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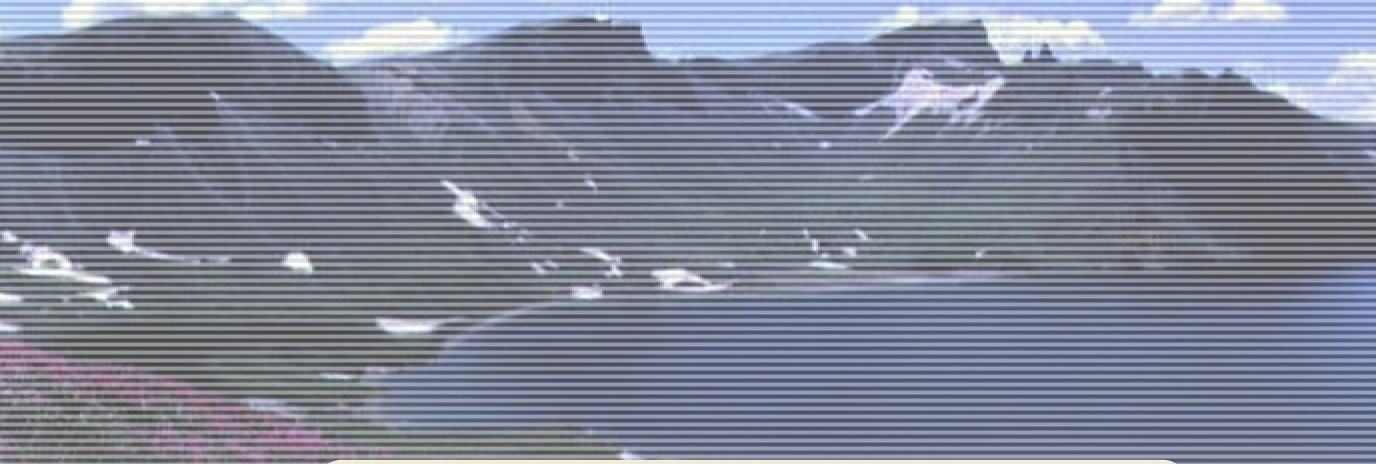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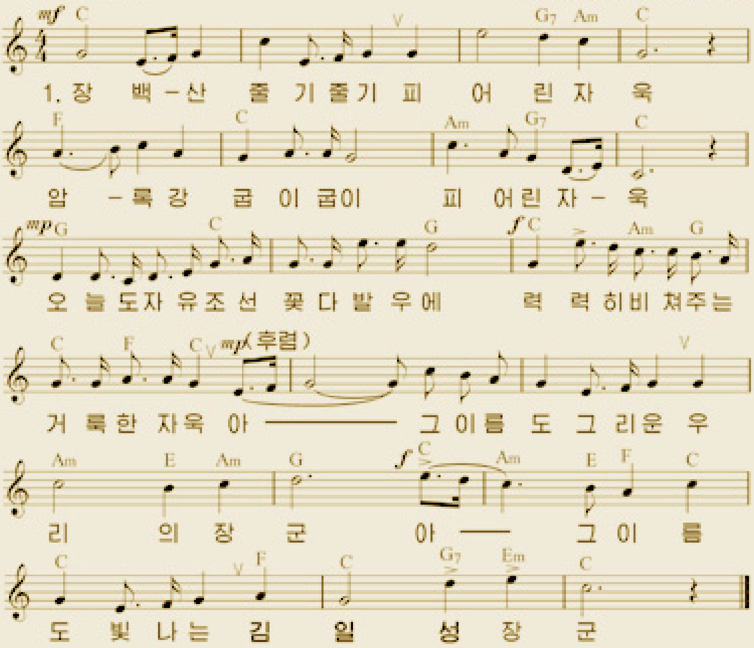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작사 리찬, 작곡 김원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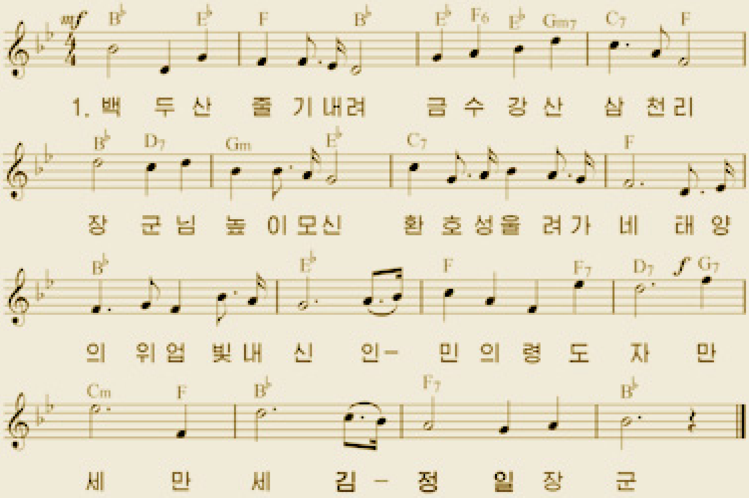


2.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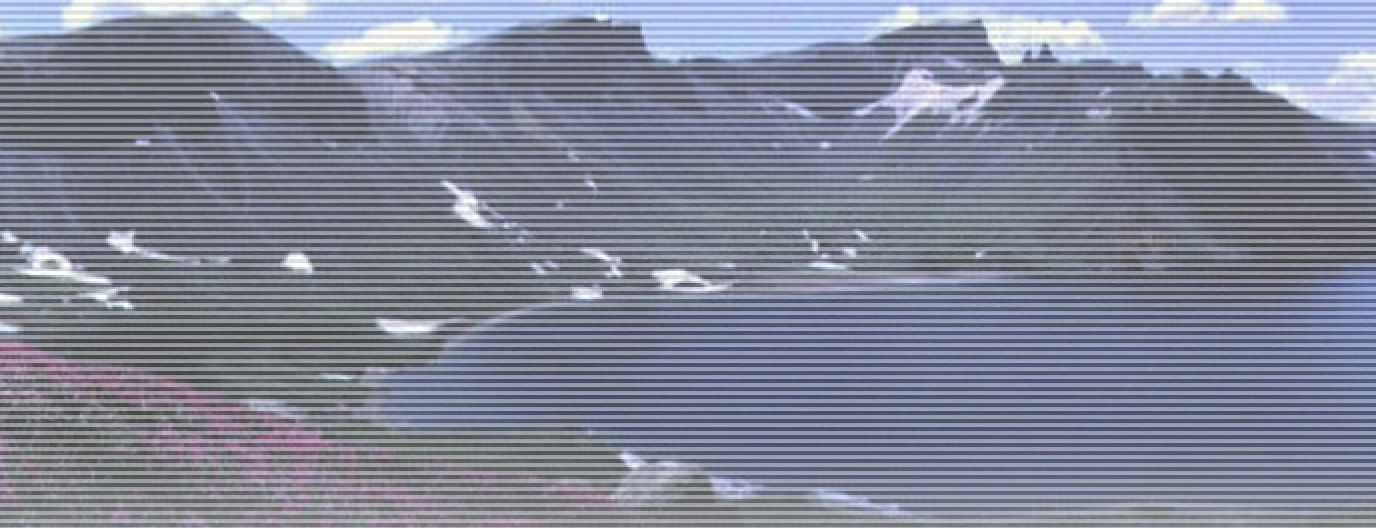
김정일장군의 노래

장중하고 폭 넓게 (♩=102) 작사 신운호, 작곡 설명순



2.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머리말

무릇 인생 말년에 자기의 한 생을 회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다. 걸어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 체험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경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근대 이후 세계정치에서 언제나 두드러졌던 한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나는 깊은 추억과 잊을 수 없는 회포속에 자신의 한 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태어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 걸음을 떼어야 했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어언 팔순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 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 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이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성공만이 있은 것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투쟁의 길에는 벗도 동지도 많았지만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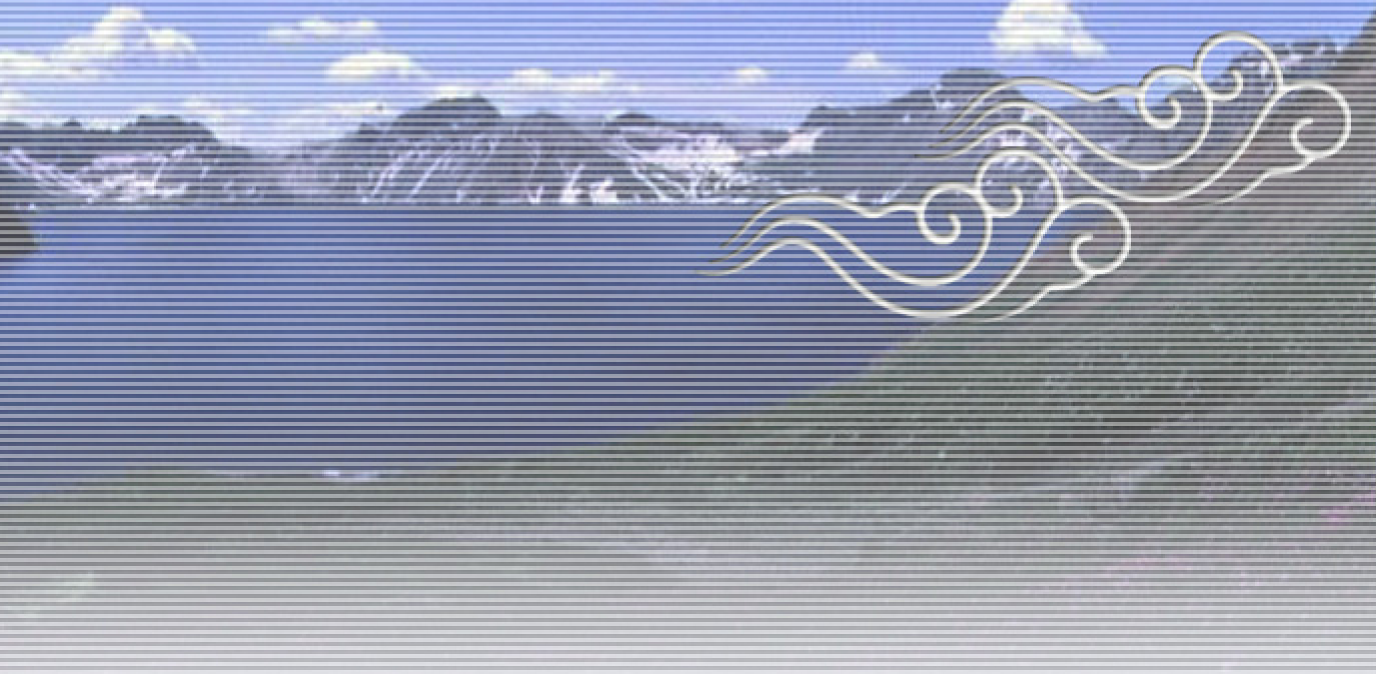
애국의 넋은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석 위에서 배일의 함성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 높이 백두밀림에서 풍찬노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 만리, 혈전 만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했다. 해방은 됐어도 분열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 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일찍이 양친을 여읜 나는 어려서부터 동지들의 사랑과 기대속에 한 생을 보냈다.



나는 수천수만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혈로를 헤쳐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와 조직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득했다.

아직은 조국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던 20년대 화전의 언덕에서 나를 믿어주고 따르던 ≪ㅌ·ㄷ≫의 첫 동지들로부터 적의 흉탄을 한 가슴으로 막아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웃으며 단두대에 올라섰던 그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오지 못한 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령으로 잠들고 있다. 투쟁의 첫 걸음을 달리 떼었어도 종당에는 우리와 한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 곁에 없다.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융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히 갈마들어 잠못 이루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원래 나는 회고록을 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명망 높은 정치가들과 저명한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의 한 생이 사람들에게 고귀한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하면서 회고록을 쓸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김정일**조직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주어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투사들도 하나 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그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 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열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 줄씩 적어 놓게 되었다.

나는 나의 한 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 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 생이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 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 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간 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1992년 4월 묘향산에서



차 례

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2장 잊을수 없는 화전

3장 길림시절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 시기 : 1912. 4 ~ 1926. 6

1. 우리 가정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일가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였다. 황제의 통치권은 ≪한일합병≫조약과 함께 일본천황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제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노예가 되였다. 유구한 역사와 풍요한 자연부원과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이 강토는 일본제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다.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이 땅의 초야와 지붕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없는 백성까지도 칠성판에 오른 국운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대답하였다.



고종황제의 수표와 국새날인도 없이 날조된
≪을사5조약≫

우리 나라에는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학교 훈도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가 수립되었다. 천황의 칙령에 따라 총독은 조선에서 육해군의 통솔권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맬 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였다. 조선사람들이 만들

어놓은 모든 정치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은 해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구류장과 감옥에서 연덩어리가 달린 소가죽채찍에 얻어맞았다. 도꾸가와막부시대의 고문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형리들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조선사람의 살을 마구 지지였다.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총독제령≫에 의해 조선사람의 흰옷마저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벌들은 무슨 ≪회사령≫이니, 조사령이니 하는 법령들의 그늘밑에서 우리 조국의 보화와 재부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약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감옥으로 변한 나라

당시의 조선은 말그대로 사람 못살 생지옥이었다. 조선사람들은 살아도 죽은목숨과 같았다.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고문을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약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약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한 레닌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것이다.

내가 성장하던 그 시기는 다른 대륙들에서도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내가 태어난 그 해에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바로 그 해에 미해병대가 온두라스에 상륙하였다. 프랑스는 모로크를 자기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탈리아는 터어키의 로토스섬을 점령하였다.

국내에서는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어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우리 나라의 망국사를 들은 다음부터 봉건통치배들을 몹시 원망하였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은 갓쓰고 당나귀타고 음풍영월로 수백 년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그러다가 동서방의 침략세력이 함대를 끌고 접어들자 그렇게도 완고하게 닫아매였던 쇄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봉건왕조는 외세가 마음대로 농락하는 이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었다.

역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러시아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외국테러단의 칼에 맞아죽고 (1895년 ≪을미사변≫) 왕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1896년 ≪아


반일구국의 기치를 든 의병들

관파천≫)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납치되어가서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되는 판국이였다.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역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할머니 이보익

우리 가문은 김계상할아버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증조할아버지(김응우)대부터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중성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구차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 이평택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해왔다.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 대동강쪽을 굽어보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다. 타고장의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이 만경대일대의 산들을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쓴것도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탐냈기 때문이였다. 만경대에는 평안감사의 묘도 있었다.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다나니 우리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다가 3대를 두고 외독자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이 할아버지(김보현)대에 와서는 아들딸 6형제를 보게 되어 열명 가까운 대식구로 불어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나 자손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보려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에도 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거름을 모았다. 밤이 되면 등잔불밑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고 멍석을 틀었다.

할머니(이보익)도 밤마다 물레질을 하였다.

어머니(강반석)는 삼촌어머니(현양신)와 고모들(김구일녀, 김형실, 김형복)을 데리고 낮에는 밭에서 종일 김을 매고 밤에는 무명낳이를 하였다.

집사정이 하도 어려우니 큰삼촌(김형록)은 9살에 천자를 좀 배우고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리지 못하였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먹군 하였는데 목안이 깔깔해서 넘어가지 않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번은 내 목에 화기가 났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디서 돼지고기를 얻어왔다. 그 고기를 먹고 화기가 뚝 떨어졌다. 그 후부터 나는 고기를 먹고싶으면 화기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할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할머니는 물욕이 없는 분이였지만 남의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만은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이웃에 벽시계가 있는 집이 한집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 벽시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다고 한다. 집에 시계가 없었으므로 할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무시다

가 첫새벽에 일어나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가늠하고는 서둘러 조반을 짓군 하였다. 만경대에서 숭실중학교까지 30리길이니 조반을 일찍 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밥을 지어놓고도 등교시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몇 시간씩 잠을 못자고 부뚜막에서 동창만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뒤집에 가서 몇 시나 되었는지 알아보구 오렴.≫하고 분부하였다.

어머니는 뒤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여 뜨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밖에 쪼그리고앉아 시계종이 땡땡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그러다가 시계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시간을 알려드리군 하였다.



할아버지 김보현

내가 팔도구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삼촌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큰아버지가 먼길을 통학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성주는 칠골외가에 가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까워서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벽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

우리 집안사람들은 비록 죽물을 우리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혈육이나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 수 없느니라.≫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런 훈계를 하였다. 이것이 곧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도 늘 정규학교에 가고싶어하였다.

≪헤이그밀사사건≫이 있은 그 해 여름 슬매부락에서는 순화, 추자, 칠골, 신흥 네 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운동회를 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순화학교 선수로 운동회에 참가하여 철봉, 씨름,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승을 하였다. 그런데 높이뛰기에서만은 첫자리를 다른 학교 선수에게 빼앗기였다. 가름대에 머리태가 걸리는 바람에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운동회가 끝난 다음 아버지는 학교뒤산에 올라가 그 머리태를 뭉청 잘라버리었다. 수백년을 두고 내려오는 낡은 인습을 무시하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머리태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그 때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하였다.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가 세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도 못들어오고 울바자밖에서 서성거리었는데 증조할머니가 뒤문으로 데려다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장손으로서 각별히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숭실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은 것도 증조할머니의 덕이라고 늘 말씀하였다. 증조할머니가 보현할아버지를 설복하여 아버지를 신식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었다. 봉건이 심했던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할아버지네 세대는 신식학교를 별



해방전 만경대



샤먼호 사건당시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만경대인민들의 투쟁

로 달가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1911년) 봄이었다. 당시는 개화의 첫 시기여서 양반들도 학교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우리 집같이 타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집에서 자손들을 중학교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 당시 숭실중학교의 월사금이 2원이었다고 한다. 그 2원을 벌려고 어머니는 순화강에 나가 가막조개까지 주어다 팔았다. 할아버지는 참외를 심고 할머니는 열무농사를 하고 열다섯 살밖에 안되었던 큰삼촌조차도 형님의 학비를 보탠다고 짚신삼이를 하였다.

아버지자신도 학비를 벌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당국이 운영하는 실습장에서 해가 질녘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그런 후에 학교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책을 읽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 시간 쪽잠에 들었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군 하였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였다.

그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었다.

미제침략선 ≪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두루섬에 정박하고 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샤만≫호가 양각도밑에까지 기여들어 대포와 총을 쏘아대면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그달음으로 평양성에 들어갔다. 그때 성안사람들은 관군과 함께 나무단을 가득 실은 매생이 여러 척을 연결시켜 불을 지르고 ≪샤만≫호쪽으로 띄워내려보내여 배도 해적들도 모조리 수장해버리었는데 증조할아버지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고 한다.

≪샤만≫호가 격침된 다음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또 군함 ≪쉐난도아≫호를 끌고 대동강하구에까지 기여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였다. 만경대인민들은 ≪쉐난도아≫호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뭇고 조국방위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였

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집안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도록 교양하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웠다.

할머니도 자식들에게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한때 일본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하느라고 엄동설한에 할머니를 데려다가 만주산야로 끌고 다니면서 별고생을 다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적들을 노복처럼 호령하면서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굳세고 당당하게 처신하였다.



강돈욱
외할아버지

나의 외할아버지(강돈욱)는 고향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면서 일생을 후대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쳐온 열렬한 애국자, 교육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맏외삼촌(강진석)도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으며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내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두 동생을 데리고 집오래에 삼형제를 상징하여 백양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경대에는 백양나무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날 두 동생에게 백양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씩씩하게 자라 나라를 독립시키고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만경대를 떠났고 뒤따라 작은삼촌(김형권)도 싸움의 길에 나섰다.

만경대고향집에는 큰삼촌 한 분만 남았지만 백양나무는 세 그루 다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 그 그늘이 지경을 넘어 지주의 밭에까지 드리워지게 되었다. 지주는 밭에 그늘이 지면 소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백양나무를 사정없이 찍어버리였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도한 세월이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깨끗한 꿈이 생각나서 참으로 분하였다.

분한 일이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우리 고향집앞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동무들을 데리고 자주 올라가 놀던 들메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역시 20년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그 중 집 가까이 있던 들메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큰삼촌이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고 하였다. 듣고보니 거기에도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우리 집을 감시하느라고 대평주재소순사들이 늘 당번을 섰다. 대평과 만경대는 좀 떨어져있었으므로 여름에는 그 들메나무밑이 그자들의 출장소 같이 되었다. 그 그늘에 앉아 심심하면 동네사람들을 불러다 문초도 하고 부채질을 하며 낮잠도 잤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다가 술추렴도 하고 할아버지나 큰삼촌에게 행패질도 하였다.

하루는 그렇게도 무던하던 큰삼촌이 도끼를 둘러메고 나와 단숨에 그 나무를 찍어버렸는데 할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쓸쓸하게 웃었다.

혁명하는 자손들을 두다나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싸웠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왜정말기에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지만 나의 조부모님들은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여낸 것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다.

그밖의 사람들은 다 성을 고치였다. 성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관청이 도시에서 배급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곤란하였다.

형록삼촌은 창시개명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주재소의 호출도 여러 번 받았다.


삼촌 김형권동지

순사가 나서서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네 이름이 뭐냐?≫하고 물으면 삼촌은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순사가 달려들어 귀뺨을 때리었다.

≪다시 말해봐. 이름이 뭐야?≫하고 또 물어도 변함없이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순사는 처음보다 더 아프게 따귀를 쳤다. 김형록이라는 대답 한마디에 주먹이 한 대씩 안겨졌지만 삼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삼촌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 성주가 왜놈들과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면 되겠느냐, 맞아죽으면 맞아죽었지 절대로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였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는 이역에서 32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의 나이 32살이면 한창시절이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고향에서 할머니가 들어와 무송 양지촌에 있는 아버지의 묘앞에서 목놓아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6년 후에는 또 어머니가 안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던 동생 철주마저 전사하였다.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으므로 동생은 유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무송시절의
철주동생

몇 해 후에는 마포형무소에서 장기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작은삼촌이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도 돈이 없어 찾아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은삼촌의 유골은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히었다.

끌끌하신 자손들이 스무 해 사이에 다들 이렇게 낯선 산천에 한줌 흙으로 뿔뿔이 흩어져 널리었다.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사립문밖에서 나를 부둥켜안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었다.

할머니의 심정이 그처럼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 사립문에 홀몸으로 들어선 내 마음이야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사립문에 들어설 적마다 이 사립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 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일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였다.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이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자매들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였다.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넘어 포연탄우를 헤치며 조국을 찾는데는 실로 서른여섯 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리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혈전의 서른여섯 해였다.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기는 지금도 치욕스러운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세기로 되였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였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 것이 한두 번의 전투나 몇 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가가 당한 이러한 불행과 고초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초의 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십수백 만의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학정밑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불타죽고 맞아죽었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였다.

나는 아버지 김형직의 맏아들로 망국 이태후인 임자년(1912년) 4월 15일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만경대 고향집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아버지 김형직

나의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집에는 물론, 순화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붓글씨로 큼직하게 써붙이였다.

지금도 아버지의 필적이 더러 남아있지만 아버지는 붓글씨를 괜찮게 썼다.

당시는 서예를 숭상하던 때여서 명사나 명필들의 글을 받아 족자나 현액, 병풍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알았다. 나도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일반서예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그 글씨에 어떤 표구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잘 띄우는 곳에 붙여두었다.

내가 철이 들자 아버지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 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양명을 염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아버지는 왜 큰 뜻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사와도 같은 것이였다.

…우리 조선은 원래 국력이 막강한 나라였다. 무예가 발달하여 싸움에서 패한 적이 별로 없고 일찌부터 문화가 개화하여 그 빛이 바다건너 일본땅에까지 비쳐갔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성하던 나라가 이조 500년의 썩은 정치로 일조에 망국의 비운을 들쓰게 되었다.

네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왜놈들이 총칼로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였다. 왜적들에게 국권을 팔아먹은 역신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신들도 조선의 얼만은 팔아넘길 수 없었다.

의병들이 창을 들고 ≪왜별복국≫을 부르짖었다. 독립군은 화승대로 이 땅에 침노한 원쑤들을 쓸어눕히였다. 때로는 인민봉기의 만세함성과 돌팔매질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적을 치고 사람마다 울부짖어 인류의 양심과 세계의 정의에 호소하

였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잡혀갔어도 원쑤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이준은 제국주의열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고 안중근은 하얼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환갑이 넘은 강우규노인까지도 사이또총독의 면전에 폭탄을 던지였다. 리재명은 망국의 한을 풀려고 단도로 이완용을 찔렀다.

민영환, 이범진, 홍범식과 같은 애국충신들은 자결로써 국권수호를 호소하였다.

한때는 우리 민족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눈물겨운 운동까지 벌이었다. 국채란 러일전쟁후 일본에서 꾸어다 쓰고 갚지 못한 1,300만원의 빚을 말한다. 이 빚을 갚으려고 온 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끊었다. 고종황제까지도 단연으로써 이 운동에 합세하였다. 여자들은 반찬값을 아끼고 패물을 내놓았다. 혼수감을 바치는 처녀들도 있었다. 부자집의 상노와 침모, 떡장사, 나물장사, 짚신장사까지도 나라의 빚을 갚느라고 땀에 절은 푼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립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나라를 찾겠다는 한마음한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쳐물리칠 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 수 있고 힘만 기르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 수 있다.

온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불러일으켜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에 오르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애국주의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아버지는 언제인가 할아버지, 할머니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후날 삼사 년이면 끝장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고 해방 후에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 있은 민족분열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에 새삼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오동진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품고계시던 ≪지원≫의 사상과 신념, 조국광복에 대한 사상과 지향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집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아버지가 강심을 품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간 것도 바로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갑오개혁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10년 남짓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내정개혁의 파도를 타고 때늦게나마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던 때였다. 신교육의 봉화를 들고 서울에서 배제학당이요, 이화학당이요, 육영공원이요 하는 학교들이 설립되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배워주고 있을 때 서선지방에서 미국선교사들이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숭실중학교이다.

숭실중학교는 전국적 판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신학문을 숭상하는 청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지망하였다. 역사, 대수, 기하, 물리, 위생학, 생리학, 체육, 음악과 같은 숭실중학교의 현대적인 교과목들은 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조류에 발을 맞춰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 아버지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다니였다고 말씀하였다. 4서5경을 비롯하여 서당에서 힘들게 배우는 구학문은 아버지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내세운 교육목적과의 관계없이 숭실중학교에서는 후날 독립운동선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름있는 애국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 초대부의장을 거쳐 의장식을 역임한 바 있는 손정도도 이 학교 출신이었고 임정말기에 국무의원으로 활동한 차리석도 이 학교 졸업생이였으며 재능있는 애국시인 윤동주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한 사람이었다.

강양욱선생도 숭실학교의 전문반을 다닌분이였다. 당시는 이 전문반을 숭실전문학교라고 불렀다. 숭실중학교란 숭실학교안에 있는 중학반을 말한다. 숭실학교에서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이 학교를 배일사상의 책원지라고 하였다.



평양숭실중학교

≪글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기술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며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는 이런 사상으로 학우들을 깨우쳐주면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웠다.

아버지의 지도밑에 숭실중학교에는 독서회와 일심친목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은 학생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평양과 그 주변 일대에서 적극적인 대중계몽활동을 벌이었으며 1912년 12월에는 교내에서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동

맹휴학까지 조직하였다.

아버지는 중학공부를 하면서도 방학이면 안주, 강동, 순안, 의주 등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며 대중계몽과 동지획득을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얻은 제일 큰 소득은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숭실중학교 동창생들가운데는 우리 아버지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도량도 크고 식견도 넓고 인격도 뛰어난 명망높은 청년선각자들이였다.

그런 동창생들가운데서 평양사람으로서는 이보식을 들 수 있다. 이보식은 독서회에도 일심친목회에도 다 관여하였는데 후날 조선국민회조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3.1인민봉기 때에도 큰 활약을 하였다.

우리가 봉화리에서 살 때 그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명신학교에도 여러 번 왔다갔다.

평안북도출신의 동창생들가운데는 백세빈(백영무)이라는 피현사람이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평안북도땅에 갈 때에는 이 사람이 길안내를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국민회의 국외통신원이였다. 1960년 12월에 남조선에서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백세빈은 그때 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박인관은 숭실중학교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한 기숙사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아버지도 기숙사생활을 하였다.

1917년 봄에 박인관은 황해도 은률에 나가 광선학교 교원을 하면서 조선국민회에 망라되였다. 그는 송화, 재령, 해주등지를 오가면서 동지들을 규합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1년동안 해주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그가 광선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쓴 ≪반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작문들이 지금도 은률사적관에 전시되였다. 그 작문을 보면 당시 조선국민회의 영향밑에 있던 학교학생들의 사상동향과 정신세계의 일단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자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그가 우리 집으로 자주 드나든 것도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오동진은 그때 안창호가 설립한 평양대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순수한 인정관계를 초월하는 사상적인 교제였으므로 두 분의 교제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열렬했다. 오동진이 우리 아버지의 사상에 처음으로 공감한 것은 1910년 봄 경상골병대마당(이조말기의 군대병영앞에 있던 훈련장)에서 열린 운동회에서였다고 한다.

이 운동회에는 평양, 박천, 강서, 영유 등지에서 만 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운동회뒤 끝에 있은 웅변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문명국이 되자면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여 군중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가운데 바로 미래의 정의부사령인 오동진도 끼여있었다. 그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오동진은 ≪그날 김선생이 한 연설이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고 뜨겁게 말하군 하였다.



평북도 삭주군 청수동에 있는
오동진의 집

그는 1913년경부터 무역상(도매상)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 등 국내의 주요도시들과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독립운동의 장래를 두고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벌써 송암 오동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뜨르르했다. 재산이라든가 배경을 보면 어려운 혁명을 하지 않고서도 살수 있는 사람이였지만 그는 직접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웠다.

오동진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우애심이 지극하였다. 의주의 그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바깥채는 통채로 그런 손님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였다.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식모도 따로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손님들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갈 때만은 바깥채가 아니라 안채에 모시고 그의 부인이 직접 부엌에 나섰다고 한다.

한번은 오동진이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그들에게 기념으로 밥바리를 선물하였다.

내가 오동진을 이처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친구이고 동지라는데도 있지만 나의 청년시절과 깊은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와의 사이에 각별한 정을 느끼였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오동진은 일제에 의해 체포되였다. 썩 후날 내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려고 간도일대를 돌아다니던 1932년 3월초에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간디의 예심기록문건이 2만 5,000페이지나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는데 오동진의 예심기록문건은 무려 3만 5,000페이지로서 64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를 재판하던 날 방청자가 수천 명이나 법정으로 쓸어들어서 아침부터 한다던 재판을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겨우 시작하였다. 오동진은 일체 심리를 거절했으며 재판장의 자리에 뛰어올라가 조선독립만세까지 불러 법정을 흔들어놓았다.

당황망조한 일본재판관들은 황황히 공판을 중단하고 피고도 없이 어물어물 판결을 해버렸다. 상소심에서 종신징역으로 구형되었으나 오동진은 끝내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였다.

우리가 유격대를 꾸리느라고 매우 어려운 싸움을 벌리고 있을 때에 그의 고결한 절개와 투지를 반영한 공판기사와 그 후 평양감옥으로 호송되는 용수를 쓴 사진이 신문에 공개되었다. 나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동진의 드팀없는 애국심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았다.

이와 같이 숭실중학교시절에 아버지와 친근하게 지낸 사람들이 적지 않게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났고 후날 조선국민회의 골간으로 되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만경대의 순화학교와 강동의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힘쓰는 한편 동지규합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것은 혁명활동무대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실천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1916년에 방학을 이용하여 간도에 다녀왔다. 무슨 줄을 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간도를 거쳐 상해에 가서 손문의 국민혁명파와도 연계를 맺었다.

아버지는 손문을 중국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중국에서 남자들이 머리태를 자르고 매주 하루씩 휴식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도 부르조아개혁파들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만경대 순화학교

아버지는 특히 손문이 중국혁명동맹회의 강령으로 내세운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와 5.4운동의 영향밑에 새롭게 내놓은 연쏘, 연공, 부조공농의 3대정책을 찬양하면서 그를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손문이 중화민국을 수립한 후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원세 개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도한 것은 실책이였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조선의 부르조아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이 지도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개화당이 내놓은 혁신정강 중 인권평등, 문벌폐지, 인재등용,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폐절을 암시한 독립사상 등은 모두 진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강동군 봉화리
명신학교

나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김옥균을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개혁운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근대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까지 가지였다.

김옥균의 개혁운동과 정강에서 제한성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조선역사를 배워주던 선생들은 대체로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 학계에서도 오래동안 김옥균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었다. 그가 정변준비과정에 일본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친일의 표적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들에게 김옥균의 개혁운동에서 인민대중과의 결합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힘에 의거하였다고 그것을 친일로 평가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그가 일본의 힘을 이용한 것은 친일적인 개혁을 단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은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역량관계를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개화당의 편에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는데 있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전술이였다고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갔다온 목적은 짐작컨데 그때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온 해외독립운동의 실태를 직접 요해하여 보고 새로운 동지들을 획득하며 차후 활동방략을 세우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문제가 크게 성숙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나라들에서의 독립운동의 방식이나 방법은 아직 개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봉화리
비석계 비석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간 때는 중국혁명이 군벌의 준동과 제국주의열강의 간섭으로 일진일퇴의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기본장애물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세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망명해있는 적지 않은 독립운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어느 대국의 힘을 빌어볼 것인가 하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

다.

간도의 실태는 조선은 조선사람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간도에 갔다온 아버지는 군중계몽과 동지규합을 위해 침식을 잊고 뛰어다니였다.

이때는 우리가 만경대를 떠나 강동군 봉화리로 이사한 뒤였다. 아버지는 만경대에 계실 때처럼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중계몽사업을 하느라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나도 어느 학예회 때 아버지가 써준 글을 가지고 반일연설을 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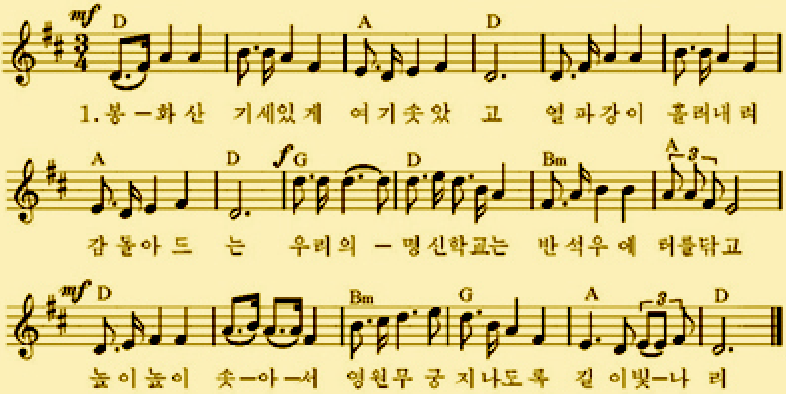
아버지는 그때 혁명적인 시와 노래를 지어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주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봉화리로 찾아왔다. 아버지자신도 동지들을 찾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를 자주 돌아다니였다. 그 과정에 핵심들이 육성되고 군중적 지반이 축성되었다.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아버지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이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

명신학교교가

보통속도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2.국가의 큰 인물도 여기서 나며
국가의 큰 재목도 여기서 나네
봉화산과 열파강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명신학교는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보존하세

3.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학도야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 분발해
동 터오는 새 조선을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받드세

성하였다. 조선국민회에 망라된 청년투사들은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 ≪결사≫라는 혈서를 썼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1917년이라면 국내에 비밀결사가 별로 없을 때였다. 합병 후 조직된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이 무렵에 와서 모조리 해산되었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때여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뜻있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국내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런저런 반일단체들을 만들어내는 정도였다. 그럴 용기마저 없는 사람들은 조선경내에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었다.

이런 때에 조선국민회가 태어났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인 입장이 투철한 혁명조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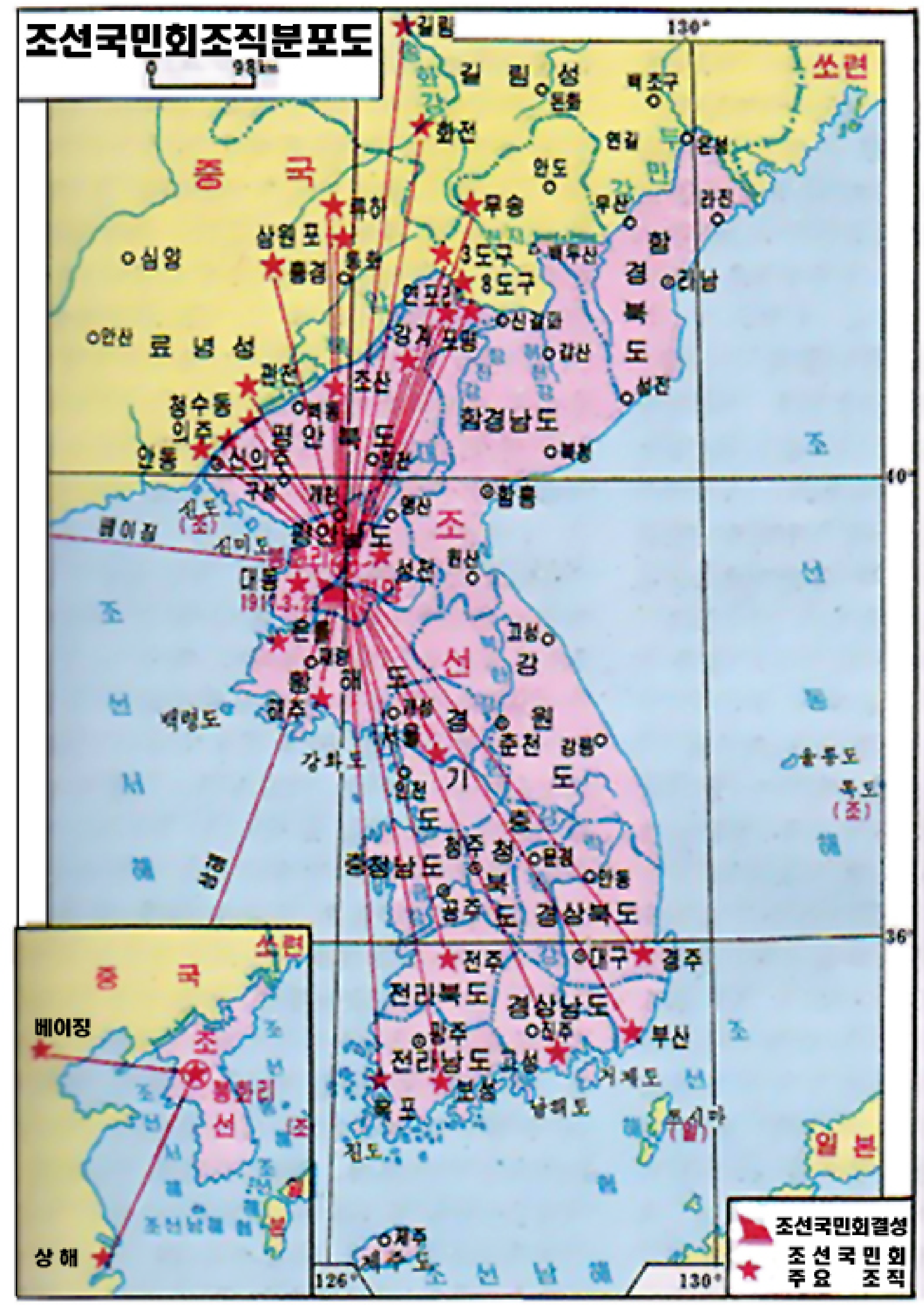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올 것은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취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는 외부세력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시는 조선민족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준비되고 검열된 애국자들만 엄선하여 받아들였으며 종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원호상간에도 암호를 사용하였다. 비밀문서들도 암호로만 작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매해 숭실중학교 개학날을 계기로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그 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써 철저히 위장되였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들을 두었으며 해외인사들과의 연계를 위하여 베이징과 단동에 통신원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 선 조직이었다. 조선국민회에는 노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있었으며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임강, 장백, 유하, 관전, 단동, 화전, 홍경 등 외국에까지 널리 뻗어있었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아버지는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였다. 그 한 사람한 사람의 동지를 찾는데 기울인 아버지의 노고는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오동진이 황해도지방으로 가다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려 아버지를 만나고 간 일이 있다. 그날 그는 다른 때보다 별로 신수도 멀끔하고 인상도 좋아보이었다.

오동진은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고 하면서 자랑하였다.

≪공영이라고 벽동사람인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요. 식견이 높고 키가 구척인데다가 미남자요. 사람이 듬직하고 게다가 격술까지 한다니 옛날 같으면 갈데없는 병조판서감이더란 말이요.≫

그의 말에 아버지도 기뻐하며 ≪옛날부터 인재의 공보다도 인재를 천거한 공을 더 높이 친다는데 그러고보면 이번 오선생의 벽동걸음이 우리 운동에 큰 자국을 새기였소.≫라고 말씀하였다.

오동진이 돌아간 다음 아버지는 큰삼촌을 보고 짚신 몇 켤레를 삼아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다음날로 삼촌이 삼아준 짚신을 신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한 달가량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도 걸음을 많이 걸었는지 신총이 다 끊어져 너덜너덜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지친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사립문에 들어섰다.

그때 아버지는 공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와 몹시 흐뭇해하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동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도리를 배웠다.

조선국민회는 ≪한일합병≫ 후 여러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아버지가 벌려온 정열적인 조직선전활동의 총화였다. 아버지가 이 조직을 통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계획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조직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국민회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은 1917년 가을이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경찰 세 놈이 갑자기 수업 중에 있는 명신학교 교실에 달려들어 무작정 아버지를 체포하였다.

아버지를 따라 맥전나루까지 갔던 허씨가 나루가에서 아버지가 몰래 한 부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뛰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지붕에 올라가 비밀문건들을 꺼낸 다음 아궁에 넣고 불을 질렀다.

아버지가 체포된 다음날부터 봉화리의 기독교인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일제의 비밀문건

들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학교에 모여 새벽기도를 드리였다.

평양과 강동 일대의 인민들은 평양경찰서에 몰려가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진정서를 들이댔다.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큰 삼촌을 경찰서로 보냈다. 재판을 한다는데 변호사를 사대야 할지 어째야 할지 아버지의 의향이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삼촌이 가장집물이라도 팔아서 재판할 때 변호사를 사대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단마디로 그 말을 막아버리었다.

≪변호사도 입으로 말하고 나도 입으로 말하는데 돈을 없애면서 따로 변호사를 사댈 필요는 없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변호가 필요하겠느냐!≫

일제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벌이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선사람이 제 나라를 사랑하고 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나는 당국의 그런 부당한 심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되자 재판은 날자를 끌었다. 일제는 세 번째 재판에서 강제로 형을 언도하였다.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 형록삼촌이 우리를 만경대에 데려가려고 둘째 외삼촌(강용석)과 함께 봉화리로 찾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봉화리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때 만경대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집에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원들과 반일운동자들과의 연계를 지으면서 뒤수습을 하려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뒤처리를 깨끗이 해놓은 다음 이듬해 봄에야 우리를 데리고 만경대로 돌아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달구지를 가지고 봉화리에 와서 이사짐을 싣고 갔다.

그 해 봄과 여름을 나는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몇 밤 자면 아버지가 돌아오는가고 내가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곧 돌아오신다.≫면서 같은 대답만 하였다. 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데리고 만경봉 그네터로 올라갔다. 나를 안고 그네에 걸터앉아 이런 말씀을 하였다.

≪증손아, 저 앞에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너는 커서 꼭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어라.≫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어머니는 나도 모르게 감옥에 여러 번 다녀왔다. 그렇지만 갔다와서도 감옥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1917년 가을 조선국민회원들이 투옥되였던 평양감옥

한번은 어머니가 칠골에 목화를 타러 간다면서 나를 데리고 성안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칠골외가에 들려 목화를 타달라고 맡겨놓고는 곧장 평양감옥으로 갔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를 떼여놓고 혼자 가라고 여러 번 타일렀다. 철도 들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가다니 될말이냐, 저 어린 것이 철창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놀라겠는가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었다.

나는 보통강나무다리를 건너서자 첫눈에 인차 감옥건물을 알아맞히었다. 감옥이 어떻게 생겼다고

대준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의 색다른 모양새와 주변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고 저것이 감옥이다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였다.

감옥건물은 그 외형만으로도 사람들의 혼을 뺄 수 있으리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였다. 철문, 담장, 망루, 쇠살창은 물론, 파수병의 검은 복장과 눈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살기가 넘치고 독기가 풍기였다.

우리가 들어간 면회실은 해빛조차 잘 들지 않는 어둑컴컴한 방이었다. 그 방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하고 흐리터분하였다.

아버지는 그런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가와하면서 어머니더러 잘 데려왔다고 말씀하였다.

수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상해서 인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얼굴, 목, 손, 발 할 것 없이 살이란 살은 온통 멍이 들고 상처가 나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몸을 해가지고서도 오히려 집안사람들을 걱정하였다. 어찌나 기상이 도고하고 늠름하였던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네가 그새 컸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라!≫

아버지는 간수가 있는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태연하게 말씀하였다. 음성도 이전날과 다름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큰소리로 ≪예, 아버지도 집에 빨리 돌아오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향해 간혹 집에 붓장사나 참빗장사들이 오면 잘 도와주라고 하였다. 혁명동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였다.


Mr. KIM HYONG JIK
KOREAN NATIONAL ASSOCIATION

김형직선생님의 활동을 소개한 외국출판물

그날 나는 아버지의 불굴의 모습에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날의 인상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면회실에서 이관린을 만난 것이다. 그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다니면서 조선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경찰의 마수가 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관린은 조선국민회원인 동창생 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봉건이 심하던 그때에 처녀로서 감옥에 그것도 사상범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감옥출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집도 못갈 세상이었다. 그런 때에 멋쟁이 신여성이 사상범을 면회하러 왔기 때문에 간수들도 놀라서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이관린은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때 감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사변이었다. 나를 감옥에 데리고 간 어머니의 깊은 뜻도 이해되었다. 아버지의 몸에 생긴 상처는 나로 하여금 악마와도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상처에서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역사가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표상을 얻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일본군경들의 행패를 많이 당해보지 못하였다. 호구조

사와 청결검열차로 만경대에 내려온 일본경찰들이 무슨 생트집을 하나 걸어가지고 시비질을 하던 끝에 우리 집 장지문을 채찍으로 찔러 다 찢어놓고 그 문짝을 가마우에 내동댕이쳐서 솥뚜겅을 깨던 광경은 보았지만 죄없는 사람들의 육신에 그처럼 심한 상처를 내는 것은 한번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 상처는 항일혁명투쟁 전기간 잠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면회에서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자욱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1918년 가을에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다. 큰삼촌이 할아버지와 함께 들 것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동네 사람들은 송산리에서 만경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었다.

매를 너무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된 아버지는 겨우 걸음을 옮기여 감옥문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로 치를 떨면서 아버지더러 어서 들것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야 제가 어떻게 원쑤놈들앞에서 들것에 들려가겠습니까. 놈들이 보란 듯이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하고는 흔연히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 돌아온후 아버지는 삼촌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나는 감옥에서 물이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세상에 제일 못된놈들이 일본놈들인데 그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형록이나 형권이도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 죽어도 피값은 해야 한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장차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으면서도 책을 읽었다.

한동안은 눈병을 잘 고친다는 왕고모부 김승현네 집에서 보양을 하며 감옥에서 시작한 의학공부를 계속하였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좋은 의서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왔다. 원래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 왕고모부네 집에서 의술도 배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

우고 의서도 탐독하였다.

아버지가 교원이라는 표면상의 직업을 의사로 바꾸려고 결심한 것이 아마 감옥살이를 할 때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아버지는 몸이 미처 추서기도 전에 평안북도일대에로 떠났다.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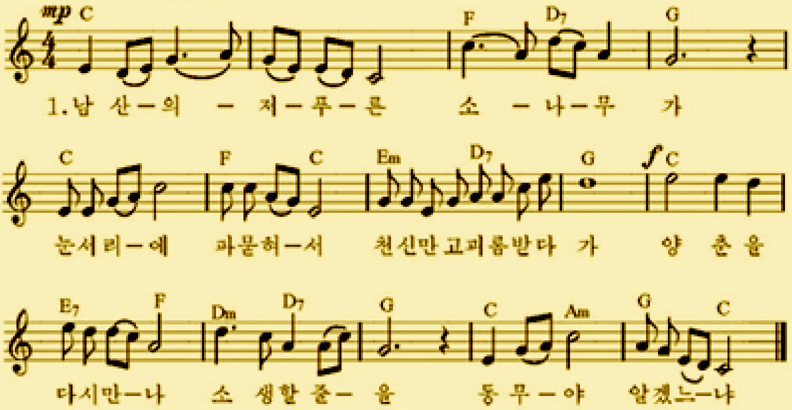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라고 아버지를 고무해주었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였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좀 느리고 충실하게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2.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 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 없을줄
동포야 믿어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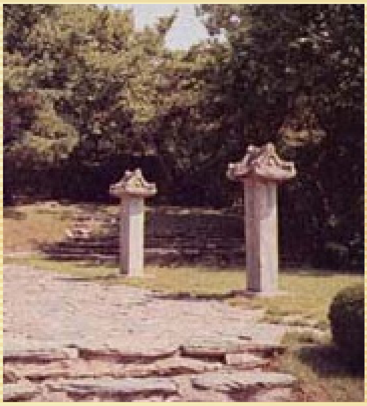
3.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 올제 독립 만세를
조선아 불러 다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혁명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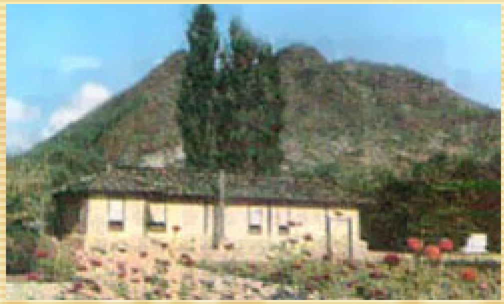


비석계의 기념비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회합장소로 이용하시던 봉화산의 바위터


창평서당


야학당


신성학교


중강회의소


명신학교


명신학교 내부

3. 독립만세의 메아리





3.1인민봉기에 호응하여 나선 군중들

아버지는 몹시 추운 날에 집을 떠났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었다. 못먹고 못입는 우리들한테는 추위도 큰 원쑤였다.

날씨가 좀 따스해지자 할머니는 조금 있으면 증손이의 생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생일 때면 꽃이 피고 북쪽으로 간 아버지도 추운 고생을 덜하겠지만 춘궁기에 나의 생일을 어떻게 하면 섭섭치않게 해줄 것인가 하는데서 오는 걱정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농량이 떨어지는 봄철이지만 내 생일이면 흰쌀밥 한 그릇과 백하를 두고 지진 닭알을 밥상에 놓아 주군 했다. 죽도 제대로 못먹는 우리 집 형편에서 닭알 한 알이면 대단한 성찬이었다.

그러나 그 해 봄에는 생일 같은데 별로 생각을 두게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체포사건이 나를 놀래운 데다가 멀리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얼마 안되어 3.1인민봉기가 터졌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었다.

합병 후 10년은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중세기적공포정치의 총검밑에서 우리 민족이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속에서 신음해온 수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합병 후 비밀결사운동과 독립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어 분연히 궐기한 것이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3.1인민봉기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갑신정변과 위정척사운동, 갑오농민전쟁, 애국문화계몽운동, 의병투쟁을 통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화되어온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은 마침내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 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여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

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이였다. 시위대열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 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만경대와 칠골 인민들도 대열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다. 우리는 이른새벽에 조반을 지어 먹고 온 집안식구가 독립만세시위에 나섰다. 떠날 때 수백 명에 불과했던 시위대열이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군중은 북과 징을 울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보통문쪽으로 밀려갔다.

그때 여덟 살이였던 나도 다 꿰진 신발을 신고 시위대열에 끼여 만세를 부르면서 보통문앞까지 갔다. 성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가는 어른들의 걸음을 나로서는 미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덜거리는 신발짝이 거치장스러워 짚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뜀박질로 대열을 따라갔다. 어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나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평양인민들

적들은 기마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시켜 도처에서 군중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였다.

그러나 군중은 두려움을 모르고 원쑤들과 육탄으로 대항하였다. 보통문앞에서도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날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음으로 본 날이며 우리 민족의 유혈을 처음으로 목격한 날이였다. 어린 나의 가슴도 분노로 끓어번졌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사람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또다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투쟁이 여러 날 계속되였다. 나도 형복고모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 만경봉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며 밤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오군 하였다. 어머니는 군중들이 마실 물과 홰불로 쓸 겨릅대를 나르느라고 바쁘게 보내였다.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이였다.

총독 하세가와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용산주둔 20사단무력까지 동원하였다. 놈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서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서울거리도 삽시간에 피바다가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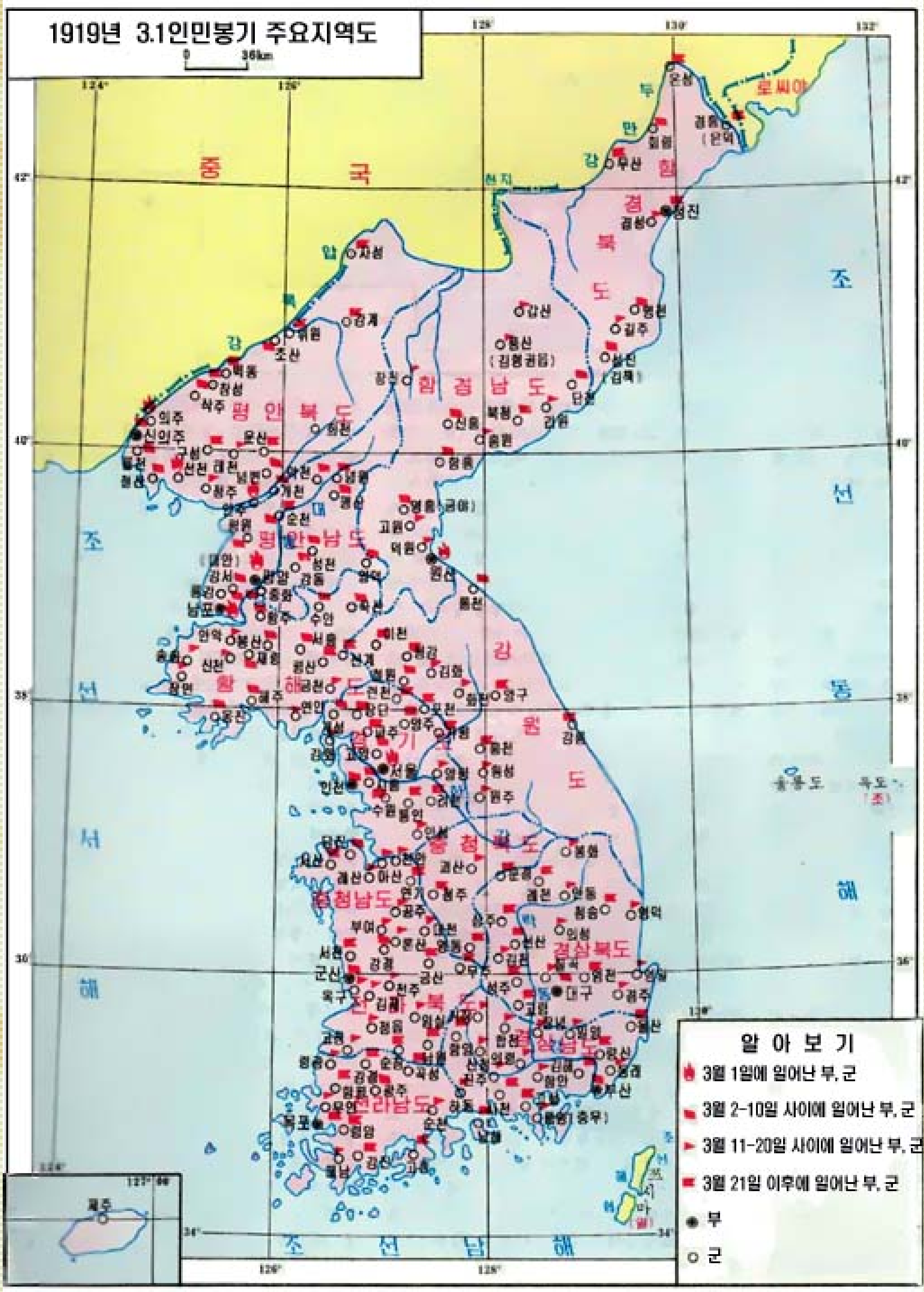
그러나 시위자들은 앞대열이 쓰러지면 그 뒤대열이, 뒤대열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 대열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다른 지방의 인민들도 총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적들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나어린 한 여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른팔을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국기를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서울과 평양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3월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그때 당시 민족적 양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 신앙, 남여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봉건도덕에 억눌려 문밖출입조차 삼가하던 여염집 아낙네들과 천민 중 천민이라



는 대접을 받던 기생들까지도 대오를 뭇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봉기가 일어난 후 한두 달은 온 나라가 독립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부터 점차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몇 달 동안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울리면 적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러갈 것이라

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망상이었다. 그런 정도의 반항 때문에 일제가 선뜻 조선을 내놓을 리 만무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큰 전쟁만 하여도 세 차례나 하였다.

벌써 400년 전에 풍신수길의 부하들인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우리 나라 땅에 불을 질렀다.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하였다.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이른바 ≪명치유신≫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지배층에서 맨먼저 들고나온 것이 ≪정한론≫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집단의 침략적 주장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정계와 군부내의 의견불일치로 그 당시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정한론≫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국내전쟁을 반년이상이나 벌이었다.

이처럼 천황정부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반란을 일으킨 ≪정한론≫자들의 우두머리 사이고 다까모리의 동상이 지금도 일본에 버젓이 서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들을 뒤에서 받쳐주었다.

일본군벌이 얼마나 독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러일전쟁당시 여순전투를 지휘한 것은 노기였다. 그가 203고지를 점령할 때 산꼭대기까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고 올라갔다. 여순의 백옥산 사당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가운데서 일부만 묻었는데 무려 2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희생을 내고 전쟁을 이기기는 하였지만 다 먹는다던 시베리아도 만주도 먹지를 못했다. 애매하게 속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로 된 일본사람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노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모여들었다. 행패라도 하자는 판이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노기의 가슴우에 세 개의 유골상자가 드리워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노기자신도 그 싸움에서 제 자식 셋을 다 죽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일본강점자들이 조선을 호락호락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을 지도한 상층인물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부합되지 않게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운동이 그 이상 확대되어 민중이 주도하는 대중적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지어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해결해보려고 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론≫이 세상에 나오자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에 의해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구차스런 청원운동을 벌이었다. 김규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독립청원서≫를 들고 열강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국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분배몫을 더 많이 찾아먹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면서 조선문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원래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가진 것부터가 오산이었다. ≪민족자결론≫은 미제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를 좌지우



빠리강화회의 대표단

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 구호였다. 미제국주자들은 ≪민족자결≫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다민족국가인 쏘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약소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영토를 차지해보려고 획책하였다.

20세기초엽에 벌써 ≪가쯔라-타프트협정≫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승인≫한 미제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 리 만무하였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고종황제는 이미 러일전쟁때와 포츠마스강화회담때에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폭로하고 조선의 독립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후처리문제를 토의하는 포츠담강화회담에서는 회담결과가 일본에 유리해지도록 백방으로 도와주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종황제의 밀서를 외면하였다.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다시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하여 회의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열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고종은 일제의 압력으로 밀사파견의 책임을 지고 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헤이그밀사사건은 봉건통치배들의 뿌리깊은 사대의식을 잡아흔드는 하나의 힘있는 경종이었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이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재판정에 나선 봉기자들


일제에 의해 학살된 시위참가자들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이 교훈을 명심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과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건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이 그만큼 뿌리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그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타개해보려고 하였다. 이 버릇이 민족주의운동상층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3.1인민봉기는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더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주도한 지도자들의 계급적 제한성은 그들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질서를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자기 계급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약간의 양보를 받아내자는데 운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후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개량주의자로 굴러떨

어지게 했거나 지어는 일제와 타협하면서 ≪자치≫를 부르짖게까지 한 사상적 바탕으로 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개량주의를 타파할만한 선진사상이 없었으며 그런 선진사상을 자기 계급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투쟁할만한 산업프롤레타리아트의 대군이 없었다. 청소한 우리 나라 노동계급은 아직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정립하고 그 기치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어세울 사명을 지닌 자기의 당을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의 악정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나라의 인민대중이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전위대를 가지려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하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강력한 지도역량이 없이는 어떤 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수백 만 군중이 나라를 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왔지만 노동계급의 영도, 당의 영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고 통일적인 강령과 전투계획에 따라 전개될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 당의 영도밑에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우리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 봉기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3.1인민봉기가 있은 후부터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소리는 온 여름 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만세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뢰가 되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다.

그 해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금불환≫이라는 중국 먹과 붓을 나에게 보내여왔다. 글씨공부를 잘하라고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였다.

나는 벼루들에 ≪금불환≫을 걸죽하게 갈아 붓에 먹을 듬뿍묻힌 다음 한지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큼직하게 써놓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밤에 등잔불밑에서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다. 형록삼촌은 세 번씩이나 읽었다. 성미가 덜렁덜렁한 삼촌이였지만 편지를 볼 때에는 늙은이들처럼 꼼꼼했다.

어머니는 대강 훑어보고 나에게 편지를 넘겨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큰소리로 읽어드리라고 하였다. 학령전이였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조선어 자모를 배워준 덕에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내가 유창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드리자 할머니는 물레질을 멈추고 ≪언제 온다는 소리는 없느냐?≫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소리로 뇌이는 것이였다.

≪아라사에 갔는지 만주에 갔는지, …이번에는 퍼그나 오래두 객지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어머니가 편지를 얼추 훑어본 것이 마음에 걸려 잠자리에 든 다음 아버지의 편지를 뜬금으로 소곤소곤 외워드리였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서는 절대로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저고리앞섶에 편지를 간수했다가 밭에 일을 나가서는 쉴참에 남몰래 읽군 하였다.


10월혁명. 무장폭동에 관한 결정을 제시하고 있는 레닌

내가 편지의 구절들을 뜬금으로 외워드리자 어머니는 ≪됐다, 이제는 자거라.≫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해 초가을에야 가족들을 데려가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1년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셈이였다.

그 동안 아버지는 의주, 창성, 벽동, 초산, 중강을 비롯한 평안북도일대와 만주지방에서 조선국민회 조직을 복구하고 동지들을 획득하며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이였다.

아버지가 청수동회의(1918년 11월)를 소집한 것도 그 무렵이였다.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과 각 지역의 연락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파괴된 국민회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 데 대한 활동방침을 밝히였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만주소식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레닌에 대한 이야기, 10월혁명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않는가 하면 신생러시아가 백파도당들과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공격으로 하여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못내 안타까와 하기도 하였다.


뻬뜨로그라드 무기공장 로동자들의 시위 (19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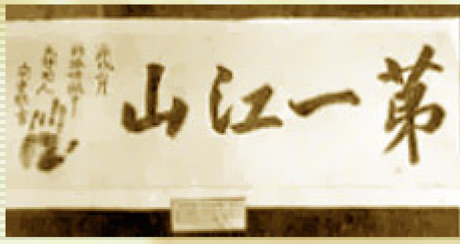
그 이야기들이 모두 생동한 세부와 사실들로 엮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그 동안 연해주에 갔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연해주도 조선독립운동의 한개 기지였고 중요한 집결지였다. 3.1운동당시 원동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수십만 명되었다. 이 지방에는 조선에서 망명해간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많았다. 이준일행이 바로 여기를 거쳐 헤이그로 갔고 유린석과 이상설도 여기(블라디보스토크)에서 13도 의병연합사령부를 결성하였다. 리동휘를 수위로 하는 한인사회당이 조선최

초의 사회주의그룹로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기 시작한 곳도 여기였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노령임시정부가 결성되어 내외에 그 존재를 선포한곳도 이 지방이였다. 홍범도와 안중근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군사활동을 하였다.

연해주지방에 망명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도처에서 자치단체들과 반일항쟁단체들을 뭇고 국권회복을 위한 맹렬한 활동을 벌이었다. 연해주에 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들은 경원,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일대에 진출하여 일본군경들을 습격하고 적의 통치와 국경경비에 큰 혼란을 주었다. 한때는 여기에서 만주지방으로부터 이동해온 독립군들이 대부대를 편성하여가지고 붉은군대와 함께 쏘비에트공화국을 옹호하여 싸웠다.





두 동생에게 유언하는 안중근, 사형당하기 전 그가 남긴 혈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의 원쑤들이 사면팔방에서 갓 태어난 쏘비에트정권을 교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을 때 수천 명의 조선청년들은 혹은 빨치산대오에서 혹은 붉은군대의 서열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인류가 이상으로 그려온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공민전쟁의 영웅들을 추모하여 세운 원동지방의 기념비들에는 조선사람들의 이름도 크게 새겨져있다.

쏘련의 원동지방을 무대로 한동안 정열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홍범도, 리동휘, 려운형 등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레닌과도 상봉하였다.

연해주지방에서 조선독립운동자들이 벌인 활동은 외부세력의 개입과 계파호상간의 대립으로 흑하사변과 같은 가슴아픈 참사도 빚어냈지만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지들을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연해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짐작은 무리가 아니였다.

아버지는 집안식구들에게 북부국경지대 인민들의 시위투쟁소식을 이야기해주였고 집안식구들은 아버지에게 3.1인민봉기 때 고평면인민들이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아버지가 하던 말씀중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줄 리는 없다. 집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 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견해와 결심이 서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3.1운동 당시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는 북부국경일대와 남만지방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깊이 살펴보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을 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왜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었으니 전국 방방곡곡

에서 거족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무산혁명방침이었다.

무수한 피의 자국만을 남기면서 독립운동이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중혁명을 주장하였다.


청수동회의장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부터 아버지는 공산주의사상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논증한 데 기초하여 8월 중국 관전현 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연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이다.

아버지는 무산혁명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는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실천활동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었으며 각종 대중단체들을 뭇고 그 조직들을 확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나갔다.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또 하나는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였다.

아버지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장활동준비를 다그치었다.

아버지의 구상은 무산계급출신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군사간부로 키우며 이미 있는 무장단체들의 지휘관들과 하층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그 대오를 무산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의 무장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방침을 내놓고 독립군 각 부대들에 조선국민회원들을 파견하여 무장대안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는 사업과 무기를 구입하는 사업,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그 당시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되었던 것이 독립운동대열의 단합문제였다.

그때 간도와 연해주 지방에는 많은 독립군부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다. 밤을 자고나면 무슨 한족회요, 대한독립단이요, 태극단이요, 군비단이요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던 때였다. 이런 독립운동단체들이 남만지방에만도 무려 20여개나 있었다. 서로 연합을 하고 손발을 잘 맞춰나갔더라면 이 단체들이 큰 힘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분파쟁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단체들을 배척하고 질시하면서 세력다툼만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립운동대열이 분열되어 인민의 버림을 받거나 적들에게 각개격파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결심한 방향전환의 대업도 추진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아버지는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의 알륵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관전으로 달려가 거기에 며칠동안 머물러있으면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복하여 통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홍업단과 군비단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일대의 무장단체들이 국민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미 있는 무장단들의 역량을 노동자, 농민의 출신들로 갱신하여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무장활동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며 여러 갈래의 무장단들을 통합하여 활동에서 분산성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무장활동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품었던 지향이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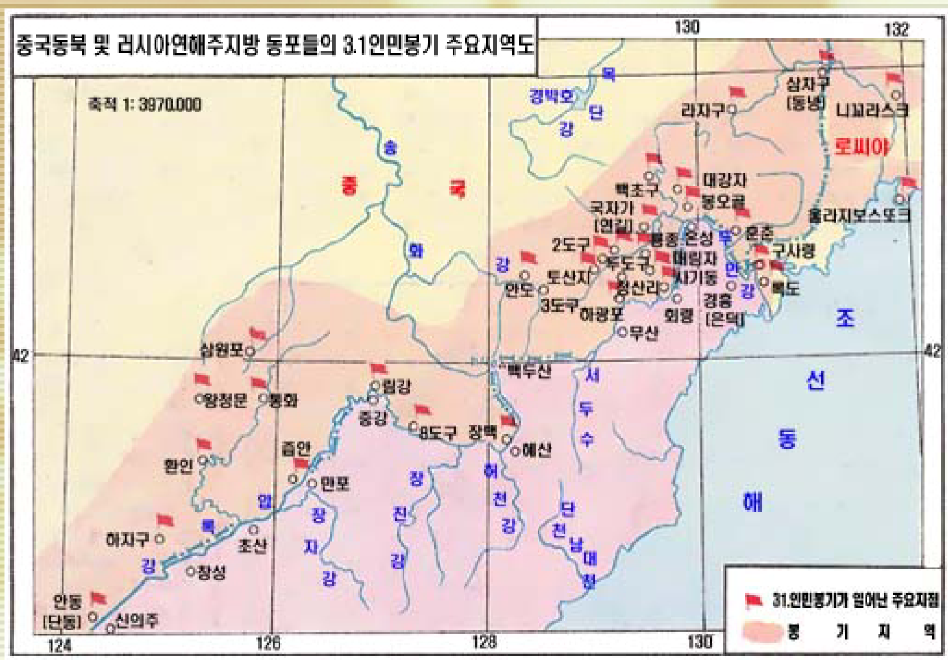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까지 방향전환의 방침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난치의 병을 얻었다.

관전회의에서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방침이 선포된후 민족주의자들속에서는 사상적분해과정이 촉진되였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던 때는 뜻을 같이하던 사람들가운데서 더러는 잡혀가고 더러는 변절하고 더러는 흩어지다나니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고 주먹을 부르쥐고 뛰어다닐 인물들도 얼마 남지 못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것과 담을 쌓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물들은 새 길을 선택했으며 후날 우리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혁명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상은 나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였다.



중국동북 및 러시아연해주지방 동포들의 3.1인민봉기 주요지역도

4. 타향에서 타향으로



관전회의를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버지가 활동거점을 자주 옮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여러 번 하여야 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은 다섯 살 잡히던 해였다. 그 해 봄에 우리는 봉화리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일가친척들과 헤어지면서도 별로 서운할 줄을 몰랐다. 아직 철이 덜 든 때여서 이별에 대한 생각보다도 새 고장,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다.

그러나 중강으로 들어가던 그 해 가을에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북쪽 한끝으로 이사를 간다니 집안식구들도 못내 서운해하였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주고 뜻을 합쳐주던 할아버지도 아들, 손자들이 천리밖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해하였다.

아버지는 이별을 앞두고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눅잦혀드리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토방우에서 할아버지의 일손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며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요시찰인으로 등록되어 조선한복판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옥을 나올 때 놈들은 나보고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 번 다시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하겠습니다. 왜놈들은 독한 놈들입니다. 독립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강으로 이사를 가던 날 큰삼촌은 아버지를 붙들고 먼데 가도 고향을 잊지 말고 오실 짬이 없으면 편지라도 자주 하라고 하면서 몹시 울었다.

아버지도 삼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오냐, 고향을 잊지 않으마. 내 이 고향을 어떻게 잊겠니.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이 되면 한데 모여 재미있게 살게 되겠지. 네가 어릴 때부터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신삼이로 손이 다 부르텄는데 오늘은 또 너한테 큰 집안살림을 다 떠맡겨놓고 가자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형님, 그런 말은 말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 아무쪼록 잘 싸워서 품었던 뜻을 꼭 이루시라요. 나는 여기서 그날만 기다리겠어요.≫

그 작별모습을 보는 나도 북받치는 설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라가 독립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였지만 그런 날이 과연 언제이겠는지 그때로서는 막연하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사실 그때 고향을 하직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만경대에 와보지 못한 채 낯설은 이국땅에 묻히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자꾸 뒤를 돌아다보았다.

나서자란 산천을 떠나 먼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싫었지만 한 가지만은 마음이 놓이었다. 중강에 가면 평양감옥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았다. 사실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나는 좀처럼 불안을 덜어버릴 수 없었다. 왜놈들이 또 아버지를 감옥으로 붙잡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물정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가면 감옥도 없고 왜놈들의 꼴도 보지 않게 될 것 같은 천진한 생각을 하였다.

평양에서 중강이 몇 리인가고 물었더니 천리라고 하였다. 나는 천리라는 말에 마음을 푹 놓았다. 왜놈들이 그 먼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강은 조선에서 제일 추운 고장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 안전하다면 추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이사짐은 밥그릇에 숟가락 몇 개를 꾸려넣은 어머니의 보퉁이와 아버지가 메고 가는 전대짐 하나가 전부였다. 봉화리로 갈적에는 궤짝도 있고 책상도 있고 놋그릇, 질그릇 따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우리는 신안주에서 기차를 내려 개천, 희천, 강계를 거쳐 중강까지 내내 걸어갔다. 강계쪽으로는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을 때였다.

아버지는 길에 나서자 내가 먼길을 꽤 걸어가내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어머니도 내가 따라가지 못할가봐 조마조마해하는 눈치였다. 내 나이 여덟 살밖에 안될 때였으니 부모들에게 시름거리가 될 만도 하였다.

나는 지나가는 달구지를 잠간씩 얻어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노정을 걸어갔다. 내 일생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커다란 육체적 시련이었다.

강계에 도착한 우리는 남문밖에 있는 객주집에 들려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 길을 떠났다. 객주집주인은 강계지방의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이해주었다. 강계에서 중강에 이르는 500리길은 영도 많고 무인지경도 많았다.

우리가 배낭령을 넘을 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 세살나는 철주를 업고 보퉁이를 인데다가 초신이 해지고 발까지 부르터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중강에 도착한 나는 그만 실망하였다. 거기도 평양의 황금정이나 서문통처럼 일본사람들이 우글우글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고향에서도 살수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그자들은 이런 벽지에까지 쫓아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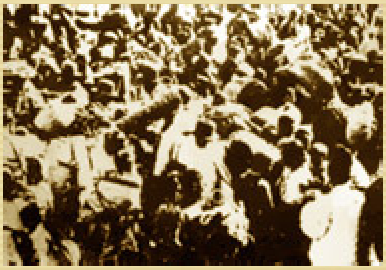
강계객주집

아버지의 말씀이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일본사람들이 다 배겨있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중강에는 경찰서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헌병대도 있었다.

나는 중강에 가보고서야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일본사람들은 중강웃거리 절반이상의 땅에 저들의 이주민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상점도 있고 병원도 있었다.

중강사람들은 일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 고장에 촉수를 뻗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후 우리 나라의 산림채벌권을 빼앗은 일제는 신의주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중강에 지창을 둔 다음 저들의 벌목부들을 이 고장에 이주시켰다. 말이 벌목이지 사실은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재향군인≫들이 많이 끼여있어 유사시 어느 때든지 출동할 수 있는 반군사집단이나 같은 것이었다. 중강에는 이런자들외에 여러 명의 무장순경과 정규군수비대까지 있었다.


조국을 떠나는 유랑민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중강으로 간 목적은 독립운동자들의 내왕이 빈번한 이 고장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 반일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려는데 있었다. 의사의 신분을 가지면 적들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쉽게 위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강기락이네 객주집에 자리를 잡았다.

강기락은 우리를 위해 여인숙의 방들 중에서 제일 조용하고 깨끗한 방을 하나 따로 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간도에 다녀오다가 중강에 얼마동안 계시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식구들이 들었던 그 방을 썼다고 한다.

강기락은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치과와 사진업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중강에 틀고앉아 아버지가 국내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외조직과 아버지를 연결시켜주고 아버지가 국외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내조직과 아버지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는 이 여인숙을 통하여 임강, 장백, 중강, 벽동, 창성, 초산 등 압록강유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연계를 가지였다.

강기락은 중강치고 큰 유지여서 관청출입도 마음대로 하였다. 그가 관청을 통해 얻어낸 적측 자료들은 아버지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 망도 봐주고 여인숙에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시중도 해주고 중상, 중덕 등지를 다니면서 비밀연락도 하였다. 중강인상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나보다 몸집이 더 큰 일본아이와 씨름을 하여 그 아이를 배지개로 넘어뜨리던 일이다. 나는 그때 조선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아이가 있으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객주집주인들은 후환이 두려워서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조선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놈들앞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배짱을 지지해주었다.

이 시기 중강에서는 반일기세가 높아지고 도처에서 삐라살포, 동맹휴학, 악질주구처단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적들은 중강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아버지와 관련시켜보게 되었다. 중강경찰서에서는 평안남도경무부에서 보내온 통보에 의하여 아버지를 ≪불령선인≫, ≪특호갑종요시찰인≫으로 등록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강기락은 면사무소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밑에 빨간줄을 쳐놓은 호적등본을 보게 되었다. 그는 경찰놈들이 김선생을 체포하려고 벌서 점을 찍어놓았으니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안전할 것 같

다고 귀띔해주었다. 그런 때에 중강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체포하려 한다는 말이 그곳 경찰순사의 입에서 누설되었다. 아버지는 중강에 그이상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다시 보짐을 들고 찬바람부는 나라의 북단마저 떠나 이역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중강에서 한걸음만 내디디면 중국땅이였다. 중덕나루에서 도막궁이를 타고 압록강을 건느자니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중강까지 떠나면 이사를 네 번이나 하는 셈이였다. 중강을 낯선 고장이라고 서름서름하게 여겨왔는데 막상 이국에 간다고 하니 중강도 고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나저러나 중강은 조국의 한 부분이였다.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던 품이 만경대라면 중강은 봉화리와 더불어 조선은 어데 가나 다 일본제국주의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잊지 못할 고장이였다.

우리가 중강을 떠나던 날은 날씨조차도 유달리 음산하였다. 마가을의 낙엽이 나루터에까지 날아와 처량하게 굴러다니였다. 하늘에서는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새들을 보니 웬일인지 구슬픈 생각이 더 들었다.

중강을 떠나는 이 길이 어머니한테는 조국을 영영 하직하는 마지막걸음이였고 동생 철주도 이 강을 건는 후로는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음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 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타향을 의붓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타향보다 몇 곱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 것인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린 나로서도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조국을 떠나는 뼈저린 슬픔도 나라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묵묵히 참아야만 하였다.

배사공은 만주로 넘어가는 이민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의 신세가 왜 이다지도 가련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몇 천몇 만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나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와 시베리아의 황야를 찾아 무리로 떠나갔다. 생존권을 잃은 백성들은 참형을 당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이 땅을 탈출하였다. 이민의 물결은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머나먼 미주에도 흘러갔다. ≪사시장철 꽃이 피고 씨만 뿌리면 백곡이 저절로 풍요하고 하루 세시간만 품을 팔면 3년안에 부자가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농부들과 뜨내기군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대륙에 가서는 미개인의 취급을 당하며 음식점이나 부자집의 막심부름군으로 일하든가 해별이 불같이 쏟아져내리는 농장에서 참을 수 없는 고역을 치르었다.

그래도 그때는 국호를 가진 제 나라가 있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수천수만의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산설고 물설은 만주황야로 가랑잎처럼 굴러들어갔다.

대대로 살아온 조상의 땅에는 일확천금에 환장한 일본의 부자들과 장사아치들이 홍수처럼 쓸어들고 그 땅을 살찌워온 주인들은 쫓기는 몸이 되어 남의 나라 지


임강에 있는 반일운동자들의 아지트

경을 넘어 헤매야 했으니 국권을 잃은 백성의 신세를 어찌 가랑잎이나 길가의 조약들에 비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유랑민의 후손들이 지금 자기네 선친들이 버리고 간 조상의 땅으로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 그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압록강가에서 보던 유랑민들의 모습을 회고하군 한다.

임강에 가니 다른 것은 다 서먹서먹해서 굴렀는데 한 가지만은 좋았다. 왜놈들의 몰골을 얼마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 요녕성의 변방상업도시인 임강은 우리 나라와 남북만으로 통하는 교통중심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중국땅에 공공연하게 세력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특무들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임강은 중강에 비해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기에 유리하였다.

우리가 임강에 건너가자 아버지는 한 반 년나마 중국교원을 붙여 중국말을 배우게 한 다음 나를 인차 임강소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다.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중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팔도구소학교와 무송제1소학교에 가서 중어공부를 계속하였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중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공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째서 아버지가 나에게 서둘러 중국말공부를 시키고 나를 중국인학교에 다니게 하였는지 그때로서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원≫의 사상에 기초한 아버지의 그 선견지명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찍부터 중국말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4반세기를 중국땅에서 보낸 나는 걸음마다에서 커다란 언어적 장벽에 부딪쳤을 것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의 투쟁무대가 대부분 만주지방이었던 조건에서 우리가 중어를 잘하지 못하였더라면 중국사람들과의 친교도 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도 성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적들의 폭압이 우심한 동북땅에 가서 감히 발도 붙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사냥개들처럼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정탐군이나 만주경찰들도 내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중어를 배운 것이 조선혁명에서 큰 은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이미부터 알고 있던 노경두라는 사람의 알선으로 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병원을 차려놓았다. 방 한 칸을 내여 약방 겸 치료실로 꾸리고 바깥벽에 ≪순천의원≫이라는 간판을 큼직하게 달아놓았다. 방안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증도 하나 걸어놓았다. 아마 평양을 떠나기 전에 어느 친구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졸업증이었다고 생각된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명의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의서 몇 권을 읽고 임상실천에 뛰어든 아버지가 명의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의술덕이 아니라 인술의 덕이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였다. 고향도 조국도 모두 빼앗기고 설움많은 이국살이에 허덕이고 있은 조선동포들을 위해주고 돌봐주는 아버지의 정성은 각별하였다.

≪순천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가운데는 빈손으로 오거나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병을 보이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들이 약값 때문에 걱정할 때마다 돈을 내겠으면 나라가 독립된 후에 내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나라를 찾고 다시 압록강을 건늘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해주군 하였다.

임강의 우리 집도 봉화리에서처럼 늘 손님으로 들끓었다. 환자들도 환자지만 그 대부분은 반일운동자들이였다.

강진석외삼촌이 임강에 들어와 백산무사단을 조직한 것도 이 무렵이였다. 백산무사단은 평안도지방의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무장단이다. ≪백산≫이란 백두산을 의미한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의 선각자들은 ≪백산≫이란 명칭을 매우 귀중히 여기였다. 그들은 무송지방에 설립한 조선인사립학교에도 백산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였다. 우리가 1927년 12월 무송에서 내온 청년조직도 백산청년동맹이라고 불렀다.



외삼촌 강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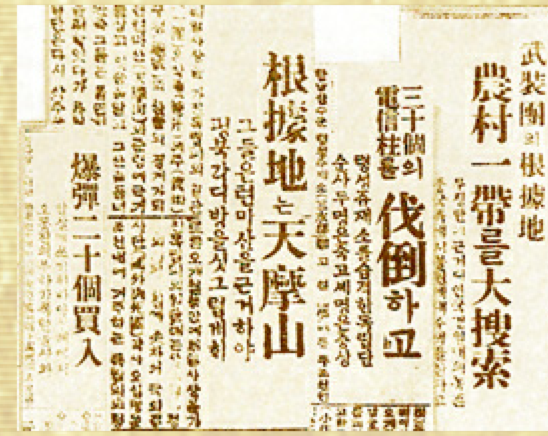
백산무사단은 임강과 장백 일대에 조직된 군소독립군단체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오가 째인 무장단이였다. 이 무장단은 본부는 임강현에 있었다. 백산무사단의 국내활동지점은 중강, 초산, 후창을 비롯한 평안북도 일대와 멀리 평양, 순천, 강서 지방에까지 길게 뻗어있었다.

평양에서 비밀청년단체 성원으로 활동하던 외삼촌은 만주에 들어온 다음 무사단을 조직할 때까지 임강의 우리 집에 거처하면서 한동안 채벌노동을 하였다. 무사단을 조직한 후에는 외무위원으로 임명되어 평안남북도일대에서 정치공작과 군자금모연활동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외삼촌은 무사단의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 집에 자주 다니었다. 그때 변대우도 오고 백산무사단의 재무인 김시우도 동행하였다. 그 지휘관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가 많았다.

다른 손님들은 다 웃방에서 잤지만 외삼촌만은 늘 우리들이 있는 방에 내려와서 베개밑에 권총을 감추고 자군 하였다.

그 당시 아버지는 관전회의에서 선포한 방향전환의 요구에 따라 선진사상에 기초한 무장투쟁준비에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아버지가 홍토애에 자주 다닌 것도 백산무사단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武裝團의根據地

農村一帶를大搜索

三千個의電信柱를伐倒하고

根據地는天摩山

爆彈二十個買入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무장대들의 활동에 대한 신문보도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여난 나는 등잔불밑에서 외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권총을 분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 권총을 보는 순간 내 눈앞에서 어째서인지 3.1독립만세시위 때 보통문 앞거리에서 보던 광경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때 내가 시위군중속에서 본 것은 쇠스랑과 나무작대기뿐이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 외삼촌의 손에서 마침내 총을 보게 된 것이다. 수백수천의 죽음으로써 얻어진 피의 교훈에 조선의 선각자들은 무장으로써 화답한 것이다.

며칠후 나는 아버지한테서 중강에 건너가 가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운반해오라는 과업을 받았다. 세관에서 어른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는 때였으므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강에 건너가 가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넣어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경찰들이 세관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을 깐깐하게 조사했지만 그날

은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외삼촌은 그 후 국내에 나가 무장소조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임강을 떠났다.

그런데 한 달도 못되어 중강헌병대에 있는 김득수오장이 임강에 건너와 외삼촌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득수는 헌병오장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준 양심적인 사람이였다.

내가 학교에 갔다오니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짓고 있었다. 외삼촌이 붙잡히는 바람에 온 집안이 왁작 끓었다.



유랑민들의 몸을 수색하는 국경경찰들

외삼촌은 임강을 떠난 후 무장소조원들을 데리고 자성, 개천, 평양 일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이다가 1921년 4월 평양에서 일제경찰에 붙잡혀 15년 장기형을 받고 13년 8개월동안이나 옥중생활을 하였는데 보석으로 집에 나왔다가 1942년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에서 미풍회라는 계몽단체를 뭇고 도박과 음주, 미신을 반대하여 싸우던 외삼촌의 활동이 구국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은 것은 강돈욱외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였다.

혁명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를 잘하고 영향만 잘 주면 누구든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놀라운 위훈을 발휘할 수 있다.

외삼촌을 체포한 후 적들은 임강에 많은 밀정들과 사복경찰들을 들여보내여 아버지를 체포하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에 임강교외에 있는 친구의 집에 피해가서 자고 낮에는 집에 돌아와 일을 보군 하였다.

이제는 임강에서도 더 살수가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사짐을 꾸려가지고 남의 나라 지경의 타향에서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 식구가 이고 지고 메고 임강을 떠났는데 인력으로는 이사짐을 도저히 다 나를 수가 없어 방사현이라는 전도사가 발구를 끌고 우리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구까지 동행해주었다. 임강으로부터 팔도구까지는 25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임강과 마찬가지로 팔도구도 압록강을 끼고 있은 국경마을이였다. 임강대안인 중강땅에 일본헌병대가 있고 경찰관주재소가 있는 것처럼 팔도구대안인 포평에도 일본 헌병대분견소와 경찰관주재소가 있었다.

포평은 조선의 북단에 속하지만 독립운동의 기본무대가 만주로 옮겨진 뒤여서 일제는 이 일대에도 폭압역량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포평에서 파견된 밀정들과 헌병, 경찰들이 매일같이 팔도구에 넘어와 애국자들을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병치료를 해주시며 인민들을 교양하시던 집

우리 집은 팔도강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합수목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다 ≪광제의원≫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우리 집 오른쪽에는 조선국민회원인 김씨네가 살았고 왼쪽에는 국수장사를 하는 다른 김씨네가 살았으며 걸건너 맞은편에도 역시 국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씨네가 살았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압록강연안의 무장부대들에 물자를 계통적으로 대주던 장사군형제도 김씨였는데 근처에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 집을 둘러싼 네 김씨네들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였다.

다만 뒤집 하나가 문제였다. 후에 판명된 것을 보면 그 집주인은 포평경찰서에서 박아넣은 손세심이라는 밀정이였다. 이 손가도 원래는 중강에서 살았는데 일본경찰기관의 지령을 받고 팔도구에 뒤따라와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였다.

아버지는 팔도구에 와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들가운데는 황씨성을 가진 사상가도 있었다. 그는 남사목재소에서 서사로 일하는 과정에 선진사상의 영향을 받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내막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황씨는 임무를 받으면 인차 팔도구를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행하고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 새 과업을 기다리군 하였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술상을앞에 놓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사히신붕≫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열을 내여 시국평을 하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낚시질을 하러 가는 날은 그도 고추장단지를 들고 강가에 따라나가 그물질도 하고 고기밸도 따면서 천렵을 하였다. 그 사람이 이렇게 3년동안이나 우리 집에 다니다나니 어떤 해 추석을 우리와 함께 쉰 적도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근거지로 이용하시던 포평예배당

아버지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200리나 떨어진 남사목재소에 여러 번 찾아가 노동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조직에 묶어세웠다. 나죽보통학교교원들도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어느 해였던지 이 학교에서 동맹휴학사건이 일어나 크게 소문을 낸 적도 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많이 다닌 곳의 하나가 포평예배당이였다. 예배당이라 하지만 뾰족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집이 아니라 보통 동기와집으로서 사이벽을 터쳐 통간으로 쓰는 것이 여느집과 다를 뿐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연락장소로 이용하시던 우편물위탁소

아버지가 팔도구에 온 다음부터 그 예배당은 군중을 교양하는 장소, 국내혁명가들의 집합장소로 이용되였다. 아버지는 예배가 있는 날마다 포평에 건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선전을 하였다. 때로는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었다.

아버지가 못가는 날은 어머니나 형권삼촌이 예배보러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교양을 하였다. 나도 철주를 데리고 그 예배당에 찾아가 아버지한테서 풍금타는 법을 배웠다.

포평거리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비밀연락장소들이 많았다.

포평주재소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비밀사업을 하였다. 이 사람이 주재소의 비밀을 탐지하여 우편물위탁소에 알려주면 위탁소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하군 하였다.

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비밀연락을 자주 다녔다. 언제인가는 포평주재소에 갇힌 애국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입해준 적도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편물위탁소였다. 아버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형권삼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지국을 맡아보았는데 수입을 따로 없었지만 신문은 거저 얻어볼 수 있었다.

나는 한 주일에 두 번 정도 그 위탁소에 건너가군 하였다. 강이 얼기 전에는 포평

에 다녀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강이 언 다음에는 이틀에 한번씩 갔다오기도 하였다. 내가 공부를 한창 할 때에는 형권삼촌도 다니었다. 아버지 앞으로 우편물이 많이 올 때에는 나와 형권삼촌이 함께 건너가서 날라오기도 하였다. 우편물은 주로 소포와 잡지, 일본에서 출판한 의학서적들이었다.

우리는 포평으로 다닐 때 헌병보조원을 하던 홍종우의 방조를 많이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밑에 혁명의 지지자, 방조자가 된 사람이었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팔도구도 포평헌병분견소의 관할구역이었다. 이 분견소에 주재소순사들도 복종하고 세관관리들도 복종하였다. 당시 국경지대에 있는 헌병기관들의 권한이 대단하였다.

아버지와 조직성원들은 늘 헌병감시소의 동향을 주시하였고 그들 역시 우리 집에 대해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홍종우가 헌병보조원옷을 입고 처음 우리 집 약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몹시 긴장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러 모로 경계하였다.

홍종우는 서름서름한 표정으로 약방안을 한참동안이나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 오늘 로형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에 있는 장순봉이라는 사람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외다. 내가 국경쪽으로 전근되어올 때 그 사람이 나더러 후창에 가거들랑 김형직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으니 수고스러운대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내자신도 노형을 만나보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헌병옷을 입은 사람의 언행치고는 매우 겸손하고 점잖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날 그에게 곁을 잘 주지 않았다.

≪중강의 김득수오장하구는 그렇게도 허물없이 지내시던 분이 오늘은 웬일이세요?≫

홍종우가 돌아간 다음 어머니가 묻는 말이었다.

≪홍씨의 헌병옷을 보니 평양감옥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더구만.≫

아버지는 인사를 전하려고 모처럼 찾아온 사람한테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번에 홍종우씨가 오면 잘 대접하자고 말씀하였다.

홍종우는 그 후에도 우리 집 출입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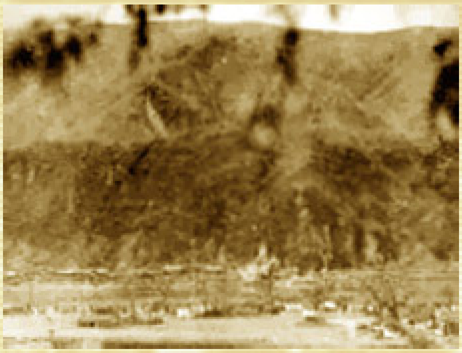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다.

≪홍종우가 우리 집을 내탐하러 왔으면 나는 홍종우를 통해 헌병대를 내탐하겠소.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내 한 몸이 위태한 것으로 그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소. 중강에는 김득수, 포평에는 홍종우라, 김형직이 가는 곳 어디엔들 헌병이 없겠소.≫

그날부터 아버지는 홍종우를 적극적으로 교양하였다.

헌병보조원을 대하던 딱딱한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한겨레로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대접도 잘하였다.

차차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알고보니 그는 본래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었는데 고향에서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살길이 열리지 않아 팔자를 고쳐보


조국의 북변 포평

자고 헌병보조원시험을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3.1인민봉기 때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헌병과 경찰의 치떨리는 만행을 목격하고는 헌병보조원시험에 응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농사나 짓자고 하였다. 그런 때에 합격통지서가 오고 교련호출장이 왔다. 이렇게 되어 홍종우는 헌병보조원이되었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개편하면서 ≪관제개혁≫의 명목밑에 국내의 헌병기관들을 축소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는 동시에 국경지방의 헌병기관들을 보강하였다. 조선인헌병보조원들은 거의나 경찰로 전환되거나 국경지대로 이동되었다. 그 사품에 홍종우도 후창으로 오게 되었다.


포평경찰관주재소

하루는 홍종우가 아버지한테 와서 헌병대의 무장을 탈취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그런 용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신이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몸에 왜놈의 군복을 걸쳤다고 어떻게 넋까지야 더럽히겠소. 5천년 역사국을 자랑하는 우리가 왜놈의 노예살이를 앉아서 순순히 감수만 할 수야 있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현 직무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오. 헌병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이 여러 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가 있소.≫

홍종우는 그 후 아버지의 말씀대로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주었다.

홍종우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가 도선장감시당번이므로 강을 건너갈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보내라고 미리 통지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홍종우는 여러 차례나 혁명가들의 도강을 보장해주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였다. 아버지에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기미가 엿보이면 홍종우는 인차 팔도구에 건너와 ≪순사들이 건너올테니 주의하시우.≫하든가 어머니에게 ≪김선생이 집에 오시면 며칠간 더 촌에 나가있다가 돌아오라고 이르십시오.≫하고 귀뜸해주군 하였다.

어느 날 헌병분견소 소장으로부터 대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사람들의 동태를 탐지할 과업을 받고 팔도구에 건너왔던 홍종우는 포평주재소의 순사가 아버지를 결박해가지고 나루터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홍종우는 그 순사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호통쳤다.

≪이 선생은 헌병대의 일을 보는 우리 사람인데 왜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체포하는가? 앞으로 김선생문제가 제기되면 너희들은 간섭말고 나에게 알려라.≫

그 순사는 잘못했노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버지의 팔에서 포승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번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헌병이 분견소 소장에게 팔도구의 김의사가 사상가라고 하는데 붙잡아서 문초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다.

홍종우는 ≪정보자료≫를 기록한 헌병일지를 펼쳐보이면서 이 자료는 다 김의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사상가들의 동태를 알려면 사상가로 가장해야 그들의 진짜 속내막을 알 수 있다, 김의사는 우리 사업에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 ≪정보자료≫라는 것은 다 홍종우자신이 꾸며낸 허위자료였다.

1923년 5월 헌병보조원제도가 폐지되자 홍종우는 자기도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적기관에 복무할 생각이 더는 나지 않

는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그날 그를 설복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아버지는 그에게 고향에 돌아가 경찰기관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서 종전처럼 계속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타일렀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만경대에 찾아가서 나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나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홍종우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만경대에 찾아가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문안인사를 전해드리었다. 그는 아버지가 시켜준대로 고향에 순사로 일하다가 상부에 여러 번 제기하여 1927년부터는 대평주재소 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임하자마자 주재소 심부름군에게 술과 돼지고기, 귤을 지워가지고 우리 만경대집으로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리었다. 만경대도 대평주재소의 관할구역이었다.

홍종우는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조선민족의 양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일가를 잘 보호해주었다. 그가 대평주재소로 자리를 옮긴 목적도 우리 만경대집을 보호해주자는데 있었다. 이 사람이 남리담당으로 있은 동안은 우리 할아버지나 형록삼촌이 놈들의 성화를 덜 받았다. 주재소수석이 그에게 늘 김형직이네 일가는 과거부터 배일사상가들의 집안이니 철저히 경계하고 수시로 가택수색도 해야 한다고 훈계하였지만 홍종우는 매번 별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어물쩍해넘기군 하였다.

해방 직후 인민들이 도처에서 친일파들을 붙들어다가 두들겨팰 때에도 홍종우만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지냈다. 그가 고향에서 은급순사노릇을 했지만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일본법에 걸리는 행위를 보고서도 매번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에 미움을 사지 않았다.

그는 과거경력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국해방 전쟁이 끝난 몇 해 후 나는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순천에서 홍종우를 찾아냈다. 찾고보니 그는 벌써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도간부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었다.

홍종우는 도간부학교를 다닌 다음에도 자기의 천품대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그는 말년을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적을 발굴하는데 고스란히 바치었다.

홍종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한테는 순사옷이나 순사의 간판이 방해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간판이나 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이다.

후대교육은 팔도구시절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관심하는 분야였다. 아버지는 교원의 간판을 의원의 간판으로 바꾼 후에도 교단에 서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대교육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학교나 야학을 통하여 군중을 계몽시키고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나라도 찾을 수 있고 부강한 독립국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1924년 여름에 삼원포에서는 조선소학교 교원들을 위한 여름강습이 진행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육내용과 노래곡목까지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팔도구골안에 조선인학교가 서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포평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쌀을 지고 와 자체로 밥을 지어먹으면서 조선글을 배웠다.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후대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이다.≫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글을 알아야 사람구실도 할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내가 다니는 팔도구소학교는 4년제중국인학교였는데 수업도 중국말로 하고 취급하는 과목도 중국의 것이었다. 시내에는 조선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개별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역사를 배워주고 레닌, 손문, 워싱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 가운데서 몇 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그때 ≪조선지위인≫, ≪조선영웅전≫, ≪러국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팔도강의 빨래터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통제를 엄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 안하면 나나 철주동생은 물론, 형권삼촌까지 붙들어세워놓고 종아리를 칠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의 공부를 많이 보살펴주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무슨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 어서 공부나 해라.≫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처럼 마음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가 하고 늘 궁리하였다. 그러다가 운동화를 사 신으라고 어머니가 준 돈으로 포평에 건너가서 고무신을 한켤레 사다드리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나이는 어려도 속은 깊구나. 나야 아무런 신을 신은들 뭐라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어머니는 기쁜 거란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명랑하게 자라나도록 정성을 다 기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구김살을 내지 않고 낙천적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려서 장난을 제일 많이 한 때가 팔도구시절이였다고 생각된다. 어떤 날은 어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험한 장난을 할 때도 있었다. 장난이 없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얼음판에 너비가 1미터도 넘는 큼직한 구멍을 뚫어놓고 강변에 한줄로 늘어서서 그 구멍을 뛰어넘을 내기를 하던 팔도구시절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70년전의 동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때 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 조선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멍을 날아넘었다. 아이들은 조선군대가 되지 못하는 수치를 면하려고 있는 힘을 다 내어 얼음구멍을 향해 달려가군 하였다.

보폭이 작거나 겁이 많은 아이들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 날이면 물에 옷을 적신 아이들의 집에서는 화로불에 옷을 말리며 저 평양집 성주 때문에 온 동네 아이들이 동태가 되겠다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성주가 팔도구대장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동네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푸념을 할 때마다 곧잘 내 이름을 거들군 하였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팔도구뒤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군대놀이를 하느라고 어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운 적도 있었다. 그런 때면 팔도구사람들이 온밤 자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다니였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였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그러나 만리대공으로 날아다니는 자유분방한 동심을 자물쇠로 잠가둘 수는 없었다.

한번은 그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종항이 자기 집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뇌관상자에서 뇌관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였다. 그 집 창고에는 독립군부대들에 보낼 무기나 피복, 신발 같은 것이 가득 쌓여있었다. 김종항의 형들은 일본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노동복이나 지하족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여 무장대들에 보내주었다. 이 사람들이 독립군에 물자를 대주느라고 배 두 척에 말까지 갖추어놓고 사방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상품을 연방 무데기로 도매하여왔다.

우리는 그날 화로불곁에서 호박씨를 까먹으며 놀았는데 김종항이 그 뇌관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자꾸 불었다. 그러다가 뇌관에 불찌가 닿아 그만 폭발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의 형이 그를 이불보에 싸업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뛰어왔다.

뇌관 때문에 상했다는 소문이 경찰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 봉변을 치를 수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김종항을 우리 집에 숨겨놓고 20여일간이나 치료해주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고나서야 김종항네 집이 독립군부대들에 군사물자를 조달해주는 애국상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실로 철이 없다고 할만큼 모험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 그늘만은 가실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망국의 고민이 더 크게 자라올랐다.



포평예배당에서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포평에서 여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강반석여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신
표평혁명사적탑

5. ≪압록강의 노래≫



광복된 조국을 안고 오리라

1923년 초에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고 이제는 소학교를 졸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나는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하고싶다고 말씀드리였다. 나를 상급학교에 보내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부터 품어온 소망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장래에 대한 포부를 물으니 나로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심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그 말씀 역시 나한테는 뜻밖이였다.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야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놀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데 가까운 고장에 보내면 안되겠는가고 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결심이 확고히 서있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허전하더라도 성주를 기어이 조선에 내보내야겠다고 거듭 말씀하였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한번 내놓은 말을 이유없이 거두는 법이 없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제 다시 조선에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고생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를 조선에 내보내자고 결심하였다.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네가 조선에 나가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만 똑똑히 알아도 그것은 큰 소득이

다,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걸 체험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할 바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리었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에서도 돈냥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외국유학의 길에 오르던 때였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풍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니 모두가 외국행을 할 때 나는 조선행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아주 독특하였다. 나는 지금에 와서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조선에 내보내준 것이 옳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열두 살도 되지 않는 자식을 당시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었던 천리길에 홀로 내세운 것을 보면 보통성미가 아니었다. 그 성미가 오히려 나에게는 힘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었다.

사실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조국에 나가서 공부하라니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부모동생들의 곁을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고싶은 생각은 불같았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떠나고싶지 않은 미련이 검질기게 교차되는 복잡한 심리의 파동속에서 나는 들뜬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날씨라도 좀 따스해진 다음에 보내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였다. 아직 어린 자식을 천리길에 홀몸으로 내세우자니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천리길을 가야 할 내 앞길을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아버지가 계획한 날자에 나를 떠나보내려고 밤을 세우며 두루마기와 버선을 지었다. 아버지가 일단 결심한 문제였으므로 어머니도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떠나갈 날이 다되자 아버지는 나에게 팔도구에서 만경대가 천리인데 혼자서 갈 수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목책에 노정도를 그려주었다. 후창에서 아무데, 화평에서 아무데, 어데어데까지 그리고 그 어간이 몇 리라는 것도 써주고 전보는 두 번 치되 한번은 강계에서 치고 한번은 평양에서 치라는 것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내가 팔도구를 떠나던 날은 음력 정월 그믐날(양력 3월 16일)이었다. 아침부터 눈보라가 일고 바람이 사납게 불었다. 그날 팔도구에서 사는 동무들이 나를 바래주느라고 압록강을 건너 후창남쪽까지 30리를 따라왔다. 길동무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정없이 그냥 따라오기에 겨우 설복해서 돌려보냈다.

막상 길을 떠나고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야 할 천리 중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였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는 것이 헐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 양옆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었다.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 직고개나 개고개(명문고개)와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정말 혼이 났다. 오가산령은 하루종일 넘었다. 아무리 걸어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군 하였다.



협궤기관차 니끼샤호

오가산령을 넘고나니 발이 다 부르텄다. 다행히도 그 령밑에서 어떤 노인이 나를 붙들고앉아 발바닥에 성냥으로 딱총을 놔주었다.

월탄을 거쳐 오가산을 넘은 다음에는 화평, 혹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회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왔다.

개천에서부터 신안주까지는 협궤철도가 놓여있었는데 ≪니끼샤≫라는 자그마한 영국제 기관차가 끄는 경편열차가 다니였다. 신안주에서 평양까지는 지금과 같은 광궤철도가 부설되어있었다. 그 당시 개천에서 평양까지의 차표값이 1원 90전이었다.


강계객주집

나는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한번은 발이 너무 아파서 어떤 농민의 발구를 얻어탄 일이 있었다. 헤어질 때 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으니 농민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나에게 엿을 사주는 것이었다.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강계객주집 주인이었다.

저녁늦게 강계시에 도착하여 객주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대문밖까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었다. 하이칼라를 하고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였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고 붙임성이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친 전보를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였다.

우리 아버지를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존경해온 이 객주집의 할머니도 나를 보자 4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 중강으로 들어갈 때는 조그마했는데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친손자라도 만난 것처럼 기뻐하였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놓은 소갈비국도 끓이고 청어도 구워서 자기 집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먹이지 않고 나한테만 주었다. 밤에는 새로 꾸민 이불도 내놓았다. 주인들이 그때 정말 나를 위해 있는 성의를 다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강계우편국에 가서 아버지가 일러준대로 팔도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보를 쳤다. 전보문 한 자에 3전이었는데 여섯 자가 넘으면 1전씩 더 받는다고 하여 전보용지에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 글자를 써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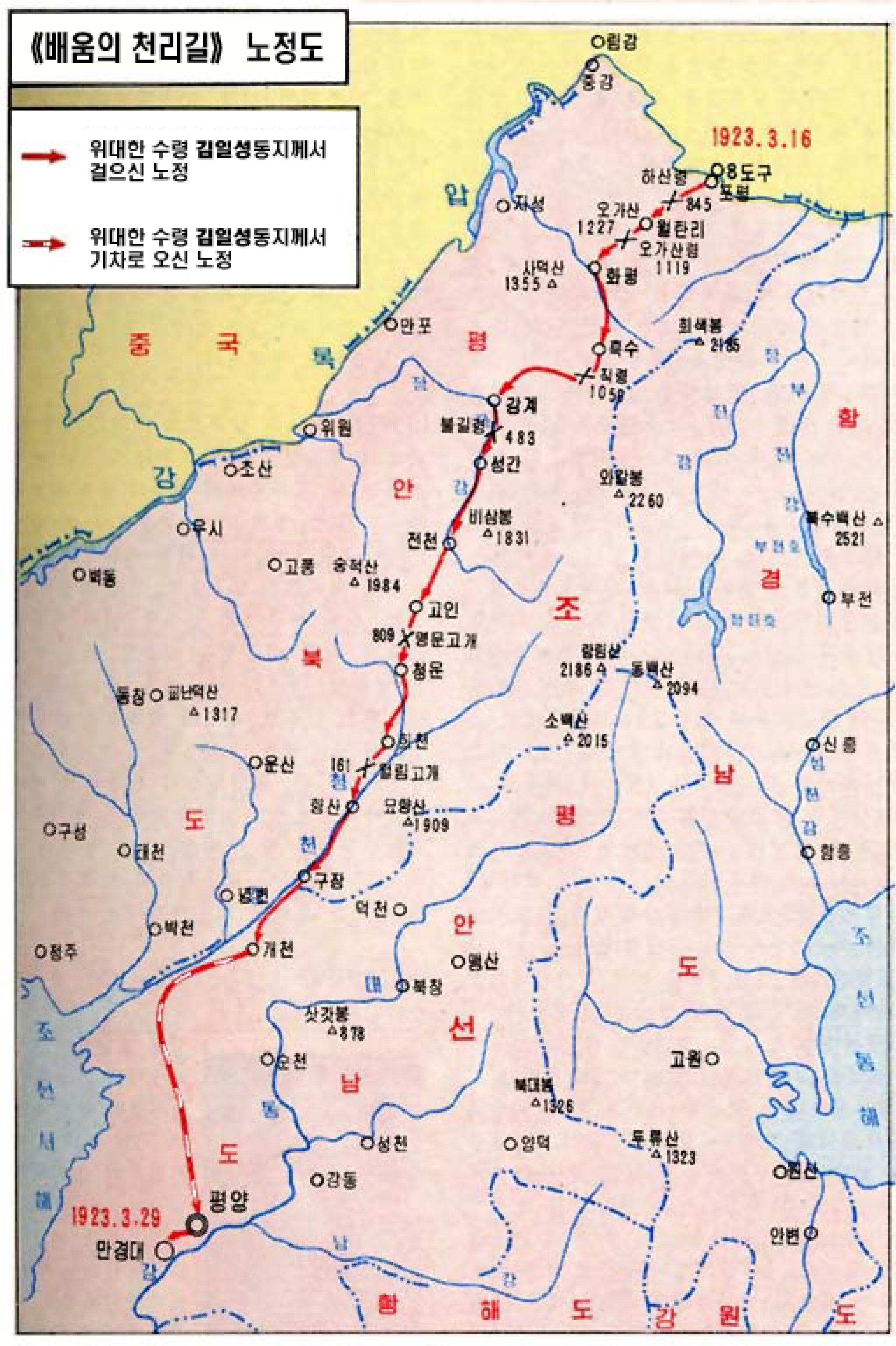
이튿날 객주집주인은 나를 차에 태워보내려고 자동차사업소에 갔다왔다. 그는 차고장으로 열흘쯤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신청은 해놓았으니 친척집에 온 셈치고 그 동안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진정이 고마왔지만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도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짚신 두 켤레를 주면서 개고개쪽으로 가는 달구지군까지 한 사람 물색하여 붙여주는 것이었다.

개천역앞에 있던 서선여관 주인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였다.


난생처음 전보를 치셨던 강계우편국

나는 그 여관에 들자 15전짜리 밥을 청하였다. 여관밥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여관에서는 15전자리가 제일 눅거리였다. 주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50전짜리 밥을 주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50전짜리는 못 먹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돈이 없어도 그냥 먹으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여관에서는 손님들에게 포단과 모포 두 장씩을 내주고 50전 정도 받았다. 수중에 있는 로비를 계산해보니 모포를 두 장



《배움의 천리길》 노정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노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차로 오신 노정
1923.3.16
8도구
포평
1923.3.29
평양
만경대
중국
압록강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강원도
조선서해
조선동해
중강
자성
만포
위원
강계
희천
구장
개천
고원
원산



씩이나 덮고 호강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모포를 한 장만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이번에도 다른 손님들이 다 포단을 깔고 모포를 두 장씩 덮고 자는데 너 혼자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돈을 안내도 되니 마음놓고 받으라고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어 어렵게 살았지만 조상전래의 인정과 미풍양속만은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금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무전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조선의 풍속이었다. 이런 풍속에 대해서는 서양사람들도 몹시 부러워하였다. 나는 천리길을 걸으면서 조선민족이 참으로 선량하고 도덕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서선여관 주인도 강계객주집 주인이나 중강려인숙 주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덟 살 적에 중강으로 들어갈 때에도 느낀 바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이처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친지들이 어디에 가나 있었다.

나는 우리 일가를 친혈육처럼 맞이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 많은 친구들을 언제 다 사귀였을가, 저런 동지들을 얻느라고 걸음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을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방에 친구들이 있으니 객지에 나서도 아버지는 이모저모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도 그들의 덕을 단단히 보았다.

천리길을 걸을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4년 전까지 등잔불을 켜고 살던 강계시내에 전등불이 환한 것이었다. 강계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였지만 나는 왜색이 짙어가는 거리풍경을 보고 쓸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조국에 나를 내보내면서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한 아버지의 참뜻이 마음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었다. 나는 그 뜻을 되새기면서 비운에 잠긴 조국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팔도구에 떠난 지 열나흘만인 1923년 3월 29일 해질 무렵에 나는 마침내 고향집 뜨락에 들어섰다.

아래방에서 물레질을 하던 할머니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누구하고 함께 왔니?≫

≪무얼 타고 왔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잘 있느냐?≫

할머니는 나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물었다.

방에서 멍석을 틀던 할아버지도 밖으로 뛰어나왔다.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왔다는 나의 대답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아니, 네가 정말 혼자서 왔단말이냐!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하고 혀를 찼다.

그날은 온 집안이 모여앉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밤을 새웠다.



외할아버지 강돈욱

산천은 예나 다름없이 유정하고 아름다왔건만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내비치고 있은 가난의 자취는 이전보다 더 두드러져보이었다.

나는 만경대에 며칠간 머물러있다가 외할아버지가 교감으로 계시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되어 조국에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때부터는 칠골외가에 가있으면서 학교를 다니었다.

당시의 외가는 사실 내가 얹혀살 형편이 못되었다. 외가에서는 그때 강진석외삼촌의 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외삼촌이 잡혀서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부터 경찰들의 감시와 성화가 심해진데다가 옥중에 있는 외삼촌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온 일가가 몹시 상심하고 있었다. 외가의 살림살이 역시 타개죽이나 비지밥으로 그날그날을 겨우 연명해가는 형편이었다. 둘째외삼촌은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우차몰이까지 하면서 가까스로 생활고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외가에서는 내앞에서 가난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내가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잘해주었다. 나를 위해 안채의 웃방을 따로 내주고 거기에 남포등도 걸어주고 돗자리까지 깔아주었다. 내 동무들이 셋씩넷씩 무리를 지어 때없이 찾아들어도 탓하지 않았다.

창덕학교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칠골일대의 선각자들이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조류를 타고 국권회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운 경향성이 좋은 사립학교였다.

구한국말기와 ≪한일합병≫후 우리 나라에서는 구국투쟁의 일환으로 애국적인 교육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국권상실의 수치스러운 본원이 나라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눈물겹게 통감한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자강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교육을 발달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도처에서 사립학교운동을 벌이었다.

이 운동의 앞장에는 안창호, 이동휘, 이승훈, 이상재, 유길준, 남궁억과 같은 애국적인 계몽운동자들이 서있었다. 각지방에 조직되어있는 학회들도 교육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었다.



칠골외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던 교육문화운동의 열풍속에서 수천 개의 사립학교들이 태어나 봉건의 구속에서 잠들고 있던 이 나라의 지성에 불을 달아주었다. 공자, 맹자의 교리를 가르치던 서당들이 신식학문을 배워주는 학당이나 의숙으로 개편되어 후대들에게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예외없이 교육을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삼고 거기에 온갖 재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였다. 테러를 독립운동의 기본방책으로 틀어쥐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배후에서 끊임없이 조종해온 김구도 초기에는 황해도일대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였다. 안중근도 남포지방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후대들을 가르친 선비였다.

서선지방에 설립된 사립학교들가운데서 유명한 것은 안창호가 주관한 평양의 대성학교와 이승훈의 개인자금으로 세워진 정주의 오산학교였다. 이 학교들에서는 이름난 독립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창덕학교

외할아버지는 창덕학교에서 안중근과 같은 인물이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고 하였다.

나는 안중근과 같은 유명한 열사는 못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애국자가 되겠다고 대답하였다.

창덕학교는 서선지방의 사립학교들가운데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학교로서 학생수가 200명 이상 되었다. 당시로서는 작은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거점으로 주변인민들을 빨리 계몽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평양지방의 인민들과 유지들은 창덕학교를 매우 중시하였고 여러 모로 이 학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백선행도 창덕학교에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였다. 본명보다도 백과부라고 많이 불리운 그는 해방 전에 평양에서 자선사업으로 이름이 높던 여자이다. 스무 살 전에 과부가 된 그는 80고령이 될 때까지 수절하면서 한푼두푼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치부방법이 아주 대담하고 독특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오늘날의 승호리세멘트공장소속의 석회석광산 부지도 한때는 백선행의 땅이었다고 한다. 그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돌박산을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일본자본가들에게 본전의 몇십 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 것이 바로 오늘의 승호리세멘트공장에 속해있는 석회석광산부지라고 한다.

문서장 한 장으로 국토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역신들에 대한 원성이 구천에 사무칠 때 수판알도 튀길줄 모르는 평범한 여성이 장사속이 밝은 일본자본가들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폭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일종의 전승무훈담처럼 통쾌하게 들었다.

사람들이 백선행을 존경한 것은 그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수중에 돈이 많았지만 그는 부귀영화를 조금도 탐내지 않고 조반석죽의 수수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저축해온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었다. 그 돈으로 다리도 놓고 공회당도 지었다. 백선행이 지은 평양공회당 건물이 지금도 연광정앞에 원상그대로 남아있다.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책상

공부를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가 볼 5학년 교과서들을 가지고 왔다. 나는 한 보따리나 되는 책들을 받아안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그런데

≪국어독본≫이라고 쓴 일본말책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황민화≫하기 위하여 일본말사용을 강요하였다. 강점 첫 시기에 벌써 그들은 관공서와 재판소, 학교들에서 쓰는 공용어는 일본어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말을 못쓰게 하였다.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일본말책을 왜 국어책이라고 하는가고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였다.

나는 손칼로 ≪국어독본≫이라는 글자들가운데서 나라국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날일자를 써넣었다. ≪국어독본≫이 순식간에 ≪일어독본≫으로 되어버렸다. 일본의 동화정책에 엇서고싶은 저항심리가 나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창덕학교에 며칠간 다녀보니 교실이나 길거리나 놀이터에서 일본말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 보이였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일본말을 배워주기까지 하였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탓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조선말도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나는 일본말을 익히느라고 애쓰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조선사람은 응당 조선말을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었다.

내가 팔도구에서 조국에 나와 칠골에 간 그날 동리사람들은 시국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외가집에 모여왔다가 만주에서 몇 해 동안 살았으면 중국말을 잘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나에게 청을 하였다. 창덕학교 아이들도 중국말을 배워달라고 자꾸 성화를 먹이였다. 그러나 나는 좋은 제 나라 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말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매번 거절하군 하였다.

내가 조국에 나와서 중국말을 해본 것은 단 한번뿐이였다.

하루는 둘째외삼촌이 나더러 성안구경을 가자고 하였다. 일에 몰려서 좀처럼 구경이라고는 다니지 않는 분이였지만 그날은 나를 위해 모처럼 틈시간을 냈다. 네가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나하고 같이 나가 점심이나 한끼 먹자고 하며 나를 데리고 평양성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시내를 한 바퀴 돌고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서평양에 있는 중국요리점에 들리였다. 지금의 봉화산여관이 자리잡고 있은 일대에는 그 당시 중국요리점들이 많았다.

요리점주인들은 매상고를 올리려고 문밖에까지 나와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하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아들이였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끌었다.

우리가 들어간 요리점 주인은 서투른 조선말로 무슨 음식을 잡숫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주인이 알아듣기 쉽게 중국말로 호떡을 두그릇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눈이 둥그래서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중국학생이 아닌가고 물었다.

나는 중국학생은 아닌데 몇 해 동안 만주에 가서 산 덕으로 그럭저럭 중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서 중어로 얼마간 대화를 하였다.

요리점주인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중국말에 그처럼 능통한 가고 하면서 몹시 반가와하였다. 만주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방

에서 살다가 온 학생을 만나니 조국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지었다.

그리고는 호떡과 함께 청하지도 않은 음식까지 식탁에 차려놓고 많이 들라고 하였다. 우리는 사양하다못해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었다. 식사를 끝낸 다음 음식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았더니 주인은 호떡값조차 받지 않았다.

외삼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한턱 내려고 너를 성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도리어 네 덕을 입었구나 하면서 크게 웃었다. 이 소문이 외삼촌을 통해 동네에 펴졌다.



청년시절의 강양욱

나는 희망대로 강양욱선생이 담임한 학급에 편입되었다.

내가 칠골에 간 것은 강양욱선생이 숭실학교를 중퇴하고 창덕학교에 취직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선생은 학비를 댈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가난이 오죽 심했으면 선생의 부인(송석정)이 시집을 버리고 한동안 친정에 가있었겠는가. 부인의 부모들이 네가 인덕이 모자라 조강지처는 되지 못할지언정 가난에 진저리가 나서 지아비를 버리다니 그게 될말이냐, 조선사람치고 그만큼 가난하지 않은 집이 몇 집이나 된다더냐, 그래, 시집을 가면 금방석에 앉아서 꿀물에 옥밥이라도 말아먹을줄 알았더냐, 일언이폐지하고 당장 돌아가서 사죄하라고 엄하게 질책하여 부인을 시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니 강양욱선생의 가세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긴 설명이 없이도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생의 부인을 ≪숙천아지미≫라고 불렀다. 부인의 고향이 평안남도 숙천이었다. 내가 가면 ≪숙천아지미≫는 매번 비지밥을 해주군 하였다. 그 비지밥이 참으로 별맛이었다.

해방 직후 나는 강양욱선생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부인과 함께 창덕학교시절의 비지밥을 회상한 적이 있었다.

≪사모님, 나는 지금도 칠골에서 사모님이 해주시던 비지밥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때 그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20여 년동안 타향살이를 하느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가난 때문에 쌀밥 한끼 변변히 대접 못하고 비지밥만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만 하시니 도리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지밥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그리고는 창덕학교시절에 장군님대접을 소홀히 한 봉창을 해드린다고 하면서 손수 지은 음식들을 차려주었다.

어느 해인가 그 부인이 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백화주≫라는 자작술까지 보내주었다. ≪백화주≫란 백가지 꽃으로 만든 술이라는 뜻이다.

그 운치있는 이름 때문에 유다른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나는 가볍게 잔을 들지 못하였다. 쌀밥 한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늘 시장기와 싸우던 부인의 지난날이 눈앞에 삼삼해서 좀처럼 잔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나에게는 고향에 있는 한대의 나무, 한 포기의 풀, 한 이삭의 곡식이 이전보다 몇 갑절 더 소중해보였다. 그런데다가 강양욱선생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부단히 취하였으므로 나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적으로 애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때 선생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원족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을 많이 조직해주었다.

그때 있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황해도 정방산 수학여행이 매우 인상깊다.

해방 후 강양욱선생은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서기장과 공화국 부주석으로 일하

면서 나와 사업상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창덕학교시절의 수학여행에 대하여, 우리가 본 정방산의 성불사와 남문루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상하군 하였다.

창덕학교시절의 추억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양욱선생의 창가수업이다. 창가시간은 우리가 제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선생은 전문가들을 무색케 할만한 희한한 고음성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대를 가지고 선생이 ≪전진가≫나 ≪소년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온 교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감상하군 하였다.

돌이켜보면 선생이 배워준 창가의 선율들이 우리의 가슴에 애국적인 정서를 많이 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창덕학교시절에 배운 노래를 종종 부르군 하였다. 그 시절에 배운 노래들은 지금도 가사와 선율이 그대로 고스란히 머리속에 남아있다.

조국에 돌아와보니 고향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해마다 봄씨붙임이 시작되면 극빈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다. 농사일이 바쁜데다가 농량이 떨어져 물구지, 냉이, 메싹 같은 것을 캐여 끼니보탬을 해야 했다. 장날이면 나물을 팔아 식량을 사려고 시내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들을 도와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봐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점심밥을 싸도 조나 수수, 피로 지은 밥을 싸가지고 다니었다. 그나마도 없어서 점심을 못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칠골이나 만경대에는 집사정이 곤란하여 학교에 못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문앞에도 못가보고 집에 파묻혀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여 방학 때 만경대에 가서 야학을 열었다. 그 야학방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다놓고 글을 배워주었다. 처음에는 1학년용 ≪조선어독본≫을 가지고 우리 글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학과목을 늘여 역사, 지리, 산수, 노래도 배워주었다.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박한 계몽활동이였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성안에 자주 드나들면서 평양시민들의 생활형편도 만경대나



칠골 사람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평양의 인구 10만 중에 기를 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는 일본사람들과 미국사람들뿐이였다. 미국사람들이 평양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신양리일대에 틀고앉아 호의호식을 하였다면 일본사람들은 평양에서 제일 번화한 본정과 황금정일대에 자기네 거주지역을 만들어놓고 풍청거리였다.

미국사람들이 사는 ≪양촌≫이나 일본인거주지역에 벽돌집이 늘어나고 상점들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늘어났지만 보통강일대나 뺑대거리 같은 곳에는 빈민촌이 늘어났다.

지금은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봉화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이 들어서고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초고층아파트와 같은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솟아나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내가 창덕학교에 다니던 그때만 해도 거기에는 거적문을 해달고 판자를 모아 지붕을 얹은 움집들이 올망졸망 들어앉아 있었다.

내가 조국으로 돌아온 그 해는 평양지방에 전염병까지 퍼지어 시민들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의 피해를 입어 온 도시가 형용하기 어려운 곤란을 당하였다. ≪동아일보≫는 그 해 홍수로 인한 참상을 전하면서 평양시내 총호수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호의 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하였다.

지금 보통강광장뒤에 세계에서 제일 큰 105층짜리 유경호텔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초라한 오두막을 짓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지 새 세대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때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서 근로하는 인민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내가 창덕학교에 다닐 때 일본에서 간또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에 대한 소문이 칠골에까지 날아와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지진을 계기로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한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조작해가지고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이 군대를 내몰아 조선동포들을 수천 명이나 학살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일본이 입으로는 ≪일시동인≫이나 ≪일선융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지로는 조선사람들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일본순사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만 보아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널판자에 못을 여러 대 박아 길바닥에 파묻어놓으면 어떤 자전거든지 영낙없이 타이어가 터지군 하였다.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우리가 만든 음악유희 ≪열세집≫에도 반영되었다. 음악유희 ≪열세집≫은 13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만든 열세 개도의 지도를 붙여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다.

1924년 가을철운동회 때 이 음악유희를 무대에 올렸는데 공연도중에 순사가 운동장에 나타나 당장 걷어치우라고 야단을 쳤다. 자그마한 운동회를 하나 열려고 해도 경찰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사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순사의 입회가 있어야 하던 세월이었다.

나는 강양욱선생을 찾아가 자기 나라의 산천을 사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공연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강양욱선생은 다른 교원들과 함께 순사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열세집≫의 공연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우리와 같은 소학생들도 이처럼 강한 애국정신, 반항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

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조국에 나온 그 해 여름 평양에서는 양말공장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그때 신문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이 비록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3.1인민봉기보다 더 큰 반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두 해를 보내다가 창덕학교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였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칠골에서도 만경대에서도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내 얼굴만 지켜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원쑤, 우리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내가 팔도구를 가겠다고 하자 외가집에서는 가도 졸업이나 한 다음에 가라고 하였다. 만경대의 할아버지도 이모저모로 설복하였다. 몇 달만 지나면 학교도 졸업하고 날씨도 따뜻해질 터인데 그때를 기다려 떠나도록 하라는 것이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한테 불행이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히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 내 이제 아무데 간들 피값이야 못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창덕학교시절의
친우 강윤범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돌려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를 바꾸어 내 결심대로 하라면서 아버지가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였다.

다음날 나는 집안어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났다.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울고 삼촌도 울고 온 집안이 다 울었다.

나를 바래우려고 평양역에 나왔던 작은외삼촌(강창석)도 몹시 울었고 칠골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던 강윤범이도 슬피 울었다.

창덕학교시절의 동창생들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동무가 바로 강윤범이였다. 그도 배짱이 맞는 동무가 없다나니 나한테 늘 놀러오군 하였다. 우리는 뿌르르 하면 같이 성안에 들어가군 하였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되였을 때 강윤범은 나에게 밥구레미와 함께 봉투 한장을 주었다. 너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기에 서운해서 몇 자 적었으니 차칸에 올라가 뜯어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대로 차가 떠난 후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속에는 짤막한 편지 한장과 돈 3원이 들어있었다.

그때 그 편지와 돈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되였는지 모른다. 동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차릴 수가 없다. 그때 형편에서 어린 나이에 돈 3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헐한 일이 아니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다고 막상 떠나기는 하였으나 사실 나한테는 그때 노자가 문제였다.

강윤범이가 나를 궁색한 처지에서 구원해준 셈이다. 그도 그 돈을 구하기가 무척 빠근했던 모양이다. 해방이 되자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첫인사로 돈을 받고 고마왔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그때 그 돈을 힘들게 구했노라고 실토하였다. 정말 부자들의 백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돈이였다. 그 돈 3원에 실려있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우정의 무게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돈에서는 우정이 생기지 않지만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별의별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강윤범은 그때 나보고 장군은 산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했지만 자기는 별반

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힘을 합쳐 새 나라를 건설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강윤범에게 지금 건국사업에서 제일 걸리고 있은 문제가 간부부족인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한 부분 맡아주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는 선뜻 응해나섰다. 얼마 후 그가 조촌에다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에 내가 삼흥중학교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삼흥이란 지, 덕, 체 세 가지가 다 흥한다는 뜻으로서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다 갖춘다는 것이다.

강윤범은 그 후 종합대학 건설을 책임지고 일을 잘하였다. 지금은 대학 하나를 건



설하는 것이 그닥 큰 문제로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자금도 없고 건설기능자도 없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는 일하다가 걸린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밤새도록 의논하군 하였다.

강윤범은 나를 광복의 길로 전송해준 잊지 못할 동지였고 친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 평양역에서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래주던 강윤범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성주, 너와 헤어지자니 눈물이 나서 못견디겠구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게 될가? 우리 서로 만리밖에 있어도 잊지 말고 창덕학교시절을 생각하자.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 나라를 생각하자.

그때 그가 준 쪽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나는 이런 우정과 의리에 고무되어 또다시 험한 고개들을 넘고 또 넘었다. 만경대를 떠나 열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는 포평에 도착하였다. 나는 나루터에 다달은 다음에도 인차 압록강을 건느지 못하고 강뚝에서 서성거리었다. 팔도구로 건너가자니 지나온 조국산천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당기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내 손을 쓸어주고 옷깃을 여며주고 눈보라를 걱정해주며 눈물짓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이제 뚝을 넘고 강만 건느면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찬바람이 불어대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조국에서 보낸 세월은 비록 두 해밖에 안되었으나 그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

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용감하고 강의한 인민이였다. 어떤 곤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예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인민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연정회의 간판을 가지고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나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군대와 경찰과 감옥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약탈해가는 화차들과 화물선들을 보면서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하는 악독한 착취자, 약탈자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숨막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품게 해주었다.

조국을 한시바삐 되찾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 조선의 것으로 만들고싶은 념원이 불길처럼 나의 가슴속에 타번지었다.

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포평나루터 아래쪽으로 좀더 내려가 여울목에서 압록강얼음판에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디였다. 폭이 백자도 되나마나한 그 강만 건느면 팔도구시가이고 그 강안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강건너쪽으로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조국을 하직하면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강뚝우에 나딩구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고 손바닥에 감싸쥐였다.

조국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조국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소중히 간수하고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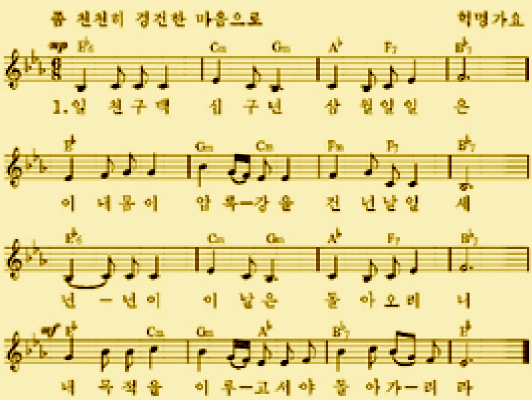
그날 압록강가에서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리적 체험을 하였다. 그날의 그 체험이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기 때문에 나는 조국에 개선한 후 국내애국자들이 나를 환영하여 차린 연회석상에서도 압록강을 건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나는 입속으로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 내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노래



2.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 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 가리라

나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창덕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평북 도구장군에 있는≪광복의 천리길≫ 헌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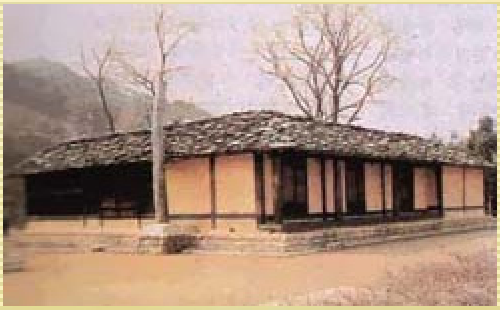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기관차와 객차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
헌시비 ≪법정나루여 길이 전하라≫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경편차역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고인여인숙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서산여관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진천객주집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
≪천리길에 빛나는 땅이여!≫ 헌시비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
헌시비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길이여!≫

6. 나의 어머니


어머니 강반석

내가 팔도구거리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천리를 걸으면서 내내 불안에 조이던 마음이 집앞에 다닫자 몹시 긴장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은 뜻밖에도 펀그나 여유가 있고 침착하였다. 어머니는 두손으로 나를 꼭 부둥켜안고 나는 한번도 그렇게 못해봤는데 너는 혼자서 천리길을 갔다 돌아왔구나, 사내가 다르긴 다르다고 하면서 반가와하였다.

나는 고향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무사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말씀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색을 보아 아버지가 급한 고비는 모면하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뒤따르며 그 때문에 주변의 눈과 귀를 몹시 조심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만경대에서 떠날 때 받은 노자를 아껴 사가지고 온 과자를 동생들한테 안겨주고는 온밤 가족들과 함께 쌓이고쌓인 회포를 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녁밥을 한 상 차려주고는 나보고 여기는 놈들의 감시가 심하니 인차 집을 떠나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있는 곳도 안대주고 아버지는 무사히 갔는데 너도 가야겠다고 하였다. 평소에 그렇게도 부드럽고 인자하던 어머니가 그때만은 내 의향이나 심정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엄동설한에 천리길을 걸어온, 그것도 2년만에 만나보는 자식을 하루밤도 재우지 않고 그날밤으로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이였다. 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덤덤히 서있었다. 동생들까지 데리고 떠나라는 말씀에 겨우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신파에 간 삼촌을 기다린다. 삼촌이 돌아오면 여기 세간들을 정리하고 뒤처리를 해야겠다. 너희들이나 빨리 떠나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이였다.

어머니는 임강 노경두네 집에 가되 아무도 몰래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당부하고나서 송십장에게 발구부탁을 하였다.

송십장은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었다. 본명은 송병철이였는데 십장들처럼 우쭐렁거리는 버릇이 있다고 하여 팔도구사람들은 이름대신 그를 송십장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 송십장의 도움으로 발구를 타고 팔도구를 떠나 임강으로 가게 되였다.

내가 일평생 혁명을 하면서 이별도 수많이 해보고 상봉도 수없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는 단 한번밖에 체험해보지 못하였다.

만경대에서부터 근 보름동안이나 걸어와 여장을 풀어보지 못한 채 그날밤으로 다시 길을 떠나면서 나는 어머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였다. 아버지는 혁명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이 강의하고 엄한 분이였으므로 따뜻한 사랑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

내가 2년 전에 조국으로 공부를 떠나게 됐을 때 그리도 나를 떼놓기 힘들어하던 인정많은 어머니였다.

만경대의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했으나 실상 그때 나는 말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느끼였다.

성품으로 보아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열네 살 나는 아이가 천리길을 걸어 집앞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억지로라도 끌어들여 따뜻이 먹여주고 재워줄 어머니였다.

어느 해 봄날 강건너 후창땅에서 왼다리와 목덜미에 종처가 생겨서 중태에 빠진 아이가 자기 큰아버지 등에 업혀 우리 집으로 온 적이 있었다. 부모들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큰아버지네 집에 얹혀사는 불쌍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진찰을 끝내고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걸어다니지 못하겠는데 치료기간 우리 집에 있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자 어머니는 더 이를 데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한마디로 응하였다. 수술 후 매일 한 번씩 꿀에다 밀가루와 중조를 반죽하여 아이의 종처에 붙이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약을 붙이는 시중을 하였으며 어지러운 상처를 다루면서도 얼굴색 한번 달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날 지성을 다한 끝에 병이 나아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아이를 데리러 왔던 그의 큰아버지가 1원짜리 돈 한 장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치료비를 계산한다면 몇백 냥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만 없는 살림이라 마음뿐입니다. 그저 치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 이 돈으로 약주나…≫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없이 사는 분들에게 치료비라니요. 그건 당치 않은 말씀이웨다. 나는 앓는 애를 더 잘 먹이지 못한 게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아이의 큰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청을 한다면 몰라도 산에 가서 솔검불 같은 것이나 긁어다 팔아가지고 치료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1원을 가지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도 난처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정녕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딱해하자 어머니는 ≪진정이야 받아야지요.≫하고는 그 걸음으로 거리에 나가 당목 다섯 자를 끊어가지고 돌아와 그 아이에게 주면서 단오도 멀지 않았는데 집에 가거들랑 옷을 해 입으라고 말씀하였다. 그때 당목 한자에 35전씩이었으니 결국 환자가 내놓은 1원에 75전을 더 보태어 옷감을 끊은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타산과 욕심이 없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 ≪돈이라는 것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마음씨가 곱고 온후한 분이었다.

간혹 아버지가 언짢은 일이 있어 꾸중이라도 할 때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고칩시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할 뿐 말대답은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장난을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심하게 하여 옷을 어지럽히거나 물건을 마스거나 집안을 소란스럽게 할 때에도 할머니가 왜 아이들보고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고 나무라면 ≪거 뭐 잘못한 걸 가지고 또 욕을 해서는 뭘 하겠어요.≫하는 정도의 말씀밖에 안했다.

혁명을 하는 남편을 섬기니 그렇지 사실 순수한 여성의 각도에서 보면 어머니의 일생은 힘에 부친 고생살이의 연속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단란한 생활을 얼마 해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늘 객지에 나가 있으니 자연히 그렇게 되였다. 아버지가 교원생활을 할 때 강동에 가서 한 1년간 좀 재미나는 생활을 하였다고 할가. 그리고 팔도구에 와서 한 1-2년 가정생활을 해보았겠는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앓고,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는 나까지 혁명을 하느라고 늘 객지생활을 하다나니 어머니는 단란한 생활을 못해보고 그냥 마음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였다.

만경대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열두 식구나 되는 큰 집안 장손며느리로서 늘 바삐 지냈다. 남편의 뒤바라지에 시부모공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안팎을 거두고 설겆이를 하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느라고 허리를 펼 사이가 없는데다가 낮에는 농사일로 진종일 밭에 나가있다나니 머리를 들고 해를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봉건이 심하고 예의범절이 까다로운 그때 큰집의 맏며느리구실을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어쩌다가 밥을 하였을 때에도 어머니한테만은 가마치가 차례졌고 죽을 쑨 날에는 제일 멀건 것을 잡숫군 하였다.

일이 정 고달플 때면 어머니는 삼촌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으로 가군 하였다. 송산이라면 지금의 군사대학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장로교계통의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남리와 그 주변에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다. 살아서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니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가 죽어서 ≪천당≫에라도 가보자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어른들이 예배당에 갈 때면 아이들도 따라가서 예배를 보군 하였다. 신자의 대열을 늘이려고 예배당측에서는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사탕도 주고 공책도 주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보는 맛에 일요일만 되면 패를 지어 송산으로 밀려가군 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동무들과 함께 가끔 송산으로 다니었다. 그러나 동심에 맞지 않는 엄숙한 종교의식과 목사의 단조로운 설교에 싫증을 느낀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날 나는 할머니가 달여준 콩엿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에 안갈래요. 예배를 구경하는게 재미없어요.≫

아버지는 아직 철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어린 나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가고 안가는거야 네 마음대로지. 사실상 예배당이라는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안가도 좋다. 너는 예수보다도 자기나라를 더 믿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한다. 그리구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칠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통제하였지만 한번도 가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민이 겪고 있는 비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다. 예수의 교리가운데 인도주의적인 것도 많았으나 민족의 운명을 두고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나에게는 구국에로 부르는 역사의 웨침소리가 그보다 더 절박하게 들리었다.

사상으로 보면 아버지도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던 숭실중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위에는 교인들이 많았고 따라서 나도 교인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장과정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고 묻는데 나는 종교적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신자들에게서 인간적으로 도움은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상적 영향도 주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독교적정신과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사상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가 예배당에 갈 때에만 송산으로 다니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어머니, 어머니는 ≪하느님≫이 정말 있어서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무엇이 있어서 다니는 것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가서는 뭘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불쌍하고 더 정이 들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다가도 피곤에 못이겨 졸군 하였다. 그러다가 목사가 뭐라고 한 후 모두가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아멘≫소리가 난 뒤에도 잠에 몰려 깨여나지 못하면 내가 슬그머니 흔들어서 어머니에게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군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이들과 같이 만경대뒤고개에 있는 상구막앞을 지나게 되었다. 동리에서 장례를 지낼 때 쓰는 상구를 보관해두는 막이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그 상구막을 몹시 무서워하였다.

우리가 그 막앞을 지날 때 한 아이가 ≪야, 저기서 귀신이 나온다.≫하고 소리쳤다. 그 바람에 우리



비밀문건 보관장소

는 막에서 정말 무엇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냅다뛰였다.

그날저녁에는 모두 무서워서 집에도 돌아못가고 동무네 집에서 자다가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오면서 신들을 얻어가지고 갔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였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무엇이든지 무서워 못나온단다.≫

노래를 부르면 무서운 기운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었을 것이다. 그 후부터 나는 노래를 부르며 그 상구막앞을 지나다니군 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이 드나들던 임강의 식당

평시에는 이처럼 온순하고 무던한 어머니였지만 적들앞에서는 기상이 도도하고 강의하였다.

봉화리에서 아버지를 체포해간 일제경찰들이 몇시간 후 우리 집에 달려들어 수색을 할 때였다. 그들이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성이 나서 ≪볼테면 보라!≫하고 자신의 손으로 옷가지들을 막 내던지고 찢어내치면서 무서운 기상으로 맞섰다. 그러자 놈들은 기가 죽어서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버렸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

그날밤따라 압록강가에서는 눈보라가 몹시 세차게 일었다.

수림을 통채로 쓸어버릴 것 같은 사나운 바람소리와 맹수의 울음소리로 가득찬 심야의 어둠은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망국의 상처를 더 아프게 건드려놓았다.

나는 무서워 떠는 동생들을 꼭 껴안고 어두운 두 나라 지경의 얼음우로 발구를 타고 가면서 참으로 혁명의 길은 간단치않고 어머니의 사랑 또한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였다.

우리는 셋이 다 추워서 이불을 들쓰고 우들우들 떨었다. 캄캄한 밤이었으므로 동생들은 그냥 무섭다고 하면서 내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구비라는 조선쪽 기슭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 임강에 도착하였다.

알고보니 노경두라는 사람은 전에 우리가 임강에서 살 때 집을 주선해주고 아버지한테 자주 찾아와 국운을 운운하군하던 구면의 객주집주인이였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큰손님처럼 따뜻이 맞이해주고 환대해주었다.

그 집은 7칸짜리 양통집이였는데 우리는 제일 조용한 두 번째 건너방에 있었다. 부엌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객방이 세 개나 있었다. 그 방들은 늘 손님들로 붐비였다. 만주에서 임강을 거쳐 조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조선에서 임강을 거쳐 만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객주집에 들렸다가 떠나군 하였다. 노경두의 집은 독립운동자의 숙박소나 다름없었다.


1925년 1월, 주석님께서 동생들을 데리고 임강으로 발구를 타고가다 하루밤 쉬고 가신 압록강기슭 오구비

노경두는 반일사상이 강한 민족주의자로서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강의하였다. 그는 객주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의 일부로 독립운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밥장사나 하면서 그날그날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므로 그것도 한 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임강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내막은 나도 똑똑히 알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노경두는 독립운동자금을 뽑으려고 중성광을

실어 내가는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한동안 단동지방에 숨어살다가 사건이 가라앉은 다음에 더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 임강에 이주했다는 것이였다.

그의 본 적지는 대동군 고평면 하리였다. 하리는 순화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고향 남리와 맞닿아있는 동네이다. 노경두는 원래 착실한 농사군이였던 것이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집에는 얼마 있지 않고 내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농사도 안하고 장돌뱅이노릇을 한다고 온 집안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그는 썰물이 지면 순화강을 건너 남리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군 하였다. 이런 연고가 있어서 그런지 노경두는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잘 보호해주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노경두는 큰 은인이였다. 한 달 가까이 객주집에 있는 동안 그는 자기 집의 것을 다 퍼내어 우리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도 다른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었다. 한번은 자기 돈을 내여 무송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장거리전화까지 걸도록 해주었다. 그 덕에 나는 난생 처음 전화를 해보았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싶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한 번씩 다 전화를 해보았다.

어머니는 약속한 날자에 형권삼촌을 데리고 임강에 왔다. 오자마자 시가지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중국요리집으로 갔다. 우리들에게 교즈 한 그릇씩 사주고는 이것저것 물었다.

처음에는 한 달 가까이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온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푸짐히 먹이고싶어 그러는가보다고 심상않게 따라들어갔는데 실상은 음식보다도 그 동안 우리가 지내온 경위를 듣고싶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사이 객주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찾는 일이 없었느냐, 너희들이 노경두네 집에 와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 이나 되느냐, 이렇게 일일이 묻고나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데 나가서 김형직의 아들이라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는 것과 새고장으로 떠나갈 때까지 매사에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곱씹어 당부하였다.



강반석여사가 탄생하신 칠골집

임강에 와서도 어머니는 역시 우리들 때문에 발편잠을 자지 못하였다. 깊은 밤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군 하였다.

자식들에게 무슨 화라도 미칠가보아 한시도 마음을 못놓는 저런 어머니가 임강으로 우리를 떠밀어보내던 그날은 어찌면 그렇게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가?!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어머니의 사랑,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 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그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이따금씩 내 꿈에 나타나군 하였다.

7. 유 산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시던 권총을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시는 강반석여사

팔도구시절에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오던 황씨는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였다. 후창에서 일경들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를 탈환해낸 사람이 바로 황씨였다.

아버지는 국내조직들과의 연계를 지으려고 포평에 건너갔다가 비밀아지트로 이용하던 국수집근방에서 매복경관들에게 붙잡히였다. 적들에게 아버지를 밀고한 것은 우리 뒤집에서 객주업을 하던 손세심이였다. 이자가 사흘이 멀다하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아버지의 곁에 딱 붙어앉아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알랑거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손세심이 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지하조직을 들춰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체포한데 대해서 극비에 붙이고 평안북도경찰부에 고위급관리들을 급파하여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였다. 포평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아끼시마와 다른 순사 한 명이 부랴부랴 후창경찰서를 거쳐 신의주 도경찰부까지 아버지를 호송해가게 되였다. 적들이 아버지를 체포하자마자 신의주로 호송하게 된 것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이 아버지를 탈환해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아버지가 포평경찰관주재소 유치장에 갇혀있는 동안은 놈들이 가족을 주재소에

들여놓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신의주로 호송되게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황씨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성주 어머니, 내가 집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변호사를 대고 재판받는 것까지 보고 오겠으니 너무 걱정마시우다. 집에 술이 있으면 몇 병 주시오.≫

그는 독한 술 몇 병에다 마른명태 한 코를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슬금슬금 아버지를 따라갔다.

순사놈들은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났는데 연포리주막집에 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되었다. 그자들은 배가 출출하다고 하면서 그 주막집에 밥을 시키었다. 그때 일행을 뒤따라 연포리까지 온 황씨가 그 집에 들어와 동정을 살피다가 망태기에서 술병을 꺼내들고 순사놈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놈들은 처음에 죄인호송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황씨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잔두잔 받아마시기 시작하였다. 황씨는 잡혀가는 사람에게도 밥을 먹여야 할게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들을 구슬려가지고 아버지의 한 쪽 손에는 수갑을 벗기게 하였다. 황씨도 술을 많이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원래 술고래였다.

아끼시마는 자기의 수하졸병인 조선인순사와 함께 마침내 그 자리에 꼬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 틈을 타서 아버지는 황씨의 도움으로 수갑을 풀고 그와 함께 주막집에서 뛰쳐나와 맞은켠에 있는 뾰족봉으로 올랐다. 산꼭대기에 거의 올라섰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술에서 깨여난 순사들은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헛총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놈들이 총질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그때 뾰족봉에서 황씨와 헤어졌다. 그 후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내가 해방 후 이 황씨를 찾느라고 여러 곳에 줄을 놓았다. 곤란할 때 그렇게도 목숨을 내대고 서슴없이 아버지를 도와주던 사람이 웬일인지 좋은 세상을 만나니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황씨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단두대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진실한 벗이며 동지였다.

황씨와 같은 성실한 동지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런 역경속에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아버지를 보고 동무복을 타고났다고 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또 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다보니 주위에는 군중이 많았고 혁명동지들과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후퇴시기 이극로선생한테서도 아버지의 탈출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그 해 초가을에 공화국정부에서는 지방들에서의 현물세납부사업을 추진시킬 목적밑에 여러 명의 내각성원들을 전권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때 무임소상을 하던 이극로선생도 평안북도에 파견되었다.

선생이 과업을 다 수행하였을 때는 전략적 후퇴가 시작되어 우리가 강계지방에 가있을 때였다. 하루는 그 선생이 내각에 사업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가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화제를 느닷없이 꺼냈다. 자기가 후창군에서 일을 끝내고 강계로 나올 때 그 군 내무서장을 데리고 연포리라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가 탈출한 주막집을 직접 돌아보았는데 그 집이 그냥 남아있더라는 것이었다. 강계와 후창은 당시까지만 하여도 다 평안북도에 속해있었다.



무장대 성원들의 모임을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한 생을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내다가 해방 후 건국을 앞두고 북반부에 들어온 이극로선생한테서 연포리주막집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일이였다.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적이 널리 공개된 때라면 몰라도 연포리주막집이 무슨 집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이극로선생에게 물었다.

≪이선생이 어떻게 되어 우리 부친의 역사를 다 아십니까?≫

≪나는 벌써 20년 전에 김형직선생님 명성을 들었습니다. 길림에서 어떤 고마운 분이 장군님일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만 끝나면 춘부장님에 대한 전기를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무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처럼 과묵하고 조용하던 이극로선생이 이날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내각이 자리잡고 있은 번잡한 방을 떠나 인적이 드문 독로강(장자강)기슭을 거닐면서 한시간 남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극로선생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황귀헌의 아버지 황백하였다. 그 당시 이극로선생은 신간회대표단 성원으로 만주지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 대표단의 사명은 5.30폭동과 8.1폭동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동포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였다. 폭동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신간회지도부는 만주지방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이극로선생은 심양에서 최일천을 만났다. 길림에 가면 황백하를 만나보라고 선생에게 권고한 사람이 바로 최일천이였다.

이극로선생은 그의 말대로 길림에 가자 황백하를 만나 그에게서 구제사업을 위한 도움도 받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부터 연포리가 후창군에 있고 후창군이 우리 아버지의 주요한 활동연고지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신간회가 선생을 대표로 만주지방에 파견한 것은 그가 이 일대에서 다년간 교육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내도산의 독립군부대에서 한

동안 훈련도감으로도 있었고 무송의 백산학교와 환인현의 동창학교에서 교편도 잡았다. 그런 것만큼 선생이 만주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십분 있음직한 일이었다.

≪군내무서장이라는 사람은 주막집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창군의 수치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리구 내무서장이 책임지고 주막집을 잘 보존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극로선생은 후대들이 선열들의 투쟁역사를 모르면 후레자식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전통교양을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창건된 지 두 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열들의 영혼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라고 절규하는 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이극로선생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황씨와 헤어진 아버지는 하루종일 산에서 헤매다가 연포리 주막집에서 그다닥 멀지 않은 가둑령이라는 곳에서 오막살이땅굴막을 하나 발견하고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서로 통성을 하는 과정에 아버지는 주인이 전주 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땅굴막주인은 가둑령과 같은 심심산골에서 동성동본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김노인은 땅굴막근처에 있는 조낟가리속에 아버지를 숨겨주었다. 그때 발도 얼고 무릎도 얼고 아버지의 하반신이 다 얼었다. 사지를 가드라뜨린채 운신도 못하고 며칠동안 찬바람이 스며드는 낟가리속에 숨어있으면서 그만 난치의 병을 얻었다.

노인은 낟가리속에 밥덩어리도 넣어주고 구운 감자도 넣어주면서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국내 무장소조원들에게 혁명임무를 주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버지를 놓쳐버린 아끼시마는 상급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평안북도경찰부에서는 후창에서부터 죽전리에 이르는 압록강유역에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펴고 며칠동안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가둑령의 조난가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그때 정황판단도 잘하고 은신처도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에 김노인은 압록강변에 나가서 강물이 얼었는가 얼지 않았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장대기를 가지고 강을 건느는 방법까지 대주었다. 아직 얼음이 두텁게 얼지 않은 때여서 서뿔리 강을 건너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김노인이 시켜준대로 얼음우에 장대기를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밀면서 배밀이도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갔다. 장대기만 들고 있으면 물에 빠져도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아주 기발한 도강방법이었으나 그 도강과정에 아버지는 재차 동상을 입었다. 그때의 그 동상이 1년 후 무송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또 하나의 화근으로 되었다.

천신만고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압록강을 무사히 건는 아버지는 며칠동안 토로즈마을에서 치료를 받다가 공영과 박진영의 안내로 무송으로 떠나갔다. 공영과 박진영은 장철호가 지휘하는 정의부소속의 무송주둔 독립군대원들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오동진의 소개로 공영이란 인물을 알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하였다. 공영은 벽동군출신으로 벽동독립청년단시절과 벽파별영에서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오던 진실한 청년이었다. 아버지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었다. 우리 집에 오면 늘상 ≪성주≫, ≪성주≫하면서 나를 사랑해주었다. 나도 후날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우리의 동지로, 전우로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영은 말리허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번 정도씩 쌀과 나무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군 하였다. 그의 부인도 산나물을 한임씩 해이고 남편을 따라 우리 집에 오군 하였다. 공영은 우리 아버지를 잊지 못해 한동안 몽상을 벗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무송으로 들어가다가 만강경내에서 마적들에게 붙잡혀 도 봉변을 당하였다. 사방에 토비들이 우글거리던 때였다. 군벌들이 도처에서 칼을 빼들고 세력다툼을 하던 혼란되고 불안정한 당시의 환경이 토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살길이 막힌 최하층의 인간들 중에도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반일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비적단들에 침투하여 그 상층을 조종하거나 따로 토비들을 길러냈다. 토비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주민지구의 가옥들을 털기도 하였고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수가 틀리면 사람들의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잔인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것만큼 아버지를 호위해가는 두 사람도 여간 긴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의사라고 신분을 밝혔으나 무지막지한 마적들은 의사라면 돈이 많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놓아주려하지 않았다. 의사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병을 봐주고 겨우 밥벌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들가운데 병난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수 있다, 돌아가서 관헌들한테 당신들을 고발하지도 않을테니 놓아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구슬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쯤 되자 공영은 저녁식사 후 그들이 약담배를 빨고 해이해진 틈을 타서 등잔불을 끄고 아버지와 박진영을 먼저 탈출시킨 다음 여라문 명 되는 마적들을 격술


김형직선생님께서 탈출하신 연포리 주막집

로 모조리 쓰러뜨리고 토비굴을 뛰쳐나갔다. 참으로 일종의 활극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장면이였다.

이 탈출에서 공영이 발휘한 희생적인 노력을 두고 아버지는 인상깊은 회상을 자주 하였다. 공영은 동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투사였다.

며칠 후 아버지는 무송에서 장철호를 만났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측량을 하던 사람이 그때는 군인이 되어 독립군의 한 개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병색이 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며 몸이 추설 때까지 자기들이 주선해놓은 거처에서 쉬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권하였다.

사실 그때의 아버지로서는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육신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였다. 아버지자신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때가 겨울치고도 제일 추운 때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든 몸에 찜질 한번 해볼 경황도 없이 인차 북행길에 올랐다.

장철호중대장이 직접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였다.

그때 다녀온 곳이 바로 화전과 길림이다. 아버지가 몸에 생긴 동상을 무릅쓰고 그토록 총총히 이 지방들에 간 것은 독립운동단체들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과 반일애국세력의 단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는 독립운동자들속에서도 당을 내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사상이 발전하고 혁명의 이념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당정치는 시대적 추세로 되어 세계의 정치계에 급속히 일반화되어갔다. 부르조아정객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다같이 정당정치를 지향하였다. 10월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연이어 창건되였다.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동방도 정당정치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였다. 1921년에는 우리의 인방인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런 배경속에서 조선의 선각자들도 민족해방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정당정치는 그 지침으로 되고 기초로 될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창시와 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우리 나라 근대역사에서 하나의 사조로 등장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해왔으나 자기의 정당을 가지지 못한 채 조락되고 있었다. 민족해방투쟁무대에서는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사조가 대두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새 세대의 선각자들속에서 공산주의신봉자대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민족주의진영에서도 많은 선진분자들이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바꾸었다.

관전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전환의 방침은 선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 선각자들에 의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관전회의방침을 맨처음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오동진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에서는 관전회의가 있은 후부터 맑스-레닌주의사조에 공감해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제는 이 시기에 대두한 새 세력을 ≪제3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었다.

일경의 포박에서 탈출한 아버지가 무송을 거쳐 길림에 간 1920년대중기는 민족운동내부에서 방향전환을 지향하는 혁신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파의 분해과정이 촉진되던 때였다.

아버지는 이런 대세를 통찰한데 기초하여 방향전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탄생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주지방에서의 조선사람들의 민족운동은 그때까지 국권회복의 이념밑에 주로

직접적인 무장활동과 교육, 민생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치활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어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아버지는 길림일대에서 활동하던 혁신계열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만주지방에 산재하는 모든 군사단체들과 자치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사업이 바로 아버지의 제의로 길림의 우마항에서 소집된 모임이었다. 모임은 1925년초 길림시 북산밑에 있는 박기백(박일파의 아버지)의 집에서 열리었다. 이 회합에는 양기탁, 현하죽,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고원암, 곽종대 등 독립운동의 원로들과 중견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독립군 중대장
장철호

그들이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필요성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종의 유일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모임에서는 창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적 문제들도 협의하였다.

이관린의 회상에 의하면 회의과정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은 당의 명칭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 당명을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명칭도 중요하지만 활동목적에 부합되게 당의 임무와 강령을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데로부터 명칭은 고려혁명당으로 낙착짓고 강령토의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우마항회의에 참가했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1년후 국내에서 온 천도교혁신파대표와 형평사대표, 연해주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현금의 사유재산제도를 소멸하고 현존한 국가조직을 철폐하여 공산제도에 의한 세계 단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병중에 있은 아버지는 그때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북산과 강남 공원을 참관하고 신안툰의 청년단체간부들까지 만나본 다음 무송에 돌아와 우리에게 전화로 임강을 떠나도록 분부하였다.

임강을 떠나 얼마간 갔을 때 우리는 장철호중대장이 보낸 두 명의 베감투를 쓴 독립군대원을 만났다. 그들이 베감투를 쓰고 온 것은 특무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한 위장이였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온 말파리를 타고 무송으로 향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시가에서 40리가량 떨어진 대영에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다. 얼굴에 비록 병색은 짙었으나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만가지 시름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동생들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달음박질해갔다.

동생들은 내가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매여달려 두 달 동안이나 품어두고 있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아버지는 그들의 응석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조국의 물이 좋기는 좋구나! 내가 너를 조선에 내보내고 잠을 못잤는데 네가 어느새 이렇게 숙성했구나!≫하며 아버지는 기뻐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앉아 밤을 밝히며 회포를 풀었다. 내가 아버지의 탈출을 도와준 황씨와 전주 김씨노인, 만강토비굴에서의 공영의 용감한 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그날밤이였다.

나는 조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에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었다.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나를 살펴보더니 조선의 아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긍정해주면서 조선을 알기 위한 공부가 창덕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니 새 고장에 와서도 조

국을 알고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의미심장하게 당부하였다.

며칠후 나는 무송제1소학교에 편입하였다. 이 학교에서 나와 제일 친한 학생은 장울화라는 중국소년이였다. 그는 무송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손꼽히는 부자집 아들이였다. 장울화네집에는 가병만 해도 수십 명이나 있었다. 무송현 동강에 있는 인삼포는 거의나 장울화네것이였다. 장울화네는 해마다 가을이면 인삼을 캐여 말이나 노새에 싣고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팔았다. 그 집에서 인삼을 팔러 갈 때에는 가병들이 10리씩이나 늘어서군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이름있는 부자였지만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인간이였다. 장울화 역시 그랬다.

나는 후날 혁명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덕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모면하였다.

조선학생들 중에서는 고재봉, 고재룡, 고재림, 고재수 등이 나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던 당시는 중국반동군벌들이 친일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조선애국자들의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런데다가 평양과 포평에서 받은 두 차례의 심한 고문과 동상의 후과로 하여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혁명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에는 ≪무림의원≫이라는 새 간판이 나붙었다. 사실 아버지는 남을 치료할 형편이 못되였다.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차 또 길을 떠났다.

그때는 다들 못떠난다고 말리었다. 장철호, 공영, 박진영을 비롯하여 무송에서 왔다갔다하는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다 만류하였다. 나나 형권삼촌도 말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지하고 말없이 받쳐드리던 어머니도 이번만은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만류하였다.

아버지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무송을 떠났다.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상층이 행동통일을 보지못하고 몇 개의 패로 갈라져 서로 세력다툼을 하기 때문에 부대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장철호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안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그는 두 사람분의 길양식으로 좁쌀 대여섯 되박과 된장 한 단지를 배낭속에 넣은 다음 도끼와 권총 한 자루를 몸에 지니고 무송을 떠났다. 목적지까지는 수백 리나 되는 무인지경이었다. 그 무인지경을 가느라고 퍼그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한지에다 우등불을 피우고 덮개도 없이 통나무무지에 기대여앉아 쪽잠을 청하군 하였는데 아버지의 기침이 심하여 그 사람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안도에 갔다와서도 그냥 심하게 기침을 하였다. 며칠 후부터는 그런 몸으로 백산학교의 인가를 얻느라고 또 여기저기로 뛰어다니였다.

백산학교는 국내에서 사립학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에 보조를 맞추어 무송지방에 이주한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설립한 역사가 오랜 사립학교였다.

초기의 백산학교 규모는 아버지가 다닌 만경대의 순화서당만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의 농촌집 방 두 개를 합친 것만 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작은 규모의 백산학교도 운영비의 부족으로 오래동안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무송에 이사하였을 때에는 백산학교를 복구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다. 일제의 부추김을 받고있던 군벌당국이 학교의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가서나 교육운동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도처에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아버지는 개교식전야에 장철호와 함께 목공창에서 만든 책걸상들을 마차에 싣고 백산학교로 갔다. 비록 ≪무림의원≫간판을 달고 의원일은 중단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학교에 가있었다.

아버지는 백산학교 명예교장으로서 직접 교편을 잡지 않았으나 교육내용과 후원사업을 보아주면서 학교에 나가 연설도 하고 과외활동지도도 많이 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이
무송에서
돌아가신 방

백산학교에서 사용한 ≪국어독본≫은 우리 아버지가 손수 쓴 것이다. 아버지는 백산학교를 세운 다음 유하현 삼원포에 갔다와서 박기백(박범조)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교과서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교재를 집필하면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삼원포에 가지고 가서 인쇄해다가 만주각지에 배포하였다. 거기에 교과서를 찍어내는 정의부관할하의 인쇄소가 하나 있었다. 석판으로 인쇄물들을 뽑아냈는데 책들이 훌륭하였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학교들에서는 여기서 찍어낸 교과서들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에서 교육문제를 의논하는 회의만 해도 여러 차례 열고 안도, 화전, 돈화, 장백 등지에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하여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은 모든 곳에 학교와 야학을 세우도록 하였다. 장백현 18도구 득영촌의 육영학교도 그 무렵에 세운 학교였다. 후날의 조선혁명군 대원이며 ≪ㅌ·ㄷ≫성원인 이제우와 항일투사 강돈은 다 그 학교 출신들이였다.

백산학교 일이 잘되어가자 아버지는 다시금 만주각지로 다니면서 독립운동자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에서 기본은 독립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방향전환의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모종의 유일당창건문제가 일정에 오를 때였던 것만큼 그 초석으로 되는 독립운동대열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을 고스란히 바치었다.

그 당시 동북 3성에 할거하고 있던 여러 갈래의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3부로 통합되어 만주에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3부가 존재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이 3부도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아 민중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아버지는 통일단결이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역사적 대과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925년 8월에 무송에서 국내외의 조선국민회대표들, 무장단체대표들과 함께 독립운동대열의 통일단결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민족단체연합촉진회를 결성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구상은 이 촉진회를 움직여서 유일당창립을 앞당기려고 하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분과 초를 다투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다른 때보다 몇 곱절 더 서둘러 일하였다. 그때 아버지자신은 벌써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후 얼마 안되어 중환으로 몸져누웠다.

1926년 봄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병석에 매인 몸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토방우에 낯선 신발들이 대여섯 켤레 놓여있군 하였다. 다

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고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무리 돈에 궁한 사람도 인삼 한 뿌리씩은 거의 가지고 왔다. 하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아버지의 병에는 약도 효험이 없었다. 봄은 지상만물에 기름진 생명의 즙을 주며 새 계절을 노래하고 있었건만 야속하게도 만사람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건강만은 소생시키지 못하였다.

나도 학교에 다닐 마음의 경황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가다가 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너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하고 엄하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아버지는 ≪가거라. 사내가 그래서는 큰일을 못해.…≫라고 하며 나를 기어이 학교로 보내였다.

하루는 길림에서 오동진이 장철호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다. 오동진은 무송회의방침에 따라 반일애국역량을 묶어세우느라고 여러 모로 애를 썼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하던 중 의논도 할 겸 병문안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소행을 격분에 차서 타매하였다.

성미가 과격한 장철호는 그런 옹고집쟁이들하고는 차라리 결별을 하고 말아야 한다면서 분노를 다잡지 못하였다.

두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던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갈라잡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되오. 힘이 들더라도 통합은 꼭 실현해야 하오. 통합을 해가지고 무장으로 적과 맞서기 전에는 독립을 성취할 수가 없소.≫하고 말씀하였다.

그들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이조시기부터 내려오는 당파싸움에 대해 말씀하면서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파쟁을 일삼고 있으니 야단이라고 개탄하였다. 파쟁을 근절하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 수 없고 문명개회도 이룩할 수 없다, 파쟁은 국력을 쇠진케 하는 근원이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개자이다, 외세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너희들 대에는 반드시 파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단결을 이룩해야 하고 민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구완을 할 때면 아버지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는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체험들이였는데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각오에 대한 말씀이다.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 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벗과 우정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도 교훈적인 것이였다.

≪사람은 어려울 때 사귄 벗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대문을 나서서는 벗들에게 의지하라고들 하는데 다 뜻이 있는 말이다. 생사고락을 같이할 진정한 벗은 사실상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그날 아버지는 벗과 우정에 대한 말씀을 장시간 하였다.

아버지는 동지를 얻는 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였다, 돈이나 육혈포를 얻는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좋은 동지들부터 물색하였다. 좋은 동지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내듯이 힘을 들여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키워내야 한



김형직선생님의
좌우명 ≪지원≫

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평생 조선과 만주벌판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닌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그래서 한뉘 손님시중을 드느라고 배를 곯으며 고생하였다.

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뜻이고 마음이다. 돈은 없어도 뜻만 통하면 서로 동지가 될 수 있다. 백만금을 가지고서도 얻지 못하는 우정을 단 한 모금의 숭늉이나 한 알의 감자를 가지고 얻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아버지는 재산가도 아니고 세력가도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재산가운데서도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는 동지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지가지의 풍상고초를 이겨내며 광복운동에 헌신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이 아버지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병중에 계시면서도 제일 그리워지는 것이 친구들이라고 하며 나에게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동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 수 있다.≫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침식을 잊고 병마와의 어려운 싸움을 하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드리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눈물겨운 지성이였다. 그러나 그 초인간적인 지성도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1926년 6월 5일, 아버지는 고향으로부터 수천 리 떨어진 이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갈 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놓이오.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성주를 중학까지 공부시키자고 했는데 글러진 것 같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먹더라도 중학까지는 공부시켜주오. 그 다음 그 아래 동생들은 성주가 할 탓이요.≫

그날 어머니에게 남긴 아버지의 유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였다. 아버지는 늘 차고 다니던 권총 두 자루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다음 이 총이 나지면 재미가 없으니 땅속에 묻었다가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도록 하오.≫

그리고는 우리 삼형제를 향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소리를 내여 목놓아울었다. 아버지의 서거는 나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망국의 설음을 한꺼번에 폭발시키었다.

아버지는 한 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듭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아버지에게는 물욕도 없었고 사리사욕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사탕을 사먹이고 싶어도 꾹 참고 한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였다.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간 아버지였다.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살았다.

나는 아버지가 가정살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사상이나 정신면에서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많지만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고향집에 전시해놓은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 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다. 장례날에는 소남문거리가 미여지게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남북만각지와 간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평소에 아버지를 따르고 흠모하던 수많은 동지들과 친구들, 제자들, 어제날의 환자들이 꼬리를 물고 무송으로 밀려들었다. 무송현장도 금박향지묶음을 가지고 찾아와 아버지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였다.

아버지의 묘소는 소남문거리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두도송화강기슭의 양지촌에 쓰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 마을로 자주 다니였다. 그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병도 봐주면서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지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평소에 그처럼 살뜰하게 지내던 사람들속에 계시고싶었을 것이다.

그날은 소남문거리로부터 양지촌에 이르는 10리길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독립운동자들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도 목놓아울었다.

무송지방의 조선여성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날부터 보름동안 머리에서 흰댕기를 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스승을 잃고 지도자를 잃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 아버지의 희생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내 가슴은 메꿀 수 없는 상실로 하여 텅 비여버리였다.

어떤 때는 홀로 강가에 나가앉아 멀리 조국의 하늘을 그려보며 눈물을 짓기도 하였다.

생각하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내가 좀 자라서부터는 늘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터놓고 말씀하군 하던 아버지였다. 무한히 엄하면서도 끝없이 웅심깊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제는 그런 사랑, 그런 이끄심을 더는 받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비탄의 눈물속에서 일으켜세워준 것은 아버지의 남다른 그 유산이었다. ≪지원≫, 3대각오, 동지획득, 두 자루의 권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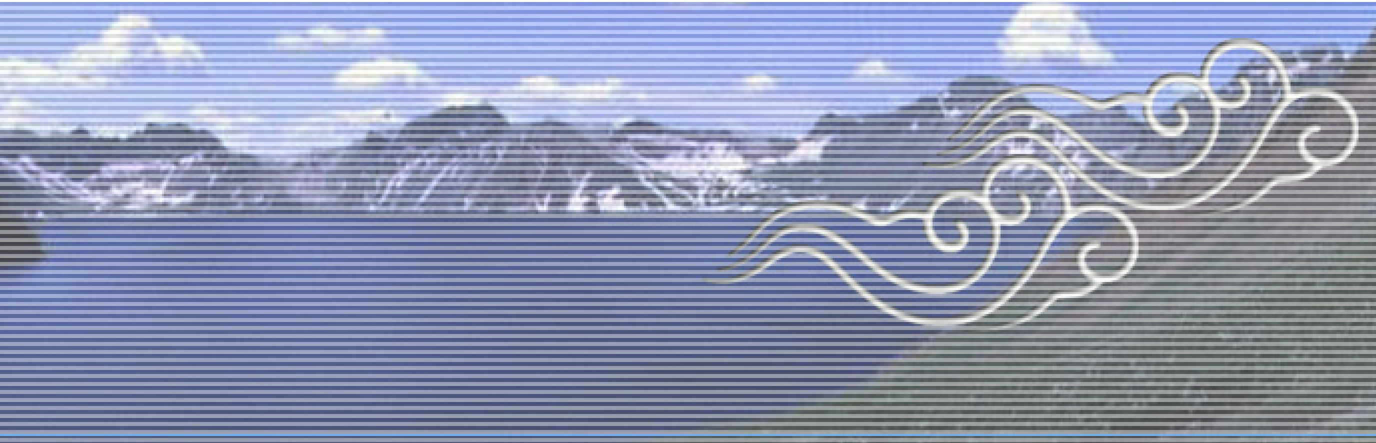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막막하고 암담한 슬픔속에서도 나는 그 유산에서 힘을 얻고 내가 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김일성주석님께 물려주신 권총

제2장





잊을 수 없는 화전

화성의숙
환멸
타도제국주의 동맹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며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 시기 : 1926. 7 ~ 1926. 12

1. 화성의숙

장례식이 끝난 다음 아버지의 친구들은 무송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의 장래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들의 보증과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난 것은 1926년 6월중순이었다.




岩泰事件으로
小作幹部의 質問
경찰서당에게 무장경관
파송에 대하야 강경질문

암태도 소작쟁의

그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 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서 3.1인민봉기가 분기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선각자들속에서 새 사조를 따르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났으며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3.1인민봉기가 있은 이듬해에 서울에서는 노동공제회라는 노동단체가 출현하였으며 연이어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와 같은 대중조직들이 속출되었다.

이런 조직들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무산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21년에 부산부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다. 그 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서울, 평양, 인천과 같은 산업중심지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영향밑에 일본인대지주들과 악질적인 조선인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재령나무리벌과 암태도를 휩쓸었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들을 몇 명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

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하면서 ≪민의 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 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추세는 이를 통일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역사적 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이 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노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사상이 없고 대열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사변으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반일시위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이조의 마지막왕이었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순종의 사망은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왕의 부고에 접한 조선사람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남녀노소 할 것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왕으로서 리왕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쌓이고쌓였던 망국의 설음이 다시금 울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군악을 울리며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군중은 더욱 슬피울었다.





순종장례식(위)과
6.10만세운동
(아래)

잘 있거라 창덕궁아
영원히 무궁히
나는 간다 북망산천
쓸쓸한 곳으로
인제 가면 언제나
또다시 오려나
2천만의 백의동포
무궁하여라

그 통곡소리가 일본강점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자극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는 곳이 있으면 즉시에 일본기마경찰대가 출동하여 총칼과 곤봉을 휘둘러 야수적으로 해산시키었다. 소학교아이들까지도 가차없는 곤봉세례를 받았다.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탈바꿈을 한 총독정치의 진면모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탄압만행은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시위투쟁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시키였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서 알려졌다. 반일시위준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애국적 인민들은 시위투쟁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6월 10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조선독립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었다. ≪문화통치≫7년간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폭발한 것이다.

열두어살 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대열을 짓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군중은 무장한 적의 군경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면서 용감하게 싸웠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사대사상이 3.1인민봉기를 실패하게 한 근본원인의 하나라면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종파행위는 6.10만세시위투쟁을 말아먹은 기본화근이었다. 화요파는 이 투쟁을 지도하면서 저들의 종파적 견지에서 조직사업을 하였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을 발단으로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 검거되였다.

6.10만세사건을 계기로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은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세를 과시하였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파벌관념을 버리고 통일적으로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더라면 6.10만세운동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되었을 것이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6.10만세운동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6.10만세운동은 종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전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나는 그때 6.10만세운동의 결과를 놓고 제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 투쟁의 조직자들이 왜 3.1운동당시의 평화적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민대중을 한번 싸움마당에 내세우자면 그들을 충분히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훈련을 잘 주어야 한다.

그런데 6.10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한 사람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총을 든 군경들앞에 적수공권을 군중을 수만 명이나 내세웠으니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설 때마다 무리죽음을 내고 좌절당하군 하는 반일운동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실패는 내 피를 끓게 하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나의 의기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나는 이런 사상적 충동을 안고 아버지의 유훈, 어머니의 념원, 민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성의숙시절을 값있게 보내리라고 결심하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초에 세운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민족재생의 출로를 실력배양에서 찾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 계몽활동가들은 일반학교의 설립과 함께 군사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관학교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각지에는 신흥강습소(유하현), 십리평사관학교(왕청현), 소사하훈련소(안도현), 화성의숙(화전현)을 비롯한 여러 개의 무관학교들이 일어섰다.

이 무관학교설립운동에서는 양기탁, 이시영, 오동진, 이범석, 김규식, 김좌진과 같은 독립운동의 거두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성의숙의 입학대상은 정의부산하 중대들에서 선발된 현역군인들이였다. 우에서 입학생수를 쪼개여 내려보내면 중대별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보냈는데 2년동안의 학습과정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새 직급을 주어 출신중대에 되돌려보내였다. 독립군밖에서도 개별적 인사들의 소개로 입학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뜻을 가진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은 은근히 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였다.

지금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들가운데 그 시절을 회고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만 해도 나는 나의 전도문제와 가정살림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나의 장래문제를 비롯하여 가정을 운영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나도 자연히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거에서 오는 슬픔과 고뇌때문에 망연자실의 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 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겠다는 일념과 사정이 허락되면 어머니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전도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중학까지 보내주라고 유언하였지만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내가 상급학교에 가고싶어도 가겠다고 말할 형편이 못되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비조달의 무거운 부담을 어머니 혼자서 짊어져야





화성의숙기숙사

하는데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에서 얻어지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빈한한 가계를 유지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 달마다 학비를 대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 그 조수역을 하던 형권삼촌도 일조에 직업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에는 약이 얼마 없었다.

이런 때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나를 화성의숙에 가라고 권고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가운데 나의 진학문제도 포함되어있었다. 내가 상급학교로 갈 때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서신을 내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어머니와 삼촌에게 주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부탁이였다.


당시 숙감 강제하

어머니는 그 부탁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인정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세월이였으니 어머니로서는 미안한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전도문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무송에 남아있던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자연히 한 개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동진은 의산 최동오선생한테 소개신도 보냈으니 화성의숙에 가라, 화성의숙에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것이 네 포부에도 맞을 것이다, 입씨름으로는 독립을 못한다는거야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학교를 졸업하면 그 후의 전도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줄테니 의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친우들은 장차 나를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독립군지도자들이 후비육성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인재양성을 중시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나는 오동진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나의 전도를 그렇게도 살뜰히 걱정해주는 독립운동자들의 진정이 참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무관학교에 보내어 독립운동인재로 키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생을 조국해방위업에 바치려는 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군사적 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견해였다.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는 화성의숙을 반일독립투쟁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화전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어떤 정객이 나보고 주석님은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되어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가게 되었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성의숙에 입학한 것은 아직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나의 세계관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이념으로 완전히 삼을 만큼 원숙한 단계에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공산주의를 지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었다면 무송에서 ≪사회주의대의≫와 ≪레닌의 일생기≫라는 소책자를 읽은 것뿐이고 사회주의이념이 실현된 신생쏘련의 발전모습을 풍문으로 들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끝없이 동경하였을 뿐이다.

내 주변에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으니 고장을 옮길 때마다 내가 다니던 여러 학교의 선생들은 공산주의사상보다 민족주의사상을 더 많이 고취하였다. 우리는 새 사조에 의해 교체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반세기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은 민족주의의 포위속에 있었다.

의숙에 끌끌한 청년들이 많고 정치교육과 함께 군사교육을 하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화전으로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학



휘발하기슭과
화전시가전경

비를 댈 힘이 없으면서도 상급학교에 갈 희망과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려는 포부를 동시에 품고 있은 나로서는 그보다 더 이상적인 교육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화성의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2년동안 의숙의 교육을 받느라면 중학과정안은 물론, 군사를 하나 더 배우게 되리라는 흐뭇한 생각도 들었다.

정작 집을 나서고보니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해가 묻혀있는 양지촌을 돌아보고 멀리서 나를 바래주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아보니 마음이 산란하여 가볍게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할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무송과 같은 백사지에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이 그때 형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길을 떠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송에서 화전까지는 육로로 300리가량 되었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은 풍을 친 한림차라는 것을 타고 쉽게 다니는 길이였지만 노자가 변변치 못한 나는 그런 호강을 할 처지가 못되었다.

화전은 송화강과 휘발하의 합수목으로부터 오륙십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은 길림성관할의 산간도시로서 남만치고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중심지의 하나였다.

내가 길을 떠날 때 무송의 어떤 독립운동자는 나에게 화성의숙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니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걱정해주었다. 독립군의 재정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화성의숙의 숙식조건이 변변치 못하겠지만 그런 곤란 같은 것은 문제로 도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무명옷을 입고 타개죽을 먹으며 자라난 나에게는 화성의숙이 아무리 가난하면 우리 만경대집보다야 더 가난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시우

내가 약간이나마 불안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이도 어리고 군인경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화성의숙이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화전에 김시우가 있고 화성의숙에 강제하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의지로 되었다.

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소속의 화전총관소 총관이었다. 총관소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은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소들이 무송에도 있고 반

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삼원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김시우는 자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와 연계를 맺고있던 독립운동자였다. 3.1인민봉기 후 중국에 들어가 임강과 단동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4년에 화전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는 화전시내에 정미소를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면서 대중계몽에 힘썼다.

그가 세워놓은 것이 남대가에 있는 영풍정미소였다. 김시우는 총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립군에 식량도 대여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당시 숙장 최동오

나는 임강에 있을 때부터 김총관의 북방사람다운 호방한 기질과 강직한 성미에 매혹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해왔었다. 김총관도 나를 친아들이나 조카처럼 극진히 사랑해주었다.

뜨락에서 닭장을 손질하던 김시우내외는 내가 나타나자 환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집 뜨락에는 발에 걸채일정도로 닭들이 많았다.

나는 김시우의 안내로 화성의숙을 찾아갔다.

김시우는 정미업자특유의 쌀겨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를 화성의숙으로 안내하였다.

화성의숙은 휘발하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만주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지붕과 청벽돌로 쌓은 거무스레한 벽체가 소나무숲사이로 바라보이었다. 교사뒤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의숙의 기숙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교사도 기숙사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건물이야 초라한들 뭐라는가, 집이 너절해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을 눌러버리었다.

그래도 운동장만은 크고 번듯하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화성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 오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화성의숙의 설립문제를 두고 의논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 의숙에 입학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펴보는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올랐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마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인상좋은 숙장이 자기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가 의산 최동오선생이였다.

의산선생은 33인으로 불리우는 3.1인민봉기 주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세교주 손병희의 제자였다. 손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동포들속에서 애국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었다.

숙장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숙장은 총관과 한참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벌려놓았다.

그날 최동오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였다.

≪성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리 의숙에 왔소. 독립운동은 수재들을 요구하는 새

로운 시기를 맞이했거든, 홍범도나 유인석식의 주먹구구시대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요. 왜놈의 신식전법이나 신식무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식전법과 신식무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바로 성주네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해결해야 한단 말이요.…≫

숙장선생은 그밖에도 교훈으로 삼을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숙식조건이 불편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런 곤란, 저런 곤란이 있더라도 조선독립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주었다. 첫 인상에도 성미가 온화하고 놀라우리만큼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김시우네 집에서는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었다. 주인내외의 정성이 엿보이는 소박한 식탁앞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두리반상 한쪽구석에는 곡주도 한 병 놓여있었다. 김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은 줄로만 알았는데 종관은 뜻밖에도 잔에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두 손을 바삐 내저었다. 난생처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대접이어서 여간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 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철호가 술을 권한 일이 한번 있지만 그것은 상제로서 받는 대접이었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였다.

그런데 김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투도 이전 날의 ≪해라≫로부터 ≪하게≫조로 바꾸었다.

≪자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 그래서 내 술을 한병 갖추어 놓으라고 했네. 자네 아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군 했네. 오늘은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으라구. 자네야 이제부터는 가장이 아닌가.≫

종관이 이렇게 말하며 허물없이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그 잔을 들 수가 없었다. 줌안에도 차지 않은 조그마한 잔이였으나 거기에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있었다.

김시우가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른처럼 처신을 해야 하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겸 서재로 이용하는 방을 내주었다. 숙장선생과도 토론이 되었으니 기숙사에 들어가있을 생각은 아예 말고 자기 집에 눌러있으라고 오금을 박았다.

김형직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편지로 성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만큼 자기는 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송에서나 화전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성의나 의리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리의 밑바탕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지세대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있었다.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아들로서, 새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유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화성의숙에서 생소한 군관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최동오선생이 나를 교실로 데리고들어갔다. 학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어느 중대에서 심부름이나 하다가 굴러온 애숭이군대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다.

40명 남짓한 학생들가운데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20살안팎의 청년들로서 그 중에는 수염이 검숭검숭하게 난 아이아버지도 있었다. 모두 내 형이나 삼촌벌쯤 되는 학생들이었다.

숙장이 나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선생이 정해주는대로 창문쪽 맨 앞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옆자리에는 1중대출신인 박차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들의 경력과 개성 중에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귀속말로 간단간단히 튕겨주군 하였다.

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사교관 이웅이었다. 이웅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인데 황포군관학교를 다니었다고 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한 존재처럼 우러러 볼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쳐다 먹는데 관료기가 좀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차석은 화성의숙에서 조선역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와 같은 과목들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종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었다.

후날 무장투쟁을 할 때 내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석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가 후에 길을 잘못들었지만 화성의숙시절에는 나하고 살붙이처럼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날 오후 6중대출신의 최창걸이 10여명의 동무들과 함께 나를 만나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다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라도 나누고싶었던 모양이였다.

최창걸은 머리에 큼직한 허물자리가 있었다. 넓은 앞이마와 시꺼먼 눈섭이 아주 남성적이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머리의 허물만 아니라면 미남자라고 불리울만큼 잘 생긴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글서글한 멋이 있었다. 첫 대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성주의 나이가 열다섯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이보다는 퍼그나 숙성해보이는구만. 이런 나이로 독립군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였소?≫

최창걸의 첫 질문이었다. 그는 한지붕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딩굴며 우정을 맺었던 십년지기라도 만난 듯이 시종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



화성의숙터전

다.

나는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히 대답해주었다.

내가 김형직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선망의 눈길도 보내면서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알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조금 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걸에게 독립군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허물자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부터 말해주었다. 우스개를 섞어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는데 아주 걸작이였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징은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는 것이였다. 그는 ≪내가 그랬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야 될 말도 ≪최창걸이 그랬다.≫, ≪최창걸이 속았다.≫고 말하여 대화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였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하졸병으로 있을 때였소. 한번은 개원쪽에서 밀정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렸는데 글쎄 그 펑덩하기 짝이 없는 최창걸은 밀정을 앞에 두고 꺼떡꺼떡 졸지 않았겠소. 수십리길을 걷다나니 피곤했거든. 그사이에 그 밀정은 포송을 풀고 도끼로 최창걸의 머리를 답새기고 꽁무니를 뺐단 말이요. 다행히도 그놈이 정통은 치지 못했지. 최창걸의 머리에 생긴 ≪훈장≫은 이런 기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소. 사람이 탕개가 풀리면 최창걸이처럼 될 수 있소.≫

한두시간 마주앉아 흉금을 터놓고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였다. 청년시절에 사귄 동무들이 수백수천 명이나 되는데 최창걸이처럼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슬슬 엮어나가는 그런 걸작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순에서 자그마한 여관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였지만 최창걸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독립군생활을 할 때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여러 차례 삼원포에 찾아왔지만 최창걸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어디 제 집 여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최창걸, 김리갑, 계영춘, 이제우, 박근원, 강병선, 김원우 외에도 남만과 국내 여러 곳에서 반일운동에 뜻을 두고 화성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년들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한두 명도 아닌 숱한 학우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처음부터 동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5-10살 이상 되는 연장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혁명활동시기의 나의 전우들 가운데 연장자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는 며칠사이에 의숙의 살림살이가 무송의 독립운동자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숙에서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낡은 책걸상과 몇 개의 운동기재뿐이였다.

그러나 나는 포부를 크게 가지였다.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칙하여 보잘나위 없어도 그 고삭은 초가지붕밑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돈은 없지만 끌끌한 청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성의숙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2. 환멸

나는 인차 화성의숙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두어주일가량 공부해보니 학과목들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다.

의숙학생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 과목은 수학이였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여럿이 지명을 받고도 풀지 못한 길다란 사칙문제를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냈더니 그들은 몹시 신기해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정규교육에서 떨어져나와 독립군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였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나는 수학 때문에 단련을 받았다.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몇몇 수염쟁이 청년들이 수학숙제를 할 때마다 찾아와서는 성화를 먹이었다.

그 대가라고 할지 그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가운데는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강한 육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훈련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까지도 서슴없이 헤쳐보이는 다정한 벗들이 되었다. 애숭이신입생으로서 나이많은 사람들의 짐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 내가 학습과 교련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네것내것이 따로없이 학우들과 잘 섭쓸려돌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연령의 층하를 두지 않고 나를 가까이 대해주었다.

그만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은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되여 화성의숙의 교육은 점차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세운 학교이고 아버지의 연고자들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나는 여기서 전 세대가 남긴 사상과 방법에서의 낡은 잔재를 발견하게 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역사가 수십 년 되지만 의숙의 교육에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하는 이론이 없었다.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은 수십 년동안이나 민족주의운동을 지도해오면서도 그 운동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논문이나 교과서 하나 똑똑히 만들어놓지 않았다. 화성의숙에 찾아오는 독립군의 거두들이나 애국지사들도 그저 막연하게 연탁을 두드리며 독립하자고만 부르짖었다. 혁명역량은 어떻게 편성하고 대중은 어떻게 동원시키며 독립운동대열의 통일단결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도 없었고 무장투쟁의 교범이나 전술같은 것도 변변치 못하였다. 조선역사과목은 왕조사본위로 엮어져있었고 세계혁명사도 부르조아혁명사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것은 민족주의사상과 구한국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였다.

민족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선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 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방법은 뒤떨어진 것이였다. 학교당국은 전투경험이 있는 독립군대원들을 데려다가 무훈담을 자주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무훈담을 통해서 고취하는 것은 안중근, 장인환, 강우규, 이재명, 나석주와 같은 열

사들이 적용하였던 개인테러의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라는 것이 말뿐이지 실탄사격에 쓸 탄알마저 없어 늘 나무총이나 가지고 훈련해서야 무슨 수로 왜놈들을 내쫓겠는가고 하면서 불평을 터놓군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언제면 우리도 신식총을 다루어볼 수 있는가고 군사교관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교관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지금 독립군간부들이 군자금을 해결해가지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사올 계획으로 맹활동을 하고 있으니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얼버무리었다. 총 몇 자루를 얻지 못해 이렇게 몇 만리밖에 있는 서양나라들을 쳐다보는 형편이었다.


일제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열사

나는 군사훈련시간에 아래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 왜놈들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날 수천수만 명을 헤아리는 전봉준의 동학군은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천명의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해 지리멸렬되었다. 그때 일본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동학군은 100명이 한놈씩만 제껴도 공주를 치고 서울까지 내처 달려갈 수 있는 유리한 형세였는데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참패하고 말았다.

의병의 무장도 동학군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의병들에게도 얼마간 신식총이 있었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있었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도창무기가 아니면 화승대를 사용하였다. 의병투쟁을 화승대와 38식보총의 싸움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탄 한방을 쏠 때마다 매번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화승총으로 분당 10발 이상씩 쏠 수 있는 38식보총을 제압하려면 얼마나 비참한 인내를 체험해야 하며 얼마나 간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승대의 성능이 아직 의병들만 아는 비밀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일본군대가 이 화승대의 총성만 듣고도 겁에 질려 달아났는데 성능을 안 다음부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였다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양반도덕과 계율에 밝은 유생출신의 의병들은 전투 중에도 대관을 쓰고 거치장스러운 도포차림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의병들을 일본군대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짓뭉개놓았다.

일본의 군력이 그때보다는 어방없이 강대해졌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훈련이나 해가지고 과연 탱크, 대포, 군함,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 무기와 중장비들을 계열식으로 만들어내는 제국주의강군을 거꾸러뜨릴 수 있겠는가.

나를 제일 실망케 한 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 낙후성이었다.

학교당국이 민족주의 외통길로만 나가면서 다른 사상은 다 경계하다나니 학생들도 자연히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는 왕조정치에 미련을 가지거나 미국식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 경향은 세계혁명사과목의 학과토론시간에 제일 우심하게 나타났다. 선생의 지명을 받은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취급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옮기면서 자본주의발전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그 교조적인 학습태도에 나는 불만을 금할 수 없었다. 화성의숙의 정치과목수업에서는 조선독립과 조선의 민중이라는 산 현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그저 교과서나 교수요강에 제시된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배워주고 받아낼 뿐이었

다.

토론을 실천문제, 조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방금 토론을 한 학생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 후 어떤 사회를 세워야 하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리 민족이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길로 나갈 때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이 음풍영월로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인데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거나 근로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할 때인데 이런 시대사조를 전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독립후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볼일이지 독립도 되기 전에 자본주의냐, 왕조복귀냐 하는 것은 싱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토론을 들으면서 화성의숙에서 실시하는 민족주의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통절하게 느끼었다. 봉건왕조를 되살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참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나라는 구라파나라들처럼 부르조아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낡은 봉건통치기구를 그대로 되살려도 안된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나 봉건사회는 다같이 돈많은 놈들이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호강하는 사회이다, 독립된후 조선에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는 없다, 기계문명의 발전만 보고 자본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당치않은 소리이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왕조정치에 그 누가 미련을 품겠는가,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바른말을 하는 충신들을 목자르고 귀양보낸 것밖에 더 있는가,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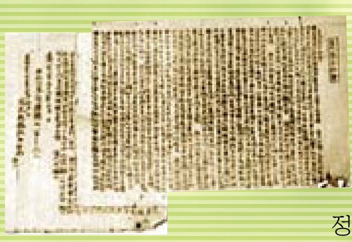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만민평등의 부강한 사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최창걸이도 수업이 끝난 다음 내 손을 꽉 그러잡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산주의사상을 멋있게 들이먹이더라고 하면서 몹시 통쾌해하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운동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화성의숙을 통하여 민족주의운동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독립군들도 맥을 못추고 세력다툼만 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국내와 압록강연안에서 종종 벌이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거의나 하지 않고 관할구역에 틀고앉아 군자금이나 거두며 돌아다니는 형편이었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사들도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열한 감투싸움을 벌이었다. 임시정부의 수뇌자리가 번번이 교체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어는 한해에 두 번씩 내각개조놀음이 벌어진 때도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파리강화회의 때 ≪조선독립청원서≫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회의의정에 상정되지조차도 못했던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청원≫놀음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미국회의원동양시찰단≫이라는 것이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미국회의원들에게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바치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임시정부조차도 자금난으로 1920년대 중엽에 와서는 그 허울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장개석의 중경정부에 얹혀다니면서 구차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치적 동요성이 많은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원쑤들에게 투항변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애국지사≫로부터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민족해방운동을 저애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치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여 나설 것이 아니라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식민지통치밑에서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문화를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통채로 받아문 것이 바로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이였다. 그들은 ≪민족개량≫과 ≪실력양성≫의 보자기를 쓰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떠들었고 각 개인의 ≪자아수양≫을 떠들었으며 ≪계급협조≫와 ≪대동단결≫, ≪민족자치≫를 떠들었다.

이와 같은 개량주의의 바람이 화성의숙에도 불어왔다.

김시우네 집 웃방은 항상 나와 정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찾아오는 청년들로 흥성거리였다. 내가 김시우의 서재에 있는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정치문제에 쏠리었다.

나는 무송에 있을 적에도 ≪레닌의 일생기≫나 ≪사회주의대의≫와 같은 책을 몇 권 읽었지만 화전에 와서는 그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 이전에는 그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면 화성의숙에 온 다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고전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게 되었다.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알고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겠는가,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노정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손에 책을 잡으면 비슷한 대목이 나올 때까지 끈기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대목은 열번스무번 곱씹어읽었다. 그러다나니 동무들이 찾아와도 화제거리가 많았다.

우리는 새 사조에 대한 이야기와 쏘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눈앞에 그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조복귀나 자본주의나 민족개조를 주장하는 이론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난다고 하였다. 그날그날을 되는 대로 보내던 학생들속에서는 점차 새것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나 10월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학교당국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점차 화성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3. 타도제국주의동맹



≪ㅌ·ㄷ≫를 조직하시던 때

화성의숙의 시대적 낙후성은 나로 하여금 낡은 방식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단성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순사나 몇 놈 처단하고 군자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투쟁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새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동무들도 견해가 같았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은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 사조를 선뜻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배척하였다.

화성의숙에서는 공산주의서적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공산당선언≫을 학교에 가지고 나가면 학생들이 내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런 책은 집에서나 보라고 슬그머니 귀뜸해주군 하였다. 학교당국이 제일 경계하고 엄중시하는 것이 적색계 책인데 경중에 따라 퇴학처벌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였다.

나는 통제를 한다고 읽고싶은 책도 읽지 않으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킨다해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당선언≫은 김시우의 서재에 있던 책이였다. 그 서재에는 공산주의서적들이 많았다. 김시우의 서재는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김시우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성의숙당국이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니 나로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숙의 계율은 어떻든 새 사상에 심취되어 그것을 깊이 파고들려는 우리의 열정은 누잦힐수 없었다. 나는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였다. 그 무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여서 우리는 독서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에 책을 바치도록 하였다. 새 사조를 신봉하는 학우들사이에서 은연중에 약속된 이 독서규범을 청년들은 대체로 잘 지키었다.

그런데 성미가 더펄더펄한 계영춘이만은 이 규범을 곧잘 어기였다. 그는 독서기간도 잘 지키지 않고 독서장소를 선택하는데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공산당선언≫은 혼자서 열흘이상 끼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동무에게 빨리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는 좀 발취할 대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계영춘은 다음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슬그머니 새여버리였다. 오전공부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휘발하강가에서 풀숲에 엎드려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은 그를 찾아내었다.

나는 그에게 책에 심취되는 것은 좋지만 강의에 빠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읽으라고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계영춘은 조심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음날 역사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기였다. 그 책이 숙장선생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키었다.

학교당국은 그 책이 나를 통해 김시우의 서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와 총관에게 역사교원을 보내여 야단을 부리였다.

그 선생은 김시우에게 화성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할 총관이 학생들이 좌익서적을 읽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총관답지 못한 처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지 못하도록 단속해달라고 하였다. 나를 보고는 성주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다면적인 지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당국은 어째서 새것을 한창 섭취해야 할 청년들에게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사상을 연구할 권리마저 빼앗습니까. 맑스나 레닌의 저작들이 보통책방에까지 흘러나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읽는 판인데 유독 화성의숙에서만은 어째서 그런 책들을 못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성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며 김시우에게 들이댔다.

김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의부의 시책이고 학교당국의 방침이니 자기 재간으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가 사상인 것처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사상이다. 그런데 화성의숙당국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사상으로 새 사조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헛되게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학교안에 맑스-레닌주의를 탐구하는 패가 있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이니, 엄중처벌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보적인 청년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부채질해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나한테로 좌익서적들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나는 그런 청년들가운데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한 사람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한 말씀이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명심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접촉하였는데 그 중에는 1중대에서 온 이모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는 머리도 총명하고 실력도 우수하고 성격이나 기질도 다 좋아서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은 학생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상만은 보수적이였다.

세계혁명사과목시간에 왕조복귀를 맨처음으로 주장해나선 학생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의 말이나 주고받던 그 학생이 나와 속을 터놓을 정도로 친숙해진 것은 조선인모범소학교 고등반학생들과의 축구시합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날 공격수로 활동한 그 학생은 상대편선수와 부딪쳐 다리를 상하였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열흘 남짓하게 그를 간호해주었다. 그



과정에 그와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세계혁명사강의시간에 자기가 왕조복귀를 주장한 것은 엉터리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성주가 말한 것처럼 우리 나라는 독립 후 근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빨리 왜놈들을 내쫓고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군사교련이나 받으면 왜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일본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총 한 자루 변변치 못한 독립군의 힘만으로 그런 강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고 물었다.

그 학생은 싸우자면 신체를 단련하고 총을 잘 쏘아야지 별수가 있는가, 오래동안 독립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지 다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지금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맑스나 레닌이 쓴 책들을 읽고 있는데 배울 것이 많다, 지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사상을 비방중상하고 있고 또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있는데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한다 하여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인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독립운동자, 애국자가 되자면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학생은 내 말에 공감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자기에게도 그런 책을 빌려줄 수 없는가고 하였다.

나는 이제 상처만 나으면 책을 빌려줄 터이니 우선 치료를 잘하여 빨리 일어나라고 고무해주었다.

새 사조를 동경하는 조류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의숙을 휩쓸었다. 민족주의를 따르는 완고한 몇몇 학생들을 내놓고는 절대다수가 선진사상을 신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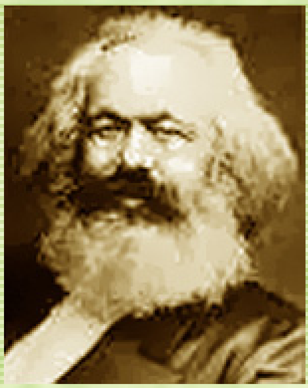
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로써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토론회는 김시우의 집에서도 하고 숙감인 강제하의 집에서도 하고 휘발하강가에서도 하였다.

총관의 서재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는 날이면 김시우는 은근히 왼심을 쓰면서 손

님들은 물론, 집안식구들까지 그 방에 드나들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군 하였다. 때로는 토방우레 걸터앉아 무슨 허드레일을 하는척하면서 망도 봐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말없는 그의 행동에서 후더운 인정과 지지를 느끼었다.

우리가 강제하의 집을 토론회장소로 정한 것은 그의 아들 강병선이 나와 가까운데도 있지만 장제하자신이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사상경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강제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놀러 가면 앉혀놓고 공산주의선전을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는데 자네들은 공산주의적 방법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그의 집에는 공산주의서적도 여러 권 있었다.


마르크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는 조선혁명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 청년들은 조선혁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시우네 집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간호를 받던 리동무가 쌍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약속했던 책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다른 동무들은 다 새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 기숙사에 누워있자니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도 우리와 한길을 걷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 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떼였다. 그때부터 나는 한 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었다.

좋은 동지들이 주위에 많이 집결되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판을 크게 벌려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대기었다. 동무들에게도 내 생각을 터놓았다. 그것이 아마 9월말경에 있은 모임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레닌

내가 그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오를 늘이고 완강하게 혈전을 벌려나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고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더니 동무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빨리 조직을 내오자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자면 준비를 더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와 사상을 같이하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무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앞으로 조직성원이 될만한 대상들을 정한다음 아무개는 누구를 맡고 아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한다는 식으로 분공조직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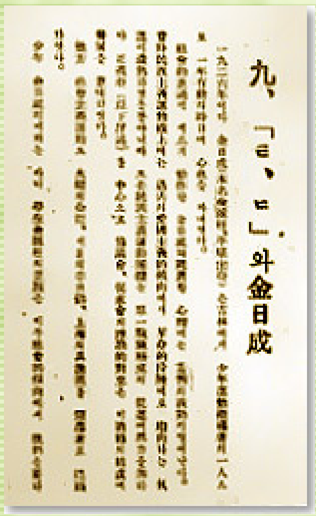
그런데 몇몇 동무들이 우리가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우리가 무으려는 조직은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와는 전혀 다른 새 형의 혁명조직이다, 그것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고 오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이다, 우리는 자신을 혁명에 깡그리 바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다, …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 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방에 차념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九, 「ㅌ·ㄷ」와 金日成

≪ㅌ·ㄷ≫의 결성과 그 활동을 소개한 출판물자료

그날은 동무들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였다. 조직을 뭇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이 떠오르고 조선국민회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조선국민회를 무으려고 여러 해 동안 수만리길을 걸으면서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국민회를 내온 뒤에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시였다. 그리고 이루지못한 뜻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도 울렁이고 눈물도 났다.

우리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령에는 아버지의 이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모임에 참가하여 열변을 토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최창걸, 김리갑, 이제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원,… 후날 배신은 하였지만 이종락과 박차석도 혁명을 위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전투적인 언약을 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훌륭한 토론들을 하였다. 나도 그때로서는 꽤 긴 연설을 하였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뭇는 조직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약칭으로는 ≪ㅌ·ㄷ≫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이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역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정치적 생명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너무 좌익적인 조직인 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우리는 그때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하자는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내가 발표한 ≪ㅌ·ㄷ≫의 투쟁강령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ㅌ·ㄷ≫는 문자그대로 제국주의일반을 타도하자는 조직이였던 것만큼 그 구호도 대단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방침도 채택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등사한 규약책도 나누어주었다.

그 회의에서 최창걸이 나를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 휘발하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밝히였다. 너무도 흥분이 크고 감격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때 온 세계를 전취한 것 같은 감격과 희열에 휩싸여있었다. 돈더미 우에 올라앉은 억만장자들의 락을 어떻게 이런 기쁨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큼직한 간판을 가진 조직들이 많았다.

우리는 조직을 방금 내온 데 지나지 않았다. 규모를 보면 아직 그런 조직들에 비길만한 형편이 못되였다. 세상은 아직 ≪ㅌ·ㄷ≫라는 것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ㅌ·ㄷ≫를 뭇고나서 그처럼 열광적인 기분에 휩싸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이 종래의 조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ㅌ·ㄷ≫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였다.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ㅌ·ㄷ≫의 피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였다.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논문을 쓰라고 하면 논문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 수 있는 끌끌한 재목들이였다.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였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새 길을 개척하자고 덤벼들었으니 그 기세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ㅌ·ㄷ≫성원들은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항상 육탄이 되어 그 출로를 열어나갔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로서 어데서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리갑, 강병선, 이제우를 비롯하여 ≪ㅌ·ㄷ≫의 산아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고결하게 생애를 마치였다.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출발은 잘 떼고서도 혁명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ㅌ·ㄷ≫의 이념을 저버리고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ㅌ·ㄷ≫시절에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사회를 그리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ㅌ·ㄷ≫의 아들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나가버리였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을 쌓아놓았다.

우리 당 역사에서는 ≪ㅌ·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 있으며 ≪ㅌ·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에 마련되고 우리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였다. ≪ㅌ·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그때 우리가 추켜들었던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이념이나 기개에 대하여서는 해방직후 최일천(최형우)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ㅌ·ㄷ≫와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단을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혁명군이 창건되고 조국광복회가 태어나 2천만의 총동원을 소리높이 웨칠 때 그리고 그 대열을 수천수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위성처럼 둘러싼 혁명의 전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화전에서 우리가 ≪ㅌ·ㄷ≫를 조직하던 시절을 감개무량하게 회상하군 하였다.



당창건기념탑 전경



당창건기념탑 - 1편 중간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1편 좌측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2편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3편 좌측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3편 우측부분 부각상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화성의숙에서는 학교운영자금의 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숙의 학생수가 100명도 채 되지 못했으나 당시의 독립군형편에서 그만한 학생들을 먹여살린다는 것도 헐한 일은 아니였다.

정의부가 주인이였지만 돈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였다. 백성들한테서 한푼두푼 모은 군자금으로 행정, 군사, 민사의 세 가지 틀거리를 다 갖추고 한 개 국가와 맞먹는 허울을 가까스로 유지해나가는 정의부로서는 돈을 크게 대줄 처지가 못되였다.

화성의숙당국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운영자금모연공작에 주기적으로 동원시키였다. 학생들은 20명이 한조가 되여 자기의 출신중대에 들어가 무기를 받아가지고는 두달동안씩 정의부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다가 기한이 되면 다른 조와 교대하군 하였다.

그렇게 돈을 모았대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인차 바닥이 나군 하였다. 그러면 또 길림에 올라가서 정의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번은 최동오숙장이 겨울나이준비를 위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정의부본부에 숙감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숙감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3중대장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였다. 화성의숙에 주려고 내놓았던 돈을 3중대장이 먼저 가로채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 비용으로 몽땅 써버렸다는 것이였다. 어찌나도 돈을 물쓰듯했던지 며칠을 불궈두고 온 동네를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리 사람들까지 불러다먹이였다고 한

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분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의부금고에 있는 돈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였다. 그 돈은 백성들이 죽을 먹고 끼니를 건느면서도 나라를 찾아달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금으로 바친 돈이였다. 돈이 없으면 짚신을 삼아 팔아서라도 군자금을 내고서야 마음을 놓는 우리 인민이였다.

3중대장한테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였다. 사리사욕에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너절한 사취행위를 하였겠는가.

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은 지휘관이 그러한 탐오행위를 꺼리낌없이 하였다는 것은 독립군의 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을사조약≫후 최익현이 지휘한 순창의병의 패보를 듣고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전라도일대에서 맹활약을 하던 한 의병장은 자기의 부하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탄식하던 끝에 부대를 해산하고 산속에 숨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병장이 백성에 대한 침해를 얼마나 큰 수치로, 죄악으로 받아들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3중대장의 비행은 결국 인민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임강에서 살 때 독립군의 몇몇 대원이 조선에 건너가서 농민들의 소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대원들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아버지한테서 호된 추궁을 받고 돌아갔다.

그 당시 독립군이 군자금을 거두려고 관할구역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나타나면 지역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무 집에서는 돈 얼마, 아무집에서는 쌀 몇 말 하는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부탁에 돌리었다. 주민들은 그 문서에 적혀있는 량만큼 돈이나 식량을 군자금으로 바쳐야 하였다. 가난한 농사군들한테는 이것이 큰 부담이였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그런 사정은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으며 저마끔씩 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승벽내기로 그 울타리를 넓히였다. 어떤 독립군들은 다른 무장단성원들이 모연해오는 자금을 중간에서 협박하여 빼앗아가지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크고작은 무장단성원들이 저마끔씩 인민들한테서 경쟁적으로 돈을 긁어들이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순전한 납세자, 돈을 대주고 쌀을 대주고 잠자리를 대주는 시중군들로밖에 보지않았다.

이런 비행은 지난날 봉건사회의 관료배들이 하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궁궐에 옥관자를 쓰고 앉아 인민의 피땀을 짜낼 새로운 세금법만 만들어내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끊임없이 털어갔다.

한때 봉건정부는 경복궁을 짓는데 막대한 돈을 써버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세(통행서)라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그렇게 긁어간 돈으로 대학이라도 하나 세우고 공장이라도 지어놓았다면 후손들한테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화성의숙의 진보적 청년들은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경으로 타락하였으니 독립군도 이제는 망해가는 모양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그저 비난하고 개탄할 뿐이였다. 지금과 같이 밝은 세상이면 군민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법에 제기한다든가 동지재판 같은 것을 하여 버릇을 떼주겠지만 법도 없고 군률도 무른 당시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정의부에 민사를 담당한 기구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간판뿐으로서 군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데려다가 볼기를 치는 정도이고 중대장과 같은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었다. 그들의 법에는 상층만이 통하는 개구멍이 따로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군과 모든 독립운동자들에게 단단히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경종을 울리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최창걸은 당장 학생대표들을 선출해서 1중대부터 6중대까지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항의를 들이대자고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정의부가 발간하는 ≪대동민보≫같은 출판물에 글을 써서 독립군의 관료행동을 폭로하자고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3중대장과 처지가 별반 차이없는 정의부본부나 다른 중대장들, 출판물의 편집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확신성없는 방법을 가지고 날자를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독립군 각 중대들에 성토문을 보내자고 하였다. 동무들도 그 방안을 지지하면서 나더러 성토문을 쓰라고 하였다.

그 성토문은 ≪ㅌ·ㄷ≫를 조직한 후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에게 가한 첫 비판이었다. 처음 써보는 성토문이어서 무엇인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것 같았으나 동무들이 좋다고 하기에 김시우에게 주어 정의부 통신원이 오면 전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토문은 통신원의 손을 거쳐 인차 각 중대들에 전해졌다.

반응도 어지간히 일어났다. 군자금을 결혼식비용으로 써버린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정의부를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오동진까지도 그 성토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듬해초에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내앞에서 그 성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6중대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모인 중대장, 소대장들과 함께 성토문을 보았다고 한다.

≪그 성토문을 보고 나는 3중대장을 되게 문책하였네. 중대장자리에서 떼던지려고까지 생각했지. 그런 물걸짝들이 독립군망신을 다 시키거든.≫

오동진은 독립군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허심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습할 길 없어 분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독립군의 타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때 오동진이 그 불같은 성미를 어떻게 다잡았는지.

나는 오동진의 말을 듣고 독립군의 부패가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고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고민으로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장의 성토문으로써 독립군의 정치도덕적 타락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독립군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의 독립군의 운명이 다르게는 될 수 없었다.

인민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들씌우는데서는 화성의숙의 학생들도 독립군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들도 모연공작에 동원되면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경쟁적으로 재물과 량식을 걷어들이었다.


독립군과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

모연에 잘 응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다고

트집을 걸든가 독립군도 몰라본다는 식으로 까박을 붙이면서 하다못해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이라도 바치게 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조밥만 자꾸 해준다느니, 부식물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밥타발까지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기숙사식당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조밥에 시래기국만 주니 식사질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트집을 걸던 끝에 식당사감을 하는 황세일과 다투기까지 하였다. 황세일은 사감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그런데 식사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생들은 사감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해방 직후 의주에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황세일을 만나 그와 함께 화성의숙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다. 그때 황세일은 웃으면서 자기는 화성의숙시절의 교훈을 생각하여 리에 내려가도 절대로 밥타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조밥을 타발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 독립군에 돌아가서도 밥타발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필연코 돈이나 권세 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2년 후에 군관으로 독립군의 중대와 소대들을 지휘하게 된다는데 있었다. 굶어죽을 각오는커녕 조밥을 먹을 각오조차 되어있지 못한 군대한테서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독립군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운동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께 화성의숙의 교육에 대한 환멸은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올랐다. 화성의숙은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고 나는 화성의숙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화성의숙이 내가 바라는 그런 학교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화성의숙이 바라는 그런 학생으로 될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 대한 나의 불만과 나에 대한 화성의숙의 불만은 서로 정비례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에 심취되면 될수록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져갔고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어나올수 없는 고민의 세계에 빠지였다. 내가 의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보내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장래를 부탁한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장례에 참가하려고 수백리를 달려와 나를 위로해주고 노자를 찔러주며 의숙으로 등을 떠밀어주던 오동진과 의숙에 왔다고 나에게 술까지 부어주던 김시우며, 최동오며, 강제하 선생들의 생각을 하면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자면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화성의숙의 교육에 재미를 붙여야 하였다. 눈을 꾹 감고 2년동안 공부하다가 배치해주는 중대에 가서 곰상곰상 독립군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앞에서 체면도 세울 수 있었다. 독립군생활을 한다고 하여 새사조에 대한 연구를 못하거나 ≪ㅌ·ㄷ≫의 터전을 넓히는 작업을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규정한 교육과 외교를 하면서 적당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낡은 교육과 타협하고싶지 않았



무관학교의 아침운동모습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삼촌대신 약방일이나 맡아가지고 가정살림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심양이나 하얼빈이나 길림과 같은 도회지에 가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심리적 곡절끝에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화전대신 길림을 내 운명의 다음정거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 도시가 만주지방에서 조선의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길림은 ≪제2상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중국관내에서는 상해가 조선혁명가들의 집결처였다.

나는 화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보다 광활한 무대에로 나가 ≪ㅌ·ㄷ≫의 결성으로 첫 걸음을 뗀 공산주의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여보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게 된 기본이유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반년만에 중퇴하고 길림으로 간 것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용단이었다. 두 번째 용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호두회의 후 새 사단을 조직하면서 ≪민생단≫보따리를 불살라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 것이 정당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에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 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앙양에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였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으로 가겠다고 하자 ≪ㅌ·ㄷ≫성원들은 깜짝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ㅌ·ㄷ≫를 내온 것만큼 이제는 그 조직과 이념을 사방에 펼쳐가야 한다, 화성의숙에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학교를 다녀대야 큰 보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 다음 동무들도 기회를 보아 독립군대나 적당한 고장에 자리를 든든히 잡고 ≪ㅌ·ㄷ≫의 줄을 뻗치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무들은 다 조직의 성원들인 것만큼 어디에서 일하든지 조직의 통일적이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몇몇 동무들과는 후날 길림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는 문제를 두고 이미 김시우와도 의논하였다.

≪집에 가서도 의논해보겠지만 이거 뭐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해보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돈은 없지만 길림에 가서 중학교에라도 다니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총관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숙을 그만두겠다는데 대하여서는 막지 않았다.

≪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친구들과 의논하여 주선해주겠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달구지가 있는 법이야. 화성의숙의 달구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네의 달구지를 타고 가게나.≫

내가 화성의숙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준 김시우가 그처럼 대범하게 이해하여주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관은 최동오숙장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중퇴하더라도 인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길림으로 갈 때에는 꼭 자기한테 들리라고 하였다.

김시우를 납득시키는 일은 예상회로 순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동오숙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동반하였다. 처음에는 선생이 노여움을 타면서 한참동안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였다.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그만이지 중퇴를 하다니 될말인가, 의숙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퇴하겠다는데 이 어수선한 세월에 만사람의 구미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를 등지고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은 그 창가에서 눈내리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성주와 같은 수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학교라면 나도 이 의숙에서 물러가겠네.≫

선생이 폭탄처럼 내던지는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고 함구무언으로 서있었다. 학교의 교육이 어떻다고 정면에서 운운한 내자신의 처사가 숙장선생을 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최동오선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와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조선을 독립시키는 주의라면 나는 민족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하지 않겠네. 아무튼 꼭 성공하게.≫

선생은 운동장에 나와서도 퍼그나 오랜 시간 나의 생활에 교훈으로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선생의 머리와 어깨우에 눈이 내려와 자꾸 쌓이었다.

나는 그 후 폭설속에서 나를 바래주던 숙장선생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선생의 어깨우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지 못한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 나와 최동오선생은 평양에서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나는 수상이고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간부였지만 그 상봉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상봉이었다. 화전에서 추켜들었던 ≪ㅌ·ㄷ≫의 이념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로 개화하고 있었다.


최동오

≪결국 그때 성주수상이 정당했습니다!≫

선생이 웃으면서 나의 아명을 부르는 바람에 나의 추억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눈내리던 화성의숙의 운동장으로 날아갔다.

곡절많은 정치생활의 파동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로스승은 아무런 설명도 주해도 붙어있지 않는 이 짤막한 말로 30년 전에 있었던 나와의 대화를 결속지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한데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지지해주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심각해지었다. 그러나 내가 중퇴사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는 것이였다.

≪네가 학비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람이 돈 때문에 주접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댈 테니 너는 그저 품었던 뜻을 꼭 이루어라. 이왕 새 길을 가려고 결심한 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큼직하게 걸어라.≫

어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송에 돌아온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무송에 와보니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많은 동무들이 살림이 구차하여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ㅌ·ㄷ≫를 방금 조직하고 그 뿌리를 사방에 뻗쳐가려고 결심한 뒤여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서는 못견딜 심정이


무송에서 살던
소남문거리의 집



무송시가

었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송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가 1926년 12월 15일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은 말그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소년조직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 동맹이 내세운 구호도 대단하였다. 그때 우리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나는 새날소년동맹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원칙과 사업체계, 동맹원들의 생활규범을 규정해주고 길림으로 떠날 때까지 그들의 동맹생활을 지도해주었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ㅌ · ㄷ≫와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무송현성안은 물론, 멀리 주변농촌의 넓은 지역에까지 다니며 도처에 야학을 내오고 조선여성들에게 우리 나라 글을 배워주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있었다.

무송에서 얼마쯤 머무르다가 길림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약속대로 화전에 있는 김시우를 찾아갔다.

김시우는 김사헌선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다. 내가 가면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소개신이였다. 그것이 김시우와의 마지막상면이었다.

김시우는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가운데서도 가장 인상깊은 한 사람이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대중계몽과 후대교육으로부터 무기구입, 자금조달, 국내공작원들의 길안내, 비밀문건과 비밀자료들의 전달, 무장단체들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계하지 않은 분야란 거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성심성의로 뒤받침해주었다. 우리가 ≪ㅌ·ㄷ≫를 뭇던 날 밖에서 망을 봐주며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도 김시우였다.

김시우는 나와 헤어진 후에도 영풍정미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독립군에 식량을 대주고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열심히 하였다. 중국에서 국내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후원회 위원장으로 화전에서 일본군대와 장개석군대의 침해로부터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였다.


김시우

김시우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1958년이었다. 한평생 민족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는 그것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나도 그의 행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전천에서 중병이 들어 임종의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식들앞에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의 연고관계를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면 왜 장군님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는가, 장군님이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장군님이 지금 우리 전천땅에와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들이댔다.

그때 내가 정말 전천군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었다.

김시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죽기 전에 옛날일을 이야기하는건 너희들이 무슨 덕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 집 내력이 여사여사하니 너희들도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라는 거다.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의 걸음을 한시라도 지체시켜서야 안되지.≫

그 노인 성미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고정하였다. 아들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도 나를 만나고 나도 그를 만났을 것인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 나로서는 평생 풀지 못할 한이다.


김시우의 집

나는 화성의숙시절을 생각하고 ≪ㅌ·ㄷ≫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김시우를 회고하군 한다. 김시우를 떼놓고서는 나의 화전시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화전에서 새 사조를 보급하고 ≪ㅌ·ㄷ≫를 결성하던 잊지 못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였다.

≪ㅌ·ㄷ≫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김시우와 같은 성실한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인민의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며 커다란 포부와 결심을 안고 길림으로 향하였다.

5.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무송에 돌아와보니 이전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난날의 집안풍경에 대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였다.

내가 무송에서 받은 인상들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관린의 모습이었다. 이관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동진이 그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관린은 김선생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주어머니를 잘 도와드리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이관린은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주고 있었다.

원래 이관린은 성격이 담차면서도 낙천적인 여자였다. 문무를 겸비한 여자로서 이관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도도하고 대담무쌍한 여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것이다.

봉건이 심해서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해도 얼굴마저 가리우고 다니던 그때 남복차림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딴세상사람이라도 구경하듯이 희한해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이관린은 이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달아하는 군관학교를 단념해버렸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숙을 중퇴하게 된 이유와 전말을 듣고서는 용단을 잘 내렸다고 하면서 길림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족주의계열의 학교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결별해버린 나의 행동이 그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관린은 분명 그때 내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독립군의 말로, 민족주의말로를 더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더구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의 미혼여성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겠는가고도 생각하였다. 이관린의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다. 14살이나 15살만 되어도 머리를 쪽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으므로 28살이라고 하면 다들 쇠서 못쓰겠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였다. 이관린과 같이 혼기를 놓쳐버린 노처녀들이 일생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므로 나는 어느 날 그에게 그사이 왜 그렇게 얼굴이 축가고 우울해졌는가고 물었다.

이관린은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성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걸으면서도 힘든줄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성수가 나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에도 녹이 쓸 지경이니 어데다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야단이 아니냐, 독립군이 아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애, 지금 독립군의 형세가 말이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영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리면서 상발(출근)도 하지 않고 싸움깨나 할만한 장정들은 집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총각들은 여자들의 분내나 맡으면서 돌아가고 있지,… 며칠전에는 날파람있던 싸움군총각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독립군에서 나와 간도쪽으로 떠나가버렸구나,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씩 꼬리를 사리는 판이야,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는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던지면 조선독립은 누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이해되고 울분이 이해되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가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는데 멀쩡한 사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던지고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는 판이니 그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공부를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여성행세를 하며 돌아갈 때 이관린은 육혈포를 차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군경들과 격전을 벌이었다.

여자가 남복에 권총을 차고 직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나선 실례는 우리 나라 역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하여 이관린의 생애를 더듬어보는 것도 이 점을 중시한데 있다. 남존여비의 인습이 뿌리깊이 남아있던 우리 나라에서 여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마당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적에 대한 우리 나라 여성들의 지난날의 저항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저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유교적인 정절관에 기초한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외적이 침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도륙하고 괴롭힐 때마다 여성들은 몸을 더럽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깊은 산중이나 절간 같은 데로 피신해버리군 하였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결로써 놈들에게 항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나라에 등록된 렬녀의 수가 충신의 수보다 30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고 하니 이 나라 여성들의 절개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가서 단식으로 순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년상을 마치고 자결로써 남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인륜의 도리로 볼 때에는 그것을 나라에는 충성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최대의 도리라고 응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모두가 죽음만을 택한다면 원쑤는 누가 치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피신, 자결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적들에게 저항하던 이 나라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경들의 총검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적의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었다.

그러나 손에 총을 잡고 여성독립군으로 이국땅에서 10년 유여의 세월을 무력항

쟁에 참가한 여자는 이관린밖에 없을 것이다.

이관린은 원래 인물이 잘나서 어데 가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을 떼버리느라고 애를 먹던 여자였다. 용모나 학식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학교에 가서 교원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 몸을 초개와 같이 독립운동에 바치였다.

그의 아버지는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초가이기는 하나 10칸이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자작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산층이였다. 그는 이관린이 12살 나던 해에 상처를 하여 2년 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살되는 처녀를 데려왔다.

이관린은 자기보다 겨우 2살밖에 더 먹지 않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혼처를 물색하여 시집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늘 공부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던 이관린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살 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간 사이에 슬그머니 압록강가에 나가 얼음구멍앞에 옷과 신발을 벗어놓고 그 길로 의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다. 반년쯤 배포유하게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된 때에야 그는 아버지에게 학비를 보내라는 편지를 부치였다.

딸이 강물에 빠져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너무도 기뻐 곧 의주땅으로 달려갔다.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겠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지하라고 하였다.

이관린은 그때부터 학비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성적도 우수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그를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추천하였다.

이렇게 한해두해 공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이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보증으로 조선국민회에도 들게 되였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한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지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지원≫의 뜻을 배운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관린은 평양여자고보와 숭실중학교, 숭의녀학교, 광성고보의 학생들 속에서 동지들을 흡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였다.

어떤 날은 그가 원족삼아 만경대에도 놀러 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사업토의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때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봄이면 숭실중학교나 광성고보 같은 데서 많은 학생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놀러오군 하였다.

평양에서 3.1인민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가 좌절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는 다시 만세를 부르면서 학우들을 고무하였다. 봉기가 실패하고 시위주모자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망국의 운명을 끝장내기 전에는 학창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초기에는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에서 총무로 활동하였다.

이관린은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벌써 고향에서 일본경관 두놈을 권총으로 쏴죽이고 압록강얼음구멍에 처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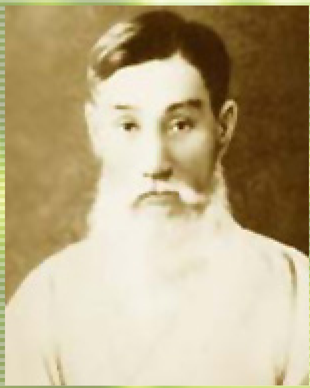

3.1인민봉기 당시 반일시위에 나섰던 여성들

도 있었다.

독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금모연공작을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려들어 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관린이 이고가는 보퉁이속에 권총이 들어있었으므로 정황은 아주 위급하였다.

경찰은 그 보따리를 자꾸 풀라고 하였다. 이관린은 보따리를 푸는척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수림속에 끌고들어가서 처단해버렸다.

국내에 모연공작을 자주 다니다나니 그는 노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언제인가 그는 오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 일대에 나가 모연공작을 한 일이 있었다. 모연을 마치고 국내조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던 그는 삼도만에서 하루밤 류숙하던 중 근방에 있는 다른 무장단성원들의 협박을 받았다. 그 때 두 사람의 수중에는 몇 백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 그자들은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를 쏘아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두 사람을 위협하였다. 동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수하고 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러나 이관린은 한푼의 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호령질로 그들을 쫓아버리었다.


양기탁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에 여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시절에 수놓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물림의 여자인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같은 신문들이 이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이관린은 또한 절개가 굳고 대가 강한 여자였다.

3.1인민봉기 후 남만에서는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파를 무시하고 자기 파를 내세우면서 본위주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을 위한 논의는 매번 무의미한 입씨름과 마찰로 공회전을 하였다.

아버지는 통합운동이 직면하고 있은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인입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양기탁이었다. 적의 감시속에 있는 양기탁을 서울로부터 남만주까지 안내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그 적임자로 이관린을 선정하고 양기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양기탁은 민족주의자들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 한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적인 신문활동과 교육운동으로 대중속에 반일독립정신을 배양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양기탁이라면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05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 해 하였으며 신민회와 상해임시정부(국무위원), 고려혁명당(위원장)조직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람이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도 조직하였다.

이런 경력으로 독립운동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이관린은 서울에 나갔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 구류장에 갇히었다. 적들은 그에게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코에 고추가루물을 부어넣기도 하고 참대침으로 손톱눈을 찌르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제껴 천정에 매달아놓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루바닥에 눕혀놓고 얼굴에 널판자를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왔는가, 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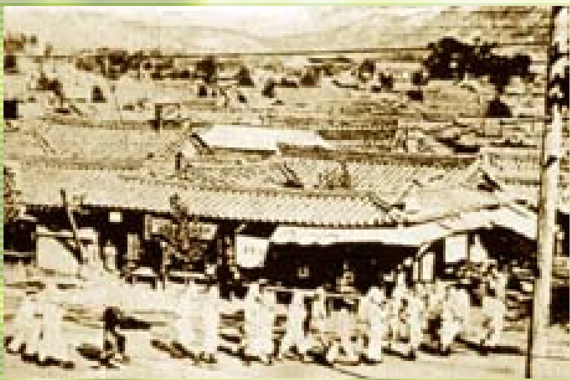
시아에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리고 짓밟고 하였다. 나중에는 두다리에 매운 재떡을 붙이고 석유를 친 다음 불을 달아놓으면서 태워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이관린은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여자다, 어느 부자집 침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놓구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대들었다.

이관린은 하도 뻗대자 한달만에 놈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몸이였으나 기어이 양기탁을 데리고 흥경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이관린은 흥경에 도착하자마자 병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간호하다 못해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한 늙은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시키었다. 그런데 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이라고 엉터리없는 진단을 내리었다. 이름난 미인한테 수작을 걸어보고 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없는 야유였는지도 모른다.



끌려가는 105인 사건 관련자

이관린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고 하였다.

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이관린은 베고 있던 목침을 들어 그에게 냅다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 너 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가구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서서 총잡고 싸우는데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롱하느냐, 나를 헐뜯어서 얻어먹을게 무엇이냐, 다시한번 말해봐라.≫

혼쌀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이관린이 이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많이 주군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이관린은 무엇이든지 다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오라면 서울에 다녀왔다. 급한 연락을 가라면 연락을 가고 여성계몽을 하라면 여성계몽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국내공작을 할 때면 이관린은 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신변호위도 하고 사업도 보좌해주었다. 그가 다닌 노정은 실로 수만리에 달한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국경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은률, 재령,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동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란 거의 없었다.

이관린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여성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그 황금같은 청춘시절에 그는 이처럼 타향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여자로서는 힘에 부친 군인생활을 하였다.

애국의 일념밑에 몸에 권총을 두 개씩 차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그가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길림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림에 가서 무

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관린은 그 후 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정도네 집에서 두세 번 그를 만나보았다. 그 때 이관린이 시국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리 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의부 지붕밑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관린은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주의좌파였다.

나는 민족주의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민하는 이관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진영에는 이관린과 같이 사생활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옳은 지도자가 없다나니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ㅌ·ㄷ≫가 방금 첫 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리의 운동선에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이관린이 그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세력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

이관린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관린처럼 올바른 방향타가 없어 모대기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시바삐 만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는 새 길을 개척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싸워나갈 수 있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길림으로 갈 준비를 다그쳤다.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이관린을 본 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그를 찾았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대를 무어가지고 활동할 때 그 대오에는 20대의 여자들이 많았다. 남성들과 꼭같은 기개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방사의 새 장을 펼쳐나가는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까왔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길이 없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의 고향 삭주에도 들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이관린은 없었다.

우리가 그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년대초였다. 우리 당 역사연구소 동무들이 여러 모로 탐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땅에서 아들딸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관린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가운데서도 공영, 박진영과 같이 ≪ㅌ·ㄷ≫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물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답게 최후도 값있고 장렬하게 마치였다.

그러나 이관린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하여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오동진이 살아있을 때는 관전회의에서 선포된 무산혁명방침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내가 길림으로 떠난 그 해(1927년) 여름에 이관린은 장철호를 비롯한 독립군대원들과 함께 내도산에 가서 풀막을 치고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군중계몽도 하였다. 오동진은 아마 내도산마을을 개척



반일구국에 나선
민족주의 군대
의병

하여 독립군의 활동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동진이 붙잡힌 다음에는 이런 활동도 다 흐지부지되었다. 민족주의좌파세력가운데서 공산주의조류쪽으로 제일 크게 기울어진 사람이 오동진이였는데 이런 기둥이 잡혀가다나니 관전회의방침을 실현하겠다고 몸을 내대는 재목도 없었다. 정의부안에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맥을 추지 못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 후에는 민족주의상층도 급격히 반동화되어 공산주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민족주의좌파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이관린도 국민부테러분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며 피신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묻히고 말았다. 상하사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치른 만주땅에 새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며 원쑤들을 전율케 하던 ≪독립군의 꽃≫, ≪만록총중 일점홍≫은 이렇게 속절없이 시들어버렸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독립항쟁의 그 풍랑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쪽배로는 도저히 조국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 없었다.

숱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행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기슭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버리었다.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밥벌이나 하고 우국지사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구멍수만 찾아다니었다. 지난날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던 상층들가운데는 백고약을 만드는 소시민이 되거나 깊은 산속에 도피하여 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은 안하고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 몰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였다. 이관린과 함께 민족주의항로를 헤쳐나가던 독립운동자들가운데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자들도 있었다.

이관린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이역에서 보내다가 여러 해 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독립군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형직선생의 아들 성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한다. 성주가 나라를 영도한다면 만민평등의 사회건설에 대한 김형직선생의 이념이 실현될 것인데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싶었다는 것이였다. 찬바람부는 만주광야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끝없이 그려보던 나서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싶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관린이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 해 동안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남매와 여러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넘어서기 어려운 만리타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다 남겨두고 홀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인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이관린은 그 후대들과 영영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내리였다. 이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여성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대용단이였다. 그가 한창나이 때 나라를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이관린이 이역땅에 자식들을 다 떨궈두고 백발을 날리며 단신으로 조국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조국애와 고결한 인생관에 탄복하였다.

무송에서 헤어질 때 20대였던 이관린은 그때 80고령의 백발노인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뭇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홍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렇게도 애를 태우며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감하던 이관린이 머리에 흰서리를 무겁게 이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반세기이상이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무정한 세월을 두고 서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관린에게 평양시 중심부의 풍치좋은 곳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나이를 고려하여 식모와 의사까지 붙여주었다. 그 집은 처녀시절에 그가 다니던 여고보자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김정일**조직비서가 이관린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곳에 집을 잡아주었다. **김정일**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은이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해주고 조명과 난방상태까지 다 보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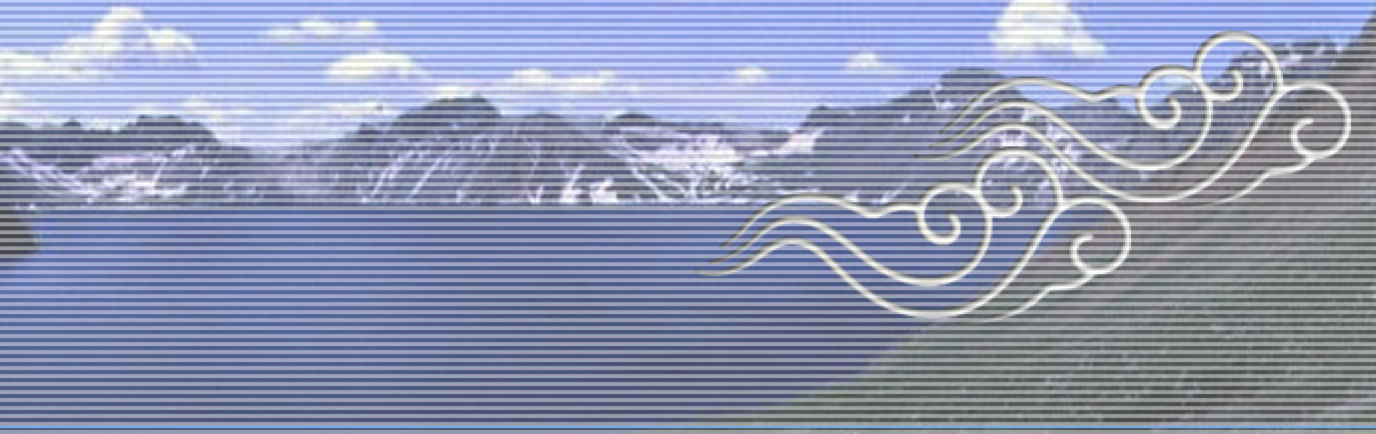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이관린은 몸이 불편했지만 그 집 앞마당에 터밭을 일구고 강냉이를 심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강냉이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냉이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싶다는 것이였다.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가 내 식성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여름철에 풋강냉이를 사다가 뒤뜨락에서 내 동생들에게 구워주군 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이 공적을 생각하여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장례도 잘 치루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안장하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

제3장





길림시절

■ 시기 : 1927. 1 ~ 1930. 5

1. 선진사상의 탐구


길림시절

나는 집에서 한 달 가량 머무르다가 설까지 쇠고 이듬해 정월중순에 무송을 떠났다. 내가 길림에 도착한 것은 행인들의 왕래가 번잡한 한낮이었다. 길을 물을 때마다 아버지친지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언손을 놀려가며 종이장을 번지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미리 내가 찾아야 할 거리와 번지들을 머리속에 다 외워두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의 번창한 풍경은 첫 순간부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지대에서만 살아온 나를 위압하는상 싶었다.

나는 개찰구를 나선 다음에도 가슴을 치미는 흥분 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를 새 생활에로 부르는 신천지의 약동하는 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 물장사군들이 많은 것이었다.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라고도 불렀다는 고장인데 음료수가 부족하여 저렇게 물장사만 성행해가니 길림이라는 도회지의 생활이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었다. 물 한 모금에도 수판알을 튀겨야 한다는 도시생활을 중압이 첫 걸음부터 심신에 육박해왔지만 나는 그 중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며 도심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길림역에서 북산방향으로 뻗은 차루가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는 성문이 보이었다. 조양문 가까이에는 신개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다. 길림에는 조양문과 신개문외에도 파호문, 임강문, 복수문, 덕승문, 북극문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매 성문을 장작상군대가 지키고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어진 길림의 고색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은 성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이었으나 별로 낯이 설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와보고싶던 곳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의 수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지들의 주소가 십여 개나 적혀있었다. 오동진, 장철호, 손정도, 김사헌, 현묵관(현익철), 고원암, 박기백, 황백하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길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으며 내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례방문의 첫 순서로 오동진을 선정하고 차루가와 상부가사이에 있는 그

의 집부터 찾아갔다.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어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고 길림으로 온 사연을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덕이었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숭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퍽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여섯 달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이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동진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역시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길림에 와서 공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솔가이주하여 여기다 살림을 펼걸 그랬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동진은 우리 어머니에게 김선생의 친구들이 많은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어머니는 그 권고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무송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양지촌에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길림으로 훌쩍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날 오동진은 자기의 수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일천을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오동진이 서기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일천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부내에서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날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일천은 그 후 특별한 동지적 유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동진은 나를 삼풍잔에 데리고 가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인사시키었다. 그 독립운동자들속에 김시우가 소개신을 써주면서 만나라고 하던 김사헌도 있고 정의부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는 장철호도 있었다. 삼풍잔이란 삼풍여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여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헌과 장철호 외에도 이 여관에는 이름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삼풍여관은 태풍합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연락장소로 이용하는 2대거점이었다.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상품여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 여관주인은 손정도목사의 동향인이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에서 살다가 손목사의 권유로 길림에 들어와 삼풍여관을 운영하였다. 간판은 여관이지만 기숙사나 공회당과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그런 집이었다.

삼풍여관에서 일본영사관까지의 거리가 100미터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지방 정탐활동의 총본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영사관의 문전이나 다름없는 여관에 밀정들과 경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늘이고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자들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여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실지로 삼풍여관에서 애국자들이 붙잡혀가는 불상사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들을 내온 다음에는 이 여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1930년대 초엽의 길림역

김사헌은 김시우의 소개신을 보고나서 나에게 자

기가 잘 알고 있은 김강이란 조선사람이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시내에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 중 경향성이 좋다는 것이었다.

길림육문중학교가 경향성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길장일보≫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이었다. ≪길장일보≫는 벌써 1921년에 육문중학교를 경영은 참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륭하여 사회 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교라고 소개하였다.

자금문제와 교장의 직권남용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육문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내가 길림에 도착한 그 당시에는 남경금릉대학출신인 장음헌을 대신하여 이광한이 교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된다고 하였다.

교장을 네 번이나 갈아치운 것만 보아도 육문중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시하는 학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문중학교의 이 혁신적이 교풍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김사헌은 다음날 나를 육문중학교의 김강선생한테 소개해주었다. 김강은 영어를 잘하였다.

나는 그의 안내로 이광한교장을 만났다. 이광한은 중국민족주의좌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은래총리의 중학시절동창이었고 어려서부터 주총리의 영향을 받은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내가 주총리과 이광한교장의 연고관계를 알게된 것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언젠가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래총리를 만나 청년시절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중국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광한교장의 이름을 들었다. 주총리는 그 말을 듣자 여간만 반가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천진에서 남개대학부속중학교에 다닐 때 그와 같이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이광한교장은 그날 나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내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 몸 바치고 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더니 그는 아주 좋은 포부라고 긍정해주었다.

흉금을 터친 담화의 덕이라고 할지 이광한교장은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나는 이 선생한테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내가 혁명사업 때문에 자주 결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이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보호해주었다. 군벌이나 영사관경찰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때면 미리 연락하여 울타리 밖으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교장이 양심적인 지식인이다보니 그밑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발을 붙이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입학하고 돌아오자 오동진부부는 나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서 다니라고 하였다. 사실 그때 내 처지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길림육문중학교

나는 어머니의 뒤받침으로 공부를 해야 하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약한 몸이었다. 어머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루종일 쉬지 않고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한 달에 3원 정도씩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월사금과 공책값, 교과서값을 대

고나면 신 한켤레 사신기가 힘든 형편이였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의 권고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길림에 가서 처음에는 오동진의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였고 그가 체포된 다음에는 장철호의 집에 한 1년, 현묵관네 집에도 몇 달 그리고 오동진의 후임으로 정의부의 사령을 하던 이웅의 집에도 얼마간 가있었다.

당시 길림에 있던 명사들이 대체로 아버지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여서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우들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과정에 독립군간부들과 독립운동지도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길림에 드나들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 당시 정의부간부들은 거의 다 길림에 상주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행정, 재무, 사법, 군무, 학무, 외교, 검찰, 검독 등 어마어마한 중앙기구와 지방기관까지 꾸려놓고 관할구역의 조선동포들한테서 세금까지 받아내면서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다. 이 방대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부는 150여명의 군인들로 조직된 상비적인 중앙호위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길림은 중국의 한 개 성소재지로서 봉천, 장춘, 하얼빈과 더불어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길림독군서에서는 장작림의 4촌동생 장작상이 우두머리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일본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본사람들이 누가 공산당원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하여도 그는 당신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군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무식하고 자존심이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특징이 혁명가들과 사회운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이 길림성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일본군경들에게 쫓겨다니는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히 조선사람들의 정치활동무대로 되었으며 그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다. ≪동 3성에서의 배일의 책원지는 길림≫이라고 한 일본사람들의 평가가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길림은 1920년대 후반기 만주에서 조선민족주의운동의 기본세력이였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수뇌들의 집결처로 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화전, 흥경, 용정 같은데서 많이 하였지만 실지 그 수뇌들이 모여 활동한곳은 길림이였다.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와 같은 종파분자들이 제각기 자기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돌아치던 곳도 바로 길림이였다.

공산주의운동자들가운데서도 내노라고 하는 명물들은 거의 다 이 길림에 드나들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종파분자, 망명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들었다.

새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도 이 성시로 찾아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길림은 형형색색의 사상조류가 집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내가 공산주의기치를 들고 혁명활동을 벌였다.

내가 길림에 왔을 때 ≪ㅌ·ㄷ≫의 몇몇 성원들은 화전에서 약속한대로 이 도시에 와서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학교들과 기관구, 선창 등에 적을 붙이고 있었다.



학교 기숙사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위로부터)

그들은 내가 길림에 타나났다는 소문을 듣기 바쁘게 오동진사령의 집으로 뛰어왔다. ≪돈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하고 땔 것이 귀하지만 책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 그들의 길림인상이였다.

나는 책이 많으면 배고픈 고생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롱을 하였다. 그것은 나의 진정이기도 하였다.

그들도 육문중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원들 중에 국민당우파도 있지만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공산당계렬이 아니면 삼민주의의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였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였다.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상월선생도 공산당원이였고 마준선생도 공산당원이였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고장에서 혁명의 진리를 마음껏 배우며 ≪ㅌ·ㄷ≫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결의하였다.

화전에 남아있던 ≪ㅌ·ㄷ≫의 성원들도 활동무대를 찾아 무송현, 반석현, 홍경현, 유하현, 안도현, 장춘현, 이통현 등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로 떠나갔다. 그들가운데는 출신중대에 들어가 다시 독립군의 모자를 쓴 동무들도 있었다.

길림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되지 않는 핵심들을 가지고 만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게 하며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한 점의 불씨가 되어 주변의 열 사람, 백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백 사람이 다시 천 사람, 만 사람의 심장을 달구어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넘치고 있었다.

길림에서의 나의 활동은 맑스-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나는 길림으로 올 때 화전에서 시작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더 깊이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길림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는 새 사조를 깊이 파고들려는 나의 결심을 부채질해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도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을 탐독하는데 더 열중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시기여서 쏘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자주 실리었다. 무송이나 화전에서 볼 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책을 살만한 돈이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나는 운동화도 학교에 갈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로 다니였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 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군 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군 하였다. 돈많은 집 자식들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 번씩 학생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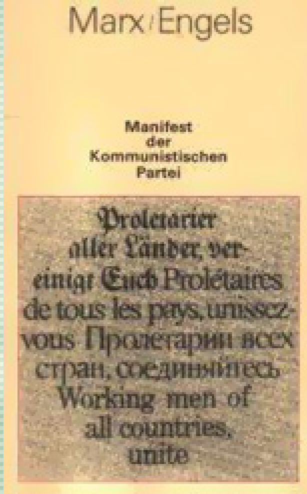
나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 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었다.

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례진 시간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었다. 아버지가 키워준 이 습관이 크게 은을 내였다. 중심을 잡아쥐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 것은 단순한 취미나 탐구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틔우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었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이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전≫,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공산당선언≫

정치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었다. 내가 그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리끼와 노신의 작품들이였다. 무송이나 팔도구에 있을 때는 ≪춘향전≫, ≪심청전≫, ≪이순신전≫, ≪서유기≫와 같이 옛날생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길림에 와서부터는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아큐정전≫,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후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나는 길림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 이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군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

우리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그때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가운데는 길림을 경유하여 다른 고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국내의 참상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은 단동을 거쳐 남만철도로 장춘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지철도를 이용하여 북만쪽으로 가든가, 길장선을 타고 길림을 경유하여 그 근방의 오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봉천으로부터 봉해선, 길회선을 거쳐 돈화, 액

목, 영안 방면으로 가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철과 이른 봄철이면 길림역과 여관들에서 조선이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주민들가운데는 별의별 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동무들과 함께 극장에 ≪창시≫구경을 갔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창시≫를 하던 여배우가 우리한테로 찾아와 자기애인의 이름을 대면서 최 아무개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살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 여배우가 조선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조선에서는 ≪창시≫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였다.


육문중학교 모표

옥분이라는 그 여배우는 경상도여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뒤집에 있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너의 처가 아들을 낳으면 내 사위로 삼고 우리 처가 딸을 낳으면 네 며느리로 주마, 만약 다같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결의형제를 맺어주자고 약속하였다.

얼마 후 한 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다른 한집에서는 딸이 태어났다. 두 집에서는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켰다는 표적으로 명주수건 하나를 둘로 갈라 각각 반쪽씩 나누어 가지였다.

그 후 두 집은 살길을 찾아 제가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들을 본 집에서는 길림에 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문광중학교에 다니였다. 그 집에서는 그래도 길림에 온 다음 집도 한채 얻고 자그마한 정미소도 하나 차려놓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여자를 낳은 집에서는 단동까지 와서 여비가 떨어져 중국사람한테 어린 딸을 팔게 되었다. 옥분이는 매를 맞으며 ≪창시≫를 배워가지고 배우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향에서 살 때 결정해놓았다는 그 남자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새 고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조선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그 남자의 행처를 탐문하군 하였다.

그날 옥분이란 그 여배우는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남편되는 사람과 극적인 상봉을 하였다.

옥분이가 ≪창시≫를 그만두고 남편한테 떨어지겠다고 하자 그를 데리고 다니던 홍행단 주인여자는 굉장한 돈을 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옥분이는 자기 몫으로 나오는 돈을 몇 해 동안 모아서 몸값을 물어주고 길림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이런 사연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피가 맺히고 분노가 생기였다. 학생들은 돈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홍행단 주인여자를 ≪뱀같은 여자≫라고 욕질하였다.

수십만의 인생이 한데 모여 생존경쟁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돌아가는 대도시의 생활은 계급사회가 내뿜는 악취를 감추지 못하였다.


학교 도서실

뙤약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동무들과 함께 북산에 갔다오던 나는 길가에서 인력거군이 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력거를 타고 온 부자가 인력거군한테 돈을 적게준 모양이였다. 인력거군이 부자에게 지금은 ≪삼민주의≫시대인데 ≪민생≫문제를 좀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몇 푼만 더 달라고 빌었다. 부자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도리어 ≪삼민주의≫만 알고 ≪오권헌법≫은 모르는가고 하며 단장을 들어 인력거군을 때리었다.

분격한 우리 학생들은 부자놈에게 달려들어 돈을 더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왜 인력거

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열두대문이 달린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맑스-레닌주의고전을 비롯한 혁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 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회현상을 보고 불평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증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맑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나는 그 혁명학설을 청년학생들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

육문중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동무는 권태석이라는 조선학생이었다. 초기에는 육문중학교에 조선학생이 모두 네 명 있었는데 공산주의운동에 마음을 둔 것은 권태석이와 나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정치운동에 무관심했다. 그저 돈만 알고 졸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리만 하였다.

나와 권태석은 지향도 비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슷해서 처음부터 서로 배짱이 맞았다. 중국학생들가운데서는 장신민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왔다. 그 사람이 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일제의 만주침략기도, 국민당의 반역적 죄행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제는 다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길림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청년학생들속에서 동경의 대상으로만 되어있었다. 맑스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고전을 뒤적거리거나 맑스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여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성원들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유길학우회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걸상도 갖추어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져나르는 것 같은 삯일을 하였다. 여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



육문중학교 교실

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연애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연애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군 하였다.



길림 북산공원

우리는 그때 청년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이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이광수가 3.1운동전야에 일본도꾜에서 ≪2.8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안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솔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안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우리는 길림예배당이나 북산공원 같은데 모여 독서발표모임을 자주 하였다. 처음에는 더러 연애소설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듣는 학생들이 그따위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들이대군 하였다.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연애소설에 빠졌던 학생들도 스스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청년학생들과 대중들에게 혁명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어느 날 나는 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렸더니 소경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소경이 넉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뜬금으로 엮어대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 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끄는데서는 좋은 방법이였다.

그 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사상을 보급하였다.

우리 동무들가운데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걸작이 한 명 있었다. 우리한테서 과업을 받아가지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였는데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들보다 나았다. 그 동무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업을 주었더니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이나 공원 같은데 가서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뜬금으로 구수하게 엮어서 매번 호평을 받았다. 소경은 ≪당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연설을 한 다음 내일 어느 시간에 다음

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군 하였다.

그때 책을 통하여 사귄 사람들 중에 인상깊은 사람은 박소심이다.

길림의 번화한 거리에는 ≪신문서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 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군 하였다. 그 책방에 박소심도 단골손님으로 다니였다. 그는 매번 사회과학서적을 팔아주는 매대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참씩 서성거리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매대앞에서 마주치는 때가 많았다. 몸은 강말랐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였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도서관에 넣을 책을 한아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군 하였다. 이렇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소심과 친하게 되였다. 내가 동대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는 한동안 내가 거처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다.



≪자본론≫

박소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였다. 몸이 약해서 공산주의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들에 짤막한 글들을 써내군 하였다. 그가 쓴 글이 아마 ≪해조신문≫이나 ≪조선지광≫같은데 나갔을 것이다. 운동에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있었지만 종파분자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멸하였다. 박소심이 대가 있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림에 드나드는 운동자들은 제가끔씩 그를 쟁취해보려고 하였다.

박소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군 했다. 돈이 떨어지면 입을 옷을 저당잡히면서라도 책을 사다보는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는 통속입문서 몇 권을 읽고 맑스-레닌주의이론가로 으시대는 행세군이 아니라 맑스나 레닌의 주요저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싶이한 사람이였다.

박소심은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해설해준 잊지 못할선생이었다. 맑스의 저작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자본론≫에도 난해한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박소심이 우리에게 ≪자본론≫에 대한 해설강의를 해주었다. 고전을 파악하는데서는 역시 입문서나 안내자가 필요하였다. 박소심은 그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내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명제에 대하여 그에게 물은적이 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역사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으로 해석한 명제들을 한참이나 뜬금으로 쭈르르 외우는 것이였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맑스주의대가라고 불리울만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런 박소심이한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는데가 있었다.

내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차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우선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야 노동자,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해방될 수 있지 않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동무들속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던 문제였다.



≪조선지광≫

당시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민족해방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적었다.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는 과학적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가 많았다.

박소심은 나의 질문에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종주국에서의 혁명승리가 가지는 의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우에는 일본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단 말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단 말인가고 또 물었다.

박소심도 그 질문에는 대답이 막히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박소심은 고전에 씌여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민족적 해방에 앞세우고 종주국노동계급의 투쟁을 식민지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보다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노선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내가 납득이 잘 안되어 머리를 기웃거리자 그는 그대로 안타까와서 자기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술상으로만 연구해왔을 뿐이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결부시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과 같이 실천과 유리되어 학문상으로만 공산주의학설을 연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나와 우리 동무들이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면서 느낀 제일 큰 고충은 우리도 러시아사람들처럼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해방해야겠는데 조선의 형편과 10월혁명이 일어나던 러시아의 형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낙후한 반봉건국가인 조선과 같은 식민지나라에서 무산혁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나 중국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혁명과 어떻게 연계를 취하며 조선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와 세계혁명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찾기까지는 오래 세월이 걸려야 했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탐구의 나날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와졌고 우리의 혁명적 지향에 깊이 끌려들었다.

그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에도 가입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청소년들을 교양하고 계몽하는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책속에만 파묻혀있던 사람이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무대에 뛰어드니 그 정열이 대단하였다.

그 후 우리는 폐병치료 때문에 그를 카륜지방에 보냈다.

박소심은 쟈쟈툰에서 5리가량 떨어져있는 무개하기슭에 초막을 짓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나는 카륜과 오가자 일대에서 활동할 때 시간을 내여 그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나를 보자 박소심은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동안의 회포를 나누면서 많은 문제를 토론했다.

그때 박소심은 처음으로 나에게 안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안해가 죽었거나 리혼한줄로 알고 있었던 나는 놀랐다. 사진만 보고서도 그의 안해가 매우 아름답고 교양있는 신식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소심은 서울에 있는 그 안해가 얼마전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하였다. 왜 안해를 데려오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자기처는 부자집 딸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부자집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는가고 물었

다.

박소심은 한숨을 쉬면서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괴이하게 들려 정말 안해를 완전히 잊어버렸는가고 다시 물었다.

박소심은 지금까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편지를 받고보니 자주 생각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안해를 사랑한다면 데려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권했다. 자기 안해 하나 교양하지 못하면야 어떻게 낡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세우겠는가, 안해가 곁에 있으면 병치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박소심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내 성주동무 말이니 듣겠소.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기울었소.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후대들에게 넘겨줄 재산이나 정신적 유산도 없었다. 자기는 맑스-레닌주의연구에 한 생을 바쳐 노동계급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을 꼭 쓰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살아 펄펄 뛰던 때는 진리를 몰라서 못썼고 진리를 깨닫고보니 이제는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박소심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안타까왔다. 박소심은 학문앞에 성실하고 꾸준하였으며 탐구력이 있었다. 책속에만 묻혀있지 않고 실천속에 좀더 일찍 뛰어들었다면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론도 찾았을 것이고 실천적인 업적도 쌓았을 것이다. 실천속에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의 정당성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우리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실천은 조선의 독립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아쉽게도 박소심은 이 진리를 깨닫기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박소심은 그 후 서울에 있는 안해를 데려다가 병구완을 받으면서 마지막순간까지 소논문과 단상들을 기록하다가 카륜에서 숨이 졌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지만 박소심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가버린 것은 분한 일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길림에서 나는 과학적 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슬픔과 분노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찍이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 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팀없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었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 후 나로 하여금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골격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 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 정신노동이다.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상월선생


상월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라면 고리끼의 ≪어머니≫와 ≪홍루몽≫을 소개해준 사람은 상월선생이였다. 상월선생은 육문중학교의 어문교원이였다.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의 교원으로 부임되어온것은 1928년 2월경이였다. 베이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새 어문교원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어문시간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신임교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의 불안도 없지 않았다. 교육청이 특무를 어문교원으로 배치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였다. 교육청이 파견하는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군벌당국에 매수된 불순분자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는 장학량이 장개석의 지령에 따라 만주땅에 국민당기발을 날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장개석의 특무조직들이 벌써 심양으로부터 길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국민당의 졸개들이 아직 육문중학교를 완전히 자기네 수중에 장악하지 못하였지만 혁신사상이 강한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군벌과 그 앞잡이들의 주시속에 있었다.

이런 때에 새 교원이 배치되어왔으므로 학생들은 신경을 잔뜩 도사리고 어문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월선생은 단 한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경계심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인기를 독점하였다. 그는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한 시간사이에 다 소화시키였다.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솜씨가 얼마나 세련되였는지 우리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은 생리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가문의 고락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상월선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학생들은 육문중학교에 보배가 굴러들어왔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리였다.

그런데 선생이 ≪홍루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해서는 적게 소개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운동장둘레를 산책하는 상월선생을 찾아가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은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작가의 경력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조설근의 생애와 집안내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선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자리에서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 성격간의 호상관계를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선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계급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였다. 그 실례로 그는 바로 조설근을 들었다. 그가 강희제의 특별대우를 받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라났지만 붕괴기에 있는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은 것은 세계관이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상월선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성주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의문되는 것이 있거나 해명하고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원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을 탐구하는데서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제기하라.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질문을 많이 하라는 상월선생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원래 나는 소학교시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육문중학교에 와서도 질문을 많이 하여 교원들을 성가시게 굴었다.

상월선생은 자기에게 ≪홍루몽≫도 있고 조설근의 약력을 발취해놓은 자료집도 있으니 보고싶거든 아무 때나 와서 가져라가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첫 손님으로 선생의 숙소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학생이 선생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씀하였다. 서당에서 ≪동몽선습≫같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 구세대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식학문의 덕으로 개명을 했다는 어른들가운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생이 선생의 뒤생활을 자주 엿보게 되면 스승을 신비스럽게 대하지 않는다, 선생은 언제나 학생이 스승을 밥도 먹지 않고 오줌도 누지 않는 신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을 세울수 있다, 그러자면 병풍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서당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다니던 순화서당에 김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훈장이 있었다. 그 훈장은 술이라면 감투가 벗어진줄도 모르는 애주가였다. 그는 사흘이 멀다하게 접장(지금의 학급반장)을 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술심부름을 시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고분고분 훈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훈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랑창에 쓰러진 것을 보고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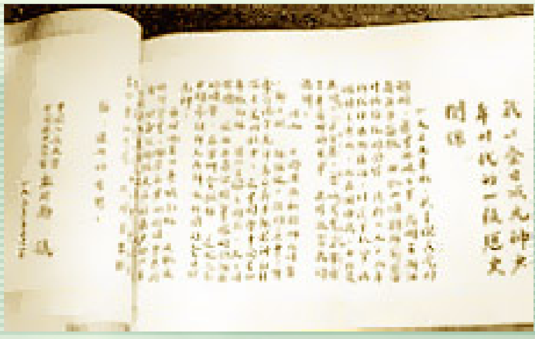
어느 날 훈장은 되병 한 개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쥐여주며 또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서당문을 나선 아버지는 바위돌에 되병을 던져 박살내고 훈장한테 돌아가 범한테 쫓기다가 돌에 넘어져 술병을 깼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훈장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 ≪허허, 백두산범이 만경대에까지 내려왔다. 형직이가 나한테 대포를 불 지경이 되었으니 내 꼬락서니가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였을가. 너희들한테 술심부름을 시킨 내가 잘못이지.≫하였다. 그 후부터 훈장은 술을 끊었다.

훈장은 술과 결별하였지만 아버지의 머리에는 개울창에 쓰러져 술내를 풍기던 선생의 모습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병풍을 치고 살아야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지론은 이런 사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이 병풍을 칠 사이도 없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개방해보이지 않았다는 선생의 생활종심에로 풍덩 뛰어들었다.

선생의 서가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서가들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채로운 서가였다. 상월선생은 책부자였다. 그 서가에는 영문으로 된 소설책들과 전기문학작품들도 많았다.

나는 그 서가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뗄 수 없었다.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 것으로 되지 않을가,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뽑아보다가 선생에게 물었다.



상월선생이 쓴 자료

≪실례이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 해나 걸렸습니까?≫

상월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서가앞에 다가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10년쯤 걸린 것 같애.≫

≪이 책들을 다 읽는데는 얼마만큼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부지런하면 삼 년, 게으르면 백 년.≫

≪책만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건부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야. 나는 오래전부터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가후비를 한두 명 키우려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없겠는가 하는 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이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 것입니다.≫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끄덕이다가 내곁에 다가와 어깨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이상이라면 나는 그 이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나는 그날 ≪홍루몽≫을 빌려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월선생이 나에게 두 번째로 빌려준 책은 장광자의 소설 ≪압록강가에서≫와 ≪소년방랑자≫였다.

나는 이 두 소설을 매우 흥미있게 읽었다. 이맹한과 운고라는 조선의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압록강가에서≫는 특히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 후에는 고리끼의 ≪어머니≫를 빌려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책과 문학을 통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상월선생은 내가 요구하는 책이면 무엇이든지 다 빌려주었다. 자기의 서가에 없는 책은 품을 내여 다른데 가서 구해다주었다. 선생은 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나에게서 독후감을 꼭꼭 들어보군 하였다.

우리는 고리끼의 작품 ≪원쑤들≫과 노신의 소설 ≪축복≫을 두고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는 과정에 나와 상월선생은 자연히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였다. 우리의 담화에서 초점을 이룬 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며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월선생은 문학이 인류를 지성에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였다. 기계가 생산의 발전을 추동한다면 문학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켜준다고 선생은 늘 말하군 하였다.

상월선생은 노신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선생은 노신의 문우였고 노신이 지도한 문학소조의 한 성원이었다. 선생이 소조활동을 할 때 쓴 단편소설≪도끼등≫은 노신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소설은 봉건유습을 반대하는 라산지방 인민들의 투쟁을 담고 있었다. 상월선생의 딸 상효원의 말에 의하면 노신은 ≪도끼등≫을 읽고 예리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였다고 한다.

상월선생은 초기의 창작에서 나타난 미숙성을 극복하고 1930년대에는 ≪예모≫와 같이 사상예술적으로 세련된 작품을 창작하여 독자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장편소설은 그 당시 운남성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연재되었다. 1980년대에 중국인민문학출판사에서는 ≪예모≫를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상월선생은 ≪예모≫, ≪도끼등≫ 외에도 장편소설 ≪창≫과 ≪개문제≫를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선생은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작가적 사색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선생이 초기에 나를 문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상월선생한테서 ≪진독수선집≫까지 빌려다보았다. 진독수는 중국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중국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상월선생은 처음에 그 책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칫하면 진독수의 우경적 투항주의노선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자기가 베이징대학을 다니기 전에 진독수가 그 대학에서 문학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교직원, 학생들이 그가 자기네 대학출신인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동안은 진독수를 숭배하였소. 그가 발간한 ≪신청년≫ 잡지와 그의 초기논문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렸더랬지. 그런데 지금은 진독수에 대한 나의 견해에도 변화가 생기였소.≫

상월선생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5.4운동시기와 공산당창당초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진독수의 인기가 여지없이 폭락된 것은 그가 우경기회주의 노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진독수의 기회주의적 오류는 농민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스탈린은 벌써 1926년에 농민은 중국의 반제국주의전선에서 기본역량이며 노동계급의 가장 주요하고 믿음직한 동맹군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독수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그는 농민이 토호출신들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농민이 행정을 간섭하는 것과 농민의 적극적인 자위를 반대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민투쟁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진독수의 오류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농촌혁명을 반대하면서 부르조아지가 혁명전선에서 떨어져나갈가봐 두려워한데 있다. 그의 투항주의적 노선은 오히려 혁명에 대한 부르조아지들의 배신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이 진독수에 대한 상월선생의 견해였다.

선생이 정당하게 말한 바와 같이 진독수의 글들에는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줄 수

있는 투항주의적 요소들이 있었다.

나는 ≪진독수선집≫을 읽은 다음 상월선생과 함께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한 장시간의 담화를 하였다. 그 담화과정에서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서 농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의 공통성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농민문제에 대한 레닌의 전략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였다.

나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인 것처럼 농민을 천하지대군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말을 긍정하면서 농민을 경시하는 것은 곧 농사를 경시하고 땅을 경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이념을 가진 혁명을 하여도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은 진독수의 오류가 바로 이 이치를 망각한데 있다고 부언하였다.

나는 이런 담화까지 하고나서 상월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시에 상월선생도 내가 공청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상월선생은 192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다가 국민당반동군벌에게 체포된 선생은 전강성육군감옥에서 1년 남짓하게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1928년초에 조선인군의의 도움으로 보석출옥한 후 사주우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만주지방에 와서 초도남이란 사람의 소개를 받아 길림육문중학교에 입직하였다.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다음부터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정치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주하였다. 그 당시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정치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도 대혁명시기이고 조선도 대중운동이 앙양되고 있던 시기여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조선청년들속에서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많은 청년학생들은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에게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상월선생은 그때 안중근의 소행은 물론 애국적이다, 하지만 투쟁방법은 모험주의적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그 대답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큰 군벌의 앞잡이 한두 명을 처단하는 테러적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전민을 궐기시킬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일제의 조선침략역사와 조선에서의 식민지정책,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기도와 군벌들의 동향, 반제반침략투쟁에서 조중인민의 단결과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당시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군비축소와 관련된 ≪국제연맹≫의 태도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학생들가운데는 ≪국제연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국제연맹≫이 군비축소문제를 가지고 가짜흥정을 한다는 논문을 써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논문을 지지하였다. 상월선생도 그 글을 보고 나의 견해가 옳다고 말하였다.

상월선생은 길림에 온 후 공산당과의 조직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고리끼, 노신 등 진보적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설하는 계몽식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언제인가는 비밀독서조성원들의 제의를 받고 학교도서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제목으로 한 주일동안 특별강의를 해주었다. 이 강의를 받

은 학생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 반영을 수집하여 상월선생을 고무해주었다.

사상의 진보성과 후대교육에서의 높은 책임성, 동서고금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으로 하여 상월선생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월선생의 교권을 허물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였다. 상월선생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학생들도 그들이 모해하고 시샘하는 대상이 되었다.

풍가성을 가진 교원은 이광한교장에게 조선학생들을 퇴학시키라고 위협하였고 체육주임 마가는 조선학생들이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한다고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꾀하였다.

그때마다 상월선생은 나를 비호해나섰다.

영어교원도 새 사조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그 교원은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사람들을 깔보다 못해 서양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국사람들은 소리를 몹시 낸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개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사람이면서도 서양인처럼 행세하였다.

그가 동양사람들의 후진성을 두고 야비한 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당번을 서는 날 일부러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먹다나니 그날 식사시간에는 온 식당안에 후르륵후르륵 하는 소리가 가득찼다. 영어교원도 후르륵후르륵하는 소리를 내면서 우동을 먹었다.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힘들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식당이 떠나가게 웃었다. 영어교원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우동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얼굴이 시뻘개서 식당에서 달아나버리었다. 그 후부터 그는 동양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 선생이 사대주의를 너무 하기 때문에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상월선생에 대한 반동교원들의 압력은 1929년에 들어와서 더욱더 우심해졌다.

한번은 상월선생이 체육은 선수본위로 하는 것보다 군중화할수록 좋다는 선전을 하였다. 그것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을 선수들만 독점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불량선수들은 방과후 숙소에서 교사로 돌아오는 상월선생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무리로 날려들었다.

나는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시켜 불량선수들의 폭행을 미연에 저지시키고 그들을 되게 꾸짖어 쫓아버리었다.

≪마체육주임이 졸개들을 잘 길러냈군. 벌거지만도 못한 녀석들.≫

상월선생은 꽁무니를 빼는 불량선수들을 덤덤히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선생님, 너무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첨예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선생은 그 말을 수긍하였다.

≪그래, 옳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군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상월선생은 그 후 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


김일성동지께서 쓰시던 책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상월선생의 딸이 아버지가 생전에 수령님을 흠모하여 쓴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게 출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철직되어 육문중학교를 떠나갔다.

장춘과 카륜 지방에 가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학교에 돌아오니 권태석이 뛰어와서 상월선생이 남기고간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는 나는 군벌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 떠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군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조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어 한 생을 살기로 결심한 성주의 이념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주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보낼 것이다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남긴 상월선생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나는 상월선생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다만 선생이 1955년 나에게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한다≫

보내준 글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역사적 관계≫와 1980년에 보내준 ≪중국역사강요≫를 받아보고 선생이 생존해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때 그 글을 보고 상월선생과 함께 조선정세와 만주정세, 일제의 침략정책과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을 논하던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노스승에게 충심으로 되는 마음속 감사를 드리였다.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상월선생의 안부를 묻군 하였다. 하지만 선생과의 상봉은 아쉽게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나로서는 옛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경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상월선생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2년에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은 상월선생의 맏딸 상가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고 1990년에는 셋째딸 상효원이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 상효원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60년 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만일 육문중학교 교정이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만발하는 정향나무꽃잎들을 한줌 가득 뜯어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꽃이다. 상월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밑에서 자주 만났다.≫하고 말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길림을 떠난 상월선생은 하얼빈, 상해, 베이징, 한구, 중경, 녕하, 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문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한때는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고 한다.

그는 생애의 말년까지 나를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친근한 인방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주의적 감정에 충실하였다.

상월선생의 유해는 지금 베이징의 팔보산열사릉에 안장되어있다.

사람에게 한 생을 두고 회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한다.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ㅌ·ㄷ≫성원들과 비밀독서조성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가자 청년학생들의 사상의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역사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조직을 통해서만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핵심역량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였다.


光州高普 中學生衝突

全南警察總動員 徹夜로 嚴重警戒

雙方氣勢依然險惡


광주학생운동

맑스-레닌주의이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 다시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 이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였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노동자, 농민의 본위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노정이 입증해주고 있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 전 우리 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역사적 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역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9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였고 광주인민항쟁(1980년)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였다.

중국사람들이 신민주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은 5.4운동의 최선봉에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해치며 새로운 경험을 부단히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풍부하고도 장구한 투쟁역사는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계층으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이론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 나라 청년학생운동에는 계급적 입장과 반제적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운동의 상층은 대부분 인텔리출신들이였으며 운동의 주력도 계몽활동에 편중되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학생운동에서 이런 부족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첫 걸음을 잘 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였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여길학우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면 빈터우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침없이 새 조직들을 내오겠는데 여러 갈래의 기성단체들이 출현하여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은 조건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심중히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이용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인길림 소년회의 활동에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자료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손정도네 예배당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무었다.

나는 김원우, 박일파(박우천)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체부(문화체육부)와 같은 소년회의 부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하였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임자로 있던 길림여자사범학교출신의 황귀헌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년회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시안의 조선인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

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 해 5월에 우리는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여길학우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다.

본래 조선인여길학우회는 길림에 와서 공부하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여길학우회의 고문들가운데는 손정도도 있었다.

우리가 여길학우회를 유길학우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여길학우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바탕이 민족주의이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양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벽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마끔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내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노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노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러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일 종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여길학우회를 무시하고 길림에 새로운 청년조직을 또 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며 학생청년들의 대열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우리는 조선인여길학우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었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었기때문에 중국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유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학생들의 일과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유길학우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를 하였다. 일요일이 오면 길림시내 모든 회원들이 대열을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가운데는 기독교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인소학교의 한 여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여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 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쪼록쪼록 고팠다. 이번에는 여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지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인습을 청산하는데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였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예배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내포하고 있은 무저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에 가보니 어떤 소년회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나 불러가지고서는 적의 화구앞으로 돌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보다도 결사전가를 부르는 투사들이 더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오가던 소년회원들이 얼마 후부터는 ≪소년애국가≫와 ≪조선인길림소년회가≫를 부르며 버젓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유길학우회가 나온 다음 우리가 한 활동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해 여름방학에 조직한 국어강습이다. 그 강습에는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조선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었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우리는 그때부터 ≪조선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계영춘, 김원우, 박소심이 엇바꾸어가며 강의에 출연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였고 강사였다.

20일동안 강습을 하고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잡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회와 학우회는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용담산원족과 강남공원야유

회도 조직하고 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였으며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예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였다.

우리는 그때 비밀활동장소로서 강남공원과 북산을 많이 이용하였다. 강남공원은 릉라도와 같이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었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공지에다가는 락화생 같은 것도 재배하였다. 이 공원에서 우리가 야유회의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하였다.


약왕묘

강남공원보다 더 이상적인 밀회장소는 북산이었다.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이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길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유원지가 바로 북산이었다. 그러므로 북산과 그 주변에는 봉사망도 시적으로 제일 조밀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북산으로 들어가는 거리 량 옆에는 음식점, 빙탕막, 완구상, 담배상, 잡화상, 차집, 오락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고 서양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큰 경광상점도 있었다.

북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경치가 좋은데도 있지만 거기에 약왕묘와 같은 명승고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약왕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이라는 뜻이다.

길림에서는 매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흘간을 묘회기간으로 정하고 성정부의 주관하에 북산에서 약신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관제행사를 벌이었다. 이 행사에는 일반서민들은 물론, 관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묘회기간의 3일은 휴가로 선포되었다.

경찰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산아래 대도로 동쪽에 임시파출소를 내오고 전화를 가설하였으며 산우에는 경찰분반까지 배치하여 상공개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면 양왕묘, 관제묘, 랑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져가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였다. 3일간의 행사기간에는 마차부들과 인력거군들까지 평상시의 10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

장사아치들이 3일간의 묘회를 돈벌이의 호경기로 삼았다면 이 도시의 유지들과 선각자들은 성립통속강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회교육의 연단으로 삼았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계몽활동가들이 도처에 나타나 주먹을 흔들며 애국, 도덕, 법수호, 미감, 실업, 체육,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는데 북산이 아니고서는 어데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이런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군중을 찾아다니며 선진사상을 먹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밀회합도 하였다. 약왕묘 지하실은 우리의 전용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중은 우리가 쟁취한 사람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 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이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8월29일), 3월 1일, 단군탄생일(10월 3일)등 주요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유길학우회의 성원들속에서는 이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길학우회가 유길학우회로 개편된 그 해 여름에 손정도네 예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었다. 그들은 테러로써도 안되겠다. 청원으로써는 더구나 안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약왕묘안에 있는 지하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매해 5월 첫 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었다. 열 살 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육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우리가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 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였고 체험이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유길학우회, 맑스-레닌주의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일대에서는 ≪ㅌ · ㄷ≫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역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었다.

길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총영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길림일대에서 새로운 혁명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질겁한 총영사는 자기 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식보고문에서 그 대오가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사분오열된 조선공산당의 종파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늘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관내에까지 펴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유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었다.

우리의 운동선에 합류하려고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독립군에 관계했던 청년들,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던 청년들, 백파들과 싸우던 청년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국민당반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던 청년들, 레닌의 숭배자, 손문의 숭배자, 루소의 숭배자 등 정견과 소속,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김혁, 차광수, 김준, 채수항, 안붕 등도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 · ㄷ≫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ㅌ · ㄷ≫보다 더 큰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 · 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연이어 ≪ㅌ · ㄷ≫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 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 청년조직이었다. 조직의 기본구성은 조선청년들이었으나 우리는 반제적 입장이 강한 중국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였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열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여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주변의 농촌지역과 유하현, 화전현, 홍경현 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퍼지었다.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얼마 후부터 등사판으로 선전용자료까지 밀어냈다.

우리는 그때 청년들을 더 많이 결속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주변농촌으로 나가군 하였다. 토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ㅌ · 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연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년 남짓한 사이 길림과 무송 일대에서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합법, 비합법의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영솔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다.

당시까지는 내가 어느 조직에나 다 관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들 호상간의 연계가 지어지군 하였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청년공산주의자의 자격으로 학생청년조직들에 관계하였을 뿐이다.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때 일제는 만주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만주에서 반동군벌과 결탁하여 조중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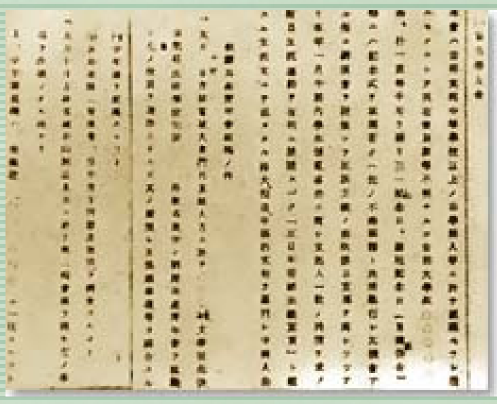
조선청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런 실정은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위조직의 필요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도권쟁탈로 하여 사분오열의 길을 걷고 있은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아도 청년들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조선공산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고 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남만주청년총동맹, 북만주청년총동맹, 동만주청년총동맹,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

되어있었다.

각이한 계열의 종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벽내기로 이 단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소속단체가 공산주의단체인지, 민족주의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있었다.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정의부편, 참의부편, 신민부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태에 있었다.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분열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세력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서 떼어내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선공산당이 제구실을 어지간히라도 하였더라면 우리까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이념을 가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으면서도 그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은 없었다.

조선혁명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많은 애로와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종파분자들과의 관계,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들과의 관계, 국제당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항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을 능란하게 영도해나가자면 그것을 감당할만한 세련된 영도핵심과 올바른 지도이론이 있어야 하였다.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파쟁도 모르고 사대주의도 모르고 집권욕도 모르며 낡은 때가 묻지 않은 새 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롭게 개척해나갈 수 있는 참다운 핵심이 육성되였다.

화전과 길림에서 새 사조를 탐구하고 ≪ㅌ·ㄷ≫와 함께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이론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지도이론을 구현한 전위조직으로 공청을 내올 것을 결심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강령에서는 공청이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이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종파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김혁, 차광수, 허률, 박소심, 박근원, 한영애를 비롯한 반제청년동맹 핵심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내가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소책자로 세상에 나갔다.

그날 우리는 ≪ㅌ·ㄷ≫를 뭇던 때처럼 서로 어깨를 겯고 한 덩어리가 되여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불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 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이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었다. 동맹원들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면투쟁과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었으며 공청대오는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공청원들에게 아래조직들을 지도할 데 대한 분공,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 데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 데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였다.

또한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훙경,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하얼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확대되었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이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일까지 맡아가지고 자기산하의 청소년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노동자조직, 농민조직, 여성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중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이롭고 인민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배짱이였다. 남들이 영도권이 탐나서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자랑하며 돌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허영의 세계와 담을 쌓고 혁명의 길을 한치한치 뚫아나갔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 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당조직의 성원들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였다.

얼마전에 우리는 공청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제1백화점
공화국만세!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하투쟁을 앞두고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을 내온 다음부터 우리는 활동무대를 광활한 지역에로 넓혀나갔다.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꼬리를 물고 길림을 떠나갔다.

나도 그때 학생의 몸이지만 여러 고장들에 나가군 하였다.

길림에서 몇백 리 떨어진 곳들에도 자주 다니며 새로운 활동무대를 개척하였다. 토요일 저녁차로 길림을 떠나 교하, 카륜, 고유수와 같은 고장들에 갔다가 다음날 밤차로 돌아오군 하였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석도 하였다. 이광한교장이나 상월선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원들은 그것을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도 안계시고 집이 가난하여 학비벌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고 짐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신분이 학생이고 보니 여러 가지 구속과 제약이 없지 않았다. 강의에 참가하고 과외학습을 하고 그 여가를 타서 여러 조직들의 사업까지 보아야 했으므로 나는 늘 시간의 부족을 느끼군 하였다.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 때였다. 우리는 보통 때 준비를 잘해두었다가 방학이 되면 여러 고장으로 다니며 조직을 꾸리는 활동도 하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브나로드운동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내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농민들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에 참가하였다. 내가 화성의숙에 다니던 그 해 여름 국내에서는 ≪조선일보≫사가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이상의 학생들로 계몽대를 뭇고 그들에게 강습까지 주어 농촌으로 내려보냈다. 계몽대에 망라된 학생들은 고향에 돌아가 신문사에서 만들어준 조선어교본을 가지고 문맹퇴치사업을 하였다.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조국에 돌아와 유학생순회강연대를 무어가지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몽사업을 하였으며 천도교와 기독교청년회에서도 농민들속에 침투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시키었다.

그러나 국내학생들의 계몽운동은 민족의식의 계발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적 운동을 저들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항으로 보는 총독부당국의 철저한 탄압과 지도자들의 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대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화하는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민족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그것마저 1930년대 중엽에 들어가서는 하강기를 맞이하였다.

그 운동이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농촌에서 그들이 해

온 활동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문맹퇴치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였다. 기독교청년성원들이 진행한 활동내용가운데는 지어 요리법의 개선운동과 우물을 깨끗이 거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계, 양잠법과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신청서의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농촌주민들을 근대적 생활에로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계몽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여있었다.

우리는 일제의 탄압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농촌계몽활동을 대중을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적극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로 승화시키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우리의 군중공작은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반제교양, 계급교양을 주선으로 하여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각종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우리가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그처럼 전력을 다한 것은 그들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인민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 있다. 단한 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이 무한정 발양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를 인민행 열차에 처음으로 태워준 길림시절에 감사를 드리군 한다.

우리가 인민들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27년 겨울방학부터였다.

부자집학생들한테는 겨울방학이 문자그대로 신선놀음이었다. 그들은 겨울 내내 집에서 연애소설을 보며 딩굴든가, 기차를 타고 장춘이나 하얼빈,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로 유람을 떠나든가 하였다. 음력설이 되면 좋은 음식을 해놓고 폭죽을 터뜨리며 흥겹게 놀았다. 원래 중국사람들에게는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2월 2일까지 정월한달동안 계속 노는 풍속이 있다. 그들은 음력 2월 2일을 용태두(용이 대가리를 쳐든 날)라고 하면서 정월에 잡은 돼지대가리를 다 삶아먹어야 명절놀이를 끝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유람을 다닐 수도 없었고 명절놀이로 풍청거릴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방학을 이용하여 혁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리를 하였다.

나는 방학이 되자 연예대원들을 데리고 장춘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기 바쁘게 인차 무송으로 떠났다. 박차석과 계영춘도 한해 겨울을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하고 나와 동행하였다.

그 해 겨울방학을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보내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기 바쁘게 새날소년동맹원들에게 둘러싸이었다. 그들은 동맹이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에 대하여 기탄없이 하소연하였다.

동맹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

다.

우리는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새날소년동맹원들과의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동맹지도일군들에게 연예선전대의 활동방법, 사회활동방법, 군중공작방법, 동맹내부사업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정치토론회와 성격검토회에도 자주 참가하여보았다.

소년동맹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무송지방의 핵심청년들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백두산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백산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그 단체는 사실상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었다. 우리가 그 조직에 백산반제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청년동맹이라고 한 것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직을 위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단체처럼 변장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신문 새날창간호를 만든 무송의 백산학교

우리는 백산청년동맹원들을 움직여 청와재를 비롯한 주변의 농촌마을들에 야학을 내오도록 하였다.

나는 청년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열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에게 사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신문을 만드는 사업은 완전히 영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욕심 같아서는 한번에 신문을 100부 정도씩 찍어내고싶었지만 우리에게는 등사기도 없고 종이도 없었다.

무송에 중국사람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가 하나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만들 신문의 내용으로 보아 그 인쇄소에 의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손으로 써서 신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 사업에 새날소년동맹열성자들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을 동원시키었다. 100부를 쓰는데 한 주일이상의 시간이 걸리었다.

1928년 1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그 시절의 혈기와 젊음이 그리워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기에서 둘도 없는 행복을 느끼였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낭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을 높이 세우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



연극-혈분만국회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 후 나는 아버지의 친지들한테서 힘들게 얻어낸 등사기로 ≪새날≫신문을 밀어냈다.

1927년 겨울방학의 활동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예선전대의 활동이였다. 무송의 연예선전대에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부녀회원들이 망라되였다. 이 연예선전대가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가량 순회공연을 하였다. 우리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도 꾸리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연극들은 다 그 해 겨울에 우리가 무송에서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들이다.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연예선전대가 순회공연을 앞두고 무송시내에서 며칠동안 공연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군벌당국이 아무 이유없이 나를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갔다. 몇몇 봉건주의자들이 우리의 공연내용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나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던 것이다.

그때 소학교동창생인 장울화가 나를 석방시키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설복하여 경찰당국이 우리 집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의사가 소통하여 아버지의 친지가 된 사람이였다. 그는 거부이지만 양심적인 인간이였다. 우리 아버지가 무송에서 백산학교 복교를 발기하고 그 인가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울 때에도 그가 나서서 교섭을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와 같은 세력가가 압력을 가하니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던 군벌당국도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다.

그때 무송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군벌당국에 몰려가 나를 석방하라고 집단적인 항의를 들이댔다. 우리 어머니가 조직을 발동하고 군중을 추동하였다. 중국인유지들까지도 군벌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나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얼마 후 군벌당국은 하는 수없이 나를 석방하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푸수허 마을로 떠났다.

연예선전대는 푸수허마을에서 연 사흘동안이나 공연하였다.

우리의 공연을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다나니 주변부락들에 소문이 굉장히 퍼지게 되었다.

두지동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찾아와서 연예선전대를 자기네 마을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두지동에서의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는 부락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예정했던 체류기일을 여러 번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첫 공연이 끝났을 때 새날소년동맹 위원장이 무대뒤로 뛰여와서 마을의 좌상아바이가 나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입에 골통대를 문 풍채좋은 중늙은이가 방금 우리가 공연을 한 그 집 울타리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수북한 장미밀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를 자기네 마을까지 안내한 두지동의 청년이 내곁에 다가와서 ≪차천리노인이요.≫하고 귀띔해주었다.

나는 차천리라는 말을 듣기 바쁘게 절을 하였다.

≪노인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인님께서 이웃동리에 나들이를 가셨다기에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나들이를 갔다가 연예대소문을 듣구 급히 뛰어왔네. 자네가 김형직선생의 자제라는게 적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김선생이 지하에서나마 마음을 놓게 되었네. 내 한평생 이렇게 훌륭한 연예는 처음 보았네.≫

노인이 격식을 차려 깍듯이 대하는 바람에 나는 여간만 당황해지지 않았다.

≪노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들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뭘 이러십니까.≫

노인은 그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나는 노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면서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노인님, 이거 버릇없는 물음이지만 노인님이 하루에 천리를 걷는다는 게 정말입니까?…≫

≪허허,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던가. 내 한창 나이 때에는 천리는 몰라도 오백리는 걸었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차천리노인이 소문과 같이 대단한 독립운동자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성밀에 본명대신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다 일리가 있은 일이었다.

그 천리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은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속에서 신비스러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이 노인의 걸음걸이를 두고 탄복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노인이 강계지방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라고 말씀해주었다.

차천리는 만주에 건너온 후 참의부에 소속되어 심룡준의 부하로 활동하였다. 참의부가 상해임시정부의 치하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제일 견결하게 반대한 사람이 차천리였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독립군단체가 임시정부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던 정의부의 몇몇 인사들은 노인의 입장을 격찬하였다. 지도부의 대다수가 군인출신인 정의부인물들속에서는 문관위주의 임시정부를 사답게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었다.

차천리노인은 그날 나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노인은 지난날 조선민족이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통탄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말만 하여서는 안되며 손에 총을 잡고 왜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주 교활한 놈들이기 때문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자네 경성성냥공장이 망한 경위를 들어본 적이 있나?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잰내비표≫성냥이 아주 유명했네. 성냥두 성냥이지만 상표가 특별해서 사람들의 눈을 끌었지. 잰내비가 복숭아가지를 메고 있은 상표였거든. 왜놈들이 조선에 와서 딱성냥공장을 차려놓았지만 이 성냥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없었다는구만. 그래 여러 가지로 계책을 짜내던 끝에 ≪잰내비표≫성냥을 수만 통 사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가서 성냥가치를 모조리 물어 잠궜다가 말린 다음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걸세. 그 다음부터는 사가는 사람마다 불이 일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면서 왜놈들의 딱성냥만 사갔다지 않겠나. 경성성냥공장은 상표를 왜놈회사에 팔고 파산당했네. 왜놈족속들이란 이래.≫

사실여부는 확증할 수 없었지만 일본제국주의를 이해하는데서는 만 냥짜리 이야기였다.

노인의 말이 자기는 한창나이 때 화승대를 가지고 놈들이 5연발총으로 다섯 발을 쏘는 사이에 세 발은 쏘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박혀있자니 답답해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노인은 그날 우리가 공연한 ≪단심줄≫이라는 가무가 대단히 좋다고 하면서 지난날 의병활동이 흐지부지돼버린 것도 힘을 합치지 못한 탓이며 독립군이 맥을 못추고 왜놈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역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가끔 뿔뿔이 놀아나는 탓이라고 개탄하였다.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하네.≫

노인은 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차천리노인의 말이 다 옳았다.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되면 망한다는 이치를 아프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노인이 내 손을 붙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당부할 때 나는 조선의 아들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혁명을 잘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었다.

그날밤 차천리노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한다고 한 노인의 말은 그 후 우리의 투쟁에서 큰 교훈으로 되었다.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면 군중을 깨우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선생은 역시 인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차천리 같은 노인도 만날 수 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

차천리노인은 참의부의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자기의 상관인 심룡준에게 암살당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던 차천리노인의 말을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되새겨보았다. 노인의 좌우명처럼 참의부의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였더라면 이런 통탄할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두지동집

우리는 두지동에서 그 해 음력설을 쇠였다.

설명절이 지난 후 나는 연예대원들을 무송으로 돌려보내고 계영춘, 박차석과 함께 안도땅으로 향하였다. 안도현에는 조선사람들만 사는 내도산마을이 있었다.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이 마을은 울창한 밀림속에 산간벽촌이었다. 내도산이란 수림속의 섬 같은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중국사람들은 산모양이 젖꼭지 같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내두산이라고도 한다.

이 산간마을에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

운동자들이 드나들었다. 독립군의 백전로장인 홍범도와 최명록도 한때 이 부락에 와있었다.

우리가 이미 ≪ㅌ·ㄷ≫성원인 이제우를 내도산에 파견하여 그 일대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한 것은 장차 백두산 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들자는 타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우(이우)는 황해도태생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장백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의 연계밑에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우도 자연히 나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화전에서 헤어진 후 내가 이제우를 다시 만난 것은 무송에서 백산청년동맹을 결성할 때였다. 나는 그때 그와 내도산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제우는 농절반 진담절반으로 자꾸 과업만 주려 하지 말고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무송에서 내도산까지는 300리가 넘었다. 중국쪽에서 보면 만주땅의 마지막부락이지만 조선땅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첫 마을이다. 이 내도산주변 100리안팎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녘에 마을에 도착하여 이제우의 안내로 한의노릇을 하는 최씨의 집에 들었다.

최씨의 말이 우리가 들어있는 방에 장철호가 두 번 와있었고 이관린이도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다녀가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개척하던 고장에 오늘은 우리가 와서 혁명의 보습을 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숙연해지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내도산부락에 며칠 있어보니 이제우가 기어이 와달라고 하던 심정이 이해되었다. 내도산마을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발을 붙이기가 무척 어려운 고장이였다.

마을에는 주로 최가, 김가, 조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바갈세상과 담을 쌓고 서로 삼각혼사를 맺었다. 최씨네 딸은 김씨네 아들한테 시집을 가고 김씨네 딸은 조씨네 아들이 데려갔으며 조씨네 딸은 최씨네 며느리로 들어갔다. 좁은 골안에서 혼사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다나니 온 마을이 친척관계로 얽혀져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형님≫, ≪아재비≫, ≪사돈님≫하면서 돌아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천불교를 믿었다. 천불교신자들은 하늘에서 99명의 선녀가 백두산천지에서 미역을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그곳에 ≪덩덕궁≫이라는 99칸자리 절간을 지어놓고 일년에 두 번씩 찾아가 기도를 드리였다. 천불교신자들은 마을에도 ≪천불사≫라는 절간을 지어놓고 열흘이나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기도를 드리였다.

우리가 내도산에 도착한 다음날이 마침 천불교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날이였다. 그날 우리 일행은 이제우의 안내를 받아 절간근처에까지 가보았는데 과연 장관이였다. 신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고구려사람들처럼 머리를 우로 틀어올리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한데 모여들어 꽹과리와 제금을 치고 북과 목탁을 두드렸는데 덩덕궁덩덕궁하는 소리가 아주 장엄하였다. 그래서 절간이름마저 ≪덩덕궁≫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였다.

이제우가 하는 말이 내도산일대에서는 이 천불교가 골치거리라는 것이였다. 그는 종교가 아편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가지고 천불교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다. 무송에서 이제우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의식을 거행하는 천불교신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웅장한 ≪덩덕궁≫을 보고나서는 생각을 한번 더 깊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최씨의 안내를 받으며 이제우와 함께 천불교 교주 장두범을 찾아갔다.

장두범은 한때 독립군에서 싸우던 사람이였는데 독립군이 맥을 못추게 되자 총을 내던지고 내도산에 들어와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였다.

나는 교주와 담화를 하면서도 천정밑에 매달려있는 기장이삭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최씨네 집에서 본 기장이삭이 교주의 집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매달려있었기 때문이였다. 종곡을 하려고 간수해두는가고 이제우에게 물었더니 그는 불공을 드릴 때 쓰는 기장이라고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논농사를 하지 못하는 이 고장 사람들은 제밥을 지을 때 흰쌀(입쌀)대신 기장쌀을 썼는데 어느 집에서나 기둥이나 천정 같은데 기장이삭을 매달아두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번지를 때에도 그들은 이 기장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백두산절간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에만 그것을 절구에 정성껏 찧어 키질을 하고 나무숟갈로 싸래기와 풀씨, 뉘, 티럼불을 고른 다음 똑같은 크기의 쌀알만 하나하나 모아 참지에 싸두었다가 깨끗한 샘물에 제밥을 짓군 하였다.

≪그 망할놈의 천불교 때문에 내도산사람들이 그만 다 환장하였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말은 정말 명언중의 명언인 것 같소. 이런 종교쟁이들을 새 사상으로 개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요.≫

이제우는 이렇게 푸념하면서 내도산사람들의 얼을 다 뽑아서는 ≪덩덕궁≫에 불을 지르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 때도 있다고 고백하였다.

나는 이제우의 관점이 협애하다고 비판하였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나는 물론 부정하지 않소. 그러나 이 명제를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요. 일본에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 행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래 아편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울 수 있겠소? 나는 천불교를 애국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며 이 교의 신자들을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애국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세우는 것뿐이요.≫

나는 이제우와 앉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천불교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일감정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한 열흘가량 물러있으면서 마을사람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종교를 믿는 것으로는 조국을 광복하지 못한다는 나의 말을 천불교신자들은 쉽게 긍정하였다.

그 해 겨울 내도산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내도산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였다. 당콩을 넣은 감자밥이 제맛이였다. 계영춘은 방귀바람에 구들장이 꺼지겠다고 우스개 소리까지 하였다.

만일 그때 우리가 내도산에 가보지 않고 길림에 앉아서 이제우의 보고를 들었거나 지나가는 풍문이나 얻어듣고 사태를 판단하였더라면 천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도산에 가서 ≪덩덕궁≫도 보고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의 진지한 표정도 보고 집집의 대들보밑에 달아맨 기장이삭들도 보았기 때문에 천불교와 그 신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인민적 풍격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 것은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 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는 마을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선행시킨 다음 이 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오고 소년탐험대를 꾸려주었다.

내가 길림으로 돌아온 후에는 우리 형권삼촌이 백산청년동맹사업을 책임지고 이제우와 함께 덕수, 독골, 절골, 약수등, 임수골, 지양개를 비롯한 장백일대와 신파, 보천, 혜산, 갑산, 삼수 등 국내 여러 지방들에 그 지부들을 조직하였다.

동맹은 이제우에게 백산청년동맹 장백지구 책임자의 임무를 맡기였다. 이제우는 그 중임을 훌륭히 감당해냈다. 형권삼촌과 이제우는 백두산일대를 혁명화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 덕으로 우리는 후날 이 일대에서 혁명투쟁을 할 때 군중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배움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때가 방학이지만 나는 그 해 겨울방학에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길림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반년간사업을 총화하고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군중들을 망라하는 계층별 대중조직들을 더 많이 꾸릴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김혁, 차광수,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등 공청핵심들이 흥경현, 유하현, 장춘현, 이통현, 회덕현 일대와 국내로 떠나갔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각종 대중조직들을 빠른 속도로 늘여나갔다.

나는 길림에 남아서 신안툰에 농민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하였다. 농민들을 조직에 결속하는 것은 그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들을 전취하는 문제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다.

우리는 강동마을에 나가서 농민동맹도 조직하고 반제청년 동맹지부와 부녀회도 조직하였으며 연이어 카륜과 대황구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교하지방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조직하였다. 내가 교하의 청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여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을 만난 다음부터였다. 이 사람이 아마 장철호한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교하로 말하면 장철호의 중간정류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길림과 무송사이를 왔다갔다할 때마다 교하에 있는 강명근네 집에 들려 길림의 청년학생운동에 대하여 전해주고 길림에 돌아와서는 교하의 소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강명근이 우리를 알게 되었고 나도 교하지방의 청년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런때에 강명근이 나를 만나려고 길림으로 찾아왔다.

내가 동대탄에 있는 장철호네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다.

나보다 나이가 열살이상이나 더 든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안타깝게 방조를 호소할 때 나는 그에 대한 동정을 금할 수 없었으며 길림에서 180리나 떨어져있는 교하에서 보통중학생에 지나지 않는 나한테까지 찾아온 그의 혁명가다운 열정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교하현에서는 납법산을 경계로 서북쪽에서 여신청년회가 활동하고 동남쪽에서는 납법청년회가 활동하였다. 교하일대의 조선청년들은 대체로 이 두 청년단체에 망라되어있었다.

청년들은 처음에 큰뜻을 품고 조직에 들었지만 자리다툼이나 하고 군자금이나 거두어들이는 민족주의운동지도자들의 소행에 점



교하거리

차 환멸을 느끼게 되였다.

그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혁명≫과 ≪헤게모니≫에 대하여서만 요란스럽게 떠들며 돌아치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빈말공부에도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갈길을 찾지 못해 좌왕우왕하게 된다는 강명근의 그 심정이 이해되고도 남았다.

나는 길림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은 청년학생운동의 실태와 우리의 활동경험을 강명근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교하에 돌아가면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내올 수 있게 준비를 잘해보라고 하였다. 그가 돌아갈 때에는 여러 권의 맑스-레닌주의서적도 주었다.

나로서는 성의를 다하여 깨우쳐주느라고 하였지만 강명근이 돌아간 다음 교하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았다.

나는 벼르던 끝에 노일령을 넘어 교하땅으로 찾아갔다. 그것이 아마 1928년 봄이었던 것 같다.

강명근은 나를 보자 그러지 않아도 길림에 한번 다시 찾아갈 생각이였다고 하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이 길림에서는 막힐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정작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였다.

교하의 농촌청년들은 우선 조직을 어떻게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떤 청년들은 여신청년회가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나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반제청년동맹을 뭇자고 하였으며 어떤 청년들은 여신청년회를 무작정 해산해치우자고 하였다.

조직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견해를 세우지 못하고 누구는 ≪적대분자≫이고 누구는 ≪동요분자≫이기 때문에 조직성원이 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웬만한 청년들은 미리부터 다 대상에서 제껴놓고 있었다.

나는 그날 마실방에서 목침을 베고 그들과 같이 한자리에 누워 조직을 내오려면 군중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쟁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람들을 이편저편 가르기 전에 꾸준하게 교양하고 설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청년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물을 먹지 않게 만들며 여신청년회와 남법청년회안에 있는 선진적인 핵심청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토론해주었다.

이렇게 한 다음 여신청년회에 망라되어있는 5명의 핵심청년들을 선발하여 교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나는 그 후에도 교하지방에 자주 나가 반제청년동맹성원들과 사업하였다.

나는 동만청총안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조직에 묶어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용정에 와서 고학을 하고 있던 조선청년들은 거의 모두가 동만청총에 망라되어있었다.

그들은 화요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조직부장으로 사업하던 동흥중학교 학생 김준이 우리가 길림에서 발간한 잡지와 소책자를 보고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김준을 통하여 용정일대의 청년운동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김준은 길림에 왔다간 다음부터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용정시내 여러 학교의 청년학생들속에 우리의 사상을 선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간도지방과 회령, 종성을 비롯한 6읍관내의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이 시기 나는 노동자들과의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길림시가

당시 길림에는 화력발전소,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과 같은 크고작은 공장들이 적지 않았지만 노동계급을 망라하는 신통한 조직은 없었다. 다만 1927년 봄에 조선인노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회가 조직되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니다가 농촌에 나온 한 청년을 교양하여 반제청년동맹에 받아들이고 그가 이전부터 일해왔다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시 들어가게 하였다.

그가 길림화력발전소에 발을 붙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발판이 생기었다.

우리는 유길학우회성원들을 발동하여 송화강선창을 중심으로 노동자야학을 조직하고 3.1인민봉기기념일이나 5.1절, 국치일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28년 8월에 반일노동조합을 내왔다. 그 책임자는 반제청년동맹의 핵심성원이였다.

청년학생들을 주되는 사업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오던 우리가 활동판도를 노동계급속에까지 넓히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였다.

조선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이 반일노동조합을 통하여 합법적 단체인 한성회를 움직이게 하였다. 한성회는 점차 정치적인 경향이 뚜렷해져갔다. 후에 한성회는 원산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돕기 위해 동정금을 모아 원산노동연합회에 보내였고 1930년 여름 조선에서 있은 수재때에는 여러 조선인단체들과 협동하여 구제회를 뭇고 수재민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수집하였으며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길림과 교하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청년단체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유익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ㅌ·ㄷ≫를 뭇던 화성의숙시절이 나의 청년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면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확대해나가던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은 학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어 도처에 혁명의 씨앗을 부려가던 나의 청년운동의 전성기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력을 사람들은 ≪길림바람≫이라고 하였다.

5. 단결의 시위



혁명영화
≪조선의 별≫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데 따라 우리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 것이 1928년 여름에 있은 길림육문중학교동맹휴학이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 관리, 도서관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교내에서의 우리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교무위원회와의 협동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그런데 군벌들의 조종을 받고 있던 반동교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 질서를 조금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교육청이 파견한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후각이 예민한 군벌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과 같은 반동교원들은 모두 적의 특무기관에 매수된 자들이였다. 그들은 군벌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 출신의 보수적인 학생

들과 불량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1928년 여름에 우리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이였다.

산동출병은 다나까의 대중국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우고 있은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이 산동지방에 처음으로 출병한 것은 1927년 5월 다나까 기이찌내각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때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장작림의 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동반도일대에 진출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길들인 장작림군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여순주둔군 2,000명을 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 후 다시 본토에서 2,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동지방에 파병하였다.

1차 출병으로 북벌이 정지되고 장개석이 산동지방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 해 가을에 산동에서 철병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에 북벌혁명이 재개되자 파쑈적인 다나까내각은 2차로 출병을 결정하고 천진주둔군과 본토의 구마모도사단 5,000명을 동원하여 산동반도의 철도연선들을 차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국민혁명군도 제남에 입성하였다. 두 나라 군대사이에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일본점령군은 제남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동출병은 조중인민들속에서 배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였다.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나까외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견한 최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 지방을 중국에서 떼내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탱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작림이었다. 장작림을 잘 길들이고 후원하면 만주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타산이였다. 제남에서 울린 총소리는 후날 중국땅에서 수천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될 야수적인 대도살을 예고하는 위험신호였다.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할 때 중화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국민당의 반역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연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쥔 것처럼 조선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이광한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학생들은 공산주의주동분자가 아니면 ≪일본간첩≫들이고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서는 소란스러워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파계열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 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상월선생도 그자들의 첫째가는 공격대상이 되었다.

반동교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학문연구도 청년운동도 마음놓고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직된 역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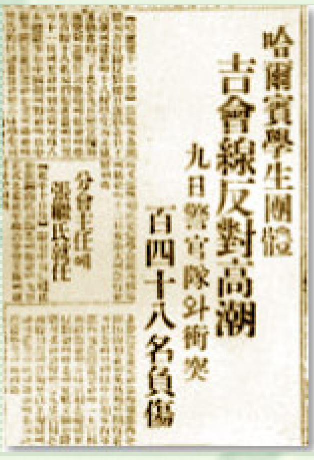
우리가 내놓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 것.

셋째, 진보적 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 것.

진보적인 교원들도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힘을 개입시키겠다고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이 시내도처에 나붙었다. 그런 선전물들은 반동교원들의 숙고와 성공서에도 날아들었다.



哈爾賓學生團體

吉會線反對高潮

九日警官隊와衝突

百四十八名負傷

分會主任에

길회선철도부설 반대투쟁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

육문중학교안에서 동맹휴학이 고조되자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며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성공서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 수 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대중투쟁에서 얻은 첫 승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동원하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동맹휴학에서 첫 승리를 얻고나니 경험도 생기도 단련도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우리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동맹휴학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고 앙양된 청년학생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준비를 하였다.

오래전부터 만주침략의 준비를 서두르던 일제의 책동은 이시기에 와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1928년 5월 일본관동군 사령관 무라오까는 중국관내에서의 정세변화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혼성 제40여단을 봉천(오늘의 심양)에 진출시키고 자기네 군사령부를 그곳에 옮길 것을 획책하였다. 연이어 베이징으로부터 봉천으로 돌아오는 장작림을 봉천입구의 남만철도와 경봉철도가 교차되는 철교에서 열차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살해하였다. 이것은 다 만주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예비작업이었다.

일제가 만주를 먹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을 투쟁무대로 삼고 있은 우리의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주가 중국땅이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였지만 만주가 강점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랐다.

세 차례에 걸치는 산동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대륙에 촉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길회선이란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회영사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은 명치시대부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이른바 ≪동방회의≫라는 것을 한 다음 천황에게 낸 ≪상주서≫에서 길회선철도부설을 비롯한 만몽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세계제패론을 고창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이 세계제패의 야욕과 망상으로 일관된 악명높은 이 ≪상주서≫에서 제기된 일차적인 국책이 만몽을 침략하는 것이며 이 침략을 보장하는 선결적인 공간이 다름아닌 길회선철도를 포함한 만몽5철도부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이 ≪상주서≫에서 다나까는 만약 길림-회령철도를 비롯한 만몽5철도가 완성된다면 전만주와 조선을 연결하는 대우회선을 얻게 되고 북만주로 통하는 직통선을 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아무데나 다 보낼 수 있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일본의 영악한 두뇌들은 길회선이 완공되어 군대와 화물을 쯔루가-청진-회령-길림으로 수송하게 되면 노정도 줄일 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가 길회선철도건설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무려 26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부패무능한 청조말기의 관리들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땅에서 철도부설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중화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였으며 외자차입에 의한 철도부설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였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대신 돈도선건설을 강행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1928년 11월 1일로 예정된 길돈선철도개통식을 성대히 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력투쟁이 필요하였다. 이런 투쟁은 적들에게는 조중인민이 만주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종으로 될 것이며 광범한 대중에게는 일제의 만주침공을 반대하는 항쟁의 신호로 될 것이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1928년 10월상순 북산공원의 약왕묘지하실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투쟁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공조직도 하였다.

시위에 들고나갈 플랭카드와 성토문,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플랭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어있는 학생자치회와 유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비합법적 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었다.

그때 선전대에 있은 한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영애는 유길학우회 성원으로 있을 때 연예공연과 독서발표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공청원으로 성장한 길림여자중학교 학생이었다. 온순하고 말수더구가 적어 보통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다.

하지만 한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천한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예공연때에는 남들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역을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독서회

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페이지나 되는 책을 자발적으로 등사하여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영애는 시위투쟁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허청간에 등사기를 옮겨다놓고 몇 명의 소년회원들과 함께 격문과 삐라를 수만매나 찍어냈다. 가두에서는 수백 명의 청중들을앞에 놓고 조선말과 중국말로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여성웅변가로 유명해졌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서 중국의 청년학생들한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길림에서 일찌부터 공산주의운동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던 그때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였으며 길림시내에 공청원이 얼마 없을 때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사업을 하면서 중국계통으로도 공청사업을 하였다. 공청조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역할을 하다나니 많은 중국청년들이 우리를 따랐다. 길림사범학교 공청소조책임자였던 조아범이나 돈화지구에서 공청사업을 맡아하던 진한장도 우리와의 연계밑에 공청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시위준비를 다그치던 우리는 철도당국자들이 1928년 11월 1일 길돈선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시위시작날자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며칠 앞당기었다. 그것은 길회선철도부설반대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키자는 것이었다.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 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고 격문을 붙이었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삽시간에 수천 명의 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된 플랭카드와 ≪타도 일제≫, ≪타도 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플랭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개문밖에 있는 성의회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열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군경들과 맞다든 대열은 구호만 웨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열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었다.

대열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겯고 군경들의 총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성의회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 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영사관이 자리잡고 있은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영사관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었다. 일본영사관앞에서 반일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돈선철도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장사꾼들은 상점을 버리고 자기들의 영사관으로 도망쳐들어갔다. 남만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양병원의 유리창도 박살났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개 조로 나뉘여 시내 십여 개소에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전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우리의 투쟁에 호응하여 타도제국주의와 6대철도반대 구호를 들고 치열한 투쟁을 벌이었다. 그들은 길장철도국장의 집도 습격하였다.

하얼빈과 천진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사적인 연대투쟁을 벌이었다.

연길지방 조선동포들도 떨쳐나섰다. 국내의 신문들도 우리의 투쟁을 연일 보도하였다.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상품배척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중은 일본인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었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투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탄압해나서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입장에만 서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 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吉敦線延長其他
吉林排日險惡化
天津排日逐日深刻

당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보도한 출판물자료

투쟁은 무려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이었으나 길림독군서의 회유무마책으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해나선 것이였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학생들이 자기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도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었다. 실천투쟁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927년 2월 길림의 교포사회는 전례없는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선생이 베이징을 거쳐 길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길림의 교포들은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였다. 우리도 ≪거국가≫를 부르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어 ≪나 간다고 설워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거국가≫는 ≪한일합병≫후 청년학생들속에서 특별히 애창되였다. 망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한때는 ≪망명자의 노래≫라고도 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거국가≫를 사랑하듯이 ≪거국가≫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 것이 아니였다. 임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안창호 개인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

안창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은 이등박문이 한때 그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도산(안창호의 호)내각을 세워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평안남도의 강서땅이 지금은 천리마의 발원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낳은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왜정시대에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안창호가 강서태생이였기때문에 서선지방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이라고 자랑하였다.

안창호는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 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학우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들도 조직하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과 같은 교육문화기관들도 설립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 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창호

독립운동의 원로들속에 남강 이승훈이라는 이름난 교육자가 있다. 이승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교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승훈은 후대교육에 바친 공적으로 하여 융희황제의 접견까지 받은 인물이다. 400년동안 서선지방의 평민들 중에서 황제를 알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왕을 만나보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명하고 인망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승훈도 한때는 돈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뱅이가 되어 유기장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5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고향에 돌아와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치는 안창호의 웅변술이 대무역상의 인생관에 새로운 돛을 달아준 것이다.

이것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안창호의 영향력과 감화력을 증시해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국의 신문들은 안창호의 길림도착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청년학생들은 그가 머무르고 있은 삼풍여관에 찾아가서 길림의 교포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그의 숙소에 연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달라고 초청하였다.

안창호는 그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였다.

독립운동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무날 어디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리고 상부가,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항가를 비롯한 시내 여러 거리들에 광고도 큼직큼직하게 써붙이였다.

그 광고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모두 들뜨고 흥분되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도산선생이 오셨다지요?≫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이승훈

강연전날밤에는 나도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역의 하늘밑에서 장장 17년만에 대성학교시절의 은사를 만난 송암 오동진의 감회는 참으로 유다르고 절절한 것이였다. 오동진은 대성학교 사범과에 입학할 때 안창호가 인물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 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주었는가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나중에는 도산선생이 지은 청년학도가까지 부르며 그가 후대들의 독립정신을 계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안창호의 웅변술을 두고 실감있는 회억을 많이 하

였다.

안창호의 웅변술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였다. 나는 만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웅변으로부터 시작되였고 웅변을 떠나서는 그의 명성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여염집아낙네들까지도 그 유창한 웅변술과 이상향론에 교화되여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가? 안창호와 같은 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여기 길림에 노상 와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 번째로 안창호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이것은 그날밤 오동진이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조양문밖에 있는 대동공창에서 의사 나석주의 추도회를 열고 겸하여 강연도 하였다.

추도회에 참가하려고 모여온 3부의 대표들과 시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 유지들, 청년학생들은 거의 다 강연회장에 모이였다. 바닥자리는 다 차고 모자라 대부분의 청중은 바람벽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날 안창호는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유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역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안창호는 강연에서 ≪민족인격완성론≫과 이상향론을 풀어나갔다. 그의 ≪민족인격완성론≫은 ≪자아인격혁신론≫과 ≪민족경제확립운동론≫의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자아인격혁신론≫이란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왜놈들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인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주장에는 어딘가 ≪자아완성론≫에서 표현된 똘스또이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본 간디의 견해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징조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였다. 극도로 파쑈화된 제국주의가 대두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총칼과 올가미로 참혹하게 교살하고 있었다.


오산학교

소부르조아지식인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위력앞에서 전율하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신적도피처가 바로 무저항주의였다. 무저항주의는 혁명적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마지막안식처였다. 반혁명에 맞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저항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저항주의가 개량주의로 표현되었다.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3.1인민봉기

후 적극적인 항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으로부터 이탈하여 교육진흥운동과 민족산업진흥운동을 민족운동의 최대의 기치로 삼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 자질과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실력양성운동을 맹렬하게 벌이였다. 민족운동의 중심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근대지식인들은 토산품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 파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장려운동을 벌이였다.





물산장려운동 계몽행렬과 포스터

이 운동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토산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저고지와 조선식두루마기를 입고 지냈다. 그는 명함장도 국산한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것을 신지 않고 조선것을 신고 다니었다.

민족개량주의를 유포시키는데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논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광수가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처럼 여기고 있은 점이었다. 나는 우리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위정신은 일찍이 아세아만방에 맹위를 떨치었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 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마치 조선사람들이 ≪열악한 민족성≫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 것은 낙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무능 때문이었다.

조선민족이 ≪열등≫하다고 개탄하는 이광수의 논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논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입만 벌이면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개조론≫을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에게 보내는 이광수의 공개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코앞에서 뻐젓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연애소설들을 써내고 있었다.

소설가로서의 이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나라 현대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으로 하여 이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엿보이던 개량주의적 요소가 완전한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논문에 등장한 것이다.

민족운동을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유도한 근대지식인들은 심지어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사람이 주관하는 민립대학까지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독립인재양성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민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민립대학기성회 창립사진

비폭력적인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일제의 저항에 부딪히었다. 조선사람이 일본이 내려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제만 사용하는데 대하여 총독부가 눈을 감아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일화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동으로 부고 독을 품고 방해하였다.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은 이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민족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산업의 발달을 용허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초보의 초보에 속하는 상식인데 기업을 창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실력양성으로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개량주의운동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사진은 일제의 식민지아성 ≪조선총독부≫

개량주의길로 타락한 민족운동자들은 제국주의속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들이 무력항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문화운동으로 이행한 것은 투쟁방법상에서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였다.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속에서는 어차피 변질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지로 개량주의자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날 민족운동대열에서 도피하든가, 전향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

자강론의 변형인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준비론이라고도 함)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의거하고 있던 이론적 지탱점이였다.


안창호와 흥사단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 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만큼 때벗이를 해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강연장의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의 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은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물론 그의 강연내용은 일구일언이 다 애국의 정신으로 관통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의욕을 거세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주장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는 나도 동감이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 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 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실력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야지 그 자체가 혁명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 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열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겠는가.

나는 강연을 듣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였다.

–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 연사가 말하는 열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질문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었다. 반발심에 못이겨 단호하게 서면질문을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막상 사회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질문 때문에 강연 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호를 숭배하고 있은 독립운동자들과 수백 명의 청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생기였다. 안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진도 서면질문의 장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안창호에게 서면질문을 들이댄 것은 그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잠간만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사상을 그 이상 더 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존경받는 안창호에게서 그가 청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침이나 방략을 듣고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번지였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동안 내려다보고나서 사회자에게 무엇인가 몇 마디 물었다. 후날 손정도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창호는 사회자에게 질문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빠져버리었다. 안창호는 조금전까지 일사천리로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연사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좀 자극이나 받으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안창호자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쪽으로 밀려나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독군서에서 수백 명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강연회장에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현묵관, 김리대, 이관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었다.

이 대검거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구니도모였다. 안창호의 길림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에 나타난 구니도모는 중국헌병사


百餘名이 講演會場包圍
百餘名을 各處住宅搜索
安昌浩氏外二百名同胞를檢擧
婦女兒童一時監禁
○○會主催講演會席上

도산 안창호의 강연회 참가자 체포사건을 소개한 동아일보

령관 양우정에게 수백 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모였으니 이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양우정의 명령에 따라 길림독군서의 경찰들과 헌병들은 구니도모의 조종밑에 조선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대동공창에 달려들어 유례없는 대검거작전을 벌이었다.

우리는 안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선사람들을 붙들어간데 대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를 수 없었다. 더구나 서면질문끝에 강연이 중단되고 강연이 중단되는 동시에 안창호가 체포되어가니 나로서는 이런 연쇄반응의 책임이 마치 서면질문에라도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 괴로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안창호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장작림군벌은 ≪미쯔야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만주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질적인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인애국자들을 체포하는 졸개들에게는 상금까지 주었다. 중국의 일부 반동관헌들은 상금을 타먹으려고 허위밀고까지 하였다.

대동공창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검거소동도 역시 장작림군벌이 일제의 사촉을 받아서 감행한 반동적인 폭압행위였다.

우리는 즉시에 ≪ㅌ · ㄷ≫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결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하여 길림독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선생은 물론, 체포된 사람들을 다 빼내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중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제일 위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자네네가 무슨 재간으로 그 무지막지한 독군서놈들을 굴복시키겠는가, 군중이 나서서 떠드는 것보다는 돈이나 뇌물이 더 맥을 추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대중의 힘을 잘 믿지 않는 타성이 그때에도 나타났다.

나는 돈으로 통하지 않는 것도 군중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을 꾸준하게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손정도가 운영하는 길림예배당에서 시내의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유지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군중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독군서가 왜놈들과 한 짝이 되어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동포들을 무리로 붙잡아갔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그들이 이제 몇 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체포해간 사람들을 일본경찰에 모조리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왜놈들 손에 넘어가는 날이면 무자비한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석방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도 하였다.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은 청년학생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 이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 것은 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깨우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안창호

안창호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경찰이 근거없이 조선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놓고 박해한다.≫,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우리는 중국의 각 신문사들에도 글을 써보내여 사회여론을 환기시켰다. 길림시내의 청소년들과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웨쳤다. 어떤 날에는 독군서앞에서 시위도 벌이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동군벌이 체포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일제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독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20여 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였다. 긴장된 투쟁끝에 얻어진 안창호의 석방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창호를 만나려고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가 질문에 담겨진 우리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감옥에서 나오자 바람으로 총총히 길림땅을 떠나가버렸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상해에 돌아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길림을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당해낸 그 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안창호가 길림을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백두산쪽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안창호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최후를 마쳤다.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쳐온 안창호가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찍이 떠나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스럽게 맺어졌던 안창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 것은 아니였다. 안창호는 갔지만 그의 여동생 안신호가 해방 후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였다.

해방 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통하여 안창호의 누이동생이 남포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남포지구에서는 김경석동무가 파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신호를 찾을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며칠 후 남포에서 안신호를 찾았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김경석동무에게 전화로 그 여자의 경향이 어떤가고 물으니 그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여자인데 독실한 신자 같다고만 대답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나는 안신호가 이름난 애국열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애국심만은 있을 것이니 당적 영향을 주면서 잘 이끌어보라고 김경석동무에게 말하였다.

김경석동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하였다. 신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보는 때여서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경원시하는 폐단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몇 달 후 김경석동무는 나에게 안신호가 입당하였다는 것과 그가 성경책속에 당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새 조선 건설에 헌신분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의 애국혼은 결코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파란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노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연석회의 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임시정부 거물의 누이동생을 중앙녀맹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안신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안창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은 또한 이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속에서 애국애족의 유대에 의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독립운동의 모든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예절이며 인사이기도 하였다.

7. 3부통합

1920년대는 총적으로 볼 때 반일애국역량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촉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전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독립의 기초가 반일역량의 통일단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3.1인민봉기의 영향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태어난 여러 개의 노동운동단체들은 1920년대 중기에 와서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합되었다. 반일애국세력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족주의진영에서도 진행되었다.

1927년에는 민족단일당조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진영과 민족주의진영의 공동전선기관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어 그 산하에 수만 명의 회원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반일애국역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전환된 만주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일합병≫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무수한 리합집산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여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관할구역에 금을 그어놓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 연계도 없이 중세기의 소공국들처럼 서로 등을 지고 할거하던 3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공세앞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에 처하여있었다. 훈춘사건과 홍경사건, 고마영사건을 비롯한 일본군의 연속되는 대학살작전과 ≪미쯔야협정≫으로 만주지방의 독립군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봉오골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부터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였고 일본군 한 명이 죽으면 조선사람 열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리살륙전으로 성장기에 있던 독립군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던 각 부의 지도자들은 눈앞에 조성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부가 태어난 초시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김좌진의 청산리전투지역

그 당시 3부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3부의 패권싸움은 이따금 가슴아픈 충돌과 유혈도 빚어냈다.

나는 1925년 여름에 이미 3부의 지도자들이 무송에 모여 아버지가 사회하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고 통합실현의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회의는 무송과 말리허, 양지촌 세 곳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흘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족단체연합촉진회였다.

민족단체연합촉진회에 망라된 인사들은 민족단일당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파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연계밑에 재만조선동포의 자치문제와 혁명전선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왕바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사건도 생기였다.

그 당시 김동삼, 최동오, 현묵관, 심룡준, 임병무, 김돈, 이연, 송상하를 비롯한 3부의 지도자들은 신안둔에 모여 통합회의를 하고 있었다. 신안둔은 길장철도에서 서남쪽으로 30리쯤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은 동네인데 길림, 홍경, 화전과 더불어 만주에서 몇 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신간회 회의장면

3부합작회의의 기밀을 내탐한 일본영사관경찰에서는 평민으로 가장한 다섯 명의 밀정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밀정들은 신안툰근처의 동향수구부락까지 와서 자라잡이를 하는척하면서 3부합작회의과정을 탐지하였다. 그러다가 마을청년들에게 정체가 탄로되어 모조리 처단되었다. 청년들은 밀정들을 한 끈에 묶어 송화강에 수장하였다.

길림주재 일본영사관경찰에서는 중국 경무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조선사람들이 일본량민을 살해하였다는 이유하에 사건현장과 신안툰에 대한 공동수사를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경무청에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오인화라는 사람에 의해 3부합작회의 대표들에게 통보되었다. 대표들은 일단 휴회를 선언하고 신안툰을 떠났다.

이것을 세칭 ≪왕바사건≫이라고 한다.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자라라는 뜻이다.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3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였다. 3부합작을 두려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책동이 첫 번째 난관이라면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단체 내부에 생긴 파벌들의 대립이었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열되어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어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김동삼, 이청천, 이종건을 비롯한 촉성회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였고 김좌진, 황학수를 우두머리로 한 군정파도 신민부와 결별하였다.

3부통합회의가 제일 자주 소집된 곳은 길림이었다.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3부통합회의가 해를 넘기며 열리고 있었다.

복흥태정미소가 육문중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였다.

그 정미소의 주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민족주의자로서 남의 쌀을 찧어주고 도정료를 받아서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기업가였다.

어느 날 그 정미소에 들리니 내가 아는 영감들이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김좌진, 김동삼, 심룡준을 비롯한 3부통합회의 대표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었다. 그렇게 소개해놓고는 농담삼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하고 꼭지를 달아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들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이고 저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인데 사상이 다를 리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네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선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들인데 남들이 다하는 공산주의를 왜 조선청년들이라고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새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낡은 것에만 매여달린다면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고 또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하고 들이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영감들은 ≪자네가 아무 것을 하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네. 설마하니 자네들이 우리야 타도하겠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을 타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점잖게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후에도 몇 번 있었다.

가며오며 이따금씩 들려봐도 3부가 통합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짜증이 날 지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 있었다.

나는 3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라는 것이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길림성밖 조양문근처에 삼풍잔이라는 간판을 단 여관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다. 3부통합회의가 휴회로 들어갈 때마다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이 여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그 여관 가까이에는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이용하고 있던 손정도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면 이 삼풍잔에 모인 독립군상층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들이 정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장기판이 늘 놓여있었다. 독립군들이 심심해한다고 여관주인이 특별히 만들어온 장기판이였다.

독립군영감들은 그 방에서 진종일 입씨름을 하든가 장훈이야 멍훈이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삼풍여관 주인들은 독립군거두들을 섬기느라고 뽕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들을 치를 때는 태풍합정미소에서 찧어내는 쌀가운데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이군 하였으며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 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았다.

독립군지휘관들은 매일 장기놀이로 밤을 밝히면서도 주인들한테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꼭꼭 대접받군 하였다.

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짜라는 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담배심부름, 술심부름을 하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한번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다가는 석 달도 못가서 거지가 되겠어요.≫라고 하였더니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분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니.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게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라.≫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지휘관들은 싸우러 떠나기는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면 장부책 같은 것을 펴놓고 무슨 일을 하는 척하였다. 젊은이들한테 건달군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눈치놀

음을 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그들이 주먹이나 목침으로 책상을 꽝꽝 내리치며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상욕들을 퍼붓기도 하였다. 3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파가 실권을 쥐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문제였다. 그들은 자기 파가 활동연한도 더 오래고 업적도 더 크다거니, 자기 파가 관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중도 더 많다느니 하면서 제가끔 자기 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리었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새껏 주정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낮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군 하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태풍합정미소에 갔다가 거기서 상해임시정부 재정부장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였다.


길림시
상의가에 있는
복흥태정미소

그는 자기네 동료 몇 사람을 데리고 길림에 와서 몇 달째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청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진보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리도 그를 만나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속에 있는 소리를 꺼리낌없이 터놓군 하였다.

그날 우리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해임시정부를 좀 비판하였다. 당신네들은 나라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백성이야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서까지 제가끔 한자리 해먹겠다고 싸움질만 하며 돌아가는데 그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사하는 집 몇 집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데 그런 권력다툼은 해서 뭘하겠는가고 우리 청년들 몇이 둘러앉아 막 공격을 들이댔다.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쩔쩔매다가 자기를 모욕한다고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그래, 옳다. 너희들만 잘나고 우리는 못났다. 그럴 바에는 나나 너희들이나 다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자.≫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옷을 와락와락 벗어내치었다. 벌거벗고 거리바닥에 나가 뛰어다니면서 조선사람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였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으니 그 대신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으로 앙갚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다. 간판은 임시정부부장인데 소행을 보면 무뢰한이고 망나니였다. 그가 정미소담장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재정부장의 망신이자 우리의 망신이고 조선사람의 망신이였다. 그래서 그를 겨우 진정시켜 옷을 주어입혔다.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하였다. 자기네를 비판하였다고 알몸뚱이바람으로 거리바닥에 뛰어나가려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배꼽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상해임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는 상해임시정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쟁을 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고 구걸외교에 매달린다고 곱지 않게 보았으며 군자금을 탕진하며 무위도식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다. 임시정부는 인두세와 구국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는 어느 도의 관찰사, 아무개는 어느 군의 군수, 아무개는 어느 면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 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관매직까지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파별싸움을 계속하고 있은 사이에 일제는 그들속에 주구들을 박아넣어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붙잡아갔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였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종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여 장춘부근 흥륭산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 싶이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 후 오동진의 부인은 고민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하고 병구완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3부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앉아 술추렴이나 하면서 세력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오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붙들어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3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울타리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달리기훈련을 하는 것이였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눈앞에 박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을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못해 우리는 오동진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름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앉아 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사람모두가 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3부의 지도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과 안타까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싸움에만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 있은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은 ≪3인1당≫이다.

준비가 다 된 후 내가 가서 3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풀실겸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손정도네 예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신민부 한족총연합회 본부건물

처음에는 그 영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서 ≪나쁜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버리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였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영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저녁 우리를 뭐라고 욕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 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였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임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앉아 딴꿈을 꾸었다.

민족주의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 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역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3인1당≫

8. 차광수가 찾은 길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면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군한다. 그 얼굴들의 전렬에는 항상 차광수가 서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봄이였다.

나에게 차광수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최창걸이다. 최창걸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다음 정의부본거지의 하나였던 유하현의 삼원포에서 독립군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연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며칠후 내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한 안경쟁이청년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걸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다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다.

얼마후 최창걸이 약속대로 길림에 왔다. 길림에는 정의부의 지도부가 있었고 그들을 호위하는 중앙호위대가 신개문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었다. 최창걸은 자기네 중대에서 중앙호위대에 연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최창걸에게 차광수와의 담화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실토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는 말도 하였다.

최창걸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진국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최창걸이 속해있는 독립군중대장한테 류수하자학교에 공산주의선전을 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였다.

중대장은 그를 당장 체포해오라고 하였다.

최창걸은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는 독립군한테 차광수가 혹시 행패라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대원들에게 단단히 과업을 주어 보냈다.

최창걸의 과업을 받은 독립군대원들은 차광수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저녁상이 몹시 초라했던 모양이다. 강조밥 한 숟가락을

물에 마니 죽은 좀벌레와 쌀껍데기가 둥둥 떠올랐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는데 습관된 독립군대원들은 이것도 밥인가, 독립군을 대하는 본때가 덜돼먹었다고 을렀다뗐다.

그때 차광수가 집주인을 두둔해나섰다.

≪이 집 주인들은 며칠째 낟알구경도 못하고 푸성귀로 끼니를 에우고 있소. 독립군어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하느라 지주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 밥을 지었단 말이요.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인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소.≫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치던 독립군대원들도 차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이치에 맞는 말이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독립군도 몰라본다고 우둘렁거리던 그들이 나중에는 차광수의 인품에 끌리며 체포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서 중대장에게 차광수란 사람은 공산당은 아니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보고하였다.

최창걸자신도 차광수를 만나보았는데 과연 사귈만하더라는 것이였다. 원래 최창걸은 자기가 일단 좋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지극하였다.

나는 최창걸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차광수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최창걸이 돌아간 다음 한 주일쯤 있다가 불쑥 차광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길림바람을 좀 쐬였노라고 하면서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장개석이 중국공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어있었다. 그래서 차광수도 만나자 바람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장개석의 변절로 중국혁명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장개석이 배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중국혁명이 눈부신 앙양기에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은 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통치를 전복하는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타도, 군벌타도, 봉건세력숙청이라는 구호밑에 1926년 여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명군은 호남, 호북, 강서, 복건 등 여러 성들을 장악하고 양자강유역의 주요도시들을 연이어 점령하면서 일제의 조종밑에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던 장작림반동군벌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노동계급은 세 차례에 걸치는 영웅적 봉기로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무한과 구강의 인민들은 북벌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어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계지를 탈환하였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북벌군의 진공에 호응하였고 농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대중적으로 북벌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런 때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혁명을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혁명의 지도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음모적인 방법으로 국민당지도부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열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막후교섭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장개석이 이런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앞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광동혁명근거지가 공고화되고 북벌혁명이 일정에 오르자 장개석은 곧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시스트적인 테러전에로 이행하였다. 그는 1926

년 3월에 중산함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 1군에서 주은래를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을 몰아냈고 1927년 3월에는 손중산의 3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당 남창시당부와 구강시당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중경에서 군중대회장을 습격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 혁명군중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피비린내나는 대도살은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혁명은 일시적인 퇴조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중국혁명의 이러한 실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차광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ㅌ·ㄷ≫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입장이었다.

그날 나는 차광수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 있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맨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 있던 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역사무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을 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 것은 역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였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 도구로서의 부르조아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하게되면 혁명실천상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부르조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이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침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 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견지해온 견해이고 입장이다.

나는 차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조아민족주의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광수는 말을 다 듣고나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성주≫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론이 월등해서 그를 납득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공리공담이 아니라 혁명실천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이 차광수한테 공명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질문을 하며 듣기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속을 터놓고 사귀어보니 차광수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나이는 나보다 일곱 살이나 우였는데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했지만 마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년들을 많이 끌었으며 맑스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면 서로 더 잘 안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화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수한테 맞다들기만 하면 쩔쩔매군 하였다. 김찬은 맑스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차광수한테 견디지 못하였다. 김찬을 공산당거물이라고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생각하던 차광수가 그를 몇 번 만나보고 난 다음부터는 중학생다루듯 하였다. 차광수와 서상파인물 신일용을 논쟁시켜본 일이 있는데 그도 차광수한테는 어쩌지 못하였다.

차광수의 특징은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다니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목에 종처가 나서 고개를 삐뚜름하고 다닌 것이 버릇이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차광수는 평안북도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동네사람들한테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그는 10대의



혁명영화 ≪조선의 별≫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였다. 그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읽고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차광수가 새 사조를 섭취하며 힘겨운 고학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이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창건된 지 얼마 안되는 일본공산당은 1923년 6월에 있은 당지도핵심들에 대한 1차검거와 간또대지진시기의 백색테러로 하여 몹시 약화되었으며 그 후 지도부에 잠입한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운동이 퇴조기를 걷고 있은 일본땅에 앉아 무슨 운동을 모색하며 맑스의 책이나 뒤적거린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차광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같은 맑스-레닌주의를 한다면서 무슨 파가 그리 많고 무슨 갈래가 그리도 복잡한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차광수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고 자기가 갈길을 찾기 위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역사와 그 계보, 파벌관계를 품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궁을 헤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3인1당, 5인1파 식으로 파와 갈래는 수두룩하였다. 각파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있었지만 실제상 사상적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종파분자들의 책동가운데서 제일 너절하게 생각한 것은 낙양관사건이였다고 하였다. 낙양관사건이란 화요계, 북풍회계 인물들이 낙양관이라는 료리점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파의 결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서울파사람들이 회합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서울파의 가해자를 걸어 일제의 재판기관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은지 며칠 안되어 북풍회파사람들이 서울파인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파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일제의 재판기관에 찾아가 북풍회파의 가해자를 걸어 형사소송을 하였다.

이런 파벌싸움이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저마끔씩 테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파와 대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험하게 타락할 수 있을가 하고 주야장탄하던 차광수는 생각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 만주는 쏘련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산당의 연줄도 잡을 수 있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 길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줄기의 희망때문이였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그는 정우회선언에 맞다들었다.

종파분자들은 정우회선언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분파투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중상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며 이론투쟁을 전

개하여 대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리켜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정우회선언의 주장대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덕을 볼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고등계형사들이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화요파는 서울파와 대립되어 파쟁을 하면서 자파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민중운동자대회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영도권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이 공산당간부들의 명단을 일제에게 송두리채 넘겨준 공개밀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일제는 공산당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검거선풍에 의하여 화요파의 인물들은 거의 다 감옥에 잡혀가고 말았다.

이 교훈을 망각하고 종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다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일본의 물정에 밝은 차광수는 정우회선언이 일본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기회주의사상조류인 ≪후꾸모도주의≫의 재판이라고 규탄하였다.

후꾸모도는 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이론투쟁≫을 통해 순수한 혁명의식을 가진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갈라낸 다음 순수한 요소들만 결합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의 주장은 분열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것으로서 일본노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었다.

차광수는 후꾸모도의 이론을 통채로 삼키다 못해 문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선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종파분자들의 범죄행위에 환멸을 느낀 그는 유하로 갔다. 시골훈장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국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차광수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투쟁노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고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 수 없을가? 분파와 헤게모니싸움이 없이 말이요!≫

차광수의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타향을 헤매던 끝에 그가 찾은 인생총화이며 교훈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새 세대들은 종파분자들처럼 분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였다.

차광수는 최창걸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맑스-레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중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러니 푸접좋고 털렁광창인 그를 나는 처음에 뚝바우로 알 수밖에 없었다.

차광수는 그 후 인차 우리의 ≪ㅌ·ㄷ≫성원이 되었다.

그 해 여름에 나는 차광수를 신안툰에 보냈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이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었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 중에서도 몇 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첫통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나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고 싶었다.

내가 신안툰마을에 내려가 사업하라고 하자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농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물었다. 남들은 서울이야, 동경이야, 상해야 하고 큰

도회지에서 돌아치며 운동을 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며 바람을 일구는데 손바닥만한 시골에 내려가서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낡은 운동방식을 반대하면서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차광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도시 같은데 틀고앉아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광복위업에 인민을 동원시킬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국제당 같은데나 들락날락해야 공산주의자의 명분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을 존중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위업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의 국제적으로 단합되어야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쇄를 부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한다면 국제당의 승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조국광복의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 있다. 시골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 우로 올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산대중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노동자,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

≪우로 올라갈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차광수는 이 말을 혼자소리로 심각하게 되뇌이고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요!≫하고 부르짖었다.

차광수의 출현으로 하여 ≪ㅌ·ㄷ≫의 핵심역량은 새롭게 보강되었다. 우리의 운동권에는 조선공산당 상층부의 거물들과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쟁쟁한 이론가가 등장한 셈이었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3년유여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신안툰, 강동, 교하, 고유수, 카륜, 오가자, 유하지방의 혁명화는 그의 이름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광수는 처음에 길림주변 조선인부락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길림을 축으로 하는 남만의 유하와 카륜,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중부만주의 조선인거주지들에서 김원우, 계영춘, 장울화, 박근원, 이종락, 박차석 등과 함께 청년들을 집결시키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마지막무렵에는 안도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


혁명영화 ≪조선의 별≫

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어느고장에 가나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졌다. 군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성미가 덜렁덜렁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말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차광수가 가르치던 사회과학과목의 교수는 삼광학교(고유수) 학생들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군하던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였다.

백신한의 추도식에서 한 그의 추도사가 아주 유명하였다.

차광수가 제일 자주 다닌 곳은 신안툰이였다. 그는 한동안 신안툰의 길흥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학감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이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 부녀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였으며 그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회 조직에 묶어세워 마을을 혁명화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신안툰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었다. 종파분자들이 이따금씩 가며오며 들려서는 ≪무산계급혁명론≫이요, 무슨 론이요 하고 허황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봉건유습이 강한 이 마을 노인들과 어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머리부터 흔들었다.

그런 고장이어서 차광수도 처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남의 집 웃방을 얻어 도배도 잘 해놓고 마실방을 꾸려놓은 다음 유식한 늙은이를 한 둬 사람 골라가지고 노인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광수가 꾸려놓은 방에 마을돌이를 오군 하였다. 그러면 차광수가 준비시킨 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다가 ≪지금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개변하려면 지주놈부터 없애야 해.≫하는 식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씩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늙은이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내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속에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마을을 흥성거리게 만들어놓았다. 마을사람들은 차광수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라면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사업에 발벗고나섰다.

나는 차광수가 신안툰에 자리잡은 다음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한테 찾아가군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교외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밭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군 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차광수의 사업경험도 듣고 그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 나는 차광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차광수를 통해 신안툰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던 어느날이었다. 차광수가 길림에 나타나 나를 북산공원으로 잡아끌었다. 공원의 나무그늘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허률이라는 주목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허률은 용정에 있는 동흥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사업에 관계했는데 법정대학에 다

니려고 얼마 전에 길림으로 왔다가 학비곤란으로 포기했다고 하였다.

차광수가 허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 때문이였다. 그가 하는 말이 허률을 길림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이라는 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광수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김찬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거물급이였다. 그는 1차공산당 때 선전부 책임자로 일하였고 2차공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놀았다. 그 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하였다. 김찬은 화요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그가 자기의 영향밑에 있는 청년을 길림에 파견한 것은 우리에게 눈독을 들이었기 때문이였다. 길림에서 우리가 공산주의기발을 들고 청년학생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자 그도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여 자기네 물을 먹여보려는 것이였다.

김찬자신도 길림에 와서 청년학생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그는 강연도 여러 번 하였다.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맑스주의대가≫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차광수와 함께 그가 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대동문밖 이금천의 집으로 갔는데 혁명실천에 해를 주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혁명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헐뜯었다. 지어 그는 조선혁명이 무산혁명이기 때문에 오직 노동자와 빈고농만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비프롤레타리아적 요소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당치 않은 주장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실천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변이며 그런 궤변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공산주의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차광수는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찬을 숭배해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도처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치었다.

그때 엠엘파의 안광천이라는 사람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길림에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의 ≪수령≫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그는 한때 엠엘계 공산당의 책임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길림에는 그를 ≪맑스주의대가≫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광천이 이름난 이론가라고 차광수가 말하기에 나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얻어들을 수 있을가 하여 두어 번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그도 김찬이처럼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들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인차 뒤집혀졌다. 안광천은 대중운동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으로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리공담쟁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였다.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얕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에 궐기하라고 부르짖는 것은 또 무엇때문인가

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부르지 않는다면 몇 사람 안되는 공산당지도부를 가지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것은 망상이라고 논박하였다.

안광천은 우리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된다는 듯한 태도로 그런걸 이해하려면 쓴맛단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가버리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은 그때 ≪조선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느니,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느니 하는 따위의 좌경기회주의이론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조선혁명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이 당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명에서 영도권을 민족부르조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는 우경기회주의적 이론도 들고나왔다.

종파분자들가운데는 조선과 같이 정치적 조건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상운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이 선차이고 혁명은 후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차광수는 신일용 같은 사람들과도 이론투쟁을 하였다.

많은 종파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예외없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조아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군들이었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었다.

이날 나는 차광수에게 김찬이 아무리 소문난 인물이라고 하여도 종파에 이골이 난 사람인 것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명성과 경력,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공산주의운동에 첫발을 들여놓은데 지나지 않는 우리가 김찬과 같은 거물과 등을 지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서 허률과 당장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허률이 종파에 때묻은 사람이라면 지체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잠시 길을 잘못든 사람이라면 교양하여 같이 손잡고나가야 했다. 우리는 허률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나는 차광수의 안내를 받아 허률이 있는 강동마을로 갔다. 길림에서 송화강다리를 건너 돈화쪽으로 얼마쯤 가면 용담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툰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었다.

허률을 만나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진지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종파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동무였다.

나는 차광수를 붙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편 나자신도 강동마을에 자주 가서 여러 모로 도와주었다.

허률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종파의 줄을 박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는 종파를 반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려대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강동마을에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할 수 있었으며 허률을 ≪ㅌ·ㄷ≫의 핵심성원으로, 후에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지도성원으로 키울 수 있었다.

9. 왕청문의 교훈

1929년 가을에 국민부는 홍경현 왕청문에서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를 남만청총대회라고 하였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3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 조건에 맞게 청년운동에서도 분산성을 퇴치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년단체의 통합대회소집을 발기하고 대회기간에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일조직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회를 통하여 청년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주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하였다.

우리는 동만청총과 남만청총과 같은 청년조직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였다. 그러나 대회를 국민부사람들에게만 맡겨둘수는 없었다. 남만청총과 동만청총에는 종파분자들의 영향까지 적지 않게 미쳐 그 내부가 복잡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청년운동이 더 분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나는 도착하자바람으로 현묵관을 찾아갔다.

현묵관은 국민부가 나온 후부터 길림에 있지 않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국민부본부가 성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 몫 단단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데 숙소를 정하지 말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청년운동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현묵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청을 사양하고 나와 외가켠으로 먼 친척이 되는 강홍락이네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대회준비성원들이 들락날락하는 현묵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강홍락은 민족주의좌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화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화흥중학교는 동만의 대성중학교처럼 독립군들이 민족주의사상교양을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교양을 해도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뿐이었다. 간판은 민족주의인데 내용은 공산주의였다.

강홍락의 처는 오신애라고 부르는 용모가 아름다운 현대풍의 여성이었다. 노래를 잘 불러 남만지방의 조직들에서는 이름대신 ≪꾀꼴새≫하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국민부는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조직대표들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회에 최봉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여러 명 들어갔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부터 그와 낯을 익히었다.

남만청총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봉은 그때 조선인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였다. 그가 화성의숙에 와서도 강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론수준도

있고 일욕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후 그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편으로 기울어졌다.

나도 준비위원으로 뽑히었다. 준비위원회성원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여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회결의안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밖의 다른 문건들도 우리의 의도대로 준비하였다.

나는 왕청문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청년대표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화흥중학교 마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청년조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들에게 영향도 주자는 것이였다. 미리 말을 해두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농락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조선청년운동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 단결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연설내용이 인차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모양이다. 나는 김리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도사리고 나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하를 떠날 때 차광수가 걱정한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였다.

≪ㅌ·ㄷ≫의 첫 성원중의 한 사람인 김리갑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후 왕청문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전경숙이란 약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혁명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전개력도 있고 담이 큰 사람이어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였다. ≪반공≫을 기발처럼 휘두르고 있은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김리갑은 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내가 화흥중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전경숙의 집에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가서 회포나 나누자고 하였다. 그가 나를 초청한 것은 국민부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다.

김리갑은 국민부사람들이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다 체포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더러 국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 정 곤란하면 그날밤중으로 왕청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묵관이 국민부간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성주도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 것만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국민부에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선전을 한다고 현묵관이 나를 문제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길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물론 현묵관도 얼마간 한 지붕아래서 같이 살았으니 이것을 짐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민부를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조선청년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박해의 이유로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한 경우 국민부의 간부들과 담판이라도 할 배짱이었다. 내가 강홍락의 집에 돌아오니 오신애가 어데 나갔다 들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었다. 국민부군대들이 최봉을 비롯한 몇 명의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벌써 체포해갔다는 것이었다. 오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 있은 대상들가운데 한 사람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왕청문에 온 첫날부터 남만청총대회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대회의 결의안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부의 상층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테러로써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국민부에서 청년사업을 책임진 고이허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차광수도 국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어듣고 몇 명의 반제청년동맹원들과 함께 강홍락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국민부의 습격대상인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이 우선 왕청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광수

그러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해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지금 남은 방법은 국민부의 테러분자들과 담판을 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이룩하자면 언제든지 한번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였다. 비록 분위기는 살벌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체포된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였다. 그것도 내가 가야 했다.

나는 동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수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고이허를 찾아갔다.

고이허는 국민부의 보수파가운데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람이었다. 민족주의진영에서는 ≪이론가≫로 소문난 인간이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고이허에게 최봉을 비롯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왜 체포하였는가고 직방 들이댔다. 고이허는 자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 중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앞뒤가 다른 고이허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다.

국민부는 청년운동을 통일한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청년들의 토론을 들어보기도전에 결의안초안을 보고 질겁하여 대표들을 체포했으니 이것은 너무 조급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대회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달라, 초안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자, 당신들이 대회주최자인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청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옳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 어떻게 마음놓고 새 사조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투사로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들이댔다.

고이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뿐 체포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당신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경들의 체포를 피해 쏘련으로 가려던 사람이니 공산주의가 어떤 사조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치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자신만 해도 그렇다, 나로 말하면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화성의숙에 다니었고 길림에 와서도 독립군지도자들의 집에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나도 민족주의운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

산주의운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새 사조를 신봉하는 것은 공산주의이념을 따르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리고는 고이허에게 새 사조를 따르는 청년들을 박해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을 제껴놓으면 남만청총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고이허는 코웃음을 치면서 국민부는 남만청총을 내던지면 내던졌지 공산당의 손에 넘겨줄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현에서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이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무어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습격한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이런 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고 빈정거렸다.


최창걸

우리도 1929년 여름에 엠엘파의 몇몇 인물들이 삼원포일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려고 국민당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반란을 기도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우리들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몽치단을 동원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을 습격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유하일대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최창걸이 지도하는 무장소조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게 된 것도 이 몽치단의 폭행 때문이었다.

나는 고이허에게 우리는 그런 종파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이라고 다시 설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우리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에도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은 추물들인데 그런 자들과 우리를 한 저울에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고이허는 나의 성의있는 설복을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당신들이 끝끝내 청년들의 기세를 꺾으려든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비록 몇 명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대중의 사상은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좋다. 당신네가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만큼 말했으면 좀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고한 대결자세를 취하면서 그날밤 왕청문에 주둔하고 있은 독립군무력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우리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이었다.

나는 유혈을 막기 위하여 차광수를 급히 삼원포로 돌려보냈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유하현의 우리 동무들한테까지 손을 뻗칠 수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도 그 밤으로 왕청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국민부가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해놓고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있으니 대회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성토문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만천하에 고발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남만청총대회는 유산되고 말았다.

나도 왕청문에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동무들은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유하현 삼원포에 가서 성토문을 작성하여 만주각지에 보내고 우리끼리 대회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세력이 강한 삼원포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삼원포에 갈가, 능가라는 곳으로 갈가 하고 망설이던 끝에 능가에 가서 차후의 활동방향을 결정짓기로 하였다. 능가에서 숨을 좀 돌리고 길림에 들렸다가 거기도 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송으로 가서 국민부의 테러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날저녁으로 강흥락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자다가는 잡힐 것 같습니다. 능가에 가겠으니 노자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강홍락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쉬며 걱정하였다.

≪자네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뛰겠는가?≫

≪큰길로 냅다뛰어서 80리만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가에 가면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 있으니 얼마동안은 견디여낼 수 있다고 말했더니 강홍락부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듯 도중식사와 판대기엿 몇 개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안신영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란 신영근을 말한다. 신영근은 능가의 한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점심때가 다되어서야 능가에 도착하였다.

한흥학교 고등과의 녀학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를 다했다. 강동에서 반제청년동맹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한흥학교에 온 신영근의 애인 안신영이 동무들과 함께 녹두묵과 시원한 랭국을 만들어 푸짐하게 점심상을 차려주었다. 그 점심밥을 얼마나 달게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나는 식사를 한 다음 피곤을 무릅쓰고 한흥학교의 운영정형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었다. 밤새 80리를 걸어오느라고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신영근은 내 잠을 깨울가봐 상학종도 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한아이한아이 손짓으로 불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

나는 능가에 머물러있을 때 국민부사람들이 체포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끝끝내 처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자들은 최봉, 이태희, 지운산, 이몽렬, 이광선, 조희연 등 스물한두 살밖에 안되는 6명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왕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학살하였다.

최봉을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노력자대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 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다.≫는 말로 국민부의 죄행을 절규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혁명승리 만세!≫를 웨치였다.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그 후 학살당한 6명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붙잡아다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고이허는 나에게 자기들의 살인흉계를 알려준 오신애까지 끌어내다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는 능가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국민부지도부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을 썼다. 그 성토문을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삼원포에서 등사하여 발표하

게 하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도 보내여 성토대회를 열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대중의 전위투사들을 공산청년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민부란 반혁명분자 몇 개인의 영리장이며 살인음모소이며 중국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장개석의 졸도와 다름없는 역적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성토문을 낸 후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부사이에는 정면대립이 조성되었다.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우리 계열의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토벌≫하였다. 그자들의 손에 그때 끌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국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며칠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나라를 찾아보자고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는데 같은 민족한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우리는 ≪ㅌ·ㄷ≫를 결성한 첫날부터 항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해왔다. 안창호의 사상이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붙잡혔을 때에는 주저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3부통합회의가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역량의 단합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 성의를 외면하고 야수적인 살륙으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그때 능가에서 ≪조선사람은 비록 세 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하던 차천리노인의 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독립운동자들가운데도 단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대중은 모든 애국자들이 다 주의나 단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반일항쟁에 떨쳐나설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었다.

지금도 왕청문의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아나군 한다. 나는 그 비극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민족내부에서 그처럼 참혹하고 무의미한 살륙이 더는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군 한다. 고이허나 현묵관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인정적으로 그처럼 가까우면서도 이념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묵관은 그 후 장사에서 테러분자들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그자신도 테러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의 딸 현숙자가 해방 후 상해임시정부인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있을 것이다.

그가 낳은 자식들은 분열된 조국의 북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역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열되어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단합이 첫째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군 한다.

10. 철창속에서


길림감옥

≪길림바람≫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휩쓸게 되자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은 점차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년학생운동과 중동철도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으로 하여 우리에 대한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적들은 길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탐군들을 박아넣고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투옥하였다.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해졌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게 되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길림시내에 들어와 박혀있던 종파분자들은 용정, 반석, 돈화와 같은 곳으로 달아나고 독립운동자들은 국적을 중국국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관내로 들어가거나 왕청문과 같은 곳으로 피신해버리었다. 1929년 가을의 길림은 벌써 반일운동자들이 와글거리던 조선의 해외정치운동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이런 때 길림제5중학교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쓸 데 없이 떠들어댄 것이 실마리가 되어 우리 동무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방금 왕청문에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나도 반동군벌당국에 걸려들었다. 5중학교의 학생들이 육문중학교의 공청조직도 다 불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우리가 벌려온 투쟁내용과 길림시내에 거미줄처럼 늘여져있던 조직망을 들춰내고 그 배후세력을 알아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이 책을 읽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심문을 들이대는 형리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뻗대었다.

내가 손가락 비트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 어느 날 화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동오선생이 심문실 한쪽에 세워놓은 간막이뒤에서 나를 피뜩 내다보다가 사라졌다.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어서 처음에는 혹시 무슨 착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성의숙시절의 숙장 최동오선생이 틀림없었다. 적들이 화성의숙시절의 스승까지 심문실에 데려온 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지간히 깊이 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동오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중국말도 잘하고 외교사업에도 능하여 국민부의 외교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선생은 국민당반동군벌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주

로 길림에 있으면서 청년학생들과도 일정하게 연계를 가지였다.

만일 그가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동군벌당국에 노출시키는 날에는 사건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구나 중동철도사건 때 우리가 쏘련을 옹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도저히 무사할 수 없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과 조종하에 중국국민당정부와 봉계군벌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장개석정부는 광주인민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광주주재 쏘련영사를 총살하고 쏘련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반쏘는 제국주의열강들에게 아첨하여 그 보호와 지지를 받아보려는 장개석의 주패장이었다.

군벌들의 입에서는 ≪적색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자주 울려나왔다. 그들은 중국인민의 민족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반쏘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군벌들의 선전에 기만당한 대학생들과 청년인텔리들까지도 ≪우랄산을 점령하고 바이깔호를 차지하자!≫, ≪바이깔호에서 말물을 먹이자!≫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폭언을 마구 해대면서 쏘련땅을 넘겨다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군벌은 반쏘도발의 첫 순서로 중동철도를 공격하였다. 중쏘양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지하고 이사회라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이 철도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선전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쏘련측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었다. 중동철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곧 국경을 넘어 세 개 방향으로 쏘련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쏘련군대와 중국반동군벌군대사이에는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그때 풍용대학과 동북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 나섰다.

우리는 국민당정부와 반동군벌의 반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투쟁에 궐기시키고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옹호하여 나섰다.

각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우리를 중화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을 돕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우리는 시내 여러 곳에 군벌의 반쏘책동의 본질을 발가놓는 삐라도 뿌리고 중국사람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벌려 군벌군대가 중동철도를 탈취하고 쏘련을 침공한 것은 10월혁명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에 물심양면의 원조를 준 쏘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밑천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국민당반동들과 군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쏘련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전을 듣고나서는 반쏘련침공의 위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데로 태도와 입장을 바꾸었다.

우리는 중국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쏘련을 공격하겠다고 날치는 풍용대학 학생들에게도 된타격을 주었다.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이었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였다.

중동철도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군벌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조중인민은 중

동철도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었다.

당시 국민당군벌은 쏘련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최동오선생이 왔다간 다음에도 심문자들은 나를 여전히 독서회사건의 주모자로만 취급하였다. 군벌당국은 최동오선생을 데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쏘련과 연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본 것 같았다. 그러나 최동오선생이 나한테 해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후 길림감옥으로 넘어갔다. 길림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 옆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건물이였다.

내가 갇혀있던 감방은 북쪽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칸이였다. 북향이어서 일년 내내 해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하얗게 돋아 녹을줄 몰랐다. 우리가 감옥으로 이송되었 때는 가을이였는데 감방안이 겨울처럼 찼다.

군벌당국은 죄수들을 다루는데서 심한 민족적 차별을 두었다. 간수들은 ≪조선놈≫이니, ≪조선망국노≫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무거운 쇠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조선학생들의 발목에 채웠다.

군벌당국은 식사조건과 감옥안의 보잘 것 없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서도 중국인정치범들과 차별을 두었다.

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연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또한 군벌당국과 싸워 출옥날자를 앞당기리라고 결심하였다.

옥중에서 투쟁을 벌이자니 외부와 연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간수들을 교양하여 우리의 동정자로 만들어야 했다.

간수를 쟁취하려는 나의 의도는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때 감옥당국에서는 감방들을 수리하면서 얼마동안 우리들을 잡범들과 같이 있게 하였다. 감옥당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어느 날 나와 한 감방에서 생활하던 중국인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부자집을 털다가 잡혀들어온 사람이였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폭하였다.

내각 잡범들의 방에 옮겨간 날 ≪깡퉅≫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우리더러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으니 한턱 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다. 자기네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를 지키게 되어있으니 너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호통질을 하였다. 아주 감때사납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죄수에게 며칠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 것은 어데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생활을 오래 한 당신들이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오금을 박았다.


십자형감옥외경

말문이 막힌 ≪깡틀≫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나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횡을 부리던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감방사람들은 모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 손정도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간수를 불러 감옥병원에서 약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였다.

행동이 거칠고 붙임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시부터 아니꼽게 보아오던 이가성을 가진 이 간수는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살붙이처럼 돌봐주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우리의 성의있는 간호로 앓던 죄수는 인차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 후부터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생기였다.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괴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내앞에서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이간수는 자못 신기하게 생각하며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림감옥의 간수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은 사람이었다. 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은 이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과 그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간수가 된 사람이라고 통보해주었다. 나는 이모저모로 이간수를 요해하던 끝에 그를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예장감을 장만하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이간수가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을 발동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며칠 후 이간수가 나를 찾아와 예장감을 장만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감옥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고 물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하자 그는 모를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겠는가,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적≫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열을 내여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이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곧이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부터 이간수는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감방에 무슨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선히 들어주었다. 얼마 후부터는 그를 통하여 외부와의 연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감옥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와졌다.

그러나 모든 간수들이 다 이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 것은 아니었다. 간수들 중에는 문구멍으로 감방안을 엿보면서 수인들을 못살게 구는 뱀같은 간수장이 한 명 있었다.

길림감옥에 있는 감수장이 모두 세 명이었는데 그 간수장에 대한 평이 제일 나빴다. 그가 당번을 서는 시간에는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여주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그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그때

길림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붙잡혀 들어온 황수전이라는 중국학생이 이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독서회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 중 조선학생은 모두 2명뿐이였고 나머지는 중국학생들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워 적어도 다섯 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물었다. 황수전은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 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의 버릇을 뚝 떼주겠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는 참대저가락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다가 간수장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다. 간수장의 눈에서는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감방안에 갇힌 학생들은 그때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추어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황수전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워 한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학생들은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을러메면서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감옥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 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싶은 것을 다하였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었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나는 감옥생활을 할 때 손정도목사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다.

손정도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같은 학교(숭실중학교) 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키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손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손정도는 3.1운동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다. 한때는 상해에서 김구, 조상섭, 이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노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노동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노병회가 해체되고 임시정부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길림에 와서는 예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던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이었다. 원래 손목사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는 길림의 기독교신자들과 독립운동자들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신자들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었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연결되어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염원은 시종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도교와 불교계 신자들의 절대다수도 애국자들이었다.

손정도가 유길학우회 고문이었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종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분하고 애석

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라고 격려하군 하였다.

내가 길림에 와서 육문중학교에서 3년동안이나 공부할 수 있은 것은 손정도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였다.

손정도목사는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겨우 유지되어가는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러 번 보태주었다. 목사의 부인도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명절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해다가 조선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다.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고기를 넣은 두부지지개와 쫀드기떡이 참말로 별맛이였다. 쫀드기라는 풀은 잎에 보드라운 털이 난 것이였는데 냄새도 없고 독도 없었다. 손목사의 집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먹었다고 하였다. 그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드기로 만든 것이였다.

손정도에게는 아들 둘에 딸 셋이 있었다. 길림에서 우리의 운동에 관여한 것은 둘째 아들 손원태와 막내딸 손인실이였다.

손인실은 그때 황귀헌, 윤선호, 김병숙, 윤옥채 등과 함께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내가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나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주었다.

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 사람을 우리 감방에 던져넣고 갔다.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여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이였다. 1929년 봄에 군벌당국에 갑자기 체포되어 생사를 알길 없던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가 체포된 것은 종파분자들의 허위밀고 때문이였다. 강명근은 주중청총사건 때문에 종파분자들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

종파분자들은 여신청년회대표들이 지창자에서 열린 주중청총모임에서 탈퇴하여 자기들의 무모한 행동을 폭로하는 성토문을 낸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해하던 끝에 교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근네가 그 청년을 독살한 것처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다.

나는 애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강명근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뜻을 품고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벌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주었다.

강명근은 그 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말해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그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기간 깨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우리 당의 과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였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강명근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 기별이 강명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뇌출혈을 하였다.

그때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림시절을 두고 뜨거운 회포를 나누었을 것이다.

나는 감방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경험도 더듬어보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시



감옥복도

위투쟁도 해보고 파업투쟁도 해보고 의병투쟁도 해보았으며 독립군운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우리 나라 반일투쟁대열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의 대오는 상하일치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있었다. 왕조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기성질서의 개혁을 부르짖는 평민출신의병들사이에는 심각한 이념상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없게 하였다.

구제도의 복구를 절대이념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병장들은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움까지 하여 대오를 분열시켰다.

평민출신의 의병장들은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독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3부로 통합된 다음에도 파쟁은 계속되었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갈라져 권력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독립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쏘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타승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국이 조선독립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데 있었다. 민족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였기 때문에 튼튼한 지반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다.

인민들과 이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 약점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영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운동내에 발생한 종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종파분자들이란 민족주의계열의 부르조아지나 소부르조아인텔리들과 몰락한 봉건귀족, 양반출신 인텔리들로서 사회주의10월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은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맑스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의 조류속에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영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을 벌였다.

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대열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나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나는 감방에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여러 모로 생각해보았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계급적 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노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조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입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노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머리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니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나는 출옥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생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출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들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투쟁방법은 단식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섰다.

단식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잡범들까지 망라된 이번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매 감방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우리 동무들이 소리없이 교양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

감옥밖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의 출옥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옥중투쟁에 호응하여 길림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군벌당국은 굳게 단결된 우리의 투쟁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나는 1930년 5월초에 길림감옥을 나섰다. 궁륭식으로 된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가슴은 신념과 열정으로 차고넘치었다.

나는 감옥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감옥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렇게 길림감옥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였다.

불행한 망국노의 아들들이어서 아버지도 나도 감옥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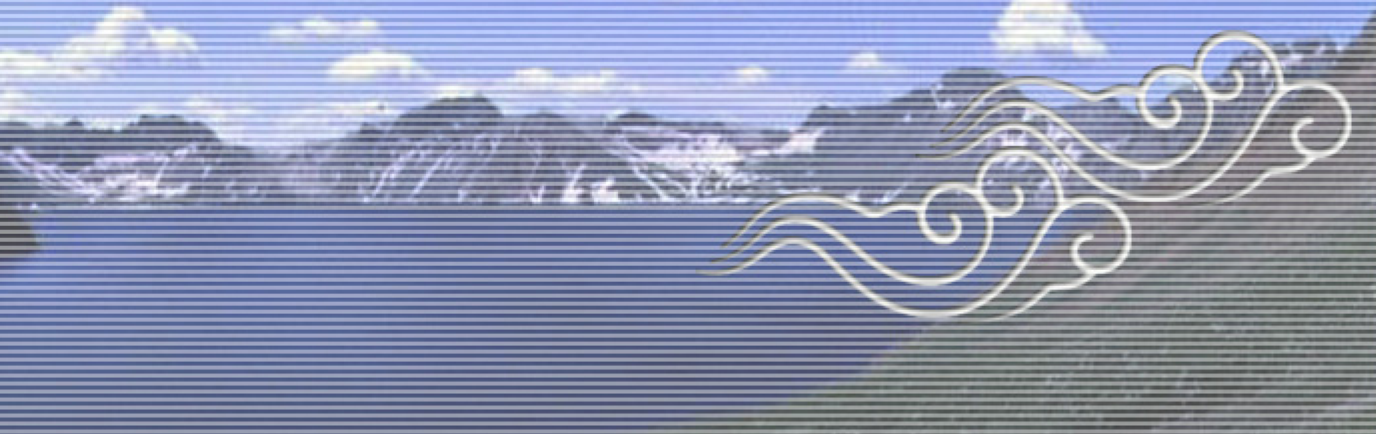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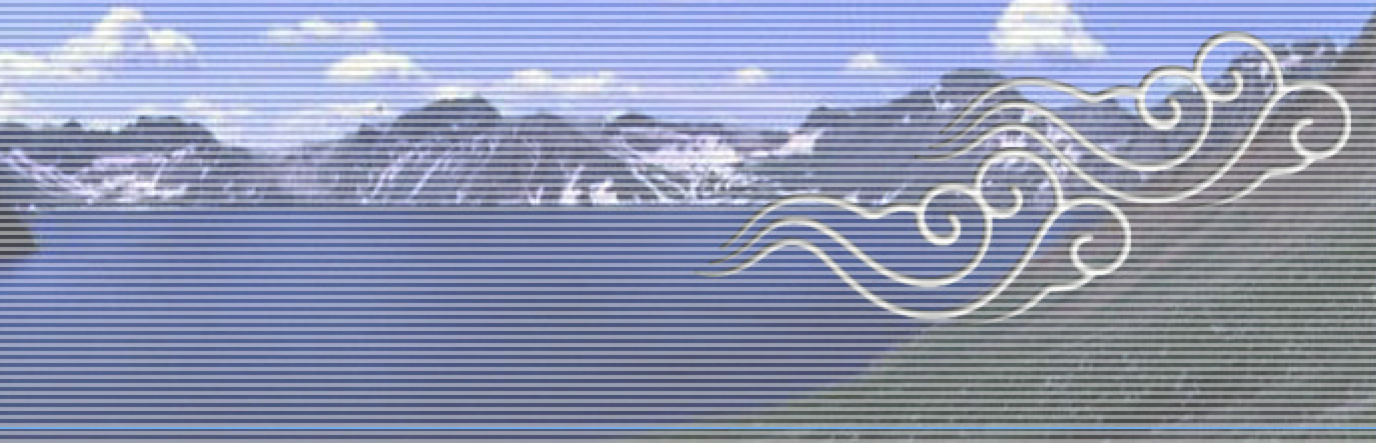
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5장 무장한 인민

6장 시련의 해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손정도목사
준엄한 봄
카륜회의
첫 당조직 – 건설동지사
조선혁명군
혁명시인 김혁
1930년 여름
두만강을 거너
≪이상촌≫을 혁명촌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 시기 : 1930. 5 ~ 1930. 12

1. 손정도목사


손정도목사

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반일독서회사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던 1929년의 가을처럼 길림의 거리에는 계엄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도로교차로점들과 관청건물의 주변에서는 독군서의 헌병들이 통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총대를 들고 이골목, 저골목에서 가택수색을 하는 군경들도 보이었다.

이립삼의 좌경노선 때문에 온 만주땅이 진통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그때 만주지방에서는 5.30폭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역사가들속에서 5.30폭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투쟁을 중국사람들은 ≪적색5월투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5.30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해에서의 5.30참살 5돐에 즈음하여 벌어진 투쟁이고 또 5월 30일에 그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지도권을 잡고 있던 이립삼은 1925년 5월에 있은 상해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3파가 파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폭동형식의 투쟁을 전개하여 쏘비에트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전당에 지시하였다.

이 노선이 내여오자 만주성위산하의 혁명조직들은 이립삼이 제창한 ≪한 개 성 또는 수 개 성의 우선적 승리≫라는 구호를 들고 군중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돌격식 집회를 소집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동만의 거리와 농촌들에는 폭동을 선동하는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5.30폭동의 시작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세는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그 파동이 벌써 길림에까지 미쳐오고 있었다.

감옥을 나와 내가 맨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마항에 있는 손정도목사의 집이였다. 일곱 달 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온 손정도일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군벌이 자네를 일본놈들에게 넘겨줄가봐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었네. 형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왔으니 천만다행일세.≫

≪목사님께서 후원을 잘 해주신 덕에 저는 감옥생활을 한결 헐하게 했습니다. 저때문에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셨다는데 그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

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그때 중국관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손정도목사에게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길림에서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손목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서글프게 웃었다.

≪장작림까지 맥을 추지 못하게 이제는 이 길림바닥에서 우리를 비호하고 후원해줄 힘도 바랄 수 없게 되었네. 장작상이 조선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군대가 쳐들어와도 야단이야. 3부가 통합되면 독립운동도 날개달린 용마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용마는커녕 집안싸움으로 평온할 날이 없으니 이 고장에 더 버티고 있을 생각이 나지 않네.≫

관내에는 그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과 의장직을 겸임할 때 가깝게 지내던 인사들도 있었고 흥사단 시절의 단우들도 있었다. 손정도가 관내로 들어가려고 결심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다시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보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고 생각된다.

손정도목사는 일제의 만주침공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주는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저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의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답을 하자 손목사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습니까.≫



길림 시가

≪일본이 세계 5대강국의 하나라는 걸 명심하라구. 의병이나 독립군도 일본의 신식무장앞에서는 맥을 못추고 주저앉았네. 하지만 이왕지사 결심을 했으면 판을 크게 벌려보게.≫

나는 내가 길림에 발을 붙인 초기보다 별로 어수선하고 썰렁해보이는 목사의 집 안풍경을 살펴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전에는 이 집에서 축음기 소리도 들리고 시국을 논하는 독립운동자들의 활기에 찬 목소리도 들리었다. 손목사를 찾아오는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소년회원들이 부르는 ≪바람아 불지 말아≫라는 구슬픈 노래가락도 들을 수 있었다.


신채호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었다. 목사의 주변에서 맴돌던 이 집의 단골손님들은 모두 유하로, 흥경으로, 베이징으로 종적을 감추고 ≪황성예터≫와 ≪방랑가≫를 애달프게 부르던 축음기도 입을 다물어 버리었다.

손정도목사 자신도 그 후 얼마동안은 베이징에 가 있었다. 베이징은 상해임시정부 초창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역사가이며 문장가이신 단재 신채호가 활동하던 고장이었다. 그 곳에는 신채호 외에도 손정도선생의 동지들이 많았다.

목사가 베이징에 갔을 때는 단재가 동방연맹과의 사업을 위해 대만에 상륙하다가 체포되어 여순감옥으로 끌려간 뒤였다. 신채호가 없는 베이징은 그지없이 고적하고 한산스러워 보이었다. 목사와 단재는 그처럼 큰 우정으로 튼튼히 얽혀져 있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한 일념으로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한동안 출판활동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 ≪혜조신문≫은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찍어낸 인기있는 신문이었다. 박소심이 ≪혜조신문≫에 논문을 종종 써보낸 것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던 신채호의 이름이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선상으로 보면 신채호는 무력항쟁의 제창자였다. 그는 이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을 다같이 현실성없는 위험한 노선이라고 보았으며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황에서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가 되어 폭력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일부 인사들이 이승만을 상해임시정부 수반으로 내세웠을 때 신채호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것도 평소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여순형무소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것은 그가 임시정부를 조각하는 자리에서 폭탄같이 내던진 유명한 말이다. 그는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서도 이승

만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이따금씩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채호는 성미가 면도날 같고 주장이 무쇠쪽 같은 사람이였다. 그가 이승만을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탄핵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신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였다. 단재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였다. 그래서 나는 신채호와 함께 임정을 결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런 발언을 참고해보면 손목사의 정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치론도 위임통치론도 다같이 망상이라고 단정한 사람이였다.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우리의 전민항쟁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혁신적 입장은 그로 하여금 이승만과 같은 사대주의자, 야심가가 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에서 각원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하였으며 결국은 임정과 결별하고 길림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용단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임시정부요인들

손목사는 길림에 온 후 일본경찰들이 ≪제3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혁신파 인물들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새 세대의 청년들과도 잘 어울리였으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주었다. 그가 교직을 차지하고 있는 대동문 밖의 예배당은 우리의 전용집회장소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예배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예선전대의 활동도 지도하였다. 손정도목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해결해주고 우리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부터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손정도목사도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었다. 내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장작상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 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목사였다.

손목사는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뿐 아니라 일가견을 가진 혁명가로 대해주었다.

그는 독립운동자들속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문제까지도 내앞에 서슴없이 털어놓고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손목사는 맏딸 손진실과 윤치창과의 혼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길림의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그 혼사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손목사 자신도 딸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였다고 못마땅해 하였다. 그는 딸이 윤치창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가문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윤치창은 친일파이며 매판자본가인 윤치호의 동생이였다. 목사가 딸을 설복하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독립군보수파들이 윤치창에게서 자금을 뽑아내려고 한 주일 동안 그를 억류하였다.

≪이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손정도목사는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어른들의 혼사에 간참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 같아서 얼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데 떼놓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향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준 다음 독립군보수파 인물들을 설복하여 윤치창을 놓아주도록 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베이징에 갔다가 그 다음해인가 길림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오인화, 고원암과 같은 혁신계 인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띠고 있는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길림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면 베이징방면의 독립운동상황도 낙관적이 못되었고 그의 건강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손정도목사의 집과 그의 딸

감옥에서 나와 손정도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얼굴이 축갔다고 염려해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얼굴에 배여있는 병색을 보고 걱정하였다. 그는 고질로 되고 있는 병이 도져 식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몸까지 병들고 보니 주야장탄일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도 나한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구만. 그놈의 유배살이덕을 단단히 보는 셈이지.≫

손정도목사의 말이었다. 목사가 1919년에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중 가쯔라 다로 암살음모의 혐의로 체포되어 진도에서 2년동안 유배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 때에 목사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은 것 같았다. 미신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군중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병마도 쉽게 침범하였다.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구에서 손정도목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손목사가 길림 동양병원에서 비명에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낭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로서는 목사가 병으로 급사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반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침상에 눕지 않고 독립운동의 장래를 논하던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초불처럼 그렇게 쉽사리 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하조직선을 통해 알아본 데 의하면 목사는 입원 첫날에 벌써 입으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교포사회에는 손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모살로 보는 첫 번째 논거는 입원 직전의 손목사의 병세가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정도의 위험계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병원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하나의 유력한 논거였다. 조선 사람들을 세균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족속들이니 모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포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가장 확실한 논거는 손정도목사가 이름난 애국지사라는데 있었다. 손목사는 일본경찰들이 한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던 요시찰인이었다. 가쯔라 다로의 암살혐의도 혐의지만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임정교통총장, 시사책진회 성원, 흥사단단원, 노병회 이사라는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경찰들로 하여금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인들이 손정도목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시해왔는가 하는 것은 목사가 급사한 직후 길림총영사가 자기네 외무대신에게 ≪불령선인 손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특별히 작성하여 발

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해석(바다의 돌)이라는 손정도목사의 호에 그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교직자의 간판을 가지고 한 생을 항일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양심적인 독립운동자였다. 손목사는 길림에 와서도 정의부의 혁신계인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응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전환과 애국역량의 단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가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유길학우회를 조직하던 그 무렵에는 만주농민호조사결성발기인이 되어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동생(손경도)의 명의로 액목현의 경박호일대에 50향의 땅을 사서 농업공사도 경영하였다.

안창호가 제창한 ≪이상촌≫의 일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박호반은 안창호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이었던 이상향건설의 후보지였다. 목사는 농업공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장례는 봉천회관에서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합방이전부터 수 십년의 풍상을 독립항쟁에 바쳐온 목사의 영전에는 일본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40명 남짓한 조객들만 모였다고 한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속에 에워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대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경찰이 입회하는 식장에서 눈물인들 제대로 흘리며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간도땅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손목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위해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야말로 은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길이며 인민의 손과 발에서 쇠고랑을 벗겨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나와 손정도목사의 유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세기가 다 가는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분단의 비극은 우리를 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과 파도사나운 대양으로 사정없이 갈라놓고 있다. 나는 평양에, 손인실은 서울에, 손원태는 오마하(미국)에 우리는 반세기 이상이나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여름 길림을 떠나실 때 오르셨던 북산공원

그러나 한 번도 손정도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차속에서도 풍화되거나 덞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련련히 이어져 왔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혈을 뿌리던 은인들과 열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역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 손원태가 우리 해외동포영접부의 초청으로 부인(이유신)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성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유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팔갑을 앞둔 백발노인이 되어 내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발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주석님!≫하고 부르며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은 눈물이였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 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 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 있은 문명시대에 십대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80이 다되어 만났다면 우리를 노년기에로 끊임없이 떠밀어온 그 시간의 누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

≪손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세였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노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손원태에게 물었다.

손원태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응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석님을 만나뵙고싶어 마음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시절에 **김**주석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석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였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시절에는 나도 손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손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 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체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농과 유모아를 연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던 제4성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그가 병리학의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노인이 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 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노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가.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리 바닥에서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사탕 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지에서 한알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루 뱉아서 팔군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군의 입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군 하였다.

손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석님께서 퍽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올시다.≫

손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보아주는 사람도 난생 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손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 것은 나의 장수를 축수하는 심정의 표현일 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 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 것이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꽝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였다. 손원태가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하다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손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손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였다.

그러나 ≪꽝즈궈즈≫나 ≪빙땅훌루≫가 먹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야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꽝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과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꽝즈궈즈≫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다.

내가 ≪꽝즈궈즈≫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손정도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이고 싶은 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히 댈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나는 손원태가 ≪꽝즈궈즈≫를 정말로 먹고 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꽝즈궈즈≫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이다.

≪≪꽝즈궈즈≫가 먹고 싶다면 다음 번에 해주겠소.≫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꽝즈궈즈≫를 해먹이고 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 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끼였다. 그가 나에게 언제 ≪꽝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 후 우리 요리사들이 만든 ≪꽝즈궈즈≫가 손원태부부에게 전달되였다. 조반 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덕분에 어린 시절에 즐겨먹던 ≪꽝즈궈즈≫를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었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노쇠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변질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었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시절에 부르던 ≪사향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일

손원태는 민족을 위해서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었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어든 애국청년이었다.

이것은 훗날 그를 나가사끼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었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경쟁의 풍토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손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시절을 회고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손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손정도의 모습이였고 손인실의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 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하였다.

그날 손목사는 나를 바래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신영

≪정세가 삼엄한 것만큼 길림에는 더 있지 말아주게. 이 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촌에 숨어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네.≫

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손목사의 조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9.18사변 후의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길림을 점령한 일본군경은 그때 나부터 찾았다. 그들은 길림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손정도목사를 비롯하여 고원암, 오인화, 황백하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에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0년 쯤 옥중생활을 더 하였을 것이다. 10년만 철창속에 더 갇혀 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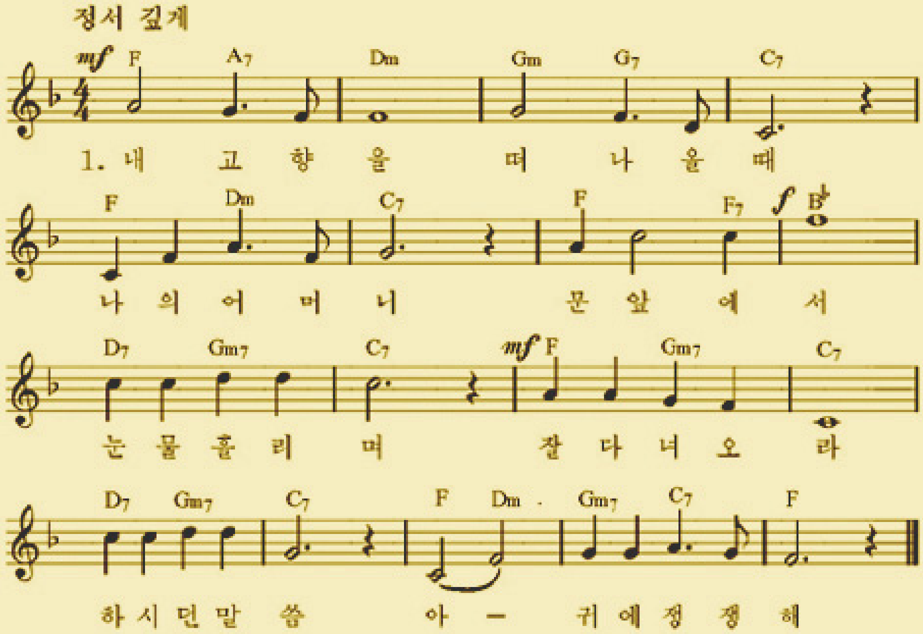
내가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길림시절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헤아리자면 실로 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최만영, 오상헌, 김기풍, 이기팔, 최일과 같은 전 세대의 운동자들도 있었고 최중연, 신영근, 안신영, 현숙자, 이동화, 최봉, 한주빈, 유진동, 최진은, 김학석, 우석윤, 김온순, 이덕영, 김창술, 최관실, 유수경

과 같은 동년배의 선각자들도 있었으며 이동선, 이경은, 윤선호, 황귀헌, 김병숙, 곽연봉, 전은심, 안병숙, 윤옥채, 박정원, 곽기세, 정행정과 같은 애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길림에 더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감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했던 바였다. 손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끼 대접받은 후 인차 신안툰으로 향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



2.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3.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 가리라

2. 준엄한 봄

나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차광수를 만났다. ≪덜렁광창≫의 눈은 도수높은 근시경밀에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환성을 질렀다.

차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손정도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 팔로 안아들고 몇 바퀴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는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 고독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참동안 길림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성주, 조선의 노동운동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소. 투쟁구호, 투쟁양상… 모든게 새롭고 생신하거든. 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투쟁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소?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혁명가의 이상은 고사하고 일신의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적의 공세에 위축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가면서 동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산주의자로서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리라는 광수동무의 견해에는 나도 동감이요. 그런데 그 기치란 무엇이겠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새 형의 당을 창건해야겠다는 것과 무장투쟁에로 이행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소. 무장투쟁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소. 조선인민이 벌이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동원되는 거족적인 항전으로 발전해야 하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차광수는 내 말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김혁, 박소심 동무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동감이라고 하였다. 무장을 잡지 않고서는 조선을 구원할 수 없고 새로운 노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성숙된 요구였다. 일제의 파쑈적인 강권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민족의 무권리와 빈궁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었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폭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았다. 경제투쟁일면으로 치우치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신흥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흥미있게 주시하였는데 그 파업도 종국적으로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백 여명의 노동자들은 파업단의 지도밑에 탄광감탄소와 사무소, 기계실, 발전실, 공장장사택을 습격파괴하고 탄광구내의 전선을 모조리 절단하였으며 탄광을 운영하던 일본사람들이 두 달이 걸려야 탄광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파업노동자들은 회사측에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폭동은 무장경관대의 개입으로 백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원산노동자총파업

이 폭동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위협을 무릅쓰고 신흥지구에 들어가 노동운동지도자들을 만나보았다.

조선노동계급의 투쟁은 조직력과 단결력, 지구성, 연대성의 측면에서도 종전의 운동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노동연합회에 망라된 2000여명의 노동자들,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령을 비롯한 국내의 로조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산에서 수 천리 떨어진 길림에서도 우리가 조직한 반일노동조합산하의 한성회성원들이 원산노동연합회에 동정금을 모아 보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산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노동운동사상에 조선노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 놓았다.

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총파업의 전과정을 심중하게 주시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역사에 특기할 만한 투쟁이며 그들의 투쟁경험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다같이 참고하고 따라배울만한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때 갱신된 노동연합회지도부가 취업지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나갔거나 전국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투쟁을 벌이었더라면 원산노동계급의 투쟁은 승리로 결속되었을 것이다.

나는 원산총파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조선에 노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하고 영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한시바삐 내와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였


元山勞聯委員長
金瓊植氏又收監
數日內形勢急轉

조선일보에 실린 원산노동연합위원장의 수감 기사


원산노동자총파업

으며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도 그 배경밑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폭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적 폭력이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의 반혁명적 폭력을 타승할 수 있는 가장 승산있는 투쟁수단이었다. 적이 총칼로 휘두르는 조건에서 조선 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교육, 문화, 경제의 진흥을 통한 순수한 ≪실력양성운동≫이나 노동대중의 쟁의나 외교공작의 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었다. 원산총파업과 신흥탄광 탄부들의 폭동을 통하여 조선의 노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할 바 없이 두터워졌으며 그 과정에 나는 우리 나라 노동계급이 훌륭한 노동계급이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었다.

문제는 노선이고 지도였다. 시대의 추이에 맞는 옳은 노선이 있고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기였다. 파괴된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에 하루속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이러는 사이에 흩어졌던 동무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나한테 모여들었다.

나는 길림지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반일노동조합, 농민동맹 핵심들과 마주앉아 적들의 백색테러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군중을 묶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차광수를 흥분시켰던 무장이라는 한 마디의 말은 여기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에서 공청사업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신속히 혁명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과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나도 신안툰에서 하루밤 자고 인차 돈화를 향해 떠났다.

내가 돈화를 공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연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줄만한 친지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얼마동안 머무르면서 폭동이 세차게 번져가고 있는 동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해주고 옥중에서 무르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세울 작정이었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허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육문중학교 당국과 복교교섭을 할 터

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길림에서 ≪동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 박기백의 아들이다. 막우천은 그의 필명이다.

내가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박일파는 길림법정대학을 다니면서 유길학우회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의 꿈은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였다. 그 당시 그는 러어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백계러시아장교를 따라다니였다. 그가 백파장교와 접촉하는 것을 신생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기고 있던 우리 동무들은 나에게 그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도 배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밑천이 될 수 있으니 그가 백파장교를 따라다닌다고 배척하는 것은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고 하였다. 해방 후 박일파가 톨스토이의 ≪고난의 길≫과 같은 명작들을 많이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은 것은 학창시절에 러어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박일파와 마찬가지로 김혁과 박소심도 복교가 가능하다면 한 해 공부를 더하여 중학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내라고 권고하였다.

이광한교장이 공산주의자를 이해하는 사람이니 김성주가 한 해 공부를 더하겠다고 청원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였다.

나는 공부는 자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파괴된 조직들이 우리를 가디리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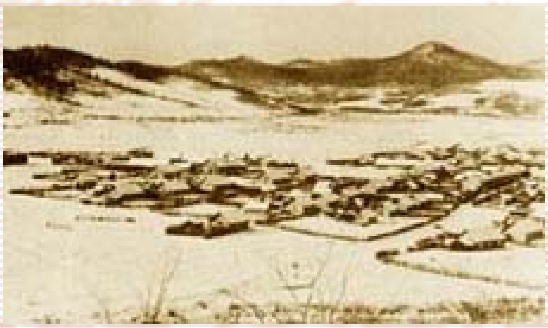
중학공부를 단념하고 막상 길림을 떠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조국에 나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엄동설한에 나를 홑몸으로 고향에 내보내던 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앞에 앉혀놓고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를 가르쳐 주던 일,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주만은 중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 이어 하루 세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주를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유언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다.

졸업을 한 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삼년동안 모지라지도록 삯빨래와 삯바느질을 하여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시며 동생들은 얼마나 허전해 하겠는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며 학비를 보태주던 아버지의 친구들과 나의 학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만은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서려는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였다. 그러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반단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한 처사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집에 문안편지 한 장 전하지도 못하고 돈화로 가는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혁명에 전념할 때라고 하여도 한두 줄의 인사야 전할 수 있



강반석여사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흥륭촌

지 않겠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어도 보았지만 웬일인지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 잡혀들어간 다음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내 신상에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1929년 겨울방학을 우리 집에 가서 보낸 동무들이 그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길림에 오지 않았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천리 밖에 있다가도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와서 간수들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어머니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참을성을 발휘한 셈이었다. 아버지가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는 나까지 데리고 몇 번씩 면회를 가던 어머니가 10년 후 아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황구의 고재봉

훗날 안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감옥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을 찾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니의 참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철창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로와할 수 있다, 내가 면회를 간대야 그 애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 앞에는 넘어야 할 고개도 많은데 첫 걸음에서부터 인정에 끌리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걷겠는가, 옥중에서 고독을 느끼더라도 차라리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 애를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부터 면회를 단념할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이 사실에서 순수한 보통여성으로부터 혁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옥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 보니 이제는 학교에 매인 몸도 아닌데 집에 가서 다문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돈화땅으로 결연히 발걸음을 옮기었다.

돈화에서 서남쪽으로 60리쯤 가면 사도황구라는 산간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담당한 공작지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풍이 무송에까지 미쳐오는 것을 예방하려고 공청, 백산청년동맹, 부녀회 조직들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돈화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권삼촌과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안도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동만으로 이주한 수십 세대의 집들 중 여섯 세대가 사도황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 여섯 세대 가운데는 고재봉이네 일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부 급비생으로 무송사범학교를 졸업한 고재봉은 백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송지구별동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하였다. 그는 반일군중단체의 핵심이었다.

그의 손아래동생 고재룡은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이었다. 훗날 그는 양정우부대에 참군 하였다가 몽강인가 임강에서 전사하였다.

고재봉의 막내동생 고재림은 백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0년 봄부터는 만철의학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길림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씨문중 사람들은 원래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을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객주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는 그때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우리 집에서 침식을 해가며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고 손에서 쌀함과 물동이를 놓을 새가 없었다.

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고재봉의 어머니(송계심)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김선생님, 댁에서는 이제부터 손님들을 치르지 말아주시우다. 지금처럼 댁에 사람들이 끓게 되면 김선생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수다. 무송에 오는 독립군 손님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무림의원≫댁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우다.≫

이 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재봉의 어머니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도 고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백산학교가 폐교된 후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도 고재봉이네는 자기 집 웃방을 교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기었다.

고재봉은 사도황구에 온지 반년도 안되었지만 그 동안 동흥의숙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황구와 그 주변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부녀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도황구의 송계심어머니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며 무송시절을 회상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석방되어 사도황구로 곧추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모색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부종이 있고 병색이 짙은데 집의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신세를 졌다.

고재봉의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는 보리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산나물을 무친 찬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내앞에 끼니마다 독상을 차려주면서도 음식이 초라해서 안됐다고 미안해하였다. 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 농사를 방금 시작한 데다가 외손자들까지 와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무송시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 있은 송계심어머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분틀을 구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눌러주었고 고재봉은 돈화현성에 가서 절임한 송어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었다. 고재봉의 매부는 부종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을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에 나갔다. 이 일가의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 갔다.

고재봉은 안도까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사도황구에서 안도까지 200리가량 되었는데 그는 이 먼길을 하루동안 가내군 하였다. 고재봉은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황천왕동이처럼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돈화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고재봉을 따라 사도황구에까지 왔다갔다. 철주는 어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무송을 떠난 집안식구들이 그 동안 구안도(송강) 서문 밖에 있는 마춘욱이네 집에서 재봉기를 세내여 삯바느질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흥륭촌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주는 새 고장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중강, 임강, 팔도구, 무송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벌방과 철도에

서 멀리 떨어진 안도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이였고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서름서름한 고장이였다.

≪형님, 감옥에서 나온 다음 무송에는 들려보았나요?≫

그때 철주는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들리고 싶었지만 들리지 못했다.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화로 곧추 온 내가 무송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무송사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고싶어 했어요. 울화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루에 한번씩 우리 집에 오군 했어요. 무송사람들이 참 좋았지요?≫

동생의 목소리는 무송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있었다.

≪그럼, 좋구말구.≫

≪무송에 두고 온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군 해요. 형님이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무들을 꼭 만나보라요.≫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동무들을 많이 사귀었니?≫

≪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안도에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철주가 새 고장에 와서도 무송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 그리움 때문에 안도생활에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애수에 잠긴듯한 동생의 눈과 쓸쓸한 얼굴표정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그 나이의 망향소년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라고나 할가. 동생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게 하였다.

≪철주야,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에게는 좋은 고장, 나쁜 고장이 따로 없단다. 안도라고 왜 좋은 동무들이 없겠느냐. 동무라는 건 찾아낼 탓이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동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한다구. 좋은 동무들을 많이 찾아내서 한번 안도를 멋있게 개척해보아라. 너두 인젠 공청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공청에 가맹할 준비를 잘해야한다고 동생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알겠어요. 형한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동생은 표정을 가다듬고 엄숙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 철주는 인차 공청에 가맹하였다. 나는 사도황구에 머무르는 기간 고재봉, 고재룡 동무들을 도와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를 무어주는 한편 동남만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성원들과 연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재봉을 통해 용정, 화룡, 길림의 연락소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 차광수, 계영춘, 채수항, 김중권 등 10여 명의 동무들이 사도황구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지휘성원이였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흔들고 있는 폭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주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사람들이였고 그들을 폭동에로 선동하고 인도한 것이 한빈, 박윤세와 같은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중국당에 전당하려면 실천투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돈화거리

당시로 말하면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1국1당원칙에 따라 당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당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다.

중국당에서도 실천투쟁을 통한 검열과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런 때에 국제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폭동을 선동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중국당에 전당하려고 탐위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았다. 그들은 청산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까지도 청산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질렀다.


일제의 의해
잘려나간
사람들의 머리

5.30폭동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반동군벌들로 하여금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반일애국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유치장과 감옥들은 모두 폭동군중으로 차고 넘치었다. 수많은 폭동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울에 끌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았다.

봉천군벌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계에 넘어가 폭동군중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중인민들사이의 이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그래도 곧이듣고 조선사람들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일제놈의 앞잡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한다고 하면서 폭동군중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의자와 일제의 앞잡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5.30폭동기간에 체포되고 살해된 사람들은 실로 수천 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다수가 조선사람이었다. 피검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을 계기로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몹시 나빠졌다.


일제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이립삼노선은 훗날 중국당내에서 ≪망동주의노선≫, ≪소부르조아적 광증≫으로 평가되었다. 이립삼의 쏘비에트홍군노선은 동북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험주의적 노선이었다.

그 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노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국제당에서도 ≪11월 16일부 서한≫을 통하여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비판하였다.

우리도 1931년 5월의 봄 명월구회의에서 이립삼노선을 비판하고 좌경모험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이립삼의 좌경모험주의의 해독은 그 후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여러해 동안 동북일대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황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통탄하였고 ≪우리 혁명이 언제까지나 이런 혼동 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나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의 후과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은 그만하고 각지에 나가서 조직을 복구하며 뒤수습을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종파분자들의 야욕을 발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향에서 떼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폭동은 비록 유혈로 끝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게 단련되고 각성되었을 것이다. 조선민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투력과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과학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한별동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킬만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노선을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바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옥중에서 생각



애국적인민들을 재판하는 일제

해둔 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차광수, 김혁, 박소심 등과 이미 토론한 바 있는 조선혁명의 노선상 문제를 내걸고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사도황구회의다. 이 회의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빚어진 참혹한 유혈을 나를 다시한번 흥분시키고 각성시키었다. 나는 이 통탄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군중을 피바다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역경에서 건져내고 승승장구하는 혁명에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혁명군대와 인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2천만을 승리의 길로 향도할 수 있는 강령과 그 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참모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외의 정세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유혈과 참화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1930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리속에 떠오르는 사색의 알맹이들을 목책에 쉬임없이 정리해주었다.

우리는 사도황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륜에서 다시 만날 곳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 후 돈화에서 길동지구당회의가 열리었다.

회의에서는 폭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파쟁분자들은 5.30폭동과 같은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5.30폭동은 무모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 해 봄 나는 옥중생활에 이어 5.30폭동까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참으로 나의 일생에서 1930년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성장의 봄, 시련의 봄이었다.

이 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였다.



애국자들을 집단학살하는 일제침략군

3. 카륜회의



카륜회의

6월하순이 되자 동무들은 약속한대로 카륜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륜에는 이미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1927년경부터 만주각지로 쉽게 내왕할 수 있는 교통의 분기점에 활동기지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를 느끼고 공청핵심들을 파견하여 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카륜에서 회의를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곳이 교통상 편리한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회의참가자들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은폐된 활동기지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카륜은 반일운동자들의 내왕이 잦은 고장이였지만 적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곳이였다. 이 고장 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면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장소는 이상적인 곳이였다.

내가 카륜에 도착하니 소년탐험대 총대장인 정행정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카륜에 갈 때면 늘 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가 나와 동행하곤 하였다.

카륜에 와보니 돈화나 길림보다는 분위기가 좀 평온하였다.

5.30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뒤여서 그 당시 간도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하였다. 그런데다가 일본군대의 동만출병이 박두한 것과 관련하여 더 긴장해졌다. 일제가 간도에 군대를 들이밀려고 한 것은 이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은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만몽을 점령하여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데 있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제 19사단 사단장 기와사마중장이 용

정, 연길, 백초구, 두도구 지방을 순시하고 있었다. 국민당 길림군참모장과 민정청 처청장도 때를 같이하여 동만을 시찰하였다.

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이 동만으로부터 일본군 중장과 국민당 참모장, 민정청청자를 내몰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나는 그때 카륜에 가서 전명학교 교원들인 유연선과 장소봉이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소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지국자의 일도 겸하여보았다. 그는 차광수처럼 글도 잘쓰고 식견도 높은데다가 일도 잘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이 흠이었다.

동무들이 충고를 주면 자기 안해가 지나치게 봉건적인 여자여서 도무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타발하였다. 장소봉이 가정생활에 취미를 붙이게 하느라고 내가 여러번 설복도 하고 비판도 하였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장소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김혁과 장소봉은 특별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지방의 유지들과 힘을 합쳐 학교와 야학을 세우고 그것을 거점으로 교육운동을 벌이었으며 농민회, 청년회, 소년회, 부인회 등 종래의 계몽단체들을 농민동맹, 반제청년동맹, 소년탐험대, 부녀회 등의 혁명적인 조직들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훌륭히 교양육성하였다.

김혁의 주관하에 잡지 ≪볼쉐위크≫가 창간된 곳도 바로 카륜이었다.

나는 카륜에 가서도 사도황구에서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사색을 계속하였다. 한달가량 사색하고 정리한 것을 종합해보니 퍼그나 부피가 큰 글이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지도이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절박감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이론이 없이는 혁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세계적 규모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대륙이 아세아였다.

아세아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중심무대로 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무렵에 와서 아세아후진국들의 이권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을 더욱 노골화하였기 때문이며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과감히 떨쳐 일어나 도처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외세를 구축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동방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멈춰세울 수 없었다.

쏘련, 몽골 혁명의 약진에 발을 맞추어 중국,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억센 조류는 격랑처럼 끓어번지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도의 거리에서 방직공들이 붉은기를 들고 시위를 단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중국인민은 제 2차 국내전쟁의 불길속에서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투쟁과 국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우리를 끝없이 흥분시키고 분발시켰다.

당을 내오고 옳은 지도이론만 내놓는다면 인민을 궐기시키며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신념으로 뿌리를 내리었다.

이 시기에 와서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각당, 각파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주의주장이 등장하여 대중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들은 이러저러한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우리가 그 중 높은 형태의 투쟁이라고 본 것은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였다. 이 투쟁에는 민족주의 좌익진영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일독립운동자들과 애국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이 독립군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것은 독립전쟁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대에 의한 군사활동으로써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테러전술만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잘 훈련시켜두었다가 쏘련, 중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다 일제와의 혈전은 지향하고 있었다.


카륜역

그러나 독립군의 투쟁은 이러한 초지를 끝까지 관철할 만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갖추지 못하였고 독립전쟁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세련된 지도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투쟁을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을 꾸리지 못하였다.

개량주의이론가운데서는 ≪실력양성론≫이라는 안창호의 ≪준비론≫이 독립운동자들의 화제거리고 되고 있었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양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의 비폭력적 독립운동노선도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된 지 얼마 안되어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낸 존재로 된 것도 이 단체가 시종일관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비폭력적인 외교노선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였다. 그런 것만큼 군사노선을 절대화하고 있던 독립군은 이것을 한사코 냉대하였다.

조선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어달라고 애걸한 리승만의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노선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민족주의 우파가 제창한 ≪자치론≫ 역시 민족의 독립정신에 배치되는 하나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못한 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선행세대의 전략이나 노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면한데 있었다.

선행세대의 운동자들은 한결같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수백만 대중의 조직된 힘에 의거해야 일제를 타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 나라의 반일운동자들은 혁명도 독립전쟁도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입장에서 기초축성은 별로 하지 않고 몇몇 상층인물들로써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만들었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서로 분열되어 여러 해 동안 헤게모니싸움을 벌였다.

선행세대의 노선이나 전략들은 또한 조선의 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한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이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방식을 풀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 지도이론을 마련한다고 하여 10월혁명의 경험 같은 것을 통채로 받아들여도 안되였고 국제당이 그 어떤 만병통치의 처방을 가져다줄 것 같이 기대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도 안되였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혈전을 벌이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자주 울리었다.

나는 이런 충동을 안고 오늘 우리가 주체라는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는 사상을 보고의 구절구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보고에 담으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들이었다.

나는 그때 특히 무장투쟁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보고에서 무장으로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벌일 데 대한 문제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본노선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것을 방침으로 채택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나는 무장투쟁을 하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새 형의 군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지 따로 군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반일군사역량이 분열되지 않겠는가고 의견을 달리하였다.

독립군이 우경화되고 반동화되어가는 조건에서 그 속에 들어가 군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무장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1930년 당시 독립군의 무력은 매우 열세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부산하에 독립군의 무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9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 무력조차도 상층의 분열로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어 있었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년동안 틀어쥐고온 기존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세력이었고 반국민부파란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이었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족운동내부에서 반국민부파와 같은 ≪제3세력≫이 대두하였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방향을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립으로 독립군역량은 분열되었고 민족운동내부는 혼란에 빠지었다.

독립군 중대들은 대체로 유격전쟁을 하는데 불리한 벌방지대의 부락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지만 규율이 문란하고 훈련상태가 저조한데다가 군중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지 못하였다.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에서와 같이 일제의 대부대를 무리로 통쾌하게 섬멸하던 1920년대초의 전성기와는 달리 독립군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는 현묵관과 함께 국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륜에서 계셨던 집

≪선생님, 국민부역량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가 국민부자랑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노라고 던진 물음이였다.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거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아연해졌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배심도 없이 대국들이 원도를 기다리면서 맹목적으로 싸우는 군대가 어떻게 맥을 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농담삼아 어떻게 국민부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한테 모조리 넘겨주지 않겠는가, 무기만 넘겨주면 우리가 3-4년안으로 일본놈들을 몰아내겠다고 말하였다.

대회준비위원들에 대한 테러가 있기 전이여서 그때까지는 그런 농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현묵관이 원래 길림시절부터 내 농담은 잘 받아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였다. 철없는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국민부군대 같은 것은 가지고서는 현상유지만 하자고 하여도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형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전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의 무장대오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폭넓게 집결시킬 수 있으며 대중의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무장성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영도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타도해야 할 일본제국주의는 청일, 러일 두 전쟁에서 자기 영토의 몇십 배나 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싸워 쉽사리 승리한 신흥강국이였다.

이런 강국을 타승하고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광신적인 황도정신을 타승하고 명치유신 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 역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장투쟁만 하게 되면 3-4년안팎에 일본을 패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혈기가 아니고서는 감히 염두도 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일본군벌들이 그런 고백을 들었더라면 아미 앙천대소하였을 것이다.

무슨 담보로 그렇게 판정했는가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담보가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애국심이였고 젊은 혈기뿐이였다. 우리가 3-4년안팎이라고 한 것은 일본의 힘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이 그보다 더 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담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2천만 민중의 힘이였다. 2천만을 잘 훈련시켜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군경들을 족치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해나가자면 대중적 지반을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화성의숙시절이라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겨둔 것은 3.1인민봉기 때였다. 내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은 길



진명서숙

립시절이었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노동자, 농민 대중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 것만큼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일애국역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런 노선을 내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하였으며 종교인이나 기업가 계층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요파에서 김찬이 한때 국민부의 몇몇 인물들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그들 조선공산당 만주국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런 관점 때문이었다.



카륜회의가 진행되고 첫 당조직이 무어진 자쟈툰부락

민족주의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냉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금물이었고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금물이었다. 이런 경향은 민족역량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개 진영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0년대 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위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신간회의 출현은 이념이 달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 사변으로 민중은 누구나 이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에 매수이용된 개량주의자들의 분해작용으로 하여 이 단체는 1931년에 그 해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역량이 애국이라는 대전제로 견고한 결합을 이룩했더라면 설사 안팎의 파괴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처럼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모처럼 성사되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합작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였다. 민족을 우위에 놓지 않고 이념만 절대화하게 되면 진정한 합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첫 자리에 놓는다면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견해였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방 후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선생과도 합작하였고 지금도 모든 겨레의 이성을 향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남는 것은 외세와 매국노들뿐이다. 민족의 대단결이 그처럼 귀중한 지상의 과제이고 경륜이기에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최홍희, 최덕신 선생이 평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때 나는 최덕신선생에게 북에 사는 사람이건 남에 사는 사람이건 민족을 첫 자리에 놓고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민족이 있고야 계급이 있고 주의도 있지 않겠는가,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는 해서 뭣하고 민족주의는 해서 뭐하며 ≪하느님≫은 또 믿어서 뭣하겠는가고 하였다.

우리는 카륜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모색하던 60여년 전에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었다. 정치는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지 못하며 정치가가 도량이 넓지 못하면 대중이 그 정치가를 외면해버린다.

보고에서는 당창건문제를 비롯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나는 보고초안이 준비되자 그것을 곧 카륜회의에 참가하려고 여러 곳에 모여온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의 토의에 붙이였다. 그때 우리는 낮에는 벌에 나가 일을 하면서 논밭머리와 무개하의 버들숲에 모여 토론하였고 밤이면 진명학교 숙직실에서 낮에 종합된 의견들을 놓고 한조항한조항 토의를 심화시켰다.

대중적인 토의과정에 제출된 의견들 가운데는 흥미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조선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생기였다. 보고에서 밝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논쟁의 초점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성격규정이 혁명의 보편적 원리나 합법칙성에 모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근대역사를 변혁시킨 혁명가운데는 부르조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도 아니고 부르조아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우리 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였다. 조선민족이 수행해야 할 가장 절박한 혁명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인민을 얽매어놓고 있는 봉건적 관계를 청산하며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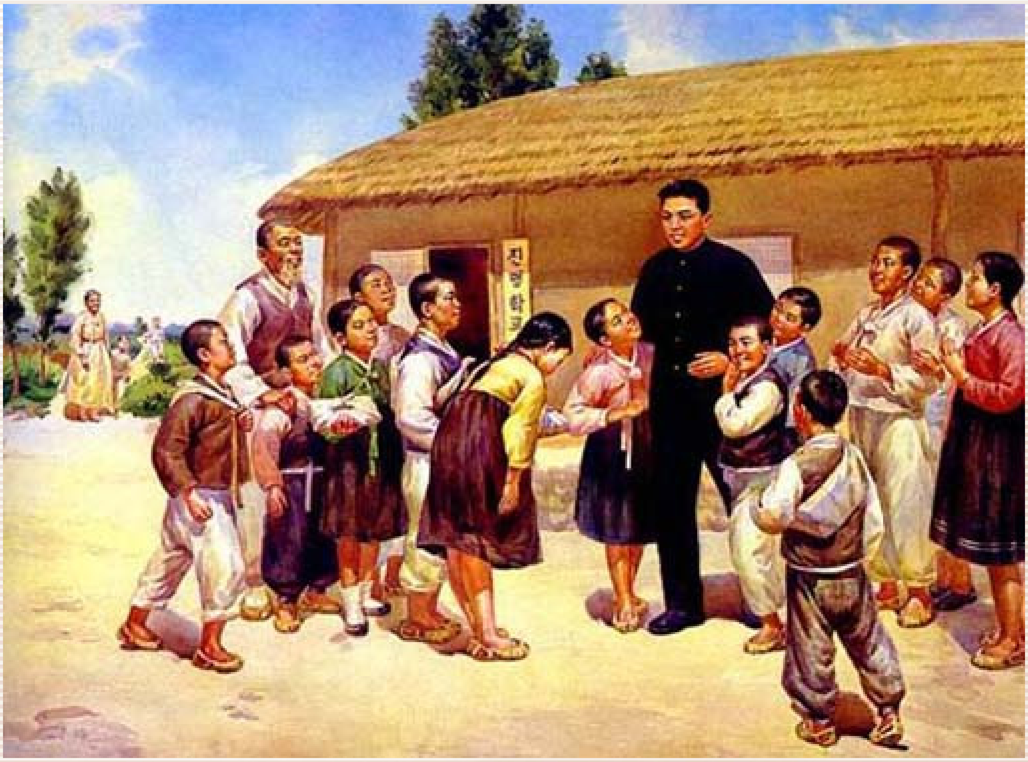
남들이 만들어놓은 형태에 억지로 틀어맞추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교조를 범한다. 형태가 선차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선차이다. 설사 고전에 없는 정식화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규정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더니 대표들은 이해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일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민족통일전선전략과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 이론실천상으로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공인되고 있었다.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실패한 것을 이유로 통일전선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밀몰아 개량주의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큰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민족통일전선정책을 노선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를 노선으로 제기하면 국제당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때 동무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버지는 지주인데 그의 아들이 혁명을 지지해나서는 경우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본가로서 독립자금도 많이 내고 독립군에 대한 물질적 보장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면장으로서 왜놈들하고는 잘 섭쓸리고 인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혁명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의 사상동향을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때의 이런 견해가 그 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방 후 20개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었다. 우리가 카륜에서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실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동무들의 의견은 보고를 완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카륜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였다. 카륜의 동무들은 진명학교 교실에다가 회의장을 준비하였다. 대표들을 위해 교실바닥에 조룰방석들을 깔고 천정에는 여러 개의 남포등을 매달아놓았다.

첫날 회의는 나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날부터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버들숲에서 조단위로 혹은 대표전원이 모여서 보고에서 제기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아주 독특한 회의방식이였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이 부락의 경비를 철통같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년탐험대원들이 회의의 전기간 특히 우리를 잘 보호해주었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중부만주지방에 집결되어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우리의 활동구역인 장춘현, 회덕현, 이통현 일대에 민정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밀정들 중에는 내 사진까지 들고 다니며 행처를 탐문하는 자들도 있었다.

만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영사관의 끄나불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밀정들을 통하여 길림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 나타나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탐한 일제는 처음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지도핵심을 잡아내기 위해 우리의 뒤를 집요하게 추격하였다. 우리가 소문을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터를 넓게 잡고 인민들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놈들도 우리를 만만치 않게 본 것 같았다.

그 때 카륜에서 부락의 경비조직을 책임지고 소년탐험대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김원우였다. 그는 회의장에 앉았다가도 슬그머니 밖에 나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경비상태를 알아보군 하였다. 내가 일에 몰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명학교 교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그도 밖에서 우리들의 신변을 지켜주느라고 밤을 밝히었다. 어떤 날에는 학교 숙직실 부엌아궁이에서 감자를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밤참으로 내놓군 하였다.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컸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김원우

그 때 김원우는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가 얼굴이 곱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여자옷을 입히고 현균과 부부간으로 ≪짝≫을 무어주어 지하공작에 보낸 적도 있었다.

김원우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몇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잘 싸웠다.

김원우는 전후시기 안팎의 정세가 복잡할 때 지방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여 싸우다가 종파분자들에게 잘못되었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묵성이다.

카륜이 우리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되고 우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된 것은 김원우, 김리갑, 차광수, 김혁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 일찍부터 피타는 노력을 해온 결과였다. 우리가 이 고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 사람들은 남도패와 북도패로 갈라져 서로 등을 지고 살았다. 남도패가 논밭을 일쿠느라고 물목을 막으면 북도패가 자기네 논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서 삽을 들고 달려가 그 물목을 터뜨려놓군 하였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북도패와 남도패로 갈라져 한데 어울려 놀지 않는 서글픈 대치상태까지 빚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김혁, 김원우, 김리갑, 장소봉 등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을 설복하여 패싸움을 청산하고 카륜에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내왔으며 학교를 세워 면비교육도 실시하였다. 대표들은 7월 2일 밤 진명학교 교실에 다시 모여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날밤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결속하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 사회를 담당하고 있던 차광수가 집행석에서 벌떡 일어나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는 ≪덜렁광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만큼 덜렁거리기도 하고 흥분도 잘하는 동무이지만 그런 때에도 이성만은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격정에 넘치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희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목을 내두르며 웨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리었다. 이 여명이 종소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이다. 동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갈이싸움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그 연설을 듣고 모두 환성을 울리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우리가 카륜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새 길을 개척해왔기 때문이였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입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 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노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그 후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거쳐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발전 풍부화되어 오늘과 같이 사상과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되었다. 해방 후 우리가 주체를 세울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후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할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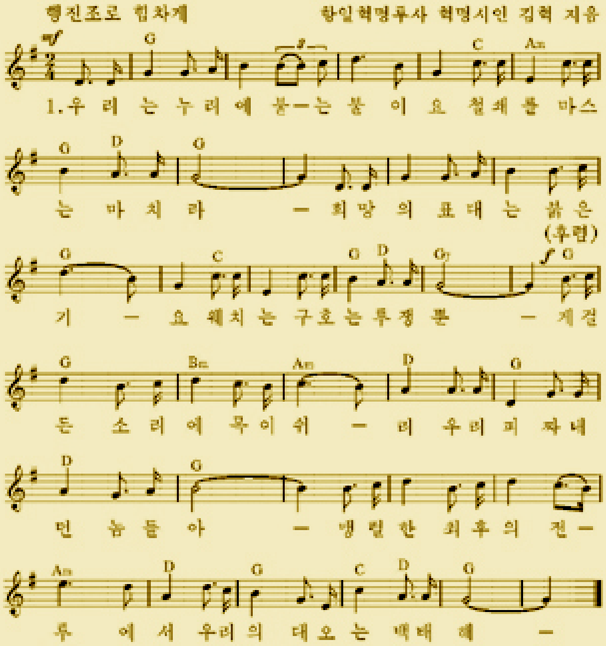
1955년에 나는 당선전선동부문 일군들앞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 데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인 곧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문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주체를 세울 데 대해서는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창시되게 된 경위, 그 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외국인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혁 명 가



2.원쑤들 아직도 발악을 한다 그러나 조종은 울렸다
포악한 원쑤의 무리들을 우리는 용서치 않으리
(후렴)

3.무기를 잡으라 억눌린 자들아 명예를 빛어라 종된 자
우리의 앞에는 희망뿐이요 나가세 앞으로 앞으로
(후렴)

4.원쑤의 잔피에 속지 말아라 계급의 용감한 투사들
자본의 사회를 부신 터우에 무산자정권을 세우자
(후렴)

5.건설의 주인들 다 일어 나라 로력의 자손들 나오라
판가리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후렴)

우리는 카륜회의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의에서 내놓은 노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적들은 우리는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노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에 수천수만 명의 아들딸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체사상탑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그 빛나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봉화



주체사상탑에 새겨진 글발 - 주체



평양의 대동강반에 솟은 주체사상탑



영광스러운 주체의 당 조선노동당 마크를 높이 추켜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상징한 군상



김일성화와 목란꽃을 형상한 주체사상탑 기단 장식 부각 - 꽃바구니



부주제 조각군상 - 만풍년



부주제 조각군상 - 주체공업



부주제 조각군상 - 철벽의 요새



부주제 조각군상 - 배움의 나라



부주제 조각군상 - 주체예술



부주제 조각군상 - 무병장수

4.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



조선노동당의 시원으로 되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카륜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930년 7월 3일 우리가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온 사실은 여러 해전에 공개되었고 그 모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갔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역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맑스가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쟁에서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까지도 찬양되고 있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유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을 당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그릇된데서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사조로서 노동운동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

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기적 변혁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새 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5년 4월이었다. 각국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속속 출현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정당이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 추세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고 풍부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며 합법칙적 산물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노동운동을 영도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영도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이 존재하는 기간 6.10만세시위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도하며 민족의 기개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으로 신간회와 같은 대중단체들도 만들어 반일애국역량을 집결시키는 사업에도 이바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그 영도밑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전개된 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민족해방운동발전을 일정하게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조직된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1928년 여름에 제6차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산당이 국제당대열에서 제명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물론 우리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파쟁을 일삼는 그 상층부에 대하여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였다. 그러나 그 당마저 국제당대열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때 국제공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공산주의운동경험도 적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당을 창건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타개해야 하였다. 가장 큰 난점은 공산주의대열안에 종파주의가 의연히 남아있는 것이었다. 종파주의가 청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당재건운동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에서 파벌별로 하였다.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열하게 벌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 수 없었다. 화요파와 엠엘파가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총국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후 서상파가 국내에서 재건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마저 노출되어 많은 당원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가지고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당을 창건하는데서 제기되었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산당이 제정한 1국1당제원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지방에서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된 것이었다. 국제당은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

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1국1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1930년 5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중공산당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재만조선인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재건운동에 열을 올리던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태도를 바꾸어 해체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을 타고 5.30폭동의 불길이 동만을 휩쓸게 되었다.

조선당원이 중국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제는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칙을 놓고 우리 동무들은 열기띤 논쟁을 벌이었다. 국제당의 지령을 무책임한 처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평가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 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배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울화를 터뜨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나의 입장을 알고 싶어하였다.

나는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중국당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가 아니며 그 요구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당재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현재의 형편에서 국제당의 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러니 국제당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주의적 입장이다. 중국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러나 국제당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자적인 당건설을 단념하고 무한정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 수는 없다.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였고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견해가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국제당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1국1당제원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당건설방침을 하루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1930년 6월하순에 쟈쟈툰에서 국제공산당 연락원 김광열을 만나보았다. 김광열은 일본에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쏘련에 가있다가 나온 인텔리였는데 우리의 활동구역인 고유수, 오가자, 카륜지방에 많이 와있었다. 연락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국제당과의 연계를 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쏘련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소봉과 이종락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소문과 같이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쏘련춤도 그나라 사람들 못지 않게 잘 추었으며 연설도 잘하였다. 그때 김광열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국제당에 가보라, 국제당 하얼빈연락소에 소개해줄 터이니 거기에 가서 1국1당제원칙에 대하여 토론해보라고 하였다. 김광열을 만난 후 나는 동무들과 함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였다.

우리는 1국1당제원칙의 요구를 한 나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산당이 국제당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한 나라에는 한 개 이상의 공산당 중앙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공산당중앙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에 같은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당중앙이 하나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열의 통일단결을 보장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1국1당제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운동 내에 여러 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이 1국1당제원칙을 명시하게 된 것은 또한 적들이 공산주의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국제공산당 규약은 1국1당제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재국의 당에 전당하는 방법은 어떻고 전당 후 그들의 혁명임무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당에 전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자체의 당 조직을 꾸리는 것이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된다고까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석으로 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빚어지고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싸울 권리조차 의문시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국제당의 지시에도 부합되고 조선혁명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과연 없단 말인가.

이런 모색 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 우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을 창건하자는 것이었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조직적 골간의 육성과 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 당이 의거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의 구축이 없이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당을 창건할 수 없었다.

나는 종파와 인연이 없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 우리앞에 주어진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창당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국제당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우리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해나간다면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이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땅안에서 우리의 당중앙을 따로 내와가지고 중국당과 병존하지 않는다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도 모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여 카륜회의에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고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되었다. 혁명적 당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당이 없으니 단천농민폭동지도자들은 폭동의 전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하여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었다. 조선에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혁명적 당이 있고 세련된 지도역량이 있었다면 그들이 노자를 쓰면서까지 국제당에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1930년대 초엽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종전의 반일투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투쟁도 초기보다도 비할 바 없이 전진하였다. 활동범위는 길림을 벗어나 멀리 동만과 북부조선 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청년학생운동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혁명투쟁은 지하활동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노동자, 농민 대중속으로 줄을 뻗치

었다. 경험이 축적되고 군사정치적 준비가 성숙되면 상비적인 혁명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대부대역량으로 본격적인 유격전쟁을 해야겠는데 공청이 그 영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단체들을 지도한 것은 과도적인 현상이였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였다.

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장악하고 민족해방운동전반을 영도하며 중국당과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당과의 사업도 해야했다.

공청의 간판을 가지고서는 국제당과의 거래도 원만히 할 수 없었다.


차광수

초기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 자기 파를 정통파로 자처하면서 승인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국제당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국제당은 조선에서 종파가 청산되기 전에는 진정한 노동계급의 전위대가 나올 수 없으며 종파를 근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권욕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투쟁에 주의를 돌리였으며 우리와 손잡아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줄을 놓았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새 형의 혁명적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았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 형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모든 것이 ≪ㅌ·ㄷ≫로부터 시작되었다. ≪ㅌ·ㄷ≫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였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 지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였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운동을 영솔하던 나날에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선행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범하였던 오류들을 극복하고 대중전취와 영도예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 투쟁기풍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한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훗날 우리 당의 넋으로 되고 기개로 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것은 카륜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놓은 것이였다. 카륜회의 결정에는 ≪ㅌ·ㄷ≫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되였으며 실패와 좌절의 진통속에서 오랫동안 갈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 지침으로 되였다.

지도사상, 영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이제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었으며 조선혁명군대장으로 내정되어있던 이종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였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미터 가량 떨어진 쟈쟈툰 앞벌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6정보가량되는 개버들밭이 펼쳐져 있었고 버들밭 가운데로는 무개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학교 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였다. 진명학교로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있었으며

설사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버들밭으로 빠지면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날밤 우리는 밀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서쪽관문에 2중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밭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개구리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앞에 붉은기를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의 붉은 색조는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김혁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앞에 비스듬히 서있던 그 잊지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논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성원들이 해야할 과업으로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해서와 당조직 건설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ㅌ·ㄷ≫의 강령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목표와 당면투쟁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할 길과 행동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건설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에 넘치는 열 변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다.

김혁의 시낭송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예총을 쏘고싶소.≫

나는 일본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 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었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역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 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멍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종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 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영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왔다. 자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어 왔다.

그 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왔다.


최창걸

국내에 당조직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 당조직을 무었다. 우리의 청소한 당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오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의 역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당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유구한 선린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유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종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주었으며 중국당과 중국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당과 중국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당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인민의 방조를 받을 수 없었으며 반제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당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은 만주성위 산하의 당조직들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동만 특위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동만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다수가 조선사람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당원비율에 있어서도 90%이상이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동만지역 당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지방에 조선인 당원들이 많은 것은 간도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숙에서 ≪ㅌ·ㄷ≫를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공산당과의 연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시원인 ≪ㅌ·ㄷ≫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은 우리와 중국공산당과의 연계문제를 성숙된 요구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 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조직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화룡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중국공산당조직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 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 등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영안현당의 책임적 지위에 있으면서 동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연계를 가졌으며 동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동만특위에 파견되어왔을 때는 그와 깊은 연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공산당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동장영이 희생된 다음에는 위증민과 연계를 가지었다. 그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이었던 반동무와도 연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계영춘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공산당과의 깊은 연계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나간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1국1당제에 관한 국제당 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있는 조치였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종일관 조국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김원우

1963년에 최용건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은래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깊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 때 그는 축하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선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연군은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연합된 혁명무력이었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데서 조선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증민 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곤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카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 후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노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원









5. 조선혁명군


김형권동지

카륜회의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조직건설사업은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결성으로 제일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앞에는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야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었다. 우리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조선혁명군과 같은 과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온 것은 그 군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의 유격부대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두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사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영토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밑천이 있다면 독립군 출신의 몇몇 동무들과 화성의숙을 다닌 얼마간의 동무들이 있고 몇 자루의 권총이 있을 뿐이였다. 그 나머지는 백지상태였다.

무기도 우리 스스로 획득하고 군사적 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과도적 조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고유수에서 처음에는 김원우, 이종락이 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준비사업의 기본은 혁명군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독립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이나 무기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웠다. 혁명군에 군인출신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어 군사지식이 없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국민부 산하에 있는 독립군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우리의 방침은 독립군중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인들을 교양하여 우리 진영으로 돌려세우며 사상적 준비정도에 따라 혁명군에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국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나뉘여 권력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국민부파는 재만조선인 통수권을 쥐었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었다. 이 조치는 결국 민중과 군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1930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두 파의 대립은 서로 상대편 간부들을 암살하는 테러전으로 번져져갔으며 이 테러전을 절정으로 하여 두 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독립군내에서는 대원들 뿐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까지도 상층부를 불신하였고 상층이 주는 지시를 잘 받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관서 일대에서 독립군과의 사업을 하였으며 이종락은 고유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원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이종락은 원래 고유수에서 정의부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ㅌ·ㄷ≫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화성의숙에 추천되어온 1중대출신의 학생들가운데는 박차석, 박근원, 박병화, 이순호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종락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고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중대로 돌아가 부중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었다. 지금과는 달리 군력이 얼마되지 않던 당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역량이었다. 만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던 국민부도 산하에 겨우 아홉개의 중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이라면 자연히 독립군들속에서 큰 인물로 떠받들리기 마련이었다. 고유수에서 이종락의 위신이 대단했다.


七 朝鮮革命軍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신데 대한 자료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1928년부터 1929년 사이에 유하지방에서 최창걸의 영향하에 있는 독립군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처럼 고유수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도 이종락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였다. 이종락은 그때까지만 해도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는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중대에 돌아가 우리가 화전에서 준 과업대로 독립군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였다. 대담한 것, 결단성이 있는 것, 판단력이 빠른 것, 통솔력이 강한 것,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이였다. 그 대신 그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사고력이 부족하였다. 기분주의가 많고 과격하였으며 개인영웅심이 농후하였다.

이것이 훗날 그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지휘체계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박죽인데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대들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국민부 반동들을 숙청하자고 하였으며 독립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민부와도 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독립군과의 사업에서 좌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형권삼촌도 두 개의 공작조를 편성해가지고 장백지구에 나갔다. 삼촌은 지양개 뒤산에 근거지를 정하고 장백의 여러 지역에 백산청년동맹지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여 무기공작과 의식화활동을 하였으며 지방청년들을 흡수하여 군사훈련도 주었다. 형권삼촌의 노력으로 장백지구에 있는 독립군역량이 우리의 영향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원들을 선발하고 그 후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무기를 해결하는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효일이였다. 최효일은 철령에 있는 일본인무기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그 당시 일본사람들은 만주에서 총장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총을 비적들에게도 팔고 중국인 지주들에게도 팔았다. 최효일은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였지만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일어로 대화할 때면 조선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창하였다. 최효일이 점원으로서는 아깝다고 할만큼 명석하고 일본말도 잘하였기때문에 상점주인은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최효일을 제일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소봉이였다. 장소봉은 카륜을 개척할 때 장춘, 철령, 공주령 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우연히 최효일을 알게 되었다. 몇 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대가 성실하고 대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최효일을 반제청년동맹에 흡수하고 그를 이종락에게 소개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최효일은 철령에서 적후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종락과 연계를 가지고 독립군 중대들에게 무기를 살금살금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최효일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무기가 조선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상고를 높이는데만 급급하여 그런 것은 아는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옥중의 김형권동지

최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팔아주다가 다음에는 독립군한테 넘겨주었으며 나중에는 일본인상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조달해주는 전용상점으로 만들어버리었다. 그 과정에 그의 세계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이종락과 장소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철령에서 멋있는 청년을 한 명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최효일의 자랑을 하곤 하였다. 그래서 나도 최효일에게 은근히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1928년인가 1929년에 최효일은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길림에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얼굴이 규방처녀들처럼 해말쑥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였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었다.

혁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흠이였다. 우리는 그때 여관에서 밥을 같이 먹고 담화도 여러 시간 하였다. 그가 간드러진 일본 ≪옥상≫의 말을 흉내내면서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급군정인물들과 우리 나라의 매국 5대신을 걸죽하게 욕질하는 바람에 나는 담화 도중 여러 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안해와 함께 살면서도 가정생활의 재미같은 것에 대해서는 꿈만하게 여기는 태평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색시같은 얼굴생김새와는 달리 혁명투쟁에서는 놀라울 만치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철령

그가 일본인상점의 무기를 여라문정 빼내가지고 안해와 함께 고유수로 탈출해온 것은 카륜회의 직전이였다. 우리가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에 앞서 그 과도적 단계로 소규모의 군사정치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여서 최효일의 탈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동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명군을 결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유수에 가보니 실지로 대원명단과 무기가 다 마련되어있

였고 결성모임장소와 모임참가대상자까지도 확정되어 있었다.

조선혁명군결성식은 1930년 7월 6일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무기를 수여하기에 앞서 나는 간단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차차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었다.


최효일

연설에서는 조선혁명군의 당면과업으로 항일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골간을 육성하는 문제, 혁명군대가 의거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꾸리는 문제,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충분히 갖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에 제1대, 제2대, 제3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대를 내왔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대장으로는 군사적 경험이 많고 통솔력이 강한 이종락이 추천되었다. 어떤 역사가들 가운데는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과 우리가 고유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명군을 같은 군사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 성원들 중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군에도 망라된 것만큼 그렇게 추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두 군사조직은 명칭이 같으면서도 서로 지도이념이 다르고 사명도 달랐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이라는 것은 국민부 자체의 내적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활동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그 명칭과 간부진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뒤바뀌군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려보기 힘든 형편이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이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었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 우리는 명칭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는 무장력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도 새 맛이 나게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같이 열을 내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나는 그때 국민부가 내온 조선혁명군의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여 우리 군의 이름을 조선혁명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복하였다. ≪ㅌ·ㄷ≫를 결성할 때에도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공산주의냄새가 나는 말은 붙이지 않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조직하는 군대도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활동상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썼기 때문에 그 후 우리 군은 실지로 활동에서 많은 덕을 보았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국내에도 몇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그때 우리가 혁명군 소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꾸리고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키자는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보자는데도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공작소조를 뭇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낭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이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송주변과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지구로 활동근거지를 옮기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제우는 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 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국내깊이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우리는 형권삼촌을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패의 공작소조를 국내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조에는 장백에서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부근에까지 진출할 과업을 주었다.

박차석이 이 조에 망라되게 된 것은 형권삼촌과의 우정때문이었다. 그는 길림시 주변의 농촌에서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지하사업을 하다가 1928년 가을에는 계영춘, 고일봉과 함께 무송일대에서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 때 어떻게 되어서인지 박차석이 형권삼촌과 딱친구가 되었다. 삼촌이 국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박차석도 같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었다.


공영

활동구역으로 떠나간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사평가와 공주령 일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사업하던 조선혁명군 대원들 중에 현대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평가에서 군중공작을 하던 도중 체포되어 장춘으로 끌려갔는데 체포되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해 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무기를 감춘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에서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었다.

현대홍은 어떤 철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근처에 있는 백양나무밑에 파묻었다고 고백하였다. 탈출할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말에 귀맛이 바싹 당긴 경찰은 현대홍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가 권총을 파묻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차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현대홍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호송경찰 두 놈을 까눕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혁명조직을 찾아 팔굽과 무릎으로 기어서 카륜에 돌아왔다. 카륜의 동무들은 현대홍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 벗기었다.

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나서도 몸이 회복되자 다시금 공주령에 나가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공주령은 일제가 중국에서 빼앗아낸 조차지여서 일본사람들의 관할하에 있었다. 현대홍은 법정투쟁도 잘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우네 소조역량은 1930년대에 들어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장백땅에서는 반일조직들이 연이어 태어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고 웅변대회, 연예공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자주 벌어져 사람들을 혁명적 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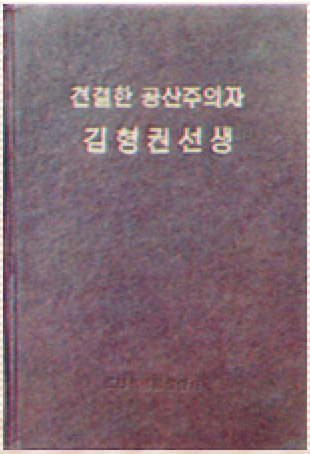

공주령

일제는 이런 때에 마적단으로 가장한 무장단을 들이밀어 조선인 부락을 하나 털어내는 연극을 꾸며가지고 이제우네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마적단을 주의하라고 경고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놈들의 꾀임에 말려들어가지 않았다.

크지 않은 실갱이가 벌어져 얼마간의 부상자를 냈을 뿐 사건은 전면적인 전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 후 이제우네 무장성원들은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박진영은 전투현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이제우는 불행하게도 체포되였다.

이제우는 이 수치를 죽음으로 씻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에서도 식칼로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본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인차 희생되였다. 공영은 만주지방의 반일운동자들을 유인납치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공산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살해되였다. 우리가 공영, 이제우, 박진영 동무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은 단천에서 농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이 있은 직후였다.



연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진 것 같아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독립군대원들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맨 처음 실현한 사람들이였다.

이제우, 공영, 박진영의 비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한 것은 카륜회의 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공작소조 하나가 없어진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전환의 선구자들을 억울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였다.

공영과 박진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멘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상도 자기들이 입겠으니 나에게는 입히지 말라고 하였다. 열 네 살 밖에 안된 내가 몽상을 입으면 애처롭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독립군 훈련소는 무송시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말리허라는 곳에 있었다. 공영은 한주일에 한두 번씩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었다. 그의 안해도 두릅이나 참나물같은 산나물을 캐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공영이 쌀자루를 메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리 집 살림에 적지 않음 보탬을 주었다.

어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다. 어떤 때에는 친누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공영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들어온 후 그의 안해는 벽동에서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송으로 들어왔다. 공영은 그때 제비국을 끓이다가 덴 안해의 화상자리를 보고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큰둥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었다.

≪임자,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린가.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안해를 금방석에 앉히지는 못할망정 같이 살지 않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녕된 생각인가.≫

공영이란 사람이 원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일제와 맞서 사우자고 호소하는 김형권 동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은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였다. 그날도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나서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삼촌네 무장소조의 활동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하얼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으나 동무들이 흥분해서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풍산땅에 4명의 무장단이 나타나 순사부장을 쏴제낀 후 북청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빼어타고 후치령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무장소조를 이끌고 국내에 진출하는 김형권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신문을 가져온 동무는 국내에서 총성을 울린 것이 통쾌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총성 때문에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되어 국내진출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에서 총성을 냈는가?

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어편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총소리를 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삼촌 하면 먼저 타개죽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 적 일이나 삼촌의 그때 나이가 아마 열한 살 아니면 열두 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타개죽을 먹었다. 수수타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 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 것이었다. 나도 타개죽은 질색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삼촌이 밥상앞에 마주앉았다가 할머니 갖다놓은 뜨거운 타개죽사발을 이마로 받아넘겨 엎질러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가 떨어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죽사발에 분풀이를 한 것이다.

할머니는 ≪네가 밥타령을 하는 걸 보니 사람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형권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의 허물자리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생활 할 때에는 앞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그 허물자리를 가리우고 다니었다.

형권삼촌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임강에서 살 때였다. 아버지가 삼촌을 우리 집에 와있게 한 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삼촌이 우리 집에 와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중학과정까지는 뗄 수 있었다. 장차로는 삼촌을 혁명가로 키우자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까지는 형권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마로 타개죽사발은 받아넘기던 어린 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들을 아연케하였다. 형권삼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임강이요, 심양이요, 대련이요 하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녔다.

우리 가정내막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삼촌이 고향에 가서 부모들이 정해준 여

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닌다고 하였다.

물론 그것도 이유라고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버지의 서거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묵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집에 돌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가정은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생기는 보잘 것 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우리 가정형편을 보기가 딱했던지 이관린도 얼마간의 돈과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있었다. 삼촌으로서는 사실 돌아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았지만 잘 운영만 하면 살림에 얼마간의 보탬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촌은 그 약방을 한번도 돌보지 않았다.


악질적인 순사부장 오빠시를 처단하는 김형권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삼촌의 소행을 두고 아주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앉아 삼촌에게 남길 장문의 편지를 썼다. 정의감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중학시절이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웃사람이고 뭐고 참지 못하였다. 그 편지를 삼촌의 베개밑에 밀어넣고 길림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편지로 삼촌을 비판하는데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였다.

≪삼촌이 지금은 저렇게 어데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지만 때가 되면 제골에 들어서느니라. 아무렴 네 삼촌이 근본이야 잊겠니. 설령 돌아다니다가 싫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 그러니 비판이고 뭐고 다 그만두어라. 조카가 삼촌을 타이르다니.≫

어머니는 이런 말로 나를 설득하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니다운 사고방식이었다. 그래도 나는 기어이 편지를 남기였다. 한해 후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무송에 돌아와보니 형권삼촌은 놀랍게도 안착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삼촌이 내가 써두고 간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 편지가 삼촌에게 적지않은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해 겨울에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일제놈들의 승합차를 빼앗는 김형권 동지 일행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우리가 무송을 떠난 후 삼촌은 백산청년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듬해에는 동무들의 보증으로 공청에도 가맹하였다. 이렇게 되어 삼촌은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1928년부터는 공청의 지시를 받아가며 무송, 장백, 임강, 안도 지방의 백산청년동맹 사업을 지도하였다.

이웃들이 신문을 보고 풍산땅에서 왜놈순사부장을 쏴죽인 사건이 터졌다고 떠

들어대는 바람에 만경대고향집에서도 형권삼촌이 체포되였다는 것을 알게되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또 제 형이 그러더니 동생도 일본놈을 쏴죽이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긴 잘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얼마간 흐른 뒤에야 나는 풍산땅에서 국내공작소조가 벌인 활동전모에 대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압록강을 건넌 소조원들은 단천쪽으로 나가다가 1930년 8월 14일 풍산 파발리 부근의 황수원들쭉갈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 순사부장의 의심을 받게 되였다. 그놈은 1919년부터 풍산지방에 와서 조선사람들의 수족을 얽어맨 악질경관이였다. 그래서 그 고장사람들은 놈에게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 인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다.

소조원들은 주재소 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형권삼촌은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인민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 수십 명의 군중이 형권삼촌의 연설을 들었다. 비전향장기수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도 그때 파발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다고 한다.

소조원들은 적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농민폭동의 불길이 일어났던 지역들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단천농민폭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서는 반드시 대중운동의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동원된 혁명적 군중의 조직된 대부대가 있기 마련이였다. 적이 폭동지역에서 주동분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였다면 우리는 폭동군중속에서 왕청의 오중화, 용정의 김준, 온성의 전장원과 같은 핵심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핵심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킬 수 있는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 단천지구를 개척하는데 성공하면 그 지방을 거쳐 성진, 길주, 청진 방면으로도 뻗칠 수 있었고 함흥, 흥남,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형권삼촌이 인솔하는 국내공작조에 단천농민폭동의 주인공들을 찾아가라는 과업을 준 것은 그 때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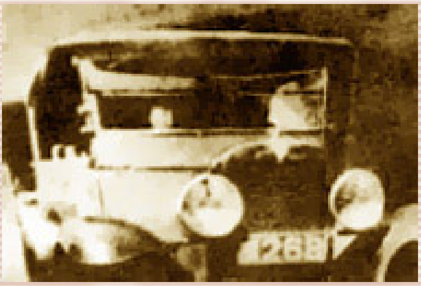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골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범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연이어 리원군 문앙리 일대에 진출하여 배덕골과 대바위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숯구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였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 무장소조는 그 후 북청방면으로 진출하다가 대오를 두 개 조로 편성하였다. 형권삼촌과 정웅이 한 조가 되고 최효일과 박차석이 한 조가 되였다. 두 조는 홍원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형권삼촌은 정웅과 함께 9월 초 적수색대가 도사리고 있는 북청군 대덕산의 광제사를 습격하고 홍원, 경포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정부암 부근에서 적들과 조우하여 전진경찰관주재소 소장을 사살하였다.

삼촌은 그날로 홍원읍에 들어가 집결장소인 최진용



파발리내중경찰서 주재소



무장소조원들이 빼앗아 탄
함남268호

이네 집에 찾아갔다.

최진용이라고 하면 형권삼촌 뿐 아니라 나도 잘 알고 있는 독립군 관계자였다. 그가 무송에서 안송총관소의 총관으로 일할 때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원래 조선에서 면장질을 할 때 돈을 떼먹고 그것이 탄로되어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동북으로 도주해와서 정의부를 따라다니였다. 한때는 우리 집에 아주 눌러앉아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몇 달 동안 얻어먹은 일도 있었다. 최진용은 일제가 만주로 쳐들어온 기미가 보이지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고 하면서 무송을 떠났다. 그때 그는 자그마한 과수원이나 하나 장만해놓고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홍원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자마자 일제의 밀정으로 되었다.



감옥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는 김형권 동지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형권삼촌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최진용은 적의 경계가 심하다는 구실로 삼촌을 뜨락의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경찰서에 달려가 만주에서 나온 무장단이 자기집에 있다고 밀고하였다. 삼촌이 경찰서에 끌려가니 최효일도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최효일을 밀고한 것도 물론 최진용이었다.

삼촌은 그때에야 최진용이 일제의 주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진용의 변절은 너무도 뜻밖이었고 돌발적인 것이었다. 하루 세끼씩 몇 달을 두고 더운밥을 해서 상우에 반주까지 놓아 푸짐하게 대접해주던 성주 어머니의 은혜를 백골이 되어서도 잊지 않겠노라고 염불처럼 외우던 그 인간이 그처럼 더러운 배신의 길을 걸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래서 나도 최진용이 삼촌을 밀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가지고 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환상이란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뛰여난 천리혜안을 가진 사람도 수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것은 정웅 한 사람뿐이었다. 정웅은 소조가 국내로 나갈 때 삼촌이 길안내자로 인입한 사람이었다. 고향이 이원인 그는 동해안 일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후에 춘천에서 밀정의 고발로 체포되였다. 형권삼촌은 체포된 후 얼마동안 홍원경찰서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후 함흥감옥에서 다시 이송되어 거기서 또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았다.

함흥지방법원에서의 법정투쟁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

그 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힘을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최효일은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삼촌한테는 1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고 한다.

삼촌과 그 전우들은 재판장에서 혁명가요를 우렁차게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구

호를 냅다 불렀다.

소조성원들은 법정투쟁기간을 연장하려고 서울복심법원에 상소하였다. 함흥재판에서 쓴맛을 본 일제는 서울에서 한 명의 방청도 없는 비밀재판을 하였다. 놈들은 그때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최효일에 대한 교수형은 판결이 내린 후 얼마 안 있어 인차 집행되었다. 최효일은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형권삼촌은 10년이상의 장기수들만을 주로 가두어두는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 감옥에서도 삼촌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놈들이 중형을 진 ≪정치범≫들을 전향시키려고 책동할 때 삼촌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상전향을 반대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군중을 격동시키고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개선투쟁의 앞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사연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탄알상자를 만드는 작업에 수인들을 내몰았다. 수인들은 그때 7등밥을 먹으면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분격한 형권삼촌은 10월 혁명기념일을 계기로 교형리들의 살인적인 강제노동을 반대하는 옥내공장수인들의 파업을 지도하였다. 이 파업에 많은 수인들이 참가하였다.

놈들은 삼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목과 발목에 고랑쇠를 채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고랑쇠가 살을 파고들게 하였다. 식사도 하루에 아이들 주먹만한 콩밥덩어리를 한 개씩 들이밀었다.

삼촌이 그처럼 엄혹한 처지에서도 투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감옥당국자들은 김형권이 마포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느 날 박차석은 감옥안에 있는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우리들이 만주각지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형권삼촌에게 전하였다.

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철창에 끌려온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박차석의 손을 붙잡고 목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豐山에 突現한 武裝團四名
巡査部長射殺逃走
自働車를 빼서 타고 山中潛跡
武裝警官二十名急行

募資中에 巡査射殺
咸南四郡에서 活動

節婦岩路上에 怪靑年
詰問하자 拳銃發射
負傷警官은 重態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와 관련한 신문보도

≪나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소. 살아남은 동무들이 끝까지 싸워주오. 형기가 끝나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만경대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을 꼭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해주오. 앞으로 성주를 만나거든 내 소식을 전해주고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 굴하지 않고 싸웠다고 말해주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삼촌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누워있을 때의 일이였다.

삼촌이 사경에 처하자 형무소에서는 면회를 와도 좋다는 통지를 만경대에 보냈다.

형록삼촌이 그때 돈으로 40원을 꾸어가지고 친척인 봉주와 함께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형권삼촌을 만나보았다.

≪형무소에 가니 간수가 병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구나. 다른 죄수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병신이 되어 다 죽게 된 우리 형권이만은 백골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겠니. 그때 기가 막히던 생각을 하면 . 나를 보자 말소리도 못내고 입만 우물우물하는데 어찌도 참혹해졌는지 그게 내 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더라.

그런 동생이 오히려 나를 보고 웃으면서 ≪형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지만 왜놈들은 꼭 망합니다.≫하고 말할 땐 역시 우리 형권이 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조국에 개선하여 고향집을 찾았을 때 형록삼촌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 회고담을 듣고 형권삼촌을 비관한 것을 후회하였다.

동생의 처참한 형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었던 형록삼촌은 그때 간수들에게 요구했다.

≪내 동생 형권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해주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김형권동지

간수는 그 말을 듣자 ≪안돼. 네 동생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 감옥귀신이 되야 해. 집에 데려가지는 못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동생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겠소.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몸이 추선 다음 여기에 다시 와있으면 되지 않소.≫

≪이놈아, 징역을 대신 사는 법이 어디있어?≫

≪법이야 당신네들이 내면 법인데 왜 못하겠소. 그렇게 좀 해주오.≫

≪이놈, 어디서 이따위 수작질이야. 동생이 나쁜 놈이더니 형이란 것도 몹쓸 놈이구나. 너희네 종자는 다 나쁜 놈이다. 어서 당장 나가라!≫

간수들은 이렇게 고함치면서 형록삼촌을 감옥에서 쫓아냈다.

형록삼촌은 생각다못해 간수에게 돈 16원을 맡기며 ≪아무쪼록 우리 형권이를 잘 돌봐주시오.≫하는 부탁을 남기고 만경대로 돌아왔다. 그 정도의 돈을 먹는다고 교형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리 만무하였지만 삼촌은 수중에 있던 돈을 다 털어놓았다.

감옥에서 돌아온 삼촌은 한 달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다. 눈만 감으면 동생의 모습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김형권동지



파발리경찰관 주재소습격전투를 조직지휘하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

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 후 석달만에 형권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 초이니 내가 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두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 살이었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 셈이었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 채 고국의 이름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삼촌의 원쑤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망통지서를 받고서도 노자가 없어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 삼촌이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형권삼촌에게는 영실이라고 부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해방 후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었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애를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일점 혈육마저 전쟁시기 폭격에 희생되었다.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 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파발혁명전적지에 세운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동상

6. 혁명시인 김혁


김혁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청년시절 내 주위에는 동지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인정적으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투쟁과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얻은 동지들도 있었다. 그 한명한 명의 동지들은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우리 후대들이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로 그런 동지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김혁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여름이였다.

그날 한문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상월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권태석이 뛰어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한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차광수라는 안경쟁이와 함께 정문에 서 있었다고 하였다.

과연 정문에는 얼굴이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긴 조면의 청년이 트렁크를 들고 서서 차광수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광수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내앞에 손을 내밀고 ≪김혁이올시다!≫하며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내가 김혁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낀 것은 차광수가 그에 대해 ≪광고≫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한데도 있었지만 김혁의 얼굴모습이 김원우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데도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형을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한 시간동안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어지간한 시간 같으면 결강을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상월선생이 담당한 문학시간이구만.≫

나는 김혁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차광수한테 이런 부탁을 하였다.

≪허허, 상월선생의 문학시간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혁이처럼 문학가가 되려는게 아니오?≫

차광수는 안경테를 추어올리면서 농을 하였다.

≪김성주라고 문학가가 못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런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학을 알아야 할 것 같애. 어떻소? 김혁형, 그렇지 않소?≫

김혁은 그 말을 듣자 환성을 울리었다.

≪길림에 와서 이제야 귀맛이 당기는 말을 듣는구만. 문학을 떼놓고야 혁명을 논할 수가 없지. 혁명 그 자체도 문학의 대상이고 모체니까. 문학선생이 그렇게 인기있는 선생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소.≫

≪그럼 훗날 소개해주기로 합시다.≫

나는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 차광수와 김혁은 정문에서 불변자본이 어떻고 하면서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친구의 음성에서 풍기는 열정은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 나는 김혁을 타고난 열정가라고 격찬하던 차광수의 말을 되새기면서 좋은 동무를 또 하나 얻게 되었다고속으로 기뻐하였다.

≪숙소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여기에 서 있소?≫

김혁은 한쪽 눈을 쪼프리고 금빛햇살이 쏟아져내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 좋은 날 바퀴처럼 집안에 들어가 박혀선 뭘 하겠소.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길림거리를 하루종일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식사나 한 다음 북산으로 가든가 강남공원같은 곳으로 갑시다. 김혁형이 상해에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도 안시키면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소.≫

≪길림에 와서 성주동무를 만나니 몇 끼 굶어도 배고플 것 같지 않소.≫

김혁은 성미도 열정적이였지만 언행도 활달하였다.

그때 내 수중에는 공교롭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삼풍여관으로 갔다. 그 여관집 사람들이 마음씨가 고운데다가 국수를 잘 만들었다. 여관집 어머니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니 국수 여섯 그릇을 말아 한 사람앞에 두 그릇씩 내주었다.

김혁은 옹근 사흘밤이나 내가 기숙하고 있는 방에서 나와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길림일대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차광수가 있는 신안툰으로 갔다.

나는 첫 대면에 벌써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광수는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었다. 평상시에는 여자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일단 충격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끓으면서 단김을 뿜는 것이었다. 차광수처럼 동양 3국을 돌아다니면서 쓴맛단맛을 다 보았다면 풍운아였는데 그런 풍운아치고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견문도 넓고 이론수준도 높았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사명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김혁은 문학과 예술은 마땅히 인간에 대한 송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후 길림바람을 좀 쏘이고 난 다음에는 견해를 발전시켜 혁명에 대한 찬가로 대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학관이 아주 헌신적이었다. 우리는 김혁의 이런 장점을 참작하여 그에게 한동안 군중문화계몽사업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주었다. 그가 연예선전대활동을 자주 지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김혁이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그를 ≪에젠뽀찌에≫라고 불렀다. 그를 가리켜 ≪하이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혁은 실지로 하이네나 에젠뽀찌에를 그 어느 시인보다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설에서는 주정이 강한 최서해의 작품보다도 정서가 적은 나도향의 작품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는 김혁의 그런 취미를 두고 세상이치란 참으로 묘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것들끼리 결합되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차광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적절하게 비유하였다. 김혁의 경우에도 음과 양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남다른 문학적 개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사업을 하면서도 짬을 내어 훌륭한 시작품들을 연이어 써내군 하였다. 우리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어있던 길림의 여학생들이 그의 시를 수첩에 베껴가리고 다니면서 즐겨 읊었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김혁은 남들처럼 종이장을 놓고 썼다지웠다하면서 시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죄다 머리속에서 다듬다가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주먹으로 책상을 내이치고는 종이 위에 옮기군 하였다.

그가 책상을 내려칠 때마다 시가 한 편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있는 동무들은 ≪김혁이 또 알(시)을 하나 낳았군≫하면서 기뻐하였다. 김혁이 시를 탈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경사로 되고 있었다.

김혁에게는 공청생활을 하던 승소옥이라는 미모의 애인이 있었다. 몸매가 날씬하고 복성스럽게 생겼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그런 기개와 담력을 가진 처녀였다.

승소옥은 공청조직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지던 그 해 가을에 거리에서 그가 선동연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연설을 아주 맵시있게 하였다.

수첩에 김혁의 시를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애송한 여학생도 바로 승소옥이였다. 그가 시를 잘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는데다가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얀 저고리에 깜장치마를 입고 다니였기 때문에 승소옥이라고 하면 길림시내 청년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생활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감수하고 시화해온 김혁은 사랑도 역시 열렬히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성도 없고 인간다운 생활도 없으며 인간다운 사랑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였고 탄우속에서도 가정도 이루었다.

그들은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는 여가를 타서 종종 버들숲이 무성한 이통하강변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시질도 하였다. 김혁이 낚시질을 할 때면 승소옥은 옆에서 고기도 따주고 미끼도 끼워주었다. 경치좋은 북산과 송화강변에서 그리고 이통하

기슭에서 혁명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은 나날이 무르익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승소옥의 아버지 승춘학이 그들의 사랑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승춘학은 삼광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신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이였다. 몇 해 동안 쏘련에 가서 연해주지방을 돌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문명의 맛도 본 사람인 것만큼 그때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개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고유수에 가서 창신학교를 삼광학교로 개조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대중조직들을 공산주의 조직, 혁명조직들로 개편할 때에도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선참으로 이해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의 사랑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남아장부인 김혁이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소옥의 어머니는 김혁을 좋은 사위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남편앞에서도 은근히 두둔해주었다. 그 후 오랜 기간 김혁의 사람됨을 면밀하게 주시해오던 승춘학도 결국은 그가 훌륭한 혁명가임을 알고는 딸의 의향을 따르게 되었다. 승춘학이 그들의 약혼을 허락한 날 김혁과 승소옥은 사진을 찍었다. 그 당시 승소옥이네 집에는 사진기가 있었다.

김혁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상태에 빠진 승소옥은 이통하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이 강변에서 그를 끌어내다가 겨우 진정시켜 놓았다.

승소옥은 그 후에도 혁명활동에 성실히 참가하다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필자인 최일천의 안해가 되어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시집을 갔다. 비록 계모가 되어 남의 아이들을 기르는 한이 있더라도 김혁과 같은 혁명가와 일생을 같이하겠다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그의 이상이었다.

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천에서 충실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였다. 나보다는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이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내지 않고 우리가 주는 과업을 언제나 성실하게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혁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김혁은 1928년 여름부터 차광수와 함께 유하현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지도로 고산자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특별반)가 나오고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된 것도 이무렵이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저자 최일천과 그의 아내 승소옥

그때 김혁은 인류진화사와 세계정치지리, 문학, 음악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고산자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내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동만쪽으로 나갈 무렵에 김혁은 고유수와 길림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조직이 준 과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나는 돈화로 가면서 그에게 서면으로 강동, 길림, 신안툰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면서 새 출판물 발간을 준비하라는 일거리를 더 맡기였다.

얼마후 돈화에서 일을 카륜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혁을 찾아갔더니 그는 우리가

준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내가 옥중에서 무르익힌 생각과 카륜에 가서 할 사업내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흥분해서 자기도 당장 나를 따라 카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카륜으로 오되 맡은 일을 다 수행한 다음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하였다. 김혁은 몹시 서운해하면서도 내 말대로 신안툰에 그대로 눌러앉아 새 출판물 발간준비를 다그치었다. 그럼 다음에야 카륜에 왔다.

카륜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새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새로운 혁명노선이 일정에 오르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는 첫 당조직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에서 그 사상적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첫 당조직의
기관지
≪볼쉐위크≫

김혁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카륜에 와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출판물에 낼 원고를 썼다. 그의 제의에 따라 출판물의 제호를 ≪볼쉐위크≫로 달았다.

우리는 ≪볼쉐위크≫를 잡지형식으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 점차 신문형식으로 크게 만들고 부수도 늘이기로 계획하였다. 1930년 7월 10일에는 마침내 ≪볼쉐위크≫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이 잡지를 공청, 반제청년동맹 지부들과 여러 반일혁명조직들, 조선혁명군 소조들에 배포하였으며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들에도 보내여 교재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내가 카륜에서 한 보고를 해설하는 글도 그 잡지에 실리었다. 카륜회의 방침을 소개하고 선전하는데서 ≪볼쉐위크≫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 얼마동안 월간잡지형식으로 발간되던 ≪볼쉐위크≫는 그 후 발전하는 혁명정세의 요구에 따라 주간신문으로 되었다.

김혁은 ≪볼쉐위크≫의 첫주필로서 카륜을 떠날 때까지 원고집필로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불덩이같은 정열가여서 좀처럼 휴식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다가 그는 조선혁명군 소조를 책임지고 하얼빈으로 갔다. 김혁이 하얼빈에 파견된 것은 1930년 8월초였다. 길림, 장춘, 유하, 흥경, 회덕, 이통 일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그에게 있어서 하얼빈은 생소한 고장이었다. 나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파악이 없었다.

우리는 길림에 있을 때부터 하얼빈을 중시하였다.

이 도시의 주민 구성을 보면 노동계급이 많았다.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자면 장춘이나 하얼빈과 같은 큰 도시들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고 중동철도를 공격한 군벌의 배신적인 반쏘행위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얼빈의 노동계급과 청년학생들은 혁명성이

강하였다. 이런 고장에 가서 줄만 잘 늘이면 많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하얼빈을 중시한 것은 거기에 국제당연락소가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조직한 공청과 연계를 가지고 있던 국제당산하의 공청조직도 하얼빈에 있었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가지자면 이 도시에 우리의 통로를 내고 하얼빈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혁을 하얼빈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하얼빈일대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을 늘이는 한편 국제당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하얼빈

김혁이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흔쾌히 받아들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에게 국제당에 보내는 소개신을 써준 사람은 김광열(김렬)이였다.

김혁은 떠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과업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제끼는 사람이였지만 단독임무를 받아가지고 떠나갈 때에는 매번 그렇게 쓸쓸해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독이였다.

시인이 고독을 자주 체험해보는 것도 문학수업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을텐데 왜 그 동무는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고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김혁은 지난날 울분을 안고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에도 고독도 하나의 좋은 길동무였는데 그런 생활을 끝장낸 다음부터는 싫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강동에서 몇 달 동안 외롭게 지내다가 카륜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몇 날 동안 일하는 것이 재미를 좀 볼만하니까 또 헤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말했다.

≪김혁이, 혁명을 하자니까 이런 이별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 하얼빈에 갔다오면 우리 동만에 나가서 같이 일해보자구.≫

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성주, 하얼빈의 일은 걱정하지 마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고 웃으면서 동무들곁으로 돌아오겠소. 앞으로 동만에 나갈 때에는 맨 선참으로 나를 불러주오.≫

그것이 김혁과의 마지막 이별이였다.

그와 헤어지고 보니 내 자신도 마음이 허전해졌다.

우리의 선이 처음으로 하얼빈에 뻗치기 시작한 것은 1927년말부터였다. 그 당시 길림제1중학교에서 고학을 하던 몇몇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강의를 한 반동적인 역사교원과 대판싸움을 하고 나서 하얼빈으로 들고 뛴 일이 있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의 지도를 받아오던 유길학우회 성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얼빈에 가서 조직을 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들은 하얼빈학원, 하얼빈고등공업학교, 하얼빈의학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학우친목회와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의 골간들로 1928

년 가을에는 반제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1930년대 초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방학 때마다 한영애를 파견하여 하얼빈의 조직들을 지도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만주를 휩쓸 때 하얼빈의 청년학생들이 그에 호응하여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직들이 은을 냈기 때문이였다.

하얼빈의 혁명조직들에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서철동무도 그때 하얼빈의 공청지부에서 일하였다.

김혁을 책임자로 한 조선혁명군 소조가 도착하였을 때 하얼빈의 공기는 매우 살벌하였다. 학우친목회나 독서회같은 합법적 조직들까지도 지하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였다. 공청을 비롯한 비합법적 조직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혁은 하얼빈동무들과 함께 조직을 지켜내고 조직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의 제의에 의하여 이 도시의 모든 혁명조직들은 여러 개의 조로 분산되어 지하로 더 깊숙히 들어갔다.

김혁은 무장소조원들과 함께 부두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카륜회의 방침을 정력적으로 해설하였다. 그는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담력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갔다. 적들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가며 국제당연락소와의 연계도 지어놓았다.

하얼빈의 일을 추켜세우는데서 김혁의 공로가 컸다. 그는 혁명의 한 개 지역을 담당한 책임자답게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다가 하얼빈도시의 비밀연락소에서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강철같은 육체가 그의 뜻을 배신하였다. 김혁은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 채 적들에게 붙잡혀 여순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감옥에선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옥사하였다고 한다.

김혁은 우리 혁명대오에서 백신한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젊음을 바친 첫 세대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한 명의 혁명동지가 천금보다 더 귀중했던 그때 김혁과 같이 훌륭한 재사를 잃은 것은 우리 혁명에 있어서 참으로 가슴아픈 손실이였다. 그가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나는 하얼빈에 갔을 때에 김혁의 발자취가 찍혀 있는 거리와 선창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그가 생전에 지은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차광수나 박훈과 마찬가지로 김혁도 조선의 진로를 찾아 만리타향을 속절없이 떠다니다가 우리와 손을 잡은 사람이였다. 상해 프랑스조계지의 어느 하숙방에서 남의 눈치밥을 얻어 먹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혁명영화 ≪조선의 별≫

그에게 차광수가 편지로 우리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상해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이지 말고 길림으로 오라, 길림에만 오면 네가 찾는 지도자도 있고 이론도 있고 운동도 있다. 그래서 김혁이 우리한테로 왔다. 우리와 통성을 한 후 길림시내를 며칠 돌아보고는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성주, 나는 여기에 닻을 내리겠소. 내 인생은 이제부터요≫라고 말했다.

차광수와 김혁이 막역한 벗으로 된 것은 일본 동경유학시절부터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공청을 창립하던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선창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김혁은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 나는 한때 상해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들이 반일구호를 부르며 행진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마음속이 동하여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다, 시위가 좌절되면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고 혼자서 모대기하였다, 그 어떤 당파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청년이니 어디에 모이라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내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의논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시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맥을 놓을 때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위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질 때 나를 붙안고 ≪김혁아! 김혁아!≫하고 부르며 눈물을 뿌려줄 동지가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이고 조선의 조직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하였다. 총구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는데 길림에 와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행운을 지닌데다가 오늘은 공청에까지 가맹하고 보니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김혁의 이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늘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동지들을 찾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인생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혁은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혁명조직들에 보급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안툰에 내려가니 그곳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혁은 우리 몰래 차광수, 최창걸 동무들과 의논해가지고 길림일대에 그 노래를 보급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를 별에 비기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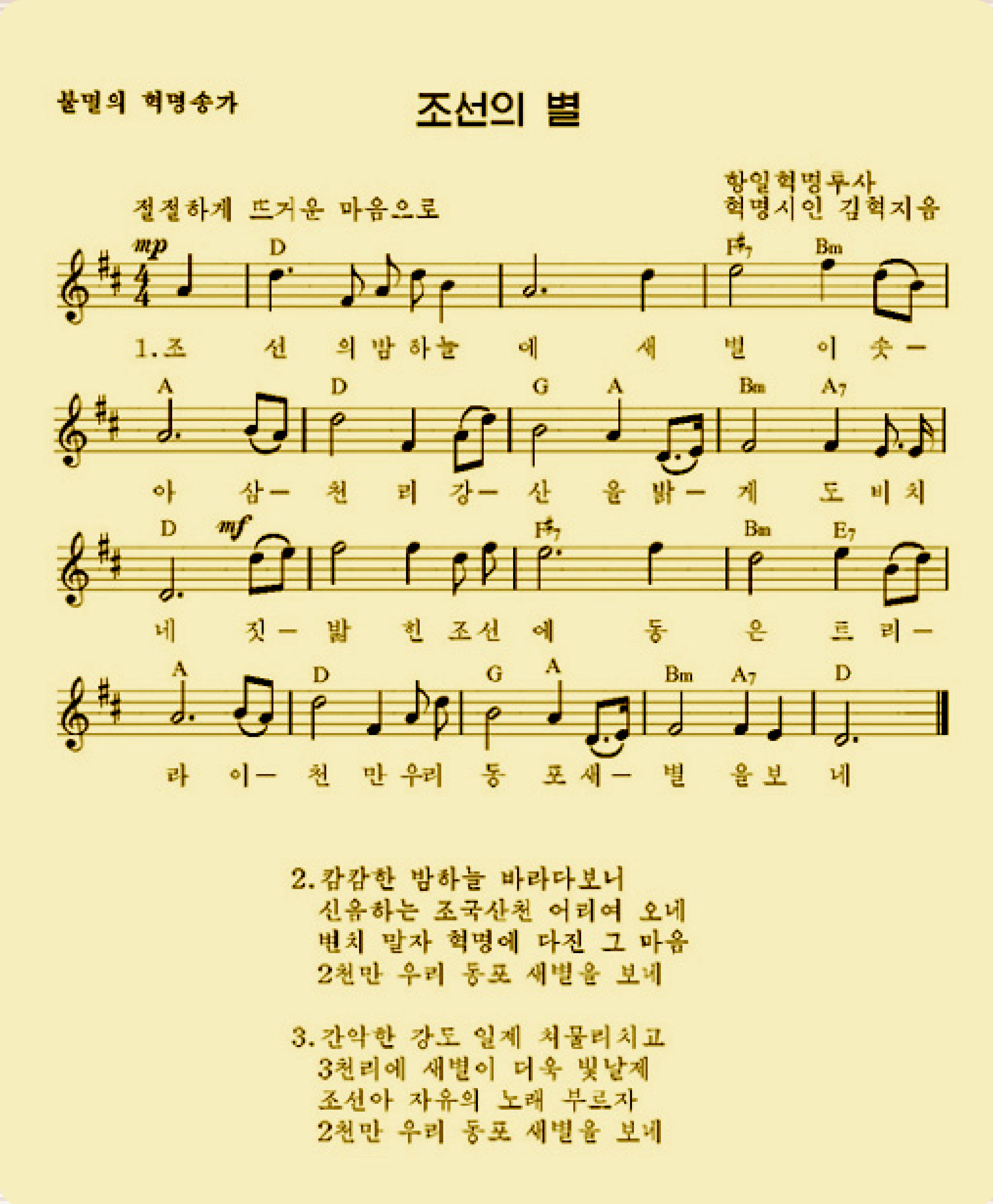
≪조선의 별≫이 보급되던 그 무렵부터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도 한별이라고 고쳐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일성(一星), 즉 한별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치자고 발기한 것은 변태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성주≫, ≪한별≫, ≪일성≫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김성주는 아버지가 지어준 나의 본명이었다.

유년시절에는 증손이라고 불렀다. 증조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나를 증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 본을 따서 ≪증손이, 증손이≫하고 불렀



다.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 부르는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추대하는데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단속하고 설복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동무들은 내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다.

김일성이라는 나의 이름이 공식출판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31년 봄 내가 고유수에서 군벌들에게 체포되어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날의 습관대로 나를 그냥 성주라고 불렀다.

내가 동무들속에서 **김일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훗날 동만에 나와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투쟁경력도 짧았지만 그들이 나를 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 것은 통일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당, 각파가 저마끔씩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전 세대의 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2천만 민중이 합심해야 하며 2천만 민중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영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이였다.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 것은 그들에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영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리다툼 때문에 대오에 불화를 조성한 적도 없고 의견상이로 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내세운 통일단결을 파괴해 본 적도 없었다. 통일단결은 우리 대오에서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역사적 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김혁이 우리의 곁은 떠나간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 때문에 밥도 새고 배도 곯고 발도 얼구면서 만주의 설한풍속을 헤쳐가던 김혁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앞에 모진 시련의 고비가 닥쳐올 때마다 나는 지난날 온몸을 애국으로 불태우며 투쟁속에서 젊음을 빛내던 살틀한 동지 김혁을 생각하며 그가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한 심경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김혁의 모습을 영원히 전해주려고 대성산혁명열사릉 맨 앞줄에 그의 반신상을 세웠다.

김혁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동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다보니 그의 얼굴 모습을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반신상을 세울 때 우리 조각자들이 수고를 하였는데 김혁의 얼굴 모습은 내가 알려주어 완성하게 되었다.

7. 1930년 여름

엠엘파계열의 종파분자들은 5.30폭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1930년 8월 1일 국제반전일을 전후하여 길돈철도연선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무모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5.30폭동 후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얼마되지 않는 조직들마저 적들앞에 노출되였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 사방으로 다니면서 가까스로 수습해놓았던 조직들도 재차 타격을 받고 파괴되였다. 만주각지에서 우수한 지도핵심들이 무리로 붙잡혀 처형되였다. 적들은 공산주의를 헐뜯고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구실을 얻게 되였다.

이 폭동이 일제의 민족이간책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두 차례의 폭동 때에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앞에서 그만 신용을 다 잃었다. 그 후 우리는 유격투쟁을 통하여 그 신용을 어렵게 회복하였다.

동만의 조선사람들은 8.1폭동까지 겪고 나서 좌경모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점차 심각히 깨닫기 시작했으며 대중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모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되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폭동이 휩쓴 지역들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혁명군중이 종파분자들의 선동에 더는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길림시가

나도 길림을 거쳐 돈화쪽에 가서 얼마동안 조직을 수습할 작정이였다.

길림에 가니 거기도 5.30폭동직후처럼 분위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해가며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였다.

길림의 역과 성문, 도로교차점들이 모두 적들의 검문초소로 되고 있었다. 일본영사관 밀정들도 거리를 싸다니면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였다. 민족주의운동이 막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시기여서 이 무렵에 와서는 안창호사건 때와 같이 독립군영감들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고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잡으려고 곳곳에 그물을 쳤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끓어번지던 길림시내에서 오늘은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보기 힘들구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동무들은 나와 헤어질 때 길림에 들리더라도 오래 지체하지 말고 인차 해룡이나 청원같은 곳으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길림을 쉽사리 떠날 수는 없었다. 혁명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고 만 3년동안이나 낮에 밤을 이어가며 심혈을 바치던 생각을 하면 다른 고장으로 선뜻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았다.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혁명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다면 이 도시에 그처럼 큰 애착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심혼을 바친 것만큼 그 고장을 사랑하는 법이다.

다행히도 공청사업을 하던 동무를 한 명 만나 몇몇 조직성원들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다놓고 적들앞에 조직성원들을 더는 노출시키지 말며 길림소년회나 유길학우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도 당분간 지하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카륜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파악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혁명조직을 수습할 데 대한 임무를 주어 활동지역들에 떠나보냈다.

나도 길림을 떠날 생각이였다. 내앞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길림의 일을 대강 수습해놓고나니 동만쪽으로 나가면서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나는 청원이나 해룡쪽에 가서 당분간 중국동무들의 집에 숨어있다가 적들의 피해를 많이 받은 고장들을 돌아다니며 폭동의 후과를 가셔볼 생각이였다. 해룡과 청원 방면에 가면 카륜회의가 있은 후 한번도 보지 못한 최창걸이와도 연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남만으로 가는 통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 일대를 유하와 함께 최창걸의 활동구역이였다.

최창걸은 유하, 해룡, 청원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동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결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때에 8.1폭동의 여파까지 미쳐 혁명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해룡과 청원사이에는 내가 잘 아는 길림시절의 동창생이 한 명 있었다. 유격대조창기 우리 부대가 있다가 남만원정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간 중국동무였다. 그 동무의 집에 얼마동안 가있으면 그 사이에 백색테러



1930년대
초엽의 길림역

선풍도 좀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림을 떠나는 날 몇몇 여동무들이 나를 역에서 전송하였다. 부자집따님들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바래다주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군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사들이 공산주의운동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길림본역으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덜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칸에서 뜻밖에도 장울화를 만났다.


장울화

장울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심양으로 가기 전에 혁명할 길이 없겠는가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 길림에 갔던 것인데 가보니 살풍경이더라는 것이었다. ≪알만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하면서 나를 다짜고짜 자기가 자리잡은 1등칸으로 데리고 갔다. 그도 내가 테러를 피해 숨어 다니는 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순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 출입문은 모조리 봉쇄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였으며 어떤 승객들에 대해서는 소지품고 보따리까지 사정없이 뒤져보았다. 검표원들도 그날은 다른 때보다 유달리 엄격하게 차표조사를 하였다. 8.1폭동의 후유증이 도시나 촌락 뿐 아니라 열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장울화의 도움으로 나는 해룡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손수들이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지만 중국신사복을 쭉 뽑아입은 장울화한테는 감히 말도 걸지 못하였다. 나도 장울화와 같이 앉아있다나니 순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표원들은 차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차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장울화의 배경 때문이였을 것이다.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료들도 있었다. 경찰이 몸을 수색하게 되면 나도 무사할 수 없었다.

해룡역에서 도착하니 홈과 개찰구 옆에서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나는 육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꼈다.

해룡역에 있는 적이 일본경찰들이라고 하니 신경이 몹시 날카로와졌다. 중국의 순사나 일본순사나 다같은 순사이지만 일본순사들에게 걸려들면 더 용수가 없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가들을 붙잡기만 하면 사정없이 국내로 압송하거나 관동도독부법원들에서 재판을 하여 여순, 대련, 길림 등지에 있는 감옥들에 마구 잡아넣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할 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을 때 장울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였다.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조시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였다. 조시역으로 가자면 다섯정거장이나 여섯정거장 더 가야 하였다. 장울화가 해룡역에서 내리게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

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룡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였다. 허리에 모갑싸창을 타 수십 명의 가병들이 우리앞에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 통에 영사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보란 듯이 이 역전거리를 달리었다. 그날 나는 고급여관에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면서 휴식을 잘하였다.

장울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병들로 세웠다. 여관둘레에 가병들이 두겹세겹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특별방에 안내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였다. 원래 그는 무송시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농삼아 양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농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아들, 양아들하였다.


철주동생과 장울화

나는 장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주가 착취자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울화와의 관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사람이 어질고 양심적인데다가 반일감정이 강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냈는데 위급한 대목에서 도움을 받고 보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지주의 아들이라고 장울화를 따돌리였다면 그들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를 그처럼 성실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와 힘을 합쳐 나를 도와준 것은 그가 나와의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였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울화는 자기와 나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자, 중국사람과 조선사람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의 설움은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주었으며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이상을 충심으로 지지해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였기 때문이였다. 그는 조선민족의 비운에서 중화민족의 불행을 보았다.

장울화의 아버지도 부자이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지조가 강한 애국자였다. 그의 애국충정은 그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맏아들이 태어나자 울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울중의 두 번째 글자 ≪중≫은 ≪중화민국≫이라는 중국의 국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이였다. 둘째한테는 울화, 셋째한테는 울민이라고 이름을 연이어 지어주었으며 넷째가 태어나면 울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넷째는 출생하지 않았다. 네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합치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된다.

장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쯤에는 일제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맞받아나가 싸우려고 한다.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장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겠는데 집에서 허락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너도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 인제 다른 출로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국지사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야 다른 것이 있다. 중국사람들과도 같이 혁명을 해야지. 일제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에는 조선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같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여관에 2-3일동안 묵으면서 장울화에게 반일사상을 불어넣었다. 장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 나서 학교를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 질 수 있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 있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달라≫고 하여 그의 심양주소를 받았다. 그런 다음 목적지까지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 사는 집이였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 것이 특이한 혁명이였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노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텔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자산가출신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며 도락을 못누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 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나는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간 묵었는데 그 동무도 장울화처럼 나를 잘 대해주었다. 그 동무의 성이 왕가였던지 위가였던지 지금은 기억이 삭막하다. 그 사람을 내세워 며칠동안 최창걸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최창걸은 8.1폭동이 일어난 다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나는 초시부근의 공청원을 한 명 만나 해룡과 청원일대에서 파괴된 조직들을 속히 복구하고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치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를 주어 최창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동안 손님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보니 그것도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였다.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더라도 대지를 마음껏 밟으며 자유분방한 활동에 몸을 잠그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길림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남만철도는 일제놈들이 주관하고 있어 기차는 타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간도에 가고 싶었으나 공산당검거선풍이 불어치는 그런 고장에 가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동만에 나가서 무장투쟁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중국동무와 함께 해룡에서 기차를 타고 길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교하라는 곳으로 떠났다. 교하에는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들이 많았다. 길림시절부터 나와 친교를 맺어온 한영애와 그의 삼촌 한광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당분간 군벌의 추격을 모면할 수 있는 은신처도 꾸리고 조직을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벌일 작정이였다. 한영애를 만나면 하얼빈에 있는 국제공산당산하 상급조직과의 연계도 지으려고 생각하였다.

한영애는 1929년 초에 가정사정으로 길림에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교하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와의 연계를 끊지 않고 있었다.


한영애

나는 누구부터 찾아가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독립군시절에 중대장을 하던 장철호한테 먼저 들리였다.

국민부가 나온 후 독립군의 상층과 결별하고 군복을 벗어던진 그는 교하에 내려와서 정미소를 차려놓고 영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를 무척 사랑해주던 사람이고 믿음이 가는 애국지사였기 때문이였다. 나에게는 조직성원을 만날 때까지 임시로 몸을 붙이고 지낼 수 있는 생활거처가 필요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왔다고 몹시 반가와하면서도 집에 숨어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눈치이기에 나도 찾아온 사유를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리재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만 하여도 여관업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잘 후원해주던 사람이였다. 그도 역시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는 하였지만 중국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교즈 한 그릇을 사먹이고 나서는 갈라지자고 하였다.

그 당시 나에게는 한두 끼의 식사보다도 숨어있을만한 거처가 더 필요하였다. 그 사람도 내가 찾아왔으면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건만 하루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없이 그저 잘 가라고만 하였다. 그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화가 치밀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는 다 져버리였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사상적 결합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친구도 다 소용없다, 지난날의 친분관계나 인정만 가지고서는 혁명투쟁을 함께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때에 얻은 뼈저린 교훈이였다.

사상이 변하고 신념만 변하면 의리나 인정도 동시에 변하는 법이다. 지난날 죽자 살자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인간적 결렬이 생기게 되는 것도 다 어느 한쪽의 사상이 변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우정이나 동지적 유대도 어느 일방이 사상적으로 변질되면 금기 가기 마련이다. 사상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의리나 친분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후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은 하나의 교훈이다.

이재순과 헤어진 나는 한광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광은 어데 피신했을 수 있지만 한영애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겠는가, 그가 내 형편을 알기만 하면 목숨을 내대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들었다.

그러나 집에는 한광도 없고 한영애도 없었다.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행처를 물어보았더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운동이나 좀 한다고 하던 사람들

은 다 숨어버렸으니 이제는 찾아갈 데도 없게 되였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경찰들이 막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잡혔구나하고 내 자신도 사태를 아주 절망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 한광의 옆집 여자가 그래도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변이 위험한 것 같은데 어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하면서 자기가 업고 있던 아이를 재빨리 업혀주었다. 그리고는 ≪대답은 내가 다 할테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서 불이나 때십시오≫하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의 내가 아이아버지처럼 위장해도 일없으리만큼 나이보다 퍼그나 숙성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부지깽이를 들고 부엌봉당에 앉아 그 여자가 시키는 역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혁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으로 당해보았다.

경찰들은 문을 열어제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방금 이리로 온 청년이 어디로 갔는가?≫하고 물었다.

그 여자는 ≪청년이라니, 어떤 청년말입니까?≫하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중국말로 넌지시 아무도 없으니 들어와서 밥이나 자시겠으면 자시라고 하였다.

등에 업힌 아이는 낯이 설다고 자꾸만 울었다. 그 아이를 달래기는 달래야겠는데 서투르게 달래다가는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지깽이로 아궁이만 뒤적거렸다.

경찰이 어디로 뛰었을까, 잘못보지는 않았는가고 저희들끼리 떠벌이다가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들이 마을에서 떠나갈 때까지 ≪주인≫노릇을 더 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밭에 나가있는데 들어오라고 알리겠으니 마음놓고 있다가 그이가 온 다음 함께 대책을 의논해봅시다.≫ 그리고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밭에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후 경찰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더러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앓는 사람이 어떻게 심부름 가겠습니까. 정 바쁘면 내가 대신 갔다오지요≫하고는 나대신 놈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다 들어주고 돌아왔다.

이처럼 그 여자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박한 촌여성이지만 기발하고 지혜가 있었다. 혁명의식도 상당히 높은 여성이였다.

나는 이름모를 여인의 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날 친분관계를 믿고 찾아갔던 아버지의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생판모르는 그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오로지 혁명가는 돕는다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처럼 희생적으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준 것이다. 사람이란 어려운 때에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의탁할 수 있는 결백하고 견실한 의리는 역시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늘 전우들에게 혁명을 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배고파도 인민을 찾아가고 물을 먹고 싶어도 인민을 찾아가며 슬픈 일이 생겨도 인민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아주머니였다.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에게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해 겨울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이 오가자에 모여 회의를 할 때 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성주동무는 운이 좋아. 운이 좋으니까 하늘

이 도운거지≫하였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봉변을 면한 것이 아니라 인심이 좋아서 군벌에게 잡히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인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교하의 아주머니≫라는 말은 슬기롭고 희생적인 우리 인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명사, 어려운 고비에서 자기를 희생시켜 혁명가를 도와주는 것이 체질로 되어있는 여성들을 상징하는 뜻깊은 대명사로 되였다.

나는 지금도 폭양에 그슬리고 피로 얼룩지던 1930년 여름을 회상할 때마다 교하를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그려보군 한다. 수십년을 두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회고할 때면 60년 전 그날 그 아주머니의 이름도 묻지 못하고 홀연히 교하땅을 떠난 실수를 가슴아픈 자책에 잠기군 한다.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온 세상에 광고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방 후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은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역에서 살다가 헤어진 지 반세기만에 백발노인으로 나타난 은인들도 있었다.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준 적지 않은 은인들이 나를 만났고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교하의 아주머니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주머니 자신은 1930년 여름에 있었던 극적인 순간을 범상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죄다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른다.

60년전의 은인은 아무런 소식도 자취도 없이 대지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좋은 옥일수록 땅속에 깊이 묻히는 법이다.

밭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후에야 아주머니는 나에게서 아이를 받아내리었다. 그때의 일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나는 내 이름을 제대로 대줄 수가 없어 가명을 대고 그저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자기도 혁명을 하던 사람인데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하면서 앞집에 큰개(밀정)가 있으니 주의해야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이 한광은 북만으로 뛰고 한영애는 탄압이 심하여 늘 피해다니는데 지금 그를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였다.

그런 말까지 듣고나서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앞집에 밀정이 있으면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다. 집에 숨어있다가 정세를 봐가며 다시 돈화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돈화라는 곳이 일본인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고장인데다가 공산당 화요파 본부가 있던 곳이어서 수색이 심했다. 어지간한 조선사람들은 벌서 5.30폭동직후에 거의 다 검거되고 여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어두워진 다음 그 주인의 안내로 교하시내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초막으로 갔다. 이 집 노인부처가 또한 매우 친절한 분들이었다.

이날밤 나는 우리 혁명가들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곳은 인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잠은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만나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찾지 못하고 며칠째 줄곧 헛물만 켜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런 때일수록 피동에 빠지지 말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수세에 빠지면 끝장이다,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이런데 숨어다니기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동만에 나가 혁명을 추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날이 밝은 다음 뜻밖에도 한영애가 그 집에 나타났다. 내가 동만지방으로 나온다

는 통보를 받은 한영애는 은신처를 찾아 집을 나설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분이 오면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 연락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1년만에 만나는 셈이었다.

고생 끝에 그를 만나고보니 어떻게 반가왔든지 한동안은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한번 웃기 시작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통쾌하게 깔깔거리군 하던 그의 얼굴이 한해사이에 살이 빠져 몰라보게 되었다.

한영애의 말을 들어보면 간도도 살풍경이라 하였다.

나는 한영애에게 ≪이렇게 숨어있어야 무골충이지. 그래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소. 일제놈들이 당장 쳐들어오겠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놈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겠소. 조직들을 빨리 수습하고 인민들을 각성시켜야 하오. 그저 무섭다고 숨어서 떨기만 할 수야 없지 않소≫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하였다.

≪아무도 없는 여기에 앉아있어서는 방법이 없소. 조직과의 연계를 지어줄 터이니 하얼빈으로 가기요.≫

한영애는 조직과의 연계가 끊어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헤덤비고 있었는데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짓기 위하여 김혁을 하얼빈에 파견하였지만 나는 그가 돌아와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얼빈에 빨리 가서 국제당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폭동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조직들과 계엄상태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긴장감에 짓눌린 도시와 농촌마을의 풍경은 나로 하여금 좌경모험주의자들이 혁명에 끼친 해독이 얼마나 엄중한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절히 느끼게 하였으며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1930년대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 혁명이 불가피하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론투쟁만으로써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거나 혁명에 이로운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의사를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5.30폭동의 연장선위에서 우리가 그처럼 우려하던 8.1폭동이 끝끝내 폭발한 것은 그들이 길동지구당회의에서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전면적으로 묵살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만주대지에서 거침없이 굴러가는 좌경모험주의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자면 국제당의 방조가 필요하였다. 나는 폭동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를 알고 싶었고 그것이 국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해낸 망동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만일 국제당이 그런 지령을 내렸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그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고 싶었다.

우리는 적들의 경계가 심한 조건에서 둘다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고 차를 타기로 하였다.

그날 한영애는 진종일 교하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입고갈 신사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여비를 마련하였다. 군경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하여 트렁크에는 화장품도 넣었다. 그의 도움으로 하얼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하얼빈

나는 하얼빈부두가의 상부가입구에 있는 국제당연락소에 찾아가 연계를 맺고 그곳 사람들에게 한영애를 소개한 다음 5.30폭동과 8.1폭동으로 하여 동만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통보하고 카륜회의 정형을 소개하였다.

국제당연락소에서도 두 차례의 폭동에 대해서는 모험주의라고 평가하였다. 연락소에서 나를 만나준 사람은 자기 견해로 볼 때에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결정들이 다 조선의 실정에 맞고 혁명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대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카륜회의에서 새로운 당창건방침을 내놓고 그 모체로 되는 기층당조직으로 건설동지사를 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1국1당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김혁

이렇게 되어 나는 국제당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의 원칙, 창조성의 원칙, 우리가 내세운 모든 노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모스크바에 자기네가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갈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다.

나는 모스크바에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봉암, 박헌영, 김용범과 같은 사람들도 이 대학을 다녔다. 모스크바유학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속에서 ≪모스크바유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혁명실천에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고는 싶어도 지금은 갈 형편이 못된다≫고 대답하였다.

1989년에 문익환목사를 만나 여담으로 하얼빈에 대한 얘기를 꺼냈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도 그 무렵에 하얼빈에서 국제당이 선발한 유학생들을 쏘련에 넘겨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국제당에서는 나에게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사업을 위임하였다.

김혁이 3층집에서 떨어져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우리는 국제당연락소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김혁의 체포 때문에 나와 한영애는 하얼빈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침통한 기분으로 지냈다. 김혁이 철쇄에 묶인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한번은 그가 떨어졌다는 도리의 3층집앞에 가보기까지 하였다.

도리의 상점들과 식당들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았으나 우리한테는 그것이 다 그림의 떡이었다.

국제당에서는 하루용돈으로 15전을 주었는데 하얼빈생활이라 그것이 15전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었다. 보통여관에 들면 숙박검열이 심하여 혁명가들이 배겨있을 수 없었다. 경관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숙박계도 내지 않는 여관이란 백계러시아인들이 경영하는 여관밖에 없었다. 이 여관에서는 식비와 숙박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돈많은 자본가들이나 들었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명함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호화여관이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타산하던 끝에 하루 한끼씩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한 고급여관에 들기로 하고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별반 하지 않는 일반여관에 한영애를 들게 하였다.

여관에 들고 보니 그 내부가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여관에는 상점, 식당, 오락장, 딴스홀 같은 시설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었다.

나는 돈도 없이 여관에 거처를 정했다가 딱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였다. 내가 첫

날 여관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안내원여자가 손톱을 깎으면 돈을 물어주어야 하겠으므로 나는 다 깎았다고 하였다. 안내원이 나가자 이번에는 접대원이 꼬리를 물고 따라들어와서 어떤 음식을 청하겠는가고 물었다. 궁색한대로 또 동무의 집에서 먹고 왔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련을 날마다 받으면서도 돈이 없는 탓으로 여관에서는 식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자기만 하였다. 식사는 하루일을 마치다 보고 저녁에 한영애와 함께 거리에 나가 눅거리강냥지점을 한두점 사먹는 것으로 굼때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온 유소기를 만나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그는 자기도 그 해 하얼빈에 있었다고 하였다. 당원들 중에 중국사람은 없고 조선공산당원 몇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국제당에 관계하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시기를 따져보면 유소기가 하얼빈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간 직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국제당일군들을 만난 것 같다.

나는 한영애에게 과업을 주고 흩어진 조직성원들을 찾도록 하였다.

한영애는 길림시절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하얼빈공청지부의 한 아무개라는 사람과 연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지하에 숨어있는 조직성원들을 한명두명 찾아내어 카륜회의 방침을 해설하였다.

나도 김혁이 공작하던 철도와 항만에 들어가서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하얼빈에서 지하조직들을 수습하고 동지들 사이에 서로 연계를 지어준 다음 한영애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돈화로 나왔다. 분초를 다투는 때여서 한영애하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내가 떠날 때 한영애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얼빈 동무들이 자꾸 남겨두고 가라고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동만에 나온 후 그것이 늘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하공작규율상 편지연락을 못하게 되어 있어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다.

한영애의 그 후 운명에 대해서는 당역사연구소동무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돈화로 나올 때 하얼빈의 혁명조직들에 서한을 남긴 것이 있는데 한영애는 그 서한을 통해 내가 하얼빈동무들에게 준 과업을 실행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1930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어지간한 여성들 같으면 집이 그리워서라도 교하로 돌아갔겠지만 한영애는 하얼빈에 그냥 남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 말이 적고 양순한 처녀였지만 일단 혁명사업에 들어가면 이악하고 과감하게 활동하였다.

한영애는 붙잡히자마자 신의주감옥으로 끌려가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이종락, 박차석을 비롯한 ≪ㅌ·ㄷ≫시절의 연고자들이 무리로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이종락이와도 한 감옥에 있게 되었다.

그 후 이종락이 한영애를 만난 자리에서 ≪나도 김성주와는 잘 아는 사이이고 너도 김성주의 지도를 받던 여자이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그를 귀순시켜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귀순공작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한영애는 즉석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는 이종락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못쓴다, 우리가 김성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따위 너절한 배신행위를 하겠는가, 출두한 다음 혁명을 못하면 말았지 그따위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938년 겨울 우리가 남패자에서 회의를 할 때 나를 ≪귀순≫시켜보라고 회의장소에 들어왔던 이종락이 이런 사연을 다 고백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그 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영애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그가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종락이나 박차석같은 사내들은 감옥맛을 보기 바쁘게 다 전향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한영애는 여성의 몸으로 그 고초를 용감하게 이겨냈다.

≪해산사건≫이후 도처에서 혁명가들이 무리로 잡혀가고 투쟁의 길을 걷던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생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고 있던 때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만큼 나로서는 무척 감동도 되고 고무도 받았다.

한영애는 중국 단동시에 있는 고무공장에서 제화노동도 하였다. 그는 노동을 하면서도 동포들에게 길림시절에 부르던 혁명가요를 보급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도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한영애는 그 후 서울에 나가 몇 해 동안 홍명희 선생의 아들집에서 처녀시절을 보냈다.

그는 조직선을 찾아 다시 만주로 들어가려고 여러 해 동안 모대기다가 늦게야 결혼하였다. 비록 머리를 쪽지고 가정에 묻히는 몸이 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양심과 지조는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무장을 들고 백두산일대에서 적들을 한창 답새기고 있을 때 한영애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길림시절의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다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승리를 빌었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해방 후 남로당원으로 지하활동을 하였는데 후퇴시기 적들에게 피살되었다.

한영애도 전쟁시기 서울근처에서 여맹조직을 책임지고 전선원호사업을 잘하였다.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나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왔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고 1951년 8월 14일밤 적들의 폭격에 두 아이와 함께 애석하게도 희생되였다.

나는 한영애가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길림시절의 호흡과 발걸음으로 전생애를 살아왔다. 노래를 불러도 길림시절의 노래를 불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한영애와 같이 절해고도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일생에서는 한영애도 잊을 수 없는 은인이였다.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여성이였다.

해방이 되여 조국에 돌아와 한영애의 행처를 수소문하니 그는 공화국경내에 없었다.

해방 전에는 항일전쟁을 하느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변장에 필요한 중국옷을 얻느라고 땀을 흘리며 무더위속을 뛰어다니던 일과 열차에서 군벌들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위험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던 일, 한점의 지짐떡을 먹으면서도 매번 그것을 절반으로 갈라서는 그 중 한쪽을 내앞에 조용히 밀어놓군하던 일들은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가 나를 위해 한 모든 봉사는 사랑이나 연정과 같은 감정을 훨씬 초월한 깨끗하고 사심없는 동지애의 산물이였다.

그가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나를 만나보지 못하고 폭격에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석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도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여 내 손에까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없는 은인들 생각이 가슴에 차오를 때면 나는 나의 청춘시절에 큰 자국을 남긴 한영애의 아름다운 넋을 사진에서 찾으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군 한다.

8. 두만강을 건너



두루봉혁명사적비

우리 아버지는 간도사람들이 투쟁력이 강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였다. 나도 5.30폭동과 8.1폭동까지 겪고나서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뛰어난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간도나 북부조선 일대는 일찍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의 활동무대로 되어왔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맑스-레닌주의사조도 이 지역에 먼저 전파되었다. 간도일대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지도자들속에서 나타난 소부르조아적 조급성으로 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나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간도일대를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이 일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함께 간도를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이 일대를 만몽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고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20세기초부터 동만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야기시킨 것은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다리를 놓자는데 있었다.

1907년 8월에 일제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연길현 용정에 군대를 침입시켜 거기에 ≪조선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중국반동정부를 꾀여 간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길회선철도공사권까지 탈취하였다. 그 후 용정의 ≪조선통감부파출소≫는 일본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일제가 용정

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나 그 아래에 다섯 개나 되는 영사관 분관까지 내온 것은 간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을 호강시키자고 한 짓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런 영사기구에도 각지에 경찰서들을 배치하고 조선인거류민회의와 같은 주구단체들을 무수히 만들어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였다. 동양척식회사 출장소와 금융계도 이곳에 줄을 뻗치고 있었다. 동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있었다.

이처럼 동만지방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백두산수림지대와 함께 동만을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8.1폭동을 겪은 후 박두하고 있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징조를 이모저모에서 느끼고 있던 나는 혁명성이 강한 동만인민들을 묶어세워 한시바삐 무장투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래서 동만으로 나갔다.


돈화 거리

내가 처음 동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 동무들은 만류하였다. 일제의 폭압기구와 정보망들이 거미줄처럼 늘여져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치고 대담하게 동만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나의 활동은 주로 도시 청년들과 학생들속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의 요구에 맞게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들 자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와의 항전에로 하루 빨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국제당에서도 내가 동만으로 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나는 먼저 돈화로 향하였다. 이 일대가 8.1폭동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이였다. 돈화는 이 폭동의 근원지였고 중심무대였다.

여기에는 일본군의 한 개 수비대본부와 길림총영사관산하의 영사관분관이 있었으며 구동북군의 677연대가 있었다. 적의 폭압역량이 이처럼 조밀하게 배치되어있는 곳에서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이 일대에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한 사정과 관련된다. 돈화는 반석과 함께 엠엘파의 본거지였으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한 개 중심이기도 하였다. 박을세, 마건과 같은 8.1폭동의 주모자들도 바로 이 고장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었다.

돈화에는 당 및 공청,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꾸려놓은 여러 가지 혁명조직들이 있었고 진한장, 고재봉, 고일봉과 같은 믿음직한 동지들이 있었다.

나는 돈화에 가자 진한장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중국 산둥옷을 입고 다니면서 폭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내가 길림에서 공청소조들을 도처에 꾸려놓을 때 중학교에 다니던 진한장도 돈화에서 우리 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에는 그가 오의성부대 총사령부에서 비서장으로서도 활약하고 동북항일연합군에서 사단참모장, 사장, 방면군 군장, 남만당위원회 서기 등도 역임하였지만 그때는 소박하고 조용한 공청원이었다.

진한장은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아들이었으나 혁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청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진한장의 아버지는 큰 부농으로서 말도 몇 백

필씩 가지고 있었고 총도 여러 자루 갖추고 있었다. 집주변에 토성까지 치고 있어 그 위풍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농담삼아 나에게 자기네는 원래 타도대상인데 집주변이 다 제 땅이므로 남의 땅의 밟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집 땅이 딱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진한장은 공산주의를 배워진 선배라고 하면서 나를 환대해주었다. 생활이 유족하다보니 그 집에서는 내가 공밥을 먹어도 아까와하지 않았다.

나는 진한장과 고재봉을 내세워 흩어진 조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면서 동무들을 찾아다니었고 밤에는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하면서 조직들을 복구하였다. 이렇게 폭동의 후과를 기본적으로 수습해놓은 다음 국제당에서 받은 위임대로 돈화에서 길동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진한장

그 후 고재봉을 비롯한 몇몇 공청원들이 나에게서 두만강연안의 도시와 농촌들에 나가 대중을 혁명화하며 당조직을 꾸릴 데 대한 과업을 받아가지고 활동구역으로 떠나갔다.

나도 진한장에게 돈화중학교에 들어가서 공청활동을 하라고 과업을 주고 돈화를 떠났다.

내가 동만에 가서 맨 처음으로 들린 곳은 화룡이었다.

화룡에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닐 때 우리의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조아범이라는 중국동무가 있었다. 채수항과 같은 조선동무도 있었다. 이런 줄을 타고 들어가면 폭동의 후과도 수습할 수 있고 조직들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나는 먼저 대립자라는 곳에 가서 조아범을 만났다.

조아범은 8.1폭동의 후과를 대단히 크다고 하면서 폭동 후 조선동무들이 다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아범은 감옥에 들어갔던 몇몇 동무들이 인차 석방된 것 같으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후 채수항이 연락을 받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원래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와서 사범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영향을 받고 혁명사업을 시작하였다. 채수항은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축구선수로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 여러 명의 화룡출신의 청년들이 길림에 와서 공부하였다. 김준이 용정과 온성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면 채수항은 화룡과 종성 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후에 현당서기로 사업하다가 ≪민생단≫연루자로 몰려 억울하게 학살당한 김일환동무와 함께 공청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집결시켰다. 연길폭탄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영순동무도 연길현의 팔도구광산에서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채수항

그런데 모처럼 꾸려놓은 조직들이 두 차례의 폭동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많은 핵심들이 잡혀가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얼마 안남은 조직성원들마저 세련이 부족한 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실태는 나로 하여금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카륜을 떠난 후 길림, 해룡, 청원, 교하, 하얼빈, 돈화를 거쳐 화룡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만인을 공감시

키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확한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이 있고 자체의 혁명역량이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체득할 때에 생기며 투쟁을 통하여 굳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을만한 강령이나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카륜에서 채택한 혁명노선은 아직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채수항을 비롯한 몇몇 공청, 반제청년동맹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그들에게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노선을 상세하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망있는 동무들로 지도핵심을 잘 꾸리며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그 대열을 부단히 늘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만강연안의 매개 현들에 혁명조직구를 내올데 대한 과업도 이때 주었다.


오태희

폭동조직자들은 감옥과 교수대가 두려워 대중을 총검앞에 남겨두고 다 도피하였지만 우리는 폭동의 후과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가 산동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화룡의 동무들은 나를 ≪산동청년≫이라고 불렀다.

내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왕청이었다. 내가 왕청에 들린 목적은 오중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오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은 김준, 채수항 동무들이었다. 그들이 길림에 들락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인물소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길림에 있으면서도 간도일대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해두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동지 한 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흘을 굶어도 좋고 열흘을 굶어도 좋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왕청에도 들리었다. 채수항이 화룡에서부터 왕청 석현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석현에서 오중화도 만나고 오중흡도 만나고 오태희노인도 만나보았다.

오태희노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가정이었다. 노인네 네 형제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고작골이라는데서 살다가 1914년경에 왕청땅에 이사하였다. 그 네 형제의 자손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땅에 쭉 널려살면서 혁명사업을 하였다. 그 당시 오중화는 왕청5구 당비서로 사업하였고 오중흡은 왕청현 춘화향 원가점에서 공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의 동생인 오중성은 왕청현 석현에서 공청활동을 하다가 1929년초에 온성군 풍리동으로 이사하여 보문학당 교원을 간판을 가지고 혁명사업을 하고 있었다. 오중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룡에 있는 사립화성학교 교원을 하였다.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오중화동무에게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오중화는 그 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그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10여 명이 충실한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었다. 그 가운데서 오중화, 오중성, 오중흡과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석현에서 일을 끝낸 나는 그달음으로 온정지구에 건너갈 것을 결심하였다. 서도지방에서 태어나 어린나이에 이국살이를 시작한 나에게 두만강 이남의 육읍일대에 대한 과업이 별로 없었다.

육읍일대는 이조 때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양반들이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이었다. 곡식이 바르고 기후가 엄혹한데다가 우두머리들의 구박과 학대가 심해서 변방수비에 동원된 군사들이 여기에 왔다가도 인차 다른 고장으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벼슬자리를 하는 자들도 이 일대의 관리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찍해하였다. 그들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에 오기가 싫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가며 서울거리에서 빈둥거렸다. 봉건통치배들이 그것 때문에 500년동안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오중화

나는 김준이 육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상들은 이 땅을 불모지라고 잘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피땀을 바쳐 이 일대를 혁명의 요새로 만들어보자고 말하였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온성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밑에 1920년대말부터 김준, 채수항, 오중성과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고장이었다. 우리는 벌써 그때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육읍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 있었다. 국내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온성지구에서는 100－150명의 청년들이 용정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이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와의 연계가 깊은 김준, 오중성과 같은 선각자들의 지도밑에 이 일대에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온성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지부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 이 발판을 타고 온성지구에 우리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갔다.

내가 온성지구에 나오게 된 것은 국내에 당조직도 내오고 카륜회의 방침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 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키자는 것이였다.

석현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오중화는 사촌동생이 먼저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연락하기 위하여 오중성이 있는 풍리동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온성군 남양대안인 희막동 어느 골안어귀에서 연락을 받고 온 오중성동무와 그밖의 조직성원들을 만났다. 오중성과는 그때 처음으로 상봉하는 셈이었다. 형인 오중화보다는 허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었다. 오중화는 자기 동생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넜다. 오중성은 노도 걸싸게 잘 저었다. 어둠속에 묻힌 산야를 바라보느라니 5년만에 조국땅을 다시 밟는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남양상탄에서 배를 내린 다음 오중화에게 나라를 독립하고 이 강을 건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다.

오중화는 내 말을 긍정하며 자기도 두만강을 건널 때면 매번 그런 감정에 잠긴다고 하였다.

남양상탄마을을 지나 남양산으로 오르는 고개길에 들어선 우리는 오중성이 미리 마련해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성지구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군중들의 동향을 요해하였다.

온성사람들이 대중조직을 내오는데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나는 한주일동안 국내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온성지구 혁명가들이 국내도처에 많은 조직들을 내오기는 했지만 그 조직들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심한 소극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파악이 있는 몇몇 정수분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문을 닫아매고 그 대열을 늘리지 않는 것이 이 일대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 봄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무어진 온성공청도 몇몇 안되는 성원들로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지방회니, 신흥회니, 신간회니, 당재건파니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파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실정에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러드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현상유지나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장원

내가 풍리에서 만난 어떤 공청일군은 원수들의 책동이 심해지니 사람들이 통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공청일군은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에 관계한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풍인동농민협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전장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데 구장, 면장, 순사질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대열에 뻗쳐올까봐 신경을 도사리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적의 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다 대중을 믿지 않는 표현이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온성지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심화발전시킬 수 없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오중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 형형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을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 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분자들에게 붙어다니다가 무의식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 한 사람한 사람씩 우리 편에 쟁취해야 한다.…

전장원동무들에게도 적기관 복무자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전술적 원칙들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에 구장, 면장, 순사가 있다고 놀라거나 축잡혀서는 안된다. 동무는 오히려 그러한 친척관계들을 타고 적통치기관에 들어가서 왜놈들의 말단통치기구를 마비시켜 놓고 판을 크게 벌일 잡도리를 해야 한다. 온성을 비롯한 육읍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꾸리자면 대중을 혁명화하는 것과 함께 적통치기관 복무자들을 대담하게 전취하여야 한다. 적기관 복무자들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라.

온성에 갔을 때의 일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준, 오중화, 오중성 동무들과 함께 마포면 월파동철도부성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던 일이다.

일제는 1929년초부터 두만강연선에서 철도부설공사를 다그치었다. 삼남지방을

비롯한 국내각지와 간도에서 1000여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어 월파마을에 개풍거리라고 부르는 번잡한 주민지구를 만들어놓았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 가있던 인부들도 이 거리에 밀려들어 벌이를 하느라고 고역을 치르었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동에서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속에 뚫고 들어가 조직을 꾸려보라고 하였다.

김준동무도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그는 나와 약속한대로 온성에 들어가 월파동에서 노동청년회와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 그들은 ≪국제당파견원이 왔다≫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느라고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국제당파견원≫이라는 직함까지 붙이면서 호위조직을 면밀하게 해준 것은 국내에서 혁명가들에 대한 일본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기 때문이였다.

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속에 들어가서 당장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였다. 내가 그때까지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해온 것은 다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였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노동계급을 내세워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하자는 것이였다.

노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것을 맹세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조선의 노동계급을 그리워하였던가.

나는 공사장에 들어가 하루반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자갈도 부리고 모래도 나르고 ≪함바≫(노동자숙사)밥도 먹어보았다

김준은 나를 연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보태려고 온 동무라고 소개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노동자들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함바≫나 공사장에서 내가 본 것은 몇 푼을 품삯을 벌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군상만이 아니였다.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갈망하는 노동자들,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개척해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내 가슴은 노동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나는 그때 철도부설공사장에서 온성출신의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최봉송 동무들과도 처음으로 낯을 익히었다.

최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하면서 자기가 남포군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리에 화약을 모아두었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날 그것을 차굴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형편에서는 차굴을 폭파하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더 절박하니 화약은 두었다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 요긴하게 쓰자고 하였다.

나는 그때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장투쟁문제, 당창건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도 내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국내에 와서 노동자들에게 카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열 사람에게로 번져가고 백 사람, 천 사람의 입을 거쳐 만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사상이 국내인민들의 신념이 되고 기반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철도공사장 노동자들은 우리의 노선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노선에서 신심을 얻었다면 나는 그 노선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었다.

온성에서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각오와 군중과의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온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뭇꾼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이었다. 전장원은 월파동의 조직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 가까이에 소발구까지 끌고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나는 먼저 회의참가자들에게 카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달하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성지구에서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 데 대한 온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중성, 전장원, 전창룡, 최춘국, 최봉송, 최근주 동무들이 온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책임자로는 오중성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소개하



첫 국내당 결성장소 기념비

고 간단한 결의를 하였다.

그들의 결의토론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 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저미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는 용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난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소박한 말이었지만 솔직한 심정토로였다.



두루봉 당조직결성모임때 정면에 걸었던 깃발

전장원은 그 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체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 같은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한 온성사람들은 당조직을 내오는 역사적인 회합인데 간소하고 격식이 없이 허전하다. 형평사 같은 백정들의 조직들에서도 발기취지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상에 내돌리는데 몇 마디 맹세로 회의가 결속되니 너무 승승한 감이 난다고 하였다.

나도 동무들이 다진 맹세가 몇 백 페이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있는 것이다. 문서장이나 자꾸 만들어서는 뭘하겠는가,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 곳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과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주었다.

온성지구에 당조직이 나온 것은 국내에서 당건설의 기초를 축적하는 돌파구로 되었으니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떠밀어주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온성지구 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육읍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이 앙양되었다.

대중이 우리를 따르게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고조되자 이 일대에 와서


두루봉

자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돌아다니던 최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달아나버리였다. 해방 후 그가 그때에 있은 일을 우리에게 솔직히 실토하였다. 온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엠엘파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 우리 세력은 없고 길림바람이 들어왔습디다, 그 바람이 어떻게나 세게 들이불었던지 온통 **김일성**동지네 판이더란 말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연세가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드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갈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최창익은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 것은 우리가 종파를 싫어하며 자기네처럼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육읍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귀로에 올랐다. 나룻배를 타고 어정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데 오던 때보다 마음이 퍼그나 가벼웠다. 일이 뜻대로 되고 보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였다. 사선을 헤치고 모험을 하면서 조국을 찾아온 보람이 있었다.

조국에서 보낸 한 주일은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혁명노선이 만민이 접수할 수 있는 옳은 노선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조국의 인민들에게서 우리의 노선을 판증받은 셈이였다.

그때부터 온성사람들은 줄곧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오중화의 안내로 대안의 양수전차와 장골을 거쳐 연길현 조양천에 이르렀다. 조양천은 용정과 함께 연길지방에서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크게 미치던 곳이였다.

조양천에서는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성원들인 마득한과 나일 동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훗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임춘추동무도 조양천에서 ≪봉춘당약방의사 임춘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사업을 하였다. 연길로 오기 전에는 학생사건으로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동의사노릇을 하면서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로서와 각 현사이의 연락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조양천에서 처음으로 임춘추동무와 만났다. 내눈에는 젊은 나이에 동의기술을 터득해낸 그가 퍼그나 인상적으로 보이었다. 그의 동의기술 때문에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우리 유격대원들이 덕을 많이 입었다.

5.30폭동과 8.1폭동은 연길의 혁명조직들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여기는 돈화보다 적들의 테러가 더 심했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위축되고 동요하였고 각성이 부족한 군중은 ≪공산당 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이였다.

나는 마득한, 나일, 임춘추동무를 비롯한 당과 공청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좌경모험주의적 책동의 후과를 시급히 청산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가자로 곧추 가지 않고 양수천자를 거쳐 조양천에까지 굳이 들린 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리가 벌이게 될 무장투쟁마당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였다. 나로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장투쟁에 대처하여 온성과 왕청, 연길에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셈이였다.

그 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이 일대는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지로 되었다.

9. 이상촌을 혁명촌으로

한때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이상촌≫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이상촌≫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며 만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마을)를 연상할 것이다.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창한 ≪이상촌≫건설에 대한 주장은 만민이 유족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오붓하게 살아가려는 조상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촌≫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다.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된 직후 중국 청도에서는 안창호, 이동휘, 신채호, 유동열 등이 모여 회담을 벌이었는데 여기에서 안창호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상촌≫건설에 대한 방안이였다. 심중한 논의 끝에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미국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업회사(밀산현)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이상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뽑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유산된 후에도 안창호는 여러 해 동안 ≪이상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고난에 찬 노력을 하여왔다. 그가 ≪이상촌≫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을 물질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있었다.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당시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있었던 것 같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학교의 설립으로 실력양성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요하농촌도 그런 풍조를 타고 생겨났다.

요하농촌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송석담, 변대우(변창근), 김해산, 곽상하, 문상목을 비롯한 남만의 민족주의세력중 일부가 서부방향으로 방황하다가 요하기슭에 보짐을 풀었다. 그들은 조선의 이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100여호의 동포들을 이주시킨 다음 외부세계와 담을 쌓고 별세상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다섯세대가 먼저 살았다고 하여 그들이 정착한 고장에 오가자라는 지명을 달았다.

그 당시 길림의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동무들 가운데는 고유수와 오가자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가자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할 결심까지 품게 되었다.

내가 동만에서 오가자로 간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나는 원래 동만에서 무장

투쟁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정세로 보아 그곳이 회의 장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장소를 오가자로 변경시키었다. 몇 달 동안 오가자에 물러앉아 회의준비를 하면서 겸하여 혁명화도 다그치자고 결심하였다. 가보니 듣던대로 풍속도 좋고 인심도 좋았다.

이 고장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진흙을 발랐다. 염분이 섞인 진흙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았다. 오가자 사람들은 담장도 흙으로 규모있게 쌓았다. 진흙을 파서 메로 두드리다가 돌처럼 굳어졌을 때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담장을 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토피는 총알도 뚫지 못한다고 그 고장 농민들이 장담하였다.

오가자를 개척한 유지들은 자기들의 이념이나 주의주장과 맞지 않는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들과 합심하여 진펄을 논으로 개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농우회니, 청소년회니, 소년학우회니 하는 대중조직도 내오고 촌공회라고 부르는 자치기관도 내왔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선포한 8월 29일이 오면 마을의 주민들을 모여놓고 ≪국치일가≫를 부르게 하였다. 일본군경들과 중국반동군벌의 마수가 잘 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고장을 오가자 사람들이 ≪천국≫으로 여기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가자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평안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남만청총계통의 엠엘파의 영향밑에 있었고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는 평안남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가자에 가서도 카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우리는 카륜에 있을 때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공작원으로 몇 명 파견하였지만 그들이 오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추지 못하였다. 고집이 세고 지반도 확고한 마을의



혁명촌으로 꾸려졌던 오가자

유지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동무들의 소개로 그 해 겨울을 보냈다. 한두 주일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한 고장에 그처럼 오래 붙박혀 있은 것은 우리가 오가자를 그만큼 중시하였기 때문이였다.

우리는 오가자를 중부만주일대에서의 민족주의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가자를 농촌혁명화의 본보기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만주전역과 북부국경일대에서 농촌마을들을 우리의 영향하에 둘 수 있었다.


변대우

우리가 혁명의 기본동력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로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우리 나라 계급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농민은 우리 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도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사람이라면 그 중 90% 정도는 농민이였다. 군벌들의 박해와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들은 최악의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라든가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경제외적 착취에 의해 사정없이 혹사당하였다.

국내에 사는 농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농민대중이야말로 노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우리 혁명에서는 농민이 노동자와 같이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공작원들의 활동으로 청년들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따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오가자의 유지들은 대통을 휘두르며 요새 젊은것들의 머리에 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요하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는 놈팽이들은 뼈가 성하지 못할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다 망했다는데 그 미친 바람이 오가자에까지 들어오면 요하농촌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지들도 있었다.

서뿔리 서두르다가는 유지들의 대통에 얻어맞을 수 있었다.

청년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산주의행진곡에 발을 맞추어야겠는데 영감들의 눈에 날 것 같아서 망설이었다. 줏대가 좀 있는 청년들은 유지들과 엇서나갔다.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이상촌≫ 건설의 허황한 꿈에서 건져낼 수 없었으며 요하농촌을 중부만주의 본보기농촌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할 탓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석 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변두리만 돌고 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전적에다가 학식과 이론을 겸비한 영감들이어서 보통수완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존공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총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노인이

었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종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트로츠키≫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인 그가 트로츠키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변노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각지를 떠돌아다니었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평안남도)과 자성, 도청거우(임강현)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 것은 1918년 임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연계를 가지느라고 임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노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삼촌이 그와 아버지의 연계를 지어주었다.

대한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의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이상촌≫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노인이 한때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노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고한 유지집단을 돌려세울 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화할 수 없었다.


변달환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우회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변노인의 아들 변달환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이상촌≫으로부터 혁명촌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영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달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

≪영감들이 뭐라건말건 우린 우리끼지 조직을 내오고 딴 가마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주의동네로 만들자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소. 오가자를 저 낙후한 영감들에게 맡길 수는 없구.≫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장선생네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달환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 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해임시정부에서도 오고 엠엘계의 공산당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냉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녹록치 않은 민족주의 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회장선생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고 했더니 변달환은 벽창호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하였다. 변달환은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노인의 편지를 가지고 임강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군하는 변달환이네 집에서 여러 날 ≪번뜨르쯔끼≫ 영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노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 이론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노인이 내 나이를 묻자 다섯 살 불쿠어 스물세 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쿠지 않고 열여덟 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송이처럼 대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것만큼 스물세 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스물세 살 아니면 스물네 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노인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예절을 차리면서 참을성있게 들어주었다.

노인은 요새 젊은이들은 남이 열 마디를 하면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요, 뭐요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형직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 자기는 임강에서 식사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 상 차렸다고 하였다.

노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이상촌≫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계한다고 하던 변달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상촌≫을 허물다니요. 우리가 도와드리진 못할망정 노인님들이 공을 들여 꾸려놓은 ≪이상촌≫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가자 마을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달환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이 밤낮 ≪이상촌≫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늙은 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 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림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이상촌≫이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 번 우리 ≪이상촌≫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터놓아 보아라.≫

≪나는 ≪이상촌≫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동포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오붓이 살아보자고 꾸린 것이 ≪이상촌≫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요하진펄에 이런 정도의 조선동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노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노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콧수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관청도 없네. 촌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단 말일세. 이런 이상적인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이때야말로 ≪이상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노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올방자를 틀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엄을 뻡던 노인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씰룩거렸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렸네. ≪이상촌≫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주고 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네. ≪이상촌≫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상촌≫ 건설의 허황성을 논증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땅에다가 ≪이상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부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이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이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놈들은 조선민족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상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건가?≫

변노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에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이지. 그건 안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기미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운동에도 방향전환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 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게 말짱 미친놈들뿐이더란 말일세. 그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나더군.≫

변대우노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내보인 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두 이런 당증이야 없겠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넌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증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증인데 좀 두고보겠습니다.≫

노인이 당증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안툰, 내도산, 카룬,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노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스탈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하네. 그러나 스탈린만 스탈린이라고 해서는 안돼. 트로츠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서 트로츠키의 이론을 폴었다.

그렇다고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트로츠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이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트로츠키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노인에게 물었다.

≪노인님께서는 트로츠키를 그처럼 숭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사실 트로츠키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거네. 트로츠키면 트로츠키고 스탈린이면 스탈린이지 지금 젊은것들은 쩍하는 큰 나라 사람들의 명제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인가. 스탈린의 명제가 어떻게 트로츠키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야 러시아 사람들이나 할 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할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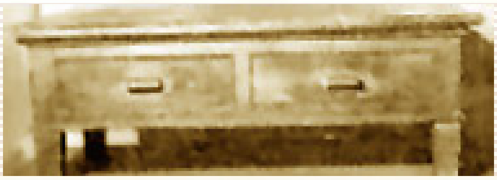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동안 ≪변트로츠키≫영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노인이 트로츠키파가 아니겠는가하는 의혹도 가지었다. 트로츠키파는 아닌데 종파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소, 스탈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러시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노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은 분명 이런 것이었다. 요컨데 제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달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기어코 해보겠네.≫

나는 노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입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변대우노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새 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정도, 남녀노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2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노인은 강한 충격은 받은 것 같았다. 노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으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오가자에서 쓰던 책상

변달환이네 부자는 둘 다 안해가 없었다. 노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배어있는 쓸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셔버릴 수 없었다.

나는 알맞은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문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 근방 농촌에서 심씨성을 가진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과 짝을 무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혼례까지 치르어 주었다. 총각의 몸으로 나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게도 생각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 나서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일로 해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변달환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 유지들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상촌≫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식이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를 나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고물딱지들이니 젊은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채로 떠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돕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탄복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 나서 나는 변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 노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고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야단이었다.

그 후 당증은 우리 동무들 손에서 돌아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노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더니 노인은 깊은 감회에 잠긴 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전체가 하나의 이상촌, 이상천국으로 된 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고 하였다. 그때가 노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난 그 해에 노인이 길림시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퍽 후에야 들었다.

변노인의 아들 변달환은 오가자에서 농민동맹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 해 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유지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청하였다.

나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 중국사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중국인 유지들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부만주지방에 맘놓고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설사 지주라고 하여도 포섭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없이 포섭하고 이용하였다.

그 당시 오가자근방에는 조가봉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가 한번은 땅 때문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우다가 그 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조가봉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 지주의 아들이 도회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도 고소장을 쓸 줄 몰랐다. 아마 그가 중학교에 다니었다고는 하지만 건달을 부리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조가봉은 오가자에서 한의노릇을 하던 김해산에게 고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 명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은 김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고소장을 쓸줄 아는가고 물었다.

우리가 지하혁명활동을 하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의 편리를 위하여 편지, 제문, 고소장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서술한 참고서들을 찍어냈다.

김해산을 따라 조가봉의 집에 가니 지주는 중국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잘 대접해 주면서 땅 때문에 재판을 걸게 된 사연을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나는 지주에게 중어로 소송문건을 써주고 현에까지 따라나가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조가봉은 그 소송문건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었다. 그때 그가 재판에서 졌더라면 몇 십정보의 땅을 떼였을 것이다.

그 후부터 조가봉은 김선생이 공산당패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선생은 공산당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다, 김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재판에서 질뻔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지주는 명절 때마다 나를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군 하였다.

나는 조가봉의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중국인 유지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에게 반제국주의 교양을 하였다.

그때부터 오가자에서의 나의 혁명활동이 합법화되고 조선인학교의 운영이 합법화되었으며 이 일대에서의 우리의 혁명투쟁지반이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유지들을 돌려세운 다음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먼저 청년회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청년회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영향하에 있었다. 조선혁명군 소조가 오가자에 간 후 청년회의 핵심성원들이 좀 개명하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투쟁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았다. 회원수도 적거니와 사업방법도 옳게 서있지 않았다.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서 청년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오가자지구는 10리, 20리, 지어는 60리 떨어져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청년회는 어느 한 마을에도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청년조직이 대중속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청년대중을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청년회를 당장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많은 청년

들이 아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고 또 청년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성조직을 새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여러 부락들에 나가 반제청년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리의 혁명노선이 청년군중속에 침투되어갔다. 나도 매일같이 청년들과 담화를 하였다.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는 삼성학교 교실에서 오가자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각 부락들에 지부를 두었다. 동맹위원장으로는 최일천, 조직부장으로는 문조양이 선거되었다.

그 후에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개편되고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었으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오가자지부가 부녀회로 개편되어 오가자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편 후 각 조직들은 새 성원들을 많이 받아들이었다. 오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해당은 대중조직들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존공회도 혁명적인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오가자의 선각자들이 존공회를 내온 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존공회는 경제교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관헌들과 상시적인 연계를 맺고 산하에 공주영도자판매소와 같은 기관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오가자 사람들은 존공회일군들이 군중성이 없으며 청백하지 못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나는 농민들과의 담화과정에 존공회일군들이 공주영도자판매소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정해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공주령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도 돌아와서 존공회가 썩었다고 하였다. 존공회일군들이 농민들한테서 모은 돈을 남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존공회사업은 그의 존장 혼자서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독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대중의 의사도 무시되었다. 대중이 참견하지 못하다보니 존공회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람도 생활도 일본새도 다 혁명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형편에서 종래의 조직기구와 고루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존공회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존공회간부들과 각 부락 존장들, 농민동맹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열고 존공회사업을 총화하였다. 그 협의회에서는 존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의도대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일을 잘 해 나갔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산하에 있는 공주영도자판매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오가자 농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리 100리밖에 있는 공주령에까지 가야 하였다.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쌀을 보관해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그런데 공주령에는 오가자의 농민들이 쌀을 맡길만한 장소가 없었다. 보관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망탕 쌀을 팔아버리군 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오가자의 농민들은 1927년 가을 공주령에 도자판매소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의 대중조직성원들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도자판매소에 파견하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 가운데서는 계영춘, 박근원, 김원우와 같은 사람들이 판매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주령에 파견되었다. 우리가 도자판매소를 장악한 후 이 판매소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법적 상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보장해주고 조선혁명군에 활동자료를 대주는 공개되지 않은 사명까지 감당하였다.

우리가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공주영도자판매사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 상업기관을 내온 것은 1930년대 초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오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러 지역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조직들을 확대하고 활동판도를 넓혀나갔다. 그때 공작원들은 카이루(개로) 지방에도 여러 명 파견되었다. ≪ㅌ·ㄷ≫출신이고 화성의숙 졸업생인 박근원도 그 일대에 가서 얼마동안 활동하였다.

카이루지방에는 몽골족도 많이 살았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카이루사람들은 병이 나도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에게 빌기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약을 가지고 가서 병난 사람들에게 주군 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 후부터 카이루지방에서는 조선사람들이 가면 대우를 잘해주었다.

우리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핵심성원들을 망라하는 강습을 조직하였다.

나는 차광수, 계영춘 동무들과 함께 매일밤 두세 시간씩 엇바꾸어가며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군중속에서의 정치사업방법,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조직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방법과 그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우리는 강습이 끝난후에도 조직책임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는 방법, 핵심을 육성하는 방법,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담화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배워주었다.

오가자의 지휘성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군중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에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민족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학과목들이 폐지되고 정치과목으로 새롭게 선정된 것도 우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삼성학교에서 월사금이 폐지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교의 유지비는 자취위원회에서 대주었다.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그 해 겨울부터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훗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고유수, 카륜,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 나라 교육역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 깊은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받지못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에도 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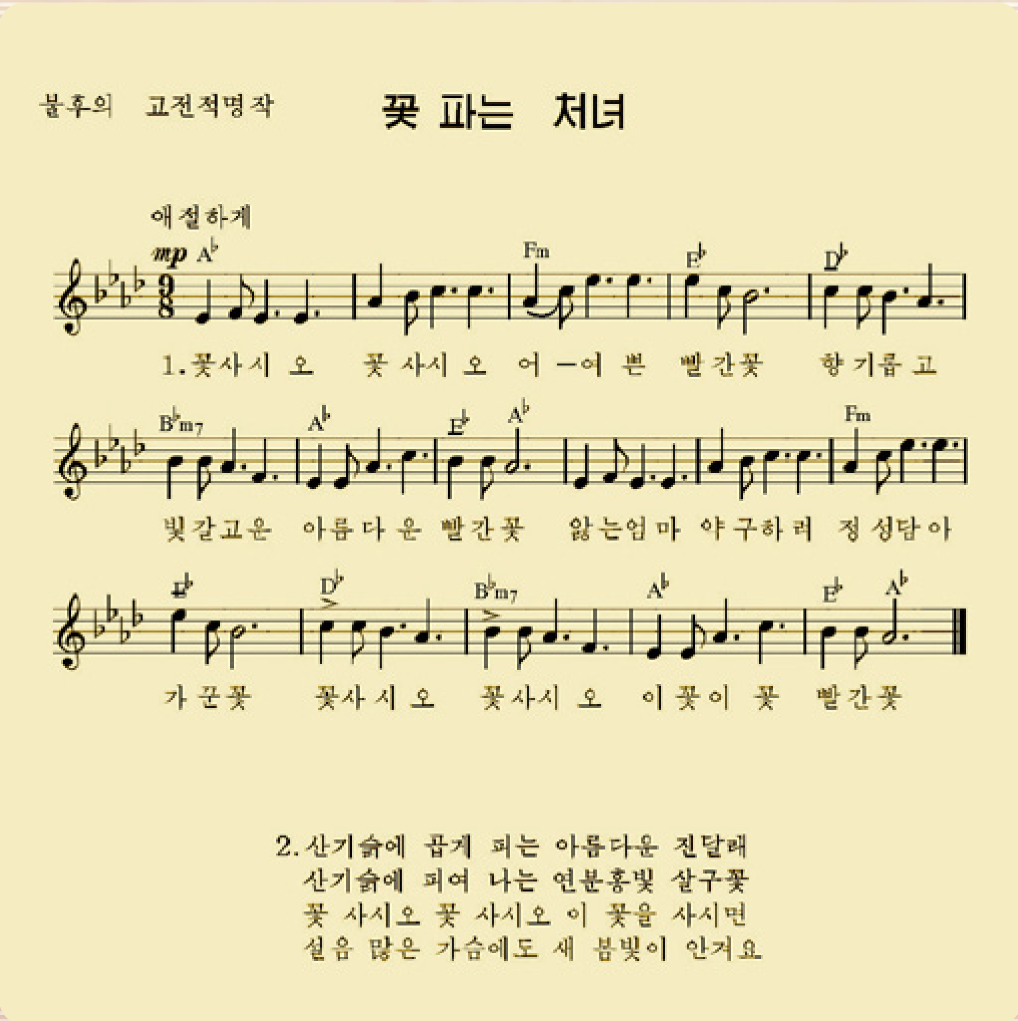
넣었다.

나는 중심부락 뿐만 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우리는 카륜에서 ≪볼쉐위크≫를 발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에서도 ≪농우≫라는 잡지를 만들어냈다. ≪농우≫는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쉐위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씌여졌다면 ≪농위≫에 실린 글들은 농민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도 간결하고 평이하였다. ≪농우≫도 ≪볼쉐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었다.

우리는 그 때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급하였다. ≪적기가≫나 ≪혁명가≫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만 배워주면 그날로 온 마을에 펴지곤 하였다.

오가자에서는 우리가 무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계영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하였다. 나도 길림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시험적으로 몇 차례 연습까지 해본 ≪꽃파는 처녀≫의 대본완성작업에 달라붙었다. 대본이 완성되자 계영춘이 삼성학교에 조직되어있는 연극조 성원들을 데리고 형상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10월 혁명 13돐기념일에 삼성학교 강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해방 후 오랫동안 파묻혀있다가 1970년 초에 이르러 조직비서의 지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 소설로 각각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조직비서가 이 때 수고를 많이 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짧은 기간에 요하농촌을 조선혁명군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가 길림주변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고 장춘근방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지만 오가자에서와 같이 그렇게 철저히 농촌을 혁명화해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국제당 연락원 김광열도 경이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독창적인 혁명노선을 내세우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개척해나가다나니 국제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국제당 동방부에서 그 당시 우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것 같다. 조선에 종래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어느 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인데 군중지반도 좋다고 한다. 그들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호기심에서 연락원까지 보낸 것 같다.

김광열은 하얼빈연락소에 갔다가 오가자에 와서 우리 동무들도 만나보고 혁명조직책임자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나보았다. 많은 사람들과 담화한 후 나와도 만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혁명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생각하였다. 연락원은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를 규정하는데서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완고한 민족주의세력들, 종교인 지어는 자산층들과도 손을 잡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연락원에게 소수 공산주의자들이나 노동자, 빈고농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일제를 타도하자면 중간세력까지도 다 동원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고 있다. 혁명을 달과와하지 않는 세력은 한 줌도 못되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하는 비결은 반일을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쟁취하는데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락원은 그 설명까지 듣고나서 ≪당신은 고전에 구애되지 않고 만사를 독창적으로 처리하는데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스크바 유학을 권고하였다.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소.≫

그때 김광열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삼 권고하는 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아마 그는 국제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복하여

모스크바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았다.

나는 김광열에게 ≪당신들에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나가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쏘련에 들어가서 홀레브를 먹게되면 러시아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선에 엠엘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차광수와 박소심을 비롯한 나의 동무들도 토로즈에서 유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나에게 모스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해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카륜회의 방침을 관철하기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군국주의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영토를 팽창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길에서 자애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차없이 소멸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동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지하고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동만으로 나가자면 중부만주지방에서의 활동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준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집한 것이 오가자회의였다.

이 회의에 조선혁명군의 핵심성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간도와 온성, 종성 지구에서 채수항을 비롯한 많은 혁명조직책임자들이 령하 3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오가자로 찾아왔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숱한 청년혁명가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누면서 조선혁명의 장래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논의된 것은 동만에서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문제였다. 투쟁의 기본무대를 동만으로 옮기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지향이었다. 그것은 혁명앞에 도래한 정세를 보아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오가자에 있으면서도 동만을 잊지 않고 동만으로 나갈 날을 초조하게 고대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다그칠 데 대한 과업과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청년학생운동과 농촌지하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단계에로 이행하여 적들에게 결정적 공세를 가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카륜회의가 무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였다면 오가자회의는 그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항일대전의 마당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

오가자회의는 카륜회의로부터 1931년 봄 명월구회의와 송강회의, 겨울 명월구회의를 거쳐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의 결전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은 1930년에 이르러 마침내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가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가자를 떠날 때 문조양이 10리밖에까지 따라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카스트로동지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나는 언제인가 평양에서 카스트로동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명시기의 투쟁을 두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카스트로동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인민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식량을 대주었다고 하였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상해임시정부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와 같은 독립군 단체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어내여 동무들에게서 의연금도 받아내고 군자금도 모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혁명활동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인민을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얽매어놓고 장부책을 끼고 다니며 누구네 집에는 얼마, 누구네 집에는 몇 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았다.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하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에서나 생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인민이 각성되고 동원되어 언제나 혁명가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민을 믿었다. 인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빈주먹을 들고 영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한 데 있었다. 고유수의 현정경, 김보안, 승춘학, 카륜의 유영선, 유춘경, 황순신, 정행정, 오가자의 변대우, 곽상하, 변달환, 문시준, 문조양, 김해산, 이몽린,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부만주 지방에서 우리를 충심으로 도와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만은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하게 대우해주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송구스러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숙직실에서 자기도 하였다. 카륜에서 진명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소로 이용되었다면 고유수와 오가자에서는 삼광학교, 삼성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박소 구실을 하였다.

내가 삼광학교 교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ㅌ·ㄷ≫의 성원이며 조선혁명군 대원인 현균은 똑똑하고 대바르고 인정이 깊은 사람이였다. 현균의 형 현화균은 고유수에서 농민동맹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두 형제가 다 우리의 조직에 망라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아버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어서 그 집에서는 우리를 각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균의 아버지 현하죽은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정경이었다. 고유수사람들은 본명대신 그를 하죽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현하죽선생이라고 하면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현하죽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지로서 자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뜨거운 우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받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현하죽선생은 통의부시절의 중앙법무위원장이었고 정의부시절의 중앙위원이었으며 국민부시절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르던 조선혁명당의 정치부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동정하였으며 그들과 잘 어울리었다.


현하죽(현정경)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유하지방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년동맹조직을 꾸리고 있을 때 그는 청년들의 계몽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왕청문 학원시절과 화흥중학교 시절에 현하죽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후 그를 자주 회상하였다.

내가 고유수에 갈 때마다 현하죽선생은 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였다.

≪큰아버지네 집에 온셈치고 마음 푹 놓게.≫

선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었다. 선생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여라문살 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열흘이나 스무날, 지어는 한 달 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어느 해 던가는 고유수에서 현하죽선생의 가족들과 함께 5월 단오까지 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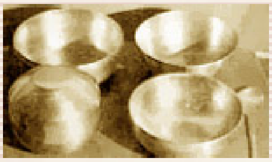
사실 그때 형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 주일씩 재우며 밥을 해먹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얼마 안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나면 집안사람들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 수 없었다. 현하죽선생의 집에서는 그때 나에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

그 집안 여자들이 두부를 앗느라고 망질을 할 때면 나도 팔을 걷어올리고 달려들어 망돌을 돌리었다. 우리가 망돌앞에 앉아 일을 거들어줄 때마다 스물두세 살쯤 나보이는 현하균의 아내 김순옥이 몹시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쳐들지 못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순옥

현하죽선생은 민족주의단체인 국민부에 소속되어있으면서도 자기가 국민부내의 혁신파라는 것은 숨기지 않았으며 장차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고유수를 떠난 다음 현하죽선생이 국민부내부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을 피해 서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학량의 군대가 그곳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따라간 것 같았다. 장학량이 배일감정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산밑에서 반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동3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나 서안, 장사 같은 곳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였다.





추억이 깃든
밥그릇(우)과 망(아래)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동북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낯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고유수를 생각하고 현하죽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의 후손들을 생각하였다.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현하죽선생의 후손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현하죽선생의 맏며느리 김순옥여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놋그릇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돌을 60년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리였는데 우리 ≪노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60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은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 빚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김순옥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나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나의 명의로 김순옥을 초청하였다. 막상 만나고보니 그는 80고령으로 아쉽게도 노환이 심하여 걸음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김순옥이 우리 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여섯 명 따라왔는데 나에게는 다 서름서름한 초면의 얼굴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그의 입모양이 아버지의 입모양과 신통히도 비슷하였다. 입모양이라도 비슷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김순옥일행을 외국귀빈들이 이용할 숙소로 지어놓은 초대소에 들게 하고 한 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편답을 하게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김순옥여성이 귀가 어두워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발음도 똑똑치 못하고 기억력도 상당한 정도로 나빴다.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은인들 중 한 사람을 60년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보충해주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충해주며 장시간 고유수시절을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후대들도 현하죽선생의 운명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현하죽선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사업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갈 수 있다.

나는 김순옥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국옥과 오가자에서 우리의 혁명활동을 많이 도와준 문조양, 문숙곤도 함께 만나보았다.

공국옥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대신하여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은 공영의 딸이다. 어느 해였던지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어 무송에 들리니 얼굴이 흠집이 생겼다고 남편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영의 안해가 아이를 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이다.

나는 해방 직후 평양에서 농민동맹회의를 지도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벽동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영의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다. 공영이 벽동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망인과 딸이 고향에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들

어서였다.

그 대표는 벽동에 공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공영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낙심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은 나타나는데 공영의 유가족만은 행방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다.

그 당시 우리는 만경대에다가 혁명자 유가족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고 20년만에 조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 소학교시절의 동창생들이 찾아와서 한 때 우리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학교자리에 나의 이름을 띤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고 제기하였다. 만경대는 김장군이 태어난 유명한 고장인데 학교를 하나 큼직하게 짓고 장군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중학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설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향촌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 그들이 눈을 감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자기네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유언대로 조선이 독립되면 꼭 동지들이 남겨놓고 간 자제들을 공부시켜 자기 부모의 뜻을 잇도록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조국을 찾고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만경대에는 중학교가 아니라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은 혁명가유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유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학원까지 세우겠는가고 하였다. 당, 행정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국의 산야와 강하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지개혁 후 첫 수확을 해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밑천으로 삼가 만경대에 혁명자유자녀학원을 세웠다. 학원에서 공부할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많은 일군들이 국내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때 수백 명의 유자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무들도 그 무렵에 임춘추동무를 따라 조국에 나왔다. 어떤 유자녀들은 물감장사나 담배장사 같은 것을 하며 살다가 만경대에 혁명학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독립군의 후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반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들의 자제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국옥이만은 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평안북도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공영의 유가족들의 행처를 수소문하였으며 그곳 일군들에게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아들과 같이 명절을 쇠려고 학원에 내려가 그들이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산나물보따리를 이고 짚신을 끌면서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 찾아오군 하던 공영의 안해의 얼굴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빨던 공국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짜릿한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1967년에야 공국옥을 찾아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국옥의 어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김일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남편은 독립군이었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가 하여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공국옥을 찾은 다음 그를 고급당학교에 보냈다. 공국옥은 그 학교를 졸업

하고 평양시당과 철도부사적관에서 일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고유수의 김보안도 현하죽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한 사람이다. 김보안은 내가 현하죽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집에는 한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찾아가면 그는 자기와 김형직은 보통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독립군중대장
김보안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고유수에 가면 김보안의 집에 꼭꼭 들리군 하였다. 김보안은 약국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삼광학교 후원비로 내군 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삼광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김보안은 고유수사람들이 돈계산을 할 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들을 가지고 조선독립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어른들이 돈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 중국사람들과 길림에서 살고 있던 조선의 이주민들 중에는 돈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르고 현에서 유통되는 돈이 서로 다른데다가 길림관채니, 봉천다양이니, 길림소다양이나, 은다양이니 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저마끔식 달라서 글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거리에 가도 돈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야학에 농민들을 불러다놓고 산수시간에 돈계산법을 배워주었다. 돈계산도 할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흘겨보던 사람들이 가감승제까지 척척하는 것을 보고 김보안은 ≪아무렴 그렇겠지. 조선사람이 원래 머리야 명석하지≫하고 흡족해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식자로부터 유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야학도 참관하고 삼광학교에 나와서 수업참관도 하였다. 삼광학교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깊게 남아있는 인물은 유춘경과 황순신이다.

그들은 둘 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에서 추천되어온 학생들이였다. 유춘경의 아버지 유영신은 진명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 유춘경, 황순신 동무들의 나이는 14-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유수에 갔다가 카륜이나 길림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무기운반을 부탁하군 하였다. 군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하였다. 유춘경와 황순신은 언제나 그 부탁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들은 치마밑에 무기를 감추고 50미터쯤 떨어져서 우리의 뒤를 따르군 하였는데 길가에서 군벌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켜주군 하였다.


황순신

황순신은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삼광학교시절의 소년탐험대원답게 일을 본때있게 하여 다수확농민으로 이름을 날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서 한 생을 값있게 살아왔다. 전후시기에는 한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유춘경은 만주에서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이관린처럼 인생말년을 조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1979년에 귀국하였다.

황순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더라면 그도 이름있는 여성활

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더 활력있는 후반생을 보냈을 것이다. 삼광학교 시절의 유춘경은 여학생들 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일 명석한 전도가 촉망되는 소녀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창건준비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때가 무장투쟁을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시기이고 또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라는 연락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장투쟁에는 적합치 않다고 여기였다. 귀국당시 유춘경의 나이가 50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그를 공부시켜 사회활동에 참가시키었을 것이다.



유춘경

우리는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이가 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키고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여 정치활동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총명하고 쓸모있는 사람도 오래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혀있으면서 사고능력이 감퇴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워지며 인생관에 녹이 쓰는 법이다.

해방 후 적지 않은 투사들과 혁명투쟁연고자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하고 파묻혀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투사들이 경력은 좋지만 무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시키지 않았다. 무식하면 공부를 시켜서라도 제구실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야겠는데 배척하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유자녀들이나 혁명투쟁연구자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데서 공부시켜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오래 한 투사들도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수많은 투사들과 그들의 유자녀들, 항일혁명투쟁방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자라났다.

오가자의 문조양도 그런 사람이었다. 문조양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할 때 변달환, 최일천, 이몽린, 김해산과 함께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글도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에도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다. 아마 회의도 그의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오가자에 가있을 때 문조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이네 집신세를 많이 졌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씩이나 돈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 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일 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래동안 침식을 하였다. 문시준이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짠지를 놓아주군 했는데 그 짠지맛이 별맛이었다. 그 마늘짠지 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 후 문시준의 딸 문숙곤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다가 마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운 때 오가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맛에는 비길 수가 없다.

얼마전에 문조양은 생일 80돐을 쇠였다. 나는 그때 오가자시절을 생각하며 그에

게 꽃다발을 보내주고 팔갑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무≫의 주인이었던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 주일씩 유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였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 해 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였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연계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 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자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이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역사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맏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 직후 이극로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였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었다.

최일천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반공반북을 이남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총검으로 떠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속에서 반일투쟁만화도 찍어내며 청소년들에게 반제반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위원회부장,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연맹 집행위원 등 주요직책을 역

임하면서 여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의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역량의 집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조국해방 전쟁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은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우리의 혁명역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상할 수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초기활동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적다. 나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다. 잊어버린 사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막해서 날자와 인문들을 정확히 회고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만과 중부만주 일대에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 인물들 가운데서 김리갑의 애인 전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리갑은 ≪금강관≫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중국사람으로 변장한 일본영사관 경찰들은 1930년 봄 길림시내 복흥가에 있는 오상헌의 집에서 김리갑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그를 장춘으로 연행해갔다.

그 후 그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감옥에 끌려갔다.

전경숙의 부모들은 딸이 김리갑과 같은 혁명가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여자는 부모들의 뜻을 단호히 거역하고 탈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열여덟인가 열아홉인가였다. 그는 방직공장에 들어가 공청책임을 지고 활동하면서 김리갑의 옥바라지를 성의있게 하였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만특위서기로 사업하던 동장영이였다. 그는 자기가 대련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때 전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서 조선여성의 절개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경숙의 고결한 풍모에 탄복하였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저녁을 지어주고 국민부의 테러계획까지 귀뜀해주던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김리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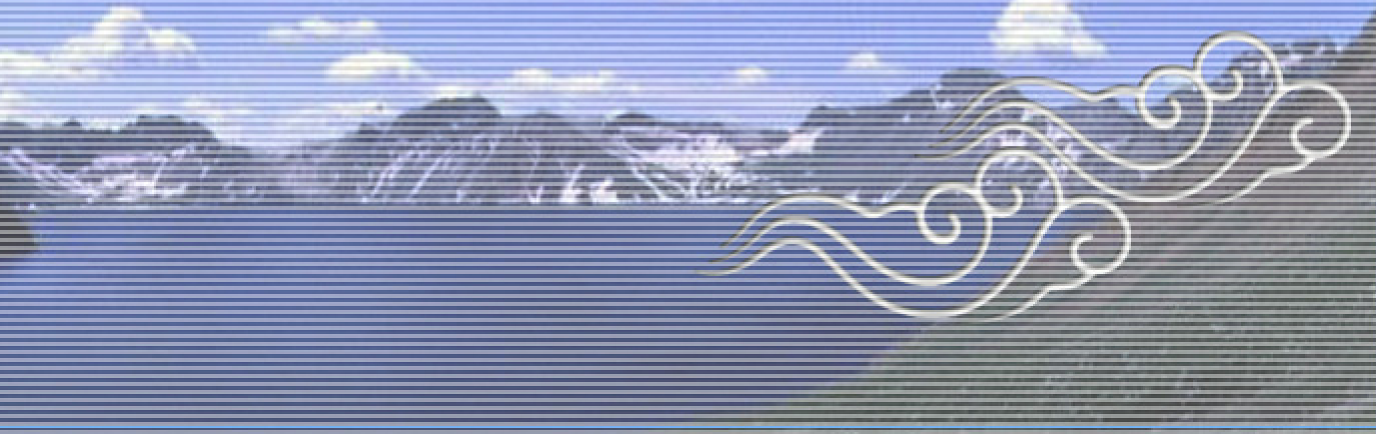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어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푼전을 모아 학비와 노자를 쥐여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 중에서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한자리에 앉아 수십 년동안 쌓이고 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노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제5장





무장한 인민

수난당한 대지
9.18사변
무장에는 무장에로
혈전의 준비
새 무장력의 탄생

■ 시기 : 1931. 1 ~ 1932. 4

1. 수난당한 대지



선전화 ≪구렝이≫

5.30폭동과 8.1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테러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 심하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여러 해 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혁명역량을 뿌리채 뽑아던지려고 도처에서 피비린내나는 폭압소동을 벌이였다.

동만에 나와보니 남만이나 중부만주일대보다 공기가 더 팽팽했다. 폭동의 후과도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였다. 돈화남문에서 장대기에 걸려있는 폭동자의 머리를 보고 나는 혁명세력에 대한 적의 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소부르조아영웅주의에 인이 박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5.30폭동과 8.1폭동을 치른 후에도 국치일, 10월혁명기념일, 광주폭동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을 계기로 기념폭동, 수확폭동, 공포폭동의 명목밑에 연속적인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회수는 실로 수백 회에 달하였다. 적들의 테러선풍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 때문이였다.

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조직들은 거의 다 파괴되였다. 전열에서 싸우던 핵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대열을 따라다니며 밥을 날라주던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혀가거나 처형되였다. 한해 전에 우리가 두만강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적들에게 자수하거나 혁명조직에서 떨어져나갔다.

지하로 들어간 조직선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면서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녹았다.≫, ≪공산당의 망동 때문에 온 간도천지가 피바다, 불바다로 되였다.≫, ≪공산당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일가멸족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람이면 소속과 계열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였다.

내가 명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위원회 위원 이청산은 폭동 후 자기가 겪어온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

≪상급에서는 자꾸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구확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 나를 혁명가라고 존대하

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날 내 보증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까지도 몇 달째 나만 보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혁명을 하겠소. 폭동바람이 몇 번 불어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약해졌단 말이요.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바엔 차라리 혁명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소. 그러나 말이 쉽지 혁명가가 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헐하게야 내던지겠소. 아무튼 무슨 방책이 있어야겠는데 나로서는 궁리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니 소란스러운 시국만 원망할 뿐이요.≫이것은 이청산의 고충인 동시에 나의 고충이기도 하였다. 간도의 모든 혁명가들이 1930년과 1931년 당시에는 이런 고충을 겪었다. 오죽이나 사태가 험악하고 암담했으면 이청산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한 노혁명가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안도

물론 이청산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안도에 가서 이청산을 다시 만났다. 내가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을 돌아다니는 사이 그는 안도구당에 조동되었다고 하였다. 옹성라자에 있을 때보다는 신수가 별로 멀끔해보였다.

이청산은 새 부임지에서의 일이 잘되어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악몽같은 시절은 지나갔소.≫

그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나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속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때의 그 비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옹성라자에서 이청산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은 백색테러의 쓴맛을 보면서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모대기었다. 내가 희멀건 강냉죽에 갓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웃방에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장기였다. 실로 우리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였다.

나는 솜옷도 없이 양복차림으로 겨울을 나군 하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늘 춥게 지냈다. 덮을 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군 하였다. 이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그래서 양복차림으로 하루밤을 잤는데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떻게나 혼났던지 후날 안도에 가서도 그날밤에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사이에 달구지군들이 입고다니는 저고리같은 솜저고리를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그 솜저고리를 입고 다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수건을 감아베고 솜저고리를 덮고 새우잠을 자군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해 봄 나는 간도에 나가서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춥고 배고파서 잠이 잘 오지 않는데다가 학살당한 동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직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인민들의 냉대를 받는데서 오는 절망과 고독감이 또한 나를 괴롭혔다. 곁을 주지 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찬방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 사람들의 불신을 당하던 풍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간도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었다. 연길에는 종파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밖의 간도지방들에는 종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지방들에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여러 해 동안 꾸준한 노력과 고심으로 이 일대에서 항일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그런데 두차례의 폭동바람에 모처럼 쌓아올린 공든 탑이 크게 손상되었다. 좌경은 초혁명적인 언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켰지만 그 해독성은 이처럼 유해롭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좌경을 뒤집어놓은 우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좌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쟁에로 한시바삐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다그치자는데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괴로와서 견딜 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이 계열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 일반을 냉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권위가 훼손된 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며 조중인민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데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와하고 모대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가는 투쟁항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가는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일대에서 5.30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기있게 해나갔다.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였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 수도 없었고 심화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만화 ≪조중인민들은 일제의 기만선전에 속지말라!≫

오가자회의를 끝낸 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과 동지들앞에 두 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폭동의 후과를 총화하는 것이었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총화할 필요를 느끼었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

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러주의자들과 이립삼노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에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5.30폭동을 총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여날 수 있었다.

우리는 5.30폭동총화를 통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조아적 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대중영도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노선을 제기하고 그 노선으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할 똑똑한 조직노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고농들과 노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만 홀잡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까지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朝鮮〇〇軍 男女三名被捉

길림성 이통현에서 잡혀

武器도押收되엿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체포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1년 3월 26일분

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자면 고적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역량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노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노정의 첫 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유봉화, 최득영과 함께장춘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군벌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일본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 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찰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연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이출류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찰원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이 리가 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독찰원의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한 보위 단원들에게 체포되어 현공서 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어 거기서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 번째 감옥살이었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이광한 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에 찾아가 ≪김성주는 길림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주는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연공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업을 변함없이 이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여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성원들을 위한 돈화 강습이었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방도,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 해 12월에 열린 겨울명월구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이었다.


유격대창건을 준비하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던 집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룡, 왕청, 종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산도와 두만강연안 육읍 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라자에 있는 이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열었다. 역사에서는 이 회의를 ≪봄명월구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라자란 옹기소리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라자라고도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어 후세사람들도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현에 속해있었다.

≪봄명월구회의≫는 당, 공청, 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 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백창헌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모험주의노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노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였으며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킬 데 대한 혁명적 조직노선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 데 대한 문제,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 데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 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에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며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연결시켜 나갈데 대한 전술적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좌경모험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봄명월구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취를 위한 회합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을 전취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좌경모험주의노선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용단을 내려 그 노선을 때리였다.

우리가 좌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노선을 내놓자 회의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이자고 부르짖었다. 노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았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연이어 떠나갔다.

나는 명월구에서 얼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사업을 추켜세우자는 것이였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영향이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연길, 화룡,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 지구는 물론 육읍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연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었다.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욱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도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하늘가에 백두영봉의 은회색 파도가 바라보이었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군 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성을 울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나는 돈화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술이 낙후한 때여서 무슨 병이라는 진단도 못받고 그저 ≪적≫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탕약을 끓여 잡숫군 하였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푼전 한 잎 없이 늘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를 걱정하면서 부녀회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었다.

두 달만에 안도로 다시 찾아가는 내 심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몹시 밝은 어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집생각을 하지 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라고 노상 타이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의 병색마저 감추는 어머니였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 해에 만주로 온 할머니는 그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

고 내내 무송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반석죽의 가난한 가계를 연명해왔다. 우리 일가가 무송에서 안도로 자리를 옮길 때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었다. 안도에 와서는 흥륭촌에 있는 영실이네 외가에 거처를 잡고 사돈집과 우리 집에서 엇갈아 가며 침식을 하였다.

영실이란 형권삼촌의 외동딸이다.

형권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부터 우리 숙모(채연옥)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었다. 금방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낳고 살만한 때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감옥행을 하였으니 신경이 약해질만도 하였다.



할머니 이보익

나는 형권삼촌이 징역 15년의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 숙모에게 아이는 다른데 주어서 키우게 하고 재가하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보냈다. 숙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재가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형님도 재가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인가, 내가 재가하면 영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설사 영실이를 남들에게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시작한들 내가 발편잠을 자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숙모가 아주 친숙하고 대가 있는 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 기분전환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숙모를 흥륭촌에 있던 친정집으로 보내었다.

우리 할머니가 영실이네 외가에 가 계시면서 며느리의 뒤시중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그러다가도 병중에 있는 맏며느리의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로 뛰어와 탕약도 끓이고 동자질도 하였다. 병약한 두 며느리를 돌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대 말없이 속을 많이 태웠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쉬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에서 몇 해를 보낸 것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두 며느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이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밤 할머니는 내곁에서 주무시었다.

깊은 밤중에 잠을 깨여보니 내 머리가 할머니의 팔에 안겨있었다. 내가 잠든 다음 할머니가 베개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내 머리를 안고계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심정이 가슴에 미쳐와 차마 머리를 옮겨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향이랑 잊은 게 아니냐?≫

≪할머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한시도 만경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일가친척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자구 만주에 왔댔다. 너는 못 데려가도 너희 어머니랑 동생들이랑은 다 데려가자구 생각했댔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통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지 않기로 맹세하고 떠난 걸음인데 성주 아버지가 떠났다고 한번 내친걸음을 어떻게 홀쩍 되돌려세우겠는가구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무송을 떠날 때 한번도 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더 붙이지 못했다. 여기서 사는 게 조선독립에 더 이롭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잡아끌지 않고 혼자서 만경대로 돌아가겠다. 고향생각이 나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

구십거든 이따금씩 편지나 해다구. 그러면 너희들을 본듯이 생각하겠다. 나야 여기로 자주 다닐 수 없지 않니.≫그 후 나는 할머니의 이 부탁을 한번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조국의 신문들에 자주 실리는 내 이름과 항일유격대의 전과보도가 내 소식을 대신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희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겠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다가 일에 너무도 극성이니 야단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정살림을 떠메고나가야 할 맏아들로서, 만경대가문의 장손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김정룡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한 청년들속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선 남아대장부하면 가정쯤 잊어야 한다는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유행하고 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 청년혁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나는 일찍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나 자신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내가 일상적으로 품고 있던 효성관이었다. 나는 혁명과 분리된 순수한 효성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었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의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앞에 부과된 공민적 의무를 책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 수는 없다.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혁명가를 투쟁에로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혁명가의 투쟁열도 동시에 식어진다.

나는 가정과 혁명 사이의 이런 상호관계를 원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신을 혁명에 바친 혁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깨여나 집안팎을 돌아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할 구석이 여러 군데 있었다. 땔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를 도와 튼튼이 가정일에도 손을 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만사를 젖혀놓고 철주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땔나무를 해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챘는지 우물터에 갔던 어머니가 또아리와 낫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손이나 덜자구 너희들을 따라가는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구 그런다. 어제야 할머니가 장밤 너를 붙들구 말을 시키지 않았니.≫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며 밝게 웃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집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군 하였다. 할머니가 물러앉으면 동생들이 나를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무를 하는 동안 노상 내곁에 있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주야, 너 최동화라는 사람을 알겠니?≫

≪알지요, 최동화야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며칠전에 우리 집에 들렸더라. 네가 언제쯤 안도로 올 것 같은가, 오면 알려달라구 하면서 너하구 한바탕 입씨름을 해보구싶다지 않겠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하구 입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까?≫ ≪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30폭동이 잘못된 폭동이라구 선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더라. 상급에서도 다 지지하고 밀어준 폭동인데 성주와 같이 지각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구 하면서 머리를 흔들더구나. 네가 혹시 사람들의 눈에 나는게 아니냐?≫ ≪눈에 날수도 있겠지요. 내 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물정을 아니. 그저 사람들이 무리로 죽고 잡혀가지 야단이라구 생각했다.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면 혁명은 누가 한다더냐.≫나는 소박하면서도 단순명료한 어머니의 지론이 퍼그나 마음에 들었다.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였다. 인민이 판단하지 못할 사회현상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강반석여사의 안도현 소사하 집

≪어머니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동화라는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수습해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니다. ≫≪네가 그럼 또 지난봄처럼 바삐 뛰어다녀야겠구나. 오늘처럼 다시는 집살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직심스레 하거라.≫ 어머니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머니는 내앞에서 최동화의 이야기도 꺼냈을 것이다.

나는 그 후부터 어머니의 염원대로 조직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안도도 5.30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었다. 그런데다가 이 지구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도를 혁명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열을 늘이며 당조직지도체계를 똑똑히 세워놓아야 하였다.

우리는 1931년 6월 중순 김정룡, 김일룡과 그밖의 핵심분자들로 안도현 소사하구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당위원회앞에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대전자, 푸르허, 처창즈 방향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기층당조직들을 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구당위원회를 내온 다음에는 유수하, 소사하, 대사하, 안도 등지에 공청조직을 확대하고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탐험대와 같은 반일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여름 안도지방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되었다.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데서 제일 큰 난관은 혁명대오가 사분오열되어 있은 것이었다.


흥룡촌 전경

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 물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마을들에 청년조직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다. 물북의 청년조직은 정의부의 후예들이 주관하는 것이였고 물남의 청년회는 심용준과 같은 참의부의 인물들이 관할하는 것이였다. 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며 지내는데다가 최동화가 지도하는 엠엘계의 청년조직까지 줄을 늘이고 있어 청년운동내부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년조직들을 원상복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에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인도해나갔다. 우리가 청년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최동화와 같이 파쟁에 인이 박힌 사람도 안도지구에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 과정에는 적대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또한 매우 심했다.

카륜이나 오가자 같은데서는 촌장들이 모두 우리 영향하에 있었지만 흥륭촌에서는 촌장이 악질지주 무한장에게 붙어 염탐군노릇을 하였다. 그자는 마을사람들의 동향과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내탐해가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아가군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흥륭촌의 남녀노소 전부가 참가하는 성토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을에서 쫓아버리었다.

며칠후 무한장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흥정을 들이댔다.

≪나는 김성주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미리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구안도에 가있고 여기에는 내 보위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 것들이 김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의 원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지내기도 딱하단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텐데. 그러니 우리 서로 좋도록 합시다. 김선생이 여기를 아주 떠나주시오. 여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응대했다.

≪당신이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주이기는 하지만 중국사람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일제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해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다른 중국청년들인 보위단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졸렬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자신이 일본놈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야기를 끌지 않고 흥륭촌을 떠나갔다.

그 후 무한장과 그의 보위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새로 임명되어온 촌장도 우리 눈치를 보아가며 꼭 필요한 행정임무만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만일 우리가 안도에서 대중을 조직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때에 관철하지 않았더라면 백색테러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지에서 무한장과 같은 큰 지주를 굴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감히 중립화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직된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힘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흥륭촌과 그 일대의 혁명조직은 활기에 넘쳐 자기의 역량을 확대해나갔다.

2. 9.18사변


918사변 -
피바다에 잠긴 동북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 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용정, 화룡, 유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연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9.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한장이 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 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국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 후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유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연달아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요녕,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 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금주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며 중국 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였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여 유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겐지대좌(심양 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 이유를 에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였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죠따로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사기록을 읽게되면 어째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만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누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산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통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이간책에 솜씨있게 이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이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 중에 선각자가 있어 이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는 일제관동군

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영사관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이권을 ≪옹호≫해 나선 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약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온 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 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 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 오가자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 해 여름의 나까무라대위≪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첩경에로 이끌어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본토에서는 연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꾜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신사에 모여 나까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 하면 그것을 신사나무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까상주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국책이었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이다가키세이시로
- 9.18사변의 주모자

진한장은 그때 일본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앞에서의 체면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 때문에 저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한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에 한마디의 책임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조객들까지 고인의 영전에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노농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중앙쏘비에트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노농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셈이다. 외적으로 치기 전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노선이다.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주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황한 일이다.

진한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노선에 추종한다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반인 동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해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진한장

이런 때에 9.8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한장도 주먹을 부르쥐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 동무, 나는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한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타매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버리고 항일을 포기한 겁쟁이고 패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총을 멘 군대가 씨글씨글했소.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한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목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장하고 국공합작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였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었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드오?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오.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소.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효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마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으니. 아,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용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손중산의 조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한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었다.

나도 언젠가는 고행의 다박솔밀에서 왜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경찰의 구두발에 만신창이가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노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한장처럼 우리 나라 역사가 자그마치 5천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역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나나 진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다. 이전에는 이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처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의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와질 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업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단결을 이룩해간다. 나는 진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중화민족의 수난을 조선민족의 수난으로 받아들이었다.

만일 수십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학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돈화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이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연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 걸음에서 좌절시키고 영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학량의 동북군에 ≪일본군측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 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데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었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와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쏘중접경지대를 일본제국주의들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은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줴버리고 일본사람들에게 국토의 한 부분을 큼직하게 떼주는 것과 같은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데 있다.


장개석과 부인, 미군사령관 조셉 스틸웰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소. 오직 자기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정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움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였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였다.

진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하였다.

9.18사변은 조선과 중국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곧이 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난폭한 침략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지역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연맹이 만주에 릿튼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학량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 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갖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었다. 피눈물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세아를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이 자기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사변의 폭발은 붕괴상태에 있던 독립군 잔여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배양을 고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였다.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연발하며 구국항쟁을 웨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전 날의 활동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학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서안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희생과 보신을 가리는 착잡한 분해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극에도 가붙고 음극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돈화에서 진한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사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었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9.18사변 - 일제의 국경경비대

정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발전을 냉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곁에 적을 주게 되었다. ≪미쯔야협약≫과 같은 것을 턱에 걸고 일본관헌들이 몇 해 동안 중국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실례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경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만주지방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공민전쟁 당시 시베리아를 들이쳤다가 철수할 때 중국측의 양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두 개 중대역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군대의 난무장으로 전변되었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 명의 일본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대륙은 적아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었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 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 셈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고 조선국내의 치안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만큼 우리는 금후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 모로 일본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국내에서 적용되던 ≪신 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사람들의 머리 우에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었다. 실지로 그 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었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왜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조선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정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유랑민들의 이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9.18사변을 두고 불리한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저들만큼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이다.


9.18사변후 봉천에 배치된 관동군 29련대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조선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놓은 그 인생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띔해주었다.

(만주는 범의 굴로 되었다. 이 굴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경제적 수탈에 미쳐날뛸 것이다.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은 극한점에 달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기운은 고조될 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해줄 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다.

오늘의 만주침공이 내일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대륙은 순식간에 전면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인민들이 자기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용허하지 않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제날 조선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내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어 한 전호에서 같은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익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이 중국관내에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 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피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서 종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 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혁명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학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버리였다. 며칠 사이에 군벌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장학량의 패주와 함께 군벌통치체제가 마비된 것이다.

일제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었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혁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 것이다.

9.18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 이 일대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3. 무장에는 무장에로



무장투쟁노선을 확정한 명월구회의 장소

9.18사변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항일전쟁을 시급히 개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부정의의 포성으로 대답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가들은 모두 지하에서 나와 자기진지를 차지하였다. 대륙을 뒤흔드는 포성에 만주지방사람들은 그 해 가을 단단히 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포성은 사람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고 분발시키었다. 적의 폭압으로 초토화되었던 만주지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투쟁기운이 태동하였다.

우리는 군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 만주지방사람들은 폭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누구나 고민하였다. 혁명을 다음단계에로 상승시키자면 그들에게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격문이나 뿌리고 빈말공부나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실패에 습관된 군중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자면 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궐기시키고 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지어야만 하였다.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설사 몇몇 선각자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크게 은을 낼 수 없었다.

9.18사변의 발발은 동만지방인민들이 다시한번 투쟁에 일떠설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국내인민들의 폭동진출이 또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농민들이 소작쟁의와 반일폭동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다. 공원동척농장 소작쟁의, 용천불이농장 소작쟁의, 김제다목농장 소작쟁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용천지구에서는 1929년 이후에도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때 그곳 조직들이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투쟁을 잘하였다. 용천땅에는 우리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있었다. 영흥의 3000여명의 농민들과 삼척의 2000여명 농민들은 9.18사변후 ≪비상시국≫을 표방하며 파쑈적인 폭압과 약탈을 강화하고 있는 일제를 반대하여 큰 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때 우리는 간도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조직하였다. 각지의 투쟁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선전대, 규찰대를 두고 삐라와 격문을 찍어내며 투쟁구호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한 다음 혁명조직구별로 추수투쟁에 들어섰다. 초기의 투쟁은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투쟁이였다. 한때 어떤 역사가들은 이 투쟁에 ≪추수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었는데 나는 그런 명명을 적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추수투쟁은 5.30폭동의 모방이 아니고

재판도 아니었다. 이 투쟁은 이립삼의 좌경망동적인 사상여독을 완전히 청산한 기초 우에서 새로운 전술적 원칙에 의하여 전개한 승리한 대중투쟁이였다. 5.30폭동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주역을 놀았지만 추수투쟁에서는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키를 잡고 군중을 지휘하였다.

추수투쟁은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5.30폭동이 변전소와 교육기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 자산가 일반을 타도하면서 방화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면 추수투쟁참가자들은 소작료의 3.7제, 4.6제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인접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였다. 소작료를 낮추라는 요구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처지로 볼 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였다. 그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길림성정부도 소작료를 3.7-4.6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 폭력이 발동된 것은 투쟁위원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나서는 악질지주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총검으로 탄압하는 군경들에 한해서였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완고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양곡을 밭에서 3.7제나 4.6제의 비율로 소작인의 몫을 실어가거나 창고를 해치고 나누어가졌다.

약탈적인 동척금융부와 고리대금업자들, 일제의 통치를 협조하는 조선인거류민회와 같은 반동단체들도 투쟁의 과녁이 되었다. 내가 연길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지도하고 안도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5.30폭동 후 일제의 수사를 피해 숨어다니던 최동화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추수투쟁이 점점 폭력적인 성격을 띠여가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안도지구에서 5.30폭동을 선동한 장본인이고 또 후에는 그 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규정한 우리의 입장에 의견을 가지고 논쟁까지 하겠다고 하던 그가 돌변하여 폭력의 유해설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5.30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비난하던 동무네가 순수한 경제투쟁에서 폭력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오?≫

최동화는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팔짱을 지르고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마 정통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5.30때 제창한 ≪붉은 폭력≫과 우리가 추수투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폭력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닙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따져볼 사이도 없이 나는 그만 이렇게 되묻고 말았다.

≪물론 미세한 차이야 있겠지. 그러나 폭력이야 이렇든 저렇든 폭력이 아니겠소.≫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주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력으로 쌀창고를 헤쳤습니다. 군경들이 사람들을 잡아갈



선전화 ≪반동지주들의 창고를 헤쳐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자≫

때면 실력행사로 동지들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 놈들이 폭력을 휘둘러 투쟁을 탄압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내가 몰라서 동무네를 시비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1대1로 완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요. 5.30폭동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였소. 우리 혁명은 불행하게도 퇴조기에 들어섰소.≫

≪퇴조기라구요?≫

≪그렇소. 퇴조기요. 이보퇴각의 시기요. 쓰똘리삔반동기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암담하지 않았을 거요. 관동군이 일거에 전 만주를 강점한 것을 보지 못하오? 장학량의 30만 대군도 퇴각했소. 이런 때에 혁명역량을 노출시키지 말구 보존해야 한단 말이요. 적을 서뿔리 건드리다가는 동만땅에서 경신년의 대토벌과 같은 참사가 재연될 수 있소.≫

최동화는 추수투쟁이 폭력투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고 무장을 드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무장투쟁구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고 사상누각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실 그와의 논쟁은 힘에 부친 것이였다. 최동화란 사람이 원래 두뇌도 명석하고 공산주의의식도 높은 지식인이여서 웬만한 말은 이가 들지 않았다. 그는 말끝마다 고전의 명제를 끌어내여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군 했는데 다 아귀가 맞았다. 최동화를 납득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의 주장은 결곡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갔다는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그는 일제의 대대적인 무장공세나 장학량군의 패주나 독립군의 와해와 같은 불리한 징후들은 보면서도 국내와 동만 인민들의 폭동적 진출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분명히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있었다. 반혁명의 공세와 비겁한 무리들의 패주가 곧 혁명의 퇴조기로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동향에 달려있었다.

최동화는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인민대중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과소평가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는 최동화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대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와의 근본 적 차이를 느끼였다. 그들과 우리와의 모든 차이는 결국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는가하는데서부터 산생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남처럼 지낸 것을 바로 그 차이 때문이였다. 나는 최동화에게 말하였다.

≪역설이라고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민대중이 일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고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조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투쟁을 끝낸 다음에는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조직화해서 항일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세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 결심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동화는 더 말을 못하고 쓴 입을 다시며 돌아갔다.

최동화와 같은 사람들이 혁명적 폭력의 불리성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주로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추수투쟁을 지휘하였다. 10여만명의 간도농민들은 1931년 9월부터 그 해말까지 일본군경들과 반동군벌의 야만적인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린 투쟁을 벌이었다. 이 투쟁과정에 조선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들이 수많이 창

조되였다. 개구지방 인민들이 시위도중 두만강얼음 우에서 일만군경들과 벌인 육박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만주지방사람들의 심혼을 흔들어놓은 화제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여성투사 김순희의 극적인 최후에 대한 일화도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다. 김순희는 약수동의 적위대원이였고 추수투쟁위원회의 위원이였다. 약수동에 나타난 토벌대놈들은 만삭이 된 그의 배를 총끝으로 쿡쿡 찌르며 배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순희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일본수비대원들과 영사관경찰들을 쏘아보면서 ≪잘 낳으면 임금이구 못낳아도 대문전거리를 지나다니는 너 같은 것들이다≫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여 적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는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자기의 혀까지 끊어버리었다. 그는 적들이 싸지른 불속에서 22살의 아까운 꽃나이를 마치였다. 추수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 투쟁을 통하여 동만지방 인민들은 신심을 얻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투쟁의 승패가 대중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방법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추수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경이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다.

대중은 추수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5.30폭동을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냈으며 폭력의 량이 결코 투쟁전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게 되였다. 5.30폭동이 실패한 원인이 폭력을 적에 투하된 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추수투쟁이 승리한 요인 역시 폭력이 많이 투하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다 잘 알게 되였다. 폭력은 결코 만능이 아니였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였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하고 분별있는 시기적절한 폭력만이 그것을 틀어쥔 사람들에게 승리를 기약해줄 수 있다. 오직 그런 폭력만이 사회를 개조하고 역사발전을 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런 폭력만을 지지할 뿐이다.

문제는 대중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하며 지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놓은 셈이였다. 추수투쟁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평화적 방법과 폭력적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은 독특한 투쟁이였다. 다음해 봄에 있은 춘황투쟁도 이런 투쟁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추수투쟁을 통하여 조중인민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유대가 공고화되였다. 추수투쟁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되였다. 이 투쟁대오에서 소박한 보통사람들이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났다.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추수투쟁에서 훈련된 수많은 핵심들로써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였다. 그런 핵심들이 마련된 것은 미구에 도래하게 될 무장투쟁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였다. 추수투쟁과정에서 배출된 수많은 청년혁명가들이 훗날 동만의 각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의 골간으로 되였다. 나는 추수투쟁을 지도하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투쟁속에서 발현되고 있던 동만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로운 단계의 혁명노선을 모색하고 있던 나를 무한히 고무해주었으며 우리가 일단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혈전을 벌이게 되면 대중이 반드시 우리를 지지성원해나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추수투쟁의 불길이 온 동만땅에 번져가고 있던 1931년 10월에 나는 함경북도 종성지방에 잠깐 다녀왔다. 내가 종성에 나가게 된 것은 국내동무들을 만나 무장투쟁문제를 논의하고 육읍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무장투쟁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주자는데 있었다. 나를 종성까지 안내한 것은 채수항과 오빈이였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였으며 거기에는 그의 처자가 있었다. 그의 선친

들은 구한국말기까지 거기서 살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종성좌수의 벼슬을 지냈다. 채수항이네 일가가 조국을 떠나 화룡현 금곡땅으로 이주한 것은 ≪한일합병≫직후였다. 채수항은 간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였으나 항상 어린 시절의 꿈이 묻혀있는 고향땅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종성으로 건너갈 때마다 기쁨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기분상태가 별로 침울해 보였다. 나는 추수투쟁의 파도가 채수항의 집 난가리도 헐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넌지시 물었다.

≪채동무네도 수탈의 대상이 된게 아니요?≫

채수항이네 집은 부유한 지주가정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는 덕신사 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채수항

≪수탈은 무슨 수탈, 우리는 농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3.7제의 비율로 밭에서 지방 곡식을 나누어주었소.≫

≪현당서기네 가정이 다르긴 달라. 그런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소?≫

≪일부 사람들이 나더러 아버지를 설복하여 사장직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만.≫

채수항은 자기 아버지가 혁명조직의 위임을 받고 덕신사사장의 자리를 맡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규율이 규율이니만치 아버지는 그 내막을 아들에게 까밝힐 수 없었다. 그러니 채수항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듣고보니 채수항이 머리를 썩일만도 하였다. 그 당시 상급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군들 중에는 혁명의 이익에 배치되는 극단적인 요구를 마구 내리먹여 아래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좌경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채수항에게 아버지와의 계급적 ≪계선≫을 가르지 못했다는 ≪과오≫를 뒤집어씌워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켰다가 다시 복직시키기까지 하였다. 나는 채수항의 울적한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자 채수항은 농조로 이제 우리 군대가 조직되면 선참으로 입대하여 기관총수로 되겠다고 하였다.

≪무관은 어울리지 않아. 채동무한테야 문관이 천분이지.≫

나도 웃으면서 농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농속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는 그를 타고난 정치일군이라고 생각하였다. 채수항이 만일 살아남아서 혁명군에 입대하였더라면 틀림없이 연대나 사단급의 정치일군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격대를 창건하고 무장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그는 대립자부근에서 일본 토벌대 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오빈은 용정동흥중학교 시절부터 체육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훈춘현 운동대회에서 씨름에 1등을 하여 황소까지 탄 일이 있는 소탈하고 쾌활하고 날파람있는 동무였다. 나는 오빈이야말로 혁명군대의 맹장이 될 수 있는 무관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혁명군대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가늠해보는 나의 버릇은 이 무렵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항일전쟁을 목전에 둔 당시의 긴박한 정세가 나를 그러한 타산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선건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간 우리는 동관진의 두량조합 콩정선장에 들리었다. 이 조합에서는 일제가 만주에서 약탈해오는 콩을 등급별로 나누어 계량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 일본으로 실어보내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간도에서 품을 팔러 나온 인부로 가장하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노동자들은 추수투쟁에 대한 화제를 꺼냈다. 추수투쟁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대체로 비관적이였다. 왜놈들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에도 간도에서 숱한 폭동들이 일어났다

가 실패했는데 하물며 그놈들이 만주를 침략하고 있는 때에 추수투쟁 같은 것이나 벌여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겠는가. 이 투쟁도 결국은 5.30폭동들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쟁을 벌려도 소용이 없다. 보라.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게다가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에서도 그놈들의 편역을 드니 약소민족이 바라볼 데가 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 때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한말을 듣고 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바 하나는 혁명가가 민심을 잘 알려면 항상 대중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화하는 사업을 더 다그쳐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그 어떤 형태의 투쟁도 대중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노동자들의 허무주의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견해를 들으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어야겠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오빈

그날 우리는 광명촌청년회 회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최성훈의 집에서 국내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열고 무장투쟁과 관련된 국내혁명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9.18사변 후의 급변한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과 무장투쟁을 개시하는 것은 우리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인 요구이며 질적인 비약이라고 강조하고 나서 두 가지 큰 과업 즉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과업과 함께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해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무장대오의 조직을 돕기 위한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열변을 토하였다.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역량준비문제는 1931년 5월의 공수덕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확정되었다. 이런데 기초하여 광명촌회의는 무장투쟁이라는 새 사변을 앞두고 국내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실천적 과제를 토의한 셈이었다. 이 회의는 국내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보내는 무장투쟁의 예령이였고 사전신호였다. 회의과정에 표현된 무장투쟁에 대한 국내혁명가들의 적극적인 공명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종성에서 하루를 묵고 인차 간도로 돌아와 채수항, 오빈과 헤어졌다. 우리는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 다시 모여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의 나의 모든 일정은 명월구회의에 바쳐졌다.

회의준비라고 하면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들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때의 회의준비란 노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모색과정을 의미하였다. 사상을 성문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공정이었다.

나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도 무장투쟁의 의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공식규정은 없었다. 어느 시대에서 다 들어맞고 또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장투쟁의 형식을 모색하는데서고 교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무장투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과업을 토론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장영을 만나기 위해 동만특위로 찾아갔다. 만주땅에서 무장력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노농홍군은 9,18사변 후 군중을 조직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같은 과녁을 향해 함께 총구를 겨누어야 할 조중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튼튼한 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광

특위서기로 임명된 동장영도 일본군대의 토벌에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용정시가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였다.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용정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으므로 나는 그를 명월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만특위에서는 아직 간도실정에 어두운 동장영이 특위가 이동된 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소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감방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뜻밖의 소식은 나를 실망케 하였다. 만주성당 서기 나등현과 성당군사위원회 서기 양림은 9.18사변 후 심양을 떠나 행처를 감추고 있었고 양정우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동장영을 구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동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의논하였다.


김일환

이런 때에 고보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장영을 구원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요술가처럼 손놀림이 빠른 그는 ≪쓰리≫를 잘했다. 마주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도 눈깜빡할 사이이면 뽑아내군 하였다. 고보배가 이런 장난을 잘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장소에서는 매번 물건이 잃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군 하였다. 이 사람이 용정시내에 가서 쓰리를 한번하고 우정 경찰에 잡혀들어가 감방에 있는 동장영을 만났다. 고보배가 감방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어떻게나 구슬려놓았던지 특위서기는 그 후 구류장에서 인차 풀려나왔다. 그렇게 되어 그가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1931년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편의상 ≪겨울명월구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차광수, 이광, 채수항, 김일환, 양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구봉운, 김철, 김중권, 이청산, 김일룡, 김정룡, 한일광, 김해산을 비롯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총애와 인망을 받고 있던 40여명의 청년투사들이 참가하였다. 그 때 나는 명월구에서 영채김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내가 명월구 뒤골 안에 도착한 날 저녁 이청산이네가 땅콩을 넣은 강냉이죽과 영채김치를 들여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영채김치는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사람들이 잘 담근다. 지금은 이 김치가 국가연회상에도 오르고 있다. 명월구회의 때 이광이 어디서인가 꿩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다. 회의를 하는 동안 대표들이 강낭죽에 조밥만 먹는 것이 가슴아파서 공청열성자들과 함께 꿩사냥을 한 것 같았다.


오중화

그날 저녁 이청산은 좋은 꾸미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국수를 눌렀다. 명월구골 안에 흰쌀은 귀했지만 농마가루는 있었다. 그런데 국수라면 오금을 못쓰는 차광수가 덜렁거리면서 이광에게 ≪이것보라구, 왕청아즈

바이, 꿩 다섯 마리를 가지고야 어느 코에 바르겠나.≫하고 집적거리였다. 그는 위탈이 심하여 끼니때면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허기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대식가연하였다.

≪저 길림양반은 강낭죽 한 사발도 못제끼는 주제에 큰소리만 탕탕 치는군. 이보라구 차털렁이, 그 꿩 다섯 마리두 쌀짐우에 덧지고 오느라고 녹초가 됐네.≫

이광은 웃으면서 차광수의 말에 농으로 대답하였다.

차광수는 꿩 다섯 마리면 고기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대표들을 두 방에 가르고 한 방에서는 꿩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고 다른 한방에서는 닭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자고 열이 나서 떠들었다.


구봉운

그러나 대표들은 모두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그날저녁 꿩고기와 닭고기를 한데 섞어서 꾸미를 만들게 하고 한방에 다같이 모여 앉아 사이좋게 국수를 먹었다. 식성이 좋은 박훈은 세 그릇이나 곱배기를 하여 ≪국수대감≫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회의를 실속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회의에서 앞서 이청산의 집에서 예비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에서는 회의안건과 회의참가자, 회의순서문제 등이 토론되었다. 예비회의를 끝낸 다음 10일동안 집행된 본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낙착되어야 무장조직의 형식과 근거지의 형태 문제 같은 이여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가 없으니 정규군에 의한 항쟁은 바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당장 전민이 동원되어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나의 마음은 자연히 유격전으로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 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전투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본 데 대하여 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 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이였기 때문이였다. 나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투쟁형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겠는가 적합치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보았다. 그 과정에 손자병법도 보고 삼국지도 다시 보았다. 우리 나라 병서들 가운데서는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 것을 보았다.


김중권

유격전의 시원이 기원 400년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유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격전은 1812년 러불전쟁시기의 러시아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이었다. 러불전쟁이 낳은 빨치산영웅 제니쓰 다위도브, 정규부대와 빨치산의 연합작전을 능숙하게 지휘한 꾸뚜조브장군의 이야기는 유격전에로 끌리는 나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임진조국전쟁은


김정룡

나에게 많은 것은 시사해주었다. 나는 임진조국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의병들의 투쟁을 유격전의 역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곽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그리고 최익현, 유인석 등 의병출신 명장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었다. 유격전이라는 말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혼을 온통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야단이었다.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이 명시해놓은 이런 부대조건은 나로 하여금 무장투쟁형태를 선택하는데서 복잡한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후방으로 될 국가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 조선의 실정에서도 유격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이것이 우리들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쟁거리로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혁명을 추동하는 극적인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장개석과 장학량의 투항주의에 불만을 품은 구동북군의 애국적인 장병들속에서 병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왕덕림도 당취오도 이두도 장학량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반변하여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왔다. 마점산과 같은 장군도 병변을 일으킨 다음 무장을 들고 항일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런 인물들을 주축으로 하여 만주각지에서 반일부대들이 조직되고 구국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태는 무장투쟁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었다. 나는 무장투쟁형태가운데는 역사적으로 정규전과 유격전이 있었는데 정규전은 주도적인 것이었으며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나 개인의 견해의 견해로 볼 때에는 유격전이 우리 나라 실정에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것,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유격전이 주도적인 투쟁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 투쟁형식이다. 국가가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열등한 무력으로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싸워야 하는 것만큼 변화무쌍한 유격전을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출로란 있을 수 없다.≫

장학량의 군벌군대나 독립군이나 일본군대밖에 보지 못한 청년들한테는 유격대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정규군과 유격대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고 강대한 일본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소부대와 대부대의 영활한 배합작전, 기습전, 매복전, 정치활동, 정치공작, 생산활동 등 군사, 정치, 경제 활동을 다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자유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동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탱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영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내 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 여부를 여러 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 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력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영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영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

라 땅에 곁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고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이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의 논쟁을 거쳐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보았다.

유격전은 자체의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적은 역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거하면서 유격전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다면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남들이 다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고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결단이었다.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데 대한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협의하였다. 먼저 혁명무력건설문제가 상정되었다. 우리는 그 때 처음에는 지방마다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가면서 점차 그것을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발전시키되 첫단계에서는 대대를 건설하였다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인민혁명군으로까지 발전시키자고 토의하였다. 뒤이어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토론되었다.

유격대 조직에 관한 논의는 근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반일유격대가 조직되면 활동기지를 어디에다 두겠는가. 산에 두겠는가. 도시에 두겠는가. 농촌부락에 두겠는가 그리고 조선도 만주도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형편에서 유격전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는가. 만주에 두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어떤 군대에나 지탱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 무장력이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 것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전하게 휴식하면서 대열도 정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부상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유격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끈기있게 해나갈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자체의 힘으로 근거지도 꾸려야 하였다,.

우리는 활발한 논의 끝에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괜찮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넓은 면적을 가진 만주대륙은 조선보다 적들의 통치밀도가 희박한 것만큼 간도에 먼저 기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내에도 나가 백두산 대수림지대와 낭림산줄기를 타고 앉자고 하였다.

근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며 국내작전을 하는데서나 조국인민들의 지원을 받는데서 다같이 편리한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였다. 두만강연안에는 물질적 보장조건이 좋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 산간마을들이 적지 않았다.

근거지로 꾸릴 구체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자 이광, 오빈, 김일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대황구, 영통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새들에 근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그 지역들에는 추수

폭동 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중들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이미 적위대까지 조직되어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지키고 있었다.

논의가 심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근거지를 장기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 즉, 농업생산과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며 무기수리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리며 주민행정사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이 끝없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할 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였다.

회의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방침으로 정식화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하고도 심원한 창조적 사업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유격전사를 들추어보아도 우리나라 혁명실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거지를 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역사상 유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피할 길 없는 숙명적인 과제였다. 이 과제해결에서 만일 우리가 정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그와의 배합으로 유격전을 벌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모방하였더라면 만회할 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을 것이다. 어느 해인가 라틴아메리카 항쟁운동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유격전쟁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항일전쟁시기의 경험을 몇 가지 들려주고 나서 유격전에는 만능의 공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가 가장 높이 발휘되어야 하는 거창한 창조적 투쟁이다, 우리의 경험이 당신들에게 일정한 도움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것만큼 당신들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쟁방법과 형식을 창조하고 활용해보라.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항쟁운동지도자는 내 말을 듣고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자기네 나라에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유격전에 치우쳐왔다. 그래서인지 성과는 적고 손실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정에 맞게 산을 끼고 농촌유격전을 기본으로 항쟁운동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본회의를 끝내고 활동지역들에 돌아가면 곧 유격대조직에 착수하기로 하고 토의를 끝내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유혈적인 탄압과 토벌에 혈육들을 잃고 동지들을 잃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도 갈구하던 우리 군대, 우리 무장력의 탄생을 가까운 내일의 일로 바라보게 된 청년들은 일제히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내셔날≫노래를 부르며 그 장중하고 우렁찬 선율로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앞에 드리는 선서를 하였다. 명월구회의에는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여러 명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주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동만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일대에서의 조중인민의 친선과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합작을 처음부터 매우 중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들이었다.

동장영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인 조선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 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중국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 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때로부터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무장투쟁은 대륙을 진감시켰고 위대한 조중친선의 전통은 혈전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31년 겨울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회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되였던 무장투쟁노선은 이 회의를 통하여 심화발전되었다. 카륜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에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였다면 명월구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에로, 반혁명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였다.



선전화 –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일제를 타도하자!≫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밑에서 동장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대련감옥에 갇혀있는 김리갑과 방직공장에 적을 두고 공청사업을 하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전경숙에 대한 이야기를 동장영한테서 들은 것이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동장영은 주민구성 뿐 아니라 동만당조직들의 당원구성을 분석해보아도 그 대다수가 조선동지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 사업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족 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당부를 뜨겁게 받아들이었다.

≪두 민족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인민들 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굳게 손을 틀어잡았다.

그 후 나와 동장영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

주은래총리는 내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회연설이나 회담들에서 1930년대초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조중친선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친선의 뿌리깊은 전통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중친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명월구의 회의장을 생각했고 우리와 함께 포연탄우 속을 헤쳐온 위증민, 동장영, 진한장, 왕덕태, 장울화, 양정우, 주보중, 호진민을 비롯한 중국의 친근한 공산주의자들을 목메이게 기억하군하였다. 친선의 정도 인간감정인 것만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맺어져야 공고한 것으로 되며 또 그렇게 맺어진 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4. 혈전의 준비

명월구회의에서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선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첫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나는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명월구에 남아있다가 동장영과 헤어져 안도에 갔다. 유격전을 하자면 어느모로 보나 안도와 같은 고장이 좋았다.

12월 명월구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이지만 우리는 무장대를 조직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9.18사변 후 만주각지에서 조직된 중국의 반일무장력인 구국군과의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조직의 기본역량을 안도와 왕청에 두기로 하였다. 안도와 왕청은 구국군의 집결중심지였다.

홍룽촌에 돌아온 나는 가족들과 함께 마춘옥이네 집에 얼마간 가 있다가 소사하 토기점골 갈말부락으로 이사하여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소사하는 조직화된 부락이어서 홍룽촌보다 주변환경을 대단히 좋았다. 지하조직이 든든하게 들어박힌 이 마을에는 밀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구들이 쏠라닥거리지 않으니 군경들도 소사하에는 별로 ≪토벌≫을 오지 않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였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식량문제, 군중적 토대문제, 구국군의 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정치적으로 많은 난문제들이 제기되어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물론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군사정치적으로 준비된 인간을 말한다. 우리한테는 정치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기간 무장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한 해 반 사이에 조선혁명군의 골간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김혁, 김형권, 최효일, 공영, 이제우, 박차석과 같은 혁명군의 주력이 한해 사이에 모두 전사하거나 감옥행을 한데다가 1931년 1월에는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이종락이마저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소책자를 가지고 무기공작을 하러 가다가 김광열, 장소봉, 박병화와 함께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군사물계에 밝은 김리갑도 감옥에 끌려갔고 백신한은 전사하였다. 최창걸과 김원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조차 알길이 없었다.

혁명군의 나머지 역량가운데 군사경험이 있다는 대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얼마안되는 그 대원들마저도 군중정치공작에 돌리다보니 무장대오에 망라시킬 수 없었다. 내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내오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날 때 내곁에 있는 조선혁명군 출신의 청년은 차광수 한 사람 뿐이었다.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으로 필

요한 군사인원들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었다. 법적 장치나 물리적 힘으로써는 대중을 혁명에 동원시키지 못한다. 한 때 상해임시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납세와 병역징발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문을 헌법에 박아넣었지만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나라 조계지 한 구석에 앉아 국권을 행사하는 망명정부의 법이나 지령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에서는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 같은 법적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메울 수 없다. 이 혁명에서는 혁명을 영도하는 수령과 선각자들의 호소가 법을 대신하며 매개 사람들의 정치도덕적 자각과 전투적 열정이 참군을 결정하게 된다. 대중은 그 누구의 요구나 지령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총을 멘다.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행위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데 대한 자료

우리는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안도와 그 주변에서 유격대에 망라시킬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적위대, 소년선봉대, 노동자규찰대, 지방돌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에는 참군을 요구하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추수, 춘황 투쟁의 폭풍속에서 반군사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청년들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중이 참군을 요청한다고 하여 그 준비정도도 고려해 보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망탕 유격대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동만의 청장년들은 아직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유격대의 인적 원천을 확보하자면 적위대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하였다.

그런데 내 곁에는 교련을 맡아볼 수 있는 인재가 한 명도 없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도지구의 청년들을 모조리 군사화할 수 없었다. 내 자신도 화성의숙의 물을 좀 먹었다고는 하지만 새 형의 군대, 유격대를 움직이기 위한 군사실천면에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 책상물림인 차광수는 나보다도 군사를 더 몰랐다. 이종락이마저 감옥에 잡혀가니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볼 인물도 없게 되었다. 이종락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군사를 일임하고 나는 정치사업에 전적으로 시간을 바칠 수 있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동지의 부족을 느끼곤 하였다.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을 때 박훈이라고 부르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유망한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다.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은 장개석이가 하였고 정치부주임은 주은래가 하였다 그 학교에 조선청년들이 많았다. 중국사람들이 광주폭동을 ≪3일 쏘비에트≫라고도 하는데, 이 폭동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이었다.

박훈과 안봉은 광주폭동에 참가하였다가 폭동이 실패하자 관내에서 도망쳐나와 만주로 탈출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훈은 체격도 건장하고 언행이나 몸가짐도 무인답게 활달하였다 그는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조선옷보다 중국옷을 더 자주 입고 다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군사고문≫이었다.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4월12일사변)한 것으로 하여 국공합작이 파괴되고 제1차 국내전쟁혁명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남방지방으로 양림, 최용건, 오성륜(전광), 장지락, 박훈을 비롯하여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장개석의 테러를 피해 만주지방으로 많이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 때 황포군관학교라는 교명을 듣고 박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박훈은 전투장에서 권총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격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총을 정말 ≪귀신≫같이 쏘았다.


선전화
≪무기탈취≫

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구령을 잘 치는 것이었다. 박훈은 만명이나 이만명쯤 되는 대열도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희한한 목소리를 가진 교관이었다. 그가 토기점골등판에서 소리를 한마디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었다.

안도의 청년들은 모두 그 구령소리에 반해서 박훈을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소리가 저쯤되면 동경판에 앉아있는 일본천황도 듣겠구만.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었을까!≫

적위대원들의 교련을 지도하는 박훈의 모습을 보고 차광수는 이렇게 탄복하였다. 박훈에게 제일 반해서 돌아간 것이 바로 차광수였다. 두 사람은 이론투쟁을 많이 하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박훈이 안도에서 훈련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한 부대는 훗날 왕청에 가서도 ≪대학생부대≫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부대의 유격대원들은 항일전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질서가 있고 규율이 째이고 언행이 점잖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다. 양정우도 늘 우리 혁명군의 절도있고 생기발랄하고 문화적인 면모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박훈을 생각했고 토기점골등판에서 울리던 그의 구령소리를 생각하였다.

교관으로서의 그의 자질 가운데서 다음으로 이채를 띠는 것은 훈련생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이였다. 그 비상한 요구성 때문에 훈련생들이 빠른 속도로 군사지식을 터득해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박훈은 이따금씩 대원들에게 체벌을 적용하곤 하였다. 제식동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규율을 어기는 훈련생들이 있으면 눈알을 굴리며 욕설을 퍼붓든가, 발길질을 하던가, 벌을 세우든가 하였다. 혁명군대내에서 체벌을 금물이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훈련 끝에 목이 쉬어서 쉑쉑하는 박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물었다.

≪박훈동무한테서는 어쩐지 군벌냄새가 나는구만. 어디서 그런 군벌기를 배웠소?≫

박훈은 군벌냄새라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를 가르쳐준 교관이 아주 엄하고 독한 사람이었소. 그 독일인이 나에게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똑똑한 군인이 되자면 어쨌든 채찍 맛을

많이 봐야지.≫

독일식군사교육의 흔적은 박훈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이론강의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바로 프러시아군대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훈은 영국병사의 용감성과 프랑스병사의 신속성, 독일병사의 정확성과 러시아병사의 완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그 모든 자질을 다 소유한 만능의 군대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그가 집행하는 훈련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나폴레옹식 종대대형과 영국식 일선형서열이 무엇인가를 납득시키고 스무 명이 되나마나한 훈련생들로써 그런 대형을 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교련을 참관하던 나는 휴식시간이 되자 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훈동무, 동무가 방금 집행한 그 영국식 일선형 서열훈련은 간단히 설명으로 굼때고 생략해버리는게 어떻소? 우리가 여기서 워털루격전과 같은 전쟁을 한다면 몰라도 산악을 끼고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과 당장 유격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구시대의 병법을 배운다고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거요.≫

≪전쟁을 하자면 어쨌던 그런 정도의 군사지식을 알아둬야 하지 않을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군사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써먹을 것부터 선택해서 배워주어야 하오. 무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채로 소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박훈에게 내가 한 말은 훈련에서 교조주의를 경계하라고 한 말이었다.

박훈에게 적위대원을 여라문명 맡기면서 사격훈련을 시키라고 했더니 하루종일 평지에다 말뚝을 세워놓고 적이 나타나면 중심하부를 쏘라는 소리만 되풀이하였다.

나는 박훈에게 보고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던지고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주어야겠다. 특히 산악전이 요구하는 훈련을 선행시켜야겠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교본에 없는 병법은 우리끼리 지혜를 합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박훈은 내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초보적인 제식동작이나 무기조작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장법, 신호법, 창사용법, 적정탐지법, 산길을 타는 법, 곤봉을 다루는 법, 무기를 탈취하는 법, 야간전투시에 적아를 식별하는 법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군사지식부터 배워주었다. 박훈은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배워주다가 나중에는 과정안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키었다. 박훈은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운 군사는 모두 세계 5개 군사강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것이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병법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지식이었다. 나는 현대 중국의 군사교육의 전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명한 황포군관학교에서 이런 지식을 배운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만에 와서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 모두가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나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냉담한 반응에 부닥쳤다. 청년들은 나의 강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으로만 받아들이었지 사활적인 것,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내가 섭취한 군사가 비록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격전을 위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반편짜리 지식임을 통간하고는 그것을 무슨 만능의 법전처럼 절대시한 자기자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었으며 유격전이 요구하는 군사론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교조에서 벗어나 조선혁명에 적응한 우리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안도

지구의 훈련도감들 가운데서 박훈 다음으로 이채를 띤 인물은 김일룡이였다. 그는 박훈과 같이 현대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으나 독립군에서 싸울 때 터득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대원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였다. 적위대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열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청년들이 우리의 주위에 수십 명 집결되었다. 우리는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 나가서 사업하던 동지들과 추수,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로 모이게 하였다. 안도, 돈화를 비롯한 동만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한테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차광수, 김일룡, 박훈, 김철(김철희), 이영배를 비롯한 18명의 핵심을 골라 그들로써 먼저 유격대소조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연길, 왕청, 화룡, 훈춘 지방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현마다 10-20명 안팎의 인원으로 되는 무장대들이 꼬리를 물고 태어나게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무장대를 꾸려가지고 대열을 늘이다가 일단 조건이 성숙되면 매개 현별로 대규모의 무장대오를 꾸리자는 것이 명월구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방침이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총

유격대소조를 내오는 과정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동반하였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결하는 일처럼 그렇게 큰 난관은 없었다.

일제침략군은 본토의 군수산업이 계열식으로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로 육해공군의 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를 대줄 국가적 후방도 없었고 총도 한 자루 사올 돈도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포도 아니였고 탱크도 아니였다. 당장은 보총이나 권총, 수류탄과 같은 경무기만 있으면 되었다. 국내에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노동계급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없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신을 무장하는데서 자기 나라 공업의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자!≫는 비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도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 그 두 자루를 쳐들고 동무들에게 말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였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였다. 나는 이 두 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자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0000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000자루가 20000자루가 되게 하자!≫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여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무기를 얻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박훈은 나에게 소문을 들으니 무송에서 어떤 부자집 자식이 당신네한테 총 수십 자루를 희사한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무송의 부잣집 자식이란

장울화를 말한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대 그는 자기 집 가병들의 총 40자루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 총을 조선혁명군 대원들에게 모조리 나누어주었다. 박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아쉬워하면서 출로는 돈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꾸려놓은 혁명촌들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에게 호소하여 돈을 모아보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제의를 따르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뽑아낸다면 몰라도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무기를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목숨을 내대고 총을 탈취하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일이 훨씬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나는 돈을 주고 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그닥 장려하지는 않았다. 농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독립군의 식이었지 우리 식이 아니었다. 설사 돈을 모았대야 그것은 큰 밑천으로 될 수도 없었다. 언제인가 최현동무는 산림터에 가서 기관총 한 자루를 1500원에 사온 일이 있다. 소 한 짝에 50원씩 하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셈하면 소 30마리정도 팔아야 기관총 한 자루를 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 숫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내도산쪽에 가서 독립군들이 묻어놓은 총을 몇 자루 파왔다. 다른 현들에서도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경쟁적으로 회수하였다.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은 청산리전투 후 많은 양의 총과 탄알을 대감자 일대에 묻어버리고 쏘만국경으로 퇴각하였다. 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자동차 수십 대를 가지고 와서 그 총과 탄알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명월구회의가 있은 다음 왕청동무들은 대감자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일본수비대원들이 파헤치고 갔던 자리에서 근 5만발의 탄알을 회수하였다. 수중에 몇 자루의 총이 생기자 우리는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적의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투행동에로 넘어갔다.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첫 공격목표로 쌍변준이라는 지주의 집이 선정되었다. 그의 수하에는 40명 가량되는 보위단이 있었다. 단장은 훗날 ≪신선대≫대장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최현동무네 부대에 녹아난 이도선이라는 자였다. 보위단병실은 지주집 토성 안에도 있고 토성 밖에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정찰을 진행한 데 기초하여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로 습격조를 편성하고 소사하 본 부락에 있는 쌍병준이네 집을 불의에 기습하여 10여 자루의 총을 탈취하였다.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만강연안의 모든 곳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혁명군중은 ≪무기는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에로!≫라는 구호를 들고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 소년선봉대원들, 지방돌격대원들을 선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떨쳐일어나 일제침략군대와 일만경찰들, 친일지주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무기를 빼앗은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이었다.

≪요창부요밍!≫이란 그때에 나온 말이다.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총만 필요하고 목숨은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세관이나 보위단이나 공안국이나 지주집같은데 가서 총을 내들고 ≪요창부요밍!≫하고 소리치면 겁많은 관리나부랭이들과 반동지주들, 경찰관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무기를 다 내놓았다.

≪요창부요밍!≫이란 말은 동만의 모든 혁명조직구들에서 하나의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오중화의 아버지와 삼촌도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 권총을 들고 ≪요창부요밍!≫으로 경찰과 자위단원들을 위협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적위대에 보내주었다. 그 소문이 안도에까지 퍼져왔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들의 기지와 대담성에 탄복하였다. 훗날 왕청에서 오태희노인을 만나 ≪어떻

게 되어 그런 멋있는 궁리를 하시였습니까?≫하고 물으니 노인은 웃으면서 ≪밤에 보니 밥상다리도 권총 같습디다. 우리한테야 총이 있습니까, 작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밥상다리를 꺼내들었지요. 급하니까 그런 궁리도 납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말이 과연 옳았다. 정말 우리는 그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싸움에 과감하게 몸은 내던지였다. 그것은 최대한의 창발성과 지혜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이였다. 동만의 혁명가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때로는 헌병으로, 때로는 구국군부대 군인으로, 때로는 일본영사관 관리나 대부호, 무역상 같은 것으로 변화무쌍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정황에 맞게 임기응변하면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어떤 고장에서는 녀성들이 빨래망치나 곤봉으로 군경들을 때려눕히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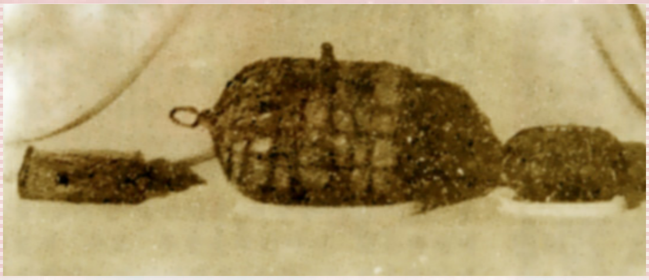

박영순

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전민항쟁의 개시를 위한 서막이였고 예비적인 싸움이였다.

이 싸움에는 모든 혁명조직들이 다 발동되였고 전민이 다 동원되였다. 혁명이 무기를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하자 군중은 서슴지 않고 이 싸움에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그들은 각성되였다. 자기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한 것이다. 자기 무기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한 우리의 구호는 도처에서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다. 그때 우리가 마련한 한자루한자루의 총에는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었고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이였다.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 도창무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권총과 작탄을 만들어냈다. 그런 권총 가운데서 제일 정교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진 것은 왕청현 남구반제청년 동맹원들이 제작해낸 ≪비지깨권총≫이였다. 함경북도지방 사람들은 러시아식으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그 권총을 ≪비지깨권총≫이라고 한 것은 딱성냥으로 총알화약을 만들어 약통실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신도 양철로 자작 만들었다. 동만의 병기창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화룡현 금곡에 있던 신성덕수리바위굴병기창과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의란구 남양촌의 주가골병기창들을 들 수 있다. 수리바위골에 있던 병기창에서는 연길현 팔도구광산의 혁명조직을 통해 얻은 폭약으로 폭탄까지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소리폭탄이라는 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살상력이 별로 없었다. 그 약점을 퇴치하려고 만든 것이 고추폭탄이였다. 소리폭탄보다야 효과가 좋았지만 이 폭탄도 역시 냄새만 지독했지 살상력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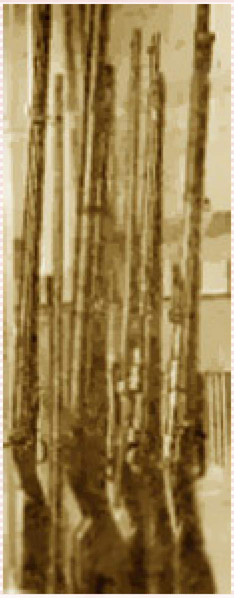

연길폭탄

화룡동무들은 그 후 고춧가루 대신 쇠쪼각을 넣어 살상도가 높은 폭탄을 만들었다. 그 폭탄이 바로 유명한 연길폭탄이다. 연길폭탄이 세상에 나온 다음 우리는 화룡에 있는 박영순을 데려다가 소왕청 대방자에서 이틀동안 작탄강습회를 조직하였다. 동만각지에 작탄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습회에는 간도 여러 현

들에서 온 병기창 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나는 첫날 강습에 출연하여 화약제조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서는 작탄을 만들 때 쓰는 화약을 광산에서 비밀리에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적들이 화약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우리는 민가에서 자체로 쉽게 화약원료들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강습회에서는 그 비결을 전습시키고 각 지방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박영순은 작탄 제조법과 그 사용법, 보관취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들이 화룡에서 자력갱생하여 개발해낸 폭탄제조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강습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자아냈다. 수리바위굴병기창을 주관한 박영순, 손원금 동무들이 아주 재간있는 동무들이였다. 훗날 이 병기창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믿음직한 무기제조기지, 수리기지로 되어 항일전쟁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만일 어느 문필가가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담성, 임기응변의 기지와 비상한 창발성에 대한 일화들을 종합하여 형상적 화폭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질 것이다. 수천수만 년 역사밖에 값싼 노동력으로 밀려나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대중, 망국민의 서러운 신세에 이를 갈고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그것이 숙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중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조직들에서 노획했거나 제작해낸 무기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개척하려고 한 우리의 결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재삼 자랑스럽게 확인하군 하였다.

우리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인민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그들을 항일전쟁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수적 요구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거족적으로 동원되는 바로 최후승리의 담보가 있었다.

1930년의 전례없는 흉작과 그에 따르는 혹심한 기근은 우리가 동만에서 추수투쟁에 이어 새로운 대중투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추수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군중의 투쟁기세를 늦추지 않고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춘황투쟁을 벌이도록 하였다. 춘황투쟁은 지주에게 쌀을 꾸어달라는 차량투쟁으로 시작되어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양곡을 몰수하는 탈량투쟁으로, 일제의 앞잡이들을 청산하는 폭력투쟁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동만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였다.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공세가 그처럼 악랄해지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내성있게 그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였다. 대중단체들은 관문주의의 틀을 마스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시키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디서나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헐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였다.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푸르허마을에서 겪은 체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푸르허는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동네였다. 이 동네를 거치지 않고서는 돈화지방이나 남만일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소사하, 대사하, 유수하를 비롯한 인접마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조직에서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으나 가는 족족 다 실패하였다. 거기에 조직을 당장 박아넣어야 하겠는데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정룡은 푸르허를 반동동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스파이나 무슨 백색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체를 밝혀낼 수 없다고 분해하였다. 이 동네에 대한 말만 들으면 나도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푸르허에 송씨성을 가진 조직원이 한 명 있었으나 그 동무의 힘만 가지고서는 반동분자를 색출해낼 수도 없었고 동네를 혁명화할 수도 없었다. 누구든지 목숨을 내대고 들어가서 잡아낼 것은 잡아내고 조직할 것은 조직하여 이 마을을 반동동네로부터 혁명동네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 내가 푸르허에 가겠다고 자원해나섰다.

나는 소사하에 송동무를 불러다놓고 미리 약속을 하였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달려서 머슴군 총각을 하나 얻어온다고 소문을 퍼뜨리오. 그러면 내가 동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노릇을 하겠소.≫

송동무는 눈이 휘둥그레서 반동이 심한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 게다가 머슴꾼 노릇을 하겠다니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푸르허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도 반대하였다.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에 앉아 푸르허마을로 들어갔다. 세수도 하지 않고 이발도 하지 않고 일부러 반편같은 용모를 해가지고 반동소굴에 침투하였다.

몇 시간 후 내가 송동무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기마경찰대가 먼지를 일쿠면서 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벌써 안도에서 경찰을 급파한 것이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기마대가 온다고 아우성치지 나는 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교하의 이름모를 여인네 집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할가. 기마경찰들은 나를 가리키며 누구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송동무가 자기 집 머슴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기마경찰이 ≪공산당간부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지도를 내려왔다고 하던데≫하면서 기웃거리었다. 양복이나 쪽 뽑아입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간부를 염두에 두고 달려왔는데 허줄한 덧저고리를 입고 얼굴에 검댕이 가지 묻은 나를 보고는 헛걸음을 했다고 실망한 모양이였다. 나는 그때 우리 대열내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품었다. 내가 푸르허에 침투하는 것은 몇몇 책임일군밖에 몰랐기 때문이였다.

기마경찰들이 돌아간 다음 송동무를 돌아보니 얼굴이 싸가매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베여있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이른새벽에 일어나 주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마당도 쓸고 소여물도 끓이었다. 그리고는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를 타고 매일 산으로 갔다. 산에 가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토론도 하면서 송동무에게 한가지한가지씩 일거리를 주었다.

나는 착실한 머슴군으로 동네에 소문났다. 그때 푸르허 사람들은 나를 어리무둔한 머슴군으로만 알았다. 우물터에서 얼음이 얼면 동네아낙네들이 나보고 손을 까닥까닥 흔들어 얼른 여기와서 얼음을 까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런 부탁도 달게 받아들이었다. 마을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킬 수록 내 몸에는 머슴의 체취가 깊이 배일 것이고 내가 그들의 청탁을 성실하게 들어줄수록 밀정들은 나에게 혁명가의 표정을 쉽사리 찾아낼 수 없게 되겠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송동무네 맞은편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밀려와서 나

더러 떡을 쳐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의례히 그런 일은 본때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농사로 한 생을 늙어온 우리 할아버지는 보삽질, 작두질, 떡메질 세 가지를 다할 줄 알아야 진짜배기 농사군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떡을 쳐본 일이 없었다. 우리 집 살림살이는 떡을 쳐 먹으면서 호강하리만큼 풍족하지 못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자니 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되었고 그 청을 거절하자니 머슴답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 주저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일이 바빠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 찾아와서 자꾸 독촉하는 바람에 더 버티여낼 수가 없었다. 내가 잔치마당에 나타나자 집주인들은 일손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몸집이 강마른 앞집 중노인의 손에서 떡메를 빼앗아 내 손에 쥐어주며 ≪이 사람, 오늘 떡맛은 임자의 솜씨에 달렸으니 한번 본때를 보이게.≫라고 하였다.

남의 속내도 모르고 방금 찐 떡쌀을 함지박에 담아내오라고 수선을 떠는 안주인의 거동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머슴의 솜씨를 보겠다고 내 량 옆에 진을 치고 서 있었다. 농촌에서는 떡치는 솜씨를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멋이고 생활이었다.

나는 떡메를 쥔 손에 침을 바르며속으로 에라, 될 대로 되어라. 힘자라는 껏 떡메를 휘둘러보자. 이놈의 일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겠지, 머슴이라고 만사를 통달하는 법이야 없지 않겠는가. 기껏해서 솜씨가 서투르다는 비난이나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내 심증을 알아차린 송동무가 나를 딱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그는 ≪이 사람, 그 팔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친다고 그래? 내가 팔을 잘 건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든가.≫하면서 일부러 위엄을 풍기며 나를 핀잔한 다음 잔치집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팔을 상해서 떡을 치지 못해요. 이웃집 경사인데 내가 대신 쳐주지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을여자들은 그날 손님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때에도 머슴군 대접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서도 나에게만은 그저 손에다 쥐어주었다. 나는 마을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수모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푸르허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에 고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 고장의 혁명화과정에 비하면 식은 죽먹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마을에 달반가량 있으면서 조직을 꾸리고 핵심청년들을 발동시켜 밀정도 청산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다음 동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나는 그때 동무들에게 ≪어데든지 혁명가들이 배기지 못할 곳은 없다.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신사식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 나는 부대를 데리고 푸르허에 간 적이 있었다. 빨치산대장이 되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 군중대회를 열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얼음을 까달라고 손목을 까닥거리며 불러대던 젊은 여인이 연설을 마치고 말안장에 올라앉은 나를 보고 너무 놀라 ≪에구,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던 머슴군총각이 아니요? 저이가 혁명군대장이 됐구려.≫라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은 이렇게 극복되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난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유혈을 가져다주었던 구국군부대와의 사업이었다.

5. 새 무장력의 탄생



무장대오를 조직하던 때 (1932년)

1932년 봄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만주대륙을 강점한 일제는 손중산의 국민혁명에 의하여 밀려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만주국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어용선전기관들과 중국, 만주의 친일적인 출판물들은 때를 같이하여 ≪오족협화≫, ≪왕도락토≫건설을 부르짖으며 만주국을 찬양하였고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인 여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배격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9.18사변의 발발원인과 그 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도착한 국제연맹조사단의 활동에 쏠리고 있었다.

영국 추밀원고문과 릿든경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열강대표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천황의 접견을 받고 수상, 육군상, 외상까지 만난 다음 중국에 건너와 장개석, 장학량과 회견하는 가하면 만주에 나타난 관동군사령관 혼죠중장도 만나고 9.18사변 발발현장에 대한 시찰도 진행하였다.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서로 릿든조사단을 자기편에 끌려고 접대, 환영 경쟁에 열을 올리었다. 조사단이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연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본이 만주에서 철병할 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정계, 사회계와 보도계는 물론, 정치에 민감해진 소학생들과 마실방 늙은이들의 입에서까지 오르내리었다.

그러나 안도지구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는 그런 억측이나 뜬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였다. 소사하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함지에 담아 이고 토기점골등판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3월 중순경에 안도에서 동만의 여러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소조의 지휘성원들을 위한 단기훈련을 조직하였다. 지방들에서 20명 가까운 지휘성원들이 소사하 토기점골로 모여들었다.

단기훈련은 2일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는 이론강의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동작훈련을 하였다. 나는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문제를 가지고 정치학습에 출연하는 한편 유격대의 생활규범과 활동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군사훈련은 주로 박훈이 맡아 지도하였다. 우리는 그때 그 강습에서 대련동작이나 무기분해결합법과 같은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격, 매복조직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로 훈련을 점차 심화시켜나갔다.

안도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본부로, 중심으로 되었다.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서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우리와의 연계를 지으려고 소사하로 자주 찾아왔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국내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과 만주각지에서 20살 안팎의 열혈청년들이 사선을 헤치며 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였다.

변달환이 입대는 지망하는 오가자의 청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안도로 나오다가 일본군경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해방 직후 나를 찾아왔던 변대우노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속절없는 감옥살이를 한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였다.

간도 여러 현들 중에서도 특히 연길지방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왔다. 연길지방에는 적의 통치기관들과 폭압수단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밀정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1932년 4월초에는 나남 19사단 소속의 38여단 75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증강된 이께다 대좌휘하의 간도임시파견대가 동만지방 토벌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길을 비롯한 간도일대에 쓸어들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그 고장 지하조직에서는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안도로 많이 보내주었다. 조직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았다.

돈화의 진한장도 호진민이라는 중국청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호진민은 화룡에서 사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이다. 어떤 날에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국군이 도중에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리로 학살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동북자위군, 반길림군, 항일구국군, 항일의용군, 산림대, 대도회, 홍창회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반일부대라는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를 말한다. 이 부대들을 통틀어 구국군이라고도 불렀다.

만주지방의 반일부대 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왕덕림, 당취오, 왕봉각, 소병문, 마점산, 정초, 이의 부대들을 들 수 있다.

동만에서 제일 큰 반일부대는 왕덕림부대였다. 왕덕림은 한 때 목릉과 수분하일대의 밀림속에서 아무런 주의주장도 없이 ≪녹림호걸≫의 토비생활로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작상 예하의 길림군에 편입되어 정규군의 외모를 갖춘 장교로 된 사람이다. 그는 9.18사변전까지 구길림군에서 3여단 7연대 3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민간에서는 그의 대대를 ≪구3대대≫라고 불렀다. 일본군대가 만주를 침공한 후 그의 상관이었던 여단장 길홍이 투항하여 관동군 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길림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자기 상관의 반역행위에 분개한 왕덕림은 즉시에 반변하여 항일구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5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국군을 조직한 다음 오의성을 전장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나자구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간도지방의 적을 견제하면서 훗날 우리 유격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공헌영은 모두 왕덕림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남만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당취오의 자위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흑룡강성 일대에서는 마점산부대가 북상하는 일본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안도의 산간오지로 밀려든 것은 오의성의 위하에 있는 우사령부대였다.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았으며 조선사람

들이 만주대륙에 일제침략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느라고 이간질을 계속하는데다가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에서 받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까지도 중국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구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꼭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피압박민족이며 중국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사람들도 중국인민의 원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정치적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구국군의 상층부는 조선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파쟁군이며 파쟁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제나름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도시들과 벌방지대에서는 일본침략군이 살벌하게 돌아치고 일본군이 채 점령하지 못한 농촌들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수천수만 명이나 되는 구국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구국군의 적대행동은 청소한 우리 유격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난관으로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물론, 산림대와 독립군까지도 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를 확대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뒤골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 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뒤골방에서 모젤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항일을 하겠는가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부락에나 숨어있을 뿐 다른 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 사람씩 비밀리에 나다니는 형편이었다.

초기에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유격대라고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군대들 뿐 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 패잔병까지도 피해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니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것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닐 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 십 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이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법화하겠는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고 자주, 자본가, 관료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

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었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 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목적과 처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연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이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연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만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덕림부대에 주의를 돌리고 7-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이광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부대에 파견된 이광이 구국군공작에 부심하고 있는 정형을 여러 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연합전선은 공상이나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분별한 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 되었다. 한 개 현에 몇십 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이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룡의 집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부대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논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꼬나들고 쉴새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부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룡, 호진민 뿐이었다. 김일룡은 나이가 나보다 10여살이 이상 되는 사람이었지만 중국말을 잘 몰

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20살 내기들이였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 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한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같은 중국동무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 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것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고 ≪꼬리빵즈≫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죽일게 뭔가, 왕청 관부대사건 때문에 요즈음은 구국군이 조선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이광동무의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의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사건이 있을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나는 그냥 내가 가야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교술을 가지고 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유격대의 존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 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시기에 풍랑도 여러 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 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 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였다. 상대측의 사령부는 양강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앞에서 유격대의 주둔지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부대와 맞닥들였다. 수백 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오고 있었다. 우사령부대가 남호두에서 일본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총까지 노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소?≫

포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니, 맞받아나가자구!≫하면서 그냥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네 사람도 나의 량 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갔다. 구국군은 우리를 보자 ≪꼬리빵즈, 오라!≫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일을 하는데 왜 붙잡으려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한장, 호진민 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엄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동북군방교차림의 지휘관이 점

심식사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 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스승이었던 유본초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유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동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 후 문광중학교와 돈화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을 사람이었다. 그는 상월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한장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데다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 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한장은 유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유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유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양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동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유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어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유본초선생을 따라 안동성시로 떠났다. 유본초에게는 전용군마가 한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구 가다니 될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행군을 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스 부요민≫이라는 글이 씌여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었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유본초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예절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 모두가 중학교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 줄 알고 격문도 쓸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이라


양강구

는 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이였고 유본초선생의 입장이 딱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사령부선전대장으로 되었다. 호진민은 부참모로 되고 진한장은 비서로 임명되었다. 소원밖의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닥다리였었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큰 은을 내었다.

나는 남의 집 뒤골방에 배겨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유본초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울리었다. 그런데 그날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는 조선청년들을 70－80명이나 붙잡아 성시로 끌어왔던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유본초선생한테로 뛰어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네 사병들이 조선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왜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유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 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왜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구.≫

유본초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돈화, 안도, 무송,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침략야망을 폭로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유본초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유본초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겠는데 일없어. 내가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지요. 그것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이면 그때 내가 유본초선생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의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유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시절부터 서로 격의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류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내가 유본초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유본초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사람들이 다 공산당일 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 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 보이었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놈들까지 끌여들었는데 그래두 공산당이 일본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않게 집요하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책을 보고 아십니까? 말을 듣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구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구 해. 그래서 나두 나쁜 줄로 알구 있는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한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었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총은 당장 줄 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놈들하구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동안 듣고 있더니 ≪음,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하고 말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들속에 은밀히 들리었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는 어데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가운데서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었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었다. 우리앞에는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문어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조선인고문이 말썽을 부리었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 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촉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거 부대에 조선사람이 한 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 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였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바랍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그도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어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죽으니 이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하면서 나를 유


유격대창건을 선포한
소사하 무주툰전경

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호의적인 분위기속에서 결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였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자리는 호진민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책임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유본초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우사령은 조선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뭇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김철

≪그럼 부대를 뭇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총부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염려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총부리를 돌린다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같은 햇내기들을 못 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편에서 대장이 농담을 진담으로 들은게 아닌가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유본초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별동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하고 말하였다.

유본초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별동대 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성원들과 우사령부대에 억류되었던 70-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리요!≫ ≪대성공이요!≫하면서 온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호진민은 나에게 가치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연기에라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치담배를 물고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랫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호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원참, 담배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빨치산대장을 하나.≫

호진민은 이런 농까지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골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갔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다 듣게 만세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룡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흥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쇠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룡이 ≪아리랑≫과 같은 비가를 부른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김철이 김일룡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룡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두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술한 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룡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룡의 한 생은 그대로 그 시련의 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해본 사람이였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아였다.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수난에 찬 생애였다.

≪아리랑≫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이다.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고 좌절에서 돌격에서 넘어가야 할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김일룡은 ≪아리랑≫으로써 곡절많은 과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푸른 하늘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것이였다.

그때 노상에서 유본초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가.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군한다.

우사령부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유본초선생이였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밖에까지 따라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못할 담판의 나날과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군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이광에게 우사령과의 담판내용과 조선인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이광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 개 중대의 인원을 이광에게 보내어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 것은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은 우리와 이광이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는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당시 쓰던 놋바리(우),
말안장(아래)

빠른 시일안에 반일인민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기있게 다그치였다.

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논쟁을 동반하였다. 그때 어떤 동무들은 유격대대열내에 노동자성분이 적은 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였다. 100여명이나 되는 입대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학생출신과 농민출신들이었다. 이 실태에 놀란 몇몇 동무들이 노동자성분이 적은 것은 혁명군대를 조직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장차 혁명군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노동계급이 혁명군의 주구성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군사학의 일반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적으로 적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의 수자가 많아질 때까지 유격대창건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나 학생출신도 다 노동계급 못지 않게 혁명의식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출신이 달라도 노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 농민이나 인텔리 출신이 많은 것이 혁명군이 변질될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깨우쳐주었다.



첫 유격대오가 들었던 기발

우리는 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고 기존공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유격전쟁의 특성와 요구에 맞게 구령을 치는 사람보다 구령을 집행하는 싸움군이 많이 내는 방향으로 대오를 짜고 편제를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지휘체계를 고도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므로 부대에 후방부서나 그것을 주관하는 지휘관도 따로 두지 않았다. 모두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싸움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작도 할 수 있게끔 준비시켰다.

그 때 우리에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편성에서의 3.3제는 나폴레옹이 창시한 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알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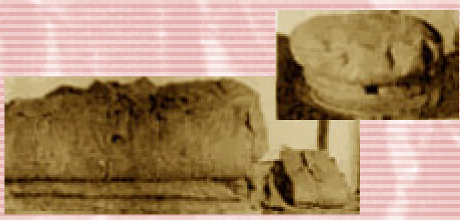
나는 2차세계대전때에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입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군을 많이 대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 수 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유격대의 군복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녹색천으로 지었다. 왼쪽가슴에는 다섯모가 난 붉은 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번호를 써넣었다. 군모에는 붉은 별을 달리고 하였으며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기로 하였다. 유격대 창건의 마지막 세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장제도를 하나하나 마무리지어나가기란 참으로 가슴흐뭇한 일이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한 복장제도에 따라 부녀회원들이 떨쳐나서 군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온갖 정성을 기울려 군복을 마르기도 하고 재봉침을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1932년 4월 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사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 군복

유격대결성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 후 입대지망자들은 3도백하의 입구인 유가분방에 모였다가 소사하에 집결하였다. 입대지망자는 100여명이였는데 그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차광수, 박훈, 김일룡, 조덕화, 곰보, 조명화, 이명수, 김철, 김봉구, 이영배, 이봉구, 방인현, 김종환, 이학용, 김동진, 박명손, 안태범, 한창훈밖에 없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 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였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고 그 공지의 한쪽변두리에 소사하와 흥륭촌 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서 술렁대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늠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등판에 불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만국노동계급의 전투적 명절은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



혁명영화 ≪조선의 별≫



반일인민유격대 대오를 돌아보시는 강반석여사

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판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이날의 행진에서 노래선창을 담당하였다. 그날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반일부대 장교들과 병사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무력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몸져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영배의 곁에 다가와 총이며 탄띠며 오각별을 오래오래 만져보았다. 그 다음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의 앞을 거닐면서 이 총도 쓸어보고 저 총도 쓸어보고 이 어깨도 만져보고 저 어깨도 만져보고.

미구에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떠그나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후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격대들이 연이어 조직되었다. 김책, 최용건, 이홍광, 이동광 등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만과 남만에서도 유격부대들이 연이어 태어나 적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1932년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서 무르익어갔다.



반일인민유격대 창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조국해방전쟁시기 ≪진격의 길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진펄을 헤치고≫



≪장군님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리≫ (금강산발전소 건설현장)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운명과 부강한 조국이 있다!≫



조선인민군 분열행진



조선인민군 분열행진

제6장



시련의 해

남만으로
마지막 모습
기쁨과 슬픔
합작은 불가능한가?
단합의 이념아래
구국군과 함께
소사하의 가을
나자구등판에서

■ 1⁄2Ãa : 1932. 5 ~ 1933. 2

1. 남만으로



유격대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소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숙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가졌다. 이 토의과정도 역시 카륜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었다.

유격전에 대한 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술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십인십색이었다. 지식정도와 생활경로, 소속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 것만큼 목소리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었다. 소조론이란 중대요, 대대요, 연대요, 사단

이요 하는 판에 박힌 부대편성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였다. 삼삼오오의 소조로 유격대역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작전에 따라 수십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 논리의 제창자들은 무장소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돈화와 연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이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노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였다. 그 여독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프랑끼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였다.

일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대결은 피하고 몇 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나석주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에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추도 내리자는 것이 무장소조논의 본질이였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러주의의 변종이였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묵인할 수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두 가지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하나는 도꾜 궁성 앵전문밖에서 일본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하여 폭발탄을 던진 이봉창 열사가 단행한 폭탄투척사건이다. 이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주둔 일본사령관 시라가와대장과 무라이 상해총영사, 가와하시 거류민단장을 즉사시키고 주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 명의 두목급군정요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이봉창이 천황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날은 1932년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활자로 ≪한일 이봉창 저격 일본천황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밖의 여러 신문들도 이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지의 일본 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 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不幸)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중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사건이 있은 후 중국사회계의 명사들이 연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에 투항주의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웅성에 감동되며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였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단의 성원들이였다. 한인 애국단의 기본적인 항일투쟁방법은 테러였다.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사령관 암살미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릿튼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군정요원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사령관과 만철총재, 신임 와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구는 부하들

을 파견하여 조선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되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테러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시기에 무장소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소조논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각지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도꾜로 출발하기 전 맹세를 다지는 이봉창열사

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에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김일룡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소조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면 박훈, 김철(김철희)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대결론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수만 명의 정규군과 폭동군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소조론을 시답지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고분고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 무장공격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논거는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9.18 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요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3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었다.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 중국본토와 쏘련이다. 지금 일본군대가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무슨 트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쏘련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전쟁의 수렁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 공격자세를 취하는 것은 역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거였다.

김일룡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준비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무장투쟁노선은 일제와의 전면적 무장대결을 예견한 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대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첫 걸음은 뗀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이치를 내대는 신중론이었다.

신중논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갓 태어난 어린 싹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 만큼 끈기있게 역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꺼꾸려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 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

직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카룬에서 무장투쟁노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의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 수 없었다.

대오안에서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정도, 출신지역과 출신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이 있는가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적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 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오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이해하는데서 자연히 수준상 층하가 생기기 마련이였다.


윤봉길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노선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어난 반일인민유격대가 첫 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소조론은 안중근의 전철을 밟겠다는 사상이다. 테러로써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였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소조가 기본적인 전투단위로 되어서는 안된다.≫≪전면적 무장공격으로 즉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100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 만 대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단위로 하여 유격전을 벌이자. 소조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모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항일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역량으로 시작을 땐 다음 전쟁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 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써 최후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영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전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역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려부시

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 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유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써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나는 이런 말로써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키었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였다. 개중에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십인십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논쟁에 아퀴를 짓고 진리가 어느쪽에 있는가를 판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해 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판도를 한 두 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였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여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우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에서 독립군부대들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였다. 남만의 통화지방에는 양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양세봉의 관활하에 있는 독립군역량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양세봉이 당취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보도가 소사하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훈은 양세봉이 반공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양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

계를 중시한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양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양사령과 우리 아버지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서신도 써주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양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양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 해 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않게 간절하였다.


이홍광

총알맛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양세봉사령은 백전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 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테러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영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경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남만에는 양세봉부대외에도 이홍광, 이동광과 같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있었다. 이홍광이 1932년 5월에 조직한 유격대를 반석공농의용군이라고 하였다. 이 부대는 후날 중국공농홍군 제 32군 남만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

이홍광이 유명한 인물로 된 것은 그가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가지고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한데도 있지만 관동군신문, 만주국신문과 같은 적의 출판물들이 그를 ≪여장군≫이라고 오보한데도 있었다.

이홍광이 ≪여장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희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동흥습격전투를 끝내고 근거지로 돌아온 후 이홍광은 자기의 휘하에 있던 한 여성유격대원을 시켜 포로들을 심문하게 하였다. 그 여대원은 심문에 앞서 ≪나는 이홍광이다≫하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포로들에게 경찰의 병력배치와 ≪토벌≫계획을 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이홍광은 20살쯤 난 미인이더라≫는 소문을 퍼뜨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일본군인들속에서는 이홍광이 ≪여장군≫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홍광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군사가로서의 기지와 담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이라면 이동광은 당건설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 유능한 정치일군이었다. 그의 이름은 벌써 1920년대 후반기부터 동만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에게 이동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은 김준, 서철, 송무선이었다. 이동광은 용정에서 동흥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 용정에서 이동광이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길림에까지 날아왔다.

나는 1930년대 하얼빈에서 서철동무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말로 얼핏 이동광이 나를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서철에게 이동광을 만나면 우리의 투쟁전략을 전하라는 것과 언제인가는 서로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같은 전호에서 손잡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나의 말도 전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이동광이 남만특위서기, 동남만성위 조직부장을 역임하였지만 우리가 남만원정을 준비하던 당시는 반석현에서 구위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동광

동만과 마찬가지고 남만지방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역량의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남만에 나가면 그들과도 연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유년기에 있는 부대들이 서로 만나 경험도 나누고 투쟁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실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에서 남만지방의 유격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과정에 나는 이홍광, 이동광, 양정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유하, 홍경, 반석을 비롯한 남만일대는 우리의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중부 만주일대에서 활동할 때 이 지역들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우수한 일군들을 많이 파견하여 조직공작을 시키었다. 최창걸과 김원우도 거기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태어난 조직들이 9.18사변 후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남만에 나가면 이런 조직들을 복구하고 위축된 혁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떤 역사가들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다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아무런 장애와 곡절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혁명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방금 창건된 유격대의 첫 노정을 남만원정으로 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심리적 고충과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정룡

우리는 1932년 5월에 구당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김정룡의 집에서 동만의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당과 공청의 지도핵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고 남만원정문제와 근거지 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남만원정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부대안에서 두세갈래로 갈라져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청년들도 이 원정방침을 흔연히 받아들이었다.

우리가 원정준비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부대 참모장으로 임명된 차광수가 문득 심각한 얼굴로 내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다.

≪대장동무, 원정을 갈 바엔 며칠안으로 이 소사하를 빨리 뜨는 것이 어떻겠소? 근처엔 신작로가 있어 적수송대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도 재미없구, 식량사정두 매우 곤란한 형편이오. 농가는 40호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명이 넘는 식솔이 모여서 먹어대니 소사하가 아무리 인심후한 동네라고 한들 어떻게 견디어 내겠소.≫봄부터 기근이 들어 춘황폭동을 일으켰던 실정이기 때문에 식량사정에 대한 하소연은



그의 설명이상으로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었다.

그러나 적수송대의 내왕이 잦기 때문에 빨리 소사하를 떠나야 한다는 문제설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안도땅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자는 차광수의 제의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참모장 동무, 기왕 우리가 총을 들고일어난 이상 한 번 싸워보는 것이 어떻소?≫≪전투를 하자는 거요?≫

≪그렇소, 부대를 무었으니 이제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적이 코앞에서 왔다갔다하는데 팔짱을 지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멋이야 없지 않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안도땅에서 한번 총소리를 내 봅시다. 전투가 없이야 대원들을 단련시킨다고 말할 수 없지. 잘만 하면 원정에 필요한 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소.≫ 차광수는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그날로 그는 박훈을 데리고 신작로에 나가 지형정찰을 해왔다. 매복전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정찰이었다. 그들은 소영자령에서 길

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수송대를 들이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내놓은 안은 나의 구상과 일치하였다. 나는 유격대의 전투형식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매복전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있었다. 대전자에서 대사하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소사하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40리 남짓하였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지만 골짜기를 따라 우마차길이 오불꼬불 나 있어 매복전투를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고장이었다. 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여 안도지구에 투입된 병력들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무기와 후방물자를 실은 위만군의 마차수송대가 명월구에서 안도방향으로 떠났다는 지방조직의 통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남만에 가기로 예정되어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신속한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도착한 다음 그들을 길목 양쪽에 매복시키었다.

야간에 매복전을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아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야간에는 매복전보다도 습격전을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었다. 항일전쟁의 전기간을 걸쳐 우리가 밤중에 매복전을 한 실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초행길에 방금 오른 우리로서는 그때 이런 이치를 타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보름달이 환히 밝아서 아군끼리 혼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수송대는 밤이 깊어갈 무렵에야 소영자령에 나타났다. 100미터 전방에 매복한 제1진의 대원들이 적이 출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적의 수송대는 모두 12대의 말파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으리만치 몹시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처음으로 닥치는 일이란 무엇이나 큰 충격과 불안과 위구를 자아낸다는 것을 나는 그때 절실히 체험하였다. 옆에 엎드린 박훈을 보니 그도 어지간히 긴장되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초연맛까지 본 그가 이런 형편이니 다른 대원들의 경우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매복조는 마치행렬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 행렬이 두 번째 매복조 앞으로 한절반 들어섰을 때 나는 바위우에 올라서면서 권총을 발사하였다.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우리는 팔에 흰수건을 감아서 적아를 쉽게 구별하였지만 급습을 당한 수송대원들은 적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눈먼 총질을 하였다. 10여명의 호송병들이 마차에 의지하여 발악적인 응전을 하였다. 시간을 더 끌면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10분쯤 사격을 계속하다가 돌격에로 이행하여 전투를 단숨에 결속지었다. 적들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투항하였다. 포로된 인원수도 사상자만큼 되었다. 전부가 위만군병사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하사관이었다.

나는 투항한 적들앞에서 짤막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10대의 마차에 전리품을 싣고 무주(목조)툰으로 돌아왔다. 보총 17정과 권총 1정, 그밖에 100여명이 한 달가량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와 천, 군화… 첫 전리품으로는 대단히 푸짐한 양이었다.

밤 12시가 넘어 우등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빙 둘러앉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을 먹었다. 첫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였다.

나는 수제비국을 먹으면서도 후둑후둑 뛰는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음식맛도 좋았지만 기분상태는 그보다 더 좋았다. 나는 그날밤에 체험했던 첫 전승의 희열과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던 흥분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생생히 간직하

고 있다.

근시경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등불을 들여다보고 있던 차광수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틀어잡고 목멘 소리로 말했다.

≪이것 보오, 성주! 겪어보니 별게 아니구만.≫

이것이 첫 전투에 대한 참모장의 소감이였다.

나의 소감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런 것이였다. 싸움이란게 별 게 아니다. 총이 있고 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보라, 그들이 우리앞에 손을 들고 투항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였다.


차광수

≪이런 때에 김혁이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김혁이만 있으면 벌써 즉흥시가 쏟아져나오는건데. 사람두 그렇게 빨리 가다니. 김혁이, 신한이, 제우, 공영이, 모두 어디에 가고 없단 말인가!≫ 차광수는 넋두리라도 하듯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초석을 닦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였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애달픈 심회를 달내일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면 우리의 대오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차광수는 안경을 벗어들고 손세를 써가며 우등불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첫 걸음을 떼었소. 우리는 첫 승리를 쟁취하였소. 누구들이 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요.≫그는 두 팔을 벌려 대원들을 한아름으로 안아올리는 시늉을 하였다.

≪총을 들었으며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총이 발사되었으면 승리해야 하오. 안그렇소?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차수송대를 하나 소멸하였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업의 시작이오. 자그마한 내물이 심산유곡을 떠나 망망대해를 향해 첫 흐름을 시작했단 말이오.≫나는 차광수가 이렇게 흥분한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날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연설을 하였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며 적어내려가는 이 글의 기록보다도 그의 연설은 훨씬 더 생동하고 호소적이였다. 그 연설을 여기에 그대로 재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동무들, 싸우니까 얼마나 좋은가. 총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피복과 신발이 생기고 나는 오늘 저녁에 위대하고 심오한 변증법을 배웠소. 이제 우리는 노획한 총을 나누어 가집시다. 그래서 그 총으로 또 새 적을 쏴눕힙시다. 그러면 더 많은 총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생길 것이오. 기관총과 대포도 생길 것이오. 노획한 양식으로 미대를 채웁시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운차게 행군해갑시다. 일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무기와 식량을 그들에게서 받아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방식이고 투쟁방식이 아니겠소.≫그가 연설을 끝내자 나는 맨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온 장내가 열렬한 박수갈채로써 그의 연설에 대답하였다.

그 다음 누구인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조덕화였던지, 박훈이였든지 기억이 삭막하지만 아주 감흥이 넘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렇게 신심에 넘쳐 첫 걸음을 내 짚었다.

2. 마지막 모습


강반석여사

우리 부대가 원정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던 어느 날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에 찾아왔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영자령에서 일본지도관이 인솔하는 위만군수송대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안도경내를 넘어 돈화와 연길지방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어디 가나 그 전승담으로 술렁거릴 때였다. 송강, 대전자, 류수하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소영자령전투의 진상을 알려고 소사하에 일부로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는 처음에 동생도 그런 사명을 띠고 나타난 것이라고만 짐작하면서 심상하게 대하였다.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철주는 소영자령매복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대원들이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지휘부 옆방에서 원정대에 망라된 대원들과 힘께 짚신삼이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휘부가 제정한 원정준비품들의 항목에는 짚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짐작을 바꾸어 철주가 소사하에 나타난 목적은 원정대의 출발준비를 거들어주려는데 있을 것이라는 제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였다. 저녁시간이 다되었을 때 철주는 마을의 농민조직 책임자를 만나보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왔던 김에 저녁이나 같이 나누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 청도 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만 하였다. 동생은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면서도 종시 그것을 입밖에 내지 않고 좀 유다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살펴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육감적으로 동생이 원정준비나 거들어주자고 소사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를 찾아온 것을 보면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나에게 터놓지 않으면 안될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머니나 동생자신의 신상에 생긴 어떤 곡절일 것이었다.

나는 지휘부에 들리지 않고 마을어귀까지 철주를 바래다주면서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토기점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냐?≫

내가 토기점골이라고 한 것은 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집이라는 말은 어쩐지 입에 올리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철주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연극을 잘하는데다가 해학이 풍부한 동생이어서 내 눈을 속일 수 있는 웃음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

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귀퉁이가 인차 이그러져버렸다. 동생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의 어깨너머로 먼 허공을 응시하였다.

≪무슨 곡절이 있으면 있다구 실토를 해야지 말을 안하구 그대루 가버리면 나는 나대루 걱정이 될게 아니냐. 이것저것 재지 말구 어서 말해라.≫ 철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위독해지신 것 같아요. 이틀째나 밥 한 숟가락 드시지 않았어요.≫동생의 그 말은 뇌성벽력처럼 내 고막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음식을 전폐하였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중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오셨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혹시 수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무송지방의 주민들가운데는 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까드라들고 손가락 매듭이 굵어지며 목병이 나서 노동능력을 상실당할뿐만 아니라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동진이 무송에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권고한 동기의 하나도 바로 이 수토병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부터 가슴앓이로 고생하였다. 그 당시는 가슴앓이를 ≪적≫이라고 하였다. 가슴속에서 큼직한 무엇이 치밀어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 어머니의 호소였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위암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은 ≪적≫이라고 진단은 내리었지만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병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저 가슴이 치미면 침상에 눕거나 끼니를 건느거나 미음을 묽게 쒀서 몇 술 뜨는 것이 유일한 치병방법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그때 나의 동무들이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썼다. 나의 친구로서 공청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을 보내주곤 하였다. 신문지상에 나는 광고를 보고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라고 짐작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소포로 부치었다. 그런 소포는 길림서도 오고 심양서도 오고 하얼빈이나 용정같은 고장에서도 오군 하였다.

안도지구의 한의들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사하에 있는 한의들은 돈도 받지 않고 어머니를 치료해주었다.

나는 철주의 충혈된 눈빛과 침울한 얼굴표정을 보고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는 막다른 대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에 쌀이 있는가고 동생에게 물으니 그것도 바닥났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날 소사하에 동무들이 주는 돈으로 좁쌀 한말(대두 한말)을 사가지고 토기점골로 향하였다. 쌀 한말이면 세 식구(어머니, 철주, 영주)가 한달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대두에 쌀 한말은 15키로그램가량 되었다.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때의 우리 집 형편에서 쌀 15키로그램이면 잔치도 치를 수 있는 대단한 양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한말의 좁쌀이 도무지 성차 보이지 않았다. 멜빵이 어깨를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그 쌀짐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에 비하면 오히려 솜털같이 가볍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전에 아버지한테서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교훈적인 데가 있었다. 관동의 병장들이 이인영을 자기네 의병부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임종직전에 이른 노부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인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 수 있으나 부모는 한번 돌아가면 다시 만나뵐 수 없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청을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나흘째되는 날에야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이인영의 휘하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려 8,000명에 달하였다. 얼마후에는 허위, 이강년의 부대까지 합세하여 창의군의 역량은 8,000명으로부터 1만명으로 불어났다. 소총으로 무장한 3,000명의 구한국군도 이에 합류하였다.

전국의 의병장들은 이인영을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진두지휘에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거에 통감부를 격파하고 보호조약을 폐기하자는 것이 의병의 궁극적인 목적이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의병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은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홀연히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의 귀향은 선발대로 나섰던 허위의 패배와 함께 의병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부대를 와해에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 길림에서 유길학우회에 망라된 성원들과 함께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이인영을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비난하였다. 1만 명을 통솔하는 의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울진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이이고 애국자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이인영을 비판만한 것은 아니였다. 개중에는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의 구실을 하는거야 응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그를 효자라고 추어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나라에도 충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하였다.

나는 이인영의 행동은 참된 효자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고 논박하였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참다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만을 중시하고 나라의 환난을 경시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효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인영이 만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부친의 묘소를 찾아 술이라도 붓고 분향재배하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들앞에 더 빛을 냈을 것이다.≫이것은 봉건도덕과 유교적 효성관이 골수에까지 깊숙이 배겨있던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대고 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이였다.

유길학우회 성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면서 치열한 논전을 벌이였다.

지금 우리 사로청원들이나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단순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때로서는 어느 것이 옳다거나 또 어느 것이 그르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논쟁거리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배기 효성이라는 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실로 수십 년의 역사가 필요하였고 피눈물로 얼룩진 체험이 필요하였다.

쌀짐을 지고 토기점골의 집으로 찾아갈 때 나는 새삼스럽게 이인영의 이 일화를 생각하였다. 어째서인지 그 창의대장의 행실이 옳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지난날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던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의나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이해를 표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 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처자의 운명에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 수 없으며 가정에 그늘이 지면 동시의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적구에 한 개 연대의 병력을 파견하는 전쟁사상 유례없는 조치도 서슴없이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의리이고 도덕이였다.


어머니가 부녀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

나도 초기에는 이 도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동만땅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는 돈화와 안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집에도 종종 들리고 어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만한 약재도 뻔질나게 구해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내가 집에 드나드는 회수가 잦아지게 되자 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였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양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같아서는 집에 철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 수 있으니 너는 집근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후회되였다. 어머니가 경계하더라도 나로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토기점골이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은 어쩔 수없이 빨라졌다. 그 대신 마음은 각일각으로 무거워졌다. 중환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뵙게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졌다.

물웅뎅이에는 갈대가 벌써 퍼그나 자라 바람에 흐느적이고 있었다. 갈이 많아서 이 고장을 갈밭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래촌에 사는 김병일네가 몇 해전부터 토기를 구워 팔면서부터 이 한적한 심심벽촌도 천지개벽을 하여 토기점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통나무를 가로질러놓은 다리를 건너 웃마을로 올라갔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내 눈에 비쳐들었다. 엉성한 싸리바자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볏짚 이영도 제때에 갈지를 않아 폐가와 같이 한산해보이는 집, 그것이 바로 몇 해째 남정의 손이 닿아본 적이 없는 우리 집이였다.

삽짝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리였다.

≪어머니!≫

나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 계시는 어머니앞으로 총총히 다가서며 소리쳐 불렀다.

≪글쎄 내 아무래두 발자국소리가 귀에 익다 했지.≫

어머니는 토방위에 벗어놓은 쌀자루의 멜빵을 만지며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집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무람은 없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얼마동안 문안이야기가 오락가락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머니의 안색이며 음성이며 몸가짐이며를 순간순간마다 살피면서 건강상태를 가늠해보려고 애썼다. 외형으로 보아서는 지난 겨울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기력은 흠뻑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리었다. 팽팽하던 가슴도 홀쭉해지고 목도 가늘해지고 귀밑머리에는 흰오리마저 눈에 뜨일만치 섞여있어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도 일찍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겨운 흔적을 낼 수 있을까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밤 어머니와 함께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군대가 어데까지 들어왔는가, 유격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양세봉선생과는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근거지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두서없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머니는 화제를 자꾸만 정치문제로만 유도하였다. 집안 살림이나 자신의 병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매듭을 지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꺼내어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들에게 병을 숨긴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그만큼 중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어머니의 앞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육감적인 판단은 나로 하여금 등골에 찬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하였으며 남모르는 눈물을 삼키게 하였다.

다음날 나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철주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나무를 하려는 것이었다. 집둘레를 돌아보니 땔나무도 한두 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린 기회에 나무라도 몇 짐 해놓고 가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욕심같아서는 손을 댄 김에 몇 달 분의 화목을 해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산이 깊지 않다보니 강대도 칠 것이 없어 부득불 쉬나무를 베지 않으면 안되였다.

≪철주야, 이런 것 말구 더 분한이 있는게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묻자 동생은 무명잠뱅이를 추어올리며 대답하였다.

≪아무거나 한 짐 해가지고 내려가지요. 어머니가 알면 꾸중하시겠어요.≫겉보기에는 철부지같았는데 벌써 철이 다 들었다.

철주는 낫질을 하면서도 연송 초조하게 마을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몰래 나무를 하러왔는데 낌새를 채면 어쩌나 하는 눈치였다. 내가 집안일에 잔신경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쉬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손에서 불이 일게 낫질을 하였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에야 지게에 나무단을 올려놓고 마을로 내려왔다. 갈밭이 내려다보이는 굽인돌이에 나서자 마당끝에 서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나는 작시미를 짚고 산길을 내리면서도 줄곧 무거운 상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중환에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원정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질 것 같았고 앞길이 막막해보였다. 우리는 원정의 기한을 한두 달로 정하였지만 그 한두 달사이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부대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전처럼 몇 해 더 지하투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려 가정사도 의논하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뉘 고생속에서 살아오시었고 남달리 심적 고통도 많이 겪어오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안되는 때에 나마저 이 안도땅을 훌쩍 떠나고 나면 허전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병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어내시겠는가, 그렇다고 하

여 나 일개인 가정문제 때문에 유격대의 한해 활동방침으로 이미 설정해놓은 남만 원정계획을 취소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이 산에서 땔나무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느냐?≫ 사립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문득 언짢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대신 웃음을 짓고 땀을 씻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츰 네가 이상해진다. 무송에 있을 때두 그렇지 않았구 저너머 흥륭촌에 있을 적에두 그럴줄 몰랐는데 요새는 집걱정이 늘어났으니 말이다.≫어머니의 음성이 갈려있었다.

≪오래간만에 풀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후련해지는구만요.≫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못들은 체하고 천연스럽게 뜨락으로 걸어들어갔다.



철주동생이
공청사업을 하던
아지트

그날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다. 접시위에는 버들치구이도 놓여있었다. 그 버들치구이가 별맛이었다. 어데서 생긴 찬이냐구 물었더니 어머니는 막내동생이 형이 오면 상에 놓은 찌게가 없어 야단이라구 걱정하던 끝에 낚시질을 해서 처마끝에 꿰미채로 걸어 말린 것이라고 하였다.

손가락만큼한 것이 한 접시였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다 없애지 못하고 몇 마리 남기였다.

막내동생이 잠든 다음 어머니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였던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심각한 어조로 나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이전보다 좀 달라졌다. 네가 쌀자루까지 지고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앓고 있는 것은 이 애미 걱정 때문이겠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 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랑 네 손목을 잡고 험한 영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고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어머니의 말마디들은 격정으로 떨리었다.

내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어머니는 입술을 사려문 채 다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인생관이 마디마디 집약되어 그것이 나의 온 심혼을 폭풍처럼 흔들어놓았으며 폐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천금같은 순간이였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씀을 이었다.

≪나무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네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걱정은 아예 말아라.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고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나는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였다.

≪어머니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소사하로 갔다가 부대를 데리구 남만으로, 양세봉선생한테로 곧 떠나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콱 쏟아져나와 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구석쪽에 놓인 반짇고리를 끌어당겨 나의 군복저고리에 단추를 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서는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장례식때에 체험했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도 입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가지 않았다. 우리 삼형제들만 상복을 입혀서 장례에 보냈다. 오동진, 장철호, 양세봉을 위시한 독립군들이 우리 삼촌과 함께 수십 명 영구를 따라갔지만 어머니만은 묘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어 오월단오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머니보고 산소에 가자고 졸랐다.

어머니는 나야 거기 가서 뭘하겠니, 너희들끼리나 가라고 하면서 끝내 산소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에게 제물을 꾸려주고는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술은 어떻게 부으며 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산소에 가지 않은 것은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

어머니는 아버지의 묘소에 혼자서 가군 하였다. 그 관례를 깨뜨린 것은 단 한번, 이관린이 장례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송에 나타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는데 그때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이관린을 묘지까지 안내하였는데 그가 너무 슬프게 조상을 하던 나머지 기절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지 말라고 달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인정에 무른 분이었지만 눈물이 없었다. 여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만치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놀라운 천품이 나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독속에서도 서슴없이 아들이 갈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 매를 대는 심정으로 온몸과 넋이 짜릿짜릿하게 한 생의 좌우명으로 되는 심각한 훈계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늘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녀사를 보통어머니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머니가 해방 후 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울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자마자 다 울었지만 그 어머니만은 울지 않았다. 내가 아들의 전우들이 많은 평양에서 살라고 했더니 장길부어머니는 아들이 고발한 원쑤들을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다. 찌그러진 싸리바자 앞에서 찬공기를 쐬며 거닐고 있는데 철주가 조용히 문을 열고 토방에 나섰다.

우리는 둘이서 나무단을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주는 지금까지 공청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이 집걱정을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노라고 하였다. 사실은 내 자신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먼저 말을 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는 콩비지를 맛있게 해먹었다. 나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뒤집에 있는 김정룡이를 만나러 찾아갔다. 동생들의 운명문제를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내가 남만으로 당장 떠나가야겠는데 집일이 걱정되어 토기점골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했더니 김정룡은 집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떠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의 병구완도 잘 할 테니 염려말라고 하였다.

나는 집에 나와 길떠날 채비를 하였다.

내가 신발끈을 메고 있을 때 어머니는 고리짝밑에서 5원짜리 지전 넉장을 나에게 주었다.

≪객지생활을 하느라면 돈을 써야할 때가 많겠는데 이걸 건사해라. 남자의 주머

니에는 정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청나라말기에 손중산선생이 외국대사관 감옥에 갇혔을 때에두 소제부한테 돈을 몇 잎 쥐여주고 빠진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정작 돈을 받아들였지만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그 돈 20원에 얼마나 큰어머니의 노고가 깃들어 었는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손가락끝이 모지라도록 삯빨래도 하고 삯바느질도 해서 푼푼히 저축해둔 20원의 돈, 소 한 짝에 한 50원정도식 할 때였으니 그만한 돈이면 중소 한 마리는 살 수 있었고 쌀을 사서 세 식구가 일년은 살아갈 수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 돈의 무게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거나 한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토방 밑에 내려선 다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 순간에 내가 명심한 것은 나의 인사가 다른 때와 유다른 점이 있어서 어머니를 울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될수록 표가 나지 않게 보통때와 다름없이 범상하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 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애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었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여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쪼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집둘레를 속절없이 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제끼며 준열하게 나를 꾸짖는 것이었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품구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너는 집안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무 해가 되어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냐.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 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어머니는 그 몇 마디의 말씀에 기력을 다 소모해버린 것처럼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고 정과 열과 노여움이 엇바뀌는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어쩌면 천리를 걸어 팔도구에 도착한 날 밤 하루도 재우지 않고 그달음으로 임강에 가라고 떠밀어 보내던 때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였다.

나는 아들로서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머니는 온몸에 불붙는 그 의와 열로 하여 순식간에 재가 될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그런 다음 동구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아래목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느고나서 고개를 돌리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문설주를 짚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쳐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저 섬약한 육체의 어느 구석에 이 아들의 가슴을 그렇게 드세게 흔들어 준 고결하고 강의한 넋이 깃들어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몸이 병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집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수백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범상한 작별이 아니라 내 한 생에 가슴아픈 추억을 남겨놓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별이었다. 나는 그 후로 어머니를 만나 다시 만나뵙지 못하였다.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였을 때 내 머리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리지 못한 회한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감상적인 이별은 바라지 않았으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 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 번씩은 그런 대목에서 서게 되는 법이다. 그때마다 종이장 두께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운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른 극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머니가 내앞에서 집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이 탕개를 늦추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깃을 펴고 대공으로 날을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과연 어떤 파문이 있었을까.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에 있던 어머니의 묘비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때로부터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수십 년동안 인간의 상상을 조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들어왔다. 그 후에는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해쳐왔다.

조국과 민족의 위해 그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그런 곤경에 취할 때마다 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적 명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남만으로 떠밀어 보이면서 어머니가 하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



여성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



혁명사업을 보좌하시기 위하여 망을 보시는 강반서여사

3. 기쁨과 슬픔

반일인민유격대의 남만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우사령부대에서도 200명으로 편성된 구분대를 통화지방을 파견하였다. 이 구분대의 인솔자는 유본초선생이였다. 우사령이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유본초참모장을 남만으로 보낸 목적은 당취오자위군과의 합작을 실현하여 자위군을 통하여 무장을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우사령은 무기의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요녕성에 본거지를 둔 남만지방은 자위군은 우사령의 구국군부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원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하에 찾아온 유본초선생은 자기들도 남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목적지도 같으니 기왕이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자기네와 동행하면 당취오와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당취오와 연계를 가지면 무기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유본초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사실 우리한테도 무기는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남만으로 가게 되면 노상에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우하여도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당취오는 원래 동변도 성방군 1연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9.18사변 후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요녕민중자위군을 조직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당취오의 자위군은 통화지방에 활동거점을 두고 남만일대를 중심으로 심양주둔 관동군부대와 힘에 부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국민부산하의 조선혁명군 부대들과도 연합작전을 조직하군 하였다.

조직초기의 요녕민중자위군는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난관이 중첩되자 당취오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이 릿든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사변의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1932년 정초에 금주를 점령한 일제는 그 해 1월 3일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상해사변을 도발하였다. 그들은 5명의 일본승려가 상해 홍구에서 구타를 당한 것을 구실로 삼아 중국의 공장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하였으며 뒤이어 해군육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이 상해사변을 도발한 목적인 이 도시를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일본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격전의 방법으로 상해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영토를 일거에 삼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다.

상해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즉시에 영웅적인 반격을 가세하여 일본침략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장개석과 왕정위를 수위로 하는 국민당반동정부의 배신적인 매국정책으로 하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상해사변은 굴욕적이고 반혁명적인 ≪송호협정≫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었다.

상해항전의 실패는 구국군과 자위군을 비롯하여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저락시키였다.

상해사변과 ≪송호협정≫체결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당정부의 반동적인 매국배족정책은 항일구국역량앞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였다. 국민당반동집단은 상해항전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범죄시하였다. 장개석과 왕정위는 제19로군에 대한 군수물자보급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전국각지에서 상해로 보내오는 원호금을 압수하면서도 해군에 비밀지령을 내려 일본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급하는 수치스러운 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은 자신들이 항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민들도 항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자들의 총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항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국민당의 테러를 당하든가 그들의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다.

장개석은 일찍이 중국이 제국주의의 손에 망한다면 우리들은 망국노는 될지언정 그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만일 공산당의 손에 망한다면 노예로조차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장개석과 그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집단이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보다 인민혁명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며 그들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노복이고 앞잡이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장개석의 매국행위는 국민당과 이러저러하게 연결되어있고 또 구군벌과 관료, 정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은 구국군과 자위군의 상층에 사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였다.

확대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일본군의 위력도 구국군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였다. 릿든을 필두로 하는 국제연맹조사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만주를 일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공동관리하에 둘 데 대한 제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전투행동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무력은 점차 산해관과 북부만주방향에로 육박하였다. 그들은 북만의 넓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열하 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북만진공을 앞두고 관동군의 특무기관들을 발동하여 동북군을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며 특무들을 통한 매수, 음모활동으로 북만 동북군의 각 여단이 사분오열되어 서로 의심하거나 권력쟁탈에 몰두하게 하였다. 적들은 마점산을 칠 때에는 소병문을 끌어당기였고 마점산이 패한 다음에는 소병문을 일격에 소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부대들을 손쉽게 각개격파하였다.

북부만주일대에서의 반일부대의 와해과정은 동만의 왕덕림이나 남만의 당취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취오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에 편승하여 항일구국의 기반을 들었으나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고 대세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었다.

그 당초 정초, 이두, 형점청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반일부대의 두령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연맹에 의거해야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포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어 ≪장학량이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공산비적을 숙청하기 위해서다. 공산비적을 먼저 숙청해야 일본군도 쫓아낼 수 있다. 공산당이 일본놈을 끌여들였다.≫는 엉터리주장까지 하였다.

우리가 남만으로 떠나던 그 해 봄에 주보중이 자위군에 잡힌 적이 있었다. 주보중은 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들에게 당신네 부대를 왜 자위군이라고 칭하는가고 문의하였다.

질문을 받은 자위군의 우두머리들은 자위란 자기 역량을 보위한다는 말이다. 자기 역량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군을 치겠는가. 일본놈들이 우

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치지 않는다. 자위란 이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군의 사고방식이였고 정치적 견해였다. 신심을 잃고 동요상태에 빠진 당취오는 산하부대들을 통솔하지 않고 방임상태에 두다싶이 하였다. 이런 때에 우사령이 유본초를 자위군본부에 파견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첫날 행군노정을 짧게 잡고 6월 초사흗날 오후에 소사하를 떠난 원정대는 사하(하소사하) 농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도강을 건너 유가분방이라는 마을로 행군해갔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밤 묵음으로써 정치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넓다란 제분소앞으로 앞마당에 우등불을 피웠다.

유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인접부락의 사람들까지 유가분방으로 찾아왔다. 마을의 조직책임자들은 이집저집에서 멍석도 모아오고 이웃마을 손님들이 걸터앉을 강대며 서까래도 끌어왔다. 제분소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 명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등불두리에 빽빽이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 조직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때처럼 무더기질문을 받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목이 갈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은 것은 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였다. 그들도 소사하에 한 달 전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같지만 거기에는 새로 탄생한 무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이 깔려있었다. 독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이고 반일인민유격대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복잡하게 유격대라는 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인가? 독립군도 어쩌지 못하는 일본군대를 유격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거꾸러뜨릴 승산은 있는가?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인가? 독립군에게서 시달림도 많이 받고 독립군의 실패에서 암담한 절망감도 수없이 맛보아온 유가분방의 군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요컨대 이런 것이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될수록 쉽고 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반일인민유격대란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말그대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바로 여러 분들과 같은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로써 무어졌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사명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는데 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의병과도 다르고 독립군과도 다른 새 형의 군대이다. 독립군의 지도사상이 부르조아민족주의라면 항일유격대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사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사람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세운다는 사상을 말한다.

돈있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세우는 것이 독립군의 이상이라면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반일인민유격대의 이상이다. 독립군이 여러분과 같은 평백성들을 광복운동의 협조자로, 동정자로 보아왔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주인으로 보고 있다. 독립군이 외부세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으로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

의병의 뒤를 이어 독립군이 그 동안 만주산야와 조국의 북부지대에서 십수 년동안 일본침략자들과 혈투를 벌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군의 군세는 점점 허약해지고 지금은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 독립군이 이루지못한 조국광복의 성업을 우리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조직한 것이 바로 반일인민유격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의 한 청년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병력이 몇 천명쯤 되는가고 물었다.

초기여서 몇 천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 명쯤 된다, 지금은 유격대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조만간에 수천수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청년은 내 말을 듣고 나서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특별한 절차나 격식은 없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받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 준비는 좋아야 한다, 입대는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러 명의 마을청년들이 즉석에서 나를 에워싸고 우리가 입대를 청원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횡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입대하더라도 당분간은 무기가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다. 무기는 전투마당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청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락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무기가 없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여러 명의 마을 청년들을 선대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가분방이 청소한 우리 유격대에 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었다. 우리는 이 선물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열 명 가까운 청년들은 단꺼번에 대오에 받아들였으니 그때의 우리 심정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눈을 움켜먹으며 풍찬노숙에 어려운 길을 걷는 혁명가들에게는 부르조아지나 시정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유한 향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전우를 얻게 될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근하게 하는 정신적 충만감이다. 어제까지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사선을 헤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에워주면서 속세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숭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끼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식의 기쁨이고 향락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날밤 유격대원들은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를 열었다. 나와 차광수도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처럼 품을 얼마들이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9.18사변 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유격대에로 크게 쏠리고 있었던데 기인한다.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조선사람은 여기서도 마음놓고 살 수가 없게 됐다. 만주에서도 기를 펴고 살지 못할 바에는 죽든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청년들의 공통된 심리었다.

우리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우등불곁에서 멍석과 삿자리를 펴고 유격대 조직후 처음으로 되는 노숙을 하였다.

조선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유격대가 노숙을 하면 유가분방백성들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였으나 우리는 조직책임자들이 알선해주겠다는 농가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천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사람들의 청을 사양한 것도 사실이지만 혁명가는 따뜻한 아랫목의 보금자리보다 거치른 잠자리를 더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낭만적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마다하게 하였다고 본다.


안중근

우리는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마을에서 하루밤 숙영하였다. 그 때 우리가 숙영한 곳은 여수문이라는 중국노인의 집앞이였다. 그 집앞에 큰 감자굴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감자굴자리에 곡초를 엮어 바자를 두르고 그안에서 불을 피우며 하루밤을 지냈다.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지에서 밥도 해먹고 잠자리를 정하는 것을 본 여수문 노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 움직이기 곤란하면 대장만이라도 자기방에 가서 유숙하자고 권유하였다.

≪성주선생이 나하구 생판 모르는 남남이라면 몰라도 우리야 구안도에 있을 적부터 서로 낯을 익혀온 사이가 아닙니까?≫ 노인은 나까지 그렇게 에누리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노라고 하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사실 나와 그 노인은 서로가 구면이였다. 우리 집 식구들이 마춘욱의 객주집 웃방에 거처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여수문노인을 두세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노인이 보여준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품이 내 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노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리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가 한지에서 숙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속에 기여들어가겠는가고 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유가분방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였다. 그는 9.18사변후 일본군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조작해내었다는 것과 장춘을 신경이라 고쳐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부의를 데려다 앉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노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이다.

노인은 말하기를 조선의 열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이라고 하였다.

≪안중근선생이야말로 동양의 거인이지요. 오죽하면 원세개대총통까지 안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는 시를 지였겠나요.≫ 노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다음부터 만주지방의 중국인들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중국인유지들은 집에 안중근의 화상까지 걸어놓고 신주처럼 모시였다.

≪노인님은 조선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안중근을 그리도 잘 아십니까?≫

여수문이 안중근에 대하여 너무도 큰 애정을 가지고 말하므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물었다. ≪만주에 사는 사람치고 안중근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하얼빈역에다가 안열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까지 있었겠나요. 나는 지금도 자

식들에게 늘 말하군 합니다. 혁명가가 되겠거든 손중산선생과 같은 혁명가가 되고 대장부가 되겠거든 안중근과 같은 대장부가 되라구말이웨다. **김**대장님. 이왕이면 부대를 무은 바엔 관동군사령관과 같은 거물들을 요정내지 못합니까?≫

나는 노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까짓 관동군사령관이나 하나 없애버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등박문을 죽이면 새로운 이등박문이 나오듯이 혼죠를 죽이면 새로운 혼죠가 또 나올 게 아닙니까. 테러로써는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어른은 어떤 방식으로 싸울 작정입니까?≫

≪광동군이 십만이 된다니 그 십만을 상대로 싸울 작정입니다.≫

여수문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몹시 감격하여 내 손을 꽉 그러잡고 놓지 않았다.

≪김대장, 참으로 훌륭하시오. 대장어른이야말로 안중근과 같은 분이 아니겠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훌륭할 수는 없지만 망국노의 생활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날 유격대가 마을을 떠날 대 여수문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멀리까지 대로를 바래주었다. 나는 유가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여수문노인을 만났던 때의 일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유가분방을 떠난 우리 부대는 이도백하부근에서 다시 하루밤 숙영하고 도로를 따라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송에서 안동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제침략군의 척후대와 불시에 조우하였다. 우리는 행군할 때마다 앞장에 3-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척후대를 배치하군 하였는데 그 척후대와 일본군의 경계구분대 사이에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하였다. 유격대가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하는 조우전이었고 또 그것도 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대와의 첫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소영자령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달랐다. 상대는 어수룩한 위만군이 아니라 실전경험이 풍부한 영악하고 민첩한 일본군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단 한번의 전투경험밖에 없는 초학도들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은 조우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원정의 목적으로 보나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보아도 장거리 행군과정에서 될수록 아군의 행동에 불리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익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았다. 옛날병서에서도 ≪피실격허≫라고 하였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 치라는 말이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부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결심을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나는 적의 기본역량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전투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척후대가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고지 북쪽능선으로 부대를 재빨리 이동시켰다. 그 다음 일부 역량을 도로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부대는 도로의 남쪽와 북쪽에서 일제사격으로 척후대를 족쳤다.

적의 행군종대가 미구에 장구류들을 잔뜩 짊어지고 신작로로 달려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한 개 중대는 잘되었다. 적들은 척후가 녹아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포위하려 하였다. 나는 신호총을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작하지 말하는 명령을 내리고 적들이 화력권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탄알이 얼마 없었다. 내가 신호총을 쏘자 전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

였다.

나는 사방으로 터져오르는 총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를 가늠하려고 애썼다. 개개의 총성에는 흥분되고 앙양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전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역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서열을 갖추면서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진지양측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무력가운데서 일부 역량을 떼내어 아군의 양익측으로 재빨리 기동시키었다. 대원들은 진지를 차지하기 바쁘게 민속한 저격전으로 익측의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악하고 끈덕지게 아군이 차지한 계선으로 그냥 기여들었다. 우리가 통선아래로 바위돌까지 굴리면서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공격이 조금 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부대에 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수림을 뒤흔드는 나팔소리와 함께 능선을 번개같이 치달아내린 유격대원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사정없이 족쳐버렸다. 몇 명의 도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 개 중대역량은 우리의 돌격앞에서 전멸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 김일룡은 육박전을 하면서도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또 한 놈 넘어간다!≫하고 환성을 올리군 하였다. 우리 유격대에서도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름모를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안장한 우리는 그들의 무덤앞에서 영결식을 가지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결사를 하였다. 그 때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대원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던 광경과 대오의 길이가 유가분방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짧아진 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던 일만이 기억될 뿐이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열에 다시 출발구령을 주었다. 모두가 길가에 정렬하였는데 차광수만은 무덤에 엎드려 있었다. 주인없는 무덤, 칠성판 하나 깔아주지 못한 어설픈 무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능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광수! 왜 이 모양이요. 일어나지 못하겠소.≫

나의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크고 모질었던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음성을 낮추어 귀속말로 그를 타일렀다.

≪대원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데 칠전팔기의 기개는 다 어디갔소?≫

차광수는 눈물을 씻고 대열앞장에 묵묵히 걸음을 떼였다.

그 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안도-무송현경 전투를 치른 후 넉 달이 지나 차광수가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 맨 선참으로 내가 상기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왜 차광수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던가. 다르게 말해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기는 내 자신도 전우들을 잃은 다음 며칠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다.

전사한 대원들은 모두가 ≪ㅌ·ㄷ≫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의 길을 걸어온 골간이고 핵심들이었다. 희생


전쟁에서 사살된 일본군

이 없는 투쟁이란 물론 있을 수 없다. 혁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평화적인 노동에서도 이러저러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데 항차 모든 병기와 수단들이 총동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장투쟁에서야 어찌 죽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도-무송현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었다. 혁명이 아무리 가혹한 희생을 동반한다고 해도 방금 첫 시작을 뗀 우리 대오에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심정이었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열 명 미만의 유생역량을 잃어버린 그닥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사자가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는 현대전에서 십단위의 인명손실이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산수적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다.

산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는 수단으로 될 수가 없었다.

우리와 함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사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었다.

유격대원 한 명과 적 100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였다. 적들은 국가의 법과 동원령을 발동하여 하루사이에도 수천수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대량적으로 싸움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수단이나 강권이 없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 해도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은 그대로 천금맞잡이였다. 뜻을 같이하는 한 사람의 동지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한 명의 전우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오를 묶어세우자면 실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비록 그것이 100명의 적을 소멸한 승리한 전투라고 해도 아군에서 한 명의 희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안도-무송현경전투를 조우전을 영활하게 반공격으로 전환시켜 한 개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멸한 성공적인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승리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의의는 비단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한 개 중대의 정규군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었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격투쟁 사상 처음으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의 신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거기에도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무적도 아니고 불패도 아니며 불퇴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유격전의 특성에 맞는 전법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한다면 적은 역량을 가지고서도 강대한 일본군을 얼마든지 타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그러나 ≪ㅌ·ㄷ≫의 첫 산아들을 열 명 가까이 잃어버린 이 전투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한 개 중대의 적을 소멸하는데 열 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렸다면 조선과 만주에 있는 10만이 넘는 일제침략군을 타승하는데는 얼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가!)

초연이 채 가셔지지 않은 안도-무송현경의 전장을 떠날 대 나는 동지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능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조우전을 치르고 나서 유격전쟁을 하느라면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달았다.

안도-무송현경전투가 있을 후 우리가 십수 년동안 하여온 항일전쟁은 실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4. 합작은 불가능한가?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양세봉의 묘비

안도와 통화를 연결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노정에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험준한 산악들과 계곡들이 많았다. 안도에서 무송까지는 장백산줄기가 뻗어있었고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삼차자령이나 삼도노야령과 같은 험한 영들로 이어진 용강산줄기가 첩첩히 가로놓여 있었다. 이런 산줄기들을 타고 부대는 한 달 가까이 힘에 겨운 행군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적들의 경계가 미칠 수 있는 대도시를 피해 산악행군을 하고 밤에는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들에 들어 끊임없는 정치공작과 전투훈련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송에서도 며칠동안 체류하였다. 거기서 그 때 장울화도 만나보았다. 장울화도 우리의 체류기일이 짧은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학창시절의 자기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이틀이나 사흘쯤 더 있다가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도 그 요청에 응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송은 나와 수십수백 갈래의 사연으로 얽혀져있는 의미깊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정대로 사흘인가 닷새만에 부대를 출발시키였다. 지난날에 대한 추억이 아무리 소중하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인정이 아무리 눈물겨운 것이라 하더라도 양세봉사령과의 해후를 위해서는 섭섭한대로 장울화와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50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가면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산세는 점점 더 사나와 지고 행군도 힘들어졌다. 생소한 메봉우리들과 골짜기를 타고 수백 리 산길을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사이에 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었다. 부대내에서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역시 계속되는 행군으로 어지간히 지친 몸이 되었다.

원정대가 통화까지 갔을 때 차광수가 문뜩 나한테로 달려와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통화로 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무송에서도 더 있고 싶은 것을 꾹 참고 500리를 내쳐 달려왔는데 통화를 코앞에 두고 휴식이라니 웬말이요? 차광수답지 않구만.≫

나는 차광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차광수는 대답에 앞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주장을 완강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특이한 습관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지칠대로 지쳤소. 대장동무자신도 극한점에 도달했구.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환자들이 생겨서 겨드랑이에 끼고 행군하는 형편인데 이꼴로 가서야 양세봉사령한테 어떻게 명함을 들이대겠소.≫

≪양세봉선생은 그만한 사정도 통찰하지 못할 옹졸한 사람이 아니요.≫

≪사령은 안목이 높아서 그렇다하고 수백 명이나 된다는 부하들의 눈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를 보구 오합지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야단이 아니요. 천리를 행군

해온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될가봐 겁나오.≫

이쯤되면 차광수의 고집을 누구도 휘여낼 수 없었다.

나는 차광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꾀죄죄한 몰골로 통화에 나타나면 독립군들이 우리를 시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이 만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얕보게 되면 모처럼 계획했던 합작도 우리의 의도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차광수가 제기한대로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원기를 회복한 다음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통화시내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전부대가 행군을 정지하고 이도강에서 숙영할 것을 명령한 다음 양사령에게 연락원을 파견하여 독립군과의 합작을 위해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를 떠나 통화근방에 도착하여 휴식중이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우리는 통화에 간 연락원을 기다리며 이도강마을에서 노독을 풀었다.

지휘부는 물레방아간집에 자리를 잡았다.

물레방아간집 늙은이들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돌보아주었다. 내가 독립군과의 사업에 필요한 행동조례를 해설해주기 위해 지휘부에 대원들을 여라문 명 불러다가 정치상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집 영감은 백성의 성의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나를 몹시 나무랐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감정을 상하고 성내는 일이 많으면 의지를 상한다고 했네. 생각을 적게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적게 웃으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섭생의 본도고 이치란 말일세. 그런데 대장처럼 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야 기는 어떻게 보존하며 병은 어떻게 털어버리란 말인가. 항차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군사들이 아닌가.≫

노인이 머리에 새겨두기조차 힘든 수십가지의 양생법을 진지하게 설명해주면서 대사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장래를 생각해서 몸을 잘 돌봐야 하지 않는가고 역설하는 바람에 나는 부득불 정치상학에서 손을 떼고 그것을 차광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가 허준의 숭배자라는 것과 노인이 우리들에게 장시간 해설해준 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섭생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섭렵한 지식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은 보양법에 대한 조예가 상당한 정도로 깊었다.

우리가 이도강을 떠날 때 노인은 참지에 싸두었던 연밥과 꿀에 반죽했다가 말린 구기자환 여러 봉지를 차광수에게 맡기면서 많지 않은 약이지만 대장의 몸을 보양하는데 써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노인이 자신의 섭생을 위해 모처럼 지어둔 보약을 가볍게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약을 조심스레 사양하였다.

≪노인님,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것들이야 기가 허하거나 혈이 모자라서 못살겠습니까. 한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락을 보지 못한 노인님께서나 이 약을 쓰시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까지 장수하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가볍게 성을 내면서 우리한테 막무가내로 약을 밀어보내였다.

≪우리야 다된 인생인데 보약을 쓰면 뭘하고 안쓰면 뭘하겠나. 그렇지만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선봉대가 아닌가. 우리가 썩박드덜기라면 자네들은 청송녹죽이란 말일세.≫

우리는 통화에 갔던 연락원이 되돌아와 나의 서신을 받고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과 그가 부하들에게 유격대 환영준비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쁘게 이도강을 떠났다. 이도강 체류기간에 이발을 하고 바지에 주름까지 세운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정보행진도 하고 때로는 혁명가요도 부르면서 통화시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나는 행길에 나서자 김일룡에게 대열을 맡기고 차광수와 함께 양세봉과의 담판계획을 다시금 상세하게 토의하였다. 나의 모든 사색과 상념은 미구에 맞다들게 될 독립군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물레방아간집 노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도 다 적게 하고 지어 웃음까지 적게 웃는 것이 섭생의 본도라고 귀에 못박히게 강조하였지만 나는 도저히 그처럼 구속이 심한 섭생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가는 독특한 창조과정이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와의 교섭에서 양세봉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광수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시종일관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통화시가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머리에는 양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환에 계실 때 뜻을 같이 나눈 동지들을 한사람한 사람 회상하면서 나와 어머니에게 여담으로 들려준 일화였다.

3.1운동 전야에 양사령의 향촌에서는 빈농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이 되어 밭을 논으로 푸는 개답공사를 벌이였다. 양사령의 집도 이 계에 망라되어있었다. 소출을 많이 내는데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는 이 개답공사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런데 계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노장파들이 논농사가 파악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개답공사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노장파와 소장파사이에는 봄씨붙임을 앞두고 연일 계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소장파 젊은이들은 당나귀발통 같은 노장파 늙은이들의 고집을 도저히 휘여낼 수 없었다. 계에서는 그 해에도 파종기가 오자 젊은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하는 밭에 조와 보리를 심었다. 늙은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예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두머리였던 양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리었다. 모내기철이 되어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던 어느 밤 소를 끌고 들에 나간 그는 조와 보리 싹이 한창 푸름푸름 자라는 여러 뙈기의 밭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갈아버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던 밭이 하루밤사이에 논으로 변하여 물까지 출렁거리는 것을 본 늙은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생벼락을 맞을 놈, 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쳐놓았구나. 금년 농사를 망치면 거지가 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나 보리를 심으면 아홉 섬밖에 나지 않던 그 뙈기밭에서 양세봉은 그 해 가을 스물넉 섬의 소출을 냈다.

계와 늙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저 세봉이가 하여튼 난놈은 난놈이웨다.≫하고 혀를 찼다. 그 후부터 양사령의 향촌과 그 인근마을에서는 논농사를 하는 집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를 쥐락펴락하던 상투쟁이영감들도 양세봉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다 들었다.

통화를 지척에 둔 노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양사령과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자신이 사색을 집중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양사령은 3.1운동전야에 고향(철산)을 떠나 남만의 흥경현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양세봉을 맨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이 흥경땅이었다.

그 당시 그는 통의부에서 겸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가 나온 다음에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일약 오동진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간부가 되었다. 그의 중대주둔지가 바로 무송이었다. 그래서 나도 양세봉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무송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양세봉은 다시 흥경현을 소환되어 가고 그 대신 장철호가 그의 후임으로 무송에 왔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태어났을 때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행력이 강하며 민중의 촉망이 높은 양세봉에게 군통수권을 맡기였다. 양세봉은 군부에서뿐만 아니라 3부의 원로중신들이 모인 조선혁명당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사령은 늘 자기와 김형직은 결의형제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극진하게 사랑해주었다. 오동진, 손정도, 장철호, 이웅, 김사헌, 현묵관과 함께 길림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양세봉이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상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몹시 나빠지고 또 그 반동화된 단체의 군부수뇌인 양세봉과도 오래동안 상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에 대한 양사령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느것이나 다 인간 양세봉, 애국자 양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상들이였다. 우리의 합작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추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될수록 우리의 담판전망을 낙관적으로 조명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회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로 자기자신을 심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의 심리작용이었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비롯한 동변도의 20개 현은 모두 동변도 진수사 우지산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는 한때 장작림으로부터 제30군 군장으로 임명받은 바도 있는 장령이었으나 1930년 6월의 대도회의 반란진압에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여 장학량의 신용을 잃었다. 우지산은 동변도 주요지점들에 1개 여단 규모의 성방위군을 배치하고 이 일대의 최고통치자로서 군림하였는데 9.18사변 후에는 동변도 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사령이 되었으며 관동군수뇌들과 연계를 가지면서 봉천성의 괴뢰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관동군은 우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구에 대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맡기었다. 관동군의 대부분 역량은 당시 북만에 쏠리고 있었다.

이런 기세를 타고 당취오의 요녕민중자위군이 양세봉휘하의 조선혁명군 부대와 함께 통화현성을 포위하였다. 오끼쯔 요시로주임을 비롯한 일본영사관 통화분관의 일본인 직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 포위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다.

관동군 사령부는 통화현성이 포위되어 현지의 일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일대에 총출동중이었으므로 다만 1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을 구원대로 파견하고 우지산군의 방조를 기다렸다. 우지산군은 두 대로 나

뒤어서 북쪽과 봉성 방면에서부터 양, 당의 연합군을 압박하였다.

관동군에서는 이다가끼참모장을 내세워 ≪통화에 있는 일본인 여러 분, 봉천에서 급히 지원부대가 내일 아침 도착하므로 잠시 완강히 견지하여 주십시오.≫하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9.18사변 후 국제연맹사단의 만주파견과 때를 같이 하여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군은 도처에서 일본침략군대와 만주괴뢰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때여서 통화현성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혁명군과 자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독립군사령 양세봉

반일인민유격대가 통화현성에 입성한 것은 6월 29일 저녁이었다.

독립군들은 시내곳곳에 ≪반일인민유격대를 환영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을 독립시키자!≫ 등의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였다. 양세봉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독립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안도에서 온 우리 일행은 즉시에 두 패로 나뉘여 유본초가 데리고 온 구국군병사들은 자위군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솔하고 있는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였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의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우리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상외로 대단히 좋았다. 그들은 안도에서 유격대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날창이나 화승대를 멘 촌바우들을 상상했었는데 만나고보니 멀쑥한 신사군대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날밤 나는 양세봉의 집을 방문하였다.

양사령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양사령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보내는 안사를 전해주었다.

≪어머니가 안도에 가신 다음에도 선생님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양사령선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어주고 너를 화성의숙에도 추천해보냈는데 그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양사령은 그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었다.

≪나하구 자네 아버지야 의형제간인데 은공이구 뭐구 할게 있나. 성주 아버지한테서 받아온 편달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야말로 백골난망이라고 할 수 있지. 자네 어머니는 좀 어떤가?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탈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병이 퍼그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계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통화시내에 들어설 때 받은 인상을 피력했다.

≪사령님의 부하들이 수백 명이나 거리에 떨쳐나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줄 때 우리는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독립군의 얼굴색이 밝은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대접만을 소홀히 하지 않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도를 떠나기 전에 사령님의 부대가 당취

오의 요녕민중자위군과 합세하여 통화현성을 포위하고 손쉽게 차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리 자랑할 전과가 못돼. 자위군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성시 하나도 공략하지 못하면야 무슨 명분으로 밥을 먹겠나.≫

양세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통화현성포위전의 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밤 잤다.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양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양세봉이 우리의 원정목적을 묻지 않는 것이 좀 불안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해주는 그의 진심에 넘치는 행동을 보고 담판이 잘돼갈 것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뗀 것은 양사령이었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 말은 이런 것이었다.

≪대장도 알다시피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숱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이춘윤,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헌 이건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양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서 부감하는 양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사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사주의자들 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 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단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 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닭보듯이 하거든. 이건 순전히 공산주의자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가 노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양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지독한 영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섣달그믐께부터 매번 지주의 빚독촉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 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었으며 무시래기에 피쌀을 쑨 죽을 기아의 해들을 기적적

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이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이념이 자본주의사상을 옹호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였지 공산주의이념 그 자체는 아니였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곧 이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 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넋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양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투쟁과정에 범한 좌경망동적 과오를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중투쟁일반을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해독행위로 묘사하는 양세봉의 편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령님의 말씀과 같이 조선공산당출신의 지도인물이 계급투쟁을 하는데서 지나친 탈선을 한 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들의 좌경망동바람에 사실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람이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인식까지 낳게 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령님, 농민이 지주를 반대해서 들고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가서 지주에게 차례지는 것이 얼마인데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죽도록 일해서 농사지은 것은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우니 농민들도 살아보겠다고 소작쟁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양사령은 내가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변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변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독립군부대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독립군대원들속에는 유하와 흥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ㅌ·ㄷ≫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환영회인 것만큼 대단히 성대하고 열광적이었다. 그 환영회에서는 통화현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례를 엇바꾸어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환영회의 모든 공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의 개성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들의 소탈하고 겸손하고 낙관적인 품성과 절제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우리 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38식 보총이었다.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저런 끌끌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고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당신네와의 합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양사령과의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묻기도 하였다.

양사령은 그날 성주가 데리고 온 군대를 보자고 하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환영을 잘하였다 그런데 그만 양사령이 반공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환영분위기는 적대적 분위기로 바뀌여졌다.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이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공장에 가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싸우게 하고 농촌

에 가서는 지주와 농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녀평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편이 싸우게 한다. 쩍하면 수탈이요, 타도요 하면서 동족간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민족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는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였다. 차광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양사령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공으로 일관된 양세봉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령님, 우리는 그런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근로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하자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력자대중이 중심이 되어 투쟁해야지 그저 옛날식으로 몇몇 영웅호걸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동무들은 입을 모아 국민부를 공격하였다. 국민부가 왕청문에서 애국청년 여섯 명을 이유없이 살해한 것은 이적행위가 아닌가, 민족앞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도 국민부집단은 감히 그 무슨 이적행위를 운운하면서 우리를 구박할 수 있는가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양사령은 노염을 타면서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그 노여움이 도수가 지나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우리의 몇 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나 아닌가, 아니면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양사령에게 우리를 걸고 나쁜 말을 한 것이나 아닌가, 어쨌든 그가 노여움을 타는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인내성있게 그를 설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노하실 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좀 더 지내봐야 알게 아닙니까. 상대를 호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령님부대와 우리 유격대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양사령도 별로 응대가 없었다.

나는 양사령의 반공자세가 요지부동이긴 하지만 꾸준히 설복하면 그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남을 믿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배타주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을 믿는 것은 최선의 인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토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인도주의란 민족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단합된 민족의 역량으로 부모형제 동포자매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내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되는 부대를 이끌고 천리밖에 있는 양세봉을 찾아온 것도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그날 통화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이 독립군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주었다.

양사령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통화에서 벼락같이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유본초선생과도 갈라졌다.

반일합작의 절박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독립군과의 충돌을 피해 통화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차광수는 대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노정도가 그려진 목책을 들여다보며 덤덤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광수동무, 오늘은 왜 그렇게 성난 사람처럼 뿌루퉁해있소?≫

나는 그의 기분을 짐작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차광수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목책을 집어넣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울화가 치밀어 못견디겠소. 피를 흘리며 천리를 달려온 노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소.≫

≪왜 참모장동무는 독립군과의 담판을 실패작으로만 보려고 하오?≫

≪그럼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란 말이오? 어쨌든 양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장해제음모를 꾸미지 않았소.≫

≪참모장동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얼굴은 보지 못했구만. 독립군대원들이 우리 유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소, 나는 무장해제설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싶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도요. 나는 거기서 합작의 장래를 보고 있소.≫

이렇게 말하는 내자신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은 것은 아니였다. 나는 그저 예감을 말했을 뿐이고 염원을 표시했을 뿐이다.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양사령과 당취오의 합작도 성사되고 우리와 우사령과의 합작도 성사되는데 동족끼리인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합작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였다.

독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장해제음모를 꾸몄는가 안꾸몄는가 하는 것은 오래동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정보가 조직원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근거 없는 정보이기를 바랬다. 설사 그것이 과학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양사령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의 사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이 소모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면서도 독립군과의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양사령이 언제인가는 꼭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였다. 애국은 연공의 바다에로 가는 시내물과 같은 것이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병변하여온 독립군의 사령 최윤구는 나와 함께 1932년의 여름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최사령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민 것은 양사령이 아니라 양사령의 수하에 있는 참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양사령은 반일인민유격대와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참모가 막후에서 반공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쏠았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의까지 하였다는 것이었다.

최윤구의 그 말이 양세봉사령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양사령이 우리와의 거래가 결렬된 것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생각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해제음모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였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애국심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임을 다시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속 훌륭한 인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얼룩이지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다.

양사령의 과실은 간계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대바르고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턱밑에서 참모가 우리와의 합작을 유산시키려고 작간질을 하는 것도 몰



양세봉부인과 함께

랐다.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헐뜯을 때에도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양사령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친 것도 적의 간계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양세봉사령이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임종 전이었다. 그 당시 독립군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밀정들과 그에 매수된 앞잡이들의 해독행위가 우심해지는가 하면 부대를 꺼나가는 낙오자들과 탈주자들이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양사령도 공산주의자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중 두 나라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세력으로 등장하여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격동기다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냉철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 연공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본의아닌 적대감에 포로되어 우리와의 합작마저 결심하지 못했던 양사령이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그자신의 생애는 물론, 독립군의 투쟁역사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었다. 그가 반공을 배격하고 련공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양정우와의 공동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와도 합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헌병, 경찰기관들과 특무조직들은 양세봉을 살해하고 독립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음모에는 봉천헌병대도 가담하고 조선총독부 후꾸시마기관도 미행하였다.

양세봉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기밀비로 10여만원의 돈이 투하되었다는 말도 있다. 박창해를 비롯한 흥경의 밀정들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적들은 양세봉사령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고

독립군을 협조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였다. 어느 날 왕가는 양세봉을 찾아와 중국항일군이 독립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회유하였다. 양세봉은 중국항일군이 원조를 약속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가를 따라 항일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립자로 향하였다

왕가는 노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아들고 ≪나는 이전날의 왕명번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일본군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양사령이 왕가에게 벽력같은 호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내들자 수수밭에 매복하고 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격으로 그를 살해하였다. 최일천이 묘사한 것처럼 ≪계림(조선)의 벌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는다.≫는 박제상의 충언이 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쑤들을 질겁케 하였던 것이다.

양사령이 만일 좀 더 일찍이 연공의 길에 나섰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리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다. 물론 그의 죽음을 애달퍼하는 한가닥의 미연일 것이다.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

양사령은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반공의 벽을 부시고 뛰쳐나온 한 애국자의 죽음으로 탄생된 연공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따라 4년 후에는 통화거리에서 우리를 환영하던 300여명의 독립군대원들이 최윤구사령을 앞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그때 나는 화전에서 그들을 만났다.

환인현의 조선사람들은 적들에게 양사령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을뒤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장으로 안장하였다. 평토장이란 지평면과 무덤의 높이가 동일한 봉분을 쌓지않은 평평한 묘를 말한다.

일본군경들은 그 묘마저 파헤치고 고인의 머리를 베여 통화시가에 걸어놓았다.

양사령의 유가족들은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일만군경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량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도에서 천여 리나 떨어진 환인현의 심산벽촌에 들어가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나는 해방 후 남만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양사령의 유가족들을 조국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윤재순)과 아들딸, 사위가 조국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 동안 사령님을 잃고 일본군경들에게 내내 쫓겨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가 첫 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동안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쫓겨다니는 거야 무슨 큰 고생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쫓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셨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다보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산중에서도 장군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군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원혼이 된 영감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군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사령은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 후 우리는 양사령의 아들 양의준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4월 남북연석회의 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선생은 거기서 양사령의 아들을 만나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치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학원에는 빨치산투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노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열이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하고 말했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의 정치일군이 된 양의준은 전후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낙망하였다. 양사령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였다.

다행히도 양의준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아이의 이름을 양철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는 소아마비의 후과로 불구의 몸이 되였다.

당에서는 그를 인민학교에도 보내고 고등중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여 14년동안 건강한 아이들과 꼭같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그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17층에 있는 교실까지 오르내리였다. 애국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존경심은 불구의 유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되였다. 지금 양철수는 공화국의 당당한 현역작가가 되어 침상에서 문학작품을 써내고 있다.

양철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을 따지면 양세봉의 증손자, 증손녀들이다. 추석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국열사릉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군 한다. 그들은 아직 자기네 증조할아버지의 생애를 얽어매고 있던 고뇌와 불행이 무엇이였던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진한 것들의 어깨우에 다시는 반공이냐 연공이냐 하는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애국열사릉

5. 단합의 이념아래


최창걸

나는 유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었다. 유하는 남만일대서 흥경, 통화, 화전, 반석과 더불어 조선독립운동의 중요한 책원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이 지방에는 구세대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 투사들도 많았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역사에서 첫 무관학교로 널리 소개되었던 신흥강습소도 남만의 유하현에 속한 하니하라라는 곳에서 설립되었다.

우리가 유하를 행군노정의 하나의 목표로 정한 것은 이 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중적 지반을 넓히기 위한 정치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유하뿐 아니라 삼원포, 고산자, 해룡, 몽강 등 안도까지의 귀환노정에 있는 지방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유격대의 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의 한 측면도 여기에 있었다.

원정부대는 먼저 삼원포, 고산자, 유하, 해룡 등지에 머물러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9.18사변 후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적의 백색테러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해 동안 피와 땀을 바쳐 꾸려놓은 조직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성원전원이 잡혀가거나 학살되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조직들도 있었다.

9.18사변의 여파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룡지방이었다. 해룡에는 일본영사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고장보다 더 깊숙이 뻗어있었다. 조직선을 찾으려고 안타깝게 모대기는 사람들이 어느 고장에나 다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체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층당조직성원들과 공청,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의 책임자들을 만나 매개 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요해하고 당면한 혁명임무와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사고방식에서 스쳐지나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9.18사변과 함께 속히 만연되기 시작한 패배주의적 경향이었다.

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러시아도 타승하고 청나라도 격파하였다.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본토까지 먹어보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미국군대와 영국군대가 얼마가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일본군대한테

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국에서 조선독립을 기다리는 것은 부지하세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을 통해 생겨난 일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더 크게 조장되고 전파되였다.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발전하면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바에야 혁명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투쟁주의로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을 묶어세울 수도 없었고 애국역량을 혁명에 동원시킬 수도 없었다.

우리는 부대내에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선발하여 9.18사변과 조선혁명의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들속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게 하였다.

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소식이였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규모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유가분방인민들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 다시 재현되고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우리의 강연이나 담화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화제거리는 안도-무송현경전투담이였다. 광대한 만주대륙을 일거에 집어삼키고 만주국까지 조작해낸 일본의 전승결과에 비한다면 1개 중대의 적을 소멸한 전과는 사실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미비한 것이였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전투담을 제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일본이 만주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방금 첫발을 뗀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백주에 노상에서 왜군 1개 중대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경탄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은 전투과정의 매 세부, 지어는 아군의 돌격 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체적인 패주상까지도 죄다 알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였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꼭같은 전투세부를 두번, 세 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안도-무송현경 전투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대중에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실전을 통하여 유격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군중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배경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무장투쟁을 절대시하고 지하혁명활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였다. 그들은 적이 탱크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짓뭉개대는 때에 밤낮 모여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공부나 하고 삐라나 뿌리면 뭘하는가, 총을 들고일어나 왜놈들을 한 놈이라도 잡아서 제껴야 소득이 있지 지하활동 같은 것이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을 경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투쟁도 조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심들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도 조직할 수 없고 더욱이는 그 대열을 늘어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9.18사변이 만들어놓은 좌익소아병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저수지가 조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논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으며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이 끝장난다는 이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

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각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항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군중이 조직활동을 잘해온 덕택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남만지방 인민들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부의 테러에 테러로써 대답하려는 경향이였다. 그 당시 국민부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테러를 강화하고 있었다.


독립군사령 양세봉

유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테러를 밥먹듯하는 국민부의 테러에 테러로 대답하는 것이 왜 유해로운가 하는 논거를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테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그것은 테러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온 것이였다.

나는 테러에 테러에 대답하는 것이 왜 온당치못한 처사로 되며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동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부가 애국자들을 학살한 것은 물론 천추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대죄이며 동족의 손에 훌륭한 애국자들을 잃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모두의 비극이다. 국민부는 이 죄악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민부를 살인백정의 집단으로 낙인하고 복수를 다짐해나선 동무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복수의 칼을 벼리기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을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을 벌이는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열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러로써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 것은 일제놈들뿐이며 리득을 볼 것도 일제놈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잠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 청년들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고개들을 끄덕거리였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남만의 동무들에게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그 두리에 대중들을 더 많이 묶어세울 데 대한 과업, 핵심들을 육성하여 무장대오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된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확대해나갈 데 대한 과업,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우리가 삼원포, 고산자, 유하, 해룡 일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남만지방에서 벌인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다.

유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걸린 고리들을 풀자면 최창걸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성원들과 공청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해전부터 연계가 두절된 최창걸을 행방을 찾으려고 그처럼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

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었다. 최창걸은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유하는 ≪ㅌ·ㄷ≫의 결정에 따라 그가 활동한 구역이었고 그와 여러 가지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고장이였다. 최창걸은 독립군생활도 거기서 시작하였고 화성의숙에 입학할 때에도 거기서 양세봉의 추천을 받았다.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최창걸은 출신중대에 돌아가 독립군 참사로 복무하면서 유하지방을 중심으로 남부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ㅌ·ㄷ≫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 그는 유하에서 활동할 때 금천현성에 잇는 일본영사관분관을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화성의숙 기숙사

유하와 흥경을 비롯한 남부만주일대에서 ≪ㅌ·ㄷ≫의 대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김혁, 차광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창걸의 눈부신 투쟁과 능숙하고 세련된 사업전개능력에도 기인된다. 그는 새 사조의 출입금지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군들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독립군대원들속에서 의식화작업을 주동적으로 하여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신봉자로 개조하였다. 최창걸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하게 하였는지 그를 통솔하던 지휘관은 심지어 그가 주둔구역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몇 달씩 정치공작을 하여도 상급에 보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었다.

유하는 종파분자들과 반공모략에 이골이 난 민족주의보수파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곳이었다. 엠엘파분자들은 반석현에서 주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내어 남만의 민족주의단체들과 대결하였고 혁신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분열직전에 있던 독립군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좌파인물들은 화요파, 서상파와 손을 잡고 민족단일전선조직을 서두르고 있었다.

현묵관, 고이허를 위시한 보수파인물들은 공산주의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공세를 벌이었다.

이런 복잡한 분위기속에서 최창걸은 유하지구에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대열을 급속도로 늘려나갔다.

종파분자들은 주중청총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들의 유일한 조직인데 유하반제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또 무슨 단체인가고 하면서 트집을 걸었다.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은 유하반제청년동맹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색분자들도 잠입시켰다. 그들은 반석지방으로부터 수십 명의 청년들은 끌어들여 다니거우에 집결시키고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무은 다음 삼원포에서 독립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는 경찰과 연합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까지 부렸었다.


현묵관

그때 최창걸은 그들의 추태를 저지시키고 동맹의 핵심들을 폭행속에서 구원해주었다.

최창걸은 종파분자들의 도발에 군사적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데서 대범한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에 카륜에서 나를 만난 최창걸은 종파쟁이들의 곤장에 살을 찢기고 피를 토하는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총탄을 발사하지 않고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하로 갈 때 제일 기뻐한 것은 차광수였다. 그는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면서 어린애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창걸과 마찬가지로 차광수도 유하와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하에서 육혈포를 차고 돌아다닐 때 차광수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였다. 그때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아 동지로 되었다.


차광수

≪이 최창걸이가 눈은 높은 사람이지만 첫눈에 차광수한테 반했드랬소. 겉보기는 덜렁광창인데 속은 온통 노다지더란 말이요. 저 친구 머리속에는 칼, 맑스가 여라문 명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소.≫언제인가 최창걸은 차광수와의 첫 교우를 회상하면서 이런 농을 하였다.

≪최창걸이가 만일 아가씨라면 저 덜렁광창을 제일 선참 낭군님으로 삼겠소. 그런데 길림의 아가씨들은 모두 소경들이 된 모양이거든.≫ 차광수는 그 농을 들으면서 씨물씨물 웃기만 하였다.

길림시절의 차광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총각이었다. 그래서 최창걸은 늘 차광수의 중매는 자기가 선다고 하였으며 덜렁광창이 말을 타고 새 각시네 집으로 가는 날에는 견마잡이도 자기가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마주서기만 하면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니 형님대접을 잘하라는 식으로 허물없는 롱질과 입씨름에 열을 올리군하는 두 사람이였지만 그들의 우정은 참으로 만 사람이 부러워하고 시샘을 느끼리만치 친밀하고 열정적인 것이였다.

그 우정은 유하와 흥경, 철령 일대를 중심으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대열을 확대해나가던 나날들에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최창걸은 차광수와 함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고산자지부도 결성하였으며 왕청문을 중심으로 흥경현, 유하현, 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현들에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명칭을 가진 계몽단체들도 조직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이론을 연구보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 운영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체계와 비슷하였다.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몇 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였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놓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앉아 토론회를 가지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남만청총대회가 소집되던 그 해 가을에 유하에서 사회과학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차광수의 설명을 들은 나는 그 운영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연구회를 이끌어나가는 세 전우(최창걸, 차광수, 김혁)를 통이 크고 창조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이 실천속에서 창조해낸 운영방법은 어려운 지하투쟁의 조건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역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교양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구에 있게 될 최창걸과의 상봉을 눈앞에 그리며 삼원포방향으로 행군대오를 인솔해가는 내 가슴도 차광수 못지않게 울렁거리였다.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뭇고 그와 헤어진지도 만 2년이 되어오고 있었다. 그 동안 최창걸은 유하, 흥경, 해룡, 청원, 반석을 비롯한 남만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 개 대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1931년 봄에는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를 동방혁명군으로 개칭하고 그 지휘관이 되었다. 나에게 소식을 전해준 최창걸의 연락원은 그가 국민부 반동파와의 알륵 때문에 고심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로는 유하와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나는 이것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아무데나 텀벙텀벙 내대는 타고난 모험가이고 낙천가라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테러를 만능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국민부의 테두리안에서 그 반동파들의 주시를 받으며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였다. 국민부의 시각으로 볼때에는 요시찰대상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하죽

왕청문사건이 있었던 그 해 말에 국민부반동들은 최창걸, 최득혁을 비롯한 6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대우구라는 곳에서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역사에 유하사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새 사상을 지향하는 국민부내부의 혁신세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동파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었다. 피해자인 최창걸자신은 파시스트화된 국민부상층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갈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유하지방에 박근원을 보내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게 하였다.

≪국민부와의 충돌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백해무익하다.

반일은 지향하는 동족사이에 유혈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왕청문에서 6명의 동지를 억울하게 잃고도 피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우리가 아닌가. 매사에 심중하며 경거망동하지 말것이다.≫ 유하사변이 있은 후 국민부는 1930년 8월에 있은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현묵관, 양세봉, 고이허, 김문거, 량하산 등이 기존방침의 고수를 완고하게 주장하고 그 실현을 강요해나선데 대항하여 고원암, 김석하, 이진탁, 이웅, 현하죽, 이관린 등의 소장파인물들은 조선혁명당을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파시스트적인 정당으로 낙인하고 그를 해체하여 무산자들을 대표하는 계급혁명의 전위로 되게 하는 동시에 재만조선농민들을 계급적으로 영도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방향전환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념상의 알륵으로부터 두 파는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싸움을 벌이었다.

국만부파는 봉천성정부의 량해밀에 중국관헌들과 군경들까지 매수이용하여 반국민부파를 숙청하는 테러전에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이진탁을 비롯한 5명의 상대편 인물들을 암살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반국민부파도 국민부본부를 습격하여 4중대장인 김문거를 총살하였다. 그 후 반국민부파는 탈퇴성명을 내고 국민부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반국민부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내었다.

최창걸의 신변에 대한 나의 걱정은 이런 정치적 배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삼원포로부터 한마장즘 떨어진 곳에서 나는 행군대오에 속보로 걸으라는 구령을 내리었

다. 최창걸은 한시바삐 만나고싶은 조바심이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삼원포에 도착하여 최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고장 조직원들이 그가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창걸은 고산자공청지부의 사업을 지도하다가 국민부우파놈들에게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삼원포공청지부의 박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끄는 국민부테러분자들이 최창걸을 금천현 강가점에 유인해다가 학살하고는 공산당밀정이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여론을 퍼뜨렸다고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해룡과 청원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활동하다가 피살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든저렇든 최창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언제나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에 끓고 정에 넘치던 ≪ㅌ·ㄷ≫의 건아가 어쩌면 한 능선에서 맞본 슬픔에 뒤이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기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였다.

무장투쟁이 역사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총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에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높이 울리고 있던 격동적인 나날에 최창걸과 같이 충실한 전우가 희생된 것은 우리 혁명을 위해서 정녕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차광수도 내 옆에 앉아 폭양속에 시들어가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

나는 최창걸의 유가족들을 만나고싶어 부대를 데리고 고산자로 향하였다. 최창걸의 부인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아이와 시동생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 부인이 참으로 강의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우리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는 것이였는데 그 남편을 대신하여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우리는 예정을 바꾸어 유가족들의 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마을을 떠날 때 최창걸의 미망인은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나는 무슨 말로 여인을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이를 안아들고 그 애의 볼을 다독여주었다. 이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내애는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아이는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 ≪아빠≫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애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었다. 나도 눈물이 저려올라 아이의 볼에 볼을 대고 한참동안 고산자마을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이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합시다!≫나는 목이 메여 그보다 더 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부대가 고산자를 떠나서 5리쯤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침통해하는 것을 보고 김일룡은 최창걸을 추모하여 조총을 울리자고 제기하였다. 조총이라도 울리면 우리의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었다. 역시 풍상고초를 많이 겪어본 김일룡의 속마음이 웅심깊은데가 있었다.

≪소문만 듣고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총부터 올리겠습니까.≫ 몽강을 거쳐 양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기안자가 바로 국민부산하의 독립군이었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양강구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노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주력부대라는 것을 연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양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양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속에서 국민부테러분자들을 타도하고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유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을 요정내고 남만청총대회때 괴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6열사의 원쑤, 최창걸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지휘부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역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 것은 상대가 적 아닌 적이라는 것이였다. 항일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총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초기의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만화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공격한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었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 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었다. 승자는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 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민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 수 없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여지고 우리는 다시 남

의 집 뒤골방에서 무기소제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부대를 치는 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후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산군부대가 독립군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냉대할 것이었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독립군은 송화강 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단합의 경륜과 항일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느라고 마음을 썩이였다. 그 일 때문에 십년은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낯을 붉힐 수치스러운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충천하여 국민부파시스트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떼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 번 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쌀을 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튕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 것이나 다 적인 셈이었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유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었다. 우리는 유본초와 같이 유력한 증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걸머지고 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오는 사이 우사령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부대와 함께 영안현일대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의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반일부대가 공산군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였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과니가 되다싶이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 대한 진속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 피줄을 나눈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몇 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 있은 이도백하로 떠나갔다.

≪박훈동무, 오늘은 총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씨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연에 족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절대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리면 민

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끝장이 날수 있소. 어떻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업인데 꽤 해낼 수 있겠소?≫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었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밤만을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독립군과 그 무기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 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능가할만한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 몫 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이면서 이도백하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역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 것을 흔연히 결의해 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하층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 시작이였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였다. 양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걸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 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 이들로서는 쉽지 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였다. 만일 그때 우리가 이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양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한에 합작의 기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역사적 화폭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단합정신은 애국애족의 감정가운데서도 그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출범한 그 첫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단합의 이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6. 구국군과 함께


이홍광

나는 유하에 머무를 때 이홍광, 이동광의 연계를 위하여 반석지방에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남만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던 그때 그 두 사람도 유격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이 9.18사변 후 보민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주구배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했던 무장적위대(일명 타구대, 개잡이대라는 뜻)는 1932년9월에 이르러 반석노농의용군으로 성립되었다. 이 의용군은 모두 탈랑투쟁과 주구숙청, 무기탈취, 반일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조선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32년 여름부터 이홍광, 이동광은 항일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었다.

그들은 주구숙청투쟁에서 특출한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화제거리를 남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은 남만지방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례방문이나 하고 인사나 나누자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자는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과 투쟁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둔 것은 그들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두고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당면과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입장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만주각지에서 분산적으로 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역상호간의 연계는 어떻게 보장하고 인접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며 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협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나는 북만의 김책, 최용건, 이학만, 이기동, 허형식과도 그런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남만과 북만은 우리의 인접이자 인측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인접과의 협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전반적 발전에 심대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공간이다.


이동광

반석에 갔던 연락원은 우리가 해룡을 떠나 몽강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부대로 돌아와 리홍광과 이동광이 지방공작을 나가고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곳 지하조직에 나의 편지만 남기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나는 이홍광, 이동광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몽강에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었다. 몽강에서 우리가 세운 활동의 종적 목표는 무장을 해결하는 것과 대열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치공작과 함께 군사외교활동이 필요하였다.

몽강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몽강의 관리들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들이 많았다. 계열을 따지면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샌님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몽강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현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자위군이라는데 들어가서 큼직한 벼슬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몽강에는 통화지방에 본부를 두고 있은 당취오자위군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동창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우리는 몽강에 눌러앉아 자위군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위군과의 사업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자위군과 접촉하는 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태반이였다. 같은 조선사람인 양세봉과도 뜻이 맞지않아 담판이 결렬되었는데 자위군과 사업하여 무기를 얻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항차 자위군은 지금 와해상태에 있지 않은가, 어떤 부대에는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다는데 그런 함정에 대장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는 자위군내부에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있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놈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판별하는 촉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자위군지휘부에 뚫고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 자위군이 와해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작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다. 그들은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총을 넘겨주거나 내버리는 것보다 항일을 하는 우리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처럼 완고한 우사령과도 뜻이 통하여 합작을 성사시켰는데 자위군이라고 해서 왜 굽혀내지 못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대장동무가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한 것은 천 번 중 한 번이나 있을가 말가 한 우연이다. 만일 그 부대에 유본초선생이 없었더라면 담판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위군부대에 찾아가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콩이야 팥이야 하며 시야비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기질이 아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우리가 유본초선생의 덕을 크게 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연으로만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구국군과의 관계를 풀려고 주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유본초선생도 우리를 도와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동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누누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연락병을 한 명 데리고 자위군의 지휘부로 찾아갔다.

자위군의 병영에는 사병들이 꽉 차 있었고 정문으로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마가 그칠 새 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산동지방말씨로 ≪무슨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다. 보초의 검실검실한 눈이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자위군과는 판판 다른 우리의 유격대복장과 모자의 오각별을 유심히 더듬고 있었다.

나는 그 산동사람의 말씨를 약간 본따서 중국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안도에서 온 구국군별동대요. 나는 별동대 대장 **김일성**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주오.≫

≪**김일성**? **김일성**별동대면 공산당이 아닌가?≫

얼굴에 마마자국이 뚜렷한 두 번째 보초가 입속으로 내 이름을 중얼중얼 외우며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김일성**부대가 공산당부대라는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기억에 새겨두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우사령의 별동대다. 당신 우사령도 모르는가?≫

내가 위엄을 풍기며 이렇게 따지자 마마자욱이 있는 보초는 ≪아, 우사령! 그 사람 알고 있소, 그 사람부대 남호두에서 왜놈의 기관총 노획했소, 우사령 대단한 사람이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보였다.

결국은 우사령별동대라는 명함장이 은을 낸 셈이었다. 중국인반일부대들이 있는 데서는 이 명함장이 맥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군을 할 때에도 반일부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늘 구국군 조선인별동대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였다.

잠시후 산동말을 하던 첫 번째 보초가 병영에 들어가서 풍채좋은 사나이를 데라고 나왔다. 그때 당시의 구국군들이란 대체로 옛 장학량군시절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보초를 따라 정문에 나타난 장교는 이상하게도 반소매에 가랭이가 무릎에도 채 닿지 않는 짧은 바지를 입고 발에는 포화를 신었다. 머리카락도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고 있었다.

≪아, 이거 김성주주임이 아닌가?≫

그것은 이름대신 ≪장꺽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던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 장가였다. 그가 나를 주임이라고 한 것은 내가 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맡아보았던 도서주임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장가는 학생시절에도 나를 늘 ≪김주임≫이나 ≪성주주임≫이라고 불러주며 호의적으로 대해왔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한참동안 학창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해수로 계산하면 그와의 상봉은 3년만에 이루어진 셈이였다. 나는 감옥을 나온 다음 학우들에게 작별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총총히 길림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다. 혁명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는 정신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던 때여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 같기도 하였지만 스승들과 학우들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 도덕적인 빚이 마음속에 연뎅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나를 괴롭힐 때도 없지 않았다.

장가를 만나고보니 이미 지평선너머로 사라져버린듯한 육문중학교시절의 가지가지 정경들과 그 시절에 맛보던 낭만적인 학생기분이 되살아올랐다. 나는 군화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는 병영마당이 아니라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육문중학교 정원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장가의 손을 잡고 그대로 병영문을 나서면 북산에도 가닿고 송화강바람도 쏘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는 이상야릇한 향수였다.

장가는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 팔을 허물없이 잡아끼고 이따금씩 큰소리로 웃어대면서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학교 졸업사진에 김주임의 얼굴이 없는건 정말 유감이야.≫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냈다.

≪우린 졸업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냥 김주임의 이름을 외웠댔어, 김주임이 학교를 중도반단하지 않았더라면 1등생이 되어 상을 탔을거라구. 혁명이라는게 중학공부를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도 성주를 유혹하던가?≫

나는 웃으면서 유쾌한 농질로 그 말을 받아넘기었다.

≪암, 물론이지. 너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창을 차구 자위군의 장교가 된게 아니겠어.≫

장가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슴뻑거리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건 그래, 9.18전만 해두 우린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속물들이였지. 그런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잠에서 깨여났거든.≫

≪그것보라구. 그러게 내가 뭐랬나. 사람은 정치밖에서 살 수 없다구 하지 않던가.≫

≪그땐 그 말을 귀등으로만 들었댔단말이야. 아, 시국이 왜 이리도 급전직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만주땅이란 미친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자나간 뒤처럼 살풍경이란 말이야.≫

나는 장가가 시국을 옳게 평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은 실로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놀라운 변화들로 가득차있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에도 무자비한 곡절을 집어놓았다. 장가자신도 며칠전까지는 베이징대학에 가서 역사학공부를 해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자 그는 역사학을 전공하려던 학창시절의 꿈을 버리고 분연히 자위군에 입대하였다.

선비중에 선비라는 평판을 들으며 두보의 시행들에 흐르고 있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친절하게 풀이해주던 유본초선생이 구국군의 참모장이 도여 초연속을 헤치게 되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이것보라구 김주임, 9.18덕분에 나도 군복을 입은 호걸남아가 되었어.≫

장가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입은 거야 너뿐인가. 나도 군인이 되어 몽강에까지 흘러오지 않았나. 동창 대 동창으로 뿐 아니라 군인 대 군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마주앉아 대세까지 논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들어진 연분인가.≫

그는 이게 다 일본놈들의 ≪덕≫이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덕≫에 사람들이 좀 총명해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몽강의 자위군부대에는 장가외에도 육문중학교시절의 동창생이 여러명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와는 담을 쌓고 립신양명의 길만을 꿈꾸어오던 그들이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규탄하고 장개석을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의 기형아라고 조소하는 것을 볼 때 만족감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사이의 공동행동문제도 협의하였다. 자위군의 지도부에 있는 동창생들은 우리 부대와의 합작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어렵지 않게 자위군부대내부에 침투할 수 있었으며 몽강에 와있는 자위군총사령부의 대표와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장가의 요청을 받고 자위군지휘성원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장소에는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나는 ≪여러 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하는 힘찬 호소로 연설의 첫마디로 떼였다.

≪자위군과 반일인민유격대는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반일인민유격대에 공산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적대시하는 것은 항일을 반대하는 일본을 돕는 길이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자위군은 조선인독립군부대를 도와주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양쪽을 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려는 일제의 교활무쌍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자위군은 대도회, 흥창회를 비롯한 민간무장력과 토비들을 설복하여 그들이 무고한 조중인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대소민간무장대들은 모두 항일구국역량으로 단합되어야 한다.

일부 반일부대들 중에는 일본군의 위세에 겁을 먹고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폐단들이 있다. 투항과 중도반단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때의 연설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였다.

자위군지휘관들은 그 연설에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런 연설이 있은 후 총사령부대표는 우리에게 수십 자루의 무기를 넘겨주었다.


안도

우리는 몽강에서 한 둬 달동안 자위군의 보호를 받으며 군중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고 훈련도 하였으며 끌끌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선전사업도 확대하는 사업도 하였다. 안도를 떠날 때 40명에 지나지 않았던 대오가 몽강에 와서는 150명 정도로 불어났다. 김성주가 큰 부대를 무어가지고 진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몽강과 그 주변의 청년들이 연방 우리를 찾아와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마치 주권을 잡은 것처럼 자유롭게 활약하였다.

안도에 연락원을 보내여 알아본데 의하면 동만의 형편도 대단히 좋았다. 우리는 그 연락원이 가져온 그 동안 많이 불어났다는 것과 왕청, 연길, 훈춘에서도 각각 100명 이상 규모의 유격대들이 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유격투쟁이 맹아적인 단계에서 본격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동만의 한복판(왕청)으로 우리의 활동무대로 옮기고 거기서 다른 현의 부대들과 힘을 합쳐 얻은 무장투쟁을 좀더 통이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원정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바로 유격대의 역량이 미약한 현단계에서는 일정한 활동거점을 차지하고 투쟁하는 것이 유리하고 능률적이라는 것이였다.

우리는 몽강에서 무송을 거치지 않고 직발 안도로 갈 수 있도록 행군노정을 잡았다. 부대는 노상에서 비적들과 반일부대패잔병을 여러 번 만났다. 그들은 우리의 신식총이 탐나서 완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진한장

이런 때에 참의부계통의 좋은 노인이 옛말에 나오는 무슨 도사처럼 우리앞에 불쑥 나타나 산을 꿰지르면서 부대를 양강구까지 무사히 안내해주었다. 그때 산을 타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단련이 되였고 앞으로 유격투쟁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로도 되었다.

우리가 양강구를 떠나려고 할 때 우사령의 휘하에 있는 한 개 연대의 주력이 양강구에 왔다. 그 연대를 맹탄장부대라고 불렀다. 맹탄장의 비서로 있던 진한장도 부대와 함께 양강구로 따라왔다.

진한장은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두팔을 벌이고 환성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어왔다.

≪성주, 이게 얼마만인가!≫

그는 마치 몇 십년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난듯이 나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안도에서 우사령과 담판한 후 헤어지고는 한번도 상종하지 못했던 진한장이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석 달만에 이루어지는 상봉이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그

석 달을 삼 년이나 삼십 년으로 착각한 사람처럼 우정에 끓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오랜 이별끝에 기적적으로 맛보는 상봉과 같이 느껴져 반가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사람의 생애에서 석 달이란 하나의 작은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석 달사이에 퍼그나 긴 인생이 흘러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 곡절이 많고 체험이 많으면 세월도 길어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주네 부대가 어데 있는지 몰라서 여러 곳에 수소문했더랬소. 남만에 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행방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양강구에서 조선공산군이 독립군과 통합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우리 부대에까지 날아오지 않았겠소.≫

진한장은 맹탄장에게 나를 소개하고나서 이런 말을 꺼냈다.

≪고맙소. 진동무. 나도 진동무가 보고싶었소. 그런데 양강구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소?≫

≪내년봄까지 이 지방에서 활동하라는 왕덕림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소? 양강구에서 얼마동안 우리와 함께 활동하지 않겠소?≫

곁에서 진한장의 말을 듣고 있던 맹탄장도 같은 제의를 하였다.


양강구

나는 맹탄장부대와 함께 있으면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을 더 공고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 사람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맹탄장부대는 장학량의 정규군으로 있다가 반변해서 나온 부대이므로 무기와 장비가 현대적이였다. 그 부대에는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었다. 총 몇 자루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다를 구국군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대는 전투력이 아주 강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양강구에 머무르는 동안 맹탄장부대는 우리를 잘 호위해주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조직되었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은 일본군의 강력한 공세앞에서 와해되거나 투항하여 그들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구국군가운데서 그래도 투항하지 않고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은 왕덕림부대였다. 그러나 그 부대마저 일본군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만주의 동쪽변두리 동녕과 쏘련경내로 퇴각하고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무력한 붕괴과정은 우리의 군사정치간부들속에서 그들에 대한 불신임을 낳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반일부대의 동요와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일부대와의 유대를 끊어버리고 반일인민유격대가 단독으로 싸워나가자고 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허용해서는 안될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이광

반일연합전선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수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무장력을 적들의 편에 밀어던지는 것으로 되며 반일부대들을 각개격파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술적 의도에 발맞추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은 그들을 지도하는 상층의 계급적 제한성에 근원이 있었지만 주로는 적들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 반일부대의 동요

와 괴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동시에 전투를 통하여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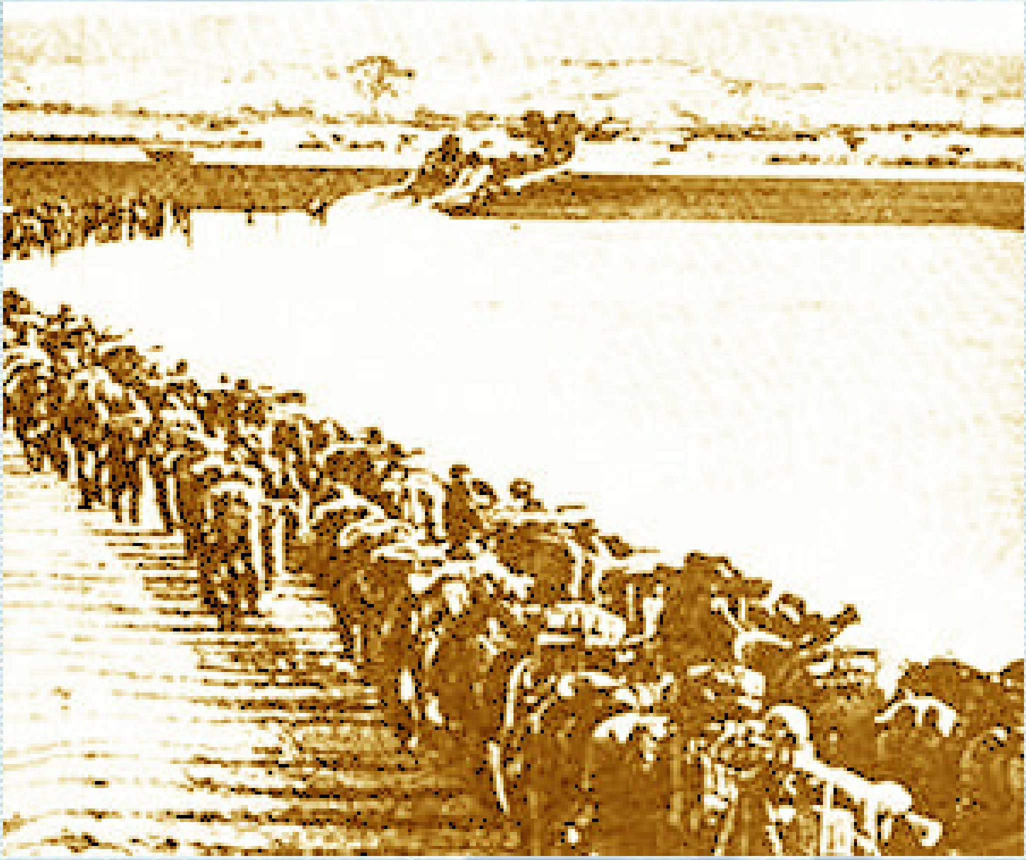
이런 현실적 절박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양강구에서 진한장, 이광, 호진민 등 구국군부대들이 참가하는 반일병사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열고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반일부대들의 동향이 분석총화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절대다수의 반일부대들이 항전을 포기하고 안전지대로 철수해가거나 적들에게 투항하여 반동군대로 변질된 조건하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점령지대를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군에 타격을 주고 애국적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우리 부대와 오의성부대, 맹탄장부대와의 연합으로 돈화현성과 액목현성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맹탄장도 우리의 전투계획을 환영하였다.

2000여명에 달하는 구국군부대는 세 개조로 나뉘여 길돈선방향과 연길방향, 돈화방향으로 각각 진출하였으며 우리부대는 맹탄장의 부대와 함께 푸르허 동쪽과 대포시하 동쪽 산길을 따라 돈화남방 대황구부근 수림속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돈화현성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고재림이 보내온 적정자료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당시 돈화현성에는 일본군부대가 주둔해있었고 위만군길림경비 제3여단본부와 4연대, 9연대 비행장경비대와 일본영사관 경찰과 위만경찰을 비롯한 막대한 무



통북항일연군

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적들은 매 성문포대와 영사관 분관정문에 물샐틈없는 경비진을 치고 있었다.

9월 2일 새벽3시 아군부대들은 일제히 돈화현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 부대의 공격방향은 남문이었고 호진민이 인솔하는 구국군부대는 서문과 북문을 거쳐 현성으로 돌입하였다.

성안에 재빨리 돌입한 아군은 적들의 지휘처를 습격한 다음 적여단지휘부와 영사관분관, 경찰분서를 일거에 소탕하고 적여단구분대병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전투의 주도권은 아군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있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2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아군에게 기총소사와 폭탄을 마구 퍼부었다.

구국군대원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태로 날이 밝는다면 전투상황이 역전되고 아군은 심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급전된 전투상황을 설명해준 다음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계선에서 철수하여 유인전으로 적들을 소멸할 새로운 전술적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우리 부대는 현성 서남쪽고지를, 구국군부대들은 관둔자 남쪽 무명고지를 차지하고 추격해오는 적들을 매복전으로 섬멸하였다. 불리하다고 보았던 사태가 순간에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된 구국군부대 병사들은 사기충천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였다.

일본당국의 보도관계가 심한 때여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출판물들은 이 전투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지 않았다. 세상사람들은 망국 스물두돐이 되던 그 해 초가을에 돈화에서 그런 전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돈화현성전투는 1933년 9월에 있은 동녕현전투와 성격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돈화현성전투가 구국군과의 연합으로 진행된 것처럼 동녕현성전투도 구국군주력과의 합작으로 설계되고 성사된 전투였다. 규모로 보아도 돈화현성전투는 동녕현성전투와 어슷비슷하였다. 그러나 돈화현성전투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역사에서 항일유격대가 중국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일본군을 타승한 첫 현성전투라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청, 러 두 대국을 일거에 격파한 일본의 군사적 명성앞에서 너무나도 혹독하게 위축되었더랬소. 그런데 오늘은 그 위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소. 영토해방에 앞서 정신해방을 이룩하였단 말이요.≫

진한장은 분명 나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혀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성주, 우리 이 길에서 영영 헤어지지 말자구!≫

그는 내 손을 그러잡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그가 이 길이라고 한 것은 공동투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진한장은 그 후 전사할 때까지 자기자신이 선창을 뗀이 서약에 충실하였다.

돈화현성전투가 있은 후 한주일가량 지나서 우리는 구국군과 함께 액목현성을 습격하였다. 아군은 이 전투에서도 역시 승리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총성이 남긴 여운은 컸다.

7. 소사하의 가을

우리는 양강구에 돌아오자 소사하에서 남만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유격대가 창건된 후 반년동안의 사업을 종화하였다. 주되는 내용은 물론 남만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우리의 무장대오가 반년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유격전으로써도 능히 일제를 탕승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그 종화회의에서 유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대앞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 반일인민유격대의 근거지를 왕청지구로 옮길 것이다.

둘째, 중국인항일구국군과의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할 것이다.

셋째, 동만일대에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유격투쟁을 옳게 지도하며 혁명근거지창설을 다그치고 그것을 튼튼히 지켜낼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근거지를 왕청으로 옮길 데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 한 가지를 안도, 연길, 화룡에서 온 군정간부들과 함께 며칠동안 내처 토의를 거듭하였다.

안도의 동무들은 활동거점을 왕청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반대하였다. 안도에서 창건된 유격대가 안도에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왕청으로 가겠는가, 유격대가 왕청으로 가고나면 안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하면서 난색을 지었다. 편협한 지역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소박한 고집이었다.

그 대신 연길과 화룡에서 온 동무들은 유격대의 효시이고 원종장인 안도부대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있는 간도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략적 견지에서 보나 지역적 조건으로 보나 응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투력이 제일 강한 안도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인접현의 유격부대들의 활동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왕청이 지역적으로 ≪명당자리≫라는 것은 안도의 동무들도 다 인정하였다. 왕청은 우선 국내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좋았다. 대안의 육읍지구는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들이어서 장차 유격투쟁에 인적, 물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원천지로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육읍지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앙양시킬 수 있었다. 왕청일대의 군중들은 무장투쟁사에서 최고의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를 지원하는데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왕청은 북로군정서의 활동기지였고 역기에서 활동한 수백 명의 독립군과 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 지방 사람들이 가꾸어낸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왕청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리로 옮겨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현에 근거지를 잡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유격투쟁을 개척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국군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금살금 조선 사람부대들을 더 늘여가겠는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일 토의를 심화해나갔다.

나는 구국군과의 공동행동 때문에 우리가 활동에서 좀 구속을 받는 한이 있더라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보좌하시기 위해 망을 보시는 강반석여사

도 피로써 얻어낸 반일인민유격대의 합법화를 더 공고히 하고 재만조선민족의 일제의 앞잡이도 아니고 척후병도 아니며 그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반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국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격대의 합법화를 계속 고수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무장대오를 늘려가다가 그것이 커진 다음 서로 합류하자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안을 확정한 다음에는 동만의 여러 지방들에 사람들을 뽑아보냈다. 연길에도 보내고 화룡에도 훈춘에도 보내고 나자구의 구국군부대들에서도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왕청에는 별동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김일룡은 안도에 떨궈두었다. 백수십 명에 달했던 우리 부대는 또다시 4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를 털어서 다른 현들에 사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동만특위는 간부들도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우리부대가 기본부대이니만치 쫄쫄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른 지방의 유격부대들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가 소사하를 떠나 남만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때로부터 넉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양강구의 강화와 산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갔다. 밤을 자고나면 여기저기에 낙엽이 깔리고 그 우에 서리가 내려 미구에 닥쳐올 대륙의 사나운 겨울을 예고해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생각뿐이었지 소사하에 다녀올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나는 토기점골을 다녀오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상봉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북만으로 출발할 날짜가 박두해오자 차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들었는지 알 수 없는 첩약꾸레미를 가져다주면서 토기점골에 다녀오라고 권고하였다. 내가 주

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김성주답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장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는 소사하로 떠나게 되였다.

첩약을 들고 가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약을 보시면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고 꾸짖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차광수가 구해보내는 약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소사하에 있을 때 사가지고 간 좁쌀 한 말은 벌써 거덜이 난지도 오랬을 것이였다. 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는 형편이니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지. 어머니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 셈치고 집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동생들을 잊고 집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였다.

그리 무겁지도 않은 첩약꾸레미를 들고 덜렁덜렁 집으로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어째서인지 소사하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였다.

어머니의 병이 혹시 더 도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불안도 불안이지만 제일 께름직한 것은 양사령과의 합작을 완전히 성사시키지 못한 채 남만에서 돌아온 사실이였다. 어머니가 알면 못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중환에 계시면서도 나의 남만행을 그토록 독촉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과 합작을 하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고 대견해서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 만 따지면서 독립운동의 선배들과 등을 돌려대고 지내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가하는 것이였다.

맹물같은 미음조차 잘 삭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갔으니 그 사이 차도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중태에 빠져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지나 않겠는지 나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다.



신문 ≪새날≫을 배포하시는 강반석 녀사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가슴을 조이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토기점골의 낯익은 외나무다리를 건느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내가 그 외나무다리를 건늘 때면 매번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을 열어젖히군 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그것이 몇 번째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예상외로 열리지 않았고 굴뚝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도 오르지 않았으며 땔나무나 구정물버치를 들고 부엌문으로 들락날락하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 것 같은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며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바쁘게 토방돌우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였다. 어머니의 침상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만 걸음이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번개같이 머리를 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철주가 소리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왈칵 매어달리었다.

≪형, 왜 인제야 오우?≫

동생은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나의 가슴에 마구 비비였다. 그리고는 목갈린 소리로 어린애들처럼 엉엉 울었다.

이번에는 영주동생이 돌덩이처럼 난데없이 날아들어 나의 왼쪽옆구리에 매어달리었다.

나는 토방돌우에 첩약꾸레미를 떨어뜨리며 통곡하는 두 동생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죄다 설명해주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없을 때에 이런 불행이 생길수 있단 말인가. 임종의 마지막순간에 이 애들의 얼굴을 바라본 모성의 마지막 행복마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차례질 수 없었던 말인가, 가난속에 태어나 일생을 가난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수난당한 내 나라의 비운을 생각하며 남편이 희생앞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던 나의 어머니,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온 넋과 육신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이 사사로운 인정에 빠져서 큰일을 그르칠가봐 늘 염려하시더니 혁명하는 아들에게 짐이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도 서둘러 눈을 감으신 것이나 아닌가.

나는 이전날 어머니가 나를 마지막으로 훈계하실 때 잡고 계시던 그 문설주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설사 그때보다 더 엄한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문앞에서 살아계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철주야,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없었니?≫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립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선 김씨여인이 철주를 대신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보고 이런 말을 했다우.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아들 성주가 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왜놈들이 살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 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아니, 문전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성주는 싸우다가 그저 돌아오지는 않을거예요.≫이런 말을 하시고는 나더러 문을 열어달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저기 외나무다리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구만.≫

김씨여인의 말은 먼 ≪하늘나라≫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매 말마디가 안고 있은 심오하고도 비통한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죄다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두 동생을 부여안은 채 외나무다리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영면하는 순간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상상의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오열이 급작스레 폭발하였다.

한창 울다가 고개를 쳐드니 김씨여인이 눈물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려깊었던지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의 눈이라고 착각할 뻔하였다.

≪어머니, 그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잠시나마 이성을 되찾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길동무가 되어준 김씨여인에게 감사를 드리었다.

그러자 김씨여인은 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소. 나는 자주 와보지 못했소.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다나니 어머니의 곁에는 머리를 빗어드릴 사람도 없었다우. 아우들도 혁명사업을 하느라고 집에 붙어있지 못했소. 어느 날 어머니는 나보고 사내아이들모양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구 하지 않겠소. 머리가 가렵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고도 차마 가위질을 할 수가 없었소. 어머니의 머리야 얼마나 소담하고 칠칠했소.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소원대로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소. 머리만 가렵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구.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

김씨여인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여 울었다.

나는 차라리 그 말을 듣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비통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오장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 같았다. 일생을 바쳐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오신 어머니인데 그 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는 임종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어드릴 효성마저 없었단 말인가.

나는 전에 무송에서 살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업고 남전자에서부터 소남문거리까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걸어와 의원을 찾느라고 애쓰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소년을 보면서 효자라고 하였다. 김씨여인의 말을 듣고나서 어쩐지 땀을 철철 흘리던 그 소년이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그 아이게 비하면 나는 불효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도처에 스무 살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랫목도 권하고 우물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기도 하였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다고 하면서 닭모이도 주고 초롱으로 물을 펴다 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혁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별로 없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고 한 옛 사람들의 말은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지어낸 명제인지도 모르겠다. 올리사랑이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이다. 섬기고 모신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들이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효성으로 부모들을 섬기고 모신 자식들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철주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말씀은 없었니?≫

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유언중에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주에게 또 물었다.

철주는 손등으로 눈두덩을 문지르고 목쉰 소리로 대답했다.

≪형을 잘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을 잘 도와드리구 형과 같은 혁명가가 되면 지하에 가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구.≫

그러고보면 어머니의 모든 정신력은 마지막순간에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된 것이었다.

나는 동생들을 데리구 그달음으로 어머니의 묘소에 찾아갔다.

느릅나무고목이 외따로 서있는 언덕받이 한 옆에 수박무늬 모양으로 떼장을 덮은 어머니의 묘가 있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두 동생과 함께 그 묘앞에 절을 드리였다.

(어머니, 성주가 왔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남만에 갔던 걸음이 늦어져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내가 땅우에 주저앉아 이런 속대사를 하고 있을 때 철주가 느닷없이 묘우에 엎으러 손으로 떼장을 우벼내였다.

≪뭘 그러고 있느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철주는 대답대신 눈물을 뚝뚝 떨구며 양강구에서 내가 가지고 온 첩약봉지들을 봉분밑에 무데기로 파묻는 것이였다.

동생의 그 말없는 행동이 그만 내 가슴에 연기처럼 서려있던 비애를 사정없이 건드려놓고야 말았다. 혁명가로부터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지상만물이 그 무덤 하나로 응결되고 세상만사가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하나의 비극으로 압축된 것 같은 순간이였다. 그러나 머리우에서는 푸르디푸른 가을하늘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명랑하게 대지를 굽어보고 있었다. 어쩌면 저 하늘이 우리의 슬픔앞에서 저렇게도 태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것은 망국의 연륜이 스물두 돌기나 감긴 1932년의 음산한 여름에 있었던 비극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살아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병은 고생 끝에 생긴 것이었으며 그 고생은 망국의 시운이 빚어낸 것이였다.

자식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노고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울인 효성이 열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부은 사랑은 천이나 만으로도 헤아



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4-5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포위를 헤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현성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리허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가서 무기를 받아올 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어머니는 내 청을 쾌히 받아들이었다.

≪그까짓것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집

말리허에 간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권총 두 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말리허의 우리 동무들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당기면 나갈 수 있게 권총을 장탄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 싸창들을 소고기갈비속에 넣어 이고 성문을 대담하게 통과하였다. 성문앞에서 경찰들이 어머니의 그 소고기 함지를 가리키며 ≪그건 뭐야?≫하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태연하게 ≪소고기웨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들은 함지우에 씌워놓은 종이장만 들춰보고 어머니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나는 장탄을 하고 안전장치까지 풀어놓은 권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큰일날뻔했구만요. 이 총들에 총알을 왜 재웠습니까?≫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고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 놈이나 세 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 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천박한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 자식들이 하는 일에 이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용기였고 참사랑이였다.

우리가 구안도에서 마춘옥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우리 동무들이 권총을 손질하다가 오발해서 어머니의 다리를 다치였다.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들릴수도 있는 위험한 총상이였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누가 물으면 아침에 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낙상하여 다리가 골절됐다고 하였다. 상처도 보이지 않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으면서 비밀리에 형권삼촌의 간호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오발을 한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지어보이지 안았다.

오발사고를 낸 동무는 너무나 미안하여 죽으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자 대노하여 ≪그러면 못쓴다.≫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총이 서툴러서 그런 것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사내라는 것들이 그만한 일에 자살을 하다니. 그런 생각일랑 말구 비밀들이나 잘 지킬 궁리를 해라. 이 비밀이 새면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이 집에도 큰일이 난다. 그리구 너희들은 성사를 못한다.≫

어머니는 다리의 총상보다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다.

마춘옥이네도 이 오발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품성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동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을 나와 꼭같이 대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오면 사업비도 어머니가 대주었다. 그 사업비의 원천은 재봉일과 삯빨래질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목재소일군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절노동자들이 광목을 끊

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옷을 해달라고 자주 주문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80전씩 벌었다. 일이 잘되는 날에는 1원도 벌었다.

비록 생활은 궁색하였지만 어머니는 돈을 쓰는데서 인색하지 않았다. 그저 쌀을 사는데 필요한 돈과 타고장으로 갈 때 쓸 노자와 집세만 계산해 놓고는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 근에 돼지고기 몇 근을 사다놓고 교즈나 수제비국을 만들어 먹이거나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다 내놓군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 성주네도 생활이 풍족치 못한데 밑천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주면 세간은 어떻게 해가시자구 그럽니까?≫하고 걱정하면 어머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라고 대답하였다.



소사하 무주툰 토기점골에 있던 어머니의 묘비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이 몇 달씩 집에 와있어도 절대로 언짢아하지 않고 시종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었다. 그러기에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들가운데서 우리 집에 며칠씩 와있다가 간 동무들은 나의 어머니를 ≪성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애국자들의 시중으로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머니였다. 임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밤 밥을 하였다. 우리가 밤에 이불을 쓰고 잠을 청할 때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 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는가고 농을 하며 집으로 쓸어들어와 웃방에서 자군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일어나서 밥을 짓군 하였다.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활동을 시작한 것은 무송에서 살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백산지구회에 들어가서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부녀회사업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의 방조자로부터 직접적인 담당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아버지나 우리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이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우리 집에 와있을 때 어머니를 남만여자교육연합회사업에 인입하였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인생이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 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될 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줄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는 육친적 권리마저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토기점골을 떠났다. 그 묘소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 것은 해방 후였다. 안도현인민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삼형제의 이름까지 새겨넣었다.

유언대로 어머니의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경대에 이장되었다.

나는 조국에 개선한 다음에도 한동안 이국땅에 묻혀있는 부모들의 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시국이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야에는 나의 부모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혁명의 불바다속을 헤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오고 그들이 부탁하고 간 자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들의 분묘를 옮겨올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였다.

그런 때에 장철호가 찾아와서 부모들의 분묘를 고향에 옮겨와야 한다고 나를 설복하였다.

천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할 테니 장군은 만경대에 나가서 좋은 땅을 골라 미리 묘소나 잡아두라는 것이였다. 만주시절의 연고자들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묘를 아는 사람은 장철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느라고 말없는 수고를 많이 하였다.

내가 무장투쟁을 할 때 적들은 우리 부모들의 묘소를 파헤치려고 무던히도 모질기게 돌아쳤다. 그러나 무송과 안도의 인민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를 성실하게 지키고 관리하였다.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스승인 강제하선생은 1년에 두 번씩 한식과 추석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을 차려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양지촌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었다.

그러나 혁명은 나로 하여금 가장의 구실도 보호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갈대가 처량하게 설렁거리는 소사하골짜기에 설움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치른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강반석여사께서 쓰시던 베틀



강반석여사의 일가분들이 사용하시던 생활도구들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동상

8. 나자구 등판에서

일본군대의 도입성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었다. 친일적인 지주들은 일본인들을 맞기 위하여 벌써 기발까지 준비하였다. 구국군은 양강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맹탄장부대에는 산을 끼고 초원이 있는 나자구, 왕청 방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구국군과 함께 안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채택한 것이 바로 양강구에서 열린 병사공작위원회 회의였다. 총적인 지향은 왕청으로 활동거점을 옮기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퇴각하는 구국군부대들과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사령부대도 안도에서 나자구로 철수하였다.

우리가 북만으로 갈 준비를 한창 다그치고 있을 때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양강구에 찾아왔다.

≪형, 나두 형님네 부대를 따라가구 싶어, 형님 없이는 토기점골에서 더 못살겠어요.≫

동생은 내가 묻기도 전에 찾아온 용건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동생이 우리 부대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심정은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골짜기에서 남의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마저 토기점골을 떠나면 영주는 어떻게 하니? 그 애가 고독해서 견디지 못할 텐데.≫

≪둘이나 남의 집 밥을 먹으니 미안해서 못견디겠어요. 막내 혼자만 있으면 덜 미안할 것 같애.≫

나는 철주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생의 나이가 열여섯 살이니 총을 메워주면 부대를 따라다니며 군인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철주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뼈가 채 여물지 않아서 유격대의 짐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철주는 안도지구에서 공청사업을 추켜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있었다.

≪네가 이년이나 삼 년 후에 그런 청을 한다면 형은 너의 청을 선뜻 받아들일게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좀 고생스럽고 고독스럽더라도 몇해만 참아다구.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계절노동 같은 것도 하면서 공청사업을 좀 본때있게 내밀어보아라. 지하활동도 무장투쟁 못지 않게 중대한 사업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되지, 공청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혁명군에 오너라.≫

나는 철주가 떼를 쓰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구슬려보았다. 그러다가 그를 데리고 못가에 있는 객주집에 갔다. 문풍지소리가 궁상스럽게 붕붕거리는 썰렁한 방안이었다.

나는 술과 안주를 청하였다. 싸늘하게 식은 언두부접시 두 개, 그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

그것을 보더니 철주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었다. 동생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잔의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청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키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다구, 낸들 왜 너를 데리고 다니구싶은 마음이 없겠니, 너를 떼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구나. 그렇지만 철주야, 섭섭한데로 우리는 여기서 또 헤어져야겠다.≫

나는 술기운의 덕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입에 쉽사리 옮길 수 없는 말을 단숨에 해버리였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에 나오자 철주도 마시던 술잔을 내버린 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알겠어요. 형!≫

이 한마디와 함께 철주는 뒤로 다가와 내 손을 소리없이 잡았다놓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동생과 헤어졌다.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그 음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내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놓고 가던 동생의 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잡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군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였다.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어주었더라면 동생은 스무 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철주는 열 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조직을 따라다녔다. 무송에 있을 적에는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였고 소사하에 와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양강구에서 나와 헤어진 철주는 그 후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였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그가 관계하였던 두의순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는 일본군의 간도토벌대와 잘 싸웠다고 한다.

그 후 철주는 안도 반일부대 공작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연길현 부암동 장재촌 사습페에 있는 서규오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서규오는 반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성미가 괴벽하고 고집이 센 두령이



반일부대공작을 진행하는 김철주동지

었다. 그도 초기에는 조선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서규오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냉대하기 시작한 것은 부암동의 반일부녀회원들이 그가 첩으로 삼으려고 억류해두고 있던 공청원처녀(조선여자)를 탈환해온 후부터였다. 일단 그렇게 걸려들면 어떤 여자든지 서규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무사할 수 없었다.

서규오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여자를 갈아대었다.

부녀회원들이 공청원여자를 탈환해온 후부터 조선사람들은 서규오의 부대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과거에 서규오와 너나들이로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까지도 그의 곁에 가서 붙지 못하였다. 서규오는 상사병으로 고민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조선사람들을 박대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때에 철주동생이 한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춘추동무를 데리고 서규오의 부대에 찾아갔다.

≪두령님이 병이 심하다기에 문병을 하러 왔습니다.≫

철주가 유창한 중국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였지만 서규오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보기도 싫고 조선사람들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였다.

≪두령님 병을 떼볼가 하여 용한 의원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철주가 다시 이런 말을 해서야 서규오는 조금 귀맛이 당겨 용한 의원이라면 진찰을 한 번 받아보자고 하였다. 그는 임춘추동무의 침을 며칠동안 맞고나서 편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림의원덕으로 골통속에 숨어들어왔던 잡귀를 쫓아버렸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철주는 서규오부대에 눌러앉아 반일병사들과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였다.

훗날 우리의 방면군에 편입된 서규오는 10연대장으로 임명되어 최후까지 잘 싸웠다. 한때 아편과 여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며 난봉을 부리던 그다 혁명군에 편입된후에는 공산당에까지 입당하였다. 내가 부대의 이름으로 입당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군지휘동지, 나는 오늘 입당하면서 군지휘동지의 아우를 생각했습니다. 철주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철주가 임춘추동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병을 떼주던 사실과 자기가 반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이끌어주던 사실을 옛말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이였다.

1935년 6월에 청주는 처창즈근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는 철주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경박호반에서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큰 강이나 호수를 보기만 하면 동생생각을 하군 한다.

철주까지 전사하고나니 막내동생은 의지가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였다. 김정룡이네가 처창즈유격근거지로 들어간 다음부터 동생은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아이보개도 하고 심부름꾼노릇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관동군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써먹으려고 나의 연고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던 때였으므로 막내동생은 자기의 이름자와 출신마저 속이고 동북3성은 물론, 중국 관내의 도회지들과 농촌들에까지 들락날락하며 정처없는 유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다나니 그는 베이징에도 얼마간 가 있었다.

나도 해방 후 일본경찰들이 남기고 간 문건에서 동생의 수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았다.

막내동생은 신경맥주공장에서 일했을 때 고향이 너무 그리워 조국에 나와서 석달가량 지냈다. 그때 그는 검은 양복차림에 흰구두를 신고 만경대에 나타났다.

그 차림새가 어찌나도 의젓하고 늠름해보였던지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손자가 무슨 벼슬자리라도 얻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였다. 그때 막내동생은 조부모님들에게 시름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장춘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였다. 경찰이 사진까지 내돌리며 지명수배를 하고 있던 때여서 그는 고향에 나와서도 만경대에 있지 못하고 칠골 고모네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가버리였다.

양강구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40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쳐 산발을 타고 남호두방면으로 북상하였다. 우리 부대가 나의 ≪머슴군≫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한 푸르허마을에 들려 정치공작을 한 것도 이때이며 돈화현 할바령부근에서 돈도선(돈화－도문)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된 일본군수송대와 격전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자에서 고재봉도 만났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황구를 떠나 두도량자로 활동무대를 옮긴 고재봉은 지하조직이 운영하는 농민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두도량자에서 돈화현성까지는 30리밖에 안되였다.

나는 그때 두도량자에서 고재봉의 어머니도 만나보았다.

우리는 일본군소송대를 들이치고 노획한 밀가루를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과 함께 먹었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광목천은 농민학원에 주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하였다.

두도량자를 떠난 우리 부대는 다시 북상하여 관지 부근과 남호두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지구에 들어가 당, 공청 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요해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었다.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동거점을 잡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왕청에 가서도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이광의 별동대가 총 몇 자루를 해결하려고 잘못 건드려놓은 관보전부대를 만나려고 이수구에 찾아갔다. 그런데 관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관영장을 만나 왕청동무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사죄도 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방도도 의논하면서 지난날 조, 중 무장부대들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었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관보전은 달아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려고 연락을 보냈더니 100명쯤되는 반일부대병사들이 돈화현성에서 일본군대를 족친 **김일성**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앞에서 왕청별동대가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영장부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댄 것이 비우호적인 처서였음을 인정하고 조중인민이 공동투쟁과 반일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일부대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다. 코산이라는 지휘관은 그 연설을 듣고나서 자기도 관보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옳은 길을 걷겠다고 하였다. 그 결의대로 그는 반일전선에서 잘 싸웠다. 왕청에서 큰 두통거리로 되었던 반일부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던 좌경적 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항일연합전선에 더 많이 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자구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때 동녕현성에 집결된 구국군부대들은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관내에로 퇴각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국경밖으로 달아나려고 서두르는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전선에 튼튼히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격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되였던 적들의 ≪토벌≫역량은 몇백 명밖에 되지않은 우리의 무장력을 단숨에 질식시켜버릴 수 있었다. 적아의 역량관계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만주의 군소도시들을 다 점령할 계획밑에 도처에서 반일무장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소재지까지 다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회의에는 나와 이광,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을 비롯하여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나와 이광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진한장, 왕윤성, 주보중은 중국측을 대표하였다.

회의의 기본안건은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일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왕청유격대의 과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과오의 시초로 된 것은 왕청부대에서 발생되었던 ≪김명산사건≫이였다. 김명산은 원래 장학량군시절이 ≪보위단≫에 있다가 9.18사변 후 6명의 중국인부하를 거느리고 왕청유격대로 반변해온 조선사람이였다. 그는 명포수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하였다. 왕청부대동무들은 그가 반변해오자 금덩이가 굴러들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반변해온 중국인대원 6명중 한 명이 적통치구역에 2정찰을 나갔다가 대감자음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 그릇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음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었다.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온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유격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독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그 중국인대원을 총살하였다. 현당군사부의 조치로 왕청에서 처형당한 중국인대원들의 수는 무려 10여명에 달하였다.

김명산과 함께 반변해들어왔던 나머지 중국인대원들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놀라 부대를 탈출하여 마촌구근방에 주둔하고 있는 관보전부대에 찾아갔다. 유격대가 중국사람들을 함부로 총살한다는 그들의 선전을 듣고 위험을 느낀 관보전은 유격대의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기회를 노리었다.

10월 혁명기념일이 되자 왕청사람들은 날창과 몽둥이와 같은 원시적인 무기들을 휴대하고 행사장에 몰려들었다. 그들이 이런 유치한 무기들을 들고 기념식장에

나타난 것은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였다.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자기네 부대에 대한 공격준비라고 잘못 판단한 관보전은 분개하여 자기의 수하에서 참모장의 직책을 가지고 구국군대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던 유격대공작원 김은식과 홍해일, 원홍권 등 여러 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살하였다.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와도 같은 역습이었다.

그 후 투쟁을 포기한 관보전의 부대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 적의 통치구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청부대는 관부대의 투항을 막는다고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무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고 하여 관부대의 투항병 몇 명을 죽이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관보전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수전을 시작하였다. 조선청년들 중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붙들어다가 총살하였다. 조직된 지 몇 달되지 않은 왕청유격대는 반일부대에 포위되어 많은 희생을 내였다.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발로된 이와 같은 미숙성과 무분별성은 조중관계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조선 혁명앞에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을 파놓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망쳐놓은 다음에도 그 과오의 엄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무슨 복수를 운운하는 왕청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치는 논의를 거쳐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조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군과의 발목을 만주땅에 잡아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당시 수만 명에 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일본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유포시킨 ≪천하무적≫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이 세상에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고 일본군대에 대적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투쟁을 거의 다 포기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군에게 죽거나 포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찌가 튀지 않고 있는 산해관너머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타산뿐이었다.

일본군은 간도지방에서 왕덕림부대에 함께 나자구를 사수하자고 결의하였다. 나자구를 사수하자면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쏘련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구국군의 속셈은 쏘련을 거쳐서 중국본토로 가자는 것이었다. 반일부대 두령들과 병사들속에서 쏘만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이두와 마점산도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달아나버리었다. 구국군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본군과 전투를 한 번 본때있게 하여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왕덕림을 설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주보중이었다. 주보중은 국제공산당의위임을 받고 왕덕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주보중에게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단하고 유격대와의 연합전선에 나서도록 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동만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소. 문제는 구국군인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왕덕림을 설복해서 그들이 만주땅에 버티고 서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쏘련으로 가겠다는건 시베리아에 가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쏘련땅을 거쳐 관내로 도망치려는 것이요.≫

주보중은 그말을 듣자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아직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국군이라는건 사실 겁쟁이들의 집단이요. 일본놈들의 비행기가 우르릉하고 삐라 한 장만 뿌려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는 시라소니무리란 말이요. 그러니 도저히 전투를 해볼 수 없구만, 그렇게 비겁한 무리들을 나는 난생처음 보았소. 구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친다는 건 망상이나 다름없소.≫

주보중과 같이 연합불가능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의견대립이 생기고 불가능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다 제마끔 영웅이고 천재고 지도자였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지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직인 것만큼 누구라고 할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주보중

그러나 회의는 내가 의장이 되어 집행하였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였다. 내가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 것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구국군들과의 사업에서는 **김일성**이 노장이라고 하면서 중국동무들이 나를 추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나자구회의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로서는 마지막회의였다. 이 회의를 마감으로 병사공작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나자구회의 결정에 따라 나와 이광, 진한장과 주보중, 호진민은 왕덕림부대, 오의성부대, 채세영부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오의성과 채세영은 다 왕덕림의 부하들이었다.

얼마후 오의성부대에 간 진한장한테서 통보가 왔다. 오의성이 나자구회의의 방침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낙관적인 소식이었다.

내가 왕덕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나자구 일대로 밀려들었다. 적들은 우리 주력부대가 왕덕림부대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공격해왔다, 왕덕림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자구에서 도망쳤다. 수천수만 명의 대병력이 돌개바람에 말려가는 가을낙엽처럼 일본군의 탄막을 피해 쏘만국경쯤으로 철퇴하였다

몇십 명에 지나지 않는 유격대역량만으로는 도저히 나자구를 사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쪽으로 후퇴하였다. 동녕현까지 따라가서라도 기어이 구국군을 돌려세우자는 것이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병력과 격전을 벌이면서 후퇴하다니 우리는 도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우리가 적의 대군과 싸우면서 동녕현방향으로 갈 때에는 추운 동지달이어서 반일병사들가운데도 얼어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구국군을 따라가면서 꾸준히 왕덕림을 설복하였다. 그때 그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공동전선을 하여 동북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덕림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쏘련을 거쳐 중국관내로 가버리었다.

우리는 왕덕림과의 교섭을 단념하고 노정을 바꾸어 최종목적지인 왕청지구로 향하였다. 나자구에서 수백 리를 걸어 쏘만국경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서는 내 마음은 비길 데 없이 침울하고 암담하였다. 수만 명에 달하는 구국군도 감히 일본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뺑소니를 치는데 18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부대는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나야 하는가. 어떤 묘술로 이 엄혹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8명이면 일본사람들이 즐겨 쓰던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부대가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였다. 싸움에서 전사도 하고 병을 만나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투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독립군출신의 나이 많은 대원들과 일부 농촌청년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하였다.

마지막까지 대오에 남은 것은 길림시절부터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투쟁하던 동무들이었다. 그 18명을 데리고 사선을 헤치면서 왕청으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어야 어떤 극단적인 정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가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왕청으로 가는 노상에서 오의성의 연락병을 만나 그와 함께 행동하였다. 그 연락병의 이름은 맹소명이라고 하였다.



진한장

우리 대원들을 처음에 신분은 알아보려고 그를 단속하였다. 일본간첩들이 사방에 우글우글할 때였으므로 우리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계하였다. 맹소명에게는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와 반일부대와의 협약으로 발급된 반일회원증이 있었다. 맹소명은 반일회원증 뿐만 아니라 오의성이 왕덕림에게 보내는 응원요청서까지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오의성이 연락병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었다.

맹소명이 천교령으로 가게 된 데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전하려고 동녕까지 갔댔는데 왕덕림이 달아나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오의성한테 오니 그도 노모저하에 한 개 대대만 떨구고 흥석라자쪽으로 철수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노모저하에 떨궈두었다는 그 한 개 대대마저 소산차구(천교령)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중엔 죽더라도 항일을 해야겠으니까요.≫

맹소명의 항일의식은 아주 견결하였다. 그는 동북3성에 시국을 평정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대장님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사람은 패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눈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맹소명과 함께 소삼차구방향으로 갔다는 그 대대장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 한 개 대대에 연합전선의 명줄을 걸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대대만은 꼭 설복하여 투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맹소명은 왕청까지 가서 우리와 함께 요영구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한 잊을 수 없는 동행자였다. 1974년에 맹소명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우리가 나자구등판에서 만나게 된 때를 감회깊이 상기시키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고난속에서 우의를 나누던 오의성의 연락병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돈화합작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넘긴 고비는 노흑산에 갔을 때라고 생각한다. 노흑산까지는 덜렁덜렁하였지만 구국군이 동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고생을 많이하면서도 별로 외로운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쏘련으로 다 도망가버린 후로는 그 광막한 등판에 우리 18명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왕덕림이 월경하면서 남겨두고간 일부를 데리고 주보중까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나니 우리는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돌아치면서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를 뿌리고 땅에서는 ≪토

벌≫에 동원된 일본군무리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조차 볼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허리를 치는 장설 때문에 대오는 좀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임시변통으로 그날그날 얻어먹으며 힘들게 저축해둔 식량도 바닥이 났다. 5월에 소사하에서 입고 떠난 군복마저 다 찢기고 터져서 살이 드러났다.

이런 때에 우리는 나자구등판에서 마가성을 가진 좋은 노인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고비를 모면하였다. 우리가 마노인을 만난 것은 음력 섣달그믐날이었다. 사상으로 보면 무정견, 무소속인데 국민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덜돼먹었다고 침을 뱉는 영감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서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착하고 인정깊은 호인이었다.

마노인한테는 집이 두 채가 있었다. 아래채에는 우리가 들고 위채에는 구국군패잔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반쏘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쏘련이 공산국가라는 이유로 월경을 시도하지 않고 만주에 떨어진 자들이었다. 패잔병들가운데는 오의성이 노모저하에 떨궈두고 갔다던 곽대대장의 부하들도 있었다.

맹소명은 여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구국군의 맥을 짚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위채의 패잔병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구국군병사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움직일 용의 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타진해보라고 하였다. 맹소명은 곽대대장의 부하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1차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그들의 속심을 떠보고 승산이 보이면 김대장이 가서 정신적으로 교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패잔병들을 만나고 온 맹소명은 어깨를 떨구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연합전선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벌써 로비가 될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인도 구국군패잔병들이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들이 우리의 총을 탈취해가지고 비적의 대오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보니 우리는 모두 우리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이 수천수만 명 와글와글할 때에는 일본군과 싸움을 해도 당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다 달아나고 없는데다가 우리 대오마저 18명밖에 남지 않고보니 그저 막연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왕청에 갔대야 총 여라문 자루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연길에 있는 무기라야 총 몇십 자루 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저 무지막지한 패잔병들마저 우리의 무장을 빼앗겠다고 날치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자구의 이름모를 등판까지 왔는데 왕청으로 돌아갈 길도 묘연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자신에게 반문도 해보았다. 무장을 줘버리고 다시 돌아가 지하투쟁이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생스럽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하면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위조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나는 그대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또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억세다고 말할 수 있다. 강철은 자기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



오직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 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해야겠는데 남아있는 대원들이란 모두 스무 살도 채 안되는 흥안의 청년들이였다. 내자신도 아직은 경험이 어리다고 할 수 있었다. 길림바닥에서 삐라를 쓰고 연설이나 하며 돌아다닐 때에는 모두가 영웅호걸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초학도들이였다. 지하공작을 할 때에는 방법이 많았지만 수만 명의 우군을 다 잃어버리고 패잔병들만 남은 무아지경에서 18명의 행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윗집에 든 패잔병들은 토비가 될 것을 계획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노릇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조직군중이 있는 곳에 가야 무슨 방법이 나서겠는데 조선인부락은 200리쯤 가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간도 일본군이 없는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 것인가. 불과 2-3년동안이면 손쉽게 결판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 끝에 와 서게 되었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전진을 멈추고 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 부대를 무으려고 끼니를 건는 것은 며칠이였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몇 날 몇 밤이었던가. 이 부대를 위해 세상을 하직하시는 어머니의 곁에도 가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들과도 생이별을 한 내가 아닌가. 차광수도, 최창걸도 이 대오를 위해

청춘을 바치지 않았는가. 차광수는 돈화에 정찰을 나갔다가 전사하였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온 지구덩어리가 통째로 매달린 듯 무겁기만 하였다.

내가 아궁이앞에 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노인이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는 사람이 눈물은 왜 흘리는가?≫

≪눈바람을 맞으면서 오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런 식으로 굼때였으나 나는 사실 눈바람탓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걱정때문에 눈물을 흘리었던 것이다.

노인은 한참동안 나를 굽어보면서 길다란 채수염을 연방 내리쓸었다.

≪자네가 저 위채에 든 놈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 오늘저녁 좋은 곳에 데려다주겠으니 거기 가서 며칠 푹 쉬라구. 한 스무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영양보충도 하면 머리가 제갈량처럼 잘 돌아갈걸세.≫

밤중에 마노인은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 우리들을 모조리 흔들어 깨워 설음식으로 빚어놓은 만두를 먹이었다. 그리고는 한 50리 실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산막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산막은 비행기도 볼 수 없는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산막집이라고 해야 한 장 정도의 삿자리나 겨우 깔 수 있는 크기의 방이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헛간이 하나 붙어있을 뿐이었다. 헛간에는 마노인이 올노를 놓아서 잡아 얼군 토끼와 노루도 있었고 밀, 강냉이 같은 낟알과 망도 있었다.

≪방은 좁지만 짚을 펴고 지내면 불편한데로 그럭저럭 급한 대목을 넘길 수 있을 거네. 여기에 숨어있으면서 몸들을 추세우라구. 바깥소식은 내가 며칠에 한번씩 와서 전해주지. 자네들이 이 산막을 떠날 때는 길안내도 내가 해주겠네.≫

노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산막에 불을 지펴줄 때 우리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다같이 눈물을 흘리었다. 그처럼 한 적하고 쓸쓸한 등판에서 마노인과 같이 성실한 은인을 만난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질 수 없는 행운이였다. 대원들은 모두 ≪하느님≫이 우리를 굽어본다고 농을 하였다.

우리는 그 산막에서 보름 남짓하게 정양도 하고 학습도 하고 노루사냥도 하였다.

산막집에는 마노인이 가져다 둔 책들이 많았다. 소설책도 있고 정치서적도 있었으며 위인들의 전기도 있었다. 마노인이 비록 깊은 산중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식은 아주 풍부한 분이었다. 여럿이 순번을 다투어가면서 경쟁적으로 읽다가니 책은 어느 것이나 다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졌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소감을 발표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논쟁을 벌이었다. 제가끔 맑스가 어떻게 말했고 레닌이 어떻게 말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따로 인용해가면서 자기주장을 논증하느라고 열을 올리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의 명제나 유명한 작가들의 명문가운데서 몇 가지씩은 다 뜬금으로 외워가지고 다닐 때였다.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손중산도 비판하였다. 그 누구를 숭배하는 것도 멋이었지만 모두다 숭상하는 위인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멋으로 되고 있었다.

그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였다. 모두가 다 걸작이고 영웅호걸이었다.

우리는 이 산막에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왕청의 조선인부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별동대를 모아가지고 부대를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누구나 다 투쟁을 계속하자고 결의하였는데 해룡에서 입대한 한 동무만은 몸이

약해서 우리들과 같이 무장투쟁을 계속할 것 같지 못하다고 실토하였다. 그 동무의 체력이 유격투쟁을 할만큼 준비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대하여 까박을 붙이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

≪못가겠으면 여기서 직방 못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혁명은 억지로 하지 못한다. 강권이나 위협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 혁명이다. 그러니 가려면 가고 투쟁을 계속하려면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나는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의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각자가 스스로 결심을 채택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한자리에 다시 모여앉아 대원들의 결심을 들어보았다. 일행 중 16명은 죽는 한이 있어도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부대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해룡에서 온 동무는 이번에도 몸이 약해서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겠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겁쟁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를 따라다니기가 힘들면 집으로 가라, 우리는 그걸 허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꼴을 해가지고는 못간다. 옷이 다 꿰져서 거렁뱅이꼴이 되었는데 그런 몰골로야 부모들품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가기는 가되 조선인부락에 가서 여비를 얻어가지고 의복이랑 해입고 가라고 하였다.

다른 동무는 쏘련에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였다.

≪쏘련에 보증인도 없이 무턱대고 넘어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는지 노동을 시키겠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왕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그곳과의 연계가 맺어지면 조직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두 동무는 내 말을 긍정하면서 내가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우리는 마노인의 안내로 무사히 나자구등판을 떠났다. 노인은 우리를 왕청현 전각루까지 안내해 주었다. 참으로 친절하고 다심하고 인정깊은 노인이었다. 몇해후 우리가 근거지안팎에서 적들을 사정없이 답새기던 유격투쟁의 활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얼마간의 천과 식량을 가지고 나자구등판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는 마노인의 영상이 60년 전의 모습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 때인가 나는 작가들에게 그 노인을 원형으로 하여 가극이나 연극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하였다. 그 노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가극이나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

그 겨울에 우리가 나자구오지에서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 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무슨 힘이 시련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였는가, 무슨 힘이 우리를 패배자나 낙오분자로 만들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 항일의 기발을 그냥 추켜들게 하였는가고 자문하군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라고 긍지에 넘쳐 자답하군 하다. 그 책임감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눈구뎅이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나자구등판의 눈사태속에 파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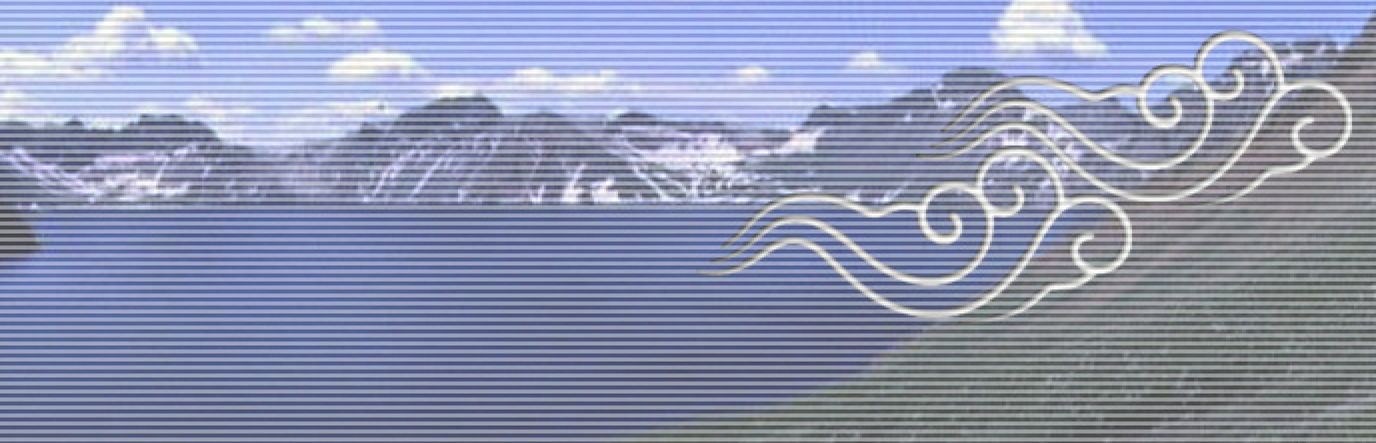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7장 인민의 세상

8장 반일의 기치높이

9장 북만원정

제7장



인민의 세상

보금자리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국제당파견원
백마에 대한 추억

■ 시기 : 1933. 2 ~ 1934. 2

1. 보금자리

우리는 1933년 2월 중순에 마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왕청유격구로 향하였다. 20일 동안 산전막에서 정치토론만 하며 갑갑하게 지내던 18명의 유격대원들은 행길에 나서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을 다그쳤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셔지지 않았건만 대오는 청신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지금 왕청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특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현장의 연설이 길고 소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 것으로 유명합지요 하는 기지 있는 말로 대답하곤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농질을 즐기는 왕청지방 해학가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어낸 말인 것 같다.

1933년 당시의 나에게 만일 그런 명구가 있었다면 모진 곤경을 치르고 난 전우들에게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왕청이 어떤 고장입니까?≫ 하는 대원들의 물음에 그저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대답밖에 해주지 못하였다.



북로군정서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말은 혁명가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왕청은 간도의 여러 현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반일독립운동이 가장 백열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노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이범석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이동휘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 인재 양성에 심혼을 바쳤다.

독립군의 맹활약과 독립운동자들의 출몰은 이 지방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켰고 그들을 반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독립운동이 조락단계에 들어서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연해주지방과 소만국경일대로 자취를 감춘 다음부터 왕청지방에서의 민족해방투쟁 영도권은 점차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투쟁의 주류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걸구어온 애국애족의 토양 위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운동의 동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압도적 다수는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 대열 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사상개조 과정을 거쳐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로 있었다. 아무런 주의에도 관계하지 않은 말쑥한 새 사람들만 가지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발전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계승과 혁신의 원리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의 사상이고 공산주의운동이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 가운데서 최고단계의 혁명운동이라고 하여 이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서 발생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쨌든 왕청은 반일투쟁역사가 깊고 군중토대가 좋으며 정치적 지반도 튼튼한 곳이었다. 조국의 육읍지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간도지방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중심지인 연길, 용정 지구와도 이웃하고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고장에 혁명가들이 많이 집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학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고, 흘레브를 먹으려면 쏘련으로 가고, 혁명을 하려면 간도로 가라는 유행어는 동만을 광복운동의 최전방으로 보고 그 곳을 끝없이 동경하던 당시 조선청년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간도로 가는 것은 화구앞으로 가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기 위하여 그 화구앞으로 주저없이 돌진하였다. 유격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도 경쾌했던 것은 거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푹신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이 있고 인민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디디고 다닐 땅이 있으며 일본천황의 칙령이나 총독제령으로써도 뒤집어버릴 수 없는 우리 식의 참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삼도만유격구역

우리가 마 노인을 앞세우고 전각루로 향하던 1933년 2월은 동만 각지에서 유격근거지 창설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그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뒤였다.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그 사상을 제시하고 방침으로 채택했던 중심과


요영구유격구

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그때 무력항쟁을 하자면 진지를 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진지란 유격근거지를 의미하는 우리 식의 소박한 표현이였다. 우리가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논의된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방도를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한 것은 1932년 봄의 소사하회의에서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간도 여러 지방들에 유능한 지도핵심들을 파견하여 농촌혁명화를 다그쳤다. 이것은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였다.


안길

혁명화된 농촌지역은 유격구가 꾸려질 때까지 반일인민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임시 거점으로 되었으며 유격근거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겨울 명월구회의에서 이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하, 요영구, 어랑촌, 대황구, 연통라자를 비롯한 여러 고장들에 유격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건설된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그들이 겪은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 있다.

두만강 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을 꾸리는데서 양성룡, 이광, 장룡산, 최춘국, 주진, 박동근, 박길, 김일환, 차룡덕, 강석환, 안길, 이국진, 이봉수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선혈과 노고는 역사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국내와 해외에서 한다하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에 집결하였다. 왕청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백룡, 조동욱, 최성숙, 전문진을 비롯한 북만의 공산주의자들도 소왕청으로 찾아왔다.

소왕청의 새주민들 가운데는 연해주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도 있었고 적구에서 다년간 지하활동을 해오다가 정체가 탄로되어 투쟁무대를 바꾼 사람들도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이 간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월경 탈출한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맑스주의 신봉자들도 있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로는 이처럼 혁명에 참가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실천투쟁속에서 직접적으로 단련된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정수분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민구성도 대왕청하의 청수처럼 깨끗하였다.

그 기개와 담력으로 말하면 전부가 일당백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책원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항일근거지들에서 유격대오를 늘리고 당, 공청을 비롯하여 반제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 아동단,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계층별 조직들과 반군사조직들을 내옴으로써 전민항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




어랑촌유격구역(위)과 소왕청유격구역(아래)

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정권이 유격구역마다에서 태어나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노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만민평 등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짚고 거들먹거리는 부자고 없었고 빚과 세금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수난이나 고통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민들의 낭만이었다. 인민혁명정부가 나누어준 분여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었다. 끝없는 유혈과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에 찬 생활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이국진

적들의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동방 일각에 거연히 솟아 민족해방의 장엄한 새 역사를 개척해가는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은 조국 인민들의 찬탄과 동경을 자아내는 낙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 거주지와 이념에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피로써 쌓아올린 이 성새를 조국해방의 유일한 등대로 바라보며 충심으로 지지성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구는 사람들이 낭만과 희열과 희망에 넘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며 수천 년을 두고 꿈꾸어온 인민의 숙망을 꽃피워준 이상향이었다.

유격근거지의 존재는 도쿄 대본영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우환거리로 되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노선의 북부지대와 잇닿아 있는 이 지대를 그들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간도 일대를 ≪반만항일의 심장부이며 북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공산당의 동맥이기도 하다.≫고 한 다까기 다께오의 표현은 적중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동만의 유격근거지를 가리켜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이 말속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군국주의 집단의 공포심리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을 ≪동양 평화의 암≫이라고 본 것은 이 일대의 영역이 특별히 넓거나 이 지방에 관동군을 제압할 만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무력이 진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간도에서 던진 작탄이 도쿄의 궁성이나 대본영의 지붕위에 날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간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위험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




처창즈유격구역(위)과 연통라자유격구역(아래)

일감정이 극렬한 조선사람들이고 그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라는데 있었다.

간도지방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9할 이상이 조선사람이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지배층이 이 지대의 유격구역들을 만주통치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로 여기게 된 까닭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국내와 만주 광야에서 십 년 유여의 항쟁을 계속해온 의병시대의 용장들과 독립군 잔류 세력의 대부분도 이곳에 남아 화승대로 일본군경들을 겨누고 있었다.


차룡덕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정과 혈연적 유대의 본보기도 여기에서 창조되어 만주전토와 전 중국적인 판도에로 확대되고 있었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은 ≪동양 평화의 암≫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꽃이며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은 항일무장투쟁을 그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토벌≫에 의하여 엄중한 시련에 부딪쳤다. 그러나 적의 초토화작전은 오히려 간도 땅에서 유격근거지의 창설과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1932년 봄 관동군과 노선군은 이른바 간도처리방책이라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것은 조선군 소속의 임시파견대를 투입하여 간도지방의 혁명운동을 탄압하려는 흉악한 모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나남사단 소속의 일본군 연대를 기간으로 하고 경원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 개의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 임시파견대는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동만 4개 현의 모든 촌락들과 시가지들을 과녁으로 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궐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에 사정없는 포화를 들씌웠다.

1932년 4월 초의 대감자 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왕청의 산과 들도 피바다에 잠겼다. 대감자는 한때 이광이 이웅걸, 이용범등과 함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곳이고 김철, 양성룡, 김은식, 이응만, 이원섭 등 투사들이 공안국을 습격하여 무장을 탈취하던 부락이다. 대포와 기관총, 비행기로 무장한 나남 19사단의 대병력이 물밀 듯이 쓸어들어오자 이 부락에 주동하고 있던 왕덕림 휘하의 구국군 부대는 마반산을 넘어 서대파로 황급히 철수하였으며 마을의 보위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토벌군≫에 투항하였다.

대감자를 점령한 일본군은 연이어 비행기로 왕청시가를 들부수고 주민가옥들에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왕청시내에서 제일 큰 지주이고 부호인 이항종의 집도 점령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그 다음은 덕원리와 상경리가 불바다로 변하였다.

이 ≪토벌≫이 얼마나 잔학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었던지 왕청 사람들은 그 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뒷산에 들들 울리고
기관총과 유산탄은 빗발같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 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에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덕원리의 농촌은 재터뿐이다
무죄양민 주검은 들에 널리고
왕청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땅에 살고 있는 무산대중아
일치단결 일어나 싸워나가자
우리들은 끓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리라


장룡산

소왕청과 대왕청 골안으로는 야수들의 ≪토벌≫에 집을 잃고 혈육을 잃은 피난민들의 분류가 그칠 새 없이 흘러들었다. 일본의 비행기들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는 그 인파를 향해서도 폭탄을 마구 던졌다.

수정같이 맑은 왕청의 강물은 삽시간에 선혈로 물들었다. 어떤 날은 그 강물로 학살된 사람들의 창자가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마노인이 우리를 데려다준 전각루도 간도 임시파견대 살인마들의 행패가 심했던 고장이였다. 이 고장에 달려든 적들은 수십 명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걷어 넣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 ≪전각루 침입에 대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이 배포되어 돌아간 것만 보아도 이 ≪토벌≫의 규모와 야만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간도혁명의 중요한 발원지들의 하나인 소왕청과 나자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각루는 일찍부터 항일투쟁의 세례를 많이 받아온 고장이였다. 수천 명의 농민들과 뗏목꾼들, 채벌노동자들이 한데 뒤섞여 와글와글하는 이 골안에는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과 함께 계층별로 되는 혁명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조직들이 군중을 동원하여 춘황투쟁 때에는 마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보위단을 들부수기까지 하였다.

군중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은 보위단원들은 그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토비가 되고 말았다.

투쟁은 승리하였으나 혁명군중은 13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 전각루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배출하는 온상으로 됐다. 왕청유격대 3중대장이였던 장룡산도 전각루에서 삼차구까지 다니는 뗏목꾼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이광이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활동하던 하마탕은 이 마을로부터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적들은 공산당원 한 명만 있어도 그 부락 주민들을 전멸시켰다. 공산당원 1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군중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 일본군경들이 제창한 구호였다.

중일전쟁 때 화북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오까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의 간도 ≪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였고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역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 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3광정책과 이른바 ≪비민분리≫를 목적했

던 집단부락 정책은 알제리의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었고 월남 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다.

삼도만, 해란구, 용정, 봉림동을 비롯한 연길현의 이름있는 혁명촌들도 모두 주검으로 덮였다. 훈춘현의 삼한리 일대에서는 1,600여 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렸다. 연길 한 개 현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명에 달하였으니 간도 임시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일본군은 간도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수단인 화식도구까지 모조리 파괴하였다. 밥도 못해먹게 가마를 깨뜨리는가 하면 노전을 들어내고 구들장을 파헤쳤다.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와 재목들을 대두천 시내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풀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 대신 자갈돌을 달구어 밥을 지어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감자나 대두천과 같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토벌군≫의 강압적인 퇴거령은 지주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항일무장부대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적지 않은 몫이 지주나 자산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었다. 적들은 이 원천마저 봉쇄함으로써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혁명군은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것이었다.

≪토벌대≫의 검질긴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끼니를 번지며 산중에서 헤매었다. 그러나 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막바지까지 가면 더 들어갈 곳이 없었다. 막바지가 나지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수림속에 몸을 숨기곤 하였는데 이런 때에 어린애들이 울음소리라도 내면 몰살을 당하는 판이었다. 어떤 여인은 ≪토벌대≫가 근처에 와서 돌아칠 때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가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품에 꼭그러 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의 총구앞에 놓여있는 수십수백 명에 달하는 혁명군중의 신변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토벌대≫가 돌아간 다음 아기를 보니 그 어린 것은 벌써 숨져있었다.

이런 비극은 간도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에나 다 있었던 비일비재의 일화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편을 먹이면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울지 못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거듭되는 적의 ≪토벌≫에 성화를 먹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유격구의 혁명군중과 전우들을 위하여, 목숨보다 더 귀중한 항일의 위업을 위하여 이 나라 여인들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뤘다.

부르주아 인도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성애를 두고 비난할 것이다. 자식들의 운명에 그처럼 무심한 여자들이 어디 있고 자식들의 생명앞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모성들이 어디 있는가고.

그러나 그 애어린 육체들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책임을 이 나라 여인들에게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햇솜같은 육체를 가랑잎으로 묻을 때 그리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떼두고 갈 때 유격구여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패였는가를 안다면 간도 땅에 살인백정의 무리들을 파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여인들의 모성애에 참을 수 없는 시련을 강요한 죄악은 전적으로 일본군국주의 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자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자지가 저지른 범죄의 자취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물론 유쾌한 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아무리 쓰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바자밑에 자기의 살붙이를 떼두고 가든가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아편 덩이를 밀어넣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을 누이들이 느끼던 그런 고통보다야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

일본 지배층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본군에 의해 참살된 수백만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으로 될것이다.

혁명군중앞에는 왜놈들의 요구대로 도시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역하고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양성룡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간도 땅에 온 조선 사람들치고 왜군이 도사리고 있는 시가지에 가겠다고 응해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간도 주민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인하여 경제적 지반을 잃고 율도국과 같은 이상형을 꿈꾸며 살길을 찾아 남부여대의 길을 떠난 영세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관헌들과 토착지주들에게 등껍질을 벗기우면서도 노야령, 할바령 산줄기들의 비탈과 골짜기들에서 억척스럽게 돌을 추어내고 나무뿌리를 뽑아냈다. 화전농사는 고되고 가난은 변함없었으나 왜놈의 등쌀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흉악무도한 왜군을 따라 도시로 내려가라고 하니 어느 누가 피땀으로 걸구어온 자기 집 터전에서 선뜻 발길을 떼겠는가.

이것은 대살륙의 참변을 겪은 왕청골 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대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벌군≫의 행악질에 겁을 먹은 일부 주민들은 한 집, 두 집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세상을 열렬히 동경하고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군중은 적들의 공갈을 무릅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어젯날까지 한동네에서 혁명을 위해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서 동고동락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 산과 도시로 흩어져 가게 되었다.

그 때 산중에 남은 사람들은 현성(백초구)로부터 100리나 떨어진 소왕청과 대왕청의 대수림 지대로 깊숙이 이동하였다. 이치백 일가가 중경리에서 마촌으로 옮겨간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공산당 왕청현위를 비롯한 현급 기관들은 소왕청에 본거지를 정하였다. 연길현 세린하와 태평구, 왕우구, 북동 등지로 장소를 바꿔가며 활동하던 동만특위도 1933년 봄에는 소왕청골 안으로 들어와 이수구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소왕청은 간도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로 되었다. 우리와 중국당, 우리 혁명과 중국혁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왕청유격근거지는 요영구를 포괄하는 1구와 마촌, 십리평을 포괄하는 2구를 비롯하여 5개의 혁명조직구로 이루어져있었다. 그 당시의 왕청유격대 역량은 3개 중대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이광, 양성룡, 김철, 장룡산, 최춘국, 이응만 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왕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체적인 예비지식이었다. 나에게 이런 예비지식을 넣어준 사람은 왕청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양성룡과 현당서기 이용국이었다. 1932년 가을에 내가 부대를 데리고 이 고장에 와서 유격근거지의 실태를

요해할 때 바로 그들이 나의 안내를 담당하였다. 나는 그 때 왕청현 안의 여러 유격구들을 돌아다니며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과 반일회, 반일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반일부대들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의 사업정형도 청취하였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동만각 현의 병기공장 성원들과 유격대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작탄강습을 진행한 것도 이 무렵이였다. 그 당시 왕청간부들은 식량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농호가 수십 호밖에 되지 않던 소왕청의 좁은 골 안에 1000명도 넘는 인파가 단번에 쓸어들었는데 유격구에는 그들을 먹여살릴만한 식량 예비가 전혀 없었다.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이따금씩 식량을 노획해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지 주민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다. 유격구의 척박한 뙈기밭들에서 거두어들인 한 해 수확량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일제토벌에 의해 불타버린 자리에 다시 집을 짓는 유격구의 인민들

이렇게 되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타개책으로 중간지대의 추수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간지대란 적 통치구역과 유격근거지 사이에 놓여 있는 무인촌을 말한다.

소왕청과 대왕청 어귀에도 빈 부락들이 여러 개 생겼다. ≪토벌대≫가 달려들어 살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유격구와 적구로 갈라지고 중간지대에는 곡식만 남게 되었다. 그런 곡식들 중에는 적구로 내려간 지주들과 반동들의 것도 있고 ≪토벌대≫의 총탁에 밀려 백초구나 대두천 같은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농민의 것도 있었다.

중간지대의 곡식에 대해서는 적구에서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적구의 지주들과 반동들은 무장을 한 자위단의 엄호를 받으면서 마차와 달구지들을 끌고 날마다 중간지대에 나타나 낟알을 걷어냈다. 어떤 날은 그들이 탈곡장 근처에까지 와서 총질을 해댔다.

우리는 그때 이런 실정을 파악한 데 기초하여 모든 유격구들에서 추수대를 조직하여 근거지 인민들의 총동원으로 중간지대의 가을걷이를 지체없이 끝낼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왕청 사람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상론하였다. 추수대는 소왕청어귀에서 곡식을 베면서 대두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벤 곡식은 그날로 털어서 창고에 넣고 유격구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3호촌 아래부터는 적위대가 보초를 서주어야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5연발로 무장한 자위단의 습격을 면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추수대가 새하얗게 달라붙어 곡식을 베고 있는 포전을 사이에 두고 적위대와 자위단 사이에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줌의 낟알을 위해 야밤삼경에도 쉬지 못하고 결사적인 추수전을 벌이는 왕청시민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감동시켰다.

비록 간고하기는 하지만 근거지에서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왕청을 떠났다.

나는 유격근거지로 되돌아가면서 자기앞에 두 가지의 큰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는 유격대오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활동 무대를 두만강 연안으로 옮기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사업과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마 노인은 우리를 전각루까지 안내해주고 나자구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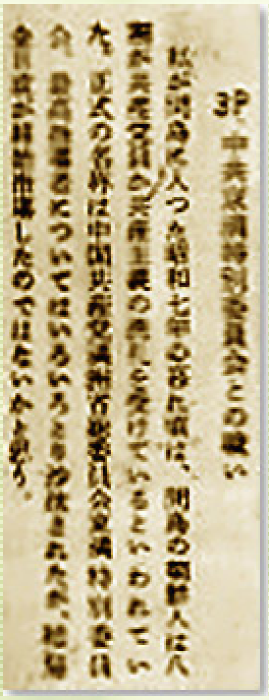
마 노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안내한 성미가 걸걸한 반일회원은 왕청유격대의 소부대들이 그 동안 요영구와 사수평에서 일본침략군 ≪토벌대≫를 답새긴 데 대하

여 옛말처럼 구수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반일인민유격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왕청 1구의 소재지인 요영구 유격구역에 들어섰다.

훗날 내 곁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한 최금산의 숙모 홍영화가 스무나문 명 되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신작로에 뛰어나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열광적으로 마중해 주었다. 그 여자는 왕청 1구 당위원회 산하에서 부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유격대와 반일부대에 대한 후원을 잘하여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날 요영구 인민들은 우리에게 기장떡도 해주고 메밀국수도 눌러주었다. 저녁에는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공연도 해주었다.



유격구역에서 당조직활동과 관련한 조선총독부 관리의 회상

≪**김일성**부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았습니다. 남만에 나갔다가 북만에 들어와서 돈화와 액목을 쳤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김**대장부대를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를 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그 광경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던 왕청 1구 당위원회 조직부장 이웅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오락장을 떠나 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격구사업을 장시간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전각루와 같은 고장들에서 우리의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어떻게 무장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담화가 유격구보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적구에서 통신원 한 사람이 비밀쪽지를 가지고 요영구로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내일 대흥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수비대 놈들이 유격구를 ≪토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 해 섣달에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려고 올테지요. 저 악귀같은 놈들이 글쎄 수천리 길을 걸어온 귀빈도 몰라봅니다 그려. 우린 사실 **김**대장부대를 여기서 며칠간 푹 쉬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일이 공교롭게 됐습니다≫

이웅걸은 마치 일본군이 요영구를 토벌하러 오게 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송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교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달 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서 모두들 손이 근질거리던 판인데 마침 잘됐습니다. 대감자와 전각루, 덕원리, 삼한리 참변에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받아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광에게 부대를 데리고 요영구에 속히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이웅걸도 등이 달아서 마라초를 연방 태우다가 오락회장에 있는 적위대장을 불어들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표정을 살펴보니 총동원령이라고 내릴듯한 기상이었다. 나는 이웅걸의 팔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그를 걸상에 끌어다 앉혔다. ≪웅걸동무, 적위대원에게 토벌대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 것 같은데 흥이 다 깨질 수 있으니 그냥 놀게 놔두시오. 그 대신 한 시간 후에는 적위대원들을 모두 집에 보내 새벽까지 푹 재웁시다. 나도 오늘밤에는 우리 동무들을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벌대의 기습계획을 알리는 긴급통보앞에서 우리가 인차 임전태세를 취하지 않고 군민의 오락회가 계속되도록 태연스럽게 방임해둔 것은 사실 군사 실천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식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당위원회에서 조직부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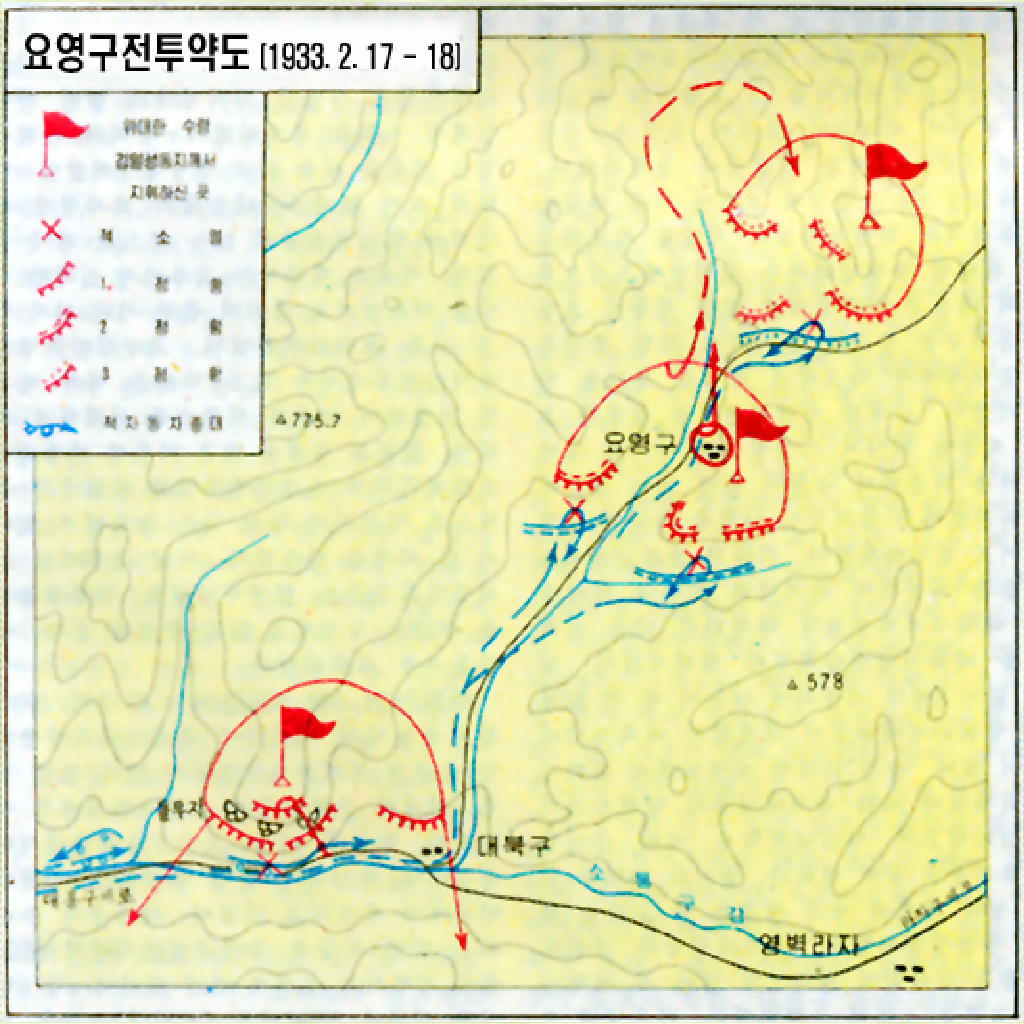
과 함께 군사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웅걸이 초조해하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대원들이 오락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에게 적구에서 온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로에 지친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투정황이 일단 제시되고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철심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밤만은 제발 수면시간을 침해하지 말자. 이 겨울에 그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는가.≫

이것이 그날 밤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었다. 유격대를 영솔하는 지휘관으로서는 삼가야 할 그런 인정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밤 11시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숙소에 돌아가 잠에 곯아떨어졌다.

우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던 전각루의 반일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타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웅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렸다. 나는 그에게 귓속말로 넌지시 물었다.

≪아까 행군을 해오면서 보니까 요영구어귀의 앞 뒤 고지들이 묘하게 생겼던데 싸움을 거기서 벌이면 어떻겠소? 그 앞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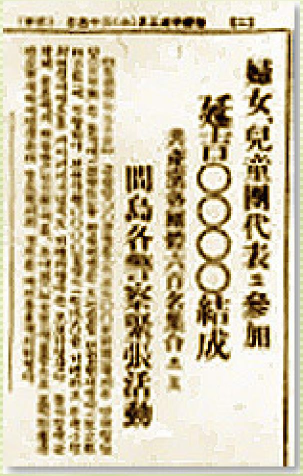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웅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북구 서산말입니까. 그곳이야말로 싸움을 해볼 만한 금성탕지이지요.≫

나와 이웅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요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구 서산으로 올라갔다. 적위대장과 전각루에서 온 반일회원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서산평행으로 뻗은 강을 소통구라고 불렀다. 서산고지에는 바윗돌들이 많았다. 그 바윗돌들은 유격대가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천연 방어축성물≫들이였다.

우리는 벼랑과 벼랑 사이에 여러 개의 돌무지를 쌓아놓은 다음 요영구 적위대 병력과 우리 부대 대원 전원, 별동대의 일부 성원들을 모두 서산으로 불러올렸다. 그리고는 언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게 하고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을 선조들은 금성탕지라고 하였다. 방비가 철통같이 튼튼히 성지라는 뜻이다. 공격자에겐 불리한 곳이지만 방어자에겐 얼마나 유리한 명당인가. 그러나 금성탕지도 좋지만 나는 동무들의 솜씨를 더 믿는다. 동무들, 참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 백 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婦女, 兒童團代表도參加
延吉○○○○結成
間島各地에서緊張活動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당시 신문자료

나의 전투명령은 이런 선동열설로 끝났다.

그날 4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요영구 골안으로 쳐들어오던 80여 명의 일본군은 우리의 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홍구의 일본수비대는 다음날도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요영구로 쳐들어왔으나 무리죽음을 내고 도주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에 와서 우리가 치른 첫 전투였다.

역사책에는 아마 요영구유격구방위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날 저녁 요영구사람들은 대북구마을에서 전투승리를 기념하는 경축행사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가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 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며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그 열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도 물론 그날 밤 격조높은 연설을 하였다. 내가 요영구에서 오진우를 만난 것이 아마 그 해 겨울이던지 그 전해 가을일 것이다. 그 때 소북구 마을 인민들은 오진우가 아동단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동단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환영회를 열었다. 오진우는 그 환영회 때 내가 38식보총을 짚고 연설하던 광경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상봉하던 때를 종종 감회깊이 회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인가 16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 때 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 싸창을 자꾸 만져보았다. 총이 몹시 탐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는 모두가 38식보총이 아니면 성능이 높은 최신식 권총들이였다. 나는 오진우에게 유격대에 들고 싶은가고 물었다. 그는 들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다음해였던지 그 다음해인지 그를 왕청 4중대에 받아들이고 북만원정에도 참가시켰다. 우리가 요영구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구의 당사업과 군중단체들의 사업까지 요해하고 나서 소왕청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서 중요한 군사문제를 두고 상론한 일이 있으니 마촌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별이 왔다.

우리는 인차 요영구를 떠났다. 우리가 소왕청에 도착하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왕윤성과 그밖의 다른 두 사람이었다. 왕윤성을 일명 마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본명보다도 그를 ≪왕다노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다. ≪왕다노대≫란 머리가 유별나게 크다는 뜻이다. 나는 ≪따거우재≫를 비롯한 유격구 간부들의 안내로 마촌 북쪽 산기슭에 있는 이치백 노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만

당 대표들을 만났다. ≪따거우재≫란 이용국의 별명인데 키꺽다리라는 뜻이다. 그 당시 그는 왕청현당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촌에 ≪유동객장소≫라고 부르는 독신자들의 합숙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많고 번잡하여 머무를 곳이 못된다고 하면서 소왕청사람들은 나를 한사코 이치백노인네 집에 있게 하였다. 이치백은 김중권의 장인되는 분이었다. 그 노인의 부인을 서성녀라고 하였다. 이치백노인네 가정은 온 일가가 혁명을 하는 애국적인 가정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다부산자를 입고 왕윤성 일행과 담화를 하였다.

≪왕청입성을 축하합니다!≫



근거지에서 출판된 정치학습자료

이것이 ≪왕다노대≫의 첫 인사말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틀어잡고 반갑게 답례하였다. 왕청과 같이 서름서름한 고장에 와서 왕윤성과 같은 구면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왕다노대≫를 맨 처음으로 만난 것은 남만진출을 끝내고 안도에 돌아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부심하고 있던 때였다. 그 때 왕윤성은 진한장과 함께 맹탄장부대에서 구국군 공작을 하고 있었다. 북만 일대에 있던 맹탄장부대가 안도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목적은 요녕 일대의 당취오자위군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합작을 성사시키자는데 있었다. 구국군 부대에서 오의성과의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북만 항일군의 연합을 통하여 만주 전역에서 반일투쟁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오의성이 안도에 맹탄장 부대를 보낸 다른 하나의 목적은 아편을 입수하여 군자금을 충당하자는데도 있었다. 안도 일대는 아편과 인삼의 주요한 산출지였다. 당취오도 부하들을 파견하여 안도의 아편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돈을 대신하는 위력한 등가물로 인정되고 있었다.

≪구국군이 돈화와 액목에서 **김일성**동지네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칠 수 있은 것은 아편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편을 대량 구입하여 나누어 준 것이 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되었거든요.≫

이광의 집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할 때 왕윤성을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벌써 이런 비밀을 서슴없이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었다. 왕윤성은 안도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호진민이나 주보중한테 보내는 연락도 그가 하였고 주보중이나 호진민이 나에게 보내는 연락도 그가 맡아주었다. 왕윤성은 구국군 부대에서 선전간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부나 대대부, 중대부 같은 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구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전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사범학교 계통 출신의 인텔리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왕윤성도 허우대는 크지만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였다. 그는 영안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베이징, 남경, 천진과 같은 대도시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창생들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가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성위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동만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김일성**동지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당사업, 유격대사업, 구국군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만혁명이 유능한 전략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김일성**동지가 왕청에 온 것

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동만과 북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변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만당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문제들을 두고 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날의 논의에서 절박한 문제로 상정된 것은 각 유격구역들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중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군사역량을 질량적으로 시급히 확대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 동장영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왕청의 유격대 중대들은 대대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동만의 다른 현들에서도 중대들을 총괄하는 대대들을 내오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개편과정을 거쳐 유격운동의 본격적인 활성기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왕청입성은 이처럼 인상적인 세부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인차 왕청풍토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활동무대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시적으로 느끼곤 하던 서먹서먹한 감정은 인차 새 고장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졌다. 1933년 당시의 나는 사실상 혈혈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었다. 어머니의 상실은 우리 삼 형제를 고아로 만들었고 그 삼 형제의 보금자리였던 소사하 갈밭 부락의 정든 집에 거미줄을 내리게 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이란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는 두 동생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고향집의 지붕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라에 바치고 쓸쓸히 살아가고 계시는 조부모님들 뿐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무시로 떠오르는 그 고향에 대한 애잡짤한 향수뿐이었다. 조부모님들에게 바치고 싶은 나의 효도는 고향집 토방에까지 가닿을 수 없었고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나의 욕망은 속절없는 걱정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제 내가 정을 기울일 곳이란 유격구밖에 없었다. 유격구의 인민은 나의 조부모, 나의 부모, 나의 동생들을 대신하게 될 혈육이었다. 나는 서성녀 어머니의 모습에서 곧 우리 어머니의 인덕과 사랑과 은정을 되찾았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속에서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처음부터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뇌도 많았던 잊지 못할 역사의 땅 왕청,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희생자가 수십 명씩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가옥들과 병실들이 수십 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했다. 병원들은 부상자들과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어데서나 겪게 되는 식량의 결핍,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기근은 숱한 아사자를 냈다. 때로는 전염병 때문에 간도전역이 무리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상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장사군도 없는 세계유일의 비상업지대, 여기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가치법칙이 은을 내기 못하였다. 주민들의 옷과 신발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충당하였다. 좌경의 전횡으로 유격구의 공기는 이따금씩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거지의 생활에서 주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격구의 생활에서 주도적 흐름을 이룬 것은 비록 제한 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폭압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과 낙천적인 정신상태였다. 곤란은 막심하였으나 군민의 기상은 백두의 멧부리처럼 도도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절해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유격근거지를 사랑하였다.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영웅적 미거는 동만 땅에서 매일처럼 발현되었다.

싸움속에서 해가 뜨고 싸움속에서 날이 저무는 북간도 오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속에서도 새 생활, 새 윤리의 고고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왕재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는 마촌에 와서도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요영구의 승전소식이 간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던 때여서 우리에 대한 소왕청인민들의 환영열도 대단히 높았다.

적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유격구의 생활은 우리 일행을 몹시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아니였다. 간도혁명을 움직이는 일부 지도자들의 일본새와 사고방식 가운데는 우리의 불만을 자아내는 점도 없지 않았다.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 것은 동만지방 혁명가들의 활동에서 열병처럼 만연되고 있던 좌경바람이였다.

좌경병은 유격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명월구, 소사하 회의들에서 유격근거지 창설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이미 그 형태를 완전유격구, 반유격구, 활동거점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형태 설정에서 균형을 잘 보장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동만지방의 일부 열성 공산주의자들은 행방지구 형태의 완전유격구를 건설하는데만 몰두하고 반유격구나 활동거점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낯을 적게 돌리고 있었다. 초기에는 왕청에서도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만 건설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역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나라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땅덩어리가 모두 혁명세력이 관할하는 해방지구 형태의 소비에트구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완전유격구를 소비에트구역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넓은 땅에다 공농정권을 상징하는 소비에트깃발을 띄워놓고 간부들은 ≪혁명!, 혁명!≫하면서 무사분주하게 돌아갔다. 유격구역 밖에 나가서 싸움은 별로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독재니, 무산자사회건설이니 하는 허공 중에 뜬 구호만 연방 외치면서 열렁열렁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념일이 오면 병실 마당이나 운동장

같은 데 모여 러시아식 댄스도 하고 메이데이가도 불렀다. 어떤 날은 동만특위와 현간부들이 한 데 모여서 목청을 돋구어가며 논쟁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사실 우리도 그 해 봄을 덩덩해서 보냈다. 그러나 점차 유격구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던 일련의 좌익소아병적인 편향도 포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와 전술도 모색하게 되었다.

유격구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창기에는 왕청근거지에만도 수천 명의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와 있었다. 훈춘, 연길, 화룡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부침땅이 적은 산골 안에 수천 명이 모여들어 와글와글하니 먹을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전부가 콩죽을 먹었다, 망에 콩을 갈아서는 쌀을 좀 넣고 죽을 쑤어 먹곤 하였는데 그것도 있을 때는 더러 타발도 하였지만 없을 때는 양잿물에 끓인 송피를 두드려서 송기떡을 만들어 끼니를 에우든가 고사리, 닥지싹, 도라지, 더덕, 둥굴레뿌리 같은 것을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하고서는 혁명가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면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친일파를 타도하고 놀고먹는 기생충의 무리들을 타도하라고 연설하는 것이 조시기의 근거지 생활이었다.

물론 소소한 전투도 여러 번 하였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후방물자를 실은 마차수송대도 들이치고 유격구역에 침습해오는 ≪토벌대≫를 제끼고 무기를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인민들은 깃발을 들고 만세도 불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초를 서든가 피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

땅덩이는 컸으나 총도 적고 무장인원도 적다나니 유격대원들은 총을 몇 자루씩 나눠가지고 근거지를 보위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늘리려고 하면 무슨 서기요, 위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소리로 혁명군은 통일전선군대가 아니니 노동자, 농민의 정수분자들만 흡수하여야지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이게 되면 오합지졸의 무리가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막아나섰다. 그 당시는 항일유격대가 소비에트구역 안에 있는 무장력이라는 데로부터 그 명칭도 공농유격대라고 하였다. 공농유격대란 노동자, 농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몇 개 중대밖에 안 되는 유격대역량으로 몇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어밀도가 섣피니 일단 ≪토벌≫만 시작되면 적이 우리의 방어진을 뚫고 종심 깊이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수천 명 인민이 봇짐을 이고 지고 피난을 가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이런 피난소동이 매일과 같이 유격구사람들을 들볶았다.

좌경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해방지구 영토의 크기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표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아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도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면서 터를 넓게 잡고 유격구역을 고수하는데만 전념하였다. 그들은 지어 유격구역과 적 통치구역을 ≪적색구역≫, ≪백색구역≫이라는 간판밑에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반동군중≫,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적구인민들과 중간지대인민들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였다. 국내인민들도 역시 ≪반동군중≫의 대접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

≪적색구역≫에서는 여성들이 단발머리를 함으로써 ≪백색구역≫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말도 글도 노래도 학교교육도 출판물도 적백이 서로 달랐다. ≪백색구역≫에서 ≪적색구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단속을 했고 취조를 한 다음에도 집으로 잘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백색구역≫에서 오는 사람은 덮어놓고 적의 간첩으로 치부하라는 상급의 지령이 아동단 조직에까지 떨어졌다. 왕청현당의 일부 사람들은 소왕청골 안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늘 악의를 품고 있었다.

한번은 동일촌에서 망원보초를 서던 적위대원들이 소를 사려고 유격구에 온 대두천의 농민을 붙잡아다가 심문한 일이 있었다. ≪백색구역≫에서 수상한 농민 한 명이 나타나 적위대의 심문을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현당의 좌경분자는 그 농민이 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바른 대로 대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정체를 실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농민은 스파이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다. 그 농민은 사실 스파이도 아니였고 주구도 아니었다. 그러나 좌경분자들은 농민이 가지고 온 현금을 압수하고 불문곡직으로 악행을 가하였다.


최봉송

왕청에서 다녀간 공청사업을 해본 최봉송은 언제인가 좌경으로 인하여 빚어진 유격구 시절의 비사들을 회고하는 좌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좌경이라는 말만 들으면 초기 유격구시절이 자주 앞에서 서물서물합니다. 간도에서의 좌경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한번은 유격대원들이 왕청령에서 일본군의 소금달구지를 노획해가지고 소왕청으로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지가 생긴 초창기이니 아마 수령님께서 남만진출을 하실 때 일 것입니다. 달구지꾼은 삯일을 하여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최하층의 조선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좌경분자들은 ≪양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를 죄인처럼 다스렸습니다. 일본놈의 소달구지를 끌었으니 역적이라는 거지요. 유격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격구를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군중까지도 서슴없이 처형하는 이와 같은 무지한 망동은 다른 현의 유격구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받을 행위들이 모두 혁명이란 신성한 간판밑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어 항일을 하겠다고 따라나섰던 수많은 혁명군중을 ≪백색구역≫으로 밀어던지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낸다는데 있었다.

유격구의 좌경분자들은 지어 온성땅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의 제사를 지내려고 상경리에 온 이치백노인의 친척까지도 ≪반동군중≫이라고 하면서 붙잡아가는 추태를 부렸다.

이런 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는 온몸과 넋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를 느꼈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가 반동이라는 감투를 씌워 무고한 백성을 마음내키는 대로 처형한다면 그는 벌써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특급범죄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왕청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만 하여도 이런 특급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특급혁명가≫로 행세하면서 군중을 아무렇게나 망탕 다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소비에트만 가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지도 고수하고 혁명도 발전시키자면 폐쇄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였다. 말하자면 유격구사수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활동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큰 정예부대를 꾸려가지고 자유자재로 기동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군대가 본격적인 군사작전에로 이행하자면 근거지 방위에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했는데 이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완전유격구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반유격구들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이러한 반유격구들이 유격구를 옹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유격구를 창설하는데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나는 중국관내에서의 유격구건설경험을 참고할 목적으로 동장영과도 여러 번 진

지한 담화를 하였다.

1931년 가을 중국 강서성 서금에서는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소비에트구역을 창설하였다. 동장영의 말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수뇌부가 집결되어 있는 소비에트중앙구는 그 면적이 대단히 넓고 주민도 수백 만을 헤아리며 무력도 몇 개 군을 이룰 만큼 막강하다는 것이였다. 동장영 자신도 하남성에서 소비에트 구역을 창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홍군은 10여만 명에 달하였고 그 관할지역은 강서성 남부로부터 광동성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지휘부 귀틀집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영토와 인구상으로 볼 때 어지간한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중국의 소비에트구역 건설 경험을 두만강 연안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는 것과 간도를 활동기지로 삼고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책원지를 튼튼히 사수하고 유격전쟁을 판이 크게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북부조선 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반유격구창설의 필요성은 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광대한 영역을 사수하자니 힘이 달렸고 힘이 달리는 그 타개책을 빨리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만일 유격전을 해보지 않고 고전이나 뒤적거리며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어떻게 했소, 중국 서금의 경험이 어떻소 하는 식으로 탁상공론만 하였더라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유격근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그 창설을 그토록 절감하고 빨리 다그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반유격구문제는 근거지에 대한 단순한 형태상의 고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에서 주체적 대를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사상적 입장 문제였으며 좌경에서 벗어나 지난날 ≪양면파군중≫이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광범위한 인민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군중관점 문제였고 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혁명역량편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반유격구란 우리도 통치하고 적들도 통치하는 지역, 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지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관할지역으로서 항일유격대에 대한 지원조건도 지어주고 그 후비원천을 비롯한 혁명역량도 키워내며 적구와 유격구 사이에서 중간연락소의 역할도 담당하는 그런 곳을 말한다. 좀더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낮에는 적들이 통치하지만 밤에는 우리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혁명근거지 건설에서 반유격구 형태는 우리의 투쟁실정에 맞는 것이였다. 이런 형태는 다른 나라들의 유격전쟁 경험에도 별반 없는 것이였다. 당시 우리 혁명의 발전노정은 반유격구 창설을 정상한 과제로 내세웠다.

우리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급속히 앙양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33년 3월 중순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 일대에 진출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 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적 목표였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육읍 일대를 비롯한 북부조선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는 것이였다. 반유격구를 잘 꾸려놓으면 유격구 건성에서 나타나고 있은 이러저러한 좌경적 편향도 능히 청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셋째섬에 활동기지를 두고 있는 왕청대대 2중대 성원 40명과 각 중대들

에서 선발된 10명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로 국내진출 대오를 편성하고 박태화소대장과 그 밖의 몇몇 대원들로 구성된 선발대를 온성지구에 파견하였다.

그 당시 동만당조직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 있던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내로 나가는데 대하여 몹시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중국 연내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조선연장주의≫ 경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국내진출도 애당초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재산밀영

하지만 나는 민족적 임무에 충실한 것이 곧 국제주의적 임무에도 충실한 것으로 되면 조선의 혁명가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자기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였으며 변함없이 국내진출을 준비하였다.

이런 때에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건져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국내와의 연계를 위하여 온성지방에 나갔던 2중대의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동만특위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 당시 2중대장은 안기호였고 정치지도원은 최춘국이었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허둥지둥 마촌에 뛰어와 내앞에서 중대지휘관들도 모르게 유격대원을 함부로 붙잡아간 김성도의 월권행위를 두고 의분을 터뜨렸다.

성미가 첫날 색시처럼 얌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남의 흉이라고는 좀처럼 보지 않는 최춘국이 ≪외눈깔왕가≫라는 별명까지 입에 올리며 김성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 김성도에 대한 파악이 별로 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가 공청 동만특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만당특위로 갓 소환되어온 사람으로서 각 현으로 순시를 다니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동만당 조직에는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하부조직을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는 것을 순시라고 하였다.

나는 최춘국이 김성도를 이름 대신 상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춘국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고약한 버릇을 배웠소? 김성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탈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무한테는 그래 그의 인격을 존중해줄 만한 아량도 없단 말이요?≫

최춘국은 비판앞에서 허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담고 송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불손했거나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유격구도 인간들이 모여사는 곳이니 별명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별명은 너무도 야비하구만. 외눈깔이라고 하다니 ≫

나는 김성도가 2중대의 대원을 체포해간 것보다 당장은 왕청 사람들이 그를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어째서 김가를 왕가라고 하는가고 물으니 최춘국은 조선사람인 김성도가 중국사람 냄새를 너무 내고 간부들앞에서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꼬와서 간도 사람들이 그에게 ≪왕가≫라는 성을 붙여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동만특위로 가던 길에 현당에 잠깐 들였더니 거기서도 김성도를 이름 대신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현당 사무실에서 이용국이 나에게 들려준 말에 의하면 김성도는 1927년에 벌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만주총국의 어느 세포위원을 하다가 일본영사관 경

찰에 체포되어 매도 맞고 감옥밥도 먹어본 노당원이라고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는 재빨리 중국당에 전당하여 특위급 간부로 승진되었는데 곯아빠진 한쪽 눈의 허물을 감추느라고 그러는지 늘 색안경을 끼고 다부산자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성도를 ≪날아가는 까마귀발에 버선이라도 신길 수 있는 수완가이고 변설가≫라고 평가하였다.

나는 동만특위 사무실에서 3시간쯤 김성도와 담화를 하였다.

정작 마주앉고 보니 그의 월권 행위를 문책하려던 결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측은한 감정부터 앞섰다. 곯아버린 눈과 몹시 지치듯해 보이는 컴컴한 얼굴표정으로부터 환기된 동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불우한 신체적 조건을 무릅쓰고 간도의 험산준령을 넘나드며 혁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얼마나 장하고 눈물겨운 일인가.

≪순시원동무, 동무는 우리와 토론도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공작 중에 있는 유격대원을 함부로 체포해갔소?≫

나는 음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절있게 물었다.

김성도는 안경너머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언감 특위순시원도 몰라보고 당돌하게 문책을 들이대느냐고 사뭇 못마땅해 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게 참 이상하구만. 그 대원의 월경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모순되는 민족주의의 표현이라는 것 모를 리 없겠는데 　우린 그를 ≪민생단≫으로 보고 있소.≫

≪무슨 근거로?≫

≪조선에 갔다왔으니 민족주의인 것이고 민족주의의 오류를 범했은즉 그거야 ≪민생단≫이 아니고 뭐겠소.≫

≪그게 동무의 생각이오?≫

≪그렇소. 나의 상급도 그렇게 보고 있소.≫

나는 김성도가 이런 대답을 하였을 때 그가 괘씸하다는 생각보다도 가련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이나 진리성도 없는 망발에 분노를 표시하고 쇠망치와 같이 드센 논리로 그 망발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할 그런 정황에서 분노와 경멸 대신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허황한 편견과 유치한 사고방식이 동만특위 순시원이라는 요란한 직급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더욱더 가련한 존재로 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육체적 불구에 정신적으로 불구까지 겹쳤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 색안경으로 밀정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애꾸눈을 가리우고 혁명을 위해 투신하는 그 기개야 물론 찬양받을 만한 것이지. 그 기개에 건전한 넋까지 담겨져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 저 사람의 정신은 저렇게도 참혹하게 병들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보다 음성을 더 낮추어 조용조용 그를 타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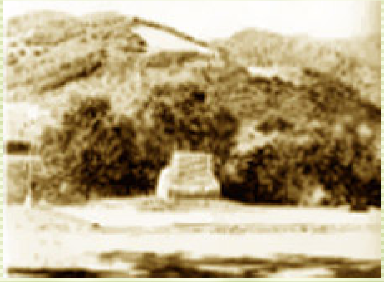
≪동무는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양자를 감히 한 천평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소. 박석윤이나 조병상, 전성호와 같은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민생단≫을 조직했다고 해서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는 것이야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삼단논법이 아니겠소. 내가 알기로는 동무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단체에 들었다가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동무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우면 납득이 가겠소? 어떻소?≫

김성도는 ≪그거야 어떻게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나는 그가 반성해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다가 조리 있게 설복을 계속하였다.

≪동무가 상부라고 한 것은 동장영서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나는 그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만일 동장영서기가 그런 실정을 잘 몰라서 일시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조선의 물정을 잘 아는 동무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가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김성도는 그 말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였다.



조국진군의
첫 발자욱을 남긴
타막골

체포당했던 2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나는 김성도가 가련하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숙반공작을 진두지휘하기 전까지 이론투쟁 때문에 여러 번 충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나 김성도가 ≪민생단≫숙청의 간판밑에 견실한 혁명가들을 무수히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더는 동정하지 않았다. 훗날 그 자신도 결국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되었다. 테러는 테러한테 망하고 좌경은 좌경의 심판대에서 죽는다는 것. 신념과 줏대가 없이 간에 붙었다 쓺에 붙었다 하는 사람에게 차례지는 운명은 자멸이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치는 동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초순에 마촌을 떠나 온성군 타막골 대안에 도착한 국내진출 대오는 솔골이라는 곳에 숙영지를 정하고 온성 땅에 침투한 선발대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가량 이 일대를 혁명화하여 반유격구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낮에는 송동산 서쪽 기슭에 가서 전투훈련을 하였고 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속에 지하조직을 꾸리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만주국의 말단 행정책임자들인 십가장, 백가장들과의 사업도 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혁명군대의 복무조례에 맞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때 솔골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어떤 대원들은 산에서 싸리나무를 해다가 주인집 울타리까지 고쳐주었다.

박영순의 회상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끼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이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에 생긴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중국사람인 주인집 노인 부처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도끼와 물초롱을 들고 두만강가로 나갔다. 이 지방 주민들은 겨울에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도끼나 곡괭이 같은 것으로 얼음을 깨고 구멍을 낸 다음 초롱에 물을 퍼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곧 음료수가 되었다.

나도 그런 얼음구멍을 내려고 도끼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얼음을 다 까내려갔을 때 그만 자루가 빠지면서 그 구멍속에 도끼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긴 장대기를 가지고 몇 시간동안 강바닥을 훑어보았으나 도끼는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나는 주인집 노인에게 도끼값을 후히 치러주고 재삼 사과하였다. 노인은 대장어른께서 새벽마다 자기네를 도와 물을 길어 주신 것만도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이 늙은 것이 힘이 없어서 혁명군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도끼값까지야 어떻게 받겠는가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지만 나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고장을 떠나가버리면 내가 대장으로서 혁명군의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노인에게 값을 넉넉히 치뤄주었지만 내 머리에서는 얼음 구멍에 빠진 그 도끼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갚아주어도 손때 묻은 연장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아쉬움이야 어떻게 가셔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59년 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갈 때 그들에게 양수천자의 그 노인을 만나면 나를 대신하여 사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답사단이 양수천자에 찾아갔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 노인은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일행이 선발대의 안내를 받으며 왕재산마루에 오른 것은 오후 4-5시경이였다.

그때 육읍지구에서 온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산능선과 이깔나무 수림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나는 애어린 참나무들이 빼곡이 서 있는 그 산마루에서 한참 동안 주변의 풍경을 부감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 고장의 일각은 3년도 되기 전에 옛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두루봉에서 국내당조직을 무을 때 볼 수 없었던 탕관의 버럭더미도 새로 생긴 풍경이였고 웅기(선봉)-온성선을 타고 달리는 열차 역시 1930년 가을이나 1931년 봄에는 볼 수 없었던 온성의 새 모습이였다.

산천과 함께 사람들도 성장하고 혁명도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고장을 다녀간 후 육읍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새로운 반일혁명조직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육읍지구의 투사들은 치안통치를 담당한 일본군부와 경찰수뇌들이 국경경비의 만전을 자랑하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혁명조직이라는 거대한 강철그물로 적의 통치기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우리의 무장투쟁도 성장하였다. 유격대 무력은 동만지방만 보더라도 대대급으로 발전하였다. 각 현에 있는 대대들은 오래지 않아 연대로도 되고 사단으로도 될 것이다. 유격전쟁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력은 남만에도 있고 북만에도 있다. 우리의 사단들과 군단들이 조국 땅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그날은 머지 않았다. 벌써 우리가 그 선견대로 이렇게 온성땅에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창덕학교시절에 외할아버지한테서 배운 남이장군의 한시를 입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다.

백두산석 마도진 (白頭山石 磨刀盡) **두만강수 음마무** (豆滿江水 飮馬無)
남아이십 미평국 (男兒二十 未平國) **후세수칭 대장부** (後世誰稱 大丈夫)

이 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된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외할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남이장군이 북관의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20대에 벌써 병조판서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주도 크거들랑 왜놈치는 대장이나 선봉장이 되라고 말씀해주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 장군이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크면 남이 장군처럼 외적을 치는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싸우리라고 결심하였다.

(남이 장군이 육진에 의거하여 북적을 막았다면 우리는 육읍의 반유격구에 의거하여 무장투쟁 국내로 깊이에로 확대하고 일제가 멸망할 함정을 파놓으리라!)

나는 왕재산마루에서도 이런 맹세를 다졌다.

왕재산에 모인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은 나에게 국내형편과 그 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

나는 육읍을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에서 항일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고무해주고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앞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이 반유격구 창설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는 그때 온성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의 여러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고 동시에 무성한 청림지대들에 비밀연락장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거점들을 마련함으로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쌓으려고 하였다.



왕재산회의장소를 찾으시어

왕재산 회의에서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과업과 대중운동과 당창건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국내 혁명조직들의 과업도 토의되었다.

유격대의 온성 진출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서막으로 되었으며 민족해방투쟁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 진출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임무이며 절대적인 권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념과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온성진출과 왕재산회의의 전 과정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할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과 간도와 육읍일대에 반유격구를 건설할 수 있는 주객관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왕재산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경원(새별)의 유다섬과 박석골, 종성군 신흥촌 금산봉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진출하여 회의도 하고 강습도 하고 정치공작도 하였다. 이 진출의 주요 목적은 국내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지하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배워주려는데 있었다.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혁명가들을 자주 만난 것은 그들을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사업방법으로 무장시켜 복잡한 실천투쟁을 용의주도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자는데 있었다. 국내 혁명조직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은 반유격구를 성과적으로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그 당시 우리가 파견한 지도핵심들은 국내 깊이에 침투하여 반일항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노조, 농조들에 뿌리를 뻗쳤으며 도처에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 일대에도 줄을 늘렸다.

육읍지구의 반유격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두만강 연안에 꾸려진 당조직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동만의 지도간부들은 반유격구건설에 관한 우리의 제안을 방침으로 채택하고 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명시하였다. 반유격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대하여 우경이라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비

평은 즉석에서 신랄한 반격에 부딪쳤다.

동만의 소비에트구역들에서는 1933년 봄부터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나자구, 다홍왜, 전각루, 양수천자 등 왕청지구와 연길, 훈춘, 안도, 화룡 지구의 넓은 지역에 반 유격구가 꾸려졌다. 이 시기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항일무장투쟁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완전유격구들 가운데서 방어하기에 불리한 일부 지역들도 반유격구로 전환하였다,

만주국이 내세운 툰장들 가운데는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자구 같은 곳은 시내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다 우리 세상이고 우리 편 사람들이었다.

반유격구 건설 경험과 그 노선의 정당성은 그 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유감없이 증명되었다.

반유격구라는 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1930년 후반기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백두산 일대를 개척할 때에도 우리는 혁명군이 주둔하는 곳들에만 밀영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적백을 가리지 않고 군중들속에 혁명조직을 박고 거기에 일군들을 파견하였다.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지 않고 적들이 이 지구를 주목하면 저 지구로 옮겨앉고 저 지구를 주목하면 또 다른 지구로 옮겨가곤 하였다. 그 사품에 정동철, 이훈, 이주익(이취)과 같은 애국구장, 애국백가장, 애국십가장, 애국면장, 애국순사, 애국자위단원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적의 하부말단 통치기관들에 똑똑한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많이 박아넣었다. 우리가 파견하지 않은 적잖은 하부말단 관리들까지도 혁명을 지지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낮에는 만주국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열성을 부리는 척 하였지만 해가 떨어지면 혁명군의 길 안내도 하고 낮에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혁명군 공작원들도 만나고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 수집도 하였다. 동만과 국내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해방지구의 군대와 인민들을 보호하며 거기에 수립될 인민의 정권과 민주주의적 시책의 열매들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위성들로 되었다.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가 진행된 곳

완전유격구 주변의 넓은 지역이 반유격구로 전환된 다음부터 항일유격대는 적구 깊이 침투하여 군중을 혁명화하고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들과 각종 대중조직들을 확대해나감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소극적인 방어전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격전에로 이행할 수 있었다. 항일전쟁을 주동적인 공격작전에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전을 타파하고 유격구생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식량 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반유격구의 건설은 적백구역의 설정으로써 많은 군중을 적의 편으로 밀어던지던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왕청지방의 반유격구들 둥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나자구와 양수천자였다.

나자구를 반유격구로 건설하는데서는 이광의 공로가 컸다. 이광은 나자구에 파견되어 반일부대 공작도 하고 독립군출신들과의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여 놓았다.



유다섬전경

나자구는 1920년대 초부터 이동휘일파가 독립운동의 주요기지로 개척한 고장이었다. 그때 이동휘를 따라다니며 독립군운동에 관계했던 영감들이 나자구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광은 그들을 통하여 이 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할 수 있었다.

나자구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려고 그때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이 이 지방에 많이 파견되어 갔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대오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나자구를 혁명화하는데서 큰 공헌을 한 최정화도 거기서 희생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지대장이었던 박길송과 최광은 그 당시 나자구에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적들이 이 고장에서 협화회나 협조회와 같은 악질적인 반동단체들을 조직하여 혁명세력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일회와 같은 큰 그릇의 대중조직들을 만들어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웠다. 나자구는 왕청의 혁명군중을 먹여 살리는 식량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에서는 식량사정이 곤란할 때마다 나자구 혁명조직에 사람을 파견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 나자구에서 혁명조직 성원들이 십리평 돌문 안까지 쌀을 등짐으로 지고 와서 왕청사람들에게 인계해주었다. 적들이 나자구를 점령한 조건에서도 해방지구들에서는 계속 그 고장의 쌀을 가져다 먹었다. 유격대가 해산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북만원정을 떠난 1953년 하반기부터 왕청현 내의 혁명가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나자구의 식량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의 ≪토벌≫을 피하여 한동안 나자구 서산에 가 있던 일부 혁명군중과 왕청 3중대 군인들도 이 지방 인민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을 소비하면서 1953년 가을과 겨울을 보냈다.

나자구가 이처럼 왕청혁명가들의 식량공급소와도 같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은 것은 거기가 원래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기장밥을 해먹인다는 비옥한 곡창지대라는데도 있었지만 그 지방 혁명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막히고 그 조직들이 일상적으로 대중교양을 잘하였기 때문이다.

나자구의 백호장 김용운은 만주국이 신임하는 말단행정 심부름꾼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조직원이었다. 그는 백호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혁명가들에 대한 방조를 많이 주었다.

적들은 유격대 공작원들의 성시침투를 막고 인민들이 혁명군과 내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반출을 가혹하게 통제하는 한편 청년들을 도시경비에 상시적으로 동원시켜 출입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게 되었다. 경비에 동원되는 청년들에게는 곤봉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그 곤봉은 만주국이 발급한 일종의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다.

혁명군이 나자구에 식량공작을 가는 날은 김용운이 일부러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청년들만 엄선하여 경비에 내보냈다. 식량공작을 담당한 사람들이 성시 주변에 나타나면 경비에 동원된 청년들은 그들에게 곤봉을 넘겨주고 마을에 달려가 백호장의 지휘밑에 쌀을 모아가지고 돌아와 식량공작원들에게 넘겨주곤 하였다.

나자구에서는 혁명조직 성원들이 위만군들을 구슬려서 수만 발의 탄알까지 뽑아냈다. 그 당시 나자구시내에는 혁명조직에서 운영하는 개인 상점이 있었다. 그 상점 주인은 오랜 공청일군이었는데 성시에서 혁명군에 보낼 원호물자를 자유롭게 뽑아내 가기 위하여 위만군 병사들과 결의형제까지 무었다.

돈에 환장한 어떤 만주국군인은 다른 지방에 가서 물건을 염가로 사다가 값을 몇배로 올려가지고 그 상점에 찾아와 자기 대신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군인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것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부득불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군인은 상점주인과 결의형제를 무은 다음 그에게 탄알까지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탄알 한 발에 25전씩 사서 혁명군에게 넘겨주었

는데 그 수량은 무려 5000여 발에 달하였다.

이것은 반유격구 건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는 왕청 남부지역에 창설된 양수천자반유격구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수천자의 혁명조직들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해방지구에서 쓸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때 쌀, 피복, 성냥, 약품, 화약, 소금 등 유격구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의 많은 몫을 온성과 양수천자의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유격구에서 제일 귀한 것은 소금이였다. 죽을 다섯 숟가락쯤 먹고는 인단알말한 소금을 한 알씩 깨물고 억지로 간을 맞추는 형편이였다. 적들은 그때 유격구에 사는 생명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식량과 소금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가을이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자리네가 관리하는 집단부락의 창고에 고스란히 가져다 넣게 하고 식구 수에 따라 하루동안 먹을 만한 식량만 내주었다. 농민들에게 식량의 예비가 생기면 그 식량이 곧 항일유격대나 유격근거지 인민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은 소금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집사대라는 소금경찰대까지 조직해가지고 가옥들에 대한 수색을 무시로 하였다. 된장, 간장이 조금만 많아도 세금을 부과시키고 ≪볼기채≫라고 부르는 세모난 나무몽둥이로 무섭게 후려갈겼다. 우리는 1934년 가을에 근거지의 소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중대 성원 30여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군민들과 아동들로 구성된 공작대를 양수천자에 파견하고 거기에 말들까지 따라보냈다. 왕청에서 양수천자까지는 왕복 200리 길이였다. 사전에 우리의 통지를 받은 양수천자의 혁명조직에서는 온성 지하혁명조직과 남양운송부를 통해 넘겨받은 많은 양의 소금을 두만강변에 쌓아놓고 공작대를 맞이하였다. 공작대는 말 한 필에 소금가마니를 두세 짝씩 얹어가지고 셋째섬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머지 소금을 한 사람당 20-30킬로그램씩 등짐으로 져서 유격근거지까지 날라왔다. 일부 소금은 나자구에 가서 밀가루와 바꾸어왔다.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때 주변나무에 쓴 구호

양수천자 조직이 우리에게 보내준 후방물자는 대부분 온성을 비롯한 육읍지구에서 넘어온 것이였다. 그곳 인민들은 우리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 많은 몫을 도문과 용정 일대에서 해결하여 보내곤 하였다. 적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한 국내에서는 일용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 국내 조직들은 도문이나 용정같은 상업지구들에 슬슬 건너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두었다가 제정된 통로를 통하여 항일근거지들에 보내주었다.

도문과 용정은 사실상 우리의 후방을 담당한 믿음직한 근거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문이나 용정이나 백초구와 같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조밀하게 박혀있는 고장들은 함부로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이 백초구를 한 번 들이친 일이 있었는데 그 습격전투가 있은 직후 이광의 아버지가 연통해오기를 민족적 양심이 있는 부자들을 통일전선에 끌어들여야 하겠는데 그들이 몹시 놀랐기 때문에 후과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백초구와 같은 고장을 치지 않았다. 왕청과 그밖의 해방지구 군민들을 먹여 살리는데서 육읍 일대의 반유격구는 실로 역사책에 대서특필해야 할 공적을 쌓아올렸다. 우리는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 외에도 적통치구역에서 유격대의 군사정치활동과 연락을 보장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거점들을 무수히 꾸려놓았다. 지하혁명조직들과 연락소들로 이루어진 이 활동거점들은 기동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띠는 유격근거지의 한 형태로서 용정, 훈춘, 도문, 노두구, 백초구를 비롯한 적 통치지역의 큰 도시들과 철도 연선지대들에 많이 꾸려졌다. 간도와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

을 회상할 때마다 내 추억속에 가장 뚜렷이 떠오른 인물은 오중화이다.

서대문 형무소를 출옥하기 바쁘게 북행열차에 몸을 실은 그는 도문에 건너오자 회막동 근처에 있는 처갓집에서 며칠간 정양을 하고는 인차 석현으로 돌아와 나를 찾아왔다. 오중화가 감옥살이를 끝내고 왕청으로 돌아온 것은 남북만 원정을 마치고 유격구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고 위안으로 되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바쁘게 큼직한 과업을 하나 맡겨 달라고 하였다. 병색이 짙은 얼굴을 보아서는 몇 달 정양을 더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일거리를 달라고 자꾸 간청하는 바람에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하였다.


유격구의 나날처럼 오태희노인의 집을 찾으시어

오중화가 속해 있는 제5구는 양수천자, 도문, 연길, 백초구, 대두천 등 적의 주요 토벌거점들과 잇닿아 있었고 가야허에는 일본영사관 경찰분서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1933년 정월초 류재구가 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 후에는 사수평이 두 차례나 토벌을 당하였다. 오중화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 나왔으나 적의 꼬리가 계속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업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중화에게 가야허주변의 일부 지역들을 반유격구로 꾸려보라고 한 것은 그 지역들이 적의 군사요충지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또 적의 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업이었으나 나는 오중화를 믿었다.

1930년 가을의 첫 상봉 때 그는 벌써 나에게 지울 수 없는 믿음을 남겼다. 그때 나는 오중화의 집에서 그와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담화를 끝내고 밖에 나오니 울타리 밖에 억대우 같은 청년들이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서 있었다. 동구 밖에도 그런 청년들이 여러 명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오중화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풍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사업능력과 혁명가다운 수완은 군중을 끄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중화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이발기를 하나 갖추어놓고 가위계라는 조직부터 먼저 내온 다음 거기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다 망라시켰다. 그 당시 일반 이발소의 이발요금은 15전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5전씩 받았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는 계에 망라된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었다. 사람들은 눅은 값으로 이발을 하고 책을 보는 멋에 계에 열심히 모여들었다. 오중화는 그런 틈을 타서 계원들을 교양하였다. 가위계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을 초보적으로 계몽시킨 다음 이전날의 동창회, 학우회, 친목회 등 계몽단체들을 통합하여 영동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친목회는 돈화와 할바령, 동쪽 지구인 연길, 훈춘, 화룡, 왕청 일대 청년학생들의 합법적 조직이었다.

오중화는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연극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가 직접 각본을 쓰면 한 개 분대도 넘는 4촌들이 달라붙어 배역도 나누고 장치도 만들고 저희들끼리 연출도 하여 미끈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군중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놓고는 자기 가문 사람들로부터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다 조직성원으로 흡수하였다. 겨울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에는 강상준, 조창덕, 유세룡 등과 함께 항일유격대 결성준비 작업의 중요고리의 하나인 무기획득 공작에 참가하였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취해낸 무기들은 최인준, 한흥권, 강상준, 김은식 등의 투사들이 망라되어 있는 별동대원들을 무장시키

는데 큰 밑천으로 되었다. 오중화는 우리의 의도에 맞게 적의 1차 공격목표로 지목되어 있는 5구의 일부 지역을 반유격구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는 적 통치구역에 활동거점을 꾸리는 과업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도문의 천일인쇄소는 그가 꾸려놓은 중요한 활동거점으로서 혁명군의 귀와 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적들은 오중화와 그의 가문을 눈에 든 가시처럼 보고 그 일족을 멸살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렸다. 1933년 봄에 유격대의 한 소조는 용정영사관에서 석현경찰서에 보내는 비밀문건을 압수하였다. 그것은 오씨일가를 전멸시키라는 살인지령서였다.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유격대를 출동시켜 구제공작을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31명이나 되는 오씨네 식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십리평으로 소개시켰다.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투지를 가지고 단거리 육상선수와도 같이 숨가쁜 속도로 일생을 줄달음쳐 살아오던 오중화는 1933년 여름 북봉오돈의 비밀아지트에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체포현장에서 무참히 그를 살해하였다. 오중화가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마쳤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목격한 증견자는 없다. 그와 그의 동료들을 처형한 살인마들만이 그것을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고 학살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오중화

오태희노인이 주먹을 부르쥐고 십리평에서 북봉오동으로 뛰어갔을 때 오중화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비밀아지트 주변에 눈을 뜬 채 쓰러져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아직 채 꺼지지 않은 그 눈동자에는 그가 살아서 그렇게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자주 쳐다보던 유격구의 푸른 하늘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입만은 생시보다 더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오태희노인은 그 입매만 보고서도 아들이 조직의 비밀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장해서 노인은 더 슬프게 울었다. 세상에 태어나 34해밖에 살지 못한 아들이였지만 그 아들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오래 산다고 더 큰 낙을 누린다는 법이야 없지. 그렇지만 아들아. 너는 너무도 일찍이 이 애비의 곁을 하직하였구나. 너를 그렇게도 아끼는 **김일성**장군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그때 노인은 아들이 시체를 부둥켜안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오중화가 학살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평소에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도 많은 걸음을 걷고 그렇게도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불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이다지도 조용히 가버릴 수 있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오중화의 곁에는 그를 바래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대지 위에 쓰러졌다. 그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 반유격구건설도 끝났으니 또 새로운 과업을 맡고 싶었노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오중화가 살아 있었더라면 나는 그에게 더 큰 중책을 맡겼을 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의 윤리에서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이 최대의 사랑이고 최고의 믿음이다. 우리 혁명은 간도 일각에서 만사람의 총애를 받던 또 한 명의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인민에게는 긍지를 주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성실하고 강직한 동량지재를 잃었다. 그것은 동만 땅에서 노도치며 전진해가는 우리 혁명의 앙양을 위해 정녕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 그러나 오중화는 그 장렬한 죽음으로써 군중을 각성시키고 궐기시켰다. 그는 희생되었지만 그가 피로 적시고 간 반유격구들에서는 항일대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왕재산 기념비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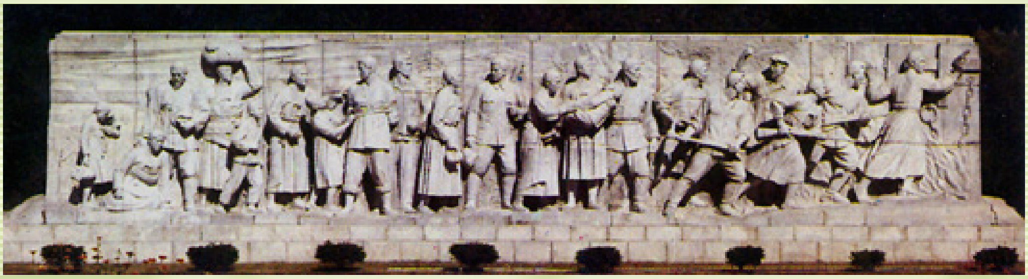
왕재산혁명사적지 – 원호 편


왕재산 혁명사적지 – 타말골 도강장소


타말골 혁명사적비 – 불멸의 자욱이여 길이 빛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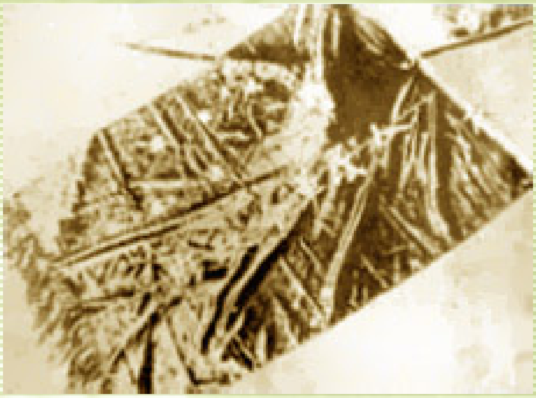

왕재산혁명사적지 – 송가상1


왕재산혁명사적지 – 송가상2


왕재산혁명사적지 – 피바다상


왕재산혁명사적지 – 전투 편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깃발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건설 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 편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소부르주아적 조급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건설노선과 소비에트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었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ㅌ·ㄷ≫시절부터 우리의 논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권 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 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 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이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정권 문제가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거리로 되었던 것은 길림시절이였다. 길림의 정치무대에서 독립 후의 국가 형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때란 거의 없었다. 3부 계통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왕조정치나 부르주아공화제를 주장하며 기염을 토할 때 김찬, 안광천, 신일용과 같은 구공산당 계열의 정객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르짖었다.

박소심도 고전의 명제에 집착되어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운운하였다. 그는 노농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지지하면서도 독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머리를 내저었다.

길림청년들은 그 준비정도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왕조정치를 지지하기도 하고 부르조아공화제에 미련을 가지는가 하면 쏘련식 사회주의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혁, 차광수, 계영춘, 신영근과 같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군영감들이 왕조복귀를 운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을 내였다. 즉시적인 사회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던 청년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 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우리는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 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

조정치나 부르주아의회제 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 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의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정권 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 것이였다.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혁명에서는 정권건설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자면 그 영역 내의 인민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구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도 없었고 그들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역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 들어섰다. 그 해 10월 혁명기념일을 계기로 왕청현 가야허에서는 군중대회를 열고 소비에트정부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 왕우구와 삼도만에서도 소비에트가 수립되었다. 유격구역에 혁명정권이 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주는 의의 있는 사변이였다.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소비에트열풍≫이 온 동만 땅을 휩쓸던 때였다.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유행되고 전파되었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시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소비에트와 월남의 느구엔-딘 소비에트의 수립은 그 좋은 예증이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노농소비에트정권을 논하였다.

국제당 본부에 가 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 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군들(꾸우씨넨, 마지야르, 오까노)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독립과 함께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국가 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소비에트노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 입장과 기회주의적 입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 조직들에서도 소비에트정권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소비에트는 전세계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소비에트가 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은 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꾸어온 염원이고 이상이었다.

러시아에 수립된 청소한 소비에트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 연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루어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소비에트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행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지에까지 떠밀어가게 하였다.

인류가 쏘련을 등대로 바라보고 소비에트를 모든 정권 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무리가 아니였다. 쏘련과의 접경지대였고 또 신생 쏘련의 영향을 이모저모로 많이 받고 있던 강조지방에서 소비에트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남북만원정을 마리고 왕청에 돌아온 나는 소비에트의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유격구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무심히 스치고 지나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두서없는 뒷소리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곧 간파하게 되었다.

나는 유격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민들이 소비에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요해하기 시작했다. 수십수백 명의 인민들과의 부단한 접촉, 그들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담화는 나로 하여금 소비에트정권이 빚어놓은 좌경적 시책의 후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유격구사람들이 소비에트를 시답잖게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 철폐를 선포하고 토지와 식량으로부터 낫, 호미, 걸이대와 같은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동산, 부동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어버린 때부터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재산의 공유화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다음 유격구 안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생활,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새로운 질서밑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에트 급진론자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던 ≪아르쩰리≫생활이라는 것이었다.

유치원생이 소학, 중학, 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직행한 셈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또한 큰 지주, 작은 지주, 친일지주, 반일지주를 가리지 않고 유격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주들과 부농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으며 마소와 양식까지도 일률적으로 수탈하였다.

동만땅이 소위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분리된 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구역에 남은 지주들은 대체로 반일감정이 강한 애국적인 지주들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왕청골 안에서 무장대오를 꾸릴 때 그들은 유격대에 대한 후원도 잘하였다.

그런 지주들 가운데 장시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적인 중국인 지주도 있었다. 1932년 봄의 대≪토벌≫ 때 간도임시파견대는 그의 집 쌀창고까지 불태워버렸다. ≪토벌대≫가 총대를 휘두르며 강제철거령을 내렸지만 장시명은 그때 대두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한 장지주의 원한은 그 봄부터 더 깊어졌다. 그는 지주였지만 유격구 사람들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었다.

≪유격구 어른들, 나는 왜놈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 골 안에 그냥 남은 사람이웨다. 저 악귀 같은 놈들을 대두천시내에서만이라도 좀 몰아내주시우다!≫

유격대원들이 모연공작을 가면 장시명은 이런 부탁을 하였다.

유격구 인민들은 그 지주와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소비에트정권은 이 지주마저 적구로 쫓아버렸다. 장시명이 유격구역에서 내려가지 않게 사정을 봐 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소비에트는 그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소비에트정권은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되었다. 당신이 반일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지난날 유격구사업을 잘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착취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숙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고장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반일지주에게 내린 소비에트의 선고였다.


소왕청일대전경

혁명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던 장시명의 재산은 즉석에서 수탈되어 소비에트정부가 관할하는 창고로 모조리 들어갔다. 알몸이 된 장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두천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숙청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주들의 장궤속에 있는 아이들이 꽃신까지도 다 털어갔다. 중국사람들한테는 집에 여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커서 시집간 다음 날을 어린애에게 신길 신발까지 미리 다 만들어두는 재미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신발을 꽃신이라고 하였다. 돌전 애기 것부터 시작하여 한 살, 두 살 올라가면서 문수가 다른 꽃신들을 연방 만들어 장궤속에 간수해두곤 하였는데 그런 신발 가운데는 골무만치 작은 것도 있었다.

이런 신들까지도 다 수탈해 갔으니 그것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이 유격구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소왕청골 안에는 유산자들한테서 몰수한 마소가 우글우글하였다. 어지간한 목장을 꾸리고도 남을만한 양이어서 근거지의 청년들은 누구나 다 말을 타고 다녔다. 소비에트 치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멋이라면 멋이었다.

좌경분자들은 중국 여자들이 전족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까지 투쟁대상으로 삼았다.

1930년대 전반기는 동만지방에서 좌경의 전성기였고 좌경의 전횡속에서 신성한 혁명적 원칙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어떻게 되어 좌경바람이 이처럼 동만땅을 휩쓸 수 있었던가. 간도의 유격구역에 모여 있던 혁명가들이 모두 망종이었거나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유격구를 다스리던 절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숭고한 혁명적 이상과 따뜻한 의리를 지닌 훌륭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의로운 것을 열렬히 지향했다. 그런데 그처럼 인정에 무르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좌경노선의 제창자, 집행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원인을 노선에서 찾았고 그 노선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상적 미숙성에서 찾았다.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고전의 일반적 원칙과 선행자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현실성이 없는 지령들을 마구 만들어 내려보내다나니 실천상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 닥치는 대로 청산하고 타도하고 매장하는 것이 가장 철저

한 계급성으로 인정되고 가장 선봉적인 혁명가의 표징으로 평가될 때였다.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되었으면 왕청농민들이 한때 과부가 길쌈을 해서 벌어 얼마간 변돈을 놓은 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조종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이응만 중대장이 무장대로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초기에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에 노동자 출신들과 빈고농 출신들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응만이네 집에는 1만 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 평 때문에 그는 빈고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 평이면 중농이라는 것이다.

이응만은 고심 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주었다. 이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평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다.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에야 일생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시절의 체험은 해방 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 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탱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 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겼다. 많은 가정들이 소비에트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2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솔가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 수 있으니 밤시간을 택한 것이다. 식구는 다섯이나 되었는데 짐짝들을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셋이 올망졸망 달려 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총멘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 지휘관한테 발각되었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댁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세 아이를 한 아이, 한 아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 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텐데.≫

≪우리가 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 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을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일구

어 연명을 해갈가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 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내일의 생계조차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토도 되지 않고 풀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차비새가 돼 있습니까?≫

≪있기는 뭣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력이 진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그저 그런 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막 귀찮습니다.≫



최인준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세 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고 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달았을까? 소비에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 것이였다.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 터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노상에서 만나 그 가족을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 2중대 병실에 가서 자려던 예정계획을 변경시켜 서대파에 있는 최자익노인을 찾아갔다. 이왕 가슴아픈 일을 당한 바에는 유격구의 민심이 어떤지 더 속속들이 캐고 들려는 것이였다. 최자익은 왕청별동대의 대원으로 유격대 생활을 시작한 후 중대장을 거쳐 독립여단 연대장으로까지 승진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한 최인준의 아버지인데 내가 셋째섬에 올 때마다 꼭꼭 잊지 않고 만나곤 하는 노인이다.

이 노인이 서일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서기까지 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식견이 높은 데다가 성미가 활달하고 솔직하여 만나기만 하면 참고가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노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의 인사에 최자익은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하는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퉁명스러운 어조가 유격구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노인님, 유격구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최자익은 그런 질문을 받자 언성을 높여 벌컥 화를 내었다.

≪소비에트정부에서 역축과 농쟁기를 거둬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도 농업집단화라는 걸 할 때 그런 놀음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는다고 짐작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거둬가는 걸 보고서는 침을 뱉았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식사 때문에 하루 세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갔다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살겠다. 꼼무나인지 아르쩰리인지 그런 귀신단지 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 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 가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이번에는 봉건숙청이요 뭐요 하고 노인들을 군중대회장에 내다놓고 며느리들한테 비

판을 시키지 않겠나. 우리 나라 역사가 자그만치 5천 년이라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인준인 그래두 나보고 소비에트를 비방하면 안된다구 야단질이 아니오. 그래서 내 그 녀석의 사등뼈를 꺾어 놓으려구 했네.≫

유격대 지휘관의 아버지가 소비에트의 시책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면 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더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었다.



1933년 5월에 썼던 논문을 정리하여 발표한 소책자

나는 그 후 유격구에서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던 공포시기와 유격구의 해산을 앞두고 군대와 인민이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쓸쓸한 나날에 이 노인을 만났을 때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시국을 통탄하던 그의 하소연을 자주 회상하였다.

소비에트정부가 수립된 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중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 지주들이었던 것만큼 5.30폭동 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부대들은 이전 날처럼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군대와 만주국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지주도 적이 되었다.

항일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유격대처럼 남의 집 뒷골방에 숨어 있던 창건 초기의 처지와 꼭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사람들이 사는 부락에 조심스레 배겨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 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빵즈≫라고 답새겼다. 유격대의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해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러시아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사람들 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은 혁명을 할 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동무 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다른 중국동무 한 명은 쏘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동만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정방침에 수정을 가할 만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우경의 모자를 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일어나 혼란한 시국을 평정하고 유격구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면 소비에트좌경노선에 맞설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테제가 필요하였다. 내가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논문을 소책자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나는 정권건설 문제를 가지고 마촌에서 동장영과 논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런데 이용국현당서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였다. ≪소비에트 건설사업 대강에 관한 동만특위의 결의≫가 이미 하달되었고 또 사수평에 소비에트정부도 수립된 것만큼 아무리 논쟁을 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었고 논쟁이 잘못 번지면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백룡이 소비에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경분자로 몰리던 사건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김백룡은 북만에서 한때 현위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간도지방에서 소비에트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소비에트정부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 5구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소비에트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소비에트를 내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경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만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었다.

이용국이 나에게 김백룡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아는 영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룡은 거기서 구당서기로 공작하고 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룡은 소비에트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가 우경투항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씁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노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정부들이 유격구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김백룡은 ≪그 이유란 간단한 겁니다. 가야허에 가 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소비에트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 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인민들이 소비에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구 소비에트 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허의 노인들은 소비에트를 속새포와 혼돈하고 있었다.

≪소비에트가 나온다 하기에 왜놈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속새포가 나오는가부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속새포는 안 나오고 붉은기가 나옵디다 그려.≫

그 노인들의 말이었다.

왕청 2구 소비에트창립행사에 참가한 마촌사람들 가운데는 소비에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소비에트가 어떻게 생긴 겐지 잘 보고 오게. 큰 겐지 작은 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소비에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 것은 무식이 빚어낸 응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 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로서 ≪소비에트란 무엇인가?≫, ≪콜호즈란 무엇인가?≫, ≪코뮌이란 무엇인가?≫하는 따위의 것들이였는데 소비에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노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청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영을 정권형태 문제에 대한 논쟁에로 끌어들였다.

≪간도 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영동지, 나는 이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데 대한 노선을 내세우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 년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습니다. 그 군중들속에는 애국적인 종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조중인민들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동장영은 웃으면서 내 팔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 것을 죄다 해결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군중은 소비에트정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낼 게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소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폭동을 계기로 저락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낙관적으로 대하는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 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 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낳고 있는 정권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 소비에트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의 노선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었다.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의 고집하면서 소비에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 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이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동지는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소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형태는 코뮌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동지, 프랑스노동계급이 코뮌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의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영을 만난 후 나는 이용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소비에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충복들인 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현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무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인민이라는 범주속에는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 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

나는 통일전선적 정부를 세우되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역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권건설노선이다. 가결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지방에 적합한 정권형태로 인민혁명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 이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 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 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 5구에 내려가서 이용국, 김명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다니촌에서 진행되었다. 그날은 모쁘르기념일이었다. 모쁘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약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 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소비에트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소비에트정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가량되는 가야허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 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소비에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 것이라는데 대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주시고 인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노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소비에트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주었다. 몰수 후 파손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양성룡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은 그 해 봄 분여받은 땅에서 밭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현당 서기 이용국의 모습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춤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춤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오?≫

이용국은 두 볼에 흘러내린 눈물자국을 씻을 염도 없이 한숨을 무섭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소. 왕청 사람들이 좌경 때문에 고통을 받은게 다 나 때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이 고장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란 말이오.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야 **김**대장이 아니오.≫

≪우리 인민은 인정이 무른 대범한 인민이오.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동무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이제는 우리 다같이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껏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소.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었소.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소.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소.≫

이용국은 내 손을 그러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 수 없었다. 동만특위가 그를 현당 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특위에서는 이용국이 원래부터 엠엘파라고 하면서 왕청현당이 소비에트노선 집행에서 극도의 좌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 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이용국이 엠엘파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던 그를 동만특위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엠엘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였을 뿐이다. 극좌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서기 한 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 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였다. 이용국에게 철직책벌을 적용한다면 소비에트노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주어야 하는가.

이용국이 ≪민생단≫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종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의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나자구에 가 있을 때 이용국은 끝내 ≪반혁명분자≫라는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 때 체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간 연해주에서 이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땅에 돌아와 태풍속에 몸을 내던졌다. 이처럼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 민생단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얼마 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파견원동지의 참석하에 노선전환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문제와 관련된 기본발언을 **김일성**동지에게 부탁합니다.≫

그 해 여름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노선전환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동만지방에 온 국제당파견원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부로서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내놓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 안에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안은 국제당의 새로운 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국제당 파견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심각한 논전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날짜를 끌며 여러 날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기초하여 소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를 개편하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들에서 소비에트노선의 좌경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가 있을 후 동만지방의 모든 소비에트들은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었다.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 형태로 농민위원회를 내오고 점차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사유재산 철폐의 명목밑에 몰수하여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혁명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보상해주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가야허에서의 인민혁명정부 수립과 노선전환 회의를 계기로 하여 동만 각 현의 혁명조직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출현하였다. 구인민혁명정부들에는 회장, 부회장, 9-11명의 집행위원을 두었으며 토지부, 군사부, 경제부, 식량부, 통신부, 의료부 등의 부서들을 두었다.

이것이 해방 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원형이었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 안의 모든 곳에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채벌노동과 유벌노동, 숯구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중 500여 명은 2구 소재지인 셋째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 명은 방초령에서 마촌으로 넘어가는 영밑에서 노동하였는데 8시간 노동제의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종전의 2배나 되는 노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 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표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친화목재소의 일본인 소장과 중국인 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채벌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 대에 1원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이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 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냈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몰인정과 수탈의 상징으로 되었던 소비에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케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었다. 좌경적인 소비에트 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녔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낭랑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었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천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채사령부대가 소왕청에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4. 국제당 파견원


국제당파견원
이기동(반경유)

우리가 유격근거지에서 좌경과의 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던 1933년 4월경에 동장영은 다부산자 차림을 한 중년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퍽이나 점잖고 세련된 중년의 그 사나이는 나를 보자 멀리서부터 미소를 짓고 인사의 표식으로 머리 위에 한쪽 손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내가 알고 있는 구면 손님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만큼 다가오는 사나이의 눈동자는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보니 구면은 아니었다. 이상한 일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알지 못한 손님이 어째서인지 구면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도 웃으면서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이 수수께끼같은 손님이 바로 국제당 파견원(순시원) 반성위였다. 반이란 성이고 성위는 이름이 아니라 만주성 당위원이란 직책을 이르는 약어였다. 위증민을 로위라고 부르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로판이라고 불렀다. ≪판≫은 ≪반≫의 중국식 발음이다. 중국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성앞에 ≪로≫자를 붙이는 좋은 예절을 가지고 있었다. 반성위를 본명대로 이기동이라고 부르거나 반경유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성위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혁명가였고 당활동가였다.

나에게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것은 왕윤성이었다. 9.18사변후 반성위가 영안현당 서기로 공작할 때 왕윤성은 그밑에서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가 영안현당에서 선전위원의 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은 것도 반성위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반성위는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중국의 무창폭동과 북벌전쟁에도 참가하였고 쏘련에 가서 공부도 한 바 있는 능력있는 노간부라는 것이었다. 한때는 수녕중심현위 서기로도 활약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반성위의 인간미와 예리한 통찰력에 매혹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의 존경심은 보통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접에서 반성위와 같은 우수한 혁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 후에는 최성숙, 조동욱이 북만에서 나와 또 반성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최성숙은 자기를 왕청에 가라고 추동한 사람이 반성위였다고 하면서 그의 지도밑에 영안시가에서 5.1절 시위를 하던 때의 일을 재미나게 말해주었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자연히 왕윤성과 최성숙에 대한 이야기에 적잖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다.

≪영안에서 온 최성숙동무가 잘 있습니까?≫

우리의 대화는 반성위의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성위의 특출한 장점이라고 하던 최성숙의 말이 되살아 오르며 새삼스럽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건강합니다. 북만에서 오자마자 대왕청소비에트 대표로 선출되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소왕청구부녀부 위원으로 선거되어 부녀회사업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무가 여기 와서도 말을 탑니까?≫

≪탄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 들어가서 기병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승마기술



최성숙

입니다. 아주 담차고 이악한 처녀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왕청 사람들이 호박을 잡은 셈이구만요. 북만에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그의 가족들이 북만에 있지만 나는 그를

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만주지방 혁명투쟁의 중심이야

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고 싶거든 왕청에

거기엔 인민의 세상으로 된 근거지가 있다. 나도 간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는 반성위가 동만지방을 조선혁명의 기본적인 책원지라고 평가하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유격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경망동적인 사태를 목격하게 되면 그가 간도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반성위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 같은 것은 아직 미지수나 다름없었다. 반성위가 정치적 시야가 넓고 투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무조건 좌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는 법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반성위에 대한 왕윤성과 최성숙의 평가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은 반성위가 아랫사람들을 대하는데서 절대로 편견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과 주견을 가지고 매사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노숙한 일군이라는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반성위에 대한 나의 첫 인상도 무척 좋았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풋인사나 하고 그쳤다.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나서 본격적인 담화를 나누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다. 국제당 손님은 시간을 잘못 선택한 셈이었으니 나는 부대를 데리고 파도식으로 달려드는 수천 명의 ≪토벌군≫ 무력을 격퇴하기 위하여 전투장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부대를 따라 전투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허술한 총이나 한자루 주시오.≫

반성위는 동만에 왔다가 싸움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 국제당 파견원으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고 일생 후회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니 하루동안의 참군이야 허락하지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대열을 따라오려고 하였다.

≪반동지, 총알은 국제당 파견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싸움구경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 오늘은 노독이나 푸시지요.≫

나는 반성위를 설복시키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적들은 소왕청유격구를 삼면으로 포위하고 연 3일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우리는 완강한 방어전으로 그 공격을 견제하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토벌군≫은 그때 관문라자(돌문안) 방향과 뾰족산 방향에서 봄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히 유격구로 기어들었다가 자기편끼리 맞불질을 하는 희비극까지 연출하였다. 이 망원 전투가 한동안 소왕청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반성위도 그 소식을 듣고는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왕청 사람들에게서 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국제당
제7차대회
회의장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국제당의 시정방침으로 보고 국제당의 명령일하에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하는 사람들은 로판이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출현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제창하는 사람들에게 우경의 딱지를 붙이고 그들이 다시는 정권형태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노선을 좌경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민혁명정부노선에 의한 새 형태의 정권수립을 부단히 추구해온 사람들은 소비에트를 반대해온 자기들의 입장이 로판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에게 국제당의 명의로 되는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반성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반성위의 출현이 소비에트노선으로부터 방금 해탈하기 시작한 유격구의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

전자가 미리부터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있었다면 후자는 마음속으로 패배의 비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양자가 다같이 국제당의 권위와 권한을 절대시한 데 있었다. 한 당의 파산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범죄를 심판할 수도 잇는 국제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제적인 ≪대법원≫과 같이 어머어마한 존재였다. 그들은 국제당이 한 혁명가의 운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간주하였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를 긴장시켰다. 나도 역시 팽팽하게 긴장된 그 공기를 매순간마다 감촉했다.

국제당의 의사와 맞지 않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소비에트노선에 대치시키고 소비에트의 시책을 좌경망동이라고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자못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였다.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울고 있는 동만 땅에 국제당이 파견원을 보내준 것은 혁명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에트노선과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서로 대치되어 제가끔 자기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시점에서 반성위의 출현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게 될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였다.

국제당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담보는 아직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국제당과 만주성위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에게 유격근거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령들을 연발하는데 대하여 그에게 항의를 들이댈 결심도 서 있었고 그와 함께 소비에트노선 집행과 반≪민생단≫투쟁 과정에서 발로되고 있는 극좌적인 경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론투쟁까지 하리라는 각오도 가지고 있었다. 처벌이나 그 무슨 제재조치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결판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불평을 가진 일부 동무들이 동만의 사태를 수습해 달라는 신소편지를 써서 국제당에 보낸 것 같았다. 국제당에서 그 편지들을 검토하고 동만지방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니 조선사람인 반성위가 나가서 일을 수습하라고 하였던 모양이다. 훗날 반성위 자신도 국제당에 그런 신소청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소왕청방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반성위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첫 상봉의 날보다는 얼굴빛이 밝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무거운 시름거리를 안고 그것을 묵새기기 위해 애쓰는 듯한 파견원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가 마침내 정치철학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준엄한 현실생활의 십자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보매 그는 동장영과 무슨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충돌한 것 같았다.

나는 마촌에서 제일 큰 이치백노인네 집에 반성위의 숙소를 정해준 그 집 윗방에서 열흘 남짓하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성위는 중국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중어로 말하는 바람에 나도 자연히 중어로 그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는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나누었다. 낮에는 내가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반성위도 낮이면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요해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객지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남의 집 윗방살이라는 것이 비록 불편스러운 점은 있지만 손님들 사이를 얼마나 친밀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처럼 친밀할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구수하고 흥미진진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나와 반성위도 그 열흘 사이에 서로 생살이라도 떼줄 만치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반성위는 나보다 나이가 20여 살이나 더 든 투쟁경험이 풍부하고 노숙한 혁명가였지만 틀을 차리거나 연령의 격차로부터 오는 거리감을 조금도 두지 않고 나와 동지 대 동지로서 허심탄회하게 열정적으로 담화를 하였다.

처음에는 혁명실천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화제를 떠나서 각자의 자서전이 소개되었다. 내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면 반성위가 자기 경력을 연달아 공개하였다. 그 다음은 엇바꾸어가며 그 일생기를 보충하든가 감상을 발표하였는데 밤이 지새는 줄도 몰랐다.

반성위는 내가 20살도 되기 전에 네 번이나 붙잡혔으며 감옥생활도 했다는 말을 듣고 사뭇 신기해 하였다.

≪그러나 감옥살이를 하는데서는 **김**동무가 나보다 선배인 셈이구만.≫

그는 자기도 하얼빈에서 감옥밥을 좀 먹었는데 5.1절 대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하여 영안현당은 풍지박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주국 관헌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일본군의 ≪토벌≫에 조직들은 다 파괴되고 당원들과 핵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반성위는 그것을 당대열이 급격히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적극화되는 과정에 자기네 머리를 병들게 한 현훈증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 대신 5.

1절 시위의 교훈이 김해산, 이광림을 대장으로 하는 영안유격대 창건의 정치적 동기로 되었다는 것만은 그도 인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좀 맞고서야 우리 시위가 서투르게 조직된 철늦은 시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소. 조직들을 더 깊이 지하에 들여보내고 무장투쟁을 해야 할 때 글쎄 현성거리에서 당원들까지 내세워 시위를 조직하다니 ≫

반성위는 그 시위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곤 하였다. 그리고나서는 우리가 길회선 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조직했던 시위투쟁을 연방 격찬하였다. 그는 남들의 업적앞에서 공정하고 대범한 반면에 자기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하든가 지나치게 허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형의 사나이었다.

≪며칠 전에 생일 스물한 돌을 맞이했다면 내 나이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감옥생활에서도 선배라고 해야겠지만 총적인 인생에서도 **김**동무는 내 선배라고 해야겠소.≫

반성위가 내 경력을 다 듣고나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가 선배라는 말을 자꾸 하는 바람에 쑥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반동지, 그렇게 자꾸 추어올리는 말씀만 하다가 젊은 사람을 아예 병신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반성위는 러시아 사람들 식으로 두 팔을 쩍 벌이고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김**동무는 평가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상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 사람이오. 나이 43살이면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남들에게 선을 보일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야단이 아니오.≫

≪너무 겸손한 말씀입니다. 반동지의 생애에서는 남방의 폭양도 있고 북방의 폭설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자기를 허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40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좋은 시절이 다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비판을 해도 반성위는 그것을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남방에서의 활동을 제껴놓고라도 북만에서 영안현위와 수녕중심현위의 서기직을 역임하고 영안유격대 조직의 산파역까지 감당해온 그의 공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녕중심현위란 목릉, 영안, 동녕, 밀산 등의 현위들을 통합하여 내온 규모가 상당히 큰 현위였다. 한때는 반성위가 국제당과 만주성위 사이에서 중간연락기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동국의 지도간부로 영전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그 소문이 비록 실천적으로 결실을 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국제당이 그를 소환하여 동만 지방 사업을 지도검열하는 파견원으로 보낸 것만 보아도 그가 신망있는 일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는 자기 소개의 경지로부터 상호관심사로 되는 현행 정치문제에 대한 실정의 통보와 의견교환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한 것은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국제당연락소일군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담화를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나는 반성위에게 국제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국제당 노선과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국제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참모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제당은 지난 기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민테른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앙집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당 규약과 노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동지, 이거 버릇없는 태도라고 나무라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제당의 처사를 두고 좀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반성위의 얼굴 표정을 순간에 긴장시켰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혹시 무슨 의견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오?≫

≪글쎄요. 의견이랄지 불만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오래 전부터 국제당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좋으니 여기서 속시원히 다 말해봅시다.≫

반성위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국제당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종파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국제당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종파야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장 놀음을 하는 거야 인도지나 공산당이나 그밖의 당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반성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긴장이 아니라 놀라움 같은 것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반성위에게도 나의 그 말은 예상밖의 급습으로 된 것 같았다.


호지명

≪나는 국제당 파견원으로서가 아니라 김동무와 다름없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공산당 해산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국제당의 처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소. 조선공산당은 해산됐는데 인도지나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오. 그건 호지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국제당에 인도지나대표로 틀고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그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는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영도핵심이 없었던 것이오.≫

당이 해산되게 된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를 지도자와 영도핵심이 없는데서 찾는 반성위의 말은 당 해산의 1차적 원인을 파쟁에서만 찾아보는데 습관된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의 결핍, 그것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반성위식의 분석이고 발견이었다.

우리는 국제당 문제와 함께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상 문제를 가지고서도 가치 있는 토론을 하였다.

반성위는 특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이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대다수의 당원들

이 해외에 망명하여 남의 나라 당에서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좌절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당을 새롭게 창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조선혁명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공산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조선공산당이 해체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당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박탈당한 것으로 그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오. 조선사람이 자기의 당을 가지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요. 곁방살이도 한두 해이지 한정없이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살수야 없지 않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반성위의 주장은 카륜에서 채택되었던 우리의 당창건 방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옳습니다. 조선사람이 자기 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조선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곁방에서 눈치놀음이나 하며 껄렁껄렁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 해 전에 이미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건설동지사란 명칭을 가진 당조직을 내왔습니다.≫

나는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것을 결성하고 확대하는 도상에서 직접 체험했던 가지가지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말을 주의깊이 들어주었다.

≪내가 공상가라면 **김**동무는 철저한 실천가라고 할 수 있겠구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오. 조선공산주의운동 선상에는 파벌이 너무 많아서 야단이오. 그러니 파벌을 하는 놈팽이들은 인정하지 말고 반드시 젊은 사람들끼리 새 출발을 해야 하오. 종파를 그냥 두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적잖은 종파군들이 왜놈의 개가 되었소. 개가 안 된 놈팽이들 가운데도 종파습성이 골수에 사무쳐서 혁명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헤게모니 쟁탈에만 열중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소. 파벌과 싸우려면 우리가 반일투쟁을 잘해야 합니다. 투쟁과정에 대열이 강화되고 핵심이 묶어지면 그것이 곧 당을 창건하는 밑천으로 되는 것이오.≫

반성위의 이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소리는 아니었다. 종파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 청년들로 당을 창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부터 주장해온 기본방침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사람들로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묶어세워 당도 창건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반성위와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국제당문제, 조선에서의 당건설문제를 논의하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의 화제는 간도의 민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비에트 문제에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인민이 등을 돌리고 침을 뱉으며 경원시하는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반성위의 견해가 어떤지 속시원히 듣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내가 ≪로판, 간도행이 처음이라는데 유격구를 돌아본 감상이 어떻습니까?≫하고 여담삼아 묻자 반성위의 대답대신 단추들을 와락와락 벗기고 웃자락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갑작스레 높여 유격구에 대한 소감을 터놓았다.

≪나는 우선 이 불모의 땅에 유격구와 같은 별천지를 건설한 간도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소. 간도 사람들이 참으로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소. 그런데 이 훌륭한 별천지에 환영할 수 없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소.≫

나는 반성위의 격한 음성을 듣고 그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유령이라니오.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반성위는 이치백노인이 내준 담배통에서 독한 써레기를 듬뿍 집어 굵직하게 말기 시작했다.

≪그건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염두에 두는 거요. 이 좌경이 간도 사람들이 그처럼 공을 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소. 만주혁명을 선봉에서 개척해온 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도 사실 그 좌경 때문에 머리가 셀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암둔해졌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정권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외한들이더란 말이오. 동장영동무는 투쟁경험도 많고 성미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참 실수도 유만부동이지. 국제당에 신소편지들이 날아왔던 게 우연치 않거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나를 바라보는 반성위의 눈빛에는 심심한 연민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나 하나의 마음고생이야 아무리 큰들 뭐랍니까.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반성위는 그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이 담배연기를 연방 신경질적으로 뿜어내쳤다.

≪내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좌경의 쑥대밭에서 혁명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이 탄생하여 유격구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였소. **김**동무가 아주 신통한 정식화를 했다고 나도 방금 전에 동장영동무에게 실토했더랬소.≫

≪그러면 반 동지도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장영동무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소.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해서는 동장영동무도 지지하였소, 그 동무는 인민이 좋다면 좋을 것이라고 한 **김**동무의 말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더구만. 우리 마음을 푹 놓고 일을 더 잘 해봅시다.≫

반성위는 느닷없이 내 손을 의미있게 꽉 잡았다가 놓았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국제당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성위는 계속하여 우리가 별동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유격대를 합법화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척한 것은 특기해야 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동만혁명가들은 앞으로 이 업적을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반성위는 우리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중국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중혁명정권노선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노선전환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만주 문제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중국당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당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국제당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의를 끈 것은 농촌정권기관으로서의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사상이었는데 농민위원회는 농민과 유격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상시 유격대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장자위대를 조직하며 당은 전력을 다하여 고농과 빈농을 농민위원회의 지도역량으로 되게하고 그 주위에 중농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즉 이것은 국제당이 정권분야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불합리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권형태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으로 된다.


10월혁명에 봉기한 뻬쩨르스부르크 노동자들

그러나 반성위는 농민위원회라는 그 명칭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는 농민위원회가 소비에트보다 만주지방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고농, 빈농의 본위로 나간다면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인민혁명정부 형태가 더 좋고 발전적인 것만큼 정권형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지로 써서 국제당과 만주성위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까짓 명칭이야 농민위원회건 인민혁명정부건 뭐랍니까. 시책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혁명정부를 내올 수 있는데는 인민혁명정부라 하고 농민위원회를 내올 데는 농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로 반성위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는 옳은 말이오. 그러나 정권기관의 명칭은 인민의 마음에 들어야 하오. 아무래도 국제당에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하겠소.≫

그 후 반성위가 결심대로 국제당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는 인민혁명정부나 농민위원회로 교체되었고 공농유격대는 반일인민유격대로 개칭되었으며 적위대는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었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어놓은 회오리바람으로 되었다.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은 국제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방침들을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검증받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국제당이 하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거나 그 지령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국제당의 처사에 대하여 존중시하면서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그것을 주체성있게 대하였다.

국제당의 전략이나 처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석연찮은 문제로 보았던 것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의 조선의 존재와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취급방법이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었을 때 만국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

적 판도에로 확대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레닌은 1919년에 제3국제당을 조직하였다. 국제당의 역사적 사명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 세계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그것은 제1, 제2 국제당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전투적 사명이였다. 국제당의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당면한 투쟁과업의 하나는 쏘련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였다.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확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10월혁명의 성과를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쏘련을 옹호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구호로 되고 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크레믈린에서 열린 제3국제당 제1차대회 상임위원회 (가운데가 레닌)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였고 또 절실히 필요하였던 이러한 관계는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공산당들을 쏘련의 앞잡이로 보거나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배족적인 무리로 치부하는 반공분자들과 부르주아 반동이론가들이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들앞에 지워진 국제주의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했다. 국제당도 역시 이 점을 응당 중시해야 했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공산주의운동, 특히 제국주의의 억압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을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낮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부 일군들은 큰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들의 혁명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쏘련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성새를 쌓아나가는데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의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에서는 너무나도 차별이 많았던 것 같다.

국제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일군들과 이론가들은 큰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이 승리하면 그와 인접한 작은 나라의 혁명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스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견해를 유포시켰다.

비유해 말하면 꽹두이숙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견해라고나 할까. 꽹두이숙이란 머리가 익으면 귀도 저절로 익는다는 뜻이다.

이런 견해는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을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큰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작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하는 대국본위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국제공산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사변에서 큰 힘을 얻고 그것을 이상으로, 등대로 바라보며 투쟁의 불길 속을 헤쳐가던 각국 혁명가들의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뢰와 순정에 때가 끼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국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공산주의사조에 대한 축복과 동경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 각국의 이름있는 인사들속에서 공산주의 신봉자 대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미래라고 본 시대의 선각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소속과 신앙에 관계없이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나 국제당과 연계를 자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이동휘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속에도 그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신봉자, 지지자, 동정자의 대열속에는 기독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도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조선예수교대표회의 명의로 서울 정동 감리교 3대 담임목사였던 현순이 참가했던 사실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현순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목사로서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그 성원으로 선출되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동무들이 몇 해 전에 쏘련의 국제당문서고에 가서 얻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는 3.1독립선언서 작성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병조를 비롯하여 조상섭, 손정도, 김인전, 송병조 등 목사들의 인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현순은 러시아공산당 고려부가 작성한 조사표에 쓰기를 자기가 상해공산당에도 관계하였고 1919년 9월에 벌써 러시아에 와서 삼주일 동안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 ≪목적과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조사표의 물음에 그가 자필로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실시함을 희망함≫이라고 명기한 문서가 우리 동무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었다.

물론 그가 공산주의라는 새 사조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공감했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제당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었던 이동휘도 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한 사람이었다. 그가 고려공산당연합대표회의 결과를 국제당에 보고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대표로 파견되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천도교 계통의 혁신세력도 국제당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천도교 1세 교주 최제우의 손자벌이며 2세 교주 최시형의 아들인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세력의 대표인물로서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 외무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직접 러영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제당과의 교섭을 성사시켜보려고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국제당에서 동양부사업을 보고 있던 가다야마 센과 인젤손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들에게 편지를 내어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빈천민중의 충복인 천도교≫와 ≪노동계급의 전위인 국제당≫간의 적극적 연락은 동양혁명의 기성을 전적으로 담보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어 최동희는 당시 쏘련의 외무인민위원이었던 치체린에게 편지를 써서 15개 혼성여단으로 고려국민혁명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총포, 폭발물, 탄약, 기병장비,

운수수단 등을 2년 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천도교 혁신세력이 수구파의 증오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나가려고 했던 것은 전 민족의 찬양을 받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쏘련도 국제당도 천도교 혁신세력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몽양 여운형도 1919년에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레닌과 함께 조선독립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

이승만과 같은 반공분자가 한때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언제인가 그가 모스크바에 가서 엄청난 재정원조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묵살당하게 되자 쏘련과 국제공산계에 등을 돌려대고 극단적인 친미 일변도로 나갔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



여운형

쏘련영토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 초가 마가리들이 올망졸망하고 여윈 하늘소들이 왔다갔다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제당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였던 것 같다. 우리가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그 시기에 와서도 조선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제당이 작은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푸대접과 냉담성이 물론 우리로 하여금 혁명에서 주체의 대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불변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당의 처사와 입장을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었던 것, 국제당의 사업조직과 고질로 된 사무실적인 사업작풍이 조선혁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저지시킬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우리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품고 있는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혁명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려는 우리의 지향과 확고부동한 결심에 보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혁명실천상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문제거리들을 안고 모대길 때 반성위가 동만에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어쨌든 반성위를 만난 것은 분명 내 생애에서 의미 있는 사변이었다. 국제당에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종파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로 핵심을 양성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을 다시 꾸리고 조선사람의 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나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준 조언들은 나로 하여금 사고와 실천에서 주체적인 대를 더욱 튼튼히 견지하게 하였다. 그때 반성위가 준 영향과 동지적 고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민생단≫투쟁이 스산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조선민족과 우리 혁명의 주체를 옹호고수하여 그처럼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고 ≪홍루몽≫을 배워준 스승이 상월 선생이라면 반성위는 조선사람은 조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준 진실한 지지자, 고무자, 동정자였다.

나의 항일혁명사에 반성위를 만났을 때처럼 조선혁명의 운명과 노선문제를 두고 그렇듯 진지하고 열렬하고 심각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위는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일가견을 가진 흔치 않은 이론가였다. 1930년대의 후반기 우리가 대부대를 인솔하고 백두산 일대에 진출했을 때 반성위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활동했더라면 그는 조선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론실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나는 반성위를 만난 다음부터 혁명투쟁을 하는데서는 실천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을 선도하고 조종해줄 수 있는 이론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소왕청에서의 잊지 못할 담화를 계기로 반성위는 나의 둘도 없는 벗이 되었고 동지가 되었다. 20살 이상의 격차를 가진 우리가 열흘 남짓한 사이에 십년지기 못지않은 벗으로 되고 동지로 된 것은 그 어떤 물질의 힘이나 이해타산의 마력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태양의 열광같이 열렬한 우정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조선의 해방과 자유를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염원이 같았고 세상만사를 주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지향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정의 심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말수더구도 아니다. 오래 사귄다고 하여 우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며 짧게 사귄다고 하여 얄팍한 우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자기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대하는데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을 배가할 수 있고 파탄시킬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정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나는 반성위가 소왕청을 떠날 때 말을 타고 훈춘경계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였다. 반성위가 다리를 조금씩 절며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을 알선해주었다.

우리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십리평에 이틀 묵는 동안에도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중국당과의 관계 문제, 특히 조선혁명의 당면 문제와 장래 문제까지 포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굳은 맹약도 다졌다.

그때의 소재는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십리평이 바로 이범석의 사관학교가 있던 동네였고 오중화네 가문이 피난을 와서 거처하는 동네였다.

반성위는 나중에 가정생활의 비밀까지도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의 이름을 오영옥이라고 하였던지 오봉옥이라고 하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반성위에게 40살이 넘어서야 가정을 이룬 까닭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허허, 까닭은 무슨 까닭이겠소. 내가 착실한 신랑감이 못되니 여자들이 다 내 곁을 지나가버린 것이지. 어느 누가 이런 절름발이에게 감히 정을 주겠소. 우리 오씨 부인이 아니었다면 난 장가도 못 들고 허리가 꼬부라질 뻔했소.≫

반성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경멸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나는 반성위를 철늦은 사랑에 심심한 동정을 느꼈다.

≪그 오씨 부인이 사람을 보기야 면바로 보았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이라는데 늦사랑에 깨가 쏟아지겠습니다.≫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구혼을 한 것

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왔다는 거요. 하여튼 늦사랑이라는 게 별맛은 별맛이야.≫

≪북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동무는 제발 남성세계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나같은 지각생이 되지 말아주오.≫

≪글쎄요. 나도 지각생이 될지 모르지요.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십리평 풀밭에서 이런 여담까지 하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반성위는 그 동안 왕청에 정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와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왕청을 떠나서 반성위가 다음으로 가야할 곳은 훈춘과 화룡이였다.

≪**김**동무의 인상이 일생 동안 내 머리속에 남아있을 것 같소. 왕청에 와서 **김일성**동지를 사귄 게 참 기쁩니다.≫

훈춘-왕청경계를 넘을 때 반성위가 정색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였다.

≪나도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이번 행각이나 끝나면 나도 처를 데리고 동만 땅에 와서 **김**동무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하고 싶소. 우린 어딘가 낡았소. 때묻었거든…. 조선의 ≪호지명≫이 되시오.≫

반성위는 이런 말을 남기고 왕청땅을 떠났다. 그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뒤고 돌아서서 머리 위에 손을 쳐들었다. 첫 상면 때 보던 것과 꼭같은 손동작을 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째서인지 그 동안 퍽그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얼굴의 세부와 인상들은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눈에 익혀온 듯한 느낌조차 들었다.

사귄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을 바래주면서 왜 이다지도 마음이 외로와지고 구슬퍼질까 하는 것이 그가 나를 돌아볼 때 내 가슴을 짜릿하게 해주던 석별의 감정이였다. 반성위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은 어쩐지 서글퍼 보였다. 나는 그 미소가 종시 마음에 걸렸다. 차라리 그가 웃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웠을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나와 헤어진 반성위는 훈춘 땅에 가서 불귀의 객이 되어 쓰러졌다.



호지명

그를 살해한 것은 훈춘유격대의 대대정치위원이였던 박두남이였다. 노선전환을 토의하는 훈춘현당 확대회의에서 반성위로부터 가장 엄중한 비판을 받은 것이 다름아닌 그 박가였다. 박가는 파벌투쟁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받고 정치위원직에서 해임되였다. 호위임무를 지닌 병사들이 반성위가 글을 쓰고 있는 숙소마당에서 전리품으로 들어온 38식보총을 구경하고 있을 때 박두남이 그 총으로 국제당 파견원을 쏘았다는 소문이 왕청에까지 날아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 소문을 들은 나는 반성위와 함께 혁명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던 이치백노인네 윗방에서 하루종일 문을 닫아걸고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5. 백마에 대한 추억



나는 원래 이 삽화를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었다. 인생 80을 총총히 더듬어보는 이 글에서 군마 한 마리가 차짓하는 몫이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회억해야 할 영웅들은 얼마나 많고 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일화를 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백마에 대한 나의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 것 같다. 더구나 그 백마는 많은 사람들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인정적으로 굳게 얽혀져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나에게 군마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33년 봄이었다.

하루는 십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군이 그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 동무들과 함께 백마 한필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그 당시의 왕청대대 지후부는 소왕청마촌 리수구 골짜기에 있었다. 한 마리의 백마를 위한 행차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수행규모가 요란하였다. 십리평 사람들은 지휘부 앞뜨락에 말을 매놓고 그 뜨락으로 나를 불러냈다.

≪험한 길을 많이 걸으시는 **김**대장께서 타시라고 저희들이 말 한 필을 삼가 증정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십리평인민혁명정부 일군이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 대표단의 돌발적인 출현과 큰 행사라도 치르는 듯한 엄숙한 예절앞에서 몹시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의 한 개 분대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행규모는 처음부터 나를 놀라게 했다.

≪이거 대접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갓 스물에 백마를 타고 다니게 되었으니 호강이 지나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겸양의 뜻을 표기하자 나이 지극한 십리평의 일군은 펄쩍 뛰는 시

늉을 해보였다.

≪대접이 과하다니오. 왜놈들은 대대장만 되어도 장교랍시고 말을 타고 거들먹거린다는데 우리 빨치산 지휘관들이 그놈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책을 보니 홍의장군 곽재우도 말을 타고 의병을 지휘했다더구만요. 군사를 지휘하려면 뭐니뭐니해도 위풍이 있어얍지요.≫

≪이건 어디서 생긴 말입니까? 혹시 어느 농가에서 쓰던 역마가 아닙니까?≫

≪역마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역마가 아니라 관상마올시다. 일전에 십리평에서 정부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 머슴꾼 출신 영감이 생각나십니까?≫

≪그 노인에게 이런 멋진 말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안장에 등자까지 걸린 백마를 유심히 살펴보고 쓸어보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다. 아무리보아야 그 백마는 역축으로 써오던 농경마가 틀림없었다. 십리평과 같은 골짜기에 관상마를 가진 농사꾼이 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노인이 그처럼 호함진 백마를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더 허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십리평의 정부일군은 그냥 관상마라고 고집하였다. 역마라고 실토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고 되돌려 보낼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 머슴꾼출신의 그 노인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지금은 기억에 삭막하다. 다만 성이 박씨였던 생각만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

박노인이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데는 무심히 스쳐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

이야기는 그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지주집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시작된다. 박노인이 늙마에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주는 그를 집에서 내보냈다. 그때 지주가 노인에게 품삯 대신 준 것은 자기 집 마굿간에서 출산한 지 몇 달 안되는 털빛이 새하얀 망아지였다. 출산 직후 어미에게 깔려 마굿간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력도 쇠약하고 영양상태도 보잘 것 없었다.

참혹하게 병든 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새끼말을 주면서도 인색한 지주는 선심을 쓰는 체하였다.

박노인은 병든 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동안 지주를 위해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고역을 치러온 봉사의 대가가 그 새끼말이라고 보면 인생이 통털어 너무나도 허망하고 세상인심이 너무나도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슬프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슬하에 일점혈육도 없이 외톨이로 고독스럽게 살아가던 박노인은 그 망아지를 장중보옥처럼 끔찍이 아끼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다. 망아지는 자라서 어엿한 백마가 되었다. 그는 고독이 엄습할 때마다 백마의 곁에 찾아가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하였다. 백마는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친구였다.

일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박노인은 자기를 말이나 소와 같은 역축과 동렬에 놓고 세상의 온갖 푸대접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답게 대하면 그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십리평유격구에서 정부위원으로 선거된 것이었다.

그날 그가 받아안은 감격이 얼마나 컸고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감격은 바로 그날 저녁 정부 마당에 노인이 친히 끌고온 백마가 무언으로 설명해 주었다.

≪회장어른, 나를 대신해서 이 백마를 **김일성**대장에게 드려주시오. 내 오늘 난생

처음 그분의 덕으로 사람대접을 받아봅니다. 흉중에 가득한 고마움을 표기할 길이 없어 몇 해를 두고 살찌워온 이 애마를 드리오니 제 심정을 잘 말씀드려주시오.≫

이것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에게 한 박노인의 부탁이었다.

이런 사연까지 듣고 나니 그 백마를 사양하기도 딱하였다.

≪거절하고 싶지만 사연이 하도 절절하니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노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몰이꾼 한 분만 오면 될 길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까≫

나는 십리평 정부일군에게서 말고삐를 넘겨받은 다음 일행을 향해 두루거리로 물었다.

≪**김**대장 어른이 마상에 오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싶어 군대와 인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대장 어른, 어서 말안장에 오르십시오!≫

십리평 인민혁명정부일군이 정색해서 하는 말이었다. 2중대 대원들도 그에 합세해서 마상에 오르라고 성화를 먹였다. 내가 말에 오르는 것까지 보고서야 그들은 흡족해서 십리평으로 돌아갔다.

박노인의 성의와 공경심은 이를 데 없이 고마웠지만 나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백마를 타지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호강하게 되면 인민들이 나를 곱지 않게 볼 수 있고 대원들도 지휘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병기창에서 일하는 이응만에게 그말을 주었다. 브로닝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는 그 이응만이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나이였는데 그만 아랫다리 총상자리가 말썽을 일으켜 다리를 잘랐다.

이응만의 다리를 수술한 사람은 소리수구 대대병실 근처에 자리잡고 있던 유격구병원 의사 장운포였다. 그는 소왕청의 의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는 만병통치의의사였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혼자서 이것저것 다 치료하였다.

그 당시유격구 병원의 관리를 담당한 것은 호조회였고 환자들의 파견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이었다. 이 호조회가 희사협의회를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총알에 뼈를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술을 하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약품도 없고 특별한 치료대책도 없다보니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까지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운포는 시계태엽으로 칼을 만들어 이응만의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어 이응만은 유격대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 그는 퇴원 후 한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양성룡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이응만은 내가 준 백마를 요긴하게 타고 다니면서 병기창 생활을 아주 보람차고 명랑하게 하였다.

얼마 후 나에게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백마가 생겼다. 그 백마는 대황구전투 때 우리 부대가 일본군 부대를 치고 노획한 말이었다. 전각루전투에서 노획한 말이라고 회상하는 투사들도 있다는데 나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서 생긴 말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고, 일본군 장교가 타고 다니던말이 생겼다는데 있고, 그 말이 만사람의 인기를 끄는 나무랄데 없는 군마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매복전을 조직하였는데 그 백마의 임자인 일본군장교가 운수사납게도 첫 번째 과녁이 되어 말잔등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을 잃은 백마가 적진으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지휘부가차지하고 있는 산비탈로 곧추 다가왔던 것이다.

조왈남 전령병은 백마가 나타나자 지휘부가 적의 목표물로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자꾸 신작로 쪽으로 쫓아버렸다. 전령병은 나무드덜기와 탄피까지 집어 뿌렸지만 짐승은 자기 주인의 곁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로 오곤 하였다. 나중에는 네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버둥질하는 짐승을 쫓아버리면 되나. 푸대접도 분수가 있지.≫

나는 조왈남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얼마동안 말갈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령병은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적의 주의가 지휘부를 가려볼 경황이 됐나. 벌써 저렇게 줄행랑을 놓는데.≫

물론 말은 유격대의 노획물이 되었다.

대원들은 일본군 장교를 위해 봉사하던 말이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사실에 처음부터 신비스러운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조왈남

≪이놈의 짐승이 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을 가려볼 줄 알거든. 우리가 조선사람이라는 걸 판단하고는 서슴지 않고 의거를 단행하지 않았나.≫

마패를 보고 백마의 출산지가 경원(새별)이라는 것을 알아낸 대원들이 하는 말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의거 동기를 찾아냈다.

≪일본군장교가 평상시 말을 혹심하게 학대한 것 같애. 그러지 않고서야 이놈의 짐승이 자기 주인이 너부러지기 바쁘게 우리한테로 넘어올 리가 있나.≫

우리는 전투장에서 철수하여 마촌으로 돌아올 때 역축으로 쓰라고 어떤 중국 노인에게 이 백마를 주었다. 간도 땅에서는 소와 함께 말도 역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되어 노인은 우리 부대에 찾아와 말을 되돌려 주었다. 발목이 너무 가늘고 연약해서 역축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성미도 이만저만 괴벽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자기같은 것은 가까이에 범접못하게 하니 도무지 다룰 수도 없고 휘어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의 전우들은 그 말을 듣고나서 ≪아무래도 이 말은 우리한테 있을 팔자야.≫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의 배장근통을 걱정해주면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권해주었다. 한두 해에 끝날 유격전쟁도 아닌데 아픈 다리를 그렇게 혹사하다가 영영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배장근통 때문에 나는 사실 그 당시 행군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끼곤 하였다. 어려서부터 걸음을 너무 많이 걸은데서 온 병인지도 모르겠다. 길림 시절에는 간혹 기차도 타고 자전거 같은 것이라도 타고 다녔지만 항시적인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왕청골 안에서는 그런 호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산발을 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 리씩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격구 생활은 걸음을 자유롭게 걷지 못하던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육체적 부담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전우들의 청을 사양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우들은 당회의를 열고 아무 아무날부터 **김일성**동지는 말을 타고 다닐 것이다 하는 결정을 채택하여버렸다. 그들은 양성룡대대장까지도 말을 타고 다니게끔 결정서를 아주 묘하게 꾸며놓았다.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내가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타산했던 것 같다.

조직의 결정이니 더 거역할 수 없었다.

처음 말을 타는 날 전우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손벽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마적부의 기록을 보니 경원군마보충부 출산이라고 적혀있었다. 때로는 뿌잇뿌잇하게 잿빛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백설같이 새하얗게도 보이는 날씬한 말이었다. 발굽이 경마용처럼 가늘었는데 뛸 때는 비호처럼 날랬다.

이 말이 나를 한 2년쯤 태우고 싸움마당에도 나갔고 때로는 사람의 발자취마저 닿아본 적 없는 천고의 밀림속으로도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온갖 경난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이따금씩 추억속에 나타나 내 가슴에 짜릿한 정서를 부어주곤 한다.

나의 하루 일과는 말관리로부터 시작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빗자루로 털에 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였다. 관리 경험이 없고 요령도 없으니 만경대 할아버지가 소를 거둘 때 빗자루로 이곳저곳을 쓸어주던 모습을 기억에 되살리며 그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마는 빗자루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내 곁에서 달아나곤 하였다. 내가 백마와 한창 실갱이질을 하고 있을 때 이치백노인이 쇠로 만든 빗을 나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한 번 등을 긁어주면 알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쇠빗으로 등부터 긁어주었더니 말은 땅에 발통을 붙이고 가만히 서있었다.

나는 말잔등에 안장을 얹다가 안장의 가죽과 모달리천 사이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마적부라는 자그마한 수첩과 함께 쇠빗, 털빗, 걸레쪼박, 쇠꼬챙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쇠빗, 털빗, 걸레쪼박의 용도는 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끄트머리가 수술칼처럼 생긴 쇠꼬챙이의 용도만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나는 쇠꼬챙이 들고 백마의 곁으로 다가갔다.

기적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백마가 곡마단의 말처럼 한쪽발을 건뜻 쳐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쇠꼬챙이와 발통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어떤 암시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좀처럼 짐작할 수 없었다.

말은 내 주의를 안타깝게 빙글빙글 돌다가 먼발치에 박혀있는 발뚝곁에 다가가 그 위에 앞발하나를 걸터놓았다. 박바닥의 마제짬에는 흙, 돌쪼각, 짚오래기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쇠꼬챙이로 그것들을 파주었더니 말은 다른 발통을 올려놓고 능청스럽게 내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림짐작으로 말 사양법을 익혀가고 있을 때 국내종마장에 있는 사람이 소왕청 친척집에 왔다가 나에게 말 사양의 묘리와 승마요령을 대주고 돌아갔다 그가 하는 말이 말은 몸에 먼지가 앉거나 발통에 사금파리 같은 끼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쓸어주고 긁어주고 기름까지 발라주어야 하며 발굽에서 흙이나 검불 같은 것을 제때에 파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말이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말의 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초와 귀밀이라는 것, 보리와 콩도 좋은 사료라는 것,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도 매일 소금을 조금씩 먹여야 한다는 것,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는 찬물을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그 종마장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비결이었다.

이런 과정에 나는 백마와 친숙해졌다. 말은 내 요구나 의사 앞에서 늘 고분고분했다. 나의 눈빛이나 손동작만 보고서도 자기가 할 바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봉사를 따라세우는 백마의 총기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저것이 과연 사람이 아니고 말이란 말인가 하고 만사람이 다같이 경탄할 정도로 백마의 성미나 행동에서는 예술적으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인격미를 연상시켜주는 면모를 종종 엿보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백마는 영리하고 충실한 반면에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은 주인 아닌 남이 자기를 건드리거나 안장에 올라타는 것을 절대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싱겁둥이가 말을 타고 싶어 고삐를 잡으면 빙빙 돌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뒷발질

을 하거나 물려고까지 하였다.

조왈남도 백마를 타보려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백마를 툇마루밑에 세우고 빗으로 옆구리를 슬슬 빗어주다가 날파람 있게 몸을 날렸는데 안장에 몸이 닿는 순간 말이 옆으로 후닥닥 내뛰는 바람에 땅바닥에 엉덩방아만 찧었다.

이런 천대를 맛본후 조왈남은 아주 기발한 승마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이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에 말을 세워놓고 말이 풀을 뜯는 사이에 슬쩍 올라타는 것이었다. 하지마 ㄴ그 방법도 조왈남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도 시궁창 벼락만 뒤집어썼다.

어린 전령병은 백마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회초리로 그 분풀이를 톡톡히 하였다. 그 후부터 백마는 조왈남이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들고뛰거나 발길질을 하였다.

그때 조왈남은 너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아무리 정을 다해도 말이 곁을 주지 않고 태워도 주지 않으니 중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왈남에게 백마가 너를 배척하는 것은 백마에게 바치는 너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성을 더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양마요령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조왈남은 내가 일러준 대로 백마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바쳤다. 백마가 그 정성에 정성으로 보답한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다.

하도 오래 전 일이어서 자질구레한 일화들은 거의 다 잊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장면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백룡이 소대장으로 활동할 때였다. 나는 나자구지방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기 위하여 오백룡소대를 데리고 마촌을 떠났다. 나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2-3세시간밖에 안되었다.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군중과의 사업까지 하고 나면 보통 밤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일이 정 밀릴 때면 밤을 꼬박 밝혔다.

일행이 쟈피거우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말안장 위에서 말뚝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전날밤 마촌인가 십리평에서 밤샘을 한 후과였을 것이다. 백마가 소대의 앞장에 있었으므로 일행중 내가 존다는 것을 간파한 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대가 쟈피거우령을 넘을 때부터 말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였다. 이것을 감촉한 사람이 바로 오백룡소대장이었다.

백마는 앞발을 딱 가두어 붙이고 조심조심 오르막길을 톺아올랐는데 오백룡이 갑갑해서 짜증을 낼 지경으로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이 영국신사 같은 말이 오늘은 참 별나게도 걷는 걸.≫

오백룡의 속생각이었다.

백마는 내리막길에서도 뒷발을 가두어 붙이고 힘들게 영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대열은 멀리까지 앞서나갔다. 뒤에는 백마와 나, 오백룡 셋만 남게되었다. 오백룡은 내가 걱정되어 줄곧 초조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상관이 앉아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 속을 조이기만 하였다.

백마는 고갯길을 다 내리자 쟈피거우 강가에 가로놓여 있는 진대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대나무 한 대쯤은 헐하게 살짝 뛰어넘던 명마가 별치않은 장애물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오백룡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백마가 저렇게 게으름을 부리는데 왜 욕도 안하고 재촉조차 하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잔등에 앉아 있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놈 참 명물인데!≫

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백마는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백마한테 오늘은 특식을 차려줍시다!≫

오백룡은 싱글벙글하면서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는 사이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생긴 모양인가.

≪갑자기 특식은 왜?≫

오백룡은 백마가 쟈피거우령을 어떻게 넘었고 또 진대나무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주춤거렸는 가를 흥에 겨워 말했다.


오백룡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옛날에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말을 국마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이 백마를 국마라고 부르는게 어떻습니까?≫

≪왜 국마라고만 부르겠소. 백룡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천하마라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겠는데 ≫

≪천하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가는 말이란 뜻이지.≫

≪그럼 천하마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오중화형님이 그러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말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소. 어떤 나라 황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집정관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는 구만. 그 말은 상아로 만든 구유에 먹이를 담아먹고 황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담아마시면서 만사람의 경의를 받았다는 거요. 그럼 우리도 영의정이라는 벼슬이나 주어볼까.≫

≪어쨌든 이 말은 명물입니다. 잔등판에 눈도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고 계신다는 걸 알아냈을까요?≫

내가 고삐를 나꾸어채자 백마는 진대나무를 성큼 뛰어넘어앞으로 쏜쌀같이 내달렸다. 우리는 잠깐 사이에 소대와 함께 나자구 삼도하자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바위가 양옆에 우뚝 솟아 쌍을 이룬 곳이 있었다. 그 강에는 산천어가 많았다.

나는 풀밭에 금을 그어주고 백마의 목에 말고삐를 감은 다음 대원들에게 군중정치공작 임무를 주어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강기슭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화를 끝내고 백마가 있는 곳에 돌아간 나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어준 금 안에서 백마는 아까처럼 그냥 착실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말은 보기 드문 명물이었다.

그 말의 덕으로 여성혁명가 홍혜성도 사경에서 구원된 적이 있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여고까지 다닌 인텔리였는데 용정에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함께 지하공작을 하다가 유격구를 천당으로 생각하고 왕청땅에 들어와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그의 아버지는 동의술을 가진 명의였다. 홍혜성은 유격구에 들어온 다음 아버지한테서 배운 묘술로 유격대원들과 주민들의 옴병을 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격구의 군대와 인민은 성미가 발랄하고 붙임성이 좋으며 동의술까지 가지고 있는 인텔리 출신의 이 아름답고 용감무쌍한 여성정치공작원을 무척 사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백마를 타고 조왈남이와 함께 서대파라는 곳으로 지방공작을 나가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급작스레 터져오르는 총소리를 들었다. 유격구에 ≪토벌대≫가 들이닥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성이 우리는 쪽을 향해 급보

로 말을 달린 우리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지방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어 힘겨운 조우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발견하였다.

적들은 악악 소리를 지르고 헛총질을 해대며 그를 사로잡으려고 발악하였다.

나는 전투현장에까지 백마를 다급하게 몰아간 다음 체포의 위기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말에 제꺽 올려태웠다. 말도 내 뜻을 알아차렸는지 한 10리 길을 쏜살같이 냅다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적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유격구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의 백마를 명마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이 만일 백초구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 그 백마를 고맙게 추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타고 양수천자 일대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을 반유격구로 꾸려놓았다. 나자구, 삼도하자, 사도하자, 노모저하, 태평구와 함께 양수천자 일대의 남대동, 북대동, 석두하자, 가재골 일대와 도문 근처의 마을들에는 우리의 조직이 다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군마를 남에게 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독자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마와의 이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된 것은 오백룡이네 대원들과 함께 골방령인가 어디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보리고개를 넘기는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때 농량이 달려 고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적을 쳐서 주둔구역 인민들이 먹을 식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해주었다. 그러나 노획한 식량만으로는 그 고장 사람들의 쌀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우리는 소비를 극력 줄여 저축한 쌀을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한편 끼니를 번지지 않을 정도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였다. 그러다나니 백마에게 차례지는 사료의 공급량도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귀밀이나 보리, 콩과 같은 고급사료도 고급사료지만 건초라든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곡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헐한 일은 아니였다.

충실한 나의 대원들은 백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부대의 활동정황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주변 부락들과 적구에 종횡무진으로 드나들며 백마에게 먹일 귀밀이나 소금같은 것을 제때제때에 구해오곤 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포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주이도 하였다.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모든 낟알들을 바수어 군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말에게 먹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백마는 그런 대원들이 가까이에 나타날 때마나 주둥이로 군복주머니를 툭툭 건드리곤 하였다.

대원들이 백마를 그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해 바치는 혁명적 우정의 표시, 충성심의 표시였다.

나는 그 우정과 충성심이 못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들이 열성스레 사료를 장만하거나 백마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접을 이 이상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남들의 봉사에 습관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빨치산 시절의 나의 개체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가 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들한테 차례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례질 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

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었다.

나는 채 완쾌되지 않은 배장근통 때문에 몇 달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나의 충성스러운 애마를 농민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백마가 반유격구 같은데 가서 역축으로 이용된다면 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지 죽을 염려도 없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에게 백마를 보내준 십리평의 머슴꾼 출신 노인에게 나의 애마를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노인이 별스레 생각하며 섭섭해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풍기사령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다 털어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의 그날 점심급식은 특식으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저축했던 사료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백마를 배불리 먹이시오. 오후에는 그 백마를 산너머 부락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을 반일회장에게 넘겨주어야겠소. 말이 떠날 때 남은 사료도 몽땅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역축이 없이 살아가는 제일 가난한 집에 백마를 주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풍기사량은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였다.

≪어서 나가서 명령을 집행하시오.≫

나는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엄하게 독촉하였다.

풍기사령이 나간 다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백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몰인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는 백마와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쇠빗과 털빗으로 여기저기를 긁어주고 손으로 갈기털을 몇십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말과 함께 걸어온 수천 리 노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여겨보던 백마의 눈에서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랐다. 이 애마가 어떻게 나와의 이별을 예감하였을까. 백마는 그때 분명 나의 얼굴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백마의 비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맛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미덕이 존재하며 그 미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백마야, 용서해다오, 너와 나는 오늘 아쉬운 대로 헤어져야겠구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것처럼 아픈 이별이지만 이 이상 더 너를 타고 다니며 호강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해 천신만고를 다한 너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 한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말의 갈기털에 한참 동안 볼을 파묻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은 마음이 허전해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공연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조차 들었다. 하지만 이왕 내린 결단이니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의 사랑스런 백마에게 부디 근면하고 살틀한 주인이 차례질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풍기사령의 저녁보고를 기다렸다.

그런데 풍기사령은 저녁시간이 다되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날이 어슬어슬해질 무렵에 오백룡소대장이 밥상을 들고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규율을 위반했으니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나는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규율을 위반하다니?≫

≪제가 보고도 하지 않고 목재소를 하나 쳤습니다.≫

오백룡은 그 습격의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에게서 이웃 마을에 백마를 보내라는 과업을 받고 소대로 돌아간 풍기사령은 오백룡을 만나자 여사여사한 지시가 내렸는데 다른 명령이라면 다 집행하겠으나 그 명령이야 어떻게 감히 집행하겠는가고 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오백룡은 풍기사령의 말에 동감을 표기하였다.

≪대원들이 백마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 대장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백마를 어떻게 대장동지 곁에서 떼어놓는단 말이오. 대장동지는 상기도 배장근통 때문에 신고하고 계시지 않소. 우리가 사료라도 많이 장만해 놓고 강짜를 쓰면 대장 동지의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풍기사령 동무는 말을 이웃 마을로 보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매두어야겠소. 그 동안 나는 친화목재소에 가서 사료를 구해오겠소. 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보고하지 말아주오.

친화목재소는 소왕청에서 40-5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목재소의 십장들 가운데서 오백룡이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이 목재채벌로 유격구를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그와도 낯을 익히게 되었던 모양이다.

오백룡은 5-6명의 대원으로 사료공작조를 뭇고 단숨에 친화목재소를 찾아갔다. 그가 잘 아는 십장은 유격대원들에게 그냥 쌀을 주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네 목재소를 습격해 달라고 했다.

십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오백룡은 보초를 억류하고 목재소의 관리들과 파수병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들이쳐서 무장해체부터 번개같이 해치운 다음 4-5포대나 되는 귀밀과 콩을 지고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는 오백룡이 보고를 끝내자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가 말한대로 백마는 이웃마을의 영세농민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내눈을 속이느라고 대피시켰던 장소에서 돌아와 마굿간에 서 있었다.

백마는 콧김을 크게 내불고 나서 감사라도 보내듯 내 쪽을 향해 머리를 몇 번 주억거렸다.

나는 눈굽이 찡 저려났다. 백마의 존재를 몸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분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성미가 백두산곰 같은 저 통장머리 큰 오백룡과 풍기사령이 지휘관의 명령을 제멋대로 어겼으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료가 많이 장만되면 자기 상관이 백마를 이웃마을로 보내기로 한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목재소까지 들이친 오백룡의 저 주관과 뻔뻔스러운 배짱은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가. 저 엄청난 배짱을 싹에서부터 짓눌러버리지 않을 경우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이상한 것은 원칙과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전날처럼 그 원칙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었다. 털빗으로 잔등을 가볍게 긁어주자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향해 고개를 주억거리는 백마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째서인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오백룡을 꾸짖고 싶은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오백룡이 소처럼 떡 버티고 서서 생억지를 부리니 나로서는 백마를 기어코 이웃 마을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대장동지, 저를 처벌해도 좋고 강직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백룡이 살

아 있는 한 백마를 어데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 나서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씩하고 콧김을 크게 내불었다.

생각같아서는 오백룡을 붙안고 ≪고맙소!≫, ≪고맙소!≫하면서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불과 물속에라도 뛰어드는 이 대담무쌍한 소대장의 충직성에 나는 한두 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까막눈이였던 자기에게 조선말 자모를 배워준 사람도 **김일성**이고 처음으로 세상물정을 알게 해준 사람도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손때를 묻혀 키운 지휘관이 오늘은 나의 백마를 위해 한 몸을 내대어 목재소를 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사료공작을 나간 것은 엄중한 규율위반 행위였다. 이것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더 큰 탈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에 지휘관은 결심을 잘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오백룡은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내 밥상의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국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나는 불시에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처벌을 달라고 물러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내 목을 꽉 메게 하였다.

오백룡은 일찍이 소년선봉대시절에 비지깨권총이라는 자작권총을 가지고 온성에 건너가 세관순사를 쫘죽이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온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식솔이 열일곱이나 되는 가정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하여 동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오백룡은 소년선봉대 시절부터 어찌나 유격대원이 되고 싶어했던지 ≪탄피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까지 빚어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하려면 믿음직한 보증인이 있든가, 총 한 자루쯤 노획해서 보증품으로 바치든가, 하다못해 방치수류탄 같은 것이라도 한 개 얻어가지고 가야 한다는 소문을 얻어듣고 방금 총격전이 벌어지던 전장에 가서 나무껍질로 바지가랭이를 동여맨 다음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탄알과 탄피를 주워서 양쪽 바지가랭이에 가득 주워넣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유격대를 찾아갔다.

바지가랭이를 동여매였던 끝을 풀어놓자 한 말쯤되는 탄피와 탄알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어때요? 이만하면 나도 유격대에 받아주겠지요?≫

오백룡은 우쭐해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중대장의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유격대원들의 입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보라구 백룡이, 그 탄피는 뭐하러 주워왔나? 그건 총을 쏘고 남은 찌꺼기인데.≫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백룡은 탄피도 적을 쏘아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자 탄알과 탄피를 따로따로 골라놓았다. 탄알은 수백 발 되었다.

이 ≪탄피사건≫은 그가 유격대에 입대하는데 유력한 지참품으로 되었다.

오백룡은 입대 후 적들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형제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입대초기 마음고생을 몹시 하였다. 총소재를 하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에게 처벌을 준 중대 정치지도원은 적들이 파견한 간첩이였다. 동만특위와 현당의 주요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종파분자들의 신임을 얻어 중대 정치일군의 직위에까지 뛰어오른 그놈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오백룡이 오발사고를 냈을 때 그놈이 적용한 처벌방법은 혁명군대의 규율이나 도덕의 척도로 볼 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것이였다. 오백룡에게 처벌로 위만군 한 개 중대가 도사리고 있는 모다니에 가서 토성 한복판에 꽂혀있는 만주국 깃발을 떼오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적구에 내려가 모험을 하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이였다. 전우들은 모두 오백룡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백룡은 유격대 주둔지에서 100리나 떨어진 모다니에 내려가 만주국 깃발을 떼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정치지도원 감투를 쓴 놈은 그 후에도 오백룡을 해치려고 악착스럽게 기회를 노렸다. 그놈은 대원들이 식사를 할 때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까지 문제시하면서 군대는 국도 먹지 말고 마른반찬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한번은 중대에서 어쩌다가 암소 한 마리를 잡았다. 대원들은 ≪마른 밥, 마른 반찬≫바람에 속에 털이 날 지경이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 실컷 먹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날도 그 알량한 정치지도원이 나타나 먹지 않던 소고기국을 갑자기 먹으면 설사에 걸릴 수 있으니 국을 먹지 말고 마른밥에 마른고기만 먹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대원들은 그처럼 먹고 싶던 소고기국도 먹지 못하였다.

지시를 거역하고 국을 먹은 것은 오백룡과 그밖의 대원 한 사람뿐이였다.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오백룡의 둘째 형수가 그들에게 소고기국을 몰래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백룡은 병실마다에 있는 나뭇가리 뒤에서 그 국을 먹다가 정치



지도원에게 발각되였다. 이 사건은 정치지도원이 그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울 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 전우들이 보증하지 않았더라면 오백룡은 ≪민생단≫의 누명을 쓴 채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정치지도원은 그 후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여 오백룡에게 처단되였다.

자기를 사지판에 고의적으로 내몬 처벌조치를 두고 원망하는 오백룡에게 또 하나의 처벌을 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에서의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소대장 동무, 동무가 나의 백마를 위해 적구에까지 갔다온 것은 고마운 일이오. 그렇지만 규율을 위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할 엄중한 과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소.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았으니 백마는 다른 데 보내지 않겠소. 어떻소, 만족하오?≫

내가 이렇게 묻자 오백룡은 벌쭉 웃으면서 ≪네, 만족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몇 마디의 지적으로 사건을 간단히 매듭지었다.

백마는 그 후에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소왕청방어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있은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적들은 리수구 막바지인 황가리골 일대까지 기어들어와 유격구 인민들을 살육했다. 산과 들과 골짜기는 주검으로 덮이고 살림집은 모두 재가 되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빗발치는 탄막을 누비며 매일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어제 뾰족산에서 방어전을 조직했다면 오늘은 마반산에 가서 적의 돌격을 좌절시키고 내일은 또 이수구 뒤 고지에서 인민들의 대피를 엄호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고정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얼마나 많은 탄우가 쏟아졌던지 나의 외투 안에 댄 털까지 불이 달렸다. 외투에 달린 불은 단번에 나를 휘감아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백마가 바람을 맞받아 달리다나니 불붙는 외투자락이 뒤로만 휘날렸기 때문이다.

내가 외투에 불이 달렸다고 느낀 것은 백마가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 불길을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벌써 외투를 벗어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다가는 바위에 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비호같이 달리던 나의 백마는 움푹하게 패여들어간 눈구덩이앞에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 눈구덩이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눈속에 파묻혀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이에 외투를 태우고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의 두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않은 참담한 화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백마의 뛰어난 감각과 신통력을 두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 몸에 불이 달렸다는 것을 이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을까?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설사 생체적 장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헌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백마는 유격구 인민의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마에 대한 소문은 소왕청 주변의 반유격구들과 적 통치구역의 인민들속에도 널리 스며들어갔다.

오의성도 그 소문을 듣고는 내말을 탐냈다.

≪김사령, 사령의 그 백마를 50필의 군마와 바꾸지 않겠소?≫

내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위해 나자구에 담판을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이런 흥정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던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튼 나자구에서 담판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오사령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아 하는 그 백마를 타고 마촌으로 돌아왔다.

나와 함께 근 2년동안 궂은 길 마른 길 가리지 않고 편자를 갈아대며 수천 리 길을 달린 백마는 1934년 소왕청에서 죽었다.

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전우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애석해 하는 것을 보고 대원들은 백마를 위해 조총을 울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총이나 울려선 뭘 하겠는가. 백마는 살아있을 때도 총성속에서 소란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죽어서나 안식을 맛보게 총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백마의 무덤이 왕청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오백룡

오백룡이 호위총국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초에 나는 그와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며 백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적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어젯날의 유격대 소대장은 백마와 관련된 세부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회고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작가 송영에게도 알려지고 이기영에게도 알려졌다. 한 군관이 그들에게 백마와 관련한 글을 써달라고 청탁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전말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그 불길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회상기가 아니라 한 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어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이기영과 송영을 통해 화가 정관철에게까지 흘러나간 것 같다. 그 유화는 바로 정관철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었다. 오백룡의 간청을 받고 박물관에 나가니 그런 그림이 턱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화폭에 나와 백마밖에 그려있지 않았다. 그 그림을 보니 백마와 함께 나를 중심으로 받들어온 전령병들과 오백룡의 생각이 나서 그들을 화면에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화가는 내 의향대로 2명의 전령병을 더 내놓아. 작품을 수정완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화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전령병들과 백마가 그리워질때마다 이따금씩 박물관에 나가보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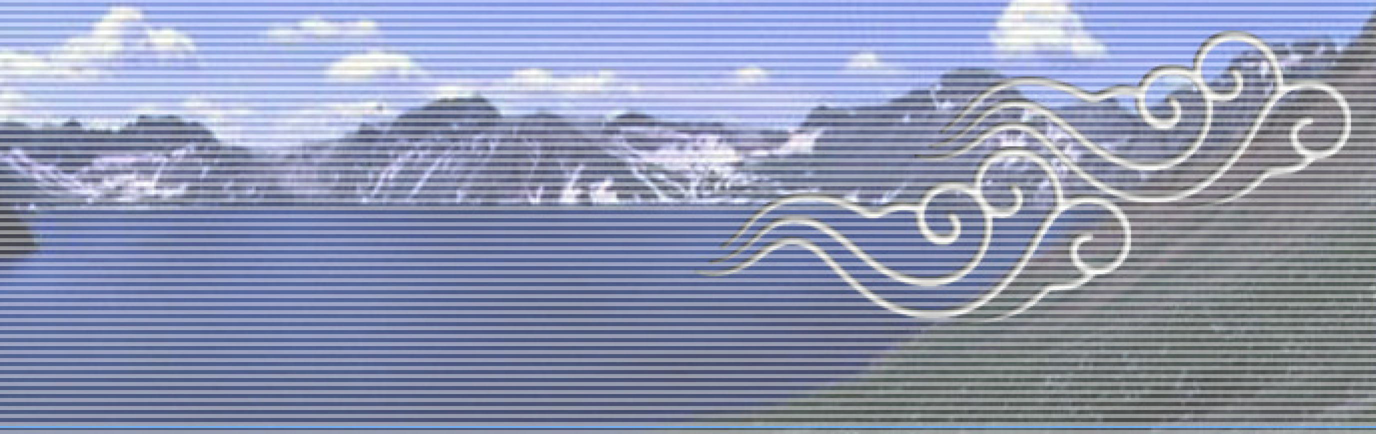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이기영

80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추억속에서만 종종 그려볼 뿐이다. 그 충실한 백마의 모습이오늘도 내 눈앞에서 60년 전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백마가 만일 사람이라면 충신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 시기 : 1934. 2 ~ 1934. 10

1. 이광


이광

나와 이광과의 우정은 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만청총 계통에서 온 김준이네 패거리들이 하루는 낯선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그 낯선 청년이 바로 이광이었다.

이광이 길림에 나타난 것을 두고 그때 우리 동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추리를 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조직선을 찾으려고 왔을 것이라는 사람, 길림일대의 청년학생운동 실태를 알고 싶어 왔을 것이라는 사람 등으로 제나름대로 해석들을 하였다. 김준은 이광이 길림에 온 것은 성적으로 소집되는 교원들의 어떤 비밀회합에 참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넌지시 귀뜸해주었다.

총명하고 대범하고 과묵한 사람, 이것이 이광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다. 그 후 접촉이 거듭되는 과정에 나는 그가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무르며 우애심이 지극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때 우리 동무들은 초면인물인 이광에게 홀딱 반해서 식견을 높이려면 문광중학교가 좋고 출세를 하려면 법정대학이 안성맞춤이고 혁명을 하려면 육문중학교가 제일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그를 길림바닥에 잡아두지 못해 안달하였다.

이광도 길림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연길현 고성자라는 곳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독립군 영감들의 심부름을 해주느라고 길림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청년학생들의 생활풍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전에는 이 도시에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져서 도시가 부글부글 끓는 쇠가마 같은 인상을 준다고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이렇게 되어 이광은 길림제5중에서 얼마동안 학창생활을 하였다.

이광이 초기에 접촉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홍범도, 김좌진, 황병길, 최명록과 같은 독립군 거두들이었다. 고성자의 그의 처가에는 독립군의 한 개 지휘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반연이 되어 그는 많은 민족운동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눈썹미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며 입이 무거운 이광의 기질은 인차 독립군 영감들의 주의를 끌었다. 오동진이나 이웅이 나를 자기네 교대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아마 이광을 독립군의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았다. 이광은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공부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신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는 진학의 꿈을 버리고 14살의 연약한 몸으로 가계를 유지해나갔다. 16살때부터는 완전한 호주로 가사를 도맡아 보았다. 그러다나니 학교공부도

늦어서야 하였다. 학창생활을 끝낸 그는 한동안 연길과 왕청의 소학교들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까지는 그를 본명대로 이명춘이라고 불렀다. 이명춘이 이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춘화향 북하마탕에서 교원을 할 때부터였다. 그때 북하마탕에서는 주변 8개 학교가 모여 계몽활동의 한 고리로 웅변대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였는데 당시 지하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이광으로 변성명을 하고 하마탕팀 선수로 축구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광으로 부르게 되었다.

≪나에게 민족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군들이고 공산주의를 안내한 것도 독립운동이오.≫

이광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고성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내 귀에는 그 말이 몹시 괴이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 독립군 영감들이 이광동무에게 단꺼번에 두 가지 사조를 내리먹였단 말이오?≫

≪아니, 내리먹였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할까.... 물을 먹였다고 하는 표현이 적중하겠는지. 하여튼 나는 그 영감들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영향도 받았고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사조의 영향도 받았으니까.≫

≪그 영감들은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들이었던게로구만.≫

≪이중적인 사조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방향전환을 모색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들은 독립군운동을 하면서도 슬금슬금 공산주의서적을 탐독했댔소. 우리 처갓집에 가면 방구석에 그 영감들이 보는 책이 디글디글했소. 그래서 나도 심심풀이 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펴그나 인이 배겼소.≫

나는 이광의 손을 덥석 그러잡고 허물없이 말했다.

≪공산주의신봉자를 알게 되어 기쁘오.≫

그러자 이광은 웬일인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부정해버렸다.

≪아니오. 나는 아직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오. 맑스나 레닌이 제창한 공산주의 원리 가운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개념들이 적지 않았소. 나의 소박한 눈으로 보면 공산주의적인 이상이라는 게 어쩐지 너무 허황하게만 생각되었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주 동무는 좀 섭섭해 할 수도 있겠는데 에두르기가 싫어서 한 말이나 널리 양해해주오.≫

첫 대면이었지만 나는 이광의 그 솔직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그 솔직성이 그의 첫째가는 매력이기도 하였다. 초기의 이광은 이처럼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전환의 도상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길림에 와서 우리와 접촉하는 과정에 완전한 공산주의 신봉자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한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 조직에 망라되지는 않았다. 이광이 길림으로 올 때 학전 3만여 평이 해당되는 토지문서 가운데서 3장을 저당잡히고 400여원의 노자를 마련했다는 자료도 나왔다는데 그 사실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학전이란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떼어준 논과 밭을 말한다.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광이 개인소유도 아닌 공유지를 저당잡히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객지로 떠날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 포부가 대단히 컸던 것 같다.

그가 집을 떠나면서 처남에서 남긴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장한 결의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는 만주벌판과 조선 8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정한 애국자를 찾고야 말겠다. 이 소망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부모님의 슬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을 맹약하는 바이다.≫

이 결의를 보면 이광의 성미를 잘 알 수 있고 그가 집을 뛰쳐나와 만주의 주요도시들과 정치활동의 중심지들을 발이 닳아빠지게 돌아다닌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이광은 대바르고 깐깐하면서도 궁리를 잘하는 사람이였다. 중국말도 동북 본토배기들 못지않게 자유로이 구사하였다. 이런 장점은 훗날 그를 십가장, 백호장, 향장의 직책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서도 출신인 나는 이광을 통하여 간도의 풍습, 함경도 풍습을 배울 수 있었다. 이광은 길림에 온 후 무슨 까닭에서인지 조직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그것은 길림을 잠깐 동안 들렸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으로 보는데서 온 임시관념의 작용 때문이 아니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대신 그가 나와의 거래는 많이 하였다. 나중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와도 범연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이광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은 길림에서 공부하다가 간도로 돌아갈 때였다. 출발에 앞서 나를 찾아온 그는 작별인사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였다.


이광의 가족사진 (뒤줄 오른쪽이 이광)

≪성주, 간도로 돌아갈 때 잠깐 무송에 들려 성주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은데 그래도 일없을까?≫

나는 이광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고마웠다.

≪원, 이광답지 않게 일없을까는 또 무슨 일없을까요.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보는 게지.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럼 동의한단 말이지? 좋소! 내 결심대로 어머니를 만나겠소. 남들이 다 성주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서 따르는데 난 아직 뵙지조차 못했으니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겠소. 왜 성주 어머니가 김혁이나 계영춘이 같은 사람한테만 ≪우리 어머니≫겠소. 나도 어머니로 모시고 싶단 말이오.≫

≪고맙소. 이광! 그러니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됐구만. 나와 이광은 오늘부터 친형제요.≫

≪그렇다면 잔을 찧어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국수라도 나누든가.≫

물론 우리는 잔도 찧고 국수도 나누었다. 이광은 결심대로 무송에 들려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드리다가 왕청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그의 가족은 연길현 의란구가 아니라 왕청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광이 무송을 떠나간 후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이광에 대한 소식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성주야. 이광이 오늘 간도로 떠나갔다. 내 그 사람을 송화강 나루터까지 바래주었지. 너를 객지에 떠나보낸 날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일손을 잡을 수 없구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싹싹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사람도 나를 친어머니 같다고 하더라만. 내 슬하에 끌끌한 아들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낙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겠니.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사내를 소개했다. 글세 이광이란 사람이 철주를 데리고 양지촌에 가서 아버지의 묘에 절을 하고 벌초까지 하고 오지 않았겠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너의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

고 내가 아는 청년들도 여럿이지만 이광이 그 사람처럼 정이 푹푹 들게 처신하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무쪼록 너희들의 우정이 저 남산 송백처럼 변치 말고 청청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은 날은 나도 하루종일 들뜬 기분으로 송화강변을 거닐었다. 글줄마다에 차넘이는 어머니의 희열이 나까지도 감염시켰다. 어머니가 기쁘다면 나도 기쁘고 어머니가 만족한다면 나도 만족한 것이다.

이광의 출현이 정녕 어머니를 그렇게도 만족스럽게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최대의 기쁨으로 되는 것이다.

이광이 길림을 떠난 후 나는 우정국으로부터 한 장의 송금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 번 말한 바가 있다. 나에게 학비를 대준 사람들은 대부분 오동진, 손정도, 양세봉, 장철호, 현묵관과 같이 길림시내에 거주하거나 유하, 흥경, 무송, 화전을 비롯한 독립군의 본거지들에 있으면서 정의부 본부에 들락날락하던 아버지의 친구들이였다. 길림시절의 나의 후원자들 가운데는 공청원들과 유길학우회원들도 있었다. 문광중학교에 적을 두고 공청열성자로 활동하던 신영근도 부자는 아니였지만 나의 학비를 보태주었다.

이미 이야기한 바지만 그 당시 어머니의 하루 수입이란 삯바느질을 해서 벌어들이는 5−10전 정도의 보잘 것 없는 돈이였다. 하루 10전씩 버는 때라야 월 3원의 돈을 쥐는데 그 3원이라는 금액은 육문중학교가 제정한 한 달 학비와 맞먹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학비를 보낼 때에도 돈을 절약하느라고 우정국 신세를 지지 않았다. 수공료를 받아서는 한 달 월사금이 될 만큼 푼푼이 모아두었다가 길림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며 보내주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정국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인편을 통해 돈을 받는 날이면 나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곤 하였다. 하나는 학비가 왔으니 망신을 면하게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월수입의 전부를 보내주고 집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였다. 사실 3원이란 돈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한끼 식사비도 될까 말까한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육문중학교의 학생구성을 보면 부잣집 자식들이 과반수였다. 우리가 돈깍지라고 부른 송금 통지서들이 어떤 날은 수십 장씩 학교에 날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나처럼 송금통지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도 구경조차 하지 못한 평민집의 자식들은 공연히 어깨가 처져서 돌아갔다. 이런 때에 평민가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 중 가난한 집의 자식인 나에게 10원의 뭉칫돈이 단꺼번에 굴러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변이였다. 나는 그 송금통지서를 들고 우정국으로 가면서 송금자가 누구이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추리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런 뭉칫돈을 보내줄 만한 친지는 종시 찾아내지 못하였다. 길림시 밖의 다른 지방에서 나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10원이나 되는 목돈이 생길 리는 만무하였다. 혹시 우정국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삭갈려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송금을 내앞으로 돌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 일은 있음직할 것 같지 않았다. 송금을 받는 사람이 송금자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 우정국에서는 돈을 잘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나한테서 송금통지서를 접수한 우정국 사무원은 송금자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 오히려 내 쪽에서 취급원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간막이 너머에서는 뜻밖에도 ≪이광이요!≫하는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의 나의 놀라움이란 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였다. 내 친구들 가운데는 이광보다 더 가

까운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이광이 길림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다가 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돈까지 부쳐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광의 웅심깊은 성미에 몹시 감동되었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 집과의 거래를 끊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안도에 계실 때 그는 많은 양의 첩약과 돈을 가지고 흥륭촌에 찾아왔다. 그 돈이란 그가 백호장을 하면서 다달이 모아두었던 생활비였다. 이광은 마음씨가 한정없이 고와서 남을 도와줄 때에는 뿅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것을 다 펴주었다. 이광은 어머니의 곁에 며칠씩 머무르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를 돌봐주다가는 왕청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우리 일가의 총애를 받는 단골손님으로 되었다. 남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줄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갚아줄 힘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돈을 돈으로 갚아주자면 우리 집 밑천이 너무도 달렸다. 나는 조국의 훌륭한 아들이 되고 민중의 충실한 노복이 되는 것으로써 나의 친지들과 동료들의 배려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광은 1929년 겨울에 나를 만나려고 길돈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1929년 겨울이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였다. 이광으로서는 때를 잘못 선택한 셈이었다.

그 대신 그는 자기가 숙박하고 있던 객주집 접대부 공숙자를 통하여 길림지방 청년학생운동 실태와 그것을 주관해온 지도핵심들의 투쟁방법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하였다. 공숙자는 접대부의 간판을 가진 여자였지만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길림시로 찾아오는 청년들과 우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간다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객주집에서의 해후가 계기로 되어 훗날 그 여자는 이광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이광의 아내 김어린녀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광은 상처를 하고 난 후에도 두고두고 그 여자를 잊지 못해 하였다. 본처와의 금슬이 좋았던 그는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생을 홀아비로 살려고까지 결심하였다. 김어린녀가 세상을 떠난 후 한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방에서 많은 혼처들이 줄레줄레 나타났으나 마음이 결백하고 고정한 그는 뭇여인들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광을 만나기만 하면 동무들과 함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고 병약한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장가를 들라고 설복하곤 하였다. 그의 결심을 휘여놓기란 참으로 마른나무를 비틀어서 송진을 짜는 것보다 더 힘에 부쳤다. 이광은 김어린녀의 3년상을 물린 후에야 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의 두 번째 부인 공숙자는 마음씨가 무던하고 현숙한 여성으로서 뭇사람들이 모두 탄복할 정도로 전처의 자식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었다. 전처의 자식들도 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공숙자 자신은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광은 나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공숙자의 소개로 길림 육문중학교와 길림사범학교에 다니던 운동권 청년들과 친교를 맺었다.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애국역량을 단합시켜야 한다는 것. 애국역량을 단합시키자면 그 기치로 삼을 수 있는 사상과 노선이 있어야 하며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길림조직이 이광의 가슴에 심어준 진리였다. 이광은 이 진리를 받아안고 간도로 돌아갔다. 이광의 길림행은 그의 혁명활동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변이었다. 그는 이 걸음으로 하여 일본영사관 밀정들과 만주경찰의 감시속에 들게 되었으나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따라 용감하게 돌진하였다. 추수, 춘황투쟁은 이광이 길림에서 얻은 진리를 확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의 세계관은 이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높이에로 또다시 도약하였다. 거주지를 왕청으로 옮긴 다음부터 이광은 북하마탕이라는 곳에서 향장으로 일하였다. 혁명 그 자체가 자기 이상의 전부라고 말해온 사람이 말단 행정기관의 심부름군에 지나지 않는 향장의

벼슬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못 흥미있는 현상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와 이광과의 상봉은 1931년 12월 명월구에서 다시금 이루어졌다. 이광은 그때 겨울명월구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느라고 사방으로 바삐게 뛰어다녔다. 그가 좁쌀 배낭에 다섯 마리나 되는 꿩을 얹어가지고 회의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역시 이광답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꿩고기와 닭고기로 꾸미를 한 간도특유의 농마국수는 곱빼기를 청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지경으로 기막히게 맛이 좋았다. 나와 이광은 그 국수를 두 그릇씩 겸상을 하여 배불리 먹은 다음 이청산이네 집 윗방에서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이광이 우리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극진히 돌봐주고 나의 학비를 보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곳

≪난 오늘 저녁 국수를 먹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소. 그 꾸미에 깃들어 있는 이광의 수고를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 길림에서 공부할 때도 동무는 날 데리고 식당으로 종종 가지 않았댔소. 이 신세를 언제 다 갚겠는지 .≫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이광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

≪신세는 무슨 신세. 난 그저 의연금을 내는 심정으로 성주네 일가를 도와주었을 뿐이오. 성주네 아버지야 한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 아니오. 성주도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왔소. 이런 애국자의 가정에 돈 몇 푼을 보태줬다면 그거야말로 응당한 일이지

신세라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내지도 마오.≫

그는 짐짓 노하는 체 하면서 손으로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나는 여기에서 이광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의 성격미를 보는 것 같았다.

≪이광이, 너무 그러지 마오. 은혜는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가 뒤따르는 법이오. 내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광이 우리에게 그처럼 진정이 넘치는 후원을 해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나도 그러리라고 짐작했소. 그런데 성주, 나의 그 선행은 우연이 아니오. 계기가 있단 말이오.≫

≪무슨 계기?≫

≪어느 날 성주 어머니는 나에게 성주 아버지와 혼사를 이루던 이야기를 옛말처럼 해주시지 않겠소. 어머니의 말씀이 그 혼사가 이만저만 힘들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요.≫

≪그 혼담은 나도 알고 있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우리 삼 형제를 앉혀놓고 그 고사를 이야기해주셨소. 그건 참말로 눈물겨운 혼담이였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할 때에 생긴 혼담이니 그것은 아마도 ≪한일합병≫ 전야에 있은 고사일 것이다.

어머니의 집이 있던 칠골과 아버지의 집이 있던 남리는 나지막한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7리쯤 떨어져 있었다. 남리에서 평향성 안으로 가자면 반드시 칠골을 지나야 했다. 칠골 사람들도 남포 방면으로 나갈 때는 남리 부근을 지나다녔다. 친교가 깊고 내왕이 잦다나니 두 동네 사람들은 서로 사돈을 잘 맺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남리에서 사윗감을 물색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총각이 다름아닌 우리 아버지였다. 두 집 사이에 매파가 왔다갔다하게 되자 외할아버지는 남리의 아버지네 집에 먼저 와보았다. 그러나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칠골로 돌아갔다. 사위감은 마음에 들었으나 살림살이가 지나치게 궁색하였기 때문이였다. 그처럼 가난한 집에 딸을 보내면 고생만 하게 될 것이라는 위구와 불안이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외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다섯 번이나 우리 아버지네 집에 와보았다. 가난이 원쑤라고 아버지네 집에서는 사돈될 사람이 여섯 번씩이나 다녀가는데도 점심 한 끼 변변히 대접하지 못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여섯 번째 만에야 칠골 외할머니와 의논하고 약혼에 동의한다는 편지를 남리에 보냈다.

≪나는 그 혼담을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가계를 더 잘 알게 되었소. 내가 참게사건까지 알고 있다면 성주는 깜짝 놀라겠지?≫

이광이 참게사건이라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그 사건은 우리 가문에서도 어머니나 보현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과 나만 알고 있는 가정 고사였다.

≪아니, 이광이 어떻게 되어 그 일까지 다 알게 되었소?≫

≪내가 성주네 집안 사람들과 어느 정도로 친숙해졌는지 짐작이 가겠지?≫

이광은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약간 우쭐하는 체 하였다.

내가 참게잡이를 시작한 것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예닐곱 살 때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집안살림에 보탬을 주느라고 참게잡이를 많이 하였다. 대동강의 지류인 순화강에는 참게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참게잡이를 하러 갈 때마다 어째서인지 나를 꼭꼭 데리고 다녔다. 어려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부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참게였지만 절구어 먹으면 그것도 별식이었다.

참게잡이는 좀 싱겁다고 할 정도로 공정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였다.

푹 삶은 수수이삭을 강물에 넣으면 날알냄새에 참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수백마리씩의 참게를 잡아내곤 하였는데 그것을 구럭에 넣어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즐거움이란 실로 한량없는 것이었다. 우리 집의 식생활에서 참게는 큰 보탬이 되었다. 할머니는 집에 손님이 올 적마다 단지속에서 절군 참게를 꺼내어 권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저런 참게를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칠골외가는 끝없이 사랑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의 세계였다. 나는 칠골집 외양간에서 풍기는 구수한 소여물 냄새를 좋아하였고 뜨락의 대추나무가지에서 귀따갑게 재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언제나 즐겼다. 여름날 밤 모기 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멍석 위에서 듣는 옛말에도 그


칠골집

지없는 애착을 느꼈다. 나의 이모는 내가 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칠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늘 훈계하시곤 하였다. 아마 나를 낳을 때 어머니가 친정집에 얼마동안 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의 출생지를 늘 남리라고 하였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며칠동안 친정에 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출생지가 칠골로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자가 설사 객지에서 몸을 풀어도 아이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 있는 곳을 출생지로 정하는 것이 조상전래의 법도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김보현

어쨌든 나는 외가를 친가에 못지 않게 몹시 사랑하였는데 이 감정이 참게잡이를 하는 순간에도 무시로 발동되었다. 나는 칠골에서 창덕학교를 다닐 때에도 일요일이면 만경대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참게잡이를 하였다. 어느 날 나는 그 참게의 절반을 수풀속에 감추고 할아버지에게 구럭을 내드렸다. 할아버지는 ≪오늘은 소득이 신통치 않구나.≫하면서 마리 수가 적은 데 대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체 하였다.

사실 제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내가 할아버지에게 외갓집에 갖다주려고 절반 몫을 남겨놓았다고 진상대로 말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토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는지 언짢아하시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아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집까지 구럭을 들어다드린 다음 다시 순화강가에 나가 수풀속에 숨겨놓았던 참게를 구럭에 담아 들고 칠골로 냅다 뛰었다. 외가사람들은 성주 덕에 오늘은 게추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였다. 나는 그 참게는 보현할아버지가 잡은 것이니 인사를 하려면 만경대 할아버지에게 하라고 하였다.



강돈욱
외할아버지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만경대에 왔다가 보현할아버지에게 참게 자랑을 하였다. 사돈덕으로 참게를 먹었는데 별맛이더라고 하면서 그 전말을 다 이야기하였다.

보현할아버지는 앉은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인사를 받고 어리둥절해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흐뭇해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한테서 속궁냥이 깊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광이 알고 있다는 참게사건이었다. 가난만이 빚어낼 수 있는 일화이고 인정세태극이었다.

그런데 이광은 인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일화를 소화한 것 같았다.

≪나는 혼담 이야기와 참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성주네 일가를 동정하기 시작했소.≫

이광의 말이었다.

나는 그 설명속에 담겨져 있는 이광의 사려깊은 마음씨에 완전히 감복되었다.

≪이광이, 향장을 하는 재미가 어떻소?≫

이것은 내가 중부 만주지방에 있을 때부터 알고 싶었던 문제였다. 그 당시 동만에 파견되었던 공작원들이 간도지방에서 보내온 통보자료에 바로 내가 가장 관심하고 있던 사업대상 중의 한 대상인 이광이 왕청에서 향장으로 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이 광은 나의 물음에 미소부터 지어보였다.

≪고달프긴 하지만 소득이 괜찮소. 지난해 가을에 우리 동무들이 하마탕에서 보위단에 붙잡힌 일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을 구출했댔소. 향장의 간판이 은을 낸 셈이지.≫

그는 농담으로 만일 허락만 한다면 자기는 종신 향장을 할 의향도 있노라고 하였다. 내가 고향자랑을 자꾸하자 이광은 이런 농까지 하였다.

≪만경대가 그런 절경이라면 나도 독립된 다음 가족을 데리고 성주를 따라가겠소.≫

≪종성은 어떻하구? 고향이 종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을 붙이면 아무데나 고향이지 뭐 태어난 고장만 고향이겠소? 어쨌든 내가 가면 소학 훈장자리나 하나 잡아주구려. 성주는 교장을 하고 나는 그 밑에서 교사로 일해야지.≫

≪이걸 어쩐다. 난 소학훈장이라면 질색인데 ≫

≪그런 말 마오. 저기 안도인가 고유수인가 하는데서 교단에 선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소. 아버님도 다년간 교편을 잡던 분이시었다는데.≫

우리의 우정은 별동대를 조직하던 나날들에 더 두터워졌다. 이광이 나를 만나려고 소사하로 찾아온 것은 그가 우리의 권고대로 왕청에서 별동대를 조직한 직후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청년들에 대한 구국군의 적대적 행동으로 하여 왕청동무들은 그 당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준비에서 커다란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이광은 별동대를 조직한 다음에도 그 활동방향을 결정짓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나는 그때 그에게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해주고 그와 함께 별동대의 활동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이광은 나의 건의를 허심하게 받아들였다.

좁쌀에 수수쌀을 섞은 밥과 된장국, 마른 산나물채가 고장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광을 극진하게 환대해주었다. 이광도 우리 어머니를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다. 어머니의 육친적 사랑은 이광을 감동시켰고 이광의 청춘다운 열정과 순박한 품성은 어머니를 만족시켰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것은 이광이 흥륭촌에 와 있을 때였다. 병상에서 일어나 철주와 함께 유격대오를 찾아온 어머니는 이광이 메고 있던 총을 만져보면서 이런 총을 가져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 독립군처럼 닭다리 같은 총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일본놈의 군대를 쳐부수겠냐, 너희들이 군대를 만들고 총 멘 것을 보니 평생을 두고 쌓인 한이 다 풀린다. 너희 어머니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어머니들은 자식이 머저리 구실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하면 가슴이 아파 울지만 나라를 위해 총을 메고 싸움에 나선 아들들을 보면 장해서 눈물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광은 왕청에 돌아가서 구국군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우리가 안도에서 우 사령과의 합작을 성공에로 이끈 것은 반일부대공작의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시초의 반일부대공작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많은 구국군 부대들이 우리와의 반제공동전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구국군 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주패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그런데 좌경이 이 통일전선을 방해하였다. 그들에 제창한 ≪상층타도, 하층쟁취≫의 모험주의적 구호는 반일부대 상층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고 적지않은 구국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거나 탄압학살하

는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이런 때에 이광이 반일부대 공작에 뛰어든 것은 어느모로 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광은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거주지도 북하마탕으로부터 태평구로 옮겼다. 그때 나는 태평구에 있는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300호 가량의 농호를 가진 태평촌은 지리적으로는 소왕청, 요영구, 노흑산을 연결하는 삼각지점의 중심에 놓여있는 마을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소만국경이 있었다. 이 동네에서 나자구까지는 20-30리 가량 되었다. 구국군의 중요 집결지들이 다 태평구 가까이에 있었다.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의 주둔지는 나자구 시내에서 5리 가량 떨어진 쟌창거우였다. 이광의 집은 태평구 본부락 강기슭의 오르막 경사지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집 옆에 있던 용드레우물이다. 그래서 이광이네 집을 용드레집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 우물에서 물을 여러 번 마셨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앞에 나타나면 이광이 용드레우물에서 찬물을 한두레박 떠가지고 와 나에게 권하곤 했는데 그 물이 별맛이었다. 나는 나자구에 갈 때마다 태평구에 들려 이광의 부모들에게 꼭꼭 문안인사를 드리곤 하였다. 우리가 주보중, 진한장, 호진민, 왕윤성 등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구국군과의 통일전선문제를 토의한 마지막 반일병사위원회도 이광의 집에서 하였다. 이광은 소왕청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대소 전투들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높은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휘한 실천적 모범은 구국군병사들을 감화시켰으며 군사정치일군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동만의 광범한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별동대를 반만항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신임하게 된 오의성은 이광을 구국군전방사령부 보위대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경위대원들까지 붙여주었다. 그 후 이광은 구국군과의 연합항일을 위하여 동산호와 연계를 가졌다. 반일을 한다고 무장을 들기는 하였으나 동산호는 이미 토비로 전락된 자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적잖은 사람들은 토비와 마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만주지방에는 예로부터 마적이 많았다. 청나라 말기에 관내로부터 많은 한족들이 산해관을 넘어 만주지방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이주민들의 침습으로부터 농토를 지키고 조상전래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자위적인 무장대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일본사람들이 마적이라고 명명한 만주에서의 의적의 시작이었다.

마적단은 ≪산적≫이나 ≪유적≫과 같은 잡스러운 도적떼와는 달리 자기식의 법도를 갖춘 의적으로 행세하였으며 남의 재물에 대한 강도, 강탈행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마적사회는 중앙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권력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 마적생활은 무장을 떼어놓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장을 휴대하고 살아왔다. 그런 생활은 사람들속에서 일종의 부러움과 동경심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표남비≫라는 말이 만주지방에서 공연히 유행되었겠는가. ≪여표남비≫란 여자는 창녀가 되고 남자는 비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적사회의 엄격한 법도가 물론 어느 때나 다 존중시된 것은 아니었다. 적잖은 마적부대는 생존과정에 부패타락하여 토비로도 되었다. 어느 것이 의적이고 어느 것이 토비인지 정체를 똑똑히 판단할 수 없는 성격이 모호한 마적단들도 있었다. 적잖은 비적들은 의적으로 행세하였다.

의적의 탈을 쓴 비적떼들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군벌들에게 정치적으로 매수이용되어 무지막지한 살육을 감행할 때 그 피해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반일부대공작 과정에서 발로된 좌경분자들의 ≪상층타도≫전략으로 하여 많은 구국군 지휘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감에 사무쳐 있을 때 그것을

재빨리 포착하고 반일역량의 내분에 이용한 것은 일제의 모략가들이었다. ≪이이제이≫나 ≪이비정비≫는 모략의 능수이고 이간의 명수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손을 빌어 반일역량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뜯어 지리멸렬케 하는 악명높은 수법이었다.

일제는 동산호가 이광 별동대를 전원 참살할 때에도 이 수법을 적용하였다. 그 첫 작업으로 이광에 대한 귀순공작에 달라붙었다. 이광을 잡으면 많은 상금을 주며 이광 자신이 귀순하면 높은 벼슬을 준다는 오만무례한 통첩장이 사방에 나붙었다. 오의성의 부대를 와해시키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막아야 하는데 그 영향을 주입하는 장본인이 이광이라고 그들은 단정하였다. 이광의 별동대는 구국군의 심장부에 깊숙이 들어박힌 통일전선의 돌격대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만하면 일본 정탐기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비의 전형인 동산호는 정치적으로 암둔한데다가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자여서 일본의 모략가들에게 쉽게 매수당하였다. 이광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일제가 자준 각본대로 노흑산에서 연합작접 문제와 관련한 담판을 하자고 미끼를 던졌다. 실책은 이광이 이 미끼를 덥석 받아문 것이었다. 그는 동산호가 일제의 개로 전락된 사실을 모르고 구국군 전방사령부 비서장 왕성복을 비롯한 10여명의 별동대원들과 함께 노흑산으로 떠났다. 당조직에서는 동산호와 같은 무지막지한 토비대장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광은 반제공동전선노선을 관철하지 못하면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못하는데 신변이 위태롭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산호는 연회까지 차려 이광 일행을 대접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살아서 돌아온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토비들은 이광이네 일행이 다 죽은 줄로 알고 학살현장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달아났는데 우리가 가서 구원해주었다. 그런데 그도 훗날 나자구와 노흑산 사이의 수림지대에서 전사하였다.

이광은 당년 29살의 청춘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의 잘못은 경각성이 없은 것이었다. 동산호와 통일전선을 하려면 사상적으로 그들을 개조시켜야겠는데 그는 그저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노흑산 부근의 산막에서 붙잡혀 학살당하였다.

나는 이광의 죽음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부대를 데리고 가서 동산호 일단을 당장 요정내고 싶은 복수심뿐이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이룩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시대적 의무이고 과제이며 총전략이라는 이성의 목소리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런 감정의 분출을 자제하지 못하고 유혈적인 복수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온 동만이 동산호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절규하며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었다. 좌경망동분자들은 군대가 출동하여 이광을 참살할 계급적 원수들에게 쓴맛을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유격대가 동산호를 치지 않는 것은 우경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제공동전선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은 이광의 희생으로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1000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동지를 잃었다. 적들은 내 곁에서 조선혁명을 떼메고 나갈 또 하나의 동량지재를 앗아간 것이었다.

나는 살점을 사정없이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오열을 참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항일전쟁을 시작한 지 한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벌써 내 곁에서 떠나갔는가. 어찌하여 나의 친구들은 정들기 바쁘

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세상으로 이렇게도 총총히 가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숙명이란 말인가.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이광과 함께 항일대전의 전략을 의논하던 소왕청하의 기슭을 정처없니 거닐면서 나를 끝없는 슬픔의 심연속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무자비한 처사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그리고 결심하였다.

이광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이광이 그토록 많은 노고와 정력을 바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다면 그도 지하에서 기뻐해 마지않을 것이 아닌가.

이광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오의성과의 담판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 죽음은 나를 통일전선의 길에서 물러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더는 후퇴할 수도 움직일 수고 없게 바짝 접근시켜 놓았다.

오의성을 찾아가자! 오의성과의 담판에 성공하면 이광의 원한을 풀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자구에로 백일행군을 다그쳤다. 이광의 가족을 만나 조상이라도 하려고 태평촌에 잠깐 들렸더니 그의 부인 공숙자가 두 팔을 벌이고 나를 막아나섰다.

≪장군님, 그리로 가시면 안됩니다. 거긴 장군님이 가실 데가 아닙니다. 애아버지도 그러다가 장군님 부탁입니다.≫

눈물에 젖은 그 부인의 애절한 호소가 나의 백인행군을 재촉해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부인은 7-8살쯤 됨직한 사내애를 품에 꼭 끌어안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소리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애가 바로 이광의 아들 이보천이었다.

그도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빤해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나타날 때면 토방돌앞에서 놀다가도 매번 ≪성주 삼촌!≫하고 부르며 사립문 밖으로 뛰어나오곤 하던 이보천이었다. 언제인가는 그가 나한테 매달려 풀메뚜기를 만들어달라고 성가시게 군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노상에 뛰어나온 이보천을 보니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저 애가 이전날처럼 내 몸에 칭칭 휘감기며 풀메뚜기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금 떼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용기마저 없다면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던 지난날의 철부지답게 내 어깨를 디디고 올라가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기만이라도 한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

그런데 보천이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뚤렁뚤렁 떨구고 있었다. 내앞에는 푸접이 좋고 양기가 발발한 장난꾸러기 이보천이 아니라 칠색무지개 같은 동요시절과 결별하고 새로운 고뇌의 세계에 앞질러 뛰어든 침울하고 소심한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 어린것에게서 풀메뚜기를 탐내던 낭만의 세계를 완전히 앗아갔다. 그러고보면 보천이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양친을 다 잃은 것으로 된다.

보천이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연약한 넋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변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이보천의 얼굴을 속절없이 굽어보았다.

≪보천아, 잘 있거라. 내 이제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돌아오마.≫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와는 비슷하지도 않은 말로 어린 보천에게 청을 하였다.

≪보천아. 이 삼촌은 지금 목이 말라서 못 견디겠구나.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냉수를 권하곤 했는데 오늘은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 한사발 떠다주지 않겠니?≫

몽상에 잠긴 듯하던 이보천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돈 것은 그 순간이였다. 그는 바람처럼 집으로 사라졌다가 놋대접에 용드레우물의 물을 퍼담아가지고 다시금 바람처럼 내앞에 나타났다. 이 별치 않은 움직임은 그의 기분상태를 일변시킨 듯싶었다.

놋대접속에서 출렁거리는 물을 보니 새삼스럽게 이광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자그마한 수면 위에 이광의 얼굴과 보천의 얼굴이 겹쳐 그려질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뻔하였다.

나는 어린것의 성의를 생각하여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 보천이는 코 밑을 훔치고 나서 대접을 들고 정다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대오에 출발구령을 내렸다.

그런데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는 그 순간 보천이는 갑자기 집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보천이는 사라질 때와 같은 속도로 쏜살같이 행길에 되돌아와 나의 백마에게 한줌의 귀밀을 권하는 것이였다. 그 말없는 행동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놓게 하고야 말았다.

우리가 강을 건너 멀리 갈 때까지도 보천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변에 그냥 서 있었다. 말안장위에 앉아 고개를 돌리니 그 애의 모습이 하얀 점으로 아물거리고 있었다.

≪보천아, 너도 크거들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을 해야 한다!≫

나는 멀리서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며 마음속으로 보천이의 장래를 축복하였다. 그 후 유격구를 해산하고 제2차 북만원정을 시작했을 때에도 나는 이광의 집에 일주일 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공숙자와 함께 보천이의 장래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 보천이가 후에는 나의 염원대로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임구에서 철도노동을 하던 그는 일제의 군수열차를 습격하다가 발각되어 두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것은 그가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있은 일이였다. 해방과 함께 감옥문을 나선 이보천은 할아버지의 태가 묻힌 조국의 땅과 하늘과 물이 그리워 그 해 가을 단동을 거쳐 평양, 서울까지 밟아보고 나서 다시 임구로 돌아갔다. 그 여행은 20살의 다감하고 전도양양한 청년 이보천의 마음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는 조국에서 건국의 불도가니속에 심신을 깊이 잠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압록강 철교를 건너갔다. 그 조국에는 아버지가 바라던 새 세상이 있었고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목마르게 기다리고 꿈꾸던 낙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다섯 해 후에는 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청소한 공화국은 자기의 존립을 위하여 결사적인 싸움을 벌였다.

수천 리 밖에서 그 초연내를 맡은 중국인민해방군 중대장 이보천은 용약 조선전선에서 탄원해 나와 인민군대에 편입하였다. 그는 한 기계화사단에서 지휘관으로 싸우다가 1950년 가을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이광의 불같은 생애와 혁명활동을 남다르게 깊이 파악하고 있던 **김정일**조직비서는 1970년대에 영화창작가들에게 과업을 주어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게 하였다. 그때부터 이광의 이름은 온



예술영화 -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나라가 다 아는 이름으로 되였다.

이광의 부인 공숙자는 유격대오에서 재봉대원으로 투쟁하다가 희생되였다.

아들의 희생에서 오는 슬픔을 혁명군 원호의 열의로 메꾸던 이광의 아버지 이주평과 누이 이봉주는 적들의 고문에서 생긴 어혈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보천이 우리의 곁에 아들을 하나 남기고 전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아들이 지금 총대를 틀어잡고 할아버지네 세대가 개척한 길, 그 뒤를 이어 아버지네 세대가 넓혀온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고보면 이광이네 일가는 3대가 혁명군대에 복무하는 것으로 된다. 한 가문이 3대에 걸쳐 총을 잡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광의 손자가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복은 입은 것은 대단히 장한 일이다.

얼굴도 몸가짐도 걸음걸이도 모두 할아버지를 닮은 젊은 군관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60년 전에 우리 곁은 떠난 이광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만 같아 가슴 뭉클해지는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보천의 아내가 장장 40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 하나를 믿고 꿋꿋이 키워 이광의 대를 잇고 그의 혁명정신을 잇게 한 것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보천의 아들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물론, 자기의 아들딸들도 군복을 입고 나와 **김정일**원수를 위해 대를 이어가는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나는 그 결의가 빈말공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광이네 가문은 빈말을 하지 않는 집안이다.

이광이 만일 살아서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왔더라면 무슨 일을 하였을까?

나는 지금도 종종 이런 가설을 세워보곤 한다. 이광의 사회활동은 물론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였고 그가 겨울명월구회의 때 이청산이네 집에서 표명한 이상도 교단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해방된 조국에 살아서 개선하였더라면 강건이나 최현이처럼 군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려운 초소를 골라가며 일생을 산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다.

2. 오의성과의 담판


오의성

투쟁무대를 왕청으로 옮긴 후 우리의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는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생긴 심각한 대립이었다. 일제의 집요한 이간책동과 반일부대 두령들의 빈번한 동요, 소비에트 좌경노선의 해독적인 후과로 하여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관계는 1933년에 들어와서 다시금 교전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9.18사변 후부터 만주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 막대한 정열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 노력을 결실로 초기에는 왕청유격대를 일방으로 하고 관영장부대를 타방으로 하는 두 무력이 힘을 합쳐 1932년 봄에 덕골에서 일본수비대의 침공을 격퇴한 것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그때 대두천의 일본군수비대는 국민당시절에 해놓은 목재를 실어가려고 수십 대의 마차를 끌고 덕골 방향으로 나왔다. 대왕청, 소왕청골안에는 목재가 무진장하게 쌓여 있었다.

이날 아군은 유인매복전으로 40-50명이나 되는 일본수비대 병력의 대부분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덕골전투는 반공풍조가 뿌리깊이 스며 있는 왕청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협동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를 지어주었다. 이 전투는 공산주의자들이 구국군속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덕골전투가 있은 후 김은식, 홍해일, 원홍권, 장룡삼, 김하일 등은 관부대에 입대하였다.

명사수인 김하일은 교통원으로 임명되었고 지식분자인 김은식은 인차 참모장이 되었다.

덕골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마촌군중들은 이전날과 다름없이 관부대장병들의 옷을 빨아주었고 칫솔, 치분, 비누, 수건, 담배쌈지와 같은 선물들을 정성껏 마련해 보냈으며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위문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공청원들은 선전문과 삐라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였다.

구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퉁즈≫(동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관 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군 대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퉁즈≫라고 불렀다.

그 부대에 들어간 동무들은 모두 구위 이상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구국군장병들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하였다. 관영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을 쟁취한 것은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훈춘지방의 항일유격대는 구국군 부대들과 정보교환까지 하였으며 지어는 주구청산도 공동으로 하였다. 연통라자유격대는 구국군이 원호한 총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진공적으로 달라붙으면 구국군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저질러놓은 ≪김명산사건≫으로 하여 모처럼 이루어진 반일부대들과의 우호관계는 영으로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관영장이 흰기를 들고 일제를 찾아가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으며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에서는 최현부대가 귀순하는 반일부대 병사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구국군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현

왕청유격대는 초기에 구국군과의 관계에서 실책을 많이 범하였다. 대대를 책임진 양성룡은 몇 자루의 무기에 현혹되어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는 품성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유능한 지휘관이였지만 군사실무주의와 모험주의에 빠져 통일전선을 홀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룡을 되게 비판하였다.

관영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항일유격대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견지한 것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은 코산부대였다. 그 부대는 1933년 5월 단오날 박두성이 인솔하는 잣더기(현재의 태평촌)자위대와 연합하여 동녕현성에 기지를 두고 동남차를 거쳐 십리평으로 쳐들어온 3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수비대와 위만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구국군이 망원경계를 무시하고 문전보초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자위대는 코산부대의 망원보초까지 서주었다. 코산은 다른 반일부대들에 지급으로 중요한 연락을 보낼 때에도 십리평의 반군사조직들에 곧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면 소선대원들이 반일부대 병사들을 대신하여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에 주었다.

그러나 이런 우호 관계가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다. 유격구역을 휩쓸고 있던 좌경망동 바람은 코산과의 이 동맹관계마저 깨뜨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좌경시책은 어젯날까지 동맹관계에 있었거나 동정적인 관계에 있었던 반일부대들의 부패변질을 앞당긴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양성룡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중국인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극좌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구국군과는 하층통일만 해야 한다≫느니, ≪구국군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두령을 죽이고 반변해 나오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주, 자산 계급인 장관들을 타도하라!≫, ≪병사들은 반변을 일으켜 유격대로 넘어오라!≫는 구호를 망탕 고창하였다. 이런 구호는 반일부대와의 상층통일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일부대는 조선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여 죽이고 ≪로꼬리 궁챤

당≫이라고 하면서 죽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를 벌였다. 그들은 만주를 강점한 첫날부터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항일의 기치를 들고 떨어져 나온 구국군 부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일제가 여기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유격대와 구국군의 연합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구국군 부대들과의 합작을 실현하기만하면 그것이 곧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와 대륙침략을 방해하는 무서운 힘으로 되어 저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이간솜씨는 벌써 만보산사건과 용정사건(조작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였다), 무순사건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일제의 첩보모략기구는 조중인민의 선린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금수나 돌부처도 낯을 붉힐 무순사건이라는 살인극도 서슴없이 조작하였다.

무순사건이란 일본의 첩보기관이 한 일본인에게 단도를 주어 무순에서 아무 죄도 없는 중국사람을 살해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모략가들은 그때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객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고 조선사람으로 변장시켰다. 살인은 성공하였으나 자객이 입고 갔던 두루마기밑에서 일본옷이 발견되고 그가 일본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무순사건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사건들을 확대하면 유조구사건도 되고 노구교사건으로도 된다. 일본이 어떤 모략을 꾸밀 때 적용하는 방정식은 이처럼 유치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잖은 사람들은 가짜를 잘 날조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법 때문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그 가짜에 쉽게 속아넘어가곤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조선사람이 만주를 빼앗으려 한다≫, ≪공산당은 구국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민생단≫에 망라된 반동분자들을 내세워 ≪간도 조선인자치구≫와 ≪조선법정자치정부≫의 수립을 골자로 하는 조선인의 간도자치를 부르짖게 하였다. 때로는 중국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조선유격대가 한 짓이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파국에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일제의 악랄한 귀순공작과 그에 따르는 반일부대 두령들의 항일의식의 변질에 있었다.

1933년 1월에 훈춘현 토문자에 주둔하고 있던 왕옥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그 중 수백 명에 달하는 역량이 우리를 반대하는 임시유격대로 개편되었다. 2월에는 소왕청에 있던 관 부대의 반수가 귀순하여 만주국 보위단과 공안국에 채용되었으며 같은 달 대황구 근처에서 출몰하던 마계림부대 장병 수십명도 전향하여 하마탕자위단에 합류하였다. 왕청현 이차자구의 강해부대와 화소포의 청산부대 장병들도 귀순을 신청하였다.

일제는 노흑산 일대에 웅거하고 있던 악명 높은 토비대장 동산호를 매수하여 이광의 별동대를 전원 참살하게 하였다.

유격대는 구국군의 행패가 두려워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행군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이 살아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다

시급 상정되었다.

나는 용단을 내려 구국군전방사령인 오의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왕덕림이 간도 땅에서 떠나가버린 후 구국군의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다. 오의성을 잘 설복하면 ≪김명산사건≫과 이광별동대참살사건으로 하여 동만땅에 동만 땅에 빚어진 유격활동의 경직상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생겼다.

나는 오의성과의 담판을 성사시키지 위하여 반성위와 함께 진지한 의논을 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결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주면서도 오사령한테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중국사람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조선사람이 가서는 오의성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을 휘여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성위는 오사령이나 채사령을 돌려세우자면 그의 배후에서 모사노릇을 하는 이청천이 작간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진한장

나는 반성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장애가 있든 가야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청천도 조선사람인데 반공분자이긴 하지만 설복을 잘하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구면입니다. 길림에서 3부통합회의를 할 때 그와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청천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구면, 초면이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사람들이 뭐 구면, 초면을 가리는 줄 아오? 게다가 오의성은 벽창호라지 않소. 승산이 없거든.≫

반성위는 나의 모험을 저지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에겐 안도에서 우사령을 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사령을 돌려세웠는데 오의성이라고 왜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우사령과 담편을 할 때는 유본초선생이 참모장으로 있지 않았소. 그게 좋은 배경이었단 말이오.≫

≪그런 배경은 오의성부대에도 있습니다. 진한장이 거기서 비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장을 하는 호진민도 공작원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만 자가당착에 빠졌다. 내가 든든한 배경이라고 역설한 진한장한테서 얼마전에 결정적인 응원을 바란다는 요청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오사령과의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되었다고 전제를 둔 다음 ≪**김일성**동지가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직에서 가급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반성위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반성위

≪혁명의 전도가 아직 요원한데 그렇게 모험을 해서야 되겠소? 제발 심사숙고해 주시오.≫

반성위는 끈덕지게 나를 설복하였다.

≪자기의 몸을 개인의 몸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소. 자칫하면 제2의 이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동무들만은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 게 아니오!≫

반성위의 그 말은 나를 적이 감동시켰다. 그러나 나는 공동전선의 대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반성위가 훈춘현으로 떠난 다음 동만의 각현에 있는 유격대 대표들은 왕청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통일전선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중심을 이룬 안건은 구국군과의 동맹문제였다. 이를테면 오의성, 채세영, 사충항 등의 구국군이 집결되어있는 나자구에 누가 담판을 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나는 구국군의 집결처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회의는 호위성원이 100명 정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나의 나자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의성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의성과 담판하자면 먼저 진한장이나 호진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부터 요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오의성의 비서장인데다가 고정한 사람이어서 사무실에만 배겨있었지 밖에 잘 나다니지 않았다. 설사 밖에 나온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날 내가 관여하던 공청조직의 성원이었고 또 그때 서로 맹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의성과 채세영에게도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나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편지를 발송한 다음 나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의성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나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반일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나는 선발된 1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로 떠났다. 새 군복을 입고 새 총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솔하였다.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나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의성 부대에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다음날 나자구에서 담판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오사령이 이처럼 담판에 응해나서기까지에는 진한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내 편지를 받고 오의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오의성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진한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가 퍽 오래다고 하였다.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오의성은 수염을 길게 드리운 풍채좋은 사나이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소

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격식을 차려 깍듯이 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중국식 예절만은 지키지 않았다.

나는 첫인사로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일본군에 투항할 때 사령님네 부대가 항일에 나선 것을 애국적 장거로 높이 평가합니다.≫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오의성을 그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부관을 시켜 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내 **김**대장이 일본놈과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당신네 군대는 수가 적으면서도 일본놈과 잘 싸우는데 우리는 수더구가 많지만 당신네들처럼 일본놈과 잘 싸우지 못해. 우리 사람들한테서 들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군대들이 알쭌히 새 총을 메구 왔다는데 그걸 몇 자루 우리한테 있는 낡은 총과 바꾸지 않겠소?≫

담판은 오의성의 이런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치고는 아주 까다로운 인사였다. 한쪽으로는 추어올리고 한쪽으로는 응해나서기 곤란한 흥정을 붙여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는 오사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쓴밥 단밥 다 먹어본 외교의 능수이고 능구렁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전방사령이 새총 몇 자루가 탐나서 예의도 없이 첫 대면에 그런 주문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바꿀 게 있나요. 그런 것쯤은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사령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넌지시 꼬리를 달았다.

≪그거 뭐 궁색하게 그런 놀음을 할거나 있습니까. 일본군대와 한바탕 싸우면 될 터인데. … 정 요구한다면 그까짓 거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오의성은 수염을 내리쓴 다음 다른 각도에서 또 들이댔다.

≪그런데 당신네 거 공산당이란 건 무엇인가? 저 진한장이란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난 통 믿을 수가 없거든. 주보중도 공산당인데 내 고문으로 있을 때 보니까 무얼하는지 꾸물꾸물하는게 마음에 안 들더군. 그래서 그 사람을 줴내깔렸지.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상공당도 마스고 다닌다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상공당을 마스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꾸며낸 선전이지요.≫

≪그럼 **김**대장도 상공당에 절을 하오?≫

≪난 상공당을 마스지도 않고 또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절도 하지 않지요. 그래 오사령은 절을 하는가요?≫

≪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하는 거나 오사령이 절을 안하는 거나 같고 같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오의성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까처럼 또 수염을 쓸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한 이불밑에서 자고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나는 담판의 성패여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오의성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재치있게 받아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선전이지요. 공산주의 물을 잘못 먹은 몇몇 사람들이 지주의 땅이라면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주라는 것들이 소작인들이 굶어

서 죽어가는데 선심이라도 써서 먹을 것을 주어야지 저만 잘 살겠다고 아닌보살을 하니 이게 도리가 됐는가요? 지주들이 식량만 주면야 무엇때문에 들고일어나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살길이 막히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 중국에도 태평천국이라는 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의성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럴 듯한 말이오. 한참 국란이 심한 때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나쁜 놈이지.≫

나는 내친 김에 계속 공세를 들이댔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이불을 쓰고 잔다는 것도 공산당을 모욕하느라고 일본사람들이 꾸며낸 소리입니다. 우리 유격대에도 여자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이 될 수는 있구요. 우리는 남녀간의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일이야 없겠지.≫

≪물론이지요. 우리 공산당처럼 청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부터 오의성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면서 시까스르려는 말투를 거두어들였다.

≪하하, **김**사령이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자구 한다.≫

≪오사령을 공산당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란 건 누가 시켜서 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의성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홱 내저었다.

≪우린 따로 하면 했지 공산당과 합작은 안하우!≫

≪그래도 힘이 부족한 때에야 합작해서 일본놈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글세 난 공산당 신세는 안 진다니까.≫

≪사람의 전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신세를 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두 그럴 듯한 말이오. 사람의 전도야 정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김사령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쟈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의성은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고나서 내 쪽에서 주춤거리는 눈치를 좀 보이자 깨고소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때 정말 쟈쟐리란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오사령이 나를 골탕먹일 수 있는 만점짜리 문제를 내던진 것이었다.

쟈쟐리란 한집안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청홍방≫이라는 조직이다. 운하를 파고 배를 끌던 노동자들이 생활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황제를 반대하여 내어온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네것내것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조직이였다.

결의형제를 무으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되지만 쟈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다. 쟈쟐리에는 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될 사람이 아버지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

쟈쟐리는 문벌이 높은데 들수록 위풍이 있고 권한도 있었다. 쟈쟐리에 들어가자면 식을 해야 했다. 우리의 지시를 받고 제24대 항렬의 쟈쟐리에 들어갔던 김재범

(김평)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식이 불만하다고 하였다. 새로 쟈잘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될 사람과 선배들한테 절만도 몇십몇백 번 해야 했다.

이런 조직에 나를 들라고 하니 야단이었다. 싫다고 거절하면 모처럼 잘되어가던 담판이 파탄될 것 같고 들겠다고 동의해 나서면 당장 부처님앞에 끌고가서 절을 시킬 판인데 그것은 오의성한테 코를 꿰어다닐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담판준비를 할 때 이런 정황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 자리는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사령하고 같이 쟈잘리에 드는 것은 뜻이 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직에 드는 것은 당조직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조직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그만둡시다.≫

≪하하, 그럼 그 쪽은 절반짜리 사령이지 옹근 사령은 아닌게로구만.≫

오사령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김**사령, 그래 술은 마시는지?≫

≪마시기는 좀 마시는데 혹 실수하여 반일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지요.≫

≪당신네 공산당은 괜찮아. **김**사령네 하구는 합작하구 싶은데 맑스의 물을 먹을까봐 걱정이거든. 우리 사람들한테 공산당 선전을 하는 건 나빠.≫

≪사령, 그건 염려마시오. 우린 공산당 선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항일선전만 하겠습니다.≫

≪당신네 공산당은 공산당치고는 양반공산당이군! 그런데 왕청공산당이 관영장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건 잘못이야. **김**사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거야 실책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실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에 왕청별동대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김**사령은 참 공정한 군사가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른 데가 없다고 하지 않겠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이따금 실수를 합니다. 그건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면 잘못을 범할 때도 종종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실책도 적을 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소. 일을 안하는 건달뱅이들한테야 실수라는 것두 있을 수 없지. 공산당이 일을 많이 해. 그건 우리두 인정하는 거구. 어쨌든 **김**사령하구는 말할 재미가 나거든. 솔직해서 의사소통이 잘된단 말이오.≫

오사령은 이런 말로써 담판을 일단락 지은 다음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담판의 성공은 확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진한장이 **김**사령의 친구라는데 이 사람이 글솜씨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자기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하였다.

오의성은 나에게 호진민을 아는가고 물었다. 안다고 하면 우리끼리 서로 내통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령은 호진민을 호출하여 이 사람이 **김일성**사령이니 서로 알고 지내라고 성의 있게 인사까지 시켰다. 나와 호진민은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예법대로 초면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한장은 오의성이 이처럼 자기의 막료들을 불러다가 인사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담판은 성사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우리는 오의성과 함께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의 일상적인 연계를 보장하며 두 군대의 공동행동을 유지하는데서 조절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반일부대연합판사처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그 성원 문제까지 토론하였다.

판사처 반일부대측 대표로는 중국사람인 왕윤성을 내세우고 유격대측 대표로는 조동욱을 선발하였으며 사무실은 나자구에 설치하되 오사령의 지휘부 가까이에 두기로 하였다.


조동욱

이날 오의성은 우리를 위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렸다.

진한장은 그것도 특대라고 귀띔해주었다.

오찬 중의 담화도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만주강점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오의성은 시커먼 눈썹을 푸들푸들 떨며 비분강개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산호가 이광을 참살한 데 대해서도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것들은 원래 토배기 비적패거리들인데 우리하구는 갈래가 달라. 그 동산호가 왜놈의 하수인이 되다니. 그 놈팽이들이 **김**사령네 부대를 해친 건 천벌을 받을 일이야. 우리 중화민족 가운데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한번 오사령의 인금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담판 결과와 오의성의 환대에 만족하였다.

오사령은 틀도 차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항일 의지와 구국열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이었다. 사상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면서 제한성만 들춰내면 합작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공동전선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로 소왕청에 오사령과의 합작이 잘되어간다는 것과 문제는 채세영인데 그와도 점차적으로 협상해보겠지만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동녕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칠 필요가 있으니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두라고 연락하였다.


채세영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채세영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채사령이 문제인데 이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1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채사령네 부대는 숫적으로 그 보다 더 많았다.

나는 이청천에게 담판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청천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채세영을 꼬드겼다. 이청천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채사영도 그 간계만은 반대하였다. 오의성사령이 **김**대장을 데려다가 오찬까지 하였고 또 **김**대장이 싸움 잘하는 왕청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잘못 다쳤다가는 큰 변이 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청천이 어떻게나 반공바람을 세게 불어넣었던지 우리는 채세영 문전에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채사령부대를 오의성과 떼어놓는데 있었다. 우리와의 합작에 응해 나선 오의성을 채세영으로부터 떼어내는 길은 오사령의 기간부대인 사충항여단을 우리의 영향하에 두는데 있었다. 여단장을 잘 설복하면 오의성과의 담판에서 이루어진 초보적 성과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여단의 구성을 알아보니 대체로 하층계급 출신이었다. 사충항 자신도 9살 때부터 지주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다가 먹고살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길림육군에서 왕덕림의 부하로 복무하다가 9.18사변 후 구국군이 되어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을 거쳐 한 개 여단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형적인 군인 기질의 소유자였다.



사충항

나는 호진민의 소개신을 가지고 그날로 사충항을 만났다.

내가 면회를 요청하자 여단장은 아무런 겉치레도 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었다. 그는 왜놈을 잘 치는 **김**대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 사람에게는 반공의식도 없었고 군벌기질도 없었다. 아주 소탈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사충항은 **김**대장부대가 일본군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자 동만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쟈피거우전투, 양수천자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비록 신문들이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간도지방에 그 소문이 굉장히 퍼졌다. 놀랍게도 사충항은 그 전투의 전말과 전과를 잘 알고 있었다.

연합하여 동녕현성의 적을 치자는 나의 제의는 사충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측근에 **김**대장네 유격대와 같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싶었소. 오늘부터 우리는 한 형제요. **김**대장의 원쑤이자 나의 원쑤고 **김**대장의 벗이자 나의 벗이오.≫

여단장과 나는 담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억세게 포옹하였다. 그 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가 되고 전우가 되었다. 사충항이 독립2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전사할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나자구 담판의 결과로 하여 항일혁명앞에 가로놓였던 가장 큰 암초는 제거된 셈이었다. 우 사령과의 합작이 공동전선을 위한 시발점이었다면 오의성과의 담판은 그 시발점에서 얻은 성과를 전 동만의 범위에로 확대시킨 역사적인 진일보였으며 5.30폭동과 만보산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조중 두 나라 민족의 무의미한 대립과 유혈을 종식시키고 반만항일의 거세찬 흐름을 하나의 대하에로 합류시킨 통쾌한 사변이었다.

오의성, 사충항과의 담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강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1932년의 남북만 원정과 왕청을 중심으로 하는 1933년의 대소 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적의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오의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쫓아버렸을 것이다. 오사

령과의 합작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애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통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상 동안 벌여왔다.

동녕현성을 치자는데 대해서는 오의성과 채세영도 찬성하였다. 우리는 나자구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을 비롯한 구국군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열고 이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세운 다음 왕청본부에 또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오의성과의 담판과 동녕현성전투의 성공으로 하여 동만의 유격부대들과 구국군부대들, 반만항일세력들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의성과의 합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데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중심고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간도를 떠나 장백 일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도 나는 오의성과의 합작을 성사시키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오의성은 무송지구에 활동거점을 잡고 우리의 익측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동투쟁의 나날에 맺어진 옛정이 다시 살아올랐다.

나는 1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오의성 부대의 밀영이 자리잡고 있는 서강 동쪽 수림으로 찾아갔다.

그때 오의성은 영채 밖에까지 뛰어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10년이나 20년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죽마고우들처럼 뜨겁게 포옹하였다.

초연에 절은 오사령의 거슬거슬한 수염이 볼에 와닿는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목이 꽉 메는 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군벌기질이 다분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 중국사나이와의 상봉이 왜 그다지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싸움속에서 맺어진 정이란 참으로 유별난 것이었다. 나는 오사령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를 친형제와 같이 진심으로 환대해주는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탄우속에서 맺어진 우정, 세상에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열렬하고 더 공고한 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전투적 우정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호랑이가죽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매 눈 같이 예리한 눈길로 사람들의 인금을 가늠하던 왕년의 도고하던 기상은 오의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던 녹림호걸이라기보다는 촌늙은이에 가까운 텁텁한 모습이었다. 살도 빠지고 눈 정기도 약해진 것 같았다.

나는 오의성의 밀영에서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 오사령은 부하 100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양의 뜻을 표시하자 그는 짐짓 노하는 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사령한테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겠소. 그렇지만 큰 싸움을 준비하는 **김**사령에게 나도 친구로서 무슨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오. 그 100명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김**사령 수하에 가야 합니다. 속담에 다북쑥도 삼밭에 가면 곧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 후 나는 오의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 해 말에 오사령이 부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쏘련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연계가 끊어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오의성은 우리가 공동전선의 위업을 개척할 때 잠깐 동안 필요했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실천속에서 어깨겯고 포연탄우를 헤쳐온 잊지 못할 전우였다. 오사령이 후반생을 어떻게 보냈고 최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해명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어데서도 믿을 만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뿐이다.



3. 동녕현성전투



나자구담판 후 반일부대연합판사처는 구국군과의 사업을 맹렬하게 벌였다. 판사처일군들은 인접의 산림대들에도 침투하여 그들을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공작을 하였다. 이 기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1933년 9월초 나자구 부근의 노모저하라는 곳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이삼협을 비롯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동녕현성(삼차구)전투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작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의성사령의 제의에 따라 우리가 작성한 작전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가 나자구담판 후 동녕현성을 즉시에 공격하지 않고 두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 전투의 의의를 특별히 중시한 데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항일유격대의 합법화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았고 우리와 구국군부대 사이에 맺어진 통일전선에 관한 협약도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발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전투를 잘하면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이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서는 것이요,

패전으로 끝나면 나자구의 담판의 성과는 허실로 돌아가고 축조과정에 있던 연합전선은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잘못하면 우리가 혈전을 통하여 힘들게 이루어 놓은 항일유격대의 군사적 권위에도 오점이 생길 것이였다. 구국군이 통일전선을 하다가 녹아났다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시험을 치르는 셈이였다. 우리의 정찰자료와 지방조직들이 보내온 통보에 의하더라도 동녕현성에는 이시다가 이끄는 500명 정도의 일본 관동군병력과 경탄장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정도의 위만군병력이 있고 그밖에도 위만경찰들과 자위단무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게다가 적들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 무기들로 장비된 견고한 성새속에 들어박혀 있었다.


채세영

그때 반일부대의 어떤 지휘관들은 동녕현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프로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합회의 석상에서도 공격자의 역량이 방어자의 역량보다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군사교범의 요구인데 적의 병력에 비해 우리측의 병력이 너무 약하다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오의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청천이 다녔다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서나 통할 수 있는 개나발이니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소극적인 임전태도를 비난하였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던 것만큼 일부 지휘관들이 ≪무적황군≫을 자칭하는 일본군의 신화에 겁을 집어먹고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연합회의에서 작전방안이 채택되자 반일부대연합판사처 성원들은 호진민과의 연계밑에 아무 부대에서는 몇 명, 아무 부대에서는 얼마 하는 식으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시킬 병력 수를 부대별로 할당하였다.

우리는 왕청, 훈춘, 연길에서 각각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그들을 나자구로 불렀다.

왕청에서 내가 데리고 간 1개 중대와 백일평대대 정치위원이 훈춘에서부터 인솔해 가지고 온 중대는 1933년 8월말에 나자구 근처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연길동무들은 아쉽게도 집결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연길대대에서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최현중대가 선발되였다. 출발에 앞서 최현은 매전투원들에게 실탄 150발씩 나누어주고 새 신발도 한 켤레씩 공급해 주었다. 북동을 떠난 중대가 강행군으로 마촌까지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동녕현성전투를 치르고 소왕청에 가 있던 9월 중순이였다.

우리가 훈춘동무들과 함께 나자구에 들어갔을 때 구국군장병들은 시내 인민들과 함께 우리를 열광적으로 맞이하여 주었다. 환영군중들 가운데는 주변 부락들에서 온 농민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들의 열정적인 환영모습을 통하여 이 고장 반일조직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대오를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를 올리는 군중의 뒤에는 최정화와 같은 유능한 혁명가들이 서 있었다. 그는 나자구반일회장이였지만 만주국의 심부름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반일병사위원회 성원의 자격으로 구국군과의 사업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나자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반일공동전선노선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최정화는 인민들을 발동시켜 구국군 부대들에 식량과 천도 많이 대주었다.

우리는 중국인거리에서 대열을 정리하고 항일구국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 다음 연이어 춤마당, 노래마당을 펼쳤다. 거리 양옆의 중국인 가게들에서도 영업을 중지하고 연도에 뛰쳐나와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구국군이 친형제와 같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나자구시가는 마치 축전도시인양 흥성거렸다. 조선인거리, 중국인거리 할 것 없이 온 도시가 명절 분위기에 휩싸였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새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대장을 보자고 야단들이었다. 김대장이 평안도사람이라느니, 함경도사람이라느니, 지어는 경상도태생이라고까지 하면서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옥신각신하였다.

아이들은 38식 보총과 탄띠들을 만져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한 대원이 탄띠를 세 개씩 띠었는데 하나는 허리에 혁띠처럼 두르고 나머지 두 개는 양어깨에 각각 하나씩 가위다리 모양으로 띠었다. 한 탄띠의 정량이 100발이니 각자가 300발씩의 총탄을 휴대한 셈이었다.

≪나라를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네들, 점심이나 같이 나눕시다.≫

여인들이 대열에 새하얗게 달려들어 유격대원들의 팔을 승벽내기로 잡아끌었다. 나자구 시내에서 10리, 20리 떨어진 고장들에서도 아낙네들이 점심을 지어가지고 유격대를 찾아와 음식을 권하였다.

나자구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반일부대연합판사처 동무들의 안내를 받아 오의성사령의 숙소를 찾았다.

우리는 구면으로서 화기애애한 담화를 하였다. 6월의 첫 담판 때와 같이 서로 상대를 떠보는 담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담화였다.

내가 나자구로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오사령이 그 동안 동녕현성전투를 포기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청천과 같이 우리와의 합작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의성이 동녕현성전투를 단념하고 우리와 구국군과의 관계를 협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도록 설유하지 않았겠는가? … 반일부대연합판사처 일군들은 이청천이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합작이 유산되도록 채세영을 부단히 꼬드기고 있는데 그의 이간질이 오사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몇 차례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오의성의 통일전선 의지는 여전하였고 동녕현성전투를 잘하여 구국군이 왕년에 당한 패배를 만회하려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오사령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은 1932년 말에 일본군이 나자구를 ≪토벌≫할 때 받은 타격이었다. 일본군은 그 당시 10여 대의 비행기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구국군을 사정없이 짓뭉개놓았다. 나자구는 잿더미로 변하였고 구국군은 성남촌, 신툰자, 석두하자와 같은 고장으로 쫓겨났었다.

≪수더구를 보면야 사실 우리가 일본놈들보다 더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나자구를 내주고 산골로 꽁무니를 뺐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우. 나자구를 타고 앉은 왜놈들이 생사람의 머리를 베서는 남문에 달아매곤 했지만 우리는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산골에만 배겨있지 않았게나. 일본군이 무섭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 이제 동녕에 가면 톡톡히 값을 받아내야지.≫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오사령은 옆구리의 목갑싸창에 자주 손을 가져갔다. 오의성이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통일전선의 전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징조였다.

그날 나는 반성위와 마주 앉았을 때처럼 오의성에게 나의 지난날을 추려서 이야기해주었다. 오사령도 그 답례로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그의 고향이 산동성 동창 어디라는 것과 그에게 오기성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그때의 격식 없는 한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담화를 하고 있을 때 오사령의 숙소 지붕꼭대기에서는 2명의 유격대원이 보초를 섰다. 구국군 측에서도 그날은 지휘부 주변의 경계를 물샐틈 없이 하였다.

소문과 같이 오의성은 그날 정말로 범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를 하였다. 몸이 비대해서인지 걸상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틀을 차리고 담소하는 것은 싫어하였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목침 위에 한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의성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점심준비를 잘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식사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 따로 점심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다닌 사람은 얼굴에 마마자국이 있는 중국인 대원이었다. 오사령은 내가 중국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덕으로 터득한 나의 중국말 밑천은 오의성과의 사업에서도 큰 은을 냈다.

왕청중대와 훈춘중대들은 나자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중정치사업 방향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국군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번 전투에 달려 있다. 유격대가 선봉에서 잘 싸우면 구국군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제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구국군이 우리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일상생활과 전투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투는 총 몇 자루나 쌀 몇 포대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통일전선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 통일전선의 명줄을 걸고 있다. 전리품은 구국군이 다 가지라고 하자. 그들이 약담배를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정치도덕적 측면에서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명심하자…

반일부대의 지휘관들 중에서 동녕현성전투 방침을 제일 적극 지지해 나선 사람은 사충항 여단장이었다. 항일유격대가 나자구에 체류하는 동안 나와 사여장 사이에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진실한 우애가 싹텄다. 유격대와 구국군의 대부대들이 나자구를 떠나 동녕현성으로 행군해 갈 때에도 그는 줄창 우리하고만 같이 다니려고 하였다. 숙영지도 우리의 곁에 정하려고 하였고 전투시에도 우리 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하였다. 나자구에서 동녕현성까지 수백 리를 걸어가는 그 나날들에 나와 사여장은 서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였다.

9월초에 나자구를 떠난 원정부대들은 며칠간의 시간을 노상에서 보냈다. 행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중시하는 계기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와 구국군의 정치도덕적 차이는 실생활과 행군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민의 군대답게 행동하였다. 상공당이 있어도 마스지 않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어도 손을 대거나 곁눈을 팔지 않았다. 중국인부락에 들리면 오락회도 하고 선전화도 붙이고 구두 선전공작도 하였다. 다른 부대들이 들면 폐를 많이 끼쳤지만 우리는 도리어 주민들을 도와 물도 길어주고 망도 갈아주

고 마당질도 해주고 울바자도 엮어 주었다.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는 전책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백성들을 알아보는 좋은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부대들은 다 성품이 곱지 못하고 행실이 거칠어서 글렀는데 김사령네 부대는 점잖고 싹싹하고 인정미가 넘쳐서 살이라도 떼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인민이 우리를 성심성의로 지지하고 환대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사충항여단장은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며 김대장네 군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사 멋쟁이군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김대장이 영솔하는 공산당군대의 모범을 따르라고 여러 번 훈계하였다.

≪지금 어떤 작자들이 행군선봉에서 구국군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행실이 깨끗해야 하늘도 너희들을 굽어본다. 우리 부대에서 여자들을 희롱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백성들에게 호령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사충항의 이 말은 그의 부하들에게 효능높은 각성제가 되었다.

어떤 구국군대원들은 어두운 밤에 곡식낟가리만 보아도 일본놈군대라고 하면서 삼십육계를 놓았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우리는 유격대대열을 맨 앞장에 세우고 구국군부대를 후위로 돌려놓았다. 이 별치않은 조치는 유격대원들을 분발시켰다. 그들은 동녕현성전투의 승패가 곡식낟가리와 일본군을 혼동하는 구국군에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따라서 통일전선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결정적 힘도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수걱수걱 행군을 다그쳤다.

유격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하였다.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를 내걸고 논쟁도 하였다.

≪강동무, 우리가 동녕현성을 왜 치는지 그 목적을 한 번 좀 멋있게 말해주게나. 나자구에서 대장 동지가 말씀해주실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그게 알쏭달쏭하거든.≫

원정군이 노흑산에 거의 다달았을 때 왕청중대의 뒷꼬리에서 한 대원이 능청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식정도를 저울질해 보자는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강동무도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허허, 이것 봐라. 이 동무가 남의 불에 게를 구울 작정이구만. 임자 기억이 그렇게두 알쏭달쏭하다면 내가 말해주지. 이왕이면 ≪십진가≫ 곡조에 맞추어 노래로 냅다 불러주지.≫

그 대원은 상대가 말할 짬도 주지 않고 정말로 ≪십진가≫를 뽑기 시작했다.

하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실현해야 할
실현해야 할
통일전선 성공함이 첫째이로다
첫째이로다

둘이라면
둘도 없는 혁명성새 우리 유격구
우리 유격구
소만국경 멀리까지 확대함이다.
확대함이다.

서이라면
서리바람 칼칼해도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쏘련으로 다닐 통로 개척하는 것
개척하는 것
…

질문을 제기했던 박 동무는 입을 딱 벌이고 감탄하는 시늉을 하였다.

≪동무 재간은 참 금 열닷 말을 주구두 못 바꿀 재간이야. 나 같은 석두한테두 동녕현성을 치는 목적이 청청하늘의 보름달처럼 제법 석연해지는 걸.≫

왕청중대의 재간둥이인 강동무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도 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착잡한 경위도 ≪십진가≫에 고스란히 펴담을 줄 알았고 9.18사변의 발발로부터 만주국의 성립에 이르는 소름끼치는 정치적 재난 과정도 ≪십진가≫의 선율속에 재치 있게 함축시킬 줄 알았다.

동녕현성전투의 목적을 알기 쉽게 시화한 강동무의 ≪십진가≫는 왕청중대에서 훈춘중대에로, 훈춘중대에서 사충항여단에로, 사충항여단에서 채세영부대에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몇몇 구국군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십진가≫를 흥얼거렸다. 구국군은 우리 부대의 모범을 따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구국군장병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미구에 차례지게 될 전리품의 몫을 그려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활동지역을 소만국경까지 넓혀보겠다든가, 유격대와의 통일전선을 잘하여 만주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숭고한 항일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화제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게, 동녕을 치면 약담배가 많이 생길까?≫

우리 부대의 후위에서 사충항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글세. 위만군이 1개 연대나 배겨 있다니까 약담배 같은 거야 흔하겠지. 아편 없이야 무슨 위만군이겠나. 그런데 아편을 빨지도 않는 사람이 약담배 소리는 왜 갑작스레 꺼내나?≫

질문을 받은 동료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짝패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사람두 원, 아편이자 돈이구 돈이자 아편이 아닌가. 허리에 만 냥만 차면 황새 타고 양주로 날아간다고 했네.≫

≪하긴 그래. 항주 구경두 돈 없이는 못 간다구 했으니까. 자넨 만 냥 짜리 아편을 차고 항주도 가구 서주도 가게. 난 그저 일본제 손전지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소원뿐이야.≫

≪그까짓 손전지 걱정 같은 걸 하지두 말게. 일본군이 득시글득시글 한데 손전지

하나쯤이야….≫

≪희떠운 소리 작작하라고. 아편두 손전지두 다 승전 후에야 생기는 선물이야. 동녕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떨어질 줄 아나?≫

우연히 얻어듣게 된 이 대화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연추를 달아 놓는 듯 하였다.

전리품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저 구국군병사들이 과연 ≪무적황군의 용사≫들과 백병전을 벌일 수 있을까? 중화민국 만세를 부르며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포대앞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언행이나 음침한 눈빛에는 어딘가 미덥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우리는 노흑산에서 왕청유격대와 훈춘유격대의 연환모임을 조직하고 다시한번 동녕현성전투의 목적과 군사정치적 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였다.

그 후에는 동녕현성 부근의 고안촌, 오사구 일대에 진출하여 적정을 재확인하고 전투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동녕 부근에서 지하당조직도 찾아냈다. 그것은 일찍이 반성위가 수녕중심현위 서기로 활동할 때 동녕, 고안촌, 신립촌, 노흑산 동지에 꾸리고 지도해온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1932년 봄에 적들한테 노출되어 추적을 당하다가 그 중 일부가 왕청지경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동녕에 남아 지하로 깊이 들어갔다. 반성위는 그때 당원들, 공청원들 뿐 아니라 유격대원들과 일반군중들도 왕청으로 많이 넘겨보냈다.

반성위는 훈춘으로 떠날 때 언제든지 동녕땅에 갈 기회가 생기면 지하에 들어간 당원들과 공청원들을 찾아내어 조직선을 이어주고 자기를 대신하여 잘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나자구에서 군중정치사업 요강을 발표할 때 주민정치사업을 잘하여 동녕현의 지하당조직을 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에서 찾아낸 몇 명의 당원들로 동녕현지하당을 복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나자구지하당에서 하도록 조직선도 이어주었다. 이 지하당 조직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쏘련으로의 통로도 어렵지 않게 개척하였다.

동녕현지하당은 우리가 준 비밀공작 지시를 잘 집행하며 1940년대까지 건재하였다. 소할바령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백두산밀영과 쏘련 하바로프스크 주변의 훈련기지들을 거점으로 삼고 소부대활동을 벌일 때 우리는 동녕의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많은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거쳐 국내와 간도로 나오기도 하고 백두산에서 소만국경 지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었던 개별적 공작원들도 연해주를 들어갈 때에는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소만국경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맹렬히 벌이던 전문욱소조 역시 동녕지하당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당시 소만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녕현 맞은 켠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다는 국제주의 전사 야. 떼. 노비첸코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동녕의 지하조직들은 대일작전 시기에도 적의 후방교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동녕현성 해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 주민들과 지하조직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동녕현성에 있는 위만군 연대장이 비록 만주국에 복무하나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이며 위만군과 일본수비대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알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대장은 현성안에 있는 중국인 상점 주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다. 지하당성원들은 상점 주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당성원들이 중국인 상점 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위만군연대장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합작에 동의해나서도록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1933년 9월 6일 밤에 시작되어 9월 7일 낮에 끝났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하면서 한 전투를 이틀씩이나 끈 실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녕현성을 치는데서 우리가 역점을 찍은 주공방향은 서문 밖의 능선에 2층으로 축성되어 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에는 여러 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대와 일제침략군부대 본부 사이에는 깊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가 굴설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예비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 공격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것도 이 서산포대 때문이였다.


동녕현성시가

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훈춘중대를 짜작골이라는 곳에 배치하고 왕청중대를 주공방향에 진출시켜 서산포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밤 9시 적진에 은밀히 접근한 유격대의 파괴조는 성시공격을 알리는 나의 총성신호와 함께 적포대를 향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를 통하여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적아간에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나는 서문으로 시내에서 돌입한 유격대로 하여금 적 병영을 봉쇄하게 하는 한편 일부 역량을 포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다음 파괴조를 발동시켜 맹렬한 작탄공격으로 서산포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동틀 무렵이 다되어서야 포대는 저항을 중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의 주력부대는 일본군 수비대 병영을 강철그물 같은 봉쇄망으로 둘러싸고 적의 필사적인 반돌격 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켰다. 일본군은 북문으로 도망쳤다.

편의대로 가장하고 시내에 미리부터 들어가 있던 구국군부대들과 동문과 남문을 거쳐 성시에 돌입한 구국군 부대들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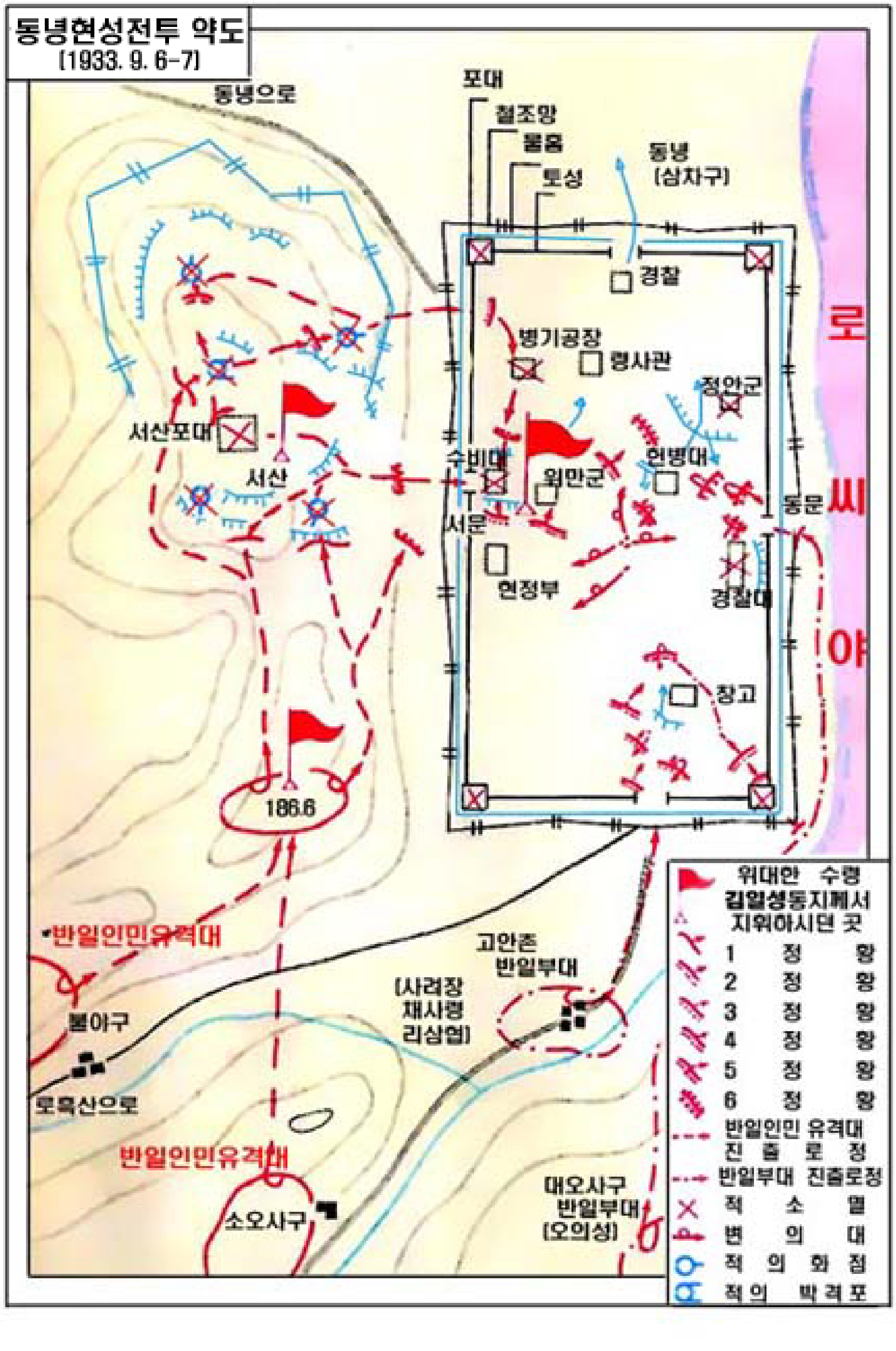
위만군부대 본영에서는 대표를 보내 협동하여 일제침략군을 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합작이 실현되면 성시가 완전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채세영 휘하의 일부 부대들이 위만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점을 마구 털고 주민 가옥들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만군은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질풍같은 기세로 우리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일본군 수비대도 이에 합세하였다.

적의 맹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구국군은 일부 부대들이 점령구역을 내던지고 현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 일각을 압축하였다. 구국군도 이에 고무되어 병기공장을 점령하고 군수품 적치장들을 습격하였다. 시가전은 여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연합작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는 아군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유격대는 시내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현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부



동녕현성전투 약도
(1933. 9. 6-7)

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여단장이 중상을 당한 채 성시안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 때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지판에 여단장을 남겨둔 채 성시 밖으로 도망

쳐버렸다. 부관도 그를 돌보지 않고 살 구멍을 찾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전리품 타령을 하던 구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약담배와 일본제 전지를 꿈꾸고 있을 때 나는 약탈과 그것이 전반적인 전투행정에 미치게 될 후과만을 우려했을 뿐이였다.

그런 약탈은 이미 전투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가는 놀라운 행실이 발로되었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 셈이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급한 행실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구국군의 약탈행위와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간 불충불효의 행위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비겁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사충항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일 표현일 따름이다.

역사는 도덕적으로 낙후한 군대가 승리자의 단상에 오른 전례를 알지 못한다. 히틀러독일의 나치스군대가 패전의 시궁창에 구겨박힌 것도 주요하게는 인륜을 저버리고 무한궤도로 선과 미를 짓뭉개버린 도덕적인 패배자들이라는데 있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운명이 서산낙일로 된 주되는 이유 역시 그 군대의 도덕적 부패성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군대로 규탄하며 증오하는 수십 억의 선량한 인민들과 국제적 연합국의 포위속에서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처럼 전쟁 마당에 ≪위안부≫까지 끌고다니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 자체를 불필요한 치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 것이다.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낸 사충항을 등에 업고 그를 화력으로 엄호하면서 부대를 고지쪽으로 무사히 빼돌렸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간 사충항의 부하들을 벼락맞을 놈들이라고 욕하였다.

구국군대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사실 욕지거리가 나갈 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소행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 사이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녕현성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 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 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동만 땅에서 이전날처럼 또 다시 붉은기를 들고 다니며 보무당당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녕현성전투는 구국군

의 의식속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모습을 심어주었다.

그 후부터는 중국의 반일부대들이 우리를 해치는 놈들만 있으면 자청하여 따라다니면서 답새겼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 번째로 생명을 받아안은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 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사령이 준 것이다. **김일성**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친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충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같은 소문이 만주 각지로 날아갔다.

동녕현성에서부터 나자구까지 연연 수백 리를 헤아리는 귀환의 길에서도 나는 노상 사 여장의 곁에 있었다. 첫날은 우리가 줄곧 담가를 들고 갔다. 구국군대원들은 자기네 상관이 유격대원들의 담가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 곁에 접근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부관들이 대원들과 함께 자기네 사령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쫓아버렸다.

부관이 세 번째로 우리 대열을 찾아오자 나는 구국군에 사충항이 누워있는 담가를 인계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도 지각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제는 자기네 과실을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담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넘겨준다면 그들이 전장에서 저지른 죄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원들을 설복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을 넘겨주자 구국군 대원들은 황송하여 절까지 하였다.

사 여장은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데 대하여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행실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상관의 입장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사죄하였다.

≪**김**사령, 저 미물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대장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부하들을 잘 키우지 못한 탓이니 허물을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고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주시오.≫

나는 그가 부하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사충항이 부하들에게 분풀이를 하였거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였더라면 나는 그토록 감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관치고도 참으로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큰 무관이었다.

≪중국속담에는 단 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 날 다 좋을 수는 없고 꽃도 천 날 다 고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여장이 치명상을 입고도 원기를 회복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을 사려면 이빨을 보고 사람을 사귀려면 그의 마음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내 **김**사령과 같은 분을 벗으로 사귀게 된 걸 하늘이 나에게 준 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귀중하게 간직하겠소.≫

사충항은 나보다 나이가 열둬서너 살 더 먹은 연장자였지만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나와 피로 맺어진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었다. 동녕현성전투가 있은 후 그는 부대의 주둔지도 마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구에 정하였다. 우리는 친척집 문턱을 넘나들 듯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교를 두터이 하였다.

사여장의 총상자리를 완치시키려고 나는 그에게 약도 많이 가져다주었으며 그의 사상을 개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주었다. 그런 과정에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고 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도 성장하였다.

사충항은 1934년 6월 나자구전투에서도 반일연합작전을 위하여 잘 싸웠고 인민혁명군에 편입된 후에는 독립 2사 사장으로 적잖은 무공을 세웠다. 그는 전투때마다 맨 앞장에서 싸창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세상에 사여장 같이 훌륭한 지휘관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구국군부대 병사들도 사여장을 무척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런 병사들 중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탈출하여 사충항의 부대에 넘어왔다.

사충항은 노송령전투때에도 최선두에서 나가다가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다. 총탄이 배를 관통하지 못하고 속에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인차 운명하였다. 사여장의 추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애달프게 그를 추억하였는지 모른다.

동녕현성전투의 포화속에서 우리와 함께 항일로 튼튼히 결합한 채세영도 후에는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어 5군 부군장을 거쳐 군장을 하였다. 그는 북만을 활동거점으로 삼고 주보중의 수하에서 우리와의 형제적 유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나와 채세영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동녕현성전투를 통하여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 사이의 공동전선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굳어졌을 때 우리앞에는 이 공동전선을 박살낼 수 있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근으로 된 것은 장개석을 미화한 오의성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그 때 나자구에 돌아와 연합모임을 열고 공동으로 동녕현성전투를 총화하였다. 오사령은 그 모임에서 첫 발언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연합부대가 동녕현성전투에서 승리한 데 대하여 말하면서 별스레 장개석을 칭찬하고 장개석이 남방에서 대포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주어야 동북의 항일전쟁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유격대원들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훈춘유격대를 책임지고 온 백일평은 그 말을 듣고 연단에 뛰어올라가 장개석이 제국주의의 개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원조하며 영도할 수 있는가, 장개석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오사령은 반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오의성은 노발대발하여 백일평을 체포하고 그를 총살하겠다고 을러댔다.

이렇게 되자 백일평의 대원들이 막 들고일어났다. 우리는 동녕현성싸움을 하면서도 대원 하나 잃지 않았는데 통일전선을 하다가 상관을 잃는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자기 지휘관을 잃고 무슨 체면으로 훈춘으로 돌아가겠는가, 우리가 다 죽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의성과 싸워 백일평동지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당장 달려나가려고 하였다.

구국군들도 총을 들고 맞불질할 차비를 하였다.

총성 한방에 무리죽음이 날 수도 있고 또 모처럼 이루어진 통일전선이 깨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앞에서 오의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술을 푸들푸들 떨기만 하였다.

나는 연단앞에 나가서 조선말과 중국말로 쌍방을 다같이 설복한 다음 오사령을 타일렀다.

≪오사령, 노엽겠지만 너그럽게 생각하고 백일평을 놓아주시오. 그 사람이 사령의 체면을 보지 않고 반동이라고 한 것은 외람된 일이지만 오사영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온 중국이 다 제국주의의 개라고 낙인하고 있는 장개석을 그렇게 추어주니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구동북군이 항일을 못하도록 9.18사

변 전부터 장학량에게 미리 못을 박아놓은 사람도 바로 장개석이 아닙니까. 이제 백일평을 총살하면 온 만주가 오사령을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할 터인데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끝내자 구국군들속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가? 남방에서 온 사람인가? 국민당이 보낸 파견원인가?□하고 떠들었다. 그러자 □남방은 무슨 남방, **김일성**이야, **김일성**이라는 유격대 대장이야≫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무식해서 한 소리이니 나를 장개석과 한통속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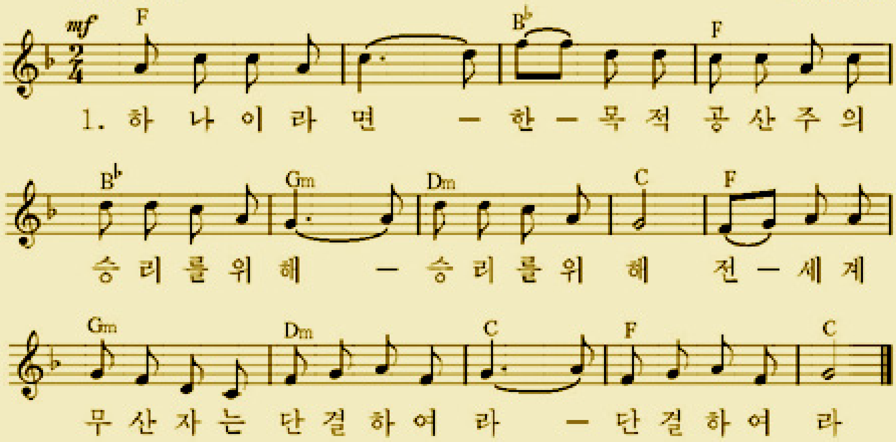
오의성은 이런 말까지 하고 나서 총살령을 철회하겠다고 언명하였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백일평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구국군 하층병사들이 자기네 사령을 미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오사령은 왜 **김**사령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십 진 가

명랑하게 　　　　　　　　　　　　혁명가요



2. 둘이라면 둘이 함께 살지 못할
두 계급이니 두 계급이니
유산계급 무산계급 투쟁하여라 투쟁하여라

3. 셋이라면 3대조직 강화하여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당조직 공청단체 아동단이다 아동단이다

≪우리가 안 죽인다면 다다. 오사령이 죽이겠다면 마음대로 다 죽이는가.≫

≪백일평을 죽이면 우리 구국군이 벼락을 맞는다.≫

병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장교들은 오의성에게 백일평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와 진정서들을 보냈다.

백일평은 사흘만에야 오사령의 손에서 풀려나왔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처럼 수많은 노고와 인내와 희생을 동반하였다. 혈형이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결합이 어찌 아무런 곡절도 고충도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적들은 동녕현성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연 사흘동안이나 화장하였다. 그 대신 우리는 호진민을 잃었다. 그는 나자구로 돌아오는 길에서 오발로 객사하였다.

4. 넷이라면 너는 도시로동자
나는 빈농민 나는 빈농민
튼튼한 동맹으로 새 사회 세워 새 사회 세워

5. 다섯이라면 다같이 참가하자
산업건설에 산업건설에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6. 여섯이라면 여러가지 해를 끼친
파쟁분자를 파쟁분자를
대렬에서 깨끗이 쓸어 냅시다 쓸어 냅시다

7. 일곱이라면 일제놈과 지주놈의
땅을 빼앗아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에게 나눠 줍시다 나눠 줍시다

8. 여덟이라면 여덟시간로동제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생산과 학습에 열중하여라 열중하여라

9. 아홉이라면 아름다운 내 조국을
해방하고서 해방하고서
인민의 혁명정권 건립합시다 건립합시다

10. 열이라면 열번을 죽더라도
한번 먹은 맘 한번 먹은 맘
조금도 변치 말고 힘껏 싸우자 힘껏 싸우자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소비에트노선이 정권건설 분야의 좌경이었다면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발로된 좌경적 사상경향이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매개 군인이 상하가 없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군사행동의 모든 면에서 지나친 평균주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절대화하는 사상이다.

유격대오 안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감촉한 것은 남만진출을 끝마치고 왕청에 돌아와서 유격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때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편향은 시초적인 것으로서 크게 후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동녕현성전투를 마치고 왕청에 돌아와 유격대의 사업을 요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싹에 불과했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군대 안의 지휘체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경종은 1933년 가을 훈춘현 대황구에서 울렸다.


오빈

대황구는 훈춘의 중심유격구로서 국제당파견원 반성위가 박두남에게 피살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했던 훈춘유격대의 용사들 중 13명이 한꺼번에 무리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 동만 인민들의 비분을 자아냈다.

나자구에서 전투총화를 마치고 유격구에 돌아온 훈춘동무들은 어떤 외딴집에서 잠시 노독을 풀며 추석명절을 쇘다. 추석을 쇤 다음다음날도 그들은 보초를 세우고 진종일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밤중에 그 외딴 집을 포위하고 불의에 달려들었다.

이런 전투정황에서는 적의 약한 고리를 치고 포위환 밖으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자면 지휘관이 정황을 똑똑히 포착하고 제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오를 책임진 중대장에게는 결론권이 없었다. 일행 중에는 오빈과 같은 유능한 군사지휘관도 있었으나 현당군사책으로 일하다가 좌경바람에 대원으로 강직된 그의 말은 날이 서지 않았다.

그 당시 상급당조직의 지도부에 앉아 있던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결론권을 주지 않았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어야 하며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되어 지휘관들의 손발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비끄러매놓았다.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곳은 무능의 탓이 아니라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중압으로부터 온 기능마비의 병폐였다.

적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여드는 죽음의 대문앞에서도 그들은 적과 싸울 것인가, 포위를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의만 거듭하였다. 창발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일부 대원들이 공론만 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으니 일단 싸움부터 시작해놓고 보자고 제기하였으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에 물

젖은 사람들은 회의결정도 없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면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사실 포위속에 든 유격대를 파멸에로 이끈 범죄적인 자살행위였다.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적들은 습격을 개시하였다. 그 순간에야 유격대원들은 회의를 중지하고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였다.

빗발처럼 날아드는 적탄은 13명의 유격대원들을 전투서열에서 제거하였다.

시체더미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몇 사람뿐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오빈의 유언을 받고 왕청에 찾아와 나에게 13용사의 희생과 관련된 전말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전사한 13명 가운데는 백일평도 있고 오빈도 있었다.

훈춘에서 온 대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시체더미를 헤치고 있을 때까지 복무에 관통상을 입은 오빈은 창자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 숨을 모아쉬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지금 동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소. 그러나 당원으로서 부탁하는 것이니 오늘의 이 사실을 **김일성** 동지에게 꼭 보고해주오.≫



종성 신흥촌에 있는 오의선의 집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제창자들과 그것을 전투실천에 맹목적으로 적용한 교조주의자들을 저주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장애가 아니었더라면 훈춘중대 동무들은 제때에 포위망을 돌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13명의 희생이라는 비참한 상실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13명은 모두가 동녕현성을 치는 싸움에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한 잊지 못할 전우들이었다. 우리가 전투를 끝내고 동녕현성에서 철수할 때 방차대에 망라되었던 훈춘동무들은 왕청부대가 싸움을 참 본때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나를 목마에 태워주기도 하고 머리 위에 추어올리기도 하였다. 희생된 전우들의 추도식을 할 때에는 엉엉 울면서 추모연설도 하였다.

그처럼 불같은 열정과 사랑을 지닌 사나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고인이 되고 말았다니 억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 13명 가운데서도 오빈은 가장 잊지 못할 전우였고 동지였다. 그는 우리가 육읍지구를 개척하는 과정에 채수항의 소개로 친교를 맺은 사람이었다. 채수항이 용정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닐 때 오빈은 거기서 동흥중학교를 다녔다. 이 두 학교는 다 사회운동자들과 독립운동 인재를 키워낸 중요한 온상이었다. 그들은 용정에 있을 때 학생운동도 함께 하였다.

오빈은 채수항과 함께 우리가 주최한 공수덕회의와 겨울 명월구회의에도 참석하여 무장투쟁방침을 세우기 위한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오빈과 채수항이 나를 종성으로 안내한 것이 아마 1931년 5월일 것이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들과 함께 밀선으로 두만강을 건너 신흥촌이라는 곳에 첫 자욱을 짚던 때가 어제런듯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버들방천을 물들이는 신록의 아름다움과 고색창연한 옛 성터의 정취를 가슴 설레이는 신록의 격정속에 받아들이며 조국의 미래를 두고 많은 말을 나누었다.

나는 그 해 봄에 신흥촌 북문밖에서 종성반제동맹 책임자로 일하는 오빈의 아버지 오의선도 만나보았다. 연길현 차조구라는 곳에서 소작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아들이 직업적인 혁명활동의 길에 나선 후 가족을 데리고 신흥촌으로 이사하였다. 오의선의 집은 미구에 왕청지구의 반일인민유격대와 종성군 안의 모든 지하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이어주는 비밀연락처로 되었다.

내가 신흥촌에 갈 때마다 오빈의 집에서는 국수를 누르곤 하였다. 우리는 1933년 5월 단오도 이 집에서 쇘다. 그때 오의선은 30리나 되는 풍계장에까지 가서 메밀가루를 사다 평양 냉면 맛이 나는 국수를 눌러 우리의 점심상에 놓아주었다.

그 단오날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고생을 많이 하는 오의선의 가족을 위해 그 집 뜨락에서 샘줄기를 찾아주고 박우물을 만들어주던 일이다. 나는 그때 훈춘땅에서 무장투쟁에 전심하고 있는 오빈을 대신하여 아들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앞두고 나자구에서 오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5월 단오날 신흥촌의 아버지가 눌러주던 메밀국수이야기를 하였다. 오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내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훈춘땅에서 군사책으로 활동하다가 대원으로 강직된 때였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다.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빈을 고무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생기발랄한 인간으로 남아 있소. 군사책이 대원으로 된다고 해서 오빈이 김빈이나 박빈이 될 수야 없지. 그렇지만 훈춘에서는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소. 동녕현성전투나 끝나면 상급에 제기해서 왕청으로 갈까하고 궁리하는데 대장 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오빈이 왕청에 오면야 나도 좋지. 그렇지만 오빈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울 수 있는 좌경분자들은 왕청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의 대답이였다.

≪그럴까?≫

≪왕청이라고 해서 좌경바람이 약한 것은 아니오.≫

≪그래도 대장 동무의 곁에 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구만. 하여튼 나는 왕청으로 가고야 말겠소. 오빈은 일구이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빈은 서산포대를 점령할 때 작탄을 품고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그의 이 공적은 전투총화에서 응당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화를 끝내고 부대들이 나자구에서 서로 갈라질 때에도 오빈은 자기의 결심을 재차 표명하였다. 왕청에 오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이였다. 그는 동녕현성전투 때 왕청동무들이 서산포대를 점령하고 성시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심이 더 굳어졌다고 말하였다.

물론 나는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오빈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왕청으로 날아온 것이다. 봄에는 이광이 갔고 여름에는 반성위가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졌으며 오늘은 오빈이 그렇게도 바라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오빈을 포함한 13용사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최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전율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했으며 어떤 경우에나 그런 요소가 대내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처럼 큰 혐오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혁명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사상경향이라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군사작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서 토의하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이 당조직을 통하여 군사작전 수립에 반영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집체성이 부대관리를 책임진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일전쟁 초 시기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집체성의 명목밑에 지휘관의 권한을 침범하였으며 부대관리와 군사작전에서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그 당시 군대안에서는 군사작전을 세우거나 전투를 할 때 당원들의 창발성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소조회의, 지부회의, 각급 위원회를 비롯한 당회의도 열고 오늘날의 군인총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대회의도 열었다. 그것도 정황조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에서였다.

그런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나폴레옹법전처럼 절대시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모든 군사문제를 그 대소와 정황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각급 당조직과 전대회의들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혁명군이 어느 한 도시를 칠 계획이라면 먼저 당소조회의를 진행한다. 진공한 도시의 이름은 비밀에 붙이고 그 도시형태를 약도에 그려놓은 다음 이 성시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이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토의결정한다.

소조회의에서 전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승리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작전방안이 세게 되면 또 지부총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꼭같은 방식으로 토의를 반복하며 그 방안을 거수가결로 결정한다.

다음 공정은 전대회의이다. 전대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과 순차도 소조회의나 지부총회와 다름이 없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비당원군인들도 문제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ㄱ이라는 도시를 치려 한다. 이 도시를 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손실은 없을 것이고 희생은 적을 것이다. 작전계획은 여사여사하다. 이 계획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면 전투명령을 하달하고 ㄱ도시로 진격해나간다.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갑작스레 의제를 설정해놓고 여럿이 모여앉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끝없는 논쟁이 펼쳐지곤 하였다. 군사민주주의의 덕으로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개명창이 되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논쟁은 무한정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에 적정에는 변화가 생기고 각급 회의들에서 모처럼 토의결정된 작전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곤 하였다. 설사 그 방안대로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혁명군은 정황조건의 변화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13용사의 희생은 가져온 혁명군대안에서 민주주의 코를 걸고 지나친 평등주의와 평균주의를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할하는 부대에도 없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현당군사책 김명균과 함께 1중대의 사업을 요해해보려고 병실로 찾아갔다. 그날 병실 주변에서는 중대장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중대정치지도원이 대원들과 함께 나무를 패고 있었다.

상하일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광경앞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명균 군사책은 웬일인지 얼굴빛이 냉담하였다.

≪지휘관들이 저렇게 이신작칙을 하니 눈맛도 좋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군사책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왕이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마당을 쓸어봅시다.≫

나는 마당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빗자루를 잡으려고 병실쪽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김명균은 나의 군복소매를 뒤고 슬그머니 잡아끌었다.

≪내 이제 기막힌 장면을 하나 보여주겠소.≫

그는 풍기사령에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곧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풍기사령은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금은 아침 청소시간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불러오라면 불러올 게지 무슨 잔말이오!≫

군사책의 입에서는 대뜸 욕지거리가 튀어나왔다.

풍기사령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전대회의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나는 풍기사령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김명균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도 인격상으로 대원들과 동등하니 대원들이 청소를 할 때에는 상관도 만사를 제쳐놓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라우.≫

이것은 아직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초단계에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평등사상은 그 후 유격대의 군사실천에까지 부식되어 일정한 기간 그 지휘체계를 마비시켜놓았다.

물론 모든 사람, 모든 군인은 인격상으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나 오늘날의 인민군대와 같은 혁명군대에서는 매개 군인들에게 그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분공을 주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대장의 분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대장의 모자를 씌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대장의 일을 시킨다.

수행하는 임무와 분공에 따라 혁명군대 안에는 상하관계가 있게 된다. 중대장은 소대장의 상급으로 되고 소대장은 분대장의 상급으로 되며 분대장은 대원들의 상급으로 된다. 혁명군대의 군사복무조례는 하급은 상급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없고 군대의 강철같은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는 군인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지휘관들이 그 복무조례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이것은 규율과 질서, 관병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의 생리를 파괴하고 그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나타나 평등의 구호밑에 하급이 자기가 추대한 상급을 존경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준 명령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불미스러운 작태까지 빼어놓았다.

하급이 상급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내린 명령지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벌써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무리이다. 그런 군대에서 전사는 지휘관을 위해 방패가 되고 지휘관은 전사를 위해 육탄이 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의지의 화합을 감히 바랄 수나 있겠는가. 자기 대오를 만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한 걸음으로 걸으며 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강철같은 통일체로 꾸릴 수 있겠는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전투시에 지휘관이 대원들과 꼭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서도 나타났다. 소뿔도 각각 염주도 몫몫이라는 말은 무슨 일에나 다 각자의 차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이치이다. 이 이치대로 해석하면 전투마당에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지휘관들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는 돌격서열의 앞장에 서고 방어할 때에는 방어진의 1선에 서서 생사를 가리지 말고 싸우라고 설교하였다. 이런 요구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전투장에서 자기의 직무

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투상황을 부단히 살피면서 싸움을 광폭적으로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1선에 서서 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다보니 부대를 정황에 맞게 제대로 통솔할 수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휘관이 선봉에 서서 대원들을 돌격에로 이끌 때도 있고 적탄이 작렬하는 참호와 전호들을 돌아다니며 전투원들을 고무할 때도 있다. 부대가 역경에 처하고 그것을 순경으로 바꾸어야 할 지휘관의 선구적인 모범이 필요할 때에는 응당 제1선 위치에서 대원들을 원쑤격멸에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정황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곧 이신작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도언

그 당시의 전투총화들에서는 자기의 지휘처를 이탈하여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대원들과 꼭같이 행동한 지휘관들에게 노상 칭찬이 차례지곤 하였다. 대원들은 어느 소대장이 고지 위에 꿋꿋이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총알이 날아와도 꿈만해 한다거니, 아무 중대장은 적진으로 돌입할 때에도 대원들보다 장바 한 기장쯤은 앞서 들어간다거니, 우리 대대장만큼 적진속에 뛰어들어가 용감하게 육박전을 하는 대대장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네 상관을 추어올렸다.

전투규정이 밝히고 있는 위치에서 전투발전 전반을 정확히 통찰하고 부대의 차후 행동방향을 결심해야 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필마단창으로 적진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무모한 풍조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동만의 모든 유격대들에 다 전파되었다. 항일전쟁 초기 유격대들에서 소대장, 중대장과 같은 기본단위의 군사지휘관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이런 풍조 때문이기도 하다.

왕청에서도 필마단창의 명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철, 김성현, 이응만 등은 다 그런 명수들이었다. 김철과 김성현은 선두에서 돌진하다가 전사하였고 이응만도 전위에서 싸우다가 발목을 상하였다.

연길의 최현과 조도언은 전 동만이 다 아는 돌격명수들이었다. 그들은 정찰도 대원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하였다. 군사 지휘관들이라기보다 중학생들처럼 물덤벙 불덤벙하는 천진난만한 모험가들이었다.

조도언은 연길유격대가 낳은 유명한 모험가였다. 입나발을 잘 분다고 연길지방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를 ≪조나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다.

그는 어디 가서나 이 별명 때문에 군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되었다.

사람들은 조도언이 입나발을 끊은 지 오랜 성년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백나발이 다된 말년까지도 그를 본명 대신 ≪조나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항일전쟁의 포연탄우를 앞장서서 헤쳐온 투사 조도언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조나발≫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별명 대신 본명대로 조도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이상해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지경이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집 문밖에 와서 ≪이 집이 조도언동지 댁입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조도언은 푸접없다고 할만치 퉁명스럽게 ≪이 집에 ≪조나발≫은 있어도 조도언이란 사람은 없어. 여긴 ≪조나발≫의 집이야≫하는 대답을 하여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처럼 그는 항일전쟁 시기의 전우들이 지어준 자기 별명을 이만저만 사랑하지 않았다.

조도언이 만일 고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 글에서 이름대신 대중이 그렇게도 즐겨부르던 별명을 써가며 그를 회고하고 싶다.

자기 부모의 이름자도 변변히 쓸 줄 모르던 조도언은 더벅머리총각이다 된 때에야 야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조선말 자모를 익히고 구구표와 ≪유년필독≫을 배웠다. 그는 문맹의 뒷골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조직생활도 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는데 나중에는 중대장의 중임까지 맡아보았다.

조도언은 중대장이 된 다음에도 적의 포대앞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적정을 살펴보고 중대에 다시 돌아와서는 습격명령을 하달하고 선두에서 바람처럼 내달리곤 하는 유별난 싸움꾼이였다.

좌경분자들은 조도언이 백주에 적을 정찰하고 자위단을 쳐서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노획하자 각종 집회와 공식문건을 통해서 그의 무훈을 굉장히 선전하였다. 그런데 그 선전은 조도언이 그런 모험을 삼가야 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것이였다. 어쨌든 그런 선전으로하여 조도언은 온 동만이 거의 다 아는 싸움꾼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였다.

그는 대전차전투때에도 대오의 앞코숭이에서 기관총좌지를 향해 돌진하다가 치명상을 당하였다. 기관총앞으로 얼마나 바싹 접근했던지 적탄을 배를 뚫고 비스듬히 잔등을 관통하였다. 조도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이때의 부상으로 하여 그는 6년동안이나 병원생활을 하였다. 종당에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중대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가 병상에서 지낸 것은 항일무장투쟁이 대부대활동으로 전환되어 남북만주와 국내에로 판도를 넓히면서 승승장구해가던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전설적 존재로 되었고 그 혁명군의 정의로운 투쟁은 전세계 피압박민중들에게 광명을 주는 등불로 되었다. 항일전쟁은 새로운 사단들과 연대들을 지휘할 유능한 군사인재들과 백전노장들을 요구하였다.

조도언이 만일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항일전쟁이 가장 눈부신 앙양기를 걷고 있던 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공을 쌓아올렸을 것이다.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정될 때까지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의 신변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후에 가서야 연대와 사단들에 지휘관들의 호위임무를 담당하는 경위대를 조직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또한 혁명군대의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로도 표현되였다.

항일유격부대에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상벌제도를 설정하였다. 전투와 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복무조례를 엄중히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벌을 주었다. 상의 공로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하였고 벌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째서 아무개한테는 1등상을 주는데 같은 분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 이아무개한테는 2등상을 주는가, 아무 동무한테는 주의처분을 하면서 같은 과오를 범한 이아무개한테는 왜 경고책벌을 주는가고 시비하였으며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를 실시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거나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신상필벌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초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도덕적 우월성을 부단히 발양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우리의 지향과 노력에 제동을 거는 유해로운 사상경향이었다.

이런 사상경향을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항일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조만

간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유격대는 상하관계도 없고 관병의 계선도 없는 무법천지의 집단으로 될 것이며 기필코 내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될 것이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그 표현형태가 어떻든지간에 소부르조아사상에 바탕을 둔 기회주의적인 사상경향이였다. 이것은 사실상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였다.

소부르조아사상의 반영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특수적으로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반발에 이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자유, 방종을 찬양하면서 사회에 무정부적 혼란과 무절제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자본주의적 대생산과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독재의 중압밑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소부르조아계층의 불안한 심리를 체현한 일부 극단적인 사상가들은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타파하고 거기에 무정부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권력 일반을 반대하는데로 대중을 이끌려하였다.

프랑스의 소부로조아사상가인 프루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바쿠닌이나 크로뽀뜨낀 같은 무정부주의사상가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극단한 증오, 사회적 평등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로 표현된 이른바 무정부주의적 이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없게 하며 착취계급의 독재를 타도한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게 하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제도, 새 생활을 꾸릴 수 없게 하는 백해무익한 사상조류로서 엄정한 역사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사상경향은 얼마동안 소부르조아계층속에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무제한한 자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켰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대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소부르조아적, 농민적 사상근성이 지배적인 지역과 나라들에서 일정한 파급을 보게 되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정부주의가 일정한 몫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급의 당들 가운데는 지주, 부르조아지의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에 무정부주의 세력을 끌어들인 당도 있었다. 소비에트정권이 공민전쟁 시기 우크라이나의 무정부주의집단인 다흐노일당과의 합작을 실현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항일유격대 내부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대두했던 초기만 해도 무정부주의적 경향은 일정한 사회계층, 특히는 소부르조아계층의 혁명성을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이념으로 남아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혁명실천에 무시할 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운동안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자들의 행동 역시 극단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허울밑에 부르조아자유주의와 무정부주위, 무절제, 무질서를 조장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방종을 야기시킨다.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극단적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는 사상적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사분야에 침습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혼란을 낳게 된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유격대건설과 군사작전에 예상치 않은 후과를 미칠 수 있었고 전반적 혁명운동발전에 적잖은 지장을 줄 수 있었다.

우리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와의 투쟁을 하

고 있을 때 십리평에서는 유격구 창설 후 1년반의 사업을 총화하고 적의 대≪토벌≫에 대처한 유격구방위대책을 세우기 위한 동만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김일룡과 김정룡을 만났다. 김일룡은 안도유격대대장이였고 김정룡은 정치위원이였다. 화룡현에서는 유격대 장대장과 정치위원 차룡덕이 왔고 연길현에서는 유격대총대대장 주진, 대장 박동근, 정치위원 박길이 왔다. 훈춘동무들도 참가하였는데 누구누구였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는 부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박동근

우리는 유격대오 안에서 부대지휘의 기본은 지휘관의 결심이고 엄정한 중앙집권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부대지휘관리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대안에는 상하관계의 구별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지휘관은 상부의 명령집행에서 견결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단 채택한 결심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지휘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성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지휘관이 지휘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휘관은 상급의 명령집행과 전투지휘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지휘관은 명령 하나만으로 부대를 지휘하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원들의 자각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의 전쟁은 필마단창으로 승패를 겨루던 노예소유자 시기나 봉건시기의 전쟁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대적인 인민전쟁이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군민의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더 훌륭히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군민의 열정과 창조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당회의, 전대회의, 선동원의 해설선전 등은 다 정치사업을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이 수단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그 때 내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런 것이였다.

나는 훈춘유격대가 대황구에서 범한 과오를 비판하고 13용사의 희생을 초래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해독성을 두고 각 현 유격대 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내가 간단히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화들이나 그 일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우리의 후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무장투쟁을 갓 시작한 그때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대내에 침습한 것은 근거지방위와 통일전선의 중하를 걸머지고 부대관리를 책임진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를 지휘관리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대황구사건 후 유격부대들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였다. 그중 하나는 지휘관의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였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부대관리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두 주장이 다 일장일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유일관리제를 절대화하면 부대 지휘와 관리에서 독단과 주관이 조장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절대화하게 되면 지휘와 관리에서 신속성과 민첩성을 잃어버릴 수 있

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토의에 붙였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것은 지휘관이 당조직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대를 책임지고 지휘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체적 협의는 매 시기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과업을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해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는 고도의 신속성과 결단성, 행동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요구에 맞게 지휘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 안에 정연한 명령체계를 확립하여 강철같은 규율을 세울 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박길

지휘관의 명령은 어느 개인의 의사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민주주의적,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다. 군사명령은 법적 성격을 띠며 상관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지다. 대원들은 명령을 조금이라도 에누리하거나 흥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은 명령의 집행과정을 옳게 지휘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유치한 평등주의, 무정부주의 같은 소부르조아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부대 안에 건전한 사상분위기를 조성할 데 대한 과업과 상하일치의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관한 과업도 논의하였다.

십리평의회를 통하여 유격대 지휘관들은 각성되었다. 거듭되는 전투의 시련속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완전히 극복되어나갔다.

항일전쟁 초시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국제적 연합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무원칙한 평등이나 평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상관의 명령을 흥정하는 사람도 없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전사들은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한 가지의 말로만 대답할 뿐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인선서를 한 그날부터 제대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충신들의 집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견해를 알려면 그들의 전투적인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군인들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상하일치의 참다운 면모를 찾으려면 한 몸을 바쳐 수많은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김광철영웅과 한영철영웅의 최후 하나만을 알아도 만족할 것이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시정되었으나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는 오늘도 의연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만 극단적 민주주의는 반대하며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지나친 평등주의는 금물로 여긴다. 극단적 민주주의나 극단적 평등주의가 다같이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정주의의 더러운 병균으로 침식시키지 못해 안달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정주의가 우리의 체내에 침습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 민주주의로 하여 구락부화되고 장마당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하여 강요되었던 항일전쟁 당시의 진통과 동구라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5. 마촌작전

그 해 가을 유격구에는 열병이 돌았다. 오한과 고열이 겹치면서 피부에 불긋불긋한 반점이 생기는 이 급성전염병은 굉장한 전파력을 가지고 소왕청골 안을 휩쓸었다. 나도 이 병에 걸려 십리평에서 옴짝 못하고 앓았다. 후에 알게된 데 의하면 발진프스였다.

지금의 새 세대들은 발진프스를 모르고 산다. 벌써 오래 전에 전염병을 근절한 무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60년 전까지만 해도 유격근거지 인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모진 고통을 겪었다. 그리 크지 않은 골짜기에 수천 명 주민 오골오골 모여서 살다나니 병도 오만가지가 다 돌았다. 사흘이 멀다하게 ≪토벌대≫가 달려들어 불질을 하고 이산 저산 쫓아다니며 도륙질을 하는 때여서 위생조건이 불리해도 개선할 도리가 없었고 병을 예방하고 싶어도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전염병같은 것이 발생하면 삽짝문앞에 새끼줄을 치거나 바람벽에 ≪출입금지, 전염병≫이라고 쓴 광고딱지를 붙여놓는 것이 고작이었다.



최금숙

적들이 수천 명이나 쓸어들어 근거지를 없애보겠다고 날마다 사생결단을 싸움을 걸어오는 때에 전염병까지 겹쳤으니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련을 겪는 셈이었다. 나까지 덜컥 열병에 걸리게 되자 지도부의 간부들은 다같이 사색이 되어 유격구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들은 나의 호위 겸 간호를 위하여 김택근소대장과 그의 부인을 보내주고 1개 소대 가량의 병력까지 붙여주었다. 다른 부대들이 다 전투하려 나갈 때에도 그 대원들만은 남아서 십리평을 지켰다. 김택근부부는 둘 다 북만 액하라는 곳에서 살다가 동만땅에 와서 혁명투쟁에 참가해보겠다는 충동을 가지고 목릉을 거쳐 왕청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이 부부외에 또 최금숙이라고 부르는 왕청현 부위가 당적으로 나의 간호를 책임지고 십리평에 와 있었다.

처음에 나는 춘자라는 여자의 집 윗방에서 병치료를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김권일은 구당 서기로도 사업하고 후에는 현당서기로도 활동하였다.

적들이 유격구에 달려들기만 하면 김택근은 나를 업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피해다니곤 하였다.

≪토벌≫이 심해지자 그들은 나를 업고 물곬을 따라 십리평골 안에 깊숙이 들어가 적의 발길이 닿지 못할 어떤 바위츠렁밑에 막을 치고 밧줄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자그마한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나는 여기서 세 사람의 도움으로 병을 완치하였다.

그 세 사람은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그들의 지성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십리평 골짜기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병이 어찌나 심했던지 나는 그때 여러 번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내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앓아 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택근이 식량공작을 나가고 없는 날이면 최금숙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 내가 이 여자의 덕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는 원래 왕청에 온 초기부터 최금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가 남북만원정을 끝내고 마촌에 왔을 때 그는 대왕청에서 제2구 부위로 공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현부녀회사업은 이신근이 맡아하였다. 최금숙이 사업토의를 하러 이신근을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치백 노인의 집에서 종종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매간처럼 가깝게 지냈다.

이신근은 최금숙이 글을 빨리 쓴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무심히 들었다. 여자가 글을 빨리 쓰면 얼마나 빨리 쓰랴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그가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들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 속기수들이 글을 빨리 쓴다고 하지만 그와 비교할 만한 속기수를 나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최금숙은 우리가 토론한 것들을 하룻밤사이에 다 정리해내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그에게 기록을 위임하곤 하였다.

최금숙은 남성들처럼 성미가 서글서글하고 인자하면서도 대가 있고 혁명적 원칙성이 강했다. 내 말이라면 모래불에서 배를 끌라고 해도 끌 그런 여자였다. 내가 그에게 공작임무를 주어 적 통치구역에도 여러 번 파견하였는데 적구에 가서도 일을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최금숙은 부모가 없는 나를 여성으로서 무척 동정하였다. 그가 나를 친동생과 같이 사랑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보면 누이라고 불렀다.

내가 싸움터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왔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한 가지씩 준비했다가 살그머니 쥐어주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옷도 기워주고 털실로 내의도 떠주었다.

최금숙이 이수구골 안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다나니 만나기만 하면 서로 농도 자주 하였다.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것처럼 그도 동네집 늙은이들을 만나면 ≪아배≫나 ≪아매≫라고 불렀다. ≪온성집 아배≫니 ≪무산집 아매≫니, ≪회령집 아재≫니 하는 식의 말은 어휘도 볕스러웠지만 억양부터가 재미나게 들렸다. 내가 자기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좀 지나친 농을 하여도 그 여자는 성을 내지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대범한 최금숙이도 한 가지 농만은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기를 보고 미인이라고 하면 그는 놀려준다고 야단이었다. 나는 최금숙이 내 잔등에 주먹질을 해대며 야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미가 나서 그가 어색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미인이라고 농을 하였다. 사실 그는 뛰어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아주 복성스럽게 생긴 여자였다. 나의 눈에는 도회지의 아가씨나 숙녀들보다도 최금숙과 같은 유격구의 여자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이 세상에 유격구의 여성들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얼굴에 화장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매연속에서 고생고생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타발하지 않고 오직 혁명에만 전심전력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최상의 미를 찾았다. 내가 최금숙이를 가리켜 미인이라고 한 것은 이런 심리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때 근거지의 여성들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들속에는 종종 분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들이 섞여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그런 화장품들이 보이기만 하면 일본 계집년들

의 상판대기를 곱게 해주는 물건딱지들이라고 하며 개울속에 집어던지든가 발로 막 짓뭉개놓고 하였다. 얼마 동안은 나도 향내나는 고급 전리품이 그렇게 처분되는 것을 방임해두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우리 유격구의 여성들은 그 당시 화장을 하지 않았다. 분내나 향수내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간혹 명절같은 때 어쩌다가 화장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정작 대중집합소에 나타나면 뒷구석에 서서 줄곧 남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이것을 분하게 느꼈다. 그들이 일년내내 분도 바르지 못하고 검댕이나 잿가루가 묻은 얼굴로 포연내를 맡으며 고생스레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화장품을 버리지 말자. 우리의 곁에도 여성들이 있지 않은가. 유격구의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던가. 우리의 여대원들과 부녀회원들보다 더 훌륭한 여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말에 호응하였다.

≪옳습니다. 우리 유격구의 여자들보다 더 좋은 여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벌써 1년반째나 이 유격구에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토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애인들을 잃고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한지에서 떨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유격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남아들로서 그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연지, 곤지를 찍어 세상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그들에게 다 보내줍시다. 화장품이 생기면 분도 바르라고 합시다.≫

우리는 어느 날 부녀회원들에게 줄 화장품을 노획해가지고 최금숙을 찾아갔다. 최금숙은 그 화장품 보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날부터 소왕청유격구에서는 분내가 돌기 시작했다. 명절날 아동유희대의 공연이 진행되는 구락부에 갔더니 거기서도 분내와 크림내가 났다.

그런데 최금숙이만은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가도 화장을 하지 않고 다녔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왜 화장을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는 대답대신 나를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는데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이신근을 통해 그 곡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최금숙이 자기 몫으로 남겨놓았던 화장품을 십리평의 부녀회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것이였다.

그 후 우리는 적의 후방을 치고 다시금 많은 양의 화장품을 노획했다. 나는 그 중 일부를 최금숙에게 주면서 이번만은 자기 몫을 양보하지 말고 화장을 꼭 해보라고, 화장한 금숙 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최금숙은 목숨을 걸고 구해온 화장품인데 대장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화장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며칠 후 나는 최춘국중대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십리평에 가다가 대왕청하 기슭에서 최금숙을 만났다. 인적기가 없는 강가에서 행길 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물 속을 들여다보는 그의 청초한 모습이 보이자 나는 이성림전령병을 시켜 대왕청 부녀회장이 왜 물가에 앉아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우물터

이성림이 최금숙의 곁에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였다. 무슨 일 때문인지 어린 전령병은 갑자기 배를 그러쥐고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곁으로 바삐 걸어갔다.

≪대장 동지, 저 금숙 누이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내가 물가에 나타나기 바쁘게 이성림은 웃음을 그치고 최금숙의 얼굴을 손짓해 보였다.

그순간 나도 부지중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복성스럽고 해맑은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부녀회장의 얼굴은 온통 연지와 크림으로 얼럭덜럭 매닥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금숙 자신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부녀회장 아지미, 얼굴이 만국지도가 됐어요.≫

이성림이 이런 마을 해서야 최금숙은 ≪에그머니!≫하고 시냇가에 펄썩 주저앉아 얼굴에 와락와락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화장을 서투르게 한 것이 죄가 될 수 없고 수치로 될 수 없건만 그는 큰 창피라도 당한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하였다. 물가의 빨랫돌앞에는 며칠 전에 내가 보내준 크림과 연지통이 놓여 있었다.


이성림

내가 보기에도 최금숙은 화장솜씨가 대단히 서툴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어찌 놀림가마리로 삼을 수 있겠는가. 최금숙은 화장을 처음 해보는 여자였다. 그에게는 거울조차 없었다. 그래서 시냇물에 얼굴을 비쳐보며 조심조심 크림도 바르고 연지도 찍었다. 그가 얼굴에 만국지도를 그린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아니였다.

이성림이 아까처럼 또 최금숙의 곁에 다가서서 시까스르려는 눈치를 보이자 나는 손을 가로저어 그를 제지시켰다. 아마 그때 이성림이 몇 마디만 더 했더라면 최금숙은 그 시냇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달아나버렸을 것이다.

아침마다 화려한 체경이나 삼면 경대앞에서 고급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는 여성들이 이 대목을 읽게 되면 누구나 최금숙을 동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품으로 삼면 경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 땅에 배를 붙이고 풀죽을 먹으며 근거지를 지키느라고 악전고투할 때만 하여도 소왕청 주민들속에는 삼면 경대는커녕 손거울을 가진 여자조차 몇 명 없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싶으면 모두 최금숙이처럼 강가로 나갔다.

나는 그날 최금숙의 화장솜씨를 흉보던 이성림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유격구의 여자들에게 거울을 마련해주지 못한 내 자신에게 화를 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 바치는 정성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울이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나 인민이 우리를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그 무한대한 온정을 능가할 수 없었다.

최금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준 믿음보다 몇 배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시종일관 나를 따뜻이 간호해주었다. 나의 병이 호전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100리나 떨어져 있는 도문이었다. 도문은 조선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물산의 집산지였다.

최금숙은 거기서 조선 배와 조선 사과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십리평으로 돌아왔다.

그 배와 사과를 보니 눈물이 났다. 멀리 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최금숙으로 소생하여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환각도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어머니나 친누이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었다.

≪금숙 누이, 누이의 이 신세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까!≫

나는 최금숙이 쥐어주는 조국의 과일향기를 가슴 뭉클하게 들여마시며 감사의 정에 넘쳐 말했다.

≪신세? 정 신세를 갚을 생각이라면 독립된 다음 평양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우다. 평양이 천하제일 강산이라는데….≫

최금숙의 대답은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이면서도 사뭇 절절하였다.

≪그건 염려마십시오. 아무렴 그런 소원이야 못 풀어주겠나요. 누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 평양땅을 밟아보기 위해서도 죽지 말고 싸웁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우. 그런데 난 동생이 항상 걱정이라니까. 도무지 몸을 돌보지 않으니….≫

최금숙은 내 입맛을 돋구느라고 절구에 찧은 깨를 얻어다가 찬에도 넣어주고 죽에도 넣어주었다. 그는 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도 영양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해주지 못해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정성은 극진하였으나 모든 것이 귀하고 바른 때였다.

김택근이 개천에 나가서 버들치를 잡아다가 썩장에 넣고 끓여도 주고 구워도 주었다. 근 하루에 70-80마리씩 고기를 잡고 하였는데 열성도 열성이거니와 솜씨 또한 여간 아니었다.

최금숙은 내 밥상에 끼마다 버들치밖에 놓아주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던 나머지 마을에 가서 국수를 받아왔다. 그는 나의 안부를 묻는 유격대원들에게 대장의 몸을 빨리 추세워야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야단이다. 택근소대장이 잡아오는 버들치만으로 매일같이 밥상을 차리자니 딱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데도 대장은 맛있다고만 하더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대의 고기잡이 명수들이 하루는 후리질을 하여 한 가마니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거처로 찾아왔다. 최금숙은 그 물고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사 때마다 내 밥상에 놓아주곤 하였다.

병에 차도가 좀 보이자 최금숙은 내가 정신을 잃고 앓을 때 어떤 알지 못할 여자의 이름을 줄창 부르더라고 하면서 우스개삼아 그 입내까지 냈다. 그 입내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가 김택근의 아내와 함께 사전에 꾸며낸 것이었다. 아주 엉터리없는 내용이였지만 나는 발병 후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물겨운 연극이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매인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런 연극을 꾸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금숙은 내가 병이 완치되기 전에 마촌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날짜까지 속여가며 나를 간호해주었다. 나는 실신상태에서 깨어날 때마다 며칠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가고 묻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여자는 날짜를 줄여서 대답하곤 하였다. 가령 내가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으면 2시간이라고 대답하였고 닷새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앓았다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해 넘겼다. 병이 완쾌된 다음 그가 말한대로 앓은 날짜를 합쳐보니 열흘도 되나마나하였다.

나는 열흘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을 놓았다.

그가 대포를 불었다는 것은 최춘국이 나의 초막으로 문병을 왔을 때에야 들장이 났다. 이 고지식한 정치지도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 몰랐다. 그는 내가 앓은 것이 한 달 동안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 한 달이라는 말을 듣고 최금숙은 눈치가 곰발바닥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애꿎은 최춘국을 나무랐지만 나는 정신을 펄쩍 차리고 마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휘부에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정보자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보자료들에는 간도치안을 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내가 앓고 있는 한 달 사이에 적들은 동기≪토벌≫ 준비를 완료하였다. 일본내각에서 파견된 고위관리들이 간도 땅에 기어들어 군대, 헌병, 경찰, 외사 부문의 수괴들과 함께 동만유격근거지들에 대한 동기≪토벌≫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도쿄에서는 이 문제가 내각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다.

일제가 만주문제를 놓고 벌인 회의들에서는 ≪만주의 치안은 간도로부터!≫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간도의 치안이 만주국 건설의 대업에 지대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일본제국 변경의 안녕에도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주국을 위해서나 일본 자체를 위해서도 최대의 긴급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쏘련에 대한 침공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관동군 사령관 자신이 만주의 경무기관을 통제하고 군대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 헌병장이 간도치안의 제1선에 서게 한 것은 대만주국의 전도를 위하여 축복할 만한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국을 조작해낸 후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각방으로 주요한 대책을 세웠다. 간도임시파견대를 대신하여 관동군사단을 새로운 ≪토벌≫역량으로 들이밀었으며 현을 단위로 무장한 행정경찰대를 편성하고 고등사법경찰과 산업경찰을 설치하는 등 경찰조직을 입체화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반항분자의 근절소탕과 민심의 안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일만합동 자문기관으로서의 치안유지회가 중앙은 물론, 성과 현을 단위로 하여 만주전역에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고 형형색색의 간첩 주구단체들이 출현하여 공산주의진영에 검은 촉수를 뻗쳤다. 옛날 중국에서 이미 실시되었고 일본이 대만과 관동주의 치안유지에서 좋은 실적을 올려온 보갑제도의 도입으로 일만경찰은 백성의 손발을 더욱 철저히 얽어매어놓았다. 재향군인들로 이루어진 일본인 무장이민의 대대적인 유입과 자위단 역량의 확대도 동3성 일대에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 반만항일세력을 제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일제는 토비공작에 종사하는 현지의 고등경찰관들에게 즉석에서 상대를 처형할 수 있는 ≪임진격살≫의 권리를 주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일제가 식민지 만주국의 지배와 유지를 위해 얼마나 고심참담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실증해준다. 특히 동북일각에서 제국의 면상과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는 간도지방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과 그를 골격으로 하는 광폭적인 민족해방운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골치아픈 일로 되었다. 일본의 어느 헌병장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진압하는데 따라 간도치안의 9할이 성



소왕청 유격구역

공된다고 한 것은 결코 허공에 뜬 엄살이 아니다.

이른바 대일본제국은 항일유격대와 그 전략적 지탱점인 유격근거지들을 이처럼 무서워했다. 그러므로 일제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만의 항일유격구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발악했다.

1933년 여름에 일본군부는 항일유격대의 공격에 만신창이된 간도임시파견대의 일부를 조선으로 소환해가지고 그 대신 히도미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관동군의 정예부대들을 동만 각지에 투입하였다.


홍범도

조선강점군의 기본역량은 유격구 ≪토벌≫작전에 즉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북부 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도합 만 수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이 간도의 유격구들을 포위하고 동기≪토벌≫행진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자리잡고 있는 소왕청유격구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이 일대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으로 구성된 5,000여 명의 무력을 들이밀었다. 방진대열을 짓고 적과 승부를 겨루던 매뉴팩츄어 시기의 전쟁을 제외한다면 산병선이 출현한 이후부터의 전쟁에서 병력을 이런 정도로 조밀하게 배치한 실례는 러일전쟁 당시의 여순공방전밖에 없을 것이다.

비행대들도 출동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렸다. 간도특무기관이 주관하는 특별수사반도 유격구 일대에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동만의 모든 지역은 우리와 일본제국주의와의 가장 격렬한 혈전장으로 되었다. 몇 개 지역의 유격구를 보위하는 방위전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결전이었다.

그런데 소왕청에는 2개 중대의 유격대 역량밖에 없었다. 게다가 유격구에는 식량의 예비가 얼마 없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은 그 존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었다.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강적을 2개 중대의 역량으로 격파할 수 있다고 믿는 낙천가는 유격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앞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느냐, 아니면 유격구를 포기하고 적에게 굴복하느냐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흰 기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유격전술상의 원칙을 놓고 보면 이런 대결전은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였다. 그런데 대결전을 하지 않으면 적들이 일격에 두만강 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을 삼켜버릴 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인민혁명정부의 혜택속에서 참다운 평등과 자유를 누리던 혁명군중이 엄동설한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유격구를 잃는다면 인민이 다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였다.

왕청도 가을이면 절경이다. 그런데 이 가을은 동기≪토벌≫의 폭풍에 뒤죽박죽이 될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묘술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궁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전술문제를 논의할 만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박훈도 가까이에 없었고 쏘련에서 몇 해 동안 군대생활을 하다가 나온 ≪쏘거우재≫ 김명균과 독립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이웅걸은 ≪민생단≫으로 몰리다가 자취를 감추었다. 양성룡도 ≪민생단≫바람에 녹아났다.

홍범도와 같은 명장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홍범도는 왕청땅에 큰 자국을 찍어놓은 의병장군이었다. 청산리와 봉오골에서

독립군부대들이 쌓아올린 혁혁한 무공의 출발은 바로 그의 지략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홍범도를 지략은 없이 요령으로만 싸우는 장군이라고 숙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었다. 그들이 말하는 요령이라는 것도 근본을 따지고 보면 결국 지략의 소산인 것이다.

홍범도가 뛰어난 지략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였다. 지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고려령에서 그처럼 교묘하고 용의주도한 복병술로 일본군대를 대패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초부다운 모습에서 은은히 내뿜기는 지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홍범도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범도(가운데)

할바령 일대를 쥐락펴락하던 대한독립군 총사령의 그림자가 왕청땅에서 자취를 감춘 지도 수삼 년이 되었다. 세월의 이끼에 덮여 이제는 사람들의 추억속에서 그의 모습마저 희미해져가는 상 싶었다.

어려운 때를 당하고 보니 선열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절해졌다.

내가 전술문제를 두고 연일 지휘부 귀틀집에서 모대기고 있을 때 하루는 이치백노인이 꿀단지를 들고 자정이 다되어 나를 찾아왔다.

≪열병을 앓을 때 아무것도 못해주었는데 이걸 쓰구 몸을 좀 추세우게.≫

노인이 내앞에 꿀단지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산청이라는 게 금값에 가는데 용케 구하셨습니다.≫

≪황가리골치기에 사는 마영감이 구한 거라네. 일전에 영감이 산청을 뜬 게 있다구 자랑하길래 찾아갔더니 단지째로 넘겨주는 게 아니겠나. **김일성**대장의 몸을 추세우는 일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장만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더군. 내 지금 그 영감을 만나고 오는 길이네.≫

나는 노인들의 지성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야 젊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꿀은 아버님께서 쓰셔야 하겠습니다.≫

≪늙은 것들의 성의를 마다하면야 안 되지. 내 그러지 않아두 김대장의 간호를 못해서 내내 가슴이 알찌근했는데… 대장이 요새 얼굴색이 말이 아니야.≫

노인은 집에 가서 밤참이나 같이 들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노인을 따라나섰다. 밤참도 밤참이려거니와 나와 반성위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였다.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나의 정은 의연히 나를 친아들 못지 않게 따뜻이 돌보아주던 그 수더분하고 인심 좋은 집에 많은 몫을 남겨두고 있었다.

우리는 밤참으로 땅콩을 넣은 강낭죽과 호박을 먹었다. 방금 열병을 앓고 난 뒤여서 그런지 음식맛이 꿀처럼 달았다. 안주인인 서성녀어머니는 내 식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음식 가운데서 제일 이채로운 것은 구운 감자와 구운 강냉이었다. 간도지방 감자는 크기도 하거니와 한 해 묵은 것은 당분이 많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통무우김치물에 이런 구운 감자를 먹으면 별맛이었다.

나는 밤참을 먹은 후 반성위가 묵어간 그 방에서 이치백노인과 함께 가지런히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웬일인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내처 한숨을 지었다. 몇 달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또 가슴에 사무치는 모양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노인의 아들 이민권은 1933년 봄에 투항해가는 관부대의 무장을 해제하러 갔다가 중상을 입고 치료도중 추월구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민권의 추도식 때에는 나도 참가했다. 1932년 9월에는 이 집에서 유격대원 최윤식의 추도식도 하였다.

≪아버님, 왜 긴밤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나는 이불자락을 걷어젖히고 노인 쪽을 향해 모로 돌아누웠다.

≪잠이 안와서 그러네. 적들이 유격구 문밖에까지 와서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다는데 어디 배포유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이번 ≪토벌≫에 유격대가 거덜난다는 말이 도는데 대장 생각은 어떤가?≫

≪유격대가 망한다는 건 반동들이 내돌리는 요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떨하게 잡도리를 하면 유격구가 이틀이나 사흘 안팎으로 거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유격구의 운명이 사실은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격구가 거덜난다는 건 말이 안돼. 유격구가 없이야 무슨 재미로 살겠나. 차라리 죽어서 까마귀밥이 되든가 북망산귀신이 되는 게 낫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근거지를 베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적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소왕청을 지키는 우리 군대는 적의 100분의 1이나 되나마나하니….≫

노인은 담배를 몇 모금 빨고 나서 내앞으로 바싹 베개를 밀어놓으며 근엄하게 말했다.

≪병졸이 부족하면 나도 대장의 부하가 되겠네. 우리 소왕청에 나처럼 불질을 할 줄 아는 늙은이들이 한둘이 아닐세. 총만 한 자루씩 쥐어주면 강화진위대 찜쪄먹게 싸울 수 있네. 전에 우리가 살던 중경리 근처에 독립군들이 파묻고 간 총과 철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포수나 독립군 출신 영감들은 말할 것도 없구 청년사업이요 뭐요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우리 사위 중권이 같은 패들두 무장시킬 수 있지 않겠나. 모두가 싸움꾼이 돼서 너죽고 나죽고 해볼 판이지. 총이 없으면 하다못해 놈들의 멱다시를 잡구 배지개를 뜨면서라도 근거지를 지켜내야 할 게 아닌가.≫

노인이 이 말은 적아의 역량대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고민을 겪고 있던 나에게 전민항전만이 닥쳐온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격전의 제1선에 유격대와 함께 배치하려고 이미부터 내정하였던 자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 뿐만 아니라 비무장인원들까지 전부 동원하여 도처에서 결사전을 벌인다면 싸움에서 능히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심이 생겼다. 소왕청방위전은 적국 대 항일유격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적국 대 유격구내 전체군민과의 싸움으로 되어야 했다. 우리의 편에는 반유격구인민들도 계산해 넣을 수 있었다.

이치백 노인과의 담화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렇다. 인민이 싸운다면 싸우는 것이고 인민이 이긴다면 이기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인민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인민을 얼마나 잘 동원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수천 명 왕청유격구 인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노인의 침착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안았던 첫 충격이었다. 우리가 구상하는 작전속에는 반드시 이치백노인이 헤쳐보인 것과 같은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벌이게 될 소왕청방위전투는 유격구의 남녀노소가 다 동원되는 전민항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민항전이라는 이 규정속에는 2년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군대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유격근거지의 인민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 싸움 그 자체가 생활로 되고 있었던 유격근거지에서의 짧지 않은 세월이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창설 후 2년동안 유격근거지가 건재할 수 있은 것은 군대의 덕만이 아니였다. 그 요인 가운데는 군건설과 유격구보위에서 적지 않은 몫을 담당한 인민의 힘도 포함되어 있었다. 1대 10이나 1대 100의 힘에 부치는 싸움을 할 때에도 인민이 후위에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몰랐다. 인민이 더운물과 주먹밥을 들고 전호로 뛰어오는 숨결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전투력은 천백 배로 강해졌다.

전민항전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 배경에는 인민의 힘에 대한 이런 타산이 적용하였다.

이 타산은 살아도 유격근거지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근거지를 베고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군대와 혼연일체가 되려는 인민의 의사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인민을 최대한 동원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힘으로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치백노인이 나에게 귀뜸해준 유격대의 예비였다. 아니 유격구의 인민은 우리가 의거해야 할 예비정도가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주력군이었다.


북로군정서

우리는 적의 역량이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을 합쳐 습격소멸하고 역량이 집결되어 쳐들어올 때에는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종래의 전술적 원칙을 다시금 확정하고 소왕청 관내 전체주민들에게 전민항전을 호소하였다.

유격구인민들은 그 호소를 받들고 조직별, 계층별로 격전준비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 자위대와 청년의용군은 유격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차지하였고 총이 없는 청장년들은 방어전연의 경사가 급한 고지들에 돌무지를 쌓아놓았다. 장포수, 최포수, 이포수를 위시한 왕청의 명포수들이 마촌에 달려와 독립군 출신 영감들과 함께 포수대를 뭇고 전방으로 출동하였다. 작식대와 담가대에 망라된 여인들도 화선으로 달려갈 차지를 하였다. 아이들은 널판자에 못을 박아 적 군용자동차들이 지나갈 도로들에 파묻었다.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 대피지로 소개되었다.

우리는 그 때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왕청을 버리고 달아난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격전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왕청땅에는 봉오골에 새겨진 전승의 기록만이 아니라 토벌대 무리들의 총검에 동포들을 내맡기고 철퇴하던 북로군정서 소속 독립군들이 남긴 통한의 아픔과 패전의 수치도 새겨져 있었다.

남만에 서로군정서라는 독립군단체가 있었다면 동만의 왕청현 서대파 일대에는 서일을 총재로 하고 김좌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 단체가 조직되어 군세를 확대하였다.

군정서 산하에 모여든 애국지사의 수는 500명이고 탄알은 100만 발이며 자금은 무려 1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한다. 북로군정서가 운영하는 십리평사관연성소(군관학교)도 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리만큼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 왕청과 그 아근의 농민들이 군정서 군인들에게 보낼 조신과 식량을 운반해갈 때에는 서대파까지 우마차가 꼬리를 달고 늘어섰다고 한다.

이 군대가 한때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협동하여 청산리에서 일본침략군대에 무리죽음을 주었다.

은색 세루군복에 군도를 찬 김좌진이 청총말을 타고 지나갈 때면 왕청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무슨 재상이나 이 왕의 행차라도 맞이하듯이 모두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것은 독립군이 청산리에서 세운 전공에 대한 인사였다.

그런데 이처럼 명망이 뜨르르하던 김좌진도 일본군의 간도내 ≪토벌≫이 시작된다는 정보를 듣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저항도 없이 왕청땅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왕청사람들은 독립군이 ≪토벌≫을 피해 삼십육계를 놓은 줄도 모르고 김좌진총사령을 보겠다고 앞을 다투어 생길로 쓸어나왔다.

군정서에 남은 병력은 1개 중대뿐이었다. 이 1개 중대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던지 간도≪토벌≫ 직전에 동일학교 졸업식에 참가하였다. 그날도 동일학교에서는 관례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졸업식을 성대히 하였다.

예식이 끝나기 바쁘게 독립군들은 서둘러서 ≪독립만세!≫를 삼창하고는 음식상앞에 마주앉아 막걸리며 인절미며 냉면이며를 정신없이 먹어댔다. 그러다가 토벌대가 쳐들어오자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학생들과 학부형들도 산지사방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마치 개미굴을 터쳐놓은 것같은 광경이였다고 한다. 토벌대는 아무런 보호나 방비도 없이 살 구명을 찾아 갈팡질팡하는 적수공권의 인민들을 총으로 쏘고 군도로 치고 날창으로 찔러 닥치는 대로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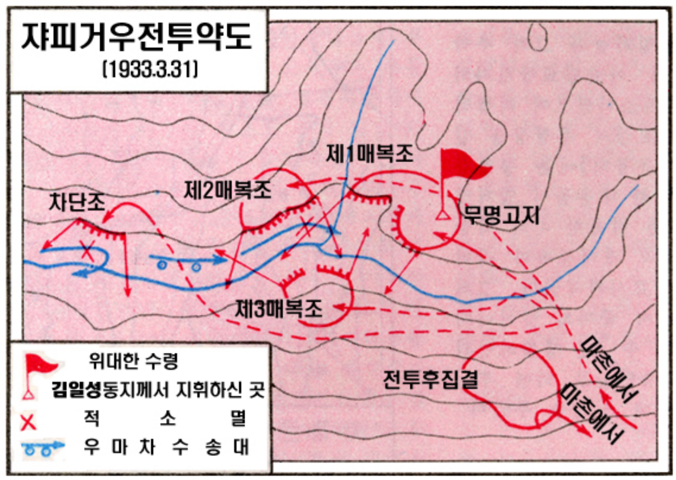
북로군정서의 독립군은 다 망하고 병패여도산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도 기세가 도도하던 북로군정서가 하루 아침 사이에 빈 달구지가 되었다고 왕청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왕청땅에서 이런 비운이 두 번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조선의 아들딸들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유격전의 요구에 맞는 매복전, 유인전, 기습전, 야간습격전과 같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전법과 전술로 적들을 족치려고 결심하였다.

이러한 유격전법들은 적들의 거듭되는 ≪토벌≫공세를 물리치며 유격구를 지켜내는 과정에 우리 자신의 지혜로 창조해낸 것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전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던 초기에만 해도 우리는 사실 전술상으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남들이 써놓은 경험이나 교범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참고했겠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쏘련에 사람을 보내 공민전쟁 시기에 전투경험을 반영한 몇 가지 군사자료를 얻어오게 하였는데 유격투쟁의 개념이나 매복전, 습격전의 조직방법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서 얼마간 도움을 주었으나 우리의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식의 유격투쟁 교범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1933년 3월말 쟈피거우 전투가 있은 다음 1년 남짓한 기간의 무장활동을 통해 얻은 초보적인 군사경험들을 종합하여 ≪유격대동작≫이라는 소책자를 써냈다.

≪유격대동작≫에는 유격대의 정신도덕적 품성으로부터

유격전의 일반원칙에 이르는 근본 적인 문제들이 밝혀져 있고 습격전, 매복전, 방어전, 행군, 숙영 등 유격대의 전투행동조직과 사격, 무기관리, 규율에 이르는 유격대동작의 모든 원칙과 방법들이 간명하게 규범화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손자병법이라든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같은 요란스러운 병서는 아니였다. 그러나 이름난 군사이론가도 없고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해본 노장들도 없었던 그 당시의 형편에서 그 소책자는 우리 식의 소박한 유격전쟁론을 대표하는 군사보감이였다. 유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이 책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풀이 일게 연구하였으며 거기에 밝혀진 교범들을 군사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유격대동작≫은 그 후에 발표된 ≪유격대상식≫과 더불어 우리의 혁명무력건설과 주체전법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원전적 기초로 되였다.

적들은 1933년 11월 17일에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방향에서 소왕청유격구를 포위 공격해왔다. 성난 이리떼처럼 눈에 살기가 잔뜩 어린 야마도의 후예들은 생나무라도 물어뜯을 험악한 기세로 유격구에 달려들었다.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세란 실로 왕청땅을 열다섯번쯤 탕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였다.

대≪토벌≫은 엄혹한 동기조건에서 파상식으로 지독스럽게 감행되었다. 적의 비행대들은 군정지도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던 마촌과 이수구를 연거퍼 폭격하였다. 전술도 이만저만 악착스러워지지 않았다. 적들은 유격구로 쳐들어왔다가도 공격이 좌절되면 그날로 되돌아가는 종전의 피스톤식 ≪토벌≫로부터 공격이 실패해도 물러가지 않고 도달한 계선에 그대로 주저앉아 숙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차지한 지대를 공고히 해가는 ≪보보점령≫의 전술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점령지역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일체 부동산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사르는 지독한 전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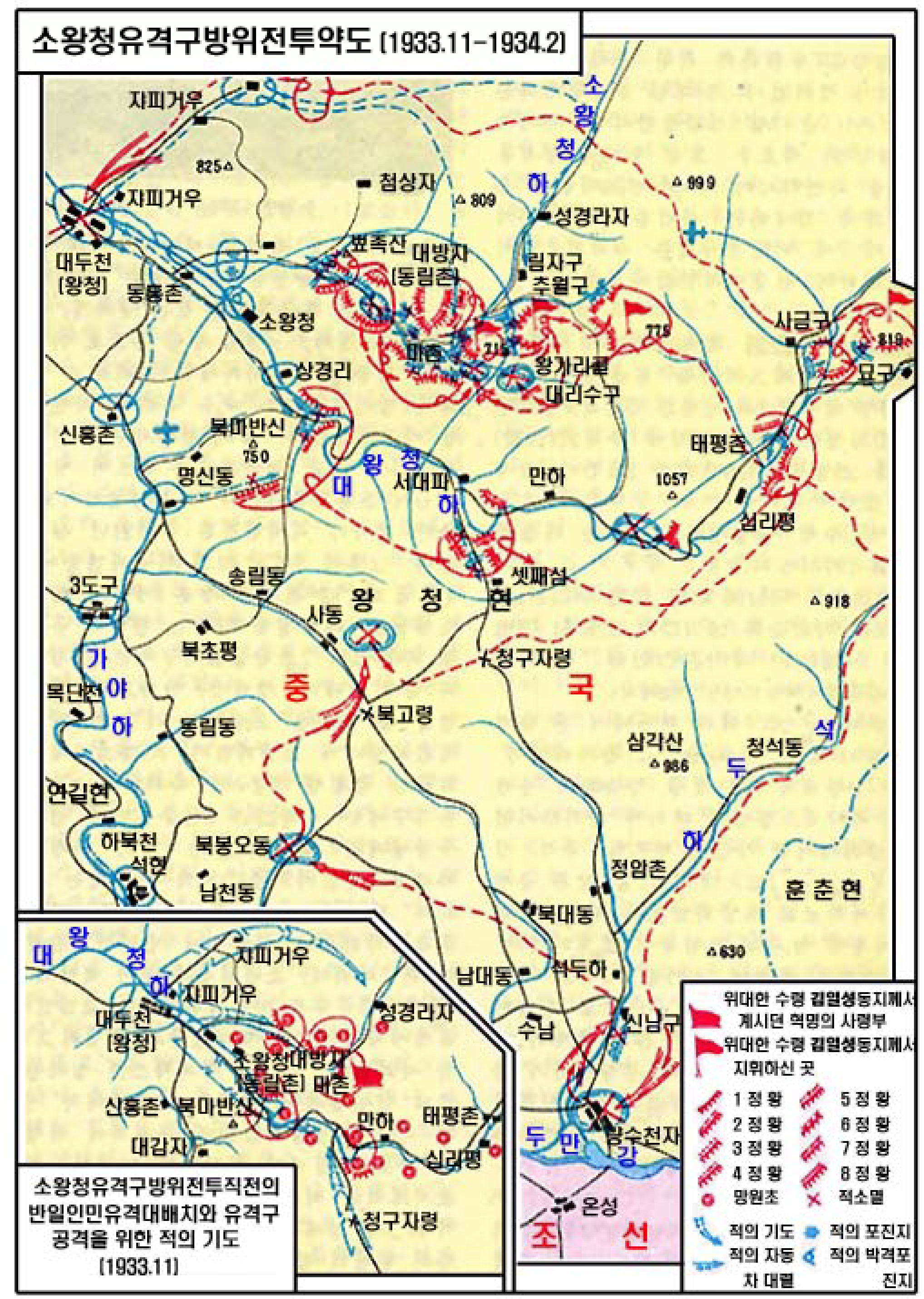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어 유격근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였다.

적아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곳은 유격구의 관문이 뾰족산과 마반산 쑥밭골 초소였다.

뾰족산과 마반산을 지키던 3중대와 반일자위대는 적을 20미터 안팎의 근거리에까지 접근시킨 다음 불의적인 집중사격과 작탄세례, 돌세례를 안겨 달려드는 족족 모조리 소멸하였다. 적들은 파도식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구의 전초진지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마반산 계선의 방위자들은 높은 속도의 기동력으로 유격구를 우회공격하는 적 기병들을 대왕청하 굽인돌이에서 통쾌하게 섬멸하였다.

적의 대병력이 뾰족산과 마반산 진지에 연속 투입되자 우리는 전면적 방어전으로부터 유인기만 전술을 위주로 하는 신축자재한 기동한 적극적인 방어활동에 의한 소모전에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전투형식으로 적의 병력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동시에 주동에 서서 교전상대를 싸움에 부단히 끌어들임으로써 적에게 일분 일초의 안정도 허용하지 않는 특이하고 자유분방한 전법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전투형식을 제때에 택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어전술에만 매달렸더라면 유격대는 숫적 우세와 전투기술기재의 우세를 믿고 거머리처럼 악착스럽게 달라붙는 적의 공격앞에서 지리멸렬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전술적 조치에 따라 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과 함께 전초진지들에서 철수하여 유격구의 종심깊이로 적을 끊임없이 유인하면서 매복전, 저격전, 숙영지습격전, 불무지작탄전 등의 천변만화한 전법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통쾌하고 때렸다.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약도 (1933.11-1934.2)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직전의 반일인민유격대배치와 유격구 공격을 위한 적의 기도 (1933.11)

불무지작탄전이라는 것은 코흘리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그 효율이 100프로였다. 우리는 진지를 옮길 대마다 다음 계선으로 철수하면서 불무지들에 작탄들을 파묻게 하였다. 적들은 우리의 방어진을 차지하기 바쁘게 불무지앞에 모여들어 언 몸을 녹이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작탄이 폭발하여 적들을 요정냈다. 오

백룡의 넷째 동생 오룡석도 자위대에 망라된 여자들과 함께 뾰족산 중앙보초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적들을 살상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숙영지에 대한 야간습격전도 자주 조직하였다. 2-3명이나 4-5명 규모로 무어진 습격조를 적진속에 들여보내어 적국와해를 위한 삐라도 뿌리고 총도 몇 발씩 쏘고 오게 하였다. 적의 천막이나 불무지같은 데 총을 서너 방만 갈겨도 온 숙영지가 수라장이 되곤 하였다. 이런 야습은 하룻밤 사이에도 세 번, 네 번, 지어는 다섯 번씩 하는 때도 있었다. 적들은 온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떨거나 저희들끼리 헛총질을 해댔다. 우리의 연속적인 기습을 겁을 먹은 적들속에서는 전쟁정신병자까지 발생하였다.

어떤 적병들은 유격대원들이 뿌린 ≪일본병사들에게 격함!≫, ≪위만병사들에게 격함!≫과 같은 선전물들을 보고 우리측으로 투항해오기도 하였다.


등사그림 - 위만군 병사들에게 격함

포수들도 화승대를 들고 전장에 달려나왔다. 나이 많은 영감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사격술은 대단하였다. 적 장교들만 골라가며 쏘아눕히는 그 탄복할 만한 솜씨는 현대 저격수들의 솜씨와도 견줄 수 있었다. 부녀회원들은 주먹밥과 더운물을 이고 연방 전호로 들락날락하였다. 열살 안팎의 아이들도 싸움터에 찾아와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면서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마촌작전 과정에 이채를 띤 것은 돌벼락작전이었다. 유격구와 군대와 인민은 뾰족산과 같은 전초진지들에 돌무지들을 마련하였다가 ≪토벌대≫가 달려들 때마다 무리죽음을 안기곤 하였다. 경사가 급한 산벼랑으로 돌사태가 쏟아져내릴 때 전장을 들었다 놓은 벼락치는 듯한 소리와 포연을 방불케 하는 자욱한 먼지구름은 침략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기병대열을 와해시키고 차와 포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데서는 이 돌벼락작전이 매우 큰 은을 냈다.

마촌작전이 낳은 영웅들 가운데는 ≪13연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격대원도 있었다.

≪13연발≫은 왕청지방에서 모험청년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였다. 그가 모험가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은 공청조직의 위임을 받고 두만강변의 어느 세무서에 가서 무기를 탈취해온 때부터였다. 그는 세무서에 가서도 나으리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조선청년이올시다, 공청원이올시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 권총을 빼들고 여유작작하게 벽에 걸려 있는 보총을 세 자루나 노획하였다. 그런 다음 전화로 경찰관주재소를 호출하여 네놈들은 무엇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공산당이 나타났다, 빨리 빨리 총동원해서 오라고 호통질했다. 경찰관주재소에서는 사건현장에 기마경찰대를 급파하였다. ≪13연발≫은 하마트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뻔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이와 비슷한 모험을 자주 되풀이하였다. 공청조직이 그에게 어떤 비판을 했으리라는 것은 여기에 구태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처창즈유격구역

이 ≪13연발≫이 쑥밭골 초소에서 항일혁명사에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할 만한 위훈을 세웠다. 쑥밭골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차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 방차대의 책임자가 바로 ≪13연발≫이였다. 그는 소대장 겸 이 대에 조직되어 있는 공청소조의 책임자였다.

일본군, 위만군, 자위단으로 이루어진 ≪토벌대≫의 대집단은 밤중에 은밀히 쑥밭골을 포위하고 초소에 달려들었다. 방차대는 새벽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귀틀집 초소의 일각이 불타서 무너질 때까지 일곱 차례나 되는 적의 돌격을 물리쳤다. ≪13연발≫은 탄우속에서 공청소조회의를 열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김명숙

≪동무들, 우리의 뒤에는 유격근거지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 만일 여기서 한치라도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조선청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자격이 없다. 몸이 열백 번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사적으로 초소를 지키자!≫

적개심에 불타는 방차대원들을 총칼을 꼬나들고 적들의 무리속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려고 하였다. ≪13연발≫도 그런 충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날 개인영웅주의, 모험주의의 병질 때문에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던 이 용감무쌍한 싸움꾼은 이처럼 혈전속에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세련된 지휘관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응원부대를 이끌고 쑥밭골에 달려갔을 때 그는 열세발의 총탄을 맞고 초소에 쓰러져 있었다. ≪13연발≫이란 별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방차대 성원들 중에는 일곱 군데, 세 군데, 두 군데의 부상을 당한 전투원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도 ≪7연발≫, ≪3연발≫, ≪2연발≫이란 별명이 붙었다.

왕청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13연발≫이라고 불렀다. 나도 역시 그렇게 불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본명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아득히 사라져갔다.

그의 본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본명보다도 항일전쟁이 만들어낸 ≪13연발≫이라는 별명이 독자들에게 더 좋은 여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데서 나는 위안을 얻는다.

전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일본군의 포화에 잿더미가 된 소왕청을 뒤에 두고 주민들은 십리평으로 피난하였다.

적들은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 어른들과 아이들, 남자들과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죽였다. 동기≪토벌≫은 소왕청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냈다.

우리가 십리평 다섯째섬 목재막앞에서 부대를 데리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피난민 옷차림을 하고 보초소를 통과한 일본군은 마촌에서 대왕청으로 이동하는 인민들의 뒤에 달려들어 기관총을 퍼부어댔다. 이 습격에서만도 우리는 수십 명의 군중을 잃었다. 밤중에 두천평 마을을 포위한 적들은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잠든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유격구에서 연극대본을 잘 쓰던 구청년단 서기 백일룡이네 가족도 모두 죽었다. 그 해 ≪토벌≫에 소왕청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유격구 형편이 최악의 상태에 달했을 때 이수구골 안에는 1,5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 피난민들을 대왕청으로 빼돌리느라고 유격대원들은 그때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다. 어떤 때는 대왕청으로 흐르던 피난민의 행렬이 적의 불의 습격에 두 토막으로 동강나 서로 종적을 찾느라고 온종일 산판을 헤매기도 하였다. 그때 나는 하루종일 팔에 애기들을 안고 혁명군중을 엄호하였다.

다른 유격대원들도 싸움을 하면서 노약자들을 부축해주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 사이에 흐르는 군민일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눈물겨운 화폭이 이렇게 엮어졌다. 그 화폭을 이룬 한점 한점이 다 피였고 눈물이었다.

피난민들을 데리고 이수구에서 십리평으로 가던 그날의 정경을 회고하면 조금도 목에서 겨불내가 나는 것 같다.

피난민들 가운데는 ≪토벌≫을 겪느라고 20일 동안이나 낟알구경을 하지 못하고 콩깍대기와 무시래기 같은 것으로 끼니를 이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십리평에 가서도 쌀이 없어 소가죽을 삶아 먹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해를 쳐다볼 힘도 없던 그 기아의 해들에 유격구 인민들이 먹던 ≪음식≫을 후대들앞에 전시한다면 그들은 선열들이 체험한 그 인간 이하의 주림앞에서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명숙(연길)은 유격구 시절에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해 생때같은 두 자식을 잃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 일주일 이상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자식이 굶어 죽은 것을 보고서도 밖에 내가가 묻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두막에 그냥 누워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웃들이 와서 시신을 오두막으로 끌어냈지만 땅에 묻지 못하고 가랑잎만 덮어주었다. 그들도 김명숙이처럼 일주일씩 굶은 사람들이어서 땅에 구뎅이를 팔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와 첫 쌀밥을 먹을 때 김명숙은 두 자식을 앗아간 유격구시절의 보리고개를 회상하며 슬피 울었다.

처창즈유격근거지에는 어랑촌전투 때 적의 기관총탄알을 여덟 군데나 맞고 두개골이 빠개져서 뇌수가 드러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그 검질긴 생명 때문에 그는 ≪팔연발≫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총탄 여덟 발을 맞고서도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팔연발≫도 동남차정부에서 일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가 죽기 전에 동지들을 향해 이런 절규를 하였다.

≪차라리 적의 탄알을 여덟 발 맞았을 때 죽었더라면 영웅이라는 이름이라도 남겼을텐데 여기서 억울하게 굶어 죽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적들은 유격구들을 총검으로 봉쇄하고 그 울타리속에 인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그때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 시절에 당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심혼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일본 지배층은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행을 두고 도덕적으로 심심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자신을 이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완성에로 이끄는 과정이다. 눈을 감는다고 역사가 스스로 인멸되는 법은 없다. 일본이 구가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비단이부자리 위에 조선민족의 피가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도 이방인들의 철화에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누이와 딸들이 강점군들에게 정조를 강탈당하는 국난을 체험하지 않았던가.

적들은 만신창이 되어 허덕이면서도 검질기게 늘어붙어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인원도 무기도 식량도 공급받을 데가 없는 우리를 장기전의 함정에 빠뜨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만이 유격대와 유격구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유격구방위전과 함께 적



일제군경의 토벌에
불타고 있는 집들

들의 종심에서 강력한 교란작전을 벌이는 것만이 유격구와 인민들을 보위하는 유일한 출로였다.

원래 나는 왕청에 온 초기부터 유격구 사수에만 매달리는 방어일변도의 경향을 반대하였다. 다시 말하여 적들의 역량이 분산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적들을 습격 소멸하고 적들이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한테로 쳐들어올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역량을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전법을 피실격허의 전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활동해야 근거지도 고수하고 부대의 역량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만당과 현당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은 적들이 집결해 쳐들어올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집결해서 적을 방어해야 유격구도 지켜내고 인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전술상 문제로 대치되어 나중에는 어느 주장이 진실로 맑스주의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비맑스주의적인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논란까지 빚어냈다.

그들이 우리의 이론을 비맑스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실도피적이고 투항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므로 우리도 그때 날을 세워가지고 적구교란론의 정당성을 완강하게 고집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역량을 집결한다고 하여도 적을 감당할 만한 힘은 못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민들을 사방에다 피난시키고 유격대도 일부만 남겨 여기저기서 뚱땅거리게 하자. 그러는 사이에 유격대의 나머지 역량은 분산되어 적 후방을 교란시키자. 가령 총을 멘 대원 10명이 적구로 나간다고 하자. 그 열 사람이 30-40명의 총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적의 약한 고리들을 자꾸 답새기면 총도 얻고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동무들이 당시의 정황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완고덩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슨 활동연조를 뽐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적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유격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군대만 살고보자는 사상이다≫라고 터무니없는 까박을 붙였다.

유격근거지가 초토화되고 희생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나는 동장영, 이상묵, 송일을 비롯한 특위와 현의 간부들을 만나 적후교란전을 벌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 계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고 인민들도 다 죽고 만다. 가면 어데로 가겠는가? 자꾸 쫓겨서 산으로만 들어가는데 수림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쫓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인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 동무들이 유격대와 같이 적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일이다. 당장 오늘밤이라도 유격대를 서너 패로 나누어 적구에 내보내야 한다. 적구에 나가서 후방근거지들을 몇 군데만 답새기면 ≪토벌대≫들이 반드시 소왕청에서 퇴각한다.≫


일제의 비행기정찰

동만의 다른 유격구들도 그 무렵에는 소왕청과 비슷한 고전을 겪고 있었다. 훈춘사람들은 밀려서 금창과 화소포 쪽으로 갔고 왕우구사람들은 다홍왜와 삼도만 방면으로, 화룡현사람들은 처창즈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간부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구교란론을 재차 상정시키고 ≪군대는 내가 책임졌으니 내 결심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다음 유격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 누가 적구로 가겠는가? 갈 사람은 나를 따라 서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절반만 적구로 나가고 절반은 유격구에 남아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구로 나갈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늘 밤중으로 포위망을 뚫자. 포위망만 뚫으면 살 길이 열린다. 적의 거점들과 지탱점들을 연이어 들부수면 소문이 난다. 소문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까봐 산골 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

이렇게 되어 유격대는 두 패로 갈라졌다. 한 패는 최춘국의 지휘하에 십리평을 지키고 다른 한 패는 내가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근거지 인민들은 공청원들의 인솔하에 나자구에 소개하였다.

우리는 병중에 있는 동장영을 묘구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할 데 대한 임무를 최금숙에게 주고 예비식량까지 다 모아서 그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상면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유격대의 한 개 편대를 데리고 배밀이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적 후방은 오히려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도시 주변의 첫 부락에 들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설 준비를 하느라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교즈와 기장떡과 같은 설음식으로 우리를 푸짐히 대접하였다. 그날밤 오백룡 소대의 김생길이라는 대원은 교즈를 140개나 먹고 배가 아파 죽을 뻔하였다.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여 보초를 세우고 하루종일 대원들을 재웠다. 몇 달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한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니 눈곱이 다 나오고 얼굴빛이 환해졌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했다. 전술은 자그마한 ≪토벌≫거점들에 대한 습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비교적 큰 ≪토벌≫거점들에 대한 공격을 배합하는 것이였다.

맨 처음으로 친 것이 양수천자의 적이었다. 우리의 벼락같은 기습에 위만군과 자위단이 녹아나고 일본영사관 경찰병영이 완전히 점령되었다. 양수천자에서 적후교란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는 멀리로 사라지는 척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앉아 신남구라는 곳에서 이동하는 적 자동차 수송대를 습격 소탕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우리는 신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봉오동의 산악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쭉 빠져나가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1934년 2월 16일 밤 북봉오동의 위만군과 경찰, 자위단원들은 모두 우리 부대에 의해 살상 포로되었다.

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북고려령을 넘어 사동 방향에 진출한 우리 부대는 동골에 있는 산림경찰대를 공격하여 병영의 적들은 모조리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최후의 싸움은 도문-목단강 사이의 철길을


요영구방어전투장

끼고 있는 주요 군사요충지 대두천에서 벌어졌다. 적≪토벌대≫로 변장한 우리는 100여 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단숨에 돌파한 다음 3개의 조로 나누어 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유격구를 조이고 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90일 전의 출발지점으로 퇴각하였다. 적들은 ≪암≫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연 석달 동안 유격구의 존립을 위협하던 동기≪토벌≫의 운명은 서산낙일로 끝나고 말았다.

편의상 마촌작전이라고 불렀던 소왕청근거지방위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취임과 라이프치히공판, 소미외교관계 수립으로 소란스럽던 세계의 일각에서 소문없이 생겨난 하나의 기적이었다. 소왕청유격구방위자들의 영웅적 위훈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을 방불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뤘다. 수백 명의 생명이 적의 포화에 목숨을 잃었다. 제일 애석한 것은 최금숙과 동장영을 잃은 것이다.

나를 친동생처럼 그렇게도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최금숙, 우리가 적구에서 돌아올 때 개선용사들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던 유격구인민들속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전령병이 메고 온 나의 배낭속에는 그에게 선물할 손거울이 있었다. 다른 부녀회원들에게 줄 전리품도 여러 마대가 되었다.

이 겨울에 우리 부녀회원들이 유격구를 지키기 위해 고생인들 얼마나 많이 하고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흘렸던가. 그들이 밥인들 얼마나 많이 짓고 풀뿌린들 얼마나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 지휘부 귀틀집

많이 캐었던가. 길 안내를 강요하는 적들을 유격대가 없는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골탕먹이고 총살당한 혜숙이와 영숙이! 지휘부가 자리잡은 벼랑턱으로 적들이 기어오를 때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연방 외쳐대며 원쑤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한 최창범의 숙모!…

어찌 계월향이나 논개만 조선의 열녀이고 애국자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때늦은 정성은 최금숙의 손에까지 닿지 못하였다. 적들은 내가 일생에서 유일하게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성,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죽지 말고 싸우자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는 불로장생하는데 대장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던 여성을 이렇게 앗아갔다.

동장영의 죽음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슴아픈 손실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상을 존중해주던 중국 동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못할 전우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중요한 노선문제를 두고 논쟁도 많이 하였다. 고집이 좀 세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견해상의 차이가 우리의 우정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늘 조선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무척 나를 위해 주었다.

우리는 대두천전투 후 오영구 방향으로 철수했다가 마촌에 돌아와 소왕청유격구 방위전투를 총화하였다. 그 때 마촌에서는 소개지에서 돌아온 인민들이 잿더미 위에 집을 일떠세우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유격구에 들어온 후 70번째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살아도 유격구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구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간도 인민들의 생명력은 이처럼 억척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인민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유격대는 적의 대≪토벌≫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촌작전의 승리는 군민일치의 열매이며 인민항쟁의 결실인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을 맞받아나가는 우리의 공격정신과 그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변화무쌍한 전법은 마촌작전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마촌작전의 전 과정은 혁명정권의 토양위에서 백절불굴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안고 거목처럼 우뚝 솟아오른 유격구정신의 연소과정이었다. 이 정신은 비행기나 대포로써도 정복할 수 없는 견인불발의 힘을 가지고 소왕청의 한치한치를 피로써 지켜낼 수 있게 하였다.

마촌작전을 통하여 적들은 심대한 군사정치도덕적 참패를 당하였다. 그 대신 우리 혁명군의 군사적 권위는 비할 바 없이 부각되었다.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하여 유격전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법들을 무수히 창조하였으며 정차 대부대활동에로 이행할 수 있는 군사조직적, 전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적의 어떤 침공도 격파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마촌작전은 소왕청을 고수함으로써 인접 현의 유격구들에 가해진 위기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211고지를 사수한 영웅전사들의 방위정신은 바로 1930년대에 탄생한 유격구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일로매진하고 있다.

항일전쟁의 포화속에서 탄생하고 연마된 유격구정신을 압도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6. 밀림 속의 병기창



무기수리소사업을 지도하시는 김일성장군님

나는 마촌에 있을 때 병기창에 자주 다녔다. 병기창이란 병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창≫은 ≪공장≫의 중국식 이름이다. 우리는 그 당시 병기창을 소박하게 철공소라고 불렀다. 이런 철공소들은 간도의 어느 현에나 다 있었다.

마촌병기창 또는 소왕청봉기창이라고도 부른 이 철공소의 초기 수준은 조직에서 파견된 한두 명을 노력이 화독에 숯불을 피워놓고 풀무를 당기면서 창이나 칼과 같은 소소한 무기를 벼려내는 정도였다.

마촌작전 직전에 철공소에 가보았더니 직원이 자그만치 7−8명이나 되였다. 그때의 철공소는 구정부 양식과장으로 소환되어간 박두경의 후임으로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주관하고 있었다. 철공소 일군들속에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오학봉, 최상문, 양도길, 강해산, 박영복, 이응만 등이다. 이 사람들 중에 철공기술을 가지고 병기창에 들어온 기술자는 강해산밖에 없었다. 그 나머지는 거의나 쇠붙이를 다루어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는 무기수리 같은 것을 해본 전적이 한 번도 없는 초학도이거나 문외한들이였다. 그런데 이런 풋내기들이 나중에는 선반도 볼반도 쎄빠도 후라이스반도 없는 촌 야장간에서 현대적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도 만들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필요한 화

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 이것은 항일전쟁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였고 이 전쟁의 승리가 민족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이 낳을 수 있었던 기적이였다.

한때 간도사람들은 멋도 모르고 쏘련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였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인류해방의 등대로 경건하게 우러러볼 때였다. 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의 덕을 보려는 사상은 사람들속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조장시켰다. 남들에 대한 의존심, 남들의 뒷받침으로 혁명을 해보려는 지향이 민족주의자들속에서 자본주의열강들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낳게 하였다면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쏘련에 대한 의존심을 낳는 근원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때 혁명승리의 테이프를 끊은 쏘련공산주의자들이 후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에 아무런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통지도 없었다.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야겠다고 강하게 결심한 것이 그때였다. 쏘련사람들의 침묵은 우리고 하여금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 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것이며 남들의 원조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기창사업을 특별히 중시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박두경이 창장으로 일할 때 우리는 모루, 멍치, 집게, 메, 풍구, 줄칼, 착공기 등의 철공도구들을 주어 병기창을 꾸리게 하였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병기창 일군들은 파손된 무기들을 수리 재생하거나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하여 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에 공급해주었다.

병기창이 생산한 무기 가운데서 이채를 띠는 것은 파손된 퉁포나 38식보총 총신을 잘라서 외방으로 쏘게 만든 단발권총이었다. 이런 권총은 군대에 주지 않고 자위대원들이나 소년선봉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어랑촌유격대에서 만들어낸 외알배기권총은 정치공작원들에게 주로 공급되었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병기창사람들은 38식보총 탄피들에서 뇌관을 뽑은 다음 새 뇌관을 만들어 끼우고 화약을 장약하는 방법으로 탄약도 재생하였다.

그런데 병기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원료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면서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화약이었다.

처음에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는 광산노동자들과 지하공작원들이 보내주는 화약으로 작탄도 만들고 탄알도 재생하였다. 그러나 이 구입방법은 상시적인 위험을 동반하였고 광산들에 모처럼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을 노출시킬 우려가 많았다. 실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약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용수평 늪사건이다.

용수평은 팔도구광산 근처에 있는 동네이다. 최현의 전우이며 부인이었던 김철호가 바로 이 마을에서 자라나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동구앞에는 수심이 깊고 갈대가 무성한 늪이 있었다. 용수평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이 고장 농민들의 생명수였던 용수평늪이 하루아침 사이에 피바다로 된 참변이 일어났다. 일본헌병대 야수들이 유격근거지에 화약을 반입한 팔도구광산 노동자 20여 명을 색출하여 이 못가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유격근거지의 지도자들과 병기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광산조직들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화약을 해결하던 종전을 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작탄과 총탄을 만들 때 쓰던 그 한그램한그램의 화약은 그대로 다 투사들이 뿌린 피였고 살점이었으며 그 모든 것의 결

정체였다.

우리는 화약도 자체로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결심을 사상누각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사람이 각오만 하면 못해낼 것이 없다. 조상들이 만든 화약을 그 후손들이 왜 못 만들겠는가 하는 뱃심을 가지고 화약제조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 화약의 기본원료인 염초를 민간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염초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보는 것이었다. 햇빛이 쨍쨍 내리쪼이는 어느 날 나는 병기창성원들을 데리고 재와 퇴비가 쌓여 있는 이치백노인의 집마당으로 갔다. 두엄더미 주변에 하얗게 쌓여 있는 흰 소금같은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염초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병기창동무들은 손에 대통을 쥐고도 내 대통, 내 대통하는 할아버지격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바탕 유쾌하게 웃어댔다.

변소자리나 외양간, 마굿간에서 나간 두엄더미 밑바닥 흙에서도 염초를 얻어낼 수 있었다.

고려시기에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하여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가 만들어낸 화포는 곧 함선에 설치되었다. 고려의 수군은 그 화포로 진포해전에서 왜구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그가 화약을 제조할 때에 사용한 염초도 역시 집 주변에서 얻은 재나 먼지를 정제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고려시기의 화약이 최무선의 발명이 아니고 그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배운 제조법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런 화약을 발명해낼 만한 이론기술적 토대가 우리 나라에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에 신라에서는 벌써 화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두뇌가 비상해!≫하고 감탄하면서도 조선사람이 무슨 발명을 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은 정말이야?≫하고 고개부터 갸웃거리는 사대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병기창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염초를 얻어냈다. 염초를 뽑아낼 때 용기들로



소왕청유격구의 병기창(모형)

는 밑굽이 뚫린 토기시루나 양철시루, 오지항아리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이런 용기들에 마굿간, 변소, 두엄더미 바닥에서 긁어온 흙을 다져넣고 물을 부었다. 그때 구멍으로 떨어져내리는 물을 그릇에 받아두었다가 가마에 넣고 달이면 하얀 결정체가 되는데 이것이 염초였다.

그때 생기는 윗층의 결정체를 가로발이라고 하였고 밑층의 결정체를 선발이라고 하였다. 선발은 곧게 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보총, 권총 탄알들에 장약되었고 가로발은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작탄제작에 많이 사용하였다.

화약을 만들 때에 소용되는 원자재는 군중이 동원되어 다 해결하였다. 필수원료인 유황은 경비전화선 애자에서 많이 긁어다가 해결하였다. 화약에는 알콜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 빼주를 썼다.


박두경

우리는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실험을 거듭하여 끝내 이상적인 배합비율을 얻어냈다.

그때 화약제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손원금이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원래 나는 손원금이와는 별로 인연도 없고 서로 만나서 통성을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원금의 경력이며 활동내용을 십년지기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손원금의 투쟁사적을 처음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박영순이었다. 작탄강습에 출연하려고 마촌에 온 그는 나와 한방에 누워 뒹굴면서 며칠 동안 신변잡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그 말 가운데는 손원금의 이름도 이따금씩 껴묻어 나왔다. 열마디에 한마디 정도씩 드문드문 튀어나오는 이름이었지만 거기에는 박영순의 각별한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도 손원금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듣곤 하였다. 박영순은 그의 친근한 전우이자 입당 보증인이었다.

사람은 업적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고 재능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으며 사건으로써도 유명해질 수 있다. 1932년 당시의 손원금은 경찰서탈출사건으로 간도지방의 혁명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약장사로 가장한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통신연락임무를 수행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고문에 만신창이 된 몸을 끌고 구정물이 허리를 치는 하수도구멍으로 빠져나와 옹근 하루낮을 강물속에서 보냈다. 경비가 철통같은 적의 소굴을 무사히 탈출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하루해를 꼬박 물속에서 보냈다는 것도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그 후 그는 유격대에도 입대하고 공산당에도 입당하였다. 손원금은 이때부터 성실한 노력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곡촌의 신성덕 수리바윗골 장대는 박영순이 책임진 화룡병기창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이 병기창 일군들이 처음으로 만든 작탄을 소리폭탄이라고 하였다. 소리폭탄은 그 후 고추폭탄으로 발전하였다가 연길폭탄이라는 위력한 작탄으로 완성되었다.

연길폭탄을 제작하는데 많은 자재가 들었다. 이 자재를 병기창 성원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면 무수한 노고를 바쳐야 했다. 손원금은 언제나 이 노고의 앞장에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갔다.

≪한번은 소리폭탄은 만들다가 큰 난관에 봉착한 일이 있습니다. 장약함을 만들 종이와 천이 거덜났거든요. 모두가 방도를 찾느라고 머리를 썩였지요. 그런데 원금동무는 어느새 마을로 뛰어내려가 자기 집 문창호지와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재밤중에 헐떡거리며 병기창으로 돌아온 그를 보니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이 박영순이 마촌에서 나에게 한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혁명가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받아안은 감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박영순은 말을 이어갔다.

≪원금동무는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서곤 했습니다. 철사가 모자라서 작탄제작이 중단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앞장에 선 것은 손원금이였습니다. 그가 수십 리밖에 있는 남양평에 가서 300미터나 되는 전화선을 끊어왔지요. 유황도 무쇠조각도 양철판도 그 사람이 구해왔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 양철판과 무쇠를 한짐 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온 손원금의 뒤로는 주소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면부지의 할머니 한 분이 무쇠가마를 이고 따라들어왔다.

늙은이의 돌발적인 출현은 일군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원금이, 웬일인가? 시베리아 바람에 살점이 막 떨어져나갈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 밤중에 노인님을 모시고 왔나. 사람두 참…≫

박영순이 할머니의 머리에서 무쇠가마를 들어내리며 하는 말이였다.

손원금은 등짐을 벗어내치고 의미있게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모시고 온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청해서 따라왔습니다.≫

박영순은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어떻게 되어 저 동무를 따라오셨습니까?≫

≪저 젊은이하구 난 구면이라우. 전에 내풍동에서 살 때부터 낯을 익혔수다. 우리 며느리가 중병이 들어 골골하면서도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깽깽이를 들고 약장사를 하던 저 젊은이가 글쎄 돈 한 푼 안 받고 약두 지어다 주고 쌀도 사다주지 않았겠수.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살아났수다. 신세를 갚지 못해 앓앓했는데 오늘 아침 저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왔더구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쇠가 있으면 내라고 하길래 옳지 됐다, 이제는 신세를 갚을 길이 틔였다하고 무릎을 치지 않았겠수. 이건 우리 집 가마 중에서 제일 큰 게라우. 에구, 신세갚음이 되기나 되겠는지…≫

할머니는 미씸쩍은 시선으로 화독앞에 놓인 가마를 굽어보았다.

≪할머니, 지성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마사진 가마만 받지 새 가마는 받지 않습니다. 이 가마는 도로 가져다 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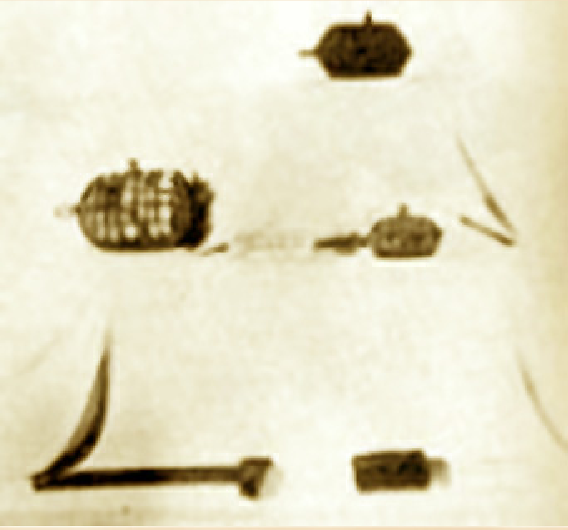
박영순이 송구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왈칵 짜증을 내었다.

≪그런 말은 하지두 마우. 일본놈들이 내 아들을 둘이나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까짓 무쇠덩지가 무얼 그렇게 아깝겠수!≫

병기창일군들은 그 이상 할머니를 설복하지 않았다.

나는 박영순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화룡땅으로 달려가 손원금을 만나고 싶


연길폭탄과 그 제작도구

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매혹시킨 손원금의 인간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강쇠 같은 자력갱생의 정신이었다.

나는 흥분된 심정으로 박영순에게 말했다.

≪박동무의 이번 걸음에 손동무도 같이 올 걸 그랬습니다. 그 동무의 경험이 아주 교훈적입니다. 이 훌륭한 경험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면 모두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박동무가 손동무를 대변하여 다 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촌 작탄강습을 계기로 손원금은 전 동만이 다 아는 인물로 되었다.

박영순이 강습을 끝내고 마천을 떠날 때 나는 이런 부탁을 하였다.

≪화룡에 돌아가면 손원금동무에게 그의 경험이 강습참가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 주시오. 언젠인가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 정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전해 주시오.≫

그러나 나와 손원금의 상봉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작업도중 폭발사고로 두 눈을 잃고 장님이 되는 불행까지 당했다.

화약을 제조하는 과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작탄이나 총탄에 화약을 재우는 일이었다. 박두경, 박영순, 강위룡은 다같이 화약을 제조하다가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곤경을 겪으면서도 작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손원금

손원금이도 실명의 쓰라린 아픔속에서 낙심하거나 비관에 잠기지 않고 ≪동무들, 슬퍼마라.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나에게는 심장이 남아있지 않은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무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손더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작탄을 조립하면서 인터내셔널의 노래를 불렀다.

한많은 세월의 바람받이에 아버지를 묻고 형을 묻고 누이를 묻고… 이제는 또 자신의 광명마저 잃은 손원금! 그는 아직 반생에 이르지도 못한 젊은 나이었다.

손원금은 유격구가 해산되자 전우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대를 떠나 금곡촌으로 내려갔다. 그의 귀에는 날마다 유격대를 헐뜯고 공산당을 헐뜯는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유격대는 산에서 전멸되었다.≫

≪근거지 사람들도 다 굶어죽었다.≫

≪처창즈에 가보라. 백골뿐이다.≫

≪공산당의 정치는 망하는 정치다. 공산당을 따라다녔대야 먹을 알이 쥐뿔도 없다.≫

손원금의 혈관속에서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졌다. 그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열변을 토하였다.

≪아니다. 유격대는 살아있다. 살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갔다. 지금 남북만 도처에서 적들을 치고 있다. 몇십 명으로 출발했던 유격대오가 지금은 대포와 기관총을 가진 수백 수천 명의 대오로 자라났다. 동포들, 형제들! 적들의 선전에 속지말고 인민혁명군을 더 잘 원호하자. 항일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고 끝날 것이다!≫

손원금의 발자욱은 금곡촌의 범위를 벗어나 수백 리 밖에 있는 연길과 용정에서 찍혀갔다. 이전날처럼 바이올린을 둘러메고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더듬더듬

걸어가는 이 ≪소경걸인≫을 군경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상에서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는 연길의 거리거리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목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동포 여러분, 6월 4일 **김일성**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진출하였다. 혁명군의 위력앞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제의 멸망은 확정적이다.≫

그의 불같은 연설에 연길시는 죽가마처럼 끓어번졌다. 그러나 그 대가로 손원금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였다.

≪여러분, 나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산천이 환히 보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조선혁명 만세!≫

이것은 그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당년 25살의 자력갱생의 선구자 손원금은 이렇게 한 생을 마쳤다.

박영순은 손원금을 추억할 때마다 ≪원금이는 장가도 못 가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라고 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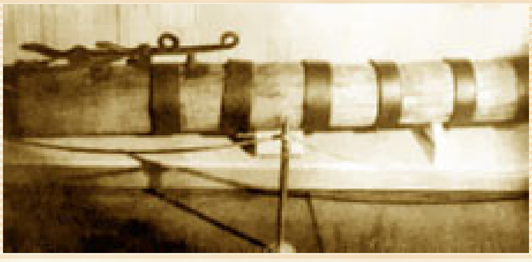
만일 손원금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면 후대들앞에서 자력갱생을 두고 좋은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그의 경력 자체가 자력갱생의 산 교과서로 되고 있을 것이다.

화약의 개발은 병기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화약이 해결되자 작탄제작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작탄은 양철통을 이용해서 도화선을 물리는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껍데기로는 통조림통을 많이 이용하였다. 적 통치구역이나 반유격구의 지하조직들에서 모아보낸 통조림통속에 화약이 장약된 기름통같은 것을 넣고 통조림통 껍데기와 기름통 사이의 빈 공간에 마시진 보습이라든가 파편으로 쓸 수 있는 쇠붙이들을 깨뜨려 넣고 심지를 물리면 곧 작탄이 되었다.

순수한 손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작탄이었던 것만치 물론 조작도 불편하고 볼품도 없었다. 손동작이 굼뜨면 조작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한 대원은 양수천자에서 적들을 칠 때 심지에 불을 다느라고 꾸물꾸물하다가 팔이 떨어진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탄은 수류탄과는 대비도 할 수 없으리만큼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인들이 빨치산의 작탄이라면 벌벌 떨었다.

화약이 생기게 되면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나무포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오의성의 부대는 지금의 반탱크총과 비슷한 쇠로 만든 대포를 꽝꽝 쏘아대며 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호강을 하지 못하고 나무포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왕청사람들이 쇠스래나무를 가지고 처음으로 나무포를 만들어낸 것은 동녕현성전투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대두천을 칠 때 이 포를 쏘아보았는데 소리가 뇌성벽력처럼 요란하였다. 손으로 두드려 만든 나무포가 위력을 내면 얼마나 큰 위력을 내겠는가. 그런데 그 포로 한 방 쏘자 적들은 놀라서 다 달아나버렸다.

화룡지방사람들도 어랑촌의 머구엔즈에 있는 병기창에 나무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그 포를 천리봉에 올려놓고 쏘면 30리 밖에 있는 이도구의 일본군경까지도 혼비백산해서 아우성을 치곤 하였다.


나무로 만든 대포

혁명군이 나무포를 쏘면 적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였다. 아무런 기술설비도 없는 유격근거지들에서 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였다.

무기 제작과 수리에서 병기창일군들이 발휘한 혁명적 적극성과 견인불발성, 창의창발성은 실로 세인을 경탄시킬 만한 것이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는 현대적인 기계나 공구가 거의 없었다. 왕청사람들이 착공기 1대를 가지고 있었고 박영순이 주관하고 있던 화룡병기창 일군들이 대립자의 단야업자를 통하여 구해들였다는 손볼반 한 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였다. 연길현의 두도구, 능지영 병기창들에 그런 기계수단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하는 것은 기억에 삭막하다. 착공기와 손볼반을 제외한 최상의 수단은 줄칼이였다.

병기창일군들은 줄칼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수리하였다. 그들은 줄칼로 쓸고 숫돌로 갈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과 물과 진흙에 담금질을 하는 방법으로 보총의 약통물개도 고치고 격침도 수리하였다. 나중에는 기관총까지도 척척 재생시켰다. 병기부문일군들 중에는 박영순, 손원금, 강위룡, 박두경, 송승필, 강해산과 같은 재간덩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바늘에 구멍을 내는 재간까지 가지고 있었다.


송승필

이 모든 기적의 비결이 바로 자력갱생에 있었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구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군들처럼 인민들에게 군자금을 내라고 호소하든가 동냥자루를 메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그 무슨 하소연도 하였을 것이다. 구걸을 하느라면 남들에게 굽실거리게도 되고 남들이 발바닥을 핥으라면 발바닥을 핥고 눈꼽자기를 뜯어달라고 하면 눈꼽자기를 뜯어주는 비루한 속물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항일전쟁의 초기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그 관철을 위해 분발한 것은 당시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일제의 만주침공은 조일, 중일간의 모순을 격화시켰고 이 모순은 불피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무장투쟁이라는 높은 형태의 투쟁과제를 제기하였다.

만일 이런 때에 우리가 자력갱생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외교에 매달렸더라면 우리는 일제의 만주강점 직후 그처럼 빨리 항일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유격대오는 불과 몇 해 사이에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자력갱생은 자주, 자강의 기초위에서 민족자력에 의한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구호였다. 인민이 이 구호를 제때에 받아물고 도처에서 야장간을 병기창으로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무기수리 기지들을 창설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분야 뿐만 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었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공산주의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지 않으면 실속있는 혁명가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을 하는 여기에 혁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본고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였다.

지난날 민족운동지도자들이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현혹되어 외세의존의 길로 줄달음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길현의 의란구에는 남양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추수, 춘황투쟁 후 일본군경들

은 이 마을에 달려들어 무고한 주민들과 청장년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집들은 잿더미로 만들었다.

남양촌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동하였다.

≪우리들은 비폭력적인 정치투쟁을 하는데 놈들은 무기를 쓰고 있다. 맨주먹으로는 적을 타승할 수 없다. 총검을 들고 일제와 맞서서 판가리싸움을 할 때는 왔다. 동무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한 청년이 주먹을 흔들면서 말했다.

≪쇠붙이를 모아서 창이라도 만들자. 창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적들을 찔러죽이고 총을 빼앗을 수 있지 않는가.≫

그 청년은 대장장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태순노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기 집 헛간에 아버지가 쓰던 야장도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칼이나 날창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그 말에 대뜸 호응하였다

≪옳다. 창과 검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는 그 창과 검을 총으로 바꾸자.≫

이태순노인이 농쟁기를 벼리던 그 망치와 집게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골짜기에서 박달나무 뿌리로 숯을 굽고 달구지 바퀴테를 벗겨다 창을 버렸다. 단야공정을 거친 창들은 돌에 대고 갈아서 날을 세웠다.

동구밖에서 울리는 난데없는 망치소리는 야장일에 인이 박힌 옛 대장쟁이를 골짜기로 불러냈다. 청년들은 치던 창을 풀숲에 치워놓고 부시는 만드는 체하였다.

≪무얼 만드느냐?≫

이태순노인은 미심쩍은 눈길로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부시를 만듭니다.≫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할 짓도 없군. 메를 이리 다구.≫

노인은 눈깜짝할 사이에 부시 열 개를 쳐주고는 야장도구들을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노인이 밭으로 나간 사이에 청년들은 그 야장도구들을 다시 들어내다가 날창을 버렸다.

≪이 녀석들아, 어제 쳐준 부시는 어떻게 하구 또 이 짓들이냐?≫

벽도 지붕도 없는 청년들의 야장간에 이태순노인이 전날처럼 기척도 없이 나타나 엄하게 물었다.

≪동무들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이 일동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런 일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다. 이태순노인은 청년들이 만드는 물건이 부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농번기에 마을 청년들이 부시나 만들자고 야장일을 벌여놓았겠는가 무더운 여름날 강냉이밭 고랑을 타고 누구도 모르게 나타난 노인은 청년들이 아들한테서 기술전습을 받아가며 창을 버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놈의 자식들, 봄내 여름내 무슨 꿍꿍이를 하는가 했더니 제 죽을 잡도리들을 하는구나.≫

노인이 야장도구들을 주섬주섬 걷어모으며 야단법석을 하자 급해맞은 청년들은 그의 옷섶을 매달려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다.

≪아버님, 놈들이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파리잡듯이 자꾸 잡아죽이는데 우리가 올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히 이태순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다가 무게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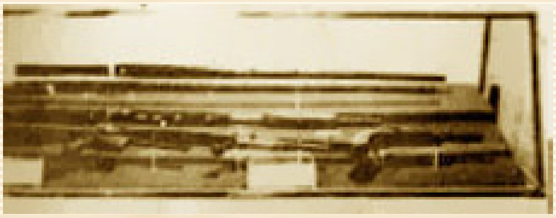
말했다.

≪내가 집게질을 할테니 너희들은 메질이나 해라. 그리구 망을 잘 봐야겠다.≫

그날 노인은 1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창을 한 자루씩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웃마을 청년들이 잡쇠붙이들과 못 쓰게 된 달구지 바퀴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창들을 모조리 바꾸어갔다. 야장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선심을 베풀라는 것이었다.

이태순노인은 떡쇠로는 창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쇠붙이들을 모조리 발고랑에 내던지게 하였다. 그 대신 자기가 감추어두었던 팔모정 수십 개를 가지고 고강도 단도와 창을 수십 개나 만들어주었다.



각종 무기들

20여 명의 남양촌 청년들은 노인이 벼려준 창과 단도를 가지고 연길에서 구룡평 쪽으로 이동하던 위만군의 소부대를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태순노인은 흐뭇한 심정으로 마을청년들의 전과를 치하했다. 그의 주관하에 남양촌의 비밀야장간은 그 후에도 많은 도창무기들을 만들어냈다. 나중에는 작탄까지 생산하였다. 노인은 전심전력으로 병기 생산과 수리를 하다가 적들에게 잡혀 희생되었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생기발랄한 시대상은 인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세상만사를 다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 방법이 정당하고 위력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산 화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력갱생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였으며 자력갱생을 떠나서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논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조선혁명의 발전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력갱생만이 우리 인민의 근대 정신생활에서 큰 질곡으로 남아있던 사대주의를 종국적으로 추방하고 자주, 자강, 자립의 이념밑에 민족재생의 활로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 자력갱생은 주체가 선 인간과 주체가 서지 못한 인간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전쟁을 개시하는 첫날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남들이 도와주면 좋고 설사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하며 또 찾을 수 있다는 사상, 위에서 해결해주면 좋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만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은 대중을 쉽게 공감시켰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자고 호소할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 크지 않은 무장문제가 제기되자 머리를 기웃거리며 난색을 짓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 창건을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이영배와 방인현이 무기청소를 하다가 격침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피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이것은 그대로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비상사고였다.

나는 고장난 격침을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이영배와 방인현에게 말했다.

≪동무들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겠으니 내일 이맘때까지 격침을 고쳐오시오.≫

두 사람 다 눈이 휘둥그래졌다. 내가 감히 그런 엄청난 요구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아니 현대적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혹시 생명을 내대는 모험이나 싸움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이거야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소. 보통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업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만 강쇠로 만든 격침이 부러졌는데…. 이거야 어디 이론으로만 되는 일입니까?≫

방인현은 암담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격발기를 굽어보았다. 그 순간까지만 하여도 그는 격침을 원상복구하라는 나의 요구를 허황하고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때에 지휘관이 자기의 지시를 철회한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나는 내 지시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삼 냉정하게 요구하였다.

≪고칠 수 없다면 앞으로 유격대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그만 격침 하나 고치지 못하는 능력으로 복잡한 사회개조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무들이 정녕 그 격침을 고칠 의향이 없다면 내일부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엄포를 놓자 두 사람은 화다닥 놀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격침을 꼭 고쳐보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방법을 대달라고 하였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방법은 동무들끼리 찾아보라.≫

이영배는 방인현은 격발기를 들고 울상이 되어 훈련장을 떠났다.

다음날 그들은 격침을 고쳐가지고 희색이 만면해서 훈련장에 나타났다. 완전무결한 원상회복은 아니었으나 격침은 손색없이 작용을 하였다.

동무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리를 명령한 내 자신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며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던 저 동무들이 무슨 갑작수로 저렇게 쉽사리 격침을 고쳐가지고 왔을까?

≪처음엔 철사를 얻어 줄칼로 새 격침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강쇠가 있어야지오. 그래서 격침을 불에 달궈 두드려 늘궜습니다. 돌에 갈아 형태까지는 그럭저럭 잡았는데 떡쇠를 강쇠로 만들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소사하에 있는 오랜 대장쟁이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떡쇠를 강쇠로 만들자면 기름에 담그라는 겁니다. 그말대로 했더니 이런 강쇠가 됐습니다.≫

방인현은 덤벼치면서 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들의 수리 경험은 동무들을 크게 분발시켰다.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을 잘 발동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모두가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안았다.

수리한 격침을 들고 훈련장으로 뛰어올 때 이영배와 방인현의 얼굴에 활짝 피어났던 그 보름달 같은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



군복을 짓던 재봉기



재봉대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다. 그 미소는 분명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다함없는 긍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냈을 때에 맛보게되는 쾌감과 희열보다 더 격렬한 환희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격침 한 개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노획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 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 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

맑스와 엥겔스는 인류발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정당한 규정이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인 동시에 자기 발전의 역사, 자기 창조의 역사, 자기 완성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인류가 자기 자체에서 사람에게 고유한 힘과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연마해온 창조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류역사는 또한 자기를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켜온 혁신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는 이런 창조와 혁신의 힘으로 오늘날의 로케트시대, 컴퓨터시대, 유전자공학의 시대, 녹색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력갱생은 역사발전을 촉진시켜온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일 자기 힘을 계발시키지 않고 천지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이나 하느님의 은총만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동만각지에서 병기창들을 활발하게 운영해가지고 있을 때 사충항은 동녕현성에 왕덕림의 구국군이 경영하던 병기공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슬쩍 귀띔해주었다. 이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동녕현성에 더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사충항의 말에 의하면 이 병기공장은 1932년 봄에 한두 대의 선반과 주물차, 재봉기

를 가진 군기수리소로 발족하였다고 한다. 1932년 하반기부터 군기수리소는 수류탄, 박격포탄, 25발짜리 기관단총, 일명 돼지포라고도 불리는 포를 생산하는 본격적인 병기공장으로 발전하여 그 관하에 직원만 해도 200여 명이나 두었다. 그러는 사이에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설비도 보강되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주로 왕청현 대전자와 영안지방의 구국군 부대들에 공급되었다.

일본군의 강점과 함께 공장은 해산되었다. 그러나 설비와 기계수단은 종전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만일 우리가 1933년 가을에 동녕현성을 타고 앉는데 완전히 성공하였더라면 이 병기공장은 불피코 우리의 무기공장으로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보다 더 현대적인 경무기와 중무기로 자신들을 더욱 훌륭하게 무장하였을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창조된 병기분야의 경험은 1930년대 후반기 백두산근거지에 건설되었던 병기창들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계승발전되었다.

우리는 유격근거지마다에 재봉대를 꾸려 군복도 자체로 해입었다. 천도 자체 해결이요, 염색도 자체 해결이요, 제작도 자체 해결이었다. 가둑나무와 가래나무, 황경피나무 껍질을 큰 가마에 넣고 우린 다음 그 물에 천을 넣으면 보위색으로 착색되었다. 나무의 종류별 배합비율에 따라 천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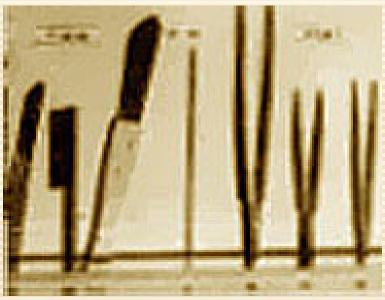
왕청재봉대의 초기 성원은 김연화와 함께 한때 6호촌의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복무한 전문진이었다. 그밖에 남자재단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 후 소왕청재봉대에는 이일파, 김명숙, 김순희 등이 보충되었다. 일손이 달릴 때에는 임시노력도 채용하였다.

소왕청시절의 나의 군복은 전문진이 지어준 것이였다.

내가 안도에서 왕청으로 가자 그곳 재봉대원들은 청년장군이 왔는데 좋은 옷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코트와 군복을 일식으로 만들어주었다. 천은 손으로 물을 들인 수수한 광목이었지만 그 한뜸한뜸에 스며있는 정성은 참말로 지극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소왕청재봉대는 2-3대밖에 안 되는 재봉기를 가지고 대대나 연대에 소요되는 군복을 도맡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나 연대부의 주문에 따라 반일부대장병들이 입을 군복까지도 일식으로 지어냈다. 일식이라고 하면 군복저고리와 바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르는 군모와 행전, 탄띠까지도 다 포함된다. 재봉대에 부과되는 작업량은 공칭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생산능력을 뛰어넘는 과부하가 생길 때마다 근면하고 충실한 재봉대원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잠이 오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노래를 불렀다. 오죽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모든 재봉대원들이 수십 가지의 혁명가요를 외우고 있었겠는가.





유격구에서 자체로 만든 약품(위)과 의료기구(아래)

소왕청재봉대의 초대책임자는 김연화였다. 그 당시의 왕청사람들은 그를 활량이 또는 말광량이라고 불렀다. 그가 이따금씩 담배질을 한다고 남자번지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덜렁덜렁한 말괄량이가 뜨개질이나 바느질만은 아주 솜씨있게 하였다.

김연화가 바느질을 배운 것은 부부생활을 시작한 후부터였다. 그의 남편은 다리가 한 쪽밖에 없는 불우한 사나이였다. 승산없는 가난과의 대결에서 그가 첫째가는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은 삯바느질이었다. 김연화의 재봉솜씨는

이때부터 축적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군복도 잘 만들었지만 중국옷도 맵시있게 만들었다. 김연화를 남자번지개라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가 지어준 옷을 입고서는 ≪연화누님, 절을 받아주십시오!≫하면서 재봉대가 있는 골 안을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곤 하였다.

우리의 재봉대원 가운데는 병기창 성원들 못지않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 많았다. 김명숙, 전문진, 한성희, 안순화, 최희숙, 김용금, 김수복, 최인숙, 박정숙, 조영숙, 박수환, 마인옥, 김선 등은 모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수천 수만 벌의 옷을 지어낸 간고분투의 명수들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순화의 최후와 간파하자밀영에서의 여섯 재봉대원들의 영웅적 순국을 사실 그대로 방불하게 그려낼 언어가 나한테는 너무도 모자란다.

우리는 유격구마다 병원을 차려놓고 부상자와 환자들도 자체로 치료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수술칼, 핀세트 등의 의료기구들은 모두 병기창 기술자들이 자체로 만들어낸 것들이였으며 약간량의 신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약들도 의료일군들이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체로 마련하고 제조한 것이였다.

의사와 간호원을 데려올 데가 없으니 그것도 자체 해결이였다. 동의사 경력을 가진 한두 명의 선각자들이 무수한 후비들을 키워냈다.

임춘추, 이봉수 등은 치료사업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은 명의들인 동시에 후비육성에도 무시할 수 없는 공로를 세운 권위있는 사람들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에서 삶의 노래, 소생의 노래를 부르며 뛰쳐일어나 대오로 돌아갔던가.

우리는 식량문제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였다. 인민들에게 납부량을 정해주고 그것을 모아들이는 방법으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였다. 우리는 군대와 적위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을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앞에 식량의 자급자족화 목표를 내세우고 유격구의 농경지들에서 자체로 곡식을 심어먹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맹렬하게 벌이던 1930년대 후분기에는 후방부대를 파견하여 백두산기슭에서 전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 좌우명을 뼈와 살로 만든 사람은 절해고도에서 지조를 지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오를 떠나 변절투항하거나 중도반단의 길을 걸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고이 안고온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 후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새 조선 건설의 봉화로 타올랐고 동방 일각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린 원동력으로 되었다. 평범한 수리기지에 지나지 않았던 자그마한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기관차 제작에 달라붙었을 때 한 대사는 조선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붉은기≫ 1호는 그 경쾌한 기적 소리로 대사의 예언을 가볍게 짓눌러버렸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망치소리는 노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항일전쟁의 폭풍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넋은 오늘날 **김정일**조직비서가 제시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속에서 힘차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행진곡≫을 부르며 풍랑 사나운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영마루로 치달아오르고 있다.

7. 영생의 꽃


김금순

1933년이었다.

왕우구 혁명조직에서는 상급의 조치에 따라 북동아동단학교 학생들인 김금순이와 김옥순이를 소왕청에 파견하였다. 두 소녀는 연길지방 인민들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던 재능있는 유희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혁명군중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왕청 일대에 가서 근거지 인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보급하라는 과업을 받고 마촌에 왔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혁명조직들은 인재들을 자주 선발하여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된 소왕청으로 끊임없이 보내주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평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동만지방의 인민들도 소왕청을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 다하였다. 마촌에 도착한 후 두 소녀는 나를 만나려고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의 안내를 받아가며 곧장 군부로 찾아왔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10살 안팎의 애어린 소녀들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을 자매간이라고만 짐작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남남이였다. 그저 이름이 어슷비슷하였을 뿐이다. 동행한 북동아동단학교 관리원은 내 앞에 두 소녀를 차례로 내세우고 그들의 경력과 집안 내력을 재미나게 소개해주었다. 그 소개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관리원이 김옥순의 경력을 말할 때 김옥순 자신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하였다. 그가 걸어온 13살이라는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큰 비극으로 얼룩져있었던 것이다. 김옥순은 9살 때 20살이 넘는 지주의 아들과 혼약을 맺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혼약이었다. 20살이 넘으면 남자도 노총각이라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등이 달아서 중매군을 내세워 신부감을 물색하던 세월이었다. 총각이 20살이 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여자의 아버지에게 술을 몇 사발씩 퍼먹이고 만취된 다음 손을 끌어당겨 문서장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혼약을 성급하게 날조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총각은 분명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장가를 가기 힘든 부실한 청년이였거나 병신이였던 것 같다.

그 문서장에 의하면 김옥순은 15살이 되는 해에 신랑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문서장에 그런 강도적인 조항이 씌여있는 것도 모르고 이틀 동안이나 빈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술에 만취되였던 그는 집에 실려와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주머니에서 자기의 지장이 찍힌 약혼문서와 출처불명의 돈 80원을 발견하고는 통곡하였다. 그 80원은 딸을 지주집에 시집보내게 되는 대가로 신부될 측이 신랑될 측에게서 받는 선사금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옥순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딸의 운명을 한 장의 문서장으로 결정해버린 그의 아버지 김재만 자신은

얼마 후 80원의 선사금으로 초가집을 사고 텃밭을 사고 소와 돼지를 사서 묵묵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강약이 부동이라고 항변했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왕이면 주머니에 굴러들어온 돈을 밑천삼아 화를 복으로 만들어보겠다는 태도였다. 딸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며 쿨쩍거릴 때마다 김재만은 이런 말로 그를 달랬다.

≪얘야, 울지 말아라. 그 80원이 그래두 다 망하게 된 우리 집을 살렸다. 어쨌든 굶어죽기보다야 낫지 않겠니. 너 하나의 혼약으로 다 죽게 된 부모형제들을 살렸다고 생각하면 슬픈 마음도 가라앉을 게다.≫

부식하고 순박한 그는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손발을 놀리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지어는 백만장자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진난만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착취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졌다. 그 지주는 드문히 옥순이네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김재만은 세상에 자기네 지주처럼 고마운 지주는 없다고까지 여기게 되었다. 한번은 옥순이가 학교마당에 가서 지하공작원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만은 딸을 외양간에 묶어놓고 온몸에 굴뱀이 질 때까지 사정없이 매를 때렸다. 딸이 혁명에 발을 담그게 될까봐 겁났던 것이다. 김재만이 계급적으로 늦게나마 각성된 것은 다섯차례에 걸치는 적의 ≪토벌≫에 마음이 잿더미가 된 다음부터였다. 옥순이네도 그 ≪토벌≫에 집과 역축을 죄다 잃고 말았다.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는 불에 타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옥순아. 이제는 놈들이 망하든지 우리가 망하든지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도 몰랐다. 이제는 너희들이 혁명을 해서 저 악귀같은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유화 - 딸



딸을 왕우구유격구역으로 떠밀어보내던 날 밤 김재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후 김옥순은 송림동에 있는 김금순이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금순이와 함께 북동아동단학교에도 다니고 구유희대, 현유희대에 망라되어 군중계몽활동도 하였다. 조선의 아이들은 옥순이처럼 부모들의 곁에서 응석이나 부리고 투정질이나 할 어린 나이에 벌써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한 멍에를 걸머지고 생활전선에서 허덕였다. 세월의 난파는 성년, 미성년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어린이도 몰라보는 세상,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똑같은 등짐을 걸머지우는 악착한 세상에 항거하여 우리의 소년들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간도지방의 조선소년들은 도처에서 아동단,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뭇고 조직된 역량으로 싸움의 마당에 뛰어들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교양되고 단련된 우리의 모든 소년소녀들은 항일혁명을 움직이는 하나의 당당한 치차가 되고 나사못이 되었다.

김옥순, 김금순이도 그 치차 중의 한 치차였고 그 나사못 중의 한 나사못이었다.

나는 김옥순의 경력을 듣고 측은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청초한 모습속에 비껴있는 한 가닥의 불행은 조선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던 불행의 축도였다. 하지만 혁명을 하겠다고 어린 나이에 벌써 집을 떠나 유격근거지로 찾아들어온 그 결의와 기개야말로 얼마나 장하고 떳떳한가. 오늘은 또 소왕청을 지원하려고 왕우구, 다홍왜, 요영구, 마촌 노정을 따라 수백리 길을 걸어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른들이나 신고 다니는 지하족을 발에 걸치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막대기로 덤불길을 헤치며 허위단심 소왕청으로 찾아온 두 소녀가 내 눈에는 몹시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워 보였다.

≪누가 너희들을 소왕청으로 보내더냐?≫

나는 저 지하족을 운동화나 고무신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소녀에게 물었다.

≪윤병도선생님이 보냈습니다.≫

두 소녀는 치마말기에 두 손을 가져다 붙이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눈빛도 별처럼 초롱초롱했지만 목소리도 정신이 번쩍 들게 또랑또랑하였다. 나는 기분이 매우 흡족해졌다.

아이들과의 친교는 사실 나의 생활에서 하나의 큰 낙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뇌를 씻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세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겨보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진다는 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이상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 것이 성스러운 사명임을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얼굴과 종다리에 긁힌 자리가 여러 군데 나 있는 금순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 큰 고개란 많았겠는데 넘기가 힘들지 않더냐?≫

≪발이 부르터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온 아저씨가 왕우구로 되돌아가라고 할까봐 힘들지 않은 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들 곁에 있으면 더 좋지 않니.≫

≪좋기야 좋지요 뭐.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겠나요. 어른이 되자면 고생을 많이 해봐야 한다구 아동단 지도원선생님두 말씀해주셨는데 . 난 고생을 많이 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그렇게 빨리 되어선 뭘하니?≫

≪조선을 독립해야지요. 김대장아저씨. 무슨 일이 있어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금순이의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조선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는 그의 각오는 사상적으로 매우 조숙한 것이었다.

≪응. 그건 걱정말아라. 간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간둥이들이 굴러들어왔는데 왜 돌려보낸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같이 왕청에 있자. 여기서 아동단생활을 하는 게 괜찮아.≫

금순이는 그 말을 듣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손뼉을 마주쳤다. 나는 현과 구의 공청지도 일군들에게 두 소녀를 마촌아동단학교에 편입시키고 아동단조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부모의 슬하를 떠나 생소한 고장에 온 그들이 마음놓고 침식을 할 수 있는 무던한 집들에 숙소를 정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왕청의 군대와 인민은 마촌아동단학교운동장에서 그 해 5.1절을 크게 쇘다. 5.1절 행사에는 왕청지구의 군대들이 다 무였다. 왕우구에서 온 두 소녀는 그날 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각각 1등을 하여 왕청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금순이는 나이에 비해 몹시 체소했다.

그가 유희대의 선두에서 배낭을 메고 발을 재게 놀리며 달랑달랑 걸어갈 때면 그 순결하고 재롱스러운 모습앞에서 누구나 다 웃음을 짓곤 하였다. 나 자신도 그의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 나는 원래 생활을 비관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보다도 낙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가 산에서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던 그 시기에는 한 명의 낙천가가 몇 십 문의 대포와 맞먹는 힘을 냈다. 금순이는 그 당시 당, 공청, 아동단의 3대 동맹에서 제일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투사였고 낙천가였다.

금순이를 만난 며칠 후 나는 지휘부에 마촌아동단학교 아이들을 불러 그들의 생활형편을 요해하였다.

원래 아동단원들은 배낭속에 일주일 분의 식량을 상시적으로 휴대하고 다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배낭검열을 당한 아동단원들속에는 학교에서 내준 미시가루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순이만은 한 숟갈도 다치지 않고 일주일 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수하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 막내가 참 용케 참아냈구나. 금순이가 제일이다!≫

나는 배낭검열을 끝내자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며 금순이를 크게 칭찬하였다.

금순이는 수줍은 듯이 웃기만 하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두 미시가루주머니를 몇 번이나 꺼냈다 넣었다 했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걸 겨우 참았지요 뭐.≫

≪어떻게 참았느냐?≫

≪다른 애들이 미시가루를 먹을 때 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래두 먹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지요. 밖에 나가두 먹구 싶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드레박 마시고 오곤 했습니다. 그럼 미시가루를 먹은 것만치니 배가 불렀거든요.≫

나는 금순이의 유창한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물겨운 동심속에는 유격구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었으며 그런 궁핍속에서도 억척스레 혁명을 개척해나가는 어린 불사조들의 넋이 격조높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10컵의 미시가루와 강냉떡을 나누어주고 배낭속에 성냥도 넣어주었다. 며칠 후에는 새 솜옷과 솜이불에 신발, 공책, 연필까지 합쳐 두 달구지나 되는 필수품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주었다. 싸움이 잦은 때여서 우리에게는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의 예비가 적지 않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귀한 때였으니 우리는 그 예비의 많은 몫을 늘 아동단학교에 돌리곤 하였다.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되고 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 원칙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었다.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부대를 출동시켜 전투까지도 서슴없이 조직하곤 하였다.

우리는 아동단앞에 ≪조선의 독립과 전 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아동단원들은 군중계몽, 연예활동, 보초근무, 통신연락, 적정탐지, 무기탈취, 유격구방위를 위한 투쟁에서 실로 어른들에게 못지 않은 위훈을 세웠다. 적의 토벌에 불타버린 귀틀집들을 다시 일떠세울 때에도 우리는 일터에서 언제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근거지를 사수하는 방위전의 불바다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혁명군의 참호에 주먹밥을 들고 뛰어오던 어린 수리개들과 맞다들 수 있었다. 농사철이면 그들이 밭에 가서 김도 매고 가을걷이도 하였다. 어떤 때에는 산과실을 따다가 유격대 병실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나는 뾰족산 중앙보초대에서 전방보초근무를 서고 있는 아동단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한 일이 있다. 허리에 묵직한 작탄을 한 개씩 찬 그들은 1.5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진 장대 끝에 쇠붙이를 붙인 창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보초교대는 한시간에 한번 한다고 하였다. 성냥가치 두 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향에 불을 붙여 그것이 절반 가량 타면 교대를 하곤 하였다. 향이 전부 타는 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아이들이 한번은 겹으로 된 조선바지, 저고리와 대님, 회색양단조끼, 승마바지, 구

두, 장화, 검정고무신을 일식으로 갖추어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가 아동단학교에 전리품들을 여러 번 보내준 데 대한 보답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일본침략군의 수송대를 치고 노획한 조선사과도 아동단원들에게 모조리 선물하였다. 유격근거지 아이들 가운데는 이국 땅에서 태어나 조선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조국의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유격대원들이 노획한 조국의 사과를 상자째로 가져다주었을 때 아동단원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절절한 감사의 정에 사무쳐있었는가에 대하여 이 일화의 산 증견자이고 직접적인 체험자인 김옥순은 자주 뜨겁게 회고 하였다.

박길송 아동국장은 어느 날 아동단학교에 찾아가 이런 말을 꺼냈다.

≪애들아. **김**대장선생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해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장선생님에게 우리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시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들 해보아라.≫


박길송

아동국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금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옷을 해드리자요. 대장선생님은 글쎄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신다지 않아요.≫

박길송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금순이가 방금 좋은 옷을 해드리자구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아이들은 일제히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좋다면 됐다. 나도 금순이처럼 두툼한 옷을 해드리자고 생각했다. 천을 구해다가 부녀회원들에게 부탁하든가 재봉대에 부탁해서 멋들어지게 옷을 만들자꾸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천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섯을 뜯어다가 말려서 팔면 돼요. 버섯 값이 비싸다구 했어요. 돈만 있으면 천이야 못 구하겠나요.≫

금순이가 또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참새처럼 조잘거렸다.

≪옳아요! 옳아요! 버섯을 뜯어다가 지주들에게 팔자요!≫

다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다음날부터 아동단원들은 박길송과 함께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돌아다녔다.

나는 그들이 버섯을 따들고 대열합창을 하며 이수구골 안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면서도 그 버섯광주리속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였다. 그저 애들이 병원에 있는 전상자들에게 입맛이 당기는 부식물을 마련해주려고 끔찍이도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버섯이 돈으로 되고 옷으로 되어서 어느새 내앞에 나타난 것이다.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시는 대장선생님께서 입으시라고 저희들은 옷 한 벌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양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금순이가 아동단경례를 맵시있게 붙이고 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때 내가 정말 홑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곤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옷을 받고나니 어째서인지 속으로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옷을 받아들고 이런 말로 아이들을 달랬다.

≪애들아. 나는 비록 홑옷을 입고 지내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성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옷은 소왕청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니 섭섭해들 말아라.≫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옷을 받지 않는다고 못내 서운해하였다. 내가 두세번 타일러서야 애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다.

군중집회가 끝난 다음 금순이는 내 곁에 다가와 군복소매를 살그머니 만져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걱정하였다.

≪천이 얇아서 바람이 쌩쌩 날아들겠네.≫

지금도 엄동설한이 되면 소왕청에서 금순이가 하던 그 말이 이따금씩 귓전에서 감돌곤 한다.

처음에 왕청사람들은 그를 ≪깜장금순이≫라고 불렀다. 눈동자가 새까맣다고 유격구인민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붙였다. 조금 후에는 ≪마촌콩새≫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겨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콩새처럼 몸집이 작고 귀염상스러운 어린이라는 뜻에서 길주, 명천 지방 출신 여성들이 달아놓은 애칭이였다.

사람들이 ≪깜장금순이!≫하고 불러도 금순이는 ≪예!≫하였고 ≪마촌콩새!≫하고 불러도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하루에 별명을 열 번 이상 들어도 절대로 노여움을 타는 성미가 아니였다.

금순이가 무대에서 탭춤을 추는 날은 왕청사람들의 명절이였다. 그는 옥순이와 함께 늘 이 춤을 추곤 하였는데 아동단유희대의 공연종목 가운데서는 늘 이 종목이 제일 많은 박수갈채를 받곤 하였다. 그가 발을 재게 놀리며 다리와 다리 사이로 수건을 뽑는 동작을 되풀이할 때마다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올렸다.

나는 왕청에 있을 때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마촌골 안을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를 요해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곤 하였다. 아침 산보는 나에게 있어서 어길 수 없는 일과였다. 내가 백마를 타고 왕청골 안을 돌아다닐 때면 유격대 나팔수 송갑룡과 전령병 조활남이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아침 산보를 할 때마다 길가에서 꼭꼭 아동단원들의 가창대열과 맞다들곤 하였는데 그 대열을 볼 때의 기분이란 참으로 흐뭇하고 상쾌한 것이었다.

양 볼이 사과알처럼 붉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마상에서 굽어볼 때에 느끼는 대견스러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 방불하게 그려낼 수 있겠는지. 나는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아동단원들이 보고 싶어서 아침 산보를 중단하지 않았다. 혹시 그 애들이 눈비를 무릅쓰고 산보를 나왔다가 노상에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허전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아이들도 나와 꼭같은 심정을 가지고 궂은 날이나 마른 날이나 할 것 없이 산보길을 한번도 비우지 않았다.

가창행진을 할 때의 선창은 노상 금순이가 떼곤 하였다. 수십 가지의 음성이 뒤섞여 울리는 조잡한 합창속에서도 우리는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금순이의 유다른 목소리를 쉽게 가늠해보곤 하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째서인지 오늘 하루도 유격구에서 만사가 잘되어 나가겠구가 하는 미신에 가까운 안정감이 마음속에 깃들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이수구골 안을 흔드는 아동단학교의 대열합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딴 지방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은 생소한 느낌에 떠밀려 귀틀집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가창대대열은 때마침 지휘부 근처에 있는 소로길로 행진해가고 있었다. 대열 선봉에는 예전날처럼 역시 금순이가 서 있었다.

금순이는 웬일인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채 타박타박 걷기만 하였다. 그날 아침 금순이를 대신하여 선창을 담당한 것은 아동단단장인 이민학이었다. 금순이의 선창이 없는 가창대 대열은 사실 기둥기수를 잃어버린 합창단과 다름 없었다.

그날은 왜 그런지 하루종일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다. 나는 금순이를 만나려고

석양 무렵에 아동단학교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왕우구에 있던 그의 가족들이 적에게 희생되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였다. 금순이가 입을 봉하고 묵묵히 가창대 대열을 따라다닌 것이라든가 이민학이 그를 대신하여 직접 선창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던 까닭이 비로소 이해되였다.

금순이는 그날 내 무릎에 엎드려 기절할 지경으로 오래도록 울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었다는데 나 혼자 살아서는 무엇하나요?≫

그는 이런 사설질을 하면서 비에 젖은 참새처럼 온몸을 오돌오돌 떨었다.


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

그날 그를 달래느라고 정말 진땀을 뽑았다. 나는 황혼이 스며들 때까지 아동단학교에 남아 금순이를 위로하였다.

≪금순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네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원수들은 너까지도 이 세상에서 없애치우려 할 것이다. 왜놈들은 지금 이 간도 땅에서 조선사람들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게 쉽사리 놈들에게 생명을 내줄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서 원쑤를 천백 배로 갚아야 한다.≫

금순이는 그때에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씻으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였다.

≪말씀대로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웃음이 적고 말수더구가 적은 소녀로 변하였다. 그가 이전처럼 소리를 내여 웃거나 목청을 높여 입씨름질에 열을 올리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는 선창을 뗄 때에도 종전과 같이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않았다. 소왕청에서는 ≪마촌콩새≫라는 애교있는 별명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린 소녀의 복수심은 아동단생활과 유희대공작에서 배가의 열성으로 나타났다.

금순이를 핵심으로 하는 아동단유희대는 석현, 도문의 회막동과 같은 적통치구역에 나가서도 맹활약을 하였다. 왕청아동유희대의 명성은 동만의 판도를 벗어나 머나먼 북만에까지 확대되였다.

그 당시 동만과 북만의 공산주의자들은 노야령을 사이에 두고 교류를 밀접히 하고 있었다. 노야령 산줄기에 구축된 천험의 장벽도 두 지방 혁명가들이 서로 부단히 왕래하고 접촉하며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간도를 항일대전의 성새로 만들어놓은 유격근거지들은 만 사람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모델로 되였으며 거기에 세워진 새 제도, 새 질서는 인방 인민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꿈으로 되고 숙망으로 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특히 만주지방 인민들과 무장부대들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 전투가 있을 후부터 구국군들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이 나를 ≪**김**장군≫, ≪**김**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유격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민주주의적 시책은 만민의 축복을 받는 시대적인 관심사가 되였다.

북만의 당조직들과 군부에서는 동만지방 인민들이 이룩하고 있는 유격구건설 경험을 섭취할 목적으로 왕청과 그 주변의 근거지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참관단을 파견하였다. 그 무렵의 왕청 중심지는 소왕청이 아니라 요영구였다.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도 마촌을 떠났다. 적의 대토벌이 있을 후 유격구의 모든 기관들은 일제히 요영구로 이동하였다. 나도 1934년 봄에 일부 부대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4년 여름 지방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로 무어진 영안현 참관단이 임영주라는 여 공청서기의 인솔하에 팔도하자에서 신선동을 거쳐 뒤틀라즈로 찾아왔다. 그 때 요영구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참관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아동단원들은 3각으로 된 붉은기를 흔들면서 ≪북만견학대를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는 연방 외쳤다. 저녁에는 병실 마당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참관단을 위한 연예공연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는 북만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다채로운 종목들을 보여주었다. 이 유희대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단원들이 많았다.

이민학은 댄스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었다. 그가 희극적인 역을 맡아 가지고 연극에 출연할 때면 관중들이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김재범도 댄스명수였다. 그는 춤으로써 오리걸음과 토끼걸음까지 흉내내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왕청현 내의 혁명조직구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연예공연도 하고 노래보급도 하였다.

우리는 아동유희대를 위해 전투에서 노획한 물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무용복도 해입히고 연극의상도 해결해주었다.

주보중이 직접 파견한 반일동맹군의 소부대도 얼마동안 요영구에 와있으면서 왕청유격대의 경험을 배웠다. 그것은 순수한 유람식 참관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을 따라세우는 일종의 실습과 같은 것이었다. 요영구에 체류하는 전 기간 그들은 하루생활도 우리 부대가 제정한 일과표대로 하였고 군사훈련, 정치학습, 문화생활도 모두 왕청부대식으로 하였다.

우리는 공청조직과 아동단에 과업을 주어 정상적으로 반일동맹군 대원들에 대한 위문사업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들이 반일동맹군 대원들에게 중국말로 된 혁명가요를 연습해가지고 가서 배워주면 반일동맹군 대원들이 아동유희대원들에게 재미나는 중국노래를 배워주었다. 어떤 날에는 아동유희대원들이 중국말로 된 연극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아동유희대의 위문활동에 감동된 북만의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그들을 병실로 초청하였다.. 이 사람들이 북만에 돌아가서 아동유희대에 대한 소문을 크게 퍼뜨려놓았다.

1934년 여름에 주보중은 왕청지방의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나는 박길중에게 원정공연 준비를 잘해서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해주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희대가 북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도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우리가 유희대를 북만에 파견한 것은 중국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한층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다.

주보중이 아동유희대를 초청한 목적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반일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교양하자는데 있었다. 그 당시 주보중은 영안 일대에 조직된 수녕반일동맹군의 판사처주임으로 활동하면서 왕덕림의 구국군에서 떨어져 나온 항일대오를 결속하기 위해 간고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파견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싸움

에도 인이 박히고 온갖 고초와 주림에도 단련된 아이들이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겠는가 하는 우려가 잠시도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금순이와 같은 어린이가 험준한 노야령 산줄기를 어떻게 타고 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아동유희대원들은 모두 동란속에서 단련된 어린 매들이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번 이겨낸 불굴의 투사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커다란 불가항력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노야령 산줄기도 어렵지 않게 돌파하였고 토비들의 활동구역도 무난히 통과하였다. 비가 내리면 머리 위에 우산 대신 솔가지와 봇나무껍질을 쓰고 행군하였다. 밤에는 자기네끼리 야전밥통에 밥을 지어 대충 끼니를 굼때고 모닥불 옆에서 보초를 서가며 노숙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배탈을 만나 산중에서 막심한 고생을 하였다. 더구나 유희대가 잡은 노정은 달구지나 발구가 다니게 되어 있는 왕청－노야령의 큰길이 아니라 유격대통신원이나 다니는 실오리같이 가늘고 험한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수백리의 노정에서 낙오자는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유희대 막내둥이인 금순이조차도 배낭을 매주겠다는 아이들의 제의를 가볍게 밀어버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힘으로 노야령을 넘었다고 한다.

금순이와 함께 북만까지 갔다온 김옥순은 훗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구국군 부대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재미나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아동유희대가 북만 땅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린 것은 마창에 주둔하고 있던 채세영부대에서였다. 채세영은 구국군지휘관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양만 더 잘하면 그들을 동맹자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자로까지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마창에서의 첫 공연은 금순이의 연설로부터 시작되었다.

150명에 달하는 구국군 장병들이 채세영과 함께 공연을 보았는데 반영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금순이가 연설을 끝마치자 그들은 ≪밤알만한 처녀애가 어쩌면 저렇게도 말을 잘할까! 저 애를 봐서라도 우리가 항일을 잘해야겠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채사령은 감격한 나머지 자기 방에 금순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그에게 귀걸이와 손목걸이까지 걸어주었으며 순회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유희대에 두 대의 마차까지 내주었다.

일주일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요청으로 자꾸만 연장되었다. 유희대는 주보중의 부대에 가서도 공연을 하였다. 채세영은 그들에게 솜저고리, 다부산자. 목도리, 돼지, 닭, 당면, 밀가루를 비롯하여 두 달구지나 되는 선물을 보내주었다. 매 아이들에게 가방을 하나씩 메워주고 총까지 선물하였다.

유희대가 원정공연을 끝마치고 요영구로 돌아올 무렵에 나는 부대를 데리고 다른 지방에 가 있었다.

내가 유격구로 돌아오기 바쁘게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고 북만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자랑하였다.

≪이건 다 채사령이란 분이 준 거예요. 레닌처럼 수염을 기른 분인데 마음씨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의 방에 가서 돼지발쪽이란 것도 먹어봤어요. 주보중선생님도 선물을 많이 줬어요.≫

금순이는 이렇게 채사령과 주보중 칭찬을 한바탕 하고 나서 칠성자 한 자루를 내 옆구리에 채워주었다.

≪장군님, 이 총은 장군님이 꼭 차야 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는 결정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제 품에 캐드득거리며 웃어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섭섭해하지 않게 그 칠성자를 며

칠동안 차고 다니다가 청년의용군대장에게 슬그머니 넘겨주었다. 나머지 무기들도 모두 청년의용군에 인계해주었다. 북만에서 가지고 온 그 밖의 선물들은 고스란히 아동유희대가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 해 가을 요영구유격대에는 금순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기적같은 풍문이 떠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금순이가 머리카락 짬에 들국화 송이들을 여라문 개 꽂고 요영구골 안이 좁다하게 나비처럼 팔랑팔랑 날아다닐 때 금순이네 가정내막을 잘 알고 있는 근거지의 군중들은 한 사람같이 흐뭇한 심정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아동단조직에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금순이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기로 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도리에 밝고 집단주의정신이 강한 금순이는 처음에 조직의 이 배려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부모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한둘도 아닌데 자기 혼자만 그런 특전을 받을 수 있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금순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리 부대가 전각루에서 북만원정 준비를 다 그치던 1934년 가을이었다. 그 때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는 그 고장에 와서 연예공연을 하였다. 원정대원들을 전송하기 위한 특별공연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연이 끝난 다음 우리는 노루를 잡아서 아동유희대원들에게 교즈를 만들어 먹였다.

내가 유희대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집을 돌아보고 나올 때 금순이가 갑자기 먹던 음식그릇을 밀어놓고 내 곁에 바삐 다가와 무슨 큰 비밀이라고 뚱겨주듯이 귓속말로 소곤소곤 속살거리는 것이었다.

≪장군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신대요!≫

≪오냐. 유격대아저씨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한다.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오늘 너무 기뻐서 독창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두 또 부르고 싶었지요 뭐.≫

≪그럼 자꾸 부르려므나.≫

나는 전각루마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마련해가지고 온 몇 가지 전리품 가운데서 참빗과 얼레빗을 각각 1개씩 꺼내어 금순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어리광이라도 부리듯이 내 팔에 마구 휘감겼다. 나이는 어리나 응석기라고는 조금도 없던 이 귀여운 소녀의 몸가짐과 언행에서 새의 퍼덕거림과도 같은 환희의 선풍을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럼 인차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네가 떠날 때 나는 너를 바래줄 것 같지 못하다. 북만에 가야 하니까.≫

이것이 내가 금순이에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금순이가 전각루에서 유희대활동을 마치고 아동단학교로 돌아간 것은 요영구혁명조직에서 적구에 보내는 극비문건을 전달할 연락원을 물색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직에서는 심중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적임자로 결국 금순이가 선발되었다.

나어린 금순이는 혁명조직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중요한 연락임무를 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최대의 믿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금순이가 적구로 내려가는 날 한성희는 그를 물가에 데리고 나가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의 차림새라도 보아주듯이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로 빗어주고 신들메도 매어주고 치마의 주름살도 펴주었다. 큰 머루알만한 도토리알 세 개를 핀으로 꿰어 리본 대신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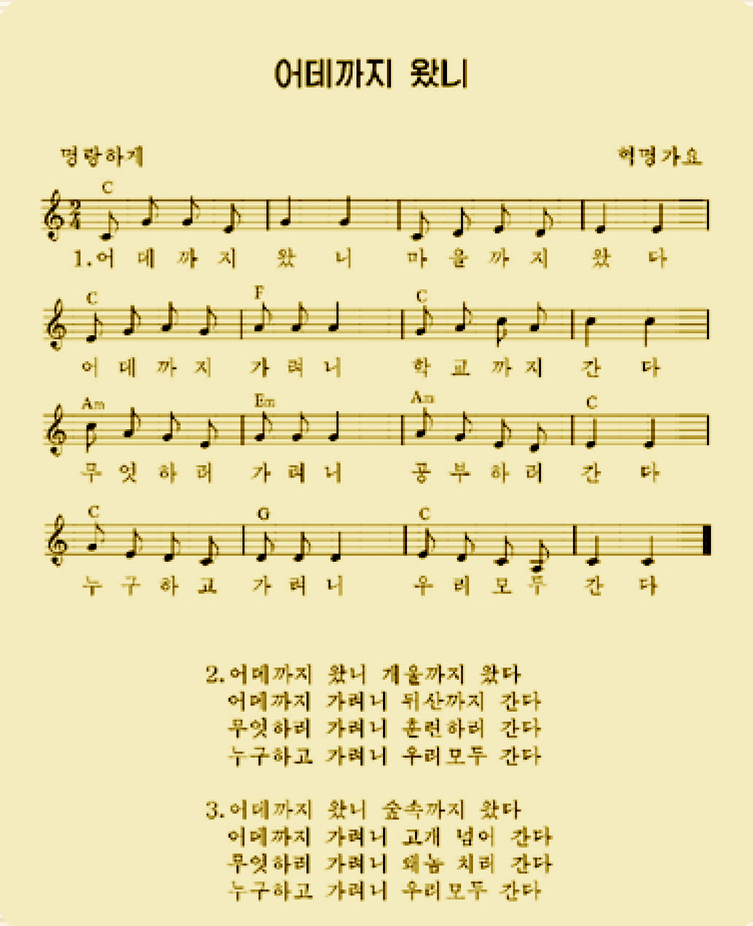
그날 아동단원들은 동구 밖까지 따라나가 금순이를 바래주었다.

어데까지 가니
연길까지 간다

어느령을 넘니
길청령을 넘지

무엇하러 가니
통신연락 가지

누구하고 가니
나혼자서 가지



금순이는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속 길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 가사는 그가 걸음을 옮기면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동무들은 그 노래를 듣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그리고는 목청을 합쳐 요영구골 안이 떠라나게 그 노래를 되받아 불렀다. 금순이는 조직이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다음 어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어른들과 함께 일본헌병대놈들에게 체포되었다.

놈들은 금순이가 유격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쾌재를 올렸다.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게워놓을 수 있는 ≪새끼공산당≫이 굴러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 그들은 금순이가 요영구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아냈던 것 같았다. 요영구는 동만지도부가 자리잡을 곳이니 잘만 구슬리면 큼직큼직한 비밀들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이었다.


항일의 소년영웅 김금순에 대하여 소개한 동북항일렬사전(1936.5)

실지로 금순이가 유격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혁명군의 활동, 간부들의 움직임, 유격구와 반유격구를 연결하는 비밀통로, 근거지 주민들의 생활형편과 동향 등은 그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금순이가 유희대에 망라되어 적구에 가서도 공연활동을 많이 한 것만큼 그를 굴복시키기만 하면 지방조직들의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

적들은 이런 가능성을 저울질해보고 그에게서 귀맛이 당기는 정보자료들을 있는 힘껏 비틀어 짜내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놓고 달콤한 말로 그를 달랬다. 다음에는 위협도 하고 고문도 하였다.

나는 전에 외국소설에서 어떤 섬마을의 어린애가 은시계에 유혹당하여 새초더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행처를 대주었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다. 그 소설을 보아도 알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을 구슬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아이들은 물질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고문앞에 굽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의 아동단원들 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한 푼의 돈과 바꾼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해방 후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강렴, 이헌수, 임형삼도 13-15살 안팎의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적의 총구앞에서 조직의 비밀을 불지 않았다.


김금순의 장렬한 최후를 보도한 신문자료

금순이는 항일혁명의 풍랑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불굴의 어린 투사였다. 이 나라의 어린 딸은 살점이 떨어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연 것은 오직 교형리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뿐이었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

금순이를 취조하던 헌병장교의 말이었다.

≪더럽다!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금순이의 대답히었다.

악착한 교형리들은 혁명군의 비밀을 불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린 금순이를 죽이려 하였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유격구 주민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다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백초구들판에는 눈물의 바다가 고였다. 그러나 금순이는 오히려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 아저씨들이 꼭 원수를 쳐 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이 최후의 절규에는 9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생애가 짤막하게 함축되어 있었다.

사형장에서는 ≪일제놈들을 타도하자!≫, ≪조선혁명 만세!≫를 부르짖는 금순이의 앳된 목소리가 맵짜게 울렸다.

나는 금순이가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동안 아동단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

어쩐지 그 학교에 가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금순이가 없는 아동단학교, 금순이가 없는 아동유희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정없이 서글퍼졌다. 적들은 내 곁에서 왕청사람들이 그렇게도 총애하던 유희대 나비, 유격구의 종달새를 영원히 앗아간 것이다.

이제는 그 누가 금순이처럼 고생속에 혈전분투하는 유격구사람들을 위해 그렇게도 낭랑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도 발랄하고 경쾌하고 맵시있는 율동으로 춤을 추겠는가. 그 누가 금순이처럼 거침없는 중국말노래로 구국군장병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산책을 길을 더듬는 나를 향해 금순이처럼 영롱하고 생기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이겠는가.

금순이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왕청 일대의 혁명군중을 분기시켰다. 요영

구골 안에서는 금순이의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동만 각 현에서 격노한 수십명의 남녀청년들이 금순이의 복수를 다짐하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국제당 계열의 잡지와 중국과 일본의 출판물들은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린 영웅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어린 렬녀의 약전≫이란 제목으로 금순이의 영웅적 생애를 격찬하였다. 한 뼘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발로 사품치는 강하와 메부리들을 쉴새없이 넘고 건너며 혁명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던 유격구의 종달새 금순이는 이처럼 9살 나이에 세계를 격동시킨 인물이 되었다.

우리 나라 현대 역사에는 유관순이라고 부르는 이름난 순국처녀가 있다. 유관순이라고 하면 먼저 기미년 3.1운동을 회상하게 된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교비생으로 학업에 전심하던 처녀는 3.1운동의 열파로 학교가 페쇄되자 고향 충청남도 천안에 내려가 독립만세시위를 조직하고 그 시위를 진두지휘하다가 일본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법관들은 그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을 언도하였다. 3.1인민봉기를 최초에 선도한 33인에게 가한 형기가 최고 3년에서 최하 1년이라는 것과 그 33인 중에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본법정이 16살밖에 안된 처녀를 얼마나 무서운 중범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7년이면 3.1독립운동사상 최고의 형량이라고 시골 농부들까지도 혀를 내두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유관순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후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줄곧 그를 ≪조선의 잔 다르크≫라고 부르며 뜨거운 애정을 담아 추억하고 있다.


유관순

그러나 금순이한테는 아직 그런 칭호가 붙어있지 않다. 그와 대등한 나이의 영웅소녀와 얽거니와 그의 투쟁업적에 견줄만한 위훈을 세운 처녀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1의 영웅 유관순과 함께 김금순과 같은 소년영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영광이다. 최근에 금순이를 형상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후대들에게 그의 위훈을 충분히 소개할 수 없다. 금순이와 같은 소년영웅들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는 금상이나 동상을 세워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며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와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었다.

김금순과 같은 어린이를 세계적인 소년영웅으로 키워낸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수많은 소년영웅들을 육성하였다.

김금순, 전기옥, 목운식, 강용남, 박명숙, 박호철, 허정숙, 이광춘, 김득봉

그들은 모두가 항일혁명의 폭풍속에서 배출된 나어린 열사들이다.

≪나를 총으로 쏘지 말고 날창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이것은 통신연락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간 훈춘의 아동단원 전기옥 소년이 최후의 순간 위만경찰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다.

처형 직전의 그 무시무시한 긴장과 죽음의 공포속에서도 자기 개인의 목숨이나 육체를 걱정하기에 앞서 유격대를 생각하고 항일전쟁의 승리를 생각한 그 숭고한 혁명정신은 교형리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목운식소년의 위훈도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것이였다. 짚신속에 비밀 통신쪽지를 감춰가지고 영창동에서 평강으로 가던 그는 길청령 경비막앞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게 되였다. 온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던 적들은 소년의 왼쪽 발에서 짚신을 느닷없이 벗겼다. 그 순간 목운식은 일각의 여유도 없이 문초하던 자위단원을 밀치고 경비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엌 아궁이에 바른편 발을 다짜고짜 밀어넣었다. 바른쪽 짚신에 비밀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간파한 적들은 아궁이에서 소년을 끌어내려고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목운식은 온몸에 내려지는 뭇매를 당하면서도 부엌돌을 힘껏 그러안고 불속에서 발을 뽑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짚신도 타고 발도 타고 솜바지 가랑이도 다 타버렸다.

적들은 목운식을 병원으로 떠메고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가슴에 주사침을 놓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비밀을 뽑아내려는 적들의 심사는 실로 검질긴 것이였다. 그러나 목운식은 그 비밀을 굳건히 간직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일선에서 후원한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은 모두가 우리 혁명 1세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였다. 지금도 우리 혁명은 사로청과 함께 소년단을 노동당의 믿음직한 저수지로 보고 있다. 우리가 온 나라의 보화를 다 모아 아이들의 궁전을 건설하고 후대교육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일군들에게 후대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 찬연한 이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지금 향락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다. 후대들이야 어찌되든지간에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침식해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후대가 생기면 거추장스럽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마저 포기하고 있다. 사람이 결혼을 안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후대들이 없이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향락에 중독된 수정주의자들은 후대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온갖 사회악앞에 사정없이 내던지고 있다. 10대의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집권자들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며 혼란된 현실에 눈물을 짓는다면 그 나라의 혁명은 의심할 바 없이 미래가 없는 혁명이며 전도가 암담한 혁명이다. 일군들이 후대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혁명은 더 많은 김금순과 전기옥과 목운식을 낳게 될 것이다. 금순이의 일가는 이름난 혁명가의 가정으로 항일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참혹한 수난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왕우구에서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피살되였고 어머니는 손에 총을 잡고 근거지를 지키다가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금순이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내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많이 주었다.

금순이의 아버지는 한번 과업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제끼고야 마는 강의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금순이까지 셈하면 그의 일가에서 다섯 명이 희생된 것으로 된다. 유관순의 가정

이 겪은 운명과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하지만 그처럼 가혹하고 무자비한 운명의 신도 이 훌륭한 가정의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후대를 한 명 남겨주었다. 금순이의 어머니가 전투장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간 금순이의 두 살 난 동생 김양남이 기적적으로 세상에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가 김금순의 동생이라는 것을 맨 처음 포착하고 나에게 그의 경력을 보고한 것은 **김정일**조직비서였다.

그 당시 김양남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음악편성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개된 어느 출판물에서 아버지가 민생단으로 처형되었다는 구절을 읽은 그는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며 기를 펴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나는 김양남의 아버지가 민생단이 아니고 견실한 혁명가라는 것을 보증해주었다.

그때부터 김양남은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되어 **김정일**조직비서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하였다. 그는 자기누이 김금순처럼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솟구쳐오르는 망국민의 설움을 풀피리에 담아 처량하게 울리던 어젯날의 목동은 낮과 밤의 구별을 모르고 혁명적인 음악예술의 원전을 복구하는 가곡 창조사업에 심혈을 깡그리 바쳤다.

김양남은 **김정일**조직비서의 직접적인 지도밑에서 만수대예술단을 창립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1류급의 예술단체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공로자의 한 사람이다. 1971년 2월 만수대예술단은 조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서반구 쿠바 땅에서 역사적인 첫 원정공연의 막을 올렸다. 그때 김양남은 정치부단장으로 예술단을 인솔하였다.

김정일조직비서는 김금순의 일가가 남긴 단 한 명밖에 없는 후손으로 2살때부터 남의 집 젖을 먹고 자라나 머슴군으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낸 김양남의 과거를 늘 가슴아프게 여기면서 그를 친혈육처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김양남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로 강력한 의료진을 뭇고 낮에 밤을 이어 집중적인 치료전을 벌이게 하였으며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들에 그의 병력서를 보내 효능 높은 고가 약들을 대량 구입해 들이게 하였고 제약공업이 발전했다는 여러 나라들에 특별비행기도 무시로 띄워보냈다. 김양남은 이런 은정속에서 무려 10여 차례에 달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거의 2년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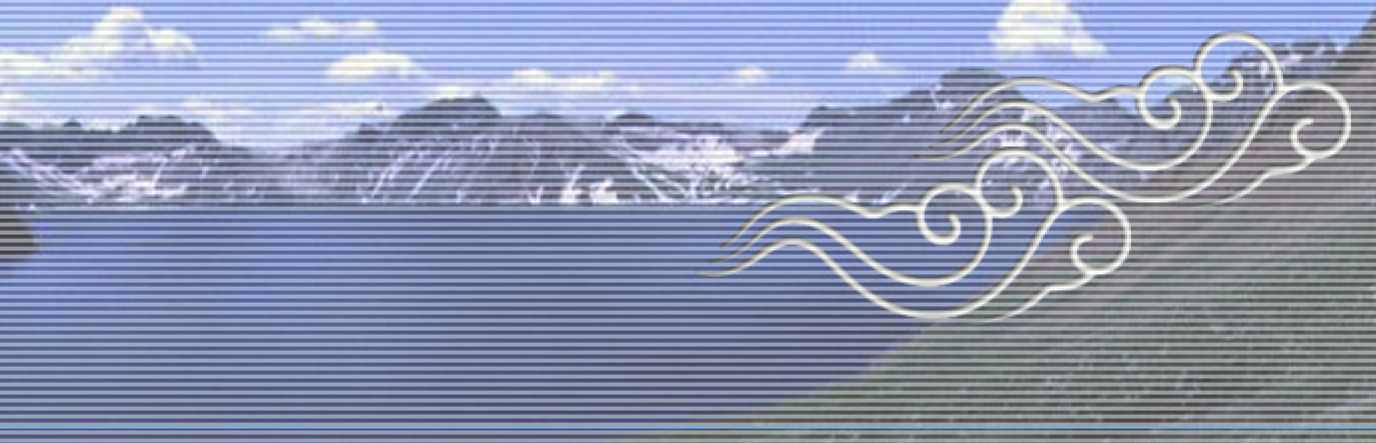
김양남이 40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누이에 비해서는 네 곱 이상의 세상을 산 것으로 된다. 하지만 장수자들이 많은 우리 시대의 척도로 보면 너무도 일찍이 끝장을 본 단명의 생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인박명≫이라는 고래의 생활철학이 인생이치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수많은 김금순, 김양남이들을 위해 그 철학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김양남의 둘째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교인 평양음악무용대학 작곡학부를 졸업하고 만수대 예술단에서 예술창조의 첫걸음을 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렀고 고모가 불렀으며 아버지가 부르던 혁명의 노래를 지금은 그가 부르고 있다.

선열들이 피로써 개척한 우리 혁명은 이처럼 대를 이어가며 훌륭하게 계승되고 완성되어가고 있다.

금순이는 죽었지만 그의 기개와 넋은 오늘도 후대들의 심장속에 마촌과 요영구골 안을 뛰어다니던 천진난만한 그 시절처럼 생동하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제9장





북만원정

조선인민혁명군
부자와 가난뱅이
노야령을 넘어
영안땅에 울린 하모니카
천교령의 눈보라
인민의 품

■ 시기 : 1934. 10 ~ 1935. 2

1. 조선인민혁명군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정치상식이다. 모나코와 같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세계의 대소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자체 방위를 위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약소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총 몇 방에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수백 년동안 노예살이를 해온 것은 군대가 없었거나 약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구한국의 군대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내란을 평정할 때는 그렇게도 그악스럽던 군대가 외적앞에서는 대포도 변변히 쏘아보지 못하고 삿대질을 얼마간 하다가 주저앉아버렸다. 우리 나라가 망한 데는 국정이 부패한 데도 있었지만 군력이 쇠약한 탓도 있었다.

망한 나라를 찾아보려고 조선의 선각자들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이 그 국권의 수복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여러 해 동안 무력항쟁을 해왔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창건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철추를 내렸다. 소규모의 비밀유격대로 항일장정의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의 무장대오가 이제는 간도 모든 현들에서 연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동기≪토벌≫의 포화가 멎은 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지방의 유격대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심중하게 상론하였다. 각 현에 조직되어 있는 유격대의 연대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반일인민유격대 자체 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초미의 과제로 나섰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공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혁명군문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논의에 오른 것은 명월구회의 때였다. 그때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전망문제를 논하면서 유격대를 일단 대대규모로 조직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질량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자고 결의하였다. 물론 이 문제가 회의에서 기본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장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두고 대표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카스트로

대부대혁명군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오빈과 박훈이었다.

식민지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항쟁무력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조직되는 것이 상례이다. 소규모의 역량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한 다음 그것을 밑천으로 살금살금 역량을 확대해가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부대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군을 내온다. 멕시코에서 망명을 끝내고 쿠바로 돌아온 초기의 카스트로부대는 82명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12명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시에라 마에스트라산에 들어가 대오를 늘리고 힘을 키우다가 아바나에 입성하여 바티스타친미독재정권을 벼락같이 무너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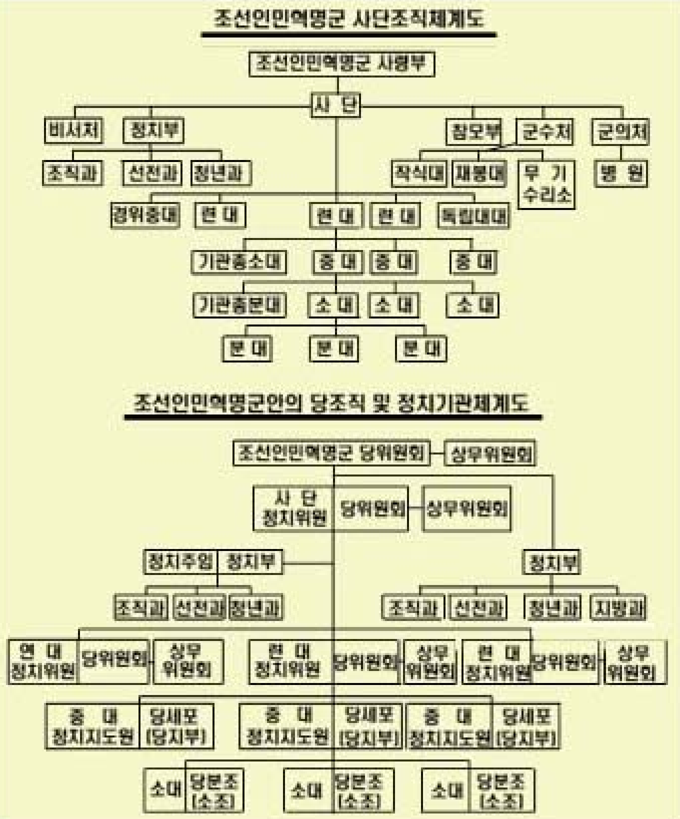
1933년 하반기부터 간도에서는 유격대역량을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상정되었다. 그것은 적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마촌작전과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판도에서 영웅적 방위전이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작전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중대 상호간의 협동문제, 부대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한 것은 소왕청 관내에서 9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시종일관 방위전에 참가전에 2중대장이나 3중대장이 아니라 작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흥권중대장이었다. 한흥권은 마촌작전과 관련하여 자기네 중대가 받은 임무는 노야령을 넘어 동만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견제하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적과 접전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주력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토론하였다. 말하자면 적이 유격근거지를 ≪토벌≫할 때 자기가 적의 뒤통수를 쳐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흥권의 토론은 자기비판적인 것이었으나 그에게는 사실 비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면 그가 왜 자기를 의리도 없고 혁명성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지휘관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그가 총화모임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요컨대 무엇이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흥권이 자기를 근시안이라고 자탄할 때 나는 나대로 그를 지도하는 상급의 자각을 가지고 마촌작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상황에 맞게 중대 상호간의 협동을 원만히 조직하자면 그를 총괄할 만한 지휘, 참모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자면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정연한 군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기 위한 방위전의 전 과정에서는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던 유격부대들이 익측과의 협동적 연계나 원조도 없이 고군독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편제도

화룡현의 경우를 보면 적들이 어랑촌 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시작한 것이 1933년 11월 초라고 한다. 이 첫 ≪토벌≫은 강력한 타격을 받고 일단 좌절되었다가 11월 말부터 단 3일 동안 진행된 2차 ≪토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싸움의 전부라고 한다.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랑촌에 대한 ≪토벌≫은 소왕청에 대한 공격보다 보름 정도나 앞선 것으로 된다. 만일 이런 때 교전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현의 유격부대들이 상호협동의 원칙밑에서 적들의 배후를 타격한다면 어랑촌유격대는 한결 험한 싸움을 했을 것이었다.

연길현이나 훈춘현의 사정도 이와 대동소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유격구마다 ≪토벌≫을 당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 현과 구에 있는 유격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단일한 지휘체계가 있고 참모기구만 있으면 모든 유격대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어가며 상호협력의 강력한 무기로 싸움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때늦게나마 시사해준다.

그런데 유격대에 대한 지도가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실현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동기 ≪토벌≫ 당시의 유격대 지휘체계가 현실적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격대의 지휘는 각급 당군사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한 개 현에 무력이 한두 개 중대밖에 없던 유격운동의 초창기에는 전투도 작은 규모로만 하였으므로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군대를 지휘하는 체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유격대의 대오가 확대되고 적들의 ≪토벌≫역량도 백 단위로부터 천 단위나 만 단위로 껑충 뛰어올라간 형편에서는 작은 전투만 골라가며 할 수도 없었다. 전투란 교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적들이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해가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도 맞불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들이 사방에서 무슨 사단, 무슨 여단, 무슨 연대하며 무력을 긁어 모아가지고 대부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뿔뿔이 엎뎌 제가끔씩 뚱땅거리기만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가? 큰 도시나 성시를 치러 갈 때에는 이 현, 저 현에서 인원들을 추려가지고 집중된 역량으로 적을 쳤는데 방어전에서는 왜 현별, 유격구별로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촌작전을 전후한 시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운동은 그 내용과 규모에 알맞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앞에는 현과 구들에 널려 있는 무장부대들을 한 체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이였다.

요영구에 주둔하고 있던 4중대장의 편지도 같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4중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촌작전 총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기 중대의 총화내용을 편지로 써서 마촌에 보내주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중대장의 전령병으로 일하던 오진우였다. 마촌작전을 총화하면서 나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진, 양성룡 등과 자주 협의하였다.

어느 날 나는 양성룡이네 집에 가서 기타를 탔다. 내가 기타를 탄 것은 마음이 흥겹거나 편안해서가 아니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의 나의 심경은 대단히 울적하였다. 마촌작전은 비록 승리로 결속되었으나 유격구는 가슴을 파내려는 고통에 울고 있었다. 우리와 생사를 같이하던 수많은 얼굴들이 진토속에 묻혀 일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 한 대의 서까래마저 다 타버린 잿무지 위에서 집들을 다시 일떠세우고 생활을 새롭게 조직해 나간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군사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 양성룡을 찾아갔는데 그도 침울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어젯날의 대대장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구금되었던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겨우 감옥신세는 면했지만 그는 복직되지 못하였다. 그는 소왕청과 나자구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양식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토벌≫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더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대부대 혁명군 조직에 대한 화제를 꺼내자 그는 대뜸 반색을 하면서 범상치 않은 열의를 보냈다.

≪문제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을 통합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오.≫

양성룡은 찬성, 불찬성이라는 말은 일어반구도 하지 않았지만 형식과 방법 문제를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군조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가 제일 걱정한 것은 반≪민생단≫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타적 기분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바로 거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그러한 난점들을 용의주도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식의 원리와 자막대기로 재고 내려먹이던 ≪국제노선≫이 득세하고 이른바 계급적 이익과 국제적 연대성의 이름밑에 민족적 전통과 지향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통렬히 공격하던 그 시기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력건설 구상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도 찬성하였다.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한 주진은 내가 말을 꺼내기 바쁘게 격렬한 손짓을 해가면서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싸움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나는 큼직큼직하게 싸우자는 그 표현이 못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호걸남아 주진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통쾌한 표현이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혁명군을 내오게 되면 ≪조선연장주의≫ 감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감투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하루속히 일

을 내밀자고 하였다.

동장영과 같은 사람도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그는 동만에 조직되어 있는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무장력이며 그 구성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땅에서 조직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장영의 이 평가는 조선혁명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민족주의로 범죄시되던 당시의 실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이홍광

동장영도 정당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동만은 물론, 남만의 이홍광, 이동광, 북만의 허형식, 김책, 이학만, 최용건 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지방의 당 건설에서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군건설에서도 개척자, 주창자, 영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을 이루고 있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절대다수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었다.

동장영은 군을 내오되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형식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중 쌍방간에 다같은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당파견원 반성위도 국제당노선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왕청대대를 함께 이끌던 양성룡으로부터 후에 인민혁명군 독립 1사사장을 했던 주진, 동만특위와 동장영, 국제당파견원 반성위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인식하는 데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통합개편된 무장력의 명칭 선택과 그 성격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동광

우리는 1934년 3월에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담당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초기에 동만의 일부 지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공농유격대라고 명명한 것은 그 성격규정에서 계급성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방에 앞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우리 혁명의 성격은 물론,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동북혁명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동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대들을 연대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간도지방 유격대의 총 무력은 5개 연대에 달하였다.

각 연대에는 유격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사명으로 하는 정치부를 두고 작전, 정찰, 통신 임무를 담당한 참모부서와 피복, 양식, 군의 사업을 보는 후방처를 설치하였다.

왕청연대는 동만지방 연대무력의 시초로 되었으며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제 1단계 준비사업이 낳은 산아들 중 첫 번째 산아로 되었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데서 우리가 제 2단계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단체계를 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마촌작전과정에서였다. 5000명의 대군을 2개 중대역량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세계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의한 적후교란전으로 유격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군단은 몰라도 사단급의 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몇 천 명쯤 되는 무력을 가지고 대포를 꽝꽝 쏘아대면서 대부대활동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각 현들에 연대들이 이미 조직되고 또 그 역량도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조건에서 사단을 조직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시킬 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 산하에 2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선차적으로 꾸리고 그 성과를 확대시켜 장차 수개 사단의 무력을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연길과 화룡에 있는 연대들로 하나의 사단을 꾸리고 훈춘과 왕청에 있는 연대를 기본으로 다른 하나의 사단을 또 편성하기로 하였다.


김책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새로운 당지도기관으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군대 안의 당조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지방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감당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무력의 담보가 없이는 지방당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전까지는 지방당조직들이 군대 안의 당조직까지 지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1934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이 소식에 접한 유격구역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지원하고 도처에서 성대한 경축모임들을 준비하였다.

왕청의 여성들은 축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고 공청에서는 아동유희대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가지 체육경기도 벌였다.

연길의 삼도만 유격구역에서는 적 통치구역 대표들까지 참가한 1,000여 명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최용건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항일혁명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졌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넓은 판도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지 않았거나 연대나 사단과 같은 대부대의 군사력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암운에 덮인 조국을 밝히며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횃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무송, 간삼봉, 홍두산, 이명수, 대홍단, 홍기하 등 국내와 만주 도처에서 적의 정예부대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연전연승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기≪토벌≫에 이어 유격구를 위협하던 악명 높은 위공작전도 파탄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항쟁으로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우에 따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활동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동북이라는 명칭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국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였다.

우리가 조직한 인민혁명군이 ≪만주인민혁명군≫이나 ≪중국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한 것은 반만항일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중국 동지들에게 있어서도 적합한 것이였다. 결국 동북인민혁명군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반만항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무력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간도와 동변도 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전역에서 가장 강대한 무장력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길림성 간도에 3천명 있다고 쓴 동방잡지 (1935.3)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취한 원칙적인 입장과 용의주도한 정치적 아량은 그 후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에 명실상부한 형식이나 명칭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국인민의 광범한 지지성원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훗날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한 다음에도 조중항일연합군의 성격에 맞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할 때에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였고 조선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조선에 나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정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가며 활동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중 양국 인민의 사랑과 보호속에 살며 싸울 수 있었다.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 중시한 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평가해보아도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와 폭넓은 태도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도 투쟁의 민족적 성격과 독자성을 원만히 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중국동지들이나 국제당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출판물들은 간도에 조직된 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썼다.

1935년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동방잡지≫는 동북에서의 빨치산투쟁에 대하여 쓰면서 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국출판사에서 발행한 ≪동북항일열사전≫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후에 동북항일연군이 편성된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2군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성격에 있어서 조중 양국 인민의 국제적인 반일통일전선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제2군안의 조선인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화민족의 해방운동을 국제주의적 기치아래 지원하였다.

간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여 그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일 큰소리로 떠든 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이였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항일무장력을 그 명칭은 어떻든 ≪**김일성**군≫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후 반일공동투쟁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지방에서 공헌영, 채세영, 사충항, 이삼협 등이 이끌던 항일의용군은 제 2군의 군대호를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하였는데 이것을 ≪동북화한인민

혁명군≫(동북조중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사실상 동만 땅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벌써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보중은 자기의 글에서 ≪항일연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 … 항일유격전쟁 중 중조인민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선혈로 얽혀져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격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람들도 만주, 특히 간도에 조직된 빨치산을 ≪조선인 순혈 빨치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쏘련의 이름 있는 중국 및 조선문제 전문가였던 웨. 랍뽀뽀르뜨는 1937년에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운동≫이라는 글에서 ≪…조선빨치산들의 대부분은 통합되어 있고 자기의 중앙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조선빨치산과 만주빨치산간의 현존하는 연계와 접촉의 확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불안을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일본은 국경지역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걸어온 전투적 노정을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유격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이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최종 소탕전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동기≪토벌≫에서 참패한 관동군 수뇌부와 도꾜의 군부는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소동을 벌이던 끝에 1934년 봄부터 종전의 초토화전술을 재검토하고 보다 악랄한 새로운 ≪토벌≫계획으로 이른바 위공작전이라는 것을 들고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군사적 포위공격과 정치적 폭압, 경제적 봉쇄를 배합하여 유격구를 종국적으로 소멸하려는 악랄한 작전이였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이 신발명을 장개석이 중국 소비에트구를 공격할 때 쓰던 봉쇄정책의 재판이라고 보았다.

장개석의 봉쇄정책이 ≪정치공포, 경제공황의 비인간적 세계를 연출하여≫ 공산군으로 하여금 입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위공작전은 유격구의 인민과 군대를 모조리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쏘아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이 작전을 위하여 집단부락을 만들어 군대와 인민을 분리시키고 중세기적인 십가연좌법과 오가작통법과 같은 보갑제도로 모든 항쟁세력을 적발 숙청하려고 하였다.

봉쇄정책과 위공작전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장개석의 전술은 ≪온찰온타 조보정책≫이였다. 이 전술은 상대를 포위한 다음 급하게 추격하지도 않고 깊이도 들어가지 않으며 어떤 지점을 점령하면 천천히 그것을 공고화하며 다시 내놓지 않을 방도까지 연구하면서 다음 지점에로의 공격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전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이 고안해낸 ≪보보점령≫전술이였다.

우리 동무들이 이 전술을 두고 ≪일본사람들 신세두 참 가련하게 됐구만, 장개석의 신세까지 지게 되었으니≫라고 한 것은 실없는 우스개소리가 아니였다.

적들은 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1934년 봄부터 유격구 주변에 관동군정예부대들과 조선강점군 부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위만군부대들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적들이 위공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유격구방어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대규모적인 작전으로 적 후방의 군사정치적 지점들을 연속 타격하여 놈들의 기도를 앞질러 파탄시키는 한편 보다 유리한 지대에 유격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피로써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앙양된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에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춘기공세를 벌여 왕청지방에서 적의 주요 배치지들과 소백초구, 대두천, 석두하자와 전각루를 비롯한 집단부락 건설장들을 습격하였다. 훈춘과 연길, 화룡의 동무들도 집단부락 건설장들에 대한 습격으로 적의 위공작전기도를 첫걸음부터 짓부숴버렸다.

우리는 이 공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주동에 튼튼히 서서 위공작전을 완전히 파멸에로 몰아넣기 위하여 곧 하기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의 중심적 지향은 유격구역을 안도현 서북부와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것이였다. 적이 위공할 때 우리가 고정된 몇 개 유격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적의 기대에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되며 그들이 기도에 협력하는 것으로 된다.

유격구를 안도현 서북부로 확대하는 것은 인민혁명군 제1사와 독립연대가 담당하고 왕청현 동북부로 확대하는 과업은 인민혁명군 제2사에 떨어졌다. 대전자와 푸르허를 연결하는 이 유격활동구역이 안도현의 생명선이라면 나자구, 노모저하, 태평구, 삼도하자 일대는 훈춘현과 왕청현의 생명선이였다. 이 고장들은 모두 목단령과 노야령을 끼고 있는 유격활동의 이상적인 적지로서 독립운동시기부터 홍범도, 최명록, 이동휘, 황병길과 같은 이름난 무관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우리는 1사 사장 주진과 독립연대장 윤창범으로 하여금 대전자-푸르허 일대에 대한 공격을 선행하게 하여 적의 주의가 그리로 쏠리게 한 다음 나자구 방면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관동군의 시선이 안도현 대전자 일대에 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인민혁명군 2사 4,5연대의 일부와 반일부대들과 함께 나자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도하자와 사도하자를 차지하였다. 삼도하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1,500여 명에 달하는 반일부대 장병들과의 연환모임이 열렸다. 이것은 나자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일종의 사상전이였다. 나자구전투에는 반일부대측에서 공헌영부대, 사충항부대, 채세영부대, 이삼협부대 등이 참가하였다.

나자구는 왕청현 백초구, 동녕현성과 연결된 적들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나자구시내에는 문장인 영장이 이끄는 위만군 수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나자구는 원래 500호 정도의 주민세대를 가진 그리 크지 않은 고장이였는데 9.18사변후 적의 군사적 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32년 봄부터는 간도임시파견대의 중요한 기지로 되였다. 일제는 이 파견대가 철수하자 증강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나자구에 상주시키고 그것을 위공작전의 한 개 밑천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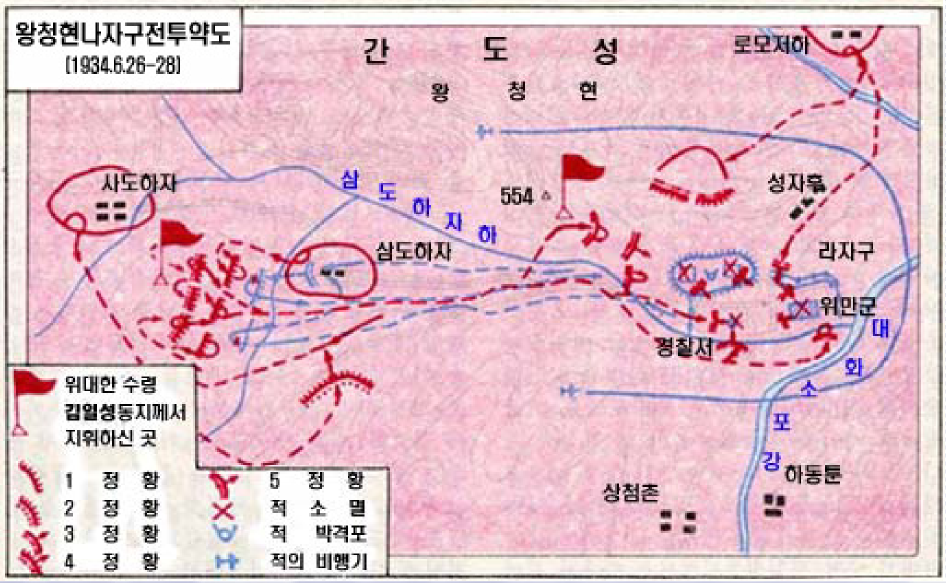
우리가 선제공격을 가하여 나자구 일대를 장악하는 것은 위공작전의 한 귀퉁이를 깨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유격구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주되는 고리였다.


나자구시가 전경

우리는 삼도하자의 이태경노인네 집에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나자구공격과 관련된 작전회의를 하였다.

이태경은 의병과 독립군 경력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우국지심이 매우 강한 노인이였다. 노인은 한 때 최자익과 함께 북로군정서에서 총무로 일한 적도 있었다.

서일이 보통 병졸에 지나지 않는 이태경을 총무로 임명한 것은 그의 뛰어난 사격술과 서예솜씨에 반했기 때문이



라고 한다. 서일이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를 설교하자 이태경은 그에 입교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으며 김좌진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주장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동조하여 그 대가로 권총까지 선사받았다.

간도 대≪토벌≫을 앞두고 김좌진이 북만으로 철수할 때 노인은 상전들을 따라 밀산에 갔다. 그러나 김좌진이 연길현 도목구의 청림속으로 깊숙이 사라진 후에는 그도 동료들과 함께 시도하자 지방에 와서 총을 파묻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태경 노인에 대한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반일부대 지휘관들에게 작전의도를 설명하려고 나자구시가 약도를 펼쳐놓았을 때 바람결에 펄럭거리지 말라고 노인이 그 약동의 창문 쪽 귀퉁이를 돌려 지질러놓던 일이다. 이태경네 집안 사람들은 그 돌을 복돌이라고 하였다. 달걀처럼 매끈매끈하게 생긴 기묘한 돌이었다. 노인의 말이 자기가 십리평에서 북로군정서 총무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죽기 전에 그 돌을 넘겨주었는데 오래 간수하고 있으면 복이 차례진다는 유언까지 남겼다는 것이다.

그 복돌은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태경노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그 돌을 가보로 넘겨주었다. **김일성**장군이 작전지도 위에 놓고 만진 돌인데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1959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노인의 아들은 그 돌을 우리 답사단에 넘겨주었다.

이태경노인은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나자구반일회장 최정화의 소개로 이 노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3년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백마를 타고 삼도하자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였다. 그 과정에 삼도하자 반일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마을의 좌상인 이태경노인을 망라시켰다. 이 노인이 반일회에 가입해가지고서는 마을 사람들을 잘 교양하였다. 마을의 좌상이며 첫째가는 유지인 그가 하는 한마디한마디의 말을 동리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받아들였다.

마을에 의병이나 독립군 출신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런 마을은 혁명화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태경처럼 무기를 파묻고 투쟁을 중도반단한 독립군들도 거의 다 애국심 하나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핵심이 되어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산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잘 돕자고 호소하면 누구나 다 ≪그래얍지요≫하였다. 그들

이 나서서 마을에 혁명군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면 ≪떡을 쳐야지요.≫하든가 ≪소를 잡아야지요.≫하였다. 독립군 출신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절대다수는 말년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을에 가나 독립군 출신 유지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석현에서는 오채희, 서대파에서는 최자익, 마춘에서는 이치백, 동일촌에서는 김동순, 삼도하자에서는 이태경 하는 식으로 독립군 출신 영감들부터 선참으로 찾아가 인사도 하고 목침을 베고 나란히 누워서 시국이야기도 나누었다.


나자구전투때 붉은기를 꽂았던 서산포대의 망루

해방 후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 출신들을 사상이 다르다고 하면서 배척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때였다. 간혹 편협한 사람들이 간부사업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따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온 통일전선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였다.

나는 그런 경향에 부닥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곤 하였다.

≪사조가 다르다고 독립군 출신들을 배척하는 것은 고약한 짓이다. 독립군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못한 것은 제한성이지 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혹시 춘향이나 이도령이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애국선배들을 몰라보면 안 된다. 시대마다 다른 사조가 있는 법인데 무엇때문에 배척하고 경계하고 따돌리는가. 그래 남들이 뜨뜻한 온돌방에서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더운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 독립군이 생명을 걸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게 죄란 말인가?

나는 집에서 제 밥벌이나 하며 편안하게 산 사람들보다는 총을 메고 싸운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더 훌륭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독립군을 배척하면 우리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라.≫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경대에 혁명자 유가족학원이 섰을 때 거기에 독립군 출신 인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능력에 따라 간부로도 배치하였다. 초대 농민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이었던 강진건선생과 공화국내각의 초대 도시경영상 이용선생도 독립군 출신들이었다.


나자구전투를 지휘하시던 집

우리가 작전회의를 끝내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적들이 선손을 쓰려고 먼저 성시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정찰보고가 지휘처에 날아왔다. 우리는 유리한 지대에 그들을 끌어다가 주력을 소멸한 다음 계속적인 추격전으로 성시공격을 개시하였다. 연합부대는 폭우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녕현성전투와 마찬가지로 나자구전투에서도 제일 큰 암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하여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반일부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서산포대에서 쏜 박격포탄에 주보중을 비롯한 몇몇 반일부대 지휘관들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주보중은 공헌영 부대의 참모장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의 부상으로 사기가 저락된 일부 반일부대들이 나자구를 등지고 무질서하게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 퇴각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싸움은 패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서산포대를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나자구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리로 되었다. 서산포대에는 박격포뿐만 아니라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도 여러 정 배치되어

있었다.

이 포대의 화력에 의하여 이미 한흥권중대장이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하였고 조왈남도 전투능력을 잃어버렸다. 한흥권의 부상이 얼마나 처참하였던지 그는 자기를 쏘아달라고 애원까지 하였다.

나는 좌절상태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포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동무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산포대를 점령하자! 혁명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자!≫

그리고는 싸창으로 적을 쏘아눕히면서 앞으로 돌진하였다. 포대 위에서 기관총탄이 우박처럼 날아와 귓부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탄알은 모자에 구멍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숨을 돌을 사이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였다. 대원들이 땅을 걷어차고 일어나 내 뒤를 따랐다.



한흥권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서산포대는 30분만에 점령되고 포대 꼭대기에는 붉은기가 휘날렸다.

그 깃발을 본 반일부대 병사들도 신심에 넘쳐 총돌격에로 이전하였다. 그들을 좌절에서 돌격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는 주보중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정신이 큰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주보중은 중상을 당한 몸이였으나 두 팔을 벌이고 동요하는 반일병사들을 막아나서며 서산포대에 휘날리는 저 붉은기를 못보는가 고 외쳤다. 그 모습을 본 반일병사들은 퇴각을 중지하고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였다.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나자구를 지키던 문영장과 일본지도관은 관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마지막 전문에서 **김일성** 등 2,000의 합류비에게 6일 5주야 동안의 포위공격을 당하여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탄약은 이미 다 떨어지고 우리들의 운명은 경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들은 국가를 위하여, 만주건국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음을 떳떳하게 여긴다, 사령관, 이를 용서하라.≫

나자구와 대전자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전쟁에서 이룩한 첫 성과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다.



차용덕

조선인민혁명군의 나자구진공전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이 전투 이후 유격구 주변의 대소 ≪토벌대≫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

실로 나자구전투는 왕청유격구 동북부 일대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유격구 확대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으며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자구 전투 후에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동만의 혁명군중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도와 나자구 일대에 많이 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여 이 지역을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혁명군은 1934년의 하기공세에서 피도 적지 않게 흘렸다. 대전자의 전승담 속에는 화룡유격대 조직자의 한 사람이며 연대정치위원인 노동계급 출신의 신망 높은 지휘관 차용덕이 뿌린 피도 찍혀 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된 후 처음으로 전사한 정치위원이였다.

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발사체 《백두산》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후 개최된 당창건 55돌 열병식





2. 부자와 가난뱅이

유격근거지가 우리의 집이고 보금자리인 것은 틀림없었으나 나는 사실상 거기에만 있은 것은 아니였다.

군대가 울타리속에만 갇혀 있는 것은 전술상으로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였다.

인민들이 주는 밥을 축내면서 소왕청골 안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의 배짱에도 맞지 않았다. 멀쩡한 자기 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죽이는 좌경분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처사도 혐오감을 자아냈다.

나는 짬만 있으면 군대를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반유격구를 꾸려놓은 다음에는 더 자주 나가 돌아다녔다.

군대가 적구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인민들도 좋아하였다. 적구활동을 해야 쌀도 생기고 천도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선전하여도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가면 다 허사가 되였다. 인민들은 적들이 내돌리는 소문보다도 우리의 도덕과 예절에 체현된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더 중시하였다.

적구생활에 재미를 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모두 나를 따라다니겠다고 하였다.

내가 데리고 다니던 부대는 5중대였다. 너무 많이 데리고 다니면 먹는 문제도 곤란하고 흔적도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50-60명만 데리고 다녔다. 병력이 많이 요구될 때에는 1중대까지 불러오군 하였다. 내가 적구에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는 바람에 2중대를 책임진 최춘국과 3중대의 장룡산이 왕청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요영구방위를 담당한 것은 4중대였다.

5중대는 왕청치고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정예부대였다. 3보 간격으로 걸으라고 하면 3보 간격으로 걷고 숨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큰 전투는 별로 하지 않고 제낄 만한 것만 골라 답새겨 버리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20리, 50리씩 벼락같이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우리의 적구교란전은 적들로 하여금 유격근거지 ≪토벌≫에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하였다.

해방 후 당선전사업을 맡아보던 일부 사람들은 항일전쟁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적후투쟁 경험 같은 것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경험만 선전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부식시킨 사대주의 병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해방 직후 우리 사람들은 스탈린그라드격전이나 꾸르스크탱크전에 대한 말은 많이 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항일전쟁사에 소왕청방위전과 같은 가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수복영웅을 가리켜 ≪조선의 마트로소프≫라고도 하였다. 조국해방 전쟁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은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화구를 막은 영웅이 쏘련의 마트로소프라고만 생각하였지 자기 나라의 항일선열들 중에 그보다 먼저 화구를 막은 김진이란 투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요영구방위전투장

우리가 해방 직후 혁명전통 교양만 잘하여도 후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5-6명씩, 15-20명씩 소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도끼나 하나씩 차고 쌀이나 한두 말씩 걷어메고 이산 저산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총이나 몇 방씩 갈기고 삐라나 몇 장씩 붙이고 산에 들어가면 한두 달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양을 많이 못하다 보니 입지 않을 피해도 더 입었다.

내가 적구활동을 제일 많이 하며 돌아다닌 곳은 두만강 연안의 농촌 부락들이었다. 어느 해인가 기차를 타고 두만강 유역을 자나가면서 건너다보니 옛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산과 골짜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김진

등하불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의 코밑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 부대는 심지어 도문 뒷산에까지 나와 있었다. 거기에 와서는 모두 사복을 입고 지냈다. 세 봉우리에 보초를 각각 한 명씩 세우고는 수림속에 들어앉아 잠도 자고 책도 보면서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였다. 그래도 적들은 자기네 코앞에 유격대가 와 있는 것을 몰랐다.

우리가 두만강 연안의 도문과 양수천자 일대에 나와서 적구활동을 한 것은 1933년과 1934년 두 해 여름이었다. 오의성과의 담판을 치르고 왕청에 돌아와 양수천자 부근에서 군중정치공작을 할 때 나는 지휘부가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하기 위하여 도문지방에 대원들도 파견하고 그 고장 토착민들과 담화도 해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송동산, 북고려령, 초모정자 세 지점을 이상적인 후보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지점들은 지휘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진출목적을 실현하는데서는 적합하지 않은 고장들이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전에 온성으로 드나들 때 평양의 모란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만 돌아보던 도문 뒷산으로 마음이 끌렸다.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 우리의 진출목적에도 딱 들어맞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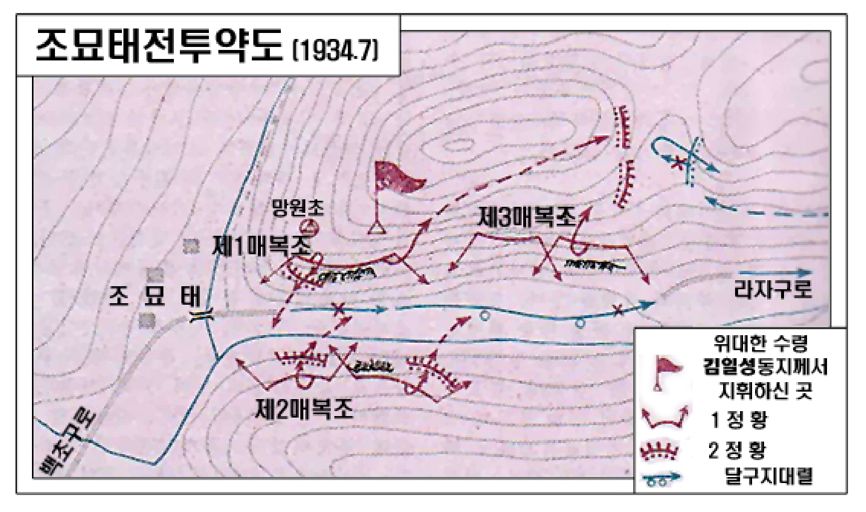
골짜기가 여러 갈래이고 숲이 우거져서 여름 한철 초막이나 치고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 산 주변에는 1930년 이후부터 우리의 조직이 들어가 박힌 개간지도 많았지만 아직 보습을 대보지 못한 처녀지도 많았다. 우리는 그 처녀지들을 다 혁명촌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원래 나자구전투가 끝난 다음 인차 도문 뒷산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반일부대의 피복과 식량을 해결하느라고 예정되었던 출발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소왕청에서 얼마 동안 지체하였다. 초복이 다된 때였지만 청산 부대 장병들은 헐어빠진 솜동복을 입고 있었고 식량이 거덜나서 참새알만한 감자알을 파먹고 있었다.

그 바람에 부대주둔지 주변의 감자밭들이 결딴났다. 밭 주인들은 청산 부대를 원망하였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니 자연히 상하관계도 나빠지고 부대는 토비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투항하려는 기미까지 보였다. 코산부대나 사충항부대의 실태도 이와 비슷하였다. 코산부대가 아직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청산부대와 함께 가야허를 치고 해결한 식량과 천들을 반일부대들에 나누어준 다음 조묘태의 적까지 치고 나서 도문 뒷산으로 향하였다. 나자구에서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한 후 유격구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한흥권중대장이 무슨 오그랑수로 병원을 탈출하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중대를 따라오다가 도문 뒷산에 도착하자마자 내앞에 불쑥 나타났다.

한 달 전에 총상으로 밸까지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수술자리를 보니 어느새 다 아



물어 있었다. 다만 봉합사를 뽑은 자리에 핏기가 좀 남아 있을 뿐이였다. 실로 꿰맸던 자라가 터질 것 같아서 병원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자 이 억대우 같은 중대장은 울상이 되어 자기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나는 중대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왕동무에게 지시하여 도문 뒷산에서라도 휴식을 잘 시켜 수술자리가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도문은 본래 회막동이라고 부르던 고장이다. 회막동이란 지명은 조선사람들이 옛날 막을 짓고 석회구이를 한 동네라는데로부터 유래된 것이였다. 이 주변은 모두 석회석산이였다고 한다.

9.18사변 후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길회선철도를 조양천에서 회막동까지 연장하고 그 역이름을 도문이라고 하였다. 역 근처의 마을들에 집들을 지어 시가를 만들고 영사관분관, 경찰서, 세관을 설치한 다음 수비대까지 끌어들여 석회와 함께 살아온 시골을 군경들의 성화에 시달리는 번잡한 소비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이 신시가의 이름은 도문으로 되고 서쪽 산 밑의 낡은 마을은 구시가로 되었는데 그 시가의 이름은 조선사람들이 부르던 그대로의 회막동이였다. 도문과 남양 사이에는 미구에 국경철도가 놓였다. 그때부터 도문은 만주대륙에서 일본의 이권을 지키는 동쪽 관문이 되었다.

대안의 남양도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930년대 후반에는 이 지구에서 쏘련침략을 위한 첩보모략기구들이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도문은 군사정치적으로 중시되는 곳이였다.

도문이 우리의 활동거점으로 되고 국내 반유격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유익한 일이였다.

우리는 일찍부터 회막동에 조직을 박았다. 이 조직은 오중성이네 영향하에 있었다. 나는 1930년 9월에 온성으로 넘어갈 때에도 회막동 동무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듬해 5월에 종성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들의 전송을 받았다. 최금숙이 병중에 있는 내 입맛을 돋우려고 사과, 배를 구하러 왔을 때 그를 도와준 것도 바로 이 회막동 조직이였다.

도문은 온성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계소와도 같은 고장으로서 유격대의 후방물자 공급기지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도문 뒷산에 체류하는 기간 활동의 총적 목표를 적들이 시정 방침으로 내세운 ≪비민분리≫의 책동을 파탄시키는데 두었다. ≪비민분리≫란 그네들이 소위

≪공비≫라고 부르는 혁명군과 인민을 갈라놓는다는 뜻이다. 일제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선포하고 사상공작이니, 집단부락정책이니, 십가연좌법이니, 오가작통법이니, 귀순공작이니 하는 것들을 연방 고안해내 군대와 인민을 연결시켜주는 혈맥을 끊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비민분리≫의 폭정밑에서 조직들은 무데기로 파괴되고 민심마저 소란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귀순신청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였다. 이런 현상이 제일 혹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두만강 유역의 왕청남단이였다.

우리는 적의 분리주의를 군민단합주의로 타파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중들속에 들어가 조직공작에 착수하였다. 오중흡이 살던 남양촌조직도 그때 복구해주었다. 대립자에는 최씨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들을 새로 내왔다. 주변 마을들에서 조직공작을 끝낸 다음에는 점차 양수천자 방향으로 군중사업 무대를 옮겨 임업노동자들과 농민들속에 침투하였다. 언제인가는 한 개 소조를 데리고 솔골을 거쳐 훈춘현 밀가의 웅기동이라는 곳까지 가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경원(새별), 훈융쪽의 조직도 수습하였다. 이런 과정에 ≪비민분리≫에 울고 있던 인민들을 군민화합으로 웃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숙하신 집(풍인)

도문 뒷산으로 들락날락하던 시기에 나는 국내 여러 지역에 꾸려진 기층당조직들과 혁명조직들에 대한 조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당조직건설사업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육읍 일대에 자주 나왔다.

1930년 10월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이 결성된 후 두만강 연안 일대에는 당지도핵심들인 오중화, 김일환, 채수항, 오빈 등과 정치공작원들이였던 이봉수, 안길, 장금진 등에 의하여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꾸려졌다. 회령, 연사, 웅기(선봉), 무산, 경원(새별), 나진, 부령, 청진 신암동 등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생겨났다.

1933년 8월에는 경원(새별) 박석골에서 지하당사업과 관련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박석골 숯구이막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밑에서 2일간 진행한 강습에는 북부조선 일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지하당조직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강의하고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조동욱이, 부녀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현숙이, 아동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길송이 각각 맡아서 강의하였다.

우리의 지도밑에 온성에서 국내 당조직 및 혁명조직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였다. 1934년 2월 지금의 온성군 풍인노동자구에 있는 진명서숙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확대하여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 지도기관을 내오도록 하였다.

이 회의 결의에 따라 전장원을 책임자로 하는 온성지구 당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 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 국내당조직 건설사업을 확대하는데서 전환적인 사명을 수행한 중요한 회의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진명서당의 당대회에서 과격한 슬로건 수 항목을 결의하여 인쇄배부≫했다고 쓴 것은 이 회의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였다.


진명서숙

도문 뒷산에서의 적구활동은 흥미 있는 일화들도 많이 남겼다.

그 많은 일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심보 나쁜 지주의 뽕을 빼던 일이다. 그 지주가 살던 마을 이름이 무엇이였던지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조선사람 동네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어느 날 나는 대원들을 도문 뒷산에서 쉬게 하고 사복차림으로 그 지주가 사는 동네에 내려갔다. 그때의 사복차림이란 양장이 아니라 조선바지 저고리 차림이다. 우리는 배낭속에 늘 사복을 넣어가지고 다녔다. 사복을 입지 않고서는 적구공작을 할 수 없었다.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옷을 지니고 다녔다.

그날 나와 동행한 사람은 전령병 이성림과 그밖의 대원 2명이였다.

늦은 오후여서 해질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다. 나는 우리가 손을 한 번도 대보지 못한 그 마을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두고 산에만 배겨 있자니 한편으로는 갑갑증도 났다. 이 마을 인심이 좋으면 신세도 지고 조직도 박을 작정이였다. 마을에는 일본군경들도 없었다.

나는 이 부락에서 덩지가 제일 크고 번듯하게 생긴 기와집 대문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다. 해가 두발이나 되는 청천백일이였으나 주인들은 웬일인지 안으로 문을 걸어놓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대문을 왈가당 왈가당 흔들어대서야 신발을 끌며 게으름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나이의 사나이가 대문을 열어 언짢은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바로 우리가 뽕을 뺐다는 지주였다.

≪주인님,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갈 곳도 없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인을 찾았는데 신세를 좀 질 수 없겠습니까?≫

나는 예절을 차려 깍듯이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주인은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욕지거리부터 앞세웠다. 도덕도 없는 심통이 사나운 지주였다.

≪아니, 여기서 한 5리 가면 여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염가에 찾아오는 게야, 여기가 뭐 동네집 방앗간인 줄 알아?≫

눈알을 굴리며 욕지거리부터 퍼붓는 본새가 이만저만 고약하지 않았다. 상대가 두 마디 안팎에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렁뱅이처럼 박대하기때문에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동하였다. 그렇지만 꾹 참고 태연하게 또 말을 꺼냈다.

≪주인님, 이거 다리도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해서 더 걷지 못하겠는데 어떻게든지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주는 입에 거품을 물고 벌컥 짜증을 냈다.

≪아니, 여관이 멀지 않다는데 왜 거머리처럼 자꾸 달라붙는 거야? 초하룻날 장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자 내 뒤에 섰던 전령병이 나를 대신하여 간청하였다.

≪주인님, 여관집에 들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북두칠성도 굽어본다는데 한턱 내는 셈치고….≫

전령병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주는 ≪그럼 우리보구 돈을 내란 말이야. 쥐똥같은 소리!≫하면서 침을 탁 뱉았다. 그리고는 왈카닥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혁명을 10년 가까이 해오는 동안 나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았다. 우리가 지하활동을 하느라고 많이 다니던 중부만주지방에도 부자들이 많았지만 이 지주와 같이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은 없었다.

전령병 이성림은 분을 참지 못하고 풀럭풀럭하였다. 자기네 대장이 사람 같지 않은 촌지주한테서 그런 괄시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였다. 그는

분한 나머지 저따위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은 살 자격조차 없으니 쏘아 제끼자고 하였다. 쏘아제끼지 못하면 그놈의 귓구멍에 대고 공포라도 한 방 놓아 기절해 자빠지게 하자고 하였다.

나도 역시 전령병처럼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이방에서는 동족들끼리 더 친밀해지는 법이다. 고국에서 살 때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이국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본도이다. 하지만 우리를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모욕한 그 지주한테는 도대체 인정이라는 것이 개알만치도 없었다.

나라가 망했다고 인정마저 더러워질 수야 없지 않는가.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정하는 것이 인생이치라고 우리 조상들은 동병상련이라는 성구까지 만들어냈다.

조선민족만큼 정에 잘 웃고 잘 우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옛사람들도 귀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장점이다. 쫓지 않고 재워주는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다. 비록 남의 묘를 봐주고 살아가는 산당지기의 가문이었으나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쌀이 없으면 죽솥에 맹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서라고 끼니를 마련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어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는 거죽에 뜬 멀건 물이 차례지곤 하였다.


국내당조직건설 사업과 관련한 당시 신문자료

설사 한 끼나 두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안 여성들은 절대로 시집타발, 신세타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내 눈에 새겨진 조선민족의 참모습이고 참표상이었다.

괴춤에 동전 한 푼 없는 장돌뱅이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팔도를 무전여행으로 죄다 편역할 수 있는 것이 저 아득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나라의 관례였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조선의 여염집에서 손님대접을 받아본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런데 저 야비한 지주놈의 몸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인간에 대해 저렇게도 냉랭할 수 있는가.

그 지주는 우선 도덕적으로 볼 때 무뢰한이였다.

국력이 쇠약한 민족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라 없는 백성은 심지어 말과 글과 성까지도 떼울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다고 어찌 인정까지 버릴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저 지주처럼 동족도 몰라보는 돼지가 된다면 조선사람은 조선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조선민족 중에는 저 지주와 같은 인간들이 소수이다.

나는 여기서 부자들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3년 여름에 십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구국군의 한 부대가 석현이라는 고을을 치고 경제모연공작을 위해 어떤 중국 부자의 아내를 인질로 붙들어온 적이 있었다. 전족을 한 여자였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붙잡혀와서 며칠 동안 십리평에 머물러 있었다. 구국군들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통고장을 보내 아무아무날까지 돈 얼마를 가지고 오면 너희 아내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는 그 돈이면 더 멋있는 여자를 얻어 장가를 다시 들겠다고 하면서 십리평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구국군에 돈을 내고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남편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였다.

심보가 사나운 부자들이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잠자리를 잡아보려고 동네를 또 한 바퀴 돌았다. 이번에는 기와집이 아니

라 초가집에 가서 사정해보자고 하였다. 심보 나쁜 지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래 웃방 문을 다 열어놓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초가집이 보였다.

나는 그 집 토방돌앞에 서서 지주에게 하던 것과 꼭같은 사정을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서 문설주를 짚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여튼 들어와 앉으십시오. 뭐 변변치는 않지만 죽이라도 같이 나눕시다. 다른 것은 없으니 허물하지 마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너무 누추해서 안 됐습니다.≫

≪누추하다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가리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초라했지만 주인들의 언행과 마음씨에서는 비단 같은 인정이 풍겼다.

주인은 아내를 보고 죽이 한 그릇 더 없는가고 물었다. 주인여자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광경을 보니 역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은 부자의 편이 아니라 평민의 편에 있었다. 둘이나 들어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청하니 우리로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들 몫을 우리가 먹으면 댁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나 하겠습니다.≫

나는 밥상앞에 마주앉아도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사양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펄쩍 뛰면서 나를 나무랐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으면 손님대접을 받아야지요.…이거 뭐 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정말 없습니다. 여보, 거 파나 두어 뿌리 뽑아오구려. 장 접시두 하나 더 놓구….≫

주인여자는 남편의 분부대로 파와 장을 가져다가 식탁 위에 놓았다.

친혈육 못지 않게 우리를 따뜻이 대해주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밥상앞에 마주앉았으나 동네 밖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 생각이 나서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 조금 있다가 먹겠으니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아직 동구밖에 떨어져 있는데….≫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나머지 죽이라고 해야 한 그릇뿐인데 손님이 더 온다면 그것도 야단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두 동무가 더 있는데 발이 다 부르트고 걷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님, 이 근처 어디에 여관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있지요. 한 7리쯤이나 될까요. 7리면 10리나 같은데 어떻게 상한 발을 끌고 10리까지 가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실 셈치고 다른 것은 없지만 죽이라도 나누고 어서 주무십시오. 밖에 있는 분들도 데려오시구요.≫

나는 집주인에게 지주의 사람됨됨이 어떤가고 물었다.

주인은 지주를 한마디로 인색하고 심술사나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과는 등을 돌려대고 살면서도 경찰이나 관리나부랭이들 하고는 어지간히 친교가 깊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에 조선에서 친척방문을 왔던 한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반주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주의 작간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나는 전령병에게 오늘밤은 이 부락에서 지내려고 하니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을 시켜 산에 가서 대원들을 다 데려오게 하라고 하였다.

얼마 후 한흥권중대장이 부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60-70명이나 한꺼번에 마을로 쓸어들자 변이 났다고 생각한 지주는 우리 동무들앞에 나타나 ≪어른네들, 수고하십니다!≫하고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는 유격대원들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수선을 피웠다. 사람이 저렇게 두 가지 낯가죽을 쓰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속내를 모르는 한흥권은 퍽그나 감동되어 ≪대장 동지, 저 지주는 소왕청에 있는 장지주나 도문지주처럼 싹싹합니다.≫하고 지주를 칭찬하였다. 장지주란 유격대원호를 잘하다가 소비에트정부의 추방령을 받고 대두천 쪽으로 내려간 사람이었고 도문지주란 반일부대들이 피복 문제를 풀지 못해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요구에 따라 500여 벌의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천과 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들을 해결해준 양심적인 지주였다. 우리는 그 천으로 소왕청지방에 있는 반일부대들에 옷을 다 해입혔다.

도문 지주는 친척들을 만나보려고 십리평에 종종 드나들었다. 그런 내막을 어떻게 알아냈던지 우리 동무들이 한번은 경제모연공작을 하려고 지주를 억류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적구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 지도부의 동무들이 방법이 글렀다고 하면서 그를 놓아주었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유격구 밖으로 달아나는 지주를 다시 데려오게 한 다음 그에게 반일부대의 피복사정을 털어놓고 호소하였다. 지주는 유격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약속을 지켰다.

≪중대장동무, 그놈의 가살에 속지 마오. 그놈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나쁜 놈이오.≫

한흥권은 내 말을 다 듣고나서 어이가 없는 듯 허허 하고 웃었다. 그러더니 주먹을 틀어쥐고 분개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듣고보니 아주 고약한 놈이구만요. 저런 놈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까짓것, 재판을 열구 쏴 제낍시다!≫

나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우둘렁거리는 한흥권에게 손을 저어보였다.

≪그만두오. 그까짓 지주나 한 명 쏴 제껴선 뭘 하겠소. 공연히 세상만 소란해지겠는데… 차라리 조선사람의 양심을 지키라고 따끔하게 일러주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주놈의 뽕을 빼구 오겠습니다. 저따위 개벼룩같은 놈을 그냥 놔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비들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겠소.≫

나는 한흥권이 도수가 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침을 놓았다.

한흥권이 자기 집에 나타나자 약삭빠른 지주는 턱밑에 다가들어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대장과 그밖의 지휘관 몇 사람만 치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집에 분숙할 터이니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속심이었다. 박정한 인간이니 계산도 매우 빨랐다.

한흥권은 자기를 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이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둬 달 퍼먹고 가두 끔쩍 안할 것 같은데요.≫

≪거뭐 두 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주는 유격대가 자기 집에 정말 두 달쯤 있을 것만 같아서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주가 뭐라건 말건 한흥권은 그냥 시치미를 뻑 따고 상대방이 경풍을 일으킬 아찔아찔한 소리만 하였다.

≪주인님, 거 우리 부하들이 몇 달째 고기를 입에 넣어보지 못했는데 집에 돼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다른 집들은 몰라두 이 집에서만은 쌀을 한 100가마니쯤 쌓아

놓구 먹겠지요?≫

≪원, 100가마니라구요. 어림두 없습니다. 다른 집들두 죽을 쒀먹으면서 궁상을 떨지만 쌀은 다 있습니다.≫

≪쌀이 있거나 말거나 당신이 한 턱 내야겠소. 당신은 부자인데 그쯤한 걸 가지구 뭘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오. 당신두 조선사람의 양심을 가졌으면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한몫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래 당신과 같은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구 농량이 없어 겔겔하는 가난뱅이들의 쌀독을 퍼먹으란 거요? 농량마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단 말이오?≫

지주는 한흥권의 엄포에 가가 눌려서 돼지도 잡고 쌀도 퍼주었다. 다른 집들에 숙소를 정한 대원들도 그 집 식량은 다치지 않고 지주의 쌀을 받아다가 밥을 지어먹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었더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흥권은 이렇게 지주를 뽕빼놓은 다음 나의 잠자리를 생각하여 그 집에서 돗자리와 이불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원래 그는 이런 희극을 잘 노는 걸작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보리죽을 권하던 그 순박한 농민의 집에서 한흥권이 가져온 지주집 쌀로 밥을 지어먹었다.

주인은 겁이 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일없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주인을 안심시켰다.

≪주인님, 걱정마십시오. 당신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네야 밥가마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훗날 지주놈이 걸고들면 유격대가 한 일이니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유격대라면 우리두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 미물들이 유격대 어른들두 몰라보았습니다 그려.≫

주인 내외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조선사람의 순박한 예절로서 죽이면 죽, 된장이면 된장을 있는 것만치 같이 먹자고 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에게는 이런 예절도 없었다. 아마 일본순사들이 대문앞에 나타났더라면 방석 위에 모시고 알랑거렸을 것이다.

부자와 평민의 차이란 이런 것이였다. 부자들이라고 하여 인정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대지주였지만 인망이 높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내가 백과부와 같은 부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그가 민족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서 금전을 아끼지 않은 인덕이 높은 애국자라는데 있다. 그래서 후세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가 만난 그 지주처럼 인색하고 몰인정하였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물론 세상이치에 닿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경우에나 다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보리죽을 권하던 그 농민이 쌀독이 높아서 그런 인정을 베풀었겠는가.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집 쌀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풋바심한 보리가 한 자루 정도 윗목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돈주머니가 크고 재물이 많아도 인덕이 없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는다. 오막살이에서 살아도 인덕이 높으면 많은 이웃을 가지게 되고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부자가 된다. 인간의 우열을 가르는 척도를 도덕이라고 할 때 우리를 대문앞에서 쫓아버린 그 지주는 도덕적으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가난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인정은 고대광실이 아니라 평민들이 사는 오두막에 있었다.

이봉수 부부는 전에 마창에서 일할 때 발진티프스에 걸린 일이 있다. 이봉수의 부인 안순화는 자기 남편이 원장으로 사업하는 병원에 있었는데 굶어 죽은 아이를 파묻으려고 밖으로 기어나가 가둑나무잎을 덮어주었다.

이봉수는 자기도 아들처럼 인차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 혁명동지들

이 며칠 전에 가져다준 새 옷을 벗어놓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서 그 위에 포개놓았다.

≪이 옷은 얼마 입지 않은 것이니 유서를 발견하는 동지는 나를 대신하여 입으시오.≫

이것이 바로 그 지주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혁명가들의 인정세계였다.

이봉수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혁명을 계속하였다. 그가 남긴 ≪유서≫는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문건으로 남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고상하고 뜨거운 인정세계였다.

도문 뒷산에 있다가 유격구로 돌아간 다음 우리는 군대들을 모여놓고 그 마을에서 당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이걸 보라. 계급적 본성이다. 어려운 사람은 죽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잘 사는 지주는 죽은 고사하고 문전에서 쫓아버린다. 나쁜 놈이 아닌가. 이런 놈들의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착취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이봉수

그 이야기가 훌륭한 계급교양자료로 되었다.

그 다음부터 잘 사는 지주와 가난한 농사군에 대한 이야기는 두만강 연안 농촌부락들에서 하나의 화젯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들은 인민들은 한결같이 지주를 몹쓸 놈이라고 욕하였고 농사군을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우리 사복대들이 부락 근처에 가면 청년들이 찾아와서 누구네 집은 잘 사고 누구네 집은 민회소가 있다고 다 귀띔해주었다.

그 당시 농촌에서는 민회소들을 가져다가 길렀다. 민회소라는 것은 일본이 만주를 강점한 후 반동단체인 민회들에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준 소이다. 농민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 기르면 바치게 되어 있는 그런 소였다. 이것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공간이었다. 민회소들은 뿔에 도장이 박혀 있었다.

청년들이 아무 집에 민회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잡아먹어도 좋다는 소리였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이 대주는 대로 민회소만 골라가며 잡아먹었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나쁜 놈들뿐이다. 어떻게 공산군들이 민회소가 있는 집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대준 것이 틀림없다고 막 야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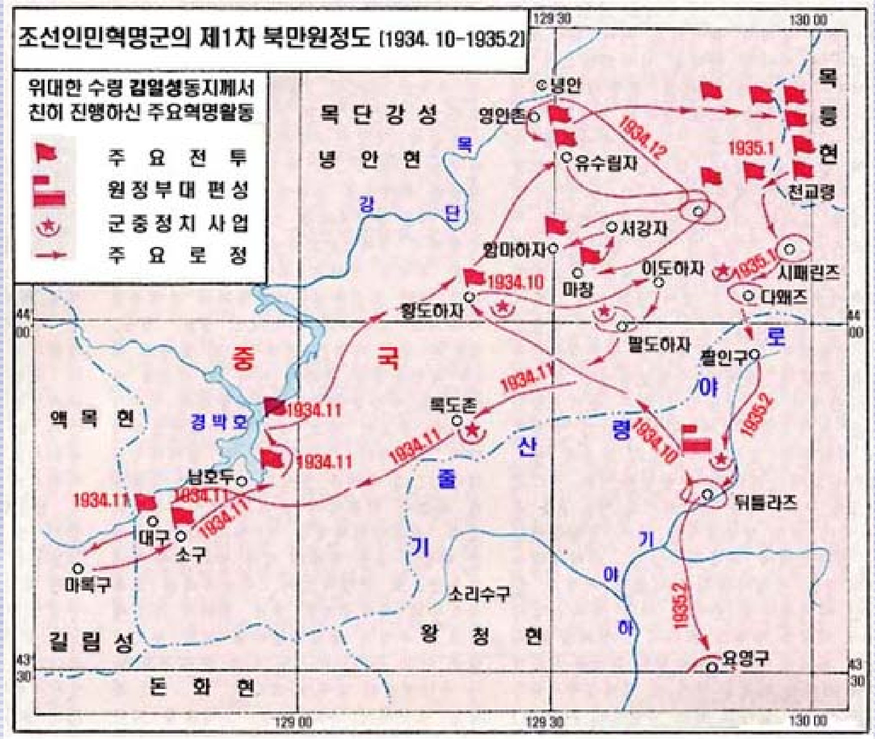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농민들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서가 다 있습디다. 문서를 보고 불러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하고 발뺌을 하였다.

나는 오랜 체험을 통하여 부자들일수록 미덕이 없는 매정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선과 도덕과 등을 진 부 그 자체는 미덕을 낳는 샘이 아니라 미덕을 매장하는 함정이었다. 두만강가의 그 지주가 내 가슴에 단단히 못을 박아놓았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한 인상이 퍼그나 흐려졌다.

나는 그 사건까지 겪고나서 장차 나라가 독립되면 지주, 자본가들이 거들먹거리는 패륜패덕의 낡은 사회를 청산해버리고 만 사람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한 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세우려고 더 굳게 결심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남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노동으로 사회의 부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인덕이 후한 도덕적인 부자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전이 만능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자본사회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꼭같은 물질과 도덕의 부를 향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인류를 더럽히는 사회악은 깨끗이 근절될 것이다.

3. 노야령을 넘어



적구활동을 마치고 유격근거지로 돌아온 우리는 또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왕청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북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보중이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 방조를 요청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 요청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주보중은 반일병사위원회 시절부터 나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싸워온 친근한 전우였다. 나자구전투를 계기로 나와 주보중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이도 나보다는 10살이나 위였다. 나는 주보중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여기고 북만원정 준비를 다그쳤다.

1934년 10월 하순,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는 날 왕청, 훈춘, 연길에서 선발된 3개 중대의 역량으로 꾸려진 170여명의 북만원정대는 뒤틀라즈를 출발하여 노야령을 넘기 시작했다.

자연이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이다. 산줄기들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이 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 현이 갈라지기도 한다. 그 산줄기라는 장벽이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상 층하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된다. 노야령은 동만을 북만, 남만과 갈라놓는 영이며 북간도와 동간도, 동간도와 서간도를 갈라놓는 천험의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의 남쪽과 북쪽은 지세도 대조적이다. 산악이 병풍처럼 첩첩한 남쪽에 비해 북쪽에는 조선의 호남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일망무제의 대평원들이 많다. 노야령 이남 동만지방 사람들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출신들이라면 이북지역 사람들 중에는 경상남북도 출신들이 많았다.

의식수준의 견지에서 볼 때 북만사람들은 동만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져 있는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혁명열도도 동만에 비해서는 높지 못했다. 언제인가 주보중은 북만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계몽이 동만인민들을 계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북만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큰 고충으로 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그것은 동북혁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로 될 것이었다.

우리는 동만과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만과 북만까지도 장차 대부대 활동무대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인접과의 협조,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온 입장이었다. 우리가 이홍광, 이동광과의 상봉을 남만진출 목적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북만을 돕는다는 것은 곧 이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김책, 최용건, 허형식, 이학만, 이계동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돕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다.

원정대는 첫 출발부터 흥분의 도가니속에 빠져버렸다. 새 고장이란 언제나 무지개 같이 화려한 동경심을 자아내는 법이다. 게다가 원정대원들은 대체로 새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강한 18-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다. 나도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희열을 안고 대오를 이끌었다.

그러나 원정대가 뒤틀라즈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발을 비끄러매려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어떤 불안을 무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오가 유격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였다.

나는 동만의 유격근거지들이 위공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에 북만으로 가고 있었다. 장기 특별치안공작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하기공세앞에서 쓴맛을 본 일제가 지구전의 방법으로 기어이 위공기도를 실현해보려고 만들어낸 ≪토벌≫대강이었다. 이 대강의 요점은 1934년 9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의 1년 반 사이를 3개의 시기로 나누고 처음에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민혁명군의 마지막 지탱점을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점령지역을 걸음걸음 확대해나가는 ≪보보점령≫의 전술에 ≪토벌≫에 소요되는 절대시간을 늘리는 지구저의 전술까지 겹쳐 위공은 그야말로 혁명을 질식시키는 목조르기로 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우리가 단행한 북만원정이 일제침략군의 위공기도에 큰 파열구를 뚫어놓는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었다.

적의 위공작전에 못잖게 유격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은 간도 전역에서 극좌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반≪민생단≫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동만당이 설정했던 본래의 과제와는 달리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일부 야심가들과 탐위분자들, 민족배타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됨으로써 혁명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고 유격근거지의 존립을 위협하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다.

인정사정 없는 숙반의 무시무시한 쇠몽둥이는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진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군중들을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날마다 무더기로 처형하였다. 유격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군민의 절대다수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민생단≫투쟁의 예봉이 조선사람, 그것도 당과 군대, 대중단체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던 핵심간부들과 정수분자들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점이었다. 숙반의 총구는 항상 군중이 신임하고 따르는 선봉적인 일군들과 투사들, 열성분자들을 겨냥하였다. 왕청현당서기 이용국이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된 것도 그 실예의 하나였다. ≪민생단≫감옥에 갇혔다가 우리의 보증으로 겨우 풀려나온 왕청대대의 대대장 양성룡도 여전히 감시속에 있었다. 간도지방의 일부 야심가들과 책략가들은 이처럼 숙반의 이름을 걸

어 진실한 혁명가들을 모해하였다. ≪민생단≫혐의를 받고 처형 직전에 놓여 있던 현 당군사책 김명균과 1구당서기 이응걸은 유격구를 탈출하였다.

10월말만 되면 만주대륙에서는 폭설이 쏟아져내리고 강풍이 몰아친다. 북관사람들은 그 강풍을 오래전부터 시베리아바람이라고 불러왔다.

우리가 뒤틀라즈를 떠난 그날도 노야령에서는 사나운 설한풍이 행군길을 막아나섰다. 노야령은 활에 화살을 메운 형국이였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 늙은 할아버지령이라는 뜻으로 된다. 아주 높고 험한 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 이 영을 하루 종일 톺아올랐다. 이성림은 무슨 영이 이렇게도 험한가고 자주 투덜거렸다.

이 영을 넘을 때 고보배가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전우들을 잘 고무해주었다. 동장영이 용정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보배가 우리의 과업을 받고 우정 따기를 하는 방법으로 구류장에 끌려들어가 그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큰 장마당의 돈도 잠깐 동안이면 다 털어낼 수 있는 번개같은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손재간만 가지고서도 백만장자 못잖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였다.

이런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혁명의 도가니속에 뛰어든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참으로 찬양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손재주는 고보배가 소유하고 있는 특기의 일부일 뿐이였다. 그보다도 더 큰 묘기는 입재주와 어릿광대재주였다. 입에 손만 대면 못내는 소리가 없었고 얼굴을 몇 번 씰룩거리면 눈과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면서 치켜들렸는데 2군군장 왕덕태와 같이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도 고보배가 이런 재주를 부릴 때에는 입이 째지게 폭소를 터치곤 하였다. 그가 한쪽 다리를 까부라붙이고 외발로 뛰어다닐 때는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고보배가 마대를 메고 장타령을 부르면서 다닐 때에는 병신 중의 병신처럼 보였으므로 적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장기와 변장술을 가지고 도시와 마을들에 자주 내려가 적정을 탐지해오곤 하였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사이에 그에게는 고보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보배처럼 귀중한 인물이라는 뜻이였던 것 같다. 고보배의 전우들 가운데는 그를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도 그를 별명으로 불렀다. 그러다보니 고보배의 본명이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의 고향에 대해서는 함경북도라는 설도 있고 함경남도나 강원도라는 설도 있다. 고보배 자신은 자기의 출신도가 어디인지 잘 몰랐다.

고향이 어딘가고 물으면 그저 조선의 어느 해변가라고만 대답하였다. 젖먹을 때 만주 땅에 와서 자랐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다보니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였다. 어려서부터 노동속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 야장을 하라면 야장을 하고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짓고, 이발을 하라면 이발도 하였다.

고보배는 한동안 동만과 북만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는 통신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섣불리 입밖에 내지 않았다. 간혹 어떤 동무들이 ≪보배 동무는 요새 무슨 일을 하오? 유격대원이오?≫하고 물으면 고보배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순시원이오?≫하고 물어도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게 묘한 웃음을 항상 덧붙이곤 하였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안개속에 묻어두기 위한 고보배식의 독특한 수법이었다.

고보배가 나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존경한 것처럼 나도 고보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사랑하였다.

우리가 노야령 산정에 올라섰을 때 일본군의 쌍엽전투기 2대가 저공으로 날아와 영마루를 누비다가 달아나버렸다. 아마 우리를 따라오던 ≪토벌대≫놈들이 본부에

원정대의 행방을 알려준 모양이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다.

노야령 북쪽 등성이들과 골짜기들은 모두 눈속에 묻혀 어느 것이 어느 골짜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오후부터는 세찬 바람까지 일기 시작하여 북만주지방으로 많이 다녀보지 못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곳 지형을 자기 집 울타리처럼 훤하니 꿰들고 있던 고보배조차도 향방을 가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지경이 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로부터 80리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잃고 행군을 멈추었다. 대원들은 사정없이 쏟아져내리는 눈과 혹한속에서 내 얼굴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처럼 명랑하던 고보배마저도 사색이 되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내앞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해마다 이 영에서는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눈구덩이속에 파묻혀 죽곤 합니다. 지난해에도 7명인가 8명인가 되는 반일부대 병사들이 이 산중에서 객사하였습니다. 마을이 있는데까지 되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눈바람이 잦은 다음 행군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는 백설로 뒤덮힌 노야령의 북쪽 골짜기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제의하였다.

≪아니오. 그럴 수가 없소. 보배 동무가 며칠 전까지 발이 닳게 지나다니던 곳인데 무얼 겁낼 게 있소. 노야령이 할바령이나 목단령으로 되지 않는 이상 길이 있어도 여기에 있지 어디로 가겠소. 나에게 나침판도 있는데 곧장 북으로만 가면 될 것이니 너무 겁을 내지 마오. 자. 용기를 내시오. 북만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소.≫

나의 이 말에 고보배는 힘을 얻었다. 그는 입으로 자동차엔진 소리를 내며 앞장에서 눈을 헤쳐나갔다. 그 엔진소리를 듣고 원정대원들은 일제히 노야령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우리는 다음날까지 행군해서야 겨우 자그마한 중국인 부락을 발견하였다. 원정대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웃부락에 와 있던 일본군 ≪토벌대≫가 불의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에서 첫 싸움을 하게 되었다.

북만지방의 일본군 ≪토벌대≫나 위만군은 인민혁명군과 접전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당시까지 그들의 상대란 대체로 일본군의 그림자만 보아도 천 리 밖으로 꽁무니를 빼는 토비나 산림대 같이 조잡하고 무맥한 무장집단들뿐이었다.

약한 상대를 일반적인 추격전으로 쉽게 소멸하는데 습관되어 온 일본군 ≪토벌대≫는 그날도 우리를 토비나 산림대로 알았던지 기세등등해서 마구 접어들었다.

우리는 재빨리 산에 올라가 ≪토벌대≫와 응전하면서 한 개 소대를 우회시켜 적의 뒤통수를 후려치게 하였다. 하도 드세게 답새기니 적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벙벙해 했다. 그 싸움에서 일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 전투에 대한 소문이 적들의 입을 통하여 북만지방에 널리 퍼졌다. 동만에서 ≪로꼬리≫부대들이 들어왔는데 싸움을 아주 본때 있게 한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부대인가. 혹시 동녕현성을 들이쳤다는 **김일성**부대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와짝 꿇었다. 그때부터 벌써 신문들에는 우리 부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때 적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도 부르고 공산당이나 반만군이라는 어정쩡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원정대는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가는 바람에 밥도 먹을 수 없는 고립무원한 처지에 떨어졌다.

주보중부대를 찾을 때까지 부락에 오래 체류하자면 적정을 알아야 되겠는데 정보망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 다음 단계의 활동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영안유격대의 행방에 대해서는 고보배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고 이름모를 산골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

음날 고보배와 오대성이 정찰임무를 받고 나가 주보중이 거처하고 있는 산막을 찾아냈다. 나는 그 산막에서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병치료를 하고 있는 주보중을 만났다. 나자구 전투에서 박격포탄에 맞은 그 상처자리가 화농이 심하여 여러 달이 지나간 그때까지도 채 아물지 않았었다.

주보중은 지팡이를 짚고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산막에서 퍼그나 떨어진 곳에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하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직 이런 신세요.≫

그는 지팡이를 들었다 내리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주보중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많이 도와주시오.≫

짤막한 인사였으나 그 음성과 눈빛에는 절절한 기대가 비껴 있었다.

나와 주보중과의 상봉은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변이였다. 이 상봉을 시발점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공산주의자들이 영솔하는 유격부대들과의 전면적인 공동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가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무장대들과의 합작을 중시한 것처럼 만주지방의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무장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9.18사변 후 장개석의 무저항주의에 반기를 들고 반일부대, 구국군, 홍창회, 대도회 등의 명칭을 가진 각양각색의 항일의용군부대들이 도처에서 태어나 일본의 침략에 도전해 나섰을 때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다같이 그들과의 통일전선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구태여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34년 이후부터 항일의용군의 활동은 점차 쇠퇴기에 들어섰다. 일본군의 공세가 심해지자 적지 않은 항일의용군 지휘관들은 부대들을 데리고 중국관내로 들어갔고 부분적으로는 투항하거나 비적화되였다. 일부세력은 사충항처럼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사상으로 지도이념을 바꾸는 방향전환의 대로에 들어섰다. 적들은 이러한 반일부대들을 가리켜 ≪정치비≫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만주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도하는 반일인민유격대들과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이러저러한 반일부대들을 연합하여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갖춘 군을 내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주보중은 영안반일유격대의 탄생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중언부언 설명해주었다. 영안반일유격대의 밑천으로 된 것은 그가 나자구를 떠날 때 데리고 온 20명 가량의 반일병사들이었다.

길동국이 해산되고 수녕중심현위가 조직되자 군사부를 책임진 주보중은 그20명을 모체로하여 곧 무장대오를 늘리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오는 얼마 안 있어 50여 명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사람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주보중의 부대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부대는 뒤이어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이도하자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던 평남양부대와의 통합을 실현하였다.

주보중은 평남양을 통합부대 대장으로 선출하고 자기는 군사책임을 맡았다.

평남양의 본명은 이형박이다. 이형박이 본명 대신 평남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평남양이란 남쪽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침략군 무력은 영안현 남쪽 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형박은 이 일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본침략군과의 결전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형박의 무장대오는 평남양부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그 대오의 지휘관인 이형박이도 점차 평남양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 일화만 보더라도 평남양이 용기가 있고 애국충정에 끓는 호걸남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반일감정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였지만 부하들의 무규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것은 이 부대의 통솔자이고 실권자인 주보중에게도 골칫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자 주보중은 자기를 대신하여 평남양과의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였다.

≪평남양이 비록 영웅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김**사령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품고 있소.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 조선공산주의자였으니까.≫

내가 그 믿음은 고맙지만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하자 주보중은 웃으면서 ≪나는 우사령과 오사령을 설복한 **김**사령의 특출한 감화력을 믿을 뿐이오.≫라고 하였다.

주보중은 반일부대와의 관계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었다.

영안현 일대에는 크고 작은 반일부대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반일부대들 중 적지 않은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이것은 영안반일유격대의 활동에서 시급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암초였다.

동경성 서쪽 북호두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은 한때 평남양과 손을 잡았다가 갈라진 반일부대들이었다. 이 부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는데다가 정안군이 귀순까지 권고하며 쐐기를 박고 있어 그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동경성 서북쪽에서 비적행위를 일삼은 쌍산, 중양 등의 반일부대들도 역시 정안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영안 동쪽의 당도구 일대의 군소 반일부대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강애인 부대도 일본군 13여단의 ≪토벌≫에 혼쌀난 다음부터는 동요하고 있었다.

강애민의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이 그 13여단의 등쌀에 견디지 못해 동만으로 쫓겨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부대들은 식량을 약탈하며 돌아가다가 귀순신청까지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그것을 겨우 저지시켰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마창 부근에 있는 채세영부대도 이전보다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이였다.

그는 영안에서도 왕청의 관부대사건과 같은 점중화사건이 있었는데 그 맹랑한 변고 때문에 자기 부대는 합법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점중화사건이란 주보중이 평남양과의 통합을 실현하기 전에 생긴 불상사였다. 평남양의 부대가 내분으로 복잡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반란자들은 평남양을 위시한 반대파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도주하였다.

평남양도 싸창 없는 신세가 되었다. 평남양은 알몸만 남은 부대를 재건하기 위하여 심복부하들과 함께 귀순을 모색하고 있던 남호두 근방의 점중화부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리고 그 총으로 자기 부하들을 무장시켰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북만의 반일부대들은 평남양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 영안유격대를 적으로 선포하였다.

결국 주보중의 요구는 자기네 부대를 합법화하자면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내가 그 중계자의 역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주보중이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은 영안지방의 혁명운동실태였다. 그는 이 일대에서 혁명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무능이나 불찰에 잇는 것처럼 몹시 안타까워하였다.

≪동만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영안은 혁명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지대나 다름없소. 대중의 기세가 왜 이다지도 저조한지 모르겠소. 혁명에 궐기하라고 호소해도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는단 말이오. 이 고장 농민들의 동향이 어떤지 아시오? 지주가 못살게 굴어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 도리가 있다는 거요. 산중에 가면 흔한 것이 땅이요, 그 땅을 일구면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며 고생스레 혁명을 하겠는가 하는거요. 국민의 관점으로 보면 땅이 넓은 것이 흐뭇한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는 장애로 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북만주에 토지가 많은 것을 자랑해야 할지 한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오.≫

주보중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땅이 많은 것이야 4억이나 되는 중화민족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지.≫

주보중도 이마의 주름살을 펴고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지,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야 만민복지의 원천이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한 것 같소.

김동무, 이상 열거한 것들이 내 고충이니 잘 도와주시오. 영안 땅에서 혁명을 앙양시킬 방도만 찾아도 발편잠을 자겠는데 나로서는 아직 속수무책이오.≫

주보중이 우리를 북만 땅에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주보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난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육체적 조건은 너무도 나빴다. 주보중은 화농이 심한 창상자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의 수하에는 준비된 핵심역량이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의 산막에서 며칠동안 주보중과 함께 북만혁명의 발전방도를 모색하였다.

우리는 북만혁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돌파구를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데서 찾았다.

인민을 각성시키고 동원시키는 것만이 북만혁명을 침체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자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정치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유격대의 군사활동을 강화해야 하였다. 무장대오란 전투속에서 커가는 법이며 혁명도 싸움속에서만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도 적대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킬 수 없고 점중화사건으로 하여 저락된 평남양의 영상도 개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주보중의 산막에 가 있을 때 거기에는 국제공산당 만주특파원인 오평도 와 있었다. 오평은 그때 우리에게 상해에서 가지고 온 항일구국 6대강령이라는 문건을 보여주었다. 6개 항목으로 된 이 문건의 원명은 ≪대일작전에 관한 중국인민의 기본강령≫이였다. 이 문건은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 준비회의 명의로 발표되였는데 거기에는 송경령, 장내기, 하향응, 마상백 등 이름있는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다. 문건에 서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화민족무장자위위원회의 성원으로 되는데 그 성원수가 벌써 수천 명이 된다고 오평은 설명하였다.

항일구국 6대강령은 일제가 공공연히 중국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무력에 의한 화북강점을 기도하고 장개석이 공산군에 대한 제5차 ≪토벌≫작전의 포문을 연 조건하에서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반제통일전선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지향은 민족역량을 최대한으로 집결시키고 동원하는데 귀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항일구국 6대강령을 시기적절한 문건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10일가량 오평과 마주앉아 폭넓은 담론을 하였다.

나는 오평과의 담화를 통하여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모택동의 전략사상에 따라 장개석의 포위를 돌파하고 북상항일의 기치밑에 2만 5천리 대장정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혁명이 1차 국내혁명의 실패로 인한 퇴각으로부터 부분적인 진공에로 이행하여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북상항일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중국 본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항일구국운동은 동만을 비롯한 만주지방 조중 양국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 수 있었다.

주보중은 공동활동을 위해 우리에게 1개 소대 가량의 병력을 붙여주었다. 원정대는 그 한 개 소대와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을 떠났다.

며칠 후 경박호반의 석두하라는 곳에서는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동투쟁의 첫 총성이 울렸다. 혁명군의 출격소식을 듣고 북호두를 떠난 200여명의 일본군≪토벌대≫가 경박호 복판에서 우리의 기관총 과녁이 되어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우리는 연이어 방신구 근방에서 일본침략군대에 땝짠 타격을 가하였다. 북만주의 광막한 대자연속에 연전연승만을 아로새기며 거들거리던 무적황군의 신화에는 마침내 금이 가고 때가 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만유격구들에 대한 일제의 위공작전에도 하나의 뚜렷한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였다.

영안지방 사람들은 또다시 ≪로꼬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쾌재를 올렸다.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으로 우리한테 달려온 사람이 바로 영안반일유격대 대장 평남양이었다. 우리가 남호두지방에 가서 훗날 우리 왕청부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곳 구당조직의 핵심당원을 만나고 서청구자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주보중의 전령병과 함께 내앞에 불쑥 나타나 자기 소개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하고 연방 탄성을 질렀다.

나는 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고 그와 격식 없는 담화를 하였다.

≪지금 온 북만땅에 **김일성**부대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 부하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놈들은 꼼짝 못하게 하는 **김**사령의 손이나 좀 잡아봅시다.≫

평남양은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정겨운 시선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부하들이 동경성 북쪽에 가 있는데 정안군아이들한테 혼났다는 정보를 받았수다. 일본군이나 정안군만 만나면 노상 꼼짝도 못하고 골탕을 먹어야 하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살겠습니까.≫

≪그럼 한 번 정안군과 맞다들어볼까요?≫

≪**김**사령네 부하대하구라면야…. 같이 싸우면 담도 커지고 배우기도 하겠지요.≫

나는 평남양의 소원대로 그가 데리고 온 40명의 가량의 대운들을 우리 원정대오에 합류시키고 그 대신 주보중이 나에게 붙여주었던 1개 소대는 평남양을 안내해온 전령병과 함께 팔도하자의 산막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적의 ≪토벌≫로 하여 새롭게 조성된 동만의 긴박한 정세를 고려하여 연길중대 동무들을 간도로 돌려보냈다.

평남양이 나를 찾아올 때 주보중은 동만에서 온 통신원도 같이 보내주었다. 그 통신원이 우리에게 간도소식을 다 말해주었다.

우리는 북호두 부근을 행군할 때 전 대오에 외발자국 행군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집결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흔적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외발자국행군이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행군해도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선두 사람이 낸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덧놓으며 나가는 행군법을

말한다.

내가 각 중대들에 임무를 주어 외발자국 행군법 뿐 아니라 발자국을 없애는 법, 분산행군법, 마을에서 숙영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익히게 하는 것을 보고 평남양은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에 완전히 도통한 군대라고 하였다.

우리는 신안진 부근에서 평남양부대와 함께 다께우찌중좌가 이끄는 2개 대대의 정안군을 요정내고 뒤이어 중양이라는 반일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대해랑하 강변에서 다른 정안군 부대를 족쳤으며 팔도하자골의 노전가라는 곳에서 정안군 기병중대와 보병 6중대를 타격하였다.

위축되었던 반일부대들이 연이어 우리를 찾아와 원정대에 합류된 것은 이런 전과속에서 이루어진 귀결이었다.

팔도하자의 산막에 돌아와 주보중을 잠깐 만난 우리는 12월 하순에 대평, 사계호, 점중화, 인의협 등 반일부대들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목단강을 건너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을 들이치고 위만경찰서를 습격하여 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것이었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군사활동에 참가하여 적들을 연속 답새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안유격대는 반일부대들과 지방의 참군 요망자들로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김**사령, 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소. 일본군도 정안군도 다 제낄 자신이 있소. **김**사령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안진 부근에서 정안군과 싸운 그날 평남양은 내 손을 잡아 흔들며 자신있게 말했다.

≪신세랄 것도 없지만 생각이 있거든 적을 많이 치시오. 군대야 싸움속에서 단련되는 게 아니겠소.≫

나는 평남양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그를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원정 과정에 채세영, 강애민과도 만나 반일연합전선 문제를 의논하였다.

일본군 13여단의 공격에 만신창이 되어 갈팡질팡하던 강애민은 나를 만나려고 동만에까지 나갔다가 우리가 북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로 찾아왔다. 패전을 거듭해온 부대의 지휘관치고는 믿기 어려울만치 명랑하고 혈기왕성해 보였다.

≪**김**대장 부대에 응원을 요청하려고 사실은 왕청에 갔댔는데 방진성이란 사람은 자기네도 형편이 어려워 남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딱해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장, 우리를 좀 도와주시우다.≫

강애민은 대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자기의 고충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방진성은 우리가 북만으로 온 다음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된 중국지휘관이였다.

우리는 평남양 부대와 군소반일 부대들과의 협동작전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였다. 원정대가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군사정치적 목적은 비교적 원활하게 성취되어 가는 셈이었다.

훗날 원정을 끝내고 간도로 돌아간 우리는 북만에서 주보중이 영안반일유격대를 기간으로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5군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원정대와 더불어 북만의 설한 속을 누비며 전투적 우의를 두터이 하던 대부분의 반일부대들이 5군 산하에 들어갔다.

5군의 간부들 중에는 북만원정시절의 나의 지기들이 적지 않았다.

평남양은 제1사 1연대장을 하다가 사장으로 승급하였고 채세영은 제2사장을 하다가 부군장으로 되었다. 강애민은 2사에서 5연대를 지휘하였다. 그 부대들에는 우리와 함께 혈로를 헤쳐온 조선공산주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5군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노야령 너머에서 영안 땅을 그려보며 주보중을 축복하였다.

우리의 1차 북만원정은 나자구전투와 함께 적의 위공작전을 파탄시키는 발단으로 되고 기본동력으로 되었다. 우리의 군사적 공세앞에서 영안주둔 일본군 13여단의 주력과 정안군 부대는 괴멸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북만에서 피도 많이 흘렸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연길중대 정치지도원과 꼬마전령병 이성림의 전사였다.

이성림은 우리가 왕청에 가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전령병이었다. 일제의 ≪토벌≫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그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웠다. 옷도 해입히고 글도 배워주었더니 제법 해말쑥한 총각이 되었다. 그는 내 목을 그러안고야 자곤 하였는데 양성룡이 그것을 보다 못해 다 큰 총각이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니 사람구실을 하기는 글렀다고 하면서 아동단학교에서 쫓아보내자고 하였다.


이성림

이성림은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떼질을 썼다.

양성룡이 이성림을 곱지 않게 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나에게서 받은 소형 권총을 자랑하느라고 아동단학교를 뻔질나게 찾아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이성림은 우리가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만이 아동단학교로 찾아가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코흘리개들을 버들방천으로 불러냈다. 권총자랑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가 권총을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는 사이에 쉬는 시간이 다 지나 가버렸는데 상학을 시작하려고 교실에 들어온 선생은 깜짝 놀라서 비상소집구령을 내렸다. 권총 구경을 하려고 전령병을 따라나가 아이들이 한 명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양성룡은 나에게 이성림과 같은 전령병을 데리고 다니다가는 큰 사달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른 전령병으로 교체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림은 나와 함께 온성, 종성에도 가고 도문 뒷산에도 오래 가 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돌하고 용감무쌍한 전령병이었다.

이성림이 전사한 것이 아마 단산자 부근 전투에서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본군과 정안군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내 명령을 전하려고 평남양 부대로 뛰어가다가 불의에 적과 조우하였다. 이성림이 전사한 다음 싸창을 보니 탄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대신 여섯 구나 되는 적의 시체가 그의 주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가 죽으면서 피값을 톡톡히 받아냈다.

우리가 이성림을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평남양마저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울었다.

적을 쳐물리치고 승리한 전장에서 이성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단골방처럼 발이 닳게 찾아다니던 왕청아동단학교였다. 그 학교에는 이성림의 소꿉동무들과 죽자살자하면서 지내온 친구들이 많았다.

내 이제 성림이를 북만 땅에 파묻고 왕청아동단원들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타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고 눈물이 괴어올랐다.

전우들이 언 땅을 파고 이성림의 시신을 안장하자고 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 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서 언 흙을 파얹지 못하게 하였다. 박달같이 땅땅 언 차디찬 땅속에 그 어린 것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놈의 영이 이렇게 험한가고 볼부은 소리를 하며 노야령을 넘던 이성림은 오늘도 전우들과 함께 만주광야에 울리는 새 생활의 노래를 들으며 그 기슭에 고요히 누워 있다.

4. 영안 땅에 울린 하모니카 소리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인민들한테서 냉대를 받을 때보다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원정대가 노야령을 넘는 첫 순간부터 이런 냉대에 부딪쳤다고 하면 독자들은 아마 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참된 의리의 창조자이고 옹호자이며 대표자인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는 혁명군대를 외면하거나 푸대접한 적이 있었는가고.

나는 있었다고 말로써 이 상식을 뒤집어놓을 수밖에 없다.

풍요하고 기름진 영안땅이 곡창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원정대가 노야령을 내려 북만지경에 들어선 초기만 하여도 영안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조차 잘 지어주려 하지 않았다. 궁해서 그런 푸대접을 한다면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련만 오해와 불신을 앞세우고 무턱대고 등을 돌려대니 인민의 지지와 환대에 습관된 우리로서는 아찔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설피를 신고 행전을 친 원정대원들이 멀리서 나타나면 이 고장 사람들은 ≪고려홍군≫이 왔다면서 무작정 동네에 나가 돌아다니는 아녀자들을 불러들이고 문부터 닫아걸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우리의 동정을 살폈다. 이런 불미스러운 광경은 우리의 자존심에 험한 상처를 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밥도 한지에서 지어먹고 잠도 한지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도에서 전혀 체험해볼 수 없었던 생소한 현상이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동만사람들은 떼를 지어 달려나와 북과 징을 두드리면서 박수도 쳐주고 가슴팍에 꽃다발도 안겨주었다. 더운물을 떠주고 풋강냉이를 쥐여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언제인가는 마촌에 솔대문까지 세워 군인들을 축하해주었다.

그런데 영안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정찰도 파견하고 지하조직도 발동시켜보았지만 우리는 도대체 이 고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동만에서 주보중이나 북만주 왕래가 번다한 고보배를 통해 사전에 요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대우였다.

영안현에는 옥랑하라는 마을이 있었다. 땅이 비옥하고 낟알이 풍족하다고 하여 지명마저 옥랑하라고 했다는 마을이였는데 밥은 고사하고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치사업을 하려고 마을에 나타나서 군중들을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처럼 응해주지 않아 시국강연조차 할 수 없었다. 이성림은 노야령이 험하다고 짜증을 냈지만 이것은 노야령보다 더 험난하고 가파로운 장벽이였다.

어떤 대원들은 영안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런 냉혈인들이라고 단정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장마다 민심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대접을 후히 하고 그들의 편의를 친절하게 봐주는 중국사람이나 조선사람의 미풍양속이 이 고장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정대를 아연하게 한 영안사람들의 인사불성은 어디에 기인되는 것인가.

역사기록에 의하면 영안 땅은 한동안 발해의 수도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였다. 이 유서 깊은 고도에는 한때 10만 명의 주민이 모여 산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개발역사도 비교적 오랜 셈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인민은 근검하고 순박 충실하며 신의가 두텁고 정의와 법도를 중히 여긴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된 이 지방의 공인된 풍토이다.

발해의 수도가 타고장으로 옮겨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후 인구의 부단한 증감과정이 수세기를 거쳐 되풀이되고 세대도 수십차례 바뀌였지만 영안사람들의 미풍양속만은 퇴색하거나 옯어지지 않고 대대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영안사람들이 본래부터 차고 야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타당치 못한 것이였다.

어떤 대원들은 영안이라는 지방이 원래 공산주의운동을 할 만한 고장이 못된다는 한심한 주장까지 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논거는 영안사람들이 의식수준이 낮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영안현에 토지가 많은 대신 그것을 경작해야 할 농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계급적 관계에서 적대적 모순이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계급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허무주의적 주장은 즉석에서 강력한 반격에 부딪쳤다. 세상에 공산주의를 할 만한 고장이 따로 있고 하지 못할 고장이 따로 있는가. 공산주의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고장이 있다면 그런 공산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전취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공산당선언≫의 사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주민이 적고 땅이 넓어서 적대적 모순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을 잘 모르고 내리는 피상적인 판단이다. 그런 이론대로 한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독일이 인구밀도가 희박한 러시아보다 계급적 모순도 더 첨예하고 혁명승리도 먼저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은 궤변이다 하고 그 논거를 일축해버렸다.

영안인민들이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게 된 원인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방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안땅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일찍부터 비열한 반공선전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정치사상적 계몽이 비교적 굼뜨게 진행되어 온 영안에서 그 선전은 주민들속에 쉽게 먹혀들어갔다.

영안 일대에 조성된 반공풍조의 책임은 파벌행위를 일삼아온 조선의 초기공산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에서 공산당이 창건된 후인 1920년대 중엽에 벌써 화요계의 인물들은 이 지방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는 으리으리한 기관을 갖추어놓고 공산주의라는 신성한 이름을 팔아가면서 판세를 확대하는데 몰두하였다. 순박하고 어리무던한 민중을 향해 조선독립과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을 귀따갑게 외쳐대면서 그들을 무모한 폭동과 시위에로 내몰았다.

좌경의 마이크는 영안인민들을 5 · 30폭동에 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이 폭동에서 주되는 투쟁대상이 간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통치기관들과 중국인 지주들이었다면 영안에서는 한족총연합회와 같은 민족운동단체들이었다. 그러나 현성에서 발달된 시위는 그 서막에서부터 된소리를 면치 못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단행된 1932년 5월 1일의 시위도 결국은 적들앞에 핵심을 노출시키고 영안시가를 피로 물든인 가슴아픈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 모든 모험적인 시위로 하여 영안지방의 혁명조직들은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5 · 1절 시위를

기점으로 영안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은 급속한 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지도부는 무력건설과 유격구건설을 중단하고 목릉, 동녕, 왕청 등지로 제가끔 흩어져갔다. 혁명을 포기한 일부 사람들은 영안현성으로도 흘러들어갔다.

일제와 만주군경들의 무차별적인 백색테러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인상을 무참히 짓밟아놓았다.

투쟁의 끝에 차례진 감옥과 죽음의 공포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전율하였다. 혁명의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생각, 공산주의운동을 했대야 쓸데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의 심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불모지라는 선고를 내리고 떠나간 영안 땅에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재건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들도 역시 혁명 일반에 대한 군중의 냉담한 표정앞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도 영안지방에서 반공독소를 전파시킨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 경신년 대≪토벌≫에 겁을 먹고 러시아에 망명했다가 흑하사변 후 영안으로 돌아온 독립군의 잔여세력은 반소, 반공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들은 흑하참변이 쏘련과 결탁된 조선의 망명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헐뜯고 쏘련을 헐뜯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심지어 김좌진이 죽은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이라고 하였다. 이런 선전은 김좌진 피살의 진상을 왜곡한 것이었다. 그러나 순진한 인민들은 그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영안지방사람들은 공산주의만 경계한 것이 아니라 군대들도 경계하였다. 그들은 소속과 사명에 관계없이 군대란 군대는 다 싫어하였다. 그 모든 군대들이 쌀독과 돈주머니를 축내는 식객으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과 위만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일부 중국인 반일부대들도 인민들에게서 돈과 쌀과 가축을 강압적으로 걷어갔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들도 영안땅에 신민부라는 행정기구를 만들어놓고 군자금과 군량미를 받아냈다. 여기에 걸핏하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토비들까지 무시로 달려들어 성화를 먹였으니 그 모든 식객들의 시중을 고스란히 들어주어야 하는 백성들의 심리가 어떠했겠는가.

이런 역사적 근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영안인민들을 박정하다고 탓할 수가 없었다. 원정대가 물질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가장 심각한 고충으로 되는 것은 북만인민들에게 혁명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한 우리의 중요한 원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인민들이 정녕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면 원정대가 북만을 혁명화하는 길은 영영 막히게 되는 것이다.

영안사람들을 혁명대로에로 불러내자면 어디든지 돌파구를 열어야 하였다.

우리는 팔도하자구 당사업을 요해하는 과정에 그곳 구당서기 김백룡을 통하여 영안현의 실태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김백룡의 말에 의하면 영안경내에서 그래도 그 중 혁명화가 잘된 곳은 팔도하자라고 하였다.


간도국민회 소속 독립단

팔도하자를 일명 소래지팡이라고도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영안현당도 있었고 구당도 있었다. 팔도하자를 소래지팡이라고 한 것은 화룡현 일대에서 대종교 교주로 있던 김소래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내가 김소래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서중석을 통해서였

다. 그는 한때 김소래가 설립한 화룡의 건원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김소래는 그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는데 서일과도 연계가 깊었고 북로군정서와 간도국민회의 상층인물들과도 친면이 두터웠다. 반일감정이 강한 그는 건원학교 졸업생들을 홍범도, 김좌진 같은 독립군 맹장들의 수하에 보내는 것으로 구국운동을 후원하였다.

김소래는 독립군이 북간도에서 철수한 후 팔도하자골 안에 와서 토지를 사고 거기에 눌러앉아 지주가 되어 김좌진 독립군에 군자금을 대주었다. 이광도 유격대 초창기에 이 사람한테 와서 여러 자루의 무기를 구해 가지고 갔다.

김소래가 대종교의 교주라는데로부터 영안지방의 혁명가들은 한동안 그를 나쁘게 보았다. 역사를 잘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종교를 일본종교로 오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종교란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환검을 신주로 하는 순수한 조선종교였다.

김백룡은 팔도하자 골짜기의 길이가 적어도 80-100리는 잘된다고 하였다. 골짜기에는 수많은 산재부락들이 있는데 주민 구성에서 조선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한때 독립군의 후방기지로 번창했던 팔도하자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영안유격대의 활동거점으로 되었다.



대종교
(단군교 포명서)

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적정도 알아볼 겸 주민들의 동향도 알아볼 겸 김백룡이 알선해주는 팔도하자의 한 부락에 정치공작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치공작조에는 한다 하는 선전선동 명수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인솔해 가지고 주민들속으로 들어갔던 5중대 정치지도원 왕대흥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또 실패입니다. 아무리 구수한 말을 해두 마이동풍입니다. 영안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바엔 차라리 소귀에 사서삼경을 불어넣는 게 낫겠습니다.≫

그는 이런 보고를 하고 나서 절망적으로 머리를 떨었다.

옆에서 그 보고를 듣고 있던 김백룡은 마치 영안 사람들이 동만손님들을 냉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나 한 것처럼 한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하여튼 영안사람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동만경험을 배우려구 참관단까지 보내면서 공을 들였는데 요지부동이란 말입니다. 참관단이 돌아온 다음 겨우 아동단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50명쯤 모여 오골오골하더니 웬걸 그것두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가들을 외면한다면 그 인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고고의 절벽에 부딪쳐보는 나로서는 생각이 깊었다. 푸르허와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단순치 않았다고 하지만 그 지방 사람들도 영안인민들처럼 그렇게까지는 냉정하지 않았다.

수수천 년을 헤아리는 우리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인민이 나빠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한평생 인민을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으로 구별해본 적이 없었다.

역사의 오점을 남겼거나 그 역사를 우롱한 것은 한 줌도 못되는 통치배들이었지 인민이 아니었다. 물론 개별적 인간들 가운데는 역적도 있고 수전노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협잡배나 야심가나 패덕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쌀에 뉘만큼도 안 되는 소수자였다.

이 세상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민이라는 거대한 집체는 항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두에서 성실하게 굴려왔다.

그 역사에 거북선이 필요하면 거북선을 만들었고 피라미드가 필요하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시대가 피를 요구할 때 인민은 육탄이 되어 서슴없이 화구앞으로 죽음을 맞받아나갔다.

문제는 영안사람들의 심장부로 통하는 지름길을 발견해내지 못한 데 있었다.

왕대흥이 인솔한 정치공작조도 분명 격동적이 호소적인 반일선전을 하였을 것이다.

영안사람들이 그런 연설을 적게 들었겠는가.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독립군도 구국군도 비적들도 그런 연설을 다 한다. 그러니 왕대흥의 정치공작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잘못은 그들이 무작정 인민을 가르치려 한 데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여겼고 인민을 자기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던가. 인민을 무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명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제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민의 심장 속 깊이에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진심만이 우리의 피와 인민의 피를 하나의 동맥속에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인민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형제가 되어 군중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안 땅에서 영영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왕청아동유희대가 영안에 와서 공연을 할 때에는 매번 공연장소에 군중이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동유희대도 혁명을 호소하고 유격대도 혁명을 부르짖었는데 왜 인민이 아동유희대는 환영하고 유격대는 외면하였겠는가.

나는 김백룡에게 물었다.

≪우리 아동유희대가 이 고장에 왔을 때 동무들도 공연을 구경했소?≫

≪했지요. 그 애들의 공연이 굉장했습니다.≫

김백룡은 왕청아동유희대가 그때 영안 땅을 들었다 놓았다고 하였다.

≪유희대가 가는 곳마다 초만원이었다는데 공산당선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영안사람들로서야 천지개벽이 아니겠소.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비결이 어데 있는 것 같소?≫

≪그 아이들이 이 고장 사람들한테 귀엽게 굴었지요. 유희대공연으로 영안사람들의 혼을 쪽 뽑아놓고는 공산명월처럼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들을 감화시켰답니다. 애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정을 주듯이 정을 주는데 아무리 목석 같은 영안사람들인들 왜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재간둥이들이 왕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오.≫

≪유희대공연도 공연이지만 아이들이 민심을 얻었지요. 그 아이들의 품성에는 나도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도하자 마을 청결은 이 아이들이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는 온 동네를 다듬이돌처럼 반반하게 정돈해 놓지요. 낮이면 밭에 가서 어른들 일손도 돕구요.≫

김백룡이 유희대원들을 연방 칭찬하는 바람에 나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그 애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셈은 다 들었지.≫

≪아이들이 또 사람은 얼마나 따르는지…. 어른들만 보면 십리 밖에서부터 아동단경례를 붙이구 ≪할아버지≫, ≪아버님≫, ≪아재≫, ≪누나≫, ≪언니≫하면서 찰찰 감겨돌아가는데 …하여튼 평이 대단했습니다.≫

아동유희대가 북만사람들의 민심을 틀어잡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정을 준 데 있었다. 우리가 두만강 얼음구멍속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반나절 동안이나 극성스럽게 애쓴 것도 인민에게 바치는 진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 아니였던가. 우리가 진정을 바칠 대 인민이 그 진정을 거절하거나 우리를 배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왕대흥 정치공작조의 실책은 바로 인민에게 그런 진정을 바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만사람들을 혁명화해야겠다는 실무적인 목적만 생각하였지 인민들에게 정을 주고 친숙해지려는 궁리는 하지 않았다. 북만인민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였다.

우선 북만사람들과의 접촉을 연설로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람들에게 정을 먼저 주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그 정을 더욱 두터이 한 왕청아동유희대의 활동은 얼마나 교훈적인가.

나는 정치공작의 형식부터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중대 정치지도원들에게 하모니카를 잘 부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오도록 하고 그들이 지휘처에 다 모이자 한 명 한 명 차례로 불어보게 하였다.

연길중대에서 온 홍범이라는 대원은 청중들이 흥이 나서 어깨를 으쓱으쓱할 정도로 하모니카를 재치있게 불렀다. 때로는 하모니카로 손풍금 합주 비슷한 소리까지 냈다. 왕청 5중대 동무도 하모니카를 잘 분다고 하였는데 그에 비하면 떨어졌다.

홍범은 소학교시절부터 하모니카를 불었다. 어떤 단골손님이 집에 놀러왔다가 두고간 하모니카였는데 주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 자연히 그의 애용품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해를 거듭하여 부는 사이에 재간은 놀랄 정도로 늘어났지만 하모니카는 도금칠이 다 벗겨진 중고품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청만은 옛 그대로였다.

나는 뒤틀라즈에서 원정준비를 할 때 그 하모니카를 보고 새것을 하나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기회가 생기지 않아 북만으로 떠날 때까지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간도지방 유격대원들과 인민들 중에는 홍범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보통대원에 지나지 않는 그의 경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화제거리가 되어 동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남다른 하모니카연주술 때문이었다.

하모니카 연주가들은 어디서나 전우들의 사랑을 받았다.

홍범의 고향은 함경북도 종성이었다. 부모를 따라 어려서 간도지방에 건너온 그는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한때는 적위대에 입대하여 돈도선철도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 해란구유격구역이 해산된 후 그는 하모니카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왕우구로 옮겨와 거기서 유격대에 참군 하였다.

나는 왕대홍에게 과업을 주어 전날 정치공작조가 침을 뱉고 돌아선 그 마을에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가서 인민들의 심장을 다시한번 흔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김백룡에게 지하조직을 발동시켜서 하모니카를 있는 대로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이날 인민들에게 배포할 선전문을 마련하려고 영안현 당비서처를 찾았다.

우리가 비서처동무들과 담화를 하고 있을 때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마을에 나갔던 왕대흥이 희색이 만면해서 내앞으로 뛰어들었다.

≪대장동지, 성공입니다. 그 장승같이 무뚝뚝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왕대흥은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작경위를 조리 있게 말하는 지휘관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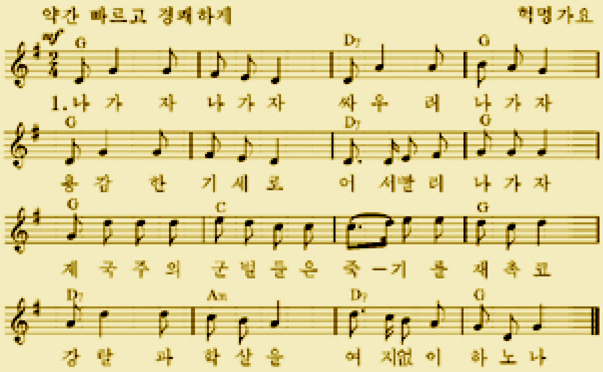
혁명군에 심장을 열어주지 않고 무정하게 외면하는 목석 같다던 사람들을 돌려세웠다는 하모니카중주단의 활동경험은 교훈적인 것이였다.

중주단의 활동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어떤 집 마당의 눈을 치는 작업으로 시작되였다. 너렁청한 그 마당에 보초를 세우고 맨 선참으로 펼쳐 놓은 것은 바로 홍범 외 1명이 출연하는 하모니카 2중주였다. 중주단의 나머지 성원들은 그 2중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러자 가까운 골목에서 팽이를 돌리던 두세 명의 조무래기들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울바자앞으로 달음박질해왔다. 다른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바지괴춤을 춰올리며 오락장으로 뛰여왔다.

2중주는 ≪총동원가≫로부터 ≪아동가≫와 ≪어데까지 왔니≫로 얼른 곡목을 바꾸었다. 홍범의 하모니카에서 경쾌한 음향에 홀딱 반해버린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떤 아이들은 동네방네로 뛰여다니며 간도에서 온 ≪고려홍군≫이 댄스를 한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광고를 들은 어른들이 먼 발치엣 팔짱을 지르고 혁명군의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어떤 어른들은 오락장 가까이에까지 바싹 다가와 ≪고려홍군≫의 ≪풍각쟁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경꾼들의 수효가 40-50명쯤 되자 하모니카중주단은 ≪아리랑≫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온 동네를 다 불러내고야 말았다. 관객의 수는 100명, 200명으로 불어났다가 다시 300명 계선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총 동원가



2.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혁명의 기세는 전 세계를 덮었다
돈 없는 로동자 망치 메고 나오고
땅 없는 농민은 호미 메고 나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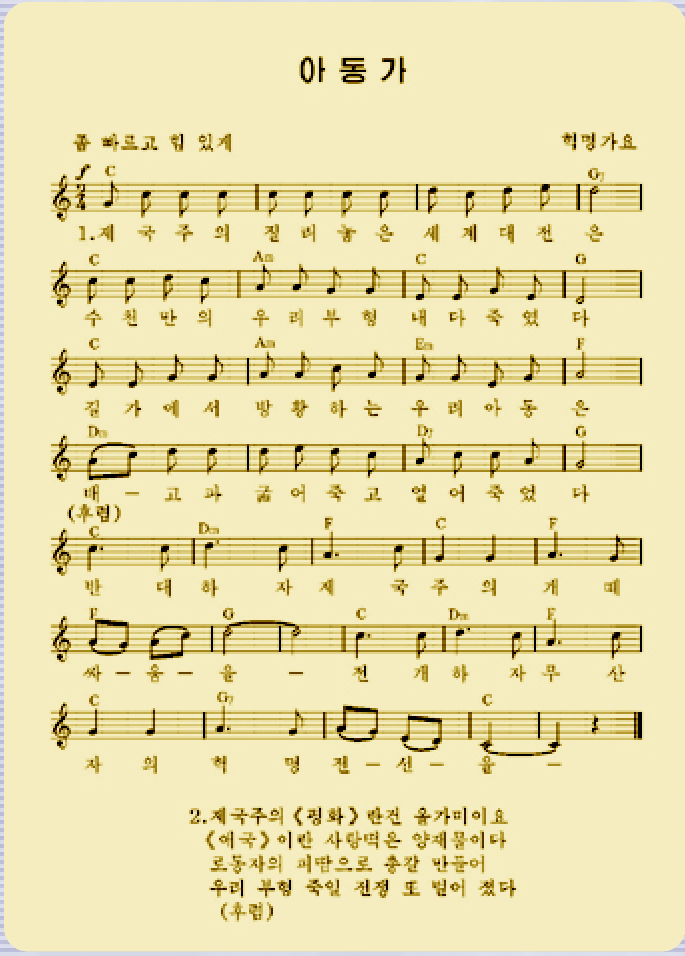
3.밥 짓던 누나는 식칼 들고 나오고
글 읽던 오빠는 책을 들고 나오라
아세아 무산자 구라파 로동자
전 세계로동자 총 동원하여라

4.세우자 세우자 인민의 주권을
붉은기 들고서 우리 주권 세우자
지주놈의 토지와 주구놈의 재산을
혁명주권밑에서 골고루 나누자

이런 때에 고보배가 나서서 ≪평안도수심가≫를 불렀다. 그 청승맞은 노랫가락에 흥취가 오른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오락장을 가락지 모양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고려홍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를 귀울였다.

고보배는 노래는 마지막까지 다 부르지 않고 중도에서 툭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좀 신파끼가 있는 억양으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여러 분. 여러 분네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북도라구요. 함경남도, 강원도, 네네, 물론 평안남도 출신도 있겠지요. 제 고향은 구태여 묻지 말아주십시오. 거 뭐 제가 재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온 놈이웨다. 조선은 조선인데 그저 해변가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조선에서 살다가 부모 등에 업혀 강을 건넜는데 두만강인지, 압록강이였던지 그 것두 알 턱이 없지요. 네네, 난



원래부터 그런 반편입니다.…≫

사람들은 고보배의 입담에 심취되어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 소감도 나누었다. 고보배는 간도에 들어와서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자라던 경위와 유격대원이 되어 왜놈들을 요정내던 몇 가지 장면들을 고사처럼 구수하게 엮어대다가 축음기 소리판을 뒤집어 끼우듯이 슬쩍 혁명에 대한 계몽으로 넘어갔다.

≪여러 분,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뭘까요. 그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자니 왜놈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의 오랑캐들을 가만 내버려두어야 하겠습니까? 난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잡구 유격대원이 된 거지요. 왜놈의 씨종자를 없애려고 영안에 두 왔구요. 북만에서 돌아치는 일본군대 더 건방지다지 않겠나요.≫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고보배의 머리에는 난데없이 일본군대의 군모가 척 놓였다. 괴춤에 찔러가지고 간 것을 순식간에 머리 위로 날렸던 것이다.

고보배는 이런 희극적인 차림으로 기지개와 하품을 한바탕 늘어지게 한 다음 뒷짐을 뒤고 턱을 잔뜩 처들고 얼굴을 우습게 씰룩거리면서 오락장을 두어 바퀴 돌았다. 그것은 방금 잠에서 깨어나 병영마당에 나서서 산책을 하는 일본장교의 기분상태를 아주 그럴 듯하게 연상시켰다.

구경꾼들은 처음에 작은 소리로 키득키득 웃어대다가 나중에는 내놓고 포복절도하였다.

고보배는 그 폭소가 가라앉기 바쁘게 구경꾼들 앞을 한 고패 빙 돌아가며 할머니앞에 가서는 노파의 웃음소리, 할아버지앞에 가서는 영감의 웃음소리, 젊은 연인들 앞에 가서는 새각시의 웃음소리를 내는 식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각종 웃음소리를 흉내냄으로써 구경꾼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어대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다.

하모니카중주단은 이렇게 마을을 흐물흐물하게 해놓은 다음 다시한번 항일선전을 하고 혁명군 원호를 호소하였다.

하루 전에 정치공작조가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마을에 가서 하모니카중주단이 이처럼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진행한 선전공작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경험에 토대하여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영안현의 수십 개 마을을 점차적으로 혁명화하였다. 동만에서 온 ≪고려홍군≫과 영안인민들을 갈라놓고 있던 철의 장벽은 마침내 제거되였다. ≪고려홍군≫이 지나간 고장들에서는 당대열이 늘어나고 공청과 부녀회, 아동단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활짝 열어제낀 인민들은 혁명군을 지지하고 원호하는데서 최대의 보람을 느꼈다.

그 인민의 군상속에는 천교령목재소의 김노인, 다왜즈의 조택주노인, 옥량하의 중국할머니 맹성복, 남호두의 이노인 등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많다.

맹할머니는 4촌동생과 함께 일본경찰에 붙잡혀 온갖 곤욕을 다 당하면서도 적의 동태를 반영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원정대에 무시로 제공해주었다.

남호두의 이노인은 적들의 항시적인 감시속에 있는 요시찰인이였다. 적들은 그가 유격대를 원호한다고 8칸짜리 집에 불을 질렀다. 언제인가는 헌병대에 끌어나가 수십 개나 되는 곤장을 먹었다. 그런 졸경을 당하면서도 이노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과 신발을 지고 혁명군의 숙영지로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노인님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무섭지요. 내가 혁명군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탄로나는 날이면 내 아들 셋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가 멸족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요. 혁명군 어른들이 나라를 찾아주겠다고 변변히 자지두 못하고 자시지두 못하면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일신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구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이였다.

조국을 사랑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불씨는 북만인민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불씨의 열도는 동만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다른 것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이 갑절 두터웠을 뿐이며 그 껍질을 통과하는 문턱이 한결 높았을 뿐이다.

인민은 자기를 동정하고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들앞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서슴없이 마음의 대문을 열어제낀다.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써 그들을 품어안는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토양이 인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배은망덕자들, 인민에게는 자기를 섬겨줄 의무가 있게 자기에게는 그 시중을 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는 건방진 인간들, 인민을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고 간주하는 관료배들, 인민을 아무 때나 짜도 우유를 내는 젖소처럼 여기는 착취자들,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끝마다 떠들어대면서도 인민이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슬쩍 지나가는 말공부쟁이들과 위선자들, 건달꾼들, 협잡배들앞에서는 사정없이 빗장을 지른다.

지금은 우리 곁에 1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전우들이 한 명도 없다. 170여 명이나 되는 원정대원들 중 광복된 조국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되지 않았다. 왕청중대에서도 아마 오준옥, 연희수가 돌아왔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영안땅에 갔을 때 강건은 아동단원이였다. 나이로 보아서는 지금까지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 발발되였던 그 해 초가을에 최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당시 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였다.

고보배는 훗날 주보중이 지휘한 5군에서 연대정치위원으로 복무하였다.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쏘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

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끝없는 우스개와 익살로 온 간도를 노상 웃음의 선풍속에 몰아놓던 재능 있는 낙천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접했을 때 나는 그 소식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낙천가가 가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다.

고보배와 함께 북만원정대의 통로를 선두에서 개척한 하모니카중주단의 과반수는 주보중의 요청으로 북만으로 떨어졌거나 귀환 도중의 격전들에서 전사하였다. 나머지 반수의 그 후 운명이 어떻게 되였는지.

나는 그것을 고증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조차 삭막하다.

제1차 북만원정이 있은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원정 참가자 한명이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반가운 통보를 받았다. 해당부서 일군들이 올려보낸 사진을 보니 하모니카중주단의 1번수 홍범이였다.

그 눈언저리에는 우리를 위협하던 북만의 사나운 설한풍과 그 설한풍속에서 걸음걸음 힘겹게 뚫아가던 유례없는 고초의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세월의 심술궂은 변덕으로 얼굴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왜가리목처럼 쑥 뽑힌 그 유다른 목의 형태만은 반갑게도 옛모습 그대로였다.

이 사람이 정녕 간도사람들의 총애를 받던 그 유명한 하모니카명수 홍범이란 말인가. 1차 북만원정의 직접적인 참가자이고 증견자인 이 보배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내 가까이에 건재해 있으면서 인제와 자기 존재를 알린단 말인가.

나는 해당 부서 일군들에게 사연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홍범이 그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지나친 순박성과 겸손성때문이었다.

≪나는 항일혁명에 참가하였지만 자랑할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수령님을 모시고 북만에 원정을 갔다온 것뿐입니다. 그나마 북만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삼도만 막바지에서 열병을 앓느라고 유격구가 해산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대오를 찾지 못하여 고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항일전쟁참가자라고 하면 당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보살펴주겠는데 나는 그런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말년에 이른 항일의 노투사 홍범이 한 말이다.

그때 70고령이었던 그는 전승분주소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다. 집도 소박한 단칸방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새 세대의 연주가들이 3칸, 4칸 되는 새집으로 이사갈 때에도 항일장정의 풍랑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유격대 하모니카수는 그 단칸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홍범은 그 이상의 특대나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항일전쟁참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홍범은 내가 영안에서 사준 하모니카를 일평생 간직해왔다고 한다. 우리 사적일군들이 취재를 위해 집에 찾아갔을 때 홍범은 그 하모니카로 북만원정 때 불던 혁명가요원곡을 연주하였다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더라고 한다.

그는 당에서 배려해준 광복거리의 새 아파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북만원정이나 고난의 행군과 같이 참담한 시련을 겪어온 투사들은 해방된 조국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오만가지 고난을 다 이겨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한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하고도 박력있는 생활의 진리를 귀뜸해주고 있는가. 고난과 시련은 만복의 어머니이다.

5. 천교령의 눈보라

우리가 원정대앞에 나섰던 군사정치적 과제를 수행하고 귀로에 오른 것은 1935년 1월 하순이었다. 왕청 뒤틀라즈를 떠날 때 170명이나 되었던 대오에는 50-60명의 인원밖에 남지 않았다. 원정 초기 연길중대가 동만으로 떠나간 후 우리는 훈춘중대도 영안 땅에서 철수시켰다. 적의 위공작전으로부터 혁명의 책원지들을 보위해야 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석달 동안 꼬리를 물고 진행된 전투들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들까지 죄다 안전지대로 후송시키고 나니 대오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우리에게는 대오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었다. 원정대가 머무르는 마을들에서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부 주보중부대에 넘겨주었다.

주보중은 우리의 귀로를 두고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적들이 지금 **김일성**부대의 종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친다고 하오. 아마 톡톡히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소. 이 겨울에 그들이 당신한테서 얼마나 혹독한 타격을 받았나 말이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신변이 우려되는구만.≫

내 얼굴을 바라보는 주보중의 눈길에서는 어딘가 불안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노야령 눈보라가 우리를 감싸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튼 무사히 돌아가게 되겠지.≫

나는 우리의 신변을 염려해주는 그의 우정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장 사지판에 들어서야 할 사람이 저렇게 태평이라니까. **김**사령은 여전한 낙천가로구만.≫

주보중은 귀로에 오른 우리의 편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믿음성 있는 노정을 잡아주었으며 우리와 함께 갈 100여 명의 반일부대역량까지 붙여주었다. 그 노정이란 우리가 북만으로 올 때 잡았던 뒤틀라즈-노야령-팔도하자의 정상통로와는 완전히 다른 천교령-노야령-팔인구의 우회로였다. 이 노정은 적들의 배치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발들을 타게 되어 있었다. 주보중의 말에 의하면 적들이 예측할 수 없는 통로라는 것이었다.

이 통로에 대해서는 주보중보다도 평남양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팔굽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교령 쪽으로 빠지면 어느 모로든지 무탈할 것 같수다. 그 고장 목재소들엔 식량이 많지요. ≪토벌대≫놈들도 천교령 쪽에는 잘 오지 않구요.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수다.≫

천교령이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 아래 다리라는 뜻으로 된다. 산이 다리같이 생긴 아슬한 고지대였다.

우리는 북만 동무들의 권유대로 천교령-노야령-팔인구의 우회로를 타고 간도

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노야령을 넘는 2-3개의 다른 통로들은 이미 적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북만 전우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주보중의 산막을 떠났다.

언 땅에 베개도 없이 누워 있는 수많은 이성림들의 영전에 봉분도 해주지 못하고 묘비도 세우지 못한 채 간도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있으라. 전우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 다시 그대들을 찾아오리라.

지금은 타향만리 언 땅에 그대들을 두고 간다만 해방의 날이 오면 고향의 뒷동산에 업고 가리라. 그대들의 영전에 묘비를 세우고 상석을 깔고 둘레에는 꽃을 심고 년년이 그대들을 조상하리라. 전우들. 그날까지 안녕히.


이성림

나는 북만의 황야에 쓰러진 전우들을 위해 전 대오가 모자를 벗고 3분 동안 묵도할 것을 명령하였다.

영안의 이름 모를 봉우리와 골짜기들에 단벌 흩옷차림으로 누워 있는 전우들에게 안식이라도 주려는 듯이 북만의 하늘에서는 그날도 발목을 휘감는 폭설이 물커지게 쏟아져내렸다. 그 폭설은 우리의 발자국을 메꾸어주었다. 은밀히 행방을 감추면서 행군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씨였다.

그러나 그 푸짐한 하늘의 선물도 적의 메 눈 같은 감시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지는 못하였다. 해발 700미터 정도 되는 능선에서 원정대가 북만 동무들이 싸준 점심밥을 먹고 간단한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적 ≪토벌대≫ 무리들이 멀리에서 나타났다.

평남양이 명예를 걸고 절대안전을 담보한 이 천고의 수림지대에서 총구를 우리에게로 겨누고 은밀히 추적해오는 적의 무리를 보는 것은 실로 천만 뜻밖의 일이였다.

원정대원들은 눈이 휘둥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돌아가는 길에서나 휴식을 좀 할까 했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따라오니 휴식은커녕 또 시끄럽게 되었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부대가 성과적으로 귀로를 돌파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첫 출발에서부터 대원들이 나약해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않게 좀 훈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이 몇 해 동안 줄창 적의 포위속에서 살아왔다.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옆에도 적이고 지어는 하늘에도 적이었다. 빨치산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적이 있었다.

행군 중에 적의 추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보라. 우리 항일전쟁사에 총성도 없고 백병전도 없는 무탈한 행군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러니 전우들, 우리는 이 행군에서도 결국 싸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 이것은 우리가 포위를 뚫고 간도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원정대원들은 내 말을 듣고 모두 정신을 번쩍 차렸다.

우리는 추격해오는 상대가 어떤 놈들인가를 알아보려고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찰조가 적을 답새기고 척후병 두 명을 포로해왔다. 포로들의 진술에서는 우리와의 거듭되는 접전에서 여러 번 참패를 당한 정안군 부대장 요시자끼의 이름이 자주 튀어나왔다.

원정대의 공격에 만신창이 된 요시자끼는 패전의 수치를 씻어보려고 거듭 유생

역량을 새롭게 증강하였다. 그 부대가 바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토벌대≫였다.

9.18사변 직후 관동군참모 고마쯔소좌의 지도하에 관동군을 협력하는 특별독립군의 명목으로 조직되었던 정안유격대는 정안군의 전신으로 일만일체의 혼합부대로 편성되었다.

만주국군의 건군과 함께 1932년 11월에 위만군에 편입된 정안군은 사령 후지이쥬로 소장을 비롯한 지휘관의 3분의 2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정안군에는 후보생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원의 대부분이 17-18살의 일본본토 출신의 중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정안군의 병기와 피복류는 관동군이 공급하였다.

팔소매에 붉은 천을 동인 것으로 하여 일명 ≪홍수대≫라고도 하였는데 언제나 싸움터에 있을 것을 강요한 ≪상재전장≫의 정신으로 교육하면서 ≪야마도다마시≫와 함께 악질적인 ≪세이안다마시≫(정안혼)도 고취하였다.

이 부대에 있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자산계급의 자식들로서 모두가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일제의 충견들로 조직된 정안군의 뱃심은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에 유격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안군의 기본적인 활동목표가 바로 우리 유격대를 소멸하는데 있음을 증명해준다.

조직 초기 정안유격대의 역량은 3,000명 정도였다.

그것은 일본군의 한 개 연대역량을 조금 초과하는 숫자였다.

요시자끼는 바로 이 정안군 보병 제1단 단장이었다.

요시자끼의 부대는 정안군부대들 중에서도 가장 검질기고 악착스러운 부대였다. 이 부대의 ≪토벌≫에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어떤 강자든지 피투성이가 될 것을 각오해야 했다.

요시자끼는 자기 관하의 부대들이 소멸되면 다른 부대들을 인차 갈아대곤 하였다. 그의 수중에는 인민혁명군 원정부대를 연속 타격할 수 있는 예비역량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생자를 대신하여 대오를 보충할 만한 그런 예비가 없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4-5차례씩 추격해오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행군하면 적들도 행군하고 우리가 숙영하면 적들도 숙영하였다. 정말 상대가 혀를 빼물 정도로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는 찰거머리 같은 놈들이었다.

주보중이 말한 것처럼 정안군 놈들은 우리 대오가 **김일성**부대라는 것과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며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천교령 일대와 그 부근에는 우리를 지원해줄 만한 공산군무력이 없다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대가 첩보사업을 아주 잘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완전히 노출된 싸움을 하는 셈이었다.

그때 적들은 ≪우리가 100명 죽고 공산군 한 명만 잡아도 큰 소득이다. 우리는 100명을 보충할 수 있지만 유격대는 한 명도 보충하지 못한다≫고 떠벌이면서 부단히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였다. 군인의 예비가 많은 놈들이지라 배짱도 이만저만 든든하지 않았다. 정안군의 속심은 자기네 군대 1,000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간도에서 온 원정대를 전멸시키자는 것이었다. 원정대를 전멸하면 **김일성**의 운명은 끝장이고 **김일성**만 없으면 조선공산군도 반만항일도 일락서산이라는 배짱이었다.

정안군이 이처럼 집요하고 악랄한데다가 그 해따라 눈보라가 얼마나 세차게 일었던지 적아를 식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느 한편이 먼저 말을 해야 적아가 구별

되고 싸움이 붙었다.

우리를 따라오던 반일부대 병사들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버렸다. 희생정신이 박약한 반일부대 장병들에게 있어서 꼬리를 바싹 물고 끈덕지게 따라오는 정안군의 추격과 인정사정 모르는 사나운 추위는 감히 맞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도전으로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해준 셈이었다.

평남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길양식도 인차 거덜이 났다.

우리는 며칠 동안 생눈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야 인적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황량하고 무정한 대지에서 눈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다.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적의 숙영지도 몇 번 기습해보았지만 그들이 노획해가지고 오는 식량으로는 대오를 먹여살릴 수가 없었다.


한흥권

적들도 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어떤 곤란이 있든지 천교령 목재소가 있는데까지만 가보자. 거기에 가면 식량이 많다고 평남양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 고무해주고 부축해주면서 꾸준히 행군을 다그쳤다.

나는 먹을 것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것을 대원들앞으로 돌려놓았다. 어떤 날에는 한 되박의 강냉이를 가지고 전 대오가 나누어먹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앞에 차례지는 강냉이알들을 어린 대원들의 입에 넣어주곤 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은 눈으로 요기를 하였다. 그 눈이 무슨 기운을 냈겠는가. 그래도 악을 쓰며 눈보라를 헤치고 비탈길을 톺아올랐다.

한흥권은 그때 눈에도 영양성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일동의 호기심을 끌었다.

나는 그 주장이 대원들의 맹렬한 반박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주장을 엉터리라고 일축해버리는 전우들은 얼마 없었다. 대부분의 전우들은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물에도 영양소가 많을지 모른다는 가설까지 내놓음으로써 한흥권의 발명을 무색하게 하였다.

나도 그 가설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것을 허튼소리라고 하거나 무식한 소리라고 하면 구름장 같이 허황한 가설을 내세우고 그 변론에 열중하는 방법으로 시장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대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다.

밥이나 빵 대신 자기들이 삼키는 눈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내놓고 그 가설에 대한 논쟁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해나가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2만 5천리 장정 때 중국동지들이 가죽띠를 우려먹었다고 한다. 우리도 쌀이 없을 때는 가죽띠를 우린 물이 식량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남비에 넣고 끓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행군이 이렇게 간고하다나니 어떤 날은 길림 시절에 읽은 장편소설 ≪철의 흐름≫에 반영된 생활들을 되그려보며 힘을 가다듬기도 했다.

나는 밤마다 다른 대원들과 꼭같이 보초를 섰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오에서 대장이라고 틀을 차리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

부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의 수완과 통솔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때에 원정대원들은 또 한 차례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내가 천교령 부근에서 촉한에 덜컥 걸

려 자리에 드러누워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몸이였으니 병마인들 어찌 그런 육신에 쉽사리 달려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온몸을 화독처럼 달구는 무시무시한 고열과 오한은 마침내 나를 눈구덩이속에 사정없이 쓰러뜨렸다.

처음에 몸이 오슬오슬 떨릴 때에 우등불이라도 쪼였더라면 병이 덧나지 않았을 터인데 전우들이 근심할 것 같아 그냥 내쳐두었더니 손발마저 까드라들고 나중에는 빈사상태에까지 빠졌다. 전우들이 달려들어서 손발도 주물러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어서야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꿀이나 한 사발 마시고 뜨뜻한 구들에서 땀을 쭉 뽑으면 촉한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해발 1,000여 미터나 되는 무인지경에서 그런 호사는 바랄 수도 없었다.

한흥권은 대원들과 함께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발구를 만들고 거기에 개가죽을 깔았다.

전우들은 그 발구에 나를 앉히고 이불과 노루가죽으로 내 몸을 감싼 다음 번갈아 끌었다. 제발 이 이상 적들이 더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내 신변을 걱정하였으나 ≪토벌군≫은 막무가내였다. 한편으로는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으로 앓는 나의 발구를 끌면서 험한 산령을 한치 한치 돌파해가는 이 긴장된 활동은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는 고역이였다.

요시자끼는 우리를 추격하는 ≪토벌군≫의 무리속에 ≪토벌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구도의 중대를 새롭게 들이밀었다. 구도는 만주에서 세운 전공으로 하여 죽어서 일본의 ≪군신≫까지 된 자였다. ≪군신≫의 유골은 야스구니신사에 안치된다고 한다. 구도는 천교령 계선에 나타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김일성**은 지금 중병에 걸려 지휘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특별히 전투를 벌일 필요도 없게 되었다. 싸움은 하지 말고 공산군의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추격만 하라. 추격하면서 그저 한 놈씩만 쏴제끼라. 한 놈씩 쏴 죽여도 한 달 안팎이면 공산군을 모조리 요정낼 수 있다.

구도는 이런 뱃심을 가지고 여러 명의 원정대원들을 전투서열에서 떼내었다. 적의 사격 명중률이 대단히 높았다.

내가 빈사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주변에 있은 대원은 도합 16명밖에 되지 않았다.

눈정기를 모으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대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16명뿐이였다. 다들 어디로 가고 이 동무들만 남았을까. 그 아까운 전우들이 모두 천교령의 눈속에 묻혔단 말인가. 이렇게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왕대흥은 어디 갔소?≫

목 안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나는 이불밑에 놓여 있던 싸창자루로 설자(눈 위에 쓰는 글)를 써 보였다. 그리고는 한흥권중대장의 얼굴을 맥없이 바라보았다.

한흥권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수염이 검숭검숭한 턱밑에서 목젖이 풀떡거리는 것이 보였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전사했습니다.≫

십리평에서 발진티프스에 걸린 나를 간호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김택근소대장이 울먹거리면서 대답했다. 얼굴을 보니 그도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들이 뚤렁뚤렁 떨어져내리고 있었다.

부대가 적의 포위속에 들자 중대정치지도원 왕대흥은 김택근을 비롯한 몇 명의 전우들로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백병전을 벌였다. 왕대흥은 총창과 총탁으로 다섯 놈의 정안군을 쓸어눕혔다. 그리고는 자신도 눈구덩이에 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왕대흥,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해온 정치군사일군 중의 한 사람이였으며 만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날파람 있는 싸움꾼이었다. 왕대흥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어감과 중어를 조선말 못잖게 자유로이 하는 솜씨로 하여 그는 노상 중국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곤 하였는데 사실은 순수한 조선사람이었다.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돕는데서 왕대흥은 뚜렷한 자기 몫을 남겼다. 중어에 능숙한 그는 어디 가서나 중국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보중이 그를 탐낸 것은 다 까닭이 있는 일이었다.

주보중이 달라고 할 때 왕대흥을 떼궈두고 오는 건데… 나는 온몸과 마음이 천만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 같은 통절한 심정을 안고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전우들을 조상하였다.

≪정황이 너무 급해서 정치지도원동무의 시신은 안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분과 회오로 떨리는 김택근소대장의 음성이 다시금 내 고막을 두드렸다.

≪이 북만땅에 눈이야 많지 않은가. 왜 눈으로라도 안장하지 못했소?≫

내 입에서는 하마터면 이런 푸념소리가 튀어나올 뻔하였다.

그런데 이성이 그 목소리를 용케도 눌러버렸다.

김택근인들 왜 그걸 모르겠는가.

그 인정이 후한 사람이 오죽이나 급했으면 안장도 못하고 돌아섰겠는가.

나는 아까처럼 권총자루로 다시금 눈 위에 글을 썼다.

≪왕대흥이 죽은 골짜기를 똑똑히 기억해두었소?≫

≪네, 그걸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김택근의 대답이었다.

≪그러면 됐소. 해토가 되면 와서 묻어주자구.≫

대원들은 내가 눈 위에 글을 쓸 때마다 글자들이 덧놓이지 않게 하느라구 발구를 조금씩앞으로 움직여주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왕대흥의 곁으로 다시는 가지 못하였다.

천교령에는 왕대흥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땅속에 안장하지 못한 전우들의 시신이 여러 구 있었다.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듯한 심정이다. 그 송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겠는가.

해방 후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탈고되자 원고보따리를 안고 나부터 찾아왔다. 나는 첫 독자가 되어 그가 낭송하는 서사시를 감상하였는데 진주 같은 명문도 명문이었지만 그 내용에서 완전히 심취되었다.

그 서사시에는 심금을 울리는 대목이 참으로 많았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열의 영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 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열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이 구절은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압록강을 건너던 철호가 적의 흉탄에 쓰러진 영남이를 안장했을 때의 심리를 반영한 주정토로이다.

그 대목을 낭송할 때에는 조기천이도 울고 나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북만 땅에 묘도 만들어주지 못한 채 두고 온 수많은 왕대흥이들과 천교령들을 생각하였다. 만주의 산야와 강하에는 실로 우리의 선열들과 전우들의 유해가 수없이 묻혀 있었다.


예술영화 - 시인 조기천

나는 전에 내각수상으로 사업할 때 교육성의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이런 여담을 들은 적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떤 교수의 집에 하루는 그의 전우가 찾아왔다. 두 전우는 반갑게 만나서 서로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 교수한테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손님을 그 아이하고도 인차 친숙해졌다.

손님의 무릎에 앉아 옷깃도 만지고 단추도 만지고 약장을 만지던 교수의 아들은 그 손님의 손을 만지다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피도 흐르지 않고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의수였던 것이다.

어린 것은 그 의수를 잡고 손님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손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전쟁판에서 미국놈들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인민군대두 부상을 당하나요?≫

≪당하구 말구. 때로는 죽기도 하지.≫

교수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 인민군대가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손님의 말은 인민군대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어린것의 생각을 뒤집어놓았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그림책들과 아동영화들은 적이 죽는 것은 많이 그리고 인민군대가 죽는 것은 적게 그렸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인민군대나 항일유격대는 죽지도 않고 부상당하지도 않는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자들과 문필가들은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후대들에게 사실주의적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뇌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으며 항일대전의 승리라는 까마득한 영봉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다.

호소로써도 청원으로써도 테러로써도 통하지 않는 제국의 강적을 격파하는 싸움에서 어찌 희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죽음은 적아를 가리지 않으며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그 죽음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한 명의 죽음으로 열 명을 살리고 열 명의 죽음으로 백 명을 살리며 백 명의 죽음으로 천 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혁명군대의 죽음이다.

왕대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또다시 실신상태에 빠졌다. 온몸을 통째로 불사르는 것 같은 고열이 오고 이어 환각인 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담가를 들고 왕대흥과 함께 오가산령을 넘고 있

었다.

담가 위에는 차광수와 주보중이 팔베개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차광수나 왕대흥이 조금도 죽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뙤약볕이 내려쬐던 여름날 갈 길은 멀고 영은 높은데 우리는 갈증과 무더위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고개를 오를수록 갈증은 심해졌다. 나는 참대 못해 길가의 자그마한 물웅덩이로 뛰어가 무작정 고인물을 들이키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디서인지 ≪아서라!≫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위에 소복단장을 한 어머니가 영주 동생과 함께 고갯마루턱에서 내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서라. 그 물은 독물이니 마시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웅덩이를 들여다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포도송이 같은 올챙이알들이 물속에 와글와글한였던 것이다. 이 물을 어째서 독물이라고 하실까? 내 눈에는 그것이 꿀물이나 정화수처럼 보였다. 나는 웅덩이앞에 엎드려 물 마실 차비를 하였다. 그때 어머니의 두 번째 경고가 또 날아왔다.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

나는 그 경고에 놀라 소스라쳐 일어났다. 그리고는 고갯마루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동생도 종적을 감추고 없었다.

그것은 분명 꿈이었다. 그런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 꿈을 흔들어 놓았다.

≪성주형, 제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주시오. 성주형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빛을 보지 못해요.≫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누구인가 발구위에 상체를 숙이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길림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글도 써주고 시중도 들어둔 왈룡이라는 공청원이었다.

석양의 강렬한 낙조에 핏빛으로 타번지는 수림속의 설경이 천천히 발구뒤로 미끄러져가고 있었다. 저녁어스럼에 물든 차디찬 하늘이 머리 위에서 빙그르르 돌아갔다.

왈룡이는 ≪성주 형≫, ≪성주 형≫하고 눈물을 뚝뚝 떨구며 발구를 따라왔다.

그 다음은 오대성인지 누구인지 또 내 몸에 왈칵 매달리며 외쳤다.

≪대장동지가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발구의 앞뒤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전우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울지 말라고 타이르고 싶었으나 기력이 없어서 입을 벌이지 못하였다. 아니 나 자신도 그 순간에는 울고 있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혼미상태가 내 몸을 엄습하였다.

다음날 아침 고열에서 잠깐 해방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수림속 공지에 서 있는 발구와 그 주변에 쓰러져 있는 16명의 전우들을 보았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처 싸움만 하였는데 저 동무들인들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를 살리느라고 고생인들 오죽했겠는가. 우리가 이

몇 해 동안 간도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왔지만 저 사나이들의 얼굴이 저렇게도 축간 적이 있으며 옷이며 신발이 저 지경까지 해진 적이 있었던가.

가슴이 답답하였다.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한데 끝날 같은 저 친구들이 기진해서 다 쓰러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들에게 과연 자리를 차고 다시 일어나 왕청으로 돌아갈 힘이 있겠는가. 저들이 저 눈보라속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파묻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살아남아서 무얼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항일의 깃발을 들고 만난을 극복하며 꾸준하게 싸워올 수 있은 것도 저 사람들이 시종일관 나를 지지하고 받들어온 덕이며 내가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덕이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수도 없고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내가 일어나야 저 눈속에 파묻힌 전우들도 구원하고 혁명도 하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의 의식은 다시금 몽롱한 안개속에 휘감겨버렸다.

겁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만 날아다니던 내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우고 주저앉고 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 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쳤다.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조선민족의 슬픔은 곧 일제의 기쁨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절망은 곧 일제의 쾌락으로 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일본의 부자들과 군국주의자들밖에 기뻐할 것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 오지에서 우리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절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역사와 시대앞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효자이다. 한 가정이나 가문의 범위를 뛰어넘어 자기를 낳아 주고 길러준 인민앞에서 불효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겁게 내려감기는 눈시울을 눈가루로 문지르고 급하게 줄달음치는 사색을 침착하게 이어갔다.

만일 우리가 혁명군이 천교령의 빙설속에 그대로 매장되어 영영 자취를 감춘다면 우리 인민에게로 쏠리는 일제의 폭압은 대번에 10배, 100배로 강화될 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하고 있는 지금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 우리 민족을 황민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을 쓰고 있는가.

일제는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경제봉쇄로 인한 손실을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로 메꾸려 하고 있다. 1920년대에 사이또총독에 의해 추진되었던 산미증식계획, 면화, 양잠의 증산정책이 조선농촌에서 계급분화를 촉진시키고 이농, 이향의 비극을 격증시켰다면 우가끼 총독시대 조선공업화정책, 산금장려정책, 남면북양정책은 우리 나라의 병약한 경제를 화약내 풍기는 전쟁경제의 유지를 위한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강철도 석탄도 면화도 면양도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한 제단에 깡그리 바쳐지고 있다.

조선의 말과 글은 비공식적인 방언의 지위에 떨어졌다. 진보적인 서적들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불세례를 받았다. 조국 땅에서 늘어나는 것은 연병장과 감옥뿐이다. 우리 애국자들의 피로 얼룩진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도 수용인원의 범람을 막

지 못해 증축 중이라고 한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일본의 대재벌과 군벌들, 그 번견들은 군국주의의 궤도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한다. 중일전쟁의 폭발은 시간문제로만 남았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일본군벌들의 결심에 달려 있다. 독일과 일본의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지구의 서쪽과 동쪽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을 배태한 검은 구름장들이 전속력으로 밀려온다.

반혁명이 이처럼 게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타승하려고 결심했던 우리가 어찌 한시인들 절망에 잠겨 오늘의 이 역경을 한탄만 하고 있겠는가.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동만은 수많은 일거리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내 머리속에서는 문득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반일전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래를 낳은 시상이였다.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 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잿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일어나라 단결하라 노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 아래 백색테러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부르자

나는 발구 가까이에 쓰러져 있던 왈룡이를 흔들어 앉힌 다음 그에게 가사를 받아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왈룡이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우리는 아침 10시경에 시패린즈에 있는 어떤 목재소에 들렀다. 강낭죽이라도 먹고 땀을 내자는 것이였다.

그날 나의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치료방법이란 강낭죽이나 먹고 중국호주에다 홍탕을 타서 먹는 것이였다.

땀을 내야 차도가 보이겠는데 발구를 타고 장창 한지에서 떨며 지내다나니 병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각일각으로 악화되어가기만 하였다. 전우들은 혼수상태에서 고열과 싸우는 나를 지켜보며 이제는 원정대가 구출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누구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솟아나 왕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침통한 기분으로 중대장인 한흥권에게 만사를 일임하고 있었다.

한흥권은 목재소에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김노인에게 강낭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우리 일행은 옹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에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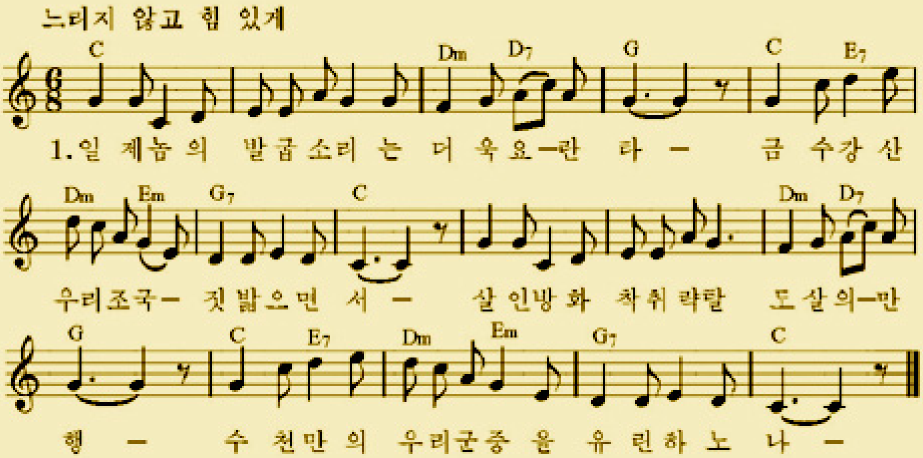
리 동무들은 이 노인을 중국노인을 보았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간도에서 온 조선유격대라는 것을 알자 김노인은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팔도하자에서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하는 김해산이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였다.

김해산은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의 참가자의 한 사람이다. 김 노인은 아들을 유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 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3. 우렁차게 들려 오는 반일전소리
곳곳에서 일어 나는 민중의 고함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4. 《왕도락토》세우려는 놈들의 몽상
반역자는 발버둥치며 쩔쩔들 맨다
대포 땅크 비행기로 미쳐 날뛰며
일기이기 《대토벌》을 진행하노나

5. 혁명세력 장성함을 보지 못하고
백색테로 겁에 질린 리기분자는
놈들의 호소리에 흔들리여서
혁명을 배신하고 투항을 한다

6. 일어 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 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 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격대에 보내고 여름이면 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먹을 것을 벌고 겨울에는 목재소에 내려가 잡일을 하여 소금이나 기름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영감이었다.

일행이 목재소에 들어가서 노인과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안 되어 한흥권은 적 ≪토벌대≫가 목재소 근처에까지 접근해왔다는 정찰보고를 받았다.

그때 왈룡이는 뚜껑도 없는 양재기를 부엌 아궁이에 넣고 내가 먹을 물도 끓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 발에서 벗겨낸 젖은 신발도 말렸다.

그는 대장의 병도 호전되지 않고 포위를 헤치고 나갈 가망도 없으니 이제는 일이 다 틀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길림에서 나를 따라 떠날 때에는 그도 맹세가 대단했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왈룡이가 한창 울고 있을 때 장작개비를 안고 부엌에 들어온 김노인이 그에게 왜 우는가고 물었다.

≪대장은 앓고… ≪토벌대≫는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 한시간 후이면 그놈들이 이 목재소에 들이닥치겠는데 빠질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 답답해서 웁니다. 빠지려면 강을 건너야겠는데 … 큰 강이고 얼지도 않았으니 물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다리로 건너가야 살 길이 열리겠는데 거기엔 ≪토벌대≫들이 1개 중대나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해산

김노인은 왈룡이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그에게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술을 하나 대주었다.

≪젊은이. 너무 상심 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우리 주인놈이 만주국 앞잡이인데 얼마 후 여기로 올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주인놈을 붙잡게. 그 놈을 잘 구슬려 ≪토벌대≫가 목재소로 오지 않게 연락만 하게 하면 당신네들은 저녁때까지 여기서 견딜 수 있네. 그 다음 수는 저녁이 된 다음 궁리해보자구.≫

왈룡이는 김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한흥권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한흥권이 일행을 대표하여 그 노인과 담화를 하게 되었고 그 담화를 통하여 최종적인 탈출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한흥권은 김노인의 처방대로 주인을 비끄러매고 생트집을 걸었다.

≪너 이놈, 누가 너더러 목재소를 경영하라고 허락했는가. 만주국이란건 우리가 승인도 안한 거야. 죄를 씻고 싶거든 우리 군대에다가 의연금을 단단히 내야겠다. 얼마나 내겠는가?≫

주인은 키가 천정에 닿을 만치 허우대가 크고 뚝뚝하게 생긴 한흥권의 외모와 엄포에 위압되어 처음부터 겁을 먹고 설설 기었다.

≪아, 뭐 당신네가 바라는 대로 냅지요.≫

한흥권은 군복이 얼마, 돼지가 얼마, 밀가루가 얼마하고 일부러 주인이 기절해 넘어질 만한 엄청난 수량을 부르고 나서 너 이걸 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를 살려만 주면 당신네가 여기 있을 동안 ≪토벌대≫가 안 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오게 하겠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라.≫

≪당신네 빨치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하면 되지요. 내가 ≪토벌대≫장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그들이 내 말은 신임합니다.≫

≪네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반일이다. 너도 죄를 씻고 반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우리를 협력하라.≫

≪요구대로 하겠으니 어서 나를 풀어만 놔주십시오.≫

그 중국인 목재상도 머리는 명석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물자가 아니라 신변안전에 있고 포위를 무사히 돌파해나가자는데 있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목재상이 대장이 누군가고 자꾸 묻자 한흥권은 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장은 나다≫하고 대답하였다.

주인이 나를 가리키며 ≪저 분은 어떻게 앓습니까?≫하고 묻자 그는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워 있다고 어름어름 넘겼다.

목재상은 약속을 잘 지켰다. 그가 연락을 해 놓은 덕에 ≪토벌대≫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목재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재소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식사도 하였다.

저녁상에는 돼지고기도 올랐다. 입맛을 잃은 나는 갈증을 덜려고 강냉죽물만 조금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난 다음 김 노인은 탈출계획의 제2부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대단한 명안이었다.

이제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전술을 잘 짜야 한다. 우선 얼렁뚱땅해서 경비초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목재소 주인을 앞세워가지고 다리까지 가서 그 놈의 힘을 빌어 경비병들을 속여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놈들이 접근해서 검색을 하면 날쌔게 답새기고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건너만 가면 김사령을 업고 산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리목에서 20리쯤 내려가면 깊은 골 안이 있고 그 골 안에 자그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막바지에 조선사람의 집 세 호가 있다. 일본놈들 꼴이 보기 싫다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만주국에 호적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면 **김**사령의 병치료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흥권이 이 계획에 동의해나서자 김노인은 흐뭇해하면서 이런 안을 덧붙였다.

다리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대장이 응전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내 안내를 따라서 움직여달라. 중대장은 키가 크고 힘도 세니 **김**사령을 업고 내 뒤만 따라오라. 다리만 건너가면 그쪽 산발은 내가 다꿰들고 있으니 놈들이 암만 따라와도 문제가 없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면 나하고 주인을 영안현시가지 근방까지 데리고 가달라. 거기 가서는 나를 좀 때려달라. 주인도 움쩍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은 중대장과 같이 김사령을 모시고 골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흥권은 그 말까지 듣고 나서 나에게 노인이 내놓은 안을 소개하였다. 듣고 보니 아주 이상적인 안이었다.



항일혁명의 말없는 증견자 노야령

노인이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병장도 할 수 있는 대담한 작전가였다. 빨치산 대장의 아버지가 다르기는 달랐다. 노인이 짜준 탈출안은 사실 어지간한 지휘관들도 궁리해내기 어려운 묘안이었다. 그때도 절실하게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 인민의 두뇌는 세상의 그 어떤 난사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의 샘이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는 나의 신조는 이런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한흥권에게 당신한테 모든 것을 맡기니 아무렇게나 하라, 나야 앓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방책이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밤이 되자 한흥권은 목재소주인을 내세워 다섯 채의 말파리를 준비하였다. 그 목재소에는 말이 많았다. 싸움을 잘하는 김택근소대장이 주인과 같이 앞 말파리에 타고 나는 세 번째 말파리를 차지하였다.

다리를 지키고 있던 일만혼성군 보초들은 우리 일행을 보자 어둠속에서 ≪누구야?≫하고 물었다.

목재상은 우리가 짜준 각본대로 우리 노동자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도 가고 영안시내에 뭘 좀 사러 가는 길이라고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목재상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보초병들은 말파리 곁에 다가오지도 않고 ≪가라.≫하고 소리쳤다.

다섯 채의 말파리는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말파리밑에서 흔들거리는 나무다리의 진동이 개가죽을 거쳐 내 몸에까지 미쳐왔다. 다리 밑으로는 사나운 강물이 사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강은 목단강으로 흘러드는 큰 원류였다.

≪이제는 됐네! 그러면 그렇겠지.≫

말파리들이 다리를 다 건너서자 김노인은 흡족해서 한흥권을 끌어안았다.

전설이나 정탐소설 같은 이 모험극은 이처럼 통쾌하게 막을 내렸다. 일행은 그 다음 공정들도 계획대로 무난히 치렀다.

김노인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사경에서 구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원정대는 나와 함께 천교령 오지에서 괴멸되었을 것이다. 그 노인이 사실 큰 은인이였다. 빨치산대장의 아버지답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훌륭한 분이였다.

생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내앞에는 이상하게도 매번 김노인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나를 사지에서 구출해주곤 하였다. 교하에서 이름모를 아주머니가 나를 체포의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마노인이 나자구등판에서 기한에 떨던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안식의 선물을 마련해준 것처럼 천교령에서는 생면부지의 김노인이 절명 직전의 원정대와 그 지휘관인 나를 천길 나락에서 건져주지 않았던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개중에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애국자들을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것은 우연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어느 것이 옳다거나 어느 것이 그르다고 시비를 가를 생각은 없다. 내 일생에서 은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였다면 그 우연은 분명 내 편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위해 한 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연조차도 선심을 베푸는 법이다.

우리 유격대가 인간해방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무력이라는 것을 인민이 몰랐더라면 그리고 그 유격대의 영상이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인민들의 망막속에 깊이 심어지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때 천교령에서 김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에 천교령의 전설과 같은 신비로운 전설도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6. 인민의 품


조택주노인

3중으로 된 적의 보초소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우리가 그 운명적인 밤에 선택한 숙영지는 웃섶미가 없고 벽체만 남아 있는 다왜즈골 안의 불탄 집터자리였다. 그 집터자리에서 전우들은 하룻밤과 옹근 하루 낮을 내 간병을 위해 바쳤다. 간병이라고 해야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모닥불을 피우고 여럿이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 순번을 정해놓고 엇바꿔가며 나의 손발을 주물러주는 것이였다.

16명 중 일부는 만주국에 호적등록을 하지 않고 산다는 조선사람들의 집을 찾으려고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종일 산발을 헤매였다. 그러나 일본 군경들과 만주국 관헌들의 눈을 피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은 한밤중에야 잣나무, 봇나무, 분비나무들이 울창한 노야령 산중턱의 태고연한 수림속에서 귀틀집을 한 채 발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속에 다왜즈의 외딴 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조택주노인네 집이였다. 회상실기 ≪부디 만년장수하시라!≫를 쓴 최일화어머니는 조택주노인의 맏며느리이다.

산중턱 밀림속에는 자그마한 물도랑을 사이에 두고 크기와 외형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단칸 귀틀집이 두 채 있었다. 돌아 북쪽 산자락 밑의 귀틀집에서는 조노인 부처가 맏아들 조욱 내외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아홉 식구가 살고 있었으며 도랑 남쪽 귀틀집에서는 조노인의 둘째아들 조경이네 다섯 식구가 거처하고 있었다. 추녀가 너무 낮아서 귀틀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땅굴막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직한 집들이였다. 두 집 지붕에는 흙을 두툼하게 씌우고 잔솔나무들을 여러 그루 심었는데 이것은 집의 존재 자체 비밀에 붙여두려는 일종의 위장술이였다. 우리 정찰조가 제때에 집을 찾아내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한 것은 위장 때문이였다.

노야령을 오가는 길손들은 다왜즈의 이름모를 산중턱에 자기네가 살고 있다는 자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특이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두 집의 주소를 아는 것은 다만 동만과 북만 사이를 오가면서 연락임무를 수행한 세사람뿐이라고 한다.

우리 정찰조성원들이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자 조택주노인은 아들 조욱과 손자

조영선의 등을 떠밀며 **김일성**대장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분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다니 될 말이냐. 어서 가서 유격대원들을 모셔오라고 불같은 영을 내렸다. 며느리 최일화더러는 물도 끓이고 미음도 쑤라고 하였다.

조택주노인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는 지름길로 20리가 넘었다. 조욱과 조영선이 정찰조 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숙영지에 당도하였을 때 원정대원들을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혼수상태에 빠진 나를 위해 밥통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나를 업고 조택주노인네 집으로 향하였다. 왈룡이는 후위에서 솔가지로 발자국을 메꾸었다. 소시적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다는 조택주노인은 한홍권중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김**대장의 병은 과로와 영양실조, 지나친 냉으로부터 생긴 촉한이라는 중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과 그러나 몸을 덥게 하고 땀은 많이 내면 사흘 안팎에 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데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장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사불성으로 계시는 것은 몸에 혈맥이 잘 통하지 않는데 까닭이 있소다. 혈맥만 잘 통하면 알 도리가 있으니 걱정들 말구 우리 둘째네 집에 가서 푹 쉬오다.≫

노인이 며느리와 함께 내 손발과 팔다리를 주무르며 한홍권중대장을 향해 한 말이었다. 며칠 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가운데 두고 우거지상이 되어 낮아있던 원정대원들은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었다.

원정대원들은 노인의 말대로 조영선을 앞세우고 도랑 건너편에 있는 조경이네 집으로 갔다. 내 곁에는 조택주 일가 사람들과 호위병 두 명만 남았다.

조택주노인은 끓는 물에 꿀을 반사발 가량 타서 나에게 주고 머리맡에 낮아 이마에 손을 대보면서 이따금씩 내 병세를 가늠해보았다. 조금 후에는 꿀물을 탄 미음을 권하였다. 그날 밤 노인과 함께 병시중을 들던 호위병들의 말에 의하면 내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미음을 먹은 다음이며 그때부터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화창한 봄대기마냥 머리 속이 쩡 열리고 몸과 마음은 솜털같이 위로, 위로만 가볍게 떠가는 듯 싶었다. 내 주위에는 개가죽을 깐 발구도 민망스러운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던 수림 속의 설경도 눈보라도 추위도 귓전을 때리던 추격의 총소리도 없었다. 머리를 아프게 탕치던 동통과 오한, 고열은 더더구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를 사지판에 밀어넣고 오만가지 행악을 다하던 병이 이렇게도 깨끗이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붕하는 문풍지소리는 뒤틀라즈를 떠나던 날 노야령 산정에서 맞다들었던 쌍엽비행기의 발동기소리 같기도 하였다. 내 눈은 희슥희슥한 장미밑에서 부드럽게 나를 굽어보는 낯설은 늙은이의 눈과 마주쳤다. 나의 바른편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는 장악발인 노인의 손에서는 유년 시절의 내이마와 볼에 곧잘 와닿던 만경대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딥니까?≫

나는 나를 굽어보고 있는 수수께끼같은 노인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그 한마디의 물음은 노인의 얼굴에서 말이나 글로써는 다 그려낼 수 없는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늙은이의 입가에 엇비스듬히 비껴 있는 웃음기는 순식간에 볼과 눈가에로 퍼져가 땅과 같이 유순하고 땅과 같이 순박한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일생에서 그처럼 순결하고 미더운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하였다.

노인의 옆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던 왈룡이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원정대원들이 사선을 헤치고 시패린즈의 목재소로부터 이곳 다왜즈의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의 전말을 단숨에 설명해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댁의 덕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니오다. **김**대장은 하늘이 낸 장수이니 이 귀틀집에 와서 소생한 건 우리 집 덕이 아니라 천명이오다.≫

조택주노인은 그 순간 내 명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지기나 한 것처럼 머리를 쳐들고 천장 쪽을 쳐다보았다. 노인의 그 말은 내 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하였다.

≪할아버지.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나를 하늘이 낸 장수에 비기는 건 너무 과분한 평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장수가 아니라 이름없는 농사군의 집에서 태어난 인민의 아들이고 손자입니다. 조선의 군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습니다.≫

≪그건 안될 소리오다. **김**대장이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가 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소다. 내 비록 이름모를 산골짜기에 와서 부대기를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몸이지만 동북 3성에서 돌아가는 풍문은 다 듣고 있소다. 애들아. 이 분이 바로 재작년 가을에 조선군대를 거느리고 오사령네 부대하구 같이 동녕현성을 쳤다는 그 유명한 **김**대장이시다. 날래 절들을 하거라.≫

노인은 내가 소생했다는 왈룡의 전갈을 받고 새벽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난 유격대원들과 함께 부엌문으로 쓸어들어오는 자손들을 보고 열띤 목소리로 분부했다.

나는 이불밑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세우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관청의 호적등본에도 오르지 않고 우체부들도 다니지 않는 심산의 귀틀집에서는 때 아닌 웃음소리가 간단없이 울렸다.

≪지금은 이렇게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적의 사면포위속에서 고생할 때는 참말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김택근소대장이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 때문에 동무들이 많은 고생을 했소. 동무들이나마 죽지 않고 남았으니 그것도 천행이오. 내 백발이 될 때까지 동무들의 은공을 잊지 않겠소.≫

나는 그때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전우들의 모습을 깊이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얼굴들은 나의 기억속에서 50여년 전 그날처럼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름만은 절반 이상 잊어버렸다. 이름 석자만이라고 후세에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녹슨 기억력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

그 16명의 이름 위에는 반세기 이상을 헤아리는 지난날의 노정에서 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은 수천수만의 이름들이 갈래를 찾아낼 수 없게 덧놓였다.

우리 항일혁명사의 심부에 묻혀있는 그 개개의 이름들을 일일이 채취해내자면 역사기록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다. 우리는 그 무슨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항일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될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운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이런 구실만으로써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자기를 사지에서 구원해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의 이름을 반수이상이나 망각한 지난날의 빨치산 대장이 아닌가.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인데 이런 막바지까지 쫓겨오셨습니까?≫

나는 핏줄이 시퍼렇게 두드러져오른 조택주노인의 갈퀴 같은 손등에 손을 얹고 옹근 반세기의 정치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노인의 주글주글한 얼굴을 연민의 정에 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내 고향이야 무산군 삼장면입지요. 일본놈들 등쌀에 견딜 수 없어 29살 때 고향 땅을 떠나 화룡땅으로 건너왔소다.≫

조노인의 쓸쓸한 대답이였다. 두만강을 건너온 그 해부터 노인은 근 30년동안 꼬박 소작농사를 하였다. 6.10만세사건이 있었다는 다음 다음 해에 노인의 일가는 노야령을 넘어와 일본 도전공사에서 등록해놓은 묵밭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는 조선의 망국사와 더불어 영락된 한 농가의 기구한 수난의 역사가 영화화면처럼 방불하게 펼쳐졌다. 노야령을 넘어온 조택주노인이 처음으로 울짱을 박고 주춧돌을 다듬어세운 마을은 조선사람의 집 세집, 중국사람의 집 다섯 집이 사는 다왜즈라는 동네였다. 그 후 조선사람의 집은 열 집으로 늘어나 이 한적한 벽촌에도 반일자위대, 부녀회, 소년선봉대, 아동단과 같은 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9.18사변의 여파는 이 모든 조직들을 한꺼번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렸다. 토벌에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자리에 다시 새 집을 짓고 줄기차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1933년 봄에 두 번째 참화가 다왜즈를 휩쓸었다. 집들은 또 다시 화염속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불속에서 재가되었다.

1934년 봄에 조택주일가는 다왜즈에서 30리 가량 떨어진 노야령의 깊은 산중에 귀틀집을 짓고 그리고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꿀물에 탄 좁쌀미음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그 집이였다. 조노인네 아홉식구는 집에서 20리나 되는 골 어귀에 내려가 자그마한 농막을 짓고 부대를 일구었다.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는 시간을 아끼느라고 온 식구가 그 농막에서 침식을 하였다. 곡식이 익는 차제로 잽싸게 거들어들였다가는 등짐을 져서 산막까지 날라다가 땅굴을 묻어두고 발방아를 찧어 야금야금 먹었다.

소박하고 원시적인 자급자족의 경제였지만 조택주노인은 거기에 만족하였다. 노인네가 쌀짐을 지고 영안시가로 가는 것은 단지 교환이 필요할 때뿐이였다. 천, 신발, 성냥, 소금, 바느실 따위의 물건들을 구하자면 시장거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밖에는 외계와의 연계가 없었다.

도시문명은 행길도 없고 마차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 외로운 막바지에 감히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은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조노인의 훈계가 교육을 대신하였고 최일화어머니의 옛말과 열 손가락에도 채 차지 않는 노랫가락이 문학예술을 대신하였다.

≪할아버지, 인적도 없는 이 외진 산중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울분에 가까운 격렬한 감정을 체험하면서 노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조노인은 그 말을 듣지 쓸쓸하게 웃었다.

≪적적하다는 거야 더 이를 데가 없지요. 그렇지만 왜놈들 꼬락서니를 보지 않고 사니 살만 푹푹 찌는 것 같소다. 율도국이면 예보다 더 좋겠소다?≫

그 율도국이라는 말에 내 가슴은 아프게 조여들었다.

이 궁벽한 막바지를 어떻게 율도국에 비길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조선민족의 이상이 고작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단 말인가. 일본은 이민을 보내 조선의 기름진 땅을 가로타고 앉는데 우리 동포들은 황량한 만주 땅에 와서까지 이런 쥐구멍같이 답답한 산골짜기에서 살아야 하니 세상에 감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는 감옥이었다. 보통감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수가 없고 울타리가 없는 것뿐이였다. 이 감옥을 지키는 최대의 간수는 일본과 만주국의 군경들이었으며 울타리는 그 군경들로부터 오는 위험이었다. 조노인이 이 감옥을 율도국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기 위안이었다.

자기를 속박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낙원으로 감수하는 노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으기 나를 실망케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저마다 조노인 식으로 현실을 감수한다면 조선은 영원히 소생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여기를 율도국이라고까지 생각할 지경이 되였으니 조선사람의 신세가 참으로 가긍합니다. 정배살이 고장으로 이름난 삼수갑산도 아마 여기보다는 더 적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놈들이 조선과 만주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율도국도 태평성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인가는 이 산골에도 토벌대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노인이 내 말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심을 툭 터놓고 말했다.

조노인은 눈썹을 씰룩거리며 한참동안 절망에 지쳐버린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악귀같은 놈팽이들이 이 산골에까지 달려든다면 이 세상에는 조선사람이 살 만한 땅이 없지요. 빌어먹을 것. 어느 놈들이 백성의 신세를 이 꼴로 만들어놓았는지. 나는 새 고장에 이사를 갈 적마다 매국 5대신을 욕하곤 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와 조택주노인 사이에 오간 담화는 대체로 이런 것이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병상에서 일어나 산보도 하고 독서도 하였다. 며칠 후부터는 가벼운 손노동도 하였다. 낮에는 군사정치상학을 집행하고 밤에는 대원들과 함께 오락회를 하였다. 오락회가 벌어질 때마다 조택주노인의 집에 거처를 정한 2-3명의 대원들은 나와 함께 물도랑 건너 편에 있는 조경의 집으로 몰려갔다. 이 비좁고 침침한 피난민들의 산막에서도 유격대의 일과는 왕청에 있을 때처럼 어김없이 집행되었다.

사흘인가 나흘이 지났을 때 나는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다. 14식구나 되는 대가정에 그보다 더 많은 장정들이 얹혀서 화전농의 빈약한 쌀독을 축내며 더부살이를 하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즉석에서 한흥권중대장의 저항을 받았다. 그는 촉한을 앓고 난 후 몸을 차게 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자기는 그런 모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사코 나를 막아나섰다. 지어 그는 내가 수림속에서 산보를 하는 것까지도 반대하였다. 20명 가까운 장정이 하루 세끼씩 먹는 식량은 사실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였다. 지금 식량공급소에서 성인들에게 주는 정량을 가지고 계산하여도 20일이면 4가마니의 쌀을 먹는 것으로 된다. 하여튼 그 집에 식량은 우리가 거의 다 털어먹었다.

그러나 조택주노인은 우리가 끼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나라 군대를 잘 섬기는 것은 백성의 응당한 도리이고 직분인데 폐는 무슨 폐인가고 하면서 입도 벌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노인이 참말 대범한 늙은이였다.

최일화어머니도 마음시가 무던히 고운 여자였다. 화전농사여서 흰쌀을 없었지만 조, 콩, 보리, 귀밀, 감자와 같은 잡곡으로 하루 세 끼씩 우리 구미에 맞게 밥을 맛있게 해주었다.

때로는 비지도 해주고 밥상에 막두부장도 놓아주었다.

최일화어머니는 병으로 쇠약해진 나에게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데 대하여 못내 가슴 아파하였다.

≪거처가 드러난다구 집짐승을 한 마리두 치지 않았더니 요새는 얼마나 아쉬운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닭 같은 게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얼른 튀를 해서 장군님께 대접하는 건데 100리 밖에 나가서라두 고깃점을 사다가 대접할 생각은 간절하지만 토벌대 미치광이들에게 혼쌀이 날까봐 가지 못합니다. 에구, 세상두 ≫

어머니의 텁텁하고 거칠거칠한 말투에서 풍기는 인정미는 유난히 따뜻하고 웅숭깊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내가 송구스럽습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푸성귀와 시래기국을 먹으면서 자라난 평백성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서슬이 없어 두부를 못하고 막두부장만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막두부장과 비지 덕에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평안도남정네들은 성미가 왈가당뎅가당 하다더니만 대장님은 마음씨가 비단같습니다. 집에 딸자식이래도 하나 있으며 평안도에 시집을 보낼 생각이 다 납니다. 그저 찬새가 없는 밥이지만 푹푹 많이 들고 이집 지붕밑에서 병을 뚝 떼십시오.≫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최일화어머니는 부뚜막앞에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조이곤 하였다. 밥을 다 들지 않고 중도에서 수저를 놓으면 어쩌나 해서였다.

나는 입맛이 없을 때에도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개다리소반의 밥과 찬을 억지로 다 들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최일화어머니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기가 내비치곤 하였다.

인민이 우리에게 바치는 정이란 참말로 깨끗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만일 그 정을 강물이나 시냇물에 비길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청류≫나 ≪옥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 정은 길이로써도 잴 수 없고 무게로써도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한 것이다.

인민의 사랑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지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이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인생의 첫째가는 진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진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고 충복이 될 수 있다.

조택주일가의 꾸준한 지성으로 내 건강을 빨리 회복되었다. 나는 한흥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책을 자주하였다. 어떤 날은 이 집 식구들을 도와 나무도 패주고 발방아도 찧어주었다. 우리가 다왜즈 골 안에 들어와 조노인일가의 지성어린 간호를 받은 때로부터 어언 10여일이라는 시일이 지나갔다. 나는 유격구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왕청을 떠난 것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달수로 따지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유격구에서 무슨 사변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원정대가 왕청으로 돌아갈 때는 유격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는지 나로서는 그것이 몹시 궁금하였다. 장래를 생각하면 어쩐지 미심쩍은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팔도하자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동만에서 온 통신원들은 숙반공작 바람에 간도지방 민심이 매우 소연해졌다고 여러 번 암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반민생단 몽둥이에 혁명진지가 다 녹아난다고 푸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숙청사업이 좀더 본격화되면 유격근거지가 한두해 안팎에 거덜날 것 같다고 하였다.

유격구에 돌아가 극좌적인 반민생단투쟁으로 하여 빚어진 후과를 하루빨리 수습해야겠다는 결심은 내 마음속에서 나날이 굳어져갔다.

어느 날 수림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던 나는 한흥권중대장에게 그 결심을 알리려고 조경이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중대장은 조경이네 집 근처에 있는 나무등걸

위에 앉아 북녘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앞가슴에 두 팔을 엇가로 모아붙이고 목조품과 같이 뚝뚝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의 체취에서는 누구도 감히 범접해서는 안될 그 어떤 강렬하고도 애달픈 감회가 느껴졌다. 내가 가까이에 다가가자 한흥권은 급히 눈굽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중대장의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진 것을 보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다. 밤 사이에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나 아닐까. 아니면 저 억대우 같은 사나이에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할 그 어떤 고뇌라고 있는 게 아닐까.

≪중대장, 한흥권이답지 않게 아침부터 웬일이오?≫



한흥권

나는 한흥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흥권은 웬일인지 나를 침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중대장은 물기어린 눈을 슴벅이고 나서 한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뜨직뜨직 말했다.

≪수십 명이나 북만에 갔다가 16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으니. 그게 어떻게 꾸린 중댑니까!≫

나는 그와 함께 5중대를 꾸리던 나날들을 뜨겁게 회고하였다. 5중대는 십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왕청 2중대에서 갈라져나온 신설 중대였다.

나는 2중대의 일부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지방에 가서 새로운 청년들로 대오를 확대하였는데 이런 공정을 거쳐 꾸려진 것이 바로 한흥권이 지휘하는 5중대였다.

왕청 5중대는 나의 친솔중대이기도 하였다. 나는 대대와 연대를 지휘하던 나날에도 항상 이 5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적구교란작전을 진행하였다. 왕청 5중대는 동만의 모든 유격부대들 가운데서도 전투력이 제일 강하고 전투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예부대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중대가 적지 않은 희생을 내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유격구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한흥권이 머리를 움켜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5중대가 당한 손실을 생각하면 나 역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오. 하지만 나는 북만 동무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였다는데서 큰 위안을 받고 있소. 하기야 소득도 컸지. 흥권 동무, 피는 헛되지 않는 법이오. 이제 다시 대오를 늘리고 전우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 배로 받아냅시다!≫

내가 한흥권에게 한 이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한흥권은 입술을 꾹 다물고 북쪽 하늘을 그냥 고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두 마디의 위로로 아물릴 상처가 아니였다. 깊이와 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사나이들의 비애인 것 같다. 한흥권의 침묵은 나를 실망케 하거나 노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배가해주었다.

며칠 후 나는 조택주노인의 만류를 무릅쓰고 대오에 출발명령을 내렸다. 노인에게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귀틀집앞에 정렬해 선 일행의 표정은 자못 근엄하였다.

≪할아버지, 나는 업혀서 이 댁에 왔다가 두 발로 걸어서 유격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댁이 아니었더라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 언제든지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노인 일가에 대한 고마움을 그보다 더 절절한 말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격정의 크기와 언어의 무력은 서로 정비례하는지도 모르겠다.

조노인은 내 말을 매우 송구스럽게 받아들였다.

≪고기 한 점도 대접해드리지 못한 백성인데 칭찬이 너무 과하오다. **김**대장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한스럽소다.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 빨리 가야 할 걸음이니 굳이 막지는 않게소다.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두 이 산골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김대장만 믿소다.≫

≪살 길을 찾아온 이국 땅에서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하니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큽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제 햇빛을 보면서 살게 될 날은 꼭 옵니다. 봄이 되면 놈들의 ≪토벌≫이 심해지고 이 골안에서도 총소리가 잦아지겠는데 고생스럽겠지만 나자구 쪽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혁명바람이 센 곳이니 여기보다는 거기가 안전합니다.≫

나는 이런 부탁을 남기고 다왜즈의 골안을 떠났다.

최일화어머니는 그때 우리의 배낭속에 밤새워 조와 보리를 찧고 쓿어서 마련한 3일분의 길양식을 넣어주었고 봇나무 껍질에 고추장과 줴기밥을 사서 도중식사까지 갖추어주었다. 어머니의 맏아들 조영선은 노야령 눈무지를 헤치며 우리를 팔인구까지 안내해주었다.

그 후 조노인의 집 근처에서는 ≪토벌대≫의 총소리가 자주 울렸다. 우리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밤중에 식량과 헌옷가지들을 대충 싸가지고 다왜즈를 떠난 조노인 일가는 태평구로 이사하여 거기서 소작살이를 시작하였다. 나는 그 해(1935년) 6월 태평구에서 이 일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았다. 노흑산에서 악질적인 정안군 부대를 괴멸시킨 동만의 원정부대는 그 때 태평구 건너 편 마을인 신툰자에 머물러 있으면서 맹렬한 군중공작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태평구 마을에도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왜즈골 안에서 조노인일가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우연히 조택주노인을 만나보고 나에게 그 사연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날로 조택주노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반년 전에는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업혀서 노인의 집에 갔던 나였다. 내 곁에는 북만의 광야에서 지칠대로 지친 16명의 대원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16명이 아니라 대부대를 거느리고 원기왕성한 몸으로 노인을 찾아갔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살뜰히 돌봐준 생명의 은인들, 그런 은인들한테로 가는 걸음치고는 우리의 행장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홀가분하였다. 내 수중에는 몇 근의 고기와 한 두달동안의 농량을 보탤만한 얼마간의 돈밖에 없었다. 그 몇 근의 고기가 몇 십마리의 가축이 되고 그 몇 푼의 돈이 한 달구지의 금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흐뭇하겠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덕을 덕으로 풍족하게 갚지 못할 때의 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가슴을 쭉 펴고 활기있게 걸음을 재촉하였다. 보따리는 빈약해도 우리는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행운을 지니지 않았는가. 나도 무사하고 조노인 일가도 죄다 건재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인가.

가난의 자취가 역력한 초라한 사랑방, 그 사랑방에서 헌누더기를 걸치고 비비닥거리는 여라문 명의 대식구, 궁상은 극에 이르렀건만 나를 맞이하는 이 일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떨기떨기 피어났다. 나는 토방돌 위에 걸터앉아 노인과 함께 회포를 나누었다. 노인의 호기심은 정안군을 요정낸 혁명군의 전과에 쏠렸고 나의 관심은 조노인 일가의 경제적 궁핍에 쏠렸다.

≪할아버지, 소도 없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땔나무는 어떻게 해옵니까?≫

이것은 내가 다왜즈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걱정하던 문제였다.

≪인력으로 해내오다. 14명 모두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 가대기도 끌구 나뭇짐도 집지요.≫

60평생 등에 짊어지고 다닌 가난을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예사롭게 말하는 조노

인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대범해보였다.

≪이 많은 식구를 먹여살리느라고 고생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고생이야 막심합지요. 그렇지만 땅을 뚜지는 고생이 아무리 큰들 김장군이 겪는 간난신고보아야 더 크겠습니까. 요새는 못 먹구 못 살아두 어깨가 으쓱해서 다닙니다.≫

≪무슨 경사라도 생겼습니까?≫

≪**김**장군군대가 왜놈들을 연거푸 답새기니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럽지요. 혁명군이 자꾸 이긴다는 소문에 배고픔 같은 것쯤은 꿈만해지오다. 다왜즈에서 **김**장군을 바래줄 때만 해두 난 눈앞에 캄캄했소다. 우리 집 식구만큼밖에 안되는 군대를 가지구 무슨 일을 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어제 노흑산에서 개선하는 것을 보니 **김**장군의 군사가 몇 백명이 되더란 말이오다. 그래서 난속으로 ≪이제는 됐다. 조선이 이겼다!≫고 무릎을 쳤소다≫

다왜즈에서 살 때만 해도 민생문제를 많이 논하던 조노인이 그날은 놀랍게도 혁명군의 전과와 관련된 한 가지 화제에만 관심을 표시하였다.

세월은 그를 반년 사이에 딴사람처럼 변모시켰다. 그는 세상을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선 무기력하고 무저항적인 은둔자로부터 자기가 결별하고 떠나간 생활의 한복판에 다시 돌아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낙천가로 변하였다.

(군대가 싸움을 잘하면 인민의 배짱이 커지는구나!)

이것은 그날 조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아안았던 충격이였다.

나는 노인의 집을 떠날 때 살림에 보태쓸 수 있는 용돈을 얼마간 남기고 다음날에는 대원들을 파견하여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한 백마 한 필을 보내주었다. 좀 여윈 말이기는 하지만 살을 잘 찌워서 역축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였다. 조노인일가가 나에게 바친 정성에 비기면 너무나도 빈약한 보상이였다. 돈이나 재물 같은 것만으로는 이 일가에 진 빚을 후히 갚을 수 없었다.

파란많은 운명의 숨바꼭질은 그 후 나와 조택주일가를 연결시켜주고 있던 혈연의 실마리를 끊어놓았다. 그 당시의 나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백두산지구였다.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로는 태평구마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내가 조노인의 일가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1959년 가을이였다. 중국동북지방에 파견되였던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답사단이 영안 땅에서 최일화어머니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나에게로 날아왔다.

수십 년동안 행처를 몰라 안타깝게 수소문하던 은인 중의 은인들이 비록 지구의 다른 지경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서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당장이라도 영안 땅에 뛰어가 은인들에게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선열들의 꿈이 꽃피고 있는 조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세월의 이끼에 뒤덮인 지난날의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쌓이고 쌓였던 그리움을 한껏 터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와 그 일가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복잡한 절차와 수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봉! 하지만 이런 장애도 그 상봉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리는 나의 열정에 찬바람을 끼얹지는 못하였다. 나는 단 몇 달동안만이라도 보통여권을 가진 평민이 되어 빨치산 시절처럼 지하족을 신고 행전을 치고 배낭을 메고 쥐기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무릎을 치는 강하도 건너면서 초목에 묻힌 지난날의 격전장도 돌아보고 전우들의 무덤에 잔디도 떠옮기고 나를 목숨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준 은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싶었다.

평민생활에 대한 동경과 향수는 어떤 정객에게나 다 있는 모양이다.

국가관리를 책임진 수반이 평민생활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해방 후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쏘련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만주와 쏘련의 중앙아시아지방에는 내가 만나보아야 할 전우들과 은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수반이라는 공식적 직무는 매번 나로 하여금 방문일정에 사사로운 것을 포함시킬 수 없게 하였다. 나의 온 신경을 항일, 항미의 두 대전에서 파괴되고 영락된 조국을 재건하는데로만 쏠렸다.

내가 만일 보통공민의 자격으로 쏘련이나 중국을 방문하였더라면 항일전쟁시기의 연고자들을 그닥 어렵지 않게 만나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씩 평민생활을 동경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라를 영도하는 국가수반이 일상생활에서 구속을 느낀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릴 것이다. 내가 어느 지방에 현지지도를 가려고 하면 어떤 일군들은 ≪수령님, 그 지방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아무아무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하면 ≪수령님, 그쪽은 진펄이니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나를 위한 걱정이고 염려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정한 구속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듬해 최일화어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조택주노인의 화룡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일가의 지긋지긋한 방랑생활이 마침내 60풍상의 피어린 곡절을 거쳐 그 후손들의 평양행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독립된 조국, 자유의 조국, 폐허속에서 자립의 깃발을 들고 우람하게 일떠서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조씨일가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랴.


조택주노인의 며느리 최일화

최일화어머니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세계가 명명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역사적인 격동기였다. 이 격동적인 흐름을 타고 조씨일가 사람들도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 당시 최일화어머니의 연세는 67살이였다. 다왜즈골 안의 음달에 쌓여있던 장설이 그대로 얹혀졌는가. 어머니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한 백설로 덮여 있었다. 양세봉의 부인처럼 그도 처음에는 내 손을 붙잡고 울기만 하였다.

≪어머니, 이 기쁜 날 왜 우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훔쳐드리려고 손수건을 꺼내자, 최일화어머니는 눈언저리에 옷고름을 가져다댔다.

≪수상님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내 고생이야 고생이랄 게 있습니까. 진짜 고생이야 어머니하고 조택주할아버지가 했지요.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조국이 해방된 다음 만주에 사람들을 보내서 일가분들을 그냥 찾았습니다. 우리가 태평구에서 헤어진 게 아무 1935년 여름이었지요? 토벌이 심해서 영안으로 가셨다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마를 가지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그것으로 명줄을 이었습지요. 수상님께서 주신 그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다 굶어죽을 뻔 했습니다.≫

≪백마가 은을 냈다니 나도 기쁩니다. 조택주 할아버지가 195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내내 수상님 말만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들을 평양을 폭격했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면 ≪**김일성**장군님께서 무고하셔야겠는

데≫, ≪장군님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하면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조택주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건강을 축원했다는 최일화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민의 정이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에게 바치는 인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내일로 승화되며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속에서도 퇴색하지 않고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영원한 것이였다.

≪7년만 더 살아계셨으면 조국에 오시는 건데 조택주할아버지가 정말 애석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다왜즈의 그 귀틀집을 생각하곤 합니다. 거기에 더러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산골에 다시 가서 살 것 같지 못합니다.≫

≪그 산골에야 왜 다시 가겠습니까. 일평생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자식들 덕도 보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지요. 내가 어머니의 집을 잡아주겠습니다.≫

1961년 4월 15일 나의 생일 49돌을 축하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최일화어머니는 나에게 만년필 한 대를 선물하였다. 그때 그는 몹시 수줍어하면서 자기가 마련한 기념품에 이런 주석을 달았다.



조택주노인에게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하여 보내주었던 한필의 말은 1961년 4월 15일에 만년필이 되어 돌아왔다

≪수상님, 수상님께서 우리 집에 주신 그 백마가 이 만년필로 되었습니다. 수상님 분부대로 백마를 살찌워 농사를 지었는데 놈들이 군마로 끌어갈까봐 소와 바꾸었습니다. 그 소 덕분에 온 집안이 먹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 소를 합작사에 넣었습니다. 조국으로 나올 때 소값을 찾아서 이 만년필을 샀습니다. 수상님께서 보시는 일이 잘되고 부디 만년장수하시라고 만년필을 드리오니 저의 성의로 아시고 받아주십시오.≫

나는 백마가 만년필로 되기까지 조택주 일가가 걸어온 노정 위에 압축되어 있는 우리 인민의 수난많은 민족사에 대하여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더듬어보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의 부탁대로 오래오래 살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그 해 8월 15일은 온 나라 가정들이 광복절 16절을 기념하고 있을 때 나는 대동강 기슭에 자리잡은 최일화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신접살림에 청신한 기운이 강하게 풍기는 방들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이 일가 아이들의 방울을 굴리는 것 같은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 집은 작가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을 위해 나가 직접 터를 잡아주고 설계도면까지 보아준 아파트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가 없었다.

평양사람들은 최일화어머니의 집이 자리잡고 있는 이 경상동 일대를 달걀 노른자위에 비기고 있다.

≪어머니, 집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구 말구요.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집은 처음입니다.≫

최일화어머니는 새 집의 전망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대동강 쪽으로 면한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강바람이 서느럽게 불어들어와 고생속에 세어버린 어머니의 흰머리 오리들을 가볍게 들추어놓았다.

≪한평생 두메산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이기에 강기슭에 집을 잡아주었는데 혹시 산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저 대동강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변살림에 살이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지 알겠습니까. 다왜즈가 사람 못살 막바지이긴 했지만 공기야 좋았지요. 산공기가 그리워질 때면 모란봉에랑 올라가십시오. 산을 그리워할 것 같아서 모란봉 가까이에 집을 정했으니 산보랑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지으면 어머니는 새 집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수상님, 저희들은 이 집으로 만족합니다. 그저 수상님 가까이에서 살면 됩니다.≫

최일화어머니는 현관 밖까지 따라나와 나를 바래주었다. 내가 작별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어머니는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수상님, 수상님 곁에 용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맥락도 없는 그 물음에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의사들이야 많지요. 왜 그러십니까?≫

≪수상님께서 촉한 때문에 고생하시던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런 몹쓸 병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설사 그런 중병이 다시 온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촉한을 잘 고치는 최일화어머니가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최일화어머니와 헤어진 나는 명상에 잠겨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는 수도의 중심거리들을 오래오래 돌아보았다. 2만 세대 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던 승리거리, 인민군거리와 함께 평양의 중심거리들은 품격있는 공공건물들과 다층 아파트들로 자기의 면모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전후 여덟해 동안 수만 명의 수도시민들이 토굴집에서 나와 복구건설의 교향곡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파트들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건설은 아직 첫 시작을 뗀 데 불과하였다. 수도시민의 과반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명 이전의 초라한 움집들과 단칸집들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항일,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해온 사람들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찬바람을 많이 맞고 끼니를 많이 굶어본 인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짓고 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고 좋은 학교들과 휴양소들과 병원들을 더 건설하자. 그리고 이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더 많이 데려오자. 이것이 나를 촉한에서 구원해주고 사지에서 건져준 인민을 위해 내가 할 한 생의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일화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우리를 팔인구까지 안내해주던 어머니의 아들 조영선과 물심부름을 해주던 딸은 벌써 7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후반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양에서 다왜즈까지는 수천 리이다. 장설로 덮였던 그 한적한 골짜기에 작별인사를 남기고 떠난 때로부터 어언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나운 설한풍으로부터 조노인의 외로운 산막을 보호해주던 밀림의 설레임 소리는 오늘도 내 귓전에서 쉬임없이 울리고 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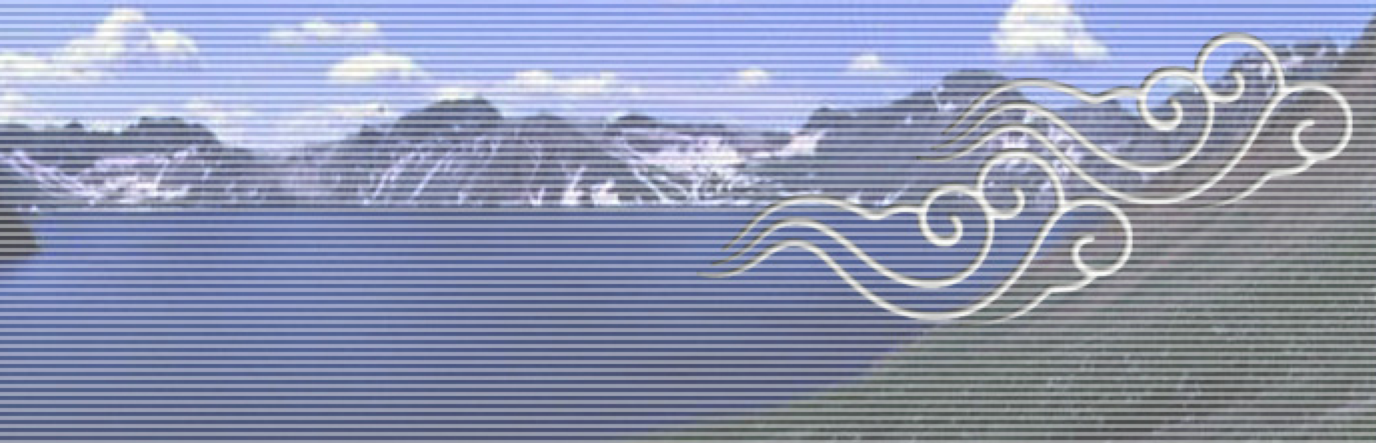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11장 혁명의 분수령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사나운 회오리
다홍왜에서의 논쟁
공청의 산아들
사도구 참변에 대한 대답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 시기 : 1935. 2 ~ 1935. 6

1. 사나운 회오리



1930년대 후반기의 간고한 나날에

시련의 나날들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던 중중첩첩한 설령들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피와 고뇌로 얼룩진 원정은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는 그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열렸다. 병마에 지친 몸을 끌고 노야령산정에 오른 나는 대원들과 함께 왕청의 산발들을 굽어보며 환성을 올렸다. 수개월 동안 초연과 혹한속에서 겹쌓인 피곤이 순간에 다 가셔지고 고향의 뒷동산에라도 와 닿은 것 같은 희열로 마음마저 구름처럼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왕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며칠동안 침상에서 고열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정에서 얻은 촉한의 후유증이 또다시 나를 쓰러뜨렸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숙반≫바람에 유격구가 만신창이 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의 침상에까지 날아들어왔다. ≪간호병≫들도 유격구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좌경분자들의 죄상을 분노에 차서 고발하는 것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혁명을 하느라고 왕청골 안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던 당원들과 공청원들, 부녀회원들이 광란적인 살인각본의 작성자들과 그 집행자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자기 자신들이 피로써 개척하고 사수해온 유격근거지를 버리고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같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한순간에 죄다 정지되고 세상만물이 빙하에 짓눌려 종말을 고하는 것 같은 무서운 절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나자구등판에서 겪은 시련이 크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다. 16명밖에 안 되는 대오를 이끌고 촉한에 걸린 몸으로 천교령을 넘을 때의 난관 역시 모진 것이기는 하였으나 ≪민생단≫문제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때에는 원정대의 앞길을 막아서던 장애가 명백하였다. 그 장애란 바로 추격하는 적과 나의 촉한이였다. 우리는 김노인과 같은 귀인의 도움으로 적의 봉쇄를 돌파하였고 조택주노인과 같은 은인의 덕으로 아사, 동사, 병사의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인민이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에서는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

어지고 있었다. 타도하는 사람들과 타도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순이나 대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도하는 사람들은 타도당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혁명대오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숙반≫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지난날 혁명을 위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쳐온 검열된 투사들이었다.

그렇다면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이 해괴망측한 ≪소탕전≫에서 적아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구를 우리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숙반≫지도부는 자기들이 처형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판결을 합당하다고 보겠는가. 만일 그 판결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숙반≫ 사업을 지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해야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해야 하는가.


전문진

이것은 수백 수천 명 혁명가들의 출혈로 무섭게 비틀거리는 동만의 현실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던 물음이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다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요영구에는 나를 병마에서 건져 줄 만한 명의도 없었고 신통한 약재도 없었다. 그저 민간요법을 좀 알고 있는 대원들이 교대로 내 머리맡에 앉아 찬물 찜질을 하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할 뿐이었다.

소북구마을사람들은 내 병을 염려하여 꿀과 노루피를 보내 주었다. 중국노인들도 차를 끓여 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였다. **김**사령이 건강해야 유격구도 고수하고 항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간호를 잘해드리라고 부탁하였다.

꿀도 차도 노루피도 보양제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들과 약재들을 원정에서 돌아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는 독감환자도 있었고 동상자도 있었으며 대장염이나 기관지염에 걸려 고통받는 대원들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한을 무릅쓰고 송갑룡의 부축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대원들을 찾아갔다. 그때 내 눈을 제일 아프게 자극한 것은 원정에 참가했던 전우들의 볼품없는 옷차림이었다. 초연에 그슬리고 총탄에 찢겨진 그들의 군복마다에는 전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온 겨울 혹한속에서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재봉대에 전령병을 파견하였다. 그 전해 가을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전문진에게 다음해에 입을 부대의 여름옷을 미리 지어놓으라는 과업을 맡기고 갔었는데 그 과제가 수행되었다면 원정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스무 벌쯤 골라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재봉대는 다홍왜에서 멀리 떨어진 솔밭골의 밀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성원이라고 해야 전문진과 한성희를 비롯한 몇 사람밖에 없었다. 전문진이 동녕현에서 양재기술을 조금 배우다가 나온 구대원이라면 한성희는 요영구에서 아동단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신대원이었다.


요영구의 오지

전령병과 함께 군복을 지고 요영구로 달려온 것

은 전문진이 아니라 몇 달째 북만에 간 원정대를 기다리며 외진 섬이나 다름없는 솔밭골의 수림속에서 임신 중에 있는 그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던 한성희였다. 한성희는 앓아누어 있는 나를 보자 눈물부터 쭈르르 흘렸다.

그가 지고 온 군복들을 원정대원들에게 갈아입힌 다음 나는 한성희를 재봉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솔밭골로 돌아간 줄로만 알았던 한성희가 다음날 아침 잣죽이 얹혀 있는 밥상을 들고 내앞에 다시금 천연스레 나타났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글에게 물었다.

≪옥봉동무, 어떻게 또 여기에 나타났소? 무슨 일이 생겼소?≫

옥봉이란 한성희의 아명이었다. 그는 한영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한성희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어제 솔밭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성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동단시절이나 입대 후나 그는 상급의 명령지시에 불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충실하고 순박하고 고지식한 여성이었다. 그가 나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몸져누워 계시는데 제가 돌아간들 문진 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한성희의 그 웅숭깊은 마음은 물론 고마운 것이었다.

나는 좁쌀과 미역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한성희의 배낭속에 넣어 주며 그를 달랬다.

≪여기서 나를 돌봐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동무는 내 걱정을 말고 오늘 중으로 당장 솔밭골에 돌아가야 하오. 동무가 가지 않으면 전문진이는 어떻게 하요? 지금이 바로 막달이라고 하는데 혼자서야 해산을 할 수 없지 않소.≫

≪장군님, 다른 명령만은 다 집행하겠지만 이 명령만은　간호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재봉대로 돌아가면 문진 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군님, 저의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장군임께서 제일 급한 대목을 넘기고 계시는 때의 여대원들이 한 명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한성희는 오히려 나를 설복하느라고 열을 올렸다.

≪성희동무, 부탁이니 어서 돌아가서 문진 동무를 간호해 주오.≫

그때 이효석중대장이 한성희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었다.

≪대장동지, 한성희가 가도 산파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못 낳아본 처녀가 어떻게 해산방조를 합니까.≫

경험 있는 여자를 물색하여 보내겠다는 중대장의 말에 나는 그만 굽어들고 말았다.

한성희는 그날부터 주야로 나를 간호하여 주었다. 그는 끼니마다 밥상에 잣죽을 놓아 주곤하였다. 아마 그의 주문을 받고 4중대 대원들이 요영구의 수림속에 들어가 눈속에 파묻힌 잣송이들을 주워온 모양이었다. 중대장 자신도 막대기를 들고 아침마다 잣사냥을 떠나곤하였다.

한성희는 자기가 간호를 잘못해서 장군님의 몸을 추세우지 못한다면 조선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극성스레 나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언제였던지 그가 자기의 머리태를 잘라 나의 신발바닥에 깔아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하나의 사실을 보고 한성희가 정 때문에 웃기도하고 울기도 하며 살마저도 서슴없이 떼주는 그런 형의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핏줄이란 역시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한성희의 일가는 모두가 동정심이 강하고 인간미가 풍부한 혁명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창섭은 이광, 김철, 김은식 등의 투사들과 함께 일찍부터 북하마탕 일대에서 항일혁명에 참가한 선각자의 한 사람

이었다. 대방자반일회조직을 책임지고 이광별동대의 군량미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는 1932년 봄에 일본군 ≪토벌대≫의 군도에 찔려 참사되었다. 언니 한옥선도 적들에게 화형을 당하였다. 오빠 한성우는 싸움터에서 전사하였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왕청에서 우리와 함께 적구활동을 많이 했고 후에는 북만의 항일연군부대에서 지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나의 전우 한흥권도 바로 한성희의 4촌 오빠이다. 한흥권이네 5형제는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열사들이였다.

한성희네 두 자매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두 딸이 다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매간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한성희는 입대 적격자가 못된다는데로부터 매번 수세에 몰리곤 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날 숙보면 안돼. 언니가 하는 일은 나도 다하지 않니. 키두 언니만치는 크단 말이야.≫

한성희가 이런 말로 맵짜게 공격을 들이대면 언니는 언니대로 여유작작하게 반공격을 가해오곤 하였다.

≪키는 커두 젖비린내야 어디 가겠니.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구 했다. 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동단생활이나 잘하여라.≫



유격대 입대

그 어느쪽도 상대방에게 참군의 영예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딸들이 이불밑에서 자신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화의 한 토막을 우연히 엿듣게 된 한성희의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다니던 단벌 무명치마를 뜯어 밤을 새워가며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배낭을 만들었다. 다음날에는 그 배낭들에 미숫가루를 듬뿍듬뿍 담아 넣었다. 그 두 배낭이 자기들이 지고 가게 될 행장이며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가 꾸려 줄 수 있는 지참품과 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한성희네 자매가 알게 된 것은 그 다음날의 일이었다.

그날 한성희의 어머니는 두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봉양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도 찾지 못한 주제에 효도가 다 무어냐. 너희들이 이 에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이 달음으로 유격대에 들어가거라!≫

≪어머니!≫

두 자매는 울음을 터치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들은 가슴을 치는 맹약과

눈물로써 어머니를 하직하였다. 1934년 봄에 우리는 한성희를 지휘부 직속 재봉대로 소환하였다.

그는 전도가 촉망되는 여대원이었다.

성격상 약점이 있다면 만사를 너무 태평스럽게 대하는 것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군인으로서는 놀랍다고 할 만치 양순하고 무경각하였다. 이 무경각성 때문에 한성희는 결국 적들에게 붙잡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본대로 찾아오라는 나의 지령을 받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던 그는 영안현 이도하자의 수림속에서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수십 명의 위만군 병사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 여대원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냇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우리가 무송지구에 진출하여 새 사단을 조직하고 있을 때 체포된 그는 나자구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수인들을 지키고 있던 보초들 중에는 한성희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동정한 양심적인 조선인 보초도 있었다. 그는 혁명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귀순 문서장에 도장을 찍고 매일매일을 치욕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였다. 교형리들이 한성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보초는 그 여자에게 탈출을 건의하였다. 자기도 총을 벗어던지겠으니 함께 도주하여 조선으로 나가든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이나 치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한성희는 그에 동의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적의 소굴을 감쪽같이 탈출하였다. 그 조선인 보초는 훗날 그의 남편이 되었다.

한성희가 적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다같이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어떤 여대원들은 너무 분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친동생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던 전우를 잃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성희의 금새를 잘 알고 있는 왕청시절의 투사들은 지금도 그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다.

한성희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경력을 두고 몹시 아쉬워해 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투사 어머니들처럼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빨치산대오에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한성희가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혁명이란 탄탄대로가 아니다. 출발신호만 울리면 누구나 쾌속으로 뛰어가 쉽사리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100미터 경기 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 앙양과 좌절의 부단한 교차와 반복속에서 승리를 향해 달리는 끝없는 행로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구한 행로에 무슨 곡절인들 없겠는가.

자식들이 부모들을 원망할 때마다 한성희는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력 가운데 오점이 좀 있다고 너희들까지 고민할 것은 없다. 조선노동당은 부모의 잘못을 갖고 자식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정치이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하지말고 그저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거라.≫

나는 한성희가 자식을 옳게 교양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당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한 성실하고 결백한 여성이었다.

한성희가 쑤어 준 그 잣죽과 사슴고기를 넣은 좁쌀죽의 덕으로 나는 사흘만에 병석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이효석중대장이 나에게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일고 있는 유격구의 실태를 상세히 통보해주었다.

그는 어느 현에서는 어떤 간부를 죽였고 어느 현에서는 어떤 지휘관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는가를 일일이 예증하였다. 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간도에서 현과 구의 지도간부들과 중대급 이상 유격부대지휘관들은 거의 다 숙청된 것으로 알아도 무방하였다. 조선사람치고서 글줄이나 쓰고 연설가락이나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 버렸다.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왕청에 떨궈두었던 우리 부대 장병들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만한 정수분자들은 다 잡아제꼈다. 미처 처형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서기요, 회장이요, 구위요 하는 자리에서 싹 쓸어버렸다.

≪민생단≫조작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지능화의 산물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내온 속심은 모략과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조선혁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자는데 있었다. 총칼정치를 해도 안되고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쓰고 ≪내선일체≫며 ≪동조동근≫을 부르짖어도 안되니 조선사람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혁명세력을 숙청 소멸함으로써 치안유지에서 당하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것이였다.

9.18사변 후 만주지방에서의 혁명정세의 급격한 발전에 커다란 우려를 느낀 사이또총독은 간도시찰반성원으로 동만지방에 파견된 박석윤과 연변자치촉진회의 거두 전성호, 연길주재 만주국군군사고문 박두영, 수급반공특무 김동한을 비롯한 친일적인 민족주의세력을 내세워 1932년 2월에 연길에서 ≪민생단≫을 조작하게 하였다.

≪민생단≫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으로서의 생존권확보≫라든가, ≪자유낙토건설≫이라든가,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 마치 조선사람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경륜인 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실제상에서는 조선민족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모해하여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조중인민 사이에 쐐기를 박아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제가 만들어낸 간첩모략단체였다.

≪민생단≫의 반동적 본질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생활의 산업화≫를 조선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활로≫라고 설교한 이 단체의 ≪조직 취지≫나 ≪강령≫과 같은 문건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적들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기간을 ≪생존권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절대적 시기≫로, 식민지통치질서의 기반밑에서 암흑의 세계로 변한 조선과 만주를 ≪자유≫와 ≪자율≫의 ≪대지≫로 묘사하는 한편 간도일대에 조선인에 의한 ≪자유의 낙토를 건설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만주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환영하며 간도일대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조중인민과 조중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선린관계와 혁명적 유대를 깨뜨려버리려고 획책하였다.

≪민생단≫이 철저한 반공 주구단체라는 것은 그 발기인이라는 사람들과 창립 후 단장, 부단장, 이사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경력만 보아도 쉽사리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발기인들로서는 그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온 경성갑자구락부 이사 조병상이나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윤, 연변자치촉진회의 전성호, 김동한 등은 다 애국애민을 부르짖는 민족주의자, 혁명가로 자처하였으나 예외없이 일제가 오래 전부터 손때를 묻혀 길들여온 반역아들이었다.

16살에 일본유학을 가는 것으로써 친일의 첫걸음을 뗀 박석윤은 도쿄제국대학 법과와 제국대학연구원, 영국케임브리지대학 등 일류급의 대학들에서 여유있는 수학생활을 하였다.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는 매해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3,000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해외유학 후의 그의 직함은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였다.

≪동아일보≫기자, ≪매일신보≫부사장, 일본외무성촉탁 만주국외교부참사관, 폴란드주재 만주국 총영사　등 귀국 후 그가 역임한 직무들과 훗날 쏘일중립조약

체결시 일본측 단장으로 그 조약문에 수표했던 외상 마쯔오까 요스께가 이끄는 일본대표단성원으로 1932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연맹총회에까지 참석한 현란한 경력은 그가 일본지배층으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로서의 박석윤의 체면을 세울 수 잇게 그로 하여금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비난하는 사설도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반대하여 총독과의 정면대결도 하게 하고 태평양전쟁 말기 여운형이 주관한 건국동맹에도 관여하게 하였지만 ≪민생단≫과 관련된 원한도 있어 간도지방이 조선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해방 직후 박대우란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양덕에 숨어살다가 적발되어 민족반역자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석윤은 재판정에서 일제통치하 조선사람의 ≪민족자치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었다는 것, 조선도 영국의 식민지들인 캐나다나 남아연방과 같은 정치발전의 코스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는 것, 바로 이런 정치이념으로부터 사이또총독과도 가깝게 지냈고 일본의 이름있는 세계제패론자이며 동아연맹의 정신적 고취자의 한 사람인 이시하라 간지도 숭배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또한 ≪민생단≫의 창립취지가 공산당과 유격대의 괴멸에 있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민생단≫의 초기 목적은 순수한 ≪생존권 확보≫에 있었다는 것과 이 조직이 일제의 지령을 받는 간첩주구단체로 전락된 것은 자기가 간도를 떠나간 후의 일이라는 것, 반 ≪민생단≫투쟁 과정의 혹심한 피해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 자기는 일본인들의 조종을 받는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였다는 것 등을 진술하였다.

박석윤의 고백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역사만이 판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실여부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일제의 충견이며 심복이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논거로써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단≫창출의 산파역을 논 박석윤이 일본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면 ≪민생단≫모략공작의 현지 하수인이었던 김동한은 러시아의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었다. 김동한이 인생은 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0월혁명 직후에 벌써 러시아에서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고려공산당 군사부 위원과 장교단장직을 역임하면서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1920년초에 연해주에서 일제에게 체포되자 인차 급전향을 하여 반공 일선에 선 친일특무가 되었다.


관동군사령부

김동한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관동군의 승인을 얻어 그 후신인 ≪간도협조회≫를 조작하였으며 200여 명의 반동들로 의용자위대라는 것까지 무어가지고 다니면서 혁명군 ≪토벌≫에 극성을 부렸다. 그는 자기를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이라고 착각할 만큼 일본인으로 철저히 동화된 자였으며 조선민족은 일본을 조국으로 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고창할 정도로 매국배족근성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수급역적이었다. ≪만선일보≫가 전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가 귀순시킨 공산주의자는 자그마치 3,8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김동한이 죽은 후 일제는 연길공원에 그의 동상과 ≪간도협조회≫의 현창기념비라는 것까지 세워 주었다.

일제의 ≪간도치안전략≫에 따르는 사상모략시책으로 ≪간도성 내의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4,000명을 체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사회적 기반을 붕괴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이른바 ≪≪민생단≫전략≫의 실상을 잠깐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민생단≫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간도 민생해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였지만 일제침략자들은 그 당시 그 단체에 민족주의적 허울을 씌우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일본사람들은 ≪민생단≫의 간판을 민생고의 해결이라는 구슬로 현란하게 장식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일본영사관의 뒷문으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인차 간파했다. 적들은 만인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민생단≫의 정체를 오래 숨겨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혁명적 출판물들과 구두강연을 통하여 그 정체를 제때에 발가놓는 한편 반≪민생단≫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이도록 하였다. 간판에 현혹되어 멋도 모르고 ≪민생단≫에 들었던 사람들이 조직을 인차 탈퇴하였으며 주구로 전락되어 암해공작에 나섰던 자들은 군중의 손에 의해 적발 처단되였다.

≪민생단≫은 창립 후 얼마 못되는 사이에 해체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우리 대내에 ≪민생단≫조직을 거의나 박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민생단≫이 없는 반≪민생단≫투쟁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며 ≪민생단≫아닌 사람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무리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수립된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3년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에 있었다.

사이또총독의 전면적인 지원과 용정 일본영사관의 적극적인 배후공작으로 빛을 보았던 ≪민생단≫은 1932년 4월 조선주둔군의 간도파병과 함께 신임총독 우가끼의 의사에 따라 해체되었으나 그것은 형태상으로 자취를 감춘 것에 불과했다. ≪민생단≫은 해산되었지만 그것을 부화시키기 위한 운동은 김동한, 박두영 등을 축으로 하여 비밀리에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1934년 봄에 연길헌병대장 가또 하꾸지로(패전 당시의 북중국 특별경비대사령관)와 독립수비보병 제 7대대장 다까모리 요시는 박두영을 비롯한 친일분자들과 함께 간도의 치안문제를 다시금 협의하면서 ≪민생단≫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으로 ≪민생단≫모략공작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생단≫조작이 만주성위 산하의 동만특위를 상대로 하는 사상모략 시책임을 명백히 하고 활동의 기본골자를 첫째로 ≪조선인 유격대에 대한 강력한 자체 붕괴분단 시책≫, 둘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양도차단 시책≫, 셋째로 ≪조선인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항 귀순 권고≫, 넷째로 ≪투항귀순자에 대한 보호, 정주감시 시책≫, 다섯째로 ≪투항 귀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업알선≫에 두었으며 연길헌병대가 모략활동 전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민생단≫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생기게 될 ≪귀순투항자들을 일괄처리하며 귀순자의 배후관계, 위장귀순유무 확인,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 ≪간도협조회≫를 만들어냈으며 여기에 ≪민생단≫을 통합하였다.

김동한을 우두머리로 하는 ≪간도협조회≫는 동만특위의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일본의 음험한 모략가들이 공산당과 항일유격대를 상대로 한 사상모략 공작의 기본바탕으로 삼은 정치적 요점은 동만항일유격대의 조직구성과 지휘체계에서의 특수성이였다. 그들은 인민혁명군이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무장력이라는 점을 하나의 본질적인 약점으로 간주하였다. 일제의 모략가들은 제나름으로 중국인간부들은 조선인당원들을 신용하지 않고 부단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당원들과 대립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 특수성을 이용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조선사람이 만주에서 피를 흘리

는 것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기를 쓰고 싸우는가, 왜 역량상 우세한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에게 메여 무의미한 싸움에서 피를 흘리는가, 빨리 각성하라, 투항귀순의 길은 열려 있다, 이러한 사상을 열심히 주입시키는 것을 ≪민생단≫사상모략 공작의 주요한 선전요령으로 삼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특무들과 주구들을 발동시켜 유격구들에 ≪민생단≫원들이 수없이 침투된 것처럼 소문을 내돌리면서 견실한 간부들과 혁명가들을 모해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원시하게 했다. 적들 자신도 ≪간도 공산당파괴경험≫이라는 비밀문건에서 처음에 ≪민생단≫을 10명씩 조직하여 유격대 안에 들여 보냈으나 다 붙잡혀 죽게 되어 더는 침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사람과 중국사람, 노동자와 농민, 상부와 하부간에 상호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간시키는 전술을 써서 공산주의자들끼리 싸우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혁명대열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교란작전에서 일본의 모략가들이 발휘한 솜씨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였다. 그 술책 가운데는 이런 수법도 있었다. 가령 동만특위에서 어떤 간부가 지방에 순시를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가는 길에다 이전에 지도사업차로 그 지방을 왕래하던 현급간부나 구급 간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특위 순시원이 그 편지의 수신인들을 어떤 인간들로 보겠는가.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의 길을 걷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만주성위나 동만특위, 각급 현당과 구당 조직의 책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형형색색의 일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야망에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대열 안에서 지도적 지위를 독차지하고 상승일로의 길로 전진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을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종속시키려고 하였다면 파벌근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지와 묵인속에서 종파적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오로부터 사정없이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확대하는데 이 투쟁을 악용하려고 하였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석을 가로타고 앉을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민생단≫이였다. 너는 ≪민생단≫이니 자리를 내놓아야겠다거나 죽어야겠다고 선언하면 다였다. 이런 판결에는 상소가 있을 수 없었으며 또 상소를 했대야 통하지도 않았다.

일제가 유포시킨 ≪민생단≫침투설은 당과 대중단체, 군대의 모든 책임적 자리를 좌파일색을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패권주의적이며 출세주의적인 욕구에 불을 붙여주는 인화물질과 같은 것이였으며 그들이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올리는 천정부지의 ≪숙반≫실적은 유격구의 혁명역량을 모조리 교살해 치우려는 모략가들에게 끝없는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은 적아가 합세하여 유격구를 마구 짓뭉개놓은 셈이다. 이런 기괴한 결탁은 세계의 어느 혁명전쟁사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반≪민생단≫투쟁이 이처럼 파쑈국가의 군법이나 중세기의 종교형벌조차 무색케 할 정도로 황당하고 가혹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일제의 간악한 모략과 그에 속아넘어간 동만특위의 일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암둔성과 그들이 추구한 목적의 비열성에 기인한 것이였다.

그 당시 그들이 ≪민생단≫이라고 보는 표징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형태별로 분류해놓으면 실로 수백 가지나 되었다.

유격대의 식사를 보장해 주는 작식대원이 밥을 설군 것도 ≪민생단≫으로 몰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밥에 돌이 섞이거나 물에 밥을 말아먹어도 그것은 곧 ≪유

격구의 인민들을 병들게 한 증거≫로 되고 ≪≪민생단≫의 작용≫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는 조건으로 되었다.

설사를 하면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민생단≫, 한숨을 쉬면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고 ≪민생단≫, 오발을 하면 적들에게 유격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민생단≫,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 민족주의를 고취한다고 ≪민생단≫, 일을 잘하면 정체를 숨기려는 수작이라고 ≪민생단≫,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민생단≫으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고도라는 별명을 가진 화룡현의 반제동맹위원회 책임자는 재인강에 나가서 정치공작을 하다가 자위단원들에게 체포되어 30여 명의 애국자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자위단원들은 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한사람한사람씩 목을 쳐서 죽였다. 고도도 물론 그런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도의 목은 땅에 굴러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목의 살과 가죽이 훌렁 벗겨져서 등에 가 붙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 이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치명상이었다. 고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이에 적들은 사형장을 떠나가 버렸다. 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형장에서 가까스로 일어난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면서 등에 가 붙은 살가죽을 목에 끌어다 붙이고 옷을 찢어 동여맨 다음 60여 리의 험산준령을 배밀이로 기고 굴러서 마침내 어랑촌유격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고도의 상처가 완치되기도 전에 좌경분자들은 그를 군중심판장으로 끌어냈다. 그가 적의 주구로서 혁명대열 내에 깊숙이 잠복하려고 일부러 목에 상처를 내가지고 유격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좌경분자들은 고도의 ≪죄행≫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나 심판장에 끌려나온 군중들은 그들의 판결을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 심판의 조직자들은 고도를 살려두고 일정한 기간 검열을 통해 그의 정체를 밝힌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뒤에 돌아가서 그를 암살해 버렸다.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의 수렁창으로 끌고가는데서는 이처럼 화룡현이 제일 과도하고 혹심하였다. 그것은 이 지방에서 당조직의 지도적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농락했기 때문이었다.

≪숙반≫의 화살은 혁명실천에서 모범적이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 아첨과 굴종을 모르고 불의와의 타협을 모르는 견실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조선인 간부들 주에서 반≪민생단≫투쟁을 제일 극좌적으로 벌인 인물은 김성도였다. 동만특위가 왕청에 자리잡고 있을 때 거기서 김성도는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처를 끼고 다니면서 특위, 현위의 간부들과 함께 술놀이와 화투놀이를 자주 하였다. 아내가 신여성 행세를 하며 살림살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의 집안일은 다 아동단원들이 도맡아해 주다시피 하였다. 김성도는 아편 꽃이 곱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동원시켜 아편을 심게 하고 그 진을 받아 자기한테 바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줄곧 ≪청렴정치≫를 염불처럼 뇌였다.

이처럼 뒷생활이 게겁지레한 김성도가 진실한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걸어제낀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심지어 그는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에 들었다는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정치공작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용정 동흥촌아지트 책임자 김근수도 좌경분자들이 마수에 걸려들어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민생단≫이 아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나의 두 발목을 자르더라도 목숨만 살려 달라. 두 다리를 자르면 도망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두 다리만 자른다면 손으로 노전을 걸어서라도 혁명에 이바지하겠다. 혁명을

더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이것은 사형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였다.

그러나 ≪숙반≫지도부는 도리어 ≪저걸 보라. 저놈이 죽으면서도 ≪민생단≫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끝내 그를 몽둥이로 쳐죽였다.

≪숙반≫의 철퇴는 당조직과 대중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유격대의 머리위에까지 떨어졌다.

≪호미긁개≫라는 토색적인 별명을 가지고 유격대에서 모범전투원으로 활동하던 양태옥도 ≪민생단≫모자를 쓰고 군중심판을 받았다.

≪죄명≫은 고의로 총의 격발기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였다.

양태옥에게 ≪호미긁개≫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자기네 조직책임자와 함께 삼포동 음식점에 내려가 집사대원들한테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부터였다. 그 때 두 놈의 집사대원은 음식점 안에 들어가 아편을 피웠고 한 놈은 문전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양태옥은 앞치락뒤치락하며 그 보초와 격투를 하였다. 그런데 힘으로써는 그놈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양태옥은 허리에 차고 간 호미로 집사대원의 면상을 긁어놓았다. 집사대원이 얼굴을 싸쥐고 너부저린 사이에 총을 걷어 메고 삼포동 산등으로 숨이 가쁘게 치달아 올랐다. 그는 비탈으로 톺아 오르면서도 총을 쏘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슬그러미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이상하게도 그가 기대하는 ≪꽝≫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태옥은 호미로 격발기를 쳐서 안전장치를 떨구었다. 하지만 호미등에 얻어맞은 격발기의 상처로 하여 그는 훗날 유격대에서 제거되어 적구로 추방당할 운명을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좌경분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민생단≫벙거지를 씌우고 극형에 처했거나 유격구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미긁개≫와 같이 목숨을 아낄 줄 모르는 용감하고 쟁쟁한 투사들이였다. 이런 투사들이 ≪민생단≫노릇을 하려고 가짜 권총이나 호미를 가지고 백주에 무장경관들의 수중에서 총을 탈취해 내는 그런 모험을 했겠는가. 그래 심판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인간들에게는 그런 열혈투사들이 ≪민생단≫이라는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반혁명에 가담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판별한 만한 지능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판단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혁명에 참가한 사람치고 그런 정도의 판단력조차 못 가진 천치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안도투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창즈에서만도 수백 명의 조선사람들이 ≪민생단≫바람으로 학살되었다고 한다.

동만당과의 연계가 깊었고 간도의 실정에 무척 밝은 주보중도 자기의 회상록에 ≪민생단≫에 걸려 죽은 사람의 수가 2,000명이나 된다고 증언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들은 ≪숙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로서는 감히 자행할 수 없는 악착스러운 방법으로 당조직과 대중단체 성원은 물론, 아동단 열성자에 이르는 모든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

≪숙반≫운동의 앞장에 섰던 김성도, 송일, 김권일 자신들도 나중에는 ≪민생단≫이라는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당하였다.

송일과 김권일은 다 좋은 사람들이였나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상급에 맹종맹동하다나니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였다. 나는 그들이 사형장에서 우리의 만세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 두 사람은 나와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자주 하였다. 그들이 사형장에서나마 이성으로 돌아와 냉철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박현숙이라면 왕청치고도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일류급의 신여성이였다. 눈이

별같이 반짝반짝한다고 하여 소왕청사람들은 그를 ≪샛별눈≫이라고 불렀다. 예능에 조예가 깊은 그는 왕청에서 한동안 아동국장으로 사업하였다. 나이는 그닥 많지 않았지만 지하공작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여자였다. 그이 시아버지 최창원(최노톨)은 현반제동맹 책임자였다.

박현숙이 아직 최형준과 결혼을 하지 않을 때 그이 지도를 받고 있던 무단천이 아동단원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통신연락을 부지런히 하였다. 박현숙이 돈을 주면 아동단원들은 상점으로 돌아다니며 유격대에 보낼 물품들을 구입하였다. 이 물품들은 ≪샛별눈≫의 손을 거쳐 비밀유격대와 별동대의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투사들에게로 전달되었다.

박현숙의 일거일동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던 적들은 그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그날 ≪샛별눈≫은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어떤 동료의 집에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집에까지 따라와서 박현숙을 내놓으라고 행패질을 하였다. 자기 때문에 집주인이 봉변을 당하게 되자 천장에 숨어 있던 박현숙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경관들앞에 버젓이 나타났다. 그는 감옥에 끌려가 살점이 뭉청뭉청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떡함지에 혁명가요를 써서 내보내 주는 식으로 오히려 감옥 밖의 인민들과 동지들을 고무해 주었다. 그 후 경찰은 그를 석방하였다.

박현숙이 최형준과 결혼잔치를 하는 날에는 공산당 여자가 시집을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하면서 백초구경찰들이 무슨 낌새라도 맡으려고 3명이나 끼어들어 술을 얻어마시고 신부에게 노래까지 청하였다. ≪샛별눈≫은 그 요청을 받고 혁명가요를 냅다 불렀다. 취중에 신부의 노래를 들은 경찰들은 그것이 혁명을 선동하는 노래인줄도 모르고 공산당 여자가 대단한 명창이라고 하면서 재청까지 요구하였다.

박현숙의 남편 최형준도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가정생활도 하고 투쟁도 잘하였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총을 맞아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지방공작에서 종전과 같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타고 다닐 말이 있는가. 자동차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는 몸으로 절름거리면서 먼길을 왔다갔다 하다나니 남보다 일을 축내지 못할 것은 뻔하였다. 그런데 ≪숙반≫지도부는 그에게 ≪소극분자≫라는 간판을 붙이고 ≪민생단≫으로 걸어 학대하고 감시하였다. 박현숙도 ≪민생단≫의 아내라는 이유로 지도간부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런 때에 그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샛별눈≫을 타일렀다. ≪민생단≫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때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최형준은 처음부터 지하공작을 잘하던 사람이고 유격구에 들어와서도 투쟁을 잘하던 동무가 아닌가, 그는 이론수준도 있는 혁명가이다.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하는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 후 우리는 박현숙을 쏘련으로 들여보냈다. ≪샛별눈≫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반≪민생단≫열파로 초목마저 떨던 왕청시절을 어떤 심정으로 회상하겠는지 모르겠다.

유격구의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동요하였다. 혁명이라는 것이 그저 그렇더라, 걸핏하면 저희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저 그 모양이더라, 조선사람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간도땅에서 농토도 개척하고 혁명도 개척했는데 그 선구자들을 다 잡아죽이고 쥐내깔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심보인가, 이거야 영도권을 잡기 위한 숙청이 나이고 무엇인가, 권력을 위해서 지난날의 의리나 인연마저 다 저버리고 자기편을 서슴없이 학살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이따위 혁명은 해서 뭘 해, 이런 도깨비놀음을 할 바엔 차라리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든가 하다못해 산중에 들어가 중이 되어 목탁이라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게 낫지 않겠는가고 사람들은 쓴입을 다시며 생각하였다. 반≪민생

단≫투쟁의 미친 바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인생관과 혁명관에 녹이 쓸게 하였다.

무의식 군중들은 자연히 혁명을 버리고 적구나 무인지경으로 도주하게 되였다. 혁명을 하려고 왔다가 혁명한테서 구박을 당하고 허공중에 뜬 신세가 되였으니 그들이 깃을 붙이고 살아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혁명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혁명이며 죽어도 정의를 위해 한 몸을 아낌없이 바치다가 싸움터에서 값있게 죽어 영생을 얻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데 영생이 다 무엇인가. 혁명가들은 어젯날까지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도살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그러기에 해방 후 나는 반≪민생단≫투쟁 때문에 적구로 내려가서 ≪귀순≫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혁명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들한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격구를 결별한 것이 어떻게 죄로 될 수 있겠는가.

무지한 살륙으로 하여 왕청의 강물과 고등하의 물이 선혈로 걸어지고 간도의 어느 골짜기에서나 통곡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충항도 간도땅을 결별하였다. 나는 가겠다, 여기서 이 이상 더는 피비린내를 맡으며 살지 못하겠다, 공산당이 정치를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동만당지도부가 공산당을 망신시킨다고 하면서 북만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엄중성을 간파하고 진상을 더 구체적으로 요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당시 요영구인민들은 적들의 ≪토벌≫이 심하였기 때문에 수림속에 들어가 토굴집을 짓고 살았고 혁명군은 유격구어귀에 병실을 짓고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보호하였다. 유격대병실에서 마을까지는 15리쯤 가야 했다.

내가 전령병들을 데리고 마을에 올라가 노인들과 담화를 하고 있을 때 홍혜성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노인들과의 담화를 끝내자 그를 만나보았다.

≪지휘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합니다. 이거야 어디 억울해서 견디겠습니까. 왕청땅에 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이 마음고생만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간도 땅에서 이런 성화를 받으면서 혁명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 나가서 지하투쟁이나 합시다. 여기서처럼 유격근거지 같은 것은 창설하지 못해도 지하투쟁같은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작비는 약방을 운영하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장해 드리겠으니 조선으로 나갑시다.≫

홍혜성은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사래질로 그에게 음성을 낮추라고 신호하였다.

≪혜성동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소리를 탕탕 하오.≫

≪장군님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그런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소.≫

나는 홍혜성의 고백을 듣고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홍혜성이 마저 유격구를 떠나려고 결심하였다면 이 왕청땅에 남아서 혁명을 계속할 인물은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하는 암담한 생각조차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격구를 열렬히 사랑해

온 처녀였다. 유격구도 그에게 큰 애정을 부어 주었다. 그는 대담한 지하공작원인 동시에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아동들의 스승이었으며 면허증은 없으나 진단을 잘 내리고 치료를 잘하는 비전임 의사이기도 하였다.

동만당 지도부와 왕청현당의 간부들 가운데는 그의 치료를 받고 3년 묵은 옴병을 뗀 사람도 있었다. 옴을 뗀 사람들은 누구나 홍혜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간부들도 그를 재간둥이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은 자기야말로 유격구에 필요한 존재이며 더욱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더욱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가 돌변하여 나에게 탈출을 호소한 것이다. 처녀는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민생단≫으로 처형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믿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한 것은 고마운 일이였다. 유격구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처럼 열정에 넘치고 투쟁욕으로 충만했던 홍혜성이 탈출까지 결심하였겠는가. 동지들이 주검으로 뒤덮인 이 간도 땅은 그에게 있어서 이전날 그렇게도 순정을 바쳐 사랑하던 별천지도, 보금자리도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혜성동무, 그래서는 안되오. 나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혁명이 망하는가, 흥하는가 하는 이 대목에 와서 고난을 참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소. 고통스럽고 진절머리가 나더라도 여기서 ≪민생단≫문제를 수습하고 투쟁을 계속해야 하오. 이것만이 혁명가가 갈 길이고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오.≫

내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자 홍혜성은 눈물을 씻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도 막막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 용서하십시오.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북만에 가신 장군님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민생단≫감옥에서도 대장동지를 찾았습니다. **김**대장이 언제 돌아오는가, **김**대장한테서 소식이 없는가, **김**대장한테 동만이 소식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가고 하면서 대장동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북만원정대가 다 죽었다는 소문만 자꾸 나지 않겠습니까. 일본놈들도 그렇게 신문에 내구요.≫

홍혜성은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얹었다.

나는 그이 눈굽에 맺히는 핏방울 같은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자책을 느꼈다.

홍혜성의 말은 나로 하여금 조선의 혁명가로서 자기에게 지워진 책임을 두고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혁명이 이 모양, 이 꼴대로 타살되고 마는가, 아니면 부활하여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엄숙한 시점에서 만일 수천수만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숙반≫의 무분별한 살인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조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동만당 지도부에 제기하였다. 만주성위의 순시원도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회의소집을 발기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한 장의 통신문건을 받았다. 그것은 다홍왜에서 동만지방 군정간부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서였다.

출발을 앞두고 나는 작식대병실을 찾았다. 몇 달째 ≪민생단≫혐의를 받고 울적해 한다는 홍인숙어머니를 만나 북만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옷감을 선물하려는 것이였다. ≪민생단≫ 혐의자에게 선물을 주면 대장도 ≪숙반≫지휘부사람들에게 걸려들 수 있다고 전우들이 경고하였으나 나는 그 경로를 무시하였다. 인도주의가 죄로 될 수 있다니 그게 될 말인가.

2. 다홍왜에서의 논쟁


다홍왜회의 장소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동만당 지도부 인물들 사이의 논쟁이 다홍왜회의에서 비로소 시작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고찰이라고 볼수 없다. 그 논쟁의 시초는 1932년 10월에 있었다. 북만진출을 개시한 우리 부대가 왕청지방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때였다.

나는 그때 왕청 체류 일정의 첫 순서로 1구(요영구)당 사업을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에 현당과 구당의 일부 일군들이 반≪민생단≫투쟁을 혁명적 원칙과 배치되게 극좌적인 방법으로 망탕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어느날 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과 함께 마을을 돌아보던 나는 구당 사무실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저건 무슨 소립니까?≫

이웅걸은 웬일인지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현당 사람들이 이종진이란 사람을 잡아놓고 문초를 하는 소립니다.≫

≪왜요? ≪민생단≫혐의자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본인은 사흘째 아니라고 뻗대는데 간부들은 자꾸 죄상을 내놓으라고 달구치지요. 저 소리만 들으면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쳐 버립시다.≫

≪그를 ≪민생단≫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구공작을 나갔다가 며칠 늦어서 유격구로 돌아온 게 문제가 되었지요.≫

≪아니, 그런 것도 이유로 된단 말이오?≫

≪대장 동무, 말을 삼가하시우. 여기서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민생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민생단≫바람에 살기가 여간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웅걸의 만류를 물리치고 구당 사무실로 향하였다.

현당에서 온 사람은 1구의 적위대원들과 함께 그냥 이종진을 무섭게 문초하고 있었다. 현당의 간부는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손님에게 왕청사람들이 계급투쟁을 얼마나 본때 있게 하는 한번 구경하라고나 하는 듯이 기광을 부리며 이종진을 두드려 팼다.

이종진은 중국인 지주집에서 10년 이상이나 머슴살이를 해온 고농이었다. 적의 ≪토벌≫에 아내를 잃고 어린 두 자식은 혁명을 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주었다. 유격구에 들어와서는 1구 소속의 지부 당서기로 공작하였는데 군중들의 신망이 높았다. 이런 사람이 이적단체에 가담하여 반혁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 공작 날짜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사업상의 불찰을 ≪민생단≫근거로 삼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나는 심문을 중단시키고 현당과 구당의 간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었다.

≪동무들, 내가 요해한 데 의하면 이종진동무는 ≪민생단≫으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 똑똑한 근거도 없이 자그마한 공작상 오류를 가지고 아무 사람한테나 망탕 몽둥이질을 해서는 안된다. 반≪민생단≫투쟁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심중하게 해야 한다.≫

심문은 일단 중지되였으나 현당 사람들은 내가 요영구를 떠나 마촌으로 간 다음 이종진을 끝내 학살하였다.

그 대신 안도에서 온 **김일성**대장이 요영구 구당 사무실에 나타나 현당에서 내려간 모모한 간부들의 ≪민생단≫ 심문을 정지시키고 그들을 탄핵했다는 소문이 왕청현당과 동만특위 간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 소문은 왕청지경을 넘어 연길, 화룡, 훈춘 지방에도 퍼져갔다. ≪그 사람이 무슨 화를 입으려구 그런 참견을 했을까, 물불을 모르는구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왕청맛을 잘 몰라서 그래. **김**대장이야 안도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담은 큰 사람이야.≫하고 조심스럽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요영구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

내가 1구당 사무실에서 보여준 언행은 사실상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쟁의 발단으로 되었다.

이 논쟁은 1933년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었다. 1933년은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민생단≫과 관련된 숙청사업이 제일 소란스럽게 벌어지던 때였다. ≪민생단≫혐의를 뒤집어쓴 조선족 출신의 적지 않은 군정간부들과 혁명가들이 바로 이 해에 주거나 도주하였다.

나도 역시 ≪민생단≫올가미에 걸려들 뻔하였다. ≪숙반≫사업을 극좌의 흔들레판으로 끌고가던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를 ≪민생단≫과 연관시키려고 검질기게 애를 썼다.

그들이 내두르는 ≪증거≫라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였다. 그 ≪증거≫ 가운데는 도문지주납치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 당시 유수하자지방에 상주하고 있던 100여 명의 반일부대들은 군복을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방조를 요청해 왔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구국군이 경제모연공작에 써먹으려고 잡았다가 놓친 지주를 데려가다 잘 설복하여 그의 도움으로 500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군복 천과면화를 해결하였는데 이것을 도문지주납치사건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때 그 천과 솜으로 왕청지방반일부대장병들에게 옷을 다해 입혔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엄동설한에 군복조차 해 입히지 못하면 반일부대장병들이 적들에게 귀순하거나 투항해갈 우려가 많았다. 구국군과 같은 우군의 협력이 없이 혁명군의 힘만으로 고군독전해서는 유격구를 유지해 나가기가 곤란하였다.

이용국의 후임으로 왕청현당서기의 자리에 등용된 김권일은 동만특위의 몇몇 간부들과 함께 유격대가 지주를 이용하여 구국군의 동기 군복을 해결한 것은 우경투항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군대를 맡고 있는 **김일성**은 ≪민생단≫의 작용을 방임하고 조장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내 이름까지 걸고들며 그 무슨 책임을 운운한 것은 사실 동만땅에서 발언권이 있는 조선족 출신 간부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제거해 버리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그들은 지어 **김일성**이 반≪민생단≫투쟁을 잘 안하기 때문에 왕청유격대 안에 ≪민생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나를 ≪숙반≫의 심판대 위에 올려 세우려고 애썼다.

이렇게 되어 나와 그들 사이에 정면충돌이 생겼다.

나는 지주를 통하여 구국군의 옷을 해결한 것이 우경으로 될 수 없고 더구나 ≪민생단≫의 작용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다음 반≪민생단≫투쟁에 대한 나의 견해도 서슴지 않고 공개하였다.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이 곧 간첩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는 것만큼 그것은 누구든지 외면할 권리가 없다. 나도 우리 내부에 ≪민생단≫이 침습하는 것을 바

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민생단≫을 숙청한다고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생사람을 잡는데 대해서는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죄도 없는 자기편 사람들을 망탕 잡아죽이는 것이야말로 혁명을 파괴하는 이적행위인데 우리가 어찌 그런 행위를 보면서도 함구무언할 수 있겠는가. 보라, 당신들이 ≪민생단≫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격구에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쟁쟁한 싸움꾼들이 아닌가. 그런 싸움꾼들이 무엇 때문에 혁명을 반대하는 ≪민생단≫이 되겠는가. 당신들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좌경분자들은 내 말을 듣자 노발대발하면서 ≪동무는 그럼 반≪민생단≫투쟁노선을 반대하는가?≫고 큰소리로 따지고 들었다.


장룡산

≪혁명에 충실한 자기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신들이 추구하는 반≪민생단≫투쟁노선이라면 나는 그런 노선을 지지할 수 없다. ≪민생단≫을 잡아내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똑똑히 잡아낼 것이지 하필 왜 이 산속에서 배를 곯으며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껴 버리는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나의 논박이었다.

내가 날을 세워 가지고 문제를 첨예하게 끌고가자 동만특위의 좌경분자들은 ≪**김일성**이 ≪민생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부족하면 좋다.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수감자들의 진술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당신들도 입회하라.≫고 하였다.

이수구골 안의 ≪민생단≫감옥에 갇혀 있던 수감자들 중에는 장포리(본명 장룡산)라고 부르는 중대장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왕청지방의 명포수였다.

장룡산은 아버지를 따라 사냥터에 자주 다니면서 총 쏘는 솜씨를 익혔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단꺼번에 8마리의 노루를 잡아다가 수제비국을 해먹을 정도로 사격술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가 소왕청방위전에서 혼자 쏘아잡은 적만 해도 아마 100명은 넘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온 지휘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런 인물이 하루아침 사이에 ≪민생단≫ 벙거지를 쓰고 짐승우리나 다름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그것을 보는 내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장포리, 똑똑히 대답해 보라. 너 정말 ≪민생단≫인가?≫

나는 ≪민생단≫ 감옥에 가자 장룡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장룡산은 별로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민생단≫입니다.≫하고 얼른 시인해 버렸다.

≪그럼 ≪민생단≫ 노릇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왜놈 새끼들은 수태 쏴죽였는가?≫

장룡산의 진술을 들어보려고 감옥까지 따라온 좌경분자들은 모두 댕댕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흥분를 가라앉히고 장룡산을 조리 있게 타일렀다.

≪이것 보라. 장포리, ≪민생단≫이라는 것야 일본놈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또 일본놈들이 만들어낸 반동조직인데 네가 ≪민생단≫이라면 그놈들을 100여명 이상이나 쏘아 잡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 바른대로 해야 할 게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 보라.≫

장룡산은 그제서야 내 손을 붙들고 오열을 터뜨리면서 목이 꺽꺽 메이는 하소연을 하였다.

≪대장 동무, 나야 무슨 까닭으로 ≪민생단≫이 되겠소. 아니라고 대답해도 들어

주지 않고 자꾸 두드려 패니 다른 수가 없이 ≪민생단≫이라구 했소. 대장 얼굴에 먹칠을 해서 죄송스럽소.≫

≪내 얼굴에 흙칠을 하건 먹칠을 하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주리를 트는 폭군들앞에서는 ≪민생단≫이라고 대답하고 내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줏대 없는 인간이라는데 있다. 나에게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겁쟁이가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노기등등해서 ≪감옥≫문을 나섰던지 좌경분자들은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였다.

그날 나는 동장영을 만나서 한바탕 항의를 들이댔다.

≪내 보기에는 당신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 반≪민생단≫투쟁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함부로 잡아 가둘 수 있는가? 반≪민생단≫투쟁은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한다. 상층에 있는 몇몇 권력자들의 독단이 아니라 대중의 토의를 거쳐 적아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고문과 위협의 방법으로 없는 ≪민생단≫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왕청에서 장포리를 ≪민생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다. 장포리는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하니 당장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좌경분자들에게 유격대 안에 있는 ≪민생단≫은 정치부의 승인이 없이 마음대로 다치지 못한다고 선포한 다음 부대에 돌아와 장룡산을 ≪숙반≫지휘부에 제멋대로 넘겨준 지휘관을 처벌하였다.

그날 동만특위에서는 나의 요구대로 장룡산을 석방하였다.

장포리는 그 후 영안현 주지툰이라는 곳에 파견되어 식량공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싸웠다.

세상에 널리 소개된 박창길사건도 하나의 시련이라면 시련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허라는 곳에 주둔해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우리는 도문 부근에서부터 끌고 온 민회소를 잡아 군인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먹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고기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설사에 걸려 고생하였다.

전우들은 내 숙소에 우르르 쓸어와서 ≪민생단≫이 우물에 다 독약을 쳐서 전부 중독되었는데 무리죽음이 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는 전멸될 수 있었다.

나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중대를 전부 뒷산에 데리고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적의 내습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여도 내 자신은 전혀 배가 아파나지 않는 것이었다. 응당 있게 되리라고 예측했던 적의 출동도 없었다.

나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공청서기, 청년간사를 비롯한 중대의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두 불러다놓고 동무들도 ≪민생단≫이 정말로 우물에 독약을 쳤다고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지휘관들은 깊이 생각해보지고 않고 일제히 ≪예, 그런 것 같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나는 소고기국을 어제 저녁에도 먹고 오늘 새벽에도 먹었는데 배가 아프지 않소.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내 배나 중대장의 배도 아프겠는데 아프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소?≫

≪지휘관들이 먹는 국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대장이 하는 말이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소. 한 가마국을 먹은 이상 지휘관들의 것이라고 해서 약독이 미치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얼마 후 마을을 순찰하던 소대장이 우물에 독약을 친 ≪민생단≫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키가 장총 기장만큼 되는 아이를 나한테로 데려왔다. 그 아이가 바로 문제의 박창길이였다. 소대장이 하는 말이 그가 마을사람들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것이였다.

동네에서는 범인들 잡아냈다고 술렁술렁 끓었다. 그놈이 몹쓸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창길의 어머니를 때려죽일 여자라고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창길이는 중국인 지주네 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며 고생스럽게 자라난 애였다. 그의 형들 가운데는 유격대에서 중대 후방책임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아이가 유격대의 한 개 중대 역량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해독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나는 창길이와 몇 시간 동안 담화를 하였다. 창길이는 내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울면서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가 처음에 마을사람들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 것은 자기에게 독약을 쳤다는 험턱을 억지로 들씌우는 마을아낙네들에 대한 반발이였다.

우리는 중대를 데리고 지체없이 산에서 내려와 군중대회를 열고 박창길의 무죄를 선포하였다.

≪이 애는 약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약을 쳤는가? 여러 분들 가운데는 약을 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약을 먹은 사람도 없다. 있다면 설사를 만나서 하루이틀 고생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배앓이를 한 것은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몰아주던 창길이를 유격대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선포한다.≫

마을아낙네들은 나의 연설을 듣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박창길이를 ≪민생단≫으로 몰아주던 여자들까지도 다 흐느껴 울었다.

좌경분자들은 박창길사건도 역시 우경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문제시하였다.

박창길은 그 후 유격대에 입대하여 소왕청방위전투에서 영용하게 싸웠다.

이처럼 나는 좌경분자들의 포위속에서 몇 가지의 큰 모험을 하였다. ≪민생단≫감옥에서 장포리와 양성룡을 빼내온 것이 하나의 모험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모험은 박창길의 무죄를 선포하고 그를 유격대에 받아들인 것이였다.

권력에 환장한 천박하고 암둔한 인간들이 색안경 너머로 만사람의 진가를 가늠해보며 검사나 판사나 형리의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동지를 동지로 대하며 인민을 인민으로 섬기는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였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했던 투쟁이였다.

만사를 ≪민생단≫의 작간으로 보는 불신의 감시경밀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최대의 보신책은 사실 아무 일에도 참견하지 않으며 보고서도 못 본 척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른 것을 보고서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죽은목숨과 같고 구태여 살 필요조차 없는 생명 없는 생명이라는 제나름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라고 보는 모든 것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한다면 그것이 무슨 혁명가이겠는가. 나는 ≪숙반≫의 회오리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한 몸을 내대고 투쟁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밀어제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민생단≫ 아닌 ≪민생단≫을 숙청하는데서 권력의 진미를 느낀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심지어 동만유격구 내에 꾸려진 당과 유격대의 조직체계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만당의 ≪민생단≫체계와 인민혁명군의 ≪민생단≫체계라는 것까지 고안해내고 그것을 공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좌경분자들은 우리에게 유격대 내에도 ≪민생단≫이 많이 침투되였다는 인상을 주고 반≪민생단≫투쟁에서 더는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나와 내 수하의 대원들 사이에도 쐐기를 박으려고 획책하였다.

어느 날 모 간부가 우리 부대를 찾아와 동만당조직부장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 주었다. 편지를 뜯어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서 입수한 자료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조직부장은 한봉선이라는 대원이 ≪민생단≫을 크게 해 가지고 나까지 죽이려 하였는데 죄상으로 보아 마땅히 체포하여야 할 대상이니 당장 잡아내야겠다고 하였다.

한봉선의 ≪죄상≫은 엄청난 것이였으나 편지를 읽어보니 어째서인지 거기에 씌어진 사연들에 믿음이 잘 가지 않았다. 우선 그가 ≪민생단≫책동을 크게 벌인다는 사실이 몹시 허황해 보였다. 지금껏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을 잘해온 한봉선이 무슨 망녕이 들어 ≪민생단≫에 가담한단 말인가.

인격상으로 보더라도 그는 자기 상관을 모함하거나 살해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할 수 있는 포악한 성격의 사나이가 아니였다. 오히려 남들이 시샘을 하리만치 선량하고 예절이 밝은 미남자였다. 평상시 나와의 친분도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준 상관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편지에 씌어진 사연들을 무턱대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조직부장이 아무려면 나에게 거짓말을 꾸며내겠는가. 내 심중은 이래저래 불쾌해졌다.

나는 편지를 가지고 온 간부에게 내가 직접 더 검열해보고 처리할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언제 일이 날지 모를 판인데…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군.≫하고 그 간부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내 곁을 떠나가 버렸다.

내 머리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한봉선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자고 할까? 나를 해칠 건덕지가 없지 않는가. 그를 특위에 보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를 둬두었다가 정말로 후환이 생기면 야단이 아닌가.

며칠 후 나는 한봉선을 지휘부로 불렀다.

한봉선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대장동지,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혹시 적구공작에 내보내자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맞혔소. 오늘 당장 삼차구에 가서 밀정 한 놈을 붙잡아와야겠소. 동문 참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구만.≫

≪후각이고 뭐고가 있습니까. 지난밤 꿈에 도문구경을 좀 했는데 우리 중대 친구들이 해몽하기를 적구공작에 나갈 징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해몽을 멋있게 해낸 셈이지요.≫

≪그럼 내가 호신용 권총을 한 자루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떠나도록 하오.≫

≪총은 거치장스러워서 두고 가겠습니다. 입으로 구슬려서 데리고 올테니 염려마십시오.≫

≪그럼 총은 묻어두었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오시오.≫

한봉선은 내가 시킨 대로 싸창 한 자루를 중도에 묻어두고 삼차구 시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명한 밀정을 만났다. 너 공산구역에 한번 들어가보지 않겠는가? 너의 신변안전은 내가 담보한다는 말로 그를 구슬려서 유격구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 밀정을 내가 직접 심문하였다.

≪우린 네가 일본놈의 개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대신 우리 일을 좀 해줘야겠다. 헌병대에 이름을 걸고 서약도 했으니 일본놈들이 시키

는 일은 그냥 하면서 ≪토벌대≫가 올 때에만 우리한테 미리 알려 달라. 너에게 다른 임무는 주지 않겠다. 너 그것만 잘해 주면 이 다음에 혁명가로 인정해 주겠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밀정은 대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혁명조직성원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신변보호만 잘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나는 밀정이 돌아갈 때에도 한봉선을 불러 그를 삼차구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였다. 물론 한봉선은 그 임무도 훌륭히 집행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나는 동만특위의 간부들에게 말했다.

≪한봉선을 검열해보느라고 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뛰지 않았다. 일본놈 개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개도 잡아왔다. 총과 탄알을 다 주었으니 나를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민생단≫이겠는가?≫

동만당의 간부들은 ≪민생단≫도 그런 흉내는 낼 수 있다, 그가 총을 가지고서도 도망치거나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은 간부들의 신용을 얻어 가지고 대열에 더 깊이 침투하여 ≪민생단≫ 작용을 큼직하게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한봉선에게 두 번째 과업을 주었다. 도가선 철길에 가서 폭발을 묻고 오라고 하였다.

한봉선은 이번에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슴지 않고 공작지로 떠나갔다. 동무는 모험심이 너무 강한 것이 탈이다,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더니 그는 잡히면 잡히고… 까짓 것, 그런 건 꿈만합니다. 잡혀도 변절은 하지 않을 테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기껏해서 총살을 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한봉선을 돌격조에 망라시킨 것은 그 다음에 있은 일이었다. 우리는 그때 왕청 주변의 어느 집단부락을 습격하였는데 그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 돌격조를 책임진 한봉선은 선두에서 포대를 들이치다가 불행하게도 한 쪽 손을 잃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 용감무상한 낙천가는 ≪민생단≫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나는 세 차례의 검열을 통하여 그가 ≪민생단≫이 아니고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때 내가 한봉선을 검열해보지 않고 조직부장에게 보냈더라면 그는 영락없이 반동분자의 감투를 쓰고 처단되었을 것이다. 내가 좌경분자들의 영을 잠깐 보류시키고 검열을 통하여 한봉선을 구원해 준 것은 사실 목숨까지도 왔다갔다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만일 그때 한봉선이 총을 가지고 어느 간부를 살해했거나 적구로 달아났다면 나는 그를 신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모험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개별적 일군이 내던지는 한마디의 명령이나 한 번의 손짓에 따라 수십 수백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험악한 ≪계급투쟁≫의 마당에서 혁명가의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정이나 의리마저 저버린 목석 같은 인간들의 도전을 순간마다 당하면서도 내가 그 어떤 압력에도 굽어들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은 것은 깨끗한 나의 경력과 유격대지휘관으로서의 전투성과와 이론적 뒷받침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도에서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간부들 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또한 길림시절부터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나만은 함부로 ≪민생단≫으로 걸어 제끼지 못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동만의 유격구들을 한창 휩쓸고 있을 때 나는 병석에서 일어나 다홍왜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수십 일간이나 내처 앓던 몸이어서 회의에 참가할 만한 기력은 없었으나 내가 요구한 회의이니 반드시 가야 했다. 그런데 4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비롯한 군대 내의 많은 동무들이 내가 다홍왜로 떠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대장동지, 만주성당에서도 파견원이 오고 공청 만주성위에서도 파견원이 왔다는데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대장동지 편에 있다고 해도 어쨌든 대장동지는 혼자이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중대 정치지도원이 나에게 넌지시 한 말이였다.

전령병인 오대성까지도 나의 다홍왜행에 대해 우려하였다. 다홍왜회의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축복의 인사를 보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고무해 주는 낙천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나의 출발을 앞두고 그처럼 불안해 한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1935년 2월이면 만주성당이 동만 각급당부와 전체당원들에게 전당을 볼셰비키화하기 위하여 숙반공작과 좌우경을 반대하는 양조전선의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 당내에 침입한 반혁명분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파쟁주의, 민족주의, 사회개량주의를 청산구축할 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한 뒤였다. 이 지령이 하달된 후 동만 각급당조직들에서는 반≪민생단≫투쟁이 더욱 극좌적으로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쟁은 그때까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당과 군대, 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모이는 다홍왜회의에서는 논쟁이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첨예하게 벌어질 것이다. 좌경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 하나라면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10이나 20명도 넘을 수 있다. ≪민생단≫문제가 일정에 오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체로 다입을 봉하고 아닌 보살을 하는 것이 전례이니까. 그런즉 나는 좌경의 포위속에서 전체를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논쟁은 나를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되고 회의장은 나를 매장해 버리는 재판장으로 변할 수 있다. ≪민생단≫이라고 하면서 나를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장해 버리려는 극단한 시도도 있을 우려가 없지 않았다.

전우들은 바로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숙반≫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 사정없는 돌심장들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우들은 사색이 되어 다홍왜로 가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길을 떠났다.

≪동무들, 이 길은 죽든지 살든지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다. 내가 만일 다홍왜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앞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기회가 왔다. 대결은 피할 수 없고 흑백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나는 오대성과 다른 한 명의 전령병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야 다홍왜에 도착하였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엄한 경호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제8구 농민위원회 사무소에서 만주성당 파견원 위증민이 왕윤성, 주수동, 조아범, 왕덕태, 왕중산을 비롯한 동만당단특위의 간부들과 함께 나를 맞아 주었다. 이 너렁청한 사무소건물에서 바로 중국사람들이 동만당단특위 연석대회라고 규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회의를 다홍왜회의라고 부르고 있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이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한 명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홍왜회의는 약 10일 가량 진행되었다. 회의 도중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석자의 숫자는 고르롭지 못하였다. 대부분은 중국사람들이였고 조선족 출신으로는 나와 송일, 임수산, 조동욱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뿐이었다고 생각된다. 조동욱은 회의 전기간 중국말을 잘 모르는 조선족 간부들을 위해 통역의 임무를 수행하였

다. 나는 동만당 특위위원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다홍왜에서 회의가 소집되게 된 동기는 공청 만주성우 순시원의 자격으로 간도지방의 사업을 요해하러 내려왔던 종자운(쏘중)이 동만지방 조선사람들의 70%가 ≪민생단≫이라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보고를 성당조직에 제출한 것이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만혁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주성당이 대표를 동만에 급파하여 수습책을 강구하려고 한 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논쟁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였다.

논쟁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종자운이 보고에서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70%, 조선혁명가들이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면 유격구가 ≪민생단≫의 양성소라는 종래의 견해를 되풀이한 순간부터였다.

회의분위기는 종자운의 보고를 지지하는데로 기울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숙반공작위원회를 강화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숙청은 혁명으로 대내의 반혁명을 포위섬멸하는 특수전이라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이 뿌리놓은 씨종자들을 보다 철저히 무자비하게 뿌리째 뽑아내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몇 마디 질문을 들이댔다.

동만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나와 기타 조선동지들도 다 ≪민생단≫으로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과 마주앉아 회의를 하는가? 우리가 ≪민생단≫이라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고 여기에 불러다 놓고 정치를 상론하는가?

동무들이 찍어놓은 그 숫자속에는 싸움터에서 전사한 혁명가들도 포함되는가? 만일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항일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놈들이 자기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것으로 되는데 그들이 모처럼 키워놓은 ≪민생단≫원들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 회의장을 호위하고 있는 1중대의 80-90%도 ≪민생단≫으로 보는가?

이 질문으로 하여 술렁거리던 회의장 안에서는 갑자기 우리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차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행석에 앉아 있는 위증민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다 알다시피 어떤 물질이든지 본래의 구성요소와 다른 요소가 80-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다.

동만에 사는 조선사람의 70%가 ≪민생단≫이라는 것은 노인들과 아녀자들을 제외한 조선족 청장년들 전부가 ≪민생단≫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렇다면 동만에서는 ≪민생단≫이 혁명을 하고 있으며 ≪민생단≫이 자기 상전을 반대하는 혈전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그들이 만일 ≪민생단≫이라면 무엇 때문에 3년동안이나 만성적인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유격구들에서 엄동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적들과 힘에 겨운 싸움을 해왔겠는가?

조선혁명가들의 80-90%는 고사하고 그 십분의 일인 8-9%만 ≪민생단≫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놓고 회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의장 주변에서는 지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1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우리들에 대한 경위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몇 해째 적들이 소멸하지 못해 애를 쓰는 동만지방의 이름난 혁명가들과 지도핵심들이 다 모여 있다.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1중대 성원들도 거의나 ≪민생단≫이겠는데 그들이 좋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습격하여 일망타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모두가 ≪민생단≫이라는 생억지의 주창자들은 이 물음에도 역시 함구무언이였다.

≪1중대는 원래 당신들이 ≪민생단≫중대라고 선포했던 불우한 중대이다. 우리가 20일 가량 중대에 직접 내려가서 요해해본 데 의하면 중대전원을 ≪민생단≫으로 볼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20일 간의 지도검열과정을 통해 1중대는 모범중대로 되었고 여기서 7중대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하였다.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된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동만유격구들에 사는 조선사람들이나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유격구를 ≪민생단≫의 양성소라고 하고 당, 단조직도 ≪민생단≫조직이라고 하면서 이용국은 ≪민생단≫왕청현당책임자, 김명균은 ≪민생단≫왕청현 조직 및 군사책임자, 이상묵은 ≪민생단≫동만당조직책, 주진은 인민혁명군 1사 ≪민생단≫책임자, 박춘은 인민혁명군 ≪민생단≫참모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동만당이나 왕청현당이나 인민혁명군 1사를 모두 ≪민생단≫조직으로 보아도 되겠는가? 동만당간부들을 ≪민생단≫의 조종자, 지도자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는가?≫

청중은 이 물음에도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성당 파견원으로서 이 투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종합분석하고 평가할 사명을 걸머진 위증민 한 사람만이 당, 단 조직 자체를 ≪민생단≫조직으로 보는 것은 착오이며 부분과 전체는 반드시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하여 장내에 조성된 긴장도를 약간 늦추어놓았다.

나는 동만인민의 대부분을 ≪민생단≫이라고 낙인하는 것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 견해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즉석에서 조아범의 반격을 받았다.

≪당신은 무턱대고 ≪민생단≫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주관이다. 감옥들에는 지금 수백 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이 갇혀 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민생단≫에 들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자기 손으로 자백서까지 쓰고 있는데 그 자백과 자백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 당신은 이런 증거자료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백이나 자백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거자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문장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받아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 가서 자백을 했다는 혐의자들을 수십 명이나 만나보았는데 자기의 자백을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당신들의 그 증거자료보다 사업과 생활을 통해 발휘된 그들의 충실성을 더 믿는다. 솔직히 말해 보라. 당신들이 자백과 자백서를 어떻게 받아냈는지.…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몰아대는 혐의자들의 대다수는 ≪숙반≫의 집행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에 견디지 못해 가짜 자백을 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 아닌 ≪민생단≫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다.≫

이때 조아범이 ≪부뚜이!≫(아니다!)하고 소리쳤다.

그 ≪부뚜이!≫라는 말에 나는 그만 신경이 한껏 팽팽해졌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조아범이 감히 이 자리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아니란 말인가?≫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하고 내리쳤다.

≪간도의 조선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이 직권을 악용하여 사람잡이를 망탕했기 때문이다.

안도유격대 정치위원 김정룡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화룡현당 서기 김일환은 누구 손에 죽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대답해 보라. 길림 시절의 조아범은 포악하지도 않았고 탐위욕도 없는 사람이였다. 김일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분해서 울었다. 그 사람이야 당신의 혁명선배가 아닌가. 당신이 그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죽이기까지 한단 말인가.≫

나는 김일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달프게 조상한 전우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김일환은 우리가 동만지방을 개척할 때 처음으로 쟁취한 혁명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중화와 쌍벽을 이룬 인물이였다. 그와의 첫 상봉이 이루어진 곳이 조아범이네 집이였던지 이청산이네 집이였던지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명월구회의 때 그와 함께 밤을 밝혀가며 허심탄회하게 담화를 나누던 일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첫 담화가 아주 인상이 깊었다. 심한 연령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김일환은 그때 틀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부리지 않고 동등한 자세로 나를 겸손하게 대해 주었다.


화룡현당 서기
김일환

나에게 오중화를 소개한 것이 김준, 채수항인 것처럼 김일환을 소개해 준 것도 길림, 용정 바닥을 쌍둥이같이 붙어다니던 김준, 채수항이네 패거리들이였다.

≪축구를 해서 황소를 탄 사람.≫

김일환에 대한 채수항의 소개는 언제나 이런 말로 시작되곤 하였다. 명월구회의 참가자들에게 김일환을 소개할 때에도 그는 이 광고부터 휘둘렀다. 이름난 운동선수인 채수항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그가 축구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곧잘 삼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재미나는 기준이였다.

채수항의 소개로 하여 김일환은 어쨌든 동만지방의 많은 혁명가들속에서 재능있는 운동선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일환은 노숙하고 경험 많은 정치일군이였다. 그는 오중화와 마찬가지로 간도지방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가정혁명화의 선구자이다. 그의 집안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있는 혁명가들이였고 혁명을 하다가 순국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김일환의 어머니 오옥경은 혁명가들의 시중을 위해 일생을 바친 오랜 공산당원이였고 아내 이계순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진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딸이였다. 동생 김동산은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적의 ≪토벌≫에 희생되였다. 화룡유격대의 김정식이란 사람도 김일환의 4촌이다. 김일환의 처가 편 사람들도 혁명에 한생을 바쳤다. 처남 이지춘은 일찍이 길림시절에 우리를 찾아와서 투쟁방향을 받아 가지고 간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김일환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씨알이 박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공부를 착실하게 한 듬직한 지식분자였다.

화룡에서 김일환과 함께 지하활동을 다년간 해온 김일과 박영순은 그가 사업작풍이 좋고 사업방법이 노숙하며 군중성이 좋다는데 대해서 자주 회상하였다. 김일, 박영순은 다 그의 영향밑에서 당일군으로 자라난 사람들이였다. 그가 구국군공작에 종종 파견된 것은 이런 우점 때문이였다고 생각된다. 그 당신 화룡지방의 구국군들은 누구나 김일환을 존경하고 우대하였다.

한번은 안도에서 이도선부대가 구국군을 ≪토벌≫하느라고 처창즈에 갑작스레 쓸어든 적이 있다. 정안군놈들은 구국군을 찾느라고 마을을 발칵 뒤졌다. 그러다가 김일환이네 집에서 삐라뭉테기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김일환의 어머니가 다른 지방조직에 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중요한 삐라뭉테기였다.

이도선은 공산당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김일환이네 일가족을 모두 붙잡아놓고 심문을 시작하였다. 낯 모를 사람이 맡기고 간 삐라라고 김일환의 어머니가 그럴듯하게 둘러대기는 하였으나 적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도선의 눈은 온통 살기로

무섭게 번뜩거렸다. 김일환일가의 운명에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이웃에 사는 지주가 그들은 공산당이 아니고 알짜 농사군이라는 것을 온갖 감언이설을 다하여 보증해 나섬으로써 이도선을 설득시켰다. 이것도 역시 평시에 김일환이 그 지주와의 사업을 잘한 덕이었다.

김일환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에 대한 비타협성과 드팀없는 혁명적 원칙성이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질로 하여 그는 훗날 ≪민생단≫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게 되었고 종당에는 좌경분자들의 손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권력앞에 아부하지 않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으면서 제 정신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였다. 원칙이 있는 곳에서는 부정이 판을 칠 수 없고 도깨비나 잡귀신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환이네가 살던 마을에는 이억만이라는 당조직책임자가 있었다. 그는 혁명대열 내에 우연히 끼어들어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아편중독자였다. 김일환은 이억만이 직권을 이용하여 숱한 여자들과 치정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하여 동지적으로 충고해 주고 약담배를 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억만이 만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비판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부에 있는 좌경분자들을 사촉하여 김일환에게 ≪민생단≫모자를 씌우고 현당 서기의 자리에서 내쫓는 방법으로 비판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

김일환은 현당 서기직에서 철직을 당한 다음에도 일을 충실하게 하였다. 좌경분자들은 그를 검열하기 위하여 개인자본가가 경영하는 탄광에 노동자공작을 보냈다.

김일환은 자기를 검열하는 기간에 좌경분자들한테서 당하는 고통과 결별하고 가족들과 함께 적구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생단≫혐의를 벗지 못한 채 유격구인민들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대오를 버리고 달아난 도주자라는 치욕을 걸머지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체포되어 죽을 것이오.

나는 일본놈의 주구단체인 ≪민생단≫이 될 수도 없고 또 ≪민생단≫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소. 그러나 나는 혁명가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곳에서 ≪민생단≫으로 몰려 죽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만약 내가 살기를 원하여 적에게 투항하여 변절한다면 혁명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오.

이렇게 되면 혁명을 배반한 나의 죄악은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게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나의 부탁은 온 가족이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는 날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 달라는 그것뿐이오.≫

이것은 김일환이 자기의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였을 때 어머니와 아내에게 한 말이다.

1934년 11월에 좌경분자들은 그를 마침내 재판장으로 끌어냈다. 이억만의 악에 받친 논고는 온통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는 반동치고도 아주 지독한 반동이다. 오랫동안 심문했으나 한마디도 불지 않았다.속에 구렝이가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놈들을 그냥 살려두면 우리 혁명이 10년 안팎에 넝마조각처럼 거덜날 수 있다. 살려야겠는가, 죽여야겠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청중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산혁명을 하겠는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있어도 정면에서 그의 무죄를 부르짖는 정의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처창즈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김일환의 무죄를 주장하면 그들 자신도 ≪민생단≫으로 되기 때문

이다.

좌경분자들은 화룡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김일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두고 보아라, 누가 진짜 ≪민생단≫이고 누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인지.… 역사는 반드시 흑백을 갈라 줄 것이다.≫

사형판결을 받은 김일환은 형리들을 쏘아보며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손장상부대의 구국군대원들이 여기저기에서 총을 들고 뛰쳐 일어나 분격을 터뜨렸다. 김일환이를 왜 죽이는가?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고 은인이다. 저런 혁명가가 ≪민생단≫이라면 도대체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김일환은 우리가 보증한다. 총살형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좌경분자들은 구국군의 압력에 못 이겨 사형언도를 취소하고 김일환을 석방하였으나 그날 밤중으로 그를 학살하였다.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래 당신들은 정말로 김일환을 ≪민생단≫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민생단≫이 아닌 줄 알면서도 딴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총살하지 않았는가? 김일환과 같은 사람들이 ≪민생단≫이라면 이 간도 땅에서 ≪민생단≫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조아범을 응시하며 목갈린 소리로 이런 주장을 피력했다. 그리고는 어성을 낮추어 연설을 계속했다.

≪동무들, 이제 더는 인간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지 말라.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고 동지들을 동지답게 대하며 민중을 민중답게 대하라. 우리는 인간애와 동지애, 민중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해 일어난 투사들이 아닌가. 이 사랑의 무기가 없다면 우리가 부르주아지들이나 마적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이상 ≪숙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우롱한다면 인민이 영원히 우리를 외면할 것이며 후대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천 명의 열사들의 죽음을 보상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이 무의미한 살육을 중단하고 사랑과 믿음과 단합의 정치로 모든 힘을 항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적들이 던진 ≪민생단≫의 미끼를 뱉아버리고 우리의 대오에서 종파주의, 배타주의, 모험주의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라. 이것만이 지난 몇 해 동안 ≪민생단≫으로 생긴 상처를 가시고 민중을 구원하고 혁명을 구원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유대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우리 두 나라 혁명가들의 진정한 화합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호이해, 계급적 믿음에 기초해야 하며 형제적 우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공동투쟁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이기를 추구하거나 그 이기를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킨다면 그러한 합작은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화합은 믿음과 사랑을 원동력으로 할 때 영원히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다.≫

다홍왜회의에서는 간부문제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논쟁의 발단으로 된 것은 특위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소수민족은 간부로 될 수 없고 다수민족만이 간부로 될 수 있으며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도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있었다. 그들은 조선사람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다수민족을 지도할 수 없으며 더욱이 조선혁명가들은 종파적 습성과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간부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만주성당이 동만당지도부의 간부 선발과 배치에서 종래의 조선인 중심주의부터 중국인 중심주의로 전환할 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지령의 요점은 지난날 조선사람들이 민족운동에서도 실패하고 공산주의운동에서도 실패하고 또 동요하거나 반동화되기 쉬운 데다가 언어풍속이 다른 것으

로 하여 ≪소수민족의 혁명기초≫가 공고하지 못하고 ≪소수민족의 영도에 의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성공이 불가능≫하므로 ≪동만에 있어서 조선인의 기초를 중국인의 기초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 지령의 요구에 의하면 동만특위 서기 이하 주요 간부들은 모두 만주성위에서 임명하며 조선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혁명군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으로 될수록 등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였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이 지령이 중국공산당중앙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지령이 하달된 때는 중국당중앙의 지도핵심들이 장개석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2만 5천 리 장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내전의 진통속에서 혁명전쟁의 중하를 걸머지고 간고분투의 길을 걷고 있던 중국당중앙은 자기 조국의 동북변방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변들에 주의를 돌릴 수가 없었다.

만주성당의 조치들 가운데는 왕명과 강생이 주관하고 있던 국제당동양부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그 지령에 준하여 만들어낸 것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성당의 소재지인 하얼빈에서 국제당 동양부기관들이 자리잡고 있던 이르쿠츠크나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것은 정강산이나 연안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그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간부선발배치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 당시 동만의 간부 구성실태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논조였다.

나는 또 논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야 할 숭고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만큼 조중 인민이 전투적 단결과 반일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 부합되게 간부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적인 입장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여 간부를 선발 배치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신들도 인정하다시피 조선사람들은 동만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이다. 동만지방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구성을 보아도 압도적 다수는 조선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공동투쟁을 몇 해 동안 해오다가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민족의 지도이니, 다수민족 간부에 의한 소수민족 간부의 교체니 하는 주장들을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견지에서 조선민족 우월론을 제창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열등론을 떠들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을 다수민족의 출신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등용시키는 경향은 반드시 시정 퇴치되어야 한다.

국적이나 소속, 인구의 다수가 간부 선발의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수민족이건 다수민족이건 간부의 표징을 갖추었으면 간부로 되는 것이고 갖추지 못했으면 간부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조선혁명가들이 지난날 대부분의 민족주의운동이나 종파에 관계했던 사람들이어서 간부로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 주장을 즉석에서 일축해 버렸다.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혁명가들의 절대 다수는 그 어떤 종파에도 관계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들이다. 우리가 일심전력으로 키워낸 기본계급 출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인민혁명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젊은 세대는 당, 정부, 대중 단체에서도 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날 민족주의운동에 참가했거나 파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다 혁명적으로 개조되었다.≫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반격을 하였다. 그 사람은 ≪민생단≫의 아버지는 종파이고 종파의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의 아버지는 일본제국주의라는 괴이한 주장으로 회의장 안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 주장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난날 민족운동에 참가했거나 파벌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부양을 받는 아들로 된다. 이것은 아무런 이론적 타당성도 없는 궤변으로서 교양개조된 파벌경력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 대한 불신의 표시였다.

나는 그 궤변에 타격을 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민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꾸준한 개조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과거 경력 중에 민족운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런 사람을 종파의 아버지라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아들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닌가.

원래 민족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애국애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을 반동시하는 것은 곧 애국주의를 반동시하는 것으로 된다. 민족주의라고 하여 덮어놓고 이단시하지 말라. 민족주의가 부르주아지의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무턱대고 배척할 필요가 없다. 민족주의가 역사의 반동으로 되는 것은 다만 온 민족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때뿐이다.

만일 그 누가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창시한 손문선생을 제국주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런 망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면 그 자체가 심한 민족적 편견이다.

조선의 종파분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적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소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파쟁이 마치 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차적인 기질인 것처럼 여기며 조선공산주의자라면 의례 종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 듯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것 역시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종파는 조선공산주의대열 내에만 있은 것이 아니다. 종파는 독일과 쏘련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으며 일본에도 있고 국제당에도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조선사람들만이 종파적 습성을 기질적으로 소유한 민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선공산주의자라는 이름이 왜 종파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조선민족은 과거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실패한 소수민족으로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성공이 불가능하다느니, 혁명투쟁에서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쉬운 민족이라느니 하면서 간부로 쓸 수 없다는 논거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조선인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황된 논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배타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신들은 이미 동만의 군정관계 간부들 중에서 당신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한 전호에서 충실하게 싸워온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수십 수백 명 제거하거나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다.

수많은 지도핵심들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내놓았는데 아직도 더 제거해야겠는가.

당신들이 만일 지금과 같이 조선사람들을 배척하고 학대하는 길로 집요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방살이를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폭탄 같은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목구멍으로 침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만큼 회의장의 긴장도 팽팽하였다.

그때 만일 누가 내 말을 반박했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논쟁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간부문제에 대한 토의는 그 이상의 격론을 빚어내지 않았다.

회의가 심화됨에 따라 나와 좌경분자들 사이의 논전은 더 치열해졌다. 회의장에 조선인 간부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만 지켰다.

그러나 그들도 내심으로는 나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좌경의 대리인역을 수행하면서 가슴아픈 흔적을 적지 않게 남긴 송일이조차도 나를 찾아와 누구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 해 제꼈다고 하면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위증민과 왕윤성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나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였다. 특히 위증민의 이성적 판단과 공정한 태도는 나에게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었다.

하루 세 끼의 콩죽을 먹으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논쟁을 하다나니 나는 뼈만 남은 몸이 되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밤늦게 숙소를 돌아와 앓다가도 아침이 되면 또 논쟁마당에 나가야 했다. 단독으로 여러 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에게 결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기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간도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위해서 싫건 좋건 논쟁마당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증민

회의에서 토의된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추켜들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다시 말하여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그 구호가 ≪민생단≫이 표방했던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 본질상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가 ≪민생단≫에서 만들어낸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 같으며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도 모순된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간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의 견해와 완전히 상반되는 위험한 견해였다. 만일 이 견해대로 한다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혁명을 위해서 그들의 시중꾼이나 국제군의 한 구분대의 사명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조선혁명을 한갖 다른 큰 나라 혁명의 부속물로밖에 보지 않는 이런 견해를 용인할 수 없었다.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는 일제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의 대열을 내부로부터 분열시켜 저들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민생단≫에 쥐어 준 구호이다. 그것이 간도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족해방의 구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우리가 내세운 민족해방의 구호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을 광복하며 우리 인민이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내놓은 구호이다.

그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고 하여 자기 조국을 해방하고 자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신성한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기 나라 혁명을 하지 않고 남의 나라의 혁명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이 만주 땅에 주저앉아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여러 해 동안 조선의 민중을 결속시키고 훈련시키겠는가. 일부 사람들은 중국혁명이 승리하면 조선혁명도 저절로 승리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황된 소리이다. 매개 나라 혁명에는 자체의 노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 자체의 역량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웃나라의 혁명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승리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남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도와주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을 내걸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견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요영구회의 장소

프랑스에 가서 활동한 중국공산주의자들에게 그 나라의 공산당원들이 중국혁명의 구호를 들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디에 가서 활동하건 자기 나라 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워야 하며 그것으로 그 나라 혁명도 도와주고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자주적 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다홍왜회의에서 시작된 논쟁은 그 해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도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미결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두 회의의 논점에서 핵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위증민과 공청동만특위 간부인 윤병도를 모스크바에 보냈다.

≪민생단≫ 문제로 하여 파생된 간도지방의 혼란은 일종의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좌경분자들은 무분별한 ≪숙반≫운동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축성해놓은 혁명의 기초를 거의나 허물어 버렸다. 그러면 그들이 죄다 ≪민생단≫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적들의 문건에는 ≪민생단≫이 겨우 7-8명이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7-8명을 색출해 내려고 ≪숙반≫운동은 2,000여 명의 자기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한 것이였다. 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세의 비극으로서 우매와 무지와 몰상식의 극치였다.

조선과 해외 각지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간도지방에 모여들었던 끌끌한 사람들이 2-3년 사이에 ≪숙반≫의 총 끝에서 다 녹아났다. 그 불우한 수난자들 가운데는 별의별 인재들이 다 있었다. 무슨 재간둥이인들 없었겠는가. ≪숙반≫의 미친 바람은 우리의 항일혁명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민족의 자랑스러운 총아들을 사정없이 쓸어갔다.

≪민생단≫의 여파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의 수를 능가한다면 아마 후대들을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항일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적과의 교전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격구들에서는 20-30명의 전사자를 낸 실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20-30명의 혁명가들이 ≪민생단≫이라는 죄명을 쓰고 무리죽음을 당한 날도 많았다. 우리는 그들의 영전에 정중하게 명복을 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하에 가서도 살인자들을 저주하였을 것이다.

≪민생단≫이 해체된 간도 땅에 ≪민생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처형이 두려워서 유격구를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생단≫은 없었다.

주진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박길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박길은 독립운동으로부터 항일구국의 성전에 뛰어든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연해주지방에 가서 공산주의사상으로 자신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성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간도 땅에 달려나와 지하정치공작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였다. 그는 우리가 비밀유격대라고 명명했던 소규모 유격대 시절에 벌써 대중의 신망을 받는 정치지도원으로 되었으며 반일인민유격대가 정식으로 창건된 후에는 연길대대에서 대대정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연길지방에서 혁명을 개척한 선구자였던 박길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유능한 정치활동가, 선동가였고 뛰어난 군사지휘관이었다.


박길

그의 일가는 5-6명이나 되는 항일혁명열사들을 배출한 애국적 가정이었다. 박길의 아버지 박중원(별명 호랑이)은 원래 소작살이를 할 때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품삯 대신 새끼소를 어미소로 키워 그것을 원호기금으로 바치면서까지 유격대를 성심성의로 후원하였다.

이런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박길을 ≪민생단≫으로 모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경분자들은 박길이 이전날 독립군이었다는 것과 그의 누이가 강제에 못 이겨 순사의 첩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여자라는 것을 문제시하던 끝에 학살하였다.

김명균이 ≪민생단≫이었는가? 아니다. 김명균은 왕청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이다. 현당 군사책인 그가 무엇이 탐나서 ≪민생단≫에 들었겠는가. 적들이 작성한 공판문건은 그가 ≪민생단≫ 감옥에 구금되기 전까지 일본인을 사살한 사건이 20여 건, 일만관헌을 습격한 사건이 20여 건, 무기를 탈취한 사건이 8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만일 ≪민생단≫이라면 이런 공적을 세울 수 있겠는가? 유격구를 탈출한 다음에도 훈도가 되어 아이들의 넋속에 민족정기를 부어넣을 수 있겠는가? 적들에게서 총살형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웅걸도? 그도 ≪민생단≫이 아니다. 나는 이웅걸이란 사람을 잘 안다. 우리가 왕청땅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1932년 10월 나를 마중하기 위해 군마 두 필을 끌고 소북구로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민생단≫으로 몰려 죽을 뻔했던 1구당 조직부장 이웅걸이다. 젊은 빨치산 대장을 위해 한꺼번에 군마를 두 필이나 끌고 온 이 체통이 큰 사나이의 융숭한 대접에서 나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

이웅걸은 화룡현에서 공청시기로 사업하다가 용정과 서울에서 감옥생활도 해보고 이광이 지휘한 별동대에서 정치위원으로도 공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감수성도 풍부하고 투쟁역사가 깊은 혁명가였다.

나는 이웅걸을 통하여 구당사업을 지도하였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왕청지방의 당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1933년 여름에 이웅걸은 ≪민생단≫의 혐의를 받고 좌경분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나에게는 ≪민생단≫이 당치 않다!≫는 글을 남기고 유격구를 탈출하여 국내에 나왔다. 부령지방에 활동거점을 잡은 그는 함북, 함남일대에서 애국적인 청장년들을 결속하여 공산주의동맹을 뭇고 군용도로건설반대투쟁, 공출반대투쟁, 징용반대투쟁 등의 반일투쟁을 조직 지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징역 12년이 그에게 떨어진 판결이었다. 일본 법관들이 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민생단≫으로 처형되었어야 하겠는가.

다홍왜에서의 논쟁의 의의는 바로 이웅걸과 같은 사람들의 경력에서 ≪민생단≫ 감투를 벗겨준 데 있다. 이 회의의 논쟁과 그 후 국제당이 내린 결론으로 하여 처형된 사람들도 무죄로 판명되었다. 육체적 생명은 회복될 수 없었지만 정치적 생명은 부활되었다. 이 회의의 다른 하나의 의의는 일제의 음험한 모략이 얼마나 간악하고 지독했는가 하는 것과 그에 농락된 자들의 정치적 졸렬성을 고발함으로써 좌경분자들의 정치적 쿠데타에 자갈을 물리고 그 손발을 철저히 얽어맨 데 있다. 그렇다. ≪숙반≫의 좌경화는 곧 높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낮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단행한 정치적 폭행이며 하향식 쿠데타이다.

다홍왜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동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우리의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이 글에서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과거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추억하는 것은 그런 비화를 빚어낸 장본인들을 구태여 만천하에 고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계산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추억은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열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모략과 간계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며 민족배타주의와 좌경분자들의 정치적 졸렬성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후대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확립과 민족의 자주성과 관련된 교훈을 심어주자는데 있다.

나는 반≪민생단≫투쟁과 그 총화로서의 다홍왜회의 과정을 통하여 자주성은 민족의 첫째가는 생명이라는 것과 이 자주성을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는 그 선각자들의 희생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장 깊이 절감하였다.

인간의 첫째가는 속성이 자주성인 것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도 자주성에 있다. 개별적인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민족을 이루는 대집단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은 자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항일혁명을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전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주권의 부활이야말로 조선인민이 수십 년동안 절절히 품어온 일차적 숙망이었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해방투쟁의 총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복종되어야 했다. 우리는 사고와 실천에서 자주성에 대한 옹호를 생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에서나 맹호가 되고 우뢰가 되어야 했다.

자주성이란 그 누가 만들어서 선사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의 누적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백절불굴의 희생적인 투쟁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만이 자주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다른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강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자기네가 자주성을 가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여기면서도 남들이 자주적으로 살려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해하는 인간들도 수두룩하다. 자주성을 저들만이 점유할 수 있는 독점물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오만성이다.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워온 투쟁대열 내부에 있은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의 변덕이었다. 이 변덕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심각한 고민과 좌절을 겪었다. 우리는 좌절에서 돌격에로 이전하기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조선민족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과 맹호가 되어 싸웠다. 다홍왜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깃발을 들고 조선혁명의 주

체노선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인 대사상전이였다.

만일 우리가 인정 사정없는 좌경의 철권앞에서 질겁하였거나 희생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더라면 우리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 좌경의 무한궤도밑에서 혁명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한 것은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강의한 희생정신과 공산주의적 원칙성,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불변의 신념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궤도에서 밀어던지려고 정치적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늘 자주성을 계속 옹호 고수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민족과 우리 공화국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대결에서도 역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


강영창

나는 반≪민생단≫투쟁과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나 혁명투쟁에서 모함과 모해가 얼마나 유해로운가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으며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는 혁명을 같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 안았다. 모함, 모해, 파쟁의 해독성과 반동성을 이해하려면 이조 500년사만 돌이켜보아도 충분하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자식사이, 형제사이에도 칼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동화된 인간들의 본성이며 종파의 악습이다.

해방 후 적들은 일제가 적용했던 ≪민생단≫의 수법을 이용하여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시도하였다. 한때 그들은 위조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백남운, 강영창, 최응석과 같이 당에 충실한 남조선출신 간부들을 모해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그 모해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유격구에서 겪은 반≪민생단≫투쟁 경험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치안대 가담자들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에서 좌경을 범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혁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치안대 가담자들과 그 연루자들의 정치적 운명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새 사회안전부장이 임명될 때마다 매번 우경을 범해서도 안되지만 좌경을 경계하며 ≪민생단≫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곤 한다.

좌경은 정치적 사기꾼들과 야심가들이 새 형의 ≪민생단≫소동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온상이다. 이 온상의 주인들은 남들보다 10배나 20배쯤 더 높은 목소리로 당을 운운하고 혁명을 운운하고 충실성을 운운한다. 이러한 초혁명성이 지난날 유격구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제멋대로 농락하던 좌경분자들의 소행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우경이 공개적인 반혁명이라면 좌경은 은폐된 반혁명이고 우경이 암이라면 좌경도 그에 못지 않은 독버섯이다. 우경과 좌경은 혁명이라는 하나의 거목 위에 기생하면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동상이몽하는 듯하지만 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좌경을 하면 집단을 해칠 수 있고 집권당이 좌경을 하면 인민을 잃어 혁명을 망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고수할 수 없다. 이것은 반≪민생단≫투쟁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며 좌경의 침해로 하여 막대한 출혈을 당한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뼈아픈 체험이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호소이다.

초당적인 언행으로 가리워진 좌경을 반대하고 경계하며 그 침해로부터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정권을 잡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한시도 놓치지 말고 틀어쥐고 나가야 할 영원한 주제이다.

3. 공청의 산아들

청년사업은 내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바쳐온 중대사의 하나이다. 나의 혁명활동이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것은 길림시절의 생활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나는 길림감옥에 구금되기 전에도 청년학생운동을 하였지만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하활동의 형식으로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국제당일군들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던 1930년 여름부터는 공청 길동지구책임비서로 임명되어 공청사업을 하였다.

물론 왕청시절에도 청년들과의 사업은 나의 군사정치활동에서 주선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유격대의 정치사업을 책임진 지휘관이 군대안의 공청사업을 지도하는 것은 직능에 맞는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동만당지도부와 왕청현당일군들의 요구에 의하여 군대 밖의 공청사업에도 많은 시간을 투하하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는 당, 공청, 아동단을 가리켜 3대동맹이라고 하였는데 이 3대동맹에서 공청은 당 다음 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청을 가리켜 당의 교대자, 당의 후비대 또는 당의 저수지라고 불렀으며 그 사명과 역할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제2의 당이라고도 명명하였다.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 문제들과 그 집행대책을 논의하는 당회의들에는 언제나 공청서기들이 연석으로 참가하였다. 동만당에서는 이런 회의를 가리켜 당단연석회의라고 하였다. 그런 회의들에서 공청서기들은 당원들과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까지 당당하게 행사하였다. 당원들이 없거나 당세가 미약한 고장들에서는 공청열성자들이 주동이 되어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김중권

남북만진출을 끝마치고 간도에 도착한 후 나는 이광별동대공청서기 조동욱, 왕청현공청서기 한재출, 왕청현공청조직부장 김중권 등을 통하여 동만지방공청사업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요해했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공청사업에서는 공청조직건설과 혁명발전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좌우경적 편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청지방 공청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로 제기된 것은 유능한 지도일군의 부족이었다.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이 눈부신 상승기를 걷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처리할 만한 능력 있는 공청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청원들의 대부분은 문맹자거나 국해 정도였고 쌀에 뉘만큼한 사람들만이 중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청년운동을 협소한 유격구역의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청년사업을 노동자, 농민 계층의 청년 본위로 진행하면서 마치도 공청활동은 성분이 좋고 식견

이 높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경향은 불피코 공청건설에서 관문주의를 낳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공청조직의 순결성과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문을 꽁꽁 닫아걸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가면서 공청에 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무턱대고 배척하였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출신이 걸린다고 하면서 따돌렸고 소박한 노농청년들을 무식하다고 외면하였다.

공청에 가입하자면 적어도 ≪사회주의대의≫쯤은 통달해야 했고 ≪공산당선언≫이나 ≪임금노동과 자본≫과 같은 고전들도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했다. 만일 심사과정에 ≪공산당선언≫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산당선언≫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청생활을 해!≫하고 까박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대왕청의 어떤 청년은 소비에트정부에 소를 몰수당한 것이 흠으로 되어 공청가맹을 청원하였다가 부결당하였다. 부림소를 몰수당하는 정도의 집이면 자산가 출신이라는 것이고 소비에트의 수탈대상이 되었으니 가맹 적격자가 못된다는 것이다.


전문진

좌경관문주의자들은 지어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선봉대에서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해온 청년들까지도 공청조직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좌경이 차단봉을 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 맨 지역들에서는 100여 명을 망라한 군중단체 안에 공청원이 고작 3-4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동만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청지방에서는 공청대열을 확대하는데서도 텃세가 셌다. 다른 현에서 아무리 조직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해당 조직이 발급한 이동문건이나 보증서가 없으면 왕청에 와서 공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동녕현성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군벌의 체포소동을 피해 왕청으로 온 전문진도 유격대의 재봉대에서 일을 잘하였지만 이동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적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복을 해준 데 대한 답례 인사를 하려고 재봉대에 찾아간 나는 그가 무슨 일인지 몹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재봉대 출입을 여러 번 하였지만 전문진의 침울한 기색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그와 담화를 하였다. 전문진은 소심한 여자였지만 심중의 고충을 솔직하게 다 말했다. 그는 목적했던 새 고장에 와서 소망대로 유격대에 입대하였지만 공청조직이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외기러기처럼 늘 우울하게 살았다. 그의 고충이 조직문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는 해당 일군들과 의논하여 그가 종전대로 공청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공청조직들에서는 동향, 동창, 친척, 친우 등의 안면 정실관계를 타고 이색분자들과 불순분자들, 동요분자들만이 대열 내에 망탕 끼어들었다. 어떤 공청 일군들은 출신성분만을 절대화하던 나머지 머슴꾼 출신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간첩임무를 받고 유격구에 잠입한 불순분자들까지 공청에 받아들였다. 이런 좌우경의 틈바구니에서 혁명적 세련이 부족한 일부 공청원들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구로 내려갔다.

공청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은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경원시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유격대 내의 공청사업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깃발 아래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유격구의 공청사업에서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청의 지

도일군들이 조선혁명의 실정과 이익에 알맞은 옳은 조직건설노선을 가지지 못하고 고전의 요구를 교조적으로 적용하거나 남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유격구사업을 주관하는 지도일군들이 공청이 범하고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고 청년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와 출로를 열심히 모색하고 있던 1933년 3월 소왕청 마촌에서는 공청일군회의가 소집되였다. 이 회의에는 왕청지구 공청위원들, 아동국장들, 연길에서 온 청년대표들과 용정학생대표들(지하공작원)을 비롯한 30명 정도의 청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로는 김중권, 박현숙, 조동욱, 박길송, 이성일, 김범수, 최봉송 동무들을 들 수 있다.



박길송

공청일군회의를 회상할 때면 어째서인지 회의 전기간 유달리 영채 도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줄곧 지켜보던 박길송의 눈동자가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내가 박길송의 눈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게 회상하게 되는 것은 훗날 그가 그 영롱한 두 눈의 한 쪽을 관동군 부대와의 조우전에서 잃어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북만의 뛰어난 유격대장으로서 최후를 마친 박길송이 1933년 당시에는 특별한 공청직위도 없이 모범공청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회의를 마감짓는 날 현공청 일군들과 대표들은 나에게 연설을 청탁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길림에서도 공청활동을 많이 하고 간도지방에 와서도 길동지구 공청책임비서라는 간판을 가지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참고할 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견해나 들어보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공청단체들 앞에 나선 과업을 두고 길다란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 중의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조동욱이 자상하게 회고하였다.

동서고금의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들은 예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세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고견들을 내놓았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일치하게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 보았다. 고대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국가의 장래 운명은 청년에 대한 교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유물론 철학가이든 관념론 철학가이든, 동양의 학자이든 서양의 학자이든 미래의 운명으로 되는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그 세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대동소이하게 평가하였다.

청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물론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의 지위를 혁명의 교량자나 후비대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선행 고전가들과 이론가들은 청년들을 전세대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도와 교양을 받으며 보조적으로 혁명을 해 나가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청년들을 보조적인 역량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조선혁명이 걸어온 노정과 실정을 볼 때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 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주장이였다. 80고령에 이른 지금에 와서도 나는 혁명의 전위로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전세

대에만 의거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들의 뒤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낡은 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민족의 선봉에 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 전반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였다. 조선의 청년들은 3.1인민봉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선봉결사대로 나섰고 6.10만세시위운동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때에도 주력으로 등장하여 애국적인 구호들을 고창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도 그 주체는 청년학생들이였다.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볐으며 총검을 박차고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광주학생운동(위)과 그 보도가 실린 호외(아래)

나의 청춘시절이 공청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 권들에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은 나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우리는 그 나이에 연대도 이끌고 사단도 지휘하고 군도 영솔하였다. 한때 우리 인민들속에는 나를 백발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던 당시의 나의 나이는 34살도 못되었다.

유격전쟁은 옛날의 군사들처럼 서로 대치되어 영채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장수들이 필마단창으로 접전하거나 높은 성벽에 의지하여 화살을 날리는 그런 구식싸움도 아니며 발달된 군수기재를 이용하여 전화나 무선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신식싸움도 아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50-70대의 노장군들도 능히 전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격전쟁에서는 전사나 지휘관이나 할 것 없이 동빙한설의 쓴맛을 다같이 맛보아야 한다.

지휘관들도 때로는 기관총을 잡아야 하며 정황이 요구하면 총창을 꼬나들고 백병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건실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항일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였다. 양정우는 32살

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장으로 되었고 진한장은 27살부터 제3방면군 군장으로 활동하였다. 오중흡이 연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29살의 꽃나이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청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청년세대를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만 평가하겠는가.

나의 이런 견해와 입장은 그날의 연설과 담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을 추진시키는 주력 중에서 기간적인 역량으로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사회개조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의 전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사업이다.

그런데 공청조직이 문을 딱 닫아걸고 청년군중을 등지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어떤 공청조직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우수한 청년들을 대열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관문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관순이 나이가 많아서 3.1이 낳은 영웅으로 민족사에 남아 있겠는가. 남이 장군도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자기들을 가리켜 대장부라 하겠는가고 하였다.

나이를 문제시하면서 10대의 열혈청년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청조직을 청년조직으로가 아니라 장년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10년이나 20년쯤 도를 닦고 성인현자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공청이라면 그것이 무슨 청년들의 조직이겠는가.≫

다음으로 대표들의 흥미를 끈 것이 공청일군들이 엄수해야 할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이 항목에 들어가서도 많은 말을 하였다.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 세우자면 공청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공청원이 총 5발을 쏘았는데 적을 한 놈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자. 유격대에서는 탄알 한 알에 원쑤 한 놈이라는 구호가 통용되고 있는데 5발 쏘아서 한 놈도 잡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가령 이런 결함을 범한 공청원에게 해당 조직에서 비판을 주고 조직문제를 보았다면 이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선 과오를 범했다면 여러 각도에서 요해해야 한다. 측면으로도 요해하고 후면으로도 요해해야 한다. 무기성능이 좋지 못한가? 조성, 조문이 틀리지 않았는가? 총탁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살그머니 당기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방아쇠를 당길 때 숨조절을 잘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생리적 약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아야 한다. 근시인가? 원시인가? 아니면 난시인가? 그리고 대담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비겁한 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여러 모로 따져보고 문제를 취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사상이 나쁘다고 보고 사상투쟁만 하면 안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결함에 대해서는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판하되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폭로하는 식으로 욕설하고 모욕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날 회의에서 공청대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선전선동 교양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상호비판,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는 문제, 아동단을 공청후비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과거 애국청년들의 투쟁에서 그 우수한 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청사업의 전반 분야를 포괄하여 연설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청지도일군들이 항상 군중속에서 살며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후 공청지도일군들의 일본새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관료주의와 관문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에 얽매여 있던 공청조직들은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되어 청년대중속에 깊이 침투했다.

어느 날 나는 김중권을 만나려고 공청현위를 찾아갔다. 그런데 현위에는 통신원 한 동무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모두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구와 지부 조직들에 내려갔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범수

종전까지는 현 공청일군들이 동맹원들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지부서기, 구서기들을 불러다가 일거리를 맡기고 받아내는 식으로 안일하게 사업을 하였다. 현 공청은 어디서 수말이 새끼를 낳았다고 하여도 믿을 정도로 하부실정에 깜깜하였다. 그러면서도 회의를 열고 사상전을 한바탕씩하고는 만세를 불렀다. 공청단체들은 회의와 비판이며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런 재래식 사업방법이 공청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어느덧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공청일군들은 유격대와 지방의 지부조직들에 내려가서 공청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었다. 현위 사무실에서 말공부와 문서놀음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이 아래에 내려가 맹원들도 만나보고 소조모임이나 지부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공청서기들을 도와 사업계획도 세워 주었다. 현위 사무실에 공청간부들이 모이는 것은 회의가 있는 날뿐이었다.

공청열성자들의 대오에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임기응변하는 능숙한 수완가들과 작풍이 좋고 지도방법이 원만한 세련된 일군들도 적지 않았다.

연길현에서 8도공청 조직부장으로 사업한 김범수는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청년들의 사랑을 받는 유능한 공청지도일군들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김범수가 소학교를 다닐 때 그의 어머니는 외아들이 글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그를 학교에 업고 다녔다.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운 아들이 총각꼴이 잡히기 바쁘게 장가도 일찍 보냈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까봐 그가 장가를 간 다음에도 문밖출입을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나 김범수는 문밖출입을 못하는 대신 자기 집 뒷고방을 회합장소로 정하고 울바자밑에 사람들이 드나들 만한 개구멍을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 청년들을 뻔질나게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김범수의 부모들은 아들이 나들이도 가지 않고 신랑구실을 ≪착실하게≫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지만 아들은 밤마다 뒷고방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느라고 새색시의 얼굴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그 뒷고방에서 김범수는 수십 명의 열성 공청원들을 육성해냈다.

현공청서기는 주로 유격대공청조직에 들어가서 청년사업을 지도하였으며 조직부장과 선전부장은 유격구공청조직과 적구공청조직들과의 연계밑에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현공청서기는 필요에 따라 유격대원들과 함께 전투작전에도 직접 참가하면서 대중을 지도하였다.

마촌작전 때의 일이다. 마촌 앞덕에 배치된 중대 공청지부는 현공청서기의 참석하에 비상회의를 열었다. 결전을 눈앞에 둔 공청원들은 저마다 불같은 맹세를 토하였다.

≪공청원의 심장으로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을 끝까지 지키자!≫

공청원들의 총구에서는 복수의 명중탄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적들은 이 전투에서만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성과 나자구를 들이칠 때에도 공청서기는 빨치산대오의 앞장에 서 있었다.

나는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다음에도 공청지도일군들을 자주 만나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그 당시 내가 공청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은 청년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낙관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군사교육을 강화하여 공청 지도일군들과 공청원들속에서 군중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들이었다.

우리는 공청조직들이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상의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낯을 돌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공청조직은 학술단체도 아니고 계몽단체도 아니며 구락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 청년대중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는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직들의 활동은 언제나 현행 정치실천, 군사실천, 경제실천에 복종되어야 했다. 그래야 매개 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강력한 발동기로 될 수 있었다.

그 당시 유격구의 인민들과 청년들속에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얼굴을 잘 돌리지 않는 편향들이 존재하였다. 유격구에서의 경제문제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말한다. 지금 식대로 표현하면 식의주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유격구인민들이 소비하는 식량의 대부분은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노획한 전리품 식량으로 충당하였다. 유격구의 척박한 경작지들에서 생산되는 알곡으로는 한 해 농량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군대를 쳐다보곤 하였다. 이런 과정에 적지 않은 일군들과 유격구주민들속에서는 유격구주민들속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의존심이 생겼다. 절량기가 닥쳐오면 으레 군대가 또 적들을 답새기고 식량을 빼앗아다가 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 농사차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1934년 봄 다홍왜에 가서 3중대동무들과 함께 5.1절을 쇠었다. 중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을 겸하여 영농준비 정형도 요해하였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이 고장사람들은 춘경기가 다되었는데도 씨붙임준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쩌자는 셈판인가. 놀란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나와 동행했던 현공청서기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태해질 수 있는가고 하면서 불안을 감추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요영구의 비밀아지트에서 현공청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춘기파종을 위한 청년들의 과업을 협의하였다. 1932년 가을에 추수대를 조직하여 중간지대 농경지들의 가을걷이를 보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생산돌격대가 조직되어 간도전역의 유격구들에서 봄씨붙임을 위한 전투에 돌입하였다. 이 돌격대에는 공청열성자들을 비롯한 유격구의 핵심청년들이 다 망라되었다. 그들은 보탑을 쥐고 발갈이만 한 것이 아니라 종곡을 마련하고 농쟁기를 준비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파손된 연장들은 야장간에서 청년들이 달라붙어 집체적으로 수리하였다. 부림소가 모자라는 지역들에서는 곡괭이나 삽으로 뚜져서라도 씨붙임을 일매지게 다하였다.

1934년의 춘기파종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 돌격대의 활동을 통하여 유격구들에서는 공청의 위신이 쑥 올라가고 청년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당조직들은 공청이 바라고 설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 주었으며 공청 지도일군들이 청년사업을 대담하게 밀고 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농민협회,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조직들도 공청사업을 각방으로 후원해 주었다.

유격구 인민들이 공청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1934년 9월의 9청데이기념일 행사과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9청데이란 국제무산청년절이라는 뜻이다.

전세계 무산청년들은 1915년에 1차로 이날을 기념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9청데이 행사를 하였다. 이 기념행사는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였다.

왕청사람들은 1934년 9청데이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적구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부락단위로 되는 참관단들을 초청하는 한편 행사를 당일 참관단 접대에 소비하게 될 입쌀, 밀가루, 고기 등의 후방물자들을 구입해 들였다. 어떤 후방일군들은 차까지 구해 가지고 돌아왔다. 유격대는 적들을 치고 명절준비에 필요한 일용필수품들을 노획해왔다.

요영구광장에는 솔문을 해 세우고 광장 변두리에는 유격대의 전과를 반영한 연속화들을 그려 붙였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는 격동적인 구호들도 써 붙였다. 그 당시 5중대에서는 그림을 기막히게 그리는 재간둥이가 한 명 있었다. 쏘련에서 살다가 나온 동무였는데 서예솜씨도 놀랄 만하였다. 그는 광장 주변에 인민혁명군의 업적을 보여 주는 전투약도까지 내다 붙였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하였다.

우리는 정부청사를 통째로 내어 손님들이 들 숙소를 꾸리고 거기에도 참관단원들이 감상할 수 있는 선전화를 붙였다.

9청데이를 앞두고 계관라자, 영벽라자, 천교령, 전각루 등 유격구와 그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대표들을 선출하여 요영구로 파견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성문밖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적구대표들은 집단적으로 무리를 지어 오지 못하고 한 사람씩 낫을 들거나 광주리를 이고 전야작업에 나가는 차림새로 유격구행을 하였다.

행사 당일이 되자 유격구청년들은 인민들과 함께 북삼차구에서 노획한 비단과 세루로 만든 옷을 쭉쭉 뽑아 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었다. 현 공청일군들도 새 양복들을 쑥 빼고 광장에 나타나 행사를 주관하였다. 주름을 세운 군복을 입고 대오를 지어 정연하게 행사장에 들어서는 유격대원들의 늠름한 모습은 적구대표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이날의 개회선언은 연길폭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참관단원들은 ≪꽝≫하는 폭탄소리를 신호로 하여 수십 폭의 붉은 깃발들이 광장에 나부끼고 구호소리, 박수소리, 북소리가 장내를 진감하는 광경을 보면서 다같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9청데이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각계 대표들은 공청의 업적을 찬양하고 반일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 당시는 이런 연설을 감상발표라고 하였다. 우리는 행사 끝에 적구 참관단원들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가졌다. 현당과 현공청일군들의 요청으로 나는 이 환영모임에서 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적극 방조할 데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답사를 하려고 적구에서 온 대표 한 사람이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감격에 목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방에 대고 연방 절만 하였다.

9청데이행사에 참가한 적구대표들은 나의 연설까지 듣고나서 저저마다 입대를 청원하였다. 모두가 유격대에 들어가겠다고 간청하므로 오히려 설복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였다. 우리는 가정사정과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대표들만 혁명군에 받아들였다.

그날의 환영공연에서 이채를 띤 것은 5중대가 준비한 연예종목들이였다. 노흑산지하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한 유격대원이 연해주에 가 있을 때 배웠다는 러시아춤은 참말로 장관이였다.

참관단원들이 유격구를 떠날 때 우리는 적구인민들의 몫으로 따로 남겨놓았던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지워 보냈다.


김택만

내가 여기에서 1934년의 9청데이행사를 이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그 행사가 유격구시절의 청년들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인상 깊은 명절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국제적인 성격의 기념일들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국제당, 국제공청, 국제노조, 국제농조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들과 연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적인 중앙이 있었던 것처럼 만국의 공청들에도 낌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제적 중앙이 있었다. 낌은 국제공산주의 청년조직의 약칭이다. 우리가 하얼빈에 가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조직도 국제공청 산하의 조직이였고 우리에게 모스크바유학을 주선한 단체도 국제당청년부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던 국제공청조직이였다.

공청의 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속에서는 민족해방투쟁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한 훌륭한 혁명가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13연발≫, 강차위(김봉욱), 박길송, 황정해, 김택만, 김충진, 주춘일, 이신순, 김범수, 이동화, 이순희, 박호준 등 무수한 항일영웅들은 다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공청의 산아들이다. 공청이 낳은 이름있는 영웅들 가운데는 빨치산지휘관도 있고 지하공작원도 있고 교육자도 있다.


황정해

요영구 비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모임에서는 적구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겸하여 토의하였다.

적구에서는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공청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의 그릇된 시책으로 하여 적통치구역에서의 공청활동은 홀시되었다. 이런 실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청모임은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전투적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적군들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는 것은 구호와 대동소이한 말이였다. ≪원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는 것은 원쑤의 심장부에 우리의 조직체들을 튼튼히 꾸려나가자는 사상이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공청간부들이 적구공작의 어려운 임무를 맡고 동만지방과 조선 국내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동만특별구위원회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박길송도 나자구에 파견되었다. 그는 유능한 공청 열성자들과 함께 조직들을 늘려갔으며 청년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켰다. 수많은 소년 계절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 간도 굴지의 나자구 양주소에도 그가 박아넣은 공작선이 넝쿨을 깊숙이 뻗쳤다.

나자구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최광도 공청조직의 지시로 이 양주소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다.

유가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이 양주소에서는 해마다 2-5월 사이와 9-10월 사이에 계절노동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품삯을 적게 주고도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소년노동자들만 채용하였다. 공장주는 소년노동자들에게 성인 일노임의 절반도 안되는 30전의 돈을 주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술을 주었다. 30전이면 술 한 병 값밖에 되지 않았다. 이 한 병의 술을 벌려고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퇴근 후에는 노임 대신 받아 가지고 나온 술을 팔려고 시내를 온밤 돌아다니곤 하였다.

최광은 공청조직의 지도밑에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로 소년노동자들을 궐기시켰다. 양주소에 입직한 후 아동단조직에 받아들여 10여 명의 동료들을 동원하여 파업을 호소하는 선동활동을 벌였다. 그 자신도 바로크식으로 되어있는 식당의 문들마다 보초를 세우고 선동연설을 하였다. 조직생활을 해보지 못한 소년들을 파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느라고 그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래도 최광은 인내성 있게 설복하고 또 설복하였다. ≪술 한 병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모두가 단결해서 일한 것만큼 돈을 받아내자. 힘만 합치면 공장주를 굴복시킬 수 있다!≫


최광

그의 호소에 따라 소년노동자들은 3일 동안이나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떼울까봐 공장으로 나가던 소년공들도 그의 해설을 듣고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파업대열에 합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치는 파업을 통하여 소년노동자들은 공장주를 굴복시키고 하루임금을 30전으로부터 40전으로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나자구공청위원으로 사업하던 박호준은 뛰어난 조직적 수완과 능란한 군중공작으로 적구 공청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나자구 양주소의 소년노동자들은 반일조직에 묶어 세우고 파업투쟁이 승리하도록 배후에서 지도한 인물은 다름아닌 박호준이였다. 그러나 그는 공작 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를 체포하자 금시 나자구일대의 비밀조직을 다 알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쾌재를 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써도 박호준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어느 날 놈들은 반주검이 된 그를 회유해 보려고 이렇게 구슬렸다.

≪너는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청년이다. 나이가 아깝다. 너를 믿고 홀로 사는 너의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은가.

공청조직과 간부들의 이름만 대면 너는 많은 상금을 받고 호강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되지도 않을 혁명에 대한 공상을 말고 살길을 찾는게 어떤가.≫

그러자 박호준은 쓴 웃음을 짓고 이렇게 말하였다.

≪공청조직과 간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받아쓰시오. 나를 지도한 간부의 성은 ≪공≫가요, 이름은 ≪산당≫이요.≫

적들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적다가 놀라는 것을 보고 박호준은 벽을 짚고 일어나 그들을 조롱하였다.

≪나를 키워 준 그 위대한 간부의 이름을 너희들이 수첩에 적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공산당은 내 원쑤를 갚아 줄 것이다.≫

박준호는 이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저고리 앞자락을 활짝 헤치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공청원의 불굴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 보라. 그가 어떻게나 떳떳

이 걸어갔던지 적군 사병들조차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한 애연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손에 슬그머니 담배를 쥐어 주기까지 했다. 처녀들은 그의 발밑에 꽃묶음들을 내던졌다.

항일혁명이 키워낸 공청의 첫 세대들은 이렇게 신의를 지켜 싸웠고 깨끗이 죽을 줄도 알았다.

그때 공청대열에서 교양육성된 공청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조직과 혁명의 이익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이순희

공청원 임춘익도 바로 그런 투사였다.

공청 연길현 8구 남선특별지부 서기였던 그는 일찌이 지하공청단체를 조직한 유능한 정치공작원이였으나 그 단체를 지도하다가 체포되였다.

그도 역시 야수적인 고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임춘익은 다른 동지들이 한 비밀공작까지도 다 자기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덕으로 체포되였던 동지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그는 18살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아름답고 고상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조직과 동지들을 살려내고 홀로 형장에 나선 18살 공청원의 고결한 인품앞에서는 적들도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공청원 이순희도 항일혁명이 낳은 불굴의 투사이다. 내가 이순희를 처음으로 만나본 것은 1934년초 겨울이였다고 생각된다. 그때 나는 적들의 ≪토벌≫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아동단학교에 갔다가 이순희를 보게 되었다. 연길에서 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던 그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다.

내가 아이들속에 싸여 아동단학교 마당에 서 있을 때 이순희가 급히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눈매가 시원하게 생긴 그는 시냇가의 물망초처럼 청초한 기운을 풍기는 처녀였다.

학교마당에서는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좋아라 매달리는 아이들속에는 홑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거나 맨짚신에 몽당치마를 두른 애들이 많았다. ≪토벌≫을 당할 때 불속에서 뛰쳐나왔는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도 보였다. 적통치구역에서 부모를 잃고 찾아들어 온 아동단원들은 거의나 헐벗은 몸들이었다.

나는 화상을 입은 한 어린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아동단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새까만 눈동자들이 그 무슨 간절한 기원을 담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몹시 아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어이 너희들을 고아로 만든 왜놈들을 쳐 없애야겠다고 속다짐하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애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였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서 무럭무럭 커서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거라.≫

아이들은 금시 밝아진 얼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소리를 모아 기운

차게 대답하고 나서 좋아라고 떠들어댔으나 아동국장 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장군님, 용서해 주십시오. 공청조직은 저에게 아동국장의 책임을 맡겨 주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헐벗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순희는 내앞에서 죄를 진 사람처럼 민망해 하였다.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짙은 회오의 빛이 어려 있었다.

헐벗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어찌 이순희에게 있겠는가. 사실상 이순희는 아이들의 옷을 꿰매 주고 신발을 손질하고 공책들을 매주느라고 밤에도 눈을 붙일 새가 없었다.

내가 이순희와의 첫 상봉에서 받은 강한 인상은 자기 사업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잘못과 불상사들의 원인을 늘 주관에서 찾는 그 혁명가적인 자아반성의 태도였다.

나는 며칠 후 아동단원들을 위해 일부러 전투를 조직하였다. 노획한 전리품을 가지고 아동단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솜이불과 새 옷 그리고 신발, 학습장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유격대원들이 피를 바쳐서 마련한 어린이들의 새 옷에 볼을 비비며 울고 있던 이순희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순희는 그 일이 고마워서 어느 날인가 아동단유희대를 무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장군님! 솜이불과 새 옷을 보내주신 장군님의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하겠다고 아이들과 연예대를 무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날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준 종목 중의 하나가 구연이였다.

나어린 소녀가 새 옷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내가 입은 이 새 옷은 유격대 언니, 오빠들이 피를 바쳐 구해 준 옷이다 하고 허두를 떼고 화상을 입은 자기의 자그마한 손을 내보였다.

≪장군님께서는 왜놈의 ≪토벌≫에 상처입은 이 손을 어루만지시며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고 하셨어요.

유격대 오빠, 언니들!

우리들은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기뻐해 주세요. 기운을 내 주세요.

장군님 말씀대로 나도 어서 무럭무럭 커서 공청원 오빠, 언니들처럼 총잡고 왜놈과 싸우겠어요.…≫

소녀의 구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무르익은 풍년 이삭에서 근실한 농민의 구슬땀을 보듯이 우리는 그 무대에서 어린이들에게 바친 이순희의 심혈을 읽었다.

어느 날 이순희는 나를 찾아와서 느닷없이 자기를 적구공작에 보내 달라고 제기하였다.

아동사업에 심혈을 쏟아왔고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던 그가 갑작스레 그런 제기를 하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희는 그 후 공청조직에 거듭 제기하여 마침내 박길송과 함께 나자구로 파견되었다.

삼면이 험준한 산으로 첩첩히 둘러싸여 있는 나자구의 만첩청산과 비옥한 전야에는 항일혈전의 발자취와 함께 적구공작의 길을 걸어간 용감한 공청원들의 붉은

넋이 어려 있다.

나는 여기서 이순희의 적구공작과정을 누누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그의 정신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순희는 그때 나자구에서 조금 떨어진 초막을 근거지로 삼고 공작하였다. 찬바람이 스며들고 빗물이 새는 어설픈 그 초막에서 봄을 맞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았다. 그 기간에 나자구에서는 공청조직이 늘어나고 아동단조직이 자라났다. 원쑤들의 아성에 강유력한 혁명의 포대가 쌓아진 것이다.

이순희는 이 포대를 쌓느라고 변장한 몸으로 군경들의 총검과 밀정들의 감시가 무시로 뒤따르는 위험천만한 적구를 주야불식으로 수없이 누비며 다녔다.

그러나 그는 이봉문이라는 고약한 밀정 놈에게 뒤를 밟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적들은 나자구의 지하조직을 들춰내려고 순희를 음침한 철창속에 가둬 놓고 가혹하게 고문하였다. 지하조직의 운명은 이순희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나자구에 깔려 있는 조직망들이 다 들장이 나고 애써 쌓아 올린 혁명의 포대가 일조에 무너질 수 있었다.

놈들은 거짓 약속과 감언이설로 처녀의 심장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순희에게 알아낸 비밀은 오직 하나, 그가 공청원이라는 사실뿐이였다. 아마도 순희는 철장속에 들어가서 공청원이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던 것 같았다.

고문을 주관하던 나자구헌병대대장은 악에 치받쳐 마침내 순희를 총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형 전날 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헌병대장이 이순희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꾀어보려고 졸개들을 이끌고 이순희를 찾아갔을 때였다.

그때 순희는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록 땀에 절고 피로 얼룩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나마 단정히 입고 사형장에 나가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헌병대장을 개처럼 따라다니던 이봉문이란 자가 처녀의 곁에 다가가서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다, 꽃다운 네 나이가 아깝고 불쌍해서 그러니 나자구에 있는 지하조직원의 이름을 한 사람만이라도 외워 바쳐라, 그러면 너는 살아난다고 하였다. 처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피에 엉킨 머리를 비다듬고 찢어진 저고리품에 손을 가져가더니 조그마한 회색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순간 이봉문은 사색이 되어 감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른 교형리들도 아우성을 치며 그를 따라나갔다. 이봉문은 순희가 꺼낸 회색주머니를 수류탄과 같은 무슨 폭발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폭발물이 아니라 흙주머니었다. 그 앙증스러운 주머니는 순희 아버지가 유격근거지에서 전사할 때 딸에게 물려준 것이다.

≪놀라지들 말거라! 이것은 내 나라의 흙을 담은 주머니다. 더러운 그 목숨이 무얼 그리 귀중해서 줄행랑을 놓느냐!≫

조국의 흙을 품에 안고 철장속에서 광복의 그날을 그려본 공청원 이순희와 변절자 이봉문의 인격적 대조를 ≪봉황새와 까마귀≫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무리한 비유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이봉문과 같은 배신자가 그 흙주머니의 가치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튿날 이순희는 사형장에서 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쳤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부른≪공청가≫를 아래에 소개하고 싶다.

새 세상 동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우리는 무산청년 모두 앞서가자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 나가자
우리는 무산청년이니 무산청년답게
우리는 근로대중의 청년전위대

나는 언제인가 이순희와 함께 아동단학교에서 풍금을 타며 이 노래를 불렀다. ≪공청가≫는 공청원들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들과 아동단원들, 부녀회원들까지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그것은 그 노래속에 새 사회에 대한 근로대중의 한결같은 동경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새 세상을 앞당기려는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였다. 수많은 공청원들이 이순희처럼 단두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 ≪공청가≫는 원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였다. 러시아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나 가사와 선율속에 흐르는 사상감정은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온 세계 청년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예젠 포치에의 ≪인터내셔널≫이 많은 나라 당들의 당가로 되었던 것처럼 ≪공청가≫역시 국제적인 청년가로 널리 애창되었다.

이순희와 같은 열녀를 배출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정치적 생명에 빛을 주고 날개를 달아 준 공청조직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존재가 없고 조직적 단련이라는 성장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순희와 같이 앳된 처녀가 교형리들앞에서 그처럼 용감해질 수 있으며 그처럼 도도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최후의 순간을 떳떳하게 장식할 수 있었겠는가.



조선화 ≪청춘의 위훈≫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조직은 영웅을 낳는 집이며 대학이라고 말한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1명의 공청원이나 사로청원은 100명, 1,000명의 적도 타승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다. 우리 인민이 일당백의 인민으로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인민이기 때문이며 우리 인민군대가 일당백, 일당천의 군대로 되는 것은 그들이 다같이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용광로에서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연마해가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조동욱

오늘날의 청년들은 사로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투사로, 영웅으로, 혁명가로 자라나고 있다. 항일전쟁 당시의 공청조직이 직업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학교였다면 지금의 사로청조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위부대를 육성해내는 기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항일혁명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주공을 담당하고 있다. 사로청은 우리 당이 가장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직한 주력부대로 되고 있다. 이 주력부대가 진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위훈이 창조되고 기적이 나래친다. 서해갑문, 북부철길, 광복거리, 5.1경기장, 망경대, 학생소년궁전, 태권도전당 등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로 되고 있는 위대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에는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노동당 시대의 청년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 우리 인민이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사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시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속에서는 만민의 찬탄을 자아내는 공산주의적 미거들이 끝없이 발양되고 있다. 한번 죽으면 두 번 다시 받아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남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고 있다. 일생을 영예군인의 손발이 되어 줄 것을 결심하고 그들의 아내가 된 처녀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꼽아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사로청원들속에는 미혼의 몸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준 고마운 처녀도 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정든 수도를 서슴없이 떠나 전야로, 탄전으로, 개발지로 자진하여 탄원해가고 있다. 진실을 말하건대 나는 이런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싶은 심정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청년운동을 위해 바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고를 더듬어보며 그 운동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해가고 있는 사로청을 생각하곤 한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속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미담들이 연이어 태어나 만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은 사로청의 공적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된 청년들의 대부대, 그것은 사실상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것이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 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 것이다.

유격구 해산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또다시 적구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안도, 돈화, 무송, 장백, 임강 등지에 사람들을 보내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를 꾸리고 적구에서의 지하청년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요길변이란 요녕, 길림, 간도의 변경지대를 말한다. 우리는 또한 지하청년조직을 무산, 갑산, 풍산,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 국경지대에 일차적으로 꾸리고 나아가서 평양, 서울, 부산을 비롯한 조선의 중부일대와 남부지대에까지 확대할 원대한 구상을 세웠

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왕청현 공청서기 조동욱도 공청 요길변 중심현위원회 서기의 책임을 지니고 적구로 들어갔다.

조동욱도 공청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5.30폭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길림성 제3감옥이라고 부르던 하얼빈감옥에서 1년 이상의 옥중생활까지 하였다. 감옥에서 중어공부도 하고 공청에도 들었다는데 중학교 졸업생치고는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학구욕이 강하였다. 조동욱은 공청 영안현위의 위임을 받고 구국군부대에 파견되어 공청사업을 하다가 40여 명에 달하는 무장인원을 이끌고 1932년 9월경에 왕청으로 나왔다.

내가 조동욱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그 해 가을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는 그를 이광 별동대의 공청간사로 임명하고 영안에서 나온 무장인원들을 그 별동대에 배속시킨 다음 대원들을 북만에 파견하여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조동욱의 의붓아버지 장기섭은 ≪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불리우던 성실한 당원이였다.

조동욱은 나와 오의성과의 담판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왕윤성과 함께 담판 중의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준 사람이다. 이 담판이 있은 후 나는 그와 왕윤성을 나자구시내에 있는 반일부대연합판사처에 파견하였다.

조동욱과 왕윤성은 각지의 반일부대들에서 파견되어온 연락군관들과 결의형제를 뭇고 중하층 장교들과 병사대중속에 공산당지부와 공청지부까지 조직하였다.

반일부대 연합판사처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조동욱의 정치활동 솜씨는 더 세련되였다. 그가 적구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발을 붙인 곳은 안도현 양강구였다. 그는 자그마한 상점을 하나 차려놓고 ≪장사≫질을 하면서 상점에 드나드는 위만군들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하여 15명의 중하층 장교와 병사들로 결의형제를 뭇고 1개 중대를 완전히 전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1개 중대는 조동욱의 조종에 따라 병변을 일으키고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조동욱은 산중에 웅거해 있는 병변군인들과 유격대와의 연계를 지어 주려고 처창즈로 찾아갔다. 그런데 좌경분자들은 그를 ≪민생단≫ 혐의자로 보면서 구속하려고 하였다.

훗날 조동욱은 그때의 일을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

≪그때 동만특위의 좌경분자들은 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문초했습니다. 송일이 ≪민생단≫이니 너도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증거를 내놓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탈출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에게 밥을 날라다주던 **김정숙**동무도 그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숙동무는 여비로 쓰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양강구에 돌아온 다음 어머니를 데리고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 후 조선의 여러 지역에 나가 청년사업을 계속하였다.

김진의 넋이 이수복에 의해 이어지고 이수복의 넋이 김광철, 한영철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공청의 명맥은 민청에 의해 이어지고 민청의 명맥은 사로청에 의해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어 할아버지네 세대들이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금 사로청대열에는 **김정일**조직비서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백만맹원들이 집결되어 있다. 21세기의 우리의 조국은 그들의 힘에 의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4. 사도구참변에 대한 대답



노흑산의
용사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는 사업을 지도하느라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자구 지하조직에서는 요영구에 연락원을 파견하여 나에게 사도구참변에 대한 상보를 전해 주었다. 연락원이 가져온 통신문건에는 문영장 부대가 노흑산지방에 있는 정안군을 끌어들여 사도구부락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부락민 전부를 살해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적혀 있었다.

통보는 믿을 만한 것이였지만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문영장이 우리와의 언약을 무시하고 정안군을 대학살에로 유도하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영장과 우리부대 사이에는 오늘날의 공수동맹 비슷한 것이 맺어져 있었다. 우리가 문영장과 손을 잡은 것은 나자구전투 직후였다.

하루는 적구지하조직에서 나자구로 가는 위만군부대의 우마차수송대가 백초구를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는 계관라자부근에서 매복전을 하였다. 위만군호송병들은 변변히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전원 포로되였다. 포로들 중에는 문영장의 수하에서 복무하는 철가 성을 가진 중대장도 있었다. 그 중대장은 혁명군에 붙잡힌 몸이라는 강박관념은 조금도 없이 마치 응당 겪어야 할 일을 당한 사람처럼 태평스러운 얼굴로 히물히물 웃기만 하였다.

≪당신은 장교인데 왜 저항도 하지 않고 투항하였소?≫

나는 그 괴짜에게 질문을 하였다.

≪여기야 ≪고려홍군≫ 활동구역인데 저항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싸워도 이기지 못할 바에야 손을 드는 게 상책이지요.≫

그도 영안지방의 사람들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을 ≪고려홍군≫이라고 불렀다.

≪게다가 ≪고려홍군≫이 포로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건 온 만주가 다 알고 있는 거구요.≫

빈농가의 자식인 철중대장은 만주국군대의 봉급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장가갈 밑천이라도 마련해보려고 총을 멘 사람이었다. 세상물정에 너무나 어둡다고 흠을 잡는 동무들도 있었지만 교양만 잘하면 위만군장교라는 간판과 관계없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었다. 우리가 포로들과의 담화를 끝내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철중대장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대장 나리, 이 우마차들에 싣고 온 물건 가운데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돈과 총만은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병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아마 문영장이 우리를 총살할 것입니다.≫

나는 우마차에 실린 물자 전량과 함께 포로들을 고스란히 나자구로 돌려보냈다. 우리 동무들은 ≪친구들, 우린 탄알값도 못하고 잠만 밑졌소.≫하는 농까지 해가며 그들을 바래주었다.

철중대장은 이효석중대장을 보고 ≪친구, 센가리(무우를 썰어서 말린 것)가마니에 총을 몇 방만 쏴주게.≫하면서 탄알 상자 한 개를 통째로 내주었다. 우리의 대범한 처분에 감심했던 모양이었다. 이효석이 탄알상자를 받지 않고 마차에 실어주자 호송병들은 자기네끼리 센기리가마니에 총을 몇 방 갈겼다. 그런 다음 장탄했던 총알들을 모조리 뽑아 손수건에 싸서 풀밭에 내던지고 덜렁덜렁 달아나 버렸다.

이 일로 하여 철중대장은 문영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되었다. 문영장은 수송대를 파견할 때마다 그의 중대를 따라보내곤 하였다. 다른 중대들을 보내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데 철중대장만은 한 번도 털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곤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수송대들은 다치면서도 그 수송대만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군수물자를 실으러 갈 때마다 부하들을 보내 아무아무 날 몇 시에 자기네 수송대가 어느어느 지점들을 통과하는데 수송대의 표적은 어떠어떠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곤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문영장도 철중대장이 인민혁명군의 보호와 관심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철중대장은 문영장을 만나 ≪우리 중대가 나자구에 와서 인민혁명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영(대대)이 **김**대장네 부대와 공수동맹을 맺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슬쩍 제기하였다. 문영장은 처음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는 시늉을 해보였으나 나중에는 본심대로 아주 훌륭한 보신책이라고 하면서 그 제의에 쾌히 동의해 나섰다. 이 사실이 철중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위만군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동맹을 맺는데 동의한다는 우리의 의사가 문영장한테 전달되었다. 회담도 없고 서명날인도 없는 파격적인 ≪신사협정≫이었다.

우리 부대와 문영장부대와의 공수동맹은 쌍방이 서로 협동하여 공격도 같이 하고 방어도 같이 하는 동맹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떠나 두 군사집단이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고 친선적으로 지내는 동맹이라는 전이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동맹은 양측의 이익을 존중시하고 상호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큰 곡절이 없이 좋게 유지되어 왔다. 우리가 불가침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자 문영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혁명군에 많은 양의 탄약과 식량, 피복을 보내 주었다. 지어 그들은 일본군의 움직임과 관련한 중요한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동맹의 화평관계를 보더라도 문영장이 정안군의 사도구≪토벌≫을 유도했다는 소식은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철 중대장에게 연락원을 보내 진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연락원의 보고에 의해 사도구참변도 사실이고 문영장의 배신행위도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영장이 일본상전의 압력을 받고 공수동맹을 파기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철 중대장이 알려왔다.

우리는 문영장의 배신과 그가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도구참변에 응당한 대답을 주어야 했다. 복수전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지휘부에 날아왔다. 지휘관들도 사도구인민들의 핏값을 받아내자고 대원들을 선동하였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혁명군이 즐겨 사용하던 격언이였다.

나는 대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노흑산의 정안군 부대나 나자구의 위만군 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고 마을마다에 박혀 있는 지하조직들의 활동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다. 나자구는 유격구를 떠난 왕청, 훈춘 지방의 해산군중이 가서 살게 될 소개지이기도 했다.

우리는 정안군부대와 문영장부대를 동시에 치기로 결심하고 부족되는 역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길 1연대와 처창즈에 가 있는 독립연대를 왕청으로 소환하였다. 독립연대는 그때 한 끼에 빵을 한 개씩 먹으면서 5일 가량 강행군을 하여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당수하자의 산제부락까지 왔다. 독립연대의 연대급간부들은 연대장 윤창범이하 대부분 ≪민생단≫으로 몰려 죽고 참모장이 중대들을 인솔해 가지고 왔는데 지휘관들을 잃은 그들의 사기는 여지없이 저락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때 독립연대의 일부와 연길 1연대의 일부, 왕청 3연대의 일부 역량으로 전각루전투를 조직하였다. 토성속에 깊숙이 들이박혀 오만가지 악행을 다하는 위만군과 자위단 무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나자구로 가는 통로를 개척할 수 없었다.

전각루전투를 끝낸 혁명군 무력은 나자구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출진기지로 내정되어 있는 사도구와 삼도구, 태평구 방향으로 백일행군으로 강행하였다. 죽을 먹으면서 200여 리를 행군 하였으나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았다.

사도구는 원래 이태경과 같은 독립군 출신의 노병들과 의병 출신 선각자들이 ≪이상촌≫으로 개척한 고장이었다. 사도하자 또는 상방자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을 후에는 우리가 이광과 함께 혁명촌으로 개조하였다. 우리는 이태경노인을 내세워 이 마을에 반일회도 뭇고 농민협회도 내오고 혁명호제회도 조직하였다. 우리가 사도구에 자주 다니다나니 당시 나자구와 그 주변부락 사람들은 그곳을 ≪공산당사령부≫라고도 불렀다. 인민혁명군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우대와 애정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혁명군이 왔다는 말만 들으면 신짝도 걸치지 않고 맨발바람으로 뛰어나오곤 하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앞에서 나는 한두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사도구마을 가까이에 있는 삼도하자도 우리의 물을 많이 먹은 유명한 혁명촌이었다. 삼도하자부락의 서쪽 산기슭에는 중국사람들이 경영하는 양조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주보중과 함께 이 양조장에 가서 지하혁명조직의 간부들과 인민들을 자주 만나보았다.

사도구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옛정은 이 고장을 적시는 수분하의 흐름처럼 연연하였건만 마을은 불타 버려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진토속에 묻혔다. 고개 너머 이태경 노인의 8칸 집도 다 타버리고 주춧돌만 남았다. 그것은 우리가 한 해 전에 나자구 진공전투를 앞두고 주보중을 비롯한 구국군 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했던 집이었다.

노인은 이 집터 근처에 학교를 세우고 후대교육에 열중하고 있었다. 참변의 총소리, 아우성소리가 아직 귓전에 쟁쟁한 그때 그는 강심을 먹고 교육운동을 위해 궐기한 것이다. 노인은 사도구참변에서 요행 살아남은 독립군 친지의 아들을 집에 숨겨두고 있었다. 청년은 그날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도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산상에서 정안군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사도구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나자구시내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공청원 서일남에 대한 부당한 심문이였다. 그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민생단≫으로 몰리다가 체포되어 사도구혁명조직 책임자로부터 억울한 심문을 당하였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민생단≫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서일남을 체포한 사람들은 일단 그를 석방하고 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서일남은 집에 돌아가자 ≪민생단≫도 아닌 애매한 사람을 ≪민생단≫으로 몰아 고문한다고 불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에서는 다시금 그를 체포하여 ≪민생단≫으로 처형하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를 학대하고 고문한 인간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사도구지하혁명조직가 관련된 비밀을 불어 버렸다.

서일남이 제공한 비밀을 당시 나자구에 와서 설명절 준비를 하고 있던 정안군 부대의 살인마들을 흥분시켰다. 100여명에 달하는 ≪토벌≫군은 1935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사도구마을을 감쪽같이 포위하고 중기, 경기의 일제사력으로 마을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눕혔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화염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림없이 총창으로 찔러 불속에 던져 넣었다.


을미사변
(민비의 장례식)

적들은 1시간밖에 안되는 사이에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삼도하자의 백호장이 사건현장으로 달려왔을 때 거기서는 참변을 요행 모면한 8명의 조선족 어린이들이 시쳇더미속에서 울고 있었다.

백호장은 근처의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의논하였다.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1명씩 데려다 기르기로 하였다. 백호장 자신도 고아1명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참화를 면한 3명의 사도구청년들은 우리부대에 입대하였다.

우리들은 이 참변의 전말을 듣고 모두 다 이를 갈았다. 화근의 동기로 된 것은 물론 서일남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대한 인간들의 좌경망동적 행위임에 틀림없었으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사도구 마을을 피바다로 만든 정안군의 살인백정들에게 일차작인 저주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구대학살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종과 사촉에 의해서만 감행될 수 있는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의 극치였다. 남의 나라 왕궁 안에 뛰어들어 그 나라의 왕비를 서슴없이 살해하고 그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시체마저 불태우는 그런 무지막지한 강도의 후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을미사변(1895)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금치 못하였다. 왕궁 안에서 살해되어 시체마저 건질 수 없었다던 그 왕비가 바로 우리 나라의 마지막 왕 순종을 낳은 명성왕후 민비였다. 조선의 국정을 한 손아귀에 거머쥐고 있던 민비가 친러파의 수괴가 되어 일본세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자 이에 당황망조한 일본의 통치자들은 조선주재 자국 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까지 포함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습격하게 하였다.

일본도로 민비를 난도질한 미우라의 하수인들은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체를 화장하고 남은 그의 유물까지도 못속에 집어 던졌다.

원래 조선사람들은 민비를 그다지 숭상하지 않았다. 개국으로 나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왕가의 며느리로서 외부세력과 결탁하

여 시아버지인 대원군을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낸데 대해서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원군이 둘러친 쇄국의 울바자가 20년이나 30년만 더 유지되였어도 우리 나라가 남들의 식민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민비에 대해 국민들이 품고 있었던 고까운 심정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민비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고 왕비는 왕비인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일원이 였고 왕가의 주인이였으며 고종을 대변하여 국정을 다스린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 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국민의식이 강하고 존왕정신이 강하며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조선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할리 만무하였다.


단발령과 반대통문

거기다가 단발령까지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민족감정은 분화구를 헤치고 크게 폭발하였다. 우리 인민은 의병항쟁으로써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시행에 대답하였다.

간도대 ≪토벌≫의 해로 알려진 경신년에도 일본군대는 만주지방에서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그것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당한 대참변의 수치를 재만조선족 비군사인원들에 대한 살육으로 씻어보려는 전례 없는 살인광증의 폭발이었다. 시베리아출병을 끝내고 남하하는 일본군과 나남을 떠나 만주지방으로 북상하던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락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청장년들을 끌어내다가 무더기로 학살하였다. 민비시해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체들은 석유를 치고 화장해 버렸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를 없애치우자는 수작이었다.

1923년의 간도대진재는 지각운동이 일으킨 자연의 재난과 함께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인공적인 재난도 기록하고 있다. 대진재를 조선인 탄압의 호기회로 삼은 깡패들은 도처에서 일본도와 참대창으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들은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서도 조선족들을 정확히 식별해 내려고 겉만 보고 잘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고엔 고주고센≫이라는 말을 번져보게 하였다. ≪고엔 고주고센≫이란 ≪5원 55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유창하게 번지지 못하는 주민들은 예외없이 조선사람으로 인정되고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재난의 첫 18일 동안에만도 우리 민족은 6,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과녁으로 하여 저질렀던 죄악의 일부이며 살육과 약탈로 얼룩진 일본근대사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역사의 일부가 사도구라는 자그마한 부락에서 재현된 것이다.

≪마을에는 지하조직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도 무경각했습니까?≫

나는 분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이태경노인에게 물었다. 사실 그것은 부질없는 질문이었다. 경각성이 있은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상비적인 유격대무력이 없는 이 부락에서 보초를 세울 수야 없지 않는가. 설사 보초를 세웠다고 해도 숱한 무장인원이 새벽 어둠을 타고 은밀히 기어드는데 다른 수가 있는가.

≪장군님, 우리가 너무 허리띠를 풀어놓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늙다리들에게 죄가 많습니다. 혁명군의 보호밑에서 늘 편안하게 살아오다나니 우리가 망국민이라는 것도 잊고 독립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고 있은 것 같습니다. 사도구마을의 어떤 영감들 중에는 간디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이태경노인은 어그러지는 말이라도 꺼낸 사람처럼 어줍게 웃었다.

나는 놀랐다. 이 산골에 간디의 숭배자가 다 있다니?!

≪노인님, 그 노인은 어떻게 되어 간디를 숭배하게 됐습니까?≫

≪조선서 건너온 어떤 신사멋쟁이가 영감에게 간디를 소개해 준 모양입니다. 우리 나라 신문에 실린 간디의 편지까지 보여 주었다지 않겠습니까. 그 후부터 영감이 마실방에만 나타나면 폭력이 어떻고 비폭력이 어떻고 하면서 무혈독립론을 염불처럼 외웠습니다.≫

나도 길림 시절에 ≪조선일보≫지상에서 간디의 편지를 읽고 박소심과 함께 무저항주의를 논평한 적이 있었다. 그 편지의 원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들의 편지를 받았나이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사바르마티에서

엠. 케이. 간디



간도대학살사건

편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간디는 조선사람들에게 무저항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아마 간디의 사고방식에 매력을 느낀 어떤 무저항주의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았다.

길림의 교포청년들속에서는 간디의 사상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비폭력불복종운동 같은 것으로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독립을 선사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환상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간디의 사고방식은 무력항쟁을 포기하였거나 독립운동의 길에서 탈락한 일부 민족운동자들에게서 일정한 공명과 지지를 받았다.

영국의 지배를 저주롭게 여기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국인도 해칠 생각 없다고 하였고 영국정부의 조직적인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조직화된 비폭력이라고 언명한 간디의 사상이 광범한 인도인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의 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인도의 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설사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아시아와 구라파의 서로 다른 강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던 조선과 인도가 같은 처방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었다. 인도는 인도이고 조선은 조선이였다.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이 가장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나자구지구에 무혈독립군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영감이 죽는 순간에야 무혈독립론이 허황하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놈들은 피맛을 보구 싶어 자꾸만 갈개는데 당치도 않게 무혈이라니 ≫

이태경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노인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강도들하고는 무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

≪장군님, 조선사람 목숨이 너무도 헐값입니다. 우리 백의민족이 언제까지나 이

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탁입니다. 사도구사람들의 핏값을 받아주십시오. 그 원쑤만 갚아 주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고 편안히 죽겠습니다.≫

노인은 나를 바래주면서도 복수를 해 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노인님의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구인민들의 핏값을 받아내지 못하고 돌아오면 이 집 마당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시오.≫

살인마들의 머리 위에 철추를 내리려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 우리는 나자구진공의 길로 오랐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해치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는 선린관계를 맺고 친선적으로 지내왔다. 상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도 상대를 치고 상대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면 우리도 상대에게 미소를 보냈다.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는 것이 내가 일생을 통해 고수해오고 있는 상호성의 원칙이다.

지난날 조선의 무능한 봉건정부는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남조선 통치배들이 미군의 위법행위앞에서 법을 발동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마구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가해자들을 조선의 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일본의 법으로만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구역에서는 그런 치외법권이 허용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조선민족과 조선의 강토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법이 있었다. 사도구참변을 도발한 살인자들은 그 법앞에서 무사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단오날을 계기로 서산포대부터 점령하고 일거에 나자구시내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훈춘연대의 도착으로 하여 작전역량은 증강되었다.

혁명군의 종대들이 나자구 쪽으로 계속 행군해가고 있을 때 시내에 정찰을 갔던 왕청연대의 대원들이 철중대장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철중대장이 나를 갑자기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문영장의 동향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영장님은 인민혁명군이 나자구를 포위공격한다는 정보를 받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안군이 쓸어와서 사도구의 위치를 대 달라고 하기에 부하를 시켜 위치를 대주게 하였는데 그런 변이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왜놈들 압력에 못이겨 사도구에 정안군을 안내한 것이고 부하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할 때 그것을 제지시키지 못한 것밖에 없다, 아무렴 **김**대장과의 약속을 의식적으로 줴버렸겠는가고 하면서 제발 용서를 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철 중대장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문영장이 사병들의 약탈행위를 엄단하지 못한 것과 정안군의 길 안내를 해 주도록 한 것은 분명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일본 상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괴뢰군 부대의 장교가 한 짓이니 그 죄는 대범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다.

만약 문영장을 쳐 없앤다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우리와의 공수동맹은 완전한 결렬에 이를 것이고 나자구에는 문영장 부대와는 대비도 할 수 악질적인 부대가 새롭게 파견되어 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않건 적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일대에 왕청, 훈춘 지방의 유격구 주민들을 소개시키려던 우리의 노력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나자구지구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략적 지탱점으로 계속 고수하려는 우리의 의도도 엄혹한 도전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문영장을 징벌하지 않고 우리 편에 더 바싹 끌어당기기로 결심하였다. 그 대

신 노흑산 일대의 정안군을 답새겨 인민을 해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주려고 하였다. 동녕현 일대에 파견되었던 정찰병들의 보고에 의하면 노흑산 왕보만이라는 곳에 증강된 정안군 1개 중대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구를 초토화한 살인광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정찰병들은 이 중대가 악명 높은 요시자끼부대에 소속된 1개 파견대라는 것까지 탐문해왔다.

나는 철 중대장에게 우리의 결심을 말해 주었다.

≪인민혁명군은 나자구진공계획을 보류한다. 문영장이 우리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문영장은 공수동맹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하여 왔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 맹약이 사실이라면 우선 단오날 인민혁명군이 나자구시내에서 군민연환운동회를 할 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돌아가서 영장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라. 우리는 여기서 회답을 기다리겠다.≫



로흑산전투가
진행된 산골짜기

철 중대장은 군영에 돌아가자 문영장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통지해왔다.

우리의 연대들은 전투대형으로부터 명절놀이대형으로 재빨리 이행하였다. 나자구진공의 설계를 담당했던 작전의 능수들은 군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는 체육종목들을 설정하고 군민일치의 위력을 시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수단 구성을 위해 바삐게 돌아갔다. 적이 주둔하고 있는 성시 한복판에서 혁명군 ≪토벌≫의 사명을 띠고 있는 적군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황리에 진행된 전쟁사상 유례를 모르는 나자구군민연환운동회는 이렇게 마련되었다.

이날은 지하에 숨어 있던 공작원들까지 다 떨쳐나와 운동회를 구경하였다. 문영장부대의 사병들도 이 희한한 명절놀이에 넋을 잃었다. 사도구참변을 계기로 저락되었던 인민들의 기세는 단오놀이와 함께 다시금 고조되었다. 군민연환운동회는 그 소속과 명칭에 관계없이 인민을 건드리지 않는 군대와는 언제든지 우호적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과 의지를 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하였다. 우리는 태평구에서 중대정치지도원급 이상의 군정간부들이 참가하는 지휘관회의를 열고 노흑산전투 계획을 면밀히 작성한 다음 사도구참변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성대히 하였다. 그 추도식은 혁명군 장병들의 복수심을 격발시키는 하나의 좋은 연단으로 되었다.

우리가 노흑산에서 ≪홍수퉅≫을 요정낸 것이 아마 1935년 6월 중순경이라고 생각된다. ≪홍수퉅≫이란 만주지방인민들이 정안군놈들에게 달아준 별명이다. 소매에 붉은 완장을 끼고 다니는 그들의 허식적인 차림새가 그런 별명을 만들어내게 한 동기로 된 것 같다.

그때 우리 대원들은 왕보만에서 적들을 아주 교묘하게 끌어냈다. 노흑산의 왕보만에 주둔하고 있는 정안군은 제1차 북만원정 때에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부대였고 사도구참변을 일으킨 독종들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정안군에 싸움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후각이 예민한 정안군은 우리 부대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던지 좀처럼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사람들을 통하여 정안군놈들이 겨울에만 유격대 ≪토

벌≫을 하고 여름에는 될수록 혁명군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산림대나 토비 같은 것만 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적들이 볼 수 있게 일부러 대낮에 부대를 나자구로 철수시켰다. 놈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데로 철수한 것으로 믿게 하려는 계책에서였다. 그리고는 그날 밤으로 은밀히 정안군이 주둔하고 있는 왕보만근처의 수림속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매복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중국말을 아는 대원 10여 명을 산림대로 가장시켜 왕보만으로 내려보냈다. 마을에 내려간 우리 대원들은 주민들의 하늘소도 빼앗고 가재도구도 차 굴리고 남새밭의 울짱도 뽑아 던지면서 한바탕 야료를 부리는 척하다가 부대로 돌아왔다.


노획한 적의 박격포

그러나 첫날은 어떻게 된 셈판인지 정안군놈들이 그 수에 걸려들지 않았다. 우리는 불편한 대로 매복지점에서 마른 음식으로 대충 저녁을 굼때고 모기들의 성화를 받으면서 지루하게 하룻밤을 보냈다. 이관린이 장철호와 함께 백두산을 개척할 때 모기들의 성화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마에 쑥타래를 둘러감고 감자밭을 맸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흑산 깔따구의 드살이 또한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볼과 뒷덜미를 철썩철썩 때리면서 이 노흑산이라는데서는 깔따구조차도 ≪홍수톨≫을 닮아서 독침으로 사람을 찌른다고 푸념을 하였다.

다음날에서 유인조동무들은 왕보만부락에 내려가서 산림대 행세를 하고 돌아왔다. 좀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닭을 두세 마리 잡아 가지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사리는 척했더니 그제서야 정안군이 무리를 지어 유인조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날은 주민들이 산림대가 또 왔다갔다고 굉장히 아부재기를 친 모양이였다.

사실상 정안군놈들은 유격대의 전법에 정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대가 수송대는 어떻게 치고 성시습격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놈들을 속인다는 것은 참새 목에 굴레를 씌우는 것만치나 힘든 일이었다. 우리 유인조동무들이 확실히 산림대 망나니들의 연기를 빈틈없이 수행한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전투와 관련된 일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두 번째 날 매복지점에서 피곤에 못 이겨 졸고 있을 때 김택근의 부인이 나를 흔들어 깨워 주던 일이다. 그 여자는 내가 십리평 골짜기에서 열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간호병의 구실을 하느라고 남편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였다. 말하자면 부관 노릇을 한 셈이었다. 그때 택근의 처가 넙적하게 생긴 풀을 뜯어 가지고 와서 먹음직하게 생겼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내가 보니 취였다. 곰이 많은 고장에서 나는 취이므로 나는 그 풀에 ≪곰취≫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했다. 해방 후에는 대흥단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곰취를 먹어보았다.

혁명군의 매복진으로 기여든 적들은 ≪이런 곳에서 포위에 들면 재미없겠는데.≫ 하면서 불안스럽게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적들이 산골짜기에 다 들어섰을 때 전투개시를 알리는 신호총을 쏘았다. 일본지도관을 겨냥하여 한 방 갈겼는데 단번에 꺼꾸러졌다. 적은 저항도 못하고 순식간에 괴멸되었다. 유격대의 선동가들은 적들이 지형지물에 의지하여 저항을 꾀하기 전에 중국말로 함화공작을 들이댔다. ≪일제를 타도하라!≫, ≪총을 바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함화에 적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순순히 무장을 바쳤다. 노흑산전투는 우리가 진행한 최초의 대표적인 유

인매복전이였다. 이때부터 일본군경과 위만군은 우리의 전법을 ≪라와전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노흑산전투에서 ≪천하무적≫을 자랑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던 정안군을 100여 명이나 쏴 제꼈다. 중기, 경기, 보총, 수류탄, 군마를 비롯한 많은 전리품들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 전리품들 중에는 박격포도 있었다. 적들은 말안장에 그 포를 싣고 거들먹거렸으나 한 방도 쏴보지 못한 채 우리에게 빼앗겼다. 내가 조택주노인에게 주었던 백마도 바로 이 전투에서 노획한 10여 마리의 우량종 군마들 중 한 마리였다.


노획한
적의 기관총

우리는 이 전투에서 여러 마리의 군견도 노획하였다. 그때 우리 지휘관들은 그 군견들 중 몇 마리를 나의 호신용으로 쓰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세파트들을 모두 태평구와 석두하자 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다. 노획한 군견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다홍왜회의 때 동무들이 나의 호신용으로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개를 한 마리 끌어온 적이 있었다. 아주 영악하고 영리한 개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전우들의 성의는 고마웠으나 나는 일본사람들이 길들인 개인데 빨치산대장에게 정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훗날 적 ≪토벌대≫와의 싸움이 붙었을 때 그 개는 일본놈의 냄새를 맡고 적진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나는 백마의 덕은 많이 보았지만 전리품 군견의 덕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항일전쟁사에서 유인매복전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흑산전투의 전과정은 유인매복전이야말로 유격전의 특성에 부합되는 가장 능률적인 전투형식의 하나라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는 훗날 몽강 땅에서 구도의 부대를 소탕하였고 장백, 임강 일대에서는 요시자끼 자신이 이끄는 정예부대를 타승하였으며 최후 결전의 시기에는 정안군의 1사를 와해 괴멸시키는 연전연승의 통쾌한 기록을 남겼다.

노흑산전투는 고정된 지역에서 유격구방위에 주력을 돌리던 인민혁명군이 협소한 해방지구의 울타리를 터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대부대활동의 위력을 처음으로 시위한 전투였다. 노흑산골짜기를 진감시킨 아군의 총성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데 대한 요영구회의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찬가였으며 제2차 북만원정의 승리를 예고해 주는 종소리였다. 노흑산에서의 승리로 하여 인민혁명군은 2차 북만원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

인민혁명군의 승전 소식은 전광석화와도 같은 속도로 만주대지에 전파되어 정안군의 압제밑에서 고통받던 조중 양국의 노농대중에게 신심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해 주었다. 노획한 말들에 전리품을 처싣고 태평구로 돌아올 때 그 고장 인민들은 도로 양옆에 장사진을 치고서 우리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삼도구의 이태경도 우리가 휴식하고 있는 신툰자마을로 달려왔다. 진창과 화소포 사람

들도 위문품들을 가지고 인민혁명군을 찾아왔다.

나는 2차 북만원정 전야에 훈춘유격대가 보내온 정보에 따라 대황구에 있는 1개 중대의 위만군을 돌려세우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그때 나에게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훈춘유격대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던 황정해였다. 그의 아버지 황병길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할 때 그 거사에 적극 참여했던 이름난 애국열사였다.

황정해는 대황구의 위만군중대에는 연공사상을 가진 중사가 1명 있는데 그가 지금 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는 중대 전체를 돌려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부 대원들만 데리고 유격대로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 잘만하면 중대 전체를 돌려세울 것 같은데 나의 조언을 바란다고 하였다.

대황구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중대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1개 중대의 위만군은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뻗치고 서서 이모저모로 유격대의 활동을 구속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우리는 중대장이 중국사람이라는 것과 중대에서 통역으로 복무하는 조선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병변공작에서 주인공역을 담당한 인물은 바로 황정해를 비롯한 우리 공작원들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던 그 중사였다. 중사는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도 아니었고 공산당원도 아니었다. 그저 대련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군대에 징모된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가 속한 ≪토벌대≫는 원래 열하에 있었다. ≪토벌대≫가 간도로 활동무대로 바꾸게 되자 그도 자동적으로 훈춘에 와서 복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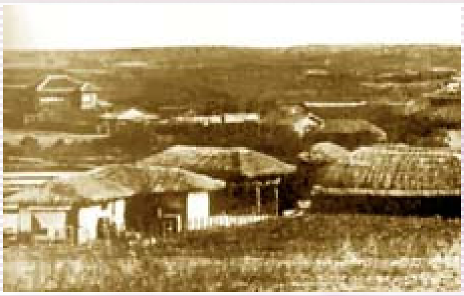
열하에 있을 때부터 간도에 공산당이 와글와글하다는 선전을 많이 들어온 중사는 훈춘에 와서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어는 공산당과 손을 잡고 자기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까지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중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빌어먹을 것, 공산당과 싸움을 해서는 뭘 해, 차라리 이놈 새끼들을 한 놈 쏘아 죽이고 넘어가고 말아야지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음식점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온 황정해는 이 사실을 곧 지휘관들에게 보고하였다. 중사는 곧 우리가 쟁취해야 할 사업대상이 되었다.

바로 이 무렵에 훈춘시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우리 동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동무는 조선사람이었지만 중국말을 아주 능란하게 하였다. 경찰이 그를 비끄러매 가지고 차고 때리고 고함을 치면서 야단법석을 할 때 시가지를 지나가던 그 노동자 출신 위만군중사가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동무를 가로챘다. 이 자식아, 공산당이면 공산당이지 너나 이 사람이나 다 압박받는 처지인데 사람을 이렇게 치는 법이 있는가고 하면서 경찰놈을 후려갈기고 쫓아버린 다음 자기네 병영으로 우리 대원을 데려갔다.

중사는 우리 동무에게 말했다.

≪당신을 당장 놓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하고 같이 우리 병영으로 가야겠다.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면 우리 부대에 가 하룻밤 자면서 우리 중대장한테랑 공산군의 형편을 좀 말해 주라. 우리는 그것을 몹시 알고 싶다. 우리 중대에는 일본놈지도관이 하나 있고 통역을 하는 조선놈이 하나 있는데 이 두 놈이 다 나쁜 놈이다. 요 두 놈은 수를 써서 시가지로 보낼테니까 마음을 놓으라.≫


간도의 조선인 정착촌

우리 동무는 중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권

고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좀 얼떠름했지만 이래도 죽도 저래도 죽을 바에는 영예롭게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만군병영으로 따라갔다.

중사는 병영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친구인 중대장한테 우리 동무를 데리고 갔다. 세사람이 차탁을 가운데 두고 밀담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일본지도관이 중대부로 쑥 들어와서 우리 동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중사는 지도관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중대장을 향해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술값 받으러 왔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야단났다, 중대장, 술값을 대줄 테니 그건 걱정 말라, 당신의 친구이면 내 친구나 같은데 잘 대접해야지 그저 보낼 수야 없지 않는가. 여기서 차나 마시면서 천천히 회포를 나누다가 헤어지라고 하였다.

일본지도관이 시가지로 내려간 다음 세사람은 밀담을 계속 하였다.

중사의 간청으로 우리 동무는 공산당 선전을 들이댔다. 유격대는 조선사람도 있고 중국사람도 있는 조중연합군이다, 나는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들도 일본놈의 만주강점을 반대한다, 당신네 위만군에도 애국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위만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선전하고 중국말로 위만군에 대한 노래를 몇 가지 불러 주었다.


황정해

우리 동무의 선전에 감화된 위만군 중대장은 당신은 내일 돌아가서 상관에게 보고하라, 우리는 유격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설사 우리 부대가 ≪토벌≫을 간다 해도 수림근방에다 대고 암호로 총을 몇 방 쏠 테니까 당신네는 다른 데로 피하라고 하였다.

중사는 중사대로 우리 동무를 바래주면서 나는 앞으로 당신과 연계를 가지고 싶다, 당신도 나와 연계를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당신네 정치위원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그 줄을 잡아쥐게 되었고 그 줄을 움직이면서 병변공작을 심화시켰다. 나는 황정해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어 대황구로 돌려보냈다. 황정해는 그 중사와 다시금 연계를 맺고 위만군중대를 통째로 병변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였다. 중사는 황정해를 보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노릇을 해먹는다. 사람으로 태어나 남의 괴뢰노릇을 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당신네가 부럽다. 중대를 다 데리고 공산군 편으로 넘어갈 각오가 돼 있으니 우리를 습격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위만군의 병영 근처에 2개 중대인가 3개 중대의 역량을 파견하였다. 그 중대들이 병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위만군사병들이 조기체조를 하고 있을 때 위협사격을 하면서 함화를 들이댔다. 위만군측에서는 대표를 보내 담판을 요구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대련내기 중사였다. 중사는 교전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우리의 대표앞에 병변결의를 표명하였다. 그 결의대로 150여 명에 달하는 위만군 장병들은 일본교관과 조선인 통역을 제껴버린 다음 시가지에 있는 적들의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서 말수레에 싣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 유격구역으로 들어왔다.

이 중대를 인민혁명군에 어떻게 편입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훈춘연대의 지휘관들은 한동안 토론을 많이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중대를 해체하여 인민혁명군의 새 중대들에 배치하자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중대를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편입시키자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안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해체해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었다.

연대지휘부는 이 안을 가지고 반변해 온 중대의 지휘관들과 담판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위만군 지휘관들은 자기네 중대를 해체하는데 좀처럼 동의하지 않았다. 훈춘연대의 정치위원 최봉호는 결론을 바란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는 위만군 사병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속에 들어가서 담화를 하였다. 해체를 반대하는 위만군측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해체설로 하여 사병들은 몹시 뒤숭숭해 하고 있었다. 포로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반변하여 넘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이 중대, 저 중대에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예절에도 어그러지는 처사였다. 가장 합리적인 안은 위만군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중대를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편입시키되 그것을 인민혁명군의 실정에 맞게 3개의 중대로 나눈다는 것과 각 중대의 지휘관은 병변군인들의 전대회의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선거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토의에 붙였다. 위만군측에서는 그 절충안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 후국충연대장과 최봉호정치위원도 그 안을 지지하였다.

병변공작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중사도 중대장으로 되었다. 그전 중대장은 쏘련에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

나는 위만군 중대의 병변군인들 가운데서 중국관내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쏘련을 거쳐 관내로 보내고 남아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훈춘유격대에 편입시켜 데리고 다니다가 북만에 가서 이연록의 부대에 넘겨주었다.

적들은 나자구, 태평구 방면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를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관동군, 위만군, 경찰, 자위단, 철도경호대 등의 대무력을 동원하였다. ≪토벌≫군의 주력은 나자구 방면에서 태평구를 압박하였고 일부는 요영구와 백초구 일대에 전개되어 인민혁명군이 서남방향으로 퇴각할 경우 이 일대의 협소한 지역에서 완전히 포위섬멸할 작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1935년 6월 20일 적들은 마침내 태평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태평구 뒷산에 부대들을 전개시키고 박격포중대 가까이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지휘처 아래에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적들은 배를 타고 대화소포강을 도하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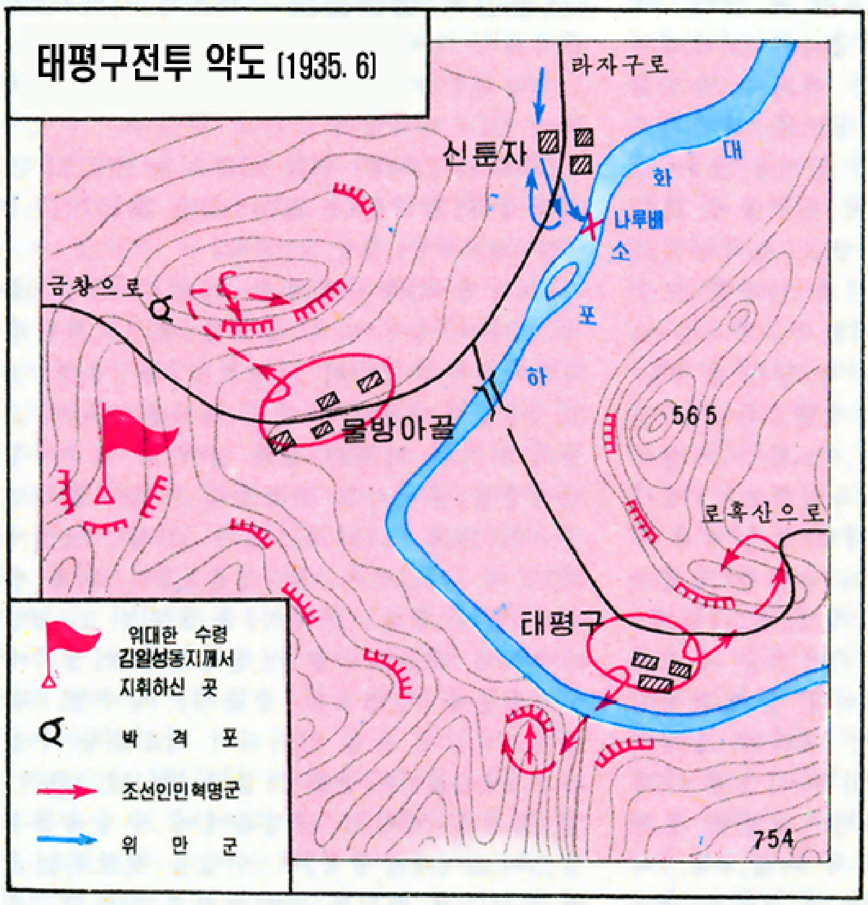
이때 우리의 박격포중대가 포문을 열었다. 배 한 척이 강복판에서 박살이 났다. 혼비백산한 적들은 대화소포강 도하를 단념하고 자기들의 진지로 황망히 달아나버렸다. 그 박격포의 포수들이 대단했다. 위만군을 병변시키고 그 일부 역량으로 포중대를 따로 내온 보람이 있었다. 위만군의 전투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회의론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실책을 뉘우쳤다.

나는 포중대장을 얼싸안고 전투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위만군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미덥지 않게 여기던 혁명군의 일부 지휘관들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포좌지로 뛰어왔다. 대화소포강에서 울린 인민혁명군의 포성은 우리 나라 포무력의 탄생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이었다. 적들은 그 포성앞에서 전율하였고 인민은 그 포성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포병절로 기념하고 있다.

대화소포강을 도하하려다가 우리의 박격포 공격에 넋을 잃고 나자구로 달아난 문영장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민혁명군이다. 어제



대화소포강



포를 노획해 가지고 오늘은 단 두 방에 명중시키는 귀신같은 재간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인민혁명군과 맞서는 것은 머저리들이나 할 짓이다. 이제는 내 목에 일본도가 날아들어도 **김일성**부대와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철 중대장이 보낸 정보이다.

노흑산과 태평구에서 연이어 전승의 개가를 올린 인민혁명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도처에서 생기발랄하게 움직였다. 나자구 반일회장은 인민혁명군이 노흑산에서 정안군을 녹여낸 다음부터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촌정부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와 결혼등록도 하고 출생신고까지 한다고 자랑하였다.

인민을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흑산이 태평구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 의지를 다시금 실천으로 힘있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민을 건드리는 자들은 너무나도 간악하였다.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우리가 생존한다!≫, 이것은 바로 인민의 적으로 등장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였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과 아직도 많은 싸움을 해야 했다.

태평구전투 때 적들이 흘린 피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화소포강을 어지럽혔다. 그래서인지 그 해에는 전례없이 많은 황어가 떼를 지어 이 강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5.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숙반≫의 회오리가 남긴 파멸적인 결과를 놓고 온 동만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갈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근거들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 활동을 벌일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1935년 3월의 요영구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노선은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군정간부들한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 이해와 공명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에 참가한 당과 공청의 일부 간부들 가운데는 유격구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유격근거지를 해산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해산해 버릴 유격구라면 애당초 건설은 왜 하였는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이 유격구를 위해 3-4년동안이나 피를 왜 흘려왔는가, 이것은 우경이다, 투항주의다, 패배주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였다. 그때 그들이 유격구해산을 반대하여 들고 나왔던 주장을 학계에서는 지금 유격구 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영구회의가 진행된 곳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사수를 제일 강경하게 제창한 대표적 인물은 영안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이광림이었다. 공청 영안현위와 길동국에서 청년사업을 많이 해온 이광림은 그 후 왕청지방에 파견되어 채세영, 부현명을 비롯한 반일부대사령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관계하였다. 그가 요영구회의에 참가한 것은 공청동만특위임시서기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할 때였다고 생각된다.

이광림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가지고 유격구 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들이댔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떠나가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격구를 해산한 다음에는 인민들은 적구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그들을 사지에 밀어 넣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유격구라는 군사정치적 지탱점이 없이 혁명군이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유격구에서 혁명적으로 세련된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손때를 묻혀 키워온 수만 명의 혁명군중을 잃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총체적으로는 유격구 해산조치가 혁명을 1932년의 원점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순조롭게 낙착을 지을 것 같던 논의는 이광림의 장광설로 하여 점차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되었다. 유격구해산방침에 지지를 표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회의참가자들은 유격구사수론자와 유격구해산론자의 두 패로 갈라져 입씨름을 펼쳤다. 논쟁이 극점에 이르자 수양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인신공격까지 해가며 상대를 강짜로 눌러 버리려고 하였다. 누구인가는 이광림의 사생활까지 거들면서 그이 주장을 논박하였다.

이광림은 영안현에서 구공청책임자로 활동할 때 어떤 여성을 짝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랑은 매우 열정적인 것이었으나 상대는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순정을 기울인 대가로 얻은 것이란 보낼 때마다 답장도 없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연정의 편지와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는 처녀의 무정하고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사랑이란 역시 어느 일방의 주관적 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광림은 자기에게 실연의 쓴맛을 안긴 그 여성을 목릉현으로 쫓아버리고 다른 여성과 치정관계를 맺다가 왕청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광림의 주장을 논박하느라고 끄집어낸 이면사이니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속단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런 이면사를 끌어내는 비열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이광림을 강타한 것은 그가 사랑하던 여자를 타방으로 추방해 버릴 정도로 무서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만큼 논쟁상대를 꺼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서였다.

어떤 사람은 이광림이 지난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모모한 인물들에게 열심히 추종하던 ≪화요파 계열의 잔당≫이라는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유격구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종파병의 재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까박을 붙였다.

실패작으로 끝난 논쟁 상대의 애정사를 들추어낸다든가 그에게 종파잔당이라는 감투를 씌운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야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책임은 이광림에게도 있었다. 그가 자기를 인민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 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가장 철저한 대변자로 묘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경기회주의이니, 인민에 대한 배신이니, 용서할 수 없는 자살행위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마구 가져다 붙였기 때문이었다.

이광림과 같은 사람들이 유격구해산을 한사코 반대하는 그 심정의 일단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유격구를 해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고통으로 되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했고 자기들의 심혈로 가꾸었으며 ≪천당≫이상으로 여기면서 철통같이 지켜온 보금자리를 아무 미련도 애정도 없이 냉담하게 집어던지고 달아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끝없는 미련과 애정에 부대끼면서 유격구 해산을 결심했다.

이광림도 물론 우리만 못지않게 유격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에서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구를 타고 앉아 막대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강적을 상대로 하여 장기간 1대1의 정면대결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여도 모험주의라고 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유격구의 생활력이 절정에 올랐던 1933년이나 1934년에는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유격구를 오아시스나 지상천국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1935년에 와서는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변덕이 아닌가? 아니다. 변덕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며 후퇴도 아니였다. 그것은 오히려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이 큰 전략적 조치였다.

우리가 1935년에 와서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감히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였다.

두만강 연안에 건설된 유격구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의 사명과 임무로 내세웠던 최대의 과제는 혁명역량을 보존육성하는데 있었고 아울러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을 위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자는데 있었다. 물론 그때 우리가 그 임무수행 기간을 3년이라거나 4년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고 보았을 뿐이다.


김자린

무장투쟁의 열기속에서 군대와 인민은 모두 불사조로 성장하였다. 출발역을 떠날 때 수십 명에 불과했던 유격대오는 대규모의 유격근거지 방어전투들과 도시공격전까지 벌일 수 있는 방대한 역량을 포섭한 인민혁명군으로 발전하였다.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 보물고에는 생신하고 독창적인 유격전의 경험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었다.

유격전쟁은 투사들을 키워내는 용광로였고 군정대학이였다. 이 용광로에서는 순수한 강쇠만 뽑아냈다. 돌밭이나 지주집 외양간에서 굴러다니던 떡쇠도 이 노에만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강쇠가 되어 나왔다. 항일군정대학은 부와 가난이 다같이 손금에 있고 점쟁이의 점괘에 있고 무당의 넋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던 촌무지렁이들과 품팔이군들까지도 투사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전에 김자린의 머슴군 시절의 경력을 듣고 앙천대소한 적이 있었다. 웃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한 토막의 희극이 그 경력을 채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날로 김자린은 지주집의 소를 끌고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갔다. 그가 먹음직한 풀을 골라가며 한창 낫질을 하고 있을 때 산굽이에서 기차가 불쑥 나타나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일손을 놓고 두렁에 앉아 잠깐동안 기차구경을 하였다. 김자린의 눈길은 승강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신사의 해말쑥한 모습을 우연히 포착하였다. 그는 어째서인지 그 해말쑥한 꼴이 몹시 밉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신사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신사도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질을 하였다. 그 서슬에 그의 머리에 맥고모자가 날아났다. 신사는 어이가 없는 듯이 몇 번 두 손을 허공에 저어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달리는 기차와 함께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그의 맥고모는 철길 가의 늪속에 날아가 떨어졌다.

김자린은 늪속에 뛰어들어가 그 맥고모를 건져 쓰고 부자가 된 기분으로 철길뚝에 올라섰다. 그는 그 뚝 위에서 운수가 좋게도 은전 5전이 들어 있는 손수건을 발견하였다. 신사의 머리에서 맥고모자가 벗어질 때 그 모자와 함께 공중에 떠돌던 손수건이였다.

은전 5전으로 무엇을 사면 좋겠는가고 하루 종일 궁리를 하던 10대의 머슴군 김자린은 그날 밤 신사가 떨구고 간 맥고모를 쓰고 부잣집 자식들이 밤마다 모여서 풍청대는 도박장에 나타났다. 그는 5전을 밑천으로 우연히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 자식들한테서 거액의 돈을 따냈다.

김자린은 그 돈 중에서 지주집에 진 빚을 물어주고 더러는 가난과 눈물로 한평생을 엮어가고 있는 이웃집의 불쌍한 노인에게 주었다.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안되었

으나 그 돈이면 몇 해를 두고 흥야라붕야라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어린 머슴꾼은 타산하였다.

그러나 한 해도 지나기 전에 김자린은 다시금 빚에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고 황소처럼 일하였다. 일만 부지런히 하면 살림도 펴고 팔자도 고칠 수 있으며 지어는 출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머슴꾼 시절에 김자린이 간직하고 있던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노동은 그에게 부도 주지 않았고 생활개선의 길도 열어 주지 않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차례지는 것은 가난과 천대뿐이었다. 그는 머리도 총명하고 힘도 장사였으나 돈이 없는 탓으로 사람값에 들지 못하고 짐승 같은 대접만 받았다.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장 이두수

김자린은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수틀리면 못살게 구는 자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휘두르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울분만으로는 생활고를 타개할 수 없었다. 그는 후에 왕우구유격구에 들어와 유격대원이 되었으며 간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기관총수로 성장하였다.

우리 인민들속에 불사조로 널리 알려진 홍두산전투의 주인공 이두수도 한때는 길가에서 동냥자루를 들고 밥비럭질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였다.

유격구는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항일의 영웅들과 열사들을 육성해 낸 온상으로 되었다. 이빨이 다 빠진 노파도 유격구에만 오면 항일을 부르짖는 선동가로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모두가 노력가였고 초병이었고 전투원이었으며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실천가들이었다. 조동욱, 전문진, 오동우, 박길송, 김택근 등은 모두가 왕청유격구에서 단련된 쟁쟁한 혁명가들이였다. 항일의 영웅들은 피와 땀으로 온 세상이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다.

종파주의와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는 그 어떤 철퇴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통일 단결되었다. 무장투쟁과 당건설을 위한 군중적 지반도 튼튼히 마련되고 중국인민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다져졌으니 이 모든 성과는 유격구가 생겨 3-4년동안에 이룩된 결실이었다.

과연 유격구라는 책원지가 없이 조중공산주의자들이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유격구라는 출진기지, 병참지, 후방기지가 없이 항일혁명앞에 나선 첫 단계의 전략적 과업들을 그처럼 철저하고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었겠는가.


김명화

김명화는 처녀시절에 말총으로 감투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가던 최하층의 여성이었다. 그도 유격구에 들어와 사람다운 생활을 하였고 항일대전의 열풍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성장하였다. 유격구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이처럼 놀라운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였을 것이다. 진보는커녕 육체적 생명도 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항일전쟁이 낳은 투사들 중에는 지난날의 포수도 있고 백정도 있고 훈장도 있고 뗏목꾼도 있고 대장쟁이도 있었다. 임춘추와 같은 약국 주인이 있는가 하면 서철과 같은 의사 출신의 혁명가도 있었다. 동만청총의 영향을 받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있었는가 하면 남만청총이나 주중청총의 지붕밑에서 살다가 참군한 청년들도

있었고 유격구는 출신과 생활경로가 얼럭덜럭한 인간들을 하나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실한 군인들로 키워냈으며 항일구국의 전열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결사분투하는 시대의 총아들로 육성해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창설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정당했고 시기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런데 유격구의 생활력이 아직은 남아 있던 그때 우리는 요영구에서 그 해산의 절박성을 새롭게 역설하게 된 것이다. 무슨 근거지를 가지고? 사명과 임무를 다한 유격구를 더는 사수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서철

1930년대 중엽의 간도지방 혁명정세는 조중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답할 수 있는 노선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유격구에 그대로 틀고 앉아 결사전가를 부르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땅덩어리를 지키는 놀음을 하겠다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혁명을 더 심화시킬 의향은 없이 현상유지나 하자는 속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혁명을 흐르는 물에 비길 수 있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호수나 저수지 안에서만 맴돌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혁명이란 대하나 장강과 같은 것이다. 절벽에 부딪쳐 아우성치고 계곡에 막혀 태질을 하면서도 허공에 부서져 나뒹구는 억만의 비말들을 고스란히 걷어 안고 바다를 향해 용용히 흘러가는 대하나 장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혁명이다. 대해를 등지고 산악을 향해 거꾸로 흐르는 장강을 본 적이 있는가? 역류와 정지는 장강의 본성이 아니다. 장강은 오직 앞으로만 달린다. 장애물이 있으면 격파하고 동료나 동행자가 있으면 포섭하면서 머나먼 종착점인 바다로 쉬임없이 달린다.


근거지에서 출판된 정치학습자료

장강이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정지나 휴식을 모르는 그 꾸준한 운동에 있다. 만약 장강이 한순간만이라도 흐름을 멈춘 강물과 같이 된다. 혁명은 자기가 세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 이런 갱신이 없다면 혁명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한 방법이 50년 후에도 유효하고 100년 후에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의를 가진다. 한순간을 대표할 수도 있고 하루를 대표할 수도 있고 한 달이나 한 분기, 한 시기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술이다. 하나의 전략을 성공에로 이끄는 과정에는 열 가지 전술이 있고 백 가지 전술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전략을 위해 한 가지 처방만을 내세우는 것은 혁명에 대한 창조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교조이다. 교조는 자기의 손발을 자기 스스로 얽어매는 미욱한 자살행위이다. 교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생동하고 박력 있는 정치를 볼 수 없으

며 도도하고 활력에 넘친 혁명의 장강을 만날 수가 없다.

혁명을 장강의 흐름처럼 줄기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창조와 혁신에 있다. 창조와 혁신이야말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끝없는 진보와 번영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와 혁신은 혁명을 추동하는 발동기라고 할 수도 있다. 한 개 민족의 발전역사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은 이 발동기의 마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혁명은 이 발동기의 힘으로 21세기의 대문앞에까지 와 닿았다.

21세기를 지척에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연합의 강력한 봉쇄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고수하고 빛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세기 전에도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포위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인천 앞바다에는 열강들의 군함이 노상 떠 있었다. 봉건조정이 쇄국을 고집하면서 척양척왜의 입장을 취할 때마다 그네들은 대포를 몇 방씩 쏘아대면서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왕과 왕후의 측근에서는 일제가 박아 놓은 고문들과 공사들, 밀사들이 맴돌았다. 이것도 일종의 포위였다.

외래침략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이 포위와 봉쇄는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강요되고 있는 시련이다. 나도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한평생을 이 포위와 봉쇄속에서 살아왔다. 지정학적 특성으로부터 오는 숙명인가?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만일 알래스카나 북극의 어느 빙하 한 끝에 붙어 있다면 혹시 우리 나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구미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만일≫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대국들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 나가는 나라들은 지구의 어느 곳에 있건 항상 ≪푸른 베레모≫의 공격목표가 되든가 무수한 ≪토리셀리법안≫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생을 자주적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제국주의들의 봉쇄를 항상 각오해야 하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간도의 항일근거지들은 1935년에도 물샐틈없는 봉쇄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해에는 적들의 봉쇄가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가 노선을 바꾸어 혁명에서 대단원을 이루어보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들은 봉쇄망을 최대한으로 조여 ≪공비≫숙청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일제는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매일같이 항일근거지의 모든 생물체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연계들을 끊어 버리기 위한 적들의 책동 중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바로 집단부락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인민혁명정부의 관할밖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싫건 좋건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여 있는 밀집부락에 들어가서 오가작통법이나 십가연좌법과 같은 악법들과 중세기적인 질서의 지배밑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적들이 만주각지에 널려 있는 수천수만 개의 산재부락들과 가가호호들에 불을 지르고 최후의 통첩적인 철거령을 내리고 그 주민들을 벌방의 토성촌들로 무자비하게 이주시킨 목적은 군대와 경찰, 무장자위단이 상주하고 있는 ≪안민촌≫들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편안한 통치를 하자는데도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토성, 포대, 물홈, 울타리, 탐조등, 철조망과 같은 인공적인 장벽들로 ≪공비박멸≫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던 군민 일치의 핏줄기를 영원히 끊어 버리자는데 있었다. 유격대가 인민의 보호자이고 인민이 유격대의 후방이며 중요한 정보원천이라는 것은 적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인민을 토성속에 모조리 걷어 넣으면 도로건설과 군사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역에도 집단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었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으며 노력과 자금, 물자의 징발도 어느 때나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적들은 집단부락 건설을 계기로 반공선전을 강화했다. 너희들이 정든 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집단부락으로 가게 된 것은 공산당 때문이고 혁명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들과 내통하면서 치안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당국은 부득불 산재부락들을 없애고 백성들이 ≪공비≫나 마적들의 성화를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안성촌≫들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지껄였다.

적들은 토성을 네모나게 쌓고 한 토성 안에 100호 또는 200호의 집들을 밀어 넣었다. 집든 군경들의 감시에 편리하게 현대 공장지구 사택들처럼 줄을 맞춰 지었다.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집단부락에만 들어가면서 서로 추녀를 맞대고 살지 못하게 갈라놓았으며 친척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앞뒷집이나 아래윗집에 있게 하지 않고 동서남북에 각각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그것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치안유지에 방해되는 모의를 하거나 비밀결사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조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 안의 주민들의 분열과 이간을 얼마나 꾀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가작통법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적들은 다섯 집으로 한 개조를 묶고 그 중 한 집이라도 유격대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 안의 모든 세대들에 꼭같은 처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구에는 그 다섯 집의 주민들을 전부 학살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오가작통법이다.

집단부락을 통치하는 행정관리들과 무장군경들은 인민혁명군의 수중으로 한 됫박의 쌀이라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이 토성 밖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공비≫들에게 줄 여분의 밥이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점심 보따리까지 헤쳐보았다. 점심 그릇도 한 사람 몫이 넘으면 무턱대고 빼앗아냈다. 집단부락의 농민들은 밭일이 묵어서 새벽 작업을 하고 싶어도 날이 밝기 전에는 성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혁명군은 집단부락 인민들의 식량상 방조를 거의나 기대할 수 없었다.

유격구에서 재배하는 곡식으로는 군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적들이 줄곧 농사를 방해했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농작물도 초토화대상으로 삼았다. 싹이 돋아나는 곡식은 군화로 짓밟았고 성장기의 작물은 불을 질러 태워 버렸으며 다 익은 낟알은 무장대가 우마차를 끌고 와서 모조리 실어갔다. 이것은 총과 대포로써도 멸살시킬 수 없는 유격구역의 군대와 인민을 완전히 굶겨서 죽이기 위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아작전이었으며 목을 조이는 봉쇄작전이었다.

≪민생단≫은 해체되었지만 혁명대오를 안팎으로부터 분열와해하기 위한 적의 파괴작전은 종전보다 더 악랄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들에는 미인들의 나체사진이나 추잡한 남녀관계를 그린 눅거리춘화들까지 나타났다. 돈에 매수된 미녀들이 로자 룩셈부르크나 잔 다르크의 탈을 쓰고 우리 대오에 침투하여 군정간부들의 넋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경찰서나 헌병대로 데려가지 위한 부식공작을 열심히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간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절해고도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철저히 초토화하고 질식시키기 위한 대살인광대극이었다.

이런 대세를 보지 않고 이미 노출된 유격구를 보위하는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혁명군은 결국 군사적으로 피동에 빠지게 될 것이며 적과의 끊임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가 다년간에 걸쳐 육성된 혁명역량은 보존되지 못하고 지리멸렬될 것이었다. 협소한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것은 결국 적색 구역의 모든 군민을 입체전으로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적의 기대에 발을 맞추어 주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회의참가자의 과반수가 유격구사수론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사수론을 고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교조가 심하고 좌경기가 많은 독선적인 인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원시하였으며 창안을 잘하는 사람, 발기를 잘하는 사람, 꿈이 많고 환상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해 서로 시답지 않게 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영구회의에서 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들을 끝끝내 설복해 내고야 말았다.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반≪민생단≫투쟁문제와 달리 유격구를 해산하는 문제는 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좌경모험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였다.

요영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구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로부터 전략적 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 계기로 되었다. 이 회의의 결정으로 하여 우리는 유격구역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동북과 조선의 광활한 판도에서 적극적인 대부대유격전을 영활하게 벌일 수 있는 창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도 5개 현에 국한되었던 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는 수십 배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활동무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한된 지역의 봉쇄에만 매달리던 적들이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5개 현을 포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밖의 동북의 여러 성들은 문제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격구를 봉쇄해놓고 고정된 지역에서 틀고 앉아 휘파람을 불며 호강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인민혁명군을 쫓아다니며 전례도 없고 규범에도 없는 싸움을 해야 했다.

적들은 우리의 유격구해산조치를 ≪관군의 분산배치에 의한 철저한 토벌의 결과≫로 ≪간도곤비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광범한 유격운동에로 이전하기 위한 새 전술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이고 진공적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조치는 적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들은 그 해산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군대와 인민이 유격구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적색구역의 철폐는 무장투쟁의 종말을 의미한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구역을 해산하는 것은 곧 유격운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각방으로 벌였다. 적들의 이런 책동은 유격구해산에서 첫째가는 난관으로 되었다.

곤란은 비단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민이 유격구해산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광림과 같은 군정간부조차도 선뜻 찬성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선을 그들이 아무런 심리적 고충도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다. 어제까지는 ≪천당≫이라고 선전하던 근거지인데 오늘은 왜 갑자기 없애치우지 못해 안달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감투끈인가고 하면서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태희노인은 십리평인민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는 진성서까지 보냈다.

각이한 해석과 판단들이 유격구에 떠돌았다. 밤을 자고 나면 누가 끌어들였는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한두 가지씩 나돌아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했다. 혁명군이 적색구역을 철폐한다는 것은 민중보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말도 나돌았고 조선의 낭림산을 타고 앉아 국내에서 유격전을 벌이려고 간도를 포기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군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쏘련이나 중국 관내 같은 데 깊숙이 들어가서 휴식을 좀 하다가 대열을 와짝 늘려 가지고 간도로 다시 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런 억측에다가 적의 선무공작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유격구의 여론은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상을 이루었다.



황순희

우리는 요영구에서 군민연합대회를 열고 유격구해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인내성 있게 해설해 주었다. 동만의 각 현과 혁명조직구들에 내려간 특파원들도 같은 성격의 대회를 열고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였다. 해산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치를 민중은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정당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산을 집행하는 실무적 단계에 들어가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나가누웠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어도 좋고 짐승가죽을 우려먹어도 좋다, 적구로 갈 바엔 차라리 유격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어떻게 적구에 내려가서 왜놈들의 단련을 받으며 살겠는가, 죽어도 유격구를 베고 죽을 테니 우리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소하였다.

우리는 ≪설복하고 설복하고 또 설복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매일같이 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구별로도 모임을 열고 조직별로도 회의를 열어 해설에 해설을 거듭했지만 적지 않는 주민들은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냥 검질기게 고집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어떤 동무들은 그 힘을 무한대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간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적구살이를 모면하려고 참군을 요청했다. 입대 적령기에 들어서지 않은 아동단원들과 소설대원들도 혁명군을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먹였다. 황순희는 그때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 달라고까지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매달려 강짜를 부렸다. 그래서 연길유격대에서는 그의 참군을 허락하였다. 그가 그 체소하고 연약한 몸으로 무장투쟁의 어려운 세례를 이겨내고 수백 수천 갈래도 더 되는 사선을 넘어 오늘까지도 혁명투사로서 한평생을 빛나게 살아올 수 있은 것은 그 강짜의 덕인지도 모른다. 태병렬, 최순산도 유격구 해산과 함께 혁명군에 입대한 투사들이다.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였다. 유격구에서 여러 해 동안 인민들과 함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당일군들과 공청일군들, 인민혁명정부일군

들도 무장을 메고 우리의 대오에 들어섰다. 재봉대와 병기창, 병원에 들어와서 혁명군을 따라다니겠다고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격구해산과정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의 대오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광활한 대지에서의 유격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후방물자의 확보, 무장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부녀회원들은 그때 농짝에 있는 필천을 다 들어내어 유격구를 떠나가는 혁명군 대원들에게 군복을 지어 주고 배낭이며 손수건이며 행전이며 담배쌈지며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태병열

우리도 소개지로 떠나가는 인민들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다하였다. 이 봉사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소개주민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이동준비사업을 다그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이동준비 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간도의 각 유격구들에서 주민소개를 앞두고 작성했던 호구조사표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조사표에는 유격구를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의 성명, 연령, 직업, 친척, 친우의 주소, 성명, 담당공작, 지식, 기술유무, 행선지, 보유식량 등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유격구의 지도일군들은 이 호구조사표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적구와 국내에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한 친척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찾아갈 수 없는 사람, 무의탁 어린이들과 환자들을 구분하여 대열을 편성하였으며 그 매개 대열에 무장소조들을 붙여 목적지까지 책임적으로 호송해가게 하였다.

유격구를 떠나 적구나 국내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가정들에는 세대당 평균 30-5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분배되었으며 천, 신발, 그릇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과 화식가구들이 공급되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줄 돈 과 물자를 확보하려고 우리는 전투도 여러 번 조직하였다. 그런 전투들 가운데서 내 기억에 지금까지도 인상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오백룡이 자기 삼촌을 혼쌀낸 파격적인 사건과 극적으로 얽혀져 있는 대왕청집단부락습격전투이다.


최순산

오백룡이 자기 삼촌의 뺨을 친 것은 우리의 수난 많은 민족사가 엮어 놓은 일종의 희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집단부락을 치고 많은 물자들을 노획하였다. 40여 자루의 38식보총, 40여 마리의 우마, 수십 포대의 쌀과 밀가루, 수만 원의 돈… 실로 군인들의 힘만으로는 운반해가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전리품이였다. 지휘관들은 전투현장으로부터 500-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락에 가서 인민들을 데려왔다. 급행급습, 급행이탈이 유격전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술적 원칙인 것만큼 전리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대의 철수가 늦어지고 적이 반격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는 때에 곳수염을 기른 어떤 농민이 짐을 지려 하지 않고 게정을 부렸다. 그는 지어 ≪이 사람들아, 빨치산의 짐을 지고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려구 그러는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경거망동하지 말라구!≫하면서 남들이 짐을 지는 것까지 막아 나섰다.

오백룡은 보다못해 ≪손님, 짐을 지기 싫으면 돌아가도 좋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염쟁이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짐을 지면 큰 화를 당한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오백룡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수염쟁이의 뺨을 불이 번쩍나게 답새겼다. 그리고는 먼 친척에게 ≪저 놈이 반동이 아닌가요?≫하고 물었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의 친삼촌 오춘삼이야.≫

오백룡은 그 대답을 듣고 펄쩍 놀랐다. 자기 삼촌이 조선사람 구실을 못하고 반편같이 행동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20살이 넘도록 삼촌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웠다. 오백룡이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오춘삼은 가문을 떠나 타지방에 가서 떠살이를 하였다. 그러다나니 삼촌도 오백룡을 몰랐고 오백룡도 삼촌을 알 수 없었다. 오백룡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사이에 오춘삼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되었다. 삼촌은 자기 자신이 혁명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혁명에 나서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소심하고 비겁한 사나이었다.


오백룡

오백룡은 삼촌의 따귀를 친데 대하여 몹시 후회하였으나 그것을 사과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먼 친척을 통하여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

삼촌, 내가 삼촌도 몰라보고 무례한 짓을 했는데 모르고 한 것이니 다 잊어 주십시오.

젊은 녀석들에게 괄시를 당하지 않으시려거든 삼촌도 앞으로 혁명에 나서 주십시오.

오춘삼은 그 후 조카의 권고대로 온 가정을 혁명화하였다. 자기 자신도 혁명가가 되었거니와 처자들까지도 항일운동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의 아들 오규남은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바쳤다.

≪조카의 주먹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소.≫

오춘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오백룡은 군민관계에 쐐기를 친 것으로 하여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삼촌이라면 부모 다음으로 촌수가 밭은 친척이지만 인민혁명군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오춘삼도 민중의 한 개 성원이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희비극이 한 장면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그가 인민들을 동원시켜 실어온 전리품들은 유격구를 떠나가는 주민들의 장래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었다.

유격구해산조치의 정당성은 1930년대의 후반기 앙양일로에 있던 항일혁명에 금상첨화의 봉우리를 얹어주면서 조국해방의 대단원을 행해 줄기차게 달리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의 전반적 발전과정이 생활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유격구역의 주동적 해산가 더불어 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항쟁역량을 간도의 협소한 산악지대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남북만주와 북부조선의 무변광대한 천지에서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과감히 타승해 나갔다. 인민혁명군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한 것은 골짜기에서 광야로 나갈 것과 같은 거사였다.

무장투쟁의 강력한 배경밑에서 유격구를 떠난 인민들은 광야에 뿌리를 박고 조

직들을 확대하며 광활한 대지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했다. 귀순문서장에 인장을 박은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륙을 불태우는 한점한점의 불씨가 되고 성냥가치가 되었다. 정치공작원들도 적구를 휘저어 놓았다.

1935년 5월에 시작된 유격구해산사업은 그 해 11월초에 결속된 처창즈 유격구역의 해산을 마감으로 하여 완료되었다.

처창즈에서 유격구해산사업이 다른 고장보다 반년 정도 뒤늦게 진행된 것은 우선 이 근거지주변에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이 굶어죽기를 고대하고 있던 적들의 집요한 봉쇄작전의 결과였고 이 구역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이 낳은 귀결이었다.


처창즈 유격구역

명월구회의에서 유격구후보지를 선정할 때 처창즈를 적지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화룡현출신들이었다. 안도현대표 김정룡도 처창즈가 명장자리라고 하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산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이 고장이야말로 적아가 다같이 눈독을 들이는 이상적인 천연요새였다. 간도의 다른 고장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쓸쓸한 산골이었으나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사물계를 좀 아는 신식풍수쟁이들의 덕으로 처창즈의 금새가 부쩍 올라갔다.

지명의 유래를 들어보아도 군사와 관련된 신비한 것은 아니였다. 그 고장 토배기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처창즈란 달구지를 거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화룡사람들은 처창즈가 유격대의 군사요충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홍범도부대가 일본군을 고동하기슭으로 유인하여다가 청산리에서 소멸한 것도 이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매력때문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처창즈유격구역 건설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1954년 봄에 독립연대를 안도지방에 파견하였다. 김일환, 김일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처창즈로 들어갔다.

독립연대는 처창즈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1개 중대를 손쉽게 쫓아버리고 이 고장의 새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무력을 배경으로 어랑촌유격구의 주민들이 처창즈에 쓸어 들어와 고동하 건너편에 화룡현인민혁명정부 건물을 세웠고 뒤미처 왕우구와 삼도만의 주민들이 신선동을 거쳐 이곳에 연줄연줄 나타나 동남차골짜기 입구에 연길현인민혁명정부 깃발을 게양하였다. 그리하여 처창주에는 두 개의 현에서 온 인민혁명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이 1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창즈유격구역은 마치 두 개의 발동기를 가진 자동차나 두필의 청총말을 태운 쌍두마차와도 같이 기세충천하여 돌진하였다. 초기에는 식량 형편도 그다지 궁색하지 않았다.

요영구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창즈유격구역 해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안도에서 파견된 당지도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성원들은 군대와 인민에게 유격구해산방침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어 처창즈에 있던 특파원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려고까지 하였다. 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처창즈는 간도의 혁명군중, 특히는 연길, 화룡, 안도 지방의 혁명군중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최후의 지탱점이었다. 최후의 지탱점이라는데로부터 이 지구의 해산을 책임진 일군들이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했을 수도 있다.

숨막히는 봉쇄속에서 처창즈인민들이 군대와 함께 1935년 11월까지 유격구를 지켜낸 것은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기

아로 하여 수많은 혁명군중이 곤경을 치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서 대부대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김평, 유경수, 오백룡, 박영순이들은 처창즈에서 겪은 그 기아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였다. 김명화, **김정숙**, 황순희, 김철호, 전희와 같은 여성동무들은 해방 후에도 음식상앞에 마주 앉으면 처창즈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김명화와 **김정숙**은 그 당시 군부에서 작식대공작을 하였다.

이 유격구의 정상은 군부의 식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왕덕태

왕덕태를 비롯한 군부의 여러 지휘성원들을 위하여 작식대원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솔껍질을 벗겼다. 콩단만큼한 송기 두 단을 해와야 군부의 하루식량이 되었다. 매둔 재물에 송기를 넣고 3시간 이상 끓인 다음 흐물흐물해진 것을 건져내어 강물에 헹군 후 돌위에다 놓고 망치로 두드렸다. 그리고는 또 물에 씻어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런 공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쌀겨를 섞어 죽을 쑤든가 떡을 만들었다. 이것이 처창즈의 일등음식이었다.

송기떡을 먹으면 홍문이 메였다. 아이들이 그때 뒤를 보느라고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다. 그럴때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고챙이로 뒤를 봐주었다. 어른들도 홍문이 메여서 고통을 자주 겪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이면 또 송기음식을 먹었다.

소금도 없어서 싱거운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죽이나 떡 같은 것은 싱거운 대로 참고 먹을 수 있었지만 산채나 나물국 같은 것은 소금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였다. 간혹 통신원들이 이따금씩 처창즈에 들려서는 괴춤에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주머니에서 소금알을 몇 알씩 꺼내주고 가곤하였다. 소금알 한알을 여럿이 순번으로 한번씩 혀끝에 살짝 대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곤 하였는데 그야말로 목안에 털이 날 지경이었다.

송기마저 떨어지면 방앗간에 가서 겨를 가져다가 죽을 쑤어 먹었다. 그래도 그 겨죽이 묵은 풀로 쑨 죽보다는 먹기가 한결 나았다고 한다. 묵은 풀로 쑨 죽은 껄껄하고 굳어서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 목을 찔렀다. 그런 죽마저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봄을 기다렸다. 춘삼월만 되면 자비롭고 풍만한 대지가 불쌍한 생명들을 기아에서 구출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봄도 아사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봄이 사람들을 위해 선사한 것은 눈밑에서 돋아난 연약하고 보잘것없은 새싹들이었다. 그 싹만으로는 유격구주민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동면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 먹었다. 처창즈에서는 설치류가 멸종되었다. 개구리와 개구리알도 주민들의 끼니감으로 되었다. 개구리알을 삶으면 기장밥처럼 풀기가 있고 차분차분해서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김철호가 회상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찐득찐득한 음식물이 목에 와닿는 것만 같아 섬찍한 감촉마저 받았다. 대원들과 함께 별의별 잡식을 다해온 나도 삶은 개구리알의 맛에 대해서만은 좀처럼 그럴듯한 표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씨붙임을 할 때 신고 일하던 도로기도 작식가마에 들어갔다. 도로기를 우린 쫍쯔레한 물을 한공기씩 마시고 병사들이 포복전진을 하듯이 배밀이를 해가며 유격구주민들은 봄파종을 하였다. 오늘 씨를 뿌리고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그 씨를 파먹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대중단체들에서는 씨붙임이 끝난 밭들에 보초를 세

우고 종자를 파먹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보초들마저도 주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씨앗을 파먹었다.

밤이면 아이들이 군부 부엌에 몰래 기여들곤 하였다. 군장이하 모모한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니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엉터리없는 공상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굶을 때 왕덕태도 굶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부엌에 가마치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가지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죽음앞에 굴복당하였을 것이다.

작식대원들이 가마치를 주면 아이들은 흐느껴 울면서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군 하였다. 그리고는 수치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하고 맹세하곤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작식대원들은 부엌문밖에서 먹을 것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발견하곤 하였다.

이런 기아속에서 처창즈사람들은 밭고랑을 기여다니면서 김을 매였다. 손으로 땅을 우비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또 일어나 손톱끝이 모지라지도록 땅을 우비였다. 두벌김까지 매고나니 보리이삭이 패였다. 속살은 없고 맹물만 차있는 알들을 정신없이 훑어 먹었다. 일어서서 걸어다닐 기력조차 없어 밭고랑에 엎드린 채 간신히 보리대를 후려당겨서는 한알두알 입에 따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처창즈사람들이 이런 아사지경에서도 순수한 인간으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탱해온 공산주의적 이념,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도덕이 간도의 모든 혁명군중을 성인군자로 만들어 준 덕이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팔다리를 삶아먹는 것과 같은 비인륜적인 현상이 처창즈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었다.

보릿고개가 되자 아이들이 먼저 기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남자들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자기자신들은 굶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의무를 걸머쥐고 태어난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차려졌으니 하나하나의 시신앞에서 온 육신이 깡그리 타서 재가 될 지경으로 슬프게 울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처창즈가 당한 기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구역을 봉쇄하고 야수적인 토벌을 거듭한 일본침략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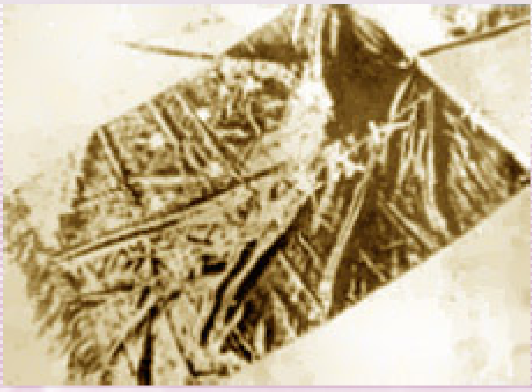
유격구를 책임진 일군들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휘부에 기여든 반동들과 불순분자들은 덮어놓고 ≪배고파도 견뎌내야 한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죽는 것은 투항이다.≫라는 초혁명적인 언사로 대중을 우롱하였다.

처창즈인민들은 ≪민생단≫으로 몰려죽고 굶어죽으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유격구를 지켜세웠다. 그들이 발휘한 견인불발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개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유격구해산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1935년 10월과 김일네 집안, 남창수네 집안, 이제순네 집안, 권일수네 집안을 비롯한 20여명에 달하는 ≪민생단≫연루자 가족들은 단합살림이라는 것을 뭇고 동남차골짜기 막바지에서 1936년 여름까지 투쟁을 계속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생단≫투쟁을 벗어던지자는 것이였다. 단합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살림으로 합치여 생활도 유지해가고 투쟁도 해가는 그런 특이한 생활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귀틀집 한채에 세간들을 합치고 책임자도 정하고 매일, 매주, 매달 각자에게 알맞는 분공도 주고 그 분공수행정형을

총화도 하면서 조직적인 생활을 하였다.

단합살림에 망라된 그 가정들은 마지막까지 처창즈를 지킨 최후의 방위자들이었다.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깃발

적들은 수천 명 병력을 동원하여 군경들에 의한 종전의 초토화식 토벌일변도의 전술로부터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치는 종합적인 대봉쇄전술로 이행하여 처창즈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려고 토벌에 토벌을 거듭하였지만 그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1935년 10월의 대토벌에는 수천 명의 적이 투입되었다.

처창즈의 용감한 방위자들은 이번에도 적들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들은 저격무기로 유격구를 공습하는 비행기까지 쏴 떨구는 전공을 기록하였다.

그 해 11월 처창즈인민들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군대와 함께 대부분 내도산쪽으로 이동하였다.

적의 봉쇄속에서도 오랫동안 인민들과 함께 굶어도 보고 앓아도 보고 싸워도 본 처창즈 방위자들 중의 한 사람인 백학림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처창즈사람들이 겪어온 항일전쟁시기의 참상을 모른다면 그 무슨 생활난에 대해서 감히 입밖에 내지도 말라. 처창즈의 군민이 봉쇄속에서 어떻게 기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적의 토벌을 이겨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곤란극복에 대해서도 감히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유격구해산의 조직과 그 실천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조직성과 강철같은 규율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인민을 잘 동원하고 지도만 한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인민이나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쳐물리치기 위해 거족적으로 궐기한다면 그런 인민에 대한 봉쇄나 초토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힘있는 교훈이다. 신생 러시아에 대한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국제적 봉쇄가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은 만국의 인민들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히틀러 독일도 레닌그라드 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폭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탱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추켜올렸다. 온 세계의 부르조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1942년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중국의 항일근거지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치는 장개석군의 봉쇄와 토벌도 역시 참패를 거듭하였다. 30년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자그마한 섬나라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막대한 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크게 은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리첼리법안≫을 배격하는 쿠바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봉쇄정책에 냉소를 보낸 셈이다. 카스트로는 ≪위험한 순간에 부

닥칠 때 인체안에서는 더 많은 량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언명하였다. 아드레날린은 심장기능을 강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 아드레날린은 쿠바공산주의자들의 낙관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현대제국주의는 지금 우리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도 그 봉쇄를 보기 좋게 격파할 활력소가 얼마든지 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질식, 압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망상이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의 국내진출이 적극화되었다. 혁명의 씨앗은 만주와 조선의 넓은 대지에 무수히 뿌려졌다.

나는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왕청을 잊지 않았고 간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간도의 5개 현은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중시한 기간적인 항일전구로 되어왔다. 최현부대를 비롯한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왕청일대에서만도 북하마탕 상촌집단부락습격전투, 사도하자습격전투, 백초구중평촌습격전투, 대리수구습격전투, 장가점매복전투, 상팔인구습격전투, 태양촌습격전투, 다홍왜습격전투, 쟈피거우매복전투, 소백초구용구촌습격전투, 십리평채목공사장습격전투, 석방촌서두하전투, 나자구상르모자하습격전투 등 무수한 전투들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신출귀몰하는 항일유격대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전력을 다하였다. 간도지방의 주요간선철도들에서는 군용차와 객차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중무장을 한 장갑차가 항상 선행하였다. 객차가 야간에 산간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차창마다 차광막을 드리워 철저한 등화관제를 하게 하였으며 헌병, 사복경찰, 철도경호대가 찻칸마다 서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단속하였다.

차광막을 들고 잠깐만 밖을 내다보아도 통비분자라고 따귀를 맞아야 했다.

적들은 집단부락경비를 강화하고 인민들을 경비에 강제로 동원시켰다. 심지어 어떤 개척민부락들에서는 주민들에게 유사시 혁명군에 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목총과 발화관이 설치된 폭발물까지 나누어주었다. 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활동에 적들이 얼마나 질겁했는가 하는 것은 일본 경찰관들이 집단부락의 야간경비를 중국인 자위단원들과 조선인 자위단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날마다 잠자리를 바꾼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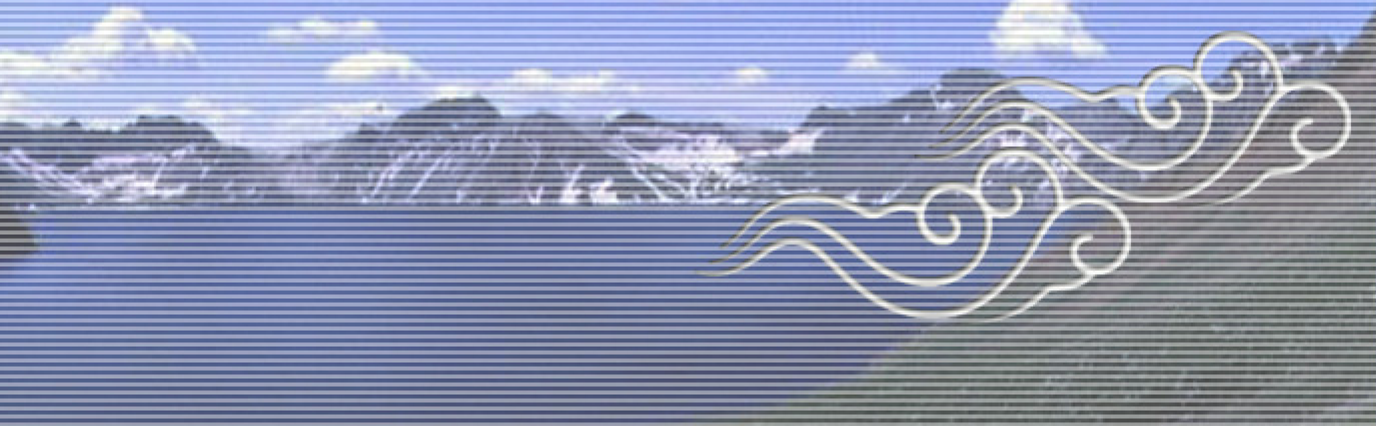
일본경찰관들과 만주국의 자위단원들속에서는 염전염군사상에 물젖은 아편중독자들이 속출하였다.

석현지방에서 발생한 ≪마쯔무라사건≫하나만 보아도 1930년대 중엽 일제의 패배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마쯔무라란 일본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원적색노조사건으로 망명해온 인텔리였다. 그는 선금 2,000원을 받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두산목재채벌장 십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십장으로 간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부대가 채벌장을 습격하였다. 마쯔라무라는 혁명군의 전리품을 지고 우리를 따라왔다가 나도 만나고 연예공연도 구경하고 나서 혁명군의 위력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채벌장에 돌아가 주인에게 사표를 낸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일본의 패전이 시간문제로만 남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유격구의 물을 먹은 벌목노동자들에 의하여 왕청과 그 주변에서는 열차전복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유격구정신은 간도땅에 그대로 남아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제11장


조선인민혁명군 제2차 북만원정도(1935.3-1936.2)
1935.7
1935.8
산동툰
삼도하자
이도하자
다왜즈
목 단 강 성
경박호
남호두
소산지하
소지지하밀영
1935.6
팔인구
1935.6
라자구
1935.6
뒤들리즈
사도하자
석두하자
태평구
로흑산
1935.6.20
동남차
1935.3.27
요영구
쌍하진
다흥왜
길 림 성
중 국
간 도 성
왕청
마촌
백초구
능지영
소왈비랭
3도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진행하신 주요혁명활동
주 요 회 의
주 요 전 투
원 정 대 편 성
군 정 학 습
혁 명 활 동 로 정
군 중 정 치 사 업



혁명의 분수령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기이한 인연
경박호 기슭에서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
백전노장 최현

■ 시기 : 1935. 5 ~ 1936. 3

1.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인민혁명군의 제2차 북만원정준비는 노흑산전투와 태평구전투를 통하여 완결되었다. 왕청과 훈춘연대의 일부중대들과 청년의용군으로 편성된 원정대가 인민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면서 태평구를 출발한 것은 1935년 6월 하순이었다. 석두하자와 사두하자를 거쳐 팔인구에 도착한 원정부대는 노야령을 돌파하기 위한 어려운 산악행군의 길에 올랐다. 장사진을 이루고 흘러가는 행군종대의 대오에는 안도에서 온 독립연대의 일부대원들도 끼여 있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2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수 있는 인물은 당시 왕청 4중대 대원이였던 오진우 밖에 없는 것 같다. 2차 북만원정에 참가한 전우들 가운데는 한흥권, 전만송, 박태화, 김태중, 김려중, 지병학, 황정해, 현철, 이두찬, 오준옥, 전철산 등도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

1차 북만원정 당시의 노야령은 장설로 뒤덮인 설령이었으나 2차 북만원정을 떠날 때의 노야령은 일만초목에 여름빛이 짙어가던 청산녹립이었다. 1934년 10월에는 설한풍을 헤치며 이 영을 넘었다면 1935년 6월에는 살을 지지는 것같은 뙤약볕과 모기떼의 성화를 받으며 이 영을 넘어야만 했다. 혹한과 폭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였지만 폭양과 땀도 만만치 않은 장애였다.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실은 군마들은 경사가 급하고 초목이 뒤엉킨 행군로를 헤치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 마필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자리에서 뭉갤 때마다 우리는 치도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톱으로 진대나무를 자르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 관내에서는 모택동과 주덕이 인솔하는 중국노농홍군이 이중삼중으로 되는 장개석군대의 봉쇄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2만5천리장정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었다. 1935년 5월 30일 대도하에 당도한 홍군은 치열한 격전 끝에 노정교라고 부르는 고대철삭교를 차지하고 수만평에 달하는 장정용사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다. 5월 30일은 태평천국운동의 지도자 석달개가 대도하를 건느려고 시도한 날이며 상해 5.30참안 10돐이 되는 날이였다. 이런 운명적인 날에 용감무쌍한 홍군결사대가 노정교를 돌파한 것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만주광야의 수수밭

귀주전역에 대한 보도에 이어 간도에 날아든 대도하도하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노정교전투가 있은 후 홍군은 장정노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의 하나인 대설산과 협금산을 연속적으로 돌파하고 감숙평원에 들어섰다.

우리는 그때 장강이 범람하여 몇십만 명이 죽었다거나 대만 어디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 몇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다는 식의 비극적인 소식보다도 브뤼셀에서 만국박람회

가 열렸다거나 모스크바에서 지하철도가 개통되었다거나 2만5천리장정을 개시한 중국홍군이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는 식의 낭만적인 소식을 더 중시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은 것은 장정중의 홍군이 대설산을 돌파한 것과 같은 거사였다. 대부분의 원정대원들은 휴식구령이 떨어질 때마다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여 아무데나 쓰러져 노독을 풀곤하였다. 쉴참이면 사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들이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배고픈 것과의 타협이 힘든 것처럼 자고 싶은 것과의 타협도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정대원들 중에는 행군강도가 높다고 불평하거나 행군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지휘관들의 구령에 따라 치차처럼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우리가 사전에 정치사업을 충분히 한 것만큼 그들은 북만원정의 목적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만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정신적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연안에서 농민들과 담화하는 모택동

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로 될 수 있는 대지는 노야령 이남의 동만땅과 남만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면 인민혁명군이 자기의 발상지이고 보금자리인 동만을 떠나 유격구 해산후의 첫 원정후보지를 북만으로 정하고 숨가쁘게 노야령을 톺아오르게 된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는가. 그 어떤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북만주로 원정대를 이끌고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던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북만주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전면적인 협조, 협동, 협력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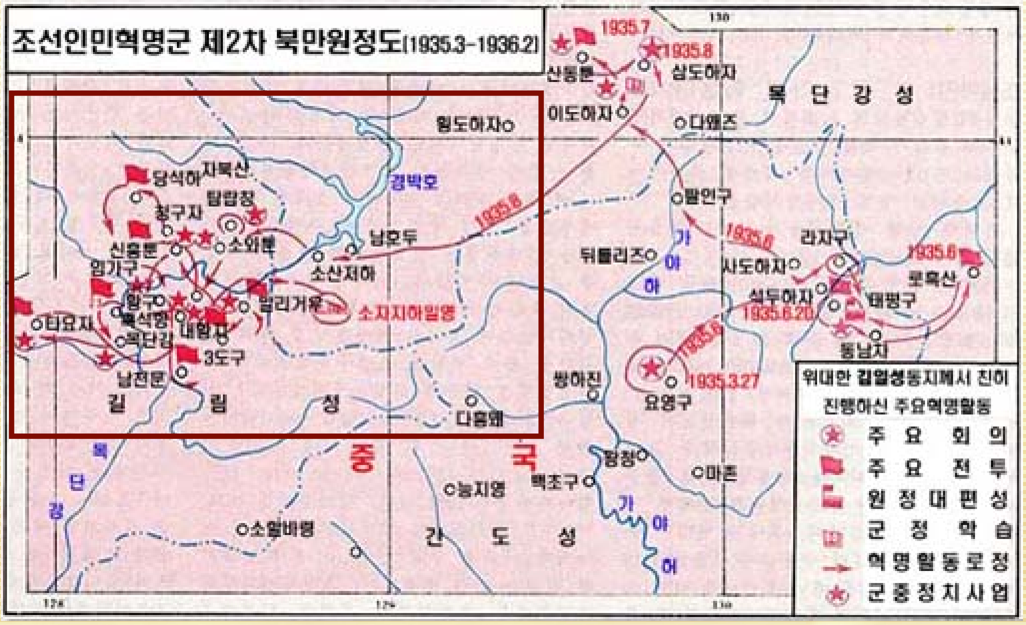
동만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 영솔자, 주창자의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북부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주동 인물들의 대부분도 다름아닌 조선사람들이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북만의 유격운동을 개척하는데서도 선구적이며 핵심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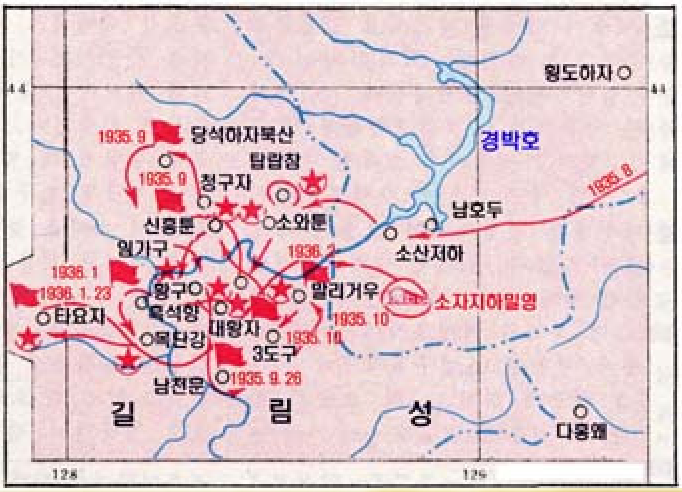
주보중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동북혁명을 위해 바친 조선사람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찬하였다.

≪1930년 당시 동북 각 지방의 현당위원회 비서들과 구당위원회 비서들은 대부분 조선동지들이였소. 연변의 여러 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안, 밀리, 탕원, 요하, 보청, 호림, 의란 등 북만 여러 현의 당위원회비서들과 현당위원회들도 거의 다 조선족 간부들이였단 말이요.≫

항일혁명이 최후단계에 돌입하고 있던 어느 해 봄날 나와 함께 아무르강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하바로프스크주변의 북밀영 모래터를 산책하던 그는 항일연군시절의 공동투쟁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조선동지들의 업적을 빼놓고서는 항일연군의 발전역사도 운운할 수가 없소. 2군의 90%이상이 조선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 1군, 3군, 4군, 6군, 7군의 시초를 열어놓은 주인공들도 이홍광, 이동광, 최용건, 김책, 허형식, 이학만과 같은 조선동지들이 아니겠소. 노위와 양정우가 희생된 다음부터는 **김일**





성사령이 여러 해 동안 2군은 물론, 1군까지 통솔하면서 항일전쟁을 영도해오고 있는데 동북혁명의 주인들인 우리로서는 사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은 때가 많소. 우리는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 동북땅에 조선족출신 렬사들의 기념비를 꼭 건립하려고 결심하였소.≫

주보중은 항일전쟁이 끝난 후 실지로 길림성 당위원회를 통하여 길림과 연변지구에 조선족출신 렬사들의 기념비를 세울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사람들은 북만주지방에 가서도 일만관헌들과 토착지주들에 의해 우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송로평원을 비롯한 일망무제의 대평원들과 황무지들로 이어진 남북만의 광야는 연간 수천만 톤의 알곡소출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곡창지대였지만 여기서도 조선의 가난한 교포들과 개척민들은 사시장철 식의주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전직후 어느 간소한 연회석상에서 나는 이영호가 어린시절 북만에서 체험했던 기아를 회고하며 눈물을 짓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형호네 일가가 오인반인가, 삼차구인가, 요하에서 살 때였다고 하니 아마 1915년 전후였다고 생각된다. 절량의 고통에 시달리던 그들은 양배추 줄기로 한해 가을을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 변변치 못한 음식도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흘을 내처 먹고 나니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였다. 어린 영호는 부모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 쫄쫄한 음식물

을 무릎 아래에 모조리 뱉아버리고 죽물만 마시곤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더라고 하였다.

그 시절의 이영호는 가난 덕으로 바지도 쌀포대로 해입었다. 복판에 ≪白米≫(백미)라는 남색글자가 큼직하게 찍혀 있는 포대였는데 안팎의 고려가 없이 재단을 아무렇게나 한 탓으로 그 두 글자는 바지를 만든 다음에도 오른쪽 가랭이 바깥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린 영호는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신비한 표적처럼 감수하면서 눈에 익혀두기까지 하였다. 괴이한 글자가 찍힌 단벌바지를 매일같이 입고 다니면서도 불쌍한 영호는 흰글자가 말해주는 흰쌀밥을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채 유년시절을 보냈다.


최용건

이것은 북만주교포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빈궁의 일단이다.

일찍이 이돈화도 잡지 ≪개벽≫에 ≪남만주행≫이라는 글을 쓰면서 만주에 가보니 마적들이 득실거리고 그 행패가 심하더라고 하였지만 북만은 동만이나 남만보다 마적들의 행악질도 더 우심하였다. 그것은 토벌대를 끌고 무시로 달려드는 일본군이나 위만군에 못지 않은 우환거리였다. 북만의 호적들은 살인을 식은 죽 먹기로 하였다. 비수와 단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호적들이 갈가마귀떼처럼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교포들은 공포와 불안에 쫓겨 부단히 거주지를 옮겼다. 호적들은 돈을 위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인질로 끌어가군 하였다. 깊은 산속에 사람들을 끌고가서는 귀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 인질의 집에 보내면서 이것이 당신네 아들의 귀다, 아무아무날까지 돈을 얼마만큼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장을 보내곤 하였다. 그런 협박장을 받은 집들에서는 억울한대로 가산을 다 털어서 아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적들이 요구한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체로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북만은 결코 ≪왕도락토≫도 아니었고 ≪오족협회≫의 세계도 아니었다.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범람하는 사회악과 약육강식의 법칙뿐이었다. 조선민족은 이 고장에 와서도 일본의 고관들과 군벌들, 재벌들, 은행가들, 장사치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머슴군으로 되고 부림소로 되었다. 이 저주로운 현실은 북만지방의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구국전선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만에서도 조선의 선각자들은 일찍부터 공산주의운동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였다. 글깨나 아는 사람, 두뇌가 명석한 사람, 감수성이 민감한 조선사람들치고 공산주의운동에 뛰어 들지 않은 인물이란 거의 없었다. 똑똑한 조산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산주의를 유일한 신앙으로 삼고 타도 일제와 타도 지주, 자본가를 부르짖으며 혁명운동에 투신하였다.

북만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은 1930년대초부터 일제를 힘으로 타승하기 위한 무력항쟁준비를 하였다. 보청현에서는 최용건의 지도하에 200여명의 조선청년들을 망라한 훈련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위한 기초축성작업을 개시하였다.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훈련반은 장차 혁명군의 골간으로 될 청년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사관학교였다. 내가 다닌 화성의숙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공부도 하고 전술학습도 하고 사격훈련도 하였다. 훈련반은 모두 10개의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령 겸 총참모장직은 최용건이 담당하고 정치위원직은 박진우(본명 김진우)가 맡고 있었다.

≪천리행군≫의 저자인 ≪비준수염≫ 김용화도 이훈련반에 망라되어 중대장을 하였다. 그에게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반미대전이 끝난 1950년대 중엽이였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개시와 함께 우리 인민의 생활양식에서는 몇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수염쟁이들과 긴머리패들, 까까중이머리들,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였다.


김용화

나라가 바지를 어떻게 입고 머리를 어떻게 깎고 수염을 어떻게 밀라는 법령을 채택하지도 않았건만 인민의 생활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스스로 일어났다.

그런데 인민군병기창 창장인 항일투사 김용화소장만은 유독 옛모습 그대로 안창호식 콧수염을 그냥 버젓이 기르고 다녔다. 몇몇 전우들이 그에게 수염을 밀어버리라고 권유하였다. 처자들과 상급일군들까지 달라붙어 열심히 ≪함화≫를 들이댔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그는 오히려 아침마다 거울앞에 서서 극성스레 수염을 다스리군 하였다.

어느 날 김용화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수상님, 수상님께서는 저의 콧수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멋있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오. 콧수염이 없이야 김용화가 아무리 잘난 사람인들 무슨 김용화겠소. 나는 콧수염이 없는 김용화를 상상해 본 적이 없소.≫

≪그렇다면 저의 이 수염을 비준하신단 말입니까?≫

≪비준이라니, 인민이 수상한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들의 수염을 다스릴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소. 결정권이야 용화동무 자신에게 달려있지. 동무가 좋다면 기르는 것이고 나쁘다면 기르지 않는 것이고 ≫

≪그러면 됐습니다. 수상님, 사실은 제 그 동안 수염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용화는 희색이 만면하여 내 방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 콧수염 때문에 내각청사를 지키던 호위군관에게 단속당하였다. 호위군관들은 외모가 거칠거나 위생문화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 방에 잘 들여보내지 않았다. 현관쪽에서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군관동무, 웬일이오?≫

≪소장동지더러 수염을 깎지 않으면 못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냥 ≪비준수염≫이라고 우기십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염을 비준해주셨다는게 사실입니까?≫

호위군관은 미덥지 못한 눈길로 김용화를 흘끔 일별하였다.

≪그런 문제라면 소장동지를 더 노엽히지 마시오. 그 수염은 불가침이요.≫

그 후부터 김용화는 군대내에서 본명대신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9살에 장가를 들고 11살에 보탑을 잡고 호주노릇을 하였으며 13살때부터는 홍범도의 연락병이 되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유명한 이만사격전에까지 참가한 전적을 가진 노숙한 싸움꾼이었다.

보청의 훈련반은 처음에 순수한 조선청년들로만 조직되었다. 조선독립을 이룩하려면 조선사람들끼리 부대를 무어야지 이국인이 끼여들면 대오를 운영하는데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순수한 조선인 구성은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중국인민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크게 울려 훈련반조직을 주관한 사람

들은 대열속에 2명의 중국청년을 받아들이는데 이르렀다. 그런데 이 2명의 중국청년이 훈련도중 변절하여 적들에게 훈련반의 비밀을 고스란히 제공하였다.

훈련반은 검거선풍을 피해 보청으로부터 300리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교사를 건립하였으나 거기서도 적들의 토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요하로 활동기지를 옮긴 최용건은 박진우, 황계홍, 김용화, 김지명 등의 전우들과 함께 삼의분소학교에서 70명 정도의 청년들로 훈련반을 다시 조직하고 훈련생들 중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정수분자들을 선발하여 주구청산, 군정간부호위, 무장공작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적색특무대(일명 적색테러단)를 조직하였다. 훗날 최용건은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요하공농유격대를 조직하였다.



강건

탕원과 요하에서의 유격대조직을 전후로 하여 영안, 밀산, 발리, 주하, 위하에서도 김책, 허형식, 이학만, 김해산 등이 이끄는 무장대오들이 연이어 태어나 어려운 항일장정을 시작하였다.

김해산과 이광림이 주보중과 함께 5군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들이면 김책, 허형식은 장수전, 조상지와 함께 3군을 건설한 노장들이며 최용건, 이학만, 이영호, 안영, 최일등은 이연록과 함께 4군과 7군을 조직하는데서 기수의 역할을 수행한 큰 공로자들이었다.

남쪽의 노야령으로부터 북쪽의 아무르강까지, 동쪽의 우쑤리강으로부터 서쪽의 대흥안령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북만의 광활한 판도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군가가 울리지 않은 고장이란 거의 없었다.

김책이 하얼빈동부와 동북부지방을 포괄하는 빈강일대를 중심무대로 하여 유격활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최용건과 이학만은 완달산줄기를 근거지로 삼고 적의 집단부락들과 후방기지들을 들이치는 끊임없는 습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 허형식은 김책, 마덕산과 연합으로 서북원정대를 조직한 다음 익측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들과의 연계를 지을 목적밑에 해륜을 비롯한 여러 현들에 진출하여 이 지대들을 과감하게 개척하였다. 강건은 노령산줄기에 활동기지를 두고 목단강 좌우연안의 산악들과 개활지대들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적들을 맵시있게 족쳤다. 애젊은 지휘관이였지만 총명한 군사지휘관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북만지방의 유격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간도출신 투사들이 둔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동만에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되고 단련된 김책, 한흥권, 박길송, 안영, 최일, 전창철 등의 투사들은 북만에 가서도 적극적인 조직자, 선전자, 지도자가 되어 항일전쟁의 어려운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북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동만혁명의 전반적 발전과정을 항상 깊은 관심속에 주시하여 왔으며 동만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만에 대한 소식을 정상적으로 입수하였다.

북만사람들에게서 간도소식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여준 사람은 주보중이었다. 영안에 활동기지를 두고 왕청에 자주 드나들던 주보중휘하의 5군 통신원들과 2군에서 5군, 3군, 4군, 7군, 6군, 8군, 9군 등 북만의 여러 부대들에 파견되어 간 투사들도 동만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다.

길동국지도부(길동성위)도 동만을 소개하는 중요한 선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은 바로 이 길동국을 통하여 동만지방에서 발간되던 적색계의 출판물들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같은 비밀문건들까지 입수하였다.

당시의 길동국은 동만과 남만을 북만에 연결시켜주고 북만을 동만과 남만에 연결시켜주는 교환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영호도 요하현당에서 선전부장으로 일할 때 길동국에 갔다가 거기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정식으로 배포받았다고 한다. 그가 돌아가서 전우들에게 길동국을 통하여 수집한 동만의 자료들을 다 소개하였다. 그는 항일전쟁 때 그 문건원본을 분실한데 대해 몹시 아수해하였다.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제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김책과 최용건이였다. 그들은 인민혁명군대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리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내세운 총노선이 무엇이고 전략전술이 무엇이며 당면임무가 무엇인가를 정열적으로 해설해 주었으며 우리의 전투성과 도덕적 풍모를 따라배울 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였다.


김책

≪동만지방의 혁명투쟁은 지금 **김일성**대장의 지략에 따라 전진한다고 한다. **김**대장은 젊은 지도자인데 민중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도자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백의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품을 내여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것은 최용건이 요하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원들앞에서 한 말이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네 번이나 써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할 사명을 띠고 북만을 떠난 최용건의 연락원들은 한 명도 나한테까지 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모두 희생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 혈로를 헤치고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인 돈화근처에까지 기적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만일 그가 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하루나 이틀만 견디였더라면 나를 만나보았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나와 최용건과의 상봉은 1941년이 아니라 벌써 1930년대 중기에 우리의 활동구역인 간도나 남북만 어느 지점에서 실현되었을 것이다.

나는 1941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김책과 최용건을 만나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이 나의 생활경위와 가정내력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 두 사람은 지어 나의 볼에 있는 보조개와 덧이가 일본밀정들이 10년 이상이나 찾아헤매는 일확천금의 목표물이라는 것과 나의 목에 수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북만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다방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책이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손정도목사의 후원을 많이 받은데 대하여 달 알고 있었다면 나는 김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허헌의 방조를 많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혁명가들의 일생이니만치 그들의 경력이나 행로 가운데는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과 기상천외한 일화들이 많았다. 그 사연들이 담고 있은 내용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일수록 더 다채롭고 풍부하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자들이나 건달군들한테야 무슨 들을만한 이야기꺼리들이 있겠는가.

한번은 우리 부대의 어떤 통신원이 북만에 갔다가 7군군장 이학만이 11살이 다 될 때까지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앙천대소하였다. 엉터리도 분수가 있지 11살이면 장가도 갈 그런 나이인데 젖을 먹다니, 이것은 날조다, 꽝포다 하고 대원들은 통신원을 막 공격하였다. 나도 물론 통신원이 들려준 이야기를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훗날 하바로프스크의 북밀영에서 이학만의 친조카인 이영호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동무의 삼촌이 11살이 될 때까지 형수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물었다.

이영호는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형수의 젖을 먹었다면 영호동무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소리인데 그 덩치가 큰 삼촌이 동무가 먹을 것까지 다 착취한 게 아니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이영호는 황황히 삼촌을 두둔하였다.

≪천만에요. 내가 그런 착취를 당할 리 있습니까. 삼촌이 먹은 것은 한쪽 젖뿐이였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내가 차지했으니까요.≫

≪그것 보시오. 동무는 50%의 식량을 착취당했단 말이요. 2,8제도 아니고 3,7제도 아닌 그런 약탈을 당하고서도 삼촌을 두둔하다니.≫


이학만

이영호는 나의 농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게 웃어댔다.

≪나는 한쪽 젖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젖량이 아주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낳자 젖이 불어나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은 그냥 짜버리군 했으니까요. 젖을 손으로 짜자면 아프기도 하고 또 끝까지 짜내지도 못하기에 하루는 할머니가 학만삼촌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젖을 좀 빨아주라고 분부했답니다. 삼촌은 분부대로 젖을 빨았습니다. 처음에는 빠는 족족 뱉어버리곤 했는데 언제였던지 장난삼아 한 모금 삼키고나서는 아주머니 젖도 어머니의 젖처럼 맛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젖을 매일같이 빨아먹군 하지 않았겠습니까. ≫

≪그 삼촌의 비위가 참말 보통이 아니구만.≫

≪네, 성격이 아주 특이했지요. 석송이가 먹을 젖을 네가 다 먹으면 어쩌니 하고 할머니가 걱정하면 삼촌은 그러길래 한편 젖만 먹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군 했답니다. 석송이란 내 아명이었습니다. 내 나이 두 살인가 세 살 잡히던 해부터 삼촌은 젖을 뗐습니다. 그러나 내가 젖을 먹을 때면 우리 어머니앞에 앉아 늘 군침을 삼키군 했습니다.≫

이영호는 그날 삼촌에 대한 일화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였다.

나는 이학만의 인간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이미 고인이 된 몸이었다. 나의 이영호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1940년대는 북만의 항일대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야의 고혼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난날 북만의 여러 항일연군부대에서 싸웠던 안영은 북만주의 산야에 묻고 온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영호

하지만 우리가 태평구전투를 치르고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맹호와 같이 무서운 기세로 적들을 쓸어 눕히고 있었다. 바로 북만의 그 전우들이 우리와의 상면을 그처럼 절절하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의 협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제당과의 관계,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과의 관계, 중국반일부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는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많았고 풀어야 할 고충들도 많았다.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하소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동만에서 ≪민생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 그들은 북만에서 그들대로의 문제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북만행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

리가 북만의 전우들에게서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동족의 정 뿐이였다. 반≪민생단≫소동은 사랑과 믿음의 윤리만이 지배하던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정의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그 불모지에서 몇 해 동안 인정에 주림을 느끼며 그것을 오아시스처럼 그리던 사람들이였다. 노야령이 아무리 험준하다고 하여도 북만의 벗들을 향해 구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조직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1차 북만원정을 통하여 이미 그 시초를 열어 놓은 북만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더 잘하려는데 있었다. 반제반전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와 사회주의역량의 진출앞에서 당황망조한 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자주역량을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을 강화하고 있었다. 인류를 세계대전의 참화속에 몰아 넣을 운명을 타고난 히틀러 독일과 무쏠리니의 이탈리아, 일본은 반공적이며 반평화적인 동맹의 결성을 서둘렀다.

이러한 정세에서 항일혁명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려면 각국 공산주의자들, 특히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 각 지방의 항일연군부대들이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합된 힘으로 타승하리라는 것은 국제당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 당신 동북지방에 조직된 여러 군의 역량은 고르롭지 못하였다. 지휘관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각 군의 전투력과 준비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매개 군들은 익측에 있는 군들과의 연계가 없이 대체로 고정된 지역에 틀고 앉아 고군독전하고 있었다. 이런 분산성은 만주 전역에서 할거하는 유격부대들의 힘을 정황과 군사정치정세의 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장차 매개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적들에게 각개격파당할 수 있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동만과 남북만에 존재하던 유격부대들은 다른 지방 유격부대들과의 연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앞에는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한정된 지역을 보위하며 고립무원하게 활동하던 종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서러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폭넓고 대담하게 전개할 전투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런 전략적 과업을 수행함이 없이는 만주지방의 유격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 수도 없었고 통일적으로 심화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반≪민생단≫투쟁과정을 통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는 공동투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불화와 불심이 조성되였다. 우리가 북만에 가서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협력을 잘하면 이런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깨끗이 가셔질 수 있었다.

부대를 데리고 북만에 가서 몇 달동안 싸움을 하며 돌아다니노라면 모스크바에 간 위증민과 윤병도도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였다. 위증민과 윤병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설정했던 제2차 북만원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였다.

노야령을 넘을 때 위만군의 반변사병들로 편성된 훈춘연대 소속의 중대동무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산악행군에 숙달되지 못한 그들은 행군을 시작한 후 첫 2시간 사이에 벌써 녹초가 되였다. 나의 명령에 따라 왕청연대의 장룡산이 그 3개 중대를 맡아가지고 반변사병출신 대원들의 행군을 거들어 주었다. 전각루와 삼차구 사이에서 뗏목노동을 많이 해온 그는 두세 사람 몫의 총과 배낭을 혼자 메고서도 가파로운 영길을 씽씽 톺아올라갔다.

≪동무들, 이 영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을 가는 것이 좋겠소. 두 다리 사이에

있는 생원님도 일찌감치 뚝 떼버리구요.≫

그는 이런 농질까지 해가며 동료들을 고무해 주었다.

우리는 간난신고를 다하여 노야령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7월에야 산동툰부근에서 주보중의 거처를 찾아냈다. 어제날의 수녕중심현위 군사책이였던 그의 어깨에는 항일연군 5군 군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묵직하게 얹혀 있었다. 여러 달 전만 해도 지팽이를 짚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를 맞아주던 주보중이 이번에는 지팽이를 던지고 밀영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노천구라는 곳에까지 달려나와 나를 포옹하였다.

≪그 동안 내 부상자리는 깨끗이 완치되였소. 동만원정대가 떠나간 다음 우리는 군을 새롭게 내왔소. 영안땅에서는 그 후부터 당조직과 대중단체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소. 이건 다 **김**사령과 원정대가 지난해에 우리를 잘 도와준 덕이요.≫

주보중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흥분된 어조로 영안실태를 단숨에 쭉 내리엮었다.

≪주형의 부상자리가 다 나았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오. 지나간 수개월은 마치도 주형을 위해서 흘러간 것 같구만. 5군 군장으로까지 취임하였다니 축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말이요.≫

나는 주보중을 이런 식으로 축하해주고 나서 평남양의 안부를 물었다. 북만땅을 밟고 보니 한해전에 싸움속에서 맺었던 정이 새삼스럽게 북받쳐올랐다. 한두 달밖에 사귀지 않은 그 감이 사나운 무인의 인상이 어린 시절이 죽마고우처럼 내 기억속에 듬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였다.

우리는 5군의 숙영지에 독학하기 바쁘게 공동행동문제를 가지고 주보중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마찰이 생겼다. 주보중이 훈춘연대의 연대장인 후국충에게 동만원정대의 행동방향을 지령식으로 내리먹이려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쌍방간의 대화가 얼마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당신 5군 정치위원이였던 호인은 부대를 데리고 목릉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보중의 요구는 동만원정대가 목릉에 가서 호인을 도와 싸우다가 오하림지구에 진출하여 그곳을 장악해 달라는 것이였다.

그닥 어려운 부탁도 아니였는데 자존심이 강한 후국충은 단마디로 그것을 거절해 버렸다. 아마 그 부탁이 부탁으로 들리지 않고 지시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안길과 김려중도 그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에겐 우리대로의 원정목적이 있고 밟아야 할 노정도 따로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5군은 5군이고 2군은 2군이다라고 하면서 막 골을 냈다. 그들이 그렇게 골을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우리는 2군을 대표하여 북만에 온 것만큼 공동투쟁을 한다고 하여 남의 지휘봉에 따라 무턱대고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보중은 빨치산이 포나 중기관총과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중무기가 유격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우리는 항일전쟁을 시작할 때 유격대가 사용하게 될 기본무기는 경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태평구전투에서 박격포를 쏘아보고 그 위력을 가늠하게 된 다음부터는 유격전이라고 하여 중무기를 덮어놓고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중무기를 적적히 쓰는 것이 큰 은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실지로 쏘련의 빨치산들은 공민전쟁때 포나 막심중기를 사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 유격대원들도 그 무렵에는 포를 이용하였다.

동만원정대가 포와 중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대하여 주보중이 모험이라고 한 것

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다.

나는 팽팽해진 분위기를 늦굴 목적으로 모두들 공동행동에 대한 구상을 더 무르익힌 다음에 다시 모여앉아 양자가 다 접수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짜보자고 제기하였다. 주보중은 나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연구하면서도 행군에 지친 원정대 성원들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산동툰은 100여호의 농가들로 이루어진 중국인 부락이었다. 산동툰이란 지명은 산동지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라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적들은 이 부락을 봉쇄하느라고 마을로부터 15리 떨어진 곳에 200－300명 가량의 토벌대를 상주시키고 있었다. 나는 산동툰에 가 있을 때 영안현당 서기와도 연계를 가지고 산동툰당조직과도 연계를 가졌다.

내가 산동툰부락에서 이연록군장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주집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지주였지만 마음씨가 무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손님들은 모두 그 집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애를 썼다.

어느 날 우리는 집주인을 도와 밀가을을 하다가 밭에서 비를 만났다. 베여놓은 밀이 비에 젖지 않도록 낟가리를 잘 가려놓은 다음 숙소에 돌아오자 유한홍이 오늘은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점심이나 먹고 휴식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손수 만들어 푸짐한 음식상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연록이네 부대가 왕청에 와있을 때부터 유한홍이 뛰어난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유한홍과 같은 중학출신의 지식분자가 전문요리사들도 깜짝 놀라게 할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는 요리솜씨도 대단하였지만 술도 잘 마셨다. 우리가 한잔을 하면 석 잔쯤 마시는 대주가였다. 안주맛이 좋아서 그랬던지 그날은 나도 술을 몇 잔 마셨다.

우리가 밀제비국을 한창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보니 밀북데기앞에 뱀들이 수십 마리나 너부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집주인이 복뱀이라고 하면서 기르던 뱀들이었는데 수류탄 벼락을 맞고 일시에 무리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집주인은 뱀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밥상밑에서 기어다녀도 가만 내버려두었다. 그 지방에서는 뱀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

그날 마당에서 문전보초를 선 것은 우리부대에 배속되어 북만까지 따라온 청년의용군대원들이었다. 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비가 멎고 해가 비쳤다. 그러자 낟가리속에 움츠리고있던 뱀들이 복데기속에서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것 사람들이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 없었던 보초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앞뒤를 가릴 사이도 없이 무작정 수류탄을 뽑아들고 뱀의 무리를 향해 던졌던 것이다.

집주인내외는 죽을 뱀들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였다. 그들은 불길한 재액의 조짐이라고 생긴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주보중과 유한홍이 좋은 말로 위로하였으나 그들은 불안을 가시지 못



주보중부대의 밀영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채 하지 못하고 부득불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35년 7월 하순 동만에서 고려홍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위만군과 경찰대로 편성된 혼성기마대가 장마구름처럼 산동툰으로 모여들었다. 어림짐작으로 가늠해보아도 몇 백 명 실히 될 것 같았다.

그 당시 5군의 주력은 목릉과 영안현 서북방에 나가 있었다.

4군 군부의 여력도 얼마 안되었다. 수적으로는 적이 우리보다 2배정도 우세한 셈이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주보중과 유한홍은 나의 의향을 물었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4군, 5군과 우리와의 연합작전은 이처럼 탁상앞에서가 아니라 먼지가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드는 적기마부대의 산개대형앞에서 가볍게 타결되고 실천에 옮겼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만 치라는 ≪피실격허≫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또 유격활동의 규범이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서 반드시 일률적일 수 없었다. 북만에서 우리의 위력을 한번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설정한 북만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정황과 지형조건으로 보아도 승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협의 끝에 곧 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전투행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위하여 적들이 산동툰마을에 달려들기 전에 맞받아나가 싸울 수 있도록 진지를 정하고 매개 부대들에 해당한 전투임무를 주었다. 태평구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박격포중대의 포수들과 중기관총중대의 명사수들은 적들의 공격로로 지목되는 방향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격제원까지 미리 구해놓고 나의 명령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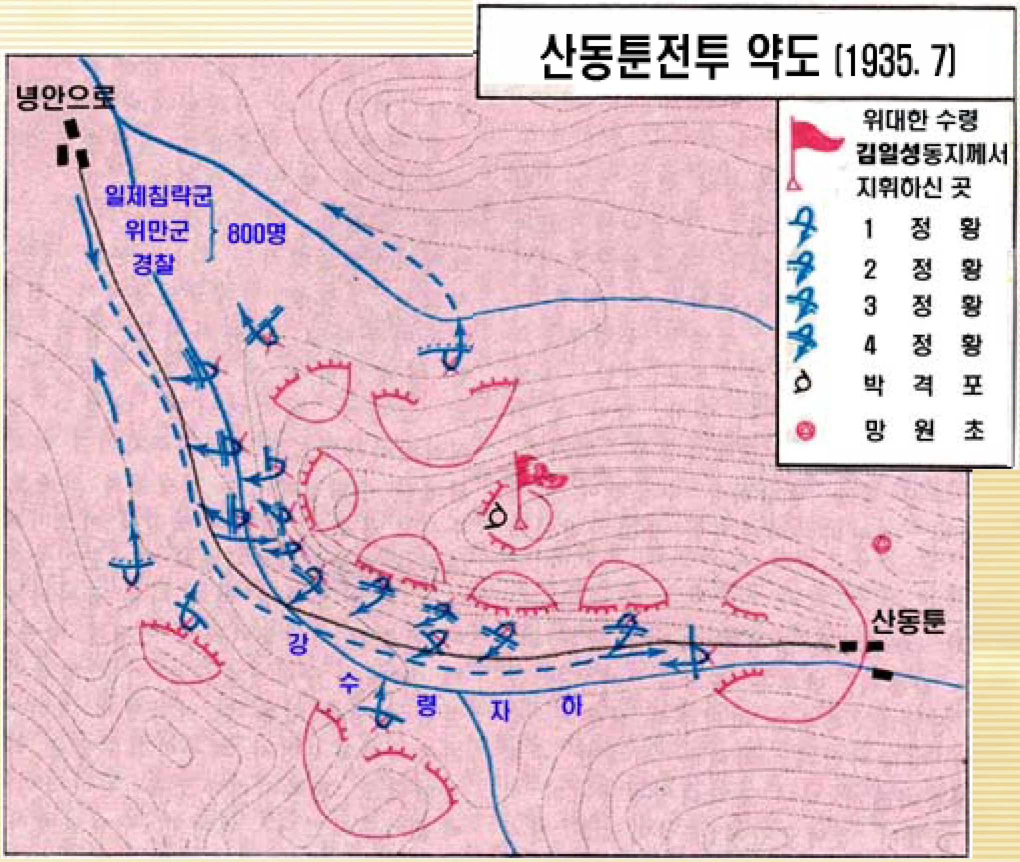
양수천자촌하를 낀 산골길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던 적들은 산동툰 서북쪽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기여올랐다. 우리는 전방 150-200미터 계선까지 적들을 바싹 접근시킨 다음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놈들이 퇴각하였다가 양수천자촌하를 거쳐 남쪽산능선을 타고 다시금 기여들려고 하였으나 거기서도 길목을 지키고 있던 우리의 용사들은 적들을 통쾌하게 쓸어눕혔다. 이런 공방전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적지휘관들은 불리한 정황을 수습해보려고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적들이 지휘소에 밀집되었을 때 박격포중대장은 사격구령을 내렸다. 포탄이 쇠소리를 내면서 연거퍼 적의 무리속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살아남은 적들은 말을 타고 영안쪽으로 퇴각할 차비를 하였다. 우리의 박격포는 철수하는 적들을 향해 포문을 돌리었다.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들은 ≪공산군이 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서 초연 속을 헤매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뿔뿔이 달아나버렸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박격포를 쏜 데 대한 반향이 대단하였다. 적들은 우리가 쏘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박격포까지 메고 다닌다고 하면서 고려홍군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우리는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한 박격포탄을 산동툰전투에서 다 소비한 다음 박격포를 땅에 묻었다.

산동툰전투에서 어떻게나 혼쌀이 났던지 그 후부터 적들은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꼭 닫고 성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어 적들은 우리가 써보낸 편지를 받고 식량, 기름, 신발을 비롯한 군용필수품들을 꼬박꼬박 보내주



산동툰전투 약도 (1935. 7)

기까지 하였다.

북만땅에 다시한번 승전고를 울렸던 산동툰전투는 수류탄으로 뱀을 잡았던 기상천외한 고사와 더불어 나의 일생에서 그 중 인상이 깊었던 전투의 하나로 추억에 남아있다.

적들은 우리의 포성앞에서 전율하였지만 인민들은 그 포성앞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북만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은 이처럼 첫 시작에서부터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은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주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였다. 주보중은 그때부터 중무기의 불합이성을 두 번 다시 운운하지 않았다.

우리는 산동툰을 떠난 후 두구자라는 곳에 가서도 방가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북만공산주의자들가의 반일공동투쟁문제를 다시금 논의하였다. 우리의 주동적 발기에 따라 북만원정대는 주보중과의 합의하에 몇 개의 편대로 나뉘어 5군의 활동지역에 나가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원정대는 5군의 정치위원 호인이 활동하는 목릉지방에도 가고 평남양이 활동하는 고장에도 소부대를 보냈다.

주보중은 마창, 단산자, 옥량하, 석두하자 등지로 떠나가는 우리의 편대들에 5군의 일부성원들을 배속시켜 주었다. 이 고장들은 우리가 1차 북만원정 때 손때를 묻혀가며 개량한 옥토지대였다. 우리는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옥량하의 지하조직은 마을 주변 뿐 아니라 멀리 동경성에까지 줄을 뻗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옥량하를 생각할 때면 한 중국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군 한다. 우리가 1차로 북만에 갔을 때 그 할머니는 부녀회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 환갑이 다된 몸으로 군복도 짓고 원정대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밤잠도 자지 않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때 고향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내가 하루동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전령병들에게 ≪진스링(**김**사령)이 왜 안보이는가?≫고 따져 묻군 하였는데 우리가 무고하다는 말을 듣고야 밤에 잠도 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간도에서 고려홍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꿩 한 마리와 함께 그릇에 국수사리를 얹어가지고 두구자에서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부대를 찾아왔다.

≪지난 해 가을에 **김**사령 대접을 변변히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국수감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 노친의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소이다.≫

노인이 국수감을 전해주면서 우리 동무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전령병들을 구슬렀던지 국수를 좋아하는 내 식성까지 알아냈다.

나는 그날 주보중과 함께 할머니의 지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꿩국물에 꿩고기꾸미와 남새꾸미를 얹은 국수는 별맛이었다. 주보중은 국수를 곱빼기로 들고나서 ≪**김**사령이 어느새 북만땅에 와서 저런 중국노친까지 다 후려냈소? 나는 군중을 쟁취하는 **김**사령의 수완에 늘 탄복하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네 부대에 배속된 우리 중대들에 정치사업방법을 배워주었으면 하오.≫하고 농담절반 진담절반의 청탁을 하였다.

그 해 9월 우리부대가 액목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5군 정치위원 호인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연합작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위하지방으로 남하하는 김책과 사업을 위하여 그 요청을 잠깐 보류해 두었다. 그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호인의 요청에 끝내 응해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항일전쟁 전기간 우리에 대한 그의 그 믿음을 늘 고맙게 추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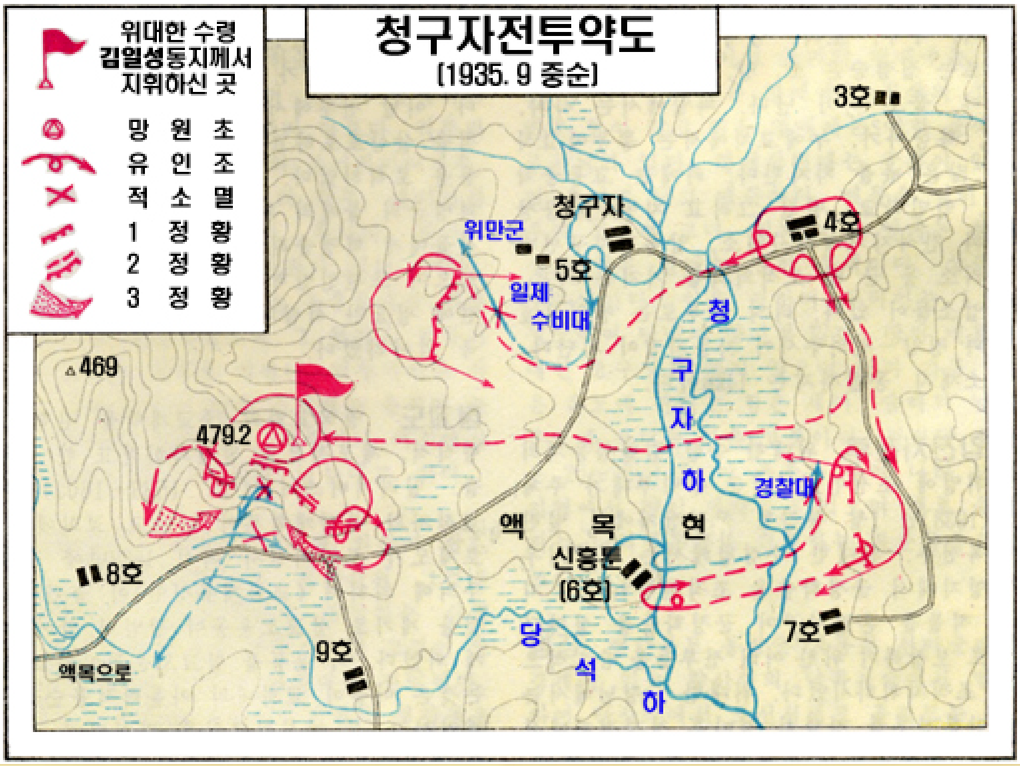
우리가 북만을 개척하는데서 영안 다음으로 중시한 고장은 액목땅이었다. 액목은 우리의 발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고장이였고 중국인부대들조차 혁명바람을 불어넣으려다가 이가 들지 않아서 포기한 곳이었다.

하지만 김책이 소속된 3군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어차피 액목땅에 보습을 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북쪽으로 3군의 활동지역인 위하, 주하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1, 2군의 활동구역과도 이웃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같은 미지의 땅은 적아가 다같이 탐내는 대지였다.

북만의 여러 무장부대들이 액목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은 이 지방 인민들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반공풍조 때문이었다. 영안도 반공바람이 드센 고장이었으나 이 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액목이 이처럼 반공의 오염구역으로 된데는 이 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좌경적 망동으로 공산주의망신을 다 시킨 엠엘계 종파들의 책임도 있었다. 8.1폭동의 여파로 하여 액목인민들은 일제와 반동군벌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도리를 떨었다.

일제는 선무반이라는 것을 파견하여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액목현 청구자밀림에서 숯구이 노동을 하다가 입대한 한 총각의 체험담은 이 지방 사람들의 반공중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준다. 일찍 전염병 때문에 양친과 형제들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는 문전걸식으로 모진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오다가 액목땅에까지 굴러들어와 도로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때 총각은 공사장의 어떤 인부에게서 혁명가요를 한 곡 배웠는데 그것이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였다.

그 후 총각은 임가구 근처의 어느 농가에서 계절노동을 하였다. 하루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총각도 주인들을 따라 그 잔치집에 가서 신랑신부를 축하해주고 주예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도로공사장에서 배워둔 바로 그 혁명가요였다. 그런데 그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잔치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식자가 있는 동네의 한 유지가 그 혁명가요를 듣고 그 총각을 공산당이라고 몰아주었던 것이다. 유지는 총각을 고용한 중농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임자, 품팔이꾼을 두겠으면 똑똑한 사람을 둘 것이지 하필이면 왜 공산공처를 한다는 그 잘난 공산당을 두는가?≫고 하였다. 면박을 당한 중농은 그날로 집에서 총각을 좇아냈다. 비극은 총각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혁명가요를 부르면서도 그것이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노래라는 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 무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식의 탓이 아니라 반공풍조의 탓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토비들이나 마적들이 한 짓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역선전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원정대가 액목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하여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경박호를 건너 액목땅에 첫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주민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다. 액목지방의 동쪽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락은 중국사람들만 사는 아담한 마을이였다. 우리가 도착하자 대다수의 부락사람들은 ≪홍호자≫가 왔다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데리고 인가에서 달아

나버렸다.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집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락에서 얼마쯤 떨어진 수림속에서 천막을 치고 대원들을 휴식시킨 다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소학교에 가보니 교직원, 학생들도 다 숨어버리고 없었다. 이것은 액목땅에 불길을 지펴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동만손님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랭혹한 대접이었다.

나는 학교마당에 풍금을 내다놓고 그 풍금을 타면서 청년의용군중대원들과 함께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동무들은 한족민요에서도 명창이었다. 이 두노래는 중국의 근로민중이 특별히 애창하는 명곡들이였다. ≪소무가≫는 내가 길림시절에 배운 애국가요였는데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충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실제인물이였다. 한나라왕의 사신으로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흉노족들은 그를 인질로 잡아놓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양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소무는 19년간 흉노족들속에 갇혀있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 사상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였다.

우리가 풍금을 타면서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자 숨어있던 소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먼저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고 우리 곁에 모여왔다. 그리고는 내가 치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교원들과 동네어른들이 하나 둘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고려홍군≫이 중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서 그들은 홍군과 자기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막연한 공통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도 원정대를 냉대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과 선망의 눈길로 대하게 되었다.

도망갔던 마을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자 나는 중국말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까지 듣고서야 마을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었다. 그들은 ≪고려홍군≫은 비적도 아니고 마적도 아니다, ≪고려홍군≫은 진짜 애국적인 혁명군이며 신사멋쟁이군대라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소무가≫를 가지고 북만땅의 중국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일을 통해 나는 문학과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각성시키는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실제로 체험하였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중시하는 이유가 그때의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2차 북만원정당시 경박호반의 그 중국인부락에서 겪은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나는 해방 후 ≪소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얼마전에야 우리 일군들의 도움으로 중국말 원문으로 된 가사를 입수하였다.

나는 그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80고령이라는 것도 잊고 ≪소무가≫를 불렀다. 80객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는가 목이 막혀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멀리 구름너머로 아득히 사라진 청춘시절의 감회가 새롭게 솟아올랐고 우리가 고난속에서 개척한 북만의 대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샘처럼 북받쳐올랐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어려운 공동투쟁의 길을 개척하던 나날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풍금으로 이 노래를 종종 타보곤 한다. 휘파람으로 불때도 있지만 20-30대처럼 생신한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에 소무가의 가사를 적는다.

소무목양

1.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 않았네
눈과 얼음 덮인 흉노땅에서 19년
목마르면 눈을 먹고
배고프면 요털을 삼키며
북해변에서 양을 몰았네
마음은 한나라에 가있으나
늙도록 몸은 돌아가지 못했네
모진 고생 겪을수록
마음은 철석으로 굳어져
변강의 밤 때로 피리소리 들으면
가슴은 아프고 쓰리었네

2.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 않았네
어느덧 북풍은 불어
기러기떼 한나라로 날아가건만
백발의 어머니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꽃나이 아내는 홀로 빈방을 지키네
삼경이면 다 함께 꿈을 꾸련만
누가 누구의 꿈을 꾸었는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는다 해도
큰 절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아
흉노족들도 놀라서 그 위덕에 탄복하였네

액목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삼과송이라는 곳에서 전주 김씨노인을 만나던 일이다. 육과송이라는 말이 6대의 소나무라는 말이라면 삼과송이라는 말은 3대의 소나무라는 뜻이다. 우리는 삼과송에 있을 때 현성에서 얼마 멀지않은 어떤 지주집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지주집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몸집이 자그마한 영감이 퇘기논을 부치며 살고 있었다. 전령병이 알아본 데 의하면 그 노인은 조선사람 같은데 조선말은 하지 않고 잘 할줄도 모르는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사람으로 행세하며 산다고 하였다.


봉오동전투장소

어느 날 저녁 나는 노인의 집에 마실을 갔다. 통성을 해보니 틀림없는 조선사람이었고 본관도 나와 같은 전주 김씨였다. 홍범도를 따라다니면서 청산리전투에까지 참가한 노인이었는데 그 전투가 있은 다음 부대가 흩어지게 되자 액목땅에 와서 노친을 얻어가지고 은거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내가 전주 김씨라는 것을 알게되자 노인은 만리타향에 와서 동성동본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부인을 시켜 발방아로 벼를 찧어 흰쌀밥을 해주었다. 북만땅에 간 후 처음

으로 먹어보는 흰쌀밥이었다.

≪우리도 처음엔 뜻이 대단하였네. 홍범도장군휘하에서 봉오골대첩을 치를 때만해도 조선독립이 당장 되는 것 같더구만. 그 마적에는 꿈을 꾸어도 독립문밑으로 해서 한양성으로 입성하는 꿈만 꾸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야의 모래알이나 막돌같은 신세가 되어 하는 일도 없이 주름살만 늘어가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이 늙은 것한테 낙이 있다면 한족세상이나 다름없는 북만주 한끝에서 장마철에 별을 보듯 조선동포를 만나는 때일겉세. 아우쪼록 김장군부대가 간도로 돌아가지 않고 액목땅에 그대로 영주하면 얼마나 좋겠나.≫

노인은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무겁게 몰아쉬었다.

나라를 찾으려고 화승대를 메고 나섰던 청운의 뜻이 늙은이의 얼굴에 사정없이 그려지고 있는 주름살과 함께 덧없이 스러진다고 생각하니 나도 역시 처량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저 노인의 초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곤란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필승불패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전주 김씨노인한테는 한쪽 귀가 없었다. 식사가 끝난 다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인에게 한쪽귀가 왜 없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목단강에 나가 얼음구멍을 내고 강도낚시질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허구프게 웃었다. 큰 잉어 한 마리를 낚아가지고 덥석 끌어안았는데 그 잉어가 요동을 치면서 언 귀를 후려치는 바람에 그런 몰골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이 당한 그 봉변을 두고 심심한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삼과송마을에 한주일가량 머무르고 있는 동안 매일밤 노인네 집에 찾아가 홍범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속을 터놓고 보니 액목사람들도 간도사람들처럼 반일사상이 강하였다. 그들이 반공에 오염된 것은 조직의 인도를 받지 못한 탓이었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구자의 4호부락 백가장 유영생과도 친교를 맺었고 나중에는 지휘부도 그 집에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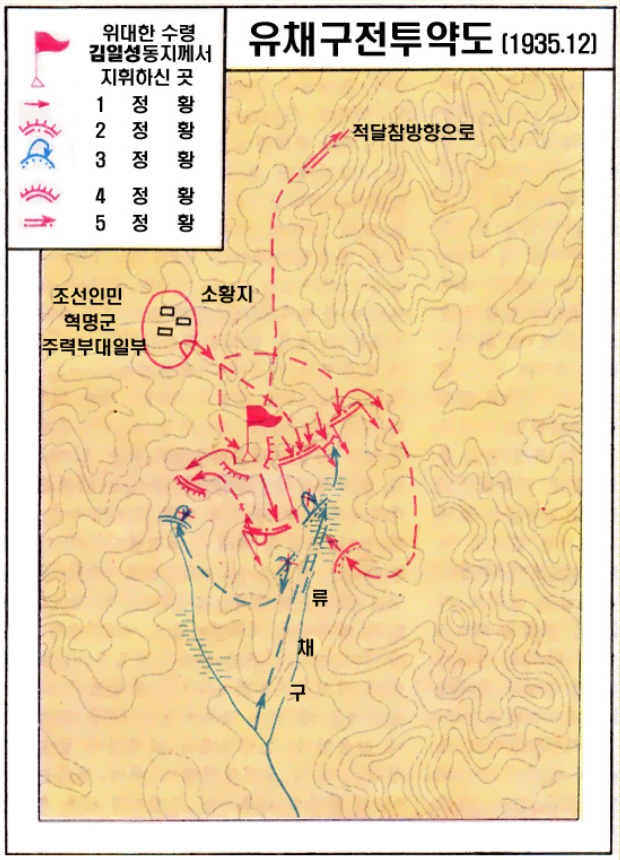
유영생은 인민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밤이면 우등불 두리에 모여앉아 오락회도 하고 여대원, 남대원의 구별이 없이 한데 어울려 춤도 추고 학습도 하는 우리를 보고 별난 군대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때까지 보아온 군대라는 것은 무슨 간판을 가졌든지간에 다 백성들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질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 그런데 간도에서 왔다는 이 ≪고려홍군≫은 백성들의 물도 길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아이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상하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이상한 군대라고 온 동네가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중에 우리는 유영생백가장한테서 6호부락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수비대와 위만군이 4호부락쪽으로 밀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 통보를 받고 전 부대에 취침구령을 내렸다. 대원들은 취침시간도 되기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백가장은 그것을 보고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였다. 다른 군대라면 다 적들을 피해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겠는데 이 ≪고려홍군≫이라는 사람들은 달아날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에 늘어붙어서 잠잘 궁리부터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지경 같은 군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을



가없이 넓은 초원에 굽이쳐 흐르는 목단강



에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 온밤 자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들락날락하였다.
나는 백가장을 옆에 끌어다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백가장님, 우리 군대가 마을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백가장님은 너무 심려하지 말고 푹 쉬십시오.≫
≪아니, 초저녁부터 이불밑에 들어간 군대가 마을을 어떻게 철통같이 지킨다는 겁니까?≫
백가장은 여전히 불안을 털지 못하고 갈팡거렸다.
≪보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홍군≫은 허풍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밤은 푹 쉬셔도 일없습니다. 그 대신 내일아침 우리가 떠나간 다음 적들에게 찾아가서 ≪고려홍군≫이 마을에 왔다갔다고 신고해 주십시오. 백가장님이 본대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신고라니요. 나는 ≪고려홍군≫같이 훌륭한 군대를 고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백가장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부탁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길이고 백가장님이 살길이고 동네가 살길입니다. 이제 두고보면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백가장으로 하여금 경찰에 ≪고려홍군≫의 움직임을 그대로 신고하게 한 것은 집단부락안에 배겨있는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4호 부락에서 철수하여 액목행도로를 따라 행군하였다. 행군도중 1개 중대의 무력은 사남능선에 매복시켰다. 유영생백가장의 신고를 받은 적들은 수백명의 토벌대를 내몰아 행군중에 있는 우리 주력부대를 사나운 기세로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북만원정대는 액목진출후 처음으로 되는 유인매복전을 하게 되였다.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일본군 수비대(헌병대라고도 함)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되였다. 인민혁명군의 탄막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한 한 명의 수비대원만이 살아서 비행기의 구조를 받았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착륙도중 사고로 풍지박산이 되는 바람에 그놈마저 ≪천당≫으로 갔다고 한다. 우리 나라 답사단이 액목땅을 찾아갔던 1959년까지도 청구자 6호부락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건립한 충령비가 그냥 남아있더라고 하였다.

우리는 1935년 12월 관지부근에서도 또 한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이 전투를 일명 유채구전투라고도 한다. 이 전투에서 우리와 맞다든 200여명의 적들은 대부분이 소멸되였다. 우리에게 쫓겨 혼비백산이 된 적 장교놈이 들판에 있는 관속에 송장대신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투 뒤에 있었던 일이다.

북만땅에서 우리가 진행한 그 수많은 교전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다. 우리가 액목땅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던 1935년 가을에 국제당은 주보중을 통하여 2군과 5군의 협동작전을 위한 합동지휘부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그 합동지휘부의 정치위원 겸 위하부대 사령관으로 나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통지해주었다. 대대와 연대, 사단들에서 정치위원도 역임한 바 있는 지난날의 경력이 아마도 국제당으로 하여금 나를 2군과 5군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으로 선발하게 했던 것 같다.

이 임명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였다. 나는 벼슬을 바란 것이 아니라 북만에서 활동하는 핵심적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상봉을 더 안타깝게 갈망하였다. 그런데 결국은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이라는 난데없는 벼슬자리가 그 갈망을 아닌보살하게 하였다. 나에게 원정대의 활동 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정치사업까지도 돌보아야 할 막대한 부담이 들씌워졌다. 나는 그 엄청난 중책으로부터 오는 일거리들을 걸머지고 남호두회의를 전후한 시기까지 북만전우들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2개 군의 정치사업을 위해서 영안과 그 주변 현들을 바삐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유대를 더욱더 공고한 기초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 소득은 우리가 원정을 시작할 때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였다.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원정의 주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선차적인 항목으로 내세웠던 김책, 최용건과의 직접적인 상봉을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을 먼 장래의 일로 남겨두게 된 것이였다.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나날에도 언제나 북만의 광야에서 온갖 신고를 다 참아가며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잊지 않았다. 상봉이 지체되면 지체될 수록 그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자라올랐다.

동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남북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통성을 하고 격정과 사랑에 넘친 포옹을 한 것은 1941년 초였다. 그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밀영에서 한 가마밥을 먹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결전을 준비하다가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건국의 불도가니속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모두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연대들에 나와 함께 항일전쟁은 물론, 반미전쟁도 해보고 민주개혁과 사회주의건설의 간고한 영봉들을 꾸준하게 돌파해온 충실한 투사들이다.

지금도 북만에서 싸우던 투사들은 나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해 고락을 같이 나누고 있다. 장장 반세기도 넘는 세월 나와 우리의 위업을 받들어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온 그 충신들에게 광망한 앞날의 행복과 더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만이 남게 되기를 바란다.

2. 기이한 인연

북만의 액목지구는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장이였다. 장명근과의 연계밑에 여신청년회라는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 조직에 망라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해오던 교하와 신잔, 삼송도 당시까지는 액목현에 속해 있었다. 이 현이 교하현으로 개칭된 것은 1930년대 말기부터였다고 한다.

우리는 2차 북만원정 때 액목땅에서만도 수천 리의 장정을 하였다. 청구자, 비파정자, 남천문, 상도구, 마록구, 신흥룬, 관지, 유채구, 삼과송, 목단강촌, 흑석향, 타요자 등은 다 우리가 그때 개척한 고장들이며 북만원정대의 무공이 새겨진 추억도 깊은 전적지들이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사건들도 많이 체험하고 인상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다.

2차 북만원정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지방에는 혁명바람이 전혀 미치지 못한 미개척지들이 많았다. 우리가 액목원정문제를 토의할 때 주보중이 걱정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김**사령이야 벽창호같은 오의성영감도 일조에 돌려세운 사람이니 어련하겠소만 우리 지난 봄에 액목땅에 갔다가 ≪홍호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곳곳에서 문전거절을 당했소.≫

주보중이 말하는 ≪홍호자≫란 붉은 ≪홍≫, 되 ≪호≫, 아들 ≪자≫를 쓰는 중국말로서 비적을 가리키는 뜻이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을 경원시하던 오의성이 ≪홍호자≫라는 말로 주보중을 욕했는데 그 후 언제부터인지 그 말은 공산주의자들의 군대 일반에게 붙이는 상욕으로 되였다.

과연 주보중의 말대로 우리는 원정부대를 이끌고 액목땅에 들어간 첫 순간부터 ≪홍호자≫의 대접을 받았다. 액목 사람들이 원정부대를 보자 ≪고려홍군≫이 왔다고 하면서 마을을 비우고 도망친 것은 우리를 ≪홍호자≫ 못지않게 경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붉은 ≪홍≫자는 패덕과 잔인성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원정중의 많은 시간을 군중과의 사업에 바쳤다. 군중공작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민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연공, 친공의 길로 돌아설 때 우리는 참으로 일확천금에도 비길 수 없는 무상의 희열을 느꼈다.

요영구회의 후 울면서 유격근거지를 떠나가던 인민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고 또 혁명에 대한 걱정이 천갈래 만갈래로 겹쳐서 심신이 고달프던 때에 액목땅에서 얻은 그런 수확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녕 커다란 기쁨으로 되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 중의 기쁨은 동지와 벗을 얻는 것이요, 슬픔 중의 슬픔은 그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액목현경에 들어서기 전에 벌써 경박호반인 소산저자에서 채화라는 중국어부를 사귀여 그 호수를 쉽게 건너올 수 있었다. 채화도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이였다. 19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경박호에서 고기잡이를 유일한 생업으로 삼아온 이 순박한 어부는 ≪고려홍군≫을 ≪비적≫이라고 묘사하

던 일본사람들이 선전을 그대로 곧이 듣고 있었다. 그러나 원정대의 위용과 질서정연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 대원들의 소탈하고 겸허한 인품에 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도 태도를 바꾸어 혁명군을 후덥게 대하였다.

격강이 천리란 말처럼 군대의 원정에서 앞길을 막는 강물은 천리길에 맞먹는 장애물이었다. 그러기에 적의 눈을 피해가며 원정대의 경박호도하를 전력을 다하여 보장해 준 채화의 수고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59년 우리 답사단 동무들이 중국에 갔다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속의 채화는 이미 70살 고령에 이른 주름많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목이 성큼한 옛모습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자못 감개가 무량했다.


동북의 신비경
경박호

청구자전투 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후발물자를 공급해준 백가장 유영생과 흑석향부근에서 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킨 유춘발노인을 비롯하여 우리는 액목땅에서 참으로 많은 벗을 얻었고 군중을 쟁취하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한 위만군 연대장과도 깊은 친교를 맺었다.

원정대가 돈화현쪽에 있는 목재소를 치려고 밤새껏 강행군을 하던 때였으니 아마 1936년 초에 생긴 일이었을 것이다.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 우리는 행군을 중지하고 대도로 옆의 어떤 지주집에 여장을 풀었다. 큰 도성을 둘러치고 포대까지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집이었다. 위만군이 조직된 후이고 또 일본사람들이 사설무력을 허용하지 않는 때여서 그 집에 가병만은 없었다.

지주집은 두 채로 되어 있는데 한 채에는 대원들이 들고 다른 한 채에는 지휘부성원들과 후방부일군들이 들었다. 우리는 대문앞에 머슴군차림을 한 대원 3명을 교대로 파견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쉬게 하였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보초소로부터 마차 1대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주집쪽으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금 후 마차가 지주집앞에 멎어섰는데 그 안에서 웬 귀부인이 병사 1명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잠깐 몸을 녹이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주집으로 곧추 들어왔다.

문밖을 내다보니 눈보라가 날리는 마당에 여우털을 댄 외투를 두벌씩이나 껴입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 서있었다. 그 호화로운 옷차림에 눈이 뒤집힌 우리 동무들이 벌써 마당에 쓸어나와 행식이 지나치게 현란한 정체불명의 여인을 에워싸고 검문을 들이대고 있었다.

웬 여자냐고 내가 묻자 나어린 보초는 ≪사령관동지, 수상한 여자입니다.≫라고 무슨 큼직한 고위급특무라도 잡은 것 같은 기세로 우쭐해서 대답하였다. 보초는 그 여자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젊은 중국여인은 사색이 되어 아무말도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몸수색까지 하려드는 보초병을 엄하게 꾸짖고 나서 명령하였다.

≪보초동무, 부인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으로 들여보내시오.≫

여인은 방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조심스레 떨고 있었다.

나는 중국말로 그 여자를 안심시켰다.

≪부인, 무서워 말고 몸을 푹 녹이시오. 어린 보초병이 잘못 보고 좀 하대한 것 같은데 양해하시오.≫

나는 여인에게 차를 권하고 나서 그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화로불도 가까이에 밀어

놓았다.

≪부인이 어떻게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고장 사람들이 ≪고려홍군≫이라고 부르는 인민혁명군입니다. 부인은 ≪고려홍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들어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고려홍군≫은 일본사람들이 소문을 내돌리고 있는 것처럼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비적≫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혁명군은 항일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의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조중양국을 침해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털끝만치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마음을 푹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표식으로 두 손을 합장하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서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반신반의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었다.

나는 부인이 긴장을 풀 때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부인이 위만군병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죄를 묻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되어 병사의 호위를 받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인민을 해치지 않고 혁명군을 해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나가는 길손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인장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 집에 잠깐 들려 피곤을 풀던 손님들이니 다른 생각일랑 말고 불이나 뜨뜻하게 쪼이다가 가시오.≫

여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쳐들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의 눈에 문득 경악에 가까운 빛이 어렸다. 여인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여 얹고 안타깝게 입술을 감빨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내 말이 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대장님의 얼굴이　전 대장님이 본래부터 인자한 분이라는 걸　≫

여인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또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호송병을 심문하던 오백룡이 범잡은 포수상으로 문가에 나타나서 중국 귀부인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조선말로 넌지시 보고하였다.

≪장군님, 호송병의 말에 의하면 저 여자는 위만군 12연대장의 아내라고 합니다. 큰 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려든 셈이지요.≫

≪백룡동무, 너무 우쭐해서 그러지마오. 큰 고기인가 작은 고기인가 하는건 이제 두고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 나는 위만군 연대장의 부인이라는 말에 퍼그나 놀랐다. 연대장이라면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다. 위만군의 군사등급으로서는 위로는 네번째이고 밑으로부터는 13개나 되는 사닥다리를 톺아올라야 따낼 수 있는 벼슬이였다. 위만군 1개 연대의 관할구역이 몇 개 현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액목현에는 교하에 본부를 둔 위만군 혼성 제9여단 산하의 12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적군와해를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위만군연대장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론 연대장의 아내라고 하여 조금도 낯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니 부인, 위만군연대장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형벌이라도 내릴

줄 알았습니까?≫

여인은 몹시 민망스러워하는 낯빛으로 손을 비비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못 보지 않았는지   실례이지만 성함을 김성주라고 하지 않는지?≫

이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간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북만땅에서 우연히 만난 위만군연대장의 아내가 내 아명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무심히 스쳐지날 수 없는 비상사건이다. 어데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귀부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동시에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참, 액목땅에 와서 아명을 들으니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성주이기도 하고 **김일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연대장의 아내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나는 부인의 얼굴에서 말하고 싶어하면서도 터놓기 주저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주선생님이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할 때 저는 거기서 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처음으로 나를 쳐다볼 때 여인의 눈동자에 비끼던 그 생동한 열정의 빛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하였다. 어쨌든 액목과 같은 백사지에서 길림시절의 여자중학교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길림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불현듯 내 가슴속에서 향수에 가까운 짜릿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는 나를 몇 해 동안 비끄러매 두었던 그 도시에 깊은 정을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내 얼굴에 피어오르는 옛시절의 추억을 읽자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성주선생님도 길회선철도부설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던 1928년 가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 가을에 길림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도 그때는 학생시위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성의회마당에서 성주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

지난날 시위대열에서 구호를 웨치던 길림여자중학교 학생, 그러나 오늘은 여우털 외투로 몸을 감싸고 호송병의 호위를 받으며 친정집나들이를 다니는 연대장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심한 격세의 느낌을 받으며 연대장의 아내를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어제까지 반일을 하던 여성이 오늘은 친일의 열차에 오른 것이다.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하여 생겨난 타락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길림시절을 회고하는 그 여성의 절절한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반일을 하던 그전날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우리앞에서 눈물로 자신을 회개했고 수치를 무릅쓰고 여학생시절을 추억하였다. 이 여자가 무엇때문에 나를 보는 순간 그리도 놀라고 전율을 일으켰겠는가. 그것은 양심앞에서 느낀 공포였을 것이다.

≪성주선생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이 연설을 하실 때 주먹을 들고 호응했던 그 소녀가 글쎄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고생하는 성주선생님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부인, 진정하시오.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 안됩니다. 그런 절망, 그런 자포자기의 세계에 빠지기에는 시국이 너무도 준엄합니다. 안팎의 정세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중화의 모든 아들딸들과 지성인들을 항일구국의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대장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항일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여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처지에서도 항일을 할 수 있는 출로가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가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게만 하여도 그것은 곧 항일을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됩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위만군연대장이면 작지 않은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벼슬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데 있습니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중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에 감격하는 위만군연대장부부

≪저의 남편도 연대장이기는 하지만 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이도 민족적 양심만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주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설복해서 유격대토벌에 부하들을 내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연대장이 친일로부터 반일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 수하의 부하들도 애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인과 부인 남편되는 분의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간도에서 위만군장교로 복무하던 사람들이 친일로부터 항일로 방향전환을 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여인에게 신심을 주었다.

여인은 오늘 성주선생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이다, 선생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되는 바가 많다. 선생이 오늘 나에게 길림시절의 넋을 되찾아주고 우리 부부를 재생의 길로 인도해준 셈이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딸답게 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만든 선전물과 송경령, 장내기 등이 상해에서 발표한 항일구국 6대강영도 보여주었다. 1차 북만원정때 영안에 있던 주보중의 산막에서 오평이 보여준 바로 그 6대강령이었다.

연대장의 아내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품속을 뒤지더니 흰 종이에 싼 물건을 내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중국지폐였다. 아편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군자금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성의가 고마웠으나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돈은 도로 간수하시오. 나는 오늘 잃었던 반일학우를 다시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큰 재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대장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저녁상을 푸짐히 차려 위만군연대장의 부인에게 접대하였다. 그 여인이 지주집을 떠나가면서 나에게 대준 성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요행 남아있는 것은 ≪지≫라는 성뿐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얼마 후 우리는 위만군연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신들은 세상에 더없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나의 아내에 생명을 보호해주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애국의 길을 걷게 한 당신들을 나는 결초보은의 각오를 가지고 도와줄 결심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는데 필치가 아주 비장하였다. 그 연대장의 이름도 ≪장≫무엇이라고 하였는데 기억이 삭막하다.

그 후 우리는 음력설 준비를 하느라고 액목현성 근처에 군수관을 파견하였다. 그는 언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설음식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구입하느라고 시가지에까지 들어갔다가 과업을 채 수행하지 못한 채 현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위만군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은 경찰서에 인민혁명군은 군대가 관계하는 것만큼 군수관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군수관은 위만군연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은 아내를 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군수관을 귀빈으로 환대해 주었다. 그는 **김**사령부대가 자기 아내를 잘 도와주어 감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황에 놓이든지 당신들을 토벌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담보하는 것이니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당신네 부대를 만나면 공중에 대고 총을 세 방 쏘겠으니 그럴 때에는 우리 부대인줄 알고 못본척 하고 지나가라, 내 죽더라도 **김**사령의 은혜만은 잊을 수 없다, **김**사령한테 충심으로 되는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군수관에게 말한대로 위만군연대장은 그 후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우리가 삼과송부락에 머물고 있던 그 당시 관지부락쪽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액목현쪽에는 위만군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두 부대가 다 토벌을 다니기는 하였지만 12연대장이 지휘하는 위만군연대는 우리 부대와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교전을 피하곤 하였다. 우리도 일본군대만 골라가면서 쏘았다.

그 당시 일본군과 위만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는 철갑모였다. 철갑모를 쓰면 일본군이고 안쓰면 위만군이라는 것이 빨치산의 어느 부대에서나 다 통하는 공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만군까지 철갑모를 쓰고 전투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철갑모를 쓴 사람은 일본군으로 알고 무조건 쏠테니 유격대와 싸우지 않으려거든 철갑모를 벗으라고 하였다. 그런 경고를 받은 다음부터 위만군은 우리한테 접근하면 철갑모를 벗고 자기네가 만주군이라는 것을 알렸다.

빨치산은 철갑모를 쓴 자들이 대열앞에 있으면 앞을 치고 뒤에 있으면 뒤를 치군 하였다. 일본군은 ≪빨치산이 신통히도 우리만을 골라 친다.≫고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위만군이 토벌에 나올 때 오발 등의 방법으로 빨치산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은 이 약속도 곧잘 지켰다. 오발도 못할 때에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한데 모여서 ≪지지가가≫, ≪지지가가≫하고 떠들어대는 방법으로 자기네 위치를 알려주군 하였다.

장연대장은 우리에게 후방물자도 적지않게 보내주었다. 그는 이따금씩 마차에 돼지고기와 언교즈를 가득 싣고 토벌을 간다고 하면서 주둔지역을 떠나서는 부하들을 시켜 우리 부대와의 접선장소에 가져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빨치산도 없는 왕청같은 곳에 부대를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병영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우리 부대가 관지부근의 어느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지휘관들 몇명이 나한테 몰려와 설명절을 앞둔 대원들의 기분상태를 보고한 다음 부락에 나가서 메밀이나 감자가루를 구해다가 명절날 국수라도 누를 수 있게끔 식량공작을 하게 승인해달라고 제기하였다.

나는 인민들에게 끼칠 부담을 고려하여 그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는 부대에 철수명령까지 내렸다. 그때 그 마을인민들은 **김**사령부대와 함께 설을 쇠게 되었다고 하면서 명절준비를 굉장히 하였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부대

의 명절음식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몇 달분 농량이 거덜날 수 있었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급작스레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정작 철수를 단행하기는 하였으나 대원들은 그때 사실 한 사람처럼 볼이 부어 있었다.

황니하자막바지에 거처를 옮긴 원정대는 목재소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산전막을 손질하고 거기서 설 명절을 쇠였다. 명절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차례진 것은 한 사람당 한 그릇밖에 안되는 좁쌀밥뿐이었다. 대원들이 그 밥을 먹고 얌얌해할 때 위만군 연대장이 보내준 돼지고기와 교즈가 도착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와의 친교가 깊어지게 되자 그 연대장은 나중에 원정대앞으로 무기도 보내주고 정보자료까지 제공해 주었다. 한 여인에게 비껴진 우리의 진정은 이처럼 진폭이 큰 결초보은의 메아리를 자져왔다. 위만군연대장은 만주국이 자기에게 준 연대장모자를 그냥 쓰고 있으면서도 과감한 연공실천으로 역사와 인민앞에서 장공속죄하였다.

위만군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하층병사대중을 전취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중하층장교들과 일부 양심적인 상층장교들까지도 전취하여 극소수의 악질장교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데 대한 적군와해방침은 그 연대장과의 사업에서도 크게 은을 낸 셈이었다.

이것은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득이었다. 우리와 단 한차례의 접촉도 해보지 않은 연대장이 자기 아내의 교양을 받고 반혁명의 하수인으로부터 연공애국인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길림여자중학교 출신의 연대장부인이 남편의 개심을 위해 적극적인 사상전을 벌인 것 같다. 그 여자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다.

위만군 연대장은 얼마 후 화전지방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그를 위증민에게 인계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래도록 연대장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1941년에 와서야 화전에서 위증민의 활동을 보좌하던 곽지간을 통하여 한 토막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곽지산은 화전에 있는 위만군 12연대와 13연대가 조만간 열하쪽으로 조동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두 연대의 연대장들이 열하로 이동하기 전에 항일혁명군에 편입할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화전에는 그 당시 두 연대를 동시에 수용할 만한 부대도 없었고 두 연대장의 용단을 두고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들도 없었다. 곽지산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그 대답을 받아가기 위해서였다. 위증민이 전사한 다음부터 2군 소속의 군정간부들은 부대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처리와 관련된 결론을 우리한테서 받아가곤 하였다.

나는 위만군이 열하로 조동되어가기 전에 그들을 조속히 의거시킬 데 대한 긴급한 임무를 주어 곽지산을 화전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이 늦은 탓으로 두 연대를 의거시키기 위한 거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연대장은 화전에 있을 때 양가성을 가진 새 연대장에게 자기 연대를 인계하였다. 그는 후임 연대장에게 부대를 인계하면서 반일의 길을 걷도록 교양하였으며 인접부대였던 13연대장에게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일혁명을 도와나서도록 권고하였다.

그 후 나는 열하쪽으로 조동된 위만군 제12연대와 제13연대의 후일담과 관련된 자료는 어데서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일작전시의 위만군의 붕괴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부대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에 반기를 들고나선 것을 알게 되었다.

적군속에 있는 한 사람의 양심적인 벗은 수천수만의 벗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초시기부터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내

들었다. 적군속에 포대를 쌓는다는 것은 적군속에 우리의 진지를 쌓는다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적군와해공작을 목적으로 적군속에 우리의 혁명역량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적군와해공작을 대적정치사업이라는 말로 통용하였다. 총탄으로 적을 잡는 것과 대적정치사업으로 적을 와해시키는 이 양자는 항일투쟁을 위한 두 가지 전략적 노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싸움, 어느 편을 막론하고 적과의 투쟁은 항상 이 두 가지 선상에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무력에 의한 싸움이요, 다른 하나는 정신과 사상선전에 의한 싸움이다.

일제의 소위 치안숙정에서도 치표공작, 사상공작, 치본공작 등 세 가지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총체적으로 보면 무력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소비공작과 선전선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상공작의 두 측면인 것이다. 적들도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적정치사업을 위해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리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이에 잘 호응해 나서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다고 적군와해공작방침을 반대하여나선 졸장부는 물론 한 사람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방침에 흔연히 호응해 나서지 못한 주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계급적 선에서의 탈퇴로 본 데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요, 상대는 부르조아군대이니 적아는 수화상극이다, 물과 불이 서로 의좋게 이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이치인데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머리를 내저었다.

맑스주의고전들을 한배낭씩 지고 다니는 축들은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협조와 비슷한 우경적인 탈선이라고 비평하였다. 그것은 불상용적 모순관계에 있는 계급적 원쑤들과의 제휴를 꾀한다는 것이겠는데 고전에는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없다고 우겼다.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고전의 명제가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런 일면적인 입장이 상당한 정도로 득세하였다.

계급투쟁이 심했고 계급적 원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은 때여서 누가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해도 그것을 무슨 큰 탈선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다고 만난을 극복하였으며 따라서 계급이라는 이 명사앞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계급투쟁론에 대한 교조적인 해석의 후과로 하여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증오하는 감정이, 포섭하고 용서하는 도량보다도 징벌하고 규탄하는 비타협성을 혁명가의 특질로 보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년들을 협애한 인간으로, 문자그대로 인정사정 없는 ≪홍호자≫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맑스주의혁명은 이런 폐단으로 하여 진통을 격었고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에 검은 그을음을 끼게 하였다. 계급옹호와 계급적 비타협성의 구호밑에서 계급의 이익 일면만을 고창해온 좌경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등을 돌려대고 적의 진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문제는 선행고전에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선과 방침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데 있었다.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우리는 맑스주의고전을 연구하는데서도 먼저 비타협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단결에 대한 사상부터 얻어내려고 애썼다.

우리가 적군속에 능히 혁명역량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노동자, 농민의 자제들인 절대다수의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물론, 일부 상층장교들속에도 우리 혁명을 동조하고 착취사회의 수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양심적인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모두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고 우군으로 전취한다면 적들은 그만큼 와해되고 우리의 혁명역량은 수배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총포탄을 쏘지 않고 계급적 원쑤들을 섬멸하는 대공격전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인류의 행복과 화목을 염원하는 고상한 이념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대 선전으로 된다.


김구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입장과 뜻을 가지고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대적정치사업의 기본구호로 제기하였다.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을 수 있다고 본 우리의 사상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인 동시에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착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경멸한다. 이 고유한 본성이 바로 인간성이다.

극소수의 반동적인 상층을 제외한 다수의 중하층 인간들과 상층의 일부 인물들은 우리가 넓은 도량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기만 하면 혁명의 지지자, 동조자, 방조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극소수의 반동들과 악한들을 제외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울 수 있다고 보는 우리의 정책은 바로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김구를 테러의 왕초라고 하면서 이승만과 동렬에 놓인 인간으로 반동시 하였다. 그가 일생동안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들에 대한 증오가 오죽했으면 김구, 이승만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만화까지 나돌았겠는가.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자기네 공장굴뚝에 ≪김구를 타도하라!≫는 구호까지 써갈겼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 중에는 김구를 개조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김구 자신은 4월 남북연석회의때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반공분자로부터 연공, 친공인사로 개조되었다. 그가 이런 개조과정을 거칠 수 있은 것은 우리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 그가 일생을 바친 애국애족의 정신이 고도로 발동되고 그의 인간성이 최대한으로 계발되였기 때문이다.

애국애족과 인간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를 겨누던 최덕신과도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의 남조선 집권자들과도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남조선의 통치자들과 대회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협상탁에 마주앉는 것은 비록 제한성은 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양심과 인간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며 그 양자가 어느 때든지 민족화합의 대화원에서 꽃으로 만발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군전취의 대상과 방법문제를 놓고도 적지않은 논쟁을 하였다. 일본군대를 상대로 하는 대적정치사업에 대한 논쟁은 더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동무들은 위만군의 중하층의 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야마도 다마시≫로 ≪천황≫을 맹신하고 강압적인 규율에 길들어진 일본군인은 도저히 전취할 수 없는 존재로, 원쑤로 보았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립

군 두령에게서도 반공사상을 뽑아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군 장병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도리질을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이 견해를 쉽게 부정해 버렸다.

어느 해인가 간도의 농촌부락들에 열병이 돌아서 일본군대들이 앓는 사람들을 집에 걷어넣고 불을 질러 태워죽이는 살인만행을 감행한 적이 있다. 동장영이 앓고 있은 부락에도 토벌대가 달려들었다.

한 일본장교가 방안에 누워있는 동장영을 보자 대뜸 자기 부하에게 문을 걸고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일본군인은 상관의 말대로 불을 달려고 서둘렀다.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다고 생각한 동장영은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선전이나 하다가 값있게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한바탕 선전을 하였다.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그는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였다.


최덕신

너도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겠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 죽이는가? 죽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인사불성도 분수가 있지 앓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절규에 마음이 움직여진 일본군인은 뒤문짝을 차던지고 상관이 눈치채지 못하게 동장영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야 불을 달았다.

동장영은 밭고랑에 숨어있다가 가까스로 사지에서 구원되었다.

이 일화는 일본군을 전취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견결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략에 능한 동무들을 선발하여 대담하게 적군속에 파견하였다.

적군속에 홀로 있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대적정치사업을 훌륭히 수행한 유명무명의 많은 공작원들에 의하여 위만군과 자위단들속에서 매일과 같이 병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유격대원이라면 누구나 다 함화, 출판물 보급, 여론유포, 가요보급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대적정치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적군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는 우리의 열렬하고 감화력있는 선전공세로 하여 많은 위만군 부대들이 유격대와 싸우기를 그만두고 충실한 무기수송대로 되었다.

위만군들은 편지 한 장만 내도 무기, 탄약, 식량을 실어다 주었고 전투마당에서 ≪요창 부요밍(총을 요구하지 목숨은 필요없다.)≫하고 입대포만 놓아도 총을 바치고 투항하였다.

적 토벌대들은 우리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지만 우리는 적군을 포로하면 위만군이건 일본군이건 차별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잘 대우하고 친절히 교양하여 여비까지 주어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니 심지어 우리 부대에 총을 메고 7차례나 포로되어온 위만군병사까지 있었다. 우리가 그 병사에게 농조로 이 친구 또 왔구만 하면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혁명군에 총 바치러 왔습니다≫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우리는 동만에서 활동할 때 왕청현 나자구 문영장부대의 중대장들을 비롯해서 적의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도 무수히 전취하였다.

1934년 남하마탕의 마굴령부대에 들어가 와해공작을 훌륭히 수행한 ≪첸렌장≫도 원래는 위만군중대장이었는데 우리가 영향을 주어 공산주의자로 개조하였다.

일본군병사들속에도 우리를 잘 도와준 잊을 수 없는 벗들이 있다.

소왕청방어전투 때 전지수색을 하던 오백룡이 일제침략군 운전수의 시체에서 유격대에 보내는 쪽지편지 한 장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그 편지의 임자는 노동계급출신의 일본침략군 운전수였으며 일본공산당원이였다. 그는 탄알 10만발을 자동차에 싣고 우리를 찾아오다가 유격구가까운 산기슭에서 발각되어 유서를 호주머니에 써넣고 자결하였다.

그가 지닌 고결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혁명정신은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일본에 남겨두고 망망한 창해와 험악한 산악을 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이국의 산기슭에 조용히 묻힌 일본공산당원의 형상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고 있다. 소왕청사람들은 자기네 고장 소학교에 이 국제주의전사의 이름을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교명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액목땅에서 위만군 토벌에서 악명을 떨친 1개 대대의 위만군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 대대는 전투경험도 풍부하였고 지휘체계와 대열관리에서도 빈틈이라고는 전혀 없는 악질적인 부대였다. 공작원들을 파견하려고 하여도 우선 침투할 수 없었다. 우리는 허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부대에 대한 입체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잡아쥔 것이 바로 이 대대의 대대장이 봉급이 낮아서 상급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돈에 궁한 나머지 부관을 시켜 아편장사를 한다는 사실이였다. 이것은 우리가 그 부대에 대한 와해공작에 착수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였다.

어느 날 우리 공작조성원들은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아편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는 부관을 체포하였다. 부관은 혁명군이 화폐와 꼭같은 가치를 가지고 통용되는 대대장의 아편을 빼앗을 것 같아서 몹시 걱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은 아편 따위는 다치지는 않고 부관을 잘 교양하여 대대로 돌려보냈다. 여기에 감동된 부관은 부대에 돌아가 자기 대대장에게 일본사람들의 선전을 듣고 공산군을 비적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만나고보니 다 점잖고 문명한 사람들이더라고 누누히 보고하였다.

그 후 우리는 부관을 통하여 그에게 나의 이름자가 찍혀있는 명함장과 편지를 보냈다 유격대는 당신들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비록 혁명군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민을 해치지 말고 인민혁명군을 해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만일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혁명군과 우호적으로 지낼 의향이 있다면 철군과 같은 출판물이나 종종 보내달라

이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 부관이 우리에게 ≪철군≫잡지를 가지고 와서 출판물을 넘겨줄 비밀장소를 협의하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고목의 구새통속에 대내와 대외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신문, 잡지들과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부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군수물자들을 사오라고 하면 그 부탁도 어김없이 들어주었다.

우리의 호의에 감심한 위만군대대장은 유격대 부상병 치료까지도 자진하여 해주었다. 병영 안에 우리 부상병들을 숨겨두고 대접을 잘 해가면서 총상자리가 아물 때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었다.

인민혁명군을 진정한 인민의 군대라고 본 그는 우리와의 우호관계가 깊어지게 되자 ≪산중에 있는 전우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동적인 편지까지 써서 나에게 보내왔다.

진실을 따르고 사랑을 예찬하는 것은 인간본연의 양심이다.

우리는 늘 동무들에게 적들은 기만과 허위, 위협과 공갈로써 우리 대오를 와해시

키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진실과 사랑은 가지고 적군의 심장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이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대적정치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작원들 중에는 임은하라는 나어린 처녀유격대원도 있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연극 ≪해바라기≫는 바로 그의 실재한 투쟁을 형상한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봄 미혼진밀영에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사단편성과 조국광복회창건 준비사업을 위한 일련의 주요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있던 무렵에 그 처녀도 우리를 따라 장차 백두산지구로 나갈 생각에 몹시 들떠 있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예쁘고 귀여운 처녀였다. 그의 나이는 그때 20살도 못되였고 소녀처럼 체구도 자그마했다.

≪장군님, 이번엔 꼭 저를 데려가시지요?≫

처녀는 나를 만날 적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우리는 병약한 위증민을 위하여 처녀를 그의 곁에 떼두었다.



미혼진밀영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우리를 따라 조국으로 가게 되리라던 기대가 무너지자 처녀는 삽시간 눈물이 가랑가랑해졌다.

나는 그를 위로하였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오. 우리가 백두산쪽에 나가 자리를 잡으면 위증민동질 데려다 치료를 시키겠소. 그러면 동무들도 같이 오게 될거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녀는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면서도 맥이 풀린 듯 하염없이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후에 우리는 미혼진을 떠나 소프르허부근 마을에서 숙영하게 되었는데 집이 네댓채밖에 안되는 이 외진 산간마을에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당하였다. 새벽에 대포시하에 있던 적들이 마을에 달려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신속히 유리한 지대를 차지하고 달려드는 적을 화력으로 타격하였으나 골짜기 건너편에서 따로 숙영하던 동무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그 집에는 위증민과 모스크바 중산대학 출신으로서 우리에게 새로 파견되어온 이주임 그리고 조아범의 아내와 임은하가 있었다.

적을 격퇴하고 전지를 수색하던 우리는 집천정에서 위증민을 찾아냈다. 총상을 입은 그의 허벅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날 따라 위증민은 병세가 악화되어 운신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임은하가 용케 그를 천장에 숨겨놓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적의 화력을 피해 산으로 내달리다가 적탄에 다리를 맞고 체포되었다.

그날 조아범의 아내와 이주임은 희생되었다.

적들은 임은하를 대포시하부근에 주둔해 있는 위만군중대로 데리고 가서 빨래도 시키고 식모일도 시켰다. 일본지도관놈이 처음엔 모진 고문을 들이대며 비밀을 짜내려고 했으나 그것이 소용없게 되자 전술을 바꾸어 잡일을 시키면서 속을 뽑아보려고 하였다.

임은하는 적진속에 홀로 있는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면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위만군의 옹근 중대를 의거시킬 담대한 계획을 가지게 되였다.

임은하는 우선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로써 고달픈 병사생활에 이지러진 사나이들의 가슴을 움직여 보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위만군병사들과 접촉할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빨래줄을 일부러 병영마당에 치고 무시로 빨래를 손질하며 향수를 자아내는 슬픈 노래를 불렀다.

우리에게는 대적정치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낸 좋은 노래가 있었다. 그것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끌려가 죽은 남편의 무덤앞에서 부르던 슬픈 옛 노래의 곡에다 혁명적 내용의 가사를 붙여 만든 것이였다.

임은하는 장교들이 있는데서는 보통노래를 부르고 앞에서는 그 노래를 불렀다.

원래 그가 시중을 들어주는 중대의 병사들은 과거 구국군에 있다가 우두머리의 변절로 위만군에 편입된 사람들이었는데 반일기분이 강했다.

아름답고 유창한 그의 노래는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교들도 그의 애수에 찬 노래를 들을 때면 먼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포로로 잡힌 유격대 처녀가 명창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어떤 병사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노래를 청하기까지 했다.

≪유격대 아가씨, 노래 한번 불러주!≫

그러면 임은하는 생글생글 웃으며 ≪그까짓 돈도 들지 않는 노래 100번인들 못 부르겠어요.≫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가며 처량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 구슬픈 노래속에는 일본사람들의 학대밑에 피흘리며 죽어가는 중국인들의 원한이 사무쳐 있었다.

옛날엔 만리장성의 고역이 중국인의 무덤을 쌓았고 오늘엔 왜놈들의 총칼이 우리의 무덤을 쌓는다. 일어서라, 나가자, 중국인의 원한을 씻으러

이런 노래를 부르노라면 어느덧 처녀도 울게 되고 억대우같은 병사들도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임은하는 노래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도와 바느질도 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남겼다가 나누어주기고 하였다.

이 과정에 임은하와 병사들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게 되었다. 그 병사들 중에는 그를 친누나처럼 극진하게 따르는 애숭이사병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유랑걸식하다가 밥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이였다.

임은하는 이 외롭고 불쌍한 청년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인정에 주렸던 어린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는 어느덧 친누나나 어머니와 같은 귀중한 존재로 되었다.

하루는 어린 병사 3명이 그를 찾아와서 결의형제를 뭇자고 하였다.

≪은하는 우리의 맏누님이요. 누나를 위해서라면 이 동생들은 목숨을 바치겠소.≫

청년들의 맹세는 엄숙하고 절절하였다.

임은하는 물론 그들의 제의를 승낙했을 뿐 아니라 ≪이 누나도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뜨겁게 청년들의 손을 잡았다.

임은하는 그들을 핵심으로 결의형제대열을 더욱 확대하고 점차 그것을 반일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거사를 위해 위만군중대장에게도 접근하였다. 중대장 역시 구국군출신이었는데 일본지도관놈의 전횡으로 늘 울분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런 기분상태를 제 때에 포착한 임은하는 어느 날 중대장을 찾아가 일부러 품을 내여 유격대에 의거한 여러 위만군들의 생활에 대해 실감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리고 대담하게 들이댔다.

≪중대장님도 부하들을 데리고 의거하세요!≫

처녀의 돌발적인 제기를 받고 처음에 중대장은 당황해 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소처럼 천대받으며 살겠습니까. 어제도 중대장님이 제일 사랑하는 왕사병이 일본 지도관놈한테 매를 맞아 인사불성이 됐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놈에게 말 한마디 못하더군요.≫

임은하는 격분에 치를 떠는 중대장에게 연방 들이댔다.

≪제가 도와드릴테니 의거하세요!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나의 결의형제들이며 반일회원들입니다.≫

중대장은 불같이 타오르는 처녀의 눈을 경이에 차서 바라보았다. 과연 이 조그마한 유격대 처녀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작은 몸집에 비해 심장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에 중대장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내 사내자식으로 태어나 부끄럽소!≫

그는 그저 이 한마디를 내던지고 도망치듯이 처녀의 곁을 떠났다.

그 이튿날이었다.

임은하의 영향을 받고 있던 병사들이 여섯 달째나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여 집단적으로 항의투쟁에 나섰다. 일본지도관은 이날에도 병사대표를 마구 때리고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임은하는 바로 이때야말로 운명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고 병사들앞에 분연히 나서서 반변을 호소하였다.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오빠들!

저 오만무례한 일본지도관놈을 처단하라!

치욕스러운 위만군생활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항일유격대를 찾아가자!

위만군병사들은 그의 호소에 따라 일본지도관을 처단하고 신속히 대열을 지어 항일유격대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간 무장은 체코제 기관총 3정, 보총 19정, 권총1정, 탄알 4,700여발이었다.

20살도 못되는 나어린 처녀가 적의 1개중대를 의거시킨 이런 사건은 역사에 흔치 않은 일이다. 일제의 비밀문건도 여대원이 일으킨 위만군중대의 반변사건을 미증유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특기하였다.

임은하는 우리의 뜻대로 진심과 사랑과 공산주의자의 높은 도량을 가지고 위만군병사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준 유격대의 꽃이었으며 큰 심장을 가진 조선의 딸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의 대적정치사업은 더욱 활발해져서 지어 악질적인 정안군까지 혁명조직이 뻗쳤다. 자위단과 위만군, 경찰 같은데는 우리 조직이 판을 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조국광복을 위한 대일작전시에 위만군들은 거의나 다 일제에게 총부리를 돌렸거나 와해상태에 있었다.

부정의의 군대였던 일본침략군과 위만군의 수치스러운 운명은 다르게 될 수 없는 역사의 합법칙적 귀결이었다.

어쨌든 인간은 직선으로 가든 에돌아가든 또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정의와 진리이 편으로 찾아가기 마련이다.

나는 액목에서 사귄 연대장의 생사안위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연대장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부인이나 후손들도 어디엔가 살아있다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3. 경박호 기슭에서


남호두회의 장소

만주대륙의 으뜸가는 명승지 경박호의 남쪽 호반에는 남호두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남호두란 호수의 남쪽머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호수의 북쪽호반에 있는 마을은 북호두라고 부른다. 호수로 흘러드는 소자지하 물줄기를 따라 상류쪽으로 몇십 리 올라가면 깊은 계곡의 어느 한 산탁에 낡은 귀틀집 두 채가 있었다. 그 집의 한 채가 바로 1936년 2월에 우리가 회의장소로 사용한 집이었다.

지금은 초목에 묻혀 집터 자리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되였다지만 오륙십 년 전에는 그 귀틀집앞에 커다란 쇠스레나무와 잣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있어 회의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되였다. 1930년대 후반기 역사의 시원지가 다름아닌 우리 나라 역사가들이 ≪소자지하의 귀틀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이다.

우리가 2차 북만원정이라고 부르는 또 한차례의 원정을 끝마치고 그 고장으로 향한 것은 1936년 2월 중순 입춘도 지나고 우수를 맞이한 무렵이였다. 절기로 따지면 봄이 시작된 셈이지만 북만의 혹한은 여전히 기광을 부리며 사나운 대륙풍으로 우리를 후려갈겼다. 경박호에서는 이따금씩 얼음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소자지하의 밀림속에서는 참나무, 박달나무들이 얼어 터지는 쩡쩡 울렸다. 그 고장 혹한이 어찌나 심했던지 한다하는 작식대원들조차 한지에서 밥을 짓는 날은 설구지 않는 적이 거의 없었다. 밑굽의 쌀은 새까맣게 타도 영하 40도의 강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웃층은 끓지 않아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북만은 나의 일생에서 선음식을 가장 많이 먹은 고장으로도 인상이 깊다.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때였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장성하였고 투쟁의 전망도 낙관적이였다. 파란과 역경을 헤쳐온 항일혁명은 분명 새로운 전환기를 향하여 힘차게 줄달음치고 있었다.

원정을 종결짓고 겹쌓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위증민과의 상봉장소로 내정되어 있는 남호두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나의 마음은 혁명의 장래에 대한 천 갈래 만 갈래의 생각으로 하여 실로 착잡하고 번거로왔다.

나는 북만원정의 전 기간은 물론이고 원정을 마친 다음 소자지하에 가 있으면서도 반년 전에 모스크바로 떠나간 사절들을 학수고대하였다.

요영구회의 결정에 따라 위증민이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되어있는 기본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동만에서 수천 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였던 ≪민생단≫문제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공사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였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약관화한 것이지만 국제공산당이 존재하였고 1국1당제원칙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어 있던 당시로서는 어느 견해가 옳고 어느 견해가 그르다고 가볍게 판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심각한 난문제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문제이기도 하였다.

1국1당제원칙을 휘두르며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답지 않은 이단행위이며 비당적 분파행위라고 걸고드는 사람들의 지론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였다.

공산주의자란 곧 국제주의자인데 어떻게 협애한 민족주의이념에 사로잡혀 자기가 당적을 붙이고 있는 나라의 혁명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조차 없는 고국생각에 골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2국제당시기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었던 수정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레닌은 일찍이 조국방위론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배신자로, 원쑤로 낙인하고 규탄하였다, 당신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사회주의자의의 배신자로, 원쑤로 낙인될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위증민이 가지고 올 결과를 대체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였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위증민도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국제당에 있는 일군들이 조선혁명의 근본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제소에 응당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제당이 우리의 고충을 진리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우리가 위증민을 통하여 모스크바에 제소한 문제점들이 어느모로 보나 혁명적 원칙과 혁명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변함없이 믿어온데도 있었지만 국제당이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었다.

레닌에 의하여 국제공산당이 조직되던 1919년만 해도 집권한 노동계급의 정당은 오직 러시아 공산당 밖에 없었다. 제2국제당의 수정주의적인 사회민주당으로부터 혁명적인 좌익이 떨어져 나와 공산당들을 조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매우 미숙하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힘으로 맡아 할만한 역량으로까지는 자라나지 못하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전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쏘비에트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세차게 벌어졌으나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라는 유리한 객관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매개 나라의 주체적 혁명역량은 적들을 압도하고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으리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앞에 신생 러시아와 러시아공산당을 축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재편성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게 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조직형식과 활동방식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세우며 매개 나라의 당과 혁명운동이 국제적 중앙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일부 공산주의자들속에서 자기나라 혁명의 목적과 민족적 이익을 떠나 모스크바바람에 덮어놓고 추종하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발로되었은 바 이런 경향으로 하여 각국의 혁명운동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국제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각국의 혁명운동은 발전하였고 매개 나라들에서의 혁명역량도 장성하였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맡아 수행할만한 역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엽부터는 아세아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연이어 출연하였고 그 당들의 영도밑에 민족해방투쟁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나라 당들의 발언권이 서게 되고 자기당의 노선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공산당이 모스크바에 앉아서 세계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 여러 대륙에 널려 있는 나라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처방을 제때에 내리거나 천변만화하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그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조종하고 지도한다는 것도 기실은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연합으로 조직된 국제당은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시달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중들의 강제군사훈련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혁명역량을 조직하고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그 조직형식과 지도방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되었다. 혁명은 수출입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매개 나라의 혁명역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워야 할 절박성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노선 작성과 집행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기 당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천된 정세는 국제당이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었다.

위증민은 1935년 여름에 훈춘쪽으로 해서 쏘련으로 들어갔는데 나올적에는 하얼빈이나 목릉을 거쳐서 영안행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남호두에로의 걸음을 다그치고 있던 그 시기를 전후하여 국제무대에서는 파시즘의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에스파니아내전은 파쑈들의 노골적인 무력간섭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열전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동방에서는 일본열도가 새 전쟁의 온상으로 번져 갔다. 일본의 군국화는 시시각각으로 가속되었다. 1932년 5.15사건에 이어 사이또 내각의 성립으로 정당내각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군부내각시대를 맞이한 일본땅에서는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이고 문화의 어머니≫라고 찬미하는 열기띤 말마디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전세계를 향하여 난사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파쑈화 추세는 우리가 남호두회의를 하기 직전인 1936년 2월 26일의 사건으로 극한점에 이르러 마침내 소장파 군부의 해외침략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숨가쁜 국면을 빚어냈다.

반란에 참가한 청년장교들과 1,000여명의 하사관, 병사들은 수상이하 여러 대신들의 관저를 습격하여 내대신, 장상, 교육총감, 시종장 등의 정부요인들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경시청, 육군성, 참모본부, 육상관저를 점거함으로써 이른바 ≪일본정치의 심장부≫를 제압하였다.

≪존황토간≫의 구호밑에 일어난 무장반란은 나흘만에 진압되고 주동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국은 수습되었지만 이 사건은 일본군국주의 발호의 위험신호로 되었다.

황도과와 통제과의 대립으로 나타난 일본군부계층들간의 알력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는 2.26사건은 일본에서의 파쑈화, 군부독재에 의한 군국주의체계의 확립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었다. 일본국내에서의 군국

주의세력의 준동은 새로운 전쟁과 보다 큰 규모의 군사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이 사태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였으며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후과를 예상하면서 우리의 투쟁전략을 재검토하였다. 반란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일본군국주의가 국내정치생활에 얼마나 횡포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침략의 길을 닦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실 일본은 그때로부터 1년반이 못되여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보다 큰 침략의 길로 줄달음을 쳐나갔다.

일본의 파쑈화는 식민지조선의 질식도 가속화시켰다. 조선반도에서는 모든 조선적인 것을 말살하고 모든 형태의 반일운동과 반일적인 요소들까지 전멸시키기 위한 광란적인 대섬멸전이 벌어졌다.


창씨개명에 내몰린 서울 시민들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하는 것, 색옷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는 것, ≪히노마루≫를 게양하지 않는 것,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지 않는 것, 심지어는 게다를 신지 않는 현상까지도 반일, 반역, 반국가 행위로 범죄시하면서 벌을 주고 벌금을 물리고 붙잡아 가고 가두어 넣었다.

민족멸살의 무시무시한 대풍랑속에서 양심의 마지막 쪼박마저 잃어버린 어제날의 애국지사들은 목숨이라도 살려보자고 ≪동조동근≫과 ≪내선일체≫를 부르짖어며 반역의 길을 걸었다.

애국은 죽어가고 매국만이 살판치던 세월이었다. 조선은 통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조선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백두산에 나가서 조선은 살아 있다, 조선은 싸우고 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실증해주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박한 이유로 되고 있었다.

남호두회의를 전후한 시기 국제국내적으로 이처럼 충격적인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사변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중압감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 나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제를 타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행군은 고되고 노독도 이를 데 없이 심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백두산지구 진출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대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우리가 경박호에 깃들어 있는 진주문 마을의 전설을 들으면서 그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도 남호두로 갈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 전설의 줄거리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었다.

경박호기슭의 진주문이라는 마을에 가난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다. 20살 전야의 딸은 경국지색이라고 불리울 만큼 미모가 뛰어난 처녀여서 아근의 총각들은 누구나 그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어하였다.


농촌의 부녀자들까지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처녀의 아버지는 천길 물속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전날 낚시질을 하면서 보니 호수의 깊은 물속에 금거울이 갈아 앉아 있더라. 그 금거울을 꺼내오자면 물밑에 있는 대가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거사를 하자면 아주 용감하고 담이 큰 방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방조자가 됨직한 인물을 물색하지 못해 요즘 이 아버지는 며칠째 궁리를 하는 중이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도와서 금거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는 총각이 있으면 나는 그런 총각에게 시집가겠어요.≫

딸의 발기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딸의 의사가 여차여차하다고 인근 마을들에 소문을 돌렸다. 그 소문을 듣고 숱한 총각들이 진주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에게 금거울을 끌어올릴 계획이 어떠어떠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누구도 방조자가 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양가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타나 방조자가 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아버지와 딸은 즉석에서 그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거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사위로 맞아들인다는 언약까지 하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게 개인 어느 날 아버지는 양총각과 함께 호수에 나갔다. 배를 호수위에 띄운 노인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된 세 개의 검을 젊은이에게 주면서 ≪내가 첫 번째로 물위로 떠오를 때 자넨 나에게 제일 작은 검을 주어야 하네. 겁을 먹어선 안되네, 금거울을 꺼내오기 전에 중도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면 내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네 목숨도 없어지고 마네.≫

총각은 ≪아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하고 노인을 안심시켰다.

총각은 배 위에서 물 속을 들여다보고 처녀는 호반에서 총각을 주시하였다. 잠시 후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불쑥 물위에 떠올라 왔다. 총각은 약속대로 소검을 늙은이에게 넘겨주었다. 노인은 그 검을 받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호수의 심층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머리만한 괴물의 대가리를 들고 물 우에 나타나 두 번째로 검을 받아쥐고 재차 물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자나자 수면의 물결이 갑자기 높아지고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이 일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이번에는 말대가리만한 괴물의 목을 잘라가지고 올라와 총각의 손에서 세 번째 대검을 받아 쥐고는 또다시 사품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우레가 일고 호수 위에서는 격랑이 끓어번졌다. 총각이 탄 배는 그 격랑 위에 당장 물에 처박힐 듯이 아슬아슬하게 기우뚱거렸다. 호반의 처녀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앞에서 간이 마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며 손에 땀을 쥐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경박호

정신착란을 일으킨 젊은이는 노인과의 언약도 저버리고 호반에서 가기를 지켜보는 처녀에 대한 미련도 다 집어던지고 호수가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나갔다. 격노한 호반의 처녀는 발을 구르며 총각을 욕질하다가 그를 설복하여 배머리를 호수 복판으로 돌리게 하고는 자기도 총각과 함께 배를 타고 아버지를 찾았다. 바람도 지고 격랑도 잠들었으나 아버지의 형체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처녀와 총각이 목청을 합쳐 안타깝게 부르고 또 불렀지만 수중고혼이 된 아버지는 그들의 피타는 절규에 호응할 수 없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배 위에서 언약을 어긴 총각을 꾸짖었다. 하지만 말다툼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두 젊은이의 모습도 얼마후에는 안개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액목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영안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지방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설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러하였다. 짐작컨대 경박호란 호수의 이름도 진주문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전설은 우리로 하여금 의리와 희생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총각을 의리가 없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하였다. 이 전설이 남긴 여운이 대단히 컸다. 빨치산대원들은 훗날 대렬 내에서 비겁분자가 생길 때마다 ≪경박호의 양총각 같은 놈≫이라고 규탄하였다.



위증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우리들앞에 제기하고 있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짓기 위하여 나는 백두산으로 떠나가 전에 먼저 소자지하에서 조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지하기로 하였다.

모스크바에 간 사절들을 기다리면서 회의에 제기할 보고서 초고를 거의 끝내가고 있던 2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무렵 기척도 없이 귀틀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위증민이 불쑥 내앞에 나타났다. 몇달동안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예정보다 늦게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그는 퍽이나 미안해하였다. 비록 예정기일은 초과하였지만 그가 병약한 몸을 추세워가기고 만주로 돌아온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었다. 모스크바 바람을 쏘이고나서 그런지 몸이 퍽 충실해진 것 같았다. 아직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겉모습과 여유작작한 표정만 보고서도 그의 모스크바행이 좋은 결실을 자져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위증민의 귀환노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철도로 하얼빈을 거쳐 영안에까지 와서 주보중의 5군 동무들을 만나 본 다음 남호두로 오다가 만구부락근처에서 순찰중에 있던 경찰들에게 걸려들었다. 몇 마디의 심문 끝에 상대를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자기네 분서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위증민의 보따리속에는 국제당에서 받은 중요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끌려만가면 만사가 끝장날 판이였다. 그는 돈 50원을 경찰의 손에 쥐여주고 무사히 풀려나왔다.

위증민은 자기 몸값이 몇 만원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50원 밖에 안되더라고 하면서 농을 하였다.

위증민은 별스럽게도 나에게 새삼스러운 악수를 청하였다.

≪**김일성**동지, 그 손을 다시한번 잡아봅시다.≫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전에 악수했는데 또 무슨 악수입니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악수는 의의있는 악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김일성**동지, 국제당에서는 동지의 제소를 받고 그것을 심중히 토의한 끝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그를 지지하여 중대한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일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위증민의 두 팔을 덥석 끌어당겼다.

≪그렇습니까!≫

≪예, 국제당은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비롯해서 동만당의 일부 활동에서 엄중한 좌경적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당의 책임일

군들로부터 거기에 가 있는 중공당대표부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국제당이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당은 앞으로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을 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맡아 하도록 책임을 서로 분담할 데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왜인지 한동안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그가 무엇인가 심중한 자책과 회오에 잠겨 있음을 간파하였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던 지난날의 격론을 돌이켜보는 것인가, 다홍왜와 요영구의 회의장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논란을 겪어 왔던가,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그런데 위증민의 모스크바행으로 하여 그처럼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소망과 염원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 것이다.

위증민의 모스크바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학습시찰을 목적으로 지방당간부 10여명을 대동하고 훈춘에서 떠났으며 그의 주요임무는 국제당 주재 중국대표단에 ≪민생단≫문제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했다는 자료가 지금도 국제당문헌고에 엄연히 남아있다.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가서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제당에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국제당에 제출한 보고는 ≪풍강보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어떤 자료들에는 그 극좌의 주되는 책임이 위증민에게 있다고 씌여 있으며 그와 반대로 어떤 자료들에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파견되어온 다음부터 반≪민생단≫투쟁에서의 편향이 바로 잡히게 되었다고 지적되어있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모든 해독적 후과에 대한 책임이 다 위증민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1934년 겨울 위증민이 하얼빈사당 서기로 있으면서 성위순시원으로 동만에 파견되어 왔던 초시기 ≪민생단≫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태에 그가 매우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당시 그는 혁명조직과 유격대안에 ≪민생단≫이 많이 박혀 있고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성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게 매달려 있었다. 후에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대부분의 조선사람이 다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실토하였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가서 우리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를 놓고 보아도 그의 말은 대체로 진실인 것 같다.

≪**김일성**, 조선인.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중국어를 잘한다. 빨치산 출신이다.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대단히 많다. 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대원들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구국군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어쨌든 위증민은 초기의 이러저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가 숙반투쟁에서의 극좌적 오류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그는 다홍왜회의 때에도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였다.

그가 민족관념을 초월하여 국제당에 동만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에게

이룹도록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였다.

≪고맙습니다. 국제당도 고맙고 특히 우리를 위해 병약한 몸으로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수고해 준 위증민동지가 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되는 나의 인사였다.

위증민은 과분한 칭찬이라고 하면서 몹시 계면쩍어 하였다.

≪동만특위와 그 산하의 우리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문제를 편협하게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처리한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민생단≫투쟁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나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출정하는 기계화 부대를 사열하는 무쏠리니

나는 위증민의 말을 진실한 자기반성으로 받아들였다.

≪로위,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인데 왜 실책을 범할 때가 없겠습니까. 나는 ≪민생단≫문제가 복잡하게 된 근본원인을 일본놈들의 민족이간 책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적이 던진 계책에 한동안 빠져서 골육상쟁을 벌린 셈이지요. 제편끼리 해칠내기를 했으니깐 ≫

위증민은 ≪내가 동만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간도땅을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필시 일본놈을 등에 업고 간도땅을 차지하려 할 터이니 철저히 경계하라고 했지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하고 허구프게 웃었다.

위증민의 얼굴을 쳐다보는 나는 어딘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로위, 만사가 다 좋게 풀렸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더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하여 로위를 국제당으로 전송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위가 우리의 제의를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제당에 책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언명했을 때 그 성실성을 믿었더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 것은 죄로 되지 않겠다는 것과 그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응당히 분공주었어야 할 신성한 의무이며 1국1당제 원칙으로도 빼아낼 수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당한 권리라는데 대해서도 명백하게 결론하였다.

우리는 조롱속에 갇혔다가 놓여난 새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광활한 자유를 선사받은 듯한 심정이였다.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날개가 생긴 셈이였다. 날개가 생긴 이상 조선혁명은 급속히 상승비행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위증민은 국제당 제7차대회의 전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해 주었다.

당시 국제공산당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강력하게 벌이는 것이였다.


히틀러와 항공상 게링그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파시즘은 많은 구라파 나라들에서 음산하고 불안스러운 정치적 변동을 가져왔고 인류의 머리위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을 몰아왔다. 이탈리아의 무쏠리니에 의해 조직된 ≪국민파시스트당≫으로부터 시작된 파시즘은 독일의 히틀러와 그에 의하여 조직된 나치스당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였는 바 이것은 독일이 새로운 세계대

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화근으로 되였다. 파시즘이 안고 있는 극단한 반공심리는 반유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그때까지 존재한 고금동서의 모든 반동사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해독적인 사조로 되였다. 파시스트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정치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독일부르조아지는 히틀러와 같은 파쑈독재자의 강력한 주먹만이 독일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독일제국의 새로운 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미트로프

히틀러파시스트는 권력을 탈취한 후의 첫 사업으로 독일공산당을 반대하는 모략에 달라 붙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악명높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은 이 모략에 의해 연출된 희세의 광대극이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면서 히틀러나 게링그가 노렸던 정치적 목적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물론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비법화하고 국회 자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기는 했지만 세계의 면전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부르조아정치체제로서의 파시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독일파시스트는 세계의 면전에서 도발자, 독재자, 전쟁방화자로 낙인되었다.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진보적 인류를 각성시켰다.

파시즘의 대두와 새 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을 막고 통일적인 보조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동방 피압박민족들과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의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처하여 모든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산당
7차대회 회의장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걸고 각국 공산당들이 모든 반파쑈 역량과 반제역량을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증민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강력히 벌일 데 대한 지미트로프를 당대의 거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파시즘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한 그의 호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쏘련 사람들인 지노비예브나 부하린, 마누일스키를 대신하여 불가리아 사람인 지미트로프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국제당의 활동이 독자적인 매개 공산당들의 활동에 입각하여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산 실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국제당 제7차대회가 자기결의에서 매개 당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상당한 정도로 허용하였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회가 조선 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위증민의 귀환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위업의 정당성, 우리 노선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위증민은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양송의 기사가 실린 국제공산당 기관지 ≪공산국제≫와 국제공산당 동양부에

있는 왕명, 강생이 연명한 국제공산당에서 길동지구책임일군에게 보내는 서한을 나에게 주면서 여기에 조선에 대한 국제당 결정의 기본부분이 다 해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송은 자기의 글에서 좌경기회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반일통일전선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제기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이제 중, 조, 몽, 만 피압박민족의 통일전선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중조민족은 굳게 연합하여 일본의 괴뢰만주국통치를 전복하고 간도 조선인자치주를 건립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중조반일연합군에 망라되어 활동하면서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었다. 양송이란 내가 1차 북만원정 때 주보중이 산막에서 만나보았던 국제당파견원 오평을 말한다.

국제당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신적지지, 노선 상의 지지만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적인 안까지 주어 행동상 지지도 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던 반일유격부대들을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갈라 재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문제로 말하면 사실상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성, 독자성을 견지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당의 지시대로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순수한 조선인 부대를 따로 편성한다면 그 역량만으로도 능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2개 사단 역량과 대적하여 혈투를 벌일 수 있었다. 우리가 일당십의 정신으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게 되면 조선청년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합세하면 전국은 달라지고 조국광복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한 전호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연합항일을 해온 공산주의자들로서의 형제적 의리, 전우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자기들 쪽에 유리하다고 하여 조선사람들을 다 매오게 된다면 조선족 군사인원이 90%나 되는 제2군같은 것은 허물어지고 말 수 있었다.

2군을 제외한 다른 유격부대들에는 중국인들이 과반수였으나 그 대부분은 반일부대 출신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많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지휘성원들은 어느 부대에서나 다수가 조선사람들이었다. 각 부대의 핵심역량도 역시 조선인대원들이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민들을 따로 갈라 부대를 꾸리게 되면 당장은 항일연군부대들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반만항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조선혁명에 주력한다고 하여 중국인민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파시스트의 연합된 역량에 맞서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들에서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이 단결하여 싸우고 있는 때에 조중항일무장부대를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로 가른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리에도 어그러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중국땅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와 부대를 조직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도움도 종전보다 약화될 수 있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주권이였지 분권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제한과 구속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조선혁명을 해나갈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세력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동지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다녀와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분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국제당의 의사대로 부대를 민족별로 가르기 위한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거듭 말하였다.

≪위증민동지, 나는 동지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한곬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원칙과 계급적 이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협애한 민족적 이익만을 추구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의 민족적 이익은 언제나 국제적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민족적 이익과 배치되는 그 어떤 국제적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중항일부대, 그것도 벌써 몇 해째 한 전호속에서 싸우고 있는 통일적인 무장부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혁명에 더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민족별로 가르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로서는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일무장부대를 민족별로 가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존중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문제를 형식적으로 고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형식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게 되면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일연군부대에 조선동지들을 잡아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군체계대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조선국내와 동북의 조선인 부락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 하고 중국인부락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지가 그처럼 폭넓게 이해해주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그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크나큰 지지로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위증민의 손을 잡았다.

≪로위, 우리가 한두 해 같이 싸웠습니까. 또 앞으로도 한두 해만 같이 싸우다가 헤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이웃에 있고 공산주의이념이 승리하는 나라로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우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지, 나는 동지와 같은 조선동지들과 한 대오에서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김일성**사령의 정치위원으로 되려고 합니다. 조선동지들과 더 밀접히 단합해서 조선혁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가슴 후련해지게 웃었다.

사실 나는 남호두에서 위증민을 만난 다음부터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위증민 자신도 지난날의 실책을 놓고 늘 미안한 생각을 가시지 못해하였다. 그는 국제당 제7차대회 이후 만주지방의 당조직체계를 개편한 다음 남만성위서기

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정치위원의 책임적인 직책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을 중국동무들이 지휘한 부대가 아니라 내가 친솔한 부대와 함께 다녔다. 그 자신이 농담삼아 말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위원이 된 셈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일제의 관헌자료가 위증민(위민생)을 나의 정치위원이었다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실 나와 함께 장백지구에도 오래 나가 있었고 백두산 비밀근거지에도 몇번 다녀갔다.

위증민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이나 제의에 대하여 거의 반대한 일이 없었다.

반≪민생단≫투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중공산주의자들의 동맹은 남호두회의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 후에도 중국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반일역량과 공동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0년 가까이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혁명을 적극 도와주었다. 조중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 역사는 이렇게 193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어느 한 지도자는 조중인민의 이러한 형제적 우의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조선인민의 중국에 대한 지지는 가늘지만 길며 중국인민의 조선에 대한 지지는 굵지만 짧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작은 나라로서 오랜 기간 형제적 중국인민을 도와준 우리 인민의 업적에 대한 충심으로 되는 평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위증민과 상봉은 나의 추억속에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인상깊은 사변들 중의 하나다. 그의 모스크바행이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한데서 큰 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하여 나는 오늘까지도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위증민과의 상봉을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일화가 있다.

우리가 군정간부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참에 전령병이 뛰어와서 큰 범이 우리 망원초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총소리를 내게 승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감시조건이 좋은 벼랑 바위위에 망원초를 정하였는데 그 벼랑밑에 범의 굴이 있고 큰 범이 새끼 두 마리를 거느리고 그 굴에서 산다는 것이었다. 입초성원들이 무섭다고 망원초 위치를 옮기려고 하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는데다가 범도 해치려는 기색이 없어 그럭저럭 지내왔는에 어제부터 범이 매우 날친다는 것이였다.

나는 범이 갑자기 사납게 날치는데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것만 같아 망원초가 자리잡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았다. 벼랑 바위위에서 내려다보니 굉장히 큰 갈범이 굴앞에 도사리고 있었다. 사연을 알아본 데 의하면 범을 노협한 것은 망원초에 나가 있던 우리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굴밖에서 해바라기를 하는 새끼범들을 데리고 놀다가 발톱에 손등을 긁히게 되자 장난삼아 한 대씩 볼통을 때려주었다.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범이 이 광경을 본 다음부터는 망원초를 향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뇌성벽력과 같은 고함을 지르며 높은 벼랑바위의 중턱까지 길길이 뛰어 오른다는 것이었다.

≪너무 걱정할 것은 없소. 범이 저렇게 야료를 부리는 것은 망원초의 동무들이 자기 새끼들을 해칠 것 같아 미리부터 위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소. 저건 두번 다시 새끼들을 학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종이나 다름없소. 범도 화약을 가진 사람들과 승산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 안심하는 것이 좋겠소.≫

내가 이런말을 해서야 망원초의 동무들은 범을 잡으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그 무서운 산중의 왕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였다. 첫 조치로 각을 뜬 노루다

리 하나를 벼랑바위 밑으로 내리던졌다. 그 후에도 먹이공급은 며칠동안 계속되였다. 물론 범은 위력시위를 중지하였다. 그 후부터 범은 친선적인 우리의 이웃이 되였다. 우리가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지구로 나간 다음에도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민혁명군 장병들은 그 범과 선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임춘추의 말에 의하면 이 범의 굴을 맨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대자지하골 안에 와있던 최인준이네 중대라고 하였다. 대자지하골에는 병원도 있고 병기창도 있고 통신처도 있었다. 후방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이 골안에 와있었다.

1935년말에 우리의 부름을 받고 왕청에서 남호두쪽으로 원정대를 찾아 들어온 임춘추는 한동안 소구의 빈 탕자막에 병원을 차려 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대자지하의 등판에서 더좋은 밀영지를 발견해내자 그리고 옮겨앉았다. 탕자막이란 산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초막을 말한다. 젊어서 산에 들어와서는 칠팔십이 되도록 한평생 탕자막에서 세상을 등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은 짐승사냥과 약초캐기와 아편재배였다. 탕자막의 주인들은 대개가 장수들이였다. 그러나 장수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고독한 그 인생이 종말을 고하면 주인없는 탕자막은 텅 비게 된다.

임춘추네 병원에서는 우리 유격대원들뿐만 아니라 5군의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바로 왕청연대의 참모장이였던 유란한이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최인준이 지휘하는 왕청 3중대는 그들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중대는 무기와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의 병영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그 전투를 치르고 100여정에 달하는 무기를 노획하였다. 그들은 무기를 보관해 둘만한 처소를 물색하다가 병원과 통신처가 자리잡고 있는 등판아래의 바위벼랑에서 굴을 하나 발견하였다. 최인준은 그 굴속에 10여자루의 보총을 집어넣었다. 돌로 굴입구를 대강 막아놓고 벼랑에서 내려오던 그는 또 하나의 굴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범굴이였다.

나는 남호두회의를 회상할 때마다 위증민을 추억하게 되며 동시에 이 회의과정의 인기있는 화제거리가 되었던 대자지하밀영의 그 호랑이를 되그려보게 된다.

우리는 1936년 2월 하순부터 근 한 일주일 동안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일명 남호두회의라고도 부른다. 회의에는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함께 김산호, 한흥권, 최춘국, 전만송, 최인준, 박태화, 김려중, 임춘추, 전창철 등 군정간부 30, 40명이 참가하였다. 국제당에 갔다가 쏘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윤병도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소자지하에서 여러 달만에 위증민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위증민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제기하였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와 지시를 전달해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증민이 신병을 무릅쓰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좋은 결론을 받아온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나는 보고에서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에서 우리가 전개해온 군사정치활동경험을 총화하고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그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다시말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 지구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 데 대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할 데 대한 방침,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한 방침,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 등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

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방도들을 제기하고 토의에 붙였다.

토론자들은 보고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침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하나의 방침을 두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입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항일혁명을 시작한 후 수많은 회의들을 집행해 보았지만 나는 노선토의가 그처럼 순조롭게 되고 회의참가자들의 기분상태가 그처럼 앙양된 회의는 처음 보았다. 그것은 실로 웃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웃음으로 끝난 회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백두산으로 나갈 날, 국내깊이에 진출하여 원쑤들과의 결전을 벌이게 될 날을 눈앞에 그리며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백두산과 국내깊이에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투쟁노선이었다. 백두산으로 나가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먼저 국경지대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투쟁무대를 국내깊이에로 확대할 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우리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꾸리고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인다면 일제의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줄 수 있고 우리 혁명군을 일일천추로 기다리며 그 모습만이라도 보고싶어하는 2천만의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백 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시위로 될 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전국적 판도에서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고 공산당 창건사업을 추진시킬 데 대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방침이 채택되었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호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남호두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은 그 이후 여러 단계의 혁명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나 그것을 민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남호두회의는 또한 승리자들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인민과 역사와 시대앞에 아낌없이 바친 무수한 희생과 피와 노고의 대가로써 이루어진 것이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오류로 하여 국제당에서도 경원시되고 형제나라 당들에서도 경원시되고 부분적이기는 하나 우리 인민들에게도 경원시된 조선공산주의운동은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승승장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자지하에서는 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강습이 한 주일가량 계속되고 당창건방침에 한 실현방도를 토의하기 위한 당정치일군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강습과 회의들에서 남호두회의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회의의 기본정신을 반영한 당면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조국에 무보를 뻗치고 군호를 올리자!≫이것은 우리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 것을 바라고 내놓은 우리의 구호였다. 우리는 남호두회의 후에 보무당당히 조국에로 진출의 길에 올랐다.

항일무장투쟁은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로 바야흐로 들어서고 있었다.

4.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

우리가 남호두회의를 끝내고 백두산 지구로 나가기 위해 소자지하를 떠나던 아침은 바람소리가 유난히도 소연하였다.

신들메를 매고 남행길에 오를 때 내머리에 맨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우리 나라 격언이였다. 소자지하의 귀틀집 마당을 떠난 우리는 방금 내린 함박눈우에 행군이 첫 자욱을 찍었다.

일행 중에는 왕덕태, 위증민과 같은 중국인군정간부들도 끼여 있었다.

심장병이 도져서 쏘련병원의 신세까지 지고 돌아온 위증민조차도 그날은 왕덕태와 함께 걸죽한 농질을 해가며 명랑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차고 사나운 날씨였으나 행군은 시원스럽게 자리가 났다. 그런데 남호두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백두산지구진출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응당 소자지하로부터 노야령-이청배-명월구-안도를 거쳐 백두산으로 가는 직선행로로 타고 남행길을 걸어야 했으나 소자지하에서 액목현 청구자-관지-안도-무송현을 거쳐 백두산 지구로 들어서는 우회로를 타고 액목방향으로 북상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 우회로는 직선행군로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먼 노정이였다.

우리가 우회로를 타고 북상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은 우리와 함께 2차 북만원정에 참가했던 동무들이 새로 개척한 액목현 청구자밀영에서 남호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동만에서 우리를 찾아온 유격대원들과 노약자, 병상자, 부모잃은 어린이들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생단≫문제와 관련하여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발생되였던 모든 극좌적 망동들에 조종을 울리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만천하에 선포한 남호두회의의 결정은 청구자밀영에서도 격정에 끓는 환호를 불러일으킬 것이였다.

동북만의 광활한 대지에서 여러 해 동안 혈전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오매불망 그려온 것은 조국이였고 조국으로 진군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관지일대와 청구자밀영의 전우들 중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 조국진군의 남행길을 걷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북만부대동무들과 공동투쟁을 해야 했다.

남호두회의를 결절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전환기가 마련된 그 때부터 백두산을 타고 앉아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일차적 염원으로 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들과의 공동투쟁을 항일혁명의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온 우리로서는 그 공동투쟁

의 경륜을 중도에서 집어던지고 모두 백두산으로만 갈 수는 없었다. 만일 우리가 자기 나라 혁명만을 생각하고 조선인유격대원들을 다 이끌고 백두산으로만 나간다면 동북지방의 유격투쟁은 심각한 난국에 봉착할 수 있었다.

군정간부들과 핵심군인들의 부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던 북만부대들에서는 동만의 부대들에 공동투쟁을 무시로 요구해왔다. 이 요구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이었다. 소자지하에서 남호두회의가 소집되던 그 무렵에도 북만의 각 군들에서는 우리에게 인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남호두회의에서 북만주지방의 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전투적 지원문제를 하나의 부수적인 의제로 상정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백두산지구진출을 단행하게 된 사변적인 시각에 여러 해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과 헤어질 작정으로 북행길부터 걷게 된 것이다. 백두산 지구진출의 역사적 장거는 우리로 하여금 피치 못하게도 오래동안 심력을 다하여 애지중지 키워온 전우들과의 기약없는 이별의 고통부터 맛보게 하였다.

우리를 따라 백두산 지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북방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나는 소자지하를 떠날 때부터 그 문제로 해서 생각이 번거로왔다.

돌이켜보면 혁명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나는 이와 같은 이별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다. 14살 어린 나이에 만경대 고향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했고 화전에 가서도 ≪ㅌ·ㄷ≫를 내오기 바쁘게 방금 정을 나누기 시작한 동무들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별은 미구에 가슴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포옹과 악수를 동반하는 상봉으로 이어졌다. 화전에서 헤어졌던 ≪ㅌ·ㄷ≫의 첫아들 둘이 길림에서 다시 만나 ≪타도제국주의≫의 깃발밑에 청년학생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했다. 그 깃발 밑으로 모여온 청년들이란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대장부들이었다. 그 하나하나의 동지들은 실로 혈육에도 비길 수 없고 천금에도 대비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 나오자 투쟁무대를 중부만주에서 동부만주에로 옮겨야 했고 따라서 이별이라는 쓴약을 또다시 맛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삼삼오오 패를 지어 밀려다니던 나의 전우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떠메고 중만, 남만, 북만의 망망대해로 뿔뿔이 떠나가 버렸다. 화전에서의 이별과는 달리 그 때의 이별은 어느 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하고 뼈아픈 것이었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강병선, 박소심, 최일천, 고재봉, 박일파와의 이별과 마찬가지로 나의 길동무가 되어 하얼빈까지 동행했던 한영애와의 이별도 그런 것이었다.

국제당 연락소와의 접촉을 끝내고 내가 하얼빈에서 떠날 때 한영애는 나를 찾아와 동만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이왕 혁명을 하는 바에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한별동무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혁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 그 소원을 막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때의 그는 이미 나에게서 우리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미결로 남겨두고 가는 두 가지의 일거리를 넘겨받은 몸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하얼빈에 그냥 남아서 파괴된 조직선들을 이어달라는 것과 만주성당 순시

원과의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는 한영애와 함께 동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사업을 위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속에서 하얼빈을 떠났다. 길동공청책임비서의 사업을 하느라면 적어도 두석달 이내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타산을 하면서 그와 헤어졌다.

내가 한영애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그를 하얼빈지구의 특파원으로 떼두고 온 것은 조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매양 착실하게 수행하곤 하는 그의 높은 책임성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책임성이 하얼빈일대의 혁명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처럼 매번 측근의 전우들을 그들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 떨구어 두거나 먼 곳으로 보내곤 하였다.


한영애

이렇게 되어 나는 남으로 오고 한영애는 북에 남았다. 그 때의 그 이별은 참으로 쓸쓸한 것이었다.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지짐마저 매번 절반을 갈라 내앞으로 밀어놓곤 하던 그 성실한 전우를 북만주 한끝에 떼여두고 잘 있으라는 손짓 한번으로 작별을 굼때던 그 때의 내 심정도 결코 평온치는 않았다.

그러고보면 혁명앞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이별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 셈이었다. 우리가 온갖 공을 다하여 가꾼 혁명조직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고히 해나가자면 어차피 투쟁속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초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새로운 처녀지들을 연속 개척하는 기경작업을 하였다면 전우들은 우리가 개척한 처녀지들을 기름진 과원과 옥답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요구가 우리들의 이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성실한 동무들이 혁명이 요구하는 이별앞에서는 자주 불복하고 말썽을 부렸다.

내가 동만으로 활동무대를 옮길 때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어린애들처럼 생떼를 쓴 것은 비단 한영애뿐이 아니었다.

하기는 3, 4년간이나 피와 정을 나누어 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사이의 이별이 출장길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작별처럼 그렇게 범상할 수는 없었다. 알아들을만큼 해설도 하고 꾸짖고 나무람도 해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를 잘 이해해주어야 할 차광수가 오히려 ≪이렇게 헤어지자고 우리 생사를 같이 해 왔는가? 헤어지지 않고 혁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보자≫고 열을 올리며 20리길까지 나를 따라와서 애를 먹였다. 우리와의 작별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문조양은 여자들처럼 소리를 내오 울었다.

우리는 그 때 혁명이란 이렇게 모진 것인가. 차광수의 말대로 과연 헤어지지 않고 혁명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하고 몇 번이나 자문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무들에게 우리는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별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상봉의 그날을 생각하며 이별의 슬픔을 참아내자,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헤어지자고 설복하였다. 이별이 백이라면 상봉이 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나의 예언을 종종 배신하곤 하였으니 그 후 살아서 다시 나를 만난 동무들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그 몇 사람마저 우리의 곁을 떠나 영별의 길로 총총

히 가곤 하였다. 생활이란 이별과 해후의 끊임없는 순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별이 아주 많았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이런 이유로 하여 이별을 고하는 마당에서 은근히 불안을 느끼고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청구자밀영에 가서 수년간이나 동만땅에서 함께 싸워온 전우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해야만 하였으니 그것은 백두산 지구로 나가게 된 우리의 기쁨속에 숨어 있는 슬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두산 지구 진출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나의 표정에서 침울한 기분을 읽게 된 위증민은 무슨 근심이라도 있지 않는가고 물었다.

나는 가슴속에 서려있는 만단사연을 한마디로 논할 수 없었거니와 그런 심정을 남들에게 내비칠 의향도 없어 별다른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참, **김일성**동지 작년에 희생된 철주동생 소식을 근일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지요? 어쩌겠소. 마음을 굳게 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나의 기분이 침울해진 까닭을 위증민은 제나름대로 짐작하고 있었다.

하기는 그 상실의 고통도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때 나는 낯설은 만주땅에 일점혈육으로 남은 어린 영주 동생의 생사안위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슬픔 위에 동지들과의 이별이 겹쳐서 내 얼굴에 더욱 어두운 그늘이 덮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위증민은 나의 기분을 밝게 해주려고 농을 하였다.

≪**김일성**동지, 속이 상할 때 제일 좋은 약으로 되는 것은 해학입니다. **김**동지를 위해서 옛날 우리 부부가 사랑싸움하던 이야기나 해주리다. **김일성**동지도 부부생활의 다반사에 대해서는 참고로 들어두는게 좋습니다. 늘 독신으로만 살 순 없으니까.≫

≪그렇구말구요. 남아 스물다섯이면 때를 놓친 셈이지요. 혹시 알겠소. 지금 **김**사령이 연인과의 이별을 앞두고 상심해 있는지 .≫

왕덕래도 어떻게 하나 나의 기분을 돌려보려고 위증민의 농담에 동을 달았다.

위증민은 성수가 났다. ≪옳소, 그럴수도 있겠소. 이왕 이별이야기가 나온 바에는 부부싸움이야기가 아니라 이별과 더불어 전하여 오는 ≪절류≫라는 우리 나라 고사를 소개해야겠구만.≫

위증민은 ≪절류≫라는 제명으로 전해지는 그 중국고사의 방법대로 하면 행운이 찾아든다고 하였다.

≪절류≫라는 말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는다는 뜻으로서 그 고사는 한나라때부터 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의 도읍이 있던 곳 가까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한나라 사람들은 친우와 이별할 때에는 언제나 그 다리에 나와 앞날의 행운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중국에서는 이별마당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었는데 위증민의 고향에서도 그 의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증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버들가지를 꺾어주면 틀림없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 고사 속의 버들은 아마도 고향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갈라지더라도 푸른 버들가지를 보며 자기를 낳아준 고향과 고향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도 그런 고사가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이 든다.

북만의 강추위가 위세를 휘두르던 그때 이별하는 동지들에게 버들가지를 하나씩 꺾어주자면 한 지게도 넘어야 할텐데 어디서 그 많은 버들가지를 꺾으며 설사 꺾어 준들 나의 시름이 가셔질 수가 있겠는가. 그야 어쨌든 나의 무거운 마음을 다소라도 가볍게 해주려고 ≪절류≫를 이야기해 준 위증민의 심정만은 여간 고맙지 않았다.

언제인가 최창걸은 이별을 앞두고 고유수의 버들방천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이 최창걸은 남강과 단재의 이별처럼 격식도 없고 송별연도 없이 소리없이 사라지겠소.≫

최창걸이 말한 남강은 이승훈이며 단재는 신채호이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강 이승훈은 우리 나라 굴지의 자산가로서 일찍부터 애국적인 교육운동과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정주의 오산학교가 남강이 세운 학교라는 것은 후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승훈은 거기서 해외로 떠나는 독립지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 단재 신채호와도 깊은 친교를 맺었다.

신채호는 남강의 강권으로 한때 오산학교에서 국사와 서양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되었는데 그가 역사강의를 어찌나 잘 하였던지 그 소문이 해외에까지 널리 퍼져서 단재의 존재는 길림바닥에서도 학생들의 열변을 토하는 최상급의 화제거리로 되곤 했었다.

단재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경술년 전야의 겨울을 오산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강에게 말하였다.

≪나는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소.≫

그러자 남강은 저으기 놀라며 만류하였다.

≪아니, 갑작스레 이 추위에 어디로 간다고 그러슈. 떠나도 해토나 되거든 천천히 가시지.≫

≪해토고 뭐고 일본놈 꼴보기 싫어 가야겠소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단재는 이튿날 홀연 정주땅을 떠나 기약도 없이 사라졌다.

그 때 신채호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갔다고 한다.

남강은 단재가 떠나간 것을 못내 서운해하면서 혼자소리로 원망하였다.

≪원 사람두, 노자나 좀 보태가지고 가지않구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

독립운동자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푸짐한 송별연을 차리고 노자를 푼푼히 마련해 주던 남강이고 보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헤어진 단재와의 이별이 그에게 있어서 그처럼 아쉽고 섭섭한 이별로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창걸이 유하로 떠나가면서 말한 남강과 단재의 이별이란 이런 것이었다.

김혁은 남강에게 인사 한 마디 없이 떠나간 단재의 처신이 너무 매정하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최창걸은 신채호의 인간됨을 알지 못하거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재야말로 누구보다도 남강을 아낀 뜨거운 인간이었다고 언명하였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신채호가 인사도 없이 정주땅을 총망히 떠난 것은 독립지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별석에서 당하게 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최창걸의 말이 옳았다. 단재는 불처럼 뜨거운 사람이었고 남강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였다.

단재와 남강의 이별을 본따고저 한 최창걸은 말할 것도 없고 김원우, 계영춘을 비롯한 다른 전우들도 모두 임무를 받고 떠나갈 때면 신채호처럼 내결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나의 전우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였다.

나는 그 후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키운 유능한 군정간부들과 귀여운 전령병들 그리고 금싸래기같은 대원들을 군사역량이 부족한 남북만의 여러 부대들에 보내주었다. 그 때마다 흘리게 되는 석별의 눈물은 그대로 가슴속에 점점이 멀어져 살을 저며내였다. 더구나 그런 동무들이 아무 때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비보를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종신상처로 되어버리는 것이였다.

나는 이러한 이별을 통해 혁명동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였고 혁명가의 일생에서 동지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큰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였다.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내가 일군들에게 이 세상에는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등 별의별 사랑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혁명동지들간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군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진실한 동지적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으며 총탄이 우박치는 전투장에서 생사를 같이 해보지 않고서는 터득할 수 없는 사랑이다.


최금산

지난날 우리 동무들은 며칠씩 맹물로 끼니를 에우며 혈전을 벌이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어쩌다 얼어떨어진 산열매 한 알이라도 눈속에서 얻어내면 그것을 먼저 동지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견우와 직녀의 슬픈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이 지극할수록 이별의 슬픔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혁명동지들간의 이별도 그처럼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별이 아무리 슬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없이는 혁명을 할 수가 없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이제 영만 내리면 동서남북을 각자 흩어져 가게 될 한사람한사람의 전우들을 놓고 천사만념을 굴려가는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재를 날리며 타고 있었다.

어린 전령병들인 오대성과 최금산은 나의 속내도 잘 모르고 조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면서 들뜬 기분으로 나를 따라왔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북만부대로 보내야 했다.

우리가 먼 행군 끝에 청구자밀영에 도착한 것은 한낮이 기울어진 때였다.

밀림 속 귀틀집에서 숱한 사람들이 밀려나와 우리를 에워싸고 반가와하며 법석 떠들었다. 그들이 북만에 떨어져야 할 왕청과 훈춘에서 온 동무들이였고 그밖에 쏘련으로 보내게 될 병상자들과 노약자들이였다.

나어린 소녀 하나가 나를 부르며 총알같이 달려와서 팔에 매달렸다.

≪이게 누구냐? 너도 여기 와 있었구나.:≫

나는 소녀를 품에 안아올린 다음 그 애의 조그마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왕청유격근거지에서 양친을 다 잃고 할머니까지 여윈 양성룡의 딸 양귀동녀였다.

≪장군님께서 여기루 오신다구해서 왔어요. 장군님, 이제 백두산으로 가신다지요?≫

≪아니 네가 어떻게 벌써 그걸 아느냐?≫

≪저 이응만 아저씨가 그랬어요. 우리 다같이 장군님을 따라 조선으로 꼭 나가게 된다구 했어요.≫

소녀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니 이응만이 쌍지팡이를 짚고 대원들속에서 서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왕청유격대중대장이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다. 자진이나 능력으로 보면 대대나 연대도 이끌 수 있는 큼직한 지휘관이었는데 그만 한쪽다리를 자르는 바람에 군직을 내놓고 2선에 물러섰다.

그는 채 아물지도 않은 다리를 가지고 병기창에서 무기를 수리하면서 낙천적으로 살았다.

≪장군님, 제 말이 틀림없습지요? 전 여기 앉아서두 그 쪽에서 하는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응만은 한참 너스레를 떨고 나서 남호두회의 소식을 알려 달라고 성급하게 졸라댔다.

나는 여장을 풀어놓은 다음 밀영안의 모든 군민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남호두회의 결정을 전달하였다.

귀틀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불렀다. 국제당이 지난날 간도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 것이 그 누구도 훼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포하였다는 말까지 듣고는 이제야 내 나라, 내 고향을 밟게 되고 태를 묻은 조국땅에서 일제와의 결전을 하게 되었다고 다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국태생들도 한시바삐 조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누구인가는 만장판에서 백두산에 대한 자랑을 터놓았다.

자기가 북만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감격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로서는 점점 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렇지만 나는 가슴아픈대로 이별에 대해서 실토해야 하였다.

≪동무들, 돌이켜보라!

무장투쟁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이별이 찾아왔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전환기가 마련된 오늘에 와서도 이것은 예외로 될 수 없으니 모두가 그러한 이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군부파쑈집단은 ≪2.26사건≫을 도발한 후 북방침략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일제가 치치할과 북부중국을 장악하고 쏘련침공의 구실을 찾기 위해 쏘만국경에서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만의 유격부대들은 이에 대처하여 항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핵심의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구하였다.

동무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모두 백두산쪽으로만 나가게 되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나는 청중이 내 말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느라고 잠깐동안 장내를 돌아보았다. 군중들속에서는 불안스러운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한쪽구석에서만 조용조용 울리던 그 속삭임 소리는 한사람한사람의 청중을 파도처럼 휩쓸며 사정없이 번져

가다가 마침내 온 장내를 벌둥지처럼 소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예상했던 바 그대로의 격렬한 반사작용이였지만 나는 그런 반응앞에서 얼마간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우들과의 이별이 엄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예감 때문에 나는 다음 말을 가볍게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군중은 어느새 사담을 그치고 나를 주시하였다.

이별을 선포할 순간이 되었다고 판단한 나는 남호두를 떠난 순간부터 머리속에서 수십번도 더 굴리고 굴린 인사변동계획을 거침없이 발표하였다.

≪이제부터 왕청연대는 최용건동무가 활동하는 구역으로 가야 하며 훈춘연대는 3군의 활동지역으로 가야한다. 그 3군에 바로 김책동무가 있다. 왕청연대와 훈춘연대에서 일부 역량은 주보중휘하의 5군과 함께 명안, 목릉, 위하 일대에서 공동작전을 하게 된다. 부상자들과 노약자들은 쏘련에 가서 치료를 받고 빨리 몸을 추세워야 한다.


최춘국

동무들, 용서하라, 보는바와 같이 나는 동무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사람들은 정적속에서 몇 초동안 나를 뚫어지게 주시하였다. 불복의 뜻을 담은 목소리들로 혼잡을 이루리라고 예측했던 장내에 믿기 어려운 정적이 찾아들고 그 숨막힐듯한 무언속에서 사람들이 침착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은 자못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수천수만 마디의 항변을 대신하고 있는 그 무언이 더 두려웠다.

그렇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상스러운 정적을 대신하여 흐느낌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별선언으로 하여 기가 죽은 대원들앞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래도 내 수하에서 정치일군을 몇 해 동안 일해온 최춘국이 도량은 있었다. 그는 ≪장군님, 우리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말구 들어가서 노독이나 좀 푸십시오.≫하고 나를 위로하였다. 사실은 그도 우리와 헤어져 독립여단을 꾸려가지고 활동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북만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과의 사업을 최춘국에게 맡긴 나는 쏘련으로 들어갈 부상자들과 노약자들을 따로 만나보았다. 수년간의 유격투쟁과정에 우리의 대오에서는 많은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이 생겨났다. 유격구가 존재할 때에는 근거지병원에서 전적으로 그들의 치료를 감당해 왔지만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부터는 부상자처리가 커다란 난문제로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상병들과 노약자들은 사하장과 경박호 부근으로 보내여 임시치료를 받게 하다가 후에 청구자밀영을 꾸려놓고 거기에 그들을 모두 집결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안전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위증민이 국제당 해당 조직과의 교섭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큰 골치거리로 여기고 있던 부상자와 허약자의 치료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그 교섭에 의하여 인민혁명군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은 당분간 쏘련 영내에 들어가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증민은 국제당과의 협의하에 쏘련영내에 들어가는 부상병들의 인계인수와 관련되 실무적 절차까지 약속해놓고 돌아왔다. 위증민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당산하 학교들에 유학생들을 보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제 왕청연대와 훈춘연대 동무들이 북만부대로 떠날 때에는 유학생들의 그룹도 부상자집단과 함께 쏘련으로 갈 것이었다.

먼저 우리 부대의 부상병, 로약자, 무의무탁 어린이들로 두 개조의 대열을 편성하고 한 개 조씩 두차례에 걸쳐 쏘련에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국경까지의 부상자호위는 왕윤성이 일부대원들을 데리고 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도 남호두에서 이미 내정을 짓고 왔으므로 청구자에 있는 부상병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부상병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을 때 어느새 이응만이 쌍지팽이를 짚고 나타나서 내앞을 막아나섰다.

≪장군님,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이응만이도 쏘련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첫마디부터 소리가 높았고 과도한 흥분으로 볼편까지 실룩거렸다.

≪응만동무,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소.≫

나는 수림속에 누워 있는 진대나무에 그를 부축하여 앉혔다.

이응만은 나의 팔을 붙들고 애원하였다.

≪장군님, 제발 저를 장군님 곁에서 혁명을 하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제 비록 외다리이지만 총을 쏠 수 있고 무기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 혁명을 선동하는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이응만이가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악전고투할 때 쏘련에 가서 호강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성미가 불같은 왕년의 유격중대장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다 짐작하고 있었다. 사실 이응만은 혁명을 하기 위해 다리를 자른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응만의 손을 잡고 사정하였다.

동무가 이러면 다른 부상병들도 더 떼를 쓰게 된다. 나도 항일무장투쟁대오에서 떨어지게 되는 동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동무들은 육체적 조건 때문에 늘 생활에서 구속을 받아 오던 사람들이 아닌가. 유격구가 있을 때는 불편한 대로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었지만 울타리를 터치고 홍길동이처럼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해야 하는 새로운 투쟁 환경에서 그 몸으로 어떻게 부대를 따라다니겠는가.

나는 한 시간나마 그를 설복하였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장군님, 저는 혁명이 승리한 나라에 가서 남들의 빵이나 축내며 편안하게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혁명도 하지 않고 호강을 할 것 같으면 제 무엇 때문에 집재산을 다 털어서 부로닝 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유격대에 들어왔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저를 장군님곁에 남게 해주십시오. 저는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응만은 혁명대열에서의 낙오 그 자체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진짜배기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너무도 극단적인 데가 있었다. 쏘련에 들어간다고 하여 혁명을 포기하거나 호강하라는 것은 아니였다. 우리는 이응만이 안전한 곳에서 여유있게 치료를 받고 의족이라도 하고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나는 이응만의 호소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유격구를 지키던 왕청시절을 감개무량하게 돌이켜보며 묵묵히 밀영의 눈무지 위를 거닐었다. 그런데 고통속에서 무겁게 흘러가는 끝없는 그 침묵이 오히려 이응만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

그는 내 표정을 한참 살펴보더니 별안간 나의 어깨에 얼굴을 틀어박고 ≪저 때문에 장군님께서 속을 썩이시누만요. 제 그럼 쏘련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백두산 쪽을 향해 장군님의 승전을 매일 빌겠습니다.≫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이응만과의 작별에 못지않게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양귀동녀와의 이별이

었다. 그 어린 것도 쏘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줄곧 울었다.

그래서 나는 청구자밀영을 떠나기 전날 밤에는 어린것이 모포밑에서 자지 않고 계속 조잘거렸다.

≪장군님, 쏘련은 여기보다두 더 춥다지요?≫

그 애는 아마도 어른들에게서 쏘련이란 나라에 무시무시하게 추운 동토대가 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일없다. 네가 가는 곳은 그저 여기만큼 춥다.≫

귀틀집 밖에서 설레이는 북만의 스산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그런 대답을 하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 부모도 없는 그 어린것을 타향에서 또 다른 타향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애의 인식속에 눈보라와 찬바람이라는 두 가지의 표상만으로 새겨진 그 풍토사나운 땅은 왜놈들도 없고 착취도 없고 압제의 채찍도 없는 사회주의 나라였다.

이제 그 애는 거기에 가서 착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저주스러운 세상과 결별하고 종달새처럼 낭랑하게, 수리개처럼 자유롭게, 비둘기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우리 대오에 돌아와 혁명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양귀동녀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을 쏘련으로 보내게 된 데는 이런 위안과 희망이 있었다.

≪응만아저씨가 그러는데 장군님을 백두산에서 싸우면서도 한달에 한번씩은 꼭 꼭 나를 찾아오신댔어요. 정말인가요?≫

그 애가 쏘련으로 안가겠다고 하도 조르니 이응만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애의 티없이 맑은 눈동자만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질문앞에서 내가 이처럼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린것이 스스로 나를 구원해주었다.

≪장군님이 백두산을 비우구 우리한테 오시면 그새 왜놈들이 또 조선사람을 죽이겠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장군님, 나한테 오시지 말구 내내 백두산에 계시라요.≫

나는 부지중 그 애를 그러안았다.

양귀동녀는 어린 새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며 이상하게 몸을 떨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참혹한 죽음을 수없이 목격해온 소녀의 눈앞에 치떨리는 과거의 영상들이 한꺼번에 비껴와서 그처럼 몸을 떠는지도 몰랐다.

백두산을 비우지 말라는 어린이의 그 말속에 온 조선사람들의 염원과 부탁이 담겨져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한참만에 양귀동녀는 다시 나를 불렀다.

≪장군님! 백두산은 너무 높아서 나같은 애들은 올라가지 못한다지요? 그래서 나는 백두산으로 못가구 응만아저씨를 따라 쏘련으로 간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어린애의 머리를 자꾸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었다. ≪귀동녀야, 이제 때가 되면 너도 백두산으로 찾아오거라. 그 때면 우리 조선도 쏘련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될 게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날이 새면 벌어지게 될 눈물겨운 석별의 광경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혔다. 어떻게 그들과 헤어질 것인가? 정말 ≪절류≫식으로 여기에 있는 나무가지들을 하나씩 꺾어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재처럼 슬그머니 사라질 것인가.

날이 밝아올 무렵에 최춘국이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조반이나 먹고 떠나야지, 관지에 있는 중대동무들이 나를 눈이 까매서 기다릴거요. 그래 어떻소? 여기 동무들이 마음을 좀 안착했는지… 동무들도 곧 북상행군을 해야겠는데.≫

온밤 내 곁에서 자지 않고 조잘거리던 양귀동녀는 이별의 날이 밝아온 줄도 모르고 쌔근쌔근 단잠을 자고 있었다.


오진우

≪장군님, 우리 동무들에 대해선 염려마십시오. 북만에서 잘 싸울테니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좋은 동무들이지, 그래서 나도 헤어지기가 괴롭소. 그러니 이젠 춘국이와도…≫

나는 말끝을 채 마무리지 못하고 최춘국을 바라보았다. 한참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꽉 거머쥐였다.

≪춘국동무와는 이렇게 서로 말이라도 해보고 헤어지니 괜찮소. 한흥권동무하군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게 됐으니 더욱 속이 좋지 않소. 후에 북만부대에 가서 만나거든 보지 못하고 가는 내 심정을 전해주오.≫

우리는 그날 간소한 아침식사로 이별연을 대신하고 헤어졌다.

최춘국의 말대로 청구자동무들은 관지 쪽으로 떠나는 나를 웃음으로 바래주었다.

다만 양귀동녀가 서럽게 울었을 뿐이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9살 소년의 손목을 이응만에게 넘겨주고 천근같은 발걸음으로 청구자밀영을 떠나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이 아파난다.

이응만이와 양귀동녀는 그 후 1차인가 2차 대열에 포함되어 쏘련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 오래동안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우리에게 그들의 안부를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청구자밀영에서 부대와 헤어져 쏘련으로 들어갔다가 해방 후에야 귀국한 지난날의 빨치산 재봉대원 전문진이였다.

늦게나마 그들이 살아서 건재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양귀동녀의 지금 나이가 아마 70살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 나이면 인생으로서는 석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민생단≫모자를 쓰고 마음고생으로 시들어가던 옛 대대장의 딸 양귀동녀를 이따금씩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그러나 내 눈앞에 매번 떠오르는 것은 진갑을 앞둔 할머니가 아니라 9살내기 꽃망울 소녀의 모습뿐이다. 나는 할머니가 된 그를 상상할 수가 없다. 나의 추억속에는 언제나 나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참새처럼 재잘거리던 소녀의 모습이 남아있을 분이다.

청구자에서는 최춘국이 북으로 들어갈 자기네 대원들을 잘 설복한 덕에 별로 어렵지 않게 헤어졌으나 관지에 있는 김려중네 중대와 오진우가 속한 중대를 북만부대에 파견하는 일은 여간 힘들게 되지 않았다. 오진우가 속한 중대는 기어이 우리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떼를 썼다.

우리가 거듭 설복하자 그들은 북만부대로 가기는 하겠는데 안도계선까지만이라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훈춘청년의용군의 1개소대 동무들도 덩달아서 안도행을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 소대안에 한때 우리의 지시를 받고 훈춘에서 위만군

반변공작을 했던 황정해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주동이 되어 나의 승낙을 받아내려고 달라붙었다.

나는 북만지구의 실태를 이야기해주면서 여러 시간 그들을 설복하였다.

위증민이 황정해가 속한 훈춘청년의용군 소대를 몹시 탐냈기 때문에 그 1개 소대만은 그에게 떼주기로 하였다. 오진우가 속한 중대동무들은 풀이 죽어서 미혼진을 떠났다.

위증민과 함께 바람소리 처량한 미혼진의 언덕에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는 오진우가 속한 중대동무들을 바래줄 때 내 마음도 이별의 정을 뜨겁게 젖어들었다


김여중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 개별적으로 파견되어 가는 동무들과의 이별은 그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드는 괴로움속에 진행되였다. 참군의 걸음마를 뗀지 얼마 되지 않는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서는 군정간부의 부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한흥권, 전창철, 박길송, 박락권, 김태준을 비롯한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어는 나의 전령병이었던 오대성이 마저 북만에 파견하였다. 간도에서 애지중지 키운 간부들은 그 때 송두리채 넘겨준 셈이었다.

오대성은 오중흡의 손아래 동생이었다. 십리평에서 소년선봉대활동을 하던 그는 형들이 연줄연줄 유격대에 입대하는 것을 보고 감질이 나서 시샘을 하던 끝에 자청하여 우리의 전령병으로 되었다.

내가 북만부대에 가라고 말하자 오대성은 처음에 히죽히죽 웃기만 하였다. 아마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울상이 되어 나한테 대들었다.

≪장군님, 왜 절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전 못가겠습니다. 나같은 게 북만부대에 안간다구 혁명이 망가지겠습니까. 장군님 곁에 그냥 있게 해주십시오.≫

지시만 내리면 그저 곰살궂게 ≪알았습니다≫하는 한 마디의 대답으로 나를 흐뭇하게 해주던 전령병이 그 마당에서 하는 처신은 실로 거칠었다.

나는 수십번의 설복을 거듭해서야 오대성을 머나먼 북만부대로 떠나 보낼 수 있었다.

안가겠다고 떼를 쓰던 오대성이도 역시 작별을 앞둔 마당에서는 어른스럽게 나를 위로하였다. 내 눈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장군님, 내가 가면 저 금산이가 나처럼 장군님을 모실까요?≫하고 희떠운 농담까지 하였다.

이별 전날 밤 오대성은 온밤 나의 다른 전령병 최금산과 함께 소곤소곤 작별담을 나누었다.

나는 원래 자정이 지나야 자리에 들고 새벽 서너시면 일어나는 것이 예사였지만 그날밤만은 먼길을 떠날 전령병을 생각해서 일찍 등불을 끄고 누웠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소곤거리던 두 전령병은 새벽녘에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저 친구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려고 저럴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도사리었다.

≪금산아, 내가 간 다음 너 장군님을 더 잘 모셔야 해.≫

오대성이 소근거리는 소리였다. 금산이쪽에선 그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백두산쪽에 가면 고추장을 꼭 구해서 끼마다 장군님께 올려라.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노력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거야. 너 장군님께서 고추장을 얼

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지? 그런데 우린 아직 한번도 그런 음식을 대접 못했거든. 우린 사람 전령병 자격이 없지뭐. 정작 장군님곁을 떠나자니 그런 일들이 마음에 걸리누나,≫

≪네 부탁대로 할테니 마음놓구 가.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만날 수 있을가?≫

최금산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글쎄 언제나 만나겠는지… 참 금산이 거기 가면 먼저 평안도사람의 집에 꼭 들려봐라. 평안도 집엔 젓갈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장군님께서 젓갈을 아주 좋아하신데. 야 백두산에 가면 그런 걸 다 구해서 장군님께 실컷 대접해드리자구 했댔는데…≫ 날이 밝아 오대성을 보낸 다음 나는 책갈피에서 그의 글쪽지를 보게 되었다.

≪장군님!

나라를 찾고저 일년삼백예순 다섯날 어느 하루도 발편잠 못주무시는 장군님께 속만 태워드리다 떠나는 전령병의 마음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잘 싸울테니 근심일랑 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면 ≪나라를 찾기 위해 이 고생을 참자.≫고 늘 하시던 장군님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사랑속에서 키운 애국절개 더럽힘없이 한목숨 짚오래기처럼 던져 광복성업에 조금이나마 보태겠사오니 장군님, 걱정마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어린 전령병의 글치고는 너무도 웅심깊은 것이였다.

나의 전우들은 모두가 이렇게 의리가 깊고 인정이 두터운 동무들이였다.

이날 위증민은 남호두에서 청구자, 관지를 거쳐 그곳까지 오는 동안 조선동지들 사이에 오가는 정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절감했노라면서 눈굽을 적시였다.

≪강장에게는 약병이 없다더니 **김일성**동지의 3대원들은 하나같이 용감하고 인정이 또한 각별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 황정해만 보아도 얼마나 탐나는 청년입니까.≫

나는 훈춘의 청년의용군소대와 함께 작식대원으로 임은하도 위증민에게 넘겨주었다.

황정해도 위증민을 따라갈 때에는 오대성이처럼 우리와의 이별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황정해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장군님 부탁대로 위증민동지를 잘 돌봐드리겠으니 걱정말라고 우리를 안심시켰고 그 시각에 다진 맹세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위증민을 잘 호위해 주었다.

위증민의 병이 위독해질 무렵에는 황정해가 그를 노상 업고 다니였고 적의 ≪토벌≫을 당할 때마다 필사적인 혈전을 벌려 그를 구원해주었다.

하기에 위증민을 임종의 시각에 황정해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내 저 세상에 가서도 정해를 잊지 않고 조선동무들의 지성을 잊지않겠소. 부디 잘 싸우다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으로 개선해 주오.≫하고 뜨겁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증민이 그렇게 고마와하고 잊지 못해 하던 황정해도 끝내 내곁으로 오지 못하고 만주대지에서 황야의 고혼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황정해를 생각할 때면 먼저 남호두에서부터 백두산에 이르는 수천리의 우회로-남하행군길이 떠오른다.

청구자밀영에서 나를 따라가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던 황정해, 그는 거기서부터 미혼지까지 왔다가 위증민을 따라 갔었다. 청구자밀영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오는 그 머나먼 남행길로 이동하는 과정에 황정해에 대한 나의 정은 더 깊어진 것 같다

남호두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오는 수천리 남행길에서 북으로 떠나보낸 나의 전우

들은 과연 얼마나 많았던가

박길송, 한흥권, 장룡산, 전만송, 박태화, 최인준, 오대성, 오세영, 김태준 등 수없이 손을 곱아도 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전우들이 남북만산야에 젊은 피를 뿌리고 숨졌다.

총 잘 쏘고 인정이 많던 장룡산의 희생도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나의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오대성이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오중흡이 무척 사랑하던 동생이였다.


황정해

우리가 오대성과 헤어질 때 1사 2연대에 속하여 교하원정에 참가했던 오중흡은 자기 동생이 먼 북만땅으로 떠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백두산지구에 와서 금산의 덕으로 풋강냉이에 건뎅이젓을 받쳐서 달게 먹은 적이 있다. 풋강냉이에 건뎅이젓을 받치는 것이 구색이 맞는 음식으로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속에 오대성이의 소원과 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내 식량에 겹도록 많이 먹었다.

형은 남에서, 동생은 북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싸웠지만 조국광복의 그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무공을 자랑하며 한 자리에 모이게 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두 형제가 다 이국의 거친 땅에서 목숨을 잃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희생된 우리 동무들은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것만큼 남북만 각지에 가서 조선혁명가의 기개를 잃지 않고 잘 싸웠다.

청구자밀영에서 전우들과 눈물겨운 이별을 한때로부터 최춘국이와는 1년반만에 다시 만났고 어떤 동무들과는 5년, 6년 후에 또 어떤 동무들과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희생된 전우들을 숙연하게 추억하였다.

살아남은 동무들도 역시 가지가지 훌륭한 무훈담들을 안고 우리곁으로 돌아왔다.

어떤 동무들은 백전불패하는 영웅지대장이 되어 이름을 떨치였고 어떤 동무들은 중대장, 여단장, 사단정치위원 등의 쟁쟁한 군정간부가 되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그러나 옛시절의 응석기만은 그냥 남아 있어서 ≪장군님의 곁을 떠나니 부모의 슬하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보고싶어 내내 울었습니다.≫하고 눈물을 닦는 것이였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두고 잊지 못해하자 그들은 항일의 그날처럼 변함없이 나를 따뜻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찾는 길에 어찌 희생이 없겠습니까. 그 동무들과는 그날의 이별이 영이별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조국을 찾았으니 그들도 자기들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전우들의 사랑속에서 80평생을 살아왔다.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이별을 한 그들은 나의 한 생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우리의 항일혁명사와 조국의 역사를 별처럼 빛내여주었다.

그러므로 나 역시 항일의 그날에 북으로, 남으로 전우들을 떠나보냈던 그 슬픈 이별을 후회하지 않는다.

5. 백전노장 최현


최현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으로 나올 때 우리가 선택했던 노정 가운데서 중요한 행선지의 하나는 돈화-안도현경의 목단령산줄기에 있는 인민혁명군이 독립1사 후방밀영기지 미혼진이었다. 크고 작은 밀영들이 천리수해속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 종심깊은 대밀영지구에서 우리는 왕덕태, 위증민을 비롯한 2군의 주요지휘관들과 함께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려고 계획하였다.

한두 번 다녀간 사람도 향방을 잡지 못해 쩔쩔 맨다는 심심산골 미혼진,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의 모양새가 하도 엇비슷하여 초행자들은 누구나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미의 세계에 빠져든다고 해서 이 천고의 수림지대를 미혼진이라고 명명한 옛사람들의 통찰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도 처음에는 밀영을 제때에 찾아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다행히도 우심정자라는 곳에서 박성철이 소속되어 있던 독립1사 1연대 1중대동무들을 만나 그들에게 미혼진까지의 길안내를 부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미혼진 골안이 온통 장티프스오염구역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청탁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 골안에 열병환자들이 수십 명이나 모여서 앓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간부들을 모시게 되면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환자들 가운데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힌 사람들만 해도 몇 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장군님을 모시다니요. 우린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길안내를 해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었다. 그 당시 인민혁명군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유격구가 존재할 때부터 발생했던 발진티프스와 장티프스가 유격구를 해산한 다음에도 계속 그림자처럼 우리의 대오를 따라다니며 천금보다 귀중한 생명들을 사정없이 앗아갔다. 이것은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근원으로 되었다.

≪장티프스도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것이니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거요. 아무렴 사람이 전염병을 이기겠지 전염병이 사람을 이기겠소. 그러니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소. 동무들은 지금 그 장티프스라는 병을 신비화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이런 말로 전염병공포증을 비난하였으나 그들은 그냥 장티프스의 위험성을 역설하며 미혼진으로 가지 못한다고 고집하였다.

≪사람이 전염병을 이긴다는 게 다 뭡니까. 그 병앞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고양이 앞의 쥐이지요. 최현중대장동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도 장티브스 때문에 몇 주일째 미혼진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 강쇠같은 싸움군도 전염병에 걸렸단 말이요? 그가 장티프스때문에 고생한다면 내 더더구나 미혼진에 가야겠소. 내가 우심정자에까지 왔다가 전염병이 무서워서 미혼진에 들리지 않고 그냥 백두산으로 나간다면 후날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동무들이 내 신변을 걱정하는데 나는 이미 왕청에서 열병을 앓고 난 사람이요. 면역이 생겼으니 전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오.≫

1중대의 지휘관들은 그제서야 길안내 겸 호위로 우리에게 1개 소대가량의 대원들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미혼진에 가더라도 열병환자들의 병실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그때 최현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실망하였다. 내가 비록 입으로는 장티프스를 사람이 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였으나 실상 그것은 전율할만한 무서운 질병이였다. 그 저주로운 질병이 혁명군의 지휘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에누리를 할리는 만무한 것이였다. 최현과 같이 성급한 사나이들의 육체에서는 오히려 만병이 더 사납게 요동을 치고 기광을 부리는 법이다. 병은 만사람을 꼭같이 건드리면서도 성급하거나 인내력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언제나 더 많은 불행을 가져다주곤 하였다. 나는 귀중한 전우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김**사령,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합니까? 혹시 최현동무에 대한 걱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내가 아무말없이 침울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자 왕덕태가 넌지시 물었다. 사교성이 부족하고 말수더구가 적은 무뚝뚝한 군사지휘관이였지만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투시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맞혔습니까?≫

나는 그가 정적을 깨뜨려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에는 오만가지 잡념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 말이다

≪그걸 왜 알아맞히지 못하겠습니까. **김**사령이 이 왕덕태와 같은 벗을 옆에 두고도 말을 걸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두고 심사숙고한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정확합니다. 나는 아까부터 줄곧 최현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최현은 병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최현부대

≪그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최현이란 사람이 참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의 꿈속에 내가 나타난다는 것, 남의 기억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남의 관심속에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왕덕태의 그 소박하면서도 심오한 지론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왕군장의 견해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것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간도의 독립군

≪아마 최현도 이 순간에 **김**사령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김**사령을 사모하는지 나는 시샘이 날 정도였습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김**사령과 최현 사이는 단 한번의 접촉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당신들은 그토록 열렬한 우정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그건 나자신도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틀밤을 함께 자고 나니 십년지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는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짝사랑에 빠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하, 짝사랑이 다 뭡니까. 최현이란 사람도 마촌바람을 한번 쏘이고 나서는 내내 **김**사령에 대한 말만 하였습니다.≫

최현이 마촌바람을 쏘이였다는 말은 그가 소왕청 마촌에 와서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는 소리이다. 나와 최현과의 첫상봉에 대한 이야기는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되었고 이 회고록의 3권을 통해서도 짤막하게 스치고 지나간 바가 있다.

그 상봉을 마련해 준 계기가 동녕현성전투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통신원의 불찰로 참전명령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행차 뒤 나발격으로 때늦게 마촌에 도착한 최현은 그때 동녕현성전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는 통신원을 두고 오만가지 쌍욕질을 다하고 나서 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 나에게 물었다.

≪왕청도 참가하고 훈춘도 참가하고 구국군패들까지 다 참전했는데 유독 연길의 시라소니들만은 동녕현성대문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엉덩방아만 찧고 있었으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견디겠습니까. **김일성**대장님, 또 다른 곳을 칠 계획은 없습니까?≫

≪젊은 사람을 보고 ≪님≫이라니요. 그저 **김일성**이라고만 불러주시오.≫

내가 이런말로 겸양의 뜻을 표시하자 온몸에서 화약내가 물씬물씬 풍기는 이 병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다.

≪여기에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김**대장을 조선군대의 상좌에 모신지 오랩니다. 그러니 함자를 높여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춰주면 인차 교만해지고 현훈증에 걸립니다. 동무가 계속 그런식으로 나를 춰올린다면 나는 다시 동무를 상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 참, 나도 배짱이 센 사람인데 **김**대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김**대장 소원대로 이제는 말을 낮추겠습니다.≫

그때부터 최현은 말투를 고쳤다. 그는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전형적인 무관기질의 사나이였다. 그가 나에 대해 경어를 사용한 것은 다만 공식석상에서 뿐이

었다. 이것은 우리의 우정에서 거치장스러운 예의와 격식을 제껴놓고 오히려 그 우정에 진실성과 참신성을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다물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한 명한 명 힘들게 채취해내는 동지가 우리 혁명의 황금으로 되고 혁명을 확대하고 상승시키는 필수불가결의 추진력으로 되고 있던 그 시절에 최현과 같은 장부를 동행자로 얻게 된 것은 분명 나의 생애에 특기할 만한 사변이요, 행운이였다.

마촌에서의 상봉은 처음부터 나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다.

첫상봉치고는 그 상봉이 일으킨 충격과 심도가 너무나도 깊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면손님인 최현이 자꾸만 구면인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였다. 음성도 귀에 익었고 생김새나 몸가짐도 몹시 눈에 익어보였다. 지어는 언제인가 이 늠름한 대장부와 함께 항일을 논하고 구국을 운운한 일이 있었던 것같은 생각조차 들었다.

최현이 나에게 구면인물처럼 느껴지게 된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그때까지 머리속에서 줄곧 그려보고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시킨 전형적인 무관의 모델에 가까왔을 뿐 아니라 많이 들어온데서 생긴 것이였다고 볼 수 있다.

최현은 망국의 비운이 절정에 치달아오르고 있던 1907년 이국땅 간도의 황토대지우에서 인생의 노를 받아안았다.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 치욕의 기록을 무수히 남긴 비통하고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준이 헤이그에서 할복자결한 것도 이 해이고 고종의 퇴위와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 것도 이 해이며 ≪정미7조약≫의 체결과 ≪차관정치≫의 강행으로 우리 나라 내정권이 모두 일제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도 이 해였다.

미증유의 파괴력을 가진 경제공황의 파도가 사납게 밀려드는 땅에서 최현을 낳은 부모들은 새생명의 장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 한일합병과 3.1인민봉기, 경신년의 간도대토벌은 어린 최현의 피를 끓게 한 극적인 사변들이였다.

그 절망적인 암흑의 시대에 한가닥의 희망으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간도일각에서 무력항쟁에 고심하고 있던 독립군의 존재였다. 홍범도와 임병국은 그의 선배였고 스승이였다. 최현의 어린시절은 용감하고 굴할줄 모르는 이 노장들의 활동과 뗄래야 뗄 수 없게 튼튼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 노장들에게서 사격법도 배우고 용마법도 배웠다. 홍범도의 수하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최화심은 최현이 11살 잡히던 해부터 어린 아들에게 통신연락을 시켰다. 최현은 그 해에 아버지한테서 한 자루의 권총을 선물로 받아안았다.

경신년대학살은 조선의 교포들이 할거하고 있던 간도의 방방곡곡에 피비린내나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최현도 그 토벌에서 어머니를 잃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임병국의 부대를 따라 연해주로 넘어갔다. 산천도 설고 사람도 설고 말도 설었으나 한생을 일제와의 싸움에 바치려는 최현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임병국대장은 그를 연락병으로 임명하여 수하의 한지대에 파견하였다. 용마술이 남달리 뛰어난 최현은 말을 타고 지대와 본부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연락병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당년 13살에 불과한 이 앳되고 체소한 소년이 말을 타고 광야로 쏜살같이 달려갈 때면 러시아 사람들도 경탄과 선망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군 하였다.

한번은 그가 통신연락임무를 받고 말을 탄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비발치는 탄막을 헤치



처형되는 간도의 조선인

며 최전선으로 돌진한 적이 있다. 일행 중 3명은 적탄에 희생되고 최현은 팔에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상자리를 돌볼 사이도 없이 탄우속을 뚫고 과감하게 앞으로 달려 본부에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하였다. 임병국은 최현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독립군의 장군감이라고 그를 치하해 주었다.

그 독립군부대가 패전한 후 간도로 돌아온 최현은 훗날의 독립연대연대장인 윤창범의 안내를 받아 동만청총에 가입하였다. 동만청총시절은 최현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방향전환과정은 그가 연길감옥에서 7여년의 옥중생활을 하던 시절에 촉진되었다.


윤창범

반동군벌당국은 1925년에 갑자기 그를 체포하고 경제모연사건의 혐의로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언도하였다.

5.30폭동과 추수, 춘황투쟁의 파도가 지나간 뒤 연길감옥은 이 투쟁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던 간도혁명의 선각자들과 애국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자유를 구속당하였으나 그 구속속에서도 머리를 쳐들고 도고하게 살아가는 생기발랄한 이 낭만가들의 소사회는 최현의 성장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학교였고 용광로였다. 최현은 이 감옥에서 옥내지하조직인 반제동맹에도 가입하고 적위대에도 입대하였다. 옥중고초는 마침내 독립군시절의 옛 연락병을 민족주의자로부터 공산주의자로 완전히 개조시킨 것이다.

군벌당국이 길림 제4감옥이라고 부르던 연길감옥에서 최현에 의해 빚어졌고 그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옥중일화들과 아슬아슬한 모험담들은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 널리 알려졌다.

최현의 옥중생활은 먼저 감방의 ≪제왕≫인 ≪깡툴≫과의 대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들어간 감방의 ≪깡툴≫은 죄수들을 학대하는데 이골이 난 살인강도범이었다. 새 죄수들이 감방에 나타날 때마다 그자는 그들의 물건을 있는대로 강탈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곤 하였다. 음식이 들어오면 남들의 몫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

≪깡툴≫에게 버릇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한 최현은 어느 날 ≪칼≫표 고급담배를 한대 물고 감방안의 다른 죄수들에게도 한대씩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깡툴≫에게만은 일부러 권하지 않았다. 이것은 ≪깡툴≫의 약을 올려주기 위한 무언의 도전이였다.

심사가 꼬인 ≪깡툴≫은 최현이더러 가지고 들어온 물건을 자기한테 모조리 바치라고 을러메였다. 최현이 대답대신 한입 가득 물고 있던 담배연기를 구름처럼 내뿜자 참을성을 잃어버린 ≪깡툴≫은 손찌검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최현은 몇 사람의 머리위를 날아 넘어 수갑을 찬 두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답새긴 다음 이렇게 호통쳤다.

≪네 이놈, 내가 누구라고 감히 허튼수작질을 하는 거냐? 네놈이 밖에서 살인을 치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불쌍한 형제들을 못살게 구니 너처럼 포악하고 죄많은 놈이 어디 있겠느냐, 너도 우리들과 다름없는 평민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냐?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하니 앞으로는 처신을 잘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저 아래목 변기통옆으로 내려가라. 이 웃자리는 내 자리다.≫

최현을 당해낼 수 없다고 자인한 ≪깡툴≫은 그가 시키는 대로 변기통 옆에 가서 무릎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깡툴≫의 억압에서 해방된 죄수들은 그 후부터 모두 최현을 은인으로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다.

최현이 무기징역언도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군벌당국은 대성중하고, 동흥중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학교,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용정시내의 여러 학교 학

생들로 감방견학을 자주 조직하였다. 적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사상단체와 반일반군벌단체들이 속출되어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 일대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의식을 거세하고 투쟁기세를 압살하려고 꾀하였다.

최현은 각 감방들에 연락을 하여 미리 물총을 만들게 한 다음 때를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감옥에 와서 감옥을 돌아볼 때 대열을 인솔하는 반동교원들과 간수들에게 변기통의 구린내나는 물을 쏘면서 욕설을 퍼붓게 하였다.

≪이놈들아, 무엇을 보여주자고 학생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불의의 봉변을 당한 반동교원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감옥측은 주모자를 색출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모든 죄수들이 저마다 자기가 책임자라고 주장해 나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최현은 연길감옥에 있을 때 옥내의 제화공장에서 제화공으로 일하고 석판인쇄공장에서 식자공으로도 일하였으며 피복공장에서 고급양복으로 짓는 재봉사로도 일하였다. 나중에는 목공장의 목수노릇도 하고 죄수들의 머리는 물론, 간수들과 간수장, 감옥장의 머리까지 깎는 이발사노릇도 하였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까닭없이 학대하고 구박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맵짠 징벌을 가하곤 하였다. 어느 날 최현은 책걸상제작에 쓰는 갈매나무로 장기쪽을 만들려다가 옥내공장감독에게 들켜 줄매를 맞은 일이 있다. 그 감독은 죄수들에게 매를 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분격한 최현은 조립중에 있던 의자다리로 그를 호되게 답새겼다. 감옥당국은 그에게 한주일동안의 영창처벌을 주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감독은 죄수들에게 더는 폭행을 가하지 못하였다.

최현의 옥내투쟁가운데서 가장 이채를 띤 것은 탈옥투쟁이었다. 그는 윤창범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군시절의 옛상관인 임병국을 비롯하여 그밖의 여러 혁명가들을 감옥밖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하였다.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라면 분신도 할 수 있고 천길 낭떠러지에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최현의 타고난 배짱이며 풍랑속에서 길들여진 그의 성격이었다.

출옥 후 최현은 태양모적위대에 입대하였으며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공산당에도 입당하고 인민혁명군연길유격대중대정치지도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일이 이왕 이렇게 된 발에는 왕청에 이틀쯤 남아서 **김**대장의 이야기나 듣다가 가겠소. 방해가 되지 않겠지요!≫

첫상봉의 인사 치레가 끝난후 최현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우리는 긴긴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온밤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보초대에서는 적들이 유격구로 쳐들어온다는 신호를 지휘부에 보내왔다. 나는 부대를 고지에 배치하고 산으로 오르면서 최현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싸움을 좀 하고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숙소에서 좀 기다려주시오.≫

최현은 그말을 듣자 자리에서 고무공처럼 튕겨 일어났다.

≪좋은 마수거리가 생겼는데 숙소에서 기다리다니, 최현이 **김**대장을 따라가지 않고 숙소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다면 최현이 아니지요. 하늘도 오늘은 이 최현이를 알아줍니다. **김**대장 수하에서 한 번만이라도 싸움을 해보고 싶으니 나도 고지로 데리구 가주시우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같이 싸워봅시다.≫

최현은 벙글벙글 웃으면서 나를 따라 고지에 오르기 시작했다.

적들은 유격대가 매복하고 있는 계선으로 돌격해 오지 않고 멀리서 눈먼 총질만 하다가 유격구인민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곡식낟가리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유격대원들에게 원거리저격전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라고 명령한 다음 최현을 향해 ≪참, 최현동무가 사격명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번 솜씨를 좀 구경해봅시다.≫라고 말했다.

최현은 마레샤보총으로 불뭉치를 들고 곡식낟가리에 달려드는 적병 한 놈을 단방에 쏘아눕혔다. 적과의 거리가 약 500미터나 되었으나 그는 매번 단발명중으로 적들을 쓸어눕히곤 하였다. 그의 사격솜씨는 실로 만사람을 감탄시킬만한 것이였다.


호박물주리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한이 이제는 좀 풀렸습니까?≫

전투가 끝난 다음 최현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는 입을 다시며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은 냠냠하우다.≫

우리는 그날밤에도 잠을 뒤로 미루고 담화를 하였다. 화제의 중심을 이룬 것은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에 관한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 새 형의 주체적인 당창건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의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설정하고 그와 함께 실천적인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담화의 결과를 두고 최현은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이제는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분이 좀 가라앉을사합니다. 동녕현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마촌에 와서 그 봉창을 단단히 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최현을 바래줄 때 첫 상봉기념으로 그에게 동녕현성전투에서 노획해온 다태갈 4정과 호박물주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때부터 그 물주리는 그가 가장 애용하는 소지품으로 되었다.

전투와 전역의 국면을 좌우하는 긴장된 사색이 진행될 때마다 그의 호박물주리에서는 독한 담배연기가 구름처럼 피여오르곤 하였다. 최현의 주변에는 그 물주리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애연가들이 적지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완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그보다 더 욕심사나운 사람들은 최현이 취중에 있을 때 주머니에서 슬쩍 꺼내는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다.

해방 후 당과 정부의 요직에서 일하고 있던 일부 애연가들 중에는 ≪최현동무, 그 물주리만 주면 담배맛이 꿀맛이라는데 우리도 한모금 빨아봅시다. ≪세금≫은 후히 지불하겠소.≫하는 따위의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벽창호같은 최현에게는 그런 흥정조차 통하지 않았다. 최현이 나진에서 휴양을 할 때 동기생으로 그와 친숙해진 김익선만이 그에게서 하루동안의 기한부로 호박물주리를 빌려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지금 그 호박물주리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진품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사적일군들은 처음에 최현에게서 한두 마디의 설복으로 그 물주리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최현은 그 일군들이 노리는 것이 자기가 수십 년동안 진주보석이나 금덩어리보다도 더 끔찍하게 보존해 온 물주리라는 것을 알게되자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뭐, 어쩌고 어째? 최현이 가지고 있는 호박물주리를 박물관에 전시하려 한다구? 이 물주린 전인민적 소유가 아니구 내 개인소유야. 우리 장군님께서 최현이더러 쓰라구 주신게지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공동소유는 아니란 말이야. 정 가지

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내 수염이나 뽑아가라구.≫

사적 일군들은 최현의 호통과 삿대질에 얼이 빠질 지경이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다녔다. 그들은 다섯 번째 만에야 이 고집불통의 노장을 설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며칠전만 해도 범처럼 으르렁거리던 노장군이 그날은 딴 사람처럼 돌변하여 살갑게 손님들을 대해주었다.

≪오늘부터 이 물주리는 최현의 소유가 아니라 전인민적 소유야. 내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최현은 물주리끝에 가치담배를 꽂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다음 한모금한모금씩 연기를 탐스럽게 빨아서는 허공중에 천천히 날려보내곤 하였다. 노장군의 가느스름한 눈을 먼 북방의 하늘을 하염없이 더듬고 있었다, 그 하늘밑에는 우리의 첫상봉의 역사가 새겨진 마촌도 있었고 그가 40이 다될 때까지 사창을 차고 발목이 시게 걸어다닌 빨치산 시절의 초연에 절은 전장들도 있었다.

나와 최현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고 영원한 동행자로 되게 한 그 운명적인 2박 3일은 문자그대로 우리의 우정사에 그 어떤 힘이나 수단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철벽의 만리성을 쌓아놓았다.

최현이 첫상봉을 통하여 나에게 남기고 간 인상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그가 매우 솔직하고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이였다. 그는 보는대로 말하고 생각나는대로 표현하는 사나이였다. 그의 사상과 감정은 순간순간마다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곤 하였다. 이런 사람들앞에서는 기만도 조작도 외교도 다 통하지 않는 법이다. 최현의 어린애와 같은 단순성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매력에 끌린 나머지 나는 자기의 속마음을 최현에게 송두리채 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미혼진밀영에 도착하자마자 50여명의 일반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반토굴식병실부터 찾아갔다. 바로 그 50여명속에 내가 그처럼 만나보고 싶어하는 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밀영을 지키고 있던 후방일군들이 병실문을 열어제끼고 **김**사령이 온다고 선통하자 최현은 누웠던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출입문쪽으로 벌렁벌렁 기여나왔다

내가 첫눈에 마촌에서 새겨두었던 옛모습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변모되어 있었다.

≪**김**대장, 부탁입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안됩니다!≫

최현이 두팔을 내저으며 불이 황황 이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바람에 나는 한동안 출입문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미혼진 인심이 너무 야박한 것 같다. 최현을 보고싶어 왔는데 문전축객을 하다니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소.≫

내가 이런 농을 하였으나 최현은 막무가내였다.

≪야박하다는 말을 들어두 할 수 없수다. 그래 **김**사령도 여기가 염라국문앞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하하, 총알을 100가마니쯤 쏴봤다는 최현이 이런 엄살쟁이인줄은 정말 몰랐구만.≫

최현은 자기의 말이 이가 들지 않는 것을 보자 나를 병실까지 안내해온 후방일군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 시라소니 같은 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구 **김**사령을 함부로 데리구 와? **김**사령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

후방일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문앞에서 모두 꽁무니를 뺐다.

최현이 욕을 퍼붓는 사이에 나는 병실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달방치 같이 단단하던 최현이가 장티프스라니 웬일이요?≫

내가 머리맡에 다가앉으면서 악수를 청하자 최현은 모포밑으로 황황히 손을 움츠러뜨렸다.

≪김사령, 내 몸엔 장티프스벌레가 씨글씨글하오. 제발 내살에 손을 대지 마시오. 전염병창고 같은 이 잘난 미혼진에는 어쩌자구 오셨소?≫

≪어쩌자구 왔겠소. 최현일 보고싶어서 왔지.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만. 최현이 전염병에 다 걸리다니.≫

나는 모포밑으로 손을 밀어넣어 화독처럼 달아오른 최현의 손을 덥석 잡아쥐고 오래동안 놓지 않았다.

최현의 눈에는 금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김사령, 반갑소. 이 잘난 최현이가 뭐게…. 난 김사령을 못보고 저승에 가는가 했소.≫

방금전까지 곁에 오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가 인제는 내 손을 집게처럼 꽉 잡아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의 최현은 영낙없는 어린애였다.

그는 2차 북만원정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나서 장티프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한참동안 설명하였다.

나는 최현의 운명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로 화제를 돌렸다.

≪그 동안 ≪민생단≫감투를 쓰고 마음고생을 펴그나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지요.≫

최현은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의 머리에 ≪민생단≫감투가 떨어진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대기 시작했다.

≪김대장이 마촌에서 통일전선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소. 그래 난 그 노선을 천하에 둘도 없는 명노선이라구 생각했댔지요. 연길에 돌아간 다음 우리 부대 동무들에게도 선전을 좀 했더니 왕덕태군장까지도 통일전선을 안하면 못산다지 않겠소. 그런데 난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민생단≫감투를 쓰지 않았겠소.≫

우리가 1차 북만원정을 떠나간 다음 최현은 중대를 데리고 돈화현과 화전현 접경지대에 진출하여 유격활동구역을 넓히기 위한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일대에서 유격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황구막바지에 진을 치고 있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자라는 것이였다.

그 당시 대황구골안에는 80명, 100명 정도의 전투인원을 가진 2개의 산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경향이 매우 좋았다. 빨치산공작원들이 이 부대에 침투하여 반일선전공작을 많이 한 덕이였다. 이 산림부대는 근처의 자위단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친일로부터 반일로 돛을 바꾼 이 고장 자위단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산림부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러나 100명짜리 산림부대는 인민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수촌의 적군경들과 은밀히 내통하면서 집단적인 귀순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항일과 투항변절을 지향하는 서로 다른 두 산림부대사이의 대립을 유혈적인 무장충돌로 번져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태하고 있었다. 투항을 시도하는 산림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산림부대들을 항일의 길로 선도할 수 없었고 그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성사시킬 수 없었다.

최현은 두 산림부대사이에 화해를 시킨다고 하면서 연회를 차렸다. 투항을 시도하던 100명짜리 산림부대의 지휘관들도 연회에 초대되었다. 그 지휘관들이 연회장에 나타나자 최현중대는 그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켰다. 그러면서도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부대와 우호관계에 놓여 있던 자위단에 대해서도

물론 실력행사는 하지 않았다.

최현이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것은 통일전선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명정대한 처사였다. 그러나 군부 정치주임을 비롯한 상급의 좌경분자들은 ≪적을 치지 않았으니 적에게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최현의 정당한 처사를 범죄시하면서 그를 정치지도원자리에서 철직시키고 그가 애용하던 모젤권총까지 회수하였다. 그 처분이 얼마나 부당했으면 왕덕태까지도 ≪최현동무가 ≪민생단≫이라면 우리 2군에 비≪민생단≫은 도대체 누구인가?≫고 절규하였겠는가. 최현은 철직책벌을 받은 후 전사로 강직되었다가 왕덕태군장수하에서 1년동안 군부 군수처장으로 활동하였다. 1935년말에야 그는 중대장으로 되었다.

≪이 최현이는 **김**사령덕으로 살아난 셈이웨다. 다홍왜에서 **김**사령이 한목숨을 내대고 우리를 옹호해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영 ≪민생단≫대접을 받으면서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요. **김**사령이 말씀해보시오. 그래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게 과연 투항이란 말이요?≫

최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정면으로 주시하였다. 그의 근엄한 얼굴은 주홍빛으로 급작스레 달아올랐다.

나는 최현의 손을 두 손으로 정답게 포개여잡고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게 왜 투항이겠소. 반일전선을 위한 옳은 처사인데…. 최현동무를 ≪민생단≫으로 몰아서 강직시킨건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허무맹랑한 짓이었소.≫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최현이가 할 짓이 없어 ≪민생단≫을 한단 말이우? 쌍간나새끼 같은 것들, 분통이 치밀어 못견디겠거든.≫

≪최현동무처럼 ≪민생단≫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거나 애매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요.≫

≪다 쌔노란 개수작이지. 그래 윤창범이나 박동근 같은 혁명가들이 어떻게 ≪민생단≫일 수 있단 말이요. 그 자식들은 일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가며 처형해놓고는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우쭐렁거리며 돌아다니더구만. 이런게 공산주의라면 애당초 연해주에 갔다가 간도땅에 오지도 않았겠소.≫

≪반≪민생단≫투쟁은 우리의 항일투쟁사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참혹한 수난이었소. 얼마나 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소. 다행히도 국제당에서는 우리가 다홍왜회의에서 표명한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동만당이 지도해온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였다는 것을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 수습책을 조속히 강구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소,≫

최현은 이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난 이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싶소. **김**사령, 고맙소.≫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전우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고 우리 혁명이 당한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봉창하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소?≫

≪옳습니다. **김**사령, 우리가 노력해서 그 누명을 메꿔야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말입니다.≫

나는 최현의 대답을 듣고 만족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군사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역시 밝은 지휘관이었다. 그 후 수십 년간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가 군사작전의 능수일 뿐 아니라 자기식의 일가견을 가진 무게있는 정치활동가라는 것을 확고히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유능한 군사작전가인 동시에 노숙한 정치일군이자 세련된 선동가이기도 하였다. 최현은 군사외교에도 능숙하였고 적군와해공작도 잘하였다. 그가 장악한 만주국의 군경들은 인민혁명군부대에 계통적으로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주고 적정도 수시로 통보해주었다.

최현을 싸움꾼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언

젠가 항일전쟁시기의 노병들이 ≪챠파예프≫란 쏘련영화를 보고 이런 소감을 나눈 적이 있다.

≪저 챠파예프란 사람은 신통히도 우리 최현대장 같구만. 최현대장이 챠파예프를 먹고 게운 것 같애. 말투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싸움하는 본때도 그렇고….≫

최현은 노기등등해서 그 말을 반박하였다.

≪챠파예프는 무슨 챠파예프, 최현이면 최현이지!≫

이 대답은 자기를 주먹구구식 군사지휘관으로만 보는데 습관된 동료들의 견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였다. 최현과 챠파예프를 동류항으로 놓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최현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가 무관이기 전에 유격대 정치지도원경력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경력을 가진 유능한 정치일군의 한 사람이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정열과 신심에 끓는 최현의 눈동자를 미덥게 바라보며 그의 손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씨앗이 열, 백, 천 사람을 얻고 천 사람이 만 사람을 얻는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사람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업이요. 이 대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호두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조국과의 접경지대인 장백지구, 백두산지구에 진출해서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해야 하오.≫

최현은 새로운 형태의 그거지라는 말에 상체를 성급하게 일으켜 세우고 눈썹을 여러 번 씰룩거렸다.

≪아니, 유격구를 방금 해산했는데 새 유격구를 또 건설한단 말입니까?≫

나는 최현에게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그 근거지가 종전의 근거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었다. 만사를 즉석에서 이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최현의 정치적 감수성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최현은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강력한 지레대로 되게 될 남호두회의의 방침들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은 최현을 비롯한 미혼진밀영의 모든 열병환자들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주었다.

≪열병을 앓는 동안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소. 병이 심할 때문 죽고싶은 생각도 났소. 죽으면 만사가 끝장이고 이런 고통도 더는 겪지 않을텐데 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잠길때도 없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김**사령을 만나는 바람에 그런 잡념이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소. **김**사령얼굴을 보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살아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배심이 생기오.≫

최현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가 나와의 상봉에 요란한 주석을 가한 것처럼 나도 그와의 상봉에 의미심장한 뜻을 부여하였다.

≪동무는 내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난 오히려 동무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소. ≪민생단≫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현이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지금의 정세에서는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로로 되고 있소.≫

그날 나는 이동백과 함께 밀영을 낱낱이 돌아보았다.

밀영의 의료조건과 식량형편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미혼진 가까이에 있는 1사 7중대 동무들이 가끔 식량을 공작해서 가져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끼니를 이어대기가 무척 힘들었다. 낟알이 떨어지면 죽도 없어 썩은 옥수수겨를 비벼서 끓는 물에 타먹곤 하였는데 그 거치른 음식마저도 노상 차례지는 것은 아니었다.

밀영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하였지만 그 김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한 몸의 안전밖에 돌볼줄 모르는 겁쟁이었다. 최현은 병원에 호송되어오자 그더러 밀영의 관리를 책임진 사무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가는 어구실저구실 붙여가면서 태공을 하였다. 밀영주변에는 1935년 가을 최현이 돈화지방에서 지주를 치고 노획해온 많은 식량과 부식물의 예비가 파묻혀 있었지만 그는 쌀이 없다고 우는소리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하루 한두끼의 콩죽마저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으며 몇 명 안되는 재봉대의 대원들에게 환자관리를 맡겨버리고는 병에 전염될가봐 10여리나 떨어진 다른 밀영에 가서 흰쌀밥에 고기반찬을 먹으며 호강을 하였다.

김가는 보초근무도 여대원들에게만 맡겨두었다.


허성숙

김철호, 허성숙, 최순산을 비롯한 미혼진의 여대원들이 그때 환자들의 시중을 해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였다. 밀영에 무슨 김부관이요, 곽부관이요, 유부관이요 하는 후방일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부공작을 하느라고 환자들의 뒤치닥거리를 할 경황이 없었다. 여대원들은 순번을 짜가지고 재봉일도 하고 보초근무도 서고 환자간호도 하였다.

주야로 고통에 시달리는 장티프스환자들은 신경을 칼날처럼 곤두세우고 시중군들을 들볶았다. 그들은 냉수를 마음대로 먹지 못해 모두 미칠 지경이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 당시 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는 장티프스환자들이 냉수를 마시는 것을 독약을 삼키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라는 여론이 떠돌아 치료에까지 적용되었다. 최현이 밀영병원에 냉수금지령을 내리고 그 금지령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여론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하지만 갈증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열병환자들은 막무가내로 냉수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병들의 눈을 피해가며 처마끝에 달린 고드름을 따먹었다. 빨치산의 규율앞에서 그처럼 공손하고 충실하던 사람들이 갈증앞에서는 참을성을 잃고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행동하였다. 여대원들이 냉수대신 죽사발을 주면 내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질을 하였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열병환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일축해버리곤 하였다. 환자들이 물독의 물을 마음대로 퍼마시지 못하게 두눈을 부릅뜨고 교대로 보초도 서고 이모저모로 감시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맹손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통신원이 갈증을 참다못해 물독을 향해 네발걸음 정신없이 기어갔다. 그날밤의 당번보초는 여대원 허성숙이었다. 허성숙은 맹손을 보자마자 허둥지둥 물독앞으로 뛰어가 그의 손에서 바가지를 나꿔챘다. 그리고는 온 병실이 떠나가게 큰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맹손동무, 벌써 명령을 잊었나요? 왜 죽고싶어서 그래요?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세요.≫

극한 점에 이른 맹손은 부뚜막앞에 놓여있던 장작개비로 허성숙의 종아리를 호되게 답새겨준 다음 물독의 물을 게걸스럽게 퍼마셨다. 그리고 나서는 온밤 모포를 뒤집어쓰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허성숙은 맹손이가 죽는 것 같아서 보초교대를 한 다음에도 잠을 못이루고 그의 곁에 앉아 밤샘을 하였다. 다른 환자들도 그가 졸경을 치를 것 같아 걱정하였다. 그러나 첫새벽이 되자 저승에 갈줄로 알았던 맹손이는 모포를 밀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성숙을 덥석 그러안았다.

≪성숙동무 고맙소. 나는 살아났소. 내가 물을 먹을 때 동무가 눈을 감아준 덕으로 열이 다 내렸단 말이요 그 많던 열이 다 어디로 갔을까?≫

≪땅구멍으로 새버렸지 어디로 갔겠나요. 이것 보세요. 모포에서 김이 풀풀 나지 않나.≫

허성숙은 땀에 푹 절은 맹손의 모포를 높이 쳐들고 병실을 둘러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모두 그 모포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냉수금지령은 취소되고 사람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미혼진의 수많은 열병환자들은 사경에서 벗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난 장티프스환자들은 여대원들과 함께 명절이라도 맞듯 음식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밀영주변에서 유부관과 함께 최현이 돈화에서 노획해왔다는 다량의 쌀과 육류를 찾아냈다. 그때부터 밀영사람들의 식탁에는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원정과 전투에서 단련된 전우들은 장기간의 원정에서 겹쌓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미혼진의 여대원들을 대신하여 날마다 보초를 서주었다.

사람마다 병마에서 구원된 기쁨을 안고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혼진에서 왕덕태, 위증민과 함께 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남호두회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 회의에는 김산호, 박영순, 김명팔을 비롯하여 인민혁명군의 중대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남호두회의결정은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활동무대를 만주일대와 조선반도 전역에 확대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들이었다. 이 과업들을 해결하자면 일련의 전술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장차 백두산지구를 조선혁명의 중심적인 책원지로 삼고 남북만주와 국내 깊이에까지 자유자재로 유동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공세와 정치활동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한 계단 더높이 승화시키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고리에서 사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당역량, 군사역량, 전민족적인 범위에서의 통일전선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혁명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최현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의 개편문제를 토의하고 새로 조직되는 사람들과 여단의 활동지대를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1개 사단, 1개 독립여단을 새로 편성하여 인민혁명군의 전투역량을 종전의 2개 사단으로부터 3개 사단, 1개 독립여단으로 대폭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부대별 활동구역을 분담하였

는데 새로 조직될 3사(후에 6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국경연안 일대에서, 1사는 무송, 안도, 임강 일대에서, 2사는 간도와 북만일대에서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새로 편성되는 독립여단은 북만주대방에서 유동작전을 하다가 점차 압록강연안에 진출하여 국경일대에서 출몰하는 적들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실로 짧은 시일안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2배정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전투적인 결정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군정간부들은 인민혁명군의 개편사업을 항일무장투쟁전반을 위한 진일보로 보고 이 조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집행대책을 토의하는 마당에서는 회의진행에 제동을 거는 잡음도 울렸다. 그 잡음의 기본주체는 간부부족에 대한 걱정이였다.

우리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의 개편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간부부족대문에 그 개편사업의 전도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생각이였다.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인민혁명군대오에서는 수많은 군정간부들이 제거되였다. 극단적군사민주주의의 후과도 간부부족을 조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였다. 적지 않은 현직간부들에게는 그때까지도 ≪민생단≫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인민혁명군의 여러 부대들에서는 지휘관을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무시로 울렸다.

우리는 대담하게 믿고 대담하게 등용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에 보낼 간부배치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에 따라 3사는 우리의 직속부대로 되였다. 안봉학은 1사 사장으로 유임되고 최현은 중대장으로부터 1사 1연대장으로 등용되였다.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조직문제도 논의하였다.

남호두회의를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획짓는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하면 미혼진회의는 동강회의, 서강회의, 남패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을 1940년대의 대사변으로 유도해 간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남호두를 떠난 급행렬차는 미혼진, 서강, 남패자를 거쳐 소할바령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였다. 미혼진, 서강, 남패자는 남호두로부터 소할바령으로 통하는 역사적인 노정에서 우리의 우정과 심혼이 아낌없이 뿌려진 잊을 수 없는 중간정류소들이다.

나는 연대장으로 승진된 최현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작별인사를 남겼다.

≪다음 번에는 백두산지구에서 만납시다. 건투를 바라오!≫

최현은 내 팔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강떼를 썼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팔을 놓아주지 않겠소. 나도 백두산쪽에 나가 **김**사령수하에서 싸우고 싶단 말이오.≫

≪최현동무, 낸들 왜 당신과 헤어지고 싶겠소.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다들 내 옆에만 오면 다른 부대는 어떻게 하겠소. 최현이나 최용건, 이학만, 한흥권과 같은 지휘관들이 큼직큼직한 전선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투쟁을 해야 우리 혁명이 넓은 판도에서 날개를 펴고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게 아니겠소. 나는 소꼬리가 된 최현이보다 범이 된 최현이를 보고싶단 말이요.≫

≪나 같은게 어떻게 범이 되겠소. 헛참!≫

최현은 ≪헛참!≫소리를 연발하고 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어딘가 먼곳을 응시하였다.

≪그럼 오늘은 내 더 떼를 쓰지 않겠소.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어림도 없소. 꿈속에서라도 이 최현이를 잊지 마시오. 나도 꿈을 꾸면 **김일성**사령관 곁에 있는 꿈을 꾸겠소.≫

나와 최현과의 세 번째 상봉은 무송현 서강 양목정자밀영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최현은 미혼진에서 매듭짓지 못한 흥정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었다. 나를 만나기 바쁘게 주력부대에 넘겨 달라고 뻘질을 하였지만 구경은 나를 설복시키지 못하였다.

최현은 일생동안 내곁에 있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의 그런 시도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다른 유혹에 매번 자리를 내주곤 하였다. 그 유혹이란 바로 내가 걱정하고 관심하는 가장 준엄한 최전선에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수정처럼 깨끗한 양심의 충동이였으며 헌신적인 복무정신이였다.

우리를 측근에서 받들어주고 싶어하면서도 우리가 부르는 가장 어려운 초소에 자기가 선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다른 일욕심, 여기에 바로 최현의 충신다운 면모가 있었고 그의 인간미를 장식하는 특출한 매력이 있었다. 그 두 가지 욕망은 한평생 그의 마음속에 쌍둥이처럼 동거하면서 끝없는 힘내기를 해왔다. 최현은 두 욕망을 다같이 지지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매번 내곁을 떠나 내가 중시하는 초소로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가곤 하였다.

이것은 분명 최현의 일생을 관통해온 유쾌한 모순이였다.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의 부장직에서 나의 사업을 보좌한 말년을 제외한다면 그의 온 생애는 초연이 자욱한 최전방에서 흘러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에만 하여도 수백번의 전투를 하였다. 삼도구전투, 5도구전투, 소탕하전투, 황구영전투, 금창전투, 붉은바위전투, 곰의자리전투, 간삼봉전투, 나루훈전투 노금창전투, 무치허전투, 프르허전투, 위탕거우전투, 천보산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요차전투, 한총구전투 등 수백회의 대소전투들은 모두 최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탁월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재능과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긴 비밀자료들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감때 사나운 사나이≫란 바로 그들자신이 최현에게 붙인 말이다. 일본군경들은 ≪사이껜부대≫가 왔다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사이껜≫이란 말은 적들을 공포에 몰아 넣는 무적장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건국의 그날에도 최현은 38도선 패말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최전연에서 무력으로 새 조국 건설을 보위하였다. 미제를 격멸하는 전화의 나날에는 전선동부에서 군단을 이끌었다. 조국이 지켜보고 인민이 지켜보는 격전장에서는 언제나 전사들을 돌격에로 부르는 최현의 자신만만한 구령소리가 울렸다.

최현이 멀리에 있을 수록 그는 나의 마음속에서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었다. 천리비린이라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격언이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서는 시공간의 크기가 문제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최현은 남보다 특별히 먼곳에 있으면서 나를 가장 가깝게 받들어온 충신이였다.

그는 벌써 건국운동을 할 때부터 수첩속에 내 사진을 끼워가지고 다녔다. 크기로 보면 보통성냥갑만치나 된다고 할가. 우스운 것은 사진임자인 나자신도 그 사진의 출처를 잘 모르고 있은 것이다. 아마 그가 여단장이 되어 38연선으로 떠날 때 정숙이를 구슬려서 얻어낸 것 같은데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현은 적구에서 2전선을 만들어 놓고 빨치산식으로 활동할 때에도 내가 그리워지면 그 사진을 꺼내보군 하였다.

한번은 최현이 적구활동에서 큰공을 세운 분대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는 표창을 주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 분대장의 이름은 김만성이였다. 김만성분대는 적후활동기간 22대의 스리쿼타와 28대의 포차를 포함하여 도합 50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노획하고 150여명의 적을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전과를 보면 가장

높은 급의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군공이였다.

그런데 최고사령부와의 연계가 단절된 군단지휘부에는 훈장도 없었고 표창장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결심만 하면 잠시도 우물쭈물할 줄 모르는 최현은 김만성을 호출하여 그에게 해방 직후부터 가지고 다니던 나의 초상사진을 수여해 주었다.

≪이건 훈장보다 더 쎈 표창이야, 너 알겠지? **김일성**장군님이 우리 나라 책임자라는 걸. 간도에서 빨치산투쟁을 할 때에도 장군님은 우리의 수령이였어. 그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이 사진을 간수하고 다니면 총알이 네 심장을 뚫지 못해.≫

이것이 내 사진을 주면서 최현이 한 전달사라고 할가.

그 후 최현은 최고사령부에 와서 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최현의 약을 올려주었다.


김철호

≪하여튼 최현은 어쩔수 없는 최현이구만. 그런데 김만성이란 그 분대장은 톡톡히 손해를 봤소. 아무렴 성냥곽만한 사진이 훈장을 탄것만치야 하겠소.≫

≪그건 너무 야박한 말씀입니다. 이 최현이 아니고야 누가 그런 표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군님, 사진은 사진이고 장군님도 한턱 내셔야겠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불의적인 역습이였다.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인전의 명수에게 걸려든 것이다.

병사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군단장아바이≫의 그 느슨한 도량은 눈물이 날 지경으로 나를 감동케 하였다.

≪옳소. 그렇게 합시다. 사진이야 최현동무 몫인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감사도 보내고 훈장도 줍시다.≫

이 하나의 물방울같은 세부를 통해 우리는 최현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된다. 이 일화에는 그의 고결한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최현은 대체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가 지니고 있던 인간적 매력을 더 충실하게 전달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더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초연에 걸고 비바람에 고삭은 그의 자서전은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과 사변들로 가득차 있다.

최현은 일평생 비관을 모르고 살아온 낙천가였으며 어떤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고 곧추앞으로만 돌진해온 탱크와 같은 사나이였다.

그가 사랑한 사람들은 어떤 형의 인물들이였던가? 솔직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근면한 사람, 대담한 사람, 성실한 사람, 통이 큰 사람, 뒤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필요한 결심을 내릴 줄 아는 사람…그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한 것은 아첨쟁이, 비겁쟁이, 건달뱅이, 수다쟁이었다. 그는 주머니를 1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꺼풀을 12개씩이나 쓰고 사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였다.

그가 이름난 장기광이라는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최현은 장기경기에서 한번 지고 나면 밥맛을 잃을 정도로 분해하였다. 그러나 그 누가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느라고 슬쩍 지거나 비켜주면 그보다 더 불쾌해하였다. 최현은 전국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영화애호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김정일**조직비서는 그에게 영사기까지 보내주었다. 최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전쟁영화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전쟁영화는 싫어하였다.

최현이 병석에서 임종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나는 여러 번 그를 찾아갔다. 병마와의 싸움에서 지칠대로 지친 그의 몸집은 10대전반의 어린소년들을 연상시킬 정


최현과 함께

도로 체소하고 볼품없이 보였다.

저 자그마한 사람이 과연 두 대전의 파도를 헤가르며 적들을 쩔쩔매게 하던 ≪감때사나운 사나이≫, 백전노장 최현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무판대기처럼 꽛꽛하던 손마저 힘살이 풀리고 장알이 빠져서 어린아이들의 것처럼 노곤노곤해졌다.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이것보 최현이, 그 호랑이 같던 ≪사이껜≫이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소?≫하고 말하자 최현은 갑자기 입술을 씰룩거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를 진정시켰다.

≪최현동무, 울지마오. 울면 기운이 빠지오.≫

≪수령님, 제 미혼진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미혼진, 그래. 어쩐지 그때가 그리워지는구만. 고생스러운 때였지만 우린 다들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이 아니었소. 가만, 최현동무의 그때 나이가 서른이었던가?≫

≪네, 지금의 계산법으로 하면 29살이었지요. 그때 수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맹세를 다지던 생각이 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수령님, 그

때 일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오. 왜 생각나지 않겠소.≫

≪그런데 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수령님,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내가 죄송스럽소. 내가 동무를 더 잘 돌봐주었더라면 동무가 이 지경이 되지 않는건데 내내 일만 시켰거든. 그것도 힘든 일만 골라가면서 말이요. 난 그것이 후회되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일평생 수령님께 폐만 끼쳤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수령님께서만은 건재하셔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수령님 몸을 좀 돌보십시오. 최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령님은 자신을 너무 돌보시지 않는게 탈입니다.≫

최현은 서거 직전까지 줄곧 나에 대한 말만 하였다고 한다.

나를 보좌하는 일군들이 문병을 갈 때마다 그는 ≪수령님께서 건강하시요? **김정일**조직비서동지께서 건강하시오?≫하고 묻곤 하였다.

나는 일생동안 힘든 일만 시키다가 최현을 보낸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하나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온 영화가 바로 예술영화 ≪혁명가≫이다.

가정에서의 최현의 공적은 처자들을 모두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충신으로 키워낸 것이다. 최현의 아내 김철호는 일생을 혁명으로 살아온 백절불굴의 투사였다. 그는 적구에서 지하공작도하고 우리와 함께 무장투쟁도 하였다. 여성의 몸으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준령과 임해설원에서 손에 총을 잡고 10년동안이나 적들과 겨불내나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북극탐험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김철호는 적의 토벌을 받는 순간 총소리에 놀라 눈무지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도 없이 제손으로 태줄을 끊고는 그 몸으로 다시 추격해오는 놈들과 총격전을 벌인 불사조 같은 여성이었다. 빨치산시절의 그 모진 고초를 얼마나 값높게 여기였던지 그는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식들에게 꼭꼭 통강냉이죽을 해먹이군 하였다.

최현이 김철호를 광명의 길로 이끌어온 충실한 발동기라면 김철호는 최현의 다사다난한 한평생을 백화로 뒤덮이게 해준 따뜻한 빛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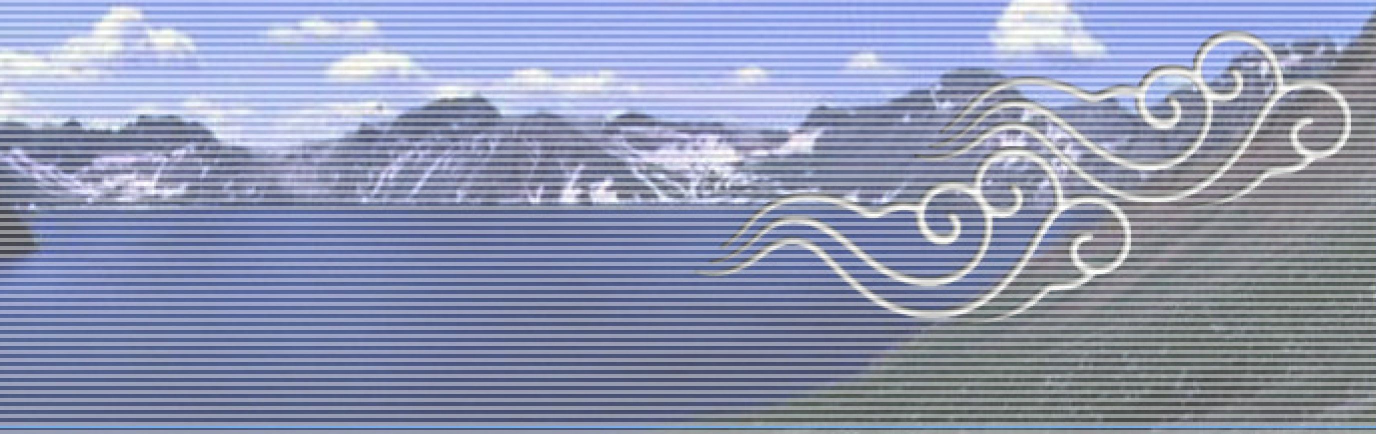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그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백두산의 눈무지 위에서 굴리는 심정으로 엄하게 키워냈다. 그가 낳아 기른 아들들은 지금 **김정일**조직비서가 세워준 초소에서 인민대중을 하늘로 보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혁명의 3세, 4세들을 충신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청년총대장인 최용해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 위대한 기념비로 남게 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치르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그는 자기 어머니 김철호가 서거한 그날도 장례식에 잠깐 참가하고는 인민문화궁전에 나가 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축제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사회의 법칙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백두산밀에서는 백두의 정기를 타고난 후대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1세들이 눈보라와 강풍속에서 심혼을 다바쳐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조선혁명을 2세, 3세, 4세들이 **김정일**조직비서의 영도밑에 충효일심의 정신으로 부단히 계승완성시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선열들의 그 이념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확신한다. 훌륭한 선열들의 품에서는 훌륭한 후대들이 자라나는 법이다.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 시기 : 1936. 3 ~ 1936. 5

1. 새 사단의 탄생

미혼진을 떠날 때의 우리 일행은 20명도 안되였다. 2명의 나어린 전령병과 오백룡을 포함한 10명의 호위성원들, 김산호와 화룡오지에서 서당훈장을 하다가 우리를 찾아온 ≪대통영감≫, 이들이 내가 거느린 식솔의 전부였다. 관지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온 왕청연대의 1개중대도 북만의 부대들에 합류하기 위하여 의란현방면으로 떠나갔다.

나는 비록 홀가분한 차림으로 길을 떠났으나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생각으로하여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어서 무송땅으로 나가자. 마안산에 가면 2연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그들을 기둥삼아 무적의 새 사단을 꾸리리라.≫

이것이 미혼진을 떠날 때의 나의 심정이였다.

새 사단을 조직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건적인 문제였다.

이제는 우리가 조선혁명에 주력하는 것을 어느누구도 감히 시비하거나 훼방해나설 수 없게 되였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탐색해왔고 축성해왔던 조선혁명의 궤도우에는 그 어떠한 차단봉도 가로질러 있지 않았다.

그 궤도를 따라 곧바로 질주해 나가면 조국광복이라는 경축광장에도 가닿게 되고 인민의 나라라는 별천지에도 가닿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자면 그 궤도우로 달리게 될 든든한 기관차와 차량들을 마련해야 했고 위력한 사령지휘처도 꾸려야 했다.

조선혁명의 선두기관차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새로 조직하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창립하려는 조국광복회는 그 기관차 뒤를 따라가는 열차차량에 비길 수 있었다. 미구에 타고 앉으려는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지휘처라고 할가. 우리는 이러한 과업수행에 지체없이 매진하여야 하였다.

그때 우리가 꾸리려고 구상했던 새 사단은 일제의 군대와 경찰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군사활동만을 벌이는 본래의미에서의 사단만이 아니였다. 이 사단은 군사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백두산에 나가 국내도처에 당조직망도 확대하고 조국광복회나 여러 가지 반일조직을 통하여 전망을 반일항전에 집결하고 영도해 나가야 할 정치군대로서의 새로운 임무와 면모를 갖추어야 했다. 물론 이런 임무는 다른 사단들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부대들의 앞장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역사단이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주역사단을 조선혁명의 기관차라고 특징지었다.

조선혁명의 기관차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강위력한 주력부대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나의 의논상대가 되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항일연군 각 부대들에 산재해 있는 조선청년들을 모조리 불러다 대집단군을 편성해가지고 백두산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군관하의 여러 부대들에서 끌끌한 유격대원들만을 특별히 따로 선발하여 주력부대를 꾸려야 한다고 역설하는 전우들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안들이였으

나 이런 의견의 제창자들은 예외없이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함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동무들 운명이나 우리의 공동투쟁의 발전전망 같은 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사고의 출발점을 주력부대부터 꾸리고 보아야 한다는데 두고 있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부대본위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결국 북만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수백 명의 원정대원들을 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들에 나누어주고 무송땅에 나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2연대사람들을 기본성원으로 하고 여기에 동만일대와 국내의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주력부대를 꾸리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미혼진을 떠나올 때 왕덕태는 적들의 목재소를 치고 노획해왔다는 말 스무나문마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였다.

≪공들여 키워온 용사들을 북만사람들에게 다 떼주고 이렇게 홀몸으로 떠나가는 **김**사령을 보니 미안하기 그지없소. 사람대신 이 말들이라도 타고가며 길동무로 삼아주시오. 훈련을 받던 말들 같은데 더러 쓸모가 있을거요.≫


연대정치위원
김산호

우리는 그 말들을 타고 남행길에 올랐다. 행군도상의 어느 휴식참에 그 말들을 세마리나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제멋대로 새초잎을 뜯어먹게 놔두었더니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청림속으로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나는 근처에 별다른 적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령병에게 공포를 한 뒤방 쏘라고 지시하였다. 총소리가 울리자 잃어졌던 세필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곧장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우리는 어느 한 산중에서 이전날의 처장즈유격구인민들을 만난 기회에 그 말들을 역축으로나 쓰라고 넘겨주었다.

북만의 소자지하골짜기로부터 시작하여 소백수골이라고 부르는 우리 나라 북단의 두메에 이를 때까지 반년이상에 걸쳐 진행된 이 해의 남하행군에서 제일 많은 곤란을 겪으며 애를 먹은 것이 바로 미혼진에서부터 마안산까지의 노상이었다.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데 도처에서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걸음을 지체시켰다. 우리는 미혼진을 떠난 다음날부터 매일 한두차례씩, 어떤 날은 서너번씩 전투를 치러야 하였다. 적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밥을 지어먹거나 꿰진 옷을 기워 입을만한 겨를도 주지 않았다. 밥은 굶어도 살지만 담배를 굶고는 하루도 못산다는 ≪대통영감≫이 종일토록 대통을 입에 물어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니 적들과의 교전이 어느 정도로 빈번했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이 돼야만 으슥한 데를 찾아서 가까스로 밥도 지어먹을 수 있었고 젖은 신발도 말려 신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에도 별로 쉬어보지는 못하였다. 인원이 너무 적다나니 보초조직조차 하기가 어려웠다. 한 교대에 적어도 문전초 1명, 바닥초 2명, 망원초 2명 정도는 세워야 하는 부상자와 간호자들을 내놓고나면 교대시켜줄 사람이 모자랐다. 그래서나도 대원들을 대신하여 여러 번 보초를 섰다. 보초소들을 순찰하던 김산호는 어느 날 밤 입초중인 나를 보고 무슨 큰 변이라도 난 것처럼 소동을 피웠다. 사령관이 대원들을 너무 어루만진다는 것이었다. 김산호가 그런 투정질을 할 때는 달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고 사정하였다.

제발 그러지 말고 어린 대원들을 좀 생각해보라.

낮에는 행군과 전투에 지치고 밤에는 밤대로 줄창 보초를 서야 하니 오죽 고단하겠는가. 내가 그들 대신 보초를 서준대야 몇 밤이나 서주겠는가. 마안산까지만 가닿으면 사람들이 수두룩 해질터이니 보초를 대신 서줄 기회도 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설복을 계속했대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김산호는 아무 말도 없이 보초소

를 떠나가 버렸다.

어서 마안산으로 가자!

마안산에 당도하면 무수한 전우들의 포옹과 따스한 안식의 보금자리속에 안겨들 것이며 그때면 자연히 그 동안 겪어온 간난신고도 끝장이 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희망찬 생각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매일처럼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남하행군노정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안도와 무송은 어느 골짜기나 어느 등성이할 것없이 다 낯익은 산천들이였고 일목일초가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고장들이였다. 송강, 홍륭촌, 쓰우리, 소사하, 유가분방, 푸르허, 대전자, 유수하, 남전자, 두지동, 말리허, 내도산 등지는 다 나의 청춘시절과 천갈래, 만갈래의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 낯익은 산천들을 수년만에 다시 밟아보는 나의 가슴에는 누를 길 없는 격정이 갈마들었다.

남하행군길에서 대서북차 서쪽 봉우리에 올랐을 때 불현듯 내앞에는 깊은 감회를 자아내는 희한한 전경이 펼쳐졌다. 봉우리앞에 앉은 자그마한 벽촌은 유격대창건준비를 다그쳐가던 나날에 내가 머슴으로 가장하고 지하공작을 하던 잊을 수 없는 마을이였다. 우리가 딛고선 봉우리도 그때 지하조직원들과 함께 발이 닳도록 다니며 모임을 가지던 곳이였다. 실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위돌 하나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유정한 고장이였다.

흘러간 옛일을 추억하며 연연히 뻗은 남쪽 산봉우리들을 더듬던 나의 시야에는 4년전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했던 소사하등판이 멀리 안겨왔다. 그 등판에서 얼마간 내려가면 양지바른 산기슭에 어머니의 묘소가 있다.

이 걸음으로 옛 발자취가 남아 있는 저길을 따라가서 어머니의 묘소에 절이라도 하고 무송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한 가닥의 애틋한 미련이 내 발목을 거머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떼장이 듬성듬성 어슬프게 얹혀 있는 어머니의 묘에 고별의 눈물을 뿌리고 토기점골을 떠난지도 어언 4년이 되어오고 있었다. 4년이면 떼장의 잔디도 어지간히 뿌리를 내렸으리라. 지금쯤 마른 잎새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을지도 모르는 애어린 싹들에 볼을 비비며 지하의 어머니와 잠간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애끓는 욕망이 불현듯 내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나는 일행이 다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냥 등성이에 서 있었다.

한식을 앞둔 절기여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덜 강렬해졌는지도 모른다. 양지촌의 아버지 묘소는 강제하선생네 집안사람들이 한 해에 두 번씩 찾아가서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한다고 하였는데 토기점골의 어머니묘소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장군님, 왜 산을 내리지 않습니까?≫

기슭으로 내려가던 최금산이 되돌아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제서야 명상에서 깨어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소사하에 어머니묘소가 있다더니 혹시…≫

최금산은 내 귓전에 두 손을 오그려붙이고 귀속말로 물었다. 내장까지도 속속들이 투시해보는 것 같은 어린 전령병의 놀라운 판단에 나는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옳아! 내 방금 어머니생각을 했댔지…≫

≪그럼 장군님, 산소에 갔다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갔다오고는 싶은 데 시간이 허락해야지.≫

≪소사하가 지척인데 시간이 바쁘다고 어머니 산소도 찾아보지 않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토기점골에 가면 동생도 있다는데…≫
≪설사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없는 몸이야. 어머니가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것 참 이상합니다. 왜 바라시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유언으로 내가 조선을 독립하기 전에는 무덤을 파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단다. 내가 지금 토기점골의 산소로 가지 않는건 그 유언을 존중하기 때문이지.≫
최금산은 그런 말을 듣고도 무엇이 못마땅한지 그냥 머리를 기웃거렸다.


최금산

≪무덤에 찾아가신다고 조선독립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 유언은 유언이고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자가 되지 못했다.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효자구실을 하고 싶은 심정이니 더 권하지 말아라. 크게 해놓은 것도 없이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냐.≫
김산호와 오백룡까지 합세해서 소사하행을 권유하였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토기점골의 어머니곁에 가 있었다.
나는 봉우리를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갈길이 너무도 총총해서 토기점골에는 들리지 못합니다. 사시장철 찬 눈과 찬비에 젖고 계시는 어머니의 분모에 흙 한줌 덮어드리지 못하고 풀 한번 깎아드리지 못한 채 안도땅을 밟고보니 송구스러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동안 아우들 건사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철주는 지난해에 전사했다는데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조선혁명앞에는 창창한 대로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마안산에 나가면 큼직한 사단을 하나 꾸리자고 합니다. 그 부대를 거느리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본때있는 싸움판을 벌이겠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지 못하면 어머니의 유언대로 묘소곁에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어이 조국을 되찾고 어머니를 만경대로 모셔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안산으로 행군을 다그쳤다. 그 마안산행에 걸고 있는 우리의 기대는 상당히 컸다. 그러므로 수해속으로 말안장같이 생긴 산발이 나타났을 때 다들 ≪마안산이다!≫하고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맨 먼저 우리를 맞아준 것은 인삼포전이였다.
그 밭머리에 허술한 귀틀집 두 채가 있었는데 모두 비어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깊숙한 골짜기에서 또 한 채의 자그마한 귀틀집을 찾아내였다. 두세 사람이 숨어사는 그 귀틀집에서 감자를 구워먹고 있던 1사 정치주임 김홍범을 만났다.
≪2연대는 어디있습니까?≫
≪이달초에 교하쪽으로 원정을 가고 없습니다.≫
김홍범의 천연스러운 대답이 나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느껴졌다. 2연대가 없다는 것은 남호두에서부터 벼르고 또 별러왔던 새로운 주력부대 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믿었던 나무가 거꾸러진 셈이었다.
2연대는 독립연대로 활동할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고려홍군≫이라고 소문난 순수한 조선인 부대들 중의 하나였다. 그 연대는 동만의 연길, 왕청, 화룡 등 각 현

유격구들에서 1개중대씩 선발해다 조직한 부대였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나와 연고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연대장인 윤창범이나 연대정치위원 김락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권영벽, 김주현, 오중흡, 김평 등 연대의 핵심성원들도 우리가 직접 양성해 낸 사람들이였다.

내가 마감으로 2연대 전투원들을 만나본 것은 1935년 5월, 그들이 나의 부름을 받고 왕청현 당수하자에 왔을 때였다. 10여일 그들과 같이 지내며 학습도 시키고 훈련도 주고 싸움도 시켜보았는데 그들은 내가 데리고 있던 부대사람들 못지 않게 발전이 빨랐다. 바로 그들이 처창즈 유격구를 최후까지 잘 방비고수하여 ≪불굴의 처창즈≫라는 실화전설을 창조해 낸 영웅들이었다.


윤창범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떠나고 처창즈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 2연대는 남만으로 진출했다가 이 해 초에 안도현 내도산을 거쳐 무송현 마한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마한산에 지휘부와 후방기지를 두고 겨울동안 무송지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남호두에서 알게된 2연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였다. 내가 마안산으로 나올 때 북만원정대 전원을 남들에게 다 떼준 것은 2연대를 접수하면 그것을 모체로 하여 새 사단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타산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2연대에 보낸 우리의 통신은 받지 못했소?≫

나는 미혼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이곳에 통신원을 파견하여 2연대가 자리를 뜨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를 보냈다.

≪받지 못했습니다. 2연대가 원정을 떠난 다음 여기엔 누구도 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원이 중도에서 무슨 불상사를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설사 그가 무사히 와 닿았다 해도 없는 2연대를 만나낼 리도 없었을 것이다.

≪연대가 교하쪽으로 원정간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오?≫

≪건 저도 …≫

≪언제쯤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었소?≫

≪없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갔소?≫

≪대장 장전술동무와 연대정치위원 조아범동무입니다.≫


김락천

≪다 원정가고 없으면 마안산에 남은 건 동무들뿐이오? 동무들은 여기서 남아서 무얼하고 있소?≫

내가 화제를 바꾸어 이렇게 물었을 때 김홍범의 입에서는 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저 삼포밀영에 백여 명이나 되는 ≪민생단≫이 있습니다. 그자들을 감시하느라고 제가 남아있지요.≫

≪무슨 ≪민생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요? 삼포곁에 있는 귀틀집은 텅비어 있던데≫

≪≪민생단≫ 혐의자들은 지금 임강 마의하쪽으로 식량구하러 가고 없습니다.≫

≪식량공작을 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무슨 ≪민생단≫이겠소?≫

≪그것들을 굶겨죽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민생단≫이 확실하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소?≫

≪증거문건이 다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백서, 진술서, 심문조서…≫

김홍범은 컴컴한 방구석에서 큼직한 문서보따리를 끌어냈다.

≪이게 다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 ≪민생단≫문서보따리가 2연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만난을 무릅쓰면서 불원천리하고 달려온 나에게 안겨준 마안산의 대결이였다. 문서보따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방한칸에 가득차 있었다.

떠들썩한 함성과 격정적인 포옹대신에 곰팡내가 물씬 풍기는 범죄기록뭉테기를 받아안게 된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기만과 우롱속에 빠져든 것 같아 몸이 떨렸다.

≪민생단≫이라는 말마디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유격구에서 살판치던 ≪민생단≫마귀가 살아돌아가며 숱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단말인가? 그리고 고물단지같은 이 문서보따리는 어떻게 되어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거듭되는 논쟁이 있었던지도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다. 국제당에서 내린 판결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달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판결내용이 여기까지 미처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생단≫이 허구라는 절규가 동만땅을 진감한 지도 오랜 지금에 와서까지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감행되는 광대놀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상상밖이였다.

김락천같은 사람마저 다 쓸어뜨리고도 무엇이 또 모자라서 100여명이나 되는 생떼같은 사람들을 잡으려 드는가?

나는 김산호에게 임강 마의하방면에 지체없이 통신원을 파견하여 그들을 전부 데려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풀어헤쳐놓고 한장한장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밤잠도 자지 않고 문서장들을 뒤져보았다. 다음날도 계속 뒤지고 또 뒤졌다. 그 문서장들을 뒤져갈수록 나는 차츰 더 깊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 종이장들에는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상들이 너무나도 생동하게 기록되어있었다.

나는 문서장들을 탁 덮어버렸다. 그것을 뒤지는 것은 백해무익한 짓이였다. 그 종이장들을 믿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잃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어떤 잉크나 다 받아들이는 백지장의 글을 믿을 수는 없었다.

임강현 마의하쪽에 가 있던 ≪민생단≫혐의자들은 우리의 연락을 받자 험준한 용강 산줄기를 넘어 수백리길을 단 이틀사이에 와 닿았다.

≪민생단≫혐의자들이 삼포밀영 귀틀집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곧 김홍범을 데리고 그들을 찾아갔다.

성에가 하얗게 낀 귀틀집 문을 열자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정녕 격정도 환성도 눈물도 없는 야릇한 상봉이였다. 나에게 경례를 붙이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 보고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쥐죽은듯한 정적과 침묵만이 무겁게 방안을 감돌고 있었다. 얼마나 짓눌렸으면 쳐다볼 권리, 인사할 자격마저 잃은 것인가. 설사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한들 저다지도 기가 꺽이고 저다지도 험상스러울 수 있는가?

≪그 동안 동무들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다.≫

어쩐지 말이 목에 걸려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동무들을 대하고 보니 그 동안 모두 안녕했는가 하는 말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무들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만나고 싶어 멀리 북만의 경박호반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인사말에 대한 반향은 어느 구석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숨소리 기침소리 하나 없는 침묵뿐이였다. 항일전쟁을 진행해 온지 만4년 세월이 되어오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맞아준 예를 한번도 없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2연대 동무들을 만나서 새 부대를 꾸려가지고 백두산에 데리고 나가 싸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여기와보니 쓸모있다는 사람들은 다 교하쪽에 원정을 가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몹쓸 사람들뿐이라고 했다.

나는 동무들에게 붙어있는 ≪민생단≫혐의문서장들을 뒤져보았다. 그걸 봐서는 동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없다. 나는 문서장만 보고 동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이 제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견해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동무들이 스스로 속심을 툭 털어놓고 얘기해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를 보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 보라.


이두수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두텁게 얼어붙어있는 침묵의 얼음장은 좀처럼 깨뜨려지지 않았다.

나는 맨 앞자리에 있는 한 청년에게 동무부터 대답해보라,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게 사실인가고 따져물었다.

그는 머리를 수그린채 주밋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네,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눈물을 쏟고 가슴을 두드리며 절대로 ≪민생단≫이 아니라고 절규하기를 기대하였다. 그 청년의 대답은 실망만 자아냈다.

나는 키가 큰 다른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그럼 이두수동무가 말해보라.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강원도 춘천출신의 그 젊은 소대장은 일제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있는 사람이었다. 이두수의 오른쪽 허벅다리에는 푸릇푸릇한 상처자국이 있었다. 언제인가 내가 어느 전투에서 부상당한 자리인가고 물었더니 개한테 물어뜯기운 자리라고 하였다.

그가 여라믄살 되든 해였다고 한다. 노상 죽으로 끼니를 애우고 있던 보리고개 무렵의 어느 날 두수는 한 숟갈의 소금조차 없어서 죽가마에 소금을 넣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푸나무 석 단을 해지고 장마당으로 내려갔다. 나무 석 단을 파니 소금 한 되가 되었다. 그는 소금자루를 지게 다리 꼭대기에 데룽데룽 매달고 의기양양해서 자기마을로 향했다. 어느 일본인의 집앞을 지날 때 불시에 사나운 세파트가 그에게 달려들어 허벅다리를 물어메쳤다, 그를 물라고 개를 부추긴 일본인 소년은 집안으로 숨어버리고 그 집 출입문에는 안으로 빗장이 질러졌다. 주인집철사에 격분한 목격자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두수를 업고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를 하고 고소를 하였다. 살점을 뭉청 뜯기운 허벅다리의 상처는 험상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두수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혜택을 입어보면서 거기서 내내 흰쌀밥생활을 하였다. 죽에 신물이 난 더꺼머리소년은 흰쌀밥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상처가 빨리 아물까봐 조마조마해 하였다. 그는 입원생활이 자기자신과 자기가정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치료비는 개주인이 보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얼마후 병원에서는 돈을 물지 않으면 그 이상 입원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치료비는 자그마치 20원이나 되는 뭉치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두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들은 번갈아 개주인과 경찰서와 병원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사정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제소도 하였다. 그러나 어디서도 피해자의

하소연과 항의와 제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개한테 물린 책임은 물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네들은 모두가 조선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일본사람들이였다.

결국 이두수는 20원의 빚을 내여 병원에 바쳤다.

그 빚이 새끼를 치며 덧붙고 또 덧붙어서 이태 후에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으리만치 엄청나게 불어났다.

빚단련 때문에 더는 춘천땅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두수네 일가는 정든 고향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빚쟁이들은 야밤도주하는 일가족을 20리나 뒤쫓아가서 할머니의 보퉁이속에서 최후의 가산인 명주 한 필마저 다 빼아냈다.

한때는 사랑채와 행랑채까지 달린 팔각지와집에 몇 정보의 농토까지 갖추어놓고 뭇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속에 살아왔던 이왕조가문의 후예들은 왕조도 나라도 집도 다 빼앗기고 최후의 천필마저 다 빼앗긴 채 순전한 알거지가 되어 유랑의 길에 올랐다.

이국살이는 떠나가는 어린 두수의 가슴에 망국의 설움과 이향의 슬픔을 심어준 것은 원산발 청진행 화륜선식당에서 밥을 날라다 주던 접대원들의 구슬픈 목소리였다.

이국살이를 떠나가는 여러 분네들의 설움과 슬픔은 구천에 닿고 유랑객들이 흘려온 피눈물은 동해물만 못지 않지만 한숨과 눈물로는 살길이 열리지 않으니 슬픔을 참아가며 조국의 쌀과 조국의 물로 지은 하직밥을 잡수시오. 그렇게 여쭈는 접대원의 동정어린 몇 마디 말이 소년 이두수의 목을 메게 하였다.

왜놈들 때문에 나라도 빼기고 집도 고향도 다 잃고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온 그의 뇌리속에는 왜놈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는 서리찬 생각이 꽉 들어찼다. 그는 장차 자기가 어른이 되게 되면 조선의 하늘아래서는 왜놈은 물론, 왜놈들의 개 한마리, 고양이 한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이두수는 어른이 채 되기 전에 총을 잡고 유격대오에 들어섰다.

이런 사람이 ≪민생단≫에 들어갈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런데 이두수 역시 전사람과 꼭같은 대답을 하였다.

≪네, ≪민생단≫에 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왕청 이수구골의 ≪민생단≫감옥에 찾아갔을 때 장포리가 나에게 했던 첫대답과 같은 소리, 같은 태도였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분기를 억누르며 ≪민생단≫에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만사람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는 떠듬거리며 자백서와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였다.

≪민생단≫에 들게 된 과정 이야기를 하는 이두수의 말은 얼마나 사개가 잘 맞아떨어졌던지 의심할 여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생단≫ 혐의자들은 모두가 일치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였다.

나는 인내성을 가지고 재차 이두수에게 물어보았다.

≪동무, 동무는 일본사람이 기르는 개 때문에 빚도 자고 집도 잃고 고향도 잃었다. 일본사람네 개가 동무의 살점만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열 사람도 넘는 동무네 일가족의 생활도 다 파헤치고 짓뭉개놓았다. 동무는 일본개 때문에 개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 그런 동무가 이제 와서는 스스로 원쑤놈들의 품에 안겨 자기 동포들을 잡아먹고 자기 동지들을 물어먹는 미친 개노릇을 한다는 것인게 과연 그런가? 동무가 적들의 뜨물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면서 적들의 개노릇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두수는 눈물만 떨어뜨리며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였다. 입술을 깨문 채 오열로 전신을 떨 뿐이었다.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은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는 저주

스러운 그 귀틀집에서 물러나왔다. 신선한 대기는 차츰 답답하던 가슴도 열어주고 울기도 식혀주었다. 흐리터분하던 머리속이 한결 맑아졌다.

≪민생단≫혐의자들과의 담화에서 나는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형장에 끌려간 우리 투사들은 대부분 중세기의 종교형벌을 방불케하는 악형을 당하면서도 ≪모른다≫는 한마디의 말로 자기가 한 일도 안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결단은 사형선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는 안한 일도 했다고 대답하며 아닌 것도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숲속을 거닐며 ≪민생단≫혐의자들이 자살적인 대답을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저 사람들이 모두 ≪민생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될 수 없고 땅이 하늘로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진리이다. 그런데 어째서 저 동무들은 ≪민생단≫에 들었다고 말하여 ≪민생단≫ 책동을 하였다고 저절로 죄를 뒤집어쓰겠는가?

가야허마을의 박창길소년도, 마촌의 장포리도 이미 자신들이 토설한 허위진술을 사실이라고 우겨댔다. 이런 괴이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민생단≫혐의자라는 올가미에 홀쳐든 첫순간에는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이 ≪민생단≫에 든 일이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 진정, 그 진심의 토로가 그들에게는 더 큰 화를 가져왔다. 진정은 가식으로 인정되고 진심은 기만으로 인정되고 솔직성은 교활성으로 인정되었다. 진정의 고백이 반복될 수록 가상적인 죄상은 더욱더 엄중한 것으로 확대되고 고문은 정비례로 증대되었다.

야수적인 고문과 번뇌가 극한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이질적 변화가 생기겠는가?

몇 해동안 한 지붕밑에서 동고동락을 해온 혁명동지들한테서 불신을 당할 바에야 구태여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살려면 총을 집어던지고 산에서 내려가 귀순문서장에 도장을 찍거나 적의 앞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명색이 공산주의자인 우리가 그런 배신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처분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식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한테서 받는 억울한 오해와 불신, 이것이야말로 100명의 빨치산 장정들을 극단적인 절망과 자포자기에로 몰아넣은 근원이였다.

돈이나 이윤추구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이념의 공통성에 의해서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혁명가들의 집단에서 믿음은 그 집단의 통일단결과 공고한 발전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생명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집단의 매개 성원들은 믿음의 힘에 의하여 동지를 사랑하게 되며 믿음의 힘에 의하여 상급이 하급을 아끼고 하급이 상급을 존대하는 공산주의적 의리가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

믿음은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믿음이라는 무기로 동지들을 얻고 인민을 묶어세웠으며 오늘도 역시 사랑과 믿음이라는 힘있는 수단으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유지해 가고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믿음은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튼튼한 초석으로 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를 믿어주고 동지들이 자기를 믿어줄 때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대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조직이 자기를 불신하고 동지들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최악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돈이 없이 살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믿음없이 살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서 믿음은 사회관계의 총체로 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의 존재방식으로 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를 믿어주고 동지들이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과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무진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불신은 역적을 낳는다는 격언은 이런 이치를 반영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며 공동투쟁을 벌이던 항일전쟁시기 우리 대오에서 믿음의 원리를 파괴한 ≪민생단≫보따리가 오직 조직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혁명에 뛰어든 투사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 당시는 적아간에 특별한 계선이 따로 없었다. 고개 하나를 넘어가도 적이요, 강하나를 건너가도 적이였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희들끼리나 실컷 혁명을 해라 하고 적구로 달아나버리면 다였다. 무고한 혁명동지들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우는 것은 그들을 모두 적진으로 차던지는 것과 같은 망동이였다.


김확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신의 올가미로 되고 있는 부당한 ≪민생단≫혐의를 벗겨주고 그 올가미를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말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소생시킬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실천행동뿐이였다.

나는 수림을 빠져나와 다시 귀틀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나무뒤에서 한 여대원이 불쑥 내앞에 나타났다. 키가 늘 같아 보이는 그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장군님, 저는 ≪민생단≫이 아닙니다!≫

여대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의 말은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나에게 주었다.

≪저는 ≪민생단≫혐의를 받았던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민생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는 ≪민생단≫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민생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왜놈들의 간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철구어머니도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민생단≫으로 몰렸습니다.≫

이 용감한 여대원이 훗날 무송현성전투때에 적을 단꺼번에 여섯이나 찔러눕혀 ≪여장군≫이라는 별호와 함께 금반지표창을 받은 김확실이였다.

화전민의 딸인 그는 처창즈에서 유격투쟁에 참가하였다. 처창즈유격구의 동남차 수림속에는 박영순이 책임지고 있는 무기수리소와 재봉대성원 20여명의 식사를 보장하였다.

어느 날 무기수리소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수리소건물은 일시에 폭연과 불길에 휩싸였다. ≪민생단≫이라는 오명을 쓴 탓으로 무장대오에서 쫓겨나 무기수리소에 와서 일하던 강위룡이라는 청년이 보총탄알 재생작업을 하다가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폭음에 놀라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마저 경황없이 작업장을 떠난 다급한 정황속에서 불길을 헤치고 수리소안에 뛰어들어 실신한 화상자를 업어내온 것은 작식대원 김확실이였다. 강위룡의 화상자리는 험악했지만 군의는 화상당한 얼굴에 소독수를 붓고 쭈그러붙은 낯가죽을 뜯어낸 다음 와셀린을 바르고 붕대를 처매주는 것으로 처치를 끝마쳤다. 그 다음부터는 김확실이 간호병이 되어 종이에다 밀을 녹여 환자의 상처에 붙여주고 눈곱을 뜯어주고 발을 씻어 주었다. 정성끝에 확실은 총각을 사랑하게 되었다. 총각도 역시 그를 사랑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결혼문제가 상정되었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오발사고 때문에 ≪민생단≫혐의자로 된 강위룡은 애인에게 누가 미칠 것을 염려

하여 비밀약혼만 하고 공식적인 결혼은 주저하였다. 박영순과 박수환은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 일단 언약이 되었으면 냅다 밀라고 그들을 부추겨주었다. 거기에 고무된 연인들은 처창즈인민혁명정부에 찾아가서 결혼등록을 하였다. 이 결혼이 문제시되었다. 숙반공작위원회에서는 ≪민생단≫혐의자와의 결혼을 ≪민생단≫의 수를 배가시켜주는 반혁명적인 이적책동으로 간주하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은 결혼한 지 반달도 지나지 않아서 김확실을 강위룡의 곁에서 떼어내여 멀리 왕바버즈쪽으로 추방하였다. 조직생활에도 참가시키지 않고 죄인취급을 하였다. 그러다가 ≪민생단≫혐의자들속에 걷어넣었다.


강위룡

애인과 강제이별을 당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다음 김확실은 강위룡이 무기수리소와 함께 근처에 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으나 조아범이나 김홍범의 승인을 받지 못한 탓으로 애인과의 짧은 상봉마저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후 강위룡은 조아범에게 끌려 2연대를 따라 교하원정을 떠나고 말았다. 원정대에 무기수리기술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끼여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민생단≫혐의자인 강위룡을 교하로 끌려가게 하였다.

≪강동무가 진짜 ≪민생단≫이라면 저는 결혼은 고사하고 불속에서 업어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적들의 토벌에 부친과 형제들을 몽땅 학살당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했구요. 오죽하면 구국군들까지 군중심판장에서 그 동무를 두둔했겠습니까.≫

나는 김확실이 그런 고백을 해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김확실은 장철구와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죄인으로 된 셈이었다.

나는 김확실을 데리고 귀틀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아까와 다름없이 머리들을 떨어뜨린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장내를 둘러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동무들, 머리를 들라. 나는 동무들의 죄를 따지고 판결을 내리자고 온 사람이 아니다. 백두산에 나가 함께 싸울 전우들을 찾아온 사람이다. 나는 전우들을 찾아왔고 혁명동지들을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무들은 모두 나의 전우로 될 수 없는 친일역적들이며 반동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동무들이 ≪민생단≫에 들었을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한테나 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산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스럽게 지내겠는가? 집에 가서 안해나 남편을 얻어가지고 뜨뜻한 구들에서 지내며 농사나 하면 편안할 텐데 무엇때문에 산에서 고생하겠는가? 어디 한번 동무들 스스로가 말해보라. 과연 동무들이 일제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이나 일부러 사서 고생해왔는가? 과연 동무들이 음산한 만주광야 빙천설지에서 풍찬노숙해온 것은 일본의 개가 되어 자기의 혈육들과 동지들을 해치기 위해서였는가? 이두수동무, 말해보라. 동무는 허벅다리를 물어뜯던 일본사람네 개 같은 짐승으로 번지고 싶어 고생스레 싸워왔는가?≫

그러자 이두수는 오열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제가, 제가 어떻게 왜놈의 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왜놈의 개가 아닙니다! ≪민생단≫이 아닙니다!≫

순간 귀틀집 여기저기에서 일시에 함성이 터져나왔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장내에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낸 자들을 저주하고 규탄하며 숙반의 총대밑에서 당해온 설움을 하소연하는 일종의 집회같은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주먹을 흔들고 눈물을 뿌리며 가슴속에 서리서리 맺혀있던 사연들을 토설하였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김홍범을 불러 ≪민생단≫문서보따리를 가져다 불사를 준비를 해놓으라고 일렀다. 김홍범은 펄쩍 뛰었다.

≪숙반공작위원회에서 작성한 법적 문건들인데 그걸 어떻게 승인도 받지 않고 함부로 없앤단 말입니까? 그걸 태웠다간 큰 변이 납니다.≫

김홍범은 무장대오에 들어서기 전부터 전문적으로 당사업을 한 오랜 정치일군이였다. 그는 열길사범학교 출신이였다. 지식도 있고 일정한 사업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창발적으로 사색하고 능동적으로 판단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법을 거들지 말고 어서 가서 ≪민생단≫문서보따리나 가져오시오. 남이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소.≫

≪조직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작성된 문건인데 어째서 그걸 없애는 걸 보면서도 가만 있었는가고 따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장군님도 곁에 안계실텐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랍니까?≫

낯색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진 김홍범은 두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법적 성격을 띤 문건을 어느 개인이 자의적으로 소각해버리고 무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하였다, 이런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사변일 수 있었다.

그러나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에게 부당한 의심과 절망밖에 안겨줄 것이 없는 그 죄악의 문서보따리를 흔적조차 없게 소각해버리려는 나의 결심은 드팀없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숙반운동을 조직지도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 당사자들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치른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였다. 필요하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죄다 ≪민생단≫의 조작으로 볼 막강한 권한과 무제한한 권력을 가진 숙반의 하수인들은 심문조서 한 장을 불태우는 죄과만으로도 나에게 열백 번의 징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런 선고로써 반≪민생단≫투쟁문제를 국제당에까지 제소한 나에 대한 앙갚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다

나는 김산호를 시켜 그 문서보따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리기로 결심한 것은 참으로 내 용단이였다.

나는 나 하나의 목숨을 바쳐 100여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결의에 넘쳐 있었다.

문서보따리를 소각할 준비를 해놓고 집회를 결속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은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명백히 선언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무들 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동무들이 한 그 말을 믿는다. 동무들은 이 시각부터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다 새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끗치 못했던 과거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무들의 혁명가로서의 진가는 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행동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무들은 지금 다같이 인생의 백지를 나눠가지게 되었다. 그 백지에 얼마나 고귀한 삶과 투쟁의 기록을 남기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무들 자신에게 달렸다.

모두가 새 출발하여 조국과 인민과 역사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투쟁행적을 그 백지장들에 적어놓게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 시각부터 동무들을 그토록 괴롭

혀왔던 ≪민생단≫ 혐의가 완전히 무효하다는 것은 언명하는 동시에 동무들 모두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오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포한다.≫

나는 ≪민생단≫혐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선발하여 마당 한복판에 문서보따리를 쌓아놓게 한 다음 불을 달았다.

그 문서장들에 불을 달면서 나는 비단 ≪민생단≫혐의자들의 불명예스러웠던 과거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의 정신적 근원으로 되는 인간증오관념, 인간불신관념을 불태워 영영 없애치우고 싶었다.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민생단≫증거문서장들을 불태워 버리던 일이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불을 지필 때 내가 마음속으로 기원한 것이 아마 너무도 크고 심각한 것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필

문서보따리에 불길이 타오르자 대원들은 모두 통곡을 하였다.

그때 그 불길을 지켜보며 울음바다를 펼쳤던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대열안에서는 진정으로 서로 믿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새로운 기풍이 생겨나게 되었다. 심지어 김홍범이마저 다른 사람으로 번지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후식 겸 사냥을 조직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된 김홍범은 호신용으로 갖춰두고 있던 100여발의 보총탄환을 그들 앞에 내놓았다. 바로 전날까지도 수인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의 호신용탄환 전부를 희사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원래 그들에게는 막대기정도의 구실밖에 할 수 없는 쓸모없는 토통같은 무기와 누기 차고 녹이 쓸어 못쓰게 된 서너발의 탄알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탄피에는 나무로 만든 가짜총알만 끼워 있었다. 온전한 무기와 탄알을 주게 되면 그들을 불신하고 학대한 자기들에게 어떤 보복을 가할지 몰라 두려워했던 것 같다.

재가루만 약간 남은 ≪민생단≫문서장들의 흔적을 굽어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김홍범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장군이 여기에 불을 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속이 너무 떨려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각현장에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위법대죄의 공모자로 몰려 목이 달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까?≫

≪선행을 지지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은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의 인사는 제가 올려야겠습니다. 장군은 저도 새 인간으로 갱생하도록 구원해주었습니다. 제게도 은인으로 돼준 셈이지요.≫ 그런 말을 듣기는 퍽 그나 거북스러웠다. 김홍범은 나보다 나이가 더든 사람이었다.

≪젊은 사람을 앞에 놓고 비행기를 태우는 과언은 그만두시오.≫

내가 이런 핀잔을 하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군의 그 도량과 큰 심장이 진정으로 부럽습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취주는 말은 그만하고 오늘은 우리도 같이 사냥이나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김홍범도 명랑한 기분으로 나의 제의에 호응해 나섰다. 그날의 사냥은 참으로 별재미였다. 나는 호위성원들의 총을 그들에게 모조리 빌려주어 그들이 온전한 총으로 한방씩 다 갈겨보게 했다.

몰이군이 많은 덕에 그날 사냥에서는 자그마치 7-8마리나 되는 메돼지와 노루를 잡았다. 여대원들 중에서는 김확실이 단발명중으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사냥해온 산짐승고기들과 얼마간 남아있던 통강냉이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그날 저녁을 푸짐히 차리도록 했다. 만찬 뒤에는 오락회도 조직했다.

마안산 삼포밀영의 퇴락한 귀틀집에서 가진 그날의 만찬회와 오락회는 더없이 검소한 것이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연대를 모체로 하여 조직하자던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새 사단은 이처럼 죄악에 찬 불신의 문서장들을 한줌의 배로 만드는 불길속에서 태어났다.

≪민생단≫문서보따리가 불타 없어지고 새 사단이 태어났다는 소문은 삽시에 사방으로 퍼져갔다. 곳곳에서 숨어지내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로 찾아왔다.


김택환

맨먼저 찾아든 것이 대첨창골짜기에 숨어있었다는 화룡출신의 반일자위대원들이였다. 그 사람들속에 후날 사령부 전령병으로 된 백학림과 꾀꼬리로 소문난 김혜순이도 끼여있었다.

박록금(본명 박영희)이 우리를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새사단 안에 잠정적으로 존재했던 첫 여성중대의 중대장이 되었다.

무송현 노모정자에서는 장티프스에 걸려 앓고 있던 청년들이 새 사단에 편입되었다. 그 청년들로 1개 소대를 조직해주고 김정필을 소대장으로 임명했다. 안도현 오도양차부근 수림지대에서 활동하던 김주현이네도 우리를 찾아왔다. 처창즈 방면에서는 김택환이네 소부대가 달려왔다.

나는 정식으로 연대들과 중대들을 편성하였다. ≪보따지≫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이동학이와 김택환이한테는 각각 중대장의 직무를 주었고 김주현에게는 정치지도원직을 맡겼다. 주력부대 연대정치위원사업을 하게 된 김산호는 그때부터 노상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게 되었다

마안상에 와닿았을 때가지만 하여도 열댓밖에 안되던 우리 대오가 동강에 이르러서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우리는 새로 조직한 주력부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민생단≫혐의자들이 가지고 있은 무기의 대부분이 토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나는 10-15명 규모로 조를 조직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주면서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들에게 이제부터 한달 사이에 총탄도 보충하고 총도 바꾸어 메고오라, 총은 일본놈들에게 얼마든지 있다. 숲속에 엎디어 있다가 적들이 지나갈 때 달려들어 총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총도 한방씩 쏘면서 무기를 빼앗으라고 하였다. 그 때 그들은 다 총창을 한 개씩 차고 다녔다. 그들은 한 달이 아니라 보름만에 다 돌아왔는데 총탄도 보충하고 총도 새것으로 바꾸어 맸다. 어떤 대원들은 기관총까지 빼앗아 메고 왔다.

나는 그들을 기본으로 하여 연대를 조직하였고 후에는 이 연대를 조직하던 경험으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다 6사와 2방연군도 조직하여 가지고 일제와 싸웠다. 우리가 주력부대의 무장장비를 단꺼번에 몽땅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난차를 친 후 서강전투를 치른 다음이였다. 그 전투를 하게 된 목적의 하나가 부대의 무장장비를 일변시키려는데 있었다.

서강에는 1개연대와 위만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 연대의 그쯘한 무장이 우리

의 구미를 당겼다.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고장인데가 주변은 울창한 수림이 망망대해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불의습격을 하기에는 유리한 대상이였다. 적들도 그런 허점을 고려하여 병영주변에 아름드리 통나무들로 세 길이나 되는 성을 둘러쳤고 그 성의 네 귀퉁이에는 포대까지 구축해놓고 있었다.

전면공격으로 성내에 돌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나는 화공전술로 적진에 혼란을 조성하고 적들을 위압하여 항복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적병영들은 완전한 목조건물이였다.


이동학

나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 김택룡을 비롯한 수류탄던지기 명수들을 시켜 석유를 묻힌 솜뭉치에 불을 달아 적병영지붕들에 던지게 하였다

초여름 보슬비가 내린 탓에 젖은 지붕에는 쉽게 불이 달리지 않았으나 화공전술은 성공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항복하면 살려줄테니 총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함화를 들이댔다. 그러나 적들은 완강한 방어전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몇 명의 대원들을 적지하 포대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민가에 보내어 그 집 부엌으로부터 지하포대 밑으로 굴을 파게 하였다. 한편 정찰병들을 시켜 위만군연대장의 장모를 데려오게 되었다. 우리는 노파에게 사위을 설복하여 무모한 저항을 그만두고 무기를 바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노파는 우리의 권고대로 기꺼이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사위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나왔다. 위만군연대장은 대원 절반을 데리고 무송으로 갈 수 있게만 해주면 투항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제기를 일축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투항을 요구하였다. 재차 사위를 만나고 나온 노파는 자기 사위가 데리고 갈 인원수를 얼마간 축소할 용의를 표명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분명 연대장은 담판을 질질 끌면서 응원대가 올 것을 기다려보자는 속심이었다.

지하포대를 폭파하기 위한 갱도국설작업은 이미 반나마 진척되었다. 나는 노파에게 갱도와 폭약을 보여주고 사위에게 투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포대들을 모조리 폭파하겠다는 우리의 최후통첩을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로 성안에 들어갔던 노파는 싱글벙글하면서 내앞에 다시금 나타났다. 사위가 2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나는 그 요구에 동의하였다.

위만군연대장은 부하들을 전원 정렬시키고 무장들을 해제하여 한곳에 모아놓은 다음 2명의 호위병과 함께 황황히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무장이 고스란히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다.

새 사단을 꾸리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무송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마음먹고 들이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후 압록강변과 백두산 주변에서 연속적인 승리의 개가도 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당초에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2연대는 새 사단의 탄생은 물론 그 성장에도 보탬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마안산에서 접수하기로 되어있던 2연대가 우리에게 온 것은 반년도 더 지나서 백두산에 나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이미 주역사단의 틀이 다 잡힌 뒤였다.

너무나 때늦은 도착이었지만 오중흡, 권영벽, 김평을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정이

든 전우들과 다시금 한 가마밥을 먹으며 같이 지내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강위룡도 성한 몸으로 무사히 새 사단을 찾아왔다. 김확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마지막 상처까지 아물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날 나는 강위룡을 찾았다.

≪동무의 애인이 김확실동무라지?≫

키가 꺽두룩한 그는 귀뿌리까지 새빨개졌다.

자기에게 안해가 있다는 대답을 하기가 쑥스러웠던 모양이다.

≪확실동무는 여기 있지 않고 몇십 리 떨어진 횡산쪽의 후방 밀영재봉대에 가있소. 거기 가서 확실동무를 만나보시오. 내가 이제 곧 길잡이 할 사람을 달아주겠소.≫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후에 천천히 만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확실동무에게 연락을 띄워서 이리로 오게 하면 상봉시간이 두 배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무가 직방 그리로 가는 것이 좋겠소.≫

≪우린 천천히 만나도 됩니다. 일없습니다.≫

강위룡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오리려 나를 섭섭하게 하였다.

≪동무는 천천히 만나도 될 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무 때문에 김확실동무의 살이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소, 두말 말고 곧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도 그는 머리를 수긋하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쳐다보며 그렇지만 대열편성도 받기전에 어찌 애인부터 찾아가겠는가, 혁명을 하자고 총을 잡았는데 혁명사업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못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한 가지 구실을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무에게 한 가지 과업을 주겠소. 2연대와 함께 온 여성동무들을 데리고 재봉대에 들어가서 동기용 솜군복을 만드시오. 그걸 다 만들기 전에 돌아오면 처벌을 내리겠소.≫

강위룡은 그제서야 더 구실을 대지 못하고 명령대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강제이별을 당해왔던 애인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마안산에서의 ≪민생단≫문서보따리의 소각은 새 인간들의 탄생, 새 사단의 탄생만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활, 새로운 사랑의 탄생도 가져왔다 사람들을 믿은 덕에 우리는 천하를 얻은 셈이 되었다.

우리 혁명대오안에서 조선혁명의 영도핵심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이 보편화되고 그 영도핵심을 중심으로 한 참다운 사상의지적 단결이 투쟁과정에 한층 공고화 된 것은 이런 믿음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역사적 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탄생과 함께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덕을 베풀어주는 속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것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마안산에 있던 그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에 충실하였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티 한점없이 깨끗한 양심과 조국애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광복혁명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투쟁사적들을 남겨놓았다.

2. 20원


어머니 강반석여사

마안산 서쪽밀영에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 보따리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새봄의 눈석이조차 시작되지 않은 마안산 동쪽밀영의 응달밀에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병마와 기한에 떨며 울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간도혁명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처창즈에서 어른들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고심참담한 나날을 보내다가 유격구가 해산된 후 내도산을 거쳐 서정하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적들의 마수가 덜 미치는 남만주의 후방밀영에까지 굴러온 고아들이었다. 마안산밀영의 나어린 주민들 중에는 연길지방에서 온 아동단원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이 유격구를 해산할 때 적국에 내려가 문전걸식하는 거지가 되거나 노두와 가게방과 장마당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루하루를 굼때나가는 소매치기나 방랑아가 되지 않고 불원천리 무송의 오지까지 찾아온 것은 정녕 감탄할만한 일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인민혁명군부대들이 관할하는 후방밀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우는 참혹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인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이 갑자기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별치않은 고난앞에서도 곧장 눈물을 짓거나 투정질하는 응석받이가 되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가설을 다 무시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울음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추위와 주림으로부터 오는 생리적 고통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가. 하지만 그런 고통이야 그 애들이 지난날 유격구시절에도 많이 겪어 보지 않았던가. 우리의 아동단원들은 고생 때문에 눈물을 지울 호부자자식들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부모형제들을 잃고 홀몸이 된 그 애들에게 있어서 춥거나 배고픈 것쯤이 무슨 요란스러운 슬픔으로 되고 고민거리로 되겠는가.

하지만 마안산밀영에서 아이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새 사단 편성을 위한 모임이 결속단계에 들어선 어느 날 박영순은 쪽지편지 한 장을 내손에 슬그머니 쥐어주었다.

≪장군님, 회의가 끝난 다음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새 사단이나 꾸려놓고는 저하고 같이 마안산밀영에 한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지는지 모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이 겪고 있던 참상에 대해서는 후날 내가 그 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숙**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마안산의 고아들 가운데는 그의 지도를 받던 아동단원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그는 부암동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지도원사업을 하였다. 아이들이 유격구시절부터 그를 몹시 따랐다고 했다.

원래 **김정숙**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유격구인민들이 가장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처창즈시절에 그와 아이들 사이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때 **김정숙**은 군부작식대원으로 활동했는데 아사직전에 있던 아이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들이 작식대원들 모르게 부엌에 기어들어서는 찬장도 뒤지고 쌀독도 뒤졌다. 그럴 때마다 **김정숙**은 끼니때에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누룽지나 송기떡 같은 것을 그 애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였다. 그는 배고파서 쩔쩔 매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한 번 정도씩은 꼭꼭 끼니를 번지면서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음식을 동무들 모르게 남겨두었다가 동냥을 오는 아이들에게 먹이곤 하였다.



김정숙동지

처창즈에서 죽을 고생을 다한 아동단원들은 평생토록 그이 그런 선행을 잊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빨치산을 따라 내도산에 가 있을 때 **김정숙**은 거기서 아동단지도사업을 했다. 그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나에게 마안산아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고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 명의 고아들이 전쟁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혁명군의 후방밀영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무심히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하나의 비상사건이였다. 나는 신경이 팽팽해졌다.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길래 그 애들이 그처럼 나를 안타깝게 기다린단 말인가.

아이들의 눈물을 정의를 대변한다. 그 어떤 부당한 힘이 정의를 우롱하고 잔혹하게 짓밟을 때 아이들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운다. 그 통곡속에는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인간들을 향해 어린 넋들이 던지는 논고가 있다. 그것은 온갖 불의스러운 것에 대한 항변과 성토를 대신하며 그 불의로 하여 손상당한 자존심과 침해당한 권리를 대변한다. 아이들은 눈물로써 자기앞에 닥쳐온 재난을 경고하며 그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울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보내는 최대의 하소연이다. 사람들이 그 울음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귀를 귀울이는 것은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로 말한다면 전우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금싸래기 같은 존재들이었다. 전우들은 유언으로 우리에게 자식들의 장래를 부탁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아들 딸들을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우리의 두 어깨와 양심에는 그 불쌍한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실한 정의의 수호자들로 키워내야 할 신성한 과제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내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동정도 아니었고

소시민적 감상주의의 발동도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권리였고 의무였다. 설사 그 부모들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수수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감정이다.

전우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자 전우의 아들로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이다. 내가 아플 때 동지도 아프고 동지가 아플 때 나도 아프며 내가 배고플 때 동지도 배고프고 동지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픈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부각시키는 윤리도덕이다.

어느 한 부업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강에 빠진 동지의 딸을 건져안고 뭍으로 나오다가 자기 딸이 물어 가라앉았다 솟구쳤다 하면서 사경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통사람 같으면 자기 딸부터 먼저 구원해놓고 연이어 동지의 딸을 구원하려고 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가 그런 순서로 구조작업을 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관리위원장은 품에 안았던 동지의 딸을 구원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딸곁으로 헤엄쳐갔다. 하지만 그 딸은 벌써 죽은 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뛰어 와서 울며불며 정에 넘치는 위로의 말을 하자 관리위원장은 구원된 동지의 딸을 가리키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 애도 내 딸이요.≫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도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성을 발휘하고서도 그것을 범상한 일로 묻어두며 만민의 평가와 우대앞에서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는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의 매력이 있으며 조선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미덕이 있다.

새 사단이나 꾸리면 인차 무송을 거쳐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것이 당초의 우리 계획이였다. 그렇지만 마안산아이들의 불우한 처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단을 꾸린 다음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장백으로 가더라도 심리적 속박에서 해방될 것 같지 못했다.

미혼진회의가 끝나 후 나는 마안산 동쪽밀영의 아동단원들을 찾아갔다. 그날 나를 밀영에까지 안내한 사람은 마안산 무기수리소책임자인 박영순이였다. 나는 그가 자청하여 나의 길동무가 되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이 걸음은 나로 하여금 인간 박영순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마촌에서 첫시작을 뗀 우리의 우정은 이 상봉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박포리가 다부작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자기 가문의 방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구술한 것이 바로 이 상봉때였다고 기억된다.

박영순의 선대 할아버지들은 1860년대부터 금곡촌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한 첫세대의 대표자들이며 이 일대에서 조선식 영농법을 보급하고 전파시킨 황무지 개척의 선구자들이였다. 아버지대에는 그의 집에 소박한 야장간도 생겼다. 이 야장간에서 아버지의 조수로 일해 온 박포리의 소년시절은 후날 그를 병기분야의 특출한 기술자로 명성을 떨치게 한 밑천으로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농한기마다 양포를 메고 사냥을 다녔다. 박영순이도 17살때부터는 소일거리삼아 수렵에 재미를 붙였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이따금씩 슬금슬금 하는 사냥이여서 성수는 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양포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맏아들이 사냥을 다니는 것은 묵인해 주면서도 둘째아들인 박영순이 총을 다루는 것은 좀체로 허락하지 않았다. 양포곁에 다가가 총신만 만져보아도 눈을 흘기며 불호령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18살때 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금곡촌의 노포수들이 잡으려가다 여러 번 놓쳐버린 호랑이를 그가 단발명중으로 쓸어눕혔던 것이다.

박영순은 범의 콧수염을 뽑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콧수염은 그가 자기 힘으로 힘들게 얻어낸 포수 면허증이나 다름없었다. 온 동네가 호랑이의 수염을 구경하려고 그의 집에 마실을 왔다. 아버지는 젊은 사냥군의 사격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금곡촌의 노포수들은 그를 ≪박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박포리에게는 양포사용 허가영도 내렸다. 계림탄광과 부그라즈광산에 입직하여 지하혁명사업에 참가할 때까지 박영순은 그 양포로 수백 마리에 달하는 산짐승들을 잡았다.

나는 박영순에게 박포리라는 별명이 달리게 된 내막을 들으면서 그가 만일 병기창사업을 하지 않고 인민혁명군의 저격수로 활동했더라면 자기가 잡은 산짐승의 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소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야장술이 사격술을 능가한다는 사실이였다. 그는 현직군인대오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심상하게 계산되고 있었지만 병기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떠받들리고 있었다.


박영순

박영순은 초물구럭속에 대여섯 마리나 되는 꿩을 넣어 짊어지고 나를 따라나섰다. 나는 그 푸짐한 짐짝을 보자 무거운 쌀배낭에 꿩을 얹어가지고 명월구골 안으로 찾아오던 이광의 모습까지 새삼스럽게 겹쳐서 가슴 짜릿해지는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박포리동무, 아직 사냥질을 좀 하는가요?≫

나는 꿩구럭을 손짓해 보이며 박영순에게 물었다. 박영순은 미간을 찌푸리고 구럭을 추슬러 올렸다.

≪그만 둔지가 언제인데요. 이건 옹노를 놓아 잡은 거랍니다. 아이들한테 빈손으로 가기가 멋적어서 좀 버럭질을 했지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좋은 일이지요≫

≪사랑이라구요?≫

박포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웬일인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런 치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 박포리는 비겁한 놈입니다.≫

≪비겁하다니, 그건 갑자기 또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만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동지앞이니 창피스러운대로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내 한번은 메토끼를 여라문마리 잡아가지고 마안산 아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메토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도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제 1사 정치주임이란 어른이 밑도끝도 없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삿대질을 해대마 막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사람인데 상급의 승인도 없이 여기에 와서 함부로 어슬렁대는가, 누가 당신더러 이런 자선을 베풀라고 했는가, 당신이 그래 저녀석들한테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고 하면서 눈이 쑥 빠지게 닦아세우고는 당장 사라지라고 파리처럼 쫓아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메토끼를 고스란히 망태속에 도로 넣어가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왔지요.≫

≪왜 겁이 났던가요?≫

≪네, 부아도 나고 겁도 났지요. 지금은 이렇게 담이 커져서 탕탕 큰소리로 말합니다만 그 때에는 어림이나 있습니까. 정치주임이 새끼≪민생단≫들을 도와준 반

혁명분자라고 물고 늘어지면 화단이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더구만요. 그 후부터는 아이들의 동네에 발길질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망신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박포리는 앞에서 초신감발을 하고 길을 내며 걸어가는 1사 정치주임 김홍범의 뒷모습을 아니꼽게 바라보며 골살을 찌푸렸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겁이 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옆에 계시니 힘이 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생단≫소동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악몽입니다. 메토끼망태를 메고 아이들을 찾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동무는 후대들앞에서 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사랑하고 동정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입니까.≫

박영순은 그 말까지 듣고나서야 팽팽하게 긴장되였던 얼굴의 근육을 풀고 큼직큼직한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놓았다, 바위돌같이 엄하고 무뚝뚝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의 입에서 문학소녀들의 일기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들으니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의 언행과 마음씨에서 풍기는 강직하고 결백한 체취는 나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자아냈다.

만일 그 누가 나에게 당신의 생활에서는 어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로 되고 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은 예사로운 것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세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주적이고 사상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며 문화도덕적으로 가장 문명하고 순결무구한 인민과 더불어 한 생을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활은 매일 매시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논하고 생활을 논하고 미래를 논하고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는 때이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는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영순과의 담화가 나에게 그토록 큰 만족을 주었던 것도 바로 이런 행복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영순은 내가 생활속에서 찾아낸 혁명가의 본보기였으며 양심인의 전형이었다. 그 후 실천을 통하여 나는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남달리 강하고 부정과의 타협을 모르며 매사에 공명정대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다.

박포리가 항일무장투쟁전적 답사단을 인솔하고 중국 동북지방을 순방하던 1959년도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대표단은 소박하고 아담한 어떤 농가의 웃방에서 하루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그 지방 농민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매일같이 신고스런 답사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나라의 손님들을 위해 숙소에 도배도 새로 하고 노전도 새로 깔아주었다.

그런데 물것이라면 꼼짝 못하는 몇몇 답사원들이 밤중에 빈대의 성화를 받다가 침구를 걷어안고 연줄연줄 마당에 뛰쳐나와 멍석위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 방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고수한 것은 박영순단장 한 사람뿐이었다. 단원들은 자기네 단장이 지나치게 잠이 둔하거나 물것을 타지 않는 특수한 체질인 모양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장군님

다음날 아침 박영순은 답사단원들을 모여놓고 호된 비판을 하였다.

≪한 개 나라를 대표하는 답사단원이라는 사람들이 빈대가 문다고 뜨내기들처럼 멍석우에서 야숙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수고한 이 고장 사람들의 성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곤란을 극복할만한 참을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차후 다시 대표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 경중에 따라 조국으로 아예 소환시키고 말겠다.≫

그 순간에야 답사단원들은 이 빨치산출신의 강의하고 과묵한 사나이가 빈대의 성화에 장밤을 시달리면서도 주인집 사람들의 성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 그냥 방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이 일화는 전적지 답사단원들의 입을 통하여 나한테까지 전달되었다.

우리가 밀영에 도착하자마자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은 ≪장군님!≫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어 귀틀집에서 쏟아져 나왔다. 밀영의 하늘에 부딪쳐 은방울처럼 굴러가는 아이들의 외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불길처럼 확 타오르는 격정에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채 내맡기며 아이들앞으로 바삐 걸어갔다.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이다. 적에게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불타 죽은 부모형제들의 원쑤를 갚으려고 천산만악과 임해설원을 지나 천신만고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혁명군을 따라온 아이들, 바로 저 아이들이 철조망없는 수용소와도 같은 이 몰인정하고 을씨년스러운 산중에서 ≪민생단≫연루자의 억울한 감투를 쓰고 겨우내 설움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아이들이다.

인민의 이익 위에 초혁명적인 원칙의 구호, 계급성의 구호를 올려 세우고 대중을 우롱하고 학대하는데 습관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군의 짐이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외면하였다. 그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적들에게 밀영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고 자기들만의 보신을 위한 소왕국을 따로 짓고 깊은 수림속에 들어가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림언저리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그 의붓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동설한에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기한에 떠는 것을 보면서도 쌀 한 톨 가져다주지 않았고 의복 한 벌 해

입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아이들의 상처에 고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아이들의 언손과 언볼을 입김으로 녹여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설움에 겨워 울 때 함께 붙안고 우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민생단≫명부에 오르고 박해를 받았다.

윤창범이 죽은 후 대리연대장이며 명사수인 김락천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마안산으로 들어오다가 아이들의 헐벗은 몰골을 보다못해 연대 후방부일군들이 간수하고 있던 군복천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혔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대장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런 선행으로 하여 김낙천은 분하게도 ≪민생단≫의 모자를 쓰고 처형되었다. 아이들을 동정하는 것이 죄가 되고 냉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으로 되는 이 밀영에서는 참다운 인간적 향취, 공산주의적 향취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먹을 부르쥐고 내앞으로 밀물처럼 육박해오는 수십쌍의 눈물에 젖은 눈동자들은 인간성을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연대정치위원
김락천

숨가쁘게 뛰어오던 아이들의 무리속에서 갑자기 동요가 일어났다. 허우대가 제일 큰 선두아이가 무슨 장애에 맞다들었는지 공지 한복판에 발길을 못박아 세우고 주춤거렸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절벽에 부딪친 물멀기처럼 그 열풍같은 흐름을 멈추고 먼발치에서 나를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떼를 지어 머무적거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박영순에게 조용히 물었다.

≪박포리동무, 저 아이들이 왜 저럴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옷주제들을 보십시오.≫

나는 아이들의 옷차림에 주의를 돌렸다. 옷이란 명색뿐이지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나 다름없었다. 불에 타고 찢겨지고 닳아 떨어진 그들의 옷은 옷이라기보다도 차라리 넝마나 걸레짝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남루했다. 수개월 동안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주림과의 싸움을 부단히 벌려온 아동단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나어린 수난자들의 그 참혹한 정상은 나로 하여금 불현듯 소사하에서 갈라진 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주동생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였다. 나이를 보면 동생도 그 애들과 같은 또래였다. 허리를 치는 갈대밭속에서 철주와 함께 눈물을 삼키며 나를 바래주던 막내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친척도 아니고 동성동본도 아닌 이웃의 친지들에게 동생들의 장래를 부탁하고 소사하를 떠난 후 문안편지 한 장 똑똑히 보내지 못하고 4년 세월을 덧없이 보낸 자신의 무심한 처사가 민망스러워졌다. 1936년 봄에 동강밀영에서 나를 만난 김혜순은 영주가 안도에서 아동단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1935년 봄인가 여름에 그가 유희대원들을 데리고 처창즈에 며칠동안 와 있으면서 연예공연을 하였다는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에 김혜순은 유희대원들의 밥을 해주었다고 했다.



김혜순

김혜순은 영주동생이 부른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였다고 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뜬금으로 줄줄 외우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무송에서 연예대활동을 지도할 때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이 부르던 노래였다.

여기 모인 여러 분 허리건사를 잘 하시오
웃음끝에 끊어진 허리는
화타 편작도 못 이어요
에헤라 논다 뛰어라 논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

화타, 편작이란 고대중국의 명의들이다.


강양욱

김혜순이 동강에서 전해준 소식은 나에게 있어서 퍽이나 큰 위안으로 되었다. 하지만 마안산의 아이들을 찾아가던 그때만 해도 나는 동생의 행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마가을 낙엽처럼 한자리에 몰켜서서 오도가도 못하는 아이들의 애수에 찬 눈동자들을 살펴보며 그때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영주도 저 애들처럼 어데서인가 기한에 떨고 있지 않을가. 저 애들처럼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면서 무정한 이 형을 그리고 있지 않을가

그런데 혁명을 하겠다고 이 산중에까지 따라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생단≫의 껍데기를 함부로 뒤집어 씌워 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그 모지락스럽고 얄미운 인간들한테는 저 아이들이 ≪민생단≫이 아니고 ≪민생단≫일 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조차 없으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줄 한가닥의 자비심이나 동정심마저 없단 말인가. 인간해방을 위해 죽음마저도 불사할 결심이라고 맹약한 사람들이 인간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자립성이 약한 어린이들을 어쩌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방임해 둔단 말인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어린이의 날≫이라는 아이들의 명절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름난 소년운동자였던 작가 방정환은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글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 바가 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그 집 운수)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맞으면서 그가 인쇄하여 돌린 삐라의 한 대목이다. 이 부탁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이 자자구구마다 스며있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닐 때 강양욱선생도 학부형들을 만나면 이와 비슷한 말을 종종 하였다. 그 호소가 ≪어린이날의 약속≫을 그대로 따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 식으로 가공한 것이었던지 그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아무튼 선생이 학부형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속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고 한 그들의 호소는 자기자신보다 후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넋속에서만 울려 나올 수 있는 숭고한 이성의 목소리이다.

≪아이들이 없는 세계는 태양이 없는 세계≫라고 한 명언속에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격조 높이 고동치고 있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 위인들은 누구나 다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맑스가 아이들의 충실한 벗이였다는 것은 칼 립크네흐트의 글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의 쾌락을 위해 이 위대한 인간이 ≪말≫도 되고 ≪승용마차≫로도 되였다는 일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회상하는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후대들이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를 지금까지도 고이 추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생애를 바친 훌륭한 교육자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명직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동서방의 모든 위인들은 누구나 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진정한 벗이였고 스승이였고 어버이였다.

그런데 귀족도 아니고 부르조아지도 아닌 마안산의 주인들, 입만 벌이면 인간성을 운운하고 인간해방을 염불처럼 외우는 이 밀영의 공산주의자들은 어찌하여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나는 치미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었다. 혁명 그 자체를 생명보다도 더 신성시해온 어린것들의 깨끗한 신념이 망울채로 저렇게 무참히 짓밟힌다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였다. 나는 저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저 어린것들이 처창즈에서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기아를 이겨냈고 내도산에서 인민혁명군을 도와 어떻게 주먹밥을 날랐고 어떻게 철야보초를 섰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엮어온 그 개개의 자서전은 소설의 줄거리처럼 내 머리속에 죄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큰 아이들의 겨드랑이밑에서 비에 젖은 햇병아리처럼 온몸을 오들오들 떨며 언손으로 무르팍의 살을 가리우고 서있는 백초구 출신의 아홉살내기 이오송의 경력만 보아도 마안산의 아이들이 겪어온 천신만고의 준엄성을 능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벌써 처창즈에 있을 때 집단적인 아사를 체험하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이오송도 배가 고플 때마다 동면중의 개구리를 잡아먹든가 봄파종을 한 밭들을 돌아다니며 씨종자를 파먹었다.

이오송의 아버지도 처창즈에서 아사로 인생을 마쳤다. 오송이가 밭에서 보리이삭을 잘라다가 거스러미를 비벼 없애고 줌에 채 차지도 않는 낟알을 아버지의 입에 놓아드렸지만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오송은 어린 누이동생과 함께 초근목피로 보리고개를 넘기다가 내도산으로 철거하는 인민혁명군을 따라 처창즈를 떠났다. 그러나 그도 김낙천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민생단≫혐의를 받고 있었다.

손명직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아동단원들은 내도산으로 가는 수백 리 노정에서 조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연마해온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앞에서는 허리를 치는 눈무지와 가파로운 산고개들이 길을 막아나서고 뒤에서는 토벌대의 무리들이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행군의 첫날에 먹을 것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배고프면 솔잎을 뜯어 씹든가 눈빵을 빚어 그것을 한입씩 떼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군 하였다. 강냉이떡 한 개를 가지고 14명이 한 끼를 굼때는 날은 그래도 잘 먹는 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밤에 야숙을 할 때마다 손명직, 주도일, 김대천을 비롯하여 체통이 큰 상급반 아이들은 10살 미만의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엄지닭처럼 품고 앉아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잠깐씩 눈

을 붙이고는 교대로 주변을 감시하군 하였다.

그 대오를 인솔하는데서 아동단단장 손명직은 특출한 조직적 수완과 통솔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원래 왕우구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사업을 잘 하였다. 한때는 적구에 내려가 김재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하공작에도 참가하였다. 일곱 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구학을 공부한 손명직은 10살도 되기 전에 천자, ≪명심보감≫을 다 떼였는데 눈썰미가 빠르고 총기가 좋아 지하공작에서도 적임자였다. 그는 아동단 시절에 조직을 발동하여 교내의 일본어교원을 비롯한 7명의 반동교원들을 숙청하는 실적도 올리어 일찍부터 혁명가들의 신임을 받았다.


이오송

손명직의 집안은 대대로 애국애족의 넋을 굳건하게 이어온 믿음직한 혁명일가였다. 할아버지는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손화준은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이면에서 비밀공작을 한 혁명투사였다. 손명직의 5촌숙부 김봉석(원명 손봉석)은 소부대 활동을 하다가 해방을 몇 시간 앞두고 애석하게 전사한 나의 충실한 전령병이었다.

죽어도 혁명군을 따라다니다가 죽겠다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이 깊은 산중에까지 찾아온 아이들, 부자집 아이들이 자개를 박은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풍청거릴 때 우등불 옆에서 가랑잎을 덮고 쪽잠을 자면서도 광복된 조국을 그려온 이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과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 귀여운 꽃봉오리들에게 금의옥식은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왜 수수한 광목옷 같은 것이야 못해 입히며 콩죽 같은 것이야 못해 먹이겠는가.

≪애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헌옷을 입고 있는건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어서들 이리 오너라!≫

나는 두 팔을 크게 벌이면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올망졸망 나를 둘러싸고 엉엉 소리를 내며 목놓아 울었다.

나는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며칠째 병에 걸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네댓 명의 아이들이 모포도 없이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있었다. 무슨 병인가고 물었으나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피하였다. 밀영을 지키고 있던 대원들도 골병이라고만 하였지 정확한 병명은 대주지 못하였다. 그것이 마음속의 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포리밖에 없었다. 아무 죄도 없는 청옥같은 아이들에게 ≪민생단≫이라는 표쪽을 달아놓았으니 무슨 병을 앓는다고 대답하겠는가.

나는 전령병을 불러 배낭에서 모포를 꺼내라고 하였다. 그것은 왕청시절에 일본군수송대를 치고 노획한 나의 단매모포였다. 그 한 장이나마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덮어주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았다. 나의 의도를 알아챈 대원들이 저마다 자기의 모포를 꺼내느라고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포들을 임자들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동무들, 그만들 두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100장의 모포를 덮고 잔들 내 마음이 더워질 수 있겠소. 동무들이 나를 생각하겠거든 먼저 이 애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이 좋겠소.≫

밀영의 후방부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푹 숙였다.

내 목소리는 갈리고 쉬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혁명가의 가치관을 두고 다시 한번 심각한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엇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무엇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혁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온갖 불의와 폐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적인 것을 옹호하며 인간이 창조해 낸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저주로운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겠는가. 학대받는 계급에 대한 동정이 없고 망국의 설음속에 울고 있는 민족에 대한 연민이 없고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헤매는 부모처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곤란을 하루도 참아내지 못하고 따뜻한 온돌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동무들의 가슴속에서는 어느새 혁명의 길에 나설 때 간직했던 순결한 인간애가 식어버리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 혁명은 후대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들에게 밥 한 술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겠는가.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 가에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 있지만 내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 나가는 주력군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핏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더구나 저 애들은 우리의 전우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 아이들을 아끼고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무슨 상급의 박해가 두려워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의 총구앞에 가슴을 내댈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자신만을 위한 보신의 철갑속에 들어박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도 그것을 동정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용렬한 인간들이 된 것이다. 동무들, 생각해보라, 이것이 세계를 개조하겠다고 나선 공산주의자들의 소위겠는가.

후대들을 괄세하는 것은 자기자신들을 괄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자기 보신만을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면 먼 후날에는 후대들이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 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 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만발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 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내가 그날 병실에서 한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의 것이었다.

이것은 80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까지 내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후대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후대들이 없이야 우리 생활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가 연필문제를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 첫째 의정으로 상정한 것이나 매 해 설명절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후대관의 표현인 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교육 교양을 담당한 교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공화국의 초대 내각성원들 중에는 이병남이라고 부르는 보건상이 있었다. 그는 해방 전부터 소아과계통에서 의료활동을 꾸준히 벌려온 이름난 박사이며 성실하고 양심적인 애국자였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그는 우리의 권유로 공화국의 초대보건상이 되였다. 그 사람의 품성 가운데서 제일 표가 나는 것은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특별히 잘 다루는 점이였다.

소아과를 전공한 이병남은 주머니에 딸랭이를 늘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는 아이들을 달랬다. 중병이 들어 골골거리던 아이들도 그가 딸랭이를 몇 번씩 흔들기만 하면 울음을 그치고 공손히 진찰을 받곤 하였다. 어리광대들도 찜쪄먹을 능청스러운 얼굴표정과 배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재미나는 익살로 상대방을 흐물흐물하게 만들면서 눈깜짝할 사이에 치료는 치료대로 다 해치우곤 하는 능란한 솜씨로 하여 그는 어데가서나 어린 환자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의 살뜰한 벗이 되군 하였다.

우리 딸 경희는 홍역을 앓을 때 발진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게다가 바람간수를 잘하지 못하여 폐렴에까지 덜컥 걸렸다. 딸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줄곧 울었다. 어린 동생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김정일**조직비서는 ≪경희야, 아버지앞에서 어머니를 찾으면 안돼!≫라고 타이르곤 했다. 정부병원의 소아과 의사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였다. 그때 이병남보건상이 경희의 침상으로 찾아왔다.

이병남은 청진기는 꺼내지도 않고 세심히 증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곧 ≪홍역보다 페염이 먼저 왔습니다.≫하고 진단을 내렸다. 보건상의 처방대로 소아과 의사들은 즉석에서 어린 환자의 입에 산소를 불어넣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경희는 하루만에 울음을 터뜨리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발진도 잘되었다.

나는 이병남을 보고 물었다.

≪이선생,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우는 건 무엇때문입니까?≫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병이 나을 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지요. 사흘 후에는 따님이 완쾌될 것 같습니다.≫

이병남은 줄도 테도 다 금으로 되고 호박노리개까지 달린 회중시계를 풀면서 경희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다. 그것은 그가 어린 환자들을 달랠 때마다 딸랭이과 함께 진정제처럼 사용하곤 하던 금시계였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사흘 후에 정말 병이 완쾌되었다.

나는 보건상의 그 능란하고 거침없는 치병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 참, 신통합니다. 어쩌면 이선생의 예언이 그렇게도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이선생은 의사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친구이고 아동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함부로 대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가을에 나는 고산진에서 이병남을 만났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였으나 한 가지만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는 끈도 없는 허술한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곤 했다. 경희를 달랠 때 풀어서 흔들던 번쩍번쩍하는 시계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니 군기헌납으로 나라에 바쳤다

고 했다.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이병남의 애국적 지성과 양심인으로서의 진정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 회중시계가 너무도 초라하기에 나는 후날 그에게 새 손목시계를 채워주었다,

이 자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나는 후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지진 사람들만이 참다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송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며 이 송가를 위해 투쟁하는 복무자들이다.

이병남과 같은 아동들의 벗이 한 명만 있었어도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처지는 그처럼 험악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유산으로 남긴 그 20원을 소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에만 쓰라고 당부하시던 20원이었다. 손끝에 피가 나도록 삯일을 하여 한푼두푼 힘겹게 벌어들인 노력의 열매였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학습장이나 연필을 사는 것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를 상점이나 장마장 같은데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라서 수전노가 되고 조국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속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돈과 관련된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어느 날 병환에 계시던 아버지는 거리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바깥출입을 거의 못하시던 아버지가 나와 같이 나들이를 떠난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중국말에 능하지 못한 아버지는 통변이 필요할 때마다 이따금씩 나를 데리고 다니곤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충실한 중어 통역원이었다.

≪병이 심한 때에 나들이를 떠나시는 걸 보니 필경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오늘은 무슨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저렇게도 바삐 서두르실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침상에서 일어나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거리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이 나의 생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버지가 병환에 계시는 때여서 생일 같은 것을 머리에 새겨둘 경황이 없었다.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본 아버지는 뜻밖에도 나를 잡고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예상을 뒤집어엎는 놀라운 나들이었다. 무엇하려고 이 상점에 나를 데리고 들어왔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진열장을 덤덤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더러 마음에 드는 회중시계를 하나 나르라고 하였다. 그 상점에는 여러 가지 회중시계들이 수두룩하게 지열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계들에는 손중산의 초상까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손중산의 초상이 없는 회중시계를 한 개 골라잡자 아버지는 그 값으로 3원 50전의 돈을 치렀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는 시계를 찰 때가 되었다. 나라를 찾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 아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주는 생일선물이니 잘 간수해라≫

내 귀에는 어쩐지 그 말이 임종전야의 유언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실지로 그때 벌써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그런 예감을 가지고 시계와 함께 평생의 노고가 바쳐진 독립의 위업을 나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성년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회중시계를 생일 선물로 사준지 두 달도 못되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나는 그 시계를 가지고 화성의숙에 갔고 거기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만나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조직했다. 우리는 빨치산시절에도 그 시계에 맞추어 매일매일의 일과를 집행했고 공격개시시간과 접선시간을 정할 때에도 그 시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그 회중시계대신 손목시계를 차기 시작한 것은 보천보전투무렵이었다. 전우들은 나의 회중시계가 고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사령관의 체모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새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라고 권했다. 그래서 나는 10년동안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를 다른 동무에게 주고 신식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내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설 때까지 돈을 모르고 자라나게 하였다. 내가 자기 손으로 값을 치르고 상점의 물건을 사본 적이 있었다면 그 것을 길림시절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돈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조장되었다고 하면 독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돈이나 물건에 포로되면 당도 수령도 조국도 인민도 안중에 없고 나중에는 부모처자조차도 모르는 인간 추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 80풍상의 일생을 총화하면서 내가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처럼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돈맛을 모르고 자라도록 엄하게 단속하고 통제한 것은 아버지가 세워준 우리 일가의 독특한 가풍이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가풍을 어기고 나에게 평생의 신고가 집약된 20원을 유산으로 넘겨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풍랑 세찬 일생이 몇 장의 지전으로 압축된 것같은 감을 느끼며 그 돈을 소중해 받아안았다. 20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호신부와 같은 것이었다. 그 돈을 품고 있으면 배고프지도 안하고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내곁에 계시면서 온몸과 넋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내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20원이었다. 가능하다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기도 했다.

그러나 준엄한 현실은 이 결심을 여러 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 돈을 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하며 동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수없이 생겼다.

나자구들판에서 우리 일행을 구원해준 잊지 못할 마노인과 헤어질 때에도 나는 그 노인의 은공을 어머니가 준 20원으로 갚으려고 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를 하는거야 응당한 처사가 아닌가. 근 20일 동안이나 이 산막에서 노인의 한해 양식을 다 파먹는데 주머니에 돈을 두고서도 사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굽어보고 나를 뭐라고 책망하겠는가. 하지만 그 신선같은 노인이 종시 나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나라를 찾자면 이보다 더 험악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겠는데 그때에나 쓰라, 나야 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고 이 궁벽한 산속에서 돈이 필요치도 않은데 그것을 받아 무엇에 쓰겠는가, 나는 옹노에 걸리는 산짐승만으로도 호구지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사코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이런 곡절을 거쳐 어머니의 사랑이 고인 20원의 돈은 한푼의 허실도 없이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 돈으로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힌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니,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곁을 떠난지도 네 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딱한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해서 그럭저럭 보존해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20원을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붙이가 하나도 없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혀야겠습니다. 장차 이 보다 더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마음먹고 택한 결심이니 어머니도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저의 성미를 어머니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단원들과 함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온 김정숙동지

멀리 토기점골의 차디찬 산등성이에 홀로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향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였다.

≪이 20원을 가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가서 천을 사오시오. 그리고 그 천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시오.≫

이것은 연대정치위원 김산호에게 하달된 나의 명령이였다.

김산호는 몹시 딱해하면서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들었다. 지주집에서 머슴군노릇을 하다가 작두날에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오가자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반제청년동맹사업을 많이 해온 호남아 김산호는 20원속에 깃들어있는 사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령관동지의 영이니 집행은 하겠습니다만 어쩐지 손이 떨립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나서 무송시내에 내려가 한자에 10전씩 한다는 캬바진 비슷한 천을 7필인가 8필인가 사왔다. 힘이 장사인 김산호였지만 그것을 지고 오느라고 혀가 나올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귀환도중 공교롭게도 토비화된 산림부대의 잔당들에게 그 천을 모조리 강탈당했다. 토비들은 김산호를 나무에 비끄러 매놓고 달아나 버렸는데 힘이 황소같은 정치위원이였지만 하마트면 얼어죽을뻔 했다. 우리는 소부대를 파견하여 김산호도 구원하고 산림부대가 강탈해간 천도 모조리 되찾아 왔다.

7, 8필의 천으로는 밀영의 아이들에게 옷을 다 해입힐 수 없었다. 나는 장울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김산호를 다시 무송으로 내려보냈다. 김산호는 장울화의 도움으로 많은 천을 해결했다. 우리는 그 천으로 밀영의 아이들과 ≪민생단≫누명을 벗어내치고 새 사단에 편입된 100여명의 유격대원들에게 옷을 다 해입혔다. 그러고나니 무거웠던 내 마음도 어느정도 가벼워졌다.

사실 20원이 무슨 큰 돈이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때 후련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마안산을 떠나갔다.

새 옷을 입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던 밀영의 아이들이 모두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이들의 그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나

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를 따라다닐 수 없는 유년기의 아이들과 병든 아이들 약간 명을 내놓고는 대부분이 남하하는 우리 대오와 함께 간고한 장정의 길에 들어섰다. 유격전으로 동분서주하는 혁명군이 10대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비록 유격전의 역사에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길속에서 단련시켜 그들 전부를 강철같은 인간들로 키우려고 결심했다. 제일 힘든 것은 전대나무를 넘고 강을 건느는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할 때와 행군할 때 아이들을 보호할 데 대한 분공을 따로 주었다. 우리 대원들은 실로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였다. 전대나무는 안아넘기고 강물은 업어 건늬였으며 적들의 총알은 몸으로 막아주면서 그들을 자래웠다.

그때 나를 따라 백두산지구로 나왔던 아이들은 그 후 빠짐없이 혁명군에 입대하였고 가열처절한 유격전을 통해 훌륭한 군정간부들로 성장했다. 종군이 허락되지 않아 얼마간 대첨창밀영에 가있던 9살내기의 리오송까지도 송장상의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후에는 장백으로 나와 나의 전령병으로 되였다. 1939년 5월에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무산지구로 진공할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다. 그는 물이 깊어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안고 강을 건네주었다. 그때 그렇게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당과 국가와 군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조국이 해방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옷을 해입히는 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영락된 나라를 재건하던 1950년대 후반기에 벌써 우리는 국가가 옷을 지어 공급하는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안산에서의 고뇌를 체험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는데 수천수억 원의 돈을 지출한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인사들은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그 많은 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출하면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각자가 상점에서 필요한 천을 사다가 해입어도 되겠는데 왜 국가가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어 입히는가, 무가로 옷을 해입히는데서 생기는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는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만나던 때의 사연을 말해준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포성을 들어보지 못한 자본주의나라의 정객들이 공화국정부의 시책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정적 계산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존재하고 백두의 전통이 계승되는 한 국가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공산주의적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확신한다.

마안산시절의 옛 아동단원들과 항일투사들은 온 나라의 아이들과 함께 **김정일**조직비서의 온정이 깃든 새 옷을 철따라 받아안곤 한다.

나의 생일 70돐에 나를 만났던 이오송, 손명직은 조직비서가 선물로 지어준 새 군복을 받아안고 내앞에 나타나 마안산시절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말끝을 맺지 못했다.

3. 혁명전우 장울화(1)



잊을수 없는
장울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산호가 천을 해결해 가지고 마안산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금 그를 무송현성에 파견하였다. 20원 어치의 천을 가지고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다해 입힐 수 없었다. 싸움을 하여야 천도 노획할 수 있겠는데 나는 나와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성시에서 백병전을 벌일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새 사단의 조직으로 혁명군의 면모를 일신시킨 우리는 그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적 역량을 확대해 가는 단계에 있었다.

힘도 축적하기 전에 총소리부터 먼저 내면 무송에서의 우리의 처지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고 백두산지구 진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었다.

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장울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대부호의 아들이며 나의 혁명전우이며 항일구국의 이념에 충실한 열성 조직원인 장울화만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전력을 다하여 나를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다.

내가 무송에 다시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리자 김산호는 좀 얼떨떨해 해였다. 방금 다녀왔던 곳에 또 가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속으로는 그를 휴식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아이들과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힘든 일거리를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김산호는 장울화와의 사업을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장울화가 장아청이라는 아명으로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김산호는 그 곳 반제청년동맹지부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사업상의 연계나 친교는 비록 없었지만 이런 정도의 연고면 신임장도 대신할 수 있었다.

≪산호 동무, 미안하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동무를 찾게 되는구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동무가 너무 혹독한 상관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를 구원해 준 소부대 동무들과 함께 마안산에 돌아와 노독을 풀던 김산호가 새로운 과업을 받으려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런 말로 그를 맞이했다.

김산호는 충혈된 눈으로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령관동지답지 않게 우회작전을 하시는구만요, 제가 무슨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직방 말씀해 주십시오.≫

김산호의 그 말은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 주었다.

≪좋소. 그럼 산호 동무는 내일 아침 다시 무송으로 떠나야겠소. 나는 동무를 장울화한테 파견하기로 결심하였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소. 오가자에 와서 소학 훈장을 하던 그 중국청년이 생각나겠지?≫

≪장아청선생 말입니까. 생각나지 않구요. 안경알 너머로 사람들을 수줍게 쳐다보던 그 눈매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생의 기타소리가 구수했지요.≫

≪그러면 됐소. 내가 소개신을 써 줄 테니 동무는 그 소개신을 가지고 장아청이를 만나보오.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정찰을 슬슬 하다가 소남문거리 쪽에 가서 장만정의 집을 찾으시오. 그 장만정이 바로 장울화의 아버지인데 무송에서 꼽히는 부자요.≫

김산호는 희색이 만면해서 가슴을 쭉 펴고 나를 쳐다보았다.

김산호는 들놀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었다.

키가 유달리 큰 이 육 척 장신의 사나이한테는 주위의 동료들이 존경을 가지고 쳐다보게 하는 실농군의 기질이 있었다. 그는 일거리가 생긴 날은 어깨바람을 일구며 돌아갔지만 아무 일거리도 차례지지 않는 날은 무슨 울화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우울해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과업을 받은 날과 받지 못한 날의 기분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일종의 한난계와도 같았다.


장울화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노란자위라고 부를 수 있는 새벽 시간을 깡그리 털어서 장울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때 누가 발기했던지 콩기름 통 밑바닥을 2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편지를 넣어 가지고 가게 창안하였다. 김산호는 그 콩기름 통을 들고 흡족한 기분으로 마안산을 떠났다. 군경들의 검문에 합격할 수 있는 알짜배기 콩기름 장사로 가장시키려고 박영순은 그에게 ≪쿠리≫들이 옷보다 더 허술하고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옷까지 구해다 입혔다.

나는 가슴을 조여가며 장울화의 소식을 기다렸다. 김산호를 기다리며 잠을 못 이루던 그 며칠 밤 나의 일체 상념은 온통 장울화에 대한 그리움속에서 흘러갔다.

이제라도 꽁무니에 걸레짝 같은 수건이나 하나 차고 김산호와 같은 ≪쿠리≫차림으로 현성에 슬금슬금 내려가 장울화를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울화와 함께 우리의 옛집이 있는 소남문거리도 거닐어보고 제1우급 소학교 시절의 스승들과 학우들도 만나보고 양지촌의 아버지 묘지에도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일 내앞에 산더미 같은 일감들이 쌓여 있지 않고 또 네 옆에 친혈육 이상으로 나의 신변을 각별히 보호해 주는 전우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만난을 무릅쓰고 무송 행각의 길에 오르는 모험을 하였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학창 시절의 많은 시간을 무송에서 보낸 나는 그 지방의 군경들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무송은 내가 관헌들의 손에 체포되어 구류장의 밥을 먹어보았던 또 하나의 음험한 군벌 소굴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소년 시절의 살점 같은 한 토막이 남아있고 아버지의 산소가 있고 사랑하는 중국의 벗 장울화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하여 나는 이 분지의 도시를 변함없이 사랑하였다.

무송의 십자거리 한 옆에는 1932년 6월 남만원정을 나갈 때 나와 장울화의 상봉을 마련해 준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이 있었다. 그 양주공장은 후에 이름을 달리 달았다가 내가 남만원정 때 그 곳에서 장울화를 만났다는 사적이 알려진 다음부터 다시 본래의 이름대로 ≪동소과≫라고 하였다 한다. 장금천이 나의 생일 80돌에 그 양주공장에서 만든 ≪동소과≫라는 이름있는 술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전할 때 나는 무송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꼈다. 거기서 나는 장울화와 함께 여러 차례의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두고, 많은 소감을 나누었다. 장울화는 그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

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무송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장금천이다.

장울화는 그때 부대의 위용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의 부하들이 참 끌끌하구나. 기차칸에서 우리가 만난 게 한 해도 못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군대를 조직하다니. 성주가 그 동안 큰일을 했어. 이제는 대사를 이루게 됐지, 대단해!≫

그는 그의 가식 없는 격찬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울화,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구. 우린 방금 첫 시작을 했을 뿐이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애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갓난애가 세상에 태어나는데서는 울화가 준 수십 자루의 총이 큰 은을 냈어. 울화는 우리 군대를 출산시키는데서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운 조산원의 한 사람이야.≫

≪그건 지나친 칭찬인걸. 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쓸모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타매하고 있는지 몰라. 성주는 지금도 이전날처럼 변함없이 나를 믿고 있겠지?≫

≪그럼 믿지 않구. 믿어도 단단히 믿지. 저기 저 송화강의 물줄기가 설사 거꾸로 흐른다고 하여도 울화에 대한 나의 정이야 변할 수 없지.≫

장울화는 불현듯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성주, 나를 성주의 부대에 받아 달라구. 나도 무장을 들고 떳떳하게 항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성주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무송에서 성주를 놓아주지 않겠어.≫

이 단도직입적이 요청앞에서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울화, 정말인가?≫

≪정말이구말구. 성주의 부대가 무송에 온 첫날부터 나는 매일 그 생각만 했어. 처도 지지하였구…≫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놓아줄까?≫

≪아버지야 놓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간다면 가는 것이지. 성주도 기차칸에서 말하지 않았나.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구 말이야. 진한장도 부호의 자식으로서 혁명을 하는데 나도 구국군공작 같은 것이야 할 수 있지 않은가.≫

≪울화가 빨치산 대오를 따라가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울화, 혁명이란 무장투쟁이라는 한 개의 전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울화가 무송에 그냥 남아서 지하혁명사업을 해 주었으면 해.≫

≪지하혁명사업이라니? 그럼 유격대에 못 받아 주겠다는 건가?≫

≪못 받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선에서 싸워 주었으면 하는 거지.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결속하는 지하혁명투쟁은 무장투쟁에 못지않은 중요한 전선이야. 이 전선에서 활동하는 투사들이 인민대중을 잘 묶어 세우지 못한다면 무장투쟁은 그 기초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송지구에도 강력한 지하혁명전선을 꾸리려고 생각했어. 나는 울화가 이 전선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으면 하는 거야.≫

장울화는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안경알을 닦기 시작했다.

≪그럼 성주는 나를 적들의 총탄이 미치지 않는 2선으로 빼돌릴 심산이구나. 부잣집 자식으로 호강을 해온 사람이니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거란 말이지?≫

≪물론 그런 계산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울화의 체질을 가지고 서는 험산준령을 타고 다니는 유격대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나야 뭘 숨기겠나. 나는 울화의 사상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준비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 산에 들어와 고

생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사진관도 차려놓고 교원도 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힘껏 도와 달라는 것이지. 대부호의 자식이라는 간판이 얼마나 좋아. 그 간판이면 울화는 혁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있거든.≫

나는 다음날에도 장울화를 끈기있게 설복하였다.

우리의 실갱이는 결국 장울화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다. 우리가 무송을 떠나는 날 그는 나를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하투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주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그러는거야. 성주가 없는 나의 생활, 그것은 바이올린이 없는 관현악과 같은 것이지. 내가 성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성주는 다 모를 거야. 그러니 어데 가서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구. 나한테서는 성주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친구가 없어. 아무쪼록 몸조심하라구.≫

그날 장울화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래주었다.

그때부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4년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이다. 하지만 장울화는 언제나 나의 관심속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가슴은 늘 꽉 차 있었다.

나는 초조하게 김산호를 기다렸다.

콩기름 통을 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간 김산호는 콩기름 흥정을 하면서 얼마 동안 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장울화가 ≪형제사진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이 사진관이였지 내용은 무송지구의 지하조직들을 지도하는 본부나 다름없었다. 장울화는 이 본부에 틀어 앉아 돈벌이도 하고 조직원들과의 연계도 가지고 있었다. 김산호가 찾아가서 ≪장 선생, 좀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그는 현상실로 손님을 안내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이 보내서 당신한테 왔소. **김일성**장군은 지금 무송근방에 와 있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 오라고 해서 내가 그분의 위임을 받고 당신을 찾아왔소.≫

김산호가 장울화에게 한 말이었다.

장울화는 김산호를 인차 알아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 김성주! 성주가 가까이에 와 있단 말이지요. 당신은 김성주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소?≫

≪지금은 멀어서 가기가 힘드오. 우리가 차후 중간기점에 알맞춤한 장소를 정하고 통지할 테니 거기서 김 장군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장울화는 산호를 미덥지 않은 눈길로 훑어보다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았다.

≪좋소.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겠소. 김성주에게 편지를 고맙게 받았다는 내 인사를 전해 주시오. 내가 건강하다는 것과 약속에 충실하였다는 것도 보고해 주시오.≫

김산호는 의기양양해서 마안산밀영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1936년 봄이 나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새 봄의 훈향에 취한 사람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발목이 아파나도록 밀영을 거닐었다. 나의 제의에 따라 장울화와의 상봉장소는 무송현 묘령 부근에 있는 천연동굴로 결정되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수십 정보의 땅과 수십 정보의 인삼포, 수많은 가병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동무들 중 일부는 나의 묘령행을 미타하고 안심할 수 없는 걸음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령관동지, 이거 주제넘는 간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씨 부호의 아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동지의 소학동창이고 또 다년간 조직생활도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계급적 본성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어쨌든 착취계급의 자제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권고를 즉석에서 밀어 버렸다.

≪동무들, 동무들이 내 신변을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소. 동무들은 지금 계급적 본성이 어떻다면서 자기네 사령관이 무슨 함정에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는데 그것은 나의 둘도 없는 혁명전우 장울화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전선 정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소.≫

≪사령관동지! 저희들은 지방조직에 있을 때 사람의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자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교양받았습니다. 우리가 혁명군에 입대한 다음에도 적지 않는 지휘관들은 그렇게 교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과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는 오직 투쟁이라는 한 가지 원리만이 작용하며 착취계급 일반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거나를 막론하고 타도하거나 청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묘령행차의 반대자들은 한두 마디의 훈계에 호락호락 굽어들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혁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초혁명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 함구령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 대내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전의 명제들을 혁명실천과의 연관속에서 창조적으로 보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았다. 맑스나 레닌의 명제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치의 에누리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규로 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교조를 떼버리자면 꾸준한 원리교양이 필요했다.

나는 말했다.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의 적대계급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동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주, 자본가들이라고 하여 다 한 몽둥이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주, 자본가들 가운데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항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오가자 내막을 잘 아는 김산호동무도 있지만 조가봉이란 그 고장 지주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모른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조가봉이란 지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원해 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무장투쟁 준비를 하고 있던 1930년 가을에 장울화는 자기네 가병들이 사용하던 수십 자루의 총을 나에게 무가로 넘겨주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한 자루 한 자루의 총이 얼마나 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동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오에는 총 한 자루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열사들도 많았다. 그런데 장울화는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 힘들게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무기를 단꺼번에 40자루나 넘겨주었다.

장울화를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장씨 가정이 지난날 우리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했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계급성과 계급투쟁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이 우리 혁명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동무들의 견해대로 하면 장만정과 같은 지주는 아무리 혁명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착취계급이기 때문에 타도대상으로 되고 반면에 노동자, 농민 출신의 밀정은 아무리 혁명에 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기본계급이라는 이유로 포섭대상으로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규정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항상 공명정대한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소속이나 신앙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평가하고 공로는 공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언제나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과학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그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실제 행동을 기

본으로 하여 객관적 입장에 철저히 서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출신만을 절대화하게 되면 과학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런 평가는 공정한 평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만일 계급성이나 계급투쟁 일면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좌경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 그런 처사는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의 진영으로 밀어던지는 후과를 낳게 된다. 적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눈뜬 소경이 되어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닥치는 대로 타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동무들, 우리는 간도에서 반≪민생단≫투쟁의 과녁이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다. 같은 가마밥을 먹으며 생사를 함께 해온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 동무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눈물나는 그런 체험을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은 의심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들을 향해 함부로 그 저주로운 불신의 무기를 쳐들 수 있겠는가.…


강윤범

나는 이런 말로 묘령행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준 다음 몇 명의 호위 성원들과 함께 마안산밀영을 떠났다.

일부 사람들이 부자들의 계급적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걸고 나와 장울화와의 상면을 반대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내던진 그 말마디들이 나와 장울화의 우정, 우리 가정과 장울화네 가정 사이에 맺어졌던 친교를 모욕한 것 같아서 나는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송화강의 흐름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신성하고도 뿌리깊은 우의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이유나 궤변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는 진지하고 심오하고 진실한 것이었으며 전반적 혁명의 이익과 공산주의적 인도주의와 윤리도덕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유산자는 착취자라는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다 반동으로 본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사회개조의 어려운 길을 애써 걸어갈 필요도 없지 않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였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나의 소년 시절의 첫동지 강윤범은 가세가 넉넉한 집 자식이었다. 윤범이네 집에서는 자그마한 과수원도 가지고 있었다. 생활수준으로 보면 우리 만경대 집과는 비교가 안되였다. 그렇지만 나는 강윤범을 무척 사랑하고 신임하였다.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회고록 1권에서 이야기한 백선행도 큰 부자였지만 평양시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사실 그를 대부호로 만든 것은 평생 먹기 싫은 것을 먹고 입기 싫은 옷을 입고 하기 힘든 일을 했다는 그의 초인간적인 근검절약의 정신이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땅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며 치부하는 수전노들, 인륜의 도를 어기고 무지막지한 행위를 자행하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 내고 있는 악덕부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와 유산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백선행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콩나물장사도 하고 두부도 팔고 꽂도 팔고 베도 짜고 무명낳이도 하고 돼지도 기르고 뜨물찌끼장사도 하면서 얼굴에 분 한 번 바를 사이 없이 이악스럽게 부를 쌓아 나갔다. 16살에 청산과부가 된 때로부터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면서 피땀으로 저축한 수천수만 원의 거금을 그는 사회를 위한 사업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가 맨 처음으로 사회를 위해 해놓은 것이 바로 ≪솔뫼다리≫라고 부르던 송사리의 석조다리이다. 백과부의 덕행에 감동된 평양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선행이라 짓고 그 함자를 따서 ≪솔뫼다리≫를 ≪백선교≫라고 명명한 것은 그 후의 일이였다.

그 당시 평양의 신시가지에는 부립공회당이 하나 있었다. 그 공회당의 사용권이 일본인들에게만 있고 조선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조선사람들만을 위한 공회당건설의 총공사부담을 혼자서 걸머지고 수만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출자하였다. 지금도 연광정앞에는 지난날의 평양공회당이던 3층짜리 석조건물이 옛모습 그대로 서 있다.

백선행은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데 평양의 광성소학교, 창덕학교, 숭의여학교와 같은 학교들에서는 그가 기증한 수십 정보의 토지들을 밑천으로 삼아 학교를 운영하였다. 결국 나도 백과부의 덕이 미친 창덕학교에서 그 덕행의 일부를 받아 안은 셈이다.

백선행은 자기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곤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들딸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놀지 말고 공부하기 싫다고 책을 밀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우리 나라가 독립된단다.

총독부에서 주는 표창을 전달하려고 서울에서 고관이 내려와 면회를 청하였으나 백 과부는 거절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장하고 견지해 온 사람 평가에서의 사상본위, 행동본위의 기준은 훗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조국광복회 산하에 그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국통일이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그처럼 많은 남녘의 민중들과 해외교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깃발밑에서 어깨를 겯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사상이나 본심을 보지 않고 신분에 기초하여 부자 일반을 반대하는데로 나아갔더라면 해방 후 정준택, 강영창, 노태석, 이지찬, 김응삼과 같은 유산자 출신의 지식인들은 우리 나라 정치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그처럼 놀라운 헌신성과 위훈을 발휘하지도 세우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중국의 유산자들도 이와 꼭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하였다. 이런 관점과 입장이 없었더라면 나는 대지주의 아들인 진한장을 나의 벗으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부호의 자식인 장울화를 우리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한장이나 장울화의 생애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해 온 명망 높은 인사들 가운데는 유산계급 출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많았다.

자기의 전생애를 중화민족의 행복과 공산주의 위업,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위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주은래도 출신을 따지고 보면 청나라 말기의 부유한 관리의 아들이었다.

장울화가 출신과는 관계없이 자산계급을 적대계급이라고 보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운동에 전생애를 바친 것은 나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에게 애국주의적인 교양을 준 것은 아버지 장만정이였지만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나와 나의 동무들이었다. 내가 무송 제1우급 소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을 때만 해도 그는 소박한 소년 우국지사에 지나지 않았다.

나도 역시 그 당시까지는 평범한 애국소년이었다. 그가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ㅌ·ㄷ≫와 공청을 조직하고 그 줄기를 사방에 뻗쳐갈 때였다.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와 박차석을 중심으로 하여 무송에서 당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공산주의 비밀소조를 무었는데 정학해, 채주선과 함께 장울화도 그 조직에 관계하였다. 이때부터 장울화는 공산주의물을 먹기 시작하였다.

나는 사 회장의 소개로 무송 제1우급 소학교에 편입한 첫날부터 장울화와 함께 공부하였다. 우급이란 고급이란 뜻이다. 불우한 망국소년 김성주와 대부호의 아들 장울화의 동석 공부, 어찌 보면 역사의 장난같기도 한 이 파격적인 결합속에서 우리의 유례없는 우정이 싹트고 개화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는 그 조건부속에 우리 우정의 출발점이 있은 것은 아니었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나의 아버지 김형직과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의 천교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었다.


백산학교

공영과 박진영의 도움으로 만강의 토비굴을 무사히 탈출한 아버지는 한동안 대영이라는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전부터 친교가 깊었던 최면장이란 독립운동자에게 무송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현당국의 거주 승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고 최면장이 현정부를 찾아갔지만 조선인 혁명가들이 자기네 관할구역에 와서 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현장은 망명자라는 한 가지의 이유로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런 때에 무송의 대부호 장만정이 병에 걸려 명의를 물색한다는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날아왔다. 아버지는 최면장의 부탁을 받고 장만정을 치료해 주었다. 이 과정에 장만정은 아버지의 붓글씨를 보고 혹했다고 한다. 그도 글씨를 잘 썼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나의 아버지와 장울화의 아버지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만정에게도 현정부가 무송거주를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최면장은 최면장대로 장만정을 설복하고 무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유지이며 지식분자인 사회장을 만나 교섭하였다. 사 회장이란 무송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던 사춘태선생을 말한다. 사춘태선생이 교장을 하면서 교육회 회장을 겸하였기 때문에 무송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를 사회장이라고도 불렀다. 사 회장은 방조를 약속하였다.

그 후 장만정이 현정부를 찾아가 조선인 망명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시내에 들어와 의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의 거주를 승인해 주면 일본놈들의 도발에 걸려들 것 같아서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을 반대해서 싸우는 것은 응당한 일이 아닌가, 당신도 친일파는 아니니 승인하면 좋지 않은가, 여기에 일본영사관도 없는데 겁날게 무엇인가, 임강에서 파견되어 오는 영사관 경찰들과 밀정들만 속이면 될 텐데 김형직이 무송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전복하였다. 감심한 현장은 우리 아버지의 무송거주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만정은 우리 아버지가 폐교된 백산학교를 복구한 다음 그 인가를 얻으려고 안타깝게 뛰어다닐 때에도 현상무회 부회장 겸 교육회 위원의 자격으로 유지들과 함께 현당국을 설복하여 인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일가앞에 타개하기 어려운 생활상 고충이 가로놓일 때마다 그는 수고가 필요하면 수고를 바치고 금력이

필요하면 금력을 바치면서 온갖 성의를 다하여 사심 없는 도움을 주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장씨 일가의 방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계속되었다. 장만정은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들을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주 돈도 보내주고 음식도 보내 주곤 하였다.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한번은 형권 삼촌이 군벌당국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는 때에 삼촌까지 감옥에 잡혀가니 어머니로서는 앞길이 막막하였다. 어머니는 생각다못해 이번에도 장울화의 아버지를 찾아가 경찰당국에 설복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장만정의 교섭으로 삼촌은 곧 석방되었다.

장만정은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양심적인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불관언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부였지만 나라를 되찾겠다고 와신상담의 길을 걷는 우리 아버지를 동정하였으며 아버지가 병사하신 다음에는 뜨거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나를 독립운동자로서 지지하고 옹호해 주었다.

장울화는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나를 단순한 독립운동자로 보고 있었다.

무송에는 군벌의 앞잡이들과 일본사령관의 밀정들도 있었지만 장만정, 사춘태, 원몽주, 전아종과 같은 양심적인 유지들과 애국자들도 적지 않았다. 원몽주란 장울화의 외삼촌이다. 내가 제1우급 소학교를 다닐 때 심양사범학교 출신인 그는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후에는 교장사업도 하였다. 원몽주가 주관하는 유희체조 시간과 풍금교습 시간은 학생들이 제일 사랑하는 인기 시간들이였다. 국민당 좌파 소속의 전아종도 사상경향이 좋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병원도 운영하고 다른 편으로는 시계방도 차려놓고 두 개의 영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사상만은 아주 진보적이었다. 그의 형 전아철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와 장만정 사이에 이루어진 교분은 나와 장울화의 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장만정의 집으로 왕진을 가고 장만정이 마실을 오느라고 우리 집에 들락날락할 때 나는 나대로 장울화의 집에 나들이를 가고 장울화는 장울화대로 우리 집에 공부를 하러 왔다.

장울화가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에게 조선음식을 해 주었다. 장울화는 조선음식을 무척 좋아했다. 장울화네 집에서는 나에게 교지를 빚어 주었다. 장울화가 조선음식을 좋아하듯이 나는 교즈를 대단히 좋아했다. 산동지방 출신들이 교즈를 잘 만들었다. 장만정은 산동지방 태생이었다.

1920년대 중엽의 무송시가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내 동쪽에 동문 1개와 북쪽에 북문 1개, 서쪽에 서문 2개가 각 있었으며 남쪽에는 소남문과 대남문이 있었다. 대남문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장만정이 경영하던 상점이 있고 거기에 얼마쯤 더 가다가 꺾어 들어가면 장울화네 집이 있었다. 우리는 이 성시의 모든 거리들을 다 돌아다녔고 모든 문들을 다 지나다녔다. 어디엔들 안 가본 데가 있고 무슨 놀음인들 안해본 것이 있으랴. 나와 장울화는 학교 마당에서 정구도 자주 치고 송화강에서 미역도 뻔질나게 감았다. 우리는 문예오락 경연에도 같이 출연하였다.

장울화는 성미가 내성적이면서도 강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참으로 뛰어들었고 불의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인간이건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다. 일단 결심만 하면 칼날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날카로운 성미였다.

한번은 어떤 경찰이 학생들의 면전에서 별치 않은 일을 트집잡아 우리 학교 교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쓰러뜨린 적이 있었다. 교원을 하느님처럼 신성시해 온 학

생들은 이 놀라운 사실앞에서 눈이 뒤집혀질 지경으로 분노하였다. 나는 장울화와 함께 학생들을 발동시키는 성토연설을 하였다. 경찰이 교원을 구타한 것은 학원에 대한 침해이며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다. 조그마한 현경찰서의 경찰 나부랭이가 교원을 함부로 때리다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경찰당국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그 무뢰한 같은 경찰이 학교에 와서 매맞은 선생에게 모자를 벗고 사죄하라고 하자.

우리는 ≪교원을 구타한 야만적인 경찰을 엄벌에 처하라!≫, ≪교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자!≫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현정부 건물앞에 밀려가서 악덕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정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을 적당히 구슬려서 이 사건을 얼렁뚱땅해 넘기려고 하였다. 투쟁은 실패하였다.

우리는 힘으로 폭행경찰을 징벌할 것을 결심하였다.

어느 날 밤 그 경찰이 극장으로 간다는 통보가 나한테 날아왔다. 경찰을 혼내기에는 아주 알맞춤한 기회였다. 그런데 경찰 놈은 때려준 다음 그놈들이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극장 밖으로 몸을 빼려면 무대 위에 걸려 있는 가스등을 처리해야 했다. 누가 이 가스등을 끌 수 있는가? 모두 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할 때 문득 장울화가 자진하여 이 임무를 맡아 나섰다. 그날밤 10여 명의 학생들은 극장에 가서 예정대로 거사에 착수하였다. 중간 휴식시간이 되자 장울화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나무 막대기로 가스등을 박살냈다. ≪때려라!≫하는 나의 외침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경찰 놈이 꿇어앉아서 잘못을 빌 때까지 호되게 그놈을 족치고 감쪽같이 빵소니를 쳤다.

그날 밤 장울화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에게 말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흡족하구나. 부정의를 힘으로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흐뭇하고 통쾌한 일인가 하는 걸 난 오늘밤에 처음으로 깨달았어.≫

≪그런 놈팽이들은 용서하지 말아야 해. 그런 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 주자 장울화는 문득 길가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어조를 바꾸어 심각하게 물었다.

≪성주,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 어느 학교로 가겠니?≫

그것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소학 이후의 자신의 전도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심상하게 대답했다.

≪글쎄, 사정이 허락하면 중학교에 가겠는데 나야 어디 중학교까지 갈 처지가 됐니, 울화, 그럼 넌 어느 학교로 가겠니?≫

≪난 심양 가서 외삼촌이 다니던 사범학교를 다니고 싶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권고하신다. 네가 만일 반대하지 않는다면 난 널 심양으로 데리고 갈 테야. 거기 가서 한 학교를 다니잔 말이야. 사범학교를 마치면 대학에도 같이 가구…≫

≪아청이,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일인가?≫

≪왜? 학비 때문에? 학비 걱정은 안해도 돼. 내가 있지 않니.≫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도 공부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다. 망국노가 됐는데 대학이 다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립투쟁에 나서겠단 말이지? 네가 혁명을 하러 떠날 때는 나도 너를 따라 떠나겠다.≫

≪심양은 어떡하고? 사범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네가 동행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구. 네가 동행하지 않는 심양행이란 있을 수 없어. 난 말이지 일평생 네 곁에 있고 싶어. 네가 상급학교에 가면 나도 상급학교에 가고, 네가 공산당이 되면 나도 공산당이 되구…≫

그날 밤 장울화가 말하고자 한 요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장울화의 그 말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나는 장울화의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말했다.

≪아청이, 고맙다. 그런데 공산당이 뭔지 알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

≪왜 몰라. 이대교나 진독수가 하는 그런 일이겠지.≫

≪공산당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해. 너 그런 각오가 돼 있니?≫

≪그런 건 겁나지 않아. 너하구만 같이 있는다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아.≫

장울화의 이 불의적인 선언은 나를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가 무슨 충동을 받고 그런 선언을 하는지 나로서는 가늠이 잘 가지 않았다. 명백한 것은 그가 그날 밤 내앞에서 한 말들이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서 무르익혀온 이상과 신념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장울화는 나의 이상을 자기의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나의 신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는 주의를 결정한 다음 그 주의에 맞는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선택한 다음 그 친구가 지향하는 주의를 선택하였다. 장래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장울화의 이런 입장은 나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우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장울화는 나를 진심으로 동경하고 따랐다.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날 때 그가 울면서 나를 따라가겠다고까지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장울화의 작별은 나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어려웠다. 장울화가 이별을 앞두고 너무도 애달파하므로 나는 이틀 밤이나 한 침상에서 밤을 밝히며 그를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룻밤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은 장울화네 집에서 서로의 가슴을 달랬다. 내가 화전으로 출발하던 날도 그는 송화강 나루터에까지 나와 울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그날 그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성주, 신분의 차이라는 게 주무랑마봉보다 더 높을까?≫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어. 너의 아버지가 네 요구를 허락하지 않은 건 아직 객지생활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야.≫

≪만일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구속을 한다면 난 너와의 우정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뱅이가 될 결심이 돼 있어. 하여튼 성주, 네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건 난 어느 때든지 네 곁으로 찾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있어라.≫

장울화는 그 후 이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였다. 내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권총을 훔쳐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가족들 몰래 슬그머니 나를 찾아왔다.

아닌 밤중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장울화를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성주, 난 마침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의 곁으로 찾아왔다. 자 이것이 내 결심이다!≫

장울화는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는 깨고소해 하는 표정을 머리를 잔뜩 뒤로 제끼고 천장의 한 점을 뚫어지게 응시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용케 너를 놔주었구나.≫

≪놔준다는 게 다 뭐야. 당장 심양으로 떠나라는 걸 뿌이치고 몰래 빠져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겠니?≫

≪대소동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나 그까짓 거 괜찮아. 찾다가 없으면 누구든지 길림으로 오겠지. 십중팔구는 너한테 와 있을 거라구 짐작할테니까.≫

장울화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장울화가 길림에 나타난 며칠 후 그의 형 장울중이 가병을 데리고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동생의 행적을 수소문하였던 것이다. 동

생이 나한테 와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오금을 꺾으면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있다니 됐다. 그런 걸 우린 토비한테 붙잡혀간 줄로만 알았구나.≫

≪울중 형님, 우리가 옆에서 잘 돌보아 줄 테니 아청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장울화은 ≪성주, 나는 마음놓고 가겠다. 울화는 너한테 맡긴다.≫라고 하였다. 그는 장울화에게서 권총도 회수하지 않은 채 가병들을 데리고 무송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나는 장울화를 오가자와 고유수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 고장들에서 1년쯤 교편을 잡다가 부모들의 소원대로 상급하교 공부까지 다 끝낸 다음 다시 우리 대오에 와서 혁명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나의 권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상봉과 이별이라는 두 개의 극점의 부단한 교차속에서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 깊어갔다.

나와 장울화의 상봉을 마련해 준 그 동굴이 지금도 무송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ㄱ≫자 형으로 된 이 동굴의 길이는 15미터 가량 되었는데 비밀접선 장소로서는 이보다 더 이상적인 처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자연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장울화는 나를 만나자 막 울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나도 사진현상약 냄새가 푹 배인 그의 어깨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성주, 어디 갔다 이제야 오오? 그새 왜 한 번도 무송에 나타나지 않았나 말이오? 내가 성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장울화의 첫 인사였다.

≪낸들 왜 울화를 보고 싶지 않았겠소. 나도 무송에 오고 싶었소. 무송에 와서 울화를 만나고 싶었소.≫

≪그럼 편지라도 할 것이지. 나는 성주 주소를 모르지만 성주야 내 주소를 알지 않소.≫

≪울화, 용서해 주오. 우리가 살던 간도의 유격구에는 우정국이라는 것도 없었소.≫

≪우정국이 없다니? 아니, 세상에 그런 고장도 다 있소?≫

나는 지나간 4년동안 우리가 겪어온 고초들에 대하여 낱낱이 말해 주었다.

장울화는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훔쳤다.

≪울화, 왜 그냥 울기만 하오? 혹시 울화한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오?≫

나는 말을 중도반단하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장울화는 눈물을 훔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다.

≪성주가 걸어온 지난날이 너무도 비참해서 그러는 거요. 성주가 그런 고초를 겪을 때 그 곁에 내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소.≫

≪아니요, 울화 항상 내 곁에 있었소.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고무해 주었소.≫

≪고맙소. 성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오. 사람들이 성주를 장군이라고, 사령관이라고 부르던데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겠소.≫

장울화가 느닷없이 사령관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나는 바삐 손을 내저었다.

≪울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령관이라고 불러도 울화만은 제발 성주라고 불러 주오. 나도 울화를 선생이 아니라 울화라고 부르겠소.

성주, 울화! … 이게 얼마나 듣기가 좋아.

그런데 울화, 울화는 그 동안 어떻게 지냈소?≫

장울화는 늙은이처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나서 쓸쓸하게 웃었다.

≪성주의 과거사를 듣고 나니 내 인생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생각이 나

지도 않소. 내가 도대체 그 닭의 둥우리 같은 무송바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소. 화성의숙 시절의 성주 동창생인 강병선이하구 둘이서 ≪형제서국≫과 ≪형제사진관≫을 꾸리구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공청조직을 지도한 것밖에 없소.≫

그는 공청조직의 활동정형과 무송지방 반일단체들과 움직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나는 그 동안 장울화가 쌓아올린 사업성과를 고무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공청조직을 모체로 하여 무송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었다.

장울화는 그 과업을 받고 몹시 난처해하였다.

≪성주, 내 능력으로 그처럼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야 지하사업경험도 미숙하지 않아.≫

≪4년동안 공청조직을 지도해 왔으면 그것도 큰 경험이라구 봐야지. 내가 김산호정치위원을 자주 보낼 테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의 방조를 받으라구.≫

우리의 담화는 3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담화가 사업상의 문제로부터 다시 사생활 문제에로 넘어갔을 때 장울화가 불쑥 내 팔굽을 움켜잡고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마지못해 어머니가 세상을 하직한 소식, 철주가 전사한 소식, 영주가 남의 집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아동단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 화제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연들이었다. 장울화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침통한 기분에 잠길 것 같아 은근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면 내 자신의 상처에도 피가 흘러내릴 것 같았다. 나는 4년만에 이루어진 우리의 해후에 비극적인 색채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일은 내가 우려하던 그대로 번져갔다. 장울화는 우리 집 소식을 듣자 한참 동안 또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성주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구만. 영주도 불쌍해. 내가 그 애를 위해 해줄 만한 일이 없을까? 나한테 그 애의 주소만이라도 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수첩을 꺼내들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울화, 그 애도 이젠 다 컸소. 그 나이이면 자수성가도 할 수 있지. 그 애에게 자선을 베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좋겠소.≫

장울화는 내 말에 굽어들지 않고 그냥 완강하게 수첩을 펼쳐들고 있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대로 안도 김정룡의 집 주소를 적어 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도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가 안도의 영주 동생을 위해 큰 자선을 베풀었을 것이다.

묘령동굴에서의 상봉이 있은 후 우리는 다시 대영온천 마을에서 두 번째 상봉을 하였다. 대영의 앞산 골짜기에 우리 사령부가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장울화를 만나러 가곤 하였다. 장울화는 그때 탕욕을 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영에 며칠 동안 와 있었다. 우리 부대가 무송지구에 진출한 후부터 적들이 나의 연고자들과 친지들의 뒤를 밟으면서 감시를 악착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도 우리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하였다.

나와 장울화는 온탕욕을 하면서도 많은 담화를 하였다. 그때의 담화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가 나의 권고대로 공청조직에서 단련된 핵심들로 당조직을 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일이다. 그때 벗의 얼굴에 아침 노을처럼 스며들던 행복한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장울화가 대영에 와 있는 동안 우리는 그가 추천하여 데려온 공청원 3명을 부대에 받아들였다. 자기가 손때에 묻히며 애지중지 키워낸 청년들이 혁명군의 군복을 입고 총을 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장울화의 입가에 비끼던 그 행복한 미소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3명 중의 한 대원인 연비서는 교원 출신으로서 훗날 우리 부대가 백두산지구에 나가 활동할 때 밀영의 나무들에 구호를 많이 썼다. 그가 쓴 구호 나무들이 지금도 여러 밀영들에 남아 있을 것이다.

대영온천에서의 담화내용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특별히 인상 깊게 추억되는 것은 작별 전야의 마지막 대화였다. 장울화는 그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

≪성주, 난 성주를 볼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 있소.≫

≪무슨 문제인데?≫

장울화가 얼굴에 수태를 머금고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나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혼의 덕으로 만 20살도 되기 전에 장가를 들어 벌써 네 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였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오. 성주가 부대를 이끌고 남전북정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때 난 집에서 결혼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면서 호강스럽게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중엔 별소릴 다하는구만. 장가를 가서 아이아버지가 되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거야 축하를 받을 일이지.≫

≪그런데 나보다 한 살 위인 성주는 아직 미혼이 아닌가. 성주, 말해 보라구. 그냥 총각으로 있을 작정이오?≫

≪글쎄 난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결혼이 나의 관심사로 되자면 좀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할 것 같애.≫

≪그러다가는 때를 놓치겠소. 성주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 무송에서 배우자를 한 명 물색해보지. 무송에서 못 고르면 심양, 천진, 장춘, 길림, 하얼빈을 다 뒤져서라도 세상이 깜짝 놀랄 경국지색을 골라내겠소.≫

≪그만두라구. 그런 경국지색이 뭐 산에 와서 껄껄한 통강냉이죽대접을 받겠다던가?≫

≪두고보라구. 내 이제 양귀비 같은 미인을 골라내지 않나.≫

장울화는 이런 농질을 한 다음 내 손을 크게 잡아 흔들고 나서 대영땅을 떠났다.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남기고 간 그 미소가 내 망막속에 지울 수 없는 형상으로 깊숙이 새겨졌다. 그것이 장울화가 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미소였다.

나는 물론 그가 언명하고 간 것이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의 말이고 실현 불가능의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에서 장울화만이 지닐 수 있는 진실한 우정을 느꼈다. 장울화가 아니고야 나를 위해 그처럼 솔직하고 그처럼 순결하고 그처럼 열에 끓는 그런 약속을 하겠는가.

무송에 들어간 장울화는 온갖 재력과 심력을 다 동원하여 우리 부대에 대한 후원을 정열적으로 하였다. 그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솜, 신발, 양말, 내의, 약품, 식량, 사진기재들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원호물자들이 우리 부대의 밀영으로 연속 흘러들어 무송지구에서의 혁명군이 활동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장울화의 지성이 담긴 3,000원의 거금으로 우리는 아동단원들과 주력부대 대원들에게 새 옷도 한 벌씩 해 입히고 여러 가지 후방물자도 해결하였다.

대영의 경찰분서장 당진동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양세봉과의 합작을 위하여 남만으로 갈 때에도 무송에서 이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었다. 우리가 다시 대영에 갔을 때 그는 밀사를 보내어 자기들에게 공개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협박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물자를 다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대영경찰분서장은 ≪협박장≫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돼지고기, 밀가루, 콩기름, 뜨개옷 같은 후방물자들을 여러 번 달구지에 실어 보내 주었다. 그 당시 경위중대가 대영경찰분서장이 보내 준 물자를 가지고 20일 가량 어렵지 않게 지냈다.

그 해 가을 장울화는 갑자기 헌병대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적들에게 그를 밀고한 것은 한때 백산청년동맹 무송현지회 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나의 소학 시절의 동창생인 정학해였다. 그는 초기에 혁명바람을 피우면서 얼마간 돌아다니다가 변절하여 임강 헌병대의 조종을 받는 선무공작반에 들어갔다. 선무공작반이란 ≪귀순공작대≫의 이음동의어이다. 내가 부대를 이끌고 무송지방으로 진출한 후 적들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변절자들을 여기저기에 파견하였다.

어느 날 정학해는 장울화를 찾아와 ≪내가 지금 **김일성**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안다, 내가 얼마 전에 김성주를 만나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정학해가 과거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장울화는 인차 경찰에 검거되였다. 사람을 호의적으로만 대하는데 버릇된 그는 지하조직의 운명을 걸머진 당소조의 책임자로서 너무나도 순진하고 무경각하였다. 사람에 대한 환상과 무경각성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오라줄에 묶인 몸이 되게 하였다. 작들은 장울화를 통하여 우리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내어 무송지구 지하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아쥐려고 그에게 온갖 악형을 다 가하였다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위치와 조직선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고 냉철하게 판단한 그는 자결을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다만 며칠이라도 집에 가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장만정은 돈과 뇌물을 먹이면서 아들을 병보석으로 내놓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적들은 장울화를 가석방시킨 다음 그와 내통하는 비밀조직선과 우리 부대의 공작선을 잡아쥐려고 밀정들을 보내어 주야로 그의 집을 감시하게 하였다.

장울화는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김일성**장군과 함께 항일투쟁에 끝까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원통하다. 내 죽음으로 동지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김일성**장군의 신임과 우정에 보답하려고 하니 당신은 너무 슬퍼 말라.≫

그는 ≪적들이 특무를 파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찾고 있다. 사령부를 빨리 옮기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 사진현상약으로 쓰는 승홍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 비통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 음력으로 1937년 10월 2일이라고 한다. 그 당시의 장울화는 25살도 되지 않은 생신한 홍안이었다.

나의 친근한 벗이며 충실한 혁명전우인 국제주의 전사는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그는 나를 위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위하여, 조중 양국 인민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포성이 우뢰치는 중화의 대지 위에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채색구름처럼 아름다운 모든 숙망을 뒤에 남기고 장렬하게 요절하였다. 그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온 아들 장금천은 그때 네 살이었고 딸 장금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방금 출생한 때였다.

사람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보다 더 애석하고 원통한 일은 없다. 장울화가 비록 실수로 감옥행은 하였지만 사실 그는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 헌병대에 더 많은 돈과 뇌물을 먹이면 적들이 얼마든지 그의 ≪죄≫를 눈감아 줄 수도 있었고 볼기나 몇 개 치고 그를 관대하게 처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결의 길을 택하는 것으로써 인생의 다음 장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죽는다는 것도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천상만태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죽음 중에서도 자결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을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이 둔 청년들의 자결은 비상한 결단과 독심을 요구한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를 단념하고 죽음의 나라로 가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자결 가운데서 대부분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장울화와 같이 남을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한 실례는 흔치 않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희생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희생이 다른 인간들의 희생보다 더 비장하고 장중한 의미를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노비첸코 내외

장울화의 최후에 대한 비보를 접한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였다. 내 몸 가까이에서 이 세상의 일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허무감과 가슴을 세차게 떠박질리운 것 같은 타박감 때문에 나의 온 넋은 천야만야의 미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슬프디슬픈 나날들에 내 가슴속에서 추도가의 구슬픈 선율은 몇 백 번이나 울렸던가.

나는 그가 우리 부대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청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가 만일 인민혁명군에 복무하였더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이 무시로 치밀어 내 가슴을 알알하게 하였다.

입대청원을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청원을 심의하고 그를 부대에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의 요구이기도 했다. 한 청년이 참군을 하겠다고 열렬하게 지망해 나서는데 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1선에 서야 할 장울화를 2선에 세워 주었다. 내가 원칙을 떠나면서까지 장울화의 입대청원을 부결한 것은 장울화를 지나치게 사랑한 데 있었다. 부잣집에서 고생을 모르고 평탄하게 살아온 그가 산에 와서 온갖 시련에 부대끼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았다. 자기는 그런 고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장울화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여기에 바로 그에 대한 나의 편애가 있었다. 이것을 두고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한다하여도 나는 변명할 말이 없다.



체 게바라

지난날 신규식, 박영, 양림, 한위건, 장지락, 김성호, 정율성, 한악연 등 수천 수만에 달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중국혁명을 위해 몸바쳐 싸운 것처럼 수많은 중국의 아들딸들도 조선혁명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사랑에 국경이 없고 과학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혁명에도 국경이 없다. 장울화와 노비첸코, 체 게바라, 베쑨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장울화와 체 게바라는 국제주의자의 세계적 전형이며 에스파냐인민전선운동을 지원한 세계 여러 나라 공산주의들의 지원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항미원조운동은 국제주의의 세계적 모범이다. 장울화의 이름은 그 모범 위에서 거성처럼 빛나고 있다.

오늘 장울화는 조선인민들속에서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 인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조선혁명앞에 세운 업적을 경건한 심정으로 추억하고 있다.

4. 혁명전우 장울화(2)


장울화의 자녀들과 함께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이것은 전령병 김정덕이 계관라자전투에서 전사한 직후 그이 딱친구였던 김봉석이 나에게 던진 물음이다. 김봉석은 빨치산 시절의 나의 전령병이였다. 김정덕이 전사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고인을 잊지 못해 비분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경우의 우정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추억속에 비껴드는 형태로 지속된다고 대답했었다. 그 실례로 나와 장울화의 우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것은 체험에 기초한 내 심정 그대로의 고백이였다. 장울화가 서거한 지 몇 해가 지난 때였지만 나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꿈에도 그가 문득문득 나타나 생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와 우정을 나누곤 하였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의 심정이란 실로 이상야릇한 것이였다.

≪사령관 동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령병은 그때 분명 나의 대답에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어떤 심오한 훈계를 듣고 싶어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우정에 관한 문제가 나의 정신생활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은 두메산골의 보통 초부들도 생각할 수 있는 범상하고도 소박한 것이였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기고 간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때 내가 김봉석에게 한 대답은 이것뿐이였다.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은 초부들 뿐아니라 소학교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이치였으나 김봉석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정덕이 그에게 남긴 유지는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 때까지 사령관 동지를 잘 모셔 달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자신도 전사하였다.

고인의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최고의 의리로 된다는 것은 항일전쟁의 나날 나의 전우들이 다같이 품고 있던 공통된 견해였다.

≪쓰러진 혁명전우의 원쑤를 갚자!≫

≪중대장 동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저 고지를 점령하자!≫

≪동지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부탁대로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자!≫

싸움터와 숙영지, 행군로들에서 자주 울린 이런 내용의 구호들에는 희생된 전우들의 유지를 지켜가려는 빨치산 투사들의 지향과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도 역시 혁명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유지를 지키고 그들이 생전에 우리에게 표시하여

준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고 혈전분투하였다.지금도 나는 이런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혁명임무 수행에 투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도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국해방이라는 대사변을 분기점으로 하여 이 의리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맞게 바할 바 없이 풍부해졌다. 고인들의 유지를 잘 지키면 희생된 전우들앞에서 산 사람으로서의 우애를 다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국산천에 널려 있는 전우들의 유해도 조국으로 옮겨오고 싶어했고 역사의 수풀속에 파묻혀 있는 전우들의 업적도 후대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했다.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 전우들의 동상도 세워 주고 싶어했다. 새로운 도시와 거리들이 생기던 거기에 전우들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했다.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동지적 의리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양되었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기 바쁘게 일군들을 파견하여 해외에 널려 있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조국으로 데려왔다. 모래밭에서 금싸래기들을 주워모으듯이 한 아이, 한 아이 찾아내서는 만경대 혁명자유가족학원에서 공부시켰다. 국내에서 싸운 투사들의 자녀들도 그 학원에 데려다가 새 조선 건설의 역군으로 육성해 냈다.

1970년대에는 우리와 함께 싸우던 전우들의 모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 주기 위하여 대성산 주작봉에 혁명열사능을 건설하였다. 형제산 구역의 산머리 산등성이에는 제2의 혁명열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국열사능이 건립되었다.

이 모든 시책과 조치들은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동지애와 변함없는 순정의 표시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세기 이상의 장구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살아 있는 혁명전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희생된 전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만민의 찬양을 받을 만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창조한 전무후무한 인간관계의 역사, 동지애의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내 개인의 역사로 볼 때에는 장울화의 우정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와 장울화 사이의 우정이 장울화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죽음이 우정을 마감짓는 종막으로 된다면 그런 우정을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우정은 그것만으로도 살아 있는 우정, 생명을 가지 우정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장울화가 서거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장울화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장울화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 향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폐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전쟁이 조중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억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국의 동지들과 은인들 가운데서도 장울화는 단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나와 나의 일가를 도와주고 조선혁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 준 수많은 중국의 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고해 볼 때의 심정이란 실로 감개무량한 것이었다. 좋은 세월이 오고보니 은인들에 대한 그리움도 더 간절해졌다.

나는 장울화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남기고 간 부모처자들을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일가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뒤 동북지방에서 토지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 실시되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에 진행된 내전의 불길이 만주 전역을 휩쓸던 시기였다. 도처에서 악질지주들과 매판자본가들을 청산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는

때인데 장씨 가문 사람들도 혹시 독재대상으로 판정되어 부당한 제재를 받지나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웃 나라에서 동란이 일어나고 그 무엇인가를 타파하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장울화네 유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장울화가 공로를 많이 세운 혁명열사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면에서 지하공작을 많이 한 사람인 것만큼 대중이 큰 부잣집 자식인 그를 반동파나 역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들과 만나게 될 날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새 나라 건설과 반미대전,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복잡한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찾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일에만 전심하였다.

내가 장울화네 일가의 소식을 처음으로 입수한 것은 1959년경이였다. 그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되어 만주행을 하였다.

나는 답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영순단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박포리동무, 마안산밀영에서 아이들이 병마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천도 보내 주고 돈도 보내 주던 ≪형제사진관≫ 주인 장울화가 생각나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스무 해가 넘는데 난 아직 그의 부모처자들에게 문안인사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소. 무송에 가거들랑 동무가 나 대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시오.≫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무송에 가면 장울화네 유가족을 만나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박포리도 깊은 감회에 잠기는 듯 눈시울을 슴벅거렸다.

≪장울화는 사실 국적은 다르지만 조선사람이나 다름없고 조선의 혁명가나 다름없소. 그가 남긴 업적은 중국의 공산주의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항일혁명 역사에서도 당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소. 만일 장울화의 유가족들이 무송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다면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그들을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온 중국을 다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답사단이 중국으로 떠나간 후부터 나는 조조한 마음으로 무송소식을 기다렸다. 전쟁의 상처를 완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한 뒤여서 나에게는 희생된 옛 전우들에 대해서와 그들이 남기고 간 유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조국을 떠난 지 몇 달만에 박영순은 마침내 내가 그처럼 고대하던 무송소식을 전보로 보내 주었다. ≪오늘 무송에서 장울화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상님의 인사를 책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인이 답사단에 사진자료 한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상님과 장울화의 공동투쟁을 반영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국에 돌아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훗날 박영순이 보고를 듣고 장만정이 1954년에 서거하였다는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울화의 부인이 아들 장금천과 딸 장금록을 데리고 무송의 옛집에서 검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영순이 나의 명의로 되는 인사를 전해 주자, 장울화의 부인은 감격하여 어쩔 바를 몰라했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김일성**장군님의 우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 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답례의 표시로 수십 년동안 간수해 오던 사진 한 장을 답사단 단장앞에 내

놓으면서 나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울화와 철주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그 사진은 그 해 가을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수집한 사적자료들과 함께 당시의 민족해방투쟁 박물관에 전시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장울화의 얼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나는 그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20여 년 전에 대영에서 헤어진 장울화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평양을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정도로 그의 사진이 나에게 준 인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민들속에는 장울화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혁명전통을 잘 소개하지 않던 때여서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고 조선혁명을 위해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도 별반 없었다. 장울화와 나와의 연고관계를 아는 인물들이란 몇 명의 투사들뿐이였다.


장울화의 아내

나는 수원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고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이며 얼마나 훌륭한 국제주의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었다. 20여 년 세월 내 마음속에 고이고 고인 연민의 샘, 추모의 샘이 마침내 분수가 되어 솟구쳐 올랐다.

≪동무들, 이 사람이 바로 무송 제1우급 소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 장울화입니다. 그는 나의 벗인 동시에 충실한 혁명전우였습니다. 그의 전우들 가운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울화는 우리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교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을 동정하고 지지성원한 위대한 국제주의전사입니다. 혁명을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였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생명까지 바쳐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진을 보니 장울화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장울화와 같은 은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의 벗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 출판물들에는 장울화의 업적이 광범히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장울화는 나성고나 황계광과 같이 우리 인민이 다 아는 유명한 국제주의 열사로 되였다. 우리의 후대들은 김진과 마동희를 회상하듯이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장울화를 회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 답사단이 무송에 도착한 다음날 장울화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장군님과 너의 아버지는 소학교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두 분의 친교가 어찌나도 깊었던지 무송의 동창생들치고 그 우정을 부러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것도 **김일성**장군님의 영향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할머니도 늘 너희들이 그이를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단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네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단다. 금천아, 너는 큰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감사를 드리고 문안인사를 올려야 한다.≫

어머니의 회고담을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 장금천으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 1959년의 장금천은 아버지가 사진현상약을 먹고 자결할 때보다 두 살이나 나이가 더 든 미청년이였다. 그는 가족 일동의 심정을 대변하여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왔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며칠 밤 장울화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나와 장울화를 이어 주고 있던 우정의 피는 나의 문안인사와 장금천의 그 편지로

하여 다시금 하나의 동맥속에서 줄달음치게 된 셈이였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우정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산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울화에 대한 나의 우정은 나와 그가 남기고 간 자식들과 빈번한 만남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그때로부터 나의 관심은 용모도 성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청년에게로 쏠렸다. 신통히도 필체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하였다. 이왕이면 모습마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가 아니라 지척에서 실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 꿈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이러저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고 내 자신이 꾸준한 열의와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와 장울화의 유가족들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냉담한 저지선이 그어져 있다. 국경은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에 이해를 표시할 수 없는 엄격한 차단물이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1984년 5월 나는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을 역방하는 기회에 기차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통과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였다. 동북의 산야는 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곳이고 무장항일의 만고풍상을 헤쳐가던 곳이다. 나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산야에 많은 추억을 묻어두고 있었다. 생시에 못 가보는 안타까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꿈에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는 고장! 그래서 **김정일**조직비서도 노정을 도문→목단강→하얼빈→ 치치할→만주리→쏘련으로 잡아 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낯익은 산발들에서 오래 눈을 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이 땅에 쓰러졌던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때였지만 불무지앞에서 쪽잠도 같이 들고 풀 죽도 같이 나누고 초연에 살도 같이 그슬리던 옛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차창 밖에서 시선을 좀처럼 돌릴 수 없었다.

우리를 태운 특별열차가 도문을 떠나 돈화 쪽으로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무송에 있는 장울화의 처자들 생각이 나서 수원들을 불렀다.

≪이곳은 내가 오래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였소. 시간이 있으면 빨치산 시절의 전우들과 친지들도 만나보고 전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싸움터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오. 여기서 몇백 리밖에 안되는 무송땅에서 장울화네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오. 그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이라도 보내 주었으면 좋겠소.≫

며칠 후 나의 이름으로 된 선물을 중국의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장울화의 집에 전해 주었다.

유럽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온 나는 장금천이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를 평양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호요방총서기에게 장금천의 우리 나라 방문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85년 4월 장금천은 마침내 동생 장금록과 맏아들 장기를 데리고 역사적인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일만초목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만화방창한 봄날 나는 홍부대초대소에서 무송의 귀빈들을 만났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금천과 장금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크나큰 격정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닮은 장금천과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장금록, 그리고 양친의 두 얼굴에서 좋은 세부들을 이것저것 따다가 모방한 것 같은 장기! 그들이 부모들의 생김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였다. 이미 고인들이 된 장울화 부부가 소생하여 내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조차 들었다. 나는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장울화다운 면모를 발견해 내려고 시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묘령과 대영에서 장울화를 만났을 때처럼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한아름에 그러

안았다.

≪너희들을 환영한다.!≫

나는 첫 인사를 중국말로 하였다. 수십 성상의 세파를 겪는 과정에 나의 중국말 밑천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긴 때였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너희들을 환영한다.≫는 중국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국가수반이 외교석상에서 다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은 관례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관례를 무시해 버렸다. 장금천일행은 외교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였고 나도 외교를 하려고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아니였다. 전우의 자손들을 만나는데 외교는 해서 무엇하며 관계를 따라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날 그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석상에서 축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관례에 없는 일이였다.

≪우리는 한 집안식구인데 축배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여기에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중조친선을 위해 잔을 찧자!≫

내가 축배사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장금천도 기뻐하였다.

장금천은 아버지처럼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나는 그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수가 높지 않은 들쭉술을 석 잔씩만 마셨다. 나는 미테랑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들쭉술을 권했었다. 왜정 때에는 일본천황만 마신다고 하던 유명한 술이다. 석 잔이라는 그 수량속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1932년 6월 무송현 십자거리 북쪽의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에서 나와 장울화가 작별 담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석 잔의 술을 마셨다.

무송의 귀빈들을 위한 환영연은 3시간 공안이나 진행되었다. 격식과 관례를 벗어난 이날의 오찬 분위기는 참말로 가족적인 것이였다. 우리는 정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화제 가운데서 중심을 이룬 것은 의리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우리 일가에 대한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무송시절에 체험한 과거사를 술회하였고 손님들은 나의 의리를 두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너의 아버지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도와주었다.≫

나는 한마디로 장씨 가문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내가 그날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비롯한 장울화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이 되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인간의 도리는 봉건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군신과 부자지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동지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붕우유신이란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성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덕과 의리에 기초하는 덕치주의를 선양하여 인자무적이라고 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이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며 현대 생활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삼강오륜을 덮어놓고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공산주의이념에 인위적으로 대치시키고 그 도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신하의 도리가 무엇이 나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효도가 어찌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도덕관념이 봉건적인 국가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인민들을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에로 내모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인간 본연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원리적 측면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장울화와 나와의 사이는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였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를 보호해 준 것은 삼강의 군신유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갓 혁명동지에 불과한 나와 혁명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삼강의 요구와는 다른 최대의 공산주의적 의리를 발휘한 것이다. 장울화의 업적이 그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이 의리의 순결성과 숭고성에 있었다.

그때 장금천일행은 무송사람들과 가문을 대표하여 나에게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는 나무장식으로 된 시계와 한 폭의 중국화 ≪다수도≫를 선물하였다.

한 농가에서 아이가 큰 장수복숭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였는데 장금천의 해석에 의하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장금천, 장금록, 장기의 팔목에 각각 하나씩 채워 주었다.

장금천은 그때 평양에 와서 종합검진도 받고 삭아서 못쓰게 된 어금니 대신 금 틀니도 해 넣었다.

나와 장금천일행과의 두 번째 상봉은 국경도시 신의주초대소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귀국의 길에 오르는 그들을 위해 또다시 오찬을 마련하였고 3시간에 걸치는 담화를 하였다.

작별을 앞두고 내가 일행에게 각각 1대씩 사진기를 선물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나는 천사만량의 고려 끝에 그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사진기를 선택하였다. 무송에서 ≪형제사진관≫을 운영할 때 장울화는 우리에게 사진기도 1대 보내 주었다. 내가 마련한 사진기는 장울화의 그 선물에 보답이기도 했으며 사진업으로 혁명에 투신한 그의 모범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장금천도 아버지처럼 무송에서 사진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나는 작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했다.

≪난 내일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어라. 지위를 탐하지 말고 잘못을 범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장금천은 1987년에도 처 왕봉란과 둘째 아들 장요, 손녀 장맹맹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을 일곱 차례나 만나 주었다. 이것도 역시 기성관례나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5살난 장맹맹은 나의 생일 7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 중에서 제일 연소한 벗이였다. 그는 장씨 가문의 다섯 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4월 13일 밤 장맹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과 함께 초청에 따라 봉화예술극장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전≫에 참가한 세계 각국 예술단들의 연환공연을 관람하였다. 나는 그날 그 극장에서 장맹맹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휴게실에서 나와 중간통로를 거쳐 객석으로 다가가던 나는 통로 옆의 맨 앞줄에 자리잡은 장금천부부와 인사를 나누다가 그를 덥석 끌어안고 공중으로 추켜올렸다. 장맹맹은 서먹서먹해하는 기색도 없이 내 볼에 볼을 비비면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극장 안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들은 우리에게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와 장씨 일가의 인연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손님들도 이 장면의 목격자로 된 기쁨을 알고 오랫동안 만장이 떠나갈 듯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렇다. 맹맹아, 내가 너의 큰 증조할아버지이다. 이렇게 너를 안고 보니 너의 증조할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증조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시는 분이였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30살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지 알 수 없

구나. 너는 5대째로 피어나는 조중친선의 꽃이다. 너의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이 친선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왔다. 너는 그분들이 흘린 피와 노고 위에서 태어난 한 떨기의 꽃이다. 조중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해서 온 세상이 보란 듯 곱게 피어라.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휘감긴 그 짤막한 순간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이런 것이였다. 나는 장맹맹을 품에 꼭 그러안았다. 처녀애의 작은 심장은 내 심장 가까이에서 빠른 박동으로 고르롭게 뛰고 있었다. 그 힘차고 열정적인 박동이 내 가슴에 와 닿은 순간은 나와 장울화의 우정이 5대째로 이어진 의미심장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장만정, 장울화, 장금천, 장기, 장맹맹… 그렇다. 풍파 사나운 세월의 유수에도 불구하고 두 가문의 우의는 무수한 장강과 내를 건너 5대째로 이어진 것이였다. 두 가문의 우정인 동시에 조중 두 나라, 두 인민의 친선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금천도 훗날 이 친선을 가리켜 ≪흘러온 옛정≫이라는 말로 명명하지 않았던가.


장울화와 철주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나와 나의 품에 안겨 있는 장맹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 조중친선이 천추만대를 두고 영구불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날 나는 장울화와 동생 철주가 찍은 사진에 기념으로 나의 이름을 써주었다. 금천이는 그것을 자기 집의 가보로 정히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장금천 일행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는 그들에게 전용비행기와 특별열차를 내주고 많은 봉사 성원들도 붙여 주었다. 그들은 장울화의 후손들로서 국빈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받은 셈이였다.

1992년 4월 장울화의 자제들은 나의 생일 80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세 번째로 되는 그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였다. 장금천 부부와 장기부부, 장유, 장맹맹,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장금록과 그의 남편 악옥빈, 딸 악지운, 아들 악지상 등 12명에 달하는 일행이 평양에 모였다. 방문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의 장울화의 후손들 사이의 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열렬해졌다.

장금천은 세 번째 방문기념으로 나에게 자기가 손수 집필한 장편수기 ≪흘러온 옛정≫을 선물하였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장만정의 교분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정의 우의에 대하여 보태지도 가공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서술한 책이였다. 필치는 비록 소박하였으나 글줄들에 넘치는 우애의 정, 친선의 정은 참으로 호방하고 유창한 것이였다. 그 책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내가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하자 장금천은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큰아버님께서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뜨거운 온정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중문판 1, 2권을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목숨으로 나를 보호하여 준 사람은 장울화와 노비첸코 두 사람이다. 물론 노비첸코는 살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생각할 새도 없이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것은 장금천 일행이 세 번째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 말은 듣고 장금천과 장금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공적보다 노비첸코의 공적이 몇 배나 더 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니였더라면 어쩔 뻔했는가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나의 생애에는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에 나를 도와 나선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들이 많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 다니는 손원태선생의 아버지 손정도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언제나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관념론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디서나 인민이 도와 나서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증법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치는 훌륭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해 주었다.

장금록은 나에게 자기가 손수 뜬 자지색 모세타를 선물하였다. 내가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져오면 국제친선전람관 같은 데 소장하고 쓰지 않을 것 같아 몸 가까이에 두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받았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자리에서 세타를 입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장금천은 그때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서거 55돌을 계기로 묘비를 새로 해 세우려고 하는데 새길 비문을 하나 써 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는 나에게 그처럼 허물없는 청탁을 한 데 대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가 나를 큰아버지로 받드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였다.

≪벌써 55돌이 된단 말이지. 너의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음력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숙연한 생각에 잠겨 1937년의 그 음산한 가을 회상하였다.

≪그렇습니다. 큰아버님, 1937년 음력 10월 2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올해 10월 27일입니다.≫

≪그럴 것이 없겠다.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다 글을 써 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하나 세워 주겠다. 어떻니?≫

그 돌발적인 제의에 장금천과 장금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큰 요구를 나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자기 집안의 가장처럼 여기고 속생각을 허물없이 비쳤던 것이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기념비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금천은 황황히 말하였다.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아버님께 폐를 끼쳐서야 안되지요. 그저 글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묘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긴 하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쓴 글을 세긴 기념비를 여기에서 마련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시켜 들어보내 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세우기 위한 준비나 하도록 하여라. 언제쯤 하면 좋겠니?≫

≪참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바쁘실 텐데 또 마음을 쓰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외람된 청을 드렸는가 봅니다.…≫

장금천과 장금록은 몸둘 바를 몰라 하였다.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왕지사 기념비를 세울 바 치고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즈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금천과 그 일행은 나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무송에 돌아가면 기념비 제막 준비를 다그치고 중국의 해당기관에도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옛 혁명전우인 장울화의 묘소에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 주게 되었다.

우리 나라 당역사 연구소 일군들이 기념비를 평양으로부터 무송까지 날라갔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임강교두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대표들을 열렬히 맞이하였고 10월 27일에는 무송시내에 있는 장울화의 묘지에서 기념비 건립 행사를 성대히 치르도록 해 주었다. 중국의 방송보도기관들에서는 큰 의의를 부여하여 그 행사를 널리 보도하였다.

≪장울화열사의 혁명업적은 조중인민의 친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열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김일성 1992년 10월 27일≫



무송에 세운 장울화의 열사기념비

이것은 나의 자필로 된 그 기념비의 전문이다.

우리 대표들이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나는 기념비 건립행사를 촬영한 녹화물을 보고 그 성대함에 놀랐다. 그것은 조중인민과 중국인민, 조선의 투사들과 중국의 투사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친선과 의리의 산 화폭이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해왔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 장씨 가문의 3세, 4세, 5세들과의 나의 친교, 무송에서 진행된 기념비 건립 행사는 이 대답의 타당성을 힘있게 입증해 주고 있다.

산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라야 그 우정이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정은 사멸을 면치 못한다.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선대들과 선열들, 먼저 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리가 없었다면 역사와 전통의 진정한 계승이 있을 수 없다.

기념비까지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런 기념비를 수천 수만 개 세운들 나를 위해 한목숨을 바친 장울화의 그 은혜야 어떻게 다 갚겠는가.

지금 장울화의 손자 장유와 외손녀 악지운은 부모들의 소망대로 평양 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울화가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그 애들의 숙소를 방문하곤 한다. 분과 초를 쪼개어 쓰는 국가주석의 긴장된 일과에서 외국유학생들과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짜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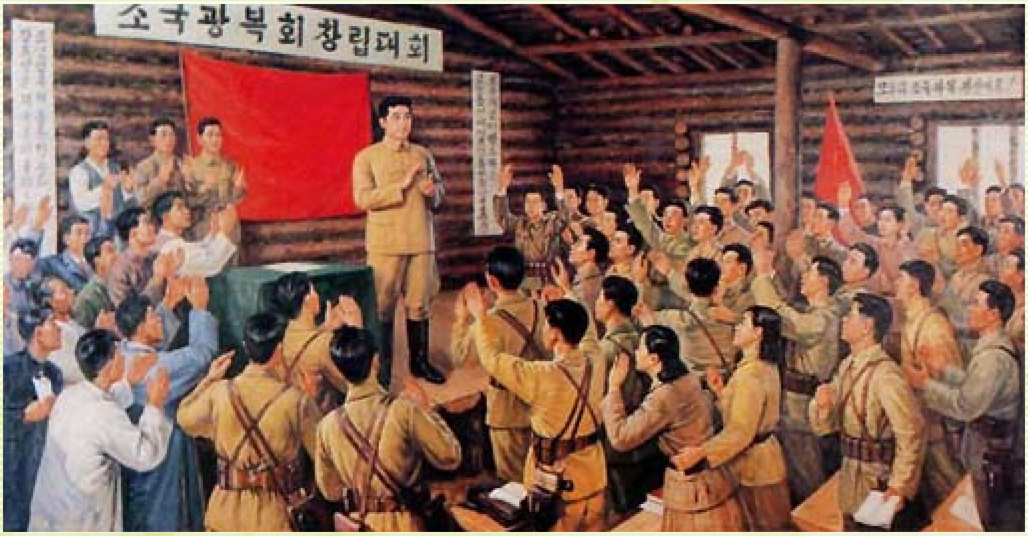
그러나 나의 보좌관들은 장울화의 후손들을 위해 바칠 주석의 사업시간을 아낌없이 짜내고 있다. 그 애들을 위해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장유와 악지운이 유창한 조선말을 나에게 설 인사를 할 때 나는 흐뭇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애들의 조선말 솜씨가 대단하였다. 나는 그 애들이 하루빨리 조선말에 능숙해지고 조선음식에 익숙해지며 조선사람들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의 정국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하나 나와 장울화일가 사이에 흐르는 옛정은 변함이 없다.

나는 오래 전부터 무송을 방문하고 싶은 심정을 표시해왔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다. 무송에 가서 남전자에 있는 장울화의 묘소를 찾고 싶으나 그것이 한갓 소망으로만 남아 있을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꿈에라도 옛 전우의 곁으로 찾아가고 싶다.

5. 조국광복회



조국광복회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새 사단의 탄생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더욱 강화발전된 것으로 하여 우리의 앞길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새 사단의 출현은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며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군사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었으며 카륜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전개해 온 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남호두회의 이후 시기부터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에로 집중되었다. 하나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민족대단결의 통일전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

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바쳐왔고 중국 땅에서 투쟁하는 조건에 맞게 중국의 광범한 반일역량, 공산주의들과의 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 우리가 쌓아올린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은 통일전선운동의 폭넓은 발전을 위하여 값있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과 주체적 역량을 빨리 키워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시도는 1930년대 이전 시기에도 있었다.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주의와 주장을 초월하는 민족의 대동단결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기 이후부터였다. 그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의 폭정과 수탈이 강화될 수록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던 선각자들은 애국역량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모색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진영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신간회 창립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진영 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1927년 2월에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도 부를 만큼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는 컸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반목대립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대중은 환호를 올렸다.

주의주장의 차이로 하여 사이가 벌어졌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운동자들이 때늦게나마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일전선기관을 내온 것은 민중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하나의 큰 경사였다.

우리 나라 민족협동전선의 첫 산아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였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양대세력의 공동전선이 실현됨으로써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 되었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란 뜻에서 신간회하고 한 명칭 자체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의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이상재, 홍명희, 허헌과 같이 민중의 인망이 높은 진보적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고 추진되고 운영된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으며 회원들의 직업별 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었다. 신간회에는 노동자, 농민, 여관업자, 사진업자, 기자, 상업가, 의사, 회사원, 교원,


신간회 강령과 규약

대서업자, 목축업자, 인쇄업자, 어업자, 운수업자, 직공, 재봉공, 학생, 변호사, 저술가, 은행원, 교역자 등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고 한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1931년 5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신간회의 해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공산주의운동자들은 그 해산의 원인을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였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은 신간회가 해산된 근본 적인 원인을 상층의 분열과 개량주의적 경향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이 조직의 애국적 성격과 민족사적 의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신간회 회의 모습

나는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해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놀음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신간회 상층에 개량주의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여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되며 그 민족사적 의의를 영으로 만들어도 안된다.

신간회가 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반일항쟁역량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열을 꾀하고 개량주의적 상층을 매수한 데 있었다.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신간회를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중심적인 지도역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해산 원인이었다.

신간회의 와해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은 우리는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총력을 항일구국위업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핵심도 키워내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프랑꼬반란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마드리드

남호두회의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인민전선운동이 대두하여 파시즘과 대결하고 있을 때였다.

독일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밑에 분리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6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주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7월 14일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의 참가하에 인민전선의 대시위가 진행되게 되었다. 3당 수뇌자들인 모리스 토레즈와 레온 블륨, 달라지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위행진의 선두에 섰

다. 1936년 1월에는 3당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쑈 투쟁에 떨쳐나선 진보적 그룹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였으며 그 해 4-5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 사로내각은 총사직하고 레온 블륨을 수반을 하는 인민전선내각이 탄생하였다. 물론 인민전선정부는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에스파냐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인민전선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노골적인 파쑈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쑈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에스파니아에 도착한 세계 여러 나라 지원병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을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노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계열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36년 2월 에스파니아에서의 아싸니아인민전선정부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은 프랑코의 반란과 독일, 이탈리아의 군사적 간섭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하였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추진된 이른바 불간섭정책이었다. 엄정중립과 무기금수를 결정한 부당한 불간섭정책은 결국 반란군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쏘련도 처음에는 불간섭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것이 인민전선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인민전선정부에 비행기, 탱크 등을 보냈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이 겪고 있던 곤경은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과 근로자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에서 숱한 지원병들이 에스파니아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에스파니아는 파시즘세력과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간의 국제적 교전무대로 되었는데 그 교전은 작은 규모의 세계전쟁을 연상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던 때를 전후하여 벌어졌던 국제적인 반파쑈운동 형편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이디오피아애국자들의 영웅적 항전에서도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었다


에스파니아 여성의용군들

국제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재빨리 포착하고 각국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을 반전, 반파쑈 투쟁에로 묶어 세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관련한 국제당과 역사적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시즘은 새로운 적이 아니었다. 국제파시즘이 대두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의 대상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 성격이 변화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국제당이 반파쑈인민전선운동노선을 제기하기 전부터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제기

해왔고 그 궤도를 따라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주로 내가 혼자서 광복회 창립을 두고 사색을 무르익혀왔을 뿐이다. 김산호, 최현, 박영순을 비롯한 몇몇 동무들이 이따금씩 필요한 조언을 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대체로 그거야 사령관 동지가 좋을대로 하시지요 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돈화지방에 있는 옥수천부근의 한 산간부락에서 어떤 나이 많은 서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의논대상이 되어 주었다.


이동백

그 부락에 조선사람이 사는 집이 둘이 있었다. 나는 그 중 한 집에 들었다. 그때 화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느 한 소부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 소부대 동무들은 나를 만나자 괴이한 사람을 달고 왔다고 보고하였다. 화룡이 어느 벽촌에서 만난 사람인데 소부대가 사령부를 찾아온다는 낌새를 알고 **김일성**장군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를 뒤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사령부로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한 소부대 성원들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네들은 가라, 나는 나대로 갈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상호 남의 일에 간참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는 장바 한두 기장쯤 되는 거리를 두고 그냥 태연하게 소부대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나의 호기심을 끌더니 첫 상봉 좌석에서도 별스럽게 굴었다. 소부대 동무들은 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나를 소개하였으나 괴이한 손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의 나이와 열성을 봐서라도 진짜 **김일성**장군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주인집 장작을 패 주다가 그를 맞아들였는데 나의 차림새가 아마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하다가 아무렴 **김** 장군이 그렇게 젊을 수 없고 장군되는 사람이 머슴처럼 장작을 팰 리도 없으며 막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다고 하였다.

북만의 관지 부근에서 야숙할 때 불무지 보초를 선 신입 전령병이 조는 바람에 내 바지를 태운 적이 있었다. 헌 솜옷이었던 데다 기워입기까지 하였으니 사실 나의 옷주제가 허술하게 보였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가 괴짜였다. 그는 호지명의 수염 같은 턱수염을 달고 있었다. 실제는 마흔네댓 살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으나 나이보다는 겉늙어서 쉬나문 살이나 돼보였다.

그는 항간에서 떠도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도 소문이 났길래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고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내가 소문난 잔치 먹을 알이 없다고 대꾸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장군이 입은 옷만 봐도 노고가 짐작된다고 하였다.

심한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는 대뜸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첫 소개부터가 아주 괴이하고 호탕하였다.

≪저는 아무 것도 이룩해 놓은 것 없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우왕좌왕하기만 해온 기회주의자올시다.≫

나는 한평생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초면에 자기를 기회주의자라고 서슴없이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무한히 양심적인 사람만이 무한히 솔직한 법이다. 솔직성은 흰 눈처럼 깨끗한 양심의 반사이며 감춰내지 못하는 양심의 빛이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솔직한 그 몇 마디의 말로 대뜸 나를 반하게 만들었다.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 꾸밈없는 이야기에서 나는 도리어 그의 인격적 높이를 보았다.

우리는 미혼진으로 빨리 나가야 했던 것만큼 그 마을에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 정도로 만나 주고 헤어질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길을 떠나려 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대신 우리를 따라나섰다. **김** 장군을 만나고 보니 인차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따라가며 이야기나 나누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웬일인지 나도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와 함께 줄창 이야기를 하다나니 행군에서 지루한 줄을 몰랐다. 이야기에 얼마나 열중했던지 나는 대원들이 쉬고 싶어할 때 쉬우지 못하고 행군을 계속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김산호가 우리 곁에 다가와 좀 쉬다가 가야 하지 않느냐고 귀띔해 주곤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당 역사에 조국광복회 발기인으로 기록된 ≪대통영감≫ 이동백이었다. ≪대통영감≫이란 이동백의 별명이었다.

함경남도 단천이 이조 말기의 참령이며 유명한 의병지도자이고 공산주의운동자인 이동휘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이동백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한학 공부를 많이 하며 자라난 이동백의 성장에서 이동휘가 준 영향이 대단히 컸다는 것과 그 영향밑에서 ≪대통영감≫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행군도상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 지식이었다. 그가 소속된 투쟁단체는 군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군비단의 소재지는 장백지방이다.

군비단과 강진건의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들 사이의 담화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강진건에 대해서는 그도 나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이동백은 8도구와 임강 쪽에도 자주 가곤 했고 그때마다 강진건과 깊은 연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군비단에서의 그의 직무는 통신사무국장이었다.

그러나 경신년 대≪토벌≫바람이 장백 땅에 미치게 되자 그렇게 으리으리하던 군비단도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 실망한 이동백은 이동휘를 찾아 러시아로 들어갔다.

그는 치따에서 이동휘를 만났고 이어 고려공산당에도 들어갔다. 어젯날의 독립운동자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운동자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 전환과 함께 그는 곧 파쟁속에 휘말려 들어 갔다.

이동백에게서 고려공산당 소리가 나오자 나는 오가자 시절에 고려공산당 당증이라는 것을 구경하던 생각이 나서 변대우를 아는가고 물었다. 그는 자기와 변대우와는 일찍부



소탈하고 겸허하신 장군님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대통영감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터 막역지우였다고 하였다.

내가 오가자의 변대우한테서 고려공산당증을 구경하던 소리를 하자 이동백은 감자도장을 찍은 대표증도 구경했는가고 물었다. 그 소리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자 그는 감자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22년 11월 러시아원동의 엘프뉴진스크라는 곳에서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합동대회가 열리게 되였다. 대회에서 다수파가 되어야만 합당 후 당의 영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간주한 양파는 자파의 대표 수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강진건

이르쿠츠크파는 감자도장까지 새겨 가지고 숱한 가짜 대표증을 만들어 대회에 엉터리 대표들을 참석시켰다. 상해파도 그만 못지않은 협잡행위를 하였다. 결국 대회는 옥신각신 끝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환멸을 느낀 변대우는 민족주의운동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품고 임강 쪽에 가버렸고 이동백은 이동휘의 파견을 받아 훈춘 쪽에 나왔다.

≪대통영감≫은 훈춘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1925년 봄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가명을 가지고 조선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듬해의 6·10만세시위운동에도 참가하였다.

파벌들의 집결처였던 서울 체류는 이동백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새로운 파쟁의 회오리바람속에 말려들게 하였다. 처음에는 화요파에 끌려들었다가 다음에는 엠엘파에 뛰어드는 식으로 일인 양역, 일인 삼역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당의 영도권을 장악하려는 각파의 추악한 암투는 중앙위원이라는 사람까지 자루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곤봉으로 때리고 목침으로 머리를 까는 따위의 추태들을 산생시켰는가 하면 반대파를 경찰에 밀고해서 잡아가두게 하는 통탄하여 마지않는 희비극도 연출하였다. 서울에 그냥 있다가는 언제 어느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쇠고랑을 차거나 곤봉에 머리가 깨질지 몰랐다. 이동백은 다시 북간도로 들어왔다.

돛도 키도 노도 다 없는 난파선마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떠미는 대로 우왕좌왕해왔던 이동백은 파쟁의 세계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뭍에 단단히 눌러앉았다. 그는 용정에서 신문기자 노릇도 하면서 독립군운동도 공산당운동도 다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간도 대지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30년대의 항일운동은 이동백을 또다시 풍랑속에 떠밀어 넣었다. 화요파계열의 그 무슨 어정쩡한 무리에 끌려든 이동백은 화룡현 3구의 서기로 있다가 간도대≪토벌≫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 영영 세상을 등지고 살리라는 결심을 품고 솔가하여 화룡의 깊은 벽지에 들어갔다. 거기서 서당 훈장질을 하며 지난 몇 해 동안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구 뭐겠습니까? 서상파 하날 내놓구는 파벌이란 파벌에는 다 끼어본 알짜 기회주의자입지요.≫

이동백은 그 파란 많은 과거사에 종지부라도 찍듯이 대통에 써레기담배를 재워넣었다. 그는 담배를 지독하게 피웠다. 때로는 마상행군길에서도 대통을 꺼내 물었다가 애어린 전령병에의 핀잔을 받곤 하였다. 그럴 때면 노염을 탈 대신 ≪이 정신봐라. 행군 때 담배를 피우면 멀리 있던 개들까지 불러온다던 걸 또 잊었군.≫하고 변명삼아 웅얼거기며 대통을 덧저고리 주머니에 집어넣곤 하였다. 그는 담배를 절대로 종이에 말아 피우는 법이 없었다. 꼭 대통으로만 피웠다. ≪대통 영감≫이란 별명도 그런 연유로 해서 생긴 것이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을 기회주의자라고는 생

각지 않습니다. 조선사회의 참다운 진로를 탐색하느라고 이리 기웃해 보고 저리 기웃해 본 데 지나지 않지요. 진리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당파에 관여하게 된 것은 결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그 말에 이동백은 적이 놀랐다.

≪제가 실지로 여러 당파에 휘말려들었는데도 기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은둔생활을 결심하고 화룡의 산간벽지에 몇 해 동안 들어박혀 있었다는 선생이 그 결심을 어기고 젊지도 않은 몸으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주의자의 본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속심을 그렇게 속속들이 꿰뚫어 들여다보시니 제 기꺼이 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또 집을 떠나온 건 수십 년동안 못 찾은 ≪보물≫을 죽기 전에 기어이 찾아 쥐자는 짖궂은 욕망 때문입지요.≫

≪의로운 뜻을 품고 진리를 탐색하는 선생과 같은 분을 보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한때는 선생 같은 진리의 탐색자들과 의로운 운동객들이 우리 나라에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으면 변절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보니 지금은 정말 희소합니다. 선생이 살아 계신 것만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대통 영감≫과의 흥미진진한 담화는 미혼진에 가 닿았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 나는 이동백에게 정이 들었다.

이동백도 또한 우리에게 정을 붙였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런 이별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적과의 접전이 계속되는 멀고 위험한 행군길로 계속 동행시킬 수 없었다.

미혼진을 떠나기에 앞서 나는 이동백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삼 권고하였다. 그는 대답 대신 부시럭거리며 덧저고리 안자락을 들추더니 네 겹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펴서 내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국한문을 섞어서 쓴 입대청원서였다.

해가 서쪽에서 불쑥 떠올랐다 해도 그 순간처럼 우리를 놀래우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그 연세에 어떻게 우리들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오.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의 휘하에는 나보다 한 배반이나 더 나이 먹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로는 부결할 조건이 못됩니다.≫

≪화룡 오지에서 눈이 새까매 기다릴 부인과 자식들은 누가 돌봐 줍니까?≫

≪정배도 가려다 못 가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국대업에 한 몸을 다 바치고 싶어서 떠난 걸음인데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다니요. 장군은 병중의 모친과 어린 형제분들을 돌봐 줄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나라 찾을 싸움길을 떠난 게 아니었지요?≫

무슨 말로도 ≪대통 영감≫을 설복해 낼 수 없었다. 내가 지고 말았다. 그의 입대를 기념하여 나는 두 해 동안 애용해 오던 권총을 그에게 주었다.

이동백은 입대가 결정되자 자기가 어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곁에 남기로 결심하였는가를 신바람이 나서 역설하였다.

≪나를 장군 곁에 붙잡아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장군의 그 고명한 경륜이구, 둘째는 장군의 기운 바지와 미혼진열병환자들의 울음이었지요.… 격리상태의 열병 환자들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찾아가 돌봐 주는 걸 보고 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고 아랫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다하는 거물들을 만나봤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 조선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맡아 안은 진짜배기 주인, 진

짜배기 지도자를 찾은 것, 이게 나를 여기 남게 한 근본 이유입니다. 탁상공론을 안하고 공리공담을 안하는 것, 장군은 이 우점만으로도 나와 같은 시골서생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을 붙잡은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것은 장군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방식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입니다.≫

어느 날 행군의 휴식 참에 나와 ≪대통영감≫사이에는 민족통일전선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에스파니아,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같은 정당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 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나는 나에게 눈덩어리 두 개를 주면서 그걸 합쳐보라고 이르고 나 자신은 작은 눈덩이를 눈위에 굴려 그 두 개의 눈덩이를 합친 것만한 눈덩이를 만들었다.

≪자 보십시오. 선생은 두 정당연합으로 한 덩이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구심력을 굴려 그보다 더 큰 덩이를 빚었습니다. 이래도 꼭 정당이 있어야만 통일전선체조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동백은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내 손의 눈덩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 참 오묘한 이치올시다. 그렇지만 눈덩이는 눈덩이고 정당이야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자연현상 가운데는 사회의 현상과 이치상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길림시절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 온 통일전선정책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을 결속시키는데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됩니다. 군중이 있고 영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 수 있습니다.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동백은 뒷더수기를 툭툭 치며 ≪역시 교조가 문제이군.≫하고는 껄껄 소리를 내어 웃었다.

≪대통 영감≫은 우리 곁에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바로 장군 곁에 와서 인생 말년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존가치를 발견한 셈이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아주 쓸모있는 인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인간은 행복한 인간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행복한 인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거리를 찾았기에 행복해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찾아낸 일은 나폴레옹을 묻어다니던 다비드가 수행했던 일과 비슷한 것이지요. 다비드가 미술화폭에 옮겨놨던 일을 나는 나의 일기장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나폴레옹군대의 역사적 행적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역사적 행적을 말입니다.≫

이동백은 결의대로 매일 일기를 적었다. 한두 끼, 혹은 며칠씩 굶는 적은 있었어

도 그가 일기를 쓰지 않고 번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민혁명군역사 저술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는 입대 후 사령부 비서처에서 사업하였으며 후에는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의 주필로 출판소 책임자사업을 겸해 보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문건들과 사진들을 수집해 뒀던지 비서처가 한 번씩 자리를 옮길 때에는 여라문 개나 되는 문서배낭들과 등사용구들을 옮겨 주기 위한 운반대로 여러 명의 전투원들을 그에게 배속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제인가 김주현이 그 숱한 짐짝들을 정리해서 절반쯤이라도 줄이라고 권고했다가 되게 면박을 당한 일이 있었다.


김산호

≪아니, 이 문서장들이 ≪민생단≫문서보따리 따위 같은 줄로 아는가. 자네가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안목은 넓지 못한 사람이야. 저 짐짝들은 나 같은 목숨 열백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군사직급으로는 연대장이지만 이 짐짝앞에서는 졸병이나 같애. 국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나 해?≫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지휘관들은 ≪대통영감≫의 짐짝이 아무리 많아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운반대를 고스란히 붙여 주곤 하였다.

그가 기록, 수집, 보관한 그 숱한 문서들과 일기들과 사진들이 소실되지만 않았더라면 오늘날 그것은 ≪대통 영감≫이 언명한 대로 나라의 만년재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동백이 어쩌다 오발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가 나폴레옹을 자주 입에 올리곤 한 끝에 어느 한 경위대원이 그를 ≪나폴레옹 숭배자 영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때마침 이동백은 분해소제를 마친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충이 같은 녀석, 내가 누구를 숭배하는가 하는 건 이 권총이 말해줄 게다.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동백은 만탄창이 된 권총을 쳐들고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 뜻하지 않았던 오발사고로 인하여 노모정자 숙영지에서는 비상소집 소동이 벌어졌다. 지휘관들은 경고책벌과 함께 한 달간의 무기휴대 금지 처분을 주어야겠다고 을러댔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하자고 하였으나 군율은 에누리가 없었다. 사고를 낸 권총은 김산호에게 회수당하였다.

보배 같은 ≪대통 영감≫이 우리 부대에 굴러든 것은 인복이 있는 나에게 차례진 큰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로 귀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 우리를 도와 준 셈이 되었다.

10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사단이 편성되고 마안산 아동단원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된 다음부터 나는 모든 힘을 조국광복회 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에 집중시켰다. 비록 간고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오만가지 시름거리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풀려서 모든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동백은 김산호와 함께 이 사업에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성실하고 빈틈없는 방조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입대하자마자 곧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망라시켰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원은 김산호와 이동백이었는데 김산호는 대외조직과 연락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다니며 일을 보고 대내에서 준비사업을 주관하여 맡아본 것은 이동백이었다.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데서도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

을 주었다. 나는 그때 매 조항을 그와 토론도 하고 초고도 그가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동백은 자기의 문투가 고루한 데다가 나의 의도를 정확히 쪼아박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사절하였다. 그래서 기초작성은 내가 하고 그가 보충하는 식으로 창립문건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다.

그와의 토의에서 가장 크게 의견 상치가 된 것은 강령의 첫 조항이였다. 강령의 첫 조항에 어떤 내용을 앉히는가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가 어떠한 이념과 투쟁목적을 가진 어떠한 성격의 정치단체인가를 단마디로 규정짓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광복회규약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2천만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짓부수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을 앉히자고 하자 이동백은 머리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기더니 도리질을 하였다.

≪무산계급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으니 서운합니다. 강령 첫 조항에 공산주의 냄새가 없으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숱한 주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말은 계급적 성격도 모호하고 어쩐지 민족주의 냄새가 납니다.≫

훗날 백두산밀영에서 박달과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도 역시 조국광복회 강령 첫 조항에 대하여 이동백과 꼭 같은 논조의 말을 하였다.

확실히 그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이비 맑스주의적인 견해가 널리 오염되어 있던 시기였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는 민족적 이념과 상치되는 사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소한 민족적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히 계급적 원칙과 국제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야만 노동계급과 전인류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 명제를 매우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데 기인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일국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이 채 성숙되지 못했던 역사적 시기에 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리라고 예언하였다. 노동계급의 전복대상인 각국 부르주아지가 민족적 이익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 부르주아계급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간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세계적인 혁명위업은 망쳐질수 있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부르주아적 지배하에 있는 모국이 결코 조국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가운데서 반드시 국제주의, 사회주의 편에 서야 했다. 바로 이러한 견지로부터 맑스주의고전가들은 노동계급이 이른바 애국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속에서 언제나 민족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할 것을 가르쳤다. 맑스는 파리코뮌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코뮌참가자들이 반동의 소굴인 베르사이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외적인 프러시아군이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때 국내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애국주의에 배치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데서 온 것이었다고 단언하였으며 레닌은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조국방위≫의 구호밑에 제

가끔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 편에 붙은 것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변절로 낙인하였다.

자기 민족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적 치부를 증대시키려는 환장한 부르주아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에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고 도와나서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려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고 전쟁보이코트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과 애국주의의 기치를 드는 것은 곧 종주국의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그리고 국제혁명위업에 다같이 기여하게 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무조건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데 바로 사이비 공산주의자들,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실천적 착오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친필원고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도 차이도 없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역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념도 지향도 애국애족의 감정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민족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온 민족앞에 과시하였으며 드디어는 민족해방투쟁의 진두를 떳떳이 나서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장구한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람찬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조국광복회 창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광복회≫라는 명칭 자체도 당당하게 내걸고 강령의 첫 조항에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의 자력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동만유격근거지에 세웠던 것과 같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데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듣고 난 이동백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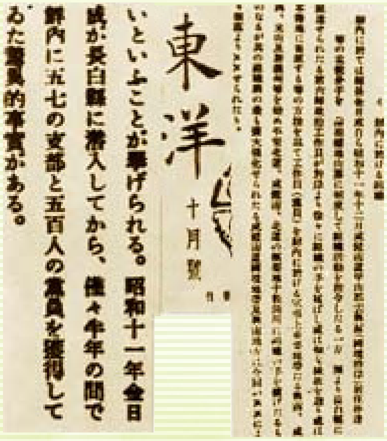
≪이제는 됐습니다! 눈뜬 소경이 됐던 나는 장군과 논쟁을 한 덕에 불구를 면케 됐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강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상치되는 의견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이처럼 주권문제의 해결을 조선민족앞에 나선

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에서는 또한 혁명적인 군건설과업도 제기하였으며 경제관계분야에서 일제와 매국적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일본 국가,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과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며 빈곤한 인민을 구제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업들도 명시하였다.


東洋 十月號

いといふことが擧げられる。昭和十一年全日
成が長白縣に潜入してから、僅々半年の間で
縣内に五七の支部と五百人の黨員を獲得して
ゐた驚異的事實がある。

당조직건설사업과 반일민족통일 전선운동이 전국적규모에서 확대된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사상은 민족자본과 매판자본의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애국적 민족자본을 장려하며 민족자본가는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지지하여 반일공동전선에 묶어 세우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과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반일적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일반을 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과 비록 부르주아라는 명칭은 띠고 있으나 그 지향에서 애국적이고 실천에서 반일적인 모든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사회문화적 과업과 대외적 과업도 제시하였다.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 애국적 지주들의 문제에서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강령 첫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미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동백은 놀라울 정도로 나의 견해를 앞질러 알아맞히곤 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김산호나 오백룡과 같은 사람들이 옹졸한 태도를 취하였다.

내가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창립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된 편지들과 선전물들을 준비하였다. 실로 일분 일초의 허실도 허용하지 않고 다 잡아 쓰던 분망한 봄이었다.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준비위원회의 최종토의에 붙인 곳은 만강부락의 허락여촌장네 집이다.

≪대통영감≫은 지난날 이른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던 파쟁군들은 변변한 강령조차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눈이 시뻘개서 헤게모니 쟁탈전만 일삼아왔다고 통탄하면서 이제는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더 밝게 비쳐줄 새로운 등대불이 나타났다고 퍽 좋아했다.

4월말에 모든 준비를 끝마친 우리는 창립대회 장소를 동강수림으로 내정하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청장을 받은 대표들이 그럭저럭 거의 다 모여왔으나 꼭 참석하겠다고 답장까지 보내왔던 남만의 이동광과 전광(오성륜)이 대회가 끝나도록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오지 못하였다. 국내대표로는 강제하의 조직선을 타고 벽동에서 천도교대표와 농민대표가 왔고 온성지구의 당조직선을 타고 교원대표와 노동자대표들이 각각 한 사람씩 왔다.

역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는 5월 초하룻날부터 시작되었다. 꽃은 만발하지 못하였지만 만산에는 봄빛이 짙었다.

회합을 앞두고 대표들은 모두다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통칭하여 동강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는 15일 간이나 진행되었다.

나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할 데 대한 과업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경 연안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할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보고가 후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자≫라는 제명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였다.

나는 또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대회 심의에 붙였다.

우리는 10대강령에서 1930년대의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상호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전략전술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각계층 애국적 인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전도를 명백히 밝혀 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강령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을 토로하였고 강령에 제시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표들의 가슴을 이만 못지않게 격동시킨 것은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에 대한 토론이었다.

창립선언의 구절구절들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거머잡았다. 특히 온 민족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 것을 호소한 부분은 회의참가자들을 상당히 격동시켰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채택된 다음 이 선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데 대한 첫 발기도 내가 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 사업도 내가 주관해 왔으며 또 강령과 창립선언도 내가 작성한 것만큼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응당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광복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것만큼 민족적 형식을 띠어야 했다. 그러므로 발기인으로서는 과거 의병운동이나 3·1운동 시기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명망이 높고 나이가 지숙한 애국지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당시까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로 만주지방을 투쟁무대로 삼아 싸워 왔기 때문에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국내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백두산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들이 설치되고 무장투쟁이 국내 깊이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움직임과 투쟁에 대하여 국내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아마 1936년 3월 어느 날 ≪매일신보≫였다고 기억된다. 그때 ≪매일신보≫는 장백현에 150-16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진출하였는데 ≪부대의 수령은 **김일성**이라고 한다.≫라고 슬쩍 언급하였다. 이것을 시발로 국내의 출판물들은 우리의 활동을 자주 보고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을 알리는 혁명적구호들

나는 대회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 누가 첫 발기자였고 누가 준비위원회를 책임져 왔고 또 누가 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무개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모두다 우기는데 그런 사실이나 따져가며 나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2천만 동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조국광복회에 결집해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 나를 동포 민중의 한 아들로 여기고 민중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했다고 치면 그만이 아닌가.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고 나이도 지숙하고 명망도 높은 애국지사들로 공동발기인을 삼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동백과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여운형

나의 제안에 먼저 반기를 들고나선 것은 이동백이었다. 그는 연세나 지난날의 명망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할 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전민족을 대표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맡아 나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국내외를 통틀어도 **김**장군밖에 없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발기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광복회 회장도 마땅히 김 장군이 돼야 하고 발기인도 **김**장군이 돼야 하다고 다시금 고집해 나섰다. 그는 나의 제안을 참작하여 나와 함께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자고 하였다.

신중한 토의 끝에 결국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 내가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되는데 동의하였다. 나의 양보를 받자 이동백이도 발기인으로 나서는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5월 5일에 발표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는 김동명, 이동백, 여운형 세 사람의 이름이 공동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나에게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붙여 준 것은 이동백이었다. 내가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만 동의하겠다고 하자 그는 더 우기지 못하고 생각을 더듬다가 가명의 성을 그대로 김씨로 하고 이름은 동녘 ≪동≫자 밝을 ≪명≫자를 붙여 ≪동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동명≫이라고 달게 되면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여러 모로 뜻깊은 이름으로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김동명≫이라는 가명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발표한 조국광복회선언은 그 후 국내의 여러 곳에 발송되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자기대로 복제하여 발표하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저명인사의 이름을 발기인으로 바꾸어 써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국광복회 명칭 자체도 동만에서는 동만 조선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면 남만에서는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 당역사연구소에서 발굴한 조국광복회 선언문들에 더러 오성륜, 엄수명, 이상준(이동광), 안광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런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나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혁명의 군중적 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 있고 체계성 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투쟁 시초부터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인내성 있는 준비를 해왔다.

조국광복회 창립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위력한 산물이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하게 선포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밀어가는 전환점으로 되였다.



장군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대표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조선혁명 자체발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각지에서 그것을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 나왔다. 선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군부대들이였다.

조국광복회 창립이 선포된 직후 조선혁명군 정부참모장으로 있던 윤일파는 우리에게 서한을 보내여 조국광복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연계를 지을 것을 희망해 왔다. 또한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운동자 박 모는 불원천리하고 만주까지 찾아와서 조국광복회 남만 대표들을 만났다.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 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종사한 애국지사로서 민족주의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서 조국광복회 사업을 널리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전민족적 이무장역량으로서 ≪독립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놓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3 · 1월간≫창간호에 이동백이 ≪천도교 상급 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천도교 도정이였던 박인진도 조국광복회가 창립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리를 찾아 백두산밀영을 방문해 왔었다. 천도교청년당에 속한 100만 당원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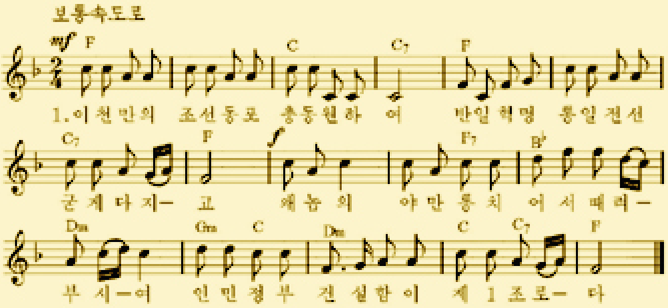
이창신, 이제순, 박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연속 우리를 찾아왔고 조국광복회의 조직확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단시일 안에 수십만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 조직으로 확대발전한 조국광복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아마 큰 책 몇 권에도 다 담기 어려울 것이다.

1936년 5월 백두산 북쪽 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2.로동자와 농민들은 한데 뭉치고
각계각층 군중들과 련합을 하여
있는 재부 지식능력 모두다 동원하여
부강조선 건설함이 제2조로다

3.왜놈의 륙해공군 신식무장을
모두다 우리 손에 빼앗아 쥐고
주저 말고 용감하게 모두 나가 싸우는
우리 군대 조직함이 제3조로다

4.왜놈의 개떼들이 모아 둔 돈은
우리 동포 피땀 흘려 벌어 준거다
모조리 빼앗아서 군비로 충당하고
동포도 구제함이 제4조로다

5.재축하는 빚과 세납 물지를 말며
착취하는 전제제도 반대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
순조롭게 발전함이 제5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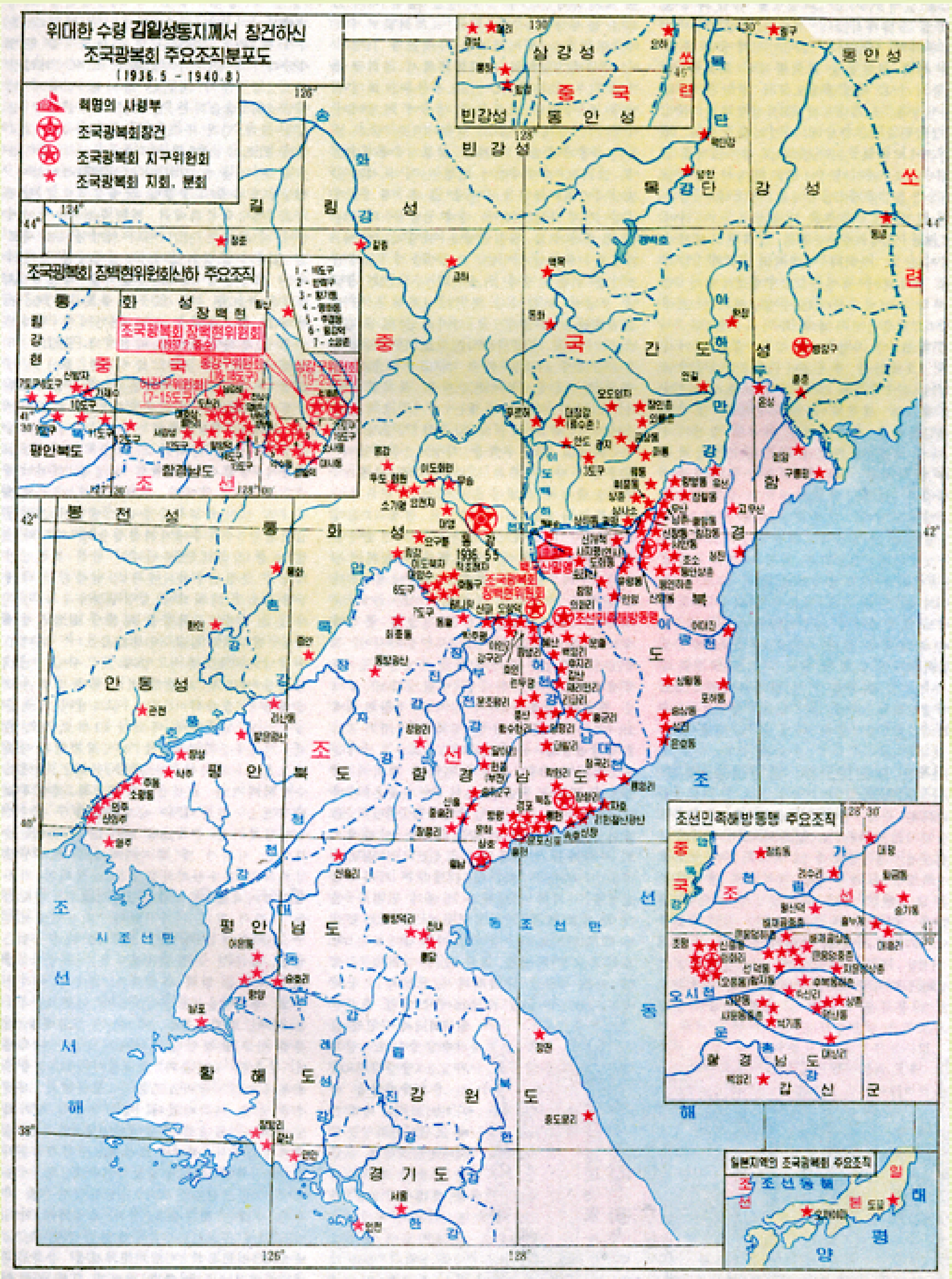
6.언론 출판 사상 결사 자유를 찾아
봉건세력 백색테로 반대하고서
체포된 우리 투사 모두 탈환해 내여
배신자를 찾아 냄이 제6조로다

7.량반 상놈 남녀로소 가리지 말고
한결 같은 평등 행복 누려 가면서
연약한 부녀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인격 지위 보장함이 제7조로다

8.우리 민족 노예 삼는 동화교육과
싼티에서 죽이려는 군사훈련을
굳세게 반대하며 튼튼히 뭉쳐 나서
우리 문화 보급함이 제8조로다

9.우리들이 쓰는 물건 만들어 주는
로동자의 임금과 대우 높이고
실업자와 병든 자를 지성껏 도와 주며
치료하고 살려 줌이 제9조로다

10.우리들을 도와 주는 나라와 민족
친밀하게 련합하여 하나가 되고
원쑤와 한편 되는 간악한 부르죠아
한결같이 반대함이 제10조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1936.5 - 1940.8)
혁명의 사령부
조국광복회창건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산하 주요조직
조선민족해방동맹 주요조직
일본지역의 조국광복회 주요조직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
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 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김일성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 만세!
주체89(2000)년 2월 16일
통일된 조선민족
만세!
남북이 한마음
조국통일 만세!
조국통일 만세!
민족도 하나
피줄도 하나!
민족대단결로
통일하자!
통일위해 단결합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제13장



백두산으로

■ 시기 : 1936. 5 ~ 1936. 8

1.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

1936년 봄은 우리에게 특별히 유난스러운 봄이였다. 그 봄에 우리는 실로 많은 일을 계획하였다. 새 사단의 조직, 조국광복회의 창립,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준비 거기에 마안산을 비롯한 무송땅 곳곳에서 돌발한 갖가지 중대사들이 예상치 않았던 숱한 일거리들을 만들어놓았다.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수습하자면 안정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그런 안정을 주지 않았다. 무송지방에 군림하고 있는 두 세력이 제가끔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에 훼방을 놓으면서 장애를 주고 있었다. 그 두 세력중의 하나는 왕가대장의 위만경찰 ≪토벌대≫였고 다른 하나는 만순의 산림부대(반일부대)였다.

왕가대장이란 문자 그대로 왕가성을 가진 대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왕가대장≫ 혹은 ≪왕대장≫이라는 칭호에는 ≪토벌≫계의 왕이라는 의미가 덧붙어 있었다.

그는 장작림군벌군대에 복무할 당시부터 ≪비적토벌≫을 전문해온 ≪토벌≫의 능수였다. 9.18 사변이후 당취오가 자위군을 조직하였을 때 왕가도 그에 가담하여 반일의 기치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만원정을 나갈 때 그와 접촉하면서 괜찮은 관계를 가지었다. 그러나 당취오가 중국관내로 들어가고 자위군이 와해되자 인차 일본군에 투항하여 괴뢰만주국의 깃발을 든 위만경찰대장으로 변신하였다. 그때부터 일제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이전에 연마해둔 ≪토벌≫솜씨를 남김없이 드러내었다.

왕가대장은 ≪토벌≫에 나서기만 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적이 없었다. ≪토벌≫대상을 영낙없이 물어메치고 머리나 귀를 베어다 상전에게 바치고는 하였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은 후한 치하와 상금을 주고는 하였다. 왕가대장은 특히 만순부대라면 기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다.

무송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반일부대들은 왕가라면 그림자만 얼씬해도 벌벌 떨었다. 반일부대에서는 왕가대장을 ≪무송의 이도선≫이라고도 불렀다.

이웃현인 안도의 악명높은 이도선은 집요성과 악랄성과 잔인성으로 하여 온 간도땅에 소문난 무서운 살인귀였다. 왕가대장도 이도선에 짝지지 않는 주구였다.

바로 그러한 왕가대장이 그 해 봄에 우리의 주되는 적으로, 장애물로 되었다.

또한 그와 별로 못지 않게 구국군 만순이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여 나섰다. 사실 무송쪽으로 나올 때 우리는 만순부대를 주요한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의 반일부대들은 우리를 벗으로 여길 대신 오히려 원쑤처럼 대하고 있었다. 김산호가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 입힐 천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산림대원들에게 강탈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 토비화된 산림대원들을 징벌하지 말았어야 하였는데 그만 격분한 나머지 지나친 보복을 가하였다. 그래서 일은 좀 맹랑하게 되었다. 우리앞에는 예상치 않았던 골치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고려홍군≫은 아주 순진해서 그 누구든지 빈민들의 재물에 조금만 손을 대

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산림부대들의 곤궁같은 건 이해해주려고도 안한다. 그것들은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딴 족속들이다.≫

산림대원들속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져갔다. 그들은 우리 부대의 개별적인 성원들을 보기만 해도 트집을 걸거나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공동전선을 해야 할 대상이 그런 상태이니 우리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큰 골치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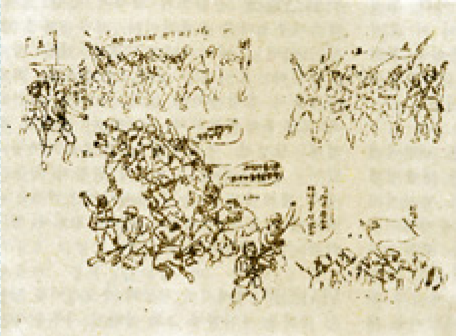
우리는 간도에서 유격대를 창건하던 초시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우리의 역량이 미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사적 권위가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진영에 속하는 왕가대장도, 우리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만순대장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안정된 시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방도를 연구하던 끝에 우리는 왕가대장과는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고 적당히 지내며 만순대장과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 당신과 나는 구면이다. 당신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만치 나는 흉금을 터놓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등사그림 - 위만군병사들에게 격함

우리의 주적은 일본군대이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위만군경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통솔하는 경찰대와 그 관하의 각 경찰분서들을 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화평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의 서두를 뗀 다음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이 파견한 공작원들이 성시나 부락들에 마음대로 드나들거나 머무를 수 있게 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는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수감중인 애국자들을 당장 석방하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된 요구조건들을 제기하고 왕가대장이 이 요구조건들을 수락하는 조건에서 무송현 경내에서의 ≪치안유지≫에 되도록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였다.

며칠 후 왕가대장으로부터 우리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우리가 내놓은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전부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이 왔다.

그리하여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비밀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쌍방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얼마동안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가대장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였고 자기 관할하의 성시나 집단부락들에 우리 공작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데 대하여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조선인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도 늦추었다.

우리도 왕가대장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을 습격하거나 그들의 주둔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나는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운 다음 대원들을 무기공작에 내보낼 때 무송현성 밖에 있는 다른 지방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무기도 얻어야지 현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고는 하였다.

왕가는 결코 미욱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나칠만큼 영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간도와 북만에서 어떻게 활약해왔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

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애당초 싸울 잡도리부터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무송땅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자 자기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고려홍군≫과는 맞서지 말라.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 병력이 적다고 함부로 덮치려들지 말라.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걸지부터 말아야 한다.≫

왕가대장은 시누런 군복을 입은 우리 군대를 보면 못본 척하고 멀찍이 피해가고는 하였다. 그 대신 시꺼먼 복장을 한 산림부대만 보면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1,000명도 더 되는 만순부대에 비하면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였지만 왕가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만순이네 산림부대들 뿐이었다.

사실상 왕가대장과 화평하는 조항에다 만순이네 부대에 피해와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요구를 밝힌 것은 반일역량을 보존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반일부대들의 활동은 하강선을 긋고 있었다.

구국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왕덕림, 당취오, 이두, 소병문 등의 부대들은 이미 산해관이나 또는 쏘련을 거쳐 관내로 퇴각해버리였고 왕전양 부대, 전신 부대와 같은 견결한 반일무장부대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사보국할 각오를 가지고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들에게 괴멸당하였다.

정초부대, 왕욱진부대와 같은 일부 부대들은 흰기를 들고 귀순하였다.

무송과 임강현경에 있는 만순휘하의 군소부대들과 자매부대들에서도 귀순자가 늘어났다. 1935년 가을에 초수탄에서는 마흥산 부대의 투항병 90여명을 환영하는 귀순식놀음까지 벌어졌다.

구국군의 나머지 역량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으며 더러는 토비로 되었다.

이런 실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경시하고 지어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반일연합전선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왕가대장과 화평약속을 하는 한편 만순부대와 공동전선을 펼 교섭도 시작하였다.

우리 부대에는 산림부대 출신의 나이 지숙한 대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만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 당신의 이름은 우리 혁명군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는 무송에 도착하는 즉시로 당신을 만나 통성도 하고 반만항일공동투쟁대책도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사도 나누기 전에 불미스러운 충돌사건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치위원이 혁명군의 후방물자를 강탈하다가 총상당한 산림대원들을 심문한데 의하면 그들은 이미 두석 달 전에 당신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도망쳐 토비로 전락된 탈주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사들이 마치 당신휘하의 산림부대 현역대원들을 해친 듯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친목을 달가와하지 않는 적들의 간계이다.

나는 양군이 오해를 풀고 불신을 해소하며 반감과 적의를 버리고 전우로, 형제로 되어 항일공동전선에 나서게 되기를 열망해마지 않는다.

만순은 회답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제의를 무시해버렸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

는 대답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당신네가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였다. 무송일대에는 만순대장이 그런 배심으로 나올만한 정황이 실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왕가대장이 우리와 약속한대로 만순부대를 비롯한 모든 반일부대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었기 때문이였다. 왕가는 형식상으로만 ≪토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 실제적으로는 ≪토벌≫을 하지 않았다. 만순의 모든 군소산림부대는 후원이 없이도 숨쉬고 살아갈 만하게 되였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산림부대의 산발적인 방해책동을 더 부추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받자 그 산발적인 가해행위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전선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정을 얻었다. 왕가부대도 만순부대도 더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모처럼 얻게 된 그 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만강에 갔을 때에도 대영에 갔을 때에도 그곳 위만군경들과 평화교섭을 하고 불가침을 약속 받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강에 간 것이 1936년 4월말 경이였다.

거기에는 30명 정도의 경찰대 무력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쯤되는 적을 제끼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대표를 보내어 경찰대와 담판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을 다치지 않을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이 부락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게 하겠는가? 그저 못 본 척하고 배겨있다가 훗날 상급에서 추궁하면 유격대 병력이 너무 많아서 대항하지 못하고 가만있었다는 식으로 뒷처리를 할 수 있는가?

경찰대는 우리의 이런 제안에 제꺽 응해나섰다. 유격대가 자기들을 다치지 않고 담판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절을 할 지경이었다.

이동학은 보위단근처의 집 옆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복입은 우리 기관총수들이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서게 하였다.

그 기회에 나는 만강에서 조국광복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강회의에 제출할 문건들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 일자리도 푹푹 났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적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철칙으로 삼아온 우리의 대적방침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지켜온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준칙이였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총을 잡은 사람들이였다. 조국을 살리고 겨레를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였고 사명이였다. 우리의 총검은 오로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쑤들을 징벌하는데만 바쳐졌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검은 살려둘 가치를 가진 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보검이 되어준 반면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악질적인 반항자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검으로 되었다.

봄내 잠잠해있던 왕가대장은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 그 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반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다시 시작하였다. 무송현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대가 그에게 압력을 가한 것 같다. 반일부대병사들의 잘라진 머리가 무송거리의 전선대들에 다시 걸리게 되자 만순 휘하의 여러 산림부대들에서는 탈주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였다. 항일구국의 이념에 투철하지 못한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산림부대의 본성이 되살아나 반일역량의 결속에 힘쓰고 있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었다. 왕가의 ≪토벌≫을 멈춰세우지 않으면 만순부대는 와해

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두 번째로 되는 편지를 보냈다.

… 우리는 당신이 수하의 경찰대를 동원하여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재개하였다는 불쾌한 통보를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와의 협약을 저버린 것으로 된다.

나는 당신이 약속을 배반한 결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완고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적에게는 우리의 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경고편지가 전달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왕가대장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만순부대에 대한 ≪토벌≫도 중단되지 않았다. 으름장을 놓으면 겁낼 줄 아느냐,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싸울테면 싸우자, 왕가대장은 아마 이런 배심이었던 것 같다.

무송현내의 여러 요충지들에는 수백 명의 관동군 ≪토벌≫ 병력이 증파되어 왔다. 왕가는 전에 없이 오만방자해졌다.

7월초에 나는 왕가에게 마감으로 다시한번 더 경고를 주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낸 지 나흘만인가 닷새만인가 회답대신 왕가부대가 다시금 대첨창 근처에 있는 만순부대의 어느 한 숙영지를 기습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송현과 임강현 사이의 어느 수림지대에 머물러있을 때였다.

왕가의 행위는 나와 나의 전우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상전의 조종을 받는 괴뢰만주국의 경찰대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중국사람이며 자기 나름의 이성이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만군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진행해온 적군와해사업의 기초에는 그 이성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깔려 있었다. 우리가 왕가를 설복하여 불가침협약을 맺은 것도 구경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가 믿음을 준 적군의 중하층장교들은 대부분 우리와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액목땅에서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은 위만군연대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철군≫잡지를 계통적으로 보내오던 대포시하의 위만군대대장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구면인 왕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던지였다. 신념을 못가진 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란 배신밖에 없다. 왕가에게는 일제가 망하고 조중 양국 인민이 승리하게 된다는 신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왕가대장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우리의 인내성있는 기대와 성의에 총질로 대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분격을 참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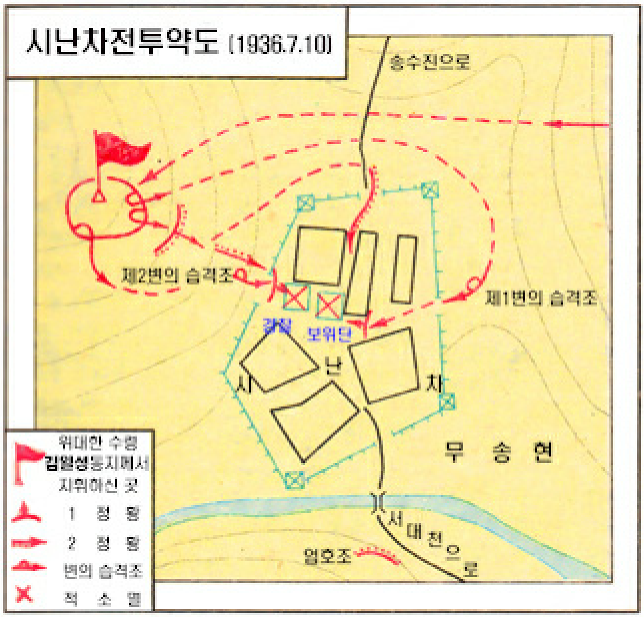
나는 김산호를 불러 날쌘 싸움꾼을 한 30명 정도 골라가지고 10연대에 가서 그 연대대원들과 함께 왕가대장을 징벌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동시에 우리도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시난차 부근의 취자산으로 은밀히 이동하였다.

시난차는 크지 않은 집단부락이었지만 적 ≪토벌대≫ 들의 중요한 출전기지였다. 이 마을에는 경찰분서와 자위단무력도 있었다.

우리가 시난차전투를 계획하게 된 주되는 목적은 우리와의 협약을 어긴 왕가대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데 있었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새 사단을 무장시키는데 요구되는 총기류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새로 편성된 사단은 이미 두도송화강전투에 이어 노령에서 큰 전투를 하였다. 그 전투만 잘 치르면 많은 무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치밀한 작전방안을 세우고



접어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돌발하는 바람에 싸움을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적의 척후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매복권내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가 매복중에 있는 우리 대원을 발견하고 그만 황겁한 나머지 공포를 한방 쏘았다. 우리 대원도 얼결에 총을 발사하였다. 적을 수십명 살상하고 무기도 몇 자루 노획하였지만 전투는 계획대로 깨끗하게 결속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노령에서 적군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봉창을 시난차에서 단단히 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는 시난차에서 위만경찰로 복무하다가 분서장의 악행에 불만을 품고 탈주해온 중국인 대원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시난차경찰분서장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악한이라고 하였다. 그는 집단부락 안의 인민들에게는 물론, 경찰들앞에서도 폭군으로 행세하였다. 중국인 대원은 자기가 유격대에 찾아온 첫째 목적이 중국해방에 앞서 양경장을 처단하려는데 있다고 분노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가 시난차를 노령 다음의 싸움터로 선택한 것은 그 탈주병이 그곳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데도 있었다.

우리는 대낮에 시난차를 치기로 하였다. 낮 12시부터 1시 사이는 경찰들의 점심시간인 동시에 무기청소시간이었다. 경찰들이 총소제를 하느라고 무기를 분해해놓은 다음에 부락으로 쳐들어가면 큰 저항을 받지 않고서도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초물모자를 쓰고 농쟁기를 들고 농민복 차림으로 변장한 유격대원들은 토성에 접근하여 재빨리 성문을 통과한 다음 경찰분서병실에 벼락같이 뛰어들었다. 경찰들은 분서장 이하 모두 크게 저항도 못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자위단도 다 잡혔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경찰분서건물앞에 야외무대를 가설하고 연예공연을 하였다. 그다음 경찰분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서강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경찰들에게 해설사업을 한 다음 노자를 쥐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한 포로가 우리 대원에게 슬며시 물었다.

≪여보시우. 빨치산, 성문은 어떻게 뚫고 들어왔수?≫

≪날아서 들어왔소.≫

우리 대원은 농으로 대답하였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든. 도대체 경비병이라는 것들은 뭘 했을까?≫

결국 우리가 의도한대로 시난차경찰분서의 습격은 왕가대장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왕가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토벌≫에 더욱 극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왕가를 유인하기 위하여 무송현성 근처에 나타난 김산호는 30명쯤 되는 유인조 성원들에게 산림부대옷을 입히었다. 그 자신도 물론 산림부대 소대장으로 변복하였다. 왕가의 구미를 제일 동하게 하는 미끼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밤중에 현성 부근의 한 부락으로 내려간 김산호네 소부대는 그 부락 농민들의 재물을 마구 끌어내며 산림부대 흉내를 내다가 황니하자마을로 옮겨가 꼭같은 수법으로 또 소란을 피우고는 그 마을뒷산 골짜기로 슬그머니 철수하였다.

현성 주변의 촌락에 산림부대가 나타났다가 황니하자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정보를 받은 왕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를 이끌고 살기등등해서 황니하자 부락으로 달려왔다.

≪걱정들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 이제 그 토비놈들을 멸살시키고 돌아올테니 점심이나 잘 차리고 있으라. 점심 전에 내 그놈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겠다. 버르장머리없는 놈들!≫

마을사람들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한 왕가는 부대를 끌고 유인조의 자취를 따라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뒷산중턱에는 10연대 전투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새벽에 김산호의 유인대가 올라가 합세하였다.

여기서 우리 전투원들은 미리 허수아비로 유인가장물을 만들어 세워놓고 왕가의 눈을 홀리었다. 가장물들 사이에 숨어있던 전투원들이 먼저 총소리를 냈다.

왕가와 그의 경찰 ≪토벌대≫는 숲속의 검은 허수아비들에게 항복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맹렬히 돌격해 올라왔다. 손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고 쓰러질 줄도 모르는 그 ≪산림대 병사≫들의 짓궂은 응전은 왕가의 부아를 잔뜩 돋구어주었다. 왕가는 양손에 권총을 하나씩 잡고 연방 사격을 하면서 발악하였으나 우리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절명하였다.

운명의 마지막 시간에 왕가가 어떤 교훈을 찾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정의로운 것에 대한 배신이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가를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왕가대장이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도처의 반일부대지휘관들은 김산호를 찾아와서 왕가의 머리를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머리를 베어 달아놓았던 왕가의 악행에 대한 앙갚음으로 그의 머리를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무송의 성문 높이 매달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산호에게 왕가의 시체를 머리칼 한 오리 다치지 말고 무송현 경찰대에 가닿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우리는 왕가대장의 장례식이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장례식이 또한 우리 군대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해주었다. 적들속에서는 우리 혁명군과 맞서서는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갔다.

왕가를 징벌한 시난차 전투와 황니하자 전투에 대하여서는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되어있다.

왕가를 제거해버린 다음 우리는 일본군대까지 제압해놓음으로써 무송일판을 완전히 우리의 천지로 만들 작정을 하였다. 정찰병들을 파견하여 각방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마침 60여명의 일본군대가 무송에서 임강 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차 매복전을 조직하였다. 그 싸움 역시 아주 통쾌하였다. 파손된 배에 실려 도망친 놈은 여라문명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몽땅 수장당하였다.

이런 싸움이 몇 번 거듭되자 무송현일대는 우리의 천지로 되었다.

그 해 여름을 우리는 대영에서 얼마동안 보냈다. 온천 옆에 천막들을 쳐놓고 지내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내오는 사업, 무송과 임강의 산림지대에 인쇄소, 재봉소, 무기수리소, 후방병원을 포함한 밀영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적의 주둔지였다. 우리는 대영에 가자마자 적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였다.

… 우리는 한동안 온천에서 지낼 작정이니 너희들은 그런줄 알고 우리앞에 나타나지도 말며 어디로 달아나지도 말라. 거기에 가만히 배겨있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물품들을 보내주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들이 담보한다.

적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지도 못하였다. 그 대신 우리가 일러준대로 물품조달자의 역할을 고분고분 수행하였다. 우리가 지하족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하족을 가져오고 밀가루를 실어오라면 밀가루를 실어왔다.

만순이 나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왕가대장을 격멸한 데 대한 축하와 문안인사를 보내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얼마 후에는 만순영감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서 대영온천지로 왔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편지도 보내고 사절도 파견하여 공동전선을 하자고 호소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던 도고한 늙은이가 제발로 찾아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공동전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사령도 찾아가고 오의성도 찾아갔지만 왕가대장을 제껴버린 다음에는 유명짜한 만순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왔다.

만순은 첫눈에도 쉰 살이 훨씬 넘어보이는 사람이었다. 아편에 중독되어서인지 눈빛이 맑지 못하였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앞세웠다.

≪우리 반일부대병사대중은 모두가 한결같이 왕가놈을 없애준 **김**사령을 세상에 둘 도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김**사령께 감사를 드리고 겸하여 사령과 형제의 의를 지니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고 찾아왔소이다. 청컨대 **김**사령은 내가 지난날 노망하여 섭섭하게 굴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먼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이 마음을 너그러이 헤아려 나와 쟈잘리를 무어주었으면 합니다.≫

만순의 요청은 한동안 나를 망설이게 하였다. 나는 지난 시기 우사령이나 오의성과 공동전선을 실현할 때 제기하였던 몇 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그것들을 수락한다면 쟈잘리를 뭇는데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조건이란 반일부대가 우리와 친교를 맺고 우군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 일제에게 절대로 투항귀순해서는 안된다는 것,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공작원이나 연락원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 우리와 정상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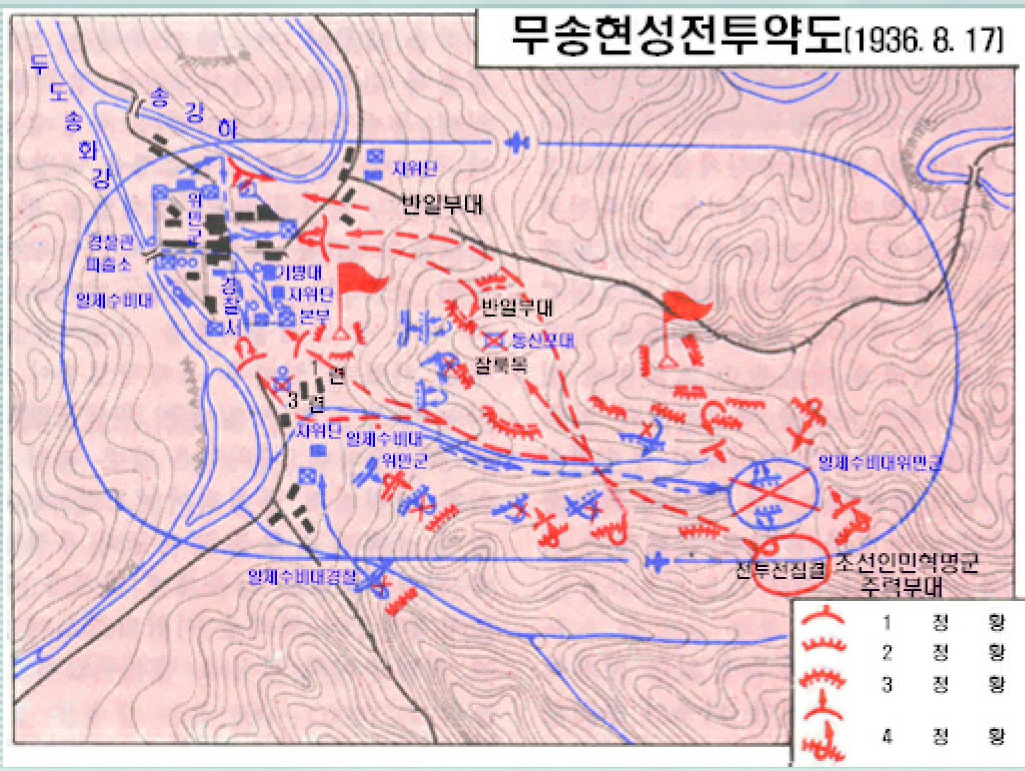
뜻밖에도 만순은 그 모든 조건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해 나섰다. 그는 내가 제기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가할적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빈번히 ≪달≫자를 넣어 ≪달견≫이요, ≪달통≫이요 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단 몇 시간 사이의 상면으로 공동전선을 맺고 우리 양군은 서로 우군이 되었다.

만순은 그 후 우리와의 언약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남호두회의 이후의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로에서 하나의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었다. 이 사변의 의의는 비단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무송지구에서 우리가 바친 불면불휴의 노력은 백두산지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서 튼튼한 초석으로 되었다. 이 노력으로 하여 우리는 조중 양국 인민과 애국역량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었다.

2. 정든 성시에서



만순은 쟈잘리나 결의형제 같은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뭇자고 주동적으로 제기해온 것은 인민혁명군과 선린우호관계를 가지고 그 배경밑에서 적들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오의성도 한때 우리에게 쟈잘리를 뭇자고 요청해왔다. 쟈잘리라는 공간을 통하여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자들을 그 연합에 비끄러매두려는 것은 반일부대 일반이 취하고 있던 공통적인 경향이였다.

그렇지만 쟈잘리나 결의형제 같은 것이나 뭇는다고 하여 반일공동전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였다.

공고한 동료관계는 실천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거듭되는 시련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반일부대를 인민혁명군의 충실한 동맹자로 만들며 그들과의 연합을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었다.

1936년 8월의 무송현성 전투는 우리와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확고한 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우리 공동전선을 무은 김에 큰 성시를 하나 제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넌지시 이런 제기를 하자 만순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쾌히 응해나섰다.

≪제낍시다. **김**사령네 부대하구라면야 무슨 대적인들 못제끼겠소. 나는 지금 천하를 쥐락펴락할 것 같은 기분이웨다. 큰 성시를 하나 들이칩시다.≫

일본군이라면 맞서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줄행랑을 놓던 산림부대 두령의 대답치고는 놀랄 정도로 자신만만하였다. 약담배 기운의 덕으로 생겨난 허세가 아닌지도 몰랐다.

만순은 우리앞에서도 약담배를 서슴없이 들이빨고는 하였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각별히 신임한다는 표시였다. 원래 중국의 아편중독자들은 파악이 없는 생소한 사람들앞에서는 절대로 약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만순이 우리는 허물없는 친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일이었다. 원래 그는 반일부대 대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약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초기에는 싸움도 본때있게 하였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공을 세워 인차 대부대의 지휘관으로 되었다.

한번은 그의 부대가 일본군의 포위속에 들어 전멸될뻔한 일이 있었다. 포위를 돌파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만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었다. 이 한차례의 위기는 그를 단번에 비관론자로 만들어버리었다. 돌격할 때마다 악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일본군은 군률이 째이지 못하고 무장이 약한 반일부대의 사병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힘에 부치는 대상이었다. 게다가 왕가대장까지 따라다니며 도처에서 그의 부대를 녹여냈다.

만순은 깊은 산중에 토성을 쌓고 들어앉아 싸움을 전폐하고 주민들의 재물을 털어서 부대의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인민들의 재물로 살아가자니 노비근성 밖에 늘어날 것이 없었다. 산속의 늙은 ≪비장≫은 한숨과 울화속에서 약담배로 세월을 보냈다.

만순의 부하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대생활에 넌덜머리가 나서 총을 집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병들은 노비로 전락되었으며 어떤 사병들은 흰기를 들고 위만군의 병영으로 찾아갔다. 지휘관들은 도박질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걸핏하면 매질을 하든가 쌍욕질을 해대는 지휘관들의 전횡 때문에 상하관계는 사실 말이 아니였다.

만순부대는 괴멸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망조가 든 만순부대를 구원하는 길은 연합을 실현하는 길이며 연합에 의한 실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데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제휴에 성공한 후 그들에게 인차 큰 성시를 하나 치지 않겠는가고 제기한 것이였는데 만순이 제꺽 응해나서는 바람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다.

≪**김**사령이 왕가대장을 쳐갈기는 것을 보고 내 수하의 장졸들은 모두 탄복하였소이다. **김**사령부대와 함께 성시를 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니 어서 작전을 짜주시오.≫

만순의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노령과 시난차, 서강, 대영 등지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였으며 그 전투들에 적용된 전법과 전술을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순은 저 멀리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명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사람들은 용맹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연전연승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만순은 김사령의 부하들은 모두가 용감무쌍한 강병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린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용렬한 자들뿐이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긴 탄식을 하였다.

≪대장어른, 너무 상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일공동투쟁을 잘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용맹한 사병들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성시를 치면 좋겠는지 그거나 골라 보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만순은 손을 홰홰 내저으며 그것도 김사령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날 공격대상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아퀴를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만순은 내심으로 무송현성을 쳤으면 하고 의향을 품고 있은 것 같았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다행스러웠다. 무송은 길림과 더불어 나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정들고 때묻은 고장이었다.

무송은 만주대륙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현소재지였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고장에는 2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송시가에 널려 있는 수백 호의 집들은 대체로 초가마가리들이 아니면 오두막들뿐이었다. 간혹 벽돌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네모번듯한 목조가옥도 있었으나 그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 줄줄 흐르는 그 초가마가리들과 오두막들을 내 몸의 한부분처럼 사랑하였고 우리가 무시로 드나들던 소남문이나 송화강을 내 고향의 정경처럼 어데 가서나 애틋한 추억속에 그려보고는 하였다.

나는 이 성시에서 일생의 나침반으로 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안았다. 그 유언을 안고 아버지의 영구를 따라 양지촌 묘소로 향하던 때로부터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묘소주변의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백두산으로 진출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는데서는 무송의 적을 제압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의의가 컸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무송을 쳐야 하겠다는 결단을 선뜻 내리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만순과 헤어진 다음부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지도하는 한편 도처에서 적합한 공격대상을 골라잡기 위한 성시정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협동작전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의성부대의 제1지대장 이홍빈이 대오를 이끌고 예고도 없이 불쑥 나를 찾아왔다. 지글지글 끓는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먼 노정을 강행돌파한 이홍빈의 얼굴은 땀에 떠 있었고 군복은 먼지와 소금버캐로 얼룩져 있었다.

이홍빈의 제1지대는 오의성부대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기간부대의 하나였다. 이홍빈 자신은 오의성의 바른팔이라고 불리울만큼 상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총애도 받는 능력있는 지휘관이였다. 우리와는 결죽한 농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면이었다.

북만의 청구자에서 잠깐 만나보고 헤어진 오의성의 부대가 어떻게 되어 남하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를 추격하여 무송에까지 나타났을까?


무송집앞거리

≪나를 **김**사령한테로 보낸 것은 오사령이올시다. 영감의 말이 **김**사령부대가 백두산 쪽을 향해 남하행군을 하고 있을 터인데 어디서건 찾아내어 협동작전을 하라질 않겠습니까.≫

지대장은 먼 행군의 피곤도 무릅쓰고 한참동안 신바람이 나서 오사령의 안부를 전하였다.

≪영감이 나보고 **김**사령부대를 찾아가라고 할 때는 정말 막연했습니다. 내가 ≪이 망망대해 같은 만주땅에서 신출귀몰하는 **김일성**부대를 어데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하고 말하니까 영감은 ≪머저리같은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모로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으니 총소리가 제일 높은데로만 찾아가라구. 그러면 거기에 **김**사령이 있어.≫하더란 말입니다. 영감님 말이 참말 명언이였습니다. 이 만주천지에서 총소리가 그 중 높은 고장이 바로 무송일대더란 말입니다.≫


무송제1학교

≪하긴 우리 부대가 여기서 매일같이 총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순부대와 함께 큰 성시를 하나 칠 계획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이형이 거느리고 온 지대도 이 작전에 참가시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운을 내가 마다할 리 있습니까. 오사령도 협동작전을 하라고 내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어 보냈는걸요. 영감도 뒷처리를 하고 인차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순부대와의 연합이 성공한 때에 이홍빈의 지대까지 합세하고보니 우리로서는 경사에 경사가 겹친 셈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홍빈이 정녕 인민혁명군을 돕자고 불원천리 우리를 찾아왔단 말인가. 청구자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오의성은 자기를 반일군전방사령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보중의 처사를 몹시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한 기분에 싸여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우리와의 합작에 대해서는 별로 화제에 올리지 않았었다.

주보중에 대한 울화만 토로하던 오의성이 **김일성**공산당하고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해야겠다면서 이홍빈을 우리한테 파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믿음의 표시였다. 왕덕림이 쏘련을 거쳐 관내로 들어간 후 비록 일시적으로 동요하기는 하였지만 오사령이 통일전선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의 합작을 시종일관하게 추구해온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었다.

때마침 만순도 와있어 이홍빈은 그날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협동작전 토의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공격대상문제를 다시 협의하였다.

나는 후보지로 몽강을 비쳐보았다. 몽강은 1932년 여름 통화의 양세봉부대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한달 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대오를 늘이고 지하조직을 복구하던 고장이었다. 발판도 있고 파악도 충분한 고장이어서 싸움만 벌이면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만순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면서 달가와하지 않았다. 설사 이기고 돌아온다 해도 귀환도상에서 포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송현성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김**사령, 무송을 칩시다!≫

이홍빈도 주먹을 움켜쥐고 격노해서 부르짖었다. 그가 무송을 치자고 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홍빈은 액목을 떠날 때 우리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무진흥이라는 중대장을 먼저 척후로 파견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무수행도중 무송헌병대에 체포되였다.

적들은 무송에 온 목적과 접선대상이 누구인가를 대라고 그를 강박하였다. 무진흥은 그 문초에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헌병대의 악마들은 고문을 하다 못해 그의 입안에 끓는 물을 퍼넣었다. 입안과 목안의 가죽은 삽시간에 익어서 문드러지고 입술도 온통 물퉁이로 되었다. 그래도 그 강인한 중대장은 절개를 굽히지 않고 무언으로 항거하였다.

적들은 끝내 무진흥을 ≪통비분자≫의 죄명을 쓰고 억류되어있던 무송지구의 애국농민들과 함께 무송북쪽 변두리에 끌어내다가 총살하였다. 그런데 총알은 이 중대장을 면바로 맞히지 못하고 빗나갔다. 남의 시체위에 쓰러져 있는 그를 어느 귀인이 업어다가 총상까지 치료해서 부대에 돌려보냈다. 이 불사신같은 중대장의 입을 통하여 무송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경들의 살인흑막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홍빈은 무진흥이 헌병대에 갇혀 있을 때 보고들은 몇 가지의 살인진상을 추려서 말해주었다.

왕가대장이 죽은 다음부터 일제군경들은 ≪통비분자색출≫의 구실밑에 성문을 봉쇄하고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놀음을 하였다. 증명서 기일이 지났거나 증명서가 없이 성안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반항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었는데 그 살인방법이야말로 고금의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다.

놈들은 성문에서 단속된 사람들을 서문다리 부근에 있는 여관에 가두었다가 신새벽이면 서문밖 두도송화강변의 늪가에서 시참을 해서 죽이었다. 시참이란 군인기질을 키운다고 하면서 시퍼런 칼로 산 사람의 목을 쳐서 생피를 보게하는 귀축도 치를 떨 백정행위의 일종이다.

시참한 시체들은 두도송화강변의 늪속에 처넣었다. 훗날 무송사람들이 그 늪을 살인항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적들은 시참의 비밀을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제때에 색출해내여 꼭같은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그들의 시체도 역시 살인항에 수장되였다.

나의 가슴속에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지었다. 무송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총성으로 깨뜨리거나 초연으로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었던 생각이 한갓 부질없는 연민에 불과했다는 자책이 머리를 호되게 때리었다.

사실 무송은 임강, 장백과 함께 백두산 주변의 여러 성시들 가운데서 적들이 각별히 중시하고 있는 군사요충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무송을 ≪동변도 치안숙정≫의 중심거점의 하나로 삼고 여기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등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실전에서 단련되었다고 하는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도 무송현성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것만큼 무송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백두산지구를 우리 손에 장악하는데서 의의가 컸다.

무송현성에 도사리고 있는 간악한 적들을 쓸어눕히고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지옥같은 성곽 안에서 시참의 세례를 받고 있는 무고한 사형수들을 구원하자!

어디에서인가 이러한 피의 절규가 끊임없이 울려오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무송부터 치고 보자! 나와 눈물겨운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성시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일본도에 맞아 매일같이 죽어가는데 이런 비극을 지척에 두고 몽

강으로는 왜 간단 말인가. 무송을 치면 이 고장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줄 수 있고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도 튼튼한 초석위에 올려세울 수 있으며 백두산지구도 보다 손쉽게 장악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닌가.

나는 무송현성을 치는 것이 이 성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반가운 인사로 되고 이 고장 사람들에게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열렬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된다고 고쳐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무송을 공격하여 백두산 서북부 일대를 장악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것을 결심하였다.

공격대상지에 대한 합의를 본 다음 우리는 무송시가에 대한 세밀한 정찰을 재차 조직하였다.

나는 정찰자료를 종합해보고 우리가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무송현성의 방어시설은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였다. 만주의 모든 성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무송도 견고한 토성과 포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성문보초를 담당한 위만군 중대가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중대라는 것이였고 내가 무송시가를 잘 안다는 것뿐이었다. 그 중대안에는 우리 부대의 정치공작원들이 꾸려놓은 반일회조직이 있었다. 반일회를 책임지고 있는 왕부중대장은 우리가 성시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믿을만한 조직성원들로 보초를 세워두었다가 성문들을 일시에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작전회의를 열고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분담하였다. 우리 부대가 맡은 전투과제는 동산포대를 점령하는 것과 대남문, 소남문 방향으로 공격하여 성안의 적을 소멸하는 것이었다. 반일부대들은 동문과 북문 방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성방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적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전투전날 송수진과 만랑하(만량향)를 칠 것도 계획하였다.

그만하면 작전준비가 이상적인 수준에서 진척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송현성전투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주되는 이유는 반일부대들이 지정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데 있었다.

이홍빈 부대가 지나친 열성을 내어 집결지점인 첨창구에 들리지도 않고 동문으로 직행한 데다가 만순휘하의 부대까지 약속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애를 말리었다. 연락병을 보낸 다음 한시간나마 기다렸으나 만순의 부하들은 첨창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공격날짜와 공격시간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 만순 이하 모든 반일부대의 두령들과 함께 길흉화복의 조짐들을 충분히 토론하여 정한 날짜였고 시간이었다.

반일부대의 지휘관들은 날짜를 정하는데서도 미신의 구속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홍빈 지대장은 공격 날짜와 시간이 어떤 숫자로 구성되는가 하는데 왼심을 썼다.



무송현시가

음양론에 의하며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므로 모든 중대사들은 1, 3, 5, 7과 같은 홀수로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좋은 운수를 타게 된다는 것이 이홍빈의 지론이였다.

그런데 음양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우리가 우연하게도 전투개시시간을 17일 새벽 1시로 정하게 되였는데 그것이 음력 7월 초하루날이어서 이홍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부대의 일부 역량을 데리고 첨창구에 먼저 도착한 만순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가다가 모두 두 손을 합장하고 동쪽하늘을 향해 무슨 주문같은 것을 웅얼웅얼 외우게 하였다. 천지신명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만순부대가 배신행위를 했다면서 늙은 두령을 마구 몰아댔다. 만순의 얼굴에는 진땀이 고랑을 지어 흘러내리었다.

나는 그 늙은 두령이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에는 이상스럽게도 만순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 그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났다. 사실 이번의 연합작전을 성사시키는데서 만순만큼 큰 열의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또 만순처럼 창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작전시간과 작전규율을 엄수할 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것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지지로, 고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위해 1선에서 그토록 사심없는 노력을 해오다가 실천상에서는 작전의 전개에 지장을 주게 된 거기에 나로 하여금 만순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민망스러운 부조화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자신도 그 누구를 동정하거나 가련하게 여길 처지가 못되었다. 시간이 한초한초 흘러갈수록 이 싸움의 총지휘역을 수행해야 하는 내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조여들었다. 수백차례에 걸치는 전투를 했다고 하지만 이때처럼 초조하고 당황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작전회의에서 시간엄수문제를 두고 역점을 더 찍어 강조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였다. 그 회의에서 내가 각별하게 힘을 넣어 지적한 것은 성시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말며 군민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데 대한 것이였다. 나는 동녕현성 전투 때 반일부대의 사병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그런 유의 비행이 여기 무송땅에서 두 번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만순부대의 지각,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던 문제였다. 중시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오히려 충격은 더 컸다고 본다.


소남문포대

전투의 운명을 비틀어놓을 수 있는 이 비상사고로 하여 우리앞에는 임기응변의 대응책을 취하든가 아니면 싸움자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연합작전을 앞에 두고 달아오른 반일부대병사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만순부대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약담배 때문이었다. 그 부대의 지휘관들과 사병들속에 아편중독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동작전의 승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행군중에 있는 만순부대에 아편을 보냈다.

만일 우리가 아편을 보내는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상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액목현성전투를 치른 후 왕윤성이 나에게 연합작전에서 반일부대들이 비교적 싸움을 잘한 것은 아편덕이였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농으로 받아들이였었다. 만순의 부하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때의 그 말이 농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대들이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어 집결장소에 도착하였다. 기본부대를 인솔한 연대장은 맨나중에야 헐떡거리며 만순대장앞에 나타나 때늦은 도착보고를 하였다.

만순은 싸창을 빼들고 그 연대장을 쏴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그 순간처럼 약담배의 해독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때의 그 절박한 체험은 훗날 우리로 하여금 유격대에서 아편중독자들에게 총살형을 적용한다는 극단적인 규정까지 작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던 고색창연한 청국의 기와장들에 망조가 어리고 서까래가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아편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청국은 자기 나라에 아편을 밀수하는 영국과 두 차례에 걸치는 아편전쟁까지 하였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이 청나라에까지 흘러들어와 수백 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아편중독자로 만들어버리었다. 그 대신 막대한 양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영국은 아편장사로 폭리를 얻었다.

임측서를 비롯한 청나라의 선각자들은 인민들과 함께 밀수를 반대하여 영국침략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항전은 치열했으나 통치계급의 배신적인 행위로 인하여 청나라는 영국사람들에게 자기 영토의 한 부분인 홍콩을 떼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은 아편이 중국을 먹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편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의 중국 국민에게 청왕조가 남겨놓은 최대의 수치이고 아픔이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대량적으로 밀매되고 있었다. 돈푼이나 있는 부자들, 벼슬아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일의 생계를 기약하기조차 어려운 일반서민들 가운데도 아편을 빠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코물을 줄줄 흘리며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아편중독자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우방인민이 당하고 있는 피눈물의 장구한 수난사를 돌이켜보며 가슴아픈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부대들이 목에서 쇠비린내가 나게 급보로 행군을 다그쳤으나 그것은 행차뒤나발이였다. 성문들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며 보초를 서던 위만군 중대의 반일회 성원들은 교대시간이 되자 기관총의 기관실에 모래를 쓸어넣고 초소에서 철수하였다. 성문을 은밀히 열고 성안에 돌입하여 적들을 일격에 섬멸하려던 우리의 작전계획은 시작부터 뒤틀어졌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나는 전투를 단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런 정황에서는 오히려 전투를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에 젖은 무송시가를 눈앞에 두고 싸움을 단념하기에는 우리의 적개심이 너무도 강했고 백두산지구의 장악을 위해 그 싸움을 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큰 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1,8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서도 성시를 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보잘 것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라고 비난할 것이 아닌가. 반일공동전선의 대의는 비누거품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백두산에서 울리려는 우리의 총성이 무맥한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정황은 어렵게 되였지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승리에로 이끌자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에게 호소하였다.

무송현성전투의 서막은 이처럼 복잡한 곡절을 겪었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내가 공격명령을 내리기 바쁘게 동산포대를 단숨에 점령하고 소남문 방향을 향해 돌진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도 북문과 동문 쪽으로 진공하였다. 소남문 앞거리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성문으로 육박하는 아군을 향해 포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소남문 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한 나는 그 기관총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기관총수 김명주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기관총 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성문을 까부시고 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원들은 육탄으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그 시각에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부대가 적의 포성에 질겁하여 퇴각한다는 연락이 날아왔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급히 중대를 데리고 북문 쪽에 가서 만순부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조금 후에는 동문을 담당했던 이홍빈의 부하들이 반격해오는 적을 막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한 탓으로 동문을 나선 적들이 모조리 소남문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광이 책임진 소부대가 만량하습격전투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까지 날아들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였다. 이유인즉 두도송화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의 부하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려난 원인은 포소리에 놀란 것 때문만이 아니였다. 만량하습격을 단념하고 돌아오는 아군의 한 부대를 적의 증원군이 밀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앞뒤로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이었다.

만순부대의 공격서열이 수라장으로 되자 그 여파가 익측에까지 미쳐 이홍빈부대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전광이 습격전투를 포기하고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후과는 이처럼 전반적인 전투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었다.

전국을 미처 수습하지도 못하였는데 벌써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정황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지고 있었다. 이때 이홍빈이 나에게로 달려왔다.

≪사령님, 판이 글러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어물거리다가는 전멸을 당합니다.≫

이홍빈이 바라는 것은 즉시에 총퇴각하자는 것이었다.

≪아하, 끝장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홍빈의 어깨를 움켜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지대장, 너무 낙망하지 마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하오. 복속에 화가 숨어있고 화속에 복이 숨어있다고 하지 않소.≫

내가 이홍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나는 반일부대들이 퇴각을 시작한 이 기회에 유인전술을 써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었을 뿐이었다.

정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적을 성문 밖으로 유도하여 골짜기에 몰아넣고 포위섬멸한다는 것은 유격활동의 전술적 원칙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놓은 복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유인전술은 야간에 적용해야만 큰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었다.

우리앞에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전장에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정면돌격의 방법으로 결사전을 벌이든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인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은 다음에도 인명피해가 두려워 퇴각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기적이 생기었다. 현성과 그 주변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서리면서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천지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각 부대들에 흩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동산과 소마록구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적들은 퇴각하는 아군을 미친 듯이 따라왔다.

우리가 동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산 중심돌출부의 잘루목에서 한방의 총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전투 후의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떼여둔 7-8명의 여대원들이 그 잘루목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군의 주퇴각방향이 동산이라는 것을 탐지한 적들은 잘루목을 앞질러 차지하고 우리 지휘부와 주력부대를 양쪽에서 타격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잘루목에서는 총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우리의 여대원들이 적의 대부대와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김확실

나는 전령병을 시켜 잘루목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다. 전령병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잘루목을 피로써 지켜내겠다는 김확실, **김정숙** 동무들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이날 우리 지휘부는 잘루목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여대원들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보다 먼저 동산으로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여대원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7연대 4중대는 결사적으로 동산을 사수하였다.

잘루목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7연대 주력은 자욱한 안개를 이용하여 동산남쪽고지에 긴 매복진을 폈다. 반일부대들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능선을 차지하였다. 그때에야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대는 적들을 유인하면서 안개낀 골짜기로 깊숙이 철수하였다. 그들도 나중에는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산등성이에 올라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시참으로 악명을 떨친 다까하시부대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함정속으로 모조리 끌려들어왔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우리는 산에서 내리쏘고 적들은 골짜기에서 올리쏘는 화력전이 얼마동안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다까하시의 사병들은 만순이 용맹의 전법이라고 말하던 그런 악독한 전술로 파장식 돌격을 들이댔으나 매번 주검만 남기고 물러서고는 하였다. 돌격이 은을 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총질을 멈추고 산기슭에 붙어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었다.

나는 반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유창한 나팔소리와 함께 매복진에서 뛰쳐 일어난 아군용사들은 적들을 닥치는대로 쓸어 눕히었다. 백병전의 선두에는 ≪연길감옥≫이란 별명을 가진 7연대의 분대장 김명주가 서있었다.

김명주는 5.30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연길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였다. 그는 옥내의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5년동안에 여섯 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다. 도끼로 전옥을 까눕히고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다름아닌 김명주였다. 전우들

이 그에게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이런 사연때문이였다.

김명주에게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 외에 ≪칠성자≫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어있었다. 그는 일곱 번 큰 전투에 참가하여 일곱 번 큰 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전우들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그에게 ≪칠성자≫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칠성자란 탄알 일곱 발을 재우게 되어있는 권총이다. 김명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부대의 사자였다.

김명주가 연길감옥에서 탈옥투쟁을 할 때 그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8연대의 중대장 여영준도 이 전투에서 ≪칠성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김명주와 여영준은 투쟁속에서 우정을 맺은 딱친구였다.

유격대의 ≪여장군≫ 김확실은 시종 두 눈을 부릅뜨고 기관총을 쏘았다. 왜 한 눈을 감지 않느냐고 전우들이 묻자 그는 왜놈의 더러운 상통을 똑바로 보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가 기관총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나가 넘어졌다. 김확실은 이날 날창을 뽑아들고 육박전에도 참가하였다.

김정숙이 양손에 싸창 한 자루씩 거머잡고 기관총으로 연발사격을 하듯이 불질을 하여 10여명의 적들을 쓸어눕혔다는 일화도 무송현성전투가 빚어낸 것이였다.

아편 때문에 싸창맛을 볼 뻔했던 만순이네 연대장은 적탄이 비발치는 바위위에 올라서서 구령을 치며 연대를 지휘하였다. 모든 반일부대가 이날은 실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는 동산골짜기에서 전멸을 면할 수 없었다. 이 비극적인 사태는 그날 오전중으로 관동군 사령부에 보고되었다. 훗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고 알게 된 데 의하면 그때 신경비행장에서는 무송주둔군을 지원하려고 폭탄과 탄알을 만재한 군용기들이 떠올랐고 통화, 환인, 사평가 등지에서는 증원부대가 긴급히 출동하였다. 중강진 수비대도 무송으로 급파되었다.

아마 다까하시도 나자구의 문영장처럼 상급에 굉장히 과장된 통보를 날렸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방대한 증원무력이 산지사방에서 무송을 향해 그처럼 소란스럽게 모여들 수 있었겠는가. 다까하시를 구원하기 위한 적의 병력은 임강, 장백, 몽강을 비롯한 인접 현들에서도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비상한 속도로 추진된 이 발광적인 수습책도 다까하시를 함정에서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8월 17일 오후 일부 증원대들이 무송에 들이닥쳤을 때는 벌써 승패가 결정된 뒤였다.

우리가 진지수색을 끝마치고 깊은 수림속으로 철수해가고 있을 때 신경에서 날아온 적기들은 우리 손에 의하여 파괴된 동산포대와 현성 부근의 주민가옥들에 눈먼 폭탄들을 마구 내리던



조선화 - 용감한 유격대원들

지였다.

≪김사령, 저놈의 비행기들도 사령의 최면술에 걸려든 게 아닙니까?≫

미친 듯이 급강하하는 폭격기들을 깨고소한 눈길로 바라보며 만순이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무송현성전투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순의 앞에서는 전리품들을 한 짐씩 가득 진 수백 명에 달하는 그의 부하들이 연대장의 인솔하에 개선장군들처럼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편부족 때문에 집결시간조차 지키지 못하여 작전에 막대한 혼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일변하였다. 반일부대의 행군대오에서는 웃음소리가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전투를 계속하면 저 사람들이 능히 약담배도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만순에게 그 대오를 손짓해보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부탁인데 연대장을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순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해졌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사실 그것은 내가 사령님에게 해야 할 부탁이였수다. 사령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준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수다. 나도 오의성처럼 김사령하구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하겠소이다.≫

확실히 무송현성전투는 동녕현성전투나 나자구전투와 마찬가지로 반일부대장병들에게 사상개조의 길을 열어준 충격적인 사변이였다. 그들은 이 전투를 치르고나서 처음으로 통일전선의 맛을 알게 되였다. 실천이란 언제나 이론보다 더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법이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이론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이 무송현성전투를 통하여 다시한번 확증되였다.

무송현성전투는 전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많이 남기였다. 나는 그때까지 숱한 싸움을 치러왔지만 이 전투처럼 그렇게 정황변동이 심한 전투는 한번도 당해보지 못하였다. 전쟁에서는 대체로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황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무송현성전투에서는 우리측의 불찰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일시적인 혼란도 조성되였다.

전투정황에 뜻하지 않은 변동이 생기고 장애가 가로놓일 때일수록 지휘관은 강철같은 의지와 담력을 가지고 냉철한 사고력을 발동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 임기응변의 방법으로 침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적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정황변동에 능란하게 대처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심을 신속히 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지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나는 무송현성전투 결과를 두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가지는 군사실무적 의의보다도 정치적 의의를 더 중시하였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강화한 것, 백두산 서북지구를 우리 손에 더 확고히 장악한 것, 그 승리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한 적병력수와 전리품의 수량 같은 것은 나의 기억에 크게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3. ≪피바다≫ 초연무대



혁명가극 ≪피바다≫의 한장면

항일혁명시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였다고 본다. 원작들도 대부분 발굴되고 그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복각하는 사업도 십중팔구는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문학과 예술은 지금 우리 당의 문예전통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문학예술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재보로 되고 있다.

나는 직업적인 학자들처럼 항일혁명 문학이나 예술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만강에서 우리 부대가 진행한 공연활동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만강에서의 공연활동을 소개하면 항일혁명시기의 문학과 예술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의 성시를 치는 전투에 못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연예활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건 마다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유격대오에 종군작가나 예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는 창작과 창조의 진통과 고뇌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였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대에는 직업적인 작가나 예술인 출신 대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와 우리의 명성에 고무되여 참군을 시도한 문인들은 있었다.

만일 그들의 참군이 원만하게 실현되였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은 자기의 행적을

수록할 수 있는 역사기록필진과 대내출판물의 발간과 연예공연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재능있는 창작집단을 꾸려가지고 강력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우리 대오에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비전문가들이 하였다. 우리 부대의 대표적인 역사기록자는 이동백과 임춘추였다. 그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느라고 하였지만 대부분은 인멸되였거나 소실되였다.

우리 학자들은 해방 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조건에서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 대부분의 역사자료들은 항일혁명투쟁 참가자들의 회상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적측의 문건들도 많이 참고하였으나 어떤 자료는 왜곡되거나 과장, 왜소화된 것들도 있어 결국 역사를 체계화하고 고착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게다가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과 무관심으로 하여 항일혁명역사와 관련된 전면적인 자료수집은 1950년대 말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항일혁명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책자들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날짜와 장소들이 약간씩 엇갈리는 것은 이런 특수한 실정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일투사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해도 좋고 기억 안해도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만난을 이겨냈다. 만일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총을 잡은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후대들이 항일혁명역사라고 부르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의 포위와 추격속에서 위치를 부단히 바꾸어가며 유격전을 벌인 우리었던 것만큼 비밀로 될 수 있는 한 장의 문건마저도 안전하게 간수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적구에서 오는 쪽지편지도 보는 족족 제때에 태워버리고는 하였다.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건이나 사진자료들은 배낭속에 넣어서 국제당에 보냈다.

1939년에도 우리는 국제당에 여러 배낭의 문건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문건들은 목적지까지 가닿지 못하였다. 그때에 유실된 자료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일제경찰문건들과 출판물들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호송자들은 분명 중도에서 적들에게 피살된 것 같다. 우리가 조국으로 개선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기록이나 조직관계의 문건이 아니라 혁명가요들을 적어넣은 수첩과 전우들의 주소, 성명을 적은 비망록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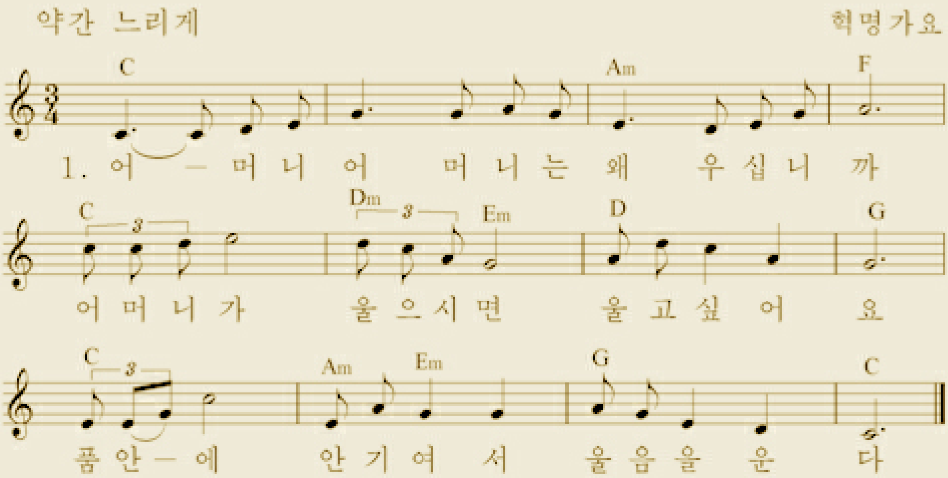
우리 학자들이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서 제일 큰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 혁명이 안고 있던 특수한 사정과 복잡한 내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매문가들,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은 몇 건의 문서장에서 따온 숫자들과 사실들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자기 조국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아들, 딸들이 육탄으로 개척해온 항일혁명역사를 어떻게 하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무진애를 다 쓰고 있었다.

우리의 이념과 사회제도를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를 왜소화하기 위해 온갖 독설을 다 퍼붓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역사란 먹으로 지울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의 역사는 역사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피바다≫를 구상하고 그 대본작업에 착수한 것은 동강회의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연극 ≪피바다≫를 창작하게 된 기본연원은 ≪간도토벌가≫에 있었다고

≪토벌≫가



2.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 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3. 애처롭고 슬프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몸이 찢겨 원통하게도
네 아버지 원한 품고 돌아 갔구나

4.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으며
생각하니 살아 갈 길 막막하구나
원한의 거친 땅에 찬바람 분다

5. 울지 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
운다고서 이 원한이 가시여 지랴
저 산을 넘어 가서 살 길을 찾자

6.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을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쳐 싸워 가리라
혁명의 붉은 맹세 굳게 다진다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린시절에 아버지한테서 ≪간도토벌가≫를 배웠다. 아버지는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간도≪토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고는 하였다.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 다음 부대를 이끌고 동만에 가니 그 지방 사람들은 일본군경들의

≪토벌≫로 하여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토벌대≫의 군도와 총창 끝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지어는 수백 명 씩 무리죽음을 당하는 대살륙의 참사가 끊임없이 빚어지는 간도땅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였다.

나는 그 피바다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배워준 ≪간도토벌가≫를 상기하였으며 ≪간도토벌가≫를 상기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초와 수난을 두고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도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운명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총대와 곤봉을 틀어잡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였다. 이 거족적인 항쟁에는 삼강오륜과 삼종지도에 구속당하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싸여 밥투정질을 하던 아이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나를 크게 감동시킨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였다.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혁운동에 뛰어든 것은 하나의 혁명이였다. 나는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였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과정에 나의 머리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여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익어갔다.

그 당시의 솔직한 내 심정은 그런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였다.

우리는 무송땅에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 도처에서 연예공연무대를 펼쳐놓고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싸움을 한 번 하고는 눌러앉아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못할 정황이면 선동연설이라도 한바탕 하고서야 부대를 철수시키였다. 혁명군대원들이 소박한 예술소품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언제인가 우리 동무들이 싸움 끝에 열린 오락회에서 ≪간도토벌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뿌리며 일제를 저주하고 항일을 결의하였다. ≪간도토벌가≫하나만으로도 울음바다를 펼쳐놓게 된 오락회장의 돌발적인 정경은 나로 하여금 연극종목과 같은 본격적인 무대형상으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계몽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동강회의가 끝난 다음 이동백이 뜻밖에도 묻어두었던 그 욕망에 불을 붙여주었다. 그때 그는 어느 마을에선가 신간 문예잡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잡지에는 감옥살이를 하는 한 사회운동자의 아내를 취급한 소설이 실려있었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 그 아내가 어린아이를 남에게 주고 다른 남자에게 재가해간 것을 줄거리로 엮은 소설이였다.

나는 이동백에게 그 소설의 독후감을 물었다. 그러자 이동백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쓸쓸해지지요. 생활이란 이런 것인가 하구.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은 　 그 소설에 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실의 일단이야 반영되어 있지요. 슬픈 일이지만 내가 잘 아는 사회운동자의 아내도 다른 놈팽이와 정분이 깊어져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선과 만주에서 내가 본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다 남편에게도 충실하고 자식들에게도 충실하고 이웃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 그런 여성들이였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작탄이나 삐라뭉치를 품고 혁명사업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여성, 남편이 혁명을 하다가 쓰러지면 군복을 떨쳐입고 그가 섰던 대오에 들어서서 총칼로 원쑤를 치는 여성, 자식들이 배를 곯으면 동냥자루를 안고 문전걸

식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굶지 않게 천신만고를 다하는 여성!

이것이 바로 조선여성들입니다. 만일 이 진면모를 보지 않고 이광수와 같이 혁명가의 아내를 모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했을 때 서울 장안에서 맥주병 세례를 받은 것처럼 빨래방치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누이들의 빨래방치는 무장을 탈취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동백선생, 어떻습니까?≫

이동백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니 돌변하여 내 말에 수긍하였다.



이동백

≪옳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진실의 반영을 문학의 본도로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반영해야만 문학은 독자대중을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반영으로써 인민대중을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의 참사명이다.

그 날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수한 여성투사들과 여성활동가들, 덕행과 정절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열녀들을 두고 오래도록 담화를 하였다.

담화가 끝날 무렵에 이동백은 나를 보고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장군님, 여성혁명가의 운명을 취급하는 연극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어떻게 되어 갑자기 연극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간도에서 교편을 잡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연극운동을 하던 생각이 나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이런 서푼짜리 소설을 써내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그 잡지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보였다.

나는 그에게 여성혁명가를 취급하자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다, 그런데 연극작품을 하나 만들자면 무슨 주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선생이 주제를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참된 조선여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조선여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조선사람들이 겪고 있는 민족적 수난은 필연코 여성들까지도 투쟁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이런 주제인데 장군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가 설정한 주제는 간도에 있을 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설계하면서 내가 탐구하던 주제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이왕이면 선생이 직접 붓을 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대통영감≫은 펄쩍 뛰었다.

≪저는 시비나 할 줄 알지 창조할 줄은 모릅니다. 그 연극대본은 장군님이 쓰셔야 합니다. 써주시기만 하면 무대형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백의 그 청을 받은 다음부터 나의 머리속에서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여주인공, 피바다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디디고 결연히 일어나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소박한 여인의 형상이 더욱 뚜렷이 떠올랐다. 주인공의 매력적인 형상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나는 종이장에 펜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부대가 만강에 도착할 그 무렵에는 대본작업이 절반 남짓하게 진행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연극창작은 생소한 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무송에 있을 때도 연극공연을 하였고 길림과 오가자에서도 연극운동을 활발히 벌이였다. 그러나 무장투쟁을 개시하면서부터는 무대에 연극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 유격근거지에서 연극운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길림시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종목들에 유격구의 예술애호가들은 정열을 많이 기울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백두산을 향해 남하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노정에서 우리는 왜 한사코 연극창조를 일정에 올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던가.

우리는 대중을 의식화하는데서 연극예술이 노는 비상한 견인력과 효과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연극만큼 대중의 심장을 잡아흔드는 예술이 별로 없었다.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발전되고 그것이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판도에서 보급되기 전까지 연극은 예술계에서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연극구경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창덕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들 가운데는 연극애호가들이 많았다. 이름난 극단이 평양에 와서 순회공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강윤범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고는 하였다.

연극은 누구나 다 보고 즉석에서 ≪좋다!≫, ≪나쁘다!≫, ≪쓸쓸하다!≫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예술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연극의 개화기, 전성기였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니던 그 무렵에는 벌써 종래의 ≪신파극≫을 밀어제끼고 신극이 대두하여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은 무산대중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치였다.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자들은 극단을 꾸려가지고 지방의 노동자,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런 극단들이 평양에도 연방 내려왔다.

해방 후 우리 연극계에서 이름을 날린 황철, 심영 등도 다 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치던 예술인들이다.

그 당시는 어디서나 연극, 연극하고 소리칠 때였다. 학생수가 50명쯤 되는 시골학교들에서도 연극을 한다고 떠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편승하여 우리도 초기혁명활동시기 연극운동을 벌이였다.

≪피바다≫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은 집체적 지혜의 발현과정이기도 하였다. 극의 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의 세부, 한두 마디의 대사를 위해서도 우리 동무들은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동강에서 무송현성전투승리를 축하하는 반일부대 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끝낸 다음 나는 주력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의 서쪽 위성구역인 만강으로 향하였다.

만강은 드넓은 고원위에 올라앉아있는 백두산아래의 첫동네이며 무송현 남단의 마을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되골령을 넘으면 장백땅이고 서남쪽으로 노령을 넘으면 임강땅이다.

1936년 당시의 만강은 80여호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산재부락이였다. 이 화전민촌은 남전자, 양지촌, 말리허, 두지동과 더불어 무송지방에 흔치 않은 조선인 부락의 하나였다. 안도와 달리 무송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현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만강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심심산촌이었다. 인총이 설핀데다가 오고가는 나그네들의 발길마저 뜸해서 어찌보면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절해고도와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길손이 좀 있다면 얼레빗이나 물감 따위

를 가지고 싸구려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행상이 아니면 소금장사같은 사람들뿐이었다. 무송의 유지들 가운데도 만강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진용총관이 한두번쯤 다녀갔을까. 그의 후임으로 총관이 된 연병준이나 대여섯번쯤 다녀갔겠는지.

말이 난 김에 연병준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홍범도 휘하의 한 부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홍범도 독립군이 연해주 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후 무슨 연줄로 해서인지 무송에 와서 한동안 총관의 자리에 앉아 정의부의 지방장관으로 일하였는데 군중의 인망이 높았다.


만경부락의 촌장 허락여

그 후 연병준은 총관직에서 물러나 대포시하에서 침통을 잡고 의원노릇을 하였다. 대포시하란 마을은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곳에 있었다. 한번은 김산호가 그 마을에 다녀와서 연의원의 의술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자랑을 하여 나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거듭 권고하였다. 그래서 나는 연병준을 찾아갔다. 연의원은 나의 맥을 짚어 보고 나서 장군의 신기가 이만저만 허약해지지 않았는데 녹용이나 산삼을 구할 수 있는가고 하면서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약화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가 만들어준 약화제를 가지고 약을 써서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썩 후의 어느 해인가 한 일군이 몸이 허약해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포시하에서 연병준이 만들어주던 약화제를 머리속으로 더듬어보면서 그에게 어떠어떠한 약을 써보라고 권고하였다. 놀랍게도 그는 몇 달 후 내가 내린 처방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것은 나의 처방이 아니라 수십년 전에 만주에서 연병준이라는 의원이 써준 약화제라고 하였다.

그 연의원이 무슨 연유로 해서인지 만강을 썩 잘 알고 있었다.

만강의 특산물 중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감자이다. 이 고장의 감자는 내도산감자처럼 갓난애기들의 베개통만큼씩 되는 것도 있었다. 만강천에는 열목어가 많았다.

만강부락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가 나무를 파고 깎아서 만든 목기가 아니면 봇나무 껍질을 오그려 만든 목피그릇이었다. 숟가락도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고 장독, 김치독도 역시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행군대오가 두 그루의 봇나무가 서있는 만강부락의 천연대문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허락여촌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나무동이며 나무함지들에 시원한 감주며 탁배기를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농민이 현성에 소금사러 갔다가 무송현성 전투소식을 안고 온 후부터 촌장은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일본군 비행기들이 자주 만강방향에 날아와 돌아치는 것을 보고서는 혁명군이 자기네 마을로 찾아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탁배기를 한 쪽박 마시고나서 촌장에게 물었다.

≪이렇게 다들 떨쳐나서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환영했다가 후환이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봄에 혁명군이 이 고장을 다녀간 후부터 만강 경찰대놈들은 우리앞에서도 설설 깁니다. 더구나 왕가대장도 녹아났다, 무송현성 왜놈들도 풍지박산이 됐다는 소식들을 듣고나서는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그때 만강천 다리목에서 한 농민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혁명군분네들, 이번에도 댄스를 차주시겠지요?≫

봄에 만강부락에 와서 연예공연을 할 때 훈춘내기의 유격대원 몇 이 무대에 올라가서 러시아춤을 춘 적이 있었다. 쏘만국경지대에서 살아온 훈춘내기들은 러시아

노래나 러시아춤 흉내를 썩 잘 냈다. 그 춤을 보고 눈이 둥그래진 마을사람들은 ≪야, 희한두 하다. 춤이란게 팔을 흔들고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것인줄로만 알았더니 저것봐라, 저렇게 발루 쾅쾅 차는구만. 아무튼 그 댄스란게 볼만은 하다.≫ 고 떠들어댔다.

≪네네. 댄스를 추다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멋있는 구경두 시켜주지요.≫

이동백이 암시한 ≪멋있는 구경≫이란 것은 연극공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우리는 허락여촌장네 집 웃방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었다. 10년 전에 공영이 마적들에게 잡혔던 아버지를 구출해 가지고 첫 번째로 들린 데가 바로 그 집이었다. 그때 허락여는 공영과 같이 아버지를 무송까지 호위해주었다.



카프 작가 이기영

나는 이 집에서 ≪피바다≫대본작업을 계속하였다. 전국진이 희생된 뒤이고 또 훗날 인민혁명군의 대내신문 ≪서광≫을 주관하면서 그 신문에 몇 편의 짧은 자작소설까지 실은 바 있는 김영국이도 아직 입대하지 않은 때여서 대본작업은 만강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아하였다.

이동백은 대본작업에 참고를 하라고 조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종의 신문, 잡지들과 단행본들을 무시로 구해다 주었다.

나는 그 출판물들의 덕으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변들과 사회경제형편, 문학예술계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의 진보적인 문학예술운동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체로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부터 민족적인 것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애국애족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일제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진보적 문학은 애국애족정신과 자주독립사상으로 인민들을 계몽하여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술들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거기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제시해주는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불리운 진보적 작가들의 문학운동은 1925년에 이르러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을 낳았다. ≪카프≫가 창립된 때로부터 조선의 진보적 문학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기영, 한설야, 송영, 박세영, 조명희를 비롯한 우수한 ≪카프≫작가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문단에서는 ≪고향≫, ≪황혼≫,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산제비≫, ≪낙동강≫ 등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어떤 작가들은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팥죽장사를 하여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인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고 길잡이가 될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써냈다.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위협하는 화약으로 되었다.



카프 작가 송영

≪카프≫작가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사상범탄압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는 일본 군경들과 정보원들의 검은 마수가 따라다니었다. 그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 수록 적들은 올가미를 더 악착스럽게 조이었다. 두 차례에 걸치는 검거선풍으로 하여 ≪카프≫는 비참하게도 창립 10돌이 되던 1935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가 강요하는 ≪국민문학≫(전향문학)을 하느냐, 붓을 아주 꺾어버리고 마느

냐 하는 기로에서도 대부분의 ≪카프≫출신작가들은 진보적 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었다. 이기영은 내금강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부대기농사를 지으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양심적인 지성인, 애국적인 작가로서의 체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설야나 송영도 역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일제는 ≪카프≫를 해산할 수 있었지만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의 터전에서 싱싱하게 싹트고 자라온 그 문학의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었다.



이찬

≪카프≫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 있을 때 항일혁명대오 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의 작가들과 중국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쏘련에서 활동하던 우리 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

훗날 ≪인간문제≫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여류소설가 강경애는 용정에서 간도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소금≫이라는 중편소설을 썼다.

시인 이찬과 김람인이 국경지대에서 벌인 창작활동은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이찬은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후 압록강 대안인 삼수와 혜산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담아 ≪눈내리는 보성의 밤≫과 같은 훌륭한 서정시들을 써냈다.

김남인은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한 그 해 11월 임강 대안인 중강진에서 표지에 붉은 깃발을 그려넣은 동인문예잡지 ≪시건설≫을 창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고 조선독립을 기원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많이 창작발표하였다. 그는 자기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2,000부나 찍어 우리에게 보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고무되어 참군을 시도한 작가들도 있었다. 소설가 김사량은 참군은 결심하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우리 부대를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썼다.

새 조국 건설시기와 반미대전시기 우리 문단에서 창작된 ≪백두산≫, ≪뇌성≫, ≪조선은 싸운다≫, ≪강철청년부대≫ 등의 성과작들이 광복이전에 혁명조직에 인입되어 있었거나 참군을 지향했던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족영화의 선구자 나운규가
등장한 영화의 한 장면

비록 우리의 무장대오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총을 잡은 심정으로 펜대를 굳게 틀어잡고 민족의 계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이런 작가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직후 짧은 기간에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새 문화를 빨리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애국적 예술인들과 선각자들은 일본도 영화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조선사람이라고 해

서 영화를 못 만들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영화를 꽝꽝 만들어서 민중을 위해 봉사하자, 그리고 영화예술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시위하자는 배심을 가지고 영화예술건설의 간고한 초행길을 개척해나갔다. 나운규를 비롯한 양심적인 예술인들은 ≪아리랑≫을 비롯한 민족적 향취가 강한 영화들을 제작하여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왜색왜풍의 탁류속에서 시들어가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적인 것을 발전시키려는 강렬한 모대김이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던 때였다.

바로 이 시기에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최승희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무용은 무대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장무대에 성악작품, 기악작품, 화술작품이 오르는 예는 있어도 무용작품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최승희가 춤가락들을 완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창작해내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무용도 다른 자매예술과 함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승희의 무용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문명을 자랑하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가 서간도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에 국내에서는 일장기 말소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소식이 백두산밀에까지 날아왔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신문 ≪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있은 여름철 올림픽경기대회 마라톤 종목의 1등 수상자인 손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다.

노발대발한 총독부 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들을 구금하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 말소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입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피바다≫대본이 다 되자 나는 그것을 ≪대통영감≫에게 보이었다. 대본을 읽고난 ≪대통영감≫은 이거면 됐다고 하면서 원고뭉치를 들어 공중에 휘젓고는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만강에서 연극들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삽화적인 이야기들은 전적지 답사기나 회상기들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 그 글들에는 기억이 삭막해져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거나 아예 망각해버린 사실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동백의 수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손기정

자진하여 무대감독을 맡아 나선 ≪대통영감≫에게는 배우선발에서부터 난관이 제기되었다. ≪토벌대장≫ 역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논의를 거듭하다가 성미가 괄괄한 이동학중대장에게 억지다짐으로 떠맡기었다. 을남의 어머니역은 장철구에게 갔다가 김확실에게로 넘어갔고 갑순이역은 김혜순에게 분담되었다. ≪토벌대장≫ 역 못지 않게 이동백을 딱하게 한 것은 갑순이 동생 을남이의 역

선발이였다. 10살 안팎의 나어린 소년의 역이였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그런 역에 합당한 체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역은 만강부락의 아이를 데려다 시키였다.

≪대통영감≫은 연출작업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었다. 원래 그가 연기형상을 지도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은 을남이의 역을 맡은 만강의 어린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골내기 어린이가 연출가의 의도를 제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였다.

그 대신 어른들의 연기가 잘되지 않아서 이동백의 애를 말리였다. 거의 모든 연기자들이 무대에만 나서면 몸가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 매였다.


김혜순

눈썰미가 빠르고 다정다감한 김혜순 조차도 정작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눈살이 꼿꼿해지고 말도 별스럽게 하였다. 울어야 할 대목에 가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고는 하였는데 이동백이 달래기도 하고 추어주기도 하고 화까지 내면서 별수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가 자기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매번 지적을 받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학비가 없어 학교에도 온전히 다니지 못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글과 노래를 배운 여성이였다.

나는 김혜순에게 그가 조국과 간도에서 실지로 체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면서 이 연극은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이 겪은 생활을 엮은 것이다, 왜놈들이 쏴죽인 을남이는 동무의 친동생이다, 생각해보라, 방금전까지 누나, 누나 하던 동생이 무참히 쓰러졌는데 왜 누나의 가슴에서 원한의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고 말해주었다.

김혜순의 연기는 그 순간부터 일변되였다.

나는 이동학도 되게 닦아세웠다. 그가 ≪대통영감≫에게 자기는 차라리 ≪토벌대장≫ 몇 놈을 잡아오라면 잡아왔지 그런 놈들의 흉내는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안 내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그에게 ≪토벌대장≫ 역을 잘 하는 것이 이동학의 전투과업이라고 두 번 다시 투정질을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았다.


이동학

총과 배낭밖에 메고 온 것이 없는 우리 유격대원들이 순식간에 가설무대를 만들어 세우고 생전 본 적이 없는 연극을 펼쳐놓게 되자 만강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무대 위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꼭 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가슴을 움켜쥐고 연극의 세계에 끌려들어갔고 나중에는 갑순이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부르짖었다. 한 노인은 지금 자기가 연극을 본다는 것도 잊고 무대에 뛰어올라가 을남이를 쏘아죽인 일본놈 ≪토벌대장≫역을 맡은 이동학의 이마를 장죽으로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 날 만강 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순박한 산골사람들이 그 날밤만은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어떤 집들에서는 여럿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나도 그 날밤에는 밤이슬을 맞으며 오래도록 마을길을 거닐었다. 공연에서 받은 인상을 주고받으며 기쁨에 겨워 술렁거리는 그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숨결소리

를 들으니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비상한 예술의 힘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만강에서 한 연극공연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박한 작품을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도 쥐어뜯고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만강마을의 소로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였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까. 허락여 촌장이 말한 것처럼 아마 초저녁부터 불을 끄고 어둠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거나 꿈나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도 만강의 집들에서는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을에 등불을 가져다준 셈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을에 100마대의 쌀을 메다준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겠는가.≫



피바다를
공연한 장소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가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 그때 수많은 마을청년들이 무대에 뛰어올라와 참군을 열렬히 청원하였다. 만강은 수많은 참군자를 배출한 고장의 하나로 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직한 후방보급기지의 하나로 되였다.

그 연극이 만강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20여 년이 지나서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만강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이 공연을 한 장소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상세한 줄거리, 지어 일부 대사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군의 사상과 정서는 ≪피바다≫의 공연무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뇌수와 심장과 폐부에 만강천의 물처럼 풍만하게 흘러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술활동을 가리켜 ≪북대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였다.

나는 현대예술도 그와 꼭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참다운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 것이 바로 현대예술의 기본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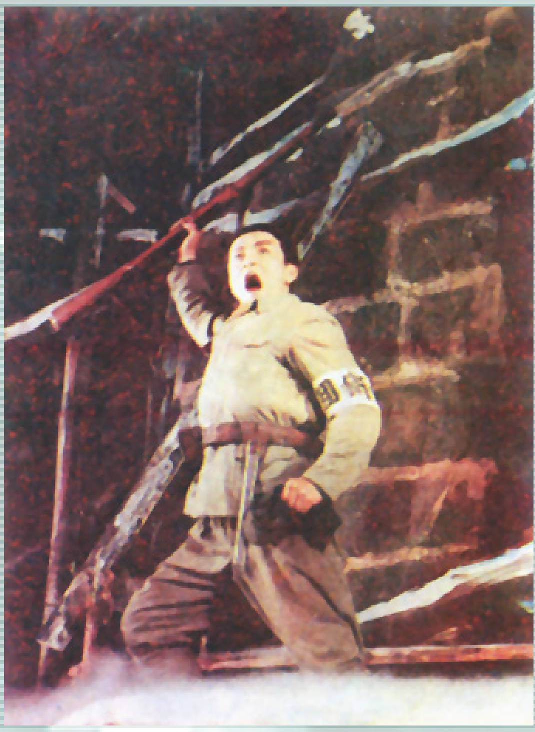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재간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예술이 비록 고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신비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참다운 창조자이다.

연극 ≪피바다≫공연은 유격대원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나는 해방 직후 우리 집으로 찾아온 작가들에게 만강에서 벌인 예술활동에 대한 생각을 더듬으면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우리 곁에 전문작가나 예술인들이 없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곡도 짓고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주인이다, 당신들이 좋은 작품들

을 만들어서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을 고무해주라고 말해주었다.

실로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혁명가극 -
한 자위단원의 운명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과정이란 혁명사상에 공명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나는 언제인가 일본의 이름난 성악가이며 참의원 의원이였던 오다까 요시꼬(이향란)에게 인간생활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응당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인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문학예술을 사랑하라고 말해왔고 또 온 나라 대중에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만민이 춤추고 노래부르는 세계적인 예술의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서 광솔불과 남포등을 켜놓고 ≪피바다≫를 공연할 때 품었던 절절한 소원이였고 꿈이였다.

지금은 전국도처에 수백수천 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들이 번듯하게 꾸려져 있다. 한 개 도에서 하나씩 예술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전당들에서 자기의 선대들이 채 부르지 못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백두산의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예술을 끊임없이 창조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고유한 우리말로 ≪피바다≫라고 하지만 그 극작품의 본래이름은 ≪혈해≫였다. ≪혈해≫가 만강에서 공연된 후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연극공연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혈해가≫라는 이름도 붙이고 ≪혈해지창≫이라는 이름도 달아 공연활동을 계속하였던 것 같다. 그러는 과정에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고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더 가까운 생활소재를 바꿔넣기도 한 모양이다.

우리는 그때 ≪피바다≫에 이어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무대에 올리였다. 그 연극에는 ≪피바다≫창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유격대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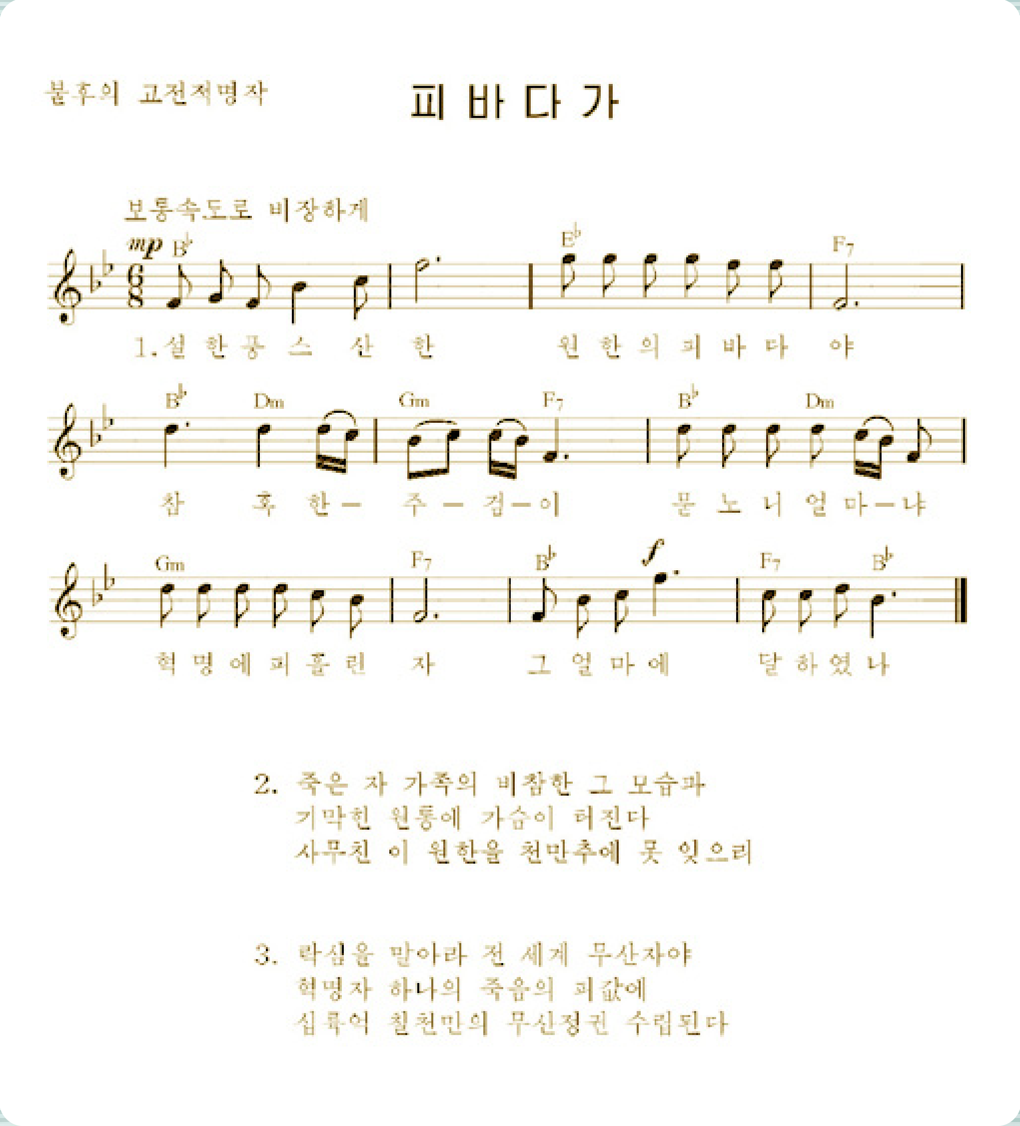
해방 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만강에서 공연한 작품들을 다 발굴하였다.

김정일조직비서는 우리가 항일혁명시기에 창작한 극작품들을 우리 나라 혁명연극과 혁명가극의 시조로, 시원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영화와 소설, 가극과 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가 만들어낸 원작들에 기초

하여 혁명영화, 혁명소설,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이 창조되고 항일유격대식 예술활동방식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피바다≫가 처음으로 영화화면에 옮겨져 나왔을 때 나는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 걸었던 남포등과 함께 멍석 위에 앉아 웃으며 울며 어쩔 줄 몰라하던 그 고장사람들이 생각났다.

만강에서 우리가 ≪피바다≫를 공연할 때 공연성과를 열광적으로 축하해주던 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한번 보고싶다.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늙은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나의 동년배들과 아이들은 더러 만강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을남이의 역을 맡았던 그 아이도 살아있다면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일제의 《토벌》로 피바다에 잠긴 마을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피바다》 - 아들을 유격대로 떠나 보내는 어머니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어머니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 주는 유격대공작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것을 힘차게 호소하는 어머니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



일제의 대(토벌)만행으로 마을은 피바다에 잠긴다



자식들이 혁명투쟁에 나선데 대하여 불안해 하는 어머니



죽음을 각오하고 유격대지하공작원을 지켜 싸우는 어머니



상동마을에 부녀회를 조직하는 어머니

4. 여성중대



조선인민혁명군
여대원들

한때 조선사람들은 독립군의 유일한 여장부 이관린을 놓고 ≪만록총중 일점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빨치산을 핵심으로 하는 항일의 만록총중에는 우리 민족이 낳은 수백 수천 점의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일제를 조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그 자랑스러운 여성투사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나는 1936년 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역사단을 편성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하였던 여성중대에 대하여 회고하게 된다.

남호두회의 이후 백두산으로 나오는 길에서 새로운 주역사단과 함께 여성중대를 따로 조직한 것은 유격대오의 급속한 확대발전과 전반적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시사해주는 경이적인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중대의 탄생, 그것은 봉건적 질곡에 의해 수천 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혁명투쟁의 제1선에 당당히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사였다.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두고 말할 때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항일혁명시기에만 해도 여성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더욱이 여자가 총을 잡고 남성들과 같이 장기간 무장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도 초기에는 여성들의 참군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생각, 그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유격투쟁앞에 나서는 모든 풍하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내 머리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몇몇 여성들이 지난날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공적도 세우고 경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화도 남기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장 소서비의 목을 베게 한 평양의 명기 계월향이나 진주의 논개와 같은 애국여성들의 무훈담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임진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행주산성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고 그 싸움에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큰 몫을 담당했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권율장군이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치고 산성을 포위한 3만여 명의 왜병과 힘에 부치는 결사전을 하고 있을 때 그 고장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석전을 하는 우리 군사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다. 행주산성 여성들의 그 짧은

애국치마들은 훗날 조선의 모든 가정부인들이 동자질할 때도 띠고 치레거리로도 띠는 맵시있는 앞치마가 되였다. 행주산성 싸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여 그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고려시기에 남복차림으로 전장에 달려나가 거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무훈을 떨친 설죽화의 이야기 또한 유명한 것이다.

역사는 설죽화와 같은 개별적인 여걸들의 참군담은 더러 전해주고 있지만 순수 부녀들로만 꾸려진 전투부대가 용약 전장에 진출하여 백병전을 벌인 전례가 있었다는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았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여성투사 김정숙동지와 여성전사

그러나 우리가 진행한 유격전쟁에서는 여성들이 간호원이나 재봉대원이나 취사원과 같은 보조적 역할 뿐 아니라 전투원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였다. 일단 참군이 결정되면 여성들도 무자비한 전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전쟁은 여성들이라고 하여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다. 정세가 요구하면 남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이고지고 며칠씩 강행군도 해야 하고 언 땅에 배를 붙이고 포화속에서 싸움도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창격전에도 뛰여들어야 한다. 정치공작이나 식량공작을 위해 적구에 파견될 수도 있고 살을 저미는 것 같은 강추위속에서 토공일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하며 몇 년을 싸워야 할지, 몇십 년을 싸워야 할 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난관을 과연 여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지판에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로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일이였다.

길림시절부터 우리의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동무들 가운데는 나에게 참군의 의사를 표시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한영애도 눈물을 흘리며 유격투쟁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나는 동만으로 나올 때 그를 억지로 북만에 떼 두었다. 길림시절의 소년회원들 가운데는 참군을 하고 싶어 돈화에까지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고 중부만주에서 편지로 참군의사를 표명해온 여동무도 있었다. 애국의 일념에 불타는 청들이였으나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다.

여자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것은 남성들이나 할 일이다.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여성들을 뒤고방에서 끌어내다가 사회혁명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들더러 어떻게 무장투쟁까지 하라고 하겠는가. 당시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장투쟁준비가 성숙되고 여기저기에서 유격대들이 연이어 무어지게 되자 참군을 열망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갔다. 지하조직들에서 활동하던 여자들 가운데는 남들이야 뭐라건 말건 유격대에 들어와 승인도 없이 그대로 퍼더버리고 앉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형세가 이쯤되자 우리는 여성들의 참군문제를 정식으로 논의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참군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일부 기혼자들은 두 마디 안팎에 그 가능성을 부정해 버리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보고 남성들은 집밖의 일을 보는 것이 조상전래의 관례이다. 이관린이 한때 피스톨을 차고 독립군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천에 하나나 있으나마나한 경우이고 보통 여성들이야 어떻게 험한 산발을 타

고다니며 남자들도 감당키 어려운 유격활동을 하겠는가, 여자들을 전쟁마당에 끌어내는 것은 모험이라고 하였다. 지어 어떤 동무들은 여성참군문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우겨대였다.

그러나 차광수를 비롯한 다른 동무들은 그런 주장들을 즉석에서 일축해버리였다. 당신들은 인류역사에 모권제가 오래동안 존재해왔고 그 모권제의 그늘밑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가?

자식이 불속에 들면 그속에 선참으로 뛰어드는 것도 여자이다, 항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는데 여자라고 왜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여성참군은 우리 누이들 자신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시대의 부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여성정치공작원
김수복

결국 여성참군에 대한 논쟁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매번 공전만 거듭하였다. 우리는 남성청년들로 유격대를 조직한 뒤에 형세를 봐가며 훗날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미루어버린 여성참군문제가 아무런 의견충돌도 없이 모두의 지지속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된 것은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간도여성들의 투쟁소식이였다. 화룡현의 대담무쌍한 두 여성이 빨래방치로 일본순사를 까눕히고 보총을 빼앗아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 여성참군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였다. 온 간도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떨쳐나서던 때였다.

조직을 통하여 무기획득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깨달은 18살의 나어린 처녀 김수복은 적의 무장을 빼앗아낼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자기의 짝패처녀와 함께 빨래함지를 이고 강가의 외나무다리목으로 나갔다. 며칠전의 장마비에 다리는 떠내려가고 말뚝만 남아있는 빈 다리목이였다. 두 처녀는 종일토록 거기서 빨래하는 시늉을 하며 알맞춤한 기회를 노리었다. 해질녘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일본경관 한 놈이 나타나 처녀들에게 자기를 업어 강을 건네달라고 호령하였다. 김수복이 경관을 업고 강물에 들어서자 짝패처녀도 부축해주는 체 하면서 그를 따라나섰다. 강심에 이르자 김수복은 신발이 젖는다고 발버둥치는 경관을 물속에 처박고 빨래방치로 난장을 쳤다. 학살당한 부모들의 이름으로 원쑤를 요정내고 무기를 빼앗은 두 처녀는 1933년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때부터 김수복에게는 ≪빨래방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재봉대원 박수환

훗날 우리 주력부대에서 재봉대 책임자로 공작한 박수환도 역시 빨래방치로 적병을 까눕히고 무장을 빼앗아낸 여성이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짜고들어 경찰놈들에게 술을 먹이고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빼앗아낸 실례도 있었다.

그 어떤 증서도 그들이 빼앗아낸 무기처럼 우리 여성들이 도달한 새로운 정신적 높이와 의지를 힘있게 증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탈취한 총을 손에 잡고 무장대오에 뛰어들고 있었다.

여성들의 이 급진적인 진출과 의미심장한 변화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어찌하여 푸성귀나 가꾸며 팔자를 한탄하던 여성들이 수백 년동안 자기들을 비끄러매고 있던 봉건의 질곡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용약 무력항전에 참가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였는가? 그것은 손에 총을 잡고 나서는 길 외에는 달리는 살 수 없는 조선여성들의 엄혹한 생활이 마련해 준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이였다. 조선의 봉건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남존여비를 계율로 삼아 모든 여자들을 비인간



조선화 - 팔려가는 날

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음식이나 지어바치고 손이 오리발이 되도록 밭을 가꾸고 길쌈이나 하는 집안의 머슴과도 같이 치부되고 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것도 여자였고 빚값에 팔려가는 것도 여자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모든 불행 위에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을 덧얹어놓았고 망국노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어놓았다.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액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였으며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 준 세기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의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 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여성참군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을 더 잘 보살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비록 총은 잡았어도 여성은 역시 여성인 것만큼 유격전쟁을 하는 어려운 조건일망정 여성 고유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였다.

유격대오에 여성대원들이 생긴 때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누이동생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었다. 총도 제일 좋은 것을 주었고 잠자리도 제일 아늑한 곳에 정해주었으며 전리품도 제일 훌륭한 것으로 골라서 분배하였다.

이러는 과정에 나는 그 특수우대의 격을 한층 더 높여 여대원들로 따로 대오를 편성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단위와 군사행동단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였다. 여대원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게 되면 그들의 혁명적 자부심과 열의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고 자각성과 전투력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조선화 - 원한의 배길

수 있으며 생활상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전투원이 되게 해달라,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학살한 원쑤놈들을 다문 몇 놈이라도 잡아서 원한을 풀어야 하겠다는 것이 여대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재봉대에 가도 병원에 가도 작식대에 가도 여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였다.

우리가 사령부에 직속된 여성중대를 따로 꾸려야겠다고 확고히 결심한 것은 무송에 나와 새 사단을 꾸릴 때였다.

그때 우리가 새 사단의 골간으로 삼은 100여명의 ≪민생단≫ 혐의자들 가운데는 장철구, 김확실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계순

≪민생단≫ 혐의자료들이 불타 없어지고 어제날의 ≪민생단≫ 혐의자들이 모두 무죄선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가자 사처에 숨어있던 ≪민생단≫ 연루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끼어있었다. 이계순, 김선, 정만금 등이 그런 여성들이었다. 이불보따리를 이고 나타난 박록금처럼 개별적으로 찾아온 여대원들도 여럿이었고 대첨창과 오도양차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새 사단에 편입한 군소부대와 함께 집단적으로 참군한 여대원들도 여럿이었다.

우리가 미혼진밀영에 갔을 때 그곳 재봉대에 있던 김철호와 허성숙이 전투부대로 돌려달라고 어찌나 성화를 먹이는지 아무리 설복하여야 막무가내였다. 재봉대 전원이 다짜고짜로 우리를 따라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동무들이 우리를 다 따라나서면 군복은 누가 지어주겠는가고 하니 자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병약한 여대원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보니 미혼진밀영에는 재봉대, 병원, 작식대들에 필요한 인원을 푼푼히 배당하고도 남을 만큼 여대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였다.

남은 여대원들을 전투중대에 배치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중대를 시범적으로 따로 무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미혼진의 여대원들만 가지고서는 1개 중대를 무을 수 없었다. 역량이 부족하였다. 나는 최현에게 앞으로 여동무들이 한사코 요구하면 여성소대를 하나쯤 무어보라고 귀띔하여 주었다.


김선

≪순수 여성들만으로 전투중대를 하나 따로 무어주면 어떨 것 같소?≫

어느 날 내가 박록금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비치자 그는 대뜸 환성을 올리며 절대찬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산호와 이동학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순 여자들끼리만 무어가지고 전투랑 꽤 치러낼까요? 여자들만 있어가지고서는 사나운 왜놈무리들과 맞서 변변한 싸움을 해낼 것 같지 못합니다. 중대와 소대들의 지휘를 남성들이 맡아 해준다면 몰라도 ≫

김산호의 말이었다.

≪남성들이 지휘한다면 그걸 어떻게 여성중대, 여성소대라 할 수 있겠소? 여성중대면 지휘도 여성들이 맡아하게 해야지.≫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글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무네는 무슨 사관학교나 군사대학을 다녀서 지휘관이 되었소?≫

김산호는 말문이 막히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아 하는 눈치였다. 이동학도 ≪여

성중대라, 여성중대라≫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우리가 여성중대에 대한 문제를 화제에 올리자마자 김주현은 펄쩍 뛰었다. 순수 여성들만으로 중대를 편성하여 전투장에 내보내면 싸움을 망치고 말터인데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정만금

우리가 만강부근에서 여성중대조직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1936년 4월경에 불쑥 남녀혼성부대가 우리앞에 나타났다. 남녀혼성이라지만 그 속에 남성대원은 4-5명뿐이고 나머지는 김철호, 허성숙, 최장숙, 황순희를 포함하여 전부가 여성들이였다.

내가 김철호에게 동무는 앓는 최현동무를 내버리고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고 묻자 그는 바로 최현이 보내서 왔다고 하였다. 병을 털고 일어난 최현은 여대원들이 자꾸만 전투원으로 돌려달라고 성화를 먹이자 그 중 시끄럽게 구는 건강한 여대원들만 따로 추려 소부대를 무어주면서 나한테 찾아가면 알도리가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분명 여대원들한테서 당하는 성화를 우리한테 밀어버리고 그들의 운명문제까지도 우리의 처분에 맡기자는 심산이였던 것 같다.

김철호네 여성소부대 대장은 조동무라고 부르는 애젊은 남성대원이였다. 햇병아리같은 신입대원이 여성소부대의 대장으로 대열을 인솔해온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허성숙은 ≪우리 같은 치마들이야 뭐 최현동지의 안중에나 있습니까. 밥이나 시키면 고작이지 어디 대장질을 시키겠답니까?≫하고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김철호

그 여성소부대의 부책임자도 역시 태병열이라고 하는 키가 자그마한 애젊은 신입대원이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열을 관리하고 인도해온 것은 기골이 장대한 최장숙이였다. 그는 총과 배낭 외에도 쌀이 한 자루 가득 들어있는 무쇠가마와 작식도구들, 도끼와 톱까지 지고왔는데 사람보다 짐이 더 컸다. 허성숙의 짐도 최장숙의 것에 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유격대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남녀를 불문하고 최장숙이와 허성숙이처럼 많은 짐을 진 대원은 나도 처음 보았다. 최장숙의 짐을 받아 내리워주었는데 어찌나 무거웠던지 힘에 부쳤다.

≪힘장사로구만!≫

내가 못내 감탄하자 태병열이 ≪그 누님은 한끼에 만두를 100개나 널름하였습니다. 60개를 널름하고 보초를 선 다음에 다시 40개를 더 꿀꺽했는데 아무 탈없이 다 소화시킨 여장수입니다.≫하고 벌쭉거렸다. 그 바람에 폭소가 터졌다.


황순희

최장숙은 태병열에게 눈을 흘기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무슨 거짓말이겠소? 한 끼에 만두 100개쯤 제껴대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짐을 져댈 수 있겠소?≫

내가 태병열을 두둔해주자 모두들 또 한바탕 웃음판을 터쳤다.

그날 나는 슬쩍 남여대원들의 힘내기를 조직하였다.

곰같이 힘이 세다고 공인돼있는 한 남대원을 불러내여 먼저 허성숙이 벗어놓은 배낭을 져보라고 하였다.

그는 호미자루로 잔뼈가 굵어졌다는 사람인데 왕청일판에서는 상등 씨름군으로 소문났었다. 앉은자리에서 찰떡을 맹물에 묻혀 35개까지 먹었다는 떡보이기도 하

였다.

그 대원은 허성숙의 짐을 지고 수월히 일어났다. 나는 토퉁 두 자루를 메워주면서 그 짐과 총을 가지고 휴식없이 얼마만한 거리까지 행군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 한 10리쯤은 쉬지 않고 갈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은 최장숙의 짐을 져보라고 하였다. 장숙의 짐을 진 그는 땅을 짚고 가까스로 일어났다. 다시금 토퉁 두 자루를 메워주며 이번에는 얼마만한 거리를 행군할 것 같은가고 물으니 고작해서 5리쯤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다.


허성숙

최장숙에게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행군했는가고 물어보자 그는 쑥스러워 말을 못하였다. 김철호가 그를 대신해서 대포시하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 여기까지 쉼없이 행군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대포시하에서부터라면 거의 100리나 되는 먼거리였다.

남대원과 최장숙의 힘내기에서는 최장숙이 이긴 셈이었다. 나는 허성숙을 시켜 대포시하 부근에서 여성소부대가 겪은 전투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였다.

허성숙은 얼굴이 거밋거밋하고 몸이 다부지게 생긴 여대원이였다. 인정이 많은 대신 입이 무겁고 말수더구가 적었다. 그러나 요긴한 말은 꼭 하고야마는 곧고 대바른 성미였다.

최장숙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성소부대는 우리를 찾아오던 도중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던 끝에 산중에서 어떤 반일부대를 만나 그들과의 공동작전으로 대포시하 부근의 어느 집단부락을 기습하였다. 여대원들은 그 전투에서 남대원들에 못지 않은 투지를 발휘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좋은 신식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퇴각했던 위만경찰대가 반격을 가해오자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쳤다. 하지만 최장숙이네 여성소부대는 구식 토퉁을 가지고서도 적들을 본때있게 족쳐댔다. 그들은 반일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계선으로 달려드는 적들까지도 다 도맡아 요정냈다.


판화 - 유격대입대

특히 그 날 보초를 섰던 여대원이 아주 희생적으로 잘 싸웠다. 옆구리에 총상을 당하여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그의 총알에 맞아 여러 명의 적병들이 연방 거꾸러졌다. 그러자 시체를 끌고 달아나는 놈들이 나타났다. 여성전투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에로 넘어갔다. 반일부대대장은 도망치는 자기 부하들에게 ≪개자식들! 조선여자들은 토퉁을 가지고도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너희들은 도망을 쳐≫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열을 이탈했던 반일부대대원들은 그제서야 대오에 돌아와 추격전에 합세하였다. 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그 전투담을 듣고는 모두가 여대원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견인불발성에 감탄하였다.

1936년 4월 만강 부근의 수림속에서는 여성중대의 탄생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이 중대를 사령부 직속으로 두고 소대와 분대들을 직접 편성해주었다. 첫 중대장으로는 박록금이 임명되었다.

여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여성전투구분대였다.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 년동안 고질화되어 왔던 남존여비 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

예로부터 남존여비가 가장 우심하게 적용되고 발현되었던 것은 정치분야보다도 군사분야였다. 물론 정치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마력과도 같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은폐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미쳐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지우지한 실례는 허다하다.

하지만 정치분야에서는 때때로 제왕이나 군사령관보다 더 힘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들도 군사분야에 들어와서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였다. 군사는 거의 남성들의 독점물로 되어왔다. 우리는 군사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비록 우리 혁명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해방을 실제로 이룩하였다.

여성중대의 출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민족적인 폭과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었다.

혁명군에 여성중대가 있고 그 여성중대의 대원들이 남성군인들 못지 않게 잘 싸운다는 것은 미구에 전민족이 다 아는 사실로 되었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의의있는 화제거리로 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의 국내신문에는 ≪**김일성**부대에는 여대원도 10여명≫이라는 보도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짤막한 글이었지만 그 기사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던진 파문은 대단히 컸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손에 총을 잡고 항일무장대오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소식은 조선의 모든 여성들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소식은 국내와 해외에서 인민혁명군에게 입대할 것을 열망하는 수많은 참군지망자들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여성중대를 조직한 후 그가 제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돌봐주고 이끌어주었으며 실전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었다. 여대원들의 정치적 열의와 자각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는 하였다.

소탕하에 머무를 때 여성중대원들에게 김스딴께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것이 생각난다.

김스딴께위츠란 러시아에서 나서 자라 전 생애를 공산주의위업에 바친 이름난 조선인 여성투사이다. 그의 본적지는 함경북도 경원군(새별군)이었다.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찌기 소학교교사가 되었으나 노령으로 찾아오는 교포들과 망명자들의 수가 늘어나가 교원생활을 그만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러시아 각지에 널려있는 조선인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



혁명열사릉

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짜르가 타도된 후 볼셰비키당에 가입한 김스딴께위츠는 남편과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10월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섰다. 그는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볼셰비키당 원동부에서 대외사업을 맡아보는 한편 조선인 독립운동자들인 이동휘, 김립 등을 추동하여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도록 열정적으로 떠밀어주었다.

김스딴께위츠의 눈부신 활동은 연해주 지방은 물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

원동의 형세가 반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볼셰비키당 원동부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김스딴께위츠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기선을 타고 떠나다가 불행하게도 아무르강에서 백파도당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최후순간을 앞두고 그는 적들을 향하여 절규하였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비열하고 악독한 너희들의 운명도 오래지 않다. 상가집 개무리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망상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다.

김스딴께위츠와 함께 설죽화, 계월향, 유관순, 이관린 같은 명인여걸들도 우리 여대원들의 친근한 정신적 벗으로 되었다.

여성중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어디에 가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였다.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쓰고 어깨에 기병총을 멘 여대원들의 모습이 먼발치에 얼핏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여자군대가 왔다!≫고 소이치면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니였다.

여성중대가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선 여대원들이 어떤 정황에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면서 처신을 잘한 데 있었다. 우리는 어느 부락에 주둔할 때나 주인집 뜨락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터밭의 김을 매주는 여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대원들은 인민들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었다. 여성중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이였고 진귀한 꽃이였다.

사실 발족초기의 여성중대는 무기가 변변치 못하였다. 대부분이 구식토퉁이였는데 개중에는 그런 총마저 못가진 대원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볍고 맵시있는 기병총을 메워주려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몇 차례 전투도 조직했지만 기병총은 좀처럼 맞다들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시난차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수비대가 말을 타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정찰을 통하여 그 수비대가 병실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는 공사장 습격전투를 결심하고 그 과업을 여성중대에 맡기였다. 그리고 그들을 고무해주려고 공사장 가까이에까지 같이 갔다. 그 전투가 아주 인상적이였다.

금시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날씨여서 적병들은 작업을 중지하였고 보초병도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박록금중대장이 울린 신호총성과 함께 공사장 근처에 매복해있던 여대원들은 비호같이 달려나가 적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댔다. 여기저기에서 ≪손들엇!≫, ≪손들엇!≫하는 여대원들의 야무진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적병 하나가 총가에서 총을 꺼내들고 반항을 시도했으나 장정숙이 날쌔게 총탁으로 까눕히었다. 전투는 10분도 못되는 사이에 결속되었다. 몇 명을 살상하고 나

머지는 전원 포로하였다. 전투에서 수십 정의 저격무기들을 노획했으나 아쉽게도 전리품들 중에는 기병총이 한 자루도 없었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기병총은 기마순찰을 나간 자들이 다 메고 갔다는 것이였다. 포로들은 자기들을 습격하고 사로잡은 것이 여성유격대라는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여성중대는 그 후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대영전투와 동강전투도 여성중대가 특출한 솜씨를 발휘한 전투였다.

그들은 어느 전투에서나 잊을 수 없는 무훈담을 남기었다. 장정숙은 대영전투 때 총알이 아까와서 적보초를 주먹으로 단매에 쳐눕히고 돌격로를 열었다. 김확실을 비롯한 3명의 여대원이 어스름한 달빛속에서 각각 한발씩 총을 쏘아 적의 경비전화선을 잘라버렸다는 신비한 이야기는 동강전투가 남긴 기담이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중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관하의 함경남도 경찰부가 여러 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일성**부대의 부녀대원 박록금 이하 40여명이 소화 11년(1936년) 음력 5월 초순경 무송현 시난차의 위만군수비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시기에 그들이 대영을 습격하여 장총 10여정과 군복 등을 노획해갔다는 사실도 기록되어있다. 여성중대가 진행한 무송현 동강전투에 대한 기록도 있다.



마동희의
누이동생 마국화

조국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열사들의 군상을 돌이켜 볼 때마다 나는 그 군상의 한복판에 있는 여성중대원들과 대담무쌍한 여장부들을 추억하게 된다.

여성중대의 첫 중대장 박록금은 중대를 잘 통솔하였다. 많은 전우들은 박록금의 특징을 단마디로 여장부라고 규정하였다.

박록금이 지금의 41문짜리 지하족을 신고 다녔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격대의 전리품들 중에 지하족 같은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큰 것은 드물었다. 그래서 박록금은 초신을 많이 신고다녔다.

박록금은 왕청에 있을 때 구부녀회주임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였다. 집살림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누데기차림으로 혼례를 치루었다. 남편 강증룡이네 집안도 역시 살림이 째지게 가난해서 신랑신부가 첫날 덮고 잘 이불조차 마련해주지 못하였다. 부부는 한날한시에 입대하여 왕청유격대 1중대에 배속되었다.

어느 날 1중대 정치지도원은 나를 찾아와 박록금이 방금 전에 해산을 하였는데 그가 가있는 친정집에는 포대기 하나 만들만한 천조차 없다고 걱정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보았더니 정말 이불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홀아비살림에 딸의 시중까지 드느라고 쩔쩔 매던 박록금의 아버지는 자기네는 난리통에 너무나 여러 번 곤두박질을 하다보니 이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까마득하다고 하였다. 갓난애기는 헌누데기에 싸여 있었다.

나는 곧 소부대를 파견하여 이불과 포단감을 마련하였다. 재봉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천으로 두툼하고 푹신한 이불과 애기포단, 애기옷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박록금이네 부부는 애기옷과 애기포단은 갓난애에게 입혀주고 덮어주면서도 이불만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큼직한 보자기에 싸서 궤짝위에 고이 얹어두기만 하였다. 살을 에이는 혹한에 등뼈가 가드라들 때에도 그것만은 다치지 않았다.

강증룡이 7중대 소대장이 되어 안도독립연대로 떠나간 후부터 줄창 왕청부대에서 생활해 온 박록금은 남편이 속한 부대가 우리 부대에 편입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



여투사들과 거니시는 김일성주석님

아올 결심을 하였다. 그는 친정집을 떠날 때 우리가 해준 이불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김대장이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준 소중한 이불인데 너희 부부가 덮어야 한다면서 기어이 그 이불을 가지고 떠나게 하였다.

박록금이 이고온 이불보따리는 그대로 그의 별명이 되고 말았다. 전우들은 이름대신 그를 ≪이불보따리≫라고 불렀다.

박록금은 겉보기에는 성미가 무뚝뚝한 것 같았지만 속이 깊고 인정미가 있는 여성이였다. 붙임성이 좋아서 지하공작에도 적임자였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1937년 초에 우리는 그를 장백현 신흥촌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였다. 그의 임무는 권영벽과 이제순을 도와 장백현 상강구 일대의 여성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였다. 박록금은 그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던 중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여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이제순처럼 남들이 한 일까지 자기가 다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지 않은 혁명가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였다.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이 맥을 놓고 감방안에 쓰러져 있을 때면 혁명가요를 불러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박록금이 혜산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함흥형무소로 이송되였을 때 적들은 그를 결핵환자가 있는 감방에 밀어넣었다. 병에 전염되여 감옥귀신이 되라는 것이였다. 그 결핵환자는 정평농조 사건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김가 성을 가진 여성이였다. 박록금은 일신의 건강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중태에 놓여있는 그 여성을 살붙이처럼 간호해주었다.

사경에 이른 그 여성은 얼마 후 병보석으로 놓여나갔는데 그 대신 박록금이 병에 전염되여 눕게 되었다. 가석방된 그 여성의 가족들이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명주저고리와 떡을 해 가지고 감옥으로 찾아왔으나 감옥당국은 차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남을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랑을 기울여온 이 인정많은 유격대의 여장부는 그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마련한 눈물겨운 지성마저도 받아보지 못하고 모진 병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눈을 감았다.

우리의 여대원들 중에는 마동희의 누이동생 마국화도 있었다. 그는 우리가 서간도 지방에 나가서 활동할 때 17도구 평강덕에서 우리 부대 정치공작원인 김세옥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김세옥은 마국화의 스승인 동시에 애인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성취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그들은 모든 것을 미래에 맡겨두고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만 분투하였다.

어느 날 작식공작을 하던 마국화는 부엌에서 강냉죽을 펴서 전우들에게 나누어주다가 두 사람 몫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몫 중 한 몫은 자기가 굶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몫은 누구를 굶겨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사정앞에서 마국화는 망설이기만 하다가 김세옥의 양해를 받아볼 결심을 하였다.

그는 병실 밖으로 김세옥을 불러내다가 딱한 사정을 하소하였다.

≪세옥동무, 양해하세요. 오늘 저녁만은 동무의 몫이 없는 걸로 여기고 굶어주세요. 참 안됐어요.≫

≪안되다니? 이런 때에야 응당 내가 굶어야지. 그 대신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는 매 끼 곱배기를 한다는 걸 미리 선언하는 바이요.≫

김세옥은 이런 농까지 하고나서 밝은 낯으로 돌아섰다.

그날밤 마국화는 맹물로 끼니를 굼땐 애인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가 굶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조국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마국화가 전사한 후 여대원들은 그의 배낭속에서 한 쌍의 학을 수놓은 이불거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국화가 궂은 비와 눈속에서 마련한 결혼지참품이였다.

세상에 이보다 값지고 이보다 슬픈 지참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여전사는 거치른 황야에 쓰러지고 꽃피지 못한 꿈만 이국땅에 남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대원들은 그 이불거죽으로 고인의 시체를 감싸주었다.

여성중대는 탄생 후 반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인민이 길이길이 따라배울 불멸의 위훈을 남기었다.

항일혁명의 1선에서 무장을 잡고 강적일제를 상대로 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려온 여전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여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성영웅들이다. 그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인륜적 평등을 남먼저 이룩하고 우리 나라 여성해방의 길을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였다.

우리 노동당시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여성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여성영웅들과 여성활동가들, 여성노력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안영애, 조옥희, 이수덕, 이신자, 정춘실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가 낳은 여성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 것은 백두의 넋이었다. 우리의 수백만 여성들은 오늘도 이 넋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보루를 쌓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여성구분대들이 있다. 총을 자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있는 여전사들은 비단 인민군대의 여성구분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들에도 총을 잡은 여대원들이 수두룩하다. 전민무장화를 실현한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000만의 여성전체가 유사시에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이 1,000만 여성무장대의 원형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 여성중대였다.

5. 백두산밀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우리가 만강부락을 떠난 것은 철늦은 감자꽃이 한창 피어있던 8월말경이었다. 수확의 계절을 고대하던 화전들에서는 보리가을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었다.

대열은 묵묵히 남으로 흘러갔다.

나의 전우들은 연대정치위원 김산호로부터 애젊은 전령병들인 최금산이나 백학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백두산지구 진출이 가지는 의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백두산은 군사지형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일부당관 천부막개한 천연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당관 천부막개란 한 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천 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격전을 확대하는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고려의 윤관과 이조의 김종서도 바로 이 백두산지구를 타고앉아 보국개척의 중임을 수행하였다. 남이장군 역시 백두산 부석위에서 천하를 평정할 웅대한 꿈을 꾸었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해야 할 지상제일의 보루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꾸리고 국내진출을 강화한다고 하여 지난날 만주땅에서 모처럼 개척해온 활동무대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삼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경을 들락날락하며 종횡무진의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천험의 백두산을 군사적 요새로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의미를 또한 특별히 중대시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 대하여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가 하는 것은 백두산 장군봉 밑의 천지기슭 바위의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용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나라의 생존이 심히 우려되었던 20세기초에 대종교나 천불교의 관계인물인 천화도인에 의하여 세워진 그 비석에도 밝혀져있는 것처럼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용신이 이 나라 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숭상해온 것은 조선민족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고구려 영토 확장시대의 부분노나 을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이장군이 지은 웅건장중한 시구들을 외우면서, 윤관과 김

종서의 보국개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백두산에 깃들어있는 선열들의 애국혼에 감동되고 매혹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높이 솟은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였다.

백두산을 타고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이 가져다 준 총화이며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만강에서 백두산으로 가려면 되골령을 넘어야 한다. 되골령은 두메의 늙은 포수들조차 향방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태고연한 처녀림들로 덮여있었다.


백두산시절의
전령병 백학림

석달전에 선발대의 사명을 띠고 장백에 파견되어가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김주현이 길잡이가 되어 대오를 안내하였다. 그가 인솔한 소부대는 백두산 쪽에 나가 그 일대의 적정과 지형들을 정찰하고 주민동향들을 조사하면서 알맞춤한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하는 한편 부대의 진출통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놓았다.

우리는 만강천 줄기를 따라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되골령의 울울창창한 원시림속에 스며들었다. 계절을 따지면 여름이 끝나지 않은 때였으나 고산지대의 넓은잎나무들에는 단풍이 돌고 선기가 났다.

우리는 되골령을 넘는 이 행군길에서 26번째의 국치일을 맞이하였다.

만강을 떠난 우리가 신들메를 갈아대며 남하행군을 다그치던 그 시기는 또한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일본 육군대장 미나미가 서울에 들어서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무송현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미나미가 우가끼의 뒤를 이어 새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우리들과 엇비슷한 때에 조선에 들어서리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미나미의 서울행차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 진출이 같은 때에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심리에 미묘한 자극을 주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강도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생활철학이 있다. 남의 것을 강도적으로 빼앗아 거머쥐고는 그것을 찾자고 하는 주인을 도리어 강도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적반하장에 이골이 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비칭으로 사용한 ≪비적단≫, ≪마적단≫, ≪공비단≫하는 따위의 표현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강도의 논리를 타고 고안된 악명들이다.

강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죄다 거꾸로 뒤집혀지는 법이다.

불청객 미나미는 제법 주인행세를 하면서 대낮에 서울장안으로 버젓이 들어서고 반면에 주인인 우리들은 길도 없는 밀림을 헤치며 제 나라 땅으로 숨어들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나는 되골령을 넘어서자 본래의 행군계획을 변경시켜 압록강 연안을 에돌아 백두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였다. 국경지대의 인민들도 만나보고 국내동포들에게 우리의 총성도 들려주자는 것이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덕수골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이제우, 형권삼촌이 지도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에서 다년간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다가 입대한 대덕수

출신의 신입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현민이었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한 것은 우리가 무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약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장사를 하느라고 무송으로 들락날락하다가 우리 공작원들의 알선으로 나도 만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다.

우리는 강현민과 김주현이네 선발대를 통하여 덕수골 일대의 주민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다.

덕수골은 장백의 모든 주민지구 가운데서도 농촌혁명화가 가장 잘된 고장이었다. 그곳에는 3.1 인민봉기 이후 독립운동자들이 개척해 놓은 반일애국투쟁의 전통과 그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온 믿음직한 군중토대가 있었다.



백두산 근거지 창설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덕수골은 강진건이 지도한 독립군의 본거지였다. 독립군은 덕수골에 4년제 소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과 농민들에 대한 계몽활동도 하였다.

팔도구시절에 우리 아버지도 여러 번 이 고장을 다녀갔다. 독립군단체들의 해체로 독립군 운동이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을 때 이제우의 무장소조가 ≪ㅌ·ㄷ≫의 강령을 들고 덕수골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었다.

이제우가 체포된 후에는 형권삼촌이 최효일, 박차석과 함께 덕수골을 거점으로 삼고 이 일대에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장백지방에는 백산청년동맹 산하조직이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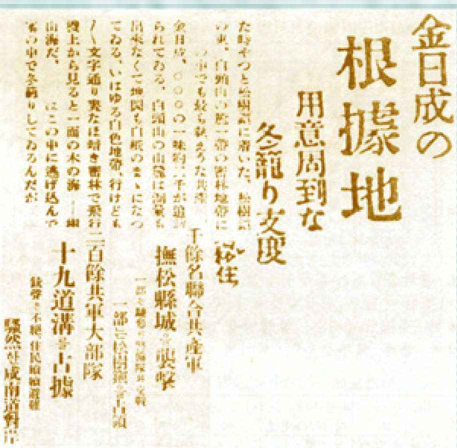
동맹은 정치군사훈련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유격대원 후비들을 육성하였다.

조선혁명군무장소조가 국내로 떠나가고 동맹간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에도 동맹원들은 지하에서 꾸준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계몽되고 교양되고 혁명화된 대중적 지반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부대가 덕수골 지경에 들어서자 김주현은 선발대로 나와 활동할 때 믿을만한 인물로 점찍어 두었던 염인환노인의 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어느 구석을 둘러보나 가난이 푹 배어 있는 촌의원네 집이었다. 침술이 능하기로 소문나서 덕수골 일판에서는 물론이고 장백이나 임강, 지어는 압록강 건너에서도 발구나 달구지로 모셔가기도 하는 의원이라지만 약값의 본전도 걷어들이지 못해 이 집의 안주인은 끼니때마다 빈바가지를 치마폭에 감춰들고 쌀동냥을 다니는 형편이라 하였다. 그전날 의원간판을 내걸었던 팔도구와 무송 시절의 우리 집을 방불케 하는 살림이었다.


金日成の根據地
用意周到な冬籠り支度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데 대하여 쓴 신문보도와 출판물

염노인은 자청하여 내 손맥을 짚어보고 지나치게 과로하고 식음을 소홀히 한탓에 신기가 허해졌다면서 산삼 한 뿌리를 내놓았다. 만강의 허락여노인도 우리와 헤어질 때 몸보신에 쓰라고 하면서 장철구와 백학림에게 산삼 몇 뿌리씩을 쥐어주었다고 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무송에서 **김**장군이 인솔한 항일연합부대에 얻어맞고 수백 명이나 북망산귀

신이 되였다는데 그게 정말이웨까?≫

염노인이 나에게 한 질문이였다. 무송현성전투소식이 벌써 이 고장에도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였다.

내가 정말이라고 하자 노인은 무릎을 철썩 쳤다.

≪됐수다. 이제는 조선이 살아났수다!≫

우리에게 하루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한끼의 감자보리밥을 내놓은 것 때문에 훗날 염인환노인은 이도강경찰서에 끌려가 학살되였다. 노인이 당한 불행을 상기하느라면 지금도 살이 떨린다. 언제인가 소부대를 데리고 그 지방을 지나게 된 기회에 나는 일부러 염노인의 묘소를 찾아서 제주를 붓고 절을 드리였다.



소덕수의 꼽새령감
김득현

다음날 우리는 새벽이슬을 걷어내며 대덕수로 향하였다. 발밑으로 마을이 굽어보이는 등성이에서 삶은 감자 몇 알씩으로 대강 조반을 굼때였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깃발대를 준비하였다가 대덕수로 내려갈 때 대열선두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소리를 내라고 지시하였다. 기가 눌려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를 맞이한 대덕수 사람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한량없었다. 신식보총에 기관총까지 그쯘하게 갖춘 수백 명의 조선군대가 대낮에 그것도 깃발을 들고 천하가 들썩하게 나팔소리까지 내며 나타나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 만강에서와 같은 연극공연을 펼쳐 보일 작정으로 가설무대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점심이나 지내고 하려던 공연계획은 실현할 수 없게 되였다. 점심상을 받아놓고 수저를 들려는데 불시에 적들이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 익은 곡식이 피해를 당할까봐 마음씌어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적들은 보리밭 맞은편에서 고랑을 따라 접근해왔다. 나는 적들이 보리밭을 거의 다 벗어져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신호를 울리였다.

우리 대원들이 그 싸움을 솜씨있게 치르었다. 적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도강쪽으로 퇴각하였다. 그것이 장백에 나와서 진행한 첫 싸움이였다. 대덕수에서 울린 첫 총성으로써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나왔다는 것을 조국인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적들에게도 알려주었다.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었다. 이웃마을사람들까지 대덕수에 모여들어 우리의 승전을 축하해 주었다. 인민들은 감자떡을 치고 농마국수를 눌러 우리를 환영하였으며 우리 대원들은 춤과 노래로 그에 답례하였다. 나는 선동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팔자수염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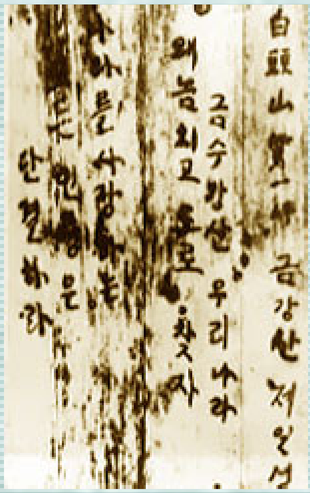
≪장군이 백두산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싸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라≫하고 소리만 쳐주시오. 그러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우다. 나도 비록 늙고 허리굽은 몸이지만 아무 시중이건 다 들 수 있수다.≫

후에 알고보니 그 고무적인 말을 해 준 노인이 소덕수의 ≪꼽새영감≫이였다.

≪꼽새영감≫에 대해서는 ≪대통영감≫도 잘 알고 있었다. ≪대통영감≫이 군비단에서 함경남도 통신사무국장으로 사업할 때 ≪꼽새영감≫은 거기서 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대통영감≫은 10여년만에 감격적인 해후를 하게 된 옛날의 전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꼽새영감≫의 본명은 김득현이다. 김세현은 독립군 활동을 할 때부터 쓰기 시

작한 가명이다. 그는 선천적인 곱사등이가 아니었다. 그저 곱사등이처럼 등이 몹시 굽었을 뿐이다. 본래는 그도 허리가 꼿꼿하고 가슴이 쩍 벌어진 균형잡힌 몸매의 청년이였다. 그가 꼽새처럼 허리가 휘어든데는 경의를 표할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함경도 태생이었는데 ≪합방≫ 직후의 음산한 시절에 살길을 찾아서 덕수골로 이주해왔다. 이 고장은 떠나온 고향과 조국에 대한 향수로 살아가는 유랑민들의 개척촌이었다. 덕수골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 고향에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군비단이라는 것이 생겨나자 김득현은 주저없이 거기에 입단하였다. 그는 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3살짜리 귀한 딸을 남의 민며느리로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무기를 구하려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먼 러시아 땅에 가서 그 곳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었다.



백두산밀영의
구호나무

그러나 10여년에 걸쳐 그처럼 헌신적으로 활약한 것 때문에 후에는 여느 단우들보다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수인들은 하루 14시간, 15시간씩 수동직기로 천을 짜내는 일을 강요당하였다. 조금만 허리를 펴도 채찍과 몽둥이가 그들의 등어리를 사정없이 들부시었다. 7-8년간이나 지속된 그 지긋지긋한 고역은 마침내 김득현의 허리를 영영 휘어놓고야 말았다.

≪꼽새영감≫은 폐인처럼 보였으나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애국열과 투쟁열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그가 이제우의 무장소조에 선참으로 흡수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김주현을 만난 때로부터 우리가 백두산에 나오기를 일일천추로 고대해왔다고 고백하였다. 김주현은 장백에 선발대로 나왔을 때 이미 그와의 친교를 맺어두었다.

간단한 연예공연과 연설을 마친 다음 나는 부대에 철수명령을 내리었다. 마을사람들은 정을 붙이자마자 이렇게 훌쩍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루밤만이라도 묵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부득이 떠나야 할 까닭을 설명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적들이 증원대를 끌고 어느 시각에 달려들지도 모르니 우리가 자리를 떠야 마을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떠날 때 길잡이는 다름아닌 ≪꼽새영감≫이 하였다.

나는 김득현노인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등사되어 있는 소책자를 주었다. 우리가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이 소책자를 준 사람으로는 그가 첫 번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덕수지구에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생겨났다.

≪꼽새영감≫은 16도구의 한 분회 성원이었다. 덕수지구의 여러 말단조직들 가운데서 그 분회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오늘날의 총련에서처럼 모범분회라는 칭호를 제정할 수 있었다면 그 분회가 제일 선참으로 모범분회가 되었을 것이다. 김득현노인은 여러 마리의 개를 길렀다. 후각이 유달리 예민한 그 영악한 맹견들 때문에 밀정이나 경찰들은 그 집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였다.

그 집 개들이 사람을 신통히 가려냈다. 우리 사람들이면 초면인물이 접근해도 짖지 않았다. 김주현, 김확실, **김정숙**을 비롯하여 개별공작을 나가는 우리의 소부대 성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덕수지구에 가면 ≪꼽새영감≫의 덕을 많이 입고는 하였다.

김정숙이 한번은 단독임무를 받고 장백현 중강구쪽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우리가 백두산에 나온 그 해 초겨울이었다. 그 당시 개별임무를 받고 나다니게 되는 동무들은 도중양식으로 생쌀이 아니라 주먹밥이나 삶은 감자 같은 익은 음식을 가지고 다녔다. 간도의 항일근거지들에서도 개별임무를 수행하는 통신원들은 그렇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다닐 때에는 망을 세워놓고 밥을 지어먹어도 되지만 혼자서는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먹을 수 없었다. ≪산사람≫이라는 표적이 나기 때문이다. 정숙이도 삶은 감자 몇 알을 싸들고 요방자를 떠났다가 노상에서 언 시래기를 씹고 있는 노파와 아이를 만났다. 정숙은 그 정상에 너무도 가긍해서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자기의 도중식사를 그 유랑 고아와 노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나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놓으며 산길을 톺았다. 훗날 그는 자기가 어떻게 ≪꼽새영감≫네 집에까지 가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꼽새영감≫ 내외가 자기의 양 옆에 미음그릇과 숟가락을 든채 울며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그 집 내외는 미음도 써주고 녹두지짐도 부쳐주고 종자닭을 잡아 곰도 해주면서 정숙이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런 간호가 아니였더라면 자기가 살아서 백두산밀영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숙은 해방 후에도 여러 번 외웠다.

≪꼽새영감≫이 우리 밀영에도 여러 번 왔었다. 온전치도 못한 몸으로 후원물자를 지고 들어왔다가는 기회를 엿보아 다른 사람 모르게 나를 찾고는 하였다.

우리가 반절구전투를 할 때에도 그는 길잡이를 서 주었다. 1939년에 소덕수의 수림속에서 5.1절 경축대회를 벌였을 때에는 농민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1942년 초에 나는 ≪꼽새영감≫이 병사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백두산 시절에도 그 후에도 ≪꼽새영감≫에 대하여 종종 추억하고는 하였다.

1947년 11월 나는 갓 설립된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에게 입힐 교복이 마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원아들을 몇 명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집에 온 아이들 중에는 ≪꼽새영감≫의 아들 김병순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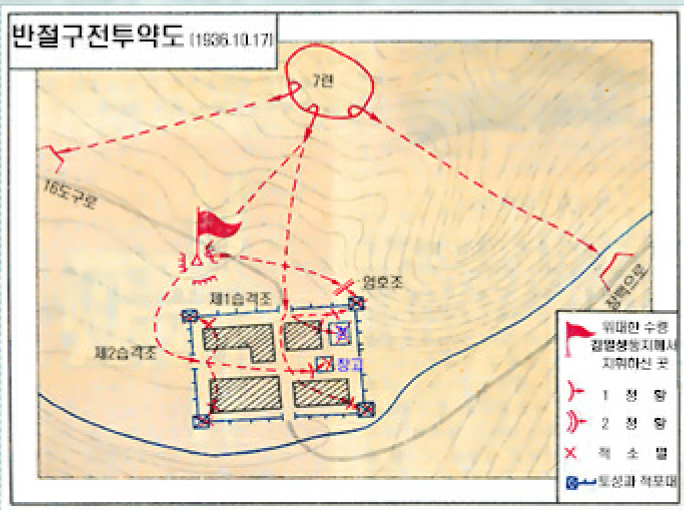
그 후 학원으로 찾아간 **김정숙**은 병순이를 따로 만나 유격대 시절부터 애용해오던 만년필을 선물로 주면서 공부를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1949년 8월 김병순은 새 군관복에 소대장 견장까지 달고 나와 **김정숙**앞에 나타났다. 경비소대장으로 배치되어 온 것이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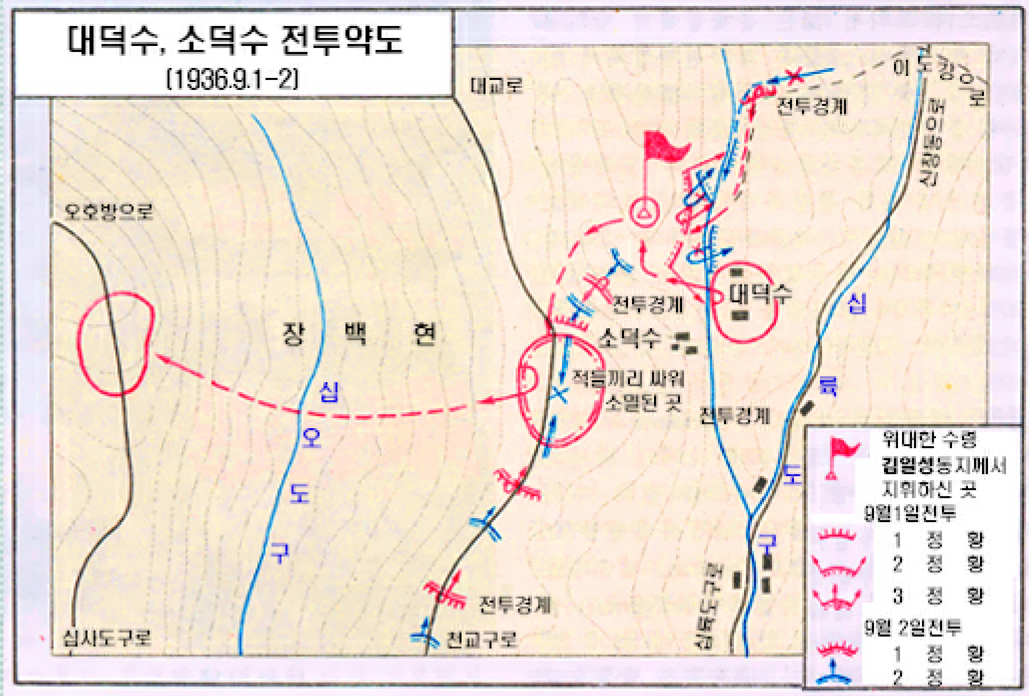
그날부터 그는 우리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정숙동무를 잃은 슬픔도 함께 겪었고 충청북도 수안보의 전선사령부에도 같이 갔으며 자강도 고산진의 최고사령부에도 같이 가서 지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곁에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항상 내 신변 가까이에서 떠돌고 있는 ≪꼽새영감≫의 마음을 느낄적마다 대덕수 마을에서 그가 한 말과 소덕수 등판의 달밤을 추억하고는 하였다.

소덕수등판에서 숙영한 이튿날 우리는 부대를 마등창수림속에 이동시키고 대원들을 휴식시켰다. 나도 풀밭에 누워 책을 보다가 굳잠이 들었는데 총소리가 났다. 15도구



반절구전투약도 (1936.10.17)



방향과 이도강 방향에서 밀려온 적들이 남북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성한 숲은 적아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감쪽같이 빠져나가면 적들의 협공을 저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는 마등창수림에서 슬쩍 빠져나와 15도구골 등판으로 올라갔다. 그 등판에서 적들끼리 싸우는 꼴을 구경하였다. 그것이 세칭 소덕수전투라고 하는 마등창망원전투이다.

그날 적들끼리의 맹렬한 싸움이 서너시간쯤 실히 걸렸던 것 같다. 구경꾼들이 지루할 정도였다. 적들은 이렇게 장시간 싸우다가 이도강쪽 패가 정 못견디겠던지 먼저 퇴각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서야 15도구쪽 패도 제편끼리 싸운 줄 알았는지 사격을 중지하였다.

수백 명의 유격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온데간데 없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적들은 우리의 ≪둔갑술≫에서 찾은 것 같다. 우리가 ≪둔갑술≫을 써서 ≪승천입지≫하고 ≪신출귀몰≫한다는 소문이 국경지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소덕수전투가 있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 적들은 담기가 모자라 신창동의 집집마다에서 문짝이라는 문짝은 다 뜯어다가 저들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황황히 꽁무니를 뺐다. 그 통에 신창동사람들은 한동안 문대신 가마니짝을 달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인민혁명군이 울린 총소리는 장백과 그 대안의 조국인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감자밭이 결딴난 데 대하여 걱정하자 신창동의 한 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자밭은 결딴났지만 악귀같은 왜놈군대들이 저렇게 죽탕이 되어 나딩구는 걸 보니 풍년든 감자밭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오다.≫

덕수골 일대에서는 그 후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다. 그들의 입대는 장백지방에서 혁명군 대오를 급격히 확대시킨 대대적인 참군운동의 서막으로 되였다.

인민혁명군의 장백진출과 군사적 위세앞에서 적들은 대경실색하였다. 장백지방 경찰기관들에서는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공직을 회피하는 이직은퇴 바람이 불었다. 적들의 통치체계에서는 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이도강에서는 집단부락 출입도 앞문으로가 아니라 뒷문으로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장백땅에 와서 군사작전만 한 것이 아니였다. 대중을 교양하고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진행하였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덕수골, 지양개골 일대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도처에 꾸려졌다.

국내에서도 조직들이 꾸려지기 시작하였다.

백두산 주변의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조직들은 새로 창설되는 근거지의 믿음직한 정치적 지반으로 되었다.

우리는 소덕수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압록강 연안의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장백현 15도구 동강, 13도구 용천리, 20도구 이종점 등 곳곳에서 연속 전투를 벌였다. 압록강 연안 일대는 벌둥지를 쑤셔 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우리가 우회노정을 택하면서 세웠던 목적은 원만하게 달성된 셈이였다. 이제는 백두산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틀 때가 되었다. 나는 김주현과 이동학을 앞세우고 백두산밀영 후보지로 향하였다. 부대의 기본지휘성원들과 경위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들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장백 쪽에서 좀더 소란을 피우라는 과업을 주어 떨구어놓았다.

김주현, 이동학, 김운신 등에 의하여 탐색된 소백수골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잡아놓은 국내의 첫 밀영 후보지였다. 소백수골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 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 있고 20리 쯤 되는 지점에는 선오산, 동북방향으로 15리 정도 떨어진 수림속에는 간백산이 각각 솟아있었다. 소백수골 뒤에 길게 가로놓여있는 산은 사자봉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소백수골로 나온 것은 집을 떠났던 주인이 오래간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경사였다. 항일혁명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활동중심을 동만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집을 떠나서 객지에 얼마간 가있던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웃들에게도 경사로 되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시인의 시에도 있는 것처럼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날아 떠나고야≫ 만다는 백두의 중중심처 소백수골에는 우리를 축하해줄 만한 이웃조차 없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설레이는 수림과 골개물 뿐이었다. 조국의 인민들은 아직 우리가 소백수골에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대오를 짓고 100리 밖에만 가면 두팔을 벌이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줄 조국의 인민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100리 밖에는 총검을 들고 우리를 겨누는 섬나라 불청객들이 있었다. 그 불청객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백두산의 눈사태처럼 쓸어내려가 사랑하는 인민들과 격정에 넘치는 상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로지 싸움만이 우리에게 조국동포들과의 상봉을 마련해줄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하여 백두산지구에 나왔고 그 싸움을 위하여 소백수골에 보금자리를 잡은 것이였다.



곰의골밀영



밀영의 아침

그때 나와 함께 소백수골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금자리로 삼았던 그 깊고깊은 골짜기가 훗날 온 세상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사적지로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낙엽이 끊임없이 떠내려오는 소백수 물줄기를 따라 골안으로 올라갔다.

오늘날 소백수골을 찾아드는 답사자들은 이 고장이 반세기 전만 해도 얼마나 태고연한 적막강산이였는지를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관광버스와 답사자들이 줄지어 다니는 훌륭한 포장도로, 고급호텔에 비겨도 그닥 손색없을 답사숙영소들과 숙영소마을, 사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들과 노래소리, 이 모든 것으로 지금은 지난날의 정적과 정갈이 새롭게 가꾸어졌지만 우리가 첫발을 들여놓던 그 당시는 산짐승들이 지나다닌 자국조차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던 원시림 지대였다. 개벽이래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은 당시의 소백수골은 그 뛰어난 경개와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부터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

소왕청 마촌시기에 우리 유격대지휘부가 자리잡고 있은 이수구골의 자리가 대단히 좋았다. 골도 깊고 산세도 험하여 적들이 수월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가까스로 기여든다 해도 쳐물리치기 좋은 지세였다. 사자봉 아래쪽의 합수목에서 백두산밀영자리로 들어가는 소백수골의 지형과 산세는 신통히도 소왕청의 이수구골과 비슷하였다.

이수구골과 소백수골이 약간 차이나는 점은 이수구골보다 소백수 협곡이 좀더 웅심깊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골안 깊이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현저해진다. 천산만악을 거느린 백두영봉의 갈피속에 자리잡은 골짜기인 것만큼 역시 골도 깊고 산도 덩치가 컸다.

우리는 어둡기 전에 장수봉 맞은 편 산언저리와 소백수가에 숙영천막을 치고 그 날밤을 지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5(1936)년 9얼
조국에서의 첫밤을 보내신 사령부천막자리

나는 하루밤에 서너시간 이상 잠자는 경우가 드물다. 산에서 싸울 때도 대체로 새벽 2시경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는 하였는데 그날밤에는 너무 곤해서 새벽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밤사이에 서리가 내렸다.

백두산지구는 여느데보다 겨울도 길고 눈도 많이 내린다.

이 지구에 한 번 내린 눈은 쉽게 녹지 않는다. 6월말이나 7월초까지도 묵은 눈을 볼 수 있는가 하면 9월 하순이나 10월 조순에는 산정에 내려앉는 햇눈을 볼 수 있다. 눈이 쌓이고 덧쌓여서 사람의

키를 넘는 때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눈속에 굴길을 뚫어야만 다닐 수 있다. 밀영 밖으로 나다닐 때는 설피를 신어야만 하였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깊은 눈구뎅이속에 빠져들어 불상사를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풍과 폭설의 위협을 무시로 받고 있는 이 엄혹한 고산지대에도 사계절의 구별이 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다.

나는 노흑산전투를 할 때 청취를 처음 먹어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쌈을 싸먹으면 부루보다 오히려 낫다. 병풍은 장백현 19도구 이훈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보았다. 그것도 역시 별맛이였다.

그런 산나물들이 백두산지구에 많았다. 청취는 대홍단벌에 많았고 병풍은 삼지연부근에 많았고 무수해는 베개봉에 많았다. 작식대원들이 따들인 그 산나물들이 우리 백두산 ≪주민≫ 들의 여름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는 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정착생활을 할 때 작식대원들은 터밭을 마련하고 남새농사까지 지었다. 새초밭 한 옆에 터밭이 있었다. 여러 가지 남새농사를 지었으나 배추, 무우는 안되었다. 그러나 부루와 쑥갓만은 잘 자랐다.

소백수의 산천어도 이따금씩 식탁에 올랐다. 그때는 마리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양어가 잘되어 마리수도 많아졌다.

백두산밀영지에 처음으로 들어온 다음날 나는 지휘성원들과 함께 밀영 후보지를 돌아보았다. 선발대 동무들이 내정해 준 병영위치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남호두를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의 원정에 대하여 총화를 지었다. 백두산을 타고앉아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토의하고 분공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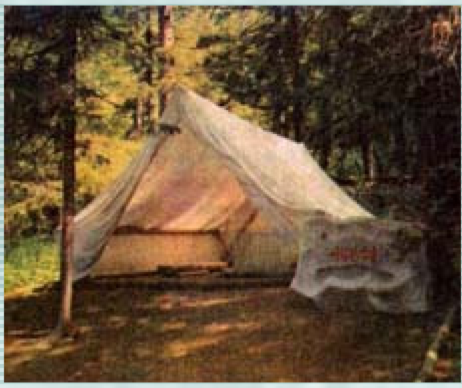
그 모임에서 토의되고 모임 뒤에 곧 실천행동으로 옮겨진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앞에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백두산근거지 창설을 적극 다그치는 것이였다. 그것은 밀영건설과 조직건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즉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한다는 것은 백두산지구에 밀영들을 건설한다는 것과 백두산 기슭의 주민지대들에 지하혁명조직들을 건설한다는 것이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동만에서 창설하였던 유격구와 후반기에 백두산에 나와서 새로 창설한 백두산근거지 사이에는 내용상에 있어서나 형태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기의 동만유격구는 고정된 유격구를 유격활동의 본거지로 삼은 근거지로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혁명근거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에 새로 창설한 백두산근거지는 은폐된 밀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한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였다.

전반기에는 근거지 안의 인민들이 인민혁명정부의 시책속에 살았고 후반기에는 지하조직망에 망라된 인민들이 표면상으로는 적의 통치를 받았으나 안속으로는 우리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움직이였다.

전반기에는 유격구사수를 위한 방어에 큰 힘을 넣어야 하였지만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격활동을 광활한 지역에서 벌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근거지 형태를 바꿈으로써 주동적인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활동영역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어있었다.


선오산밀영의 사령부자리

우리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장백의 넓은 지역과 장차로는 백두고원, 개마고원, 낭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근거지를 국내종심깊이 확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북부조선으로부터 중부조선을 거쳐 남부조선에 이르는 전국적판도에로 번져가게 하는 동시에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전민항쟁준비도 강력히 추진시킬 작정이였다.

밀영망창설과 지하조직망건설이 이처럼 우리들의 존망과 생사운명, 나아가서는 항일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되어있은 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밀영건설을 1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이 과업을 각 부대에 맡기였다.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과제는 김주현에게 맡기였다. 밀영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이 두 가지 문제는 통속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식의주문제이기도 하였다.

지하조직망 건설을 방조해 줄 인재를 적극 탐색하며 우리 인민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광복성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필요한 전투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과업은 이동학의 중대에 맡겼다.

지휘관들은 백두산근거지 창설을 위한 분공수행에 지체없이 착수하였다. 김주현과 이동학이 중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그밖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개별임무를 주어 공작지로 떠나보낸 다음 나도 경위대와 7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데리고 곰의골로 향하였다. 황공동부락에서 갈라진 부대의 기본역량과 만나게 되어있는 곳이 곰의골이였다.

소백수골에서 곰의골로 갈 때의 걸음이 자못 인상적이였다. 나는 그때 선오산과 삼단폭포를 보았는데 참으로 신비경이였다. 우리 일행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대탁온천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쪽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수림의 바다에서 향방을 잡지 못하고 2시간나마 왔다갔다하다가 몇 개의 정찰조를 여러 방향으로 내보냈더니 그중의 한 정찰조가 노인 한 분을 모셔왔다. 백두산턱밑에서 홀로 산다는 늙은이라는데 만강쪽에 소금과 좁쌀을 얻으러 내려갔다 오던 길에 우리 정찰조를 만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가 사는 대탁의 초막으로 갔다. 그 초막 옆에는 아주 좋은 온천이 있었다.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가재를 넣으면 빨갛게 익었다. 우리는 그 물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재도 익혀 먹었다. 언제인가 텔레비젼화면에서 이슬란드사람들이 추운 한겨울에 야외온천욕을 하는 것을 보니 대탁에서 온천욕을 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대탁의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되어 백두산턱밑에까지 들어와 살게 됐는가고 물었더니 노인의 대답이 원래는 별방에서 살았는데 시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조종의 산으로 올라왔다고 하였다.

≪망국노의 수치를 안고 죽기는 매일반인데 죽어도 백두산밑에 와서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요. 나에게 천자문을 배워주던 서당 훈장님은 늘 조선사람은 백두산을 안고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수다. 정말이지 그 말씀은 비석에라도 새겨두고 싶은 금언이었습지요.≫


사령부의 내부

미간을 쪼프리고 백두산쪽을 응시하는 노인의 시선을 따라 끝없이 가노라면 그가 걸어온 구질구질한 한생의 진창길이 펼쳐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심경이 자못 엄숙해졌다. 백두산밑에서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겠다는 노인의 말은 나를 감동

시키였다.

≪그래 백두산 두메맛이 어떻습니까?≫

≪별맛입니다. 감자농사와 노루사냥으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왜놈의 꼴을 보지 않으니 살이 지는 것 같수다.≫

그 노인과의 담화는 나로 하여금 백두산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에서 굳건한 기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하였으며 백두산을 혁명의 책원지로 삼은 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절감하게 하였다. 이웃도 없이 홀몸으로 백두산에서 인생말년을 강인하게 보내는 그는 참으로 애국적인 노인이였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늙은이의 성씨를 묻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다.


사자봉밀영의 출판소

나자구 등판의 마노인처럼 그에게도 책이 많았다. 우리가 온천욕을 마치고 대탁을 떠나 곰의골로 향할 때 노인은 나에게 여러 권의 소설책을 선물하였다. 훗날 우리는 바로 대탁온천지에 전장에서 부상당한 대원들과 허약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꾸리였다.

우리 일행이 곰의골에 도착한 후 어느 날 교하지방에서 활동하던 2연대 성원들이 곰의골로 찾아왔다. 권영벽, 오중흡, 강위룡 등이 바로 그때 교하에서 돌아온 사람들속에 끼어 나와 함께 쌓였던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하였다. 추운 날씨에 홑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백두산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목재소를 치고 소를 얻었는데 우리를 위해 두 마리는 산채로 끌고왔다. 피골이 상접한 그들의 모습과 헐어빠진 여름군복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들도 나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에게 새옷을 갈아입혔다. 겉옷 뿐 아니라 내의도 갈아입히고 행전과 지하족도 갈아주었다. 세면도구도 일식으로 공급해주고 담배와 성냥까지 내주게 하였다.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교하쪽에서 돌아온 강위룡은 박영순과 함께 곰의골, 횡산, 홍두산 지구의 여러 곳에 밀영들을 꾸리였다. 박영순과 강위룡은 도끼 하나만으로도 1개 연대가 넉근히 숙영할 수 있는 커다란 귀틀집을 2-3일 사이에 척척 지어내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장백지구의 밀영건설에서는 아마 그 두 사람의 수고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조국안이네 부대 사람들이 곰의골에 왔을 때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단 하루사이에 자기들의 숙소를 지어놓은 솜씨를 보고 경탄하였던 것도 사실은 그들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자봉밀영의 사령부귀틀집

내가 곰의골에서 얼마동안 지내다가 소백수골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지점의 밀영지들에 새 귀틀집들이 일어섰다. 사령부와 부대 병실들, 출판소와 재봉소 건물들, 위병소와 차단소들이 밀림속 곳곳에 생겨났다.

밀영의 귀틀집 출입문들에 노루발쪽손잡이가 달리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어

그 하찮은 노루발쪽손잡이가 나에게는 역사적 시기를 구획짓는 이정표처럼 뇌리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백두산≪주택≫들에 노루발쪽이 문손잡이로 달리게 된 때로부터, 다시말하여 소백수골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꾸려지게 된 때로부터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 영도거점으로 되였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우리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바로 그 백두산밀영으로부터 미구에 북부, 중부조선의 곳곳에 부채살같이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 밀영들에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하여 권영벽, 김주현, 김평, **김정숙**, 박록금, 마동희, 지태환 등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전국각지로 떠나갔으며 또한 백두산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이제순, 박달, 박인진 등의 수많은 인민의 대표들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안고 다시금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의 부대들이 원쑤들을 찾아 출전의 길을 떠났다. 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백두산밀영에서 구상되고 설계되고 행동에 옮겨졌다.

백두산밀영망에 속한 위성밀영들은 조선쪽에도 있었고 중국쪽에도 있었다.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 무두봉밀영, 소연지봉밀영 등은 조선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였으며 곰의골밀영, 지양개밀영, 이도강밀영, 횡산밀영, 이명수밀영, 부후물밀영, 청봉밀영들과 무송지구의 여러 밀영들은 서간도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였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그 모든 밀영들은 다 이용하였다.

백두산지구의 밀영들은 각이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순수한 비밀병영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재봉소나 무기수리소, 병원 같은 후방밀영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으며 공작원들의 중간연락소나 숙영소 역할을 한 것도 있었다.

백두산밀영망의 심장부는 소백수골의 밀영이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는 소백수골의 밀영을 ≪백두산 1호 밀영≫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백두산밀영≫이라고도 부르고 ≪백두밀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최대한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사령부 직속부서 성원들과 경위대를 포함한 일부 골간부대만 있게 하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단속하였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소백수골의 밀영에서 만나지 않고 2호 밀영(사자봉밀영)에 나가 만나주고는 하였다. 2호 밀영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2호 밀영은 사령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하였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령부로 찾아오는 통신원들도 흔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명수 쪽에서 올라오다가 소백수골 어귀에서부터는 소백수물줄기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우리는 밀영의 처소들을 누구에게나 다 알리지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밀영도 아니다.

백두산밀영과 그 주변 밀영들이 있는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은 것은 김주현과 김해산, 김운신, 마동희와 같이 연락임무를 도맡다시피 했던 몇몇 사람들과 소수의 지휘성원들 뿐이였다.

백두산밀영과 그밖의 다른 밀영들 그리고 거기서 지냈던 우리 ≪주민≫들이 항일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자기들의 존재를 고이 숨겨 보존할 수 있은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백두산은 나의 청춘시절의 ≪집≫이였다. 어린 시절의 고향집 식솔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식솔들이 나와 함께 거기서 지내며 백두산의 눈비를 맞았고 오늘의 조국을 꿈꾸었다.

백두산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전날의 백두산 개척자들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후세들에게 백두의 갈피갈피에 차넘치는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소개하고 전해주어야 할 선대로서의 사명을 제때에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건당, 건국, 건군 사업과 전쟁, 복구건설 등 하도 많은 일감을 짊어지고 있다보니 짊어서는 백두산 시절의 본거지로 와볼짬을 내지 못하였다.

박영순이네가 살아있을 때에 백두산밀영의 옛 자리들을 후대들에게 찾아주라고 몇 번이나 일렀지만 그전날의 그 날파람있던 목수도 자기들이 직접 지은 곰의골이나 지양개, 횡산의 밀영자리들과 청봉, 베개봉, 무포 같은 숙영지 자리까지는 찾아내면서도 백두산밀영자리는 끝내 못찾아내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 밀영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결국 백두산밀영자리는 늦게나마 내가 찾게 되였다. 어쩌다 짬이 생긴 김에 백두산지구 밀영들을 꾸려놓은 것을 보고싶어 그곳에 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소백수다리가 있는 한 고장의 지세가 하도 눈에 익어보여 답사성원들을 소백수골로 파견하였다. 100여길쯤 되는 벼랑바위 봉우리가 있는 골 안에 찾아 들어가면 그리 넓지 않는 새초밭이 있을테니 한 번 찾아보라고 일러보냈다. 그러면서 그 골안은 산과 산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아서는 잘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 지구가 당시까지만 하여도 어찌나 무시무시하고 험했던지 압록강 연안 참관도로를 내기 위하여 언제인가 현지에 책임서기와 군사무관을 답사보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만 원시림속에서 길을 잃고 숱한 애를 먹은 일도 있었다. 호위중대를 보내어 그들을 겨우 찾아 데려왔다. 실로 미혼진에 못지않는 혼미의 지대였다. 소백수골로 들어간 탐사, 답사 성원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먼저 구호나무들을 발견한데 이어 집자리와 숙영지 자리들도 찾아내었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후세들앞에 백두산밀영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 있다. 광활한 백두대지에는 대노천혁명박물관이 형성되었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는 풍부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백두산은 이미 30년대 후반기에 자기의 고유한 상징적 의미외의 새 의미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화산이던 백두산에서 분출한 ≪광복혁명≫의 용암은 2천만 동포의 주목을 끌었다. 항일혁명의 불길이 미쳐간 곳곳을 돌아본 작가 송영은 자기의 답사기행문집에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표제를 붙였다. 그 표제가 말하듯이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이는 광복의 활화산, 혁명의 성산으로 되었다.

6. 애국지주 김정부



장백현의 지주 김정부

세계의 정치무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한 때로부터 만국의 무산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는 구호를 들었다. 우리 나라의 근로대중도 이 구호를 외치며 오랫동안 외래제국주의세력과 결탁된 반동적인 착취계급을 매장하기 위한 준엄하고도 첨예한 계급투쟁을 벌려왔다.

한때는 국민부의 정당조직인 조선혁명당의 좌파인물들까지도 타도 지주, 타도 자본가를 자기들의 투쟁목표로 선포하고 타도선풍을 일으켜나갔다.

우리도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는 것을 자기의 이념으로, 투쟁목표로 삼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 남의 피와 땀으로 기생하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 견지해오고 있는 원칙이다. 나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있다. 수억만 근로대중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재부를 탕진하여 호의호식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증오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부의 분배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이념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진보적 인류가 다 긍정하고 있다. 우리는 한줌도 못되는 몇몇 유산자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한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점, 도덕적 타락을 반대하며 그 모든 것에 조종을 울리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물론 구체적 실천에서는 착취계급을 타도하는 문제와 그 계급의 개별적 존재, 개개의 유산자를 대하는 문제를 엄격히 갈라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혁명시기 일본제국주의와 그 하수인이 된 악질적인 유산자들만을 투쟁의 과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날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계급관계에서 투쟁일면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애국적이며 반제적인 요소를 가진 지주들과 민족자본가들을 대하는데서 좌경을 범하였다. 유산자들을 구체적인 조건과 실태를 고려함이 없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턱대고 청산하며 수탈하고 학대하는 융통성없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반공에 환장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헐뜯을 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지주,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계급교양이 높은 수준에서 심화되어 모든 일군들이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잘 결합시켜 나가고 있다. 부자일반을 다 나쁘다고 보던 일면적인 견해, 그 경력과 공로에는 관계없이 지주, 자본가 계급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한 방망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던 편협한 관점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입당하였다거나 적재적소에 등용되어 낙천적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자신이 지니는 행운에 못지 않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군중심리이다.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광폭정치에 의해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광폭정치를 반세기 전에도 하였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벌써 항일혁명시기부터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출신과 신앙과 재산정도가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주, 자본가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견해를 이해하는데서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광폭정치의 역사적 뿌리를 파악하는데서 일정한 도움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김정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6년 8월말이었다. 지양개부락에 모연공작을 나갔던 소부대 성원들이 깊은 밤중에 친일지주들이라고 하면서 칠순이 넘어보이는 노인과 그밖의 몇몇 사람들을 데려왔다.

우리는 그때 마가자라고 부르는 이도강 근처의 임산마을에서 군중사업을 하고 있었다.

억류된 사람들의 명단에서 김정부의 이름을 발견한 나는 놀랐다. 그를 ≪친일지주 라고 데려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소부대 책임자를 이동학이라고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김정부를 붙들어온 사람은 김주현이다.

나는 김주현을 불러다가 엄하게 물었다.

≪김정부를 타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저 영감은 땅만 해도 자그마치 150정보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지주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소유지가 150정보나 되는 지주라고 해서 다 타도대상으로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소?≫

≪사령관동지, 법이라니오.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런 부자 하나만 있으면 열 동네가 망하고도 남겠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그 다음 증거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주현은 김정부가 일본영사관 분관 참사원이란 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 그 참사원이 경상북도 영천인가 어디에서 이또라는 일본인 자본가를 데려다가 김정부에게 6,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알선해 주어 목재상을 하게 했다는 것, 김정부가 자동차까지 한 대 사가지고 장사질을 크게 할 수 있은 것은 다 일제놈 떨거지들을 등에 업은 덕이라는데 대하여 누누이 설명하였다.

≪다른 증거도 또 있소?≫

≪또 있지요. 증거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김정부는 호림회장 겸 농촌조합장의 벼슬을 하면서 만주국 관청출입도 뻔질나게 한다고 합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도 제 애비의 그늘밑에서 몇 해 동안 이도강 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부에게 우점은 전혀 없다던가고 묻자 김주현은 좀 얼떠름해졌다. 우점에 대한 반영은 수집하지도 않았거니와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다.

≪우점이라니요. 그런 친일분자한테 우점같은 게 있을게 뭡니까.≫

소부대 책임자의 보고는 마디마디가 다 부정적이었다. 시종일관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어쩐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다. 계급투쟁과 계급성밖에 안중에 두지 않고 있던 종래의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김정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없는 그들은 우리가 장백땅으로 나오면서 중요한 통일전선사업대상으로 점찍어 놓았던 그에게 ≪친일지주≫니, ≪반동분자≫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이고 지주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까지도 붙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전선방침에도 맞지 않고 조국광복회창립선언문이나 10대 강령 정신에도 어긋

나는 행위였다.

심지어 그들은 김정부의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것까지도 친일의 증거로 삼았다. 그가 전화를 놓은 것은 순수 호강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밀정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였을 것이다, 통화를 한다면 어디하고 하겠는가, 영사관이나 경찰이나 만주국 관청밖에 더 있는가, 그런 놈들과 전화질을 한다는거야 고발질이나 하자는 수작이지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하고 소부대책임자는 기염을 토하였다. 사실 그 당시 개인이 집에다 전화를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평백성들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 할 호강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집에다 놓은 전화기를 친일의 표적으로 보고 이적행위의 수단으로까지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생억지가 아닌가. 만일 모든 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통일전선정책은 실천에서 엄중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었다. 이것은 김정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나는 소부대 성원들을 꾸짖기 전에 우선 마음속으로 아래사람에 대한 교양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였다. 우리가 무송에서 장울화와 거래할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편견을 앞세우면서 우려하였다. 장울화가 보낸 여러 발구의 원호물자와 거액의 돈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산계급의 인물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장백에 나와서 150정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보게 되자 그들의 눈에서는 또다시 가시가 일어섰다.

어찌하여 장울화를 동행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김정부가 통일전선대상으로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가.

이것은 통일전선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교양사업에 빈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각계각층의 군중속에는 실로 그 경력과 생활처지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인간들이 있다. 그 모든 인간들과의 사업에 다 들어맞는 유일한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다 참고할 수 있는 원칙만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일인가, 반일인가,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나라와 민족, 인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위해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투쟁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우리는 김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통일전선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장백에 나오면 그에게 협조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든가 밀영에 데려다가 만나려고 계획하였다.

≪내가 보건데 김정부에 대한 동무들의 평가는 도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사람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안된다. 동무들이 친일지주라고 보는 김정부는 사실 애국지주이다. 내가 그의 과거를 잘 안다. 동무들은 지양개에 나가서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김정부가 여사여사하고 김하사가 여사여사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망탕 평가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속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김정부가 그렇게 나쁜 지주일 것 같으면 지양개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 마을에다 그의 송덕비를 세웠겠는가. 동무들은 지양개에 김정부의 송덕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소부대 성원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동무들이 김정부의 과거경력을 알게 되면 친일지주라고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타도대상이 아니고 포섭대상이며 반동지주가 아니고 애국지주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증한다고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모르고 김정부를 잘못 취급했습니다. 소부대의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그를 지양개에 돌려보내겠습니다.≫

김주현이 자책감에 못이겨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돌려보내지는 마시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밀영에 데리고 들어가서 품을 놓고 담화를 해보고 싶소. 동무들을 대신하여 사과는 내가 하겠소.≫

그날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김정부를 통일전선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 지주의 경력은 그날중으로 온 부대에 다 알려지게 되었다.

김정부의 출생연대는 대체로 1860년대 초라고 짐작된다. 우리가 장백지방에 나갔을 때 그는 벌써 70대에 이른 늙은이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의주군 청수동이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의주태생인 장철호는 부호라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군 운동에 투신해온 김정부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자주 말해주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는 장철호와 오동진의 청수동시절의 죽마고우이다.

독립군이 장백땅에서 한창 기세를 올릴 때 김정부는 군비단의 남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가산을 털어 독립군에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들을 대주었다. 군세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지양개에서 농마도 내고 물방아를 놓고 쌀도 찧어 단의 식량으로 섬겼다.

김정부의 집은 길림, 무송, 임강, 팔도구, 화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이 장백으로 왕래할 때 이용한 숙박소인 동시에 회합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 연고를 보더라도 나는 김정부 노인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

김정부는 후대교육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지양개골 안에 그가 주관하는 구학서당이 생긴 것은 1920년경이었다. 자기 작인의 자식들을 다른 고장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개명시켜보려는 야심은 그로 하여금 구학서당을 신학문위주의 4년제 소학교로 개편하게 하였고 얼마후에는 그 학교를 15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6년제 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김정부는 인접부락들에서 지양개로 찾아오는 아이들까지도 다 학교에 받아들이었다. 그 종산사립학교의 운영비와 교원들의 생활비는 작인들에게서 받은 소작료로 보장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주독립과 애국애족의 사상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양개의 소작농들은 자원적으로 소작료를 냈다. 농사작황에 따라 한 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한 가마니를 바치고 열 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열 가마니를 바치었다. 그것은 김정부가 지주로서 작인들에게 토지의 양과 질에 따르는 현물납부량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주와 작인들 사이에는 소작계약조차 맺어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1년 소출중에서 몇 프로는 농민이 먹고 몇 프로는 지주에게 바친다는 약속이 없었다.

한때 지양개에서 김정부의 소작농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항일혁명투사 이치호는 세상에 김정부와 같이 선량하고 통이 큰 지주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지주의 땅을 부치면서도 소작료가 얼마인지를 몰랐다, 장리쌀을 여러 번 가져다 먹으면서도 이자를 붙여 돌려준 일이 없다, 그래도 김정부는 추궁하지 않고 매사를 작인들의 자원성에 맡기었다, 인민들이 그의 집앞에 송덕비를 세운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지양개 등판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그것은 사실 벌방에 있는 15정보의 옥답보다 별로 나은 것이 못되었다고 말하였다.

지양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바이≫, ≪우리 부장님≫, ≪우리 교주어른≫하면서 김정부를 찬양하였다. 그것은 실로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웃의 지주들은 김정부의 덕행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작인들이 지양개를 넘겨다보며 김정부의 소작농을 부러워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맺지 않고 소작료를 내키는대로 납부하게 하는건 지나친 선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는 살림살이가 3-4년 안팎에 거덜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부를 설유하였다.

이웃의 지주들이 이따금씩 그런 걱정을 해도 김정부는 꿈만해하였다. 소작계약이 없다고 우리 세 식구가 굶어죽기야 하겠는가. 작인들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고 작인들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것이니 그런 이치를 생각해서 인정을 품앗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김정부가 이런 선덕을 지닌 부호였기 때문에 만주국 관청이나 일본영사관에서도 그를 감히 허술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소부대성원들이 데리고 온 지주들 가운데는 김하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애국적인 지주였다. 그에게 김하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구한국의 신식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의 본명은 김정칠이였다.

김하사는 10대의 나이에 이조군대에 탄원하여 일찍부터 군인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한때는 우리 나라 첫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참군하였으며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에 열렬히 공명하기도 하였다.

농촌초부와 같이 소박하고 정결한 그의 모습에는 강건한 정치적 신념이 비껴있었다. 갑오개혁때 왕궁호위를 전문으로 하는 시위연대에 있던 그는 그 후 진위대로 옮겨갔으며 망국 이후에는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가 의병운동이 조락하자 생업에 파묻히였다.

김하사는 구한국말기 신식군대가 존재한 거의 전기간을 하루와 같이 근실하게 복무한 군인으로서 이조군대의 사멸과정과 근대조선이 겪어온 파란만장의 국난을 고스란히 체험한 역사의 산 증견자였다. 김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오랜 기간을 만근하면서도 하사관 이상의 직급에 등용되지 못한 것은 북관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하사는 이조의 위정자들이 정배지라고 차별시하는 갑산출신이었다. 봉건조정이 군정개혁도 표방하고 문벌폐지도 부르짖었으나 서북관 사람들을 인재등용에서 제외하던 구시대의 유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하사는 10정보의 땅과 여러 마리의 부림소를 가지고 있는 지주였으나 사고와 행동에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애국자였다.

그런데 그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김정부나 김하사같은 사람들도 통일전선대상이 된다고 하면 입을 딱 벌이면서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포섭대상이라니, 이건 ≪계급협조≫가 아닌가고 하면서 얼떨떨해하였다.

사실 맑스나 레닌의 명제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침으로 통하던 반세기전만 해도 우리가 모모한 지주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로부터의 탈선이라고 시비하였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자본가를 동맹자로 만들려고 하면 레닌주의에 대한 이단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우리 혁명의 산 현실을 떠나서 맑스-레닌주의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고 교조적으로 대한 후과였다.

해방 전 조선농촌에서의 계급분화와 토지소유관계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통계자료들을 보면 일본인 대지주의 대열이 늘어날 때 조선인 대지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중지주나 소지주로 영세화되었거나 몰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총독정치의 지반을 다지었다. 그 과정에 일부 토착지주들은 총독부의 지지밑에서 토지와 자본을 늘리며 공상업에 돈을 투하하는 대지주로 되고 매판자본가로까지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선인 대지주들은 중소지주로 남아있었다.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그 처지가 영락된 일부 중소지주들이 소극적이나마 반일애국을 지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주, 자본가들 중에는 항일혁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들도 있고 해방이 되자마자 땅과 공장을 송두리째 나라에 바치고 평범한 근로자가 되어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 개인의 치부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양심적인 자산가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시책에 반기를 들 정치적 이유도 없고 그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방해하여 나설 아무런 감정 심리적 기초도 없다.

물론 나도 어린 시절에는 지주, 자본가라면 모두 놀고먹는 기생충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자산가들속에도 양심적인 자산가가 없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을 애국적인 자산가와 반동적인 자산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창덕학교시절에 백선행이 학교에 많은 땅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장울화와의 인연은 나로 하여금 자산가 일반을 다 타도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나는 진한장을 통해서도 부자들에 대한 관점을 더욱 똑똑하게 정립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런 애국적인 사람들을 자산가라고 하여 타도하거나 따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혁명의 지지자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되며 애국적인 자산가는 물론, 수많은 군중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중은 그런 인정사정 없는 혁명을 외면할 것이다. 기뻐할 것은 오직 적들뿐이다. 계급투쟁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탈선은 결국 원쑤들의 전략에 발을 맞추는 최대의 이적행위로 된다.

나는 유격대대장으로서 김정부와 그 일행에게 우리 사람들의 과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지었다.

소부대책임자는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기하고 있던 김정부일행을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밤중에 갑자기 무례하게 데려오게 되어 안되었다고 심심히 사과하였다.

김정부는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적의와 불안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모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속을 조이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 좀더 살뜰하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교감이 잘되지 않았다. 그처럼 냉랭한 분위기속에서는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군대어른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립군이면 요구되는 군자금 액수나 대주고 호적이면 방표값이나 말해주시오.≫

얼음장같은 공기속에서 맨처음으로 울린 것은 김정부의 가시돋친 목소리였다. 그 말은 방안의 긴장된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하였다. 김정부와 그 일행은 분명 우리를 독립군이나 호적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방표란 호적이나 반일부대들이 흔히 쓰는 인질전술을 말하며 방표값이란 인질을 놓아줄 때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한다. 김정부 자신도 호적들한테 인질로 두세번 잡혀가 모진 곤욕을 치른 사람이었다.

지주일행은 숨소리를 죽이고 나를 지켜보았다. 방표값을 엄청나게 부를까봐 속이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때 소부대 책임자가 담배 10갑을 들고 내앞에 다시 나타나 지양개마을의 가게방주인에게 값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보고하면서 주인이 너무도 사양하기에 그만 담배값을 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지주일행을 향해 우리 소부대책임자에게 10갑의 담배를 돈을 안받고 준 지

양개의 가게방주인이 어떤 사람인가고 물었다.

≪그 김세일이란 양반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다. 당자는 몸이 불구이고 아내가 삯방아를 찧어 그럭저럭 연명을 해가는 집안입지요. 정상이 하도 가긍하길래 돈 얼마간을 주면서 잡화상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 돈으로 구멍가게를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김만두가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부대 책임자를 책망하였다.

≪궁상스럽게 사는 집안인데 동무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 같소. 주인이 사양한다고 값을 치르지 않고 덜렁덜렁 돌아왔으니 그게 어디 인사가 됐소?≫

이런 말이 오간 다음 놀랍게도 방안의 분위기는 일변하였다.

지주들은 무슨 충격을 받았던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들을 주고받으며 귓속말로 수군거리였다. 나의 책망이 지나치다고 나무람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걸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스산한 날씨에 노인님들이 밤길을 걷게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이 없는 고장들을 돌아다니다보니 더러 이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무들이 좀 공손치 못하게 굴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재삼 사과를 하자 지주일행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 이 부대는 무슨 부대인지? 차림새를 보면 호적 같지도 않고 또 왕년의 독립군 복장도 아닌데 ≫

김정부도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으로써 장백의 유지들과 첫 통성을 하게 된 셈이였다.

≪인민혁명군이라니! 일전에 무송에서 왜놈들을 혼쌀냈다는 그 **김일성**장군부대란 말이요?≫

≪네, 그 부대입니다.≫

≪**김일성**장군은 지금도 무송에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김선생,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정부는 반신반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다가 쓴입을 다시였다.

≪70이 넘은 늙은이라고 얕잡아보지 마시오. 아무렴 축지법을 쓴다는 **김일성**장군이 그렇게 홍안일수야 있겠소. **김**장군은 우리 속인들과는 다르우다. 그분은 이빨까지도 쌍줄로 났다는 기인이지요.≫

그때 김주현이 대화에 끼어들어 바로 마주앉으신 분이 다름아닌 우리 **김일성**사령관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김정부는 비로소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미처 장군을 몰라보아 황송하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왕이면 노장보다 약관의 장군이 더 좋지≫하고 그는 김하사를 향해 말하였다.

김하사도 나라를 찾는 싸움이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닌 것만큼 건강한 청년장군이 더 믿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계속하였다.

지주들은 그 날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지어 김만두는 **김**장군님이 ≪사흘천기≫를 내다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 하는 엉뚱한 질문까지 하여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엉터리없는 질문이였지만 나는 계면쩍은대로 어차피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사흘천기를 본다는 것은 허황한 소리입니다. 사흘천기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제때제때에 잡아쥐기 때문에 정세판단을 잘할 뿐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인민이 제갈량입니다. 인민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군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늘만치 쳐주니 송구스럽소이다. 우리도 장군의 대사를 도와주어야겠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 방도나 가르쳐주시오.≫

≪사실은 우리도 장백으로 나오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의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무장을 들고 만주광야에서 여러 해 동안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혈전을 벌려왔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였지만 인민혁명군은 지금 도처에서 적을 족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이 우리를 도와주고 받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혁명군은 오늘과 같이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군대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힘과 마음을 다 합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주건, 자본가건 다 동원되어 인민혁명군을 후원해야 합니다.≫

지주들은 나의 말에서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혁명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이 지양개 등판에다 수십만평의 화전을 일군 것은 돈과 쌀로 독립운동에 보탬을 주려는 것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소작농들과 독립인사들이 뜻을 합쳐 선생의 송덕비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실례이지만 장군은 이 졸부의 과거를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고계시오?≫

≪선생의 함자는 선친을 통해서도 듣고 오동진, 장철호, 강진건 선생들을 통해서도 익혀두었습니다.≫

≪선친의 성함이 무엇이기에?≫

≪김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팔도구와 무송에 계실 때 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변이라구야! ≫

김정부는 눈을 슴뻑거리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김**장군이 김형직의 자제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 늙은게 몇 해째 조야에 묻혀 속절없이 지냈더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속물이 되고 말았소이다. 이렇건 저렇건 장군의 선친과 나는 가까운 사이었지요. 오늘 선친이 밟고 다니던 땅에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을 보니 그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나도 역시 선생과 같은 애국인사를 만나고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깊은 속내도 모르고 선생을 연행해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김선생은 친일지주나 반동지주가 아니라 애국지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위해 지양개 사람들처럼 비석을 해세우지는 못할망정 애국지주를 친일지주로 보는 허망한 실수야 하겠습니까.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쳐온 자신의 지난날들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김정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장군이 나를 애국지주라고 하였으니 이 늙은 몸은 당장 흙이 된다고 해도 여한이 없소이다.≫

김만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다른 지주들은 불안과 부러움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김정부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 심정을 알아맞힌 김정부가 동행한 지주들을 가리키며 의젓이 말하였다.

≪장군, 사실은 저 사람들도 반동지주는 아니오. 내가 장군앞에서 목숨을 걸고 보증하오. 장군이 만일 나를 신임한다면 저 사람들을 역적으로 보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보증하는 분들이라면야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친히 보증하신다면 나도 저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주들은 그 말을 듣자 감사하다고 하며 연방 고개를 조아리었다.

첫 담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날의 담화가 지금도 내 기억속에 인상깊이 남아있다. 만일 그것이 친일분자들의 죄행을 조사하는 심문이었거나 그 어떤 죄상을 고발하는 성토모임 같은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도 김정부일행을 만나던 마가자의 임산노동자합숙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그날밤 자정이 다될 때까지 계속된 지양개유지들과의 담화를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들 중 누가 소작인들을 어떻게 착취하였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어느 정도로 협조하였으며 조국과 겨레앞에 떳떳치 못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캐여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주들이 친일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들에 대한 신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그 신임 때문에 지주들은 그날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날의 담화는 통성이나 하고 대문을 열어제낀데 불과하였다. 우리가 의논하고 싶었던 기본문제들은 죄다 앞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우선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정신에 맞게 지양개의 지주들을 사상적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하자는데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장백일대의 유지들을 혁명의 관조자, 방해자로부터 동정자,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자면 아직도 그들과 많은 담화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나는 김정부만은 인차 그의 아들과 함께 지양개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 다음날이었다. 내가 김정부노인을 만나 마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그는 펄쩍 뛰며 내 말을 막았다.

≪장군, 나는 간밤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소. 이번에 내가 장군을 만난 것은 정 말 천지신명의 도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려고 여러 모로 전력했지만 별로 해놓은 것이 없구려.

나도 이제는 늙었소. 기력도 쇠진했지만 덕행 하나만으로는 민족을 건질 수 없다 는 것을 깨달았소. 인생말년에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길 바이없어 모대기던 차에 이렇게 장군을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여기에 있어야 우리 아들 만두가 지양개에 돌아가더라도 나를 코에 걸고 원호물자들을 보내줄 수 있소. 아버지를 데려오자면 유격대에 물자들을 보내주어야겠다, 내가 산에 식량이랑, 천이랑, 신발이랑 보낸다고 해도 당신들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 놈들도 할 말이 없지 않겠소.≫

나는 노인의 말에 저으기 감동을 받았다. 그 말마디들이 양심의 외침으로 폐부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노인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 고결하신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노인께서 계실만한 곳이 못됩니다. 처소라고 할만한 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음식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더욱 추워지고 일제놈들의 ≪토벌≫도 심해지겠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막무가내로 옹고집을 부리었다. 그는 자기가 유격대의 병정으로 싸우지는 못할망정 나라의 독립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나는 김정부노인을 얼마간 밀영에 머물러있게 하고 그의 아들만을 먼저 마을로 돌려보내였다.

우리는 밀영에 지양개의 유지들을 위한 거처를 특별히 따로 마련해놓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들을 돌보아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산중생활이었으나 온 부대가 죽으로 끼니를 에울 때에도 지양개

의 지주들에게만은 비상시에 쓰려고 저축해 두었던 흰쌀포대를 터쳐 밥을 지어주었다. 우리 대원들에게는 엽초를 공급하면서도 그들에게만은 특별히 가치담배를 대접하였다. 김정부는 그때 밀영에서 생일도 쇠고 1937년 설명절도 쇠었다.

그 노인의 생일이 아마 음력 12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도 김정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양개에서 아들이 마련해 보내기로 한 원호물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밀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는 고집하였다.

나는 김정부 자신은 물론, 그 일가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은 자책감을 느끼였다. 70고령의 노인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산중에서 생일을 맞게 한다면 이보다 더 몰인정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적구사업을 하는 공작원들에게 부탁하여 백미, 육류, 술 등의 식료품들을 마련해 놓았다가 노인의 생일날 전령병에게 지워가지고 그가 있는 밀영으로 찾아갔다. 진수성찬은 아니였지만 그때 우리가 김정부를 위해 차려준 생일상은 인민혁명군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였다. 우리는 전우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때에도 그런 음식상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원들의 결혼식이란 밥 한그릇에 국 한사발이면 고작이였다.

김정부는 생일상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서 물었다.

≪음력설도 멀었는데 이건 갑자기 무슨 성찬이요?≫

≪오늘은 선생의 생신날입니다. 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선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는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노인에게 권하였다.

≪김선생, 이 엄동설한에 험한 산중에서 생일을 쇠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한 생일상이지만 성의로 생각하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술잔을 받아쥔 김정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유격대원들이 통강냉이죽을 먹으며 나라를 찾으려고 신고하는걸 보니 이 늙은 것은 하루 세끼씩 먹는 더운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소. 하물며 이 산중에서 나 같은 늙은이의 생일이 다 뭐요. 진정 장군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웨다.≫

≪아무쪼록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은 늙은이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소. 그러나 장군만은 옥체건강해서 기어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야 하오.≫

나는 그날 김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한 추위가 닥치고 산에 눈이 많이 내려쌓여 이번에는 우리가 김정부를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노인이 심산의 눈길에서 무슨 변고라도 만날 것 같아 그런대로 밀영에서 겨울을 나게 하였던 것이다.

김정부는 넉달 남짓한 밀영생활에서 받은 인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그것은 인민혁명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인 동시에 그가 오랜 세월을 두고 주시해온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집약적인 평가이기도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소이다. 그런데 **김**장군이 하는 공산주의는 판이하오. 같은 지주도 친일, 배일로 갈라서 친일만 치니 그런 공산주의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소. 왜놈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 하는데 그건 다 개수작이지.　　그 동안 유격대의 밥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소. 물론 결심도 새롭게 다졌구. 이제 내가 살면 몇 해를 더 살겠소. 하지만 여생을 값있게 바치겠소. 죽어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다가 죽을 작정이웨다. 이 김정부는 살아도 죽어도 **김**장군의 편이라는 것을 믿어주시오.≫

김정부는 밀영에 와서 우리의 적극적인 동조자가 되었다.

우리가 교양대상, 경제모연공작대상으로 삼고 데려온 지주들 중에는 농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주들도 있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그들을 보증해 나서고 좌상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휘어잡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반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좋은 영향을 주었다.

김정부는 인민혁명군의 후방사업을 도와 3,000여원에 달하는 많은 자금을 내놓았으며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물자들을 해결해주었다. 우리는 그가 사들인 천으로 부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솜옷과 군복을 다 해입히었다.

김정부의 아들은 지양개로 돌아간 다음 우리앞에서 결의한대로 유격대에 대한 후원을 통이 크게 하였다. 그는 밀영에서 내려가자마자 관청에서 받아온 소중에서 10여마리를 팔아 많은 돈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현당국에서는 지양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면서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그에게 신용대부형태로 수십 마리의 소를 내어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현청에 가서 보증서를 쓰고 좋은 소 20여 마리를 집으로 끌고오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자기 집에 있던 재봉기까지 원호물자로 실어보냈다.

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부터 적들은 장백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였다. 김정부의 집도 감시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김만두는 장백경찰서에 불리워가서 문초를 받았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 **김일성**부대와의 연계밑에 그들에게 많은 물자들을 넘겨주고 있다는데 그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방물자들로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넘겨주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김만두는 시치미를 뻭 따고 엄살부터 부리었다.

≪당신들은 마치 우리가 **김일성**부대와 무슨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연계라는 것은 있지도 않거니와 또 있을 수도 없다. 아무렴 공산군 부대가 우리와 같은 대지주를 끄나불로 쓰겠는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공산군 밀영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물건을 좀 가져갔는데 어쨌단 말인가. 나는 집재산을 다 들이밀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당신들이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김만두의 말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이상 더 심문하지 않고 그를 놓아주었다.

김정부부자는 이처럼 혁명군을 원호하느라고 전답과 역축을 많이 팔았다.

김정부는 독립군에 식량과 자금을 대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주가 되었는데 독립군을 위해 다 쓰지 못한 재력과 금력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모조리 소비하였다. 지주,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되고 있는 치부 그 자체를 단념하고 그 치부를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재산을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부의 애국심의 심도가 있고 항일혁명에 이바지한 공로의 높이가 있다. 나는 항일혁명 전기간 김정부와 같은 애국충정을 품고 그처럼 통이 크게 우리를 지원해 준 대지주를 별로 보지 못하였다.

훗날 밀영에 와서 그가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느낀 것의 일부가 ≪삼천리≫라는 잡지에 나와서 회견기 형식으로 발표되였다.

그 회견기의 일부 대목을 아래에 그대로 소개하려고 한다.

≪**김일성**≫이라 하면 국경일대에선 너머나 알니엇고 신문지나 본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리라.

총사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에 가까운 만인, 조선인 부하를 이리저리 통제해가며 습격싸흠. 완강히 군대와 저항해가며 산중소굴을 지휘해가는 그! 은근히 동의자를 규합하며 이일저일을 꿈꾸는 그! 그는 과연 어떤 인간인고?

김정부옹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수수꺽기의 인간을 회견하였든 것이다.후리

후리한 키, 우락부락한 말소리 음성을 보아 고향은 평안도인 듯. 예상보다 연령은 너머나 젊은 혈기방장의 30미만의 청년. 그는 만주어에 정통, 어대까지 대장이란 표적이 없고 복장, 식음에까지 하졸과 한 가지로 기거를 같이하며 감고를 같이하는데 그 감화력과 포용력이 잇는듯하게 보엿다.

≪노인님 추운데서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그는 이렇게 부드러운 인사를 들이고는

≪우리 젊은 몸이 따뜻한 자리 평안한 생활을 누가 싫여하겠오. 2-3끼씩 보리죽도 못얻어먹어가며 이 고생을 달게 하는 것은 다 그리되어 그리것이요. 나도 눈물도 있고 피도 있고 혼도 있는 인간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도라다니는구려.≫

그는 생각든바와는 좀 달느게 비적수괴답지 안케 음성도 조용하고 태도도 우락부락하지 안엇다.

그는 김옹을 여러 가지 말노 위무해가며 지금은 엄동이라 설중에 존보를 옴길 수 없고 새봄에는 꼭 노인님을 환가시킬터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부하간수에게 특별우대하기를 명하였다고 한다.

이 글은 혜산에 있던 박인진의 제자인 양일천이란 사람이 썼다. 김정부는 일본당국의 감시와 통제속에 있는 언론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비교적 솔직하고 대담하게 고백한 것 같다. 인민혁명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관제가 심한 때에 잡지 ≪삼천리≫가 이런 정도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김정부는 나의 권고대로 왕청하마탕에 이주하여 살다가 거기서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김정부를 만날 때 20대이던 나도 이제는 어언 팔순이 넘었다. 그러니 김정부의 그 당시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든 것으로 된다. 80고개에 오르고보니 유격대의 밀영지에서 그가 겪은 신고가 자기자신의 신고처럼 더 절실히 헤아려지게 된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노인을 공대하느라고 하였지만 그 정성에도 빈 구석은 많았을 것이다. 그를 더 따뜻하고 푸짐하게 대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나는 김정부 자신을 위해서는 천묘도 해주지 못하고 비석조차 세워주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백두산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대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돈이 있는가, 쌀이 있는가, 천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선배로서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에게 바치는 일생일대의 선물이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김정부와 같은 유산자, 대지주가 발휘한 양심과 애국적 장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가는데서 무시하지 못할 공헌으로 되었으며 우리의 위업에 대한 힘있는 지지로 되었다. 1920년대와는 달리 무력항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30년대에 와서 지주나 자본가들이 우리를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내대야 하는 모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부는 그것을 해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정부를 애국자로 보는 근거이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는 지금도 지주, 자본가들이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억대의 자산가들도 있다고 한다. 반동적인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애국적인 자산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들을 대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애국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제14장





장백사람들

서간도
물방아소리
이제순
남만의 전우들과 함께
≪3.1월간≫

■ 시기 : 1936. 9 ~ 1936. 12

1. 서간도



서간도 임강
5도구밀영지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백두산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두만강 북쪽의 여러 현들을 가리켜 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백두산서부의 압록강 이북지역은 서간도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서간도는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유서깊은 지역이다. 우리가 말하는 백두산근거지란 다름아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서간도와 국내의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서간도의 광대한 영역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건설한 백두밀영과 더불어 백두산근거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백두산근거지는 중국쪽만 염두에 둔다면 서간도근거지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근거지를 가리켜 장백근거지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적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칫하면 백두산근거지의 영역상 의미를 장백지방을 비롯한 서간도 일대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빚어낼 수 있다. 백두산근거지는 장백지방에 국한된 근거지가 아니라 백두산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송화강 상류와 압록강 북쪽 연안에 전개되어 있는 서간도 여러 현들과 국내의 광활한 영역을 포괄하는 대근거지이다.

1930년대 후반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역사에서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특출한 번성기이다.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수십 개의 밀영들을 건설한 후 서간도를 활무대로 하여 남호두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때부터 서간도는 교전회수가 가장 많고 총포성이 가장 높은 전장으로 되었다.

나는 서간도가 좋은 고장이라는데 대하여 한두 번만 말하지 않았다. 고장이 좋다고 하면 산천경개가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이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산천경개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고약하면 그런 고장을 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는 불모의 땅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씨가 고우면 좋은 고장이라고들 한다.

서간도에는 그 당시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화전농사를 지어 감자음식으로 구차하게 끼니를 굶때가는 가난한 우리 동포 이주민들은 서간도의 척박한 등판과 계곡들에 이전날 조국에 있을 때 자기네가 살던 고장의 이름을 붙여 풍산덕이

요, 갑산덕이요, 길주덕이요, 명천덕이요 하는 마을들을 만들어놓고 광솔불밑에서 단군시조나 ≪온달전≫이야기를 해가며 인생의 비탈길을 힘겹게 톺아가고 있었다.

지주들의 대부분은 중국사람들이였다. 간혹 조선인 지주들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는 그닥 많지 않았고 또 토지소유량으로 보면 부농이나 다름없는 소지주들이였다.

서간도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은 대체로 살길이 막혀 조국을 하직한 유랑민들과 일제가 우리 나라를 병탄한 다음 망국의 수치를 씻으려고 반일독립운동의 길에 오른 애국지사들이였다.

서간도의 화전민 부락들에 가면 그 전날 독립군 운동에 투신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던 사람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독립군의 노장인 강진건도 장백현에 와 살았고 홍범도, 오동진과 이극로도 관전, 무송, 안도 지방을 거쳐 여기에 자주 다니었다. 나의 외삼촌 강진석도 임강에서 백산무사단을 뭇고 활동하였다.

서간도에는 국내 여러 지방에서 농조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장백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 야학방을 꾸려놓고 민중계몽사업을 벌리었다. 이제순, 최경화, 정동철, 강돈, 김세옥 등 장백지방의 이름난 혁명가들은 대부분 야학선생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였다. 장백지방에는 국내에서 건너온 망명자들과 애국적인 유지들이 설립해 놓은 조선인 사립학교들도 많았다.

이 사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교양을 많이 하였다. 야학을 통한 군중계몽과 학교를 통한 청소년 교양은 서간도의 조선사람들속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배출케 하였다.

서간도 사람들이 민족성이 강하고 반일감정이 높았던 것은 그들의 불행한 생활처지가 가져다 준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지만 애국적인 사상가와 선각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부단한 계몽사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서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이 특별히 강하고 반일정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일대에 공작원을 한 사람만 파견하여도 쉽게 핵심을 장악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1930년대 초에 우리는 벌써 조선혁명군 출신의 공작원들을 서간도 일대에 파견하여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공작원들에 의하여 이 일대에는 우리의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호두와 동강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된 후 우리는 김주현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서간도일대에 내보냈다. 소부대성원들은 장백현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고장의 혁명운동실태도 요해하고 핵심도 장악하고 군중교양도 하면서 장차 주력부대의 정치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기초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서간도 일대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활동을 지원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서간도 일대를 빠른 속도로 쉽게 혁명화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좋은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는 고장에 준비된 공작원들이 들어가서 의식화활동을 할 때 군중의 조직화, 혁명화 과정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간도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할 때 얻은 또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었다.

우리가 서간도를 요해하면서 하나의 특징으로 본 것은 이곳에 만주국의 통치가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서간도 일대는 감자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지대여

서 세금을 받아들일만한 대상도 얼마 없었다. 장백현 같은 곳을 보면 현장 외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몇 명 정도 있을 뿐이었다.

무송에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보니 그 고장 통치당국에는 토지 조사나 등록 같은 것을 제대로 할만한 인물들도 얼마 없었다. 그러다보니 임자 없는 땅을 허가없이 부쳐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관리들이 개탄할 지경이였다.

무송지방 경찰업무의 특색은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 의하여 간신히 유지된다는 것이였다. 게다가 이곳 경찰들 중에는 포수출신들이 많았다. 사격솜씨만 보고 사람들을 고르다나니 그 경찰들은 하나같이 무식하였고 사람단속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 그런즉 통치행정이 자연히 무맥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장백에 와보니 그 고장 실태도 무송과 어슷비슷하였다. 이런 특성은 이 일대에서 군중을 비교적 쉽게 의식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서간도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박해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기치를 들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데 대해서 비난하거나 제동을 거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고 업신여기거나 차별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압록강 연안과 국내 깊이에서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항일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자유자재로 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우리는 자체의 당조직을 꾸리는데서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서간도쪽에서나 조선쪽에서나 독자적인 당조직 건설사업을 우리의 구상대로 통이 크게 전개해나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서간도 일대에는 우리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성시공격을 하고 싶으면 성시공격을 하고 당조직을 꾸리고 싶으면 당조직을 꾸리고 대부대를 이끌고 국내에 나가고 싶으면 국내에 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북간도의 유격근거지들에서 투쟁할 때는 사정이 달랐다. 그때는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가서 국내인민들을 잠깐 만나고 돌아와도 민족주의를 한다고 시비하였다. 우리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할 때 동만특위와 현당지도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중앙의 노선이라고 하면서 쏘비에트정부를 세우라고 내리먹이었다.

우리가 서간도 일대 인민들의 혁명화를 빨리 다그치고 또 서간도 인민들이 우리의 자주적인 투쟁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설 수 있게된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은 이 지방 사람들속에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가 없은 것과도 관련된다. 서간도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동경하였으나 러시아의 물을 얼마 먹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원동지방과 한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북간도 지방에는 러시아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치었다. 이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용어 가운데는 러시아식 말투가 많았다. 지금 함경북도 지방의 늙은이들이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는 것처럼 북간도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러시아식 말투를 본따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왕청, 훈춘, 연길, 화룡 일대의 사람들은 ≪소년단≫이니, ≪집단농장≫이니, ≪세포≫니 하는 말보다 ≪삐오네르≫니, ≪꼴호즈≫니, ≪야체이까≫니 하는 러시아어휘들을 입에 더 많이 올리었다. 유식을 뽐내느라고 일부러 러시아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러시아식 말투를 쓰는 것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과 세계에서 맨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쏘련 인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식 말투의 사용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소박한 공명의 표현으로도 된다고 볼 수 있었다.

북간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러시아노래를 한두 곡쯤은 다 흥얼거릴 줄 알았다. 그들은 러시아식 댄스도 잘하였다. 유격구의 공연무대들에는 두 손으로 장딴지를 번갈아 두드리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춤을 비롯하여 오늘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러시아춤이 많이 올랐다.

훈춘이나 왕청 같은 곳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입는 것과 꼭같은 루바슈까를 지어입고 다니면서 세계혁명의 승리나 프롤레타리아독재만세를 부르짖는 행세식 공산주의자들도 드문히 만나볼 수 있었다.

러시아식 말투를 쓰고 러시아식 노래를 부르고 러시아춤을 추고 러시아식 옷을 입고 생활하며 지구상의 첫 사회주의 나라인 러시아를 동경하는 과정에 북간도 사람들속에서는 세계에서 러시아가 제일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이라는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가 은연중 생겨나게 되었다.

북간도 사람들속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얼마간 있었다. 그 고장 사람들 중에는 중국혁명이 승리해야 조선혁명이 승리할 수 있고 중국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조선혁명도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식 말투만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중국식 말투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지방 사람들은 삽을 삽이라 하지 않고 ≪강차위≫라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간도 사람들은 중국식 말투나 러시아식 말투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고국에서 살 때와 다름없이 순수한 함경도말이나 평안도말을 하였다. 생활풍습과 예의범절, 식생활, 언어구사 등 모든 면에서 이 고장에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은 고유한 민족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우리는 백두산에 나온 후 서간도를 한바퀴 돌면서 자연지리와 주민동향을 요해하는 과정에 이 일대가 유격활동을 하는데서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다. 백두산지구에 혁명의 본거지를 꾸려놓고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내밀어보려는 우리의 결심은 서간도사람들과 접촉하고 서간도의 풍토에 몸을 잠그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것으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서간도진출은 우리의 역사가들과 인민들이 항일혁명의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놓은 장거였다. 그것은 칠칠암야와 같은 민족의 수난사에 눈부신 광망을 던져준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한 조선의 아들딸들은 칠성판에 오른 민족의 운명을 부둥켜안고 비탄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도탄에 빠진 겨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발을 탕탕 구르며 백두산으로 나왔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보자는 배심이었다.

그러고보면 우리는 ≪ㅌ·ㄷ≫을 무은 때로부터 장장 10년동안이나 백두산행을 준비한 셈이었다. 때가 되면 백두산에서 군사를 일으켜 독립성전을 벌이리라던 화전시절의 결심,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우리가 걸어온 수천수만리의 길에는 직선통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모든 길들은 하나같이 경사가 급하고 구배가 심하였다.

만일 우리가 ≪ㅌ·ㄷ≫를 무은 다음 화전에서 서간도로 직행하였더라면 늦어도 5-6일 안에는 백두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백두산으로 곧추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길림과 그 주변지역들에서 혁명역량을 꾸리는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활동무대를 동만으로 옮긴 다음에도 그 작업은 계속되었다.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백두산으로 데리고 갈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 군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하여 줄 인민의 바다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안도에서 유격대를 갓 조직하였을 때에도 나는 부대를 이끌고 백두산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안도에서 백두산은 지척이였다. 하지만 오르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를 수 없는 곳이 백두산이였다. 백두의 장엄무쌍한 위용에 비해볼 때 우리의 대오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단출하였다. 우리는 아직 갓 태어난 수리개에 불과하였다. 머리위에 창창한 대공이 펼쳐져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그 대공으로 날아오를만한 억센 날개가 없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자면 대오를 늘이고 힘을 축적해야 하였다.

백두산은 결코 마음만 내키면 아무 때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였다.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여기에 백두산이 가지는 참의미가 있었고 가지 못할수록 더 가고싶어진다는 여기에 바로 백두산이 가지는 참매력이 있었다.

백두산은 일본의 정예사단들과 군단들을 타승할 수 있는 혁명군의 강철부대들과 강철전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격구를 건설하고 사수하는 나날들에 일당백의 힘을 가진 강철부대들이 마련되였고 수십수백 번을 헤아리는 교전과정에 불사조와 같은 강철전사들이 자라났다. 카륜과 명월구, 다홍왜와 요영구, 남호두와 동강에서 천명된 진로를 따라 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노정에서 조선혁명은 백두산으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충분하게 축적하였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서간도로 나왔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항일혁명의 역사는 망국의 치욕을 안고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였고 백두산에서 일제를 쳐 이긴 과정이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남호두와 동강의 수림속에서 열린 회의들을 통하여 마련되였다. 이 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화제는 백두산으로만 쏠리였다.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백두산이 우리를 기다린다. 어서 빨리 백두산을 타고 앉아 당건설 준비도 힘있게 내밀고 조국광복회망도 통이 크게 펼쳐가지고 결사적인 전민항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리자!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민족재생의 종을 울려 조선사람 모두가 애국에 눈을 뜨고 구국에 몸을 바치게 하자. 신념을 잃고 주저앉은 인민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어 일으켜 세우자! 민족이산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단결하여 조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앞장서서 창조하자!

이것이 백두산으로 진출할 때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의지였고 신념이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백두산 마루를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 대신 그것을 조국의 대문으로 보았으며 조국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교두보라고 보았다. 백두산은 서간도와 국내와 북간도를 연결하는 삼각지점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였다.

백두산을 타고 앉는다는 것은 곧 국내인민들과 서간도의 애국지사들, 북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국내혁명운동과 서간도의 독립운동, 북간도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에서 일원화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백두산을 차지하면 조국땅을 발판으로 하여 일본과도 연계를 가질 수 있었고 산해관너머 중국본토 항일운동과의 연대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북간도를 거쳐 북부만주와 쏘련 연해주지방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과의 합작도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동만에서 유격구를 건설하고 사수할 때 얻은 여러 가지 교훈을 충분히 참작하여 서간도를 북간도에서와 같이 완전유격구로 꾸리지 않고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반유격구란 낮에는 적의 세상이지만 밤이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곳을 말한다. 서간도 일대의 십가장, 구장, 면장 자리들은 거의 다



선전화 ≪자위단원들의 반변≫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일본 군경들과 만주국 관헌들의 심부름을 해주는척 하다가도 밤이 되면 회의도 하고 야학도 하고 혁명군에 보낼 후방물자수집도 하고 원호미도 찧으면서 바쁘게 돌아갔다.

이제순, 이주익, 이훈, 최병락, 정동철, 이용술, 염인환 등은 반유격구의 실상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전날 동만당 조직의 지도자들은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만 만들어놓고 유격구 밖의 사람들은 쓴외 보듯 하였다. 지어 적통치구역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백색군중≫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였고 중간지대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양면파군중≫이라고 하면서 경원시하였다. 군중을 ≪적≫, ≪백≫으로 갈라놓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이 조치는 유격구에 대한 적들의 봉쇄를 오히려 더 용이하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는 혁명역량을 더 굳게 묶어세우며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사업을 방해하였다.

이런 뼈저린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서간도 전체를 반유격구로 만들고 이 일대의 모든 군중을 ≪적≫, ≪백≫의 차별이 없는 우리 사람들로 만들게 하였다.

집단부락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위단원들속에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언제인가 우리는 팔도강이라는 집단부락에 식량공작을 간 일이 있었다. 팔도강의 자위단에는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이 있었다. 우리 소부대는 이 공작원의 연락을 받고 혁명가요를 부르며 곤두총을 쏘면서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자위단의 무장은 해제하지 않고 공작원이 미리 마련해놓은 식량만 가지고 돌아왔다.

유격대가 철수한 다음 공작원은 일본인 경찰을 찾아가 유격대가 마을을 들이치고 식량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포대만은 점령하지 못하였다, 포대 때문에 자위단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놈들을 속여넘기었다.

서간도사람들이 이처럼 유격대원들에게는 속을 주면서도 일본군경들과 만주국 관헌들에게는 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우리의 뜻대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

서간도는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그때로부터 대부대선회작전에로 이행하던 시기까지 3-4년동안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동적으로 개척하고 장악한 기본적인 활동무대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시기 우리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다시금 동만으로 옮겨졌다. 소할바령회의 후 우리는 백두산근거지와 함께 쏘련 경내에 또 하나의 근거지를 가지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총괄적으로 고찰할 때 항일혁명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중심은 첫째는 북간도였고 둘째는 서간도, 셋째는 두만강 연안의 장고봉 일대였다. 이 지대들은 항일혁명의 승리를 보장한 중요한 활동거점이었다.

동만지구에서 활동할 때에도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는 서간도에 와서도 적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악랄해질수록 반유격구가 여러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였다. 서간도를 반유격구로 꾸리고 그 고장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거둘 수 있었던 성과의 비결이였고 승리의 요인이였다.

우리는 서간도를 반유격구로 꾸려놓은 다음부터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였다. 한 2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무장부대들이 서간도 일대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매일같이 적들을 답새기였다. 우리는 국내에도 소부대를 많이 내보냈다.

우리가 대부대로 활동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무장부대들로 분산하여 활동한 이유의 하나는 감자와 귀밀 같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해가는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500-600명 이상의 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벌써 200명 정도를 단위로 하여 움직이기만 해도 먹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있었다.

적들은 1938년경까지 동만과 남만 지방에서 집단부락 건설을 완료하였다. 집단부락화가 끝난 때로부터 혁명군의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로 되었다. 먹을 것을 얻자면 큰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동지들의 피와 식량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부대활동을 많이 벌려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나는 우리가 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동지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영향밑에 서간도 일대에서는 인민들의 반일투쟁정신이 고조되고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었다.

서간도에 나와 노인들과 담화를 해보니 장백사람들은 벌써 1932-1933년경부터 우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1936년초에 이제순과 이주익은 아편밀수업자로 가장하고 서간도에 나온 유격대 정치공작원 권영벽, 김정필 등을 만나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소식을 입수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격대 재편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장백지방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받았다고 한다. 그 소식은 곧 장백현 도처에 전파되었고 국내의 갑산공작위원회 성원들에게까지 날아갔다.

천상수에서 살고 있던 십가장 이용술은 벌써 1932년경부터 동료들에게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 **김일성**장군이 북간도에서 유격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때건 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에 나올게고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니 먹은 마음 변치 말고 계속 반일애국사업을 하라고 호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소식에 고무된 장백지방의 청년들은 일찍부터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 대덕수 마을에서 청년사업을 하던 강현민은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김**장군을 더는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겠다. 직접 찾아가서 입대하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간 다음 당신들이 우리 집을 잘 돌봐달라.≫ 고 부탁한 후 무송쪽에 들어와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우리가 장백으로 나온 다음에는 서간도 전체가 참군열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많은 청년들이 사령부에 찾아와 연줄연줄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보류하였다. 지하활동을 강화하자면 부득불 많은 청년들은 적통치구역에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집단부락이 생긴 다음에는 입대지망자들을 빠짐없이 부대에 받아들이였다. 토성 안에 청년들이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적들이 조직하는 강제부역에만 끌려다닐 수 있었다.

우리가 장백에 진출하여 대덕수에서 첫 총성을 울린 때로부터 서간도 인민들의

반일기세는 충천하였다.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일본군이 우리한테 무리로 녹아나는 것을 본 16도구의 노인들은 자고로 백성들을 못살게구는 놈치고 망하지 않은 예가 없으니 일본놈들이라고 해서 무사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야, 조선이 영영 망한줄 알았더니 다 죽지 않았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하며 환성을 올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서간도 일대에서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이게 되자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우리에 대한 전설을 연거퍼 만들어냈다. 천도교에 망라된 일부 노인들은 우리 부대의 위력을 선전하느라고 **김일성**대장이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일제놈들을 족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어느 경관이 주재소에서 전화를 걸 때 유격대가 나타나 총을 한방 쏘았더니 귀가 떨어져나가고 그놈이 달아나려고 할 때 또 한방 쏘았더니 다리가 떨어져나가더라는 그럴듯한 민화까지 만들어냈다.

서간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화들은 압록강을 넘어 국내깊이에까지 전파되었다. 압록강변에 나가 장백쪽에서 ≪혁명군이 지난밤 반절구를 쳤소!≫하고 소리지르면 그 소리를 강건너편에 있는 삼수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간도에서 활동할 때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서간도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후원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회상자료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서간도사람들은 혁명군에 대한 후원을 충실하게 하였다. 그들은 혁명군을 잘 돕는 것을 양심의 표징으로 삼고 있었다. 혁명군을 외면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안락만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운 것으로 낙인하였다.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다음부터 일제는 혁명군과 인민들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인민들의 지원이 혁명군에게 가닿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들은 조선사람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여도 공산주의 물이 들었다고 주시하였다.

서간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웃동네에 갔다오는 것도 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숟가락은 식구수만큼 가지고 있게 되어있었다. 한 가락의 여유라도 있으면 혁명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무시로 조사를 들이대어 남아돌아가는 숟가락을 모두 빼앗아가고는 하였다.

적들은 포고문을 내어 혁명군의 목을 잘라오면 50원의 상금을 준다고 하였고 산 사람을 잡아오면 그보다 더 많은 상금을 준다고 선포하였다. 나에게 더 많은 상금이 걸려있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들에 널리 소개되어 있다. 한때는 인민들을 시켜 산중에다가 귀순을 선동하는 삐라도 뿌리게 하였으며 유격대에 독약을 친 소금을 ≪원군물자≫로 보내게도 하였다.



(공출)의 명목밑에 놋그릇과 놋수저마저 앗아가는 일제

이것은 다 유격대와 인민과의 혈연적 연

계를 끊어보려는 술책들이었다. 서간도의 인민들은 이런 술책에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적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들은 인민혁명군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집단적인 원군운동을 더욱더 활발히 벌이었다. 적들이 유격대의 활동을 막으려고 마을마다 야경대를 조직하면 그 야경대에 망라된 사람들은 순찰을 하는척 하면서 집단부락에 배겨있는 지하공작원이나 인민혁명군들의 사업을 도와 보초까지 서주었다.

적들은 원군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마을들을 가차없이 불태워버렸으며 원군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늙은이들까지 다 잡아죽이었다. 지양개도 대덕수도 신창동도 그런 사품속에서 전소되었다. 대덕수 마을의 어떤 교원은 유격대에 만년필을 보내준 것이 ≪죄≫가 되어 총살당하였다. 하지만 서간도의 인민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굴하지 않고 원군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 공세앞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인민들앞에서는 자기네 군대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우리가 소덕수에서 적들과 접전하였을 때 인민들은 혁명군이 패했다고 생각하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적들이 마치 승전이라도 한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위세를 돋구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장에 널려있는 수십구의 일본군 시체를 보고서는 인차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적들은 자기편 시체를 운반하면서도 공산군의 시체를 나른다고 하였다.

우리가 12도구를 치고 철수한 직후 12도구와 그 주변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바빠맞은 적들은 혁명군이 방금 돌입했다가 철수한 북문입구의 일본군장교의 머리를 높이 매달아놓고 공산군우두머리를 죽였다고 광고하였다. 후에 그 장교의 처가 북문앞에 뛰어와서 장대기에 달린 머리를 보고 ≪아이고, 당신이 이 지경이 되다니 웬일이요?!≫하면서 통곡을 해서야 연극이라는 것이 들장나게 되었다.

이런 희비극은 한두 번만 연출된 것이 아니였다. 이와 비슷한 연극은 무송에서도 꾸며졌고 임강에서도 꾸며졌다.

어느 때인가 정안군 놈들은 일본 상전들한테서 상금을 받아먹으려고 무송과 임강 시가지에 각각 어떤 알지 못할 사람의 머리와 ≪**김일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싸창을 걸어놓고 우리 부대를 완전소멸하였다는 요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임강과 무송에서 함께 소학교를 다닌 나의 동창생들과 친지들이 현장에 가보고나서 정안군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너절한 기만극도 파장이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고 그 사령관도 살아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만 강하게 해주었다.

적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서간도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킬 수 없었으며 인민혁명군에 대한 동경심과 원군의식을 압살할 수 없었다. 원군사업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탄압이 심할수록 나날이 더 강화되었


유격근거지를 (초토화)하기 위하여 날뛰는 일제침략군



원호물자를 가지고 온 인민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다.

서간도 인민들의 원군운동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서술하겠기에 여기서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자료들과 인물들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서간도의 마을들을 지나갈 때면 인민들이 새까만 감자엿을 가지고 나와 대원들의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하였다.

서간도 사람들은 집단부락이 건설된 다음에도 유격대를 잘 도와주었다. 일제가 인민들을 집단부락에 모조리 몰아넣고 밭면적과 수확량을 따져가며 식량에 대한 통제를 심하게 하는 형편에서 그들은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감자수확철이 와도 밭에서 넝쿨만 걷어내고 감자는 캐지 않았다. 유격대가 캐다 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냉이는 수림속에 만들어놓은 창자에다가 오사리채로 넣어두고 유격대가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였다. 강냉이를 오사리채로 보관하면 썩지 않는다. 그들은 콩도 가을을 하지 않고 혁명군에 알려주어 가져가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겨우내 비지를 해먹었다.

밭에 있는 곡식을 가을하지 않고 내쳐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유격대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서간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함경남도 경찰부장이 혜산에 내려와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는 내가 이번에 이 일대를 시찰해보았는데 서간도에 문제가 있다, 첫째로 서간도 사람들은 다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서간도에서 활동한 유격대의 인원수는 적어도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주었다는 쌀은 서말밖에 안된다, 가령 유격대가 300명이 온다고 해도 하루에 쌀을 여러 말 먹겠는데 왜 서말만 주었다고 보고하는가, 이것은 서간도 사람들이 유격대와 내통한다는 증거이다, 둘째로 서간도 사람들이 적화되었다, 서간도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온 사람 혹은 비적을 보았는가고 물

어보면 그들은 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사람을 못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혁명군을 보았는가고 하면 보았다고들 한다. 이것을 보면 서간도 사람들이 유격대를 자기 군대로 알고 있고 적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로 서간도는 유격대의 상시적인 활동근거지로 되고 있다. 서간도에 그전에는 독립군들이나 비적들이 여름이 아니면 가을 같은 때에 와있다가 겨울이 오면 다른 곳으로 가고는 했는데 **김일성**부대는 여기서 겨울에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이 일대에 집단부락을 설치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유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반증으로 되며 인민이 혁명군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였는가를 입증하는 산 자료로 된다.

서간도의 치안유지가 얼마나 심한 곤경에 빠졌던지 적들은 공산주의, 삼민주의는 어느것이나 민중의 진로를 비치는 등대처럼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비나 반만항일비의 영향하에서 민중을 탈취하고 그들의 비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목표보다 더 뛰어난 목표와 그에 이르는 명확한 길이 명시되고 민중적 정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공비가 민중을 흡인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게 또한 원활하게 민중을 동원하여 만주국의 건국이상을 향하는 전진과정이 밝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모든 민중을 흡인하는데 충족되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지도방침에 의한 정치적 , 경제적, 사상적, 사회적 국민운동의 특수한 활동분야로서의 대비적공작만이 훌륭히 정치, 사상비의 근간을 찌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고 비명을 질렀다.

≪공비≫라는 말은 인민혁명군에 대한 비칭이며 ≪반만항일비≫란 괴뢰만주국을 반대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군사역량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혁명군을 소탕하고 혁명군과 인민과의 연계를 끊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모든 시도들은 죄다 허사로 돌아갔다.

일제의 ≪토벌≫에 마을이 전소된 후 지양개의 농민들은 역축의 부족으로 막심한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 당장 농사도 짓고 이와실이도 해야겠는데 그들에게는 부림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지양개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현공서와 교섭하여 부림소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 교섭을 위해 이씨 청년을 대표로 파견하고 호위성원으로 몇 명의 청년을 붙여주었다. 아마 그가 마을에서는 제일 교제술이 높고 말주변도 좋았던 모양이다.

이씨 청년은 현공서에 당도하자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공산군과 내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일본군대는 똑똑한 증거도 없이 우리 동네를 하루밤사이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데 있는가. 현공서는 도대체 눈을 뜨고 뭘했는가. 말끝마다 우리 부락을 ≪양민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토벌대≫가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도 왜 막지 못하였는가. 이제는 ≪양민촌≫이고 뭐고 다 튀었다.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밥도 먹을게 아닌가 하고 일장 푸념질을 하였다.

그 넉두리가 얼마나 크게 심금을 울려놓았던지 현공서에서는 지양개 농민들에게 20여마리나 되는 소를 대부해주었다.

이씨 청년은 교섭이 뜻대로 되자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하는 유격대원들에 대한 생각이 불시에 떠올랐던 것이다. 밭갈이를 하지 못하고 이와실이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군에 이 소들을 보내어 식량보탬을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궁냥이 떠오르자 그는 현에 있는 지하조직을 통해 유격대에 연락을 보냈다. 자기네가 현공서에서 대부소들을 받

아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니 매복을 했다가 자기네 일행을 ≪습격≫해서 그 소들을 밀영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하조직의 연락을 받고 현과 지양개 사이의 길목에 매복조를 파견하였다. 그 매복조가 연극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였다. 그때 현공서에서는 그가 대부소들을 무사히 끌고 갈 수 있게 위만군 무장경비인원들까지 달아보냈다. 물론 그 위만군 호송병들은 유격대의 습격을 면치 못하였다.

호송병들의 무장을 해제한 유격대원들은 그들이 보는데서 일부러 이씨 청년을 비롯한 지양개의 청년들에게 포승을 지우고 네놈들은 일본과 만주국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악질들이고 반역자들이니 모조리 총살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 전원을 밀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밀영에 들어온 지양개마을의 청년들은 모두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일석이조의 수확을 얻은 셈이었다.

이것은 서간도시절의 군민관계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일화에 불과하다.



19도구 구장
조국광복회
특수회원 이훈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땅에 진출한 첫날부터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하여준 원군운동의 대하속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계급 뿐 아니라 교조에 물든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투쟁대상이라고 보면서 적대시하던 계층들까지도 합류되었다.

장백현 19도구에는 조덕일이라는 중국인 대지주가 있었다. 삼촌이 죽으면서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30대에 일약 대부호가 된 사람이였는데 토지를 80여 정보나 가지고 있었다. 그 지대에 있는 절반이상의 농토는 다 그의 소유였다. 그는 첩을 여섯이나 두고 있었고 순사들과 결의형제를 뭇고 있었다. 교조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타도대상이라고 할만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장점이 좀 있다면 민족주의사상이 강한 것이였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인민혁명군이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일만군경들을 쳐갈기자 조덕일은 혼비백산하여 첩들을 거느리고 장백현 소재지로 떠나가버리었다. 집과 토지는 마름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이 지주를 구장인 이훈이 장악하였다. 그가 조덕일을 쟁취하게 된 경위가 극적이었다.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밀영을 꾸리자 후방일군들을 시켜 1937년 설준비를 하게 하였다. 나는 백두산에 나와서 첫 번째로 맞는 이 설명절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이해에는 대원들도 설을 몹시 기다리었다. 부대의 후방사업을 책임진 김주현은 물자를 구해들이느라고 서간도의 마을들을 발이 닳게 돌아다니었다.

장백에서 벼농사를 하는 유일한 고장은 19도구의 압록강 유역뿐이었다. 그러나 논농사를 해도 벼는 지주들의 쌀창고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1937년의 설식탁을 푸짐하게 해줄 수 있는 막대한 식량과 고기, 사탕의 예비가 조덕일에게 있다는 통보가 정치공작원 지태환으로부터 김주현에게로 날아갔다. 김주현은 그 통지를 받자 이제순과 짜고 즉석에서 조덕일에게 인민혁명군의 명의로 된 통고장을 썼다.　　우리는 당신이 중국사람으로서 민족적 양심을 다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친일주구들의 재산을 제외한 모든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당신의 재산에 사소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 당신은 응당 우리의 이 정당한 처사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대에 보답하려면 자진하여 혁명군을 도와야 한다, 언제 무엇으로 우리를 원조하겠는지 속히 회답하

라고 하였다.

그 통고장을 받은 날부터 조덕일은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침상에 드러누어 고민하였다. 통고장이 요구하는 대로 인민혁명군을 도와주자니 일본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고 그 요구를 묵살해 버리자니 혁명군의 징계가 두려웠다. 그는 애첩들이 침상옆에 나타나 아양을 떨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조덕일의 첩들은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떨었다. 이런 때에 이훈이 이제순의 지시에 따라 조지주의 기맥을 짚어보려고 현소재지로 행차하였다. 거리에서 구장을 만난 지주의 애첩 하나가 우리 영감이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데 구장님이 우리 주인하고 같이 점심이나 자시면서 영감을 위로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일이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한 이훈은 못이기는 척 하고 지주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조덕일은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이훈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는 이훈에게 혁명군이 보낸 통고장을 내보이면서 ≪동생, 이 일을 어쩌면 좋소?≫하고 물었다.

이훈은 통고장을 얼추 훑어보고나서 조덕일의 손을 잡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혁명군이 형님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몇 달 전에 밀영에 잡혀간 일이 있는데 혁명군이 비적과는 다르더라,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치지 않으니 형이 한턱 크게 쓰면 혁명군도 감심해서 형을 보호해줄 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조덕일은 그 말을 듣자 그까짓 재산이나 주자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데 눈이 무서워서 그런다, 발각되면 나도 황천객이 될텐데 어찌 내가 주저하지 않겠는가, 구장이 명처방이 있으면 대달라, 나는 구장이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재산이 아깝지 않다면야 바치고볼게지 뭘 그다지나 걱정이시유, 노형이 혁명군앞에서 최선을 잘 해야 나도 19도구에서 다문 몇 해라도 구장질을 더하고 농사꾼들도 편안할 게 아니오.≫

이훈이 이런 말까지 하자 조덕일은 혁명군에 짐을 보내는 것은 구장에게 맡기니 아무쪼록 사달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조덕일에게 원호물자를 보내기로 결심하였는데 통지를 받자 나는 지체없이 20여명의 대원들을 19도구에 내려보냈다. 그때 그들은 수십대의 발구에 600여말의 쌀과 여러 마리의 돼지 그리고 많은 사탕가루를 싣고 밀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조덕일은 그 후에도 우리에게 여러 번 상당한 양의 원군물자를 보내주었다.

서간도를 혁명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은 장엄한 원군운동 대열속에서는 일본경관출신들도 있었고 공사장의 십장들도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재생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삼수군 어느 주재소의 한 순사는 자기 주재소의 수석과 차석을 처단한 다음 그들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임철공사장과 채벌장의 일부 십장들은 우리 군대가 가면 마치 강제에 못이기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창고문을 열어제끼고 후방물자들을 와락와락 꺼내주었다. 20도구 산판의 어떤 십장은 채벌노동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들과 근처의 산림대원들에게 염전염군사상을 고취하는 ≪친일병자탄가≫라는 노래까지 노골적으로 보급하였다.

나는 원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서간도의 지식인들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서간도의 지식인들이란 대체로 교원들이었다. 그 교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나의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종산사립학교에 있던 강영구이다.

그 선생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자기는 일제의 교육시책을 집행하는 하수인으로서 장군님을 뵈올 면목이 없다고 하였다.

≪일제놈의 교육시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면 안됩니다. 이국 땅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내 나라 아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비록 할 수 없이 일제에게 복무한다 하더라 도 민족적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독립투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위안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컴컴한 얼굴빛으로 나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만 하였다. 내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면 속이 탈 때가 많겠다고 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왜놈교육을 하는데 애가 탈 지경으로 수고할 멋이야 있겠는가고 하였다.

그 날 나는 마을을 철수하면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였다.

≪내가 선생에게 부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생자신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조선의 얼을 지키게 하려면 선생들 자신이 조선의 얼을 지켜야 합니다.≫

강선생은 나의 이 부탁을 명심하였다. 우리가 마을을 떠난 후 그는 인차 조국광복회에 가입하여 활약하였으며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를 열성적으로 도왔다. 등사기를 보내라면 등사기를 보내고 천을 보내라면 천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라면 식량을 보내주었으며 직접 원군물자를 지고 밀영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지어 우리가 준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도청해서는 우리에게 적정을 수시로 통보해주었다.

교육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그는 해방된 조국에 들어와서도 교단에 서서 후대들을 가르치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말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어느 날 나는 평양의 어느 고급중학교에서 교장을 하는 그 선생이 학생들을 어루만지기만 하면서 생산노동이나 건설현장에 내보내기를 주저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내가 그 선생을 불러 그게 사실인가고 묻자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선생이 교장으로 사업하는 학교에서 그런 폐단이 존재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서간도 시절을 벌써 잊으신 게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우리의 부모들을 지난날 왜놈들의 치하에서 비록 손톱이 닳아빠지도록 고생을 해왔지만 아이들만은 창밝은 교실에서 공부를 편안히 시켜보려는 것이 평생소원이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심정은 물론 이해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이들을 일도 시키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어루만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 아이들은 고생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 등짐도 져보고 목도도 메보고 호미질도 해보고   그래야 아이들이 땀값을 알게 되고 노동자, 농민들을 존중하게 되며 사회주의 건설을 잘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자면 후대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서간도 사람들의 투쟁정신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엄하게 말해주었다.

격전의 총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잊을 수 없는 땅에서 서간도 인민들은 우리와 함께 혁명적인 군민관계의 초석도 마련해놓았고 천도교도들을 비롯하여 애국적인 자산가와 청년학생, 지식인 등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기반도 다져놓았으며 국내 인민들과 혁명가들과의 연계를 위한 통로도 개척해놓았다. 서간도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의 페이지들에 당당히 오를 수 있는 특출한 애국자들과 인민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그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 서간도 사람들의 투쟁정신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억세게 고동치고 있다.

2. 물방아소리



장백의 물방아들은 밤낮으로 유격대 원호미를 찧었다

백두산의 여러 지맥들을 끼고 태어난 서간도의 농촌부락들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힘차게 굽이치는 골개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동력으로 하여 낟알을 찧는 물방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달밝은 깊은 밤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 물방아소리들은 얼마나 쩌릿한 향수를 자아내고는 하였던가. 조선이주민들의 눈물을 찧던 장백의 물방아들은 우리의 백두산 진출과 더불어 그 용도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1936년 가을부터 장백사람들은 그 물방아로 수없이 많은 낟알을 찧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장백땅에 걸어놓은 수십 개의 크고작은 물방아들 중에서 원군사업과 인연이 없는 물방아는 거의나 없었다. 물방아는 전인민적 원군사업의 상징으로 나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가 백두산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백지방에서 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맨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16도구 덕수골 사람들이였다.

우리가 장백에 나와서 처음으로 들린 마을은 신창동이였다. 신창동을 포함하여 16도구골 안에 있는 마을들을 통털어서 덕수골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들린 웃신창동은 두 개의 골개물이 합쳐지는 합수목밑에 자리잡은 40여호 잘되는 벽촌이였다. 그곳에도 물방아가 있었다.

신창동 마을사람들은 그 날 우리 인민혁명군에게 물방아로 메밀을 찧어서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였다.

16도구 덕수골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원군운동은 그 후 왕가골, 약수골, 지양개골을 비롯하여 온 서간도땅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며칠 건너 한 번씩 숱한 사람들로 무어진 원호물자 운반대가 쌀과 천들을 이고지고 수림속 밀로를 따라 우리 밀영으로 들어오고는 하였다.

이에 급해맞은 적들은 장백일대에 무력을 증파하고 인민들을 들볶았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만 보이면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죽이였다.

≪공비에게 식량과 금품을 공급하거나 그와 연락을 취한 자는 통비로 인정하고

즉시 총살함.≫
이것은 당시 장백현내 도처에 나붙었던 서슬이 퍼런 경고문이였다.
백두산 부근의 국경마을 사람들은 지하족 한 켤레, 성냥 한 갑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영들에는 인민들의 원호물자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인민혁명군에 대한 장백인민들의 원호사업은 자기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사업이였다. 그들은 혁명군을 돕는 길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원군을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칠팔월 염천과 동지섣달의 폭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원군운동에 떨쳐나섰던 장백사람들의 군상을 돌이켜볼 때마다 내 눈앞에는 영화동 촌장이며 조직원이였던 이을설의 아버지 이병혼의 강직하고 소박한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들 3형제는 모두 장백지방 원군운동의 선구자들이였다.
1936년말 우리가 곰의골 밀영에 있을 때 이병혼은 영화동 혁명조직에서 준비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왔다.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원호물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인상깊게 기억되는 것은 보통 버선보다 솜도 많이 두고 기장도 곱절이나 긴 통버선이였다. 짐짝속에서 버선 한 켤레를 뽑아내어 발에 대보니 무릎에까지 와닿았다.
나는 영화동 여인들의 알뜰한 솜씨와 지성에 못내 감탄하였다.


혁명화된 왕가골

≪이것 참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하자 이병혼은 얼굴을 붉히였다.
≪장군님, 이 장백땅이라는데는 눈이 깊습니다. 겨울에 발건사를 잘못하면 고생이 막심합니다.≫
첫 대면이였으나 나는 그가 매우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차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짐군들을 이끌고 밀영에 와서도 인솔자라는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뒤에 서서 조심스레 나를 쳐다보고는 하였다.
내가 버선을 놓지 못하고 이모저모로 살펴보고 있을 때 누구인가 쌀배낭 아구리를 터쳐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이것 보십시오. 일본천황도 이런 보리쌀은 구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설같이 하얗고 정갈한 보리쌀! 이것이 정녕 옥백미가 아니고 보리쌀이란 말인가. 쌀을 얼마나 정성껏 찧었으면 이다지도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울까.
≪아버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보리쌀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찧었기에 이다지도 새하얗습니까?≫
≪네 번 찧었습지요.≫
≪아니, 보리쌀이야 두 번만 찧어도 밥을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 아낙네들이 원래 그런 이악쟁이들입니다.≫

이병혼은 이번에도 공로를 마을 아낙네들에게 밀어버리였다. 이 쌀을 찧느라고 수고한 것은 남정들이 아니라 여인들이다. 쌀은 공력만 들이면 찧을 수 있다. 네 번이 아니라 열 번도 찧을 수 있다. 혁명군을 위한 일인데 그거야 못하겠는가. 곤란은 밀정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쌀을 찧는 집이 어느 집이고 그 집에서 무슨 쌀을 찧는다. 찧은 쌀은 어디로 날라가는가 하고 감시하는데 있다. 그 감시를 피하느라고 부녀회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 그들은 혜산장에 가서 혁명군에 보낼 천을 사서는 허리에 둘러감거나 기저귀처럼 접어서 아이들에게 채운다. 여자들은 장마당 출입을 할 때마다 우정 아이들을 업고 간다. 눈치를 모르는 늙은이들은 고생을 사서한다고 사설질이다. 그래도 여자들은 그냥 아이들을 업고 다닌다. 그래야 천을 감출만한 구실도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을설

이병혼은 남정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여성들의 수고에 대해서만 입에 올리었다.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키었다. 나는 배낭속에서 보리쌀을 한줌 움켜쥐고 냄새를 맡다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일본천황은 높아도 뿌리없는 나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튼튼한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이니 우리가 받는 이런 좋은 쌀을 천황이 어찌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영화동인민들이 벌인 원군운동의 전모를 우리는 이듬해에 이을설을 통하여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 해에 그는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그도 아버지처럼 자랑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수고와 관련된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언이라고 보아야 할지 한 가지만은 말하였다. 어머니가 배낭천을 살 돈을 마련하느라고 산딸기를 따던 이야기였다.

영화동에는 농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집들이 많았다. 이을설이네 집도 그런 집이었다. 그러나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혁명군을 지원하는 일에서만은 남들에게 뒤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산딸기를 따고 가을에는 머루, 다래를 따서 혜산장에 가서 팔았다. 어머니가 산열매를 따다 고를 때마다 이을설의 어린 동생들은 어머니의 곁에 빙 둘러앉아 군침을 삼키고는 하였다. 자식들의 심정을 잘 아는 어머니였건만 그들에게 딸기 한 알 선뜻 쥐어주지 못하였다. 아이들이 딸기를 먹으면 혁명군에 바치는 지성이 그만큼 모자라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병혼은 밀영에서 돌아가자 자식들에게 나를 만나보았다고 자랑하였다. 이을설은 그 말을 듣자 당장 유격대에 찾아가 나의 수하에서 싸우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군님 수하에 있는 군대들은 다들 늠름하고 총도 잘 다루는데 베잠뱅이에 호미자루 밖에 모르는 네가 어떻게 감히 혁명군이 된단 말이냐. 좀더 수양을 하다가 가거라.≫

이병혼은 즉석에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리고 아들을 조국광복회 분회조직에 넣어 단련시키었다. 이듬해 여름에 그는 아들과 조카를 유격대에 보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원군정신의 최고표현이었다.

이병혼은 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킨 후에도 혁명군에 대한 후원을 꾸준하게 하였다.

나는 1937년 늦봄에 천상수에서 다시 이병혼을 만나보았다. 그때 그가 가지고 온 물감들은 보천보전투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에 장식할 꽃과 깃발을 물

들이는데 요긴하게 썼다.

정녕 장백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원호물자들에는 그 어느 것에나 눈물겨운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당시 화전농사를 하는 집들에서는 4명의 노력으로 1년에 기껏해야 20단내지 30단(한 단은 20말)의 감자소출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농마 한 말을 내자면 여라문 말의 감자를 갈아야 하였다. 그때 농마 한 말 값이 60전 내외였다. 농마 한 말을 팔았대야 지하족 한 켤레값도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술이나 엿 같은 것을 만들어 그것을 돈으로 전환시키었다. 수중에 돈이 있어도 물품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월이어서 그 한점한점의 원군물자를 마련하자면 실로 많은 노력과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 가족을 혁명에 바치고 그 뒤바라지를 한 염보배

장백현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에서도 별의별 물품을 다 장만하여 산으로 보내주었다.

장백현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치고 원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의 없었다. 지팽이를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노인들까지 산에 들어가서 피나무 껍질을 벗겨왔으며 밤을 새워가며 우리에게 보낼 신을 삼았다. 부녀자들은 주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에 불도 피우지 못하고 번갈아 보초를 서가면서 방아를 찧었다.

원호물자 운반조직은 대체로 촌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백현촌장들은 거의 다 조국광복회 분회장, 지회장들이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맡아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였다. 당시 우리 혁명군의 후방부관들은 촌장들앞으로 일부러 물자조달을 요구하는 위협적인 공문을 띄우고는 하였다. 촌장들이 혁명군을 위한 원호사업을 조직하더라도 적들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공문을 받은 촌장들은 위협에 못이기는 척 하면서 비밀리에 원호사업을 조직하였다.

마을에서 원호물자 운반대가 떠나는 날이면 인민들이 저저마다 달려나와 물자를 지고 가겠다고 자원해 나섰다.



강진건

우리 대원들은 장백현의 인가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들려 도움을 받은 집들 중의 하나가 염보배어머니네 집이였다.

염인환의 말에 의하면 덕수골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은 강진건이라고 하였다. 그가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일가친척 몇 사람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16도구골 안에 마을을 꾸렸다는 것이다.

염보배는 강진건의 사촌제수였다.

염인환은 염보배 내외가 강진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반일사상이 강하고 대가 바르다고 하였다.

그런 연고로 하여 나는 대덕수에 갔을 때 염보배 내외분을 찾아보게 되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그때 감자를 버무린 귀밀보리밥을 차려놓고 어쩔줄 몰라하던 보배어머니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밤중에 들려도 곧 밥을 지어줄 수 있도록 늘 커다란 함지에 귀밀쌀과 보리쌀을 불궈놓고는 하였다. 염보배어머니가 지은 귀밀보리밥은 부근부근하고 구수해서 맛이 참 좋았다.

밤에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주구들이 수상하게 여길까봐 바깥주인 강인홍은 굴뚝을 낮추고 밀짚단을 씌워 연기가 밑으로 흩어져나가게 하였다. 그 집

내외분은 다 마음이 비단같은 사람들이였다.

덕수골 사람들은 모두가 살림이 째지게 가난하였지만 혁명군의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하나의 큰 낙으로 여기였다.

적들이 하루아침에 대덕수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놓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북간도의 ≪피바다≫를 연상케 하는 참변이였다. 불탄 재를 쓸어내고 구들장 위에 초막을 세우면 적들이 또다시 달려들어 불을 질렀다.

염보배어머니네는 할 수 없이 신창동 장마자로 자리를 옮기였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염보배 어머니를 만나러 장마자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물방아소리가 들려왔다. 나에게는 그 소리가 좋은 징조로 생각되였다. 왜냐하면 물방아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고 원군을 최상의 낙으로 여기는 인민이 있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조선의 넋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물방아소리는 마치도 원군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는 인민들의 장엄한 북소리처럼 들리였다.

나는 전령병을 데리고 먼저 물방아간으로 가보았는데 거기서 염보배어머니를 만나게 되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무릎을 꺾으며 흐느껴 울었다. 대덕수를 떠나온 어머니의 울음속에는 너무도 큰 설움이 차있었다.

≪어머니, 그만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이겨내야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위로하였다.

알고보니 그 물방아는 어머니네가 와서 새로 걸어놓은 것이였다. 물방아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귀틀집이 어머니네 집이였다.

그 날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가서 닭을 구해다 육수물을 만들고 닭고기꾸미를 메워 농마국수를 말아주었다. 그러고도 대접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면서 미안해하였다.

사실 나는 장백현 마을에서 무시로 맛본 농마국수가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귀한 손님을 맞아 연회를 차릴 때면 언감자국수나 농마국수를 별식으로 내놓곤 한다.

그날밤 어머니는 물방아소리가 나의 잠을 방해할까봐 퍼그나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사색도 잘되였다.

어머니네가 장마자에 와서 물방아를 새로 걸어놓은 것은 자기 일가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원군사업을 목적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 장마자라는 두메산골도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고장이 아니였다. 적들은 그 깊은 산중에도 촉수를 뻗치였다. 이도강경찰들이 갑작스레 달려들어 물방아를 마사버리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다. 염보배어머니네집 사람들은 사흘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반주검이 되어 소발구에 실려 돌아왔다. 매를 제일 많이 맞은 강노인은 중태에 빠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혈에 특효가 있는 곰열을 얼마간 보내주었다. 그 집 식구들은 우리가 보낸 곰열을 쓰고 다들 일어났다고 한다. 제일 상처가 심했던 강노인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원군사업에 달라붙었다.

목수재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산에 가서 박달나무를 찍어다가 마사진 방아채를 수리하였다. 자식들은 몸을 더 추세운 다음에 일손을 잡으라고 아버지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귀에 그런 말이 곱게 들릴 리가 만무하였다.

≪무슨 소리들을 하느냐? 지금 팔순되는 영감, 노친들도 산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돕겠다구 초신을 삼는다, 버선을 깁는다 극성들인데 이만큼 오륙이 성해가지구 낮

잠만 자서야 되겠느냐.≫

장마자의 물방아는 다시금 원호미를 찧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강인홍노인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 강종근을 혁명군에 받아들이였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두고 늘 보살펴주었다. 그런데 강종근은 그 후에 그만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17도구 평강덕에 있는 김세운이네 집도 혁명군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훌륭한 가정이였다.

김세운은 두 동생과 아들딸 4남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혁명투쟁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준 성실한 혁명가였다. 마국화의 애인 김세옥은 그의 동생이고 항일혁명투사 김익현은 막내아들이다. 맏아들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 그는 입대하자마자 간삼봉전투에도 참가하였고 후에는 국내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나는 그가 15년형을 받고 권영벽, 이제순 동무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1945년 봄에 학살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김세옥

혁명군의 밀영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산간오지에 있는 김세운의 집으로는 유격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국내에서 밀영을 찾아오는 혁명가들도 이 집에서 하루밤씩 묵어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의 집은 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무전숙박을 하는 ≪여인숙≫이였다. 그는 중국인 지주의 땅을 얻어 부치면서 거기서 생기는 농량을 몽땅 혁명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바치였다.

권영벽도 이 집에 거처를 두고 장백현 내의 당사업을 지도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김세운에게 ≪따스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따스포≫란 ≪따스프≫라는 중국말에서 전이된 것인데 취사원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런 별명을 들을만큼 손님을 많이 치르었다. 그 집 가마는 보통가마보다 다섯배쯤 컸다. 그처럼 큰 가마에다가 밥을 지어서는 큰 박죽으로 푹푹 퍼서 혁명군들을 대접하였다. 손님이 많은 날은 김세운이도 부엌에 내려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여인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그는 심한 동상으로 발뒤축이 다 문드러져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지만 쌀가마니를 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방아간을 드나들었다.

≪내가 발뒤축만 빠져나가지 않았던들 좀 늙은대루 유격대에 들어가 군수관쯤은 할 수 있는건데…≫

그는 손님들에게 자주 이런 농담을 하였다.

소작농의 처지에서 하루에 한가마씩 밥을 지어 정치공작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니 과연 그 집에 무슨 낟알이 남아 있었겠는가. 아마도 김세운 자신은 끼니를 번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을 것이다.


김익현

혁명을 지원하는 장백사람들의 헌신성은 참으로 비길 데 없는 것이였다. 그들은 가산을 다 털면서까지 열정적으로 혁명군을 지원하였으며 정황이 요구할 때에는 목숨까지 바치었다.

1937년 5월에 이도강으로 오가는 노상에서는 젖먹이 어린이와 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서 유격대 부상병을 몰래 치료해주다가 체포되었던 평범한 농촌 여성이였다. 일본군 헌병놈이 달려들어 치료중에 있던 부상병과 여인을 본부

로 압송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집을 떠날 때 품속에 슬쩍 간수해가지고 온 빼또칼로 헌병장교의 얼굴을 난도질한 다음 장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아냈다. 그 덕으로 혁명군대원은 구출되었다. 여인은 부상병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권총을 틀어잡고 반 시간 가까이 헌병장교를 지키었다. 그러나 실신상태에서 깨어난 헌병장교가 여인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고 그와 그의 아이를 군도로 무참하게 찔러죽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얼마 후 항간에 새어나왔다.



주경동의
빼또칼영감 김용석

어느 날 밤 여인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헌병대놈들은 큰 변이라도 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밀정들이 24시간 동안 줄곧 감시하던 시체가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분명 이도강이나 그 근처의 어느 혁명조직에서 기회를 보다가 잽싸게 시체를 빼내었을 것이다.

장백현에 가면 주경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이름난 혁명가들이 많았다. ≪빼또칼 영감≫ 김용석도 주경동에서 투쟁하였다. 그도 위에서 이야기한 그 이름모를 여성처럼 빼또칼로 포승을 끊고 자기를 호송해가던 일본군장교놈을 찔러눕힌 일이 있었다. 김용석이 유격대에 입대하여 군수관으로 복무할 때 전우들은 그에게 ≪빼또칼 영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때부터 그 별명은 김용석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가 말년을 보내던 평양의 아파트 아이들도 그를 ≪빼또칼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빼또칼 아주머니≫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였다. 여인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부상병도 분명 대오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 모양이었다.

언제인가 나는 주경동 지하조직원인 지봉팔노인의 집에 두 대원을 맡긴 적이 있었다. 속병으로 앓고 있던 김용연과 부상을 입은 신입대원이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봉팔 노인은 그들을 두달 동안이나 정성껏 치료해주다가 적들의 ≪토벌≫에 목숨을 잃었다.

적들이 주경동에 달려들었을 때 지봉팔노인은 혁명군 대원들을 산으로 다 피신시키고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자기마저 집을 비우고 피해버리면 적들이 혁명군을 찾아 뒷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적들은 혁명군을 내놓으라고 을러메었으나 노인은 모른다고 잘라맸다. 적들은 가죽피대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대뜸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매가 반복되고 쌍욕지거리가 잦아질수록 노인은 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적들은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구뎅이속에 노인을 세워놓고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며 혁명군 부상병이 피신한 곳을 대라, 그걸 대기만 하면 상금을 주고 안대면 구뎅이에 묻어버려 구데기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악에 받친 원쑤들은 그를 구뎅이속에 세워둔 채 총살하였다. 노인은 운명직전에 마을사람들에게 소박한 부탁을 남기었다.

≪우리 군대를 잘 도와주우. 그래야 새 세상이 빨리 온다니까.≫

지봉팔노인의 최후와 관련된 이 사건은 그 후 ≪주경동사건≫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나는 훗날 김용연동무의 보고를 듣고 그 노인의 최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평생 땅을 뚜지며 소박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어진 농민이 어떻게 되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자기를 매장하게 될 구뎅이속에서도 그처럼 태연할 수 있었으며 거인처럼 꿋꿋이 서서 마지막 순간을 빛나게 장식할 수 있었는가.

우리 군대를 잘 도와야 새 세상이 빨리 온다고 한 지봉팔노인의 유언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며 신념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절절히 깨우쳐주고 있다.

장백현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 혁명군을 도와주었지만 보상은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제 얼굴을 내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염보배어머니는 나라가 해방되자 자식들을 데리고 혜산에 건너와 살았다. 그러나 자기가 어디에서 산다는 것을 1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는 1958년에 현지지도차로 양강도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염보배어머니가 혜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있었다.

≪어머니, 종근이도 먼저 가고 종근이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오늘 이렇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어머니를 만나니…≫

나는 목이 메어 뒷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염보배어머니의 남편인 강인홍노인은 혁명군을 도와준 일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은 그 어혈로 피를 토하고 절명하였다.

나를 부둥켜안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난 그전에 어머니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방이 되어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편지라도 한 장 하면 안된답디까.≫

나는 어머니의 터슬터슬한 손을 쓸어만지며 섭섭한 말을 하였다.

≪내라구 왜 평양으로 장군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소. 하지만 장군을 찾아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나요. 모두가 찾아가면 늘 바쁘신 장군께서 어찌 나라정사를 바로 볼 수 있겠소.≫

이전 날 우리를 보면 신발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동구 밖으로 뛰어나오던 그 열정적인 장백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는 자기 존재를 세상에 크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 인차 염보배어머니를 평양에 모셔왔다. 그리고 경치 좋은 대동강변에 집을 잡아주었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우리를 피로써 도와준 장백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김세운이도 1937년 가을부터는 국내에 들어가 운흥, 보천, 무산, 성진(김책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하조직을 꾸리고 원군사업을 보장하였다.

그 후에는 도문에 건너가서 해방되는 날까지 우차군으로 가장하고 지하활동을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발을 상한 불구의 몸으로 성한 사람들 못지 않게 넓은 구역을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며 지하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가 진행해온 국내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역사가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어찌 이런 사람이 김세운 뿐이겠는가.

그 당시 서간도 사람들의 다수가 조국광복회 회원들이였는데 지금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들 모두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었다.

적들은 인민혁명군과 인민과의 연계를 끊어보려고 집단부락을 만들고 포대와 토

성과 철조망으로 원군의 강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하였지만 백두산으로 흐르는 서간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두어둘 수는 없었다. 집단부락 안의 자위단장, 촌장, 성문지기들의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로 되어있었으니 적들의 집단부락소동은 하나의 웃음거리 만화극에 불과하였다.

백두산근거지는 동만 근거지에 있을 때보다 주민지구와의 거리가 훨씬 더 멀었다. 그러나 군민의 연계는 반대로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가는 정도 더 열렬하였다. 인민을 믿고 백두산을 조선혁명의 새로운 책원지로 설정할 때 우리가 인민에게 건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깨끗한 애국충정과 혁명군에 대한 순정을 지닌 백두산근거지의 인민들은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원군운동으로써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장백현사람들은 혁명적 원군전통의 모범을 창조하고 빛내인 영웅적인 인민들이다. 원군사업은 각계각층, 각촌각호, 남녀노소를 다 포괄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그 원군의 뒷받침을 받아 적과의 어려운 대결에서 백전백승하였다.

광활한 서간도 땅을 누비며 흐르는 원군의 대하를 보면서 나는 조직화된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농호가 세 집밖에 안되는 등판이나 골짜기에도 조직은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 동네에도 통신원들을 시켜 짤막한 글쪽지 한 장만 보내면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 혁명군이 10리밖에 와있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한다, 어서 빨리 차비를 해서 그분들께 더운밥을 지어드리자고 하면서 부리나케 식사준비를 하고는 하였다.

쪽지편지 한 장이면 조직을 동원하여 서간도 인민을 한꺼번에 백두산으로 부를 수도 있었고 백두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게 할 수도 있었다. 서간도사람들은 1936년 가을부터 우리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화된 인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서간도에서 살고 있던 그 개개의 사람들은 다 구슬에 비길 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었다. 그 구슬을 보배로 만든 것이 바로 서간도를 우리 세상으로 만든 조국광복회조직이었다.

만일 우리가 서간도인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개개의 구슬들은 적들에게 각개격파 당했거나 진로에 묻혀 빛을 잃었을 것이다. 제아무리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인간이라 한들 혼자서야 무슨 맥을 추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부를 조직이라고 늘 말한다. 자주화를 지향하는 각국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직이 가지는 의의는 영구불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여 조직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며 혁명이 승승장구한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조직화를 약화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조직화는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권을 전취한 후의 국가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 그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명에 끝이 없는 것처럼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도 종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발전의 생리이며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지금도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에도 인민대중을 끊임없이 조직화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힘으로 이 땅에 영원히 부강번영하는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조국과 우리 제도를 철벽으로 보위할 것이다.

40년대 초에 일제가 소위 ≪일쏘선린정책≫으로 세인을 기만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고군독전≫을 떠벌이고 우리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때에도, 히틀러독일이 모스크바를 향해 파죽지세로 침공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운운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왕청과 장백의 물방아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신심을 간직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국가 군대를 대적하여 싸운 시련에 찬 전화의 나날에도 나는 장백의 물방아를 회상해보면서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물방아소리를 상기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분명 장백마을들을 드나들 때에 그 물방아들에서 우리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확고부동한 지지성원의 의지, 죽음앞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지조를 보았던 것이다.

일시적 후퇴시기에 나는 이극로 선생과 함께 독로강(장자강) 기슭을 거닐면서 그에게 장백의 물방아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었다.

백두산에 있을 때 장백사람들이 물방아로 원호미를 찧어보내서 우리가 굶지 않고 싸웠다는 것, 원쑤들이 마을을 불사르고 물방아를 마사버려도 물방아소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의 힘을 발동하면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때 장백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자그마한 골개물에도 물방아를 걸어놓고 쓸모있게 이용하였는데 이 넓은 독로강물을 그대로 내버리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 전쟁이 끝나면 이 강을 막아서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자고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원군전통, 군민일치의 전통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나날을 거쳐 더욱 불패의 것으로 확대공고화되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의 ≪최강국≫과 맞서 싸워 그를 타승할 수 있은 것은 적측이 거의 순수한 군사력만 동원한 반면에 우리측에서는 전민이 동원되고 군민이 단결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력한 원군전통, 군민일치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지도밑에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인민이 군대를 돕고 군대가 인민을 돕는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우리 초소, 우리 마을≫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동지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음부터 그 운동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장, 가두, 학교들에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군민관계는 세계의 어느 나라의 군건설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커다란 자랑이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 어떤 원쑤들의 위협과 공갈앞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나는 일심단결, 군민일치를 조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 여긴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듣던 물방아소리는 지금도 내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소리와 더불어 수없이 많은 장백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그들중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이는 몇 이고 감방에서 숨진 이는 얼마인가. 원군의 길을 걷다가 백두설령에서 몸을 얼구고 쓰러진 사람은 또한 얼마이랴.

그들의 은공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의 정이 가슴에 차 넘친다.

3. 이제순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
위원장 이제순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나오자마자 밀영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 한편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지대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조국광복회망 건설의 첫 대상지로는 백두산을 직접 끼고 있는 장백지구와 국내의 갑산지구가 선정되었다.

조직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용의주도하게 수행해나가자면 생명을 걸고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하였다.

나는 서간도에 진출한 직후 소부대를 파견하면서 이동학중대장에게 재삼 강조하였다. 동무네의 기본임무는 인재발굴이다, 장백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아내라, 적을 치는 것은 부차적 임무이다, 인재탐색에 주력하면서 싸워 이길만한 적만 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동학은 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이제순을 데리고 밀영에 돌아왔다. 이동학이란 사람이 몹시 덤비는 것 같지만 내속은 아주 찬찬한 묘한 사람이였다. 말을 어떻게나 빨리 해대는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얼떨떨해질 지경이였다. 그는 늘 빠른 말씨로 대원들을 볶아댔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에게 ≪보따지≫라는 별명을 붙이었다. ≪보따지≫라는 별명은 ≪복닥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다.

이동학은 중대를 데리고 장백땅을 한바퀴 빙 돌다가 20도구 등판에서 청소년들의 아침체조를 지도하는 젊은 촌장을 만났다. 그 촌장이 바로 이제순이였고 아침체조를 하던 동네가 신흥촌이었다. 이제순은 촌장인 동시에 야학선생이었다. 신흥촌 사람들은 늙은이건 젊은이건 부녀자이건 할 것 없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네 촌장을 가리켜 우리 선생, 우리 선생 하면서 존경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볼 작정으로 그에게 중대가 2-3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촌장은 중대성원들이 다 지고도 남을만큼 엄청난 양의 식량을 잠깐사이에 모아놓고 밀영까지 져다 드리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말솜씨도 좋았지만 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아서 ≪보따지≫는 초면의 이 촌장에게 대뜸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후에 경솔하다는 비판은 좀 받더라도 이제순을 사령부에 직접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서 촌장이 짐을 져다 주겠다고 할 때 그 청을 얼른 받아들이었다.

촌장이 마을사람들을 회동해가지고 자진해서 쌀짐을 지고 갔다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보따지≫네 대원들은 이제순에게 포승을 지워 마치 큰 죄인이라도 호송해가는 것 같은 흉내를 내었다.

신흥촌을 떠난 식량운반대가 밀영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다. 밀영에서 20-30

리 밖에 안되는 곳에 다달았을 때 이동학이 마을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순은 자기를 밀영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의 마음을 중떠보려고 일부러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비밀기지에 데리고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이제순은 이동학의 팔을 잡고 아주 기발한 제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놓고 한 번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떤가? 가령 목숨까지도 걸고 풀어내야 하는 일감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이동학은 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3일 동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버선 5켤레와 행전 5짝을 만들어오라고 하였다. 당신이 버선과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시간에 돌아오면 밀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요, 제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면 불합격이라고 하였다.


이동학

이제순은 그까짓거야 못해내겠는가,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신흥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시켜 하루밤사이에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5켤레의 버선과 5짝의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접선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이동학은 그제서야 이제순을 부둥켜안고 통성을 하였다. 그는 자기의 별명이 ≪보따지≫라는 것과 고향이 어디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대주고 나서 ≪결국은 내가 당신네 이불을 거덜나게 했구려≫하였다. 이제순은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내가 백두산지구를 한바퀴 선회하고 돌아오자 이동학은 신흥촌이라는 동네에서 좋은 청년 한 명을 물색하였는데 사령관동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밀영까지 데려왔다고 하면서 이제순에 대한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제순은 밀영에 들어와 지내는 며칠동안 대내출판물들을 읽느라고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어찌나 이악하고 직심스러운지 그사이 유격대원들을 따라다니며 무기분해결합법과 방위판정법까지 다 배워두었다고 하였다.

≪사람이 똑똑하고 대가 바른데다가 혁명을 하자는 열의도 높고 정열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접이 또 어찌나 좋은지 며칠사이에 우리 동무들을 다 친해놓았습니다. 군중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동학의 견해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신흥촌촌장에 대한 종적 평가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제순은 여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언제나 새물새물 웃는 것 같은 눈이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강쇠처럼 굳건한 속대와 바위와 같이 드놀지 않는 신념과 냉철한 사고력을 가진 강의하고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순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남의 집 밭들을 돌아다니며 삯김을 맸고 10살 적부터는 이웃마을 지주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11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주집 머슴방에서 짚신을 삼고 있을 때 문득 어머니가 찾아왔다. 몹시 보고싶었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노전머리에 앉을 때도 눈을 들지 않았다. 너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짚신만 삼았다. 가련한 어머니는 아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 한 채 머슴방을 나섰다. 그제야 이제순은 일손을 놓고 뒤쫓아가서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말아요. 어머니가 오면 지주집에서 숙봐요. 뭘 얻어가지러 왔나 해서 업신여긴단 말이예요!≫

자식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안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네가 보고싶어도 내 다시는 지주집에 나타나지 않으마 하고 약속하였다.

이제순은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중등 정도의 지식까지 소유한 성실한 노력가였다. 14살까지 머슴을 산뒤에 몇 해 동안 야학방에 다니었고 형한테서 국문을 배우고 장가를 간 다음에는 옥편을 끼고 다니면서 자습하였다. 학교물을 먹어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긴 이제순은 신흥촌에 오자 화전민의 자식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정열적인 계몽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제순은 고향에 있을 때 소년회와 청년동맹에 망라되어 몇 해 동안 조직생활을 하였다. 형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일제경찰들은 그에게도 감시를 붙이었다.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속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이제순은 1932년초에 처가가 있는 갑산쪽으로 이주하였다. 그 무렵이 바로 박달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이 일대에서 애국계몽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제순은 그들과 함께 오풍동일대에서 비밀독서회를 뭇고 새 사조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

비밀독서회 성원들은 수난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었으나 투쟁방략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기었다. 그들은 올바른 투쟁진로와 명망높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에 줄을 놓았다.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농조, 노조 출신의 선각자들과 주의자들을 더러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명백한 투쟁노선이나 전술이 없었다.

이제순의 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쏠리었다. 1934년경부터는 인민혁명군이 장백지방으로 나온다는 풍문이 국내에까지 전파되었다. 이제순은 훈춘쪽으로 가려던 본래의 계획을 버리고 장백현 20도구 천가덕으로 넘어왔다. 훗날 그 천가덕을 개척한 이주민들은 자기네 마을에 신흥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었다.

신흥촌에서 보천보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멀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는 베개봉, 소백산, 곤장덕과 함께 백두산도 볼 수 있었다. 백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고장에서 산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은 이방의 서름서름한 풍토앞에서 망향의 슬픔을 금치 못하던 이제순에게 신비스러운 안도감을 주었다.


학교가 그리운 소작농의 자식들

그러나 관헌들의 압제와 생활고는 그림자처럼 이주민들을 따라다니었다. 소작료와 부역, 가렴잡세로 불쌍한 화전농들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지주들은 명절때마다 소작농들에게 뇌물을 강요하였으며 땔나무도 전적으로 소작농들이 맡아 해오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강건너 조선땅에 있는 가림리, 천수리의 경찰놈들까지 장백지방의 조선인주민들에게 화목을 해내라고 호통질하였다. 순사 나부랭이들은 민가를 시찰할 때마다 농민들의 닭둥우리에 손을 넣어 닭알을 꺼내먹고는 하였다. 화전농들의 식탁에는 보리밥이나 강태죽만 올랐다.

60여호를 헤아리는 신흥촌의 농가들에 소가 있는 집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역을 치루었겠는가. 농민들은 모두가 인력으로 보습을 끌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봄갈이를 할 때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

들은 소도 없이 하루종일 후치질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내가 보탑을 잡고 남편이 소를 대신하여 보습을 끌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보습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보습은 땅에 박힌채 움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답답한 나머지 그만 고향에서 소로 밭을 갈던 타성대로 ≪이랴!≫하고 고함을 질렀다. 남편이 자기를 부림소로 여긴다고 생각한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여 발머리에 엎드려 오열을 터뜨리였다.

그러자 남편은 보탑을 놓고 내가 그만 실언을 했으니 용서하구려 하면서 곁에 주저앉아 이놈의 두더지같은 농군신세 언제면 끝장이 날까 하고 한탄하였다.

이러한 생활처지는 신흥촌농민들을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쉽게 각성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신흥촌

신흥촌주민들의 대부분은 함남북일대에서 이주해온 영세농민들과 농조와 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중단체들에서 반일운동에 관계하다가 새로운 활동무대를 찾아 이향출국의 길을 택한 망명가들이였다. 훗날 조국광복회 신흥촌지회와 그곳 당특별지부에서 사업한 김병철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망명해온 사람이였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늘 농조조직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지도가 없이는 국내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물론 그 주장은 많은 동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혁명군의 줄을 어떻게 찾겠는가고 하면서 그 주장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라도 유격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백현 신흥촌으로 단호히 이주하였다.

그는 국내인사들 가운데서 해외의 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의 불가분이성과 일원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리공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군과의 연계를 성사시킨 다음에는 우리의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생명까지 바친 선각자, 투사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주관, 이주익을 비롯한 조선의 애국자들은 1930년대 초에 장백지방에서 재만한인 적색농조를 결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투쟁을 벌이었다. 미신, 도박, 조혼, 매혼 타파와 문맹퇴치와 같은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농조의 활동은 점차 소작쟁의나 강제부역을 반대하는 경제투쟁의 단계를 거쳐 군용도로건설을 반대하고 군사시설구축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반일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장백땅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전까지 신흥촌과 주변의 대중운동은 그 적색농조가 주관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제순은 백지장처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생활경력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것은 그가 행세식 운동자들과 파쟁분자들의 그릇된 사고와 투쟁방법에 오염당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우리는 오히려 그 단순성을 값있게 여기였다. 다른 때가 끼지 않는 순결한 머리에 이식되는 사상이나 주의주장은 흐리터분해지지 않는 법이다.

반일애국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순이 터득했다고 하는 인생철학 가운데는 흥미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것은 선구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남이 한 가지를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거나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두걸음, 세걸음을 걷는 것이 제일 빼근한 일이라는 것이였다.

그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그것은 남들의 앞장에서 사회개조의 어려운 길을 개척해가는 혁명가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는 진리었다.

≪농사도 짓고 촌장노릇도 하고 혁명도 하느라면 고생이 막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이제순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오히려 저에게는 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월에 혁명을 하는 고생마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군중공작을 제일 큰 재미라고 하였으며 동지를 얻을 때의 기쁨을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였다. 군중을 쟁취하는데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무엇인가고 하였더니 노인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제순은 큼직한 운동장과 공회당(회관)만 있으면 한 동네를 계몽시키는 것쯤은 문제없고 옹근 한 개 면이라도 다 혁명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제순의 군중관점과 군중공작에 대한 견해에 완전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군중계몽과 관련된 이제순의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가정야학방≫의 운영이었다. ≪가정야학방≫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운영하는 야학을 말한다. 이제순의 집에서도 그런 야학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가정이 다 참가하였다.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온 식구가 모여 앉고는 하였는데 이제순이 팔을 걷고 나서서 자기의 아내와 동생들을 교육하였다. ≪가정야학방≫의 덕으로 이 집안은 문맹자가 없는 집안으로 되었다.

나는 군중공작과 관련된 이제순의 사업을 요해하다가 문득 그에게 밀영에 짐을 지고 온 다른 십가장들의 동향이 어떤가고 물었다.

이제순은 그 사람들의 동향은 다 좋은데 이동학중대장이 데려온 천지주의 양아들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 양아들이 혁명군을 ≪비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유격대가 자기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밀영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냥 불안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순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동학중대장은 경제모연을 하려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순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지주의 양아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합니까?≫

이제순은 마치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기의 속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나는 유격대가 그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은 지주의 양아들이지만 실상은 머슴이나 다름없는 불쌍한 청년인데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통일전선의 각도에서 문제를 너그럽게 고찰하는 그의 관용과 독특한 사고방식앞에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천지주의 양아들에 대한 이제순의 관점은 사실 우리의 관점과 일치하였다. 이동학은 그 양아들을 여러 가지로 교양하여 우리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로잡아주었다. 드디어 그는 자발적으로 입대를 청원하게 되었다. 우리는 천지주의 양아들을 본인의 소망대로 혁명군에 받아들이었다. 우리가 20도구 전투를 할 때 그 청년은 길잡이를 하였다. 이제순이 큰 믿음을 표시하여준 그는 그만 그 후 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어쨌든 이제순은 만 사람이 반할만한 특색있는 성격의 사나이었다. 그는 장백을 혁명화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적임자였다. 필요한 지식과 방법만 배워주면 이제순은 장차 훌륭한 지하조직활동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장백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자는 참군을 열망하였다.

이제순은 우리가 싸움을 하러간 사이 참군준비를 좀 했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입대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성화를 먹이었다.

나는 입대시험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지≫동무가 동무를 시험쳐보고 데려왔으니 그것으로 입대자격증은 이미 받은 셈입니다. 동무가 정 요구하면 아무 때라도 유격대에 받아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혁명에 더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순은 얼떨떨해하였다.

≪다른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일개의 사격선수로 출전하기보다 큼직한 조직을 무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군을 이기라고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직을 뭇는다는 겁니까?≫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동무가 살고 있은 신흥촌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의 도처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일입니다.≫

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가에 대하여 역점을 찍어 설명해주었다.

총명한 이제순은 그렇다면 지하조직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 자신이 안간다고 말하였다.

≪그건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타고난 혁명가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나 혁명할 생각을 가지고 실천투쟁속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가며 경험을 쌓으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순을 위한 단독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의 주제는 조선혁명의 노선과 성격, 전략전술에 대한 것이였다. 이 강의는 내가 담당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에 대한 해설강의, 국제당사 강의는 이동백이 해주었다. 단 한 명의 수강생을 위하여 여러 명의 유능한 강사들이 번갈아 출연해가며 그처럼 알심있게 강습을 진행한 실례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그때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강습을 마치고 밀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순은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저는 쌀 한 말을 지고 왔다가 몇 섬이나 되는 혁명적 양식을 지고 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사업분공을 주십시오. 지역을 하나 떼서 맡겨주면 그 지역안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모든 마을마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겠습니다.≫

우리는 장백현 상강구 지역을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이제순은 자기에게 신임장을 한 장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도장이 찍힌 신임장만 내대면 군중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많이 묶어 세울 수 있고 또 일도 상당히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요구대로 신임장을 써주고 나의 이름밑에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이제순은 그 자그마한 증명서를 받아들자 반년안으로 상강구 지역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였다. 그 장담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후의 그의 투쟁실적이 증명해주었다.

그날 이제순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장군님, 제 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게 아니고 밀영을 떠나 기 전에 유격대의 군복을 입어보면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청이야 못들어주겠습니까. 군복을 입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그 청을 반갑게 받아들이였다. 참군열의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청까지 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순은 지하광복전선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다지면서도 참군열망만은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타고앉은 다음 중국본토와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야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향해 미친듯이 내달리고 있을 때 군복을 입고 항일대전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을 시켜 창고에서 새 군복 한 벌을 가져다가 이제순에게 입히게 하였다.

이제순의 군복맵시가 참으로 좋았다. 호수를 어림짐작하고 가져온 군복이었는데 몸에 딱 들어맞았다.

≪제순동무는 마치 군복을 입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같습니다. 옷맵시가 대단합니다. 군복까지 입어보았으니 이왕이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것으로 합시다. 오늘부터 동무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입니다. 제순동무, 입대를 축하합니다!≫

나는 이제순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그의 입대를 제일 열광적으로 축하해준 것은 이동학이였다. 이동학은 군복을 입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촌장을 업고 내 둘레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이제순은 밀영에 쌀짐을 지고 왔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순을 집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를 위장해주기 위한 소규모의 전투를 조직하였다. 그 임무는 이동학의 소부대가 담당수행하였다.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골탕먹인 이제순의 귀환담이 아주 재미있다. 그는 우리가 일러준대로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자기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20도구 경찰분서에 찾아가 다짜고짜로 행악질부터 하였다. 나는 촌장질을 더는 못하겠다, 당신들은 촌장을 부려먹을줄이나 알지 보호해줄 줄은 모른다, 내가 붙잡혀간줄 알았겠는데 당신네들은 아무런 구원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서 다시 조선땅에 넘어가 살아야 할가부다, 죽음밖에 차례질 것 없는 당신네 하수인 노릇은 다른 사람들이나 실컷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마구 들이댔다.

그러자 경찰들은 바빠나서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우리가 당신 걱정을 하지 않은게 아니다, 당신의 행처를 몰라서 미처 손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좀 진정하고 그 동안 어디에 붙잡혀 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놓여나왔는지 그것이나 어서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제순은 유격대가 내내 자기의 눈을 싸맨체 끌고다녔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있는 장소는 알 수 없고 새벽에 도망친 장소만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휴식참에 자기를 감시하던 보초병이 깜빡 조는 새에 삼십육계를 놓았다고 그럴듯하게 엮어댔다.

경찰들은 유격대가 몇 명이나 되던가, 도망친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따져묻고 자기들을 그곳까지 안내해 달라고 하였다.

일은 우리가 사전에 짠 각본대로 되었다. 경찰 ≪토벌대≫는 이제순이 대준 골안에 들어갔다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적들은 이제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순은 적들의 신임을 능숙하게 이용해가며 그 해 가을 김병철, 이주관, 이삼덕과 함께 조국광복회 신흥촌 지회를 조직하였다. 이 지회는 백두산 서남쪽 턱밑에서 생겨난 최초의 조국광복회조직이었다.

이때부터 이제순은 촌장의 자리를 이삼덕에게 넘겨주고 권영벽과 함께 장백현 상강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장백현을 편의상 세 개의 지구 즉 상강구, 중강구, 하강구로 구분하고 활동하였으며 상강구는 다시 상방면, 중방면, 하방면으로 나누고 활동하였다. 이제순은 신흥촌에서 지회를 내온데 뒤이어 주경동, 약수동, 대사동, 평강덕에도 조국광복회 지회들을 조직하였다.

지회산하에는 또한 많은 분회들을 두었으며 반일청년동맹과 부녀회, 아동단과 같은 외곽단체들을 꾸려 각계각층을 폭넓게 결속시키였다.

불과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이제순은 상강구 전지역을 조밀한 지하조직망으로 뒤덮어놓았다.



20도구
조국광복회
특수회원 이주익

백두산밀영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마을들에는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그물코처럼 촘촘히 들어배기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현대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속에서도 침투되었으며 지어는 만주국의 관공서들과 경찰기관들, 정안군 부대들에도 뿌리를 내리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을 두었다. 조국광복회의 외곽단체들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집결되었다. 조국광복회의 매개 지회는 생산유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사시 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강력한 밑천으로 되었다.

장백지구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확산이 어찌나 빠르게 진척되었던지 우리가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를 내오고 이제순에게 총책임을 지우던 1937년초에 이르러서는 장백현의 전지역이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을≫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촌락의 구장, 촌장의 직책들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척 하였으나 안속으로는 우리 일을 하였다.

면장 이주익도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백두산 진출을 앞두고 장백지방에 선발대를 파견하였을 때 그는 김주현에게 흡수된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었다.

이주익은 우럭골에 약방을 차려놓고 의원일을 하는 한편 면장질을 겸하였는데 그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사업을 아주 실속있게 뒷받침해주었다.

이면장이 국내에서 수리조합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감옥에 잡혀가던 그무렵부터 이제순은 줄곧 그를 주시해왔다고 하였다. 이주익은 이제순의 지도를 아주 허심하게 받아들이었으며 그가 하는 지시라든가 부탁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 당시 정치공작원들이 국내로 나가든가, 압록강 연안의 중국쪽 마을들에 발을 붙이고 안전하게 활동하자면 도강증이나 거민증 같은 증명서들이 필요하였다. 거민증이 없이는 파견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배겨있을 수가 없었고 도강증이 없으면 세관경찰들이 버티고 서있는 압록강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없었다.

거민증과 도강증은 면장의 보증밑에 경찰기관에서 발급하였다. 그런 증명서들은 경찰서에서 면장이 제시하는 민적부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내주었다.

이제순과 이주익은 우리 정치공작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산골인 24도구에 많은 ≪유령민적≫을 만들어낼 꾀를 생각해냈다. 그곳 막치기는 멀고 험악하여 경찰들도 가기를 저어하는 곳이었다.

이주익은 민적부에 장백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치공작원들을 가명으

로 등록한 다음 그 민적부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수선을 떨었다.

≪산골 가난뱅이들이란 하나같이 무식하다보니 통 셈판을 모르거든. 일년 열두달 내내 산골에 들어박혀서 아무데도 나다니지 않으니 도무지 세상물계도 알지 못하고 거민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니 어찌겠소. 그 곰같이 우둔한 것들한테 이쪽에서 갖다줘야지 별수가 있소. 다리가 늘어져도 할 수 없지. 정말 면장질 하기도 헐친 않구만.≫

경찰서에서도 백성들이 무식해서 야단났다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면장, 촌장들에게 수다한 ≪유령민적≫에 따르는 거민증을 내주었다. 이제순에게는 이주익이 마련해다 준 예비거민증이 언제나 푼푼히 장만되어 있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아무 때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고장에도 수월히 발을 붙일 수 있었고 국경도 쉽게 넘나들 수 있었다.

장백지구에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 사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 꾸려진 조직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혁명운동을 국내깊이 확대하기 위하여 단꺼번에 30여명의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한 일이 있다.

신흥촌에는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박영희)과 2명의 소년공작원이 파견되었다. 이제순에게서 그 세 사람의 거주수속을 일임받은 이주익은 그들을 가명과 변성명으로 민적부에 올리었다.

19도구 지양개에서 구장노릇을 하던 이훈도 이제순의 영향으로 조국광복회에 가입한 사람이었다. 이제순은 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후 인차 이훈을 찾아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소개한 다음 김장군의 뜻이라고 하면서 믿을만한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 과업을 받고 이훈이 이제순에게 소개한 맨 첫 사람이 함경남도 영흥(금야)에서 농조운동에 관계했다가 19도구 덕삼촌에 와있던 안덕훈이였다. 1937년 봄에 이제순은 안덕훈을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19도구 지회를 조직하였다. 그 관하의 모든 부락들에는 그 해 여름까지 분회들이 다 조직되었다. 분회장은 대체로 촌장이 겸하였다. 조직의 활동이 얼마나 드셌던지 이 지방들에서는 소년들이 혁명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며 돌아다니였다.

나는 백두산에서 활동할 때 이훈을 몇 번 만나보았다. 그때 그는 이제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를 보고서 사람복이 있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사람을 면바루 고르셨습니다. 장백땅이 넓다고 하지만 제순이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혼살림의 재미도 다 뒤에 두고 늘 객지에서 혁명운동을 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니는 그를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갑니다. 저두 그 사람 덕으로 장군님 부하가 됐는걸요.≫

우리 사령부가 장백현 19도구의 지양개 뒷산에 가있을 때 이훈은 아내와 함께 우리 일을 잘 도와주었다. 지양개 뒷산은 수림을 거쳐 곰의골까지 갈 수 있는 유리한 곳이였다. 그때 이훈의 아내는 장백현 시가지에 내려가 담배장사나 두부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자기 집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는 하였는데 인민혁명군의 보초소들에서는 그 모닥불을 보고 사령부에 적정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는 하였다. 이훈은 적들의 대부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정황이 생기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인 면장, 구장, 촌장들은 장백의 도처에 있었다.

장백이 우리 세상으로 되고 장백사람들이 우리 사람들로 된 것은 백두산근거지 창설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반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장백과 그 주변을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순과 같이 충실하고 과감하고 열

정적인 혁명가들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순은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태어난 민중의 참된 아들, 참된 충복이었으며 민중의 해방을 위해 육탄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온 훌륭한 조선의 애국자,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제순은 지하조직활동가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충분하게 소유한 원숙하고 세련된 혁명가였다.

오중화와 마찬가지로 이제순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우선 자기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시켜야 온 동네를 혁명화하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 온 민족을 혁명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고 혁명활동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을 때부터 동생들을 혁명사업에 끌어들이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의 혁명사업을 잘 도와주었다.

이제순은 신흥촌에 온 다음 아내와 장모도 혁명사업에 인입하였다.

남편의 세밀한 방조와 사랑속에서 아내 최채련은 조국광복회 산하 신흥촌 부녀회회장으로 성장하였다.

최채련은 남편의 영향밑에서 사상적으로 빨리 각성되었다. 그는 정서도 풍만하지만 정치적 감수성이 또한 대단히 예민한 여성이었다. 이런 장점은 그로 하여금 혁명하는 방법도 빨리 터득하게 하고 혁명가가 지켜야 할 준칙도 철저히 엄수하게 하였다.

이제순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익살도 부리면서 아내를 몹시 살뜰하게 대해주었지만 일단 지하사업에 들어가면 공과 사의 계선을 명백히 긋고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았다.

한번은 이순사의 처가 최채련에게로 뛰어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야, 채련아, 넌 하루 세끼 익은 밥먹구 눈이 멀뚱멀뚱해서 뭘하니. 너 우리 마을 주막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구 있는지 아니?≫

최채련은 영문을 몰라 순사의 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하였다.

≪몰라, 나같은게 주막집 일까지 어떻게 다 알겠니.≫

≪넌 참 까마밤중이로구나. 네 남편이 거기서 밤마다 남의 여편네들을 끼고 재미를 보는데…≫

이순사의 처는 여기까지 말하고 살며시 자취를 감추었다.

최채련은 그날밤중으로 그 주막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니 이순사의 처가 말하던대로 주막집에는 정말로 알지 못할 여인들과 남정들이 한방 가득차 있었다. 그 한복판에 이제순도 앉아있고 이순사도 끼어있었다. 그런데 이순사의 처가 말하던 그 ≪재미≫라는 것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최채련은 경찰들의 시선이 덜 미치는 이 너렁청한 주막집에서 남편이 주관하는 어떤 비밀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간파하였다. 그러고보면 이순사도 지하조직원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순사의 처는 새빠지게도 왜 재미를 본다고 말하였을까? 시샘이 지나친 나머지 비밀회합을 ≪재미≫로 보는 착오가 생긴 모양이었다.

최채련은 안도감에 휩싸여 주막집 문을 황황히 닫아버리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예리한 눈길을 모면할 수 없었다. 이제순은 온밤 아내를 무섭게 다불리었다.

최채련은 빗발처럼 쏟아져내리는 욕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자기가 남의 꼬드김에 들어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는 것과 무근거한 불신이나 시샘은 가정의 화목을 깨며 나아가서는 가정자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부부관계의 공고화를 담보하는

첫째가는 기초는 믿음이라는데 대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제순은 그날밤 아내에게 온갖 강권행사를 다하면서도 청백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네가 주막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처럼 비밀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였다. 우리가 혁명가 일반, 특히는 지하공작원들, 지하조직활동가들에게 필요한 행동규범들을 법적으로 성문화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순에게는 자기자신이 제정하고 준수하는 마음 속의 법이 따로 있었다.

나는 장백지방에서 활동할 때 신흥촌에 있는 이제순의 집을 두 번인가 방문하였다. 어느 때인가는 그 집에서 언감자국수도 먹고 자기도 하였다. 내가 갈 때마다 이제순은 정지간과 방 사이에 문발을 치고 최채련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최채련은 끼니때마다 내앞에 밥상을 가져다놓으면서도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훗날 박록금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은 말끝마다 사람을 믿어야 하다고 하면서도 나한테는 종시 그분이 **김일성**장군이라는 것을 안대주었지요.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어요?≫

≪여보, 그 비밀만은 누구에게도 대줄 수 없었소. 다 그분의 신변을 위한 것이였으니 당신이 섭섭한대로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겠소.≫

이것이 바로 이제순식의 법이였다.

그가 보여준 강인한 성품과 수미일관한 원칙성은 최채련의 성격발전과 세계관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제순은 백두산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 같소. 그러니 감자랑, 감분이랑, 보리쌀이랑, 된장이랑, 땔나무랑 많이 장만해두어야겠소. 당신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소.≫

최채련은 그 후 유격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의 시중을 드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는 날마다 방아를 찧었다. 어찌나 많은 쌀을 찧어냈는지 이제순이 손수 만들어준 방아확에 구멍이 날 지경이였다.

이제순은 가정을 혁명화한 다음 마을도 혁명화하였다. 그는 권영벽과 함께 신흥촌에 당특별지부도 조직하였다. 그 지부가 조직된 후 장백지방에서는 수많은 조국광복회원들이 당대열에 들어섰다. 사람들을 조직에 결속시키고 유격대를 원호하는데서 신흥촌은 단연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부탁이였다.

신흥촌사람들은 유격대가 마을에 온다는 말만 들으면 기름을 짤 들깨부터 닦았다. 그들은 유격대에 보낼 원호미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량절약을 이악하게 하였다. 그 마을의 주산물인 감자는 운반에도 불리하고 이용가치도 적었다. 그래서 농마로 가공하여 유격대 밀영으로 보냈다.

신흥촌의 부녀자들은 장도 생것으로 그저 보내지 않고 가공하여 보내주었다. 장에다 밀가루를 넣고 떡처럼 빚은 다음 불에 구워서 보냈는데 보관과 이용에 아주 편리하였다.

신흥촌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낸 각종 원호물자들은 수만 점에 달하였다. 그 많은 물자들을 그들은 등짐으로 져서 밀영이나 유격대의 숙영지까지 날라다주었다.

신흥촌인민들이 지도자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순이 능력있는 사람인데다가 권영벽, 박록금, 황금옥이 그를 잘 도와주었다.

나는 보천보전투전에 신흥촌에 가보고 이 마을 인민들의 혁명군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단결된 모습앞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국수분틀 4개를 가져다놓고 수백 명분의 국수를 잠깐사이에 다 눌렀다. 정말

벼락같은 일솜씨였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신흥촌을 가리켜 욕심나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정말 신흥촌 주민들은 하나같이 욕심나는 사람들이였다. 후에 알게 된데 의하면 이제순은 우리가 갈 때마다 사전에 비상회의를 열고 환영대책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이제순이 높은 조직적 수완과 임기응변의 묘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는 신흥촌에서 5.1절 시위를 조직하였다. 대낮에 그것도 만인의 주시속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벌이자면 적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럴듯한 계책이 필요하였다. 이제순은 여우잡이를 구실로 각 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시위대열은 붉은기를 들고 한줄로 늘어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압록강이 굽어보이는 산능선을 따라 20도구 남석부락까지 행진해갔다. 시위군중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두간두간 다른 구호들도 불렀다.

그날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희한한 시위를 통쾌한 심정으로 구경하였다. 강건너 가림천 주재소와 국경수비대의 군경들은 혁명군이 내습한 줄로 알고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소요의 진상이 무엇인지 감히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적들은 시위가 끝나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사민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다음에야 장백땅에 건너와서 무슨 일로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와 밀려다니는가고 물었다.

시위군중들은 여우잡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우잡이를 하는데 붉은기는 왜 들고 다니는거야?≫

경찰들이 물었다.

≪여우는 붉은색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를 들었습지요.≫

시위자들은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경찰들을 속여넘기었다. 사실 붉은기는 여우잡이에도 필요했고 시위에도 필요하였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치달아오르던 1937년 당시 수백 명의 집단이 백주에 붉은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그것이 반일반만시위라는 것을 일만군경들이 다같이 감촉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였다. 이것은 뛰어난 지략과 대담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안해낼 수 없는 큰 모험이었다. 우리가 보천보를 친 후 이제순은 신흥촌 부녀회성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투결과를 알아내고 인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주었다. 우리는 이제순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창발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포치한 사업이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보더라도 우리는 이제순이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방법론을 가진 재능있는 일군이며 열정적인 사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혁명과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시대적 사명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많이 썩인 사람이었다. 그런 진통과정이 부단하게 되풀이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짧은 기간에 그처럼 철저하게 장백땅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드는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색이 없는 인간들한테 창발성이 있을 수 없고 창발성이 없는 곳에 창조와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은 상식이다.

인간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 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색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는 사색과 사색의 누적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해왔고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군림하였다.

우리 당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해 정열적인 사색가가 되라고 호소

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사색이 노는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제순은 사색과 실천을 원만하게 결합한 창조적인 인간이였다. 그는 법정과 옥중에서도 사색을 중단하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그의 사색은 공산주의자로서 일생을 어떻게 마치겠는가 하는데 집중되였다.

≪법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 자신이 더 많은 ≪죄≫를 뒤집어쓰면서라도 동지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혜산경찰서 구류장에 있을 때 내린 결심이였다. 실지로 이제순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성공하였다. 면장 이주익이 체포되었을 때도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김**장군과 나,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장군은 산에 있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만 버티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익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며칠만 고생을 하고 풀려나왔다. 이제순이 모든 ≪죄상≫을 자기의 한 몸에 뒤집어쓰고 나선 덕으로 신흥촌 당조직책임자였던 김병철과 이주관도 극형을 면할 수가 있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 거기에 공산주의자로서의 이제순의 숭고한 미덕이 있었다.

권영벽을 통하여 감옥에서 장중렬이 변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제순은 그의 변절로 해서 견실한 동지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가 적의 개로 되었다는 사실을 동지들에게 한시바삐 알려주어야 하겠는데 그에게는 꽁다리연필 하나 없었다. 그는 생각다 못해 이빨로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가락 끝에 한방울 한방울 묻혀가며 천쪼박에 ≪장중열 변절≫이라는 글을 써서 고문실로 나갈 때 다른 감방에 넣어주었다. 그래서 많은 동무들이 그자의 정체를 알고 옥중투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순이 7년동안 감옥에서 싸운 감동적인 일화들을 이 글에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최채련이 면회를 갔을 때 본 이제순의 얼굴은 이전날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 늘 보고는하던 그 곱살하고 탄력있던 얼굴이 아니였다. 옥중의 남편은 본래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철창밖의 아내와 면회를 하면서도 이제순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셈평좋게도 사식이 아니라 세계지도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유다른 주문앞에서 최채련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제순이 옥중에서 세계지도를 요구한 것은 2차대전 후의 새로운 세계구조, 대전의 결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해방조국의 모습을 지구상에서 자기나름대로 그려보고 싶었던 욕망의 표시가 아니였겠는가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사형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절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 세계의 광명한 미래를 끝없이 그려보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산 사람이였고 죽음앞에서도 해방된 조국땅에 백화로 만발할 행복한 새 삶을 그려본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전향을 권고하는 법관앞에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일제강점시기의 서대문형무소

1945년 초에 최채련은 막내딸과 함께 서울 서대문형무소 면회실에 나타났다. 출생 후 두달도 못되어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갇혀 젖고생에 시달려오던 막내딸은 어느덧 8살잡이 꽃망울 소녀가 되었

다. 그 애는 철창 저쪽에 나타난 수염이 검숭검숭한 사나이를 이상야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다.≫

최채련은 그 사나이를 손짓해보이였다.

아버지의 딸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8살이 다되도록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온 딸의 입에서 어떻게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쉽사리 터져나올 수 있겠는가. 딸은 이웃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을 애무해주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별난 아버지였다. 딸이 왔는데도 안아주지 않고 철창 너머에서 웃고만 있었다.



혁명열사릉의 이제순동지 반신상

절그럭거리는 쇠고랑 소리와 함께 수갑을 찬 아버지의 손이 자기의 머리를 살뜰히 쓰다듬어줄 때에야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비로소 흘러나왔다.

이제순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아버지는 인차 집으로 간다≫는 실현될래야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딸과 하였다. 생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딸에게 그런 허망한 약속밖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제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물론 그는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1945년 3월 10일 적들은 심문장에 이제순을 불러내다가 설복하였다. 오늘은 우리 일본 황군의 육군절이다, 당신이 이제라도 전향을 하면 사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순은 그 어떤 회유와 악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장백의 이름없는 산촌에서 야학선생과 촌장으로 있던 이제순은 항일혁명에 꽃다운 한생을 바친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투사였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혁명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생활과 투쟁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견실하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불타는 사람이 옳은 지도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혁명가로 된다는 것은 혁명의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선차시한다. 그것은 이 사상혁명이야말로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강의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요람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제순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우리 밀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위해 바친 그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두 손을 내흔들며 난색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수완이나 수고덕이 아닙니다. 그 신임장이 이주익면장 같은 사람도 대번에 광복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면장은 그 신임장을 보더니 **김**장군이 회장이라면 자기도 그 회원이 되게 해 달라질 않겠습니까. 장백사람들이 또한 애국열도가 높은 사람들이지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순은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대성산 혁명열사릉에서 자그마한 반신상의 겸허한 모습으로 후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권영벽, 이동걸, 지태환도 나란히 서있다.

4. 남만의 전우들과 함께

백두산일대의 여러 곳에 밀영들을 꾸려놓고 압록강 연안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에 있은 사실 가운데서 또 하나 인상깊이 회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대를 찾아온 항일연군 제1군 2사 동무들과 함께 공동생활, 공동작전을 하면서 전투적 우의와 연대를 두터이해가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인공산주의무장부대들과의 협동문제는 이미 1935년 3월의 요영구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후 우리 부대는 북만으로 두 번째 원정을 갔고 다른 부대는 신개령을 넘어 남만으로 떠나갔다. 우리의 익측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중국인무장부대들로는 영안지방에서 활동하던 주보중부대, 밀산지방에서 활동하던 이연록부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양정우부대, 주하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상지부대를 들 수 있다. 당시 이 부대들은 제가끔 인접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었다.

남만에 진출한 동만의 독립 1사는 1935년 8-9월 몽강현 나루훈에서 1군의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때 우리 부대는 노야령을 다시 넘어 주보중부대와 협동작전을 하고 있었다.

남만에 파견되어간 대오속에는 왕청 출신의 지휘관들인 오중흡과 김평도 있었다.

남만동무들은 솔대문도 세우고 깃발도 띄우고 연락도 차리고 환영사도 하는 등으로 동만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했다고 훗날 오중흡도 감격에 겨워 회상하였다. 그 행사가 참으로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날 남만부대를 대표해서 양정우가 환영사를 하고 동만부대를 대표해서 이학충이 답사를 했는데 두 사람의 연설은 수백 명이 보내는 박수갈채로 하여 자주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장면을 재치있게 압축한 그림이 ≪인민혁명보≫라는 신문호외에 실렸던 기억이 난다.

조국안이 사단의 주력을 이끌고 곰의골 밀영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전투를 하느라고 밀영에 없었다. 전장에 나가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남만부대의 도착소식을 알려준 것은 김주현이 보낸 통신원이였다. 부대의 식의주문제를 맡아보는 김주현은 손님접대를 통이 크게 하느라고 무던히도 마음을 쓰는 것 같았다. 우리는 남만에서 온 동무들을 빨리 만나보려고 싸움을 끝내기 바쁘게 밀영으로 돌아섰다.

인접부대의 전우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낙으로 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항시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귀중하고 강렬한 감정이였다. 인가와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의 산중생활에 어찌 그리운 것이 한두 가지 뿐이였겠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혈육에 대한 그리움, 학우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온갖 문명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 모든 그리움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리움은 동지들에 대한 그리움이였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이 그리움 때문에 부대가 주민지대에 머무르는 날은 우리 모두의 명절이였다.

조국안부대의 전우들이 우리 밀영에 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나의 전우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통신원을 부둥켜안은 것도 그와 같은 감정의 표시였다.

우리가 밀영에 돌아오자 남만에서 온 70-80명의 동무들은 병실에서 뛰쳐나와 겹겹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포옹과 악수의 사태 속에 파묻히였다. 그때의 그 광경을 딴 사람들이 보았더라면 남만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밀영에 우리가 가서 환영을 받고 있는 듯한 감을 느끼였을지도 모른다.

이 상봉을 계기로 나와 조국안사장은 처음으로 낯을 익히게 되였다.

조국안은 의지가 굳고 요구성이 강한 군사학교교관 같아 보이었다. 그것이 조사장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였다. 그런데 며칠동안 침식을 같이하고 나서는 인상을 달리하게 되였다. 그는 대단히 다심하고 붙임성이 좋은 사람이였다.


조국안

나보다는 나이가 여라문살 더 든 듬직한 사람이였다.

그가 길림성 영길현 태생이고 길림사범학교 출신이라는데서 나는 동향인이라도 만나는 것과 같은 친근감을 느끼였다. 그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 제1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는 산동군정대학에도 다니고 베이징에서도 공부하였는데 조국안이 맑스-레닌주의학습에 열중한 것은 바로 이 두 학교를 다닐 때였다고 한다. 조국안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후 1군 1사 7연대 정치위원을 하다가 1934년 가을부터 1군 2사 사장 겸 정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사령, 협동하려는 상대가 이런 몰골을 하고 나타났다고 나무라지 마시오. 내가 부대지휘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오.≫

조국안은 우리의 주위에 겹겹이 서있는 부하들을 가리키면서 열적은 표정을 지어보이었다. 남만에서 온 손님들은 지휘관이건, 대원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름한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속옷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해진 그 군복들에서는 사단이 걸어온 고난에 찬 장정의 흔적이 그대로 엿보이었다.

≪**김**사령,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린 아직 대원들에게 겨울옷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조국안은 우리 대원들이 입고 있은 폭신한 솜동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그리었다.

≪부끄럽다니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옷들이 저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우리 부대 모습도 저랬습니다. 2사 동무들이 나무라지 않는다면 우리 부대에 동복이 여유가 좀 있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먼저 갈아입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새로 지어 입히기로 하구요. ≫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조국안은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밤잠을 편히 자겠습니다.≫

나는 밀영에서 조사장과 함께 스무날 가량 침식을 같이해가며 공동투쟁문제를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 그와 퍽 친숙해졌다. 우리는 두부대의 협동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부대관리문제, 대내교양문제, 대열보충방도문제, 군중공작방법문제, 유격전술문제, 조중 두 나라 혁명의 전도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사사로운 가정잡사에 대한 견해까지도 허물없이 나누었다.

내가 조국안의 품성가운데서 매력이라고 본 것은 솔직성과 소탈성이였다. 그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솔직하고 겸허한 사람이였다. 그와의 담화에서는 10년쯤 되는 나이의 격차 같은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조국안은 나이의 차이라든가 직위의 고하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상대가 일단 마음에 들면 자기의 속마음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보이는 사람이였다. 조국안 사장은 부대가 겪어온 곡절과 그

과정에 당한 인명손실에 대하여 나에게 서슴없이 다 말해주었다.

조국안이 지휘하는 1군 2사는 조선사람들이 반석에서 조직한 반일인민유격대를 모체로 하고 여기에 위만군 반변자들과 산림대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1사 1연대를 포함시켜 꾸려진 사단이었다. 사단의 기본활동구역은 반석현과 그 주변일대였다.

그런데 부대는 사단으로 편성된 이래 군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여름에는 휘발하 북쪽의 강북으로 원정을 갔다가 겨울이면 돌아와서 원정과정에 입은 손실을 메꾸고 역량을 보충해서는 다음해 여름에 다시 강북으로 출정한다는 것이었다. 유격활동구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한 해에 한 번씩 어김없이 진행해온 정기적인 이동작전이었다. 그런데 이 규칙적인 이동작전이 적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고정불변한 활동노정이 그들의 작전지도에 오르게 되었다. 적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불의에 타격을 가하고는 하였기 때문에 그 부대는 원정때마다 매번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는 하였다.

그 해(1936년) 여름에도 사단은 원정과정에 적지않은 전투인원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조국안은 사단의 일부 역량을 거느리고 동만 1사부대들과의 협동으로 멀리 액목현 삼송까지 갔다 왔다고 하였다.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화전현 회전잔일대에 집결하였다가 무송현을 거쳐 우리한테로 직행하다나니 1군의 후방기지가 있는 몽강현 나루훈에도 들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름옷을 동복으로 갈아입히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고민속에 모대기며 부대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방책을 이리저리 모색하던 조국안은 어느 날 무송현 삼도라자하 일대에 나가 식량공작을 하다가 돌아온 송무선의 소부대성원들한테서 우리가 진행한 무송현성 전투담을 듣게 되었다.

조국안은 그 전투담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남들은 새로 꾸려진 사단을 가지고도 연전연승을 하는데 우리 부대는 어찌하여 매번 고전만 치르어야 하는가, 원정을 갈 때마다 적지 않은 유생역량의 손실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여름이 오면 기계적으로 강북으로 떠나곤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휘관협의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부대의 군사활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토의되었는데 그 대책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부대와의 공동작전을 한시바삐 하자는 것이었다. 공동작전을 하게 되면 전술과 전법도 발전시킬 수 있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 제안의 주창자가 송무선이었고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바로 조국안사장 자신이었다.

사단은 곧 우리 부대의 소재지를 향해 화전현 대동구를 출발하였다.

짐작컨대 2사의 전우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싸움은 그닥 흥취나게 해본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겪어온 시련과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니 어쩐지 그 시련이 남의 시련같지 않고 그 고초 역시 남의 고초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세칭 남만유격대라고도 부르는 동북항일연군 제1군은 사실에 있어서 북만에 있는 유격대와 더불어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주요한 인접이었다. 우리는 항일전쟁의 첫 시기부터 남만유격대의 성장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였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유격전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동만의 우수한 조선인간부들을 많이 파견하였다. 1932년 여름 남만으로 갈 때 우리가 이홍광, 이동광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그들과의 제휴를 실현하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과 함께 공동작전은 해보지 못하였다.

남호두회의 이전시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북만유격대와의 합작에 치중하였

다. 그래서 원정부대를 이끌고 두번이나 북만에 갔었다. 우리는 거기서 공산주의자들과도 공동작전을 하고 반일부대들과도 연합작전을 펼쳤다. 가슴아픈 손실도 있고 희생도 없지 않았으나 인접과의 연합은 큰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우리가 간도에서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싸울 때는 남만보다 북만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웠던 것도 사실이였다. 영 하나만 넘으면 북만이였다.

그러나 우리가 서간도를 새로운 활동무대로 삼고 싸우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북만보다 남만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접이 되였다. 백두산서남부지역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울린 총성은 남만부대들에도 인민혁명군과의 협동을 한시바삐 성사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욕을 안겨주었다. 남만부대들과의 연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문제로 되였다. 조국안사단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와 사단급에서 공동작전을 실현한 첫 대상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남만에서 활동한
당정치일군
이동광

동만이나 북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만에서의 유격투쟁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주도되였다고 할 수 있다. 남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일연군 제1군 소속의 1, 2, 3사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정우, 위증민, 조국안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사정치간부들도 역시 조선사람들이였다.

주보중은 1945년 12월 길림의 어느 한 집회에서 한 보고에서 1932년도에 건립된 억센 동만유격대와 1933년에 건립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는 모두 조선동지들과 혁명적인 조선군중에 의하여 창건되었는데 그것이 후에 항일연군의 여러 군으로 발전하였으며 제5군에도 적지 않은 우수한 조선동지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항일연군 각 군의 군장, 정치부주임으로부터 소대장, 지도원에 이르는 각급 군정간부들 중에는 조선동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유격대가 바로 남만유격대, 항일연군 제1군의 전신이다.

반석유격대라는 통속적인 명칭 자체가 말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남만유격투쟁의 발상지는 반석지구였다.

반석현당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 소속된 공산당원은 40명 정도였는데 그들도 모두 조선사람들이였다고 한다. 여기서 이홍광이 10명 안팎의 조선사람들로 첫 무장대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이 남만유격대의 모체였다. 30여명으로 구성된 남만유격대의 첫 성원들도 모두가 조선사람들이였다. 반석유격근거지 안에 조직된 반일회, 부녀회, 소선대, 농민위원회의 책임자들도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다. 남만의 유격운동 개척과 그 발전에서 조선사람들은 선구적이며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국안의 사단도 조선사람들이 많은 부대였다. 송무선, 박순일을 비롯한 과반수이상의 지휘관들과 많은 대원들이 조선사람들이였다. 이것은 우리와의 공동작전, 공동투쟁을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남만의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의 직접적인 연계밑에 또 때로는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과 행동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된타격을 안기었다. 그들은 때때로 압록강을 건너와 국경대안을 기습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는 우리가 동만에서 국내진출을 빈번히 하던 때였다.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은 1935년 1월 한달동안 온성 한 개 군만 해도 네 번이나 기습하였다. 그 소부대들이 온성군 남산리와 월파동, 세선동과 미산동 일대에 진출하여 적군경들과 교전을 벌이었을 때 서울의 신문들은 유격대가 함북 온성, 훈융 등지를 대거

습격하였다고 떠들었다.

1935년 5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무산군 삼장면 농사동 일대에서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한 다음 안도현 대마륵구 부근에서 뒤쫓아오는 일제경찰들과 총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된타격을 주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격렬해지는 국내진출의 흐름을 타고 압록강 대안에서 싸움으로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던 이홍광이 부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와 후창군 동흥진을 습격하였다. 1935년 2월 15일 밤 그가 거느린 1군 1사의 3개 소부대는 경기관총 2정을 앞세우고 동흥진을 포위한 다음 경찰서, 금융조합 등을 습격하여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남만유격대
창건자의 한사람
이홍광

인민혁명군의 거듭되는 국내진출에 당황망조한 적들은 국경경비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사변들이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동흥진습격으로 내외에 전공을 크게 떨치던 남만의 부대들에서 어떻게 되어 조국안사장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조국안의 꺼칠한 얼굴을 바라보는 내 심중에서는 어째서인지 분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최근에 인접과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유일 한 출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너무 늦게야 찾아냈지요.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지난 기간 **김**사령과의 연계를 소홀히 한 게 후회됩니다.≫

조국안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한숨을 크게 내쉬고 두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조사장동무, 우리한테서 며칠간 푹 쉬며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질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일시적인 실패를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나는 사장에게 기아와 혹한과 적의 포위로 온 부대가 전멸의 위기에 처하였던 나자구등판에서의 시련과 혹한과 폭설과 거듭되는 적의 추격으로 하여 또다시 헤어날 수 없는 역경에 처하였다가 귀인들의 도움으로 구원되던 1차 북만원정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상치 않았던 무리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기 때문에 잠자리부터가 문제로 되었다. 나는 우리 대원들이 이용하는 귀틀집들을 손님들에게 모조리 내주고 주인들을 우등불을 피워놓고 천막에서 숙영하도록 하라고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나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재빨리 귀틀집을 내주고 천막도 치고 우등불도 피웠는데 그 기묘하고 날랜 솜씨에 손님들은 다같이 감탄하였다.

우리 대원들 중에는 우등불 명수들이 많았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통나무 우등불을 피우는 묘리를 발명하여 그것을 전부대에 보급하였다. 그 방법이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이었다. 같은 길이로 알맞춤하게 자른 통나무를밑에는 5-6대, 그 위에는 4-5대, 또 그 위에는 3-4대씩 피라미드식으로 층을 올리쌓고 2-3대를 올린 마감층위에 불쏘시개감으로 마른나무 가치들을 놓고 거기에 불을 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등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오래갈 뿐 아니라 젖은 나무도 마른나무처럼 잘 타들고 불찌가 튀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화력이 세서 좋았다.

2사 동무들은 처음에 저런 식으로 해서야 통나무가 불이 달리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피라미드식으로 쌓은 통나무더미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자 신기해서 ≪야!≫, ≪야!≫ 소리까지 질렀다.

조국안도 대원들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번에 만강에서 위증민을 만났는데 그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는 우등불에 시선을 떨군 채 의미심장하게 웃어보이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사령부대에 가면 우등불을 피우는 법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솜씨가 아주 신묘합니다.≫

조국안은 우리 부대에 와서 받은 인상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운 것 중의 하나가 우등불과 통나무로 만든 귀틀집이라고 하였다. 우등불이 있고 귀틀집만 있으면 깊은 산중이나 무인지경에서도 부대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밀영에 와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였다.

다음날 나는 귀틀집 건설에 솜씨가 있는 몇몇 도끼목수들과 7연대 4중대원들을 시켜 2사 동무들이 우리 밀영에서 지낼 동안 그들이 옹색해하지 않도록 전용병영으로 그날중으로 새로 짓게 하였다. 우리 부대의 집짓기 명수들은 통나무를 찍어다 하루사이에 커다란 귀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았다. 2사 동무들도 신바람이 나서 그들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어주었다.

그와 같은 비밀병영들이 백두산일대 밀림 속 곳곳에 건설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국안은 또다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기네는 지금까지 이 백두산과 같은 무인지경에서는 부대가 거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가만 찾아다니며 숙식하였다, 산중에서 밀영을 짓고 지낸 적은 거의 없다, 전번에 강북에 갔을 때도 집집을 찾아다니며 분숙하였다고 하였다.

남만동무들이 우리 밀영지에서 ≪자기 집≫을 가지게 되자 나는 후방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김주현과 김해산을 시켜 그들의 세간에 필요한 식량과 작식도구들을 넉넉히 갖춰주고 우리 부대의 후방부창고에 있는 수십 벌의 군복까지 내주게 하였다. 몇 벌이 모자라서 군복분배를 만족스럽게 아퀴짓지 못하였지만 박수환이네 재봉대에서 밤을 패가며 돌격작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날에는 해진 여름옷을 우등불 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 야단스러운 덕행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예절을 차린 셈이였다.

2사동무들을 위하여 목욕과 이발도 조직하였다. 곰의골밀영에는 그 당시 큼직한 목욕가마도 설치되어 있었다. 오중흡이네가 횡산목재소를 치고 구해온 소여물을 끓이는 대짜배기가마였는데 그것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였다. 손님들을 멀끔하게 닥달해놓은 다음에는 세면도구도 일식으로 안겨주고 담배도 몇 갑씩 분배해주었다.

조국안은 우리 사령부에 찾아와 부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김사령 부대에 빈손으로 찾아와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세만 지게 되니 미안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이 신세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같은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웃끼리 신세고 뭐고 할게 있는가, 우리가 만일 조사장네 부대에 손님으로 간다면 사장이 그런 정도의 대접을 안해주겠는가, 남의 부대에 와서 신세를 진다고 생각지 말고 친척집에 왔다고 생각하라, 정 신세를 갚고싶거든 우리 밀영에 머무르는 동안 재미나는 인생체험이나 많이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조국안은 책상물림인 자기에게 무슨 **김**사령의 흥미를 돋굴만한 요란한 인생체험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좀 색다른 밑천이라는 것이 있다면 산동군정대학을 다닐 때에 얻은 지식뿐인데 **김**사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라도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그는 우리 지휘관들에게 정규전과 관련된 전술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주었다. 그 강의가 대단히 심도있었다. 조국안의 강의는 적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규

전의 전술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그에 대처한 우리 식의 유격전술을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밑천으로 되였다.

그 답례로 우리는 조국안부대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창조해온 유격전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생동한 실전경험담이 배합되였기때문에 남만에서 온 손님들은 퍼그나 흥미진진해 하였다.

나는 2사 동무들에게 옹군애민을 특별히 중시할 데 대하여 당부하였다. 인민은 우리의 힘이며 지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발동시켜 싸워야 한다, 인민의 덕을 입으려면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루밤 숙영하고 지나버릴 고장이라 하여 인민들에게 함부로 부담을 끼치면 인민은 그런 사람들을 시끄럽게 여길 수 있다, 인민의 재물에 손을 대어 해를 끼치게 되면 그 후과는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인민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게 되면 인민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군사는 틀림없이 백전백승하는 군사로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출전을 앞둔
혁명군대원들

곰의골밀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 남만동무들은 학습과 회의, 훈련을 비롯한 우리 부대의 일과생활도 여러 번 참관하였다. 그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당신네를 대학생부대라고 하더니 과시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감탄하였다.

조국안은 진심을 담아 나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자기는 강남으로, 강북으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데 습관되어 밀영을 꾸리고 거기에 의거하여 자력갱생해 나갈 궁리도 하지 못하고 밀영을 중심으로 한 유격활동지역에 지하조직망을 꾸리고 밀영과 지하조직망들로 이루어지는 근거지에 토대하여 투쟁을 확대발전시킬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다.

≪**김**사령부대는 어느 모로 보나 군대맛이 납니다. **김**사령부대가 연전연승하는 비결을 이제는 알만합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부대의 오락회를 보고나서 조국안은 숲속을 거닐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남만의 전우들은 우리 부대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직심스럽게 노력하였다. 그들은 일과생활도 우리 식으로 고치고 학습과 훈련도 우리 식으로 하였다. 우리 밀영에 머무르는 기간 그들은 군력도 보강하고 규율도 더 엄격히 세워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제는 두 부대가 협동하여 큰 싸움을 치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 ≪동기대토벌≫에 날치는 적들을 좌우에서 족쳐봅시다. 도천리를 비롯해서 장백, 임강현경지대는 군중적 지반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조직해놓은 지하혁명조직의 적극적인 방조와 후원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청년들을 받아들여 인차 대열보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부대가 서로 손을 튼튼히 잡고 좌우에서 부단한 소모전을 진행하면 전투성과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안은 나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공동작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사의 전우들은 우리 밀영을 떠날 때 매우 섭섭해하였다. 우리 부대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다같이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여 눈굽을 적시었다.

작별을 앞두고 조국안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김**사령, 대원들 가운데서 전령병감을 한 명 골라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북만에 갔을 때와 꼭같은 경우를 당한 셈이였다. 그때 주보중도 나에게 조선족 출신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요구했었다. 그 청을 받고 동만부대에서 박낙권, 전창철, 안정숙, 박길송을 비롯한 많은 조선족 출신 대원들과 지휘관들이 북만부대에 파견되어 갔다.

≪조사장이 우리 동무들을 그렇게 믿어주니 감사합니다. 조선사람들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남만부대에 파견된 기관총수 강증룡

나의 이러한 물음에 조국안은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 이홍광, 이동광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선동무들에게 매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홍광이 소본량을 요정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간도사람들은 아마 다 모를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소본량이란 유하현 일대에서 안도의 이도선이나 무송의 왕가대장과 같이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약탈하던 위만군의 악질 고위장교였다.

바로 이 부대를 이홍광이 유하현 삼원포와 고산자, 양수하자 일대에서 녹여냈다는 것이다.

이홍광은 소본량을 녹여낸 다음 양수하자 부근에서 1군 지휘부가 적의 대병력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대담성과 높은 기지를 발휘하여 양정우를 구출하였다. 그때부터 양정우를 비롯한 1군 간부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용맹의 상징으로 총애하였다.

조국안은 이홍광이 전사했을 때 양군장 이하 1군의 모든 간부들과 대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왕청때부터 몹시 사랑해온 기관총수가 한 명 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증룡이라고 소대장인데 기관총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이지요.≫

알고보니 강증룡은 조사장과도 구면이고 2사 조직과장 송무선과도 구면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2사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강증룡은 이 조치를 알게 되자 내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정작 조국안의 수하에 간 다음에는 2사 지휘부 호위기관총소대장으로 잘 싸웠다고 한다.

그 후 조국안부대는 장백, 임강현경지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었다. 그들은 우리 밀영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도천리로 직행하여 거기서 한 주일가량 머무르며 지하조직의 도움으로 대열도 보충하고 밀영후보지도 탐색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나는 김재수에게 서면으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발동하여 그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줄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도천리를 비롯한 하강구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꾸려놓고 원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다. 그 조직들이 발동되어 2사를 대단히 성의있게 후원해주었다.

남만부대는 그들의 지지속에서 도천리골 안에 밀려든 정안군과의 싸움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1936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 인민들로부터 적정보고를 받은 부대지휘부에서는 적들을 야간매복전으로 소멸할 결심을 내리고 날이 어둡기 전에 도천리 포대거리골 안에 매복진을 쳤다. 매복지점은 마을 막바지에 있는 마지막 집으로부터 불과

10여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적의 대부대는 마을에 들어서자 집집에서 인민들을 끌어내다가 유격대의 행처를 대라고 강박하였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유격대가 코앞에 매복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결같이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실로 고마운 인민들이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비밀이 들장나게 되면 촌민전부가 앙갚음을 톡톡히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정황이였지만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유격대의 행처를 대지 않았다.

인민들의 희생적인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2사 동무들은 이날의 매복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다음날도 그들은 인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전날 전투에서 죽은 제놈들의 시체를 실으러 오는 20여대의 자동차 편대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적들을 전율케 하였다.

도천리에서 대열을 보충하고 전과도 크게 올린 조국안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희샤즈거우(곰의골밀영)에 가서 지낸 덕을 벌써부터 톡톡히 보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 조국안은 **김**사령의 신세를 잊을 수 없으며 당신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보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국안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2사는 임강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장백현 7도구 목재소 근처에서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었는데 이 전투에서 조사장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부대지휘를 당분간 송무선에게 맡기고 경위대와 함께 안전한 곳에 떨어져 상처를 치료하였다. 그런데 변절자가 그의 거처를 밀고하였다. 적들은 조국안을 사로잡으려고 사면에서 그의 거처를 포위해왔다. 경위대는 사장을 구출하기 위하여 결사전을 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도 보람이 없이 조국안은 결국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희생되었다.

나는 조국안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나에게 하던 말을 상기하였다.

≪**김**사령, 앞으로 조선을 해방하는 결정적인 작전이 시작될 때에는 나를 불러주시오. 그러면 부대를 데리고 **김**사령을 찾아가리다!≫

그것은 그가 나와 작별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조국안은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선해방은 물론, 사랑하는 자기 조국 중국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나는 그것을 못내 분하게 여기였다.

2사 군수부장 박순일이 조사장의 전사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것은 1937년초였다.

송무선은 사장을 잃은 슬픔과 장차 부대지휘를 어떤 방향에서 했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기탄없이 밝히고 자기들에게 활동방향과 관련된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지휘관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처지에 동정을 보내면서 그때로서는 대단히 수더구가 많은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 글에서 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서로 단결하고 합심하여 부대앞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과 부대관리에서 집체적 지혜를 높이 발양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나는 송무선에게 눈이 많이 내린 조건에서 적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이명수산지에 밀영을 꾸리고 신입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군사훈련에 주력하라는 의견을 준 다음 음력설이 지나 부대를 방문할 의향을 전하였다.

한 사람의 평범한 조객으로서 그들을 찾아가 조의를 표시하는 것은 생전에 고인과 유다른 친교를


홍두산전투장

맺어온 전우로서 응당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하였다. 사장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곁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었다.

홍두산전투가 있은 다음 나는 약속한대로 그들을 찾아 떠났다. 가는 도중에 도천리전투를 치르고 사문개정부락에서 하루밤 묵으면서 이명수 상류와 팔도구 방향에 정찰조들을 파견하였다.

2사 동무들은 통신원으로부터 우리가 사문개정부락에 와있다는 연락을 받자 저녁도 먹지 않고 밤중으로 달려왔다. 자정도 훨씬 지난 깊은 밤중에 그 동무들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김주현을 불러 손님들에게 대접할 떡국을 끓여놓으라고 지시한 다음 전령병을 데리고 마중나갔다.

내가 먼발치에서 인사를 하자 지휘관들이 달려와 두겹세겹으로 나를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살가죽이 너무 얼어서 포옹을 할 때마다 볼에 큼직한 얼음덩이가 와닿는 것만 같았다.

사장대리임무를 수행하는 송무선은 우리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는 우리 부대가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준 은인입니다.≫

≪조직과장동무,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남만유격대
정치일군 송무선

전에도 그랬지만 그날도 그는 나에게 유다른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내가 조국안을 동향인과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송무선도 나를 동향인과 같이 대해주었다. 그는 오리하자라고 부르는 길림근교의 농촌마을에서 청년운동을 하다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오리하자는 한때 이동광이 청년운동을 지도하던 고장이다. 그의 지도밑에 송무선을 비롯한 오리하자 지방의 청년들은 혁신청년회를 조직하고 그 주위에 청년들을 집결시키었다. 그 당시 영길현일대에는 신흥청년회, 전진청년회라는 간판을 가진 청년조직들도 활동하였다. 송무선은 혁신청년회의 조직위원이었다. 1928년 봄에 이 조직은 이동광에 의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고 후에는 다시 공청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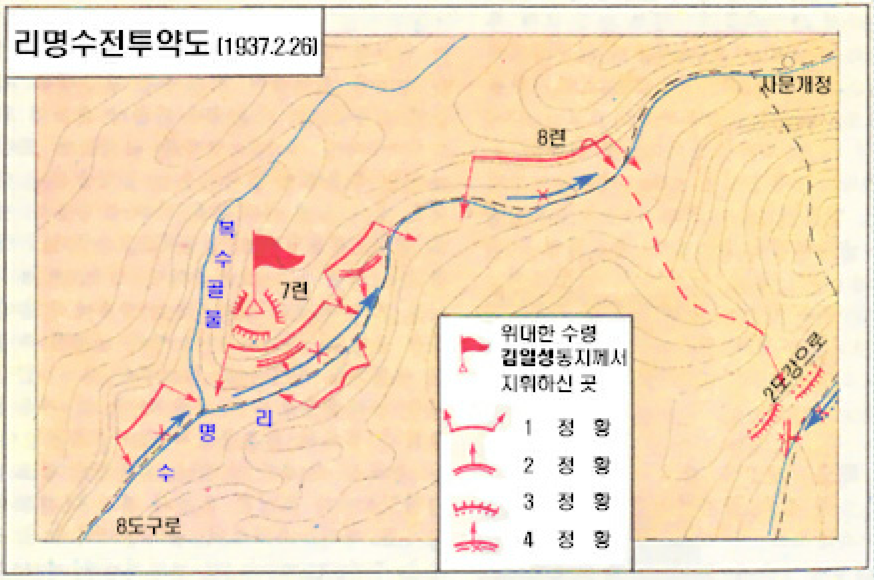
우리가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을 벌이자 오리하자의 청년조직은 동정시위를 벌이었다.

이동광이 오리하자 일대에서 청년운동을 지도하던 시기는 우리가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송무선은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정의부의 일부 간부들을 비난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수고하는 선배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고 내가 핀잔하자 그는 오히려 얼굴을 붉히면서 그보다 더한 말을 해도 체면에 어그러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정의부 간부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송무선은 그 대답으로 1928년 벽두 정의부가 소집한 길림지방회의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아마 이 회의에 송무선도 오리하자 대표로 참석했던 모양이었다. 회의에는 쌍하진대표, 강동대표, 신안툰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안건은 의무금 징수에 관한 문제였다.

그날 고이허는 정의부를 대표하여 과격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관할구역 백성들이 의무금을 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시켜서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연설이 발단이 되어 주최자측과 회의참가자들 사이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송무선도 오리하자를 대표하여 반박연설을 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회의



가 끝난 다음 고이허가 파견한 테러분자들에게 매를 맞고 졸도하였다.

송무선은 왕청문에서 발생하였던 국민부의 테러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오동진이며 현묵관이며 고원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림과 관련된 생활이면 자그마한 세부까지도 다 말하였다. 곰의골밀영에서 함께 지내던 그 나날에야 길림시절을 두고 무슨 이야기인들 나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여기 사문개정의 농가에서는 나도 송무선도 길림시절을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조국안사장만을 추억하였고 조국안이 없는 사단의 운명과 전망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우리는 2사 동무들에게 떡국을 대접하였다. 대식가로 알려진 한 중국인지휘관은 떡국을 세 사발이나 먹었다. 그는 오늘에야 진짜설을 쇠는 것 같다고 하였다. 고력보자목재소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적의 추격에 걸려들다보니 점심식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부대와 2사의 지휘관들은 새벽에 이명수 전투를 위한 연합작전회의를 하였다.

나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적들이 새날의 정오경에는 우리한테 밀려오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주목을 우리한테 끌기 위하여 이명수 쪽으로 이동한 자취를 일부러 많이 내게 하였다. 이도강 쪽에서부터 오는 적들은 이명수골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또 2사 동무들이 고력보자를 치고 조우전을 하다가 이명수골로 들어왔으니 팔도구 방면의 적들도 분명 여기로 들이닥칠 수밖에 없었다.

양쪽에서 밀려올 적들을 족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복지점은 이명수의 북수골물이 합치는 합수지점 부근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명수골에 들어설 때부터 그 지점을 점찍어두었다.

나는 작전회의 참가자들에게 새날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적들의 행동기도를 알려주고 두 부대가 연합하여 큰 규모의 적들을 요정낼 수 있는 매복전투를 치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매복전투의 승패는 은밀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는 것만큼 날이 밝기 전에 조반식사를 끝내고 매복지점에 가닿아야 한다는 것과 각 부대들이 매복

진지를 차지한 다음에는 연기를 피우거나 말소리, 기침소리를 내거나 진지를 이탈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명령없이는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적들에게 들이댈 함화 내용과 방법, 포로취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뒤이어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분담하였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적정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나의 제의에 따라 출발준비를 갖춘 두 부대는 한자리에 모여 조국안사장의 추도모임을 가지었다. 나와 송무선이 각각 추모연설을 하였다.

이명수는 장백현 모두덕 분수령에서 서쪽으로 흘러 팔도구하에 합쳐지는 강이다. 사문개정은 이 강의 상류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였다. 거기서 강줄기를 따라 15리쯤 내려가면 열대여섯 호 될까말까한 순 조선사람들의 화전마을이 있었다. 그것이 이명수촌이였다.

부대들은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매복진지를 차지하고 전호들을 팠다. 주변의 가파로운 산비탈들은 깊은 눈에 뒤덮였고 이명수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강추위로 뼈속까지 얼어드는 날이였지만 전투원들의 사기는 아주 높았다. 우리가 지휘한 전투는 언제나 승전한다는 소식을 들어온 남만동무들은 출전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이번 싸움은 대승할 싸움이라고 장담하였다.

나는 주역량을 합수목 근처의 산등성이에 배치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새로 만든 밭들이 있는 등성이인데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쏘기에 편리한 위치였다. 고지의 중심에 나의 지휘처를 정하고 앞에 우리의 7연대와 경위중대를, 좌측에 8연대를, 우측에 2사 전투원들을 매복시켰다. 골짜기 건너편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는 육칠십 명의 용사들로 구성한 돌격대들을 매복시켰다. 그 두 산과 마주 서있는 높다란 건너편 산은 밀림으로 뒤덮인 험산이여서 그쪽으로는 우리한테서 얻어맞은 적들이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매복구역 건너편은 100미터 가량의 폭을 가진 평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적들을 전멸시키는데 적합한 집중사격구역이였다.

나는 이도강 쪽에서 오는 적과 팔도구 쪽에서 오는 적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양쪽방향에 각각 1개 분대가량 되는 방차대를 파견하였다. 방차대들에서 보내오는 수기신호를 받기 위한 받을초는 우리의 뒷산에 배치하였다. 전투원들은 전호속에 엎드려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점심때가 지나도록 적들은 얼씬하지 않았다.

≪놈들은 안오는 게 아닙니까?≫

지루해난 백학림이 이빨을 덜덜 맞쪼으며 귓속말로 물었다.

≪너무 조급해마오. 이제 꼭 오게 될 테니까.≫

나도 사실은 이빨을 맞쪼으며 온몸을 떨었다.

전투원들은 눈속에 엎드린 채 꽁꽁 언 강냥떡을 꺼내 먹었다. 나는 백학림이 자기 배낭에서 꺼내주는 언 강냥떡 한 개로 점심을 굼뗐다. 날씨가 어찌나 맵짰던지 쇠붙이에 손을 닿으면 떡떡 얼어붙고는 하였다.

적들은 오후 2시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2월의 강추위에 한시간도 아니고 8-9시간이나 눈속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더한 간난신고도 참고 견딜줄 알아야 하였다. 여기서 치명상을 받게 되면 적들도 더는 우리에게 함부로 달려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였다.

오후 5시경에야 팔도구방향의 동남쪽고지에 나가있는 방차대로부터 적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왔다.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위만군장교가 인솔하는 척후대가 앞장에 서고 그뒤로 일본 지도관이 거느린 기본대열이 느릿느릿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전령병을 보내어 선두척후대는 지나보내고 본대의 뒤꼬리가 우리 매복권 안에 들어선 다음에 사격명령을 내릴 터이니 함부로 사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부대에 전달하게 하였다.

적들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날씨가 급작스레 사나와졌다.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시꺼멓게 뒤덮이었다. 눈만 없었다면 음산한 저녁대지는 캄캄한 어둠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차디찬 강풍이 북쪽으로부터 우리를 후려갈기었다. 눈보라 때문에 적들은 눈도 바로 뜨지 못하였다.

나는 적의 기본대열이 우리의 매복권안에 완전히 들어서기 바쁘게 신호총을 쏘았다. 400여 자루의 보총과 여러 정의 기관총들이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었다. 사격에 이어 한익수에게 돌격나팔을 불게 하였다. 적들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과는 컸다. 적 100여 명을 살상하고 2개 중대를 투항시켰으며 3정의 경기관총을 비롯하여 150여 정의 보총, 많은 탄알을 노획하였다. 살아서 도망칠 수 있은 것은 선두의 척후병들 뿐이었다.

팔도구 쪽에서 온 적들을 한창 족쳐대고 있을 때 이도강 쪽에서 온 적들은 골짜기에서 울려오는 요란한 총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방차대성원들이 나가있는 산코숭이앞에 멈춰서고 말았다. 우리의 방차대원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적의 무리를 향하여 몰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은 살상된 동료들을 그냥 내버린채 황황히 도망치고 말았다.

나는 사문개정 마을의 가가호호에 적의 부상병들을 업어들여다 치료도 해주고 식사도 시킨 다음 성한 포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우리에게 여섯번이나 붙잡혀 여섯자루의 총을 바쳤으니 자기는 유격대를 도와준 공로자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 위만군 포로의 유명한 일화가 생겨난 것이 바로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이명수전투로 인하여 팔도구방면의 적들은 ≪동기대토벌≫의 주력을 잃게 되었다. 유격대를 전멸시킨다고 호언장담하던 적들의 위세는 땅바닥에 구겨박히고 ≪동기대토벌≫놀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이명수전투의 승리로써 적들의 ≪대토벌≫작전에 종지부를 찍어놓은 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수전투는 각별한 감회를 자아내는 전투였다. 2사 동무들은 사기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나는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사단의 장래활동에 필요한 조언도 주고 그들이 도천리와 천상수 일대 조국광복회조직들의 방조밑에 안전하게 활동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토론해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일러준대로 도천리골 안에 깊숙이 들어가 밀영을 건설하고 따스한 계절이 올 때까지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하면서 조용히 지냈다. 도천리지하조직에서는 그때 그들에게 광목과 미투리와 큰 버선을 비롯한 수많은 원호물자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남만전우들의
피가 어린 산과 들

내가 남만동무들을 다시 만난 것은 햇풀이 돋기 시작한 5월 중순경 이명수마을에서 서쪽에서 좀 떨어진 어느 한 산등성이에서였다. 밀영에서 편안히 지낸 2사동무들은 혈색들이 좋았다.

그런데 나를 몹시 딱하게 한 것은 그 부대에 속해있는 조선동무들이 좀처럼 내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우리 부대에 편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 허락해달라고 성화를 먹이였다.

나는 그들을 설복하느라고 목이 쉴 지경이었다.

우리가 중국동무들과 연군을 편성해가지고 싸우는 것은 순수한 조선사람들로만 부대를 꾸리고 싸우는 것보다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방조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동무네 부대는 1군에 속하지만 조선사람이 절반나마 되는 것만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별동부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라. 그런데 모두가 우리한테로만 오겠다고 하면 사면팔방의 적들과는 도대체 누가 싸우겠는가. 남만쪽의 적들은 동무네를 비롯한 1군동무들이 족치고 동만쪽의 적들은 4사동무들이 족치고 북만쪽의 적들은 북만동무들이 족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백두산일대의 적들과 잘 싸울 수 있다. 동무들이 사처에서 적들을 붙들어두지 않으면 그 적들이 몽땅 주력부대를 괴멸시키자고 벌떼처럼 덤벼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육성한 우수한 군정간부들을 북만부대들에도 보내고 남만부대들에도 보내주고 있는데 동무들은 모두 우리곁에만 와있겠다니 딱하지 않는가. 나라를 찾겠다고 부모처자 곁에서도 떠나온 사람들인데 항일대전의 승리를 위하여 사적 감정을 초월하자.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은 다음에는 우리모두가 한군데 모여 살면서 옛말을 해보자고 설복하였다.


남만유격대
참모성원 손용호

사실 나는 남만동지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고는 하였다. 그런 일은 한두 번만 있지 않았다.

우리가 남만에 보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끌끌한 남아대장부들이었다. 이동광과 이민환도 경력을 따지면 동만에서 선발되어 남만으로 간 사람들이었다. 1937년 3월에 조국안의 후임으로 사장을 맡은 조아범이 너무나 욕심을 내기때문에 나는 전령병 김택만이도 그에게 붙여주었다.

1군 총무처장이었던 손용호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우리가 조직한 유길학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학우였다. 그는 음악과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은 동무였다. 체격이 좋고 용모도 준수하여 길림바닥의 처녀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그는 사범학교의 높이뛰기선수였으며 바이올린연주가였다. 손용호는 그 후 공청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감옥에서 얼마동안 시련을 겪었다. 출옥 후 연길현 오리하자에서 농촌혁명화에 힘쓰다가 이듬해 남만 반석현에 가서 현당기관지인 ≪반일청년일보≫의 주필로 있었다. 1937년 겨울부터 그는 1군 지휘부에서 총무처장으로 사업하였다. 나는 1938년 겨울 남패자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손용호는 그때 몹시 반가와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가 서너달후에 푸르허 근처의 어느 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다.

남만유격부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웃에서 활동한 1군 2사에 더 많이 돌려졌다. 그들은 보천보전투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모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간삼봉전투는 우리 주력부대와 4사, 1군 2사의 연합으로 진행된 전투였다.

1군 2사와 우리 부대는 몇 해 동안 백두산 서남부 일대에서 공동투쟁을 잘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 적들의 경찰문건이나 신문자료들에서 나의 이름과 조국안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되는데 이것은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이 어깨를 겯고 공동투쟁, 공동작전의 어려운 길을 개척해온 산 역사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우리의 혁명투쟁이 승승장구하던 그 나날들을 회상할 때면 1군 2사의 전우들을 추억하곤 한다. 조국안, 송무선, 박순일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는 그 얼굴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내 눈앞에 정답게 안겨온다.

5. ≪3.1월간≫



3 · 1월간

인류생활에 미치는 출판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어 과거의 온갖 세계는 몇 개의 미개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는 이미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출판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였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시대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출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출판물을 가리켜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라고도 표현한다.

혁명적 출판물은 또한 수령과 당, 대중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레닌은 신문 ≪이스크라≫를 발간하면서 그 첫 호에 ≪한 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타오르라≫는 글발을 제사로 실었는데 이것은 전세계가 공명하는 금언으로 되였다. 이 제사속에 나오는 불꽃은 그 후 10월의 불길이 되어 러시아의 대지에 타번지였다.

나를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데서도 실상은 출판물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명언 가운데는 검이 못하는 일을 붓이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새날≫과 ≪볼쉐위크≫와 ≪농우≫를 발간하면서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참맛을 보았으며 그 출판물들에 종이나 검에 못지 않은 기대를 걸었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우리가 백두산에 앉아서 ≪3 · 1월간≫이나 ≪서광≫같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을 잊지 말고 조국동포들을 잊지 말자고 호소하면 그 목소리를 남북만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다 듣게 된다.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여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흔히 구두선전은 ≪입대포≫, 연예활동을 통한 선전은 ≪북대포≫,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붓대포≫ 또는 ≪글대포≫라는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고는 하였다.

구두선전이나 연예활동에 의한 선전은 출판물선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르고 선동성이 강하지만 그 대신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지속성이 있고 지역적인 제한성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국체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동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가차없이 무찔러버리는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선전활동은 부득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격전쟁에 가장 적합한 선전선동수단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우리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붓대포≫를 발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된 후 거기에 출판소를 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월간≫을 창간하였다.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큰그릇에 각계각층의 민중을 다 담아가지고 항일대전을 거족적인 경지에로 끌어올리자면 ≪입대포≫나 ≪북대포≫도 잘 써먹어야 하지만 특히 ≪붓대포≫가 은을 내게 해야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정치공작은 다분히 지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의 통일전선공작판도는 주로 만주지방과 조선의 북부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광복회는 그 판도를 조선전역과 중국본토, 일본, 쏘련,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은 해외의 모든 곳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깃발을 날리려고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지에 공작원들을 자주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공작원들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었다. 유격투쟁의 초기부터 동만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많이 해본 군정간부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북만에 떼두고 오다나니 일군들이 부족하였다.

일군의 부족에서 오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도가 바로 출판물에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리면 그 한부한부의 잡지나 신문이 곧 한명한명의 공작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여 기관지를 제때에 내오지 못하였다. 그 당시는 싸움도 많았고 유동도 심했다. 우리는 언제나 적의 사면포위속에 있었다. 등짐을 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를 걸어야 했다. 적들은 우리에게 출판물을 발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되고 그 밀영에 출판소가 꾸려지게 된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을 가질 수 있었다. ≪3·1월간≫은 2천만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이념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담은 대중정치이론잡지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의 사명에 알맞는 제호를 고르려고 애를 쓰다가 ≪3·1월간≫이라는 네글자를 찾아냈다.

≪3.1≫은 3.1 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거족적으로 대항해 나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이였다.

그러므로 ≪3·1월간≫이라는 제호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와 함께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3·1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 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

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아지나 종교인들, 독립군병사들까지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비서처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3 · 1월간≫편집부를 꾸리고 주필로 기자경력을 가진 이동백을 임명하였다.

이동백의 주관하에 편집성원들은 창간호 발간준비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잡지의 편집방향과 출판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논의를 많이 하였다. 이상적인 편집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출판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 국내출판계에서는 신문과 잡지들의 폐간, 정간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잡지들은 무조건 탄압을 당하고 폐간되어 사실 참고로 삼을만한 잡지라고는 몇 종 되지 않았다.

≪3 · 1월간≫편집성원들은 참고적으로 국내잡지들을 들춰보았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따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창발적으로 새롭게 탐구하였다.

우리는 ≪3 · 1월간≫을 대중정치이론잡지형식을 갖추게 하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일관시키기로 하였다. 매호에 사논설을 주는 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비서처가 속해있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 안의 필진들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부대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만, 남만, 북만의 주요 지점들에 ≪3 · 1월간≫잡지의 특파원들을 두었으며 광범한 독자들의 투고를 장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3 · 1월간≫편집사업을 독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잡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독자들이 편집내용을 풍부히 하고 편집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보내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색하던 끝에 이동백은 투고규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만든 투고규정을 읽어보니 구미가 동하였다. 그 규정을 읽으면 글재간이 둔한 사람도 붓을 들고 그 무엇인가를 일사천리로 쓰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있었다. 그 규정의 앞머리에는 각계 애국지사의 명론탁설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고를 환영한다는 청탁문이 실려있었고 그 뒤로는 원고내용에 따르는 글자의 수와 투고방법, 열성투고자에 대한 우대적용 등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조직선을 통해 그 규정을 내려보내고 창간호에도 ≪투고환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하였다.

투고규정을 내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원고들이 많이 날아들어왔다. 그 원고들을 받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대통영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도 투고된 형형색색의 글들을 기쁜 마음으로 거의 다 읽어보았다.

양세봉독립군의 참모장이 보내온 축하편지에도 조국광복회창립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남만에서 조국광복회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이동광과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박아무개교포대표와의 상봉소식을 적어보낸 글도 매우 인상적이였다. 상해교포대표는 북경, 천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곳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조국광복회창립소식을 듣고 남만에

까지 찾아와서 국내외에서 조국광복회를 축으로 통일적인 전선을 전개할 데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을 중국본토의 광활한 지역에 뻗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리는 그 원고를 받자 곧 유능한 정치일군 한 사람을 이동광에게 파견하였다.

이처럼 ≪3·1월간≫의 발간준비과정에 편집부는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통신처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한 구위원회가 인민혁명군을 고무하기 위하여 축기를 준비하면서 보내온 편지도 역시 감동적인 사연으로 엮어져 있었다.

≪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동정에 의하여 자기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1전, 2전 혹은 1원씩을 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모은 총액은 8원 71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군수품을 사서 보내려고 하여도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전체 애국동포들의 의견에 의하여 환영기를 만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는 성의껏 보내온 그 편지들을 모두 창간호 지면에 싣게 하였다.

창간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던 원고들이 예상외로 넉넉히 마련되자 ≪대통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 하루는 그가 사령부에 나타나 싱글벙글하면서 내 앞에 여라문장의 백지를 불쑥 내놓았다.

≪다른 원고밀천은 든든합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창간사와 논설만 있으면 편성에 들어가겠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조국광복회 회장동지가 써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주필은 무얼 하겠습니까. 문장가로 소문난 주필선생이 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밀어제끼고 그 자리를 가로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간사야 응당 주필선생이 맡으셔야지요.≫

나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수난의 길을 걸어온 그 성실한 문필가에게 창간사를 맡기어 가슴에 쌓였던 망국의 설움을 마음껏 터치고 2천만겨레를 향하여 내뿜고싶었던 불같은 말들을 실컷 외치게 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어이 창간사를 떠맡기었다.

그 대신 나는 ≪3.1운동의 회고≫라는 제목의 논설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쁜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제때에 써주지 못하였다. 어쩌다 짬을 내어 집필을 시작하던 때에 공교롭게도 밀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적 ≪토벌대≫가 우리 밀영쪽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통보가 들어와서 전장으로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그리웠던 것은 김혁과 최일천이였다. 카륜과 오가자 시절의 막역지우들이었던 ≪볼쉐위크≫의 주필 김혁과 ≪농우≫의 주필 최일천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장가들이였다.

시인인 김혁의 글이 범람하는 장강처럼 호방하고 격동적이였다면 최일천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 김혁은 ≪볼쉐위크≫에 자기가 순수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이따금 편집해넣곤 하였다. ≪볼쉐위크≫에 내보낸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이다.

≪자본주의사회 저주가≫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착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였고 ≪반파벌가≫는 감자도장이나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등에 업혀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발가놓은 풍자가요였다.

김혁이나 최일천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대통영감≫의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

주었을 것이다.

나는 3.1운동에 대한 회고논설도 조국광복회창립문건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대본들처럼 적들과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짬시간을 내어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3 · 1월간≫창간호 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출판기자재의 구입이였다. 그때 우리에게는 낡은 등사기 한대밖에 없었다. 등사잉크도 로라도 등사원지도 종이도 다 부족하였다. 출판소의 일군들은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다. 등사잉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깔을 해씌우고 봇나무껍질을 태우면서 고깔에 붙은 그을음을 긁어모았다. 그 그을음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등사잉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라가 못쓰게 될 때에는 아교에 송진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형틀에 부어 만들어냈고 강필이 못쓰게 되면 돗바늘을 가지고 만들어 썼다.

≪3 · 1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울만한 것이였다.

그 노력은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1936년 12월 1일 ≪3 · 1월간≫창간호가 마침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그 날 ≪대통영감≫은 맨처음으로 제책된 창간호 한 부를 들고 와서 말하였다.

≪덧없이 흘러간 나의 한 생에서 그래도 값있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3 · 1월간≫ 창간 호를 만든 것입니다. 장군님, 바쁘시더라도 ≪3 · 1월간≫의 고고지성을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그는 격정에 넘쳐 창간사의 첫 대목을 읽었다.

≪우리 조선이 강도왜놈들에게 강점되어 2천3백만 백의민족이 일제의 망국노예로 된 후 우리들의 생명과 인권은 개나 돼지만큼도 못하였다.≫

≪3 · 1월간≫은 발행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창간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반영이 대단하였다. 각 지방의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는 ≪3 · 1월간≫의 발행을 축하하는 환영인사와 함께 배포부수를 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편지들을 보내왔다. 조직의 명의로 다음호의 잡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3 · 1월간≫ 발행에 필요한 출판기자재 명세를 작성해가지고 그 해결방도를 한창 모색하고 있을 때 박달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성능좋은 새 등사기 2대를 해결하였다. 단천역에 도착한 등사기를 각각 한 대씩 감자포대 안에 넣어가지고 달구지로 갑산까지 운반하였는데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산속에 종일 숨어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민족해방동맹 출판부가 자리잡고 있던 오풍동에 가져갔다고 한다.

박달은 처음에 그 등사기를 다 우리 밀영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대만 우리가 쓰고 한 대는 갑산에 떨구어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지를 발간하게 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는 ≪화전민≫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박달이네가 구해보낸 등사기의 성능이 아주 좋았다. 낡은 등사기를 사용할 때보다 능률이 몇 배나 높아 다음호부터는 잡지를 수백 부씩 밀어냈다.

≪3 · 1월간≫의 인기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이 이 잡지를 애독한 것은 편집형식이 참신한 데도 있었지만 주로는 그 내용이 민족통일전선의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3 · 1월간≫을
찍던 등사기

한다. 이것은 이 잡지가 민족앞에 나선 시대적 과제를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파쑈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워 전민항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3·1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인민혁명군 참군자들의 대열과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열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방의 ≪붓대포≫가 이렇게도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포≫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였다.

박인진은 언제인가 권영벽을 만난 자리에서 영북의 거의 모든 천도교인들을 단시일내에 조국광복회조직망에 망라시키는데서는 ≪3·1월간≫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3·1월간≫을 만들어내는데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백이다.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에도 그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3·1월간≫의 창간과 발행에 바친 그의 수고에는 비길 바가 못된다. 그는 인생말년을 완전히 ≪3·1월간≫과 함께 살았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대통영감≫만큼 종이를 아껴쓰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나뭇잎사귀만한 종이도 다 건사해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글씨를 깨알같이 박아가며 아주 요긴하게 쓰고는 하였다. ≪대통영감≫은 글을 쓸 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말아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 자신은 늘 대통으로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 그가 대통에 담배를 담아 피우게 된 동기도 종이를 아끼려는데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연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 대통이 이동백으로 하여금 퍼그나 많은 종이를 절약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그 대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일생동안 수천 매에 달하는 종이를 소비하였을 것이다.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를 써야겠다고 하면서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배낭속에 정히 간수하던 ≪3·1월간≫ 주필 이동백은 양목정자밀영에서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고 희생되였다. 적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약자들과 함께 ≪대통영감≫을 사살하고 밀영에 불을 질렀다. ≪대통영감≫이 귀중히 여기며 고이 보관해왔던 많은 문건들과 사진자료들, 일기책들이 그때 그의 육신과 함께 불타서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독립된 조국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여겨오던 그 역사자료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재가 되어 날아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분함을 금할 수 없다. 그 큼직한 보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 –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장군님앞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는 대통영감

따리들속에서 그가 쓴 일기책들만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훗날 양목정자 밀영에 갔을 때 나는 불탄 초막자리에서 그의 유골을 찾아 손수 안장해주었다. 생전에 이동백이 그처럼 애용하던 대통만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의 유물로 남겨둘만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것은 그 걸출한 늙은 인텔리혁명가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감회깊은 추억뿐이였다. 그런데 몇 해전에 백두산밀영이 발굴되면서 그의 필적으로 된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었다. 나는 마치 살아있는 ≪3·1월간≫의 주필을 만나보는 것 같아 그 구호나무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김영국

이동백은 항일혁명시기에 내가 만나본 모든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양심적이고 혁명적이며 박식한 인텔리의 한 사람이였다.

각이한 나라들에서 각이한 시대에 산 인텔리의 선진적 대표자들은 사회 혁명과 개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근대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혁명운동발전에서 인텔리들이 논 역할이 매우 크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동백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는 1920년대에 우리 나라 인텔리들이 걸을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을 걸어 항일무장투쟁대오에까지 들어선 혁명적 인텔리의 대표자였다.

이동백은 우유부단하고 동요하던 인텔리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무력항쟁에 복무하는 진짜배기 혁명적 인텔리로 된 사람이였다.

백두산 시절의 대내출판일군들 중에서 이동백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문필가는 국내의 적색농조에서 활동하다가 박달과 이제순의 줄을 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김영국이다.

그는 군인으로서는 ≪갑≫의 계열에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였으나 문필능력으로 보면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재간둥이였다. 그가 강필글을 쓴 것을 보고서는 기계로 찍어낸 것 같다고 하면서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는 하였다. 하루저녁사이에 원지 여라문 장씩 써내면서도 글체가 활자처럼 일매져 ≪대통영감≫한테서 늘 칭찬을 받았다.

흠이라면 자유주의가 있고 건망증이 심한 것이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였던지 언제인가는 휴식장소에 총을 놓아둔 채 거의 20리나 걸어가서야 ≪아뿔싸, 내 총!≫하고 허둥거리며 되돌아간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단단히 비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다.

≪총은 동무의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제 목숨까지 떼두고 떠나는 그런 얼떨떨한 정신을 가지고 글은 어떻게 짓소?≫

처벌이 해제된 다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국은 뒤더수기를 긁으면서 비위좋게 ≪세계적인 문호들은 거의 다 건망증이 많았습니다≫하고 대답해서 나도 ≪대통영감≫도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열정적인 문학도였던 김영국은 짬만 있으면 시나 소설작품을 창작하고는 하였다. 우리가 1937년에 대내기관지로서 발간한 신문이었던 ≪서광≫의 지면에는 그의 작품들이 여러 편 실리었다.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되는 것은 ≪서광≫의 창간호에 ≪남의 집 남편은 혁명군에 갔는데 우리 집 남편은 자위단에 갔다≫는 구절이

들어있는 네댓편짜리 가사가 게재되었던 사실이다. 김영국은 그 가사를 발표하면서 ≪아리랑≫곡조에 맞춰 부르라는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서광≫의 2, 3, 4호에는 그의 단편소설이 연재되었다. 그는 ≪서광≫의 주필이였다. 그 젊고 재능있는 문필가는 1938년 가을에 김주현과 함께 허약자들과 부상병들을 위해주려고 산청을 털다가 적 ≪토벌대≫의 저격을 받아 그만 아깝게도 너무나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났다.

주간정치신문인 ≪서광≫에는 유격대원들을 위한 정치군사학습자료들도 많이 실리었다. 내가 집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도 ≪서광≫에 발표되었다.

≪서광≫의 열성필자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낸 또 하나의 인물은 임춘추였다. 그는 김영국을 도와 ≪서광≫의 편집과 발간에 적극 참여하였다.


최경화

≪종소리≫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발간한 대내주간신문이였는데 군정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군사학습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주로 실곤 하였다.

≪종소리≫의 주필사업은 최경화가 담당하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려운 신문발간사업을 능숙하게 주관하였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은 비결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섭취한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자습으로 대학입문서들을 독파하였다.

그가 하는 말은 하루종일 들어도 싫지 않았다. 독자들이 하품을 하면서 읽는 눅거리 통속소설도 일단 그의 입만 거치면 일류급의 명작으로 되곤 하였다. 말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쟁기였고 재산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선동연설을 많이 시키였다. 인민들이 그의 연설만 들으면 홀딱 반하였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청년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가 적들의 추적을 피하여 장백으로 망명해온 사람이였다. 장백에 와서는 서당훈장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계몽에 몰두하였다. 물론 조국광복회조직에도 인차 가입하였다. 그는 권영벽의 공작선과 연계를 가지면서부터 17도구 당지부 조직부책임자로, 성진(김책시) 방면 정치공작원으로 되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지하사업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입대하자 여대원들은 미남자가 왔다고 수근거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생김새보다 재능과 인품에 더 마음이 끌리었다. 최경화는 글재주도 뛰어나고 그림도 썩 잘 그리는 보기 드문 재사였다. ≪종소리≫의 삽화는 대부분 그가 직접 그려넣은 것이였다. 정치상학시간에는 강사로 나섰고 전투장에서는 선참으로 돌격에 나서곤 하는 선봉투사였다. 1933년 초에 있은 정안툰전투때에도 최경화는 자진해서 돌격조에 망라되어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였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고 최후를 마치었다.

최경화와 같은 훌륭한 전우를 잃은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나는 그가 전사한 날 밤 새껏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사를 썼다. 우리는 혹한속에서 그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대내의 반일청년동맹기관지였던 ≪철혈≫은 1939년 말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발간된 속보형식의 주간신문이였다. 이동백, 김영국, 최경화와 같은 쟁쟁한 필진들이 이미 다 우리 곁을 떠난 뒤여서 출판물의 편집과 발행은 조학도들에게 떠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요령을 배워주며 일을 시켜갈 셈치고 사령부 당지부사업과 청년동맹사업을 겸해서 맡아보던 강위룡에게 ≪철혈≫발간을 위임하였다. 처음에 강위룡은 두

손을 내저으며 그런 일만은 못하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강권을 해서야 그는 마지못해 분공을 받아들이였는데 대중의 도움을 받아가며 결국은 별 손색없이 신문을 만들어내고는 하였다.

≪철혈≫도 ≪3 · 1월간≫이나 ≪서광≫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철혈≫첫호에 실린 이을설에 대한 소개기사와 날창만으로 적의 신식 체코제 기관총을 노획한 한 신입대원의 전투담은 그런 긍정자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위룡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끝낼 무렵에 우리는 청년들의 용감성과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전투에서 무훈을 세운 청년들에게 영예의 붉은띠를 수여하는 제도를 새로 제정하였다. 띠를 수여받은 대원은 명절날이나 부대가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경사로운 날에 그것을 군복위에 띠고 지내도록 하였다.

군정학습총화를 계기로 발간한 ≪철혈≫ 특간호에는 학습총화에 대한 기사들과 아울러 새로운 표창제도의 제정소식 같은 것도 실어줌으로써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적 출판물들은 독자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영웅적 위훈의 고무자로 되고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었으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었다.

≪3 · 1월간≫을 비롯한 항일혁명시기의 우리 출판물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몇몇 인재들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독자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집필, 편집,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판물을 만드는데서도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에 의거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우리 부대가 남패자에 머물러있을 때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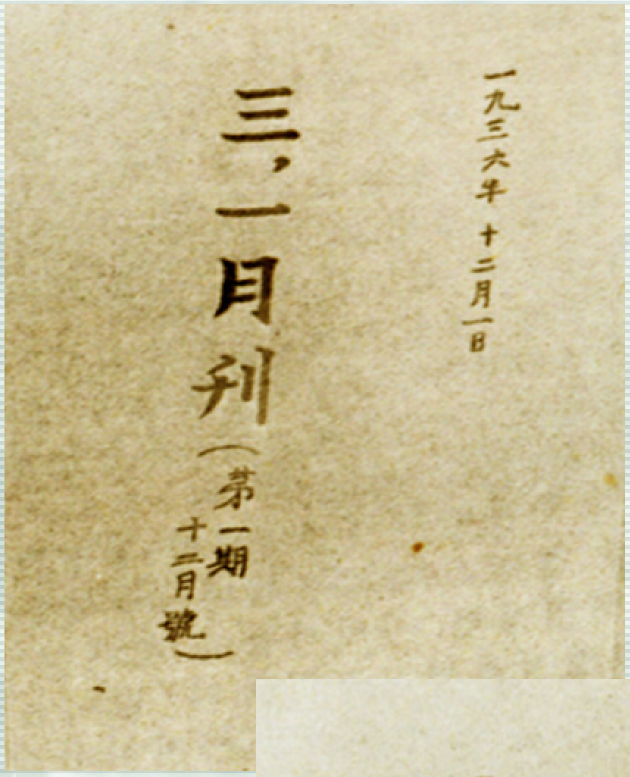
어느 날 밀영을 거닐던 나는 한 여대원이 숲속에 홀로 앉아 공책에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골똘했던지 그는 인적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혀끝으로 연필심만 적시며 그 심끝에서 탁수방울처럼 힘들게 떨어지는 글에만 음해있었다. 무슨 글을 쓰는가고 물었더니 농촌에 나가서 침투할 선전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글을 읽어보고 몹시 놀랐다. 소학교 중퇴생의 글치고는 매우 활달하고 세련된 글이었기 때문이였다. ≪재만조선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그 글은 씨가 있고 주장이 뚜렷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약간 수정가필하여 ≪3 · 1월간≫에 실어주었다. 독자들이 그 잡지를 읽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이처럼 소학교조차 변변히 다녀보지 못한 평범한 작식대원들도 우리 출판물의 필자로 되었다.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에 의해서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3 · 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과 같은 출판물들을 발간해낼 수 있었으며 혁명적 출판물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마련해놓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최고상으로 ≪3 · 1월간상≫을 수여하는 표창제도가 제정되어 있다. 이동백이 살아있었더라면 제1호 ≪3 · 1월간상≫은 그에게 수여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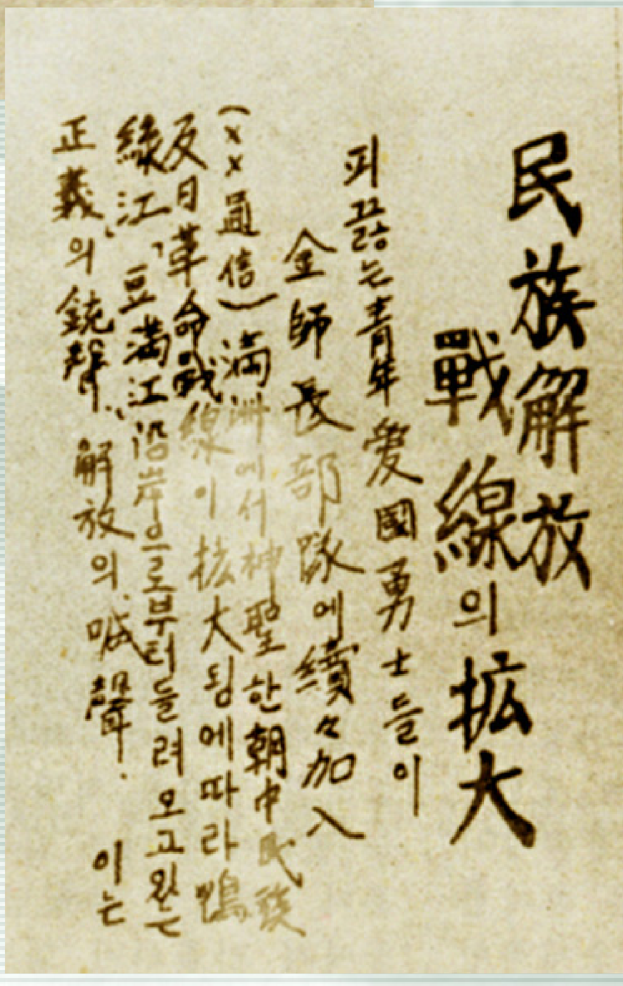
나는 우리의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메달 하나 달아보지 못하고 돌아간 혁명적 출판계의 제1세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一九三六年 十二月 一日

三,一月刊

(第一期 十二月號)



民族解放
戰線의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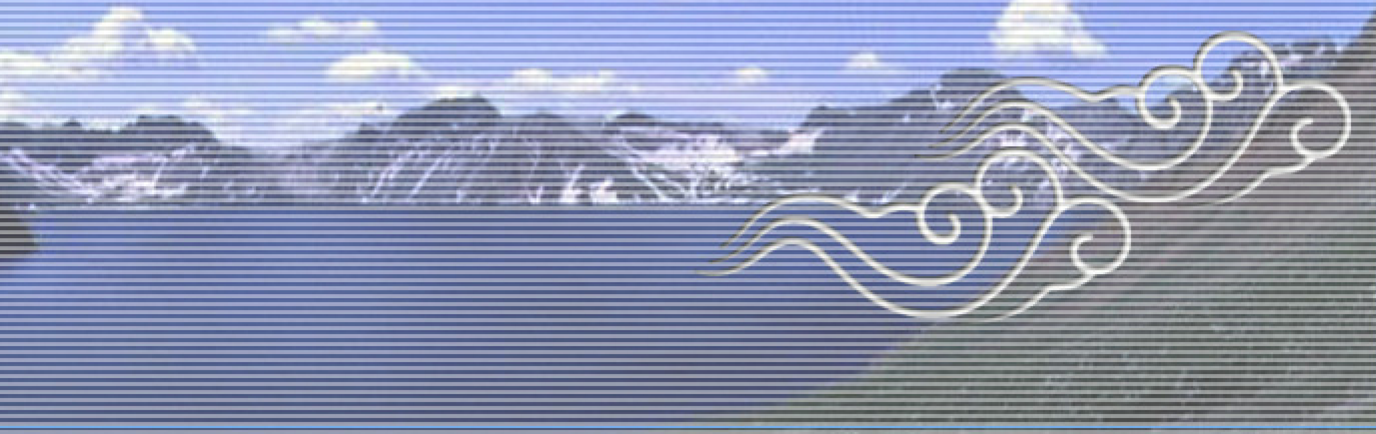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피끓는 青年愛國勇士들이
金師長部隊에 續々加入

(××通信) 滿洲에서 神聖한 朝中民族
反日革命戰線이 擴大됨에따라 鴨
綠江, 豆滿江沿岸으로부터 들려오고있는
正義의 銃聲, 解放의 喊聲. 이는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

제15장





지하전선의 확대

불굴의 투사 박달
국내당공작위원회
백두산기슭에서의 싸움
박인진도정
민족종교 천도교를 두고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양민보증서

■ 시기 : 1936. 12 ~ 1937. 3

1. 불굴의 투사 박달



국내당 작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족해방동맹 책임자인 박달

박달은 단 한 번도 군복을 입은 적이 없었고 나와 한 부대에서 싸운 적이 없었다. 내가 백두산지구에서 박달을 만난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두어 번은 내가 자리를 뜨고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한두 차례의 상봉으로 생면부지의 상대를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헐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루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과 같이 나와 박달 사이의 호상이해는 첫 번째 상봉만으로도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순과 마찬가지로 박달도 세파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파벌에 속하였던 적도 없었고 주의자행세를 하면서 거드름을 부린 적도 없었다. 박달은 내가 길림시절에 많이 만나본 김찬이나 안광천과 같은 유행식 운동자가 아니였다.

그는 산골사람다운 농민적인 순박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과 몸가짐이 세련되고 식자도 풍부하였다. 첫 상봉으로도 무게가 있는 사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었다. 자기식으로 종래의 여러 운동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민족의 출로를 두고 걱정도 하였다. 그는 종래의 낡은 운동방식을 타파할만한 지도자를 찾지 못해 흥남에도 가고 단천에도 가고 간도땅에도 갔었다고 한다.

박달이 자기를 이끌어줄만한 영솔자를 찾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된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내세운 전략적 과업은 한편으로는 국내에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책원지, 비밀거점을 꾸리는 것이였으며 다른편으로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을 마련함으로써 자력광복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였다.

국내에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꾸리는 사업은 조국광복회망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과 함께 국내에 강력한 당조직망을 꾸림으로써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항일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아 벌이려고 하는 모든 정치적 , 군사적 활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중심고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국내혁명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처음부터 영상태에서 시작

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혁명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조직적 기초도 있었고 일제의 군도와 곤봉 맛을 본 준비된 정치적 역량도 있었다. 노조와 농조를 비롯하여 전국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계층별 대중조직들, 그 조직들을 항일에로 인도해가는 검열된 투사들, 거듭되는 실패와 우여곡절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고 강해진 인민, 좌절과 실패를 체험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로 기록해놓은 투쟁의 교훈 　그 모든 것은 국내혁명운동을 새로운 전략과 전술에 기초하여 가일층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었다.

국내혁명운동이 거둔 업적과 경험을 존중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기성운동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국내혁명운동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세였고 방침이었다.

우리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부터 ≪ㅌ·ㄷ≫와 조선혁명군에서 육성된 우수한 공작원들을 북부국경지대와 국내깊이에까지 파견하여 정치군사적 기반을 닦기 위한 일정한 준비사업을 선행시키었다.

국내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올리자면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중심적인 지도세력으로 등장한 인민혁명군의 조선경내에로의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진출과 국내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방조가 필요하였다.

사실상 실패와 좌절만을 거듭해온 국내혁명운동은 새로운 지도와 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의 상층부는 파쟁으로 혼란되어 있었으나 하층의 선각자들과 인민들은 혁신적인 노선과 지도를 받아들여 결사전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당재건에 열을 올리던 투사들도 지하와 감방에서 자신들이 엮어온 실패작들을 돌이켜보며 출로를 찾으려고 암중모색하였다.

우리앞에는 이러한 요구에 민감하게 호응할 수 있는 실천대책이 필요하였다. 그 대책 중에서도 선차적인 것이 바로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운동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운동의 일원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이제순과 같은 형의 견실한 혁명가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조국광복회망을 빨리 늘이고 온 민족을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하였다.

그런 적임자로 물색된 것이 박달이었다.

우리에게 박달을 소개한 사람은 이제순이었다.

≪박달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칼날 위에라도 올라서는 사내대장부입니다. 이론도 굉장합니다. 한번은 사상가랍시고 으시대는 단천내기 사자머리 하고 무슨 논쟁이 붙었는데 그 사람의 코를 아예 납작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함남북을 개척하자면 박달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이제순이 한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다 믿기가 어려웠다. 사실 요란한 소문을 듣고 만나본 명사들에게서 우리는 기대와 달리 얼마나 큰 실망만을 받아안았던가.

주의주장에는 관계없이 지난날 내가 만나본 명사들 중 적지않은 사람들은 자기로서의 분명한 탁견이 없었고 사고와 실천에서 참신성이 부족하였다.

박달로 말하면 내가 길림시절에 만나본 안창호, 김좌진, 이청천, 오동진, 손정도, 심룡준, 현묵관, 현하죽, 고원암, 김찬, 안광천, 신일용, 서중석과 같은 일류명사는 아니었다. 박달에 대해서는 기껏해서 지방순사나 고등계형사들이 살피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소박한 시골초부와 같은 사람이 결국은 우리 혁명에 큰 자국을 남긴 거물로 솟아올랐고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막역한 벗으로 동지로 되었다. 이제

순의 말에 의하면 박달의 본명은 박문상이라고 하였다.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웃들이 《박달》, 《박달》하고 불렀는데 그것이 그만 박문상의 별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름으로까지 고착되였다고 한다.

박달은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 태생이였다. 아버지가 명천에서 정어리공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니 가세는 그닥 빈한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학력만은 보통학교 졸업정도라고 하였다. 그는 11살에 신랑이 되고 16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정어리공장에 취직하여 월급쟁이회계원이 되였다. 아마도 그의 부친은 아들을 일찍이 자수성가시키려 했던 것 같다.

박달은 조혼한 것이 부끄러워서 동무들에게 신랑이 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점심식사하러 집에 들어왔다가도 아내가 혼자 있으면 밥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성미가 호방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였는데 주색을 즐겨 첩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저래 박달을 낳은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따돌림을 당한 것 같고 아들은 어머니를 몹시 동정했던 것 같다.

《내가 제일 미워한 것은 첩을 얻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언제인가 박달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일생동안 첩을 둔 아버지의 슬하에서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여 축첩제도의 쓴맛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해방 후 우리가 법으로 축첩제도를 폐지해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였다.

축첩제도로 하여 어머니가 당한 불행은 일생동안 박달을 괴롭힌 근원으로 되였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에서 교훈을 찾고 주색과는 담을 쌓으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인 아내에게 한평생 변함없는 순정을 바쳐왔다.

박달이 다음으로 경멸한 것은 깍쟁이들이였다. 그는 직급과 직업과 성별에 관계없이 깍쟁이란 깍쟁이는 죄다 미워하였다.

《나는 인색한 사람들만 보면 하루종일 밥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을에서 박달을 만나던 1957년은 그런 한담을 할 정도로 그의 건강이 좋아진 때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생활에서 가장 질색해 하는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박달 자신은 인덕이 높은 사람이였다. 통속적인 표현을 빈다면 인정이 남아돌아가는 사람이였다. 감자를 수확하는 계절이 올 때마다 그는 자기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였다. 금년 감자맛이 꿀맛인데 한 번 먹어보고 갈 생각이 없소 하고 잔뜩 구미가 동하게 해놓고는 슬쩍 팔을 잡아당기고는 하였다. 감자를 심지 못한 집에는 감자떡을 쳐서 갖다주게 하였다.

박달과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만일 부자였다면 굉장한 자선가가 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돈은 없지만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였다.

박달은 소학교를 마친 다음 독학으로 구학도 공부하고 중학강의록도 보았다. 박달이 얼마나 근면한 독학가였는가 하는 것은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불구의 몸으로 《동의보감》을 전부 독파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능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혜산사건》 때 박달의 집을 수색한 경찰들은 깜짝 놀랐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의》, 《사회진화론》, 《식민지 문제의 기본지식》, 《무산계급의 부인운동》, 《실업반대투쟁선언》,

≪사회주의사전≫, ≪제7차 국제당대회에서의 왕명의 연설≫, ≪중국공산당 창건 15주년 기념≫, ≪조선문제에 관한 테제≫, ≪당원기본상식≫과 같은 사회주의서적들이 무데기로 발견되였던 것이다. 서발막대로 휘둘러도 걸칠 것이 하나도 없는 집이였는데 책만은 부자였다.

박달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못하니 문맹자로 여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겸양의 뜻이였고 실은 맑스주의혁명이론 일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지식을 뽐내지 않았고 지식으로 그 누구를 압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무슨 ≪영도권≫을 잡아보려는 것과 같은 야심은 품지도 않았다. 그는 물욕도 없고 직위욕도 없는 검박한 인간이였다. 바로 여기에 참된 인간, 참된 애국자, 참된 혁명가로서의 박달의 참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달은 언제나 자기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세웠고 그래서 누구인가가 자기네를 손잡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를 고대하였다.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도 그는 그 단체의 포괄범위를 ≪갑산≫이라는 지방적인 것으로 한정하였고 공작위원회라는 명판을 통하여 그 잠정적인 성격도 명백히 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차 조선공산당이 창건되면 그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그때가서 조직의 이름을 다시 적당한 것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박달이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반일투쟁을 이끌어줄만한 지도자를 찾지 못한 조건에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방적인 테두리에서나마 먼저 조직을 뭇고 운동을 벌려보자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였다.

박달이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하던 과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였다. 그 당시 갑산지방의 일부 사회운동자들은 군경들의 폭압에 겁을 집어먹고 투항주의적 입장에 빠져있었는데 그들은 이 원인은 당중앙기관이 없는데서 찾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갑산군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반제투쟁을 부추겨주거나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어 새로운 노선을 내놓고 그 노선에 따라 갑산에서의 운동을 영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제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된다.≫

박달은 이런 입장을 혁명에서의 도피라고 비판하면서 갑산군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인 운동을 우리가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것을 전조선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앞으로 공산당이 조직되더라도 당중앙이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영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이처럼 좋은 시기가 도래하기를 앉아 기다리기만 하거나 경찰의 주목을 피하여 타지방에 도피해서 제 한 몸이나 부지하려는 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조직되었다.

박달은 있을 수 있는 적의 탄압으로부터 갑산공작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부조직들의 명칭을 정우회, 전진회, 반일회 하는 식으로 각이하게 달았다. 대중계몽을 위해서는 진흥회나 자위단과 같은 어용단체들도 서슴없이 이용하였다. 이 단체들의 간판을 가지고 야학회나 운동회, 조기회 같은 것을 할 때 속내를 모르는 경찰들은 이제는 갑산촌뜨기들도 충실한 황국신민이 돼가는가보다고 흐뭇하게 생각하였다.

박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하기로 되어있는 공작위원회 하부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축구경기를 조직하였다. 군중이 모인 다음 시합을 붙여놓고는 뒤에 돌아앉아 슬금슬금 회의도 하고 분공조직도 하고 할 일을 다하였다. 제사, 결혼식, 생일놀이, 환갑잔치도 조직원들과 조직책임자들의 비밀모임을 하는 계기로

이용하였다. 합법적인 가능성을 이용하니 조직을 위장하는데도 좋았고 조직활동도 활발히 벌릴 수 있었다.

공작위원회 성원들은 이러한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제경찰, 주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능란하게 가졌다. 공작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성원들은 일제의 어용단체들과 말단행정기관들에 들어가 ≪열성분자≫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일제 군경이나 주구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대결자세를 취하던 신간회, 노총, 청맹, 적색노조, 적색농조의 투쟁에 비하면 매우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였다.

국내투사들 가운데서 박달이 맨처음으로 응용한 이 외유내강한 위장전술이 크게 은을 내었다.

경찰기관이나 자위단이나 그 밖의 관공서와 농촌진흥회, 소방조, 학교조합, 산림보호조합 등의 단체에서 촌장이나, 구장이니, 무슨 장이니 하는 감투를 쓰고 심부름을 고분고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은 적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데도 좋았고 적의 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는데도 좋았으며 적의 주위에 집결되어있는 세력을 와해시켜 우리편으로 끌어당기는데도 좋았고 인민들이 들볶이지 않도록 하는데도 좋았다. 박달은 갑산공작위원회 책임자 겸 그 위원회의 정치부와 쟁의부를 담당한 만만치 않은 혁명가였지만 적들이 관할하는 공공단체들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는 보천면 신흥리 1구의 농촌진흥회부회장, 1구 일신서당계의 계장, 자위단부단장, 운흥면 대오시천리 소방조소방수 등 주요한 자리들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다.

≪혜산사건≫ 당시 1차로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 63명이 자위단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얼마나 영활하게 일제의 어용기관과 단체들을 이용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 63명 가운데는 진흥회서무부장, 자위단5가조장, 산림보호조합평의원, 산농지도구지도위원, 화전측량총대표, 중견청년강습회수강생, 서당학무위원, 간이학교평의원 등 별의별 직함이 다 있었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을 능숙하게 배합하면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호, 예를 들면 소작료인하, 화전자유개간, 부역반대, 고리대반대, 아마강제재배반대, 소맥강제재배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을 힘있게 벌이었다.

얼핏보면 경제투쟁 일변도로 나간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 구호들에는 아마강제재배반대나 소맥강제재배반대와 같은 심각한 정치투쟁의 구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갑산지구 농민들이 아마강제재배조치에 반기를 든 것은 그 작물이 군수품 원료로 이용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마씨를 가마에 쪄서 심거나 드물게 심어 아지를 많이 치게 함으로써 못쓰게 만드는 방법으로 강제재배조치를 파탄시키었다.

어쨌든 이제순의 말만 들어보아도 우리가 하루속히 손을 잡아야 할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우리는 박달을 만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이제순을 국내연락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제순은 연락임무를 신속히 수행하였다. 박달이 자기에게 인민혁명군대표를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제순의 보고가 통신원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우리와의 회견을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곧바로 밀영을 찾아오지는 않았다.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매우 심사숙고할 줄 아는 혁명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는 박달의 조심성과 용의주도성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호기심을 더해주었다.

우리에게는 남비처럼 쉽게 끓다가 인차 식어버리거나 바람부는대로 왔다갔다하는 경박한 사상가가 아니라 진지하고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혁명가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박달이 요구한대로 당사업경험이 풍부한 권영벽을 갑산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때 내가 권영벽을 통하여 박달에게 보낸 편지는 아래와 같다.

조국을 사랑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국내의 애국자동무들 앞
국내에서 간악한 일제원쑤들과 싸우는 동무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무장을 들고 만주광야에서 일만군경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무들과 손을 굳게 잡고 모든 힘을 합쳐서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을 광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을 충심으로부터 권합니다.

나는 우리의 대표를 직접 동무들에게 파견하오니 서로 만나서 사심없는 토론들을 교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김 일 성

권영벽이 갑산으로 나갈 때 이제순도 동행하였다. 그들이 박달을 만난 것은 1936년 12월이라고 기억된다. 박달은 그때 처음으로 권영벽을 통하여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권영벽을 그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이 전개해온 주요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었다.

권영벽의 출현은 우리와의 연계를 열렬히 희망하는 박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변으로 되었던 것 같다. 권영벽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박달이 워낙 웬간해서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아서 ≪무뚤쇠≫라는 별명까지 받은 사람이라는데 나의 편지를 받고서는 너무 기뻐 눈굽에 이슬방울까지 맺히더라는 것이다.

≪그 동무는 즉시 장군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사령관동지가 허락만 해주시면 아무 때든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 나도 박달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더 간절해졌다. 나는 우리 밀영에서 박달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영벽에게 지시하였다.

박달은 자기대로 우리에게 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압록강을 무사히 도강하는 것이였다. 당시의 살벌한 정세로 인하여 비합법적인 도강은 거의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모로 도강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혜산경찰서장과 큰웅뎅이마을에 있는 주재소 김순사를 찾아갔다.

≪여보, 김순사, 당신은 장백소식을 좀 들었소?≫

박달은 주재소에 들어서자마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떠들었다. 김순사와 다른 여러 순사들이 눈이 휘둥그래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식말인가?≫

≪장백땅에 ≪비적≫들이 많이 다니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른 데로 이사해가느라고 곡식 을 마구 처분하는 통에 그 값이 매우 눅다고 하는데 콩을 한 두어 차 실어다 돈벌이를 해야겠소. 눅거리콩신세를 지고 싶거든 도강증이나 한 장 떼주시구려.≫

순사들은 그 말에 귀가 항아리만 해서 도강증을 떼줄 테니 자기네들의 메주콩도 실어다달라고 저마끔 부탁하였다. 도강증은 예상외로 헐하게 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박달은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 이제순의 집에 가닿게 되었다.

이제순이 박달을 데리고 사령부에 들어선 것은 새벽이 다 되였을 때였다.

이제순의 말대로 박달은 정말 넓은 어깨에 비해 얼굴이 작아서 어딘가 생김새가 조화롭지 못한 감을 주는 사람이였다. 외모로 보아서는 풍운아다운데가 그닥 없고 촌나무군 같다고 한 이제순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지켜보는 예리한 눈빛만은 범상치 않게 느껴졌다.

≪퍽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박달의 첫 인사였다. 겉치레가 없는 간단한 인사였으나 진정이 느껴졌다.


박달

그 두세마디의 투박한 말에 나는 어째서인지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달은 길주에서 유치장 신세를 질 때부터 우리와의 상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적의 감시도 피할 겸 조직도 확대할 겸 길주에 나타난 그는 제지공장 공사장에서 토목노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어느 날 박달은 휴지뭉테기속에서 우리 부대가 장백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답새기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의 상념은 줄곧 우리에게 와있었다는 것이다.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박달은 갑산에 들어서자 우리와 연계를 지을 수 있는 줄을 잡아쥐자고 행상짐을 짊어지고 압록강변 마을들을 거의 다 훑으며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정말이지 오늘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보게 된 건 천행이올시다!≫

박달은 반가움에 겨워 내 손을 다시 부여잡고 힘있게 흔들었다.

≪박달동무를 만난 내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무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나온 후 우리를 찾아온 첫 국내대표입니다.≫

≪내가 무슨 대표이겠습니까. 이 갑산촌놈이 길주나 성진이나 함흥과 같은 대처에 가면 무슨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같은 걸 외눈으로 보기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마치 몸가짐마저도 ≪갑산촌놈≫의 분수에 맞게 가지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이였다. 하지만 나는 박달의 그 겸허한 언행과 몸가짐에서 오히려 거인성을 느끼였다.

≪대처에서만 큰 사람이 나온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이제순동무를 통해서 갑산공작위원회가 그 동안 많은 반일애국활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그렇게 속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고무를 줍니다.≫

내가 몸을 녹이라고 하면서 더운물을 권하였으나 박달은 한모금 마시는둥 마는둥 하고 국내형편을 보고하겠다고 서둘렀다. 온몸이 열정으로 빚어진 탄복할만한 사나이였다.

박달과의 본격적인 담화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박달이 당시의 국내형편과 갑산지방의 운동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국내형편에 대하여 설명한 요점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다.

국내형편은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당재건을 위한 운동도 맥이 빠진 것 같고 농조운동도 한물 지나가버리었다. 운동가들은 탄압에 견디지 못해 이산저산 돌아다니며 피신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가? 없다. 설사 용기를 가다듬고 다시 일어난다 해도 노선이 없다. 그저 맹목적인 싸움이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용기를 버리지 않고 투쟁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분파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해패요, 아라사패요 하는 패당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남패, 함북패라는 것도 있고 지어는 같은 함남패 안에서도 함흥패, 흥원패, 단천패라는 것이 생겨 서로 으르렁거리며 갑론을박의 공허한 입씨름으로 정력만 소비하고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혁명운동에서 제일 큰 애로는 옳은 영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만인을 납득시킬만한 노선이 없고 그런 노선을 만들어낼만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나니 전에 단천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국제당에 사람을 보내어 조언과 지도를 요청하였는데 거기서도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나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박달의 말을 요약하면 국내혁명운동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가장 절박한 현안문제가 노선문제, 영도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과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박달은 나에게 좀 외람된 질문을 한 가지 하였는데 나무라지 말라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국내혁명가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은 조선사람이지만 중국혁명을 하는 사람이고 **김일성**부대는 조선사람들로 꾸려진 부대이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라는 말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장군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순에게서 듣던 바대로 박달은 역시 매우 솔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박달을 위해 비교적 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판보도계가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가리켜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라고도 칭하고 있는 것만큼 국내혁명가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완전한 중국군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은 명칭 그대로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는 각종 항일유격부대의 연합군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공산당계열의 중국인유격부대, 구국군계열의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휘하는 조선인항일유격대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것은 반일항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결속된 일종의 국제적인 연합군이다.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 자기 조국의 해방이라는 같은 목적, 동북이라는 동일한 투쟁무대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의 감정과 공통한 처지, 이러한 것들이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의 무장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무력연합을 실현하게 하였다. 연군체계는 어디까지나 자원성의 산물인만큼 항일연군은 각 민족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연군의 간판을 띠고 중국혁명을 도와주면서도 조국해방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민족군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조선혁명에 주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창건초기부터 자기 조국의 해방과 자기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조선의 민족군대라는 것은 만주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말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1국1당제원칙을 코에 걸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대해 시비하면서 우리 민족군의 독자성과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 후 국제당은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 것이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항일연군에서 갈라져나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라는 조

언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였다. 따로 세간을 내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의 지지가 약화될 수 있었고 우리의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었다. 연군을 민족별로 가르는데 대해서는 중국사람들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연군체계는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중 두 나라 전우들간의 혈연적 유대의 산물로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의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자주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또 중국사람들이 싫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앞으로도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몽골민족군대나 쏘련군대와도 항일연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우고 싶다.

박달은 나의 설명을 다 듣고나서 방안이 환해지게 미소를 지었다.

≪아참, 그런걸 우리는 괜히 낙망했댔습니다. **김**장군빨치산이 중국군 소속의 군대라면 기대를 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용기가 백배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해서는 신심을 가져도 됩니다. 일본군은 강군이긴 하지만 결코 무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산을 거점으로 조선국내에로 광복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국해방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그속에 바로 박달동무가 지도하는 갑산공작위원회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박달의 담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화제로 된 것은 우리의 통일전선정책과 조국광복회에 대한 문제였다.

박달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과 그것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반조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담고 있은 총적인 지향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조국광복회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의 높이와 보편성, 포괄하고 있는 역량의 방대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신간회나 근우회와 같은 좌우합작의 소산이었던 민족단체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대형의 단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우리의 조치와 방침들을 어느 것이나 다 지지한 것은 아니였다. 그는 조국광복회의 명칭이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기는 하지만 최종목적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건설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광복회 명칭이나 10대강령을 보면 이러한 공산주의적 강령의 요구를 멀리 떠나서 민족주의계선까지 후퇴한 감이 듭니다. 말하자면 최고강령을 포기하고 최저강령만을 내걸었다고 할까. ≫

박달은 아마도 우리가 운동의 최고목적을 포기하고 모종의 기회주의적 입장에로, 적극적인 투쟁형식보다도 타협적인 개량주의 운동에로 돌아섰다는 비난이라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도 역시 ≪대통영감≫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혁명이란 공산주의자들 몇 사람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총동원되어야 우리 혁명은 승산있는 혁명으로 될 수 있다, 동무도 다 아는 바이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는 노동자, 농민이나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압제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조선독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역량을 다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한다, 동무는 조국광복회 명칭문제에 의견을 가지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떤 계층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명칭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단체명을 하나 지어도 혁명이라는 말이나 적색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좌경의 한 개 표현이다, 우리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의 명칭에 조국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단체가 어떤 한정된 계급이나 계층을 위한 조직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조직

으로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려 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박달은 성진, 학성, 길주, 단천, 북청 지방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서로 경험도 나누곤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하활동을 우둔하고 거칠게 하고 있은 것 같다고 하였다. 가령 성진 같은 곳에서는 농조원들이 단오명절날 씨름판에 가서도 표가 나게 붉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쭉 둘러앉는다는 것이였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비조직군중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씨름판에서 자기편이 눌리게 되면 승산이 있건없건 연달아 선수들을 내보내는 인해전술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극성을 부리는데 실력으로 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씨름판에 고의로 분쟁을 일으켜 적색농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시상부에 앉아있는 사복경찰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농조핵심들을 장악하였으며 그것을 단서로 하여 농조열성분자들을 검거하거나 지하조직들을 색출해냈다.

그 당시 일부 지방들에서는 향교와의 관계에서도 좌경을 범하였다. 향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제사지내는 지방유지들의 봉건냄새가 나는 조직이였다. 여기서는 장의, 교감 등의 명예직을 주는 놀음을 하였는데 서로 만나 인사를 할 적에 아무개 장의님, 아무개 교감님 하면서 상대를 높여부르는 예법을 썼다. 이것은 물론 봉건유교도덕을 선양하는 것으로서 크게 장려할 것은 못되나 그렇다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루아침에 깨어버리겠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좌경에 중독된 어떤 청년들은 봉건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장의감투를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망동을 하여 늙은이들의 대통에 얻어맞는 창피까지 당하였다. 늙은이들은 공산당 패거리들이란 삼강오륜도 모르고 웃어른도 몰라보는 망종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 틈바구니에서 덕을 보는 것은 일본제국의자들 뿐이었다. 그들은 향교에서 공자의 제사를 지낼 때 군수도 함께 참석시켜 절을 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할아버지들을 반대하지만 일본 관청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시위하자는 속셈이었다. 적들은 이처럼 지방의 향교조직도 공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무슨 ≪적색≫이니, ≪혁명≫이니 하는 요란스러운 명칭이나 단다고 해서 단체의 일이 잘돼나가는 것도 아니며 조직의 혁명성이 스스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해당 지방의 형편과 대중의 각성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내올 수 있습니다. 가령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조직하며 청년들은 반제청년동맹이나 공산청년동맹 같은 것을 조직하는 식으로 실정에 맞게 조직을 내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해한 바에 의하면 국내 여러 지방들에는 진흥회라는 어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적지 않은 군중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려면 이런 단체들에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혁명화하면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정신에 부합되게 단체의 성격도 점차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 혁명에 이로운 것이라면 그 어떤 명칭을 가진 조직이건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박달은 이 말을 듣자 자기를 뉘우치었다.

≪말씀을 듣고보니 확실히 우리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박달을 통하여 국내투사들의 사고방식에서의 허점과 제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와 실천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교조주의적인 이해였다. 그들이 민족주의운동일반을 배척하고 경원시하는 것은 그 당시 맑스－레닌주의를 씹어서 소화하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던 행세식 공산주의자들과 독경식 맑스주의신봉자들 일반이 범하

고 있는 좌경적 편향이였다.

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해방보다 더 큰 대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런 공산주의운동은 필요도 없다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의 개념속에는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창조적 노동을 사랑하고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군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총동원의 기준이며 조국광복회 입회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하며 또 이룩할 수 있다는 자주독립사상에 기초한 민족의 총동원만이 조선의 운명을 칠성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박달은 사고와 실천에서 교조를 적지 않게 범한 사람이였지만 그것을 교조로 대담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이였다.

나는 박달에게 갑산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의 산하조직으로 하되 그 명칭은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바꿀 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박달은 그 제의에 흔연히 동의하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국광복회망을 국내에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임무와 구체적인 방도들을 협의하였다. 밖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불을 쪼이면서도 담화하였다. 박달이 밀영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와 함께 국내에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인민혁명군원호문제, 적통치기관침투문제, 국내혁명가들의 신변보호문제, 앞으로의 연락방법과 연락장소, 암호, 연락원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이해와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박달과의 접촉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그의 솔직성과 소탈한 품성, 혁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다. 그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였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입으로는 좋다고 표현하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의 눈치와 시세를 봐가며 좋다고 말했다. 설사 상대방의 기분을 좀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웃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흰 것을 검다고 하거나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며 시세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방법으로 웃사람들에게 발라맞추는 것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다. 간신들의 혀끝에서는 진실이 서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박달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털어놓고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의 그런 성품에 완전히 반해버리였다. 매력이란 결코 복잡하고 현란하고 다사스럽고 야단스러운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솔직한 여기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매력의 핵이 있다.

공화국 정부의 초대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정준택도 소시민 출신의 인텔리이고 종파분자들에게서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은 간부였지만 내앞에서는 항상 바른 말을 하였다. 그는 경제정책집행에서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가령 내가 왜곡된 보고를 듣고 어떤 생산지표에 대하여 정확치 못한 견해를 가질 우려가 있으면 나의 집무실에 와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기어이 나에게 정확한 실태를 보고하고는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도움으로 나라의 살림살이 전반을 항상 진상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해 나갈 수 있었다.

옛날에는 인재를 등용하는데서 첫째로는 문벌이 좋은 것을 취하고 둘째로는 모습이 청미한 자를 취하고 셋째로는 말씨가 순한 것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다나니 출신이 미천하고 체격이 왜소하고 말씨가 무뚝뚝한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원급제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훈계하였다.

≪사람은 문벌이나 재산이나 생김새나 말씨를 보고 취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됨됨이를 보고 취해야 하느니라.≫

박달을 만나고보니 어째서인지 외할아버지가 하던 이 말이 되살아났다. 외형상으로 수더분하게 보이는 이 박달이야말로 속대가 바로선 사람이였고 허식이나 겉치레를 모르는 솔직하고 소탈하고 성실한 인간이였다. 요새 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정녕 심장에 남는 사람이였다.

≪내 몸이 열 조각, 백 조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리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염려말아 주십시오.≫

박달은 이런 말을 남기고 나와 헤어졌다. 물론 그는 약속대로 이제순이네 동네에서 만주산 메주콩을 한 달구지 사가지고 가서 순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37년 1월 갑산공작위원회의 지도핵심들은 박달의 사회하에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하기 위한 모임을 열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집행대책도 겸하여 토의하였다.

조직대열을 갑산지방범위로부터 도범위, 전국적인 범위에로 확대해나갈 데 대한 문제, 동맹조직내의 일체 종파주의적 요소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할 데 대한 문제, 비밀을 엄수할 데 대한 문제, 동맹원교양문제, 기관지발행문제 등 당면한 여러 가지 실천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한 것은 조국광복회운동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조국광복회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시키는 하나의 발진기지로 되였다.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된 그때로부터 갑산지방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들은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지 ≪화전민≫에 우리의 노선을 소개하는 글들도 실어 하부조직들에 배포하였다. 갑산을 비롯한 함남북일대에는 우리의 노선과 방침이 빠른 속도로 침투되고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이 급속히 자라났다. 반일투쟁의 불길은 전례없는 열도를 가지고 타올랐다.

1937년 5월에 나는 다시 박달을 만났다. 최현부대의 무산방면 진출과 관련하여 갑산일대의 정세는 대단히 험악해졌다. 국경일대에는 또다시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삼엄한 경비진이 늘여졌다.

그러나 박달은 이번에도 경찰을 잘 구슬려 합법적으로 자기 마을을 떠나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국내형편과 사업정형을 놓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내운동정형에 대한 박달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모두 만족해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전위투사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가고 있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갑산지방을 비롯한 현재의 양강도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성진, 길주, 단천, 흥원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주요지역들에 널리 뻗어가고 있었다. 투쟁방법도 훨씬 세련되어갔다.

우리는 박달에게 전투에서 노획한 경기관총 2정을 보여주었다. 박달이 그 무기

들을 만져보며 기뻐하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국내동무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내가 느낀 문제점은 그들이 운동의 국내적 측면만을 놓고 문제를 설정하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국제적 판도에로 확대하면서 폭넓게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 혁명이 처하여있는 국제적 환경, 말하자면 국제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 그리고 일본공산당과 같은 조직들과의 관계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변들과의 연관속에서 조선혁명문제를 설정하도록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치였다. 이것은 국내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적극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였다.

그 무렵의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였다.

구라파대륙이 에스파니아국제전쟁으로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때 아프리카대륙은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으로 하여 떠들썩하였다.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은 어떤 의미에서 에스파니아내전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에스파니아공민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크게 띤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국내전쟁에 지나지 않는 사변이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은 한 약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른바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러한 무력침공을 조장하였으며 특히는 국제연맹이 아무러한 효과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디오피아를 침략의 희생물로 고스란히 바쳤다는데 있었다.

일본의 만주침략과 독일에서의 나치스 정권의 출현은 이탈리아로 하여금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감행할 수 있게 한 국제적 배경이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대독일제국건설에 달라붙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열강들은 히틀러정권의 출현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의 반공정책에 공감하고 관대하게 양보함으로써 독일무력을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방벽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거기에서 고무를 받은 파쑈독일은 1935년 1월에 자르를 병합하였으며 그 해 3월에는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의 군사조항을 페기하는데 이르렀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독일에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그 나라가 10만이상의 군대를 못가지며 탱크와 비행기는 물론, 1,000톤급 이상의 함선조차 못가지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독일은 이러한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36개 사단에 55만의 상비군을 설치할 데 대한 ≪국방군 편성법≫을 발표하였다. 게링그는 독일공군의 공식편성을 선언하였다. 나치스 독일의 이 모든 움직임은 이탈리아를 노골적인 무력침공에로 사촉하고 고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되었다.

이탈리아는 침공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탈리아의 대대적인 군사적 침공이 시간을 다투어 준비되고 있은 절박한 정세하에서 국제연맹 성원국이였던 에티오피아는 이 사실을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이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국제연맹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식민지 문제를 놓고 이탈리아와 엇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디오피아는 거듭 중재를 요구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황제는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연맹의 총회에서 울면서 이디오피아를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 성원국도 아닌 미국에까지 각서를 보내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중립법≫ 제정 등으로 고립주의정책을 쓰던 미국도 아닌보살하였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선전포고 없이 이디오피아에 쳐들어갔다.

군민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는 패망하였다.

국제연맹은 이탈리아에 대한 아무러한 효과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형식상 선포하였던 경제제재의 막 뒤에서 영국,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못본 체하였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맞았다.

국제연맹의 위신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하기는 제국주의열강들의 침략도구로 시종일관 복무해온 그 연맹이 강자의 편을 든다고 하여 크게 놀랄 것은 없었다. 국제연맹은 초창기에 벌써 ≪위임통치령 분배≫ 형식에 의한 식민지재분할을 노골적으로 비호하였고 노골적인 반쏘정책을 실시하였다. 국제연맹이 일제의 만주침략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두둔하였는가 하는 것을 세계의 양심들은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제연맹은 파쑈독일의 자르강점과 에스파니아에 대한 독일, 이탈리아의 무력간섭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지어는 그 나라들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돌리지 못하였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사명을 띠고 출현하였던 국제연맹은 그 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독일의 침략행위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도와주고 고무하였다.



몸은 포승에
묶였어도
태연자약한 박달

파쑈세력과 군국주의 세력의 전횡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던 국제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연맹의 무맥한 존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체적인 역량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내가 박달을 다시 만났던 그 시기는 중국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시간문제로 남아있던 때였다.

≪화북사변≫은 실제로 화북을 일본제국주의의 천하로 되게 하였다.

≪화북사변≫ 후 일본제국주의는 군비확장과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1936년 8월 히로다 내각은 일본은 동아대륙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양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기본국책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여 동시에 북진하여 쏘련을 반대하고 시기를 기다려 남으로 진공하려는 전략방안의 하나였다.

박달을 비롯한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멀지않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전제밑에서 국내의 혁명가들이 그에 맞게 역량결속을 잘하고 조성된 정세를 잘 이용하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조만간 중국에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네들이 전쟁수행을 위해서 수탈도 강화하고 목조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후방에는 빈구석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전선을 넓혀갈수록 우리도 넓은 판도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박달동무는 새로운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잘 움직여서 반일역량을 더 많이 집결시키며 폭동적 진출에로 나갈 수 있는 차비도 잘 갖추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박달에게 보천보시가의 약도를 그려오며 일제의 국경경비정형을 상세

히 조사보고할 데 대한 특별과업을 주어 밀영을 떠나보냈다. 박달은 우리가 준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가 그린 약도와 조사보고자료는 보천보전투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 큰 기여를 하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엿새째 되는 날 우리는 통신원을 보내어 박달을 다시 불렀는데 부대를 데리고 간삼봉 쪽으로 총총히 가다보니 만나지 못하였다. 보천보가 된타격을 받은 후 조선총독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함흥 74연대병력과 장백현 주둔군, 국내경찰들을 집결하여 우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해 7월에 다시 박달을 불렀다. 그러나 그가 적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하여 이번에도 우리의 상봉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병선만이 박달의 체포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실태보고를 하였다.

나는 이병선에게 우리가 명천, 성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어줄 데 대하여 부탁하였다.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유격대를 내올 데 대한 과업도 겸하여 주었다.

이병선을 통하여 준 임무는 훗날 유치장에서 나온 박달에게 전달되었다.

1938년 6월 박달은 국내조직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어려운 정세속에서 그 수습책과 관련된 우리의 조언을 받으려고 장백일대의 수림에서 한 달 이상이나 우리를 찾아헤매였다고 한다.

그 당시 임강, 몽강 방향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던 나는 퍽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일제경찰은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핵심역량을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혜산경찰서의 조선인경부 최령이 사복경관, 자위단, 소방대까지 다 끌어내어 박달의 뒤를 추적하였다.

박달과 김철억은 김철억의 4촌형인 김창영의 변절로 하여 1938년 9월과 10월에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이용술(이경봉)도 붙잡혔다.

교형리들은 박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한 것은 우리의 위치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조직성원명단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모진 고문도 철석같은 의지를 지닌 박달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적들은 처음에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살인귀들의 고문장은 박달의 육체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리었다. 척추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서졌다. 그렇지만 그의 넋은 변하지 않았고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우리의 후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옥고를 치르며 7-8년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역경을 이겨냈다.

해방 후 어느 날인가 나는 박달이 살아서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 들것에 실리어 감옥문을 나선 박달은 한동안 서울에 주저앉아 부인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리었다. 후에 의학박사인 최응석이 다시 진찰을 하고 박달의 병명을 척수결핵이라고 정정하였다. 박달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무국장을 서울로 보내어 박달을 평양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전 날의 박달은 하루밤에도 수백 리 길을 날아다니던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강기가 있는 혈기왕성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 날 남의 등에 업혀 내앞에 나타난 박달은 고문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옛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의 불구였다. 피골이 상접한 그의 갑삭한 몸은 한 줌안에라도 들것처럼 작아 보이었다.

그래도 박달은 두 팔로 나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좔좔 흘리었다. 살아서 나를 다시

만났으니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였다. 박달을 진찰한 의사들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내리였다. 구원할 가망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박달은 감옥문을 나설 때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옆에 박달의 집을 잡아주고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면밀한 치료대책을 세웠다. 명약이란 명약은 다 구해다주고 명의란 명의는 다 데려다가 그의 치료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집무실에 오갈 때면 문병을 하고는 하였다. 어느 해인가는 남포 우산장에 젖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젖소를 가져다가 우유를 짜서 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3년간의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주을휴양소에 ≪박달각≫을 따로 내오고 그를 치료해주었다. 박달이 주을에서 요양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그가 좋아하는 남새를 평양에서 실어다 공급해주었다.


박달의 수기

≪빨리 병을 고치고 장군님을 도와드려야겠는데 ≫

이것은 박달이 침상에서 노상 걱정하던 말이다. 그는 병마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의료진의 성의있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는 날을 따라 악화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달이 그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서도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기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9년에 있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산장휴양소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던 박달은 주변농촌의 과수원들에서 사과에 봉투를 씌우지 않아 병충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휴양소에 와있던 남반부 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휴양소직원들을 발동하여 사과봉투를 만드는 일을 조직하였다. 박달자신도 침상에 누워 가슴에 널판자를 놓고 봉투를 만들었다.

전후 주을에서 치료받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박달은 우리가 보내준 삼륜차를 타고 주변농촌에 나갔다가 당에서 심으라는 벼종자를 심지 않아 벼이삭에 쭉정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쭉정이가 많은 벼이삭을 봉투에 넣어보내면서 당의 농업정책이 정확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리는 그의 보고를 받고 어느 회의에선가 박달과 같이 불구의 몸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아파서 당중앙에 보고하는데 지방일군들은 왜 그런 현상을 모르고 있는가고 비판하였다. 그 후 함북도당위원장은 박달을 찾아가서 자기비판을 하였다고 한다.

박달은 자기가 영영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또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부터 침상에 누워서 청소년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 바쁘게 박달을 찾아가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그러자 박달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장군님 덕인데 조

금이라도 혁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국내당공작위원회위원과 조선민족해방동맹책임자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경찰에게 붙잡혀서 결국 지금은 국가의 밥만 축내는 폐인이 되였지만 그날에 받은 혁명임무를 마저 수행하려는 심정에서 다소나마 힘을 바치고저하니 부디 막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오스뜨롭스끼는 눈먼 장님이 되어가지고도 혁명을 위해 장편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글이야 왜 못쓰겠습니까. 물론 글재간이 없어 걸작이야 못내놓겠지요.≫

박달은 한평생 자기의 손발이 되어주고 간호사가 되어준 충실한 아내 현금선과 의료일군들의 방조를 받으며 수기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와 항일혁명투쟁시기 갑산지방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자서전적 장편소설 ≪서광≫을 쓰기 시작하였다. 심장의 피를 찍어 한자한자 쪼아박듯이 쓴 그의 글줄들은 그속에 담긴 혁명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주었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앞으로 독후감과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박달은 자기의 글이 삶의 귀중한 길동무로 되고 있다는 독자들의 편지에서 고무를 받으며 여러 편의 글을 연방 써냈다.

어느 날 그는 자를 가지고 침대를 재어가며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숫자를 적은 종이장을 아내에게 내보이었다. 거기에 적은 치수대로 책상을 하나 짜주면 그것을 침대위에 가로건너놓고 글을 쓰겠다는 것이였다.

며칠 후 그가 부탁한 책상을 목수가 정성껏 짜서 보내왔다.

박달은 책상다리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책상을 아주 잘 짰소. 여보, 이 책상을 잘 건사해주오. 내 이제 좀 쉬고 이 책상을 놓고 글을 쓰겠소.≫

그러나 박달은 그 책상에서 한번도 글을 써보지 못하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충정으로 높뛰던 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춘 것이다. 그의 서거에 대한 부고를 듣고 온 나라가 깊은 애도의 정에 휩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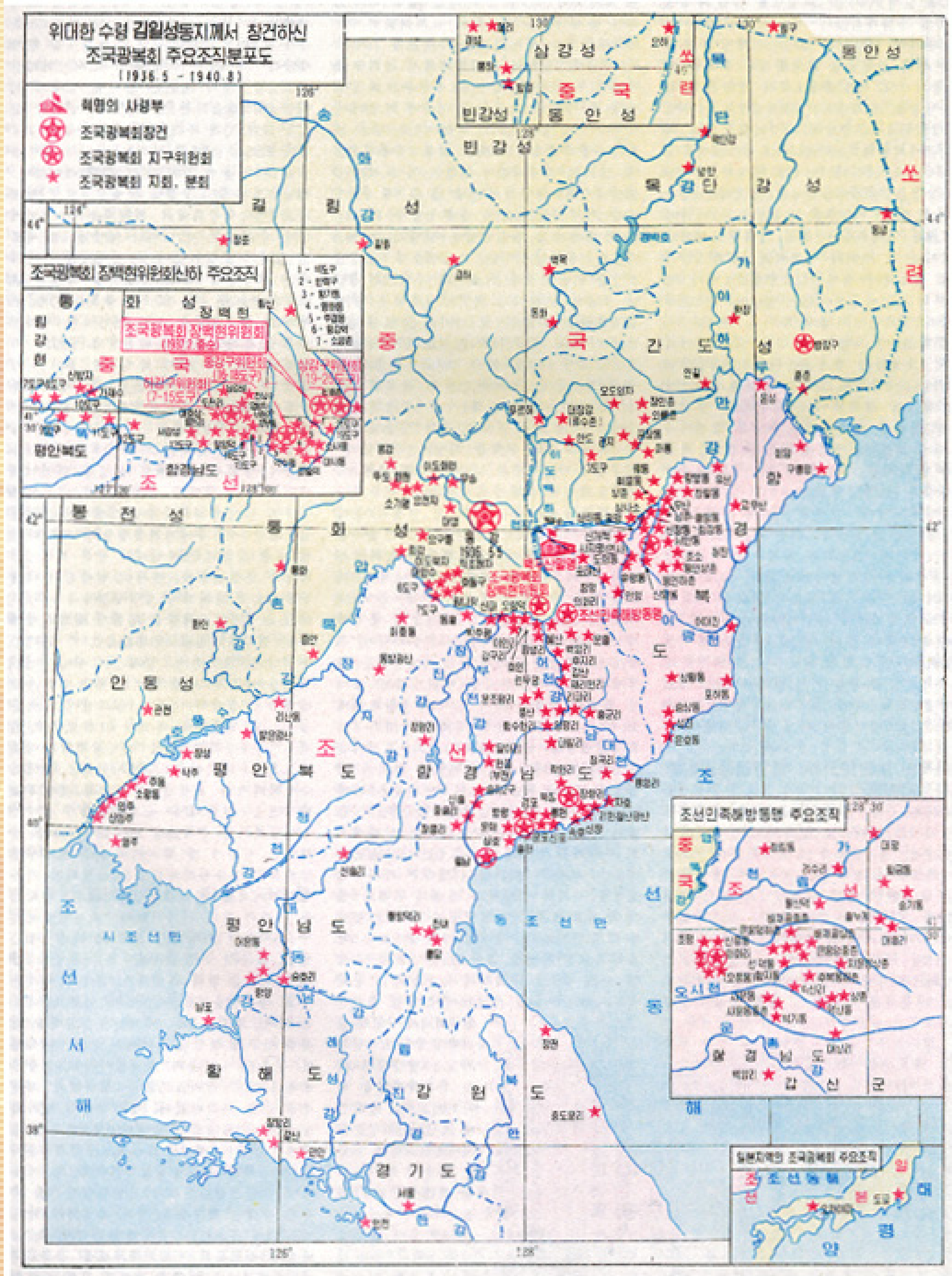
우리는 박달의 집에서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고인을 발인할 때 나는 영구와 함께 나갔다. 백두산에서 박달과 헤어질 때 멀리까지 바래주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항상 심중에 매달려 있었는데 영결하는 순간에나마 그를 바래주고 싶었다. 어떻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손수건이 푹 젖어있었다. 나는 김책을 잃었을 때처럼 또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해방된 조국땅을 제발로 걷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후 박달이 해방 전에 쓰던 보천군 운흥리의 집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집앞에 그의 동상을 세워주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혁명가들을 위해 건립한 최초의 동상일 것이다.

박달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날개를 잃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을 위해 굴함없이 싸운 투사이다.

참으로 박달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나온 이후시기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의 일원화를 맨처음으로 실현한 국내혁명가의 당당한 대표자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일도 제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겪은 우리의 국내전권대표였다. 박달과 같은 이런 투사들의 덕으로 우리는 해방 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단시일안에 당을 창건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1936.5 - 1940.8)
혁명의 사령부
조국광복회창건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산하 주요조직
조선인족해방동맹 주요조직
일본지역의 조국광복회 주요조직
길 림 성
목 단 강 성
빈 강 성
삼 강 성
동 안 성
간 도 성
봉 천 성
통 화 성
안 동 성
평 안 북 도
평 안 남 도
함 경 남 도
함 경 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경 기 도
서 조 선 만
동 조 선 만
조 선 서 해
조 선 동 해
태 평 양

2. 국내당공작위원회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공산당을 가지는 것은 조선혁명가들의 일관한 염원이였고 항일혁명투쟁을 전개하면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육성된 우수한 전위투사들로 당의 기층조직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항일혁명의 주력을 담당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를 책임진 당건설의 주도적 역량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활발히 조직전개된 당건설사업은 무장투쟁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당적 영도와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전위투사들에 의하여 추진된 당조직건설사업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당당한 주류를 이루었으며 확고한 정통성을 대표하게 되였다.

우리의 당건설사업은 처음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진척되였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특수한 사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을 가지기 위한 투쟁노정에서 남달리 비싼 대가를 치르며 남이 곧추 가는 길을 멀리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고심참담한 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우리는 식민지 나라의 항쟁투사들이 당을 창건하는데서 일반적으로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난관과 함께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였던 특수한 조건으로 하여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시련과 고충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당은 1928년에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것을 재조직할 것을 지령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따라 만주와 일본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재국의 당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세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다른 나라 당에 들어가 좋은 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수동적인 길을 택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적인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에 역행하여 주재국의 당에 당적을 옮기지 않은



장백진출의 길에서 마을안민들에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선전하시는 김정숙동지

상태에서 얼마동안 종전대로의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타성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죄다 주저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당에 적을 임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인 동시에 계급적인 연대를 전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인 것만큼 그 운동을 담당한 투사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일시 다른 나라의 당조직에 망라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상할 것이 없다.

국제당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가있던 여러 나라의 적지 않은 공산당 지도자들과 정치망명객들은 자기 나라의 당적은 당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쏘련공산당조직에 임시로 이름을 등록하고 당생활을 하였다.

문제는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모체조직을 거세해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차스러운 곁방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처지에 떨어지게 한데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처사를 온당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엇나가거나 운동 그 자체를 줴버리는 것과 같은 자포자기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제당이 취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체의 주동적 노력으로 새 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다.

우선 국제당에서 내놓은 원칙이 용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방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당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추진시켜나갔다. ≪ㅌ·ㄷ≫의 전위투사들을 망라한 건설동지사의 조직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동만이나 북만 땅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당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내깊이에는 얼마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그 시기에 벌써 우리는 온성, 종성 등 두만강 연안의 국내 여러 곳에 몇 개의 기층당조직을 꾸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조직건설을 위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

의 기본적인 활동판도는 아직은 동만이였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데 주력하면서 간도 각 현의 당조직들과 밀접한 연계속에서 우리 당 조직을 확대해나갔으며 앞으로 국내에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핵심들을 육성하였다.

우리가 남호두회의 정신에 따라 당건설방침을 심화시키고 그 방침의 실현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한 것은 1936년 5월의 동강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업이 상정되고 그 대책으로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투쟁의 골간들로 전위적인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가 협의되였다.


박달

그때 동강회의에서는 당조직건설사업은 유격대에 국한시켜도 안되고 동북일대만을 무대로 삼아도 안되며 국내깊이까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두만강대안 국경연선의 일부 지역들에만 기층당조직을 내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내의 광활한 지대에 당조직들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내에서의 당창건 준비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였다.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은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잘 꾸리자면 반드시 조선실정을 환히 꿰들고 있은 국내공산주의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해야 하였다.

박달이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것은 이런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당조직건설, 이것은 나와 박달과의 담화에서 논의된 중심주제의 하나였다.

조국광복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박달과 함께 국내에 당조직을 꾸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나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달은 내가 국내에 조국광복회조직만이 아니라 공산당조직도 내올 의사를 표명하자 무척 놀라면서 어떤 공산당조직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였다.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당을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거기에 바쳐진 투사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열정이 철창 속의 서글픈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나라, 이미 오래 전에 결사의 자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공산당조직을 내오려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박달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우리의 공산당, 조선의 공산당조직을 내오려 한다고 대답하자 그는 재차 물었다.

≪조선에 공산당조직을 내오는데 대하여 국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제당이 그것을 승인하였는지요?≫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일인데 국제당의 승인이고 뭐고 상관할게 있습니까?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국제당의 승인을 받아야 할 까닭이야 없지 않습니까.≫

박달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각 나라의 공산당은 다 국제공산당의 지부로서 그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당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자기 당 조직을 내올 수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걸 국제당에서 허용할까요?≫

박달은 확실히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혁명이란 워낙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 누구의 지령이나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 좀 물어봅시다. 박달동무는 그 누가 시켜서 혁명을 시작했습니까? 또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맑스가 공산주의자동맹을 조직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또 레닌이 볼셰비키당을 조직할 때는? ≫

말문이 막혀버린 박달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맑스나 레닌은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당은 이미 1928년 12월 테제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당재건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테제에 명시된대로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시비하겠습니까. 국제당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승인이고 비준이고 하는 문제자체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일을 우리 집안사람들끼리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바깥사람들에게 우리 집일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물을 필요야 있습니까? 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까.≫

박달은 그제야 자기 생각이 너무나 짧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적극 찬성해나섰다.

≪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자신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국제당이 각국 혁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국내에 당조직을 꾸리게 되면 그 당조직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그리고 지도는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국내의 당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그 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 공산당이 없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담당한 참모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의 활동은 무력에 의해 튼튼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헌병경찰통치는 조선에서 당재건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해버리었습니다. 당 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투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철창속에 갇혀 있습니다.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은 것은 오직 무력의 담보를 받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선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수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되게 될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박달은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우리는 곧 국내당공작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실무문제 토의에로 넘어갔다.

이 토의에서도 박달은 질문부터 하였다. 그는 언제나 질문을 앞세우고 논쟁마당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

≪지금 국내에서는 당을 먼저 건설하는가,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는가 하는 문제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함흥패는 당건설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천패나 흥원패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온 다음 실지투쟁을 통해서만 당을 내올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달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견해도 없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당을 먼저 내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달은 그런 논의가 생겨나게 된 연원을 국제당의 12월 테제에서 찾고 있었다. 그 테제의 원명은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다. 국제당은 그 문건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 단체들속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이며 신간회를 비롯하여 신구민족해방단체안에서 투사들을 획득하기에 힘쓸 것과 당의 사상적 단결을 중시하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하루빨리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하고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그 테제가 마치도 당건설과 군중단체의 조직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데로부터 인식상 혼란을 빚어내게 되었다.

≪내가 보건대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후차를 결정하는 거야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이지 여기에 12월 테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조건에 따라 당조직을 먼저 내올만한 곳에서는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군중단체를 먼저 내올만한 곳에서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3명이라도 있다면 그 3명만으로도 당장 공산당 소조를 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고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낸 다음 당조직을 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과 군중단체라는 이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고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후차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산주의자들은 군중속에서 당의 후비대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자격을 갖춘 전위투사들만 있으면 당조직은 아무 때든지 내올 수 있습니다.≫

박달은 내가 내오려고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가 장차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국내당조직건설을 맡아보게 될 지역적 지도기관이다. 통일적 영도기능을 수행하는 참모부가 없는 것으로 하여 국내운동은 지금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이라는 두 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결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맡아 수행할만한 지도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지도기관이 바로 국내당공작위원회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면 우리는 여기에 박달동무를 망라시키려고 한다. 박달동무가 이런 위원회가 파견하는 국내전권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국내각지에 널려있는 투사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에는 박달동무가 이제 돌아가서 우선 함남북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운동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국내당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박달은 내 말을 듣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정말 과분한 믿음이올시다. 제가 그럴만한 재목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박달의 솔직한 고백은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혀주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를 책임자로 하고 김평과 박달을 위원으로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박달은 이 위원회의 현지집행인으로서 갑산지방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할 임무를 지니었다.

박달은 국내에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장차 당중앙기관을 조직하며 당창건을 선포할 데 대한 우리의 방법론을 지지하였다.

박달은 그 회의 후 국내운동가들의 사업방법에서 지적할 점이 있거나 참고로 될 만한 요령이 있으면 죄다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무엇보다 망명객식의 사업방법을 퇴치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금 국내동무들의 활동을 보면 망명객식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한 방법입니다. 낮에는 산에 숨어있다가 밤에 가만히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조직원들은 놈들의 감시가 두려워 그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망명객식방법으로는 조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후지하활동을 하는 동무들이 생산에 참가하면서 합법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얻어야 합니다. 망명객식사업방법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박달은 내 말을 듣고나서 얼굴을 붉히였다.

≪나도 사실은 망명객식방법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면충돌만 생각하였지 때에 따라서는 우회적인 방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담화를 떠나서 잠시 한담을 하였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깃또구두를 신고 하이칼라를 하고 개화장을 짚고 현대인 행세를 하며 다니는 때에 어떻게 되어 구습을 싫어하는 박달동무가 중머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까닭을 말해줄 수 없는가고 물었다.

박달은 노조운동을 할 때 경찰서에 붙들려가면 순사놈들이 머리칼을 움켜잡고 담벽에 머리를 짓어대곤 하기 때문에 화가 동해서 아예 ≪벌초≫해 버렸노라고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박달의 그 ≪벌초≫가 아주 기지있는 처사로 느껴졌다. 박달은 내가 요구한다면 중머리를 하이칼라나 상고머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달동무가 필요해서 한노릇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상회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군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중머리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걸음을 또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박달은 실지로 그 후 경찰서와 감옥에서 닥달을 많이 당하였다.

나는 그에게 혁명에 이익이 된다면 순사시험 같은 것을 쳐 볼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눈을 크게 치뜨고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저를 순사로 둔갑시킬 생각이야 아니겠지요?≫

≪혁명이 요구한다면 순사 같은 것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박달동무를 순사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순사모자는 써도 좋고 안써도 좋으니 그런 일을 통해서 주재소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박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피어났다.

≪제가 순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순사시험을 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달은 이듬해 봄에 정말 순사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는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주재소 수석순사를 찾아가서 희떠운 소리부터 하였다.

≪수석님, 나도 순사로 발전하고 싶은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사로 발전할만한 재목이 되겠습니까?≫

수석은 그 말을 듣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아니구요. 오죽 순사가 되고 싶었으면 내가 수석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당신은 재목이 되고도 남는다. 잘만 하면 이 주재소 수석도 할 수 있다.≫

≪제가 수석님 자리야 가로타고 앉을 수 없지요. 그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수석을 못하더라도 박달과 같은 사람이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개

조된다면 나는 대일본제국을 위해서 기꺼이 수석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 포부가 아주 좋다. 어서 순사시험을 치라.≫

박달은 순사가 될 것처럼 소문을 크게 내면서 빼젓이 순사시험을 쳤는데 답안을 적당히 썼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끝나고 합격은 되지 못하였다. 그는 우리가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를 능란하게 하였다. 일본인들도 그의 경력을 밝히면서 비밀문건에 ≪소화 12년(1937년) 3월 함경남도 순사에 자원하여 갑산서에서 응시, 낙제≫하고 한조목 적어넣었다.

박달은 순사시험을 친 것으로 하여 일본인들한테서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곳 주재소에 있는 김순사는 박달을 순사시험까지 친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신원을 여러 번 보증해나서기까지 하였다. 박달은 이처럼 순사들은 업고 그들에게 충실한척하면서 하고싶은 일을 다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결성은 우리가 내놓은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을 고수하여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었다.

이것은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던 당재건운동의 단순한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지도밑에 전개된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이야말로 국제당이 직접 주관한 당재건운동이나 또 국제적색노동조합(프로핀테른)이 적색노조운동을 통하여 이룩해보려고 시도한 당재건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철두철미 자주적인 당재건운동, 당조직건설투쟁이었다.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에서의 민족해방투쟁, 특히 당재건운동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구라파에서의 파시즘에 못지않게 일본군국주의가 날로 위험한 세력으로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문제를 두고 꾸우씨넨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당 제7차대회 이후 시기에 논의되었던 조선민족혁명당조직에 관한 제안이었다. 조선에서 반일을 목적한 민족혁명당조직에 관한 국제당의 의사를 보다 상세히 밝힌 것은 ≪공산국제≫에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 쓴 양송의 글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간도에 있어서의 현재의 국면은 중국공산당조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중조 노동자, 농민을 더 많이 당내에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반일과 조선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새로운 당의 창립자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썼다. 그리고 그 당은 성격상 반일통일전선적인 당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당의 견해와 당시 국제당에 가있던 중국당일군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의 당조직건설문제와 통일전선결성문제를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해결하였다.

우리는 당조직건설문제와 통일전선결성문제를 같이 밀고 나가면서도 그것을 서로 뒤섞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당이 통일전선을 대표하거나 통일전선체조직이 곧 당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일부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민족유일당이라는 명목으로 좌우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포섭하는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내올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우리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조직건설을 밀고나가는 한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내오는 방법으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였다.

물론 국제당은 그 이전시기에도 조선에서의 당재건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다.

국제공산당의 지도밑에 있던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이 1930년 9월에 발표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세칭 ≪9월 테제≫)는 주로 공산당을 재건하는데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필수조건으로 내놓고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9월 테제에 의거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적색노동조합) 조직에 힘쓰고 그것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여 공산당의 재건을 추진시키었다.

그 다음해 10월에 국제적색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상해에 있는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도 ≪태로 10월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급격문≫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여 공산당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적색노조계통의 이러한 문건들은 1931년 5월에 발표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꾸우씨넨의 의견서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에 관한 의견서≫와 더불어 내용상으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꾸우씨넨

1934년 6월 모스크바에서는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 명의로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에서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극악한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고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날로 우심해지는 가운데서도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당재건운동을 면면히 벌려나갔다. 함남, 함북에서의 공산당사건,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 조선공산당재건 코민테른노선레포트회의 사건,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사건 등은 이 시기 국내 여러 지방에서 있었던 당재건운동의 일부이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당재건운동도 있었다.

엠엘파와 서상파는 중국 길림일대를 중심으로 당재건준비위원회, 당재조직중앙간부회, 당재건동맹, 당재건정리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당재건운동을 벌이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거점으로 당재건운동이 벌어졌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기까지 전국적 판도에서 전개된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 운동도 당재건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합법적인 형태로부터 지하운동형태의 비합법적 형태로 전환된 적색노조와 적색농조의 기본적인 투쟁목적은 공산당재건에 있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전개된 당재건운동은 대부분 기성의 낡은 운동형식과 사대주의적 경향, 파벌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래의 재건운동이 거둔 성과를 타고 국내에 새 형의 당조직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지난 시기의 적색노조, 농조 선들을 찾아 거기에 우리의 당세포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다.

1937년 5월 하순 우리는 백두산근거지에서 국내당공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 결성 이후의 당조직건설정형을 총화하고 국내당조직건설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나는 그때 당조직건설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명조직들에 받아들이며 당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조직지도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몇 가지 방도를 제기하였다.

그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내용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선경내에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당조직건설과 국내혁명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로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국내당공작사업을 방조할 사명을 지닌 정치공작대를 파견하였다. 1937년 여름과 가을에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 김평과 권영벽, 정일권, 김주현, 마동희, **김정숙**, 백영철, 이동학, 최경화, 김운신, 이창선, 이경운, 이병선 등을 성원으로 하는 정치공작대가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들에 파견되어 당조직건설사업과 군중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공작대를 북선정치공작대라고 불렀다. 북선정치공작대는 북부조선 일대를 혁명화하는 방법으로써 국내당조직건설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북선정치공작대원들에게 정치사업구역을 맡겨주었다. 그 당시는 이런 정치사업구역을 정치구라고도 하였다. 정치구는 1호 정치구, 2호 정치구, 3호 정치구, 4호 정치구, 5호 정치구 등으로 나누었다. 정치구의 지역범위는 주로 김평이 우리와 토의하고 설정하였다. 정치구는 동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서해안으로 이르게 되어 있었고 번호도 그에 따라 설정하였다.

북선정치공작대원들은 해당 공작지에 가서 직접 조직정치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육성해낸 우수한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업할 수도 있었다.

이동학을 책임자로 하는 북선정치공작대의 한 소조는 국내당건설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1937년초 이제순의 안내밑에 갑산군 운흥면 일대의 농촌부락들에서 반일애국사상과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수백 매의 포고문, 격문을 살포하고 군중선전을 진행한 다음 번개같이 귀대하였다.

삼수군일대를 담당한 마동희조, 지태환조도 연이어 국내에 들어가 영활하고 용의주도한 정치공작으로써 영북지방의 민심을 뒤흔들어놓았다.

우리는 박달의 편의를 도모해줄 목적으로 그에게 어린 연락원 한 명을 파견하였다. 그가 손장복이었다.

나는 손장복에게 국내에 들어가면 일본관청의 호적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조선에서 나서자란 사람으로 행세하라고 하였다.

박달은 손장복을 데리고 주재소에 나타나 수석을 향해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수석님, 나를 축하해 주시오다.≫

수석은 명청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보았다. 박달이 순사시험에 응시한 후부터 수석은 여간만 싹싹해지지 않았다.

≪당신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

≪네, 동생이 공짜로 하나 굴러들었습지요.≫

박달은 뒤에서 쭈밋쭈밋하는 손장복을 보란 듯이 내세우고 나서 온 주재소가 다 듣게 떠들었다.

≪내 늘 수하에 동생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한탄해왔더니 아버지가 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그려.≫

≪그럼 저 총각은 아버지가 붙여준 의형제인가?≫

≪의형제라니요. 아버지가 길주에 있을 때 딴장을 봐서 벌어놓은 이복동생이오다. 생모가 죽은 다음 고아로 떠돌아다니다가 이복형이 갑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구 이렇게 덜렁덜렁 찾아오지 않았겠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애를 내가 돌보기로 결심했습지요.≫

≪아, 공짜로 저런 아들 하나 벌었으면 당신 아버지 재간이 대단하다.≫

수석의 그 말에 주재소 순사들은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기분이 거나해진 수석은 아무런 트집도 걸지 않고 수속을 해주었다.

박달은 손장복을 박영덕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였다. 그때부터 손장복은 지하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갑산지하조직의 사업에 피해를 주었다. 갑산군 운흥면 대중리의 어느 농가에 강도가 나타나 돈 20원을 빼앗아 간 일이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자기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인 체 하였다. 그 당시는 유격대원을 ≪산사람≫이라고 하였고 유격대공작원을 가리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강도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무렵 박달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대중리에 다녀왔다. 이 우연한 일치로 하여 박달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피검되었다. 경찰들은 그때 박달의 집에 길주에서 온 이병선이라는 사람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그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당자가 없어 헛물을 켰다.



국내당 공작위원회 위원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대정치위원 김평

이병선은 길주에서 적색농조사건에 관계하였다가 김영국과 함께 그 전 해에 갑산에 온 사람이었다. 김영국이 유격대에 입대한 뒤 이병선은 보천면의 한 목재소에 적을 두고 그 일대의 민족해방동맹조직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제경찰은 그 날 박달의 집에 있는 손장복을 이병선으로 알고 덤벼들었으나 나이로 보아 이병선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돌아가버리었다.

우리는 그때 장백과 국내에 정치공작원들을 많이 파견하였는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필요한 공작인원을 다 채우자면 적어도 1개 연대인원만한 정치일군들이 있어야 하였는데 유격대가 군사활동은 뒤전에 미루고 정치활동만 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정치사업경험이 풍부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성원들과 지난날 동만일대에서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군중과의 사업을 많이 해본 준비된 동무들을 선발하여 국내에 파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백현조국광복회조직에서도 이제순의 선을 타고 수많은 공작원들이 국내로 들어갔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사업은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인 김평이 주관하였다.

그 당시 김평의 직급은 7연대 정치위원이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 적후공작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유능한 정치군사일군으로서 풍부한 지하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그가 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김평은 항일혁명시기 내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정치군사일군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 후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에게 체포되어 고생도 하고 정치생활에서 일정한 오점도 남기었으나 우리에 대한 충실성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다. 김평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당위원회 사업에 많이 관계하였고 우리가 국내혁명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본격화하던 시기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군사문제와 함께 특히 비밀리에 진행된 정치공작과 관련된 사실들 중 그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그가 남긴 기록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를 풍부화하는데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김평이 끝까지 유격대오에서 투쟁하다가 조국해방을 맞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의 사업을 그처럼 충실하게 보좌해온 백두산 시절의 김평을 잊지 못한다.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노조, 농조를 비롯한 기성의 조직들과 개별적인

공산주의 그룹에 깊이 침투하면서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늘이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다.

정치공작원들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국내인민들속에는 ≪백두산바람≫이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강하게 스며들어갔다. 그들의 영향밑에 국내의 동포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에 참군하려고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조선민족해방동맹조직에서 단련된 우수한 동맹원들을 망라하는 국내당소조를 무어주었다. 역사가들은 박달을 책임자로 하는 이 소조를 ≪3인조≫라고 부르고 있다. ≪3인조≫는 기층당조직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당건설을 위한 모체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열을 늘이기 위한 박달의 사업방법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당조직의 결성이다. 무명의 당조직이란 정식명칭은 없으나 실지로는 비밀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당원들의 당조직을 말한다. 이런 조직은 조국광복회의 내부에도 있었다.

무명의 지하혁명조직은 적들의 탄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직을 건설하는 하나의 독특한 방법이다.

조직명칭을 달지 않고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양도 하고 투쟁방법도 대주고 분공도 주면 유사시 어느 한 사람이 검거된다 하여도 다른 조직성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박달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갑산에 돌아가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사업에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치였다. 그는 우리가 세운 방침대로 갑산과 삼수 일대를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원종장으로 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점차 타군, 타도로 활동선을 뻗치였다.

우리가 그 지방을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꾸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그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이였다.

삼수, 갑산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으로 통한다.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조선속담은 이 지대가 유명한 정배지라는데서 생겨난 말이다. 이조때 봉건조정의 박해로 이곳에 쫓겨와 정배살이를 하던 몰락양반들의 후손들은 대체로 화전농이 되거나 광산 노동자가 되어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다. ≪한일합병≫ 후 살길을 찾아 개마고원 일대에 밀려든 유랑민들도 이 일대에 와서는 모두 괭이로 드떨기를 찍어내고 푸장불을 피우면서 힘에 부친 화전농사를 하였다. 그 지방의 주민구성을 계급적인 각도에서 분석하면 본바탕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유격활동에 편리한 고원지대의 웅심깊은 자연은 1910년대로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이 화승대를 들고 결사보국의 이념을 안고 출몰하는 전장으로 되었으며 사회운동자들을 품어주는 조선최대의 피신처로 되였다. 북부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활동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회운동자들이 은신처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조선경내는 물론이거니와 북간도와 서간도, 시베리아지방에서까지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1920년대 중엽에 평양숭실중학교에서 동맹휴학을 주도하던 4명의 반일운동자들이 삼수, 갑산 일대에 와서 화전민들을 망라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소조를 조직한 것이 이 지방 사회주의운동의 시초로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동해연선의 여러 지방들에서 노조, 농조 운동에 부심하다가 망명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청년동맹도 내오고 농민동맹도 내오고 전위동맹도 내왔

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삼수, 갑산 지방은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처음에 특정의 명칭이 없는 조직으로 발족되였다. 193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이경봉을 인입하고 연이어 김철억을 쟁취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심창식 또 그다음에는 누구누구를 망라시켜 아마강제재배반대투쟁도 하고 미신반대투쟁도 하고 조혼반대투쟁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서로가 조직원이라는 것을 다 간파하게 되자 그 무명의 조직에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김철억

우리는 국내당조직건설에서 얻은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그 후 당지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쓴 글에서 이 방법을 정식화하였으며 1940년대 전반기에 소조공작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가는 동무들에게 이 방법을 활용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한 조직원은 해방 후 이렇게 회상하였다.

≪무슨 조직엔지 가입하였다. 그 조직의 명칭과 내용은 비밀에 붙여서 몰랐다.≫

갑산출신의 한 혁명가는 박달이 비밀서적을 주면서 몰래 읽으라고 하기에 그것을 읽고 심부름을 하였을 뿐인데 일제의 법기관은 자기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명칭이 없는 무명의 조직원들일 것이다.

박달은 삼수, 갑산 일대를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꾸린 다음 거기에서 키워낸 우수한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인접군과 인접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박달이 그들에게 준 임무는 파견지에 가서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토대를 꾸리는 것이였다.

그는 우리의 방침대로 파견성원들이 철저히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하였다. 공작지에 파견되어가는 조직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신분이 사회적으로 합법화되고 맡은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망명객식사업방법을 근절하고 군중속에 튼튼히 발을 붙일 수 있었다.


심창식

박달은 무산군에만 해도 5-6명이나 되는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 산하조직인 보천면 선덕동 반일회 책임자인 채응호도 그때 무산군에 파견되어 정치공작원들과의 연계밑에 유격대 후방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모연공작과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맹렬하게 다그치었다. 그는 ≪혜산사건≫이후에도 연길, 화룡 일대에 망명지를 정하고 무산지방에 들락날락하면서 임업노동자들을 혁명조직에 꾸준히 묶어세웠다.

박달은 조선민족해방동맹 청년부 책임자인 이용술과 이병선을 함경북도의 남부군들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을 통하여 국내혁명운동과 당조직건설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성진 적색농조 지도자의 한 사람인 허성진에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노선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약한 허성진은 우리를 만나려고 갑산까지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때 우리는 ≪열하원정≫의 후과를 가시느라고 임강, 몽강 일대에 나가있었다.

박달은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혁명의 군사적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이병선이 밀영에 왔을 때 그를 통하여 박달에게 국내당조직성원들과 조국광복회 청년핵심성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박달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첫 준비작업으로 자위단을 이용하였다. 일제는 ≪향토보위≫의 미명아래 자위단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까지 공급해가면서 단원들을 훈련시키였다. 생산유격대원들을 이 조직에 모조리 밀어넣는다면 그들이 모두 무기에도 정통하고 적들의 신임도 많이 받을 것이 아닌가. 유사시에는 한꺼번에 왁 들고일어나 놈들에게 총부리를 돌려댈 수 있을 것이다. 박달은 이런 타산을 가지고 걸치기자위단 부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적들이 규정해놓은 입단연령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생산유격대원들을 자위단에 빠짐없이 입단시키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따내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국내혁명조직들이 이용하던 비밀연락장소

그는 북선반일유격대조직과 관련된 우리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리는 북부조선일대에서 무장투쟁을 급격히 확대발전시킬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국내당조직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선반일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무산, 갑산으로부터 부전령에 이르는 영북의 광활한 대지는 유격활동을 벌이기에 알맞춤한 이상적인 지대였다.

나는 그때 국내동무들에게 북선반일유격대를 조직하라, 부대의 지도핵심으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유격대원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들을 원종으로 하여 대오도 확대하고 훈련도 하라고 하였다. 북선반일유격대 대장으로는 7연대의 최일현이 임명되고 정치위원으로는 박달이 임명되었다. 만일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지도간부들의 대다수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북선반일유격대의 편성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었을 것이다.

국내당조직성원들은 김주현별동대가 국내에 파견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박달은 일제교형리들이 국내당조직성원들과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을 마구 검거하고 있는 살벌한 환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꾸려놓은 기층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지하에 은밀히 보존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혜산사건≫으로 하여 국내당조직과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는 김평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해주었다.

나는 그 통보를 받기 바쁘게 마동희와 장증렬을 국내에 들여보냈다. 그러나 이 구원조치는 박달을 찾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던 마동희와 장증렬이 적들에게 붙잡히는 것으로 하여 효력을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공작경험이 풍부한 **김정숙**을 대진평에 파견하였다. 그 동안 단천, 북청, 흥원, 신포를 비롯한 동해안 지구에서 조직을 확대해가던 박달은 대진평에 돌아와 곤경을 겪고 있는 조직을 수습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천신만고 끝에 박달을 만나고 그와의 회견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고 우리는 백영철을 책임자로 하는 연락소조를 갑산지방에 보냈다. 백영철은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도 국내공작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럭골지방에 밀영을 짓고 여러 지방에서 식량공작을 하다가 마동희와 장증렬이 체포된 후

부대에 소환되어 와있었다.

백영철은 국내에 들어선 첫날부터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박달, 김철억, 이용술 일행을 만났다. 우리는 연락소조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찾아온 박달일행에게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국내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릴 데 대한 과업을 주어 다시 갑산지방에 내보냈다.

박달 일행과 함께 다시 국내에 나왔던 백영철은 속신지구에서 공작하던 중 일제경찰과 조우하였다. 복부에 총탄을 맞은 그는 흘러내리는 밸을 안고 적과 싸우다가 잡혔다. 일제경찰들은 그를 구뎅이에 꿇어앉히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산비적≫이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 생매장하게 하였다. 박달과 국내당조직을 구원하기위한 투쟁은 실로 막대한 노력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적들은 박달을 체포하려고 밀정들과 변절자들을 도처에 풀어놓아 산이란 산은 다 뒤지면서 소동을 벌이었다.

박달은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를 도와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하는데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로 그는 국내당조직의 주되는 담당자였다.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데서 김평, 권영벽, **김정숙**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신파, 풍산, 낭림, 부전, 흥남, 신흥, 이원, 단천, 허천을 비롯한 북부조선 일대와 장백 일대에서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묶어세웠다.

우리 당 전위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갑산, 신파, 풍산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와 양덕지방 그리고 평양, 벽성 등 서선일대의 여러 광산, 탄광, 공장, 농촌, 어촌, 도시들에 혁명조직들이 속속 건설되었다. 적색노조나 적색농조 운동으로 들끓다가 잠잠해진 지역들에서 다시금 혁명적인 노조, 농조 운동이 전개되었다. 어제날의 노조, 농조들이 재조직, 재편성되는 과정은 곧 당조직들이 생겨나는 과정과 일치하였다. 당조직망과 조국광복회망은 북부조선 일대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조선 일대와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제주도와 현해탄을 넘어 일본땅에까지 확대되었다.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은 장백과 임강 일대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밀접한 연관속에서 추진되었다. 장백, 무송, 임강 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도 당조직들이 뿌리를 박았다. 동만과 남만 일대에도 당조직들이 확대되었다. 전국적 판도와 전민족적 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영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전국적 범위의 강력한 당조직체계가 세워졌다. 최고영도기관인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에 따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축성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또 하나의 크나큰 전취물로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후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지구에서 얻은 군사작전들에서의 승리에 못지 않은 정치적 승리였다. 당조직건설을 위한 우리의 피어린 투쟁은 조국해방을 앞당겨오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강유력한 기초로 되었다.

파쟁과 이론적 결핍과 실천적 능력의 부족으로 소외되고 경시당해오던 조선공산주의운동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가기 시작하였다.

3. 백두산 기슭에서의 싸움

우리가 백두산으로 나온 다음 장백땅이 자리잡고 있는 동변도, 특히 북부 동변도 일대는 관동군과 만주국 치안당국에 있어서 매우 골치 아픈 최대의 ≪치안불량지대≫로 되였다.

일만군경의 모든 신경은 동변도로 쏠리게 되였다. 신문지상에는 장백땅의 소란스러운 사변들에 대한 기사들이 그칠새없이 나돌았다. 그전만 해도 치안양호지대로 치부되어왔던 백두산 기슭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만주강점직후부터 조선과 함께 만주를 아시아제패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동변도의 치안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동변도는 중국의 북양정부가 동북을 요령, 길림, 흑룡강의 3개의 성과 10개의 도로 나누면서 생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지금의 길림성과 요령성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다. 동변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잇닿아있으므로 ≪선만일체화≫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에도 그렇고 엄청난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일만 정계와 실업계는 물론, 군부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을 모으게 되는 주요한 대상지의 하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대의 북부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군사정치활동을 쉴사이없이 벌이게 되자 적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빠맞은 관동군은 동변도를 포함한 만주일대에 항구적인 치안대책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만주국치안숙정계획대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에 기초하여 만주국정부는 ≪3개년 치안숙정계획요강≫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특별공작대상지로 정한 것이 바로 북부동변도(장백, 임강, 무송, 동강, 휘남, 금천, 유하, 통화, 즙안현)였다. 만주국은 중앙에 ≪동변도 부흥위원회≫, 통화에 ≪동변도 부흥판사처≫와 ≪동변도 특별치안유지회≫를 설치하는 한편 만주국 군부 최고고문인 사사끼를 우두머리로 하는 ≪통화토벌사령부≫를 내오고 북부동변도의 치안확보를 겨냥하는 ≪동기대토벌≫전을 개시하였다.



일본관동군 사령관과 조선총독사이에 진행된 도문회담

일본군부의 군경을 제일 날카롭게 자극한 것은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에 의하여 서간도땅에서 매일같이 울리고 있는 총소리와 그 뒤에서 도처에 건설되는 백두산밀영망과 지하광복전선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근거지였다.

이미 도쿄에서는 식민지조선의 최고통치자인 조선총독 미나미육군대장과 만주의 사실상의 최고통치자인 관동군사령관 우에다육군대장으로 하여금 항일무장부대들을 완전소탕하고 치안을 도모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모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문회

담≫이라고 부르는 악명높은 회담이 조만국경의 자그마한 세관도시 도문에 있는 일본영사관 분관의 밀실에서 열리였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전까지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있었던 미나미가 조선총독으로 부임되자마자 우에다와 함께 조선유격대 ≪토벌≫문제를 놓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미나미와 우에다의 밀담에 이어 그 수행원들이었던 관동군 헌병대사령관 도죠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쯔바시 사이에도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 회담들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국경경비의 강화, 대규모적인 공동 ≪토벌≫작전의 전개, 서간도 일대의 집단부락화를 골자로 하여 항일무장부대들의 압살을 노린 이른바 ≪3대정책≫이였다.

도죠와 미쯔바시 사이에는 쌍방이 연합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토의되였다.

≪3대정책≫의 핵은 1936년 ≪동기대토벌≫이였고 그 기본목표는 우리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백두산이였다. ≪동기대토벌≫이 종전에 벌인 작전들과의 차이점은 만주로 출전한 조선주둔 일본군 병력과 만주에 있는 관동군과의 혼성 ≪토벌≫작전이라는데 있었다. 그 전술은 대병력에 의한 포위에다가 참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산골짜기와 등성이를 샅샅이 훑는다는 새로운 비소식방법을 배합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 해 겨울을 마감으로 하여 항일무장부대들을 완전히 소멸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음흉한 목적밑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치안유지와 국경경비의 강화≫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국경경비역량을 증강하고 방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일본제국의 국가예산에서 막대한 추가자금까지 보장받도록 하였다. 조선주둔 일본군 부대들과 특설국경경비대, 국경일대의 경찰부대들에는 대거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관동군 측에서도 동변도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토벌≫작전을 준비해나갔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국경일대에는 각양각색의 ≪토벌≫부대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였다. 남부조선에 있던 경찰부대들도 북부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였다. 치치할에 있던 관동군 부대들도 백두산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고 조선주둔 일본군 제19사단 산하 부대들도 또한 압록강을 건너왔다. 일만경찰부대들과 위만군 ≪토벌대≫들도 우리를 향해 몰려들었다. 압록강 연안에는 경찰관 주재소들이 부쩍 늘어났다. 곳곳에 단속초소들이 생겨났으며 강위로는 전화선들이 줄줄이 늘어졌다. 바로 이 무렵부터 적들은 경찰관의 아내들까지 사격훈련을 시키었다. 달구지나 발구, 말파리 같은 것이나 겨우 드나들던 백두산일대 산간오지의 오솔길들로는 대포바퀴와 치중마차들이 굴러다니게 되었고 밀림속 곳곳에 군마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지기 시작하였다.

백두밀림에는 그 해 초겨울부터 ≪토벌대≫들이 쫙 깔렸다. 적들은 ≪이번의 토벌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여 치안을 결정적으로 확립한다≫고 하면서 백두산일대의 밀림을 샅샅이 뒤졌다. 백두산 기슭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일본침략군 사이의 새로운 결전이 바야흐로 박두하고 있었다.

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우선 역량상으로도 적들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게다



일본관동군
토벌대들의 행렬

가 항공대의 지원까지 받는 정예무력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적들은 행정, 경제, 경찰 등 모든 단위를 다 발동하고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발동시킬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인민의 은밀한 지원뿐이였다.

보편적인 군사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정황에서는 공격은 설정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성관례와 상식을 뛰어넘어 공격위주의 새로운 우리 식 전법으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우리는 1936년 11월 곰의골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남호두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는 한편 적의 ≪동기대토벌≫공세를 격파하고 백두산근거지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우리의 기본전략은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전술적 우세로 격파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전투원들의 사상적 각오를 고도로 높인데 기초하여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유인매복전과 불의의 기습전, 철벽의 방어전 그리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대오를 토막내어 소멸하는 전법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전술을 활용하여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의 영활한 군사작전에 의하여 적들은 ≪동기대토벌≫의 첫걸음에서부터 골탕을 먹었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압록강 연안으로 나온 첫시기에는 우리가 반만군부대들처럼 거기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적들이 ≪토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밀림속에 더 깊숙이 숨어서 신출귀몰의 수를 써가면서 백두산 주변과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에서 더욱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려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새로 꾸린 백두산근거지를 공고화해나갔다.

적들에게 된매를 안긴 그 해 겨울의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곰의골어귀전투와 홍두산전투 그리고 도천리, 이명수 전투들을 꼽아야 할 것이다.



만주국 국경선을 넘어 화북지방을 강점한 일본군

곰의골어귀전투는 우리 밀영에 대한 적들의 기습소탕작전을 앞질러 좌절시킨 방어전투였다.

≪동기대토벌≫의 첫시작에서부터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본 적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작전을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많은 밀정들을 파견하여 우리 사령부의 행방을 탐지하려고 하였다.

적들의 ≪동기대토벌≫이 개시되자 나는 부대의 주력을 거느리고 주로 곰의골밀영쪽에 나가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대원 몇 명을 데리고 전방초소에 나가 경계근무를 서던 오중흡이 농민옷차림을 한 수상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밀영으로 돌아왔다. 조사하여보니 적들의 밀정들이였다. 그들은 수림속을 살금살금 헤치며 밀영쪽으로 접근해오다가 미리부터 그 거동을 살피고 있던 우리 대원들에게 꼼짝 못하고 잡혔는데 능청스럽게도 일제놈들의 핍박에 못이겨 혁명군을 찾아온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행색이 하도 수상해서 몸을 뒤졌더니 한 놈의 바지괴춤에서 날이 시퍼런 조막도끼가 나왔다. 그 도끼는 특무기관에서 살인흉기로 만든 것이였다. 심문결과 한 놈은 행상으로 가장하고 이미 여러 해 동안 밀정노릇을 해오는 악질적인 특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순박한 농민인데 강박에 못이겨 길잡이로 그와 동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이 받은 임무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어 뒤에서 밀림을 샅샅이 훑으며 올라오고 있은 ≪토벌대≫에 신

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밀정의 진술에 의하면 적은 일만합동 ≪토벌대≫를 편성하였는데 그 중 한 부대는 이도강을 떠나 곧바로 곰의골로 밀려오고 다른 한 부대는 16도구의 마가자 서북쪽을 거쳐 유격대 밀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약속된 소리신호를 하게 되면 곧 공격을 하기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밀정은 이 ≪토벌≫을 회령에 있는 비행기들이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그의 진술은 우리 정찰조들이 수집한 정보자료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아직 포위환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밀정을 통하여 사령부의 위치를 낌새맡은 적들은 결국 나남 19사단 산하 일본군 ≪토벌대≫와 이도강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토벌대≫를 곰의골로 들이밀어 사령부와 우리의 주력을 불의에 타격함으로써 ≪불안의 화근≫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정황은 매우 불리하고 위급하였다. 적들이 수색을 벌이면서 밀영으로 조여들고 있은 형편에서 우리는 밀영근처의 유리한 지대에서 적을 치고 슬쩍 빠져나갔다가 되돌아가는 적을 삼개골지대에서 밤을 이용하여 한번 더 때리기로 하였다.



곰의골밀영

곰의골의 남쪽은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적의 주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골에는 잘룩한 병모가지처럼 묘하게 생긴 곳이 있었다. 이 골의 양쪽비탈은 경사가 몹시 급한 벼랑을 이루고 있어 벼랑을 잘 타는 산짐승들조차도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적들을 좁은 홈통속에 몰아넣고 족치기에는 둘도 없는 싸움터였다.

나는 2중대와 4중대를 서북쪽과 동북쪽 고지들에 매복시키고 골 안 깊은 곳에 허위진지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몇 명의 대원들을 거기에 배치하여 마치 주력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불도 피우고 소리도 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유인조를 파견하였다. 적진에 들어가 밤새껏 소란을 피우다가 날이 밝으면 대부대가 움직인 것 같은 흔적을 내면서 철수해오라고 지시하였다.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 유인조는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의 추위가 몹시 맵짰다. 그러나 나는 매복위치를 숨기기 위하여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

유인조는 적을 우리 주력이 배치되어있는 곳으로 끌어오려고 골바닥에 대부대가 지나간 듯이 무질서한 발자국을 내면서 허위진지쪽으로 올라갔다. 잠시후에 그쪽 산비탈에서는 여러 개의 우등불 연기가 솟구쳐오르고 떠들썩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은 미리 짜준 유인각본에 따르는 기만동작이었다.

우리의 유인조를 뒤따라 골안에 기어든 적들의 신경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법썩 떠들어대는 허위진지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었다. 적이 척후대는 기마대열이었다. 잠시 한자리에 몰켜서서 골안쪽의 허위진지를 살펴보며 쑥덕거리던 기마척후대의 일행중에서 검정말을 탄 기병 하나가 말무리를 헤치고 나와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다른 두 필의 말도 그 말을 따라갔다.

반시간쯤 지나서 기마척후대는 길다란 보병중대를 달고 다시 골안에 나타났다. 종대의 선두마다에 말을 탄 장교들이 긴 군도를 번쩍거리며 오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나남 19사단 관하 부대 패거리들이었다. 정안군 장교들은 말을 얻어타지 못한 채 병사들과 같이 걸어왔다. 적부대들의 뒷꼬리에는 박격포를 분해하여 기르마에 얹은 말들이 뒤따랐다. 다른 골로도 적들이 기어들었다. 분명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100여명 되나마나한 우리 역량에 비하면 실로 5배도 더 되는 어머어마한 ≪토벌≫역량이었다.

이 전투에서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는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적들

이 포위진을 완성하기 전에 1차 타격을 강하게 안기고 슬쩍 빠져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였다. 우리는 밀정을 처단하는 총소리를 신호로 하여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신호총소리와 함께 적들은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였다. 대부분의 적들은 공격개시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나가너부러졌다. 포탄이 장탄된 포들은 그냥 전장에 나딩굴었다. 곰의골어귀의 골짜기는 적들의 무덤으로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전장수색을 끝낸 다음 어둠을 타서 은밀히 빠져나왔다.


오중흡

예견대로 정찰조원들은 패잔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추격해오던 적의 증원부대가 해가 지자 한곳에 몰켜 숙영준비를 하고 있다는 적정자료를 사령부에 통보해주었다. 나는 오중흡에게 적숙영지를 야습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오중흡은 곧 1개 소대역량으로 습격조를 무었다. 야간습격전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없었다.

습격조를 데리고 적의 숙영지로 은밀히 접근해간 오중흡은 나무밑에서 졸고 있은 보초병을 사로잡아 간단한 심문을 하였다. 숙영지의 자리배치를 잘 알지 못하고 섣불리 쳐들어가면 짐군으로 끌려온 인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보초는 입이 가분가분한 놈이었다. 그는 일본군대가 숙영지 복판을 차지하고 위만군이 그 두리에 잠자리를 잡았다는 것, 짐군으로 끌려온 인민들은 맨 바깥쪽에 총알받이가 될 수 있게 자리를 정해주었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보초는 위만군들만 서고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은 우등불 곁에 젖은 신발들을 걸어놓고 말리우면서 곤하게 자고 있다고 하였다.

오중흡은 습격조를 3명씩 나누어 순찰병으로 가장시켰다. 군호를 대면서 보초선을 무사히 통과하여 숙영지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간 습격조원들은 조단위로 일본군의 천막을 향해 불의에 사격을 들이댔다.

총소리에 놀라 깨어난 천막안의 적들은 신발도 찾아 신을 사이없이 헤덤벼쳤다. 적아를 가리지 못하고 제놈들끼리 향방없이 마구 쏴갈기는 눈먼총알에 숱한 장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너부러졌다. 숙영지 안은 마치 벌둥지를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히었다. 습격조원들은 적이 혼란된 틈을 타서 전장밖으로 감쪽같이 빠져나왔다. 그날 밤 적들은 저들끼리 밤새껏 총격전을 벌려 무리죽음을 내었다. 간신히 살아 도망친 적병들은 거의 다 얼어죽고 말았다. 신발도 못신고 털외투도 못입은 채 들고 뛴 자들이 백두산의 혹한을 이겨낼 리가 없었다.

패잔병들은 숙영지 자리에 널려있는 수백 구의 시체들을 그대로 다 운반할 수가 없어 머리만을 잘라서 마대에 넣어가지고는 마차에 처싣고 황황히 달아났다.

곰의골어귀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우리는 압록강 우안의 여러 고장들에서 맵시있는 전투들을 하였다. 11월 20일에는 적의 ≪토벌≫ 거점의 하나인 장백현 14도구시가 습격전투를 하였으며 그 며칠후에는 13도구 도천리 상촌에 있는 적을 기습소탕하였다. 일부 소부대들은 15도구와 19도구 일대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벌였다.

적들은 곰의골어귀전투와 뒤이어 계속된 전투들에서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그 후 두석달 동안 우리가 있는 백두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토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적들은 시간을 얻어 새로운 ≪토벌≫을 감행하려고 획책하였다. 우리는 경각성을 높이었다. 전부대가 밀정들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다른 한편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적 대책도 세웠다. 백두산 기슭에는 얼마동안 정적이 깃들었다.

내가 장백현 19도구 구장 이훈을 밀영에 불러다가 지하공작 방향과 방법에 대한 요령을 이야기한 것도 이 시기였고 원호물자를 지고 밀영에 온 17도구 인민들과 담

화를 한 것도 이무렵이였다. 박달, 박인진과의 상봉,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의 공포, 조국광복회조직들의 급속한 확대, 이 모든 사연들로 하여 1936년 말-1937년 초의 백두산지구 겨울은 우리의 기억속에 지금도 인상깊이 아로새겨져있다.

그 기억에 한쪽모퉁이에는 장백현 19도구의 안덕훈농민도 있다. 안덕훈을 만나던 당시는 장백현 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신화같은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김일성**이 솔방울을 만지면 정말로 총알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안덕훈은 그런 기담들에 유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집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한 질문을 연거퍼 들이대였다. 다행히도 주인이 아랫방에 있는 김평을 대장으로 알고 그하고만 상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끼여들지 않아도 되였다. 그들의 대화가 아주 해학적이였다.


김평

≪장군은 3일천기만이 아니라 훨씬 더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안덕훈이 김평에게 던진 첫 질문이였다.

≪사실이구말구요.≫

김평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안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들이댔다.

≪웃마을 영감들이 그러는데 장군은 일이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일이 없을 때는 눈을 감는다고 하더구만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네, 사실로 믿어도 됩니다. 장군은 일이 없을 때는 눈을 감지만 일단 눈을 뜨면 아예 큰 변이 나지요.≫

≪장군이 축지법을 쓴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지요. 장군은 산을 주름잡아가지고 사방으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지요.≫

≪들리는 소문에는 **김**장군이 옛날의 홍길동이도 무색케하는 신출귀몰의 장수라더니 과시 그렇구만.≫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물음이고 또 그 물음에 못지 않게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였으나 주인이 하도 정색해서 질문하고 손님이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정색해서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그 일문일답을 제지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듣기만 하였다. 더욱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도 솔직하고 고지식한 김평이 그런 엉터리없는 대답을 연방 둘러대면서도 전혀 어색해하거나 면구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였다.

안덕훈은 김평에게 당신은 장군을 몇 번이나 만나보았는가, 지금 **김**장군이 우리 마을에 와있는가고 물었다.

김평은 이번에도 자주 만나본다, 지금 **김**장군이 당신네 마을에 와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주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나는 김평에게 그런 싱거운 소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고 가볍게 나무랐다.

김평은 웃으면서 인민들이 전설을 믿으면 그 전설을 100프로 긍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민들이 우리 조선에 하늘이 낸 신비로운 장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장수가 나와서 나라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런 천출장수가 정말로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빼앗긴 나라를 꼭 되찾을 수 있다는 신심을 안고 우리를 따라 반일성전에 더 기운차게 떨쳐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였다.

≪우리 동포들은 지금 일본놈들이 아무리 너덜거려도 우리 민족가운데는 신술이 도통한 장군이 있다, 그러니 왜적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김장군을 따라 싸우면 능히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령관동지 일개인에 대한 숭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기대이지요. 인민이 그러기를 바라는데 군이 아니라고 해서 맥을 떨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김평의 말을 듣고 앞으로 군사작전을 더욱 대담하고 영활하게 벌려 인민의 기대와 신임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김평의 말과 같이 우리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에서 인민들은 큰 힘을 얻었다. 조선에 왜놈들을 쩔쩔매게 하는 장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심을 가다듬은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인민혁명군에 참군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이 민간설화들의 덕을 많이 본 셈이었다.

그 후 안덕훈도 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다른 대원들 못지 않게 잘 싸우다가 몽강의 어느 전장에서 희생되었다. 이치호는 가랑잎과 눈으로 그를 안장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의 일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추억하였다.

적들이 우리 밀영지들에 다시 범접하기 시작한 것은 새해 1937년에 접어들어서부터였다.

만주와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에 출몰하는 항일무장세력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리려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일본의 소화천황은 군부의 제기를 수락하여 자기의 시종무관 시데이를 특별사신으로 파견하여 혁명군의 맹렬한 유격활동으로 하여 ≪치안유지≫가 엉망이 돼버린 압록강연안의 국경일대를 한 달동안이나 현지시찰하게 하는 동시에 조선총독 미나미와 관동군사령관 우에다 그리고 조선주둔일본군사령관 고이소 등과 함께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강화할 대책을 모의케 하였다. 어명을 받은 천황의 시종무관은 도쿄로부터 압록강 상공으로 날아넘어왔다. 그의 행차를 계기로 적들은 ≪토벌≫에 더 열을 올렸다.

홍두산밀영에 대한 적들의 기습 ≪토벌≫은 시데이가 국경일대시찰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단행되었다. 혁명군의 후방부성원들은 그때 음력설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기본전투부대들은 전방출전기지인 지양개밀영과 곰의골밀영에 나가있었고 나는 호위성원들과 함께 홍두산밀영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치 못할 몇 가지 사정이 있어 음력설을 이틀 앞두고 홍두산밀영을 떠났다.

나는 우선 홍두산과 횡산 사이의 한 산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되골령밀영에 들러 김정부를 위문해주고 백두산 최후방밀영으로 향하였다. 잡지 ≪삼천리≫ 지면에 나타난 나와 김정부와의 회견이 있었던 고장이 바로 그 밀영이었다.

백두산 최후방밀영이라고도 부른 횡산밀영에는 병약한 아동단원들이 보양생활을 하고 있는 귀틀막도 있었고 이계순, 박순일을 비롯한 병약자들과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도 있었으며 박영순이네 무기수리소와 박수환이네 재봉대도 있었다. 심장병 때문에 신고하던 위증민도 그곳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대통영감≫을 비롯한 비서처일군들도 ≪하늘아래 첫 동네≫인 여기에 와서 일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밀영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을 요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취해준 다음 김평, 권영벽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곰의골 군정간부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고 적의 ≪동기대토벌≫을 결정적으로 격파할 데 대한 당면한 투쟁

과업을 토의하였다. 특히 도천리, 이명수 계선과 무송지구에로의 전투부대들의 전술적 및 전략적 이동문제와 국내진공작전의 시기선택문제 등이 논의되였다. 그 문제는 훗날 서강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당조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토의하였고 권영벽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제순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장백현당위원회와 이제순을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날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회의는 적의 ≪동기대토벌≫을 격파하고 백두산근거지를 지키는데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당조직건설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홍두산전투장

그 회의에 위증민도 참석하였다. 횡산에서 쇤 음력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박영순이 깡통으로 국수분틀을 만들어서 농마국수를 눌러 명절상에 올린 것이 바로 그 음력설이었다. 재봉대에서는 교즈를 빚고 병원사람들은 우동을 만들었다. 횡산사람들은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푸짐하게 대접하였다.

위증민은 그 후 횡산밀영에서 나와 함께 농마국수를 맛있게 먹던 1937년 음력설을 두고두고 회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영순의 재간을 칭찬하였다.

1937년 음력설을 생각할 때면 교방신이라는 중국인경위대원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교방신은 교즈를 15개나 먹고도 국수 두 그릇을 또 먹었다. 교방신네 다섯 형제는 지양개에서 한날한시에 참군하였다. 그는 다섯 형제 중의 막내였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를 ≪쑈우즈≫(다섯째)라고 불렀다.

그 ≪쑈우즈≫가 한 번은 손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면도칼로 그의 손을 수술해주었다. 특별한 마취제도 없이 강짜로 한 수술이어서 몹시 아팠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용케 참았다. 수술자리가 잘 아물지 않아 교방신은 변소에 갔다가도 제 손으로 허리띠를 메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매번 그를 거들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신발이 젖으면 벗겨서 불에 말리워 주었다. 한 번은 회의에 참가하려고 경위대원들과 함께 안도현 오도양차에 갔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그때 교방신이 아주 잘 싸웠는데 그 전투에서 아깝게도 그의 형 하나가 희생되였다.

횡산에서 음력설을 즐겁게 보내고 이튿날 홍두산밀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망원초 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였다.

정황은 아주 긴박했고 형세는 우리에게 몹시 불리하였다. 우리의 병력이란 이두수네 중대원 몇 명과 나를 호위할 임무를 맡고 있었던 기관총반원들 뿐이었다. 적의 병력은 자그만치 500여명이나 되었다. 그런데다가 우리 망원초에서 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적들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망원초 고지에 거의 다 오른 뒤였다.

나는 즉시 대원들에게 남쪽능선을 재빨리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두수 중대장에게 망원초에 있는 대원들을 철수시켜 적들에게 길을 열어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하는 망원초성원들은 반드시 적들의 눈에 뜨이게 칼능선을 타고 내려오게 하였다. 칼능선은 한발자국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골짜기의 눈속에 굴러떨어져 파묻힐 수 있는 외통길이었다. 그 외통길로 적들을 유인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도 능히 제낄 수 있었다. 홍두산 남쪽능선은 칼능선으로 달려드는 적을 손금보듯 내려다보면서 답새길 수 있는 전술적 지탱점으로서 적들이 퇴각하면 능선아래 골바닥에 몰아넣고 모조리 족칠 수 있는 곳이였다.

나의 명령을 받은 망원초성원들은 적들을 칼능선으로 유인하였다.

칼능선과 남쪽능선 사이의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적들의 ≪함정골≫로 되였다. 우리의 승전을 도와준 또 하나의 요인은 명령을 받고 이두수가 남쪽능선의 비탈을 얼음강판으로 만들어놓은 데 있었다. 그 얼음강판 때문에 적들은 단 한 놈도 우리가 차지한 능선으로 기여오를 수 없었다.

홍두산전투는 보통 군사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역량상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을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중대장 이두수가 총상을 당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이었다.


한익수

전투가 끝난 다음 나는 적들의 숙영지에 야간습격조를 파견하는 한편 무송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적들이 일단 물러났지만 불원간 증원대를 끌고 다시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였다. 우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었다. 이런 때에는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우리가 철수대책을 토의하고 있을 때 골아래쪽에서 우리 유격대의 돌격나팔소리가 울리고 연이어 요란한 총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오중흡이 인솔한 대오가 적들을 녹여내는 소리였다.

오중흡은 인민들로부터 적 ≪토벌대≫가 홍두산 방향으로 밀려갔다는 말을 듣고 사령부의 안전이 걱정되어 천방지축 달려왔다. 그는 우리가 파견한 야간습격조와 함께 적의 숙영지 복판을 가로질러 몰사격으로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마저 깡그리 요정냈다.

오중흡은 적을 족친 다음 한익수를 나에게 보내어 부대를 끌고 홍두산으로 들어오라는가고 물어왔다. 나는 홍두산밀영에 대한 적들의 습격이 완전히 좌절된 조건에서 본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을 지시하였다. 오중흡은 우리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사령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곰의골로 되돌아갔다. 오중흡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홍두산전투 때 일본군의 짐을 지고 갔다가 적들의 송장처리까지 한 이도강의 한 농민은 훗날 우리의 답사단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때 일본군대는 매 호당 한 사람씩 인부를 강제징발했습니다. 한번 그런데로 끌려갔다오면 우리는 대개 발에 동상을 입고 심지어는 열 발가락이 다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끌려갔을 때는 겁이 났고 또 실지 전투마당에 엎드려있으면 온몸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언제나 유격대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속으로 는 어찌나 기뻤던지 피곤을 다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도망쳐갈 때 면 그 더러운 송장을 끌고오라고 하는데 여간만 질색이 아니였습니다. 홍두산전투 때만 해도 어찌나 시체가 많았던지 담가로 다 나를 수 없어서 죽은놈의 각반을 풀어 목을 매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언제인가 나는 일본에서 우리를 찾아온 한 언론계 대표단일행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가 구 척이나 되는 신문기자가 한 명 끼여있었다. 접견석상에는 내내 아무말없이 기록만 하던 그가 오찬회 때에야 불쑥 입을 열고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김주석은 ≪백두산호랑이≫로 소문났던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보니 무척 인자하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가 홍두산전투에서 혼쌀난 옛 일본군소위라고 실토하였다. 자기는 야습당하던 날 밤에 보초소 검열을 나갔던 덕에 용케 생명을 건진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살아나왔다고 하여 헌병놈들한테서 억울한 매도 맞고 된 봉변까지 당했는데 그때 속이 꼬여 군직을 버렸고 후에 기자로 돌았다고 하였다.

홍두산전투에 참가한 적군은 일만합동 ≪토벌대≫였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일본군뿐이였고 위만군측에는 희생자가 별로 없었다.

일본군장교들은 위만군장교들을 보고 어떻게 되어 전투에서 죽은 것은 황군뿐이고 너희들만 고스란히 살아올 수 있었는가? 빨치산의 탄알에 황군만 따라 다니는 지남철이라도 달려있는가? 그런 지남철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온 것은 분명히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마구 때리고 차고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홍두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은 주되는 요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 이런 정신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다.

수배 혹은 수십배의 적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지, 자기 희생성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적들과 맞서도 패한 적이 없었다.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지가 얼마나 굳센 것이였는가를 실증해주는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두수는 바위굴 속의 병원에서 송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이계순, 박순일을 비롯한 서너명의 병상자들과 함께 간고한 나날을 보내었다. 말이 병원이었을 따름이지 변변한 약도 주사도 없었고 수술칼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 허술한 병원에도 ≪백두의 혁명정신≫만은 넘쳐있었다.

중환자인 박순일은 2사의 군수부장이였는데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한 탓으로 발이 썩어들기 시작하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직후 나는 병원동무들에게 식량과 함께 전투에서 노획한 의약품들과 통조림, 여름군복, 신발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주면서 병마와 싸워 반드시 이겨달라는 것과 완치된 다음 전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써보낸 적이 있었다.

그 편지를 받은 자리에서 박순일은 통조림통으로 자작 만든 양철톱을 내놓으면서 썩어들어가는 발을 제 손으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송의사를 비롯한 모든 동무들이 그의 결심을 말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박순일 자신은 그 결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동정하는 동료들을 소극적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하면서 나는 이미 발을 내 손으로 잘라낼 각오를 한 사람이다, 나의 결심을 실천하는데는 동무들의 약간한 방조가 필요할 뿐이다, 내 발을 잡아만 달라, 나는 빨리 완쾌되어 혁명초소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휘친거리는 양철톱으로 옹근 엿새동안이나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썩는 발을 자기스스로 잘라냈는데 수술을 다하고서야 쓰러졌다고 한다. 다행히 상처자리는 용케 아물어갔다.

그 해 초겨울에 병원동무들은 더 깊은 산중으로 옮겨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초막병원이 그만 적≪토벌대≫의 수색에 걸려들었다.

제일 선참으로 적을 발견한 박순일은 동지들을 구원할 일념으로 자기를 생포하려고 달려드는 적병은 붙안고 벼랑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토벌대가 왔다≫고 고함을 질렀다.

혁명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자기 발을 자르면서까지 생명을 귀중히 보존하였지만 동지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백두산에

서 살며 싸웠다.

박순일이 알려준 덕분에 나무를 베려고 병원초막을 떠났던 이두수는 쉽사리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계순을 포함한 몇 사람은 붙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었다.

동지들도 초막도 양식도 없이 산중에 홀로 남은 이두수는 혹심한 참경을 당하게 되었다. 옹근 엿새동안이나 그는 낟알 한 알 구경 못하고 꼬박 굶었다. 그러다가 이계순이 끼니를 마련할 때마다 몇 알씩 절약하여 남겨둔 뒤 사발 되는 콩을 발견하였다. 콩이 다 거덜난 다음에는 메돼지가 뜯어먹곤 한다는 속새풀을 씹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그 무서운 백두산 추위속에서 옷마저 다 꿰져 헌 마대쪼박으로 몸을 가리우고 원시인처럼 한지에서 지내야 하였으니 그 간난신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까마귀떼들은 주변의 나무가지들에 매일같이 날아와 소란스럽게 울어댔다. 때로는 번갈아 한 마리씩 날아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슬쩍 다쳐보기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장 이두수

이두수 자신도 죽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재속에 묻어 가까스로 살려오던 불씨마저 스러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최후를 각오한 그 순간에 그는 완쾌되어 전장에서 만나자고 한 우리의 당부와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진 박순일의 최후를 상기하였다고 한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켜 나를 살려준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다. 살아서 다시 전장에 나서라는 것은 사령관동지가 내게 준 명령이다. 나는 그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이두수는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였다. 그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절해고도와 같은 산중에서 무려 석달스무날 동안이나 홀로 지내면서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이두수와 마찬가지로 박순일과 이계순 그리고 희생된 모든 전우들도 역시 몸은 한 점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정신만은 백두의 영봉처럼 도고한 불사조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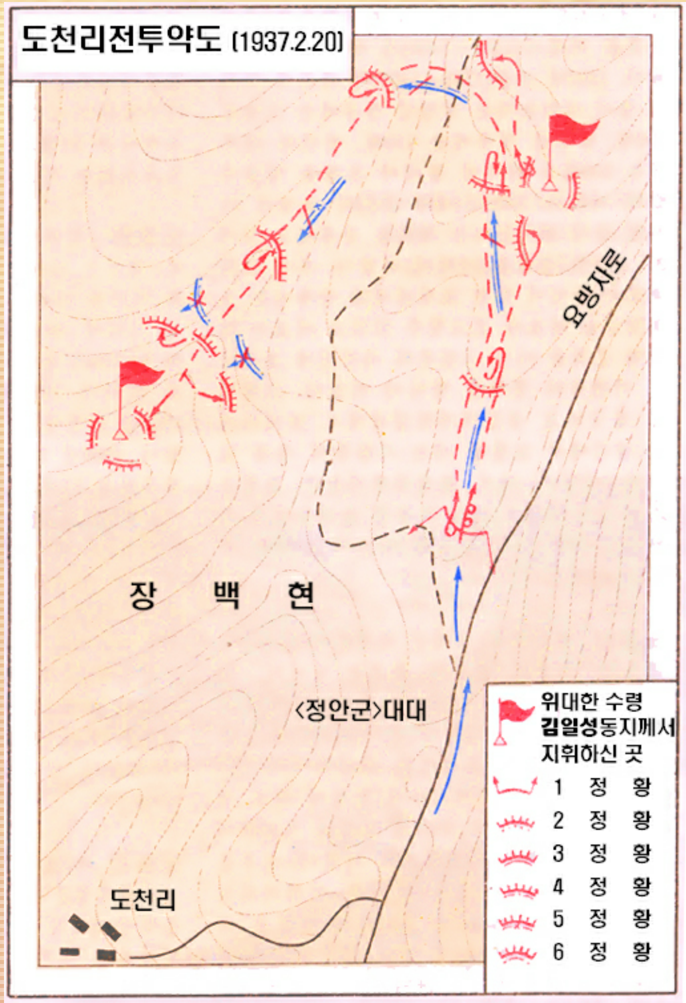
우리는 홍두산전투가 있은 다음 연이어 도천리전투와 이명수전투를 치르었다.

홍두산전투 후 나는 곧 부대주력을 이끌고 장백현 하강구쪽으로 내려갔다. 적들이 백두산 주변일대에 다시금 대병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수색전을 펴고 있은 조건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이려면 적들의 주의를 다른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우리 주력부대가 하강구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적 ≪토벌≫ 역량을 분산시켜놓고 혼란을 조성한 다음 적의 ≪동기토벌≫을 결정적으로 분쇄하려는 전술적 이동이였다. 원래 우리는 음력설만 지나면 남만동무들과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부대가 요방자근방마을에 이르자 나는 숙영명령을 내리고 도천리에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정찰조원들은 마을로 내려가던 도중 마침 적정통보를 가지고 우리의 소부대를 찾아오던 도천리지하조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통보에 의하면 우리의 대소부대배합전술에 걸려들어 겨우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허탕을 친 정안군부대가 우리와 결판을 내겠다며 사령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요방자에서 도천리나 최영감골로 가려면 봇나무, 자작나무, 가시나무와 키가 넘는 갈대들, 새초풀들이 얼기설기 뒤엉킨 무연한 소로길을 지나야 하였다. 우리는 이 길로 도천리 상촌에 갔는데 그때 전령병 최금산이 떨기나무숲에 들어섰다가 가시에 눈을 찔려 소동이 벌어졌다.

만약 이 30리길에 적들을 끌어들인다면 적들은 외줄로 행군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기본부대가 진대통이 가로놓인 요소요소에 매복했다가 쉽게 놈들을 토막쳐 족



칠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우선 소부대유인전으로 적들이 잔뜩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매복전으로 모조리 소멸할 결심을 내리고 오중흡을 사령부로 불렀다.

나는 오중흡에게 적들을 그 등판의 오솔길로 유인해들여다 토막내어 족치라는 임무를 주었다. 유인조성원들은 적의 행군종대가 나타나자 그 선두대열에 일제히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매복조들이 잠복하고 있는 가시덤불 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우리의 유인조성원들은 가시덤불이 뒤엉킨 등판길에 들어섰다. 가시덤불은 산생활에서 단련되지 못한 적들에게 있어서 가시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이었다. 그 가시덤불의 성화 때문에 적의 대오는 자연히 토막토막 끊어지게 되었다. 매복조 성원들이 적대열의 도간도간에 불소나기를 들씌웠다. 적들은 골짜기를 따라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는 눈위에 피를 뿌리며 고꾸라졌다. 수백 명에 달하는 병력이 우리의 토막치기 전술에 걸려들어 녹아나고 말았다. 적들은 날이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상자들을 전장에 팽개치고 도천리 부락으로 도망쳤다.

도천리 지하조직에서는 적들이 그날밤중으로 저들의 소굴로 돌아갈 것 같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적들은 우리의 야습이 두려워 몹시 서둘고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 부대의 집결장소에서 도천리 앞도로까지 가려면 적어도 2시간나마 걸려야만 하였다. 우리가 그 도로계선에 가닿을 시간을 얻으려면 구실을 만들어 적의 출발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도천리지하조직에 될수록 적들이 저녁식사준비를 질질 끌라는 지시를 주었다.

도천리 지하조직에서는 우리 부대가 산에서 내려와 매복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식사준비를 질질 끌었다. 적들은 초조해서 저녁을 빨리 지어달라고 독촉하였지만 지하조직원인 구장 정동철은 무슨 큰 성의라도 베풀 듯이 정안군어른들이 모처럼 우리 마을에 왔는데 어떻게 대접을 소홀히 하겠는가고 하면서 닭도 잡게 하고 쌀도 찧게 하는 등으로 식사준비를 늦잡았다. 결국 적들은 한밤중이 거의나 되어서야 마을에서 떠나게되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도천리 앞의 큰길 좌우에 매복을 끝내고 반시간 가까이 적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이 매복전에서 우리는 정안군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새초가 깔린 등판에 적의 주검이 한 벌 널려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 시체들에서 총만 벗겨가지고 유유히 철수하였다. 이 시체들을 실어 나르는데만 해도 24필의 소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소발구 하나에 주검 9구씩 처싣고 13도구까지 날라갔다는 것이였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소발구 하나에 아홉 개씩 스물네 발구면 모두 얼마요?≫하면서 적들이 당한 패배를 깨고소해 하였다.

도천리전투를 치른 다음 우리 부대는 부후들 골짜기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만동무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연합작전으로 또 한차례의 통쾌한 싸움을 하였다. 그것은 적들의 ≪동기대토벌≫작전을 결정적으로 분쇄한 최종전투였다.

적들이 전력을 다하여 구상하고 감행한 ≪동기대토벌≫의 격파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연전연승으로 하여 장백땅은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고 말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면서 혁명군의 조국진출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나 오히려 싸움을 벌이는 족족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적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고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하여 ≪비적수괴≫니, ≪공비괴수≫니 하는 험담을 해가면서 별의별짓을 다하였으나 거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들자신도 우리의 유격전술을 놓고 ≪신출귀몰≫이니, ≪승천입지≫니 하고 아우성을 쳤으며 벌벌 떨었다.

일만군경들은 천변만화하는 우리의 전법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였다. 적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라와전법≫이였다. 그들은 출판물과 내적인 훈령을 통하여 산악지대에서 ≪라와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일단 ≪라와≫에 걸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심리가 일만군경들속에서 열병처럼 만연되었다.



이명수전투장소

≪라와전법≫이란 조선인민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유격전법의 하나인 매복전에 대하여 일만군경들이 붙인 이름이다. ≪라와≫라는 것은 라망의 중국식 발음인데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빠질 곳이 없는 천라지망 즉 포위망, 함정이라는 뜻이다.

1936년 말부터 1937년 초에 이르는 ≪동기대토벌≫에서 패배한 적들은 그때의 ≪토벌≫ 경험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의 ≪라와전법≫에 걸려서 혼이 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1937년 5월호의 만주경찰잡지 ≪철심≫은 혼성여단 군사교관 이시자와가 쓴 ≪**김일성**빨치산 기습전에 대하여≫와 ≪이번 토벌에 관한 소감≫, 그리고 그 후의 좌담회 기사 ≪토벌체험을 이야기하다≫ 등의 글에서 ≪라와전법≫의 전술적 완벽성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빨치산의 전법은 이번 ≪토벌≫ 기간을 통하여 보면 어디까지나 대체로 ≪라와전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빨치산은 우리보다 병력이 적을 때에 이 전법을 쓸 뿐 아니라 병력이 많은 때에도 이 전법을 쓰는 것을 상투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올해 2월 무송현성 서남방 대쟈피거우 부근에서 있은 **김일성**빨치산과의 조우에서 모두가 용전분투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영예의 전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빨치산의 전술 ≪라와전법≫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른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라와≫를 경계할 데 대한 경종을 울리였다.



용감한 유격대원들

우리의 유격전술에 대해서는 국제당학교에서도 주의를 돌렸던 것 같다. 항일혁명투사 박광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당학교의 일군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전법을 자주 강조한데 대하여 회상하곤 하였다.

쏘련에는 국제당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학교들을 국제당학교 또는 국제당대학이라고 불렀다. 국제당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아오는 유학생들과 공산주의운동자들에 대한 정치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박광선도 여기서 얼마동안 학창생활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땅에 울린 총소리들은 총독부 수뇌들과 조선주둔 일본군경들, 일본본토의 정객들과 군벌들, 자본가들을 전율케 하였다. 침략자들과 반동들이 그 총소리를 듣고 아연해 하였다면 우리 인민들은 기뻐하였다.

우리가 장백에서 연전연승으로 수행한 대담한 군사작전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놓았다. 이 작전들로 하여 조선혁명의 실제적 주력으로서의 우리 혁명군의 지위는 확고한 것으로 되었다.

나는 우리가 장백에서 벌인 싸움들이 세계를 들었다놓은 규모가 큰 것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세계전쟁사에는 수 천, 수 만, 지어는 수십 만의 사상자를 낸 요란한 전역들과 대결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 전투에 투하한 병력은 불과 수백 병, 적살상도 백이나 천단위를 헤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들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본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간고한 싸움에서 발현된 혁명군의 넋이다. 인민혁명군의 의지는 적들을 압도하였다. 적을 정신적으로 압도하면 승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장백땅에서 벌인 혈전의 자취들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박인진도정


천도교 도정 박인진

조국광복회 기관지 ≪3 · 1월간≫ 창간호에는 ≪천도교 상급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 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내외에서 유력한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 위원 모씨가 끓어 넘치는 애국열정을 가지고 친히 조국광복회 대표인 나를 방문하였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조국광복회 강령과 일체 주장에 찬동하였으며 아울러 천도교 청년당원 100만명을 조선독립전선에 출동시킬 의향을 표시하고 장차 조국광복회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취할 데 대하여 굳게 약속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인 모씨가 박인진도정이다. 비밀보장을 위하여 모씨라고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몇 줄짜리 보도기사의 뒤에는 옹근 한 책을 써도 다 담기 어려운 깊은 사연이 숨겨져있다. 박인진도정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으로 찾아오게 되기까지의 내막을 이해하자면 같은 호에 실린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이 우리 부대에 속속 입대한데 대한 기사와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그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조국 서북부 각지의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은 떼를 지어 매일 7-8명씩 압록강, 두 만강을 건너 김사장 부대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국내의 지세와 도로 및 각지의 정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장부대의 전위로서 국내출입의 선두에 설 것을 자원하였다.≫

우리가 국경지대에 나와서 두 번째였던지, 세 번째였던지 신창동 마을에 갔을 때였다. 그 마을 청년 몇 이 우리를 찾아와서 참군을 청원하였다. 국경지대의 입대지망자들인 것만큼 신체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다 받아주도록 하라고 일렀더니 이동학은 다른 청년들은 다 합격시킬 수 있음직한데 풍산출신의 ≪천도쟁이≫만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하면서 통일전선도 분수가 있지 천도교를 믿는 종교쟁이야 어떻게 함부로 혁명군에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였다.

나는 이동학을 시켜 마을사람들이 ≪천도쟁이≫라고 부른다는 그 청년을 사령부로 데려오게 하였다. 비록 허줄한 옷을 걸치었으나 촌티를 벗은 꽤 멀쑥한 청년이 이동학을 따라 당돌한 걸음걸이로 내앞에 나타났다. 인상적인 것은 쌍까풀진 눈과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금이빨이였다.

그는 풍산군 천남면 슬리라는 고장에서 영북지방의 천도교 도정 박인진과 한마을에서 살면서 그의 교육과 영향을 받아 천도교 청년당원이 된 이창선이였다. 박인진의 총애를 받는 수제자라는 사실로 하여 그는 경찰들의 부단한 감시와 미행속에

들게 되었다. 스승 박도정은 풍산에서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한 요시찰인이었다. 왜경들은 도정네 집 처마밑에 순찰함을 달아놓고 주에 한번씩 순찰을 등대고 정기적으로 찾아와 그의 동향을 탐지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씩은 수석경찰이 직접 다녀갔다. 그 달갑지 않은 정기적인 순찰과 무시로 되는 감시는 이창선에게까지 미치였다. 도정의 집에 내려오는 경찰들은 그의 집을 그저 스쳐지나는 때가 없었다. 이창선은 스승의 동의밑에 왜경의 감시와 성화를 덜 받을 수 있는 장백땅에 옮겨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창선의 입대를 거침없이 승인하자 이동학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볼이 부어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종교쟁이가 빨치산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로청년들도 디글디글한데 하필이면 저런 천도쟁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대오의 구성성분을 어지럽힐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농담절반, 진담절반의 말로 이동학을 나무랐다.

≪동무의 눈은 알다가도 모르겠소. 이제순이가 인재라는 것은 제꺽 알아보았는데 저 사람이 보배라는건 알아보지 못하니 말이요. 사팔뜨기가 아닌데 어떤 때는 왕청같이 비뚤어지게 보거든.≫

≪맑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구요. 저따위 천도쟁이가 보배는 무슨 보배란 말입니까? 우환단지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그의 편견은 확실히 지나쳤다.

나는 진지하게 그를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이창선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극단적으로, 일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 명제는 종교적 환상에 유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종교인 일반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애국적 종교인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다 포섭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 유격대는 항일구국을 자기의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고 있은 애국적 무장력이며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유격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장력이라고 하여 다른 계층이나 세력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설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원한다면 주저없이 우리의 무장대오에 받아들여야 한다, 동무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호박을 잡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저 청년의 줄을 타면 갑산, 풍산, 삼수 지방의 천도교도들속에 조국광복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북의 광활한 대지를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두고보면 저 청년의 가치를 알게 될 테니 그를 잘 대해주고 귀중히 보호해주라고 말해주었다.

이동학이 내 말을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신창동사람들이 달아준 ≪천도쟁이≫라는 별명은 이창선이 입대한 후에도 그냥 그를 따라다니었다. 그 별명에서 풍기는 것은 동지적 애정이 아니라 비우호적인 조롱기와 경멸이었다. 이창선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었다.

한번은 밀영에서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구대원들과 신대원들이 엇바꾸어가며 출연하는 오락회였는데 아주 흥미가 있었다. 그 날 구대원들은 신대원들을 위하여 있는 밑천을 다 털어놓았다. 신대원들도 흥이 나서 연방앞에 나섰다. 그런데 모처럼 마련된 오락회가 소개자의 실언으로 해서 그만 파투가 되고 말았다. 이창선이 나설 차례가 되자 소개자는 ≪다음은 신창동에서 새로 입대한 ≪천도쟁이≫동무의 노래를 들어봅시다≫하는 엄중한 실수를 하였다. 비위가

상한 이창선은 그 맹랑한 소개자의 말을 듣자 노래를 부르지 않고 퇴장해버리였던 것이다.

이 일로 하여 부대에서는 여론이 분분해졌다. 비난의 화살은 오락회 책임자에게 집중되였다. 구대원도 아닌 신대원에게 ≪천도쟁이≫라니 무슨 당치않은 소리인가, 사람을 깔보고 조롱해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창선을 쬐쬐한 인간이라고 욕하였다. 별명을 들으면 들었지 지명을 당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퇴장해버리면 오락회는 어떻게 되는가, 혁명군대가 되겠다고 집을 떠난 대장부가 그만한 노염도 삭이지 못하고서야 무슨 사내인가, 싸움군이 되기는 글렀다, 옹졸하다고 비난하였다.



동학 1세 교조
최제우

오락회 책임자와 이창선을 두고 벌어진 상반되는 논의는 결국 일반적으로는 종교인들, 구체적으로는 천도교들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번져갔다. 나는 부대의 전체지휘성원들과 병사들앞에서 천도교와 관련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해설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천도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민족종교이다.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명명하여 ≪서학≫(천주교)과의 차이를 명백히 한 것만 보아도 이 종교가 가지는 민족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천도교는 그 기본 사상과 이념에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종교이다. 천도교가 내세운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구호만 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천도교도들은 수십 년동안 그 구호를 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만백성이 복락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투쟁해왔다. 그런 민족종교를 종교라는 한 가지 이유로 무작정 배척하며 그 교의 신도들을 ≪천도쟁이≫라는 말로 모욕해야 하겠는가.

천도교 이념의 애국애민성과 천도교인들의 애국투쟁에 대하여 해설을 해주고 천도교인들을 대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 입장과 통일전선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주지시킨 다음부터 이창선에게는 ≪천도쟁이≫라는 별명이 없어지고 그 대신 ≪김빠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났다. ≪김빠이≫란 금이빨쟁이라는 뜻이다. ≪김빠이≫란 별명이 유격대오 안에서 이름처럼 고착되어버리자 본인도 그에 맞추어 자기의 성을 ≪김≫가로 바꾸고 이름은 ≪갑부≫로 고쳐서 자기를 ≪김갑부≫라고 하였다. 훗날 그는 정치공작을 하느라고 돌아다닐 때에도 그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이창선은 농촌태생이였지만 매우 유식하고 총명하였으며 문화적 소양도 높은 편이였다. 특히 가무와 만담 같은데 장기가 있어서 오락회가 벌어질 때면 독판을 치다시피 하였다. 푸접이 또한 좋아 처음 대하는 사람들과도 쉽게 사귀였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영웅주의적 기질이 있었다.

그가 입대한지 한두 달밖에 안되던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부대정치부에서 조직과 장사업을 맡아보는 김평이 나를 찾아와서 ≪김빠이≫가 자기를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자리에 승진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당시 ≪김빠이≫네 중대정치지도원의 정치이론실무수준이 그닥 높지 못하였다. 일찍이 천도교청년당 간부사업까지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김빠이≫로서는 자기보다 못해보이는 상급의 지도를 받기가 어지간히 빼근했던 모양이다.

나는 이창선을 불러다놓고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중대정치지도원의 장점

들과 공적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필요한 조언도 주었다.

동무는 앞으로 중대정치지도원 정도가 아니라 더 주요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100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대학생도 소학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유능한 군사정치일군도 기초견습과 훈련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무는 지금까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서의 견습단계를 거쳤다. 이제부터는 유능한 정치공작원으로 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하겠다. 나는 입대시킬 때부터 동무에게 앞으로 천도교인들과의 정치공작을 맡겨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는 1개 중대인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대열에 이끌어들이고 지도하는 정치공작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큰 정치일군이 되어야 하겠다. 사령부 조직과장 김평과 선전과장 권영벽동무들을 개별담당 강사로 붙여주겠으니 정치이론도 배우고 군중공작방법과 지하사업경험도 터득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적 품성을 배우는 것이다. 겸손성은 가장 훌륭한 미덕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혁명선배들만이 아니라 동년배들과 후배들도 모두 스승으로 간주하고 일생동안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무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를 전투중대에서 소환하여 사령부 정치부에 옮겨놓았다. 이때로부터 ≪김빠이≫는 대내에 있을 적에는 7연대 선전간사로 사업하였고 대외에 나가서는 천도교방면담당 정치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후에는 선전간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전문적인 정치공작원이 되었다.

이창선은 박인진을 비롯한 북선지구의 수많은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망에 흡수하는데서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박인진과 천도교 내부형편에 대한 사전요해를 하였고 또 천도교들과의 접촉도 하였다.

박인진은 천도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다.

도호를 문암으로 쓰고 있는 박인진은 1909년에 입도한 후 천도교의 여러 급의 교직을 맡아보다가 1932년에 지원포의 도정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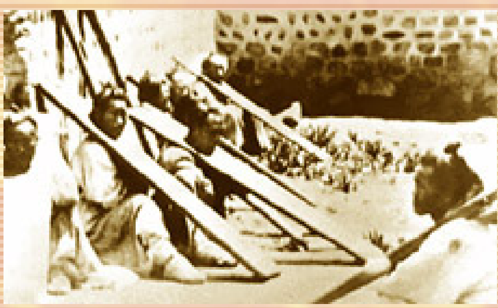
그 당시 천도교는 전국적으로 29개의 포를 설치하였는데 주로 풍산, 삼수, 갑산, 장백 등지를 포괄하였던 지원포는 전국의 천도교포들 중에서 가장 큰 포조직의 하나였다고 한다. 박인진은 일명 영북도정이라고도 불리웠다.

박인진의 아버지는 전봉준 휘하의 남접군에서 갑오농민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운 동학당의 한 성원이었다.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다음 수십만을 헤아리는 그 전쟁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되자 그는 고향을 하직하고 머나먼 전라도에서 영북땅으로 피신하였다.

박인진은 부친이 옛말처럼 들려주곤 하던 천도교조들과 부친의 저항적인 생애에서 자기의 인생행로를 찾았다.

3.1 인민봉기는 그의 의지와 신념을 검열한 최대의 시련이었다. 그는 풍산에서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대열의 맨 앞장에서 1,0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관청에 돌입하다가 몸에 적탄을 받고 중상을 당하였다.

박인진은 3년동안 함흥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옥고도 그의 심장속깊이 뿌리박혀있는 신앙심과 저항의지를 말살해버리지는 못하였다. 출옥 후 박인진은 독립군들과 손을 잡고 3-4년동안 여러 지


투옥된 동학농민군

방을 떠돌아다니며 그들을 후원하는 사업에 몸을 깊숙이 잠그었다. 그러나 독립군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하고 타국땅으로 쫓겨가게 되자 한숨과 눈물속에 그들을 바래주고 왜놈들의 꼴을 덜 보면서 살 수 있는 고장을 찾던 끝에 풍산군 천남면의 깊은 산골로 솔가이주하여 전교실도 꾸려놓고 야학방도 차려놓았다. 그리고 이창선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에게 천도교 교리도 선전하고 애국정신도 주입하였다. 하지만 그 산골도 완전한 피신처로는 되지 못하였다. 주말과 월말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불청객들의 정기적인 가택방문은 그로 하여금 풍산땅을 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박인진은 장백현 신거리로 이주하였다.


전봉준

이창선은 인간 박인진을 파악하는데 참고로 될 수 있는 흥미있는 일화도 한 가지 들려주었다.

박인진이 29살의 노총각으로 이웃동네에 선보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양측에서 맞선을 보고난 다음 중매꾼 노파는 총각의 의향을 물었다. 박인진은 반대가 없다고 대꾸했다. 그런데 장인될 영감은 곰방대만 빼금빼금 빨면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임자 나이가 24살이 옳기는 옳은가?≫

영감이 한참만에 싸움이라도 걸 듯 퉁명스럽게 내던진 말이었다.

평생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는 고지식한 박인진은 중매꾼이 자기의 나이를 5살이나 줄여서 24살이라고 선통한 줄도 모르고 사실대로 29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중매꾼 노파의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총각의 나이 20살만 넘어도 병신이나 시라소니라는 의심을 받던 조혼의 시대이니 29살이라는 대답을 듣고 장인될 영감이 오만상을 찌프릴만도 하였다. 박인진은 집이 너무 가난했던 탓에 장가를 제때에 가지 못하고 노총각이 되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박인진에게 폭탄같은 선언을 하였다. 30살이 다된 노총각한테는 딸을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박인진은 눈앞이 아찔해졌으나 용기를 가다듬고 열띤 목소리로 내게 코가 없는가 눈이 없는가, 도대체 주인장이 나를 타발하는 까닭이 뭔지 어디 좀 들어보자고 따지고 들었다.

상대방은 몹시 난처해하며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다 좋은데 임자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흠이다, 우리 딸애보다 11살이나 이상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혼약을 허락하면 귀한 딸자식을 길러 늙은 홀아비한테 주었다는 망측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박인진은 그런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나는 기어코 이 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야겠다, 나이는 많을망정 여자손목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숫총각인데 어떻게 홀아비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혼약을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겠다, 정 허락치 않으면 딸을 자루속에 훔쳐넣어 메고라도 갈 테니 그리 알고 어서 시원한 대답을 달라고 강짜를 썼다.

그때 처녀의 오빠가 빙그레 웃으며 우리 여동생에게 정 장가들 생각이 있으면 돈을 1,000원만 내라고 넌지시 귀띔하였다. 돈 1,000원이면 20마리 이상의 소값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박인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박인진은 시치미를 떼고 딸만 주면 돈을 주겠다고 장담하였다. 노총각의 얼굴을 관상쟁이처럼 유심히 살펴보던 주인장은 마침내 약혼을 허락하였다.

박인진은 노총각의 신세를 면하고 그 집 사위가 되었다. 물론 1,000원 돈은 문제

로도 되지 않았다. 돈소리는 신랑감의 속대가 어떤가를 중떠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확실히 박인진도정은 줏대가 있고 자존심이 세고 결패스럽고 투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짐작되었다. ≪김빠이≫와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파악하게 된 박인진의 인간상에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이창선을 천도교방면담당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 나는 그에게 우리와 천도교인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이며 ≪척왜≫와 ≪보국안민≫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투쟁해온 번천민중의 벗들인 것만큼 서로 손을 잡고 합세하여 단합된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과 가까운 장래에 양측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협상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박인진에게로 떠나보냈다. ≪김빠이≫는 사흘 후 밀영에 돌아왔다.


천도교 종리원장
이전화

박인진은 합세하여 반일전을 전개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협상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박도정과의 협상마당에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몇 가지 피치못할 사정이 나로 하여금 밀영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나미와 우에다 사이의 ≪도문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적들의 ≪동기대토벌≫ 작전의 개시로 하여 인민혁명군앞에는 험악한 난국이 조성되었다. ≪토벌≫ 공세와 때를 같이하여 수많은 밀정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돌아쳤다.

전우들은 새로 창설된 밀영의 운영을 위해서나 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나 사령관이 직접 협상마당에 나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출발을 한사코 막아나섰다. 밀정이 우리 사령부 근처에까지 기어든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으므로 모두가 신경이 예민해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김평과 이창선을 박인진과의 협상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평은 어릴적부터 못해본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으며 무슨 일이건 손쉽게 해제낄 줄 아는 능란한 실무일군이었다. 그는 한문에 밝은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5-6년간이나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한 덕이었을 것이다. 커서는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았고 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유격대의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수영학교에서 군정교육도 받았다. 김평은 교원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창선과 함께 김평이 천도교인들과의 협상대표로 물망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천도교방면에 대한 지식과 정치사업경험이 많이 고려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인진과 우리 대표들 사이의 면담은 장백현 17도구 왕가동에 있는 천도교 장백종리원 원장 이전화의 집 안방에서 진행되었다.

김평은 먼저 상대측에 우리의 서명날인이 있는 대표신임장을 보여주고 박인진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전한 다음 천도교 세력과의 제휴문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박인진은 일제를 몰아낸 후에 우리가 어떠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구한국 정권과 같은 왕권복귀도 반대하였고 러시아땅에 수립된 쏘비에트식 정권도 반대하였으며 ≪망명정부≫라는 평판을 받고 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법화하는 형식의 정권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였다.

김평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제1조를 놓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의 대의제에 기초한 인민의 정권을


갑오농민전쟁

수립하려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자 박인진은 10대강령에 명기한 대로 민중정권을 세운다면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데 정작 나라가 광복되고 정권을 세워야 할 때가 되면 약속을 어기고 쏘련식의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의심을 기탄없이 털어놓았다.

그 당시 쏘련에서는 반당분자들과 적대분자들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웃나라들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평은 광복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쏘련식의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으리라는 것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된 조국땅에 우리가 세우게 될 정권은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구현한 정권으로 될 것이며 민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하는 정권, 노동자, 농민 뿐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인민의 정권으로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쏘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던 때의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 강령과 선언이 선전이 아니라 당신들의 진심이고 확고부동한 실천의지라면 우리 천도교인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참가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은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결심하고 처리할 가벼운 일이 아니니 동덕들과도 협의하고 천도교 중앙의 교령인 최린과도 협의한 후에 대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린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밀영을 방문하여 나와의 회견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김평은 그 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인진은 우리와 손을 잡겠다든가 말겠다든가 하는 말을 섣불리 내뱉지 않았다. 조건부를 내걸고 어정쩡한 대답만 하였다. 손을 잡는가마는가 하는 것은 나를 만나본 다음에 결정지으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어쨌든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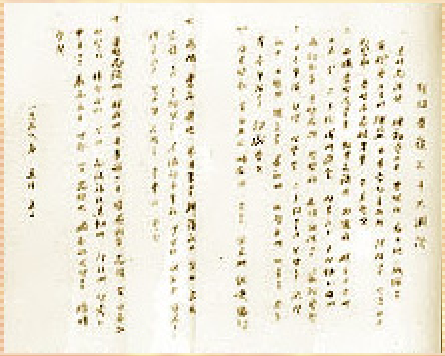
다음날 박인진은 장백종리원 산하의 남녀교도들을 50여명이나 불러다가 조선인민혁명군 대표들을 환영하는 큰 잔치판을 펼쳐놓았다. 돼지도 잡고 떡도 쳐서 우리

대표들을 환대하였다. 천도교 청년당원들로 보초를 세워놓고 오락회까지 벌였는데 그 가무들이 한결같이 애국심과 투쟁열을 고취하는 것들이어서 김평은 천도교도들의 애국정신에 새삼스럽게 감복되였다고 하였다. 집주인인 이전화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하기 위하여 하얼빈으로 떠날 때에 그와 동행한 우덕순이 불렀다는 ≪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쑤들을 만났도다 ≫하는 노래를 어찌나 비장하게 불렀던지 모두가 다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뿌렸다는 것이다.

박인진이 우리 밀영을 방문한 것은 1936년 초겨울이였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인물은 이전화이다.

그들은 모두가 검정두루마기 차림새였다. 그 두루마기들에는 한결같이 고름대신에 단추고리가 달렸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채우게 된 고리였다. 천도교도들은 그처럼 유표한 단추고리를 단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복식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인진은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밀영으로 초청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장군을 만나뵙게 싶던 소망이 이토록 수월하게 이룩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항일독립전에 총한 자루, 단돈 한 잎 보탠적 없는 우리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소이다.≫

그 말만 들어보아도 박인진이 무척 겸손하고 예절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진정을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돈이나 물건보다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 몇 잎이나 무기 몇 자루를 보태주었는가 하는 것보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 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도정님이 지금껏 애국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신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결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몇백 배나 힘있는 보탬으로 됩니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애국의 지조를 고수하고 있는 도정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고 기쁨으로 됩니다.≫

박인진은 ≪그건 과찬이올시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만한 체면이 못됩니다≫하고 말하였다. 일본사람들의 악선전에 속아서 비록 한때나마 광복성업을 위해 매진하는 인민혁명군을 ≪비적단≫이라고 오해한데 대하여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래서 나는 서로 잘 모르고 지내면 곡해도 생길 수 있고 적의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허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앞날의 일이다, 과거는 백지로 만들고 우리 다같이 뜻을 합쳐 앞날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 대표들에게서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왜적을 미워하는 각계각층 동포들을 다 집결하여 거족적인 항일대전을 벌이기 위하여 지난봄에 조국광복회를 내왔다, 그 강령에 반대가 없다면 양심적인 천도교인들도 항일대전에 합류해달라, 단결하여 싸워야 승리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면 조국의 광복도 이룰 수 없고 백전백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쓰라린 교훈이다, 만일 갑오농민전쟁의 최전성기에 호서지방의 북접군을 총지휘하고 있던 최시형이 호남의 남접군을 지휘한 전봉준의 연합제기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서울진격을 방해해나서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얼마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동학당란이 실패로 끝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각지, 각계의 모든 애국역량이 일치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 싸웠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반일성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광복을 이

룩하려면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 민족단결은 반일에 민족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천도교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척왜≫에 성공하고 ≪보국안민≫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 다른 반일애국역량도 다 묶어세워야만 승산을 내다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민족대단결을 꼬는 단심줄이 되어 조국광복회 두리에 뭉치자고 하였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강령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고 장군의 의견도 천만번 지당하니만큼 반드시 천도교 중앙의 최린을 설득시켜 전국의 300만 교도들이 단꺼번에 모두 조국광복회에 가입하도록 해볼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엄하게 준수되고 있는 천도교단에서는 중앙에 절대적인 재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천도교 중앙의 상층이 부패타락, 변질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중의 동학 2세 교조 최시형

나는 자기의 견해를 박인진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최린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의 최근 동향이나 써내는 글들을 보면 천도교 역대 교도들과는 판판 다른 길을 걷고 있은 것 같다. 그는 동학이념도 배반하고 민족도 배반하고 원쑤들의 권력시녀로 전락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박인진은 어떻게 최린에 대해서까지 그처럼 잘 알고 있는가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천도교들 중에도 최린이 이상스럽게 번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 있은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자기도 역시 그를 의심한다고 고백하였다.

최린은 3.1 독립선언서 작성에 관계한 사람이었다. 그는 3.1 운동의 발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 때문에 감옥맛도 보았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 3세교조 손병희의 천거를 받아 천도교교령의 지위에 올라앉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행로에서는 ≪방향전환≫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형당한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그는 천도교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후천개벽≫으로 ≪지상천국≫을 이룩하려면 세계만방을 순방하여 동서방의 정국도 살펴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해 동안이나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와서는 현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일본의 세력은 세계적 판도에서 나날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천도교도들은 일본과 백해무익한 충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운동≫이나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교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천도교를 보호하려면 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린의 입에서 흘러나온 주장이었다.

≪최린이 이처럼 총독의 들러리노릇까지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천도교를 위하고 천도교 동덕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교인들은 그 말이 위선이라는 것을 감촉하지 못했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최린을 여전히 우상화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전화종리원장이 서울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최린이 집이랑 꾸며놓고 사는 꼴을 봐도 그래, 언행을 봐도 그래 전과는 퍽 달라졌더라는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그를 변절자로 낙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서울에 가게 되는 기회에 그와

한번 맞쪼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래지 않아 서울에서 천도교 중앙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나도 서울에 가게 됩니다. 그가 썩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그를 버려얍지요. 우리는 우리 배짱대로 할렙니다.≫

박인진은 칼로 무를 베듯이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었다.

우리들의 면담에서는 내외의 정세와 민족주의 운동의 현실태,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정, 조국광복을 이룩한 후의 조국건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정되고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야기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였다. 쉴참이면 손님들에게 우리의 부대생활모습도 보여주었다.

박인진은 우리 인민혁명군의 무장장비가 예측보다 현대적이라는 것, 대원들의 면모가 아주 늠름하고 생기발랄하다는 것, 병실들이 규모있게 꾸려지고 주변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일과생활이 째여져 있다는 것, 군인들이 한 사람같이 규율있고 절도가 있어 정규군과 같은 멋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의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밀영지의 기묘한 산세에 대해서도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격대밀영의 산수는 마치 천도를 창명한 최제우가 두 차례나 들어가 있으면서 도를 닦았다는 경상도 양산의 천성산 골짜기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천성산 내원암에는 유명한 ≪화왕계≫의 저자 설총의 아버지 원효대사가 당나라 중 1,000여명에게 불타의 만가지 선행을 찬양한 ≪화엄경≫을 가르쳐 모두 성인이 되게 하였다는 고사가 깃들어있는데 동학시조는 유서깊은 그곳에서 도를 닦고 동학을 창시하였다는 것이다.

박인진은 우리가 백두산 청림속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도를 닦으며 ≪화엄경≫이나 ≪동경대전≫보다 더 사활적인 민족재생의 대경륜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까지 마련해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사로 키우는 모습만 보아도 기운이 부쩍부쩍 난다고 하였다.

그가 우리 밀영에 들어와서 가장 큰 자극을 받은 것은 내가 그에게 청수봉전의 기회를 마련해준 순간이었다.

천도교에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등 교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5관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놋그릇에 청수를 떠서 모시는 것을 청수봉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도교 세계에서 단 하루도 어길 수 없는 법도로 되고 있다. 청수는 천지의 근본을 상징하며 거기에는 천지의 은덕을 잊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맹세가 담겨져 있다. 최제우가 수도생활을 할 때 하루에 세번씩 청수를 떠놓고 깊은 명상에 잠기고는 하였고 또 그가 효수를 당하던 최후순간에도 청수를 떠놓았기 때문에 천도교인들은 시조의 영혈을 상징하는 청수봉전을 전통적으로 법도화, 관습화해온 것이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 최동오나 강제하를 비롯한 천도교도들이 저녁 9시만 되면 온 식구를 한 자리에 모여놓고 청수를 모시곤 하는 것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았었다.

나는 박도정과 함께 저녁에 한담을 계속하다가 9시가 다가오자 문득 청수봉전시간이 다됐다는 생각이 나서 전령병을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오게 하였다. 물그릇이 들어오자 투박한 통나무상 한복판에 정히 올려놓고 도정에게 청수봉전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성지의 물인데 놋그릇 대신 법랑그릇에 담아오게 해서 안되었습니다. 놋그릇이 아니라고 나무람마시고 도정님, 어서 청수를 모시십시오.≫

내가 이렇게 권하자 박인진은 몹시 놀라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천도교를 숭상치도 않는 장군님네 군영에 와있으면서 제 어찌 감히 청수봉전을 하겠습니까?≫

≪동학당란 때 동학도들은 전장에서도 매일 청수를 떠놓고 주문을 외웠다던데 도정 어른께서 수십 년간이나 지켜온 법도를 우리 밀영에 왔다고 해서 어찌 어기겠습니까? 어서 마음놓고 주문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박인진은 손님으로서의 예절을 지켜 굳이 사양했지만 나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인륜적 평등과 신앙의 자유 보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신자의 앞이라 하여 신앙심이 남달리 강한 도정님이 평시의 법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에게 청수봉전을 거듭 권하였다.

결국 박도정은 청수를 모시고 앉아 21자의 주문을 외웠다. 거듭 세 번을 외운 다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그는 숙연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백두산곡의 청수가 참 별맛입니다. 우리 나라 조종이 마시던 물로 청수봉전을 하였으니 오늘저녁 일은 평생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장군과 같은 무인이 우리교의 법도를 이처럼 존중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고보면 박인진은 반공에 오염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와 종교상의 모든 법도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증오한다고 생각해온 것이 분명하였다.

어느 해인가 미국에 사는 교포 김성락목사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그와의 오찬석상에서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그때 김성락목사는 우리가 그런 권고를 하는데 대하여 몹시 놀랍게 생각하였다. 공산국가의 주석이 어쩌면 종교인의 식전기도에까지 관심을 돌리는가, 이것이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날 내가 김성락목사에게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한 것은 그 무슨 생색을 내자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종교와 종교신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전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손님을 손님답게 대하고 싶은 주인으로서의 예절과 일생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온 그가 조국에 와서도 구속을 받지 않고 교도를 지킬 수 있게 하자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그런 권고를 했을 뿐이었다.

우리 나라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빈말공부나 비누거품 같은 약속이 아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자유를 유린해본 적도 없고 종교신자들을 탄압해본 적도 없다. 만일 공화국정권하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정치적 시련을 겪은 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팔아먹은 범죄자들과 민족반역자들뿐일 것이다.

해방 후 일부 지방에서 종파분자들이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종교자체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편향이 발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실례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다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었고 더욱이는 중앙의 조직적인 의사나 지령에 의해 발생되었던 폐단도 아니었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 전쟁 직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예배당과 절간이 있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칠골에 가보니 거기에도 창덕학교시절에 보던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금 인민대학습당이 자리잡고 있는 평양의 남산재에는 큰 예배당이 두 개나 있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도들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건물들을 다 파괴해버리었다. 부처를 모신 큰 절간과 임자들도 폭탄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와 성상, 성경책들은 불타서 재가 되거나 폐허속에 파묻히었다. 교인자신들도 시체가 되어 저승으로 떠나갔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사람들이 예배당도 파괴하고 교인들도 죽이었다. ≪하느님≫은 그러한 만행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전쟁기간 우리 인민들속에

서는 예배당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였다. 우리의 종교신자들은 ≪하느님≫앞에서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았다. 종교가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사람이 이 세계의 창조자이며 지배자라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되였다. 전쟁이 끝난 다음 그들은 성금을 모아 두 번 다시 예배당을 지으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 대신 살림집과 공장, 학교들을 먼저 건설하였다.

우리의 후대들속에는 ≪하느님≫이나 ≪한울님≫이나 부처님을 믿어야 복도 받고 천당에도 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없다. 그들이 신자가 되거나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를 나쁘게 보거나 종교인들을 학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생활조건도 보장해주고 있다. 몇해 전에는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종교과도 새로 내왔다. 그 과에서는 종교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종교단체들과 교인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조선에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 신자들 중에는 민주, 통일, 평화를 위한 3대 전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은 애국자들과 투사들이 적지 않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종교인들속에서 연공애국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산당 선언≫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와 그들을 결합시켜주고 있는 유대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다.

이러한 유대는 1930년대에도 존재하였다. 애국애족만 있으면 그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천명된 통일전선의 원칙이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박인진도정과도 손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통일전선의 그물속에 종교인들을 끌어넣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회유책이라고 왜곡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날조는 그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 오동진, 손정도, 최동오, 강제하 등의 신자들과 나를 이어주고 있던 친교는 순결한 애국애족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였지 그 어떤 책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였다. 나는 그들을 맑스의 신봉자로 만들려고 시도해본 적도 없으며 공산당의 들러리로 내세우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다만 진정으로 그들의 신앙심을 존중했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여 주었을 뿐이다.

박인진도정이 청수를 모신 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그 날 박도정은 청수봉전을 치르고 나서 나에게 불쑥 물었다.

≪제가 꼭 여쭈어 알고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정의 그 질문을 우리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답하였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 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 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박인진은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백두산에 온 보람이 있다, 좀 때늦긴 하지만 진짜 ≪한울님≫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

였다. 그리고 천도교 시조 최제우의 ≪인내천≫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상통한 데가 있다면서 대단히 흡족해하였다.

박인진도정과 그 일행은 사흘동안 머물러있으면서 출판소와 재봉소도 돌아보았고 실탄사격도 참관하였으며 유격대원들의 연예공연도 관람하였다.

≪나는 5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고 처음 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밀영에 완전히 매혹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바도 똑바로 알았고 결심도 섰습니다. 내 이제 최린을 찾아가서 모든 천도교도들을 조국광복회에 끌어들이는 거사를 치르겠습니다. 그 거사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내 산하에 있는 영북의 8개 종리원에 속한 천도교인들만이라도 전부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피끓는 천도교 청년당원 100만명도 모두 총을 메고 장군의 수하병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밀영을 떠날 때의 박인진의 말이였다.

밀영을 방문하고 돌아간 박인진은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 나갔다. 나는 장백의 천도교도들을 조국광복전선에 묶어세우는 한편 1937년 8월에는 직접 삼수종리원에 가서 그곳 종리원장 조완협, 장백종리원장 이전화 등과 협의하여 우리와의 통일전선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김빠이≫가 그를 적극 방조하였다. 박인진은 장차 자기 사업을 보좌할 수 있는 창선이 같은 인재를 키워달라고 하면서 7-8명의 청년들을 이미 우리에게 파견하였던 것이다. 천도교 청년당 풍산군 대표 이경운 등도 이무렵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입대하였다.

박인진은 우리앞에서 말한대로 그 해 12월 천도교 중앙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최린이 밀고하거나 테러행위를 조직하게 되면 박인진의 신변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가 하려는 담판도 도와주고 그의 신변도 보호하기 위하여 나는 이창선에게 나의 전령병 김봉석을 붙여주어 박도정을 서울까지 무사히 호위해가게 하였다.

박인진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최린이 그사이 명륜정에 있는 양옥자택을 더 호화롭게 꾸려놓았다는 것과 그가 ≪독립을 위한 자치≫를 실현하자면 일본과 화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천도교 자금을 총독부에 ≪국방헌금≫으로 갖다 바쳤다는 것 등 기막힌 소식을 들었으나 의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를 인내성있게 설복해보았다.

그러나 최린은 안하무인이였다.

박인진은 격분을 금할 수 없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헌금놀음은 독립성업에 역행하는 매국배족적인 배신행위로서 오히려 일본의 국력이나 더 한층 증가시키고 조선의 예속을 더욱더 지속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최린의 면전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흔들며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은 헌금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령에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무이한 길은 이 길 뿐이다, 우리 교도들은 **김일성**장군이 조직한 조국광복회에 들어가서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항일대전을 벌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린은 10대 강령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나서 덤비지 말라, **김일성**이 가자는 목표도 대해이고 내가 가자는 목표도 대해이다, 대해로 가는 노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큰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우며 큰길로 나갈 때가 아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그릇만 닦아놓으면 된다, 물은 언제든지 담을

수 있다고 박인진을 설유하였다. 격노한 박인진은 최린과 한바탕 싸우고 그의 집에서 나와버렸다.

최린과의 결별을 단행한 박도정은 인차 풍산군안의 천도교인들을 망라하는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를 결성하였고 뒤이어 갑산, 삼수, 혜산, 장백 지대에서도 천도교 핵심성원들로 조국광복회 지회들을 내왔다. 그 지회들은 자기 주위에 많은 천도교인들과 농민들을 결속하였다. 박인진의 영향하에 있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우리 밀영에 많은 원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박인진 자신도 우리에게 보낼 원호물자를 구해들이느라고 혜산과 풍산으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언제인가 도정은 유격대원들이 한지에서 숙영할 때 깔개로 쓰라고 여라문장의 짐승가죽까지 직접 마련해보낸 일이 있는데 그때 나의 전우들은 모두 그 짐승가죽을 보고 박인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천도교 경전

지양개에 있는 박인진의 제자들 중에는 김정부한테서 소작지를 수천 평이나 받아가지고 인민혁명군에 보낼 원호미를 생산하기 위해 남모르는 땀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 소작지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의 밀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도정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와 딸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기 위해 후방물자운반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투신하던 박인진은 1937년 10월 불행하게도 ≪혜산사건≫의 여파로 일제경찰에 검속되었다.

박인진도정의 투쟁실적과 우리와의 연고관계를 어렴풋하게 짐작한 적들은 집요하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네가 **김일성**빨치산과 오래전부터 내통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네가 국경양안에서 불온분자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들을 무어가지고 국제변혁을 실현하려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김일성**장군한테서 무슨 지령을 받았고 너희 조직들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있는가를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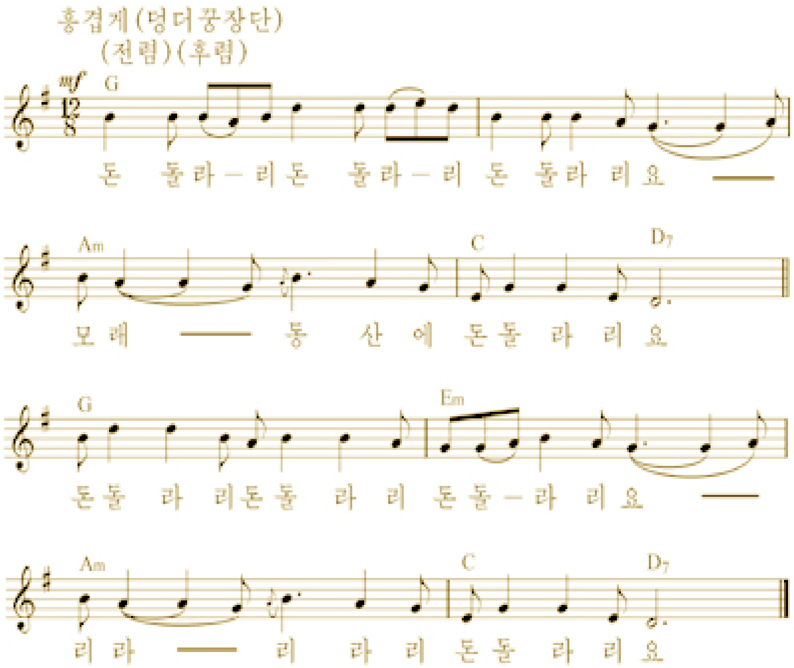
그러나 박인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적들은 박인진의 지조와 의지를 굽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천도교를 걸고들었다. 너희네 천도교에서는 사람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아래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항일독립이라는 구실로 싸움마당에 마구 내몰아 헛되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도에 대한 이단이고 인륜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고 하였다.

박인진은 적들의 그 망발에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인륜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 천도교의 종지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네놈들은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의 ≪한울님≫들을 소나 돼지처럼 매일같이 도살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군경들의 총칼이 번뜩이는 곳에서 우리 백의민족의 피가 내와 강을 이루고 산 사람의 간장마저 원한에 썩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답해보라. 죄는 누가 짓고 재판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조선국의 신성한 천도를 짓밟고 백성들을 무수히 살해한 강도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불법적으로 조작해낸 국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300만 교도는 2천 만의 동포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피의 항쟁을 하는 것이다. 내 한 몸의 피가 너희들의 제국을 불사르는 한 점의 불꽃이 된다면 나는 죽어서 재가 된다 해도 보람을 느

돈돌라리



낄 것이다!≫

그 불같은 성토에 원쑤들을 전율하였다. 악에 받친 적들은 늙은 도정에서 극악무도한 고문을 들이대며 그를 운신조차 할 수 없는 페인으로 만들어버리였다. 중병까지 겹친 도정은 사경에 이르렀다.

박인진의 생명이 경각에 다달았다는 것을 직감한 적들은 병보석의 명목으로 그를 가출옥시키었다.

박인진은 병석에서 1939년 봄을 맞이하였다. 임종을 앞둔 그는 한평생 남편의 뒷시중을 충실하게 해온 부인에게 혼신의 힘을 모아 말하였다.

≪나는 죽음을 앞둔 이 시각에 행복을 느끼고 있소. 그건 내가 수운대사의 후대답게 인생말년을 값있게 결속했기 때문이요. 이 박인진은 조선의 사나이로 태어났다가 조선의 사나이로 가오. 조국이 해방되면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김일성**장군을 따라가오.≫

박인진이 운명직전에 이르렀다는 연락을 받고 그의 총애를 받던 한 제자가 침상곁으로 달려왔다. 도정은 그를 보자 평소에 자기가 즐겨부르던 ≪돈돌라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돈돌라리≫라는 제명은 ≪동틀 날이 오리라≫는 말이 줄어지면서 붙은 것이라고 한다. 일제침략자들을 구축하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날이 동터올 것이라는 신념이 구가된 노래였다.

후치령을 사이에 두고 북청과 잇닿아있는 풍산땅에는 1930년대초부터 ≪돈돌라리≫노래와 춤이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박인진의 주도하에 조국광복회 하

부조직이 유격대원호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된 때로부터 풍산지구 지하조직들에서는 ≪돈돌라리≫가무를 원호사업을 위한 공동노력을 조직할 때마다 적들의 눈속임을 위한 방편으로 자주 이용하였다고 한다.

충실한 제자는 스승의 부탁대로 ≪돈돌라리≫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목이 막혀 더 부르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었다.

박인진은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끝없이 흐느끼는 제자의 손목을 잡아쥐고 조용히 말하였다.

≪**김**장군이 건재하고 혁명군이 백두산에 건재하는 한 우리 백의동포들은 반드시 동틀 날을 맞이하게 될거네. 자네들은 이제 백화가 만발하는 ≪한울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걸세. 내 눈에는 그 날이 환히 보이네. 암 보이구말구.≫

연공구국의 길에서 거대한 공적을 세운 박인진도정은 항일혁명이 낳은 애국지사의 한 사람이다.

해방 후 나는 박인진이 생각날 적마다 여러 번 그의 미망인과 후손들을 찾아보곤 하였다. 1992년 여름에 항일혁명투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미망인이 90이 넘도록 건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걷지 못하면 업어서라도 모셔오라고 일렀다. 도정의 늙은 미망인은 차에서 내리는 길로 누구의 등에도 업히지 않고 제발로 걸어서 내앞으로 달려왔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처럼 나를 ≪장군님≫이라든가 ≪수령님≫이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한울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고 해도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꿈에서도 ≪한울님≫을 보았습니다.≫

박인진의 부인만이 입에 올릴 수 있는 그 호칭과 솔직한 고백에 나는 도정과 만나던 옛 추억이 되살아나 눈굽이 뜨거워졌다.

박인진을 각방으로 적극 도와주던 천도교 청년당원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이였던 이창선은 엄혹한 백두산 추위가 가져다준 동상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가 동사한 것이 아마 1938년 겨울이였던 것 같다. 최근에 관계부문 일군들은 ≪김빠이≫의 4촌처남의 사진첩에서 자못 놀라운 사진 한장을 찾아내였다.

이창선이 천도교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결의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중의 한 사람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이인모라는 것이다. 그는 박도정의 많은 제자들중 한 사람이였던 것 같다. 그러고보면 박인진은 희세의 애국자들을 키운 은사이기도 하다.



황수원언제공사장 노동청년들과
함께 있는 이인모

5. 민족종교 천도교를 두고


천도교
중앙대교당

박인진과 같은 이름있는 종교인을 혁명의 동반자로 삼는데서 천도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입장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만일 우리가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었거나 편견과 적의를 가지고 이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애당초 박인진과의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백만에 달하는 전국의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도 벌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말이 난 김에 천도교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여기서 좀더 밝혀보고 싶다. 동학의 이념이라든가 그 발전역사와 관련해서는 나도 하고싶은 말이 많다.

인간이 어떤 주의주장이나 교리를 파악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안내한 것이 책이었다면 기독교를 안내한 것은 예배당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자주 다니었다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나는 그 예배당에서 종교의식을 처음으로 보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목사의 설교도 처음으로 들었다. 숭실중학교 출신인 아버지와 칠골교회의 장로이며 교육자인 외할아버지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닐 때 칠골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강양욱선생도 기독교 신자였다.

손정도,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김시우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친지들 가운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예수를 숭상하는 신도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소학교 시절의 나의 동창생들 중에도 많았다. 그 당시는 항간에 기독교를 선전하는 책들도 많이 나돌았다. 그런 주위환경은 나에게 기독교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슬람교(회교)를 파악하게 된 경로는 이와 좀 달랐다. 그 경로는 웃음을 머금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재미나는 사연과 결부되어 있었다. 나에게 이슬람교의 맛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 마금두였다. 마금두는 이슬람교도였다. 식성이 좋은 그는 교의 계율을 어기고 자주 식당에 가서 술과 돼지고기 안주를 청해다 먹었다. 그는 늘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송 불안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하였다.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이슬람교도로서의 체면도 세울 수 없고 교단에서 엄한 추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금두와 함께 몇 번 식당에 드나들면서 이슬람교도들속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 알게 된 이슬람교에 대한 상식은 마금두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들은 것이다.

내가 천도교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갑오농민전쟁이 낳은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선열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마다 녹두장군의 이름은 홍경래, 이준, 안중근, 홍범도 등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놓이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전봉준에 대한 지식은 그가 갑오농민전쟁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용감무쌍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내가 어린 때여서 아버지는 그 이상의 지식은 주지 않았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나에게 녹두장군의 생애와 갑오농민전쟁의 전모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소개하여준 사람은 강양욱 선생이었다.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도였지만 천도교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의 조리있는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나는 갑오농민전쟁과 천도교를 결부시켜 보게 되었다. 동학당란의 처참한 종말과 녹두장군의 비극적인 최후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국정을 도탄속에 몰아넣은 봉건조정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을 두고, 일청 양국의 야심과 내정간섭을 두고 치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동학당란이야말로 근대 우리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한 큰 사변이며 이 전쟁이 배출한 용사들이야말로 근대조선민족의 정치생활과 정신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수리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점의 불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천도교에 대한 나의 인식은 화성의숙시절에 와서 더 깊어졌다. 의숙에는 천도교 신자들이 많았다. 숙장 최동오선생이 천도교 3세교조 손병희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의 자제인 최덕신도 이미 회상하였다. 숙감 강제하와 그의 아들 강병선 역시 독실한 천도교도들이였다. 화성의숙에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동학경전들을 뜨금으로 줄줄 외우면서 유식을 뽐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고 천도교 중앙이 발간하는 월간잡지 ≪개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학의 시점에서 본 조선농촌이 어떻소, 이돈화의 문장이 어떻소 하고 역설하는 열성독자들도 있었다.

최동오는 학생들이 ≪공산당선언≫을 읽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동경대전≫이나 ≪개벽≫을 열독하는 것은 장려하였다. 역사선생이 결근할 때마다 숙장은 이따금씩 우리앞에 나타나 대리강의를 하곤 하였는데 그런 경우의 역사수업은 예외없이 동학사강의로 전환되고는 하였다. 선생은 우리 나라 근대역사에 존재하였던 충격적인 모든 사변들과 사실들을 항상 동학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최동오는 천도교 교리로부터 출발하여 국본, 민본, 인본의 삼민주의를 많이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손문이 내놓은 삼민주의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천도교와 관련하여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운 것은 이 교의 창시자이며 1세 교조인 수운 최제우에 대한 소개였다. 선생이 최제우의 경

력과 동학의 창시경위를 소개하고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역점을 찍어 강조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동학을 창제한 최제우 선생을 모두 수운대신사라고 경칭한다. 그런즉 학생들도 ≪최제우≫, ≪최제우≫하지 말고 수운대신사라는 존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동오의 말에 의하면 9세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이 최제우의 먼 조상이였다고 한다.

최제우의 부친 최옥도 시재가 특출한 사람이였다. 그가 내놓은 ≪근암문집≫은 당대의 유명한 시집으로 알려져있다.


최덕신

6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16살 때에 아버지를 여읜 최제우는 스무해 가까이 전국을 방랑하면서 악정, 악폐로 가득차있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낼 길을 모색하던 끝에 1860년 4월 마침내 우리 나라 근대역사발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천도교의 교리를 발표하고 동학의 창시자가 되였다.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한 것은 ≪서학≫인 천주교에 대치시켜 동방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신앙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최제우가 활동하던 시기는 세도정치와 당쟁으로 그 피해가 말세에 이르고 국력이 극도로 쇠잔해지던 때였다. 봉건적 학정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기근과 홍수까지 겹쳐 사회정치적 혼란은 문자그대로 절정에 이르렀다.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적, 계급적 대립도 극한점에 도달하였다.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왕조의 존립을 제도적으로 받들어온 봉건적인 신분관계는 나라의 중흥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저주로운 질곡으로 되었다. 탐관오리들의 학정과 핍박으로 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허울조차 없는 민권은 통곡하였다.

수백 년을 두고 쇄국을 지켜오고 있는 동방의 조선은 끝없는 치부와 영토팽창에 환장한 열강들이 침을 흘리는 야망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를 길잡이로 한 구미열강의 촉수는 시시각각으로 조선반도를 노리고 있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전주곡은 사실상 벌써 그 무렵부터 마련된 셈이였다. 그런 때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대의 선각자들이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찾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최제우는 바로 그 선각자들의 앞장에서 ≪인내천≫, ≪보국안민≫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는 동학을 창시하고 그 교리를 만방에 전도하기 위한 정열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였다.

≪제군들, 동학을 알려거든 ≪보국안민≫의 구호부터 보라!≫

최동오는 천도교에 대한 선전을 할 때마다 매번 이런 표제를 프랑카드처럼 내들었다.

≪밖으로는 외래침략에 대처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보국≫이고 안으로는 악정에 대처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안민≫인즉 이거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천 도인가. 성주, 자넨 ≪보국안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언제인가 숙장은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보국안민≫을 제창한 것이 천도교라면 나는 그 교를 지 지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심이였다. 공산주의이념이 벌써 우리의 생활에서 주요한 사상적 지주로 되고 있던 때였으나 나는 동학에 대한 지지를 서슴없이 표시하였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편안을 도모하는 것은 지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다 다 절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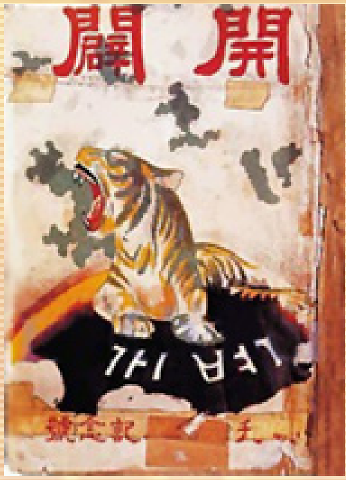
바라는 것이였다.

최동오는 입가에 미소를 담고 흐뭇이 나를 바라보았다.

≪≪보국안민≫을 반대하면야 조선사람이 아니지. 공산당이 부르짖는 세계혁명의 구호도 좋겠지만 이 ≪보국안민≫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배달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 구호인가. 확실히 수운대사님은 영험한 분이야.≫

천도교에 대한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지식은 실천과 결부되지 못한 협소하고 생경한 것이였으며 아직 범속하고 단편적인 것이였다.

내가 동학을 실천과 결부시키면서 주의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길림시절부터였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은 이미 역사에 의해 부정된 주의주장이나 해석을 대체로 멀리하는 것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과거의 이념이나 운동 그 자체를 허무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성이론이나 남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거기에서 좋은 것은 허심하게 섭취하였다.



개벽 창간호

카륜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의 혁명실천에서는 통일전선문제가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상정되였다. 어떤 세력을 포섭하고 어떤 세력을 배척하여 어떤 세력을 고립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도처에서 제기되어 무시로 복잡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였다. 통일전선대상이 논의될 때마다 종교문제는 민족자본가문제와 함께 매번 무시할 수 없는 중심화제를 이루곤 하였다.

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내가 가장 중시해온 종교의 하나였다. 천도교가 우리의 주시대상이 되고 그 교도들의 활동이 우리의 관심사로 된 것은 그것이 조선의 민족종교로서 이념이나 실천활동에서 시종일관 애국애민을 지향해왔다는 것과 포교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며 침투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자본론≫과 마찬가지로 ≪동경대전≫도 파고들 재미는 있지만 독파하기가 힘든 난해한 글이였다. 우주자연현상과 사물현상을 신비하고 오묘하게 서술한 최제우의 글에는 알듯하면서도 잘 알 수 없거나 보일듯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아리숭한 데가 있었다. 해방 후 천도교 중앙에서 간부로 활동한 김달현도 수운대신사의 글이 난해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김달현은 그 글이 유인석의 격문만치만 헐해도 동학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수십만의 교도들을 더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천도교를 이해하는데서 우리의 안내자로 된 것은 잡지 ≪개벽≫이였다. ≪개벽≫이라는 제명은 천도교의 주요교리인 ≪후천개벽≫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개벽≫은 창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십 호를 발행하는 전기간 종합적인 정치시사잡지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잡지였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소개하는 글도 실었다. 당시로서는 독자들의 인기를 많이 끈 참신하고 혁신적인 대중잡지였다.

천도교 청년당조직이 조선의 북부지역과 함께 멀리 동만, 남만과 북만의 하얼빈일대에까지 그 지부를 늘이고 있는 때여서 ≪개벽≫은 만주영내에도 많은 독자들을 두고 있었다.

나는 ≪개벽≫에서 길림시절에 내가 잘 알고 있던 논적인 신일용의 글도 보았다. 그는 1920년대 중기의 농촌문제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다. 신일용이 잡지에 발표한 ≪농촌문제의 연구≫라는 논문은 이론적 깊이가 있는 글이였다.

≪개벽≫에는 세계각국의 문물을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실리었다. 그런 글들 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고유수인가 오가자인가에 있을 때 본 ≪남만주행≫이

라는 기행문이다. ≪남만주행≫은 이돈화가 쓴 글인데 만주지방의 자연풍경과 중국사람들의 생활풍습, 무순탄광 노동자들의 참혹한 생활처지와 우리 나라 독립운동자들의 활동형편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 기행문에 의하면 남만주지방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땅에 묻지 않고 밖에 놓아두며 나아가 7살이 못된 어린이가 죽으면 거적에 싸서 나무에 매달아놓는 별스러운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개벽≫에 실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들 중에서 독자들의 구미를 제일 강하게 자극한 것은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잡지에는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고구려 국민의 기상과 노력≫, ≪천혜가 특다한 조선의 지리≫ 등 조선의 역사와 지리, 자연경개와 지방별 특성이며 물산을 자랑하는 글들이 자주 실리었다. ≪8도대표의 8도자랑≫도 바로 그런 글들 중의 하나였다.

≪8도대표의 8도자랑≫이란 조선 8도의 대표들이 저마다 나와서 자기 도의 자랑을 하는 것을 엮은 것이었는데 그 골자는 어느 실학사상가가 평하였던 8도사람들의 기질평가에서 취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평안도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출림≫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상은 ≪수풀에서 나오는 범≫ 같으나 뒤가 조금도 없는 평안도 사람이 나와서 자기고장 자랑을 하는가 하면 ≪이전투구≫, 다시말하여 ≪진창에서 싸우는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미를 가진 함경도의 ≪조얄개≫라는 사람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바로 함경도에 있다는 것으로 운을 슬쩍 떼고는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 도의 자랑을 늘어놓는 등 8도 사람들의 특징을 어찌나도 방불하게 그려냈던지 글을 읽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8도자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을 통하여 알아본데 의하면 ≪8도대표의 8도자랑≫은 1925년 7월호에 게재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 그 잡지를 구해다가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았다. 반세기 이전에도 느낀 바이지만 역시 재미나게 쓴 글이었다.

≪개벽≫에 실린 인기기사들 가운데는 ≪외국인이 본 조선의 인상≫이라는 글도 있다. 그 글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재예는 세계제일≫, ≪3대 감탄≫, ≪예의가 천하제일≫, ≪조선의 4대미≫, ≪조선에 대한 7대 신조≫, ≪자연미 인정미≫, ≪조선인의 인상≫과 같은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기록하였다. 외국인의 시점에서 본 조선을 조선사람의 시점에서 다시 음미해보는 것은 참으로 흐뭇하고 유쾌한 일이었다.

≪개벽≫ 잡지는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을 두고 ≪순량성은 천하제일≫, ≪건강상으로 우월점≫, ≪윤리도덕 무비류≫, ≪장래세계모범민≫, ≪잔인포악이 없는 조선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동학당과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글도 독자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필자는 동양천지에서 사회를 혁신할 대의를 품고 분투하는 집단으로는 중국의 국민당과 조선의 동학당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제우가 손중산보다 40여년 전에 벌써 동학을 창제한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였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개벽≫의 필자들 중에서 글을 그중 많이 쓴 사람은 천도교 중앙의 편집과 주임이며 ≪개



개벽

벽≫의 편집인인 이돈화였다고 생각된다. 이돈화의 호는 야뢰였다. 그는 동학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재능있는 이론가였다. ≪인내천 요의≫, ≪신인철학≫, ≪수운심법강의≫, ≪천도교 창건사≫ 등의 저서들을 통하여 그가 포교활동에서 이룩한 공적인 천도교 역사에서 응당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벽≫의 독자가 된 다음부터 이돈화에 대하여 은근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야뢰선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소개를 해준 사람은 박인진이었다. 그도 야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박인진은 심지어 나에게 이돈화와의 회견까지 권고하였다. 그러나 산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던 나로서는 서울에 있는 그를 만나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해방 후 그가 양덕에 살면서 천도교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짬을 내지 못하여 종시 그를 만나볼 수 없었다. 다만 천도교 청우당위원장인 김달현을 통하여 이따금씩 그의 활동과 관련된 토막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돈화

이돈화의 최후에 대해서는 김달현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이 후에 통보해온데 의하면 그는 1950년 가을에 북상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자강도 지역까지 후퇴해 갔으며 거기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미국비행기폭격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돈화와 같은 재사를 잃은 것은 그를 아껴온 ≪개벽≫의 옛 독자들과 천도교들에게 있어서 애석하고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돈화는 정치적 견해로 볼 때 소장파 혁신세력에 속하지 않는 보수적인 온건파였던 것 같다. 그러나 민족성의 고수, 민족적인 체면의 유지, 도덕적인 자아완성을 주장한 그의 글들로 보아 그는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깨끗하고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강병선과 함께 ≪개벽≫에 실린 글들을 읽고 독후감을 자주 나누었으며 동학의 지위와 교리에 대한 문제를 걸고 투쟁도 하고는 하였다. 강병선은 ≪ㅌ·ㄷ≫ 성원들 가운데서 천도교에 제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면서도 자기가 숭상하던 동학사상과 천도교 조직에 상당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강병선의 고향인 창성과 의주, 벽동, 삭주 지방에는 천도교도들이 많았다. 강제하, 최동오, 공영 등은 모두 그 평북도지방의 천도교 사회에서 주역을 담당한 애국지사들이었다. 강병선은 천도교줄을 타고 1930년대 후반기 평안북도 지방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많이 늘이었다.

천도교 소장파 혁신세력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그도 처음에는 동학당란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천도교가 논 역할을 거의 절대시하면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제기되는 모든 대소사가 천도교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천도교 문제를 놓고 우리들 사이에 벌어진 주되는 논쟁점은 이것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봉건을 반대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동학이 쌓은 공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 동학의 민족성과 애국애민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의거해야만 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강병선 자신도 그 후 실천투쟁을 통하여 천도교 만능의 관점을 극복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장울화와 함께 무송에서 지하활동에 헌신하던 그는 1930년대 후반기 북만에서 우리의 정치공작원으로 활약하다가 경찰에 피검되어 감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었다.

동학도들이 주장한 ≪인내천≫의 사상은 사람을 하늘에 비기며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 자체를 신적 존재로 보는 것으로 하여 이론적 불합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나 그것을 계승한 2세, 3세 교조들은 천도교가 유교, 불교, 선교의 3교 종합, 다시말하면 여러 종교를 유기적으로 합일한 최후의 진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천주교와 같은 이단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천도교 경전

천도교의 이론가들은 그 후 선배들이 주장한 단순한 3교 종합설을 한걸음 전진시켜 민족종교로서 동학이 가지고 있은 고유한 특성과 독창성을 자랑하였다.

천도교의 어느 한 혁신파이론가는 천도교교리의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과거의 모든 종교들의 이러저러한 교리, 예컨대 불교의 적멸설, 선교의 현묘설, 기독교의 천당설, 유교의 천명설과 기타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적 가면을 모두 부인하고 사람이 곧 부처이고 선이고 신이고 하늘이다, 따라서 사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신인일체≫, ≪인내천≫을 설파하였다.

≪신인일체≫, ≪인내천≫, 곧 사람이 ≪한울님≫이라는 이것이 바로 동학의 기본사상이다.

천도교에서는 ≪한울≫ 즉 우주전체가 ≪지기≫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기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으로서 자연도 사람도 신도 모두 ≪지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기≫를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동학의 ≪지기설≫은 모든 물체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영혼설의 일종으로서 범심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지기설≫에 기초하여 천도교에서는 인간도 살았거나 죽었거나 ≪한울≫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람은 세상만물 중 가장 으뜸가는 영혼을 지닌 특수체라는 것이다.

영혼설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의식과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배밑에 그 어떤 숙명적인 삶의 궤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혼설은 불가불 숙명론에 떨어진다. 숙명론으로부터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론이 나올 수 없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도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학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전망도 사회발전법칙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목표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비폭력적인 투쟁으로 온 세상에 덕을 펴나가느라면 모든 인간이 신선처럼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마침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신선화는 사람마다 일상적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반성과 자각을 거듭하여 양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내천≫의 사상은 유물론에 기초하지 못하고 유신론에 기초한 사상이었다.

천도교는 그 계급적 제한성과 이론적, 실천적 미숙성으로 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학만능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주되는 논거였다.

우리는 천도교를 이러한 관점으로 대하면서도 좋은 측면을 보다 중시하였으며 천도교가 이념상에서나 실천상에서나 통일전선의 대로에서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천도교는 지상천국건설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 과거의 종교가 이 세상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견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면 천도교는 이 세상을 개벽하여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천도교는 ≪후천개벽≫을 교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간주하고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으로 불리우는 3대개벽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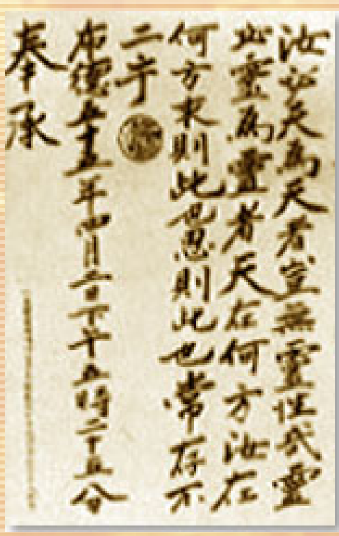
손병희

천도교는 순수 신앙으로부터 내세의 행복, 사후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와 윤리적 수양과 지식의 섭취를 교화의 기본으로 삼고 현세적 실천도덕을 중시하면서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유교와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다 부처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비를 기본종지로 하는 불교와도 구별된다고 동학의 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적인 불교에 비해 기독교가 보다 동적이라고 한다면 천도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동적인 종교이며 불교가 이성적 경향이 많고 기독교가 감성적 측면이 많다면 천도교는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교리에서 하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람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과 다른 종교들에서처럼 하늘이나 신의 초자연성과 초인간성을 운운하면서 봉건사회제도나 봉건적 신분제도를 하늘이 정한 질서라고 설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놓고 천도교가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종교로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나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세워나가면서 기성의 이러저러한 이론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민족종교로서의 천도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긍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혁명이 처하고 있는 환경, 선행운동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인 전통과 계급역량관계를 충분히 타산한 과학적 기초 위에서 주체학설을 세우고 우리 혁명의 진로를 탐색하였으며 그에 부합되는 전략전술을 작성하였다.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3세 교조 손병희의 필적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어떤 하늘의 도움이나 천명에 따라 혁명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우리 인민자신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싸워야 한다는 이론적 대의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

천도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다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이후시기였다. 특히 박인진도정의 우리 밀영방문을 전후로 하여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속에서는 동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박인진이 밀영에 다녀간 후 천도교도들과의 통일전선방침을 더욱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천도교는 자기의 종교적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독립과 국민주권의 확립으로 민생의 안전을 기하는 ≪보국안민≫을 이루는 동시에 나아가서 세계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으로 평화로운 세계, 지상

천국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떨쳐나섰다.

동학은 그 주의주장의 애국애민성과 강한 저항정신으로 하여 광범한 천민대중과 몰락양반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 동학사상의 전파확산은 귀천의 차별을 절대화한 봉건유교사상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였고 봉건적 특권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였다. 이 때문에 동학의 창시자인 1세 교조 최제우는 1864년 3월 좌도란정(도를 어기고 정치를 문란케 한다)의 죄를 쓰고 대구에서 처형되었으며 이조봉건정부의 혹심한 탄압과 추적속에서도 비밀리에 동학의 보급과 조직의 확대에 진력하였고 갑오농민전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던 2세 교조 최시형도 서울에서 사형당하였다.



체포되어 압송되는 전봉준

동학을 창시자의 본의대로 천도교로 명명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그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 되었던 3세 교조 손병희도 일제교형리들로부터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역대 교조들의 생애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도교는 시발은 물론, 발전과정도 철저히 애국적이고 애민적이였다.

천도교 사회에서 동학 제1혁명이라고 부르는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후반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루는 농민전쟁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천도교 상층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그의 지령에 따라 발발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패무능한 봉건특권층의 전횡, 야수적인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의 폭동이였고 반정부농민전쟁이였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밑에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은 동학 상층부와는 무관계하게 전봉준을 위시한 농민폭동 지도자들에 의하여 개시되였다. 폭동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각 지방의 동학포조직과의 연계밑에 고부농민폭동(고부민란)을 전면적인 농민전쟁으로 확대발전시켰다.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시아 3대 항전으로 특기할만한 것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일청 양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각지로 흩어진 농민군은 그 후 반일의병운동의 주력으로 되어 구국항전을 계속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 큰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동양과 세계 정치정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동학혁명의 의의를 세계적인 판도에서 고찰한 우리 나라의 한 역사가는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를 대동란속에 몰아넣은 모든 세계사적 사변의 시발이 바로 조선땅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쓰기를 조선동학당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청일 양군간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며 청일전쟁에서 만약 청나라가 승리하였더라면 러시아의 만주침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러시아의 만주침입이 없었더라면 러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가 없었더라면 오흥(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발칸반도에로 날개를 펼 수 없었을 것이며 오흥제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쩨고비나 병합이 없었더라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제1차 세계

대전이 없었을 것이며 또 세계대전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러시아의 로바노브황제의 전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적색 러시아의 출산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 동학당이여, 너는 간접적으로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되며 노농러시아의 산모이다라고 하였다.

동학사상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동방근대화의 첫걸음을 이렇게 동학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1 운동 때에도 천도교 세력은 큰 역할을 하였다. 3.1 인민봉기의 주력군은 물론 광범한 노농대중과 청년학생, 지식인 계층이었다. 하지만 그 봉기를 발단시켰던 민족대표들 가운데 기독교도, 불교도들과 함께 천도교인이 들어가 있었으며 당초의 발기를 천도교 측에서 하였다는 사실과 300만이나 되는 전국 천도교도들의 과반수가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던 사실들은 그 반일투쟁에서 천도교측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천도교의 투철한 저항정신은 우리가 그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한 주되는 요인의 하나였다.

천도교는 조선의 토착종교로서 그 이념과 주장이 참신하고 저항정신이 강한 것과 함께 교의 예의법식이 단순하며 운영방법이 매우 소박한 평민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화국 내각의 초대체신상이었던 김정주는 동학이 소박한 민족종교라는데 대해서 늘 자랑하였다. 우리가 항일유격대를 조직할 무렵에 입도하여 왕년에 천도교청년당 중앙집행위원으로까지 발탁되었던 그는 자기 교의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정주는 풍채가 좋은 천도교인이었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우스개소리를 잘하였다.

≪수상님, 하루종일 집무를 보시느라고 머리도 아프시겠는데 이제는 저의 고담이나 들으시면서 피곤을 푸십시오.≫

내 집무실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꼭지를 떼고 한참씩 고담을 늘어놓았다. 그가 한번은 명절날에 나한테 왔다가 천도교 자랑을 한바탕하였다.

≪우리 천도교에서는 구수한 토장국 냄새가 나지요.≫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토장국 냄새라고 하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청수봉전≫한 가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청수봉전≫을 할 때 앉음새를 통제하지 않는데 올방자를 틀어도 좋고 두 무릎을 곤두세워도 좋고 두 정갱이를 모로 눕혀도 좋다고 하는 자유는 다른 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나는 김달현과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왜정시대에 천도교 조직에서 활동할 때 체험한 일화들을 자주 회상하였다. 상담회수가 잦아짐에 따라 나와 그 사이에는 수상과 천도교청우당당수라는 실무적 개념을 떠난 인간적 유대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한 번은 그가 밤 12시가 지나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청사로 찾아와 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내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을 때였으니 아마 1946년의 일이었던 것 같다.

자정도 넘은 심야에 그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고 나는 어지간히 놀랐다. 혹시 나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될 어떤 비상사건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조차 들었다.

그런데 김달현은 뜻밖에도 공식적인 사업문제와는 인연이 먼 기상천외한 청탁으로써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이 늙은 것이 체신머리없다고 나무람 마십시오. 이거 너무 외람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산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을 좀 구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집무실에 들어온 다음에도 용건을 선뜻 꺼내지 못하고 쭈밋쭈밋하다가 용기를 가다듬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나서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내 얼굴을 면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이 위원장 노인이 왜 이럴까 하고 유심히 바라보니 귀뿌리가 어느새 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선생이 늘 건강자랑을 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되어 보약을 갑자기 찾으십니까?≫

나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친절하게 물었다.

≪사실은 여편네를 휘어잡지 못해서 그럽니다. 얼마전에 젊은 여자를 골라 재취하였는데 여간 천대가 심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줍시다. 부인이 선생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합시다.≫

김달현은 그 말을 듣고 희색이 만면해서 나의 집무실을 나갔다.

나는 산삼과 녹용을 구해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한해가 지나서 김달현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덕으로 70나이에 제 생남을 했습니다. 글쎄 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애의 백일잔치에 장군님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그것 참 대단한 경사입니다. 세월이 좋으니 그런 경사도 생기지 않습니까. 초청을 쾌히 수락합니다. 부인에게 생남을 축하한다는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김달현은 이번에도 싱글벙글하면서 집무실을 나섰다.

나는 약속대로 백일잔치에 김달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장군님 덕분에 우리 집안에는 꽃이 폈습니다 하고 절을 하였다. 그 여자는 그 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온밤 싱글벙글하면서 손님대접을 하였다.

전쟁 때 나는 김달현을 자강도 별오에서 만났다. 우리는 국수를 먹으면서 천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달현은 이날 성미는 천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법도라고 하면서 성미가 바로 교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정적 원천으로 된다고 하였다.

사실 최린 등 몇몇 인물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역대 천도교지도자들은 모두 사리나 공명과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생활도 검박하게 하였다. 그들은 늘 재원의 부족으로 고충을 겪었다. 생활비를 받지 않고 교를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천도교에서는 교를 운영하는 교직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조선의 천도교인들은 한때 개벽사의 인쇄공장 자리에 극장을 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교의 재정을 충당했다고 한다. 중앙대교당에 설치한 두 개의 결혼식장도 재정을 보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사용비를 받았다고 한다. 좀 궁색한 노릇이긴 하지만 재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도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된 보다 주요한 이유는 그 상층의 우유부단이나 기회주의와는 관계없이 절대다수의 교인들이 반일적이며 애국적이라는 측면과 계급구성에서 빈천자들, 가난한 농민들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원래 천도교는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농민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념도 농민적인 것이였다. 자본주의적인 발달이 미미한 단계에 있었고 현대적 노동계급의 부대가 전혀 없었던 당시의 우리 나라 실정에서 동학운동이 농민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게 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였다. 그러나 동학운동은 농민만을 위한 운

동이 아니였다. 그것은 도시빈민들과 소상인들을 포함한 모든 빈천자들의 지향과 이해관계를 대변한 광폭적인 대중운동이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강렬하게 지향한 거족적인 반침략애국운동이였다.

3.1 운동에서 실패한 후 천도교 상층은 투쟁정신을 상실하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미미한 포교활동과 이론활동을 벌이는데 머물렀으며 그 일부 상층들, 례컨대 최린 같은 사람은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온 다음부터 친일파로 전락되였다.

그러나 상층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층은 일제강점하의 엄혹한 조건에서도 천도교의 애국적 전통을 이어나가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도교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기초였다.

천도교의 운동을 나라의 다른 혁명역량과 연결시키며 국제혁명과의 제휴를 모색하여 동분서주하던 이 운동의 혁신적 지도자들은 천도교를 ≪빈천민중의 충복≫, ≪이규모 동질성의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제당과의 연계를 희망하였다.

1925년 10월말에 조선농민사 이사회의 명의로 이돈화가 적색농민인터나쇼날에 가맹청원을 낸 사실은 그에 대한 하나의 예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농민사라는 것은 1925년 10월 서울에서 창립된 천도교 청년당 산하의 농민조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러시아에서의 노농정권의 수립 그리고 3.1 인민봉기에 뒤따르는 내외정세의 발전속에서 1919년 9월 천도교 교리의 연구, 선전과 조선신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천도교 청년들인 이돈화, 정도준, 박내홍 등은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창립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운동적 색채를 띤 청년단체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얼마 후 천도교청년회로 개칭되였다. 청년회는 자기 산하에 언론기관으로 개벽사를 설립하여 1920년부터 정치시사잡지 ≪개벽≫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년부를 조직하고 조선어린이들의 정서를 높이고 윤리적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인내천 주의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었다.

이 천도교청년회는 1923년 천도교청년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후천개벽≫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천도교의 전위조직으로 되었다.

이 당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부와 군에 지방부, 면과 동에 접이라는 말단조직을 꾸리는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당세확장 3개년계획을 내걸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어 짧은 기간에 많은 빈천자 청년들로 대열을 확대하였다. 천도교 청년당은 특히 동학당란의 피해를 받지 않은 예성강 이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935년도에 간행된 천도교 청년당사에 의하면 그 당시 당지방부는 국내외를 합하여 100여개소나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북선지역이 70프로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평안도가 40개소로서 제일 많았다. 사실상 그때 지금의 자강도와 평양시, 남포시까지를 포괄하는 어제날의 평안도지역에는 그 어느 군이나 할 것 없이 천도교 청년당지방부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천도교 세력의 압도적 다수가 북선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천도교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된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도교 혁신세력도 3.1운동이후 세계대세를 타고 교파세력을 확장하여 반일애국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천도교 3세 교조 손병희가 서거한 다음 1922년 7월 천도교의 소장파 혁신세력은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천도교역량의 재수습, 재편성에 노력하면서 연해주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와 국내에서의 활동을 적극화해나갔다. 고려혁명위원회는

그 후 비밀지하혁명조직인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로 재조직되었다.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의 활동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쏘비에트러시아정부와 국제당을 상대로 천도교 혁명활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치따부근에 있는 3개의 금광구역을 이용하여 역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2년안에 1,000명 정도의 군사를 키우며 나아가서는 15개 혼성여단의 고려국민혁명군을 창설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한다.

천도교의 비밀조직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농쏘비에트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천도교 혁신세력이 1924년초 원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쏘비에트러시아와 국제당 인물들을 상대로 벌인 외교활동의 일단을 보여주는 고문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때 최동희는 가다야마 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제당이 조선혁명, 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묻고 조선혁명을 편견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천도교는 조선에서의 혁명발발시에 동으로는 일본의 사회혁명세력, 북으로는 쏘비에트러시아 및 국제공산당의 깊고 밀접한 연계를 취하여 조선, 일본, 러시아가 삼각형으로 연쇄적 활동을 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천도교 혁신세력은 수구파의 저해와 증오를 받으면서도 국제혁명과의 제휴속에 무력항쟁을 벌여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천도교 혁신세력은 동학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 애국애민의 열정과 울분을 그대로 반일투쟁에 바쳐보려고 어지간히 모대기었으나 실은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게다가 3.1 운동 실패 후 천도교 내부에서 급진파와 온건파간의 심한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또 일제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조건에서 급진파가 분열을 방지한다는 명분밑에 타협한 것으로 해서 천도교 혁신세력은 거세되고 반일운동은 모종의 개량운동으로 점차 퇴화한 것 같다. 상층이 민족개량주의에로 굴러떨어지고 노골적인 친일에로 기울어지는 조건에서 천도교는 혁명성과 시운을 점차 잃게 되었다.


가다야마 센

그러나 천도교의 지방조직과 그에 속해있는 절대다수의 교도들과 청년당원들은 이러저러한 합법, 비합법 조직들을 묶고 일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여러 갈래의 투쟁을 벌였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똑똑한 투쟁방략이 없었고 그들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줄만한 지도역량이 없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백두산으로 나왔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였다.

수백만 천도교도들은 우리의 10대 강령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들은 오매불망 바라던 새날의 계명성이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울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였다. 이렇듯 천도교가 우리와의 통일전선에 응해나서고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광범히 망라되게 된 것은 천도교에 대한 공명정대한 평가와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우리자체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애국애족, 반외세를 이념으로 삼는 천도교조직 자체발전의 역사적 필연이며 합법칙적인 귀결이였다.

이념과 종지, 주의주장에서 물론 일정한 차이가 있고 운동의 출발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대의에서 서로 손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때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급적 이익과 함께 언제나 민족적 이익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였다.

바로 이러한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날 반공일선에 서있었던 최덕신과도 손쉽게 화해할 수 있었다.

나와 최덕신은 70살이 지나서 서로 만났지만 지난날의 숙적이라는 관념은 조금도 없이 최동오 선생 슬하에서 애국의 넋을 키우던 그런 심정으로 해후도 감격적으로 하였고 공산주의와 천도교라는 이념차이를 훨씬 초월하여 한 민족, 한 혈육으로서 대화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나누었다.

얼마전에 나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공포하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와서 박인진과의 제휴를 성사시키던 1930년대에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광복이 지상의 대과제였다면 20세기가 다 저물어가는 오늘은 분단조국을 통일조국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의 종지로, 이상으로 되고 있다. 외세를 박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투쟁이 일찍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들었던 동학도 천도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은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분단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벌써 반세기 가까이 갖은 수난을 다 겪고 있다. 이것이 민족자체의 잘못에 의한 자율의 비극이 아니고 외세의 강요로 인한 타율적인 수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찌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통일과 민족자강, 민족대단결을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지금 조선의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애국적인 천도교도, 기독교도, 불교도들이 하나같이 외세에 의한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우리가 20여성상 만주광야와 백두대지에서 무장항일을 해온 것도 결국은 일신의 안일이나 영달,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기 위한 것이였다.

민족위에 신이 없고 민족위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 이익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의 한결같은 종지이며 날과 더불어 더욱더 절감하는 현실이다.

나는 지금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해 한 생을 바쳐 싸운 그 목적과 이상이 실현되고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세세년년 복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동학열사들이 바라던 그런 세상, 그런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민족의 얼이 맥맥히 살아 숨쉬는 동학이념, 천도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자랑이다. 애국과 애족, 애민에 바쳐진 천도교 선열들의 애국충정은 민족사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6.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 수 없으며 싸움에서 승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은 항일혁명의 전 기간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바로 ≪옹군애민≫이였다. ≪옹군애민≫이란 인민은 군대를 옹호하고 군대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싸울 때 인민들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였던가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동서고금의 유격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옹군열의와 원군기풍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옹군의 주체가 되고 원군의 담당자가 되어 시종일관 인민혁명군을 결사적으로 지지성원하게 하였는가?

그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군대의 인민적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군대,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이니 그런 군대를 인민이 따르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과 사명이 인민적이라고 하여 인민이 모든 군대를 다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후원하는 것은 아니다. 간판에 ≪인민≫자가 있어도 행실이 좋지 않고 군풍이 문란하면 인민은 그런 군대를 곱게 보지 않는다.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대하며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군대만이 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군풍에서 핵을 이룬 것은 철저한 애민성이였다. 인민혁명군의 매개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인민에게서 찾았다. 그들은 인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존재하고 인민이 행복해야 자기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민의 기쁨이 곧 자기들의 기쁨으로 되고 인민의 슬픔이 곧 자기들의 슬픔으로 되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인민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였다. 인민을 떠나서는 우리 유격대가 그 존재를 유지해나갈 수도 없었다.

우리는 유격전쟁을 개시한 첫날부터 인민의 품을 우리 삶의 보금자리로 여겨왔고 인민의 지지성원을 우리 삶의 젖줄기로 여겨왔다.

워낙 우리 유격대의 모체자체가 인민이다. 우리들의 부모도 다름아닌 인민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보호자도 다름아닌 인민이였다.

그러므로 군민일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어있었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며 또 인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승패문제이기 전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하는 존망문제였다. 우리가 만일 이 점을 중시하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곧잘 묘사하던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가 되어 이리저리 밀리다가 지리멸렬되였을 것이다.

우리는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민관계나 관병관계, 부대의 일상생활에서 혁

명군대의 규범과 행동준칙으로 될 수 있는 사상을 새롭게 성문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었다. 그래서 작성공포한 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였다.

조례작성의 기본목적은 우리 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강화하고 애민성을 법화하여 그것을 튼튼히 유지하려는데 있었다.

인민혁명군은 물론 정규군은 아니였으나 그에 못지 않은 무력과 정연한 군사편제를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대원들을 지휘관들의 명령, 지시나 관습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1930년대 중기는 적들이 서간도에서 집단부락건설을 다그치고 인민혁명군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비민분리≫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유격대와 인민사이에 쐐기를 박고 유격대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는 원군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인민혁명군의 영상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일, 혁명군을 군사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하였다.

우리 군대가 비적의 행실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고 자기네 군대하고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도덕적인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혁명군을 가리켜 ≪비적≫이라고 헐뜯는 거기에 바로 적들의 간교성이 있었고 우리 군대의 정치도덕적 권위를 허물어버리려는 그들의 본심이 있었다.

우리가 군민일치를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적들은 ≪비민분리≫를 집요하게 꾀하였다.

일제는 마적단이 저지른 죄행까지도 우리한테 넘겨씌우면서 우리 인민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깎아내리려고 하였다. 적들의 악선전으로 인해 전도된 혁명군의 영상을 원상대로 회복하고 그것을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 군대의 고유한 인민성을 보다 더 발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인민성을 고도로 발양시키자면 그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성문화하여 고착시켜야 하였다.

지난날 만주 각지에 할거하던 독립군 단체들도 군민관계에서 좋은 인상도 주었지만 좋지 못한 인상도 또한 적지 않게 남기었다. 인민들이 의병이나 독립군에 대하여 더러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기본원인은 그들이 군민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끼친데 있었다. 어떤 독립군 지휘관들은 정의부의 어느 중대장처럼 인민들한테서 군자금이나 독립운동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품을 모아가지고 개인의 향락을 위해 서슴없이 사취하였다.

일제는 이런 유의 비행까지도 우리 인민혁명군을 비방하고 모독하는데 이용하였다. 독립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다 인민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사취하는 강도무리라고 독립군과 인민혁명군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비난하였다. 적들이 억지로 뒤집어씌운 그런 때를 벗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군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더 뚜렷이 밝혀야 하였다.

우리가 잠행조례를 내오게 된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군대 안에 신입대원이 급격히 늘어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인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적들은 이것을 알고 전투에서 수세에 빠지게 되면 부락에 들어가 주민가옥의 담벽이나 울타리에 의지해서 저항하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부락이나 주민가옥에 의지하여 싸울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다.

1934년 초여름에 우리 군대가 나자구전투에 앞서 삼도하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에도 그렇게 했다. 적들은 나자구로 진출하는 우리 부대의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그때에도 나는 적들을 우정 삼도하자 밖에 있는 벌판에 끌어내서 치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러는 바람에 적의 유생역량 가운데서 절반가량은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경우를 한두 번만 겪은 것이 아니였다.

인민혁명군은 주민부락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에도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등대고 절대로 재세를 하지 않았다.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물도 긷고 불도 때고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주었다. 그런 일에서는 사령관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지휘관들 자신이 대원들의 거울이 되어 실천적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도록 교양하였다.



김정필

이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유격대 초창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계율로 삼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백두산지구로 나온 첫 시기에는 일부 신입대원들속에서 군민관계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기고는 하였다.

우리 부대의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농촌청년들도 있었고 지난날의 반일부대출신들도 있었으며 위만군에서 넘어온 반변사병들도 있었다. 초보적인 훈련단계도 미처 거치지 못한 그 각이한 출신의 신입대원들속에서는 혁명군의 전통적인 규율과는 상치되는 행위들이 이따금씩 나타나 부대의 위신을 떨구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부대가 19도구 육철포동에 사는 이노인네 집에 잠깐 머물러있을 때였다. 이 노인은 그때 자기 집 가을걷이를 도우러 왔다는 조카벌되는 애된 청년을 우리에게 인사시키였다. 신발과 각반까지 새것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을걷이 차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였다. 그 청년과의 담화가 아주 흥미진진하였다. 무슨 대상이든지 입만 벌이면 한두마디로 특징을 꼬집어서 방불하게 그려내고는 하였는데 말재주가 대단하였다.

청년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것을 보니 새 각반과 신발이 헌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기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으나 청년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였다.

나는 김정필소대장에게 각반과 신발이 바뀐 사연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필은 사연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한 위만군 반변사병이 청년을 강박하여 각반과 신발을 바꾸었다는 것과 그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소대장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더라는 것을 격분에 차서 보고하였다.

≪그가 변명하는 말이 군대가 산에서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는데 백성들이 군대를 섬기는거야 응당하지 않는가, 위만군에서는 이런 일이 여반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도하자전투장

소대장의 보고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날 남의 나라를 강점한 침략군 우두머리들이 점령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 약탈과 같은 범죄행위들을 합법화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것을 허용한 실례는 수두룩하다. 일본군은 중일전쟁 시기와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판에 종군위안부들까지 데리고 다니었다. 군민관계를 너절하게 가지는데서는 위만군도 일본군에 짝지지 않았다.

살인, 방화, 약탈을 전업으로 삼는 군대에서 비행에 인이 박힐대로 박힌 병사고 보면 각반이나 신발 같은 물건따위를 바꿈질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혁명군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그냥 스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실수로 될 수 없었다. 애민을 철칙으로 삼고 있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엄중한 위법행위였다.

나는 이노인에게 혁명군을 대표하여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님, 우리가 교양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 노엽더라도 불민한 친자식의 실수로 여기고 용서해주십시오.≫

이노인은 펄쩍 뛰면서 내 말을 막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내가 더 송구스럽쉐다. 노상 산에서 싸우는 군대가 신발을 바꿔신으면 바꿔신는 것이지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와 노인 사이에는 더 깊은 친교가 맺어졌다. 우리는 19도구에 갈 때마다 꼭꼭 육철포동에 들려 이노인을 만나서 문안인사를 하곤 하였다.

우리 대원들이 그 마을에 가서 후방물자공작을 많이 하였다. 한번은 그곳에서 닭까지 구해가지고 왔다. 나는 그 닭으로 병약한 위증민에게 닭곰을 해주게 하였다. 그때 그는 병이 도져서 우리 부대에 와있었다. 그런데 닭을 구해가지고 온 대원은 임자가 돈을 받지 않아서 값을 치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누구네 닭인가를 알아보았더니 또 그 이노인이었다. 후방공작경험이 많은 대원이였는데 처사를 썩 잘하지 못하였다.

나는 후방부대에 있는 그 대원의 소대장을 데리고 이노인을 찾아갔다.

마당질을 하고 있은 노인의 일손을 돕다가 소대장을 시켜 ≪닭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미안합니다≫하면서 돈 10원을 내놓게 하였다. 그 당시 닭 한 마리의 시장가격이 1원 50전쯤 되었다. 두 마리의 값이 3원이였지만 노인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싶어 값을 후히 치르게 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이노인의 노여움을 샀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조선사람이 아닙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 늙은 것한테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님, 받아두십시오. 씨암탉인줄 알았더라면 되돌려드렸겠는데 그만 알지 못하고 써버렸습니다. 봄날에 병아리를 깨울 종자닭을 썼으니 우리가 밑천을 다 거덜낸 셈이 아닙니까.≫

우리는 끝내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노인은 소매끝으로 눈굽을 훔치며 이태전에 당했다는 강탈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사슴을 어떤 부자한테 팔았는데 군대들이 소문을 듣고 우르르 쓸어와서 무작정 총대를 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당장 쏴죽이겠다는 바람에 사슴값을 다 털리우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도리질을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백성을 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런 군대라면야 무엇인들 아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마침 우리 동무들이 검정닭을 수소문한다는 말이 돌아가서 이런 때 약소하지만 성의를 보여주자고 생각하고 종자닭을 주었다면서 일껏 성의를 표시하느라고 한 것인데 도리어 닭값의 세 배도 넘는 돈을 받고보니 백성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늙은이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우리가 노인의 성의를 너무나 몰라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하지만 인민의 성의를 어김없이 보상하는 혁명군의 전통적인

규범을 어기고 노인의 지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일부 신입대원들은 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사심없는 지지성원을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와 생활형편에 대한 심중한 고려가 없이 원군물자들을 경솔하게 처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1936년 가을에 있은 약수동 소사건이었다.

우리 부대는 그 당시 장백현 19도구 지양개치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식량부족으로 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약수동쪽에 시래기를 주으러 나갔던 신입대원 두 동무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희색이 만면해서 돌아왔다. 사연을 알아본즉 그 소는 유격대원들이 시래기국으로 끼니를 에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약수동 농민들이 보내준 것이었다.

처음에 두 대원은 소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들의 정성이니 제발 받아달라며 억지로 소고삐를 쥐어주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끌고왔다고 하였다.

한쪽에서는 벌써 더운물이 설설 끓고 있었다. 여러 날 낟알구경을 못한 터여서 신입대원들은 물론, 구대원들과 지휘성원들까지도 오래간만에 소고기국을 푸짐히 먹어보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나 역시 대원들이 시래기국을 한 공기씩 마시고 저녁을 굶때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어서 소를 잡으라고 이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슬프게 영각하는 둥글황소의 치장품들을 살펴보며 결심을 달리하였다. 알뜰하게 만든 코뚜레며 붉은 천을 모양있게 감은 소굴레며 누런 퉁방울과 엽전들, 그 모든 것에는 소임자의 극진한 정성이 슴배어있었다. 나는 소를 잡아 한 각씩 떠서 당장 가마에 넣을 기세로 신나게 돌아가는 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조용히 말하였다.

≪소를 임자에게 돌려보냅시다.≫

소를 끌어온 대원들은 아연하여 나를 쳐다보았다. 다른 신입대원들도 미소를 지우고 낙심천만한 표정이 되었다. 며칠째 시장기와 싸워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나는 한숨을 짓고 있은 신입대원들에게 타일렀다.

우리가 소를 왜 임자에게 돌려주자고 하는가, 그것은 이 소가 농민의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소임자가 자기 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보라! 이 퉁방울은 아마도 그 집에서 몇 대를 두고 소중히 간직해 내려오던 것이 틀림없다, 엽전은 모름지기 그 집 할머니가 시집올 때 속주머니끈에 달아가지고 와서 평생 아끼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에 대한 애착을 표시하는 것이다, 소를 돌려주어야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약수동 농민들의 농사문제도 이 소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민들의 지성이라고 하여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임자와 소의 신세를 지곤하던 이웃농민들이 당장 내일부터는 소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소가 날라야 할 짐을 등짐으로 져나르고 소가 갈던 밭을 괭이나 호미로 쪼아 뚜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소를 잡아먹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도 거의 모두 가난한 농민들의 자식이니 땀흘리며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내 말에 가책을 받았는지 소를 끌고온 대원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들이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처벌대신 그들을 약수동에 다시 보내어 소를 돌려주게 하였다.

나는 그 당시 신입대원들을 받으면 얼마간 숙식을 같이하였다. 그들과 같이 지내

면서 일정하게 단련을 시킨 다음에야 중대나 연대로 내려보내고는 하였다. 수십 명씩 받아들일 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서너 명 정도의 적은 인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문 며칠동안이라도 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하면 신대원들의 집안형편과 준비정도, 성격, 취미들을 요해할 수 있었고 적합한 교양대책도 세울 수 있었다.

1936년 10월경에 10여명의 목재소 노동자들이 단꺼번에 우리 부대에 들어온 적이 있다. 나는 그 신입대원들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3명의 대원들을 첫날부터 데리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보초를 서고 돌아오는 길에 한 농민의 밭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강냉이를 오사리채 한 배낭씩 따가지고 왔다.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려워 나까지도 맹물로 끼니를 에우기에 강냉이라도 따다가 푸짐히 대접하고 싶었노라고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는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오히려 사령관을 위해서 부하의 도리를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었다.

나는 사령관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동무들의 성의는 고맙소. 그러나 동무들은 오늘 인민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였소.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냉이를 세 배낭씩이나 따왔으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소!≫

≪우리야 조선독립을 위해 고생하는 군대인데 강냉이 세 배낭이 무어겠습니까. 그전에 우리 마을에선 독립군들을 위해 금붙이까지 다 바쳤습니다. 강냉이 몇 이삭때문에 의견을 가지는 농민이 있다면 그건 친일파나 다름없습니다.≫

여무지게 생긴 꼬마대원이 일동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겨끔내기로 제 생각을 한마디씩 내비치는데 그 태도가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아니였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재세를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변고나 폐단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였다.

나는 한시간 이상이나 품을 들여 그들을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설복이 끝난 다음에는 세 신입대원에게 명령하여 따온 강냉이를 전부 농민의 밭머리에 고스란히 가져다놓게 하였다. 중대장 한 사람이 현장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일행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다가 전령병을 앞세우고 강냉이밭으로 찾아갔더니 세 대원이 강냉이 이삭들을 밭머리에 놓고 앉아있었다.

나는 중대장에게 왜 이러고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였다.

나는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벌겋게 짓물러있었다. 그때 나는 팔도구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읽은 ≪삼자경≫의 첫 구절 ≪인지초 성본선≫이 생각났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뜻이다. 그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바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숙영지로 돌아오면서 세 대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였다.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삼고앞으로 인민을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인민을 허술히 대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한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인민의 사랑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싸우겠는가.

그들은 그날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말 한마디하지 않았다. 나는 제일 어린 대원

의 손을 잡아쥐고 왜 그렇게 말이 없는가, 혹시 오늘 일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그러는가고 물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군대가 좋은 군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어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유격대원이 되겠노라고 맹세를 다지었다.

혁명군의 체모에 손상을 주는 편향은 비단 군민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두수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속에서는 병력이 많아지게 되자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지시나 렵구면서 병사대중과 잘 어울려 지내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지휘관들은 이제는 식솔도 수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상하가 직급에 따라 복장도 다르게 하고 침식도 따로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조장되어 대오를 통솔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였다.

새로 제발된 일부 초급지휘관들속에서는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우쭐렁거리는 경향이 종종 나타났다.

1936년 가을 장백지방에서 활동하던 우리 부대가 14도구 부근을 출발하여 밀영 방향으로 야간행군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출발에 앞서 나는 척후대를 임명하고 행군할 때 참고해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야간행군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행동이나 다름없었다.

행군대오가 어떤 산굽이를 돌아가고 있을 때 대열 앞코숭이를 차지한 중대쪽에서 갑자기 담배연기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2중대가 굽인들이를 돌면서 대열후위에 있는 사령부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누군가 날쌔게 담배대를 꼬나문 것이 틀림없었다.

다음날 아침 중대장들을 불러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대원들이 아니라 중대장들인 이두수와 김택환이 자기들이 간밤에 금연지시를 위반한 장본인들이라고 솔직히 자백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담배부터 말아무는 것이 그 두 중대장의 습성이었다.

나는 그들을 엄하게 타일렀다.

≪나는 오늘 여기서 동무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두고 장황하게 연설하지 않겠다. 만일 적들이 간밤에 동무들이 피운 담배불빛을 보았거나 담배연기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불의의 타격을 들이댔더라면 부대는 어찌뻔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은 항일전쟁은 의지와 규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일전쟁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려는 혁명적 의지와 남의 나라에 대한 강점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공고화하려는 침략적 야망과의 심각한 대결이다. 우리가 지금 이 대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규율이 적들의 의지와 규율보다 강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치도덕적으로 적들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열내에 동무들과 같은 의지박약자들이 자꾸 나타나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규율이 해이되고 의지가 약한 군사집단은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동무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애연가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담배애호

가들은 평대원들속에도 얼마든지 있다. 동무들이 담배를 피울 때에는 그들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다. 그런데 평대원들 중에는 어제밤에 행군을 하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동무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율을 엄수하는데서는 특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동무들은 특수로 행세하였다. 이런 행실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지휘관들의 특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급이 상급을 믿지 않게 된다. 손해를 보는 것은 관병일치, 옹간애병이다. 동무들의 잘못이 엄중한가 엄중하지 않은가?≫

이두수와 김택환은 엄중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든지 다 받겠다고 하였다.

≪물론 동무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방법이다. 나는 동무들이 같은 결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경고한다. 이 경고를 처벌로 생각하라.≫

나는 그날 이두수에게 ≪금연단 단장≫의 임무를 주었다.


김택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대정치위원 김평의 전령병이 또다시 극단적이고도 무규율적인 상하평등을 주장해나섬으로써 대오내의 공기를 흐리게 하였다. 허범준이라는 그 전령병은 나이도 좀 들고 무장투쟁에도 비교적 일찍이 참가한 구대원이였다. 원래는 나의 전령병이였었는데 동작이 너무 굼떠 사령부의 전령병으로는 적합치 못하다고 하면서 김평이 자기 연대로 데려갔다. 김평은 허범준의 후임으로 자기의 전령병인 이권행을 사령부에 보내주었다.

허범준은 김평의 산하로 간 다음부터 이따금씩 지휘관들에게 대답질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켰다. 연대지휘관들이 연락을 보내면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불손하게 구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지휘관들은 참다 못하여 허범준의 문제를 위에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면 상하간의 우애에 금이 갈 수 있었고 옹간기풍이 사라져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이유와 우리 인민혁명군 안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참작한 기초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작성공포하였다. 그때가 김주현이 백두산에 나와 처음 맞는 설인데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뛰어다닐 때였으니 아마도 1936년말경이였다고 생각된다. 김평이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 잠행조례로서의 맛이 덜 났다. 그래서 15개 조항으로 된 조례초안을 다시 만들었다. 앞으로 보충완성할 것을 전제로 잠행조례라고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에는 우리 혁명군의 성격과 사명, 지휘관, 병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들과 행동준칙들이 자세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주의를 돌린 것은 군민관계와 관병관계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잠행조례의 모든 조항에서 우리 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본군은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이것은 조례의 첫 조항이였다.

우리 인민혁명군의 조직원칙을 규제한 조례의 두 번째 조항에서도 본군은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된 진정한 조선인민의 혁명군대라고 밝히였다.

군민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하였다.

– 본군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관병일치에 대한 조항을 아래와 같았다.

– 본군의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은 옹간애병, 관병일치의 정신에서 군기와 풍기를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잠행조례에는 일제와 그 주구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항일전쟁경비로 충당하며 그 일부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또한 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협동작전을 하려는 부대들과 본군을 동정하려는 나라와 인민들과의 공동전선을 도모한다는 조항도 밝혀져있었다.

이밖에도 잠행조례에는 인민혁명군의 군사편제와 각급 지휘관의 임면에 관한 사령부의 권한이 밝혀있었고 입대자격과 입대 및 탈대 절차, 처벌대상에 관한 범위가 규정되어있었다.

잠행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깃발과 휘장, 군모의 별도 규정되어있었다.

잠행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인민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군민의 하나로 되고 관병이 하나가 되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와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민이 학수고대하는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잠행조례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사랑이였다. 다시말하여 인민에 대한 사랑, 병사들에 대한 사랑, 지휘관들에 대한 사랑을 철칙으로 삼으라는 것이였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군민일치나 관병일치는 규정과 원칙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감정의 일치성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자면 군대와 인민, 지휘관과 병사, 상급과 하급 사이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인간적인 정이 동시에 통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하고 친근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정이야말로 사상을 공고하게 결합시켜주는 강력한 접착제로 된다.

그러고보면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그 누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문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를 뜨거운 정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법전, 사랑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작성하여 공포한 후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잠행조례가 공포된 후부터 군민관계, 관병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뜨거운 혈연적 관계로 더욱더 튼튼히 밀착되었다.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아사, 동사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없는 정황에서 감자 몇 알이라도 파갈 때에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본값의 몇배에 해당되는 돈을 밭머리나 감자움에 남기곤 하였다.

일단 주민부락에 들어가면 인민들을 도와줄 궁리부터 하였지 대접받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우리 부대가 장백현 20도구의 어느 마을에 체류하고 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때도 나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보이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그 집에서는 육순이 지난 노인내외가 어린 손자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고 있었다. 아들은 떼를 몰다가 비명에 죽고 며느리는 장질부사를 앓다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장정노력이 없는 그 집의 초가이영은 다 고삭아서 천정으로는 비가 새들고 토방은 무너져서 사람사는 집 같지 않게 어수선하였다. 나는 첫날 전령병들과 같이 마을 뒷산에서 새초를 여라문단 베어다가 이영도 갈아주고 토방도 고쳐 쌓아주었다.

그날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였다. 나는 갑자기 닭이 홰를 치는 소리를 듣고 혹시 족제비가 닭을 물어가지 않는가 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주인집 노인이 광솔불을 켜들고 있은 노친의 도움을 받으며 닭장안에서 닭을 붙잡아내고 있었다. 내가 노인더러 이 밤중에 닭을 왜 끄집어내는가고 하자 노인은 요긴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였다. 그 집 닭장에는 닭이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노인은 그 중에서 두 마리를 꺼내었다. 한 마리는 수탉이었고 한 마리는 살찐 암탉이었다. 우리는 이날 낮에 그 암탉이 알을 낳고 둥우리에서 내려와 한참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집 노인은 노끈으로 닭의 두 다리를 동여매더니 암탉은 부엌에 집어넣고 수탉은 옆구리에 끼고 사립문밖으로 나갔다. 무엇때문인지 안노인도 그를 따라나갔다. 그렇게 나간 다음에는 두세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토방에 나앉아 집주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노인내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타났는데 옆에 끼고 나갔던 수탉을 그대로 가지고 아주 낙심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노인님, 어디 가셨다가 인제야 오십니까?≫

≪말말게. 온 동네 쉬나문집을 다 돌고 오는 길일세.≫

영감이 수탉을 토방에 내려놓으며 하는 소리였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무슨 일이 생겼기에 내외분이 밤중에 그런 수고를 하는가고 물었다.

≪임자네 대장의 성함이 **김일성**이란 말을 들었네. 그래 이때까지 그분이 숙식하는 집을 찾다가 종시 못찾고 돌아오는 길일세.≫

≪그 집은 왜 찾자고 하십니까?≫

≪임자네들의 기특한 소행을 대장께 여쭈고 우리 영감노친이 큰절을 올리자고 했네. 임자네들의 신세를 지구 우리가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겠나. 약소한대루 대장께 닭이라도 한 마리 대접하자구 했더니 글쎄 ≫

노인이 맨처음으로 찾은 집은 웃마을에 있는 지주네 집이었다. 대장이라면 응당 동네에서 제일 덩지가 큰 집에 들었으리라고 짐작했다는 것이다.

노인은 동네에서 두 번째로 큰 마름네 집에도 가보았다. 그 다음은 동네의 쉬나문집을 빼놓지 않고 차례로 다 돌아보았다. 노인은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의지가지없이 가난하게 사는 늙은이라고 온 동네가 자기네를 괄세한다고 하였다.

≪하기는 이 늙은 것들이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대장앞에 나서겠나. 하지만 좀 너무해. 글쎄 제 집에 그분을 모시구두 여기 와서 찾으면 어쩌우 하고 놀려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보라구. 자네네 대장이 정말 어느 집에 드셨나?≫

주인집 노인은 온 동네를 다 돌아보고 와서도 제 집에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해본 것이 틀림없었다. 주인노인이 하도 궁금해하기에 나는 사실대로 신분을 밝히었다. 노인은 내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독립군이 마을에 드나들 때에도 중대장만 되어도 제일 큰집에 틀고앉아 소를 잡고 술추렴을 하기가 일쑤였는데 대장이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들 수 있는가고 하였다. 더구나 대장어른이 어떻게 이영을 갈아주고 토방을 쌓아줄 수 있으며 수수죽을 달게 자실 수 있겠는가, 자네도 역시 우리를 업수이여기고 그분의 행처를 숨기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몹시 노여워하였다. 이튿날 전령병의 말을 듣고서야 노인은 비로소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닭을 잡아 대접하겠다는 노인내외를 겨우 만류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러루한 일들은 한두 번만 있은 것이 아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군민일치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서 참으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만일 우리가 대오 안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철저한 복무정신을 확립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생존을 부단히 위협하던 그 준엄한 시련의 나날들에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혁명을 중도반단하였을 수도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가 나온 후 우리 혁명군은 관병일치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지휘관들은 대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대원들이 죽을 먹으면 지휘관들로 같이 죽을 먹었고 대원들이 눈위에 나뭇잎을 깔고 잘 때면 지휘관들도 눈위에 나뭇잎을 깔고 잤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사령관으로부터 소대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철저히 ≪작은 가마≫를 경계하고 반대하였다.

≪큰 가마≫, ≪작은 가마≫라는 말은 원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서 생겨난 것이다. 국민당 군대에서는 장교만 되면 일반 병사들이 끓여 먹는 큰 가마와는 별도로 작은 가마에 별식을 해먹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상하를 엄격히 구분하여 상을 절대적으로 우대하고 하를 절대적으로 박대하는 면에서는 일본군대가 아주 지독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오장정도만 되어도 하급병사들더러 발바닥이나 구두바닥을 핥게 하는 야만적인 기합과 처벌을 마음내키는대로 자행하였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에서는 ≪작은 가마≫를 절대로 허용치 않았다. ≪작은 가마≫가 있게 되면 별식의 특혜를 받는 특수층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그런 특수층과 큰 가마의 대중음식을 먹게 되는 광범한 대원들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말로는 만민평등을 곧잘 외우면서 먹는데서부터 구별을 두고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면 그런 위선자들을 어느 누가 받들고 따르겠는가.

우리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정황에 처하여있건 평대원들과 꼭같이 한 가마밥을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체가 한 가마밥을 먹는 것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인민혁명군의 군율로, 식사윤리로 되어있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도 모두가 꼭같이 하였기 때문에 대원들을 돌볼 의무를 지닌 지휘성원들은 사실상 대원들보다 오히려 적게 먹고 헐게 입고 못한 잠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우리는 ≪작은 가마≫를 반대하고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때 수도와 지방의 적지 않은 식당들에서는 뒤골방을 따로 차려놓고 간부들이 오면 별식을 대접하였다. 뒤골방을 꾸리지말라는 중앙의 신호가 여러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부문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작은 가마≫를 운영하였다. 이것은 결국 인민성이 없는 일군들속에서 특수화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어떤 일군들은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뒤골방이나 귀빈실로 안내하면 그것을 응당

한 것으로 여기면서 특대를 받으려고 하였다.

우리는 ≪작은 가마≫를 찬성하지 않는다. ≪작은 가마≫를 둬두면 온갖 ≪잡귀신≫들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가마≫에서는 자본주의사상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런 ≪작은 가마≫를 그대로 둬두면 당과 대중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튼튼히 건재하고 있는 것은 당이 관료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작은 가마≫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도 주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조선노동당이 작성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기초에는 반드시 인민성이 놓여있다. 인민성은 우리 당과 군대와 국가의 성격을 지배하는 기본인자이다.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인민성을 기본적인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은 당과 군대는 필승불패한다는 진리를 확증하였다.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복무하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닐 뿐 아니라 반인민성의 노골적인 표현이다.

자본주의 군대에서는 참다운 군민관계, 동지관계,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거기에는 오직 강압, 기만, 갈등, 대결, 맹종, 맹신이 있을 뿐이다. 슬픈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병사호상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인간본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먹어라. 내가 너를 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먹는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군대 안에서 장교들이 주입시키고 있는 인생철학이다. 이 철학에 의하면 ≪나≫ 밖의 존재는 모두 적으로 되고 포식대상으로 된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뉴기니아전선에 있던 일본군대 병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오늘도 자본주의나라 군대들에서는 군인들속에서 ≪너 아니면 나≫라는 야수적인 생존방식을 배양하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보다 공고하게 다져진 군민일치와 관병일치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올바른 영도밑에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군 군인들은 인민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이 군대를 돕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일로 되어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처녀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 그들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어준다.

날과 더불어 활짝 피어나는 군민일치의 모습을 보는데서 나는 무상의 행복을 느낀다.

인민군대 안에서는 관병일치의 전통도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자기의 자식이나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대원들을 구원한 영웅지휘관들도 많다. 전사들은 중대장을 맏형이라고 부르고 중대정치지도원을 맏누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로 되고 있는 중대안에서의 상하관계는 바로 이런 혈연적 관계이다.

우리 나라는 세상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만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군민일치, 관병일치이다. 그런 위력한 무기는 그 어떤 군사 과학이나 기술로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참다운 사랑만이 만들어낸다.

7. 양민보증서



조국광복회
신파지구
지하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우리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한 것은 1937년 3월, 서강회의 전야였다.

그 해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순도 박달도 권영벽도 김재수도 다같이 사람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바로 **김정숙**의 도천리파견이였다.

이제순의 신흥촌과 박달의 큰웅뎅이 마을을 연결하는 지하선이 함북도 전지역과 함남도의 동부지구에 우리의 지하조직망을 펼치기 위한 통로였다면 도천리와 신파를 연결하는 지하선은 함남도 서부 및 남부 지역과 국내의 내륙지대로 우리의 조직망을 펼치기 위한 통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도천리는 장백현 하강구지역의 중심위치에 있는 부락으로서 하강구지구는 물론이고 임강현을 포함한 남만의 광활한 지역에 조국광복회망을 펼쳐나가는데서나 그 망들과의 연계를 짓는데서 중심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였다.

도천리의 맞은편에 있는 신파는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대군이 집결되어 있는 흥남공업지대와 연계를 맺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곳으로서 동해안 남부지역과 내륙깊이에로 우리의 지하조직망을 뻗치는데서 아주 좋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였다.

우리가 신파를 특별히 중시하게 된 것은 국내지하선통로를 비교적 용이하게 개

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과도 관련된다.

신파에는 장해우(장효익)가 있었다. 우리 밀영에 찾아온 어떤 사람들은 장해우가 감방밥을 먹고 나온 다음에는 일개 소시민으로 전락되고만 것 같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신파 지하세계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타관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권영벽의 보고를 통하여 장해우가 소시민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하고 있으며 그가 벌써 김재수와도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해우는 독립운동자들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였다. 그는 우리 아버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자들과 망명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연해주쪽에 자주 왕래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 집에서 한두 밤씩 묵어가곤 하였다. 그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겸상을 하고 반주를 권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1920년대 중기에 독립운동 관련자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형기도 알 수 없었고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경위도 알 수 없었다. 해방 후에야 나는 공판때 그에게 차례진 형기가 7년이였으나 소화천황의 즉위일과 관련된 ≪은사≫로 그가 2년동안만 형을 지고 감옥에서 석방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혁명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나와 친분상으로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장해우가 신파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사업의 전도를 위해서 좋은 징조였다. 그 후 도천리지하조직을 통해 요해해본데 의하면 그는 성미가 약간 이지러졌을 뿐 속내는 여전한 것 같다고 하였다. 장해우가 기맥이 통하면 유력한 국내통로가 열릴 수 있었다.

장해우와의 공작에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 누구를 보내면 그 유망한 국내통로를 비교적 용이하게 개척해낼 수 있겠는가?

마땅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나도 김평도 머리를 썼다. 7연대 정치위원이었던 김평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는 비밀사업까지 겸하여 맡아보고 있었다.

싸락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나는 김평을 숙영지 우등불가에 불렀다. 그것은 우리가 되골령을 넘어 무송현 양목정자 밀영쪽으로 북상행군을 하고 있던 때였다. 초강초강하던 김평의 얼굴은 연속되는 전투와 장설행군에 시달려 몹시 수척해진 것 같았다.

≪신파통로 개척자를 내정했소?≫

나는 며칠전에 던졌던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김평은 그날 시원스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가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비끼였다.

≪내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깜장정숙이가 그 중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내가 점찍은 대상과 신통히도 같았기 때문이다.

≪깜장정숙≫이란 **김정숙**을 말한다. 우리 부대에는 정숙이란 이름을 가진 여대원이 셋이나 되었다. 장정숙, 박정숙, **김정숙**이었다. 누가 ≪정숙동무!≫하고 부르면 세 정숙이가 동시에 ≪예≫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런 광경이 이따금씩 즐거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지만 생활에서 불편과 혼란을 가져다주는 점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전우들은 그 세 정숙이를 가리켜 각각 ≪씩씩이정숙이≫, ≪퍼런정숙이≫, ≪깜장정숙이≫라고 구별하여 불렀다.

≪씩씩이정숙이≫라는 장정숙의 별명은 일할 때나 행군할 때 숨이 차서 씩씩거리는 그의 특징을 포착해서 지은 것이었다. 어떤 투사들은 그의 일거일동이 항상 기운차고 씩씩한데서부터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들어맞는 것 같다. 박정숙에게 ≪퍼런정숙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유격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푸른색깔의 치마를 입은데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깜장정숙이≫라는 **김정숙**의 별명도 그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시 유격구에서 생활할 때에는 물론, 혁명군에 입대할 때까지 단벌 검정치마를 입고 지냈기 때문이였다.

≪그가 신파개척의 중임을 꽤 감당해내겠소?≫

나는 김평이 **김정숙**을 적임자로 선택하게 된 사유를 알고 싶어 넌지시 의문을 던져보았다.

≪제가 연길현 팔도구에서 당사업을 할 때 정숙이는 저의 지도밑에 공청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빈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성중대의 정치사업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향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김평의 견해에 동감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그때까지 인간 **김정숙**을 완전무결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우리 부대에 배속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망국민의 생활을 하였고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혁명에 뛰어들었다. 내가 **김정숙**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소왕청 마촌에 있을 때였다. 왕우구 북동에 있다가 왕청에 온 연대원들이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말마디들속에 윤병도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이 두간두간 튀어나왔다. 그 나비같은 아이들은 자기네 아동단 지도원에 대해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는 연길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다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어온 이순희가 종종 **김정숙**을 회상하였다. 윤병도도 이따금 그를 화제에 올리었다. 어느 동네에 가나 한두 명씩은 꼭꼭 만나게 되는 ≪정숙≫이라는 그 평범한 이름은 그렇게 되어 내 기억속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김정숙**에 대한 뭇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가 대단히 담차고 이악하면서도 마음씨가 무척 곱고 동정심이 남달리 강한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정숙**에 대한 왕청시절의 나의 지식은 대체로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연길현 아동단연예대가 왕청에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40개의 붉은 넥타이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그때 8구 공청위원 겸 현 아동단연예대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정숙**은 그 선물을 받고 몹시 감격하였다고 한다.

김정숙은 마안산밀영에 와있던 4중대의 성원들 가운데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딱지를 함부로 붙일 수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였다. 하지만 좌경분자들은 그를 무턱대고 ≪민생단≫혐의자들의 중대에 배속시키였다. 너도 조선사람이니 혐의가 있건없건 ≪죄≫진 조선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심보였다고 본다.

김정숙은 그 불쾌한 처사를 오히려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그는 죄없이 죄를 들쓴 전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 결심이였다.

그는 ≪민생단≫혐의자들과 함께 한병실에서 숙식하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외형상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데가 없는 그 작달막한 몸매의 수수한 여대원이 온 중대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이유를 나는 그 후의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였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었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먹을 것이 차례지면 자기보다 체통이 크거나 나어린 대원들에게 덜어주었다. 정숙의 식사몫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 것은 기송동생의 짝패였



김정숙동지의 생가
회령집



추수투쟁대열의 선두에 서시어 대중을 투쟁에로 호소하시는 김정숙동지

다는 4중대 1소대의 곱슬머리 꼬마대원이였을 것이다. **김정숙**은 남들이 다 잠든 때에도 남성대원들의 꿰진 옷이나 신발을 기워주고는 하였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것이였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 매력이기도 하였다.

나는 임춘추, 김정필, 박수환을 비롯한 연길출신의 대원들에게서 반≪민생단≫태풍이 온 동만을 휩쓸던 시기 능지영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던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가만가만 날라다준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처녀의 덕에 억울하게 갇혔던 수난자들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 어린 처녀가 **김정숙**이였다는 것이다.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그도 ≪민생단≫ 감투를 뒤집어 쓸 수 있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 본 것은 삼도만류격구에서였지만 그의 경력과 가정애사를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1936년 봄 만강에 가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나는 동강회의에 내놓을 보고문 준비를 끝내놓고 개운해진 기분으로 경계초소들을 돌아보며 강기슭에 나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향수를 자아내는 청아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노래소리가 나는 웃쪽 시냇가에 올라가니 버들숲속에서 여대원 둘이 빨래를 헹구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대원이 **김정숙**이였다.

나는 그 날 처음으로 **김정숙**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것과 그가 5살인가 6살 되던 해에 온 일가가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회영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을 함북명승이라고 자랑한다. 6진중의 하나로 알려진 이 유서깊은 요새지가 항일혁명시기에는 일본군 나남 19사단 소속의 75연대 본부와 비행대가 자리잡은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의 작전지도에도 큼직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지금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나운규와 같은 영화재사가 나오고 조기천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배출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고향 도시가 유명한 백살구산지라는데 대해서도 자랑하고 있다. 백화난만한 봄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는 김정숙동지

회령을 찾는 사람들은 온 시가지가 백살구꽃속에 묻힌 풍경을 구경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숙**은 그처럼 아름다운 고장에서 몇 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의 눈에 비쳐든 것은 마적들이 먼지를 뿌옇게 일구며 싸다니는 북간도의 거치른 산야였다.

김정숙의 부모형제자매들은 그의 곁을 차례차례로 떠나갔다.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자였다. 적들에게 붙잡혀 악형도 많이 받고 풍찬노숙하는 가운데 동상도 심하게 입은 분이었는데 그 어혈로 중병에 시달리다가 일찍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불우한 운명의 낭떠러지에 선 아버지는 사랑하는 막내딸 정숙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짓물린 눈귀를 눈물로 적시며 남쪽 하늘가를 자꾸만 더듬었다.

≪나는 죽더라도 조선에 묻히고 싶었다. 흙이 되더라도 조선의 흙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소원마저 이룰 수 없을 것 같구나. 너는 어데 가서나 고향을 잊지 말고 조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조선을 위해 싸워라.≫

김정숙이 15살 되던 해에는 온 간도땅을 피바다에 잠근 침략자들이 부암동에 달려들어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의 어머니와 올케를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올케가 그에게 남긴 것은 아직 걸음마도 채 떼지 못한 젖먹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젖동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배고파서 보채는 조카애를 안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10리도 더되는 이웃동네에까지 가서 젖을 구걸했다.

김정숙은 애써 키워오던 조카애와도 생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가 유격대로 들어갈 때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8도구 광산에 가기로 되어있던 오빠 김기준이 그의 품에서 조카애를 억지로 앗아냈던 것이다. **김정숙**은 그 애를 유격구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결심하였으나 오빠가 종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발을 하루 미루었다.

다음날 새벽 ≪토벌대≫가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치였다. 총소리가 울리자 그는 무작정 조카애를 안고 산으로 올랐다. 그 길로 그냥 유격구로 들어갈 작정이였다. 그런데 오빠가 숨가쁘게 뛰어와 혁명할 각오가 덜 되였다고 그를 꾸짖였다. 혁명에 나섰으면 먼저 혁명부터 생각해야지 자기 집 식구나 생각해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는가, 애걱정은 말라고 하였다.

오빠는 우는 애를 안고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아마 그도 말은 모질게 하였지만 눈물이 나서 누이동생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이 두 남매의 영원한 이별로 되였다.

김정숙은 그 후 오빠도 조카애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오빠는 광산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 끝에 희생되였고 조카애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안개속에 사라진 새가 되였다. 단 한 점의 살붙이로 남아있던 동생 기송이마저 부암동에서 삼도만유격구로 이동해가는 장재촌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동단 신호나팔로 적 ≪토벌대≫를 유인해가다가 적의 흉탄에 맞아 최후를 마치였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고 거리에서 10대의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카애도 살아있으면 저 애들만큼 컸겠는데 하면서 남모르게 한숨을 쉬고는 하였다.

김평과의 담화가 있은 후 나는 **김정숙**을 사령부에 불렀다.

≪김재수동무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지하공작에 능숙한 사람들을 더 보내달라고 벌써 여러 번 요구해왔소. 날파람도 있고 지하공작경험도 많은 사람이지만 관할구역이 하도 넓다나니 상당한 정도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소. 그는 특히 부녀들과의 사업을 추켜세우지 못해서 무척 안타까와하고 있소. 부녀들을 지하조직에 끌어들이자면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노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겠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는거요. 동무는 도천리에 거점을 잡고 하강구 일대의 부녀사업을 지도하면서 김재수동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어야겠소.

하강구일대의 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신파에 건너가서 장해우와 손을 잡고 삼수지대에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시오. 그리고 흥남, 함흥, 북청, 단천, 성진, 원산 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공업도시들과 농어천들에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시오.

국내에 가서 비밀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인민혁명군의 보호하에 있는 장백에서 군중공작을 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요. 각별히 조심하여 일을 잘해주시오.

우리는 동무가 이 어려운 과업을 능히 수행하리라는걸 믿소. 곤란에 부닥칠 때마다 동지들에게 의거하고 인민들에게 의거하시오.≫

이것은 내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하면서 한 말의 일부이다.

도천리지구에는 이미 1936년 늦여름부터 우리의 공작선이 뻗어있었다. 정동철의 말에 의하면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이 도천리 산촌에까지 날아들던 그 무렵에 김원달이라고 하는 낯선 ≪도박꾼≫이 하강구 일대에 나타나 청년들속에 투전바람을 일구며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투전꾼들한테 주로 해대는 이야기는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1등과 3등으로 달린 것은 조선사람이였으나 시상식 때 깃발게양대에 오른 것은 일장기였다는 것이다.

작은 키에 동작이 민첩하고 영리하게 생긴 그 젊은 ≪도박꾼≫이 바로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 김재수였다. 그는 모험소설의 줄거리와도 같은 특이한 투쟁경력을 가진 인물이였다.

왕우구쏘비에트초대회장, 연길현당위원회서기, 동만특위조직부장　　이것이 1930년대 전반기의 그의 행로를 한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경력이였다.

그런데 순조롭던 그의 인생행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뻔한 곡절이 생기었다. 동만특위가 나자구로 옮겨갔을 때 그는 다른 특위성원들과 함께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어 헌병대에 끌려갔다. 적들은 김재수와 주명에게 전향문을 씌우고 각각 자기네 일을 도와달라고 강요하면서 임무를 주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체포당했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특위사업을 계속하라. 혁명조직들도 계속 만들라. 우리는 그것을 상관치 않겠다. 다만 새로 끌어들인 조직성원명단을 정상적으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적들은 특위급의 간부가 전향을 하였다고 쾌재를 올리었으나 김재수는 혁명을 다시 하기 위하여 가전향하고 가짜서약을 맹세하였을 뿐이다. 그는 적들의 비밀문건과 공작자금을 탈취해가지고 동만특위에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뒤늦게 특위를 찾아간 주명은 적들이 짜준 각본대로 조직을 속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장백현 하강구에 파견된 정치공작원 김재수

김재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신 당대열에서 제거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죽은 목숨이 되었지만 도덕적으로도 매장당한 몸이 되었다. 일조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투쟁권 밖으로 밀려난 그는 홀로 산골에 들어박혀 죽음보다 못한 가전향을 후회하며 번민속에 모대기었다.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신념과 의지, 정신도덕적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최상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혁명가들의 세계에서는 가전향도 허용할 수 없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공인되어 있다. 비록 가짜로 전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들에게 역선전할 구실을 마련해주고 진짜 변절자들에게 변절의 전례와 변명할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혁명가로서의 양심과 지조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적들앞에 전향을 선언하는 것은 찬양할만한 것이 못되는 것은 사실이다.

김재수는 적들을 속여넘기고 살아나가서 혁명을 계속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에만 집착했던 나머지 혁명가로서의 숭고한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이다. 그는 번민 끝에 우리가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사르고 1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완전히 백지화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결백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를 처단하든지 살리든지 그건 결심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혁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더 못견디겠습니다.≫

그때 김재수는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이렇게 하소하였다.

나는 김재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장백현 하강구 방면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김재수가 다시는 자기의 행적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가 조직앞에 솔직하였다는 것은 혁명적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다. 나는 그가 지니고 있는 그 양심을 믿었다. 김재수는 협애한 생각에 지배된 나머지 한번은 가전향하였으나 그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되는가를 깨닫고 체험한 이상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치욕의 길을 택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였다.

그는 가명을 가지고 천상수를 거쳐 도천리에 침투하였다. 처음에는 천상수의 조국광복회 지회장 이용술이 믿을만한 인물들이라고 소개하여준 정동철, 김두원, 김혁철(김병국) 등을 요해하느라고 투전판을 벌려놓았다. 하강구일대에는 그의 투전솜씨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었다. 김재수는 투전을 할 때마다 토씨를 끼고 그 토씨속에 화투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번개같이 눈속임을 하였다. 가보나 장땅 같은 높은

수가 나올 때에는 건들건들한 소리로 ≪어랑타령≫까지 불렀다.

내막을 알리 없는 늙은이들은 저 김원달인지 건달인지 하는 난봉꾼이 젊은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놓는다고 아우성이였으나 그들이 아부재기를 치는 사이에 투전판에서는 조직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조직은 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하강구위원회의 핵심조직으로 전환되였다. 김재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7년초까지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생겨났고 그 후에는 생산유격대도 조직되였다.

도천리로 파견된 **김정숙**이 처음으로 김재수와 접선한 곳은 바로 천상수사람들이 ≪안골집≫이라고 부르는 이용술의 집이였다. 그 집은 여덟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사는 보기 드문 대가정이였다. 이 집에서 조국광복회 천상수지회가 조직되였다. 이 조직의 지회장사업을 넷째인 이용술이 맡아보았다.

우리가 그 집 신세를 많이 졌다. 많은 우리 동무들이 지방공작을 나갈 때마다 그 집 신세를 톡톡히 지고는 하였다. 나도 1936년 말과 1937년 여름에 걸쳐 세 번씩이나 그 집에 폐를 끼쳤는데 첫 번째 갔을 때에는 사흘이나 묵었다. 화전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지만 그 집 사람들의 인심이 대단히 좋았다.

이용술의 맏형은 김재수의 부탁을 받고 우리 부대의 도장을 두 개나 새겨보냈다. 그 도장을 우리가 퍽그나 오래 사용하였다.



도천리 구장
조국광복회
특후회원 정동철

김정숙은 ≪안골집≫에 보름가량 머무르면서 지회사업을 방조하는 한편 사민으로 변신하여 공작할 준비를 하였다.

김정숙은 엄옥순이라는 가명으로 자기를 위장한 다음 무산에서 살다가 오는 이주민 가족으로 가장하고 도천리에 내려갔다.

자주색 저고리에 곤색 세루치마, 목이 긴 버선, 그것이 ≪무산집 새애기≫ 엄옥순이 도천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차림새였다. 함경도 사람들은 젊은 여인들을 새애기라고 불렀다.

도천리는 신파대안에서 30리쯤 떨어져있는 산간마을이였다. 출생직후부터 내내 도천리 한곳에서만 2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경력을 가진 위인찬의 말에 의하면 이 고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한일합병≫ 직후 조선에서 건너온 독립운동자들이였다고 한다.

1930년초까지만 해도 도천리는 독립군들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

그 후 농조운동에 참가하였던 선각자들이 국내에서 집단적으로 망명해오면서부터 도천리 일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조류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1936년 하반기부터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인민들에게 혁명바람을 불어넣었다. 도천리와 그 주변은 조국광복회조직들로 뒤덮이였다.

인민혁명군의 왕래가 잦아지고 도천리와 그 부근에서 유격대들이 연전연승의 전과를 올리는 가운데 이 일대에서는 인민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투쟁열의가 비등되었다. 반면에 적들은 공포에 떨었다.

적들의 공포상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있다.

도천리 학교앞에 샘물이 하나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샘물을 마시면 너무도 차서 이가 시릴 지경이였다. 일본경찰들이 그 샘물이 특별히 좋다는 소문을 듣고 원인을 해명하려고 저울에 물의 중량을 달아보았는데 다른 물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그런 샘치물을 마시니 도천리 새끼들이 눈깔이 새까만게 또릿또릿하구나. 모두 빨치산 새끼들이다!≫

적들은 이렇게 뇌까리면서 샘물을 메워버리려고 하였다.

그 소문을 듣고 정동철 구장이 경찰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물은 유격대들이 가며오며 마시는 물인데 그분들이 샘치가 없어진걸 알면 나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나요?≫

적들은 감히 샘물을 메꾸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도천리는 군중토대가 좋고 혁명역량이 강한 곳이였다.

김정숙은 농사일로 바쁘게 보내면서도 밤이면 나들이를 다니며 마을사람들과 얼굴을 익히였다. 얼굴을 익힌 다음에는 이름을 익혀두고 무슨 북청집이요, 갑산집이요, 흥남집이요 하는 집이름도 익혀두었다. 그가 후에 하는 말에 의하면 한주일 동안에 마을사람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집이름도 다 외워두었다는 것이였다. **김정숙**은 이 별치않은 일을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공정으로 보았다.

≪교원들도 학급을 맡으면 먼저 출석부를 놓고 학생들의 이름부터 익힌다질 않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속에 들어가니까요. 정치공작원도 교원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모르고야 인민들속에 들어가나요.≫

그가 도천리 공작을 마치고 돌아와서 김평에게 한 말이였다.

그는 사령부에서 받은 과업대로 자기 사업의 중심을 부녀공작에 두고 그들과 열심히 접촉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천리에는 여성들의 조직이 없었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집안살림에 파묻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그들을 몹시 구속하고 있었다. 간혹 여자들이 글공부를 하고싶어 야학방문앞에 가서 기웃거리기만 해도 늙은이들은 큰 변이라도 난 듯이 야단법석을 하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에서 여성혁명화를 빨리 다그칠 수 있는 기본열쇠가 노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사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에 비해 노



지하조지책임지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인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완고하였다. 그들은 신세타령은 하면서도 자기 운명을 개척할 궁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들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잘돼나갈 수 없었다. 실지로 **김정숙**은 노인들과 부녀자들 때문에 애를 먹은 실례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길림과 고유수, 오가자 일대에서의 우리의 활동경험이 이것을 잘 실증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이지만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에는 ≪변트로츠키≫영감이 암초로 되었다. 그 노인을 휘어놓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수 없었으며 도대체 조직을 내올 수 없었다. 우리는 ≪변트로츠키≫영감을 쟁취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곳에 반제청년동맹을 내올 수 있었다. 고유수의 현하죽도 우리의 중요한 사업대상이였다. 현하죽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였기 때문에 나는 고유수에 갈 때마다 선참으로 그에게 들려 인사도 하고 어머니의 안부도 전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은 원래 노인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도천리에서 노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경험을 들어보았는데 의식적인 공작이라는 감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김정숙은 사람들을 공작대상이나 교양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순수한 보통인간으로 대하였다. 설사 공작상 필요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될 인물과 교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를 피교양자의 위치에 놓거나 자기를 교양자의 위치에 놓지 않고 정든 이웃을 대하듯이 예사롭게 대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인민들의 신임을 받는 딸이 되고 이웃이 되었다. 이것이 지하공작원으로서의 **김정숙**의 중요한 특징이였다.

나도 일생을 통해 절실히 체험한 바이지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먼저 인민의 아들딸, 인민의 충복, 인민의 벗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인민을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선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인민의 선생, 인민 위에 군림한 관료, 인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인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인민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김정숙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김정숙**의 정성은 참으로 돌위에 꽃이라도 피울 수 있으리만큼 지극하였다. 이 과정에 노인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도천리 혁명화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한번은 유가골 지주가 열병에 걸린 부엌데기 소녀를 산중초막에 내버린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불쌍한 소녀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김정숙**은 꺼리낌없이 초막에 찾아가서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며 병구완을 해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무들이 초막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살릴 가망도 없는 아이 하나때문에 위험천만한 자선모험을 하다가 감염되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령부에서 준 큰 임무는 어찌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돌봐주더라도 침식을 같이하는 것만은 제발 그만두라고 말리였다.

김정숙은 웃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였다.

≪걱정말고 돌아가세요. 목숨이 두렵다고 아이 하나 살려못낸다면 나라는 어떻게 찾고 인민은 어떻게 구원해내겠어요? 인민을 살리자고 내댄 목숨인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동무들은 **김정숙**을 그 초막에서 끌어내지 못하였다.

김정숙은 끝끝내 그 불쌍한 소녀를 살려냈다. 도천리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우리 옥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 한마리가 생겨도 그들은

≪우리 옥순이≫를 찾았고 갓난애기의 백날잔치를 차려도 ≪우리 옥순이≫부터 찾았다. **김정숙**은 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딸로 되였고 손녀로 되였고 누이로 되였고 언니로 되였다.

그는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다심히 보살펴주면서도 하강구 지역의 혁명화를 다그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재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 해 2월 김재수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보내준 ≪3·1월간≫을 조국광복회조직들에 배포해주다가 그만 마지막 한부를 몸에 지닌채 적들의 눈에 걸려들었다. 경찰서에 잡혀간 그는 글 한자 읽을줄 모르는 머저리 시늉을 하면서 떼를 썼다.



신파지구당
조직성원 서재일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얻은 책이오다. 담배종이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째 빼앗소? 그걸 빨리 도루 주오다.≫

적들은 그를 천치로 인정하고 일단 놓아주었다. 그러나 뒤에 돌아앉아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였다.

한때 김원달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하강구 일대를 왔다갔다하던 김재수는 도천리 본부락에 사는 이효준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처를 옮기면서부터 그의 4촌형으로 가장하느라고 ≪준≫ 자 돌림의 이름을 고르던 끝에 이영준으로 변성명을 하였다.

김정숙은 김재수와 함께 적들이 뒷조사를 걷어치우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을 의논하였다. 두 사람은 적들에게 ≪이영준의 천치성≫을 확증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들이 짠 각본에 따라 이튿날 이효준이네 집에서는 동네방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새파랗게 젊은 이효준의 처가 자기 집에 홀아비로 얹혀사는 ≪사촌시형≫이영준을 방치로 때려 내쫓는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 여자는 머저리 시형이 집안물건들을 계속 훔쳐내다가 투전을 붙어먹어서 자기네는 알거지로 되였다고 마구 고아대며 대성통곡하였다.

처가 집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효준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투전밖에 모르는 머저리 4촌형 때문에 패가망신을 하게 됐으니 호적부에서 형이름을 지워버리고 내쫓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한편 ≪머저리 시형≫도 ≪3·1월간≫잡지 한 권을 빼젓이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리님들이 좋아하는 이 책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효준이하구 우리 제수가 나를 때리지 말구 내쫓지두 말게 해주시오다≫하고 사정을 하였다.

≪3·1월간≫을 본 경관들은 눈들이 휘둥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재수는 이전날 유격대와 일본군이 접전한 삼개골 싸움터에서 얻었다고 대꾸하였다.

≪그전에 나리님들이 탐나서 빼앗은 그 책두 실은 거기서 얻은건데 우리 마을 포대 산에서 얻었다구 꽝포를 놨소다.≫

경관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자 김재수는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고 히죽히죽 웃었다.

≪그 자리에 가면 이런 시계랑 만년필이랑 돈이랑 별의별 것이 잔뜩 널려져있는데 그 걸 대주면 남의 손에 다 들어가고 말지 않소다? 우리 동생네가 나를 내쫓지 못하게만 해주면 내 나리님들한테 노다지가 있는 자리를 대주겠소다.≫

경관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영준의 천치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뒷조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정동철, 유영찬, 김혁철, 이철수를 비롯한 도천리의 선각자들과 혁명적 군중은 **김정숙**의 지하공작과 신변호위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김정숙**을 위해 신파에 건너가서 그가 읽을 수 있는 신문까지 정기적으로 얻어왔다. 정동철이 신파 조직성원인 잡화점 주인에게 구독료를 주면 그는 자기 이름으로 신문을 신청하였다. 신문이 나오는 족족 포장지 대용으로 상품을 싸서 넘겨주든가 그대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김정숙**은 정기적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정동철은 관혼상제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을 초청하여 도천리에 찾아오는 유격대 공작원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다른 지방에서 찾아오는 지하조직의 연락원들과도 만나게 해주곤 하였다.

1937년 여름에 그의 집에서는 생남잔치를 차리었다. 그 잔치에는 유격대에서 갓 파견되어온 ≪펴런정숙≫(박정숙)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순사며 구장이며 밀정들도 참가하였다.

정동철은 적들의 감시로부터 공작원들을 철저히 위장시키기 위하여 그들끼리 서로 맞절을 시키었다. **김정숙**은 관례대로 박정숙과 맞절을 하였다. 그는 ≪펴런정숙≫앞에 엎드려 ≪처음 뵙겠습니다≫하면서 큰절을 하였다. **김정숙**은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서 물동이를 이는 법과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법도 숙달하였다. 단오명절을 앞두고는 여러 날 밤을 그네뛰는 연습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여성지하공작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필수적 공정으로 여기었다.

그가 도천리를 혁명화하는데서 중심고리로 잡은 것은 군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이었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걸고 우리의 혁명사상을 정력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런 과정에 지도핵심들을 소문없이 키워냈다. 그리고 그 핵심들로 반일청년동맹도 조직하고 부녀회도 조직하였다. 조용하던 산골마을은 드디어 우리의 위력한 활동지반으로 되었다. **김정숙**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옹군애병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부녀회원들, 청소년들과 함께 원호물자들을 준비하여 부대에 보내주고는 하였다. 그가 원군교양을 얼마나 잘하였던지 도천리 부락에서는 산동지방에서 온 중국이주민들까지 발동되어 인민혁명군에 원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아동단원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총탄을 수집하였다.

원군운동의 최고형태는 참군이었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 하강구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조직을 통하여 장악한 핵심들 중에서 파악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인민혁명군에 참군시키었다. 정동철의 회상에 의하더라도 하강구일대에서 혁명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수는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도천리부락에서만도 김혁철, 유영찬, 이철수, 최인덕, 한창봉 등 10여명이 입대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한창봉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연대를 이끌고 낙동강을 희생적으로 도하하였으며 강대안의 산고지들을 견지하는데서 특출한 군공을 세웠다.

김정숙의 지도를 받던 세 아이를 가진 요방자의 부녀회 회장 윤어복은 두 살난 아이를 업고 80리도 넘는 우리 밀영에 찾아와 자기를 유격대에 보내달라고 강떼를 썼다.

참군열도가 어찌나 높았던지 어떤 집에서는 자



이곳에서 조국광복회 장백현 하강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식을 유격대에 보내고는 그 자식의 가짜무덤을 만들어놓고 제사까지 지냈다. 유격대 가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심하다나니 그런 방법으로라도 적들을 속여넘기자는 것이였다.

김재수의 ≪3·1월간≫ 배포탄로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되여 우리는 **김정숙**의 신파공작을 뒷받침해줄 목적으로 최희숙을 요방자에 파견하였다. 최희숙이 오자 **김정숙**은 도천리를 비롯한 하강구 지구의 부녀회, 청년회, 소년회 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그에게 맡기고 신파공작에 주력하였다.

김정숙의 신파공작은 장해우와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당시 장해우는 신파지구에서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과 함께 반일혁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도천리구장이며 조국광복회특수회원인 정동철과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이였던 장해우, 임원삼, 서재일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호상기맥이 통하기 시작하였다.


신파지구 당 조직책임자 장해우

서재일은 세탁공으로 일하면서 조직공작에 투신하였으며 **김정숙**과의 연락임무도 수행하였다.

장해우와 그 조직들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요해장악하기 위하여 **김정숙**은 정동철로 하여금 장해우네 조직성원인 임원삼과 결의형제를 맺게 하였다. 그는 정동철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요해를 한 기초위에서 마침내 장해우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나섰다.

김정숙은 석전양복점 뒷방에서 처음으로 장해우를 만나보았다. 그 날 **김정숙**은 장해우에게 나의 친서를 전하였다.

≪**김일성**장군이 김형직선생의 자제분 김성주라니 이 장해우는 형직선생을 따를 때처럼 장군을 따르겠소.≫

장해우가 그런 소신을 밝혔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그때 **김정숙**의 신파공작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였다.

장해우는 연령이나 투쟁연조 따위를 계산하며 콧대를 세우거나 옹졸하게 구는 시시한 혁명가가 아니였다. 의로운 것이면 조건없이 따르고 지지하였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대의와 대업을 위하여서는 서슴없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였다.

장해우는 얼마 후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로 조국광복회신갈파지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같은 시기에 김재수와 **김정숙**의 지도밑에 석전양복점 뒷방에서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직속 신파지구당소조도 결성하였다.

조국광복회 지회결성모임은 광선사진관에서 진행되었다. 그 사진관의 2층 사진수정실은 **김정숙**이 가장 많이 이용한 비밀연락장소였다.

광선사진관을 운영하는 이순원은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의 핵심성원이였다. 그는 서울에 가서 사진강습소를 나온 다음 사진관을 차린 사람이였다. 이순원은 사진도 잘 만들고 인망도 높고 접촉성도 좋아서 그를 내세우면 사람들과의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많은 적측자료들을 촬영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언제인가는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파전경도 찍어서 보내주었다. 그 집 사진현상실에서는 삐라도 많이 찍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조직의 비밀사업을 묵묵히 뒷받침해준 성실한 방조자였다.

김정숙은 광선사진관 외에도 석전양복점, 샘물터국수집, 신파객주집, 사발상점, 물방아집을 비롯한 신파지구의 여러 곳에 비밀연락장소와 비밀사업장소들을 정해

놓고 그곳에 은밀히 드나들면서 지하활동을 하였다.

샘물터국수집, 신파객주집, 사발상점 같은 곳은 조직원들의 접선과 연락을 위한 장소로 많이 이용된 동시에 유격대에 보낼 원호물자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되였다.

원호물자의 기본운반통로로 이용된 비밀지점은 물방아집이였다. 읍거리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그 물방아집은 적들의 시선이 덜 미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를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아주 편리하였다. 그 집주인의 친척되는 사람이 뗏목군이어서 원호물자들을 압록강 너머로 넘겨보낼 때에는 그의 도움을 쉽사리 받을 수 있었다. 물방아집 주인이나 뗏목군도 역시 조국광복회 회원들이였다.



신파지구 당
조직성원 임원삼

신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로 많은 원호물자들이 들어왔다. 13도구에는 물품들이 많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백현 하강구 일대의 조직들에서도 원호물자의 대부분은 압록강 건너쪽의 신파에서 사들여와야 하였다.

신파지구조직들에서 유격대에 보내오는 식량, 천 같은 다량의 원호물자들은 대부분 물방아집 아지트와 오함덕객주집을 통하여 뗏목이나 나룻배에 실려 압록강을 건너가고는 하였다. 오함덕객주집은 가족단위로 무은 특수분회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백두산밀영과 삼수에도 다녀왔으며 신흥, 흥남, 북청, 단천을 비롯한 동해안 지구에 나가 이 지대 혁명가들과의 사업도 심도있게 하였다.

아안리와 오함덕의 비밀연락장소들은 주로 타지방공작원파견아지트로 많이 이용되였다. **김정숙**은 부전, 장진, 신흥, 흥남 일대에 가게 되는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은 주로 아안리분회 책임자의 집에서 파견하였고 갑산, 북청, 덕성, 단천 일대에 가게 되는 성원들은 오함덕 비밀연락장소들을 거점으로 하여 파견하였다. 흥남공업지구에 지하혁명조직을 꾸릴 임무를 주어 파견한 위인찬공작조를 떠나보낸 곳도 아안리아지트였다.

김정숙과 신파지구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아지트들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조직들을 넓혀나갔다. 그는 절대로 고정된 아지트를 쓰지 않았다. 자신을 변장해가며 여러 가지 비밀연락지점들과 공작장소들을 엇바꾸어 재치있게 이용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직을 위장하는데도 좋았고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좋았다.

김정숙이 도천리에서 돌아온 다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신파경찰들의 눈이 올빼미눈이라는데 동무는 무슨 수를 써서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았는가. 신파시내에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도 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김정숙은 대답대신 웃으면서 신파에 건너갔다가 밀정의 미행을 당하던 일화를 말해주었다.

≪신파도선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허즐한 농립모를 쓴 어떤 사람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미행인줄 몰랐는데 제가 시내에 들어선 다음에도 그 사람 이 그냥 내뒤에서 어물거리는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음식점앞에서 소일거리삼아 담배를 꺼내물었는데 그게 마라초가 아니고 가치담배였습니다. 그 가치담배를 보니 수상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들이야 어디 가치담배를 피웁니까.≫

김정숙은 골목과 골목들을 에돌며 밀정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장마당안에 들어가 어린애를 업고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떤 낯익은 여인의 짐을 날래게

받아 이었다. 그러는 바람에 밀정은 그를 놓치였다.

≪제가 밀정들이나 경찰들의 손에 걸려들지 않은 건 책임성 때문이였습니다. 놈들에게 붙잡히면 사령부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저절로 대담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중이 저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였습니다.≫

김정숙의 이 말은 도천리-신파지구공작에 대한 그 자신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그로 하여금 어려운 적구공작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은 바로 책임성이였으며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것이였다.

그가 적구지하공작에서 발휘한 놀라운 창발성도 결국 이런 책임감으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우리는 그를 도천리로 파견할 때 정치공작과 관련된 지시만 주었지 다른 과업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적구공작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정숙**은 정치공작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부대의 활동에 필요한 군사정보들을 수시로 수집하여 사령부에 보내주었다.

그는 도천리와 신파의 지하조직들을 발동하여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정동철, 장해우, 임원삼을 비롯한 혁명가들이 그에게 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정동철은 정보공작의 능수였다. 경찰서장, 세관장, 면장을 비롯한 적통치기관 우두머리들과 결의형제를 맺고 그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살금살금 비밀을 뽑아냈다. 이 결의형제패에는 13도구의 관청 우두머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파에서 파견된 고등계 형사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정동철은 그들을 위해 자주 술추렴을 마련하였다. 아편을 좋아하는 관리들을 위해서는 약담배먹기도 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하강구 위원회에서는 적기관에 회원들을 교묘하게 박아넣었다. 13도구 경찰서 관하에만 해도 2-3명의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 침투하였다고 한다. 적의 행정말단 단위의 심부름군인 구장들과 십가장들도 대부분 혁명조직에 망라되었었다.

임원삼은 정안군 연대본부에 가서 필사작업을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군사비밀들을 수집하였다. 그는 혁명군의 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작전도나 통계자료가 나오면 종이에 날쌔게 기록하고는 꾸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저녁에 휴지들을 불태울 때 다시 꺼내어 조직에 가져다주었다.

광선사진관과 석전양복점은 적정자료수집과 연락장소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신파지회 산하의 조국광복회 회원들 가운데는 면사무소나 금융조합 같은 적기관에서 서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적정자료를 수집하여 광선사진관이나 석전양복점에 집결시켰다가 조직에 통보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은 간삼봉전투때에도 바로 이 지구의 아지트를 통하여 김석원이 인솔하는 대군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날날이 조사수집하여 제때제때에 사령부에 통지함으로써 인민혁명군의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정숙은 조직성원들을 발동하여 신파일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경들의 병력과 군사시설 배치상태, 무장장비상태를 조사장악하고 압록강의 너비와 깊이, 유속, 지어는 도하와 철수에 유리한 지점까지 직접 확인한 다음 필요한 약도까지 작성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도천리 공작정형을 총화할 때 **김정숙**의 이 창발적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도하와 철수에 필요한 지점들은 어떻게 되어 조사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더니 우리 혁명군이 아무 때건 신파도 공격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

다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였다.

1937년 여름에 **김정숙**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도천리의 부녀회원들이 우리 출판소에 보내려고 장만해두었던 종이통구리들이 정안군의 수색과정에 발견되였는데 그것이 화근으로 되였다. **김정숙**은 그 종이통구리는 정동철 구장의 부탁을 받고 주민대장용으로 쓰기 위하여 자기가 사다 보관시킨 것이였다고 그럴듯하게 변명해나섰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사리정연한 대답이 적들의 부아를 돋구어주었다. 말문이 막힌 채 약이 오른 장교는 네가 겁도 먹지 않고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혁명군의 스파이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그를 결박하여 자기들의 부대본부가 있는 요방자로 끌고 갔다.

김정숙은 최후를 각오하고 조직에 보내는 유서를 썼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연필로 씌여진 그 유서쪽지와 2원의 돈은 그가 갇혀있는 집 노파의 손을 거쳐 그 옆집에 전달되고 다시 정동철을 거쳐 조직에 전하여졌다.

조직에서는 성원들을 발동하여 비상구출작전을 벌이였다. 도천리의 조직원들은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정안군 부대 본부에 찾아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을 불법 체포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도천리 조직원들의 항의투쟁이 마침내 은을 내였다. 정안군 부대 본부에서는 부대이동을 구실로 **김정숙**을 14도구 경찰서에 넘겼다.

정동철은 **김정숙**은 그 경찰서에서 13도구 경찰서로 이송시키도록 교섭하였다.

13도구 경찰서가 한 급 높은 1급 경찰서였기 때문에 **김정숙**을 거기로 이송시키



장백지구 조국광복회 부녀회원들의 유격대원호물자운반사업을
조직지휘하시는 김정숙동지



지하정치공작 임무를 마치시고 부대로 돌아가시는 김정숙동지

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였다.

김정숙은 두손을 묶이운 채 압송당하였다. 그 두 경찰서 사이에 도천리부락이 있었다.

그가 경찰들의 호송하에 도천리 부락을 지난 것은 한낮이 조금 지난 때였다.

신도 없이 맨발로 경찰들의 총부리에 떠밀리우며 걸어가는 ≪무산집 새애기≫의 결박당한 모습을 보게 된 도천리 마을사람들은 비분의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다. 한 할머니는 짚신짝을 들고 길바닥에 달려나와 **김정숙**의 피흐르는 발에 신겨주면서 그를 호송하는 순경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놈들아, 우리 옥순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생사람을 잡아가느냐? 네놈들이 우리 옥순이를 공산당이라구 잡아간다는데 옥순이 같은 사람이 공산당이라면 나도 공산당을 따라가겠다!≫

정동철은 그 길로 **김정숙**을 뒤따라가서 13도구 경찰서장에게 석방교섭을 들이댔다. 경찰서장은 500명분의 양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김정숙**을 ≪양민≫으로 인정하고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찰서장이 그와 같은 엄청난 양의 보증서를 요구한 것은 차후 상급에서 문제시하게 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증빙문건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바치라는 것만치나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러나 정동철은 그들이 요구하는 보증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서 서장의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서장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으로 놀랐다. ≪역적≫이나 ≪공비≫로 지목된 ≪불온분자≫를 ≪양민≫으로 인정하는 보증서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지장을 누르려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대중심리였다. 경찰서장은 정동철과의 ≪우정≫ 때문에 체면상 양민보증서를 받아오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500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런이 찍혀있는 양민보증서, 실로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가? 200여 호밖에 안되는 도천리마을에 그렇게 많은 지하조직원이 있었을 수도 없다. 아무리 조직이 발동되었다 해도 조직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 숱한 비조직원들이 모두 남의 풍에 떠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보증서에 함부로 도장을 누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뭇사람들로 하여금 양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르게 할 수 있은 것은 **김정숙**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이였고 지지였다. 달리 말하여 강권이나 금권보다도 더 위력한 인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 것이다.

적들의 마수에서 무사히 풀려난 **김정숙**은 도천리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속에 에워싸이기 바쁘게 ≪아이구, 난 배가 너무 고파서 혼났어요. 형님, 나 밥부터 줘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집안식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허물없는 말이다. 그가 도천리사람들을 한집안 식구처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선뜻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해방 후 흥남시인민위원회위원장사업을 하던 임원삼이 회의차로 평양에 올라왔던 기회를 타서 옛날의 도천리, 신파 친구들이였던 장해우, 정동철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장해우와 정동철은 그 당시 중앙의 주요직무에서 일하였다. 평남도민주당위원회위원장사업을 하던 김재수도 함께 왔었다. 그 날 **김정숙**은 손님들을 위해 교즈를 빚었다. 그 날의 화제는 자연히 도천리－신파시절로 흘러갔다.

김정숙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사경에서 구원되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눈물을 지었다. 그는 불쑥 자기는 요방자에 잡혀가 감금당했을 때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노라고 말하였다.

≪사실 보초 하나쯤 제끼고 내뛰는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제가 갇혀있던 집의 늙은 내외의 가긍한 정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초를 제끼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가기는 쉽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집 늙은이들은 어떻게 되고 나를 좋은 여자라고 보증해나선 정구장은 어떻게 되고 도천리의 지하조직과 인민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와 시달림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조직을 지켜내고 인민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기였습니다. 저는 그 날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 웃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신을 바치려고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운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천리－신파시절의 ≪무산집 새애기≫의 모습이였다.

양민보증서의 덕으로 역경에서 구원된 **김정숙**은 얼마동안 도천리지구와 국내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사령부로 돌아왔다. 그가 부대로 돌아올 때 조국광복회 도천리지회 성원이였던 유영찬도 같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김정숙**의 보증으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우리가 하바로프스크 주변의 훈련기지에서 대일작전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1944년 유영찬은 야영지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배로 실어 나르다가 불행하게도 아무르강에서 익사하였다.

김정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회상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이 도천리를 떠날 때 그를 따라가려고 결심한 사람은 비단 유영찬뿐이 아니였다고 한다. 부녀회원들도 울면서 그를 따라오며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는 것이다.

한 부녀회원은 **김정숙**이 포대산을 넘을 때까지도 그냥 그에게 매달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정숙은 달래다 못해 자기가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부녀회원의 손에 끼워주고 그가 띠고 있던 빨간 허리띠를 풀어 자기의 허리에 띠였다. 털실로 뜬 빨간 허리띠는 그 여자가 **김정숙**의 보증으로 부녀회에 가입하는 날 기념으로 손수 떠서 자랑삼아 띠고다니던 소중한 치장품이였다.

≪데리고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나혼자 떠나는거니 섭섭해말아요. 나는 이 빨간띠가 다 해어져서 마지막 실 한 오리가 남을 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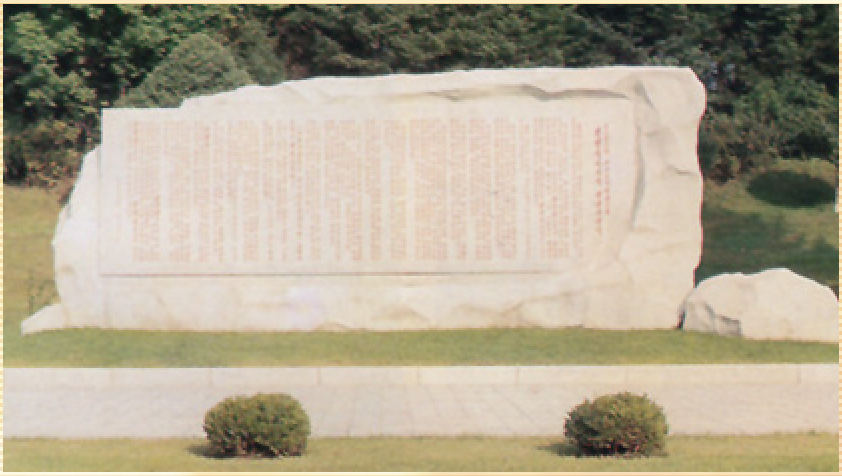
지 품고 다니며 정든 도천리 사람들을 잊지 않겠어요.≫
그 유정한 말을 받아안은 여인은 더 이상 따라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가서 소식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 약속대로 부대에 돌아와서도 늘 군복안에 그 빨간털실허리띠를 띠고 지냈다. 나는 그와 결혼한 다음에야 그의 허리에서 한 번도 풀려본 적 없는 빨간 허리띠에 깃든 사연을 알게 되였다.
그 띠와 함께 **김정숙**은 늘 인민의 체온을 자기 몸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의 넋은 언제나 인민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한다. 어떻게 되어 **김정숙**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속에서 어려운 지하공작을 해낼 수 있었을까?
만일 **김정숙**이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 것만큼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양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이 도천리를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1991년 가을에 나는 양강도지방을 현지지도하다가 그가 심혼을 바쳐 개척한 신파땅을 찾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때였지만 그의 지하활동과 관련된 사적물들은 옛모습 그대로 고이 보존되어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유물들과 사적지들에 바친 신파사람들의 정성은 실로 탄복할만한 것이었다.
그 날 강사들은 **김정숙**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사적지로 나를 일일이 안내하면서 그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 설명가운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세부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압록강기슭에 옛모양 그대로 서있는 음험한 포대를 바라보면서 **김정숙**이 그 고장을 혁명화하느라고 모험도 많이 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무렵에 정거장으로 나오면서 신파거리를 뒤돌아보니 어쩐지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신파혁명사적관



신파혁명사적지에 모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동상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혁명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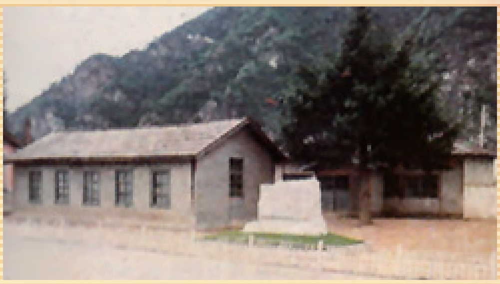
신파혁명사적지-글을 배워주신 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객주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나루터 헌시비



신파혁명사적지-헌병대를 정찰하신 곳



신파혁명사적지-물레방아집



신파혁명사적지-박주평비밀도강장소



신파혁명사적지-광선사진관



신파혁명사적지-도천리합숙



신파혁명사적지-샘물터국수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귀틀집



신파혁명사적지-물레방아간



신파혁명사적지-포목점



신파혁명사적지-동구나루터 표식비



신파혁명사적지-오함덕 객주집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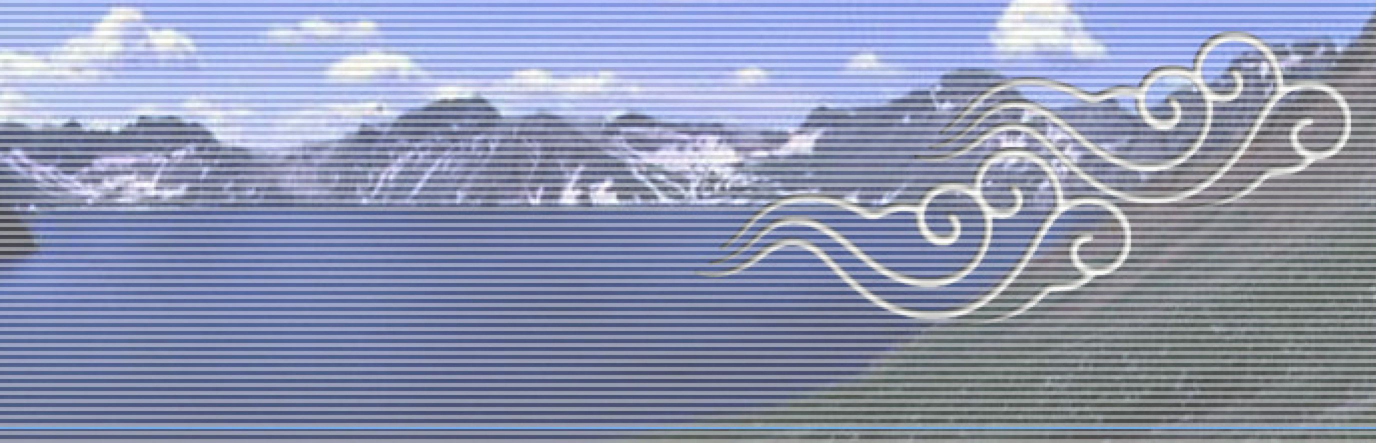
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17장 조선은 살아있다

18장 중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 시기 : 1937. 3 ~ 1937. 5

1. 무송원정

도천리와 이명수에서 ≪동기대토벌≫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던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후 나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장백산줄기를 넘어 북상행군의 길에 오를 결심을 하였다.

내가 무송원정안을 공포하였을 때우리 부대의 대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하였다. 이제 당장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답새기게 되었다고 가슴들을 들먹이며 명령을 기다리는 때에 갑자기 북상행군이라는 웬일인가, 모처럼 개척한 서간도와 백두산을 등지고 북으로는 왜 간다는 것일가, 이것 참 모를 일이다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되어가는 때에 부대가 무송으로 원정을 떠나야 할 이유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당시는 우리 군민이 사기가 절정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던 시기였다. 적들과의 거듭되는 혈전에서 우리는 연승하고 있었다. 적의 발악적인 ≪토벌≫공세와 정치, 경제, 군사적 봉쇄작전에도 불구하고 유격대오는 새로운 참군자들로 나날이 확대되였으며 무장장비와 전투력은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었다.

백두산지구와 압록강연안 일대는 온통 우리 세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의 손에 튼튼히 장악되어 있었다. 우리의 지하조직망들은 서간도전역으로 조밀하게 뻗어갔다. 남호두를 떠날 때 우리가 세웠던 일차적 목적은 성과적으로 달성된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진공작전이였다. 하루빨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해야 조국강토에 반일민족 통일전선의 선풍도 세차게 일굴 수 있었고 새 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도 본격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었다. 조국에 진출하여 원쑤들을 징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가장 큰 꿈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인민들의 가슴에 타 번지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국내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진출을 얼마나 고대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지양개에는 난덕이라고도 부르고 나하덕이라고도 부르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다. 이 마을의 구장이며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인 유호는 원군사업을 잘하였다. 언제인가 그는 후방물자를 가지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일이 있다. 그런데 그간 인솔해온 짐군들속에는 갑산에서 들어온 농민도 세 사람이나 있었다.

그때 갑산 사람들은 좁쌀과 귀밀 미시가루 그리고 미투리를 잔뜩 짊어지고 경계가 삼엄한 압록강을 건너 우리 밀영에까지 찾아왔다. 그 많은 후방물자를 셋이서 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백두산 원시림속에서 향방을 잃고 헤매는 동안 몇 끼씩이나 굶으면서도 원호미만은 한줌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밀영까지 지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미투리에 깃든 사연도 그만 못지 않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온 미투리는 자그마치 200여 켤레나 되였다. 삼오리를 꼬아 신총을 만들고 신바닥에도 삼오리에 누릅끈을 섞어 정성스럽게 삼은 그 미투리들은 하나같이 맵시가 있고 탐탁한 것들이었다.

김산호가 갑산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자 그들은 어쩔 바를 몰라하였다. 옛말에

나오는 도사처럼 채수염을 길게 드리운 좌상영감은 김산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장수들에게 미투리밖에 삼아올리지 못하는 이 불충불의한 백성들을 용서해주시외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노고라고 하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초라한 신발들이지만 이걸 군화 삼아 신고 우리 갑산 땅에서도 저 섬나라 오랑캐 놈들을 요절내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린 그저 혁명군만 기다리겠소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군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비단 갑산의 농민들뿐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원군물자를 지고 우리 밀영에 찾아왔던 경상도 출신의 이병원 노인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다.

≪장군님, 대체 언제쯤이면 저 쪽발이들을 조선 땅에서 내쫓게 되겠는지 내 생전에 그런 날을 보게 될까요?≫

조국동포들이 우리에 대해 품고 있은 불같은 그리움과 따뜻한 정을 우리는 거의 매일매시마다 절감하고 있었다. 갑산사람들이 마련해온 미투리를 한 켤레씩 받아안은 우리 동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시가 새롭게 조국에 진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염원에 휩싸여 있었다. 나의 심정 역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전우들에게 조국방향과는 정반대 되는 북쪽방향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의혹을 금치 못해하는 전우들에게 북상행군을 후퇴라고 생각하지말라, 우리는 북행길에 오르지만 그것은 사실 조국으로 가는 남행길이나 다름없다, 조국으로 나가자면 부득불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잠시 무송 쪽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국내진공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무송원정을 작전하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한 기본목적은 이정화령의 영활한 전법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백지방에 집결되고 있는 ≪토벌대≫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적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림으로써 이 일대에서 번성하고 있는 지하조직망 건설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적들은 1936년 겨울의 ≪동기대토벌≫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을 고립압살시키려는 기도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조선강점군과 국경수비대를 비롯하여 위만군과 경찰대의 방대한 역량을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에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주동에 튼튼히 서서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혁명을 줄기차게 상승시키자면 활동지역을 얼마동안 다른 고장으로 옮겨야 하였다. 그래야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서간도와 국경일대의 혁명운동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백에 집중되고 있는 적들의 ≪토벌≫역량을 분산시키고 압록강연안의 혁명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도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었다. 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가서 대부대활동을 하려면 우선 우리의 후방이며 출진기지인 서간도에 적들의 대병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다.

≪도문회담≫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들이 서간도일대에 무력을 집중하는 목적은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장백의 오지에 몰아넣고 압살하자는데도 있었지만, 기본은 우리의 국내진출을 결사적으로 막자는데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부대가 미구에 국내진격을 단행하게 되리라는 것은 적들에게 있어서도 기정사실로 되어있었다.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은 시간문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일본본토를 들이치는 것

과 같은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적들은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몇 방의 총소리를 울리기만 하여도 그것이 어떤 화단으로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지구에 자리를 잡은 그 해 겨울부터 그들은 인민들을 동원하여 매일 밤 압록강의 얼음을 까는 소동을 벌이었다. 인민혁명군이 개별적으로든지 집체적으로든지 조선땅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였다. 우리의 국내진공을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적들이 그런 유치한 방비책에까지 매달렸겠는가.

일본천황이 자기의 시종무관을 보내여 조만국경을 3주일간이나 시찰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바가 있지만 일본 정계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우리 나라 북부국경에서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시종무관은 그때 국경경비인원들에게 국경을 철벽으로 지키라는 천황의 어지도 전하고 천황부부의 하사품도 전달하였다. 그 야단스러운 전달식장면을 놓고 우리대원들은 일본천황도 인민혁명군이 조선으로 쓸어 나올가봐 조마조마해하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을 성사시키자면 반드시 적들이 ≪동장철벽≫이라고 떠드는 국경경비진에 몇 개의 돌파구를 뚫어야하였다. 이 돌파구를 뚫기 위한 선행작업이 바로 장백의 산과 들에 와글와글하는 적의 ≪토벌≫역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적들을 분산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장백땅에서 자리를 뜨는 흉내라도 내야하였다. 우리가 부대를 데리고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적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국경방비도 자연히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무송원정과정에 무송현과 임강현, 몽강현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최현부대와 1군 2군사의 동무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동작전계획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가 무송원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 원정을 통하여 신대원들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조선 인민혁명군의 사명에 맞게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충분히 고양하고 훈련시키자는데도 있었다.

백두산지구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가 창설된 후 우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참군지망자들로 대련을 보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 정치활동과 그 성과에 고무된 서간도 일대의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국내에서도 연일 애국청년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려고 우리를 찾아 왔다.

부대의 역량이 양적으로 늘어난 조건에서 우리는 그 질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지휘관과 대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군사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부대를 백전백승하는 대오로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부대의 신병들은 하나같이 계급의식도 강하고 혁명열의도 높았으나 아직 전투경험이 없었으며 유격전법에 정통하지 못하였다. 정치문화수준도 높지 못하였다. 우리의 신병들은 어제날까지 부대기발을 뚜지거나 날품팔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온 순박한 산골내기들이었다. 호미질, 가래질, 작두질같은 일이라면 펄펄 날아도 군사에서는 까막눈들이었다. 초보적인 사회발전의 원리는 고사하고 조선글 자모조차 모르는 문맹자들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고생도 많이 하고 노동에도 단련된 청년들이기는 하나 그들은 유격대생활에서 겪게되는 고난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동요도 하고 투정질도 하였다. 잠이 모자라고 행군이 고되다고 투덜거리는 청년도 있었고, 신이 꿰

지거나 옷이 헤지면 자기 손으로 기워야할텐데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고 구대원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청년도 있었다.

제식동작도, 야간행군법도, 방위판정법도 모르는 햇내기들, 총이 고장나면 구대원들더러 ≪이것좀 봐주시오.≫하고는 우두커니 서있는 그런 신대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조국진출을 단행할 수는 없었다.

신대원들을 받아들인 후 짬이 나는 대로 구대원들을 붙여 속성으로 훈련도 시키고 토막상식도 배워주면서 자질을 높여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그많은 신병들을 유격전의 요구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준비시킬 수 없었다. 이상적인 방도는 적들의 주의가 덜 미치는 울창한 수림지대에 가서 얼마동안 품을 놓고 신대원들에 대한 군사정치 훈련을 조직하는 것이였다.



등사그림
≪나팔수≫

이런 본격적인 교육과정이 없이는 그들을 쇠소리가 나는 군인들로 키워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백땅은 평지나 오지나 할 것 없이 다 적들에게서 ≪참빗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병 훈련의 적지로 혁명군의 후방밀영들이 집중되어 있는 무송지구를 택하였다.

총괄적으로 볼 때 무송원정은 적의 대병력이 집요하게 달려드는 조건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튼튼히 틀어쥘 수 있게 하는 진공적인 대책이였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활한 전술적 조치였다. 이 원정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반년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는 길이였다.

1937년 3월 어느 날 우리는 무송원정의 길에 올랐다. 거기에는 기본전투성원들과 함께 재봉대와 작식대, 무기수리소 성원들을 포함한 후방부문의 성원들까지 다 참가하였다.

위증민과 전광, 조아범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첫날의 행군목표는 뇌골령을 넘는 것이였다. 하루종일 행군을 하였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이고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영을 다넘지 못하고 중턱에서 하루밤을 숙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해 겨울 장백산줄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였다. 적설이 어떻게나 심했던지 어떤 골짜기에는 눈이 몇 길씩 쌓인 데도 있었다. 그런데서는 몸으로 눈을 밀어제끼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였다.

장백산줄기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가 하는데 대하여 새 세대들이 똑똑한 표상을 가지려면 그 당시 무송원정에 참가했던 투사들의 체험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원정을 끝내고 해토가 되어 백두산쪽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깔나무정수리에 미투리 한 짝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장백에서 입대한 신입대원이 무송으로 행군해갈 때 눈속에서 잃어버린 미투리였다.

3월 초면 조국의 벌방지대에서는 눈석이가 한창이자만 백두산일대에서는 아직도 동장군이 판을 친다. 엄혹한 설한 풍속에서는 천막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다. 설사 친다 해도 바람을 견디여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정황에 부닥칠 때마다 깊은 눈속에 한 개 분대정도의 인원이 숙영할 수 있는 구뎅이를 파고 노루가죽이나 나무껍질을 깔고 배낭에 기대여 앉아자는 수밖에 없었다. 구뎅이입구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백포를 쳤다. 에스키모인들이 얼어죽지 않고 눈집이나 얼음속에서도 능

히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원정과정에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다.

우리는 그때 무릎까지 올라오는 큰 버선에 갑산사람들이 삼아준 미투리를 신고 있었다. 백두산일대에서는 그런 차림새가 아니고서는 겨울에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미투리를 신은채로 우등불 옆에 누워서 숙영하였다.

우리는 다음날에야 되골령을 넘어섰다. 이 원정이 보통원정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1938년 겨울의 행군을 의례히 생각한다. 물론 그 행군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울 수 있으리만큼 간고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고성으로 말하면 무송원정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운 행군이였다. 행군거리를 따지면 100킬로미터도 되나마나할 것이다. 기일은 25일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당시의 100여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원정도 매우 간고한 노정이었다.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쪼들리고 수면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 싸움을 여러 번 하다나니 피도 많이 흘리고 희생도 많이 내였다.

무송원정은 노대원들에게 있어서조차 이빨을 악물고 참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런즉 입대한지 몇 달밖에 안되는 신대원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모든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한 명씩 맡아 돌보아주도록 하였다. 나도 3-4명 되는 약골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대원들은 모두 신대원들의 착실한 형구실을 하였다. 행군할 때에 는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같은 것도 기워주었다.

주경동출신의 한 신입대원은 양쪽 엄지발가락이 시뻘겋게 드러나도록 신발이 험하게 해졌지만 쉴참에 그것을 손질할 궁리는 하지 않고 휴식구령이 내리기 바쁘게 우등불곁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구대원들은 장백에서 신고 떠난 갑산 미투리도 아직 꿰뜨리지 않았는데 그는 예비로 가지고 떠난 지하족마저 해뜨렸다.

나는 그에게 나의 예비신발을 갈아 신기고 돗바늘로 그가 신고 있던 지하족을 손질하였다. 손질한 지하족은 배낭속에 건사해두었다가 다른 신입대원에게 갈아 신기였다. 해진 신발을 손질할 때면 본인들이 딱해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한번은 신발임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대원은 눈물을 떨구면서 나에게 매달려 무작정 바느질 깁던 신발을 빼앗아 냈다.

그날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동무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삼아주는 짚신을 신고 어머니가 기워주는 옷을 입고 지내다보니 바느질도 못해보았겠지만 유격대원이 된 이상 옷도 신발도 다 자기 손으로 기워입고 기워 신을 줄 알아야한다. 자기가 살 도리는 자기가 해야 한다.

오늘은 나와 함께 신발 깁는 법이나 배우자.≫

그들은 사령관에게 당치 않은 부담을 끼쳤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하였다.

신발이나 옷이 제일 심하게 해지는 경우는 얼음 버캐가 덮인 눈우를 지날 때이다. 그래서 나는 얼음 버캐가 덮인 눈 우를 걸을 때에는 발을 어떻게 옮겨놓아야 하는가 하는 요령을 대주었다.


동강

무송원정은 주림을 이겨내는 투쟁과정이기도 하였다. 많은 고난이 시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군 하였으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한 것은 식량난이었다. 행군속도가 예상보다 어방없이 떠지는 바람에 장백을 떠날 때 마련해가지고 온 얼마 안되는 식량은 되골령을 넘어서기 바쁘게 인차 떨어지고 말았다.

언폴 뿌리조차 캐먹을 수 없는 눈판에서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얻어내겠는가. 출로는 적의 군량을 빼앗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때 식량고생을 하던 인상이 너무도 강해서 훗날 나는 어느 동무에게 무송원정은 사실상 ≪기아원정≫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한 일까지 있었다. 옹근 하루동안 강냉이 한 알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맹물과 눈으로 창자를 달래면서 수십 리를 행군한 날도 있었으니 그 끔찍스러운 기아의 고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원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동강 부근의 수림속에서 있은 일이였다. 우리는 그 수림속에서 중국집 한 채를 발견하였다. 이틀째나 낟알 구경을 하지 못하고 맹물로 끼니를 에워온 우리는 그 집을 보자 혹시 식량을 구할 수 있지않을가 하는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산에 숨어서 아편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식량의 예비가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부대가 며칠째 낟알 구경을 못하고 있는데 식량이 있으면 다분 얼마만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산림부대가 몽땅 털어가버려서 한줌도 없다고 딱 잡아뗐다. 매들밑에 강냉이 겨가 그득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강낭쌀이나 강낭가루를 많이 내둔 같은데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궁색스러운데로 매들밑에 내버린 강냉이겨로 끼니를 에우기로 하였다.

강냉이겨는 조겨나 피겨와 달라 닦아 먹어도 식도에 자꾸 붙기만 하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매들에 갈아먹어도 넘기기가 어려웠고 설사 물에 풀어서 억지로 넘긴다고 해도 시장기를 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생각다 못해 전령병 백학림을 불러 지시하였다.

≪여기서 고개를 몇 개만 넘어가면 오의성부대가 있을 것이요 사령은 지금 없겠지만 그 부하들은 더러 남아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소. 동무는 거기 가서 내가 왔다는 걸 알리고 식량을 얼마간이라도 보태달라고 이르고 오시오. 쌀이 있으면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청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요.≫

백학림은 오의성부대로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의성부대의 지휘관이 강냉이겨 한 마대를 메고 일부러 찾아와서 나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김**사령께서 모처럼 하시는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희들도 식량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형편이라 이런걸 가지고 찾아왔다고 나삐 생각지 말아주시오.≫

그날 우리 대원들은 그 중국집 안팎을 두루 살피다가 앞마당에 놓인 관속에 강낭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주지방사람들은 훗날에 쓸 관을 미리 만들어서 집앞에 놓아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장의물로 되고 있었다. 이런 풍습으로부터 항일혁명때 만주지방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생겨났다.

집주인들이 관속에 쌀을 감추어둔 것은 이해할 말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관속의 쌀이 그만 우리 동무들의 분격을 자아냈다. 제일 심하게 격노한 것은 신입대원들이었다. 주경동에서 입대한 한 신입대원은 나한테 뛰어와서 이런 속사정을 하였다.

≪장군님, 이 집주인들은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제 집뜨락에 들어와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예절인데 이 집사람들은 너무 고약합니다. 도대체 피가 있는 인간들입니까. 한번 혼내줍시다. 그리고 식량은 압수합시다.≫

나는 그 대원을 설복하였다.

≪압수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집 식량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차

라리 우리가 굶는 것이 낫다≫

그 신입대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시면서 물러갔다.

우리는 관속의 식량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강냉이겨로 식사를 대신해가며 집주인들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주인들은 우리와 작별을 하면서도 관속에 식량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종시 말하지 않았다. 쌀을 압수하자고 제기하던 신입대원이 나를 찾아와서 ≪그것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한테 교양이 통하지 않습니다.≫하고 말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인민들속에는 각이한 유형의 인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만큼 교양도 천편일률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무슨 일이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성사된다는 것, 그러므로 군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해서 인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들의 호의나 도움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노여움을 삭이지 못하고 집주인들을 혼살냈거나 그들이 우리를 속인데 대한 벌로 식량을 압수하였더라면 신입대원들은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좌우명을 어기고 인민들앞에서 쩍하면 호령을 하거나 특전을 바라는 관료라든가 마적과 같은 인간들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만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멀리서 행군대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처서군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단두산목재소 노동자들이었다. 행색이 하도 수상하기에 어째서 우리 대열을 계속 따라오는가고 물었더니 적들한테서 유격대의 종적을 탐지하여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였다. 그들이 하는 말이 유격대의 종적을 알아오면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 품삯을 많이 받고 그냥 돌아가면 ≪통비분자≫로 몰리거나 모진 곤경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통하여 단두산목재소에는 수많은 인부들과 산림경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소를 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싸움에 7연대와 8연대를 동원시켰다. 두 연대의 전투원들은 목재소를 치고 창고를 수색하였으나 한 포대의 쌀도 얻지 못하였다. 목재소주인들은 유격대의 습격이 두려워 쌀을 창고에 저장해두지 않고 매일매일 딴 곳에서 실어다 먹고 있었다. 목재소마을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700-800명의 적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쓸어나와 우리 전투원들에 대항해 나섰다. 우리 주력부대가 무송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토벌≫에 새로 증파되어온 자들이었다.

7연대와 8연대는 목재소에서 끌어온 20마리 정도의 소를 몰고 본대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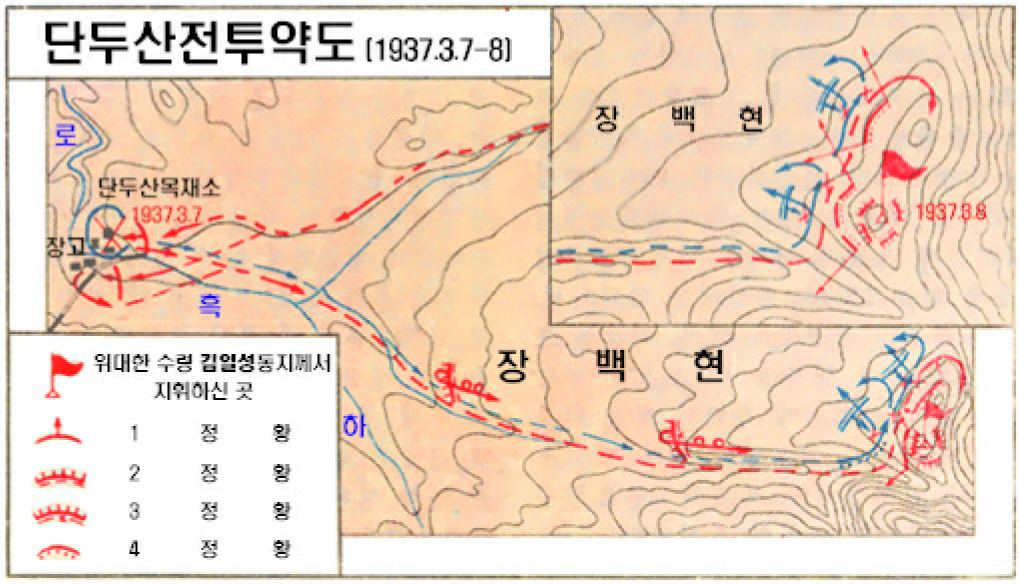
추적하는 적은 오중흡이 책임진 방차대가 막았다. 오중흡은 각 소대에서 결사대원들을 선방하여 무려 10여 차례에 접전을 하면서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 적들은 50미터 밖에까지 와있더라고 하였다.

방차대원들이 적을 막아내는 동안 주력은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전령병을 보내여 그 두 봉우리 사이의 새초밭으로 오중흡이네 방차대가 적을 유인하며 빠지도록 하였다. 방차대의 유인전술에 걸려 무여한 새초밭에 들어선 적≪토벌대≫는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였다.

주력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일부 대원들은 장대 뒤에서 소를 잡았다. 잡는 족족 우등불에 구워냈는데 소고기냄새에 창자가 뒤집히는 듯하였다. 나머지 소들은 각을 떠서 배낭속에 간수하였다. 우리는 그 고기를 날것 채로 먹으면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2-3주일 후에는 그것마저



만강뒤산



도 다 동이 나고 말았다.

적들의 추적이 심해지자 전광은 동만강에 있는 밀영으로 가버리였다.. 그는 밀영에 돌아가자 우리 대원들에게 통밀 몇 말을 주어보냈다.

우리 대원들은 정치주임이란 사람의 인심이 고작 그것뿐인가? 덩치값을 못한다고 하면서 전광을 비난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그를 용기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였다. 그들은 전광이 무송현성전투때 보조적으로 하게 되어있었던 만량하습격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전반적인 작전에 혼란을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었다.

전광이 간부티를 내는데다 어렵고 위험한 모퉁이에서 매번 몸을 사리였기 때문에 우리 부대의 관병들은 대체로 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다. 군중의 감각은 정확하였다. 전광은 그 후 변절하여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부대는 적들을 뒤에 달고 만강물골을 따라 무송쪽으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전광이 보낸 통밀 몇 말도 인차 바닥이 났다. 우리는 또다시 절량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뒤따르는 적들을 따돌리고 두도령이라는 고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식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군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강태옥을 비롯한 만강출신의 신입대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오겠다고 자청해 나선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들은 그 전해 만강에서 연극 ≪피바다≫와 ≪한 자위대원의 운명≫을 보고 격동되어 즉석에서 참군을 탄원해 나섰던 신입대원들이었다.

부대가 만강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김택환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 우리가 가서 식량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만강이 코앞인데 유격대가 굶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강에 쌀은 바르지만 감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유격대를 원호하려고 모아두었던 감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압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었다.

이렇게 되어 10명 정도의 식량공작대가 만강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은 신통치 않았다. 군량으로 쓰자고 저장했다던 그 감자는 멧돼지들이 달려들어 다 파먹고 없더라고 하였다. 식량공작대원들은 멧돼지들이 먹다가 버리고

간 얼마 안되는 감자를 지고 귀로에 올랐다. 아무 것도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그것도 큰 소득이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였다. 본대로 돌아오던 식량공작대원들이 그만 시장기를 참지 못해 숙영지 가까이에 와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감장구이를 하는 엄중한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새벽에 숙영지 근처에서 우등불을 피움으로써 자기자신들 뿐 아니라 전부대의 위치를 노출시켰으며 적들을 발견한 다음 보초소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무작정 숙영지로 뛰어왔기 때문에 취침중에 있던 부대가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투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최금산

자유주의란 종종 이처럼 예상치 않은 후과를 빚어내군 하였다.

나는 신입대원들에게 늘 유격대에서 자유주의는 금물이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숙영할 때 신을 벗고 자지 말며 어디에 가든지 흔적을 남기지 말라, 상관이 지정해주지 않은 장소에서 우등불을 피우지 말며 추격을 받을 때에는 밀영이나 숙영지의 위치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적들을 유인하라, 파악이 없는 풀은 함부로 먹지 말라는 등 유격대가 지켜야할 규율과 행동규범에 대하여 강조하군 하였다.

그러나 만강에 다녀온 식량공작대원들의 과오로 하여 우리는 적들과의 접전에서 아까운 전우들을 잃었다.

나는 그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우들의 죽음은 비판을 대신하고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판이나 처벌보다 더 준엄한 것이였다.

전령병 최금산도 그때 전사하였다. 우등불을 발견하고 우리의 식량공작대원들을 은밀하게 뒤따르던 적들은 숙영지를 포위하고 총질을 시작하였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최금산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사령부 쪽으로 다가드는 적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웠다. 내가 맨후위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자 그는 이봉록과 함께 내옆으로 뒤여와 몸으로 나를 막으면서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그때 그들이 나를 결사적으로 호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신상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모른다.

여러 발의 적탄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최금산은 마지막탄알이 다할 때까지 엄호사격을 그치지 않았다. 그의 군복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봉록이 눈속에서 최금산을 안아 일으켜 등에 업었다. 나는 후위에서 싸창으로 리봉록을 엄호하였다. 이봉록이 맥이 진할 때면 내가 최금산을 업었다.

포위를 돌파한 다음 이봉록의 등에 업혀있던 금산이를 내려놓고 보니 그는 이미 숨이진 몸이였다.

최금산은 남보다 특별히 잘난데도 없고 기질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상에 남을 수 있으리만큼 모가 나게 두드러진 데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령부성원들은 그를 친동생처럼 사랑하였다.

그는 꿈이 많고 공상이 많은 소년이였다. 그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기차를 많이 타보는 것이였다. 그는 조국이 독립된 다음에는 기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늘 말하군 하였다.

≪참, 나이가 아깝소! 이 애가 아직 스무두살도 안됐지?≫

숨진 최금산을 우등불 곁에 내려놓았을 때 내 등뒤에서 누구인가 한말이다. 그 한마디의 말에 그만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리였다.

시체를 안장하기 전에 최금산의 배낭을 헤쳐보니 그 안에는 갑산사람들이 삼아준 미투리와 미시가루 한 봉지밖에 없었다.

이국 땅에서 내어나고 이국의 물을 마시며 자라난 유랑민의 아들 최금산의 가슴속에 간직된 가장 큰 소망은 고국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전령병이 되어 먼 북만의 남호두에서 백두산으로 나올 때에도 그는 매일 같이 나에게 이제 얼마나 더가면 조국땅을 볼 수 있는가, 동해바다가 기막히게 멋있다는데 장군님은 가보았는가, 앞으로 몇 해안에 평양이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의별 질문을 다하였다. 그가 갑산 농민들이 삼아온 미투리를 신지 않은 것은 조국진군의 날을 맞을 때까지 아껴두자는 생각에서였다.

최금산은 나와 함께 한 모포를 덮고 오랜 기간 사령부 전령병으로 일해온 귀염둥이었고 어린 전우였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우들과 영결할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지 모른다.

두도령의 땅거죽은 왜 그리도 모질게 얼어붙어 있었는지 도끼로도 총창으로도 도저히 흙을 뚜져낼 수가 없어 우리는 최금산을 맨눈을 덮어 안장하였다. 훗날에라도 그를 다시 온전히 묻어주고 싶어 표적을 해두었다.

눈이 다 녹은 다음 무송원정을 총화하고 백두산쪽으로 다시 나갈 때 나는 부대와 함께 최금산을 안장하였던 그 장소로 찾아갔다.

우리는 동강밀영에서 마련해가지고 온 새 군복을 그에게 갈아 입히고 양지바른 땅속에 그를 온전히 안장해주었다. 무덤앞에는 몇 그루의 진달래도 떠다 심었다. 그가 죽어서라도 그 꽃나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이국에서 자란 꽃나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다. 이국에서 자란 꽃나무일 망정 그 향기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진달래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꽃이였다.

(금산아, 잘 있거라! 우리는 또다시 백두산으로 나간다. 이번 여름에는 네가 소망하던 대로 부대를 데리고 기어이 조국으로 진군하련다. 조국에 나가면 너의 원수를 백 배, 천 배로 갚아 주마.)

나는 마음속으로 최금산과 이런 말을 하며 그의 영전에 작별인사를 남기였다. 그때의 정경을 회고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난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백학림의 나이만큼 되었을 것이다.

1937년 봄 무송원정때 우리는 아까운 전우들을 많이 잃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리었다. 우리앞에 놓인 한치한치 피로써 헤쳐나갔다.

이 글에서 나의 전우들이 발휘한 그 빛나는 위훈과 그들이 바쳐온 노고를 그대로 실감있게 그러내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붓이 아무리 무딘들 정성이야 다 고이지 못하겠는가. 무송의 그 험한 영과 골짜기에서 조선을 끝까지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전우들, 죽으면서도 나에게 건강하십시오, 잘 싸워주십시오 하고 미소를 보내던 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 비문을 쪼아박는 심정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



백두밀영을 목숨으로 지켜내는 최금산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2.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소탕하

만강부근에서 여러 차례의 격전을 치른 다음 우리는 부대를 이끌고 양목정자밀영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양목정자는 시난차에서 노령으로 올라가는 산중턱에 있었다. 이 지명은 버들이 많은 고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영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좌우에 밀영이 각각하나씩 있었는데 한쪽 밀영을 동양목정자밀영이라 하였고 다른쪽 밀영을 서양목정자밀영이라 하였다. 우리가 먼저 간 밀영은 서양목정자밀영이었다. 그 밀영에 바로 유참모부대가 있었다. 동양목정자밀영에서 남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고려보자밀영이 있었다. 노령을 중심으로 하여 삼각으로 놓여있는 이 세 밀영을 통칭하여 사람들은 양목정자밀영이라고 한다.

양목정자밀영은 창설 후 여러 해 동안 이용해오다가 임수산이 ≪토벌대≫를 끌고와서 대규모적인 습격을 감행한 1940년 3월에 폐영되었다. 그 ≪토벌≫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밀영은 불타버렸다.

양목정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장이다. 여기서 나의 전우이며 믿음직한 조언자인 리동백이 희생되었다. 경위중대의 중대장으로 있던 이달경이 중상당한 몸으로 담가에 실려 왔다가 희생된 곳도 이 밀영이었다. 우리가 ≪서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발표한 고장도 다름 아닌 양목정자였다. 우리는 이 밀영에서 위증민을 비롯한 군부간부들과 여러 번 만나 연합작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나는 양목정자밀영에서 1937년 여름의 조국진군과 관련된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혔고 그 준비를 다그치였다.

국내진공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한 고리가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양목정자에서 오중흡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편성한 다음 그들을 김주현이 기다리고 있는 장백으로 파견하였다.

이 소부대에는 재봉대의 여대원들과 동상자들, 허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람당 하루에 강냉죽 한 그릇도 차례지지 못하는 고달픈 설상행군에 비하면 그래

도 장백에 나가서 후방물자를 마련하는 일이 한결 헐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후방물자 공작을 위한 소부대와 함께 서간도일대와 국내에 침투하여 활동하게 될 정치공작원들도 파견하였다.

그 후 원정부대는 적들을 유인분산시키고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목정자를 떠나 소탕하의 밀림속에 있는 4사 후방 밀영으로 찾아갔다. 그 밀영에는 술통, 귤상자, 사과상자 같은 것도 있었다. 4사의 전우들은 정안군을 치고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자랑하였다. 그 전리품 중에는 기관총도 3정이나 있었다.

4사 동무들은 우리에게 이틀 분의 식량으로 될만한 강냉이를 펴주었다. 부대가 4사밀영을 떠날 때 몇 동무들이 비로까대를 구슬려서 술통도 하나 메왔다.

나는 술통을 보자 금주령을 내리었다. 우리는 원래 술과 담배를 장려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다 군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였던가 잘 기억되지 않으나 행군을 하다가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다. 쉴참에 인원을 점검해보니 2명이 행방불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두 대원은 행군도중에 슬그머니 음식점에 새여들어가서 술을 마시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비판을 되게 받았다.

술통을 보자 능구렝이들은 날씨도 추운데 한 대포하자고 이동학중대장을 구슬리기 시작하였다.

이동학은 자기 둘레를 맴돌며 검질기게 달라붙는 그들의 간청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는 통에서 술을 뽑아 대원들에게 한잔씩 골고루 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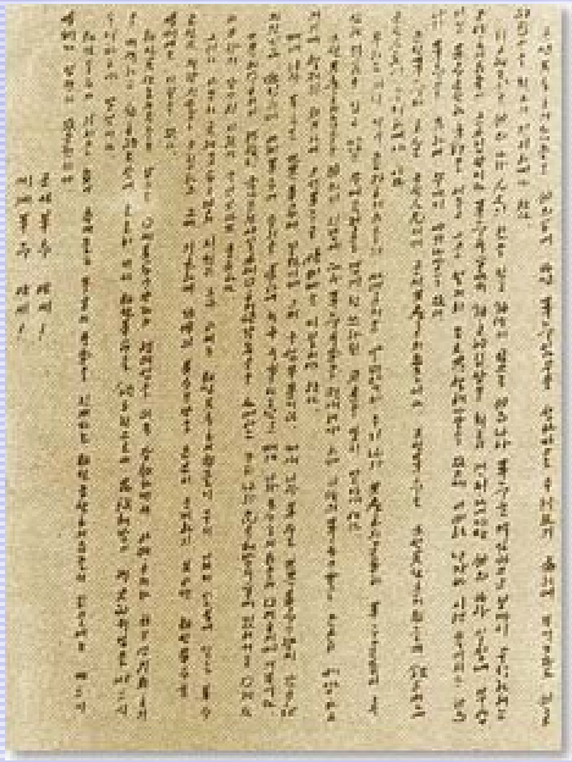
≪사령관동지 모르게 한 모금씩만 마시자. 한 모금쯤이야 일없겠지.≫

이렇게 되어 그날 경위대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술을 마시게 되였다. 다른 중대들에서도 다 술을 마시었다. 어쨌든 이 황당한 평균분배로 하여 우리는 소탕하전투에서 큰 낭패를 볼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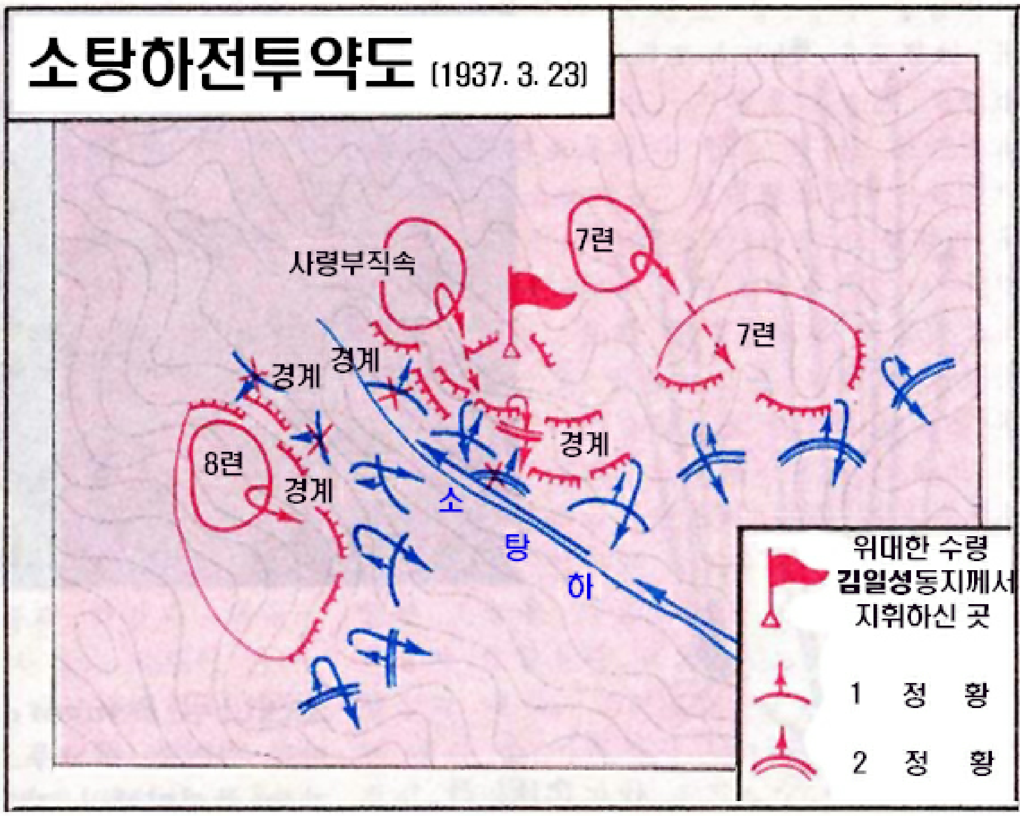
이동학의 경력 가운데서 과오가 있었다면 아마 그날의 과오가 제일 엄중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니 취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그날은 보초병도 규정을 어기고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그날 아침 숙영지어귀에서 보초임무를 수행한 것은 8연대 대원이었다.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숙영지로 수백 명의 위만군들이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다. 보초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누구야?≫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그 보초에게 걸려든 위만군이 능청스러웠다. 그가 ≪우리는 4사부대이다. 너희들은 **김**사령부대가 아니냐?≫하고 말하는 바람에 얼떨떨해진 보초는 그들을 4사부대라고 속단하고 ≪그렇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야?≫하고 묻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의 친필원고 (1937.11.10)



까지 하였다. 이러는 사이엔 위만군 ≪토벌대≫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포위환을 바싹 조이었다.

위만군은 보초에게 너희가 정말 **김**사령부대라면 대표를 보내라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이 인접부대를 만날 때 대표를 보내는 것은 원래 규정에도 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8연대 보초는 위만군측에 자의로 대표를 한 사람 보냈다. 능선을 다 차지한 적들은 그 대표를 체포하고 무장해제까지 시킨 다음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얼마동안 우리는 피동에 빠지게 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전투정황을 유리하게 역전시킨다는 것은 조련치 않았다. 적들은 벌써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능선에까지 기여오르고 있었다. 나는 전부대에 고지를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동학이 대원들에게 술을 먹인 후과가 나타난 것이 이때였다. 나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인차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기슭에서 어물거리는 대원들을 여러 명 보았다. 후에 알아보니 그들은 다 술을 마실 줄 모르면서도 무턱대고 받아 마신 사람들이였다. 경위중대 기관총수였던 강위룡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내가 고지를 빨리 차지하라고 여러 번 고함을 쳤지만 그는 계속 아래에서 뭉개고만 있었다. 훗날 그가 고백한데 의하면 술기운 때문에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서 도무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더라는 것이였다. 기관총수가 그 지경이니 나도 어지간히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나니 고지우에서는 혼전이 벌어졌다. 이동학의 배낭은 적의 몰사격에 여러 군데 찢기우고 한 대원은 적탄에 한쪽 귀가 떨어져나갔다.

설상가상으로 김택환이 지휘하는 7연대 2중대는 아직 포위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경위중대는 기관총수들이 그날 은을 내었다. 기관총수들은 위치를 자주 옮기면서 적들에게 맹사격을 들이대였다. 그러는 사이에 8연대가 포위에서 빠져나왔다. 김택환이네 중대도 한 개분대를 잃기는 하였으나 혼전속에서 구출되었다.

전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적을 살상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였으나 그 전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였다. 우리측에서도 손실이 적지 않았다. 김산호는 대원들을 구출하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여러 발의 적탄을 맞았다.


김산호

그는 마지막 순간에 창격전의 명수인 김학률을 불러 돌격로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였다.

김학률은 신창동에서 한태룡과 함께 입대한 힘장사였다. 기운도 세지만 대바르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시 습격전투를 할 때마다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으며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쌀창고나 후방물자창고를 헤치고 선참으로 무거운 짐짝들을 매내군 하였다. 언제인가는 100키로그램짜리 쌀포대를 단꺼번에 2개나 메고 나와 전우들을 놀라게 한일까지 있었다. 눈속에 굴을 뚫고 전진할 때에도 선두에는 언제나 그가 서있었다.

명령을 받은 김학률은 적들의 무리속에 뛰어들어 육박전을 벌이었다. 그는 총창으로 여라문명 되는 적병들을 찔러 눕히었다. 그러는 과정에 여덟군데나 부상을 당하였다. 참으로 불사신같은 사람이었다. 김학률은 창격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류탄으로 적들을 족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의 수류탄을 안고 적들의 무리속으로 굴러들어갔다. 요란한 폭음이 고지를 흔들어 놓았다. 전우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며 비통한 심정으로 그와 영결하였다.

가장 큰 손실은 8연대 정치위원 김산호를 잃은 것이었다.

김산호는 오가자 시절부터 나와 여러 해 동안 고락을 같이해온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사람들이 혁명을 통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가를 말할 때마다 그 전형적인 실례로 김산호를 들군하였다. 그리하여 ≪머슴군으로부터 연대정치위원으로!≫라는 말은 혁명이 보통사람들의 발전과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동하며 노동자, 농민 출신의 평범한 근로청년들이 혁명의 와중에서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문화도덕적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 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와도 같이 되어왔었다.

김산호의 죽음 때문에 나는 그날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대원들이 우등불을 피워놓고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하면서 나를 찾았으나 나는 불길에도 다가가지 않았다. 온몸이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어 눈속에 묻혀있을 김산호를 생각하니 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8연대장 전영림도 그날은 나처럼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김산호가 조선사람이고 전영림이 중국사람이었지만, 국적의 차이가 그들의 혁명적 우정을 방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전영림은 언제나 김산호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김산호는 항상 뒤에서 전영림의 일을 성심으로 떠밀어주었다.

전영림이 김산호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슬퍼하였던지 그의 부하들도 전원이 단식하였다. 김산호와 김학률의 도움으로 포위에서 구출된 대원들은 자기들을 사지에서 끌어낸 생명의 은인들과 희생된 전우들을 생각하며 끝내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적들은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분명 병력을 증강하여 포위망을 완성한 다음 우리를 소탕하골안에 몰아넣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자칫하다가는 그 포위망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 녹아날 수 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주동에 튼튼히 서서 적을 피동에 몰아넣는 것이 유격전이 요구였다.

나는 부대를 수림 속 멀리로 철수시키는 척하다가 은밀히 되돌아와 우리가 싸우던 전장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루밤을 숙영하게 하였다.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리 식의 고유한 전술이었다.

우리가 이런 눈속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적들은 적들대로 우리의 결판을 준비하느라고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다.

아마 적들도 그 봄에는 ≪동기대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적들은 소탕하골안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마치도 만주땅에 있는 무력은 다 골안으로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 장대에서 평지를 내려다보니 소탕하 수십리골안에 난데없는 우등불의 바다가 펼쳐지었다. 대도시의 야경을 방불케하는 광경이었다.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적의 불무지들이었다. 그 많은 불무지들을 방향별로 대충 세여 보게 하고 불무지당 병력수를 추산해 보았더니 수천 명에 달하는 놀라운 병력이 산출되었다.

불의 바다를 바라보는 대원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는 소탕하의 골안에서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는 비장한 생각들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사령관동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사전을 준비하는게 어떻습니까?≫

7연대장 손장상이 내곁에 다가와서 비장하게 하는 말이었다. 다른 지휘관들도 꼭 같은 표정들이었다.

손장상의 ≪결사전≫이라는 말은 어쩐지 내귀에 공허하게만 들리었다. 500명도 못되는 적은 역량으로 수천 명의 적과 결사전을 벌인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자포자기적인 만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결사전을 해서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 덕으로 내일 당장 혁명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단 시작한 혁명을 성공에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동무들, 살아남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앞에는 국내진공작전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과제이다. 이런 대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어찌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살아서 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조국으로 반드시 진출해야한다. 그러니 난국을 타개할 길을 생각해보자≫

≪사령관동지, 용수도 정도가 있지 이런 함정속에서 어떻게 솟아나겠습니까?≫

손장상은 여전히 사태를 파국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었다.

전부대가 명령을 기다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령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가를 그때처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크고 작은 우등불로 가득차있는 골안을 굽어보면 포위망을 뚫고나갈 묘책을 궁리하였다. 문제는 어느쪽으로 어떻게 뚫고나가 적의 포위를 멀리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 소탕하 골 안에 널려있는 ≪토벌대≫의 병력이 수천 명을 추산된다면 적의 후방은 지금 텅비어 있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포위환을 벗어나는 경우 분명 더 깊은 산속을 빠지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적의 포위가 비교적 약한 큰 길쪽에 붙어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 다

음에는 큰길을 따라 일행천리하자, 이러한 생각이 내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즉석에서 명령을 내리었다.

≪동무들,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좋으나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살길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소탕하의 수림지대를 버리고 주민지구로 나가야한다. 주민지구에 나가서 큰길을 따라 동강쪽으로 행군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다≫

지휘관들은 ≪큰길≫이라는 말에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동할 때 은밀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격대의 활동에서 철칙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적들의 대병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때에 주민지대에 나가 대도로를 따라 행군하라고 하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손장상이 내 곁에 다가와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고 불안스럽게 말했다. 그가 나의 탈출작전을 지나친 모험이라고 우려한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모로 보든지 그것은 모험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작전이었다. 왜냐하면 적들이 큰길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의 후방에 일정한 병력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원래 항일무장투쟁 초기부터 군사모험주의를 반대해왔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였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우리가 모험에 매달린 것은 피치 못할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실행한 모험은 어느 것이나 다 성공을 전제로 한 모험이었으며 우리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한 그런 모험이었다.

백 번 하면 백 번 다 과녁을 명중하는 성공적인 모험,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투지와 용기를 가져야만 단행할 수 있었다.

내가 소탕하의 장대우에서 결심한 주민지대에로의 탈출과 대로행군은 전술은 승산이 확실한 모험이었다. 내가 그것을 승산이 확실하다고 본 것은 바로 그 모험속에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피동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려는 우리 식의 투철한 공격정신이 깃들어있고 적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타산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싸움이란 결국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신념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대결, 용기와 용기의 대결이기도 하다.

적들이 소탕하일대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킨 것은 수적인 우세에 의한 대규모적인 인해전술로 우리를 포위서 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인해전술에 의한 대포위전은 그들이 혁명군을 ≪토벌≫할 때마다 항용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적들은 이미 세상에 수백 번도 더 알려진 그 진부하고 판에 박힌 전술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적들이 믿는 것은 오직 수천 명이라는 그 방대한 수자뿐이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제한성이 있었다.

적들은 소탕하 수십리골안에 우등불의 바다를 펼쳐놓음으로써 자기들의 역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과 어떤 전술로 인민혁명군을 섬멸하려 한다는 것을 죄다 노출시키였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작전문건을 탈취당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실수로 하여 그들은 벌써 우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셈이었다.

나는 우리가 반드시 안전지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였다. 그래서 손장상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이었다. 그리고는 지휘관들을 향해 말하였다.

≪...적들은 지금 이곳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 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소탕하주변은 물론, 무송일대의 모든 주민 거주지들에 널려있던 군대와 경찰들만이 아니라 자위단 무력까지 깡그리 긁어모아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즉 이 마을과

대로들은 텅 비여있을 것이다. 적들은 현재 밀림속에만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가 설마 대도로로 빠지리라고는 상상도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바로 적들의 빈구석이 있다. 우리는 그 빈공간을 이용하여 동강밀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그때 내가 한말과 나의 행동거지가 아마도 퍽 여유작작했던 것 같다.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신바람이 나서 대열에 출발구령을 주었다. 먼저 8연대가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 뒤를 경위중대가 따르고 7연대가 따랐다. 행군종대는 불무지들을 피해가며 큰 길쪽으로 소리없이 움직이었다. 집단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복잡한 정황이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지휘관이 취하는 자세와 개개의 언행이 전 대오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때 나는 크게 절감하였다. 지휘관이 태연하면 전사들도 태연하고 지휘관이 당황해하면 전사들도 당황해하는 법이다.

예견했던 바대로 신작로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을어귀에 불무지 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궤도우를 질주하는 급행렬차처럼 여러 개의 마을들을 거침없이 통과하면서 동강으로 행군하였다.

우리는 총한방 쏘지 않고 텅빈 적구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우리가 총을 쏜 것은 단 한 번 8연대 대열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서로 뿔뿔이 행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두 토막으로 갈라진 앞대열과 뒤대열사이의 거리는 500미터도 더 되었을 것이다. 마을과 대로들을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대원들은 긴장을 늦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8연대 대원들 중에는 졸면서 행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는 후위에 있는 지휘관을 시켜 총을 한 방 쏘게 하였다. 그 총소리가 울린 다음부터 행군속도는 곱절 빨라졌다. 걸으면서 조는 사람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탕하에서 실현한 대로행군전술을 우리는 훗날 조국에 나와서 베개봉을 떠나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적용하였다. 그 전술을 일행천리전술이라고 한다.

훗날 잡지 ≪철심≫을 보고 요해한데 의하면 적들은 소탕하전투때 일본, 만주국, 독일, 등 3국의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기자들이 종군을 하는 것은 어느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예상사이지만 만주에서 수천수만 리나 떨어져있는 나치스독일의 기자까지 전장에 굴러온 것을 보면 일본의 ≪토벌≫전문가들이 무송지구작전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고 또한 그들이 이 작전을 다이긴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심≫에 실린 ≪동변동토비행≫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이 기자단은 일본의 주요신문들인 ≪도꼬니지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호찌신붕≫의 기자진과 함께 신경방송국 성원들과 만주국의 외교부 관리들, 나치스독일의 국가통신사 통신원인 요한 네벨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 독, 만 출판보도계와 언론계의 연합진에 외교관들까지 합세한 어마어마한 참관단이였다. 아마도 적들은 무송지구 ≪토벌≫작전을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시범작전으로 판단하고 이 작전에서 달성하게 될 저들의 ≪혁혁한 전과≫를 만천하에 널리 소개하고 싶은 열의로 펴그나 들떠있었던 것 같다.

때를 같이하여 만주국 군정부 군사조사부 핵심간부 와시자끼와 사무관 나가시마, 안동특무기관단장 다나까도 현장에 출두하였다. 그들도 그 해 봄에는 무송의 험산준령과 골짜기들에서 일본군이 인민혁명군을 전멸시키고 ≪동양평화의 암≫을 영원히 근절시키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와시자끼는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운동 실상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그것을 박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간단치 않은 모사였다. 그는 ≪만주공산비의 연구≫라는 비밀도서의 주간 집필자로서 만만치 않은 필력도 가지고 있었다.

조국해방 전쟁(1950-1953) 말기 이승만이 정형고지라는 자그마한 고지에서의 싸움을 구경시키려고 숱한 외국기자들을 끌어들인 일이 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는 무송원정시절을 새삼스럽게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의 경망스러운 행위와 일본의 ≪토벌≫계의 우두머리들의 허장성세에는 어딘가 모르게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

상대방을 깔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데서 히틀러나 도죠나 무쏠리니나 이승만이는 매일반이었다.

기자단일행을 맞이한 ≪토벌≫사령관은 자기 부대들이 산에서 순수한 **김일성**공군과 조우했는데 **김일성**은 30살도 안되며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500명이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은 동변도에서 첫째가는 큰세력이지만 ≪지금은 자루안에 든 쥐신세≫ 라고 뽐냈다. 그는 독일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는데 나치스 통신원에게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신문들은 내가 모스크바공산대학을 졸업했다고 굉장히 떠들었다. ≪자루안에 든 쥐신세≫라는 ≪토벌≫사령관의 말에 기자단일행은 환성을 울리었다.

그러나 우리 주력부대가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망을 돌파하여 종적을 감추게 되자 ≪토벌≫사령관은 다시 기자단앞에 나타나서 공산군은 300명 정도인데 다 도주했다고 하고는 ≪포로병≫한 명을 궁색스럽게 보여주면서 그를 취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자단이 취재한바에 의하면 그 ≪포로병≫이라는 군인은 통화에서 위만군에 복무하다가 얼마전에 혁명군편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히죽히죽 웃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하건데 우리는 그때까지 통화계선에 나간 일이 없었다.

연극도 분수가 있지, 기자단이 얼마나 아연실색했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소탕하의 수해속에 적들이 펼쳐놓았던 우등불의 바다는 우리에게 비단 대로행군전술만 착안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국경일대에 집결되어있던 적들을 무송쪽으로 끌어오자던 원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민혁명군이 수천 명에 달하는 대병력의 포위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은 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적들은 혁명군의 행방을 가늠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다. 적 사병들속에서는 여러 가지 요언들이 유포되었다. ≪유격대의 전술은 귀신도 곡할 전술이다.≫, ≪조선빨치산에는 제갈량을 찜쪄먹을 도사가 있다.≫,≪조선인민혁명군이 수 년 내에 서울도 치고 도꾜도 친다더라.≫, 이런 말들이 민간에까지 흘러나와 농촌마실방에 모여드는 늙은이들의 화제거리로도 되었다. 이 행군을 통하여 우리 부대에 대한 민화와 전설은 더욱 풍부해졌다.

두도령에서 동강부근가지의 행군 역시 심한 식량난을 동반하였는데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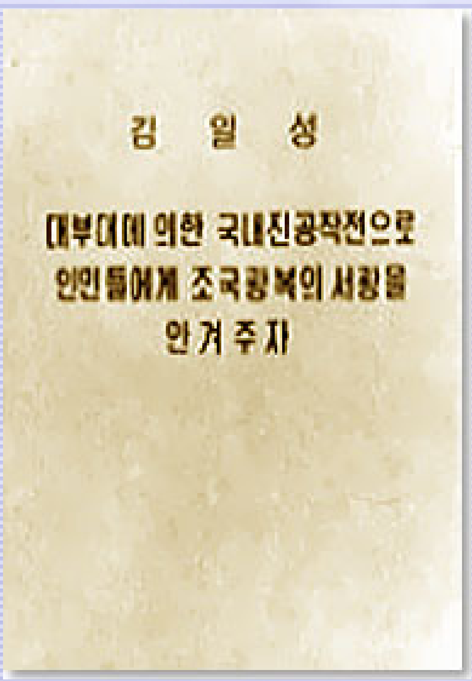
일행천리하여 동강 가까운 밀림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에 한 달쯤 머물러있을 작정을 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하였다. 수백 명이 한 달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우리에게 식량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밤중에 보초임무를 받고 망원초로 나갔던 대원들이 우연히 조소 가까이에서 강냉이 밭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전해에 심어놓고 수확을 하지 않아 밭에는 겨울난 강냉이들이 그대로 있었다. 백두산주변의 심산들에는 그런 밭들이 적지 않았다.

며칠째 낟알 구경을 하지 못하고 겨와 맹물로 연명을 해온 보초병들은 부대의 동료들을 생각하여 돌아올 때 강냉이를 따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들은 밭임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밭임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다가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도 없었고 보초교대시간이 되어 알아볼 경황도 없었던 것이다.

나의 엄한 꾸중을 듣고 주인을 찾아 떠났던 보초병들은 몇 시간 후 머리가 하얀 중국노인 한분을 데리고 내앞에 나타났다.



서강회의에서
하신 연설

나는 부대를 대표하여 그 노인에게 사죄하고 현금 30원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 노인은 펄쩍 뛰면서 강냉이, 몇 배낭이 무엇이기에 대장이 이 하찮은 늙은이에게 그런 사죄를 다하는가, 토비군이 먹는 것은 아까와도 혁명군한테서 먹는 것은 아깝지 않다. 강냉이 얼마 때문에 혁명군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훗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되면 나를 뭐라고 욕하겠는가, 나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강냉이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에게 강냉이는 노인네 밭에서 따온 것인만큼 응당 받아야하는 것이고 돈도 손해를 끼친 대가로 무는 것이니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내가 양보를 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바람에 노인은 마지못해 돈과 강냉이 배낭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 늙은이는 자기를 마을까지 호송해주려고 따라가는 우리 대원들에게 방금 전에 자기를 만난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우리 대원들은 **김일성**장군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가 오늘 평생 씻지 못할 대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는 마을에 돌아가자 일가 친척들을 동원하여 우리 보초병들이 강냉이를 따온 그 밭에서 강냉이를 모조리 따서 발구에 싣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오늘 **김**대장을 만나보고 몹시 감복되었습니다. **김**대장이 저 같은 백성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이 늙은 것은 황송하기만 하외다. 인정으로 갚는 것이니 저 발구의 강냉이를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이번에는 노인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강냉이덕으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통로까지 대주었다 만강 물곬을 따라 20리쯤 내려가면 양삼포전이 있는데 그 포전 주인들과 교섭을 하면 알도리가 있다고 하였다. 늙은이의 말에 의하면 그 양삼밭자리에 콩과 강냉이를 심었으나 주인들은 자기네처럼 가을을 하지 않고 곡식을 세워둔채 밭을 통채로 팔아버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장군부대에서 요구한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흥정을 해볼 용의가 있노라고 하였다.

나는 전령병을 한 명 붙여 그 노인을 양삼밭이 있다는 곳으로 보냈다. 전령병은 뜻대로 락착을 볼 것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

우리는 경위중대와 7연대에서 건장한 대원 몇 사람을 골라 양삼포전으로 보냈

다. 식량공작대가 식량공작을 하는 동안 부대는 얼마동안 강냉이로 끼니를 이었다. 며칠 후 공작대에 망라된 경위대원들이 대두박을 지고 부대에 나타났다. 그것은 양삼포전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우리는 그 대두박을 생것채로도 먹고 찌어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었다.

대두박을 지고온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양삼포전 주인들은 혁명군이 식량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듣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양삼밭자리에는 콩과 강냉이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곡식들이 그대로 밭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부대의 한 달분 식량을 대고도 남을만한 량이었다. 식량공작대원들이 그 곡식을 팔라고하자 양삼밭 주인들은 **김일성**장군의 부대를 돕는 일인데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콩과 강냉이가 없어도 살수 있으니 다 가져다 먹으라고 하였다.



서강회의 장소
(무송현 양목정자)

그러나 7연대의 식량공작대원들은 그들에게 억지로 돈을 떠맡기고 밭곡식을 통채로 샀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끝낸 다음 인차 양삼포전으로 강행군을 하였다. 포전에 도착하자 전부대가 달라붙어 강냉이도 따고 콩도 거두었다. 강냉이는 이삭채 따서 보관하고 콩은 포기채로 거두어 마당질을 하였다. 도리깨가 없는 마당질이여서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였다. 콩과 강냉이를 합쳐서 셈하니 수십섬이 되였다.

나는 양삼포전주인들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선량한 양삼포전 주인들은 우리가 한달 동안 먹고도 남을만한 소금까지 져다 주면서 더 잘 싸우라고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식량문제가 해결되자 부대를 이끌고 동강밀영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장백지구를 떠날 때부터 우리가 군정학습터로 내정해두었던 지점이였다.

나는 이미 그 전 해 봄과 여름에 허락여노인을 통하여 동강의 밀림속에 어느 한 지점에 가면 옛날에 고려보자 또는 고려보자라고 부르던 마을터가 있으며 그 마을터에 우리 선조들이 무예를 익히던 보루의 주춧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허락여노인은 말하기를 자기가 만강의 화랍자마을에 이사짐을 풀어놓았던 10대의 소년시절에만 해도 고려보자주변에는 순조선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곳의 화전들은 땅이 걸어서 곡식도 아주 잘되었다고 하였다.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의 여파가 백두산 기슭에까지 미칠 때 일본군대가 고려보자에까지 나타나 마을사람들에게 함부로 난도질을 해댄적이 있었다. 그때 격노한 마을의 청장년들은 활과 창과 석전으로 왜적을 쫓아냈다고 한다. 고려보자가 홍범도부대의 련병장으로 이용될 때에는 이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그 부대에 입대하여 교련을 받았다.

경신년 대≪토벌≫은 고려보자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었다. 마을은 모조리 불타서 재가 되고 보루는 폭파되고 주민들도 전멸되다싶이 하였다. 천행으로 살아남은 얼마안되는 사람들마저 밀림속에 숨어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몇 해전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가다보니 옛 고려보자에는 인적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허락 여촌장한테서 이런 예비지식을 얻은 다음 지도를 펼쳐 보았더니 과연 고려

보자라는 지명이 있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하는 100리 안팎에는 고려보자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한둘만 있는 것이 아니였다.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은 임강에도 있었고 장백에도 있었다. 안도현에는 고려위자라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고려사람들의 보루가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였다. 백두산의 동쪽과 남쪽 지대에는 요와보, 보천보, 나난보, 신무성, 창평, 창동, 혜산진, 신갈파진 등등의 이름을 가진 곳들이 또한 많은데 그 지명들이 담고 있는 뜻이 말해주는 것처럼 옛날에 보루나성, 혹은 군수창고나 파수병들이 지키는 나루터가 있었던 고장이였다. 이것은 고려시기나 고구려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시기부터 벌써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주변의 여러 처소들에 성과 보루를 쌓고 국방에 힘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허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애국 선열들이 축성한 옛보루와 그들이 겪어온 고난의 자취가 어려있다는 동강밀림속의 그 지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고려보자의 옛마을 자리를 찾아간 우리는 양삼배자들이 사용하다가 비우고 갔다는 두 채의 빈집을 발견하였다. 무송지방에는 산에 들어와서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도시근처에 있는 자기네 마을에 가서 지내다가 여름 한철만 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두 채의 빈집은 과송산이라는 꼭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산기슭에 있었다. 과송산이란 잣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잎이 5개씩 한묶음으로 달려있는 소나무라는 뜻에서 오엽송이라고도 부르는 이 잣나무를 무송사람들은 한자말로 과송산이라고 불렀다. 동서량쪽에 쌍둥이처럼 사이좋게 마주서있는 두 과송산에는 이름 그대로 잣나무가 많아 고산지대의 웅건장중한 풍치에 호방한 맛을 보태어주었다.

우리는 두 채의 빈집을 수리하고 거기서 정치학습과 군사상학을 진행하였다. 연병장은 동쪽 과송산의 밀림속 공지에 꾸리었다.

한 달분 이상의 식량을 장만하고 밀영에 자리를 잡게되자 적지 않은 대원들은 부대가 당분간 ≪장기휴식≫에 들어가게 되는 모양이라고 추측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오랜 강행군과 격전의 후과로 하여 피로가 극한점에 달한 대원들은 누구나 다 휴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휴식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대원들이 피로를 풀사이도 없이 동강밀영에서 중대 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무송원정을 총화하였다. 이 총화모임에서는 원정과정에서 발현된 옹간애병의 미거들이 널리 소개되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런 미풍을 더욱 조장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이 모임에 이어 소집한 회의가 바로 항일혁명투쟁사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되는 서강회의이다. 회의는 서양목정자밀영에서 사흘동안 진행되었는데 2사와 4사의 간부들과 위증민, 전광을 비롯한 군부간부들도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내진공작전방침이 토의되었다. 이 방침과 관련하여 내가 연설을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내가 내놓은 국내진공작전방안을 찬동하였다.

우리는 회의에서 국내진공작전과 관련된 매 부대들의 임무와 활동방향, 활동구역도 결정하였다.

그 회의 후 동강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훈련의 전과정은 국내 진공을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갖추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정치상학과정안에서 기본을 이룬 것은 조선혁명의 노선과 전략전술문제, 국제국내정세에 대한 강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강의는 조선혁명에

관한 우리의 주체적 노선을 이해하는데서 큰 도움으로 되였다. 이 강의를 통하여 신입대원들은 백두산밀영에서 섭취한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이때에도 독경식학습을 반대하였다. 그 대신 실천과 결부된 학습토론과 문답식학습을 적극 장려하였다.

사령부성원들과 군정간부들, 경위중대대원들에 대한 강의는 내가 직접 담당하였다. 나는 그때 혁명노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회발전의 초보적인 원리도 강의해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혁명가들과 영웅호걸들, 파시즘의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강의해주었다. 국제정세에서 우리의 초점을 끈 것은 이디오피아와 이탈리아의 전쟁, 에스파니아인민전선군의 전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쑈화에 대한 것이였다.


마동희

그 당시 적들의 잡지에는 히틀러가 지방 군시찰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났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이면서 히틀러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였다.

중국농민 동의 저명한 활동가의 한 사람인 방지민열사도 우리의 화제에 올랐다. 방지민의 영웅적 한 생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청강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동강군정훈련에서 모범으로 평가되었던 대원들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마동희이다. 그는 열성도 높았지만 토론도 아주 잘하였다. 마동희는 이 동강군정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정치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옛보루가 있었던 고려보자에서 어제날의 부대기농사군들과 날품팔이군들은 광복거사의 주공전선을 담당하게 될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훗날 항간에서는 우리가 백두산의 어느 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러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것이 와전되여 어떤 고장에서는 우리가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에서 훨훨 날아 다니는 장수 수만 명을 길러냈다는 전설까지 나돌았다. 그런 전설을 낳은 고장이 다름아닌 동강의 군정훈련터 고려보자였다.

동강군정훈련이 끝나가고 있던 1937년 5월초 우리는 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인 《서광》을 창간하였다. 신문의 제호에는 해방된 새날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숙망과 그 새날을 기어이 앞당겨 맞이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결의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낸 다음 우리는 인차 조국진군을 위해 동강밀영을 떠났다.


조선화 - 일제놈들이 유격구로 《토벌》온다. 경각성을 높이자

3. 경위대원들



경위대원들과 함께

나는 생애의 많은 부분을 전장에서 보냈다. 항일전쟁 15년에 반미대전 3년을 합치면 스무해 가까운 세월을 포연탄우속에서 보낸 것으로 된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해야할지 천행이라고 해야할지 나는 단 한 번의 상해도 입지 않았다. 항일전쟁시기 유격부대들에서는 이신작칙을 몹시 강조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언제나 지휘관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신작칙을 하는데서 보람을 찾았다. 공격할 때에는 대오의 앞장에서고 퇴각할 때에는 대오의 뒤에 서서 전우들을 돌보는 것이 인민혁명군지휘관, 정치일군들의 기풍이 되고 도덕으로 되어있었다. 나도 역시 그 기풍과 도덕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대원들을 구원하려고 탄막속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동무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목숨을 내거는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기관총을 직접 틀어잡고 1선에서 적들과 치열한 화력전을 전개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건만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무사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유격대지휘부는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돌격로의 앞장에서는 것을 삼가라는 원칙을 내놓았다. 우리 지휘관들이 그때부터 모험을 삼간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한 고비에 맞다들 때마다 가슴을 내대고 위기를 타개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본성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조선전쟁때에 미국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무척 많은 화약을 소비하였다. 가령 우리 당 지도부에 앉아있던 박헌영이나 이승엽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날 몇 시에 어디로 간다는 무전을 날리면 그 길목에 비행기를 보내여 쬭쬭 줄폭탄을 퍼붓군 하였다. 어떤날은 최고사령부 옆에도 폭탄이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건재하였다.

우리가 사민복을 입고 길림이요, 정춘이요, 하얼빈이요, 카륜이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하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권총과 곤봉으로 무장한 ≪ㅌ·ㄷ≫성원들, 조선혁명군대원들, 공청원들, 반제청년동맹원들 소년탐험대원들이 나를 보호해주었다.

나를 친자식이나 친형제처럼 살뜰히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인민이라는 보호자는

어디에 가나 있었으며 어느 고장에 가나 무수한 ≪교하의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상월, 장울화, 진한장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인민들과 중국공산주의자들도 나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었다. 상월선생은 공안국경찰들이 학교에 나타날 때마다 나를 담장너머로 빼돌리었고, 진한장은 군벌의 추격을 피해다니던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었다. 장울화가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사진 현상약을 먹고 자결한데 대하여 나는 이미 국제주의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주보중은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신변호위를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2군 군장 왕덕태와 1군 2군사 사장 조국안이 희생된 다음부터 동만의 항일무장부대들에서도 지휘관들의 신변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왕덕태는 싸창을 빼들고 1선에서 돌격하다가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왕군장은 연길현의 조선인부락에서 성장하였고, 조선에 나가 노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사람이었다. 그는 유격대생활의 첫걸음도 조선인부락에서 떼였다. 그래서인지 왕덕태를 조선사람이라고 하는 일제 관헌기록도 있다고 한다. 왕덕태는 초기에 최현과 같은 분대에서 평대원으로 싸웠다. 그는 평대원으로부터 군장으로까지 성장한 노동계급출신의 호탕하고 군중성이 풍부한 군사지휘관이었다.


왕덕태

왕덕태와 조국안을 비롯한 주요군정간부들의 희생은 항일연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속에서 경위사업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였다.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경위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부대들이 속속들이 조직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의 측근에 있던 전우들도 사령부호위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일단 성숙되자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경위부대를 내오자고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나는 전우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적인 호위대가 없이도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사령부 호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7년 봄에 와서는 나자신도 전우들의 의사를 더는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밀영을 꾸리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적들은 우리의 내부와 주변에 많은 밀정들과 암해분자들을 박아넣었다. 그런 특무들 중에는 도끼를 가진 자도 있었고 비수를 가진 자도 있었으며 늑거리춘화나 독약을 가진자도 있었다.

적들은 우리가 밀영에 있을 때에도 자객들을 들이밀었고 원정을 할 때에도 자객들을 침투시키었다. 어떤 간첩들은 지하 조직에 망라되어 가짜 열성을 내는 방법으로 신용을 얻은 다음 조직의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사령부를 해칠 기회를 노리었다.


위증민

일본의 특무 기관들에서는 위증민 몇천 원, 전광, 진한장 몇천 원, 최현, 안길, 한인화는 또 얼마 하는 식으로 이름있는 지휘관들에게 현상금까지 걸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적들이 사령부지휘성원들을 소멸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조건에서 우리도 부득불 그것을 격파할만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부대 지휘관들은 또다시 사령부 호위문제를 가지고 떠들었다. 위증민까지도 합세해나섰다.

≪**김**사령은 몸을 아끼지 않는게 탈입니다. 공격의 초점이 **김일성**동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들이 괜히 **김**사령의 몸값을 높이 매긴줄 압니까. 경위부대조직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평

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만 사람이 다하자는 일을 나혼자서 굳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무의미한 고집으로 될 수도 있었다.

우리 사령부산하에서 경위대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937년 봄이였다고 기억된다. 그 때 이 사업을 선두에서 주관한 사람은 사령부 조직과장 김평이였다. 내가 중대규모에서 경위대를 조직해보라고 하자 그는 신바람이 나서 뛰여다니였다. 하루밤사이에 인원선발도 끝내고 지어는 경위중대가 갖추어야 할 무기명세까지 다 짜놓았다.

나는 조직과정이 만든 경위 중대원명단을 보고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 명단대로 하면 각 중대들에서 핵심이라고 할만한 쫄쫄한 사람들은 다 경위중대에 망라되게 되어있었다. 시난차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김택환, 이름난 기관총수들인 오백룡, 강흥식, 힘장사인 강위룡, 여장군으로 소문난 김확실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싸움군들은 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위중대에 모조리 끌어오면 다른 중대들의 골간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었다.

경위중대에 배당하기로 한 무장장비 또한 이만저만 요란하지 않았다. 조직과정은 이 중대에다가 기관총도 여러 정이나 주는 것으로 타산하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주력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의 대부분을 경위중대에 주고나면 전투연대들에는 각각 1정씩의 기관총도 차례지지 못하는 것으로 되였다.

나는 이 구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임원선발도 잘 하지 못했고 무장장비에 대한 타산도 잘하지 못했소. 다른 중대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바에야 경위중대를 꾸려선 뭘하겠소.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가 허술해지면 연대가 약화되고 연대가 맥을 추지 못하면 사령부자체의 안전도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는 법이요.≫

≪사령관동지,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군정간부들의 의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대중의 소망을 한데 묶은 것이니 부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평은 대중이란 말에 역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나 나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안을 기각해버리고 내가 짠 명단을 강다짐으로 내리먹이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휘관들의 성화를 막아낼 길이 없었다. 그 명단에 의하면 경위중대의 대부분 역량은 전투경험이 미숙한 신입대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꾸리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 초년병들 중에는 심지어 총알을 한되박도 쏴보지 못한 마안산아동단 출신의 애숭이들도 있었다.

이 안은 발표되기 바쁘게 지휘관들의 완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키였다. 그들은 이동백을 부추겨서 나한테로 보냈다. 내가 ≪대통영감≫의 조언만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이였다. 사령관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 재삼 들고나올 때마다 그들이 이동백을 자기네 대변인으로 내세우군한다는 것은 나도 잘알고 있었다. ≪대통영감≫은 그 대변인역을 매번 훌륭하게 수행하군 하였다. 늘 하던 버릇대로 그는 이번에도 사령부에 나타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장군님, 겸양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애숭이들에게 사령부호위를 맡긴단 말입니까. 그 애숭이들이 짐이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제 사령부가 그애들의 보모노릇을 하느라고 욕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 단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동백

나는 ≪대통영감≫에게 말하였다.

≪경위대의 기본역량이 초년병들로 꾸려진다고 해서 겁낼 것은 하나도 없다 잠깐이면 그들도 싸움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지난번 ≪동기토벌≫때 우리의 신입대원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였는가. 또 그들이 생소한 유격대생활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응되고 있는가 이제 무송원정까지 하고나면 우리의 신입대원들이 모두 구대원들과 다름없는 강자가 될 것이다. 내가 신입대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경위중대를 꾸리자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옆에 바싹 끼고 다니면서 똑똑한 싸움꾼들로 키우자는데 있다. 그들이 모두 끌끌한 전투원으로 자라나게 되면 사령부는 하나의 믿음직한 예비대를 가지게 되는 셈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유격대생활에 아무리 미숙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잘 키우면 다 강병으로 될 수 있다. 인재를 키우는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승리에 대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일장 해설을 하였더니 ≪대통영감≫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가 나의 대변인이 되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이동백마저 태도를 바꾸어 나의 안을 지지해나서게 되자 지휘관들도 더는 자기네 주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 혁명무력 건설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경위중대는 이런 곡절을 거쳐 탄생하였다. 경위중대가 탄생한 고장을 그 당시는 수피창자밀영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경위중대에 3개의 소대와 기관총반을 두었다. 사령부 전령병들과 작식대원들도 조직생활은 경위중대에서 하였다. 첫 중대장으로는 이동학이 임명되었다. 과오를 범하고 평대원으로 생활하던 ≪보따지≫는 중대장으로 복직되자 여간만 사기가 나지 않았다. 이동학의 과오란 수하의 신대원들이 군중공작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었다. 잘못은 대원들이 저질렀지만 그는 부하들을 잘 교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중대장 자리에서 철직되었었다.


이동학

경위중대가 조직된 날 이동학은 대원들앞에서 기관총연발사격을 해대는 것과 같은 빠른 말씨로 훈시를 하였다.

≪우리 중대의 기본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령부를 잘 호위하는 것이요. 우리의 혁명선배들은 유격구시절부터 장군님을 잘 호위하였소. 그들이 오늘은 우리에게 계주봉을 넘겨준 셈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은 어떠한가 다 신대원들이 아니면 애숭이들이요. 나는 우리가 사령부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령부가 도리어 우리를 호위하게 될가봐 걱정이요.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뿐이요. 사령부가 우리를 호위하게 하지 말고 명실공히 우리가 사령부를 호위하자는 것이

요.≫

≪보따지≫의 이 연설이 경위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대원들은 중대장이 대원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는 말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동학이 연설을 너무 과격하게 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었다. ≪보따지≫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초기의 경위중대실태를 그대로 말한다면 얼마동안은 우리가 그들을 호위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위중대는 사령부를 호위하는 기본임무와 함께 한 개 전투단위로서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 경위대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였다.


김정덕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은 우리에게 걱정을 기치지 않으려고 매사에 처신을 어른스럽게 하였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인격상으로 자기들에게 성인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언제인가 이동학이 공식석상에서 자기 중대의 소속되어있는 마안산출신의 아동단원들을 보고 햇병아리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경위중대원들은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덕은 저녁밥도 먹지 않고 시무룩해있었다. 그는 마안산에서 데리고온 수십 명의 소년대원들 중에서도 제일 어른티가 나고 행동거지가 숙성한 대원이였다.

나는 그가 저녁도 먹지 않고 덤덤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너 왜 밥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혹시 누구하고 말다툼이라도 한게 아니냐?≫

≪아닙니다. 중대장동지가 우리를 햇병아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

김정덕은 말끝을 흐리면서 얼굴을 붉히었다.

나는 그의 천진스러운 대답에 그만 소리를 내어 크게 웃고 말았다.

≪햇병아리란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더냐? 그거야 너희들이 귀여워서 하는 말인데.≫

≪중대장동진 귀여워서만 그러는게 아닙니다. 사실 병아리들은 병아리들이니까요. 이런 풋병아리들이 어떻게 사령부를 보위해드립니까. 저두 정말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정덕이 우울해한 것은 이동학의 말대로 자기네가 사령부 호위중책을 훌륭히 수행해내지 못한 것 같은 위구심 때문이었다.

나는 김정덕을 바라보면서 네가 벌써 어른이 다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기는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 어리다고만 보아서는 안되는 나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사실 취침시간이 될 때마다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은 정말 병아리들처럼 내곁에 모여들어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실갱이질을 하군 하였다. 그들이 노리는 제일 좋은 자리란 나의 양쪽 옆구리에 붙어서 잘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모포가 한 장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애숭이들이 양옆으로 몰려와서 다가붙으면 잠자리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즐거움으로 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면 두 팔을 벌이여 ≪애들아, 어서 오너라!≫하고 어린 경위대원들을 찾군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내옆으로 모여들어 저마다 더 가까이에 눕겠다고 승벽내기를 하였다.

나의 옆자리는 대체로 이오송과 같은 여라문 살짜리 경위대원들에게 차례졌다. 나는 이오송이네 또래에게 그런 특전을 베풀면서도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단 한 번씩은 내곁에서 잘 수 있도록 매일 잠자리를 바꾸게 하였다. 내가 혹시 순서를 헛갈려서 어느 한 아이에게 공평치 못한 ≪혜택≫을 베풀면 항의를 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한번은 김평이 무슨 일로 해서인지 밤중에 나를 찾아 왔다가 잠자리 때문에 실갱이질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못마땅해한 적이 있다.



이오송

≪사령관동지 저것 보십시오. 저런 철부지들이 어떻게 경위사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저애들이 사령관동지앞에서 저렇게 버르장머리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경위사업은 고사하고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해서 좀 버릇을 때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곱지 않은 눈으로 경위대원들을 쏘아보았다. 원래 아동단출신들이 경위중대에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던 김평이다보니 비판도 이만저만 호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김평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형제의 사랑이 그리워 밤이면 잠자리다툼을 하는 것인데 꾸중을 해서는 뭘하겠는가고 꼬마들을 두둔해주었다.

한 장의 모포를 놓고 여럿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자는 것을 그때 우리는 ≪따바리잠≫이라고 하였다. 10여 명이 발을 모포속에 밀어넣고 따바리모양으로 빙 둘러누워서 자는 잠이였다. 덮을 것이 늘 모자라고 한지에서 자야 하는 유격대생활에서는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이 고안해낸 이 ≪따바리잠≫이 매우 실용적이였다.

해방 직후 혜산쪽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던 이오송이 사업보고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 당시의 우리 숙소는 지금의 당창건사적관이 자리잡고 있는 해방산기슭에 있었다. 나는 그 숙소에서 얼마동안 우리 동무들과 함께 산에서처럼 공동숙식을 하였다. 지방공작을 하는 동무들이 평양에 오면 그 숙소로 꼭꼭 찾아오군 하였는데 이오송도 상례대로 내앞에 나타났다.

취침시간이 되자 투사들은 이불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오송이 ≪장군님과 같이 잘때야 ≪따바리잠≫을 자야지.≫라고 하면서 그 이불들을 와락 밀어제끼였다. 그날 숙소에 있던 북만출신의 동무들은 ≪따바리잠≫이 어떤 것인지를 잘몰랐다.

이오송은 내팔을 잡아끌며 ≪장군님, 오늘만은 백두산시절처럼 ≪따바리잠≫을 자보시지 않겠습니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청에 인차 응할 수가 없었다. ≪따바리잠≫을 자자면 부득불 숙소의 모든 투사들을 ≪따바리≫속에 다 끌어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노숙을 달가와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가 주저하는 눈치를 보아 이오송은 다짜고짜로 나를 자리에 눕히며 ≪자, 누워주십시오. 다리를 좀 구부리십시오. 장군님의 오른쪽에 김책동지가 누우시고 그 옆에 최현동지, 장군님의 왼쪽 옆자리는 내 자리입니다.≫하면서 잠자리를 억지로 잡아주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지령 때문에 김책도 옴짝달싹못하고 ≪따바리≫속에 끌려들어갔다.

나는 경위중대의 애숭이들을 몹시 사랑해주면서도 그들을 무원칙하게 어루만지지는 않았다. 잘못을 저지르면 눈물이 나게 꾸중도 하였고 어려운 일거리를 많이 맡겨 단련도 시키었다. 기온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날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보초임무를 주어 눈보라치는 한지에 내보냈다. 때로는 구대원들과 꼭같이 혈전의 길에도 내세웠다.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중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비판도 하게 하였고 1평방미터도 되나마나한 동그라미안에 서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잘못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그러다보니 가슴아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을설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리 엄한 비판을 하고 모진 단련을 시켜도 그들이 나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번은 이오송이 연락을 가다가 길을 헛갈려 시간을 어긴 일이 있었다. 내가 정해준 길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노정을 바꾼탓이었다. 나는 그때 이오송이 사령부의 지시를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이 전례 없는 처사는 이오송을 서운하게 하였다.

(나는 사령관동지에게 비판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단 말인가. 사령관동지는 지금도 나를 코흘리개로 알고계시는게 아닌가.)

이런 옥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그는 나를 찾아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책벌을 주면서도 왜 자기한테는 책벌을 주지 않는가고 하면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자기한테도 처벌을 달라고 졸라댔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 처벌은 오히려 하나의 믿음의 표시가 된다. 우리가 비판을 하고 처벌을 주어도 경위대원들이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인 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준데 대한 보답이었다.

경위대원들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힘을 기울인 것은 학습이었다. 나는 보통날이나 밀영에서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하는 날이나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경위대원들의 교사가 되어주었다. 그 당시 사령부에는 ≪동아일보≫, ≪만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외 신문들과 ≪레닌주의의 제 문제≫, ≪사회주의의 대의≫, ≪국가와 혁명≫같은 책자들을 비롯하여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이 수두룩하였다. 우리는 경위대원들에게 이모든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그 대신 그들에게서 구두나 서면으로 된 독후감을 어김없이 받아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위중대는 학습에서 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따라배우는 모범단위가 되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경위대원들에게 정을 준 것만큼 그들에게서 또한 정을 받기도 하였다.


강위룡

경위대원들은 사상적으로나 군사실무적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그들은 사령부호위도 본때있게 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모면하였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안도현의 한밀영에서 임수산이 끌고온 적 ≪특수부대≫의 포위에 들었던 일이 있다. 임수산은 우리 주력부대에서 참모장으로 있다가 변절하여 유격대 ≪토벌≫을 전업으로 하는 ≪특수부대≫대장이 된 자였다. 그는 서간도 일대를 돌아치며 우리가 꾸려놓은 후방밀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였다.

그날아침 우리는 밀영을 뜨려고 조반을 일찌지었다. 짧은 시간에 식사를 끝내고 출발을 서둘러야겠는데 보초를 교대해 줄 사람이 없었다. 당번 보초는 이을설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초를 대신하였다. 이을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인적기가 나지 않는가를 주의깊이 살피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여서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까 보초소근방에 수상한 인적기가 났다. 그것은 삭정이가 부스러지는 소리었다. ≪적이다 !≫하는 순간적인 판단과 함께 나는 진대나무밑에 엎드리면서 무작정 싸창을 꺼내 갈기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10여미터앞에서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김택만

그날 아침 내가 인적기를 느끼고 진대나무밑에 엎드리면서 싸창을 갈긴 순간은 눈깜박할 사이었다. 그처럼 짧은 순간 식사중에 있던 강위룡과 이을설은 나의 안전을 염려하여 보초소로 뛰어왔다. 먼저 강위룡이 나를 완력으로 진대나무밑에서 끌어내였다. 그러는 사이에 이을설이 경기관총을 휘둘러댔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래서 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강위룡이 나를 진대나무밑에서 끌어내려고 모지름을 쓸 때에도 그들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으리라는 비장한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불사신같은 경위대원들은 탄막속에 몸을 통채로 내대고 천신만고하여 나를 사경에서 구원하였다. 적들이 포위환을 좁히며 다가들자 이을설은 수류탄을 뽑아들고 우뚝 서서 ≪이놈들아 덤빌테면 덤벼들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부르짖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푸르고 도고했던지 적들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났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위룡은 나를 탄막속에서 완전히 뽑아내였다.

임수산은 우리가 철수한 다음 밀영을 몽땅 털어갔다. 그 바람에 우리는 아깝게도 문건, 사진, 소책자, 의약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수부대≫가 철수한 다음 밀영에 되돌아가 내가 대리보초를 서던 자리를 보니 한아름이나 되던 싸리나무 떨기가 칼로 후려친 것처럼 중동이 일매지게 끊어져 있었다. ≪특수부대≫의 기관총화력이 이만저만 세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동무들이 아니였더라면 내오늘 저 세상에 갈번 했소.≫하고 말하였다.

우리 부대 경위대원들이 자기 사령관을 얼마나 충실하게 호위했던지 그 소문이 인접부대의 중국인 지휘관들한테까지 퍼져갔다. 그들은 늘 우리가 똑똑한 전령병들과 경위대원들을 두고 있는데 대하여 부러워하였다. 만나면 농담삼아 적선을 하는 셈치고 좋은 전령병을 한 명만 달라고 하든가 **김**사령이 데리고 다니는 경위대원들 중에서 아무 사람이라도 좋으니 중국말을 좀 아는 대원을 몇 명만 달라고 하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경위대원이나 전령병들을 탐내는데서는 양정우나 위증민이나 주보중이나 조아범이나 할 것 없이 다 체면을 가리지 않았다.

무송원정직후 조아범은 나에게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전령병감을 골라달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 부대의 전령병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김택만을 조아범에게 보내면서 그를 잘 보호해주라고 하였다. 조아범이 반≪민생단≫투쟁때 조선사람들에게 원한을 많이 끼치고 또 그가 내 개인의 활동에도 제동을 많이 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를 배척하거나 그가 모처럼 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새사단을 조직하였을 때 조아범이 우리 주력부대의 정치위원으로 오게 되어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반≪민생단≫투쟁때 조아범한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모두 조아범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내가 부대의 정치위원을 겸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김택만은 나의 부탁대로 조아범을 잘 보호해주었다.

조아범은 김택만을 총명하고 충직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훌륭한 전령병을 보내준데 대하여 여러 번 감사를 표시해왔다.

양정우도 우리에게 여러 번 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였다. 양사령이 1군, 2군의 군정간부들의 모이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남패자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데리고 다니던 전령병들을 여러 명 넘겨주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떼내여 그에게 독립여단을 잘 꾸려주었다.



위증민도 양정우나 조아범처럼 우리가 키워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하였다. 그가 너무도 간절하게 조선인 경위대원들을 요구하기에 나는 황정해와 백학림을 보내주었다. 김철호, 전문욱, 임은하, 김득수 등도 한동안 위증민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위증민을 충실히 도와주고 호위하여주었다. 한때 주보중은 조선사람인 박락권을 경위대장으로 두었다. 3방면군 군장 진한장도 마안산 아동단 출신인 손명직을 전달장으로 두었다.



백학림

나는 우리가 보내준 동무들이 항일연군의 각부대들에서 국제주의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경위중대에 망라된 대원들은 모두 나의 생명의 은인들이였고 친위전사들이였다. 우에서 지적한 동무들 외에도 나를 지켜준 전우들은 수없이 많다. 김운신, 최원일, 김학송, 한익수, 전문섭, 김홍수, 최인덕, 최금산, 조명선, 지봉손, 김봉석, 이학송, 이두익, 오재원,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외우면 수천수만 갈래로 뒤엉킨 지난날의 사연들이 추억속에 저절로 어려온다.

첫 경위중대장 이동학은 연대장으로 승진된 후 1938년 만경의 전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이달경

이동학의 후임으로 경위중대장이 된 이달경은 원래 4사에서 기관총수로 있던 사람이였다. 그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 어찌나도 총을 잘 쏘았던지 이달경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경위중대의 정치지도원으로 얼마간 있다가 이동학이 연대장으로 소환되어간 다음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몇 달도 못되어 전사하였다.

이달경 다음으로 경위중대장을 한 박수만도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였다. 그는 쌍산자전투에서 나에게로 집중되는 적의 화력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기관총사수를 데리고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가며 싸우다가 흉탄을 맞고 그 후과로 운명하였다.

경위중대의 초대중대장인 이동학으로부터 4대 중대장인 오백룡에 이르기까지 사령부 호위를 위해 복무한 모든 중대장들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였으며 나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충실한 전우들이였다.



박수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생명의 은인들 중에는 이권행이라는 10대의 젊은 경위대원도 있었다. 그는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어느 해 겨울이였던지 추격해오는 적들을 꼬리에 달고 강행군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 겨울치고는 아주 지독하게 추운날이였다. 그런데 아무리 눈속을 헤치며 행군을 계속해도 발이 얼어들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벗어보았더니 바닥에 솜처럼 보드랍게 다져진 울로차가 차분히 깔려 있는 것이였다 전령병들은 리권행의 소행이라고 나에게 가만히 귀띔해주었다.

중국사람들은 인삼, 록용, 초피(동피)를 ≪관동(동북)3보≫라 이르는데 어떤 강

추위에도 발을 얼지 않게 해주는 울로초도 ≪동북 3보≫에 넣고 있었다. 진펄에만 돋는 이풀이 어떻게 되어 내 신발바닥에까지 깔리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권행은 나를 위해 울로초를 발견할 때마다 한줌두줌 뜯어 배낭속에 간수해두었던 것 같다.

그가 장백현 15도구전투때 몸으로 나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권행이 몇 번이고 지휘처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고 하였으나 나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자리는 적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이였다.


이권행

그런데 적탄이 불시에 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권행은 두 팔을 벌이고 몸으로 나를 막아섰다. 그가 방패처럼 나에게 안긴 순간 적탄이 그의 다리뼈를 부수어 놓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이권행을 품에 안고 총상자리를 살펴보는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나는 담가를 따라가며 이권행에게 ≪넌 죽지 않아!≫, ≪넌 죽지 않아!≫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고무해주었다.

이권행은 오히려 ≪사령관동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하고 나를 위로하였다. 그 때 내표정이 몹시 비장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가 후방병원에 후송된 후 편지를 썼다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입수한 것은 이권행이 후방밀영에서 치료를 받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는 것과 그가 장백현경찰서에서 매일 같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사령부 위치를 대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뿐이었다.

사령부 경위대원들 중에는 ≪룩크사크≫라는 별명을 가진 동무도 있었다. ≪룩크사크≫란 등산용 배낭을 말한다. 그에게 ≪룩크사크≫라는 괴이한 별명이 달린 것은 그가 언제나 유달리 큰 배낭을 지고다녔기 때문이었다. 그가 왜 그처럼 부피가 큰 배낭을 지고다니는지 그것은 누구도 몰랐다.

그 배낭의 비밀이 드러난 것은 임강의 어느 전투때에서였다. 적아간에는 맹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날 따라 ≪룩크사크≫동무는 내곁에서 한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전호의 흉벽에 적탄이 배길 때마다 혹시 상처라도 생길 것 같아 그를 끄당겨 안아 흉벽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 그는 어느새 내품에서 빠져나가 적들이 오른쪽으로 달려들면 내 오른쪽 옆구리에 다가붙고 적들이 왼쪽으로 달려들면 내 왼쪽 옆구리에 다가 붙군 하였다.

싸움이 끝난 다음 진지에서 솜타는 냄새가 몹시 나기에 전호를 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총알 구멍이 두 개나 난 ≪룩크사크≫동무의 배낭에서 연기가 새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옷이 탄다고 고함을 치면서 동료들을 들볶고 있었다. 대원들이 달라붙어 그의 배낭을 헤쳐보았는데 차곡차곡 개여넣은 명주솜갈피에서 뜨끈한 적탄알이 두 알이나 굴러나왔다. 그때에야 나는 그가 왜 배낭을 메고 줄곧 내곁에서 감돌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은 ≪룩크사크≫동무의 그 명주솜이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준 셈이었다.

나는 ≪룩크사크≫동무에게 어떻게 되어 그처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그는 **김정숙**동무가 나의 동복을 만들 때 명주솜을 두면서 이런 솜을 두면 총알 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나를 위하여 방탄용 배낭을 만들 작정을 했다고 대답하였다.

항일전쟁에서 경위전사들이 쌓아올린 공로를 한두 마디로 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켜가는데서 이룩한 공적만으로도 그들은 마땅히 후손들의 찬양과 절을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위해 바친 그 숭고한 동지적 의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대의 꽃으로 피여나고 있는 충효일심의 시원으로 되고 있다.

나는 항일혁명시절의 경험에 기초하여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도 10대의 혁명가유자녀들로 친위중대를 무어 최고사령부를 호위하게 하였다. 친위중대원들은 나의 신변을 호위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고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다. 어느 해 겨울인가 나는 연합작전을 위해 성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에 갔다오다가 적폭격기편대의 기습을 받은 일이 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밭고랑에 억지로 넘어뜨리고 모두가 방탄벽이 되어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내우에 엎드리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다.

1950년 가을의 그 간고한 일시적 전략적 후퇴시기에도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평양에 남아 최고사령부를 호위한 것은 바로 그 용감무쌍한 친위중대 대원들이었다.

노도와 같은 남진으로부터 후퇴에로의 전쟁국면의 급격한 변화는 수도 시민들을 의기소침하게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최고사령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최고사령관이 전쟁의 전망을 두고 무슨말을 해주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방송연설을 통하여 후퇴는 일시적인 것이다. 도처에서 빨치산투쟁을 하라, 승리는 우리 인민의 편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런 다음 친위중대원들을 시켜 시내를 한바퀴 돌면서 가창행진을 하라고 하였다. 이 뜻밖의 명령을 받고 친위중대원들은 아연해하였다. 대동강, 건너편에서 벌써 적의 포소리가 쾅쾅 들려오는데 태연하게 가창행진은 왜하라고 한가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은 최고사령관이 가창행진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씩씩하게 거리로 행진해나갔다.

후퇴를 앞둔 음산한 수도의 거리에서는 갑자기 친위중대원들이 부르는 ≪조국보위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달려나왔다. ≪친위중대다!≫, ≪친위중대다!≫ 도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날아왔다.

(친위중대는 우리 곁에 있다, 친위중대가 남아있으니 최고사령관도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그때 평양시민들은 친위중대가 가창행진을 구경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친위중대는 평양시내의 모든 기관들이 후퇴를 개시한 그때에야 비로소 나와 함께 수도를 떠났다.

항일전쟁시절의 경위중대원들이 지금은 어느덧 환갑이 훨씬 넘은 늙은이들이 되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은 혁명의 3세, 4세들이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사령부를 호위하고 있다. 세대는 바뀌고 있으나 새로운 경위중대, 친위전사들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이 몇 만, 몇십 만인가를 구태여 헤아릴 필요가 있겠는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모두가 경위대원이 되고 친위전사가 되어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천리 방방곡곡에

백두산기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조국광복회건설운동은 만주전역과 삼천리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차게 번져갔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구절구절은 민족의 넋에로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고 삼천리 온 강토가 광복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지식인, 청년학생, 수공업자, 종교인,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애국적인 온 겨레가 하나의 광복전선에 합세하였다.

조국광복회건설운동은 장백을 비롯한 선간도와 만주땅에서 먼저 활발히 벌어졌다.

만주지방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은 것은 이 지방의 항일운동역사가 깊고 토대가 좋았기 때문이였다. 90만에 가까운 재만조선인들은 그 한명한명이 다 인화성이 강한 화약과 같은 존재들이였다. 그들은 불시가 와닿기만 하면 아무 때나 폭발할 수 있는 위력한 폭탄들이였다.

반일애국역량의 총집결이라는 대과제는 만주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였다. 카륜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가 하나의 의정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였고 이회의를 시발로 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각계각층의 항일역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피어린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주지방사람들은 통일전선운동의 시련에 찬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토양우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씨앗이 빠른 속도로 움트고 자라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에서도 역시 시범단위를 먼저 꾸리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사방에 조직을 늘여나가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런 시범단위들은 우선 조직건설의 기초가 있고 운동경험이 있는 곳, 군중의 사상동향이 좋고 혁명성이 강한 곳, 지하전선을 움직여나갈 수 있는 지도역량이 일정하게 마련되어 있는 곳들에 선참으로 꾸리였다.

회원 3명 이상이 되면 분회를 꾸리게 하였고 분회가 3개 이상이면 지회를 꾸리게 하였으며 지회가 3개 이상이면 구회를 꾸리게 하였다. 조국광복회 현조직은 여러개의 구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적의 군대와 경찰기관, 관공서에도 꾸리게 하였다. 적기관들에 복무하면서 지하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특수회원들은 일본지도관들의 감시가 살벌한 정안군내에도 있었다.

한편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역에 조직들을 내오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그 인접구역들과 국내깊이에로 조직을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 직후 우리는 밀영에서 먼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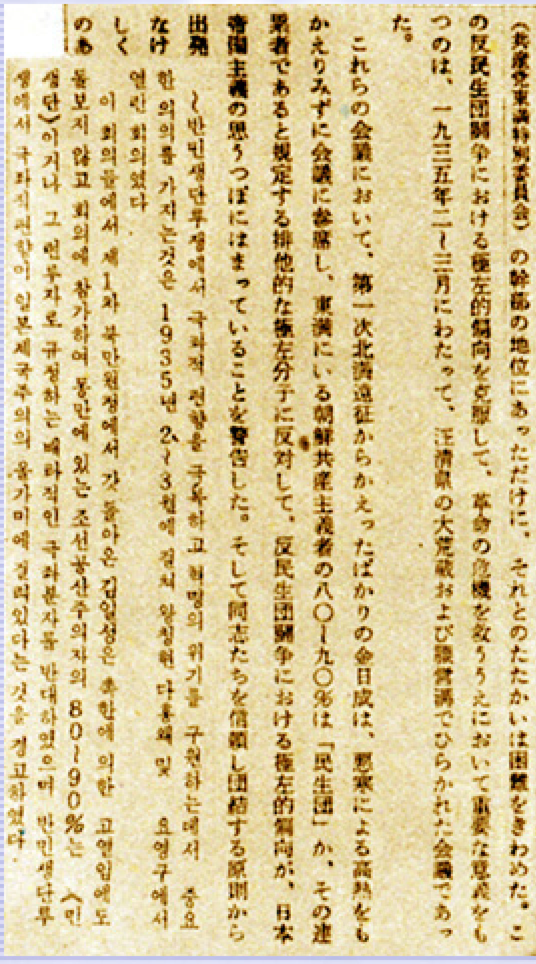
과 대원들의 회의를 열고 부대내 전체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에 가입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부대안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일치한 요구에 의한 것이였다. 그들은 사령관이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였는데 우리도 회원이 되어 통일전선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야하지 않겠는가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고 전민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선전자, 조직자가 되라고 고무해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모두가 자기앞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시키는 통일전선운동의 기수가 되였다.

우리가 서간도일대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빠른 속도로 내세울 수 있었던 전체의 하나가 바로 이 기수들의 역할에 있었다.

그 당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주역을 담당한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무장대오에서 선발된 정치공작원들이였다. 그들 중에는 한때 조국광복회준비위원회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성원들도 포함되어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불씨가 되어 만주 대륙에 통일전선운동의 열풍을 일으키였다.

1936년 가을에 벌써 왕청, 화룡, 훈춘, 연길을 비롯한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전날 대황구유격구가 자리잡았던 병랑구에는 농민협회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조국광복회 훈춘현 병랑지구위원회가 결성되였다. ≪3·1월간≫창간호는 북간도에 파견된 한 정치공작원이 화룡지방혁명가들의 열렬한 찬성과 일치한 동의안에 4개의 중심촌에 조국광복회 분회와 무장부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끝내데 대한 소식을 실었는데 이 하나의 실례만 놓고 보더라도 그곳인민들이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東満特別委員会）の幹部の地位にあっただけに、それとのたたかいは困難をきわめた。この反民生団闘争における極左的偏向を克服して、革命の危機を救ううえにおいて重要な意義をもつのは、一九三五年二〜三月にわたって、汪清県の大荒崴および腰営溝でひらかれた会議であった。
これらの会議において、第一次北満遠征からかえったばかりの金日成は、悪寒による高熱をもかえりみずに会議に参席し、東満にいる朝鮮共産主義者の八〇〜九〇%は「民生団」か、その連累者であると規定する排他的な極左分子に反対して、反民生団闘争における極左的偏向が、日本帝国主義の思うつぼにはまっていることを警告した。そして同志たちを信頼し団結する原則から出発
なけ
しく
のあ

(반민생단투쟁에서 극좌적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의 위기를 구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1935년 2~3월에 걸쳐 왕청현 다홍왜 및 요영구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회의들에서 제1차 북만원정에서 갓 돌아온 김일성은 혹한에 의한 고열임에도 돌보지 않고 회의에 참가하여 동만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의 80~90%는 《민생단》이거나 그 연루자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극좌분자들 반대하였으며 반민생단투쟁에서 극좌적편향이 일본제국주의의 올가미에 걸려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홍왜 및 요영구회의를 지도하신데 대하여 쓴 출판물

남만일대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한 것은 동강회의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항일 연군부대안의 조선인 병사, 지휘관들을 조국광복회조직들에 가입시키고 그 병사, 지휘관들을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으로 무장시키었다.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서 정치적 식견도 높고 선동력도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파견하였다. 이 사람들이 지방의 혁명가들과 손을 잡고 반석, 화전, 통화, 즙안, 공강, 환인, 관전, 휘남을 비롯하여 남만의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왔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북만땅에도 뿌리를

내리였다.

우리는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후 인차 북만의 항일연군부대에서 당사업을 하고 있던 김경석에게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보내주었다. 그는 동만에 있을 때에도 연길현 삼동만일대를 중심으로 당사업을 하였다. 나는 삼도만에 있는 동만특위 비서처를 방문하였을 때 그를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그 당시 김경석은 ≪민생단≫혐의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홍왜회의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와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우리는 주보중의 요청으로 그를 북만부대에 보내주었다. 김경석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5군내의 조선인 병사, 지휘관들속에 침투하고 핵심들을 선발하여 조국광복회 지부를 내왔다. 주보중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5군 군장의 자격으로 이 지부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떠밀어주었다.


김경석

이것이 효시로 되어 조국광복회조직들은 방정, 통하, 발리, 탕원, 요하, 영안, 밀산을 비롯하여 북만의 여러 현들에도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그 사품속에서 액목현반일동맹도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 동맹의 맹원들속에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맨처음으로 전달해주고 동맹을 조국광복회조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 인물은 그 당시 방진성과 함께 독립여단을 이끌고 관지 부근에서 활동하던 최춘국이었다.

북만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에 대하여 말할 때 김책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김책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입수하자 그 강령을 한자한자 목판에 새겨가지고 수백부나 찍어냈다. 그가 손수 찍어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과 각현의 지방혁명조직들에 널리 배포되었다. 김책은 여러 차례의 회의들을 통하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고 그 조직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요하현 삼의툰의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은 격문을 발표하여 우리의 조국광복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 격문에서 ≪제군들이여! 조국을 잊지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당파를 불문하고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반일을 하는 동포들은 모두 단결하여 반일 공동전선에 매진하자. 일반 동포들은 돈있는 사람은 돈을, 무기있는 사람은 무기를, 노력있는 사람은 노력을 조국독립을 위한 반일전선에 바치라.≫고 호소하였다. 북만사람들의 이 호소는 우리의 목소리와 일치하였다. 남만의 전우들도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최춘국

이처럼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애국애족적인 노선으로 받아들이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주되는 목표는 어디까지나 2천여만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국내에 있었다. 그것은 당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도, 무장투쟁의 확대발전도 다같이 조국을 기본무대로 하여 전개하며 조국인민의 힘을 주력으로 삼아 수행한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남호두회의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을 국내깊이 확대하는데서도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들이 품을 들여 육성한 서간도지방의 핵심적인

혁명가들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영향밑에서 통일전선운동에 매진하던 북부국경지대의 선각자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내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일본침략자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노선상 착오로 말미암아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국내깊이에로 밀려오는 통일전선운동의 과도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공격의 예봉은 우선 국경일대의 애국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로 돌려졌다. 우리의 공작선이 와닿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들과 개인들, 우리의 사상과 노선에 동조하며 우리의 무장투쟁에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는 모든 애국지사들과 운동자들은 적들이 가장 엄중시하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압록강이남의 조국인민들은 서간도의 성시와 부락들에서 총소리와 나팔소리가 나고 화광이 충천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들을 수도 구경할 수도 없었다. 인민혁명군이 대안의 성시나 부락들을 치는 날이면 적들이 강변에 나와서 구경군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저들의 패망상이 인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니 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이 국내에 침투하는 것이야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였겠는가.


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혁명군의 투쟁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국경일대의 인민들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슬금슬금 전장을 돌아보군 하였다. 인민혁명군이 적들을 요정내고 돌아간 직후이면 압록강세관을 통과하여 서간도쪽으로 흘러드는 도강자수가 몇 곱절이나 불어나군 했다는 삼수, 갑산, 후창 지방 사람들의 증언은 조국인민들이 우리의 무장투쟁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종파분자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발전에 큰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들은 자파세력확장에 혈안이 되어 반일 애국역량을 분열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성이론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면서 애국적인 지식인들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적대시하였다. 혁명은 계급적 토대가 견실한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고 지론이었다.

좌경의 지휘봉밑에서 진통을 겪는 대중운동에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망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암중모색의 길에서 헤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광명을 안겨줄 수 있는 출로는 국내혁명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강화하며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국내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가 가장 손쉽게 미칠수 있는 북부국경지대의 압록강연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 종심깊이 확대하는 방향에서 진척시키였는데 이 사업의 주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갑산과 삼수, 풍산 지구였다. 이 지구는 우리와 지역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국내 여러 곳에서 모여온 형형색색의 운동자들과 선각자들, 서간도 지방에 친척, 친우, 친지들을 둔 연고자들이 많았다.

갑산, 풍산, 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우리가 권영벽, 이제순, 박달, 박인진을 통하여 직접 지도하였다. 박달이 우리를 만난 후 동지들과 함께 갑산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여러 가

지 이름을 가진 수십 개의 하부조직들을 꾸리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바 있다.

갑산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데서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와 그 하부조직들도 한몫하였다. 장백현 18도구 주경동지회는 갑산군 강구리에 조국광복회 지회를 내올 때 큰역할을 하였다. 강구리는 주경동대안에 있는 마을이었다. 지회에서는 허리에 점심밥곽을 차고 주경동에 매일같이 건너와서 밭을 경작하는 강구리의 한 농민을 전취하여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농민은 강구리에 돌아가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로 곧 조국광복회 지회를 조직하였다. 갑산군 운흥면의 백암리 지회도 장백현에서 활동하던 조국광복회조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비롯한 갑산군안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의 산하에는 수많은 임업노동자들과 화전민들, 교인들이 결속되었다.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는 하강구 대안에 위치한 삼수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조국광복회 광생리지회는 장백현 17도구 왕가동지회 청년부 책임자이며 훗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이 된 최경화의 영향과 지도밑에 조직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고장은 풍산이였다. 풍산은 오래전부터 반일사상이 강한 곳으로서 유명하였다. 풍산지구에는 일제의 2조선강점과 함께 고향에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북행길에 올랐던 영남지방 출신의 한 화전민들과 허천강발전소 공사장에 끌려온 모집인부들이 많았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본토와 조선, 만주의 경제적 잠재력을 침략전쟁확대에 모조리 동원하기 위한 계획의 한 고리로 신흥재벌 노구찌를 내세워 수십 만 킬로와트의 발전능력을 가진 허천강발전소를 건설하게 하였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인부들이야말로 통일전선에 가장 쉽게 묶어세울 수 있는 커다란 역량이였다. 풍산땅에는 또한 수백 명의 애국적인 천도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

풍산지구를 조국광복회망으로 뒤덮으면 백두산 근거지를 개마고원일대에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후치령동쪽의 여러 지방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마고원일대를 혁명화해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함경남도와 동해안일대도 혁명화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불길을 국내깊이에까지 지펴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풍산땅을 보는 전략적 시야는 이런 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부터 풍산지방의 선각자들은 우리와 연계를 가지려고 장백땅에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그런 선각자들 중에는 혁명군에 입대할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았다.

풍산땅에 조국광복회의 씨앗을 심은 박인진, 이창선, 이경운을 비롯한 천도교계통의 인물들은 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장백에 건너와있던 풍산출신의 애국자들이였다. 맨먼저 이창선이 참군에 성공하였고 그의 소개와 주선으로 박인진이 우리와 만나 통일전선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경운이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가 개마고원일대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되었다.

풍산땅에 간 이경운은 수전공사장의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정열적으로 소개선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후 박인진과 함께 핵심적인 천도교 청년당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는 짧은 시일내에 수백 명의 천도교인들을 회원으로 흡수하였다. 천남면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인 홍군지구 반일노동회가 조직되었다. 1937년 여름 **김정숙**이 도천리－시판지구 공작을 하면서 풍산지구에 파견한 조국광복회 회원 김유진은 리창선과 함께 황수원 언제 공사장의 핵심노동자들로 조국광

복회 배상개덕지회를 조직하였다.

개마고원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풍산지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은 그곳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적 영도가 많이 미치였던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혁명군의 여러 소부대들 과 소조들이 풍산지구에 진출하여 그곳 혁명조직들을 도와주었다. 나도 신흥지구에 가서 국내혁명가들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풍산비밀근거지에 들려 천도교인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은 1930년 탄부들의 폭동으로 전국적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던 신흥지구에도 뿌리를 내리었다. 신흥지구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장백현 도천리에서 국내공작원으로 파견되어나온 조국광복회원 이효준이었다.

압록강연안과 개마고원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점차 동해안일대의 도시들과 농촌지역들에로 확대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은 동해안일대를 개척하는데서도 비상한 조직력과 전개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1937년 여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낭림, 부전, 신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허천 일대에 나와 이주연, 이용, 주동환을 비롯한 국내혁명가들과의 밀접한 연계밑에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동환은 우리와의 연계를 맺어보려고 서간도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서간도에서 왕가등촌장의 소개로 권영벽의 공작선에 흡수되었다. 권영벽과 주동환은 용정대성 중학교 시절의 동창생이였다. 주동환이 장백과 연길 지방에서 반일계몽사업을 많이 해왔고, 또 국내에 나가서도 혁명운동에 관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이상이나 감옥살이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권영벽은 그에게 북청, 단천 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맡기였다.

주동환은 국내에 나오자 북청에서 조정철과 함께 김경식 등을 흡수하여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구위원회산하에는 짧은 기간에 10개에 달하는 분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주동환은 고향에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조국광복회 단천지회를 조직하였다. 단천지회는 산하에 단천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분회를 두고 북방친목회와 남방친목회와 같은 친목단체들을 조직하여 거기에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조국광복회 장백현 하강구위원회에서는 많은 공작원들을 국내에 침투시키였다. 그때 위안찬도 여러 동무들과 함께 흥남지구에 파견되었다. 군수공장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산업중심지 흥남에서 하강구의 지하공작원들은 조국광복회 흥남지구위원회를 내오는데 성공하였다.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원산에 침투한 정치공작원들은 선진적인 반일청년단체인 고려회 성원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웠다. 고려회는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인악질교장을 축출하기 위한 동맹휴학도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도천리 지회조직에서 파견된 지하공작원들은 홍원지방에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내왔다. 그 조직의 명칭은 홍원농민조합이었다. 조합은 자기 산하에 여러 개의 지회를 두었다.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은 이외에도 이원과, 부전, 함흥 등 여러 지방들에 뿌리를 내리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동해안의 북부 여러 산업중심지들과 농어촌들에서도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 지방은 북부국경지대의 도들가운데서 일찍이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이었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구를 꾸려놓고 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이 고장 인민

들속에는 혁명적 영향이 크게 미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영향과 후원밑에서 이 지방 인민들은 일찍부터 반일구국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이 지역의 농조운동은 그 적극성과 완강성으로 하여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함경북도지방은 어느 모로 보나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비교적 빨리 다그쳐나갈 수 있는 곳이였다.

우리는 이 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였다. 국경을 끼고 있는 북부 시, 군들에는 소부대들까지 들이밀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함경북도안의 여러 곳에서 비밀근거지들과 활동거점들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청진항

한편 우리는 이 지방의 여러 시, 군들에 반일운동관계자들과 대중단체 지도자들을 근거지에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교양을 준 다음 출신지역들에 다시 들여보내여 통일전선운동을 지도하게 하였다. 청진사람이 청진지방운동을 지도하거나 무산출신이 무산지방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실정에 맞는 사업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도 유리하였지만 항일혁명이 심화되는데 따라 점점 더 늘어나는 공작원의 수요를 보충하는데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였다.

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애국투사들에 의하여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노동계급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무산, 청진, 어대진, 연사 일대와 길주-혜산선철도를 낀 농조 세력이 강한 남부시, 군들에서부터 먼저 조국광복회운동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1937년 여름에는 벌써 이 고장들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의 결성을 보게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어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서는 그 조직의 수가 수십 개에 달하였다.

함북지방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기 위한 운동이 가장 폭넓고 심도있게 벌어진 곳은 연사와 무산 지구였다. 그것은 1930년대 후반기 우리가 서간도를 떠난 후 연사, 무산대안의 올기강유역에서 주로 정치군사 활동을 하였고 또 그 무렵에 국경지대의 혁명운동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연사, 무산 지구에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자주 들여보낸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일현도 소부대를 데리고 연사지방에 다녀왔고 오일남도 7-8명으로 구성된 소조를 인솔하고 그 지구를 다녀왔다. 오중흡연대장 역시 50여명으로 구성된 4중대 성원들을 거느리고 이 고장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우리의 소조들과 소부대들이 연사땅에 한번씩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고장에서는 조국광복회 지회들과 분회들이 조직되군 하였다.

연사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 공헌을 한 지하공작원은 최원봉과 윤경환이였다. 최원봉이 연사지구 조국광복회 책임자라면 윤경환은 연사지구 당조직책임자였다. 그 두 사람은 다 장백에서 우리가 키워낸 공작원들이였다.

지금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에 안치된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 최원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형이 바로 최원봉이다.

최원봉은 줏대가 굳고 궁냥이 깊으며 혁명성이 강한 사람이였다. 그의 이런 우점을 맨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값높게 평가한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였다. 김주현은 동

강에서 선발대의 임무를 받고 장백에 나와있을 때 최원봉을 찾아내여 권영벽과 이제순에게 소개하여주었다.

장백현 18도구 영화동이라면 원군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이름난 고장이었고 항일혁명투사들을 많이 배출해낸 것으로도 유명해진 고장이다. 바로 이 영화동에서 조국광복회 지회장 겸당소조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 최원봉이었다. 그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한 사람은 김주현과 김세옥이였다. 그들의 지도와 격려밑에 최원봉은 조국광복회조직도 내오고 당소조도 뭇고 생산유격대도 조직하였다. 김주현은 18도구에 올 때마다 최원봉과 김세옥의 집 뒤고방에 거처하면서 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최원봉

최원봉은 유격대후방가족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을 고스란히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었다.

1936년 가을 3종점 부근전투가 있은 후 나는 밀영에서 원군물자를 지고 짐군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최원봉을 만나 보았다. 얼핏보아도 똑똑하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통이 별로 크지 않은 중키의 사람이였는데 군중을 잘 통솔하였다. 그의 구령 한마디에 짐군들이 모이기도하고 헤쳐지기도 하였다. 최원봉은 우리에게 군사정보도 여러 차례 보내주었다.

1937년 5월경 우리는 무산군을 비롯한 북부지방들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최원봉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다. 연사지구에 도착한 최원봉은 다른 공작원들과 함께 연면수 상류일대의 떼무이공들과 유벌공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분회조직을 꾸리었다.

최원봉의 성실한 방조자인 윤경환은 김일이 장백현 8도구 가재수에서 공작할 때 그 고장의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되어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김일과도 인연이 깊었지만 김성국과도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도 최원봉처럼 원호물자를 지고 우리 밀영에 여러 번 왔다갔다. 우리가 가재수를 치고 밀영으로 철수할 때에도 윤경환은 전리품을 지고 짐군들속에 섞여 우리를 따라왔다.


이동걸

적들은 유격대에 짐을 지고간 사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선을 찾아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체포의 위험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은 윤경환은 가족들을 데리고 동만에 옮겨와 신개촌이라고 부르는 올기강유역의 옥돌골 상촌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우리는 윤경환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고 그를 이지구 당조직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언제인가 윤경환은 조직성원들과 함께 후방물자를 지고 곧은골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부대에 찾아왔다가 연사지구에 분포된 조국광복회 분회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구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갔다고 한다.

나는 이미 국사봉회의에서 연사지구 동무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을 준 바가 있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운동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자면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더니 그들이 다 그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었다.

윤경환이 짐을 지고 우리 부대에 찾아온 것은 이동걸(김준)이 적들에게 체포되기 전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동걸은 청봉밀영에서 과오를 범하고 책벌을 받은 후

연사, 무산 지구에 나와 정치공작을 하였다. 그는 최원봉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연사지구의 혁명운동을 지도하였다.

우리는 이동걸의 후임으로 국내공작경험이 있는 **김정숙**을 연사지구에 파견하였다.



이주연

김정숙이 연사지방 혁명가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조국광복회연사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가 그 회의를 마치고 사령부로 돌아와서 연사조직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재봉기 한 대를 내놓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최원봉을 비롯하여 조국광복회연사조직에 망라된 애국자들은 무산지구전투때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다.

이동걸과 최원봉, 윤경환의 희생으로 하여 연사지구조직공작의 내막은 오래도록 비밀로 묻혀있었다. 그 비밀의 일단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초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으로 벌어지던 때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서선지방과 중부조선, 남부조선 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도 응당한 주위를 돌리었다.

평안남북도지방은 황해도지방과 더불어 민족주의세력이 매우 강성했던 지역이었다. 서부조선일대는 천도교세력과 기독교 세력도 대단히 강하였다. 그런데 이 종교세력이 순수 신앙에만 매달려있은 것이 아니라 애국애족을 하였다. 3.1인민봉기 당시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포함한 조선의 3대종교세력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경민

서선지방의 청년들속에서는 김혁, 차광수, 강병선을 비롯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배출되였다. 우리는 공영과 강병선을 통하여 일찍부터 이 일대에 손을 뻗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불이 농장 소작쟁의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용천지구에 나가서도 군중을 의식화하였다. 불이 농장 소작쟁의는 반일에서 살길을 찾고 있던 이 지방 인민들의 강의한 투쟁정신과 애국열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서북조선일대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 신의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1937년 7월초에 이 도시에서는 조국광복회 신의주지회가 결성되었다. 8월에는 빈농민들과 유벌노동자들을 망라하는 리산반일회가 위원에서 조직되었다. 지하공작원들은 압록강중류지대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연속적으로 꾸려놓았다. 강병선은 일가친척이 모두 천도교인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교의 줄을 잡아쥐고 조직공작을 능숙하게 벌려 여러 개의 조직들을 만들어 놓았다.



평양의 일각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의 조직건설을 뿌리는 후창군과 철산군에도 뻗어갔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위하여

양덕과, 덕천, 평양과 해주, 벽성 등지에도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는 이주연, 현준혁, 최경민 등이 큰 공로를 세웠다.

이주연이 단천에 있다가 평양으로 나온 것은 반일운동을 새로운 고장에서 더 통이 크게 벌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평양정창고무공장직공반일회, 평양곡산공장노동반일회, 남포반일회 등은 다 이주연이 꾸려놓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였다.

대구에서 감옥생활을 마친 후 평양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현준혁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받아물고 승호리세멘트공장 노동계급속에 들어가 조국광복회지회를 조직하는데 참가하였다.

나의 4촌동생 김원주가 망라되어있던 조국해방단과 강서지구의 일심광복회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었다.

한때 무송에서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주다가 조국에 나온 최경민은 양덕지구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그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속에까지 깊이 스며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조국광복회조직에 받아들이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은 평안남도 온천지방에도 있었다.


민덕원

황해도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서는 우리 공작원들에 의해 흡수된 민덕원이 주역을 담당하였다. 황해도일대에는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이 개척한 비밀근거지들이 많았다. 이 근거지들에서 활동하던 우리 공작원들이 민덕원을 쟁취하여 그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에 인입하였다. 민덕원을 비롯한 황해도지방의 애국자들에 의하여 도안의 곳곳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연이어 태어났다.

동해안중부지방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엔 노동계급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천내지구와 양양, 고성, 문천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천내리세멘트 공장 반일노동회는 규모도 컸지만 실천투쟁을 잘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양양의 속초구국회의와 고성의 장진반일회도 조국광복회조직이었다.

남부조선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토분단으로 하여 충분히 발굴되지 못하고 있지만 일제 경찰자료 들에 남아있는 것들만 해도 그 수는 많다.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 그 활동에 관한 자료가 여러 건 발굴되었다.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이 오까야마를 비롯하여 도꾜에도 있었고 교또나 오사까, 호가이도에 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20여만의 회원을 가지고 전민항쟁에로 육박하던 조국광복회조직은 조선민족해방투쟁역사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하나의 기념비이다.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민족해방위업에 조직동원하는데서 이 조직들은 실로 거대한 공헌들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첫째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는데서 세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통일전선운동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해방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 무장한 원쑤들과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야한다는 사상, 조선인민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자면 계급, 성별, 연령, 당파,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해야 하며 전세계 피압박 민중들과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펼쳐야한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비약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은 1930년대 후반기의 민족해방투쟁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의 개조에서 특기할 것은 그들이 무장을 들고 일제와의 혈전을 벌이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국해방의 주력으로 보고 우리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우리의 영도를 더욱 충실하게 받들어 나가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1930년 후반기부터 인민혁명군의 중심활동거점인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였다.

조선의 인민대중은 백두산에서 울리는 목소리라면 어떤 것이나 다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였고 대소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였으며 백두산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조선혁명의 영도중심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실성은 곧 인민혁명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표현되였다. 전국의 인민은 재력과 금력, 인력,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후원해주었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유격대를 도와주기 위한 전인민적인 운동을 힘있게 벌이였다. 조국광복회 갑산지회에서는 원래 천도교인들이 바치는 ≪성미≫를 천도교중앙에 올려보내군 했었는데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그 ≪성미≫를 조직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에 보내였다. 인민혁명군이 식량고생을 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서간도사람들은 결혼잔치, 환갑잔치, 생일잔치감으로 모아두었던 쌀마저 서슴없이 보내주었다.

조국광복회 신의주지회 조직성원들은 압록강에 수풍발전소의 언제가 준공되던 1938년경까지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에 짐배로 원호물자를 실어왔다. 그 원호물자들 가운데는 천, 신발, 소금, 화약, 뇌관, 도화선을 비롯하여 별의별 것이 다있었다.

언제가 준공되고 뱃길이 막힌 후부터는 중국 단동시의 3번통과 6번통에 각각 원호물자를 모아두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물자를 집결시켰다가 자동차와 철도로 관전, 홍경, 통화지방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의 대부대들과 소조들에 보내주었다. 마전동분회의 어떤 조직원은 반 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돛배를 한 척 사서 낮에는 삯짐을 실어 돈벌이를 하고 밤에는 조직성원들이 수집한 원군 물자를 싣고 슬금슬금 인민혁명군을 찾아가군 하였다.

조국광복회회원들은 백두산에서 1.000리 이상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서울에서도 혁명군의 활동에 필요한 후방물자를 구해서 보내주었다.

조국광복회북청조직의 한 성원이였던 전조협은 북청군 속후 ≪삐오네르사건≫에 관계한 ≪죄≫로 형무소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인데 1937년 이후부터는 조직의 위임에 따라 서울에 가서 지하공작을 하였다.

그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유격대지원을 위한 모금사업으로 물지게 장사를 시작하였다. 원래 북청사람들은 물지게장사를 하여 서울공부를 하는 자식들의 학비를 대주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전조협에게는 서울공부를 시킬만한 자식이 없었지만 혁명을 위하여 물지게를 지였다.

그는 물지게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천, 신발, 백로지, 의약품, 등사잉크를 비롯한 원군물자들을 마련하였다. 그가 원군물자들을 구하여 북청에 부치면 그곳 조직에서 우리한테 보내주군 하였다.

한번은 그가 아침 일찍 물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노상에서 여자용금시계를 얻은 일이 있었다. 부자집 여인들도 흔히 찰 수 없는 고급시계였다.

그는 시계임자를 찾기로 결심하고 언덕 길주변의 집들을 돌아다니였다. 시계는 가게방집 딸이 약혼선물로 받은 것이였다.

시계를 찾은 가게방집 사람들은 그 시계의 본값보다도 더많은 사례금을 주었다.

결국 그 돈으로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금시계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가게방집사람들과 혈육처럼 가깝게 지냈다. 가게방집 사람들은 전조협의 영향을 받아 항일유격대를 무한히 동경하게 되었으며 유격대를 돕는 일이라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전조협이 요구하는 물자들을 직접 장만하여 북청에 부쳐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의 평범한 소시민가정도 조국광복회원의 안내로 원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 국내조직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업, 파업, 시위, 폭동, 소작쟁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일제의 강도적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일제의 대륙침략과 전쟁정책 수행에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 지도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통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이 운동을 통하여 당조직건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마련한 것이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 육성된 핵심들로 전국각지에서 당소조들을 무었다. 이 소조들이 결국은 조국광복회조직들도 지도하고 대중투쟁도 지도하였다. 투쟁속에서 태어나 투쟁을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끊임없이 단련된 당조직들이야말로 장차 해방된 조국땅에서 근로대중의 위력한 정당을 창건할 수 있는 초석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은 또한 조선의 혁명가들로 하여금 대중단체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도 쌓게 하였다.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민청, 직맹, 여맹, 소년단과 같은 계층별 대중단체들을 건설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과정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실로 애국적이고 애족적이며 혁명적인 강유력한 통일전선의 참모습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을 축으로 하여 형성된 반일민족통일전선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통으로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전 과정은 조선인민이 분열이나, 대립보다 통일이나 화합을 더 좋아하는 인민이며, 당파와 소속,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발밑에 뭉쳐 싸워나갈 수 있는 뛰어난 의지를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노동당시대의 우리 인민들은 그 단결력의 최고형태인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미 오래전에 실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쪽으로 갈라진 북남의 통일이다. 조국통일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은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민족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고 관점이다. 무슨 담보를 가지고 북남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통해 이룩한 민족통일전선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반세기전에 이미 통일전선의 경륜을 훌륭하게 이루어온 우리 민족이 왜 지금에 와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겠는가. 그 이유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조건 통일전선을 해야한다. 통일전선만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전선은 민족이 민족으로 살아남는데 필요한 영원한 생존방식이다. 민족이 살아나갈 길도 통일전선에 있고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는 길도 통일전선에 있다. 이것이 내가 해내외의 우리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5. 권영벽


권영벽

권영벽은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였다. 선전일군이라면 의례히 말을 잘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는 사단선전과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요긴한 말을 조리있게 몇 마디 할 뿐 실속없는 빈말을 늘어놓거나 한번 한 말을 다시 곱씹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얼굴표정이나 외모를 보아서는 그의 생각과 감정상태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었다.

권영벽은 거짓말을 하거나 허장성세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다고 말한 것은 몸이 열 쪼각 나도 기어이 해내는 사람이였다. 언행의 일치, 아마 그것이 권영벽의 사람됨을 단 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는 특징이며 인간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백두산과 서간도를 주되는 활동지대로 삼고 싸우던 당시 권영벽에게 장백현당위원회 책임자의 중책을 맡긴 것도 기실은 그 인간적 매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였다.

장백현당 책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장백현당은 우리가 백두산밀영에서 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열고 무슨 노선을 세우거나 긴급한 과업을 제기하면 그것을 제일 먼저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추적인 당조직의 하나였다. 우리가 내놓은 노선이나 과업들은 많은 경우 장백현당과 국내당공작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통하여 서간도와 북간도, 국내에 전달침투되였으며 그 집행과정도 대부분은 이 통로를 거쳐 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보고되였다.

장백현당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은 우리가 백두산밀영에 활동거점을 잡은 조건에서 서간도 땅을 또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국내와 만주에서 혁명을 확대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과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 새 형의 당을 창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국내당공작위원회와 동만당공작위원회, 장백현당위원회 등을 통하여 당조직건설과 전반적인 항일혁명을 영도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930년대 전반기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근거지를 꾸려놓고 싸울 때 소왕청이 항일혁명의 중심지로 되였던 것처럼 후반기에는 서간도를 포함하는 백두산근거지가 항일혁명의 중심지로 되였다. 백두산밀영은 그 중심에 있는 핵이였고, 백두산주변 국내의 넓은 지역과 함께 장백땅은 그 핵을 둘러싼 살이였다. 장백땅에는 우리가 건설한 밀영들이 많았다. 그 밀영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자면 장백땅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고 장백지방의 인민들을 혁명화해야 했다.

장백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운동을 전개해나가자면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하였다. 만주국의 통치는 서툴었지만 장백에 있는 일본의 첩보세력이라든가 일만군경의 ≪토벌≫역량을 간단한 것이 아니였다. 우리가 국내로 진출할 때 장백땅을 반드시 경유한 것처럼 적들도 우리를 치자면 반드시 장백땅을 거쳐야하였다. 장백은 적아쌍방이 다같이 중시하는 군사전략상 요충지였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장백현당 책임자를 선발하는데서 기준을 높이 세웠다. 장백현당 책임자라는 중책을 감당하자면 큰 담력과 선도력, 포용력, 조직력,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였다. 지하전선을 움직이는 것만큼 정확한 판단력과 치밀성, 임기응변의 지략도 지니고 있어야 하였다. 특히나 시야가 넓어야 하였다.

이런 표징을 갖춘 인물을 고를 때 내 머리에 선참으로 떠오른 사람이 다름아닌 권영벽이었다. 김평도 그를 추천하였다.

나와 권영벽은 동창도 아니였고 동향인도 아니였으며 유격구 시절부터 한 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한 사이도 아니었다. 1930년대 전반기 유격구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 나는 왕청에 있었고 권영벽은 연길에 있었다. 권영벽은 교하원정을 참가하였다가 1936년 10월에야 백두산밀영으로 찾아와 주력부대에 편입되었다.

권영벽은 일찍이 중학시절부터 반일운동에 참가하였다. ≪불온학생≫으로 지목되어 퇴학처분을 당한 다음부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었다. 나는 동만지구에 있을 때 오중화인가 박영순한테서 권영벽에 대한 일화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 일화란 아버지의 장례날 그가 당한 참극과 그때에 나타낸 그의 비상한 자제력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날 공작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받은 권영벽은 저녁어스름을 타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구앞에 서기도 전에 어느새 낌새를 챘는지 말탄 헌병들이 장례현장에 달려들어 식구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권영벽에게 네놈이 권창욱이냐고 물었다. 창욱이란 그의 아명이었다. 권영벽은 헌병들 중에 자기 얼굴을 아는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공손하게 동생 창욱이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후 어데 가있는지 몰라서 부고조차 보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그 시각에 형 권상욱은 마침 도가에 가고 없었다. 그 통에 권역벽은 권상욱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적들은 권영벽을 잡지 못한 분풀이로 영구가 놓여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집이 다 타서 재가 되는 것까지 보고서야 물러가버리였다.

권영벽은 아버지의 시신이 처참하게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도 입술을 앙다물고 비분을 참고 견디였다. 공작지로 돌아간 그는 동지들이 부어주는 술도 마시지 못하였다. 자기의 이발에 깨물리운 혀와 입술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며칠동안 죽도 먹지 못하였다.

권영벽은 동만의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비상한 자제력을 가진 청년투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혁명가가 원쑤들을 타승하고 대의를 성취하려거든 권영벽쯤은 되는 참을성을 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이나 고통을 참을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례날의 그 일화를 들은 사람들이 다 권영벽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두 번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권영벽이 대항해나서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자식으로서 어찌 처신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놈들이 영구를 불태워버리지 못하게 막아나서야 할 게 아닌가고 비난하였다.

그런 비난을 두고 권영벽의 지지자들은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순간에 놈들에게 대항해나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권영벽은 적들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적들에게 항거해나서면 즉석에서 총살당할 것이고 잘되는 경우라야 감옥에 잡혀가겠는데 그러면 혁명도 못하고 말 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권영벽은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집을 떠나면서 안해에게 이런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요. 설사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혁명이 10년후에 성공하게 될지, 20년 후에 성공하게 될지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은 나를 기다리느라 하지 말고 당신 나름대로 살길을 찾소.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재혼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겠소. 다만 부탁할 것은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키워달라는 것이요.≫

이 작별인사 역시 시비거리가 되였다. 안해에게 하는 작별인사치고는 너무도 몰인정하다는 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성일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같은 값이면 왜 나는 이기고 돌아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안해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조선여자들에게는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혁명의 길에 나선 남편들을 기다릴만한 절개와 의리도 없단 말인가, 여자들을 얕보아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권영벽이 안해에게 했다는 말을 직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보다 더 혹독한 비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혁명의 길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안해를 참답게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혁명은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온몸과 넋을 깡그리 연소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투사가 아니고서는 그처럼 솔직하고 비장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권영벽의 그말에서 오히려 참다운 인간상을 발견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1935년 봄에 나는 요영구에서 권영벽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당시 거기서는 동만각지의 유격부대들과 혁명조직들에서 활동하는 일군들을 선발하여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군정강습을 주었는데 그 수강생들 가운데 권영벽도 끼여있었다.

광란적인 반≪민생단≫투쟁소동으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이국의 고혼으로 사라진 그때 강습장에서 그를 대하게 되니 마치 다정한 옛 벗을 보는 것만 같아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는 서로 통성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첫 상면치고는 꽤 진지한 담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가운데는 안해와 헤여지던 때의 장면도 있었다.

≪안해에게 좀더 살뜰한 말을 남기고 떠날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슴이 덜 아팠을게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로 아쉬움을 표시하자 권영벽은 머리를 가로젓는 것이였다.

≪아무 때건 당할 아픔인데 뒤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무는 지금도 살아서 안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권영벽은 그 물음에도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살아서 조국이 광복되는 것도 보고 고향에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런 행운이 나한테는 차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적들과의 결전에서 뒤자리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위해서라도 언제나 맨 앞자리를 차지할 작정입니다. 선두에서 결사전을 벌려야 할 이 몸이 어찌 살아날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그런 우연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한말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었다.

권영벽의 그 후 행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실제로 혈전장에서나 지하전선에서나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앞자리에 서군 하였다. 2연대가 교하원정을 할 때 권영벽은 2중대 당지부서기로 있었다. 원정대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어 괴멸당할 번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으나 그때마다 그는 오중흡을 비롯한 전우들과 함께 연대를 구출해내군 하였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한다는 국경경계마을을 뚫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박달에게 나의 사신을 맨처음으로 전달한 사람도 권영벽이였다.



오중흡

우리가 권영벽을 장백현당 책임자 후보로 내정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1930년대 전반기 간도에서 사업할 때 일정한 지하공작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데 있었다.

권영벽의 가장 큰 우점은 사람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할줄 안다는데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잘 끌어당기였을 뿐 아니라 끌어당긴 사람들을 원만하게 통솔할줄 아는 일군이였다.

황남순(황정열)은 지금도 그가 옹성라자에 가서 그 마을 좌상노인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던 일을 감명깊게 회상하고 있다. 그 좌상노인의 성미가 이만저만 드세지 않았던 모양이였다. 공작원들이 여러 번 옹성라자를 개척하려고 침투해보았으나 그 노인 때문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고 한다. 원인은 공작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사상부터 주입하려 한데 있었다. 특히 그들은 좌상노인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 노인을 봉건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따돌리기만 하고 쟁취할 궁리는 하지 않았다. 옹성라자의 그 좌상노인이 분명 오가자의 ≪변트로츠키≫ 영감만치나 대가 세고 완고하였던 것 같다.

권영벽은 자기 식대로 그 좌상과의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우선 노인이 예의범절을 잘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격식을 차려 초면 인사부터 깍듯이 하였다. 노인앞에 나타나자마자 조선예법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서 ≪노인님, 저는 생활이 넉넉치 못해서 떠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마을 인심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권영벽의 남다른 예절과 인품에 기분이 흐뭇해진 좌상노인은 ≪그 젊은이 과연 인사범절이 밝다. 뉘집 후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절지키는걸 보니 속이 익었거든. 우리 마을 인심이 무던한데 여기서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세나.≫라고 하면서 점심까지 대접하였다. 옹성라자에서는 이 노인을 쟁취하는 것이 전투장에서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만치나 힘든 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권영벽은 조선절 한 번으로 그 고지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마을혁명화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권영벽을 장백현당 책임자로 내정한 다음 그로 하여금 현을 한바퀴 돌아보게 하였다. 현실연구를 시키자는 것이었다.

권영벽은 한 달가량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밀영에 돌아왔다.

1937년 2월 우리는 권영벽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지하공작원들과 함께 황산밀영에서 모임을 가지고 장백현당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권영벽은 현당책임자의 직무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 현당부책임자로는 이제순이 추천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산하의 구당과 당소조들을 확대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나는 이날 권영벽에게 사업범위를 넓혀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국

내깊이에로 확대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참군희망자들을 혁명군에 추천해보내는 문제, 적기관복무자들을 쟁취하여 조직에 받아들이는 문제, 조직성원들의 힘으로 군사정찰을 진행하는 문제 등 장백현당앞에 나선 여러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후 나는 인차 그를 적구에 파견하였다. 권영벽이 적구를 내려갈 때 우리는 그에게 황남순을 방조자로 붙여주었다. 권영벽과 황남순은 공작상 필요에 따라 부부로 위장하였다. 이것은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위장방법이였다.

황남순은 일찍부터 지하공작경험을 쌓은 여자였다. 그는 15살 때 석인구 지장골이라는 마을에서 지하공작을 한 적이 있었다.


황남순(황정열)

어느 날 황남순은 지장골의 한농가에 가서 주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다가 그 집 부엌에 걸려있는 가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암촌유격구에서 살 때 자기 집에서 쓰던 바로 그 가마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어 유격구에 있던 가마가 이 집 부엌에 와 걸려 있을가. 혹시 이 집 주인이 ≪토벌대≫를 따라갔다가 놈들한테서 받아온 것이 아닐까.)

황남순은 며칠동안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장골의 지하조직성원들은 그 사연을 알게 되자 개가 틀림없으니 그 집을 아예 마을에서 들어내자고 하였다. 하지만 황남순은 인내성있게 주인집사람들을 알아보기에 노력하였다. 그 는 과정에 그 가마가 ≪토벌대≫가 부암촌유격구에 쳐들어가 집마다 불을 지르고 가재도구들을 소각해버릴 때 적들이 뽑아던진 가마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달구지와 함께 ≪토벌대≫에 강제로 끌리어 부암촌까지 따라갔던 집주인이 불탄 집터 옆에서 나딩구는 황남순네 집가마를 처싣고 돌아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황남순과 지창골에 나갔던 임수산은 지하공작에서 실패하였다. 임수산은 이론도 있고 풍채도 좋은 신수 멀끔한 사람이었지만 군중들과 어울릴줄 모르다보니 호감을 사지 못하고 식객취급을 당하였다. 그는 어떤 반일회원네 집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하루 세끼씩 차려주는 밥이나 축내면서 집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만 하였다. 어쩌다가 외출이라고 문밖을 나서는 경우에도 뒤짐을 지고 마을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듯한 질문을 연거퍼 들이댐으로써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곁에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 임수산은 지장골 사람들속에 종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유격구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기를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한 특수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결국 군중의 버림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만다.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사람들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서만 맴돌면 군중의 호감을 살수도 없고 그들을 쟁취할 수도 없다.

권영벽과 황남순을 장백으로 파견할 때 우리 밀영에는 장백현에서 활동하는 지하공작원들이 많이 와있었다. 권영벽은 그날 그들과 함께 나한테서 적구공작임무를 받았다. 그가 임무를 흔연히 받아들이었으나 나는 마음이 가볍지 못하였다. 그에게 너무도 아름찬 과업을 짊어지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장백지구는 7도구로부터 25도구까지 포괄하고 있어 사실 합법적인 당사업을 한다해도 헐치 않은 넓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그는 장백현당사업을 지도하면서 국내운동에도 깊이 관여해야 하였다.

장백으로 파견되는 지하공작원들과 헤여질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양개의 농민들이 음력설을 쇠라고 보내준 감자엿을 깨여먹던 일이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여서 진수성찬은 차려주지 못하고 엿을 한쪼각씩 나누

어 먹었는데 왜 그런지 그것이 오히려 깊은 감회를 자아낸다.

≪나는 동무에게 장백을 맡긴다. 장백과 나아가서는 서간도를 다 장악해야 우리 인민의 지도원도 받을 수 있고 혁명군의 인적 후비도 마련할 수 있다. 서간도를 틀어쥐지 못하면 우리가 대부대로 압록가을 넘나들며 국내작전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해 봄이나 여름부터 조국진출을 단행하려고 한다. 동무는 이제부터 적구에서 인민들과의 사업을 잘해야한다. 동무의 임무는 당조직건설을 하면서 인민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다. 인민들을 전취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동무에게 달려있다. 나는 동무를 믿는다.≫

이것은 권영벽을 바래주면서 내가 한말이다.



왕가골

권영벽이네가 공작지로 떠나는 날 오전 우리는 한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출발은 아주 부산스럽게 되었다.

권영벽은 17도구 따스포네 집과 20도구 이제순의 집을 거쳐 공작 거점으로 사령부가 이미 내정해준 17도구 토기점리에 무사히 침투해 들어갔다. 왕가성을 가진 중국인지주가 세도를 부리던 곳이라고 하여 일명 왕가골이라고 부르는 17도구는 장백현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고장이였다. 게다가 압록강만 건느면 호인, 혜산 등지를 거쳐 국내깊이에도 가닿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왕가동은 왕가골에 있는 한 개 부락이였다.

권영벽은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서 일공노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떼운 서응진의 외조카로 가장하고 토기점리에 자리를 잡았다. 서응진은 연길지방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반일조직에 망라되어 혁명사업을 해오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주해온 노숙한 지하공작원이였다. 서응진, 최경화를 비롯한 17도구의 혁명조직성원들은 권영벽이 적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왕가동에 무난히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뙈기밭도 떼주었으며 왕가동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뇌물로 아편을 찔러주고 거주 승인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권영벽은 권수남으로, 황남순은 황정열로 각각 변성명을 하고 조직원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가짜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다. 훗날 권영벽은 황남순을 부를 때마다 ≪동무≫라는 호칭이 튀여나와서 당황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고 실토하였다.

원군물자공작조를 데리고 17도구를 다녀온 김주현은 왕가동 주민들속에 벌써 새 ≪부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이 고장에 발을 붙인 첫날부터 진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동리 사람들의 일손을 직심스럽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권영벽은 공작상 필요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다가도 남자의 손이 닿아야 할 일거리가 눈에 띄우면 나무도 패주고 작두질도 해주고 마당도 쓸어주었다. 관혼상제를 하는 집에 가서는 떡도 쳐주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가 돼지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솜씨를 본사람들은 권영벽을 가리켜 한결같이 백정 찜쪄먹을 사람이라고 하였다. 왕가동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잡을 일이 생기면 권영벽부터 찾군하였다고 한다.

두 공작원은 일솜씨와 일본새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 그들은 남들이 자기네를 도와주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면서도 자기네가 남들을 돕는 것은 응당한 일로 여기였다. 권영벽은 지하공작원이 남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존재로 된다면 그 공작은 벌써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제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실농군처럼 자기

집일도 직심스럽게 하였다.

권영벽이네가 왕가동에 갓 자리를 잡았을 때 그곳 조국광복회원들은 지하사업으로 분망한 그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땔나무를 해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영벽은 그 선의를 한사코 막았다.

≪여러 분, 고마운 일이지만 이러지 말아야합니다. 평농사군한테 땔나무까지 해다주면 적들이 인차 우리를 수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고 싶더라도 참아야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지하조직 성원들은 다른 수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땔나무를 하면 권영벽이네 집에 직접 지어다주지 않고 그가 다루는 보리밭 머리에 몰래 가져다 놓군 하였다. 그런데 권영벽은 조직원들의 이 성의마저도 마다하였다. 그는 땔나무도 손수해오고 거름도 직접 져냈다.

권영벽은 왕가동에서 사업하는 동안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본적이 없었고 늦게까지 누워있어 본적이 없었다. 그는 다른 공작지에 가서도 하루 3-4시간이상 자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벽은 허술한 봇짐을 메고 줄곧 어디론가 나돌아다니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부부사이에 금슬이 좋지 못해서 아마 자주 외박을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강구의 7도구로부터 상강구의 25도구에 이르는 수백 리의 노정을 권영벽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발이 닳게 돌아다니였다. 장백현에 부락들이 많았지만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부락이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나들처럼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언제인가 밀영에 사업보고를 하려고 들어온 권영벽을 보니 두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있었다. 몸을 돌보면서 일을 해야지 한두 해만 혁명을 하다말겠는가고 나무라는 말을 했더니 그는 조직을 내오는 재미가 어찌나 아기자기한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권영벽과 그 전우들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7년 초봄까지는 장백현의 거의 모든 중심부락들에 지하당조직들이 나왔다. 권영벽의 산하에는 수많은 당소조들과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직들이 태어나 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생산유격대들도 당조직들의 보호와 지도밑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밤에 장백땅을 활보하며 민심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만주국의 관리가 아니라 권영벽의 손탁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들이었다.

권영벽은 이전보다 더 분망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직접 교양하고 육성한 믿음직한 공작원들이 여러 명 국내에로 들어갔다. 17도구의 지하혁명조직들은 지하공작의 담당자들을 양성해내는 원종장이나 다름없었다.


권영백의
공작아지트

권영벽은 반군사조직인 생산유격대를 통해서도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였다. 생산유격대에 망라된 청장년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혁명조직을 보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시에 무장투쟁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권영벽은 조직원들인 촌장들과 상론하여 자위단의 야간순찰대를 생산유격대원들로 꾸리게 하였다. 생산유격대원들은 야간순찰대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적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였다.

많은 생산유격대원들이 권영벽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투사로 자라났다. 최경화도 그의 지도밑에서 왕가동지회 청년부책임자 및 특수회원책임자, 왕가동당지부 조직담당책임자로 성장하였다. 그의 맏아들도 아동단조직에서 투사로 자라났다.

권영벽은 오래전부터 참군을 열망해온 최경화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여 보냈다.

사생활에서나 언제나 결백하고 양심적이고 고지식한 권영벽이였지만 지하전선의 중임을 맡은 다음부터는 순간순간마다 능란한 위장책을 써가면서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고 자기자신과 동지들과 조직들을 철저히 보호하였다. 조직의 핵심성원들을 적기관의 요직에 박아넣은 것도 일종의 위장책이였다.


최경화

권영벽은 지하당조직이나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된 촌장들이 적들의 신임속에서 안전하게 원군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 군수관의 명의로 된 편지를 나누어주어 경찰에 가져다 바치게 하였다. 편지에는 아무날까지 어떠어떠한 원군물자를 마련해 놓으라고 요구와 함께 이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촌장의 신변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경고편지를 들고오는 촌장들을 충직하다고 치하하였다. 그런데 유독 왕가동촌장만은 권영벽이 짜준 각본대로 편지를 바치지 않았다. 이 유다른 행동이 적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반절구경찰서 서장은 촌장을 불러다 놓고 노발대발해서 당신은 ≪공비≫와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쥐고 있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을러메였다.

왕가동촌장은 태연스럽게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 나는 혁명군의 ≪빨간콩알≫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리님들을 위해 촌장노릇을 하고 있는데 ≪통비분자≫라는 감투를 씌우니 매우 섭섭하다고 하였다.

서장은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한 촌장이라면 응당 이런 것을 가져다 바쳤을 것이 아닌가, 다른 촌장들은 다 바쳤는데 당신만은 왜 시치미를 떼고 있는가고 하면서 서랍을 열고 혁명군군수관의 편지를 꺼내놓았다.

왕가동촌장은 그제서야 괴춤에서 편지를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나도 물론 경고장을 받았다. 혁명군이 나한테라고 왜 물자를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자, 이것이 그 경고문이다, 그렇지만 난 나리님들을 생각해서 우정 바치지 않았다, 나리님들이 이 편지를 보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한다하는 ≪토벌대≫들도 몇 백명씩 무리를 지어갔다가 혁명군한테 얻어맞고 쫓겨왔는데 이런 자그마한 경찰서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런 편지를 가져다 바친대야 오히려 나리님들을 딱하게나 만들지 않겠는가, 혁명군하고는 적당히 지내는게 상수다, 우리가 좋도록 처리할터이니 서장님은 모르는체 하고 있어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경찰서장을 감동시키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서장은 그를 각별히 신임하게 되었다. 권영벽의 각본이 단발명중한 셈이다. 지하공작과정에 나 자신도 체험한 바이지만 적구에서 자기자신과 동지들과 조직을 위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최대한의 지혜와 창발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권영벽은 이 중하를 믿음직하게 감당해냈다.

우리는 1937년 봄에 국내 진공작전을 앞두고 국민의 협동으로 보천보시가지에 대한 여러 갈래의 정찰을 조직하였다. 보천보를 정찰할 데 대한 과업은 장백현당조

직에도 떨어졌다.

국내진공작전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권영벽은 그 정찰임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떠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정찰을 하자면 여러 날동안 외지에 가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길을 떠나게 되면 적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미행을 당할 수 있었다. 농사군이 농번시기에 여러 날을 집을 비우고 나들이를 간다는 것은 정상을 벗어나는 일이였다.



보천보 시가

권영벽은 이번에도 누구나 다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한조직원을 장백시내에 있는 우정국에 보내여 거기서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를 치게 하는 방법이였다. 그 조직원이 장백에 가서 친 사망전보는 그날로 우편배달부의 손을 거쳐 권영벽에게 전달되였다. 배달부가 왕가동에 오면서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의 ≪불행≫을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적들도 알게되였다.

노인들은 부조를 돌고 권영벽을 찾아와 부친상을 당했다는데 왜 안떠나고 있는가고 하면서 걱정하였다. 권영벽이 남의 땅을 부치는 농사군이 바쁜 농사철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자리를 비우자니 걱정이 되어 그런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세상에 부친상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 밭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어서 떠나라고 하였다. 그는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가동을 떠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권영벽의 간절한 청원을 마다할 수 없어 우리는 그를 보천보전투에도 참가시키였다.

권영벽이 전투를 마치고 17도구에 돌아왔을 때 조직성원들은 그가 ≪상제≫구실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그는 부친상을 치르고 돌아온 자식답게 상복차림으로 동네의 조객들을 맞아들이었다. 자신을 위장하느라고 선량하고 순박한 늙은이들까지 속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의 그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권영벽은 사령부가 작성한 기본노선에 근거하여 상급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여 처리하고 자체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결심을 채택하여 처리하면서 용의주도하고 능숙하게 지하공작을 해나갔다. 전화기나 무전기와 같은 현대적인 통신수단도 없이 쪽지편지와 같은 불편한 수단을 이용하면서 사령부와의 연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실정에서 공작원들은 상급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자체의 판단과 결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권영벽은 우리의 결론이 필요한 중요한 노선상 문제만 사령부에 보고하였지 대부분의 문제는 현장에서 조직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즉결처리한 다음 경위와 결과만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공작지와 밀영과의 거리가 멀고 또 우리가 노상 밀영에만 있는 것도 아니여서 만사를 다 사령부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권영벽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부담이 된다고 인정되는 문제는 상정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번 집단부락건설과 관련된 차후 대책문제에 대해서만은 나에게 결론을 바란다고 하였다. 적들은 동만에서 하던 본새대로 서간도에서도 ≪비민분

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부락건설을 강제적으로 추진시키였다. 그런데 장백지방 인민들의 대다수는 집단부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권영벽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농민들이 집단부락에 들어가면 생활상 고통도 심해질 수 있었고 지하사업이나 원군운동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집단부락건설을 덮어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다. 적들은 집단부락에 들어가지 않는 집들에 불을 지르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단행하였다. 반항하면 총을 쏘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명안이겠는가? 현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도 해보았으나 종시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권영벽에게 집단부락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두 거기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였다. 집단부락에 들어가면 우리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철조망으로 강물을 막을 수 없고 성벽으로 바람을 다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유격대와 인민들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통하는 군민의 정과 원군의 대하는 절대로 막아내지 못한다. 걱정말고 집단부락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권영벽은 공작지에 돌아가자 관도거리 집단 부락건설장에 앞장서 나갔다. 그가 나서는 것을 보고 완고파들도 따라나서서 열성스럽게 집을 짓고 토성을 쌓았다. 권영벽의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성원들은 적들의 시책을 고분고분 받아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척하였다. 관도거리 집단부락은 현경찰당국으로부터 첫 번째로 ≪안민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7도구의 지하조직성원들은 관도거리 집단부락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였다. 서응진은 자위단단장, 송태순은 자위단부단장, 전남순은 촌장, 권영벽은 학교교장의 자리를 각각 차지하였다. 다른 집단부락들에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권영벽의 지하전선은 장백의 영역을 벗어나 함남북도와 평북도를 포함한 국내의 종심깊이에도 뻗어있었다. 권영벽은 군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인민대중을 의식화하는 지하전선의 긴장된 투쟁을 통해서도 무게있는 공적을 쌓아올리었다.

1937년 여름 그가 통신원을 통해 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들이 적혀있었다.

≪사령관동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부대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1선에서 2선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의 그 섭섭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인민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 항일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건만 나는 작별의 악수를 청하는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발을 가볍게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고장에 와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전선을 2선이라고 보던 관점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 전선은 분명 2선이 아니라 1선입니다. 조직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비옥한 토양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준 사령관동지에게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인민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 권영벽의 말에는 심오한 진리가 깃들어있었다.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한시도 놓쳐서는 안되는 항구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부단히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혁명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구불멸성이 있다.

혁명가가 만일 이 사업을 외면하거나 경시한다면 그의 정치적 생리에는 변질현상이 생기게 되며 그는 혁명가로서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

권영벽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영용하게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자기자신과 동지들이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자래운 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는 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문 한 사람이라도 더많이 살려내여 조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권영벽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혁명조직들이 당하고 있는 출혈을 최대한으로 막아보려고 애썼다. 그는 우선 이제순에게 이런 백글쪽지를 보냈다. 백글이란 펜이나 연필이 아니라 손톱으로 쓴글을 말한다.

≪모든 것을 나에게 밀 것!≫


이제순

권영벽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제순은 지체없이 회답 쪽지를 보냈다.

≪우리는 일심동체!≫

그 전보문 같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권영벽은 잘 알고 있었다.

권영벽과 이제순은 서로 딴방에 갇혀있었고 그 이상 더 쪽지교환도 하지 못하였지만 두 전우의 심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실로 일심동체가 되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적인 구출작전에 나섰다.

≪도정님이 백두산에 갔던 일과 그 후의 모든 일은 나와 도정님과 장군님밖에 모르는 일이니 도정님만 입을 다무시면 아무런 죄도 씌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권영벽이 혜산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박인진도정에게 귀띔한 말이다.

권영벽이 그런 귀띔을 하고 있을 때 이제순은 이주익에게 같은 당부를 하였다.

권영벽과 이제순의 희생적인 구출작전의 덕으로 박인진, 이주익을 비롯한 수많은 피검자들이 재판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났거나 예상보다 퍼그나 가벼운 형을 마치고 살아서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변절자들이 미처 다 알 수 없었던 장백과 국내의 지방조직들에 대한 권영벽의 조직연계와 지도내용은 영원한 비밀속에 묻혀있게 된 까닭에 그 조직들과 조직성원들은 고스란히 생존하여 은밀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영벽은 조직을 살리고 동지들을 살리는 대신 이제순, 지태환, 마동희 등의 투사들과 함께 결연히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혜산경찰서에서 함흥으로 이송되는 열차안에서도 동지들에 대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돈이 7원이 있었다. 권영벽은 그 최후의 7원마저도 동지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고 호송 경찰에게 말했다.

≪경관나리, 이 돈으로 과일과 과자를 사다주시오. 당신들이 우리에게 수갑을 채웠으니 일본당국을 대표하여 싫은대로 심부름을 들어주어야겠소.≫

다른 동지들도 주머니를 뒤져 30여원을 보태어주었다.

호송경관은 이상하게도 그 청을 곱상곱상 들어주었다.

권영벽은 호송경관이 사다주는 과일과 당과류들을 동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100여명의 투사들은 달리는 열차안에서 그 과일과 당과류들을 먹으며 말없는 눈빛과 미소로 정을 나누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정신적인 향연이었다.

호송경관들은 한가족처럼 친밀한 그들의 분위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참 별난 사람들이다. 당장 형벌을 받겠는데 인정을 나누는가? 그래 말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가?≫

≪그렇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 일제를 타승하면 우리는 전민이 한

형제로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권영벽씨, 당국은 당신에게 그런 나라를 건설할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 때건 교수대에 올라야 하니까.≫

≪내 한 몸은 죽어도 나의 전우들이 반드시 그런 이상향을 건설할 것이다.≫

권영벽은 그때의 이 주장을 공판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국강토에서 일제를 내쫓고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국투사들이며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들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는가. 재판을 받아야할 진짜 범인은 바로 너희들이 아닌가.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물을 제멋대로 도적질해가는 너희들이야말로 희세의 강도범들이고 살인범들이다.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를 민족의 수호자로 받들고 네놈들을 매장해버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지태환

쏘련군이 동구라파의 약소국들을 해방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미군의 폭격으로 도꾜의 거리를 이 불바다로 되고 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와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위한 대일작전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 권영벽은 서울서대문형무소 교수대에서 혁명만세를 부르며 최후를 마치였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간 일점 혈육은 어언 열대여섯 살의 사내애가 되어 청진거리에서 거름달구지를 끌고다니고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여름 나는 서울에 얼마동안 머무르며 남반부의 해방구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서울에 처음으로 가보는 나로서는 다녀보고 싶은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곳은 다 제쳐놓고 서대문형무소부터 찾아갔다. 나의 친지들과 전우들 중에는 그 형무소와 피맺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인민군용사들은 이 도시에 입성하자마자 탱크로 형무소의 대문을 짓부시고 수인들을 해방시키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과 범행의 수치스러운 대명사였다. 바로 악명높은 이 형무소에서 권영벽, 이제순, 이동걸, 지태환을 비롯하여 우수한 아들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한줌의 흙으로 되었다. 형권삼촌 역시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 나라가 해방되면 서울에 가서 그들의 묘지라도 찾아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소망을 해방이 된지 5년만에야 성취하게 된 것은 조국을 두토막으로 갈라놓은 38선 때문이었다. 패말도 없는 무덤들은 찾을 길이 없었지만 그들의 피와 숨결의 어려있는 형무소의 지붕과 담벽만이라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해방이 되어 5년 세월이 흘렀지만, 옛 전우들의 조의방문조차 받아볼 수 없었던 동지들의 영령앞에서 나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아들하나를 남기고 간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이다.≫

권영벽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우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였다.

형무소를 돌아보고 거리에 나서니 그 말이 새삼스럽게 종소리처럼 머리를 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권영벽과 같이 한 생을 값있게 산 혁명가들만이 남길 수 있는 고귀한 말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그 말을 상기하군 한다.

6. 스쳐버릴 수 없었던 사연

무송원정을 끝낸 다음 부대를 이끌고 장백땅에 다시 돌아와 신흥촌 근처에 머무르면서 조국진군준비를 갖추고 있던 1937년 5월 하순이었다. 어느 날 나는 전령병을 데리고 신흥촌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길성촌이라는 마을로 향하였다. 길성촌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온 첫해 겨울부터 인연을 맺어온 동네였다.

우리는 장백에 나와서도 군중공작을 많이 하였다. 원호물자를 가지고 밀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중간연락지점이나 이러저러한 비밀장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주민지구에 직접 내려가 군중들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민심도 포착하고 적들의 동향도 요해하였으며 군중들에 대한 계몽도 하였다.

나는 장백지방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 가보았다. 길성촌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사흘동안 머물러있다가 돌아왔다.

농호가 10집도 되나마나한 오붓한 동네여서 사흘사이에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익혀둘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군중정치 사업도 하고 국내공작원들도 만나보았다.

포수로 가장하고 길성촌에 기여든 다나까라는 일본인 밀정도 이때에 적발하여 처단하였다. 다나까는 전문특무기관에서 계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백지구에 파견된 노회하고 교활한 밀정이었다. 조선에서 나서자란 그는 우리 나라 말도 토배기들 못지 않게 잘하였다. 우리 나라 풍습과 예절에도 정통하고 있어 19도구와 20도구 사람들은 그가 몇 달 동안 사냥총을 메고 장백땅을 돌아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사람이라는 것으로 모르고 있었다.

다나까가 밀정이라는 것을 포착한 것은 길성촌의 지하조직이었다.

나는 길성촌에 가있을 때 장씨성을 가진 노인네 집에 거처를 잡았다. 그 집은 방도 널직하고 살림살이도 다른 집보다는 괜찮았다. 이 마을 늙은이들은 내가 장노인네 집에 가있는 동안 그 집에 매일 같이 마실을 왔다. 등에다 대통을 꽂고와서는 밤이 깊도록 고담도 나누고 미나미가 어떻게 만주국이 어떻고 하면서 시국평도 하였다. 그 늙은이들이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세분석만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인민들에게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것은 아마도 정치의식인 것 같다.

하루는 해질녘에 머리를 빡빡 깎은 30살 전후의 농사군 청년이 그 늙은이들과 함께 장노인의 집에 나타났다. 상등 씨름군처럼 생긴 용모나 허우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숫되고 어리무던 한 젊은이였다.

30살이면 세상을 다안다고 뽐낼 때이다. 시골마실방에 가면 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10대나 20대가 무슨 주장을 내세우면 젖비린낸가 난다고 깔보면 50대나 60대가 무슨 훈계를 하면 봉건냄새가 난다는 감투를 씌우는 것이 바로 혈기왕성한 30대의 사나이들이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늙은이들의 등뒤에 웅크리고 앉아 내처 내 말을 듣기만 하였다. 노인들이 내 부탁을 받고 마을실정을 소개할 때에도 젊은이는 거기에 끼여들지 않았다. 늙은이들이 백두산에 있는 **김**대장 군사가 총 몇 명인가, 빨치산에 속사포도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일본이 대체로 몇 해만 있으면 망할 것 같은가, **김**대장의 춘부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등 별의별 질문을 다했지만 그 젊은이는 늙은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벙긋벙긋 웃기만 하였다. 그러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앞사람의 등뒤에 몸을 움츠리고 감추며 움츠러뜨리군하였다.

무엇인가 물을듯 말듯한 표정을 하였다가도 풀이 죽어서 단념해버리는 것을 볼 때면 그가 혹시 벙어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도 하였다. 그 청년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거지는 어쩐지 나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노인들에게서 살림살이 형편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청년에게도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청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방안의 노인들이 모두 민망스러운 눈길로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그를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 사람은 머슴군이올시다. 혈혈단신 노총각입지요. 이름은 김월용이라고 하는데 남도출신이라는 것만 알지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외다. 나이도 어림쳐서 서른 안팎이라고만 하지 확실한 것은 모르오다.≫

사람이 자기를 잃으면 의사표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얼마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겠는가.

그의 곁에 다가앉아 손을 잡아보니 북두갈구리 같았다. 얼마나 고역에 시달렸으면 손이 이지경이 되었을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리도 활등처럼 굽고 옷주제도 말이 아니였다. 그가 노인들의 등뒤에 자꾸 숨은 것은 그 옷주제 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남이 묻는 말에 대답 한마디하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가 유격대사령관이 거처하는 마실방에 찾아온 것을 보면 속대가 있고 궁냥도 어지간히 깊은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웠다.

언제부턴가 머슴살이를 했는가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하고는 외마디 대답을 할 뿐 말을 잇지 못하였다. 말씨로 보아서 전라도사람 같았다. 서간도를 포함한 동북지방에는 전라도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악명높은 ≪선농이만정책≫에 따라 ≪집단개척≫이라는 명목으로 수만 명의 조선농민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부락채로 이주시키였다.

마실꾼들이 헤여진 다음 나는 집주인인 장노인에게 물었다.

≪노인님, 저사람이 장가는 왜 아직 못갔습니까?≫

≪어릴 적부터 머슴으로 굴러다니다보니 서른이 넘도록 장가 못들고 외롭게 살아가오다. 사람은 진국인데 짝이 없소이다. 어디 딸을 주겠다는 집이 있어야지요. 홀몸으로 고생하는걸 보자하니 가긍하기가 그지없소이다. 저기 보이는 저 녀석도 새서방이랍시고 어른대접을 받는데 .≫

나는 장노인이 손짓하는 문밖을 내다보았다. 공책장만한 유리를 한복판에 대고 창호지를 바른 문밖에서 여나무살 되나한 아이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 꽁다리 연필

만한 그 아이가 새신랑이라니 기막힌 생각이 들었다. 조혼에다가 억혼, 매혼까지 행하는 시대였지만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좀 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대에도 그 아이와 비슷한 ≪꼬마신랑≫들이 있기는 있었다.

장백출신의 유격대원 김홍수도 기실은 10살 되나마나한 나이 장가를 간 ≪꼬마신랑≫이였다. 그는 ≪꼬마신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키도 유달리 작았다.

30살 안팎의 노총각과 10살 안팎의 ≪꼬마신랑≫, 이 웃지 못할 대조앞에서 나는 울분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총각이나 ≪꼬마신랑≫이나 시대의 수난자라는 점에서는 처지가 엇비슷하였다. 그러나 나는 30살이나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노총각에게 더 깊은 동정심을 느끼었다. 조혼의 희생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꼬마신랑≫에게는 안해가 있고 생활이 있지 않은가.

그날밤은 김월용에 대한 생각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 한인간이 걸어온 비참한 반생이 눈앞에 자꾸만 어려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가 없었다. 김월용의 존재는 그대로 수난의 가시밭을 걸어가는 내 나라의 모습이였고 그가 살아온 부평초와 같은 한생은 망국조선이 눈물로 엮어가는 역사의 축소판이였다.

그에게 배우자를 물색해주어야겠다는 충동을 받은 것이 그날밤이였다. 한 인간에게 가정도 무어주지 못한다면 수탈당한 조국은 어떻게 찾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혁명군에도 물론 혼기를 놓친 노총각들은 많았다. 그들이 혼기를 놓친 것은 승리의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였다. 유격전은 모든 형태의 투쟁가운데서 가장 간고하고 희생적인 투쟁이다. 기동이 심하고 활동반경이 큰 반면에 식의주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일이였다. 적지 않은 여대원들이 무장대오에 들어서면서 자식들을 시부모에게 떼맡기든가, 지어 남의 집 양자나 양녀로 주고온 것은 그때문이였다. 그 유격부대들에 부부가 함께 입대하여 싸우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명색뿐이였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은 셈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한 조선민족 모두를 정상적인 생활궤도에서 사정없이 밀어냈다. 국권의 상실과 함께 민족고유의 풍토우에서 이어오던 생활까지 박살이 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생존조건, 전통적인 풍습들은 여지없이 초토화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이 잘먹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개, 돼지나 마소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썼다. 그래서 ≪우민화≫라는 말도 나왔다.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못하고 거지와 유랑민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며 시집장가를 가야 할 처녀총각들이 생활고 때문에 혼기를 놓쳐버리며 안해와 남편들이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하건만 그들은 조선사람이야 어떻게 됐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외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로 되였다. 우리는 부득이해서 가정을 못이룬다하자.



손정도목사의 집과 그의 딸

그러나 김월용과 같은 노총각들이야 왜 장가를 못가는가.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가지 이루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나는 20대가 되기 전에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면서 혼사일에 몇 번 관계한 적이 있다.

그 하나의 실례가 바로 이 회고록의 2권에서 짤막하게 서술한바있는 손정도목사의 맏딸손진실의 혼사였다. 내가 손진실의 혼사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돌이켜보건대 순전히 우연 이었다.

그런데 이일이 얼마동안 길림교포사회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방학이 되어 무송의 집에 가니 어머니도 길림의 학우들처럼 혼사중매란 잘되면 술 석 잔이고 안되면 뺨이 세 대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안신영

나는 어머니의 훈계를 명심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부 동무들 가운데서는 흔히 연애니,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을 다 소부르조아적 감상주의로부터 오는 생활잡사로 치부하였으며 혁명과 학습, 노동을 떠난 모든 공상들에 대하여 잡념이라고 단정해버리였다.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었는데 사랑은 무슨 청승맞은 사랑인가, 국권도 찾지 못한 처지에 연애는 해서 무엇하며 사랑은 해서 무슨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런 입장과 태도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구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랑이니, 연애니, 가정문제니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곡절을 겪거나 지어 혁명대열에서 타락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부터 더욱 확고한 것으로 되었으며 가정을 가진 적지 않은 학우들이 공부를 뒤전으로 밀어던지거나 이러저러한 가정잡사에 몰두하는 폐단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하나의 견해로 굳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사랑까지도 다 망한다는 법은 없다. 망한 나라의 울타리안에서도 생활은 생활대로 흐르고 사랑은 사랑대로 꽃피기 마련이다. 나이가 되면 눈이 맞는 처녀총각끼리 연애도 하고 가정도 우리고 아들딸들이 생기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타령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ㅌ·ㄷ≫성원들이 사랑 때문에 고민도 하고 희열도 느끼고 결별도 하고 결합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김혁은 혁명을 하면서도 숭소옥과 연애를 하였고 유봉화는 이제우를 사랑하던 나머지 그를 따라 혁명사업에 몸을 내던지였다. 신영근은 공청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던 안신영을 안해로 맞아들이었으며 최효일부부는 무장투쟁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무기를 여라문정이나 빼내가지고 일본인 무기상점을 탈출하여 고유수의 우리한테로 찾아왔었다. 차광수는 소설 ≪등에≫에 나오는 젬마오 같은 애인을 꿈꾸고 있었다.

사랑은 혁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골고루하고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최창걸이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은 남만원정을 할 때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유하천에 두고온 처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얻었다. 숭소옥의 청초한 모습은 열정의 사나이인 김혁이한테서 시를 낳고 음악을 낳게 하는 샘으로 되었다. 전경숙은 김이갑이 대련감옥에 갇히자 탈가하여 9년동안이나 그의 옥바라지를 하였다. 옥바라지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대련방직공작에 직공으로까지 취직하였던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도의 딸인 전경숙을 이처럼 세상이 다 아는 열녀로 만든 것도 역시 다름아닌 사랑이었다.

그 과정에 우리 동무들은 점차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가정과 혁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가정은 애국심과 혁명성을 낳는 샘이며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변달환의 혼사에도 관여한 일이 있었다. 변달환은 그 당시 오가자 농민동맹 책임자로 사업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농사일을 하면서 그 여가 시간에 사회사업을 하다보니 늘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부자가 다 쓸쓸한 홀아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변달환

변달환은 나이로 볼 때 이관린네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쌀함박앞에 웅크리고 앉아 가마뚜껑같은 손으로 돌을 골라내든가 버치나 물동이를 들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어째서인지 처량한 생각이들었다. 지금은 나이가 30살이 되어도 장가갈 구이를 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웃들이 덩달아서 이제는 장가를 가야하지 않나 하고 부추기면 천천히 가지요 뭐, 그까짓 것하고 대답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는 30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자들이 남자를 셈에 넣지 않고 중늙은이처럼 대접을 하면서 제껴놓았다.

변달환은 남자치고는 보기 드문 미남자였고 인간치고도 보기 드문 호인이었다. 광고만 내면 처녀장가라도 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변달환 자신이 두벌장가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었다. 당자가 무관심하면 아버지라도 김을 불어넣어야겠는데 변대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씨 고운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환에게 붙여주었다. 우리가 이 인생대사에 대담하게 관여해나선 것은 순수한 동정심때문이었다.

변달환은 후처를 얻은 다음부터 농민동맹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은 길림청년들이 혁명도 잘하지만 인정도 깊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변달환의 가정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결국 여러 가지로 소득을 본셈이었다. 결혼은 결코 혁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의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왕청지방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였다. 어느 날 나는 오백룡이네 중대를 데리고 소왕청을 떠나 가야허방향으로 행군해가고 있었다. 중대가 영을 넘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낯설은 처녀하나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우리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오를 발견한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대열이 가까워오자 눈을 내리깔고 종종걸음으로 우리옆을 바삐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시골처녀치고는 용모나 몸가짐이 꽤 단아하고 말쑥하였다.

중대는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대열 맨 뒤에 선 대원하나가 얼핏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 대원은 머리를 푹 숙이고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였다. 대열이 100미터쯤 지나갔을 때 대원은 다시한번 처녀가 지나간 쪽을 돌아보았다. 그 눈길에는 알지 못할 우수와 애틋한 그리움이 비껴있었다.

나는 그 대원을 대열 밖으로 불러낸 다음 조용히 귀속말로 물었다.

≪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오? 혹시 방금 지나간 처녀하고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대원은 갑자기 화색을 띠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주 솔직하고 소탈한 사람이었다.

≪저 처녀는 저의 약혼녀입니다. 입대한 다음 한번도 만나지 못했댔는데 머리도 들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머리만 쳐들었으면 군복을 입은 내모습도 보았을게 아닙니까.≫

대원은 그런 말을 하고나서 또 처녀가 사라진 쪽을 돌아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대원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얼른 뛰어가서 약혼녀를 만나고 오오. 군복을 입은 모습도 보이고 잠시 회포도 나누란 말이요. 그러면 그 동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소. 시간을 넉넉히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다해도 되오. 우리는 동무가 돌아올 때까지 요 아래동네에 가서 휴식하겠소.≫

대원의 눈굽에는 눈물이 핑도는 것 같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서는 총알처럼 달음박질을 해갔다. 나는 약속대로 다음 동네에 가서 중대를 휴식시키였다. 30분이 지났을까 말까한 때에 약혼녀를 만나러 갔던 대원이 돌아와서 나에게 경과보고를 하였다. 내가 그런 문제는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 동무는 군복을 입은 나를 보더니 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의 안해답게 일을 잘하겠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봤지. 난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혁명군에 몸을 바칠 사람이야. 당신은 혁명군의 안해가 될 여자구. 혁명군의 안해답게 살려면 당신도 조직에 들어서 사업을 해야 해.≫ ..≫

애인을 만나고온 대원은 그 후 싸움을 본때있게 하였으며 그의 약혼녀도 지방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일을 잘하였다. 사랑은 역시 열정의 샘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며 생활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염색소이다.

나는 길성촌을 떠나면서 장노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노인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간밤 김월용이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 노인님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혼처도 구하고 성례도 치르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장노인은 그 부탁을 받고 몹시 당황해 하였다.

≪장군님께 그런 걱정까지 끼쳐 죄송하외다. 우리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장가보낼테니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길성촌의 노인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에서는 김월용의 좋은 혼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그에게 딸을 준사람은 18도구 절골의 김노인이었다.

우리가 길성촌에 와서 한노총각의 혼사문제를 걱정하였다는 소식이 20도구 지경을 넘어 18도구에 가지 날아갔던 모양이었다.

김노인은 그 소문을 듣자 김장군이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길성촌에 건너와 장노인과 혼사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그의 혼사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김노인이 참으로 쉽지 않은 분이었다.

김노인네 집은 산자락 농사에 명줄을 건 가난한 집이었지만 잔치를 자기네가 몰밀어 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신랑측의 후견인들이 굳이 반대하는 바람에 성례는 결국 길성촌의 장노인네 집에서 치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후방 부관으로 사업하고 있던 김해산에게 전리품들 중에 제일 좋은 천과 식료품을 골라서 길성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해산은 어떻게 된 셈판인지 그 지시를 시들하게 접수하였다. 대답을 하고 나서도 내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장군님, 우리가 그 혼사에 꼭 예장감을 보내야 합니까?≫

뜻밖의 질문이였다.

≪보내야지 왜 마음이 내키지 않소?≫

≪우리 전우들은 지금까지 밥 한 사발 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예장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한 그릇의 밥으로 굼때고 싸우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해산

나는 김해산의 심정을 이해하였다. 전우들의 결혼식을 할 때에는 한 그릇의 밥밖에 놓아주지 못하였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잔치에 예장감으로 보내라고 하니 볼이 부어오를만도 하였다.

≪그런 사연들을 생각하면 나도 역시 가슴이 아프오. 그러나 해산동무, 우리가 밥 한 그릇으로 결혼식을 굼땐다고 해서 인민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하기는 우리 인민들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오. 동무는 그게 분하지 않소? 물론 밀영창고에 있는 전리품으로 조선민족을 다 구제할 수는 없소. 하지만 민족을 재생시키겠다는 결심을 품고 총을 멘 조선의 젊은이들이 김월용이라는 한 사람의 잔치야 왜 보란 듯이 차려주지 못하겠소.≫

김해산은 그날로 예장감을 꾸려가지고 대원 한 사람과 함께 길성촌에 다녀왔다. 그가 이불거죽이며 잔치쌀이며 통졸임이며를 가지고 밀영을 떠날 때는 나는 그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다. 김해산이 길성촌에 갔다와서 싱글벙글하는 것을 보면 대접도 잘 받은 것 같고 결혼식도 잘된 것 같았다. 그는 신랑이 예장감을 받고 황소처럼 울더라는 것과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이만저만 후덕스럽지 않더라는 것만 말하고 다른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서간도 청년들의 예장감은 우리가 다 마련해 줍시다.≫

훗날 동행했던 대원에게서 들은 바이지만, 김해산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잔을 찧을 때 몹시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구태여 묻지 않았다. 분명히 그 정황에서는 당시 조선사람 일반이 공통적으로 느끼군하던 민족적 설움이 폭발하였을 것이다.

나는 김해산의 귀환담을 듣고 아무 때건 짬을 내여 그들의 새 가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였다. 살림도 구경하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신혼부부의 장래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국내진공준비로 바삐 보내던 그때 부대를 숙영지에 두고 전령병들과 함께 길성촌으로 굳이 찾아가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사람의 정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내가 김월용을 만난 것은 단 한번이였고 주고 받은 대화도 단 몇 마디뿐이었다. 말을 너무도 하지 않아 의사소통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대상인데다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지나치게 순박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내 마음을 그렇게도 잡아끄는지 그것은 나로서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매력이 있었다면 이세상의 그 어떤 때에도 오염되지 않은 숫눈과도 같은 천진난만성이라고나 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만나지 않고서는 못견딜 충동을 느끼었다.

그날 나를 김월용의 집으로 안내한 사람은 장노인이었다. 그집은 누가 쓰다가 버린 헛간을 간편하게 개조한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신랑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었다. 그 대신 절골 김노인의 딸이라는 새색시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였다. 미인은 아니지만 큰집 맏며느리처럼 무던하게 생긴 여자였다. 성미도 여간히 활발하지 않았다. 저런 성미라면 남편을 인차 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생을 월용동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친정집 아버님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인사를 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큰절을 하였다.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저희들이 남편을 도와 세간을 잘하겠습니다.≫

≪아들딸을 많이 낳아 기르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리 동무들은 집앞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패놓았다.

김월용의 안해를 만나고나니 어째서인지 답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부부가 일생을 한 쌍의 원앙새처럼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성촌을 떠났다. 그날의 길성 촌방문은 우리 부대가 보천보를 치려고 곤장덕에 오르던 순간까지도 긴 여운을 남기였다.

우리가 머슴군 총각의 혼사를 성사시켜주고 그 총각의 잔치에 예장감을 보내주었다는 소식은 서간도 땅에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이 퍼진 다음부터 인민혁명군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기대는 훨씬 더 커졌다. 밀영으로 들어오는 원군물자의 양과 가지수도 나날이 늘어났다.

13도구 성문 밖에 사는 어떤 노인은 아들의 잔치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피쌀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틀 후에 당장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있다는 아들이 형과 함께 그 피쌀을 지고 유격대에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쌀을 사양해도 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도로 지고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쫓겨난다고 하면서 두 형제가 그냥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성의를 더 사양할 수 없었다. 김광운이라는 그 청년이 그 후 잔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르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잔치쌀을 마련하느라고 퍼그나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후물등판에서 그들과 헤여질 때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끔 후회된다.

나는 서간도를 떠난 후 김월용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길림을 떠난 후로는 손진실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풍편에 그가 미국 유학을 한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지만 결혼후의 구체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감감 모르고 지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나는 한평생 손진실과 변달환과 김월용을 잊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은 자기가 애정을 바친 것만큼 지난날의 친지들과 벗들과 동지들과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손진실은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부고를 받고나서 손원태선생에게 조전을 보냈는데 살았을 때 한번 만나 회포라도 나누고 병문안이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월용도 건강한 사람이였으니 장수하였을 것이다.

7. 유격대의 어머니



장철구

백두산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전우들 가운데는 ≪어머니≫로 불리운 여성 유격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사령부 작식대원 장철구였다. 부대에는 여대원들이 수십 명씩이나 있었고 작식대원들도 여럿이였지만 유독 장철구만은 ≪어머니≫로 불리웠다.

나이는 우리보다 10살나마 이상이었다. 10살정도의 차이라면 ≪누이≫나 ≪동무≫라고 불러도 무방할 나이이다. 그러나 나도 평시에는 그를 ≪동무≫라 부르지 않고 ≪철구어머니≫라고 부르군 하였다 장철구보다 나이가 어방없이 많은 ≪대통영감≫까지도 ≪철구어머니≫,≪철구어머니≫라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장철구가 사령부 작시대원으로 된 것은 우리가 1936년 봄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린 다음부터였다.

나는 그때 김홍범이 뭉테기로 내놓은 ≪민생단≫혐의자들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장철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무슨 까닭이었던지 그의 문서장만은 빨간색 잉크로 씌여져있었다.

그 문서장에는 연길현의 당사업을 하던 남편이 ≪민생단≫으로 판명되어 두 해 전 처단되었다는 것과 장철구도 연길현 왕우구에서 부녀회주임으로 사업할 때 군량미를 고의적으로 매몰하여 대원들을 굶기는 등으로 암해책동을 하였다는 몇 가지 ≪죄상≫들이 적혀있었다.

빨간색 글씨의 문서장과 남성의 이름을 가진 중년의 여성이라는 특징만으로도 그는 벌써 나의 주의를 끌었다.

장철구는 외모도 어지간히 표가 났다. 여대원들 가운데서 키도 제일 작았고 눈섭도 매우 성글었다. 어찌나 성글었던지 눈섭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었다.

장철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에 발을 들여놓은 여자였다. 남편을 끔찍이 따르던 나머지 그가 하는 일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남편이 하라는대로 삐라도 붙이고 연락 쪽지도 나르고 사람도 숨겨주고 글도 배우고 비밀모임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혁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믿고 따르던 남편은 부당하게도 ≪민생단≫으로 몰려 처단당하였다. 장철구도 왕우구공작현지에서 체포되어 ≪민생단≫감옥에 갇혔다. 언제인가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더운 피쌀밥과 갓김치를 달게 먹던 ≪왕동지≫가 그에게 몽둥이 찜질을 가하고 머리칼을 잡아 휘둘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

은 심판장에서 그를 처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장철구는 처단을 면했으나 ≪민생단≫혐의자라는 오명만은 벗지 못하였다.

나는 신성한 혁명을 모독하고 죄없는 사람들을 참살하는 교형리들이 사람들의 목에 걸었던 ≪민생단≫혐의자의 올가미를 벗겨주면서 장철구를 우리 사령부의 작식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장철구가 작식을 맡은 때로부터 우리의 식찬은 한결 다양해졌다. 그는 장이나 김치를 속성으로 만드는 재간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하루이틀사이에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여 먹는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콩을 타지 않을 정도로 닦아서 뜨끈한 물에 담그면 시뻘건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에 소금을 넣고 졸이면 간장처럼 된다. 삶은 콩을 단지에 넣어 더운데 두면 뽀얏게 발효된다. 거기에 소금을 치고 끓인 것이 썩장이다. 그맛은 꼭 명태장국맛과도 같다.


백학림

장철구가 속성으로 만들어준 썩장이나 참나물김치는 우리 모두가 명절성찬처럼 맛나게 먹던 상등요리들이였다.

장철구는 강냉이눈을 닦아서 기름을 짜내군하였다.

언제인가 전령병이였던 백학림이 중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다. 평시에는 나무껍질까지도 씹어 삼키군하던 그는 푹 삶은 통강냉이죽조차 구역질이 난다면서 입에 대지 않았다. 장철구는 눈속에서 마른 산채잎을 뜯어다가 물에 불구어 우려내고 그것을 삶은 다음 강냉이눈으로 짠기름에 볶아냈다. 그렇게 만들어낸 찔게에 학림은 입맛이 돌아섰다.

장철구는 말그대로 유격대의 ≪어머니≫였다. 부대가 싸우러 갈 때면 그는 나어린 대원들의 바지주머니에 슬그머니 가마치를 넣어주군하였다.

최금산이나 백학림과 같은 애숭이 전령병들은 물론이고 오중흡이나 이동학과 같은 구대원들도 장철구앞에서는 배고프다는 소리까지도 무랍없이 털어놓군하였다.

장철구가 제일 사랑한 대원은 우리 부대의 막동이인 ≪가마치대장≫ 이오송이였다.


이오송

장철구는 그가 먼발치에 와서 얼씬거리기만 해도 치마폭에 가마치를 감춰가지고 나가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군하였다. 이오송은 그 가마치를 자기 또래들과 함께 꼭같이 나누어 먹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여자가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더 허물없고 친밀한 육친으로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식들에게 일생동안 더 가까운 육친으로 되는 것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을 주로 모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후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은 모성들에게 부여된 고정 분공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라는 말의 참의미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가장 은혜로운 보호자라는데 있을 것이다.

이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장철구는 우리 모두의 가장 친밀한 ≪어머니≫로 되었다.

우리가 곤란하게 잠든 깊은 밤에도 그는 다음날 식사준비 때문에 산나물도 다듬고 망질도 하고 키질도 하였다. 밤중에 절구질을 해야 할 때면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는 한지에 나가서 쌀을 찧었다.

장철구는 노상 불앞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 때문에 옷도 남보다 갑절 빨리 꿰지

였다.

한번은 밀영에서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그가 지명을 받았다. 전우들은 모두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였다. 음식 솜씨는 대단한데 노래솜씨는 어떨가하는 심정으로 다들 박수까지 쳐가며 그가 나서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장철구는 홀쩍 일어나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 돌발적인 행동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나는 장철구를 변호하였다.

≪철구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다르게 생각할 것은 없소. 그 어머니가 대중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옷차림 때문이였을 거요. 동무들도 보았겠지만 철구어머니가 기운 옷을 입고 있소. 기운자리가 열 군데도 더 될거요. 그런 옷으로 군중앞에 나서야 할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보오.≫



백두산밀영지의 일부

오락회 모인 사람들은 그말에 다같이 공감하였다. 사실 장철구 자신도 훗날 자기가 그 때 달아난 것은 옷주제 때문이였다고 실토하였다.

그 후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전장에 나갔던 기회에 장철구를 위해 좋은 옷천 한 감을 마련하였다. 대원 한 사람을 파견하여 값에는 구애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라고 하였더니 중년기의 여인들에게 꽤 어울림직한 회색목세루천을 사왔다. 천물계를 좋아하기에 나도 마음을 놓았다.

나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옷 한 벌 장만해드리지 못했다. 소사하 갈밭속의 허술한 초가집에 앓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남만원정의 길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드린 좁쌀 한말조차 우리 동무들이 마련해 준 것이였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준 일이 있다면 오직 한번 팔도구시절에 고무신 한 켤레를 사올린 것뿐이였다. 하지만 그때 고무신을 사느라고 쓴 돈도 실상은 운동화를 사신으라고 어머니가 준 것이지 내가 마련한 것은 아니였다. 나의 어머니는 자식의 성의는 단 한 조각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였다. 살아서 자식덕을 한번도 못보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아들의 흙 한 줌, 눈물 한 방울 받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소사하강반에 쓸쓸히 묻히였다.

철구어머니에게 옷감을 마련해가지고 갈대의 나의 마음속에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자식덕을 못본 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도 비껴있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밀영에 돌아오니 우리가 전장에 나가있는 사이 장철구가 김주현의 지시로 후방병원에 갑자기 옮겨갔다는 것이였다. 그가 어째서 사령부작식대에서 일하다가 한적한 후방밀영으로 조동되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 소식을 듣자 동무들은 한 사람처럼 서운해하였다. 나 역시 허전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작식대나 재봉대, 병원, 병기창 같은 후방기관들을 모두 후방부관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후방사업을 담당한 김주현이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작식대에서 사람을 뽑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였고 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였다.

문제는 사령부작식대에서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장철구가 무슨 이유로 후방병원에 조동되었는가 하는데 있었다.

장철구와 함께 밀영에 남아있던 **김정숙**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도 그 동기가 무엇이였는지 몰랐다.

≪후방병원쪽에서 철구어머니를 요구했거나 무슨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철구어머니는 울면서 밀영을 떠났습니다. 어찌나도 섭섭해하는지 우리가 막 송구할 지경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장철구가 후방병원으로 떠나가던 정경을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눈굽을 훔치였다. 그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으로 보아 장철구와의 이별이 작식대원들에게 아픈 추억을 남긴것만은 틀림없었다.

나도 방금 이별을 당한 사람처럼 가슴일 알알해났다. 후방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내가 돌아온 다음에나 보낼 것이지, 그러면 옷이라도 한 벌 해입히고 가게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고까운 생각가지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분노한 것은 김주현한테서 장철구의 조동이유를 들은 다음이였다.

≪저는 조막도끼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령관동지의 신변가까이에 깨끗한 사람들만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이 고백한 장철구의 조동이유였다. 그가 조막도끼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고 사령부호위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긍정할만한 일이였다.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는데서 김주현은 부대의 모범을 내세울만한 사람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각별히 사랑하여 주었다.

서간도전체가 참군열의로 끓어번지던 1936년 가을에 우리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로 몇 개의 보충중대를 뭇고 교관들을 파견하여 곰의골밀영에서 그들에 대한 속성훈련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이 보충중대의 신병들속에는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해 침투한 첩자도 끼여있었다.

출신으로 보아서는 적들에게 흡수될만한 건덕지가 조금도 없는 순박한 농사군 청년이었는데 적들의 권모술수와 간계에 속아서 밀정으로 전락되었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인민혁명군복장을 한 적들이 청년의 집에 뛰어들어 ≪비적≫행실을 하였다. 청년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앓는 어머니의 약값으로 마련할 돈도 빼앗고 양식도 털고 닭도 잡고 .. 아무튼 눈에 걸리는 것은 다 강탈해갔다. 그 뒤로 선무공작반이라는데서 파견된 놈이 나타나 청년이 당한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가 저들의 요구에 응해나설 때까지 집요한 반공선전과 협박을 들이대었다. 이렇게 되어 청년은 본의 아니게 반혁명의 하수인으로 되어 우리 대오에까지 기여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적에게 매수된 간첩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 밀영으로 들어올 때 허리춤속에 찌르고온 조막도끼마저 사령부주변에 깊숙이 감추고난 뒤여서 그를 간첩으로 볼만한 표적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는 곰의골밀영에 갔다가 보충중대의 신병들이 며칠째 맨시래기죽으로 끼니를 에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생을 각오하고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집을 떠나온 지 몇 달되지도 않고 아직 고난에 익달되지도 못한 신대원들인 것만큼 사전에 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나약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고 동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밤 신입대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동무들이 부모처자가 있는 아늑한 집을 떠나 한지에서 추위에 떨며 시래기로 끼니를 에우자니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자고 나선 청년들이 큰 뜻을 이루자면 고생스럽게도 지내도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는 싸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광복한 다음 삼천리 강토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압박받는 사람도 없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낙원을 세우자는 것이다. 공장도 땅도 인민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병치료해주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민중제일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때에는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신입대원들 중에는 적들에게서 간첩임무를 받은 그 청년도 섞여 있었다. 청년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놈들에게 속아서 좋은 사람을 헤치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설사 엄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를 밝히고 깨끗이 자수하자고 생각하였다.

청년은 결심대로 우리앞에서 조막도끼와 독약봉지를 꺼내놓고 자기 정체를 밝히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관대하게 용서해주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지휘관들을 크게 각성시키었다. 그들은 자기나름대로 교훈을 찾았다. 어떤 지휘관들은 사령부 호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지휘관들은 입대심사를 실속있게 하여 우연분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이 대내에 끼여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지휘관들은 서간도전역에서 적의 주구들과 악질적인 반동들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려 한 명의 간첩이나 밀정도 밀영에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주현의 생각은 이보다 좀더 복잡한 경지에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 사령부를 잘 호위하자면 안팎을 다 잘 살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이 외부에만 있고 내부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적이 우리 내부에 보호색을 쓰고 숨어 있는 반동들이나 동요분자들과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사령부 측근에 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장철구와 같은 ≪민생단≫혐의자는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였다.

나는 분하고 격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오직 성실성 하나만을 가지고 혁명을 위해 애쓰는 순박하고 무던한 그 어머니를 어쩌면 그렇게도 몰인정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매사에 그처럼 대범하고 용의주도한 김주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불같이 다불렀다.

≪동무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은 동무에게 아픈말을 좀 해야겠다. 장철구어머니에 대해서는 동무자신도 진실하고 근면하고 인정있는 여성이라고 여러 번 칭찬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동무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그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대신해왔고 누이를 대신해왔다. 우리에게 하루 세끼씩 누가 더운밥을 지어주고 누가 더운국을 끓여주었는가? 철구어머니였다. 만일 그가 나쁜 여자였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기회야 얼마든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철구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수백 그릇씩이나 먹고서도 모두가 건재하고 있다. 이것은 장철구어머니가 의심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좋은 여자이며 지난날 그가 받았던 ≪민생단≫혐의가 백 번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뿐이다.≫

김주현은 훗날 그날처럼 땀을 많이 뽑아 본적은 없었다고 나에게 고백하였다.

사실 나는 김주현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책을 범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김주현은 오랜 혁명경력을 가진 노련한 군사정치일군이었다. 우리는 늘 한 가마밥을 먹고 함께 지냈으며 한 상에 마주 앉아 사업을 의논하였고 늘 마음과 뜻을 같이해왔었다. 우리의 노선과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주현이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리와 도덕을 떠나 인간의 운명을 그처럼 모질게 다룬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김주현의 잘못을 계속 비판하였다.

≪우리가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린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다. 그런데 동무는 무엇때문에 다 아물어가는 그 상처자리를 들쑤셔놓았는가? 이제라도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장철구는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뜨뜻한 가마목에서 더운밥을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고생스러운 산생활을 하고 있다. 혁명을 하자고 결심했기 때문이며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무는 그를 사령부에서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준 믿음조차 기만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우리가 여느때에는 믿는 척하고 포섭했다가 위험할 때에는 서슴없이 배척해버리는 그런 용렬한 인간들이란 말인가? 믿음에는 가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박정숙

김주현은 그날로 후방병원에가서 장철구를 데려왔다. 다음날은 재봉대원들을 다과대여 그에게 입힐 옷까지 한 벌 지어 왔다.

하지만 장철구는 김주현의 지시를 매번 책임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그를 멀리하였다. 간혹 밀영의 소로길이나 식당에서 단둘이 만날 때에도 경례만 붙이고는 침묵으로 대하군 하였다. 결론을 받아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작식대원들을 내세워 김주현에게 보냈다.

장철구가 후방병원에서 보낸 며칠간은 시간으로 셈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며칠을 못잊어 장철구는 오래동안 마음속의 그늘을 지우지 못하였다.

참으로 불신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다. 티끌만한 불신이 일생의 원망을 살수도 있고 10년 묵은 우정을 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장철구가 사령부작식대에 다시 돌아오자 밀영의 활기도 부활되었다. 음식맛도 대뜸 달라졌다. 어쩐지 같은 통강냉이죽도 이전보다 한결 더 달게 느껴졌다. 그것은 지성을 다하는 작식대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장철구는 솜씨있는 요리사는 아니였다. 장철구는 전보다 더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우리의 구미에 당기는 것이라면 100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구해오군하였다. 어느 날 나는 19도구를 지나가다가 이훈네 집에서 병풍쌈을 먹어 본 일이 있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쌈은 오히려 부루쌈보다 맛이 나았다. 밀영에 돌아와서 한담삼아 그 쌈맛에 대한 말을 꺼냈더니 장철구는 어느새 수십 리나 되는 19도구에 달려가 병풍나물을 한임 가득 이고 돌아왔다. 그 후에는 백두산밀영지에서 병풍나물을 찾아내였다.

장철구는 습기가 많은 작식터 근처에 나무가지와 가랑잎을 피고 늘 새우잠을 자군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그의 오른쪽팔이 점차 마비되었다. 엎치데 덮친 격으로 얼마후에는 열병에까지 걸리었다.

우리는 병치료를 위해 장철구를 안도현 오도양차골안으로 보냈다. 그때 박정숙과 백학림도 ≪간호병≫의 사명을 띠고 그를 따라갔다. 그 후에는 **김정숙**이 그의 병간호를 맡아하였다. 그들이 장철구를 거들어주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 나도 지봉손 전달장을 데리고 오도양차에 있는 장철구의 풀막에 한번 가보았다.

장철구는 수십 일만에 열병을 털고 일어났으나 오른팔의 마비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작식도 변변히 할 수 없었고 총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자기가 부대의 짐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장철구는 날마다 고민속에 모대기였다. 그러던 끝에 그는 자기가 부대를 떠나야 전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1940년대초, 우리가 무장대오에 그냥 세워둘 수 없는 불구자들과 노약자들을 쏘련으로 후송할 때 장철구는 자청하여 그 대열을 따라갔다.

작별을 앞두고 그는 자기가 늘 끼고다니던 은반지를 **김정숙**에게 주면서 조선이

독립되는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장철구는 **김정숙**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만리타향에서 들었던 것이다. **김정숙**이 선사하였던 장철구의 은반지는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진열되어있다.

장철구와 함께 우리 사령부의 작식일을 맡아한 사람들 가운데는 연합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대원도 있었다. 그는 중국요리를 잘 만들었다. 장철구가 성실한 취사원이였다면 연합동은 솜씨있는 요리사였다. 그가 우리에게 온 것은 1936년 겨울이였다.

연합동은 우리 부대에 입대하자마자 얼마동안 장철구의 곁에 있으면서 유격대요리법을 배웠다. 그러는 과정에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벗으로 되었다.

장철구가 쏘련으로 파송되어갈 때 연합동은 몹시 허전해 하였다. 그는 중국음식을 한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와서 철구어머니의 배낭에 넣어주었다.

장철구도 그와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연합동이 우리한테로 오게 된 사연속에는 희귀한 상봉극이 있다. 그 상봉극의 주인공이 바로 길림에서 교의 계율을 어기고 술과 돼지고기를 잘먹던 이슬람교도 마금두이다. 마금두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일 뿐 아니라 팔도구소학교시절의 학우이기도 하였다.

팔도구시절의 연고자들 가운데는 인상깊은 사람들이 많았다. 팔도구경찰서장의 아들 여현장도 나하고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였다. 그도 팔도구시절에 나와 소학교를 같이 다니였다. 여현장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병치료를 받던 단골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였다. 그 사람은 신세를 갚는 다고 하면서 명절때마다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군 하였다.

나는 서간도 지방에서 부대를 데리고 활동할 때 여현장의 소개로 팔도구경찰서장과도 연계를 가지였다. 그때는 여현장의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이 경찰서장 노릇을 하였다. 그 경찰서장도 여현장의 아버지처럼 양심적인 사람이였다. 그는 우리와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인민들이 혁명군에 보내는 원호물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들여 보내주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백현내의 다른 고장들은 다 치면서도 팔도구만은 한번도 치지 않았다.

마금두는 성격도 특이하였지만 사생활도 남다른데가 있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벌써 결혼을 하였다. 그것도 단꺼번에 두 여성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의 두 안해는 자매간이였다.

처음에 마금두는 자매중의 언니와 연애를 하여 약혼까지 하였다. 그런데 언니의 심부름을 하던 동생이 마금두에게 반해서 상사병을 앓게 되자 자매의 부모들은 딸형제를 모두 마금두에게 맡겨버리였다. 돈 부자인 마금두는 처부자로도 되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와 길림을 떠난 다음에는 마금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운명의 변덕이라고 할가. 이번에는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적으로 맞서게 되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나와 싸우던 첫해 겨울의 일이였다.

마금두는 이도강에 둥지를 틀고 있던 위만경찰 ≪토벌대≫대장이였다. 이도강은 곰의골밀영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의 중요한 ≪토벌≫거점이였다. 이 고장에는 위만경찰 ≪토벌대≫의 무력과 함께 함흥 74연대에서 파견되어온 수백 명의 일본군 ≪토벌대≫병력도 주둔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마금두가 위만경찰 ≪토벌대≫우두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도강을 쳤을 때 우리 대원들이 도망친 위만경찰 ≪토벌대≫대장의 집을 수색하다가 권총을 쥐고 숨어있는 대

장의 처와 요리사를 데려왔다. 놀랍게도 그 대장의 처라는 여자는 마금두에게 출가한 두 자매중의 동생이였다.

마금두가 길림에서 결혼식을 할 때 나도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가했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인차 알아보았다. 그 여자도 역시 나를 알아보았다. 아주 극적인 상봉이였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 마금두는 어느새 네 아이의 아버지로 되였다고 하였다. 자기는 아들 둘을 낳았고 언니는 딸 둘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기 남편이 지금도 길림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김성주선생을 외우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김일성**공비≫무리에 기여들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그는 어제날의 김성주가 바로 **김일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공비대장≫이라고 말하는 **김일성**이란 바로 나다. 우리는 공비가 아니라 조중인민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군이다. 남편이 오면 내 인사를 전달해 달라. 지난날의 우정을 가지고 동창생으로서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여기서 승산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슬그머니 피하라고 하라. 피할 수 없으면 ≪토벌≫에 내몰리더라고 흉내만 내라고 하라. 우리는 악질적으로 저항하는 위만군은 치지만 그렇지 않은 위만군은 너그럽게 처리한다. 나는 마금두가 왜놈들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혁명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벗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지 원쑤로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다.≫

마금두의 부인은 ≪**김일성**공비단≫이 위만군에 대해서는 함부로 총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인민혁명군의 야간습격조가 곰의골어귀전투때 적숙영지를 기습하면서 일본군의 천막들만 답새기고 위만군의 천막들은 치지 않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일본군 ≪토벌대≫의 우두머리들은 그 분풀이로 싸움에 참가하였던 위만군장교들을 모조리 총살해 버리였다.

마금두가 그 끔찍한 참살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은 것은 감기를 핑계로 ≪토벌≫에 참가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하였다. 아마 마금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대적 방침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았다.

마금두의 부인은 **김일성**부대가 왜 위만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가를 이제는 알만하다, 성주선생이 학창시절에도 늘 조중친선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도 자주 말해왔다. 성주선생이 중국사람들을 그처럼 아끼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만군을 대해주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다, 남편을 설복해서 두 번 다시 혁명군에 총부리를 돌리지 않게 하겠다. 남편도 **김일성**대장이 어제날의 김성주선생이라는걸 알면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마금두의 부인에게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역적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잘 설복하라고 거듭 당부한 다음 그와 요리사를 돌려보내고 이도강에서 철수하였다.

요리사는 그때 마금두의 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입대를 청원하였다. 그가 바로 연합동이였다. 그는 마금두의 안해들인 두자매가 한남편을 놓고 자주 싸움을 하는 짬에 끼워 시달림을 당하기에 지쳤다면서 혁명군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다.

≪나는 마금두대장한테서 김성주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성주선생이 바로 **김일성**장군이라는 것을 알게되니 장군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장군부대에서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청을 받아주었다. 그 무렵에 위증민이 횡산후방밀영에 와서 병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에게 중국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리사가 생기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의 구미에 맞는 중국음식을 지을만한 작식대원이 없어서 사실은 나 뿐 아니라 김주현까지도 몹시 난감해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연합동을 한동안 위증민의 곁에 가서 일하게 하였다. 위증민은 연합동이 일류급식당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재능있는 요리사라고 하면서 그를 몹시 사랑하였다.

연합동은 그때부터 1945년 9월,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조국에 돌아올 때까지 오래동안 우리 곁에서 작식대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같은 감을 가지고도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낼줄 아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밥은 큰가마에 해야 맛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큰가마를 지고 다녔다.

1940년대 전반기 쏘만국경지대의 훈련기지에 가있을 때 우리는 중국동무들과 함께 쏘련동무들과도 연합군을 편성하고 종종 합동훈련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연합동의 요리솜씨가 얼마나 소문났던지 중국측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쏘련측 지휘관들까지 우리 부대의 야전식당에 뻔질나게 찾아들군 하였다.

어느 날 주보중은 연합동이 차려준 중국음식을 먹고나서 우리에게 그를 달라고 농을 하였다. 그런데 안길동무가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그 농을 받아넘겼다.

이 말이 진담처럼 전달되어 연합동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합동은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자기를 중국부대에 넘긴다는게 사실인가고 하였다.

≪어느 부대에 넘어가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무를 탄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단났고. 쏘련동무들도 동무를 달라는 구만. 만약 쏘련동무들이 더 조르면 쏘련측에 넘어갈 수도 있소.≫

나의 말에 연합동은 펄쩍뛰였다.

그는 중국부대고 쏘련부대고 다 가지않겠다고 하면서 고집스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패망직후에 절실히 깨달았다. 해방된 조국으로 나올 때 나는 연합동을 불러놓고 10년 가까운 세월의 수고를 치하해준 다음 그를 주보중부대에 편입시키기로 한 당조직의 결정을 전달하였다. 주보중은 연합동이 자기 부대에 오면 연대장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연합동은 그 말을 듣자 자기를 꼭 조선을 데려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제는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못살겠습니다. 내가 중국사람이라고 해서 꼭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연대장이고 뭐고 다 싫으니 나를 장군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왜놈의 총칼이나 만주바람도 끊지 못한 정인데 국적이 다르다고 그 정을 억지로 끊을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연합동의 말은 나를 감동시키었다. 그가 한 말에는 혁명의 길에서 동지를 위해 피도 흘리고 눈물도 뿌리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관이 집약되어있었다. 그의 말과 같이 사람은 산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매여 산다고 할 수 있다.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항일투사들을 하나의 큰 가정속에 묶어세운 것도 역시 정이었고 사랑이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천도 빛을 잃는 법이다.

연합동이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적극적으로 간청해나선 것은 국제주의정신의 숭고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나도 역시 연합동을 떼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원이 정 그렇다면 동무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 난들 왜 동무와 헤여지고 싶겠는가, 나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동무의 입장이 딱해질가봐 심사숙고 할뿐이다. 동무도 알다싶이 지금 중국은 내전전야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중국혁명을 돕기 위하여 강건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 군정간부들과 투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주보중에게 약속하였다. 조선사람

이 중국혁명을 도우려고 할 때 중국사람인 연합동이 자기나라 혁명을 외면하고 조선으로 간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동무자신도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연합동은 중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그는 중국혁명이 승리한 다음 조선에 나가 살겠으니 그때에는 평양미인들 중에서 색시감을 꼭 구해달라고 하면서 농까지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가 연대장이 되어 장개석국민당군대와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는 그를 조선에 데리고 나오지 못한데 대하여 후회하였다. 그러나 연합동은 중국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사람으로 되었다.

연합동이 조선에 오지못한 대신 먼 중앙아시아 지방에 가있었던 장철구가 전후에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온지 얼마안되어 백두산시절의 옛전우들이 한자리에 모이었다. 장철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장군님, 옛날 백두산시절 동무들이 다모였는데 시간을 내여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스무해만에 만든 통강냉이죽을 장군님께도 한 사발 올리고 싶어 그럽니다. 제가 만리타국에서 빈손으로 오다나니 장군님께 올릴 것이란 통강냉이죽뿐입니다.≫

나는 퍽그나 가고 싶었으나 갈 형편이 못되었다.

≪고맙지만, 나는 지금 지방으로 떠나자던 참입니다. 인민들의 약속한 걸음이여서 어길 수가 없으니 훗날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날 옛 전우들은 백두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작불로 끓인 통강냉이죽을 달게 들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나는 백두산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면 장철구에게 통갱냉이죽을 쒀달라고 부탁하군 하였다.

장철구는 우리 집 대문 맞은편에 있는 둔턱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나도 어쩌다 짬을 얻으면 장철구의 집으로 건너가군 하였다.

조국에 돌아와 살면서 그가 한 주되는 일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던 옛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장철구는 1982년에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사망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처럼 비통한 감정에 휩싸이었다. 그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친동기처럼 극진히 돌봐주었다. 그것은 사실 친어머니의 사랑에 못지 않은 사랑이였다.

우리는 혁명무력건설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투사들과 꼭같이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크게 치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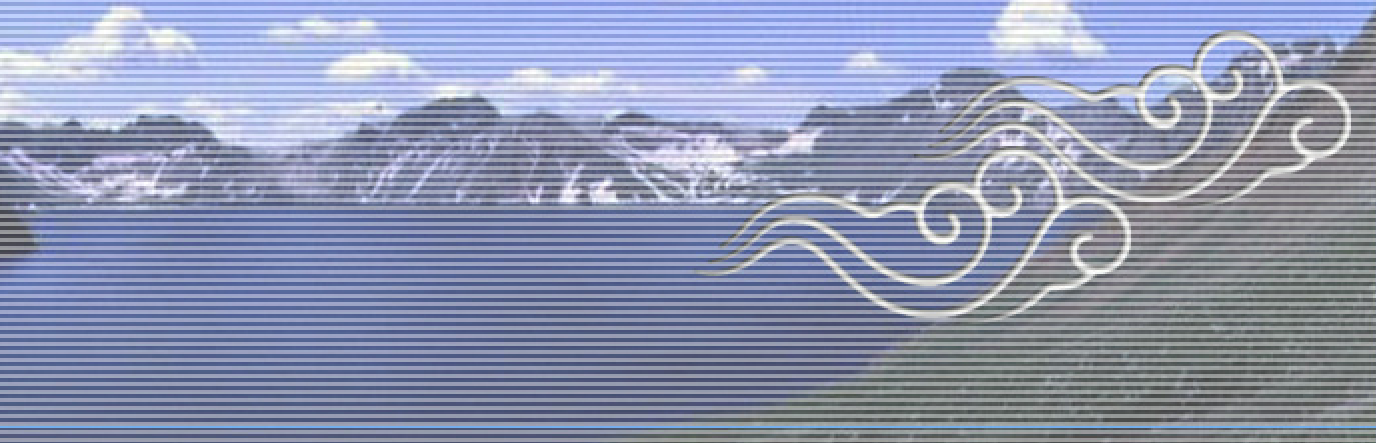
그 평범한 여성을 후대들이 길이길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에는 그의 흉상을 앉혔으며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만병초≫도 만들었다.

우리가 평양상업대학에 장철구의 이름을 달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한 사람같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평양상업대학에 평범한 작식대원의 이름을 붙인 것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민의 생활상 편의와 식의주를 위해 노고를 바치는 봉사일군들과 숨은 영웅들을 높이 내세우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상업대학을 장철구대학이라고 명명할 때 우리는 후대들이 장철구처럼 혁명임무에 충실한 일군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 시기 : 1937. 5 ~ 1937. 6

1. 보천보의 불길(1)



보천보의 횃불

보천보전투의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전투를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나에게는 정신적 체험이나 추억거리들이 적지 않다. 지금도 반세기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정경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이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였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보천보에서 울린 총소리를 계기로 하여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에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도 표현 할 수 있다.

나는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투담을 들려달라는 각계인사들의 요청에 접할 때마다 늘 보천보전투에 대해서 말해주군 하였다. 전과로 보면 이 전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전투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보천보를 칠 때 우리가 살상한 군경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일전쟁당시의 주요전투들을 소개할 때면 언제나 이 전투를 맨 웃자리에 놓군 한다. 그것은 내가 이 전투를 그 어느 전투보다도 특별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천보전투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대하였다. 적측의 손실

이라든가 피해정도 같은 것은 이미 전투 직후 지상을 통해 소개되었으니 새삼스럽게 확인할 것도 없었지만 그 작전의 동기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어떻게 되어 보천보전투를 하게 되었는가, 국경부근에 그런 정도의 고을들과 촌락들이 수십 개나 되는데 유독 보천보를 친 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천보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족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항일혁명투쟁에서의 결정적인 단계, 질적 비약을 이룩하자는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민족사는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 피눈물은 일제가 강요한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전을 개시하였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아들들이 선택한 항일의지이고 수단이였다.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구호를 들고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건설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을 하면서 항일혁명을 추진시켜왔다.

이 길에는 난관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까지도 범죄시하면서 저들의 당리당략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언제나 사고의 출발점을 조선혁명에 두었다. 몸은 비록 이국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있었고 주국의 동포들에게 가있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가 이국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조국을 위한 것, 조국의 해방을 위한 것이였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기발을 들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되고 의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남호두회의에서는 다른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표현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향은 조선에 나가서 총소리를 크게 내자는 것이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판도를 국내깊이에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앙양시키자는 것이였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의 주되는 활동판도는 만주지방이였다. 항일유격대창건을 전후로 하여 국내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그것은 제한된 활동이였다. 1930년대 전반기의 우리의 활동은 주로 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대오는 여러 개의 사단을 이룰만치 장성하였다. 이 힘을 가지고 국내에 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었다. 백두산에 틀고앉아서 낭림산에도 1개사단, 관모봉에도 1개사단, 태백산에도 1개사단, 지리산에도 1개사단 하는 식으로 사방에다 무장부대들을 파견해서 근거지를 건설하고 적들을 연거퍼 답새기면 조선반도를 죽가마처럼 끓게 할 수 있었으며 2천 300만 조선민족을 전민항쟁의 마당으로 모조리 불러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숙원을 달성할 수 있는 대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남호두와 동강, 서강 등지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들에서 거듭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사의 요구, 항일혁명발전의 총화였다.

1937년 봄에 우리는 서강에서 수년간에 걸친 무장투쟁과정을 총화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에 따라 혁명군무력을 3개의 방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세워졌다. 그 작전에 의하면 최현부대는 무송으로부터 안도, 화룡을 거쳐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었고 다른 하나의 역량은 임강, 장백 일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주력부대는 적의 공격이 두 부대에 집중될 때 혜산쪽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총소리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작전의 총적인 지향점은 국내의 적을 치는데 있었다. 임강과 장백 일대에 진출하게 되는 2사부대의 활동도 기실은 국내에 진공하게 될 두 부대의 활동에 대한 배후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인민들속에는 일본군의 강대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이 만주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군대를 당해낼 군대는 없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본과 같은 강국을 상대로 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이 황당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아 일제가 중국관내에로 침략전쟁을 확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현실로 되었다. 중일전쟁은 시간문제로만 남아있었다. 일본군이 기세등등해서 전쟁의 불길을 넓혀가는데 따라 무적황군에 대한 공포와 환상은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적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은 혁명의식을 마비로 만들려면 일본군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군이 강군이기는 하지만 치면 꺼꾸러뜨릴 수도 있고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였다.

우리가 한 5년동안 북간도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여 벌인 무장투쟁은 일본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었다. 그러나 흑심한 보도관제와 왜곡된 선전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전과는 국내깊이에까지 사실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부대로 국내에 쳐들어가게 되면은 나라 강산이 경탄과 감격으로 발칵 뒤집히고 인민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시킬 군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국해방을 이룩할 수 있는 조선의 혁명군대가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2천 300만 동포들이 조국광복전선에 과감히 떨쳐나설 수 있는 힘과 의지의 기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진공작전에 일관되어있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였다.

나는 그 당시 두 가지 점에 사색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국내의 큰 요충지들을 공격해서 온 나라에 충격을 주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조직망을 조밀하게 펼쳐서 전민을 반일항전에 준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국을 해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 무장투쟁과 전민봉기를 배합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독립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피와 땀을 많이 바쳐야 하는 어려운 전략이였지만 달리는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였다.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일대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전략의 실현에 철저히 바쳐지고 있었다.

국내진공을 앞둔 때의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조국의 실정을 깊이 요해하는 것이었다. 출판물만으로는 국내의 실정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국내에 갔다오는 공작원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원들을 불러다가 국내실정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실정자료는 새로운 통계수자나 충격적인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마당풍경이나 길가의 객주집에서 울려나오는 아낙네들의 넉두리에서도 우리는 어용신문의 눅거리보도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주요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일 중시한 것은 인민들의 동향이었다. 인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되는 관심사였다.

그 해 4월이 아니면 5월이었다고 기억된다. 만포쪽에 나갔다가 돌아온 한 무장소조원이 나에게 사업보고를 하다가 산중에서 목격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글쎄 팔다리가 젓가락 같이 여윈 10살 되나마나한 사내애들이 솔밭에서 삭정이를 줏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니 학교에서 얼결에 조선말을 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벌금을 무느라고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애들은 모두 보통학교 2학년생들이였습니다.≫

무장소조원이 그 아이들한테서 들은데 의하면 일본인교원은 목검으로 아이들의 다리와 잔등을 굴밤이 지게 두드려패고 머리에 물통을 뒤집어씌워 운동장에 장시간 꿇어앉히였다고 한다. 그리고 벌금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학급에서는 조선말을 한마디하면 5전, 두 번하면 10전, 세 번 이상하면 퇴학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교나 학급들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을 내지 않았는데 일본인교원이 담당한 그 학급만은 유독 ≪국어상용≫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조선말을 한 아이들한테서 벌금을 받아낸 것 자체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일이였다. 나라를 통채로 빼앗은 일제가 무슨짓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이전에도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사람들에게 일본말사용을 강제로 내리먹이지 못해 안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다.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한 보통학교에서는 벌써 1931년말부터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1937년 봄에 총독부 당국은 조선의 각급관공청들에서 일체 공문서작성을 일본어로 할 데 대한 지시를 내리먹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치하에서는 달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였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사람이 말까지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며 민족이 민족어를 빼앗기면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민족의 징표가운데서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민족어는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 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혀를 잘라내고 얼을 빼앗는 것과 같은 잔학무도한 짓으로 된다. 영토와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남는 것이란 언어와 정신밖에 없다.

그런즉.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족전부를 숨쉬는 시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민화≫의 본직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사람들과 꼭 같은 ≪1등국민≫으로 만들어서 흰쌀밥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궁성요배≫나 ≪신사참배≫를 하여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본국민의 종복으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언어를 빼앗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온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2천 300만동포를 한 줄에 세워놓고 그들 모두를 한칼로 쳐없애는 것과 같은 대살륙이나 다름없었다.

식민주의자들의 첫째가는 특성이 야만성과 탐욕성, 철면피성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남의 나라를 강탈한자들은 모두가 포악하고 교활하고 후안무치한 놈들이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는 자들,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사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토록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무장소조원이 안고온 소식은 나의 피를 끓게 하였다.

(조국으로 하루빨리 진군해서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조선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조선민족은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을 인정하지 않으며 ≪황민화≫를 거부한다는


일제의 ≪황민화≫ 교육

것, 조선민족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손에서 무장을 놓지 않고 항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1937년 5월초였다. 나는 놀라운 국내소식을 또 하나 받아안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거물 이재유가 체포되였다는 ≪매일신보≫특간호의 상보를 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옹근 4면짜리의 대대적인 특집이였다. 거기에는 경찰에 여섯 번이나 체포된데 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개가 지나치다고 할만치 상세하게 적혀있였다. 신문은 이재유를 ≪조선공산운동괴별의 최후진≫이니, 공산주의운동 ≪20년 역사 최후거물≫이니 하면서 그의 체포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영영 끝나게 되었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다.



이재유의 체포를 보도한 신문

부르조아정치일반이 워낙 지능적인 속임수로 되어있지만 그 시녀노릇을 하는 관보의 활자뒤에는 항상 지배계급의 검은 속심이 숨어있는 법이다. ≪매일신보≫의 그 호외도 예외가 아니였다. 워낙 잡도리부터가 총독부의 골방에 깊숙이 들어앉아 반공을 업으로 삼는 노회한 책사들이 야심적으로 꾸며낸 가면극이라는 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이재유가 이름난 공산주의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삼수사람이였다.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다가 노동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을 활동무대로 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하였는데 주로 태평양노조조직들을 맡아가지고 함흥일대에까지 드나들면서 각 지방의 노조, 농조 운동을 지도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담력도 있고 임기응변하는 기지와 변장술도 있어 붙잡힐 때마다 매번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이상의 탈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라고 단언하였다.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모략선전은 기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고 있었다. 그 점에서 적들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검거로 공산당이 무너지고 얼마 남지 않았던 개별적 공산주의자들마저 이재유의 체포로 활동의 종말을 고했다고 하니 그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학문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속에도 허무감에 잠겨 맥을 놓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적들은 과녁을 면바로 고른 셈이였다. 그 과녁이란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자는 것이였다. 그 목적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어떤 폭언이나 감언이설도 아끼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 쪽으로는 총을 내대고 ≪복종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하고 을러메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 ≪동조동근≫에 ≪내선일체≫이니 신사참배도 같이하자≫, ≪만주에서는 ≪왕도낙토≫에 ≪오족협화≫와 꽃이 피여있고 일본에는 사꾸라꽃속에 복지가 기다리니 만주나 일본에 가서 부자가 되라≫, ≪남쪽에서는 목화를 심고 북쪽에서는 양을 치며 대일본의 신민이 되어 온 아세아를 주물러보라.≫하고 입에 침발린 소리로 구슬리기도 하였다.

조선민족이 당하고 있은 가장 무서운 비극적 사태는 정신이 무너진다는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일제의 독재기관으로부터 유행가를 불어넣은 축음기판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조선을 없애고 조선민족의 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집중되고 있었다. 조선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동방조선에 칠칠야밤과 같은 암흑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 밤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지샐줄 몰랐다.

≪이 지리한 예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감히 자기들을

조선의 장부라고 할 수 있으랴. 어서 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속에서 시 달리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은 조국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머리를 지배한 생각이였다.

상수와 소덕수를 거쳐 5월중순경 지양개등판에 이른 우리는 거기서 국내진공을 위한 대오정비와 여러 가지 선동사업을 벌이였다. 한편 국내정세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박달을 불러다가 만나 보았다.

박달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혜산, 갑산 방면으로부터 적들의 국경경비무력이 대대적으로 북상하여 최현부대가 진출하고 있는 무산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였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면 최현부대는 포위를 면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정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였지만 적들이 혁명군의 움직임에 그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뜻밖이었다.


최현

서강회의 후 최현이 부대를 이끌고 작전지역으로 떠나간 것은 1937년 4월경이었다. 나는 그가 떠날 때 안도에 가면 이도선의 부대를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부대는 만주지방의 ≪노번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였다.

이도선은 안도에 와서 처음에는 소사하의 대지주 쌍빙준의가 병대장으로 있었다. 그때 그가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소작인들을 총칼로 악착하게 다스린다는 소리를 나도 많이 들었다. 유격대의 습격에 몇 번 혼쌀이 난 이도선은 가난뱅이는 다 공산당편이라고 하면서 걸핏하면 부락들을 기습해서 불을 지르거나 생사람의 목을 치군 하였다. 주민들속에서는 이도선에 대한 원성이 그칠 날이 없었다.

수급졸개로서의 이도선의 야수같은 기질을 잘 알게 된 일제는 그를 간도지구 경비사령부산하 안도≪토벌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부대는 혁명에 앙심을 품은 자산계급출신의 망나니들로 꾸려져있었다. 이도선의 특기란 한 번 걸려든 대상은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적아가 다 공인하는 명사수였다.

최현은 험한 산발을 타고 북상하여 거듭되는 싸움을 치르면서 무송오지에 적들을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 갑자기 방향을 꺾어 안도지구에 진출하였다. 그의 부대는 금강에 도착하자 난관에 봉착하였다. 부대가 건너가야 할 강물이 범람했던 것이다. 일부 대원들이 가교를 건설하는 동안 부대는 휴식하게 되었다.

대원들이 방금 잠에 곯아 떨어졌을 때 이도선부대와 버럭더미들을 사이에 두고 쌍방간에는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총격전에서 주수동이 그만 전사하였다. 처음에는 적들이 주동에 서서 일방적인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주수동을 대신하여 부대의 지휘를 담당한 최현은 불리한 정황을 재빨리 수습하고 역습으로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였다. 적아간에 총격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전판에 있던 인부들이 이도선이 도망친다고 소리질렀다. 그 금전군들이 아마


보천보전투당시 보천보시가

이도선의 용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유격대원들은 도주하는 이도선을 뒤쫓아서 기관총몰사격으로 즉사시키였다. 그날 최현부대는 도망치는 적들을 15리까지 따라가서 족쳐대였다.

금창전투는 인민들의 원한을 통쾌하게 풀어준 유명한 전투였다. 최현이 이도선을 죽이고 ≪토벌대≫를 전멸시킨 소식은 그 당시의 신문들에 크게 소개되였다. 최현은 원래 이름난 싸움꾼이였다. 최현부대의 무산지구 진출과정에는 가슴아픈 회생도 없지 않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4사의 꽃≫이라고 불리우던 이경희를 잃었다.


붉은바위전투장

그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경희네 집안은 온 일가가 혁명사업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정신이 강한 집안이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오빠들과 삼촌들을 잃고 할머니마저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격대원이였다. 이경희도 원한을 품고 쓰러진 혈육들의 복수를 위해 무장대오에 들어섰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그마저 총을 잡는다면 이씨가문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겠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이경희의 떼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군을 허락하고 말았다.

전우들이 ≪4사의 꽃≫이라고 하면서 이경희를 친딸이나 친동생처럼 애지중지하게 된 것은 그의 용모가 특별히 아름답고 그의 특기인 춤과 노래는 부대의 자랑이였다. 이경희가 유격대에 입대하였을 때 지휘관은 그에게 권총을 주었다. 체소하고 연약한 이 처녀에게는 보총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경희는 권총으로 싸우는 것이 성차지 않아서 마상대총을 메고 다니였다. 그가 마상대를 메고 춤을 출 때면 전우들이 손벽을 치며 늘 재청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경희는 부대의 분위기를 조절할줄 아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어떤 대원이 성을 내거나 울적한 기분에 잠겨있으면 그 대원에게 허물없이 감겨들어 웃겨놓으면서 귀엽게 어리광을 부리였다. 그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지쳐서 쓰러졌던 대원들도 기운을 내여 자리에서 일어나군 하였다. 이경희는 바느질도 잘하고 수놓이도 잘하였다. 그가 만든 담배쌈지는 누구에게나 귀물이고 자랑거리였다. 깔깔한 풀도 경희의 손에만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하였다.

이경희는 ≪토벌대≫와 맞다들어 싸울 때마다 일부러 전우들의 곁에서 외따로 떨어진 곳에 좌지를 정하고 조준사격을 해가면서 자기가 쏘아죽이는 적을 한명한명 세군하였다. 어느 한 전투 때에는 적을 연거퍼 6명이나 쏴눕히었다. 그가 총알을 갈아재우는 사이에 두세 명의 적들이 도망쳤다. 이경희는 그놈들을 놓친 것이 분해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보천보전투가 끝난 다음 3개 방면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지양개에서 만나 군민연환대회를 할 때 최현은 나에게 이경희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로 수건을 적시었다. 이 범같은 사나이의 눈에서 소리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을 때 나는 이경희의 죽음이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통한 손실로 되는가를 가슴저리게 느끼었다.

최현이 치명상을 당한 이경희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손가락짬으로는 피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 여기가 조국땅이라지요? 그래도 조국땅을 밟아보았으니 다행입니다. 모두들 내 몫까지 잘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최현의 품에서 전사할 때 그가 전우들에게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그 후 이경희의 아버지도 회령쪽에 국내공작을 나갔다가 적들에게 학살당하였다. 아버지와 딸은 이렇게 조국땅에 묻히었다. 해방 후 나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한 부대에서 싸우던 전우들이 무산지구에 가서 이경희의 유물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전사한 지점이 아리숭한데다가 상황중에 평토장을 한 무덤이여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우리는 이처럼 전우들의 피로 물든 징검돌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조국진군을 하였다.

최현부대는 무산지구의 붉은바위일대에 진출하여 적을 타격한 다음 만주지경으로 일단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백두산 동남쪽에 있는 일본인목재소의 상흥경수리 7토장을 들이치고 베개봉쪽으로 번개같이 이동하였다. 혜산, 호인, 신파 등지에 있는 특설경비대와 군경들은 도로를 따라 베개봉쪽으로 급속히 진출하였다. 최현은 통신원을 보내여 우리에게 부대가 처한 형편을 간단히 보고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는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통신원을 보낸 것은 적의 움직임이 여사여사하니 작전상 참고하라는 것이지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였다. 최현은 원래 곤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최현과 같은 노련한 싸움군이 최선을 다하여 난국을 타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전국의 흐름을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돌발적인 사태는 우리의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다. 당시의 정황은 우리로 하여금 전면포 위의 위기에 처한 최현부대를 구출하는 일과 국내진공작전을 다같이 밀고나갈 수 있는 묘술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4사가 포위에 들었다. 최현은 자체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결심을 믿고 우리가 가만있어야겠는가. 만일 그 결심이 미덥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진공을 뒤로 미루고 최현부대부터 구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내진공을 먼저 한 다음 연이어 구출작전을 펼쳐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주력부대역량을 둘로 갈라서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최현부대를 포위에서 구출하자면 국내의 어느 지점을 치는 것이 이상적이겠는가

모두가 긴장하여 나를 주시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절박하고 심각해서 논쟁은 처음부터 열을 띠였다. 지휘관들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한 부류의 주장은 북쪽으로 몰려간 적들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방법으로 먼저 최현부대부터 구출하고 그 후에 형편을 봐가다가 적당한 때에 국내진공을 단행하자는 것이였다. 이 의견은 여러 사람들의 반박을 받았다. 주력부대가 최현부대를 구출하는 작전부터 벌인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잇겠지만 우리의 총소리를 듣고 북부조선과 서간도일대의 적들이 기동로를 따라 물밀듯이 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부대가 적의 포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였다.

다른 한 부류의 주장은 최현부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포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은 것만큼 예정대로 한시바삐 국경1선인 혜산을 치자는 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적들도 당황하여 최현부대에 대한 포위를 풀고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되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방안도 역시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 부정을 당하였다. 그 허점이란 최현부대가 전투력이 강한 부대인 것은 사실이나 거듭되는 전투와 행군 때문에 포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주력부대가 혜산을 친다고 하여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무산지구로 북상하고 있는 적들이 과연 최현부

대에 대한 포위환을 풀고 돌아서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두 가지 작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반드시 국내에로 진공해야 한다. 이 작전에는 변동이나 취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시급히 최현부대를 구원해내야 한다. 국내진공을 중시한다고 하여 혁명동지들을 사지판에 내버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국내의 어느 한 지점을 때려 두 가지 목적을 단꺼번에 다 달성하는 것이다.≫

지휘관들은 ≪어느 한 지점≫이라는 말이 나오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지점이란 어느 고장인가고 이동학이 일동을 대표해서 물었다.

나는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그 지점을 선택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적의 역량이 집결되어있는 베개봉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고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턱밑에 바싹 붙어있는 고장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국내진공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낼 수 있다. 베개봉쪽에서 제일 가까운 요충지는 혜산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보천보이다. 보천보를 때려야 베개봉쪽에 집중되어있는 적들이 우리 주력부대와 최현부대에 역포위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포위추격전을 포기하고 이미 진출했던 계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 보천보를 치면 혜산을 치는 것 못지 않게 국내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보천보를 치는데 있다.≫

내가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였다.

≪보천보를 치자면 여러 가지로 타산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백 명에 달하는 부대가 적의 조밀한 국경감시망을 번개처럼 뚫고 들어가 적을 치고 번개처럼 빠져나오는 전격전을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이 전투는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만큼 화력전을 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치선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신속한 선전선동이 가능한가? 셋째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혁명군무력과 지하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연합작전을 하는 모범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가 다 헐치않은 전제들이어서인지 지휘관들은 또다시 팽팽한 분위기에 휩싸이였다.

그러나 그 때 권영벽이 무게있는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리였다.

≪사령관동지, 해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해낼만한 담보가 있소?≫

나는 권영벽의 대답이 달리는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우쳐 물었다.

≪있습니다.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

나는 그 대답을 귀로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웨친 것만 같았다. 어쩌면 권영벽의 심정이 내 심정과 그렇게도 같은가.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타향의 이슬비와 설한풍속에서도 연전연승하여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어찌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혼을 준 사랑하는 조국땅에서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짧은 모임이었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세부들은 세월의 연륜속에 묻혀버리었다. 다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 하고 자신있게 웨치던 권영벽의 음성뿐이다. 국내진공이라는 역사적인 출정을 앞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존재를 강탈당한 망국노의 울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곤장덕 사령부자리


곤장덕 헌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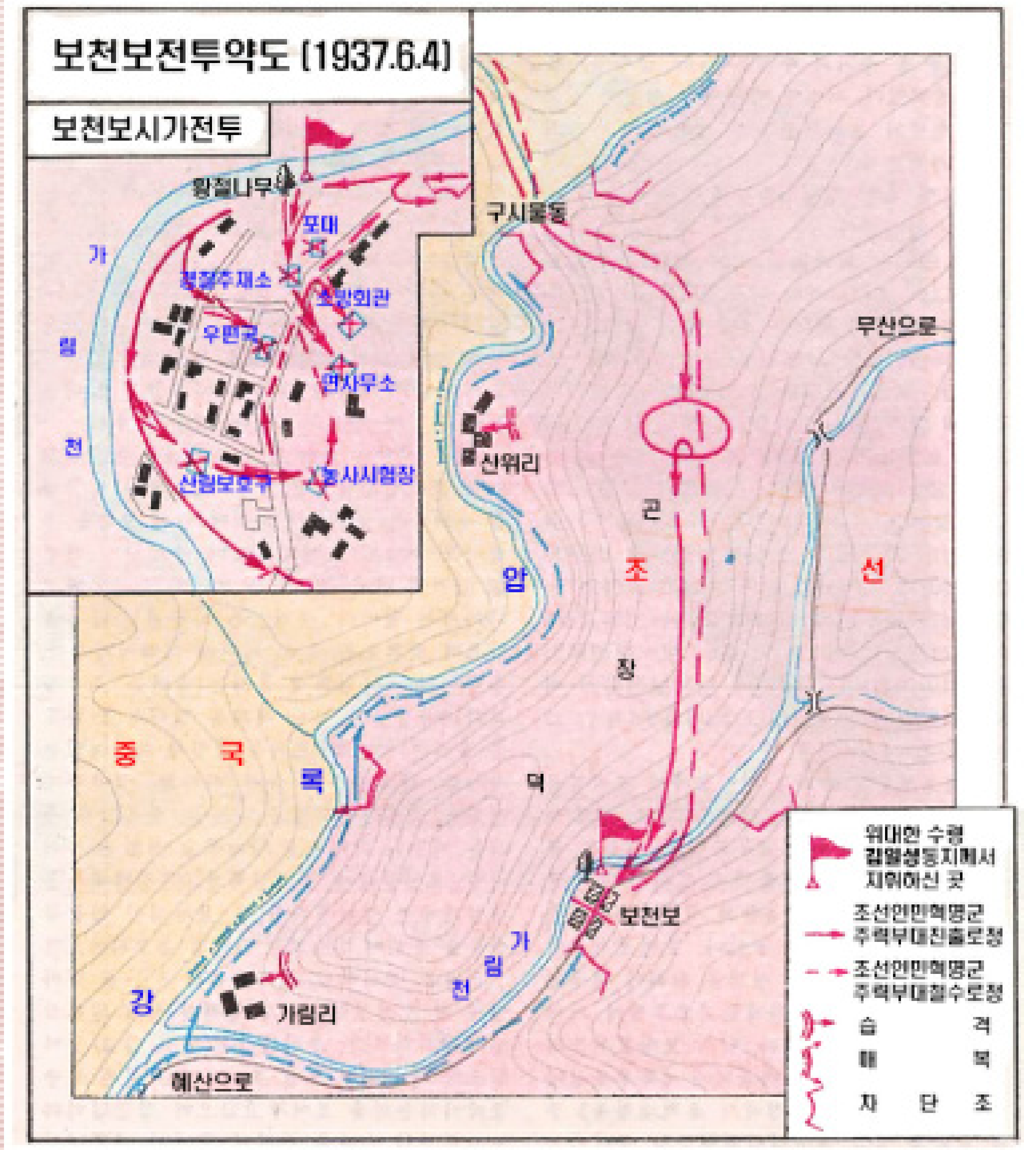

전투지휘소


적정확인장소


혜산방향 차단대자리


철수도중 휴식한 곳


대진, 무산 차단대자리


보천보전투약도 (1937.6.4)
보천보시가전투
황철나무
포대
경찰주재소
소방회관
우편국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가
림
천
구시물동
무산으로
신웨리
곤
장
덕
압
록
강
중
국
조
선
보천보
가
림
천
가림리
혜산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신 곳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진출로정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철수로정
습 격
매 복
차 단 조


경찰관 주재소의 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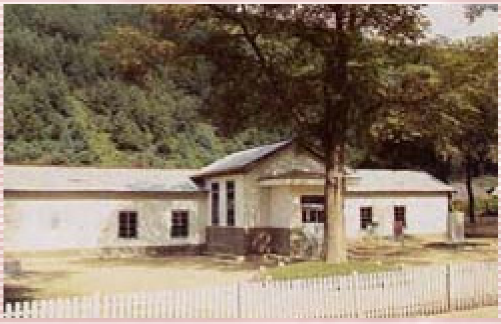

경찰관 주재소


우편국


소방회관


면사무소


농사시험장자리


산림보호구


군수물자를 노획한 상점

2. 보천보의 불길(2)


보천보의 불길

우리는 장백현 19도구 지양개에서 국내진공대열을 편성하고 대원들에게 일제히 여름군복을 갈아입히었다. 장사진을 이룬 대오가 일매지게 새 군복을 입고 지양개를 떠났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차림새가 그때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걸음은 작전상의 단순한 위치이동이 아니였다. 그것은 망국의 한을 품고 이국의 하늘밑에 큰 총성을 울리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피흘려 준비해온 길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이별끝에 몹시 그리웠던 부모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조국인민들에게 혁명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옷차림과 행장구를 최상의 것으로 갖추었다.

이전의 군복들가운데는 제나름으로 지은 것들도 없지 않았다. 혁명군의 군복은 재봉대가 맡아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일손이 딸릴 때에는 주민주구의 아낙네들까지 동원시키였다. 그러다나니 모양새가 어설픈 것들도 더러 있었다. 군복과 사복이 혼탕을 이루어서 차림새가 얼럭덜럭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나는 국내진공작전을 결심한 때부터 사령부가 작성한 도안에 따라 부대 전체성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군복을 지어 입히기로 하였다.

새로 작성한 군복도안에서는 모자에 붉은 별모표를, 군복저고리에는 영장을 달았다. 그리고 남대원들의 바지는 유격활동에 편리하게 약간 개조한 승마복형태였

고 여대원들에게는 주름치마나 바지를 입히는 것으로 하였다. 남여대원들의 저고리는 종전처럼 닫긴깃형태였다.

우리가 600벌의 군복을 만들기로 하고 재봉대를 포함한 후방부성원들을 장백으로 파견한 것은 양목정자에서였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천신만고의 무송원정길을 돌아가던 그 당시의 우리 형편으로 보면 군복 같은데 신경을 쓸 경황이 못되었다. 그때에는 군복보다도 당장 먹을 한두 끼의 식량이 더 절박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국진군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예견성있게 수백벌의 군복제작을 포치하였다.

600벌의 군복제작과업을 수행하느라고 오중흡과 김주현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오중흡이 인솔하는 후방공작조가 서강에서 장백으로 나갈 때 겪은 고초에 대해서 여러 투사들이 회고도 하고 증언도 하였으나 그 전모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못하였다. 우리가 무송으로 북상행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명수전투에서 얻은 식량을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오중흡이 장백으로 데리고가는 후방공작조에는 한 되박의 식량도 없었다. 대원들은 허기가 나고 기력이 진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맹물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노상 시장기를 달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굶다 못해 단두산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거기에 가면 단두산전투 후에 파묻었던 소대가리를 우려먹을 수 있다는 타산을 했던 것이다.



보천보전투당시 유격대를 도와준 노인의 초상

그러나 막상 소대가리를 파묻었던 현장에 가보니 살은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댕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래도 오중흡이네는 그 뼈를 우려먹고 얼마쯤 기력을 회복하였다. 기아는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였다. 일행은 아사의 위협과 함께 동사의 위협도 동시에 받았다. 모두가 칼날같은 눈얼음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살이 드러나서 얼어죽을 지경이였다.

만일 조국진군이라는 목전의 대망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잊었더라면 후방공작조성원들은 무송이나 장백의 어느 설령에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영영 눈속에 묻히었을지도 모른다.

김주현의 말에 의하면 오중흡이네 후방공작조가 소덕수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해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더라는 것이였다.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들을 소덕수인민들이 맞아들여다가 형체만 남아있는 누데기같은 옷을 가위로 째내고 새 옷을 갈아입혔는데 온몸에 피얼음들이 엉켜 붙어있어 상처자리부터 소금물로 소독하고 언독을 빼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오중흡 이하 전원이 동상을 입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방공작조성원들이 의식을 차리기가 바쁘게 일어나 재봉기앞에 마주앉더라는 것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소덕수의 조국광복회원들과 인민들은 일심일체가 되어 600벌의 군복을 짓는데 필요한 천도 해결하고 제작도 끝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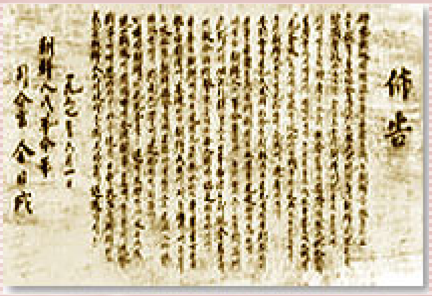
언제인가 박영순은 나보고 항일혁명투쟁시기 군대와 인민이 처창즈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되면 후대들이 잘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 험한 것은 생략하고 줄여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항일혁명당시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력을 아무리 발동하여도 그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언제인가 쏘련에서 발행하는 군사잡지를 보니 쏘련군사사상의 핵을 쏘비에트애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쏘련군사사상의 핵으로 본 쏘련사람들의 관점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활동을 관통하고 있던 군사사상도 그 핵은 애국애민에 두고 있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의 모든 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국과 인민의 참다운 해방자, 성실한 수호자가 되도록 부단히 교양하였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죽어서 한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기에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애국주의의 본질이 있었다.

오중흡이 새로 지은 600벌의 군복을 가지고 지양개에 나타난 것은 5월말이었다.

전우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새 군복으로 옷차림을 일신한 행군대오는 1937년 6월초에 19도구를 떠나 20도구, 21도구, 22도구를 거쳐 구시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에 와닿았다. 그때 우리의 길안내는 19도구사람인 천봉순이 하였다. 천봉순은 앞쪽에 바라보이는 등판이 제비등판인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국땅 곤장덕과 마주서있다고 하였다.


布告

보천보전투때
거리에 내붙였던
포고문

부대는 구시산마을에서 얼마간 머무르다가 제비등판에 올랐다. 6월3일 새벽이었다. 조국의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키돋이를 하며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그날 부대는 제비등판에서 노독을 풀었다. 김운신을 비롯한 선발대성원들은 구시물동에 가서 떼목다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넜다.

전원이 강을 도하할 때까지 자신도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엄습하였다. 적들이 1선, 2선, 3선도 모자라 4선으로 경계진을 치고 있다는 삼엄하고 조밀한 국경경비였다. 300여 개를 헤아린다는 북부국경지대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들, 거기에만도 수천 명의 폭압무력이 배치되어있었다. 기동성도 여간 아니었다. 혜산경찰서에서는 국경특설경비대라는 것까지 무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였고 후날 이 경비대의 대장이었던 오사와 슈이찌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국경지대의 경찰관주재소와 출장소 건물들의 주변에는 참호를 굴설하고 토벽, 철조망, 나무울타리 등 인공적인 장애물들로 보루를 축성하였으며 필요한 장소에는 감시대를 설치하거나 교통호를 파놓았다. 평안북도경찰수비대에는 비행기도 있고 기관총을 갖춘 두 척의 발동선도 있고 탐조등, 망원경, 철갑모를 분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 대부대에 의한 국내침투는 거의나 불가능할 것 같은 형세였다.

하지만 아무리 삼엄한 국경경비도 우리를 주저하게 자리는 못하였다.

구시물동은 소연한 물소리로 우리의 도하를 감싸주었다. 근대조선의 소란스러운 민족사가 그 물소리속에 응축되어 만단사연을 속삭여주는 듯하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곤장덕에 올랐다. 곤장덕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혀있는 평평한 야산이었다. 여기서 부대는 보초를 세우고 하루밤을 숙영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곤장덕 숲속에서 전투준비를 하였다. 포고, 삐라, 격문도 준비하고 지휘관부회의도 열고 정찰도 조직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장악한 적정자료를 현지에서 다시 확인 해 보는 것이었다. 마동희와 김확실에게 정찰임무를 주어 보천보거리로 내려보냈다. 그들은 어리무던한 농민부부로 가장하였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여러 기관들에 들어가 수작을 붙이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어찌나 정찰을 실속있게 했던지 그날밤에 다른데로 부임되어가는 산림보호구 주임의 송별연회가 있다는 정보까지 걷어가지고 돌아왔다.



불타고 있는
보천보 일제기관들

우리는 이미 여러 갈래의 선을 통하여 보천보에 대한 정

찰을 충분히 해두었었다. 권영벽이나 이제순의 선도 동원하고 박달의 선을 통해서 도 적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곤장덕을 내리었다. 거리에 돌아서자 대오는 여러 단위로 분산되어 소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나는 거리초입에 있는 황철나무아래에 지휘처를 정하였다. 거기에서 주요공격목표인 경찰관주재소가지의 거리는 불과 100미터 안팎이였다. 시가전을 하는 경우 지휘처와 시가와의 거리가 이처럼 가까운 실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고 있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휘관들은 나에게 지휘처를 시내에서 좀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전의 움직임을 순간마다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지휘처를 정하고 내 자신을 전투의 도가니속에 밀어넣으려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전투전야의 정경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휘처근방의 농가앞 마당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지하활동을 할 때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훈수도 하였을 것이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기였다.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신호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습격파괴한
보천보
경찰관주재소

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사방에서 적기관들을 들부시는 사격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먼저 이 고장 경찰들의 소굴이며 온갖 폭압과 만행의 아성인 경찰관주재소에 주되는 타격을 안기였다. 오백룡의 기관총이 주재소창문을 향해 사정없이 불을 뿜었다. 그때 우리는 산림보호구역에 적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거기도 드세게 공격하게 하였다. 순식간에 온 거리가 발칵 뒤집히었다. 전령병들은 연이어 황철나무곁으로 달려와 전투정황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들이 왔다갈 때마다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군 하였다.

얼마후에는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래쳐오르기 시작했다.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소방회관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적통치기관들이 일시에 화염에 휩싸였다. 거리전체가 여러 개의 대형조명등을 설치한 무대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 대원들은 우편국을 수색하다가 철궤속에서 일본각전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들은 보천보에서 철수할 때 그 각전들을 시내 여기저기에 다 줴던지였다. 주재소에 쳐들어가 ≪애국부인회≫의 이름으로 된 기관총을 노획해가지고 나온 오백룡이 기뻐 어쩔줄 모르던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나는 김주현을 앞세우고 거리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총소리를 듣고 움쩍도 못했는데 우리 선동원들이 부르는 구호를 듣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막 쓸어나왔다. 시인 조기천은 그때의 정경을 그리면서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적중한 것이었다.

군중이 우리를 둘러싸고 끓어대자 권영벽이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래도 조국동포들에게 인사 겸 연설을 한마디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운집한 사람들을 둘러보니 별빛같은 시선들이 일제히 나한테로 쏠리었다.

나는 모자를 벗어쥔 다음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만장을 향해 필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반일연설을 하였다.

≪여러 분,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연설을 다친 다음 이런 말을 남기고 화랑이 충천하는 면사무소앞을 떠났으나 가슴이 그냥 저려들었다. 칼로 살을 도려낸 것처럼 몹시도 아파났다. 우리는 저마다 이 자그마한 국경의 거리에 심장의 한 부분을 떼두고 가는 것이였다. 가는 심장과 남는 심장이 이별앞에서 소리없이 통곡하였다.

부대가 곤장덕에 올랐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구령도 없이 갑자기 대열이 흩어지는 것이였다. 대원들이 저마끔 흙을 움켜쥐 배낭속에 넣고 있었다.

지휘관들도 뒤질세라 조국의 흙을 간수하였다. 22만평방킬로미터라는 나라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한줌의 흙이라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였다. 그러나 그 한줌의 흙에는 삼천리가 담겨 있고 2천 300만이 담겨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옹근 조국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였다.

오늘은 우리 비록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내일은 100개의 거리, 1000개의 거리를 치리라. 지금은 우리 비록 한줌의 흙을 안고 가지만 내일은 온 나라를 다 해방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리라!

우리는 이런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다시 건넜다.

보천보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탱크도 없이 진행한 자그마한 싸움이였다. 보총과 기관총에 선동연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격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우리측으로 볼 때에도 전사자는 없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습전이여서 어떤 대원들은 오히려 아쉬워할 지경이였다. 그러나 이 전투는 유격전의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한 전투였다. 전투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작전이였다.

전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군사적 의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의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치로 볼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싸움을 치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아세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 인민혁명군은 조선총독부당국이 치안유지가 잘된다고 장담하던 국내에 들어가 한 개 면소재지의 통치기관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림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 일본인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타격을 받은 셈이였다. ≪후두부를 꽝 하고 강타를 당한 것 같다.≫느니, ≪천 날동안 베여들인 새초를 한 순간에 태워버린듯한 한을 남겼다.≫느니 하는 따위의 군경 당사자들의 고백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다.


보천보전투시가의 전경

만국평화회의장 문전에 나타난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여 열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서이라는 약소국에 세계 5대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는 일본군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일제란 칼로 내려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짚검불이나 북데기처럼 타번지는 일종의 폐기물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조국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민족의 재생을 예고하는 서광이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를 달고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하였다.


機關銃가진二百餘名越境
普天堡市街를襲擊衝火
駐在所 郵便所 ○○面所에放火
電線切斷 詳細한被害未判

국내진공소식을 보도한 각국의 신문자료들

≪도메이≫통신, ≪도꼬니찌니찌신봉≫, ≪오사까아사이신붕≫ 등 일본의 출판보도물들과 ≪만주일일신문≫, ≪만주보≫, ≪대만일신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도 이 전투를 광범히 취급하였다. 쏘련의 따쓰통신은 물론, ≪프라우다≫와 ≪크라스노예 즈나마≫도 이 전투를 위해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동방식민지 약소국의 변강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이무렵 쏘련에서 발간되는 잡지 ≪태평양≫에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실렸는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쏘련출판물에 우리의 이름과 투쟁소식이 크게 소개된 것이 이때부터였던 생각이 든다.

보천보전투에 대한 글은 에스페란트어잡지 ≪동방사자≫에도 실리었다.

≪동방사자≫의 발행취지는 일제의 야수성과 약탈상을 폭로하고 항일전쟁을 소개하며 동방문화를 선전하는데 있었다. 잡지에 제재된 모든 기사들은 대상국들에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할 수 있었다. ≪동방사자≫의 이런 특징으로 하여 보천보전투소식은 이 잡지가 배포되는 많은 나라들에 광범히 전파되었다.

보천보전투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부활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내외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 전투를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전 노정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온 투철한 반제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철저한 실행력과 유력한 전투력을 시위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고 있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진실하고 참된 애국자들이며 민족해방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책임적인 투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국인민들로 하여금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항일혁명의 마당에 거족적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일사천리로 내밀 수 있는 분위기를 지어주었다.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데 있다.

이 전투가 국내인민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들이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운형은 전투현장에 달려갔다고 한다. 그가 이 전투소식을 접하고 몹시 흥분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는 해방 후 평양에서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보니 20여년 세월 왜놈들치하에서 수모를 당해온 망국민의 설움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때 보천보

에 가보고 무릎을 쳤지요. 이제는 됐구나,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안우생의 말에 의하면 김구도 보천보전투에서 이만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안우생은 오래동안 상해임시정부를 따라다니면서 김구의 서기로 있었다.

어느 날 김구는 신문을 뒤적이다가 보천보전투소식을 읽게 되었는데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보천보전투
지휘터

김구는 그때 안우생에게 지금은 시국이 험한 때이다. 중일전쟁이 임박하니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은 되골목으로 다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판국에 **김일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에까지 쳐들어가서 왜놈들을 전면으로 후려친 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인제는 우리 임시정부가 **김일성**장군을 후원해야겠다. 수일내에 백두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김구를 비롯한 해내외의 명망높은 인사들이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얼마나 신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이런 풍조는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인사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다음 적지 않은 민족운동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에 받은 인상이 해방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어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합작에서 크게 은을 내였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보천보전투의 덕을 많이 본셈이었다.

나의 팔도구시절의 잊을 수 없는 친구 김종항은 일본 도꾜에서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할 때 ≪아사히신붕≫지면을 통해 보천보전투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 ≪아사히신붕≫지국에 나간 그는 주인으로부터 오늘은 책임량외에 100부의 신문을 더 배달해야겠다는 지령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지국이 그런 지령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 신문을 펼쳐보니 거기에 **김일성**부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종항은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팔도구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지식인으로서의 김종항의 고민은 보천보전투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애국청년들은 무장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이 일본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벌이를 하려고 대학을 다니는게 과연 옳은 인생인가하는 고민이었다.

김종항의 이런 자아반성은 유격대에 찾아가 무장을 잡으려는 심각한 결심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는 참군결심이 서자 지체없이 일본땅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후의 그의 행로는 항일유격대를 찾는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김종항은 조국에 돌아와서야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소년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두산으로 찾아가려는 열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참군시도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상봉은 해방 후에야 실현되었다.

김종항의 실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천보전투는 조선의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인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른 홰불은 조선의 모든 양심인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참된 인생의 좌표를 밝혀주는 등불로 되었다.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전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중심군상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무장을 위하여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곤난을 뚫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격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조국진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진격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군상 - 필승의 신념

3. 지양개군민연환대회

보천보를 치고 귀로에 오른 대열이 구시골에 들어서자 대원들은 지휘관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루의 휴식을 제의하였다. 그때까지의 항일전쟁행정에서 대원들이 사령부에 휴식을 요구한 전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피곤이 겹쌓였으면 그들이 그런 제의를 하였겠는가. 사실 그 무렵에 우리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다 하루도 편안하게 쉬여본 적이 없었다. 곤장덕에 가서도 만 하루를 지냈지만 모두가 열에 떠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곤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전투가 일단락을 짓게 되자 어느새 대오를 지배하고 있던 탕개가 풀어진 것이다.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정과 휴식을 바라고 있었다. 나자신도 피로와 수면부족을 느끼였다.

그런데다가 구시골마을 농민들까지 우리 지휘관들을 보고 쉬다 가라고 권하였다.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았으니 마을사람들의 성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였다. 시장기를 느끼고 있던 대원들은 떡과 돼지고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래서 연대정치위원들까지 합세해서 구시골사람들의 성의를 받아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휴식을 선포할 수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지휘관들은 각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섰다고 하여 긴장을 늦춘다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었다. 국경일대의 수비대에는 보나마나 비상동원령이 내리고 대소동이 일어났을 것이었다. 그 병력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런지도 몰랐다. 적이 우리를 추격해오리라는 것은 전례로 보아도 명백한 일이었다.

적들이 우리의 뒤와 옆에 나타날 시간은 언제이며 앞쪽에 나타날 시간은 언제이겠는가.

대강 추산해보아도 구시골에서는 반 시간이상 머물러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몇 재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마을이어서 수백 명에 달하는 군대와 짐군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해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전리품의 일부를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배낭들에 주먹밥을 싸넣게 하였다. 동시에 짐을 지고 따라온 보천보사람들의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부대전원과 남아있는 짐군들을 데리고 구시산에 올랐다. 나는 어쩐지 싸움이 붙는다면 이 산에서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구시산은 경사가 60도나 되는 물매가 급한 돌박산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기가 헐치 않았다. 앞사람이 실수해서 돌 한 개만 굴려도 연쇄반응이 일어나 무서운 돌사태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백학림전령병을 시켜 돌을 굴리지 말라는 주의를 몇 번이나 주었다. 누구나 손으로 앞사람의 발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밀어주면서 조심스레 경사를 밟아올랐다.

나는 부대가 산꼭대기에 오르자 땀도 들이기 전에 전투배치부터 하였다. 지형의 특성에 맞게 돌싸움을 배합할 작정으로 전 대오가 달라붙어 곳곳에 돌무지를 무져놓았다. 그런 다음 주먹밥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게 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올라온 쪽으로 어느새 적들이 무리지어 기여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오가와 슈이찌가 이끄는 국경특설경비대 무력이었다. 오가와는 그 경비대의 대장이었다. 적은 제법 기세좋게 접근해왔다. 적이 우리 진지로부터 30미터가량 되는 곳에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사격구령을 내리었다. 고지우에서는 보총

과 기관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나도 보총으로 조준사격을 하였다.

적들은 돌짬에 납작 엎드려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는 아무리 총을 쏘아도 효과를 낼 수 없었다. 나는 돌을 굴리라고 명령하였다. 대원들은 돌을 굴리기 시작했다. 소왕청방어전투때 뾰족산에서 한번 돌싸움을 해보고 구시산에서 다시 해보았는데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 대원들은 싸움솜씨를 다시한번 잘 보여주었다. 보천보를 칠 때는 우리가 적들에게 반항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우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좀 싱겁게 끝났기 때문에 싸움이 우리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사정이 달랐다. 적의 공격이 대단히 집요해서 싸움을 해볼만하였다.



구시산전투장

돌격나팔이 울리자 오백룡은 비호같이 달려내려가 적기관총부터 제껴버리었다. 김운신은 몸집이 장대한 적병과의 힘겨운 격투 끝에 척탄통을 노획하였다.

우리의 타격이 어찌나 드셌던지 구시산 서쪽으로 뒤늦게 밀려오던 위만군부대는 겁을 먹고 달려들지 못하였다. 먼발치에서 눈먼 총을 몇방 쏘고는 싸움을 구경하기만 하였다. 나는 기관총수들에게 그쪽으로 공포를 몇 방 쏴주라고 하였다. 위만군이 근처에서 어물거릴 때 헛총질을 하는 것은 간도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지켜온 하나의 관례였다. 위만군들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었다. 우리가 그 요구를 지켜주면 그들도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고 헛총질을 몇 번 하다가 물러가군하였다.

이날 방차대성원들도 구리다대위가 인솔하는 혜산수비대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보천보에서부터 짐을 지고 우리를 따라온 사람들은 구시산전투 전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인민혁명군의 위용앞에서 크게 감탄하였다. 그들은 적의 패전상도 똑똑히 보았다. 그때에 체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결국은 말없는 교양자료가 되었다. 짐군들은 구시산전투까지 목격하고나서 인민혁명군의 전투적 위력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본군이 자기를 ≪천하무적≫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상의 천하무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보천보전투에서 살아남은 적들은 너무 혼이 나서 한동안은 어디에도 전혀 출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구시산까지 왔다가 겨우 살아돌아간 ≪토벌대≫가운데는 그가 잘 아는 조선인순사도 한 명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사가 아주 약삭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

순사는 구시산으로 오르면서 유격대의 신발자욱을 보고 산마루에 유격대가 틀림없이 매복해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각반을 고쳐매는 척하면서 일본인순사들을 앞세우고 슬그머니 뒤에 떨어졌다. 일본인순사들이 산마루에 거의 도달하자 기관총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었다. 조선인순사는 산밑으로 도망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가에 숨어있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꾀를 잘 썼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박달에게 자랑하였다.

구시산전투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국경특설경비대장 오가와 슈이찌는 몇해전까지 일본에서 평범한 시민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말년에 그대의 패전상을 회고하는 글을 써냈다. 나는 그 글을 보고서야 오가와가 구시산에서 중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 대원들의 총알이 그의 혀바닥을 뚫었다

고 한다. 부상치고는 아주 괴망한 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별로 효험이 없었던 모양이다.

아물지 않은 총상자리를 드러내보인 오가와의 사진을 나도 보았다. 오가와 역시 구일본의 수많은 군경들과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황도정신≫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구시산에서 우리가 거둔 전투승리는 그 후에 있는 간삼봉에서의 전과와 더불어 보천보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적 위력과 불패성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국경일대의 적들은 공포에 떨었다. 적들의 문건을 보면 구시산전투에서 그들이 ≪다수의 적≫을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날조이다. 우리측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최현

적들은 시체운반을 위해 구시산근방의 부락들을 돌아다니며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문짝과 이불을 닥치는대로 걷어갔다. 결국 우리는 혜산에 건너와서 치려던 적을 구시산에서 친 셈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시산전투는 우리가 당초에 혜산진공작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구시산전투를 끝낸 후 포위에 들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최현부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최현의 신발이며 옷주제를 보니 말이 아니었다. 그는 만나자마자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를 떠들썩하게 축하해주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불쑥 꺼냈다.

≪우린 이번에 베개봉근방에서 놈들의 포위에 들었댔는데 그놈들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달아나버리더란 말이오다. 장군님, 이게 어떻게 된 감투끈이요?≫

나는 그 동안 최현의 4사를 구출하기 위해 보천보를 치게된 과정사를 간단히 말해주었다.

최현은 그 말을 듣자 껄껄거리며 웃었다.

≪갸들이 물러가는걸 보구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장군님덕이었구만요. 거 정말 굉장하오이다.≫

그는 말끝마다 ≪갸들≫이라는 대명사를 붙이었다. 그것은 그가 일본군경들을 멸시해서 곧장 사용하는 비칭이었다.

나는 최현에게 4사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으니 안내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은 만날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다.

내가 이유를 캐여묻자 그는 대원들의 몰골이 너무 험해서 그런다고 하였다.

나는 김해산을 불러다가 4사동무들에게 군복을 공급해주라고 지시하였다. 그 군복들은 국내진공을 앞두고 제작한 600벌중에서 최현부대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최현의 말과 같이 4사전우들의 옷주제는 과연 말이 아니었다. 그 남루한 옷차림과 볕에 탄 적동색얼굴들은 그들이 헤쳐온 고난에 찬 노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최현은 군복을 입고 면도까지 한 다음에야 나한테 와서 정식으로 그 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하였다. 전과가 간단치 않았다.

우리는 지양개에서 1군 2사동무들과도 상봉하였다. 2사도 자기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다. 나는 4사와 2사 동무들에게 주력부대의 국내진공작전을 익측과 배후에서 후원하고 협조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서강회의의 결정에 따라 3개 방면으로 진출했던 혁명군부대들은 이처럼 회합장소로 내정되었던 지양개등판에 모여 전투적인 우애를 나누었다. 신록이 무르익는 등판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었다. 주고받는 이야기마다 신바람나는 무훈담들이었다.

서강회의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에 혁명군부대들이 거둔 전과를 직접 목격한 백두

산지구 인민들의 기쁨은 참으로 각별하였다. 박달이네 조직선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갑산, 풍산, 삼수 일대에서는 혁명군이 자기네 고장을 해방시킬 날이 박두했다고 하면서 남녀호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현의 보고가운데서 이채로운 것은 상흥경수리 7토장을 칠 때 잡아왔다는 가와시마라는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목재소는 혜산에 본부를 둔 한 개 지소나 다름없는 작업장이였는데 가와시마는 거기서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4사사람들이 그를 지양개까지 끌고온 것은 그가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조선여자를 데리고 사는 흥미있는 인물이였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으며 그를 인질로 삼아 경제모연공작을 해보고싶은 속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최현은 가와시마의 운명처리문제 때문에 자기가 전광, 박득범 등과 언쟁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와시마를 처단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는데 장군님의 생각은 어떤가 물었다.

나는 단마디로 처단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와시마가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억지요. 그가 재향군인으로서 목재소 현장책임자로 일한다고 해도 우리 인민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야 무엇 때문에 처단하겠소. 사람들의 운명문제는 심중하게 다루어야 하오.≫

최현은 그 말을 듣고나서 동감이라고 하였다.

그날 나는 가와시마를 직접 만나보았다. 말을 몇 마디 건네여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였다. 혁명군이 무섭지 않은가고 물으니 처음에는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은 유격대를 ≪비적≫이라고 하는데 요새 혁명군을 따라 다니는 과정에 그 선전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비적이라면 남의 재산을 빼앗겠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유격대는 오직 조선독립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 몇 일씩 굶는 때에도 주인없는 밭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쩌다가 먹을 것이 좀 생겨도 동무들의 입에 먼저 넣어준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비적일 수 있는가고 하였다.

나는 최현, 전광, 박득범들에게 가와시마는 큰 죄도 없고 눈도 바로 배긴 사람이니 교양을 잘 주어 곱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훗날 조직선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가와시마는 목재소에 돌아가서, 조선유격대는 비적이 아니라 기강이 뚜렷한 혁명군≫이며 일본군대에 먹히울 약자가 아니라고 선전하였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가서도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그냥 하였다.

경찰당국은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그를 일본으로 쫓아버리었다. 가와시마가 인민혁명군에 대해서 했다는 말의 골자는 그 당시 국내신문에도 소개되었다.

최현은 신문을 보고 나에게 ≪가와시마가 유격대에서 먹은 밥값은 단단히 하우다. 장군님이 왜 그를 놓아주라고 했는지 이제는 가늠이 가우다.≫라고 하면서 크게 웃었다.

나는 가와시마의 실례를 통해서 비록 일본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나쁘게 모아서는 안되며 그들의 현행실태와 사상경향에 따라 심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부대가 지양개에 도착한 그날 19도구 구장 이훈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거둔 전승을 축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대로 음식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식사나 한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훈이 말꼭지를 떼는 품이 보통때처럼 점심이나 한 그릇씩 대접하자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품을 놓고 한턱 차리겠다는 소리 같았다. 수백 명의 유격대원들에

게 밥 한 그릇씩만 해먹인다고 해도 19도구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폐를 끼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훈더러 식사준비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말이라면 늘 고분고분하던 이훈이 이번만은 고집스레 버티면서 인민의 지성인데 받아주어야지 이제는 딴도리가 없다고 통사정을 하였다.

≪장군님, 이건 제 일개인의 청이 아니올시다. 19도구사람들의 민심이올시다. 이 청만은 제발 사양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라소니라고 몰아대고 돌을 던질겁니다. 그건 글세 내가 참으 면 되겠지만 온 마을에 울음판이 터질게 뻔한데 그건 어떡합니까?≫


김운신

듣고보니 구장의 청을 그냥 거절하기가 사실 난처하였다. 인민의 성의를 외면하고 지양개를 갑자기 떠나간다면 이 고장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하며 유격대원들은 또한 얼마나 알찌근해 하겠는가.

나는 이훈에게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집집에서 음식이나 나누고 헤어지지 말고 차라리 군민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오월단오도 다되었는데 그날 군민연환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지양개등판에서 세상이 보란 듯이 청청대낮에 경축모임을 성대히 가지는 것이 좋겠다,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서로 고무하고 정을 나누게 하자, 하늘땅이 들썩하게 오락회도 열고 운동회도 열어 그날은 모두가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단오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4사와 2사의 지휘관들도 찬성하였다. 뜻을 이룬 이훈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군대와 인민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합동행사를 시도해본 적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군민연환대회장소로 내정된 덕부골은 이제순, 김운신, 마동회, 김주현, 지태환, 김일 등이 개척한 혁명촌이었다. 현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등판에 위치하고 있던 순사나 구장들도 자주 오지 못하는 고장이었다. 적통치기관들도 비교적 멀리에 있었다. 덕부골에서 제일 가깝다는 주재소가 우럭골에 있었는데 우럭골과 덕부골사이의 거리는 산길로서 퍼그나 멀었다. 우리는 덕부골에서 훗날 유격대원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나는 50여명의 병사, 지휘관들과 함께 조국광복회 지회장 안덕훈네 집에 거처를 정하였다. 이제순이 19도구에서 맨처음으로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훈과 안덕훈이었다. 우리는 보천보전투 이전에도 이 집에 들렸고 그 이후에도 이 집에 들려 많은 신세를 지고갔다. 안덕훈이네 일가는 유격대원호를 잘하는 집안이었다. 그의 동생 안덕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 사업을 아주 정열적으로 도와주었다.

덕부골에는 송가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인생관을 가진 친일성이 강한 지주였다. 이 부자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내탐한 우리 공작원들이 하루는 안덕훈이네 집에다가 송가와 이훈을 불러다놓고 유격대를 원호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공작원들이 그 자리에 지하조직원인 이훈까지 불러들인 것은 그럴만한 타산이 있어서였다. 이훈이 먼저 얼마만큼 내겠다고 하면 송가도 아닌보살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공작원들이 이훈을 보고 떡떡거리게 되면 지하조직원으로서의 그의 정체도 더 잘 위장해줄수 있었다. 일은 예상대로 되었다. 이훈이 먼저 동리를 대표하여 얼마를 내겠다고 하자 송가는 공작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150원을 넘겨준 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그 앙갚음으로 안덕훈이네 집에 유격대공작원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주재소에 다니는 처남에게 넌

지시 귀뜸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훈은 공작원들과 의논하여 안덕훈을 유격대에 보내고 그의 가족들은 조선으로 빼돌리었다. 그런 구급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안덕훈일가는 틀림없이 멸살을 당하였을 것이다. 1937년 여름인가 가을에 적들은 ≪빨갱이촌≫이라는 구실밑에 덕부골마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였다.

나는 안덕훈의 집에서 19도구의 유지들, 2사, 4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군민연환대회의 일정을 심화시킨 세부안을 작성하였다. 마을청년들은 그때 국수분틀을 50여개나 만들었다. 군대와 인민이 집집마다 한자리에 모여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노래도 부르고 고담도 나누었다. 천봉순의 보천보정찰담은 매번 폭소를 자아댔다.

1937년 5월말에 천봉순은 우럭골출신의 유격대원인 김운신을 통하여 보천보시내의 적의 무장장비와 무력배치 상태를 알아내라는 우리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보천보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을 통하여 경찰관주재소에 7명의 순사가 있으며 경기관총은 1정이라는 것, 산림보호구역에는 5명의 일본인이 있는데 주임은 인차 다른 데로 전근되어간다는 것, 시내에 있는 집은 대략 200호가량 된다는 것을 알아내였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천봉순은 보천보시내에 들어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주재소앞에 있는 잡화상점으로 찾아갔다. 그는 술에 몹시 취한척하면서 1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을가 하고 중얼거리며 후들거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였다. 그리고는 5원짜리 한 장을 꺼내들고 ≪옳지, 여기 1원짜리 한 장이 있군.≫하면서 ≪마꼬≫담배 한 갑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마꼬≫한 갑 값이 5전이었다. 5원을 냈으니 거스름으로는 응당 4전 95전을 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엉큼한 여주인은 천봉순이 술에 잔뜩 취해서 5원짜리와 1원짜리를 분간하지 못하는줄로만 알고 95전만 던져주었다. 일은 천봉순이 바라는대로 되어가는 셈이었다. 그는 여주인에게 5원짜리를 냈는데 왜 거스름돈을 95전만 주는가, 4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였다. 여주인은 어디서 이따위 협잡군같은 놈이 나타났는가, 1원을 내고도 5원을 냈다고 하니 천하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허튼수작말고 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5원이라거니, 1원이라거니 하면서 싱갱이질을 하다가 여자쪽이 주재소맛을 보지 못해 그러는가고 위협할 때 천봉순이 그러면 순사나리들한테 가서 결판을 짓자고 하였다. 상점주인여자는 주재소측이 자기편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던지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섰다.

두 사람은 주재소에 들어가서도 계속 상욕질을 해대며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바람에 주재소측도 어느 편을 들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 사람의 말싸움을 구경만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천봉순은 순사가 몇 놈인 있고 기관총이 몇 정 있으며 보총이 몇 자루가 있는가를 다 탐지해냈다.

그는 확인할 것을 다 확인하자 그러면 순사나리들이 우리와 같이 상점에 나가자. 내가 낸 5원짜리는 복판에 종이를 오려붙인 것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없으면 저 년이 이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당직순사를 앞세우고 당시 상점으로 나갔다.

천봉순이 말한대로 돈궤속에서는 정말 복판에 종이를 오려붙인 5원짜리 돈이 나왔다. 그러나 상점주인은 그 돈은 아침에 다른 손님한테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생억지를 썼다. 결국 이 송사질에서는 상점주인여자가 이기였다. 천봉순은 그 여자에게 ≪마님, 익은 밥 먹고 선트림 하면서 호강하시오.≫하고는 상점문을 나섰다. 그는 속으로 상점주인을 정직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고맙게 여기였다. 그 여자가 아니였더라면 주재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찾지 못할번 했기 때문이었다.

덕부골의 지하조직원들은 천봉순의 정찰담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 정찰담은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을 보장하는데서 자기네 마을의 지하조직원이 한 몫 하였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동리가 연환대회준비로 분주한 때에 흥을 깨는 정찰정보가 들어왔다. 위만군 혼성여단장이 인민혁명군을 ≪토벌≫하겠다고 하면서 장백을 떠나 한가구쪽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최현과 함께 맞받아나가서 그 부대를 일격에 소멸하였다. 여단의 패잔병들은 혁명군의 습격을 받고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자기네 동료들이 무리죽음을 당한 그 싸움터에 난길을 가리켜 ≪낭아도≫라고 하였다. ≪낭아도≫란, ≪이리의 이발같은 길≫이라는 뜻이다.

이 전투를 통하여 혁명군의 위신이 다시한번 올라갔다. 노획한 전리품들 중에는 연환대회준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식료품들이 많았다.

날씨도 청청한 오월단오날 지양개등판에서는 군민연환대회가 열리었다. 3개 부대가 한데 모이니 넓은 등판이 군대로 가득찼다. 조국광복회 회원들만도 수백 명이나 모이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각 부락의 구장들이 비밀보장을 위해 적의 앞잡이들을 사전에 따돌렸기 때문에 대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은 군대와 인민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울리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기뻤다. 음식들을 벌려놓고 빙 둘러앉아 마음껏 즐기였다. 그날 인민들이 마련한 음식가운데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쑥떡과 수리취떡이었다.

나는 최현과 함께 이훈, 안덕훈의 안내를 받으며 노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다음은 청장년들, 아낙네들의 곁을 지나가며 그들에게 두루거리로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날 어떤 여대원들은 조선치마저고리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낮이나 밤이나 벗을 수 없었던 군복을 잠시나마 벗어 놓고 향토시절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은 정말 선녀와 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들은 마을처녀들과 함께 쌍그네도 뛰었다. 숲속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리고 춤판이 벌어졌다. 양푼에 물을 떠다놓고 바가지장단을 치는 여인들도 있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난생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래동안 생이별하였다가 다시 만난 혈육처럼 저렇게 뜨거운 정으로 얽힐 수 있는가. 나는 그날 군민이 한데 모여 꽃밭을 이룬 지양개등판의 정경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였다. 적들은 우리를 고립무원한 존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파도치는 인민의 바다에 떠있었다. 지양개등판에 펼쳐진 군민합동경축모임은 유격대는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은 유격대의 보호를 받으며 험난한 역사의 가시밭을 헤쳐온 항일혁명의 축도였다.

나는 그날 인민혁명군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였다. 군대와 인민은 떨어져 살래야 살 수 없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혁명군이 건재할 수 있고 백전백승한다는 사상으로 일관된 짤막한 즉흥연설이었다. 어느 대목에서인가는 국내진공작전

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관하였던 것 같다.

그날 국내에서 온 조직대표도 연설을 하였다.

각계인사들의 연설이 끝난 다음 우럭골에서 왔다는 노인이 장백현 조국광복회조직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축기를 전달하였다. 보천보전투 때 정찰임무를 잘 수행한 마동희가 위임에 따라 축기를 받았다. 붉은 양단천에 노란 명주실로 글을 새긴 자그마한 그 축기는 신흥촌의 부녀회성원들과 박록금이 감자움속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밀정들이나 군경들이 언제 달려들지 몰라 움밖에 보초를 세우고 한뜸한뜸 수를 놓았다는 말도 있다. 박록금과 같은 여공작원에게 그런 수놓이재간이 있었다는 것은 참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

그날이 군민연환대회는 성대한 열병식으로 막을 내리었다. 그것은 항일전쟁개시이래 우리가 거행한 여러 차례의 열병식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열병식이었다. 1948년에 있었던 열병식과 전승열병식 때에 나는 그 단상에서 바로 지양개등판의 열병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지양개군민연환대회는 군민의 위대한 정치적 단결력을 만천하에 보여준 회합이었다.

이 연환대회에 참가했던 인민들은 1940년대 전반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혁명군이 다 소멸되었다고 선전할 때 그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양개군민연환대회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를 증명해준다. 항일유격대원들 역시 인민이 자기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후 곤경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들을 찾아가군 하였다.

그런데 그날 김철호를 비롯한 4사의 몇몇 대원들만의 식량난으로 걸음이 늦어져 이 성대한 연환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모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몹시 허전하고 아쉬웠다.

여러 해가 지나 해방된 조국에서 단오명절을 쉴 때 나는 **김정숙**과 함께 그들을 모두 집에 초청하였다.



90년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후 개최된 주체 89(2000)년 10월 10일 당창건55돌 기념군민연환대회

4. 사진과 추억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곳은 장백현의 지양개등판이였던 것 같다. 군민연환대회가 끝날 무렵에 여러 동무들이 세 개 부대가 함께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마침 4사에 사진기가 있었다. 그래서 각 부대들에 있는 기관총을 다 모아다가 앞에 쭉 벌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모두들 표창이나 받은 것처럼 흡족해하였다.

그런데 어린 대원들은 한 장쯤 찍는 것으로는 도무지 성차해 하지 않았다. 독사진도 찍고싶어했고 분대별로 집체사진도 찍고싶어했으며 오래간만에 만난 다른 부대의 딱친구들과 함께 상봉기념으로도 찍고싶어하였다. 어떤 경위대원들은 나하고 단둘이서 찍고싶어 안달하였다.

그러나 무뚝뚝한 사진사는 사진기를 걷어메고 멀찌감치 가버리었다. 하기는 그도 몹시 난처했을것이다. 요청자는 많고 사진종판은 적은데 누구를 찍고 누구는 찍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린 대원들은 볼이 부어 돌아갔다. 나는 사진사를 다시 불러오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럴만한 시간여유가 없어 단념해버리고 말았다.

사진을 못찍어 섭섭해하는 어린 대원들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그 시절이야 누구나 사진을 찌고 싶어하는 때가 아닌가. 내 마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사진을 얼마 찍지 못하였다. 타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형편에 사진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진을 한 장 찍자면 30리나 되는 평양성안이나 뺑대거리에 가야 했다. 간혹 성안의 사진사들이 세 다리사진기를 메고 시주변에 나와 돈벌이를 할 때도 있었지만 만경대 같은 외진 부락까지는 오지 않고 칠골 같은데 왔다가 돌아가군하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으로 5전을 준 적이 있었다. 난생처음 돈이 생긴 김에 30리길을 걸어 평양성안으로 갔다. 나는 성안의 번창한 풍경에 넋을 빼앗기였다. 도로양옆의 가게방들과 장마당들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광주리장사군들의 ≪사구려!≫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사진관을 향해 발길을 돌리었다. 사진을 찍고싶은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5전을 쥐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었다. 신식옷을 쭉 뽑아입은 신사숙녀들이 출납구앞에 서서 종이돈을 벌컥거리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못올 데를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황히 사진관에서 나와버렸다. 5전으로 문명의 맛을 보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망상이었다. 그날 내가 사진관을 떠

나면서 느낀 것은 온 세상이 돈에 짓눌려 꺼져 내리는 것 같은 환각이었다. 내자신도 그 무게에 눌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그 후부터 나는 성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진관을 외면하였다.

길림시절에도 사진과는 될수록 담을 쌓고 살았다. 영화관에 가는 일은 있어도 사진관은 넘겨다보지 않았다. 길림육문중학교는 부자집 자식들이 많았다. 그들은 유흥가나 음식점, 공원 같은 데를 늘 풍청거리며 돌아다니였다. 식도락이나 유흥을 위해 돈을 물쓰듯하는 그들의 풍족한 소비생활은 나를 아연케 하였다. 어머니가 푼전을 모아 마련하여 보내어주는 학비로는 겨우 월사금이나 물 수 있는 형편에 있던 나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순간은 그들이 사진관이나 식당으로 가자고 하면서 내 팔을 잡아끌 때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그들의 청을 밀막아버리군 하였다.

한번은 어머니한데서 송금통지서와 함께 이런 편지가 왔다.

≪돈을 조금 더 보내니 생일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보내다구. 너를 보고싶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오죽 좋겠느냐.≫

나는 어머니의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주동생의 말이 어머니는 내가 보구싶을 때면 다 해진 나의 속옷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지으신다고 하지 않던가. 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학비에 돈을 더 얹어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셨겠는가.

나는 어머니의 분부대로 사진을 찍어 무송에 보내주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독사진이다. 그 사진을 수십 년동안 간수해두었다가 우리 나라 혁명전적지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에 갔을 때 내놓은 사람이 내가 무송시절부터 잘 아는 부녀회원인 채주선이다. 그가 오랜 세월 적들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보관해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채주선

그 후에도 이럭저럭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대부분은 분실되고 별로 남은 것이 없다. 다부산자를 입고 고재룡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몇 해 전에 발굴되어 회고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을뿐이다.

그런데 길림시절에 찍은 내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 경찰들의 수사작전에 이용되었다. 한번은 밀정이 내 사진을 들고 카륜에까지 와서 마을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소년탐험대원들에게 이런 사람을 본적이 없는가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아이들이 밀정이 왔다고 제때에 연락해준 덕으로 나는 요행 봉변을 모면하였다. 우리를 해치려고 돌아치던 그 밀정은 조선혁명군 대원들에 의하여 처단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한동안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사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다.

때없이 이루어지는 상봉과 이별, 경사… 이런 것에 맞다들면 사진으로 남겨 두루두루 추억하고싶은 생각이 들군 하였다. 나의 지하활동과 유격대생활에는 사진으로 찍어둘만한 극적인 것이 많았다. 유격구시절에도 인상깊은 광경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의 어느 한 장면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였다. 그때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누구나 앞날을 위하여 어떤 기념물이나 상징적인 증거물 같은 것을 남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투쟁이 간고한데다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이 연달아 들이닥치다보니 색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하지만 절해고도에 떨어져도 인생은 인생이라는데 유격대생활이라고 하여 노상 메마르게만 살라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어린 대원들이 사진을 더 찍고싶어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4사에는 사진기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부대에 사진기가 없다는 사실이 우선 나로 하여금 자기를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늘 산에서 살며 안중에 혁명밖에 없는 대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고 싶어하며 더구나 그 갈망이 보통정도가 아닌 것을 보니 오래전부터 사진과 담을 쌓고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 몇몇 지휘관들에게 어린 대원들이 사진을 찍고싶어 4사의 사진사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어주던데 우리도 사진기가 한 대 있기는 있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했는데 그 말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지태환

우리가 장백을 떠나 임강현 6도구밀영에 가있을 때인 1937년 여름이었다. 하루는 장백에서 지하공작을 하던 지태환이 밀영에 나타나 사업보고를 하다가 뜻밖에도 사진기를 구해왔다는 말을 하였다.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른다.

지태환이 구해왔다는 사진기는 4사동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꼭같은 캬비네형 삼각대사진기였다. 그는 중년나이의 사진사도 한 명 데리고 왔다. 지태환은 아마 내가 얼핏 내비친 말을 명심하고 깊이 새겨두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지태환은 김일이 지방사업을 하는 과정에 찾아내고 단련시켜 우리 부대에 보내온 사람이었다. 김일처럼 그도 입이 무겁고 실속이 있었다. 무슨 과업을 받아안기만 하면 실농군처럼 수걱수걱 해냈다. 김일과 지태환은 성격이며 일솜씨며 행동거지까지도 신통히 비슷하였다.

지태환에게서 사진기를 노획해온 과정사를 들었는데 모험 소설의 줄거리처럼 재미가 있었다.

지태환은 김학철이라는 유격대원과 함께 처음에 19도구 구장인 이훈을 찾아가 사진기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존하였다. 구장은 그곳 조국광복회 회원들과 함께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중 하루는 이훈이 지태환을 찾아와 주민들의 거민증을 내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쓸 사진을 찍으려고 20도구경찰분서에 사진기 한대를 가져다놓았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그 사진기를 슬쩍 빼내올 수만 있다면 유격대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등록놀음도 그만큼 지연시킬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기라는 것이었다.

일제는 동만에서 실시해온 집단부락제도와 중세기적인 ≪보갑제도≫를 서간도에서도 강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호구조사도 하고 증명사진촬영놀음도 벌이었다. 적들은 그밖에도 통행(체류)허가증, 물품구매허가증까지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15살부터 65살에 이르는 사람은 거민증과 통행허가증이 없이는 거주도 통행도 할 수 없었고 물품구매허가증이 없이는 식량이나 천, 지하족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런 증명서가 없이 상품을 산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통비분자≫로 몰아 다짜고짜 묶어갔다.

그런데 경계가 삼엄한 경찰분서마당에 있는 사진기를 어떻게 빼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지태환과 이훈은 장시간 이마를 맞대고 묘책을 토론하였다.

다음날 이훈은 크게 낭패한 기색으로 20도구경찰분서장앞에 나타나 이제는 애가 타서 구장노릇도 못해먹겠다고 투덜거리었다 농군들이라는 것이 무식하다보니 경찰분서에 가면 사진을 찍어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구장

만 나타나면 포도대장을 만난 것만치나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니 맥이 빠져서 못해먹겠다고 하였다.

분서장은 그 말을 듣고 입만 쩝쩝 다시었다.

≪유지들은 또 유지들대로 잔뜩 비틀어져있수다. 19도구 100리 골안의 수백 여세대를 20도구까지 끌고가서 사진을 찍느라면 가을이 다 갈텐데 낟알걷이는 집어치우고 사진이나 씹어먹으라는가고 다들 삿대질이니 이것 참, 어떡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수다.≫

이훈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장도 참 답답해. 분서에 와서 송사질을 하면 난들 어떻게 하라는건가. 대책이야 구장이 세워야지 무슨 방도가 없겠소?≫

이훈이 기다린 것은 분서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한참동안 머리를 쥐여짜는 척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 경찰분서는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19도구에서 거리가 너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19도구에 사는 이종술이네 집이 어떻습니까? 그 집 마당이 널직해서 사진을 찍기는 명당입지요.≫

이종술은 적들의 주구였다. 경찰들과 관리들이 가면 술대접을 극진하게 해주어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가고싶어하는 곳이었다. 분서장은 명안이라고 하면서 이훈의 제의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사진기는 경계가 엄한 20도구경찰분서로부터 이종술이네 집마당으로 옮겨졌고 19도구주민들도 그 마당에 모이게 되었다.

분서장 역시 순사들을 데리고 이종술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이종술이 순사들을 위해 주안상을 차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분서장은 순사 한 사람을 마당에 세워두고 술상에 마주앉았다. 얼마후에는 망을 보던 순사까지 술판에 끼여들었다.

경찰들이 술에 취해서 법석 떠들어댈 때 마을의 지하조직원이 방문을 와닥닥 열어제끼며 ≪비적≫들이 사진기를 들어간다고 소리쳤다. ≪비적≫들이 앞산, 뒤산에 누렇게 깔렸다고 그가 엄살을 떠는 바람에 분서장은 사색이 되어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제법 돌격해나갈 태세를 취하였다. 술기운의 덕으로 생겨난 만용이었다.

이훈은 분서장을 제지시키였다

≪≪비적≫들이 한두 명두 아닌데 혼자서 무슨 수로 당한다고 그럽니까. 몸을 보존해야지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는데 .≫

그는 분서장을 뒤울안으로 끌고나가 무작정 돼지우리에 밀어넣고 북데기를 씌워주었다. 다른 순사들도 재간껏 몸을 숨기였다.

그사이에 유격대원들은 촬영현장에 나타나 사진을 찍으러 온 주민들에게 선동연설을 한바탕 한 다음 사진기를 메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진기공작에 동원되었던 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어서 나는 눈물이 나게 웃어보았다.

≪대안≪비적≫상황에 관한 건≫과 ≪혜산사건판결서≫라는 일제의 비밀문건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다.

≪소포도구에 이르러 주민 100명을 모으고 촬영중에 1시 30분경 권총휴대의 **김일성**일대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진사에 대하여 ≪무슨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가≫, ≪당신은 사진사로 생활하므로 도와주면 도로 보내겠으니 사진기만 내라≫고 하고 사진기와 종판 한 타스를 빼앗아갔다.≫

종판이란 지금의 사진필림 같은 것이다. 구식사진기에서는 필림대신 유리종판을 썼다.

그러고보면 지태환이 김학철, 이훈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훌륭히 풀어준 셈이다.

지태환이 적구에서 데려온 사진사의 이름은 한계삼이라고 하였다. 유격대에서는 그를 이인환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이가 40살이 다 되어오는 사람이었다. 키가 큰데다가 힘이 장사여서 유격대생활에는 제격이었다.

나는 사진기술을 배워두었다가 필요한 때면 직접 대원들의 사진을 찍어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사진사에게서 개별적으로 사진술을 익히었다.

이인환은 내가 사진기술을 진지하게 대하자 왜 이런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내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그는 촬영할 때 화폭을 예술적으로 잡는 방법이며 종판을 감광시키는 묘리도 가르쳐주었는데 아주 친절하고 까근까근하였다.

이인환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다. 그가 한 말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인상깊게 남아 있는 것은 ≪버섯꿰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우리 부대에 오자마자 ≪버섯꿰미≫라는 것부터 찾았다고 하였다. ≪버섯꿰미≫란 무엇인가고 물으니 ≪귀를 베어 말린≫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인환의 말에 의하면 적들은 혁명군이 사람을 잡으면 귀를 베여 버섯꿰미처럼 꿰서 말린다고 선전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산하에 각종 분과를 거느린 ≪선무반≫이라는 모략단체까지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유격대는 얼굴이 빨갛고 뿔이 돋은 식인종들이라고 선전하는데 자기도 얼마전까지는 그런 말을 곧이들었노라고 하였다.

≪이종술이네 마당에 유격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 해서 검정보자기를 뒤집어쓴 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귀부터 움켜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격대를 보니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인환이네 집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식들은 처가 돌볼 수 있으니 제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그 결심이 하도 진실하고 드팀이 없으므로 나는 이인환을 유격대에 입대시키였다. 새 군복을 입히자 어찌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가 있은 다음 우리는 부대에 많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신입대원들로 여러 개의 분대를 조직하였다. 그 중 한 분대의 분대장을 이인환이 하였다.

그는 입대 후 유격대원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인환은 현상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족족 현상하군 하였다. 그가 싸움도 잘하였기 때문에 대원들은 누구나 다 그를 존대하고 아끼고 사랑하였다.

한번은 사진사가 독감으로 드러누운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정성껏 치료해주었다. 그가 잠잘 때에는 저마다 솜옷을 벗어 여러 겹으로 덮어주었다. 나도 덮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고 곁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밤샘을 하였다.

잠을 깬 사진사는 내 손을 부여잡고 저 같은 게 무엇이 대단해서 이러는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사진사는 우리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난생처음 사람대접도 받고 참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았다고 하면서 왜놈들의 머슴이 되어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유격대에서 풀뿌리를 삼킬망정 하루를 살아도 가슴을 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한번은 사진사가 내앞에 사진기를 마주세우고 나의 옷차림을 깐깐히 손질해주면서 말하였다.

≪오늘은 제 소원을 풀게 해주십시오. 장군님의 독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는 나의 사진을 찍어 직접 국내에 가지고 들어가 동포들속에 전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성은 고맙지만 시진을 찍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부대의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니 혁명이 승리하는 날 마음껏 찍자고, 해방이 되면 첫 독사진을 이인환동무가 찍어달라고 하였다.

그 말에 사진사는 울면서 웃었다. 나는 그런 미묘한 웃음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소할바령회의 후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또다시 이인환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대에 그냥 남아서 싸우다가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나는 지금도 사진을 찍을 때면 이인환이 구식사진기를 메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내앞에 다가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환각을 가끔 느끼군 한다.

이인환은 희생되었으나 그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몇 장은 그래도 기적적으로 역사에 남았다. 우리가 임강현 5도구밀영에서 찍은 사진과 올기강유역에서 여대원들이 찍은 사진도 그가 찍고 현상한 것이였다.

5도구밀영에서 찍은 집체사진은 국내공작에 나갔던 김주현소부대의 귀환을 기념하여 찍은 것이였다. 그 날의 사진은 내가 찍어주려고 하였는데 경위대원들이 같이 찍자고 그냥 조르는데다가 이인환도 셔터를 자기가 눌러주겠으니 같이 찍으라고 등을 밀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변장을 할 때 쓰고다니던 검은테안경을 낀 채로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와 이인환이 찍은 사진들가운데서 대부분은 아쉽게도 소실되거나 분실되였다. 적들은 사진을 입수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를 지명수배하기 위한 모략에 써먹었다. 나와 경위대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은 임수산이 ≪토벌대≫를 끌고 황구령밀영에 달려들었을 때 없어졌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사진들 중 일부를 과거 만주국의 고위경찰관이였던 가또 도요다까라는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우리의 사진 석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장은 잃어버리고 두 장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공개하였다.

가또 도요다까는 ≪만주국경찰 중요사진, 문헌자료 집성≫이라는 글에서 ≪신비로운 항일영웅 **김일성**≫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

≪ . **김일성** 및 중국공산당간부에 대한 ≪수배사진≫은 무엇보다도 현물로서 현실적 의의를 충분히 가지는 극히 중요하고 희소한 것이다 .≫

그는 당시 ≪토벌≫대원이 사진뒷면에 남긴 ≪**김일성**부대 본부원일동≫이라는 필적까지 사진 옆에 옮겨 소개하였다.

그 덕에 역사의 진실이 생생한 한 폭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거기에는 마귀나 야인 같은 스산한 ≪비적≫이 아니라 대원, 지휘관들을 막론하고 꼭 같은 군복을 입은 혁명군대의 면모가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원들과 지휘관들 중에는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동무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전사자가 나면 군공에 따라 표창도 하고 고향에 부고도 보내여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항일 전쟁당시에는 희생자가 나도 부고를 보낼 수가 없었고 이름석자를 새긴 묘비도 세워줄 수 없었다. 적이 항시적으로 달려드는 정황에서 눈무덤이나 돌무덤을 쌓아주거나 그렇게도 할 겨를이 없으면 솔가지를 덮어주고 총총히 떠날 때도 있었다.

전사한 대원들을 안장할 때면 그 불같은 청춘을 황야에 묻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기가막혀 한줌의 흙이 바위들처럼 무거웠다. 한 장의 사진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열사들이 그 얼마이던가.

희생된 전우들과 헤어지는 것도 헐치 않았지만 산사람들과의 생이별도 빠근하였다. 그런 때에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서로 교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대원들이 그 꽃같은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는 것이었다. 그런 여대원들이 피를 물고 쓰러질 때 우리의 가슴은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란 배낭 하나밖에 없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조선지도에 무궁화를 수놓은 자그마한 수예품뿐이었다.

그 수예품을 시신우에 얹고 거기에 한줌두줌 흙을 뿌릴 때 어느 장사의 손인들 떨리지 않겠는가.

세월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마사버리고 희석하여 망각속에 묻어버린다. 기쁘던 일도 슬프던 일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흐려지고 멀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내 경우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나는 희생된 전우들 한 사람한 사람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떠나간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렇듯 소금이 일게 한을 품었던 탓일가. 내 기억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수백수천 장의 또렷한 청사진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진도 색이 날고 기억도 희미해지기 마련이건만 그들의 모습만은 어이 일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올라 나의 심혼을 거머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산에 혁명열사들을 꾸릴 때 기념비를 웅건하게 잘 세우고 거기에 투사들의 이름을 새기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나는 열사들의 모습을 세워주고 싶었다. 항일영웅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재생시켜 후대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사들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결국 내가 조각가들에게 그 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어 원형을 재생시키도록 하였다.

일제가 취급한 ≪혜산사건≫에 대한 자료집을 보니 거기에 여러 투사들의 사진이 나있었다. 고리끼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의 사진은 그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나 신문에 난다고 하였던 것 같은데 우리의 투사들도 족쇄를 차고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사진을 남겼던 것이다.

우리가 항일혁명시절의 모습을 몇 장이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태환이 사진기를 공작해온 덕이었다. 그런데 지태환자신은 사진기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견결하고 솜씨있는 지하정치공작원이었던 그는 ≪혜산사건≫ 때 체포되면서 적들의 문건에 비로소 사진을 남기였다.

지태환은 포승에 묶이운 채 사진을 찍히웠는데 분통이 어린 얼굴을 외로 돌린 채 날카로운 시선을 땅에 박고 있었다.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그 사나이의 심장이 얼마나 원한으로 끓어올랐겠는가.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태연하였다. 지태환은 ≪나는 일제놈들에게서 피값을 다 받아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껄껄 웃었다고 한다.

나에게는 잠들 수 없는 밤이 많다. 일이 많을 때도 그렇지만 유언들 하나,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고간 열사들이 떠오르는 밤이면 졸음도 오지 않는다.

아마도 그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 것 같다. 공장이나 농촌에 나가면 근로자들이나 아녀자들과도 찍고 초소에 나가면 인민군군인들과도 찍는다. 어느 해인가는 연풍고등중학교에 들렀다가 반나절이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지금은 제도가 좋아서 사람과 직업에 층하가 없고 누구나 공훈을 세우면 영예도

누리고 만사람의 갈채도 받는다. 그리고 어디에 가나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노동속에서 속아나는 춤과 노래가 명절의 광장과 축전무대에 옮겨지고 불야성을 이루는 밤거리와 공원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끝없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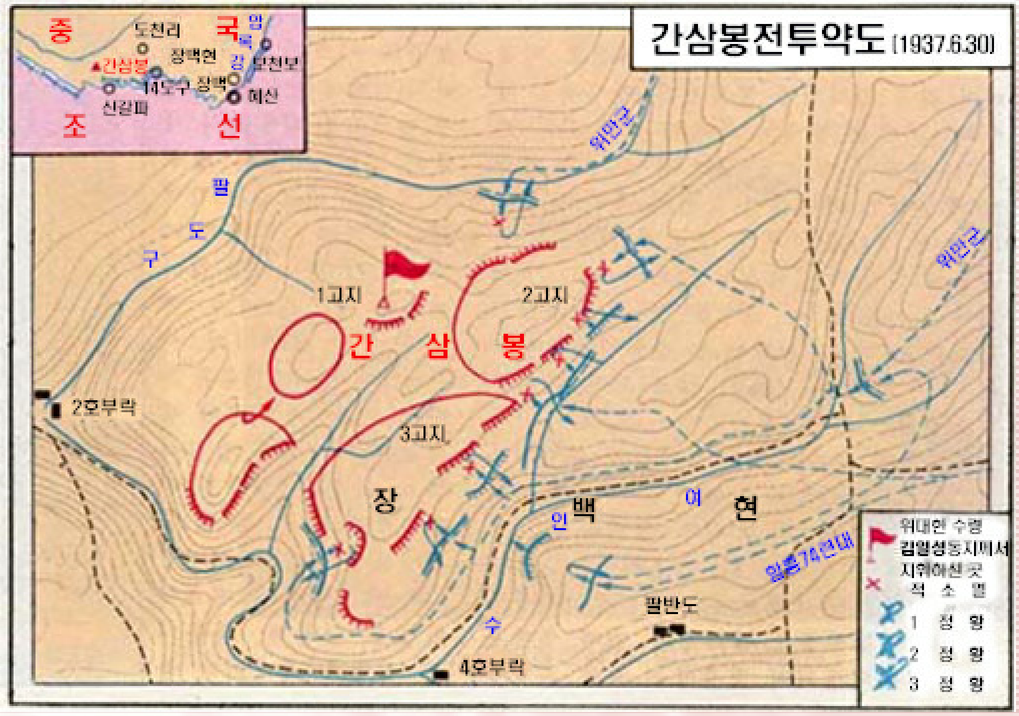
반세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별처럼 먼 공상이였다. 항일투사들의 태반은 이런 생활을 보지 못한 채 희생되였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바쳐 피로써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 세대의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사진

5. 간삼봉전투



군민연환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최현부대와 함께 팔반도에 있는 집단부락을 치고 서로 헤여지기로 하였다. 팔반도란 간삼봉부근에 있는 집단부락이다. 거기에는 300여명의 위만군≪토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국내진공작전도 계획대로 수행하고 세 개의 대부대가 한데 모여 군민연환대회도 성대하게 거행한 때여서 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들 중에는 대부대들이 한데 모인 기회에 국내진공을 더하든가, 장백시가같은 곳을 답새겨서 인민혁명군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정식으로 제기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행동의 견지에서 볼 때 보천보를 방금 치고난 후여서 국내진공작전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혜산방면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 조건에서 장백시가를 친다는 것도 역시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였다. 혈기가 욕망만을 가지고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격대상지를 팔반도를 선택하였다.

우리에게 팔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것은 2사동무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밀영에 와있을 때 그 고장의 실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그 후 우리는 팔반도에 우리의 지하조직을 박아놓았다. 그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는 유씨성을 가진 위만군병사도 있었다. 그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지휘관들의 눈밖에 난 사람

이였는데 상관들한테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부대에 의거해와서 분대장을 하였다. 이 사람이 또한 위만군대대의 내부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유격부대가 적이 집중되어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친 후에는 쭉 빠지는 전술을 써서 멀리 빠져나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보천보를 친 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들도 유격대전법에 도통하고 있는 것만큼 그 점을 미리 타산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였다. 실제로 관동군은 우리가 무송방면으로 빠져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일대의 길목들에 대부대들이 촘촘히 배치하고 있었다. 이점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쭉 빠지는 전술이 아니라 적의 턱밑에 그대로 돌아앉는 수법을 썼다.

우리가 국경근방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일대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도와주면서 국내의 실정을 더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장악하며 상승단계에 있는 국내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자는데 있었다. 우리는 팔반도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작원들을 불러 지하사업정형도 요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과업도 주었으며 지방조직의 책임자들을 만나 사업방법도 배워주었다.

이런 때 정보공작업무를 받고 혜산에 건너가있던 이훈이 우리에게 통신을 보내왔다.

도천리의 한병을노인이 가지고온 이훈의 그 통신에는 함흥 제74연대가 수십대의 자동차를 타고 급작스레 혜산에 밀려들었다는 정보내용이 적혀있었다. 적들은 벌써 신파쪽에 나가 압록강을 건느기 시작했으며 ≪토벌≫을 책임진자는 김석원이라는 악질적인 조선인장교라고 하였다.

어떤 자료를 보면 그때 함흥 제74연대를 인솔해가지고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측 지휘관이 김인욱이라는 조선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와 장백의 지하조직들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통보자료들은 한결같이 ≪토벌대≫를 이끌고 함흥을 떠난 적장의 이름을 김석원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김석원은 일제가 소문을 크게 내려고 함흥역에서 조직한 요란한 장행식에서 혈서로 ≪무운장구≫라고 갈겨쓴 기발을 들고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김일성**부대를 몰살시키겠다고 매우 격해서 떠들어댔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상급의 신임으로 토벌을 떠나는 것은 공산군의 전술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멀지않아 74연대의 솜씨가 어떤가를 보게 될 것이며 황군의 위력앞에서 공산군은 추풍낙엽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허장성세하였다는 것이다.

김석원의 함흥 74연대는 혜산과 신파를 떠나면서도 환송의식을 치르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며 군중을 강제로 동원시키였다. 경찰과 일본인 유지들, 관리들, 재향군인들이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일장기를 흔들면서 부산을 피웠다. ≪토벌대≫의 무력이 어찌나 많았던지 30-40명이 탈수 있는 목선으로 하루종일 신파나루를 건네였다고 한다.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정탐일군도 아닌 이훈이 알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한테서 혜산시내의 적정을 탐지할 데 대한 과업을 받은 이훈은 목재상의 간판을 가지고 공작지에 침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19도구 관내에 있는 조국광복회 분회장들에게 과업을 주어 며칠사이에 수백 대의 나무를 베게하고 그것으로 떼목을 무었다. 목재상의 신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만들었다.

이훈은 원래 8년동안이나 산판에서 유벌노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른 한 사람의 조직원과 함께 떼를 들고 혜산으로 나갔는데 일이 잘되느라고 그랬던지 강기슭에서 최경부의 친척되는 영감을 만났다. 최경부는 ≪혜산사건≫때 많

은 애국자들을 잡아가둔 악질적인 경관이였다. 박달을 체포한 것도 이 최가였다.

최경부의 삼촌은 이훈이 수백 대의 통나무를 끌고온 것을 보자 나무를 몇 대만 팔아달라고 하였다. 이훈은 최경부나리의 숙부되는 어른이라는데 어찌 돈을 받고 나무를 팔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통나무 두 대를 거저 주었다. 영감은 흐뭇한 김에 이훈에게 시내에 있는 목재상을 소개해주었다. 영감의 말이 그 목재상의 사위도 자기 조카처럼 혜산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였다.

이훈은 목재상과 통성을 하고나서 장백이란데는 ≪비적≫이 많아서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나무나 내다 팔아서 돈냥이나 모아가지고 혜산에 나가 살 생각인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는 목재상에게 절반값으로 나무를 팔아버린 다음 그 집에 며칠동안 머무르면서 그의 사위라고 하는 김순사는 아무날 몇 시에 김석원부대가 혜산에 온다는 비밀을 흘려놓았다.

그는 보천보사건으로 제국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군부의 위신을 추켜세우느라고 김석원을 파견한 모양인데 아무튼 싸움깨나 하는 사람이라더라, 이 사람이 **김일성**부대를 치고 서간도를 평정하겠다고 장담했다는데 결과는 두고봐야 알테지만 어쨌든 공산군측에서도 김석원부대와 접전하게 되면 고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함흥 74연대가 혜산시내에 들어오는 날 이훈은 고급양복에 봄가을외투를 입은 말쑥한 신사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환송대열에 슬그머니 끼여 ≪토벌≫에 동원된 무력이 얼마이고 포는 몇 문이며 기관총은 몇 정인가 하는 것을 죄다 살펴두었다. 그리고 환송의식이 끝나기 바쁘게 압록강을 건너와 우리에게 연락을 보냈다. 연락이 사령부에 당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장해우와 **김정숙**이 보낸 연락원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연락원은 압록강을 건너온 적의 부대가 13도구에 와서 행적을 감추는데 지금 조직원들이 동원되어 그 행방을 찾는다고 하였다. 이훈의 정보와 도천리, 신파 조직이 보내온 정보는 신통히도 일치하였다. 지방조직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해보면 ≪토벌≫에 동원된 무력은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적들이 조선주둔군에서 정예라고 하는 함흥 74연대까지 ≪토벌≫에 내몬 것을 보면 조선총독의 분격과 신경질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던 것 같다. 보천보전투와 그



간삼봉전투장소

전투를 전후하여 국경일대에서 거듭 얻어맞은 적들은 엄청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중국관내에 대한 침략전쟁이 목전에 박두한 때여서 일제는 후방의 안전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장철벽≫이라고 자랑하던 조만국경일대가 난리판이 되고보니 총독이 노발대발하는 것도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2,000명이면 적의 역량이 우리보다 훨씬 우세하였다. 이런 형편에서는 접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대부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였다. 적이 대부대로 공격해오면 재빨리 분산해서 기동전을 벌이는 것이 유격전의 일반적인 전술이지만 이번에는 관례를 깨뜨려 대부대를 대부대로 치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최현

우리는 팔반도쪽으로 움직이다가 일단 행군을 멈추고 싸움터를 고르기로 하였다. 로마가의 서쪽산에 올라가서 직접 지형을 정찰하였는데 거기가 바로 사방이 탁 트인 간삼봉이었다. 간삼봉은 13도구로부터 8도구에 이르는 100여리의 광활한 대지에 가로놓여있는 서강고원의 북쪽 세 개의 봉우리를 말한다. 간삼봉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원시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우에 사등방산줄기의 연봉사들이 떠있었다. 모두더기라고 불리우는 고장이었다.

남쪽도 역시 동서로 100리가 넘어보이는 수풀의 바다인데 서강고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덕지대에 노국소와 같은 부락들이 띠염띠염 보였다. 간삼봉은 태고연한 원시림의 바다우에 섬처럼 솟아있는 봉우리었다. 적들이 여기로 오려면 13도구에서 서강성에로 올라오는 산굽이와 영마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싸움터로는 간삼봉이 제일 적당하였다.

저녁에 지휘관들이 모여 전투방안을 토의하였는데 거기서 내가 강조한 것은 적의 정규전법에 말려들지 말고 유격전법을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산능선을 배치에서 도식을 범하지 말아야 하였다. 적들이 우리가 주의를 덜 돌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역량을 많이 배치하고 전투과정에 부대들이 수림을 이용하여 좌우로 빨리 기동하면서 임기응변하도록 하였다.

나는 4사, 2사의 지휘관들과 함께 전투방안을 짜놓은 다음 새벽녘에 권영벽, 김재수, 정동철을 비롯하여 우리의 부름을 받고 간삼봉으로 찾아온 국내와 장백지방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혁명조직들의 사업방향과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적들이 간삼봉으로 공격해온 것이 바로 이 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뿌옇게 끼였는데 최현부대가 차지한 산봉우리에 있는 초소에서 먼저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곧 산능선의 지휘처로 올라갔다. 최현은 보초대가 적의 포위에 들 것 같아 한 개 중대를 거느리고 전방으로 맞받아나갔다. 적들은 순식간에 최현이 인솔한 중대를 포위해버렸다.


이동학

전투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데 따라 전투사기가 좌우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사태를 수습하여야 하였다. 이동학에게 경위중대를 데리고 가서 최현네중대를 빨리 구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군은 위만군을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지만 최현네중대와 이동학중대가 안팎에서 협공으로 벼락같이 조겨대는 바람에 적의 포위진이 무너져버렸다. 치열한 육박전 끝에 중대는 구출되었다.

사태를 역전시킨 우리는 적들을 여러 번 협곡에 몰아넣고 하루종일 답새겨대였다.

하지만 일본군은 맹수처럼 기세가 등등하였다. 일본군대의 돌격이란 참으로

집요한 것이였다. 그들은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타고 넘으면서도 목이 터지게 함성을 지르면서 파도식으로 계속 연달아 달려들었다. 소와청방어전투때에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 간도파견대의 돌격을 겪어보고 대단히 악착하다고 하였는데 이 함흥 74연대의 돌격은 그보다 더 맹렬하였다. 우리가 기관총을 10여정이나 배치하고 전방을 탄막으로 뒤덮는데도 적들은 그냥 새까맣게 달려들었다.

이런 공격을 종일토록 계속하였다. 그 통에 우리도 어지간히 힘든 싸움을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적이 아군진지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육박전까지 벌려야 하였다. 거기에 비까지 계속 내려서 전장은 더 처참하였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되여 군국주의가 사람들을 저렇게도 검질기고 분별없는 야수적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야마도정신≫은 부정의를 정의로 알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천치들, 총구앞에 부나비처럼 뛰어들어 보람없는 개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무사도라고 자부하는 청맹과니들, 타민족의 시체더미우에 축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야수들, 자기가 죽으면 천조대신의 혼이 자기를 굽어살피고 천황이 자기 명복을 빌며 일본국민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망상하는 정신불구자들을 수많이 생산해냈다. 일본의 군벌들과 대신들은 그렇게 죽은 장병들을 잠깐 피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사꾸라꽃≫에 비기면서 황군의 정신이니 뭐니 하고 추어주었다.

일본군병사들은 자기들의 죽음이 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망상이였다. ≪황도정신≫은 일본을 부흥에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멸망에로 몰아갔다.

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군대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납게 달려들어도 혁명가의 자부심,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적을 굽어보았다.

우리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적들을 답새기였다. 여대원들이 싸움을 하면서 부른 ≪아리랑≫이 전 대오에 퍼지였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간삼봉전토장에 울린 ≪아리랑≫은 혁명군의 정신적 종심을 비쳐보이고 낙천주의를 시위하였다. 적들이 ≪아리랑≫을 듣고 어떤 기분에 잠겼겠는가 하는 것은 그닥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후에 포로들이 고백하기를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고 다음 순간에는 공포에 잠기였으며 나중에는 인생허무를 느꼈다고 하였다. 부상자들 중에는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자들도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도망병까지 났다는 것이였다.

적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저녁때가 되도록 폭우속에서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때 우리는 팔반도쪽에 정찰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박성철소부대와 식량공작조에 연락하여 적의 뒤통수를 때리게 하였다. 김석원은 앞뒤에서 얻어맞을 위험이 생기고 날까지 어두워지자 200명가량밖에 안되는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싸움터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간삼봉전투는 흥미있는 일화들을 많이 남기였다. 최현의 나팔수인 김자린은 덤벼치던 나머지 허벅다리에 척탄통을 세우고 쏘다가 반충력에 대퇴골이 골반에서 삐여져나가는 사달을 일으키였다.

최현은 김자린에게 걸쭉한 욕설을 퍼붓고나서 척탄통을 두어방 쏘아 포진지에서 한데 몰켜돌아가는 것들을 소멸한 다음 탈골된 김자린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단번에 제자리에 맞추어주었다. 그날 아군이 쏜 척탄통에 김석원이 부상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실여부는 잘 알 수 없다.

함흥 74연대의 ≪토벌≫행각은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간삼봉전투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 중에는 함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꽁무니를 뺀 병사들도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사까이라는 병졸도 김석원을 따라가지 않고 청진에 도주하여 일제의 패망당시까지 술집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그는 간삼봉격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워 짬만 있으면 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사까이의 말이 자기는 일본사람이지만 조선말을 알고 있은 덕분에 목숨을 건지였다고 하였다.

그때 장교들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면서 병사들을 공격에로 몰아대였다. 사까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산중턱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일본군이 산마루에 거의 당도하였을 때 혁명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황군의 서열에서는 단꺼번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김자린

사까이는 산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내리달리었다. 그런데 이때 산꼭대기쪽에서 ≪조선사람은 엎디라!≫하고 고함소리가 들려 왔다. 조선말을 아는 사까이는 그 고함소리를 듣자 얼결에 무기를 던지고 동료들의 시체 옆에 엎드리었다.

저녁때에 유격대원들이 총과 탄피를 걷어가느라고 전장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사까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심한 염전의식에 사로잡힌 사까이는 어둠을 타서 산을 기여내렸고 네발걸음으로 집단부락에 가닿았다.

≪이 사까이가 조선말밑천이 좀 있은 것이 행운이었소. 조선말이 결국은 내 생명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소.≫

이것은 사까이가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자주 했다는 말이다.

사까이의 선전으로 청진시내와 그 주변일대에서는 간삼봉전투에 대한 일화들과 함께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다. 구직을 버리고 소시민으로 전락된 한 침략군병사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간삼봉전투가 있은 얼마 후 우리 동무들은 전장근처의 마을에 갔다가 적들의 패전상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왔다.

전투가 있은 다음날부터 적들은 혜산, 신파와 간삼봉부근에 있는 마을들에서 담가와 우마차, 자동차들을 징발하여 시체운반을 하였다. 그 고장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투직후 간삼봉과 그 일대의 부락들에는 일본군의 시체가 한벌 깔려있었다고 한다. 적들은 시체마다에 흰광목천을 덮어놓고 사민들이 얼씬 못하게 단속하였다. 적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저들이 패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였다. 그들은 신문에 간삼봉전투실황을 소개할 때에도 사상자수가 얼마 안되는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



부상자를 후송하는 일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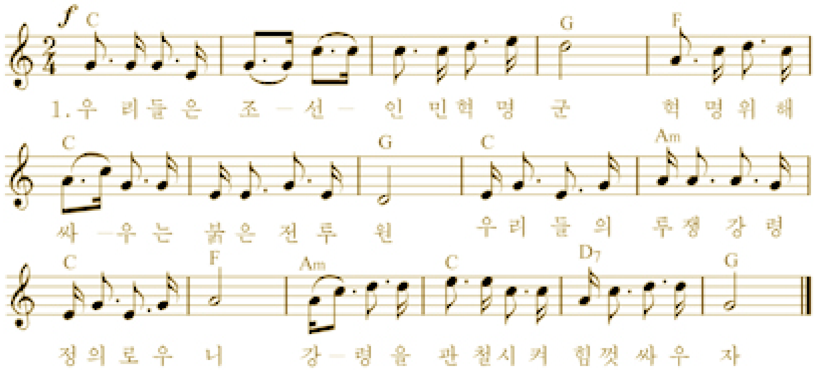
김석원이 우리를 치겠다고 신파에서 압록강을 건너올 때에는 하루종일 걸렸는데 다시 건너갈 때는 반시간 남짓하게 걸렸다고 한다.

사상자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시체에서 머리만 잘라서 마대나 나무상자에 넣어 우마차에 실어 자동차가 있는데까지 날랐다. 그러면 시꺼먼 풍을 친 자동차들이 그 마대와 나무상자들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갔다. 시체들을 화장하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인민혁명군

씩씩하게



2.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수다한 륙해공군 파견하고서
무수한 군사시설 만들고 있다

3.놈들의 군사시설 군사력량은
무산자대중을 학살툴한다
놈들의 륙해공군 몰아들 내고
무수한 군사시설 때려 부시자

4.파쑈적인 일제의 통치배들은
무수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개떼군대 조직하고서
무산대중진압의 도구로 쓴다

5.사회의 불평등과 민중압박을
위만군병사에게 폭로를 하여
망국노예 병사질을 집어 치우고
병변을 일으키여 나오게 하자

6.악독하고 교활한 일제놈들은
무수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각종의 세납을 거둬 들이여
무산대중학살의 군비로 쓴다

7.무산자대중을 소멸하려고
간 곳마다 노예교육 강요하면서
인민의 사상을 마취시키려
강제로 일어를 배우게 한다

8.야수같이 악착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일제놈의 파쑈적인 통치제도를
한결같이 일어 나서 때려 부시자

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간삼봉지구 농민들은 며칠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시체운반에 동원된 일본병사에게 어떤 농민이 시침을 떼고 ≪나리, 달구지에 싣고가는게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일본병사는 능청스럽게 ≪가보짜≫라고 대답하였다. 호박이라는 뜻이다.

그러자 농민도 싱글벙글하면서 ≪가보쨔 농사가 대풍이군요. 좋은 국거리니 많이 들자시우≫하고 야유하였다. 그때부터 항간에는 호박대가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민들은 일본군시체만 보면 호박대가리라고 풍자하였다.

김석원과 그의 패잔병들은 번화한 해산을 거치지 않고 조심스레 신파와 풍산으로 빠져 함흥으로 돌아갔다. 출동할 때는 장행식까지 하면서 떠들썩했던 함흥역이 돌아올 때는 초상난 집같은 광경이었다. 역두에 나온 것은 병영에 남아있던 병졸들뿐이였다. 그 병사들이 부상자투성인 출정군인들을 복판에 세우고 거리를 가까스

로 지나갔다.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패망상을 감추자니 그런 궁상스러운 짓도 하였을 것이다.

함흥의 무덕장이라면 일본군인들이 격검을 하던 연무장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 얼마동안 적들은 여기서 격검을 하지 못하였다. 신파거리에서는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 야경소리까지 없어졌다고 한다.

간삼봉에서의 패전은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었고 김석원이라는 이름은 그 치욕의 대명사로 되었다.

결국 보천보전투와 그에 잇달아 진행된 간삼봉전투로 조선총독 미나미와 관동군사령관 우에다가 ≪도문회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히 소명하겠다고 작정한 이른바 ≪획기적인 전략≫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이로써 1937년 초 우리가 계획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간삼봉전투는 우리의 항일부장투쟁사에서 하나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의의있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구시산전투와 더불어 보천보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해 주었다. 구시산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의 격전으로 하여 보천보전투승리는 더욱더 큰 빛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유해 말하면 간산봉전투와 구시산전투는 보천보전투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었다.



간삼봉전투에 대한 신문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1937.7.2)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무적황군≫의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간삼봉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항일혁명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서 하나의 뚜렷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우연의 조화라고 할가. 우리의 숙적이었던 김석원은 해방 후 또다시 38선을 사이에 두고 최현과 대결하였다. 최현은 거기서 경비여단을 지휘하였다. 이승만이 김석원을 38선 가까이에 밀어보낸 것을 보면 간삼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할 기회를 마련해주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북으로 의거해온 ≪국군≫사병들의 말에 의하면 김석원은 38선을 지킬 때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최현도 그와 맞다들면 혼을 내주려고 별렀다.

전쟁전야에 김석원이 불의에 38선을 넘어 대규모의 기습을 감행한 일이 있었다. 그 바람에 송악산에서 싸움이 붙었다. 아마 그는 최현을 혼내우거나 없애치울 작정이었던 것 같다. 격노한 최현은 38선을 넘어온 ≪국군≫을 모조리 소멸하고 얼마 안되는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개성까지 따라갔다. 그는 내친걸음에 서울까지 쫓아가서 김석원을 잡겠다고 하였다.

나는 최현에게 당장 철수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일제놈들의 충견이 되어 싸우러 왔었지만 지금은 미국상전에게 매여있다. 자칫하면 동족끼리 죽일내기를 하게 되고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 김석원도 조선사람이니 언제인가는 자기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은 최현도 김석원도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을 대신하여 오늘은 망국의 설움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북과 남에서 총뿌리를 마주대고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북과 남의 모든 새 세대들이 민족의 피줄을 두 토막으로 동강낸 인위적인 장벽을 하루속히 제거해버리고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김석원도 말년에는 이런 염원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6. 총을 쥔 소년들


총을 멘 소년중대원

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여파 가운데서 특기할만한 또 하나의 사변은 청소년들 속에서 일어난 참군열풍이었다. 압록상연안의 수림과 골짜기들속에서 총소리가 한번씩 울릴 때마다 우리 밀영으로는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끝없이 밀려들었다.

입대지망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재미나는 일도 많이 생기였다.

한번은 얼굴이 가무잡잡한 더벅머리소년이 물에 폭젖은 바지를 입고 우리한테 찾아와 형의 원쑤를 갚겠다고 하면서 부대에 받아달라고 떼를 썼다. 상풍덕마을에서 온 소년이었다.

소년은 자기 맏형이 거기서 청소년야학을 지도하다가 유격대에 밥을 해준 것이 탄로되어 경찰놈들에게 학살되었고 둘째형은 보천보전투직전에 장군님부대에 입대하여 싸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도 혁명군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입대를 탄원한 그 더벅머리소년의 이름은 전문섭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농으로 마른 옷을 입고오는 청년들도 미처 다 입대시키지 못하는데 너처럼 젖은 옷을 입고온 장난꾸러기들이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고 하였다. 그러자 전문섭은 자기가 젖은 바지를 입고온건 어머니탓이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였다.

전문섭이 상풍덕마을에 온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못간다고 잡아떼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바지를 물함지에 집어넣었다. 단벌바지가 물에 젖어 입을 것이 없게 되면 아들이 유격대를 따라가지 못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전문섭은 조바심이 났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하는 문제는 소년회조직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었다.

혁명군에 입대할 수만 있다면 벌거숭이가 되어서라도 백두산까지 한달음에 뛰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던 전문섭은 어뜩새벽에 물함지에서 바지를 건져내어 대충 물기를 짠 다음 그것을 걸치고 집을 떠나려 했다. 그제서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격대입대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압록강연안을 중심으로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와 서간도의 넓은 지역을 휩쓸고 있던 참군운동이 어느정도의 열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였다. 전문섭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운동에는 20대, 30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소년들도 참가하였다.

처음에 대열보충사업을 맡아보던 지휘관들은 그런 소년들이 찾아오면 의논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은 열네댓 살밖에 안되는 소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부장대오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들을 사랑하는 김평조차도 그런 소년들이 오면 머리를 내흔들었다.

부대가 지양개등판에 머물러있던 1937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총기장보다 더 작은 애숭이들이 한 20명 또 달려들어 입대를 시켜달라고 성화를 먹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의 결론을 요구했다.

≪좀더 큰 다음에 다시 오라고 암만 타일러도 말이 통해야지요. 나중엔 장군님까지 만나게 해달라고... 장군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전문섭

나는 소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을 진대나무에 앉히고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아버지는 무엇을 하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하고 차례로 물어보았다. 내가 질문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아이들은 고무공처럼 튕겨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군 하였는데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공통적인 것은 어른티를 내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다 원쑤들의 ≪토벌≫에 부모형제를 잃었거나 가까운 일가친척들이 참살당하는 치떨리는 참변을 목하고 그 복수를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소년들이었다. 흉금을 터놓고 말을 나누어보니 속에 대감이 한둘씩 들어앉아 있었다.

세상이 험하면 아이들도 조숙한다는 말이 옳았다. 보이는 것은 불행뿐이고 겪는 것이 고생살이뿐이니 조선의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벌써 이 세상 내막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혁명은 비상한 힘과 속도로 사람을 격동시키고 각성시킨다. 혁명을 가리켜 새것을 낳는 학교라고 한 어느 명인의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참군의 꿈을 안고 우리 숙영지로 찾아온 20여명의 소년들은 누구라 할 것없이 파란많은 우리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체현하고 있던 가장 참혹한 수난자들이었다. 그 어린것들이 사회개조의 중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탄원해 나설 때 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만난 소년들속에는 이을설과 김익현도 있었고 김설만과 조명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은 그들이 다 조선인민군 차수로도 되고 대장이나 상장과 같은 장령들로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총대를 쥘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검열대우에 서있던 애숭이들이였다.

이 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불을 모르는 어린 매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나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였다. 억대우같은 장정들도 힘에 부쳐서 부단한 훈련과 수양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명군생활이다.

나는 이런 말로 소년들을 달래였다.

≪나는 너희들이 부모형제들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 손에 총을 잡으려고 결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다. 그런데 아직 나이들이 어려서 혁명군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격대의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마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혁명군은 한겨울에

도 산속에서 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며칠씩 비를 맞으며 행군할 때도 있다. 식량이 떨어지면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우려먹든가 맹물로 끼니를 에우는 것이 혁명군 생활이다. 내 보기엔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집에들 가있다가 좀더 큰 다음에 총을 메는게 어떠냐?≫

그래도 소년들은 마이동풍이였다. 그들은 어떤 고생도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어른들이 눈우에서 자면 자기들도 눈우에서 잘 수 있고, 어른들이 전투를 할 때에는 자기들도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그냥 졸라댔다.

나는 이때처럼 우리에게 군사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통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랑스런 소년들을 모두 군사학교에 넣어 훈련도 시키고 몸도 단련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독립군들도 한때 한 주의 여러 곳에 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관학교들을 설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만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였다. 일제의 대군으로 뒤덮인 1930년대 후반기의 만주는 우리에게 독립군들처럼 군사학교를 세울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밀영에다가 양성소 같은 것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도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왜놈들이 새로운 발화점을 찾아내여 중국땅에서 또 하나의 9.18사변을 도발하리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청우계≫들이 다 시사하고 있은 문제였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여 대기동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10대 소년들을 무장대오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행군을 앞에 두고 배낭을 하나 더 지는 것과 흡사한 일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불리한 점만 앞세우면서 그들을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그 소년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었다. 계급적 각오만 보더라도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굶을 때 자기들도 굶을 수 있다고 한 소년들의 말에서 그날 나는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말로만 애국하는 우국지사들이나 초로인생을 운운하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타락분자들에 비해볼 때 참군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소년들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열렬한 넋을 지닌 애국지사들인가. 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입대를 탄원해 나선 것은 사실 그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꽃다발을 안겨주어야 할 일이였다.

나는 이 투지만만한 소년들을 투사로 키우고 싶었다. 당장 전투대오에는 세울 수 없겠지만 방도만 잘 찾아내면 1-2년 사이에 끌끌한 후비군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해나 두 해사이에 이 소년들이 모두 구대원들에게 짝지지 않는 전투원으로 자라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수확인가.

그 대원들이 잠을 덜자고 밥을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강심을 먹고 애를 쓴다면 소년들을 짧은 기간에 날파람있는 싸움군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소년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여 조건이 허락할 때에는 밀영에서 훈련을 주고 부대가 기동할 때에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단련시키자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테면 군사학교나 군정간부양성소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면서도 거기에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 특수중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였다. 나는 소년들을 부대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맹세문을 쓸 과업을 주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유격대에 입대하고 싶다면 오늘밤중으로 맹세문을 다 써내라, 왜 혁명군에 들어와 총을 메려고 하는가, 입대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며 싸우겠는가 하는걸 글로 써내라, 그러면 그 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김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내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였다. 마안산에

서 데리고온 아이들도 적지 않아 부담이 큰데 저 소년들까지 더 받으면 난사라고 하였다.

다음날 소년들이 써온 맹세문을 보니 결의들이 다 좋았다. 글을 몰라서 딴 아이들에게 대필을 시킨 맹세문도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을 모르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모두가 맹세문을 다 잘 썼다고 했더니 소년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터치였다.

나는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지휘관들을 사령부에 모이게 한 다음 마안산출신의 아동단원들과 서간도에서 새로 우리를 찾아온 아이들로 소년중대를 따로 조직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소년중대중대장으로는 오일남을, 사무장으로는 여대원인 전희를 임명하였다.


오일남

오일남은 사령부직속기관총소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다. 사격솜씨도 좋고 대오관리에서도 빈틈이 없었다. 그는 비상한 인내력과 투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구시산전투때의 일화가 잘 말해주고 있다. 오일남은 그 전투에서 총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누구도 놀랐다. 지양개에 도착해서야 그의 군복에 배여있는 피를 보고 모두가 중상이라고 떠들었다. 웃옷을 벗겨보니 살에 탄알이 박혀있었는데 그 끄트머리가 보일락말락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웃고만 있었다.

군의가 없어 힘꼴이나 쓰는 강위룡에게 그의 몸을 붙잡게 하고 내가 핀셋으로 탄알을 뽑아내였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아 어지간히 땀을 뽑았다. 마취제도 없이 강짜로 하는 수술이었지만 오일남은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살에 박힌 탄알을 뽑아내고 상처에 총기름으로 쓰는 와셀린을 발라준 다음 후송명령을 내리니 오일남은 ≪그쯤한 부상을 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적들이 당장 우리를 추격해오겠는데 기관총소대장이 자리를 뜨다니요.≫하면서 종시 가지 않았다. 나는 오일남의 이런 투지가 소년병사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믿었다.

사무장 전희도 투지로 보면 간단치 않았다. 나이는 소년중대원들과 엇비슷하였지만 속대를 가을콩알처럼 땅땅 영글은 처녀였다. 전희의 가정내막을 잘 아는 김철호는 그가 10살적에 할아버지의 침통을 깨뜨린 난돌이라고 하였다.

전희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전희의 할아버지는 침깨나 놓을줄 알아서 마을사람들의 병구완을 잘해주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병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어린 전희는 어머니를 살려내지 못한 책임이 할아버지의 침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돌로 그 침통을 박살냈다. 할아버지가 이년, 이년 하면서 야단을 하자 그는 ≪어머니 병도 고치지 못하는 침통은 두어서 뭘하나요.≫하면서 엉엉 소리를 내여 울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도 전희를 붙안고 함께 서글피 울었다.

다음해에 전희는 오빠마저 잃었다. 그의 오빠는 유격대원이었는데 적구공작을 하다가 두 동료와 함께 체포되었다. 적들은 그들을 구자가 뒤산에 끌어내다가 처형하였다. 세 투사는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악형을 당하면서도 적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혁명만세!≫를 부르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었다.

어린 전희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오빠의 영웅적인 최후는 그를 감동시키였다. 적들은 군중들을 향해 ≪자, 보라, 일본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저 꼴이 된다. 그래도 혁명을 하겠는가?≫하고 지껄여댔다. 군중은 잠잠하였다. 하지만 어린 전희의 입에서는 ≪혁명만세≫라는 쟁쟁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깜짝놀란 적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뭇매질을 하였다. 그 후 전희가 유격구에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너 어쩌자고 그때 만세를 불렀니?≫하고 물었다. 전희는 ≪나도 오

빠처럼 죽고싶었어요. 죽을 바엔 ≪혁명만세≫를 부르고 죽고싶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단순한 고백에서 벌써 자기의 목숨보다 혁명을 우위에 놓을줄 아는 담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희의 담차고 용맹스러운 성미는 소년중대원들에게 훌륭한 시범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전희도 오일남과 마찬가지로 소년중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하였다. 사무장이란 오늘의 인민군대에서 사관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전희

내가 그 조직을 선포한 후에는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소년중대를 내온 사령부의 조치를 두고 아연해하였다. 저 어린애들이 우리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는가,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묶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꼬마들이 과연 어른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내가 사령관의 권한을 가지고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은 소년들의 청원을 가급적으로 빨리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소년들이 품고 있은 혁명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과 부모형제들의 원쑤를 갚으려는 불타는 적개심이 우선 나를 감동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 유격대의 후비군육성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년들로 특수한 군사조직을 뭇게 되면 그것이 곧 후비군육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년중대에 망라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유격대에 입대한 조왈남, 이성림, 최금산, 김택만, 백학림을 비롯한 역대전령병들이 걸어온 행적으로 보아 14-17살이면 능히 어른구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소년중대의 대열을 편성하자 곧 그들에게 군복을 해 입히고 무기를 수여하였다. 무기와 대부분은 아이들의 키에 어울리는 38식기병총이었다. 새 군복에 무기까지 받아안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던 소년중대원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내 마음이 후련해진다.

우리는 오일남과 전희에게 소년들을 지양개등판에서 당분간 훈련시키다가 7도구의 부후물밀영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유격대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초동작을 한두 달사이에 주기 위한 속성훈련강령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오일남에게 주었다. 오일남은 그 강령을 보고나서 강도가 너무 높아 아이들이 다 소화해내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고 하였다.

소년중대는 그 이튿날부터 지양개등판에서 곧 훈련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나는 중일전쟁에 대처한 방침을 구상하느라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을 내여 소년중대의 훈련을 자주 지도하였다. 훈련장에 나가면 시범동작도 해보이고 군대물이 빨리 들려면 정보훈련을 잘해야 한다느니, 조준연습을 할 때는 과녁을 원쑤의 가슴팍으로 여겨야 한다느니 하고 훈계도 많이 하였다.

소년중대가 지양개에서 두 주일쯤 훈련하였을 때 우리는 회의를 소집하려고 소백수밀영으로 떠났다. 나는 출발에 앞서 오일남에게 소년중대원들을 데리고 부후물밀영에 들어가서 훈련을 계속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애숭이들을 막상 행군서열에 세우고보니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실 그때의 행군이 간단치 않았다. 고생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부후물밀영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밀영이었다. 훈련기지로서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이 일영에는 소년중대원들이 2-3개월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저장되어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김평에게 과업을 주어 부후물에 밀영을 꾸리고 식량을 마련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그 덕을 단단히 보았다.

우리가 부후물근처에 6도구밀영에서 적배후타격전을 지휘하고 있을 때 소년중대원들은 부후밀영에서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초수탕과 소배수에서 회의를 끝낸 다음 밀영에 찾아가 그들의 훈련과정을 직접 모았는데 지양개에 있을 때보다는 몰라보게 발전했다는 것을 인차 실감할 수 있었다. 소년중대를 조직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그 훈련모습만을 보고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의 놀라운 발전속도는 나를 흐뭇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전희가 사령부에 나타나 나에게 귀속말로 ≪장군님 야단났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하고 밑도끝도 없이 하소연을 하였다. 소년중대에서 그 중 키가 작은 한 꼬마가 밤마다 집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운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격대원들도 다 가정을 가진 인간들인 것만큼 소년중대원들이 집생각을 하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었지만 울면서 집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달랐다.

전희의 말에 의하면 꼬마는 중대가 팔도구하를 지나면서부터 시무룩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왜 우는가고 물으면 집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입대할 때에는 부대가 자기 집 근처에만 활동할줄 알았는데 행군길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전희에게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좀 세게 다불리라고 권고하였다. 전희는 꼬마를 세워놓고 짱짱하게 책망하였다. 그런데 이 책망이 그만 부작용을 일으켰다 꼬마는 더 엇서면서 이번에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꼬마를 사령부에 불러다놓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은가고 물었다. 꼬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나는 꼬마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집에 가거라. 그런데 여기서 19도구까지는 아마 몇백 리가 되겠는데 꽤 가내겠느냐?≫

≪오던 길로 졸졸 가면 갈 수 있어요.?≫

대답하는 기세로 보아서는 단순한 투정질 같지 않고 제나름으로 타산까지 다해본 모양이었다.

나는 전회를 시켜 소년중대의 비상미가 몇 되박 들어있는 배낭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소원대로 집에 가거라. 집까지 가자면 먹을 것이 있어야겠으니 이걸 가지고 가거라.≫

그것이 중대의 비상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꼬마는 두 눈이 휘둥그래져서 말하였다.

≪싫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중대는 뭘 먹고사나요? 난 혼자니까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어요. 강냉밭에 들어가 한두 이삭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거야 도적질이나 같지. 그런 짓을 할까봐 이 쌀을 가져가라는 거다. 유격대의 밥을 며칠 먹어봤으면 그런 것쯤이야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니? 어서 이 배낭을 가지고 가거라.≫

≪동무들을 다 굶기면서 나만 먹을 순 없어요.≫

꼬마는 기를 쓰고 내가 메워주는 배낭을 벗어놓았다.

≪그런 도리를 다 아는 네가 어쩌면 피흘리며 싸우는 동무들을 산중에 두고 혼자

서 집으로 가는 것이 수치라는 걸 모르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똑똑한 소년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못하구나.≫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번지자 꼬마는 울음을 터뜨리였다.

사실 이 애들은 아직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들이였다. 나는 여기서도 일제가 강요하는 있는 민족수난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년중대원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꼬마가 입대할 때 쓴 맹세문의 내용을 상기시키고나서 그를 타일렀다.


이을설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근 같이 무겁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넌 자기가 다진 맹세를 길가의 막돌처럼 집어던지려고 했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허술히 여기면 되겠느냐. 한번 총을 잡았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집에 가야지. 그래야 부모들도 더 반가와 할게 아니냐

꼬마는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이런 곡절이 있었던 까닭이라고 할까. 나는 그 후 그를 각별히 돌보아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그의 품성가운데서 좋은 점이라고 본 것은 동지애였다. 자기는 굶더라도 중대의 비상미만은 축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애심이야말로 숫눈이나 나리꽃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동지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동지애를 혁명가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덕적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표이다. 만일 인간에게 동지애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가 없는 구조물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동지애가 강한 인간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내가 19도구 출신의 그 꼬마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점이였다.

온 부대가 소년중대원들을 친동생처럼 살뜰히 도와주고 보살펴주었다. 구대원들은 그들을 한 명씩 맡아서 진지하게 교양하였다. 매개 소년중대원들에게는 믿음직한 후원자가 한 명씩 생기였다.

가장 성실하고 적극적인 후원자는 역시 중대를 책임진 오일남이였다. 그는 소년들속에서 낙오자가 생길가봐 항상 마음을 썼다. 언제인가 그는 상풍덕에서 입대한 ≪꼬마신랑≫ 김홍수의 발싸개를 싸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크게 감동되었다. 그 때 오일남은 김홍수더러 홍수, 네가 장가를 가는데서는 나의 선배이지만 발싸개를 감는데서는 후배야, 그러니 창피스럽게 생각지 말구 허심하게 배워야 해,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갈 땐 문제가 달라, 그땐 네가 선생노릇을 해야지 하고 말하였다. ≪꼬마신랑≫인 김홍수는 오일남에게 발을 완전히 내맡기고 중대장의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일남이 김홍수의 생활을 남보다 특별히 잘 돌보아 준 것은 그가 장가를 간 사람으로서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소년중대원들을 위해서는 여대원들도 각별한 사랑과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들도 소년중대원들을 두세 명씩 다 맡아보았다. 여대원들은 소년들을 위해 배낭 속의 물건들을 정돈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밥짓는 방법, 우등불을 피우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발바닥의 물집을 없애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소년들을 돕는데서 중대장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열성분자는 김운신이였다. 그

는 당조직에서 이을설을 담당하라는 과업을 받았던 것 같다. 짬이 생길 때마다 이을설을 옆구리에 달고 다니면서 조준연습을 시키는 김운신의 모습은 다른 구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 덕으로 이을설은 명사수가 될 수 있었다. 훗날 이을설이 공산당에 입당할 때 김운신은 보증인으로 나섰다.

구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소년중대원들을 이끌어주었다. 야간행군을 할 때에는 앞사람을 바투 따라가야 하며 주위에서 나타나는 정황을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제 때에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식을 하다가 떠날 때에는 종이쪼박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상식들은 모두 구대원들의 행군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김운신

나도 소년중대를 위해서는 있는 성의를 다했다.

나는 물살이 센 강을 건늘 때마다 소년중대의 꼬마들을 업어서 건네주곤 하였다. ≪꼬마신랑≫ 김홍수도 내 등에 업혀 강을 건넌 적이 있다. 장가를 간 새서방이 어린애들처럼 그게 무슨 꼴인가고 놀려주어도 이 천진난만한 신랑은 꿈만해하였다. 나는 소년중대원들과 함께 행군할 때마다 ≪앞에 나무가 있으니 주의하여라.≫, ≪웅뎅이가 있으니 건너뛰어라.≫, ≪조심해서 강을 건너라.≫는 식으로 일일이 잔소리를 많이 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은 늘 시장기를 느끼면서 살았다. 유격대식사가 집에서 하는 식사보다 나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어느 때인가 장백에서 임강으로 그들과 함께 행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식량이 부족하여 죽을 많이 쑤어먹었다. 죽을 먹는 날이면 그들은 배가 고파서 헐헐하였다. 작식대원들이 매번 나에게 식사를 따로 차려왔지만 나는 끼니때마다 죽그릇을 들고 소년중대원들의 식탁에 찾아가 그들에게 죽을 덜어주군하였다.

성미가 깔끔한 사무장 전희는 어느 날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죽을 자꾸 덜어주면 사령관동지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 그러면 자기들도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푸념하였다.

나는 이런 말로 그를 달래였다.

≪전희동무, 너무 걱정하지마오. 좀 굶는다고 해서 큰 변이 나겠소. 그러나 소년중대원들은 다르오. 아직 단련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어한단 말이요. 돌을 삼켜도 삭이 나이들인데 죽만 먹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소. 이런 때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소.≫

내가 소년중대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돌린 것은 사상교양이였다. 나는 짬만 있으면 그들의 강사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글을 모르는 소년들에게 글부터 가르쳤다. 소년들은 명인들의 전기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인전을 많이 소개하였다. 그 다음은 우리 나라 망국사를 강의하였다. 소년중대원들 중에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과 같이 권총이나 수류탄을 차고 다니면서 일본천황이나 조선총독을 제껴버릴 꿈을 꾸는 공상가들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테러로써는 나라를 독립하지 못한다, 무장투쟁을 축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벌려야 조국을 광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소년들에게 우리의 혁명노선을 인식시키자면 인내성있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장백에서 임강을 행군할 때 우리는 수십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소년중대원들을 한 번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저 먼발치에서 구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광경을 보게 하였다. 언제인가 한 소년중대원이 전장에 있다가 눈먼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상처자리가 쑤셔날 때마다 그 소년은 아버지를 찾았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애의 부모들이 총알을 맞은 자식의 상처를 본다

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오일남을 보고 혁명위업을 계승할 보배들인데 대원들을 아끼고 잘 보살펴주라고 하였다. 우리는 금이야 옥이야 하고 소년중대원들을 보살펴주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귀공자처럼 어루만지기만 한 것은 아니였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비판도 하고 구대원들과 생활을 같이하게 하여 단련도 시켰다.

어느 날 밤 나는 숙영지를 돌아보다가 소년중대원들이 신을 벗고 자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규율위반이였다. 우리는 숙영규정을 만들 때 전투원들이 신발을 벗고 자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다. 적들의 불의습격을 무시로 받게 되는 유격대생활에서 일시적인 불편을 참지 못해 신발이나 옷을 벗고 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병들은 숙영지에서 언제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총을 가슴에 안고 자군 하였다. 유사시 행동의 민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낭은 머리에 베고 잤다.



조명선

그날밤 나는 전희를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런 얕은 인정으로는 소년들을 투사로 키워내지 못한다. 만일 이 순간에라도 적들이 달려든다면 신발을 벗고 자는 저 소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발을 상할 수도 있고 얼굴수도 있다. 저 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긴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부모나 친형, 친누이의 아프고 인정에 그늘이 지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소년들을 원칙적으로 키워야 한다.

전희는 그날밤 내가 준 비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수십 년세월이 지나 우리 군대의 부총참모장의 중책을 지닌 조명선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동무의 발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던 일이 생각나요?≫

조명선은 옛 사무장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기억나구만요. 제가 숙영지에서 신발을 벗고 자는 바람에 전희동지가 그만 혁명의 첫걸음을 떼던 소년중대시절이였지요. 고생은 많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고생과 그 시절에 받은 사랑은 한생토록 잊지 못한다. 그 추억은 꺼지지 않은 불빛처럼 따뜻이 인생을 비쳐준다. 반세기도 더되는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 14살, 15살이던 소년들이 이제는 어언 70고개를 넘어섰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동지들을 잊지 못한다.

구대원들의 따뜻한 방조와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빨리 성장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도 구대원들과 같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이 처음으로 참가한 전투가 신방자전투이다. 그때부터 그 들은 구대원들과 꼭같이 무수한 격전을 치르었다. 그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우리가 사전에 아무리 타이르고 열백 가지로 주의를 주어도 싸움만 시작되면 소년중대원들은 어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거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평소에는 아주 침착해보이는 소년들도 전투에 돌입하면 어느새 열에 떠서 마구 헤덤비었다. 어떤 소년은 은폐물에 의지하는 것이 성차지 않아 윗도리를 다 드러내고 총을 쏘다가 구대원들에게 덜미를 잡혀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다.

우등불에 새 군모를 태우고 얼마동안 맨머리바람으로 다니던 한 소년중대원은 어찌나 모자생각에 옴했던지 적과 맞다들자 그놈을 쏴눕히기 전에 모자부터 벗기

려고 하다가 하마트면 죽을 번하였다. 보조임무수행중에 노루가 나타나자 참지 못하고 총을 쏜바람에 온 부대가 비상소집을 하게 만든 소년중대원도 있었다.

어려운 싸움의 나날들에 소년중대원들은 전공도 많이 세웠다. 유격대생활의 비상한 정황은 그들로 하여금 보통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지혜와 용감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한번은 전문섭, 이두익, 김익현이 연락을 가다가 위만군 소부대와 맞다들린 적이 있다. 적아가 동시에 상대를 발견한 것만큼 미리 선손을 쓰지 않으면 적에게 포위될 수도 있고 전부 사로잡힐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였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소년중대원들은 덤불속에 엎드려 일부러 어른의 굵은 목소리로 ≪제 1중대는 좌측으로, 제 2중대는 우측으로!≫하고 구령을 내리면서 조준사격으로 적을 타격하였다. 소년중대원들은 연락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이두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였다는데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하여 그 군공은 부대에 인차 알려지지 않았다. 나도 오일남 중대장의 말을 듣고서야 세 소년들이 얼마나 장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소년중대원들은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들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였으며 구대원들에게 될수록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소년중대가 조직된 그 해 가을 김익현은 우등불곁에서 자다가 종다리에 화상을 당한 일이 있다. 게다가 눈병까지 만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대원들은 행군할 때마다 그를 부축해가지고 다니였다. 김익현은 종다리가 몹시 쑤셔났으나 나나 구대원들에게 시름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리의 화상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그에게 약을 보내주었다. 김익현의 화상자리를 보고 나는 그이 의지와 참을성에 감탄하였다.

항일전쟁의 전기간 우리의 소년중대원들은 나이나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대원들 못지 않게 잘 싸워 무장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본 군경들은 소년중대를 거친 유격대원들과는 말도 말라고 하였다. 소년중대 출신과는 맞서지 말라는 것이였다.

김일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입대한 김성국의 실례를 들어보자.

김일은 오래동안 간삼봉아래부락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하였는데 그곳 조국광복회원인 김상현의 방조를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였다. 김상현은 김일을 자기의 농막에 3개월동안이나 숨겨주면서 그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농민은 홀아비였다. 안해가 죽은 다음 셋이나 되는 자식건사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남의 집 머슴으로 주었다. 그 세 아들 중의 맏이가 바로 김성국이었다.



김익현

김일은 이 불쌍한 일가를 도와줄 방도가 서지 않아 고심하던 끝에 김성국을 유격대에 추천해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그는 김성국이 김을 매고 있는 밭에 찾아가 나에게 보내는 소개신을 주면서 나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년 김성국은 호미를 던지고 토스레옷차림으로 나를 찾아와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어려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해온 김성국은 눈썰미가 빠른데다가 담차고 이악해서 사격술도 빨리 익히고 유격대의 행동규범도 빨리 터득했다. 몇 달 후에는 기관총

사수인 오백룡의 부사수로 뽑히었다. 김일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늘 보살펴주었다.

송화강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던 때의 일이었다. 그 때 김성국은 한동안 방차대에 나가있었다. 한번은 그가 우등불에 발을 쪼이다가 발바닥이 따가와서 신을 벗은 적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적들이 달려들었다. 김성국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급히 송화강얼음판에 나가 기관총을 걸어놓고 적들에게 몰사격을 퍼부었다. 그는 자기가 신도 신지 않고 맨발바람으로 달려나와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연대정치위원
김일

그가 총을 쏘는데만 몰두해있을 때 등뒤에서 누구인가 그의 발을 잡아당기였다.

김성국은 벅컥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뜻밖에도 김일이 내의를 찢어 자기의 발을 싸매주고 있지 않는가, 그때에야 김성국은 자기가 맨발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퇴각해간 다음 김일은 이게 무슨꼴이냐, 발을 잘리고 싶어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였다.

김일이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김성국이 기관총을 메고 송화강얼음판을 내달리는데 뒤에서 보니까 발이 얼음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짜작짜작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날 맨발바람으로 얼음판에서 기관총을 냅다갈기는 김성국도 보통내기가 아니었지만 탄우를 무릅쓰고 전장에까지 뒤쫓아가서 내의를 찢어 어린 사수의 발을 싸매준 김일 역시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김일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김성국은 틀림없이 발에 큰 동상을 입고 날개없는 새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후에 나와 김일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가 얼마나 혁명에 충실한 투사였는가 하는 것은 소부대활동시기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1940년대 전반기는 매개 유격대원들의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잘 싸웠다.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국내에 드나들던 김성국이 한번은 혼자서 나진시내에 들어갔다가 별치않은 실수로 경찰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다. 거리에서 비를 만난 그는 상점에 들어가 우산을 샀는데 그것이 그만 여자용양산이었다. 가재수라는 산골에서 어려서부터 고역에 시달려온 김성국은 우산과 양산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상점에서 쓰고나온 여자용양산은 대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얼마나 수상스럽게 보였는지 지나가던 경관이 그 양산을 가리키며 어디서 훔쳤는가고 물었다. 김성국은 사실대로 상점에서 산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왜 여자용을 샀는가라는 경관의 물음에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탁해서 사가는 길이라고 슬쩍 둘러대었다.

그러나 경관은 김성국을 경찰관주재소까지 끌고가서 짖궂게 심문하였다. 김성국은 의자를 들어 경관을 때려눕히고 뛸 궁리도 해보았으나 단념하였다. 그렇게 하면 시내에서 지하공작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공작원이 또 사선을 넘어 나진에 침투해야 하였다.

김성국을 붙잡아온 경관이 시내순찰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딴 경관이 그를 심문하였다. 순사는 심문중에 책상서랍을 열어보다가 동료순사가 김성국한테서 압수한 수백 원의 공작비를 발견하고는 돈이 탐나서 얼른 그를 놓아주었다.

다음해 여름에도 김성국은 소부대공작을 나갔다가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다. 공작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그는 적들과 맞다들어 총격전을 벌이던 끝에 여러 군데나 부상을 당하였다. 김성국이 골짜기로 내려와 풀숲에 숨어있었기 때문

에 적들은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는 임철을 책임자로 하는 소조를 파견하여 김성국을 찾게 하였다. 상처를 여러 군데나 입은 김성국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기적이였다. 그는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풀을 뜯어먹었다고 하였다.

김성국이 훈련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리는 해당기관과의 연계밑에 그를 쏘련의 한 야전병원에 후송하였다. 김성국은 그 병원에서 1년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은 모두 그를 극진히 돌봐주었다. 특히 담당간호원처녀는 김성국을 조선빨치산의 불사조하고 하면서 수혈도 해주고 낮에 밤을 이어 헌신적으로 간호해주었다.


김성국

그 간호원은 독일처녀였다. 반파쑈투사인 아버지가 히틀러도당에게 총살당한 후 어머니와 함께 쏘련에 온 망명자였다. 처녀는 김성국을 동방약소민족의 투사로 존대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그의 치료를 위한 일이라면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도와나섰다. 위생실출입을 거들어주고 세수를 시켜주었으며 식사시간에는 밥을 먹여주었다.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자 처녀는 그의 식욕을 돋구어주려고 집에서 닭을 잡아 구미에 맞는 음식을 지어왔다.

퇴원하는 날 처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환자가 병원생활을 끝내면 요양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기 집에서 며칠동안 영양보충을 하다가 가라고 하였다. 김성국은 초청을 쾌히 받아들이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그 거리의 미술학교 교원이었다. 그 여자는 시베리아의 사나운 기후조건에서도 닭을 수십 마리나 기르고 있었으며 다년생 고추나무도 재배하였다. 모녀는 하루에 한 마리씩 닭을 잡아 여러 가지 요리를 하여 김성국의 밥상에 놓아주었다. 그들은 짬만 있으면 김성국에게 조선빨치산의 투쟁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처녀와 그의 어머니를 제일 감동시킨 것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혁명의 폭풍우속에 몸을 내던진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나이 어린 소년들이 유격투쟁을 하는데 대하여 매우 신비롭게 생각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조선의 투사영웅을 그려 구라파에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화판에 김성국의 얼굴모습을 자주 옮기었다.

김성국이 요양생활을 하는 기간 처녀는 그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였고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이해하였다. 김성국을 알게 된 때로부터 처녀는 조선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소년대원들에 대한 말만 듣고도 당신네 나라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리는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일본을 타승하고야 말 것입니다.≫

처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김성국이 부대로 돌아올 때 모녀는 쏘련의사들과 함께 멀리까지 따라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모녀는 김성국에게 작별기념으로 많은 저금액이 기입되어있는 저금통장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성국은 그 호의를 굳이 사양하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이별의 마당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은 아직 더 쉬어야 할 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상 붙잡아두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만류한들 당신이 우리 집에 남아있겠는가. 당신 같은 투사들을 가지고 있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김성국의 귀환담을 듣고 그에게 기울인 독일처녀와 그 어머니의 국제주의

적 소행에 크게 감동되였다. 그래서 김성국에게 돈과 돼지고지를 주어보내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시하게 하였다.

소년중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쓸모있는 군사정치학교였는가 하는 것이 김철만의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김철만은 지양개일대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대통영감≫을 따라 우리를 찾아와 소년중대에 입대한 사람이였다. 그가 처음으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대통영감≫을 나무랐다. ≪장총키보다 더 작은 애숭이를 부대에 데리고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랍니까?≫하고 답답한 소리를 했더니 이동백은 펄쩍 뛰면서 애숭이라니요, 그 애 나이가 지그만치 17살이나 됩니다, 키는 작아도 속은 영감이 다 된걸요 하면서 김철만을 두둔해주었다.


김철만

나는 처음에 김철만이 ≪대통영감≫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속였다고 생각하였다. 내 눈에는 그가 12살 아니면 13살쯤 되는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복하였다.

그러나 김철만은 씨물씨물 웃으면서 ≪장군님, 키가 작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이래뵈두 못해본 농사가 없습니다.≫하면서 팔뚝을 흔들어보이였다. 그의 팔뚝은 과연 다른 아이들보다 힘살이 더 있어 보였다. 김철만은 소년중대에 입대한후 무슨 일에서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소년중대가 해산된 후에는 7연대에 가서 오중흡연대장의 전령병으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오중흡이 전사하였을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대원이 바로 이 김철만이었다. 그는 오중흡의 후임으로 연대장이 된 오백룡의 신변호위를 위해 각별히 마음을 썼다.

김철만을 소부대활동기간에도 줄곧 오백룡이 인솔하는 소조에 망라되어 쏘만국경과 두만강을 뻔질나게 넘나들며 반일항쟁역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공작과 적의 군사요충지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과감히 벌이었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단련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김철만의 담력과 재능은 반미전쟁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1차 남진의 길에서도 잘 싸웠지만 적후투쟁도 잘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연대는 양구, 춘천, 가평, 통천, 포항, 청송, 군위를 비롯한 강원도일대와 경상북도일대의 천여 리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적들을 배후에서 연속적으로 타격하였다.

적아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벌어졌던지 그 당시 양구지방 인민들은 가을걷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철만은 양구를 해방하자 군내 간부들을 다 불러다놓고 배포유하게 가을걷이조직부터 하였다. 양구군의 인민들은 그의 연대와 함께 며칠사이에 밭에 서있는 곡식을 다 베어들이었다.

김철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당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수령님의 덕이다, 수령님께서 나를 소년중대에 받아들여 친부모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보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름도 없는 초부나 농사군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그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소년중대에는 망라되지 않았으나 그들과 비슷한 나이에 무장을 잡고 유격대에서 싸운 꼬마대원들도 항일전쟁의 승리에 당당하게 기여하였다.

김병식은 15살 때 차굴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단신으로 유격대에 찾아와 입대한 당돌한 소년이었다. 참군후 한동안 문붕상과 최춘국의 전령병으로 활동하였는데 지휘관들이 그를 날파람있는 싸움군이라고 하면서 몹시 총애하였다.

김병식은 적후공작에 자주 파견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그는 경계가 삼엄한 두만

강을 휘파람을 불며 마음대로 넘나들었고 웅기(선봉), 나진, 회령을 비롯한 조선의 북부국경도시들을 이웃마을 다니듯 하였다. 그가 목숨을 내대고 국내에 들어가서 수집해가지고 온 적정자료들은 우리의 조국해방작전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방 전야에 김병식은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일본의 교형리들은 그가 한 모든 일이 자기네 제국의 밑뿌리에 시한탄을 파묻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임을 알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사형은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적들도 아마 그가 미성년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김병식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나어린 ≪죄수≫로 되었다. 그는 잡역노동에 끌려나갈 때마다 그 감옥에서 복역중이던 권영벽, 이제순, 이동걸, 지태환, 박달, 서응진 등의 감방을 오가면서 연락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적들은 그를 귀순시켜보려고 고문도 하고 위협도 하고 구슬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 그는 절개가 강한 투사였다.


김병식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서 제일 어린 나이에 입대한 사람은 이종산과 이오송이었다. 이종산은 11살 때 항일연군 3군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이 되었다.

이종산이 혁명군에 찾아갔을 때 그의 입대심의를 한 사람은 3군 정치주임이었던 풍중운이었다. 풍중운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다. 11살 나이에 군인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종산은 키도 작았다. 나이는 한두 살 속인다 해도 키를 속이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이종산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끝끝내 풍중운의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는 입대 후 만사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군인생활을 잘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눈썰미가 빠르고 동작이 민첩하고 일욕심이 많은 그를 친동생처럼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이종산은 3군에서 주로 전령병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김책과 박길송의 수하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였다.

김책이 좋은 부관감이라고 하면서 이종산을 나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1943년경이라고 기억된다. 그때로부터 이종산은 나의 측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김책이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나에게 여담삼아 들려준 이야기이다. 이종산네 가정은 원래 평양 팔동교에서 살았는데 내가 창덕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만주로 들어갔다고 한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심양행 열차에서 낳은 새 생명이 바로 이종산이었던 것이다. 산모에게는 포단도 없고 기저귀도 없었다. 그래서 승객들이 한잎두잎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 이종산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갓난애의 옷을 가까스로 마련하였다.


이종산

해방 후 이종산은 손종준 등과 함께 나의 부관으로 여러 해 동안 사업하였다. 그는 부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담배부터 끊었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였다. 10년 이상이나 붙여온 습관을 일조일석에 떼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청구자에서 군정간부들을 3군에 파견할 때 그 성원들 중에는 왕청유격대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오중흡의 동생 오중선(오세영)도 포함되어있었다. 오중선은 3군에 가서 대대정치위원을 하다가 어느 전투에서 적탄에 오른쪽 지시손가락을 잃어버리었다. 그가 마라초를 피울 때면 이종산이 대신해서 담배를 말아주고 다른 대원들한테 뛰어가서 불도 붙여주곤하였다. 불을 붙이자면 상대방의 담배대에

담배대를 대고 한두모금씩 연기를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애연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따금씩 담배를 권해도 이종산은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금연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우리와 함께 항일혁명의 험난한 고개들을 수없이 넘어온 나어린 유격대원가운데는 1936년 봄에 여성소대를 인솔하고 미혼진에 나타났던 태병열도 포함되어있다.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총을 멘 것이 15살인가 16살 때였다고 한다.


태병렬

그에게는 ≪고추알≫이라는 별명이 늘 붙어다니였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지만 속은 다 영글었다는 뜻이다. 태병열은 싸움도 맵짜게 하였고 생활도 모가나게 하였다. 그는 항일유격대에 입해한 후 묘영전투, 금창전투, 간삼봉전투, 무치허전투, 대포시하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액목현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노병들에게 짝지지 않는 자랑할만한 무공을 세웠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백발백중의 사격술은 이런 무공을 세우는 과정에 실전을 통하여 연마한 것이였다. 태병열이 이용운연대장과 함께 돈화현의 어느 집단부락에 들어가 30여명의 위만군을 눈깜짝할 사이에 녹여낸 무훈담은 지금도 항일투사들속에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솜씨있는 싸움군이였기 때문에 하다하는 노병들도 그를 나이가 어리다고 감히 얕보지 못하였다.

항일전쟁의 나날에 태병열은 주로 안길, 전동규, 이용운을 비롯한 군정간부들의 전령병으로 활약하였다. 많은 군정간부들이 눈썰미가 빠르고 책임성이 높고 일욕심이 많은 그를 제가끔 자기의 수하에 두고싶어하었다.

태병열은 전령병으로 있을 때 지휘관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지휘관들이 위험한 모퉁이에 뛰어들려고 할 때마다 태병열은 그러지 못하게 두 팔을 벌이고 막아나섰다. 모험을 하지 말라는건 장군님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어기면 되겠는가로 총알같이 내쏘군하였다. 대사하, 대장강전투 때 전동규연대장이 전사한 것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탄막속에 몸을 내대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다.

안길은 태병열이 자기 옷섶에 매달리면서 모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전동규처럼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할바령회의 후 소부대활동에 참가하였던 태병열은 왕청현의 어느 깊은 수림속에서 적 대부대와 불의에 맞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허벅다리에 중상을 당하였다. 뼈짬에 총알이 들어가 박혔는데 그것을 끄집어낼 도리가 없었다. 출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따금씩 실신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총상자리에서는 구데기까지 우글우글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제때에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뱉이나 방광까지 곪아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그런데 간호병의 의무를 받고 밀림에 떨어진 왕가대원은 수술은 커녕 아무런 의학상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태병열은 막돌에 손칼을 선뜩선뜩하게 갈아가지고 그 칼로 총상자리를 수술하였다. 상처속에 칼을 집어넣고 힘있게 잡아 돌리자 싯누런 농즙과 함께 썩어문드러진 살과 뼈짬에 박혔던 총알이 섞여나왔다. 이런 모험의 덕으로 그는 자기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다.

이듬해에 왕청의 공작지에서 나를 만난 태병열의 전우들은 그가 스스로 자기 다리를 수술하던 전말을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는 독종입니다.≫하고 말하였다. 독종이라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태병열에 대한 전우들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뛰어난 담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모험이다.

나는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가 실지로 독하고 담이 큰 사람이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맹호가 되여 투쟁하는 충직하고 결패가 있고 원칙적인 인간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항상 원칙을 견지하였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증오한 것은 종파분자들과 군벌주의자들이였다. 태병열이 대가 세고 당성이 강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김창봉과 같은 군벌주의자도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하지 못하였다.


강건

태병열은 항일전쟁 때에도 잘 싸웠지만 조국해방전쟁 때에도 많은 공로를 세웠다. 전후에는 부관이 되여 측근에서 나의 사업을 성실하게 뒤받침해 주었다.

초년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는 속담도 있지만 태병열이 이처럼 온갖 풍상고초를 다 이겨낸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어린시절에 잡은 총대의 덕분이였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쇠소리가 나는 혁명가가 된다. 그리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같은 인간이 된다.

반년사이에 소년대원들은 구대원들 못지 않은 전투원들로 성장하였다. 그들의 발전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였다.

우리는 그들이 군인다운 틀거리를 갖추게 되자 1937년 말경에 소년중대를 해산하고 그 성원들을 다른 중대들에 배속시키였다. 그 조치로 하여 소년중대원들은 예비군으로부터 기본부대전투원으로 될 수 있었다.

소년중대원출신의 유격대원들가운데는 배신자나 낙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파쑈가 최후의 광태를 부리던 해방 전야의 그 엄혹한 세월에도 그들은 나와 함께 소부대활동을 충실하게 하였다. 새 조선 건설의 나날에는 그들이 사단장도 되고 연대장도 되어 혁명선배들과 함께 이 나라의 무력을 건설하였으며 미국의 장군들과 탱크들을 함정골에 몰아넣고 족쳐버리였다.

인민군대의 초대총참모장이였던 강건도 16살에 혁명군에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30살에 총참모장이 되였다. 강건은 1948년말에 쏘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온 상대국의 대장, 원수급의 고위간부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강건이 조국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동무가 아이적에 벌써 소문난 군인이였다는 걸 이야기해주었을거요.≫

나는 소년중대를 조직한 후부터 사람의 생리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을 완전히 갈라보기 시작했다. 그 두 연령가운데서 내가 기본으로 본 것은 정신적 연령이였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연령은 한 해에 두 살, 세 살, 지어는 다섯 살씩 늘어날 수도 있다.

청소년교양은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또 하나의 천하지대본이다. 소년중대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계승자, 후비군의 준비는 이를수록 좋고 잘할수록 좋다.

7.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임춘추

서간도와 백두산지구에서 이루어진 항일혁명의 고귀한 열매는 그 하나하나가 다 피어린 투쟁속에서 마련된 것이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적들의 공세도 비할바없이 극렬해졌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 중하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면서도 현대군사과학이 쌓아올린 모든 최신성과들과 수십년에 걸치는 폭압정치와 영토팽창을 통하여 련마한 파시스트적인 억압수단을 모조리 동원하여 우리 혁명을 압살하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계략이나 권모술수도 우리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우지는 못하였다.

원쑤들이 힘으로 혁명을 압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영활한 전법과 묘술의 힘,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의리의 힘으로 적들을 타승하였다. 그리고 적들이 폭압에 미쳐날뛸수록 인민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고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하려고 할수록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의리는 인간본연의 도덕적 관념이다. 낡은 사회에서도 참된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기초적인 표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종래의 낡은 사회의 도덕규범에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구속하고 타방은 그 일방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불평등이 설교되고 있으며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제동기가 장치되여 있었다. 낡은 사회의 도덕규범은 애민이라든가 위민과 같은 진보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이러저러한 봉건적인 인간관계와 도덕규범을 타파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와 도덕규범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후대들에게 하나의 재부로 물려주었다.

항일유격대에서 상하관계, 동지관계, 군민관계를 지배한 것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의리였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법이 있다.

하지만 천갈래만갈래로 엮어지는 인간의 무한대한 실천활동을 법 하나만으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법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사람의 사고나 행동가운데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다. 사랑이나 우정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만일 법기관이 법령을 발포하여 오늘부터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너는 누구를 친구로 삼으며 너는 누구를 안해로 맞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법의 힘만으로는 세상만사를 다 총찰할 수 없다. 법이 못하는 일을 법을 대신해서

해내는 것이 바로 의리와 도덕이다.

우리는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고 동지적 의리와 단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부단히 심화시키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에도 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생명선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걸어온 수십성상의 영광스러운 투쟁노정은 동지애와 동지적 의리의 발전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대오는 치부나 투기를 위해 모인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뭉쳐진 혁명가들의 집단이었다.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생사를 같이하게 하였다. 그런 것만큼 우리의 대오에는 동상이몽하거나 양봉음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동지애와 동지적 의리를 중시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대오의 존재방식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한 자루의 총, 한 포대의 쌀, 한 켤레의 신발을 구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 신념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 윤리를 창조하였으며 단결이 곧 승리라는 하나의 진리를 도출하게 되었다.

항일혁명은 인류가 아직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간고성과 치열성에서 그 어느 시대의 혁명과도 대적할 수 없는 풍파사나운 혁명이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장구하고도 곡절많은 노정에는 여러 대를 두고 내려가면서 살아도 다 겪을 수 없는 온갖 곤란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난관이 겹쌓이고 시련이 중첩될수록 동지적 단결의 구호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동지애의 힘으로 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갔다. 우리는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전략에 혁명적 의리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갔다.

항일혁명시절의 의리가운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도자와 대중사이의 의리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에서 통일단결의 중심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영도자와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으며 영도자와 대중의 혼연일체와 도덕의리적 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가 강조하는 영도자와 대중의 관계는 옛사람들이 쓰던 군신유의류의 의리와는 다르다. 군신유의란 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영도자와 대중의 호상관계는 한 마디로 일심일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도자는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은 영도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도자와 대중사이에 흐르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 의리이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내세우고 영도자와 전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투신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의리가운데서 핵을 이룬 것이 바로 자기 지도자,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파쟁이라는 것도 몰랐고 권력다툼이라는 것도 몰랐다. 일단 영도의 중심을 내세운 다음에는 곁눈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영도자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의리의 순결성이 있다.

김혁, 차광수 등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시기 우리와 함께 전장에서 싸운 수많은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나같이 순결한 의리의 소유자,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의 창조자들이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의리를 두고 론할 때면 김일의 얼굴을 먼저 돌이켜보게 된다.

김일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폭풍우속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는 나와 함께 항일전쟁도 하였고 새 조국건설도 하였다. 반미전쟁도 하였고 사회주의건설도 하였다.

항일혁명시절의 김일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로숙한 정치일군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있었다. 그는 안도와 화룡 지방을 중심으로 간도일대에서 지하당사업과 반일부대공작을 많이 하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혁명가들을 육성하였다.

김일은 백두산시절에 두의순, 손장상, 전영림 등의 두령들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공작하였는데 성과가 매우 좋았다. 그가 얼마나 공작을 잘 하였던지 안도의 전영림은 부대를 데리고 인민혁명군에 편입하여 우리와 함께 싸울 결심을 하였다.


김일

김일은 처음에 전영림부대를 무송으로 안내하였다. 우리 부대가 그 쪽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부대를 이끌고 무송지구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만강을 떠나 장백지방에 가있었다. 이렇게 되자 반일부대대원들은 김일이 자기네를 속였다고 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다가 식량난까지 겹쳐 김일은 참으로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대장이하 전대오가 사흘동안이나 변변히 먹지 못하고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때 몇몇 대원들이 어떤 산중에서 인삼밭을 발견하였다. 아사지경에 이른 대원들은 대장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달려들어 인삼을 캐먹기 시작하였다. 인민혁명군의 지휘성원인 김일로서는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인삼을 캐먹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떳떳치 못한 행위라고 하면서 두팔을 벌이고 대원들을 막아나섰다.

이성을 잃은 반일부대대원들은 전영림을 찾아가 박덕산(김일의 본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김일성**부대가 무송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송에는 **김일성**부대가 없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에 속아넘어가면서 우리가 박덕산을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가 지금은 김장군부대가 장백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박덕산은 우리가 인삼을 캐먹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야 우리를 굶겨죽이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 박가를 그대로 따라다니다가는 우리가 무슨 봉변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저놈을 제끼고 안도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다.

김일은 반일부대사병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좋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겠거든 죽이라, 그 대신 청이나 하나 있다, 내가 인삼밭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돌아올 터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대신 인삼은 더 축내지 말아달라, 인삼을 더 축내면 그것을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태연하게 그들을 설복하였다.


홍두산

김일의 언행에 감동된 전영림부대장은 서슴없이 그를 보증해나섰다. 그는 인삼밭에 두 번 다시 손을 대는 놈이 있으면 총살하겠다고 하면서 김일을 포전주인한테로 보냈다.

양삼포전주인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온 김일은 배낭을 풀어헤치고 초전주인이 쪄준 만두를 대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그에게 아편덩어리를 내놓으면서 자기에게는 이 아편밖에 없으니 만두값과 대원들이 캐먹은

인삼값으로 받아달라고 하였다. 그 아편덩어리는 왕덕태가 비상용으로 쓰라고 김일에게 준 것이었다. 포전주인이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동된 인삼밭주인은 산에 저장해둔 겨울나이용식량을 다 내놓았고 전영림부대를 만강까지 안내해주었다. 만강에 도착한 반일부대대원들은 김일한테 찾아와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반일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지구에 온 김일을 홍두산밀영에서 만나주고 전영림부대를 우리 주력부대에 편입시키였다.

김일은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과묵한 사람이었다. 첫달 밀영에서 담화를 할 때 혁명에는 언제 참가했고 어떤 투쟁을 했는가고 물어보니 혁명에는 1930년초부터 참가했는데 별로 해놓은 일이 없다는 외마디대답만 하였다. 아무리 물어보아야 해양같은 대답이었다. 첫 대면이지만 지나치게 과묵하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의 장점이기도 하고 흠이기도 하였다.

김일의 성격에서 좋은 점은 가식이 없고 고지식한 것이었으며 어떤 풍파가 있어도 드놀지 않고 한본새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평생 조건타발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저 시종일관 입을 꾹 다물고 수걱수걱 일만 하였다.

김일은 우리의 명령, 지시에 대한 집행을 상급앞에 지닌 하급의 의무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영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리로 여기는 진짜배기혁명가였다. 그는 무슨 일이건 의리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임무수행에서 큰 파동은 없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김일을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던 때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의 임무가 간단한 것이 아니였다. 연대장 전영림은 전해에 휘남현성전투에서 희생되고 연대정치위원마저 적임자가 없어 배치하지 못한 형편에서 1중대 정치지도원은 임시로 연대정치위원의 임무까지 겸임해야 하였다. 중대장도 사업에는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수준이 어리였다.

나는 이런 실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 하고나서 동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되는가를 알만한가고 물었다. 김일은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알았습니다≫하는 외마디대답을 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가 과업을 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언제나 한본새였다. 무거운 일이건 가벼운 일이건 매양 ≪알았습니다≫하는 한마디의 말로 받아들이였다. 그리고는 구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김일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다음날 1중대로 찾아갔더니 그는 없고 중대장만 있었다. 중대장의 말이 김일은 새 직무에 배치되기 바쁘게 1소대가 주둔하고 있은 무송현 북강군으로 떠났다고 하였다. 내가 그전날 김일을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할 때 무송에 나가있는 1소대의 소식이 없다는 것을 지나가는 말처럼 얼핏 비치였는데 그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가 북강룬에 가서 1소대의 실태를 알아볼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김일은 다음날새벽 숱한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중대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당거우에서 북강군까지는 100리길이 잘된다. 김일이 중대로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루낮하루밤사이에 왕복 200리길도 훨씬 넘는 강행군을 한 것으로 된다.

김일은 배낭을 벗지도 못한채 나를 찾아와 1소대동무들이 모두 무사하며 일도 잘한다는 것, 1소대와의 연계가 두절된 것은 연락임무를 받고 떠난 1소대 대원이 중도에서 길을 헛갈린탓이라는 것, 북강군에 갔다가 지고온 식량과 무기는 1소대 동무들이 적을 치고 노획한 것과 인민들이 지원한 것을 합친 것이라는 것, 그 지방 청년들이 참군을 하도 간청하므로 사령부의 승인도 없이 데리고 왔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하였다.

나는 김일을 숙소로 돌려보낸다음 그가 데리고 온 참군요청자들과 담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김일이 직접 1소대를 데리고 금룡군의 적경찰서와 악질 지주네 집을 습격하여 많은 무기와 식량을 노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김일은 두 가지 타산밑에 적의 소굴을 습격하였다. 첫째로는 지주와 경찰들을 숙청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는 것이였고 둘째로는 내가 제일 걱정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였다. 그 당시 우리는 식량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수백 명이 한 밀영에 모여 몇 달 동안 군정학습을 하였는데 후방부성원들이 마련한 식량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한 포대의 쌀도 구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런데 김일이 뜻밖에도 많은 량의 쌀을 해결해오는 바람에 전부대가 그 덕을 입게 되었다. 나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그 후 금룡군인민들은 혁명군의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마당거우밀영에 4-5차례나 지원물자를 지고왔다.

부대에 식량이 떨어지면서 노상 김일이 맨 선참으로 자진해서 대원들을 데리고 식량공작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루에 쌀을 넣어가지고 오군하였다. 자기는 굶거나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우리에게만은 늘 쌀밥을 지어주려고 여간만 애를 쓰지 않았다. 김일의 배낭이 다른 사람들의 배낭보다 곱절로 더 크고 무거웠던 것은 그가 그 배낭속에 예비식량주머니를 늘 넣어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김일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급에서 활동하였지만 자기에게 특전, 특혜, 특대가 차례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특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일은 해방 후에도 항일혁명시절처럼 우리를 잘 도와주고 받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진일마른일을 가리지 않았다. 당사업이면 당사업, 군건설이면 군건설, 경제지도면 경제지도 초소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복잡한 국사에 묵묵히 몸을 적시었다.

어느 해였던지 김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자기를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장에 전권대표로 파견해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는 그 당시 국가적 투자와 이목이 집중되던 중요한 건설대상이였다. 그런 것만큼 나도 마음속으로 공사지휘를 담당할만한 인물을 은근히 물색하고 있던 중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기를 받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건강상태가 대단히 나빴기 때문이였다. 그가 이전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날엔 무슨 화단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김일이 어찌나 집요하게 자기 요구를 되풀이하였던지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신 공사장에 가면 고문격으로 훈수나 하는 정도로 일하되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김일은 공사장에 가자마자 가설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8층짜리 아빠트높이만한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오르내리면서 건설을 불이 번쩍나게 추진시키였다. 그는 섣달그믐날까지 공사장에 있으면서 불철주야로 일하다가 1호보이라에 물을 지피는 것까지 보고서야 평양으로 돌아와 나에게 그 동안의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

김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가 임종 사흘전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했고 소속세포에서 당생활총화를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을 찾아 **김정일**동무를 잘 모셔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김일이 한평생 우리를 충심으로 따르고 받들어온 것처럼 나도 한평생 그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산에서 유격전쟁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김일은 그 장대한 체통에도 불구하고 병마에 종종 시달리었다. 한때 의사들은 그에게 위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단까지 내리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평안남도 온천지방으로 계획에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떠났다. 평양에 그대로 있자니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다가 밥도 먹고싶지 않고 마음마저 진정할 길이 없었다. 김일마저 세상을 떠나간다면 내 옆에는 나의 말동무가 될만한 사람도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이였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모두 김일을 죽을병에 걸렸다고 한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였다.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수가결에 버릇된 나였지만 그날만은 웬일인지 그 의사의 진단에 굳이 매달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나는 달리던 차를 멈춰세우고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암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쏘련의 이름난 의사들을 급히 초청할 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외무상이 친 전보를 받고 쏘련당국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의사들을 지체없이 보내주었다.

쏘련의사들은 김일을 진찰하고나서 암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었다. 그들이 김일을 데리고 쏘련에 들어가서 다른 명의에게도 보였지만 그 의사 역시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었다. 그때 만일 암이라는 최초의 진단결과만을 믿고 김일의 위를 잘라 버리기라도 했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인차 잘못되었을 것이다.

김일이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를 만나 동무는 우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항일혁명을 하던 노투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무가 없으면 내가 허전해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돌보면서 일하라고 당부하군 하였다.

그러나 김일은 중병에 걸려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집무실이나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위해 한 가지 일이라도 더 많이 해 놓으려고 온갖 정열을 다 바치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에 걸리었다.

한 번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가 나보고 병이 나으면 내년 4.15에 만경대에 가서 관성열차를 타보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섬찍한 생각이 들었다.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 그런 속생각까지 터쳐놓은 것으로 보아 그가 혹시 자기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김일은 그 해 섣달그믐날 아이들의 설맞이공연관람에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날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해마다 설맞이공연을 동무와 같이 보았는데 오늘 저녁에 동무가 곁에 없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볼 수 없더군, 그래서 내 이렇게 왔소.≫

침상에 누워있는 김일에게 이런 말을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는 오히려 현관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제 부탁인데 과로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과로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듭 당부하였다.

나는 그날 저녁 김일의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그와 새해를 경축하는 축배잔도 찧지 못하였다. 그것이 지금도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집을 떠난 다음 김일도 나에게 축배잔을 권하지 못한데 대해 후회했다고 한다. 축배잔이나 마주찧는다고 해서 병이 나을리도 없고 또 나의 기분이 밝아질 수도 없는 일이다. 하건만 김일을 회고할 때면 매번 축배잔이 내 마음속의 아픈곳을 건드리군 한다.

김일은 나를 대하듯이 **김정일**동무를 대하였고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듯이 **김정일**동무에 대한 의리도 지키었다. 나는 **김정일**동무에 대한 김일의 남다른 경모심에 한두 번만 탄복하지 않았다. **김정일**동무가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김일은

지팽이를 짚고 역에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의 진실한 자세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동무도 김일을 혁명선배로서 각별히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김정일**동무는 늘 김일부주석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승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견결히 투쟁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의 모범이라고 하면서 그를 내세워주고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내가 김일을 나의 오른팔이라고 한 것처럼 **김정일**동무도 그를 나의 오른팔로 보았다.



황순희

그래서 김일이 서거하였을 때 제일 애석해한 사람이 아마 **김정일**동무였을 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 지도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 뿐 아니라 혁명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도 최상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믿음에는 믿음으로 대답하며 은혜에는 은혜로 갚는 것이 항일유격대원들의 의리였다.

황순희와 김철호의 우정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양되고 있던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의리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황순희를 만날때만다. 저렇게도 체소하고 섬약한 여자가 백두산의 설한풍속에서 어떻게 10년동안이나 무장투쟁을 해왔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한다.

해방 후 평양에 돌아와 국내인사들에게 황순희가 10년동안 유격투쟁에 참가한 여자라고 소개했더니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에는 황순희만큼 체소한 여대원이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혁명을 해도 차돌처럼 옹골차고 담차게 하였다.

체통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혁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다. 임수산은 황순희보다 몸집이 두 곱이나 더 큰 거구의 사나이였지만 곤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였으며 동지들에 대한 의리도 저버리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황순희는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한시도 혁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의리와 신념이 강하면 여염집아낙네들도 혁명을 하며 김금순과 같은 꼬마들도 절개를 지켜 단두대에 오른다. 황순희가 그처럼 체소한 몸으로 끝가지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이 강하고 의리가 강했기 때문이였다.

내가 군복을 입은 황순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은 미혼진밀영에서였다. 여대원들의 병실은 이전날 산림부대사병들이 사용하던 병실자리였다.

그 중국식병실의 캉이 대단히 높았다. 캉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낯설은 작달말한 처녀가 복도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여 무슨 말을 할듯말듯 머뭇거리고 있였다. 그가 바로 한주일동안이나 강떼를 써서 입대승인을 받아내고 부대의 뒤꽁무니에 붙어 미혼진까지 따라온 황순희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그를 아동단원으로 보았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자기를 유격대원이라고 소개한 것이었다.

≪키도 작은데 어째서 벌써 유격대에 들어왔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황순희는 일제에게 학살당한 아버지와 전장에서 희생된 언니의 원쑤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했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오빠 황례운도 최현부대의 중대장을 하다가 한총구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입대조기의 황순희는 부대의 짐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미구에 뭇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혁명군의 꽃으로 되었다. 그가 매사에 이악하고 경우가 밝고 원칙성이 강하면서도 인정미가 있고 의리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김철호는 생전에 황순희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사경에서 구원되었던 1940년 봄의 일화를 자주 회상하였다.

어느 날 황순희는 최현연대장한테서 후방밀영에 들어가 부상병들과 로약자들을 얼마동안 보살펴줄 임무를 받고 일행과 함께 푸르허방향으로 떠났다. 일행의 태반은 부상병들이었다. 제일 큰 난사는 임신중에 있던 김철호가 노상에서 해산을 한 것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새 생명을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기저귀는커녕 어린애를 감싸줄 한쪼박의 천도 없었다.

황순희는 자기의 솜옷을 벗어 갓난아이를 감싸주었다.


후방밀영

해산후 ≪토벌대≫가 총질을 하며 그들한테로 조여들었다.

산모는 어쩔바를 몰라서 전우들만 쳐다보다가 황순희에게 아무래도 살리지 못할 아이인데 버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안은채 일어서지 못하였다.

그 때 황순희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게 무엇때문인가. 다 후대들 때문이 아닌가, 아이를 버리고 제 한 몸의 보신이나 할 바에야 살아서는 뭘 하겠는가고 하면서 산모의 품에 있던 아이를 와락 빼앗아 안았다. 그리고는 산등성이로 뛰어올라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다박솔밑에 갓난애를 눕혀놓았다. 그러자 산모도 총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잠시후 황순희는 짐을 찾으려고 다시 산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짐을 들고 산등성이로 돌아왔을 때 김철호는 눈물이 글썽해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셈판인지 갓 태어난 새 생명은 보이지 않았다.

황순희가 갓난애의 행처를 물으려고 김철호의 곁으로 다가가는 순간 지척에서 총소리가 또다시 울리였다. 두 여대원은 일행과 함께 맞불질을 하면서 저 골짜기로 이틀동안이나 달리였다.

적≪토벌대≫를 완전히 따돌리였을 때 산모는 의식을 잃고 땅에 곤두박히였다. 황순희는 양재기에 물을 끓여 김철호의 입에 떠넣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좀처럼 벌려지지 않았다. 그는 숟가락으로 이발을 벌이고 억지로 더운물을 떠넣었다. 그 더운물이 결국은 산모를 살리였다.

그 때에야 황순희는 아이생각이 나서 김철호에게 아이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니 어느 덤불밑에 놓고왔다고 하였다. 황순희는 그 먼길을 되걸어 ≪토벌대≫와 총격전을 벌이던 그 산에 다시 가보았다. 불쌍하게도 아이는 이미 숨이진 몸이였다.

아이의 생사를 알아보려고 홑적삼바람으로 먼길을 다녀온 황순희를 보자 김철호는 한두시간밖에 살지 못할 애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애의 몸에서 차마 솜옷만은 벗겨오지 못하겠더라구나 하고 사죄하였다.

≪언니, 우리 어른들이야 솜옷이 없은들 뭐라나요. 이름도 없이 죽은 그 애가 춥지 말아야지요.≫

황순희는 시장기와 추위로 하여 우들우들 떨면서도 이런 말로 김철호를 위로하였다.

김철호는 그때 황순희가 발휘한 우정을 한평생 잊지 않았다.

임종을 얼마 앞둔 날 그는 병상을 찾아온 황순희에게 느닷없이 말했다.

≪순희, 내 생명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네 덕으로 푸르허에서 죽지 않고 일생동안 수령님슬하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빨치산시절처럼 너와 한 이불밑에서 자고싶구나!≫

두 전우는 그날 미혼진에서처럼 한이불을 덮고 밤이 지새도록 빨치산시절을 회고하였다.

고난의 행군때 장백에서 갓 입대한 신입대원이 밤이 우등불곁에서 자다가 군복을 태운 일이 있었다. 어떻게나 심하게 탔던지 살을 절반도 가리지 못하였다. 그런 옷을 입고 그는 행군 첫날부터 우들우들 떨면서 대오를 따라갔다. 그가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동정도 하고 걱정도 하였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그들도 한 사람같이 단벌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을설

동지애가 강하였던 이을설은 신입대원이 당하는 고통을 보다못해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군복저고리를 벗어들고 그 대원을 찾아갔다.

신대원은 아연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동무는 무얼 입고?…≫

≪나야 유격대생활에 익숙되였으니 웬만한 추위야 건드리지 못하지.≫

≪아니요. 제 잘못으로 옷을 태웠는데 내 무슨 면목으로 동무의 옷을 입겠소.≫

신입대원은 좀처럼 동료의 호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말로써는 그 대원의 고집을 좀처럼 휘여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을설은 그의 몸에서 불에 탄 옷을 강짜로 벗기고 그 대신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었다. 그가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은 것은 구대원이 신입대원을 돕는 것을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전우들은 모두 이을설이 그 겨울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경위중대에서 나이도 어리고 체질도 약한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만주지방에서 한두 해만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그 고장 추위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알 것이다. 추운 날에는 머리카락에 성에가 끼기 일쑤이다. 성에가 낀 머리카락들은 손가락으로 슬쩍 건드려만 놓아도 고드름처럼 쉽게 부서져나간다. 이런 강추위속에서 불에 타서 구멍이 숭숭 나 여름옷을 대충 기워입고 여러 날 행군을 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을설은 춥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는 행군을 할 때마다 앞장에서 생눈을 헤치었다. 숙영지에서는 언제나 그가 선참으로 나무를 해오고 천막을 쳤다. 그는 기관총반의 일을 다하고 전우들이 우등불가에 둘러앉은 다음에야 불에 자기의 신발을 말리우곤하였다.

이을설의 강인성과 동지적 의리는 타고난 것이 아니였다. 그는 생활속에서 민족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간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였고 인민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였다.

이을설은 남패자회의 후부터는 경위중대 기관총반에 배속되어 기관총 부사수로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사령부를 보위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한평생 손에 총을 잡고 궂은날이나 마른날이나 변함없는 자세로 나를 호위해온 경위대원이였다.

나는 북대정자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할 때 이을설을 동지애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그의 품성과 동지적 의리를 평가하였다. ≪철혈≫편집집단도 창간호를

내면서 그의 모범을 찬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였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군 한다. 우리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였다면 우리는 그처럼 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적을 상대로 하는 장기간의 혁명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될 수 있은 것은 결코 병력이 많거나 무장이 우월해서가 아니였다. 수백만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은 적에 비겨볼 때 우리의 병력은 수적으로 매우 간소한 것이였다. 적아의 무장은 대비할 바도 못되였다. 오로지 충성과 의리로 결합된 사상의지적 단합이 있어 우리는 강적을 타승할 수 있었다.


임춘추

나는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임춘추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춘추는 당과 수령에 대한 의리를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 투사였다.

내가 1930년 가을에 조양천에서 봉춘한 약방주인의 간판을 가지고 간도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의 연락원으로 공작하던 임춘추와 첫 통성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앞에서 간단히 소개한바가 있다. 그때로부터 그는 장장 60년 가까운 세월을 고스란히 혁명에 바치였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명구는 **김정일**동무가 인텔리들에게 붙여준 칭호인데 임춘추와 같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임춘추는 지식을 가지고 조선혁명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 그가 18살 때부터 면허증을 가진 의사로 ≪영업≫을 벌이었다고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을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는 의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군중계몽도 하고 연락공작도 하고 혁명가육성사업도 하였다. 그가 팔도구근방의 용수평마을에 가있을 때만 해도 숱한 사람들을 유격대에 추천하여 보냈다고 하니 그의 의술이 어떤 성격의 것이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임춘추가 유격구로 들어오자 혁명조직에서도 그를 군의로 임명하였다. 그는 군의로 활동하는 기간 수많은 전상자들과 인민들의 병을 보아주었다. 14-15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자습으로 연마한 의술이라는데 임상성과가 대단히 좋았다. 그 의술의 덕을 한두 번 본 사람들은 다들 그를 명의라고 하였다.

임춘추를 명의라고 제일 요란하게 내세운 사람은 최춘국이였다. 최춘국이 중상을 당했을 때 그를 수술한 사람이 바로 임춘추였다. 위만군과의 불의적인 조우전에서 불행하게도 대퇴골이 직탄에 맞아 부스러졌는데 그 상처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부상자를 살려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춘추만은 생각을 달리하였다.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유격대지휘관으로서의 역할고 끝장이려니와 인간으로서도 매우 불편한 몸이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임춘추는 최춘국이 만 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이며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군의 맹장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그는 부상자의 허벅다리를 조금 째고 총알에 부스러진 대퇴골의 뼈조각들을 집게로 끄집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였다.

최춘국은 1년 후부터 대지를 활보하였다. 상한 다리가 짧아져서 조금씩 절기는 하였으나 그런대로 행군도 하고 전투지휘도 하였다. 임춘추의 대담무쌍한 수술이 크게 은을 낸 것이었다.

나도 1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삼도만 능지영에 있는 동만당 비서처를 찾았을 때

임춘추의 덕을 많이 보았다. 그는 효능이 좋은 초약과 보양제음식을 매일같이 가지고와서 있는 성의를 다하여 나를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최현, 오진우, 조아범, 조도언도 그의 치료를 받고 상처를 완치시키였다.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가을까지의 옹근 한해 동안 임춘추는 금천현과 임강현, 몽강현 룡천진의 대수림지대에 널려있는 인민혁명군의 밀영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전상자들을 치료하였다. 그러다나니 왕진도 많이 하였다. 그때의 왕진반경은 보통 수십리씩이나 되었다. 지금은 의사들이 구급차나 승용차와 같은 현대적인 운수수단들을 이용하면서 왕진도 하고 위생선전도 하지만 항일전쟁시절의 군인들은 그런 호사를 할 수 없었다. 왕진을 다니다가 ≪토벌≫을 당하지 않으며 다행이었다.

임춘추는 언제인가 적들의 ≪토벌≫을 받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적이 이었다. 그는 황구영전투 후 최현이 준 전리품 솜바지저고리를 배낭뒤에 처매고 산고개를 오르다가 기관총련발사격을 받았다. ≪토벌대≫가 물러간 다음 배낭안을 헤쳐보았는데 놀랍게도 그속에는 기관총알이 일곱 발이나 있었다고 한다. 배낭뒤에 처맨 솜바지저고리가 아니였더라면 그는 영낙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항일전쟁시절의 접촉을 통하여 임춘추는 당일군으로서 사람들과의 사업도 많이 하였으며 조직활동과 저술활동도 많이 하여 군민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임춘추가 정치일군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실지로 그는 입대전에 연길지방에서 대중단체 일군으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통솔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군의사업과 함께 당사업을 맡기였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위원도 하고 경위연대 당서기로도 활동하였으며 동만당공작위원회사업도 맡아 수행하였다.

동만당공작위원회는 발족 후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남패자회의가 끝난 후 임춘추를 동만당공작위원회의 책임적 지위에 임명하였다. 이 공작위원회의 사명은 간도지방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대중단체들을 늘이는 방법으로 인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무장투쟁의 지반을 강화하는 한편 당창건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었다. 동만당공작위원회는 장백현당위원회나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유사한 사명을 수행하였다.

동만당공작위원회의 주요활동무대는 간도와 함경북도 일대였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된후 간도지방의 당조직들은 모두 동만당공작위원회산하에 들어왔다.

임춘추는 나와의 연계밑에 무산, 연사 일대와 동만지방에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을 확대해나갔다.

소할바령회의후 왕청, 연길, 돈화, 훈춘, 안도, 화룡 일대에서 소부대활동을 할 때 우리는 동만당공작위원회가 꾸려놓은 혁명조직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조직들이 기본이 되어 우리의 활동을 이모저모로 잘 도와주었다.

임춘추는 항일혁명시절의 당사업경험을 밑천으로 하여 해방 후 당건설활동에서도 큰 흔적을 남겨놓았다. 초기에는 평안남도당 제2비서로 일을 하였고 후에는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그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분계연선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될수록 높은 지위를 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위직은 국내인사들이나 해외에서 혁명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었다. 우리와 함께 무장투쟁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가운데 능력있는 인재들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정치를 하자니 그런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북반부에 5개 도당밖에 존재하지 않던 그때 임춘추에게만은 강원도당위원장의 임무를 맡기였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당사업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이였다.

임춘추의 활동가운데서 내가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저술활동이다. 그는 많은 글을 써서 후대들에게 남기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비롯하여 그가 쓴 글들 가운데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임춘추가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가 ≪3·1월간≫의 명예기자로 일한 다음부터였다. 그가 쓴 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들에 여러 편 나갔다. ≪3·1월간≫에 실린 ≪만신창이 된 일본경제≫라는 그의 글은 성과작으로 평가되였다.

임춘추는 전투와 행군, 치료 사업으로 바삐 보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시간을 아껴가며 매일같이 우리의 활동내용을 짬짬히 기록하였다. 종이가 바닥이 나면 봇나무껍질을 얻어서라도 거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일지를 정이해놓군 하였다. 그 일지가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의 기초자료로 되었다는 것은 임춘추 자신도 여러 번 말하였다.

위증민은 생전에 임춘추를 보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역사를 쓰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다고 한다. 당사업도 좋고 군의사업도 좋고 명예기자사업도 물론 좋다. 그러나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임춘추의 사명은 조선빨치산의 활동역사를 쓰는 것이다. 동무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결사전을 벌이다가 다 죽는 경우에도 동무는 살아서 이 사명을 완수하여 자기 사령관의 업적과 자기 군대의 투쟁역사를 후세에 꼭 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임춘추는 경위연대 당서기로 활동할 때 위증민의 곁에 오래동안 가있으면서 그의 사업도 도와주고 병치료도 해주었다. 그래서 위증민은 그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늘 곁에 있어줄 것을 요구하군 하였다. 나와 위증민과의 연계를 보장하며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의 친선을 공고히 하고 두 나라 무장력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데서 그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임춘추의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내가 처음으로 받아본 것은 1950년대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사대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혁명전통교양이 잘되지 않아 인민들과 청소년들속에 우리의 무장투쟁역사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은 ≪쏘련공산당약사≫에 대해서는 ≪이스크라≫가 어떻고 부하린이 어떻다고 줄줄 외우면서도 남호두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가고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가 출판되어 인민들에게 항일혁명에 대한 윤곽을 처음으로 그려주었다. 그때로부터 이 책은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원전으로 되었다.

임춘추는 이 책을 내놓는 것으로 항일혁명에 참가한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앞에 지닌 의리와 의무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는 자기자신을 소개하거나 그 무슨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만년대계의 재부로 되는 혁명전통을 후대들이 더 잘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도록 하려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다.

임춘추는 **김정숙**, 김철주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상실기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교양자료들을 써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고증하고 체계화하여 우리 당 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그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원형으로 하는 ≪청년전위≫라는 다부작 장편소설까지 창작하였다.

우리 당은 지금 임춘추를 우리가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온 항일전의 빛나는 혁명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증견자, 힘있는 보증자로 평가하고 있다. 나는 그 평가가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임춘추는 어려운 항일혁명을 하지 않고 의술만으로도 제 밥벌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사선의 고비를 수십수백번이나 넘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한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자기 수령과 동지들앞에 지닌 의리를 한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임춘추는 용정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승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 개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조직과 동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야수적인 고문을 이겨냈다. 그런데 혁명을 배반한 인간들은 자기가 죽으면 혁명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조직과 동지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고문에 굴복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들이 차이점이다.

나는 임춘추가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방 후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준비를 위해 중국동북지방에 전권대표로 파견되어갈 때 나는 그에게 동만에 가면 항일혁명열사의 자녀들을 많이 찾아 조국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임춘추는 중국인민이 어려운 국내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전선을 원호하고 정권기관들을 조직하며 교육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사업을 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항일혁명열사의 자녀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여 조국에 내보내주었다. 그는 지어 부암동시절의 친지이며 혁명전우인 **김정숙**의 형제들을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그는 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조국에서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운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으며 한 명의 유자녀라도 더 찾으려고 직접 신들메를 매고 간도의 산재부락들을 발이 닳게 돌아다니였다.

누데기를 걸친 람루한 행색의 아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올 때마다 임춘추는 그들의 품에 와락 끌어안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너는 누구의 딸이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계시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아이들의 볼을 막 비비였다고 한다. 그렇게 한 명한 명 찾아낸 유자녀가 수십 명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장군님, 1차로 찾아낸 유자녀들을 데리고 곧 조국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보를 쳤다. 나는 그 짤막한 문구들에서 혁명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킨데서 오는 임춘추의 격정과 희열을 느끼였다.

임춘추는 수많은 유자녀들과 혁명열사의 가족들을 찾아서 조국의 품으로 보내주었다. 그때 학원에 입학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도 되고 도당책임비서로도 되고 인민군장령으로도 되어 일을 잘하고 있다.

임춘추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얼마동안 지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성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으로 출장을 올 때마다 모란봉에 올라가 투사들의 묘소옆 잔디밭에 백포를 펴고 잠을 자군 하였다고 한다. 시내의 여관에서는 아예 유숙할 잡도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의 모란봉에는 김책, 안길, 최춘국, **김정숙** 등의 묘소가 있었다. 한지에서 그것도 전후좌우에 전우들의 무덤이 있는 산등성이에서 한 장의 백포에 몸을 맡기는 그런 노숙이라 잠이 잘 올 리가 만무하였다. 하건만 임춘추는 평양에만 오면 무작정 모란봉에 올라가 전우들의 무덤곁에 잠자리를 정하군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훗날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아, 조국이 당신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은 때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잠들고 있는가. 장군님께서 지금 조선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아는가?≫고 하면서 무덤속의 전우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때여서 시민들 중에는 모란봉의 무성한 초목속에서 투사들의 혼백이 고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떤 허우대 큰 사나이가 이따금씩 그 혼백을 안고 자다가는 첫아침에 조용히 모란봉에서 내려오군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임춘추야말로 의리가 있는 참사람이며 참투사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항일유격대식 의리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의리와 사랑에 대한 미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이 창조한 것보다 더 숭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의리를 나는 모른다.

임춘추는 항상 자기를 **김정일**동무의 늙은 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지도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김정일동무 역시 임춘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그는 늘 임춘추동지가 앉아계시기만 해도 우리 당과 국가에는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그를 극진히 아끼고 돌보아주었다. 임춘추에 대한 **김정일**동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는 로혁명가들에 대한 지도자의 고결한 의리가 반영되어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마련된 항일유격대식의리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혁명적 의리와 절개를 잘 지킨 것은 아니였다. 우리 대오에서도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변절자나 낙오자가 생기였다.

입만 벌이면 혁명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절개를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대원들은 모두 상심하였다. 어제날까지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부르고 혁명승리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적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질 때 병사, 지휘관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감을 무슨 말이면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변절자들이 한두 명 생겼다고 하여 십 년 쌓은 성벽이 무너질 수 없었다. 우리는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의 백색테러에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제18장



중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새로운 정세를 맞받아
김주현
농민을 준비시키던 나날에
독립여단시절의 최춘국
9월 호소문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 시기 : 1937. 6 ~ 1937. 11

1. 새로운 정세를 맞받아

우리가 노구교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은 간삼봉전투가 있은 후인 1937년인 7월 중순경이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9.18사변이 새로운 ≪9.18≫을 낳게 되고 일제의 만주강점이 침공에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해왔었다. 그러나 막상 노구교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중일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정세발전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이 앞으로의 세계정세와 조선혁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였고 조성된 정세를 우리 혁명에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중에는 세상에 노구교라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자체를 아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누구도 이 다리에서 한밤중에 울린 총소리가 근 3,000일 동안이나 중국 땅을 피바다에 잠그고 대전의 소용돌이속에 세계를 휘몰아 넣는 전주곡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1939년 9월 파쑈독일의 폴란드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로 보는 것이 일반의 공인된 견해로 되고 있지만 그보다 2년 앞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노구교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중일전쟁은 9.18사변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세우고 완성시켜온 대아세아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가 만주를 삼켜버린 그때 벌써 세계의 진정한 여론은 그들이 멀지않아 중국관내로 쳐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실지로 일제는 동북3성을 강점한 후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1933년 1월의 상해관공략과 화북지구의 침입, 열하작전에 의한 성소재지 승덕의 점령, 진황도상륙, 하북성 동부지구에로의 진격 등 이 모든 군사작전은 일본군대가 만주사변을 도발한 후 몇 해 사이에 있은 것이며 미구에 감행하게 될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의 한 측면이였다.


노구교를 건느는 일본군

장개석국민당정부는 일제의 화북침공에 항전으로 맞설 대신 인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국배족적인 ≪당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만리장성 이북의 광대한 땅덩어리를 사실상 일제의 점령지로 내맡겨버리고 화북을 일제의 감시와 통제밑에 놓이게 하였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결국 일제의 침략적 야망과 전쟁광증을 부추겨주는 것으로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서 화북의 친일세력은 ≪화북5성 자치운동≫이라는 것을 벌이었다. 이른바 ≪독립≫을 요구하는 이러한 매국운동의 결과로서 친일적인 ≪기동방공자치정부≫가 조작되었다.

이런 계단식 방법으로 만주전역과 화북의 명맥을 완전

히 틀어쥔 일제는 1936년초 배일운동의 엄격한 단속과 중국, 만주, 일본의 경제적 합작, 공동방공 등을 골자로 하는 ≪대 중국 외교방침≫이라는 것을 내걸고 중국관내에 대한 침략준비를 노골화하였다. 일독≪방공협정≫의 체결은 새 전쟁준비를 부추기고 조장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 되었다. 장개석국민당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자세와 매국배족적인 정책은 일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을 마음 내키는대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의 중국본토침략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저울대에 오른 그때에도 장개석은 대내적으로는 홍군을 포위공격하고 인민들의 항일구국운동을 탄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굴복하는 ≪안내양외≫정책을 추구하면서 대일타협노선을 견지하였다. 장개석의 비굴한 대일협조정책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의 중국관내침략을 묵인해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노구교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의 조작에로 일본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되었다.

일제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단행하게 된 것은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의 응당한 산물이기도 하였다.

1937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공황의 파도는 또 다시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열강들은 새 시장들을 개척해보려고 혈안이 되었다. 시장쟁탈을 위한 싸움은 열강들 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었다. 이러한 모순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의 이권을 둘러싼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구미열강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도를 중국과의 전면전쟁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 전쟁만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 영 세력을 구축하고 일본을 아세아의 맹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일독방공협정체결

이에 대한 미, 영의 태도는 양면주의적이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무분별한 침략적 망동을 제한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제의 침략을 조장시키었다. 그리고 일본을 사촉하여 반쏘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미, 영은 이런 방법으로 저들이 중국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화북사변 후 일본제국주의는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동아대륙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양으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기본국책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중국과 쏘련에 대한 전쟁정책은 전쟁정책대로 추진시키면서 동시에 시기를 기다려 동남아방향으로 남하하려는 전략적 방안이었다.

고노에내각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불간섭≫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중국내부에 아직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확고히 성립되지 못하고 있던 유리한 기회를 타서 마침내 중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대는 군사연습 중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완평현성에 대한 수색을 무리하게 요구해 나섰다. 이것을 발단으로 하여 충돌이 야기되었다. 일본군대는 송철원의 29군이 저항해 나서자 노구교를 점령하고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노구교사건은 하나의 자그마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만큼 현지교섭으로써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고 있던 군부의 압력밑에 고노에내각은 7월 11일 일본에 있는 불확대를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이 별치않은 사건을 중일전쟁을 확대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8월 13일에 일본군은 벌써 상해를 공격하는데 이르렀다. 노구교에서 울린 총성은 드디어 중일간의 큰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전술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며칠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지며 우리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에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줄곧 사색을 거듭하였다.

중일전쟁은 일제가 화북이나 먹고 물러앉을 국지전이 아니였다. 또 만주사변처럼 몇 달 동안에 속전속결된 성격의 싸움도 아니였다. 이 전쟁은 그 자체가 장기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으며 지역전쟁,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일교전쌍방 외에 제3의 나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일, 쏘 충돌이 불가피하는 사실이였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조선과 만주는 로, 일 각축전의 중요한 마당이였다. 그것이 금세기 초에 있었던 러일전쟁 발발의 주되는 원인으로 되었다. 쏘련이 성립된 후에도 일본의 대륙침략야망으로 하여 여전히 쏘일간의 관계는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전야에도 쏘련과 일본은 아무르강상에 있는 두 개 섬의 영유권문제를 놓고 아슬아슬한 대결상을 보이였다. 그것은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배태한 대결이였다. 모스크바에서의 직접적인 외교적 교섭으로 분쟁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일본은 그 후에도 일만공동방위라는 명분밑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쏘련과 맞섰다.

세계의 대다수 여론이 쏘일간의 이 분쟁으로 큰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전혀 무근거한 것이 아니였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본토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몽골과 쏘련의 원동부분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였지만 일본은 쏘련과의 전면전쟁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날을 따라 강해지고 있는 쏘련의 국력과 국방력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조건에서 쏘련과도 전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였다. 일본은 두 개의 대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국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적지 않은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전쟁이 확대될수록 우리 혁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천진역부근에서의 교전

나는 중일전쟁발발에 대처한 전략적 방침을 한시바삐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할 절박성을 느끼었다. 1937년 7월 중순 백두산밀영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와 그 해 8월초 장백현 초수탄에서 소집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는 이 방략을 확정한 회의들이였다. 우리는 이 회의들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릴 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동희, 이제순을 비롯하여 백두산지구와 국내에서 활

동하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서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적배후교란작전을 강화하며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백두산서남부일대와 국내에 더 많은 지하조직을 내올 데 대한 문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공작소조들이 낭림산 줄기를 이용하여 혁명근거지를 꾸리며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파, 장백현 하강구 일대에서의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하부조직건설 정형, 군중정치사업과 유격대원호사업 정형을 요해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토의하였다.


일본군에게 총탄을 안기는 중국병사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자기 나라를 세계5대강국의 하나, 3대해군국의 하나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열강들도 그런 눈으로 일본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조만간에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일제가 초기에도 비록 중국의 항전역량에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우세를 차지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부정의의 전쟁은 항상 내부모순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국내에서의 전쟁세력과 반전세력간의 모순과 동반하는 법이다. 자국내에서의 전쟁세력과 반전세력간의 모순과 이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열강들간의 모순은 일본의 전쟁수행에 제동을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구라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동맹국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확대하고 ≪남방진출≫을 단행하게 되면 그것은 불피코 제국주의열강들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끝없는 치부욕과 팽창욕에 환장이 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한 다음 그것을 채 소화하지도 않고 연방 중국본토까지 삼키겠다고 욕심사납게 덤벼들었지만 그것은 고양이가 소대가리를 맡은 격이었다. 일본이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제는 중일전쟁발발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 식민지통지기구들을 더욱 강화하고 완비하였다. 각종 파쑈악법들이 새롭게 조작되어 인민들의 사상과 육체를 무시무시하게 얽어매였다. 1931년부터 실시하여오던 ≪군기보호법≫도 전시환경에 맞게 개악되었다. 적들은 ≪전시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특수한 사명≫이니 ≪대륙정책수행에서 조선이 걸머쥔 임무≫니 뭐니 하면서 모든 것을 전쟁수행에 복종시키었다.


베이징 광안문으로 입성하는 일본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약탈은 경제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적들은 인적 자원도 사정없이 약탈하였다. 청장년들을 징발하여 전쟁판에 내몰았고 막대한 노동력을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장들에 강제로 동원시키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할 바 없이 강해지고 악랄해

진 일제의 파쑈적 폭압과 경제적 약탈은 우리 민족의 처지를 참을 수 없는 막바지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일전쟁으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영활하게 이용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초수탄에서 열린 군정간부회의에서도 정세를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조직건설의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였지만 초수탄회의에서는 적배후교란작전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항일연군부대들과의 협동작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협의하였다.


주재일

나는 이 회의에서도 역시 두만강, 압록강 연안일대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강화하여 국내에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데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적배후교란작전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벌이기로 하였다. 하나는 낭림산줄기에 의거하여 밀영망을 꾸리고 국내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민항쟁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격전의 방법으로 일본침략군의 중국관내에로의 기동을 가로막고 그들의 전략작전을 파탄시키는 것이었다.

초수탄회의에서는 새로 세운 전략적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부대들의 활동지역을 실정에 맞게 분담하였다. 국내에 파견할 무장소조와 정치공작소조 문제도 협의하였다.

적들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우리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의 군경우두머리들은 우리가 새로운 활동방침을 세우고 부대를 개편하고 활동지역을 분담하였으며 8월 29일의 국치일을 계기로 만주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고 국내에로 일제히 쳐들어갈 것을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응책을 세우느라 복닥소동을 피웠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사실이 적들의 비밀문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초수탄회의를 마치고 장백, 임강, 현경으로 다시금 나가기에 앞서 나는 동북항일연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과 적배후교란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증민을 만났다. 그 당시 위증민은 만강의 상류인 화피하기슭의 동만강밀영에서 정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을 동만강밀영으로 안내한 사람은 중대정치지도원이었던 주재일이었다. 그가 동만강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주재일은 강원도태생이었지만 어렸을 때 화룡지방에 가서 살다가 어랑촌에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유격구가 해산될 때 화룡에서 살던 여섯 세대가 초수탄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중 한 세대가 주재일이네 집이었다. 주재일은 반일부대에서 사업하다가 1937년 3월에 자기 처와 함께 우리 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때 우리는 그를 반일부대출신의 중국인병사들이 많은 중대에서 정치지도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가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풍습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경위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있다가 연대정치위원으로까지 승진하였다. 주재일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사히 안내하였다.

위증민은 중일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협력을 잘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조선인민들의 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들

은 지금까지 중국혁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조선동지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전호속에서 고락을 같이한 나날들은 두 나라 역사 뿐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역사에도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사령, 조선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을 오늘은 중화민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조선인민이 우리의 편에 확고히 서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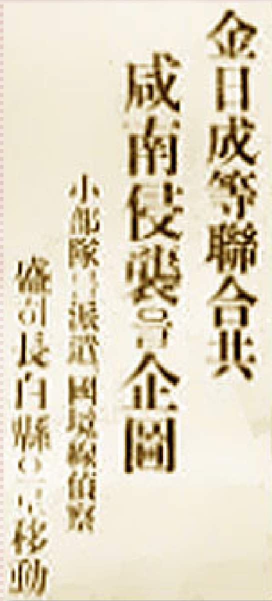
위증민의 말은 매우 절절하였다.

2군 정치위원이며 남만성위 서기의 중책을 지닌 그는 진실을 담아 이야기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반민생단 투쟁의 극좌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과적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증민은 그 누구보다도 조선공자주의자들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다. 나는 그가 조선인민을 동정하고 조선공사주의자들의 투쟁을 여러 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응당한 경의를 표시하여왔다. 그도 시종일관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었다.

위증민은 동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항상 높이 평가하군 하였다.

이날 위증민은 중일전쟁이 터진 후의 중국의 내외정세와 중국공산당의 대일전쟁방침에 대하여 상세하게 통보해주었다. 그 통보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새로운 국공합작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 애국인사들의 움직임이었다.


金日成等聯合共
咸南侵襲을企圖
小部隊로 張武 國境線偵察
盛히 長白縣으로移動

조선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 활동을 보도한 당시 신문

7.7사변이라고도 불리우는 노구교사건이 있은 다음날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이 다 떨쳐나서는 항일전쟁만이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민족통일전선의 튼튼한 장성을 쌓아 왜놈의 침략에 저항하자.≫고 전국에 호소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국공합작을 공포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언≫을 국민당 중앙에 보내였다.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측에 내전의 중지와 국공합작을 호소하는 제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고 관내에로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국민당은 공산당을 반대하고 노농홍군을 ≪토벌≫하는데만 열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항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장개석은 방대한 군사역량을 동원하여 서금에 있는 중앙쏘비에트를 없애버리려고 무려 5차례에 걸쳐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벌이었다. 국민당은 외적보다 공산당을 오히려 더 적대시하였다.

중국공산당도 당시까지는 항일에 주력을 돌릴 수 없었다. 공산당의 주공방향은 토지혁명과 국민당과의 싸움이었다. 외적이 침노하였을 때에는 내전을 일시 중지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항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제2차 국내혁명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내전과 내분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섰다.

그 후 중국공산당은 대세에 맞게 항일제일주의의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갔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북상항일≫의 구호밑에 역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을 단행하여 섬감녕변구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 후 그들은 ≪동정항일≫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나섰다.

중국공산당은 그 후 ≪반장항일≫로부터 ≪연장항일≫로 구호를 바꾸고 국공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이 노력은 서

안사변을 계기로 심화되었으며 중일전쟁이 발발된 후 여산에서 진행된 장개석과 주은래의 담판으로써 마침내 그 열매를 다시 얻게 되었다.

나는 여산담판때 주은래가 장개석과 만주와 화북 그리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활동을 적극화할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위증민의 말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었다. 그것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항일전쟁수행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영도하는 무장투쟁에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택동

1937년초 모택동은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전중국 구국회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 항일주의가 가능하다는 산 실례로 동북에서의 항일유격대활동을 들었다. 그는 동북지방의 항일유격대가 몇 해 어간의 투쟁에서 10만 이상의 적유생역량을 소멸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줌으로써 중국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공을 견제하고 지연시켰다고 썼다. 동북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업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증민과 나는 일제가 시베리아보다 중국본토를 먼저 삼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적배후교란의 대부분의 부담은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보다 동만이나 남만의 항일유격부대들이 많이 져야한다는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였다.

그날 위증민은 의견을 교환하던 과정에 공헌영의 부하가 남경정부 밀사의 자격으로 수련경내를 거쳐 2군 지도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남경정부 밀사가 만주로 온 것은 국민당의 남경정부가 동북항일역량과의 합작을 각방으로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헌영은 왕덕림의 구군군에서 부사령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왕년에 우리와 함께 인민혁명군을 창건하는데서도 한 몫 하였다. 공헌영은 쏘련원동군사령부의 연락을 받고 일부 인원들과 함께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관내로 들어갔다. 관내에서의 그의 활동이 주목할만하였다. 그는 이두, 왕덕림 등과 함께 남경정부와도 연계를 가지고 장학량의 구동북군과도 관계하면서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동북의용군 총사령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남경국민당정부와의 연계밑에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한 외부적 자원을 종종 조직하곤 하였다. 공헌영이 우리에게 남경정부의 명의로 밀사를 파견한 것은 그가 만주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은래

밀사도 공헌영과 마찬가지로 동만에서 반일투쟁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밀사는 관내에서의 투쟁과 동북에서의 투쟁을 하나로 연결시킬 필요를 강조하면서 관내에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농홍군이 국민혁명군 소속부대들로 개편되어 장개석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에서 작전적 구상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관내실정과 동북실정의 구체적 차이점과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상대적 독자성을 들어가면서 그가 제기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남경정부 밀사는 우리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제기를 철회하

였다. 그러면서도 관내와 동북지방의 불가분리적인 연관에 대하여 잊지 말고 호상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지하고 협조해줄 것을 그루를 박아서 강조하였다.

우리는 관내투쟁을 돕는 의미에서 동북3성과 조선에서 일제의 배후를 철저히 타격할 것을 공약하였다. 밀사는 자기가 쏘련을 경유할 때 중일전쟁과정에 생기는 부상병들의 치료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니 상병자들이 생기면 필요한 때 약속된 통로를 거쳐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쏘련에 노약자들을 보낸 전례도 있고 또 자기의 통로를 따로 가지고 있었지만 밀사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앞으로 그 통로도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증민과의 담화를 통하여 나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전략에서 우리와 중국공산당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배후교란작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박장춘

위증민과 헤어진 후 우리는 장백-임강현경의 어떤 밋밋한 산능선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가지었다.

회의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비슷한 수직굴이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장난군이 그 굴에 돌을 굴려 넣었는데 한참만에야 첨벙하는 소리가 났다. 높은 산능선 바위틈에 어떻게 그런 굴이 생겨났는지 신비스러웠다.

이 회의에서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략과제가 상정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지휘관, 병사들의 결의가 피력되었다. 오늘날의 결의모임 같은 회의라고 할가. 백두산밀영과 초수탄에서 열린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였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대회에 대하여서는 혁명역사 전문가들과 저술가들이 글을 많이 썼고 회의에 참가했던 투사들도 여러 기회에 회상하였기 때문에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백두산회의와 초수탄회의, 지휘관 및 병사대회는 다 중일전쟁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 대안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중일전쟁 첫 시기부터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적배후교란작전을 과감히 벌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노구교사건직후에 장백현 19도구 마순구부근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를 벌이었다.

이 시기 민족혁명당의 기관지 ≪전도≫는 우리의 적배후교란작전을 두고 ≪이것은 확실히 조중 양국민족의 위대한 연합전선의 제일성≫이라고 썼다.

이 시기 적배후타격을 위하여 최현네 부대도 장백을 떠나 임강, 통화, 유하, 몽강으로 이동하면서 거듭 전과를 올리었다. 안길과 박장춘도 강건부대와 연합하여 적들을 통쾌하게 족치였다. 김책, 허형식 등이 진행한 해륜원정과 심양철도연선까지 진출한 남만부대들도 적의 배후를 크게 타격하였다. 우리의 무장소부대와 정치공작원소조들은 국내 종심 깊이에 침투하여 도처에서 적들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조선과 만주에서 조중공산주의자들이 벌인 정치군사활동과 치열한 배후교란작전은 중국의 항일진영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蔣介石氏·突如監禁さる

張學良氏兵變を指揮

對日宣戰、容共を通電す

새로운 국공합작의 길을 열어 놓은 서안사변

중국을 단숨에 먹어보겠다던 일제의 허망한 꿈

은 북중국과 상해계선에서 중국인민들이 벌인 투쟁과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동북지방 항일연군부대들의 적극적인 배후교란작전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일격론≫, ≪단기종전론≫을 떠들던 일본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적배후교란작전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임강현 신태자밀영에서 당시까지의 배후교란작전정형을 총화하고 조선국내에서의 배후교란과 적의 군사수송체계, 특히 무기와 탄약 운반을 파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대표적인 전투가 휘남현성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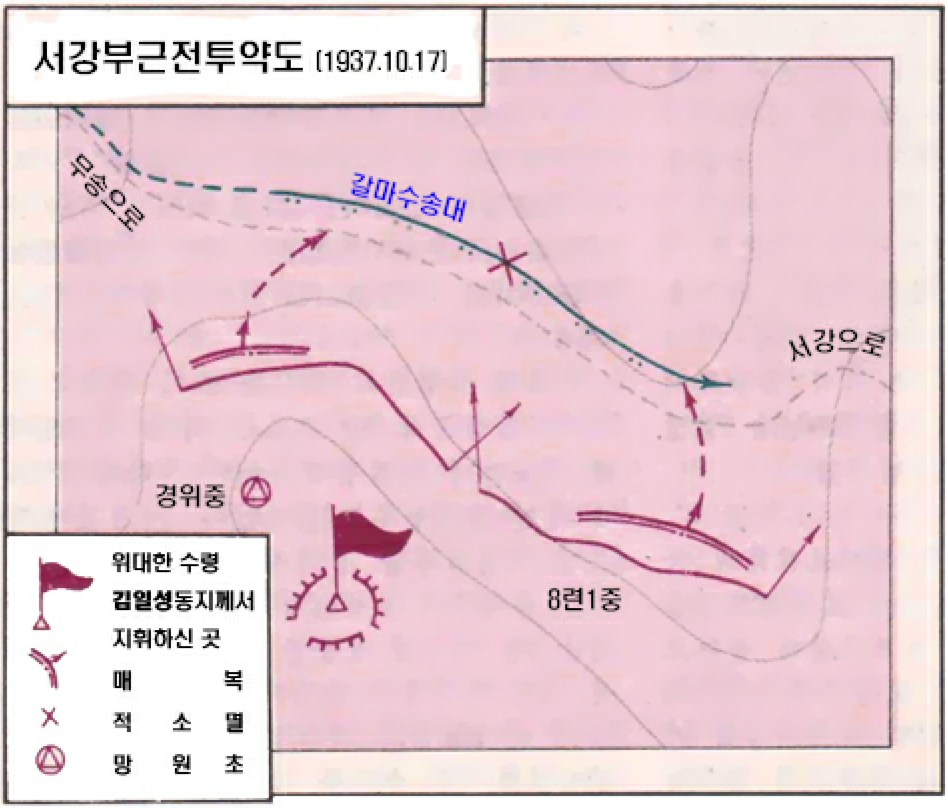


김영환

휘남현성은 교통이 발달된 평지의 성시여서 습격하기가 매우 불리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는 길해선이 있었다. 휘남근처의 여러 곳의 적의 ≪토벌대≫의 거점으로 꾸려져 있는 조선에서 성시공격에 성공한다 해도 제때에 철수하지 못하면 적증원부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었다. 휘남현성진공이 여러 모로 보아 불리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전투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7연대를 파견하고 새로 편성된 이동학, 최춘국이네 경위연대와 4사의 일부를 참가시킨 것은 이 현성이 적배후교란작전의 타격대상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 휘남현성은 적의 주요 ≪토벌≫거점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일대 여러 현들에 파견되어 있는 위만군부대들의 후방기지이기도 하였다. 성안에는 두 개의 큰 군수품창고가 있었다.

이 현성진공전투에는 항일연군부대들과 함께 반일부대들도 참가하였다.

아군은 불의에 성안에 쳐들어가 적의 군수품창고에서 많은 천과 솜, 식량을 빼앗



은 다음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현성습격전투 후 아군부대들은 해룡, 반석, 몽강 등 방면에서 밀려오는 일본군과 위만군의 증원부대들을 다시 한번 호되게 타격하였다. 휘남현성전투에 앞서 우리 주력부대가 진행한 무송-서강매복전투도 배후교란작전에서 자못 의의가 컸다. 적배후 교란 작전의 나날 우리는 이달경, 김영환, 전철산 등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다.

김영환은 왕청에서 공청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격구시절에 그를 연길유격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파견하였다.

1937년 12월 김영환은 연길땅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철산

전철산은 훈춘유격대출신이었다. 우리는 노흑산전투 때 그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 후 그는 왕청 4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소환되었다. 그에 대해서도 오진우가 잘 안다. 전철산은 1937년 9월에 액목에서 전사하였다.

이 시기 우리는 남만에서 조국광복회 대표로 사업하던 이동광도 잃었다. 유능한 정치일군이었고 용감한 유격대지휘관이었던 그의 희생을 두고 양정우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돌려주었다.

적의 남만 ≪토벌≫작전때 이동광은 통화중심현위가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적의 ≪토벌≫사령부가 있는 고산자를 거쳐 유하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약장사로 가장한 채 두 명의 호위성원만을 데리고 대낮에 적들이 욱실거리는 고산자거리에 들어섰다.

골목골목에는 이동광을 잡으라는 체포영장이 나붙어있었다. 그 체포령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 있었다.

≪남만특위 공산비적 두목 이동광 연령 30세 좌우, 키꺽다리, 반고수머리, 눈이 특별히 큼.

이자를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금을 주며 숨기는 자는 극형에 처함.≫

이동광은 자기에 대한 체포령이 나붙은 게시판에 마주서서 태연히 다 읽어보고서야 여유있게 거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동광, 이달경, 김택환, 김영환, 전철산의 생애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빛나는 모범이었으며 적배후교란의 자욱을 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넋을 더운피로 역사에 아로새긴 고귀한 노정이었다.

내 일생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 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 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을 써온 것은 나 개인의 취미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이 제기한 요구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세계를 뒤흔드는 복잡한 정국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가 만일 방어나 후퇴, 우회하든 방법에만 매달렸다면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때 역경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전략이 천백 번 옳았다고 생각한다.

2. 김주현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대장 김주현

김주현은 우리 인민들속에 항일유격대의 가장 대표적인 후방일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는 후방사업에만 능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우수한 군사지휘관이기도 하였으며 유능한 정치공작원이기도 하였다. 원래 그는 유격대에 들어오기 전에 지하조직사업에 많이 관여하였다.

내가 김주현을 알게 된 것은 항일유격대 뭇기 전부터였다. 1931년에 우리가 흥륭촌에서 무장투쟁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주현은 대사하 고등창이라는 마을에서 농민협회와 반일동맹조직을 책임지고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그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소사하구 당조직책임자였던 김정룡이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허심하고 솔직한 사람이였다. 어느 날 나는 김정룡에게서 김주현이 독립군출신들을 반일동맹조직에서 몽땅 몰아낼 잡도리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를 찾아갔다. 편협한 사람들로부터 독립군에 대하여 나쁜 소리만 들어온 김주현은 독립군출신들을 투쟁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혁명에서 통일전선이 가지는 의의와 반일애국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군출신들에 대하여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품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김주현은 다음날 자기가 축출하려던 독립군출신유지들을 찾아가 사죄하였다. 유지들은 김주현을 돼먹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김주현은 일하는 과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 의논하군 하였다. 나도 가끔 그의 집을 찾아가군 하였다. 8살이라는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럼없는 친구로 되었다. 1931년이면 내가 항일유격대 대장을 하던 때도 아니였다. 그렇지만 김주현은 나의 의견을 항상 허심하게 받아들이였다.

나는 그의 겸허성에 매혹되였다.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덮어놓고 다 지지하였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김주현을 누구도 휘여잡을 수 없는 옹고집쟁이라고 하였다. 그가 결혼하고 세간나던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연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였다.

김주현이네 일가는 원래 함북도 명천땅에서 살다가 가난 때문에 화룡땅에 옮겨앉은 가정이였다. 더그나 애어린 시절에 떠나온 고국땅을 늘 그리워하던 김주현은 서당공부를 마치자 어대진에 나가 어업노동을 하면서 잔뼈를 굳히였다. 김주현의 형은 장가갈 나이가 지나도록 집에 돌아올 궁리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타관에 머물러있는 동생을 억지로 대사하에 데려다가 이미 자기들이 점찍어둔 이웃동네의 처녀와 강제약혼을 시켰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채 부모들끼리 맺은 혼약이였던만큼 김주현은 약혼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다.

그는 부모들끼리 약혼식을 하건말건 연해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 구산학교선생한

테만 뻔질나게 드나들며 러시아혁명바람을 쏘이다가 집에서 잔치준비를 서두르는 것을 보자 아버지에게 자기는 낯도 코도 모르는 여자와 짝을 무을 생각이 조금도 없느라고 실토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만 여기고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잔치날을 며칠 앞두고 신랑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부모들은 큰 변고가 났다고 걱정하였다. 처녀의 집에서도 야단법석을 하였다. 김주현의 형은 동생의 행방을 찾으려고 온 겨울 집안 일을 전폐하고 돌아다니며 간도땅을 발칵 뒤지다가 구산학교선생한테서 동생이 러시아에 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갖은 신고를 다한 끝에 러시아에 가서 동생을 데려왔다. 김주현은 결혼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가 돌아오기 바쁘게 집에서는 벼락잔치를 하였다.

그러나 김주현은 잔치를 한 다음에도 집에서 직심스럽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늘 밖에 나가 살았다. 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그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었다. 세간을 내여 딴 살림을 시키면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눌러앉아 농사를 지으리라고 속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처사는 오히려 김주현의 혁명열에 부채질을 해주는 격으로 되었다. 그는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 집에서 조직을 꾸리고 군중을 계몽시키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하였다. 나중에는 집안에 땅굴을 파놓고 갓 시집온 안해까지 혁명사업에 끌어들이었다. 김주현의 아버지는 손을 들고 나앉으면서 개탄하였다.

≪그놈의 고집은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주현이 아주 줏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의사와 결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완강하게 헤쳐나가는 김주현의 그 성미는 우리 마음에 퍽 들었다.

김주현은 바로 그런 완강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우리가 안도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한지 얼마 안되어 화룡땅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지휘성원으로 활약하였다.

몇 년동안 서로 헤어져 활동하던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한 부대의 식솔로 된 것은 마안산에서 새 사단을 편성하던 무렵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새로 편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우리를 찾아 마안산으로 달려온 것이 김주현이네 소부대였다. 간부감이 발라서 애를 먹고 있던 차에 그가 와주니 귀인을 만난 듯이 반가왔다.

당시는 부대의 세간을 맡아볼 사람도 없어서 연대정치위원 김산호가 그 일까지 겸하여 보고 있을 때였다. 부대를 편성하는 기회에 나는 김주현을 사령부후방부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주현은 부대의 후방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별로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후방부문의 대원들을 다몰아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어렵지 않게 구해들이고 부대살림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유능한 후방일군으로서의 김주현의 뛰어난 솜씨는 부대가 백두산지구에 나와서 활동하던 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그가 한번만 출동하던 인차 지원물자를 진원군대열이 꼬리를 물고 밀영으로 밀려들곤 하였다. 일단 마음먹은 것이면 그는 무엇이든지 다 구해들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에 걸쳐 1937년 설처럼 명절은 흔치 않았다. 그것도 김주현이 백두산에 와서 처음 맞는 설인데 허술히 쇨 수 없다면서 마음먹고 준비한 덕이었다.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마련한 600여벌의 군복, 군모, 행전, 탄띠, 배낭감들과 천막감 그리고 또 그만한 수량의 신발들과 막대한 식량들도 그가 책임지고 오중흡과 함께 구해들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김주현을 두고 제 색시 하나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지만 그는 두 주먹밖에 가진 것이 없는 백두산에서 수백 명 식구들의 식의주 문제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많은 일을 하였다.

내가 김주현의 수고와 후방사업성과를 치하하면 그는 서간도 인민들이 좋은 인

민이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잘된다고 하였다.

부대의 살림살이 때문에 늘 입술이 부르터 가지고 눈에 충혈이 가셔질 새 없이 돌아다니는 김주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된 인민들은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김주현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항상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인민의 아들이 되었으며 대원들속에 돌아오면 다심하고 후덕한 어머니로 되었다. 서간도 사람들은 그를 가르켜 ≪우리 김부관≫이라고도 하였다.

김주현은 아무리 굳게 닫긴 마음의 문도 어렵지 않게 열어제끼는 독특한 수완과 특이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정으로 대하며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검박하고 겸허하게 처신하는 참사람으로서의 인간적 향취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김주현이 후방사업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공작에서도 매번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김주현의 후방사업에서 독특한 점이라고 본 것은 그가 매사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데 있었다. 가령 우리가 후방부에 군복제작과 관련한 과업을 주면 그는 아내일군들에게 사령부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되받아 넘긴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의 절박성과 수행방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정치사업능력을 귀중히 여긴 나는 어렵고 복잡한 정치공작임무가 제기될 때마다 자주 그를 찾군 하였다. 나는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하여 선발대를 파견할 때에도 김주현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 선발대를 파견한 목적이 단순히 백두산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하고 부대의 이동통로를 개척하며 국경지대의 적정과 인민들의 동향을 알아오는데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반일지하혁명조직들을 내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찾아내고 준비시키는데 있은 것만큼 반드시 정치공작을 병행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주현은 그때 자기가 받은 정치공작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그가 백두산지구에 선발대로 나가서 이룩해놓은 업적은 응당 글로 써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소백수골, 곰산, 사자봉, 선오산, 곰의골, 지양개골, 덕수골을 비롯한 백두산지구의 밀영후보지들은 모두 김주현이 인솔한 선발대가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지양개, 소덕수, 신창동, 판도거리, 종리원촌, 평강덕, 상풍덕, 도천리, 삼수골과 같은 서간도의 여러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발굴하였으며 혁명군의 후비원천도 적지 않게 마련해놓았다. 김주현일행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담겨진 우리의 혁명노선을 국내와 서간도의 넓은 지역에 전파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김주현선발대의 사업성과는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을 한 단계 비약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로 되었다.

힘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일먼저 찾게 되는 사람, 김주현이 우리 부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대의 보배였다. 그의 혁명임무에 대한 강한 책임성과 높은 정치적 자질, 능숙한 조직적 수완, 노련한 사업방법은 모든 지휘관들이 귀감으로 삼을만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김주현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김주현의 업적과 사업능력을 늘 좋게 평가하고 있던 나는 1937년 8월중순에 그를 국내로 파견되어가는 소부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1937년 8월이면 중일전쟁이 폭발한 직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는 이 전쟁의 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적의 배후를 크게 교란시키고 항일혁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 계단 더 앙양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계획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유능한 인원들을 선발하여

소부대를 뭇고 그들을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선견대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국내의 혁명조직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진, 길주, 명천, 단천 등 함경북도 남부와 함경북도 북부 해안지대의 산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연계를 가지려고 안타깝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해왔다.

소부대의 기본임무는 그런 애국청년들을 찾아내여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였다. 무장투쟁에 참가할 수 없는 허약한 사람들은 그밖에도 소부대는 주민들속에서 지하조직과 무장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과 인재탐색사업도 겸해서 하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백두산줄기와 마천령산줄기, 부전령산줄기들에서 무장투쟁거점으로 삼을만한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할 데 대한 과업도 동시에 주었다.


정일권

그 사명의 중대성으로부터 우리는 쇠소리나는 쟁쟁한 사람들로 소부대를 꾸리였다. 거기에는 박수만, 정일권(옹조꼬맹이), 마동희, 김혁철과 같이 이미 정치공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망라되어있었다. 대장이 능란한 지휘관인데다가 대원들도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꾸려진 것만큼 소부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컸고 그들의 기세와 결의 역시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들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오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나는 소부대를 떠나보낼 때 김주현에게 그 이상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도를 속속들이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였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열 가지를 풀이해내는 것이 김주현의 특징이였다. 그런 이유로 하여 나는 그에게 무슨 과업을 줄 때면 장황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건대 김주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였다.

짧아서 너덧 달, 길어서 대여섯 달 후에는 소부대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리라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기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부대는 떠난 지 한 달이 좀 지나 문득 부대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사태였다. 나는 김주현의 얼굴빛을 보고 국내공작이 실패로 끝났음을 즉시에 간파하였다. 그의 보고는 나를 아연케 하였다. 소부대는 애국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성진지방에 가닿지도 못하고 갑산땅에서만 맴돌다가 되돌아왔던 것이다.

이제순의 신흥촌 통로를 거쳐 국내에 들어간 소부대는 박달의 조직선을 타고 혜산쪽으로 나가다가 그곳 지방조직으로부터 일본의 금광업자들이 본국으로 약탈해가는 금괴들이 증평광산에 보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주현은 그 통보를 받자 광산을 쳐서 금덩어리들을 빼앗아 내기로 결심하였다. 후방일군으로서의 직업적인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되었던 것이다. 사실 금괴를 몇 개만 손에 넣으면 그것은 부대의 후방사업을 위해서 횡재로 될 수 있었다. 광산을 습격한 소부대는 얼마간의 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신 소부대 성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증평광산에서 울린 총소리를 듣고 크게 놀란 적들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소부대를 추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광산에서 철수한 소부대는 덕산동뒤산에 올랐으나 사면포위의 위험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김주현은 한 장의 통고장을 써서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 멍텅구리들아, 신출귀몰하는 혁명군을 아직 모르느냐,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간다!≫

통고장을 읽어본 적들은 압록강쪽으로 밀려갔다. 그 틈을 타서 김주현은 소부대

를 이끌고 적들의 포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소부대는 요행 포위망에서 벗어났으나 국내깊이에로 더 들어갈 수 없었다. 함경남북도의 산악지방들과 유격대공작원들이 다닐 수 있다고 보는 길목들에 적들이 벌써 한 벌 쭉 깔려 있었기 때문이였다. 김주현은 차후에 다시 기회를 보아 국내에 들어가 공작임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단 부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하여 절정으로 치닫아오른 우리 인민의 독립열망과 청년들이 참군열의에 편승하여 국내항일무력을 창설하고 무장투쟁의 불길을 동해안일대에까지 확대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김주현소부대의 황당한 모험과 혹심한 자유주의로 하여 뒤로 밀리우게 되였다. 마천령산줄기에 만날 장소까지 정해놓고 소부대를 기다리던 국내의 애국청년들도 혁명군의 사절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실망을 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였다.


김주현

소부대가 공작현지에 침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소식은 유격대원들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었다. 지하공작에 그처럼 능한 김주현이 공작현장까지 가닿지도 못하고 초입에서 되돌아섰다면 국내의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하면서 다들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자칫하다가는 무장투쟁의 국내확대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생길 수 있었다. 김주현의 실책은 이처럼 수습할 수 없는 것이였다.

나는 김주현이 실책을 범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소부대의 활동을 파탄시킨 그의 과오는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김주현의 자유주의로 해서 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작전과 국내진공작전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공백이 생긴 셈이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가 동해안쪽으로 그냥 나가서 애국청년들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생각에 종종 잠기군 한다. 그만큼 그 당시 나의 실망과 좌절감은 여간 크지 않았었다.

나의 분노도 보통정도를 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의 그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김주현에게 한마디의 추궁이나 책망도 할 수 없는 것이였다. 아마 노여움이나 실망이 극도에 달하면 꾸지람도 나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나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사령부당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김주현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동지들은 저마다 그가 범한 과오의 엄중성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려치기도 하였다. 아마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비판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김주현은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사람처럼 맥없이 앉아있었다.

그날 사령부당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당하게 분석한 바와 같이 김주현이 극심한 자유주의를 범하게 된 근본원인은 소총명과 자고자대로부터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본데 있었다. 그는 소부대의 임무를 전략적인 높이에서 새겨두지 못하였다. 그런대로부터 금덩어리란 말을 듣게 되자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였던 것이다. 김주현은 광산을 치면서도 그에 대한 후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당시 그는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속심이였다. 말하자면 광산을 쳐서 금덩어리도 털어내고 청년들을 만나 무장부대도 조직하고 싶은 욕심이였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 고백을 진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고백속에는 한 마디의 허위도 없었다. 우리는 김주현이 얼마나 솔직하고 결백한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의도는 어떻든지간에 소부대가 공작현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으니 전부대가 그들의 행위에 격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나는 김주현을 용서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사령관이

친, 불친을 가리거나 원칙을 어길 수는 없었다. 인정에 못이겨 그의 과오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내가 김주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방조는 그가 자기 과오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사령부당위원회는 김주현을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나도 물론 그 결정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책벌을 받고 맥없이 사령부를 나서는 김주현의 뒤모습을 보면서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도와주지 못한 자기자신을 마음속으로 질책하였다.

소부대를 파견할 때 김주현에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돌아보지 말고 국내동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직행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사태는 이렇게까지 번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김주현이 후방부관으로서 금덩어리와 같은 그 어떤 물건에 현혹되어 활동노정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특수한 정황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

김주현은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된 다음 사상단련을 아주 잘하였다. 지금은 그런 사상단련을 혁명화라고 한다.

사령부후방부관의 자리를 내놓고 작식대원으로 배치된 김주현은 새 초소에 온 첫날부터 가마를 지고 다니었다. 어제까지 자기가 지도하던 대원들앞에서 가마를 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제기한다. 그러나 김주현은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것을 조금도 나무라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옆의 대원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수걱수걱 맡은 일에 열중할 뿐이었다. 표정도 밝고 기분도 늘 명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김주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8년대 식당으로 찾아갔다. 김주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중에 있는 대원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자기앞에 차례진 국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양재기를 두드리며 김주현을 소리쳐 부르는 것이었다.

≪여보 작식대, 국 한 그릇 더!≫

순하게 덧국을 청하는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남을 얕잡아보는 말투였다.

그러나 김주현은 아무런 내색도 없이 ≪예, 가져다 드립니다.≫하더니 국자로 국을 퍼 가지고 곱빼기로 청한 대원에게로 총총히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날저녁 나는 김주현을 하대하던 대원을 불러다가 과오를 범하고 철직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호령질을 하거나 얕잡아보면 안된다고 타일러주었다. 과오를 범한 사람일수록 외면하거나 경계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더 따뜻이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대원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직위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여서 높다가도 낮아지고 낮다가도 높아지는 것만큼 진정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위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 곡절을 겪을 때일수록 그를 더 따뜻하게 충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자기의 전우들이 과오를 범하고 본래의 직책에서 사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냉대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그들이 과오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었다.

김주현이 작식대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나는 행군 중에 있는 그의 곁에 다가가 배낭을 벗으라고 하였다. 총과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작식가마까지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를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주현은 무겁지 않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내가 배낭끈을 잡자 그는 배

낭을 벗기려는 나의 손을 고집스럽게 떼여놓았다. 그리고는 그냥 대열을 따라갔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어쩐지 마음이 서운하였다. 이 사람이 혹시 철직처분을 내린 당회의의 결정을 고깝게 여기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심결에 얼굴을 쳐다보니 김주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눈물앞에서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저 억센 사나이가 눈물은 왜 흘리는가?

김주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커다란 슬픔과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안해는 지방공작을 나갔다가 적의 ≪토벌≫에 희생되였고 딸애는 병으로 죽었다. 일점혈육으로 남은 아들애는 김주현이 유격대에 입대할 때 남의 집에 주고 말았다. 그때부터 김주현은 오직 혁명만을 위해 살았다.

그날밤 나는 대원들이 다 잠든 다음 김주현을 만나려고 8연대의 숙영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작식대원에 이르러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잠자리에 누워서 번민할 줄 알았던 그가 놀랍게도 내가에 앉아 수세미로 가마를 닦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에게 내일부터 병기창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다. 병기창에 가면 주변환경도 조용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도 없어 마음만은 편안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김주현은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는 책벌을 받아도 사령관의 옆에서 받겠다고, 사령관 가까이에 있어야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였다.

≪나는 낮에 동무가 남모르게 우는 것을 보았소. 그래서 그 눈물을 내나름대로 해석했지. 작식대원일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줄로 알고 병기창으로 옮겨줄 생각까지 했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김주현은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는 것이였다.

≪아닙니다. 저는 사령관동지가 저에게 책벌을 주고 가슴아파하는 것이 하도 고맙고 또 저자신이 배은망덕한 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울었습니다. 사령부당회의에서 제 문제를 취급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저를 대오에서 제명하여 멀리로 쫓아버리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혁명대오에서 떠난다면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버리지 않고 작식대에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김주현의 말을 들으면서 밤깊도록 내가에 앉아 수세미로 가마를 닦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였다.

그는 일신의 문제야 어떻게 되든 우리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였다. 우리의 곁에 있기만 하면 지휘관을 해도 좋고 작식대원을 해도 좋고 비판을 받아도 좋고 책벌을 받아도 좋고 그저 혁명대오에서 탈락당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바로 김주현의 참모습이 있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나 책벌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김주현은 자기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혁명에 얼마나 큰 손해를 주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내가 혁명가가 다된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멀었구나. 사령관동지께서 나를 신임해주셨으니 그렇지 나처럼 설익은 혁명가가 어디 있겠는가. 동지들의 비판이 다 옳다. 이 기회에 내 사상단련을 잘해서 쇠소리가 나는 유격대원이 되어야겠다.)


6도구전투장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개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였다.

김주현은 가마를 지고 다니던 나날에 공부도 많이 하였다. 김주현이 책벌을 받은 그 해 11월에 사령부비서처성원들은 내가 쓴 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소책자로 찍어냈는데 그는 그 소책자를 제일 먼저 구해다가 열독하였다.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도 직심스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작식대원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따르고 존경하던 옛



후방부관이 쓰러지기라도 할가봐 모두 걱정하였다. 그들은 김주현의 배낭에서 소책자를 몰래 꺼내다가 풍막 뒤 돌짬에 감추었다.

김주현은 그 책자를 찾느라고 며칠동안 고심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살이 더 내리었다. 그 소책자를 읽은 것 때문에 그는 밥맛까지 잃어버릴 지경이였다. 바빠맞은 작식대원들은 김주현이 없는 틈을 타서 돌짬에 감추어두었던 소책자를 슬그머니 그의 배낭속에 다시 가져다 넣었다. 그리고는 ≪주현동지, 다시 잘 찾아보시라요. 배낭속에 있던 물건이 배낭에 있겠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주현은 잃었던 소책자가 배낭속에서 다시 나타나자 ≪이것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하면서 어린애들처럼 기뻐하였다.

그는 사상단련을 참으로 잘하였다. 역시 노동계급출신의 오랜 혁명가가 달랐다. 그가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감동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김주현이 후방부관자리에서 철직된 때로부터 6개월만에 우리는 그를 7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우리가 그를 본래의 자리에 복직시키지 않고 연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늘 총포성이 울리는 전장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이다.

김주현은 연대장으로 임명된 다음 싸움을 잘하였다. 그는 장백현의 가재수와 12도구 전투를 비롯하여 임강현 6도구전투, 쌍산자전투, 오가영전투, 가가영전투, 신태자전투 등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벌인 1938년의 춘기공세와 그 이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대소전투들에서 영활하고 대담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 해 여름에는 신태자에서 몽강, 유하, 금천 지방에까지 진출하여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그가 이끄는 7년대는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도 대단히 잘하였다. 연대장자신이 주민부락들에 들어가면 솔선 앞장에 서서 사람들과의 사업에 몸을 잠그었다.

김주현은 1938년 10월 몽강현 남패자의 수림에서 김택환, 김영국과 함께 후방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산꿀을 채취하다가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그는 연대장이 된 다음에도 부대를 입히고 먹여살리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던 후방부관시절처럼 전우들의 식의주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가 전사한 후 전우들은 그의 유물로 남은 배낭을 헤쳐보았다. 그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전령병에게 물어보니 그 전날 신발을 꿰뜨린 대원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김주현이 남기고 간 빈 배낭을 부둥켜안으니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가 후방부관을 하던 시절부터 우리 혁명군을 위해 공작해들인 쌀과 군복천, 신발을 전부 쌓으면 아마 산더미를 이룰 것이다. 그는 신발만 해도 수천 켤레나 구해 들었다. 그러나 김주현은 자기 배낭에 있던 예비신발 한 켤레마저 대원들에게 주었다.

그 빈 배낭은 혁명가의 재산과 인생관에 대하여 깊이 생각게 하였다. 행복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세상에는 황금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김주현은 아무 재산도 없는 무산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김주현이야말로 진짜거부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만금의 황금으로 살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고결한 사상과 넋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농민을 준비시키던 나날에

중일전쟁발발 후에 새로운 정세는 전민항쟁준비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는 힘을 미리 길렀다가 때가 오던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작전에 전민항쟁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할 구상을 점차 무르익혀 나갔다.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 나라에서 그들의 참가없이는 전민항쟁이 성립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농민은 노동자들과 달리 조직성과 의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다. 올바른 지도가 보장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만 된다면 농민대중도 거대한 혁명역량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1931년의 추수투쟁 때 이미 체험하였다. 우리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농민대중을 혁명적으로 잘 준비시키기만 한다면 거대한 항쟁역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우리 조상들은 후대들에게 초라하고 가난한 농업을 넘겨주었다. 남들이 기계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우리 나라 농민들은 원시적인 손노동으로 농토를 다루고 오곡을 가꾸었다.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봉건적인 질곡에 얽매여 지주계급과 봉건통치배들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왔다.

농민들의 생활처지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토지조사령≫과 ≪산미증식계획≫, ≪선농이만정책≫등의 강도적인 약탈정책으로 하여 조선의 농촌과 농업은 황폐화되었으며 농민들의 빈궁화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토지조사령≫의 명목으로 농민들의 수중에서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약탈하였는데 그 농토들은 총독부와 ≪동척≫, ≪불이흥업주식회사≫를 비롯한 식민지척식회사들과 일본본토에서 흘러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분배되었다.

그 후 일본이 ≪산미증식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악착스럽게 추진시켜 나간 것도 기본목적은 자기 나라에 조성된 식량위기를 타개하는 한편 조선농촌에 자본수출을 대대적으로 하여 막대한 이윤을 짜내자는데 있었다.

일제가 발표한 ≪조선민사령≫에는 ≪…소작인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수익에서 손실을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처지개선을 위한 조선농민들의 투쟁을 미연에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포고령과 같은 것이였다. 소작인들은 아사지경에 이르러도 입을 봉하고 얌전하게 처신하라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농민들에 대한 일본인농장주와 지주계급의 약탈을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 주었다. 소작농이 전체 농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농촌의 실상을 고려해볼 때 이 ≪민사령≫의 구속을 받고 있던 우리 나라 농민들의 처지가 어느 지경이였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마니의 쌀이라도 더 뽑아내려는 일제와 지주계급의 강도적인 착취상은 실로 짐승들도 낯을 붉힐만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이였다. ≪동척≫은 지방과 농장단위로 주재원 또는 관리원들을 두고 그 밑에 농감이라는 것들을 배치하여 소작인들을 엄격히 감시통제하게 하였다. 소작로를 체납하거나 영농에 ≪태만≫하거나 농장주를 반대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당장에 조작계약을 취소하고 소작지를 회수하였다.

일본인농장주들은 사설구류소라는 것까지 만들어놓고 농장측에 맞서서 불평을 부리거나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작농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가차없이 잡아넣었다. 나는 창덕학교시절에 나까하라농장의 일본인들이 전야작업을 쏴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너무도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항구에 쌓아놓은 수탈한 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농민들의 고혈로 생산된 쌀을 해마다 700만-1000만석씩 본토로 실어갔다. 조선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만주좁쌀이나 대두박을 가져다 먹이였다. 기름이 철철 흐르는 흰쌀은 왜놈들에게 다 빼앗기고 썩은 좁쌀로 끼니를 마련할 때 조선사람들의 심정일 어떠했겠는가.

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조선인지주들도 경쟁적으로 농민들의 등껍질을 벗기였다. 마름들과 고리대금업자들도 그에 합세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반동적인 농업정책은 조선농촌에서 계급분화를 촉진시키었다. 농촌에서 이농현상이 격증되고 화전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된 것은 계급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식민지특유의 서글픈 풍경이였다. 고향에서 더 살래야 살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깊은 산중이나 무인지경에 들어가 화전농사를 지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화전농사도 안전한 것은 아니였다. 총독부가 ≪산림보호≫, ≪산불방지≫의 구실밑에 ≪화전민추방운동≫을 벌이었던 것이다. 나는 서간도에서 활동할 때 화전농사를 하다가 추방된 농민들을 여러 명 만나보았다. 조선농민들의 대대적인 해외유출은 필연적인 것이였다.



북부지방 화전민의 생활모습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을 해외에로 몰아내는 대신 과잉인구의 격증과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은 본토에서 이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그들은 ≪산미증식계획≫제1기로 규정한 15년간에만도 400만 명의 일본농민들을 조선에 끌어들이려고 꾀하였다. 원래 다나까 기이찌는 1925년 9월에 일본헌정연구회를 내세워 ≪일본인 1000만 명 조선이식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각총리대신이 된 다음 척무성을 신설하고 그 이식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1000만 명의 과잉인구가 조선에 그대로 흘러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민족은 일본인의 사태속에 파묻혀 숨도 변변히 쉬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일제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영락시키고 민족적, 사회적,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었다.

농민대중은 생존권을 위해 궐기하였다.

3.1인민봉기이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소작인조합, 조작상조회, 농우회, 작인동맹 등 농민단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초기의 대표적인 단체는 소작인조합이었다.

일제통치하의 우리 나라 농민운동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소작쟁의였다. 1920년대의 조작쟁의는 대체로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감하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구호를 들고 진행되군 하였다. 이 쟁의를 주관한 것이 다름 아닌 소작인 조합이었다. 농민조합은 해방 전 우리 나라 농민운동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주도적인 조직형태였다. 이 조직은 객관적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민운동앞에 생존을 위한 경제적 구호와 함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도 동시에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 성격을 띠고 출현한 첫 대중조직은 조선노동공제회였다. 노동공제회에는 농민부 또는 소작인부를 설치하고 소작농민들을 다수 망라시킴으로써 농민운동발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초기농민운동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제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점점 격렬해지자 경찰을 동원하여 총칼로 탄압하고 선봉에 선 농민운동의 선각자들을 마구 체포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농회≫산하의 어용조합들을 통하여 농민들을 회유하고 농민세력을 분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초기농민운동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은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초기 공산주의운동자들이 끼친 부정적인 후과와도 많이 관련된다. 그 당시 농민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한 태반의 지도자들은 순수한 농민이 아니었다. 그들속에는 소부르조아지식인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농민운동의 지도층에 들어간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무저항운동론≫을 주입하였다. 그들은 소작인들과 지주들은 공연히 아웅다웅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의좋게 지내라고 설교하였다. 그렇게만 하면 소작인들과 지주와의 분쟁은 봄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농민운동의 지도층에는 초기 공산주의운동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었다. 농민운동이 앙양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이 운동의 지도부에 들어가 앉은 그들은 농민단체들을 자파의 영향밑에 두기 위한 파벌싸움에 열을 올렸다. 농민의 이익보다 자파세력확장에만 눈이 어두워진 그들의 파벌싸움으로 하여 농민운동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 농민단체 호상 간에 혹은 한 단체 안에 심한 반목과 대립이 생겨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진통속에서도 농민들은 투쟁을 계속하였다.

농민들은 적들의 반혁명적인 폭력에 혁명적인 폭력으로 대답하였다. 1920년대말에 있은 용천불이농장 농민들의 대중적인 진출과 단천, 영흥(금야)지방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용천불이농장에서 일어난 소작쟁의는 용천지구에 나가있던 ≪ㅌ · ㄷ≫ 계열의 새 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밑에 진행된 대중적인 폭력투쟁이였다.

국제적색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인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가 1920년대말과 1930년대초 몇 차례에 걸쳐 태평양연안의 여러 나라들에서 적색노조와 적색농조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조선에서는 혁명적인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내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明川赤農事件中心 再次大檢擧開始
警察部서 十數名檢擧
赤農檢擧網脫出 山中隱身해 再建
李洙億의 大
百萬金갓다왓다


咸南端川에 檢擧風
各地에서 青年廿名檢擧
事件은 赤色農組再建의 嫌疑
範圍는 漸次擴大될듯
自動車取締規則
來四月一日부터 實施
使用許可는 知事에 申請

명천, 단천의 적색농조를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

그리하여 193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적색농조가 새로 조직되게 되었으며 종래의 농조조직들도 적색농조로 개편되게 되었다. ≪적색≫또는 ≪좌익≫이라는 말은 개량주의와 구분하기 위하여 쓴 표현이였다. 그 당시 공산주의운동권에서는 어디서나 ≪적색≫이라는 표현이 범람하고 있었다.

적색농조의 압도적 다수는 북부조선일대에 집중되어있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의 농민단체들의 과발수는 남부에 있었다. 소작쟁의도 북부보다 남부에 더 많았다. 그것은 호남벌을 끼고 있는 조선의 남부지방에 북부지방보다 농호수가 훨씬 많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농민운동의 주되는 전선은 남부로부터 북부로 옮겨졌다. 혁명적인 농민단체의 수자도 북부에 더 많았고 격렬성을 띤 농민들의 투쟁건수도 북부에 더 많았다. 농민운동의 중심이 남부조선으로부터 북부조선으로 옮겨지게 된 근본원인은 백두산이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되고 있었고 그 일대가 간도나 쏘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였다고 볼 수 있다.

적색농조는 북부조선일대 뿐 아니라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조선일대에도 조직되었다. 중국 동북지방과 북부국경지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적색농조가 번성할 수 있게 된 힘있는 요인으로 되었다. 사실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된 후 북부조선에서 나온 농민조직들은 다 국내인민들이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반일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함흥지반 법원에서 작성한 명천농조사건 공판록에 올라있는 농조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 투쟁의 결과 연길현의 사무실 소각, 일본영사관 분서가 소각, 일본군대와 교전, 일본군 퇴각, **김일성**총지휘하에 혁명투쟁에 진출함.≫

이것은 당시 북부조선일대의 농조들이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활동한데 대한 단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적색농조가 주관하는 농민운동에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해독적 책동으로 인한 간과할 수 없는 부족점들이 존재하

고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농조조직들에 ≪적색≫이라는 모자를 씌운 다음에는 울타리를 높이 쌓고 관문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소작농들과 빈고농이외의 모든 농민들은 다 적대계급이나 동요하는 계층으로 규정해놓고 농조의 울타리 가까이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애국적인 중농이나 반일감정이 강한 지주들이 적색농조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로 되어있었다. 한 동네에서 적색농조가 먹는 우물이 다르고 비농조주민들이 먹는 우물이 다른 마을도 있었다고 하니 그 시절의 관문주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선전화 ≪노농대중은 단결하여 항일에 떨쳐나서자≫

적색농조의 관문주의는 비농조성원들의 애국열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로 하여금 농조가 하는 모든 일에 적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였으며 자식들까지도 농조편과 비농조편으로 갈라지게 하였다. 적색농조활동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함은 ≪타도식≫ 일본새였다. 적색농조성원들은 무슨 일을 한 가지 해도 처신을 과격하게 해야 혁명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었다. 예를 들어 농조상층이 미신타파를 하라고 하면 그들은 예배당 가까이에 가서 돌멩이로 유리창을 박살내든가 지붕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자빠뜨리었다. 그리고 국사당을 파괴하고 거기에 놓인 음식들을 마구 짓밟아 버리었다. 지어는 예배당으로 들락날락하는 신자들의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만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였다. 조혼을 반대하라고 하면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신랑행차를 습격하여 말을 압수하든가 신랑을 억류하는 방법으로 결혼식을 파탄시킨 농조조직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어린 신랑들은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도망가든가 공포에 질려 엉엉 울었다.

농조조직들이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을 위해서는 실정에 부합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부분적인 활동에서 처신을 거칠게 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농조가 하는 일이면 덮어놓고 머리를 흔들었다.

적색농조조직들의 활동에서 우리가 최대의 약점이라고 본 것은 자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전술적 대책을 똑똑히 세우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데로부터 적들의 탄압과 종파분자들,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해독작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농조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을 노출시키군 하였다. 농조우물이 다르고 비농조우물이 다르면 조직군중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텐데 농조지도자들은 그런 이치를 무시하였다. 적의 밀정들은 집안에 울방자를 틀고 가만히 앉아서도 창구멍을 통해 농조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집이 어떤 가정들인가를 잠깐 사이에 식별해낼 수 있었다.

어떤 농조조직들은 오늘날 집권당의 외곽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회원명부나 회비납부대장까지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직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근원으로 되었다. 아지트를 한 번씩 습격할 때마다 적들은 회원명부를 압수해가군 하였다. 그것도 한꺼번에 200-300명씩 무데기로 잡아갔다.

이 몇 가지 실례들은 농조단체들이 조직의 비밀이나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경계해야 할 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노출증에 빠져 벌거벗은 상태에서 적들과의 대결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출증은 적들에게 농조조직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수 있느 가능성을 주었다.

농조조직들은 농민단체 호상간에 연대성과 통일적인 보조를 취하기 위한 활동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결함들은 농조조직에 대한 올바른 공산주의적지도가 보장되지 못한 우리 나라 농민운동의 영도상 약점과 미숙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였다. 농민운동을 지도한 상층은 이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색농조운동은 이러한 약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농민운동발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견실한 농조지도자들과 농조에 망라되었던 수많은 농민대중은 자기들의 검거선풍에도 굴하지 않고 반일, 반지주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었다.

우리는 농조운동과정에 발휘된 농민대중의 이러한 용감성과 대중성, 견인불발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우리가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대중을 전민항쟁역량의 기둥으로 본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였다.

중일전쟁의 개시는 우리에게 전민항쟁준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이 준비작업에서 우리 나라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대중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과 함께 국내의 농민대중을 혁명화하는 것은 항일혁명수행에서 우리가 선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생명선이였다.

나는 농민을 전민항쟁역량으로 준비시키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내에 있는 기성농민조직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군정간부들은 국내의 기성조직들에 이것은 좌경이고 저것은 우경이라는 식의 감투를 씌우면서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과거의 농조는 없었던 것으로 치고 새로운 농조들을 조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과거의 농민단체나 농민운동은 다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재생시키거나 재편성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허무주의였다.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는 공산주의운동자체의 요구와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성의 농민운동이 쌓아올린 토대와 성과를 스스로 줴버리는 것으로서 농민들을 묶어세우는데 있어서도 백해무익한 것이였다.

우리의 구상은 그것이 반일을 지향하고 반제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명칭이라든가 공로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기성조직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의 취지에 맞게 해체직전에 이른 지난날의 농조직들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재편성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전민항쟁준비와 관련한 지휘관모임에서 국내의 모든 노조단체들과 농조단체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들데 대한 방침을 채택하였다. 국내의 기성운동단체들을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둔다는 것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국내에 파견할 정치공작원들을 선발하였다.

당시 우리 혁명대오안에는 김영국, 안덕훈과 같이 국내에서 농조활동을 해본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가 가까이 끼고 있는 서간도에도 지난날 국내에서 독립운

동이나 농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농민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는 여러 갈래의 선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농조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우리 주력부대에서 선발된 정치공작원들과 서간도 지방의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 육성된 지하조직원들이였다. 그들이 국내농민운동을 변혁하는데서 쌓은 업적을 이해하려면 함경북도 남부지방에 침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내용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후 우리는 조정철, 유경수, 최경화, 조명식 등 파악있는 정치공작원들을 이 지구에 파견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가 농조핵심들을 장악한 다음 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우리에게도 보내고 각 지방의 농조조직들에도 파견하였다.

성진농조지도자의 한 사람인 허성진도 이병선이라는 농조출신정치공작원의 소개로 우리의 인맥을 잡게 되었다. 그는 나의 부름을 받고 서간도에까지 찾아왔다. 중평광산습격사건의 후과로 비록 나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갑산에서 박달을 통해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노선을 전달받는데 성공하였다. 고향에 돌아간 허성진은 1937년 9월에 열린 함경북도 남부 3개군 망명자들의 모임에서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전달하였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하여 통일전선전략을 포함한 우리의 혁명노선은 함경북도일대에 널리 전파되었다.

정치공작원들은 국내혁명가들과 농조열성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전민항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농조조직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하거나 그 영향하에 두기 위한 조직건설사업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력을 바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견실한 농조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국내의 농민운동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내농조조직들의 동향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이였다.

1936년 가을 명천에서 진행된 부녀친목대회의 국제국내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19도구 노농쏘비에트의 수립, **김일성**은 선전대를 무어 가지고 조선에 건너와서 선동선전을 하고 있다. …동지들이여, 이후부터 조선에 **김일성**이 건너올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 지방농조가 작성한 한 결의문에서 ≪장백현! 쏘비에트를 수립함에 있어서 19도구전투결과 목재 3000톤 소각, 영림사무소 소각, 일본영사관 소각, 주구 8명 납치, 일본군대와 교전, 일본군대 퇴각, **김일성**총지휘하에 이상과 같은 투쟁이 혁명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것이라든가 길주농조의 신문 ≪붉은 추모≫가 10월 혁명기념특집에서 ≪**김일성**부대를 적극 지원하자!≫는 구호를 실은 것 등은 경제문제를 주되는 쟁점으로 끌고 나가던 지난 시기의 농민운동에 비해 적색농조시절의 농민운동이 얼마나 정치적 색채가 짙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적색농조를 비롯한 국내의 혁명조직들이 인민혁명군의 활동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보장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영도가 미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국내의 농민운동에서는 획기적인 노선상 변



부산항

화가 일어났다.

국내의 적색농조조직들은 우선 계급투쟁일면에 치우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되는 공격의 화살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로 돌리였다. 농조의 일부 문건들에서 ≪농조 ××앞에 나서는 임무는 일본에 대한 군중의 불평불망을 혁명적 적극성에로 인도하여야 한다≫문구를 찾아보게 되는 것은 이런 실태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견실한 농민운동지도자들은 농조조직에 결속시킬 대상의 폭도 전에 없이 넓히고 있었다. 어떤 지방 선각자들의 간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보면 그 당시의 농민운동지도자들이 농조의 기층조직에 빈농만이 아니라 중농과 부농을 포함하는 각계각층의 열성자들을 망라시킬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율을 준수할 줄 알고 비밀을 고수할 줄 알며 투쟁욕이 있는 사람들을 계층에 관계없이 조직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농조직건설의 일반적인 요구로 된 것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어떤 적색농조는 지어 자기산하에 소시민위원회와 학생위원회라는 것까지 내오고 거기에 잡화상, 점원, 음식점경영자, 중개상인, 상업자본가, 자유노동자와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망라시키였다.

국내의 일부 농조조직들은 반일투쟁에 양심적인 지주들까지 인입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어떤 농조조직들은 도로부설공사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도하면서 지주들을 선전대에도 망라시키였다. 그리고 자위단을 비롯한 일제의 말단통치기관들과 어용단체들에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그 조직들을 점차 ≪적화≫하는 방법으로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결합시키였다. 그들이 발행한 한 소책자에서는 합법적 가능성을 거부하는 이론은 좌경기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합법적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능숙하게 연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지 않은 농조조직들은 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호상간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실정의 통보로부터 시작하여 투쟁방법의 선택과 투쟁목표의 실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우리의 영향하에 적색농조운동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기성의 농민조직들을 혁명적으로 재편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국내동지들과 손을 잡고 농조조직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이리하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많은 지역들에 어제 날의 농조조직들을 바탕으로 하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수많이 생겨났으며 신의주지회를 비롯하여 많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압록강중류지대의 농민들속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때 평양, 남포, 철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주에 있는 조국광복회조직을 거점으로 중부와 남부 조선의 농민들속에서도 각이한 명칭을 가진 혁명조직을 내왔다.

우리 공작원들과 국내동지들은 농민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일과 함께 그들을 의식화하는 사업에 모를 박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독립정신으로 농민들을 무장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민조직출판물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문을



대구의 시장

대대적으로 실었다.

이러한 교양사업은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역사적 사명감을 높이도록 자극하였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속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반일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국제국내정세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조선혁명의 전도,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투쟁소식 등을 널리 선전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을 지니도록 하였다.

구월산과 벽성지구에 나간 우리 공작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덕원을 벽성지구 농조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민덕원은 이어 벽성지구의 핵심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인천지구에 나가 그곳 노조와 농조 성원들을 의식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황수원언제공사장 로동청년들과 함께 있는 이인모

김정숙도 풍산지구를 거쳐 1937년 7월중순에 단천, 이원지방으로 나갔다. 그때 그는 풍산군 파발리에서 이인모를 만나 적색도서회 관계자들을 핵심으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인모는 조선혁명군 국내공작소조가 파발리 내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오빠시≫라는 별명을 가진 악질순사부장을 처단하였을 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견자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의 영향밑에 풍산지방의 선각자들은 적색독서회를 조직하고 반일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인모도 그 독서회에 망라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1932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약 1년간의 감옥생활을 하였다.

최근에 이인모를 직접 만나 알아본데 의하면 그는 우리와 연계를 지어보려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요한 작전구역인 이도강에 두 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남만부대의 소부대가 동흥진을 습격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도 다녀올만큼 그의 참군시도는 열광적인 것이였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선을 찾지 못해 그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이인모가 우리를 만나는데 성공하였더라면 그의 인생행로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인모는 감옥밥을 두 번 먹고나서도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풍산지구혁명위원회 성원으로서 파발리분회와 황수원언제노동자돌격대, 안산후치령생산유격대 등의 조직들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김정숙은 1938년 9월 하순경에 또다시 풍산에서 이인모와 풍산지구혁명위원회에 망라되어 있는 그의 동료들을 만나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적구에서의 활동을 영활하게 벌릴 데 대한 대책들을 협의하였다.

이인모는 **김정숙**을 만난 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늘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의 활동판도는 우리가 국내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영도를 실현하면서 필요한 대상의 하나로 점찍고 있던 서울콩그룹에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이인모의 활동에서 가장 이채로운 점이였다. 그는 주병포와 함께 서울 콩그룹에 우리의 조국광복회노선을 전달하고 서울의 운동권에 우리의 영향을 침투시키였다.

김삼룡에게 우리의 노선을 직접 전달한 풍산적색독서회시절의 이인모의 상급인 주병포는 용정에서 동흥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반일학생운동에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1937년부터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 적을 두고 풍산에 자주 드나들면서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풍산지방에 나가 활동하던 **김정숙**과도 선이 닿아 국내혁명에 대한 우리의 노선과 전략전술

을 비교적 정확히 터득할 수 있게 되였다. **김정숙**은 주병포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조선일대에서 국내공산주의자들을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묶어세울 데 대한 문제를 상론하였다.

이인모의 회상에 의하면 그 당시 김삼룡은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을 전달받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김삼룡

주병포와 이인모는 서울지구의 금속, 방직, 섬유, 인쇄, 염색, 피복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노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노조조직을 꾸리고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혁명조직들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인모는 국내혁명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일본땅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이는 사업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았다. 1940년 여름에 그는 주병포의 지령에 따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가지고 일본 도꾜에 건너가 풍산출신의 고학생들로 조직된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인모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였다.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만들어준 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이였고 그 조직의 씨앗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리기 위해 천신만고를 다한 백두산의 투사들이였다.

풍산에서 사업일정을 마친 **김정숙**은 동해안 단천지구로 향하였다. 단천지방의 선각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점을 찍어두고 있던 인물은 지난날 신간회에 관계하였던 단천농조의 지도성원의 한 사람인 이주연이였다. 그는 1930년의 단천농민폭동에도 관여한 사람이였다.

김정숙은 그 지방 조국광복회의 안내를 받아 먼저 이주연을 만났다. 단천농민폭동사건으로 7년간의 옥고를 치른 이주연은 그 당시 산에 있는 절간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병까지 만난 이주연을 따뜻이 위로해준 다음 그에게 우리가 내놓은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과 전민항쟁역량준비를 다그칠 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주연은 자기가 지난날 무슨 운동을 한다면서 밤낮 뛰어 다녔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나침반이 깨진 낡은 배에 앉아 날바다를 향방없이 떠다닌 것 같아 허무하기 그지없었는데 이제는 새 배를 탄 심정이라고 하면서 혁명에 충실할 것을 맹약하였다.

이주연과의 사업을 마친 다음 **김정숙**은 이원의 차호앞바다 기슭에서 이용을 만났다. 이용이란 헤이그밀사사건의 주인공인 애국열사 이준의 아들이다. 그는 북청농조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놓


조국의 품에 안긴 이인모

여 나온 후 반일회를 조직지도하고 있었다.

이준이 헤이그에서 분사한 후 이용은 ≪너의 몸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한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고 한동안 독립군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인차 그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독립군운동이라는 것이 간판은 요란하지만 똑똑한 영도를 받지 못하는 이상 대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용은 한때 공산주의운동에도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그렇지만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대중과 유리된 파벌들이 제 안속만 채우면서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그 후에 깊숙이 관여했던 농조동네 역시 다툼질이 심하였다. 맑스의 본을 따서 장발을 한 행세식운동자들이 농조의 상좌에 틀고앉아 농민들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었다.


이용

이용은 그런 꼴을 보다 못해 어느 날 상좌의 장발쟁이를 단죄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당신이 왜 이리 오만한가. 이준의 아들이 돼서 그런가, 만리밖에 나가 피를 뿌리며 호소나 한다고 누가 독립을 가져다준다던가 하고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이용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애국혼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원통하였다. 그 아픔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셔지지 않았다.

이용이 독립군운동, 초기 공산주의운동, 농조운동에까지 참여해보고 얻은 결론은 아무리 힘있는 대중도 영도자를 못 만다면 용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용은 동지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 한편 백두산으로 닿는 선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김정숙**은 후치령이남일대에서 농민대중을 묶어세워 전민항쟁역량을 준비할 데 대한 우리의 구상을 이용에게 전달하였다.

이용은 우리의 뜻을 받들고 조국광복성업에 한 몸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였다. 그는 **김정숙**과 작별할 때 우리가 있어 조선의 명맥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켜 조선국의 ≪정통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언제인가 나는 북부조선일대의 혁명조직들에서 교양자료로 쓴 ≪금란지계전≫을 본적이 있었다. 출처를 알아보니 북청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다. 북청군 청흥리에는 소나무가 많은 송전이 있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조용하여 예로부터 지방유지들이 놀이터로 삼고 이따금 보여 풍월짓기를 하였다.

반일의식이 높은 북청지방의 핵심들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유지들을앞에 내세우고 ≪금란계≫를 무었다. 금란계라는 말은 합심을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같고 향긋함이 란초와 같다는 의미로 친구간의 두터운 정의를 이르는 말이다. 가까운 친구들끼리 무은 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청의 핵심들은 대체로 ≪금란계≫성원들이였다. ≪금란계≫성원들은 유지들을 앞세우고 자주 송전에 모여 글짓기놀이를 하는 체하면서 정신수양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계성원들 가운데서 제일 견문이 넓고 박식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자라고 존경받는 좌상회원이 ≪금란지계전≫을 쓰게 되었다. 그 글에 바로 ≪정통령≫이라는 말을 쓴 구절이 있다.

이용은 그 해 9월에 북청지구 당소조를 내오고 그 책임자가 되었다. 초기 당소조 성원들은 차호반일회 핵심들이였다. 그는 당소조를 움직여 차호반일회와 부근의 농조, 노조들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묶어세우면서 후치령이남의 동해안일대를 중심으로 전민항쟁세력을 꾸려나갔다.

백두산과 선이 닿은 다음 이주연의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투쟁과업을 받은 그는 집에 들어가기로 안해와 약속한 날에 집으로가 아니라 투쟁의 길을 떠났다. 7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남편의 옥바라지만 해온 착실한 안해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애틋한 연민의 정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이주연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절간에 찾아온 안해와 결연히 이별하였다.

그는 절간을 떠난 후 해방이 될 때까지 8년동안 오붓한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홀몸으로 적들의 눈을 피해 부단히 자리를 옮겨가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반일투쟁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이주연

이주연과 이용은 백두산을 바라보며 싸우던 때처럼 해방 후에도 변심없이 일을 잘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발을 들고 통일전선운동과 전민항쟁준비를 위해 분투하던 국내농조조직의 조직자들 가운데는 이원섭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농조를 조국광복회하부조직으로 개편한 길주지구반일지하조직의 책임자였다. 1932년에 왕청에서 동지들과 같이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의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대감자공안국습격전투에 참가한 것이 있는 이원섭은 그 후 조직의 위임으로 국내에 나와 지하공작을 줄곧 하였다. 그가 지도하는 조직성원들은 혁명군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길주펄프공장에서 흰종이를 뽑아 백두산으로 계속 보내주었다. 당시 동해안일대의 농조조직들에서는 혁명군에 보내는 각종 필수품들을 신파, 혜산까지 자동차로 뻐젓이 실어다 놓군 하였다.

농조활동가들은 농민대중속에서 우리의 무장투쟁에 호응하여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선전선동활동도 활발히 벌이었다.

장평농조성원들은 감옥에 잡혀가서도 우리의 투쟁에 대한 선전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명천일대의 농조활동가들도 그들에 못지 않게 우리를 선전하고 반일투쟁을 호소하였다.


후치령비밀근거지

전민항쟁을 준비하던 나날에 국내에서 우리의 노선을 받들고 희생적으로 싸운 애국열사들은 천이나 만으로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수많은 유명무명의 혁명가들은 우리 공작원들과 함께 전국도처에서 조국광복회산하에 수십수백 만의 농민대중을 결속시키었다.

농조조직들이 혁명적으로 개편된 후부터 우리 나라 농민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착되었다. 이것은 농민운동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과정에 국내혁명은 수많은 농조활동가들과 애국적인 농조원들을 잃었다.

농민운동은 노동운동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뚜렷한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총칼이 난무하는 일제의 파쑈적인 학정밑에서 민족자주권의 부활과 농민의 계급적 해방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가며 싸워온 혁명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독립여단시절의 최춘국


최춘국

중일전쟁이 일어나던 1937년 여름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주로 장백, 임강 지구에서 활동하면서 북만에서 떠난 독립여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독립여단은 유격대초창기부터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동무들을 골간으로 하여 편성된 부대였다.

1935년 봄에 있은 요영구회의결정에 따라 동만지방에 있던 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이 남북만의 넓은 지역에 진출하여 중국인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활발히 벌인 사실은 이미 서술한 바이다. 우리도 북만에서 5군부대와의 연합작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는 왕청연대와 훈춘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김책, 최용건이 활동하고 있는 삼강지구로 파견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먼길을 가는 과정에 그들의 역량은 증강되어 대부대로 장성하게 되었다. 1937년 봄에 독립여단은 서간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 독립여단의 당위원회 서기이며 1연대 정치위원이 바로 최춘국이었다. 독립여단의 조선사람들은 북만의 중국인부대들과 중국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최춘국은 워낙 왕청에서 싸울 때에도 중국인민들이나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한테서 각별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

서상회의 후 나는 북만땅에 외따로 떨궈두었던 부대성원들을 서간도로 불렀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립여단은 보천보전투도 끝나고 7.7사변도 퍽 지나서야 임강지구에 당도하였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우리는 모두 놀랐다. 누구라없이 군복은 찢어져 너덜거리였고 지하족은 닳고 터져서 천으로 발을 감싸고 노끈이나 새끼오리로 동여매였다.

나는 최춘국의 해진 군복장들을 어루만지면서 왕청시절부터 오늘까지 동무는 늘 힘든 과업을 받아안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하였다.

최춘국은 도착도 늦게 한데다가 오는 도중에 최인준중대장이나 박룡산소대장 같은 끌끌한 전우들을 적지 않게 잃어서 면목이 없다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북만땅을 떠난 것이 5월초순이라니 원정행군이 여러 달 걸린 셈이었다. 그들이 출발했다는 의란땅에서 압록강연안까지 만리나 되었다. 그 머나먼 험로를 오느라니 그 과정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임춘추는 17살적부터 보물처럼 건사해가지고 다니던 침통을 잃어버렸다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 침통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닳고 또 닳아서 허리가 잘룩해진 값진 금침도 두 대나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참, 어려운 행군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천막들을 주런이 친 것을 보니 별천지에 온 것 같습니다.≫

임춘추는 천막에서 자본지가 언제였던지 이제는 기억이 삭막할 정도라고 하였다.

나는 곧 후방부관을 불러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천막들을 내주고 전체 성원들에게 새 군복을 갈아입히게 하였다. 그러나 최춘국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저녁식사를 하기가 바쁘게 다시 나를 찾아왔다. 한참 푹 자면서 노독을 풀라고 하였으나 오래간만에 사령관결에 왔는데 누운들 잠이 오겠는가고 하면서 중일전쟁소식부터 물었다. 여러 달동안 유혈행군을 해온 그들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퍽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인준

나는 그들에게 정세를 설명해주었다.

…3.18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7.7사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인민은 일제침략군과 맞서 거국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다. 장개석도 더는 항일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주동적인 발기로 국민당과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에 따라 서북지방의 홍군주력은 주덕을 총사령으로 하여 국민혁명군 8로군으로 개편되었다. 홍군과 국민당군대가 합동하여 장기전을 벌이면 국력과 병력이 제한되어있는 일본은 견디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일본군은 위세를 떨치며 파죽지세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일장기에는 벌써부터 멸망의 흉조가 비끼고 있다.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였고 해당한 결정도 채택하였다. 회의방침에 따라 적의 배후에서 맹렬한 교란작전을 벌이며 국내혁명역량을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전민항쟁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적배후교란작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된 기본전략지대는 압록강연안일대와 남만지구이다. 중일전쟁의 기본전선이 북지전선인 것만큼 일본군이 그곳에 군수물자를 조달하자면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동무들도 앞으로 압록강연안이나 남만지구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쉽게 여기었다.

최춘국은 북만에 가있는 동안 항일연군부대들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 모두가 백두산을 몹시 그리워하더라고 하였다. 그는 의란현성전투때 최용건도 만나 보았다고 하면서 그 정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최용건은 그때 최춘국을 붙안고 동무가 **김**사령이 있는 곳에서 왔다지, 반갑소, **김**사령을 만난 것만 같소, **김**사령이 나와 김책을 만나려고 북만까지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백두산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섭섭하오 하면서 눈물을 머금더라는 것이었다.

해방 후 최용건도 의란현성전투때에 최춘국을 만나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그 전투는 최용건이네를 비롯하여 여러 북만부대들과 동만의 부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큰 전투였다. 북만땅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이 200리, 300리 밖에서 말들을 타고 와서는 밤사이에 적을 치고 날 밝기 전에 번개같이 철수하였다. 밤을 겁내는 적들은 병영주변과 토성 곳곳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 최춘국이 속한 부대전투원들이 총 한 방에 전등알 한 개씩 모조리 꺼버렸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총성과 섬광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응전할 생각도 못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후 새로 조직된 독립여단은 서간도쪽으로 나오라는 우리의 지시를 받게 되었

다. 그 지시가 여간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서간도쪽으로 나오게 된 독립여단동무들이 너무 기뻐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면 강건, 박길송처럼 북만에 그냥 남아있게 된 동무들은 또한 너무 낙심하여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여단의 남하행군은 우여곡절로 가득차 있었다.

최춘국은 지시를 받은 그날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 부대들에 연락을 띄운 다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원들에게 위만군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대담하게 벌판에 나가 대로행군을 하였다. 여러 전투에서 된매를 맞은 적들이 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산속을 뒤지고 있을 때였으므로 벌판은 텅 비여있을 것이라는 타산을 했기 때문이였다. 일행은 대로행군의 덕으로 단 한번의 전투도 하지 않고 한 주일만에 동경성부근까지 가닿을 수 있었다.


지병학

행군의 첫 시작은 순탄하였으나 그 후 여러 부대가 합쳐지고 여단장 방진성이 행군대오를 지휘하게 되면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임춘추, 지병학, 김홍파, 김룡근을 비롯한 여러 행군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단장인 방진성과 여단당서기인 최춘국이 용병전술상에서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은 것이 문제거리였다.

동경성을 지나서부터 행군대오가 적의 대부대와 자주 조우하게 되자 최춘국은 교전을 피하고 희생을 덜기 위해 여단을 소부대로 분산시켜 제가끔 행군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유격전의 요구에 맞는 정당한 주장이였다. 그런데 방진성은 대오를 분산시키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 분산되면 여단의 전투력이 약화된다, 여단은 함께 있어야 여단이지 흩어지면 여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제기를 묵살해버리고 한사코 대부대행군을 고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나니 적들과 자주 맞다들게 되고 희생자수도 늘어나 부대의 활동은 이모저모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처럼 험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대원들이 조국진출의 날만은 한 사람처럼 절절하게 고대하였다. 중상당한 한 어린대원은 최춘국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꼭 조선땅에 내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였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유언이였다.

최춘국은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 한줌을 종이에 싸서 사무장의 배낭속에 간수하게 하였다. 그 한줌의 유골재라도 조국땅에 내다 묻어주려는 것이였다.

그는 전우들의 희생을 덜기 위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100여 필의 군마들을 감쪽같이 끌어다가 타고 가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었다. 갈라져서 행군했어야 자취를 감출 수 있었겠는데 당신이 허락하지 않은 탓으로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숱한 전우들까지 잃게 되었다.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지 못하게 신속히 빠져야 한다. 놈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끌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마행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동에 서서 놈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족쳐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 피동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는 부대가 전멸되고 만다. …

방진성은 그 제의도 거절해버리였다. 기마행군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였다. 아무리 설복을 해도 요지부동이였다. 최춘국의 제안은 결국 여단당위원회에까지 상정되었다.

당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은 최춘국의 전술적 방안을 지지하였다. 노획한 100여

필의 군마에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을 태우고 부대는 남하행군을 계속하였다. 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군마에 짐을 얹고 맨몸으로 걸었다. 그런 즉 행군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추격하던 적들은 최춘국의 예견대로 까마득히 떨어져 끌려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단은 관지부근에 와서 뒤따르던 적들을 소탕해버렸다. 그 후 군마들은 각을 떠서 식량으로 썼다.

부대는 기마행군의 덕으로 한동안 돌릴 수 있었으나 돈화−할바령간 철도연선에 이르러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철도연선이 온통 적군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여단장은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퇴각을 주장하였다.

최춘국은 압록강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서야 되겠는가, 퇴로에서 적을 만나면 더욱 위험하다, 놈들은 분명 우리의 뒤로 증원부대를 파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여단장은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전진하느냐고 하면서 성을 벌컥 냈다.

그들이 논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근처의 도로로는 위만군의 한 개 부대가 행군해가고 있었다. 최춘국은 그 행군종대들을 보자 위만군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여단장은 대뜸 눈이 둥그래져서 적을 따라가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고 하였다.

최춘국은 설명하였다.

…저 위만군놈들은 지금 포를 끌어가느라고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다. 설사 뒤따르는 우리를 본다 해도 제 편인줄 알지 대낮에 유격대가 버젓이 자기들을 따라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적의 뒤를 따라가다가 철도연선지대를 통과한 다음 슬그머니 산속으로 들어가자…

여단장은 그 주장만은 반대하지 못하였다.

최춘국의 제안을 따른 덕에 여단은 철길계선을 별고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의 대소 ≪토벌≫부대들과의 조우와 교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표하부근에서는 500여명의 적들과 맞다들어 연 이틀간이나 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전투에서 되지 않은 대원들이 유골재를 건사한 사무장의 배낭도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최춘국은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여단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소부대분산행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단장 방진성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한두 개 중대는 살아날지 모르나 여단은 전멸된다. 저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자는가. 살려면 다같이 살고 죽으려면 다같이 죽어야 한다고 우기었다.

여단당위원회는 다시금 두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여단장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분노한 최춘국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불같은 말을 연방 내뿜었다.

…여기 이 자리에 자기만 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닿기 전에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그토록 조국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도에서 다 잃는다면 우리 지휘관들은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는가? 한두 지휘관의 우둔한 처사 때문에 대원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도 죽고나면 항일대전은 누가 하며 혁명은 누가 하겠는가, 여단역량을 보존해 가지고 서간도까지 나가려면 분산행군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

회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지휘관들은 대부대행군만을 한사코 고집해온 여단장

을 모험주의자라고 규탄하고 비판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동지애의 외피를 쓴 비겁분자라는 낙인까지 찍었다고 한다. 사실상 방진성이 훗날 적에게 귀순한 것을 보면 비겁분자라는 낙인이 무근거한 것은 아니였던 것 같다. 물론 방진성은 스스로 찾아가 귀순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체포된 후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에 굴복하여 귀순하였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찌되었든 투항과 변절의 싹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종종 나타나군 하던 신념과 의지의 박약과 비겁성에서 오래 전부터 움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진성은 여단이 분산되어 전투력있는 구분대들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곁에서 떠나게 되면 자기의 신변이 위태로와질 것을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여단당위원회 표하회의가 있은 다음부터 독립여단은 비로소 분산행군으로 넘어가 적의 봉쇄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진성은 동지들의 충고를 종시 삭이지 못하였다. 그는 최춘국을 몹시 고깝게 생각하였다.

방진성은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구동북군 장교출신인데다 직급상에 있어서도 여단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최춘국은 소학교정도의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최하층출신이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한 다음에야 글을 배우고 군사를 배우면서 성장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인물의 우열이 결코 학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방진성은 몰랐다. 방진성이 스스로 자기를 회개하게 된 것은 며칠 후에 있은 송화강도하전투 때였다고 한다. 분산행군을 하던 여단은 그때 이미 대오를 다시 집결하여 대부대로 행군하고 있었다. 대열은 석양이 비끼였을 때 나루훈부근의 송화강에 당도하였다. 장마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송화강은 바다같이 넓어진데다 물결까지 사나왔다. 적들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도강기재는 대여섯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매생이 하나뿐이었다. 그것으로 도강을 하다나니 적지 않은 인원들은 날이 샐녘까지도 강을 건느지 못하였다. 도하한 대원들이나 도하하지 못한 대원들이나 다같이 가슴을 조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매생이와 밝아오는 하늘을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때에 적들이 나타났다. 최춘국은 10여명의 날파람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맞받아나가며 자기가 적들을 유인해 갈테니 어서 강을 건너 유수하자 부근의 숲속에 들어가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적들을 유인해간 덕으로 나루터에 남은 사람들은 강을 무사히 건늘 수 있었다. 여단은 유수하자부근에 당도하여 며칠동안 최춘국이네 결사대원들을 기다리었다. 최춘국은 나흘만에야 결사대전원을 데리고 나타났다. 어떻게 구했는지 식량까지 한 짐씩 지고 왔다.

방진성은 그때에야 비로소 최춘국의 어깨를 붙잡고 사죄하였다.

…독립여단의 북만지구에서의 활동과 남하행군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여단의 전체성원들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보다 무척 성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최춘국이었다. 물론 그는 우리 곁에 있을 때에도 유격전술에 능한 군사지휘관이였고 나무랄 데 없는 정치일군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독립여단의 북만에서의 활동과 남하행군과정에 그의 군사적 재능과 지휘능력은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았고 철도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최춘국은 유격대에 들어온 후 눈썰미가 빨라서 사격동작과 제식동작 같은 것도 인차 터득하였다. 그의 품성과 능력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나는 그를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

였다. 그때 최춘국은 울상이 되어 아직 여러 모로 준비가 부족한 자기가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정치지도원을 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신있는 일은 그저 왜놈과 그 앞잡이들을 족치는 일뿐이니 평대원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나는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증오하는 동무의 그 마음을 대원들의 가슴에 심어주라, 그러면 정치지도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첩 하나를 주면서 그 첫 페이지에 ≪땅에다 글을 쓰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써주었다.

그 후부터 최춘국은 학습과 훈련에서 남다른 열성을 보이었다. 그는 우리 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문까지 자습하였다.

그가 성급히 한문까지 넘보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 날 최춘국은 이정화령이란 말의 뜻을 몰라 나를 찾아왔다. 내가 뜻과 음을 풀어가며 이정화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자 그는 ≪거참 한문이라는게 신기합니다. 서당공부를 못한게 후회됩니다.≫하고 중얼거리었다.

최춘국은 배낭속에 늘 옥편을 넣어가지고 다니였다.

소왕청방위전투가 90일 이상 걸린 전투였고 또 그 싸움이 아주 간고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서술하였다. 그런데 최춘국은 그 90일 사이에도 한문공부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최춘국이네 중대의 주둔지인 셋째섬에 찾아가서 그에게 정치지도원은 춤도 줄줄 알고 노래도 잘 불러야 중대를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인 중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최춘국은 밤마다 밖에 나가 남몰래 춤연습을 하였다. 그가 얼마나 연습에 열중했던지 어느 날 어뜩 새벽에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중대작식대원 고현숙이 중대장에게 달려와 겁에 질린 소리로 정치지도원동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귀뜸하였다. 중대장은 그 바람에 허리가 부러지게 웃었다. 이것은 훗날 셋째섬의 유명한 일화로 되었다.

최춘국이 그처럼 성실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동만유격구에서 싸울 때에도 어려운 임무가 제기되며 그것을 늘 그의 중대에 맡기군 하였다.

5000여명의 적과 무려 90여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을 하던 마촌작전 당시에도 최춘국이네 2중대가 기동중대였다. 내가 적의 배후를 치기 위해 근거지를 떠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춘국에게 근거지방어임무를 맡기었으며 그러면 그는 어김없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여 자연히 내가 없는 빈자리에는 최춘국을 남겨두게 되고 내가 미쳐 갈 수 없는 중요한 지점들에는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상례로 되었다. 나와 최춘국이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면서도 늘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최춘국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항일대전의 풍운속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최현, 안길, 김책, 최용건, 이학만, 허형식, 강건…

적들이 현상금을 걸고 있는 항일의 명장들 가운데는 황포군관학교교원까지 한 최용건을 내놓고는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군사교육은 커녕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군인으로 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 능숙한 정치일군들로 자라났는가!

나는 초연에 그슬린 최춘국의 미더운 모습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미 우리에게는 능히 하나의 전략적 지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인재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앞으로 때가 오면 이들에게 부대를 맡겨 동무는 함경북도로 가라, 동무는 낭림산줄기로 나가라, 동무는 태백산쪽으로 뻗어나가라는 식으로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임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각지로 나간 부대들에 호응하여 곳곳의 생산유격대들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는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여단이 도착한 그날밤 나는 왕청시절에 셋째섬의 2중대에 나갔을 때처럼 오래간만에 최춘국과 함께 천막안에 누웠다. 감회깊은 잠자리였다. 우리는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나누었다. 그날밤 최춘국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백두산쪽으로 간다는 생각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중도에서 모두 쓰러졌을겁니다. 기어이 살아서 조국땅을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니 죽을 고비에 들어섰을 때에도 살아날 구멍수가 보이고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날 기운이 생기더군요. 이 몇 해어간에 조국 땅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흙 냄새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 그의 손을 꽉 그러잡으며 그렇게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무에게 조국 땅을 인차 밟아볼 기회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결국 나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해주자던 이야기를 그 밤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 부대들에서는 군정간부의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다. 적의 ≪토벌≫로 인하여 남만부대가 당한 손실은 파국적인 것이었다. 적들이 ≪남만의 공비는 완전히 숙청되고 치안은 확보되었다≫고 떠들만치 1군의 적으로 더더욱 중요해진 남만에서 유격투쟁을 확대강화하려면 우선 유능한 군사정치일군들을 보강해야만 하였다. 더구나 남만부대에서는 조국안사장의 희생으로 하여 지휘관들에 대한 경위사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문제로 나서고 있었다. 군이나 사단의 친위대, 핵심부대로 되어야 할 경위부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유능한 군정간부들과 단련된 전투원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휘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위증민은 그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미 봄부터 최춘국이네 여단이 오게 되면 고스란히 자기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남만부대의 어려운 형편도 잘 알고 남만유격투쟁의 전략적 의의도 잘 알며 위증민의 고충과 심정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간절한 청을 마다할 수 없었다.

내가 소망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최춘국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혁명의 요구라면 또 떠나야지요, 그렇지만 너무 상심마십시오, 곁에 와있을 날도 있을게고, 조국땅을 밟을 날도 이제 있게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사실 왕청때부터 같이 지내던 동무들만이라도 내곁에 두고 싶지만 로위(위증민)가 그런 사람들을 더 욕심내고 있소.≫

독립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증민은 이튿날로 나를 찾아와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독립여단동무들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의 흥망은 역시 지휘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지휘관이 똘똘하면 부대가 망합니다. 방진성은 여단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위연대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쏘련에서는 공민전쟁 때 짜르군대출신장교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위연대를 통솔할만한 군정간부하나도 구하기 힘들게 되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 푸념에는 역시 우리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연대장감과 연대정치위원감을 내달라는 속마음이 깔려있었다.

그날 진행한 독립여단의 행군총화서에서는 여단행군을 영활하게 지휘해온 최춘

국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행군에서 모범을 보인 전투원들을 표창하였다. 반면에 방진성과 그를 추종한 지휘관들은 응당한 비판을 받았다. 나는 모임을 결속할 때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우는데서 유격전술을 용의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가 유격전을 하지 않고 정규전을 한다면 그것은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땅을 밟고 다니며 먹이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옛 병법에도 싸울 것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자가 승리자로 된다고 했고 적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노리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적과 맞다들든 영활한 유격전술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여야 한다…

그날의 행군총화에는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인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참가하였기 때문에 나는 연설을 조선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였다.

행군총화가 있은 뒤 우리는 경위연대를 하나 새로 편성하였다. 연대장으로 우리 부대의 경위중대장이던 이동학을 임명하고 정치위원으로는 최춘국을 임명하였다. 임춘추도 위증민의 곁에 가서 그의 병치료를 도와주게 하였다. 독립여단에 소속되어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보내주었다. 결국 위증민은 소원대로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조선인군정간부들과 끌끌한 전투원들로 무어진 경위연대를 가지게 되었다.

위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경위연대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우리곁에 있으려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어 임춘추까지도 국내에 들어간 정치공작조에 자기를 파견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며칠 후 새로 편성된 경위연대는 위증민과 함께 남만의 휘남지구를 향해 떠나갔다. 출발전야에 최춘국은 작별차로 나를 찾아왔다. 추석이 갓 지난 때의 달밤이었다. 우리는 사령부천막옆의 풀밭에 앉아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동무는 북만의 신들메도 풀어볼 사이없이 또 남만으로 떠나게 됐구만,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자꾸 멀리로 보내군 해서 안됐소.≫

≪원,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그만큼 믿어주자니 힘이 생길 뿐입니다.≫

≪휘남은 적들의 경계가 삼엄한 고장이라는데 아무쪼록 몸을 조심하오. 온성에서 도선장파출소를 칠 때처럼 모험을 하거나 덤비지는 말아야겠소.≫

온성의 도선장 파출소 습격 사건이란 1935년 초 최춘국이 중대원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장덕나루를 들이친 전투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국내진공작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전투였다.


온성 장덕나루

도선장에 자리잡고 있는 파출소는 두만강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단속통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틀고 앉아있는 경관놈들이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온성쪽에서 도선장을 거쳐 원군물자를 날라오는 지하조직원들이 번번이 진땀을 뽑거나 통제물자를 압수당하군 하였다. 온성의 지하혁명조직에서는 도선장파출소놈들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최춘국의 중대에 그곳 도선장파출소를 습격할 데 대한 전투임무를 주었다.

어뜩새벽에 전투원들과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은밀히 건너간 최춘국은 대원들을 파출소주변에 배치해놓고 혼자

서 파출소안에 들어갔다. 경관 한 명이 당번을 서고 있는 정황이어서 싸움은 총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서도 쉽게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경관이 난로불을 제때에 피우지 않았다고 심부름군소년에게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최춘국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그를 쏴갈기였다. 그 통에 도강등록을 하려고 파출소앞마당에 모여 있던 인민들앞에서 선동연설 한마디 못한 채 총총히 돌아오고 말았다.

경관 한 놈을 쏴눕힌 크지 않은 전투였으나 그 전투가 일으킨 파문은 아주 컸다. 유격대가 불과 몇 명의 전투원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경초소를 치는 판이니 이게 무슨 큰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활발히 전개된 압록강, 두만강 대안의 적들에 대한 소탕작전의 신호로 되었다.

≪그땐 제가 설익었댔지요. 덤벼치지 않고 좀더 신중했더라면 인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선동연설을 하는건데…그만 덤비는 통에 기본목적을 놓쳤단 말입니다.≫

최춘국은 그때 정치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지휘관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용의주도해야 하오. 이제는 연대의 운명만이 아니라 군사령부의 운명까지 맡아안고 있는데 매사에 신중해야겠소. 쓸데없는 모험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동무는 조국광복회 대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아서 우리곁에 돌아와야 하오. 조국해방작전을 할 때는 무조건 동무들을 데려오겠소. 보천보전투에 참가시키지 못한 빚을 몇 배로 갚지.≫

그 말이 효력을 냈던지 최춘국은 북만에 파견되던 때와는 달리 기쁜 낯으로 내결을 떠났다. 그는 남만에 가서도 우리와의 밀접한 연계밑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나는 최춘국을 남만으로 보낼 때 환인, 즙안, 통화를 중심으로 압록강연안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하라는 과업을 주었는데 그는 그 과업을 실행하는데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었다. 위증민은 나에게 통신을 보내올 적마다 경위연대의 활약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통보해주곤 하였다. 그가 통신원을 통해 보내온 소식들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최춘국의 편지 한 장으로 수백 명의 위만군을 쥐락펴락하였다는 이야기다.

연대를 이끌고 적들의 한 군사요충지근처를 지나가다가 정찰을 통하여 그곳에 수백 명의 위만군과 위만군경찰만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춘국은 위만군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는 중국사람들을 원쑤로 생각지도 않고 또 원수로 만들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푸르허에 들려 당신네 토성안에서 잠간 쉬다가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이것은 유격대와는 될수록 총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만군의 정신상태를 충분히 가늠하고 써보낸 편지였다.

위만군측에서는 연락병을 보내어 혁명군의 요구를 다 들어줄테니 30분간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혁명군이 30분을 기다리는 사이 위만군부대는 성시를 비우고 뒤산으로 피하였다. 저들이 성안에 있으면서 유격대를 들여놓았다가는 훗날 일본군의 추궁을 면할 구실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최춘국의 연대는 성안에 들어가 휴식도 하고 인민들에게 정치사업도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뒤산에 오른 위만군들은 초조해하며 연방 휘파람을 불어댔다. 일본군이 나타날까바 불안스럽기는 한데 유격대를 보고 감히 떠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자기네의 딱하고 초조한 심정을 알아달라는 신호였다.

최춘국은 부대에 출발명령을 내리고 위만군부대장에게 짤막한 인사쪽지를 남기였다.

…잘 쉬고가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를 벗으로 알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조중인민들의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는 반드시 패망하고 조중인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

최춘국은 그런 수법으로 수많은 위만군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을 반일에로 돌려세웠다. 놀라운 것은 위만군부대장들에게 보낸 그런 중문편지들의 대부분을 그가 직접 썼다는 사실이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의 첫 시작부터 마감까지 줄창 남북만 광야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항일연군의 중국인유격부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들과 혁명동지들로부터 국제주의전사로 떠받들리웠다. 중국의 벗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중친선을 위해 바친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최춘국으로 하여금 온 남북만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대장으로 되게 하였는가?

항일혁명시절의 순간순간은 보통때의 하루나 한 달, 지어는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을 몰라보게 변모시켜주었다. 떡쇠가 불속에서 강쇠로 단련되듯이 지난날의 까막눈들과 벌거숭이들, 천덕꾸러기들이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속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선각자로 자라나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되었다.

최춘국은 바로 이 혁명에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이며 투쟁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온 사람이다.

여기에 최춘국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8.15해방 후 최춘국이 결혼을 하고 갓 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 집을 방문했던 임춘추가 부인에게 농담삼아 남편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부인은 수줍게 웃으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유격투쟁을 했는가고 되물었다. 그런 다음 며칠 전 최춘국이네 부대 운동회날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날은 군무자가족들도 초청을 받고 운동회구경을 나갔다. 최춘국의 안해도 역시 명절옷차림으로 운동회구경을 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최춘국은 몹시 언짢은 기색으로 안해에게 물었다.

≪당신은 옷이 그렇게도 없소? 온 부대가 모인 곳에 하필 베옷을 입고 나오다니…≫

안해는 ≪베옷≫이라는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모시옷을 천한 베옷으로 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베옷이 아니라 모시옷이라는 거예요. 여름철 옷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없답니다.≫

≪그렇소?≫

최춘국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였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잘못을 사죄하였다.

최춘국의 안해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질디 어진 사람이 무슨 담을 가지고 왜놈들과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임춘추는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였다. 그리고는 정색해서 말했다.

≪부인이 남편을 옳게 보았습니다. 최춘국동무는 정말 마음이 어질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온성의 도성장파출소 습격전투 때 순사놈한테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는

심부름꾼아이의 코피를 씻어주지 못하고 온 것을 몇 해 동안이나 두고두고 가슴아파하며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또한 무한정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왼쪽다리를 잘 살펴보면 상처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탄알에 다리뼈가 부서진 걸 내가 마취제도 없이 수술하고 봉합을 했는데 그는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무서운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인민들과 동지들 앞에서는 순한 양 같고 적들 앞에서는 호랑이 같은 난관 앞에서는 강철같은 사람이 바로 부인의 남편입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가느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임춘추

임춘추의 말과는 달리 앞날이 구만리 같을 것 같던 그들의 부부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한달 남짓하게 지난 때인 1950년 7월 30일 제12보병사단을 이끌고 안동해방전투를 지휘하던 사단장 최춘국은 안동시가를 지척에 둔 곳에서 그만 중상을 당하였다. 참모장 지병학이 최춘국의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길옆에 세워놓은 승용차안에 누워있었다. 운명이 이미 경각에 다달은 때였다. 지병학의 거듭되는 부름에 가까스로 눈을 뜬 최춘국은 군의에게 자기 생명을 5분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최후의 5분동안에 사단장은 모지름을 써가며 안동의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할 자기의 작전적 의도를 참모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내 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줄 것을 부탁하오.≫

이것이 지병학의 손을 잡고 최춘국이 운명하면서 남긴 유언이었다.

최춘국이 전사했다는 비보에 그날 내 눈앞에는 왼쪽다리를 약간 절면서 걸어다니던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어려와서 그가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왼쪽다리는 항일전장에서 뼈가 부서진 탓으로 조금 짧아졌다. 하지만 그는 불편한 다리로 수만리길을 걸어다니였다. 해방 직후에는 보안간부훈련소 부소장의 중책을 맡고 훈련생들이 도하훈련을 하면 그들과 함께 도하훈련도 하고 산악훈련을 하면 험한 벼랑도 함께 타고 넘으면서 나라의 군사력강화에 헌신하였다.

애젊은 시절에 최춘국이 문턱넘듯 넘나들며 적들을 벌벌떨게 하던 두만강변의 그의 고향 온성거리에 지금은 그의 동상이 군복을 입고 항일혁명시절의 모습그대로 서있다.

동상제작자들은 최춘국의 모습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의 부인을 찾아갔다.

≪최춘국동지에 대한 추억가운데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인에게 던진 첫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할게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말수더구가 적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결혼생활 몇 해 동안에 그이가 한 말을 모두 합친데야 아마 백 마디도 안될테니까요. 차라리 성미가 우락부락해서 내 뺨이라도 때렸으면 추억에라도 남을텐데…≫

최춘국의 안해는 추억에 남을만한 부부생활의 세부가 없는데 대하여 사뭇 아쉬워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뜻있는 말을 하였다.

≪우리 둘째를 한번 만나보시우. 그 애가 신통히 아버지모상을 닮았습니다. 양순하지오. 더 잘 닮자면 억센 맛도 있어야겠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

으로 꼭 그렇게 키우자고 합니다.≫

결혼초기와는 달리 부인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억센 사람, 이것이 항일의 용장 최춘국이다.





혁명열사릉

5. 9월호소문



1937년 9월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1937년 9월 우리는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나자신도 직접 국내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전민항쟁준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였다. 첫 목적지는 함경북도 신흥지구, 두 번째는 풍산지구였고 수행성원은 10여명이었다.

조국땅이 위험한 적구로 되어있던 그 시기에 얼마 안되는 호위대원들을 데리고 국내종심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조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군정간부들은 나에게 국내에로 들어가는 것을 부디 삼가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다. 내가 양복차림을 하고 나서자 ≪대통영감≫은 사령관이 그런 행색을 하고 함흥근처에까지 들어가다니요, 적들의 경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였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 당시 내 심리에는 김주현이네 소부대의 국내공작실패로부터 오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강한 모대김이 깔려있었다.

나는 9월초 호소문의 요구를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였다.

내가 국내깊이에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난처해한 것은 김주현과 그와 동행했던 소부대성원들이였다. 김주현은 마치 자기네 수부대가 대사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국내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하기는 노여움도 전혀 없은 것은 아니었다.

9월에 발표하였다고 하여 9월호소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호소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9월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의 하나는 중일전쟁과 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깨나 보는 사람들 중에는 중일전쟁이 심화되고 일본군의 전과가 확대되어가자 조선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 해 8월초부터 최남선, 윤치호, 최린 등의 이른바 저명인사들은 내외신문들에 일제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그들을 연속 발표하였다.

그 글들을 우리도 읽어보았다.

최남선은 일본의 존재와 그 발흥은 곧 아세아의 기운이요, 동방의 빛이라고 하면서 동방제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대동단결하여야 한다고 썼다.

3.1독립선언문 기안자의 한 사람인 최남선은 일찍이 백두산을 동방만물의 최대 의지, 동방문화의 최요핵심, 동방의식의 최고연원이며 동방대중의 원척이며 그 활동의 주축이라고 하면서 동방의 풍운치고 그 기류의 동원이 백두산에서 발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언제 아무데서고 이마를 스치는 것은 백두산의 바람이요, 목을 추기는 것은 백두산 샘물이요, 갈고 심고 거두고 다듬는 것은 백두산의 흙이라 하였다. 그러던 사람이 돌변하여 일본의 존재가 아세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린은 내선일체로 ≪국민적 적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1독립운동발기자 33인에 속하는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도 배신적이고 매국적이었다.


윤치호

윤치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배를 탄 동일운명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근대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구한국시대의 고관이었던 윤치호를 잘 안다. 그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나 ≪한일합병≫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감옥밥도 먹어보았다. 7.7사변당시 이 인사는 칠순을 넘긴 고령이었다. 이런 늙은이가 그 무슨 영달을 바라거나 목숨이 아까와 새삼스레 일제에게 아부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늙은이는 해방이 되자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 80이 넘은 나이에 자살하였다고 한다. 자결로써 자기의 치욕을 씻으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양심인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왜적에게 전향하게 된 것은 일본을 과대평가했던 데다가 정세의 추이를 잘못 판단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흥지구로 진출할 때 삼수근방에서부터 길안내를 한 장해우도 중일전쟁의 전도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중일전쟁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다. 중일전쟁은 탐욕스러운 일본군국주의로 하여금 스스로 광대한 지역에 병력을 널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서 그들이 병력난, 물자난, 보급난, 원료난으로 허덕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일전쟁은 우리 인민의 독립전쟁에 절망이 아니라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달성의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와 결사전을 벌릴 수 있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9월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민항쟁준비의 전략적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호소문에 중일사변은 더욱더 긴장한 성격을 띠고 있다. 종국적승리가 중국에 있게 되리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가장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후방에서 무장폭동과 파괴공작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 집행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를 조직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요하다.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는 자기 조직의 성원들을 동원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며 군수공장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인민적인 항쟁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본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과업 즉 조선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박아 넣었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진출의 첫 목적지로 신흥지구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지구가 함흥, 흥남 등 우리 나라 노동계급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큰 공업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이였다.

우리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부전령산줄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신흥지구의 울창한 수림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밀영들이 꾸려져 소부대의 활동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 밀영들 중의 어느 한곳에 흥남지구를 비롯한 동해안 각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노조, 농조 핵심성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제2목적지로 풍산지구를 선택한 것은 그 지구에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된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였다.

신흥을 거쳐 풍산에까지 가야 했으므로 지도상에서 적선거리로 타산해도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은 800리가 넘었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등사하여 김봉석의 배낭속에 넣고 떠났는데 그것을 장해우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장해우는 우리가 삼수부근의 청산령봉턱에서 휴식하는 사이에 호소문을 몇 번 반복해 읽고나더니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 조직문제를 중요하게 내놓은 것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원산총파업만 보아도 노동계급은 정말로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1929년의 원산총파업에서 특기할 점은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이였으며 연대적인 협조정신이였다.

원산총파업이 있은 다음해에 신흥탄광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조선각지에서 노동자파업은 해마다 계속되였다.

그러나 그 대중적 파업투쟁은 거의 다 요구조건을 관철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였다.

우리는 9월호소문을 작성할 때 과거 노동운동의 경험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약점은 퇴치하는 방법으로 노동운동의 새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더는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산업노동이 발생한 것은 19세기말엽 개방정책의 흐름을 타고 외국자본이 쓸어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나라 산업노동의 시초를 18세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때는 근대산업이 아직 맹아적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조정이 문호를 개방한 후부터 거침없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사태속에서 항구가 건설되고 철도가 놓이고 공장들이 돌아가고 광산들이 개발되었으며 부두노동자. 광산노동자, 철도노동자, 토목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산업노동자들의 대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업노동의 발생발전은 노동단체의 조직을 가져오게 하였다. 1890년대말에 벌써 이규순이라는 사람이 부두노동조합을 조직했는데 노동자조합으로서는 이것이 첫 산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기의 노동단체들은 의형제나 부조계 형태로 조직되었으나 그것은 점차 노동계나 조합 형태로 발전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조작된 후에는 진남포노동조합, 평양 신창리노동조합, 군산의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대적 노동조합들이 전국각지에서 결성되였다.

물론 당시의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공장별 조합들이었지만 그러한 노조단체들이 발생되자 곧 계급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만은 틀림없다. 192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인 합법적 노동단체로서 노동공제회, 노동대회, 노동연맹회 등이 조직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애국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신흥탄광의
한 갱입구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대중적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

쟁의를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검거투옥하고 노동단체를 해체시켰으며 집회를 엄금시켰다. 그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930년 9월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은 세칭 ≪9월테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조직하여 거기에 공장위원회나 노동자상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조합이 공고한 하부조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31년 10월에는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가 또한 조선노동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비합법적 적색노조를 조직할 데 대한 당면임무를 규정하였다.



1937년 9월하순 신흥지구 삼밭산에 나와서 신흥탄광로동자와 담화하신 집

국제공산주의노조운동이 성원을 받으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1931년부터 평양, 흥남, 원산, 청진, 서울, 부산, 신의주 등 산업도시들에서 적색노조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적색노조들은 노동자대중속에 맑스주의를 보급하고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종파주의자들의 책동과 적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성황기를 보지 못한 채 인차 자기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9월 호소문을 가지고 신흥지구로 진출할 당시에는 노조지도자들이 거의 다 투옥되거나 변절했거나 아니면 피신하여 은둔생활을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실상 노조는 유명무실하였다.

파란많은 우리 나라 노동운동역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도 역시 혁명군중을 옳게 지도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에 종래의 노동운동을 냉철하게 비쳐보면서 우선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가 노조를 빨리 재건하고 노동자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만 전민항쟁준비를 옳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9월호소문의 발표는 극도로 침체되었던 우리 나라 노조, 농조 운동을 중일전쟁이 발발한 정황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고 노선상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나는 장해우와 함께 청산령을 오르면서 줄곧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조선각지와 중국, 쏘련연해주 일대를 방황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해우는 지난 시기 함흥, 흥남 지구에서 활동하던 태평양노조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는 국제적색노동조합산하의 태평양노조블라디보스토크 조선지부 책임자가 김호반이라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지도밑에 1931년 2월에 처음으로 함흥노동자연맹을 적색화한 함흥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장해우에게서 함흥지구 적색노조 간부들의 이름을 적지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노조간부들속에는 바바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인노동자도 있었다. 장해우의 말에 의하면 김호반은 태평양노조 블라디보스토크지부에서 보낸 노조자금 1200원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함흥, 평양, 서울 등지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1931년 여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태평양노조산하 함흥지구 일본인노조 성원들까지고 1932년인가 1933년에 모두 체포되었다.

함흥, 흥남 지구의 노조운동에 생긴 공백을 메꾸고 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이미 박금준, 김석연 등 지하공작에 경험이 있는 정치공작원들을 이 일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이 지구의 노동운동을 뿌리채 뽑아던지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마수를 피할 수는 없었다. 박금준을 비롯한 여러 명의 노조지

도자들은 많은 일거리들을 남겨두고 감옥과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1937년 봄부터 흥남지구에 서간도에서 길러낸 정치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우리 일행은 청산령마루에 올라섰을 때 신흥지구비밀근거지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책임자인 한초남이 불쑥 우리를 찾아 왔다.

밀영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부전에 노구찌의 밀장이 있고 적들의 경계도 다른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달려왔다고 하였다. 그가 오자 우리는 장해우를 신파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부터 길안내는 한초남이 하였다.

얼마후 우리앞에는 넓고 푸른 호수가 나타났다. 한초남은 그것이 부전호 2호언제인데 이제 왼쪽기슭으로 올라가면 1호언제가 보인다고 하였다. 그 언제 가까이에 경찰관주재소가 있고 거기서 3-4리쯤 더 올라가면 노구찌의 별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신흥재벌인 노구찌는 조선에서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전기, 화학 공업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도 건설하고 흥남에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전개하고 군수공업회사도 세웠다. 그리고 부전과 허천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를 감독하기 좋은 위치에 별장을 지어놓았다.

비화로 가득찬 부전호의 건설역사를 더듬어보아도 노구찌가 우리 조선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25년에 누구찌는 부전고원을 돌아보고 사이또총독에게 여기에는 수력자원도 많고 산림자원도 많고 게다가 눅은 노동력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사이또총독은 그 편지를 받고 눅은 노동력을 얼마든지 사서 수전공자를 시작하라, 대일본제국헌법이 그것을 보장할 것이므로 안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부전호언제공사는 1920년대중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물길공사를 할 때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탓에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선인노동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언제공사를 마감지을 때에는 물을 빨리 채우려고 호수주변에 있는 농민가옥들을 이주시키지도 않고 수문을 막아버려 600여 세대나 되는 농민들이 인공수재를 입어 한지에 나앉는 참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수식날에는 제물로 처녀를 바쳐야 수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어린 조선처녀는 물속에 집어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노구찌는 늘 조선인노동자들을 우마로 생각하려고 지껄여댔다. 그가 언제공사를 할 때 얼마나 악독하게 놀았는지 일본사람들마저 ≪노구찌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다.

노구찌별장주변경계가 엄하였으므로 우리는 별장을 에돌아 며칠만에 기본목적지인 신흥의 동오골밀영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우리는 일제의 눈을 피해 산중생활을 하고 있는 20명 가까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산으로 피신해온 경위는 각각이었다.

부전강발전소 공사장에서 악질감독을 돌로 까죽이



신흥지구 동오골밀영의
사령부자리

고 산에 들어박혀 있다는 청년도 있었고 공사에 쓰는 다이나마이트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함흥거리에서 흥남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일제를 타도하라!≫, ≪노구찌는 우리의 피를 짜서 비료를 만든다≫라고 쓴 삐라를 얻어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하게 되자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다.

고원출신의 ≪최면장≫이라고 키 큰 청년은 자기를 ≪관제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면장≫이라는 것은 관직이 아니고 얼굴이 무형으로 길었기 때문에 동무들이 붙인 별명이고 ≪공산주의자≫는 본인 스스로가 단 별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집에서 학비를 대지 못해 중퇴하고 돌아온 그는 한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원거리에서 지냈다. 바로 그 무렵에 근처의 한 공장에서 적색노조사건이 터졌다. 놈들은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미심쩍은 대상들도 모두 검속하였는데 ≪최면장≫도 거기에 걸려들었다. 심문이 시작되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거짓말을 한다고 고문이 가해졌다. 코 안에 고춧가루물까지 부어졌다.


위인찬

그는 고문을 못이겨 노조운동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그때부터 고등계형사는 ≪최면장≫에게 모르는 것을 배워주어 가면서 공산주의자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다.

형사가 ≪너는 왜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하라. 그것도 너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운다고 하고 있다. 그래 너는 이것을 위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디 말해보라!≫이렇게 심문하면 그는 ≪네,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식으로 3개월간의 예심을 받는 과정에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1년간의 징역을 살고 나오자 이제는 당당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일제경찰은 그를 계속 미행하였다. 고원경찰서 고등계형사가 만들어낸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진짜공산주의운동선을 찾기 위해 산발을 타고 북으로 가던 중에 동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산중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나에게 여기 모인 청년들은 모두 일제놈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김평이었다. 김평은 맑스나 엥겔스도 이 말을 들으면 앙천대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맑스는 부르조아지가 자기에게 이윤을 주는 상품 뿐 아니라 자기를 매장할 프롤레타리아도 만들어낸다고 하였는데 이제 보니 일제경찰이 바로 자기를 매장할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동무들에게 보라, 조국의 청년들은 모두 이렇게 일제와 싸울 각오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9월호소문을 주고 부전령 비밀근거지에 있는 소부대성원들과 연계를 맺게 하였다.

부전령산줄기를 타고 오르면서 몇 개의 밀영들도 돌아보고 지형도 살펴보니 그 지대야말로앞으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투쟁근거지로 될 수 있는 명당자리였다.

그 산줄기는 백두산 줄기와도 잇닿아있었다.

우리가 참솔이 무성한 동오골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부전령산줄기를 끼고 있는 동해안지구


신흥촌
담화하신 곳

에서 30명 정도의 정치공작원, 혁명조직책임자, 노조, 농조의 핵심들이 와있었다.

김재수, **김정숙**의 지도를 받음 흥남지구의 지하조직을 개척한 위인찬이 김혁철의 안내를 받으며 동오골밀영에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물고기비린내가 풍기였다. 웬 물고기냄새인가고 했더니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물고기장사로 가장하느라고 고등어를 한중태기 메고 왔다는 것이였다. 그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도천리에서 같이 자란 송아지동무였다. 그들은 소년시절에 사회주의나라 쏘련을 동경하던 나머지 연해주에 가보려고 김공수와 함께 부모들과 일가친척들은 사상경향이 대단히 좋았다.


박우현

위인찬이 도천리조국광복회조직으로부터 공작임무를 받고 흥남지구에 침투한 것은 1937년 6월경이였다. 그의 뒤를 이어 인차 김공수를 비롯한 여러 공작원들이 흥남지구로 증원되어갔다. 때를 같이하여 원산에는 허석선이 파견되였고 신흥탄광에는 이효준, 창성에는 강병선이 들어갔으며 청진에서는 박우현이 조국광복회조직과 연계를 맺고 사업하기 시작하였다.

조국광복회흥남지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그 해 8월이라고 하는데 벌써 많은 노동자들이 지회에 흡수되였고 조직의 운영도 활기있게 되어간다고 하였다. 지회책임자인 위인천은 자기 어머니에게 노동자간이음식점을 차려놓게 하고 그곳을 연락소로 이용하면서 사업내용을 수시로 **김정숙**, 김제수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이 흥남에 와서 첫 조직을 꾸리던 이야기는 매우 교훈적이였다.

도천리에서 온 공작원들이 처음으로 발을 붙인 본궁화학공장 건설노동자들속에는 14살짜리 소년도 있었다. 그 소년이 하는 일은 불에 달군 쇠못을 운반해다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리베트공에게 던져주는 것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한순간에 시체로 변하는 참사가 생겼다. 그 애가 올려던진 불에 달군 쇠못이 공교롭게도 우에서 떨어지는 철편에 맞아 다시 밑으로 떨어졌는데 면바로 카바이드통에 내리꽂히었다. 그 바람에 카바이드통이 폭발하여 소년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노동자들이 모여왔을 때 그는 이미 절명하였다.

일본인감독은 소년의 시체를 병원에 날라가려고 서둘렀다.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조작하게 되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년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안주어도 되기 때문이였다. 공작원들이 감독의 속심을 폭로하자 노동자들은 분개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감독놈들은 겁을 먹고 시체를 어쩌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은 소년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측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흥남공작원들은 노동자들속에서 신망을 얻었으며 노동자들속에 첫 조직을 내올 수 있었다. 그들은 ≪협조계≫라는 합법적인 명칭을 띠고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중년사나이가 불쑥 ≪협조계≫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나는 프로핀테른이여!≫하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프로핀테른이란 국제적색노동조합의 약칭이다. 그가 아마 한때 태평양노조에 관계하였던 모양이다. 스스로 격을 높여 자기를 프로핀테른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당신네한테 경고하는데 좀 자중하오. 중일전쟁으로 요즘 일본사람들이 사나와졌기 때문에 그들하구 엇서지 말아야 하오. 위자료요 뭐요 하면서 중뿔나게 나서지 마오. 당신들 때문에 요시찰인물인 내가 화를 입는단 말이오≫하는 충고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부터 흥남공작원들은 노조관계자들이 극좌로부터 극우로 넘어갔다고 인정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서호지구의 노조속에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김석연의 지난날의 로조관계자들 중에는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일본의 ≪백색로조≫나 구라파의 노동조합주의자들처럼 타협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푸념하였다.

장해우의 말을 들어보면 원래 흥남지구 적색노조가 조직초기에는 반일투쟁을 아주 잘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초에만 하여도 흥남노동조합은 공장가까이에 비밀서류를 보관하는 지하실까지 꾸려놓고 활동을 본때있게 하였다. 조합성원들은 그 지하실에서 격문도 찍어냈다. 밤이면 거리에 나가 반일구호를 내붙이었다. 그날의 용감한 붉은노조는 모두 어디로 갔겠는가?

나는 흥남동무들에게 태평양노조관계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면 노조관계자들이 노동조합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는 우선 동해안지구의 도시, 농촌, 어촌, 광산, 탄광들에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더 많이 내오고 숨어있는 노조, 농조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어 적어도 몇 해 안으로 신흥, 흥남, 함흥, 원산 일대에 수만 명의 항쟁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전령산줄기를 중심으로 비밀유격근거지를 꾸리고 당면하게는 수백 명씩 되는 몇 개의 무장부대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속에는 돌격대를 내오고 농민들속에는 생산유격대를 조직하되 그 모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비밀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9월호소문이 지하수처럼 소리없이 군중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초기에 우리에게는 사람수보다 총이 적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총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남는 총으로 국내에 있는 전체 청년들은 무장시켜 결정적인 시각에 전민항쟁에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때 내가 강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상과 같다.

나는 담화를 마치고 다음날 경찰들의 감시가 덜 미치는 신흥탄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신흥탄광 대표로 온 이효춘이 나를 안내하였다.

수백 세대나 되는 불우한 탄부가족들은 낡고 찌그러진 바라크에 빼곡이 들어박혀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고장에서는 질병과 노동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의 생명이 무덤으로 갔다. 나는 이곳에 찾아온 조직원들과 노조핵심들을 삼밭산의 비밀장송에 모여놓고 9월호소문을 해설해주고 당면과업도 주었다.

그때 한 탄광조직원이 찾아와서 적색노조에서 간부로 있던 자기 사촌형이 변성명을 하고 숨어산다고 하였다. 알고보니 그 사촌형은 노조성원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 때 신흥으로 온 사람이었다. 노조가 파업을 잘못 지도하다보니 숱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개가 되어 조직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경찰이 노조지도자들은 잡아갈 때 사촌형이라는 사람은 겨우 몸을 빼어 탄광으로 왔는데 노조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신흥탄광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형을 만나보았다. 그는 혁명을 같이하자는 우리의 청을 받자 지하에서 나와 만신창이 된 노조를 수습하여 어떻게 하나 9월호소문의 요구를 관철해가겠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노조원명단이 그대로 간수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흥남지구의 노조관계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혁명사적비
≪삼밭산이여 천세만세 길이 전하라≫

우리는 그와 흥남지구 조직원들과의 연계를 지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풍산을 향해 떠났다. 불개미재밀영에서 하루밤 유숙한 다음 곧장 황수원 언제공사장으로 가보았다.

풍토사나운 영북땅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언제공사를 하고 있는 그곳 인부들의 참상은 고역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탄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풍산에서는 천도교출신의 우리 정치공작원인 ≪김빠이≫가 고급양복에 개화장을 짚고 다니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다. 우리는 황수원언제공사장을 거쳐 풍산군 소재지를 지나 어느 화전마을의 외진 포수집에서 박인진을 만났다. 나는 오늘도 화로불에 햇감자를 구워먹으며 그와 함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화전마을의 그 밤을 잊을 수 없다.

그날밤 박인진은 최린을 천하제일매국노라고 규탄하였다.

그가 제일 미워한 것은 ≪3대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최린, 최남선, 이광수였다. 박도정이 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까닭은 세사람이 조선민족을 미개민족처럼 근거없이 멸시한데 있다고 하였다.

≪제 민족을 못난 민족으로 보는 사람치고 길을 옳게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인진의 말이 옳았다. 혁명이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신념이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믿음이기 전에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인 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가 없다면 과연 어디서 애국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박인진과 함께 작별하고 캄캄한 밤길을 걸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였다. 풍산지구 정치공작원들을 만나 9월호소문 사상을 해설하면서도 박인진의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하였다.

조국의 산과 들에 가을빛이 짙어가던 그때 조국광복회 대강을 안고 멀고 험한 길을 소문없이 걸어간 우리의 조국편답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신흥, 풍산지구를 돌고 난 뒤에 부전, 함흥, 흥남, 원산, 단천, 풍산, 신흥을 비롯한 국내각지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었다.

황수원언제공사장에서 노동자돌격대가 무어진데 뒤이어 후치령생산 유격대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이 연방 날아들었다. 공장들에서는 연이어 파업이 일어나고 공사장들에서는 인부들이 집단탈주사건이 벌어졌다.

함흥-신흥지구의 여러 공장, 탄광들에서도 노동자돌격대가 조직되어 곳곳에서 태업과 오작시공, 폭발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함흥만세교 난간과 동흥산의 구천각에 9월호소문과 관련한 선전문이 나붙은 것도 그 무렵이고 **김일성**이 함흥거리에 나와 이발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김일성**이 일본육군병원에 입원했다는 풍문까지 떠돌았다고 한다.


신흥촌 - 두만강 건너오신 곳

함흥, 흥남지구공작원들은 9월 호소문을 접수한 다음 노조와의 사업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숨어있는 노조관계자들을 100여명이나 찾아내어 그들 모두를 조국광복회조직에 흡수하였다. 흥남지구노조는 노동자돌격대의 원천지로 되었다.

≪혜산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흥남지구 조직원들은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위인찬, 김공수, 김응정동무들은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였다.

원산, 문천, 천내리 지구에서도 우리 조직의 활동은 아주 왕성하였다. 천내리시멘트공장조직원들은 9월호소문이 발표된 그 해 가을에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망라한 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적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전에 부수상을 한 정일룡이 문천제련소출신이였는데 그는 해방 전에 자기네 문천제련소에 지하조직원들이 많았다고 자랑하였다. 자기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왜놈십장들과 투쟁을 많이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뒤에서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지하조직원들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내가 해방 후 평양에서 개선연설을 한 바로 그날에 문천제련소에서는 첫 쇠물을 뽑았다. 그것도 그 제련소에서 지하활동을 해오던 조국광복회조직원들이 발기한 애국적 소행이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조직원들은 감방속에서도 9월호소문을 선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발표한 9월호소문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으며 그것은 국내의 혁명운동을 백두산과 연결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놀았다.


신흥촌 - 두만강을 건너가신 곳

수풍발전소 노동자출신으로서 건설상을 한 최재하도 생전에 말하기를 1930년대말부터는 중부조선이북의 큰 공장, 건설장의 노동자들은 거의 다 백두산과 연결된 조직의 영향밑에서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도 동무들을 따라서 파업과 태업운동에 여러 번 참가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당시 우리 나라 산업지대들에는 어디에나 다 조국광복회조직이 뿌리를 박고 있었고 그 조직들의 영향밑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약탈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다. 반일구국의 초지를 버리고 일제에게 전향한자들이 아무리 입을 모아 반공과 친일을 선전하여도 우리 노동계급은 동요없이 애국의 지조를 지켜 싸웠다.

9월호소문을 발표한 때로부터 5-6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지상에 조선청년학생들에게 학도병진출을 권고하는 조만식의 권고문이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 조만식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일제가 조작한 글인지 그 내막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 글은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조만식이까지 전향하면 천하의 민족운동지도자들 중 전향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갔다. 특수무기를 연구하는 흥남지구의 어느 비밀군수공장에서는 세상을 법석 끓게 한 굉장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적들이 조사한데 의하면 사고의 원인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파괴공작이었다. 우리 혁명조직성원들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한다는 그런 소굴에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9월호소문을 적극 실천하였다.

9월호소문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고 있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중일전쟁으로 하여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근로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조직하고 궐기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대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었다.

6.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유경수

1937년은 항일혁명의 전성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백두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역사적인 전환의 시대에 들어선 조선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앙양에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만사가 우리의 의도와 의지대로 다 잘되어가던 그때 조선혁명은 사나운 도전에 부딪히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를 떠나 무송, 몽강현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이 적들이 세칭 ≪혜산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의 혁명역량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선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 한 해 남짓한 기간 꾸려놓은 지하조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우리의 영도와 노선에 충실한 혁명가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처형하였다. 수차에 걸치는 검거선풍을 통하여 적들은 수백수천명의 애국자들을 잡아가두었다. 옥중에서 고문치사를 당한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사천리로 내달리던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사업은 심각한 손실을 당하였다.

나는 몽강현 대갑랍자밀영에서 김평과 김재수를 통하여 ≪혜산사건≫에 대한 상보를 처음으로 들었다. 그때의 통분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수많은 억울한 희생을 낸 ≪민생단≫ 소동이후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커다란 상실감이었다.

나는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혜산사건≫은 매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신념과 의지의 강도를 검증하는 일대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하나의 엄혹한 검열과정이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절개를 지켜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반대로 신념과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배신과 굴종의 길에 떨어졌다.

사건초기 고문에 못이겨 적들에게 대내의 비밀을 고스란히 섬겨바친 배신자들 가운데는 길혜선과 백무선의 철도공사장들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지하공작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철도공사장의 노동계급속에 혁명조직들을 박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곤장을 몇 개 맞고는 인차 적들에게 투항해 버리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명의 이익을 고수해야겠다는 철석같은 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이 부족하였다. 그 몇 사람이 비밀을 불지 않았더라면 장백일대 혁명조직들은 건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벌써 1차 검거에서 권영벽, 이제순, 박인진, 서응진, 박록금 등 수많은 지도핵

심들과 조직성원들을 잃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 자질이다.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다. 참된 인간의 표징을 논할 때 우리는 그가 무슨 사상과 신념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응당하게 중시한다. 왜냐하면 사상과 신념이 강한 인간일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에 성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가들을 육성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신념을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으로 보고 그 배양에 막대한 노력과 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기발밑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과정이 인류가 수행하는 모든 혁명가운데서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변혁운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도전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려운 변혁운동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혜산사건을 언급한 당시 일제의 문건

신념을 신념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동반자, 보호자가 바로 의지이다.

신념과 의지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으며 약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신념과 의지이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에 변질이 생길 때 그 혁명은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신념교양을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필수적인 공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념과 의지의 연마는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단한 교양과 자체수양과정을 거쳐야 견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공정을 경과하지 않은 신념이나 의지는 사상누각과 같다. 혜산경찰서의 취조실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였다. 그들은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과정을 거쳐 신심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그들의 사상의식은 폭풍속에서 연마되지 못한 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항일혁명의 전성기에 입대하여 승리하는 싸움질만 체험한 사람들이였다. 혁명이 상승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 흐름을 타고 이처럼 대열내에 사상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우연분자들이 끼여들게 된다.


이용술

≪혜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우리는 인차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비상회의를 열고 위기에 직면한 혁명조직들을 보호하고 당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1차 검거를 통하여 장백일대의 지도핵심들을 대부분 잡아 가둔 적들은 수사의 폭을 넓혀 서간도 전역과 압록강건너 갑산일대에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 적들은 조선혁명의 명줄을 다 끊어놓기라도 할 것처럼 그 무슨 실적을 뽐내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애써 건설해놓은 지하조직들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었다. 장백과 갑산 일대에는 적들의 폭압망에서 벗어나 타고장에 피신했거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 숨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장백현당과 장백현조국광복회조직의 지도부는 권영벽, 이제순, 서응진, 박인진 등의 체포로 해체상태에 이르렀지만 박달, 김철억, 이용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해방

동맹지도부는 그대로 살아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장증열과 마동희를 국내에 파견하여 피신 중에 있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성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통하여 조직들의 피해정형을 요해장악하며 파괴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의 총적인 지향과 의도는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고 화를 복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김철억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의 행방을 찾아 갑산군 일대의 산간부락들을 차례로 훑어나가던 마동희와 장증열은 남흥동에서 산농지도구 서기로 일하는 김태선이라는 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김태선은 마동희의 동향친구였다. 그 두 사람은 갑산땅에 와서도 청소년시절을 남다른 우정속에서 보냈다. 김태선의 장백현에 건너가서 무슨 강습소에 다니다가 학비난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돈을 대준 사람이 다름아닌 마동희였다. 김태선이 강습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마동희는 서당돈을 5원이나 돌려 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삯김을 메주고 번 돈과 땔나무를 팔아서 번 돈, 대서인 노릇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아 친구의 뒤받침을 직심스레 해주었다.

강습소를 졸업하고 산농지도구 서기의 자리에 취직하였을 때 김태선은 장길부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 내가 지식청년이 되어 밥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동희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덕입니다. 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 한평생 동희의 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동희가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부와의 연계를 지을 과업을 받고 갑산땅에 나갔을 때 남흥동의 김태선네 집을 피신처로 정한 것은 이런 우정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적들의 충실한 노복으로 변해버린 김태선은 마동희와 장증렬이 자기 집에 나타나 숙식을 보장해달라고 하자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주고는 **김일성**의 부하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와있다고 신고하였다. 그 김태선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한 놈이었다.

마동희와 장증열은 적들에게 체포된 때로부터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다.

마동희가 어떻게 고문을 이겨냈고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냈는가 하는 것은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들과 문예작품들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마동희가 어떤 사람인가고 물으면 인민학교 아이들까지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혀를 끊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사람이 자기 혀를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각오는 살아서 역적으로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일단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마동희의 용기와 희생성은 신념이 강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 용기와 희생성은 어떤 고문이나 위협으로써도 거세할 수 없는 무쇠같은 의지의 발현이었다. 마동희는 자기가 비밀을 지키면 조직은 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승리한다고 말하였다.

마동희를 신념이 강한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은 혁명실천이었다. 그는 백암지방에서 살 때 반일회도 조직해보았고 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구대원들과 함께 간고한 무송원정도 해보고 경위중대의 학습강사로서 대원들의 정치, 문화적 자질

을 높이기 위한 계몽사업도 해보았다. 그 과정에 사람이 망국노가 되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며 민족이 살아나갈 길은 투쟁에 있다는 것, 혁명을 해야 살길이 열리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자자손손 마소보다도 못한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었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마동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념의 소유자로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공정한 것, 몰염치한 것, 비양심적인 것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다. 상대가 너절한 인간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면 담임교원과도 단호히 결별하였다.


마동희

소학교 시절의 마동희의 담임교원 조가는 교육자의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시정배와 같은 인간이였다. 그는 학업성적을 실력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친, 불친을 가려가며 불공평하게 평가하였다. 뇌물을 많이 먹이는 집 아이들과 부자집 자식들, 권세가의 출신들에게는 실력에 관계없이 모두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담임교원은 자기가 편애하는 학생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우수생들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비행도 서슴지 않았다. 마동희가 졸업반에서 공부할 때에도 조가는 그 버릇을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뇌물을 듬뿍 찔러준 어느 권세가의 자식을 1등생으로 내세우기 위해 전과목 최우수생인 마동희의 역사시험성적을 일부러 ≪갑≫이 아니라 ≪을≫로 매겨 버리였다. 교원의 처사에 불만을 느낀 마동희는 담임교원한테 서슴없이 찾아가 자기의 시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가는 시험지를 보여줄 대신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그의 뺨을 후려갈기였다. 조가의 행위는 마동희의 분노를 격발시키였다. 그는 스스로 퇴학을 선언한 다음 담임교원앞에서 성적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동희의 아버지 마호룡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단념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낮에 장마당에서 사온 소학생모자를 아


유화 ≪사령부는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들에게 내보이며 네가 맨머리바람으로 다니는 것이 민망스러워 방금전에 모자까지 사왔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훈장이 부자집자식편을 든다든가 권문세가의 눈치를 보는거야 다반사인데 그런다고 선생한테 시비를 걸면 어쩔 셈이란 말이냐, 어서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사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동희는 끝까지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가 담임선생을 찾아가는 것까지 한사코 막아 나섰다.

그 후 마동희와 담임교원은 각기 적대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마동희가 시대의 반항아가 되어 애국전선에 떨쳐나섰다면 조가는 교단을 버리고 매국반역의 길에 나섰다. 그는 순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형사로 승진되어 애국자색출에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그가 눈을 곤두세우고 감시한 첫 대상이 바로 마동희였다. 조가는 마동희의 일거일동을 짖궂게 주시하였다. 똑똑한 건덕지가 없으면 사건을 날조해서라도 마동희를 형장으로 끌고갈 잡도리었다.

조가가 마동희를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장백땅에 들락날락하면서 인민혁명군의 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어느 날 마동희는 장백에 건너가서 유격대대표인 김주현을 만나 입대승인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다가 압록강 다리목에서 도사리고 있는 조형사와 맞다들었다. 조형사는 눈살이 꼿꼿해서 마동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동희는 다리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대번에 직감했으나 태연자약하게 집에 돌아가 출발준비를 하였다.

그날 마동희의 어머니는 백두산으로 떠나가는 아들에게 하직밥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마동희는 그 밥마저 먹지 못하고 총총히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가가 그를 잡아가려고 순사들과 함께 뜨락에 나타났던 것이다. 마동희는 뒤문으로 집을 탈출하여 무사히 압록강을 건넜다.

스승이 제자를 잡으려고 돌아치는 것과 같은 말세기적인 현상은 일제통치자들이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풍조가 빚어낸 비극이였다. 해방 후 장길부녀사는 나를 만날때마다 이 일화를 옛말처럼 들려주곤 하였다.

마동희는 구시산전투 후 전투장 근처에서 우리 부대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치는 조형사를 만났다. 그자는 마동희를 보자마자 무작정 총질부터 하였다. 마동희는 조국도 민족도 제자도 안중에 없는 이 후안무치한 친일반동을 즉석에서 처단해버리었다.

이 일화를 통해서 마동희의 인간상을 알 수 있고 마동희가 지니고 있던 신념이 어떤 토양위에 서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내가 마동희를 데리고 다닌 것은 1년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마동희는 만사람의 사랑을 받은 충실한 유격대원이었지만 그가 유격대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나 일화를 남긴 것은 별로 없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송원정을 끝내고 동강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식량을 구해들이던 때의 일이다. 그때 마동희네 7년대 3중대도 매일같이 식량공작에 동원되었다. 어느 날 밤 중대장은 식량공작을 떠나면서 발에 동상을 당한 마동희와 그 밖의 신입대원 동상자들에게 밀영에 남아 다음날 아침식사준비를 위해 통강냉이를 망에 갈라는 과업을 주었다.

마동희는 중대장의 명령대로 망에다 통강냉이를 갈기 시작했다. 종일 힘에 부친 설상행군을 한데다가 식곤증까지 겹쳐 그는 참을 수 없는 피로를 느끼었다. 그러나 마동희는 찬눈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졸음을 이겨냈다. 그런데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은 먹지 않아도 좋으니 피곤해서 누워있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마동희가 혼자서 망질을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로 누워있었다. 그러다가 마동희가 통강

냉이를 다 갈아놓자 수고한 값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걱정하였다. 우리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그들처럼 동서남북을 전혀 모르는 얼떨떨한 사람들이 간혹 끼여있었다. 마동희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두 신대원을 호되게 꾸짖었다.

내가 밀영에 도착하자 마동희는 이 사연부터 말하였다. 동지애는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혁명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한탄하였다. 그가 몹시 낙심해하기에 나는 지금은 조직적 세련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교양을 잘하면 그들도 훌륭한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신대원들은 물론 그 후 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진짜배기 장병이 되었다.

마동희는 입대 후 짧은 기간에 훌륭한 전투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보천보시가에 대한 정찰도 아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임무수행에서 발휘한 헌신성과 적극성을 높이 평가하여 나는 보천보전투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장에서 인민대표단이 우리에게 축기를 증정할 때 마동희를 조선인민혁명군 병사대표로 내보내어 그 축기를 받는 영예를 지니게 하였다.

그 후 생활이 증명해준 것처럼 마동희는 확실히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병사들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혁명전사였다. 그는 한 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마동희의 안해
김용금

마동희는 누구보다도 사령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비밀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다.

마동희가 희생된 다음날 마호룡은 관을 짜가지고 혜산에 와서 아들의 시신을 싣고 경찰서앞으로 지나가다가 최경부와 맞다들었다.

최경부는 마호룡을 보자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영감, 죽은 아들을 싣고가니 감상이 어떤가?≫

민족에게 백정질을 하는 최경부를 평소부터 밉살스럽게 보아오던 마호룡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분연히 대답했다.

≪내 아들 동희는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딸과 며느리도 그렇게 죽었다. 왜놈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랑으로 여긴다.≫

마동희의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후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투사의 아버지, 애국자로서의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교형리들과 맞서 싸웠다.

마동희와는 대조적으로 장증열은 곤장맛을 몇 대 보기 바쁘게 인차 자기가 아는 밀영들과 지하조직들을 다 불었다. 마동희는 혀를 끊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지켰는데 장증열은 어찌하여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저주스러운 배신의 길을 택하였는가.

학력이라든가 이론수준이라든가 사업능력으로 볼 때 그는 마동희한테 조금도 짝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격내연한을 따지면 오히려 마동희의 선배라고 할 수 있었다. 똑똑하고 붙임성이 좋은 장증열은 입대하자마자 일반대원들로부터 ≪간부감≫이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사령부도 역시 그를 ≪간부감≫이라고 점찍어두었다. 그는 입대 후 보통사람들이 대체로 거쳐야 하는 계단식공정을 밟지 않고 일약 사단청년과장자리에까지 도약해 오른 인물이었다. 사단청년과장이면 그가 권영벽이나 김평에 못지 않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장증열을 어느 정도로 신임했는가 하는 것은 장백현당이 조직되었을 때 그를 현당위원으로 선거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장증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밥도 굶어보고 손발도 얼궈보고 밤도 밝혀보았다. 장증열은 우리가 당하는 곤란을 두고 비관에 잠기거나 신심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저 우리와 함께 만난을 묵묵히 참아냈다. 그러나 그는 철창안에 끌려가자마자 쉽게 흰기를 들고 말았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곤란을 다 참아내면서도 형장에서의 고문만은 견디여 내지 못하고 휴지장을 집어버리듯이 혁명가로서의 체면과 지조를 얼른 집어던지었다.

장증열의 변절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철창밖의 인생관이 다르고 철창안의 인생관이 다를 수 있다는 진실을 통감하였다. 철창밖에서의 장증열의 세계관이 공산주의적인 것이 있다면 철창안에서의 그의 세계관은 유다의 것과 같은 것이였다. 그는 자기 개인의 육체와 혁명의 이익을 바꾸어먹은 장사군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장증열은 많은 비밀을 적들에게 섬겨바치었다. 그는 자기가 관여한 조직들을 다 공개하였고 장백현의 상강구와 중강구관하에서 자기와 연계를 맺고 있던 혁명조직의 지도핵심성원들을 다 불었으며 사령부의 위치와 밀영들의 위치까지도 아는 것은 다 대주었다. 그리고 경찰들을 데리고 19도구아지트에까지 와서 지태환과 조개구를 체포하게 하였다.

조개구도 장증열처럼 변절하였다. 그는 우리 재봉대가 자리잡고 있는 간파하자 밀영에 경찰들을 안내하여 재봉대원전원이 희생되게 하였다. 간파하자에서 전사한 여대원들 가운데는 마동희의 안해 김용금도 있었다.

어찌하여 장증열은 이처럼 너절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변질되였는가, 평상시 그가 지니고 있던 공산주의적 신념은 허울뿐이였단 말인가.

그도 물론 신념에 대한 말은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신념은 공고한 기초를 가지지 못한 서푼짜리 것이었다. 그는 형장의 어마어마한 광경과 경관들의 독기어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대일본제국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은 것 같고 항일혁명으로 그 제국을 타승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의 부질없는 공상이라고 회의주의에 침식된 것 같다.

공고한 기초위에 선 신념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숭상하는 이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그 이념을 위해서라면 굶어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어있는 그런 신념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이며 자체의 주체적인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각오를 의미한다. 그런데 장증열에게는 맞아죽을 각오가 없었다. 자기가 맞아죽더라도 혁명의 이익을 고수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겠는데 그는 반대로 혁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무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장증열은 혁명을 팔아먹은 값으로 육체적 생명은 건질 수 있었으나 그 대신 그보다 더 값비싼 정치적 생명은 잃어버리었다. 사람들이 마동희를 기억하면서도 장증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동희와 장증열이 걸어온 서로 대조되는 두 인간의 행로를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김혁과 장소봉을 의례히 회고해보군 한다. 그들도 같은 시각에 같은 지점에서 같은 궤도를 타고 혁명을 시작하였지만 그 종착점은 서로 남극과 북극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격차의 출발점 역시 두 인간이 지니고 있던 신념과 의지의 질적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김혁이 조직생활과 혁명적 실천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장소봉은 이론에 밝고 두뇌가 명석한 대신 실천이 굼뜨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혁은 어떤 고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소봉은 육체를 혹사하는 그런 성격의 일에 몸을 깊이 잠그지 않았다. 한 사람은 물불을 모르고 열정의 사나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소낙비라 쏟아지는 날에도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진창속에서 돌을 골라 디디면서 신등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냉철하고 타산이 밝은 사나이였다.

우리가 카륜이나 고유수같은 고장으로 왔다갔다할 때만해도 나의 친구들은 김혁을 재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혁명을 위해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시나 쓰고 작곡이나 하는 선비가 혁명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 하는 선입견이 작용했던 것 같다.

기타를 메고 거리를 몇 번만 오락가락하여도 풍각쟁이 대접을 받던 세월이었으니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장소봉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후에 변절은 하였지만 명물이었다. 그는 가명으로 글을 많이 써서 발표하였다. 잡지 ≪볼쉐이크≫에 글을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바로 장소봉이었다. 그 사람은 차광수가 동렬에 놓을 수 있는 한다하는 이론가이고 선동가였다. 그가 이론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 화요파의 거두인 김찬도 그와 논쟁을 하면 늘 수세에 몰려 허둥지둥하였다. 우리는 카륜회의 때에도 장소봉네 집에 가있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그가 몇 해 후 유치장에서 전향문을 쓰고 일제의 충견이 되어 우리를 반대하는 ≪귀순≫공작에 나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처럼 육체적 생명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의 나이는 신념의 유무와 대소에 의해 결정된다.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할수록 그 인간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데서 장수자가 된다. 신념을 일찍이 줴버린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은 비명에 요절하고 만다.

우리 주력부대의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투항한 임수산은 이종락이나 장소봉보다 더 한심한 반역행위를 하였다. 그는 ≪토벌대≫대장이 되어 지난날 한 전호에서 싸우던 전우들을 해치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다니었다. 적들은 그를 주구로 써먹다가 쓸모가 없게 되자 내던지었다. 그 후부터 임수산은 말구지를 끌고 다니며 술장사를 하였다.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술장사에로의 전락, 그것은 신념을 잃어버린 그에게 차례진 서글픈 운명의 귀결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 달구지에 술통을 싣고 안도에서 삼지연을 거쳐 혜산으로 오다가 길가에서 유경수가 인솔하는 소조를 만났다. 그날 유경수네 일행은 백두산주변에서 출몰하는 일본군패잔병들을 소탕할 데 대한 나의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임수산은 지난날 자기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보자 어색해하면서 당신들도 이제는 산에서 내려왔구만, **김일성**장군은 아직도 산에 있는가, 그때 유경수, 이두익을 비롯하여 패잔병숙청사업에 동원된 항일투사들은 모두 일본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임수산은 그들이 모두 자기처럼 일본사람들에게 귀순한 줄로만 알았다. 얼마나 정세에 암둔했던지 일본이 망한 것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사람이 신념을 잃고 지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되고 만다.

손에 무장을 들고 우리와 함께 험난한 항일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절대다

수는 물론 신념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백절불굴의 투사들이었다. 그들은 최악의 역경에 처한 순간에도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고 조국해방에 대한 신념을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의 전우들과 전사들은 낯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였으며 ≪공산주의는 청춘!≫이라고 부르짖었다. 신념을 가진 강자들만이 최후를 이렇게 장식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없었다면 우리의 항일유격대원들이 만주의 그 모진 추위와 주림을 견디여내지 못했을 것이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논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유경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곤 한다. 자기 수령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생을 곧바르게 걸어가는데서 유경수는 만 사람이 따라 배울만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나와 유경수와의 첫 상봉은 1933년 동녕현성전투직후에 이루어졌다. 싸움을 끝내고 소왕청으로 돌아와 대원들을 휴식시키고 있을 때 최현이 인솔한 연길유격대의 대원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 대원들 중에 최현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어린 대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경수였다.

유경수는 통신원의 불찰로 연길유격대가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지각생≫의 신세가 된 분풀이를 최현에게 막 해댔다.

≪중대장동지, 소왕청까지 와서 밥만 얻어먹다가 어떻게 거저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데라도 좋으니 **김**대장을 모시고 한번 답새기고 갑시다.≫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나는 유경수가 보통배짱군이 아니라는 것을 인차 간파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8살이였다. 그가 혁명대오에 들어선 것은 16살때였다.

≪**김**대장, 저 삼손이가 나이는 어려도 싸움군입니다. 애가 녹록치 않수다≫

삼손이란 유경수의 본명이었다.

이것이 유경수에 대한 최현의 총적 평가였다. 나는 그 한마디의 평가를 듣고 최현이 유경수를 몹시 애지중지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살밖에 안되는 이 어린 대원의 짤막한 인생속에는 망국으로 해와 달마저 빛을 잃었던 내 나라의 구슬픈 얼굴이 비껴있었다. 유경수의 경력가운데서 특기할만한 점은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한 사실과 10대에 춘황폭동에 참가하였다가 군벌당국에 체포되어 용정감옥에서 곤장맛을 본 사실이었다. 간도지방에 혁명가들이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물고문이나 고춧가루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장중열이나 이종락과 같은 인간들과는 달리 유경수의 손을 잡아보았는데 손바닥에 썩살이 어찌나 험하게 배겼던지 쇠판대기 같았다.

나는 유경수가 어렸을 때 이삭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다. 이삭공부란 남들이 공부할 때 그곁에서 눈과 귀로 글자를 익히고 이치를 새기면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섭취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그는 나무짐을 지고 장에 갔다올 때마다 사립학교 창문밑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가지를 들고 교원이 칠판에 쓰는 글을 열심히 따라썼다. 그 과정에 조선말 자모와 구구표를 완전히 익히었다.

유경수의 이삭공부를 미구에 온 학교가 다 알고 동정하게 되었다. 유경수의 향학열에 감동된 곽찬영(곽지산)교원은 그를 학교에 입학시키였다. 그리고 학비는 자기가 부담하였다. 이삭글을 배우는 나무군총각에도 쉽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낯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아이에게 입학을 허락하고 그에게 학비까지 대준 훈장 역시 쉽지

않은 교육자였다.

하지만 유경수는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지주집에 머슴군으로 끌려갔다. 그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곽찬영도 큰 충격을 받고 교사직에서 물러나 노동자, 농민들속에서 혁명적인 계몽사업을 시작하였다. 후에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유경수는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계속 곽찬영의 지도를 받았다. 자기 제자에 대한 곽선생의 사랑과 관심은 실로 각별한 것이였다. 그런데 이 선생이 그만 억울하게도 ≪민생단≫올가미에 걸려들어 심판대위에 서게 되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중대장자리에서 철직시키였다. 그의 일거일동은 감시병들의 감시속에 놓여있었다.



유경수

곽찬영이 군중심판장에 끌려나온 날 유경수는 목숨을 걸고 그를 보증해나섰다. 그가 심판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보증해나선 것은 사실 만인의 찬양을 받을 만한 큰 용단이었다. 그 당시는 유경수자신도 ≪민생단≫혐의자의 명부에 등록되어있었다. ≪민생단≫혐의자가 ≪민생단≫의 딱지가 붙은 ≪피고≫를 두둔하거나 동정한다는 것은 총구앞에 달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원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가슴을 내대고 스승의 무죄를 증명하였다. 그 ≪죄≫로 하여 그는 ≪민생단≫감옥으로 끌려갔다.

유경수의 용감한 행위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의리였다. 그는 한평생 스승의 은정을 잊지 않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그처럼 의리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였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도덕과 의리도 잘 지키는 법이다. 혁명가는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를 증오하며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 혁명하는 사람들이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자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지니고 있던 생활의 신조였다.

그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민생단≫이라고 규정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혁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아무렇게나 처형하는 것은 범죄이라고 단호히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비록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져 혁명대오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꼭 수습될 날이 견실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생사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심판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구원해낸 유경수의 용감한 소행에 대한 풍문은 동만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격동시키었다. 나도 다홍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왕청에서 있었던 그와의 상봉을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돌이켜보았다.

나는 마촌에서 연길유격대의 전우들을 바래줄 때 최현에게 이런 농을 하였다.

≪저 삼손이는 어느 모로 보든지 욕심나는 싸움꾼이입니다. 우리의 상봉기념으로 저 애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최현은 그 말에 농담절반, 진담절반으로 응수하였다.

≪최현은 안 되우다. 저 녀석이 싸움은 본때있게 잘하지만 아직 속은 좀 궁글었수다. 3년만 더 키워서 **김**대장에게 바칠테니 그때까지 참아주시오.≫

유경수가 우리의 가까이에 와서 중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할바령회의

이후부터였다. 소왕청에서의 첫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근 10년 세월을 그는 최현부대에서 기관총수로 복무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를 자주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살뜰히 돌보아주지도 못하였다. 내가 유경수를 위해 해준 것이 있다면 ≪어린 혁명가≫라는 칭호를 준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그 칭호를 자기자신에 대한 표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혁명을 위해 한 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무산지구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천보산일대에로 진출하던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

우리의 행적을 탐지한 적들은 그때 천보산과 그 주변지구에 ≪토벌≫무력을 집결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려고 획책하였다. 최현부대는 우리에게로 쏠리는 적들의 싸움을 하였다. 그 시가공격전이 얼마나 가렬했는가 하는 것은 적들이 여자들까지 내몰아 수류탄을 던지게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성시의 적들은 대부분 섬멸하였다.

하지만 최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토벌≫역량을 소멸하기 위해 유인전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50명 남짓한 부대의 일부 성원들로 전투조를 조직한 다음 천보산시가에서 20리쯤 떨어진 수림속에 매복전을 펴놓았다. 바로 그 전투조에 유경수가 망라되어 있었다. 유경수소조는 적을 유인하기 위해 ≪토벌대≫의 숙영지들을 연속적으로 기습하였다. 어떤 날 밤에는 같은 숙영지를 두 번씩이나 습격하였고 또 어떤 날 밤에는 ≪토벌대≫의 작전지도까지 탈취해옴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악에 받쳐 인민혁명군을 추격해 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유경수는 그때 옹근 사흘동안 물도 변변히 마시지 못하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싸움을 도맡아하였다. 이 작전에서 유경수가 세운 공로를 두고 최현은 해방 후에도 이따금씩 생동한 회상을 하였다.

최현부대는 산고개를 일곱 개나 넘으면서 숨돌사이도 없이 적들을 연방 족치였다. 적들은 흔들레판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현부대의 덕으로 우리 주력부대는 적들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고 천보산일대에 무사히 진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당초에 계획했던 최현부대와의 상봉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 최춘국부대를 만났다. 우리가 최춘국이네 부대를 만나고 있을 때 최현부대는 오히려 천보산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지점에서 다음차례의 유인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현의 말에 의하면 그때 4사의 전체 유격대원들은 우리를 만나지 못하는데 대하여 몹시 섭섭했다고 한다.

우리에 대한 유경수의 의리는 참으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의리가 얼마나 고결하고 진실한 것인가를 나는 소부대활동시기에 더욱 절절하게 체험하였다.

혁명가로서의 유경수의 인간미는 자기 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사령관의 명령을 집행하는데서 맹세나 약속을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았지만 일단 한 맹세나 약속은 어김없이 이행하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령관동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과 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우리는 조국의 해방도 이룩할 수 있고 자기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유경수가 일상적으로 간직하고 있던 신념이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나의 명령이나 지시를 훌륭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1941년 이른봄에 나는 만주각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유경수네 중대를 데리고 쏘련 원동의 훈련기지를 떠나 백두산일대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유경수는 중대성원들과 함께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는 한총구에 사령부자리를 정한 다음 각지에 소조들을 파견하였다. 유경수도 나의 명령을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령부를 떠날 때마다 자기네 소조에 차례진 식량을 경위대원들에게 맡기며 장군님께 밥을 지어드리라고 당부하군 하였다. 그리고 우리한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인전을 자주 조직해서 적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군하였다.

사령부가 한총구에 자리잡고 있을 때 나는 유경수에게 화전현 노금창에 있는 연락지점에 가서 위증민을 만나고 오라는 과업을 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몇 십겹을 헤아리는 적의 보초소들과 봉쇄구역들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래서 사령부에서는 그에게 10명에 가까운 인원을 떼주었다. 그러나 유경수는 사령부호위를 염려하면서 두 명만 데리고 노금창으로 떠나갔다. 그는 3명분을 식량으로 내가 배당한 한 포대의 쌀마저 전문섭에게 슬그머니 맡기고 대여섯 되박밖에 안 되는 쌀만 휴대하였다.

유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총구는 온통 ≪토벌대≫의 불무지로 가득차 있었다. 사령부가 천막을 치고 있던 자리에서도 여러 개의 불무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라고 명령한 마지막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나어린 두 대원은 나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사실 그날밤 한총구에 펼쳐진 불바다를 보고서는 사령부가 살아서 건재해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유경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없다. 이 30분 동안에 우리가 저 불무지가 있는 사령부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위험속에서도 우리 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는 대원들을 달래였다. 그리고는 그들을 산봉우리에 남겨두고 사령부의 천막자리를 향해 주저없이 기여 내려갔다. 그러다가 그 근처에서 우리가 떨궈두고온 대원을 만났다. 유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령부자리부터 어김없이 찾을 것이라는 나의 확신과 정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기 사령관이 소조를 기다릴 것이라는 유경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였다.

내가 정해준 날자와 시간과 장소를 털끝만큼한 편차도 없이 엄수하려는 유경수의 드팀없는 자세와 철저한 집행정신은 자기 사령관은 어떤 정황에서나 대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사령관의 신임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고통도 각오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리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신념과 의리심을 가지고 유경수는 해방 후 철도경비대를 조직하고 땡크부대를 건설하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에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방침을 실현하는데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인민무력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군인들을 그 어떤 정세변화나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지키는 강의한 투사, 충신들로 키우라고 말하군 한다.

역사적 경험은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는 대오안에서 동요분자,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지만 내외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혁명의 길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에는 대열안에서 사상적 혼란과 동요가 생기고 투항분자, 낙오분자들이 나와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만주강점이나 중국본토침공과 같은 큰 국제적 사변들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투쟁이나 공산주의운동 대열안에서 터다란 정치적 자극과 사상적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9.18사변이후 일제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었다면 일부 민족운동자들과 혁명적 각오가 굳세지 못한 공산주의운동자들은 만주까지 강점한 일제를 더는 당해낼 수 없다고 단정하고 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갔다.

일제의 중국본토에 대한 침공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일제가 중국을 대거 침공하는 것은 불피코 역량의 분산과 소모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만큼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발전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중일전쟁이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정치군사적 난관을 모르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였다. 우리는 중일전쟁으로 하여 급변하는 어려운 정세에서 유리한 측면을 중시하고 불리한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였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이러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신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도 항일운동대열내에 끼여든 우연분자들과 일시적 동반자들속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사상적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일제가 중국본토로 쳐들어가 무한, 삼진까지 삼키는 것을 보고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대세를 돌려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상적 변질과정은 결국 패배주의를 낳고 그것을 온상으로 하여 적지 않은 혁명의 탈락분자들과 시정배들, 배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중국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태평양전쟁준비에 달라붙는 한편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을 종국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대대적인 ≪토벌≫공세를 연속 벌였다. 결과 남북만 도처에서 소용돌이속에서 남만의 양정우부대마저 큰 피해를 당하였다.

열하원정의 실패로 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적지 않은 부대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그 무렵에는 중국사람들속에서도 투항분자, 도주분자들이 생기였다.

1938년 여름 양정우휘하의 1군부대는 열하에로의 또 한 차례의 원정을 개시하자마자 적의 대포위에 들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 당시는 적들이 군사적 공세와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귀순공작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던 때였다. 항복한 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귀순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른바 만주국 황제의 ≪은사의 대조≫라는 것이 공포되어 혁명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비겁분자들, 의지박약자들을 유혹하였다. 항일무장부대들에 대한 ≪토벌≫작전이 악랄하고 끈질지게 벌어지는 가운데 유격대와 인민을 갈라놓기 위한 ≪비밀분리≫책동도 심화되었다. 혁명군은 인민들의 지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들고 때묻은 본래의 유격근거지를 떠나 열하방면에로의 승산없는 원정길에 오른 항일연군부대들은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생소한 땅에서 인민들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하고 적의 거듭되는 ≪토벌≫에 시달릴대로 시달리였다.

이런 때 양정우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며 남만의 항일맹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1군 1사 사장 정빈이 요녕성 본계에서 투항을 반대하는 정치일군을 총으로 쏘아죽인 다음 부대를 데리고 적들에게 귀순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1군 앞에는 심각한 난국이 조성되였다. 동북항일연군 제1군 지휘일군들의 활동경로와 소속부대의 번호, 밀영설치의 비밀들을 잘 알고 있는 정빈의 변절은 1군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였다. 정빈의 귀순으로 하여 1군의 서정계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정빈은 그 후 통화성경무청장 기시다니의 앞잡이가 되어 양정우포살작전의 돌격대로 나섰다. 그가 안내하는 ≪토벌대≫와의 격전에서 남만의 명망높은 항일용장 양정우는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기시다니가 열하성부성장으로 조동된 다음 정빈은 거기에 따라가서 ≪열하일심대≫라는 경찰≪토벌대≫를 무어가지고 대장노릇을 하였다.

정빈이나 전광이와 같은 자들의 실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변절일수록 그 양상은 보다 악랄했고 후과도 몇 곱절 더 컸다. 정빈이 적들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적들의 진영으로 넘어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는 직위불만도 없는 사람이였다. 그렇다면 그가 투항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내 판단에 의하면 정빈의 배신행위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데서 온 것이다. 그는 7.7사변 후 매일과 같이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는 일본군의 위세앞에서 겁을 집어먹었고 따라서 혁명의 전도를 암담한 것으로 보았다. 언제 성사될 지 모를 혁명을 하느라고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역적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내 한 몸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자, 이것이 분명 정빈이 적들의 편으로 넘어가게 된 사상적 동기라고 본다.

정빈은 이름난 싸움군이였지만 보매 사상수양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염두에 둔 사상적 수양이란 주로 신념교양, 낙관주의교양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상단련을 잘하지 않으면 역경에 부닥쳤을 대 곤란앞에서 인차 굴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사상제일론을 주장한다.

상전이였던 기시다니는 패전 후 가족들과 함께 자결하였다. 그러나 정빈은 그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많은 일본인 포로들을 제 손으로 사살한 다음 정체를 속이고 팔로군에 들어가 지휘관의 자리에까지 기여올라갔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오래갈 리는 만무하였다. 정빈은 보호색을 쓰고 애국자로 가장하였지만 배신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오래 숨길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어느 해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가 우산을 받쳐들고 비내리는 심양의 거리를 걸어갈 때 그 우산밑에 기여들어 비를 긋는 사람이 있었다. 그자도 역시 정빈이처럼 보호색을 쓰고 살던 반역자였다. 그는 정빈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지 그들은 당국에 찾아가 서로 상대방을 변절자라고 고발하였다. 그 과정에 정빈이 투항분자였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신념을 버리고 적의 품에 기여 들어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너절한 인간에게 인민재판은 응당한 판결을 내리었다.

정빈의 운명은 신념을 버리고 동지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로 된다.

양정우부대가 녹아난 다음부터 ≪토벌≫의 포화는 우리에게로 집중되었다. 적들은 **김일성**부대만 소멸하던 만주와 조선의 항일운동은 끝장이라고 하면서 사면팔방으로부터 우리를 포위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우리앞에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타도제국주의동맹 시절부터 혁명투쟁을 해오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겁분자, 투항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무렵에 동북항일연군앞에서 지휘관으로 있던 방진성, 박득범도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 대오에서는 도주자가 생기었다. 우리의 적지 않은 대원들속에는 쏘련에 대한 의존심 즉 지금말로 하면 사대주의가 있었다. 일부 지휘관들이 민족자주의식을 배양하는 사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다나니 쏘련만 믿고 의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말하자면 쏘련의 지지나 도움이 없이는 조선독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이때처럼 내가 민족자주의식이야말로 혁명가의 신념을 좌우하는 하나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진리를 절감한 때는 일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을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력독립의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도주자나 변절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자신이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은 하찮은 것으로 보면서 큰 나라의 덕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보려고 시도하던 사람들가운데서는 낙오자들과 투항분자들이 생겨났다.

사람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 예외없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며 패배주의에 빠지면 곧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도반단하게 된다.

이런 류의 인간들은 큰 나라들이 혁명에서 곡절을 겪을 때면 자기 나라 혁명도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 혁명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만큼 국제반제역량과의 단결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실패에 동정을 표시하거나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또 큰 나라 혁명의 실패가 자기 나라 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큰 나라 혁명이 일시적인 좌절을 당한다고 하여 작은 나라 혁명도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발을 내던진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혁명은 국제적 성격을 띠기 전에 우선 민족적 성격을 띤다.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완강하게 투쟁을 벌려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고지든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며 지론이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식은죽먹기로 생각하고 무장대오에 들어왔던 사람들, 신념이 뚜렷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 종파근성에서 예외없이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올 때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다.

임수산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 후부터 나는 전우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군 하였다.

≪정세는 엄혹하고 투쟁은 점점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반드시 독립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 있은 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런 즉 우리를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놓고 집으로 돌아가라. 도주는 비열한 것이지만 보고하고 가는 것은 일없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0년이상이나 혁명을 같이하다가 인사도 하지 않고 헤여지겠는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바래워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모자라고 신념이 약해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이런 식으로 내놓고 말하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내가 이렇게 선언했지만 대원들가운데는 전우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이 심하여도 신심을 잃지 않고 완강하게 항쟁을 계속하였으며 종당에는 일제를 때려부수고 조국해방의 대업을 훌륭히 성취하였다.

우리는 ≪혜산사건≫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제때에 수습책을 세우고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당 조직 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항일전쟁이 낳은 영웅들의 뒤를 이어 지금은 어려운 초소들에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강자들이 끝없이 배출되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거창한 혁명투쟁과정은 곧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낳는 온상이며 터전이다. **김정일**동무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우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의 실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무가 말한대로 이인모를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는 신념과 의지가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값비싸게 평가되는 때이다. 우리 시대는 전체 인민들이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집요한 봉쇄정책과 반동적인 사상공세로부터 우리의 신념과 제도를 고수하며 금강석같은 의지를 가지고 조성된 난국을 뚫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고수해온 신념을 버리고 그 신념의 창조물인 사회주의를 버린 것으로 하여 지금 적지않은 나라들에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난무하고 있다. 역사는 신념을 버린 자들에게서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법이다.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 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인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변함없이 전진하는 인민들만이 자주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설 수 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

《계승본》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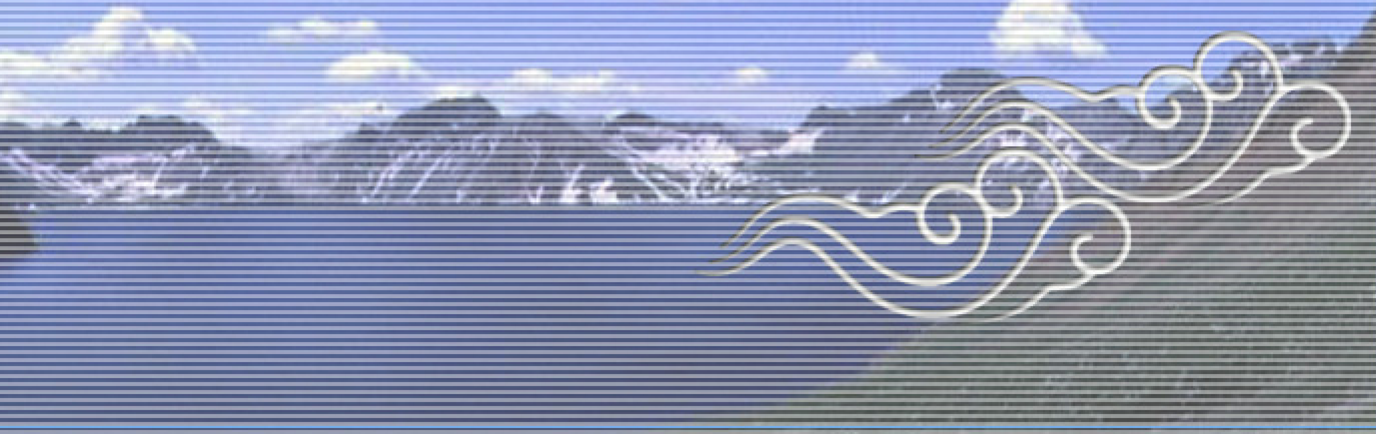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20장 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향하여

21장 대부대선회작전의 총성

제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 시기 : 1937. 11 ~ 1938. 11

1. 마당거우 밀영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동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정우현의 지난날 이름은 몽강현이다. 그 현에는 패자라고 부르는 광대한 밀림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 동쪽 패자(동패자)의 밀림속에 마당거우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있다.

바로 거기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37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무려 4개월에 걸치는 집중적인 동기군정학습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청소년학생들이나 간부들과 군인들의 학습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항일혁명시기의 학습경험을 자주 말씀해주군 하시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추억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한 단락이다.

1937년 겨울에는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이 군정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마 한 너덧 달쯤 품을 들여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 해 봄에 동강밀영에서도 한 달 남짓하게 집중학습을 했다는데 또 무슨 집중학습인가 하고 동무들은 좀 별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상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단순한 군사집단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를 다같이 중시하는 혁명군대입니다. 문과 무를 겸비해야 무장투쟁도 잘할 수 있고 인민들과의 사업이라든가, 통일전선사업이라든가 적군와해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의 교육과 교양에 많은 힘을 넣은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군인들을 육성하는데서도 힘있는 수단은 학습입니다.

동무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상의식에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과 지적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이 동양천지를 다 삼키는줄로 알고 맥을 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관내의 넓은 땅덩어리를 어렵지 않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투쟁을 좀 하던 사람들조차도 뒤골방에 틀어박혀 우국지사행세를 하거나 살아갈 구멍수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혁명군대오안에서도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동요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이나 군사교육에 힘을 넣지 않는다면 주체적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혁명의 자주노선을 끝까지 배심있게 밀고나갈 수 없었습니다. 국제당의 간판을 달고 나도는 이러저러한 노선이 일으키고 있는 혼란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당에 앉아 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열하원정노선을 내리먹이어 조중 두 나라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속에서는 조선공산당발기자그룹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라는 것과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국제당 제7차대회에서 한 연설문이 나돌고 있었는데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당이 해산된 다음 올바른 지도노선을 찾느라고 좌왕우왕하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이나 국제당대회의 연설에서 그 어떤 시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이해할만한 일입니다.

국제당대회의 연단이나 기관잡지에서 조선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도 물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공산당발기자들이 작성한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이나 국제당대회의 연설에는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지 않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것을 정식화하였으며 유격구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을 관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자주노선에 관한 지식부터 똑바로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논문을 쓰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집중적인 정치학습을 조직했던 이유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논문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임무를 또다시 서술하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군정학습을 다시금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의 통치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마당거우는 혁명군이 한 해 겨울 군정학습을 하며 지내기에는 알맞춤한 장소였습니다.

마당거우에 들어서던 날 선발대대원들이 만들어놓은 화독에 감자를 구워먹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몽강지방도 무송이나 안도에 못지 않게 감자가 잘됩니다. 어떤 감자는 목침만해서 바가지 하나에 한 알밖에 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맛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그 해 겨울동안 매개 병사, 지휘관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를 정해준 다음 부대별, 조직별, 학습반별 회의를 가지고 학습을 잘

할 데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학습도 전투다!≫라든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는 그때 우리가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구호입니다. 나는 그 구호를 병실마다 큼직하게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유격대오에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동희, 최경화, 김영국, 강돈 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유식해서 대학생이라는 별명을 받기는 했지만 학력이라야 소졸, 중졸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였기 때문에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서철이 그 중 높은 편이였는데 그도 돈이 있어서 전문학교까지 나온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도 이악하고 직심스러운 덕에 고학으로 전문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박소심이나 차광수나 대통영감만큼 다문박식한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신입대원들은 군사훈련에만 참가하고 정치상학에는 잘 참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의 하나가 박창순이라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는 까막눈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글은 모르지만 싸움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곧잘 큰 소리를 치군 했습니다. 그러다나니 학습시간도 뚜꺼먹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학습에 자꾸 빠지는가고 물으면 ≪머리속이 캄캄해서 통 글을 배워낼 수 있어야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사격연습이나 잘해두었다가 일본놈을 많이 잡는 것이 상책일 것 같수다.≫하고 대답하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박창순을 불러다놓고 담화를 하던 도중에 앞에 서있는 고로쇠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는 무엇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박창순은 도끼자루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를 길러 부림소로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다시 물었더니 ≪코뚜레를 꿰야 합지요.≫하였습니다.

실농군인 박창순은 그런데서는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아주 잘했다, 동무가 농사를 지어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야 그런 이치를 알겠는가, 혁명사업에서도 꼭같은 이치가 작용한다, 무엇이 어디에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야 혁명을 잘할 수 있다, 모르고서는 고로쇠나무를 보고도 그것이 훌륭한 도끼자루감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적을 많이 잡는 묘리를 모르는 사람은 적을 많이 잡을 수 없다, 총만 가지고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동무가 정 공부를 못하겠다면 우리는 동무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학습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혁명을 해낼 수 있겠는가, 총을 바치고 집에 가서 농사나 짓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으니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몽강현
마당거우밀영

혁명을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인 것만큼 박창순은 공부를 하기 싫다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머리를 싸매고 학습에 달라붙었습니다.

신입대원들가운데는 머리타발을 하면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권 무엇이라고 하는 그는 동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귀담아들을 대신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홍범도장군도 자기같은 무식쟁이였지만 독립군대장노릇을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글을 몰라

혁명을 못한다는게 무슨 소린가고 반박하군 하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데서는 박창순을 찜쪄먹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나 찔통을 부리며 애를 먹였던지 그 사람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골머리를 앓다 못해 나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그 신입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전령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그 편지를 읽어주지 않도록 미리 모든 중대들에 단단히 침을 놓게 하였습니다.


김영국

전령병이 나의 편지를 전달해주자 신입대원은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하나의 평대원으로 사령관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연이 적혀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으니 야단이 아닙니까. 그는 아는 동무들을 찾아다니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구실저구실 붙여가면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그는 이 소대에서 저 소대에로 또 이 중대에서 저 중대에로 발이 닳게 돌아다니며 편지를 봐달라고 빌붙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혼이 났겠습니까.

권동무는 하는 수 없이 나를 찾아와서 편지에 적힌 사연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을 몇 시까지 하고 사령부에 와서 보고하라는 긴급지시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고온 때는 이미 지령이 적힌 시간이 퍽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령관이 자기에게 준 과업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그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나는 자 봐라, 무식하다보니 사령관의 명령도 집행 못했다, 동무가 적구에 나가 사업할 때 내가 편지로 어떤 명령을 떨구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대원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학습에 열성을 내였는데 훗날 아주 유식한 군정간부로 자라났습니다.

말이 난 김에 글을 모르던 사람이 학습을 잘해서 투사로 자라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왕청시절의 우리 부대에 김만익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꾸냥이란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녀를 중국말로 꾸냥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결도 맑고 얌전하고 또 곱게 생겨서 왕청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달았는데 꾸냥답지 않게 키는 구 척이나 되었습니다.

김만익은 초기에 청년의용군에 속해서 소왕청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유격대에 정식으로 입대한 다음에는 최춘국이네 중대에 배속되었는데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어오도록 기차도 구경해본 적이 없는 소박한 시골태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때가 묻지 않았던지 마음이 백지장같았습니다.

그가 한번은 열차습격전투에 나갔다가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습니다. 김만익이 전투를 앞두고 레일장에 귀를 대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전우들이 이상해서 그에게 뭘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만익은 응, 기차란게 뭔가 했더니 별게 아니구나, 이런 쇳덩이줄을 타구 발구처럼 미끄러 다니는 새발구구만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식하던 김만익이도 우리한테서 글을 배우고 후날에는 중대청년간사가 되어 대원들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중국 동북해방 전투에 참가하고 조국에 돌아온 그는 강건의 사단에서 대대장으로도 사업했고 연대장으로도 복무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취급한 우리의 책자들에 김만익이 서울과 대전을 해방하는 전투때 부대지휘를 잘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희생된 곳이 낙동강계선일 것입니다. 그는 배와 목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이틀동안 전투장을 떠나지 않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김만익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느라고 비서처와 출판소 일군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출판소를 꾸려놓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과 참고서들을 적지 않게 찍어냈습니다. ≪종소리≫의 주필사업을 하던 최경화나 ≪서광≫의 발행사업을 책임졌던 김영국은 모두 비서처의 쟁쟁한 문필가들이였습니다. 그들이 주동이 되어 대통영감과 함께 교재내용을 해설하는 글이나 학습에 도움이 될 문학작품들을 부지런히 써서 우리 대내출판물들에 싣기도 하고 또한 열성독자들을 발동하여 땀내가 나고 화약내가 나는 생동한 글들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습반성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자반에 망라된 대원들까지도 그 해 겨울에는 신문, 잡지들에 낼 글들을 쓰느라고 이만저만 열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느라면 안목도 넓어지고 학습열의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정치학습의 기본문제는 혁명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와 혁명적 신념문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문제들이였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다 중일전쟁발발후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것들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자주노선을 견지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와 같은 문헌들이 마당거우군정학습에서 주되는 학습교재로 이용된 것은 바로 그 문헌들에 혁명



청강전자전투약도
(1938.1)

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이 똑똑히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당거우에서 군사학습에도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군사상학의 중심은 유격전법들이 종합되어있는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였습니다. 지휘성원들은 전술학습에 주력하게 하였고 대원들은 사격훈련과 제식훈련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기를 연마해나가게 하였습니다.

마당거우에서는 유격전술과 함께 정규군전술도 동시에 학습시켰습니다. 과정안에 정규군전술학습을 포함시킨 것은 적을 전술적 측면에서 더 깊이 파악하려는데도 있었지만 해방된 조국에서의 정규군건설이라는 대과제를 앞에 두고 그것을 담당하여야 할 우리들자신이 사전에 필요한 지식을 섭취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경화

우리는 자주 야외에서 실전의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전술연구모임을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평대원들에게도 전술학습을 시켰습니다. 지도의 가치를 모르는 신입대원들에게 지도를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지남침에 의한 방위판정법도 배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입대원들이 군사상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을 통해서 잘 다져나갈 수 있게 이따금 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청강전자전투와 정안툰전투는 우리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하는 기간에 조직한 전투들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은 후방물자를 해결하느라고 한차례의 매복전투도 조직하였습니다.

정안툰을 칠 때 최경화동무를 잃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발 건사를 잘하지 못해서 동상을 입었던 강돈도 그 후에 전사하였습니다. 최경화와 강돈은 둘 다 장백에서 입대한 대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신대원들과는 달리 장백지방에서 큼직큼직한 지하조직들을 몇 개씩 맡아서 지도하다가 혁명군에 들어온 지식인출신의 전도가 촉망되는 대원들이였습니다.

최경화는 권영벽이 왕가골에 내려가서 서간도일대의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사업을 지도할 때 찾아내어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가 왕가골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강돈도 우리가 서간도에 나와서 찾아내고 육성해낸 사람입니다. 강돈은 소학교 고등과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자습으로 중학강의록과 사회발전사를 떼고 일찍부터 군중계몽사업에 뛰어들어 반일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립하고 지도한 야학들이 유명했습니다. 강돈은 그 야학들을 통해 수많은 혁명가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 부대에 강돈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을설도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지금은 영웅을 한 명만 키워내도 크게 떠듭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강돈은 큰 공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돈은 영화동에서 조국광복회조직에도 참가하고 반일청년회도 조직하였습니다. 그가 꾸린 조직들이 원군운동을 잘했습니다. 강돈은 십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가치있는 군사정보들도 무시로 수집해 보내주었습니다. 강돈이 원군물자를 지고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나는 곰의골밀영에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강돈은 혜산사건이 터지자 혁명군중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다음 마을청년들을 인솔해가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가 신입대원이였지만 우리는 그를 중대선전간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선전간사의 직분에 맞게 대원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전문섭동무도 아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강돈은 학습토론과 논쟁에 늘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대내출판물들에 글도 여러 번 써냈습니다. 종소리에 실린 그의 글이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 혜산사건을 도발한 후 장백땅에서 일제가 감행한 만행을 폭로한 글이였는데 필자의 체험이 아주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였습니다.

부대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하는 기간 나는 4사부대와의 연계를 위해 강돈을 화전현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마당거우에서 화전현까지는 300리가 넘었습니다. 적의 경계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4사부대의 소식을 몰라서 안타까와한다는 말을 듣자 강돈은 자진해서 화전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강돈이 화전에서 귀중한 정찰자료들을 한 보따리나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충실성과 용감성에 탄복하였습니다.


강돈

우리 부대가 정안툰을 칠 때에도 강돈은 수류탄으로 포대를 까부시며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포대를 까부신 다음 방차대로 나갔다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영에 돌아오자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강돈은 동상을 입은 몸이였지만 편안히 누워서 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의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신문에 글도 써내군 했습니다. 문자그대로 불면불휴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밀영에 쳐들어오자 총을 들고 서슴없이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돈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였는데 분하게 잃었습니다.

강돈의 영웅적 생애는 학습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혁명실천에서도 모범을 발휘하게 되고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위훈의 창조자가 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알고 있은 빨치산영웅들은 예외없이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학습을 게을리한 사람들속에서는 후대들앞에 모범으로 내세울만한 영웅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양식을 풍족하게 마련하고 있은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반드시 혁명을 위해 큰 위훈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인민무력부간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수복영웅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학습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념이 강한 것을 보지 못했고 신념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혁명적 의리에 충실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야 신념도 강해지고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높아집니다.

김정일동무가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한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군정학습기간에 대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이였습니다. 혁명가요보급과 오락회도 자주 조직하고 혁명적인 소설작품이나 전기실화작품들을 소개선전하는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것도 자주 열어 대원들로 하여금 낙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밀영에서 오락회가 조직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인간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숙영지에서도 울리고 가설무대들에서도 울리고 전장에서도 울리였습니다. 노래소리가 높다는 것은 사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기가 높

은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래소리가 높아야 혁명대오가 흥하고 강해집니다.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활문화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렸습니다. 정갈하지 못한 육체에서 건전한 넋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산만무질서한 대오에서는 강철같은 전투력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적들은 우리 부대가 숙영한 자리, 불피운 자리만을 보고도 추격을 중지하였습니다. 그것만을 보고도 우리 군대의 규율과 질서,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당거우밀영에 들어온 초기에는 탕개를 풀어헤치고 되는대로 살아가는 중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땔나무조차 미리 해다놓지 않고 태평스럽게 지내다가 끼니때가 되어서야 밀영주변에서 아무 나무나 망탕 찍어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밀영생활에서 온 부대가 다 따라배울 수 있는 모범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하고 오중흡을 불렀습니다. 그가 맡고 있은 7연대 4중대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핵심중대였습니다. 오중흡에게 밀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은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말해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자기 중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중흡은 중대에 돌아가자 생활문화바람을 되게 일으켜 중대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사흘 후 다시 내앞에 나타난 그는 자기가 중대를 좀 꾸리느라고 해봤는데 한번 나와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달 군정간부들을 데리고 4중대에 나가보았는데 중대의 면모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밀영주변이 어찌나 깨끗이 정리되어있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취사장앞에 연기가 안나는 강대를 패서 몇 달 쓰고도 남을만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중흡에게 중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대를 정렬시킨 오중흡은 먼저 자기의 무기를 1소대장에게 검사시키고 합격을 받은 다음 대원들의 무기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관중에 있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그와 함께 중대의 무기상태와 복장상태, 병실, 취사장, 세면장의 정돈상태를 다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참관이 끝난 후 군정간부들에게 부족점을 찾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했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만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중대들에서도 4중대의 모범을 본받아 부대관리와 생활문화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생활문화를 세우던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때 거기서 벌어졌던 금연운동도 생각납니다. 우리 주력부대에서 두 번째로 전개된 금연운동입니다. 백두산기슭에서 싸울 때 이두수가 주동이 돼서 벌이었던 제1차 금연운동은 나의 권고에 따라 벌인 것이지만 마당거우밀영에서 벌어진 제2차 금연운동은 애연가들 자신이 자원적으로 조직하고 벌인 것이였습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 집중군정학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총적인 목표로 잡은 것은 우리의 모든 장병들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공산주의적 혁명투사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교육과 교양의 기본사명은 사람들을 당대의 사회제도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키우는데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교육하는 흉내를 좀 냈는데 그것은 조선의 청소년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데 알맞춤할 정도로 길들이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선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데는 최소한의 실용적 기능이나 가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학문 그 자체는 대체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써먹는가에 따라서 덕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식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으로 되고 인민에게 이로운 것으로 되게 하자면 교육이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나 기술문화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참사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상도덕교양을 잘해야 합니다. 인간애와 인민애, 조국애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한 사상과 신념에서 배양됩니다. 나는 도덕품성이 저열한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당과 국가가 물질본위의 경제건설에만 주력하지 않고 사람본위의 사상교양을 선행시키면서 기술실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도덕적으로도 잘 준비된 참다운 인간들을 육성해낸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제일주의자가 아니고 인간제일주의자인 것만큼 우리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제일 큰 재부로 여깁니다.

마당거우밀영에서의 군정학습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가의 풍모와 품성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인간개조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안툰전투를 치르고 마당거우밀영으로 돌아올 때 한 신입대원이 무기를 잃어버린 사고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강돈의 총이었습니다. 강돈은 방차대로 나갔다가 동상을 입고 밀영으로 후송될 때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보총을 중대정치지도원인 주재일에게 맡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전장에서 철수할 때 무기를 수여받지 못한 한 신입대원이 짐을 덜어주려고 그가 메고 있던 강돈의 총을 자기가 메겠다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의 요구대로 총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대가 정안툰에서 퍼그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주재일은 마음씨 고운 신입대원의 어깨에 총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유를 알아본즉 중간휴식장소에서 무기를 벗어놓았다가 그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대원과 함께 몇 십리길을 되돌아가서 3시간동안이나 어둠속을 헤맸지만 종시 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밀영에 돌아오자 나를 찾아와서 그 사연을 보고하고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에게 책벌을 주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엄격한 책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혁명군의 규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책벌을 적용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니 주재일은 아직 복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어떤 책벌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심사숙고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의 실수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엄중하다고 생각된 것은 그 신입대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무기를 그냥 맡겨버린 정치지도원 자신의 경솔성과 무책임성이었습니다.

주재일은 투쟁경험도 풍부하고 매사를 심중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매사에 용의주도하고 책임성이 높은 그가 신입 대원들과의 사업에서 그런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그가 자기자신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재일은 나를 찾아와 책벌은 총을 분실한 신입대원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자기의 부주의와 무책임성이 결국은 신입대원으로 하여금 사고를 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함을 옳게 찾아냈고 자기자신을 허심하

게 비판하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일의 문제를 상정시키였습니다.

회의에서 그를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의 직무에서 떼고 비서처보조성원으로 보낸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회의소식을 큰 감동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무기분실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지지 않고 지휘관이 지고 철직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혁명군대안에서의 상하관계가 얼마나 고상한 도덕의리에 따라 맺어지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린 신입대원은 고민끝에 주재일을 찾아가 울면서 사죄하였습니다.

주재일은 그 대원앞에서도 자기를 반성하였습니다.

나는 내 과오 때문에 철직한 것이지 동무 때문에 화를 입은 것이 아니다. 사고는 동무가 저질렀지만 그 근원은 나한테 있다, 나는 정치일군으로서 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고서도 사고의 책임을 전우에게 전가하자고 하였으니 동무를 대하기도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비서처에 가서 새로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정학습을 결속하던 날 나는 그에게 준 책벌을 해제하고 그를 경위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령부 후방부관의 자리에서 철직되였던 김주현도 사상수양과 학습을 잘해서 같은 시기에 연대장으로 임명되였습니다.

마당거우에서의 군정학습은 이처럼 매개 병사,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적 자질과 정신도덕적 풍모를 높이는데서도 큰 은을 냈습니다.

우리는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가 있은 후 백석탄이라는 곳에서도 40일가량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백석탄밀영에서 한 달 이상이나 군정학습을 하게 된 주되는 이유는 육과송과 쟈신즈에서 200여명의 목재소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입대한 사정과 관련되어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활동에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입대원들가운데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는 높았지만 대체로 의식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우리 나라에서 왜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벌목노동자로 일하다가 우리 부대에 입대한 손종준도 그 당시에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안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



판화 ≪사령부의 불빛≫

다. 그런데 유격대가 한총구를 친 다음부터 손종준은 각성하였습니다. 안도에서 한총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가 안도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벌목노동자로 일하다가 입대한 사람이였지만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농민이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농민이 노동자보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입대원들의 대부분은 총을 다룰줄도 몰랐고 제식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인민혁명군에서는 각종 경무기만 해도 10여종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제기관총이 있는가 하면 독일제기관총도 있었고 체코제기관총도 있었습니다. 보총도 여러 가지 종류였고 권총은 4가지 이상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이 되자면 이 모든 무기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전투에선가 일본군의 기관총을 여러 정 빼앗아낸 일이 있습니다. 일본제기관총가운데는 탄창을 우로 꽂는 기관총도 있었고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있는 기관총도 있었습니다. 탄창을 우로 꽂는 기관총은 쏘기가 좋았지만 탄창을 옆으로 꽂게 되어있는 기관총은 사격법이 까다로왔습니다. 일본군기관총수를 한 명 생포하여 사격교범을 설명하라고 하니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총수는 아편만 먹으면 비밀을 다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편을 주고 사격교범에 대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나는 기관총교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기관총 한 종의 사격원리와 분해결합법에 정통하자고 해도 이와 같은 곡절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목재만 다루던 노동자들에게 군정학습을 시기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백룡을 시켜 적들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실컷 골탕을 먹이다가 백석탄으로부터 400-500리 되는 곳에 따돌리게 하고 각지에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예비로 저장해두었던 후방물자들과 무기들을 운반해오게 한 다음 밀영에 들어박혀 군정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의 신입대원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최현도 수십 정의 무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백석탄에서의 학습은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는 소정된 과목을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배워주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배운 것을 다시 반복하여 공고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구대원들의 학습목표를 지식수준을 한 등급이상씩 높이며 신입대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두었습니다. 신입대원들에게는 한 달동안에 문맹을 퇴치하고 각종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연대와 연대사이, 중대와 중대사이, 개인과 개인사이에 경쟁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구호는 ≪학습도 전투다!≫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신입대원들은 그 후 모두가 문맹을 퇴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학습정형을 요해하려고 고향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더니 누구나 자기의 사상감정을 우리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총과 권총, 기관총을 비롯한 각종 무기의 사용법과 분해결합법에도 정통하였습니다. 어떤 신입대원들은 대내출판물들에 글도 써냈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구대원이건 신대원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신문, 잡지들에 낼 글을 썼습니다.

제1기 군정학습을 총화하는 날에는 시상식도 크게 하고 오락회도 하였습니다.



학습총화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급시계와 금반지, 만년필 등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 해 겨울에 우리는 백석탄에서 콩비지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밀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포시하라는 고장이 있었는데 대포시하 아래쪽에 가을하지 않은 콩밭이 있었습니다. 지방 농민들의 주선으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콩을 가을해왔더니 다들 비지를 해먹자고 하였습니다.

백석탄밀영에는 적들의 토벌에 쫓겨와 사는 집이 한 집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있으면서 언배추시래기를 썰어넣고 콩비지를 만든 다음 주먹만큼씩 덩어리를 빚어 얼구어두었다가 식사할 때 하나씩 남비에 끓여먹군 하였습니다. 하루 세끼씩 비지를 먹었는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절약하느라고 강냉이는 조금씩 넣어 먹었는데 별맛이였습니다.

백석탄에서의 군정학습은 홍기하전투와 대마록구전투를 비롯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와 소부대활동시기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군사정치활동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일군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울 데 대하여 늘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정일**동무가 내놓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관철하는 과정에 누구나 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혁명적 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2. 족제비사냥군

우리가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다 썼습니다. 인민혁명군의 주력이 백두산지구를 떠나 몽강지구로 진출했다는 것을 때늦게나마 내탐한 일제의 첩보모략기관들은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였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김주현이 소부대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난날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던 모모한 영감이 몽강에 살면서 족제비덫을 놓으러 다니는 것을 만나 선전사업을 했는데 경향이 좋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족제비사냥군영감한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립군출신이라는 말에 귀가 당기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중일전쟁발발 후 일본군대가 중국본토를 막 들이쳐서 북경을 먹었다, 상해를 점령했다 하는 바람에 대가 약한 사람들이 혁명을 거의나 포기하고 바람이 잠잠한 안방이나 뒤골목으로 몸을 사릴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애국지사가 그리워 옛날 독립운동을 좀 했다는 사람만 만나면 반갑다고 무작정 손을 잡아 흔들던 때였습니다.

더구나 몽강에서 독립군출신 영감과 접촉했다고 하니 그 영감을 통해서 심룡준의 행처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룡준은 만주땅에서 정의부니, 신민부니 참의부니 하는 독립군 3부가 세력다툼을 할 때 참의부에서 거물급으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심룡준이 참의부시절에 휘남, 화전, 몽강 일대에서 활동했고 3부가 국민부로 통합된 후부터는 몽강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룡준을 알게된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학시절에는 길림의 상의가에 있는 복흥태정미소나 삼풍여관에서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자들과 독립군 지도자들은 3인1당, 5인1파, 8단9회의 난립상태를 해소하고 각당, 각파, 각계 역량의 집결을 목적으로 하는 3부 통합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합의 중심지가 길림이였습니다. 정의부와 신민부, 참의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표회의를 할 때 심룡준은 참의부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족제비사냥군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영감이 심룡준을 아는가, 안다면 지금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요해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주현은 밀영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다시 만나보았는데 영감이 비록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애국심만은 버리지 않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룡준의 주소와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 하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은 심룡준이 독립군에서 물러난 후 색시를 얻어 가지고 몽강에 와서 살지만 변한 것은 없고 뜻은 여전하다는 것까지 자신있게 보증해 나섰다고 합니다.

나는 김주현의 말을 듣고 심룡준이 나이는 많지만 독립운동에 나설 때의 조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거기다가 줄을 좀 달아서 몽강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주장은 다르지만 그도 애국심을 간직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통일전선에 꼭 합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룡준이라는 인물을 그처럼 중시하고 그와 접선하기 위한 방도를 그토록 적극적으로 추구한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군대가 중일전쟁의 수렁창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일역량과의 공동전선을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정계통의 반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임정계통의 반일역량과 손을 잡자면 우리와 임정사이에 줄을 놓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심룡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덕림

심룡준은 한때 상해임시정부에 드나들던 사람이다. 그가 속한 참의부는 육군주만참의벽라는 이름을 가진 임정의 직속산하단체였고 그 안의 적지 않은 간부들은 임정에서 직접 파견되어온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룡준과 함께 독립군활동을 하다가 중국관내에 들어가 있은 사람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임정과 관계되어있을 것이고 중국국민당과도 기맥을 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었다.

이미 그때 우리 부대에는 왕덕림의 특사가 와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편제에도 없는 경위중대 교관이라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그를 보고 이교관, 이교관 하고 불렀습니다. 그가 중국장기를 잘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자주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왕덕림이 중일전쟁발발적 후 혁명군사위원회 별동대 제2로군지휘로 있으면서 장개석과 연결되어있고 장개석이 또한 임정과 내통하고 있은 조건에서 왕덕림과의 선을 잡아쥐기만 하면 임정과의 합작을 성사시킬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왕덕림이 관내에서 이교관을 특사로 보내준 것은 실로 예상치 않았던 행운이였습니다.

리교관의 말을 들어보면 왕덕림은 환갑나이가 다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그냥 일선에서 항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한장도 나에게 왕덕림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진한장은 구국군부대에 있을 때 오의성의 명령을 받고 천진에 가서 왕덕림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왕덕림은 진한장에게 자기가 그 전날 동북땅을 떠나 관내로 들어간 것은 장개석이나 장학량의 도움을 받아 반일투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진한장이 왕덕림에게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심룡준과의 접선을 위해서는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더 검열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에게 몇 번 과업을 주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과업을 매번 착실하게 수행하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의 검열을 통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룡준에 대한 공작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족제비사냥군영감을 통하여 그에게 나의 명의로 된 편지도 보내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도 보내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심룡준에게 갔다와서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다른 반응이 없던가고 물으니 편지회답을 인차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서 이런 보고를 받고 심룡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의 편지를 받고 멍해있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바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심룡준이 편지를 받으면 밀영으로 직방 찾아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응만은 아주 크게 보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좀 냉담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총을 메고 돌아다니며 국권회복을 위해 힘쓰다가 가정에 묻힌 사람이니 왕년처럼 반일전선에 또다시 나서 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받게 되자 머리가 좀 뗑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반일전선에 나서 달라는 것은 이전처럼 독립운동에 몸을 적셔달라는 뜻인데 운동을 중도반단한 사람이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룡준이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보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혁명을 중도반단했던 사람이 혁명의 길에 두 번 다시 나설 때에는 물론 결심을 인차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룡준이 회답을 뒤로 미루는데는 제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편지를 보낸 이상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답장을 받아보아야 심룡준의 정신상태도 알 수 있고 그 정신 상태에 알맞은 처방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후 몽강현에 나갔던 소부대동무들이 족제비사냥군영감에게서 심룡준의 회답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심룡준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산에서 얼마나 고생하는가고 문안인사를 간단히 한 다음 김형직선생의 자제가 이제는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싸우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일무장투쟁노선이 아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있은 것이 양심에 가책된다고 하면서 나의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에 다시 나설 결심을 했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심룡준은 나이로 볼 때 우리 아버지네 세대에 속한 사람이였습니다. 1937년이면 그 세대의 독립운동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인으로 되였거나 해외로 망명했거나 감옥에 끌려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대오에서 물러나 초부로도 되고 농사군으로도 되고 시정배로도 되였습니다. 내가 아는 독립운동자들가운데 이름난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벌써 1920년대 말이나 1930년대초에 길림일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참의부 무장부대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 관내로 활동지역을 옮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아버

지의 친지가 아마 손정도목사일 것입니다. 무장투쟁을 하느라고 간도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무송시절이나 길림시절에 자주 보군하던 3부소속의 독립군지도자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데 가서나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생각을 할 때면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론하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애국지사들의 얼굴도 눈앞에 그려보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사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그들의 행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몽강에서 심룡준을 찾아낸데다가 그와 줄이 닿아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편지까지 받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대내신문에도 실었습니다.

몽강지방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백두산근거지의 위력과 영향력을 이 일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역량을 여러 방면으로 더 늘여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는 족제비사냥군영감을 통하여 심룡준에게 돈을 좀 보내서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와 같은 정기간행물들을 사보내게 하였습니다. 심룡준은 며칠사이에 우리가 요구한 신문, 잡지들을 다 사서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와 심룡준사이에는 편지도 여러 번 오갔고 돈과 물건도 여러 번 왔다갔다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심룡준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를 지하조직활동에 빨리 인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령부당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룡준과의 사업을 더 판이 크게 벌이자, 그리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몽강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광범히 꾸리자고 토의하였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이제는 심룡준에게 과업을 맡겨도 될 것 같다, 몽강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하나 꾸려보라고 하자, 그리고 부상자치료에 필요한 약재도 부탁해보자, 이것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로 될 것이며 동시에 그가 정치적 생명을 되찾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참가자들도 내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심룡준의 고문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작원으로 누구를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도 토의되였습니다. 심룡준이 한 때 참의부의 거두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조직건설경험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3부통합에 참가한 것뿐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는 비합법적인 지하조직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룡준에게 유능한 정치일군을 한 사람 파견하여 뒤에서 그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적임자로 정치사업경험이 풍부한 김일동무가 선발되었습니다.

심룡준도 우리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김장군의 부탁대로 조국광복회조직을 당장 꾸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와의 직접적인 상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심룡준의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몽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성원들이 다 반대하였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곱절이나 많은 심룡준을 밀영에 불러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룡준과의 대화를 성사시키자면 몽강시내도 아니고 밀영도 아닌 제3의 지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고 소부대를 파견하

여 적당한 장소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장소만 고르게 되면 거기에 김일을 보내여 심룡준과의 대화를 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작전까지 짜놓은 다음 김주현소부대를 시켜 족제비사냥군영감을 밀영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두도송화강쪽에서 사령부가 있는 밀영까지 들어오자면 여러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강골로 얼음을 타고 들어오다가 벼랑을 기여오른 다음 7연대밀영, 8연대밀령, 경위중대밀영을 차례로 거쳐야 사령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령부에 오려면 반드시 이 통로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사령부가 정해놓은 엄격한 밀영출입질서였습니다.

밀영의 출입자들이 강골의 얼음을 타면 발자취를 남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설사 눈우에 발자국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강판우의 눈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눈우에 신발을 몇번 비비고 얼음강판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낸 겨울철행군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당거우밀영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했고 백석탄밀영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행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몽강현 청장전자로부터 마당거우로 가던 날 그 해의 첫눈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밀영근처의 벼랑바위앞에 이르니 두꺼운 얼음강판 가운데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을 보고 그날 어떤 대원들은 두도송화장복판에 온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마당거우의 관문에 서있는 벼랑이 대단히 가파롭고 험했습니다. 전부대가 이 바위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대원들은 땀을 철철 흘리며 나무가지와 마른 풀뿌리들을 휘여잡고 한치한치를 힘들게 톺아올랐습니다.

눈섭에 성에가 불리는 추운 겨울날 두도송화강얼음판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물을 보니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도송화강이 별난 강입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도 우리가 마당거우로 들어올 때 개척한 밀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소부대와 함께 7연대밀영의 보초앞을 지나다가 얼결에 보초병들이 요즈음 밀영에 데리고 들어오는건 간첩밖에 없는데 저 영감행색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영감이 정탐군이 틀림없다면 내가 한번 쏴봐야겠다고 농삼아 한 말을 듣고 공포에 질리였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밀영에 절대로 사민들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밀영밖에 나가서 만났지 밀영에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죄상을 조사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 밀영에 데려왔습니다. 이런 실정에 습관된 보초병들은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정탐군으로 보았습니다. 보초병들이 그런 말을 마음놓고 할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중국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이 그날 입은 옷은 조선옷이 아니라 중국옷이였습니다. 그가 왜 조선옷을 입지 않고 중국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보초병들로 하여금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중국사람으로 잘못 보게 했고 그가 들어서는 안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이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말을 듣고도 꿈만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초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유격대가 자기의 내막을 다 알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우리가 심룡준과의 대화를 준비하던 시기에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일본사람들의 위협과 공갈에 못이겨 본의 아니게 사령부를 해칠 임무를 받았습니다. 소부대와 함께 밀영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우리를 해칠 때 사용할 흉기까지 휴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

음이 태평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족제비사냥군영감이 사령부에 나타났을 때 나는 왕덕림의 특사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족제비사냥군을 만나주었는데 그 영감의 얼굴색이 왜 그런지 밝지 못했습니다.

후날 족제비사냥군영감도 고백했지만 그날 그는 보초병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김일성**장군이 석 달천기를 내다본다더니 아마 우리끼리 꿍꿍이한 것을 다 아는 모양이다. 나를 이런데로 끌고들어올 수 없겠는데 이런데로 끌고들어오는 것을 보니 나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레 짐작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무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었는데 보초소에서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으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의 신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몽강과 같은 벽지에 들어와 족제비잡이로 생계를 이어가자니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극진하게 대우해주었습니다. 대원들에게는 수수밥을 먹이면서도 그에게만은 기장밥을 해먹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대견학도 시키고 오락회며 강연회며 학습토론회도 구경시키었습니다. 이렇게 며칠동안 훈련도 주고 계몽도 시킨 다음 김일과 함께 심룡준과의 대화를 하게 되어있는 제3의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영감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향을 많이 주느라고 했지만 그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경위대원들은 그 영감이 기장밥을 해줘도 먹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밀영에서 언제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족제비사냥군영감과 김일을 제3의 지점에 제때에 보내지 않은 것은 적들이 마당거우일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시소조들을 여러 곳에 보내여 높은 고지나 나무꼭대기우에서 망원경으로 주위를 세심히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감시소조들은 밀영부근의 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과 처처에 적들이 집결되어있는 것을 제꺽 알아내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연기를 내지 않고 밤에만 불을 조금씩 피워 밥을 지어먹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담화를 하려고 족제비사냥군영감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담화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이 사업보고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업정형을 간단히 보고한 다음 공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탐군 두 놈을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한 놈은 자기 정체를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설복하여 그 자리에서 놓아주었고 다른 한 놈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자기가 받은 임무와 죄과에 대해 전혀 실토하지 않고 숨기면서 반항하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부대책임자의 보고를 듣고나서 정체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처리한 것도 잘한 일이고 솔직하게 자백한 사람을 놓아준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머리를 연방조아리면서 밑도끝도 없이 ≪장군님, 제죄를 용서해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책임자도 영문을 몰라서 영감의 거동만 지켜보았습니다. 영감이 용서를 빌 땐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곡절인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감에게 무슨 사연인지 어서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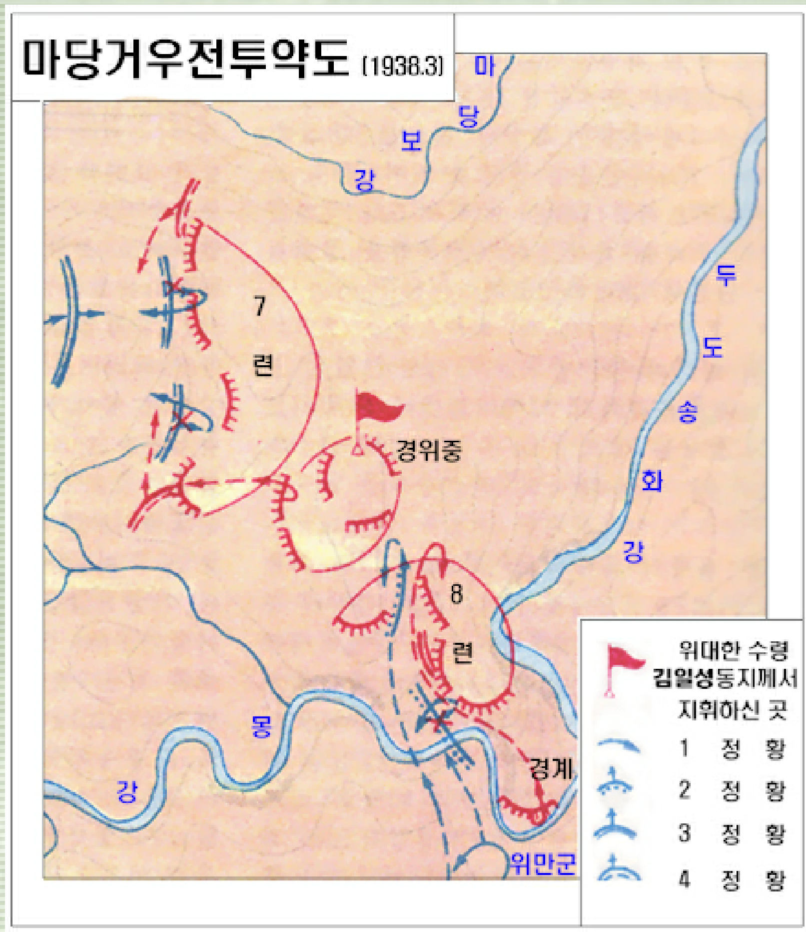
영감은 그 말에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계십시오.≫하고는 밖에 나가서 봇나무밑에 감춰두었던 도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첫째 죄가 일본놈들한테서 사령부를 해치고 돌아오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밀영에 들어와 귀빈대접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뉘우치고 사령부에 자수할 대신 도끼를 감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심룡준이 변절한 것을 알면서도 사령부에 귀띔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심룡준이 변절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해졌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이 일본사람들한테서 임무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닥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 백두산밀영에 있을 때에도 몇 번 체험해보았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날의 참의부 거물급인 심룡준이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였습니다.

3부시절의 심룡준은 명망도 높았고 민중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는 반일을 선동하는 씨가 박힌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제의 개가 되었다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나는 족제비사냥군영감에게 심룡준이 변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고 물었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은 심룡준이 일본놈들과 모의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였습



니다. 어떤 모의를 했는가고 물으니 사령부를 유인할 방도를 모의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심룡준에게 유격대대표가 가게 되면 우선 그를 억류하고 강박하여 사령관과 모 지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사령부에 보내며 편지를 받고 사령관이 약속된 지점에 나타나면 포위해서 붙잡는다는 것이 심룡준이 일본사람들과 함께 짜놓은 사령부유인방안이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영감의 고백에 의하면 심룡준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그가 뒤골방에서 일본사람들과 토의하고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거리를 하나씩 맡길 때마다 심룡준은 일본사람들한테 꼭꼭 찾아가서 혁명군이 무슨 부탁을 해왔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지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족제비사냥군은 심룡준이 왜놈들에게 투항변절한 다음부터 장춘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적의 토벌대도 여러 번 끌어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족제비사냥군영감이 사전에 자백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일도 녹아나고 나도 녹아나고 다 녹아날 뻔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역시 믿음의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밀영에도 들여놓고 부대생활의 이모저모를 통째로 개방해놓고 마음대로 구경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영감의 흑심이 인간본연의 양심으로 되돌아섰던 것입니다. 인간심리의 변증법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주장가운데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명언입니다.

불신을 해서 덕을 볼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아의 구별이 없이 염통까지 다 뽑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되 실천을 통해 검열해야 합니다.

영감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다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무들은 그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감을 관대히 용서해주었습니다. 자기 죄과를 솔직히 반성하는 사람한테야 왜 아량을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겪고나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혁명이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일수록 사람에 대한 환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상이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룡준의 실례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관계로부터 혁명을 추동할 수도 있고 훼방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금강석처럼 변하지 않지만 혁명의 이익과 인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안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인차 변질되고 맙니다. 어려운 때에 혁명을 제일 쉽게 배신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중독된 인간들입니다.

나는 심룡준의 실례를 통하여 사람이 근본을 잊고 자기보신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엄중한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친구도 동지도 이웃도 민족도 나라도 서슴없이 팔아먹습니다.

3. 독립군의 마지막 부대



독립군의
마지막사령
최윤구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몸부림치던 망국조선의 역사무대에 무력항쟁의 기발을 들고 등장한 독립군은 의병투쟁과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비롯하여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의 각이한 투쟁을 통하여 국권수복의 뜻을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싸워온 이 나라 애국지사들의 피끓는 독립 열망과 눈물겨운 노고의 열매였다. 비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중적 지반이 박약한 것으로 하여 조락의 길을 걷기는 하였지 독립군은 민족운동진영의 유일한 반일무장력이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청원이나 구걸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총검으로써 일제를 타승하려한 독립군의 지향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항일혁명의 봉화를 추켜드신 첫날부터 그들과의 사업에 시종 많은 힘을 기울이시었다.

일찍이 남만의 양사령을 찾아가시던 그때로부터 항일일선에서 독립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게 되기를 갈망하시던 수령님의 그 숭고한 경륜과 투철한 애국의지는 여러 해가 지나서야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립군과의 합작제휴노선을 받들고 독립군부대들앞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조선인민혁명군측으로 의거시키는데서 크게 역할한 사람은 최춘국과 최윤구였다.

그렇다면 최윤구는 어떤 사람인가.

1975년 10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최윤구의 반신상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 대한 귀중한 회상교시를 하시었다. 최윤구의 인간상과 그가 방향전환을 하게 된 과정은 그때에 더욱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옮겨놓는 글은 그날 수령님께서 당역사연구소 일군들과 혁명열사릉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그밖의 여러 기회를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과 작가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을 추려서 묶은 것이다.

최윤구는 평안북도 의주사람입니다. 오동진, 양세봉, 장철호, 이관린, 김시우, 최동오, 공영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압록강유역일대에는 명망높은 독립운동자들이 많았습니다.

1925년에 우리가 무송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대영까지 마중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최윤구도 있었습니다. 그가 독립군말기에는 부사령, 사령으로 활약하였지만 우리가 무송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낮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그 고장 사람들은 최윤구를 가리켜 최참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불렀고 그의 직속상관들인 장철호, 오동진, 양세봉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사란 최윤구에게 붙어있는 군사칭호였습니다. 그가 소대장이 된 후에도 나는 그를 참사아저씨라고 불렀고 부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후에도 우리 둘만 있을 때에는 소년시절의 버릇 그대로 참사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참사아저씨라고 하면 최윤구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소대장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오히려 서먹서먹해하였을 것입니다.

최윤구는 지지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 가슴속에 많은 말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속이 깊고 통이 크고 배짱이 센 그는 전형적인 무관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스스로 무술훈련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 무술훈련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일찍부터 뜻을 크게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록강반에 의병과 독립군이 자주 나타났으니 소년시절부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윤구의 아버지는 야장간일을 하였습니다. 최윤구도 서당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10살을 넘기기 바쁘게 아버지를 도와 야장간에서 일하였다고 합니다. 한번은 그가 추운 겨울에 웃통을 벗어내치고 냉수마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격술선수들처럼 온몸에 힘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사나이구실을 하려면 체통이 저쯤 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윤구는 17살인가 18살 때 독립군을 따라 임강현 모아산에 갔습니다. 모아산은 백산무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언제인가 오동진영감은 우리 아버지와 마주앉아 최윤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대장감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력 뿐 아니라 인품과 성미를 보아도 최윤구는 대장감이라는 말을 들을만하였습니다. 그는 전투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독립군시절에 최윤구의밑에서 복무한 김명준은 그가 부사령으로 승급한 다음에도 싸움마당에만 나서면 앞장에 서서 돌격하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송시절에 최윤구를 독립운동의 큰 인물로 존경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극진하게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최윤구는 장철호와 함께 매일같이 문병을 오군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상을 하였습니다. 그도 베감투를 쓰고 몹시 울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고무적인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따뜻이 위로해준데 대하여 나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윤구가 정의부시절에 무슨 주의주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연공이냐 반공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이념을 해부한다면 그는 반공보다 연공에 더 가까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윤구는 공영이나 박진영과 같이 공산주의운동에로 일찍이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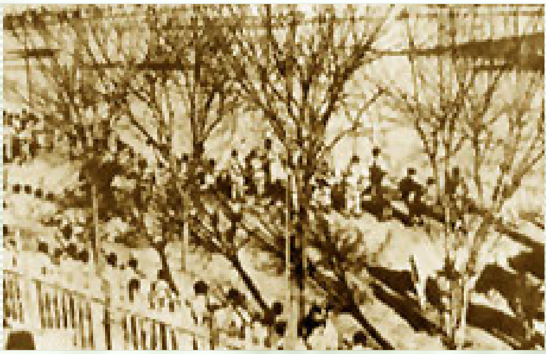
우리 아버지의 주변에는 새 사조를 동경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기발을 바꾸어 들고 공산주의자들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만과 중부만주 지방에서 새 사조를 지향하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에게 포위되어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왕청문에 갔을 때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인물들한테서 테러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만지방에서는 공산주의사상이 민족주의사상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침투되자마자 민족주의사상이 반기를 들 사이도 없이 이 지역을 휩쓴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습니다. 동만에서는 남만이나 중부만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두 사조의 심각한 대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최현, 윤창범, 박동근, 김일룡, 박두경 등의 경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일대에서는 적지 않은 독립군출신들이 특별한 곡절을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고 령솔하는 혁명군대오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구사조의 교체가 유혈이나 사생결단의 사상전을 동반하지않았습니다. 이 지방의 인민대중은 공산주의사상에 접하게 되자 그것을 자기 계급의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조선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 대하여 역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응당한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통화성 삼원포의
독립군훈련장

1932년 여름에 나는 통화에서 최윤구를 잠깐 만나보았습니다. 양세봉과 합작문제를 의논하느라고 그때 그와는 별로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만에 가서 양세봉과 합작문제를 토론하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립군의 사상동향에서는 연공의식보다 반공의식이 지배적이였습니다. 독립군상층의 반공의식과 적들의 이간책동 때문에 우리가 목적했던 합작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통화를 떠난 뒤 최윤구는 몹시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만에 가서 큰 소득이 없이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자들과의 합작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힘이 약할 때에는 하고 강할 때에는 하지 않는 문제도 아니며 주권을 잡기 전에만 하고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완전한 화합과 통일단결을 실현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이고 노선이였습니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나라가 해방된 때로부터 수십 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명활동초기부터 민족통일전선문제를 민족의 완전한 대단결이 실현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전략문제로 본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양세봉과의 담판에서 실패했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군과의 연합이 실현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으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완고한 중국인반일부대들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공동전선을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제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서간도에 진출한 후 나는 여러 갈래의 경로를 통하여 남만에 있는 독립군의 소식을 계통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제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우선 통신원을 파견하여 조국광복회창

립선언과 10대강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독립군과의 합작공작을 남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동지들이 맡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동광은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자격을 가지고 독립군과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군측은 요지부동이였습니다. 양세봉이 희생된 다음 독립군사령자리는 김활석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완고한 반공분자였습니다. 물론 독립군내부에는 새 사조를 동경하고 연공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부시절부터 고이허나 현묵관과 같은 지독한 반공광신자들을 추종해오던 우익계층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고 있어 그들과의 합작공작이 잘 진척될 수가 없었습니다. 양세봉이 살아있을 때 양정우부대와의 공동행동을 한 일이 있었지만 모처럼 싹텄던 그 연공대사가 김활석사령의 대에 와서 줄기차게 이어지지 못한 것은 군상층에 틀고 앉아있던 반공분자들의 탓이였습니다.


김명준

김활석을 연공의 길로 돌려세우는 것은 그의 수하에 있는 수백명 부하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서 한시도 지체시킬 수 없는 중대사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가 그 당시 독립군과의 합작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그들의 덕이나 보자고 그런 것이 아니였습니다.

1936년이면 조선인민혁명군이 역량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대단히 강성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독립군은 그 당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때인 것만큼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대오가 자꾸 줄어들고 무기도 모자라서 더러는 창이나 몽둥이를 들고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세력이 몹시 약해진 독립군은 적들과 별로 싸우지 않고 슬슬 피해다니기만 하다나니 무기와 탄약을 보충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김명준은 김활석의 수하에 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최윤구의 동행자였다.

김명준은 1960년에 쓴 자기의 수기에서 독립군에 입대하던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군이 처하였던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1932년 가을에 우리는 … 연통산근처에 주둔하고 있은 독립군부대를 찾아갔다. 마을에서는 독립군환영잔치준비가 한창이었다. 나와 짝패는 우선 돼지를 잡는 곳에 나타나 이것저것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군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는 보초의 잔심부름을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독립군지휘관들은 애숭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입대청원을 부결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강심을 먹고 이동하는 부대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쫓아갔다. 나와 짝패는 독립군이 가닿는 마을마다에서 그들의 시중을 열성스럽게 들어주었다. 우리의 끈덕진 시중과 참군열의에 감동된 중대장은 마침내 입대를 승인하였다. 그때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입대 후 우리는 얼마 안가서 독립군이 우리가 꿈꾸던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였다 무리가 그렇게도 동경하던 독립군에는 무기가 없어 몽둥이를 들고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입대하면 곧 총을 받을줄 알았는데 나 역시 처음에는 총이 없다 보니 보초근무에 나갈 때마다 매번 선배군인의 보통을 빌리군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김명준은 소부대활동시기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몸가까이에서 몇 해동안 생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명준을 통하여 김활석사령이 이끌던 독립군의 생활을 이모저모로 깊이 요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독립군이 최윤구를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한 것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발전의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독립군은 무기를 인민들한테서 징수한 모연금으로 해결한 것처럼 먹고 입고 쓰는 문제도 인민들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관할구역의 주민들에게 연조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징수를 맡은 사람들은 대장을 펼쳐놓고 세대별로 주민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납부정형을 따지었습니다. 지정된 납부액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설을 하든가 볼기를 쳤습니다.

과거에 정의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부의 군대도 남만에 틀고 앉아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습니다.

김명준의 말에 의하면 독립군은 1930년대 중기부터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점차 토비처럼 되어갔다고 합니다. 독립군의 한 소부대는 식량사정이 곤란해지게 되자 압록강가에 나가 떼목군들의 식량까지 털어냈습니다. 토비로 가장한 다음 물목을 지키다가 공포를 몇 방 쏘아 떼목을 강제로 기슭에 끌어다붙이게 하고 막무가내로 식량을 빼앗아내군 했는데 이거야 어디 독립군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궁여지책이라 해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의 보호자, 구원자가 되어야 할 독립군이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부패변질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독립군내부에서는 점차 군기가 문란해지고 도주자가 연달아 생기였습니다. 김명준네 소대장도 지휘부의 궤짝속에서 사령의 도장과 총, 돈 등을 훔쳐낸 다음 직일병과 보초병을 데리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산림대도 독립군을 만나면 무턱대고 무장해제를 하였습니다. 독립군의 처지는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괴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이 망하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나 좋아했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지않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적들의 노복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을 때 그래도 독립군이 창군당시의 초지를 버리지 않고 하나의 군사역량으로서 존재를 유지해간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였습니다.

존재를 유지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립군은 민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무렵에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였지만 활동 초기와 중기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전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군지휘관들은 일만군경들의 거듭되는 토벌과 내부의 사상적 혼란으로 하여 생긴 군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애를 태웠습니다. 독립군의 사상적 변질에서 제일 문제로 되는 것은 패배주의였습니다. 패배주의사상은 적들에게 투항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고 대오에서 도주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으며 애국군대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토비행세를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활석을 비롯한 군의 일부 상층인물들과 부분적인 장병들은 장개석군대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당에 대해 환상을 품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군을 유지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란 별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할 때 남을 쳐다보거나 남들의 덕으로 살아갈 구멍수를 찾게 되면 스스로 사대주의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대주의라는 병은 선

천적인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던 사람도 사대주의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독립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사상적 제한성이 바로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데 있었습니다.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 사대주의가 안내하는 길이 매국과 반역입니다.

사대주의자들치고 조국과 민족을 깔보지 않는 자가 없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깔보는 사람들치고 매국과 반역에로 가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가 충분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독립군의 모든 병사, 지휘관들이 다 국민당의 돈과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령은 장개석을 하느님처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국민당군대와의 연합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연합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병사, 지휘관들은 소문을 통해서만 우리 부대의 면모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실지체험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이 어떤 군대라는 것을 똑똑히 이해하였습니다.

김명준이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들려주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느 해인가 김명준이 소속되어있던 독립군의 소부대는 즙안현의 어느 산간부락에서 우연히 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밤중에 마을을 찾은 독립군소부대는 잠자리를 마련해보려고 어떤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인민혁명군의 소부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독립군의 소부대가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이집저집 돌아다니던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진해서 자기들이 들었던 집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쌀도 덜어주었습니다.

밤중에 소변을 보려고 밖에 나간 독립군대원들은 놀라운 정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이 꺼져가는 우등불두리에 따바리모양으로 빙 둘러누워 서로 껴안고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포단도 없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낭짚을 깔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서야 어느 누가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독립군대원들은 인민혁명군 병사, 지휘관들이 우등불두리의 강낭짚을 거두고 물을 긷는다, 나무를 팬다, 마당을 쓴다 하면서 주인집늙은이들의 일손을 돕느라고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더 감동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중국인노인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소행에 감동되어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내 평생 이런 군대는 처음 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 우리의 군대입니다.≫ 하고 치하했습니다.

이 사실은 김명준네 소부대성원들의 입을 통하여 독립군의 상하층이 다 아는 유명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윤구도 그 일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립군병사들의 마음이 인민혁명군편으로 쏠리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독립군이 살아나는 길은 인민혁명군과의 연합밖에 없었습니다. 연공만이 살길이요, 합작만이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독립군이 장성해서 독자적으로 투쟁을 계속하든가 인민혁명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항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군측의 형편으로 볼 때 인민혁명군과의 합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였습니다. 문제는 반공을 휘두르면서 장개석에게 기대를 걸고 있은 김활석사령

과 그 추종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세우는가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작원들과 남만동무들이 보내준 통보에 의하면 최윤구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을 읽고 아주 만족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립군과의 합작을 결정적으로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후였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에 진출한 후였습니다.

그전에도 인민혁명군측에서는 독립군지휘부와 주동적으로 몇 차례 접촉하였습니다. 독립군측에서는 민족반일역량이 서로 합작할 데 대한 우리의 사상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과의 연합과 관련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남만으로 떠나가는 최춘국에게 독립군과의 합작을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남만에 도착한 최춘국은 먼저 최윤구에게 나의 편지를 전달한 다음 두 군의 합동에 대한 문제를 내 걸고 그와 비밀리에 담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춘국이 공동항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자 최윤구는 두 부대를 합치는데 대해 대뜸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나하고 연고관계도 깊었지만 독립군안에서 반일의지가 제일 견결하고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허울만 있지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파먹은 김치독이요. 내 개인의 심정을 말한다면 부대를 데리고 당장 김성주대장한테로 찾아가고 싶소. 사령영감이 정 고집을 부리면 나 혼자서라도 혁명군을 찾아갈 작정이요.≫

그때 최윤구는 최춘국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춘국은 우리는 독립군의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 부사령선생이 자기 지지자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 사령영감을 잘 이해시켜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을 하게 해보라고 최윤구를 설복하였습니다.

최윤구는 사령을 구슬릴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동항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공동전선을 해야 살길이 열린다는 것은 그가 다년간 독립군에서 민족운동의 부패변질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김활석은 부대를 세 개로 쪼개여 분산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독립군의 손실을 덜려고 했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중속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독립군은 역량을 보충할만한 후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최윤구는 어찌하여 독립군은 쇠퇴해가는데 인민혁명군은 번성해가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군기가 문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데 인민혁명군은 군기가 점점 더 강해져 적들조차 아우성을 치게 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백성을 노략질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먹고 입고 쓰고사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일본군만 만나면 연전연패하는데 인민혁명군은 연전연승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인민혁명군을 쓴외 보듯 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독립군을 우군으로 보는가 하는 고민에 잠기였습니다.

최윤구는 그 원인을 민중적 기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것도 민중적 기초가 약한데 있고 부패변질과정을 멈춰세우지 못하는 것도 민중적 기초가 견실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최윤구는 민중을 떠나서 민중위에 군림하고 있는 독립군의 전망은 암담하지만 민중속에서 태어나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혁명군의 앞길은 무한히 창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립군의 민중적 기초가 약한 것은 달리는 될래야 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였습

니다. 독립군의 활동과 지향은 민중중심의 사상과는 인연이 먼 부르조아민족주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근로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데 있었으며 그로부터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역량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배척하는데 있었습니다.

최윤구는 독립군이 쇠퇴, 고립, 붕괴되어가는 근본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실현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이 구축해놓은 민중적 지반우에서 활동할 때만이 민족앞에 지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활석은 인민혁명군과 연합하면 이득은 공산주의자들이 얻고 독립군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고 하면서 합작제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독립군이 설사 명이 모자라서 망하게 되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는 한 가마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김활석의 입장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속지 말라, 그 사람들은 계급투쟁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들이 통일전선을 한다는 건 일시적인 속임수이다, 안팎이 다른 사람들이니 그들과는 등을 돌리고 지내는게 상책이다.≫라고 하면서 반공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드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과 부사령의 담판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은 사이에 부대의 형세는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식량과 피복이 떨어진데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빠져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도주하는 사람, 귀순하는 사람, 굶어죽는 사람들이 연방 생겨나는 바람에 장병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최윤구는 마지막 결판을 낼 작정으로 사령과 최종담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의 제의에 응해나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대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곁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이상 더여기에 앉아뭉개다가는 우리가 전멸당하고 만다, 장개석을 찾아가든지 **김일성**을 찾아가든지 각자가 소망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고 들이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김활석은 그 제의에 동의해 나섰습니다. 그의 지령에 따라 독립군의 전체 병사,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령은 부대가 겪고 있은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비장하게 설명하고 나서 ≪당신들 중에서 **김일성**부대를 찾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앞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은 처음에 그런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령의 속심을 알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혹시 연공분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어찌 알겠습니까.

맨처음으로 대열앞에 나선 것은 김명준이였다고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대원들이 대열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선구자가 있으면 꼭 풀리는 법입니다. 김명준은 그야말로 선구자였습니다. 내 그래서 그 사람이 인민혁명군에 편입한 다음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때 내 결심을 부채질해준 분은 최윤구부사령이였습니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결심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 후날 김활석사령의 수하에서 떨어져나가던 때를 회상하여 김명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부대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갈라지고 나서는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김활석사령도 울고 최윤구부사령도 울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둘로 갈라진 셈이니 그 아픔과 고통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독립군은 두 패로 나뉘어 조선이 독립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는 각각 다

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한 대오는 최윤구의 인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떠났고 몇십 명밖에 안되는 다른 한 대오는 김활석의 지휘하에 봉황성부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남만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저항하던 국민부의 군대는 이렇게 해체되었습니다.

≪나는 먼길을 에돌아서 이렇게 성주대장의 곁으로 찾아왔소. 곧바로 올 수도 있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도 우유부단했거든.≫

이것은 최윤구가 남패자에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그의 의거를 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홍춘수

최윤구가 단행한 거사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와 민족통일전선역사에 대서특필할만한 의의를 가진 경이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실시해온 통일전선정책의 승리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또 하나의 탑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의 연합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우고 참고로 삼아야 할 하나의 선구적인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그 본보기를 창조한 공로자들인 최춘국과 최윤구의 업적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역사와 민족대단결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윤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구는 연공의 선구자이며 그 실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량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항일무장투쟁사를 전문하는 역사가들은 민족통일전선운동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최윤구의 업적을 큼직이 써넣어야 할 것입니다.

최윤구의 의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혁명운동선상에서는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의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윤구는 사조로 볼 때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였습니다. 아버지네 세대가 대부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면 우리네 세대는 대체로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수화상극이라고 보던 두 세대의 애국자들이 결국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항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윤구의 거사는 이념이 다르고 신앙과 정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얼마든지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줍니다.

최윤구는 인민혁명군에 넘어온 후 공산당에도 입당하였습니다. 그는 참모일군의 요직에서 항일혁명의 승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1938년 말에 화전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전우였던 동시에 나의 혁명동지였던 그를 나는 슬픈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그가 연공의 길을 개척해놓고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아팠습니다.

최윤구와는 다르게 김활석은 장개석을 만나러 가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독립군사령으로서의 사명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김활석을 장개석에게 환상을 가지고 그에게 붙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고 계교를 꾸몄습니다. 장개석의 특사로 가장한 특무를 보내여 김활석을 꾀여냈습니다. 특무는 장개석이 보냈다는 위조신임장을 내보이면서 장총통이 김활석사령과의 회견을 고대하고 있으니 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장개석에 대한 기대로 눈이 어두워진 김활석은 상대방의 신분을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특무를 따라나섰습니다. 특무는 그를 곧장 헌병사령부로 유인해갔습니다.

김활석의 운명을 망친 것은 결국 반공병과 사대주의병이였습니다.

우리의 민족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대주의자들과 반공분자들은 예외없이 매국과 반역,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법입니다.

손중산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지도자이지만 연공을 하였기 때문에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혁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는 인생말년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에로 새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활석도 그들처럼 연공을 하였더라면 일본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자로 삶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반공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공은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민족과 인민을 등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군 합니다. 인민의 편에 서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인민을 등지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공이 애국, 애족, 애민으로 될 때 반공이 나라를 등지고 민족을 등지고 인민을 등지는 길로 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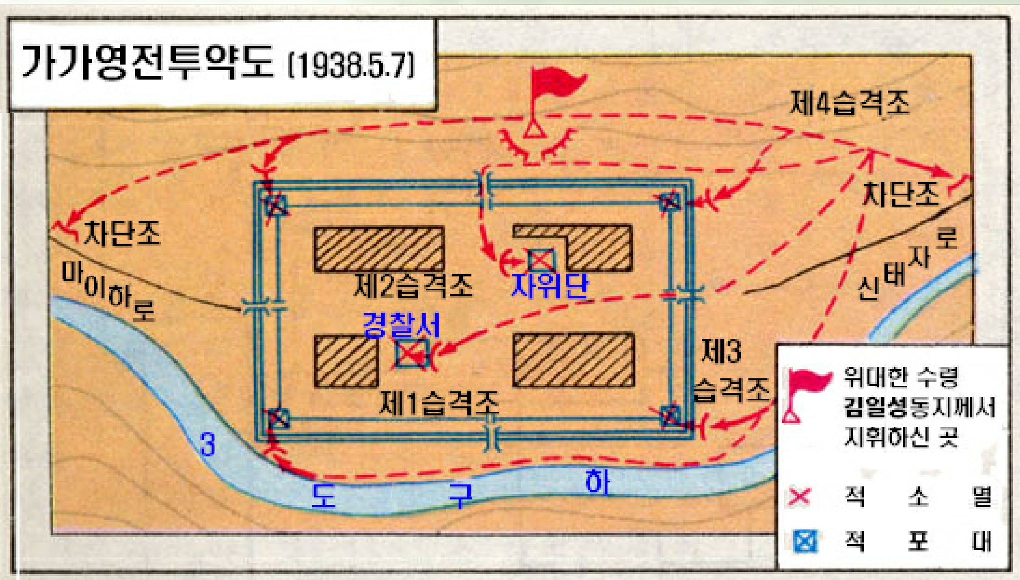
최윤구를 따라 인민혁명군으로 넘어왔던 김명준도 일생동안 혁명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오래동안 나의 부관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는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인데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김정일동무는 김명준이 독립군에 있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내세우고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홍춘수도 독립군에 있다가 인민혁명군에 편입하였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나날 독립군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합류하여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역사적 경험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애국역량이 사상과 이념, 정견을 뛰어넘어 하나로 단합하여 외세와 공동으로 싸워야 하며 또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4. 왕촌장과 왕서장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준 중국의 벗들 중에는 적기관복무자들인 두 명의 왕씨도 있었다. 한 왕씨는 임강현 대황구에서 촌장 노릇을 하였고 다른 한 왕씨는 임강현 가가영이라는 곳에서 위만경찰분서의 분서장으로 있었는데 그 고장 주민들은 그를 그저 왕서장이라고 불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말단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던 두 왕씨가 어떻게 되어 조선인민혁명군과 연계를 맺게 되었고 나중에는 항일혁명의 동조자, 지지자로까지 되었는가. 그 두 사람에 대한 공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일전쟁발발 후 친히 포치하신 정치사업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촌장과 왕서장을 만나신 것은 각각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였다.

나에게 왕촌장에 대한 말을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8연대 1중대 정치지도원 주재일이였습니다. 그가 임강현 대황구에 적구공작을 나갔다가 돌아와 대황구일대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자면 왕촌장부터 쟁취해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주동무에게 왕촌장의 내력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전에 그가 화룡현 삼도구 우심산이라는 곳에서 당지부서기로 활동할 때 입당시킨 조직원이였습니다. 그 조직원

이 정체가 노출되어 화룡땅에 더 배겨있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조직은 그를 임강현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임강현에는 그 조직원의 친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은 대황구근처에 농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지고 있었으나 임강현에 와서도 조직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당지부서기였던 중대정치지도원을 만나서 조직선을 다시 이어달라고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1중대 정치지도원에게 대황구에 당장 가서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되 그가 보증하는 사람들로 조직을 무어주고 조직선을 달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중대정치지도원은 그 조직원을 다시 만나 사령부가 직접 동무의 사업을 보아주게 되니 마음놓고 조국광복회조직을 늘여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대황구에 우리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임강현에 가서 처음으로 내온 조국광복회조직일 것입니다.

나는 1중대 정치지도원에게 왕촌장을 쟁취할 데 대한 과업도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촌장은 우리의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의 지하조직을 통하여 그를 반년이상 깊이 요해해 보았습니다.

왕촌장에 대한 우리의 공작이 열매를 맺은 것은 1938년 봄이었으니 1938년 봄이면 우리가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끝마치고 장백으로 진출할 때였습니다. 부대의 행군노정에 대황구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는 임강에 가면 어떻게 하나 짬을 내여 왕촌장을 한 번 만나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으로 남하하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황구로부터 3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식량마저 떨어져 행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원들도 몹시 피곤해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부대를 데리고 장백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행군도 하고 싸움도 하겠는데 식량이 한 되박도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해서 식량을 노획했으면 좋을 텐데 대원들은 모두 지쳐서 싸움은커녕 몸도 가누지 못하는 형편이였습니다. 내가 왕촌장에 대한 공작을 한 매듭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왕촌장과의 사업만 잘하면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활동에 좋은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황구 옆에는 소황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지하조직들이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소황구의 조직도 1중대 정치지도원이 우심산에서 당지부서기를 할 때 입당시켰다는 그 사람이 관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일을 잘해서 소황구 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도 새끼를 많이 쳐가고 있었는데 그만 적들에게 꼬리를 잡히었습니다. 적들은 부락에 달려들어 조직원들을 마구 살해하고 집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도 총에 맞아죽고 총창에 찔려죽었습니다.

학살을 면한 몇몇 조직원들과 주민들만이 살길을 찾아 대황구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왕촌장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때 왕촌장은 자위단장노릇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 가에 따라 소황구 조직성원들과 피난민들이 덕을 볼 수도 있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왕촌장을 빨리 우리의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황구에 왕촌장과의 사업을 할 공작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공작원들은 왕촌장을 꼭 쟁취하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위단장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작이 암초에 부딪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작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왕촌장이 양심인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촌장이 양심

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되었는가. 그는 촌장과 자위단장으로 된 후 관할지역의 인민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는 매우 주요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개인의 보신과 영달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자위단장이나 촌장과 같은 벼슬자리를 따기만 하면 실적을 높이려고 애국자 한두 명쯤 해치는 것은 식은죽 먹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촌장은 그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황구에서 온 피난민들과 유가족들도 아직까지는 다치지 않고 자기의 관할구역에서 살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네 마을 에 공산당마을에서 도망쳐온 빨갱이들이 있는데 잡아가라고 고자질하거나 직접 자위단원들을 시켜 피난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상금을 타먹었을 것입니다.

일본군경들이 학살하다가 놓쳐버린 사람들을 마을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안착하여 살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것은 사실 어지간한 담력이나 결심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이 들장나는 날이면 촌장자신이 엄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촌장은 이런 것까지도 다 각오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황구로 떠나가는 공작원들에게 왕촌장은 다소간 양심도 가지고 있은 사람 같다, 대담하게 접근하여 우리 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목적을 잘 해설해준다면 그를 반드시 우리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대황구에 내려간 공작원들은 농막주인의 도움으로 왕촌장을 만나 우리와의 합작을 제의하였습니다. 왕촌장은 그 제의에 기꺼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는 나와의 상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혁명군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주겠으니 **김일성**장군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자거니 들어주면 안된다거니 하면서 입씨름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령부에 대한 암해공작이 빈번해지면서 지휘관들이나 대원들이 모두 신경을 바싹 도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밑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휘관들을 설복하여 왕촌장을 우리 밀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왕촌장은 비밀리에 마을인민들을 동원하여 식량과 신발을 비롯한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해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보니 서른네댓 살 나보이는 미남자였는데 예절도 바르고 몸가짐도 점잖고 행동거지도 활달하여 첫인상부터 마음에 푹 들었습니다.

나는 왕촌장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두고 얼마간 대화를 나눈 다음 그가 그 동안 민족적 양심을 잃지 않고 지성인답게 살아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고 앞으로도 촌장의 간판을 가지고 우리를 더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일본도 만주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은 촌장자리는 만주국이 준 벼슬이지만 당신은 그 벼슬을 일본이나 만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혁명군을 잘 도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왕촌장은 내가 자기를 믿어주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일생 잊지 않고 장군님말씀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그는 우리한테로 올 때에 술과 안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다심하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막안에서 빼주를 나누었습니다. 왕촌장은 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자기가 먼저 한잔 마시고 그 다음 나에게 한잔 권하였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가정사를 터놓았습니다.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딱 째인 이야기였는데 다 듣고나니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동녕현에서 나서 자란 만주족이었습니다. 생활이 하도 가난해서 나이 40이 다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그들의 가정에는 귀여운 아들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바로 미래의 왕촌장이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는 용모가 의젓하고 총명한 남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하도 어렵다보니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늘 만주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은 없을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아들애를 데리고 만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강동으로 돈벌이를 가던 중 로비를 마련하느라고 자기네 마을에 머무르고 있던 조선청년들한테서 러시아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네 세대 사람들가운데는 러시아를 아라사나 강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조선청년들이 마을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러시아에 갔습니다. 청년들은 돈벌이를 하려고 금전판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데 모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조선인부락이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

왕촌장의 아버지는 중국사람이였지만 거기서 조선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민족은 달랐지만 그들은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그 부락에서 학교를 다니다나니 조선풍습에도 익숙해지고 조선말도 곧잘 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에서는 신구당파바람이 되게 불었습니다. 신당이란 볼셰비키당을 말하는 것이고 구당이란 백파도당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왕촌장네 마을사람들도 신구당파바람에 숱한 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볼셰비키세력이 우세하여 반혁명세력을 내쫓으면 볼셰비키세상이 되었다가도 백파가 득세하면 하루아침사이에 마을이 백파세상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점차 공산당지지세력과 백파지지세력으로 갈라지고 지어는 한 집안에서도 맏이가 신당파라면 둘째, 세째는 구당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싸움끝에 희생자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구당파들의 걸이대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의지가지할 데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지지하다가 죽은 사람의 자식이어서 구당의 눈에 날까봐 누구도 그를 돌보아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당파는 신당파의 씨종자를 말리워야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아준 사람은 동녕현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러시아로 들어갔던 조선청년이었습니다. 추운 가을날 그 청년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동녕현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그만 마적들한테 붙들리게 되였습니다. 마적들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아두고 돈이나 물건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혈혈단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적의 부두령이 불쌍한 아이를 죽여서 뭘하겠는가, 조선사람은 제갈 데로 가게 하고 아이는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마적들에게 노비를 털리우고 아이마저 떼운 조선청년은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가고 아이는 마적의 소굴에 남아 부두령의 보호를 받게 되였습니다. 부두령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그를 욕심냈기 때문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마적의 소굴을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도망쳐간 곳이 다름아닌 임강땅이였습니다. 그는 대황구의 산속에 와서 밭과 집을 사고 부자질을 하면서 아이를 양자로 키웠습니다. 부두령이 부자가 될 수 있은 것은 그가 마적단을 뛰쳐나올 때 집단의 공금으로 간수하고 있던 거액의 돈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이였습니다.

아이의 양아버지로 된 부두령은 산동지방출신의 왕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아들에게도 왕가라는 성을 달아주었습니다. 권세를 쥐여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였습니다. 부두령은 양아들을 권세가로 키우기 위해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는 촌장자리에까지 내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왕촌장은 양아버지의 은혜도 아주 크지만 친아버지가 죽은 다음 자기를 보호해주고 만주에까지 데리고 나온 조선사람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신세를 갚을 길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저 그분의 은덕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하고 가슴아파할 뿐입니다. 소황구의 피난민들 중 대다수가 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셈치구 말입니다.≫

왕촌장은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은인에게 절을 하는 심정으로 조선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그의 말은 나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동정해주고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은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를 만주국을 위한 촌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촌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왕촌장은 우리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왕촌장이 마을로 돌아갈 때 그에게 호위원 두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은데 행처도 모르고 생사여부도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왕서장을 쟁취한 과정도 왕촌장을 쟁취한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왕서장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7연대 정치위원인 김평이였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한때 최일현이네 중대를 데리고 장백, 임강현계에 가서 소부대공작을 지도하였습니다. 각지에 소부대들을 파견하고는 그를 장악지도하면서 자기도 지방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파견한 소부대들가운데서 한 소조는 임강현 5도구와 3도구일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대원은 소조책임자를 찾아와 가가영의 위만경찰분서 때문에 소조활동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가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분서를 한번 되게 들이치고싶었던 모양입니다. 임강이나 몽강, 무송지방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가영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에 경찰분서라는 것이 떡 틀고앉아있으니 문제는 문제였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그 대원을 만난 다음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가가영의 위만경찰분서를 장악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후환도 생기고 오히려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대담하게 접근하여 분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7연대 정치위원은 가가영근처의 수림속에 있는 산전막에 자기가 연길현에서 구당서기로 활동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를 중개자로 내세우면 분서장과 접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길현일대에서 적위대소대장까지 한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이 민생단연루자로 몰려 죽을 뻔했을 때 구당에 있던 조선사람들이 그를 적구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을 김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가가영에 와서 짐승사냥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찰분서장이 사냥을 즐기다나니 자연히 그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산전막주인을 아는 사람은 동무밖에 없으니 동무가 직접 그 사람을 통해 왕서장에게 접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왕촌장을 쟁취할 때와 경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조직성원이 경찰과 친교를 맺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친교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 왕서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직통 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산전막주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가 비록 유격구를 떠난 지는 오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새빨갛더라고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나타난 이 전날의 구당서기를 보자 혹시 변절해서 왜놈의 밀정이 된게 아닐가 하고 경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다니던 사람이 사복을 입고다니면 종종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이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한 다음에야 산전막주인은 그를 이전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위대에 있을 때 민생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적구로 나온데 대해 몹시 절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연대 정치위원에게 나를 **김일성**장군한테로 데리고가달라, **김**장군앞에서 내가 민생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당신도 옆에서 그것을 보증해달라, **김**장군이 나를 신임하면 나는 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김**장군덕에 민생단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말고 혁명전선에 나서서 가슴을 쭉 펴고 쇠소리가 나게 일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었다고 합니다.

산전막주인이 왕서장과 친교를 맺은 것은 한 해 전부터였습니다. 그의 사냥구역에 왕서장이 이따금씩 나타나 사냥을 하였습니다. 서장은 짐승을 한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산전막주인은 늘 네댓 마리씩 잡군 했습니다.

어느 날 왕서장은 그 비결을 알고싶어 산전막에 들리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해박한 사냥지식에 감탄한 나머지 당신은 보통사냥군 같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사상가나 인텔리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사냥군인가 가짜사냥군인가 하는 것은 내일 사냥경기를 해서 시험쳐보는게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왕서장은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산전막주인이 경기에서 이기자 왕서장은 술을 냈습니다. 산전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왕서장은 주인에게 의형제를 맺자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은 내가 당신네 쟈잘리에 들어가면 당신의 형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건 좀 연구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분서장이라는 무거운 벼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주 분서를 떠나 사냥까지 할 수 있는 여가를 내는가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시간이 많아서 사냥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서 나온다, 저 왜놈들이 못된 종자들이다, 죽을 자리에는 만주경찰을 세우고 같은 별을 달고도 만주경찰한테는 걸핏하면 호령과 욕설질이다, 분통이 터져서 못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전막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7연대 정치위원은 그에게 가가영일대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꾸릴 임무를 주고 당면하게는 왕서장을 만날 수 있게 교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산전막주인은 왕서장을 데리고 정치위원이 지정해준 접선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왕서장도 왕촌장처럼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술은 만주국관리들의 중요한 교제수단이었습니다.

왕서장은 왕촌장보다 몸도 우람지고 성격이 우락부락했지만 결심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재는 것이 별로 없고 대답도 명확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은 왕서장과 첫인사를 할 때 자기가 **김일성**부대의 한 정치위원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히었습니다. **김**사령의 영을 받고 공동항일을 의논하자고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우리와 손을 잡을 의향이 있는가고 직방치기로 물었습니다.

왕서장은 처음에 놀라서 눈살이 꼿꼿해졌으나 인차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아, 만나자마자 뭘 그러는가, 술이나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술이 몇잔 들어가게 되자 정치위원의 무릎을 탁치면서 ≪유격대정치위원이 키는 작지만 마음에 드오. 칼찬 사람앞에서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신분을 소개하다니 참 놀랍소.≫하고 감탄했습니다.

정치위원은 ≪**김일성**사령관의 부하들은 다 그렇소.≫하고 말했습니다.

왕서장은 정치위원의 귀에 대고 **김**사령을 만나게 해달라, **김**사령만 만나게 해주면 내 그분앞에서 결심을 말하겠다, 그러되 당신이 쟈잘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담판을 통해 왕서장은 산전막주인도 정치위원과 같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전막주인이 쟈잘리에 들어 자기하고 한 형제가 된 다음에도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했는데 쟈잘리의 비밀이 제일인줄 알았더니 공산주의자들의 비밀이 최고이구만 하고 탄복했습니다.

나는 7연대 정치위원에게 쟈잘리에 들었다고 하여 성이 바뀌는것도 아닌데 의형제를 맺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서장을 사령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가가영부근에서 왕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역시 왕촌장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한테 올 때 선물이라고 하면서 산삼 세 뿌리를 가져왔던 생각이 납니다.

왕서장은 공동항일을 하자는 나의 제의에 인차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언행이 아주 활달했습니다. ≪나는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경찰이 된 사람이지 공산당을 반대하자고 경찰모자를 쓴 사람이 아니다. 일본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총을 벗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난다, **김**사령이 손을 잡고 공동항일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가 없다, **김**사령이 분서장벼슬을 버리지 말고 항일을 하라고 하니 영대로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경찰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유격대원모두가 **김**사령처럼 나를 대해주겠는가, 양쪽 총알에 맞아죽지 않겠는지 모르겠다≫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왕서장에게 그건 염려말라,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 알아

본다, 우리 혁명군은 비록 적기관에 가담한 사람들일지라도 항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한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줄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방해하지 않으면 그것도 항일로 된다, 때때로 정보를 보내주고 산전막주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왕서장은 그 후 우리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산전막주인은 그의 우산밑에서 가가영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왔습니다.

우리는 왕촌장과 왕서장의 도움으로 쓸모있는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황구자위단은 우리 부대 동무들을 만나면 손수건을 흔들면서 환영까지 하였습니다.

왕촌장과 왕서장에 대한 공작과정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우리가 쌓은 또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세상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제일 힘든 것은 인간개조입니다. 그러나 품을 들이면 다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 정의로운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상교양을 잘하면 누구나 다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개조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간판이나 복장을 보고 사람의 사상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사람의 신분이나 직급을 보고 사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주, 자본가들에게 착취계급의 사상이 있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종우와 같이 경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건 간에 양심이 있고 진보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양심도 결국은 이런 사랑속에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간판 뿐 아니라 국적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면 중국사람들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았고 중국인적기관복무자들까지도 대담하게 포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조선인적기관복무자들을 교양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곧 중국인적기관복무자들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원리는 국적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조선인경찰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면서 중국인 경찰이나 촌장이라고 하여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항일혁명당시 우리와 손을 잡은 중국의 벗들 가운데는 위만군의 고위장교들과 중하층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왕촌장이나 왕서장처럼 그들도 우리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우리와 이념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과 관리, 기업가,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이 각이한 계층들과 한 강토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버리고 공산주의자들끼리만 살수야 없지 않습니까.

설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통일조국을 건설해나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 공통분모를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열하원정

열하원정은 중일전쟁발발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과 국내혁명운동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항일운동선상에 큰 손실을 가져다준 하나의 교훈적인 사변이다. 이 원정은 1930년대중엽 세계각국에서의 혁명운동방략이 국제노선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던 정황에서 매개 나라 민족혁명이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반적인 난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반증하는 하나의 산 실례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자주노선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고수되고 관철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특기할 역사적 사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당으로부터 열하원정계획이 처음으로 시달되던 때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열하원정으로 알려져있는 요서, 열하 지구에로의 원정계획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와닿은 것은 1936년 봄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증민이 국제당의 지시라고 하면서 열하방면에로의 원정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열하원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부대들이 요서와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여 동정항일, 실지회복의 구호밑에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노농홍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으로 중국관내에 쳐들어가는 일제침략군을 제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당이 추구한 이 원정의 전략적 목적은 북상동정하는 노농홍군(후에는 8로군)과 서정하는 항일연군부대들이 열하계선에서 합류함으로써 중국관내



동북항일련군 기병대

와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투쟁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전반적 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남만의 1군과 길동지구의 4, 5군, 북만의 3, 6군 등 동북지방의 항일연군부대들은 장춘의 동쪽과 동남부 그리고 동북부지역에 반원호모양으로 분포되어있였습니다. 국제당의 전략적 의도는 이 반원호를 서쪽으로 압축하여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공격하고 열하계선까지 진출하여 북상하는 노농홍군부대와 합세하여 중국관내로 쳐들어가 는 일제침략군을 타격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국제당은 열하원정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관내혁명과 관외혁명이 통일적인 연관속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가 동북 3성을 강점하고 만주국을 조작할 때만 하여도 중국에서의 반일투쟁은 주로 동북땅에 국한되어있었습니다.

2만5천리 장정과정에 중국당안에서 좌경기회주의노선이 분쇄되고 새로운 지도체계가 수립된 때로부터 중국인민의 항일투쟁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관내에서의 항일운동의 급격한 장성은 동북지방사람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열하원정계획이 시달됨으로써 열하땅은 다시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일대결의 열점으로 되었다.

발해만쪽에 있는 열하는 청나라시기의 열하성 소재지로서 만청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있는 도읍이다.

열하가 중국 청나라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거기에 강희황제가 지은 청조의 이궁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광한궁이라고 불리우던 그 이궁에서 청조의 이름난 건륭황제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하는 천험의 군사요충지로도 유명하였다. 열하서남쪽기슭의 산줄기들이 만리장성의 거점으로 되고 있은 것만 보더라도 이 고장이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시되어왔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열하가 이처럼 인상깊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19세기 실학사상가의 한 사람이었던 박지원도 이조봉건정부가 파견한 사신의 수원으로 중국에 갔다가 열하일기라는 장문의 기행문을 남기였다. 이 글에는 중국의 문물제도나 풍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열하의 실상이 매우 실감있게 서술되어있다.

열하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고장으로 된 것은 9.18사변 이후 일제가 관내에로의 침공의 길을 열기 위해 금주와 열하를 점령한 때부터였다.

국제당으로부터 열하원정계획이 시달되였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각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덕태는 처음부터 서정계획을 회의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몇천 명밖에 안되는 유격대의 역량을 가지고 적의 군력이 밀집되어있는 만주국의 수도를 포위하라는 것도 그렇고 산악지대의 본래 근거지들을 떠나 멀리 평원지대로 진출하라는 것도 다 께름직한 일이다, 그것은 유격전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관내에서 노농홍군이 동정을 한다고 하여 우리가 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대도시에 대한 공격전도 실패하였는데 우리더러 그 전철을 다시 밟으라는 것은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군벌들사이에 혼전이 벌어지고 있던 1930년대초 중국당중앙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립삼은 혁명정세발전의 유리한 측면을 일방적으로 과장하여 우선 한 개

성 또는 몇 개 성에서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는 모험주의적 결의를 채택하게 하고 여러 주요도시들에서 정치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당지도부의 이 조치에 따라 홍군은 몇 개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국제당의 작전계획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응당한 일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항일연군부대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당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공명정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였습니다. 그런 때에 일부 지휘관들이 원정계획을 시답지 않게 본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양정우

그러나 위증민은 이러한 의견을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령의 전달자로서 국제당의 계획을 변호해 나섰습니다. 이번 원정에는 남만, 동만, 북만의 모든 항일연군부대들이 다 참가하게 되어 있다, 국내의 형세도 매우 좋다, 그러니 승산이 영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가볍게 논박하였습니다. 위증민은 그 후 금천현에 가서 동북항일연군 1군의 군정간부들에게도 국제당의 열하원정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양정우는 그 계획을 받자 몹시 흥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원래 양정우는 관내혁명과의 연계를 실현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오던 사람입니다. 남만의 유격근거지가 관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때문에 그런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내의 노농홍군은 전국항일구국운동의 고조를 일으키기 위해 이미 북상하여 동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정우는 동정하는 관내의 항일선봉군과 힘을 합쳐 적들의 봉쇄를 분쇄하고 동북항일유격전쟁과 관내항일전쟁의 직접적 연계도 실현하고 협동작전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양정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하원정계획을 지지해나섰는가 하는 것은 그 후 두 차례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열하방면에로 진출한 사실과 서정승리가까지 만들어 대원들을 원정에로 고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당에 앉아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우리에게도 열하원정을 단행할 데 대한 지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달하였습니다.

1936년 봄에 처음으로 열하원정을 요구한데 이어 중일전쟁이 발발된 1937년 여름과 1938년 봄에 또다시 열하원정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제당이 1, 2차 원정을 요구하던 1936년과 1937년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일대에 진출하여 당창건준비와 통일전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면서 기세를 올리던 때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견지하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때였습니다. 혁명의 전도는 창창하였지만 우리앞에는 실로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압록강연안과 국내에서는 혁명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고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혁명가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이 조직들과 혁명가들의 활동을 무장으로 보호해주고 백두산지구와 서간도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일대앙양에로 이끌어올려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승산이 없는 열하원정을 하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국제당이 원정을 하라고 강요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무모한 것이라



열하로 진격하는 8로군

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우리가 내세운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면서 백두산근거지를 새롭게 꾸리고 조국안의 1군 2사와 협동하여 서간도일대에서 큰 전투도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또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군이 차지하고 있던 남만의 일부 지역들의 군사적 공백도 메우면서 요서와 열하 방향으로 진출한 원정부대들의 활동을 성실하게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에로 확대할 데 대한 자주적인 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면서도 국제당이 제시한 노선집행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였습니다.

남만의 무장부대들이 열하와 요서쪽으로 한창 진출하고 있을 때 국제당지령의 전달자인 위증민 자신은 1군부대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로 우리와 함께 다니었습니다.

열하원정계획이 매우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은 중일전쟁발발 후 더욱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지만 국제당은 이 시기에 와서도 반달형포위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항일연군부대들에 승산없는 서정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중일간의 대결이 전면전쟁으로 번져지고 그것을 계기로 항일운동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제당은 또다시 반달형포위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노농홍군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편되었으며 수원, 차하르, 열하에로의 진격을 지향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당은 열하원정과 관련된 새로운 지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그전날 1군이 차지하고 있던 해룡, 길해선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하는 작전에 직접 참가하며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1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백

두산근거지를 떠나 멀리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국본토전체가 싸움터로 된 조건에서 8로군 열하진격대와의 합류라고 하는 문제설정은 솔직히 말해서 별 의의가 없는 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열하에로의 원정계획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유격전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여있였습니다. 유격대가 산악지대를 떠나 벌방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 뭍에 오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였습니다. 동만과 남만, 북만의 산악지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개척해온 고장이여서 군중토대가 좋고 지리적 파악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항일연군부대들이 본래의 활동구역을 떠나 열하나 요서까지 가려면 적의 요충지들이 집결되여있는 남만철도계선의 넓은 평원지대를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서 대포나 탱크와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있은 적의 정규군과 맞다든다면 경무기밖에 없는 유격대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입니다.

열하땅은 8로군측으로 볼 때에는 만리장성만 넘어서면 지척에 있는 고장이지만 동북에 있는 항일연군측으로 볼 때에는 수천 리 떨어진 먼 곳에 있었습니다.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격대가 수적으로 수십수백 배나 되는 적들이 처처에 집결되여있는 평야지대를 지나 그처럼 먼 거리를 행군해간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열하원정이 군사전략상 무모한 원정이라는데 대해서 위증민에게 여러 번 말해주었습니다.

열하원정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민도 점차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조건에서 원정의 성공이 전중국적 판도에서 항일고조를 일으키게 되고 항일제일주의의 기치를 시종일관하게 고수하고 있은 공산주의자들의 견실한 반일정신과 참된 애국주의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는 한 가닥의 미련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하원정이 성공하면 장개석을 적극적인 항일에로 이끌어가는데서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나는 위증민에게 중국전체에서 항일고조를 일으키는 것도 필요하고 공산당의 진면모를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 장개석을 적극적인 항일에로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북혁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그런 결과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북혁명을 위해서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의 입장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전략상의 견지에서 볼 때 열하원정계획이 일정한 약점을 내포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크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회피할 수야 없지 않는가, 물론 원정을 하느라면 아까운 희생도 내고 예상치 않았던 손실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희생이나 손실이 없이 어떻게 대사를 치를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주보중의 5군과 4군도 중일전쟁반발을 서정실현의 좋은 계기로 보고 지령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증민의 그 말은 사실이였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길동지구에서 활동하던 주보중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의 중국 본토와 동북지방의 정치군사 정세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사변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사변의 확대발전과 동시에 즉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열하지경에 진출하는 8로군 유격군과 직접 연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서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5군 부

사령으로 었던 채세영은 처음부터 서정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을 회의적으로 대하였다고 합니다.

위증민은 열하원정계획에 모험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정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중국혁명에 대한 위증민식의 충실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증민은 화북의 산서성출신이지만 1930년대초부터 만주에 들어와 동북혁명에 참가한 지도적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북의 당사업과 항일연군건설에 심혼을 바치었으며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군사작전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였습니다. 동북혁명에 대한 그의 애착과 관심은 보통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증민

그러나 위증민은 동북혁명에만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북혁명을 중국혁명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지역혁명을 중시하면서도 전반적 중국혁명발전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중국혁명을 앙양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이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열하원정을 성사시키고싶어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나는 국제당이 원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때 동북의 현실과 중국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 계획의 군사적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타산하였는가 타산하지 않았는가, 더욱이는 그들이 시도하는 원정이 유격전의 특성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당이 시달한 열하원정계획에는 중국혁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선혁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왕명이 국제당에 가서 중공당대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주관주의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왕명이 주관주의가 강한 사람이라는데 대해서는 위증민도 수긍하였습니다.

열하에로의 원정계획은 국제공산당의 지령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작성 시달한 사람은 왕명이었다.

왕명은 모스크바에 가있으면서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노선들을 계속 작성 시달하였다. 왕명의 노선에서 주되는 병폐는 국제노선이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좌경이었다. 그러나 중일전쟁발발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의 노선은 우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국민당과의 합작과 통일전선을 통해서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하원정에 관한 지령을 조선혁명과 국제혁명과의 연관속에서 용의주도하고 영활하게 집행해나간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고하시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왕명노선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설사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그 집행을 노골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은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위원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당비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작성한 모든 지령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제당의 명의로 하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열하원정계획이 중국 동북지방의 혁명운동발전에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조선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매우 일면적이고 해독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 그러면서도 그 집행에서는 신중성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증민과 함께 1군산하의 항일연군부대들과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활동방향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우리 부대가 1군의 활동지역인 해룡, 길해선 일대에로 나가주었으면 하였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한다면 우리는 백두산지구에서 달성한 군사정치적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충안으로 우선 당분간은 임강, 무송, 몽강 일대에서 유동작전을 벌이면서 조선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그 당시 서간도와 국내에서 입대한 신입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한 조건에서 부대가 본래의 활동지역을 떠나 생소한 고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국내에 꾸려진 혁명조직들을 보존확대하며 앞으로 국내진공을 더욱 적극화하기 위해서도 서간도와 백두산지구를 멀리 이탈하지 않겠다고 내놓고 말해주었습니다.

위증민은 나의 입장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당시 양정우는 중일전쟁의 발발로 급격히 앙양되는 항일기세를 이용하여 기어이 열하원정을 성사시켜보려고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봄 1군의 부대들은 원정을 개시하자마자 포위속에서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사사장 정빈이 부대를 데리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비상사태까지 일어나 1군의 서정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7월중순에 양정우는 노령에서 1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서정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군내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 필요한 개편조치를 취하였습디다.

정빈의 투항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1군이 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군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마련한 다음 일부 부대들로 하여금 몽강현을 에돌아 금천, 유하현을 거쳐 통화계선으로 부분적인 군사적 이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군사적 이동은 1군부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1군의 전우들에게 포위를 돌파할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원정계획을 어떻게 집행하는가하는 문제에 앞서 1군의 전우들을 구출함으로써 동북항일역량을 보존하고 여러 해 동안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두터이하는데 목적이 있였습니다.

우리의 일부 부대들이 적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화계선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은밀히 국내깊이 들어와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편 주력부대는 여러 방면에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깊은 전투의 하나가 8도강부근의 도로공사장습격전투였습니다. 8도강에는 일본군, 위만군, 무장경찰대와 자위단을 비롯하여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장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은 임강지구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자주 동원되는 한편 조선의 강계와 중강으로부터 임강을 거쳐 만주의 내륙지대로 통하는 군용도로와 철도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화-임강사이에서 큰 공사장을 습격하여 삽시간에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경비병력을 소멸하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지휘하고 있던 몇 명의 일본인청부업자들이 나와의 회견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자 몸값을 후하게 치를 터이니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의 침략행위를 돕는 것으로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몸값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혁명군은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마적들이나 할 짓이다, 몸값은 내지 않아도 되니 돌아가라, 그러되 이 공사장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청부업을 하겠거든 다른 청부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을 친 후 **김일성**빨치산이 임강서부에 나왔다는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일본인청부업자들이 돌아가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후 계속하여 8도강, 외차구, 내차구 일대에서 적을 소멸하고 이어 무송현 서강전투를 벌려 적들의 역량을 우리에게로 쏠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열활한 전술적 이동은 적들로 하여금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종잡을 수 없어 여기저기 병력을 끌고다니며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군을 곤경에서 구출하려는 우리의 전술적 이동과 일련의 작전적 공세가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양정우와 위증민도 임강, 무송, 몽강 일대에서 우리가 울린 총소리가 1군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데서 결정적인 도움으로 되었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도 서정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북만에서 활동하던 여러 개의 군이 원정의 길에 처음으로 오른 것은 1937년 7월이었고 본격화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만에서의 원정도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몇 해 동안 동북혁명에 혼선을 일으키고 무모한 전투와 희생을 강요하던 열하원정은 남만에서는 1938년에 그리고 북만에서는 1939년에 이르러 막을 내리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정력과 인력, 물력의 소모를 가져온 열하원정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열하원정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일만통치질서의 수립과 적역량의 압도적 우세로부터 온 객관적 조건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 적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실시한 집단부락정책은 이른바 비민분리라는 말대로 유격대와 군중의 연계를 철저히 끊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일만통치질서를 공고히 하는 반면에 항일무장부대들의 활동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원정은 군중들과의 연계와 식량보급로가 거의나 단절된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단부락에 갇힌 인민들은 원정부대들과 연계를 가지고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군물자의 지원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원정부대들은 부득불 적을 쳐서 식량이나 천같은 후방물자들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를 내게 되니 원정부대들의 전략적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적들에게 시시로 알려지지 않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정부대들앞에는 걸음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포대, 험한 봉쇄선들과 병영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정이 실패한 원인을 객관적 조건에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원정의 주체는 동북의 항일연군부대들입니다. 열하원정을 노선으로 내리먹인 국제당도 넓은 의미에서는 원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당은 노선작성과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범하였고 항일연군부대들은 그 집행과 실천에서 맹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와 모험주의가 원정을 실패에로 이끈 기본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접수되지 않거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노선은 훌륭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노선을 채택할 때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관에만 사로잡히면 눈뜬 소경이 되고 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래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갈량도 이름난 재사이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은 그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주은래

노선과 방략이란 만사람에게 그 정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은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접수되지 않는 노선과 방략이란 무용지물입니다. 대중은 정당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노선을 위해서만 심장을 발동시키는 법입니다. 하물며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 군사작전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열하원정이 무모한 작전이었다는데 대해서는 적들도 인정하였다.

... 그들은 사변 후의 객관적 정세가 저들의 유격행동에 유리한 것처럼 경솔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도 재작년(1938년) 가을경부터 작년 봄에 걸쳐 동변도 ...금천, 유하, 임강 일부로 빠져서 화북의 열하진격군과 합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 대담한 행동에로 나오는 형세가 있었으나 너무나도 빠르게 일만군경의 토벌을 만나 다시 북상하여 화전, 몽강, 돈화 교하, 무송, 안도 등의 현경 즉 백두산기슭의 백색지대를 중심으로 적구건설을 의도한 것입니다.(사상월보 제77호 사법성형사국 소화 15년(1940년) 11월 136-137페지)

국제당이 내린 지령들 가운데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 지령들을 심중하게 대했으며 그것을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켜 이행하면서 국제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이라는 양자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사색하고 영활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혁명앞에 장벽이 가로놓이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 때일수록 주체적 입장을 더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원칙입니다. 국제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갈지자로 걷지 않고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 수 있은 것은 이런 요인 때문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가 열하원정문제를 두고 취했던 입장과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가을에 나는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측에서는 우리 당 창건기념일을 축하하여 베이징에서 연회를 차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명과 같이 국제당에 가있던 사람도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중국간부들에게 지난날 조선혁명이 주위의 압력으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그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큰 고뇌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희생되였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기에는 일부사람들이 국제당에 들어앉아 실정에 맞



항일전에 나가는 8로군 기병

지않는 노선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항일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손실을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주은래가 그에 대한 책임은 왕명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고보면 왕명은 중국혁명에도 많은 손실을 주었지만 조선혁명발전에도 적지 않은 저해를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국제당이 주관주의적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스탈린도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국제당이 열하원정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서간도를 떠나지 않았을것이고 서간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혜산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때에 수습하고 손실도 최대한으로 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력부대가 서간도에 그냥 있으면 적들이 우리의 혁명조직들에 손을 대고싶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설사 손을 댄다 하더라도 체포를 면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와서 부대에 입대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달도 체포되지 않고 산으로 돌아다니었는데 우리와 제때에 접선하지 못하다나니 붙잡히었습니다.

열하원정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원정에 대하여 회상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하는 시비를 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른대야 제소할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제당도 없고 그 무슨 지휘봉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주관주의와 맹목성으로 하여 손실을 보았던 열하원정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혁명의 이치를 무시하고 주관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선사하지 않는 법입니다.

6. 양정우와 만나


양정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중국인민들과의 공동투쟁,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국제주의적 유대를 중시하시었으며 중국의 각계각층 애국역량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었다. 그 과정에 중국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혁명가들, 군사간부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었다.

동북지방의 저명한 항일연군지휘관이었던 양정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동항일의 나날에 생사를 같이한 중국의 명망높은 혁명투사들 중 한 사람이다. 양정우와 관련된 수령님의 회상교시들에는 중국인민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뜨거운 우애의 정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양정우는 이홍광, 이동광과 더불어 남만유격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남만유격대는 항일연군 1군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군장이 바로 양정우였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에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하고 항일연군 각 부대들과의 연합과 협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이것은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도 하고 조국안이 지휘하는 1군 2사 부대와의 협동작전도 하였으며 남만부대들과의 연계도 확대해나갔습니다.

남만부대들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남만동무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우리가 품을 들여 육성한 군정간부들도 많이 파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남만공산주의자들과의 유대가 깊어졌고 남만군정간부들과의 동지적 친분관계도 두터워졌습니다. 양정우는 우리가 남만부대들을 잘 도와준 사실을 두고 여러 경로를 거쳐 감사를 표시해왔고 나도 인편을 통해서 양정우에게 문안인사를 종종 하였습니다. 나와 양정우는 공동투쟁과정을 통해 이처럼 부단히 친분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나는 1938년 가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군정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양정우를 처음으로 만나보았습니다. 남패자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몽강현에 가면 패자라는 대수림지대가 있습니다.

패자의 특징은 수림이 무성하고 흔들레판이 유달리 많은 것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림속에 감탕물이 고인 곳을 흔들레판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레판에는 흔히 고지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잡초가 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망탕 발을 들이밀면 안됩니다. 흔들레판이 사람을 잠깐사이에 삼켜버리기 때문입니

다. 이런 흔들레판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오른쪽의 풀밭에도 흔들레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패자의 대수림지대를 방향별로 동패자, 서패자, 남패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1937년 겨울에 군정학습을 한곳은 동패자부근이고 양정우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간부들과 함께 열하원정의 후과를 청산할 데 대한 안건을 가지고 중요회의를 한 곳은 남패자였습니다. 사람도 말도 순간에 삼켜버리는 흔들레판이 무수히 있고 지세가 험한 남패자는 부대들이 은밀히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남패자회의를 일명 몽강회의라고도 하는 것은 남패자가 몽강현에 속해있기때문입니다.

남패자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 혁명앞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국이 조성되어있었습니다. 하나의 난국은 우리 혁명을 압살해버리기 위한 적의 공세로부터 오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의 난국은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의 좌경모험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였습니다.

일본침략군은 그 당시 중국 남방으로 공격의 예봉을 돌리는 한편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동북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적의 반혁명공세는 우리의 무장투쟁과 전반적인 항일혁명발전을 심히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열하원정의 후과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열하원정의 결과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국제당의 지령이 실정에 맞지 않는 무모한 것이고 열하원정으로 하여 항일혁명이 엄중한 손실을 당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흑백을 가르고 그 후과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자면 적의 공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방안과 좌경모험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과 항일연군 1군산하의 부대들은 남패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양정우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가 열하원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였고 또 몽강으로 오는 노상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정우도 우리와 만나게 될 날을 고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정우부대의 길안내를 해줄 사람들도 미리 파견하고 숙식조건도 충분히 마련해놓았으며 그들에게 공급할 피복까지도 다 준비 해두고 있었습니다.

고생끝에 이루어진 상봉이였던 것만큼 나와 양정우와의 상봉은 실로 감격적인 것이였습니다.

양정우의 어글어글한 두 눈은 첫 순간부터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팔백냥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양정우의 두 눈을 보고 그가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나이라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닥불곁에서 간단한 담화를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몸을 좀 녹이고나자 느닷없이 1군에 있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1군부대에 조선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소문난 싸움군들이었다, 그런데 그 동무들이 여기에 다 오지 못했다, 아까운 동무들을 잃었다고 거듭 통탄하였습니다.



양정우가 활동하던 지대

그가 조선동지들을 잃은데 대하여 얼마나 아프게 생각했던지 내가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였습니다.

나와 양정우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운명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 남만일대에서는 대도회군이였던 요녕구국의용군총사령 왕봉각이 양정우와 더불어 영웅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변도일대를 휩쓸며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였습니다.

우리가 서간도일대를 타고앉은 다음부터 적들은 우리와 양정우, 왕봉각의 이름을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왕봉각이 안해와 함께 적들에게 피살된 후에는 시선이 우리와 양정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적들이 **김일성**군이라고도 부른 조선인민혁명군과 양정우부대는 동남만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실력으로 압도한 2대무장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적측의 극비문건들을 보면 나와 양정우의 이름을 나란히 놓은 소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신문, 잡지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楊靖宇と東北抗日連軍

양정우를 소개한
일본출판물자료

일본의 어떤 양정우연구가는 길림에 대하여 쓰면서 청년 **김일성**이 반일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던 거리, 양정우가 유격구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것이라는 식으로 썼으며 어떤 글에서는 항일운동이 거세찼던 만주지도에 양정우와 **김일성**이 항일유격전쟁을 전개한 남만주지역이라는 설명문을 달기도 하였다.

양정우의 희생에 대하여 쓴 글에서는 그가 항일게릴라의 지도자로서 일본에서는 **김일성**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아래에 당시의 자료를 더 소개한다.

김일성은 순수한 공산유격대로서 30살도 안되는 젊은이이나 … 임강, 무송, 몽강, 장백 등 소위 미토벌지대에 반거하여 현재 약 5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동변도에서 첫째가는 집결세력이다

(철심 1937년 5월호 106페지)

담화를 끝내고나서 나는 우리가 꾸려놓은 숙영지로 양정우네를 데리고 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쳐놓은 천막들을 보자 1군의 전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가 들 천막이라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군간부들이 사용할 지휘부천막으로 양정우를 안내하였을 때 그는 감격해하였습니다.

김사령네 부대가 손님대접을 잘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골안에 와서 이런 환대를 받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 겨울이 어떤 겨울인가고 하면서 천막안으로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속에 들어가서 몇 달 묵은 피곤을 풀고 잠도 자라고 하였지만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 부대의 전우들에게 아직 도착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피곤부터 풀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양사령이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접부대들에서 우리 부대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갔지만 양정우처럼 숙소에 행장을 풀어놓기도 전에 도착인사부터 하겠다고 서두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에게 양정우에 대한 소개를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동장영이였습니다. 동장영은 대련에서 당사업을 할 때 양정우에 대한 소문을 좀 얻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순탄광 노동자들이 양정우를 친형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2사 사장 조국안도 부대를 데리고 우리 밀영에 와있을 때 양정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무순당특별지부 서기로 갈 때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 마상덕이라는 본명을 장관일로 고치고 산동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동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은 무순 지방에 발을 튼튼히 붙이려면 같은 산동사람으로 위장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양정우가 휴대하였던 무기, 탄약과 인장

무순탄광에서 한번은 노동자들이 일본인광주들을 반대해서 파업을 일으킨적이 있다고 합니다. 파업을 당장 해야겠는데 탄광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 나설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부들은 대바른 소리를 잘하는 양정우를 자기네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양정우는 자기의 주견대로 파업을 줄기차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끌려가서도 노동계급의 권익을 옹호해서 주장할 것은 다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문이나 위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조직은 광부들과 함께 적들의 손에서 양정우를 구원해냈습니다.

나는 양정우의 소원대로 그를 우리 부대가 있는 밀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밀영은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1군의 전우들이 있게될 밀영과 잇닿아있었습니다. 나의 연락을 받고 전부대가 밀영앞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양사령은 그 동안 거듭되는 열하원정으로 모두가 큰 피해를 보았는데 역량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한 것은 김사령이 주견을 가지고 부대를 잘 이끌어온 덕이다, 그런데 나는 부하들을 거의 다 잃었다, 먹을 것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잠도 변변히 자지 못하면서 열하로 진격하다가 중도에 쓰러진 부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내 오늘 그 부하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왔더라면 얼마나 떳떳하겠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가 희생된 대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정우는 부하들에 대한 애정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양정우를 위해 간단한 주연을 마련했습니다. 주연이라야 탁상에 마른 안주를 놓고 술 한두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혁띠를 풀어본다고 하면서 허리에서 권총과 전투가방까지 벗어놓았습니다.

양정우와 함께 남패자에 도착한 서철은 그 광경을 보자 나에게 귀속말로 슬그머니 저것은 관례에 없는 일입니다. 양사령은 누구앞에서나 군복을 단정히 입고 무관다운 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오늘은 격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대면이었지만 양정우는 그날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때 공업학교에 들어가 방직날염에 대하여 학습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미래의 항일연군사령이 방직날염을 연구했다는 사실자체가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양정우의 말에 의하면 그가 공업학교에서 방직날염을 연구한 것은 대대로 헐벗고 못살아온 중국의 동포들에게 고운 천으로 옷을 해 입히고 싶은 욕망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급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투쟁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런 계급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양정우는 10살 남짓한 학창시절에 벌써 학교당국의 불공정한 교육시책에 항거해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남달리 대가 바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정우는 원래 동북사람이 아니고 하남성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위임에 따라 동북지방에 와서 지하당사업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무순지방에서 중국공산당 무순당특별지부사업을 하였고 후에는 하얼빈에서 지하당사업을 하였습니다.


서철

만주사변이 터지고 동북각지에서 항일무장부대들이 연속 태어나고 있던 1932년 가을에 중국공산당 만주당조직에서는 양정우를 남만에 순시공작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가 남만에 파견되게 된 것은 남만유격대의 구성상 특성과도 관련되어있었습니다.

남만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조직된 남만유격대는 초창기에 전부가 조선사람들로만 이루어져있었습니다. 남만유격대의 조직자들인 이홍광과 이동광도 조선사람들이었고 그 휘하의 대원들도 모두 조선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남만유격대는 초기에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한족과 만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고장에서 순수히 조선사람들로만 유격대가 꾸려지다보니 광범한 주민대중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고 인적 후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만유격대에 파견되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하얼빈에서 공청사업을 할 때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활동한 서철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서철은 조선사람이지만 중국사람행세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만유격대에 군의관으로 파견되어갔습니다. 조직에서는 그에게 남만에 가면 이홍광과 이동광에게만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앞에서는 철저히 중국사람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인 서철은 하얼빈에서 고학으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지식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중어에 매우 능하였고 중국사람들의 생활풍습에도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중국사람들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철이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된 과정을 보면 재미나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가 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루종일 들판에 나가 소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다가 경찰들에게서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당치도 않은 트집을 걸어 행패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철을 다짜고짜로 소잔등에서 끌어내려 발길로 차며 경찰나리들이 지나가는데 건방지게 인사도 하지 않고 소를 타고 거들먹거린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철이 한나라 당의 정치국위원으로까지 되었지만 그때에는 꼼짝못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혈로 몇 달 동안 애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경찰들을 미워하였고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돌아가는 지주나부랭이들과 벼슬아치들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풍토에 순화되어있고 동북사람들의 생활관습에 인이 박힌 서철은 중국사람으로 둔갑하여 남만유격대를 곤경에서 구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철은 조직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중국인군의행세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유격대의 권위를 높이고 군민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정우가 남패자에 왔을 때는 그가 데리고 온 부하들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하원정에서 당한 손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양정우네 부대는 원정과정에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즙안으로부터 몽강으로 빠져나오는 행군과정에서도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비행기와 대포를 비롯한 중무기까지 다 동원하여 그의 부대를 숨쉴 사이 없이 추격하였습니다. 온 부대가 포위속에서 고전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공격하지 앞에서는 정빈이 투항을 권고하는 나발을 불어대지 사처에서 대포를 꽝꽝 쏘아대며 포위망을 좁혀들지 정말 빠질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정우는 1군에 속한 조선인전투원들이 특별히 잘 싸웠다고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외차구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박선봉연대와 박성철중대에 대해서 거듭 찬양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양정우는 자기가 외차구에서 최후를 각오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선봉

외차구돌파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박성철이 인솔한 중대였습니다. 박성철중대의 결사대원들은 모두가 육탄이 되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양정우네 부대를 구출하는데서 박성철의 공로가 컸습니다.

양정우는 그때 자기네 부대에 조선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외차구에서 적의 포위를 뚫지 못하고 전멸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조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연군을 내오지 않고 따로따로 갈라서 활동했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남패자에 와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선인간부들을 많이 양성하여 자기네한테 파견해준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패자에서 회의를 10여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패자회의에서는 열하원정의 좌경모험주의적인 본질과 그 엄중한 후과가 신랄하게 분석비판되고 그 후과를 가시기 위한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대규모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데 대한 문제와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 데 대한 문제, 혁명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을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그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부대들의 활동구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남패자회의의 정치군사적 의의를 잘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패자회의는 남호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은 질적으로 한 걸음 더 비약하였습니다. 인민혁명군의 전체 장병들이 이 회의에서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을 의지나 인내성 하나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패자회의의 정신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행군 전과정에서 나와 나의 전우들을 줄곧 앞으로, 앞으로 떠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1939년 봄에 북대정자회의에서 남패자회의의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내에로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남패자회의에서 중요한 노선적 문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10겹, 20겹으로 포위하고 있던 그 준엄한

환경속에서 장백의 설령과 설원을 헤치고 조선에 나가서 총소리를 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남패자회의와 북대정자회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남패자에서 우리 부대의 대원들로 양정우와 위증민에게 경위연대를 새로 개편해주었습니다. 그 연대에 숱한 인원을 보충해주었습니다. 그때 지휘관들도 재임명하고 양정우에게 전령병도 넘겨주었습니다. 경위연대의 개편과정을 통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친선과 우애는 더 깊어졌습니다.



1939년 4월 북대정자회의가 있은 장소

남패자회의가 끝난 후 각 부대들은 분담된 작전지역들로 떠나갔습니다. 양정우와의 작별은 상봉의 날처럼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혁명가들의 명예를 걸고 기어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승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후 나는 양정우를 다시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정우는 우리와 헤어진 다음 화전, 돈화, 몽강, 휘남, 무송, 금천 등지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이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감행된 적들의 대토벌로 하여 그의 부대는 중첩되는 곤란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겨울나이준비였다고 합니다. 겨울나이준비를 하자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양정우는 분산활동의 방법으로 대토벌을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결심을 내린 것은 물론 유격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보아 옳은 전술도 정황에 맞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정황이라는 것은 천태만상이고 천변만화하는 법입니다.

소부대로 분산활동을 하게 되면 적들의 시야에서는 비교적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양정우도 이 점을 타산하고 이정화령과 이령화정을 능란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적을 타승하고 부대앞에 가로놓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황의 요구에 따라 흩어졌던 소부대들을 대부대역량으로 집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적의 포위속에 있는 상태에서 분산활동만 하게 되면 적이 대부대로 공격해올 때 그것을 쉽게 격파할 수 없습니다. 적을 격파하지 못하면 결국 추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피동에 빠지게 됩니다. 분산활동을 하다가 대부대와 맞다들어 부득이 조우전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불리해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산활동을 하는 측입니다. 적들은 양정우네 부대가 소부대로 분산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는 종전보다 큰 규모의 역량을 투입하여 포위소멸작전을 악착스럽게 벌였습니다. 게다가 양정우는 유동작전을 벌이지 않고 밀영을 지어놓고 겨울 한철 그곳에 머물러 있다보니 적들의 집중적인 토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의 최선두에 선 자가 양정우의 수하에서 사장을 하다가 반변한 정빈이라는 것입니다. 1939년 정월에 통화성경찰대 대장이 된 정빈은 양정우부대의 주력과 조우하여 몽강현 서강에서 무려 6시간동안의 교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는 다른 하나의 경찰대대와 함께 또다시 양정우의 주력과 교전하였습니다.

양정우는 1940년 2월 몽강현의 한 수림속에서 적토벌대와 맞서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였습니다. 양정우가 마지막결전을 벌이던 그 시각에 그의 곁에는


김주현


김택환


김영국

경위대원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투항하라고 연속 웨쳐댔습니다. 그러나 양정우는 손에 두 자루의 권총을 틀어잡고 적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다가 쓰러졌습니다.

양정우를 마지막까지 호위한 사람은 우리가 남패자에서 넘겨준 전령병 이동화였습니다. 이동화는 양정우가 전사하는 순간까지 그와 운명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양사령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에 접한 것이 아마 대마록구전투 직후일 것입니다. 적들을 치고 노획한 신문에 그가 전사한 소식이 실려있었는데 나는 그 신문을 읽은 다음부터 밥맛을 잃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지만 나는 그때 양정우와의 상봉을 회고하며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적들은 양사령의 머리를 잘라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만주도처에 뿌리였습니다. 그들은 양정우의 배까지 갈라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산중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그처럼 초인간적인 투지를 발휘했는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 알의 낟알도 보이지 않는 양정우의 위장속에는 마른풀과 풀뿌리, 나무껍질을 삭인 것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근목피뿐이였습니다.

남패자에서 양정우와 함께 우정을 나누던 그 시기 나는 김주현, 김택환, 김영국 등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세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패자를 더더구나 잊지 못합니다.

해방 후 중국에서는 양정우의 이름을 따서 그가 전사한 몽강현을 정우현이라고 고쳤습니다.

중국에서 양정우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통화시에 정우릉원을 꾸리고 개원식을 할 때 나는 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해방 후 중국당지도자의 한 사람은 동북항일유격전쟁의 위치를 밝히는 글에서 20여 년간의 중국공산당의 역사에서 가장 간고한 세 싸움은 첫째는 2만5천리장정이고 둘째는 노농홍군 주력이 장정한 후 남방에 남은 홍군의 3년간의 유격전이고 셋째는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고투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 진행한 영웅적 항전의 기발에는 중국인민이 낳은 열렬한 공산주의자 양정우의 피도 스며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항일의 길에서 양정우가 이룩한 빛나는 투쟁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7. 이보익할머니


이보익여사

이보익여사의 생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낳아키운 만경대일가의 혁명투쟁사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슬하에 많은 자손들을 두신 여사께서는 그분들 모두를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 후에도 김보현선생과 함께 고향집사립문으로 쓸어드는 비바람을 모두 막아내며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고생의 흔적은 만주의 산야와 설원에도 점점이 찍혀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하는 자손들의 뒤바라지를 평생토록 해오시다가 소문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가신 할머니에 대해 아프게 추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중일전쟁을 시작한 이후시기부터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공작에 학창시절의 나의 동창생들과 교사들, ≪ㅌ · ㄷ≫시절의 연고자들, 옥중에서 전향한 자들, 친지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이였습니다. 나중에는 만경대에 가서 우리 할머니까지 끌어내다가 백두산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오만가지 고생을 다 시키였습니다. 혈육들을 미끼로 하는 귀순공작은 그놈들의 마지막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인방나라들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이 예절바르고 인정이 많고 충효심이 높다는 것은 옛날 우리 나라에 와본 서방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구한국말기 우리 나라를 편답한 제정 러시아의 학자들은 자기네 나라에 돌아간 다음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조선은 예의도덕에서 으뜸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들이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끌어들인 것은 조부모님들에 대한 손자의 효성을 악용하여 우리를 좀 어째보자는 것이였습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인정사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의 미풍양속과 전통적인 윤리도덕까지도 다 자기들의 강도적인 전략에 악용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기에 양인들이 대원군을 굴복시켜 우리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보려고 그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에 달려든 것도 다 그런 것이였습니다.

나는 부대를 데리고 몽강일대에서 활동할 때 우리 할머니가 장백현 가재수마을에 끌려와 연금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밤에는 할머니를 가두었다가 날이 밝기만 하면 매일같이 산으로 끌고다

니면서 ≪성주야, 할머니가 왔다. 이 할미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산에서 나오너라.≫ 하고 함화를 하라고 강박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가재수사람들이 보내온 쪽지에는 장백의 여러 마을들에 나붙었다는 적들의 방문 내용도 첨부되어있었습니다. **김일성**의 할머니가 가재수에 와있다, **김일성**은 지체 말고 산에서 나와 할머니를 만나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적들은 빨치산의 밀영이 있을만한 대수림지대와 맞다들릴 때마다 할머니더러 손자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따위 요구에 응할 할머니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뒤따를 것은 구박과 행패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들은 그 무슨 형사범이라도 다루듯이 총부리로 할머니의 등을 쿡쿡 찔러대며 위협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할머니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촌노친이니 한두 번 발을 구르고 눈만 부라리면 겁에 질려 저들의 요구를 곰상곰상 들어주리라고 타산했겠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가재수인민들이 유격대에 식량을 보낼때의 신호바위에 그 위에 놓인 돌

가재수의 지하조직성원들은 할머니의 정상이 말이 아니니 부대를 파하여 구출작전을 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대를 파할 형편이 못되면 자기네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구원하겠으니 양단간에 결심을 내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기별을 받고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몸이 떨리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빙천설지에 60고령의 노인을 끌고 다니며 고생시킨다는게 사람의 가죽을 쓰고 할 일입니까.

분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부대를 끌고 가서 적들을 요정내고 할머니를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누르고 참기로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혜산사건이 터져서 서간도와 국내에 있는 혁명조직들이 한참 시련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백 명 혁명가들이 철창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태를 외면하고 친할머니부터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혁명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투를 조직하면 할머니를 일단 구출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적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김평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소부대를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작지로 빨리 돌아가서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원들을 구원할 대책이나 취하라고 설복했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떠나가던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간 다음 사실은 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참자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몇 포대의 쌀이나 몇 자루의 총을 얻으려고 싸움을 한 때도 있었고 한두 명의 애국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서슴없이 전투를 조직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 붙잡혀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다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참아야 했던 내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구원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억지로 묵새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것이 바로 사령관으로서의 나의 남다른 고충이였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으로 조련치 않은 일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나로서는 가재수지하조직의 통보자료를 받아본 순간부터 도무지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에서 할머니는 어머니 못지 않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 본 풍경들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의 하나는 엿장사들이 엿이 담긴 목판을 메고 엿사시오! 엿사시오! 하면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리어카에 넝마나 파고무신 같은 것을 실은 엿장사도 우리 마을에 오군 했습니다. 그들이 엿을 자르는 넙적가위를 절컥거리면서 엿을 사라고 하면 온 동네의 조무래기들이 다 모여들군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달달한 엿생각이 간절해서 군침을 삼키였지만 우리 집에야 돈이 있습니까, 고포가 있습니까, 헌 고무신바닥이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도 모두 짚신을 신고 다녔지 고무신 같은 것은 신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조무래기들이 엿장사의 목관이나 리어카를 둘러싸고 떠들어댈 때에도 나만은 그 속에 끼우지 않고 뜨락에서 닭의 모이를 주든가 뒤울안의 장독대곁에 가서 개미들이 기여다니는 모양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러는 내 심리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할머니는 귀한 쌀을 펴가지고 나가 엿을 바꾸어온 적이 있습니다. 엿가락 몇 개를 들고와서 내 손에 쥐여주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고마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타개죽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집안에서 몇 가락의 엿 때문에 쌀을 퍼들고 나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이 어린 그 쌀바가지와 엿가락들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잔등에 업혔던 기억보다는 왜 그런지 할머니나 형실고모한테 업혀다니던 일들이 더 기억에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친정집에 나들이를 갈 때에도 곧잘 나를 업고가군 하였습니다.

남아의 나이 6-7살이면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나이에는 부끄러움도 알아서 업혀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봉화리에 올 때마다 우리 증손이가 그새 얼마나 컸나 보자고 하면서 내앞에 잔등을 돌리군 하였습니다. 내가 쑥스러워 하건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에 업히면 머리카락과 적삼에서 풀냄새 비슷한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런 냄새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노동속에서 한 생을 살아온 할머니들한테서만 맡아볼 수 있는 특이한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만경대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나를 독차지하다싶이 하였습니다. 어린시절의 나는 할머니곁에 있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투실투실한 팔은 어린시절의 나의 베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팔베개를 베면 어째서인지 잠이 잘 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주무실 때마다 신기한 옛말을 들려주면서 공상을 키워주군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끼니때 간수해두었던 누룽지나 대추 같은 것을 내 입에 슬그머니 넣어주기도 하였는데 그 맛이 별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몇 곱절 더 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문의 장손인 나의 성장을 보는데서 인생의 유일한 락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낙이 있었다면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는 낙이 있었습니까, 산천유람같은 것이나 하며 호강하는 낙이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품고 있던 소박하나 간절한 꿈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

을 기다리며 그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뒤바라지를 성실하게 해주는 것이 할머니의 일이고 낙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많은 경우 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표현되였습니다. 1926년이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한 해입니다. 그 해 여름 무송의 양지촌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할머니는 묘앞에 엎드려 슬프게 곡을 한 다음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증손아,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 있던 짐을 네가 메야겠구나.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

나는 할머니의 그 말씀에서 큰 충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조선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할 생각이나 하라고 하였더라면 나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것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할머니의 뜻이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나라의 독립과 같은 중대사를 부탁한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만경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무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도로 이사한 다음에는 거기에도 가있으면서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특징은 한마디로 강의한 늙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의 녀성들치고 보기드문 강자였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사람같지 않은 자들에게는 추상같은 것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것이 할머니의 성미이고 기개였습니다.

할머니가 소심하고 나약한 노인이였다면 나는 가재수지하조직이 보낸 통보를 받았을 때 그처럼 큰 충격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며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인질로서 당하게 되는 온갖 고초와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내가 할머니를 그렇게 믿은 것이 백번 옳았습니다.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인 박차석이 남패자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정우를 비롯한 1군, 2군의 간부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귀순공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종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박차석은 자기가 진 죄를 솔직히 자백하면서 우리 할머니를 끌고 서간도땅을 돌아다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내가 믿었던 그대로 적들에게 조금도 굽혀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인질로 끌고다닌 것은 귀순공작반 패거리들이였습니다. 이종락과 박차석은 그 공작반에 속해있었습니다. 일본모략군들은 그들에게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동원시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종락과 박차석은 만경대에 나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를 만나보고 싶지 않는가, 손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있다고 말하라, 손자는 헛고생만 하다가 신세를 망치게 됐으니 그를 구원할 생각이 있거들랑 자기들이 하라는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신문에 죽었다고 광고까지 난 손자가 살아있다니 웬 소린가, 그런 허튼 소린 듣기도 싫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댔습니다.

이종락이 바빠나서 그 광고는 거짓광고다, 성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데 성공하지도 못할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험한 산속에서 공연히 헛고생만 하고 있다, 동양천지가 다 일본세상이 됐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백두산에서 소금도 없이 생쌀과 솔잎만 먹고 지내다나니 짐승처럼 온몸에 털이 나고 발은 닳고 몽드라져 그 형체가 사람같지 않게 되였다, 성주가 묘한 축지법을 써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싸우기때문에 그를 산에서 데려내올 수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성주가 자기네 편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관동군대장자리도 좋고 조선군사령관자리도 좋고 무슨 벼슬이든 달라는대로 다 주겠다고 한다, 물론 집안식구들도 궁궐같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주를 빨리 돌려세워야겠는데 그 일에는 할머니가 나서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뭉치돈 수백 원을 내놓으며 이건 일본사람들이 보내는 초벌인사인데 이 돈으로 우선 집안살림에 요긴한 물건부터 사고 식모도 부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성이 독같이 올라 이 천하에 고현놈들, 그래 우리보고 제 손자의 목숨을 돈과 바꾸라는거냐, 그런 개수작질은 싹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돈뭉치를 뜨락에 활 내던지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우리 성주한테 일본군대장이 아니라 그 하내비자리를 준대도 데리러 안가겠다, 내 아들 형직이와 형권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이 터진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들 가라고 호령했습니다.

판이 이렇게 되자 이종락과 박차석은 더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이나 돈으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적들은 총대로 할머니를 끌어내어 만주로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는 좋다, 너희들이 억지로 날 데리고 가겠거든 가자, 그렇다고 너희들을 도와줄 줄 아느냐, 그대신 나는 나대로 이 기회에 손자가 싸우고 있은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이나 실컷 돌아보겠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배짱이 정말 보통배짱이 아니였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1년 가까이 서간도의 산악지방으로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고생시켰습니다. 그런즉 육순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고된 신역을 치르었겠습니까.

한번은 박차석이 할머니의 발이 부르튼 것을 보고 할머니, 이렇게 억울한 고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자니 사실은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하고 할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박차석이 비록 전향은 하였지만 동정심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도 내 손자가 싸우고 있은 산천을 보니 기운이 솟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총대로 몸을 쿡쿡 찌르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할 때마다 할머니는 매번 나는 그런 미친 소리는 할 줄 모른다. 네놈들이 나를 죽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 손자의 총알을 받고싶거든 어디 네놈들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맞받아 위협하군 하였습니다.

사실 귀순공작반 패거리들도 자기네가 하는 일이 승산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유격대의 습격을 받을 지 몰라 벌벌 떨었습니다. 혁명군사령관의 할머니를 인질로 끌고다니는 자기네 행각이 어떤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어떻게 하나 유격대의 총알만은 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자기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호해줄 터이니 그 대신 열댓

살 되는 사내아이를 시동삼아 데리고 다니며 손자를 찾아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적들이 겁에 질려서 몸을 사리려 한다는 것을 간파한 할머니는 왜 하필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다닌단 말이냐, 나는 꼭 볼따귀에 살이 유들유들한 너희들과 같이 다녀야겠다, 혁명군이 겁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의 상관을 불러 사실대로 말해주겠다고 을러메였습니다.그 바람에 특무들은 할머니에게 도리어 코를 꿰워다니며 설설 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보익녀사께서
드시였던
후주려관

할머니는 특무들에게 호령질을 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였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산에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곤하면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목욕탕물이 좀 미지근하거나 그 물을 일본놈들이 먼저 사용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김장군의 할미를 무얼로 알고 네놈들이 나를 이렇게 허술히 대하는가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고 특무들이 끼니때에 일본음식이나 중국음식을 내놓으면 조선음식을 가져오라고 위엄있게 분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순공작에 동원된 놈팽이들은 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쩔쩔매며 바삐 돌아치군 하였습니다.

설명절때 귀순공작반을 맡은 일본인독찰관은 이종락과 박차석을 불러 **김**장군할머니에게서 설인사를 받고싶은데 그 늙은이더러 와서 세배를 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독찰관의 말을 전달받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세상에 별소릴 다 듣는구나, 버릇없는 놈! 그 놈더러와서 **김**장군할미한테 세배를 하라구 해라!≫하고 불호령을 내리였습니다.

독찰관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손에 들고 있던 술잔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수틀리면 흉기부터 뽑아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야료를 부리는 독종이었다는데 그날만은 기가 꺾여 아무 행패길도 못하고 ≪과시 **김일성**의 할머니가 다르긴 다르다. 손자가 백두산의 호랑이라더니 그도 역시 할미호랑이가 틀림없다.≫고 감탄해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대바르고 도고하게 처신하는 우리 할머니앞에서 박차석은 매일같이 나약한 변절자로서의 죄를 문책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솔직히 실토하였습니다.

귀순공작반 특무들은 결국 헛물만 켜고 할머니를 만경대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박차석을 통하여 그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귀순공작정형을 들으면서 조부모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향의 조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었습니다. 박차석은 그때 밀영을 떠나면서 왜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비록 전향은 하였지만 조국과 민족앞에, 더욱이 산에서 고생하는 내앞에 부끄러울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산삼 몇 뿌리와 편지를 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만히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산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가고 물어보니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삼만은 받지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박차석을 우리 군영에 들여보냈던 일본인독찰관이 가로챘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남패자밀영에서 박차석을 통하여 보낸 편지를 만경대 조부무님들은 손자분이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개선할 때까지 고이 보관해두었다. 그 편지는 1946년 5월 29일부 정로의 지면에 실림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신문 정로는 노동신문의 전신이다.

혁명을 배신한 전향자에게 처벌이나 처형대신 밀서의 전달이라는 어려운 부탁을 하신 이 세상에 다시없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도량과 관용을 가늠할 수 있다. 박차석도 한 가닥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도량앞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가 상전들에게 편지를 바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한 것을 보면 밀영에서 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조국해방위업에 대한 신념과 의리앞에서 언제나 투철하고 낙관적이었던 혈기왕성한 20대장군의 기백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이 짤막한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편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 할머니의 극진한 심정은 잘 알았습니다.
>
> 남아 한번 국사에 몸을 바친 이상 그 몸은 완전히 나라의 것이요, 민족의 것인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
> 이제 멀지않아 반가이 할머니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계십시오.

만경대에서 살고 있던 **김일성**동지의 일가분들은 그 편지를 받고 모두다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후 이보익할머니께서는 임수산이 소속되어있는 또 하나의 다른 귀순공작반놈들에게 끌려가 북간도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시었다.

정전 후 이보익할머니의 영구앞에 모인 일가친척들과 친지들은 이 부분을 회고하실 때 수령님의 안광에 매우 침통한 빛이 어려있었다고 하였다.

할머니가 두 번째로 만주땅에 끌려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안도현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를 데리고 다닌 귀순공작반의 구성을 보면 일본인특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공작반에 우리 주력부대에서 참모장을 하던 임수산도 속해있었습니다. 그가 투항하면서 일본상전들앞에 어떻게 하나 나를 잡아보겠다고 단단히 맹세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 공작반에서는 처음에 형록삼촌을 인질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끌고갔대야 이가 듣지도 않고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형록삼촌은 우리 조부모님들 슬하에 남아있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놈들이 만경대에 나타나서 삼촌을 마구다지로 끌고가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주먹으로 구들장을 치며 그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였고 할머니는 내 슬하에 하나밖에 남지 않

은 아들을 내세워 우리 장손을 잡겠다는 너희들도 사람새끼들이냐, 천벌을 받을 줄 알라고 되게 꾸짖었습니다. 형록삼촌 역시 집에서 죽으면 죽었지 조카를 잡는 놀음에는 나설 수 없다고 버티였습니다.

적들의 강압으로 결국은 할머니가 또 속절없는 만주걸음을 하게 되였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네놈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김장군의 할미를 이길 것 같으냐 하는 배심이 있었습니다. 형록삼촌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까지 품고 집을 떠난 할머니는 이번에도 북간도의 험한 산천을 몇 달 동안 강제로 끌려다녔지만 적들앞에서는 한 번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수산이 숙소나 노상에서 저들의 지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다몰아댈 때면 할머니는 네놈은 내 손자를 배반했지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 손자편이고 조선편이다, 어디 네 명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두고보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할머니가 인질로 재차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를 많이 조직하였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에게 내가 건재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최상의 방도였고 말로는 형용할 길이 없는 나의 만단심회를 담아 할머니에게 올린 인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누가 곁에서 듣건말건 조금도 상관치 않고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 하고 기세를 올리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이번에도 할머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인질로 나를 낚기 위한 놀음을 더는 벌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 할머



이보익여사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귀순≫시켜 보려는 일제놈들과 견결히 맞서 싸우신 압강여관

니가 총 한 자루 없는 노인의 몸으로 적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집사람들에 대한 군경들의 박해와 수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문에 애국자들이 많은데다가 내가 혁명군사령관을 하다나니 우리 집안사람들이 수십 년동안 실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정말기에 형록삼촌은 간단한 어구를 마련해가지고 놈들의 폭압을 피해 남포앞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해가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상봉하시는 김일성동지

우리 가문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해방 후 만경대고향집에 처음으로 들어서던 날 내가 할머니를 보고 ≪나때문에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내 고생이야 네가 한 고생에 어찌 비기겠느냐. 고생으로 말하면 왜놈들이 더 많이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단 말이냐. 너는 나라를 찾는 싸움을 하느라고 숱한 고생을 했구. 왜놈들은 내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고생했지. 네 덕에 나는 산천구경만 실컷하다가 돌아왔다. 그거야 호강이지 어디 고생이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20년만에 고향집에 오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빈손으로 왔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나를 타일렀습니다.

≪왜 빈손이란 말이냐.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네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 왔으니 나는 그 이상 더 바랄게 없다. 네가 크고 해방이 크지 세상에 더 큰게 뭣이 있겠느니.≫

70이 다되어오는 촌늙은이의 말치고는 너무나도 호방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할머니로구나 하고 탄복하였습니다.

일제의 총검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때 할머니가 적들의 강권과 위협에 휘여들지 않고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존엄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할머니들 가운데는 우리 할머니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하군 합니다.

할머니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직업적인 혁명가도 아니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조직적인 혁명교양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되어 글도 모르는 촌늙은이가 적들과 그처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었으며 매사에 처신을 그처럼 지혜롭고 대바르게 할 수 있었는가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집안가풍이 그리고 혁명이 할머니를 그런 여걸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가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나라와 백성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여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손들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아들이나 손자들이 모두 혁명을 하였기 때문에 할머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혁명을 하는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대체로 혁명을 하기마련입니다. 혁명을 하지 못하면 혁명의 동조자, 방조자로라도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들이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그 영향밑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똑똑한 자식들을 두게 되면 계몽되고 각성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군 합니다.

물론 선친들이 혁명을 했다고 하여 그 후손들도 저절로 혁명가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혁명을 하자면 부모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주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에라도 조상덕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젊은 세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친들과 선열들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년까지 농사일에 전념한 것도 결국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대적투쟁을 잘할 수 있은 다른 요인의 하나는 우리의 힘이 장대했다는데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을 벌일 때 조선인민혁명군은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혁명군의 위용과 명성이 할머니에게 힘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혁명무력을 건설한 다음 적들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의 전과를 쌓지 못했거나 광범한 군중을 통일전선의 기발밑에 묶어세우지 못하고 현상유지나 하면서 산속에 배겨있었더라면 할머니는 그처럼 고압적으로 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을 많이 하고 힘을 크게 길러야 조국이 부강해지고 인민이 높은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존엄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이 위대하고 수령이 위대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존엄이라는 것도 생기고 자부심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력이 되어 당과 수령을 잘 받들고 일을 많이 해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1946년 6월 9일 만경대마을사람들과 항일빨치산참가자들, 평양시의 당, 행정기관 일군들은 만경대인민학교에서 할머니의 생신 70돐을 축하하는 연회를 마련하였다. 그 연회석상에는 평양에 와있던 쏘련군대의 로마넨코소장도 참가하였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여러 내빈들의 뒤를 이어 축사까지 하였다.

할머니의 70돐 생일연이 큰 사회적인 관심속에서 성대히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만경대에 나오시었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계 대표들의 진정에 넘친 축사까지 받게 되자 할머니의 장손으로서 가족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게 되시었다.

할머니의 70평생의 생애를 몇 마디의 말씀으로 집약하신 그 답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촌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조카,

> 손자들이 혁명사업에 나섰을 때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해주었으며 그들이 혁명활동을 위해 슬하를 떠나서 혹은 원쑤들에게 잡혀죽고 혹은 옥에 갇히고 혹은 행처불명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놈들한테 붙들려 만주에까지 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처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할머니가 비록 글자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머니는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이 그것이 아닙니까.
>
> 우리 할머니는 이날을 보기 위하여 오늘까지 살았으며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
>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연회가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할머니도 더욱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보익할머니께서는 1959년 10월 8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었다.

광복 후 14년을 제외한 이전의 근 70성상은 가난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외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풍랑사나운 세월이었다. 총검의 압박하에 강행된 두 차례의 만주행은 그 무엇에도 대비할 수 없는 최악의 수난이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장장 수십 년에 달하는 그 암흑의 시대를 적수공권으로 꿋꿋이 헤쳐오시어 손자분께서 안고오신 해방의 날을 맞으시었고 이 땅에 세워진 사회주의낙원을 보시었다.

그 숨막히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할머니께서 장수하실 수 있은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80여성상에 달하는 할머니의 수난많은 생애의 증견자이며 보증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새겨보자.

> 우리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은 하나의 요인은 노동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일생을 노동으로 늙어왔습니다.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중단없는 노동, 이것이 할머니의 육체와 의지를 단련시켜주었습니다. 육신을 부지런히 놀려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사는 법입니다.
>
>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 꿈을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생애가 속절없이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의가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
>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한평생 그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해방전에는 독립의 날을 기다렸고 해방 후에는 나의 귀향을 기다렸으며 나를 만난 다음에는 만민이 잘사는 날을 기다렸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생을 기대와 희망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도 잘 이겨냅니다.
>
>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은 꿈이 많고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꿈이 많고 이상이 높아야 위대한 발명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꿈이 많은 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은 것은 꿈이 많은 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이 확고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것, 꿈이 많은 것, 근면한 것, 이것이 우리 할머니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
> 할머니는 국가수반의 조모였지만 일생을 소박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조국에 돌아온 후 당을 꾸리고 국가건설이나 끝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평양에 데려다가 모시고 함께 살려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한 연세면 손자의 부양이나 받으며 여생을 편히 쉬어도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혁명열사의 유가족들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우대만 받아도 여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국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손자의 덕으로 호강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수한 평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말년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라.≫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소박한 철학이였습니다.

일생을 노동으로 늙어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문 얼마간의 휴식이라도 시키고 싶어 나는 이따금씩 조부모님들을 우리 집에 모셔오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부모님들은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깨진 바가지를 갖다주며 그걸 기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손자며느리가 해주는 음식맛이 별맛이고 증손자, 증손녀를 안아보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면서도 할머니는 일거리가 없으니 갑갑해서 야단이고 흙을 밟지 않고 지내자니속에서 불이 나 못견디겠다고 하면서 매번 한 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만경대로 돌아가군 하였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림에 보탬을 주려고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할머니는 이 할미걱정은 안해도 되니 백성들 걱정이나 하라고 하면서 노상 그것을 사양하군 했습니다. 수상도 사람인데 나라고 왜 제 할머니를 호강시키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사지판을 헤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 할머니가 아닙니까.

한 생을 홑옷을 입고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두툼한 솜옷도 지어드리고 생일이 되면 소주나마 한두 병 차고가서 할머니의 장수도 빌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의 성의마저도 마다하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내가 만일 수상이 아니고 평범한 보통공민이였더라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지 좀더 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손으로 나무를 찍어 기와집도 지어드리고 극장에 모시고가서 심청전구경도 시키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국사에 파묻히다보니 할머니에게 솜옷 한 벌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증조할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소박한 초가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나는 나라의 모든 마을들에 기와집을 지어주고 천지개벽을 일으키면서도 제 할머니한테는 새 집을 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해드린 일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돋보기를 하나 사드린 것뿐인데 그것만은 할머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일을 돌보느라고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세월도 가고 할머니도 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나니 후회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앞에서도 그랬지만 할머니앞에서도 나는 역시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생전에 솜옷 한 벌이라도 변변히 지어드렸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8. 남패자의 수림속에서


남패자회의가 진행된 장소

항일무장투쟁이 고조에 이르고 있던 1930년대 후반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총포로 얻지 못한 것을 회유공작으로 얻어보려고 짓궂게 책동하였다. 적들은 혁명에서 배신한 자들을 유격대오에 들이밀어 귀순공작만 잘하면 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귀순공작의 앞장에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탈락분자들과 배신자들을 내세웠데 그 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옛 동창생들과 혁명활동연고자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패자회의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마다 화성의숙시절의 동창생들이며 ≪ㅌ·ㄷ≫시절의 동지들이었던 이종락과 박차석이 귀순공작임무를 받아가지고 밀영에 들어왔던 일을 회고하시었다.

남패자에서 회의를 할 때 이종락과 박차석을 만나던 일에 대하여 여담삼아 말하겠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은 나와 화성의숙에도 같이 다니였고 ≪ㅌ·ㄷ≫와 ≪건설동지사≫도 같이 조직하고 조선혁명군을 꾸릴 때에도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였습니다. 혁명을 몇 해만 같이하면 형제나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나와 혁명을 4-5년동안이나 같이하였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은 김혁이나 차광수와 같은 길림패들보다 한발 앞서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전에서 ≪ㅌ·ㄷ≫를 무었을 때 거기에 아직 김혁과 차광수는 망라되지 않았댔습니다. 그러나 박차석과 이종락은 둘 다 그 조직의 핵심인물이였습니다. 그런 연고를 보더라도 박차석과 이종락은 내가 혁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귄 동지인 동시에 첫 동행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청년운동과 지하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곡절끝에 서로 헤어져 한쪽은 산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다른 한쪽은 적들에게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여러 해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의의있는 해후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상봉은 즐거운 상봉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락과 박차석은 일본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귀순공작 임무를 받아가지고 밀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혁명동지로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가 되어 귀순흥정을 벌이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 흥정에 나섰다는 것은 그들이 나도 배반하고 혁명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그들은 귀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혁명을 배신한 지난날의 동창생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막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적들이 인민혁명군에 대한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보다 악랄하게 벌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3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항일무장부대들과의 싸움에서 귀순공작을 기본전

략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청소한 항일유격부대들과 반일부대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방법외에 그 어떤 방법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쓰지도 않았으며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자그대로 토벌제일주의만을 주장하고 내밀었습니다. 일본군수뇌부는 토벌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귀순놀음같은 것은 벌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놀음은 사무라이정신에 배치되는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어 ≪유도적 귀순엄금주의≫라는 계율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군부가 동북의 항일무장역량을 군사적 방법만으로도 능히 제거해버릴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우리의 활동에 군사적으로만 대응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9.18사변당시 장학량의 휘하에 있던 30만대군이 하루아침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상당한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타격만으로써는 항일유격대가 장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문화토벌이라는 새로운 창안품을 끌어내왔습니다. 문화토벌이란 치본공작이나 사상공작, 귀순공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일제침략자들이 군사토벌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발본색원을 노린 문화토벌전술에 어떻게 되어 매달리게 되었는가를 그들자신의 말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일본의 사법성 형사국에서 내는 사상월보 제77호 (1940년 11월 139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공비의 토벌이 왜 이처럼 어려운가 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공산군은 공산주의에 기초한 끈질긴 투쟁의식에 불타고 있으며 또한 교묘한 선전전술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지리적으로는 산악의 첩첩한 밀림지대를 유격지구로 하여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퇴각하고 적이 물러가면 우리는 전진한다≫는 게릴라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중정치공작에서는 특이한 잠행선전공작에 의하여 민중을 획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력에만 의존하는 토벌로써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 무력에만 의거하는 것은 일시 효과가 있지만 결국 발본색원의 방책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밥우의 파리를 쫓는다든가 잡초의 싹을 베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종래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토벌을 강행하면서 오늘도 아직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한 중대한 원인의 하나는 무력에만 힘을 넣고 그 치본공작, 사상공작을 홀시하였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기관이 이에 협력하지 않고 단지 군에만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적들은 문화토벌의 미명하에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이비정비정책에 따라 항일무장대오를 버리고 투항한 자들과 귀순자들로 토벌대를 무어가지고 다니면서 지난날의 전우들과 상관들, 부하들을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이비정비란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비적으로 비적을 친다는 뜻으로 됩니다.

적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문화토벌과 같은 비군사적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만능으로 삼아오던 군사일변도의 정책이 여지없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공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귀순공작과 같은 너절한 놀음도 벌이게 된 것입니다.

1937년-1938년이면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이 전성기에 오른 때입니다. 역량도 대단했고 전과도 대단했습니다. 큰 성시를 한두 개쯤 치는 것은 식은 죽먹듯할 때였

습니다. 무장투쟁의 영향밑에서 대중투쟁도 앙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고조되어가던 항일혁명이 열하원정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양정우의 1군을 비롯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적지 않은 부대들이 원정과정에 많은 유생역량을 잃었습니다. 항일무장부대들에서는 도주자와 귀순자들도 생기였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적들의 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적들은 동북의 항일무장역량이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다 거덜난 오합지졸의 무리이니 그 내부도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갈팡질팡할 것이다, 이렇게 쳐도 넘어지고 저렇게 쳐도 넘어질 것이라고 타산했습니다.

적들이 문화토벌을 중시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그 당시 귀순공작을 통해 달성한 몇 개 성과에서 재미를 본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지휘관들의 투항은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이나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그런 인식을 토대로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와해공작을 추진시키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문화토벌의 기본과녁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두고 한편으로는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의 기본과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1930년대초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주적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대오들 가운데서 제일 전투력이 강하고 소멸하기 어려운 존재로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나니 신문, 잡지들에 우리 부대의 활동이 많이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소식은 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아래에 그 당시 미국에서 발행된 교포신문 신한민보에 실린 자료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제 최근 천진통신을 의지하건대 그 보도가 자못 소상함이 아래와 같다. 한중의 용군중에 가장 용맹스럽게 쌈 잘하는 군사는 한인 **김일성**장군(내지신문과 기타 한국측이 소식을 의지하건대 간도를 근거하고 활동하는 **김일성**씨의 무장부대가 있어 지난 6월에 국경을 넘어 갑산 보천보를 습격하여 왜군경의 간담을 떨어뜨렸고 그 후에도 동군 행동이 동아일보와 기타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 통솔하에 전혀 한인으로 편성한 사단이라고 한다.

그들의 단결존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데 있는 것이며 일종 가족식계통적 지배에다 의협충용 등 전통적 정신훈련을 겸해서 그 단결이 더 굳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수령이 한번 영을 내리면 그 부하가 수화를 헤아리지 않고 내닫는 것이다. ... 그들의 목적은 다만 민족을 위하여 원쑤를 갚는 것 뿐이요, 전략은 많이는 유격방식을 택하여 신출귀몰함으로 왜적으로 하여금 갈팡질팡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쏘련군사가의 관측은 ≪만일 일조에 중일양국이 정식 선전하면 일본이 만주 한모퉁이의 의용군을 당해내려도 군사 20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의 실력이 몹시 위대한 것이 아니냐.

(신한민보 1937년 9월 30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인 방법도 써보고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선전도 해보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탕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적들이 공세를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오는 철벽으로 다져졌고 우리의 투쟁

소식은 날개를 달고 더 넓은 판도로 전파되어갔습니다.

군사토벌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거짓을 꾸며내는데서도 재미를 보지 못한 일제가 궁여지책으로 매달린 것이 바로 귀순공작 입니다. 적들이 이 공작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를 끌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은 문화토벌의 기본과녁을 큼직큼직한 인물들한테 두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잡도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양정우에 대한 귀순공작은 성귀순공작반이 담당하였고 나에 대한 귀순공작은 만주치안부경무사소속의 중앙특별귀순공작반이 담당하였습니다.

적의 군경들이 나의 무송소학교시절의 교사까지 귀순공작에 이용하려 했다는 일제의 관헌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그가 실지로 나를 찾아왔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연락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차석과 이종락이 남패자밀영에 나타난 것은 적들이 우리에 대한 귀순공작에 열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근친들을 통한 공작이 은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지난날의 나의 동창생들을 들이민 것입니다.

내 짐작에는 일본의 모략가들이 박차석은 귀순공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물로 보고 이종락은 결정적인 기회에 써먹을 수 있는 기본인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박차석이 우리 밀영으로 들어온 것은 부대가 남패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초대에서 보초장이 전령병을 시켜 박차석이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나는 그 연락을 받고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차석은 1930년 여름에 공작임무를 받고 국내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남패자에는 갑자기 무슨 일로 나타났겠는가, 설사 그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요시찰인으로 엄한 감시를 받을텐데 그 감시는 어떻게 떼버렸고 적들이 이중삼중의 포위진을 치고 있은 이 밀영에는 무슨 수로 찾아왔을가 하는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명을 다시해보려고 불원천리 찾아왔다면 업고라도 다닐 일이지만 적들이 그에게 그런 자유를 줄 리는 만무한 일이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감은 어떻든 나를 찾아온 사람이니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박차석을 만나게 되면 형권삼촌이랑 최효일이랑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알고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박차석을 만나보니 겉모양은 여전한데 속은 딴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이별한 혈육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옛날의 혈기는 어데 가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되었는가, 감옥살이도 견디어냈으니 이제는 앞을 보고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차석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전향을 했다고 하면서 적의 주구로 전락되어 남패자까지 찾아오게 된 경위를 눈물을 흘리며 실토하였습니다. 그는 형을 받고 형무소에서 몇 해 동안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 점차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형권삼촌을 십자형틀에 묶어놓고 태형을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다음부터는 저항할 기력마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박차석이 동요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고 그를 다른 감옥에 옮겨놓았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놓아주고는 끝내 전향시켜 귀순공작반에 끌어넣었습니다.

적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조작할 때 거기에 박차석을 끌어들인 것은 장소봉이었습니다. 장소봉은 우리가 중부만주 지방을 개척할 때 김혁, 김원우 등과 함께 카륜을 혁명화하는데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1931년초에 이종락과 같이 무기공작을 나가다가 장춘역에서 체포된 후 전향하였습니다. 적들은 그에

게 기생을 붙여 장춘에 가정까지 꾸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를 직업적인 특무로 써먹었습니다. 일제의 정탐기관에서 나와 연고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물색할 때 장소봉은 이종락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세워 박차석이까지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박차석은 적들의 심문을 받을 때 자기가 ≪ㅌ·ㄷ≫시절의 나와의 친분관계도 다 말하고 그 후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던 일과 공청을 조직한 다음 길림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무장소조에 속하여 국내에 파견된 경위까지 다 털어놓았다고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네가 하는 노릇이 너 혼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고 따져물었습니다.


김혁

박차석은 자기는 아무 벼슬도 하는 것이 없고 일본놈들이 강요해서 여기로 왔지만 성주한테는 그런 놀음이 애당초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성주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나를 보고싶어 찾아왔다는 말은 진정인 것 같았습니다.

박차석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도 이것저것 대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할머니를 귀순공작에 끌어들이려고 만경대에 갔던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평양태생인 그는 소년시절부터 형권삼촌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가 형권삼촌을 만나려고 만경대에 자주 다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의사소통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차석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내막을 적들에게 알려주고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그를 크게 써먹을 수 있다고 내세운 사람이 이종락이었다고 합니다. 박차석은 할머니를 끌고다니면서 고생시킨 것은 천만 번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죄이지만 할머니의 신변만은 잘 보살펴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나 이종락이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이며 자기 같은 인간은 백번 죽인데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차석이도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정의감이 강하고 반일정신이 높은 청년혁명가로서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조선혁명군이 결성된 후에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체포되어 육체가 철쇄에 묶이게 되자 사상도 변하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래도 예전날의 것을 조금이나마 지니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한 가닥의 정뿐이었습니다.

박차석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지만 의식적으로 그들을 협력하거나 또한 그런 대가로 영달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이 강대하기 때문에 혁명이 승리할 가망이 없다고 보았고 그런데로부터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목숨을 부지하자니 전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향을 하게 되니 일본사람들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순공작에 참가했지만 그것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뜻과 지령에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박차석과 같이 혁명적 신념을 저버린 인간들에게 차례진 당연한 비극이였습니다.

나는 박차석을 만나고나서 사람의 참모습이란 무엇이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박차석은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고 얼굴모습은 지난날과 꼭 같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허울은 남아있는데 무엇인가 알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넋이 없는 인간이 돼버렸더란 말입니다. 그러고보면 사람의 참모습은 결국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을 빼놓으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 허울뿐입니다. 사상이 무너지면 인격도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박차석은 사상을 집

어던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란 눈이 없는 얼굴과 같습니다.

나는 박차석이 변질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의 수중에서 다시 그를 빼앗아내는 심정으로 여러 모로 해설도 하고 충고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적이 나의 옛 동지를 빼앗아갔는데 나는 왜 그를 도로 빼앗아내지 못하겠는가 하는 반발심이 작용했다고 해야 할지 ≪ㅌ·ㄷ≫시절의 박차석으로 완전히 개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애국심 하나만이라도 되살려주고 싶은 것이 나의 심정이였습니다. 내 가슴에도 박차석에 대한 옛정은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이 민족앞에 죄를 지으면 사람답게 살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고 내가 말했더니 박차석은 내 말을 긍정하면서 일제놈들에게 전향한 다음부터는 사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하루가 그대로 고역이다, 이렇게 살 바엔 목숨이나 부지해서 뭘하겠는가, 죽자 하고 결심했는데 용기가 없으니 자살도 못하겠더라, 오늘 성주를 만나서 말이라도 나누고보니 마음만은 가벼워진다,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죽여달라, 죽어도 성주손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너 하나 죽인대야 내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가, 네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난날 함께 혁명을 하던 동지들과의 의리를 봐서도 그렇고 이제부터라도 양심과 체면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박차석은 내 말을 명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박차석을 처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상대가 자기 죄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반성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원들이 잡아온 메돼지고기도 대접하고 그와 마주앉아 술도 몇 잔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령부천막에서 하루밤 재우면서 사람답게 살라는 충고를 해주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박차석은 내앞에서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탁대로 조부모님들에게 보내는 내 편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박차석이 남패자밀영에 들어왔다가 무사히 살아나간 것을 보고 적들은 얼마 후 다시 이종락을 밀영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종락을 남패자밀영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임강에 갔던 소조였습니다.

그 해 겨울 우리는 대원들의 겨울옷을 해결하려고 한 소조를 임강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소조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물자거래에 솜씨있는 장사군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장사군은 일본사람들한테도 봉사하고 우리 유격대에도 물자를 대주면서 양다리치기를 하는 사람이였는데 우리의 소조를 만나자 흥정을 길었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천과 솜을 조달해줄터이니 그 대신 일본군의 군속 한 명을 혁명군 사령부까지 데려다달라고 했습니다.

소조책임자는 그 흥정에 동의하면서도 조건부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가려면 도중에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겠는데 너희 상급에 말해서 혁명군에 대한 도발을 중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임강, 가재수로부터 남패자에 이르는 넓은 지대에 진을 치고 있던 적 토벌대들은 한동안 작전을 중지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소조는 이처럼 적의 기도와 약점을 역이용하여 많은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남패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군속이 바로 이종락이였습니다.

이종락은 처음부터 처신을 희떱게 하여 우리 동무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혁명군의 군영에 들어왔다는 공포감이나 위축감 같은 것은 전혀 없이 뻔뻔스럽게 웃고 망탕 말하고 주저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보초대를 책임지고 밀영어귀에 나가 있던 오중흡을 보고 추운 산중에서 고생이 많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시계를 선사하

려고 했습니다. 오중흡은 자기의 회중시계를 꺼내보이면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종락은 사양말고 받으라, 시계가 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고 했습니다. 오중흡은 시계는 하나를 기준해야지 오늘은 혁명시계를 차고 내일은 반동시계를 차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고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편에서부터 반동의 편으로 넘어간 이종락의 반역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였습니다.

이종락이 밀영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놀았지만 나로서는 만나자마자 그의 죄상부터 문책할 수 없었습니다. 칼로 단번에 벨 수도 없고 불로 태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그하고 맺은 우정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서주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군기동부대

이종락도 역시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ㅌ·ㄷ≫시절의 이종락은 일가견을 가진 쟁쟁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우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군사에 밝았고 새 사조에도 민감하였습니다. 16살때부터인가 벌써 통의부에 소속되어 독립군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강했고 행동도 용감하고 굵직굵직했습니다. 이종락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종락을 조선혁명군의 책임적 지위에 추천한 것은 그에 대한 높은 기대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인기가 있는 인물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었던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전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종락은 자기가 일본군 군속으로 귀순공작반에 속해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ㅌ·ㄷ≫의 강령에 있는 것처럼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전세계에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물론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ㅌ·ㄷ≫조직에 참가하고 조선혁명군을 내오고 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9.18사변과 7.7사변을 겪고 나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이미 공산주의운동이 거덜났다, 내선일체는 확고한 현실로 되고 그에 따라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인으로 되었다, 중원을 쥐는 자는 동양천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중일전쟁의 실태를 보라, 북경, 상해, 남경도 일본군에 함락되고 서주작전, 무한작전, 광동공략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북 3성을 단숨에 삼키고 오늘은 광대한 동아대륙을 반나마 타고앉은 무적의 대일본제국인데 그 힘을 무엇으로 당해내겠는가, 성주는 노상 산에서 지내다나니 대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내가 이리로 찾아온 목적은 산에서 보람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성주를 돕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종락은 마치 나를 위해 굉장한 선행을 베풀려고 온 것 같이 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과 체취에서 이 사람은 이미 썩을대로 다 썩어서 살려낼 가망이 없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는 회의를 마칠 때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훼방을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락을 시켜 적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편지내용은 내가 불러주었습니다. **김일성**군의 군영에 들어와보니 현재 사령부는 백두산쪽으로 이동해가서 부재중이다, 거기까지는 몇백 리 길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자면 얼마간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지금 **김일성**휘하의 한 부대를 만나 사령부와 연계를 맺을 교섭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차후 통보를 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이종락의 필적으로 된 그 편지를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적들에게 보내고 여유작작하게 회의를 계속하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이종락에게 몸도 좋아지고 손도 매끈해진걸 보니 괜찮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일본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 잘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살게 된 것은 나의 덕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일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일본사람들이 자기네쪽으로 돌려세우려고 **김일성**을 잘 알거나 지난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것들도 그렇게 높이 대우해주는데 **김일성**이 돌아만 선다면 일본사람들이 여북 높은 대우를 해주겠는가, 그들은 **김일성**장군이 돌아서면 어떤 벼슬이든지 다 주겠다고 한다, 조선군사령관자리도 좋고 또 다른 벼슬자리도 좋고 달라면 다 주겠다, 조선군사령관을 하면서 조선을 관할하든지 또 여기에서 한 자리 하면서 만주를 관할하든지 뜻대로 하라, 어느 쪽이든 관할하면서 일본과 합작만 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태평양서부연안으로는 불피코 미국의 세력이 뻗쳐와서 일본도 조선도 만주도 다 삼키자고 할 터인데 아세아사람들끼리 손을 맞잡고 미국을 견제하고 쳐물리쳐야 아세아의 살길이 열린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아주 교활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종락을 들여보낼 때 귀순하라는 말을 해서는 통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이른바 합작이라는 타협안을 가지고 의논해보라는 과업을 주어 들여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아사람들끼리 합작하자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한때 요란스럽게 표방한 대아세아주의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주도하에 아세아사람들을 위한 번영하는 아세아를 만들자는 것이 대아세아주의라고 일본사람들이 굉장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 들을 머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아세아주의는 아세아에 대한 일제의 독점야욕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방패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남을 침략할 때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법입니다. 그들은 야마도족이 우월함을 고창하면서 세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집안이라는 ≪팔굉일우≫의 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을 침략할 때에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민족을 일본이 맡아서 이끌어주며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만주를 칠 때에는 자위권의 발동을 구실로 삼았고 만주국을 날조할 때에는 5족협화와 왕도낙토건설을 떠들었으며 중일전쟁을 도발할 때에는 폭도화된 중국에 벌을 준다는 ≪폭지응징≫이니 ≪갱생신지나건설≫이니, ≪일, 만, 지 3국의 결합≫이니 하는 따위의 구호를 내들었습니다.

이종락이 대아세아주의라는 것을 자꾸 설교하기에 나는 만일 우리가 일본에 쳐들어가 철권으로 일본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 이제부터 조선의 주도하에 대아세아주의를 펴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래도 일본이 대아세아주의를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은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일본을 무적필승의 존재로 묘사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몇해째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해 그토록 골머리를 앓는가, 일본이 무적필승이라면 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평정할 것이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거간군으로 내세워가지고 유치한 귀순공작을 벌이는가고 하였습니다.

이종락은 그 물음에도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거야 일본사람들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아껴서 그런거지 다른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강승약패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치인데 승산도 없는 항전은 그만두고 일본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남패자주변에만도 3개 사단 병력이 물샐틈없는 포위망을 쳐놓고 있는데 우리가 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가스나 무슨 신식고성능대포로 우리를 멸살시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종락에게 일본사람들이 조선군사령관이 아니라 총리대신을 시킨대도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독가스를 뿌리고 고성능대포도 쏠테면 쏘라고 하라,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은 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이종락이한테서 한영애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준비할 때 한영애도 점을 찍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영애가 단연코 반대했기 때문에 동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종락은 한영애가 신의주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징역살이를 했는데 성주에 대한 의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일본사람들의 지령을 받고 한영애를 귀순공작에 끌어넣으려고 말꼭지를 뗐다가 본전도 못 찾고 면박만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한영애는 ≪나는 그따위 너절한 일은 하지 않는다, 당신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김성주가 그따위 귀순놀음에 넘어갈 사람인가.≫고 하면서 되게 비판을 주더라고 하였습니다.


한영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영애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이종락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라, 한영애같은 여자도 지조를 지켜 전향을 안하고 버티는데 종락이 당신은 혁명을 집어던진 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본놈들밑에서 개질을 하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은가, 사람이 변해도 너절하게 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나를 설복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종락은 대원들에게 낚시를 걸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경위대원 한 사람을 만나서 부모가 있는가, 가족들이 그립지 않은가고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전에는 유격대를 사로잡으면 다 죽였지만 지금은 살려줄 뿐 아니라 신세를 고칠 수 있게 해준다, 부모곁에 가서 고운 색시를 얻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거든 자기와 함께 가자고 구슬렸습니다.

나는 그런 통보까지 받고나서 일본사람들의 심부름을 마지못해 하는 박차석과 달리 이종락은 조국과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고 의식적으로 적들에게 복무하는 일제의 충견이며 심복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사령부는 이종락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를 처형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종락의 시체위에 동창생이건 누구건 배신자는 이렇게 처단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덮어두었습니다.


마동희

내가 남패자에서 이종락과 박차석을 만나던 사연을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그때의 사연을 그대로 엮으면 정말 훌륭한 소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나타나 일본의 강대성을 선전하고 우리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혁명군사령관을 귀순시키려고 하였으니 그런 심각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겪은 수많은 체험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체험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두 사람을 만나고나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주소성명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인물이 그런 공작임무를 받아가지고 왔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ㅌ·ㄷ≫결성할 때에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때 같아서는 누구도 변절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가운데서 배신자가 생기였단 말입니다.

혁명이 상승할 때에는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혁명대오에서 동요분자나 탈락분자 같은 것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인모동지와 상봉하시는 장면 (주체 82(1993)년 7월)

그러나 정세가 혁명의 편에 불리해지고 곤란이 중첩되게 되면 동요분자도 생기고 도주자도 생기고 투항분자도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군들은 정세가 준엄하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혁명대오내에서 혁명적 신념을 잃어버린 동요분자나 패배주의자들을 골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어느 구석에서든지 꼭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일군들은 매개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사상의식상태에 맞게 혁명적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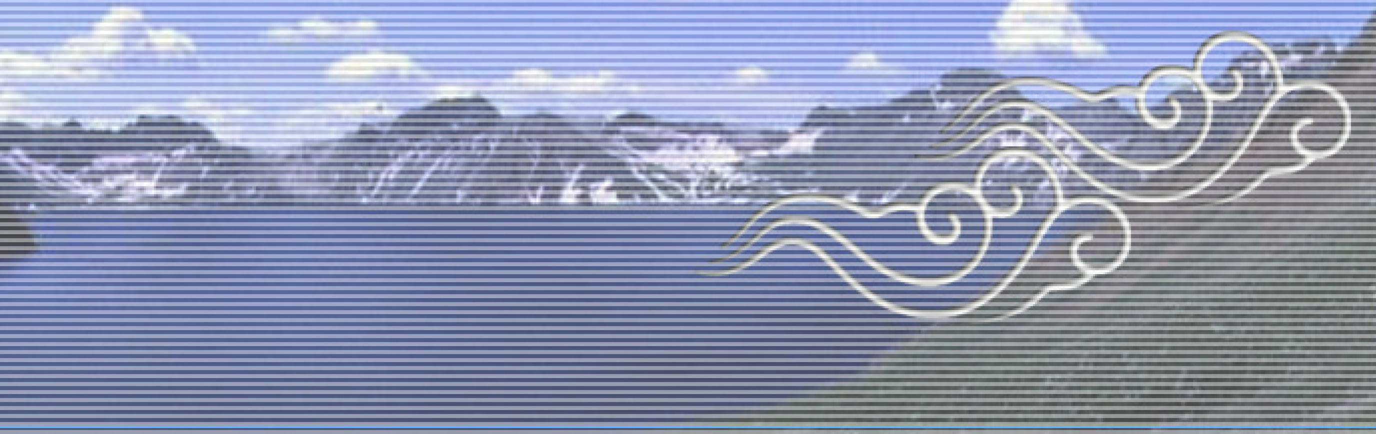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교훈은 무엇인가? 사상이란 신념화되어야지 순수한 지식만으로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념화되지 못한 사상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사상에 변질이 생기면 이종락이나 박차석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다고 보는 사상을 접하면 그것을 철저히 신념화해야 합니다. 풍부한 지식도 혁명적 신념이 안받침되어야 새것을 끝까지 개척해가는 참다운 창조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봅니다.

신념이 무너지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인간자체가 무용지물로 됩니다. 인간의 도덕의리나 양심도 다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도 지닐 수 없고 도덕의리도 지킬 수 없으며 인간적인 체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념이 강할 때 자신의 삶도 훌륭하게 개척해나갈 수 있고 동지들을 위해서도 처신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도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충실성은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동무의 주장입니다. 심오한 철학입니다. 나는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한 **김정일**동무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20장





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향하여

고난의 행군
청봉의 교훈
소금사건
대홍단전투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
여투사들의 혁명절개

■ 시기 : 1938. 12 ~ 1939. 6

1.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1938년 12월초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 그 행군이 있은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지금도 이 행군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행군을 통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따라배워야 할 귀중할 유산으로 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가들과 작가들에게 들려주신 고난의 행군에 대한 회고담을 편집하였다.

동무들이 그 동안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소개선전하는데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작가들도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는 교양적 가치가 큰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동무들의 요청을 받은 지도 이제는 퍼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품을 놓고 말해주자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한 1938년말-1939년초는 항일무장투쟁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 우리가 대부대를 데리고 조국으로 나갈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엄광호와 같은 사람이 혁명의 저조기가 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 정도로 정국은 우리한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런 때에 대부대가 국내진출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담하게 국내진출을 위해 압록강연안에로의 행군을 단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혁명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앉아서 걱정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물론 밀영같은데 들어가서 배겨있으면 한 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도 있고 역량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현상유지나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해서 조국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혁명을 계속 앙양시키자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938년은 서간도지구와 국내인민들의 사기가 떨어졌던 때입니다.

혜산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지하조직원들이 잡혀가게 되자 국내혁명운동은 시련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적들은 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드립다 선전해대고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은 것을 망했다고 했지만 그런 선전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갔습니다. 적들의 선전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민들한테 굴러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흉흉한 소식들뿐이었습니다. 한다하는 혁명가들조차도 신심을 잃고 백두산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전활동을 하는데서는 적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선전수단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선전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혁명군이 전멸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신문에 그럴듯하게 실어 수만 부 내보내면 그 기사를 수천수만 명이 보았습니다. 방송도 그 선전에 합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전수단이란 대내에서 발간하는 몇 종의 신문, 잡지들과 선동삐라, 격문같은 것들이 고작이었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의 지하조직들에서 찍어내는 얼마간의 인쇄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힘들게 배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한 장의 삐라를 뿌린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애국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배낭쯤 되는 삐라를 지고 국내에 들어가자고 해도 지하공작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혁명군이 녹아났다고 적들이 선전할 때 그것을 허위라고 까밝히며 혁명군이 살아있다고 선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내에 들어가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총소리만 내면 지하조직도 많이 내올 수 있었습니다.

서간도에서 온 연락원의 말에 의하면 장백지구의 지하조직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는데 살아남은 조직원들은 어디에 가 숨었는지 연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고들을 받고 나서 아무리 다 마사졌다고 해도 그루터기야 좀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조직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장백에 나가서 조직을 수습해놓고 그런 다음 조국에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당거우에서처럼 한 해 겨울동안 밀영에 들어앉아 군정학습을 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진 다음에 새로운 작전을 펼쳐도 되지 않는가, 엄동설한

에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국내의 반일투쟁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은 때에 어떻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란거야 혁명초기부터 밥 먹듯 해온 것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에 없는 고생을 한두번만 해왔습니까. 국내의 반일투쟁이 시련을 겪고 있고 국내인민들이 백두산쪽만 쳐다보는데 조국해방의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선 혁명군이 팔짱을 끼고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면서라도 조국으로 가자, 희생도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가야할 노정인데 어찌 간난신고가 없겠는가, 그렇더라도 발자국을 크게 찍어보자, 와지끈 퉁탕 하고 부딪쳐보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내 심정이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의 행군의 목적은 국내를 한번 들었다놓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기간에 어려운 행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32년 가을에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안도에서 왕청으로 갈 때의 행군도 어려운 행군이였고 1차 북만원정을 갔다가 간도로 돌아올 때의 행군도 어려운 행군이였으며 1937년 초 봄의 무송원정도 어려운 원정이였습니다.

그런데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였습니다. 행군기간이 100여 일이나 되기 때문에 이 행군은 100일행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실 110여 일이나 되는 행군이였습니다. 고생이 너무도 막심했기 때문에 그 행군을 가리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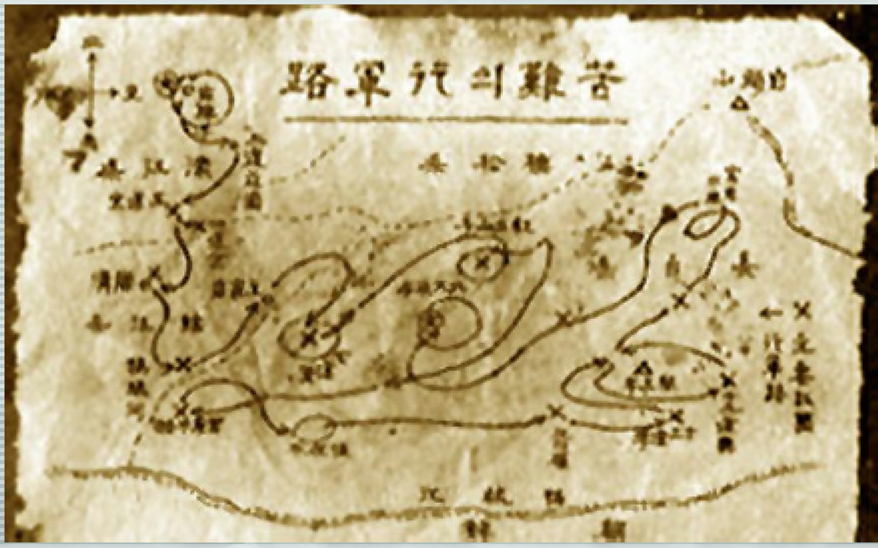
나는 지난날 행군에 대해서 쓴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철의 흐름같은 작품은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과 같이 간고하고 곡절많은 행군에 대해서 서술한 글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학시절에 철의 흐름이란 장편소설을 읽고 세상에 이처럼 고생스런 행군도 다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꼬주흐가 중첩되는 고난을 뚫고나가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겪고나서는 그것이 우리가 체험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것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기본내용이였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진 시련과 난관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추석전에 첫서리가 내리고 추석이 지나서는 벌써 첫눈이 크게 내렸습니다. 초겨울부터 강추위에 박달나무가 얼어터졌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여기에 식량난과 쫄라병까지 겹치고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적들과 싸움을 벌려야 했으니 그 고생이란 참으로 이루헤아릴 수 없는 것이였습니다.

남패자에서 북대정자까지는 도보로 대엿새면 가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들과 싸우느라고 무려 100여 일이나 되는 엄청난 품을 들여서야 거



고난의 행군노정도

기에 가닿을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도 고난의 행군노정도를 보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행군로들이 여간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육체적인 부담이나 고통으로 보아도 종전의 원정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거창한 행군이였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되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역사에서 유례없이 어려운 행군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끊임없는 추격과 포위속에서 행군이 진행된데 있습니다. 그 추격과 포위가 얼마나 집요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동무들도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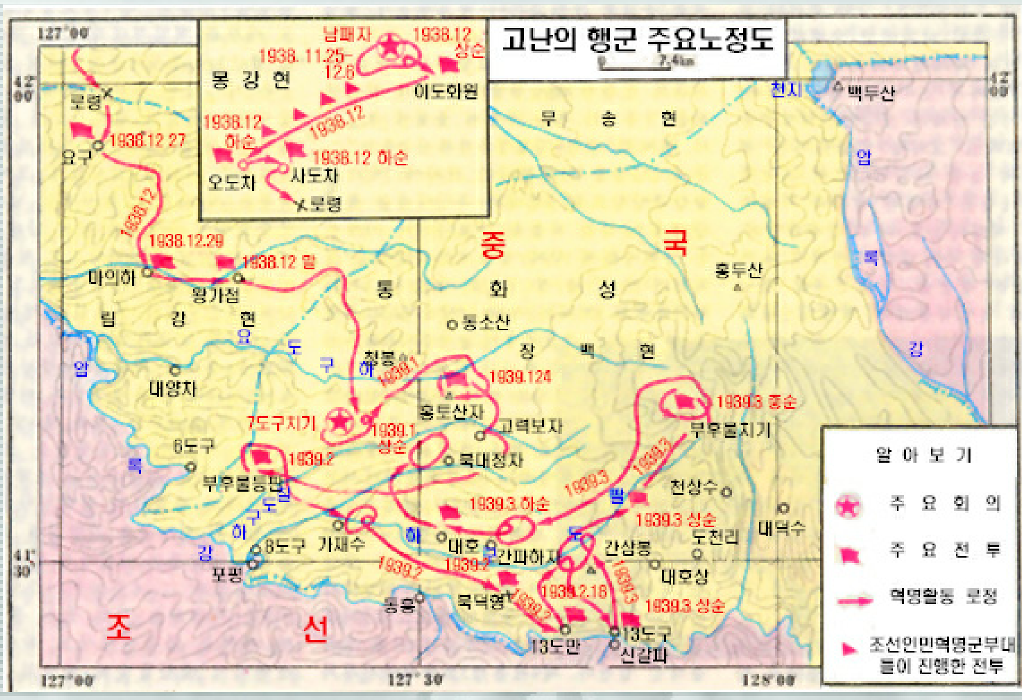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주력부대에 토벌역량을 총집중하였습니다. 1군은 다 녹고 얼마 없다, 남은 것은 **김일성**부대뿐이다, 전역량을 다 동원하여 **김일성**부대 토벌에 집중하라고 떠들어대면서 야단법석을 하였습니다. 적들은 통신수단으로 비둘기까지 날리면서 싸움에 열을 올리였습니다.

적들의 전술이 어떤 전술이였는가. 혁명군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자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전술을 가지고 수백 명씩 막 들이밀었는데 하루 20번이상 전투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른 원정행군을 떠날 때처럼 슬그머니 남패자를 출발했더라면 그처럼 심한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 몰래 조용히 행군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군벽두부터 총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행군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하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밀영을 뜨자마자 인차 집단부락을 하나 쳤습니다. 적들은 그 총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우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2방면군이 어느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적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남패자밀영을 포위하고 있던 적들은 인차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기동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우리가 50리가량 강행군을 한 다음 밥을 해먹자고 하는데 어느새 적들이 덮쳐들었습니다. 그러니 밥해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아쉬운대로 젖은 쌀을 배낭속에 꿍져넣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두 번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싸



움이 없는 단순한 행군이라면 뭘 그다지나 속이 탔겠습니까. 추격과 포위가 계속되고 그런 정황속에서 싸움을 노상 하게 되니까 곱절 힘들었던 것입니다. 행군의 가장 큰 간고성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겪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시련은 식량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때 식량난을 겪은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1938년 가을에 한 해 겨울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패자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많은 양의 식량을 소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식량은 먼저 떠나는 부대들이 담당지역으로 갈 때 그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어서 산나물이나 풀잎따위의 신세도 질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좀 덜 갈개면 산짐승을 잡아서 생고기로라도 끼니를 잇겠는데 총소리를 내는 것이 재미가 적어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은 내가 곰사냥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오백룡이 구새먹은 큰 나무안에서 잠자는 곰을 발견했는데 제발 한 방 갈기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적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단방에 잡을 자신이 있으면 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발명중으로 황소만치나 큰곰을 잡았습니다. 행군초기에 우리 대원들은 하루 두끼씩 죽을 쑤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예비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인차 식사끼수를 하루 한끼로 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한끼마저 먹지 못하고 생눈을 먹었습니다.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되니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군을 하자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눈앞이 가물거리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해방 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배고픈 고생을 좀 해보아야 쌀이 귀한 것도 알고 농민이 귀중한 것도 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혁명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오백룡이 내 허락을 받고 7도구치기에 내려가서 목재소를 치고 여러 필의 말을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식량이 거덜난 때라 우리는 말고기로 끼니를 에우기로

하였습니다. 적들의 포위속에 있는 때여서 말고기를 굽지도 못하고 소금도 없이 날것으로 먹었는데 두 번째끼부터는 메스꺼워서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날것으로 고기를 먹다보니 설사가 나서 굶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원들은 설사로 고생을 하면서도 말고기를 그냥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5일이 지나서는 그 언 말고기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 많은 것은 한창 먹어야 할 나이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한데도 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다나니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음식같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산나물이나 풀뿌리, 나무껍질, 누룩, 쌀겨, 술지게미 같은 것으로 끼니를 에울 때가 많았습니다. 거친 음식을 많이 먹는데다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다나니 소화기관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스트로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보고 항일무장투쟁시기 식량은 어떻게 해결했고 피복은 어떻게 해결했으며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영하 40도나 되는 혹한은 어떻게 이겨냈는가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의 행군 때 식량고생을 하던 일과 혹한 때문에 고통받던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카스트로가 그 말을 듣고 몹시 탄복하였습니다. 그가 유격전을 할 때 아마 우리와 같은 고생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꾸바는 중국 동북지방이나 우리 나라와는 달리 기후가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 전우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시집장가를 갈 나이에 시집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고생시키는 것이 제일 가슴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의 행군의 간고성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해준다 해도 체험자가 아닌 동무들로서는 그 고난의 실상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군의 간고성에 대해서는 노정을 따라가면서 더 이야기해봅시다.

적들은 처음부터 맹공장추전술을 썼습니다. 사납게 공격하고 검질기게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맹렬한 공격에다가 짓궂은 추격을 배합한 전술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과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우리는 그때 밥을 해먹을 사이도 없어 생쌀을 씹어먹으면서 행군하였습니다.

맹공장추전술에서 기본은 진드기처럼 검질기게 달라붙어 상대를 못살게 구는 다니전술이었습니다. 일본말로 진드기를 다니라고 합니다. 다니전술은 토벌대를 요소마다에 미리 배치해 놓고 있다가 유격대가 나타나면 치고 또 일단 발견한 유격대는 꼬리를 물고 끝까지 따라가며 소멸한다는 전술입니다. 그 전술은 유격대가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줄창 쫓겨다니며 얻어맞다가 기진맥진해서 녹아나게 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었지만 유격대는 쉴 짬도 먹을 짬도 없이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간고성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옛 병서에 우세한 적의 교대식장거리추격전에 걸려들면 반드시 패하는 법이니 그런 궁지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장수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고 쓴 대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함정에 빠져들면 용빼는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함정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적들이 사처에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떨어질줄 모르는데 정말 야단이였습니다. 우리는 깊숙이 빠져들어간 함정에서 빠져나올 묘술을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갈지자전법이었습니다. 나는 연대장들을 불러다놓고 이제

부터 행군로를 갈지자모양으로 잡아나가자, 그리고 굽인돌이마다에 되돌아앉아 지키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기관총으로 적들을 쳐갈기자. 그래야 일본 다니를 떼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지자전법은 눈이 몇 길씩 쌓인 만주산지에서 뒤따라오는 적들을 타격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법입니다. 그 해 겨울은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려서 앞사람이 눈을 다지며 길을 내야만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아무리 건강한 대원들도 50-60미터만 가면 맥이 진해서 주저앉군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눈이 너무 깊어서 몸을 굴려 다져가며 길을 냈고 어떤 데는 굴을 파고 지나갔습니다. 눈이 너무 깊은 데서는 대원들이 다리에 감고 있던 각반을 풀어서 한 줄로 이은 다음 모두가 그것을 감고 행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낙오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은 어차피 우리가 낸 갈지자길을 졸졸 따라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중흡은 행군종대의 맨뒤에서 갈지자모양으로 길이 꺾이는 대목마다 기관총을 휴대한 2-3명의 전투소조를 매복시켰다가 적을 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죽은 놈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이에 매복타격조들을 이동시켰다가 적들이 다가오면 다시금 같은 방법으로 소멸하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낸 외통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매번 얻어맞는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피동에 빠져 무리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도권을 쥐고 적들에게 연속 강타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장설행군을 계속하여 1939년 정초에는 마침내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임장현 요구집단부락습격전투와 마의하부근전투, 왕가점습격전투들을 비롯하여 무수한 전투들을 했는데 그것은 동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무력을 토벌에 내몰았습니다. 추격을 거듭할수록 사상자수가 늘어났으나 그들은 부대를 갈아대면서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병력의 예비가 무진장한 적들이니 몇백 명쯤 죽는 것은 꿈만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잠을 자고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걸으면서 잠도 자고 꿈도 꾸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자주 돌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등불조차 마음대로 피울 수 없었습니다. 5호농장에서 농약을 뿌릴 때 쓰는 그러루한 비행기인데 어쨌든 비행기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놈의 비행기들이 매일같이 날아와서는 우리 행방을 탐지해가지고 지상부대들에 연락해주었습니다.



가재수부락전경

어느 날 아군의 행방을 찾는데 성공한 적들은 인민혁명군의 행군종대에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앞에도 적이요, 뒤에도 적이요, 옆에도 적이요, 하늘에도 적이었습니다. 정황이 어찌나 긴박했던지 나는 앞에서 달려드는 적은 기관총소대가 소멸하게 하고 뒤에서 달려드는 적은 7연대가 견제하게 한 다음 나머지 성원들은 측면돌파로 포위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험한 고비는 요행 모면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노상 아

슬아슬하게 줄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행군에 참가한 방면군의 큰 병력으로 집단행군을 하자니 여러 모로 불편했습니다. 우선 흔적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식량을 해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수십 명되는 사람들이 허리가 부러지게 지고온 식량도 2-3일만 지나면 바닥이 나는 판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창싸움에 시달려온 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픽픽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살아서 장백까지 무사히 가겠는가. 나는 궁리를 하던 끝에 집단행동으로부터 분산행동에로 넘어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진다고 해서 만사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흩어지면 흩어지는데서 오는 부담과 고충이 따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방면군을 몇 개의 방향으로 갈라서 활동하게 하고 나자신은 7연대와 함께 움직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 참가한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내가 7연대와 같이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7도구치기의 밀영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청봉밀영에 사령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연대가 7연대인데 그들과 같이 다니면 나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청봉밀영에는 부상자들과 병약자들만 들여보내자, 우리 인민에게는 싸움을 하는 **김일성**이 소용되지 팔짱을 끼고 숨어있는 **김일성**은 소용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더니 지휘관들은 더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면군을 세 개의 방향으로 분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를 데리고 청봉밀영을 거쳐 가재수방향으로 나가고 오중흡이네 7연대는 장백현 상강구일대에 진출하여 활동하며 8연대와 독립대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면군이 분산행동으로 넘어가게 된 때로부터 고난의 행군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말로 되었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령부와 헤어지는 동무들은 모두 섭섭해하며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 동무들은 경위중대 대원들을 붙들고 사령관을 잘 지켜달라고 저마다 신신당부하였는데 그 뜨거운 결사옹위의 정신에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 가운데는 옷이 형편없이 찢어져서 살이 드러나고 신발이 헐대로 헐어서 맨발을 각반으로 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소가죽을 발싸개처럼 싸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제몸들은 생각지 않고 사령관의 신변을 걱정해주니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오중흡은 헤어지면서 오백룡에게 자기네 7연대가 적들을 달고갈테니 동무네 경위중대는 절대로 전투를 하지말고 피하라고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나를 청봉밀영에 눌러있게 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에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 바친 오중흡의 희생성과 충실성에 대하여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령부에 위험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7도구치기를 떠나는 첫 순간부터 달려드는 적들을 자기들 쪽으로 유인하면서 어려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기네를 사령부로 가장하다나니 모든 중하를 도맡아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나를 잡자고 혈안이 돼있는데 그 사람네가 **김일성**을 옹위하고 있는 사령부집단인체 하였으니 적들이 더 기를 쓰고 덤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중흡이네 연대는 그때 한 주일나마 낟알구경도 못하고 적을 끌고다니며 쉴새 없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홍두산전투 때에도 멀리서부터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 사령부를 잘 보위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적들의 성화를 덜 받았습니다. 사령부에 집중되었던 적의 역량이 분산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량난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굶으면서 청봉방향으로 행군했습니다. 청봉에는 우리가 후방성원들을 보내서 감자를 심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감자가 그대로 밭에 있으면 그것을 캐먹으면서 며칠동안만이라도 대원들을 휴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을뻔 하였습니다.

우리는 청봉부근에서 난데없는 조밭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펴보니 봄에 우리가 신태자밀영으로 가면서 씨붙임을 한 조밭이였습니다. 아마 산골에 와서 아편농사를 하던 사람이 그 밭을 경작했던 것같습니다. 봄씨붙임을 하느라고 밭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우리 대원들을 보자 허둥지둥 어디론가 달아나버리였습니다. 비적이나 일본군대인줄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밭임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 대원들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겁을 먹고 달아났으니 언제 여기 와서 다시 씨붙임을 하겠는가,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달아났는데 밭을 한 해 동안 그저 묵혀둘 수는 없다, 우리가 씨를 뿌려 임자가 가을에 와서 곡식을 거두어가게 하자고 하면서 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조가 가을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눈에 깔려있는 조이삭을 보고 대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원은 전우들에게 농담으로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느님이 아니고야 누가 다 죽게 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대원이 장군님, 지금은 ≪하느님≫도 혁명군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의 덕을 본 셈입니다. 우리가 봄에 밭임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씨붙임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런 횡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새 숙영지에 도착할 때마다 대원들을 동원시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조나 감자나 호박같은 것을 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숙영지에서 좀 떨어진 평평한 곳에 가서 땅을 뚜지고 종자를 뿌린 다음 후날 와서 찾을 수 있게 표식을 해두군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령병들은 장군님, 앞으로 여기에 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묻군했습니다. 오지도 않을 곳에 씨붙임은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속대사였습니다.

나는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다, 십중팔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신원도 올 수 있고 소부대도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이 이런 무인지경을 지나다가 배가 고플 때 감자도 캐먹고 호박도 따먹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해주군 했습니다. 우리는 부대가 한번씩 지나간 곳에 1호도로, 2호도로, 3호도로, 15호도로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통신원들이나 소부대동무들이 어디에 가서 공작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어느 길로 갔다왔는가고 물어보면 3호도로로 갔다왔다든지 15호도로로 갔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지 않았는가고 하면 그전날 장군님께서 부대를 인솔하고 행군하다가 숙영할 때 일구게 한 밭에 들려 호박을 따서 삶아먹었다든가 감자를 캐서 구워먹고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 식량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우리는 자작나무진까지도 먹었습니

다. 자작나무진은 약재로 뿐 아니라 식량보탬으로도 썼습니다.

우리는 눈무지속에서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따낸 조이삭을 찧어 죽을 쒀먹었습니다. 발방아도 물론 우리가 속성으로 만든 것이였습니다. 한 주일가량 죽을 쒀먹으면서 지냈더니 좀 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쌀마저 인차 거덜이 났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청봉밀영에 가서 감자를 한 배낭씩 얻어가지고 가는 것뿐이였습니다.

우리는 청봉밀영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강을 하나 만났습니다. 강을 당장 건너야겠는데 물이 얼지 않아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산골물은 원래 겨울에 복판이 잘 얼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자니 적의 보초가 있을 것 같아 선뜻 용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방법은 다리를 돌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사람한사람씩 기여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오중흡

우리 일행이 다리를 건너서자 적들이 인차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뒤에 달고 재빨리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감자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심은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는 사이에 일부 대원들을 떼내여 감자를 한짐씩 지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는 집도 없고 감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밀영에 가있던 후방조성원들이 다 캐먹었던 모양입니다.

토벌대는 어느새 뒤에 따라와서 기관총을 막 쏘아댔습니다. 그러니 야단이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이제는 골짜기로 빠져서 저기 버덩쪽으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느라면 날도 저물 것이다, 그리고 길도 나질 것이다, 눈은 깊은데 먹을 것은 없지 그런데다가 토벌대가 자꾸 뒤쫓아오니 신작로로 나가 강행군을 해서 멀리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행군을 하다가 산림부대들의 병영을 만났습니다. 장졸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어디론가 다 달아나버리고 병실들은 텅 비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영에 갈비를 비롯하여 먹을 것은 많았습니다. 이거 일본놈들이 독약을 쳐놓고간 음식이 아닌가 하고 몇 동무가 말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구들에 투전장들이 널려있는 것으로 보아 산림부대가 있던 병실이 틀림없었고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도망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구들도 따끈따끈했습니다.

놈들이 추격해오지만 않는다면 한잠 푹 자면서 피곤을 풀다가 가고싶은 아늑한 병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식탁우에 푸짐히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을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눈으로 얼핏 가늠해보니 사령부성원들이 이틀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음식을 다 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산림부대병실을 나서자 적들이 또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정말 지독한 추격이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땅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서 만두나 건빵 한 개를 먹을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령부가 적의 추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가재수에서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 하나가 적들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김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후 장백에서 입대한 사람입니다. 입대전에는 지하혁명조직에서 일을 했고 입대후에도 싸움을 괜찮게 한 사람이였습니다. 몇 해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함께 싸우다가 지하공작에 파견되었던 사람인데 적들에게 잡힌 다음 지조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적들에게 우리의 행방을 대준 모양입니다.

적들은 장백일대에서 제일 크게 총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오중흡이네 연대가 가짜사령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토벌역량을 몽땅 우리한테로 집중하였습니다. 적의 비행기도 매일같이 우리쪽으로만 계속 날아왔습니다. 사처에서 적들이 우리 사령부쪽으로만 몰려들다나니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청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본 오백룡까지도 얼굴색이 꺼멓게 질려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는 판이라고 생각한 지휘관들은 모두 내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선동연설이라는 것은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쉴참에 사령부성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수풀속에 들어있는 바늘은 만쌍의 눈이 밝혀도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잘만 꾀를 쓰면 대밀림과 대적의 무리속에서 능히 바늘처럼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이순신장군은 명량해전때 적은 배를 가지고 수많은 왜군의 함대와 싸워이겼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대세를 역전시키었다. 이것은 세계해전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이다. 이순신이 무슨 수로 적을 이겼겠는가. 물론 지혜와 책략, 용기로 이겼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애국심이었다. 왜적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놈들의 노예가 된다는 분발심으로 적을 이긴 것이다. 애국심이 강했기에 지혜와 용기도 최대한으로 발동된 것이다.

애국심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험악하다. 그러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으면 우리도 능히 대세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행군을 계속하자…

이런 연설을 하자 대원들은 장군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는 장군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행군길에 나섰습니다. 그런 말에 나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으로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유격전쟁이 창조한 모든 전법과 전술의 종합적인 시험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묘술을 썼는가 하는데 대하여 두어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행군도중에 행처를 감추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는 발자국자리를 메우거나 지워버리면서 슬쩍 사라지는 방법도 있고 자빠진 강대나 진대나무를 타고 옆으로 빠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들을 골탕먹이는데서 그 중 통쾌한 방법은 앞뒤에서 나타난 적들이 제편끼리 맞붙어 싸우도록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빠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망원전술이라고 하는데 적들끼리 싸우게 하고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장백현 홍토산자와 부후물등판에서 적들을 골탕먹일 때 쓴 수가 바로 그런 수였습니다.

홍토산자는 이름 그대로 덩지가 큰 번대머리산입니다. 그때 우리는 추격해오는 적을 뒤꼬리에 단 채 그 산을 두 바퀴째 돌다가 앞에서도 적이 나타나자 진대나무를 타고 슬쩍 옆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를 앞뒤에서 공격하다가 외통길에서 마주치게 된 적의 두 부대는 서로 상대를 인민혁명군으로 알고 맹렬한 총격전을 벌이었습니다. 상대가 제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벌이는 맞불질이니 그야말로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후물등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싸움을 벌이었습니다. 적의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떼여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토산자에서처럼 부후물등판두리를 빙빙 돌게 하였습니다. 한 두어 바퀴 돌았을 때 새로운 토벌대의 무리가 나타나서 우리와 우리를 뒤따르던 본래의 적들짬에 끼여들었습니다. 부후물등판두리를 한

바퀴 돌자면 하루걸음이 잘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없는 두 무리의 적이 겹쳐서 추격하는 괴이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동무들에게 등판을 계속 돌게 하면서 각자가 발구채만한 나무대들을 한대씩 찍어 메게 하였다가 나무그루와 나무그루사이에 건너놓고 슬쩍 옆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포로 몸을 가리우고 숲속에 숨어서 생보리를 씹으며 휴식하는 동안 서로 꼬리를 문 두패의 적들은 제편끼리 기를 쓰고 맞불질을 하였습니다. 제놈들끼리 벌이는 개싸움을 멀리서 구경만 했는데 우리는 총 한방 쏘지 않고서도 숱한 적들을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부후물등판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손실을 당했던지 적들은 우리가 너무나 감쪽같이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는 묘수를 쓰기 때문에 도저히 잡아낼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묘한 싸움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여 적의 많은 유생역량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병력후비는 많았습니다. 땅보다 사람이 많아서 해외팽창을 해야겠다고 떠든 일본이었으니 아무리 토벌군을 없애버려도 인차 보충하군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산중에서 싸우는 우리는 한 사람만 죽어도 병력을 인차 보충할 수 없었습니다.

부후물등판싸움을 치른 다음 나는 부대를 데리고 밤새껏 강행군을 해서 가재수쪽으로 쭉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야산지대쪽으로 행군방향을 자꾸 유도하게 되자 대원들은 나에게 장군님, 그쪽으로 빠지면 버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집단부락에 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지금형편에서는 수림지대에 있는 것보다 야산지대로 쭉 빠지는 것이 상책이다, 이대로 추격만 받다가는 우리가 피동에 빠져 아무 것도 못한다, 적은 병력이 많아서 매일같이 토벌대를 갈아대는데 우리야 갈아댈 역량이 있는가, 그러니 인원의 손실밖에 날 것이 없다, 오늘 한 명 죽고 내일 한 명 죽고 모레 한 명 죽고 이런 식으로 역량이 졸금졸금 없어진다면 나중에 몇 사람 남겠는가, 7연대와 8연대 동무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곤궁에 빠져있는 줄은 모를 것이다,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연락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방법이 있는가, 적들을 수림지대에 떼내깔리고 야산지대에 나가야 한다, 적들이 야산에는 주의를 덜 돌리니 그런데로 나가야 우리가 당분간 숨을 돌리면서 역량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지구가 가까운 곳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재수부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야산에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키가 한질반쯤 되는 소나무와 가둑나무들이 꽉 들어선 소담한 야산이였습니다. 산 아래는 벼랑이었고 벼랑밑에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가재수부락에서 개가 짖으면 그 야산에서도 다 들리였습니다. 가재수를 물방아간동네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면 천막을 치고 날샐녘이 되면 천막을 거두어 짐을 꾸려놓고 전투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였습니다. 남패자를 떠난 이후 천막을 치고 지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얼마간 피로를 풀었습니다. 나는 사령부성원들과 마주앉아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전술적 문제들에 대해서 무시로 토론하였습니다. 음력설이나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방에 널려있는 부대들을 불러 도처에서 적들을 답새기고 파괴된 조직들도 복구하면서 국경연안과 조국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거덜나서 야단이었습니다. 당장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

는데 우리에게는 한 되박의 쌀도 없었습니다.

나는 경위중대 정치지도원 이봉록을 가재수마을에 내려보냈습니다. 가재수부락에는 김일동무가 꾸려놓은 지하조직이 살아있었습니다. 안 무엇이라는 지하조직원도 그 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던 농민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산림대에 납치되어 갔을 때 그 산림대의 두령에게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빼내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두령은 전날 우리한테 톡톡히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나의 편지를 받자마자 그 농민의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농민은 김일의 영향밑에서 혁명사업을 돕던 사람이였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인차 지하조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봉록

나는 이봉록에게 가재수에 가면 물방아간주인을 만나고 안 무엇이라는 농민과도 연계를 취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봉록은 산에서 내려가자 우선 물방아간부터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는 물방아간주인을 만나자 산에서 싸우다가 적들의 토벌도 심하고 식량곤란도 심해서 이렇게 인가를 찾아왔다고 아리송하게 자기 소개를 한 다음 밤손님이지만 허물하지 말고 말이나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봉록에게 귀순하러 내려왔는가고 냉냉하게 물었습니다. 이봉록은 상대의 마음을 중떠보느라고 일부러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방아간주인은 그 대답을 듣고 몹시 섭섭해했습니다. 산에서 고생이야 막심하겠지만 그렇다고 귀순해서야 되겠는가, 나라를 찾자고 일단 총을 잡았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뒤를 잘 꼬아야지 이왕 하던 일을 중도반단해서야 되겠는가, 고생스럽더라도 귀순하지 말라고 이봉록을 설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건재하신가고 물었습니다.

리봉록은 장군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혁명군을 인솔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적들을 답새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물방아간주인은 그것 보라, **김**장군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군을 그냥 영솔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자기 대장을 버리고 귀순하는게 말이 되는가고 하면서 이봉록을 면박하였습니다.

상대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리봉록은 나는 산에서 귀순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다, 산에는 나의 전우들이 있다, 돈을 줄테니 식량을 좀 구해주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방아를 찧어주고 삯으로 받는 쌀을 겨속에 묻어둘 터이니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지고가군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방아간주인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였습니다.

이봉록은 가재수마을에 내려가서 식량공작을 하는 과정에 물방아간주인이 조국광복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안 무엇이라는 농민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혜산사건 이후에도 가재수조직이 그냥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은 것은 우리 공작원들이 조직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물방아간주인에 대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됐다, 우리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우리는 이긴다, 이제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방아간주인은 식량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셈입니다. 그 사람이 식량을 해결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장기나 꼬니

를 두면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배포유하게 설계할 엄두도 못내였을 것입니다. 십중팔구는 아마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물방아간주인 뿐 아니라 온 가재수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나섰습니다. 어느 날 이봉록은 가재수사람들이 식량도 마련하고 설음식도 준비해놓았는데 가지러 가게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 수십여 일을 생쌀과 날고기와 맹물로 끼니를 이어온 대원들을 생각하면 가재수사람들의 성의를 밀어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설음식을 그대로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가재수사람들의 덕으로 1939년 음력설은 궁색스럽게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대원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던 한이 그제야 좀 풀리는 것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재수사람들의 그 성의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봉록이랑 함께 마을로 내려갔던 이호림이 그만 도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봉록은 빈몸으로 돌아와서 이호림이 도주하는 바람에 식량이고 뭐고 다 내깔리고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령부경위대원들 중에서 도주자가 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행군이 아무리 간고해도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는 변절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때에는 우리 대내에서 도주자가 4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달아나지 않던 사람들이 왜 달아났는가 하면 무서운 고난을 더는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호림은 유격대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선에서 온 대원이라고 해서 좀 표가 날 정도로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는 일본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요해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게 과업을 주군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두 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주대에 올라가 적들의 전화를 도청하군 했습니다. 건장하고 유식해서 지휘관감으로 점을 찍어두고 있었는데 혁명이 다 망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꽁무니를 뺐던 모양입니다.

이호림이 변절하는 바람에 우리는 아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한시바삐 거처를 옮기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재수마을 뒤산을 떠나 무연한 벌판을 백일행군으로 돌파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들이 오건말건 내처 걸으라고 했습니다.

적이 대부대역량으로 공격해올 때 분산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유격전술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때에도 그 원칙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덕으로 적들의 토벌역량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산활동을 하는 과정에 역량이 얼마 안되었던 우리 사령부는 자체의 존망을 판가름하는 어려운 고비에 여러 번 부닥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적들이 우리가 사령부라는 것을 알고 총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대정자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할 때 전술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분산활동이 대부대공격에 대처



12도구전투장

하는 유격전의 한 개 전술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천편일률식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사령부가 대부대의 후원이 없이 단독으로 분산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험은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는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면서 아무리 원칙에 맞는 전술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용하는데서는 교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우리가 백일행군을 방금 시작했을 때 도주자가 또 생기였습니다. 이교관이라고 왕덕림이 보낸 북경대학 졸업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뛰고 중국인대원이 대오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열에는 부상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량이 조금만 더 줄어든다면 보초교대도 못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오백룡

오백룡은 행군명령이 떨어지자 나보고 장군님, 우리가 행군을 시작하면 포대에서 철알이 우박같이 날아오겠는데 어떻게 저 벌판을 돌파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는가, 앞뒤에 기관총을 한 정씩 세우고 적이 앞으로 오면 앞에서 쏘고 뒤에서 오면 뒤로 쏘면서 강짜로 행군해야지 별 수가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가재수의 적들은 포대에서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면서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력은 토벌에 참가하느라고 산에 다 가있고 부락에는 역량이 얼마 없는데다가 우리의 기세에 압도되다나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대낮에 벌판을 빠젓이 지나 수림지대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잠시 휴식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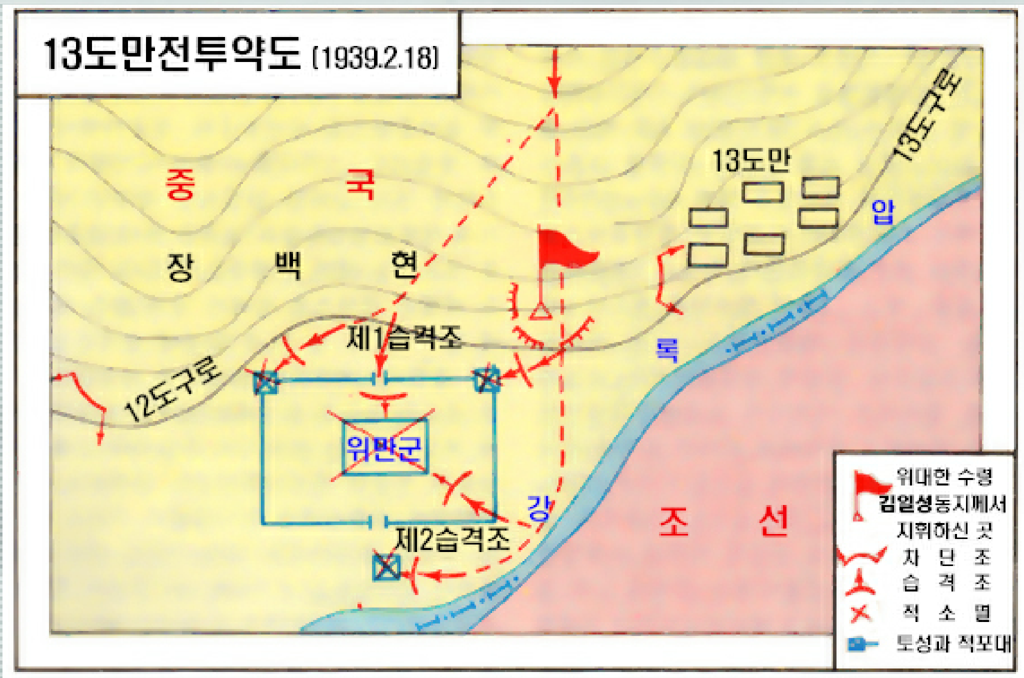
이런 경우를 두고 아마 천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판을 무난히 통과하고 나니 우리자신도 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꼭 불질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불질은커녕 재채기소리도 내지 않고 포대에서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기만 했으니 왜 어리둥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유격투쟁을 하느라면 이런 경우를 가끔 당하게 됩니다.

벌판을 무사히 통과한 대원들은 또다시 하느님이 혁명군편을 들어주었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을 때 너죽고 나죽고 결판을 내자,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는가 하는 배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대담하게 냅다밀면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림지대에서 벗어나 다시 행군을 하고 있을 때 적들이 우리의 뒤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대열에서 도주한 자들이 우리 행군방향을 대주면서 **김일성**이 지금 대부대는 다 떼내깔리고 몇십 명만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인제는 제낄 수 있다고 귀띔질한 모양이었습니다.

얼마후에는 우리의 앞에 적들이 나타났다는 전방척후들의 보고가 또 날아들어왔습니다. 적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다면 그것은 야단이었습니다. 오백룡은 또다시 내 얼굴을 보면서 장군님, 이제는 우리가 사령부라는 것도 다 들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생결단을 하는 것밖에야 다른 길이 있는가, 앞에서 오는 놈들은 우리를 생판 모르는 놈들이고 우리와 조우하는 것도 모르고 마음놓고 오는 놈들이다, 뒤에서 따라오는 놈들은 우리 역량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때문에 그놈들과 본격적인 대항전을 하기는 곤란



하다, 그러니까 다른 도리가 없다, 한 개 분대쯤 되는 인원을 떼서 뒤에 있는 놈들을 견제하게 하고 기본역량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주 오는 앞에 놈들을 제껴버려야 한다, 그래야 포위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일본군 토벌대였지만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만주국군대였습니다. 만주국군대는 우리 부대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즉 약한 고리는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부대를 데리고 앞을 돌파하라, 약한 고리를 답새겨서 조금만 주춤거리면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돌격해서 적들의 병영까지 따라가 혼쌀을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은 대열앞에다가 기관총을 걸고 적들을 한바탕 족친 다음 나팔을 불면서 돌격을 들이댔습니다. 만주국군대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자 우리가 굉장한 대부대인줄로 알고 지고 있던 배낭이며 짐짝들을 다 내던지고 퇴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던지고 간 배낭들에서 먹을 것들을 걷어서 걸머지고 꿰진 신발까지 갈아신고 대통로가 있는데까지 적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나 도리어 적들을 추격하는 주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전술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적들을 따돌리는 전술로부터 선손을 써서 적들을 답새기는 주동적인 공격전술로 넘어갔습니다. 묘술을 써서 적들을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전술만으로써는 대오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병서들에도 강한 적의 예봉은 피하고 교란하여 피로케 만들며 적이 동요하면 드센 공격을 들이대고 적이 퇴각하면 맹렬히 추격하며 강한 적을 약한 적으로, 아군의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것이 상등의 용병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술을 광범하게 활용하여 고난의 행군때에도 어려운 고비들을 수없이 이겨내고 피동에서

벗어나 주동을 장악하군 하였습니다.

나는 집단부락을 하나 들이쳐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는 한편 식량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음력설이 오늘내일하던 때여서 여러 달째 주림에 시달려온 대원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조직한 전투가 바로 13도만집단부락습격전투입니다.

우리는 전투에 앞서 적들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12도구로 철수해간 위만군장교가 임강현에 있는 자기 상관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보고하기를 **김일성**부대와 우연히 맞다들었는데 어떻게나 공격을 드세게 하는지 견뎌내지 못하고 퇴각하여 12도구에 와있다. 차후행동에 대한 지시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장교는 이웃 집단부락에도 전화를 걸어 빨치산이 습격해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가까이에 있는 적을 치고 연이어 다른 부락도 하나 더 쳐서 많은 식량과 식료품을 노획하였습니다. 식료품중에는 적들이 먹으려고 준비해놓은 교즈도 있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더러는 눈속에 파묻고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13도만전투에서 노획한 식량과 식료품으로 그 해 음력설을 푸짐하게 쇴습니다.

유격투쟁이라고 해서 노상 고생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못먹고 못입는 것이 일상사이기는 하지만 배불리 먹고 뜨뜻이 입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13도만전투가 있은 후 적들은 우리 사령부에 이전보다 더 많은 토벌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토벌대뿐이였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검질기게 우리를 따라오는지 우리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지에서 며칠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령부 대오는 그런 곤란속에서도 피동에 빠지지 않고 집단부락을 또 하나 들이쳤습니다. 분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대들에 우리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싸움이였습니다. 그 부락이름이 무엇이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장백현 상강구일대에서 활동하던 오중흡의 7연대가 사령부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령부에 쏠리는 적의 역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집단부락들을 또 들이쳤습니다. 그 전투들은 우리에게 자기네 부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7연대가 사령부를 찾아온 다음에는 무송쪽에서 활동하던 8연대와 독립대대도 우리를 찾아왔고 청봉밀영에 있던 후방성원들까지 다 북대정자에 모이였습니다. 대열을 점검해보니 전해에 몽강현 남패자를 떠날 때의 인원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패자를 떠났던 대원들의 거의 전부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일전쟁기간에 이별도 많이 해보고 상봉도 많이 해보았지만 아마 그때의 그 상봉만큼 격동적인 상봉은 없었을 것입니다. 북대정자는 온통 축전마당처럼 흥성거렸습니다. 100여 일동안이나 사지에서 고생하다가 만난 대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웃기도 하고 딩굴기도 하면서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고생끝에 이루어진 상봉일수록 그 열도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동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면 서로 헤어져 있어도 보아야 합니다. 피를 나눈 동지들이 서로 이별도 하고 상봉도 하는 과정에 동지애는 더 공고해지고 열렬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동지애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부대의 이동을 위한 단순한 행군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옹근 하나의 전역과 맞먹는 규모가 큰 군사작전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축도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군과정에 우리는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도 다 겪었고 인간으로서 체험하게 되는 온갖 시련도 다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들이며 자기 민족과 민족해방위업에 가장 충실한 혁명투사들임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높은 경지에서 연마하였습니다. 이 행군과정에 형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아름다운 영상은 우리 인민이 후손만대를 두고 따라배워야 할 공산주의적 인간의 훌륭한 전형으로 되었습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지도자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 적들을 타승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며 항일혁명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입니다.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이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다 영웅들입니다.

모든 대원들이 만난을 이겨내고 불사신으로 살아남아 승리자로 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요인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적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난을 이겨내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무서운 곤란을 겪으면서도 항상 낙망하거나 비관에 잠기지 않고 승리할 앞날을 그려보며 그 모든 곤란을 이겨냈습니다. 말하자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강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당면한 난관에만 집착하여 맥을 놓았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전망을 암담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그처럼 엄청난 시련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눈구뎅이속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감지을 수 있은 요인으로는 혁명적 동지애도 들 수 있습니다. 행군을 끝내갈 무렵 오중흡이네와 만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나도 그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육친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가왔습니다. 너무 반가와서 가슴이 빠근했습니다. 나는 그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귀중한 전우들과 다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해 겨울 전우들에게 분산활동을 시키고나서 내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해 겨울처럼 전우들을 목마르게 기다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무들 중에도 제대군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우애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렬한 감정인가를 잘 알고 있겠지만 세상에 전우애보다 더 열렬하고 생명력이 강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들 사이에 오가는 도덕의리보다 더 숭고한 도덕의리는 없을 것입니다.

혁명적 동지애는 항일혁명 전노정을 관통해온 승리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과정에는 우리 대원들의 도덕의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발양되었습니다. 한 홉의 미시가루와 같은 일화는 그 시기에 창조된 무수한 미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령병들이 사령관을 위해 배낭속에 한 홉쯤 되는 미시가루를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원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설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두 번만 있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때 우리 동무들은 자기 전우를 위해 살이 필요하다면 살이라도 떼여주었

을 것입니다. 자기를 깡그리 바쳐서라도 혁명동지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혁명적 동지애입니다.

언제인가도 이야기하였지만 이을설은 한 신입대원이 불곁에서 자다가 옷을 태우고 우들우들 떠는 것을 보자 자기 솜옷을 벗어 그 동무에게 입혀주고 무서운 혹한속에서 홑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얼어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무들이 또 그에게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인 사랑을 기울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100여 일에 걸친 행군의 전 행정에서 모두가 한 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먹는 정신으로 살며 싸웠기 때문에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헤진 옷을 입고 혹한속을 헤치고 다녔지만 늘 몸이 훈훈했고 마음은 후더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불사신처럼 살아남을 수 있은 비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죽음을 타승하게 한 것입니다.


이을설

동지애로 뭉친 집단,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된 대오는 필승불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지원이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과정에 가재수의 물방아간주인과 같은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우리 군대만 참가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행군에는 인민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쌀이나 소금이나 신발이나 천과 같은 후방물자를 지고 사선을 헤치며 우리를 찾아온 이도화원과 요녕구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모두가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자구등판과 천교령에서도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구원자, 방조자, 동행자로 나선 것은 언제나 인민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인민이 있는 한 우리가 고난의 행군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다듬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승리한 행군으로 될 수 있은 것은 또한 부닥치는 정황에 맞는 영활한 유격전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고난의 행군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수십만의 일본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추격하였지만 오늘은 그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이 막강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세력이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쟁시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일혁명선열들이 고난의 행군과정에 발휘하였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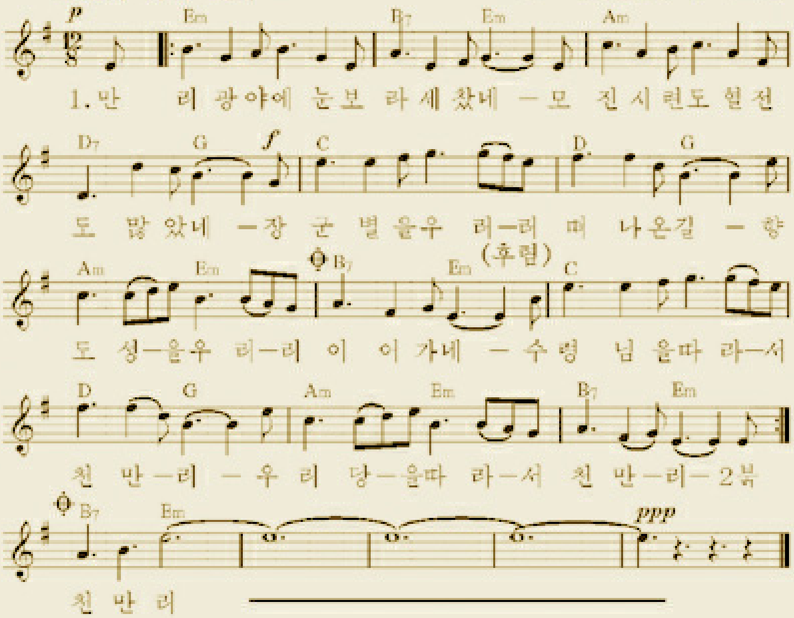
우리는 항일전쟁시기 뿐 아니라 새 조국 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낙관주의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천천히 사색 깊게

작사 리정술, 작곡 리학범



2. 북반원정을 헤쳐 온 투사도
험한 라동강 넘어 온 전사도
당중앙을 받들어 나가는 길
걸음마다 승리로 빛내가네
(후렴)

3. 우리 수령님 찾아 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 준 락원에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여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 가네
(후렴)

4. 백두밀영에 타오른 그 불빛
우리 당중앙창가에 빛나네
온 세상에 찬란한 그 빛발은
인민들이 나갈 길 밝혀 주네
(후렴)

2. 청봉의 교훈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항일혁명역사를 서술한 도서들과 교과서들에는 청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의 두 사적지가 나온다.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실 때 첫 밤을 보내신 유서깊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청봉숙영지이고 다른 하나는 항일유격대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후방밀영으로 개척한 서간도의 청봉이다.

삼지연군의 청봉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렇지만 서간도의 청봉에 가본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다. 그 밀영이 고난의 행군과 함께 항일혁명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거기서 혁명가의 신념과 충실성을 검증하는 엄중한 사건이 벌어져 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기 때문이다. 그 교훈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청봉밀영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청봉밀영으로 보냈습니다. 청봉밀영은 우리의 후방기지였습니다. 백두산주변과 서간도일대에는 그런 후방밀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봉밀영에는 우리 부대의 후방일군들이 감자를 심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이 몇 달쯤은 식량고생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였습니다.

1939년의 13도만집단부락습격전투가 있은 후 나는 전리품들 중 일부를 따로 떼내여 청봉으로 보냈습니다. 청봉에 감자농사를 지어놓은 것이 있다지만 맨 감자로야 어떻게 음력설을 쇠겠습니까. 그래서 색다른 식료품들을 골라 밀영의 전우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짐을 지고 청봉밀영에 갔다온 사람은 부대통신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청봉에 다녀온 통신원은 사령부에 나타나 밀영에서 간첩단사건이 발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령부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눈이 휘둥

그래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영솔하는 혁명군대안에서 간첩단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거야말로 엄중한 사태일 것입니다.

통신원은 간첩단사건의 전말을 요약한 이동걸의 편지와 함께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하는 독약봉지라는 것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동걸의 편지에는 여대원들인 **김정숙**, 김혜순, 김선, 서순옥 등이 모두 일제의 간첩이라는 것과 그들이 독약으로 혁명전우들을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원의 말이 자기가 청봉에 갔을 때 그 여대원들은 포승줄에 묶이어 있었고 고문을 받은 흔적까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순간의 충격은 장포리나 한봉선과 같은 투사들을 민생단으로 몰았을 때의 충격보다 몇 곱절 더 큰 것이었습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생단문제는 1936년의 남호두회의를 종점으로 하여 이미 결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부터 민생단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싫어했습니다. 민생단소동으로 해서 받은 손실이 너무나도 크고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김혜순

그런데 이번에는 청봉에서 민생단과 맞먹는 간첩단이라는 것을 적발했다고 하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청봉에서 적발해냈다고 하는 간첩단사건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대원들을 간첩으로 낙인한 밀영지휘관들의 주장에는 믿을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보내준 독약은 사실상 독약이 아니라 치분가루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 가루를 혀끝에 대보기까지 했는데 틀림없는 치분이었습니다. 치분가루를 독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청봉의 여대원들은 혁명실천을 통해 충분히 단련되고 검열된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혁명 하나밖에 모르는 여성들이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이상은 조국을 해방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이 아니고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총을 메고 설피를 신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씹으면서 시집갈 나이에 시집도 가지 않고 남성들도 감당해내기 힘들어하는 풍상고초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김선

이런 여성들에게 간첩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완전한 억지였을 뿐 아니라 모독이고 우롱이었으며 범죄였습니다.

김정숙이 어떤 여성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적 처지라든가 투쟁경력으로 볼 때 그는 적과 내통할만한 사소한 이유도 없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은 사람이 간첩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김혜순이나 김선이나 서순옥이도 혁명적 각오가 높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쁜놈들의 수작질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였습니다.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것도 역시 언어도단이었습니다.

이런 여대원들을 간첩으로 본다면 간도에서 숱한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던 김성도나 조아범의 망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대에는 적의 간첩으로 전락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격구 시절에도 그랬고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그랬고 우리 여대원들속에서는 배신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대오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가운데 여대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임수산이 적들에게 투항해갈 때 자기와 가까이 지내던 여대원을 한 명 데리고 달아났지만 그 여자도 유격대에 있을 때 간첩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대원들은 남대원들보다 고생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정들에서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생각하면 내 말을 누구나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꼭같이 사회사업에 종사하면서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을 거의 도맡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어머니들과 안해들, 누나들의 수고야 어디 가겠습니까.


서순옥

항일혁명시절에도 부담은 여대원들한테 더 많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여대원들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도 작식은 작식대로 하였습니다. 화식도구나 식량도 대부분은 여대원들이 지고다니였습니다. 남대원들이 피곤에 몰려 우등불 옆에 쓰러져 잘 때에도 여대원들은 남대원들의 찢어진 옷을 깁느라고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찢어진 옷은 바느질로 꿰매주면 되였지만 불에 탄 옷은 천을 덧대야 했습니다. 덧댈 천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치마자락을 잘라내였습니다.

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후부터 군복을 공급할 때 여대원들에게는 치마를 두벌씩 내주게 하였습니다.

여대원들은 고난도 남대원들 못지 않게 이겨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남대원들보다 더 이악했습니다.

여대원들에 대한 말이 난 김에 최순산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순산은 이름난 병기창일군인 송승필의 안해입니다. 그는 연길지방에서 지하당사업도 하고 작식공작도 하고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사업에도 참가한 오랜 당원이였습니다. 연길출신투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책임성이 높고 강인한 여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최순산

최순산은 유격대에 입대한 후에도 작식공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행군의 쉴참에 그는 저녁준비를 하느라고 쌀을 씻다가 바늘에 손바닥을 찔리웠습니다. 부러진 바늘토막은 살속에 깊이 박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바닥에 박힌 바늘토막을 뽑아낼 여유도 없었습니다. 밥을 빨리 지어야 부대가 다음단계의 행군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산은 그날부터 살을 쑤시는 아픔 때문에 여간 큰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여자들 같으면 당분간 밥을 짓지 못하겠다고 하소연 할 터인데 이 무쇠같은 여대원은 바늘에 손을 상했다는 하소연도 하지 않았고 손바닥에 들어간 바늘을 뽑아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대장이 작식시간이 늦어진다고 나무람을 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손을 놓게 되면 다른 전투원 한 명이 자기를 대신해서 작식공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늘은 손등거죽까지 뚫었습니다. 뾰족한 바늘끝이 손등우에 내밀렸을 때에야 그는 전우들에게 바늘을 뽑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전우들이 달라붙어 동집게로 뽑아냈습니다.

부러진 바늘토막을 살속에 두고도 아픔을 남모르게 참으면서 보름 동안이나 전우들에게 밥을 지어준 여인,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항일전쟁의 불길속을 헤쳐온 여투사들의 초상입니다.

이런 여투사들에게 간첩이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밀영책임자인 엄광호는 몇 해 동안 정치사업을 한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 아무 건덕지도 없는 여대원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간첩으로까지 몰아댈 수 있는가. 그래 그는 자기가 포승으로 묶어 귀틀집에 가두어넣은 여대원들이 혁명앞에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한 애국자들이란 것을 모른단 말인가. 엄광호의 증언대로 그들이 만일 간첩이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송승필

이동걸의 서면보고만 보고서는 진상을 알아낼 도리가 없었고 뭐가 뭔지 통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로 김평을 불러 사태의 진상을 조사할 것과 간첩단을 적발해냈다는 밀영책임자 엄광호와 정치책임자 이동걸, 그리고 구속된 여대원전부를 사령부로 소환해올 데 대한 과업을 주어 사건현장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김평이 돌아온 다음 나는 사건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청봉밀영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상상이외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청봉밀영은 엄광호가 책임지고 있는 밀영이였습니다. 우리가 엄광호를 후방밀영책임자로 보낸 것은 그의 병집을 고쳐주기 위해 취한 하나의 동지적 배려였습니다. 그는 사상상에서나 작풍상에서나 병이 단단히 든 사람이였습니다.

엄광호는 우리가 도저히 눈을 감아줄 수 없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악습이였는가? 종파적 습성이였습니다. 종파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체하면서 남을 깔보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남을 깔보다나니 자꾸 동지들을 깎아내리게 되고 동지들이 하는 일을 시비하게 됩니다. 종파적 습성에 물젖은 사람들한테는 예외없이 출세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기회가 차례지지 않게 되면 남을 등에 업거나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나 벼슬자리를 따내려고 애씁니다. 종파분자들이 야심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엄광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엄광호는 혁명대오에 들어서던 첫 시기부터 야심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길지방에서 5.30폭동바람을 타고 혁명운동에 뛰어든 그는 한때 독립1사에서 중대정치지도원을 한 일도 있었으나 처음부터 인망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전우들을 까닭없이 헐뜯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자기라고 하면서 혁명동지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는 인간을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엄광호는 반민생단투쟁까지도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아댔습니다. 민생단원들을 고발하고 단죄하는 모임들에서는 그의 초당적인 목소리가 제일 높이 울리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조직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동지들을 고의적으로 버리었지만 조직은 그를 관대히 용서해주고 그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안산일대에서 새 사단을 편성할 때 엄광호는 나를 찾아와 일을 성실하게 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자기 과오를 깨끗이 고쳐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그 믿음을 저버리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앞에서 쩍하면 호령질을 하였고 중대장의 사업을 잘 도와줄 대신 그 꼭대기에 앉아서 훈계질만 하였습니다. 투쟁연한이 길다고 선배연하면서도 힘든 일에는 어깨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전투장에서는 일선에 서지 않고 늘 총알이 미치지 않는 구석쪽에서 어물어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중의 거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정치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엄광호를 정치일군의 자리에서 떼고 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후방밀영에 가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청봉으로 보낼 때 부상자들의 치료와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고 후방일군들과 함께 농사를 잘 지어 부대의 식량예비를 마련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우리가 맡긴 일을 태공하였습니다. 그는 예비병실을 지으라고 한 사령부의 지시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도구치기에서 우리와 헤어져 청봉밀영에 간 부상병들과 재봉대원들은 숙소의 부족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었습니다. 그들은 엄동설한에 천막을 치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밀영에는 약품이나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속에서 단련된 유격대원들은 자그마한 불평이나 조건타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곤란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밀영의 생활일과를 엄격히 지켜나갔습니다. 학습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루속의 송곳은 못감춘다고 이 학습과정에 엄광호의 유해로운 사고방식과 패배주의자로서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밀영에서는 남패자회의방침과 관련된 학습토론을 하였습니다. 엄광호는 그때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어떤 혁명에나 고조기가 있고 저조기가 있기 마련이다, 고조기에는 고조기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저조기에는 저조기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정세의 변화를 보고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저조기의 징조가 보이면 저조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혁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저조기에 있다, 보라, 열하원정도 실패하고 혜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혁명조직들도 죄다 망가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래 저조기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형편에서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세와 정면대결은 피하고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때까지 퇴각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엄광호는 밀영안의 모든 성원들에게 이런 주장을 내리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열하원정과 혜산사건의 여파로 해서 혁명이 몹시 위축되어있던 때인 것만큼 얼핏 들으면 그것은 사리에 맞는 주장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밀영에 가있던 여대원들은 엄광호의 목소리가 사령부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밀영에 가있던 여대원들은 즉석에서 엄광호의 주장을 논박하였습니다. 객관적 정세가 혁명투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혁명가들은 정세가 불리하면 할수록 그에 반작용을 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이것은 사령관동지의 뜻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정세가 유리할 때에도 투쟁을 해왔고 정세가 불리할 때에도 투쟁을 계속해왔다,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정세가 불리할 때에는 숨어서 지내고 정세가 유리할 때에만 활동했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상비적인 무장대오

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총검의 숲을 뚫고 국내에 나가서 보천보를 치는 것과 같은 대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맑스-레닌주의가 공산주의학설인 것만큼 혁명활동과 실천에서 그것을 지침으로 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도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지 덮어놓고 적용해서는 안된다, 동무는 ≪일보전진 이보퇴각≫의 내용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조선혁명이 중중첩첩한 난관속에서 발전해왔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동무는 지금과 같은 정세하에서는 퇴각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퇴각할 후방이나 있는가, 우리가 퇴각하면 혁명의 고조기는 누가 마련해주는가, 남패자회의에서 사령관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난관을 맞받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노선이나 작전적 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상론자였습니다.

여대원들한테서 이런 반격을 당하게 되자 엄광호는 맑스와 레닌의 명제들을 이것저것 섬겨대면서 어떻게 하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말에서는 구린내가 더 났습니다. 야심가, 기회주의자로서의 엄광호의 정체는 논쟁과정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대원들은 그가 여름내 밀영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위한 치료준비와 겨울나이준비도 하지 않고 건달만 부린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광호에게 배신자나 투항주의자라는 정치적 감투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학습과정에 진행된 논쟁인 것만큼 엄광호가 자기의 이론적 착오를 인정하고 동지들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였다면 논쟁은 그것으로 무난히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토론을 통해 발로되는 이러저러한 사상적 착오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수준과 준비정도가 각이한 것만큼 사물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사람이 처음부터 다 같이 사상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미숙성은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해 극복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원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원리에 어긋나는 모호한 소리가 나와도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논쟁의 방법으로 끝까지 깨우쳐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여대원들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상개조를 위해 힘쓸 대신 투항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에 분칠을 하려고 애쓰면서 논쟁상대들에 대한 보복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엄광호의 진면모는 여대원들을 박해하는 과정에 드러날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대원들을 박해하면서 저지른 망동은 간도에서 반민생단투쟁을 벌일 때 숙반공작위원회에 망라되였던 사람들이 한 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동기와 목적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비열하고 음험했습니다.

엄광호가 여대원들을 박해한 목적은 자기의 죄상을 가리우자는데 있었습니다. 엄광호는 여대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기 위해 죄를 날조해서 그들에게 억지로 뒤집어씌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는 여대원들이 죄인으로 되어야 자기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사령부에 보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입니까.

청봉밀영에는 어린 신입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린 대원이 엄광호

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일이 있었습니다. 엄광호는 대뜸 도주자가 생겼다고 떠들어대면서 수색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수색조성원들은 밀영근처에서 모닥불에 감자를 구워먹고 있는 신입대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밀영에 돌아가자 엄광호에게 신입대원이 잠시 대오에서 이탈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 시장기를 이겨내지 못해 감자를 구워먹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어린 대원은 배고픈 것과의 싸움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영을 깜짝 놀래울 수 있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던 엄광호는 그 신입대원을 끝끝내 도주자로 낙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대원이 감자를 굽느라고 불을 피운 것도 적들에게 신호를 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들이대면서 그에게 간첩의 딱지까지 붙이었습니다. 신입대원이 그렇지 않다고 거듭 항변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광호는 그 대원에게 적들에게서 받은 지령은 무엇이고 그 지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내에서 흡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대라고 강요하면서 고문까지 했습니다.

어제날까지 한 가마밥을 먹으며 지내던 자기 부하에게 표창은 주지 못할망정 도주자니, 간첩이니 하는 감투를 씌우고 모진 고문까지 들이댔으니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엄광호가 간첩이라고 선언한 그 신입대원으로 말하면 수양은 좀 어리지만 계급의식이 투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열에서 도주할 근거도 없었고 간첩으로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광호는 그가 여대원들을 암해공작에 끌어들이고 밀영안에 있는 혁명동지들을 독약으로 해치려 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백을 근거로 여대원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람과의 사업을 해오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부르짖던 엄광호가 어떻게 되어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는지 나는 그 까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날 그의 죄행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가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광호는 후방밀영에 가게 되자 그것을 강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를 정치일군의 자리에서 해임시킨 사령부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다나니 후방일군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건달을 부렸습니다. 여대원들과의 논쟁이 있은 다음부터는 패배주의자로서의 자기의 깨끗치 못한 본색을 감추기 위해 초혁명적인 요구를 연방 제기하였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실로 비상소집을 자주 해서 병약자들을 들볶는가 하면 식량절약을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하루 두끼씩 하던 식사를 한끼로 줄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정 굶기였습니다.

청봉밀영에 하루 한 끼씩 먹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식량의 예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쌀은 없었지만 움속에는 적지 않은 양의 감자가 있었습니다. 밀영에서 얼마쯤 떨어진 덕지대의 숲속에는 꽤 널직한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자농사도 하고 배추농사도 했습니다. 엄광호가 임무를 잘 수행했더라면 온 부대가 청봉에서 겨울을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광호는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단정한 그 순간부터 혁명에 염증을 느끼었고 국내외의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혁명의 전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적 병집이 결국은 학습토론과정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엄광호가 이처럼 위험한 전횡을 부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밀영의 정치책임자인 이동걸이었습니다. 7연대 정치위원인 그는 직급으로 볼 때 엄광호의 상급이었습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7도구치기에서 분

산행동으로 넘어갈 때 밀영의 정치사업을 맡아할 데 대한 과업을 주어 청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동걸은 엄가의 아첨과 권모술수에 녹아서 사태의 진상과 본질을 가려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통신원을 청봉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엄광호의 모략이 실현되어 여대원들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는 과정에 나는 엄광호가 이종락이보다 더 저열하고 악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종락의 범행은 적들에게 체포되어 변절을 강요당한 후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엄광호는 혁명대열내부에 있으면서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되었고 그 부패변질을 가리우기 위해 동지들을 모함하고 학대하는 반동적인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동걸

민생단소동으로 간도의 유격구들이 진통을 겪던 1930년대 전반기를 제외하고 우리 대열내부에는 고문이나 형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열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오나 부족점은 해설과 설복, 비판의 방법으로 고쳐나갔습니다. 지휘관이 대원들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광호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대원들과의 관계를 누가 누구를 하는 불상용적인 적대관계에 놓고 그들을 모해하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원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규율을 좀 어긴 신입대원들을 도주자로, 간첩으로 낙인하고 여대원들이 쓰던 가루치약을 독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루치약의 임자들인 여대원들까지도 간첩이라고 몰아댔습니다.

엄광호는 **김정숙**과 도천리에서 몇 달 동안 지하공작도 같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숙**을 간첩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무뢰한이나 할 짓입니다. 그는 **김정숙**이 어떤 여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는 사람이 출세욕에 빠지면 조직도 동지도 의리도 모르는 악한이 될 수도 있으며 혁명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엄광호 자신도 고백했지만 그는 여대원들에 대한 모략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할 궁리까지 했습니다.

엄광호의 실례를 통해서도 느낀 바이지만 혁명에서는 초당분자, 과격파, 독선적인 인간, 양봉음위하는 자, 앞에서는 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끌어당기는 자, 기분주의자, 불평분자, 공명출세주의자들이 늘 말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엄광호사건은 또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상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이 약해지고 불평분자, 의지박약자가 되어 어지간한 난관앞에서도 주저앉게 되며 나중에는 패배주의자가 되어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엄광호가 조작해낸 간첩단사건은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도덕의리적 단합을 크게 해칠 뻔한 비상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광호에 대한 문제를 사령부 당위원회에서 심중히 검토한 다음 북대정자에서 열린 지휘관, 병사대회에 내놓고 군중심판에 붙이었습니다.

청봉밀영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모든 관병들은 최악의 역경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우리의 노선을 고수한 여대원들을 일치하게 지지하였

습니다. 그와 반대로 엄광호와 사태의 본질을 높은 정치적 안목에서 정확히 해부해 보지 못하고 그 범죄를 묵인한 이동걸에 대해서는 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엄광호는 처음에 자기의 죄과를 변명하느라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군중의 규탄을 받고서야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동걸은 처음부터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며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중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이었으며 자신을 심각하게 뉘우치었습니다.

이동걸은 속대가 단단하면서도 인정미가 있고 구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사업과 지하공작분야에서는 한다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우리가 남패자회의에서 오중흡을 7연대장으로 임명할 때 그를 같은 연대의 정치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자질과 풍부한 정치사업경험을 귀중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급지휘관한테 농락당하는 과오를 범한 것은 밀영에 가있는 동안 엄광호의 방에 숙소를 정하고 있으면서 그의 아부아첨에 녹은 데다가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물론 몸에 중상을 당한 사람인 것만큼 대원들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면 병실에 대원들을 불러서라도 자주 만나야 하였습니다.

밀영에서 간첩단사건이 발생했다고 엄광호가 수선을 떨 때 그가 대원 한 명만 만나도 진상을 인차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걸은 엄광호의 보고를 들은 다음 한 명의 대원도 만나지 않고 그가 마음대로 전횡을 부릴 수 있게 내버려두



신파혁명사적지1-도천리합숙

었습니다. 엄광호가 신입대원을 심문하겠다고 하면 심문하라고 하고 여대원들을 가두겠다고 하면 잡아가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동걸은 엄광호의 말만 듣고 대원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나니 엄광호와 같은 야심가의 농간앞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정치일군으로서의 이동걸의 죄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관병들은 엄광호를 보는 것과 꼭같은 시각으로 이동걸을 보았습니다. 정치일군이 군중과의 호흡을 잘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다루는 일군들은 군중과의 호흡을 한시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이란 인민이 삽을 들 때 자기도 삽을 들고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 자기도 조밥을 먹으며 모든 것을 인민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과의 호흡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의 감정과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며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박해하며 그 비판의 도수에 따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희롱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어떤 일군들은 자기에게 알랑거리는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망탕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군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제멋대로 다루게 되면 인민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게 됩니다.

우리 당은 인덕정치를 하는 당이며 우리 나라는 인덕정치의 혜택아래 만민이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덕정치는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 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까지도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할 사명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곧 조직이고 당이며 매개 사람들은 그 집단속에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됩니다. 수백만 대중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생명이 그대로 조직의 생명으로 되고 당의 생명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함부로 칼질을 하거나 먹칠을 하는 것은 곧 당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당이 자기의 최고강령을 실현할 때까지 장수하려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잘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아닌 청봉의 교훈입니다. 동무들은 언제든지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오는 엄중했지만 이동걸은 용서할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과오를 범한 것은 정치책임자라는 자각을 버리고 엄광호한테 기만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동이 아니라 피동에서 엄광호에게 동조하고 그의 모략을 묵인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이동걸을 강직시키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엄한 처벌을 면한 이동걸은 나를 찾아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좀더 무거운 책벌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저의 과오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전우들은 나를 용서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날처럼 동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이동걸은 그 후 사령부가 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8.15해방 전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동걸은 이동걸이라는 본명과 함께 김준이라는 이름도 썼습니다.

3. 소금사건

1949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내각소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소금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판매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체험한 데 의하면 소금이 떨어졌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쌀은 떨구는 일이 있어도 소금만은 떨구지 않기 위하여 애썼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예비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소금을 자유판매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소금을 자유로 팔고사는 조치를 취하신 수령님께서는 일군들 앞에서 고난의 행군 때 소금고생하던 일을 회상하시었다. 세칭 소금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연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신 회고의 말씀을 종합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소금사건은 1939년 봄 고난의 행군의 마지막 시기에 있은 일입니다. 그 소금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손발이 붓고 맥이 없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초식을 하는 짐승들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산속의 웅뎅이에 고여있는 염기있는 찝찔한 물이 있는 부근에 낙각이 많은 것은 사슴들이 염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격대의 생활에 4대필수품곤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식량곤란, 신발곤란, 성냥곤란, 소금곤란이였습니다. 그 네 가지 곤란가운데서 제일 참기 어려웠던 곤란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의 항일투사들이 소금곤란이였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워낙 북간도나 서간도 지방은 소금이 바른데다가 관청이 통제를 심하게 하다나니 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은 만주지방에서도 관청의 전매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주민지구의 소금이 인민혁명군의 수중에 넘어가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였습니다.

장사군들이 조선에서 소금을 밀수해다가 주민지구를 돌아다니며 더러 밀매를 하였지만 크게 보탬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간도오지에서는 소금대용으로 나무재를 우려먹는 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만에 있을 때 한세대의 식구가 돌소금 한 알을 가지고 한 끼를 굼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청에서 활동할 때 한번은 최

춘국이네 중대에 내려가 고현숙에게 작식대에서 제일 큰 애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니 첫 순서로 꼽는 것이 소금이였습니다. 고현숙은 오백룡이네 이웃에 살다가 적들의 토벌에 숱한 식구를 잃고 원쑤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한 여자입니다. 그는 입대하자 작식대원으로 임명되였는데 내가 중대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찬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못내 송구해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가 소금을 치지 못한 찬을 밥상우에 내놓은 것이 면구스러워 내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부뚜막앞에 서서 어쩔 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고현숙의 말이 자기네도 온 집안식구가 돌소금 한 알로 한 끼를 굶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돌소금 한 알은 보통 당콩알만치나 컸습니다.

2차 북만원정때 소금사정이 얼마나 곤란했던지 어떤 중대에서는 대원들이 저마끔 혁띠에 소금을 넣은 자그마한 비상주머니를 차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머니라야 손가락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도장주머니만한 것이였습니다. 비상주머니의 소금은 그 어디서도 염분을 섭취할 수 없는 막다른 경우에만 소비하였습니다. 소금고생을 해보지 못한 동무들에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옛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빨치산시기에 소금공작을 하느라고 적구에 내려갔다가 희생된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였습니다. 지하조직원들도 소금공작을 하는 과정에 많이 희생되였습니다. 소금을 구해들이는 기본통로는 지하조직선이였습니다. 지하혁명조직들에 돈을 주면 그 조직들이 군중을 발동하여 소금을 사다 놓았습니다. 물론 부대에 들어오는 소금중에는 인민들이 스스로 사보낸 것도 있였습니다.


고현숙

적들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금을 구해들이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소금부족 때문에 얼마나 큰 곤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도 손금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들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인민혁명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무서운 작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적들은 소금을 가지고 모략을 잘 꾸미면 총 한방 쏘지 않고서도 혁명군을 몽땅 사로잡거나 전멸시킬 수 있다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순수한 군사정치적 대결만으로써는 우리 인민혁명군을 타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순공작도 벌려보고 집단부락정책이나 초토화작전도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민생단을 조작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는 민족이간전술로 우리의 혁명역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심지어 **김일성**사살설까지 퍼뜨려 우리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 저들한테 잘못된 것처럼 거짓보도를 날리고 이제는 **김일성**도 없어졌으니 독립투쟁도 끝장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선전을 하면서 조선민족의 반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만주의 적지 않은 출판물들은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잘못되였다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엮은 현지보도 형식의 글까지 뻐젓이 냈습니다.

1937년 11월에 경성일보는 만군토벌대가 무려 5시간의 격전끝에 우리를 사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쓰고 부자가 2대에 걸쳐 항일반만운동을 계속하던 **김일성**도 토벌군에 의하여 궁지에 몰리우다가 드디어 36살을 일기로 파란많은 생애의 막을 닫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만군이 발간하던 잡지 ≪철심≫도 ≪**김일성**비 토벌상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어쨌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상보에 의하면 ≪내가 무송현 양목정자부근에서 위만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고전을 겪던 중 부하 8명과 함께 잘못되었는데 부락민들을 불러다 확인해보니 **김일성**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로 해서 위만군 제7연대 중대장이였던 이아무개란 자는 관동군사령관, 만주국치안부 대신으로부터 특별승급과 상장을 받고 1만원의 상금을 타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김일성**이 다시 나타나 일이 참으로 맹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과 중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하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였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군대를 노린 것이고 전망적으로는 동양제패를 방해하는 온갖 적대세력에 대한 생리적 소멸을 꾀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항일혁명의 불길을 끌 수 없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악에 받친 적들은 우물에도 독약을 치고 빵에도 독약을 치고 지어 소금이나 쌀에도 독약을 쳐서 들여보내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땅에 가자마자 적들의 농간질에 걸려들 뻔했습니다. 서간도에 나가서 첫 싸움을 대덕수에서 하고 연이어 소덕수전투까지 치른 다음 우리가 마순구라는 곳에서 추석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초장이 나한테로 뛰어와서 어떤 노인이 지금 보초소에 나타나 무작정 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나의 결론을 받으러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노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장백에서 구해들인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적들이 소금에 독약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독약이 들어있다는 소금을 짐승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에 독효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제때에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날 뻔하였습니다. 소금에 독약을 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멸살시켜보려는 적들의 시도는 우리가 소금곤란을 당할 때일수록 더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는 1939년 봄에도 소금이 떨어져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분산행동에로 넘어갔던 연대들이 한데 모여 사령부와 같이 움직이며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지어가던 때였습니다.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어서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는 식량도 해결되고 날씨도 푸근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다보니 다들 기분도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행군중에 있던 대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칠거렸습니다.

몇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숱한 사람들이 그러니 정말 야단이였습니다. 대원들은 모두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부증이 너무 심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맥을 못추는 원인을 소금에서 찾았습니다. 부증이 심한 원인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령부성원들은 그때 열흘쯤 소금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오중흡에게 소금을 언제까지 먹었는가고 물어보니 7연대도 사령부와 헤어진 다음부터는 거의나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금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행군을 결속짓고 다시금 국내에 들어가 적들을 답새길 궁리를 하고 있는 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니 정말 기가 막히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소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대가 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적구에 나가 소금을 구해올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였습니다. 경위중대를 인솔하고 있던 오백룡이 김봉록이라는 신입대원을 추천했습니다. 김봉록은 노획물자를 지고 따라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청년이었는데 유격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활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오중흡도 그를 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가 서강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그가 가게 되면 소금을 꼭 구해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김봉록

김봉록을 불러 소금을 구해올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니 해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맘 때면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내려가면 밀정들의 눈에 걸려들지 않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만 만나게 되면 소금은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봉록에게 임무를 주면서 협조자를 한 명 붙이였습니다. 김봉록은 그 대원을 데리고 소금공작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 몹시 기뻐하면서 네가 김장군의 부하가 되었다니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다, 그분한테 너를 맡겼으니 나는 마음이 푹 놓인다, 그런데 요즈음 왜놈들의 선전을 들어보면 **김**장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하였습니다. 김봉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방금 장군님의 군영에서 그분의 영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그분은 건재해 계십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봉록의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서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사실 우리는 그분이 어찌어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른다, **김**장군이 살아계신다니 이제는 됐다고 하면서 좋아서 어쩔줄 모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집으로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들은 노인은 펄쩍 놀라 소금 때문에 혁명군이 싸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는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소금을 구해서 **김**장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늙은이가 아들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나섰지만 소금을 구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두 근을 사면 몰라도 그 이상부터는 적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국관청이나 경찰기관들에서는 상점들에서 소금을 한 도량 이상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수시로 나타나 소금의 판매정형을 가만히 조사장악하였습니다. 장사치들가운데는 주민들의 물자구매정형을 적들에게 정상적으로 통보해주는 끄나불들도 있었습니다.

김봉록의 아버지는 혼자서도 소금을 얼마간 구할 수 있었지만 행군에 참가하고 있는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한두 근이라도 더 사보내려고 평시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노인한테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정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늙은이는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만 친분이 두터운 다른 노인에게 **김일성**장군이 산에서 소금을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한몫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유격대를 돕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재간껏 소금을 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인

도 소금구입에 나섰는데 바로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그 세 번째 노인이 협화회원인 자기 아들이 밀정인줄을 모르고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선무반이요, 귀순공작대요 하는 것들을 무어가지고 귀순놀음을 벌였습니다. 그런 놀음에서는 협화회놈들도 한몫 하였습니다.

적들의 밀정노릇을 하고 있던 아들놈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은 사실을 곧바로 상급에 들고가서 고자질하였습니다.

우리가 늙은이들을 통하여 많은 량의 소금을 사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관동군특무기관에서는 경찰기관들에 명령을 떨구어 서강일대의 상점들에 있는 소금을 몽땅 사들이게 하고 그 대신 장춘에서 비행기로 급송한 소금을 상점들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적들이 비행기로 실어보낸 그 소금은 독약을 뿌린 독소금이였습니다. 그 독소금을 먹으면 인차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 머리가 아프고 다리맥이 없어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봉록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소금을 사러 다니는 영감들이 이런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의 계책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활하게 꾸며졌는지 도가집강아지처럼 눈치가 빠르다는 장사군들도 그 낌새를 전혀 냄새맡지 못하였습니다.



경위대원들과 함께

두 영감은 소금을 사가지고 김봉록과 함께 유격대의 숙영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대에 찾아온 것이 아마 낮 1시나 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금을 부대들에 나누어주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정숙**동무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늘 식초를 가지고 다니였습니다. 사령부의 작식공작은 그가 맡아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몫으로 받아온 소금에 식초를 쳐보고 독약을 친 소금같다고 하였습니다. 식초를 쳐보면 독약을 친 음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인차 알 수 있습니다. 식초는 독약에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령부성원들과 경위중대대원들은 독소금을 먹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령관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도덕으로, 규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내가 회의를 끝내고 천막으로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회의를 하다가 노인들이 지고 온 소금이 독소금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휴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등불에 소금을 넣어보았더니 과연 퍼런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퍼런 불이 납니다.

나는 군수관에게 부대들에 나누어주었던 소금을 모조리 회수해들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소금을 회수하라는 사령부의 지령이 떨어지자 동무들은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대원들이 벌써 소금을 조금씩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대들에서는 소금회수명령을 받고서도 소금에 무슨 독약을 쳤겠는가고 하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어 어떤 대원들은 소금을 자그마한 주머니에 넣어 감추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문제로 된 것은 이미 독소금을 먹고 기습전을 떠난 7연대와 8연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적을 들이치고 식량을 해결한 다음 곰의골밀영 방향으로 가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7연대와 8연대 동무들에게 전투임무를 주어 내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독약을 먹인 적들이 달려들 것이 뻔한데 기본전투부대들을 전투에 내보냈으니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빨리 불러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전령병들을 띄우려고 하는데 출전했던 전투원들이 헐떡거리면서 맥없이들 돌아왔습니다. 오중흡동무가 그렇게 맥없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너무 다리맥이 없어서 숙영지까지 채 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분명 놈들은 우리가 소금을 먹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에 달려들어 일격에 괴멸시키든가 몽땅 사로잡으려고 꾀했던 것 같습니다. 교활한 적들은 소금짐이 몇 시쯤이면 우리 부대에 당도하고 우리가 몇 시쯤이면 그 소금으로 음식을 지어먹으며 또 몇 시쯤 지나면 우리의 전체 성원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쓰러져 있게 되겠는가를 타산했을 것입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사령부성원들을 제외한 전부대가 독약에 마비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대가 전멸당하고 마는가 아니면 천행으로 살아나 반일항전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정황이였습니다.

나는 1937년 봄에 소탕하에서 우리가 수천 명 적들의 포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체험했던 당혹감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탕하에서는 우리가 수천 명이나 되는 대군의 포위속에 들어있었지만 전투원들

이 싸울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경우에는 적을 치면서 돌파하자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독소금에 중독된 부대를 가지고 적과 맞다들게 됐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조성된 사태를 놓고 심중히 논의하였습니다. 격분한 일부 동무들은 소금을 사다준 늙은이들을 당장 처단하자고 하였습니다. 적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놈들의 개가 아니고서야 감히 독약을 친 소금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판단이였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적과 내통했고 그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서강마을에 내려갔던 유격대원들에게 넘겨주고말지 왜 굳이 우리들한테까지 지고 들어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제 자식을 죽이려고 독소금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늙은이를 처단하자고 하는 동무들을 호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잘 싸우게 하자고 생사를 결단하고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온 늙은이들을 따뜻이 대하지는 못할망정 처단하자니 그게 무슨 망령된 소리인가, 동무들은 독약을 먹은 나머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 늙은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적들의 간계에 빠져들었다, 내 짐작으로는 독약의 효과가 절정에 이른 때에 반드시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투준비를 갖추고 시급히 제독대책을 취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날이 밝으면 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으니 오늘이야말로 결사전을 벌려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연대동무들은 모두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리 맥이 없더라도 적들이 달려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모두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여서라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또 놈들의 지상부대가 포사격을 하면서 포위해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연대동무들을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령부호위성원들과 기관총소대동무들에게는 전투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가 예견한대로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이틀동안이나 가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기본전투연대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데려다 눕혀놓고 얼마 안되는 기관총소대동무들과 사령부호위병들이 달려드는 적들을 답새겨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령부성원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적들이 심신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약을 쓴 것을 보면 우리를 전원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사로잡게 되면 세상에 대고 만주땅에서의 공비토벌전은 종결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김일성**부대만 괴멸하면 유격대 토벌전은 끝난다고 적들이 떠들 때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물리친 다음 연대들을 피신시킨 수림속에 들어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녹두도 달여먹이고 호박도 삶아먹이면서 한 주일가량 치료전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소금사건 때 내가 정말 진땀을 뽑았습니다. 소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제일 혼이 난 것은 김봉록이였습니다. 자기네 부자가 가져온 소금이 독소금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김봉록과 그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어쩔 바를 몰라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소금짐을 지고 왔던 두 노인에게 우리는 노인들을 조금도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성심성의로 도와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어 안심시킨 다음 서간도의 물정에 밝은 김일에게 과업을 주어 그들을 데려가되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안전한 고장에 모셔다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모략작전이 실패한데다가 도리어 숱한 죽음을 당한 적들이 악에 받쳐서 실패의 책임을 죄없는 노인들에게 들씌워 무슨 행패질을 할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격대원인 아들과 내통하여 숱한 소금을 유격대에 빼돌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놈들은 김봉록의 아버지와 이웃집노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김일은 내가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노인에게 먼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준 다음 가족들도 그리로 몰래 빼돌리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지고 왔던 소금에 독약이 들어가게 된 내막도 탐지해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아들놈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김일

지난 전쟁시기 보건부문에 침투한 적의 고용간첩들은 음식물속에 독성물질을 넣어 환자들의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살인행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일군들 호상 간에 불신과 불화를 조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해독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세균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혁명은 혁명을 공격하는데서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동방것들이든 서방것들이든 다 인간도살의 능수들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기교와 능력을 부단히 연마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몇백 명의 혁명가나 몇만 명의 혁명군대를 소멸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사회주의나라 전체를 일시에 붕괴시켜버리기 위한 엄청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항일혁명때 산에서 소금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나는 해방 후 북부국경지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소금사정부터 물어보군 하였습니다. 한번은 후창에서 군소비조합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일군을 만나서 군내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가운데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니 소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1947년 여름에 집무실에서 금강산에 가서 야영생활을 하고 돌아온 창성지방소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도 창성사람들이 소금고생을 몹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산간벽지의 인민들에게 소금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양강도지방은 북간도나 서간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와 떨어져 있는 내륙산간지대인만큼 소금이 바를 수 있습니다. 전쟁 때 고산진에 가보니 자강도에도 소금이 아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후퇴시기의 어려운 정황이었지만 고산진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소금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일군들은 내륙지대 인민들이 소금이 떨어져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잘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사슴목장에서는 사슴들에게도 소금을 정상적으로 먹여주어야 합니다.

4. 대홍단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대홍단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히시는 김정숙동지

1939년 5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오시여 백두고원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리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그때 조국땅에 들어와 첫 밤을 지낸 곳이 오늘날의 삼지연군 이명수노동자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청봉의 수림속이다. 그 숙영지자리는 거의 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연이어 무산, 연사 사적지가 발견되었다.

아래에 수록하는 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 기회에 무산지구전투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을 종합한 것이다.

남패자에서부터 논의된 조국진출문제는 북대정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한시바삐 조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했습니다. 조국에 나가서 보천보전투나 간삼봉전투를 능가하는 큰 규모의 전투를 벌려 세상을 한번 요란하게 들었다놓고 싶어했습니다. 힘이 강성할 때이고 또 100여 일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무쇠처럼 단련된 때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해 봄에 압록강연안에서 수많은 성시들과 부락들을 연이어 답새겼습니다.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조국으로 왜 진출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조국진군이었습니다. 우리는 북만에서 활동하건 동만에서 활동하건 크고 작은 군사작전을 무수히 벌이면서도 그 총적인 지향점은 항상 조국진출과 조국해방이라는 목표에 두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조국진출에서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937년 6월이 조국진군의 적기였다면 1939년 5월도 역시 적기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시의 정세로 보든지 우리 자신의 지향이나 국내인민들의 염원으로 보든지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군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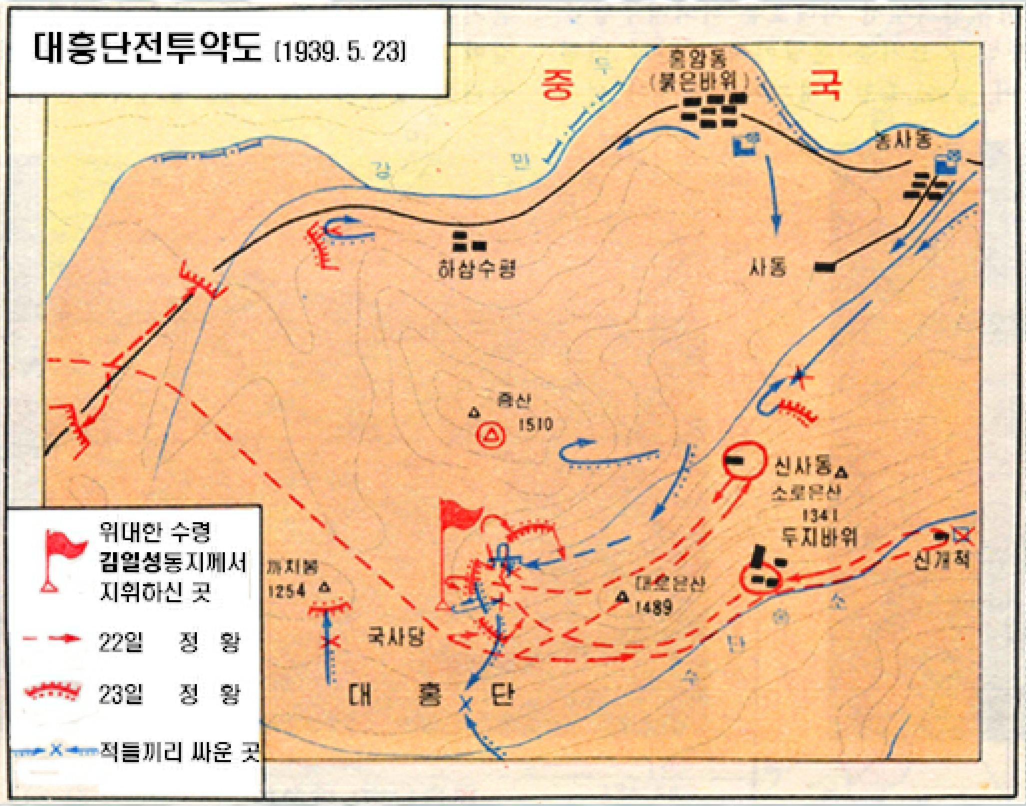
우리는 그 당시 내외의 정세를 깊이 분석해본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다시금 국내깊이에로 확대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39년 5월이면 지구의 동쪽에서는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이고 서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준비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일제는 장기전에 빠진 중일전쟁을 시급히 결속하고 대쏘공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남방으로 진출할 전략을 짜면서 공고한 후방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파쑈적 폭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혜산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서간도지방의 혁명조직들과 함께 북부조선일대의 일부 혁명조직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조직들도 적지 않지만 핵심적인 조직들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피해를 면한 혁명조직들도 위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적들은 혜산사건 후 조선인민혁명군이 망했다는 선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괴멸과 저들의 무훈을 축하하는 경축대회놀음까지 벌이었습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한 거짓선전에 속아넘어간 일부 지방의 혁명조직성원들은 **김일성**



장군이 잘못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혁명은 다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가망도 없는 혁명을 해서는 뭘하겠는가고 하면서 유격대공작원들이 있는 밀영에 찾아와 내가 잘못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항일혁명을 앙양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 들어가서 적들을 쳐갈기고 내외에 자기 존재를 시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공작원들이 국내에 침투해서 혁명군은 죽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도 건재하고 혁명도 전진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그런 선전이 잘 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진군을 하게 된 다른 하나의 주되는 목적은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그것을 확대하자는데도 있었고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더 잘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자는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의 혁명조직들이 대오를 제일 크게 늘인 것은 보천보전투 직후와 간삼봉전투 직후입니다. 총소리가 한번씩 울리면 사람들이 각성되게 되고 각성된 인민들이 혁명조직의 품으로 흘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남호두회의 후 서간도에 나와서 싸움을 하지 않고 올방자를 틀고 앉아 인민들이 섬기는 밥만 축내면서 껄렁껄렁 지냈더라면 장백지방에서 혁명조직들이 그처럼 빨리 그리고 그처럼 많이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간도지방에서 혁명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게 된 주요한 요인은 우리가 사상사업을 잘한 데도 있지만 싸움을 많이 해서 혁명군의 본때를 보여주고 항일혁명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준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내진출의 후보지로 무산지구를 선정했을 때 일부 지휘관들은 좀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후 적들이 이 지대에 가장 악질적인 수비무력을 몇 배로 증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대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노릇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로 진출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요정내게 되면 북부조선의 여느 지구로 진출하는 것보다 효과를 몇 배로 크게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무산지구에는 철광노동자들과 수전공사노동자들, 벌목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대에서 총소리를 내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그 소식이 그들을 통하여 전국각지에 급속히 퍼질 수 있었습니다.

몇 방의 총소리로 무산의 노동계급을 각성시키고 함경북도의 노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며 온 나라 인민들을 항일혁명에로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청봉숙영지 사령부자리

1939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5호물동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오송은 내가 업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강을 건느면서 이게 무슨 강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원들한테는 국경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압록강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강물속에 내려놔달라고 졸랐습니다. 조국의 강물에 몸을 적시고 싶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물동가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

들은 조국의 진달래를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펼쳐진 풍경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대원들이 진달래무더기앞에 웅크리고 앉아 꽃구경을 하면서 울고웃으며 감격해 하던 광경이였습니다. 어떤 여대원들은 두팔을 크게 벌려 진달래를 무더기채로 안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리더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진달래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외적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한 부분, 하나의 살점과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진달래는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그저 웃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치산대원들이 진달래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진달래도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애국심이란 참으로 강렬한 감정입니다. 진달래한테야 무슨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진달래라고 하여 오늘의 진달래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국의 설움을 안고 있던 우린 눈에는 진달래마저 그 망국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눈물로써 외적에게 강탈당한 땅에서 피고 지는 서러운 신세를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조국의 진달래라고 불렀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낙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나날들이 회상되어 시라도 읊고 싶은 충동을 받군 합니다. 조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 진달래,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우리가 청봉에 도착하자 안개가 걷히고 해가 났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등불을 피우고 이슬에 젖은 행건을 말리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적정과 지형을 알아보려고 청봉마루에 올라갔더니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이 보이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휘관들에게 적들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행동에서 은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부대들의 숙영장소도 정해주고 보초도 세우고 정찰도 파견하였습니다.

부대가 숙영준비를 다 끝낸 다음 우리 동무들이 나무껍질을 벗기고 구호들을 썼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대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구호들을 썼는데 그때 구호를 쓴 동무들 중에 구원애라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구원애는 한때 흥륭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학습도 잘하였고 글씨도 잘 썼습니다. 입대전에 중학교교사노릇을 하던 연안길도 글씨를 잘 썼습니다. **김정숙**동무가 쓴 것도 여럿이 됩니다.

아까운 동무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함께 글이 살아있으니 그들도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아주 귀중한 재보를 찾아냈습니다.

청봉에 있는 구호나무들에는 우리와 함께 싸운 투사들의 숨결이 배어있습니다. 구호나무들을 보니 산 투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무에 쓴 구호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귀중한 혁명적인 문헌입니다. 그 구호들에는 투사들의 피가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만년재보입니다.



청봉숙영지에 남긴 구호나무
(김정숙동지의 필적)

우리는 청봉에서 하루밤 숙영하고 다음날 건창으로 자리를 옮기였습니다.

우리가 건창에서 숙영할 때 적들은 낚시군으로 가장한 밀정 두 명을 숙영지로 들여보냈습니다. 건창일대에는 낚시질을 할만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낚시군으로 가장한 밀정들은 대낮에 우리 숙영지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들었습니다. 거동이 하도 수상하기에 보초병은 그들을 붙잡아 문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놈은 놓치고 한 놈만 붙잡았습니다. 잡힌 놈의 몸에서는 권총까지 나왔습니다.



갑무경비도로

밀정이 실토한 데 의하면 적들은 벌써 우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숱한 수비대와 경찰대들을 투입하여 밀림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예측한대로 적들의 역량이 이 일대에 쏠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에서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였습니다.

나는 있을 수 있는 적의 준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행동방향을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두 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여 한 소부대는 포태리방향에 나가 적을 타격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놈들을 혼란시키며 다른 소부대 는 우리가 다시 압록강을 건너 장백쪽으로 빠진 것처럼 발자국을 내고 자취를 감추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새벽에 건창을 떠나 베개봉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끼였던지 지척을 가려볼 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척후부대는 향방을 잡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척후부대에 나가 군용지도와 지남침을 가지고 행군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행군이 여간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다. 적수색대가 불의에 나타나서 우리와 조우전을 벌이게 되면 야단이였습니다. 수색대가 나타나도 해제끼는 것은 문제없겠지만 일단 총소리를 내게 되면 차후 행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청봉헌시비 ≪불멸의 청봉숙영지여!≫

베개봉에 도착한 다음 숙영지시를 내리고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찰조들을 파견하였더니 그들이 베개봉 동쪽의 원시림속에서 기막히게 멋있는 신설도로를 발견했다는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신설도로는 우리가 이미 정보를 쥐고 있은 갑무경비도로였습니다. 갑무경비도로는 갑산과 무산의 무인지경을 연결하는 비상경비도로였습니다. 이 도로의 사명은 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기동수단을 동원하여 필요한 지점까지 토벌역량을 급송급파하는데 있었습니다. 공사가 갓 끝났기 때문에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잡인들의 통행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찰조성원들은 도처에 통행금지 패말이 박혀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도처에 그런 통행금지구역이나 출입금지구역을 만들어놓고 조선사람들의 내왕을 엄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왜정시대의 평양시 중심부에는 일본사람들만 사는 거리들이 따로 있었는데 일본의 경관들

이나 장사아치들은 그 거리들에 조선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눈부터 흘기군 하였습니다. 일본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조선아이들이 문전에도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못한 조선아이들이 일본학교 마당에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대뜸 귀뺨을 얻어맞던가 거지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아이들은 조선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나 조선사람들이 사는 주민 지구에 마음대로 나타나하고 싶은 짓을 다했습니다. 한번은 평양성안에서 살던 일본인 불량소년들이 창덕학교 근처에 있는 참외밭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칠골의 가난한 농사군이 여름내가꾸어온 참외를 결단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덕학교에 다니는 학우들과 함께 참외밭을 짓뭉개며 돌아가는 일본인 불량소년들을 되게 혼내주고 성안으로 쫓아버리였습니다.

적들은 국경연선에까지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조선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부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세를 시위하여 갑무경비도로를 건설한 적들에게 타격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들이 국경일대에 갑무경비도로까지 건설해놓고 삼엄한 경계망을 늘이고 있는 것을 보면 보천보와 간삼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군정간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처한 위급한 정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들의 포위속에서 행군을 하고 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적들이 쫙 깔려있다. 우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함남북 각지에서 국경수비대, 경찰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벌 무력을 끌어다가 대대적인 포위수색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망친 밀정이 우리를 보았으니 지금쯤 적들은 청봉을 수색하고 건창을 거쳐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산쪽으로 빨리 빠져나가서 우리가 북대정자에서 세운 작전계획을 실천에 옮겨야겠는데 전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완전포위의 그물에 걸려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단숨에 무산으로 진출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지휘관들은 승벽내기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장백쪽에 유인조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적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슬쩍 무산방향으로 빠지자고 하였고 어떤 동무들은 무산지구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다면 차라리 베개봉근방에서 간삼봉전투와 같은 큰 전투를 벌이는 것이 어떤가고도 하였습니다.



건창숙영지안내도

어느것이나 다 귀맛이 당기는 방안들이였으나 무산지구로 한 달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묘안은 아니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에 대한 토론까지 조직한 다음 내가 생각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

안이란 적들이 방금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린다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대로행군을 단행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지휘관들은 그 제안을 듣자 모두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보통달구지길이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토벌하는데 쓰자고 특별히 닦아놓은 도로로 대부대행군을 하자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이 내 방안을 미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대도로를 통한 백일행군방안이 전술적으로 타당하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내가 생각한 방안의 전술적 의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능히 대낮에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의 태도가 증명해주고 있다. 동무들은 내가 대낮에 대로행군을 하자고 하자 다들 아연해하였다.

적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자기들이 특설한 경비도로로 백주에 대오를 지어 행군해가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백일대로행군의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적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담하게 강행하는 여기에 이 행군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전술적 담보가 있다.

지휘관들은 모두 신심을 가지고 베개봉을 떠났습니다.

진달래가 어찌나 많이 피여있었던지 행군중에 있는 우리 대원들의 얼굴이 온통 새빨개보였습니다.

진달래는 삼지연연못가에도 많았습니다. 못가의 진달래와 물속의 진달래가 한데 어울려져 얼마나 수려한 절경을 이루었던지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초막을 짓고 살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백두고원과 같은 고산지대에 이처럼 희한한 명승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고산지대의 풍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닮아서 웅건장엄하면서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것이 바로 삼지연의 경치입니다. 고산지대의 미와 별방지대의 미가 한데 조화되였다고 할가, 삼지연과 같은 산천경개는 사실 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삼지연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을 강탈당했는가를 다시한번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나는 삼지연의 절경에 너무도 심취되어 일제를 내쫓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 듯이 경치 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이 이제는 훌륭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삼지연은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오는 혁명전적지로 되었을 뿐 아니라 고산지대의 특이한 풍치를 자랑하는 이름난 휴양지로 전변되었습니다.

1956년 **김정일**동무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끌고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볼 때만 해도 삼지연못가에는 진대나무들과 가랑잎무지들뿐이였고 사람의 손길이 닿





두지바위정치공작소와
신개척정치공작소

은 곳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못에는 헐어빠진 매생이 한 척과 전쟁전 이 고장 사람들이 호수의 풍치를 돋구느라고 지었다는 구식정각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쏘련과 동구라파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 **김정일**동무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답사과정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혁명선열들의 숨결이 그대로 어려있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잘 건설되지 못하고 소홀히 꾸려졌거나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사실과 지어는 혁명전적지들에 답사자들에게 안내해설을 해주는 강사조차 없는 실태를 두고 가슴아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치공작을 벌리신 집

1956년이면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바람이 방금 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체가 확고히 서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관련된 자료들과 유물들도 많이 발굴되지 못했고 혁명전적지도 잘 꾸려지지 못했으며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김정일**동무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뭇고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를 떠날 용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삼지연을 떠난 우리는 갑무경비도로로 해서 무산지구를 향해 최대 급행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술을 두고 일행천리라고 했습니다. 일행천리란 한 달음에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가 일행천리전술을 여러 번 썼습니다. 몇 번 써보았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퍼런 대낮에 경비도로라는 이름이 달린 신작로로 수백 명을 헤아리는 대부대가 일행천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갑무경비도로개통식은 우리가 해준 셈입니다. 우리는 곧추 뻗은 적들의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그날로 두만강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숙영하였습니다.

적들은 후날 우리가 자기들이 닦아놓은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증유의 괴사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갑무경비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이행군은 몇 개 연대나 사단의 적을 소멸한 것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하였습니다. 나는 무포숙영지에서 지휘관회의를 열고 행군과정을 총화한 다음 대홍단지구로 진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우선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아침 무포숙영지를 출발한 우리는 대홍단벌에 도착하자마자 국사당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획대로 부대를 두 개 방향으로 진출시켰습니다. 7연대는 두지바위를 거쳐 신개척방향으로 가게하고 나는 경위중대와 8연대를 데리고 소로은산기슭에 있는 신사동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신사동에서 정치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는 개울건너 둔덕진 곳에 사령부를 정한 다음 몇 명의 경위대원들과 전령병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제일 큰 목재소노동자합숙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무산지구에 불쑥 나타난 우리를 보게 된 인민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얼어죽었다더니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많은 군대가 어디에 있다가 무슨 수를 써서 무산땅에 나타났는가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합숙방이라는 것이 소외양간이나 마구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방의 정경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한복판에 빨래줄처럼 길게 늘여놓은 바줄이였습니다. 무슨 줄인가고 물으니 노동자들이 잠잘 때 발을 얹어놓는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합숙방이 너무도 비좁아서 노동자들이 그 바줄을 사이에 두고 두 줄로 마주 누워자는데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가 없어 바줄우에 발을 서로 엇걸고 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세옥

노동자들은 사람대접은커녕 소나 말보다 더 열등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나 말과 같은 집짐승들이야 그래도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날밤 그 합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합숙방에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마당에도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그날 신사동인민들앞에서 연설도 하고 그 고장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날밤 신사동인민들에게서 지성어린 대접을 받던 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사동에는 종곡이 모자라 씨붙임을 못한 화전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사동여인들은 **김일성**장군이 거느리는 조선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기장밥을 짓고 농마국수까지 눌러주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 지성에 감동되어 신사동을 떠날 때 배낭속에 남겨두었던 군량미까지 다 털어서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밀가루를 털어내여 주인집사람들에게 수제비국을 끓여주고 그 집딸아이의 튼 손에 크림도 발라주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신사동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나는 이미 신개척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반드시 추격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지형상 유리한 대홍단벌에서 적을 소멸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을 떠나 대홍단벌에가서 둔덕진곳에 매복진을 치고 신개척으로 간 오중흡이네 7연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연대동무들은 내 지시대로 신개척에 가서 총소리를 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개척의 적들을 몽땅 요정내고 일본십장들까지 여러 명 잡아오다나니 좀 들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대열뒤로 적들이 은밀히 따라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개척이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고 출동한 국경수비대와 창평경찰대였습니다.


남동수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7연대의 뒤를 따라오는 적군을 제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적아를 미처 식별하지 못한 것은 안개가 낀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적들이 안개를 이용하여 7연대의 꼬리를 너무 바싹 물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7연대의 뒤를 따르는 철갑모부대가 적이라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습니다. 정황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조성되고 있었으나 적들의 총구앞에 놓여있는 7연대의 처지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적들이 7연대의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복진을 차지하고 있은 8연대와 경위중대의 대원들은 사격구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총을 특별히 조심해서 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쏜 총알에 우리 동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적아의 간격이 버그러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적들이 선손을 써서 7연대에 먼저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방조성원들과 짐을 지워가지고 오는 목재소노동자들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열에 있는 7연대 대원들을 그냥 매복전 앞으로 지나가게 한 다음 대열후위에 있는 후방조성원들과 목재소노동자들에게 엎디라는 신호를 하고나서 사격명령을 내리였습니다.


二百餘金日成○團과
咸北警官隊와激戰
應援隊急派包圍陣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수백 정의 총들이 일시에 불을 뿜었는데 그 총성이 정말 요란했습니다. 대원들은 그때 상당한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이 총소리를 온 나라가 다 듣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온몸에서 힘과 격정이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대홍단전투 때에는 나도 역시 대원들 못지 않게 흥분했습니다. 우리의 일제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적들은 악을 쓰며 저항하였습니다.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경들은 여느 군경들보다 더 지독하고 포악하였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사람들도 국경지방에는 정수분자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적들 사이에 끼여있는 7연대 후방조성원들과 노동자들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탄에 머리조차 쳐들 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짐군들속에는 일본사람들도 끼여있었습니다.

그때 전장에서는 아주 묘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조선사람들은 짐들을 진 채 인민혁명군의 진지로 뛰어오고 일본사람들은 짐들을 버리고 일본군경들쪽으로 벌렁벌렁 기여가더란 말입니다.

조선인노동자들가운데서 일본군경들쪽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민족의 피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였습니다.

그날 대홍단에서 우리와 맞다든 적들은 거의 전멸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두 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희생된 대원의 이름은 김세옥입니다. 김세옥은 마동희의 누이동생인 마국화의 애인입니다. 그는 7연대 사무장과 함께 짐을 지고 7연대를 따라온 사람들을 안전구역으로 피신시키다가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를 보니 살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세옥을 업고간 대원이 김성국이였을 것입니다. 김성국의 군복잔등이 피로 물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널 때 목재소노동자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은인인 김세옥이 중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는가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따라왔습니다.

부대가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도 김세옥은 빈사상태에서 완전히 깨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온 짐군들도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묻힌 곳이 장산령기슭입니다. 해방 후 우리는 김세옥의 유골을 찾아내여 대홍단에 이장하였습니다.

김세옥을 장산령기슭에 안장한 그날 우리는 중상당한 남동수를 부근에 있는 어느 한 밀영으로 후송시키였습니다. 남동수는 밀영에 가서 100여일동안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대와의 연계가 끊어진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육신을 잘 쓰지 못하는 중상자가 식량도 없이 100여일을 지냈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
기념탑 부조

남동수의 간호를 담당한 사람은 산림대에서 갓 넘어온 정영감이라고 부르는 중국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인민혁명군이 비적이라는 일본인들의 선전을 듣고 돈벌이를 해보려고 우리 부대에 넘어온 사람입니다. 산림대에서 노략길을 하는 것보다 공산비적단에서 비적질을 하면 먹을알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민혁명군이 비적질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 신사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부대는 자기 같은 건달군이 있을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수를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공산군을 한 명 죽이고 가야 고향에 가더라도 무사할 것이라고 타산했던 것입니다.

정영감이 이런 흉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남동수는 밤중에 초막에서 기여나와 가랑잎으로 몸을 가리우고 이틀동안이나 숨어있었습니다. 그는 정영감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나뭇잎과 풀싹을 뜯어먹고 다람쥐와 뱀을 잡아먹으면서 그날그날을 연명해가다가 우리가 파견한 연락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원마저 토벌에 희생되였습니다.

남동수는 또다시 고립무원한 몸이 되였습니다. 그는 부대의 행방을 찾아서 헤매다가 자기 어머니가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 갑산을 거쳐 동만에 들어가 중국혁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부름을 받고 조국으로 나온 것이 어느 해였던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저는 장군님께서 주신 모포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야 찾아옵니다 하고 오열을 터뜨리였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무산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였습니다. 옹조꼬맹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일권동무도 박성철동무와 함께 붉은바위일대에 진출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산지구에 나타나 대홍단벌에서 자기네 군경들을 대량소멸하고 유유히 두만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자 대경실색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절할 지경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백두산서남부의 서간도일대였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한 후 조선과 만주의 신문, 통신들이 모두 서간도일대에서의 유격활동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혜산으로부터 신갈파를 거쳐 중강진일대에 이르는 압록강연안의 군경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월경침입을 막기 위한 방비대책에 혈안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함경남도경찰부에서는 이른바 대안비적상황이라는 표제밑에 우리의 활동상황을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자료들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조선주둔군 사령부,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국경지대의 연관 도경찰부, 나남19사단사령부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해주었습니다.

일본군부와 경찰계의 두뇌진들은 우리가 내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리라는 것까지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백두산기슭, 그것도 국경 수비무력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은 무산지구에 우리가 나타나 토벌에 내몰린 군경의 무리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회오리바람처럼 사라졌으며 적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적들의 실책은 열하원정의 후과에다가 고난의 행군기간의 손실까지 겹쳐 조선인민혁명군의 자기의 존재를 거의 끝마칠 정도로 괴멸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오산한데 있었으며 얼마남 지 않은 우리의 역량이 장백, 임강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이나 몽강, 무송과 같은 북부동변도오지에서 군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하고 있으리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데 있었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홍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보여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기가 죽었던 국내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이 계속 상승일로를 걷고 있다는 신심을 주고 혜산사건의 여파로 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위축되었던 국내혁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강심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이룩한 우리의 군사적 승리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떠들어대던 적들의 선전이 완전한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후부터 우리 인민들은 적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절대로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있은 뒤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조선인민 혁명군이 건재하는 한 조국광복의 새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항일혁명의 흐름속에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삼지연대기념비



삼지연못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삼지연대기념비 - 진군



삼지연대기념비 전경



삼지연대기념비 - 숙영



삼지연대기념비 - 조국의 물



삼지연대기념비 - 조국



삼지연대기념비 - 흠모

5.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

대홍단전투를 치른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활동무대를 백두산동북부로 옮기고 두만강연안 유동하면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그 시기의 군사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올기강전투이며 대중정치사업에서 제일 이채로왔던 것은 옥돌골에서의 단오명절놀이였다.

화룡현 옥돌골은 무산군 대안에 있는 두만강 건너편의 산골마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홍단지구를 현지지도 하시던 나날들에 두만강가에서 무산지구전투 후 백두산동북구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시던 뜻깊은 사적내용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옥돌골에서 1939년 단오날에 축구경기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격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축구경기를 했다고 하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격전쟁을 한다고 해서 일년 사시절 퉁탕거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도 유격대의 특성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유격구에서 운동회도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왕청유격대에는 한다하는 축구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2차북만원정을 앞두고 나자구에서 축구경기를 조직하고 옥돌골에서 조직하였는데 별재미였습니다. 간도지방의 조선사람들이 축구를 잘했습니다. 간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 것은 용정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홍단전투를 마친 다음 우리는 예정대로 투쟁무대를 백두산동북부로 옮기였습니다. 그 일대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 기지로 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해 5월하순의 안도현 큰골군정간부회의에서 나는 백두산동북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강화하여 이 일대에 또 하나의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격구가 해산된 이후 새로 창설한 우리 혁명의 근거지들은 대체로 서간도일대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에 꾸려져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꾸리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기지와 작전기지 후방기지들을 전국적 판도에로 넓혀갈 수 있었고 그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혁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열을 늘이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거점을 늘이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장을 늘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문제, 땅문제, 총문제를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고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곧 혁명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무장이 있으면 혁명을 얼마든지 고수할 수 있고 확대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거지를 확보하자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군사작전으로 적을 제압하고 해당 지

역안의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과 조직건설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혁명군의 활동을 훼방하지 못합니다. 대홍단전투 후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기 바쁘게 동경평전투, 휘풍동전투, 올기강전투, 청두촌전투, 청산리부근목재소습격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투들을 연속적으로 벌이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전투들은 모두가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싸움을 한 번씩 하고나서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도하고 조직건설사업도 하였습니다. 옥돌골에서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단오명절을 즐겁게 쇤 것은 우리가 벌인 특색있는 정치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지역에 갈 때마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생동하게 벌려 대중의 혁명화를 적극적으로 다그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이였으며 일관한 활동방식이였습니다.

원래 옥돌골에서의 단오놀이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의 폭압이 심하고 정세가 삼엄해서 단오놀이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할 때였습니다. 옥돌골에서의 단오놀이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끝낸 다음 우리가 화룡땅에 건너가서 인민들을 만나는 과정에 결심하고 조직한 것이였습니다.

어느고장에 가서나 느끼게 되는 것이였지만 간도지방에서도 인민들은 그 당시 기를 펴지 못하고 몹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룡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약담배에 중독된 젊은 농민형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북지방에는 아편중독자들이 씨글씨글했습니다. 아편이 화폐와 같이 통용되는 때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약담배라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더 심하게 전파되는 법입니다. 농민형제는 조선에서 살다가 이민바람에 간도에까지 굴러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나는 신수가 멀끔한 젊은 사람들이 약담배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농사를 짓자면 심신이 튼튼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당신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기를 뽑는 그 몹쓸 것에 맛을 들이게 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형제는 별로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편도 안하면 고달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약담배라도 피워 세상만사를 잊어야지 다른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술로 달래보자고도 했지만 술이야 모여 앉아 부어라 마셔라 하며 떠들썩하는 멋에 마시는건데 왜놈들이 명절날에 여럿이 모여앉아 노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아 금지시키는 판이니 술이나마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담배로 넘어갔습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농민형제는 이제 좀 있으면 오월단오인데 모여앉아 막걸리도 마시지 못하는 명절이 오면 무슨 소용인가 그전에 고향에서 살적에는 단오날에 씨름도하고 그네도 뛰고 쑥떡도 해먹으면서 재미나게 놀았지만 망국노가 되니 그런 명절놀이를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푸념을 듣고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멋에 살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멋이라는 것은 사는 보람을 의미합니다.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생활을 창조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편에 중독된 그 젊은 형제에게는 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성벽과 철조망에 갇혀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생존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을 떠난 생존이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의도 없

습니다.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아편쟁이들을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농민형제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민족의 존망을 다투는 이 위급한 시각에 약담배를 피우며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는 것은 조선청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보라, 이 어린 전령병들과 여대원들까지도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총을 메고 나섰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아편을 떼라.

형이란 사람은 내 말을 듣더니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아무 의욕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편에 중독된 농민형제를 만나보고나서 인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를 펴고 살아갈수 있게 우리가 군사정치활동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설이나 하는 정치사업만으로는 인민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은 승리하는 혁명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싶어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혁명이란 곧 싸움이었습니다. 닷 말의 연설보다 한 방의 총소리가 은을 더 크게 내던 시기가 19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사업과 함께 군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농민형제가 살고 있다는 휘풍동이웃의 집단부락과 휘풍동의 적들부터 쳐갈기였습니다. 우리의 공격이 얼마나 드셌던지 적들은 총 한방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산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휘풍동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해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동북부로 이동하여 두만강연안에 있는 10여 개의 집단 부락들을 연이어 습격하여 수백 명의 적을 소멸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자 일제는 우리 부대의 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관동군이 할힌골에서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이 싸움이 터지자 수만 명의 일본군병력이 전선으로 기동하였습니다. 적들로서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고 떠들어댈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저들의 후방종심에서 혁명군의 총소리가 연방 울리게 되니 적들도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룡일대의 산판들에는 적들이 시누렇게 깔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량이 토벌에 동원되었던지 어느 날 망원경으로 적정을 살피고 돌아온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이상 싸움을 더 계속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적아를 따져보면 역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모장에게는 우리는 건군 첫날부터 역량상으로 수십 배, 지어는 수백 배 우세한 적과 싸웠지 열세한 적과 싸우지 않았다, 역량이 달린다고 이왕 시작한 작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숨돌릴 사이 없이 답새겨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기 중국 화북전선에서 특출한 군공을 세워 천황의 표창까지 받은 일본군장교가 백일평에 도착하여 토벌대를 지휘한다는 정찰자료가 사령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교는 원래 무공덕에 일본본토로 표창휴가를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안도와 화룡땅에 나타나 집단부락들을 쳐갈기며 돌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따위 게릴라부대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계속 패전한다는 것은 황군의 수치이자 일본국민의 수치다, 내가 **김일성**부대를 전멸시켜 이 수치를 씻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교도 허영심이 이만저만 강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화북전선에서 온 장교는 가슴팍에 아수라를 입묵해가지고 다니면서 무적용장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불교에서 싸움귀신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백일평에 나갔던 정찰조원들은 아수라에 대한 소식과 함께 화룡현에 있는 일본인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단오명절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이한 정보까지 수집해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천황의 표창까지 받고 고향으로 휴가를 가던 싸움귀신이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자청해서 백일평에 왔다는데 다른 쪽에서는 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명절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니 이런 만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보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적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선물놀음은 분명 동서고금에 없는 희극이였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선물을 준비할 리는 만무한 것이였습니다.

나는 적들이 감히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을 하는 것은 혁명군의 불을 설맞은 탓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백일평의 적들을 올기강쪽으로 유인하여 일격에 섬멸할 전술을 짰습니다.

우리가 전투장소로 선택한 지대는 백일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밭이였습니다. 그 갈밭 한가운데로 올기강이 흐르고 강 한쪽 기슭을 따라 자동차길이 나있었습니다. 강과 길의 좌우쪽은 다 수림지대여서 매복에 유리하였습니다. 적들이 올기강기슭에 나타난 것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늦은 아침이였습니다. 중무장을 한 수백명의 적들이 여러 정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기세좋게 행군해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대오가 우리의 매복권에 모조리 들어섰을 때 긴 칼을 찬 일본장교가 웬일이지 물도랑 옆에 와서 걸음을 멈추더니 수상한 흔적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적의 종대들은 일제히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부하장교 몇 이 달려와서 물도랑을 들여다보며 고개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마 우리 동무들 중 누구인가 거기에 발자국을 냈던 모양입니다. 싸움을 끝내고 전장을 수색할 때 전사한 일본군장교들의 가슴을 헤쳐보았는데 물도랑 옆에서 우리의 흔적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긴칼을 찬 그 장교가 바로 아수라로 자처하는 토벌대 대장이였습니다. 아수라가 물도랑 옆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나는 사격명령을 내리였습니다. 우리는 잠간 사이에 2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습니다. 아수라는 칼집에서 군도를 절반도 뽑지 못한 채 물도랑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고향에 가서 휴가나 곱게 보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황천객이 되었다고 조소하였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백일평전투라고도 불리우는 유명한 올기강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쓴 조명선의 회상기를 나도 보았습니다. 올기강전투에서 쓴맛을 본 다음부터 적들은 감히 그 골안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민들은 올기강유역의 마을들을 폐문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긴 촌이라는 뜻입니다. 올기강유역에 폐문촌들이 많이 생기다나니 우리도 마음놓고 정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옥돌골단오명절놀이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올기강전투를 비롯하여 두만강연안의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는 일종의 축제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만강연안의 마을들은 해방의 날이라도 맞은 듯이 흥성거렸습니다. 청장년들은 이번 단오날에는 마음놓고 놀아보자고 하면서 그네를 매고 씨름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올기강전투를 마치고 철수할 때 흥미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군 한 사람이 담배와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가지고 우리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인민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뜻밖에도 손을 내저으며 그것은 자기의 지성품이 아니고 화룡현경찰우두머리가 **김일성**장군에게 보내는 명절음식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정찰조원들이 물어온 정보가 정확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였습니다.

적들이 보낸 선물보따리속에는 밀봉한 편지도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백룡한테 보내온 것이였습니다. 적들이 오백룡의 이름을 특별히 지명한 것으로 보아 그가 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일본제국과 10년 가까이 싸워보았으면 그 실력을 똑똑히 가늠하였을 것이다, 단오도 가까워오는데 이 선물이나 받고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한테 연공이나 바치는 것이 어떤가. 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이 경고편지는 일제가 화룡현일대에서 경찰토벌대를 도맡아 지휘하던 우나미를 시켜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나미는 화룡현 경무과장을 겸하고 있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홍안의 나이에 일찍이 만주에 건너와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한 생을 바칠 것을 맹약하고 영사관경찰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나미와 맞다든 것은 1932년 가을이였습니다.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돈화현성을 습격했는데 우나미는 그때 현성안의 일본영사관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응전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달아난 덕에 그가 상전한테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군대에는 전투의 승패에는 관계없이 죽으면 직급을 한 등급씩 높여주고 크게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에게도 상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본주의군대이니 그런 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도선도 죽은 다음 별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우나미는 동만의 여러 곳을 다니며 경찰정보계통에서 입신출세하여 1939년경에는 수백 명의 무력을 거느린 경찰 토벌대의 우두머리가 되였습니다.

우나미는 후날 기자들에게 이 편지를 경고문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우리가 보건대는 경고문이 아니라 요청서 비슷한 것이였습니다. 총칼로써는 안되니 애원을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였습니다.

경고문이 은을 내게 하자면 그것을 보내는 시기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피동에 빠져 갈팡질팡하든가 지칠대로 지쳐 싸울 의욕을 잃었을 때 보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나미는 시기선택도 대상선정도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피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동에 확고히 서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하강기가 아니라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역량도 전술도 다 강했습니다. 분명 우나미는 우리를 무서워하면서도 밉천이 딸리는 군대로 본 것 같습니다.

우나미가 우리에게 경고문을 보낸 것은 미나미조선총독의 지령에 따라 함경북도 경찰부장 쯔쯔이가 숱한 위문품을 마련해가지고 기자들까지 거느리고 무산군 삼장

면일대에 내려가 우리한테 얻어맞은 군경들을 위로해주던 무렵이였습니다. 미나미는 보천보전투 직후에도 그 뒤조사를 위해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우나미가 경고문이라는데서 큰 봉변이니 뭐니하고 을러댔지만 그것은 한갖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회답편지를 한 장 써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은 문장가가 아니였지만 편지를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토벌하느라고 7-8년 세월을 고생했지만 얻은게 무엇이냐, 우리의 무기조달자, 식량수송대 노릇밖에 한 것이 더 있느냐, 가련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제는 그쯤하고 처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며칠 있으면 단오명절인데 생과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라, 내가 손님으로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주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경한 투로 엮었습니다.


오백룡

나는 단오날 옥돌골 30리골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운동회에 참가시키고 휘풍동을 비롯한 이웃마을들에서 올만한 사람들은 모두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옥돌골에는 몇 정보 잘되는 넓은 등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꼴문대를 세워놓고 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적들이 화룡일대에 숱한 토벌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은 때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여유작작하게 명절놀이를 하면서 축구경기까지 벌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몇 번의 전투나 몇백 마디의 연설로써도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적구에서의 축구경기는 또 하나의 우리 식의 독특한 정치사업방법이였습니다.

혁명군과 마을청년들사이의 축구경기가 정말 볼만했습니다. 기술이라야 뻔한 것이고 경기짜임새라는 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양팀선수들이 번갈아 헛발질을 하고 풀밭에 미끄러져 나딩구는 바람에 장내에서는 폭소가 연방 터져올랐습니다.

늙은이들은 옥돌골에 마을이 생긴 이래 사람들이 오늘처럼 만가지 시름을 다 잊고 태평스럽게 웃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는 승부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의 정치적 득점은 만점이였습니다.

그네경기와 씨름경기도 대성황이였고 군민합동오락회와 연예공연도 재청, 삼청의 연발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오놀이를 조직해준 혁명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날 옥돌골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참군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사업이 마을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육경기와 오락도 정치사업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백수천 개의 극장, 영화관, 회관들이 있습니다. 기관, 기업소들에 있는 회의실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모임장소가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정치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마음대로 전개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군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집을 지어놓았는데 중요한 행사나 회의를 할 때에만 몇 번 쓰고는 노상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서 과학강연이나 정세강연 같은 것도 하고 웅변대회나 시낭송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름난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명수, 영웅, 로력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 같은 것도 자주 조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이크도 없고 극장도 없고 방송국도 없는 빨치산생활이였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벌이였습니다.

그 후 옥돌골과 그 주변 인민들은 우리를 도와 투쟁을 잘하였습니다. 약담배를 피우던 휘풍동의 젊은 농민형제도 아편을 떼고 조직원이 되어 잘 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만강연만의 마을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화룡일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내혁명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었다. 그이께서는 단오명절을 며칠 앞두고 국사봉에 나오시어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국사봉은 두만강의 지류인 소두수연안에 있다.

국사봉회의를 준비하고 소집하는데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정치공작소조책임자였던 이동걸이었다. 국사봉회의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어버이수령께서는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이동걸을 회상하시었으며 그를 충실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하군 하시었다.

우리는 대홍단전투를 치르고 화룡땅에 건너가자 인차 사령부당회의를 열고 이동걸동무의 책벌을 해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에게 국내정치공작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기였습니다.

국내혁명앞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국내혁명의 중심과제는 혜산사건 때문에 파괴된 지하혁명조직들을 하루속히 복구확대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무산지구에 이동걸을 파견하여 거기에 전날의 이제순이나 박달이 꾸린 것과 같은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동걸에게 국내에 나가면 무산경내의 적당한 지점에서 국내 지하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가질 계획이니 그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두만강가의 중국인마을들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을 먼저 장악하고 그줄을 타고 국내에 드나들면서 조직선도 찾고 회의준비도 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령부와 이동걸사이에서 통신을 책임지고 보장하면서 적극 도와준 사람은 **김정숙**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두만강연안의 국경마을에 내보내어 이동걸과 자주 연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사령부와 이동걸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면서 우리의 지령과 의사를 제때 제때에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무산군 삼장면일대에서 사는 농민들은 부침땅이 모자라 여름 한철을 중국땅에 건너가 농사를 지으며 지내다가 가을철이 되면 곡식을 베여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군 했습니다. 무산사람들은 이것을 간도농사라고 했습니다. 갑산지방 농민들가운데도 간도농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먼저 간도농사를 지으러온 사람들부터 장악하고 그들을 통하여 국내와의 연계를 보장하였습니다.

무산, 연사 지구를 혁명화하는데서는 이동걸과 **김정숙**이 주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동걸은 공작임무를 받은 지 스무날도 되나마나해서 벌써 회의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날 나는 이동걸의 안내를 받으며 두만강 물동다리를 건너 회의장소로 내정된 국사봉에 올랐습니다. 국사봉회의에서는 지하혁명조직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를 마친 다음 나에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꾸려놓은 삼장지구의 조직을 국사봉회의방침대로 연사일대에로 확대발전시켜 당조직의 본보기, 조국광복회조직의 본보기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조직책임자들에게 정치사업방향을 배워주기 위해 국사봉회의참가자들을 다 옥돌골단오명절행사에 참가시키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제기를 모두 승인해주었습니다. 이동걸은 회의가 끝난 다음 옥돌골에서 우리와 함께 단오명절을 쇠고 비밀아지트에 가서 조국광복회조직들에 국사봉회의 방침을 침투하는 한편 한 국내조직원과의 연계밑에 연사지구로 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지트에서 불의에 습격을 받고 총상을 당한 몸으로 적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이동걸이 체포된 후 한 조직원이 그가 맡겨두었던 비밀수첩을 가지고 올기강밀영으로 찾아왔댔습니다. 그 수첩에는 안도현 큰골과 화룡현 옥돌골 그리고 국내 삼장, 연사 일대의 지하조직실태와 연사지구에서의 활동계획이 암호문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동걸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적어서 조직원의 집에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걸

박달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걸은 옥중에서도 감방벽을 두드려가며 혁명동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법정투쟁도 잘했습니다. 법정에 나설 때면 그가 노상 선참으로 조선혁명 만세! 를 불러 공산주의자의 기개를 시위하였다고 합니다.

이동걸은 김주현처럼 사업과정에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지만 혁명실천을 통해 그 과오를 씻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을 하노라면 더러 과오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한 과오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수양에 달려있습니다. 이동걸은 자기비판도 잘했지만 연대정치위원의 자리에서 해임된 후 사상단련도 잘했습니다. 그런 덕으로 동지들의 신임을 인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처벌을 받았을 때 제일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처벌을 주면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근하게 받아들일 대신 지나치다거니, 억울하다거니 과장되었다거니 하면서 불평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형태로 비판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합니다. 그리고 동지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한 혁명초소에서 일하는 동지들끼리 서로 속을 주지 않고 지내서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동지들에게 속을 주지 않으면 집단의 변두리밖으로 밀려나게 되며 종당에는 딴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동지들이 아무리 가혹한 비판을 해도 그것을 항상 허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동지들이 자기에게 주는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합니다. 김주현과 이동걸이 지휘관의 자리에서 떨어져나가는 무거운 책벌을 받은 다음에도 실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과오를 깨끗이 고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의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의 비판에 대한 소화능력을 보면 사람의 인격과 수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동걸은 인격과 수양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이동걸은 비록 희생되었으나 그가 바친 심혈은 두만강연안과 국내 깊이에서 수십수백 개의 불씨로 자라났습니다. 이동걸이 체포된 후에는 **김정숙**이 그를 대신해서 연사지구에 나가 그 고장 조직원들에게 선을 이어주고 그가 바라던 대로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려놓았습니다. 그 조직들은 전민항쟁을 준비하는데서 큰 밑천으로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여투사들의 혁명절개


최희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장과 교수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여투사들과 마지막까지 혁명적 의리에 충실하였던 여대원들에 대해서도 자주 회고하시었다.

이 절에서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던 나날들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혁명의 이익을 지키고 공산주의자의 영예를 고수해낸 여투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회상교시들 중에서 그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건립된 혁명열사능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능을 건설하느라고 동무들이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안치된 투사들 중 여투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투사들이 10여명이나 여기에 안장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신상을 세우고 비석에 이름을 새겨줄만한 동무들입니다.

이순희는 공청일군으로서 투쟁을 잘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왕청지방에서 아동국장사업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잘 압니다. 이순희는 절개가 강한 여자입니다. 적들이 나어린 그를 좀 숙보고 지하조직의 비밀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많이 당했지만 비밀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사들은 응당 후대들앞에 내세워 주어야 합니다.

장길부여사는 유격대원은 아니지만 마동희를 낳아키운 혁명가의 어머니답게 한생을 값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딸과 며느리도 유격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은 혁명가들의 뒤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 며느리는 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무장을 들고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영웅들입니다. 영웅칭호를 주는 제도가 없었으니 그렇지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장길부어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웅을 셋이나 키워낸 어머니이니 마땅히 혁명열사능에다 모셔야 합니다.

장길부여사는 고령의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도 잘 참가했습니다. 장길부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손에 무장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항일혁명의 길을 걸어온 여대원들입니다.

김책, 강건 동무들이 있는 열에 여투사를 2명 배치하였는데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역할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 임춘추, 최현을 비롯한 노투사들은 나에게 인민의 일치한 염원이고 전우들의 한

결같은 소망이라고 하면서 **김정숙**을 거기에 세워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최희숙을 그 열에 추천한 것은 나입니다. 그는 웃열에 세워줄만한 당당한 투사입니다. **김정숙**과 최희숙을 동열에 놓은 것은 항일혁명의 나날 그들 사이에 맺어진 우정을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김정숙**이도 도천리일대에서 어려운 적후공작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최희숙은 요방지라는 마을에 침투하여 그의 활동을 은밀히 도와주었습니다. **김정숙**이 신파에 건너가서 조직건설활동에 마음껏 투신할 수 있은 것은 최희숙이 요방지에 틀고앉아 그의 사업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최희숙은 1939년 가을에 올기강일대에서 수많은 군복을 제작할 때에도 **김정숙**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가며 일을 본때있게 하였습니다. 그 군복을 제작하는데서 발휘한 최희숙의 높은 책임성과 노력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는 그에게 금반지와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

최희숙은 조선인민혁명군 여대원들 중에서 노병급에 속하는 인물이였습니다. 그의 입대연도가 아마 1932년일 것입니다. 1932년이면 동만 각현에서 반일무장대오들이 앞을 다투어 태어나던 해가 아닙니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여대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1932년에 입대한 여성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32년에 총을 멘 대원이면 응당 노병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1936년 봄일 것입니다. 그 해 봄에 연길, 화룡 지방의 부대들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우리 주력부대에 많이 편입되였습니다. **김정숙**과 최희숙도 그때 주력부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대원들은 다들 최희숙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대원들 중에는 그를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희숙은 나이로 보아도 우리의 누이벌이 되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여러 살이나 나이가 더 든 여자였습니다. 여대원들 중에서는 김명화나 장철구 다음가는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최희숙이 전우들속에서 언니나 누이로 불리운 것은 비단 나이 때문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과 임무수행에서 항상 남들의 모범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전우들을 잘 보살펴주었습니다. 지방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공청활동과 부녀회활동, 반일부대공작을 해온 그는 정치적 자질도 높고 통솔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힘든 일거리를 많이 맡기였습니다. 최희숙이 소할바령회의 이후시기에도 조선인민혁명군 재봉대책임자로 계속 활약한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주력부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최희숙의 남다른 충실성과 혁명성을 언제나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늘 전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도 그의 숭고한 의리와 인격에 탄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난의 행군때 목격한 일인데 최희숙은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도 우등불가에서 언 손을 녹여가며 전우들의 궤진 옷들을 기워주였습니다. 그는 맹물로 끼니를 에워가면서 이틀이건 사흘이건 맡은 일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업의 성과를 논할 때면 매번 전우들을 내세워주었습니다. 군복제작이 끝난 다음 공로자들을 표창할 때 금반지와 시계를 받고 군복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나만 이런 특대를 받으면   하고 송구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할바령회의 후 소부대공작에 참가하였던 최희숙은 중요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오다가 적들의 만산토벌을 당하였습니다. 만산토벌이란 빗으로 훑듯이 온 산판을 샅샅이 뒤진다는 뜻입니다.

소부대를 발견한 적들은 유격대원들을 사로잡으려고 기를 쓰고 따라왔습니다.

최희숙은 포위속에서 그만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적들에게 붙잡히였습니다.

적들은 비밀을 뽑아내려고 그에게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두 눈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문과 위협도 최희숙의 송죽같은 절개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여투사의 이 외침앞에서 혼비백산한 적들은 최희숙의 심장까지 도려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심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는 것이였습니다. 혁명가의 심장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에는 혁명가의 표식도 없고 반역자의 표식도 없습니다.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 동지들을 위해 고동친다면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만을 위해 고동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들은 최희숙을 체포하자마자 우리가 그에게 표창으로 준 금반지를 빼앗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놈들은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우리에 대한 믿음과 의리는 결코 빼앗아낼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최희숙의 심장을 도려냈지만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혁명절개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생명관에 깃든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높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희숙이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대원들은 목이 메여 밥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오래동안 슬픔에서 헤어날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말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원쑤들에게 두 손을 묶이우고 두 눈을 빼앗긴 최악의 상태에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한 최희숙의 말속에는 얼마나 견결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 기개가 높뛰고 있습니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그 말은 여투사 최희숙의 한 생의 총화이기도 하였습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되였습니다. 여투사의 그 외침소리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를 주장하며 낙천적인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 내가 중시하고 있은 좌우명의 하나입니다.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어떤 동요나 편향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올 수 있은 것은 이 낙관주의의 덕입니다.

나는 한줄기의 빛조차 볼 수 없는 실명상태에서 남긴 최희숙의 마지막 말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강의한 의지와 불변의 신념을 담고 있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최희숙은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혁명대오의 대열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여성혁명가입니다.

최희숙의 남편 박원춘은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서 옥중생활을 했습니다.

최희숙처럼 최후를 마친 여대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순화의 최후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후를 그렇게 마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순화는 이봉수의 안해입니다. 이봉수가 군의로 활동할 때 안순화는 같은 부대에서 재봉대책임자로 일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자식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섯 명의 자식은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모두 죽었거나 부모들과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동상으로 두 발의 발가락을 모조리 자른 맏이는 중환자들과 함께 쏘련으로 들어갔고 둘째는 홍역을 앓다가 죽었으며 셋째는 유격구에 쳐들어온 일본군의 총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넷째는 굶어죽고 다섯째는 남의 집에 주었는데 그 생사여부와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봉수의 회상기가 여러 편 세상에 소개된 것만큼 그 다섯째가 살아 있으면 분명 아버지를 찾아올 텐데 나는 아직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순화

그 아이를 두 돌 전에 남의 집에 주었으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양부모들이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순화는 1938년 봄에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밀영에 있던 유격대원들이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남만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적 토벌대가 갑자기 밀명에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그 밀영에는 주로 병원일군들과 재봉대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안순화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험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적들은 유격대원들의 행방과 식량창고, 약품창고의 위치를 대라고 하면서 안순화를 악착스럽게 고문했습니다. 토벌대 대장은 승산도 없는 싸움에 피를 바치고 청춘을 바치는게 아깝지 않는가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그를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안순화가 고문이 두려워 놈들의 물음에 고분고분 대답했더라면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들은 귀순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혁명대오를 와해시키려고 날뛰였습니다. 귀순신청서에 보증인을 밝히고 손도장이나 찍으면 어제날까지 타도일제를 부르짖으며 무력항쟁을 하던 사람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안순화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적들의 회유와 고문을 이겨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적들은 처음에 그를 발길로 차고 짓뭉개다가 머리칼을 마구잡아 뜯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순화가 이놈! 저놈! 하며 점점 더 완강하게 저항해나서자 총알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의 가슴과 배에 참나무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육중한 나무말뚝이 살과 뼈를 문지르며 육신을 깊숙이 박힐 때 안순화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안순화는 그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혁명가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 지킬 것을 다 지키었습니다. 참나무말뚝이 몸에 박히는 순간에는 마지막 힘을 모아 조선혁명 만세! 와 여성해방 만세! 를 부르짖었습니다.

안순화가 희생된 후 전우들은 그의 배낭을 풀어헤치고 유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유물들 가운데는 안순화의 남편 이봉수가 1920년대말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부두노동을 하여 번 돈으로 사준 세루치마와 채 뜨지 못한 책상보가 있었습니다.

세루치마는 10년동안 한번도 입어보지 않고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만 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루치마를 왜 그처럼 고이 간수해왔겠습니까. 안순화

는 틀림없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 그것을 입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유물을 통해서도 그가 혁명이 승리하게 될 내일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헌사쓰의 실을 풀어 짬짬이 떠왔다는 책상보도 역시 조국이 해방된 다음 남편의 책상우에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숨진 안해의 시신을 세루치마로 덮어줄 때 이봉수는 10년 전에 세운 치마의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희숙, 안순화와 같은 여성들은 북만의 항일무장부대들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만에서 싸운 조선여성들이 얼마나 혁명절개를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은 한주애의 실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봉대책임자인 한주애는 후방밀영에서 유격대원들의 솜동복을 짓다가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나어린 딸애와 함께 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전우들을 뒤로 빼돌리느라고 한주애는 자기를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승산없는 맞불질을 하다가 토벌대 놈들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철창속에 갇혀있었습니다. 적들은 어머니와 딸이 한 감방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호강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 모녀를 따로따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주애의 마음을 굽히기 위해 이따금씩 딸애를 데려다가 면회도 시켰습니다. 모성애를 역이용하려는 심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술책도 한주애의 지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들은 우쑤리강변에서 한주애를 총살하였습니다. 일본헌병대의 형리들이 그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였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재봉대원

북만유격대에서 활동한 안순복, 리봉선을 비롯한 8명의 재봉대원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달려드는 적들과 생사결단의 싸움을 벌이다가 사로잡힐 고비에 이르자 목단강의 깊은 물에 꽃같은 몸들을 던지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은 동만의 여대원들속에도 있었습니다. 7명의 여대원들이 내도산으로 가던 도중 적들의 포위에 들자 푸르허강물에 뛰어들어 청춘을 마치였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최후는 항일혁명사의 한 페이지에 새로운 전설을 남기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나는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목단강 8열녀의 투쟁을 형상한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만여성들 뿐 아니라 남만유격대원들의 친근한 누나인 이순절도 혁명가답게 절개를 잘 지키였습니다.

김수복은 장백현 주경동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희생되었습니다.

영웅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희숙이나 안순화, 동만의 7열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합니다.

벽성군여맹위원장이었던 조옥희가 일시

적 후퇴시기 적구에서 빨치산투쟁을 하다가 적들에게 붙잡혀 학살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도 최희숙이나 안순화처럼 혁명절개를 끝까지 지켜낸 강한 여자였습니다. 적들이 손톱, 발톱을 뽑고 두 눈과 젖가슴을 도려내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지지였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추상같은 목소리로 적들을 호령하였으며 조선노동당 만세! 를 부르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치였습니다.

조옥희가 빨치산투쟁을 하면서 적들을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살상한 적의 수자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머리를 떳떳이 쳐들고 적들의 멸망을 선고한 그 높은 기개와 혁명적 지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를 표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나 짓고 여맹사업이나 몇 해 하던 평범한 여성이 그처럼 빛나게 일을 마치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양심앞에 조옥희를 내세우고 싶어 그를 형상한 영화도 만들라고 하였고 그의 조각상도 만들어 세우게 하였으며 그의 고향 농장에 조옥희라는 이름도 달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다가 그곳에 소장되어있는 항일투사 이계순의 달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것은 이계순은 16살 때 혁명에 한 몸을 바칠 굳은 결심을 담아 어머니에게 잘라보낸 머리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이계순의 달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귀중한 유물이니 잘보관하라고 당부하시었다. 그 후 수령님께서는 이계순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달비에 깃든 사연을 보더라도 이계순동무가 대단히 훌륭한 혁명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달비를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들과 누이들, 우리 나라 여성혁명가들의 깨끗하고 굳센 절개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됩니다.

원래 조선여성은 외유내강하고 절개가 굳습니다. 나는 항일혁명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이계순의 달비는 여성혁명가들의 절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주에서 지하활동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신발바닥에 달비를 깔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조선에서 살 때부터 여러 해 동안 고이 간수해오던 달비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울부짖는 무인지경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걸으면 걸을 수록 발바닥이 후끈후끈해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신발을 벗어보니 바닥에 달비가 깔려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해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따를 사랑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가 깔아준 달비는 모성애의 표시였습니다.

상해에 조선사람들의 임시정부가 서고 중국 동북지방에 정의부니 참의부니 신민부니 하는 독립군단체들이 생겨나 인민들한테서 세금을 받아낼 때 나는 적지 않은 여인들이 달비를 팔아 독립헌금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달비는 애국심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왜 이계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달비와 관련된 과거사를 돌이켜보는가 하면 그 달비 하나만을 통해서도 그의 인간상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순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싸운 김일동무와 박영순동무가 잘 압니다. 이계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면 김일제1부수상과 박영순동무를 취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제1부수상이 과묵해서 취재할 멋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김일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한 자랑은 잘 안하지만 남에 대한 이야기는 곧잘 합니다.

이계순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은 그의 오빠 리지춘이였습니다. 리지춘은 내가 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길림에 있는 사범학교에서 우리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투쟁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 후 그는 부모들이 살고 있은 화룡땅에 돌아가서 공청사업을 지도하다가 그만 적들에게 붙잡혀 학살되였습니다. 적들은 그를 총살한 다음 시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리지춘은 두벌죽음을 당한 셈입니다.


이계순

이계순은 어랑촌유격구에 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의 소식을 들은 다음날 새벽 이계순은 머리채를 풀고 그것을 가위로 뭉청 잘라 다리를 지었습니다. 다리란 달비라는 뜻입니다. 그는 달비와 함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떠난 후 오빠마저 세상을 떠났다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쑤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머님께 저의 다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래동안 어머니 곁에 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듯이 이 다리를 보십시오.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디 몸 성히 계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이계순의 마지막 고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혁명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화룡에서 여러 해 동안 지하사업은 해온 박영순의 말에 의하면 이계순은 어릴 때부터 혁명에 대한 감수력과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 군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33년 여름에 그는 당조직으로부터 용정시내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주되는 임무는 파괴된 지하조직들을 복구하거나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였습니다. 적의 중요한 통치거점중의 하나인 용정지구에는 군경들과 밀정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이 고장에 둥지를 틀고 있던 첩보기관들은 촉각이 매우 예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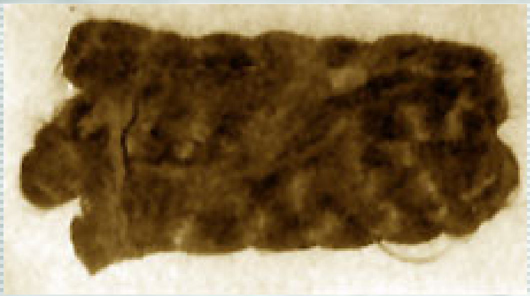
유격구의 혁명조직이 지하공작경험이 별로 없는 이계순을 이런 고장에 파견한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 용정시내에 있는 당조직들과 부녀회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대부분 파괴되고 조직원들은 거의 다 검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순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리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국수집에 잡부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국수집에서 부엌데기노릇이나 하는 촌티나는 여자를 공산당이 파견한 지하공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국수집은 공작지점으로도 훌륭하였습니다. 이계순은 물도 긷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했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복덩이가 굴러 들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도 내오자면 하루종일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바로 국수배달이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냥이나 있고 세도 깨나 쓰는 집들에서는 국수를 주문해다 먹었습니다. 집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농마국수 몇 그릇을 가져오라고 호통치면 배달원이 목판에 국수와 육수물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주문자들한테까지 날라다주었습니다.

이계순은 주인마누라의 신용을 얻어 국수배달원의 자리를 따냈습니다. 그는 국수를 배달하러 나갈 때마다 짬을 내여 필요한 조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선대조직부터 복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목판에 국수그릇을 담아 이고 하루에도 수십 리 걸음을 해야 하는 배달원노릇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였습니다. 어느 날 목판을 머리에 이고 주문자의 집으로 바삐 걸어가던 이계순은 미친듯이 달려오는 왜경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그만 목판을 떨어뜨려 국수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계순이 남긴 달비

이계순은 그 바람에 주인한테서 된 욕을 먹고 배달원의 자리를 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루영업이 끝나면 피곤을 무릅쓰고 국수집뒤뜨락에 나가 목판에 돌을 담아이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걷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계순의 이런 직심스런 열의가 주인의 눈을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계순의 나이가 아마 그 당시 열일곱 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투사들은 벌써 15살, 16살만 되어도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10대의 나이에 선동연설도하고 적구공작도 하고 조직건설활동도 하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들은 세상물계를 다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속에서 자라난 세대여서 지금 청년들보다 조숙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여 덮어놓고 선각자가 되고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적으로 준비되어야 혁명투쟁에 일찍이 뛰어들수도 있고 혁명을 해도 본때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견실하지 못하면 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순이 혁명을 잘한 것은 사상이 견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20살이라고 하면 젖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20대라고 하면 아직 세상물계를 모르는 철부지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0대나 40대, 50대가 돼야 간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20대의 청년들도 맡겨만 주면 책임적인 임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방 직후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을 수행할 때 이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는 20대의 청년들이 현당서기도 하고 성당서기도 하고 사장도 하고 군장도 하였습니다. 나는 20대에 혁명군사령관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으면 간부대열이 노령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진운동이 활력을 잃게 됩니다. 간부사업에서는 철저히 노중청을 배합해야 합니다.

이계순이 동만사람들의 화제에 제일 크게 오른 것은 화룡현당서기로 일하던 그의 남편 김일환이 민생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배타주의자들한테 희생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간도지방사람들은 김일환을 학살한 주범들을 한결같이 저주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의 미망인인 이계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정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계순이 동만당지도부의 처사에 환멸을 느끼고 혁명에서 손을 떼거나 유격구를 떠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간도지방의 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속에서는 동만당지도부의 좌경망동주의에 침을 뱉고 유격구를 등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에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에 때가 많이 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 혁명에 염증을 느끼고 유격구를 떠나갔거나 손맥을 놓고 신세타령을 하며 세월을 보냈겠지만 이계순은 그와 반대로 강심을 먹고 일어나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혁명에 보탬을 주려고 했으며 남편이 혁명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결백하고 양심적인 인간이였다는 것을 증명해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창즈유격구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계순은 만삭이 된 몸이였습니다. 그는 임신부였지만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계순은 자기자신과 태어날 새 생명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유격구의 인민들을 걱정하면서 매일 같이 산채를 뜯고 나무껍질을 벗기였습니다. 그런 것조차 바닥이 나면 개구리를 잡고 그 알을 모아다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완하였습니다.

그 후 이계순이 해산을 했지만 젖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때에 유격구마저 해산되였습니다. 이계순은 어린 딸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겨 적구로 떠나보내고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맡긴 젖먹이는 김일환이 학살된 다음에 낳은 유복녀였습니다.

그 유복녀와의 이별이 아주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두 살밖에 안된 어린애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을 치고 시어머니도 울지 이계순자신도 아이가 불쌍해서 몇 번이고 되돌아가서는 부둥켜안고 흐느끼지 그러니 그 이별이 왜 눈물겹지 않았겠습니까.

유격구해산과 함께 일가친척들과 친지들, 혁명전우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던 그 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처럼 눈물속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계순의 시어머니가 손녀애를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동냥젖도 한두 번이지 노상 남들의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알과 강냉이알을 짓씹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계순은 이처럼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과 모진 아픔을 안고 총대를 잡은 투사였습니다. 그는 무송에서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이계순을 후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동상을 당한 몸이였기때문에 전투부대에서 싸울 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처음에 이계순은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였습니다. 일선에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계순을 위해서 그 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싸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 우리 아버지도 동상 때문에 돌아가셨다, 발가락이 뭉땅 썩어 문드러져서 지팡이를 깊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더니 그는 마지못해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치료해주던 유격대의 후방병원이 곰의골밀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두산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1937년 음력설에 나는 횡산지구의 후방밀영들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박영순이네 무기수리소 동무들이 깡통으로 국수분통을 만들어가지고 농마국수를 눌러 나에게 대접해주었다는 음력설이 바로 그 해 음력설입니다.

우리가 후방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이계순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쳤습니다. 송의사가 하는 말이 그는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병원노릇도하고 작식대원노릇도 하면서 몸을 혹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병원을 떠나면서 이계순에게 딴 일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병을 떼는 일 하나에만 전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한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신원을 통해 병원동무들에게 편지와 후방물자를 몇 차례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지구를 잠깐 뜬 사이에 적들은 우리 부대의 후방밀영들에 토벌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송의사가 책임진 후방병원도 불의습격을 당했습니다. 박순일은 격전끝에 전사하고 이계순은 적들에게 사로잡혀 장백현으로 끌려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두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줄도 모르고 김정필과 한초남에게 식량을 지워 병원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다 나았을 터이니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험상스럽게 변모해버린 이두수만 데리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후방병원에 들이닥친 재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방에 정찰조들을 내보내여 이계순의 행처와 생사여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정찰조들이 그가 적들에게 붙잡혀간지 10여일만에 학살되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정찰조원들은 이계순의 최후를 직접 목격했다는 장백 사람들을 만나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계순을 총살하는 날은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그날 전향한 공산군여자의 반성연설이 있다는 광고를 내면서 주민들을 학교운동장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혜산쪽에서 넘어오는 장사군들도 모조리 그 운동장으로 끌고갔습니다.

그러면 이계순이 무엇 때문에 주민들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적들에게 요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공산주의자로서의 이계순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인민들과의 영별을 반일혁명선전으로 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반성연설을 몇 마디 하면 적들은 그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계순은 그런 비루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총칼을 겁내지 않으며 무슨 말이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이계순은 나는 비록 죽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며 그 사령관도 건재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않아 온다, 모두다 일치단결하여 적의 폭압을 박차고 반일항전에 떨쳐나서라는 내용으로 연설하였다고 합니다.

이계순은 마지막까지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 교양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연설을 한다고 소개했던 공산군여자가 반일을 선동하는 혁명선전을 했으니 적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백지방의 토배기들이 지금도 그때의 광경을 생생하게 회상한다고 하니 그 연설이 그 고장 인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순이 유명한 여투사로 된 것은 그가 이처럼 최후를 잘 마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에서의 정점은 바로 이 최후에 있습니다. 생애의 정점이란 사람의 정신력과 활동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점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맞이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60대나 70대에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한때 명성을 날리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한 생을 마치는 사람보다 이계순이나 최희숙처럼 인생의 끝을 쇠소리가 나게 맺는 사람들을 역사는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계순을 잊지 못해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계순과 같은 여투사는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영웅적인 생애는 혁명적인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이계순은 조선민족이 낳은 참된 딸이며 여성혁명가의 훌륭한 본보기의 한 사람입니다.

이계순의 친정어머니는 오래동안 외손녀의 생사여부를 몰라 남모르게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전후에야 종합대학에 다니는 외손녀를 만나 딸이 남기고 간 달비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3대를 오르내린 그 유물은 단순한 달비가 아니라 이계순렬사의 값높은 인생의 상징이였습니다. 두 살 때 생이별을 당하여 얼굴도 목소리도 알길 없는 어머니가 한 줌의 달비로 되어 딸을 찾아왔으니 세상에 이런 상봉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딸은 그 달비에 볼을 비비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이계순의 딸은 지금 부모들이 목숨을 바쳐 개척해온 혁명의 대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절개를 지켜낸 여성들의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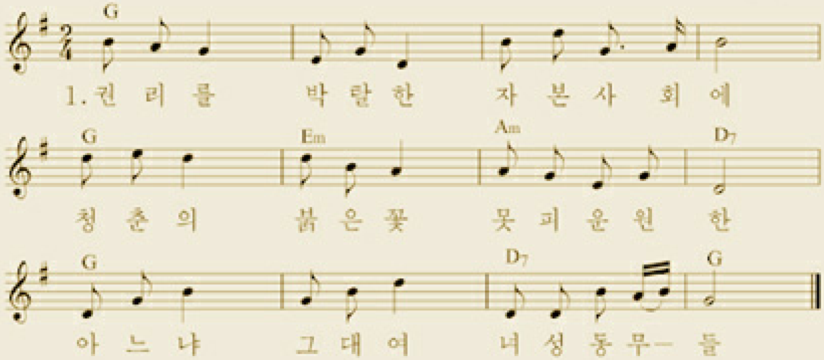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역사와 우리 나라 여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견자로서의 산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혁명열사릉

여성해방가

빠르지 않게(♩=87) 혁명가요



2.남 몰래 조용히 우는 눈물로
청춘의 고운 낯에 주름 생기고
매 맞아 얻은 병 살기 싫어요

3.골방안 감옥살이 언제 끝나나
꿈에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멸시와 천대는 더욱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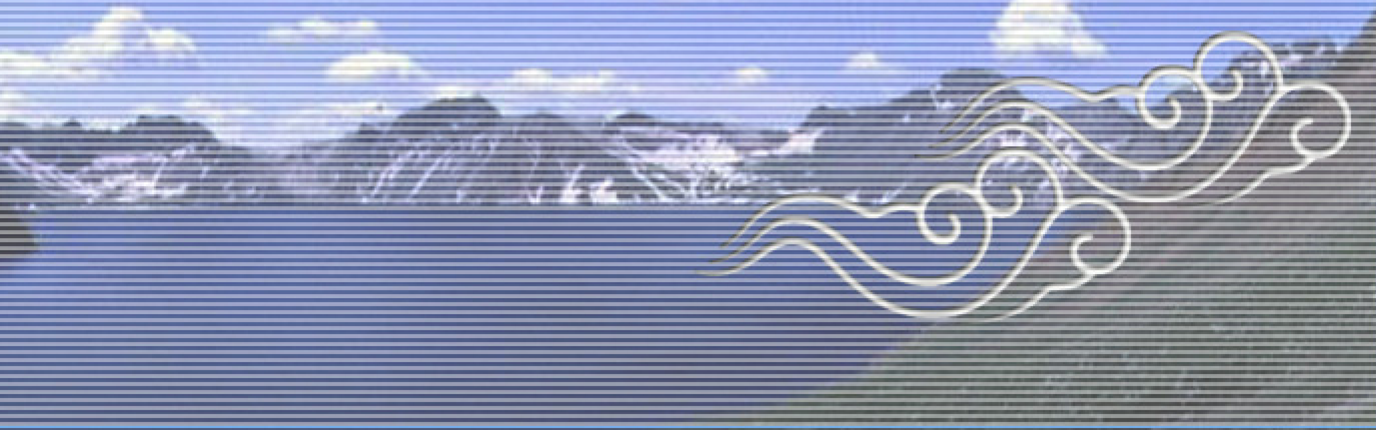
4.아버지 어머니 나의 오빠여
지주놈 장리빚에 날 팔지 말고
차라리 이내 몸을 없애 버려요

5.녀성들 우리 동무 다 일어 나라
부르죠아제도를 없애버리고
동등한 권리 위해 총들을 들자

6.얼매어 하는 결혼 멍에를 벗고
구속에서 용감히 뛰쳐들 나와
동등한 권리를 다같이 찾자

제21장





대부대선회작전의 총성

밀영에 찾아온 여인
중국인지주 류통사
수십만의 ≪대토벌군≫과 맞서
오중흡과 7연대
평안도사람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마에다토벌대≫의 종말

■ 시기 : 1939. 7 ~ 1940. 3

1. 밀영에 찾아온 여인

1956년가을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기는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부터 긴 전화를 받았다. 학포탄광탁아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기가 해방 전에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싸웠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청하기에 평양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에 그 여성이 내각청사로 찾아왔다. 찾아온 사연을 묻는 서기에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자꾸만 뵙고싶어서 하고 간신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대표단과의 사업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고 계시었다. 대표단과의 사업을 마치신 수령님께서는 서기가 여인이 찾아왔던 전말을 보고드리자 강흥석의 처 지순옥이 그 여자가 살아있었구만 라고 하시며 깊은 추억에 잠기시었다.

지순옥이란 어떤 여자일가?

어버이수령님께서 1972년 5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실 때와 1976년 3월 음악무용서사시극 대부대선회작전을 보실 때 그리고 1985년 10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돌아보실 때 하신 교시들을 종합하여 아래에 지순옥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한다.

우리가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백두산동북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며 8연대의 사업을 지도하고 있을 때이니까 그게 아마 1939년 여름일것입니다.

어느 날 7연대장 오중흡이 나를 찾아와서 부대실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끝에 사령부로 오던 도중 올기강상류에서 강흥석의 처를 만나 8연대밀영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순옥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면서 밀영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열정에 탄복하였습니다. 송화강이나 올기강유역의 산악지대는 적의 군경들과 밀정들이 무시로 싸다니는 위험한 유격전구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눈먼 총알을 맞을 수도 있고 통비분자로 몰려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남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소행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순옥의 남편 강흥석은 명사수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애처가로서도 소문난 사람이였습니다.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의 배낭속에는 안해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가 여러 통 있다고 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혼을 한 그는 결혼 직후 인차 혁명을 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안해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안해 역시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정보선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내탐한 일제는 지순옥을 위협하여 그를 간첩활동에 끌어들이였습니다.

아무튼 강흥석이란 사람이 안해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으니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강흥석이 식량공작을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령부로 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지순옥을 만나보니 몸가짐이 단정하고 예의범절이 밝은 여자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그 여자에게 이 산천어는 장군님께서 부인을 위해 손수 낚은 것이니 많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지순옥은 몹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셈인지 밥을 몇 술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흥석

나는 그에게 여대원 한 명을 붙여 말동무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포속에 누워 밤새껏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그들 부부의 상봉을 앞두고 경사가 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어려운 무장투쟁을 하면서 처음 보게 되는 상봉이었기 때문에 나도 축복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강흥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을 만나고나니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남편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사지판이나 다름없는 산속으로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대의 위치를 어떻게 면바로 알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담화를 해본 동무들도 그가 하는 앞뒤말이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반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밀영에 들어온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되었을 때 오중흡과 오백룡이 헐떡거리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중흡은 제가 인정에 사로잡혀 알아도 보지 않고 일제의 밀정을 사령부로 끌고왔습니다하고 청천벽력같은 보고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였습니다. 오백룡은 혁명군소대장의 안해라는 것이 유격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일제의 개가 되어 들어왔으니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당장 총살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강흥석의 처와 함께 한 천막안에서 자는 여대원이 지순옥의 거동도 이상하고 말도 아귀가 맞지않아 미타하게 생각하던 중 밤중에 바느실로 잡아맨 그의 겹옷속을 깐깐히 살펴보다가 독약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독약공세에 얼마나 신물이 났던지 우리 동무들이 그런 것쯤은 인차 식별해낼 때였습니다.

독약봉지가 들장났다는 것을 그 여자가 아는가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감시만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동안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밀정이나 암해분자들이 우리 부대에 잠입했다가 적발된 실례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간첩들 중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일 수 없는 기본계급 출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순박한 머슴군이나 노동자들에게도 간첩임무를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혁명군에 남편을 보낸 여자를, 그것도 혁명군에서 소대장을 하는 사람의 안해를 밀정으로 길들여 우리 군영에 들여보낸 전례는 없었습니다. 혁명군소대장

의 안해가 간첩임무를 받고 나타났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상사건이였습니다. 일본의 첩보모략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약하였습니다.

오중흡의 보고를 받고 나는 강흥석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중흡과 오백룡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순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적 오랜 담화를 했습니다. 강흥석이네 가정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혁명군으로 찾아들어올 때 고생하던 일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그의 친정집형편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화제는 자연히 강흥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강흥석이 내일이나 모레쯤 공작지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하자 지순옥은 별안간 얼굴을 싸쥐면서 와락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저고리에서 제손으로 꿰맨 자리를 뜯더니 독약봉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군님, 저는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죽어 마땅한 년입니다! 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래 물 한 모금을 먹이고 그 여자를 좀 진정시킨 다음 부인이 자백을 했으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기 죄과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혁명군은 관대하게 처리한다, 더구나 부인은 강흥석소대장의 안해가 아닌가, 그러니 겁내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라, 어떻게 되어 간첩이 됐고 간첩이 된 다음 무슨 훈련을 받았고 혁명군으로 찾아올 때 임무는 어떤걸 받았는지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순옥은 간첩으로 흡수된 전말과 간첩훈련내용, 간첩임무와 입산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습니다.

훗날 이 광경을 목격한 오백룡투사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아마 10년은 감수된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쭉 흘렀다. 독약을 가지고 감히 장군님앞에 나타나다니. 그걸 작식가마나 밥그릇에 슬쩍 쳤더라면 어쩔 뻔 했는가. 그 조그마한 여자가 아예 조선혁명을 망쳐놓을 뻔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항일투사들이 지순옥을 회상하기조차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훈춘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영사가 작성한 정보기밀자료는 지순옥을 간첩으로 파견한 목적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파견상황:

1. 지령내용

(1) 강홍석을 획득하는데 따르는 내부분열공작

(2) 간부의 독살

(3) 유격대의 취조에 대해서는 부모의 강요에 따라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왔다고 말할 것

2. 연락방법

본인과 본인이 획득한 유격대측 인물에 대하여 특무과 가다다경좌 혹은 미나미경위에게 직접 연락할 것.

3. 입산날자. 시간 및 장소

부모에게 본 공작을 승인시키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연길에서 본인에게 각종 필요한 지식을 준 다음 8월 10일 계원과 동행시켜 유격대잠복지로 지목되는 화룡현 맹하동 서남쪽 1088고지와 서쪽 의란구 방면에 목표를 두고(8월8일 오후 10시 **김일성**주력부대 120명이 화룡현 용택촌을 습격하고 서남쪽 밀림지대로 도주한데 의하여 이렇게 판단함)입산시키었다.

4. 귀래예정

똑똑치는 않으나 대체로 2-3개월을 필요로 한다고 예견.

(훈령정기밀 제 186호. 소화15년(1940년) 7월 26일 훈춘영사 기우찌 다다오보고)

일제특무기관에서는 지순옥을 생간이라고 했습니다. 생간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술어인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는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지순옥을 생간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적들이 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직업적 스파이로 써먹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지순옥에게 네 남편이 유격대기관총수가 되어 황군을 수없이 해쳤으니 그 죄는 3대를 멸살시켜도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네가 공산군부대에 찾아가서 남편을 귀순시키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상금도 후히 주고 잘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대를 멸살시키겠다고 하니 지순옥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백을 받고 보니 가슴이 여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깨끗한 사랑과 순정마저 우리와의 대결에 서슴없이 악용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비렬성과 악랄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처자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까지도 악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습성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짓뭉개다 못해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마저 초토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사람들을 야수화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외세에 의해 강탈당한 영토와 국권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지켜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고수하기 위한 야수들과의 대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을 야수화, 불구화, 기형화하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입니다. 안해에게 간첩훈련을 주어 남편이 하는 일을 훼방하게 하고 남편의 사령관과 전우들을 독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래 야수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 몹시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이 인류를 위협하는 큰 골치거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도덕의 붕괴와 인간오염입니다. 이 세계의 하수도와 오물장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제국주의 반동들과 그 사환군들에 의하여 사람의 탈을 쓴 야수들과 기형아들과 불구자들이 산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오염은 역사발전을 저애하는 가장 큰 제동기입니다.

나는 엎드려 우는 지순옥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말라, 늦게나마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 우리는 부인을 조금도 다르게 생각지 않는다, 강압에 의해 죽지 못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하겠는가, 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지순옥이 간첩임무를 받고 온 여자라는 것이 부대에 알려지게 되자 밀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나는 원래 지순옥의 문제를 비밀에 붙이려고 했으나 오중흡, 오백룡동무들이 부대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실을 공포하여 경각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사령부로 달려온 강흥석은 밀영에서 쉬쉬하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지경이였습니다. 그가 제손으로 안해를 처단하겠다고 하면서 권총을 들고 돌아가는 바람에 나는 강흥석이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를 설복하여 자기 연대가 있는 홍기하막치기로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부부를 그렇게 갈라놓자니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군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진한장 같은 사람도 자기를 귀순시키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행패를 하려고 했다니 강흥석의 심정은 이해할만한 것이였습니다. 아량이 있고 인정이 헤픈 안길도 어느 해인가 귀순을 권고하려고 온 자기 가문의 사람을 제손으로 처단해버리겠다고 하다가 충고를 받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루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총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생각해 보라, 혁명적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자기 혈육을 쏴죽인다면 그런 군대를 누가 지지해주겠는가, 적들은 바로 우리 혁명군이 동무네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부자간, 형제간이 서로 원쑤가 되어 골육상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이치를 왜 모르고 헤덤비는가고 일깨워주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흥석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꾸중이 잘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한동안은 밀영에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지순옥을 믿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지어는 마땅히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순옥을 믿었습니다. 그는 일가친척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간첩임무를 받은 사람이고 적의 강압과 기만선전에 넘어가 혁명군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게 되었던 여성이였습니다. 사람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순옥은 혁명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교양을 받은 여자도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우리군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게 되자 즉시 죽음을 각오하고 죄과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만일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면 자백은커녕 우리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쳤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순옥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인은 반드시 우리 편으로 되면 되었지 적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인가 김책동무한테서 이계동살해사건의 경위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계동은 김책과 함께 감옥살이도하고 주하유격대도 무은 오랜 당원입니다. 운남강무당 졸업생인 그는 전투지휘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군사정치일군을 주광아라는 간첩이 죽였습니다. 주광아는 유격대에 침투한 후 한 개 부대의 비서장자리에까지 기어오른 자였습니다. 그자는 부대의 규율이 해이된 틈을 타서 이계동을 암살했습니다.

이런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 대원들이 지순옥을 경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순옥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왜 용서해주었는가. 자기 죄를 제입으로 자백한 그의 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한 존재로 되는 것은 이성과 양심, 도덕과 의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빼놓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을 더럽히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지순옥은 비록 한때 양심을 어지럽혔지만 자신과 싸워 그 양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오점을 털어놓은 여자입니다. 사람

이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기는 쉬워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순옥은 우리의 도움을 받고 힘겨운 자체투쟁을 통해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갱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구렁텅이에 밀어던지겠습니까.

혁명은 인간의 양심을 지켜주고 빛내어주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순옥의 그 양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가문에 한 명의 혁명가만 있어도 그 혁명가를 혈육들로부터 고립차단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우리의 애국역량을 닥치는대로 압살하고 분해시키고 각개격파시키자는 것이 적들의 시종일관한 책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내부의 혈연적 연계를 귀순공작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의 하나가 혈육끼리 서로 경계하고 증오하고 잡아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간계와 수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미욱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설사 간첩임무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대죄를 짓지 않은 이상 다 용서해주고 개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 번은 총독부에서 파견한 밀정이 예수교신자로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밀정은 밀가루 몇 포대를 가지고와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혁명군을 위해 조선서 가져온 선물이니 만두라도 빚어잡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작식대원들을 시켜 그 밀가루로 몽땅 만두를 빚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작식대원이 그릇에 만두를 담아가지고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밀정은 우리가 권하는 만두를 사양했습니다. 어서 들라고 거듭 권고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밀가루에 독약을 섞어가지고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밀정에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도 배가 아파서 나라를 찾겠다고 한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가, 조선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조선사람답게 처신해야지 그렇게 너절하게 살아서는 무엇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개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타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전박에 두고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잡지엔가 그 사실이 실렸다고 합니다.

나는 오백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순옥을 그냥 밀영에 두고 교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후에는 그를 재봉대로 보냈습니다. 재봉대에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600벌의 군복을 만들 과업을 받았는데 일손이 딸려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위룡도 재봉대에 동원되어 있었지만 그 역시 지순옥이 오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희숙을 비롯한 여당원들에게 지순옥을 따뜻이 대해주고 잘 교양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순옥을 진심으로 돌보면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추석을 쇤 다음 화라즈쪽으로가면서 홍기하막지기에 있는 강흥석을 그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화라즈의 깊은 밀림속에서 마침내 그들 부부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라즈에 얼마간 머물러있으면서 군정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순옥은

우리가 만든 학습교재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소학교물도 먹은 식자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후 행군기간에도 용케 부대를 따라다니며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해주었습니다. 생소하고 힘든 생활이었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노상 웃음기가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잘돼나가던 일이 그만 비극으로 번져갔습니다. 강흥석이 육과송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지순옥이한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운신

지순옥은 행군 때마다 김운신이 메고가는 기관총을 가끔 유심히 살펴보군 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강흥석이 다루던 것이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가 지방공작을 나갔기 때문에 김운신한테 기관총을 인계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무 소용도 없는 숨박꼭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육과송전투를 치른 후 송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예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공연장소에서 나는 수심에 찬 지순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없는 그를 부대에 그냥 두어둘 수 없어 그 후 우리는 지순옥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를 보내주지 않으면 일가친척들이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밀영을 떠날 때는 물론 여비도 주고 길안내자도 붙여주었습니다. 밀림속으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그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정전후에 지순옥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래저래 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평양까지 왔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순옥이 떳떳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면 우리와 헤어진 후에도 조국과 민족앞에 죄될 일은 그리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를 만났더라면 산에서 내려간 후 그가 살아온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부서 동무들이 현대사자료라는 책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경위의 일단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자기를 빨치산밀영에 파견한 적들앞에서 처신을 어떻게 했고 혁명군의 내부생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우찌 훈춘영사가 상급에 제출한 보고내용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간부들은 모두가 사상이 견실하고 시종 혁명승리를 위한 노력에 열중하며 대원들은 이에 자연히 매혹되어 전적으로 간부들을 신뢰하면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어 제반 공작의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과 제2방면군이 사기왕성하고 단결력이 있는 것은 군지휘관 **김일성**이 맹렬한 민족적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고 완강하고 건강한데다가 통제의 묘술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어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우리 부대의 실상이 비교적 공정하게 서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순옥이 우리 혁명군의 생활과 우리 대원들의 정신상태에 대해 편견없이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순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적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기

우찌영사의 보고내용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사항만 훑어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 소견과 처치

1. 소견

(1) 본인은 공술은 현하의 각종 정세에 비추어볼 때 논리가 정연하여 일단 수긍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입산초기 독약을 감추어가지고 갔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형도 받지 않고 1년나마 비단과 행동을 함께 하였을 뿐 아니라 무사히 놓여나오게 된 것은 혹은 유격대의 속심에 따라 위장귀환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되어 금후의 언동에 주의를 요한다.

2. 처치

(1) 지순옥은 안도에 잇는 가다다공작반장에게 넘겨 은밀히 감시하면서 위장귀래자라는 전제밑에 회유에 힘쓰며 보충적 취조를 추진함과 함께 특별공작을 따로 시키고 있다.

(훈령정기밀 제186호, 소화 15년(1940년) 7월 26일 훈춘기우찌 다다오보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순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돌아간데 대해 몹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인간을 한갓 말하는 짐승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써야 어떻게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순옥을 징벌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처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시집과 친척들은 모두 반동가족이라는 누명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혁명은 인간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인간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혁명입니다. 인간을 매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인간으로서 참된 생활을 해나가도록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고 부활 시켜주는 것이 가장 값높고 위대한 혁명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간을 막돌처럼 쉽게 버리지만 우리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아끼고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김정일**동무의 성품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장점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일동무는 언제인가 아래일군들에게 나폴레옹은 그대들이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데 자기자신은 그와 반대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 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동무의 철학적 신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김정일**동무를 대할 때마다 나는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장래에 대해 마음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운명을 망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이며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원리,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만 일관된 숭고한 도덕과 의리로 얽혀져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었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신성한 윤리도덕이다.

2. 중국인지주 유통사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팽진을 만나주신 일이 있다. 그이께서는 그날 조중량국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무장투쟁을 벌이던 시절에 대해서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팽진은 민족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조선만민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숭고한 계급적 우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을 높이 평가한 다음 동북해방작전당시 많은 중국인지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이라는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내보이면서 지난날 자기네가 항일연군을 도와준 사실에 대해 역설하더라는 것을 여담삼아 말씀드리었다. 동북해방작전당시 팽진의 직함은 동북민주연군 정치위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이 그 확인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회억의 말씀을 하시었다.

확인서이야기가 나오니 유통사가 생각납니다. 유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원군확인서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사는 우리가 백두산동북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 화룡현에서 만난 유명한 중국인부호입니다. 장백현에서 만났던 조선인애국지주 김정부에 못지 않게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유의현입니다. 조선말을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그는 중국사람들과 조선사람들사이에 의사를 소통하여야 할 일이 생기면 스스로 통역을 맡아나서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유통사라고 불렀습니다. 통사란 지금말로 통역이라는 뜻입니다.

백두산동북부로 넘어가 올기강전투를 한 다음에 우리는 화룡과 국내 삼장 지구, 안도현일대를 한 바퀴 돌고 올기강밀영에 머물러있으면서 정치군사활동을 맹렬히 벌이였습니다.

그 당시 기본부대는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사령부에는 기관총소대와 경위중대 대원들이 있었는데 식량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밀영부근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다 가난한 농민들이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작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부대가 자기네 관할구역에 나타나자 화룡현의 적들은 혁명군이 와서 쌀을 빼앗아간다고 선전하면서 지정된 몇몇 장소에 식량을 다 모아놓고는 하루 한 사람당 식량소비기준을 정해놓은 다음 부락에서 달구지를 가지고 오는 대표들에게 이틀치씩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어 적들은 현내 주민들에게 석유를 두 병씩 구해놓게하고 혁명군이 와서 식량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다

가 쏟아 부으라고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식량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심하던 중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담화를 하다가 그 전날 소왕청유격구역에서 살다가 유격구가 해산될 때 화룡현으로 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담화를 하는 과정에 중국인부호 유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통사만 쟁취하면 반일애국역량을 장악하는데도 좋고 후방물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재일이나 강위룡과 같이 입대전에 화룡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유통사가 한때 자위단장까지 한 지독한 반공분자이기 때문에 징벌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주재일과 강위룡은 유통사의 내막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유통사네는 화룡현 소재지에서 약 30리가량 떨어진 우심산기슭에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용담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유통사네 집은 네귀에 포대를 박은 긴 토성안에 들어앉은 어마어마하게 큰집이였습니다.

유통사의 형은 그때 이미 칠순이 넘은 늙은이로 앉아서 가문의 좌상대접만 받고 있었고 둘째인 유통사 자신은 가문의 기둥으로서 관청 같은데 드나들며 주로 바깥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셋째 유의청은 서사들을 거느리고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 이봉록과 박정숙의 말에 의하면 유통사네 집에서는 토지만 해도 100상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한 상이 3,000평이니 100상이면 30만평 100정보나 되는 광대한 토지이다. 유통사네는 콩기름공장, 분탕공장, 양조장도 경영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상점들도 가지고 있었다. 화룡시내에는 백화점, 음식점, 소금전매점 같은 것을 두고 대리인을 시켜 운영하였다고 항일혁명투사들은 회상하고 있다.

유통사네 집안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였지만 반공을 하는데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화룡출신의 유격대원들은 그 가문 사람들을 가리켜 악질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아들이 화룡시내에서 위만경찰관노릇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유통사의 아들은 경찰관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부들이나 작인들을 종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또 그 아비인 유통사는 공산당과 연줄이 있다고 짐작되는 집사람들을 아들네 경찰서에 알려 문초를 받게 하든가 소작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살길을 끊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통사네를 당장 징벌하고 그 가문재산을 강제로 수탈하자는 일부 사람들의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부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통사에 대하여 달리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에 대하여 깊이 요해해보지도 않고 서뿔리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유통사에 대하여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그가 조선말을 잘한다는 사실과 군중들과 허물없이 어울린다는 점이였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관청에서 조선인 작인문제가 제기되면 스스로 통역을 서주면서 작인들의 역성까지 들어주는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 와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조선작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특별히 돌보아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복동에 사는 유통사의 작은댁이 조선여성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흥미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국살이를 하는 조선농민들을 동정하고 조선여성을 작은댁으로 두고 있으며 조선말과 풍습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왜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천하에 못된 악질지주라는 평을 받고 있는가? 어째서 동정심이 많다는 유통사가 주재일이나 강위룡과 같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경찰서 걸음을 시키며 못살게 굴었는가?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우리 동무들을 용담촌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용담촌에 가서 유통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해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유통사가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된 것이 바로 5.30폭동때문이였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5.30폭동 때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습니까. 땅뙈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일이고 반일이고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한 몽둥이로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그자들의 선동을 받은 폭동자들은 지주집대문을 두들겨 패고 곡식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별별 망동을 다 부렸습니다. 그런 극좌적인 망동은 공산당에 대한 영상을 아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통사는 공산당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생각하고 공산운동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집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한사코 박해를 가한 반면에 지주들을 보호해주는 군벌들과는 더욱 가깝게 지냈습니다.

9.18사변 후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생겨나면서 공산당이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을 갈라놓고 백색구역사람들을 적대시한다는 말을 듣고 유통사는 더욱 반공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만주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일본사람들도 미워하였고 공산주의자들도 미워하였습니다.

공산당은 나의 숙적이야.

유통사는 늘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비록 일시적 오해 때문에 반공을 하고 있지만 좋은 영향만 주면 그를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돌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통사는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다음 그들이 자기 집 가병들을 해산시키고 무기를 회수해간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 반일감정에 특별히 유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징벌이나 재산몰수가 아니라 유통사의 반공의식을 바로잡아 주고 반일애국정신을 더욱 조장시켜 그를 우리 혁명의 지지자, 후원자로 교양개조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7연대의 오일남을 책임자로 하는 공작소조를 파견하였습니다.

오일남은 유통사를 만나자 **김일성**장군님께서 통사님과의 면담을 위해 자기를 파견하였는데 그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통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유창한 조선말로 잡아가겠으면 그저 잡아갈 것이지 면담이라는 보자기는 왜 씌우는가, 공산군 대장이 지주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는거야 잡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겠는데 당신네가 화룡현지경안에 들어와 돌아친다는 소문이 나돌 때부터 이 유의현이 칼도마우에 오른 물고기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각오하였다, 내 이미 죽음까지 각오한 바이니 의논이고 뭐고 빙빙 에돌 것없이 죽이겠으면 죽이고 끌어가겠으면 끌어가고 재물을 털어가겠으면 털어가고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오일남이네 공작소조가 자기를 납치하러 온 줄로 알고 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영감의 기상이 이만저만 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통사가 자기네를 얼마나 차겁게 대했던지 처음에 오일남은 이번 공작은 실패로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통사가 빳빳하게 나올수록 오일남은 어떻

게 해서든지 이 영감을 후려서 사령부로 데려가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은 5.30폭동 때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애국과 매국에 대한 구별도 없이 부자일반을 상대로 닥치는대로 두드려부시던 그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으로서 조중인민의 민족적 해방과 생명재산의 보호를 신성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군대라는 것을 해설해준 다음 통사님이 우리 사령부의 요청에 정 응할 수 없다면 조용히 그대로 물러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일남이 정작 물러가겠다는 말을 하자 유통사는 한참동안 입을 꾹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꾸어 이왕이면 눌러앉아 시국이야기라도 하다가 갈 것이지 그렇게 훌쩍 떠나갈 바에야 무엇 때문에 예까지 왔는가고 하면서 김사령이 나를 부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면담요청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후환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오일남이란 사람이 처신을 점잖게 하지 시국이야기도 구수하게 잘하지 하니 유통사도 좀 호기심이 동하고 노여움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김정부

김사령부대가 쌈 잘하는 부대라는 말은 나도 많이 들었소. 그렇지만 김사령도 공산당이라는데 부자들을 밉게 보는 그 본색이야 어디가겠소. 하긴 이야기를 좀 들은 것도 있고 또 당신네의 말과 행동거지를 보면 다른군대들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김장군이 부른다니 가긴 가겠소.

유통사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자기를 데려가겠거든 포승으로 묶어서 죄인 호송하듯이 데려가달라, 내스스로 김사령의 요청에 응하여 순순히 당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일본놈들이 눈치채게 되면 토벌대를 보내서 내 목을 칠 수 있다, 우리 집안사람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납치해가듯이 데려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오일남은 유통사가 묘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한테서 받은 명령은 유통사를 점잖은 방법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였지 붙잡아오라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사령부의 승인이 없이 그를 포승으로 묶어 데려간다면 장백현에서 김주현소조가 김정부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그는 판단하였습니다. 오일남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 유통사가 내놓은 안이 묘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지해주려고 하였는데 일부 지휘관들이 유통사가 내놓은 안대로 하면 경찰관노릇을 하는 그의 아들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수비대무력까지 떨쳐나서서 야단법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촌에서 총소리를 내면 화룡현 소재지에 있는 적들이 인차 증원을 올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가 내놓은 안대로 하자면 무대를 넓게 잡고 판을 크게 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유통사의 집이 있는 용담촌을 중심으로 3개 부락의 적을 동시에 치기로 하고 7연대, 8연대와 경위중대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유통사네 사돈집이 있는 용담촌 옆부락에 지휘부를 정하고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작전에 앞서 우리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유통사는 당분간 집에 있게하고 그 대신 유통사의 동생 유의청을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통사의 아들과 군경들이 신경을 덜쓰게 하면서도 유통사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의청이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예로부터 형제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고유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씨집안사람들이 유의청을 빼내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것을 구실로 내걸고 우리와 연계를 맺어도 적들과 주변사람들이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부대들도 3개 부락에서 일제히 철수하였습니다. 혁명군부대가 마을을 떠나갈 때 유통사는 형의 셋째아들을 불러내여 삼촌의 시중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유의청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유통사가 형의 아들을 산으로 보낸 것은 유의청의 고독을 덜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밀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의청이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몸이 뚱뚱해서 잘 걷지 못하는데다가 아마 아편기운이 다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편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가에 태웠습니다. 혁명군이 아편쟁이를 담가에 태워가지고 수십리길을 걸어가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실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때 우리는 못해본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경위중대장인 오백룡에게 과업을 주어 유통사의 동생과 조카를 잘 보호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경위중대동무들은 손님들이 들 천막을 치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었습니다. 식량곤란을 겪고 있은 때였지만 그들에게만은 끼니마다 흰쌀밥을 해주고 고기국을 푸짐히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의청은 음식을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 끼니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리고 먹던 부호의 자식이니 입맛이 당기지 않아서 그러겠거니하고 짐작했는데 까닭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달게 들지 않는 것은 아편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유의청은 우리 경위대원들에게 밥은 못먹어도 좋으니 아편을 달라고 매일같이 성화를 먹이었습니다. 아편만 주면 값은 부르는대로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무들은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당시 군의처에서 마취제대용으로 쓰던 비상용아편이 얼마간 있었을 뿐입니다. 아편 때문에 발광이 난 유의청은 마침내 경위대원들에게 별별 험담과 욕설을 다 퍼부어대게 되었습니다.

지주집자식이 혁명군밀영에 와서 아편을 내라고 성화를 먹이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나는 손님들을 사령부천막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정상이 말이 아니였습니다. 아편중독자가 아편을 못쓰게되면 눈정기가 풀리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비상용을 다 털어서라도 유의청에게 매일 아편을 조금씩 공급하라고 군의처에 지시하였습니다. 유의청은 아편을 쓰자마자 눈에 생기를 띠고 벙글벙글 웃으며 들떠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육신을 놀리는 일이라고는 해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지어는 잠자리도 거둘줄 몰라 조카가 거들어주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의호식해온 무위도식자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이말저말 하던 끝에 사람이란 제힘에 맞게 오륙을 놀려 일을 해야 사는 멋도 있고 밥맛도 난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공주는 무슨 일이든 남만 시켜먹다나니 사과 한 알 제손으로 깎지 못하는 병신이 되었다는데 남의 덕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런 머저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그 말을 듣더니 자기도 그 공주와 다름없는 머저리지만 한 가지 일만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만두를 잘 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인이 다되었다고 단정한 사람한테 비록 굉장한 기술은 아니지만 만두빚는 재간이라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사령부작식대원을 시켜 만두감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반죽한 밀가루를 얇고 고르롭게 밀어서는 속감을 다져넣고 만두를 빚어놓군 했는데 그 솜씨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두모양도 고왔지만 만두를 빚는 속도가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나는 우리 동무들과 함께 유의청이 빚은 만두를 먹으면서 그의 뛰어난 솜씨를 칭찬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유의청은 만두를 빚는 일만 생기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식대원들을 도와나섰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는 말수더구가 많아지군 했습니다. 지어는 나와 농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던지 그는 만두를 빚고 돌아와서 **김**사령님 말대로 일을 하니 사는 멋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두를 빚는 일도 노상 있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일감이 없는 날이면 유의청은 몸살이 날 지경으로 갑갑해하면서 약담배질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교훈이 될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와 맹자에 이르기까지 안해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역사에 이름을 남긴 애국적인 자산가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다나니 장울화와 진한장과 같은 부호가문출신 혁명가들의 이름도 자연히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의청은 내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붓과 종이를 청하였습니다. 장울화처럼 비록 혁명을 위해 자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돈과 재물로 **김**사령을 돕고 싶다면서 형 유의현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의청의 편지내용을 보니 우리가 그 동안 그를 인간답게 대해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의청은 먼저 자기자신과 조카의 안부를 썼습니다. 그는 나와 한 천막에서 같이 지내며 만두도 같이 빚군 한다는 것과 혁명군대원들이 자기를 친형제를 대하듯이 성심성의로 보살펴준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동안 대접도 잘 받았으니 은공에 보답해야겠는데 형님이 쌀과 천, 신발 같은 물자들을 보내준다면 혁명군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자기들도 인차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교양하고 계몽시킨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조카를 산에 보내고 은근히 불안속에서 보내던 유통사는 동생의 편지를 받아보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아무날까지 당신네들한테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해놓을 테니 짐을 지고갈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봉록에게 한 개 소대가량의 대원들을 붙여주어 유통사가 준비해놓은 원군물자들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운반대가 지고온 물자들 가운데는 수백 벌의 군복을 지을 수 있는 광목천과 지하족도 있었고 흰쌀, 밀가루, 전병 같은 것도 있었으며 돼지고기와 콩기름도 있었습니다. 유통사는 우리 밀영에 그런 물자들을 세 번씩이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동무들과의 교제가 잦아지게 되자 그는 정식으로 나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자기를 밀영에 데려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왕 혁명군을 도와주는 바 치고는 사령을 만나 인사라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밀영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유통사가 밀영으로 올 때 경찰서에 다니는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각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삼촌이 보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혁명군밀영으로 찾아갈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삼촌이 보낸 편지를 보면 삼촌과 사촌동생이 **김일성**장군과 한 천막에서 숙식도 하고 만두도 같이 빚는다고 했는데 그

것은 믿지 못할 소리다. 혁명군사령관이 어떻게 사민과 침식을 같이할 수 있는가, 게다가 삼촌은 지주집자식이 아닌가, 공산당은 지주들을 타도대상으로 보고 있다, 혁명군대장이 적대계급의 자식과 침식을 같이하고 여염집아낙네들처럼 만두를 빚는다니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김**사령의 부하들 중 누군가가 그렇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는 아들에게 당치않는 소리는 하지 말라, 내가 요즈음 **김**사령부하들과 몇번 교제해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의바르고 인정미가 있는 젊은이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김**사령이 수하에 좋은 부하들을 두었다고 생각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만 보아도 **김**사령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부대의 기강을 알 수 있다, 이왕 혁명군과 인연을 맺은 이상 내 아무래도 산에 가서 **김**사령도 만나보고 너의 삼촌이 편지로 전해온 것이 사실인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올 때 고급천인 스크노직으로 지은 군복과 코트, 장화와 모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몇 번 말을 나누어보니 인격상으로나 학식으로나 동생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였습니다 점잖으면서도 언행이 도고하고 위엄이 있었었습니다

유통사는 나에게 조선말로 산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은가고 하면서 그 동안 동생과 조카를 잘 보살펴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나대로 그사이 많은 원군물자를 보내주고 또 연로한 몸으로 우리를 찾아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유통사를 위해 천막 하나를 따로 쳐주고 거기서 그가 동생과 조카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유의청은 형에게 공산군이 붉은마귀라는게 무슨 소리요 그건 다 헛나발이요. 세상에 이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은 없소. **김**사령부대는 신사부대요 라고 하면서 혁명군에 대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어 **김**사령덕에 개명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유의청이 우리에 대한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유통사는 동생을 만난 다음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였습니다 내가 유통사를 만나보고 제일 놀랍게 생각한 것은 그가 조선말과 조선의 풍습 뿐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내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와는 아주 쉽게 언어가 통하였습니다.

유통사의 말가운데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그가 나라를 잃고 고생스러운 이국살이를 하는 조선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이였습니다. 내가 중국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유통사도 조선사람들을 퍽그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사는 나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김**사령부대를 ≪공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사령이 공산당이라는게 사실입니까?≫

≪우리 부내를 ≪공비≫라고 한 것은 왜놈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사령은 지금껏 반공을 해온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나를 만나러 밀영에까지 찾아온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가기 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만큼 나는 심사숙고해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초기부터 반공을 하는 사람들과 담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사영도 반공을 하였고 오의성도 처음에는 반공을 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인 양세봉도 애국자였지반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다가 생애의 말년에야 연공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사령이나 오사령, 양사령과의 담판에서는 통일전선을 위해 내

가 매번 공산주의를 변호하고 연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연공이냐 반공이냐 하는 선택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주동적인 자세에서 담판을 끌고나가면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사와의 담화에서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나는 그의 반공행위를 규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유통사는 그 판결을 귀담아듣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하여 자기의 반공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간에 그는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였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반공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멸공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반공이요 다른 하나의 부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의 비행을 보고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을 듣고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경원시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맹목적인 반공이였습니다. 유통사의 경우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를 반공으로부터 연공에로 돌려세우자면 그에게 우리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원군물자나 받아먹자고 그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해도 안되었고 또 그가 반공을 해온 지주라고 해서 덮어놓고 몹쓸 놈이라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행적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밝혀주어 반공대신 연공애국의 길을 택하도록 잘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사님이 반공을 해온데 대하여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사님을 징벌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통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잘 몰라서 반공을 했고 또 반공은 하면서도 중국을 사랑하고 중화민족을 사랑해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공을 해도 망국은 원치 않고 있으며 지주를 해도 나라가 있는 중국지주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통사님입니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중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공의 길로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유통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내손을 잡았습니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이 화룡판에 인종이 많고 입이 많아도 나에게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신 분은 **김**사령밖에 없습니다. 그 평점 하나면 나는 발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기 소갈머리가 좁아서 반공을 해왔는데 연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공이란 별 것이 아니다, 반만항일을 하고 우리 혁명군을 후원해주는 것도 다 연공이다, 통사님은 우리에게 동생과 조카를 보낸 그날부터 벌써 연공을 시작하였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공산주의를 이해하게 되고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된다, 공산주의자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조선지주들한테나 중국지주들한테나 연공항일은 첫째가는 애국대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유통사는 **김**사령덕에 때늦게나마 자기의 금새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는 별나게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편치 않은 데가 있는가고 물어도 그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을 불러다가 그 동안 경위중대에서 유통사를 돌보는 과정에 무슨 불

미스러운 일이 없었는가고 물었습니다. 오백룡은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유통사가 밀영을 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기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모습도 보여주고 오락회도 구경시켰는데 그가 작식터를 돌아보는 과정에 수수쌀과 산나물을 반반씩 섞어 끓이는 죽가마를 보고 좀 언짢아하였다고 했습니다.

유통사는 자기가 수십 석의 쌀을 보내주었는데 왜 밥은 해먹지 못하고 저런 음식을 해먹는가, 쌀을 아끼느라고 죽을 쒀먹는다면 물론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식량이 바르다고 사령관한테까지 죽을 대접한다는거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사령관이 부하들과 한 가마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아마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군의처를 돌아보다가 거기에서 환자치료에 쓰려고 비상용으로 아껴오던 아편을 자기 동생한테 써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감격해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덕

나는 오백룡의 말을 듣고나서 유통사네 일행을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자신은 자기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동생과 조카는 당분간 밀영에 더 머물러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더많은 물자를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러자면 자기가 혁명군에 물자를 넘겨주지 않을 수 없는 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조카가 밀영에 남아있게 되면 물자를 들여보내는 것이 탄로되어도 왜놈들에게 둘러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유통사가 없는 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리를 더 도와주겠다고 자청해나선 것은 아주 좋은 일이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각방으로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유통사와의 작별을 앞두고 간단한 송별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사는 그 송별모임에서 지가 공산주의자 일반에 대해 적대시하고 우리 혁명군을 ≪비적≫으로 오해하고 있은데 대해 사죄하면서 앞으로 혁명군을 돕는 일이라면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헤어질 때 앞으로 8로군이 동북을 해방하는 경우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확인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명주천에 한자로 유통사는 훌륭한 애국지사이다, 그는 항일연군을 물심양면으로 원호해주었다고 쓰고 그 밑에 사령관 **김일성**이라고 쓴 다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팽진이 보았다는 증서가 바로 이런 확인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만주지방의 적지 않은 중국인지주들은 겉으로만 일본사람들과 협력하는 체 하였지 내막적으로는 가만가만 항일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제가 망하고 괴뢰만주국이 다시 중국에 귀속될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지주들은 ≪쭈시강≫이라고 하면서 인민혁명군을 도와주고는 반드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증서를 장백현의 지주들에게도 써주고 액목현과 돈화현의 지주들에게도 써주었습니다.

원래 중국말로 ≪쭈시강≫이라는 말은 돼지 ≪저≫자와 먹을 ≪식≫자, 겨 ≪강≫자의 중국식발음인데 돼지가 쌀겨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붉은 ≪주≫자와 먹을 ≪식≫자, 편안 ≪강≫자로 쓰면 그것도 발음은 ≪쭈시강≫으로 되지만 이때에는 주덕이 강덕을 먹는다는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8로군을 주덕과 모택동의 성자를 따서 주모군이라고도 했습니다. 강덕은 일본사람들이 세운 만주국황제 부의의 연호입니다. 중국사람들은 8로군이 동북을 해방하게 된다는 의미의

은어로서 ≪쭈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사가 우리한테 왔다가 돌아간 다음 올기강밀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군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각종 원군물자들을 자동차로 아낌없이 실어보냈습니다. 그 물자들은 우리가 그 해 겨울나이준비를 하는데서 큰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유통사는 자기 동생이 우리 군의치의 비상용아편을 쓴 대가로 목침만한 아편덩이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유통사의 동생과 조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의청은 우리와 작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편부터 끊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 우리도 인차 올기강밀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유통사형제와 두 번 다시 연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유통사를 잊지 않았으며 그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통사의 친척들 중에 조카벌이 되는 유진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역사역구소앞에로 써보낸 편지에 의하면 유통사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자주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밀영에서 돌아간 다음 자기의 항일의지도 명백히 표시하고 우리에 대한 선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통사는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가 올기강밀영에서 써준 증서를 가보로 간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한 다음에는 동생네 집에서 그 증서를 보관해두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 밀영에서 만나 흉금을 터놓은 것이 인연이 되어 나와 유통사는 일생을 두고 서로 잊지 못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면서도 늘 가깝게 지낸 셈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라도 민족도 혈육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산가들과는 뜻을 같이할 수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자산가들은 국적과 당파, 정견에 관계없이 우리의 동행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나 재산의 유무는 인간을 평가하는데서 절대적 기준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람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애와 민족애, 인민애, 인간애일 것입니다.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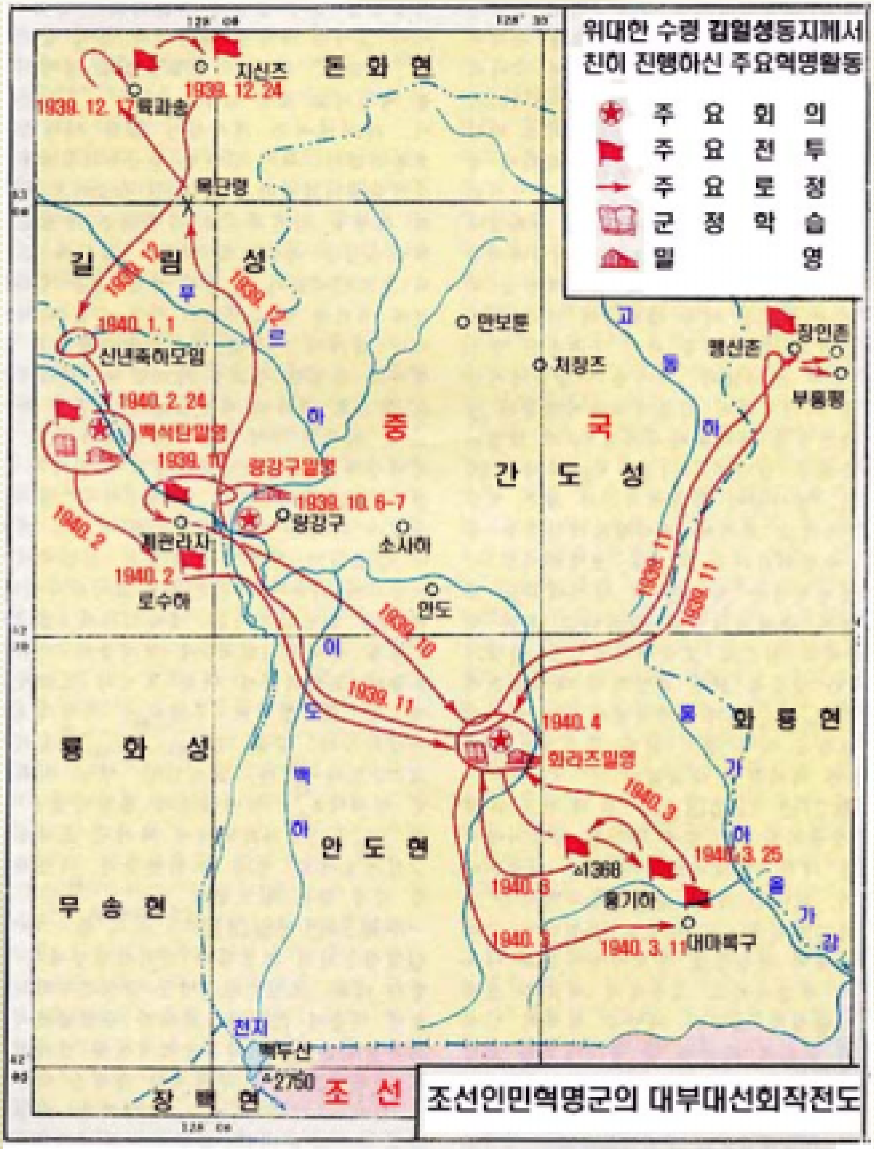
이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에서 좌우경을 범하게 됩니다. 한때 항일혁명투쟁역사를 소개선전하는 일부 글들에서 유통사를 악질적인 반공지주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신과 경력만을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경솔하게 다루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를 매국자로 볼 수도 있고 혁명의 지지자를 반혁명분자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매국자를 애국자로 보게 되고 반혁명분자를 혁명의 지지자로 잘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교포 손원태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자리에서 주석님, 남조선에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그 많은 자산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주시었다.

그때 외세에 붙어서 민족을 팔아먹는 극반동이 아닌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의 이런 입장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3. 수십만의 대토벌군과 맞서



일제는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봄까지 동남부 3개성에 대한 치안숙정 특별공작의 명목밑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미증유의 대토벌을 강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작전의 주담당자였던 노조에와 그 산하 토벌대장들의 패전고백을 담은 글을 보시다가 검질긴 일본군이 이렇게 김빠진 소리를 한걸 보면 그들도 그때 몹시 혼이난 것 같소. 우리 동무들의 고생이야 더 말해 뭘하겠소.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결전이었소 라고 하시면서 적아의 대결에 대하여 상세히 회상하시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입니다. 고난의 행군도 어려웠고 일제가 치안숙정특별공작의 명목밑에 동남부 3개성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던 때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남부 3개성이란 길림성, 통화성, 간도성을 말합니다. 매 단계의 투쟁이 다 간고하고 복잡했지만 이 시기에 겪은 고생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적들이 1939년 가을부터 장기적인 대토벌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은 그 해 6월에 있은 올기강전투에서 우리에게 포로되었던 봉천부대의 한 중대장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에서 많은 장교들과 사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들은 혁명군이 자기네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노자까지 주어 돌려보내는데 대해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군을 희망하는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적군속에서 우리를 도울데 대한 임무를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교양을 받고 위만군으로 돌아간 장교들 가운데 중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사람이 바로 그 중대장이였습니다. 그는 간도지구토벌대라는 것이 새로 조직되었는데 자기 중대도 거기에 망라되었다는 것, 대토벌은 10월초부터 개시되는데 이번 작전은 전례없는 큰 규모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 혁명군이 즉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정보의 도움으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방대한 규모의 새로운 작전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처할 준비를 비교적 여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전모를 발가놓고보니 그 잡도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토벌 작전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일만군경일체의 대토벌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관동군사령관 우메즈와 만주국 치안부대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무려 20여만에 달하는 일만군경과 각종 반군사인원을 동원시킨 하나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선포한 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매해 우리를 반대하는 토벌작전을 감행해왔는데 그 규모가 해마다 커졌습니다.

1934년이후의 위공작전과 1936년 가을부터 북부동변도에서 감행된 토벌도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의 미명하에 준비된 새로운 토벌작전은 그것이 수행되는 지역의 규모에서도 종래의 모든 토벌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였습니다.

1936년의 북부동변도치안공작 때 사사끼를 위수로 한 통화토벌사령부의 작전무대가 1개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면 1939년 노조에 토벌사령부의 작전무대는 길림, 통화, 간도의 3개성과 목단강성의 영안현까지였는데 결국 4개성인 셈이었습니다.

만주국군에 실린 글에는 동낭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단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관동군이 예정한 예산금액은 300만원으로서 그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고 한다. 토벌개시의 첫날인 10월 1일 관동군사령부에서 이이무라참모장, 만주국총무장관 호시노 나오끼, 치안부차장 스스기다 미조와 노조에소장의

대리로서 기다베참모가 회담하여 기다베참모는 치안숙정계획을 설명하며 도로의 신설보수, 통신, 집단부락 등등에 대하여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여 토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호시노장관은 비용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이이자와 주계처장도 비용은 짜낼테니 꼭 3성 토벌을 성공시킬 것을 요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철저한 치안공작을 추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만주국군 란성회400페지)

노조에토벌사령부의 새 작전은 그전의 통화토벌사령부의 작전보다 지역상으로는 3-4배, 역량상으로는 12.5배, 비용상으로는 13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이수자들을 통해서만도 일본군부가 이 토벌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일만군경수뇌들은 이 토벌작전을 단순한 군사적 토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귀순공작과 사상공작, 치본공작 등을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그 폭과 심도라든가 방법과 수단의 치밀성으로 볼 때 종전의 토벌들을 훨씬 능가하는 전례없는 작전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토벌작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성전 또는 성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성벌이란 성스러운 토벌이란 뜻인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 토벌을 미화한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일본사람들은 해외침략전쟁을 여러 번했지만 선전포고를 한 적이 별반 없고 또 처음부터 그것을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을 사변이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전쟁행위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습성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새 작전을 성벌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부가 인민혁명군과의 대결을 일방적인 토벌이나 숙정으로 보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전관계, 전쟁관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왜 이 시기에 와서 어마어마한 총력전의 체제로 작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들이 작전을 세우면서 달성하려고 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중일전쟁과 할힌골싸움에서의 연속적인 실패로 하여 일본군내부는 몹시 소란했습니다.


토벌대행렬

석 달이면 결속될 수 있고 길어서 반년이면 막을 내리게 되리라고 장담하던 중일전쟁은 2년이 지나도록 승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주력은 전쟁의 진흙탕속에 깊숙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일본군부의 일부 계층속에는 중국대륙과 할힌골에서의 패전원인을 군부안에서의 파쟁이나 군사기술기재의 낙후성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군부관료들과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과 그로 인한 후방의 불안정, 보급로의 차단, 전쟁심리의 혼란 등에서 주되는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 때문에 적들이 큰 손실을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부터 일본사람들이 정신을 단단히 차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후방에 인민혁명군부대들을 그냥 두고서는 중일전쟁도 대쏘작전도 다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이것은 적들이 항일유격대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새로운 작전을 꾸미고 총력전체제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인민혁명군과의 교전과정에 대한 총화로부터 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숙정공작에서 적들이 달성하려고 한 목적은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최종적으로 소멸하고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였습니다.

노조에의 훈시를 보면 내용전반이 우리 부대를 완전소멸 해치우겠다는 호통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훈시라는데서 이때까지 여러 해 동안 길림, 간도, 통화의 3개성에서 거듭되는 토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격대들이 쇠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중임을 받고 정마를 백두산에 내몰아 한 칼에 짓부셔 비적의 화를 근절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부하들에게 인민혁명군부대성원들을 한 사람도 놓침이 없이 전멸시키라고 호통질하였습니다.

정마를 백두산으로 몰아 한칼에 짓부셔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째보겠다는 말이였는데 이 훈시를 통해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의 주공목표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력전체제하의 대규모작전에서 적들이 어떤 전략전술로 나오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는데 일본군부가 우리의 유격전술을 오래동안 연구총화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새로운 전술, 말하자면 유격전을 유격전으로 소멸하는 전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유격전을 유격전으로 소멸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토비공작 참고자료라는 것을 입수한 후 더욱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적들은 우리에 대한 토벌 경험을 묶은 이 자료집을 각 토벌대들에 배포하여 사전연구를 충분히 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반유격전교범이였습니다.

일본군부는 반유격전을 목적한 특수부대의 복장도 우리와 같은 것으로 하고 훈련도 행동도 역시 빨치산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군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얼마나 깊이 있는 조사와 새로운 전술을 모색해왔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노조에와의 대결이 아주 준엄한 싸움으로 되리라는 것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종전에는 쓰지않던 전혀 새로운 전술을 탐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공세를 파탄시키고 혁명의 지속적인 고조를 이룩하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치밀하고 적극적인 작전을 뒤받침할 수 있는 묘술을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묘술로 대부대선회작전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대부대로 비밀통로를 따라 광활한 지역을 빙빙 돌아가는 장기적인 유동작전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법으로 적을 답새기며 돌아가는 작전입니다. 이러한 유동작전을 하지 않고서는 20만의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가 늘여놓은 지구토벌대, 소지구토벌대의 그물은 길림, 간도, 통화 3성은 물론, 북만에 있는 목단강성의 영안, 동녕, 목릉 등지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그물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촘촘한데도 있고 성글게 쳐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물을 이미 친 데가 있는가 하면 치는 과정에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물


토벌대의 비행대

코의 크기도 각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활동 구역인 간도성은 모든 현에 다 토벌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선회의 지향점을 돈화와 액목의 서쪽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두 지방에는 우리가 꾸려놓은 지하조직들이 많았습니다. 군중들도 혁명화되어 있어 발을 붙이기가 좋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부대로 그 고장들을 짓부셔 놓으면 적들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지향점을 몽강, 무송, 장백 방향으로 정하고 그리로 급선회를 해서 또 한바탕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적들이 우리의 흔적을 따라서 몽강과 무송과 장백으로 나올 때 우리는 다시 간도성 남단으로 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나의 구상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선회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보았습니다.

선회작전은 대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였습니다. 적들을 피하자는 것이 대부대선회작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곳마다에서 적들을 소탕해버리자는 것이 이 작전의 목적이였습니다. 적을 칠 때에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섬멸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반드시 선회작전을 대부대로 해야 했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수행에서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본 것은 선회통로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였습니다. 통로의 비밀이 새기만 하면 적의 진드기전술에 걸려들 수도 있고 포위망속에 들어가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격대가 고정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식량을 미리 장만해서 밀영에 저축해두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온 겨울 대부대로 유동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식량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부대선회작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작전안을 생각해낸 다음에도 그것을 인차 공포하지 못하고 얼마동안 보류해둔 것은 그때문이였습니다.

나는 부대의 이동노정을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서 7연대와 8연대, 경위중대를 동원하여 우리가 지나가게 될 중요지점들에 미리 식량을 저장해놓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도현 북부와 화전현, 돈화현 일대에 먼저 식량을 마련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가을걷이를 하지 않은 때여서 식량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곤란했습니다. 가을걷이를 하고 탈곡을 해야 쌀을 사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도회지의 미곡상들을 찾아다니며 쌀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나는 식량공작을 떠나가는 지휘관들에게 곡식을 밭에 세워 놓은 채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쌀을 해결해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량을 해결하자면 매매가 끝난 다음 우리 스스로가 밭에 가서 곡식을 베여들여야 하고 낟알털기도 자체로 해야 했습니다. 전부대가 다 동원되어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식량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던 그 해 10월초 나는 안도현 양강구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할 데 대하여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양강구와 그 부근에서 활동할 때의 사실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농민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열네댓 살밖에 되지않은 작은아들을 혁명군에 입대시켜달라고 간청하던 일입니다.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큰 시련을 앞두고 어린 소년을 부대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소년에게 우리는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는 군대다, 하루에 100리를 행군할

때도 있고 200리를 행군할 때도 있다, 그래도 따라 다닐만한가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오송을 가리키며 저 군대형님이 걸으면 자기도 따라다닐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농민에게 아들을 유격대에 보내놓고 걱정스럽지 않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그만한 각오도 없이야 어떻게 아들을 혁명군에 바치겠는가, 다북쑥도 삼밭에 나면 곧아진다고 했는데 장군님만 믿고 마음을 놓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소년도 똑똑하고 아버지도 훌륭하였습니다.

나는 그 소년을 입대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고생을 사서한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사령관동지가 저런 소년을 입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번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만일 이번 작전이 승산없는 작전이라면 사령관이 저런 짐을 스스로 걸머지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였습니다.

그 소년을 전령병들속에 두고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였는데 눈썰미가 있고 행동이 민첩하여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 후 나는 양강구로 회의하러 갈 때에도 그 어린 대원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인차 귀로에 올랐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노조에의 1기 토벌이 시작된 때인 것만큼 정황이 몹시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척후를 세우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계관라자부근에 이르러 적들의 불의습격을 받았습니다. 계관라자란 산봉우리가 마치 닭의 볏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닭의 볏처럼 생긴 그 봉우리가 바로 우리의 전방 왼쪽에 솟아있었습니다. 계관라자부근의 지형은 적들이 매복전을 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고 행군중에 있는 우리가 적의 기습을 막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였습니다. 적 토벌대들이 만약 계관라자일대에 와있다면 이런 지형을 놓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격전의 방식으로 항일유격대를 소탕하겠다고 덤벼든 놈들이니 매복진을 치고 대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군노정을 바꾸어 품이 많이 드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오앞에 기관총을 세우고 속보로 위험구역을 통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계관라자의 바위밑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산봉우리쪽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났습니다. 적들은 외가닥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행군대오를 향해 집중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적의 이 불의습격에서 조꼬맹이란 별명을 가진 구대원과 김정덕이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때 양강구에서 입대한 소년이 걱정되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글쎄 고지의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위급한 순간에 그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놀라왔습니다.

소년대원은 사령관동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법 나를 돌보기까지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니다. 움직여야 한다. 자리를 옮겨가며 사격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까이에 있는 흙무지뒤의 웅뎅이진 곳으로 그를 끌어당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적탄은 계속 우리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실로 진퇴양난이였습니다. 나는 벌판쪽으로 100미터쯤 되는 곳에 홈타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날 따르라는 구령을 치며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대원들도 부상자들을 부축해가지고 나를 따라 그 홈타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안전한 곳은 못되였습니다.

우리는 강기슭에 내려가서 얼마간 달리다가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절벽쪽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에게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장에 서서 적진쪽으로만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대원들이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10명안팎의 적은 역량으로 적의

대부대를 향해 돌격할 리는 없겠는데 어쩌자는 것일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내뒤를 따랐습니다. 나에게 대원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원들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접근한 때부터 탄막은 머리우로만 지나갔습니다.

대원들이 나의 전술적 의도를 파악한 것은 그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적들은 우리가 벌판쪽으로 빠진 줄 알고 그쪽으로만 눈먼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지에서 쓸어내려와 벌판을 포위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밀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옆고지에 올랐습니다. 벌판을 3면 포위한 적들은 한참동안 저들끼리 미친듯이 맞불질을 했습니다.

계관라자전투는 노조에토벌대와의 첫 조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새 작전을 앞두고 우리의 유격전술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나는 이 전투를 통해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대부대선회작전안이 전술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계관라자전투는 그 해 겨울에 우리가 부닥치게 된 군사적 정황의 축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강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는 사이에 우리 동무들은 이미부터 진행해오던 식량공작을 전부 끝냈습니다. 재봉대원들도 나의 지령대로 군복을 거의 다 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를 돈화원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단계의 노선은 화라즈에서 돈화로 쑥 빠졌다가 그 다음에 몽강, 무송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화라즈를 떠난 다음 백두산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돈화오지를 왔다갔다하며 큰 싸움을 몇 번 하고는 몽강현 동패자나 무송현 백석탄의 대수림속에 들어가 로독도 풀고 군정학습도 하면서 대소한추위를 밀영에서 넘기자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1단계의 작전준비를 하면서 임수산에게 경위중대 1개소대와 독립대대를 주어 동패자로 보내고 소부대를 백석탄으로 보내여 밀영을 준비하고 대부대가 먹고 살아갈 량식과 피복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준비를 끝낸 다음 돈화원정을 떠났습니다. 돈화원정을 쉽게 이해하려면 육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를 상기하면 됩니다. 이 두 전투가 바로 돈화원정기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대이동노정을 위장하느라고 원정의 첫 시작에 삼장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도강상류쪽으로 진출했습니다.

화라즈에서 20-30리가량 빠지니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벗어나 발자국을 없애고 가까운 숲속에 들어가 피곤을 풀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는 외발자국 행군법을 쓰면서 백두산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도산 근처에 가서는 행군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삼도백하의 얼음을 타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적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행군방향을 그렇게 역전시키면 그것은 전투를 몇 탕 한 것만치나 큰 은을 냅니다. 적들은 혼란에 빠져 이곳저곳 헤매다가 백색지대에 들어가서 얼어죽을 수도 있었고 맥이 진해서 전투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짓소문도 퍼뜨리면서 흔적을 공개한 것은 적들을 될수록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최대한 맥을 빼고 춥고 지쳐서 움짝달싹할 수 없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우리는 목단령을 넘을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면서 영의 돌바위를 모조리 얼음판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여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나니 행군속도가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력부대는 목단령을 무사히 넘어 돈화의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이처럼 시작부터 간난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장쾌한 출발이었

습니다. 우리는 돈화원정을 시작하면서 적들을 요란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비밀통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측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화원정과정을 회상하실 때마다 행군도상에 있었던 반일청년동맹회의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하시였다.



선전화
≪적을 소탕하자≫

우리는 돈화원정과정에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반일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남호두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개편한 청년조직입니다. 우리가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소집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돈화에 가면 사도황구라는 곳이있습니다. 사도황구는 내가 길림감옥에서 출옥한 후 한동안 파괴된 지하조직을 복구하며 정양생활을 하던 고장입니다. 우리가 목단령을 넘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사도황구부근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요해하려고 주민부락에 내려갔던 대원이 박득범사건과 관련된 그 고장 지하조직의 반영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득범사건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혁명군지휘관의 한 사람인 박득범이 혁명군의 명예와 후방물자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들은 한때 식량과 피복의 부족으로 심한 곤경에 빠지었다고 합니다. 후방물자가 떨어지면 적을 치거나 혁명조직들을 발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인민혁명군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박득범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지하조직들을 발동할 궁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적용한 방법은 어디에 내놓고 말하기도 거북한 것입니다.

박득범은 밀정을 통해 적들에게 1개 사단을 데리고 당신들한테 투항하겠는데 옷이 다 해지고 식량이 없어서 곤란하다, 식량을 얼마 내고 천을 얼마 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 그러면 그것으로 옷도 갈아입히고 대원들의 원기도 회복시켜가지고 당신들한테로 내려가겠다, 그런데 밀정인 당신의 담보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니 식량과 천을 가져올 때 우리가 내려가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밀정은 동의를 표시하고 곧 자기가 속해있던 특별공작반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적들은 이 흥정에 큰 흥미를 느끼였습니다. 길림성과 돈화현의 우두머리들이 통보를 받은 즉시로 모여앉아 대책을 모의하고 접선장소에 모모한 자들을 대표로 파견하였습니다.

박득범이 그들을 영접하고 담판을 하였습니다. 담판도중에 수하지휘관이 들어와서 약속된 물자가 다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자 그는 적측 대표들을 그 자리에서 몽땅 죽여버리었습니다. 그 후 박득범은 된비판을 받고 경위여단에 가서 일하였는데 조직의 신임을 저버리고 1940년에 적들한테 체포된 다음 귀순하고 말았습니다. 가짜귀순이 진짜귀순으로 되었습니다.

박득범은 적의 진영으로 도주한 후 박특설대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지난날의 전우들을 귀순시키기 위해 돌아쳤습니다.

박득범사건이 주는 교훈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박득범이 귀순했

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짜귀순놀음을 꾸민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귀순놀음은 진짜로 귀순할 요소가 있는 사람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박득범의 전향은 가짜귀순놀음을 고안해내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진짜 귀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중하게 생각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후방물자를 해결한 박득범의 이 행위를 무슨 굉장한 거사라도 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황구에 갔다온 정찰조성원은 박득범이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응당한 평가도 받지못하고 과도한 제재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한테 주민들의 동향을 다 보고하고 나서 사도황구 사람들이 박득범을 유격대의 위신을 다 말아먹은 지휘관이라고 말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정찰조성원은 반일청년동맹원이였습니다.


이두익

반일청년동맹원이 박득범의 행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습니다. 청년사업을 담당한 지휘관을 만나 담화를 해보니 방면군안에 정찰조성원처럼 박득범사건을 평가하는 동맹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반일청년동맹원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맹원들의 모임을 하자고 지휘관에게 말했더니 숙영지에 도착하자마자 다 곯아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지금까지 그러루한 일이 없었습니다. 숙영지에 도착하면 전체 대원들이 총도 닦고 옷도 깁고 면도도 하고 나무도 해오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긴장하고 절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밤은 딴판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정과정에 피곤이 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숙영준비도 하지 않고 모두가 곯아떨어지면 야단이 아닙니까.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유동작전을 끝까지 근기있게 내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밤 오중흡연대장에게 한 개 중대 천막을 내게 하고 거기서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나도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일청년동맹원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리멍텅한 사상적 경향이 비판되고 청년들속에서 곤란극복정신이 부족한 현상, 위생문화에 무관심한 현상, 문화오락사업에 잘 참가하지 않는 현상들이 비판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였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박득범사건의 엄중성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매개 대원들이 인민혁명군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상들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런 현상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할 데 대해서와 인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지휘관들도 각성되였습니다.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대원들이 숙영준비를 하지 않고 곯아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눈감아주었으며 오히려 동정까지 하면서 시정시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나서 정신을 차리였습니다.

반일청년동맹회의는 육과송과 쟈신즈를 치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동원이 큰 은을 냈습니다. 회의가 있은 후 육과송을 쳤는데 모두가 잘 싸웠습니다. 대원들은 쟈신즈전투도 본때있게 해제꼈습니다. 이 두 전투를 치르고 나서 대원들은 무엇때문에 사령관이 반일청년동맹회의를 갑자기 소집했었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사상사업은 일이 힘들고 정세가 엄혹한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상지상주의자이며 사상을 그 어떤 재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20여만의 대적과 맞서서 판가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엄청난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강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군의 일치단결과 강인한 혁명사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인민이 있고 대원들이 있고 경무기가 있고 그밖에야 다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사상동원을 하고나서 싸움을 연거퍼 했는데 그것이 은을 내더란 말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정과정에 임수산의 태공으로 인해 당초에 계획했던 작전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연에 대해서도 회고하시였다.

반일청년동맹회의에 앞서 **김정숙**과 이두익이 사령부에 찾아와 동패자밀영의 실태를 보고 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돈화원정을 떠나면서 동패자에 가서 제일 추운 시기를 한두 달 보내고 무송현과 장백현을 에돌아 국내를 거쳐 화룡에 들렸다가 출발지점인 안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패자에 파견된 임수산은 대부대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준 과업을 집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과 이두익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수산이 받은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느라고 애썼으나 동패자에 가있는 성원들의 겨울나이식량이나 얼마간 마련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였던 기본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였습니다. 식량도 없는 밀영에 가서 대부대가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임수산은 그때 벌써 골병이 단단히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 적들한테로 달아나버렸지만 변절행위라는게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도 준비가 있어야 하고 사상적 발효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상의 부패변질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임수산이 말끝마다 혁명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벌써 혜산사건 후부터 사상적으로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신임하던 나머지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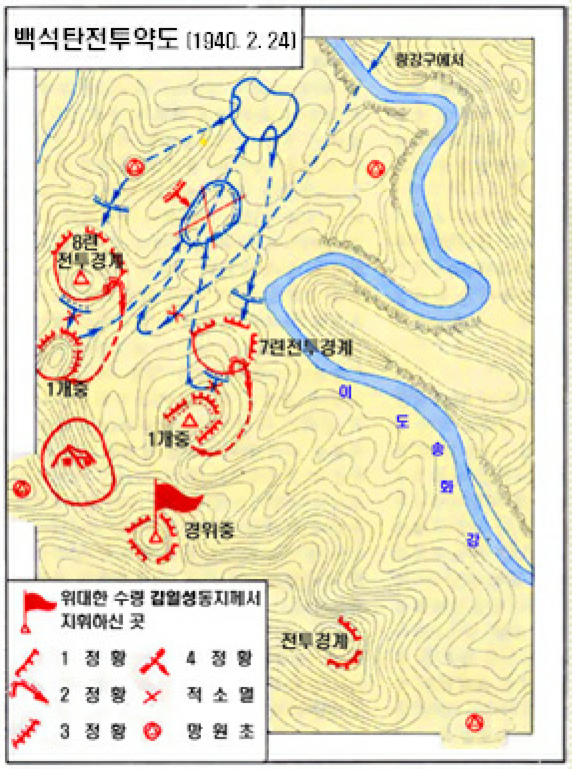
예비통로로 설정했던 무송현 백석탄은 지세는 좋으나 주민부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습니다. 밀영으로부터 3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마을을 몇 개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꾸린 지하조직이 얼마 없었습니다.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전에 파견한 소부대와 오백룡이 송화강을 이용하여 저장해놓은 식량이 얼마간 있었지만 그것은 저장장소도 멀고 또 차후에 소비하기로 했던 것이였습니다. 백석탄일대에 선발대를 보냈으나 대부분이 여성들이 아니면 허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부대가 곧추 예비통노인 백석탄으로 간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도가도 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진 격이 되었습니다. 강추위가 사정없이 들이닥치는데 설정된 통로는 준비되어있지 않지, 새로운 통로를 준비하자니 시간적 여유가 없지, 적들이 우리의 꼬리를 바싹 물고 있은 조건에서 목단령밑에서 오래 지체할 수도 없지 이래저래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쌀만 있으면 다른 곤란은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에게 가을걷이를 하지 않은 콩밭을 알선해주어 바쁜 고비를 넘길 수 있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육과송과 쟈신즈 목재소를 되게 들이쳐 식량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자를 노획한 다음 인차 행군로를 180도로 바꾸어 남쪽으로 노정을 잡고 백석탄밀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를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과송과 쟈신즈 전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를 빛나게 장식한 전투들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마다가 토벌대들의 촘촘한 그물로 뒤덮인 화룡-안도지대에서



빠져나온 것만 하여도 놀라운데다가 전격적으로 돈화의 적의 주요주둔지들을 연속 들이친 우리의 영활한 작전은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습니다. 적들은 육과송, 쟈신즈가 습격당하고 저들의 부대가 녹아났다는 급보를 받고서야 허둥지둥 돈화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벌써 우리가 은밀히 남으로 빠져 송화강유역에 이른 뒤였습니다.

첫 단계의 작전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내가 보는 것은 육과송과 쟈신즈의 목재소노동자들속에서 입대한 200여명의 신입대원들로 우리 무장대오를 확대한 것입니다.

전투를 치른 후 송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예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있은 후 짐을 지고 우리를 따라왔던 노동자들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습니다.

노동계급출신의 청년들속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 대오에 받아들인 것은 항일유격대의 건군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입대한 대원들에게 미처 무기도 주지 못하고 군복도 공급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대에 받아들이는 족족 신입대원들에게 붉은별이 달린 완장을 팔에 끼워주었습니다. 여대원들이 그 완장들을 만드느라고 밤을 패던 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백석탄밀영에서 진행된 군정학습은 대부대선회작전의 2단계에 속하는 동시에 제1단계의 총화로도 됩니다.

우리는 백석탄에서 준비를 잘 갖춘 다음 작전 제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작전 2단계의 활동노정은 백석탄에서부터 백두산동북부의 무인지경인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지대를 지나 국내에 진출했다가 화룡현을 거쳐 안도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에서 군정학습을 한창하고 있을 때 밀영이 그만 적들에게 노출되였습니다. 식량공작대가 마대에 넣어가지고 온 콩이 사달을 일으켰는데 일이 아주 맹랑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대에 구멍이 난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으로 콩이 한알두알 새서 밀정의 눈에까지 걸리였습니다.

밀영을 발견한 적들이 우리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공격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자 우리는 그에 대처할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우리 부대의 한 지휘관에게 1개 중대를 데리고 적구에 가서 양강구를 친 다음 하왜자쪽으로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위중대 1개 소대는 백석탄 뒤고지의 여러 초소들에서 달려드는 적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노수하쪽으로 철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력을 이끌고 적들의 공격개시 30분전에야 밀영을 떠나 노수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자면 우리가 밀영에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자마자 적들이 밀영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는 고요한 밀영을 보고 적들은 다 먹어놓은 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돌격을 들

이댔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위중대의 명사수들은 총을 쏘지 않고 적들이 노는 꼴을 보기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적의 비행대가 밀영상공에 날아와밀에서 좋아라고 손을 흔드는 제편을 향해 폭탄을 마구 던지였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에 들어갔던 적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기관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적들이 계획했던 육공협공은 결국 인민혁명군과 일본군비행대가 협동하여 일만군보병들을 소탕한셈이 되였습니다.

적들이 백석탄에서 복닥소동을 벌이는 사이 우리는 유유히 백두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뒤따르는 적을 노수하에서 치고는 이도백하를 건너 내도산동쪽의 수림속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화라즈부근의 목재소를 치고 양강구에 간 중대와 백석탄에 남았던 경위중대 동무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산 삼수평으로 정찰을 파견한 것이 그때 일 것입니다.

정찰조는 국경경비가 너무 삼엄하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정찰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추격만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대부대가 국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이였습니다.

나는 국내진공을 당분간 뒤로 미루기로 하고 식량도 해결하고 조선 쪽에 있는 적들의 반응을 보기도 할 겸 큰 목재소를 하나 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두만강가까이에 있는 대마록구목재소를 쳤는데 조선쪽 반응이 아주 예민했습니다. 나는 적들이 국경경비를 철통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적들을 꼬리에 달고 며칠간 싸우면서 화라즈의 남쪽수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홍기하에서 마에다부대와 한바탕 싸움을 하고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일단락지었습니다.

노조에토벌대와의 대결을 어느 한 지역 군사령관과의 대결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노조에토벌대와의 대결은 곧 일본군부와의 대결이였고 대일본제국과의 대결이였습니다. 적들은 이른바 숙정래강에서 그토록 요란하게 선전하던 치표, 사상, 치본의 3대공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패전 후 퇴역하여 규슈의 어느 농촌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던 노조에는 그 당시의 일을 놓고 이런 글을 남기였다.

김일성부대는 여러 개의 분대로 나누어 행동하면서 저마다 **김일성**부대라 칭해 이쪽에도 저쪽에도 **김일성**부대가 있는 것 같은 위장전술을 잘 썼다. 또 **김일성**이란 사람 본인은 하나겠지만 **김일성**이란 이름을 쓰는 자는 몇 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김일성**이가 어떤 인물인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간도폭동을 탄압하고 상급의 신임을 얻어 노조에토벌대에서 특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나가시마의 술회에 의하면 그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신출귀몰한 전술 때문에 고배를 톡톡히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노조에부대에서 특수공작을 맡게 되었을 때 **김일성**부대란 것이 있다기에 알아본즉 이 부대의 작전이 아주 묘했다. **김일성**부대가 여기에 나타났다해서 그쪽을 쫓아가면 이번에는 또 저쪽에 나타났다 한다. 마치 **김일성**부대가 신출귀몰하는 것 같았는데 실인즉 한부대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쪽저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대를 여러 개로 쪼개여 이쪽저쪽에 나타나게 하면서 그 소부대들에 모두 **김일성**부대라고 하게 했던 것이다.

나가시마는 계속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의 힘겹던 싸움에 대해 회상하면서 항일연군의 고위간부는 다 사살되었거나 체포 또는 투항했는데 **김일성**만은 용케도 살아남아서 종전 후에 북조선에 돌아와 수상까지 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오중흡과 7연대


오중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해인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읽으시다가 오중흡이 희생되는 장면에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 더 읽지 못하고 오래 전에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그를 생각하며 밤을 밝히시었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의 1단계를 빛나게 장식한 돈화현 육과송전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오중흡의 최후를 회상하시었으며 오중흡의 영웅적 생애를 돌이켜보실 때마다 항일혁명의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7연대의 결사옹위정신과 투쟁업적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회상하시었다.

우리가 오중흡을 잃은 것은 육과송전투에서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중대장 최일현과 기관총소대장 강홍석이도 잃었습니다. 3명 다 내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던 지휘관들이었는데 분하게도 한날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항일전쟁을 하는 과정에 많은 전우들을 잃었는데 오중흡을 잃은 것이 제일 분하고 가슴아팠습니다. 오중흡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리는 작지만 그림자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크다는 것은 발자취가 크고 이루어놓은 업적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 중에 최춘국이나 오중흡이만큼 소리를 작게 내는 지휘관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작게 낸다는 것은 자기를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은 군사지휘관으로서는 드물다고 할 만치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였으며 소리는 작게 내면서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소박한 일군이였습니다.

최춘국을 가리켜 새색시같은 사람이라고들 했는데 오중흡은 그보다 더 얌전한 사람이였습니다. 부족점을 찾아내자고 하면 어느 것이라고 딱 찍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였습니다.

오중흡은 일상생활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지만 혁명실천에 들어가서는 매우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심만 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호랑이같은 사나이였습니다. 어지간한 난관 같은 것은 탁탁 퉁겨버리면서 무슨 일이든지 끝장을 보고야 말았으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잠도 휴식도 몰랐습니다.

오중흡은 정의를 옹호하는 정신이 강한 반면에 부정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보다 일찍 계급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정의에 대한 강한 옹호의 정신과 부정의에 대한 비타협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인가 오중흡이네는 가물이 들어 농사를 망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중흡

의 아버지는 농사형편이 여사여사하니 금년만은 좀 사정을 보아달라고 지주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포악한 지주는 동정은 고사하고 도적놈이라는 당치않은 감투를 씌우며 오중흡의 아버지를 단장으로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오중흡은 참다못해 단장을 휘두르는 지주를 도리깨로 후려갈기였습니다. 그 당시 오중흡의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이었다고 하니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계급적으로도 빨리 각성되고 혁명에도 빨리 뛰어듭니다. 그리고 대오의 선봉에서 생사를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훌륭한 투사로 성장합니다.


강흥석

오태희노인의 말에 의하면 어린시절에 그는 독립군놀이를 몹시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김좌진이 청총말을 타고 왔다 갔다하던 곳이였습니다. 그러니 독립군물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촌형 오중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공산주의물을 먹었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혁명에 눈을 뜬 것은 나라를 강탈한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오중흡이만큼 담차고 용감한 지휘관은 드물었습니다.

예로부터 명장들은 무인의 도를 닦는데서 지, 인과 함께 담과 용을 중시하고 그것을 배양하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벼랑에서 굴리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중흡은 강무당에도 간 적이 없고 도사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가가 지녀야 할 담력과 용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1939년 추석을 앞두고 화룡현 3도구부근에 있는 금광을 습격할 때 전쟁터에서 보기 드문 일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싸움을 지휘할 때 적탄이 오중흡의 이마에 와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빗맞은 탓인지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가 이마에 적탄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전투지휘를 계속한 것은 기적이였습니다.

사람의 얄팍한 두 개골이 아무리 빗맞는다 해도 탄알을 막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전령병이 붕대를 감아주었다는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동무들이 오중흡더러 당신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느님 덕을 단단히 보았다고 말해주자 그는 일본놈들의 눈먼 총알이 겁쟁이의 이마는 뚫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공산주의자의 이마는 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마에 적탄을 맞고도 전투를 계속 지휘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적들이 던진 수류탄이 성벽을 넘어와서 대원들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중흡은 발밑에 와떨어진 수류탄을 잽싸게 집어서 성벽너머로 힘껏 던지었습니다.

적들은 자기네가 던진 수류탄이 되넘어오자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오중흡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수류탄이란 투척시간부터 폭발시간까지 불과 2-3초의 여유밖에 없는 근거리살방무기입니다.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손에 집어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모험입니다. 오중흡은 바로 그런 위태위태한 모험을 눈섭 한 오리 까딱하지 않고 해낸 사람입니다.

이 두 일화를 통해서도 동무들은 오중흡의 인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은 싸움을 아주 재치있게 하는 군사지휘관이였습니다.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장점은 우선 정황판단과 결심이 빠르고 전투조직이 치밀한 것이였습니다. 그는 일단 결심이 선 다음에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성있게 밀고 나가는 특기를 가지고 마치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묘한 수를 써서 힘을 센 적수를 넘어뜨리듯이 아무리 우세한 적과 맞다들어도 그에 알맞은 전술을 적용하여 실수없이 소탕해버리군 하였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최현이나 최춘국에 못지 않은 세련된 싸움군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상 사령부와 같이 다니다보니 그에 대한 소문이 적게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동안 혁명을 해오면서 오중흡만큼 조직성이 강하고 규율성이 강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조직성이 강하고 규율성이 강한 투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급의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임무를 받을 때에는 예! 하고 무조건 접수하였으며 무슨 일이든지 변명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중흡은 우리가 주는 명령과 지시를 1분1초도 어기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군 하였습니다. 어디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언제까지 어느 연락장소에 도착하라고 하면 꼭꼭 어김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제시간에 도착하였으며 간혹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게 되면 소부대를 남겨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기자신은 기본부대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한 날자에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가 제때에 돌아가지 못하면 사령관동지가 근심한다고 하면서 대원들을 교양하고 고무하였습니다.

오중흡연대장은 부대를 관리하며 대원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하라는대로만 하는 모범적인 지휘관이였습니다. 그처럼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그는 정규군에서처럼 부대관리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7연대에는 꿰진 신을 신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는 대원들이 없었습니다. 오중흡은 행군하다가도 옷이 꿰진 것을 보면 도중휴식시간에 옷을 다 기워 입게 하였습니다. 그가 부대관리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서는 한 건의 사건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중흡동무는 내 입에서 무심결에 흘러나오는 혼자소리도 다 사령관의 요구나 명령으로 받아들이였습니다.

1939년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올기강밀영에서 오백룡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추석이 가까워오는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새 오중흡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의 의도나 지향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하고 받아들일줄 아는 오중흡은 그 말을 그저 스쳐보내지 않고 사령관동지가 왜 추석이 가까워온다고 했겠는가, 혹시 신입대원들이 추석을 맞으면서 고향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고 명절준비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자기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후 추석준비를 위한 전투를 조직해서 많은 식량과 식료품을 노획해가지고 왔는데 월병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오중흡의 요청으로 7연대 대원들과 사령부성원들에게 월병의 유래를 이야기해준 것이 바로 그 해 추석입니다.

오중흡은 내가 내는 총소리까지도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충신이였습니다. 고난의 행군도중에 우리는 집단행군을 하다가 얼마동안 분산행동에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오중흡이와 헤어지면서 봄에 삼수골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사람들은 13도구골짜기를 삼수골이라고 불렀습니다. 1939년 3월초순에 나는 삼수골의 어느 한 부락을 습격하는 전투를 조직하였습니다. 오중흡은 그때 우리가 내는 총소리를 듣고 이것은 사령관동지께서 울린 총소리요. 불과 1개

중대의 역량밖에 안되는 사령부가 노출되어 적들의 포위에 들 수 있소. 동무들,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오! 라고 하면서 앞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달리였다고 합니다.

오중흡은 사람이 워낙 진국이였습니다.

그가 왕청현 원가점이라는 곳에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유격대에 갓 입대했을 때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당시 왕청유격대에는 총이 부족하였습니다.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도 많고 입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총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이 없는 대원들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차고다니거나 창을 메고 다니였습니다.

오중흡도 역시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만들어낸 칼을 차고 다니였습니다.

왕청유격대에서는 총이 없는 대원들을 늘 대열의 맨뒤에 세우군 하였습니다.

오중흡은 보초를 설 때마다 다른 대원들의 총을 빌려가지고 나가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금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중흡이 몇 달 동안 칼만 차고 다니기 때문에 동무들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늘 놀려주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중흡에게 ≪중흡동무, 동문 밤낮 칼을 차고 남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섭섭하지 않은가≫ 고 정색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중흡은 ≪이 칼도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이 어떻게 다 차례지겠습니까, 총이야 싸움을 하면 아무 때건 생기게 되겠지요.≫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총을 메고다닐 때 칼과 작탄을 차고 남들의 뒤를 따라다니자니 사실이야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칼을 차고 다니였습니다.

우리는 창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유격대원들에게 총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전투를 조직하였습니다. 총을 얻자면 전투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문에서 삼차구를 거쳐 목단강으로 들어가는 철도공사장을 습격하였습니다.

오중흡동무는 이 전투에서 보총을 여러 자루나 빼앗아냈습니다. 그는 적장교가 차고 있던 권총까지 빼앗아왔습니다.

노획한 무기를 누구에게 수여하는가 하는 것은 전투총화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용감성을 발휘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총을 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철도공사장습격전투와 관련된 총화모임에는 나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오중흡은 비로소 무기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후 오중흡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등의 군직을 차례차례 밟아가며 연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는 혁명군대지휘관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중흡의 장점을 들자면 그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얌전한 사람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쾌활하고 낙천적이었으며 붙임성이 좋고 향학열도 높았습니다. 그는 허튼소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였고 동지들이 어떤 비판을 주든지 그것을 다 접수하고 성실하게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부대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였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정신도 남보다 높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서의 오중흡의 성장은 그대로 7연대의 성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7연대의 전신은 독립연대였습니다. 독립연대는 왕청, 연길,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각 현들에서 1개 중대씩 선발하여 편성한 연대입니다.

왕청현에서는 7중대가 독립연대에 망라되었습니다. 왕청 7중대라는 것은 왕청 1

중대에서 생겨난 중대인데 독립연대에 들어가서는 2중대로 되었습니다. 오중흡은 독립연대 2중대에서 청년간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독립연대는 1935년에 독립1사 제2연대로 되었다가 남호두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역사단이 새로 편성될 때 사단의 7연대로 되었습니다.

7연대는 새 사단의 핵심부대였습니다.

오중흡, 오백룡, 강증룡 등은 이러한 변천과정을 걸어온 7연대의 역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연대장으로도 되고 중대장으로 되고 소대장으로 되었습니다.


김주현

7연대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우리는 왕청시절부터 오중흡을 체계적으로 키워온 것처럼 7연대도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단위보다 지도를 심화시켜 새 사단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모범연대로 꾸리였습니다. 우선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비롯하여 연대의 지휘간부들을 좋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연대의 지휘관들에게 유격전에 필요한 각종 교범은 물론, 숙영법, 작식법, 행군법, 방위판정법, 가설무대를 만드는 방법과 연예공연종목을 작성하고 소개문을 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워주었습니다.

7연대를 모범연대로 꾸리기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사단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대에 자주 내려가서 지휘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계몽시키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7연대는 모범연대로 되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자랑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7연대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다른 부대들에 지휘관으로 많이 파견하였습니다. 위증민도 우리에게 군정간부들을 달라고 제기할 때에는 7연대의 지휘관들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7연대에서 단련된 지휘관들이 다른 부대들에 가면 그들이 또 많은 지휘관들과 모범전투원들을 길러냈습니다. 7연대는 그야말로 군정간부들을 키워내는 원종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동학인가 박수만이 지휘하던 경위중대도 후에 모범중대로 되었습니다. 이 중대에 7연대출신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학

혁명군에 정치군사간부들을 양성하는 상설적인 교육기관들이 없는 조건에서 7연대를 통해 계통적으로 육성한 간부들을 다른 부대들에 끊임없이 파견하는 방법으로 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한 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을 하는 과정에 축적한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이처럼 항일혁명과정에 창조된 경험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 중에는 7연대에서 배출된 지휘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중흡, 김주현, 이동학, 이동걸, 오백룡, 김택환, 최일현, 오일남, 손태춘, 강흥석, 강증룡 등은 7연대출신들입니다. 7연대의 중대정치지도원들 가운데는 처처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은 최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무엇이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언저리가 늘 젖어있는 것 같다고 하여 처처벌이라고 불렀는데 잘 싸우다가 소탕하전투에서 김산호와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최일현은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장감으로 지목해 두었던 사람입니

다. 김택환중대장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이 쇠소리가 나는 사람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쇠소리가 나는 사람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장은 연대장을 닮고 소대장은 중대장을 닮으며 대원들은 소대장이나 분대장을 닮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휘간부들의 인품과 성미를 닮게 됩니다. 7연대는 통털어 오중흡을 닮아서 강철같은 연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오중흡이네 7연대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백두산근거지에 있을 때 1군 조국안사장이 우리 부대와 함께 얼마동안 생활해보더니 똑똑한 사람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서 기관총을 잘 다루는 사람을 주었으면 했습니다. 조국안이 욕심낸 사람이 바로 7연대의 이름난 소대장이며 기관총수인 강증룡이였습니다. 강증룡은 박록금의 남편입니다.


강증룡

강증룡에게 1군 2사에 갈 의향이 없는가고 물으니 그는 대번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박록금이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안해와 갈라지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장군님 슬하를 떠나기가 싫고 오중흡이 있는 7연대를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중흡에게 정이 푹 든 사람이였습니다. 오중흡과 강증룡은 왕청시절의 죽마고우였고 왕청1중대시절부터 줄곧 한 중대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였습니다.

오백룡이도 8연대의 기관총수로 가게 되었을 때 오중흡이 지휘하는 7연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오중흡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연대 대원들이 자기 부대에 대한 애정과 단결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과오를 범했거나 정치군사적 실무가 약한 사람들도 7연대에 보내어 단련시켰습니다.

1938년 임강현 신태자부근의 한 밀영에서 기관총소대를 책임진 사람이 과오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무능력도 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임시로 7연대 4중대에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그 기관총소대장을 오중흡이네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부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줄 모르면 벌써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숱한 대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줄 알아야만 간부구실을 할 수 있다. 동무는 7연대에 가서 좀더 배우고 단련하는 것이 좋겠다.≫

기관총소대장은 7연대에 가서 오중흡의 도움으로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원직으로 돌아왔습니다.

7연대는 조선인민혁명군 관하부대들 중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부에서는 가장 긴급하고 책임적인 과업은 항상 7연대에 주었습니다. 7연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타격수였습니다.

나는 행군 때나 숙영할 때에도 전투력이 강하고 책임성이 높은 7연대를 늘 후위에 배치하군 했습니다. 적들의 추격과 불의습격이 노상 뒤따르는 유격대의 생활에서는 후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숙영을 조직할 때마다 항상 사령부로부터 행군해오던 방향으로 300-500미터쯤 되는 거리에 전투력이 강한 1개 부대를 후위부대로 남겨두군 했습니다.

사령부에서 후위부대까지의 거리가 1-2킬로미터 정도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후위부대와 사령부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초를 세우거나 감시성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인민혁명군 토벌에 동원된 적들은 전방에서 길목을 지키다가 공격해오는 전법을 별로 쓰지 않고 뒤에서 유격대의 꼬리를 물고 추격해오는 전법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후위에 세운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이권행

1939년 봄에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우리는 청봉숙영지에서 7연대를 후위에 배치하였습니다. 7연대 대원들은 밤에 우등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적들에게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힘들다거나 고달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인민군대에서 오중흡과 같은 사람들을 전형으로 내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오중흡을 전형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오중흡을 따라 배우라는 뜻입니다.

김정일동무는 벌써 1960년대초에 인민군대안에서 7연대를 따라 배울 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오중흡이 어떤 지휘관이고 7연대가 어떤 연대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군군인들이 오중흡에게 무엇을 배우고 7연대에서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겠습니까.

오중흡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장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라고 봅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였습니다.

오중흡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상과 노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관련된 우리의 사상과 노선을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오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 사령관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였으며 그 사상과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맹호가 되어 투쟁하였습니다.

오중흡은 우리의 사상과 사령관이 지시한 군사작전적 방침들을 법으로 여기였고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오중흡이한테는 잡사상이 붙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잡사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상적으로 결백하면 구정물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습니다.

연대장의 사상이 견실하다나니 7연대는 모두가 자기 사령관과 같은 숨을 쉬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은 또한 자기 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그 명령, 지시 관철에서의 높은 책임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중흡은 사령관이 주는 명령, 지시라면 한치도 드티지 않고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집행하였습니다. 그 명령, 지시가 아무리 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타발하거나 불평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령관이 준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꼭꼭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명령, 지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에 대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총화하였습니다.

사령관이 준 명령, 지시에 대한 오중흡의 태도에서 우리 일군들이 본받아야 할 다

른 하나의 우점은 한 가지 일을 해낸 다음에는 연이어 다른 일거리를 맡겨달라고 간청해나서는 점이였습니다. 오중흡은 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는 꼭꼭 다른 일거리를 붙잡군 하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7연대가 다른 연대들보다 고생을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오중흡이 일욕심이 많은 연대장이였다는 사정과도 관련됩니다.

오중흡은 쉬운 일거리를 맡길 때보다 어려운 일을 맡길 때 더 기뻐하는 특이한 기질을 가진 군사지휘관이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 자기 사령관에 대한 오중흡의 충실성은 사령관을 정치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결사옹위정신에서도 표현되였습니다. 오중흡은 사령관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연대와 함께 육탄이 되어 뛰어들었고 어떤 간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홍두산에서 이두수중대를 데리고 수백 명의 적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오중흡은 사령관동지의 신변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적의 숙영지를 불이 번쩍나게 기습하였습니다. 후방이 기습당하게 되자 살아남은 적들은 하는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오중흡의 덕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만강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부대의 철수를 지휘하는 나를 육탄으로 막아나선 것도 오중흡이였고 7연대 성원들이였습니다. 단두산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적을 꼬리에 달고 사령부가 철수하였는데 그 후위에서 7연대가 우리를 엄호하였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오중흡의 남다른 충실성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였습니다. 오중흡은 행군의 첫 시기 갈지자전술을 쓰면서 근 보름동안이나 결사적인 후위전을 벌려 사령부를 보위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기회에도 말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7도구치기에서 대부대집단행동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집단행동으로부터 분산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와 헤어진 오중흡은 자진해서 사령부로 가장하고 두 달 남짓이 험준한 용강산줄기와 장백산줄기를 누비면서 적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느라고 7연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으로 사령부는 얼마동안 적들의 성화를 덜 받았습니다.

7도구치기에서 우리와 헤어질 때 오중흡이네 연대에는 식량이 한 알도 없었습니다. 식량을 해결하자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중흡은 부대의 행군노정을 가이허, 사등방등성이, 홍두산서쪽, 쌍차두북쪽으로 하여 덕수골로 떨어지게 잡았습니다. 이 노정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백색지대입니다. 있다면 탕자막 같은 것이 있을 뿐이였습니다. 여기에 한 번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미궁에 빠져 다시 살아나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중흡은 배를 곯면서도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자기네 연대에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험로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목재소를 치고 얻은 소고기나 말고기로 끼니를 에웠지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란 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중흡은 적들이 더는 자기네 연대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원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령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들이 혹시 눈치채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수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소. 기어이 뒤쫓아가서 꽁무니에 적을 달고 와야겠소. 모두 나의 뒤를 따르시오.



그는 싸창을 빼들고 천신만고하여 톺아온 길을 수십 리나 되돌아가서 적의 숙영지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적을 뒤에 달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 7연대는 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아가서 한두 번씩 성화를 먹이군 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코꿴 송아지처럼 졸졸 연대를 따라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연대는 왜놈군대들이 잡아먹고 버린 소가죽을 우려 나누어먹으면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오중흡이네는 그 해 음력설을 언감자로 쇠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우리는 이 산상에서 이런 것이라도 먹는데 사령부는 무슨 식량으로 지내는지 하고 우리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행군노상에서 허기증과 무력증으로 신고하는 대원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10년을 하루같이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고생끝에는 낙이 오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가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해방된 조국땅을 향해 행군할 때를 생각해보라, 조선사람으로 태어나 이 이상 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의 이 간고한 행군이 해방조국으로 잇닿은 걸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은 **김일성** 사령관의 말씀이다, 모두다 사령부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오중흡은 이런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큼직한 불덩어리를 안고 싸워온 사람이였습니다. 무슨 불덩어리였는가 하면 혁명에 대한 열정이였습니다. 그 열정의 핵이 다름아닌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이였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나 모든 병사,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사령부의 안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7연대의 고유한 특성이며 사령관의 명령, 지시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며 사령부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할 뿐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온몸이 육탄이 되어 앞장서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관철해나가는 것이 바로 7연대의 생활과 투쟁의 전투적인 기풍이였습니다.

나에게로 날아드는 적탄을 몸으로 막고 전사한 이권행도 7연대출신이였고 사령부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오일남, 손태춘, 김혁철도 7연대출신이였습니다.

오중흡, 최일현, 강흥석도 바로 사령부를 옹위하는 길에서 한 생을 살다가 육과송전투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내 그래서 육과송전투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군 합니다. 물론 싸움 자체는 아주 맵시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중한 지휘관을 셋이나 잃었습니다.

그날밤 10시 오중흡은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를 인솔하고 맨앞장에서 육과송

에 있는 적병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주공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였던지 나는 그날 오중흡에게 몸을 조심하라는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한다고 몸을 아낄 오중흡은 아니였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부대의 앞장에 서는 지휘관이였습니다.

나는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를 보낸 다음 그 뒤로 인차 8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8연대에는 목재소노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는 한편 적의 군수창고를 열고 식량과 군수품을 해결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오중흡은 돌파조를 이끌고 나무울타리안으로 감쪽같이 돌입하여 철조망을 끊고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7연대는 적이 정신을 차릴 새 없이 벼락같이 포대와 병실들을 점거하였습니다. 바빠맞은 적들은 병실밑에 파놓은 비밀지하도에 들어가 숨어버렸지만 오중흡은 제꺽 지하도의 입구들에 불을 지르도록 하였습니다. 지하도입구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밑에 있던 적들은 더 배겨내지 못하고 밖으로 벌벌 기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군의 승리가 확실해진 때에 뜻하지 않은 일격을 당했습니다. 지하도에 숨어있던 적들이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오중흡연대장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전령병 김철만이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패잔병들이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7연대의 유능한 지휘관들인 최일현과 강흥석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오중흡이 역시 원통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생 험한 길을 헤쳐오면서 혁명을 위해 그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던 그 불덩어리같은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동무들에게 늘 그 어떤 전투에서나 마지막 결속단계에서 특히 주의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고는 흔히 그 마지막단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과송전투에서도 결국은 전투를 결속하는 마지막 5분에 귀중한 세 전우를 잃었습니다.

아마 오중흡이 그때 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국면이 우리에게 유리했던 데다가 적들이 솜타는 냄새에 취해서 손을 들고 나오게 되니 너무도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중흡은 원래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활도 깨끗이 했지만 싸움도 맵시있게 하였습니다. 경각성으로 말하면 그 어느 지휘관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자기 발밑에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정찰조원들이 적병영내부에 대한 정찰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찰만 잘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참으로 분하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김철만이 내앞에 나타나 왕왕 소리쳐 울면서 오중흡이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전할 때 처음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자 나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중흡을 죽인놈이 어디에 있는가? 오중흡을 죽인 놈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소리를 치며 적병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대원들앞에서는 마음을 억제하는데 습관되어 있었지만 그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던 오중흡입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 날 우리는 숱한 적을 소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게 다 귀찮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가슴이 그때처럼 아팠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철수명령이 떨어지자 우리 동무들은 전우들의 시체를 떠메고 육과송을 떠났습니다. 몇 백 명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말소리 하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서 추도모임을 하였습니다. 추도사를 하려고 나섰는데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곤란앞에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지만 슬픔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습니다.

육과송전투는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적들의 제2기 토벌 작전은 혼란에 빠지게 되였고 우리 군대는 대부대선회작전 제1단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적들이 백두산동북부 두만강연안일대에 대병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돈화오지에 와서 한바탕 총성을 크게 울렸으니 놈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는 역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기둥부대인 7연대가 제일 잘 싸웠습니다. 7연대는 강철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무적의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가 일당백의 부대로 될 수 있은 것은 연대의 지휘를 담당한 오중흡의 공로에 속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충신이고 명장이기 때문에 7연대가 강한 부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혁이나 차광수를 잊을 수 없듯이 오중흡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중흡은 나에게 있어서 혁명전우이고 동지인 동시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오중흡연대는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발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를 철통같이 호위해온 방탄벽이였고 난공불락의 성새였습니다.

오중흡이 전사한 후부터 우리는 대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개 대원들이 전투에 들어서면 시야를 최대한으로 넓혀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처신을 신중하게 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오중흡을 잃은 손실만은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그를 훌륭한 혁명가로 길러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중흡동무를 놓고 가정혁명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왕청을 포함한 간도전역에서 첫손가락으로 꼽은 애국혁명일가가 바로 오태희일가였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일혁명에 참가하였습니다. 지하공작원이나 인민혁명군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사람들만 하여도 20명 가까이 되니 나라를 위해 바친 이 가문의 애국충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흡동무가 그처럼 쇠소리가 나게 혁명을 할 수 있은 것은 일찍이 오씨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좋은 교양을 받은 데 그 주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씨네 집안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쟁쟁한 혁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정확한 인생행로를 그어준 오태희, 오성희, 오창희, 오정희 등 4노인형제의 피어린 노고가 어려있습니다.

오씨가문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도덕교양을 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교양, 반일교양, 혁명교양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었습니다. 오씨가문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웠지만 자식들의 교육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문중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었습니다. 오씨가문에 중학교 졸업생이 10여명이나 되지만 관리가 되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 오중화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중흡이 최후를 마친 륙과송전투장

오중화는 가정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하

였습니다. 우리가 남북만원정을 마치고 왕청에 갔던 그 무렵에 벌써 오씨가문의 청장년들과 부녀들은 모두 혁명조직에 망라되어있었습니다.

오중흡이네 집안은 오씨가문에서 그 중 가난하게 산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혁명화도 빨리 되였습니다. 오중흡은 먼저 자신을 혁명화한 다음 동생들을 혁명화하고 온 가족을 혁명화하였습니다.

오중흡이네 3형제는 모두 연대와 대대의 군정일군으로 활동하다가다 전사하였습니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중에서

나는 1941년 여름에 나자구일대에서 소부대활동을 할 때 오중흡의 아버지 오창희와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과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오씨일가는 나자구에서 살았습니다. 산에서 망원경으로 오씨네집을 보면 집안식구들이 지게에 나무짐을 가득 지고 사립문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보였습니다. 오씨네 집안 사람들은 나자구에 와서도 혁명군대의 후방가족답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김일동무를 통하여 오창희, 박덕심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나자구일대의 후방가족들로 지하조직을 무어주었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백두산동북부로 진출했을 때 우리는 오창희노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노인의 도움으로 경원(새별)지구에 건너가서 혁명조직들을 꾸리였습니다.

오씨일가는 정말 역사책에 기록해둘만한 혁명일가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오중흡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합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 나라에 수많은 7연대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동무가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난날 내곁에는 오중흡과 같은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오중흡과 같은 충신들을 많이 길러내여 **김정일**동무의 곁에 세워주어야 합니다.

김정일동무는 조선의 미래이고 조선혁명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국이 영원무궁토록 번영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자면 **김정일**동무가 건강해야 하며 전당, 전군이 **김정일**동무의 영도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김정일**동무를 혁명의 수뇌로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야 하며 오중흡연대가 사령부를 보위한 것처럼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인 당중앙위원회와 **김정일**동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5. 평안도사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에는 상봉과 이별로 엮어진 기이한 사연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연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진 후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한 사연도 있고 다시 만나기로 되어있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감소식이 없다가 뒤늦게야 그 행적이 알려져 수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사연도 있다.

1993년 10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사 연구자들앞에서 대부대선회작전에 대한 회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육과송에서 잠깐 만나신 평안도사람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항일혁명편 7권에 절을 따로 설정하여 평안도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걸어오신 혁명활동노정에는 그런 기이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었다.

말이 난 김에 육과송에서 만난 평안도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중흡의 추도식을 끝내고 숙영지로 갈 때였습니다. 전령병이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웬 낯선 사람이 육과송에서부터 부대를 따라오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나를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나보았습니다. 적통치구역이나 국내에서 찾아온 인민들을 만나보는 것은 유격전으로 여념이 없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만은 어떤 손님이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 오중흡을 잃은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애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최일현과 강흥석이까지 잃고 나니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중흡이 전사한 것은 나에게서 오른팔이 떨어져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령병에게 오늘밤엔 누구도 만나주지 못할 것 같으니 양해를 구해서 손님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전령병은 몹시 난처해하며 벌써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은 **김일성**장군과 자기는 잘 아는 사이인데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만나서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전령병의 말을 듣고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육과송에는 내가 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일대는 우리가 처음 밟아보는 생소한 고장이였습니다.

전령병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니 배낭을 진 중년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손님이라는데 나로서는 어디서 만났던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보자 대뜸 접니다, 평안도집입니다 하고 덥석 내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평안도집이라는 말에 나는 그가 누구인지 인차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일현

어느 해였던지 우리는 부대를 이끌고 수림속으로 행군해가다가 외진 골안에서 불탄 집 한채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집터에서 등에 사내애를 업은 중년사나이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을 안정시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몇 시간 전에 도끼를 차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 사이에 토벌대 놈들이 달려들어 집에 불을 지르고 안해와 아이들을 총으로 쏴죽였다고 했습니다. 업은 아이는 자기를 찾아 산에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나니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원쑤를 갚아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이 몇 명이나 되며 떠나간지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더니 토벌대는 40명쯤되고 떠나간지는 반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자, 보라! 일본놈들이란 이런 야만인들이다. 아무 죄도 없는 이 가정이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대원들은 당장 복수전을 하자고 하면서 저마끔식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파람있는 대원들을 50명쯤 선발해가지고 돌격대를 무었습니다. 그 돌격대가 토벌대를 뒤쫓아가서 숙영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을 모조리 요정내고 돌아왔습니다.



강흥석

나는 불탄 집을 떠날 때 집주인에게 돈 50원을 꺼내주면서 당신의 정상을 생각하면 집이라도 지어주고 싶은데 줄 것이란 이것밖에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고장에 가서 살길을 찾으라, 앞으로 나라가 독립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50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였습니다. 그 돈이면 부림소같은 것도 한 마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좁쌀 한말 값이 30전 정도였습니다.

집주인은 제 본래 평안도에서 살다가 서간도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이런 봉변을 당했소이다. 내 흙이 된들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어른의 성함이라도 알고싶소이다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가 너무 조르기에 우리 동무들이 내 이름을 대주었습니다.

나는 봉변을 당한 사람이 평안도에서 살다가 왔다는 말에 친근감과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안도사람이면 나의 동향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의 구성상태를 보면 평안도지방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만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간도지

방에는 평안도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번은 내가 서간도에서 평안도사람이 사는 집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 건뎅이젖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땅에서 건뎅이젖이 어데서 났는가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풋강냉이에 건뎅이젖을 발라먹었는데 별맛이였습니다. 나는 어린시절을 서선지방에서 보냈기 때문에 건뎅이젖이나 백하젖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세 식구를 잃어버린 평안도사람의 불행을 목격하고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돈을 얼마간 주고 떠나기는 하였지만 마음이 가볍지 못했습니다. 평안도사람이 짊어지고 가게 될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해도 없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중화

그렇지만 우리는 아쉬운대로 그와 헤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참 넓고도 좁은 것이였습니다. 이름모를 산골에서 얼핏 만났다 헤어진 그 평안도사람을 돈화의 오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중흡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정말 대단히 반가왔을 것입니다.

전우들을 잃고 너무나 큰 슬픔속에 잠겨있다보니 반가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슬픔을 억지로 눌러가며 육과송에는 어떻게 되어 왔고 이 밤중에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평안도사람은 우리와 헤어진 후 아들애를 데리고 육과송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후처도 얻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하면서 저의 부자가 살아난건 장군님덕입니다. 그 돈 50원이 아니였더라면 우리 부자는 거지가 되였거나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산판노동을 하면서 흰쌀 한말을 마련해놓고 마음속으로 장군님을 만날 날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이 고장에 오시게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빌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의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였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나는 그 흰쌀 한말에서 우리 혁명군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사랑을 보았고 깨끗한 지성과 의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여 다시 일어나 천백 배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밤 나는 평안도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갈길이 총총했지만 그 사람도 오래 머물러있을 형편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갈 때 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바래주었습니다.

그 후 나는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사람의 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의주에서 학생소요가 일어났을 때이니 1945년 11월일 것입니다.

신의주학생사건은 동중학교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반동놈들의 사촉을 받아 도당청사를 습격했는데 소요를 제때에 수습하지 않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가야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신의주에 갔습니다.

동중학교에는 원래 애국적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홍동근목사도 아마 동중학교 출신일 것입니다. 해방 전부터 민족주의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이 학교 학생들

에게 가짜공산주의자들의 비행을 걸고 반공의식을 불어넣게 되니 그들이 화약처럼 확 달아가지고는 도당청사를 습격하는 망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신의주에 간 나는 동중학교 마당에 시민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연설을 듣고 자기네가 반동놈들에게 이용되어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것과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나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나 백해무익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번 다시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설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육과송에서 헤어졌던 평안도집이 천만뜻밖에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날 군중대회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사람앞에서 옛친구들처럼 반갑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나는 동행했던 간부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육과송전투 때 만났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좋은 친구는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기 마련입니다.

옛날 노인들이 즐겨 쓴 말가운데 삼익우라는 말과 삼손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익우라는 것은 사귀어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이로운 벗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삼익우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삼손우라는 것은 사귀면 손해를 보게되는 세 가지 벗이라는 뜻입니다. 즉 편벽한 사람, 착하기는 하나 주대가 없는 사람, 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사람들이 하던 말이니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귀어서 이익을 주는 벗과 손해를 주는 벗을 비교적 정확하게 찍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행군도상에서 잠간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을 삼익우나 삼손우의 범주에 넣고 논한다면 좀 무리하다고 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집은 분명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지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미더운 사람이라는 것은 육과송에 우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쌀을 지고 찾아온 사실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견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골에서 살던 사람이 견문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그가 삼익우에 속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잠깐 입은 은혜일지언정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정에 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안도사람에게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옛친구로 생각하고 아무 때건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별스럽게도 그날 우리는 만나기 바쁘게 또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일이 바빴고 그 사람은 나한테서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세 번 다 비상한 정황속에서 만났다가 총총히 헤어지다보니 이름이 무엇이었고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1945년 말경이면 만 사람이 다 해방바람에 들떠있던 때였고 제일 바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나도 역시 건국사업으로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나니 그처럼 기이한 인연을 가진 평안도사람과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후회가 됩니다.

토벌에 처자와 집을 잃고 울 때 그 사람의 등에 업혔던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쯤 환갑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아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의주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평안도사람이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시기 신의주시에서는 미군의 폭격으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가 그 도시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폭격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육과송전투와 관련된 회상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자료제출자가운데 평안도사람이라고 짐작되는 회상자는 없습니까? 그 사람을 전쟁전에 다시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평안도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둘도 없는 락입니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을 추억하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 은인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알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김치범이라는 농민도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서울근방에서 농사군으로 일해온 그는 1950년 8월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동자, 농민, 청년, 문화인들로 구성된 인민관광단성원의 한 사람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나는 8.15해방 5돐이 되는 날 내각청사에서 백수십 명이나 되는 관광단의 전체 성원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담화를 하는 과정에 폭격 때 헤어졌던 관광단원 한 명이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치범이라는 농민이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고 관광단원들에게 물었더니 1943년경부터 서울지구에 침투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애국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단원들의 말이 그 농민은 해방 후에도 온 가족을 구국투쟁에 내세웠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들은 이승만정권을 반대해서 싸우다가 사형언도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 농민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관광단원들도 그가 나의 접견을 받지 못하는데 대해서 몹시 섭섭하게 여기였습니다.

나는 접견시간을 여러 번 연장해가면서 인내성있게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 농민은 어디에 가있었겠습니까. 접견 후에 들어 알게 되었지만 그는 대오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폭격에 무너진 어떤 유치원건물안에서 부상당한 어린애를 안아내다가 병원에 입원시키느라고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연까지 듣고 나서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농민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서운해할 것을 생각하니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만경대를 참관한다고 하기에 나도 우정 시간을 내여 만경대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그 농민을 만나볼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농민이고 그도 농민이니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의사가 잘 소통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그 농민에게 줄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만사를 다 제껴놓고 고향집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함께 김치범을 기다렸는데 그날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되도록 남에서 온 그 농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나를 대신해서 손님을 만나주라는 부탁을 남기고 내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날아침 도착시간을 어긴 것은 공교롭게도 관광단일행이 팔동교근방에서 폭격을 당했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내 부탁대로 그를 만나고 나의 선물까지 전달해주었습니다. 평양관광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간 후 김치범농민은 전선원호사업을 잘했습니다. 온 가족이 떨쳐나서서 전선에 식량과 탄약을 날랐습니다.

그의 집 식구들은 인민군부상자들에 대한 간호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단원으로 들어왔을 때 환갑이 다 된 사람이였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100살이 넘을 것입니다.

그때 급한 일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못한 것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일이 정말 섭섭하게 되었을 뻔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격언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와 집단과 동지와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도사람은 내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 사귄 벗입니다. 나는 그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등에 아들애를 업고 불탄 집 마당에서 슬프게 울던 그의 모습과 쌀을 지고 육과송에 찾아왔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합니다.



6.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한 쏘련은 사회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지향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이상향으로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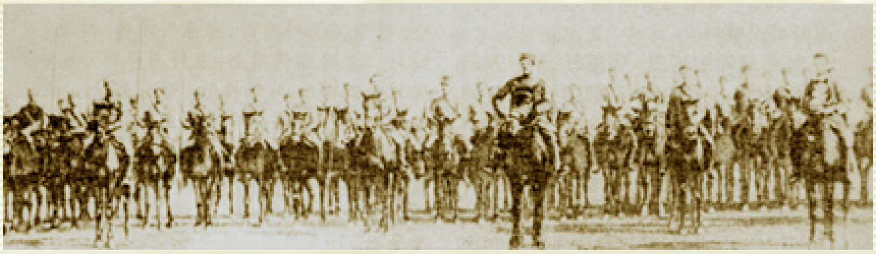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지난날 이 이상향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해 사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낫과 마치를 새긴 쏘련의 붉은 국기에는 영웅적 쏘련인민이 바친 심혈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국제주의전사들의 뜨거운 피도 어려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쏘련에 대한 군사적 위험이 조성될 때마다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제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였다.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과정에는 희생된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던 나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해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혁명에 관심하는 것은 맑스주의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전에 쏘련혁명이나 세계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한 좌우경적인 인식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서는 한때 적지 않은 사상적 혼란과 대립이 조성되었댔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면서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들한테 공



붉은군대 기병

산주의자들을 헐뜯을 수 있는 언질을 주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일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우리더러 쏘련의 희생물이 되지 말며 스탈린의 제물이 되지 말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국제주의에 대한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쏘련을 피로써 도와주자고 하면 그것을 무익한 희생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민족혁명을 하면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쏘련사람들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준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쏘련은 그 당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포위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것은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필요한 것이였지만 도덕의리상으로 볼 때에도 정당한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던 첫 시기부터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높이 쏘련을 지지하고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홍범도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투쟁은 1930년대 뿐 아니라 192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홍범도는 초기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였지만 공산주의운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운동으로부터 애국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였으나 그 울타리안에서만 맴돌지 않았고 민족운동자체에 대해서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가운데 3 인민봉기 후 쏘비에트러시아에 들어가서 무장활동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민전쟁당시 붉은군대와 원동빨치산에서 쏘비에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과정에 홍범도도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으며 레닌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일제는 1920년대초에도 백파도당을 지원하며 러시아 원동지방에 대한 무장간섭을 부단히 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원동의 공산당조직에서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범도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독립군상층부의 일부 인물들은 조선사람이 제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머저리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홍범도는 왜놈을 치는 군대는 다 우리편이라고 하면서 붉은군대를 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홍범도가 관여한 전투들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이만격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만은 우쭈리강변에 있는 고장입니다. 독립군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던지 이만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일본군과 백파군이 조선말구령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쏘련사람들은 이만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사이에 맺어진 공동투쟁의 유대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쏘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산자들의 공화국을 세운 나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이니 어려운 일인들 얼마나 많겠는가, 잘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공부깨나 했다고 으시대던 사람들보다야 얼마나 궁냥이 넓습니까.

쏘만국경일대에서 붉은 군대와 직접 대치하고 있던 관동군의 움직임만 놓고보더

라도 제국주의자들이 그 당시 쏘련을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적으로 준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32년부터 1939년사이에만도 널리 알려진 하싼호나 할힌골 사건을 비롯하여 근 1,000번의 크고작은 국경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며칠에 한번씩 무장도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쏘만국경지대에서는 초연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쏘일간의 적대관계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1904-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가 일본에 많은 이권과 영토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월혁명후 신생쏘비에트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열강들의 무력간섭이 진행될 때 일본제국주의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에 군대를 출동시켜 노골적인 무장간섭의 방법으로 백파도당들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쏘비에트러시아에 대한 무력간섭에 동원된 제국주의열강들의 군대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인 것이 일본군대였다고 합니다. 일본침략군은 그때 연해주지방을 피로 물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빨치산대장 나조를 체포하여 기관차화구에 넣고 태워죽인 것도 바로 그때에 있은 일입니다. 공동출병을 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군대들이 붉은군대의 반격에 못이겨 철퇴한 다음에도 일본군만은 계속 병력을 증강해가면서 검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눌러놓은 다음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과대망상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정복하지 못할 나라란 있을 수 없으며 일본군이 타승하지 못할 강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쭐해져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차례질 분배몫을 타산하며 거기에 매번 코를 들이밀군 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의 대립은 중일전쟁발발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7.7사변을 일으키자 쏘련은 중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쏘일관계는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7년 8월에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쏘련은 일본관할지역에 있는 자기 나라 영사관의 일부를 스스로 폐쇄한 다음 자기 나라에 있는 일본영사관의 일부도 폐쇄할 것을 상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쏘일사이의 모순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38년 1월에는 일본당국이 만주땅에 불시착륙한 쏘련비행기를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여 또다시 쏘일관계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쏘일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국지전쟁이나 전면전쟁으로 번져가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다보았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6년 8월의 5상회의에서 대쏘침략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대쏘침략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원동에 있는 쏘련군무력을 개전벽두에 즉각 소멸할 수 있도록 만주와 조선에 있는 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독일이 2차 세계대전전야에 바르바로스라는 대쏘작전계획을 세웠다면 그보다 앞서 일본군부는 오쯔라는 대쏘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쏘련을 넘겨다보는데서는 일본이 독일보다 한 수 더 앞선 셈



공격준비를 다그쳐
초원을 강행군하는 일본군보병

입니다.

관동군사령관 우에다는 만쏘국경분쟁처리요강이라는데서 국경선이 불명확한 지역에서는 현지사령관이 자의로 국경선을 정하되 충돌이 일어나면 병력의 다과, 국경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승리를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본군의 부당한 국경분쟁도발로 하여 쏘련은 어느 시각에 전면전쟁에 말려들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쏘련에 대한 일본군의 강도적인 도발행위를 보고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쏘련을 무장으로 지원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관동군과의 피어린 싸움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지적 감정의 발현이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자, 농민의 정권이 수립된 쏘련은 문자그대로 이상향이였으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기생충의 무리들을 쓸어버린 사회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놀라운 현실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더라도 쏘련을 보호하고 고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들사이에 이간을 조성시키던 수법대로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사이에도 쐐기를 치는 정책을 부단히 실시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훈춘출신의 친일적인 조선청년들을 기본으로 국경감시중대라는 것을 조직하여 쏘만국경계선에 배치해놓고 쏘련사람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주국 군정부대신의 상금을 주는 놀음까지 벌이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간도에 있는 조선사람들 중에서 첩자를 많이 양성하여 쏘련에 침투시킨듯한 여론을 내돌리면서 쏘련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사람들을 증오하고 경원시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 훈춘연대동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간책동 때문에 자기네 연대와 쏘련국경경비대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나빠졌다고 하면서 어떤 중대장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쏘련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진 줄도 모르고 종전의 질서대로 그들과 접촉하려다 억류당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1938년 여름에는 쏘련원동내무인민위원부의 한 고위장령이 훈춘을 통하여 일본으로 망명해갔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1930년대 중엽에 원동에 살던 조선사람들을 중앙아세아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카자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경내에로의 조선족의 집단적 이주가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망국민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의를 위해 쏘련옹호의 기발을 계속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우리가 쏘만국경일대에서 진행한 모든 전투들은 작전상으로는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쏘련을 돕기 위해 주동적으로 조직한 전투들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쏘련과 군사적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또 홍범도네처럼 쏘련측으로부터 무슨 청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쏘련에 대한 동지적 유대와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결심하고 단행한 군사행동들이였습니다.

쏘련을 옹호하고 지원하려는 우리 대원들의 열의와 지향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

는 것은 1934년 겨울에 쏘련비행기가 연습도중 광풍에 휘말려 만주의 호림땅에 떨어졌을 때 벌어진 비행사 구출작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쏘련비행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박광선이였습니다. 그 당시 박광선은 호림으로부터 몇 십리 떨어진 곳에서 반일인민유격대연락소 공작원의 신분으로 우양부대라고 부르는 중국인반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쏘련비행기가 우수리강반에 떨어진 그날은 50여명의 끌끌한 조선청년들을 우양부대에 입대시킨 뜻깊은 날이였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발견한 박광선은 연락소에 뛰어가서 전우들에게 쏘련비행사를 구원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놈들은 일본놈들대로 쏘련비행사를 사로잡으려고 밀려왔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적은 역량으로 기관총과 소구경포까지 쏘아대는 100여명의 적들과 결사전을 벌였습니다. 적수송대를 습격하려고 출동하던 우양부대의 대원들도 싸움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쏘련비행사는 안타깝게도 적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비행기곁에 속수무책으로 서있었습니다. 박광선이 조선말로 안심하고 어서 오라고 고함을 쳤지만 비행사는 오히려 유격대를 적으로 알고 권총까지 쏘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박광선을 도와준 것은 우양부대에 침투하여 반일부대공작을 하던 조선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말로 우리는 혁명군이니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비행사는 그제서야 아군쪽으로 기여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쏘련비행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의 건강을 추켜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유격대원들은 강냉이죽조차 없어서 먹지 못하는 형편이였으나 쏘련비행사를 위해서는 적의 수송대를 쳐서 노획한 밀가루로 빵도 해주고 메돼지사냥을 해서 고기도 보장해주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수리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생선도 잡아들였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고 포로의 수치를 당할 뻔했던 비행사는 우리 유격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인민혁명군부대들에서 국제주의교양자료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1938년 여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하싼호사건을 도발하였습니다.

일명 장고봉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그때까지 일제가 도발한 국경분쟁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파렴치한 것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고봉이란 당시의 웅기군 사회리 대안에 있는 쏘련의 자그마한 고지입니다. 쏘련사람들은 그 고지를 무명고지라고 불렀습니다. 고지근처에 하싼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하싼호사건이니, 장고봉사건이니 하는 말들은 다 이런 지리적 개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처음에 하싼호를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장고봉에 있는 쏘련의 국경초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장고봉을 점령한 다음 병력을 증강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의 연



하싼호에서 국경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쏘련군대

해주지역을 제압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일본군은 쏘련측의 초소를 점령한 다음 그 일대에 나남 19사단을 기간으로 하는 숱한 병력을 집중시키였습니다. 쏘련측은 큰 병력을 동원하여 조국강토를 침노한 일본침략자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하고 그들을 자기 나라 영내에서 모조리 쫓아 냈습니다.

하싼호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임강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적의 배후를 타격하였습니다.

일본군부는 쏘련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항상 자기들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인민혁명군의 존재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썼습니다. 일본통치의 암으로 되고 있는 항일유격대를 없애버리지 못한 것, 이것은 일본의 정계나 군부가 제일 큰 두통거리로 여기고 있던 최대의 고달픔이였습니다.



할힌골에서
쏘일정전교섭

우리가 임강현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적배후타격전을 과감히 벌일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자 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철하였습니다. 인민들도 혁명군의 투쟁에 호응하였습니다.

일제의 쏘련에 대한 도발적인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작전과 함께 국내의 애국적 인민들속에서도 항일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다음의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정무국이 발행한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상황≫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일제의 하싼호침공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8월 2일 밤 청진부두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작업을 포기하였으며 부두에서 파업에 참가하였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갔다고 한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조선인민 쏘련과학원출판사)

하싼호사건이 있은 다음 쏘일간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치리하는데서 쏘련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강경하였습니다.

일본의 군부호전계층은 쏘련의 강경자세에 위축되었습니다. 쏘련은 러일전쟁당시의 무능한 러시아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국력을 가진 대국이였습니다. 일제는 쏘련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던 대쏘침략계획을 놓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쏘련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쏘련의 강경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심산으로 만몽국경일대에서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칭 노몬한사건이라고도 부르는 할힌골사건은 이렇게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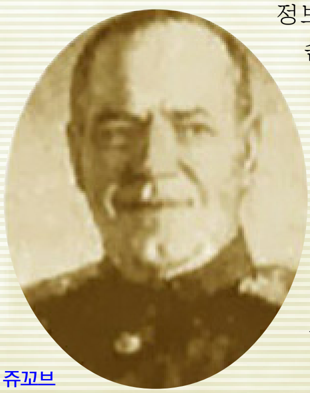
할힌골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쏘련군포병대

할힌골이란 쏘만국경 가까이에 있는 몽골의 강이름이며 노몬한이란 몽골말로 평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할힌골사건을 도발한 목적은 할

힌골강 동쪽의 몽골영토를 점령하고 저들이 부설하려고 하는 제2철도를 엄호하기 위한 방어지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시베리아철도간선을 절단하여 러시아로부터 원동을 떼여내자는데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쏘련이 일본의 군사적 침공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쏘련의 대일전략은 무엇인가, 쏘련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탐지하고 가늠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쏘련의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나 공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습니다.


쥬꼬브

그 무렵 쏘련군부에서는 적지 않은 고위군사지휘관들이 전열에서 제거되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군부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쏘련의 군사력에 얼마만큼한 영향을 미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몹시 알고 싶어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래동안 일본 정계와 군부에서는 북진론과 남진론이 대두하여 쏘련을 먼저 치느냐 남방을 먼저 먹느냐 하는 전략문제를 가지고 맹렬한 논전을 벌이었습니다.

할힌골에서의 군사적 도발은 북진의 가능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전쟁이였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할힌골일대는 광막한 모래언덕과 초원으로 된 곳이라고 합니다. 할힌골사건은 몽골국경수비대원들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당치않은 트집을 걸어가지고 일본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도발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직접적인 동기를 마련해준 것은 할힌골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들이였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국경이 무엇이고 통행금지구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그런데 일제는 만주국경찰들로 하여금 양무리들이 월경했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몽골사람들을 수색체포하게 하고 그것을 기화로 할힌골사건을 도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5년에 벌써 위조지도를 찍어내여 만주국의 국경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몽골쪽으로 20여 킬로미터나 더 들이그어놓았습니다.

일본이 할힌골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군사적 도발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주공을 담당한 일본의 고위지휘관들 중 한 사람이 한때 일본대사관 무관으로 모스크바에 가있던 고마쯔바라장령이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마쯔라는 반쏘모략에서 수완을 보인 덕으로 대쏘작전에서 1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르주둔사단의 사단장이 된 사람이였습니다.

사건초기에 그는 사단을 이끌고 몽골령내에 깊숙이 쳐들어가서 할힌골 서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을 일본군의 교두보로 확보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몽골군이 얼마 없었습니다. 쏘련군대는 거기서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마쯔바라는 이 약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쏘몽군대가 연합하여 고마쯔바라사단을 비롯한 적의 대부대들을 괴멸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일제는 본토에서 병력을 끌어다가 대규모적인 집단무력을 편성하고 새로운 작전을 벌이었습니다.

쏘련측에서는 백러시아군관구 부사령관인 쥬꼬브를 할힌골전선에 파견하였는데 쥬꼬브는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부대를 땡크와 비행대에 의한 타격을 기본으

로 하여 높은 기동력과 불의성으로 괴멸시키였습니다.

할힌골에서의 국지전은 그 해 9월 중순 쏘몽군의 승리로 결속되였습니다. 쏘몽련합군이 할힌골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해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 적배후교란작전을 벌일 데 대한 새로운 명령서를 작성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 명령서에 따라 그 해 여름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은 수많은 전투를 벌려 일제의 쏘련침공을 저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진

대표적인 싸움으로는 1939년 8월의 대사하, 대장강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는 적들이 할힌골에 투입할 제6군을 새로 편성하느라고 병력이동과 군수물자수송에 한창 혈안이 되어 날뛰던 시기에 벌인 교란작전이였습니다. 그 싸움을 이틀동안이나 했습니다. 적 500명을 소멸한 큰 전투였습니다.

김진은 대사하전투에서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습니다.

김진의 모범을 따라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시기에도 수많은 인민군전사들이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습니다.

김진은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갔을 때 영안현 팔도하자에서 입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팔도하자마을에 들어갔을 때 오진우가 한 머슴군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청년이 바로 김진이였습니다. 그가 혁명군에 받아달라고 너무 조르기에 입대시켰습니다.

김진에 대해서 오진우동무가 잘 압니다. 김진네 소대장이 바로 오진우였습니다.

김진은 서당공부를 며칠밖에 하지 못한 청년이였으나 입대 후 전우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내가 끼고 다니면서 직접 글을 배워주었습니다. 소박한 청년이였는데 우리 혁명에 큰 공헌을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김진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후대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이 바로 쏘련의 할힌골격전을 지원하는 싸움에서 배출된 것을 매우 뜻깊은 사실로 생각합니다.

할힌골전투를 돕는 적배후교란작전에서 희생된 여대원 허성숙도 잊을 수 없는 동무입니다.

허성숙은 자위단장을 하는 아버지와 의절을 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유격구에 찾아들어왔다가 혁명군에 입대한 여대원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위단장질을 하는 것때문에 그가 이만저만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성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위단장모자를 벗으라고 했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딸의 애원을 매번 마이동풍으로 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설복해내지 못한 허성숙은 분연히 집을 뛰쳐나와 삼도만류격구로 들어갔습니다. 1933년에 있은 일이니 그가 16-17살 나던 해였을 것입니다. 내가 허성숙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몇 해 후였습니다.

사연은 어떻든지간에 나는 허성숙이 아버지와의 의절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것은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성중대를 조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성숙을 만났을 때 그에게 동무는 아버지에 대한 입장부터 고쳐야겠다, 아버지가 자위단장을 하면 반역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설복하고 도와줘야지 그렇게 원쑤처럼 대해서야 되겠는가고 가볍

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손부터 내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허성숙에게 설사 아버지가 친일분자로 되였다 하더라도 동무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를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 생각을 해야지 결별부터 선언하고 원쑤의 편으로 밀어던지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버지 하나를 개조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이 혁명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멀지않아 우리는 여성중대를 꾸려보자고 하는데 동무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중대에 망라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허성숙

그러자 허성숙은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그 동안 처신을 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아버지를 잘 설복하겠으니 여성중대에만은 꼭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여성중대에 망라되어 잘 싸웠습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였기 때문에 전우들은 그를 가리켜 허장군 또는 여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간삼봉전투가 있은 날 저녁 최현을 만나 허성숙에게 얼마동안 말미를 주어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부녀간의 상봉을 마련해서 그들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생각에서 그런 권고를 했더니 최현도 얼른 동의해 나섰습니다. 그는 부대가 명월구부근에 가면 허성숙을 꼭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성숙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허성숙이 아버지한테 찾아가려고 길차비를 하고 있을 때 할힌골작전을 지원하여 대사하, 대장강 전투를 벌이기 위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허성숙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큰 작전을 앞두고 어찌 사사일부터 먼저 치르겠는가고 하면서 집에 가는 일을 뒤로 미루겠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가 벌어지던 날 그는 보초소에서 불의에 적군용자동차편대와 조우하였습니다. 그날의 보초는 원래 허성숙이 아니라 부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구대원이었다고 합니다. 허성숙은 식사 후 늙은 대원을 도와주려고 보초소를 찾아갔습니다. 보초소근방으로 적군을 실은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밀려오자 허성숙은 로대원을 시켜 지휘부에 정황을 보고하게 하고 혼자서 적들을 막아나섰습니다.


양형우

그가 총소리를 낸 것은 적들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더라도 적의 공격을 다문 몇 초동안만이라도 저지시키자는 것이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적들의 화력은 자연히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허성숙은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으나 휴대하고 있던 수류탄을 다 터뜨린 다음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소행으로 하여 그날 부대는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때에 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허성숙이 희생될 당시의 나이가 아마 22살이나 2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꿈을 그는 쏘련의 할힌골격전을 지원하는 싸움에 바치였습니다. 국제주의의 꽃입니다.

전동규연대장과 양형우연대정치위원도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모두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이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훈춘출신들이였습

니다. 대원들이 그들을 몹시 따르고 존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높은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이신작칙하는 지휘관들이였기 때문입니다.

양형우는 훈춘유격대 초창기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 대사하를 친 다음 소사하의 고지를 차지하고 달려드는 적을 견제하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사하전투가 너무 시간을 끄는 바람에 소사하의 고지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지를 먼저 차지한 것은 적들이였습니다. 소사하고지를 쟁탈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 대사하, 대장강 전투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에서 양형우는 기관총을 틀어잡고 싸움의 앞장에 나섰습니다. 대원들은 그를 따라 고지로 육박해갔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고지를 거의 점령할 무렵에 양형우는 그만 적탄에 복부를 부상당하였습니다.


전동규

그는 왼손으로 총상자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기관총을 휘두르면서 왜놈들은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다. 놈들은 지금 쏘련을 침공하고 있다. 저 원쑤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쳐부시자,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자고 웨치며 대원들을 돌격에로 불러일으키였습니다. 대원들은 노도와 같은 공격으로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였습니다.

훈춘시절부터 양형우와 어깨를 겯고 성장한 전동규연대장도 적의 부대를 전멸시키고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희생된 유격대원들은 모두 혁명위업에 충실한 국제주의열사들입니다.

요차전투도 인민혁명군부대들이 쏘련을 돕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조직한 전투였습니다. 새로 연대장으로 임명된 이용운이 이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연대는 이 전투에서 만도 수백 명의 적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지휘한 이용운은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총상자리는 다행히도 아물었으나 그는 소할바령회의 후 쏘만국경지대에서 국제당과의 연계를 취하며 소부대공작을 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수행한 소부대공작도 역시 국제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였습니다.

화룡현 3도구 금광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대습격전투, 안도현 푸르허습격전투, 왕청현 백초구습격전투를 비롯하여 할힌골사건 당시 인민혁명군이 쏘련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적배후교란작전의 실례를 들자면 많습니다.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배후교란작전에 적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쏘만국경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들과 철도주변의 100-200미터 구간에 있는 초목들을 모조리 베여버린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음으로는 인민혁명군의 매복 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대담무쌍한 활동에 의해 쏘만국경지대로 통하는 철도들에서는 군용열차폭파사건과 탈선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룡운

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적의 후방을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많은 유생역량을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유격대의 활동구역에 수많은 적을 붙들어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쏘련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에 인적역량을 원만히 동원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적들은 하싼호사건 때 우리의 역량을 견제하기 위해 간도지구에만도 2개 여단의 역량을 투입하였습니다. 할힌골사건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역량을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보는바와 같이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할 데 대한 구호를 들고 우리가 진행한 배후타격전은 일제의 대쏘침략을 좌절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산병선이 전진할 때 약진하는 선두대원을 위해 온 대오가 그를 엄호하는 것은 군사학의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시점으로 볼 때 이 행성에 하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국가 쏘련은 산병선의 선두에서 약진하는 병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선두에서 약진하는 쏘련을 엄호하기 위해 관동군의 배후를 타격하였습니다.


레닌

승리한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혁명의 전취물을 보존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국제주의적 임무인 동시에 의리이고 도덕이기도 합니다. 앞선 혁명을 잘 도와야 뒤떨어진 혁명도 그 연관속에서 성과적으로 약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연합은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할힌골격전은 관동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5만에 달하는 사상자와 포로, 행방불명, 그것은 불질을 즐기는 호전광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대가였습니다. 자기 부대의 유생역량을 다 잃어버린 일본군 지휘관들은 스스로 군기를 불사르고 자결하거나 상급으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하였다고 합니다. 관동군사령관 우에다를 비롯하여 참모장, 작전과장, 작전참모 등 관동군의 수뇌부는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전원 철직당하고 말았습니다.

할힌골격전에서 쓴맛을 본 다음부터 일제의 대쏘정책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그때부터 쏘련에 대한 강경정책을 일시적인 유화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 이 항일전쟁당시 쏘련을 피로써 도와주고 옹호한 것이 옳았는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오늘의 현실은 지난날 쏘련을 옹호하여 기울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지원이 헛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그런 문제를 설정하고 가타부타하고 시비질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린 사람들이나 할 짓입니다.


붉은군대 장갑차

우리는 쏘련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지원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쏘련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지난날 우리가 쏘련의 혁명투쟁을 지원한 것이 헛된 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바친 의리나 노력은 헛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인류의 이상이고 역사발전의 응당한 노정인 것만큼 그 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부



정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사회주의가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 첫 체현자인 쏘련을 도와준 것도 정의롭고 성스러운 것으로 되지 허무한 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쏘련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 때 무장을 들고 피로써 그들을 도와준데 대하여 지금도 긍지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쏘련이라는 국호도 없어졌고 쏘비에트국가를 건설하던 초창기의 노혁명가들도 없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땅에는 할힌골격전에 직접 참가한 노병들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절에 우리가 쏘련을 위해 적의 배후에서 교란작전을 벌인데 대해서 회상할만한 사람들도 거의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억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가 심혈을 바쳐 가꾸어온 국제주의의 화원이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런 것에는 관계없이 무장을 들고 쏘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쏘련을 위한 일인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에 대하여 국제주의로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은 민족이기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말건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이기주의도 반대하지만 민족이기주의도 반대합니다. 자기만 잘살내기를 해서야 그게 무슨 인간다운 생활입니까. 사람이 누리는 낙중에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그라드전투

7. 마에다토벌대의 종말



홍기하전투에서 전멸된 마에다부대의 격전비

1940년 3월의 홍기하천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마지막 시기를 빛나게 장식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것으로 혁명군을 괴멸시킨다고 떠들던 적들은 이 전투로 해서 이만저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옹근 하나의 토벌 중대가 전멸되는 비참한 종말을 당한 것으로 하여 져들은 어쩔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기인가. 중일전쟁이 장기적인 대치전으로 들어가고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으로 해서 쏘일관계가 극도로 팽팽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관동군수뇌들은 동북항일운동을 최종적으로 박멸한다 어쩐다 하면서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적을 부단히 치면서도 싸움을 한번씩 하고난 다음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군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겨우내 돈화와 무송의 오지를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때에 다 얼어죽었다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이 안도-화룡현경에 불쑥 나타나 홍기하에서 마에다토벌대를 전멸시켰으니 적들로서야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홍기하전투는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동녕현성전투, 무송현성전투와 같은 큼직큼직한 전투들과 더불어 우리가 벌인 군사작전들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작전의 하나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에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룡현 경찰토벌대의 한 개 중대장에 불과하였던 마에다로 말하면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이 상대할만한 그런 존재는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송의 왕가대장이나 안도의 이도선같이 가장 악질적인 토벌대장이었습니다. 직급은 보잘 것 없었지만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해쳐보겠다고 날뛰다가 녹아난 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대선회작전에 따라 계획적으로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적들에게 거듭되는 군사적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홍기하전투를 한달가량 앞둔 때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하던 우리는 밀영으로 기습해 들어온 적들을 불이 번쩍나게 답새겨 주고 안도쪽으로 쭉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제2단계라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에서는 첫 시작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패자밀영에 들어가 있던 임수산이 사령부가 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공했기 때문에 원래의 비밀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다른 통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한 통로가 다름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백두산동북부의 백색지대였습니다.

일본군대에 한다하는 측량쟁이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 일대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측량을 하지 못한 지대이니 지도에 백색을 그대로 남겨둘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동북부의 일부 지역을 백색지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석탄을 떠날 때 백색지대를 지나서 무산, 삼장에 나가 총소리를 다시한 번 크게 내고는 화룡현을 거쳐 안도현 중심부로 되돌아오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석탄을 떠나면서 새로 세운 대부대선회작전의 2단계 계획이란 이런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로수하에서 한차례의 전투를 한 다음 두도백하, 이도백하, 삼도백하를 가로지르면서 안도현남단으로 행군해갔습니다.

백색지구를 참으로 힘들게 돌파했습니다. 그때는 눈무지도 적이고 설한풍도 적이였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 없었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곤란한 것은 길을 자주 헛갈리는 것이였습니다. 만물이 죄다 백색으로 치장을 하다나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표적을 정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마록구근방에 와서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의복도 신발도 다 해졌습니다. 우리는 대마록구를 쳐서 후방물자를 해결하였습니다. 대마록구라는 말은 큰 말사슴골이라는 뜻이고 소마록구라는 말은 작은 말사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대마록구의 사슴들이 두만강을 건너 우리 나라 땅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겨울에는 대마록구에 돌아가 새초를 먹느라고 두 나라 지경을 왔다갔다했습니다.

적 토벌대의 본거지인 대마록구에는 산림경찰중대본부도 있었습니다. 대마록구는 국경방면의 토벌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장이였습니다. 일제는 이 고장에 있는 산림채벌회사와 작업장들을 통하여 군수용목재들을 대대적으로 약탈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에 앞서 대마록구에 정찰조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찰정형을 보고하고는 눈알이 뿌옇고 키가 꺽두룩한 이상한 인종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코가 한자나 되고 손등에 털까지 부르르한 이상한 족속들인데 무슨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원 한 명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목재소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백계러시아인들이더라고 했습니다. 하얼빈지방에 백계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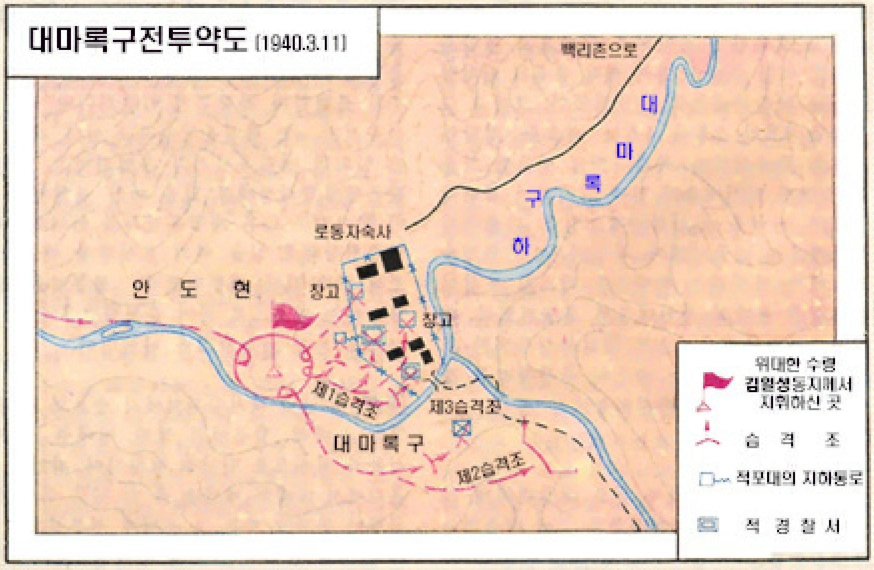
나도 1930년 여름 하얼빈에 가서 백계러시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의 주력이 출전한 틈을 타서 급행급습하는 전술로 순식간에 대마록구를 타고앉았습니다. 백계러시아인운전사들은 우리 대원들을 만나자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부대를 비적부대로 본 모양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금반지를 받지 않고 되돌려주자 그들은 천하에 별난 사람들도 다 본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만큼 낙후했습니다.

대마록구를 치고 노획한 밀가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밀가루를 대마록구인민들에게 한포대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노획한 물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대원들이 모두 한 짐씩 지고도 남아서 수십 명의 목재소노동자들이 자진하여 짐을 져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백계러시아인들을 설복해서 자동차로 일정한 거리까지 쭉 빠지자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어를 아는 사람을 백계러시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백계러시아인운전사들을 설복하여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백계러시아인들과 직접 담화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조국에서 살지 않고 중국에 와서 사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와 같은 지주, 자본가 출신들은 공산당이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자기네한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쏘련에 보내주면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해볼 용의가 있는가고 묻자 있다고 했습니다.

노획물자들을 지고 우리를 따라나선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노동자도 한 명 있었



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좋은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혁명군을 만나보니 사람들이 다 좋더라,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편이더라,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없이 대해주면서 일본인노동자들도 조선인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일본제국주의를 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보고 들은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재소감독에게 잡혀 딴곳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마록구를 기습하자 안도와 화룡 일대의 적들은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력부대를 소멸해보겠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앞장에 선 것이 화룡현 경찰토벌대 대장인 현경무 과장 우나미와 마에다였습니다.

화룡현 경찰당국이 경찰토벌대를 조직한 것은 1939년 5월 우리가 무산지구전투를 끝마친 다음 두만강연안에서 큰 전투를 연속 벌이던 무렵이었습니다. 화룡현 경찰토벌대는 순전히 우리를 견제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급작스레 만들어낸 무력이었습니다. 이 토벌대는 마에다의 중대를 포함한 4개의 중대와 철도경비대 2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간도지구 토벌대장의 지휘밑에 유격대 토벌에 미쳐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북쪽에 있는 줄 알았던 우리가 불쑥 화룡, 안도 현경에 출몰하면서 대마록구를 들이치게 되자 화룡 경찰토벌대는 악이 날대로 나서 우리를 추격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마에다는 곧잘 **김일성**부대주력은 자기네가 맡아 제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우리에 대한 토벌에 그 누구보다도 악질적으로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우리의 목에 자그만치 1만원이라는 많은 현상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걸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만주국치안당국이 경찰상을 제정하면서 보통상 10원으로부터 치안부대신의 명의로 된 최고상의 액수를 200원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1만원이라는 현상금은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하급경찰관노릇을 하다가 만주로 들어온 다음 수도경찰청산하 경비사령부와 주로 조선국경대안의 여러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바 있는 마에다는 간도일대에서 벌인 치안숙정공작에서 세운 공로로 치안부대신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金日成〇〇一派
警察本部襲擊
食糧多數〇〇〇〇〇去

대마록구전투를 보도한 일제의 신문보도자료

우리가 대마록구를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이 오른 마에다는 유격대를 전멸시키겠다고 하면서 혈서를 쓴 다음 토벌출정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만군경합동토벌대는 총출동하여 백두산기슭의 대수림을 포위하고 개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나는 그때 토벌대들이 반드시 우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적을 교묘하게 빼돌리기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한 개 소부대 성원들과 노획물자들을 지고 우리를 따라오던 40여명의 사람들을 대마록구로 되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여기저기에 발자취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적들은 그들의 발자취에 속아 모처럼 잡았던 유격대를 놓쳐버렸다고 통탄하다가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김일성**이 아무리 신출귀몰한들 땅속에 잦아들겠는가, 백두산만 다 뒤지면 공산군사령부는 문제없이 찾아낸다고 장담하면서 매일같이 산속을 헤매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따돌리고 얼마동안 화라즈밀영에서 배심좋게 주력부대의 군정학습을 조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휴식도 하면서 피곤을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쪽으로 행군을 계속 하였습니다. 화라즈일대에 흩어져서 혁명군의 행방을 찾느라고 돌아치던 적들이 마침내 우리의 행방을 탐지해내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상에서 토벌대에 인부로 징발된 농민들을 만나 1,000명 가량되는 적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이라고 하지만 허리를 치는 적설 때문에 적아쌍방이 다같이 행군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행군속도가 우리보다는 빨랐습니다. 우리가앞에서 생눈길을 내면 적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부대에는 쫄라병환자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명뿐이었는데 나중에는 15명가량의 환자가 생기였습니다. 나는 임춘추에게 쫄라병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작정인가고 물었습니다. 임춘추는 유격대정치일군이었지만 임상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먹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아편을 쓰든지 무엇을 쓰든지 재간껏 치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아편을 먹고 급한 고비를 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행군을 할만한 정도로는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적들을 멀리 떨구어놓아야 하겠는데 환자들 때문에 행군속도가 떠지게 되다나니 적아의 거리가 10-15리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홍기하상류의 대마록구하는 여러 갈래의 골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골에 이르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재소노동자들이 사용하다가 버리고간 헌집이 있길래 보초를 세우고 그 집들에 대원들을 숙영시키었습니다. 대원들을 푹 쉬우지 않고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적들이 꽁무니를 바싹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군을 멈추고 그런데서 숙영하라고 하자 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자리에 드러눕자 안심했습니다.

나는 마에다토벌대를 홍기하골짜기에서 족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기하골짜기를 매복지점으로 택한 것은 화라즈까지 들어온 적들이 기지로 돌아가자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리라는 것을 타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곳 지형은 적을 매복소멸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고장이였습니다. 후에 화룡현경무과장이 말한 것처럼 그 골짜기에서 매복에 걸리기만 하면 정말 전술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형이였습니다.

내가 홍기하골짜기를 전투장소로 선택한 것을 알고 오백룡은 장군님, 적들이 우

리의 전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함정에 스스로 찾아들어오게 될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였습니다. 적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인매복전술이였습니다. 적들은 이 전술에 라와전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라와에 걸리지 말라는 말이 하나의 경구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의 유인매복전술에 얼마나 혼쌀났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들은 빨치산이 매복해 있을만한 곳으로는 될수록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백룡이 한 말은 이런 실정을 염두에 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일본군이 라와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산군이 그런 전법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산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홍기하골짜기에 매복진을 치고 거기서 추격해오는 토벌대와의 싸움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적들이 더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전법을 다시금 적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행군길에 나선 우리는 소마록구쪽으로 능선을 타고 나가다가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 골짜기 양옆의 산들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상류를 향해서 오른쪽에는 3형제같이 생긴 3개의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매복진지로는 명당자리였습니다. 골짜기 왼쪽에도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봉우리기슭에 자그마한 수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지물이였습니다.

나는 지휘관모임을 열고 간단한 전투조직을 했습니다. 골짜기 오른켠에 있는 3개 봉우리에는 기관총소대와 경위중대를 배치하고 왼켠봉우리의 변두리에는 7연대와 8연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되 각 부대들은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고지로 올라오는 발자국만을 메우면서 제가끔 지정된 장소에 매복하고 유인대는 발자국을 크게 내면서 계속 골짜기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태춘을 책임자로 하는 한 개 소조는 골짜기의 첫 고지 북쪽을 차지하고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게 했습니다. 유인대는 골짜기끝에까지 가서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홍기하골짜기에서 계획대로 전투를 하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스해졌기 때문에 양지쪽에서는 눈이 녹아버리었습니다. 길도 질적질적 했습니다.

적들은 정오도 지나고 해가 펴그나 기울어진 때에야 홍기하골짜기에 나타났습니다. 망원경으로 골짜기어귀를 내려다보니 척후였습니다. 척후치고는 큰 척후였습니다. 적들이 척후를 파견할 때에는 한두 명씩 내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화라즈골짜기들에 있던 토벌대란 토벌대는 다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척후병들의 뒤로는 첨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첨병들이 마지막 고지의 앞을 지나갈 때 군도를 찬 장교가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가 바로 마에다였습니다.

부대의 앞머리가 매복권안에 깊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걸음을 멈추고 눈우에 찍힌 발자국과 골짜기의 묘한 지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나는 그가 골짜기우에 척후대를 파하거나 부대를 뒤로 뽑을 궁리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일이나 산악지대를 돌아치며 허탕만 치는 통에 지칠대로 지친 마에다는 냉철하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할 그 운명적인 시각에 탕개를 늦추고 방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에다가 독립수밑에 서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부하장교들이 그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에다는 군도를 짚고 서서 그들에게 무슨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적의 기본대오는 전부 매복권안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격신호를 내렸습니다.

적들은 첫 타격에 벌써 반수이상이 쓰러졌습니다. 골짜기 좌우쪽에서부터 불의에 협격을 받은 마에다는 즉시 전대오를 행군하던 그 자리에 산개시키고 주력으로

북쪽고지를 점령하려고 했으나 서쪽 잡관목림속에 매복해 있던 우리 대원들이 맹렬한 측면사격을 하게 되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에다는 정황이 불리해지게 되자 최후결전을 결심했던지 돌격명령을 내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군도를 뽑아들고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중상을 당한 후에도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나머지 적들도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에다의 부하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바치고 투항한 30명쯤 되는 적을 내놓고는 모두가 소멸되였습니다. 살상자수가 140여명 잘되었을 것입니다.

홍기하전투때 우리 동무들이 참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때 육과송에서 전사한 오중흡을 대신하여 연대장이 된 오백룡도 잘 싸웠고 김일도 돌격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전장을 수색해보니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리품가운데는 무전기도 있었습니다. 탄알도 수만 발 노획하였습니다. 무기가 남아돌아가던 때여서 처치곤란이였습니다. 그래서 노획한 무기들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어 낡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대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대사변의 시기를 예견하여 유지로 싸서 땅에 묻거나 구새먹은 나무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전리품정리를 끝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위만군 봉천부대가 불을 피우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달려들지 못하고 눈먼총질만 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노획한 기관총을 전부 걸어놓고 성능검사도 할 겸 요란하게 위협사격을 퍼붓게 하였습니다.

그날밤 오백룡이 봉천부대가 슬금슬금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놈들을 답새기라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은 내버려두라, 구경군들까지 때릴 것이야 있는가, 그들을 때려눕히는 것보다 살려보내는 것이 낫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여 마에다부대가 벼락맞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줄게 아니냐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에다가 부하들에게 유서를 쓰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홍기하에서 싸움을 한 다음 전장을 수색할 때 전사한 장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비단천에 싼 유서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비장했습니다. 포로병들의 말에 의하면 마에다는 출전직전에 부하들을 모아놓고 중대는 지구 토벌대의 일원으로 **김일성**부대와 싸워야 한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야마도 다마시(일본정신)를 키우고 천황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유서까지 쓰웠다는 것입니다. 지어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쓸 유골함까지 만들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에다가 비록 직급은 하나의 토벌중대장에 불과한 자이지만 정말 지독한 국수주의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에다를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와 반공광신자로 만들어놓은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사상이라고 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체 국민을 철저한 국수주의의 신봉자들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국수주의라는 것은 항상 애국주의의 외피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국수주의의 독소가 쉽게 침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만주를 먹어야 자기네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침략사상을 집요하게 주입시키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소비하는 빵이나 과자같은 음식물에



선전화 ≪거덜난 <토벌>≫

다가도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자극적인 글자를 새겨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남의 땅을 삼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전을 이런 정도로 집요하게 해대면 그 독소가 사람들의 머리속에 침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조아지들에게는 마치 아무런 사상도 없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이 있는 것처럼 부르조아지들에게는 부르조아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네 사상을 신봉하는 충견들을 길러냅니다.

한때 혁명군안의 일부 지휘관들은 일본군대내에서 황도정신을 주입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일면적으로 그 기만성과 허황성만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일본병사들을 총을 쥔 목석으로 보는 편향을 발로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들에게 사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이 적들의 사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적들이 똑똑한 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얕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일군들에게 적의 사상적 취약성만 강조하지 말고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사상을 주입하고 있고 극악한 반공독소로 병사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은 홍기하전투를 통해 쓴맛을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뒤꽁무니를 아무리 쫓아다녀보아야 차례질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마에다토벌대의 종말과 같은 비참한 결과만 맛보게 된다는 것과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쓰디쓴 교훈이였습니다.

우리는 홍기하전투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굴복하지도 사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홍기하전투는 국내인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홍기하에서 조선땅이 지척이였기 때문에 혁명군한테 마에다가 쫄딱 녹았다는 소문이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으로 인차 날아갔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운명이 어떻게 돼가는가고 가슴을 조이며 주시하던 인민들이 그 소문을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혁명군이 망했다는 선전을 아무리 들이대도 믿지 않았습니다.

홍기하전투를 계기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전파되어갔습니다. 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자기들의 장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게 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조선의 모든 반일애국역량이 신심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홍기하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와 반대로 **김일성**부대만 소멸하면 동북에서의 항일유격전쟁은 조만간에 종말을 고한다고 선전하던 일만군경측으로 볼 때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상사였고 비참한 패전이였습니다.

화룡현경찰당국은 마에다부대의 전멸을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저들이 천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수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영활한 전법앞에 마에다부대의 패망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에다토벌대의 괴멸은 일만군경수뇌들이 그토록 큰 힘을 넣었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마에다의 직속상관이었던 화룡현 경무과장 우나미는 패전 후 일본에 돌아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간도성의 만주국경찰로 있은 내가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항일부대의 토벌에 참가

한 것은 1938년부터 1941년에 걸쳐서였다.

…

정보수집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확실한 정보로서 ≪**김일성**장군은 길림시의 학교를 졸업하였다. 매우 우수하여 정치적 판단력, 조직지도력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웠다.≫는 것이었다.

…

김일성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은 항일유격투쟁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 것 같았다. 특히 교묘한 유도작전이라든가 매복전에 의하여 혼쌀난 일이 많았다.

…

1940년 3월 11일 홍기하계곡에 있는 대마록구가 **김일성**부대의 습격을 받다. 대마록구는 산림경찰중대본부가 있는 토벌대의 거점이였다. 본부가 얻어맞고 자동동차수리소가 불타고 무기, 탄약, 식량, 피복을 빼앗았다.

누노가미지구토벌대장은 경찰토벌대대에 일본군의 오오바, 아까호라부대와 협동작전으로 **김일성**부대를 추적섬멸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마에다 다께이찌중대에 그 임무를 주었다. 3월 25일 마에다중대는 대마록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일성**부대와 맞다들어 대격전을 벌였으나 마에다중대장이하 전멸하는 결과로 끝났다. 매복작전에 걸렸던 것이다. 이 마에다중대의 전멸은 토벌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부대는 지리에 밝고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림에서의 토벌작전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

당시 **김일성**빨치산부대는 ≪우리는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조국광복을 위한 싸움에서는 타협이 없다.≫, ≪토벌대는 우리에게 무기 식량, 의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환영할만한 손님이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수상의 영도밑에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밑에 전진하고 있는 조선인민은 기필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나는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도 홍기하전투와 관련된 회고를 하시면서 군국주의의 재생에 경각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 말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일본지배층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나서 세계제패라는 어리석은 몽상에서 깨여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이웃나라 인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지배층이 하는 노릇을 보면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이나 세계제패를 꿈꾸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적지 않은 반동세력은 지금까지도 조선인민과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한 죄과, 수십수백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는 20여만의 아녀자들을 성노리개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취급한 야수적 죄행까지도 똑똑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밑천으로 하여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참망하고 있습니다. 구라파나라들에서 신파쑈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재미가 없는 일입니다.

군국주의의 부활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

≪계승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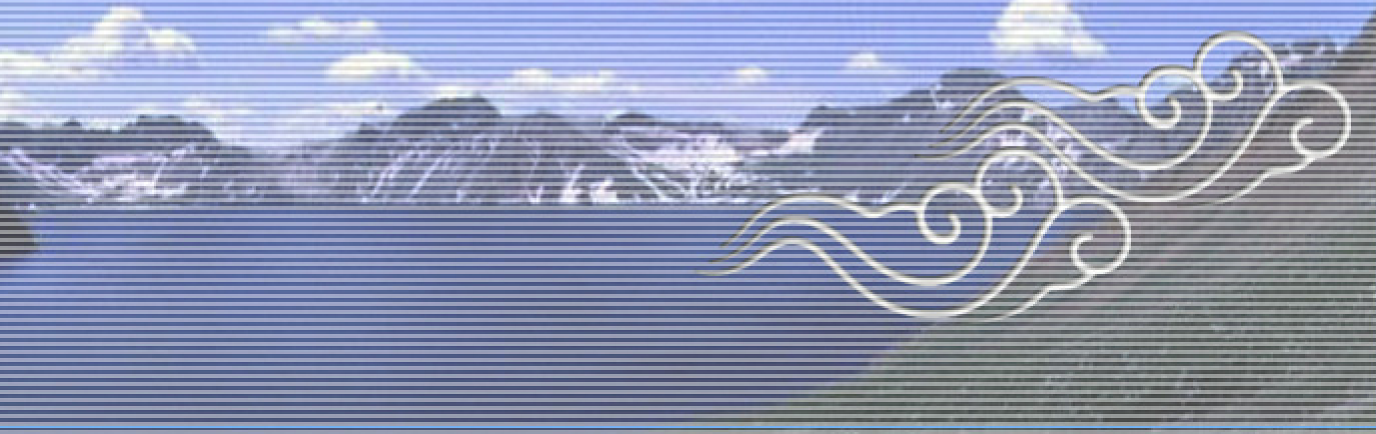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제22장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

소할바령에서
미래에 대한 락관
국제당의 련락을 받고
1940년 가을
위증민에 대한 회상

■ 시기 : 1940. 4 ~ 1940. 12

1.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김일성동지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갈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채택한 중요한 역사적 회합이었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혁명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안고 있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치신 피타는 노고와 열정의 소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회의의 준비와 그 진행과정을 두고 하신 여러 차례의 교시를 새롭게 되새겨 본다.

홍기하에서 마에다토벌대를 소멸한 다음 우리는 화라즈의 수림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노정에 대한 총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20만리장정총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노정이 20만리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장정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혁명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일도 더 많이 하고 험한 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장정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기본요인은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유격전술에 있다, 이것이 20만리 장정의 주되는 총화이다,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 조성된 정황과 지대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격 전술과 전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자,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며 대중정치사업도 강화하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수십만 리를 더 걸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자, 앞으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곳

1940년 봄이면 노조에토벌사령부가 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를 종전보다 더 요란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병력도 더 많이 들이밀고 혁명군을 소멸하기 위한 토벌계획도 이모저모로 더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형세가 이런 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도권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동에 서서 계속 적들을 압도해 왔는데 시국이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주도권만은 앞으로도 계속 틀어쥐자는 것이였습니다.

무엇을 믿고 주도권을 쥐자고 했는가. 정신력과 전술을 믿었습니다. 우리 혁명군이 인적 후비나 무장장비에서는 적들보다 열세했지만 정신력이나 전술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어느쪽이 더 우월한 용병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라즈골안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노조에토벌대들은 다 산간지대들에 있었습니다. 혁명군이 드나들만한 길목들에 떡 버티고 서서는 좀처럼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주도권문제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은 정황은 몹시 불리했습니다. 노조에는 동만의 병력으로는 성차지 않아 통화쪽에서도 응원대의 명목으로 병력을 끌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의 말에 의하면 그 병력이 벌써 연길, 돈화 현경의 양병대쪽에 도착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장백쪽에서도 무슨 공작대라는 명칭을 가진 병력이 새로 증강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역량을 증강하면서 토벌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형편에서 장차 어떤 방법으로 그에 대처해야 하는가.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미명하에 감행된 적의 첫 단계 대토벌은 대부대선회작전의 방법으로 격파했는데 그보다 더 악랄하고 집요한 공세는 무엇으로 파탄시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이 은을 냈다고 하여 지금에 와서도 그런 방법을 되풀이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전술로 나가겠는가, 동서방의 정세를 보면 독일과 일본이 강행하고 있는 전쟁의 불길이 조만간에 온 세계를 휩쓸게 되고 모든 열강들과 군소국가들이 다 그 불길에 말려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를 예견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앞에는 당면한 적의 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책과 함께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확립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였습니다.

나는 우선 홍기하전투 후에 조성된 난국을 이겨내기 위한 전술적 방안을 세워나가면서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무르익히기로 하였습니다.

적들은 그 당시 산간지대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면 분산활동으로 넘어가 야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이 성시나 집단부락들은 경찰과 자위단에 맡기고 기본역량을 산간지대에 집중하고 있는 조건에서 배후를 교란시켜 토벌역량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승산이 확고한 전술이였습니다.

이런 타산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40년 4월 중순 화라즈밀영에서 은밀히 빠져나와 적들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소사하유역에 있는 큰 집단부락들인 동남차와 양초구를 동시에 치고 뒤따르는 적들을 수개봉골짜기에서 소멸한 다음 적의 병력을 떼버리고 처창즈쪽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연길과 왕청 일대에서 활동하던 안길, 최현의 부대들과 주력부대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현의 중심지대들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개 부락에서 총소리를 냈지만 적들은 별로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분산시키자면 좀 더 큼직한 미끼를 던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현성 동쪽에 있는 3개 부락을 동시에 치기로 하고 어느날 밤 남2도구, 북2도구, 신성툰에 대한 동시타격전을 벼락같이 해제꼈습니다.

이번에는 적들이 미끼를 덥석 받아물었습니다. 안도와 화룡현 남부접경지대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던 관동군부대들이 안도현성이 당장 떨어지는 줄 알고 와하고 몰려왔습니다. 조만국경을 지키던 국경수비대도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품을 들여 적들을 안도현 중심부로 끌어들인 것은 적의 역량을 분산시켜 타격하는 것과 함께 두만강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이 움직이는 틈을 타서 또다시 국내에 무장투쟁의 불길을 확대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진출임무를 맡고 있던 부대는 김일이네 8연대였습니다. 나는 8연대에 국경일대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분산활동을 하라는 과업을 주고 7연대와 경위중대는 안도현 북부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적을 쳤습니다.

그 후 김일은 소부대 하나를 데리고 살금살금 국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부대는 5월중순경에 무산군 삼장면일대에 진출하여 국경수비대에 대한 기습작전을 벌이면서 이틀동안이나 인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미나미총독이 국경으로는 단 한 명의 유격대원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고 호통치던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1개 소부대가 국내에 뻐젓이 나타나 총소리도 내고 여유작작하게 정치사업도 한 것은 194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진출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과 안도현의 중부, 북부에서 타격전을 더 맹렬하게 벌려 적들을 녹여



두만강하류
전투장소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조에토벌사령부의 새로운 토벌작전은 그 첫걸음부터 된타격을 받게 되였습니다. ≪토벌사령부≫와 ≪지구토벌대≫, ≪소지구토벌대≫사이에서는 매일같이 우가 아래에 책임을 추궁하고 한 인접이 다른 인접에 책임을 전가하는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새로운 ≪토벌≫지침을 하달한다 어쩐다 하면서 복닥판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새 작전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남만에서 한인화가 50-60명 가량 되는 1로군의 잔존부대를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위증민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합류해서 활동할 의향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인화는 1로군 참모 겸 경위여단 정치위원이였습니다.

우리는 남만부대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접어들며 동경평과 상대동을 치었습니다. 치고보니 동경평은 거의 무방비상태였습니다. 10여일전에 친 부락을 또 치겠는가 하고 모두가 방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도 몇 개의 부락을 동시에 들이쳤습니다.

고동하목재소를 습격한 다음날에는 남만에서 온 동무들과 함께 전투에서 노획한 후방물자로 단오명절을 푸짐히 쇠였습니다.

한인화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내 손을 잡고 위증민이 왜 나를 **김**사령한테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다, 지금 정세를 보면 간도쪽이 남만쪽보다 훨씬 더 험악한데 적≪토벌대≫들이 노조에나 우메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사령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작전에서 얼마나 큰 인상을 받았던지 그는 2방면군이 제일이다, 김사령부대야말로 백전백승하는 부대이다, 이제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액목이나 돈화쪽에 가서 진한장을 만나고 영안쪽에 가서 주보중을 만난 다음 한 바탕 본때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담무쌍한 활동앞에서 일본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였습니다.

적들이 내리막길로만 굴러가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형세를 조금이라도 역전시켜보려고 간도전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을 때 우리 대오에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대마록구부근 밀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방면군 정치주임 여백기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부대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불었습니다.

우리는 여백기의 체포와 투항으로 하여 조성된 난국을 적들에 대한 부단한 공격과 다양한 전술상 변화로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선 부대를 소부대화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방면군의 역량을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도처에서 과감하고 영활한 소모전을 벌이자는 것이였습니다. 부대를 소부대화하면 활동에서도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적의 조밀한 경계망도 용이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며 적들을 다시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부대를 소부대화해야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들에게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날쌔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타산이 서게 되자 우리는 지체없이 방면군 역량을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소모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공세앞에서 주춤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맞받아나갔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적들의 대공세에 위축되어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다니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은 것은 주동에 서서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 못하게 연거퍼 답새겨댔기 때문입니다.

주체29(1940)년 봄, 여름 작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승리했다는 것은 적들 자신도 인정하였다.

≪추기, 춘기 토벌의 예봉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비단은 번무기를 타서 여러 곳에서 맹활동을 하며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제2, 제2선의 후방부락까지 적극적 습격을 하여오는데 그 상태는 참으로 방약무인이며 피해도 또한 적지않게 보고 있은 것은 여러 분과 함께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일만군대, 헌병, 경찰, 철도경호대, 협화회 등 모두 수만 명이다. 아무리 계절의 영향과 지형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력을 떨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은 첫째로 토벌사령관인 나를 비롯하여 모두의 책임에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정황을 관찰하여보면 특히 토벌대 및 각 기관의 융화단결과 그의 동태에 내포된 수많은 약점과 결함이 현저하여 숙정제공작의 추진을 저애하며 나아가서 비단의 활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를 통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치안숙정관계서류≫노조에토벌사령부, 소화 15년(1940)≫

1940년 봄과 여름의 작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소부대활동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우리는 경우에 따라 소부대활동도 했지만 주로는 대부대활동을 벌려왔습니다.

그러나 1940년 여름에는 소부대들을 단위로 하여 도처에서 연속타격, 반복타격, 동시타격과 같은 영활한 전법들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적들이 ≪토벌≫역량을 증강하고 포위망과 경비망을 물샐틈없이 칠 때일수록 전투단위를 작게 하여 소부대활동방식으로 유격전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중요한 경험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단계의 전략적 과업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수립하는데서 큰 밑천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밑천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해 8월에 열린 소할바령회의에서 대부대활동대신 소부대활동을 하자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축적한 경험도 있고 자신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부대활동을 1940년대 전반기의 주되는 투쟁형식으로 삼고 계속 주도권을 틀어쥐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소할바령회의 이전에는 대부대 활동만 하고 소부대활동은 그 이후에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유격전의 특성은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와 환경에 따라 임기응변하는데 있습니다. 소부대활동은 대부대활동이 위주였던 1930년대 후반기에도 중시되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1940년 상반년에 활발히 진행된 소부대분산활동의 시험적인 단계를 거쳐 소할바령회의 이후부터는 모든 빨치산 부대들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대부대선회작전의 후일담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 연구에서 공백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공을 들여 말해주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를 본다면 1940년 봄과 여름에 우리가 벌인 활동은 그 회의의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의 흐름에 맞게 전

략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구라파에서 일어난 전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던 때부터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결속하지 못한 채 동남아세아지역에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면서 ≪후방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최후발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적들의 우리에 대한 대대적이고 끈질긴 ≪토벌≫공세와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약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침략정책의 강화에서 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국제국내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깊숙이 빠져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정세는 일제의 멸망이 확정적이고 시간문제이며 우리 인민이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지난 10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역량보존축적을 잘할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로 넘어가자면 객관적인 정세변화 일면만 보고 거기에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주동에 서서 투쟁을 끌고 나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주체적 역량에 대한 타산과 지난 시기의 투쟁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선 선행단계에서 규정한 전략적 과제가 해결되었는가를 따져보았습니다. 남호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 임무를 꼼꼼히 따져보았지만 미해결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축성,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과 확대발전, 국경지대에로의 진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는 문제… 어느 것이나 해결되었다고 총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규정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적아의 역량관계의 변화입니다.

수자상으로 볼 때 적아의 역량은 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때 우리를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속의 좁쌀알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통상식으로써는 역량대비라는 말이 성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대비방법은 그런 산술적 비교법이 아니였습니다. 우리군대 한 명이 백명의 적, 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것이 우리 식의 비교법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가 있은 후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급속히 자라났습니다. 우리 군대는 수적으로는 비록 적들보다 적었으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하는 싸움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소유한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군사적 사명과 함께 정치적 사명과 동시에 수행하는 새 형의 특수한 혁명군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 뿐 아니라 전반적 조선혁명수행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영도적 지위와 증대되는 핵심적 역할은 우리가 혁명무력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

한 것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전취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정치적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을 먼저 꾸리고 그 다음에 무력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혁명투쟁, 특히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무력, 폭력적 진출이 가지는 결정적 역할과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무력을 건설하고 다음에 당을 건설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김일

우리는 1932년 4월에 첫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그것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바로 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의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높여나가면서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영도와 무력적 담보밑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도, 조국광복회조직과 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도, 전민항쟁 준비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혁명시기 우리 혁명의 중추적 핵심역량이며 정치적 향도자이며 민족적 이익의 무력적 담보자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대로 우리의 군대이자 당이고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전략적 단계의 과업을 능히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 핵심역량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때 조국광복회산하 회원이 20여 만이나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또한 노동자돌격대나 생산유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모체가 되어 도처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부대들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비조직군중들의 동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무렵에 김일이네가 국내에 나와 적을 치고 두만강쪽으로 행군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오의 뒤로 어떤 절름발이 농사군이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격대 어른들이 이곳으로 두만강을 건느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저녁에는 다른 길로 가야 하우다. 이 근방에는 놈들이 쭉 깔렸수다.≫하고 말했습니다.

김일이네는 그가 제공해준 정보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그 농민은 품에서 신문쪼박지를 꺼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 믿어도 되우다.≫라고 하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신문쪼박지를 내놓고 자기를 믿어달라 하니 우리 동무들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훑어보니 거기에 실린 글이 1939년 5월의 무산지구전투를 소개한 보도기사였습니다. 오랜 유격투쟁의 감각으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더러 어느 쪽으로 가야 두만강을 무탈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자기가 안내하는데로 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도 경비는 서지만 다 혁명군편을 드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밤 우리 동무들은 그 농민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경비에 끌려나왔던 마을의 주민들은 유격대가 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체하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얕수다.≫, ≪거기는 깊수다.≫하면서 길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의 강화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여전히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규정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적의 전략전술적 기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임철

1940년 여름에 우리는 황구영도로공사장에서 일본공병장교를 포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교를 심문하는 과정에 우리 동무들은 적들이 간도일대와 남만쪽에서 방대한 군용도로망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을 중심으로 하여 화룡, 연길, 돈화, 화전, 무송은 물론, 국내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백두산동북부의 험한 골짜기들에까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군용도로들의 건설정형은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거쳐 관동군사령부에까지 매일같이 보고되었습니다. 포로된 공병장교의 말에 의하면 노조에사령관이 오래지 않아 공사중에 있는 도로들을 시찰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도로는 인민혁명군을 토벌할 때 써먹자는 기동로였습니다. 영만 떨어지면 이 도로들로 조선과 동북땅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숱한 병력들이 쓸어들 판이였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주변에 비행장들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야전비행장들은 노조에의 극비지령에 따라 동남부 3성에다 건설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병장교는 자기가 아는 야전비행장의 위치와 비행기들이 지구토벌대는 물론, 소지구토벌대에도 전속된다는 것까지 실토하였습니다.

그 장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적의 야전비행장들로 포위되어있는 셈이였습니다.

적들은 이 무렵에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길림으로부터 연길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연길에 있던 동지구토벌대사령부도 도문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지역들에 적의 병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보자료들과 정찰자료들이 사령부로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징후들을 보면 적들이 오래지 않아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판을 내려고 잡도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정의 급격한 변화는 종전의 전략적 방책만으로써는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무모한 전투로 인한 손실을 피하면서 주동적인 행동으로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는 것을 우리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은 1940년 8월에 소집된 소할바령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안도-돈화현경에 이르렀을 때 15연대장 이용운과 임철중대장이 4-5명의 호위성원들을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재일에게 소할바령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취지를 말해주고 그 회의를 위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군정간부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였

습니다. 도착날자는 8월 9일, 음력으로 7월 7석전까지 다 모이게 하되 왕청, 동녕쪽에 가 있는 안길, 최현에게는 훗날 회의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13연대와 14연대들에서는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중대들에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15연대에서는 이미 이용운과 임철이 왔기 때문에 더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하였습니다. 회의과정에 크게 논의된 문제는앞으로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적 대사변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달리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안길

나는 한마디로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들에게 물론 지금도 일본군대는 강하다, 그러나 망해가는 군대다, 일본군이 망해가는 군대라는 것은 관동군의 정예라고 하는 공군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실만 보고서도 알 수 있다, 도주자와 의거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중일전쟁마당에서도 그 단속을 하느라고 쩔쩔맨다고 한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본이 패망할 날도 오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얼마전부터 특별지원병령인가 뭐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청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대만과 만주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네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식민지나라의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갈 지경이 되었으니 병력의 부족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러겠는가.

9.18사변 후 7.7사변 전까지 일본군은 만주에서만도 근 20만에 달하는 병력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일전선에서는 한 해에 그보다 더 큰 손실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예비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 직전에는 적들이 탄알도 1939년 이후에 생산한 것을 썼습니다. 간삼봉전투시기에 사용한 탄알들은 1920년대에 생산한 것들이였습니다. 탄약의 예비도 바닥이 났다는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계도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사흘이 멀다하게 내각이 교체되고 입씨름질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군부도 모순투성이였습니다. 군장성들과 장교들이 여러 파로 가라져 옥신각신하게 되니 작전에서 통일성과 협동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자간의 모순, 군민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모순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본토의 주민부락들에도 정보원들을 박아넣어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판이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의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데서 일본의 국책이 구라파에서 일어난 전쟁을 이용하여 동남아를 치자는 속심을 공공연히 내비친 것으로서 만일 일본이 동남아세아로 진출하는 경우 그것은 그들 자신이 제 무덤을 파는 길로 되리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대사변의 시기에 실행해야할 전략적 과업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조선혁명의 중추역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우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사변은 적아쌍방의 정치군사적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동원되는 최후결전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결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매개 대원들이 종전보다 몇 등급 높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였습니다. 조국이 광복되면 바로 그 대원들이 핵심이 되어 새 조국건설도 해야 하였습니다.

최후결전과 새 조국건설, 이 두 가지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략적 과제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신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야하고 조선인민이 해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장기간의 항일혁명과정을 통해 마련한 주체적 역량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최후결전을 벌일 때 남들이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동무들, 수준을 두세 등급씩 높일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다들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민을 무장시켜 항쟁에 동원시킬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것도 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전략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안을 두고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이 도처에서 대무력으로 달려들 때 우리가 대부대로 맞서지 않고 소부대로 대결하게 되면 각개격파 당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동무들에게 대부대전성기는 지나갔다, 대부대로 와와 밀려다닐 때가 아니다,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단꺼번에 그물에 잡아넣어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부대작전을 계속한다면 것은 적들의 계책에 빠져 자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격으로 된다, 소부대단위로 움직이면서 싸움도 하고 대중정치사업도 하면 식량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동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식량을 해결하려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목숨과 바꾼 식량도 대부대가 나누어 먹다나니 얼마 못가고 인차 바닥이 나군하지 않았는가, 소부대로 활동하게 되면 적의 역량도 최대한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봄과 여름에 진행한 소부대타격전의 전과정이 증명해준다, 과녁을 작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군사활동을 영활하게 전개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강력히 벌이며 매개전사들과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빨리 조직하며 세계의 모든 반제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합의한 다음 회의를 끝냈습니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전략적 노선들을 제시한 1931년 12월의 명월구회의, 1936년 2월의 남호두회의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전략적 노선을 바꾸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대세의 흐름을 제때에 보지 못하고 목전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대부대활동을 계속했더라면 역량도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존재를 끝마쳤을 것이며 역사에 순국한 열사들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할바령은 돈화현과 안도현의 경계를 타고 뻗어내린 할바령의 꼬리부분입니다. 회의는 그 령의 북쪽 비탈면에서 하였습니다. 앞에는 새초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할바령회의라하면 그 새초밭이 생각납니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그런지 새초를 베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새초밭을 굽어보며 김책이랑, 허형식이랑, 박길송이랑 말을 타고 다닌다는데 북만동무들이 이런 새초밭을 보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할바령의 새초밭에서 그려보았던 북만의 전우들을 나는 원동에 들어가서야 만나보았습니다.

2. 미래에 대한 낙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향가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한 조선인민혁명군

1940년 봄에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안도와 화룡을 비롯한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해 봄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적은 역량으로 주동을 쥐자니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힘에 부치는 시련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겨냥하고 달려드는 적의 파도식 토벌이었습니다.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 사면팔방에서 악, 악하고 달려드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노조에도 그때는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정마를 백두로 몰아 비화를 근절한다고 장담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한 해 겨울 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앞에서 골탕만 먹어온 그로서는 사실 우리 때문에 분통이 터질만도 하였습니다. 관동군사령관은 물론, 일본군부의 추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쩔쩔매던 노조에는 약이 오를대로 올라 봉천, 통화 지구로부터 증원대도 끌어들이고 지어는 쏘만국경의 국경경비대까지 불러다가 토벌에 내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수산과 같은 투항분자들이 적들을 끌고다니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날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심한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산간오지에 있는 사냥군막, 버섯막, 아편밀재배자들의 막 같은 데까지 수많은 밀정들이 들이배겨 유격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공작대라는 주구집단들도 우리의 활동구역에 나타나 정세는 일본제국의 편에 유리하다, 전도가 없는 혁명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리지 말고 귀순하라고 공개적으로 접

어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련은 식량난이였습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한되박의 식량이라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산에다가 식량을 매몰해 놓으면 어떻게나 빨리 냄새를 맡는지 그것을 다 찾아내여 없애버리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집단부락들에서 주민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밭으로 갈 때면 성문보초들이 달려들어 밥그릇까지 뒤져보는 판이였습니다. 적지 않은 집단부락들에서는 군경들이 소모하는 식량과 피복, 탄약을 토성 밖에 비밀창고를 따로 짓고 보관해 두었는데 그 위치는 취급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취급자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에 창고문을 열고 비밀리에 물자들을 졸금졸금 집단부락에 실어들이였습니다. 우리가 성시를 자주 들이쳐서 후방물자들을 보는 족족 다 실어갔기 때문에 적들도 그런 대응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광산과 탄광, 목재채벌장들의 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서도 식량은 하루나 이틀, 고작해서 사나흘분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소금도 없었습니다. 7연대와 8연대가 안도지구를 부단히 유동하면서 식량공작을 하느라고 했지만 별로 큰 소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온 부대가 끼니를 번지며 배를 곯지 않을 수 없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해 5.1절을 개구리요리로 쇠였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개구리요리가 고급요정의 식탁에도 오르는 인기있는 식품으로 되고 있다지만 우리 나라 식당들에서는 개구리요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논두렁이나 개천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꼬챙이에 꿰여 불에 구워먹는 풍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 맛에 혹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빨치산생활이 아무리 간고하다 하지만 우리는 5.1절 날만은 끼니를 번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소덕수등판에서 맞은 1939년 5.1절에는 대원들에게 술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5.1절에는 술은 고사하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도랑의 개구리를 잡아 끼니를 굼때였습니다. 명절날을 그렇게 보냈으니 명절도 아닌 보통날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에도 식량고생을 몹시 했지만 양초구치기에서 활동할 때에도 배고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 부대가 풀을 우려먹으면서 구차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갔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다나니 양초구란 지명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날 나는 기관총소대 동무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찾아갔다가 그들을 나무람한 일이 있습니다. 해토가 된지도 오랜데 산채를 뜯어다 나물국이라도 끓여먹으면 맛도 있고 식량보탬도 되지 않는가고 했더니 강위룡소대장은 보초 설 인원이 모자라서 나물 뜯으러 보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노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물 같은 것이야 보초를 서러 나갈 때에도 뜯을 수 있고 보초를 서고 돌아올 때에도 뜯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직사업만 잘하면 하루 국거리 같은 것은 잠간 사이에 장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강위룡소대장에게 지휘관이란 언제나 자기 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따끔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자라면 전령병들까지 데리고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다음날 강위룡은 전령병인 전문섭과 이을설 그리고 한창봉을 데리고 산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녘에야 돌아왔는데 나물은 한 바구니도 채 못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본 즉 풀밭에서 장시간 씨름을 하느라고 나물을 많이 뜯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뜯으라는 나물은 뜯지 않고 씨름판을 펼쳐놓게 됐는가

고 물으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가 진동하는데다가 폭신폭신한 잔디밭을 보니 고향생각이 절로 나고 봄동산에서 즐겁게 뛰놀던 어릴적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씨름으로 한나절을 보내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전문섭과 한창봉은 나이도 힘도 어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승부도 쉽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통이 엄청나게 큰 강위룡은 심판이 되여 시합이 한번씩 끝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또 해봐라…≫하고 손벽을 치면서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소대장이란 사람이 손벽까지 쳐가며 자꾸 부추기는 통에 두 대원도 신바람이 나서 씨름에 열을 올리였습니다.


강위룡

사연을 듣고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령병들까지 달아서 산나물 뜯으러 보냈는데 넷이서 한 바구니도 채우지 못하고 오다니, 그것도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때에 씨름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 사람을 엄하게 비판한 다음 그들에게 각각 주의처분을 주었습니다.

과오의 엄중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그보다 엄한 처벌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오에는 사령관이 준 임무를 그렇게 허술히 집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네 사람이 다 책임성이 강하고 임무수행에 남달리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거리든지 맡기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척척 해제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일본새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들은 우리 부대에서 모범적인 유격대원의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그들이 들고왔던 골막한 나물바구니가 그냥 눈앞에 얼른거리였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고 주의처분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씨름에 올해 돌아갔다는 네 대원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이 험한 판국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비관을 모르고 배포유하게 씨름까지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흐뭇한 웃음이 저절로 피여오르는 것이였습니다.

사람이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생활에 대한 낙관이 없으면 그때의 어려운 정황속에서 씨름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빨치산 대원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만이 적의 포위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노래도 부르고 씨름놀이도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섭

조선인민혁명군은 동서고금에 없는 낙천가들의 집단이였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군대도 빨치산도 많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만큼 혁명적 낭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생기발랄하고 전도가 양양한 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이 통채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낙천가들의 집단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였습니다.

전문섭이도 외형을 보면 조용하고 얌전해보이지만 실상은 낙천가입니다. 그는 혁명군에 입대할 때 자기 부모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기다려주십시오, 무산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를 쳐부신 다음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전문섭의 결의야말로 얼마나 엉뚱하고 낭만적인 것인가.

안길이도 낙천가였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총애한 것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도 충실성이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낙천적 성격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길은 비관을 모르는 낭만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우리 항일빨치산들속에는 이들 뿐 아니라 수많은 낙천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총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투사들 모두가 다 언제나 비관을 모르며 혁명적 낙관으로 사는 낙천가들이였습니다.

내가 강위룡, 이을설, 전문섭, 한창봉 네 대원이 저지른 잘못을 엄중하다고 보면서도 그들에게 주의 이상의 처벌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소행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김살 없는 낙천성과 배짱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그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 설사 우리가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열백 번한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신념을 가지고 혁명하는 낙천가들은 옆에서 무슨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교수대에 오른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신념도 없이 모두가 혁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혁명에 뛰어든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아늑한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안길

동무들도 아마 행군도상에서 있는 가재잡이에 대하여 쓴 회상기를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재잡이는 혁명가들의 일상생활과 투쟁에서 낙천성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39년 가을의 돈화원정을 대부대선회작전의 1단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행군도상에서 있은 가재잡이란 바로 그 원정과정에 있은 일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식량의 부족으로 심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적들을 떼던져야 식량공작을 할 길도 열리겠는데 토벌대들이 그냥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움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런지 그 때에는 메토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내처 행군해가다나니 어데 가서 식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데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진대나무를 타고넘을 힘도 없어서 매번 그것을 에돌아가군 했습니다. 어쩌다가 휴식구령이 내리면 땅바닥에 노그라지든가 아무데나 드러누워 피곤을 풀군 했습니다. 출발구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두도백하니, 이도백하니, 삼도백하니, 사도백하니하는 송화강 상류일대는 원래 진펄과 원시림이 많아서 포수들도 잘 다니지 않는 지대였습니다. 그러다나니 행군속도가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동무들, 용기를 내오. 이런 때일수록 기력을 잃지 말아야 하오. 양강구에 가면 휴식도 하고 식사도 푸짐하게 합시다!≫

나는 주저앉은 동무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고무해주군 했습니다. 나라고 왜 배고프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배고프고 피곤해도 그것을 내색할 수 없는 것이 사령관입니다.

어느날 점심참에 나는 약간 경사가 진 평퍼짐한 능선에서 휴식을 선포한 다음 경위대원들을 시켜 그 능선 아래쪽에 가서 정황을 살피고 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경위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골짜기에서 개울물이 흐르고 있을 뿐 별다른 정황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원 몇 사람을 데리고 개울가에 내려간 나는 군복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만가만 돌을 들추면서 그 밑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큼직한 가재 한 마리가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재를 물가에 내던지자 경위대원들이 ≪가재다!≫하고 일제히 환성을 울렸습니다.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개울물에 들어섰습니다. 며칠씩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다들 신바람이 나서 가재잡이를 하였습니다. 발이 정 시리면 잠간씩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첨벙대며 돌아갔습니다. 온 대오가 가재잡이로 흥성거리였습

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힘들게 대열을 따르던 동무들까지 승벽내기로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휴식하던 자리에 돌아와 불을 피우고 가재를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새빨갛게 익은 가재를 놓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농지거리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잠간동안의 가재잡이가 대오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몇 마리의 가재를 먹었다고 단번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재를 잡느라고 첨벙거리는 사이에 대원들은 시장기도 피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재잡이가 있은 다음부터 행군속도는 곱절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대나무를 타고 넘을 맥도 없어 그것을 에돌아가군 하던 사람들, 휴식구령이 떨어지면 피곤에 못이겨 아무데나 퍽퍽 쓰러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처럼 명랑해질 수 있을가.

나는 가재잡이가 대원들의 낙천성을 계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재를 잡느라고 벅작 떠들어대며 돌아가는 사이에 피곤도 풀리고 기분도 전환되고… 그래서 힘도 나고 며칠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명랑해진 것입니다. 가재잡이가 대오에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은 것은 대원들의 낭만적인 정서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939년 오월단오날 옥돌골이라는 마을에서 군민합동 오락회와 운동회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군민이 한데 어울려서 축구경기도 했는데 볼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볼을 차다나니 헛다리질을 어떻게나 많이 하는지 우스워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였습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구경군들은 그것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가 사람들한테서 더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끝난 다음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소멸해보겠다고 사방에서 새까맣게 달려들고 있을 때 토벌대들이 끊임없이 나돌아치는 화룡땅 한복판에서 배포유하고 단오명절놀이를 벌려놓고 축구경기까지 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응변의 전법과 혁명적 낭만으로 끓는 담대한 심장을 지닌 조선인민혁명군의 병사, 지휘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원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꾸준하게 투쟁해 나가는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애당초 투쟁의 길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설사 혁명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도저히 이겨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혁명가의 인생관이나 인간적 품격, 그들의 생활 신조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념이나 의지, 불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상과 포부가 웅대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 이상과 포부가 꽃피게 될 미래를 확고하게 낙관한다는데 있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와 낙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품격을 이루고 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외국기자들이 나에게 주석께서 80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시였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내 장수의 비결은 낙천적으로 사는데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는 것이였습니다. 한 인간의 생리적 연령이 생활을 얼마나 낙천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한 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은 혁명적 낙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밀림속의 명절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가 없이 우울하게 생활하는 군대는 단결도 안되며 싸움도 잘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낙관에 기초할 때 더욱 더 강한 것으로 되고 혁명의 최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확고히 견지되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옥과 교수대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의 길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낙관을 가지고 일편단심 혁명승리를 위해 한 몸 다 바칠 결의와 각오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혁명적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혁명가들처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도 서슴지 않고 걷는 것이 혁명가들이며 설사 그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가들의 인생이 값있고 보람있는 것으로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오에서 도주한 자들을 보면 예외없이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비관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상승할 때 그 기류를 타고 우연히 혁명대오에 뛰어들었다가 고난이 중첩되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옛다, 모르겠다, 혁명이고 뭐고 나만이라도 살고보자 하고 달아나버린 의지박약자들이였습니다.

1940년대는 우리 대오에서 혁명적 낭만과 낙관주의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매개대원들의 진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믿은 사람은 나와 함께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혁명을 중도반단하고 대오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교양, 부단한 사상단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적 낙관주의입니다. 적이 아직은 강하고 혁명이 언제 승리한다고 기약하기 어려운 때에 미래를 낙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상교양, 사상단련을 부단히 해야 하



혁명가요

는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어떤 폭풍속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한 군대로 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사상교양에 큰 힘을 넣어온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로, 우리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짬만 있으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대원들에게 ≪독립이 되면 평양에 가서 숭어국도 먹고 냉면도 한 그릇씩 먹고 모란봉에 올라가 대동강 구경을 하자!≫고 하면 그들이 다 ≪야, 빨리 그 날을 앞당겨와야지!≫하면서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백배해서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요리로 명절음식을 대신한 1940년 5.1절 날도 나는 대원들을 혁명적 낙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우등불두리에 모여 앉아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의 부모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승리할 내일에 대한 이야기로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전우들에게 동무들, 오늘은 우리 비록 개구리요리로 5.1절을 쇠였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숭어요리로 조국광복을 경축하자, 적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모두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자부심, 조선공산주의자의 자부심도 드높이 일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등불에 비쳐진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모습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첩되는 곤란을 낙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야 말겠다는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곤란앞에서 팔짱을 지르고 먼산만 쳐다보았거나 대원들에게 개구리요리를 먹인 다음 그들에게 자, 이제는 시장기도 덜었으니 모두 천막으로 헤쳐가라고 말했더라면 대오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명랑하고 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대원들은 오늘은 겨우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또 뭘 먹고 끼니를 굼때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 명절음식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전우들이 모두 환성을 지르며 두 팔을 걷고 떨쳐나선 것이라든가 내가 우등불앞에서 밤새도록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심취되어 내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자기 사령관의 모습에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어떤 고난앞에서도 드놀지 않는 배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진드기처럼 따라다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나의 배짱이였습니다.

지휘관의 정신상태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배짱군이면 전사들도 배짱꾸러기가 되고 지휘관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전사들의 신념과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사들의 낭만이 지휘관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낙관주의는 지도자의 신념과 배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려운 때 대중이 지휘성원들의 얼굴부터 쳐다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 빨치산들은 내가 이긴다면 이긴다고 믿었고 내가 웃음을 지으면 혁명의 전도가 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낚시질을 하거나 코노래로 조금 흥얼거리기만 해도 그들은 다음 작전은 다 이긴 작전이라고 판단하군 하였습니다.

나 뿐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최경화와 강돈은 행군을 하면서도 대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는 담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신념교양, 낙관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 것은 문예활동이였습니다. 혁명적인 문화오락을 떠나서는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논할 수가 없고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승리의 노정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였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 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교향곡이고 노래를 낳는 터전입니다. 노래를 떠난 혁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떠나서 국제노동운동의 발전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만원정 때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던 군중을 쟁취한 것도 노래였고 우리를 피해 달아났던 중국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랑하는 ≪소무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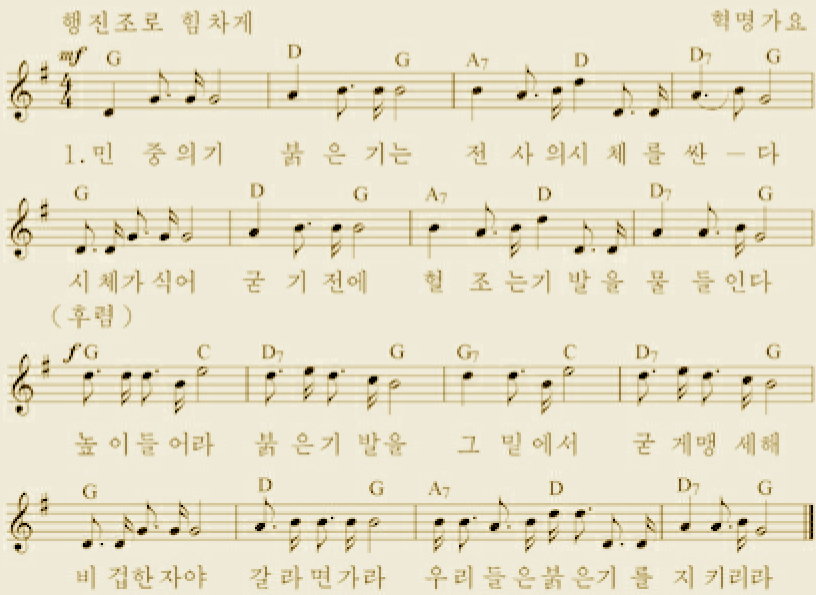
노래는 나의 인생행로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자장가≫로 시작되였다면 나의 혁명투쟁은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평나루터를 떠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찾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압록강가에서 다진 그 맹세를 생각하며 싸움의 길을 다그치군했습니다.

중학시절부터는 자체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의 노래≫가 나오고 ≪반일전가≫가 나오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군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맹물로 끼니를 이어갈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힘든 고비를 넘기군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성장하고 혁명도 발전하였습니다.

배고플 때 노래소리를 들으면 배고프지 않았고 힘이 진했을 때 노래를 불러주면 기운이 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경위대원들이 눈속에 파묻혀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지칠대로 지쳐서 힘이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도 몸을 가눌 수

적 기 가



2.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후렴)

3.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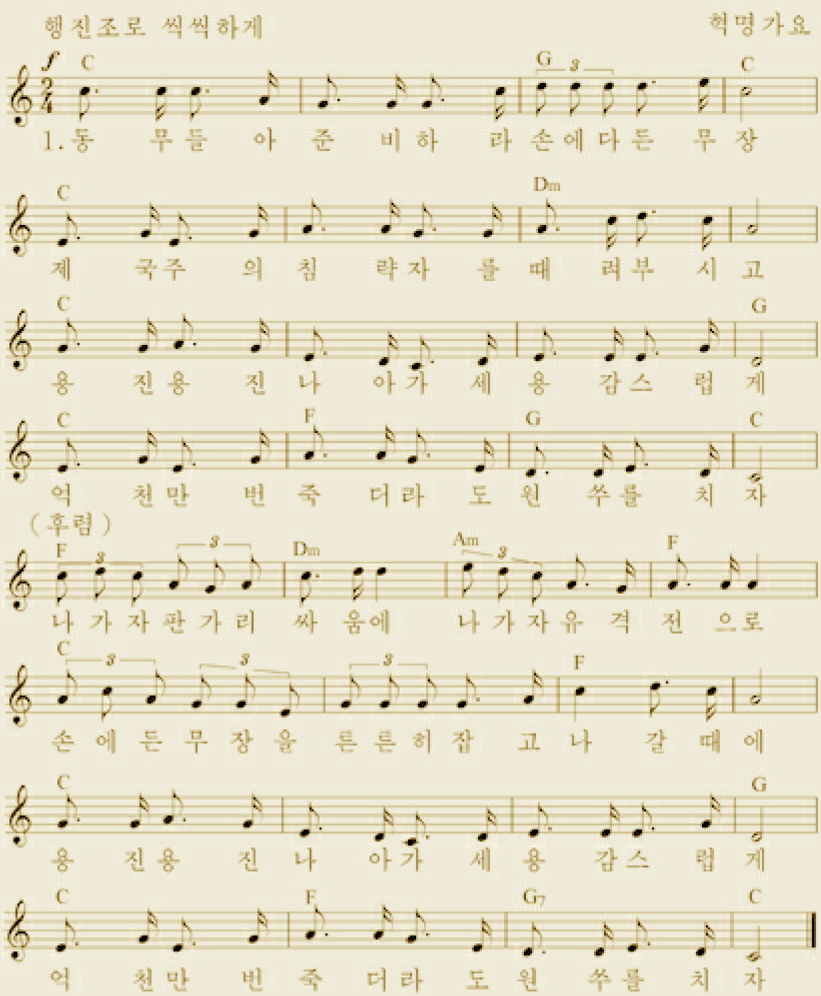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눈속에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대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대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적들이 한때 수천 명의 병력으로 처창즈유격구를 봉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고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혹심한 식량난과 적의 거듭되는 토벌로 사경에 이른 처창즈인민들을 결사전에도 불러일으킨 것이 아동단원들이 부른 혁명가요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에는 우리에게 전문예술단체로 없었고 직업적인 창작가나 배우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스스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면서 ≪유격대행진곡≫과 같은 훌륭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적인 연극, 가극, 춤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청년학생운동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격구시절에도 연예공연을 자주 조직

유격대행진곡



하였으며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서 대부대류동전을 하던 시절에도 문화정서생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연예공연은 산에서도 하고 주민부락에서도 했습니다.

연예공연을 할 때에는 주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들이 달려들어도 마음놓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명절날에도 하였고 큰 전투를 치른 다음에도 하였으며 부대에 신입대원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에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한 종국적인 목적은 군대와 인민을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강의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 모두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만들자는데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공연소개도 낙천적인 맛이 나게 하였습니다.

7연대 2중대 동무들은 도천리에 가서 군민연환오락회 형식으로 연예공연을 조직했는데 ≪깔깔웃음대회≫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깔깔웃음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광고를 써붙였더니 농촌집마당과

그 주변에 사람사태가 날 지경으로 많은 구경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깔깔웃음대회≫, 얼마나 기지있고 익살스런 표현인가. 이 광고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입가에 웃음을 그리였습니다.

빨치산의 연예공연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문화오락과 공연활동으로 기분전환을 하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중흡과 강흥석이 희생된 다음에도 연거퍼 두 번이나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이 그들이 전사한 때만큼 그렇게 슬퍼하고 분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중흡의 장례를 한 그날밤 숙영지에서는 흰밥에 절인 고등어를 구워 저녁식사를 마련했으나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김정숙**은 고등어만 보면 오중흡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군 했는데 그를 잃고난 다음 우리 대원들의 기분상태가 얼마나 침통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도중 우정 시간을 내여 오락회를 열었는데 대오를 지배하고 있던 비감을 춤과 노래와 요술로써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중흡

며칠 후 쟈신즈를 친 다음에도 송화강가 수림속에서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투사들과 역사가들이 그 공연을 신입대원들을 위한 환영공연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한다면 공연을 조직한 목적이 거기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오중흡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비애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대오에 낙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이 굉장한 공연이였습니다.

황철나무를 베여다 가설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여러 개 모아 풍도 쳤습니다. 언 나무여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모포를 깔았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종목을 써붙였는데 합창이 없겠는가, 독창이 없겠는가, 무용이 없겠는가, 요술도 있고 하모니카 합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은 호각을 불어 여닫게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신대원들과 구대원들, 짐을 지고온 노동자들이 다 모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날밤 **김정숙**이 ≪여성해방가≫를 부르고 나서 춤을 추던 생각도 납니다. 춤을 출 때에는 면막뒤에서 무용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막간희극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양개에서 입대한 키다리대원과 연길에서 입대한 동무가 활동사진변사처럼 영화해설을 해서 관중들을 울리였습니다.

배뱅이굿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중국인 대원은 오늘날의 막간교예배우들처럼 긴 나무다리를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우 이채로운 종목이었습니다. 그 대원은 행군 때마다 나무다리를 타고 다니며 대오가 지나간 다음 발자국을 메우군 했습니다. 공연종목가운데는 조도언의 요술도 있었고 호궁도 들고나와 이채를 띈 신입대원들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격대생활을 보여주는 단막극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군도중에 짬짬이 구상하여 대본을 만든 것이였습니다.

그날밤의 공연은 네댓 시간이나 걸리었습니다. 그래도 관중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공연 뒤끝에 추가로 참군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얼마나 큰 은을 내는가 하는 것

은 항일혁명시절의 연예공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이란 사상의지나 규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지, 도덕의리와 함께 낭만적인 감정정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부모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떠나서 애국주의가 싹터날 수 없습니다. 자기 집단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감정도 없이 공산주의사상과 같은 심원한 사상을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박길송

항일혁명의 전 노정은 풍부한 감정정서를 가진 낙천적인 유격대원들이야말로 자기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사상에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몸을 바쳐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위훈의 창조자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박길송이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했는가.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합니다, …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이다, …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이다, …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쑤의 고문에 두 눈을 잃은 최희숙이 최후를 앞두고 무엇이라고 절규했는가.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교형리들은 철쇄에 묶인 이계순에게 반성연설을 한마디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계순은 이 원쑤놈들아, 내 귀가 더러워진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아직도 몰랐느냐고 하면서 적들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 단두대에 올라 조국광복의 날은 멀지않아 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항일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모든 투사들은 다 혁명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풍부한 감정정서를 지닌 낙관주의자들이였습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내일을 위해서는 꽃나이에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끓는 투사들입니다.


최희숙

내가 오늘 여기서 동무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외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소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금 여러 모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팽팽한 대결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국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것은 어느 때든지 꼭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낙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김정일**동무와 같은 혁명의 새 세대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배심입니다. **김정일**동무가 혁명을 영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김정일**동무만 믿으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돼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정일**동무의 기상속에 조선의 미래도 있고 21세기의 미래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줄 것입니다.

3.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스탈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나날에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이끄시는 한편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 국제당이나 쏘련과의 연계가 심화되어 조선혁명의 국제적 판도가 더욱 넓어지고 조중공동항일이 조선, 중국, 쏘련을 포괄하는 보다 높은 형태의 새로운 투쟁단계에로 발전하던 역사적 시기를 두고 아래와 같은 회상교시들을 남기시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두절되었던 국제당과의 연계를 다시 회복한 것은 1939년이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모두가 새 솜옷들을 갈아입었을 때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그때 안도현 화라즈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김일이 시꺼먼 다산부자를 입은 사람 셋을 묶어가지고 사령부로 데려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하도 수상해서 체포했는데 산골농사군들 같지는 않고 일본놈들의 특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권총과 쟁개비가 나오고 닦은 콩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세 사람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가 제2방면군 부대이고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국제당연락원들이라고 자기네 신분을 밝히면서 성냥갑을 내놓았습니다. 성냥가치가 유달리 큰 것으로 보아 만주나 조선에서 만든 성냥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그것이 쏘련성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신분을 더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다른 증빙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칼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작은칼은 위증민이 국제당에 갈 때 접선암호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수년 세월이 흐르고 그 동안 모진 풍상도 겪었지만 우리는 그 낯익은 손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위증민에게 그 손칼을 주면서 모스크바에 가면 접선암호용으로 국제당에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당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파견할 때는 꼭 그 손칼을 주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일소부대가 일본특무로 잘못 볼 번했던 세 사람이 국제당연락원들이라는 것은 그 손칼만 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무는 어떻든 국제당이 우리를 잊지 않고 연락원까지 보내준 것은 반가운 일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 후 두절되였던 국제당과의 연계는 이렇게 되어 다시금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20여 만 대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국제당이 연락원들을 보내준 것은 우리에 대한 고무로 되였습니다.

연락원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국제당이 우리에게 파견한 사람은 6명이였다고 합니다. 6명중 3명은 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병이 나서 되돌아가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돌아간 3명중에는 조선사람도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당이 정확한 소재를 대주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연길쪽에 나가서 **김일성**부대를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 여기저기를 헤매다보니 날도 많이 가고 고생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에서 나올 때 약도도 가지고 왔지만 우리 부대가 늘 유동하면서 활동을 하다나니 좀처럼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인민들까지 곁을 주지 않아서 우리와의 접선을 포기하고 쏘련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안도현 3도구 마을에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이 화라즈쪽으로 가보라고 귀띔해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산전막에서 자다가 화재까지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화재바람에 옷들을 태우고 식량까지 거덜나서 닦은 콩으로 겨우 끼니를 에웠는데 화라즈에서도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임무를 포기하고 철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자기네는 만주땅에 들어선 첫날부터 날바다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행로가 복잡하고 고립무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연락원에게 새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필요한 일용품도 일식으로 공급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요기를 한 그들은 사령부천막에서 오래간만에 마음을 푹 놓고 휴식하였습니다.

주체 28(1939)년 말에 국제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연락원들을 보낸 사실을 두고 일제의 관헌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강덕5년(1939년) 10월 11일 **김일성**비가 화룡현 삼도구 서북쪽 침봉밀림속에 있을 때 공비와 같은 복장을 하고 권총을 휴대한 러시아인 8명이 조선인통역 두 사람과 함께 **김일성**을 찾아와서 중요담화를 했다. 그때 중요간부이외에는 누구도 곁에 접근시키지 않고 약 10일간 머물러 있은 다음 **김일성**비단 가운데서 허약자 12명을 데리고 떠나간 사실이 있다. 그 러시아인은 쏘련에서 연락원으로 온 사람들이라 하며…상세한 것은 명확치 않으나 직접 쏘련에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연락을 온 것이 아닌가고 보아진다.≫≪훈춘영사 기우찌의 보고, 소화15년(1940년) 7월 26일≫

≪다음으로 당의 지도에 대한 영도노선문제인바 이것은 작년(1939) 12월 쏘련에서 직접 제1로군에 4명의 연락원을 보내왔는데 그 연락내용과 목적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사실은 금년(1940) 1월 22일 무송에서 압수한 위증민이 양정우앞으로 보낸 서신속에서 그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쓰고 있으며 경로는 돈화에서 대포시하에로 들어오고 다시 양강구를 거쳐…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동향≫, ≪사상월보≫제177호, 사법성 형사국, 소화15년(1940) 11월≫

그때 국제당에서 우리에게 보낸 연락내용은 짤막한 것이였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국제당이 소집하는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에 조선인민혁명군과 1로군에서 대표를 파견해달라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동북의 항일유격부대들이 당분간 대부대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당과 쏘련은 동북항일유격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말의 항일연군운동 자체실정을 보면 그 내부가 좀 순편치 않았습니다. 북만과 길동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2로군과 제3로군 사이에서는 지도와 연합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면에서 일정한 의견상이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상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당사람들은 제2로군과 제3로군의 대표들과 함께 쏘련에서 필요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그들은 북만과 길동지구의 항일연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김에 조선인민혁명군과 남만의 1로군대표들까지 데려다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협의를 마련함으로써 전동북적판도에서 항일혁명의 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뿐 아니라 만주빨치산운동을 쏘련의 극동정책에 조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당에서 파견되어온 연락원들이 우리에게 이런 내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동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라든가 그 당시 쏘련과 국제당이 실시하고 있던 일련의 정책으로 보아 그런 판단은 십분 가능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나 양정우나 위증민은 유격전구를 떠날 수 없는 몸이였습니다. 적의 대토벌이 눈앞에 박두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부대를 두고 쏘련으로 들어가버리면 새 작전수행에 막대한 후과를 미칠 수도 있고 대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고려해달라는 국제당의 건의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것이 결국 소극적인 분산도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심중하게 따져보아야할 문제였습니다.

나는 국제당연락원들에게 국제당의 두 가지 요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준 다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인 자를 위증민에게로 보냈습니다. ≪만강≫이라는 대호를 가진 사령부통신원이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국제당연락원들이 화라즈밀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내용을 수록한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을 보냈습니다.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을 쏘련에 보관해두면 안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낸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은 한배낭 정도 되였습니다. 내가 안경을 끼고 임강현 5도구밀영에서 찍은 사진도 그때 보낸 것입니다.

쏘련으로 돌아가던 국제당연락원들은 불행하게도 화룡현 어느지방에서 철길을 건너다가 자위단놈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나니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이 국제당에 가닿지 못하고 고스란히 적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자료들이 일제의 관헌기록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제당연락원들이 쏘련으로 들어가다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우리한테 왔던 국제당연락원들 중에 닌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닌이 적들과 교전하다가 부상당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국제당의 두 가지 요구와 관련된 위증민의 견해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였습니다.

우리가 국제당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입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우리와 국제당과의 연계가 비교적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녕구회의에서 락착을 보지 못한 반민생단투쟁과 관련된 의견상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증민이 모스크바에 다녀온 1936년 초부터 1939년 가을까지는 우리와 국제당사이에 내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도 국제당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당도 우리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당시 국제당에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노선상 문제가 공명정대하게 해결된 이상 남호두회의에서 채택된 방침대로 혁명을 계속해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노선을 가지고 혁명을 추진시켰으며 백두산을 타고앉아 국내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고 투쟁기풍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곤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자체로 극복해나갔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쓸데없이 손을 내밀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항일혁명시기부터 혁명의 자주적 노선을 확고히 견지해온 역사적 전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자주성이 강한 당, 자주성이 강한 민족,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유격전을 벌인 나라도 많고 정규무력에 의한 현대전을 벌인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무력항쟁을 벌인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15성상 싸웠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간고성을 말해주는 사실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고슬라비아빨치산이 잘 싸웠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가 독일군에 의해 강점된 것이 1941년 4월이니 그 나라 빨치산 역사도 몇 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토가 빨치산투쟁을 시작하던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에는 정규군의 그루터기가 적지않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은 쏘련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쥬꼬브의 회상록을 보면 쏘련은 이 나라에 보총이나 기관총과 같은 경무기만 해도 수십만 정 보내주었다고 서술되어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은 쏘련사람들한테서 대포나 탱크와 같은 중무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이 벌인 항일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개석의 수하에 수백만의 대군이 있었는데 그 대군이 순수 반공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소극적이고 어정쩡하기는 하지만 반일의 기발을 든 것도 사실이고 일본군과 교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개석군대가 조금이라도 일본군을 견제했다면 그것은 중국인민이 벌인 유격전쟁에 대한 정규군의 지원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공합작이라는 말자체가 공동항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규군이 그 존재를 끝마친 것은 1907년입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20년이상이나 지난 때에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시작할 때에는 정규군은 고사하고 그 그루터기조차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국가적 후방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었습니다.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쓰던 총이 몇 자루 있었다고 하지만 다 낡아버린 구식이고 그것마저 녹이 쓸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목숨과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당한 어려움, 우리 유격대원들이 10년 가까이 산에서 겪은 고초를 다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국제당은 중국이나 인도같은 큰 나라 혁명에는 관심을 많이 돌리면서도 조선혁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국제당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조선혁명을 중국혁명이나 일본혁명의 부속물처럼 보았습니다.

같은 중국혁명인 경우에도 관내의 혁명투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돌렸지만 동북혁명에 대해서는 왼눈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당이 국민당을 위해서 보로진이나 브룩헬 같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산당을 위해서는 보이친스키, 마린, 오토 브라운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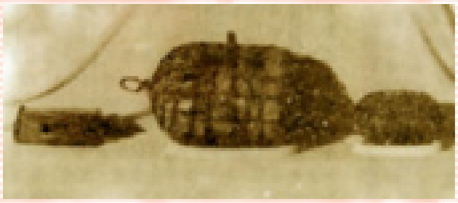
그런데 동북혁명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고문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북혁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면 제2로군이나 제3로군에 치중했을 뿐입니다. 쏘만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이나 남만의 제1로군에는 거의 낯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제당이 동북혁명을 경시한 사실은 그들이 쏘련에 데려다가 공부시킨 만주출신 지휘관들을 대부분 동북에 돌려보내지 않고 관내로 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격구시절에 간도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투쟁을 했던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참모장 유한홍이나 제5군의 이형박은 다 쏘련에서 학교를 마친 후 출신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연안에 배치되어갔다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야 동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담긴 기록들을 보면 동북혁명이 마치도 쏘련이나 국제당의 지원밑에서 전개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 일본사람들은 내가 모스크바의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후 1938년 여름에 쏘련으로부터 정예부대를 이끌고 만주에 들어왔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일본의 어떤 관헌기록들을 보면 내가 상당히 오랜기간 쏘련에 들어가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지원을 받은 다음 만주로 돌아왔다고도 하였고 장고봉사건 이후 만주에 돌아와 동변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연길폭탄

이런 선전의 목적은 우리를 쏘련이나 그 어떤 외부세력의 사촉과 조종밑에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내인민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말살시키려는데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 쏘련이나 국제당의 신세를 별반 지지 않았습니다. 왕청에 있을 때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어달라는 편지를 쏘련에 보

낸 적이 있었는데 상대측에서는 회답조차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길폭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탄을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동북혁명이나 조선혁명에 어딘가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국제당이 어떻게 되어 1939년에 이르러서는 연락원을 보내어 우리를 쏘련에 초청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변화는 일본의 대쏘침략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던 쏘련의 군사정치정세의 요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을 통하여 일제의 영토팽창야욕과 강도적 본성을 다시한번 충분히 엿보게 된 쏘련은 그들이 어느 때든지 북공을 단행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국제당과 함께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각방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당이 특별히 중시한 것은 쏘련을 익측과 배후에서 무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맹자들을 찾아내고 그 동맹자들과의 군사정치적 연합을 실현하는 문제였습니다. 동방에서 쏘련을 무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당은 동북에서의 항일무장역량을 쏘련원동군의 일익으로, 그의 외선세력으로 보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쏘련원동군무력의 별동대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쏘련도 물론 같은 입장이였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동북항일운동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던 쏘련사람들은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 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자기네 나라를 옹호해서 강력한 배후공격작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서야 만주빨치산이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와의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쏘련옹호의 선에서 추진시키는 것은 국제당의 기본사명인 동시에 시종일관한 정책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동북항일역량에 대한 국제당과 쏘련원동군사당국의 견해가 처음부터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주빨치산에 대한 국제당의 입장은 전시가 도래할 때까지 역량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였고 원동군사당국의 입장은 중국전체가 이미 전시상태에 들어갔고 희생은 불가피한 것만큼 일본병력이 중국본토에로 이동하지 못하게 강한 군사적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어쨌든 국제당이 종전보다 동북항일운동에 더 낯을 돌리고 중요한 전략전술의 협의를 위해 우리를 쏘련에 초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의 배후에서 쏘련을 무장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만큼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국제당의 요구를 보유하고 대부대활동을 중지하지도 않았으며 쏘련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주에 그대로 틀고앉아 우리가 이미 설정한 시간표대로 대부대선회작전을 결단성있게 내밀어 적의 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렸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우리는 피동이 아니라 주동에 서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국제당의 요구대로 하바로프스크에 들어갔거나 소부대활동에로 인차 넘어갔더라면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큰 작전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체 29(1940)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국제당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통지를 받으시었다. 국제당이 파견한 사절들이 사선을 헤치고 그이

를 찾아왔다. 그때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내가 국제당의 연락을 다시 받은 것은 1940년 10월 중순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소할바령회의 방침에 따라 도처에서 소부대활동을 벌일 때입니다. 국제당에서 파견한 연락원 2명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연락원들의 말이 자기네를 파견한 사람은 원동군사령부에 있는 류쉔꼬장령인데 그가 국제당의 명의로 전달하라고 한 사항은 12월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국제당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항일무장부대들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며 원동에 기지를 정하고 역량을 수습재편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들어오라는 국제당의 지영도 동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류쉔꼬는 원동군사령부에 있으면서 국제당이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그 후 하바로프스크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자 이거 **김일성** 동지의 손을 잡아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와의 연계를 짓기 위해 소부대와 소조들을 파견하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첫 대면부터 상대의 마음을 잡아끄는 열정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류쉔꼬는 흔히 왕신림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주로 국제당이나 쏘련과 우리 사이에 연계를 지어주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연락원들의 말에 의하면 1940년 초에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소집하려고 했던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 대표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만과 길동지구 빨치산대표들만 참가한 회의로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당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동북의 모든 항일무장부대 지휘관들의 회의를 기어이 소집하여 동북항일운동의 발전방향도 토의하고 쏘련이 당하고 있는 국난도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연락원들이 우리에게 와닿은 것은 10월이지만 국제당이 회의소집과 관련한 통지를 보낸 것은 1940년 9월이였습니다. 그 통지가 제2로군과 제3로군에는 전신으로 전달되였지만 무선통신체계가 없던 우리에게는 연락원들을 통해 전달되였습니다.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하라고 지정한 대상은 각 로군의 총지휘, 정치위원, 당서기를 비롯한 주요군정간부들이였습니다.

나는 위증민에게 국제당에서 연락원이 왔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그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증민은 국제당에서 주관하는 회의인 것만큼 가기는 가야겠으나 건강이 허락치 않아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국제당에 가면 조선인민혁명군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과 남만성위도 대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과 관련된 국제당의 요구는 우리가 이미 소할바령회의에서 채택한 소부대활동방침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이 시기 군사정치정세는 우리가 1939년 말-1940년 초에 대부대활동을 벌이던 시기보다 훨씬 더 엄혹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대로 와와 밀려다니기가 곤란한 때였습니다.

우선 적들이 집단부락화를 완성한 때여서 대부대의 식량을 보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줌의 쌀, 한 개의 강낭떡을 위해 피를 흘리는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매번 식량을 해결하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그 당시 치본공작과 사상공작에 특별한 힘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단부락정책은 종전에 우리가 서간도에서 보던 집단부락정책보다 훨씬 더 악랄할 것이였습니다. 적들은 산재가옥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무장부락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비민분리를 강행하면서 식량, 물자, 탄약 등에 대한 통제와 통비분자들에 대한 색출, 검거, 도하장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밀작아편에 대한 단속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난민구제요, 민생공작이요 하고 떠들면서 혁명군중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면 대부대활동을 할 때보다 식량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서 식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1차이고 그 다음이 전술이였습니다. 먹지 않고서야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식주라는 말대신에 식의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빨치산시절에 식량고생을 많이 한 체험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동에 드나들면서 소부대로 움직이면 인민들속에서 정치공작을 하기도 편리했고 부대의 간부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사업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군사활동을 벌이고 겨울철에는 쏘련이 알선해주는 곳에 가서 군정훈련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에 우리는 적의 대토벌로 하여 많은 간부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국제당연락원들에게 우리가 이미 항일무장투쟁발전자체의 요구로부터 소할바령에서 회의를 열고 역량보존과 소부대활동에로 이행할 데 대한 방침을 채택한데 대해서 통보해주고 쏘련으로 들어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이를 악물고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대오를 수습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지대를 확보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현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될 수 있었습니다.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하자면 그런 안정된 기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와서 역량보존문제에 대해 주의를 많이 돌리게 된 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이 바야흐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하반년에 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전 구라파를 휩쓸었습니다. 쏘련과 독일사이에 전쟁이 촉발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상태에서 남방을 겨냥한 또 하나의 다른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 영을 상대로 새로운 전쟁을 또 도발한다면 그런 모험이 어떤 결과로 끝나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였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는 정면충돌을 피하고 역량을 보존확대강화하는 것이 상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견해는 쏘련이나 국제당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습니다.

쏘련이 자기 경내에 우리가 역량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며 대오를 보존확대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쏘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만큼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우선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 얼마동안

체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나오는가, 아니면 오래 머무르게 되는가, 원동에 기지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머물러있는 경우 무장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국내운동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나는 원동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몇 가지 경우로 갈라서 고찰하고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경우는 주력은 현재의 위치에 남겨두고 지휘관들만 들어가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 본래의 위치에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지휘관들만 먼저 들어가서 회의에 참가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그곳 실정을 보아가며 부대를 쏘련경내에로 불러들이는 것이며 세 번째의 경우는 회의에 참가하는 문제와 쏘련경내에로 들어가는 문제를 시간적으로 일치시켜 우선 잠정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차후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철

나는 장차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백두산지구에 꾸려 놓은 비밀근거지들을 더 잘 보강하는 전제우에서 쏘련경내에 새로운 기지를 창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니 시간이 요구되었고 보다 상세한 정황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할바령회의방침에 따라 우리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무대로 하여 소부대활동을 하면서 한 해 겨울을 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다그쳐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그것을 집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석과 판단으로부터 나는 국제당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루고 쏘련에 먼저 들여보낸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우리에게 연락하게 하는 한편 본래부터 추진시키던 겨울나이준비를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용운에게 과업을 주어 쏘련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게 하는 한편 그전부터 이용해온 통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용운은 제3방면군에서 싸움군으로 소문난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1939년 8월에 있은 안도현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전동규가 전사한 후 그 후임으로 연대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용운은 원래 국제당에 보내는 위증민의 편지를 가지고 쏘련으로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용운은 허우대가 커서 나이보다 퍽 숙성해보였습니다. 그는 입이 무겁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일단 전투장에만 나서면 용맹스럽고 날파람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가 돈화현에 있는 어떤 집단부락을 습격할 때였다고 합니다. 행군중에 있던 부대는 식량이 떨어져서 집단부락을 하나 치기로 하고 먼저 정찰병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은 마을에 3명의 적밖에 없다는 적정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총분대가 마을에 들어가서 적들을 소멸하기로 하였으나 이용운은 그까짓 세 놈 때문에 기관총분대까지 데리고가겠는가고 하면서 자기가 전령병을 데리고 먼저 적을 제압할 테니 신호를 하면 마을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전령병은 태병열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용운은 전령병 한 사람만 데리고 집단부락에 내려가 곧장 병영으로 찾아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30여명이나 되는 장교들이 둘러앉아 작전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지도를 짚어가며 훈시를 하던 우두머리장교가 방안에 들어서는 이용운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이용운을 따라 방안에 들어갔던 태병렬은 훗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살아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운은 태연히 싸창을 꺼내며 너희들은 포위되였으니 손을 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두머리장교는 악 소리를 지르면서 이용운의 싸창을 거머잡았습니다. 이용운은 방아쇠를 잡아당기였으나 불발이였습니다. 그는 싸창을 왈칵 나꿔챘습니다.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왜놈장교는 손바닥이 째여지면서 잡았던 총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용운은 싸창에 다시 장탄하여 그 장교를 쏴 제끼고 저항하는 장교들을 발길로 차서 쓰러뜨리며 단신으로 적들을 제압해버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장교들이 그가 쏜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습니다.

태병렬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문가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열이, 벽을 지키라!≫하는 이용운의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등지고 있는 벽에 주런이 걸려있는 수십 자루의 권총을 보았습니다.

이용운은 태병열을 시켜 그 권총들을 모두 거두게 하고 살아남은 장교들을 생포하였습니다. 그날밤 그는 태병열과 함께 유격대토벌에 나갔다가 돌아온 수많은 적사병들까지도 모조리 생포하였습니다.

이용운은 액목현성습격전투와 대사하, 대장강 전투, 요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용감무쌍하고 과단성있고 재능있는 지휘관으로 이름을 날리였습니다.

내가 이용운연대장에게 임무를 준 곳이 소할바령어귀일 것입니다. 이용운을 만날 때 임철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용운에게 쏘련으로 드나드는 연락통로를 잘 개척해 놓으라고 했더니 그는 염려말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와 한익수가 부상자와 허약자들을 이끌고 쏘련 쪽으로 떠나간 것은 이용운과 임철이 쏘만국경쪽에 가서 통로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렇게도 걱정했던 부상자와 허약자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았는데 특사로 떠나갔던 이용운만은 일본군과의 싸움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통로개척과 관련된 임무도 정확히 수행하였고 그 통로를 타고 부상자들을 쏘련으로 들여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수행해야 할 나머지 과업은 쏘련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곳 형편을 전해주는 것이였습니다. 이용운은 그 과업을 위해 국경 쪽으로 가다가 대원들의 옷차림이 남루한 것을 보고 사령부의 위임을 받고 쏘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줄해서야 체면이 서겠는가고 하면서 이전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숯구이막주인을 통해 옷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숯구이막주인이 나쁜 놈이였습니다. 그는 혁명을 하다가 변절하여 적의 밀정으로 된 자였습니다. 그가 옷을 사온다고 이용운을 속여넘기고 100여명이나 되는 적을 끌고왔습니다. 이용운은 혼자서 수십 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몇 해를 두고 단절되었던 국제당과의 연계는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국제당과의 연계를 밀접히 가지였고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1940년 가을

최근에 나는 항일혁명역사를 소재선전하는 글들을 읽어보는 과정에 역사가들의 연구사업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더 개척하고 심화시켜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할바령회의를 전후한 시기의 자료들이 많지 못합니다.

1940년 가을이 보통가을이 아닙니다. 그 해 가을에 우리가 겪은 하많은 곡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아마 몇 편의 장편소설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한 때여서 그 당시 우리는 무송현성전투나 간삼봉전투와 같은 큰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일혁명역사에서 고난의 행군만큼 간고한 행군이 없고 고난의 행군시기만큼 간고한 시기가 없었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1940년 가을에 우리가 겪은 시련은 그에 못지 않은 시련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육체적 고통이 극한점을 넘어섰던 시련이라면 1940년 가을에 우리가 처한 역경은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던 또 한 차례의 시련이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다같이 그것을 이겨내자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자기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1940년 가을에 얻은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이후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투쟁전략에 맞게 부대도 새롭게 편성하여 방면군산하에 여러 개의 소부대들을 내왔습니다.


강위룡

그 소부대들의 활동지역과 임무를 분담한 다음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연길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김일이네 소부대에는 왕청, 동녕 일대에서 활동할 과업을 주고 오백룡이네 소부대에는 연길, 안도 일대에서 겨울나이식량을 해결할 임무를 주어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연길현 발재툰막바지에서 오백룡소부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강냉이 이삭 한 개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을 한 되박이라도 얻자면 집단부락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해 여름 내내 거의나 무수해만 삶아먹고 지냈습니다. 산에 무수해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속이 빈데다가 그것만 먹고 지내자니 아무리 먹어도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식량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정찰을 나갔던 우리 동무들이 골아래에서 농막을 하나 발견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조선농민 셋이 거처하는 농막인데 막주변에는 보습으로 이랑을 지은 꽤 넉질한 밭도 있더라고 하면서 그 농민들을 잘 발동시키면 식량을 얼마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위룡을 농막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농막사람들과 사업하되 우리가 유격대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툭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강위룡이 방조를 호소하자 농막사람들은 난색을 지어보였다고 합니다. 식량을 구하려면 명월구에 갔다와야 하는데 경계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격대의 요구인데 물러설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명월구로 떠나갔다는 것이였습니다.

강위룡이한테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들은 다음 나는 대원들에게 경각성을 높일 것과 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날 취사장에서는 더덕죽을 끓이였습니다. 더덕을 두드려서 푹 끓이면 죽처럼 되는데 여기에 낟알을 조금만 섞으면 별맛이였습니다. 풀음식치고는 상음식이였습니다.

더덕죽이 한창 끓고 있을 때 보초를 서던 손장춘이 달려와서 적들이 누렇게 달려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보초소에 나가본 동무들은 적들이 어디로 달려드는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장춘은 산아래켠을 가리키며 거기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나무그루터기들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열병을 앓고 나면 그렇게 나무그루터기를 사람으로 빗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난 지 얼마 안되는 몸이였습니다.

내가 손장춘을 보초소로 내보낸 지휘관을 추궁하고 있는 사이에 취사장에서 일하던 대원들은 적들이 달려든다는 말을 듣고 공들여 쒀놓은 더덕죽을 다 쏟아버리였습니다.

며칠후 식량을 사러 갔던 농막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월구에 갔던 사람은 둘인데 양복을 입은 신사 한 사람이 따라와서 나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양복쟁이는 전에 왕청유격대에서 중대장을 하던 최용빈이였습니다. 최용빈은 한다하는 싸움군이였는데 원래 힘이 장사였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나를 찾아와 몸이 쇠약해졌는데 얼마동안 중대를 떠나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소왕청치기에 가서 짐승사냥을 하면서 몸보신도 하고 그 고장 당조직의 사업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그는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안해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적통치구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편지의 사연인즉 아이를 데리고 잘 있으라, 나는 혁명을 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하기가 싫어서 내려가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그러나 내려가서도 혁명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해산한지 얼마 안되는 그의 안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산후탈을 만났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갓난애는 금시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경에 처한 처자를 버리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적구로 달아나버린 최용빈이,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내 가슴속에서는 이런 분노가 솟구쳐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최용빈을 무정한 인간이라고 욕하면서도 그가 편지에서 쓴 대로 변치말고 혁명사업을 계속했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용빈을 대신해서 그의 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후에는 그들 모녀를 부상병들과 함께 쏘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쩍 떠나갔던 최용빈이 5년이 지나서 우리를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민생단 바람이 불던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에 말입니다.

최용빈은 쟁개비가 데룽데룽 매달린 배낭을 메고 껑충껑충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는지 신수도 멀쩡했습니다. 그는 사령부천막에 들어서자 ≪이게 얼마만입니까!≫하면서 나에게로 곤두박질해왔습니다.

나도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사야 어떻든 왕청시절의 내 수하지휘관이 아닙니까.

최용빈은 나를 만나기 바쁘게 유격대에 다시 들어오려고 산중을 헤매던 사연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식사를 했는가고 물었더니 요아래에서 밥을 끓여먹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배낭속에서 쌀자루랑, 말린 가재미랑, 술이랑 꺼내놓았습니다.

배낭에 매달린 쟁개비를 보니 그을음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유격대를 찾느라고 산중을 오래 헤맸다는 사람, 그것도 방금 밥을 해먹고 온다는 사람의 쟁개비가 그을음 하나 묻지 않고 새것대로 있으니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나는 그가 이종락과 같은 인간추물이 되였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 부대에서는 최용빈이 귀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댔습니다.

최용빈은 내가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것도 모르고 컵에 술을 가득 붓고나서 다시 만난 기념으로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청을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술컵을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노기에 차있었으니까 아마 자기정체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최용빈이, 사실대로 말하라, 농막사람들은 어떻게 만났고 여기로 찾아온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고 따지였습니다.

최용빈은 더 오그랑수를 써야 소용없다는 것을 인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막에 있던 세사람은 밀정인데 자기가 그자들의 보고를 받고 토벌대 3개부대를 데리고와서 이 골안을 포위해놓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신호만 보내면 토벌대가 곧 쳐들어올 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빠지기 어려운 포위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사생결단을 해야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보다도 최용빈이 일제의 개가 되어 뻐젓이 내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그가 나를 귀순시켜보려고 있는 말주변을 다 짜내여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면서 나는 **김**장군이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안다, 만주천지에 일본군대가 쫙 깔렸다,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김**장군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당장 귀순한다 해도 허물할 사람이 없다, 귀순한 사람들은 다 잘되였다, 장군도 내려만 오면 길림성 성장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주어섬겼습니다.

나는 최용빈이 하는 말을 듣다못해 용빈이, 네가 어쩌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래 옛날 왕청에서 중대장까지 하던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래도 우리는 네가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을 때 아까운 지휘관을 잃었다고 섭섭해했다, 네가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감히 우리앞에 나타나다니, 처자까지 다 버리고 적들의 품에 들어간 너에게 인간의 양심이 있는가, 변해도 너절하게 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최용빈의 변절은 몸이 허약해졌다는 핑계를 대고 중대를 떠나 소왕청치기에 가서 생활할 때부터 벌써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는 혁명보다도 제 한 몸의 보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적구로 도망쳤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해진데서 온 결과입니다.

최용빈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그 종착점은 변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대원들에게 혁명가가 갈길은 죽으나사나 혁명의 한길밖에 없다, 이 길을 떠나면 반동이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인간추물이 된다, 눈비가 두렵고 총알이 두렵고 식량난이 두렵고 산악행군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교수대

가 두려워서 혁명을 중도반단하는 사람들은 형틀앞에 두세 번 끌고가서 고추물만 먹여도 인차 기발을 바꾼다고 말해주군 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용빈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였습니다.

간도에서 민생단 문제로 숱한 사람들이 처형되던 그 무렵에는 최용빈이처럼 유격구를 버리고 적구로 내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민생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오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죽으면 죽었지 양심을 팔 수 없었고 혁명을 등지면 반혁명의 길밖에 갈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은 이처럼 양심을 버리고 혁명의 붉은기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못할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성철

신선동유격구시절에 박성철이네 중대에는 인숙이라는 여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원이 하루는 보초근무를 서고 있은 박성철에게 편지 한 장을 가만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중대에서 중대장을 하는 그 여대원의 남편이 자기 안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연인즉 ≪붉은 포승에 묶였다.≫는 것이였습니다. 민생단에 걸렸다는 은어였습니다.

그 당시 박성철은 중대청년간사였습니다. 여대원이 간사에게 그런 편지를 보이고 자기의 운명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것은 조직관념의 견지에서 볼 때 잘한 일이였습니다. 그 여대원은 박성철에게 남편이 민생단으로 낙인되었으니 이제는 자기도 무사치 못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죽음을 당할 바에는 적구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박성철은 그게 무슨 소린가,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혁명투쟁을 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투항하는 것이나 같은 짓이니 어떻게 그렇게야 하겠는가고 말해주었습니다.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아니다, 민생단을 피하자는 것이지 혁명투쟁을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성철은 혁명대오를 떠나게 되면 반혁명의 길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여대원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혁명가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철이 그때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죽지 않겠거든 뛰라고 부추겼더라면 어쩔 번했습니까.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오에서 그냥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혁명이냐, 도주냐 하는 두 갈래의 길중에서 도주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혁명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신상에 생긴 문제를 혼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년간사에게 노출시켜 조직의 방조를 받은 데 있고 일단 조직에서 주는 조언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이성으로 돌아와 혁명가답게 동요를 극복한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대장부인 최용빈은 혁명동지들의 방조를 받을 궁리도 하지 않고 안해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내고는 비굴하게 적구로 달아나버렸습니다. 그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귀중하게 여겼더라면 방금 해산한 안해를 버리고 그처럼 비겁하게 적구로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감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용빈의 운명은 벌써 여기서 결정되였습니다. 사람이 개인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혁명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것에서는 배반이 생기지도 않거니와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우리라는 것에 습관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깨끗한 양심이며 매일, 매 시각 자기를 완성해가는 수양과정입니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혁명가가 될 수 없으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패자에서는 이종락이 일본군속의 옷을 입고 나타나 귀순을 권고했지, 고난의 행군 때에는 이호림이 달아나버렸지, 임수산도 변절했지, 오늘은 또 최용빈이라는게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종락이도 최용빈이도 내가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이라는데 있습니다. 덜 아끼고 덜 신임하고 덜 사랑했더라도 그래도 가슴이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혁명군시절의 대장이라는게 간단치 않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중대장도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변절이나 해 가지고 집에 가만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혁명을 배반한 것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옛 상관앞에 뻐젓이 나타나 귀순을 설교하니 내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수치도 모르고 내앞에 뻐젓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혁명이 다 망했기 때문에 옛 사령관한테 찾아와 귀순을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세에 암둔했고 인간자체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용빈은 이종락과 같은 운명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적들은 우리가 있는 산을 이중삼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사방에 우등불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물을 친데도 온 산판을 다 뒤덮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적들은 대체로 산능선이나 골짜기에 보초를 세우고 포위진을 치군 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적들끼리 부딪치게 하고는 산허리를 타고 그 곳을 떠났습니다.

명월구에서 안도로 가는 큰길을 넘은 다음 수림속에 들어가 한숨 돌리면서 보니 적의 토벌대가 시누렇게 우리가 있던 발재툰막바지에 올라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수림속으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정황이 조성되게 되자 우리와 오백룡소부대와의 접선에는 난관이 생기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발재툰막바지에서 오백룡이네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오백룡이네 부대의 통신원들을 만나려면 누구인가 거기에 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였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오백룡이네 통신원들이 발재툰막바지가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정이였습니다.

우리는 지봉손과 김홍수를 연락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김홍수는 장백에서 갓 입대했을 때 꼬마신랑이란 별명으로 불리우던 대원인데 책임성이 강했습니다.

지봉손과 김홍수는 다음날 저녁때 연락지점에서 통신원들을 만나 오백룡이 보낸 편지를 받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통신원을 만나려고 연락지점으로 뚫고들어가던 경위를 들어보았는데 참

으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무를 한대한대 안고 돌면서 뚫고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이네는 그 동안 집단부락들을 치고 얼마간의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 식량의 대부분을 사령부에 보내왔습니다.

발재툰을 떠난 우리가 다음으로 거처를 잡은 곳은 안도현 황구령기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940년 겨울을 나면서 소부대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을 벌이면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군중지반도 튼튼히 꾸려놓자면 겨울나이준비를 잘 해야 했습니다.

나는 오백룡소부대외에도 여러 소부대들에 식량과 소금, 천을 비롯하여 겨울나이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들을 구입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봉손

겨울나이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적 준비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고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규율을 강하게 세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강위룡이네 소부대에서는 사상적으로 해이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밀영을 앉힐만한 곳을 탐색하고 오던 그들은 개울에서 물고기가 와글거리는 것을 보자 거기에 총을 마구 갈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방의 고개마루에서 적들이 포대를 쌓느라고 왁작거리고 있었다는데 그런데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겠습니까. 밀영에 틀고앉아 한 해 겨울 많은 일을 하려 했던 우리의 계획이 몇 방의 총소리 때문에 다 나무아미타불이 될 번했습니다.

그당시의 일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소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장흥룡이었습니다. 그는 기관총 소대에서 분대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부대 하나를 책임지고 쟈피거우일대에 식량공작을 나갔습니다.

장흥룡은 목재소 소도 아니고 뿔에 임금 왕자 도장을 새긴 민회소도 아닌 농민의 소를 끌고 왔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다가 산중에서 그 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종시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장흥룡은 대원들을 시켜 소를 밀영으로 끌고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를 매두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인이 오면 사연을 말하고 돈을 물어주자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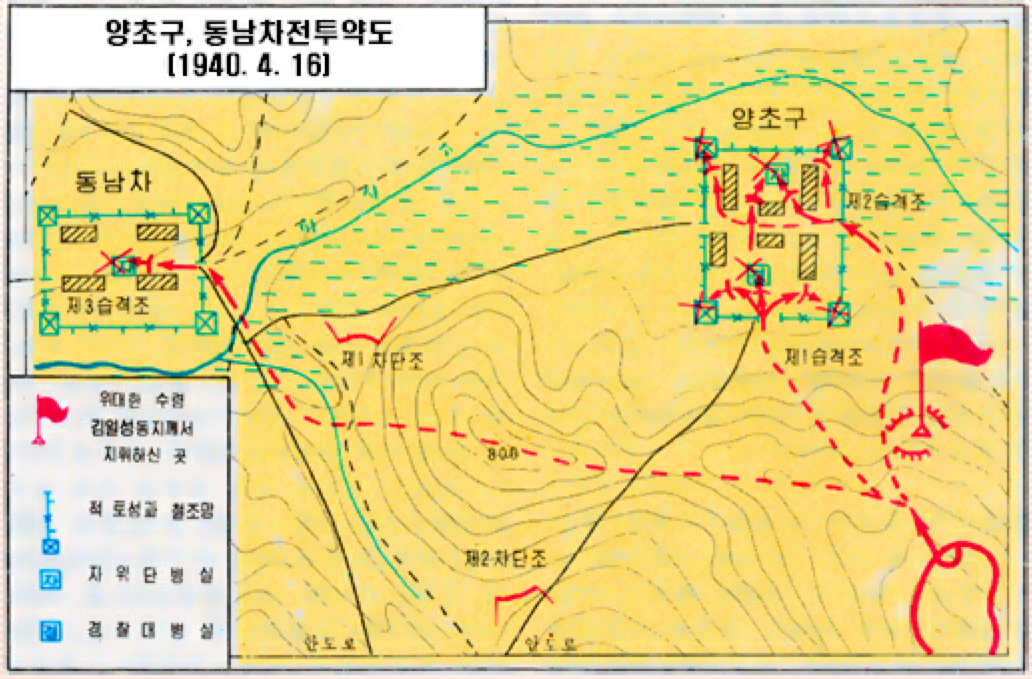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값을 치르지 못한 채 밀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소를 내다맨 주인이 소를 풀어가려고 오다가 총멘 사람이 그 곁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는 질겁해서 달아났다는 것이였습니다. 장흥룡이네 소부대가 값도 치르지 않고 농민의 소를 끌어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혁명군의 복무조례를 잘 모르는 신대원이 그랬다면 몰라도 혁명을 오래했다는 장흥룡이 그런 엄청난 탈선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흥룡은 1932년에 자위단놈들과 싸우던 중 적탄에 손가락 하나를 잃고 포로되었다가 도망쳐서 귀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그가 혹시 적들한테서 무슨 임무를 받고 오지 않았나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장흥룡은 동지들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처창즈유



격구에서의 모진 기아도 이겨내고 고난의 행군도 견디어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도 모르게 소를 망탕 끌어오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장투쟁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이고 인민혁명군의 복무조례에도 명문화한 문제입니다. 1940년이면 군민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어느정도로 군민관계가 순결했는가, 인민이 후방물자를 지원하면 오히려 그것을 되돌려주는 수준이였습니다.

1940년 봄에 우리는 양초구에서 전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마리의 닭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에게 닭값의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마을농민들은 그 돈을 보자 펄쩍 뛰였습니다. 혁명군을 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 자식들에게 돈을 받고 팔라는 것인가, 성의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준다고 막 성을 냈습니다. 그렇게 들이대니 우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민이 표시한 지성에 유격대가 돈을 치루어 주는 것으로 대답했으니 성의를 표시한 마을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처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을사람들이 돈을 안받으면 닭을 받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돈과 닭이 한참동안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닭을 받고 마을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것으로 실갱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대가 양초구를 철수할 때 값을 치르고 가져가던 그 닭들마저 놓아주고 갔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오래전 일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은 일인데 장흥룡이 이런 전례를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 행위를 했으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장흥룡에 대한 대원들의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장흥룡이 죽음으로써도 이 과오를 씻을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장흥룡이도 자기비판을 잘했습니다. 그가 자기비판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책벌만 주고 소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장흥룡은 1941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로 다시 나왔을 때 김일이네 소부대에 망라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황구령기지에 있을 때는 도주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도주자는 쏘채라고 부르던 중국인 대원이였습니다.

쏘채는 평소에 집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추석날에는 월병을 먹으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이 그에 대한 개별교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쏘채가 전염병을 앓게 되자 우리는 그를 후방병원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가 작식대에서 일하는 여대원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충동질했다는 사실이 사령부에 보고되였습니다. 그는 군인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일을 세우면 졸기만 하고 보초를 서라면 배가 아프다고 죽는시늉을 했습니다. 억지로는 혁명을 못합니다.

쏘채는 끝내 우리의 성의를 저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다음의 그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대오를 떠나자마자 토벌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소부대공작을 나가고 밀영에는 나와 전령병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사령부의 위치를 맹산촌오지로 옮겼습니다.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족족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백룡이네 소부대에서는 수백 석의 식량을 장만하여 비밀장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강냉이밭을 통채로 사서는 이삭을 따서 마대에 넣어 푸르허에서 50리 가량 떨어진 깊은 수림속에 뒤주를 만들고 은밀하게 저장했습니다.

국제당이 쏘련에서 소집하는 조, 중, 쏘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보내온 것이 바로 이 무렵이였습니다.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때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그쪽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는 한편 종전에 세운 방침 그대로 겨울을 동북땅에서 날 준비를 마저 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적들의 손에 몽땅 들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비탄장이 변절하는 바람에 식량을 저장했던 장소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탄장이란 김명화가 돈화의 수림속에서 온갖 지성을 다해 살려낸 그 비로까데입니다. 연대장까지 한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였습니다.

식량저장고의 위치를 알아낸 적들은 산에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몰고와 뒤주를 헤쳐서는 몽땅 퍼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수고가 하루아침사이에 물거품이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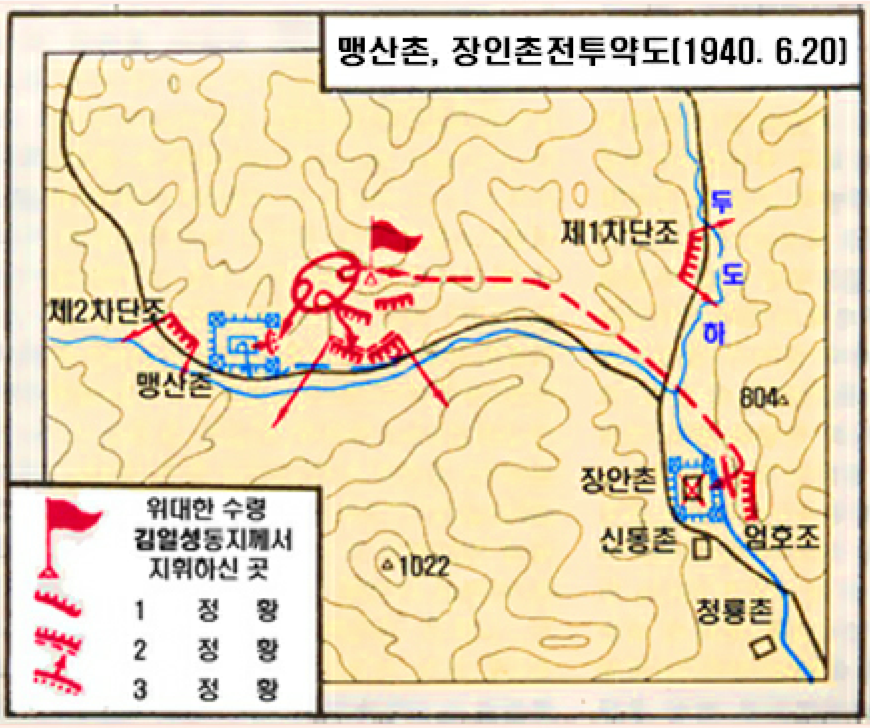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곤란앞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난관은 큰 것이였지만 우리가 그런 난관을 어디 한두 번만 겪었습니까.

나자구등판에서 겪은 고생,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과 무송원정은 얼마나 간고한 원정이고 고난의 행군은 또 얼마나 곡절많은 행군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혹한도 이겨냈고 주림도 이겨냈고 그믐밤처럼 캄캄한 절망도 이겨냈습니다.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생기는 슬픔과 심장의 동통도 다 디디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어떤 정황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 혁명가의 양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고비를 이겨내고 혁명을 다시한번 상승시키자. 좋다.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두고보자!

나는 그때 맹산촌에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가, 배짱이라고 할가, 시련이 겹칠수록 담력은 커지고 혁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더욱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출로는 무엇인가.

이런 때일수록 강행군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강행군을 하자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상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소집한 회의가 바로 맹산촌회의입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툭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정세는 엄혹하고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독립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 있은 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하게 될지 10년 더하게 될지 그것은 찍어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 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비도 주고 길양식도 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약하고 신심이 모자라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그러되 인사는 하고 가라.

대원들은 그 말을 듣자 와 하고 내 팔에 매달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동지들을 배반하고 산에서 내려가 적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살 바엔 여기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과 생사를 같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대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났습니다. 그때의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연설도 그날 대원들이 한 말보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진 맹세는 항일혁명의 장도에 바친 우리들 자신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결의였습니다.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되는 사령관과 전사들의 혼연일체, 지도자와 대중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다시한번 확증한 회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 회의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위기에서 구출 할 수 있는 기본명맥이 혁명적 양심을 귀중히 간직하며 사령관과 전사들이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산촌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전에 원동에 보냈던 동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두익

국제당이 장차 하바로프스크에서 소집하게 되는 조, 중, 쏘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와 위증민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1로군 대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쏘련으로 들어올 것을 거듭 요구한다는 것과 그 기회에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쏘련경내에 들어오는 경우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국제당은 우리가 일단 원동에 들어가서 한 해 겨울을 난 다음 차후 활동대책을 실정에 맞게 상론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국제당이 소집하려고 하는 회의취지가 명백하고 또 동북항일연군의 다른 지휘관들도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 실정에서 나는 쏘련경내에 들어가 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면서 주력부대 일부성원들을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제 나라, 제 땅과 더 멀어지고 이미 싸우던 고장을 또다시 잠시나마 떠나게 된다니 섭섭하다는 것이 대원들의 일반적인 심리였습니다.

내가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쏘련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자 일부 대원들은 국제당이 중대한 회의를 소집해놓고 사령관을 찾으니 장군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들어가고 자기네는 남아서 싸우면 어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대를 데리고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로서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설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혁명을 버리고 주저앉자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살자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은 국제당에서 소집한 지난해의 회의에도 못참가하였는데 이번 회의에는 참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당이나 쏘련당국과 좀더 폭넓게 조선혁명이 장래문제를 논의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당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회의에 갈 적에 동무들을 데리고 가자는 것이다, 겨울나이준비도 잘 안된 조건에서 동무들만을 떨궈놓고 갈 수 없다, 그러니 함께 쏘련경내에 갔다가 겨울이나 나고 봄에 다시 이 전장으로 돌아오자고 말해주었습니다.

후에 나는 이 엄혹했던 1940년 가을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지휘관으로서 제때에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처창즈치기를 떠난 것은 10월말 경이었습니다.

출발에 앞서 나는 위증민과 오백룡에게 연락원을 보냈습니다. 위증민도 오백룡도 병상에 매인 몸들이어서 원동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연락원을 만나지 못한 오백룡은 그 후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안도땅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오백룡이 처창즈치기에 당도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묻어두고간 식량과 동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백룡이네를 생각해서 쌀 두 가마니와 솜옷 몇십 벌을 파묻어두고 갔는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준 셈입니다.

그 후 오백룡소부대도 뒤따라 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노정에서도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로 숲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행군했는데 적들을 피해가며 행군하자니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였습니다. 그래도 노두구까지는 단숨에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백초구쪽으로 갈 때 토벌대와 맞다들었습니다. 우리가 외줄로 서서 산고개를 넘어서는데 골아래쪽에서부터 적들이 마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산능선으로 다시 올리뛰었습니다.

그때 짐을 많이 지고 행군하던 **김정숙**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산능선을 넘은 다음 대열을 살펴보니 **김정숙**이가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다시 능선을 넘어와 적들이 마주오는 언덕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는 큰 배낭에 눌리워서 발을 재게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사로잡으라고 고함치고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창으로 그놈들을 쏴갈기였습니다. 경위대원들도 뛰어와서 기관총으로 **김정숙**을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적들을 요행 따돌리고 하마탕근방에서 숙영하였습니다. 그날은 적들의 기동이 너무도 심해서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마을 가까이에 있는 조밭고랑에 누워있었습니다.

밭고랑에 마침 배추와 무를 심은 것이 있어 그것으로 요기는 하였으나 추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불을 켜놓고 가드라드는 손을 조금씩 녹이었습니다.

훈춘에서부터는 조선농민 두 사람이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은 쏘만국경 가까이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는 저 앞산을 넘으면 쏘련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니 아무런 표식도 없는 허허벌판이였습니다. 어디까지 만주땅이고 어디서부터 쏘련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두익을 시켜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인가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나무를 잘 탔습니다. 이두익은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강도 안보이고 인가도 안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얼마쯤 더 가다가 수림속에서 전화선을 발견하였습니다. 뚱딴지를 보니 중국이나 조선것과는 달랐습니다. 쏘련땅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확인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밤 우리일행이 정찰을 다시 파견하고 한참 휴식하는데 동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습니다. 얼마 후 정찰나갔던 동무들이 돌아와 어떤 자그마한 경비막에 들어가 컵이랑, 주전자를 만져보다가 보초에게 들키는 바람에 큰 변이 날 번했다고 하였습니다. 찻잔이며 주전자가 유달리 크고 투박한 것으로 보아 쏘련의 국경초소가 틀림없는 것 같더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경비막이 얼마쯤 되는 곳에 있는가고 물으니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쏘련국경경비대원들은 온밤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하였습니다. 정찰나갔던 우리사람들이 그들을 몹시 놀래웠던게 분명하였습니다.

다음날 나는 이을설과 강위룡을 국경초소에 보내여 쏘련경비대원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정작 쏘련사람들과 마주앉고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나는 그

들에게 우리는 조선빨치산이고 내가 그 대장인 **김일성**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빨치산이라는 말과 **김일성**이라는 말만은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위자체도 이처럼 수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입쏘하는 것이였지만 그 구체적인 통로와 시간이 국경초소에까지 와닿지 않다보니 고생을 하였습니다.

쏘련경내에 들어간 다음 여러 날 방역사업을 하느라고 지체하였습니다.

방안에서 하루종일 하는 일없이 지내다보니 대원들은 다들 클클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들은 하루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혁명가요란 혁명가요는 다 부르고 그것마저 밑천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느 고망년에 풍월로 얻어들은 노래까지 다 불러댔는데 굉장했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원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있는 방에 가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동무들이 국경에서 며칠간 지체하니 섭섭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쏘련동무들이 우리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매개나라에는 국경통과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국경출입질서에 따라 필요한 신원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생검열을 하는 것은 전염병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최근에 만주에 있는 관동군의 세균전연구집단이 쏘련원동에 전염병을 퍼뜨려 놓았다, 그래서 쏘련정부가 입국검사를 철저히 할 데 대한 결정까지 채택하였다고 한다, 우리앞에는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도 많다, 우리 혁명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의 날도 멀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면서 조국해방의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쏘련사람들은 우리 동무들을 뽀비예뜨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국경초소에 있을 때 거기서 홍범도부대의 통변이었던 김승빈을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와 쏘련사람들 사이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처창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대원들은 그때 쏘련여성들이 몸에 화려한 옷을 걸치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여자들도 언제면 저런 옷을 입고 활개를 치며 다니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1940년 가을은 이처럼 그 하루하루가 다 고난과 시련으로 엮어진 준엄한 가을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중압속에서도 질식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간데 있으며 혁명적 신념을 소중히 간직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에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국해방을 향해서 지름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국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혁명가와 시련은 언제나 숙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40년 가을, 지금도 그 해 늦가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늦가을에 우리가 가랑잎을 깔고 자던 간도의 산천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옵니다.

총성도 없고 주검도 없는 원동에 가니 별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시련의 고개들이 많았습니다. 조국해방의 그날까지도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5. 위증민에 대한 회상


위증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정치군사지휘관이었던 위증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회상하시였다.

그 회상교시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증민의 남다른 우정, 혁명가로서의 위증민의 인간상과 그의 비장한 최후, 위증민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두고 고민했고 무엇을 원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위증민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만주성당 파견원의 자격으로 간도에 와서 다홍왜 회의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와 위증민은 줄창 항일의 길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위증민은 어릴 때부터 줄곧 항일 애국의 길을 걸어온 직업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안양에서 군사학교에도 다녔고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에는 항일시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혁명가로서의 위증민의 활동은 9.18사변 후 만주로 투쟁무대를 옮기면서부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주에 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하얼빈도시입니다. 위증민은 거기서 당서기로 활동하였습니다.

용모로 보면 위증민은 대학교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무관형이 아니라 문관형이었습니다. 혁명만 아니면 과학탐구나 저술활동에 한 생을 바칠 수도 있는 사색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위증민은 인간으로서는 소박하면서도 붙임성이 좋았고 진지하고 원만하고 겸손하고 허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국제당문고에 보관되어있던 ≪만주에 있는 유격부대지휘성원들에 대한 평정서≫에는 위증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위증민

남부그룹 부지휘관, 중국공산당원, 남만당위원회 서기…

정치적으로 잘 준비된 지휘관이다.

유격대원들의 반영에 의하면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경력자료는 없다.

정찰국과 내무성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는 없다.≫

위증민은 중국의 혁명가였지만 조선혁명가들을 지지해주고 조선혁명을 위해 윈심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다홍왜회의가 얼마나 심각한 회의였습니까. 그때 당파견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위증민이 처신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리한 처지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내 주장을 귀담아듣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참작할 것은 참작하였습니다. 요영구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제소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당본부에까지 갔다왔습니다.

그가 국제당에 갔다온 것이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좋은 방조로 되였습니다. 사선을 헤치고 남호두에 찾아온 위증민을 얼싸안고 서로 볼을 비비던 그날을 지금도 잊

을 수 없습니다.

위증민이 조선혁명가들은 조선혁명의 기치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 나의 발언도 정당하다는 국제당의 견해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민족군대를 가지고 국내와 압록강연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국제당의 결론을 전달하면서 내 어깨를 부둥켜안았을 때 나는 조선혁명을 위해 바친 그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나와 위증민의 우정은 몇 곱절 더 깊어졌습니다. 거기서 한 보름쯤 그와 함께 지냈는데 뜻이 잘 통했습니다. 그때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증민은 미혼진회의에서 부대개편과 관련된 우리의 의사를 지지해주었고 그 후 조국광복회의 창립도 열렬히 환영해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그 무렵부터 조선동지들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말을 익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조선인대원들을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조선혁명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성원의 표시었습니다.

우리도 위증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은 정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민은 미혼진회의 직후 우리와 함께 백두산쪽으로 나오다가 푸르허근방에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중에는 적을 치고 노획해온 군마가 몇 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군마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골라 위증민에게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그 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마안산까지 갔습니다.

나는 박영순을 시켜 대첨창에 병원을 꾸리게 하고 위증민이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위증민은 열하원정과 관련된 국제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양정우한테 갔다가 우리가 서간도에 진출해서 백두산밀영 건설을 마감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만에 다녀온 위증민을 보니 건강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고질병이 있었는가 하면 심장병과 위병이었습니다. 원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인데다가 무슨 일에서나 몸을 아끼지 않는 성미이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대원들의 앞장에서 산을 톺아오르고 영을 넘다가 심장병이 발작하여 혼수상태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면 육체가 병든건 무섭지 않지만 사상이 병들면 무섭지요 하고 웃어넘기군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횡산밀영에서 얼마간 요양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는 강위룡과 김운신을 장백에 보내며 인조자라혈을 비롯하여 위증민의 몸보신에 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200여원의 모연금으로 인조자라혈은 물론, 흰쌀, 밀가루, 통졸임, 우유, 전병까지도 사 가지고 돌아와 위증민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가루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였습니다.

그 해 음력설을 나는 횡산밀영에 가서 위증민과 같이 쇠었습니다. 박영순이 통졸임통에 구멍을 내서 국수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 설에는 위증민과 함께 농마국수도 먹고 술도 몇 잔 나누었습니다.

그날 8연대장 전영림도 우리하고 같이 설을 쇴습니다. 그 사람의 요리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썰 때 쓰는 칼과 채소를 썰 때 쓰는 칼까지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찬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실오래기처럼 썰어서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놓

고 벼락같이 양념을 치군했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위증민이 사람을 달라면 사람도 주었습니다. 황정해와 백학림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였지만 그가 이름을 찍어서 달라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황정해는 중대장이나 연대장 같은 직무도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한 대원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빠지는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중국말까지 잘하였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에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였습니다.

백학림도 내곁에서 여러 해 동안이나 전령병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백학림이 성실하고 소박하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데로 가든지 늘쌍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보천보를 칠 때에도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가림천기슭의 황철나무밑에서 전투를 지휘할 때 백학림은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면서 내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간삼봉에서 최현이네 4사동무들이 포위에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7연대와 경위중대에 돌격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전달한 사람도 백학림입니다.

그가 얼마동안 전투부대에 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기에 한 연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투부대에 가 있으니 어떤가고 백학림에게 물었더니 그는 성수는 나는데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못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전령병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사령부로 데려왔습니다.

백학림은 우리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한 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먹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백학림입니다.

상하간의 관계가 그런 정도로 밀접해지면 상하가 다 상대를 친혈육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남에게 주자니 나도 사실은 속이 좀 알찌근했습니다.

그러나 중병으로 시달리는 위증민이 욕심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보내주었습니다.

양정우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슬퍼한 사람이 위증민이였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던지 식사도 전폐했다고 합니다. 양정우가 희생된 후 1로군의 지휘를 맡은 위증민은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그 해 가을 위증민은 전투에서 두 번째로 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폐병까지 겹치다나니 그는 부대를 더 이끌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양정우를 살해한 다음 거리에 그의 머리를 내걸고 마치도 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부대들을 다 소멸한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동북지방 항일무장투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동북항일연군은 안팎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토벌은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고 대오안에서는 배신자들과 동요분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한때 여단장을 한 방진성이도 양정우의 죽음을 전후하여 적들에게 체포되어 변절하였습니다. 게다가 남만 1로군의 군중적 토대도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1로군 정치위원이며 남만성위 서기인 위증민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사업에 빈구석이 있으며 그대로 묵여두어서는 안될 심중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장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아는 군사정치일군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조선동지들이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에도 동만과 국내, 서간도의 광활한 지역에서 당조직건설과 대중단체건설에 많은 품을 들였는데 그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유격구시절에는 간도의 모든 현들에서 혁명조직들이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예닐

곱살나는 어린이들도 곤봉을 차고 다니면서 아동단이다 뭐다 하고 왁작 떠들어댔습니다. 조직이 군중을 동원시키고 군중이 궐기하여 군대와 함께 뚱땅뚱땅 하면서 싸움도 하고 농사고 짓고 인민혁명정부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만부대들은 유격구를 떠난 다음 군사활동일면에만 치중하면서 대중공작을 차요시하였습니다. 유격구역에서 와글와글하던 인민들을 적통치구역에 내려보내고는 그들을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새로운 군중토대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민과의 연계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들에서 군사제일주의 경향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열하원정 때였습니다. 군사제일주의란 군사활동과 군사적 대결로써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무장투쟁이라고 하여 군사만 군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군대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그 인적후비를 충당시켜주는 대중이 없고 대중적 지반이 없으면 유격투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던 초기에는 총도 몇 자루밖에 없었고 역량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주저없이 항일대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항일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던 일본의 군사력과 우리 유격대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사실 대비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항일대전을 시작했겠습니까. 우리는 혁명적 민중관에 바탕을 둔 정치사상적, 도덕적, 전술적 위력으로 일제를 타승하려고 하였습니다.

열하원정의 무모성은 인민과의 연계에 대한 고리나 전술적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주관주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 전날의 전장을 떠나 일본군대와 정면으로 대결하려 한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한 후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에서 당건설도 해야겠다, 통일전선조직체도 내와야겠다,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해야겠다, 압록강연안과 국내에까지 나가서 무장투쟁을 확대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백두산지구에 떡 틀고앉아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오고 그것을 국내의 넓은 지역에로 급속히 확대해나간 것은 다 군사를 뒤받침해줄 수 있는 민중공작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조직들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들이 집단부락이다 뭐다 하면서 유격대와 인민을 토성으로 분리시키고 한 되박의 쌀, 한 오리의 실도 토성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발악하고 있을 때 그런 조직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승천입지하는 재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군과 민은 서로가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니는 존재로서 어떤 환경에서나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증민은 남만성위가 소집한 회의에서 준비된 유격대간부들을 만주각지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종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가 때늦게나마 실책을 깨닫고 군사일변도경향을 퇴치하려고 결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습니다.

밀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던 위증민이 제일 고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한 1로군의 병력을 수습하고 재정비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본 남만혁명을 다시금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증민은 도래와 대사변을 앞두고 신축성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게 전술상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성된 정황에 맞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 몹시 안타까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해결방도로 관내에 있는 8로군과의 군사적 연합을 실현해 볼 수 없을가 하는 궁리도 하면서 그 해 4월 국제당에 보낸 편지의 회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에는 당시 그의 고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1935년 가을 … 이후 … 중앙과의 연계가 일체 단절되어 중앙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중앙에서 발행하는 문건, 통신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교활한 적들의 사면공격을 받고 있다.

… 우리들은 실로 망망대해에서 사공을 잃은 쪽배와도 같고 또한 어린아이가 두눈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도 같다. 위대한 혁명의 물결이 세차게 사품치는데 우리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박힌 신세이고 공기라고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큰 북속에 갇혀있는 꼴과도 같아서 … 상급기관과의 연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활동상에서 예견치 못하던 엄중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

위증민이 편지를 쓴 목적은 국제당과 중공중앙으로 하여금 1로군의 어려운 형편을 더 잘 알게 하자는데 있고 1로군을 추켜세우는데서 국제당과 중국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는데 있었습니다.

그가 국제당이나 중공중앙에 이처럼 기대를 건 것은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국제당이나 쏘련은 그 당시 자기의 안전으로부터 만주에서 일제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 유화정책으로 나갔으며 중공중앙은 수천 리 밖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느라고 동북혁명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위증민이 국제당이나 중공중앙의 지원을 바라고 있은 것은 얼마동안 군사정치활동에서 떨어져 있었고 정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때에 입수하지 못한데다가 병으로 심신이 매우 허약해진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의 답신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린 것은 1로군의 부족되는 간부들과 군사물자에 대한 보충을 강력하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증민은 국제당의 지원이야말로 1로군을 추켜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당이 연락원 한 명을 파견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때에 간부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며 군수물자는 무슨 통로로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는 국제당의 지원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파괴된 지하조직들을 다시 꾸리고 군중지반을 더 합당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견해였습니다.

나는 소할바령회의를 마친 다음 한총구밀영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는 위증민을 찾아갔습니다. 병고로 얼굴이 창백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위증민의 총상자리는 그럭저럭 아물어가나 본래의 고질병이 도져서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였습니다. 밀영의 악조건에서는 현상유지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증민은 나에게 가슴에서 돌덩이 같은 것이 자꾸 치민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나니 가슴이 섬찍해졌습니다. 우리어머니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런 하소연을 종종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위증민은 화제를 유격운동의 당면과제와 전략전술과 관련한 문제에로 자꾸만 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며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을 채택하고 그에 따르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위증민은 조선동지들이 정세도

옳게 판단하고 전략도 옳게 세웠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앞으로의 활동문제를 놓고 많은 담화를 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을 쏘련으로 들여보내는 문제와 그리고 소부대활동에 필요한 겨울철 양식을 미리 확보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위증민에게 쏘련에 들어가서 병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로군의 실태를 두고 병상에서 몹시 고민하고 있던 위증민은 아직 바로 잡아야 할 일들도 많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에게 쏘련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제당에 1로군의 실태를 자세히 보고해주며 국제당에 보낸 자기의 편지가 정확히 가닿았는가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자신의 병보다 1로군의 운명을 두고 더 고민하는 위증민을 보니 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정우가 희생된 후부터 1로군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서는 아직 당장은 쏘련으로 들어갈 형편이 못되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신원들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 필요한 연계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김사령,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밀영을 떠날 때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말이였습니다. 그 후 위증민을 다시 만나보지 못한 나한테는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였습니다.

사실이야 얼마나 단순하고 평범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 위증민이 나를 전송하면서 한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나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가 온 생애를 바쳐 가꾸고 사랑해온 혁명을 끝까지 성공시켜 달라는 뜻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로군사업을 부탁한다는 뜻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증민이 그 말을 하고나서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우 서글픈 눈길이였습니다.

밀영을 떠날 때 위증민을 위해 식량도 남겨놓고 후방물자들도 떨궈두었지만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쌀이나 솜동복 같은 것을 두고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무슨 큰 활력을 주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육체였습니다.

나는 황정해와 곽지산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려내야 한다고 재삼 당부하였습니다. 정해와 곽지산은 위증민을 잘 돌볼 테니 염려말고 어서 떠나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를 따라왔습니다. 이름도 없는 심산중에 그들을 두고가자니 나도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당부를 두세 번 곱씹느라고 시간을 수태 지체하였습니다.

훗날 하바로프스크에 간 나는 위증민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국제당일군들은 위증민이 보낸 편지가 정확히 와닿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비밀서한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주체29(1940)년 12월 일제의 관헌자료집 ≪사상휘보≫제25호에 그 전문이 실린 다음이었다.

그 서한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제3방면군의 이용운연대장이 그 해 가을 왕청에서 전사한 후 적들이 그의 소지품을 회수해 갔는데 그속에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하여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는 국제당에 가닿지 못한 채 중간에서 적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당이 정확히 인수하였다는 위증민의 편지는 누가 전달한 것인가. 국제당문서고에 있는 다음의 자료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는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극비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앞

항일연군 제1로군 부사령이며 중국공산당 남만성위 서기인 위동지의 1940년 4

월 10일부 보고와 2통의 편지번역문을 보낸다.

쉘리가노브

1940년 8월 10일≫

문건에는 1941년 1월 23일 날자와 디미트로프의 수표가 있다.

편지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의 통보는 4개의 부분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다 말하지 못한 것도 놓친 것도 많다. 그러므로 이번에 동지들이 거기로 가는 왕윤성과의 담화를 통하여 관심사로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명하기 바란다.

그가 글로 쓸 수 없는 비밀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동지들에게 파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보증한다.≫


주도일

이 인용문을 보면 위증민이 이용운만이 아니라 왕윤성에게도 국제당에 보내는 편지를 맡긴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개소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나 편지의 기본내용은 두통이 다 같다. 다만 이용운에게서 나온 편지내용에는 왕윤성과 관련된 언급이 없을 뿐이다.

왕윤성은 일찍이 동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왕다노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4연대 정위를 하였고 후에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2사정위로 있었다.

주체30(1941)년 봄 소부대를 이끌고 사선을 헤치며 만주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증민과의 마지막 상봉이 이루어졌던 한총구를 찾으시었다. 그러나 위증민 일행은 거기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증민과 그 호위성원들의 상세한 소식을 입수하신 것은 그때로부터 지난 주체30(1941)년 말이었다.

우리가 다시 만주와 국내에 소부대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후 쏘련동지들이 나를 급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다는 쏘련군대좌가 사복차림으로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항일연군의 한 소부대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쏘만국경을 넘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동지 뿐이라고 하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완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쏘련군대좌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면서 나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했습니다. 그 일행중에 혹시 위증민이 껴있지 않을가, 그가 병사했다는 말이 혹시 헛소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품어 보았습니다.

승용차가 여드레 팔십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쏘련군 대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내앞에 곽지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환갑노인처럼 늙어버린 곽부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위증민 일행이 겪어온 참담한 고충을 다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곽지산은 원래 연길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유격대에 들어와 정치일군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연길유격대에서 중대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세련된 혁명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곽지산은 식견이 높고 품성이 좋아 어데가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는가 하면 그가 동지들을 위해 물불을 가리

지 않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미도 대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곽지산을 가리켜 열두폭치마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타발하지 않고 다 품에 감싸안는 너그러운 일군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대가정의 크고 작은 잡사를 다 맡아안고 속을 태우는 어머니같다는 의미를 담아 열두폭치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로군에 경위연대가 조직될 때 우리는 그를 위증민의 후방부관으로 추천해주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때부터 그를 곽부관, 곽부관하고 따랐습니다.

곽지산은 위증민을 위해 있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선을 헤치고 적구에 직접 뚫고 들어가서 식량과 약품들을 지고 왔습니다. 위증민은 늘 자기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곽부관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김득수

곽지산은 마음이 좀 진정되자 쏘련군 대좌에게 자기가 맡긴 싸창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좌가 싸창을 가져오자 그는 목갈린 소리로 ≪위증민동지의 싸창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곽지산에게서 싸창을 받아들었으나 ≪그가 어떻게 됐소?≫하는 말은 종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증민은 보이지 않고 싸창만 온 것을 보니 그가 희생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곽지산을 통하여 위증민의 운명과 관련된 상보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총구에 가서 위증민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들은 화전현 쟈피거우밀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쟈피거우란 고장은 왕청현에도 있고 동녕현에도 있습니다. 만주에 쟈피거우란 지명을 가진 고장이 많습니다.

화전현 쟈피거우에 자리를 옮긴 위증민일행은 밀영을 두 군데 두었습니다. 하나는 쟈피거우에서 북쪽으로 수십 리가량 되는 곳에 정했고 다른 하나는 서남쪽으로 그보다 더 먼 곳에 정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첫 번째 밀영에 있었습니다. 그 밀영에 황정해도 있고 김봉남이도 있고 의사 김회선이도 있었습니다. 7-8명쯤 되는 기관총반성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곽지산과 김철호, 주도일, 이학선, 전문욱, 김득수네는 두 번째 밀영에 있었습니다.

두 밀영의 위치를 다 아는 사람은 곽지산뿐이였습니다. 그가 두 밀영을 힘들게 오가면서 필요한 연락도 하고 식량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는 쟈잘리를 맺고 있던 위만군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해결하군 했습니다. 장교들은 곽지산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헌병대의 특무대장도 그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쟈잘리에 속한 위만군장교들이나 특무대장이나 다 양다리치기를 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식량이나 소금 같은 것을 지고 산에 들어와 유격대에 넘겨주고는 유격대원들이 입던 헌옷이나 꿰진 신발, 구멍난 양재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빨치산을 몇 명 살상했다고 거짓보고를 하고는 상금까지 타먹군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운명직전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붓을 들고 보고서도 집필하고 유격투쟁을 총화하는 글도 썼습니다. 어떤 날은 노군의 사업과 관련된 문건기안도 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손에서 일을 떨구지 말자는 것이 혁명가로서 그가 품고 있던 지향이였던 것 같습니다.

임종이 박두하자 위증민은 싸창과 문서보따리를 전우들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무들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 혁명은 동무들을 믿고 있다. 혁명이란 간고하고 피도 흘리고 희생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생을 두려워하

지 말라. 우리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동무들은 꼭 **김일성**동지를 찾아가라.

위증민이 사망한 때가 1941년 3월이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였습니다.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조총도 쏘지 못하고 추도식도 없는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전우들은 있는 정성을 다해 그의 시신을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중국인대원이 산에서 내려가 적들을 끌고오는 바람에 묘소가 발견되게 되였습니다. 위증민이 평소에 몹시 사랑하던 대원이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증민을 전투에서 사살했다고 한 적측의 자료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살인 것이 아니라 병사입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런 가짜선전을 잘했습니다. 적들은 현상금을 타먹자고 위증민의 묘를 파헤치였습니다. 야만인들이나 할 짓이였습니다.

위증민의 싸창이 내 손에까지 와닿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 그를 호위하던 사람들의 그 후 행로에도 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증민은 처음에 그 싸창을 황정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황정해를 몹시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황정해는 처음에 통신을 맡아보았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위증민의 통역도 하였습니다. 그 후 경위소대장이 되어 전적으로 위증민을 호위하고 그의 사업을 보좌하는 인물이 되였습니다. 그는 위증민의 요구에 따라 문건과 자료 번역도 하고 그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집필도 대신하였습니다.

황정해도 곽지산과 함께 위증민의 신변을 끝까지 호위한 동무입니다. 그가 위증민을 정말 성실하게 호위하였습니다.

한번은 밀영에서 위증민의 백마가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황정해는 기관총수에게 위증민을 부탁하고 백마를 찾아 떠났습니다. 백마를 찾자면 발자국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얼마쯤 가다가 밀영으로 살금살금 기여드는 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적들도 말발자국을 더듬어가면서 밀영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정황이였습니다. 경위소대원들이 식량공작을 떠난 뒤여서 위증민의 곁에는 황정해와 기관총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정해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 비밀문건을 건사한 후 위증민을 들쳐업고 수림속으로 달렸습니다. 적탄이 인차 우박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위증민을 안고 달리였습니다.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위증민만은 살려내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날 황정해는 어깨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더는 위증민을 안고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위증민을 기관총수에게 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관총을 잡고 엄호사격을 하면서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황정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니 위증민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위증민이 그에게 싸창을 넘겨 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 후 황정해는 소부대를 데리고 곽지산이 있던 밀영에 옮겨앉았습니다. 소부대는 메돼지나 곰과 같은 산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길양식으로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황정해는 곰사냥을 하다가 잘못되였습니다. 한방 얻어맞고 달아나는 곰을 뒤쫓아갔는데 그놈의 곰이 돌아서서 사납게 달려드는 바람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아까운 사람을 맹랑하게 잃었습니다.

황정해가 간수했던 싸창은 백학림의 동향친구인 이학선이 건사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번씩 꼭꼭 그 싸창을 소제하면서 위증민을 추억하군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학선이 희생된 후 위증민의 싸창은 곽지산이 간수하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소조활동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아편농사를 하면서 쏘련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유경수네 조가 쟈피거우근방에 가서 곽지산이네와 연계를 맺고 있던 노인을 만난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그 노인이 비밀을 철석같이 지키는 바람에 유경수네가 곽지산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곽지산일행은 아편농사를 지은 것으로 군복도 해입고 식량과 소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 가지고 떠났는데 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쏘만국경을 넘을 때는 바지를 벗어 이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한 자루의 권총이 몇 사람의 손을 거쳐 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곽지산은 그 후 김일이네 소부대에 망라되어 만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는 쟈잘리라는 공간을 통하여 이전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는 위만군장교들을 포섭하여 지하조직도 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곽지산을 비롯하여 위증민의 곁에서 그를 호위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생전에 위증민이 그렇게도 번민하던 군사일변도 경향을 없애고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황정해

곽부관이 전사한 것은 1943년 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찰임무를 받고 만주로 나갔는데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적탄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위증민은 조선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지지해준 사람입니다. 내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군합니다.

위증민은 실천상에서 결심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꼭꼭 우리의 견해를 들어보군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신뢰했는가 하는 것은 양정우가 전사한 후 1로군과 남만성위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와 협의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로군간부들이 자기한테 무슨 결론을 받으려고 찾아오면 위증민은 그들을 모두 나한테로 보냈습니다. 위증민이 전사한 다음부터 국제당은 동북항일연군 1로군 사업과 남만성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였고 혁명가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였습니다. 훌륭한 인간이고 훌륭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위증민이 보살펴주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위증민을 목숨으로 보호해준 국제주의전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우애에 있어서 위증민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위증민 곁에 가서 오래 일한 바 있는 우리 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위증민은 언제나 조선혁명의 운명을 우리와 연결시켰고 그래서 말끝마다 **김일성**동지를 잘 받들라고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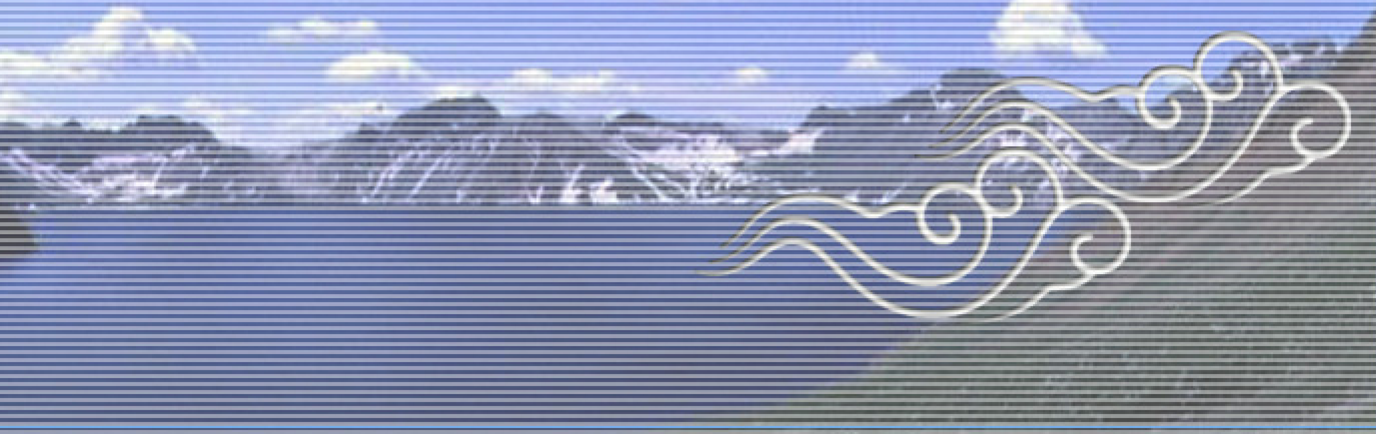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위증민의 생애가 아름다운 일생으로 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은데 있습니다. 인생의 첫 자욱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뗀 사람은 인생의 마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생의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깨끗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부터는 국제주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별반 없습니다. 입만 벌이면 국제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도 지금은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먹고 못입어도 혁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국적을 따지지 않고 먹어라, 써라 하던 때가 좋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국제주의적 의무와 의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23장





국제반제역량과 연합하여

하바로프스크회의

혁명가 김책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소부대활동의 나날

신념과 배신

국제연합군을 편성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북만에서 온 투사들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

■ 시기 : 1941. 1 ~ 1942. 7

1. 하바로프스크회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3(1984)년 여름 쏘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신던 도중 하바로프스크에 들려 하루동안 머무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원동의 훈련기지에서의 생활과 하바로프스크회의를 두고 감회 깊은 회상의 말씀을 하시었다.

하바로프스크는 내가 한번 와보고싶었던 곳입니다. 요전에는 만주리로 해서 쏘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바로프스크에 들릴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하싼으로 해서 두만강역을 거쳐 귀국하는 것으로 노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고장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에 와보고 싶었는데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야 그 소망을 풀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쏘련원동군부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이던 나날에 하바로프스크는 국제당일군들과 조, 쏘, 중 세 나라 공산주의자들, 군대의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공동투쟁의 방향과 방도도 모색한 중요한 회합장소로 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는 그 당시 원동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국제당 동양선전부도 한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만국경을 넘어 쏘련경내에 들어선 것은 1940년 11월이었습니다.

나는 필요한 수속이 끝난 다음 우리 동무들과 헤어져 쏘련군관의 안내를 받으며

곧추 하바로프스크로 떠났습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눈에 덮인 원동의 대지가 내다보였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이 땅에서 애국의 피를 부리던 수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의 군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사들과 우국지사들이 이 땅에서 망국을 통탄하고 국권수복을 부르짖으며 속절없는 와신상담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총기를 얻으려고 간 사람, 단체를 무으려고 간 사람, 약소민족의 설움을 하소하려고 피눈물을 뿌리며 간 사람 …

산천유람이나 하려고 이 땅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은 여전히 민족의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고혼이 되어 잠들고 있는 선열들의 영령앞에 자력독립을 성취하여 그들의 유한을 풀어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걸음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펴그나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당의 회합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당이 우리를 회의에 초청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국제당지도부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로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당사람들이 자기네가 소집하는 회합에 조선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감자도장을 가지고 저마끔씩 국제당으로 찾아다니었지만 그것은 영도권쟁탈을 위한 파벌행각이었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참다운 의미에서의 활동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행각 끝에 차례진 것이 바로 조선공산당해산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였고 1국1당제에 의한 다른 나라 당에로의 의무적인 전당이었습니다.

국제당지도부가 조선혁명문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의제로 삼고 그것을 회의에서 토의한 적은 별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부터 조선혁명은 거의나 국제당의 시야밖에 놓여있었습니다. 국제당이 안중에 두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큰 나라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국제당지도부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동북땅에서 싸우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직접 드는 것조차 막았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는 지령들을 연방 내려뜨림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제당이 조선혁명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국제당 제7차 대회가 있은 때부터입니다.

국제당이 비록 조선혁명에 낮을 적게 돌렸지만 우리는 그와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국제당을 지지하였으며 그 업적과 존재가치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국제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정세에 맞게 공산주의운동대열을 결속하고 그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 전위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온 국제당의 공헌에 대하여 우리는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긍지와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당당한 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한편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국제당의 지시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 대한 나의 기대는 자못 컸습니다. 새 나라 무장력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는 것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회의의 전망에 대해 나는 낙관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니 눈이 무릎을 치게 쌓여있었고 날씨는 대단히 추웠습니다.

밀림속에서만 싸워온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총성과 약탈도 없고 주림도 없는 평화로운 대통로들,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상으로 그려오던 생활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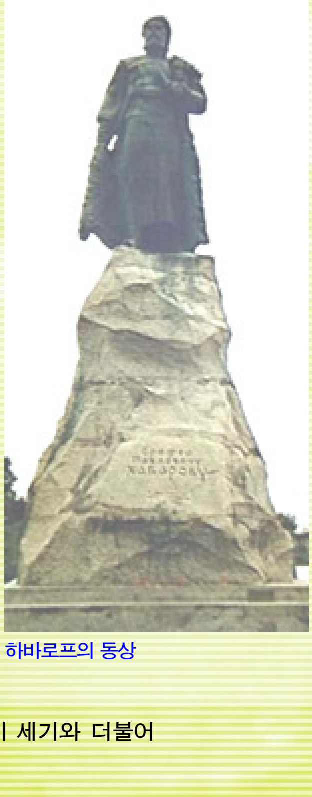
일부 지도책에는 하바로프스크가 합부 또는 백력이라는 지명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거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삼위라고 불렀습니다. 쌍성자, 연추, 수청, 소성이라는 식으로 불리운 고장들이 원동지방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바로프스크라는 도시 이름은 원동개척자의 한 사람인 하바로프의 이름을 딴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의 역전광장에는 하바로프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때만 해도 20여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서철을 만났고 다음날에 안길을 만났습니다. 서철은 남만성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왔고 안길은 제3방면군 참모장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만과 남만, 북만에서 전장을 누비며 다닐 때는 싸움을 하느라고 자주 상종하지 못했던 전우들을 만나고보니 그 감격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1로군 군장인 양정우가 희생된데다가 위증민이 병중에 있고 또 방면군군장들인 조아범, 진한장 등이 모두 전사한 조건에서 우리 셋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대표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로 동시에 대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남만에서 활동하는 당조직과 모든 유격 부대들의 대표였습니다.

나는 서철과 안길을 통하여 제2로군 총지휘 주보중이 11월 초에 이미 하바로프스크에 왔고 뒤이어 제3로군 총지휘 장수전과 정치위원 풍중운 제5군 정치부주임 계청 등도 와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길과 서철은 김책과 최용건도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여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보면 동북항일연군의 3개의 노군과 길동, 북만, 남만 성위를 대표하는 일군들이 다 모인 셈이였습니다.


하바로프의 동상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는 국제당 대표인 쏘련원동군 장령 류쉔꼬를 만났습니다.

류쉔꼬는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에서 만주빨치산과 쏘련군 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주고나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는 대응책을 함께 잘 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남만서위와 제1로군의 구성,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묶어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청탁에 동의하고 안길, 서철과 함께 남만성위와 제1로군의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신림앞으로 보낸 1941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왕신림은 쏘련원동군 정보부장 류쉔꼬의 가명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부대들이 쏘련경내에 들어가 활동하던 시기 국제당과 쏘련당, 쏘련원동군을 대표한 인물은 자기를 왕신림으로 행명하였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마감고비에 이르렀을 때 쏘련 원동군의 쏘르낀장령이 류쉔꼬가 맡아하던 임무를 넘겨받았는데 그도 역시 왕신림이라는 이름으로 행명하였다.

국제당문헌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0(1941)년 1월 남나성위(제1로군)대표들의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원문이 있

다. 그 원문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왕신림동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1940년 봄과 여름 기간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만 대답하려고 한다. 때문에 이 보고는 항일연군 1로군의 모든 형편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

볼셰비키적 인사를 보낸다.

김일성
안길
서철
1941년 1월 1일≫



서철

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김책, 최용건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오래간만에 주보중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안길과 서철은 회의를 마치고 하바로프스크를 떠날 때까지 나와 한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침식을 잊고 회포를 나누던 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던 일들이 어제 같습니다.

이미 1940년 1월말에 하바로프스크에서는 국제당이 소집한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의 대표들은 참가하지 않고 주보중, 장수전, 풍중운을 비롯한 제2로군과 제3로군의 대표들만 모여서 진행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동북유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정세의 분석에 기초한 차후투쟁방침을 확정한 다음 쏘련원동군과의 연계를 이룩하고 호상협조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일적 보조를 맞출 데 대한 문제들에서 필요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40년 3월 중순경에 호상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동북항일연군측과 쏘련군사당국이 참가하는 협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북항일연군 제2, 3로군 대표들과 원동군사령관대리, 하바로프스크와 워로쉴로브 주둔군의 책임자들 그리고 류쉔꼬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안길

이 협의회에서 항일연군측은 국제당과 쏘련군이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쏘련측은 동북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을 상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주둔군 사령관은 동북항일연군 무장부대들을 중국공산당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 동북의 유격부대들에 대한 쏘련의 지원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측의 이런 태도로 하여 협의회에서는 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동북항일연군과 쏘련원동군사당국과의 호상지지와 협조의 형식과 내용 문제는 초보적인 합의를 보는데 그치고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 후에 열린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가한 흔히 말하는 1941년의 하바로프스크회의는 1940년 12월에 소집되어 1941년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는데 비밀사업을 하는 군대병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병영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느 공작원이 이용하던 아지트였습니다.

회의 첫 단계에서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 각 성위의 책임일군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조건에서 각 노군과 성위 간의 연계와 국제당 및 쏘련과의 관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놓고 여러 날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941년 1월 초부터 국제당 및 쏘련의 당국자들과 함께 만주에서의 항일유격운동의 장래문제와 쏘련원동군사당국과의 호상 지지와 협조의 내용과 방식 문제를 기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국제당과 쏘련측을 대표해서는 류쉔꼬장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권문제를 둘러싼 쏘련군측과 항일연군측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여 처음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권 문제를 둘러싼 쏘련군측과 항일연군측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여 처음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 다른 이유의 하나는 중국공산당 대표가 참석 못한 것과 관련된 항일연군측 지휘관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쏘련측은 국제당의 명의로 하바로프스크회의를 소집하면서 길동과 북만 성위에 중국공산당 중앙에서도 대표가 참가하게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중공중앙대표는 하바로프스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중앙과의 연계회복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간부들은 적지 않게 실망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데는 중공중앙대표와의 상봉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중공중앙대표가 하바로프스크에 왜 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쏘련당국이 중공중앙에 회의소집과 관련된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통지는 했는데 연락이 채닿지 못했는지, 사유는 어떻든지간에 중공중앙대표가 오지 않은 것은 항일연군 일부 대표들의 의혹을 샀고 그들로 하여금 쏘련이 국제당의 명의로 소집한 회의의 취지자체를 미타하게 생각하게 하였으며 초기 회의사업에 일부 그늘을 던지었습니다.

회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보고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각 노군대표들이 자기 사업정형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상정된 문제의 협의에 필요한 인식과 이해를 서로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제1로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군사정치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해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지나 주보중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당중앙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독자적인 동북당조직도 구상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고 서로 병립된 북만성위나 길동성위, 남만성위가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북항일연군도 노군별로 제각기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동북혁명을 통채로 장악하고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의 일본군이 만주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당이 관내에 앉아 동북사람들의 당, 군사 활동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 논의된 중심의제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장래활동방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조선과 동북에서의 유격투쟁과 쏘련군대와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키고 강화발전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쏘련측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파쑈세력이 방공연합을 형성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연합한 파쑈들

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동북항일연군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쏘련군과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도 부합되고 동북혁명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이 그 전해 회의에서 제일 완강하게 반대하던 문제였습니다.

한 해 사이에 세계정치정세와 원동의 군사정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쏘련의 제의는 이런 정세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쏘련은 서부국경쪽으로 질풍같이 육박해오는 독일과의 충돌을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일이 서쪽에서 쳐들어올 때 일본군이 동쪽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야단이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서나 동서협격을 피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쏘련이 제출한 협동안을 보면 정세의 긴박성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초조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큰 땅덩어리의 한쪽은 구라파에 속해있고 다른 한쪽은 아세아의 넓은 판도를 차지하고 있는 쏘련으로서는 그 넓은 국경선의 한쪽만을 지킨다거나 어느 한쪽의 적을 막을 수 있는 능력만 갖추는 것으로 국가방위의 완벽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쏘련은 국가건립의 초기부터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적을 다같이 격파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이와같은 국방원리와 대일,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원동을 독립적인 군사단위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5개년계획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쏘련의 구라파지역을 추켜세우는데 모를 박은 것으로서 그 덕이 원동의 군력을 강화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로 하여금 원동의 군사력을 급격히 확대보충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로 된 것은 1931년의 9.18사변이였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만주침공에서 큰 충격을 받고 늘 일본이 자기무력을 원동에까지 진출시키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9.18사변이전의 원동무력은 5만의 보병과 100대의 비행기, 3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쏘련은 일제가 9.18사변을 도발한 후부터 원동무력을 2배, 3배, 4배로 늘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쏘련의 불가침조약체결제의를 거부한 후부터는 중폭격기, 신형탱크, 잠수함 등을 원동에 배비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였습니다. 1936년에 몽골과 체결한 쏘몽협정도 그 목적은 일본을 견제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쏘련이 원동에서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동쪽 국경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을 쏘련원동군 직속부대로 만들데 대한 쏘련측의 제안은 한 해 전에 들고 나왔던 주장의 재판으로 해석되고 지어는 쏘련이 자기의 정치군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동북항일운동을 거기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비난까지 야기시키었습니다.

그 당시 원동에 조성된 정세를 참작해볼 때 쏘련의 제안에는 이해할만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의한 동서협격의 위험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쏘련은 자기 나라의 동쪽에서 포성이 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만주에 있는 항일무장부대들이 마치 쏘련의 사촉과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쏘련으로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어떻게 하나 마련해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쏘련은 원동의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외교적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일본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당시 쏘련에는 독일과 일본의 침공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동맹자가 없었습니다. 쏘련은 구라파에서 증대되는 전쟁의 위험을 막아보려고 집단안전체계창설을 추구하였으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방에도 쏘련을 무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은 없었습니다.


스탈린

중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쏘련의 지원을 받는 존재였지 쏘련을 지원할 수 있는 동맹자는 못되었습니다. 나라의 동쪽만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쏘련으로서는 동쪽에서 일본에 무력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쏘련이 원동군과 동북항일연군을 하나로 합치는 군사체계의 창설을 제안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쏘련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작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원동군과 협동할 수 있는 동맹자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동북항일연군과 쏘련원동군의 통합문제를 두고 회의장안팎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은 쏘련원동군의 우산밑에 들어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여년동안 풍찬로숙하면서 혈전을 벌려왔는데 통합은 무슨 통합인가, 절대로 동북혁명을 포기할 수 없다, 쏘련측은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네 생각만 한다, 그들의 입장은 매개 나라 혁명의 독자성을 존중할 데 대한 혁명적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스탈린이나 지미트로프에게까지 제기하여 풀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스탈린과 지미트로프도 동북항일연군측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류쉔꼬는 쏘르낀과 교체되었습니다.


지미트로프

그때 쏘련측은 통합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를 몹시 알고싶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쏘련측의 제안이 민족이기주의로부터 출발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쏘련이 건재하고 쏘련혁명이 잘되어야 중국혁명이나 조선혁명도 잘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제출한 제안은 일리있는 제안이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내놓게 된 당신들의 형편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아직은 일방적이고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일본군이 쏘련침공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쟁이 당장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을 보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지 못한 나라의 혁명을 추진시키는 것도 그만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당신들은 동북항일유격운동을 경시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쏘련측은 나더러 어떤 형태의 통합도 다 반대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쌍방에 다 이로운 연합과 협동방식이야 왜 반대하겠는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무시하는거나 타방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한 통합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항일연군을 뭇고 공동투쟁을 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공동투쟁을 해도 말썽이

없다, 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항일연군에 용해시키는 것도 반대하지만 쏘련군대에 배속시키자는 것도 반대한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쏘련원동군과의 공동투쟁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하겠는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문제는 앞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공동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쏘련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 조선혁명이나 중국혁명의 이익에도 다같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측은 내 말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당신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의를 결속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말에서 아주 좋은 시사를 받았다, 독자성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좋다, 일방적인 주장은 그만두고 회의를 시급히 결속짓자, 빨리 전장에 달려가서 소부대활동도 하고 조직건설사업도 하고 인민들과의 사업도 해야겠는데 시간이 아깝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입씨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각자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주보중과 장수전도 나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나는 각자의 독자성만 인정해준다면 여러 무장력의 국제적인 연합을 반대하지 않겠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연합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해보아야 한다, 쏘련측의 제안이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씨앗은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배척하지 말자, 우리가 다같이 동지적이고 사심없는 태도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공동의 이익에 맞게 문제토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회의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의과정에 발현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조선, 쏘련, 중국 세 나라 혁명무장역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는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며 대규모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이행할 데 대한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확한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역량보존에 중점을 두고 소부대활동을 벌일 데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틀쯤 회의를 하였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협의에서도 반론이 전혀 없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규모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혁명에서의 후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부대활동도 성차지 않은데 소부대활동이나 해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겠는가, 관내동지들이 대부대로 움직이면서 판을 큼직큼직하게 벌이고 있을 때 항일을 먼저 시작한 동북사람들이 소부대로 활동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해야 체면이 서고 소부대활동을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소부대활동방침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도 회의장안팎에서 쏘련, 중국의

전우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벌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보존축적하기 위하여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방침을 채택했고 소부대분산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온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쏘, 중 두 나라 사람들은 나의 주장에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손실도 적지 않다, 혁명의 오늘 뿐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도 역량보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일제를 쉽게 패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도, 동북항일연군도 역량을 보존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부대활동을 하게 되면 전민항쟁을 위한 조직건설도 활발히 벌일 수 있고 식량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을 하기에도 편리하다, 우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소부대활동을 해보았는데 결과가 대단히 좋았다, 해볼만한 일이다, 대부대활동은 필요한 때 벌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을 퇴보로 보는 사람들에게 소부대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어지간히 말해서는 잘 먹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세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과 만주의 정세, 쏘련정세를 가지고 소부대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정세토론을 하는 과정에 의견상이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정세토론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였지만 하바로프스크회의 때만큼 정세토론을 장시간 진지하게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대부대활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국제당의 요구도 대부대활동을 삼가해달라는 것이다, 그 요구속에는 쏘련을 옹호하고 쏘련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하려는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지향과 결의도 담겨있다, 대규모유격전이 쏘련의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응당 그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쏘련측대표한테는 당신들이 우리를 무턱대고 여기에 비끄러매두려고 해서는 안된다, 역량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혁명을 전진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소부대를 무어가지고 국내와 동북지방에서 정치군사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주장에 모두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쏘련사람들은 우리가 원동에 틀고앉아 훈련이나 하고 소소한 군사정찰활동이나 하면서 무난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일본에 쏘련을 침공할 수 있는 언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도의 활동으로 시간을 어물어물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위도식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논의 끝에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본은 소부대활동, 군중공작, 조직건설, 실력배양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할바령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였습니다.

쏘련측은 회의에서 자기 나라 경내에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기지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련해주는 장소를 또 하나의 임시기지로 삼고 조선과 만주의 넓은 판도에서 소부대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다음 쏘련은 원동지역에 2개의 기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워로쉴로브근처에 있는 남야영이였고 다른 하나는 하바로프스크부근에 설치된 북야영이였습니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남야영을 차지하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 5군의 일

부 역량도 남야영에 함께 있었습니다. 북야영은 제2로군과 제3로군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서 남야영을 책임지고 활동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1로군에서 온 일부 역량을 하나로 묶어 제1지대를 조직하고 그 지대장으로 있으면서 소부대활동을 적극화할 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원동에 새로운 임시기지를 꾸린 다음 국내와 만주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소부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된 것은 항일무장투쟁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앞으로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조성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시기적절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혁명을 하느라면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에는 퇴조기도 없었고 소강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앞에서 동요한 적도 없었고 슬픔앞에서 주저앉은적도 없었으며 적의 공격앞에서 피동에 빠진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역경앞에서 주저앉았거나 피동에 빠졌더라면 적들은 우리 혁명을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의지와 배짱을 가지고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군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소할바령회의와 함께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화기를 열어놓은 하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와 하바로프스크회의는 1940년대 전반기 항일무장투쟁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해주고 조선혁명가들이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가올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회합이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원동의 임시기지에서 군정훈련도 하면서 백두산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튼튼히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삼고 무장투쟁과 혁명운동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조국해방의 새날을 앞당기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노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계실 때 일만군경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아래의 자료들은 적들의 당황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 쏘련의 영도하에 만주에 대한 책모를 행하고 있는 조선공산당의 요소는 구 제1, 제2, 제3로군의 나머지 세력으로서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쏘련 붉은군대의 직속산하에 있는 오께안스까야야 영소계통 군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재만조선인불령단체의 책동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각 도 경찰부장에게 보낸 서류, 소화19년(1944년)≫

≪**김일성**, 최현, 안상길, 채세영 등 유력비단은 본년초두까지 전부 쏘련에 들어가 워로쉘로브에서 각종 훈련을 받고 4월이래 새로운 편성과 새로운 방침밑에 차례로 만주로 들어오고 있다.≫≪목단강 영사대리 후루야의 보고, (소화16년(1941년)6월 17일≫

2. 혁명가 김책


김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여러 달이 지난 어느날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였다.

≪금수산의사당에는 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금고가 있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그 금고안에 무엇을 보관하시였는가 하는 것은 부관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 그 금고를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수령님께서…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이 있였습니다….

원래 수령님께서는 사진들을 다 당역사연구소에 보관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전우인 김책동지를 얼마나 못잊어하시였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줍니다….≫

수령의 추억속에서의 영생, 그것은 인간이 한 생을 통해 지닐 수 있는 영광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광이며 혁명가가 한 생을 바쳐 도달할 수 있는 행복가운데서도 가장 큰 행복이다. 김책동지는 그 영광과 행복의 상상봉에 있는 충신중의 충신이다.

그는 어떻게 되어 수령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인간으로 되었는가.

내가 김책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하바로프스크에서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를 할 때입니다. 거기서 최용건도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바로프스크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김책은 북만성위와 동북항일연군 3로군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 하바로프스크에 머물다보니 나와 김책은 서로 내왕을 자주 하였습니다. 내가 들어있는 숙소에서 안길이와 서철이도 숙식을 하였는데 거기에 김책이 와서는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군 했습니다.

그때 김책을 만나보고 받은 인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지금도 첫 상봉을 하던 때의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이 40이 채 되기도 전에 앞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그의 침착한 모습을 보니 첫눈에 마음이 끌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면인 김책이 자꾸만 구면처럼 생각되는 것이였습니다. 소문을 많이 듣고 또 마음속으로 그리던 사람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성을 한 다음 첫 대면인데 구면같다고 했더니 김책은 자기도 **김일성**이 초면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김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대를 그만큼 마음속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김책이나 최용건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부대를 데리고 북만에까지 갔다왔겠습니까. 김책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벌써 1930년에 길림부터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용건이 나와의 공동투쟁을 얼마나 열망했으면 간도에 연락원을 네 번이나 보냈겠습니까.

투쟁무대가 북만이건 동만이건 우리는 그때 모두가 다 조선혁명을 생각하였고 자기가 조선사람이며 조선의 혁명가라는 것, 단체의 소속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쳐야 할 조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성이 동만과 북만의 조선혁명가들로 하여금 오래 전부터 서로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책이나 최용건이 왜 더구나 동만을 자꾸 넘겨다보았는가. 조선사람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동만의 2군이 조선인부대라면 그들이 소속되어있던 3군이나 7군은 다 중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대들이었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판이한 중국사람들속에서 지내다나니 늘 조선사람들이 수십만이나 와글와글하는 동만을 부러워했고 조선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 우리 부대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사령을 만나는 길이 왜 이다지도 멀었는지.≫

초면인사가 끝난 다음 김책이 혼자소리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파내리었습니다.

김책은 통성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그립고 조선인부대들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과묵한 사람이 눈물까지 보였겠습니까.

그날은 나도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김책의 선친은 나라가 망하자 인차 가족을 데리고 간도로 들어갔습니다. 간도가 땅도 많고 살기도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땅으로 말하면 학성도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땅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좋은 줄이야 누가 모릅니까. 밥술이라도 얻어먹으려니까 줄레줄레 북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김책이네 부모들은 간도에만 가면 살길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둔 부모들이니 노력걱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큰 기대를 걸었던 세 아들은 집안 일은 뒤전으로 밀어놓고 혁명, 혁명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집안에 혁명바람을 끌어들인 것은 김책의 형 김홍선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3.1인민봉기 때 거리에 나가 독립만세도 부르고 독립군부대를 따라다니면서 청산리전투에도 참가하고 공산주의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교편을 잡고 있던 용정 동흥중학교에 러시아에서 건너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아마 그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김홍선은 영안현일대에서 공산당구위로 일하다가 모해에 걸려 억울하게 희생되였다고 합니다.

김책의 동생도 쟁쟁한 혁명가였습니다. 김책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자기 동생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야학을 다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혁명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관계한 조직이 동만청총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습니다. 김책이 소속된 세포는 화요파의 영향밑에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이 파쟁놀음 때문에 해산된 당이라는 것을 알면서

도 그는 자기가 한때 이 당 산하의 어느 한 세포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다 밝히였습니다.

그 당시 만주땅에는 두 개의 만주총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요파가 장악하고 있던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항하여 엠엘파가 만들어낸 만주총국이였습니다.

김책은 영도권쟁탈로 일관된 파쟁의 내막을 알고는 권력다툼을 일삼는 공산당상층인물들에게 환멸을 느끼였습니다. 그 나날에 감옥에도 잡혀들어가게 되였습니다. 그가 파쟁속에서 조락해가는 공산주의운동실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국제당이 조선공산당을 해산시켰다는 놀라운 소식이 감방안에까지 날아왔습니다. 파쟁으로 피투성이가 된 당이였지만 그 당마저 해산되였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헌

그렇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일을 해야 하는가. 김책은 감옥안에서도 감옥밖에 나아서도 이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에 의거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겠고 그렇다고 기성세대를 부정하자니 그것을 대신할만한 세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야 홀로는 막연한데 감옥문을 나섰다고는 하나 수중에 돈 한푼 없으니 이 몸을 어디다 어떻게 건사하겠는가. 이렇게 막막한 생각을 하다가 은인에게 인사라도 한마디하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찾아간 곳이 허헌선생네 집이였습니다.

김책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서준 사람이 바로 허헌선생이였습니다. 김책은 원래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붙일만한 돈도 없었고 또 변호를 받고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헌선생이 자청해서 무료로 그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많은 혁명가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형량을 덜게 하거나 무죄가 되게 하였습니다.

김책은 허헌선생네 집에서 며칠동안 보양을 하였습니다. 그가 서울을 떠날 때 허헌선생은 두루마기도 한벌 입혀주고 손에 노자도 쥐여주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3원인가 4원인가 주었다는데 그 돈으로 김책은 차표도 끊고 도중식사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책과 허헌선생은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허헌선생이 김책의 변호를 서준 것은 순수한 애국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선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것이 가슴 아프고 억울해서 무료변호를 서준 것입니다. 동정심, 연대감, 애국선배로서의 의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허헌선생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방 후 김책은 내각에서 부수상 겸 산업상으로 일할 때 허헌선생은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지난날 피고석에 앉아있던 사람과 그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이 국가의 고위간부가 되어 일하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이한 인연입니까.

김책은 부수상으로 임명된 날 허헌선생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비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부수상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종아리를 쳐주십시오.≫

허헌선생은 호인이지만 대가 바른 사람이였습니다. 김책이 일을 잘못한다면 정말로 종아리를 칠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허헌선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한번도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김책이 부수상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비판감이 될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박헌영은 부수상을 하면서 늘 허헌선생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허헌선생이 무슨 낌새를 챘던지 나보고 노상 박헌영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서거했다는 말을 듣고 목놓아울던 허헌선생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상님한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른팔이었는데 너무도 일찍이 갔다고 하면서 못내 애석해하였습니다.

김책은 허헌선생네 집에 있을 때 창피한 생각이 들어 끼마다 차려주는 더운 음식도 살에 가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별로 없이 파쟁군들한테 농락만 당하다가 감옥살이를 했는데 자기를 대단한 혁명가처럼 돌봐주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 이것이 김책이 허헌선생네 집을 떠나 간도로 들어갈 때 다진 맹세였다고 합니다.

김책은 간도땅에 들어서자 그 동안 아버지와 안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는 철도 채 들지 않은 두 아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가사일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특무들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 혁명가들을 붙잡아다가 한 바탕씩 두들겨패고나서는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앞문으로 석방하고는 다시 뒤문으로 잡아들이군 했습니다. 그들의 잔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책은 두 아들을 처남네 집에 맡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헌 삿갓을 쓴 농부의 차림으로 처남네 소를 앞세우고 동구밖으로 나갔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그 소가 외양간에 떼어두고 온 새끼소를 찾느라고 계속 울었습니다. 외양간의 새끼소도 어미소를 부르느라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위장도 중요했지만 김책은 어미소를 더 끌고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 울음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들으니 처남집에 맡기고온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송아지도 아이들도 다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16년동안이나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책과 같은 혁명가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책에게 아이들이 그 후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가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처남이 살아있으면 입에 풀칠은 할 것이다, 그러나 처남네가 잘못되었으면 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대문 밖에서 동냥질을 하더라도 죽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해방의 날도 보고 이 못난 애비도 볼게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영안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들들과 헤어져서 곧추 찾아간 곳이 영안현인데 거기에 있는 동만청총시절의 동료들과 만주총국시절의 친지들이 길림방면에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 그 지도자가 김성주라는 것,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인망이 있고 친화력이 강하다는 것, 군벌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석방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만청총에 길림선이 닿아있었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활동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안현일대에 길림에 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책은 동료들한테서 그런 말을 듣기 바쁘게 나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미 길림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대신 여관에서 그는 우연히 우리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김책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김책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가 길림에 오게 된 사유까지 듣고나서

김성주는 길림에 없다, 길림이 초행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물어물하지 말고 몸을 피하라, 지금 ≪적색5월≫의 여파로 군벌들이 혁명가들을 잡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여있다, 김성주는 훗날에도 만날 수 있으니 경찰들의 손이 뻗치기 전에 길림성안을 빠져나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자까지 주어서 바래주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책은 그 길로 북만 쪽에 갔다가 국민당군대에 붙잡혀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9.18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책은 그 후 감옥문을 나서기 바쁘게 또다시 군벌경찰한테 붙잡혀 미결수로 있게 되었습니다. 약식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판은 공산주의자이지만 아직 운동다운 운동은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군벌들의 손가락 하나 다친적 없는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형벌이였습니다. 당시의 만주땅이라는 곳은 말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김책은 사형장까지 끌려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떤 장교가 와서 쏘지 말라고 호통치더라는 것입니다. 반일사상이 강한 진보적인 장교였던 것 같았습니다.

김책은 그때 사형장을 떠나면서 세상이 영 무심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곡절을 겪는 과정에 그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젊어서부터 혁명을 하느라고 했지만 태반은 감옥이나 노상에서 보내면서 큰일은 치지 못하고 쫓겨다니기만 하다가 무장을 잡은 다음부터야 비로소 주동에 서서 적들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혁명가들을 허재비로 압니다.≫

김책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장을 하지 못하면 무장한 강도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무력한 존재가 되고 자기자신마저 지켜낼 수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의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옳은 교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김책의 반생이 도달한 교훈이기도 했지만 혁명투쟁의 일반적 합법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하며 민족적 독립이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모든 투쟁의 결말은 대체로 무장투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일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요인도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김구네 세력, 이승만이네 세력, 여운형이네 세력을 비롯하여 각이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본 것은 우리의 조선인민혁명군이였습니다. 왜 우리를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원이나 파업이나 붓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완강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의 승리는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진리의 정당성을 확증해주었으며 해방 후 우리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혁명적 건설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강유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게 하였습니다.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 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옵니다. 군대가 강해야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도 융성번영합니다.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가 됩니다.

오늘 **김정일**동무가 혁명무력의 수위에 서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

우고 군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데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역사적 업적으로 됩니다.

김책은 종파의 해독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별로 한 일도 없이 감옥으로 끌려간 것은 종파의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그때 자기는 감옥밥을 먹고나서야 공산주의운동을 재래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종파를 없애지 않고서는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길림에 나타난 새 세력이 조선공산당산하도 아니며 종파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참신한 새 세대들의 집단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세력이라면 서슴없이 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행로에서 인생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주하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그전의 생활은 방황과 모색과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하에서 유격대를 조직한 때로부터 그는 북만당과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의 주요직책에서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북만의 조중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책을 노숙하고 세련된 혁명가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김**사령을 주시해왔습니다. 우리 북만의 조선혁명가들이 사령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했는지 압니까. 우리는 늘 **김**사령부대가 있는 백두산쪽을 쳐다보며 싸웠습니다. 그때 길림에서 **김**사령을 만났더라면 내 그 동안 마음고생도 그렇게는 안하는건데…≫

김책은 계속하여 우리가 조국진군을 단행하여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제일 간절한 소원은 나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었으며 북만의 조선혁명가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싶었다고 하였습니다.

엄한 사람으로만 알려져있던 김책은 뜻밖에도 다감한 사람으로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가 북만에 파견한 사람들한테서 동만소식도 듣고 서간도소식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에서 제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은 관병일치,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이며 사상과 넋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면서도 조국해방을 주되는 투쟁강령으로 내들고 조선사람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해온 자주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우리의 투쟁행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한 대원의 총가목을 수리해준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혁명투쟁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우리를 거울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책은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책은 우리를 거울로 삼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가 혁명가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범같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대원들을 사랑하는 정치일군이었습니다. 그가 총가목에 대한 일화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와 비슷한 상하관계상의 일화들은 그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혁명군대의 전투력은 무엇인가, 동지애이다,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라, 사랑하되 자기의 심장처럼 사랑하라, 혁명동지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이 김책이 대원들에게 강조한 사상이었습니다.

한번은 어느 지대의 한 대원이 문건을 가지고 그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김책은 그 대원을 병실에서 재우고 문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자 바느실을 준비해가지고 그 대원이 자고 있는 병실에 찾아가 그의 해진 옷과 내의를 기워주었습

니다. 낮에 문건을 넘겨받을 때 김책은 벌써 그 통신원의 옷이 해진 것을 보고 기워줄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대의 대원도 아니고 딴 부대의 대원이었는데 친형이나 친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돌봐 주었던 말입니다.

김책은 싸움을 한 번씩 하고 나서는 대원들을 만나 그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해주군 했습니다. 대원들을 한데 모아놓고 축하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무가 성문을 돌파할 때 잘한 것은 무엇이고 위만군병실들을 들이칠 때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함화공작에서는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는 식으로 전투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주군 했습니다. 북만부대들에서 싸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원들이 그런 총화를 받고난 다음이면 싸움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장상룡

김책은 비판을 받은 사람이나 책벌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업도 아주 노숙하게 했습니다. 만일 어떤 대원이 지휘관한테서 충고를 받으면 꼭 그 대원을 만나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가를 알아보고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할 때까지 꾸준하게 설복하였습니다.

김대홍이 소대장으로 공작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은 그가 입대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총부사수를 되게 욕질한 적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단련되지 못한 그 대원은 적탄이 우박처럼 날아오자 총을 공중에 대고 쏘았습니다. 김대홍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비겁한 놈,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면 총을 놓고 부모들곁으로 썩 사라져!≫라고 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김책은 김대홍을 불러 동무, 대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돼, 그 사람이야 신대원이 아닌가, 싸움을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욕설인가, 동무는 그 대원에게 욕부터 할 것이 아니라 솔선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의 충고를 받은 김대홍은 그 후부터 절대로 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김책을 부하들을 어루만지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설복할 것은 설복하고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는 원칙성이 강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과오가 엄중하면 무섭게 다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책이 서거한 후 장상룡이 그를 회고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2년 겨울, 그러니까 김책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했다가 다시 만주에 돌아가 소부대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부대는 식량부족으로 고생을 몹시 하였습니다.

어느날 장상룡은 사냥을 하려고 진종일 밖에 나가 돌아다니었습니다. 곰 한 마리와 메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숙영지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잡은 짐승들을 감추어놓고 바삐 걸었지만 맥이 빠진데다가 길도 험해서 숙영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냥군들의 숙소에 들어가 하루밤 자고 다음날 아침 숙영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숙소는 김책이 특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처라고 하면서 사용금지령을 내린 집이였습니다.

장상룡이 사용하지 않기로 된 집에서 하루밤 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김책은 전창철을 불러 장상룡은 우리 대오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되게 문제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전창철은 지금까지 혁명을 위해 충실히 싸워온 동무인데 한번만 용서해주자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용서할 수 없다, 우선 밖에 내다가 3시간동안 세워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전창철은 그의 명령대로 장상룡을 밖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2시간도 되기 전에 장상룡은 벌써 몸이 꽁꽁 얼어들었습니다. 전창철은 보다 못해 김책에게 그만하면 장동무가 자기 과오를 충분히 반성하였겠는데 이제는 불러들이자고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책은 과오를 범한자의 처벌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규율위반이라고 하면서 전령병에게 전창철도 밖에 내다가 벌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3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장상룡을 천막 안으로 불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할 터이니 우선 식사부터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상룡은 밥상에 마주 앉았으나 밥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쳤기 때문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김책은 장상룡을 가까이에 불러앉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무는 자기의 과오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엄중시하는가, 동무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소부대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은 물론, 혁명임무까지 몽땅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막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동무는 자기 상급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하루밤 모험을 하였다, 거기에 특무들이 있었다면 어쩔번했는가고 하였습니다.


전창철

장상룡은 그때 그 한마디한마디를 뼈에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대신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법조항과 같이 드릴 수 없는 무게가 담겨있었습니다.

적들이 한때 북만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사기를 꺾어보려고 김책이 체포되었다, 박길송이 투항했다, 어느 지대가 귀순했다, 허형식이 어떻게 됐다 하고 엉터리없는 유언비어를 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날조라는 것을 알고 있은 유격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런 유언비어에 신물이 난 2지대의 지대장은 좋다, 너희들을 혼내주마 하고 적들을 골탕먹일 계책을 꾸미였습니다. 그는 부대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특무를 한 놈 유인해다가 그에게 빨치산이 투항하려고 하니 당신이 산에서 내려가 헌병대와 교섭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헌병대는 특무를 통하여 접선장소와 접선시간을 알려주고 지대장에게 후한 표창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순자대열을 인수하기 위하여 약속된 접선시간에 특무를 앞세우고 지정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적들은 수림속에 정열한 2지대의 대오를 보자 벌쭉벌쭉 웃으면서 그들에게 손까지 흔들어보였습니다.

이때 2지대의 대원들은 일제히 총을 내들면서 ≪꼼짝말라!≫고 고함쳤습니다. 지대장은 적들에게 이 어리석은 놈들아, 우리는 투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놈들을 잡아가러 왔다, 손을 들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적의 우두머리는 공산군은 거짓을 모르는 군대라던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대란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지대장이 그 말을 듣고 이 뻔뻔스러운 놈들아, 네놈들이 눈만 째지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신의는 무슨 신의란 말이냐, 네놈들이 하도 대포를 불기 때문에 우리도 대포를 불어본거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2지대는 적들을 몽땅 생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대장이 큰공을 세웠다고 칭찬들이 대단했습니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추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득범이 식량을 해결하려고 ≪투항≫을 광고했다가 되게 비판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책은 2지대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적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유격대도 거짓말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무슨 사고방식인가, 아무리 가짜귀순놀음이라 해도 어떻게 유격대와 투항이라는 말을 결부시킬 수 있는가, 혁명군대의 지휘관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무섭게 다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대장을 철직시키고 나머지 지휘관들도 다 강직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김책을 책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처벌을 망탕 주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휘관이 아니였습니다.

실례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한 대원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덤벼치던 나머지 척탄통알이 들어있는 배낭을 전장에 두고 척탄통만 가지고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임을 열고 그 대원을 비판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은 대원을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혁명군 부대들에서 간혹 보게 되는 일이였습니다. 비판무대에 오른 대원은 전우들이 주는 충고를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초급정치일군이 과오를 범한 대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람에 회의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김책은 과오를 범한 대원의 입대연도를 요해해보고 그가 신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책임은 그를 잘 교양하지 못한 지휘관들에게 있으니 책벌이 아니라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한 다음 초급정치일군이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사건은 확대되었습니다.

과오를 범한 신입대원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종일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날밤으로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조롭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문제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심각하게 번져갔습니다. 책벌을 주장하던 초급정치일군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인정사정없는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를 반혁명분자라고 규탄하는 사람, 처벌해야 할 사람이라고 기염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책은 이런 사태를 보고받고서 책임은 다른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대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정치일군이 있다는 것은 정치주임인 내가 일을 쓰게 못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초급정치일군을 자신의 호위반에 편입시키고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개별교양을 하였습니다.

김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휘관들과 대원들에게 군민관계와 상하관계를 잘 가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책은 우리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면서 조선혁명의 기치를 든데 대하여 자주성과 결부시켜 높이 평가하였지만 사실은 그자신도 조선인대원들에게 우리는 중국인부대에서 싸우지만 항상 조선혁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혁명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 자신이 해야 한다, 우리는 늘 자기조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견해, 인민에 대한 관점, 자주성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은 물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나와 김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책이 내가 자기의 생활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나도 처음부터 김책을 주시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그 말을 듣자 웃으면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도 못 본 사람들끼리 서로 주시하고 그리워했다면 그거야 연분이지.≫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나를 만나려고 길림에 찾아온 것이 1930년 여름이니 우리의 우정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북만부대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던 김책은 나이로 보나 혁명투쟁경력으로 보나 만주빨치산의 조선인군정간부들 중에서 좌상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였습니다.

또 나로 말하면 그때에는 아직 국가수반도 아니고 당총비서도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김책은 쏘련사람들앞에서나 중국사람들앞에서나 나를 조선혁명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어 그가 자기보다 9살이나 아래인 나를 그처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내세웠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책이한테는 혁명을 하자면 영도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 영도중심의 두리에 모두가 하나로 튼튼히 뭉쳐야 한다는 사상이 온몸에 꽉 차있었습니다. 영도중심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결국은 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책은 나를 만난 다음부터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어 시종일관 변함없이 나를 따르고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국이 어떻게 변하건 상관치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서도 김책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당건설도 하고 군건설도 하고 국가건설도 하고 산업건설도 하느라 편히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김책이 소갈데 말갈데를 다 갔습니다. 전선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충청도에까지 나가있었습니다. 자기는 최전선에 나가있으면서도 내가 전선에 시찰을 나가면 나의 수원들을 보고 여기가 어딘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오는가, 동무들이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인가고 생야단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안보에 갔던 사람들이 그때 김책이한테서 욕을 단단히 들었습니다.

길림시절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영도의 중심으로 내세웠다면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는 김책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자들이 나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나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에서는 영도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영도중심을 꾸리는데서 김책은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역사에서 김책이 차지하는 몫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원동의 기지에는 북만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와있었고 남만출신들도 와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곳에서 나서 자란 조선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가 자기 부대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혁명대오가 단합되지 못하고 중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동의 기지에 모인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지방주의라든가 영도권쟁탈과 같은 놀음이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결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책, 최용건과 같은 로장들이 처음부터 나를 내세우다나니 영도중심이 확고했습니다.

김책이 나를 어느 정도로 따르고 신뢰했는가 하는 실례를 말해주겠습니다.

김책은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한 후 1942년과 1943년의 대부분을 만주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만주에 나간 것은 북만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을 지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소부대들에 대한 지도가 끝난 다음에도 기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북만부대의 지휘관들인 허형식과 박길송이 전사한 후였습니다.

김책은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는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면서 지휘부에서는 여러 번 무전을 쳐서 그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매번 할 일을 다하고야 돌아간다는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김책이네 소부

대에는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지휘성원들은 무전을 받을 때마다 그의 처사를 두고 매우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이 변화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 있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직접 나의 이름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김책은 내가 무전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해서야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연합군 지휘부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이 왜 내 연락을 받고는 그 달음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은 그가 나를 그만큼 따르고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가 나를 들어오라고 했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 처사이다, 그러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내 말이나 요구를 절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책은 원동의 기지에 있을 때부터 진심으로 나를 내세우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1941년 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나갈 때에도 나와 동행하게 될 호위성원들 한사람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에 대한 최후공격작전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는 김책이 나도 모르게 국제연합군의 조선지휘관들만 따로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나의 신변호위와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각자가 경각성을 높여 **김일성**동지의 신변호위를 잘해야겠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과 조선혁명가들을 대표하는 영도자이니 목숨으로 옹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에 개선하자마자 김책은 나의 호위와 관련된 모임을 또 열었습니다. 조국에 와보니 듣던 것보다 정세가 훨씬 더 복잡하다, 테러분자들의 준동이 여간 심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평안남도당의 책임비서 현준혁이도 테러분자들한테 피살당했다, **김일성**장군이 개선했다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 공개할 때가 있으니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경위대원이 된 심정으로 **김**장군의 호위를 각별히 잘해야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후에는 그가 주동이 되어 경위대도 조직하였습니다.

김책이 나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못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직후에도 나는 사람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인민들과의 사업, 남조선혁명가들과의 사업, 외국인들과의 사업으로 정말 눈코뜰새가 없었습니다. 노사까 산조도 해방 직후 우리 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귀한 손님들이 와도 그들을 접대할 수 있는 봉사체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님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초대소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접대하였습니다. 우리 집이라야 밥 한 그릇에 국 한 사람이 고작이었습니다.

해방이 갓 되었으니까 별 수 없지 하고 다들 심상하게 여기였지만 김책이만은 이런 실태를 두고 상당한 정도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차린 식탁에 좋은 술을 내놓지 못하는데 대해 은근히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나라사정이 딱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군님댁에 손님이 올 때마다 어떻게 노상 되병을 들고 장마당출입을 하겠는가, 이제 공화국이 창건되면 우리 장군님한테로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겠는데 술공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우리 손으로 접대용술을 만들자,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술은 우리자체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술은 무엇이고 그 술을 만들어내는 양주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는걸 물색하기 시작

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술은 용강에서 만드는 술이였습니다. 그 술을 한 양주업자가 딸과 함께 만들어냈는데 해방 전에 일본인 고관들과 부자들이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김책은 그들을 찾아 용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책의 말에서 큰 충동을 받은 양주업자는 나라에 양주기술자가 필요하다면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강정숙이였습니다. 강정숙은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김책의 밥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술을 고았습니다. 그가 양주작업장을 꾸리기 시작하자 김책은 한 일군을 데리고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왔습니다. 김책의 숙소는 미구에 양주장으로 변하였습니다.


강정숙

며칠후 김책은 처음으로 뽑은 술을 병에 넣어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강정숙이 뽑은 첫 용강술입니다.≫

김책은 이렇게 말하며 잔에 술을 찰랑찰랑 부었습니다. 용강술이 최고라고 하던 항간의 소문이 뜬소문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술맛이 좋다고 하자 김책은 ≪그렇다면 됐습니다.≫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강정숙이 제조하는 용강술은 국가연회용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줄로 되어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책이 수령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절대화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채운 다음에야 통화를 시작하군 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석에 있을 때에도 나한테서 오는 전화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받군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노상 그렇게 했습니다. 수령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김책은 내가 없으면 자기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제일 준엄했던 때가 후퇴 때였습니다. 일시적 후퇴다, 전략적 후퇴다 하고 선포했지만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공화국의 운명이 끝장나는가보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적들이 사리원을 돌파하자 전선사령관인 김책은 중화, 상원, 강동 일대에 평양방위선을 구축해놓고 나에게 전선정황을 보고하면서 자기는 후퇴해 들어오는 부대들로 방위역량을 보강하고 끝까지 견지하겠으니 장군님만은 최고사령부성원들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며칠후 김책은 또다시 전화로 최고사령부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동무들도 적들의 공격을 그만큼 지체시켰으면 되었으니 이제는 후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후퇴하지 않고 당원증만 보내왔습니다. 결사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화로 김책을 찾아 동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평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김책은 방어부대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민군대가 재진격을 시작했을 때에야 그는 당원증을 찾아갔습니다.

김책을 매우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일군들도 있지만 사실 그가 무섭게 구는 것은 건달군들과 아첨쟁이들, 불평분자들, 이기주의자들, 탐위분자들과 종



최용건동지, 김책동지, 김일동지, 강건동지와 함께계시는 김일성주석님

파쟁이들앞에서였지 아내일군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무한히 인자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김책이 딴꿈을 꾸는 자들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에 박헌영도 그 앞에서만은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김두봉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김책이만 보면 슬슬 피해다니였습니다.

김책은 가식과 위선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해방 직후 그의 아들이 만주에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단추 2개가 달린 베적삼에 짚신바람이였습니다. 김책이 아들을 나한테 인사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짚신바람으로 어떻게 장군님을 만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런 때 어지간한 부모들 같으면 상점에 가서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신기고 난 다음 자식을 내 방으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책은 처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짚신바람이라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네가 **김일성**장군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말고 어서 들어가자, 지금까지 내처 발을 벗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부자집자식들 흉내야 낼 수 없지 않느냐, 장군님께서는 네가 짚신에 이렇게 입고 온 것을 더 좋아하신다, 네가 만약 좋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찾아왔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6년 만에 짚신바람으로 찾아온 아들을 데리고 김책이 내 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은 김책이보다 내가 더 울었습니다. 김책 자신도 속으로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가 오래동안 헤어졌던 자식들과 눈물나는 해후를 했지만 그들과는 네 해 남짓하게밖에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김책이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은 과로 때문이였습니다. 그가 안고 있은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51년 1월 30일입니다. 1951년 1월말이면 최고사령부가 건지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저녁 김책이 불쑥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지난달 24일 **김정숙**동무의 생일이였는데 수상동지가 적적해하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이 달도 다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처신이 잘된 것 같지 않고 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음이 늦어진 것을 두고 사과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나는 지난해 12월이야 북반부땅에 쳐들어온 미국놈들을 몰아내느라고 눈에서 불이 일던 때인데 언제 찾아다닐 경황이 있었는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김책은 왜 그런지 기분상태가 김책이답지 않게 감상적이였습니다.

그가 나보고 산보를 하자고 하기에 우리는 산보를 했습니다. 김책은 나에게 전쟁전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모르고 다니지 못하였는데 전쟁이 끝나면 여기에 휴양소를 하나 잘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해방

후 우리는 새 조국 건설로 몹시 바삐 보내다나니 어디에 휴식에 적합한 골짜기가 있고 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휴식이라고 해야 장수원다리밑이나 맥전나루터 같은 데 가서 발이나 씻고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 날 내앞에서 뒤축이 꿰진 양말을 감추느라고 애쓰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김책에게 일만 일이라 하지말고 몸을 좀 돌보시오, 이 엄동설한에 살이 보이는 양말을 신고 다녀서야 어떻게 견디겠소, 나를 생각해서라도 몸을 조심해주시오라고 하면서 새양말을 꺼내 신기였습니다.

김책은 그날저녁 나와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허가이가 갑자기 내앞에 나타나 당사업정형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외교를 하느라고 오래동안 이런말저런말을 하며 흐지부지하다나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책은 식사도 못하고 건지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최고사령부를 떠나면서 나를 보고 ≪장군님, 미국놈들과의 싸움은 저희들이 하겠으니 장군님께서는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십시오.≫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보니 왜 그런지 그날따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밤도 김책은 집무실에서 철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군의국장을 겸하고 있던 이병남보건상이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할 때 나는 그 사실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위성원들의 만류를 뿌이치고 대낮에 자동차를 달려 내각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 가보고서야 나는 이병남의 보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날밤 그를 내곁에서 재워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가 내곁에서 자고 갔으면 밤을 새우지 않았을 것이고 심장마비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후회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책이 나를 찾아온 날 밤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여보냈다고 해서 내 슬픔이 덜어질 리는 없겠지만 어쩐지 그게 지금까지도 속에 얹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책과 영결하던 날의 일들은 거의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똑똑하게 기억되는 것은 영구를 발인하기 전에 김책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처음으로 잡고 오래 놓지 못하던 손이였습니다. 10년 전에 잡아보고 그 따뜻한 온기를 평생 잊지 못했는데 그를 영결하던 그날은 얼음처럼 차거웠습니다. 지방에 현지지도를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선참으로 뛰어나와 내손을 부둥켜잡던 김책의 손이었습니다.

김책은 한생을 나의 충직한 전우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내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잊지 못합니다. 김책이 돌아간 다음 나는 그의 자식들을 친부모처럼 돌보아주었습니다.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잔치도 차려주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축하도 해주고 우리 집에 종종 불러다가 음식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책을 위해 무엇인가 더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 노상 허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혁명이 시련에 부닥치거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면 김책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김책의 묘앞까지 차를 타고 가지 못합니다. 그의 묘지를 찾을 때는 차를 타고가는 것이 죄스러워 대성산밑에서 내려 걸어서 올라가군했습니다.

김책이 저 세상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마음이야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혁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깊이 새긴 것 중의 하나가 동지에 대한 체험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입니다.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충직하고 의리깊은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말인데 뜻이란 곧 사상입니다. 일시적인 이해관계나 타산에 의하여 맺어진 동지관계는 공고할 수 없으며 때에 따라 쉽게 깨여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동지관계는 영원하며 총알도 단두대도 그런 동지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은 영도자에 대한 충정으로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동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책이 서거한 다음 우리는 그를 영원히 추억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 가까이에 있는 성진시와 그의 심혈이 깃든 청진제철소, 그리고 평양공업대학을 각각 김책시, 김책제철소, 김책공업대학으로 명명하고 인민군대의 한 군관학교도 그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김책시에는 그의 동상도 세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김책의 이름을 가진 도시와 공장, 대학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김책은 남의 뒤꽁무니에서 우물거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봉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건설에서 김책이 해놓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볼 때면 속으로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하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그가 산업상으로 일할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치차처럼 잘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김책과 함께 사업하던 일군들도 적지 않은데 동무들은 그가 우리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 바친 심혈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김책동지




새朝鮮건설에힘쓰자



3.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0. 3. 1 B야영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친필이 적혀있는 사진이다.

언제인가 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사진앞에서 이 사진은 자신께서 제일 아끼던 사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시절을 추억하실 때마다 **김정숙**동지를 자주 회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동지로, 잊을 수 없는 혁명전우로 살아계시였다.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남야영에 머물러있을 때입니다. 남야영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항일연군 1로군산하의 부대들이 초기에 사용한 워로쉴로브근방의 임시기지입니다. 남야영을 B야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한 해 겨울을 난 다음 나는 다시 만주와 국내에 나와 소부대활동을 벌였습니다. 1942년 여름부터 우리는 쏘독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급변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동북항일연군과 쏘련군부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뭇고 북야영에 정착하였습니다. 항일투사들이 A야영이라고 부르는 하바로프스크부근에 있는 기지가 바로 북야영입니다.

나는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다음 남야영으로 갔습니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남야영에 와있던 최현이 멀리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습니다. 그가 털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나를 눈이 떼꾼해서 쳐다보다가 웬 신사인가 했더니 **김**장군이었구만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현이 어찌나 포옹을 세게 했던지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였습니다. 그는 하바로프스크에서 회의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했는가고 투정 비슷하게 롱도 하였습니다.

남야영에서 동쪽으로 얼마간 가면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하는 철길이 있고 자그마한 철도역이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모인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자체로 병실도 더 짓고 주택도 짓고 창고며 식당이며 세면장도 지었습니다. 병실은 반토굴식이였는데 인민군대의 현재 병실들처럼 침대를 2층으로 놓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때 건설공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실앞에는 널직한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있을 때 국내와 만주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준비하면서 정치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대부분이 그때 처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간 다음부터는 식량걱정을 안해도 되었습니다. 끼당 200그램 정도씩 얇게 썬 빵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입에 잘 당기지 않았습니다. 입에 선 서양음식인데다가 찬도 변변치 않아서 다들 식성이 맞지 않아했습니다.

거기에는 후방차도 있었습니다. 그 화물자동차가 근처에 있는 부업농장에 다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후방물자를 날랐습니다.

운전수는 쏘련사람이였습니다. 이오송이 운전기술을 배우느라고 내내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였습니다. 어떤 날은 부업농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는 운전수를 따라 다니는 과정에 자동차운전법도 배우고 술도 배웠습니다. 그 운전수라는 사람이 술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오송은 그때 배운 밑천을 가지고 해방 후에도 얼마간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차라면 오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내 차를 몰다가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무들이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남야영에서 생활하던 쏘련전우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후방차운전수도 평양에 와서 옛친구인 이오송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원동에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던 그 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941년은 우리 혁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지만 세계적 판도에서 볼 때에도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입니다.

6월에 히틀러군대가 쏘련을 침공했고 12월에는 일본군의 진주만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였습니다.

참으로 1941년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불행한 해였습니다.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탱크와 대포앞에서 형체도 없이 박살나던 수난의 해, 전화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쏘독전쟁도 태평양전쟁도 아직은 미래의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낙관과 신념에 넘쳐 1941년을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조선혁명가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실현할 시각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봄을 맞으면서 소부대활동과 앞으로의 공동작전과 관련된 구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구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우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김책과 주보중이 남야영에 얼마동안 와있었는데 그들과도 자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바로프스크회의 후 소부대들을 편성하여 국내와 만주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날자가 박두하자 **김정숙**은 나와 소부대공작에 나갈 동무들의 길차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그때 이미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되었고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 벗이 되고 동지가 되고 한 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으로 본 것은 다홍왜회의를 하던 무렵입니다. 회의 후였던지 도중이였던지 삼도만에 갔습니다. 연길현에 속한 고장입니다. 삼도만 능지영이라



삼도만유격구에서 김정숙동지를 만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는 곳에 당비서처가 있었는데 **김정숙**은 그 비서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지영에서 소집된 비서처일군들의 회의장소에서 **김정숙**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후 나는 마안산에서 우리 부대에 편입된 **김정숙**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명화와 함께 만강에서 나를 맞아주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듣고보니 그는 의지가지할 데 없는 몸이였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곳이란 혁명전우들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후부터 내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김정숙이 우리한테 온후 무송현성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여투사로서의 담력과 지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무송현성전투에서 살아난 것도 **김정숙**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가 아주 심각한 전투였습니다. **김정숙**은 전투장에서 좀 떨어져있는 잘루목에서 7-8명의 여대원들을 데리고 아침식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루목에 밥을 지을만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연기가 나도 다른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갑자기 여대원들만 있는 잘루목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잘루목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부대가 앞뒤에서 얻어맞을 수 있었습니다. 정황이 몹시 위급하다는 것을 간파한 **김정숙**은 싸창을 뽑아들고 전우들과 함께 맹렬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여대원들의 드센 반격에 부딪친 적군은 숱한 주검을 남기고 퇴각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있은 후부터 그는 더욱더 전우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되었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장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에 무송원정을 떠났습니다.

무송원정이 힘든 원정이였다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도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만은 우등불곁에서 온밤 자지 않고 대원들의 해진 옷을 손질해주었습니다. 행군길이 하도 험하다나니 옷이 쉽게 해졌습니다. 신입대원인 마동희도 그 원정에 참가했다가 우등불에 모자를 태웠는데 **김정숙**이 새것처럼 기워놓았습니다.

후에도 체험한 바이지만 **김정숙**은 무슨 일거리든지 손에 잡기만 하면 온 심혼을 다 바쳐 맵시있게 마무리를 해놓군 하였습니다. 그날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탄복하였습니다.

무엇에 탄복하였는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자지못하는 그 남다른 성품과 인정미에 탄복하였습니다.

이 생활세부를 통하여 나는 여성으로서의 **김정숙**을 깊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휘관들이 **김정숙**을 도천리지하공작조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할 때에도 서슴없이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 일대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만만치 않은 수완과 능력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에게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 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안군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도천리와 그 주변 인민들이 경찰에 제출했다는 수백 명의 연명으로 된 ≪양민보증서≫는 **김정숙**에 대한 군중의 평정서와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인민들한테서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숙**이 한 몸을 내대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몸을 내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배심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까 위험한 고비에 부닥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1938년 4월 6도구의 적을 치고 나오다가 쌍산자라는 곳에서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나까지 기관총을 잡고 일선에서 적들을 쏘아눕히였습니다. 사면팔방에서 적들이 조여들다보니 우리는 어데로 빠질 데도 없었고 잠간 숨을 돌리며 식사할 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뜨끈해났습니다.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난데없는 만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얼핏보니 **김정숙**이 전장을 돌아다니며 전우들의 손에 만두를 쥐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만두를 하나씩 꺼내먹으며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작식터는 벼랑아래 샘터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음식그릇을 가지고 그 아찔한 벼랑을 어떻게 톺아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처럼 전우들한테는 늘 끼니를 번질세라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도 **김정숙**자신은 노상 배를 곯았습니다.

언제인가 부대에 쌀이 떨어져 모두 맨 감자만 먹고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감자도 여러 끼를 먹으면 대체로 새가 나고 입맛을 잃게 됩니다. 전우들이 며칠째 맨 감자로 끼니를 에우게되자 **김정숙**은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우들의 입맛을 돋구겠는가를 줄창 궁리하였습니다. 그는 감자를 갈아서는 전우들에게 지짐도 해주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볶아서 소를 넣고 떡도 해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감자음식을 모두 달게 들었습니다.

김정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지애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지애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 도덕의리가 최대한으로 발양된 비범한 혁명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 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 것이였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관념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였습니다.

김정숙의 동지애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 것인가를 알려면 한 장의 모포에 깃들어있는 사연만 들어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연길에서 살고 있는 **김정숙**의 전우인 서순옥이 나를 만나려고 평양에 왔다갔습니다. 그때 그가 모포 한 장과 쌍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순옥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일하던 동무입니다. 그의 남편 김명주도 한 때 주력부대에서 군사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무송지방에 나와 활동할 때 7연대에 있었습니다.


서순옥

서순옥은 최희숙이 요방자라는 고장에 지하공작을 나갔다가 데리고와서 입대시킨 여대원이였습니다. 입대당시의 그의 나이는 열대여섯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희숙은 서순옥을 부대로 데리고 올 때 그의 조카가지도 데려왔습니다. 엄광호가 청봉밀영에서 적의 밀정으로 몰아붙인 애숭이대원이 바로 서순옥의 조카였습니다.

서순옥은 **김정숙**의 사랑을 많이 받던 여대원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숙영지에서 늘 자기보다 몇 살 아래인 서순옥을 껴안고 잤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포 한 장을 함께 사용하군 했습니다. 그 당시 사령부가까이에 있은 여대원들이란 **김정숙**과 서순옥뿐이였습니다.

서순옥이 가져온 모포는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입니다. **김정숙**의 배낭에는 언제나 그 모포가 얹혀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배낭이 더 커서 누구인지 가려보기가 힘들 때에도 나는 모포를 보고 그를 알아보군 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이 소부대기지에 갈 때 그 모포를 그에게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그 기지에 김명주도 있었고 현철도 있었습니다. 김명주와 서순옥은 거기에서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서순옥은 떠나는 날 **김정숙**을 붙들고 자꾸 울였습니다. 한 모포밑에서 지내던 여성들의 이별이여서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줄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와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의 배낭에 그 모포를 넣어주면서 자, 기념으로 가지고 가거라, 새것은 아니지만 너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온 이 언니의 온기가 스며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서 그 모포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 모포가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라는 것을 인차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쌍안경도 내가 김명주에게 준 것이였습니다.

그때 그 모포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그것도 서슴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의 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자기 정을 줄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철학입니다.

김정숙의 동지애는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헌신성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도 그 본질은 동지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몇 끼씩 굶으면서 전투를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보니 **김정숙**이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주머니의 것을 꺼내서 펼쳐보았더니 잣을 알알이 까서 종이에 싼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어디서 얻은 잣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였습니다. 훗날 다른 여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직접 잣나무에 올라가 따온 잣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여러 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철

우리가 대사하치기에서 전투를 할 때 내 주변에서는 아슬아슬한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무리의 적들이 나한테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투를 지휘하느라고 그런 정황이 조성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었더라면 큰일이 일어날 번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쏴갈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산에서 여러 해 동안 입고 다니던 솜외투도 실은 **김정숙**이 지어준 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명주솜을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솜외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뜸두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낸 외투가 내몸에 꼭 맞는 것을 보자 그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나는 숙영지에서 밤을 새우거나 잠을 잘 때면 휴대하고 다니던 노루가죽을 땅바닥에 편 다음 그 솜외투를 덮군 했는데 그러면 몸이 훈훈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뜨개질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계로 편직물을 짜내는 시대이니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뜨개옷을 볼 때마다 **김정숙**을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뜨개질을 많이 했습니다. 작식일을 하느라면 일손도 딸리고 시간도 바쁘겠는데 시간을 어떻게 짜내고 털실을 어데서 구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짬만 생기면 책을 읽든가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산에서 털실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그때는 바늘 한 쌈을 얻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적들과 싸우느라고 사철 밖에서 자고 먹고 행군하는 나를 걱정하여 솜외투도 지어주고 배띠개도 만들어주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털양발을 떠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나는 언제인가 그에게 털실은 어데서 어떻게 구했는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한테는 털양말이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말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자꾸 캐여묻자 마지못해 ≪장군님은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 그런건 몰라도 됩니다.≫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나를 위해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내가 신은 양말이 해지면 깁지 않고 그것을 풀어 실토리에 감았다가 새로 양말을 뜨군했습니다. 온밤 자지 않고 떠서는 아침이면 내 침상곁에 놓아두군 했습니다. 상점이나 시장에 가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양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서는 실이 삭아서 못쓰게 될 때까지 그냥 풀어서 쓰고 풀어서 쓰고 하면서 제 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으로 양말을 떠서는 나에게 신기였습니다.

그는 양말 한 켤레라도 제 손으로 직접 떠서 나에게 신기고 싶어했습니다. 여성들의 정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김정숙의 그 남다른 정성앞에서 한번은 내가 본의 아니게 성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던지 그가 내 옷을 빨아서 제 몸에 품어 말리웠다가 내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노릇이였지만 그 소행에 감탄한 여대원들이 뒤에서 **김정숙**을 칭찬하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옷가지를 몸에 띠고 말리웠다는 말을 난생처음 들은 나는 아연해서 **김정숙**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얼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는 생각을 하니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정숙**동무, 나를 위한 동무의 정성에는 나도 머리를 숙인다, 그것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무가 어쩌자고 그런 노릇을 하는가, 그러다가 촉한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텐가, 동무가 자기를 희생한 값으로 내가 덕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고생이야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장군님만 무탈하시게 된다면…≫

비록 **정숙**이 앞에서는 성을 냈지만 나는 그를 돌려보내고나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순간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정성속에 어머니가 못다주고간 사랑도 겹쳐져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열기를 젖은 옷에 빼앗기고 오한으로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김정숙**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김정숙**은 몸으로 나의 젖은 옷과 내의와 같은 것을 말리워주군 하였습

니다. 그러고보면 **김정숙**은 몸으로 나에게 날아오는 총탄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촉한도 막아준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들이 우리가 걸어온 항일혁명의 길을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 뿐 아니라 사랑에서도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고했지만 백두산 부석우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굶지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춥지않게 하며 자기는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속에도 들어가고 형틀앞에도 나서고 얼음구멍에도 뛰어드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헌신성만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다음 만경대에 가니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산에서 싸울 때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들러리는 누가 섰으며 상은 어떤 사람들이 차려주었는가고 자꾸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답하자니 갑자기 목이 메고 말문이 막히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자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슴아파할 것 같고 친척들도 섭섭해할 것 같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는 결혼식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활이 간고하고 어렵기도 하였지만 나라를 찾지도 못하고 망국민의 수치를 씻지도 못한 처지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오에는 그런 호사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격대식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원들앞에서 오늘 아무개동무와 아무개동무가 결혼을 한다고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처럼 첫날옷을 차려입고 큰상을 받는 것같은 예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좀 괜찮은 경우라야 밥 한 그릇이 고작입니다. 밥이 없으면 죽을, 죽이 없으면 감자나 강냉이 같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런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부로 선포된 다음에도 소속 중대나 소대에서 종전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쓰러진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이 결혼하던 날 전우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해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온 부대가 식량이 떨어져 끼니도 잇지 못하는 때에 어디서 무엇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날옷도 큰상도 주례도 들러리도 없었지만 그 혼례가 한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정숙**이도 생전에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했습니다.

새 세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형편에서 달리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멋으로 여기였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의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백두산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조국이 해방된 다음 전우들의 결혼식을 잘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를 찾고보니 그것도 마음뿐이

였습니다. 해방은 되였으나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못하고 식량사정도 무척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 장시우가 나를 찾아와 빨치산출신이라는 사람이 평남도당의 자금을 꺼내다가 개인잔치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가고 들이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고 물으니 김성국이 도당의 돈을 꺼내갔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성국을 방에 불러다놓고 이을설이더러 그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무슨 권한으로 도당자금을 마음대로 다루는가고 추궁하였습니다.

김성국이 울먹거리면서 ≪손종준이 잔치를 하는데 첫날옷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자고 그랬습니다. 혈육도 친척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쩝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유격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그렇지만 나는 김성국을 호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손종준에게 첫날옷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면 좋다는 것이야 낸들 왜 모르겠는가, 그렇데 지금 어디 그럴 형편이 되였는가, 밥 한 그릇도 변변히 떠놓지 못하고 결혼식을 하던 지난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동무가 당에다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에 빨치산 출신답게 동서남북을 살펴보면서 처신을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김성국을 돌려보내긴 하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의 결혼식을 잘 차려주자고 애를 쓴 김성국의 그 마음이야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에 와서 결혼을 많이 했지만 다들 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게 늘 속에 얹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동무는 그들이 생일 60돌, 70돌을 맞을 때에는 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보내주군 합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런 낙도 보지 못하고 30살을 넘기기 바쁘게 이렇게 사진만 나기고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나와 정숙이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것도 우연이였습니다. 아마 혁명전우들이 관심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조차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동무들이 나를 찾아와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자고 하였습니다. 사진기도 얻어왔으니 **김**장군은 얼굴만 빌려주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밖에 나가니 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했지만 어데서나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나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에 기대여 전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남야영에 와서 만난 기념,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는 소부대공작기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둘씩, 셋씩 패를 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창 찍고 있을 때 여대원들 몇이 어떻게 낌새를 챘는지 우리곁에 달려와 자기들도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대원들과도 몇 장 찍었는데 그들이 나와 **김정숙**이더러 둘이서 함께 찍으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자 부끄럼을 타면서 여대원들의 등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대원들은 **김정숙**의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었습니다. 그는 내우를 하며 어쩔 바

를 몰라했습니다. 전우들이 등을 떠미는 통에 그가 웃으면서 내곁에 밀려왔습니다.

동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내가 일생에서 개별적으로 여전우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그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와 **김정숙**에게 있어서는 결혼사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혈기왕성한 청춘들이였습니다.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때였습니다. 타향에서 봄을 맞이했지만 다들 신심에 넘쳐있었고 기세도 좋았습니다.

나나 **정숙**이로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잊을 수 없는 봄이였습니다.

나는 그 봄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 사진뒤면에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야영구에서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역사에 남아 이처럼 큰 박물관에 전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항일혁명을 20년동안이나 했는데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진을 찍자고 발기한 동무들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였습니다.

김정숙은 다른 여대원들과 꼭같이 중발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머리모양새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머리칼을 군모안에 모조리 몽그려넣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나갈 때였습니다. 쏘련국경을 넘어 훈춘땅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발이 후끈후끈해났습니다. 처음에는 행군을 많이 해서 그런가보다하고 무심히 생각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와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았더니 바닥에 머리칼로 만든 깔개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에야 **김정숙**이 방안에서도 별스럽게 군모를 벗지 않고 지내던 것을 상기하고 그가 나를 위해 머리카락을 솎아서 신발깔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이 군모를 쓰고 있은 것은 숱이 성글어진 머리를 남들에게 보이기가 멋적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안길이도 가고 최현이도 가고 **정숙**이도 가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랑, 안길이랑, 최현이랑 기대여 서서 사진을 찍던 그 나무도 지금쯤은 거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야영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여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지성을 다해 나를 받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느정도로 나에게 세심하였는가. 며칠에 한번씩 갈아대는 목달개도 풀을 먹여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듬이질을 해야 목달개가 노긋노긋해지고 목에 닿아도 뻣뻣한 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을 먹인 목달개가 인두나 다리미로 다리면 뻣뻣해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다듬이질도 내가 없을 때에만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한번도 다듬이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실성과 관련된 일화를 한 가지 더 말해주겠습니다.

조국해방 전야에 내가 대일작전회의에 참가하려고 모스크바에 가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밤 나는 초대소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숙**이 큰방에 책을 가득 가져다 놓고 나에게 이 책들을 마음대로 골라보십시오, 이만한 책이면 사령관동지께서 일생동안 보아도 다 못보실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에서 깨여난 다음 동무들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될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질을 해가며 한참동안 어마어마한 해몽을 하고나서는 꿈을 보면 내가 장차 운이 굉장하게 트일 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모스크바에서 돌아와 **김정숙**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웃으면서 좋은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한 달, 두 달 흐르는 사이에 그 꿈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 꿈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광복된 다음 우리가 해방산기슭에 집을 잡고 살 때 그는 서재에 책을 가득 채워놓고 나더러 해방도 되었으니 이제는 책을 마음껏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김정숙의 한 생은 나를 위해 바친 한 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시종일관 나를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수령으로 내세워주고 받들어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과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동지와 동지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김정숙은 자기를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까지 나보고 보통 집안에서 쓰는 호칭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를 때에는 그저 장군님이라고 하든가 수상님이라고만 하였습니다.

해방 후 언제인가 여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역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은 일생동안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다. 일생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서 그와 영결할 때는 손목에 시계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시계를 채워보낸다고 그가 한평생 나를 위해 바친 지성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그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사연도 없는 보통시계라면 그런 궁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계가 사연이 깊은 시계였습니다.

어느 해였던지 우리 할머니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값이 좀 나가더라도 어디서 좋은 여자시계를 하나 구할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벽시계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여자용시계를 찾는데다가 그것도 좋은 것으로 구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용 시계를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다는데 그게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온 지도 퍼그나 되는데 이 할미가 상을 차려준게 있나 옷 한 벌 해준게 있나, 그래서 시계라도 채워주려고 그랬다면서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용하시던 권총

정숙이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손자며느리에게 부어주는 할머니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전에 떠나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김정숙**을 위해서 해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해마다 잊지 않고 소박하게나마 내 생일상을 차려주었지만 나는 가정을 이룬 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에게 생일상조차 차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생일에 대해서는 말조차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정숙**의 성품이였습니다.

김정숙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점심참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에게 술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동안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부을터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 생에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였는데 그것이며 더 바랄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이 돌아간 이듬해에 여투사들이 돈을 모아 당에 바치면서 그의 묘를 잘 꾸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란봉에 안치된 **김정숙**의 묘에 가보니 쇠울타리도 치고 석축도 하고 화강석으로 계단을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사장에 나와 일하는 여투사들에게 내가 동무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다, 저 집들을 보라, 인민들은 아직도 저런 작은 집들에서 살고 있다, 지난날 그렇게 피눈물속에 고생해온 인민인데 아직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런 때에 동무들이 화강석으로 묘를 꾸린다는 걸 **정숙**이가 안다면 인민들앞에 얼마나 미안해하겠는가, 동무들이 정 성의를 표시하고 싶거나 묘주위에 꽃이나 나무를 심으라, 그리고 그가 생각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휴식도 하고 묘도 보라, 이것이 **정숙**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저 화강석은 건설장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송두리채 바치고 세상을 떠나간 **김정숙**이였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재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비한 돈은 내가 받은 생활비였고 그가 사용한 집과 가구들은 다 나라의 것이였습니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영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준 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에도 **김정일**동무를 불러앉히고 그에게 아버지를 잘 받들라는 것과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김정일**동무에게 남긴 유언으로 되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긴 후 3시간이 지나서 **김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김정숙**을 자주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치마저고리도 입고다녔지만 어째서인지 사복을 입은 모습보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몸으로 말린 옷을 들고 나를 찾아왔을 때 오한으로 떨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단연예대를 데리시고 항일유격대를 찾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애국미를 가지고 찾아온 한 농민을 따뜻이 맞아 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건립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방침을 해설해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정숙동지께서 태어나신 회령생가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농민들과 여러차례만난 집

김정숙동지의 지하임무 수행에 대한 자료



회령혁명사적지-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동상



김정숙동지의 지하임무 수행에 대한 자료

4. 소부대활동의 나날



소부대활동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때 일본의 어용출판물들은 항일연군부대들에서 지휘관들이 희생되면 그 부대가 다 녹아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관동군 사령부를 비롯한 일만군경 역시 항일연군의 많은 역량이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격대가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항일무장부대들이 다 녹아나고 우리의 항전이 종말을 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노조에가 사령부를 길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지역인 연길로 옮긴 것은 무엇때문이며 양정우를 치는데 돌렸던 병력까지 다 끌어다가 백두산동북부에 들이민 것은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또 빨치산토벌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무력과 함께 철도경호대와 협화회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몽땅 내몬 것은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우리는 소부대활동시기에도 계속 총소리를 냈습니다. 무의미한 충돌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적들을 되게 답새겼습니다.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큰 규모의 싸움은 물론 피했습니다. 그 대신 대중정치공작과 정찰활동에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국내에 많은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전민항쟁준비도 하였습니다.

소부대와 소조의 인원은 경우에 따라 각이했으나 소부대는 보통 10명 안팎으로부터 수십 명으로, 소조는 수명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은 사명과 임무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소부대와 소조를 편성한 다음에는 해당한 임무와 활동구역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임무분담에 따라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를 두는가 하면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도 두었으며 정찰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도 두었습니다. 그러되 그 분공이 고정불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황에 따라 정찰소조가 정치사업을 하기도 하고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조가 정찰과 정치사업을 동시에 맡아보는 식으로 다른 임무를 겸해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대편성이 끝난 다음에는 소부대나 소조들이 의거할 임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 이후 건설된 대표적인 임시비밀근거지들로는 연길현 도목구부근기지, 화룡현 맹산촌부근기지, 안도현 황구령기지, 왕청현쟈피거우기지 등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은덕, 선봉, 무산, 나진으로부터 종심깊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시비밀근거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임시비밀근거지들

에는 소부대가 있을 밀영과 통신연락장소, 비밀회합장소, 후방물자보관장소 등을 두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할바령회의 후 몸소 경위중대의 일부 대원들을 친솔하시고 안도현 황화전자부근 사득판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소부대활동의 시범을 창조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전투를 두고 아래와 같은 회고를 하시었다.

황화전자부근에서 있은 싸움은 소할바령회의 후 우리가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가면서 벌인 첫 전투입니다. 소할바령회의가 끝난 다음 1개 분대가량 되는 경위대원들을 데리고 한총구에 갔다 돌아오다가 황화전자라는 곳에서 불의에 적과 조우전을 벌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마당거우나 남패자와 마찬가지로 황화전자라는 지명에도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사람들을 보고 황화전자가 무슨 뜻인가고 물으면 서로 엇갈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국화가 많이 피는 사득판이라는 뜻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처녀총각의 사랑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황화전자라는 고장을 여러 번 지나 다녀보았는데 들국화도 그닥 많지 않고 원추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득판은 있었습니다. 전투는 바로 그 사득판에서 붙었습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는 황순희도 섞여있었습니다. 최현에게 소할바령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방침을 전달할 임무를 주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몸은 체소했지만 날파람도 있고 책임성도 높았습니다. 황순희는 최현부대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 황화전자 뒤산에서 잠간 휴식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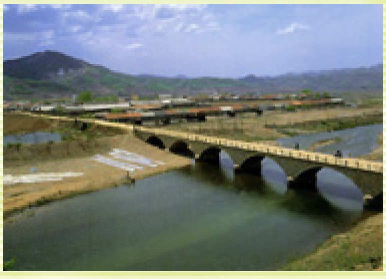
나는 대원들을 휴식시키면서 저 사득판을 어떻게 돌파하겠는가 하는걸 궁리하였습니다. 사득판가운데 큰 물도랑이 있고 그 우에 외나무다리가 놓여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몇 길이 될지 모르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외나무다리를 건느고 산 한두 개만 넘으면 우리가 임시 비밀근거지로 내정한 연길현 도목구까지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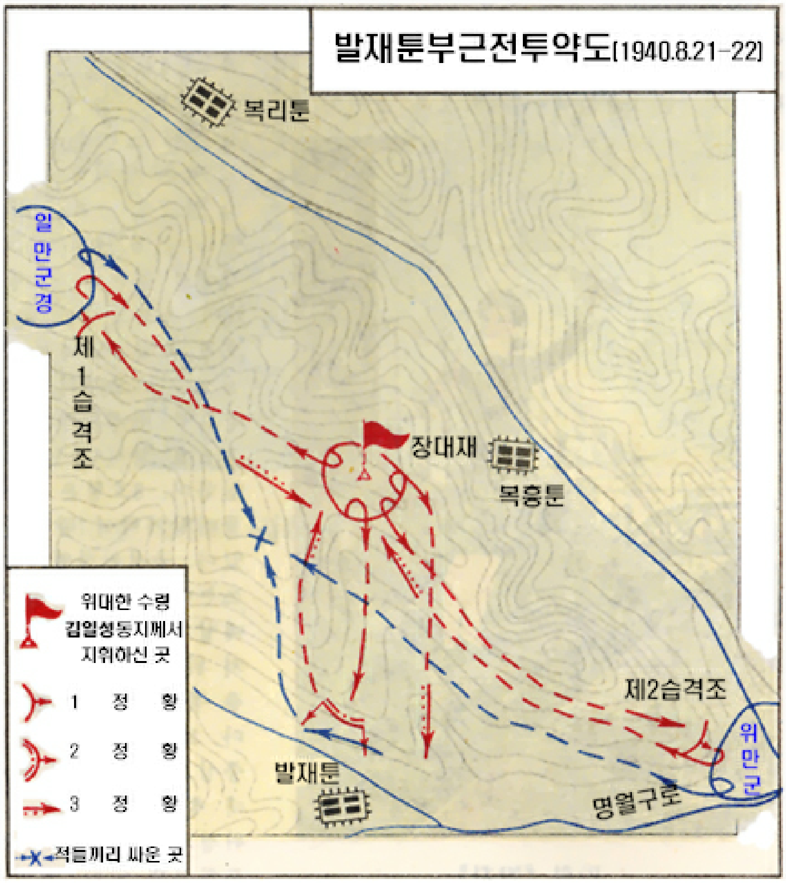
그런데 다리건너편에 적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다리목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나다를가 건너편에서 무슨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혹 반디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분명 적들의 전지불이였습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야 도목구로 가겠는데 적들이 어둠속에 도사리고 있으니 야단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외나무다리에서 원쑤와 맞다든 격이었습니다.

무장투쟁을 하는 나날에 적의 포위에도 들어보고 사지판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그때처럼 정황이 급박하고 방도가 떠오르지 않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다리를 건느지 못하면 수십 리를 에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죽으나사나 가던 길로 곧추 가야 하였습니다. 내가 정황을 살피며 방도를 찾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대원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참만에야 나는 적들이 눈치채기 전에 감쪽같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결단을 내리고 대원들에게 출발구령을


안현 화전자



주었습니다. 모두가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후위에 선 내가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 풀숲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기관총수에게 적의 기관총수를 답새기라고 명령한 다음 대오를 큰길 쪽으로 빼돌리였습니다. 그때 전문섭이와 황순희가 나를 결사적으로 보호해주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였습니다. 한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데다가 적의 총알이 비발치듯하였으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그 위험한 함정을 헤쳐나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천행이였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조성된 정황에 놀라 당황하거나 제때에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더라면 적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큰 손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길 쪽으로 한창 빠지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앞에서 적들이 나타났다는 척후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목에서 울리는 기관총소리를 듣고 대기했던 주력이 밀려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에 다리쪽으로 되돌아서서 급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였습니다. 대원들을 시켜 다리목의 적과 꽁무니를 따르는 적들에게 총을 쏘고 옆으로 슬쩍 빠져 산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휴식구령을 내리였습니다.

대원들은 산중턱에 앉아 숨을 돌리였습니다. 그럴 때 다리목에 있던 적들과 대도로쪽에서 밀려온 적들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안도지방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적들은 저희들끼리 총격전을 벌이다가 무리주검을 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총질을 시작했느냐 하는 책임추궁이 따르고 외

나무다리목을 건너온 것이 귀신인가 빨치산인가 하는 비명도 터지고 적들 내부가 온통 수라장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연길현 발재툰과 안도현 오도양차 부근에서도 숱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연길현 발재툰일대에서는 황화전자에서와 달리 3개의 습격조에 의한 습격전법과 망원전술을 배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적들은 저희들끼리 총격전을 해서 많은 무리주검을 냈습니다.

이런 싸움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몇 개 소부대가 역량을 한데 합쳐가지고 큰 대상을 쳐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부대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때로 큰 싸움을 배합했기 때문에 적들은 인민혁명군이 대부대전으로부터 소부대전으로 전술을 바꾼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황순희

황순희한테서 소할바령회의 방침을 전달받은 후 최현이네도 소부대활동을 잘했습니다. 최현이네 부대들은 왕청현에서 먼저 대부대로 광성툰과 소성자의 적을 친 다음 소부대로 분산하여 사방으로 오가면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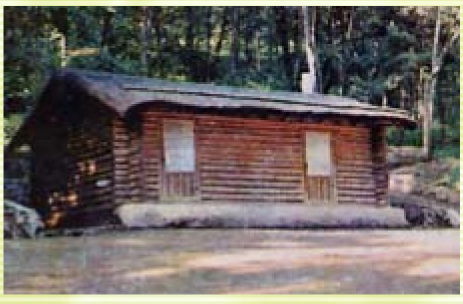
연길, 화룡, 안도현에서는 오백룡이네 소부대들이, 훈춘과 동녕현일대에서는 김일, 손장상의 소부대들이, 동녕현과 영안현, 목릉현, 오상현 일대에서는 한인화와 함께 박성철, 윤태홍이네 소부대들이 싸움을 벌이었습니다.

온 동북땅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는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으로 죽가마처럼 끓어번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바로프스크회의 후 자신께서 친히 지휘하신 소부대활동정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시었다.

이전에는 소부대, 소조들이 주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였지만 이 시기부터는 국내종심깊이에로 뚫고들어가 조선남단의 군사요충지들과 멀리 일본본토에까지 활동지역을 확대해나갔습니다.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내용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내와 동북일대에서 파괴된 당조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새로 꾸리며 남아있는 무장부대들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는 사업, 전민항쟁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확립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각지의 비밀근거지들을 보강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 국내와 동북일대에서 애국적 청장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확대하며 군사적 골간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봉읍뒤산
임시 비밀근거지의 귀틀집

동시에 적극적인 습격전과 매복전, 파괴전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전쟁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투쟁, 적의 군사시설과 기지, 요충지들에 대한 군사정찰활동과 적통치체계와 적군의 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한 투쟁 등을 폭넓게 벌려나갔습니다.

그 시기의 소부대활동에는 동북항일연군 부대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별로 소부대활동지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관하의 부대 그리고 일부 2로군부대들은 조

선국내와 동남만지역을 맡았고 제2로군의 기본부대들은 홍개호 이북으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3로군부대들은 경성, 철리, 해륜을 비롯한 여러 현들에서 소부대작전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백두산과 원동의 임시기지를 왔다갔다하면서 국내와 동남만에 대한 소부대활동을 시도하는 한편 군정학습도 동시에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부대활동에 나갔다가 기지에 돌아오면 정치학습과 현대전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영

남야영에서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망라된 소부대를 데리고 내가 제일 먼저 백두산 동북부와 국내에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현이네 소부대와 안길이네 소부대도 정황을 보아가며 국내와 만주에 나가기로 하고 활동구역과 임무를 정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기지를 떠난 것은 1941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 소부대가 해야 할 기본임무는 동남만일대에 남아 투쟁하고 있는 소부대들과 소조들과의 연계를 맺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는 것이였습니다.

이와 함께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새 조직들을 건설하며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선발된 청년들로 무장대오를 늘이는 한편 그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과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간부들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한 활동목적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위증민의 행처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내와 만주정세는 험악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1년 초봄부터 새로운 토벌작전에 달라붙었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해산되고 그 권능이 관동군사령부에 이관되었습니다. 관동군의 기본부대와 각 지구별 위만군 군관구사령부들과 관동헌병대사령부 관하의 모든 토벌대들이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더욱 미쳐날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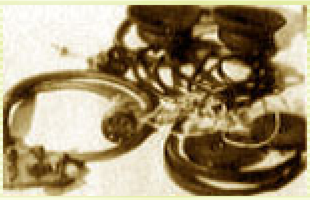
그래서 내가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적구로 나가는데 대하여 걱정하면서 일부 지휘관들은 정세를 좀 보아가며 행동했으면 하였습니다. 김책도 처음에 나의 신변을 염려하여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나는 소부대공작을 떠나면서 중대장으로 유경수를 선발하고 정치지도원으로는 김일을 임명하였습니다. 전령병으로는 전문섭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를 전령병으로 임명할 때 김책은 그에게 내곁에서 한발자국도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소부대의 무전수로는 안영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동만에서도 활동하고 북만에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교단에서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주의교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만에서 활동할 때는 순회극단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군중계몽사업도 하였습니다.

안영은 식견이 높고 생활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북만에서 대중공작을 할 때 남의 집 부엌데기노릇도하고 약담배밭에 가서 품도 팔았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사용한 무전기부속품

우리가 만주로 떠나면서 안영을 무전수로 선택한 것은 그가 북만부대에 있을 때 쏘련에서 무전강습을 6개월동안 받고 나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영의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를 콧수염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소부대의 인원이 3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소부대전원

이 일본군복으로 변장했는데 그럴듯했습니다.

우리일행은 4월 상순 어느날 심야에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국경을 넘은 다음에는 옛 근거지자리를 밟으면서 백두산 동북부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우리가 백두산동북부에 가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구를 해산하고 서간도쪽으로 진출하자 적들은 동만과 백두산 동북부 일대에서 전면적인 파괴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과를 수습하기 위해 무산지구전투후 백두산 동북부에서 다시 진출하여 이 일대에 대한 혁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우리가 잠시 쏘련에 들어가있는 짬을 타서 적들은 또다시 이곳에 정규무력을 들이밀어 대대적인 파괴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동만은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백두산동북부에서 혁명을 다시 앙양시키자면 소부대와 소조들의 과감무쌍한 활동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실체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군중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안도, 왕청, 연길, 훈춘, 돈화 일대를 휘저어놓은 다음에는 백두산에 나가 서간도 일대와 국내에 혁명조직을 더많이 꾸리는 한편 전민항쟁역량을 강화하며 애국적인 청년들을 수백 명 선발해다가 백두산근거지와 원동의 기지에서 군정간부로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소부대가 며칠간 강행군을 하여 도착한 곳이 큰곰의골밀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골안이었습니다.

언제인가 연변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왕청, 동녕, 훈춘 세 현계에 있는 유격대 숙영지자리를 찾아냈다고 하면서 답사과정에 찍었다는 녹화테이프를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 그 지대가 바로 우리 소부대성원들이 임시 비밀근거지로 정한 고장 비슷했습니다.

이 골안에까지 오고보니 벌써 지고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김일이네를 금창에 보냈습니다. 왕청현 금창부근에 가서 금광을 치고 식량도 해결하고 군중공작도 하라고 했습니다.

큰곰의골기지근방에서 전문섭이 곰을 잡았는데 대단히 컸습니다. 여럿이 목도를 해서 겨우 기지까지 날라왔습니다. 그때 그 곰한테서 기름을 한초롱이나 뽑았습니다.

며칠후 김일이네가 식량을 해결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통한 얼굴빛으로 공작도중에 장흥룡이 전사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장흥룡이 전사한 것은 지갑룡이 때문이었습니다. 금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밥을 해먹고 가자고 우겨대는 바람에 한 시간쯤 지체했는데 그사이에 뒤따르던 적들이 소부대가 있는 장소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은 지갑룡이 밥을 해먹고 가자고 할 때 그 제의를 물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흥룡의 희생은 우리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였습니다. 소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가 과오를 씻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쓰렸습니다.

장흥룡의 희생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인대원 1명이 적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우리 부대의 행정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김일성**이 나타났다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

하면서 기를 쓰고 우리를 추적해왔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적이 노출된 것이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적들이 **김일성**부대가 나타났다고 떠들어대게 되면 그 사실이 인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서 투쟁한다는 걸 선전하는 것으로 될 것이란 말입니다. 소부대의 행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적들 자신이 우리를 선전해주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종적을 감추기 위하여 그 후 영을 넘어 태평구쪽으로 행군하였습니다. 5월 상순에는 왕청현 쟈피거우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쟈피거우에서 김일과 헤어졌습니다. 그가 소부대 하나를 데리고 쟈피거우를 임시 비밀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그 소부대의 활동구역으로 된 나자구와 도가선일대에는 유격구시절에 우리가 손때를 묻혀 키워놓은 조직성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일에게 여기 어디에 최춘국의 가족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니 연계를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무전수 안영도 보조성원 2명을 데리고 쟈피거우기지에 남게 했습니다. 쟈피거우기지는 중간연락소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나는 20여명쯤 되는 대원들을 데리고 백두산동북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하여 쟈피거우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돈화현, 안도현, 무송현, 화룡현, 연길현 등 동만의 여러 현들을 선회하면서 활동할 작정이었습니다.

우리소부대는 돈화현을 거쳐 안도현 한총구에 기지를 꾸리고 연락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총구는 내가 위증민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한총구에 이르니 절기가 바뀌여 숲이 무성해지고 한낮이면 더웠습니다.

한총구에서 정치공작소조들을 장백과 돈화, 처창즈, 국내와 백두산 등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때 장백일대에 파견된 사람은 한창봉과 한태룡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장백지방의 지하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며 우리 대원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 조직의 줄을 달아 국내에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장백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일가친척을 다 조직에 망라시키고 국내에 박아넣으면 전민항쟁조직을 꾸리는데 크게 한 몫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원동기지로 보내라는 임무도 주었습니다.

나는 한창봉과 한태룡에게 장백 도천리에 가면 누가 있고 또 어디가면 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하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국내에 나가 노동계급속에 틀고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섭과 김홍수는 처창즈치기에 가서 우리가 그전에 묻어 놓았던 무기와 지도를 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돈화 쪽에 공작나갔던 동무들이 대황구부근 밀림속에서 산짐승잡이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던 박가성을 가진 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원래 화전현에서 반일회에 관계하던 지하조직원이었습니다.

나는 노인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산마다 일본놈 토벌대가 쫙 깔려있고 주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부대들이 거점으로 삼군하던 숯구이막이나 아편재배막, 도가집, 동굴 같은데도 다 밀정들이 틀고앉아 있는데 조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인민들을 집단부락에 말짱 가두어넣고 왕래마저 통제하는데다가 서로 감시까지 붙여놔서 지하공작이 정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격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건 힘껏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돈화현 소재지와 집단부락들에 드나들면서 조직관계자들의 명단을 가져

오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구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여 이 일대의 조직들을 재빨리 복구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은 적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부대활동시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았습니다. 적후에서 하는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인민들의 지지야말로 우리에게 크나큰 고무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대한 인민들의 이러한 지지는 사실상 그들이 벌써부터 전민항쟁에 떨쳐나서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하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1로군의 남아있는 부대들과 위증민의 행방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를 3개 만들어서 돈화현과 화전현 그리고 안도지방과 화룡현 북부, 무송현일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류경수

그때 유경수가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가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화전현 쟈피거우로 가자면 푸르허강을 건너가야 하였는데 물이 불어난 때여서 건너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강줄기를 올리훑고 내리훑다나니 식량도 다 떨어지고 돌아와야 할 날자가 되었습니다. 유경수는 며칠간 굶은데다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너무 속을 태우다나니 병이 나서 몹시 앓았습니다.

쟈피거우에는 누구든 꼭 갔다와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경수를 보내려던 곳에 내가 직접 소부대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막 한쪽에서 정신없이 앓고 있던 유경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척거리며 내앞에 나서더니 장군님, 장군님은 가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내가 못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떼를 쓸 때에는 설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고통스러운대로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는 그가 어떤 인간인가를 검열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우리의 유격투쟁은 매 분초가 그런 검증의 순간이였습니다. 자기를 바치는가 마는가 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있었습니다.

유경수는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자기를 육탄처럼 내던지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어려운 모퉁이에 늘 그를 보내군 했습니다.

헐한 일은 전우들에게 맡기고 힘든 일은 자기가 맡아하며 영광의 자리에는 동무들을 내세우고 책임추궁이 가해지면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서 찾고 어떤 처벌이나 책망이든지 달게 받아들이는 여기에 바로 유경수의 인간적 매력이 있고 그가 만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경수가 화전현 쟈피거우로 떠날 때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량을 다 털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유경수는 전문섭에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식량은 있는가고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전문섭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 그는 전령병이란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고 되게 다불리면서 배낭의 쌀을 도로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여러 날만에야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나를 만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여진 신발을 벗겨보니 발이 썩어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에 미음을 떠넣으니 간신히 눈을 뜨고 사업보고부터 하였습니다.

그들은 쟈피거우일대에서 유격대와 연계가 있는 한 농민을 만나긴 했으나 그가 속을 주지 않는 바람에 곽지산네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위증민이 사망한 것 갈

다는 소문만을 듣고 왔습니다.

유경수는 할 수 있는껏 다하고서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1개조를 책임지고 왕바버즈에 나갔던 지갑룡은 변절하였습니다.

1941년의 시련은 다시한번 누가 진짜배기혁명가이고 누가 가짜였는가를 가른 시금석이였습니다.

이런 시련과 검열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항일투사들은 다 시련속에서 백번천번 검열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갑룡이 변절한 후에 우리의 행처를 알게 된 적들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리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대오를 이끌고 적들의 포위를 교묘하게 빠져 대사하, 소사하를 거쳐 안도쪽으로 나갔습니다.

안도와 무송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박아놓았던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조직원들을 통하여 위증민이 병사했으며 그의 사진을 실은 광고가 명월구 시가에까지 나붙었다는 풍문이 돈다는 사실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3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남북하마탕일대에서와 명월구와 연길부근에 나타나 활동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들에 좀더 머물러 활동하기로 작정하고 1개의 소조를 사하장, 남호두, 다홍왜, 북하마탕 일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은 나머지 성원들을 데리고 백두산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간백산밀영에 가서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혁명조직 책임자들을 불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일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서간도일대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원동의 기지에 데려다가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와 그밖의 많은 역량을 백두산밀영과 간백산일대에서 튼튼히 키워 전민항쟁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온성군에 나가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국내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습니다.

백두산일대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정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소부대들이 울린 총소리에 놀란 적들이 우리의 행적을 찾아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데가나 토벌대가 누렇게 깔려있었습니다. 적들은 신작로에도 있고 산꼭대기에도 있고 골짜기에도 있고 없는데가 없었습니다.

연길현 노두구는 적들의 군사요충지의 하나로서 관동군의 헌병대와 특수부대들, 위만군과 경찰이 틀고 앉아있는 곳이어서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방대수림으로 통하는 산발에 붙을 수도 없었으며 우리 소부대의 집결지점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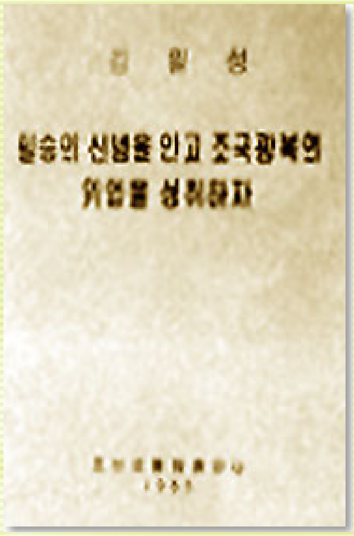
우리는 일본군복을 입고 야간행군으로 노두구를 통과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두구철길을 건느기 전에 그만 날이 밝았습니다. 낮에는 행군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있어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니 대통로 옆에 집이 몇 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들에 들어가 어두울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그 집들에 배치하고 나는 길옆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농민으로

변장한 대원이 호미를 들고 밭김을 매면서 망을 보고 나머지 성원들은 모두 휴식하였습니다.

점심때 누르스름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있는 집문을 벌컥 열어제꼈습니다. 그들은 방안에 군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아연해했습니다. 앞에 섰던 사람이 놀라서 돌아나가려고 하자 우리 대원이 그의 잔등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를 일본군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는 협화회회장인데 **김일성**부대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피거우회의 연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직방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회장이란 자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가치있는 자료들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이 옆구리에 끼고온 신문을 보고 쏘독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일본놈들이 갑자기 등이 달아 날치면서 쏘만국경일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쏘일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고 했습니다.

나는 협화회회장에게 우리가 마을을 떠난 다음 경찰에 가서 **김일성**부대가 대낮에 노두구시가지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통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보고를 받은 적들은 **김일성**부대가 우리 코앞에서 밥도 해먹고 여유작작하게 낮잠까지 자고갔다니 천하에 이런 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집결지점인 왕청현 쟈피거우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공작을 마치고 돌아온 김일이네와 합세하였습니다.

내가 쟈피거우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쏘일중립조약의 체결과 쏘독전쟁의 발발로 국제무대에 생긴 정세의 격변과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장병들과 소부대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을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쏘독전쟁의 발발을 두고 소부대성원들속에서는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쏘독사이의 전쟁이 우리 혁명에 유리한 전망을 열어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쏘련이 동서에서 두강국의 협격을 받게 되면 우리 혁명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계정세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쏘련침공이 현실로 될 때 가늠해볼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논의를 시급히 하나의 견해로 통일시키고 모든 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로 그들을 더욱더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쟈피거우에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쟈피거우회의에서 각지에 파견되었던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활동정형도 총화하고 차후활동방향을 토의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주장한 것은 무엇이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흔들리지 말라, 독일이 쏘련을 친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 길이다, 일본도 쏘련을 치면 무덤을 파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일본은 쏘련을 칠 힘이 없다, 열강들의 세력관계를 보라,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파쑈는 망하고 민주는 승리한다, 우리 혁명에도 밝은 전망이 열린다, 그러니 일시적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였습니

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차후 소부대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역량의 보존을 위해 무모한 정면충돌이나 수량상 우세한 적과의 교전을 피하면서도 적후교란작전을 맹렬히 벌이자, 군수물자수송로와 군수물자보급기지도 기습소탕하자,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정찰활동과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영숙

8월초에 우리는 왕청－나자구간 도로공사장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쏘만국경일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우글우글하는 이 지역에서 총소리를 낸다면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를 낼 바엔 적종심에서 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배짱이였습니다.

두 개 방향에 차단조를 각각 하나씩 파견한 다음 일본군으로 가장한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공사장에 돌입하여 순식간에 호로병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병실의 적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얼마나 번개같이 해치웠던지 공사장의 노동자들은 벙벙해서 눈들을 슴뻑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유경수가 ≪우리는 **김일성**빨치산입니다!≫하는 소개를 해서야 그들은 사방에서 달려와 우리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한 후 왕청현 북부지대를 에돌아 태평구마을이 바라보이는 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 왕청지방에서 우리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산정에서 망원경으로 태평구마을을 내려다보니 이광의 집이 보이고 오중흡이네 집과 박길송이네 집도 보였습니다. 오중흡이네 아버지가 마당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김일에게 이 일대에서 그들과 연계를 맺고 지하조직을 꾸릴 과업을 주었습니다.

김일은 그 후 오중흡의 아버지 오창희와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과 연계를 가지고 지하조직을 꾸리였습니다. 그는 왕청현 남북대동일대의 농민들과 소왕청역 노동자들속에도 지하조직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때 오중흡의 아버지는 지금 **김일성**부대가 다시 백두산 쪽으로 나왔다는 소문이 쫙 펴져 인민들이 크게 기뻐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소부대들은 적의 집중수송과 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쏘만국경연선에서 적들의 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군사정치활동도 적지 않게 벌였습니다. 우리 소부대들이 도문역구내에서 군용열차를 충돌시킨 것도 이때이고 화룡현 두 도구와 왕청현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타격한 것도 이때입니다.

우리는 국내와 동북지방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8월에 원동의 임시기지로 돌아왔습니다.

1941년 9월 중순경에 나는 지난번 소부대활동의 성과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다시금 소부대를 거느리고 만주와 국내로 나갔습니다. 그때의 주요임무는 안길, 김일, 최현 소부대들과 연계를 맺고 그들이 수집한 정찰자료를 종합하며 두만강연안과 국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자는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지대를 국내 깊이에로 확대함으로써 조국광복의 대사변

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서와 쏘만국경일대에서의 일본의 반쏘침공기도여부를 확인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습니다.

출발에 앞서 안영을 부인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안영의 부인 이영숙은 북야영에 와있었습니다. 이영숙은 부모들의 주선으로 한마을에서 야학선생을 하던 안영과 결혼한 후에 함께 최용건의 부대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안영이 쏘련으로 무전배우러 들어갈 때부터 헤어져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해가 북야영에 와있다고 하니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부부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전투임무를 맡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안영은 안해를 만나고 나서 더 힘을 얻은 듯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최광

왕청쪽으로 나온 우리가 숙영지로 정한 곳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두익과 전문섭은 그 강에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들이 낚시질을 괜찮게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여서 강물이 몹시 불어난 때였습니다. 두 대원은 낚시질을 하다가 썩은 나무등걸에 기여 다니는 불개미를 핥아먹는 곰까지 잡았습니다.

우리는 곰의 각을 떠서 더러는 강물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산골물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기 때문에 고기를 넣어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깊은 소 같은데 보관해두면 변질될 염려가 없습니다. 밀가루포대를 물에 넣으면 몽땅 젖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층이 1센치미터가량 젖을 뿐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산 생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다 묘리가 있고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소부대지휘관들을 불러 그 동안 입수한 정찰자료들을 종합하고 정세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휘관들이 흥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와 같이 일본이 쏘련을 침공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을 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금의 형세로 보아 당장은 침공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안길은 그 증거로 철도를 통과하는 화차들에 대한 정찰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일본의 경찰관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만간에 쏘련과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방공호도 파고 도로공사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통치는데 철도로 오가는 화물차량들을 조사해보면 무개화차들에는 대포와 탱크 같은 것이 실려있지만 대다수 유개화차들은 텅 비여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목단강지구에 나가 활동한 최광이네 소조가 수집한 정찰자료도 흥미있는 것이였습니다. 최광이네는 철도역이 가까운 산에서 망원경으로 매일같이 적들의 병력이 국경지대에 얼마만큼 쓸어드는가 하는 것을 정찰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 소조활동을 지도하신 새별군연봉

최광은 열차가 정거장에 들어와 설 때마다 망원경으로 승강대를 살피면서 한 방통에서 몇 놈이나 내리는가를 세여보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승강대를 주시하다가 입에 담배대를 꼬나물고 홈에 내리는 장교를 보았습니다. 행동거지가 특별히 거만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담배대를 꼬나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표가 나서 그랬던지 최광이 그놈의 얼굴을 똑똑히 봐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최광은 승강대에서 그 장교를 보았습니다. 전날 내린 놈이 오늘 또 내릴 수가 있는가 하고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는 그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장교는 담배대를 꼬나물고 있었다는 것입

니다. 최광은 그때에야 적들이 유개차로 매일같이 군대를 실어나르지만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아주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최광이 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리 동무들은 농으로 그가 애연가이니 그런 자료를 수집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광이 왜놈장교가 입에 문 담배대에 눈독을 들이다나니 자연히 그 장교를 유심히 살피게 되였고 그래서 그놈이 전날 보던 그 장교라는 것도 쉽사리 알게 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최광은 담배를 인연으로 해서 좋은 정보자료도 수집하였지만 담배가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광은 16살 때 청년의용군 소대장이 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대장이 되다보니 대원들이 모두 그를 애숭이로 대하였습니다. 최광은 자기가 애숭이가 아니고 어른이 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담배인데 몇 해가 못되어 인이 박히고 나중에는 담배가 없으면 몸살을 앓는 사람이 되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리품으로 밀가루 한 포대에 담배 한 지함을 얹어지고 부대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당회의를 열고 그를 처벌하였습니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에 같은 값이면 밀가루 한 포대라도 더 지고올 것이지 먹지도 못할 담배는 무엇 때문에 지고 왔는가고 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우리가 수집한 모든 정찰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쏘련을 침공할 실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이 쏘만국경지대로 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냄새를 피우려고 애쓰는 것은 남방진출기도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본이 북공이 아니라 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쏘련의 대일군사전략을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11월 중순이 다되어서야 기지로 돌아갔는데 새별군연봉에도 들렀댔습니다.

내가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나갔다온 다음에 여러 소부대가 국내와 만주로 진출하였습니다.

강건의 소부대는 1941년 말에 목가선의 신가점부근에서 적의 군용렬차에 대한 큰 규모의 매복전을 진행하여 일본장교들을 실은 객차와 함께 장갑차와 휘발유를 가득 실은 차량들을 순식간에 녹여냈습니다.

박성철이네는 1942년 초봄에 동녕현과 영안현, 교하현 일대에 나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안현 노송령과 교하현 청구자, 오상현 일대에 남아서 활동하는 전우들을 찾아 대오를 늘이고 적과 부단한 조우전을 하면서 그 해 9월까지 소부대활동을 하다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채세영소부대는 영안현, 목릉현, 목단강 주변에서 활동하였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첫 단계로 진행한 소부대활동의 성과를 총화해보면서 원동의 임시기지에서 국내와 동만일대에로 다시 진출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정황에서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간 것이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되며 소부대활동이 대부대활동에 못지 않게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인민들을 반일항전에도 힘있게 고무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권총과 작식도구

소부대활동과정에서 달성한 성과는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부대활동은 국내외의 인민들에게 혁명군은 이전날처럼 여전히 건재해서 적들을 족치고 있으며 승리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혁명군의 두리에 전민이 뭉쳐 거족적인 항쟁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과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으로 유격대를 다 소멸한 것처럼 허장성세하던 일만군경들은 우리의 영활한 소부대작전앞에 궁지에 몰려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소부대활동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가오는 대일최종작전을 내다보고 그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사정찰활동과 전민항쟁준비에 모를 박으면서 소부대활동의 폭과 심도를 확대해나갔습니다.

그 시기 우리의 소부대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로 조직된 소부대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국제연합군 별동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군사정찰공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조성된 활동조건과 군사정치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보충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활동방식은 소부대활동의 정치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다음 소부대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조활동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기에 덩치가 비교적 큰 소부대활동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에서도 소조들에 의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여기에 소부대에 의한 습격전과 매복전을 적절히 배합하였습니다.

국내와 만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새로 만주로 들어온 **김일성**, 최현, 채세영 등은 …무력항쟁이 불리함을 깨닫고 주로 군사, 산업, 경제 방면의 중요시설 파괴, 민중의 적화공작 혹은 폭동유발, 사병공작 등 모략적인 행동으로 나오려는 경향이 극히 농후하다.≫≪목단강 영사대리 후루야의 보고, 소화 16년(1941년) 6월 23일≫

≪1942년초 북부조선에서 조선빨치산들은 일련의 전투작전으로 22대의 일본비행기와 2개의 격납고를 파괴하고 2척의 유조선과 92척의 고기배를 침몰시켰다.≫≪베. 야로보이≪조선≫44페지, 주체34(1945)년 9월 쏘련해군출판사≫

국내와 만주에 파견된 소부대들은 적군와해공작도 벌였습니다. 소부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일본군내부에서는 염전사상이 더욱 만연되고 군대에 강제적으로 징집된 조선청년들이 무기를 메고 탈출하여 우리 소조원들을 찾아오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적항공대의 비행사들도 폭동을 일으키고 인민혁명군을 찾아왔습니다.

소부대활동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우리를 몰살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보존축적하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한 것입니다.

소부대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달성한 정치군사적 성과는 조국해방의 새날을 앞당기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으로 되었습니다.

5. 신념과 배신

최근 신문들에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다시 싣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교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필승의 신념≫도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1960년대에 우리 인민이 이 회상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전후 경제를 복구하고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정세가 어렵고 투쟁이 간고한 때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같은 회상기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정세가 어렵고 투쟁이 간고해지면 동요분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혁명앞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모진 시련이 닥쳐오자 혁명적 신념이 박약한 사람들속에서는 낙오자와 도주자, 투항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 대오에서는 동요분자, 도주자들이 생겼습니다. 회상기 ≪필승의 신념≫에 나오는 지갑룡이도 바로 그런 도주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쏘일중립조약은 1941년 4월에 체결되었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활동할 때입니다. 일본외상 마쯔오까가 독일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모스크바에 들려 중립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파동이 인민혁명군에까지 미쳤습니다.

체약쌍방이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호상영토의 보존과 불가침을 존중한다는 것, 어느일방이 제3국과 분쟁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이 조약의 골자였습니다.

보다시피 조약에는 조선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문제가 상정되지 않은 조약이니 조선사람들의 신경을 특별히 건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조선의 혁명가들은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였습니다. 쏘련을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보고 있었는데 그 동맹자가 일본과 같은 적국의 손을 잡게 되자 판이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상영토를 존중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쏘련이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고 해석하면서 낙심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대오의 한구석에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 투항주의를 낳게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하고나서 그것을 요란스레 광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탈린과 마쯔오까가 만나는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동요분자들의 심리를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에서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근본입장이야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혁명을 시작할 때 어떤 큰 나라를 믿고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을 시작했지 그 누구의 힘을 믿고 혁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장투쟁을 시작한 후에도 이웃나라들에서 수류탄 한 알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해가면서 무장투쟁도 하고 당건설도 하고 통일전선운동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중국사람들과의 공동투쟁을 했고 쏘련사람들과도 연합전선을 무었습니다. 동맹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첫날부터 군대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교양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였습니다. 자주를 하면 살고 외세에 의존하면 노예가 되며 자력갱생을 하면 흥하고 자력갱생을 하지 않으면 조국광복도 할 수 없고 새나라 건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휘관들이 자력해방이나 자력갱생을 고취하는 교양에는 힘을 덜 돌리고 쏘일간의 모순과 쏘련의 강대성에 대해서만 강조하다나니 쏘련과 일본이 전쟁을 해야 조선해방을 위한 결정적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쏘련과 같은 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일본도 타승할 수 있다는 사대주의적인 병균이 지갑룡과 같은 사람들의 머리에 침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외상이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쏘련사람들과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하나의 기만동작에 불과한 것이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그때 자나깨나 북진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북진이란 쏘련을 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쏘련을 칠 때 서로 합작하기로 밀약하였으며 우랄을 경계로 하여 쏘련의 광활한 영토를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한 쪽씩 차지한다는 분배안까지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딸리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쏘련침공이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래서 남진론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를 타고 앉아 전략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해두었다가 히틀러 독일이 쏘련에 치명상을 입힌 다음 원동으로 쳐들어가 우랄계선까지 단숨에 집어삼키자는 것이 일본의 속심이였습니다. 말하자면 감이 무르익기를 기다려 따먹자는 숙시주의적인 책략이였습니다. 쏘련과의 중립조약은 이 시간표에 따르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중립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독일군이 쏘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지체없이 ≪관동군특별연습≫이라는 것을 발령하였는데 이것은 대쏘전쟁예령이나 다름없는 것이였습니다. 이 연습때 쏘만국경에 배치된 관동군병력이 2배로 증강됐다고 하니 일본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쏘련이 일본의 이런 속임수를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쏘련은 일본의 책략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발로 찾아와 평화관계의 유지요, 영토존중이요 하니 일본과 독일의 합작에 의한 동서협공을 몹시 경계하고 있던 쏘련으로서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쏘련은 히틀러독일의 침공이라는 미증유의 대국난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부국경일대에 집결되어있는 독일군의 대병력이 어느순간에 밀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시베리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이 중립을 표방한 것은 쏘련으로 하여금 동서양면전쟁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마쯔오까와상이 모스크바를 떠날 때 스탈린이 역에까지 나가서 바래주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쏘독전쟁을 눈앞에 둔 쏘련지도부의 심리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중립조약체결을 계기로 쏘련이 일본의 우방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얼마나 암둔합니까.

정세가 긴장할수록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지갑룡의 실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사람을 왕바버즈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1년 봄입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안도지방에서 활동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한총구라는 곳에 기지를 정하고 각 지방에 파견된

소부대활동을 하면서 제일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모두 집단부락에 들어가 있는 것이였습니다. 집단부락에 갇혀있는 인민들과 연계를 맺어야 하겠는데 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출로는 산중에서 돌아다니는 사냥군들이나 숯구이군들, 약초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계를 맺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사냥군들은 이른봄부터 가을철까지 녹채를 놓는 방법으로 사슴사냥을 하였습니다. 녹채란 사슴을 잡는 함정을 말합니다. 깊은 구뎅이속에 쇠로 만든 뾰족한 창들을 촘촘히 세워놓고 그우에 사슴이 밟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가느다란 나무가지들을 가로지른 다음 새초를 펴고 소금을 뿌립니다. 사슴이 소금을 먹으려고 새초풀우에 올라서기만 하면 구뎅이속에 빠져 뾰족한 창끝에 찔리게 되어있었습니다.


유경수

녹채를 놓는 사람들과 교섭을 잘하면 지하조직들과 연계도 맺을 수 있고 적정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부대들을 여러 개의 소조로 나눈 다음 매개 소조들에 과업을 주어 사방에 파견하였습니다. 지갑룡과 김봉록은 안도현 왕바버즈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들한테는 지방공작을 하면서 식량을 해결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사령부의 명령대로 각 지방에 파견된 소조책임자들을 닷새에 한번씩은 꼭꼭 사업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룡이네 소조에서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고였습니다. 왕바버즈에 책임적인 사람을 한 명 파견해서 실태를 요해해야겠지만 사령부에 인원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유경수네가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조에는 김익현과 서보인이라는 중국인대원이 속해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사람들이였는데 주제를 보니 말이 아니였습니다.

식량이 거덜나서 고생, 푸르허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길을 곱절이나 에도느라고 고생, 위경련을 만나서 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이 겹치는데다가 대포시하인지 어디인지를 지날 때는 농민으로 가장한 류꾸인 이주민들의 무장집단과 맞다들어 그들의 추격을 받느라고 이만저만 고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류꾸인 이주민무장집단에 대한 말을 듣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정말 음험하고 교활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경수와 김익현이 번갈아가며 하는 말이 그 무장집단은 100 명가량 되였다고 합니다. 농민복차림을 한 그 사람들이 밭에서 봄씨붙임을 하기에 저 농사군들한테 식량을 좀 부탁해보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만 화단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세 소조원은 길가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밭머리로 나온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빨치산이다, 돈을 주겠는데 식량을 좀 사줄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선말을 해도 몰라, 중국말을 해도 몰라, 그래서 벙어리인가보다 하고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더니 그제서야 의사가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의 부탁을 받은 농민은 밭으로 술렁술렁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며 돌각담뒤와 덤불속에서 총을 찾아쥐고 유경수네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숱한 사람들이 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기관총도 불을 뿜었습니다. 기관총이 2정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함정이라도 이만저만한 함정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5리나마 달려서야 놈들을 떼버릴 수 있었습니다. 추격에서 벗어나고 보니 눈을 뜰 힘도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일행은 주인없는 밭에서 감

자눈을 한 소랭이 파서 삶아먹었습니다. 감자눈 한 소랭이 값으로 돈 50원을 유지에 싸서 작대기 끝에 달아맨 다음 주인이 알아볼 수 있게 밭머리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부림소 한 마리에 50원 정도 할 때였는데 감자눈 한 소랭이 값으로 50원을 두고 왔더란 말입니다.

기관총까지 가진 류꾸인 이주민들의 무장집단과 맞다들린 사실은 이 시기 소부대활동이 얼마나 간고한 정황에서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적들은 혁명대열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김익현

김익현은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지갑룡소조의 형편을 알아보아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가보겠다고 자원해 나섰습니다.

다음날 나는 왕바버즈에 김익현을 파견하였습니다.

김익현은 소조의 활동정형을 요해해보고 소조책임자인 지갑룡이 패배주의에 빠져 사령부가 준 임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앞산봉우리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는 것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봉록은 식량이 떨어져서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 풀막에 누워있습니다.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데다가 기력이 없어서 사령부에 보고하러 갈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익현은 지갑룡이 풀막으로 돌아오자 타일렀습니다. 공작임무를 받고온 지 열흘이 다되어오는데 사령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있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사냥군들을 만나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갑룡은 지금은 적정이 삼엄해서 움직이기 위험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익현이 아무리 설복해도 마이동풍이였습니다.

다음날아침 지갑룡은 김익현과 김봉록이 세수하러 간 틈을 타서 그들의 총을 걷어쥐고 나서 두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무장대오를 따라다니였다, 그 과정에 고생이란 고생을 다했지만 고생 끝에 조선독립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참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그 꿈이 깨지고 말았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쏘일간에는 중립조약이라는게 체결되었다, 나는 쏘련과 일본간에는 뿌리깊은 적대적 모순이 있고 불원간 전쟁이 폭발한다고 믿어왔다, 전쟁이 터지면 쏘련군대와 협동하여 일본군을 격멸하고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허망한 노릇을 더는 못하겠다, 게다가 병까지 도지니 어쩌겠는가, 나는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익현은 그 말을 다 듣고나서 그게 정말인가고 물었습니다.

지갑룡은 사실이다, 여러 날 고심하며 생각한 끝에 먹은 마음이다, 너희들도 가려면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김봉록은 억이 막혀 울면서 달아나고 싶으면 너나 혼자 가라, 나는 죽어도 사령관동지의 곁에 가서 죽겠다, 혁명의 전도가 어두우면 어두웠지 사령관 동지를 버리고 달아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지갑룡을 쏘아주었습니다.

지갑룡은 부대를 떠나도 임수산이처럼 너절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나를 믿어달라, 이 세상 그 어데를 가도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익현이 그를 면박하였습니다.

혁명의 전도가 암담하다고 해도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갈 수

없다, 좋을 때는 좋아서 따르다가 나쁠 때 나쁘다고 물러서면 그게 무슨 인간의 도리인가, 당신은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가 보라,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손에서 총을 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치는 막돌만도 못하게 된다, 임수산이 어떤 꼴이 됐고 최용빈이 어떤 꼴이 됐고 김백산이 어떤 꼴이 됐는가, 그러니 원쑤들한테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갑룡은 자기 결심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산에서 무사히 내려갈 때까지 총을 못내놓겠다, 총은 풀막에서 멀지 않은 다리밑에 걸어놓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풀막을 떠나 내려간 다음 김봉록은 다리목에 가서 두 자루의 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후 김익현과 김봉록은 약속된 연락지점으로 떠났습니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노상에서 적들과 맞다들기까지 하다나니 예정시간보다 퍼그나 뒤늦게 연락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한 연락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격대에는 소부대가 지방공작을 떠난 다음에는 지휘부가 자리를 옮기고 그 대신 거기에 연락원을 파견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대원은 연락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지점을 떠나지 않고 풀을 우려먹으면서 사령부와의 선이 이어질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소랭이에 풀을 뜯어넣은 다음 소금을 치고 끓이면 퍼런 풀물이 우러나오는데 그걸 조금씩 마시고 연명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몇 달전에 먹다버린 소뼈다귀를 끓였는데 흰쌀알같은 것이 국물에 떠있었습니다. 그것은 흰쌀이 아니라 뼈다귀속에 있던 구데기였습니다. 구데기가 떠있는 국물을 먹고 두 대원은 취해서 노그라졌습니다.

며칠 후 굶어죽을 지경이 된 그들은 껍질이 벗겨진 나무에다가 우등불자리에서 얻은 숯으로 지갑룡이는 도주하고 김익현과 김봉록이 굶어죽었다는 글을 써놓고 덤불속에 나란히 누워서 죽음의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전문섭이를 연락지점에 파견하지 않았더라면 김익현과 김봉록은 이름모를 덤불속에서 한줌흙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무의 글을 본 전문섭이 온 산판을 돌아다니며 두 전우의 이름을 안타깝게 불렀으나 김익현과 김봉록은 기력이 없어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섭은 모기소리같은 신음소리를 듣고 전우들을 찾아냈습니다.

두 전우를 사령부까지 데려오느라고 전문섭이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마저 기진맥진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전문섭은 있는 힘을 다 짜내여 김익현과 김봉록을 사령부까지 데려왔습니다. 김익현과 김봉록은 미음을 몇 숟가락씩 먹고서야 비로소 실신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바버즈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교훈은 무엇이였는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힘을 믿도록 교양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지갑룡의 도주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데로부터 발생한 사건인 동시에 사대주의로 해서 생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사대주의였는가.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였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이 쏘련에 대한 환상을 주입하면서 쏘일간의 모순으로 전쟁은 언제든지 꼭 터진다, 그러면 일제는 망한다는 식으로 이해시키다나니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룡의 도주와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사대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왕바버즈사건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혁명가의 생명은 신념에 있다는 것, 신념이 고갈될 때 혁명가의 생명은 끝장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었기 때문이며 김익현이나 김봉록이 도주하지 않고 사령부로 돌아온 것은 풀을 우려먹으면서도 신념을 고수했고 덤불속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순간에도 자기들은 죽지만 혁명은 승리한다는 신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영도자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의 힘, 자기집단의 힘, 자기인민의 힘, 자기당의 힘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혁명가의 신념이 고수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들어섭니다. 문제는 그 신념을 얼마나 오래 고수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마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마과정을 떨떨하게 거친 신념은 인차 부패변질됩니다. 신념을 연마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 바로 조직사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정치사상적 단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혁명연조가 오래면 신념도 의례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념은 연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조가 길어도 자체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신념상으로는 약자가 되며 연조가 짧아도 자체수양을 잘하면 신념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갑룡이란 사람도 연조로 볼 때에는 김익현이나 김봉록보다는 퍽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격대생활을 근 10년이나 해온 사람이였습니다. 김익현이 그때까지 인민혁명군에 몇 해 복무했다가 하면 4년 복무했습니다. 김봉록은 2년밖에 안되니 신입대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변절은 누가 했습니까. 더 오랜 유격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갑룡은 도주했지만 후배인 김익현과 김봉록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연조가 오래거나 투쟁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신념을 잃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갑룡은 건군초창기부터 유격대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공로도 세워 중대장으로까지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엄한 시기가 도래하자 동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혁명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동정도 하고 특별히 돌봐도 주었는데 종당에는 곤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신념을 잃게 되자 낙오자가 되고 의리도 다 줴던지고 말았습니다.

임수산이도 혁명연조가 짧아서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혁명연조로 말하면 그는 좌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성철이 8도구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장재촌으로 들어갔던 1933년에 임수산은 거기서 벌써 연길유격대 2중대 정치지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철이 비조직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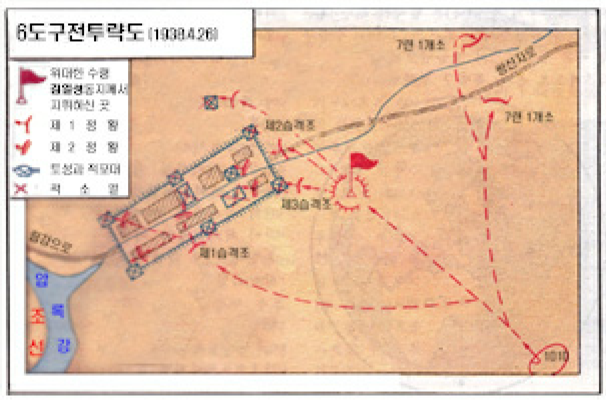
입대전에는 그가 중학교에도 다니고 교원도 하였습니다. 키가 구 척이나 되었는데 김일보다 더 컸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데다가 식견도 있고 말주변이 있어 초기에는 전우들의 호감도 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원들속에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돌아갔습니다. 임수산이란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1938년 봄 한 달 사이에 우리가 6도구전투를 두 번 했는데 왜 두 번 했는가.

첫 전투를 임수산이 지휘하였으나 다 이긴 전투를 망쳐놓았습니다.

6도구는 1,000여 호의 집들이 밀집되어있는 큰 성시였습니다. 성시에 적이 얼마



없다는 보고를 받자 임수산은 즉시 연대를 이끌고 6도구 시내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진입하자 곧 예상치 않았던 적부대와 조우하게 되였습니다. 정찰병들이 정찰을 하고 돌아온 후 6도구에 새로 나타난 부대였습니다.

연대가 성안으로 쳐들어갔을 때 적들은 한창 먹자판을 벌이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능히 소멸할 수 있는 적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임수산은 적의 역량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겁을 집어먹고 얼른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퇴각명령은 아군으로 하여금 주동으로부터 피동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어리둥절해서 전투를 중지하였고 그 틈을 타서 적들은 인차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반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부대는 아무 소득도 없이 6도구거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 적들은 유격대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인민들이 그 선전을 듣고는 누구나 어깨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임수산의 오류로 해서 첫 6도구 전투는 이처럼 인민혁명군의 권위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6도구전투를 다시 조직하였습니다. 부대를 이끌고 성시로 쳐들어가 6도구를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적들은 유격대의 공격을 격퇴했다는 선전을 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휘관회의에서 임수산의 과오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상적으로 분석하면 비겁성이 그 과오의 주되는 요인이였습니다.

그러나 임수산은 비판을 받은 후에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 때에도 사령부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후방밀영에 들어가 안일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과오를 고치지 않는다고 북대정자회의에서 또 그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수산을 참모장자리에서 떼내깔리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다시한번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임수산은 우리의 이 신임에 변절로써 대답하였습니다. 무장투쟁이 장기화되어가는데 대해 권태를 느끼고 있던 그는 노조에토벌대의 출현과 그 전례없는 규모에 질겁하여 전전긍긍하다가 동패자밀영에 가서 단독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적들한테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달아난 것이 아니라 적과 내통하여 밀영주변에 토벌대를 미리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숱한 전우들을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동무들이 적들에게 붙잡혀간 것은 다 임수산 때문이였습니다.

그 임수산이란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보겠다고 사령부에까지 토벌대를 끌고온 적이 있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임수산이 싸움판에서 총 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정치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적의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였습니다.

임수산이 투항했을 때 적들은 산 범이라도 잡은 것처럼 기세등등해서 **김일성**빨치산의 몇 번째가는 인물이 다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대일본제국에 귀순해왔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수산의 투항은 우리 대오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들 심각해서 며칠동안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임수산의 변절로 해서 우리 부대는 실지

로 적지 않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상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수산은 타락분자였습니다. 타락분자란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대오에 있어야 해독작용밖에 할것이 없습니다.

혁명을 하는 과정에 배신자들이 생기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보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에는 스탈린이나 주은래나 텔만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도 맑스, 엥겔스를 숭상하던 사람들이였지만 역사에 배신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맑스주의도 배신하고 자기들의 스승이며 혁명선배인 맑스, 엥겔스도 배반하였습니다. 한편 쏘련당의 요직에 있던 트로츠키도 쏘비에트국가의 적으로 되었습니다. 장국도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을 배반하고 장개석에게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배신자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자들이 혁명을 배신했다고 해서 혁명이 좌절되거나 후퇴했습니까. 배신자들이 제거될 때마다 혁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고조되고 앙양되였습니다. 트로츠키가 청산된 후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이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진척되였습니까. 트로츠키는 자기가 없으면 스탈린이 하는 모든 일이 시시해지고 쏘련이라는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쏘련인민은 자기나라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국도가 공산당을 등지고 국민당의 식객이 된 다음 중국혁명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로상승하여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임수산이 적에게 투항하여 사령부의 비밀을 다 팔아먹고 토벌대를 끌고 돌아치며 우리에게 피해도 입혔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약화되지도 않았고 붕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변절한 다음 우리 대오는 더욱더 철통같이 단합되였고 우리 혁명은 자체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가면서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였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벌어질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최창익, 윤공흠, 이필규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던 자들이 저들의 종파적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당을 배반하고 조국을 반역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 나가자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 천리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가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배신자들은 민족운동대열에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최남선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최남선이 3.1인민봉기 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데 참가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쓴 백두산기행을 읽어보았는데 구절마다 애국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이름높던 그가 돌연히 양심과 신념을 버리고 배신과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어려운 시



스탈린, 주은래, 텔만, 체 게바라
(위로부터)

련을 겪고 있던 1940년대 초에 최남선은 우리의 이름을 크게 찍어가지고 투항을 촉구하는 권고문까지 써서 비행기로 뿌렸습니다.

아래에 최남선이 몇몇 친일파들과 함께 쓴 권고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황량한 산야를 정처없이 회배하며 풍찬노숙하는 제군! 밀림의 원시경에서 현대문화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맹신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도하고 있는 가엾은 제군! 제군의 저주된 운명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될 최후의 날이 왔다. 생하느냐 사하느냐…

오호! 밀림에 방황하는 제군!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어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참회할 것도 참회하고 이제까지의 군등의 세계에 유례없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즉각으로 탈리하여 동포애의 따뜻한 온정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군등의 무용과 의기를 신동아건설의 성업으로 전환봉사하라. 때는 늦지 않다!…

동남지구 특별공작후원회본부

고문 최남선…

총무 박석윤…≫

≪잡지≪삼천리≫, 소화 16년(1941년) 1월호 206-209페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충청도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50대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유한종이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대에서 몇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상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사람이 아주 진국이였습니다.

유한종은 금침 몇 대와 수술칼 하나를 가지고 외상이란 외상은 다 고쳤습니다. 명의인데다가 정성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대원들이 다들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나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언제인가는 한 지잠을 많이 자는 그를 위해 곰가죽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성시공격전투를 하고 대원들이 전리품을 노획할 때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부터 찾아서 유한종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유한종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1940년 정초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나이에 산속에서 유격대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만에 유한종은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안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호강스럽게 보냈지만 먹는 밥이 살로 가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호강스럽게 보냈지만 먹는 밥이 살로 가지 않고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모로 서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목숨이나 구차스레 부지해서야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유한종은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사고방식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건강상태로 보아 부대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였습니다. 그를 설복하느라고 땀을 뽑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한종은 몹시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직후 그는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와 반갑게 만나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 손을 꽉 잡고 건강한 장군님을 뵈었으니 이제는 한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그에게 나는 왜놈들을 몰아냈으니 나와 함께 건국사업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유한종은 그 후 평양에 눌러앉아 혁명자후원회사업도하고 평양학원군의로도 사

업하였습니다. 그의 딸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실 타자수를 하였습니다. 유한종의 두 아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최남선이나 임수산이나 지갑룡이와는 얼마나 대조되는 인간입니까. 신념을 잃은 임수산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유한종은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최남선은 우리의 투항을 촉구하는 권고문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니며 만주산야와 백두산에 뿌리었지만 유한종은 그가 밀림의 원시경이니 불안정한 생활이니 하고 묘사한 유격대의 생활이 그리워 몇 달전에 떠났던 우리의 대오에 다시 찾아와 복대를 탄원했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지만 유한종은 최남선이나 임수산, 지갑룡이보다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는 수정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진실한 인간이였습니다. 그가 돋보이는 것은 고결한 양심 때문입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쉽게 배반하는 것은 신념이 없이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불평분자들, 우연분자들, 탐위분자들, 의지박약자들, 행세식운동자들이었습니다.

일을 태공하는 사람들, 임무수행에서 무책임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맡기면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이 타발, 저 타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혁명이다 뭐다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서슴없이 만드는 사람들, 거짓말을 식은죽먹기로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인간들도 기회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붉은기를 팽겨치고 적진으로 뺑소니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인간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혁명가에게서 양심을 떼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도덕의리도 다 무너집니다. 양심을 버리면 인격도 찌그러집니다.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은 곧 양심을 가진 존재, 도덕의리에 충실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져야 도덕도 알게 되고 의리도 지키게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도덕도 의리도 희생성도 정의감도 성실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해야 한다고 한 **김정일**동무의 말은 명언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 수 있고 양심에 때가 오르며 양심에 금이 생기면 신념에도 금이 생기고 투지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혁명가는 양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혁명가이기를 그만두며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들과는 같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한 가마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그 순간부터 동상이몽을 하며 양봉음위를 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헤어져야지 헤어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지갑룡도 양심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혁명가의 면모를 잃었습니다.

내가 지갑룡의 행동에서 비양심적인 색채를 발견한 것은 육과송전투에서였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 주공방향은 적병영이었고 그것을 담당한 것은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벼락치듯 총소리가 울렸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총성이 뚝 멎었습니다. 그것은 적병실을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금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병실 쪽에서 울려왔습니다. 왜 기관총소리가 다시 울리는가 하고 이상스레 생각한 나는 즉시 정황을 알아오도록 지갑룡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룡은 병실로 가다가 되돌아 달려오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우는소리를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보니 싸창목갑이 적탄에 맞아 터졌을 뿐 몸

은 상한데가 없었습니다. 목갑에 탄알이 맞을 때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타박을 좀 입은 것 같았습니다.

지봉손과 김학송은 비발치는 적탄 속을 뚫고 전투장으로 달려가 적패잔병들이 병실밑 비밀지하도에 들어박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즉시 대원들을 병실에서 철수시키고 화공전술로 지하도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명령이 가닿기 전에 오중흡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오중흡의 자체판단으로 화공전술을 썼지만 대원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서둘러 수색작전을 벌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오중흡

만약 지갑룡이 되돌아서지 않고 제때에 병실에 달려가 정황을 알아왔더라면 우리의 명령이 지체없이 오중흡에게 전달되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투에서의 정황처리는 분초를 다툽니다. 지갑룡이 수행하지 못한 임무를 김학송과 지봉손이 대신 수행하느라고 늦어진 사이에 오중흡은 지하도에 깊이 숨어있던 패잔병들이 난사하는 총탄에 맞았던 것입니다.

지갑룡은 그때 이미 전투원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라면 중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되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에 병이 든 자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소행으로 얼마나 큰 화를 입었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혁명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어느 경우에나 다 비참하였습니다. 역사는 그런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였습니다. 죄가 가벼워 용서를 받은 사람들도 죽는 순간까지 얼굴을 쳐들고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까지 혁명적인 양심을 간직하고 신념을 고수한 투사들에게는 인민이 꽃보라를 뿌려주고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8도구광산에서 노동을 하다가 유격구에 찾아와 입대청원을 했을 때 비조직적으로 왔다고 임수산에게서 수모를 받았던 박성철은 그 후 간고한 투쟁의 길을 끝까지 걸어 조국으로 돌아왔고 오늘은 국가의 주요한 직책에서 혁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박성철은 행군도중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입대후 몇 해가 지나도록 가족들의 안부도 몰라 궁금하던 차에 부대가 자기네 마을을 지나게 되니 부모처자들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지도 않던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해가 아이를 들쳐업으며 남편을 따라 유격대로 가겠다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박성철이 제정신이 있는가, 아이를 가진 여자가 가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가 하고 막아나서자 안해는 그의 허리띠를 꽉 거머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타일러서는 이가 들 것 같지 않고 콱 떠밀쳐버리고 달아나자니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울음만 터뜨리는 날에는 온 동네가 그 사연을 다 알게 되고 적의 귀에도 들어가 유격대가족이라고 식구들이 결딴나게 될 판이였습니다.

박성철이 어쩔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어머니가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네가 지금 처신을 잘못하면 남편을 죽일 수 있다, 저 사람이 약속된 시간까지 부대를 따라서지 못하면 도망군이 될 것인즉 그건 역적이 되는 길이다, 아이애비가 그렇게 돼도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안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허리띠만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사내가 한번 큰일을 하자고 집을 나섰으면 그만이지 넌 왜 이 밤중에 뛰어들어 소동이냐,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독립이 되기전에 또 오면 네 정갱이를 분질러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에야 안해는 남편의 허리띠를 놔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던지 박성철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박성철

지식으로 볼 때에야 그 어머니나 안해가 임수산에게 비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혁명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임수산에 비할 수 없는 선생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서라도 유격투쟁을 하겠다는 안해의 지향도 아름답지만 나라를 독립하기 전에 다시 집에 나타나면 아들의 정갱이를 분질러놓겠다고 엄포를 놓는 어머니의 뜻은 또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것입니까.

김익현이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받던 날 나는 그가 어린나이에 지양개등판에 찾아와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하던 일이며 지갑룡의 회유를 뿌리치고 사령부로 찾아오다가 굶어죽게 되자 나무에 숯덩어리로 글을 써놓고 덤불속에 들어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김익현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 후대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익현도 훌륭한 대원이지만 그와 김봉록을 사령부에까지 부축해가지고 온 전문섭은 또 얼마나 강인하고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실신상태에 있는 두 전우를 사령부에까지 업어온 그를 보니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해서 눈물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혁명적 신념이 박약하고 의리와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배고픈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동지들을 버리고 달아나버렸을 것입니다. 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가, 울타리가 있는가, 감시막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을 던지고 내려가서 문서장에 손도장만 찍으면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뜨뜻한 온돌방에서 마음껏 잘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섭

하지만 전문섭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두 전우를 번갈아 업으며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따르며 충실하게 혁명을 해왔습니다.

동무들은 한 생을 빛나게 장식한 항일의 노투사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욕망만으로는 내밀 수 없는 것이 혁명이고 사회주의위업입니다. 신념이 강해야 자기도 지키고 사회주의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백 날을 굶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떳떳한 삶을 위해 천 날 고생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 이름모를 숲속에서 한 점의 티끌로 사라져도 조직이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를 키워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6. 국제연합군을 편성하여



국제연합군의 전우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우리 혁명역사에서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1940년대 전반기 쏘련경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뜻깊은 회고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는 국제연합군의 편성과 그 활동전모를 뚜렷이 밝히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1940년대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은 조국광복위업수행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의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 것은 우리가 1942년 여름부터 쏘련경내에서 중국, 쏘련의 전우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일제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간 것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공동투쟁을 벌인 것은 조선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 혁명은 원래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우리는 조국해방의 위업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체를 종국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한 세계사적인 과업을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편성으로 하여 우리의 무장투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연합군편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중국인민과의 공동투쟁단계로부터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공동투쟁단계에로, 세계반제, 반파쑈 투쟁의 거창한 흐름에 합류하는 새로운 공동전선단계에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결정적인 최후공격작전을 위해 유리한 지대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핵심을 보존육성해가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최종준비를 갖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2년 7월에 우리는 쏘련,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반제역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쏘련의 외교, 군사 관계 문헌들에서 우리가 1942년 여름부터 쏘련에 들어가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공동군사작전을 준비하였다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쏘련원동군의 일부부대들로 이루어진 국제연합군편성의 역사적 필연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우리가 원동에 임시기지를 정하고 동북지방과 국내에서 적극적인 소부대활동을 벌이던 시기는 국제정세발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1941년 4월에 쏘련과 일본사이에는 중립조약이 체결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 사이에는 러일전쟁 당시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된 뿌리깊은 모순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순관계가 쏘일간의 새로운 전쟁으로 번져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즉시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에서 정치군사외교를 추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쏘련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세계최악의 호전국가들이었습니다. 쏘련은 반공의 돌격대로 등장한 히틀러독일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해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쓰면서 독일과의 있을 수 있는 전쟁을 피하든가 최소한 지연이라도 시킬 목적으로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사람들과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은 이런 맥락속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쏘일쌍방이 서로 상대를 견제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쏘일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었습니다.

1941년 6월에는 소독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나는 소부대의 전체성원들을 모아놓고 불가침을 약속했던 독일이 쏘련을 침공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히틀러는 처신을 달리할 수 없다,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돌아서서는 불의에 뺨을 때리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오산하고 있다,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는 것은 히틀러의 무덤을 파는 것으로 될 것이다,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곁눈을 팔지 말고 기존방침대로 최후결전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쑈독일의 불의적인 선제타격으로 하여 쏘련의 군사력은 전쟁초기에 심대한 손실을 당하였으며 붉은군대는 불리한 사태를 역전시킬 사이도 없이 일시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키예프, 하리코프, 민스크를 연이어 함락하고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로 육박하였습니다.


전선으로 나가는 레닌그라드 노동자부대

그 후 나는 쏘독전쟁의 발발로 해서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안을 검토한 다음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쏘련, 중국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앞으로 세 나라 무장력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터쳐놓았습니다.

미일간의 개전은 우리를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개전일방인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적국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다른 전쟁을 도발한 것은 무모한 도박이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석유, 고무, 철과 같은 전략물자를 긁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섬나라 일본이 무슨 타산을 가지고 그런 모험에 뛰어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국력을 탕진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였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큰 함정속에 스스로 뛰어든 것은 우리들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최후결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였습니다.

우리는 쏘일사이에 조만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도 예견하였습니다. 쏘일전쟁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중국, 미국, 쏘련을 상대로 하는 세 방면에서의 큰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나 조선주둔군을 상대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작전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관심은 이 하나의 문제에로 집중되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결판을 짓자면 우리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남들이 독립을 선사해주기를 기다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방들의 지원이라는 것도 자체의 힘이 강해야 은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은을 내지 못합니다.



독일과 쏘련의 불가침조약

우리는 국제반제반파쑈역량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응당한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그 당시 쏘련의 원동은 조, 쏘, 중 세 나라 항일세력의 중요한 집결지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련과 중국 두 나라 무장력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이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원동의 임시기지에 들락날락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쏘, 중 두 나라 무장력과의 협동을 잘해나가는 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것을 확대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도 반드시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전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련, 중국 두 나라 무장력과의 협동을 어떤 형태로 실현시키는가 하는 것은 매개나라의 민족적 이익과 세 나라 혁명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은 독자성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무장부대들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을 묶고 공동투쟁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인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한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은 두 나라 혁명의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항일혁명의 객관적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투쟁은 쌍무적인 군사관계에서의 하나의 모범이였습니다.

조중 두 나라 무장력이 원동에 또 하나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쏘련원동군이 우리의 익측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공동항일의 폭과 심도를 더욱 넓히고 그것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혁명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이나 쏘련의 대일전략과 도 일치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조선, 중국, 쏘련 세 나라 무장력의 이상적인 연합형태를 국제연합군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나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책, 최용건, 안길, 강건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도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치하게 그 구상을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쏘련, 중국 동지들과의 협의를 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한때 적지 않은 중국동지들은 만주의 항일무장부대들과 쏘련원동군의 일부역량으로 하나의 새로운 군체계를 창설하고 공동활동을 할 데 대한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의 발기를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쏘련측의 일부당국자들이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구상을 무르익히고 그것을 토론에 붙이였을 때 그들은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은 성숙된 문제로 된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쏘련군사당국도 그 구상을 지지하였습니다.

내가 국제연합군편성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1942년 봄 쏘련의 고위군사관계자들과 남야영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을 대표하여 우리와 연계를 맺고 있던 쏘르낀장령은 모스크바방위전의 영웅들에 대하여, 모스크바방어와 반타격전에서 특출한 솜씨를 보인 시베리아사단들의 전공에 대하여 생동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쏘련원동군의 래력에 대해서도 자랑하였습니다. 원동군과 모스크바방위전에 참가한 시베리아사단들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구상을 터놓자 쏘르낀장령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지금 정세가 요구하는 가장 적중한 대안은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상에 동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한다면 자기도 사실은 조만간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조선동지들이나 중국동지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겠는가, 이해와 지지대신 오히려 대국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게 되지나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주춤거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어딘가 깊은 속대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력독립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 협조나 국제혁명역량과의 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기나라 혁명에도 이롭고 세계혁명에도 이로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주의야 왜 반대하겠는가,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적을 때려부시자면 힘을 합쳐야 한다, 쏘련과 같은 큰 나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혁명역량과 연합하여 투쟁하는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덕을 볼 생각만 하거나 자기나라 혁명은 다 집어던지고 남의 나라 혁명을 돕는 것만이 진정한 국제주의라고 생각하는 사상적 경향을 사대주의라고 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국제련합군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던 건물

쏘르낀장령은 나와의 담화 내용을 쏘련군사당국과 국제당에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문제를 시급한 현안문제로 부상시키었습니다.

쏘독전쟁이 결속될 때까지 미일간의 전쟁이 결속되지 못하면 어떤 형세가 조성되겠는가. 우리의

공통된 관측은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하게 되리라는 것이였습니다. 비록 쏘련이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대일참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국제항일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대일전쟁준비에서 쏘련이 추구하고 있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제당이나 쏘련 자체의 정치군사적 요구와 우리의 전략적 구상이 일치됨으로써 국제연합군편성 문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7월 중순경에 우리는 쏘련, 중국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조, 중, 쏘 무장력의 연합문제를 최종적으로 토의하고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독자성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전제하에 국제연합군을 창설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장수전

1942년 7월 22일에 나는 주보중, 장수전과 함께 쏘련원동군사령관 아파나셴코대장을 만났습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눈매가 예리한 아파나셴코는 다부진 몸매를 가진 50대의 로숙한 장령이였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면서 조선의 젊은 빨치산대장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령관의 방에서 참모장 니체브중장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파나셴코는 쏘련과 중국, 조선의 혁명무력을 연합하여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의 혁명투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쏘련의 안전과 대일작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국제연합군이 자기앞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국제연합군이 편성되면 조선과 중국의 민족혁명전쟁에 필요한 군사간부들을 많이 양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연합군의 조중부대들은 조선과 만주를 해방시키는데서 결정적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파나셴코는 훈련의 강도와 질을 높여 임의의 시작에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큰 작전지도가 걸려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우리에게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벌인 유격운동실태와 앞으로의 작전을 위한 구상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군사정치정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작전지도앞에 나가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의 활동정형에 대해 개괄하고 앞으로 있게 될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활동정형과 현 실태에 대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선을 해방하는데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군사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모를 박아 설명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무력배치, 조선자체의 반일역량의 실태와 그 발전전망, 쏘련과의 연합작전의 실제적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해주었습니다.

제3로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장수전이 설명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북만일대의 군사정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나셴코와의 협의에 따라 국제연합군에 대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공급을 쏘련측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국제연합군을 쏘련원동군 독립88여단으로 부르도록 하고 부대의 대외번호는 8461보병특별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은 그 존재와 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며 위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 축소하여 편성하는 원칙을 세워 여단규모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1로군 역량으로 편성된 제1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제1지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국제연합군의 조선지대였습니다.

그때 적들의 첩보암해활동으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군사관등급도 실제보다 낮게 상징적인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의 편성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는 모두 북야영에 집결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원동의 군사정치정세는 국제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소부대

우선 쏘련이 그 덕을 적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쏘련은 일본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고 중국동북지방과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수행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새로운 특수부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존재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원동군과 함께 활동하게 됨으로써 정규무력의 테두리속에서 조국해방작전에 필요한 가장 현대적인 작전수행능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쏘련경내에서 대사변이 도래할 때까지 조국해방의 과업을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정치적 준비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연합군본부에서 아파나셴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파나셴코는 그때 군사위원을 비롯한 참모부와 정치부, 후방부 일군들을 데리고 북야영에 왔습니다.

국제연합군은 그날 분열행진을 하였습니다. 분열행진대오의 맨 앞장에는 조선지대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지대가 행진을 잘했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국제연합군의 탄생을 경축하는 일종의 기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파나셴코와 함께 오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가 자기경력을 소개한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는 10월혁명 직후에 쏘비에트정권을 지키기 위해 백파들과도 싸우고 독일강점군과도 싸운 로투사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벌써 공민전쟁시기에 기병사단을 지휘하였으며 중앙아세아군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원동군사령관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쏘련 당국은 일찌부터 원동군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원동군사령관들은 모두 이름난 실력가들이였습니다. 쏘련의 력대 국방상들과 고위군사간부들 가운데는 원동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아파나셴코는 1943년 초에 쏘독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의 하나였던 워로네쥬전선 부사령관으로 조동되어갔다가 그 해 여름 치명상을 입고 전사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연합군의 전체장병들은 한자리에 모여 조중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던 그를 슬픔속에 추모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우애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쏘련인민이 당하고 있던 국난을 자기 나라의 국난처럼 여겼습니다. 쏘련군대가 전선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장병들이 서부전선에 보내달라고 탄원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제당과 쏘련당국은 연합군장병들이 참전을 요구할 때마다 당신들한테는 자기 조국을 해방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성새이고 유일한 보루였던 쏘련을 그처럼 열렬히 옹호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쏘련이 망하면 사회주의도 망하고 세계평화도 고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공통된 관념이였습니다.

적지않은 나라의 인명사전들은 내가 조선사람들로 꾸려진 큰 부대를 이끌고 스탈린그라드 격전에 참가했고 거기서 공을 세워 적기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들은 내가 베를린공격작전에도 제1선부대로 참가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쏘련정부로부터 적기훈장은 받았지만 스탈린그라드격전이나 베를린공격작전에 참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전의 필자들이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글들이 참전열로 끓던 훈련기지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제연합군의 존재는 조, 쏘, 중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두려워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떨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민들에게는 큰 신심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경내에 훈련기지를 정하고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신 사실과 관련된 적측의 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김일성**의 동정에 관한 건

입소중의 **김일성**은 … 지난해 여름 쏘련 하바로프스크로부터 … 연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중공요인 모택동, 하룡, 강생 등과 회견하고 일쏘개전전후에 있어 중공당군과 항연군과의 합작행동 기타 항연군의 금후에 있어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다시 연안부근에 있는 조선인공산당원과도 회견하고 각종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일성은 작년말경에 그곳에서 비행기로 쏘련에 돌아와 목하 쏘련하바로프스크부근에 있으면서 … 대만선 첩보 및 사상공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하바로프스크부근 야영학교에 조선인, 중국인 공비 기라 입쏘한 선만인불령분자, 피납치자 등 약 300명을 수용하여 하바로프스크 붉은 군대…의 지도원조하에 일쏘개전전후에 일제히 만주로 들어와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훈련교육중이라 한다.≫

≪남양경찰시장이 함경북도경찰부장에게 보낸 경찰자료, 소화 19년(1944년) 2월 21일≫

≪**김일성**은 지금 연안에 있으며 열하성에 군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한다. 또 니꼴라옙스끼(연해주)에는 순전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4개사단의 군대가 있으며 일쏘개전의 시기에는 4개사단의 군대가 결사대로서 북조선지방에 상륙하거나 혹은 낙하산을 타고 조선내에 강하할 것이다.≫

≪≪성대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전쟁후방교란 및 무장봉기 불온책동 사건철(4)≫고원경찰서, 소화20년(1945)≫

≪시베리아를 횡단해 돌아온 사람이 연설하면서 시베리아의 어느 곳에 주위가 10리나 되는 진지가 있고 거기에 조선기발이 꽂혀있으며 조선인군대가 수비를 서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모양이다.≫≪≪특고월보≫내무성경보군, 소화19년(1944) 2월분 79페지≫

국제연합군편성소식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싸우고 있던 반일애국역량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의 대원들이 삼삼오오 패를 지어 강

을 건너와 연합군에 합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위만군병사들이 반변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조직된 전이였던지 후였던지 요하현 동안진에 있던 위만군연대의 1개 중대가 저들의 지휘관과 일본장교를 처단한 다음 수많은 보총과 기관총, 척탄통 등을 가지고 목선을 타고 우쑤리강을 건너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부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면서 대일작전준비를 급속도로 다그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고대전쟁이건, 중세전쟁이건, 현대전쟁이건 군사작전의 근본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수단들이 발전하는데 따라 그것을 어떻게 구사하며 각이한 군종, 병종간의 협동과 배합작전을 어떻게 조직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전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이 노력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배가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현대전법구사능력은 훈련기지에서의 훈련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백두광야에서 연마해온 유격전법들을 더욱 완성하는 한편 정규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전법들을 익혀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담당한 주력군으로서의 정치군사적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갔습니다.

쏘련원동군도 국제연합군의 전투능력을 속성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1942년 11월 중순경에 아파나센코는 쏘련원동군 남부주둔군의 여단종합군사연습을 조직하고 거기에 연합군의 주요지휘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장갑열차를 타고 그 여단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거기서 여단의 동기종합연습이 진행되였습니다. 그날의 연습에는 4개의 보병대대와 탱크, 포, 박격포, 통신, 반탱크포 대대를 비롯하여 많은 무력이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이였던 것만큼 우리도 큰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그 연습을 참관하였습니다.

여단이 맡은 전투임무는 고지의 적을 공격소멸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였는데 낮 12시에 시작된 공격이 오후 4시에야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후 하바로프스크교외의 아무르강안에 주둔하고 있던 또 하나의 여단 군사연습도 참관하였습니다.

그날의 연습에서 여단앞에 제기된 임무는 벨리좁까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부대를 집결시키고 전투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연습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원동군부대들의 열병식도 참관하였습니다. 군사연습과 열병식에 동원된 여러 가지 현대적 무장장비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이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언제면 저런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게 될가. 이것이 군사연습과 열병식을 참관하는 과정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나라를 해방한 다음 인차 정규군건설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더욱더 확고한



국제연합군시절에 진행한 공연의 한 장면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조, 쏘, 중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진지한 노력과 상호협조의 덕으로 국제연합군은 짧은 기간에 현대전에 상응한 무장력으로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쏘련은 전선형편이 몹시 어려워 하나의 연대나 대대무력이 그리울 때에도 국제연합군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연합군이 오직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최후결전을 위해서만 착실히 준비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쏘련의 군사일군들은 스탈린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장병들을 얼마나 아끼는가에 대하여 자주 말해주었습니다. 스탈린은 조선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에서 싸운 매개전사들은 다 장차 자기조국을 해방하고 새 조국 건설을 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할 귀중한 사람들이므로 한 명의 손실도 없도록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쏘련 원동지역에서의 국제연합군의 창설과 발전은 구라파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항쟁역량을 결속하는데서도 좋은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1943년에 쏘련과 체코슬로바키아사이에 친선과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쏘련영토에서는 붉은군대와 함께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부대가 조직되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려단은 키예프해방전투와 벨라야 쎄르꼬비해방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군사작전들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폴란드도 쏘련영토에서 파쑈독일을 반대하여 싸울 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폴란드집단군은 루블린해방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폴란드땅을 독일파시스트강점자들의 마수에서 해방하기 위한 여러 군사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쏘련경내에서 국제연합군을 뭇고 활동하던 1943년 5월 국제공산당이 해산되었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왔습니다. 국제당의 해산을 두고 훈련기지에서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파쑈와의 대결을 위해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가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던 2차 대전도중에 어떻게 되어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 20여년동안이나 존재해온 국제당을 해산하였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레닌이 국제당을 조직한 것은 1919년입니다.

국제당이 해산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이유는 국제당이 세계혁명을 영도해오는 동안 각국에서 공산주의적 정당들과 혁명역량이 충분히 자라나 국제당의 중앙집권적인 영도와 간참이 없이도 자기나라 혁명을 자신의 노선과 힘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국제당이 해산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국제공산당의 존재가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보다 폭넓은 반파쑈연합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되고 있었던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파쑈연합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

는 새로운 양상의 연합이였습니다. 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파쑈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초이념, 초제도적인 입장은 사회주의국가인 쏘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연합, 공산주의자와 부르조아우익정객들과의 합작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반제를 이념으로, 세계의 공산주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국제당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공산당의 해산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당시 정세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남의 힘이나 노선에 의거하지 않고 혁명의 매단계에서 전략과 전술도 자체로 채택하고 혁명역량도 자체로 꾸리면서 만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해온 우리자신의 투쟁노정을 두고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제당이 해산되였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군의 테두리안에서 활동의 독자성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의연히 국제적인 벗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경내를 무대로 하여 벌인 군사정치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되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동향과 조직구조, 그 활동내용을 탐지하려는 일본 군부와 경찰, 특무기관의 책동은 참으로 집요한 것이었다.

일제는 국제공산당이 해산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차후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침의 추향과 특별하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활동을 두고 이러저러한 판단과 억측을 일삼기도 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국제공산당의 해산과 금후전망≫의 한 단락을 아래에 소개한다.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패전에로 이끌어감으로써 조선이 우선 민족해방, 민족적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당면한 전략적 목표로 될 것이며…무장투쟁의 임무에 대해 말한다면…만주에 있는 공산비 **김일성**일파 내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조선의용군의 활동과 같은 것은 이 방침의 표현으로서…현재의 조선에서의 운동은 일쏘관계의 여하에 따라서 규정되는데 일쏘현상유지의 경우와 정면충돌의 경우에 의하여 국면은 급전하며 후자의 경우 운동이 급속도로 테러화되어가거나 무장투쟁화될 것이라는 것은 동맹국인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실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사상휘보≫속간호 131페지, 소화18년(1943년)10월 고등법원 형사국사상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제당이 존재하거나 해산되었거나에 관계없이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인민자체의 투쟁으로서 독자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연합군의 조직과 그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은 혁명투쟁에서 매개나라의 자주성, 독자성과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의 두 개 원칙을 옳게 결합시킨 모범으로 됩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 나날에 얻은 성과와 경험은 일제를 격멸하는 최후격전의 나날에는 물론, 전후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합전선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데서도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7.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채세영

국제연합군시절에 나는 주보중, 장수전, 채세영, 풍중운을 비롯한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전우들과 함께 한 대오안에서 깊은 연계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중에서 나와의 연계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주보중이였습니다. 그와의 친교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전반기 간도에서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사업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주보중과는 반일병사위원회에도 함께 참가하고 나자구전투도 같이하였습니다. 왕청에 있을 때 북만원정을 두 차례 하였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보중이네를 만나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에 활동무대를 백두산지구와 서간도로 옮긴 후부터는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아니다.≫ 이것은 주보중이 나와 헤어질 때마다 격언처럼 한 말이였습니다. 활동무대가 다르고 투쟁노정도 각이하지만 공동항일을 하는 이상 어느 때든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 직전에 나를 만났을 때에도 주보중은 ≪그것보시오. **김**사령,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해만에 이루어진 해후여서 그때의 상봉은 참으로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양사령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노상 남만동지들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일제가 **김**사령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려운 고비들을 용케 이겨냈습니다. 동남만이 얼마나 위험한 전장인가 하는거야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바로프스크에 온 **김**사령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사령이 오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보중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퍼그나 늙어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임해설원에서 살아온 풍상고초가 역력히 어려있었습니다.

주보중은 고생이 많았겠다는 나의 말에 오히려 우리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만동무들이 겪은 고생이야 어떻게 비기겠는가,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연전연승했다니 우리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국제당일군들과 쏘련군지휘관들의 찬사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주보중을 만난 것은 국제당이 동북의 유격대지휘관들과

쏘련 원동군대표들의 회의를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만치 나와 주보중도 담화의 많은 몫을 이 회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돌리였습니다.

주보중의 고충은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 혁명투쟁에서의 독자성과 국제적 연대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중공중앙과의 연계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해 초조해 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원인 주보중이 당중앙의 지도밑에 동북혁명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해 동안 모대긴 것은 응당한 일이였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중공중앙과의 연계를 앞세우면서 쏘련과의 연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북지방에서 싸우고 있던 중국동지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이 한때 동북항일연군을 쏘련의 지휘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만큼 주보중이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였습니다.

그날 나와 주보중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아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과 협조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협동과 협조의 구체적 형식과 방법은 매개나라 민족혁명의 이익과 국제혁명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보중은 담화를 마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남만대표동지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반일병사위원회시절에도 **김**사령의 발언은 매번 우리의 화제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황에 맞게 서로 손잡고 일해 나갑시다.≫라고 뜨겁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나에 대한 주보중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쏘련을 옹호하고 쏘련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항상 지지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언행이나 처사에서 대국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매우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지키면서 아량을 가지고 동지적 협조정신을 잘 보여주면 대방의 그릇된 태도도 능히 바로잡을 수 있고 맺혔던 고리도 조만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보중은 머리를 끄덕이며 ≪아무튼 **김**사령은 노숙하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노숙해서가 아니라 주사령에게 한 가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처럼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해본 경험이야 없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렇지, 조선동지들이야 동만에서 민생단문제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지요 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길동에서 활동할 때 이미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까밝히고 그 잘못이 동만특위의 사업상 착오로부터 초래된 것이였다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도시절부터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대해 비교적 공명정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조직했을 때 주보중이 자기가 지휘하고 있던 동북항일연군 부대 안에 꾸려진 그 지부의 활동을 적극 떠밀어준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 일인가 하면 1936년 12월에 있은 일입니다.

주보중의 이 처사는 조선혁명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주보중이 조선혁명에 대해 그처럼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우리가 유격운동의 초창기부터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여러 차례의 연합작전을 통하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북만원정 때에는 원정대의 성원 중 과반수를 뚝 떼서 주보중이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북만동무들과 함께 연합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2차 북만원정때에는 2군과 5군의 합동총지휘부까지 구성해놓고 큼직큼직하게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지휘를 맡고 내가 정치위원으로 되었으며 평남양(리형박)이 부지휘를 담당하였습니다. 총부산하의 6개 부대가 활동지역을 분담하였는데 서부의 안도부대는 주보중이, 위하부대는 내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선지휘부, 중선지휘부… 하는 식으로 지역별 지휘부를 내오고 그 산하에 여러 부대들을 갈라서 배속시켜 무송으로부터 목릉일대를 오가며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나와 주보중과의 인연은 이처럼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인지 주보중은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나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쏘련사람들과 협의할 문제가 제기되어도 주보중은 먼저 내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간도시절부터 **김**사령의 조언에 습관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의 주보중은 그 어떤 형식상 위계에 구애되지 않고 나를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조선혁명의 지도자로, 연합군 내의 조선측대표로 인정하고 존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어떤 단체의 공동위원장처럼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것은 쌍방이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보중과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신뢰에 기초한 동지적, 형제적 관계였습니다.

내가 주보중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가 동북혁명의 개척과 발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업적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라는데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주보중은 자기는 두 가지의 잊지 못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는 항일유격투쟁에서 조선사람들이 선봉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주보중의 입장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응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동북혁명은 조선사람들을 때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주장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항일연군 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고 하면서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늘 격찬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혁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논 선봉적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1932년도에 건립된 억센 동만유격대와 1933년에 건립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 요하유격대는 모두 조선동지와 혁명적인 조선군중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후에 항일연군 제1, 2, 3, 4, 6, 7군으로 발전하였다. 제5군에도 적지 않은 우수한 조선동지들이 있었다, 항일연군 각 군내의 군장, 정치부주임으로부터 소대장, 지도원, 각급 군정영도간부는 모두 조선동지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왕신림에게 보낸 아래의 서한내용들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가장 훌륭한 군사간부이며 … 조선인동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군이다. 그는 만주남부와 압록강동부, 조선북부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체30(1941)년 7월 1일 왕신림에게 보낸 주보중의 서한≫

≪**김일성**은 남만 제1로군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요한 간부이다. 양정우, 위증민 두 동지가 희생된 이후 오직 **김일성**이 남만유격운동의 영도와 남만전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책임지고 있다.≫≪주체30(1941)년 9월 15일 왕신림에게 보낸 주보중의 서한≫

내가 주보중의 인간상에서 좋다고 보는 다른 하나는 그가 혁명투쟁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옹호정신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보중은 중국혁명을 쏘련혁명에 복종시키든가 쏘련혁명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쏘련혁명과의 연대, 쏘련옹호를 주장하면서도 항상 중국혁명의 독자성과 독자적 발전을 견지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주보중의 이런 원칙적 입장은 우리의 주장과 통하는 것이였습니다. 혁명가의 금새란 혁명에 대한 자주적 입장의 확고성에 정비례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혁명가의 권위는 높아지고 자주성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혁명은 백전백승하는 법입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주보중은 변함없이 나를 **김**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평양에 와서는 나를 한번도 **김**사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보중은 자기를 이전날처럼 허물없이 주사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꼭꼭 수상동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나를 부르는 것이 어딘가 귀에 설고 또 우리사이에 불필요한 간격을 두는 것만 같아 그전처럼 **김**사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주보중은 정색해서 그래서는 안되지요 하고 말하군 했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가끔 논쟁도 벌였습니다. 주보중이 한번 주장하면 요지부동이여서 양보를 얻어내기가 조련치 않았습니다. 나도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당에 가서는 양자의 주장이 조절보충되어 견해의 일치점에 도달하군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 사이의 우의는 더 두터워지고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드문히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주보중의 사담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가족과 동지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주위라고 부르는 어린 딸애가 있었습니다. 마흔고개에 본 자식이다보니 그 애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그 애의 재롱이 한 가지라도 늘면 주보중은 내앞에서 그것을 곧잘 자랑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가 느슨하게 피여오르군 하였습니다.

주보중과 그의 부인 왕일지는 오래동안 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만의 밀림속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안해와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에서 정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사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대주변에서 사는 나나이족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가 하면 하바로프스크거리의 하숙집 러시아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그 관찰력과 묘사솜씨가 그럴 듯했습니다.

한번은 주보중이 운남성의 자기고향마을에서 성대하게 쇠군 한다는 닭싸움명절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음력 2월 8일만 되면 새옷단장을 하고 나와 제 집 수닭의 목에 붉은띠를 매여놓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닭은 그 지방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지방의 선조들은 닭을 기르면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닭을 믿고 가정을 추세운다는 말까지 전해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국난을 타개하는데서는 닭따위를 믿을 수 없겠지만 수탉처럼 적수를

물리치는데서는 용감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사나이였으나 인정미가 있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덕은 덕으로 갚고 정에는 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반생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보중은 여러 해 동안 국제연합군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혁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도 국제주의적 의무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주보중이 만일 제것만 제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혁명임무를 외면하거나 세계혁명만세만 부르면서 자기나라 혁명을 방관시하였더라면 그는 시간을 내여 회고할 만한 인물로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보중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나는 주보중이 동북지방에 소부대들을 끊임없이 파견하여 유격운동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할 때마다 그가 중국인민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주보중이 연합군 안의 각 민족부대들의 친선단결과 쏘련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참된 국제주의전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보중은 국제연합군의 대오관리와 살림살이도 잘하였습니다. 각이한 민족부대의 집합체인 국제연합군의 생활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훈련강령의 작성과 훈련지도, 인사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락부건설을 비롯한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란 별만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주자가 생겨 그를 괴롭힌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자동차사고가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초기에는 일부 쏘련군관들과 보조가 잘 맞지 않아 주보중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쏘련군사당국의 엄한 요구가 쏘련군관들의 생활기풍을 일변시켰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말보다 실천적 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북야영에서 낙하산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주보중은 훈련 첫날부터 대원들과 함께 락하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 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으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보조산을 펴고서야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보중에게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했대야 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봄에 운남성부녀연합회 주임을 하던 왕일지가 위문단으로 평양에 왔다가 최고사령부로 나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전쟁의 중하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것을 보니 기쁘다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때 나에게 ≪보중의 부탁입니다. 절대로 위험한 전선 길을 걷지 말고 신변안전에 최대로 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그런 부탁을 하네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일지에게 ≪돌아가면 주사령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왕일지는 ≪이건 보중의 부탁이자 내 부탁이지요. 우리 중국사람들이 지금 수상동지의 신변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

하면 주보중은 국제연합군시절에도 소부대활동을 나간 내가 예정된 날자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밤 자리에 눕지 못하고 문밖을 들락날락하면서 걱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이 승리하고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청산된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에 주보중과 헤어지시었다. 그러나 우리수령님과 주보중사이에는 그 이후에도 전투적 우의에 찬 교제와 왕래가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 후 주보중과의 친분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고하시었다.

해방 후 나는 주보중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우리 나라에서 만났고 마지막 번은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주보중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온 것은 1946년 초봄이었습니다. 그를 남양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주보중은 동북민주연군 부총사령원 겸 길로군구 사령원으로 있으면서 국민당반동들과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장개석이 반공을 하면서 국민당군대를 총동원하여 해방지구에 달려드는 바람에 중국대륙은 또다시 국내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갔습니다. 주보중은 동북지방의 형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적아의 역량대비와 군사정치정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쫓겨간 다음 만주땅은 얼마동안 정치적 공백지대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어느 편이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개석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첨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당도 공산당도 만주를 중국전토장악을 위한 주요한 대결장으로 보았습니다.

국민당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함선과 비행기로 그리고 육로로 수십 만의 군대를 들이미는 통에 갓 조직된 동북지구의 민주연군은 우세한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주보중이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이런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한때 조직부장을 하다가 중공중앙 동북국의 부서기로 임명된 진운을 평양에 보내어 우리의 지원을 청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중국의 전우들이 장차 동북에서 진행하게될 작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죄다 해결해주고 최대한의 지원을 줄데 대해 쾌히 약속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 나라의 형편은 남을 도와줄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동북땅이 장개석의 세상으로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 당시 동북땅에서는 항일유격대출신의 우수한 군정간부들인 강건, 박락권, 최광을 비롯하여 약 25만 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동북해방 전투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왕일지도 동북해방작전과 관련된 주보중의 부탁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 온 것이 1946년 여름이 아니면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화가 이끄는 요동군구의 무력이 안산, 해성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안산, 해성 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대의 한 부대가 반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변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한 장개석은 반변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멸해치우겠다고 하면서 맹렬한 공세를 들이댔습니다. 반란부대는 그 공격에 밀려 조중국경연

안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이 막혀 더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보중은 반변부대를 구원할 방도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들을 연방 우리 나라에 보냈습니다. 왕일지도 그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남에 왔다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반변부대가 우리 나라 영토를 거쳐 동부만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왕일지를 만난 것은 1947년 초였습니다.

왕일지는 주보중을 대신하여 동북해방작전을 여러 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부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2만 여명의 부사병들과 가족, 후방인원, 2만여톤의 전략물자를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자면 아무래도 또 조선땅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김장군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일지는 전체 동북민중이 김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왕일지에게 우리가 원동에서 헤어질 때 임춘추가 기념으로 준 시계를 그냥 가지고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왕일지는 웃으면서 쏘련사람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조중친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차고다니겠다고 하던 그 시계를 어떻게 되어 쏘련사람에게 주었는지는 모를 일이였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임춘추가 몹시 애용하던 시계였습니다. 우리가 훈련기지를 떠나던 날 주보중과 왕일지는 석별의 정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인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춘추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 왕일지에게 주었습니다.

왕일지는 처음에 그 시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귀물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두라고, 앞으로 그 시계가 은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야 왕일지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춘이 해방된 다음 방송국을 장악하고 방송을 맡아하면서 무기운반에도 종종 참가했는데 그 시계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의 말에 의하면 무기운반을 할 때 쏘련군의 한 자동차운수대가 자기네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시계는 바로 그 쏘련군 운수대장에게 기념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일지는 결국 그 시계는 중, 조, 쏘 세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왕일지를 동북으로 인차 돌려보내지 않고 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에 와있는 동안 모란봉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습니다.

왕일지는 그 후에도 전략물자운반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왔습니다. 왕효명과 팽시로도 그 무렵 평양에 와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때 국제연합군 시절의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그 후 왕일지를 나에게 보낸 것이 아마도 1947년 여름이였던 것 같습니다. 동북민주연군이 50일 동안의 전투에서 8만 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42개의 성, 진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선형편은 여전히 긴장한 때였습니다. 민주연군측 장병들은 신발의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맨발로 진흙탕과 자갈밭을 행군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가 나를 찾아온 것은 신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을 다 중지하고 중국의 전우들에게 보낼 신발만 생산할 데 대한 긴급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중국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주체 36(1947)년의 첫 7개월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동북민주연군측을 위해 21만 톤의 물자를 수송해주었고 그 이듬해 한 해 동안에는 30만 900톤의 물자를 수송해 주었다고 한다.

조선을 통과한 인원은 주체 35(1946)년 하반년에 18개 부대에 이르렀고 주체 36(1947)년 9개월동안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동북근거지로 간 인원은 1만 명 이상이나 된다. 주체 37(1948)년에 남양교두를 통과하여 근 9천명이 두만강을 건너갔고 신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의 적지 않은 민주당파, 무당파와 해외교포 대표들이 조선을 경유하여 하얼빈으로 갔다. 사업상 용무로 조선을 통과한 중국공산당 간부들의 수는 더욱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동북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직후인 1948년 가을에 주보중은 왕일지와 딸 주위를 데리고 길림성정부 주석 겸 동북군구 부사령원의 자격으로 다시금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의 방문은 동북해방작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우리에게 사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이 기차에 싣고온 많은 양의 밀가루는 바로 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그때 주보중부부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김책이 동행하면서 안내도 하고 말동무도 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보중부부는 금강산에 있는 온천휴양소에서 얼마동안 휴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에서 돌아와 단풍경치에 감탄하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보중부부는 평양에 돌아오자 김책과 함께 만경대도 방문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직접 주보중부부를 데리고 **김정숙**과 함께 안길의 묘도 찾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보중을 회고할 때면 조국해방 전쟁 2계단때 있은 일을 종종 돌이켜보군합니다. 우리가 일시적 후퇴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낯모를 청년 2명이 나를 찾아와 주보중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보중이 동북해방작전을 지휘할 때부터 그의 부관과 운전수로 일하던 조선청년들인 현주영과 김길룡이였습니다. 주보중이 운남성 부성장으로 갈 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인데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조선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다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편지에서 몸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선의 전호속에 있다고 하면서 똑똑하고 책임성이 높은 두 청년을 나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 있던 때 주보중의 그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혁명동지들 사이의 우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간도와 북만에서 그리고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우리가 백설같이 순결한 감정을 가지고 나눈 전투적 우의와 우정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전우애란 생명력이 강한 사랑입니다. 전우애가 생명력이 강한 사랑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초연속에서 연마된 사랑이고 동지를 대신하여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리에 충실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의리로 하여 인간은 숭고한 존재로 되고 의리로 하여 인간생활은 백화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보중을 마지막으로 만나본 것은 1954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주보중은 그 때 고질병인 심장병이 도져 이화원 개수당에서 료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은래총리가 그를 베이징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해주었다고 하였습니

다.

주보중은 나를 만나자 얼싸안고 눈굽을 적셨습니다. 그 무쇠같은 사나이가 그 날은 눈물을 자꾸 흘렸습니다. 병상에 매인 몸이여서 그런지 마음마저 몹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 안부부터 물으면서 전쟁 3년간에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는가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병석에서도 쉬지 않고 저술활동을 하여 ≪동북항일유격전쟁과 항일연군≫이라는 큰 책도 남기였습니다. 이화원에서의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64년 2월 주보중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전에 조전을 보내던 날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무실을 거닐며 주보중을 추억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 나는 채세영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꽉 부둥켜안고 ≪로징≫, ≪로징≫하면서 꺼칠꺼칠한 볼로 내 볼을 막 비벼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나보다 스무살 가량이나 나이가 더 많은 채세영이 손우의 사람을 찾을 때처럼 ≪로≫자까지 붙여서 부르는 바람에 나는 이 **김일성**을 중늙은이로 만들 작정인가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김사령은 자기를 공산주의자로 이끌어준 선배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고 하였습니다.

채사령의 본명이 채조승입니다. 일본군대가 만주땅을 먹기 전에는 화룡현 어디에선가 경찰서장을 했다고 합니다. 9.18사변이 터지자 그는 경찰들로 자그마한 무장대를 무어가지고 반만항일에 나섰습니다.

내가 채세영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왕청지방에서 구국군의 1개 부대를 지휘하던 1933년이었습니다. 오의성부대와의 합작을 성사시킨 후 채세영을 찾아갔지만 담판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채세영은 연공을 하였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나와 두터운 친교를 맺었습니다. 채세영이 하고는 동녕현성전투도 같이하고 나자구전투도 같이하였습니다.

그 후 북만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채세영은 동북항일연군 5군 군장으로까지 되었습니다. 2차로 북만땅에 원정을 갔을 때 우리는 채세영이네 부대와 연합작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채세영은 중선지휘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액목과 영안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채세영은 나를 혁명선배로 존대해주면서 내앞에서 늘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게서 숭고한 인격미를 느꼈습니다.

나와 채세영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다음에 1지대와 4지대를 각각 지휘하였습니다.

이제는 채세영도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채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사상이 한인간을 어떻게 개조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입니다.

채세영의 미망인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동북항일연군 5군에 있다가 훈련기지에 왔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금수산의사당 홀에 들어설 때 나는 그 백발너머도 채세영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의 중국인 전우들 가운데는 동북항일연군 3로군 정치위원을 하던 풍중운도 있었습니다. 풍중운은 청화대학당지부 서기를 했으며 한때는 하얼빈에서 교원도 하였습니다. 혁명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는 북만성위와 산하 여러 현들에서 당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살이도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당사업과정에 범한 과오로 책벌을 받은 적도 있고 두차례난 총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풍중운은 동북항일유격운동과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연대문제를 풀기 위하여 1939년 가을부터 1940년 2월까지의 기간에 쏘련에 가서 활동하였습니다. 1940년대 초에 열린 북만성위와 길동성위의 연석회의, 그 후에 있은 쏘련당국과의 회의를 마련하는데서도 그의 노력이 컸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는 정치부 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군관교육을 위한 정치과목 교원도 하였습니다.

풍중운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오래전에 헤어진 처자들의 생사여부를 몰라 몹시 속을 썩이였습니다. 그가 처자 생각으로 잠 못들거나 우울해 할 때 동무들은 그에게 생사를 모르는 처자는 십중팔구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새 가정을 꾸리고 안착해서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풍중운은 그때마다 일생을 홀아비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여자는 보지 않겠다고 딱 잘라대군 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가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 정한 안해를 변함없이 기다리며 사랑하는 거기에도 혁명가, 인간으로서의 그의 고결하고 강직한 풍모가 비껴있었습니다.


풍중운

밤에 여가가 생길 때면 산책을 하며 애인을 그리는 중국노래를 흥얼거리던 풍중운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방 후 풍중운은 그렇게도 그리던 안해를 만나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보중처럼 깊은 존경과 감사의 정을 가지고 조선인민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적 투쟁을 언제나 격찬하였습니다.

풍중운은 송강성인민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동북항일연군 14년 고투간사≫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 담겨진 일부 내용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항련 제2군의 전신은 동만유격대이다.…동만항일유격대는 원래는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4개의 반일유격대대로 나뉘여져 있었다. 간도지구의 주민은 조선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만유격대는 조선사람들이 주요골간으로 되고 있었다.

… 저명한 조선의 민족적 영웅 **김일성**장군의 영솔하에 안도, 임강, 장백, 압록강에 진출하여 … 형제군인 항연 제1군 양정우사령과 회합하였다.

… 또한 **김일성**장군의 영솔하에 조선조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여러 차례 조선본토의 북부지역에 깊숙이 진출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여기에서 일제침략자들과 수차에 걸치는 혈전을 벌였으며 또한 비밀리에 조선인민의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들을 조직하였다.

… 해방 후 조선국내 남여노소 모두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을 환영하였으며 민족적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를 열렬히 외치였다.≫

송강성인민정부 주석으로 있던 풍중운은 그 후 베이징도서관 관장, 수리전력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수리전력부 부부장을 할 때 조중 양국간의 발전소공동이용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1958년 9월에 풍중운이 중국수리전력부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수풍발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소시설들을 돌아보고 언제우에 올라가 수풍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면서 압록강에 새로운 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수력발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데 대해 의논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풍중운은 그 후 문화대혁명 때 우파로 몰려 고생하다가 1968년 봄에 감옥에서 사

망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생일 80돌 때 풍중운의 부인 설문이 아들딸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풍중운이 그렇게도 그리던 부인이였습니다.

항일전쟁시기 만주성위일군이였던 설문은 자그마한 키에 지성이 넘치는 용모를 가진 여인이였습니다.


이민

설문의 말에 의하면 풍중운은 옥사한 때로부터 근 10년이 되는 1977년 말에 명예회복이 되여 베이징교외에 있는 팔보산열사릉에 안장되였다고 합니다.

풍중운의 가족일행이 눈물을 뿌리며 내 품에 안길 때 나도 흘러간 옛일을 추억하며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풍중운의 유가족들은 그 후에도 우리 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풍중운의 맏딸 풍억라가 평양에 와있을 때 환갑을 맞게 되였습니다. 그때 **김정일**동무가 그에게 환갑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와 풍중운사이에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친분관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 맥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정치일군으로 활동한 장수전도 내가 가깝게 지낸 중국전우들중 한 사람입니다. 장수전은 북만에 있을 때 3로군 군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리조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는 풍중운과도 막역한 사이였지만 김책과도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풍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겸허성과 헌신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와는 첫 대면에 벌써 친구로 되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동지들을 내세우고 힘든 일이 나서면 제몸을 내대군하는 그에게 나는 정이 푹 들었습니다.

국제당이 가지고 있던 유격부대지휘성원들에 대한 평정서에서는 장수전을 훌륭한 조직자로, 용감하고 정력적이며 창발성이 높은 유격대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덕

항일전쟁시기 그가 창작한 ≪로영의 노래≫를 북만유격대원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다음 장수전은 중공 송강지구위원회 서기, 송강성 부성장 등 중임을 맡아가지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하얼빈에서 국민당특무들에게 암살되였습니다.

이제는 주보중도 장수전도 풍중운도 다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1992년 4월 국제연합군 시절의 옛전우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생일 80돌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진뢰와 그의 안해 이민 그리고 이재덕… 그들은 다 귀빈들이였습니다.

진뢰는 원래 동북항일연군 6군 군부선전과장도 하고 3연대 정치주임도 한 사람이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는 소대장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중공 흑룡강성위 서기, 흑룡강성장 등을 하였습니다. 그가 흑룡강성친선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온 것은 흑룡강성당고문위원회 주임을 할 때입니다.

진뢰는 생일 80돌을 맞는 나에게 ≪천추세 축 **김일성**동지 팔추대수≫라고 쓴 족자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내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삼천리강산에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웠다고 하면서 내가 고려국과 더불어 천만년 장수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뢰는 서예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였습니다.

이민은 항일전쟁때 부르던 가요 100곡을 묶은 혁명가요집을 선물하였습니다. 국

제연합군 시절에 그는 방송원을 하였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친근한 인방으로 살아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대전의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한 전호에서 피와 살과 뼈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 고귀한 투쟁전통과 형제적 우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화원으로 활짝 꽃펴나게 될 것입니다.

주체 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였다는 보도가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갔다. 이 청천벽력같은 부음앞에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온 세계가 눈물을 뿌리며 그이의 서거를 슬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국제연합군시절의 지휘관 진뢰

진뢰와 리민은 우리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해 승용차로 하얼빈을 떠났다.

심양에 있는 우리 나라 총영사관으로부터 진뢰부부가 육로로 우리 나라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교두에서 그들을 맞아 평양으로 안내하기 위한 대책을 친히 세워주시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마련한 승용차가 압록강을 건너온 진뢰부부를 태우고 신안주까지 왔을 때 거기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가 그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얼빈을 떠나 장장 2,500리를 밤낮으로 이틀 동안이나 달려오면서도 진뢰부부를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항일전쟁의 그날부터 그들의 뇌리에 깊이 찍혀진 우리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그들 부부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전에 당도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랜 여로에서 구겨진 옷의 주름살을 펼 사이도 없이 우리수령님의 곁으로 달려온 그들 부부는 경애하는 주석동지, 당신의 전우 진뢰와 이민이 왔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뿌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추도대회 주석단 단상에서 진뢰부부를 만나주시었다.

주보중의 딸 주위는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지 못한 것을 일생의 한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체84(1995)년 10월에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편지와 함께 자기가 손수 편집한 화첩을 올리었다. 그 화첩에는 주보중의 한 생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자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수록한 사진문헌들도 여러 장 있었다.

주위가 조선방문의 소망을 이룬 것은 주체85(1996)년 여름이었다. 어린시절 원동의 훈련기지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온 우리수령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안고 숨가쁘게 평양으로 달려온 주위는 여장을 풀기 바쁘게 금수산기념궁전부터 찾았다.

≪**김일성**주석님!… 주위가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이 주위를 봐주실수 없습니까. 주석님…≫

그는 입속말로 이렇게 뇌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주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조중친선을 빛내이는 한 떨기 꽃으로 더욱 싱싱하게 피어날 맹세가 불타올랐다.

8. 북만에서 온 투사들


최용건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한 후 하룬가 이틀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길이 나에게 말하기를 멀지 않은 곳에 최용건이 와있는데 나를 몹시 만나보고 싶어하더라고 하면서 내가 도착한 것을 모르니 그렇지 알았으면 한 달음에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최용건을 무척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김책, 강건, 허형식, 박길송이네들과 함께 이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전우들 중 한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간도지방에서 활동할 때 조직한 제2차 북만원정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김책과 최용건을 비롯한 북만일대의 조선인 전우들을 만나 그들의 투쟁을 도와주자는데 있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때 그 목적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용건도 우리한테 연락원을 네 번이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락원 중 한 사람은 돈화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남만과 북만의 여러 지역에 널려서 활동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합작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려는 것은 우리모두의 공통된 염원이고 지향이였습니다.

최용건은 북만의 항일연군 건설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공로자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항일연군 4군과 7군은 그가 주역이 되어 건설한 부대였습니다. 최용건은 원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군참모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나에게 최용건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인 박훈이였습니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훈련을 다그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큰 애로가 군사교관의 부족이였습니다. 유격대를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대를 훈련시킬만한 군사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차광수와 박훈은 마주앉기만 하면 어디서 군사전문가를 데려올 수 없을가 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최용건도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훈은 나에게 손중산이 서거한 후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황포군관학교에 있던 조선청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인물은 최추해이다, 그는 황포군관학교에 있을 때 훈련 교관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최추해란 최용건의 다른 이름이였습니다. 최용건은 최추해 외에

김지강과 최석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용건이 하바로프스크에 와있다는 말에 그렇다면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안길이를 앞세우고 숙소에 도착하자 최용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깨가 쩍 버그러진 무관형의 사나이였습니다.

≪만주에서 만나지 못한 **김**사령을 아라사에 와서야 만나는구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인사삼아 하는 말이였습니다.

최용건은 그런 말을 하고나서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인차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와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맞게되어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내 평생 **김**사령과 함께 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이젠 헤어지지 맙시다.≫

최용건은 혁명의 길에 나선후 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최용건이 중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미국인교장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이 일어났습니다. 최용건은 이 동맹휴학의 주모자였습니다. 미국인교장이 겁을 먹고 빽소니를 쳤지만 일본관헌들의 간섭으로 최용건을 비롯하여 투쟁을 조직지도한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퇴학당하였습니다.

최용건은 그 후 3.1인민봉기에도 참가하고 반일출판물발간사업에도 관여하였는데 그 때문에 형무소맛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서울에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상해임정의 공작원과 친교를 맺게 되어 그와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그가 잡아끄는대로 상해임시정부를 찾아 조국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상해까지 가기는 했지만 최용건은 임시정부의 실태를 보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공산주의운동에 발을 들려놓은 그는 투쟁속에서 일정한 군사적 경험도 얻게 되었으나 조국을 떠날 때 품었던 국권수복의 뜻과는 달리 중국혁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청년들은 중국혁명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딴 나라 혁명을 하면서도 보람은 느꼈지만 어쩐지 변두리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 서글픈 심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로는 중국혁명이자 조선혁명이고 조선혁명이자 중국혁명이라는 등식까지 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고국의 현실을 등지고 멀리로 달아나버리는 것만 같아 늘 죄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손중산이 연쏘, 연공, 부조공농을 제창하며 국공합작에 의거하여 북경정부를 전복하고 국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을 때 최용건은 그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북벌의 성공으로 국민혁명세력이 중국동북지방까지 장악하게 되면 조선독립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그가 바라는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중산이 서거하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였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서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살의 시기에 관내에서 장개석의 손에 희생된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용건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의 선풍을 피해서 관내를 탈출하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북만이었다고 합니다. 최용

건은 그때 자기가 간도로 가지 않고 북만으로 직행한 것은 항로미실과 같은 실책이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간도로 갔더라면 **김**사령도 더 일찌이 만나고 조선혁명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수 있었겠는데 참 아쉽게 됐소. 일생일대의 회한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도 최용건과 같은 군사전문가와 일찍부터 손을 잡지 못한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김책이나 최용건과 같은 사람들이 동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당신과 같은 골간들이 북만에 가서 항일의 불을 지폈기에 그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혁명화하고 항일연군운동도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군중을 혁명화해 놓으면 그것이 다 조선혁명을 위한 준비로 되고 밑천으로 된다, 그리고 중국혁명에도 이로운 일로 된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서로 분리시켜 고찰하지 말자, 중국 땅에서 혁명하는 이상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 중국항일역량과의 공동전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북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중국의 해방을 위한 일인 동시에 조선의 해방을 위한 일로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용건은 지난날의 생활에서 자기를 제일 괴롭힌 것이 고독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고독했는가고 하는 내 질문에 그는 적이 너무 강대하고 혁명의 전도가 너무 요원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다가 중국사람들속에서 살다나니 자연히 고독스러워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이 심하게 치밀 때면 백두산에서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보니 그가 나한테 연락원을 네 번이나 파견한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최용건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달받았을 때의 충격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받아 읽은 다음부터 조선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려면 백두산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부대와의 연계라도 강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기에 나도 북만의 조선인전우들을 만나기 위해 1935년에 2차 북만원정을 조직하던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나와 최용건은 동만과 북만에서 무장대오를 꾸리느라고 바삐 뛰어다니던 1930년대 초의 일들에 대해서도 화제에 올리였습니다.

최용건은 북만의 농민들속에 훈련소를 내오고 무장대오를 조직했지만 역량을 늘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전민항쟁을 주장한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전민을 어떤 방법으로 항쟁에 동원시킬 생각인지 그 구상을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선민족의 대다수가 극한상태에서 민족의 재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그들을 무장시키면 수십 만대군이 생기게 된다, 어떤 식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가, 일하면서 무장활동을 하는 반군사조직들을 도처에 내오자는 것이다, 공장지구에서는 노동자부대들이 나올 것이고 농촌에서는 농민부대가 나올 것이며 도시에서는 학생부대가 나올 것이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북부조선일대에서는 벌써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전국각지에 다 내오자는 것이다, 누가 조직하는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골간들이 각 지방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최용건에게 이것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다, 세계대세는 지금 일본제국주의가 망하는 방향에로 번져지고 있다, 일본이 지금 중국과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조

만간에 더 큰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중일전선의 형편도 막막한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일본이 망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다, 몇 해 안으로 최후결전의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런 시각이 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온 나라의 항쟁조직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전민항쟁의 방법으로 최후결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조국해방작전에 대한 나의 구상이며 자력독립노선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최용건은 그 말을 듣고나서 자기의 민중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조국의 인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해방작전의 담당자로는 보지 않았다, 혁명이란 선각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이 혁명의 동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야 혁명을 하겠는가, 선각자들이 피를 흘려서 인민들에게 해방된 조국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을 보는 나의 관점이였다, 그래서 대중혁명화를 위한 정치사업보다 군사일면에 치중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화제가 오가는 사이에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보이던 최용건이 이따금씩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용건은 자기는 하바로프스크에 오면서도 쏘련과의 군사적 협조에 대해서만 관심했지 조선국내에서의 전민무장이나 조국해방작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김**사령을 만났으니 앞길이 환히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령, 솔직한 심정인데 나는 백두산에 가서 싸우고 싶었소, 백두산에 가야 나도 조선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평대원을 해도 좋고 아무 것을 해도 좋으니 백두산에 가서 **김**사령의 부하로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최용건은 눈물을 머금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만, 동만, 북만에 흩어져 싸우던 조선의 혁명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손을 더 굳게 잡고 조선을 위해 싸웁시다.≫

이것은 최용건의 숙소를 떠날 때 내가 한 말이였습니다.

나는 최용건과의 상봉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한 말속에는 여러 해를 두고 품어온 숙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는 경우에도 제나라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강렬한 염원이였으며 하나의 중심을 내세우고 그 두리에 집결하여 주체적으로 혁명을 해나가려는 확고한 지향이였습니다.

그것은 최용건 한 사람만의 염원이나 지향이 아니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만에 있건 동만에 있건 북만에 있건 모두가 다 그런 염원과 지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용건이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처럼 절절하게 말한 것은 우리에 대한 신임과 기대의 표시였으며 혁명을 해도 조선혁명을 하고 죽어도 조선을 위해 죽겠다는 애국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최용건이 품었던 소원가운데서 많은 몫은 그 후 국제연합군의 조직으로 하여 스스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나와 첫 상봉을 한 때로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백두산에 가서 함께 싸우고 싶다던 그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동에서 내가 만난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는 강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되기 전에 나는 북야영에 갔다가 강건을 만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와했던지 거기에 있던 2로군과 3로군의 군정간부

들이 다들 놀라와 하였습니다.

북만의 군정간부들 가운데서 나와 강건의 연고관계를 아는 사람은 주보중을 비롯해서 5군 출신의 몇몇 지휘관들뿐이였습니다.

나와 강건은 구면이였습니다. 나는 만주에 있을 때 몇 번 강건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번은 1차 북만원정 때였고 다른 한번은 2차 북만원정 때였습니다.

강건은 1938년부터 5군 제3사 9연대 정치위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입대 후 얼마 안되어 연대급정치일군이 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건

우리가 소할바령회의에서 소부대활동방침을 채택한 후 5군에서도 부대개편을 하였습니다. 강건은 그때 제2로군 총지휘부 직속 경위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경위대의 대장은 박락권이였습니다.

나는 북만으로 가고오는 통신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강건의 소식을 묻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가 잘 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건은 5군에서 발전이 빠르고 전도가 촉망되는 군사적 재능을 소유한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대 후 2-3년 안팎에 인차 쟁쟁한 인물로 될 수 있은 것은 싸움을 잘한 데도 있었지만 인민을 지극히 사랑한 데도 있습니다.

인민들이 강건을 고지식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몹시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대오를 이끌고 주민부락들에 들어서면 인민들은 강정위가 왔다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 자식들을 부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만큼 강건이네 부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강건이 부대의 기강을 단단히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조직성과 규율성도 강했다고 합니다.

강건은 싸움도 본때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재능과 수완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소부대활동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강건은 매복습격과 열차전복전투를 특별히 잘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장교들만 실은 열차를 요정냈습니다. 그는 소부대활동시기 여러 차례의 열차전복전투와 철교, 도로, 군수창고에 대한 파괴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강건을 다시 만난 그날 우리는 아무르 강반에서 장시간 회포를 풀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때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나랑 강건이랑 살던 집을 그때는 도리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리집에서 국제연합군의 주요지휘관들이 살았습니다.

도리집이란 당시 시베리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통식으로 된 주택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이 빙 둘러가며 배열된 집이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강건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고와 실천에서 틀이 없는 그는 말도 재미나게 하였습니다. 그를 메마르고 딱딱한 군사지휘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 강건을 잘 모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건은 냉철하고 고지식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자기주장이나 견해에 치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그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아무 분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숨김없이 터놓군 하였습니다.

강건은 고향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이였습니다. 그가 상주를 떠난 것은 10살 때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

만 고향에 대한 표상이 아주 구체적이였고 그리움도 대단히 절절하였습니다.

그때 강건이한테서 상주가 술과 명주로 이름난 고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건의 말에 의하면 상주에서는 감도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상주의 술과 감과 명주에 대해서, 낙동강과 속리산에 대해서 말할 때면 강건의 눈에서는 매번 물기가 번들거리였습니다. 겉보기에 메마르고 냉철해보이는 사람이 고향에 대한 화제를 꺼내기만 하면 시인들처럼 감정을 걷잡지 못하였고 평상시보다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에 남의 집 민며느리로 두고온 누이에 대해서도 아프게 회상하였습니다.


강상호

강건이처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혁명을 해도 열렬하게 합니다. 향토애가 강한 사람은 조국애도 강하고 조국애가 강한 사람은 혁명열도 높습니다.

나와 강건과의 교우는 국제연합군시절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내가 강건의 인간상에서 특별히 탄복한 것은 그의 남다른 군사적 안목과 높은 책임성이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면 열을 내여 자기견해를 발표하군 했는데 그 주장이 독특하고 심도도 깊었습니다.

강건은 중국말도 잘했고 러어도 잘했습니다. 그가 러어공부를 시작한 것은 북야영에 들어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쏘련군관들과 간단한 회화도 하고 노문으로 된 쏘련군사규범책도 제힘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에 대해서는 쏘련사람들도 중국사람들도 다 탄복하였습니다. 그는 한문약자도 자기식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강건의 발전을 두고 제일 기뻐한 사람은 김책이였습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였습니다. 김책이 영안에서 활동할 때 사립학교에서 얼마동안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건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태는 사립학교시절에도 수재로 소문났지요. 그 시절에 벌써 ≪삼국연의≫를 뜬금으로 외우더라니까요.≫

김책이 늘 자랑삼아 하는 말이였습니다. 신태란 강건의 본명입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지만 품성을 보면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김책은 생전에 대바르고 고지식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강건도 그만 못지않게 대바르고 고지식했습니다. 원칙성이나 전개력을 보아도 두 사람은 한 형타에서 찍어낸 것처럼 어슷비슷했습니다.

강건이 해방 후 총참모장을 할 때 그의 수하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혁명연조가 오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다 강건을 어렵게 대하였습니다.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건은 원칙앞에서는 상대가 누구이건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 상대가 가까운 혈육이라고 해도 원칙을 저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일군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강건의 충실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따라배우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옳은 요구입니다. 강건은 후대들이 따라배울만한 재능있는 일군이며 매력있는 군사지휘관입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전사했으니

그렇지 살아있었더라면 무력건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강건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혁명에 깡그리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는 중국혁명을 돕느라고 조국에도 나오지 못하고 길동분구사령관으로 동북해방작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전봉서

강건은 동북해방작전을 할 때 조선사람들로 많은 부대를 꾸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에 참가한 조선사람의 수가 무려 2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는 과정에 그는 위탈까지 만났습니다. 조국에 돌아와 보안간부훈련소 2소 소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강건은 위궤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식사를 제시간에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궤양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연회 때 강건이 술은 물론, 사이다도 못 마시게 하였습니다.

인민무력건설분야에서 강건이 쌓은 업적이 큽니다.

서울해방 전투와 대전해방 전투의 승리를 비롯하여 전쟁1계단때 우리 인민부대가 거둔 전과속에는 강건의 공로도 크게 깃들어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낙동강계선에 진출한 후 강건은 나에게 전선형편을 보고하다가 며칠 후에는 고향 상주에 가서 누이와도 상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건의 그 말은 유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9월 그는 고향이 멀지 않은 곳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강건은 재능있는 일군이였습니다. 그는 정치에도 군사에도 다 능하였습니다. 강건이 전사했을 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였습니다. 우리가 젊은 총참모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쏘련사람들도 부러워하였습니다. 강건이 그처럼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강건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의 공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1중앙군관학교를 강건군관학교로 명명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20돐 때에는 사리원시에 강건의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강건을 잃은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주 강건을 생각하군 합니다.


김지명

동만출신 항일투사들이 원동의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한결같이 바란 것은 북만에서 투쟁하던 조선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였습니다. 북만사람들도 원동에 들어갈 때 같은 심정이였다고 합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 갔을 때 북만에서 들어온 조선인대원들은 모두 병실 밖에 뛰쳐나와 나를 환영해주었습니다. 절대다수가 나와는 초면이였습니다. 북야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북만출신의 조선인투사들은 동만사람들을 고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북만이나 동만이나 다같이 만주땅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북만보다야 동만이 조선과는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조선사람들이 개척한 동만땅이고 조선사람들이 개척한 동만혁명이니 다들 그 고장을 고국의 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습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제일 유표하게 보인 사람은 콧수염을 기른 김룡화였습니다. 그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스개대장인 최용진이였습니다. 그도 역시 콧수염을 길렀습니다. 그가 한발앞에 나서서 동료들을 한 사람한 사람 소개해주었는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어찌나 덜렁거리는지 초면이라는 느낌을 조금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강상호는 기억력이 비상하다, 김룡화와 김대홍은 명사수이다, 장상룡, 김지명, 전봉서는 엉치가 가볍고 달구지바퀴처럼 부지런하다, 김증동은 눈썰미가 빠르다, 유응삼은 실농군이다라는 식으로 개개의 특징을 단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군 하였습니다. 훗날 지내보니 그때의 그 소개가 다 정확하였습니다.


최용진

강상호는 머리가 명석했고 김룡화와 김대홍은 한다하는 명사수들이었으며 장상룡이나 김지명이나 전봉서, 박우섭, 김양춘과 같은 사람들은 다 무슨 일거리를 맡기면 묵여두지 않고 가뿐가뿐 해치우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가들이었습니다. 장상룡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나와 김책 사이에서 심부름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유응삼은 농사물계에 밝은 사람이였습니다. 북만에 있을 때도 유격구농사를 주관했지만 북야영에서도 부업지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였습니다. 한때 그는 인민무력부에서 부업부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민철이와 이종산이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종산은 북만사람들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린 대원이였습니다. 그가 비상소집을 알리는 총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던 일을 최용진이 상기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습니다.

북만에서 온 여대원들은 대체로 성격이 개방적이였습니다. 북만에서는 무연한 평원이 많습니다. 사람이 넓은 고장에서 살면 성미도 호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 탔습니다.

북만의 여대원들 가운데서 무전을 제일 잘 친 동무는 박경숙과 박경옥이고 기마술이 제일 높은 동무는 왕옥환이였습니다. 이정숙도 말을 잘 탄다고 하였습니다. 허창숙, 전순희, 항지숙은 한다하는 재봉대출신들이였습니다. 이계향은 사격명수였습니다.

최용진은 동료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 마디씩 특특 희떠운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군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최용진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서간도 시절에도 더러 들은 바가 있지만 정작 만나고보니 그는 소문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최용진이 유명한 싸움군이고 배짱군이라는 것은 주력부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군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발동선을 타고 시찰하는 일본군토벌대고위장교와 그 수원들을 몰살시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발휘한 때부터입니다.

최용진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였습니다.

그가 북만에서 연대장인가 중대장을 할 때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려고 자위단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최용진의 아버지는 원래 무장을 들고 독립군에서 싸우던 반일독립운동자였습니다. 독립군운동이 흐지부지된 후 그가 총을 놓고 은퇴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자 적들은 조선사람들을 분열이간시키는데 써먹으려고 그를 자위단에 강제적으로 밀

어 넣었습니다.

최용진이 지금 부대가 식량고생을 하고 있는데 쌀을 좀 달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너에게 줄 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딱 잡아떼였습니다.

사실 최용진이네 집에는 땅마지기도 좀 있었고 쌀도 넉넉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 조반석죽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최용진 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자위단원들앞에서 유격대와 내통 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최용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독립군을 했다 신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아버지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하지 않겠는가, 항일유격대원들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나 해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찬노숙하면 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유격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르고 민족도 모르는 역적이다, 쌀을 주지 않으면 가만놔두지 않겠다고 하 다.


박경옥

아들의 말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튼 최용진의 아버지는 그에게 쌀을 열다섯 달구지나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식량과 무기를 구입하여 유격대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위단의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을 들고 독립군을 따라다니던 왕년의 그 애국심과 절개를 버리지 않고 원군운동을 꾸준하게 벌려나갔습니다.

그 후 일본놈들은 그를 학살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 최용진은 우리 지대에서 중대장을 하였습니다. 최용진중대라면 쏘련사람들도 탄복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1중대가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성이 높고 승벽이 강하고 일욕심이 많은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용진은 해방 후 평양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위치에서 간첩암해분자들과의 투쟁도 잘하였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정규무력의 골간을 키워내는 사업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가 수산상을 할 때에는 고기도 많이 잡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부수상도 하였습니다.


허창숙

나는 훈련기지에서 우리가 북만에 파견했던 투사들과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최광, 김경석, 전창철, 박락권, 김옥순, 안정숙과 같은 투사들은 다 우리가 동만에서 활동할 때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최광은 나를 만나자 이게 몇 해만인가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 울고나서는 ≪장군님, 나는 북만에 있으면서도 늘 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등을 떠밀며 쫓아내도 다른 부대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그는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내가 최광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아동국장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동단연예대를 데리고 나한테 와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1차 북만원정을 떠날 무렵에는 아동국장사업을 그만두고 청년의용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광은 총을 쏘면 총알이 깍지채로 나가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입대하자마자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조묘태에서 전투가 붙었을 때 그가 나를 호위한다고 하면서 소대를 데리고 요영

구 서쪽산에 와서 밤을 새우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최광은 노혹산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원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보중이네 5군 지휘부에서 경위대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최광을 몹시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보중은 동북에서의 대일작전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할 때 우리에게 선참으로 강건, 최광, 박락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계향

강건은 동북에 가서 분구사령관을 하고 최광, 박락권, 남창수는 각각 연대장을 하였습니다.

최광이네 연대의 활동구역은 왕청현일대였습니다. 그들은 만주국시절에 일본사람이 저축해둔 고량미를 먹으면서 부대도 꾸리고 전투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최광이네가 조직하는 군대가 너무 많다고 자꾸 시비하였습니다. 현에는 군대를 200명밖에 둘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광은 현소재지가 아닌 농촌들에 나가 군대초모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조직한 무장대오가 그 후 동북해방작전은 물론, 우리 나라 군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최광이네 부대는 돈화쪽에 가서도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조직도 내오고 군중조직들도 꾸리였습니다.

우리가 최광을 조국으로 소환한 것은 1946년 초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조국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부대를 인계한 다음 200명 가량의 선발된 인원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던 날은 김책과 무정이 역에 나가 마중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숙**은 최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밥상을 차리였습니다.

최광은 조국에 돌아온 후 보안간부훈련소 1소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조선인민군 1사 사단장으로 조국해방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나라 군건설을 위해 세운 공적이 컸습니다.


최광

최광은 인간으로서도 성실했고 군사가로서도 성실하였습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면서 1년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침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사람입니다. 혁명을 하는 과정에 곡절도 겪고 고민도 하였지만 절대로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무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김정일동무도 그를 몹시 신임하고 사랑하고 내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최광을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후 70고령의 그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박길송과 허형식이도 꼭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그들과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북만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허형식은 주하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입니다.

김책이 허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북만출신의 투사들치고 허형식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책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허형식이 강남으로 동기행군을 할 때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는 사연이였습니다. 그 행군이 보통행군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허형식은 대원들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지휘관들도 보초를 서게 하고 자기자신도 보초를 섰습니다. 시계가 없는 때여서 향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향대 한 가치가 다타면 교대시간이 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허형식

어느날 밤 허형식은 문전보초를 서다가 실수하여 교대시간을 어기였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대원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고 밤이 되자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참모장이 책벌근무까지 서는 것을 본 한 대원이 너무나 민망스러워 향대를 절반가량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형식은 그 대원에게 자기 지휘관을 생각하는 동무의 심정에 대해서는 나도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동무는 중요한 것을 놓치였다, 혁명대오내에는 두 가지 규율이 있을 수 없다, 한번 정한 질서는 누구나 꼭같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오안에 규율이 서는 것이다, 동무도 나도 오늘밤 다시 책벌근무를 서면서 제가끔 자기를 돌이켜보자 하고는 그날밤 또다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허형식은 훈련기지에 빨리 들어오라고 김책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도 계획했던 작전을 마무리하려고 하루하루 날자를 미루다가 그만 훈련기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투에서 희생되였습니다.

그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도 허형식과 같은 큰 지휘관 한 사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허형식의 희생은 조국해방작전을 설계하고 있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까운 손실로 되었습니다.

박길송은 왕청에서 활동하다가 북만에 가서 지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오중화의 영향으로 어린나이에 추수, 춘황 투쟁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은 소작농사를 하면서 배사공노릇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 노인을 잘 압니다. 인민들이 우리 부대에 보내는 원군물자를 그 노인이 배로 여러 번 실어다주었습니다.

박길송은 아동국장을 할 때 내 방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차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일욕심이 대단한 청년이였습니다. 아동국장사업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참군할 기회만을 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차 북만원정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입대청원을 부결하고 그를 나자구에 공작원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나자구에는 왕청, 훈춘 일대의 유격구들에서 살던 혁명군중이 집결되어있었습니다. 그 군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임자가 박길송이였습니다. 그는 군중공작의 능수였습니다.

그 후 통신원들을 통해 박길송의 소식을 몇 번 들었습니다.

박길송이 북만으로 들어간 것은 나자구일대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다가 병보석으로 놓여나온 다음 우리 부대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나자구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옥중투쟁을 잘하였습니다.

박길송은 노야령을 넘을 때부터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

다. 그러다가 영안현 소래지팡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대에 입대하였다고 합니다.

박길송은 20대에 벌써 지대장의 중책을 지니였습니다. 그는 공청생활에서도 모범이였습니다. 박길송이 지대장을 하던 시절에 이종산이 그의 연락병을 하였습니다.

박길송지대는 싸움을 잘하는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박길송이네 지대에는 기마대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 기마대를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박길송은 계획했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원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아쉽게도 희생되었습니다.



박길송

이종산이 무전으로 그 소식을 잡아가지고 나한테로 뛰어왔습니다. 박길송은 행군도중 적들과 격전을 벌이다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적들이 끌고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였을 때 제때에 들어왔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자구에서 살던 박길송의 아버지를 평양에 데려다가 살게 했을 때 최광과 김옥순은 자기네 집에 박덕심노인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이 이 사실을 알고 소부대활동 시기의 연고를 보더라도 박덕심아바이는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습니다.

두쪽 다 자기네가 맡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다보니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일은 나에게 결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의 1세들이 지닌 고상한 인간성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길송의 아버지가 어찌 김일이나 최광이나 김옥순이만의 아버지이겠는가, 그 노인은 우리모두의 아버지이고 우리모두는 그 노인의 아들딸들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박길송이 되어 노인을 모시자.

우리는 박덕심노인이 그 당시 상, 부상들이 살던 보통강기슭의 좋은 주택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북만의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김옥순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국제연합군의 별동대로 쏘련군대와의 공동정찰에 동원된 북만출신 투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사격명수이고 정찰공작도 잘하였습니다. 조국해방작전때에는 제1선에서 싸웠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전에 남만이나 동만, 북만에서 각각 싸웠지만 서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하여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갔습니다. 노야령이 동남만과 북만을 가르는 경계선으로는 되고 있지만 그 노야령이라는 산고개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에까지 금을 그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백두산에 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는 한결같은 염원은 그대로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되었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9.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



백두산해돋이

혁명이란 투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에는 투쟁도 있고 생활도 있습니다. 투쟁과 생활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투쟁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여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난신고속에서도 공산주의자들만이 설계할 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도덕의리의 이상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투쟁속에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투사들의 생활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더욱 풍만한 발전의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바야흐로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줄달음치던 1940년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것은 혁명의 2세들이 태어난 사실이였습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열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나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장손, 장손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끔찍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두벌 자식이 더 곱다고도 하는데 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고향에 계시다나니 증손자의 출생을 알리는 소식마저 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시절에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대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한 사람처럼 나를 가문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의 사랑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는 집안 자손이니 더 살뜰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백두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는 인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는 귀틀집과 천막에서, 때로는 빙설로 덮인 노천에서 청춘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치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 사람의 장군감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김책은 유년시절의 **김정일**을 늘 어린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백두산의 이깔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였으며 천백 배의 힘과 용기와 투지를 가다듬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였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을 공동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심없이 보살펴주는 전우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우리 일가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전에도 말한 것이지만 나는 한평생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올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동지들과 인민들의 덕분입니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 이후로는 줄곧 인민들과 동지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일 혁명의 나날이나, 새 조국 건설의 나날이나, 조국해방 전쟁의 나날이나 동지들은 나를 시종일관 성실하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어 총알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병마도 막아주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을 할 때도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힘이 진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동지들과 인민들로부터 찾군 했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캄캄하던 앞길도 트이였으며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제 동무들한테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우리가 북야영에 집결했던 그 해 겨울 만주와 원동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산짐승들까지 먹을 것을 찾아 민가에 내려오는 판이였습니다. 무릎을 치는 눈 때문에 거리로는 얼마동안 자동차도 다니지 못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귀틀집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김일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지에 돌아와 **김정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빵이 주식으로 되어있는 그곳 형편을 생각해서 쌀을 좀 구해왔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사령관에게 꼭 밥을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일이 나를 위해 쌀자루를 메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만날 통강냉이만 먹으면서도 나한테만은 어떻게 하나 쌀밥을 마련해 주려고 항상 마음을 썼습니다.



김일

유경수도 후방부에서 쌀을 조금씩 공급해주면 **김정숙**이한테 맡기고 가면서 소문을 내지 말고 나한테 밥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나와 전우들사이에 오고간 혁명적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도덕의리는 **김정일**이 태어난 후부터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한 도덕의리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갓 태어나자 **김정숙**은 그에게 나와 자기 군복을 줄여서 지은 옷을 입히었습니다.

훈련기지에 있을 때도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쏘련사람들도 전쟁을 치르느라고 배불리 먹지 못하였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자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여대원들이 자투리 천들을 모아다가 그에게 쪽무이포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냈습니다.

나의 전우들은 자기 사령관의 아들이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몹시 가슴아프게 여기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해방 후 임춘추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사업하다가 휴가차로 조국에 나올 때 모포 500장을 사다가 나와 **김정숙**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포를 모두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생활형편이 몹시 어려운 때였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온갖 지성을 다하여 **김정숙**과 **김정일**을 돌보아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군대를 몹시 따르고 군인들의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우들은 **김정일**이만 만나면 그의 머리에 군모부터 씌워주군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김정일**에게 선물하려고 적구공작을 하면서도 나무권총을 깎았습니다.

백두밀영과 달리 원동에 있을 때는 우리 집과 부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여가나 휴식일이 되면 많은 대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김정일**을 안고돌면서 걸음마도 떼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노래도 배워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르강변에 데리고나가 발동선이 지나가는 광경도 구경시키고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빨치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 것도 빨치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치산들이 지니고 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어 그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뫼부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김정숙과 **김정일**을 돕는데서는 남대원들도 짝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대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김정숙**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습니다.

백두밀영도 그렇지만 원동의 훈련기지라고 해야 영양제가 될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사람이 다 허리띠를 조이며 어렵게 사는 때여서 돕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사실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임춘추랑 많은 동무들이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빵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김정숙**이한테 가져다 주군 했습니다. 쏘독전선을 지원하느라고 누구나 다 배를 곯던 때였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빵을 모아주었습니다.

김정숙은 전우들이 가져온 빵중에서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간수해두었다가 그들에게 도로 돌려주군 하였습니다.


임춘추

언제인가 임춘추가 무전기를 메고 만주에 소부대공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령부와 무전연계를 가지면서 몇 달 동안 정치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였는데 기지로 들어올 때에는 적구에서 닭알까지 수십 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소부대공작지에서 우리 훈련기지라는데가 거리가 먼데다가 거기로 오가는 길이 평탄한 대통로도 아니고 총검이 숲을 이룬 사지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한 몸 건사도 하기 어려운 사지판으로 등에 무전기를 짊어진 사람이 닭알짐까지 들고오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춘추가 그 닭알보따리를 들고 우리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하는 그의 고결한 진정에 감복하였습니다.

사실 임춘추와 **김정숙**은 서로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부암동에서 야학에 다닐 때 임춘추는 곽지산과 함께 강사로 출연하였습니다.

임춘추는 병고로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많이주었습니다. **김정숙**의 가족도 임춘추한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숙**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구완해준 사람도 임춘추였다고 합니다.

임춘추는 국제연합군시절만이 아니라 한 생을 나와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임춘추는 **김정숙**의 일가친척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도 여러 모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후대들에게 **김정숙**, 김철주, 김기송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소개선전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여러 해 동안 자료작업을 한데 기초하여 그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임춘추는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면서 지식으로써 우리 사업을 보좌한 대표적인 인텔리입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역사기록과 저술활동을 하였습니다.

임춘추가 역사가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은 연길현 조양천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과 내가 한 담화를 기록으로 남긴 때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종군역사가로서 남호두회의와 남패자회의, 소할바령회의를 비롯한 주요회의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충실하게 회의기록을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국제당이 관계하는 출판물들에도 여러 건의 글을 써보냈습니다.

어느 해 였던지 잡지 ≪태평양≫이 그 잡지 특파원과 임춘추의 회견기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회견기를 보고 임춘추가 특파원에게 우리 부대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전투전에 잘 세운 계획과 오묘한 전술과 신속정확성, 용감성으로 하여 실패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우리 대오가 독자성이 강하고 문화적이며 낙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잡지특파원은 그 회견기에서 임춘추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에 대한 글과 아동단원 김금순의 영웅적 최후에 대한 글을 써보낸 사실까지도 다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임춘추는 늘 전우들에게 대내출판물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당에 보내는 보고서나 문건을 작성하는 것도 좋고 혁명군의 전과자료를 종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김**사령의 투쟁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다, 내 비록 필치가 무디고 지성도 천박하지만 **김일성**동지의 전기를 써서 후세에 길이 전하겠다고 말하군 했습니다.

우리 빨치산대원들 중에 무장을 가지고 혁명위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임춘추와 같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빨치산의 역사를 자발적으로 수록해서 후세에 남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임춘추는 당사업을 많이 한 노숙한 정치일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일군으로서의 임춘추보다 문필가, 역사가로서의 임춘추를 더 내세우게 되는 것은 그가 우리의 혁명역사를 정립하는데서 해놓은 일이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임춘추는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우리의 혁명역사를 종합체계화하고 깊이 있게 고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이렇게 고증하게 된 것은 그때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임춘추와 같은 문필가, 역사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들을 정리해두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활동역사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임춘추는 우리의 혁명역사를 정립하는데서 뿐 아니라 그것을 소개선전하는데서도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해방 직후에 평남도당에서 당사업을 하던 그는 조기천, 정관철을 비롯한 여러 문화인들에게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우리의 항일빨치산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임춘추는 혁명전통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도서들과 수많은 회상실기들을 집필완성하여 우리 당 역사문헌고를 풍부히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역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빛내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장애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임춘추는 내가 발표한 논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가지고 국제연합군 시절에 정치강의에 출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일부 지휘관들이 우리의 논문을 강의안에 포함시키겠는가고 하면서 좀 고려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춘추는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김일성**사령관을 조선민족의 지도자로, 수령으로 모셔오고 있다, 자기 수령의 노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은가고 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임춘추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왼심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연대당서기를 할 때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라고 하면서 나에게 통지해준 일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내가 배낭을 절대로 메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임춘추를 불러 동무는 혁명연조가 오랜 사람인데 어떻게 회의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토의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사령관이 배낭을 지고 다니는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대중의 의사이니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어떻게 되어 임춘추가 그처럼 자기 수령과 영도자를 열렬히 경모하고 그 영도에 충실한 혁명가로 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김혁, 차광수나 김책과 마찬가지로 종파의 해독성을 잘 알고 실지체험을 통하여 수령이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통감한 사람이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일동무는 임춘추를 혁명의 1세로 내세우고 존대하였습니다. 임춘추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임춘추가 외국에서 대사로 있다가 원칙을 지켜 그 나라 당국자들과 되게 다투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안에 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교관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조직문제까지 보아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동무만은 임춘추가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잘 싸워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우리 집 정원에서 딴 막물복숭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는 임춘추가 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함께 싸운 수많은 혁명열사들의 투쟁을 고증하여 우리 당의 역사적 재보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외교대표로 사업하는 동안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도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완성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우리의 투쟁역사,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역사로 정식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 수고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임춘추가 저술활동을 하면서 **김정일**동무의 지도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의 인간적 매력에 탄복하였으며 그를 스승으로, 영도자로 따르고 흠모하게 되였습니다.

그때부터 임춘추는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김정일**동무에게 보고하고 그의 결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그의 위대성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강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임춘추가 저술활동에 전념하던 1960년대 후반기 국제공산주의운동무대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 특히 후계자문제가 논의의 초점으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올바로 선정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 나라와 인민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후계자를 잘못 내세운 탓으로 혁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실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월 혁명 후 쏘련인민이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본요인은 레닌이 후계자를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레닌의 충실한 전우이며 제자인 스탈린은 한 평생 자기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레닌이 서거한 다음 스탈린은 그의 영구앞에서 6개 조항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과정에 그 결의들을 다 실천에 옮기였습니다.

스탈린은 독일군대가 모스크바 코앞에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다른 정치국위원들과 간부들은 소개지로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냥 크레믈린에 틀고앉아 전선지휘를 하였습니다.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쏘련에서 만사가 다 잘돼나갔습니다. 그런데 흐루시쵸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일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쏘련당안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쏘련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루시쵸프는 자기를 길러준 수령의 은덕도 다 잊어버리고 개인미신에다 걸면서 스탈린을 헐뜯었으며 스탈린에게 충실한 노혁명가들도 모조리 정치국에서 쫓아내

고 당대열에서까지 추방해버리였습니다.

그 후 언제인가 임춘추는 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 레닌묘를 참관하다가 우연히 심각한 몰로토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몰로토프는 그때 임춘추에게 당신들은 쏘련당의 전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수정주의를 하지 말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충실하게 계승해 나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임춘추는 그때 후계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망치고 혁명도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사의 쓰라린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후계자의 표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이며 도덕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도덕의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 이것은 후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질과 영도풍모를 지닌 실력가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빛내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김정일**동무가 발휘한 비범한 수완과 혁명적 원칙성, 수령의 노선과 구상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력, 고결한 충성심과 효성에 경탄하였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향도하고 완성해나갈 수 있는 영도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왔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받드는데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장에서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영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 최현, 오진우와 함께 임춘추는 **김정일**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나의 후계자로 한사코 추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이 늘 **김정일**동무처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 임춘추는 **김정일**동무처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혁명전통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김정일**동무와 같은 위대한 사상의 대가, 영도의 대가가 없다고 하였으며 오진우는 **김정일**동무처럼 무비의 담력과 뛰어난 지략을 소유한 영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현과 이종산은 종종 **김정일**동무처럼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김정숙**, **김정일**을 돕는 데서는 이을설이도 역사가 깊은 사람입니다.

해방 후 그가 부관으로 일할 때 아침일찍 일어나서는 경비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집 부엌에서 **김정일**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을설은 어린 **김정일**과 친밀한 사이었습니다.

내가 현지지도를 나갈 때마다 이을설은 **김정일**을 곁에 앉히고 다니었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언제나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쟁 때 신의주에서 **김정일**을 만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개지에 가있다가 오래간만에 내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부관장으로 나를 따라간 이을설에게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군님을 잘 돌봐달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김정일동무가 왜 지금도 이을설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을설이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따뜻이 돌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겪다나니 그는 어린 동생과 함께 얼마동안 나와도 헤어져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를 복구하느라고 내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나니 그들 남매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린시절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를 육친의 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이을설과 같은 나의 전우들이였습니다.


이을설

이을설이 어린시절의 **김정일**을 얼마나 위해주고 보살펴주었는가 하는 한 가지 실례를 말해주겠습니다.

1953년 여름에 내가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쏘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방문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를 떠날 때 쏘련측에서는 환송연회를 차리었는데 그 연회상에 오른 수박맛이 특이하였습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 숙소에 가니 지함을 포함하고 있던 이을설이 나를 보자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무슨 지함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좀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다가 자제분들 생각이 나서 수박 한 개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지함안의 수박은 물동이만큼이나 큰 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때 그 수박을 받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인민들에게도 이런 수박을 맛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씨를 받아 수박농사를 지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일**과 함께 받은 수박씨로 이을설은 이듬해부터 우리 집 정원에서 수박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박이 새끼를 쳐서 많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이을설은 어려서 부모의 슬하를 떠난 한 생을 내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동안 경위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대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반동들과도 싸우고 종파들과도 싸우다나니 쓴맛, 단맛도 다 보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무서운 배짱군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인차 박영순과 이을설을 워로쉴로브에 있는 무전강습소에 보내면서 강습을 마치고 곧추 부대에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백두산동북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을설은 무전강습을 마치고 부대를 돌아올 차비를 하였습니다.

이을설이 무전강습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날 쏘련군대의 한 고위간부가 국제당의 요구라고 하면서 그더러 조선으로 나갈 차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을설은 조선으로 나가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쏘련의 군사일군은 당신이 믿음직해서 그런다, 우리가 전략상으로 중시하는 성진이 당신의 고향이니 거기에 가 배겨있으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우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을설은 고향에 가서 공작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사령관동지한테서 강습이 끝난 다음 부대에 돌아와 무전교관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 이해해달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쏘련사람은 다음날에도 이을설을 설복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허락은 차후에 자기네가 받을터이니 조선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국제당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좀 터세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을설은 그때 나는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어데도 갈 수 없는 몸이다, 지난날 무전기술을 소유한 통신병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부대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들이댔습니다.

그때는 원동에 임시로 들어가 있었고 또 아직은 국제연합군이 조직되지 않은 때여서 통합된 지휘체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쏘련군사일군이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국제당을 걸고 무전강습소를 졸업하고 부대에 돌아가게 되어있는 이을설을 다른 일에 빼돌리려고 한 것은 무리한 일이였습니다.

이을설이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이을설은 소년중대시절부터 현재까지 나를 위한 호위사업에 한 생을 바치면서도 나의 뜻을 어기거나 임무수행에 태공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자기 수령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내가 1939년에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할 때에도 내뒤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호위사업을 한 사람은 경위대원 이을설이였습니다.

이을설은 해방 후에도 나를 잘 호위하였습니다.

전쟁때 최고사령부주변에 반혁명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극비자료들이 박헌영과 이승엽을 통해 계속 미국사람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1952년 여름에 이승엽은 졸개들을 시켜 무전연락으로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건지리골안에 미국비행기들을 수십 대나 불러들였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최고사령부주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고사령부건물 곁에는 큰 시한탄까지 떨구고 달아났습니다. 내가 있던 집에서 그 시한탄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을설이 비상회의를 열고 부관들과 호위성원들에게 결사전을 호소한 다음 당원증을 바치고 목도로 그 시한탄을 메다가 골짜기에 내던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을설은 최고사령부 주변에 잠복해있던 암해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이을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내가 1956년에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부관장으로 사업하던 이을설이 하루는 지금 뒤에서 최창익이랑, 박창옥이랑 노는 꼴이 심상치 않은데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까밝혀놓는 것이였습니다.

남일이도 나에게 전화로 최창익과 박창옥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을설은 김창봉의 군벌관료주의와도 정면으로 맞서 잘 싸웠습니다.

이을설은 나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것처럼 **김정일**동무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을설과 박영순은 남야영에 돌아와 많은 무전수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을설은 그 후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작전지점들과 일본군대의 기본역량이 배치되어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에서 소부대공작을 여러 차



정일봉

례 하였습니다.

그는 소부대에 망라되어 무전기를 메고 왕청현 노흑산일대에 나가 정찰활동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적들이 노흑산일대에 큰 비행장을 건설하고 수백 대의 비행기들과 수백 문의 대포, 수백 대의 자동차들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 작전준비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쏘련사람들도 그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부대를 노흑산에 보냈습니다. 소부대성원들은 비행장안에까지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새 비행기와 새 자동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형포들이 전부 나무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을설은 정찰을 끝내자마자 나에게 무전으로 소부대활동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도의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어린시절의 **김정일**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걸음마를 떼주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김정일**의 마음속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싹텄고 항일혁명투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과 친애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김정일**동무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감정정서발전에서 가장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입니다.

김정일동무가 지니고 있는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혁명적 낙관주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더욱 풍부하게 터득하고 굳건히 연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동무와의 접촉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그가 지니고 있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과 도덕의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완성해가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배우게 되었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동무를 우리 위업의 계승자로 추대하는데서 뿐 아니라 그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계자를 추대한다고 해서 만사가 저절로 다 잘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서 **김정일**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호소하군 합니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후계자의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갈 수 있는 핵심의 육성, 후비대의 육성입니다. 핵심을 잘 꾸리지 않거나 후비대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후계자의 영도체계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후계자로 노선과 방침도 관철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백두산에서 싸워온 핵심들을 가지고 혁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원들과 군인들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수십수백 만명의 핵심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자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영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

김정일동무의 생가가 있는 골짜기를 소백수골이라고 부릅니다. 소백수골안은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뛰어난 절경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이 밀영을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백수골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천고의 밀림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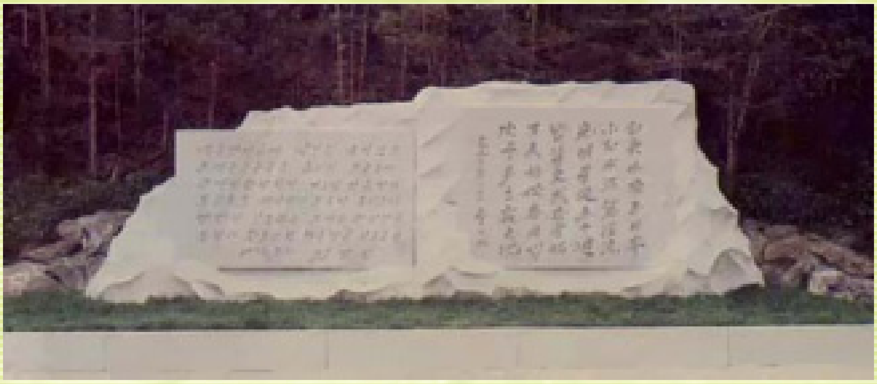
군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천험의 요새나 금성탕지라고 할만한 곳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소재지로서는 명당자리였습니다.

정일봉의 이전 이름은 장수봉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장수봉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온 세상에 **정일**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영도자로 키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 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영도자입니다.

빨치산의 아들로 태여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영도자가 될 **김정일**동무의 위업은앞으로도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쓰신 송시 ≪광명성찬가≫를 새긴 비



유년시기
부모님들인 김일성주석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계시는 유년시기의 김정일총비서.
총비서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었다.



대학시절
민청초급간부를 격려하시는 대학시절의 김정일총비서(사진 가운데)=1963.10
총비서께서는 대학시절의 1962년 1월 15일 론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개시 작가, 예술인들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72.9
총비서께서는 1964년 4월 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지도원, 과장을 거쳐 70년부터 73년까지 부부장, 부장으로 사업을 보시고 73년 9월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었다.



주체위업의 계승자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께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신것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 =1974년
1974년 2월 13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김정일총비서 =1974.2
총비서께서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 참석하신 김정일총비서=1980. 10
총비서께서는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업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1991.12.25
대회전날인 24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창건 60돐기념 열병식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전체 열병부대들에게 축하를 보내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1992.4.25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5.1.1
총비서께서는 《다박솔중대》라고 불리우는 이 군부대방문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시작을 결심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564공군대련합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7.10.10
총비서로 추대되신후 첫 군부대방문.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99.1.1
공화국에서는 과학중시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가자들을 축하하시는 김정일총비서=2000.10.10
총비서께서는 금달 16일에 탄생 60돐을 맞이하신다.



위대한 영장 김정일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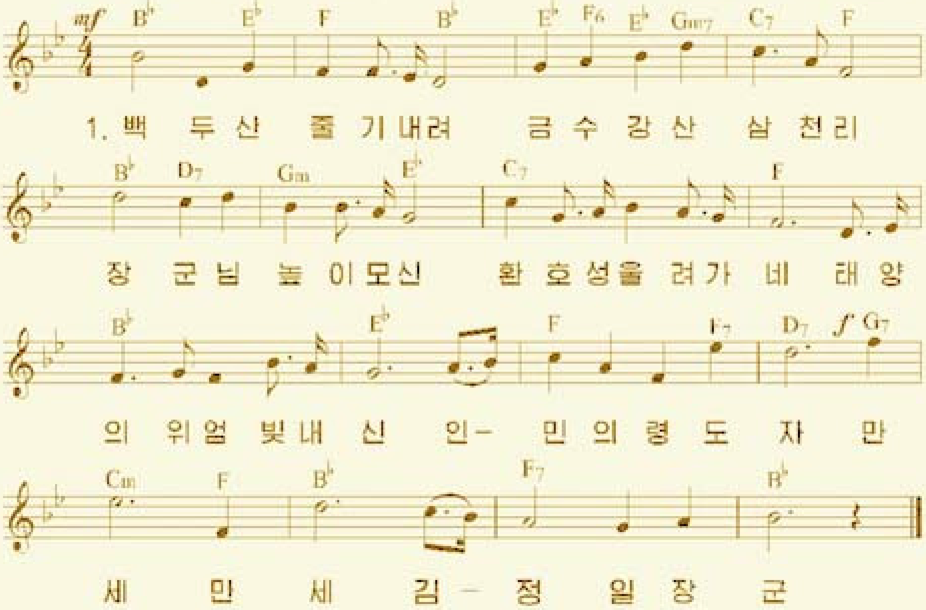


어머님의 총소리




《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김정일
"Mt. Paekdu is my native place."
Kim Jong Il
DPR KORKA
80전 조선우표
조선화 《백두의 눈보라》 Korean painting "Snowstorm in Mt. Paekdu"

김정일장군의 노래

장중하고 폭 넓게 (♩= 102)　　　　작사 신운호, 작곡 설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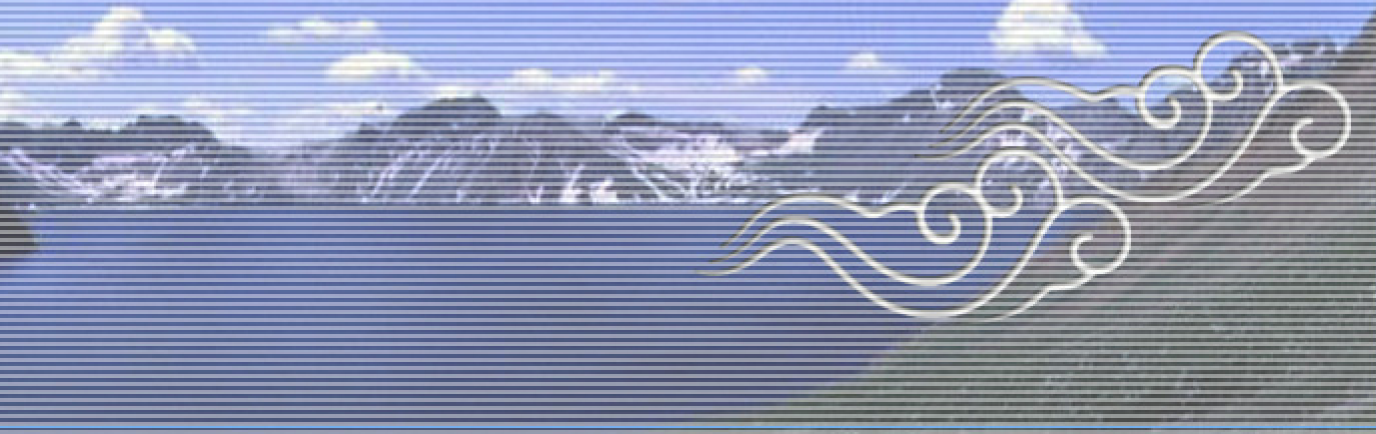


2.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제24장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해방의 날을 그리며
전민항쟁의 불길은 온 강토에
대일작전의 돌파구
민족의 얼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현해탄너머에서도
최후결전의 날
개선

■ 시기 : 1942. 8 ~ 1945. 8

1. 해방의 날을 그리며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만고의 영웅 김일성장군

해방 후 적지않은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력서를 쓰면서 학력란에 ≪88군관학교≫ 또는 ≪88야영학교≫라고 명기하였다.

그 당시 간부사업을 맡아보던 일군들은 간고한 유격투쟁을 해온 항일혁명투사들이 모두 군관학교졸업생들이라는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 이력서의 학력란에 당당하게 써넣은 ≪88군관학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군들은 그 후 국제연합군시절의 군정훈련과 관련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하고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소부대작전과 정찰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는 한편 군정 학습과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한 교육제강은 정규적인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취급한 교육내용보다 폭도 더 넓고 심도도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방면적이었습니다. 훈련강도도 정규군사학교들보다 몇 배나 더 셌습니다.

훈련강령자체가 지휘관양성을 목표로 한 것만큼 군관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력서의 학력란에 국제연합군시절을 염두에 두고 ≪88군관학교≫나 ≪88야영학교≫라고 써넣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간판을 내건 일도 없고 졸업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다들 현대적인 군정대학을 하나 마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사이론도 배우고 현대정규전의 전술과 전법들도 배웠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의 교육은 군사일면의 교육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를 겸한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이였고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준비인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무력 건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똑같이 중시하였습니다. 정치경제학, 철학 같은 것도 학습하였고 당건설이론도 연구하였으며 경제운영과 관련된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였습니다.

1942년 말 1943년 초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의 형세는 반파쑈역량의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쏘련군대의 대승리는 파쑈독일의 기를 꺾어놓았고 쏘독전쟁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국을 역전시켰습니다.

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에게는 일이 더미로 쌓였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고심한 문제의 하나는 해방된 조국에 나가 새 조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도 창건하고 국가도 건립하고 무력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도 하여야 하겠는데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핵심역량인 간부가 부족한 것이 제일 난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한 것은 간고한 무장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항일투사들을 군사에서 뿐 아니라 당사업과 국가관리, 경제나 교육, 문화 그 어느 부문을 맡겨주어도 척척 해낼 수 있는 만능의 간부로 키우자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국제연합군에서의 군정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훈련강령을 보면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학습비율이 낮았습니다.

나는 정치이론학습의 비중을 군사훈련보다 낮추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나셴코대장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국제연합군의 첫째가는 임무는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혁명군사간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과 만주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붉은 군대와 연합하여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다그쳐 현대전의 전략전술과 기술기재,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훈련이나 군사간부양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조선이 해방된 후에 새 조국을 건설하자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둥이 될 여러 분야의 간부들을 다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훈련강령에서 정치상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훈련에서 시간을 떼내어 정치상학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훈연대로 다하면서 그만큼 정치학습을 하자는 것이라고 모를박아 말했습니다.

아파나셴코는 옳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긍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연합군의 군정훈련강령에서 정치학습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정훈련에 들어가면서 대원들에 대한 사상동원과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소조들과 공청조직에서 회의도 하고 신문과 벽보에 결의도 내고 구내방송으로 불기도 하였습니다.

각 지대들에서는 유능한 군정간부들로 정치상학을 담당할 강사들과 교원들을 꾸렸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원동군사령부는 정치학습담당 교원들을 위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중국말을 겨우 번지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어찌나 서투른지 알아들을 수 없더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 청강생들의 반영을 고려하여 쏘련인 강사한테 중어통역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동무들한테는 그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런 방법도 불편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절반시간을 소비하다나니 강의효율도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어로 된 교재를 조선말로 번역한 다음 우리 실정에 맞게 강의안을 다시 짜서 정치학습을 담당한 교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김경석

초기에 정치상학에 이용한 교재들을 보면 철학이나 정치경제학 같은 일반이론과목과 함께 쏘연공산당역사와 쏘중 두 나라의 역사, 지리와 관련된 것들이였습니다. ≪공산당선언≫이나 ≪레닌주의제문제≫같은 것을 해설한 교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교재들은 우리 대원들의 정치적 안목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쏘련과 중국의 역사는 배워주면서 조선의 역사를 배워주지 않는다든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실정에 맞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지난날 필독문헌으로 삼아오던 몇몇 저작도 교재에 포함시키고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도 배워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정치상학지도교원들이 강의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하면서 제강을 만들고 강의까지 하다나니 늘 다른 대원들보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강의술이 괜찮았습니다.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사들의 강의이니 감칠맛도 있었습니다.

안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아주 구수했습니다. 오랜 정치일군인 그는 정치과목강의도 독특한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해학과 비유로 일관되여있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웃음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터득하였습니다.

안길은 강의할 때 필요한 대목에서 시도 읊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어떤 강의시간에는 옹근 1페이지나 되는 레닌의 명제도 뜬금으로 줄줄 인용하였습니다.

행군중에 있는 대원들이 기진맥진해서 걸음을 잘 옮기지 못할 때면 인차 휴식구령을 내리고 북을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대원들을 춤판에 끌어들이고 노래판에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안길의 독특한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이 강의에서도 그대로 발양되였습니다.

임춘추는 강의도 잘했지만 학습에 대한 개별지도를 더 잘하였습니다. 그는 토론이나 논쟁을 붙여놓고 매개 청강생들의 준비정도와 배운 지식에 대한 소화정형을 다 요해하고는 필요한 개별수업을 과외시간에 조직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의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대원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에 그 대원의 곁에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개별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군정학습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김경석도 인기있는 강사였습니다. 말주변은 없는 사람이였지만 강의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청강생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쓸 때마다 밤을 패군했습니다. 강의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꼭꼭 내 의견을 들어보군 하였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짤 때에 첫마디부터 마지막마디까지 몽땅 성문화하였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밴 김경석은 해방 후에도 무

슨 연설문이든지 꼭 제손으로 써가지고 대중앞에 출연하군 하였습니다. 보고문도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교원들이 이렇게 이악하다보니 대원들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영과 전창철, 이봉수의 강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룬제군사대학 졸업생인 류아루도 강의를 잘했습니다. 류아루가 쏘련의 신형무기인 까츄샤포에 대한 강의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이봉수

나도 자주 정치강의에 출연하였습니다.

군정학습총화때에는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이 부대적으로 제일 높다는 평가를 받군 하였습니다.

부대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던 풍중운도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나보고 조선동지들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비결이랄게 있는가,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얼굴에 찬물찜질을 해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이라고 농삼아 말했더니 풍중운은 ≪이악한데서야 조선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하면서 손을 내젓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이악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선지대 대원들이 군정 훈련과 학습에서 늘 부대의 모범으로 된 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습니다.

지대의 대원들 가운데는 마당거우시절의 박창순이처럼 학습을 두통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락권을 들 수 있습니다.

박락권은 동만에서 청년의용군에 있다가 우리가 북만동무들의 요구로 우수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넘겨줄 때 5군에 가서 주보중의 경위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박락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감무쌍한 싸움군이였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기지도 있고 날파람도 있었습니다.

박락권은 왕청유격대에 있을 때 일본토벌대와 불의에 조우하여 총격전을 벌이다가 복부에 중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밸을 손으로 밀어넣으면서 기여서 유격구까지 돌아왔습니다.

박락권은 북만부대에 가서 경위대장을 할 때 호위사업을 잘해서 주보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보중자신도 박락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여러 번 구원되었다고 합니다.

박락권의 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무기를 귀신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무기든지 한두 번만 다루어보고는 눈을 감고서도 척척 분해결합을 하였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손쉽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무가 지금은 소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규모의 현대전을 할 때에는 연대나 사단도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현대군사지식을 직심히 배우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대나 사단을 지휘하겠는가, 동무가 경험만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면 숱한 대원들이 목숨을 잃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박락권은 모진 마음을 먹고 이론학습에 열중하였습니다. 보병전술이론을 학습하느라고 하루종일 아무르강가에 나가있는 박락권을 본 일이 있는데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해방 후 그를 동북지방에 파견하였습니다.

박락권은 연대를 이끌고 장춘해방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장춘해방전투같

은 큰 시가전에서 연대를 훌륭히 지휘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원동기지에서 이를 악물고 전술공부를 한 덕이라고 봅니다. 앞장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박격포탄파편을 여러 군데 맞고 전사했다는데 최후를 박락권이답게 마쳤습니다. 그는 조중인민이 다같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학습도 전투라는 말은 우리가 실지생활에서 찾아낸 진리입니다.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에 독이 쓸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박락권

김정일동무가 학습을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의 첫공정으로 보고 언제나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한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대에 꾸려진 과외교양시설들과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을 교양하였고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훈련기지에는 영사실과 도서실, 방송실에 가진 구락부가 있었습니다. 부대장병들은 이 구락부에서 집회도 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부대방송시간에는 학습과 군정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으로 내세울만한 군인들과 소대, 중대, 대대들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국제정세와 관련된 보도도 많이 하였는데 쏘독전선소식을 매일같이 알려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서는 신문도 발간하였습니다. 지대와 중대마다에는 벽보가 있었고 소대들에는 전투속보가 있었습니다. 신문과 벽보, 전투속보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도덕교양과 군정훈련준비나 총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리는 붉은군대창건기념일과 10월혁명기념일, 5.1절을 비롯한 명절행사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대에서는 쏘독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쏘련영웅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희생된 혁명전우들을 추모하는 추도식도 의의있게 하여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영찬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훈련기지에서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유영찬은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혁명조직에 흡수하여 키우다가 유격대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는 아무르강에서 병영건설에 쓸 모래를 싣고오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익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선사령관들인 아파나센코와 와투진, 체르냐호프스키의 추도식도 하였습니다.

추도식을 할 때에는 악대가 추도곡을 연주하였습니다. 부대에는 악대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강연도 하고 쏘독전쟁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종종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동기지에서 군사이론학습과 군사실동훈련도 맹렬하게 하였습니다. 전술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스키훈련, 낙하산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다하였습니다.

현대전훈련에서는 전술훈련에 기본을 두고 공격과 방어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시에 병기학, 지형학, 위생학, 공병학에 대한 학습도 하고 반화학전과 관련된 지식도 주었습니다.

유격전훈련은 습격전과 매복전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만 하면 성수가 나서 뛰어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에는 무연한 들판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들판에 대한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방향을 주면 중대장, 소대장들이 제강을 짜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전쟁경험과 쏘독전쟁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우리 식의 훈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은 교육강령에 따르는 한 제목의 학습이 끝나면 실동훈련을 보고 그 소화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손종준

지휘관들에 대한 전술훈련은 내가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의 목적은 매개 군인들로 하여금 몇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대대나 연대를 맡아 지휘하며 소대장들은 중대나 대대를 지휘하고 전사들은 소대나 중대를 능숙하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술훈련은 소대나 중대 단위로 하였습니다. 지휘관으로 임명된 동무에게 정황을 주고 임무를 주면 그는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채택한 후 전투를 조직하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을 갓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나는 중대가 내려가 전술훈련정형을 검열하였습니다. 그날은 손종준이 소대장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종준은 자신만만하게 소대를 지휘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앞에는 여러 가지 차단물이 설치되어있고 고지우에는 증강된 적 중대역량이 있다는 정황을 새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종준은 일선형정면돌격을 시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계발시켜가지고 우회돌파전술을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격을 다시 시켰습니다.

손종준이 정황에 맞지도 않는 일선형 공격을 시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화부대를 앞세우고 부대를 일선형으로 산개시켜 공격하게 되어있는 당시의 전투규정대로 훈련을 기계적으로 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방법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술훈련제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쌓은 유격투쟁경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강을 새로 만들어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오진우에게 보병소대의 공격전술을 취급한 시범훈련제강을 빼게 하였습니다. 오진우는 그 당시 하사관이였지만 내 도움을 받아가며 손색없는 시범훈련제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제강으로 지대가 다 모여 전부대적인 시범훈련을 했는데 반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진우는 지대전체를 망라하는 기동훈연계획도 작성하였습니다.

사격훈련은 각이한 거리의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과 이동목표, 출현목표에 대한 사격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사격훈련장은 부대에서 20-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지대는 사격성적에서도 연합군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었습니다. 총은 이두익이 잘 쏘았습니다.

우리는 명사수들을 따로 뽑아 저격수훈련도 하였는데 지형학훈련과 겸해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총을 많이 쏘았던지 저격수들은 병실에 돌아온 다음에도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 후 매개 저격수들에게 행군노정이 표시된 지도와 지남침을 주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새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몇 시 몇 분까지 돌아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몇 각도로 방향을 꺾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표시대로 하자면 옹근 하루가 걸리는데 거기다가 새까지 쏘아잡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기본은 사격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지도보는 법을 숙달시키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스키훈련, 수영훈련도 많이 하였습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낭림산줄기나 함경산줄기 같은 것을 타고 앉아 유격전을 벌이자고 해도 그래,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조국해방작전을 하자고 해도 그래 스키와 수영을 배워두어야 하였습니다.

수영훈련은 여름철에 아무르강에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양국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지대의 대원들은 대다수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였습니다. 헤염을 칠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나니 다수가 강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는 수영훈련을 낙하훈련 다음가는 힘든 훈련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처음에 땅우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키고는 강으로 데리고 나가서 헤염을 칠 줄 아는 몇몇 동무들이 시범동작을 해 보이며 배워주었습니다.

물맛을 좀 보인 다음에는 강건너편까지 바줄을 늘이고 그것을 쥐고 헤염쳐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중운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보람이 없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돌덩이처럼 가라앉군 하였습니다. 풍중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경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석이도 혼자서 수영연습을 하다가 하마트면 사고를 칠 뻔하였습니다. 그는 물에 가라앉게 되자 강바닥을 짚으면서 벌렁벌렁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수영을 제일 잘한 대원은 전순희였습니다. 그가 수영을 잘 하게 된 것은 강반에서 산 덕이였습니다. 전순희는 헤염을 칠줄 몰라서 강을 건늘 때에는 어른들한테 업혀다니군 했는데 철이 들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헤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7군에서 간호원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훈련기지에 와서도 부대군의소 간호원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전순희한테서 수영을 배운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영훈련을 한 다음에는 연이어 도하훈련을 하였습니다. 도하훈련은 일종의 종합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다음 25킬로미터가량 강행군을 하고나서 장구류를 휴대한채 소대별로 떼목을 하나씩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낙오자가 1명만 있어도 점수를 깎았습니다. 최광이네 소대는 도하훈련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공정수 때문에 늘 다른 소대들에 앞자리를 떼웠습니다.


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공정수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이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천성이 늘어져서 군인다운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해 겨울에도 모자를 몇 개씩 태웠습니다. 우등불에 바지가 타도 바빠하지 않는 느린 성미를 가진 사람이였습니다.

공정수는 5군에서 복무할 때에도 최광이네 소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최광이 그 사람 때문에 속을 태우던 나머지 가고싶은 데로 가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수는 절룩거리며 그냥 부대를 따라왔습니다.

최광은 거기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광에게 가라고 쫓아도 가지 않고 혁명을 하겠다고 따라온 동무인데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가, 좀 힘이 들더라도 공력을 들여서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우리가 한 말을 명심하고 그에게 개별훈련을 주었습니다. 7미터나 되는 조약대에서 물에 뛰어드는 훈련을 할 때에도 공정수만은 따로 붙잡고 지도하였습니다.


공정수

나도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정수는 물에 곧추 떨어지지 못하고 평자로 떨어져서는 배가 터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훈련을 건듯하였습니다. 어쨌든 특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가 우리의 부관도하고 최용건의 호위군관도 하였으며 대대도 지휘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르강에서 보트도 탔습니다. 1인용 보트인데 ≪아무로치까≫라고 하였습니다. 나나이인들이 그 보트를 잘 탔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 배로 하바로프스크까지 갔다오는 경쟁을 하였습니다. 노는 한 개만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르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영훈련, 도하훈련과 함께 상륙전훈련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강하천도하와 해상상륙전은 박두한 대일작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나진항을 목표로 한 상륙전훈련도 하였습니다.

수영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낙하산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오히려 남대원들보다 여대원들이 더 담찼습니다. 남대원들 중에는 그 훈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여대원들속에는 그런 떨보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낙하산훈련의 첫 공정은 모의훈련이었습니다. 조약대에서 톱밥을 깔아놓은 땅우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회전대 같은데서 빙글빙글 도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훈련 때 여대원들이 멀미를 많이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낙하산훈련은 워로쉴로브근방의 큰 벌판에서 했는데 거기에 군용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김증동

먼저 낙하산을 접는 법부터 익히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면 50미터쯤 되는 낙하탑에 올라가 펼쳐진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50미터구간을 내리면서 바람방향에 따라 몸을 한번 돌리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익숙되면 비행기를 타고 낙하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10-20명 정도로 1개 승조를 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미터 높이에서 훈련하였고 나중에는 600미터 높이로 낮추었습니다. 보통 800미터 상공에서 낙하명령을 내리군 하였습니다.

비행장 주변은 무연한 사탕무우밭이었습니다. 우리가 낙하를 끝내면 밭일을 하던 여성꼴호즈원들이 뛰어와서 낙하산도 끌어다주고 사탕무우도 깎아주군 하였습니다.

많이 뛰어내린 대원들에게는 새파란 기념마크를 주었는데 우리 지대에서는 최용진이 최고기록을 내여 기념마크를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 번 낙하산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할 때에는 모자를 잃어버리는 사람, 장화를 잃는 사람, 발을 퐅치는 사람, 낙하산이 나무가지에 걸려 공중에 데룽데룽 매달리는 사람 등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체중이 80킬로그램이상 되거나 40킬로그램이하인 대원들은 안전상 이유로 낙하산훈련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강하속도가 빨라서 부상당할 수 있고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공중으로 자꾸 올라가 왕청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순희는 체중이 가볍다나니 비행기보다 더 높이 떠올랐다가 가까스로 낙하하였습니다. 김증동도 외딴곳으로만 자꾸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 체통이 몹시 작았습니다. 허튼 곳으로 날아가다가 나무에 데룽데룽 매달려있는 그를 내가 안아 내렸는데 몸이 아이들처럼 가벼웠습니다.


전순희

김증동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서울과 대전 해방 전투에서 위훈을 세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낙하산훈련을 강하훈련, 항공육전대훈련과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1944년 이후 시기에 많이 하였습니다.

항공육전대훈련에서는 저항하는 적을 낙하하면서 소멸하는 동작, 낙하하여 신속히 전개하는 동작,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동작 등을 연마하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하고 나면 체중이 줄어들고 배가 몹시 출출해나군 했습니다. 훈련강도가 센데다가 쏘독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부대에서는 전선을 지원하느라고 식량공급량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땅을 일구어 부업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남새도 심어 자급자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업농사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대에서는 산나물을 뜯어다가 식량보탬을 하였습니다. 훈련기지주변에는 고사리, 닥지싹, 두릅을 비롯하여 산나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나물로 국을 끓여먹자 부대군의소의 쏘련의사들은 파악도 없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식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먹어보고는 맛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산나물이 약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산나물만 찾았습니다.

한번은 우리 동무들과 부대의 후방부장인 유태계 쏘련군소좌가 부업밭에서 감자씨붙임을 하다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소좌는 우리 동무들이 감자눈을 따서 심는 것을 보고 농사를 망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가을에 가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해에 감자농사가 잘되었습니다. 통감자를 심은 데서는 잔자갈 같은 것들이 달렸지만 우리 동무들이 눈을 따서 심은 데서는 주먹같은 알들이 달렸습니다. 그때에야 소좌는 우리 식의 농사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해 봄에 우리 지대에서는 눈을 따내고 남은 감자를 다 삶아먹으면서도 수확은 곱으로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안정숙

우리 동무들은 수렵대를 조직하여 짐승잡이도 하고 쉬는 날에는 아무르강에서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그 강에 뱅어가 많았습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놈도 있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아무르강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어는 그물을 쳐서 잡아 소금에 절구었습니다. 연어알은 따로 뽑아서 절구었다가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짐승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 서부전선에 보내준 일도 있습니다.

훈련기지에서는 무선통신훈련도 하였습니다.

북만에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쏘련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무전기술을 배운 동무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대에서는 박영순, 이을설이 임시기지에 들어와서 처음 무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워로쉴로브에 가서 석 달동안 무전강습을 받고와서 다른 동무들에게 배워주었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는 남대원들인 이종산, 이오송 등과 **김정숙**, 박경숙, 박경옥, 김옥순, 이영숙, 왕옥환, 이재덕, 이민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거의 다 참가하였습니다.


이정인

지난날 동남만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부대들에서는 무선통신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전수들을 양성하자면 국제당이나 쏘련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그게 헐치 않았습니다. 무전수가 없다 보니 무전기를 여러 번 노획했지만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령부와 각 부대들에 통신원을 주고 도보로 통신연락을 보장하였습니다. 우리 통신원들이 정말 걸음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사선이였습니다. 통신연락을 하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치호는 입대 후 여러 해 동안 우리 사령부 통신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사령부통신을 보장하느라고 식량고생도 하였고 적들에게 체포되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공로도 적지 않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인력으로 통신을 보장하자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통신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무선통신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무력건설은 물론, 나라의 시경인 통신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선전활동을 하자고 해도 통신의 골간이 될 동무들을 키워야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무선통신과 낙하산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의 여러 지역에 나가 소부대활동을 적극 벌였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서는 여대원들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선훈련에도 직심스러웠지만 스키훈련, 수영훈련, 낙하산훈련, 도하훈련에도 남자들과 꼭같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때의 훈련강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쏘련군관들도 자기들이 군관학교를 다닐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타발 한 마디 없이 모두가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훈련을 시작 할 때 우리는 모성들과 일부 허약한 여대원들을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대원들이 다 섭섭해하였습니다. 안정숙은 나를 찾아와 울면서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여대원들이 무엇 때문에 아이들까지 떼두고 러시아땅에 왔겠습니까.≫

안정숙은 원동으로 들어올 때 남의 집 삽짝문앞에 어린 자식을 두고온 동무였습니다. 이정인도 남의 처마막에 딸애를 떨궈두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훈련에 참가시켜 달라고 강경히 요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군인식당의 음식을 입에 전혀 대지 못하면서도 무전대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도 맹훈련을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학습과 훈련에 정력적으로 참가했던지 무선소대의 교관은 조선여자들이 정말 근면하고 이악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무전기를 메고 김책을 따라 적구에 나가 몇 달 동안 소부대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아주 잘 쳤습니다.

김정숙도 이악하게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발목을 퐁친 일이 있었는데 퉁퉁 부어오른 발을 가지고도 스키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걱정하자 그

는 종이에 싼 각사탕 하나를 꺼내주며 이걸 입에 물고 훈련을 하면 한결 숨이 덜 찹니다 하고 오히려 나를 염려해주는 것이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할 때 내가 제일 걱정한 것은 몸무게가 가벼운 여동무들이 제대로 락하하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때에 산을 펴고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착지하군 하였습니다. 몸무게를 불구느라고 배낭속에 벽돌을 넣고 낙하훈련에 참가하는 여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왕옥환

이것이 바로 우리 투사들의 청춘시절이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웃으며 뚫고나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훈련강도가 센 데다가 잠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랐지만 우리는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웃으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누구에게나 청춘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가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회상할 수 있도록 그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헐치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한길에 일신을 깡그리 바쳐가며 피끓는 열정과 불타는 투지로 만난을 헤쳐가는 그 걸음걸음이야말로 얼마나 값높고 긍지높은 생활이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청년들도 항일혁명에 몸바친 투사들의 그 정신을 이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리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서산낙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국에 대한 학습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전략전술, 조국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도덕과 풍습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력독립도, 새 조국 건설도 할 수 없고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과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대체로 조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만주태생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철이 경상북도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지만 10살 때인가 고향을 떠난 후로는 줄곧 만주에서 살았고 이을설도 성진태생이기는 하나 어려서 두만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계속 장백에서 살다가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이치호

그래서 나는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노선과 자기 조국에 대한 학습을 단단히 시켜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훈련기지에 조선관계서적이 부족한 것이였습니다.

조선에서 출판한 책은 국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가는 동무들한테 과업을 주어 해결하기도 하였고 쏘련동무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인가는 ≪조선지리통감≫이라는 책도 얻어다 보았습니다. 그 책이 조국의 지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임춘추에게 조선지도를 큼직하게 그려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리되 이름있는 산과 강, 벌, 호수, 지하자원과 각 지방의 특산물들, 명승지들과 문화유적까지도 다 그려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품을 들여 지도를 그렸습니다. 흰종이 몇 장을 이어붙이고 큼직하게 지

도를 그려왔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상학시간에 이 지도를 걸어놓고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들과 정치교원들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연설에서 나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국제연합군안의 모든 조선인대원들은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조국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였습니다.


박경숙

그때가 아마 추석무렵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밤 우리는 밀림우에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조국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 줄 몰랐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이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학습과 훈련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항일투사들은 옹근 하나의 정규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정안을 부단한 전투와 힘에 부치는 훈련을 하는 긴장한 가운데서도 훌륭히 소화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흘린 땀과 노력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해방 후 우리와 같이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다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쏘련에서 동방근로자공산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니 당건설이나 국가건설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은 무슨 일을 맡기건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김책에게 산업부문을 맡아보라고 하였더니 엉망이 된 나라의 산업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길에게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간부를 키우는 학교를 꾸리고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도 그 임무를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중공작이나 정치사업 같은 것은 유격대출신들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전기간 언제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해방된 조국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적극적으로 다그쳐왔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평양시 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라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복구건설설계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해 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설계에 기초하여 지체없이 평양시 복구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오늘 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멀리 내다보며 사업을 설계하고 내밀줄 알아야 합니다.

난관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곤란을 디디고 일어서서 내일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생활을 앞당겨 창조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을 앞당기고 미래를 앞당기는 것은 공격정신입니다.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내다보던 바로 그 시절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적 낙관과 신심에 넘쳐 군정훈련을 다그치며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 나갔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웃음으로 헤치며 내일의 조국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가며 후대들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

2. 전민항쟁의 불길은 온 강토에



조국해방 3대노선과 총공격명령을 반영한 구호문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인민적 봉기와 배후연합작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속에 결합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조국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선으로 제시하시었다. 혁명무력과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복대업을 이룩하시려는 통이 큰 이 구상에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성장해온 우리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몇몇 선각자나 투사들의 힘만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혁명운동사의 총화인 동시에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사의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전민항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한 전민항쟁이란 전민을 혁명화하여 항일혁명에 총동원시킨다는 뜻이였습니다. 다시말하여 온 나라, 온 민족을 망라하는 거족적이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일항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전민을 혁명화하자면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하며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을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민항쟁과 관련된 우리의 주장이였습니다.

전민항쟁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백두산에 틀고앉아 무장투쟁을 압록강연안과 국내에로 확대하면서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당건설과 통일전선운동, 대중조직건설을 활발히 벌이던 때부터였습니다.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 것을 호소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사실상 전민항쟁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민항쟁방침을 독자적인 노선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였다고 봅니다. 전인민적 반일항전문제를 가지고 백두산밀영에서도 회의를 했고 초수탄과 신흥에서도 회의를 하였습니다. 9월 호소문은 전민항쟁호소문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나와 있을 때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간백산에 꾸려진 강습소를 통하여 지방조직들에서 단련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전민항쟁에 필요한 지도핵심들을 많이 길러내는 한편 북부지대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곳에 반군사조직들을 더 많이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국내에 파견된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도처에서 노동자돌격대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조선지대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최후결전준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조선지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우리 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자는 나의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대중단체건설 정형 그리고 비밀무장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요해한데 기초하여 조국해방의 3대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의 3대노선이라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 봉기, 배후연합작전으로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데 대한 노선입니다.

그것은 실현할 가망이 충분히 있는 노선이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가망이 있다고 했는가. 민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민심이라는 것은 몽땅 우리한테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격대에 찾아가서 **김일성**의 부하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징용, 징병을 기피한 사람들도 산속에 들어가 야장간을 꾸리고 왜놈들과 결판을 낸다고 하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놈치하에서는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살겠다, **김일성**빨치산부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때에는 우리도 들고일어나서 왜놈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자는 것이 그때의 민심이였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오가는 관부연락선 ≪고안마루≫3등선실 천장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나타나고 서울남대문에 ≪근일 **김일성**대장 조국개선≫이라는 ≪불온낙서≫가 발견되어 일본관헌들이 와짝 떠들던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민족의 운명을 의탁하고 우리가 조국을 광복시켜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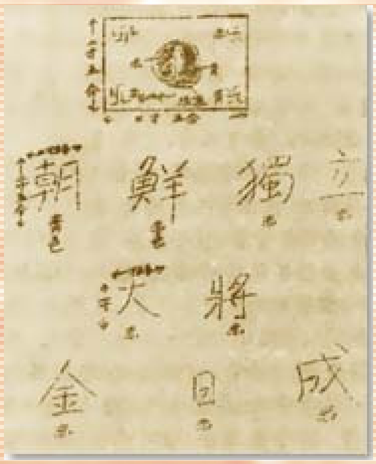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민심에는 인민들의 지향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심만 준비되면 그 어떤 대사든지 다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가능성이였습니다. 조국해방 3대노선이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참작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노선입니다.

최후결전을 위한 작전계획의 골자는 우리 주력부대가 신속히 국내에 진출하여 모든 도들을 차지하고 거기서 전투행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에 호소문을 내여 산에 숨어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집결시켜 무장대오를 조직하도록 하며 여기에 배합하여 전인민적 무장봉기를 일으켜 일거에 적들을 요정내고 나라를 해방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승산이 있는 작전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단련된 혁명군대원들을 골간으로 하고 국내의 애국적인 청장년들도 무장대오를 확대한 다음 여기저기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인다면 우리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 시기에 인민을 항쟁마당에 불러내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3.1인민봉기 때는 독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고안마루 천장에 씌여진 글

만세를 부르느라고 200여만이 떨쳐나섰는데 최후결전을 한다고 해보시오, 얼마나 많은 인민이 항쟁마당에 달려나오겠는가.

물론 이 방침을 아무런 논란도 없이 모두가 다 척척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전민항쟁노선을 제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승산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지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전민무장방침에 대해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도 탄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네 나라는 완전식민지인데다가 무장투쟁도 주로 국외에서 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조선동포들에게 격함≫ - 선전화

나는 그들에게 전민무장, 전민봉기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다, 인민이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구호로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는 국내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체계가 점차적으로 마비되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배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감에 따라 관리들속에서까지 직무를 태공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조명선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그가 산에서 순사를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조명선은 그 순사에게 이 비상시국에 왜 건달군처럼 산속에서 어정거리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사는 일본이 오래지 않아 망할걸 생각하니 만사가 귀찮아지는데다가 속이 하도 답답해서 사냥이나 하러 나왔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관헌들의 정신상태라는 것이 이런 형편이였습니다.

적들의 정신상태가 이 지경이였으니 통치체계가 흔들흔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적의 통치체계에 생긴 이와 같은 취약성은 국내항쟁조직들이 통이 크게 전민항쟁준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항쟁조직성원들은 적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밑으로는 면의 관리들과 경찰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로는 도지사들과 총독, 지어는 총리대신이나 천황에 이르기까지 고하를 가림이 없이 선언문도 보내고 경고장도 보내여 적들을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주체32(1943)년 2월 국내항쟁조직들은 징병제실시와 관련하여 일본 수상 도죠에게 여러 통의 경고장을 보냈다.

벽성군 청년일동의 이름으로 된 경고장을 아래에 소개한다.

≪수신인 ; 도꾜시 도죠수상관저 도죠총리대신 각하

…

조선은 독립한다.

… 적국 일본이여 각성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조선인민들이 인민혁명군의 조국광복작전에
전 인민적항쟁으로 호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양성하려 하지만 나는 조속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총검을 돌려달라. 우리의 적은 일본인이다.…

우리들은 조국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로서 적국 일본에는 어디까지나 반항한다. 죽을 때까지 반항한다. 죽어서도 역시 반항한다. 우리들은 … 징병에 선참으로 나가련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은 숙원을 풀기 위하여, 적국 일본에 반항하기 위하여, 아니 멸망시키기 위하여.≫≪≪특고월보≫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 18년(1943년) 2월분 72페지≫

우리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 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더 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민항쟁역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내의 전민항쟁역량에 대한 통일적 영도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전민항쟁이란 무장봉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활동거점이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전민항쟁과 관련된 노선을 제시하면서 낭림산 줄기를 비롯한 큰 산줄기들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 전민항쟁역량의 무력적 지탱점으로 될 수 있는 비밀 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백두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부지역, 압록강연안과 낭림산줄기, 부전령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내륙지역을 비롯하여 서부지역과 중비역 등 전국 도처에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러한 비밀근거지외에 조국해방작전수행에서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의 주요요충지들에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로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근거지건설을 선행시키면서 국내에 수많은 소부대와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를 데리고 여러 번 국내 깊이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은 두만강, 압록강 연안의 국경지대 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조선일대와 부산, 진해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그리고 멀리로는 일본에까지 침투하여 정치, 군사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전인민적 항전에로 준비시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의 한 관헌자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부하 사상반장의 검거

재만불령조선인의 수령 **김일성**은 종래부터 항일불령책동에 광분중인데 첨예분자인 그의 부하 사상반장 김모가 최근 불령목적으로 간도성도문에 잠입하여 지하공작을 종사하던 중 그곳 경비기관에 검거되어 목하 엄중취조중인 바 현재까지 판명된 잠입목적과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잠입목적 일쏘개전시 만주와 조선에서의 후방교란 및 조선계 제5렬부대조직과 일본은행권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2) 활동상황 **김일성**의 사상반장으로서앞에서와 같은 사명을 띠고 하바로프스크로부터 비밀리에 만주에 들어와 도문에서 조선계 불령분자 약 20명을 획득…

3) 배후관계 경성(서울)에 제5열 본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명료하여 목하 상세한 취조중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 18년(1943년) 2월분 82페지≫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국내항쟁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영도기관을 꾸리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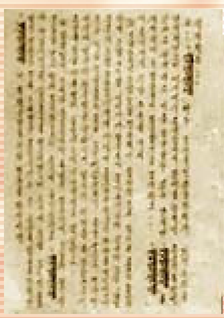
국내당공작위원회가 결성된 후 우리 나라에서는 각지에 당소조들이 조직되어 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였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꾸려진 당소조들과 반일대중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지구당위원회들이 태어나 지역적 영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례로 **김정숙**이 조직한 연사지구당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공산주의선각자들을 망라한 지구당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평안남도 지구당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평양, 개천, 남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소조를 두고 있었으며 이 당소조들을 통하여 도내 각지의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전민항쟁조직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함경북도에 조직된 청진지구 당위원회는 일철을 중심으로 청진지구의 공장들에 수많은 당세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치





≪김일성대≫활동에 대해 쓴 일제의 비밀분건

군사활동에 의하여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격히 장성하였습니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 개가 되고 조직적 역량이 50만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국내외에서 활동한 반일단체들의 활동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된 것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정치적 성격과 함께 군사적 성격을 띤 조직들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과 전민봉기와 무력항쟁을 중요한 투쟁 목적과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이 시기 많은 투쟁단체들은 자기의 투쟁목적이 전민항쟁, 일제봉기, 무장폭동,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합세하는데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었으며 조직명칭자체를 ≪**김일성**대≫라든가 백두산회라는 식으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원주

서울에서 조직되어 제주도 모슬포와 국내각지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 ≪**김일성**대≫는 목적이나 활동방식으로 보아도 항일혁명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주목할만한 전민항쟁조직이였습니다.

≪**김일성**대≫라는 항쟁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1945년 6월경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니이가다현 경찰부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있던 조선사람들속에서 ≪**김일성**대≫라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여 그것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습니다.

≪**김일성**대≫는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워 항쟁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다가 우리 혁명군이 국내진공을 개시할 때 거기에 합세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성전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주요 군수공장과 기업소, 항만과 군사건설장을 비롯한 노동현장들에 뿌리박은 조직이였습니다.

구일본의 비밀문건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대≫는 대동아전쟁은 인차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며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조선은 독립한다는 것, 패전 후 조선의 정치형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정치형태로 된다는 것 그리고 ≪독립후의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김일성**≫이라는 것 등을 선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1942년도 3월에 제주도의 한 비행장에서 있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을 ≪**김일성**대≫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미국 ≪뉴욕타임스≫ 주체31(1942)년 7월 18일 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

≪조선인들이 큰 일본기지를 파괴

노동자들이 조선서해로 가는 입구에 있는 큐얼파트(제주도를 말함)에 대한 공격에서 공국무력 142명을 사살

애국자폭동 계속

…

워싱톤발 7월 17일 … 지난 3월 조선에서 계속되는 적극적인 반일폭동은 큐얼파트섬 혹은 사이슈에 있는 일본공군기지의 심한 파괴를 초래하였다.…

큐얼파트섬은 조선반도의 남쪽끝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조선해협과 조선서해 입구의 주요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노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선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 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99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두 개의 휘발유저장탕크와 69대의 비행기도 파괴되었다. 일본은 그 후에 습격 후 살아남은 400명의 조선사람들을 모두 죽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1일 북부조선에서도 조선사람들이 폭약으로 세 개의 발전소를 폭파하였다고 한다.≫

백두산회는 1942년 여름에 함북도 성진(김책)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일본경찰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백두산회는 와세다대학에 적을 둔 사람의 지도밑에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싸우고 있다는데로부터 그것을 조직의 이름으로 삼고 활동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백두산회가 조선독립을 위해 인민혁명군 참군투쟁과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평양일대에는 조국해방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쟁조직이 있었습니다. 나의 4촌동생 김원주가 들어있던 조직입니다.

조국해방단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 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 있던 적극적인 항쟁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중서부의 공장지대들과 농촌들에 들어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직망은 경찰기관과 적의 관공서에까지 뿌리를 내리였습니다.

조직의 운동방침도 굵직굵직하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실례로 조국해방단은 조선청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강제연행해가는 제1선기관들을 파괴할 것을 계획하고 우리 부대에 줄을 놓아서 무장을 해결한 다음 조직성원들 중 우수분자들을 선발하여 무장투쟁에 직접 참가시킬 것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면사무소도 습격하겠다, 공출미도 도로 빼앗겠다, 징병, 징용 문서도 탈취하겠다, 교통기관도 파괴하겠다, 구월산에 야장간을 꾸리고 도창무기도 만들어내겠다… 보다싶이 하겠다고 설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조국해방단 지도부는 일본군대나 군수공장에 조직을 박아넣을 궁리까지 하였습니다.

원주의 말에 의하면 조국해방단은 두단리에서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원주가 체포된 것은 왜정말기에 권총을 탈취해낸 사건 때문입니다.

원주가 체포된 다음 경찰놈들은 매일같이 집에 달려들어 감춘 총을 찾느라고 수색을 해댔습니다.

경찰들이 원주를 붙잡은 다음 **김일성**의 4촌 동생을 잡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항쟁조직들 가운데서 그 중 규모가 큰 조직으로는 일철비밀결사와 경성제국대학출신들로 조직되었던 무장봉기준비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우리의 한 소부대에서 파견한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일철의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무어진 조직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 일철에 공산당재건조직이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

다. 이 조직을 주도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운동경력으로 볼 때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로조나 농조운동에 관여하다가 감옥밥을 몇 번씩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준비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결사는 부윤지구에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무기와 식량, 의약품들을 저장하고 삐라와 소책자도 찍어냈습니다. 주요공장들에 행동대를 조직하고 무장폭동의 개시 신호와 날자, 무기탈취대상과 그 순차와 방법을 밝힌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짜놓았습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조직이 탄로되기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시생산에 제동을 걸기 위한 파괴공작도 잘하였습니다.

이 항쟁조직에서는 공장주변에 있는 일본군대의 고사기관총을 탈취할 대담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일철반일회조직은 철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생산된 선철을 일본으로 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선거부투쟁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숱한 짐배들이 철을 싣지 못하고 청진항에 여러 날 동안이나 머물러 있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직된 무장봉기준비결사도 규모가 크고 잡도리가 만만치 않은 조직이였습니다.

경성(서울)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에는 기성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인텔리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국내의 비밀결사들가운데서 지식인들이 그만큼 많이 참가한 조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성대비밀결사라고도 하는 조직입니다. 해방전 항간에서 ≪성대사건≫이라고 떠든 것이 바로 이 결사로 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약칭해서 성대라고도 합니다. 이 결사를 배후에서 움직인 것은 우리가 준비시켜 파견한 공작원이였습니다.

경성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의 조직자들인 김일수나 서중석은 내가 길림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김일수는 쏘련 원동지방에 들어가 이준의 아들 이용과 함께 쏘련적위군 조선인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한 적도 있습니다. 백파를 격멸하는 전투들에도 여러 번 참가하여 많은 군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1920년대 초에는 고려공산당의 이동휘네를 따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김일수는 한때 조선공산당 재건활동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데 후에 말하기를 당을 재건하되 감자도장을 가지고 국제당에 찾아다니는 놀음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당건설을 중앙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향식방법이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면서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도 허심하게 받아들이였습니다.

훗날 만주로 망명해간 김일수는 동만특위에서 일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여러 해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을 마친 다음 우리 부대를 찾으려고 동북 지방에 들어와 여기저기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조선에 나와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노동계급을 중시한 것으로 보아 때벗이를 잘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민립대학 창립총회

서중석, 서완석 형제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중석은 원래 서울파에 속해 있다고 후에 엠엘파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길림에 있을 때 황귀헌의 아버지 황백화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는 서중석이 길림에서 청년사업을 할 때부터 그와 알게되였습니다. 내가 하숙을 정하고 있던 장철호네 이웃에서 서중석이 살고 있다나니 그와도 얼굴을 익히게 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와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서중석은 파벌놀음을 걷어치운다고 했습니다. 1국1당제에 따라 남들이 다 중국당으로 적을 옮길 때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당재건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여러 해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주견도 있고 지조도 강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들 형제는 해방 후에도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무장봉기준비결사를 내온 국내항쟁투사들은 흥남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공장, 광산들과 학교들에 조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경성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는 비밀활동거점을 꾸리고 무기구입과 출판물인쇄로부터 군사정보수집에 이르는 폭넓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였습니다. 지어는 조직성원들에게 무기사용법도 배워주고 군사훈련도 시키였습니다.

일세시기 조선에 하나밖에 없던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노라는 수재들이고 그 대부분은 유산층의 자제들이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계몽시키자고 그런 대학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조선사람들이 자체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벌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제국대학이란 이름을 붙여 식민지통치의 하수인들을 길러내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무장봉기준비결사가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형준도 서울에서 전민항쟁조직들을 꾸리고 잘 싸웠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북부국경일대에서 형권삼촌의 지도를 받으며 반일청년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안형준은 서울의 종로네거리에 무슨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산하기업소들을 내온 다음 조직공작을 추진시키는 한편 혁명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을 통이 크게 벌였습니다. 그는 산하기업소들의 목재소노동자들과 유벌노동자들속에 전민항쟁조직들을 꾸려나갔습니다.


선전화 ≪조선민족의 단결로 일제를 쓸어버리자≫

안형준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던 일본사람의 피혁공장을 눅거리로 사서 무장봉기준비결사의 후방기지, 연락기지로 전환시키고 그 공장에서 뽑은 수만 원의 돈을 허리에 띠고 다니면서 무기같은 것을 사들이였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안형준은 서울시인민위원회 초대선전부장을 하였습니다.

나는 1946년 봄에 김책과 함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이극로를 비롯한 조선어학회에 망라된 학자들도 조직을 뭇고 투쟁을 벌였습니다.

함경북도 동무들이 회령 까치봉인민무장대, 곰산로농무장대, 나진인민무장대 하면서 자기네 고장 무장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자랑을 할

만도 합니다. 그 무장대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산광산의 청년노동자들로 무어진 백의사라는 조직에서는 계통적으로 쏘련으로 내보내는 조선말방송을 들으면서 선전공작도 하고 투쟁도 조직하였습니다.

철산의 애국단, 순안철공소 반일무장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무장대들이 온 나라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 중에서 적지 않은 것이 우리와 함께 일했거나 직접 파견한 사람들에 의하여 꾸려진 것들이였습니다.

우리의 영향밑에서 활동하던 흥남지구의 항쟁조직들은 일제가 극비밀리에 개발해오던 대량살륙무기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패망할 때까지 끝내 그 개발에 성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조동욱

박인진, 이창선 등과 함께 일찍부터 풍산일대에서 반일대중단체건설에 참가하였던 이귀현이 파견되어 활동한 함경남도 허천일대에서도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많은 애국자들이 조직을 뭇고 잘 싸웠습니다.

전민항쟁조직은 일본침략군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1944년에 진해해병단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이 전쟁이 일제의 패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패전국의 군대에 끌려다니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사전에 **김일성**부대에 달려가 그 산하에서 조선독립에 기여하자고 하면서 집단탈출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동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중국에 갔을 때 주은래와 팽덕회가 항일전쟁 때 중국전선에서 많은 조선청년들이 무장을 갖추고 자기들한테 찾아와 **김일성**부대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못하고 화북에 있던 의용군에 넘겨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30사단에서도 조선청년들이 반일학도병무장대를 조직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집단적으로 합류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무장대는 산하에 2개의 지대를 두고 그 지대아래에 4-5개의 분지대를 둔 잘 째인 조직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투쟁방향을 몰라서 암중모색하다가 우리의 선이 가닿은 다음 옳은 진로를 찾고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갔다고 합니다.

반일학도병무장대는 행동계획을 아주 통이 크게 세웠습니다. 그들은 추석날을 계기로 일제히 병영을 탈출해서 일단 양덕군 북대봉기슭에 집결했다가 경찰서나 헌병대 같은 것을 치는 방법으로 무기, 탄약, 식량을 보충해가면서 산줄기를 타고 보천보근방의 산중에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산속에 숨어있는 징용, 징병 기피자들로 대오를 보충하고는 활동거점을 꾸리고 유격투쟁을 벌이다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합세하여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지막작전회의에서 목표 백두산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할 준비를 면밀하게 갖추었댔는데 한 조직성원의 부주의로 거사가 유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부는 이 사건을 건군이래의 큰 반란음모의 하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날 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조직에 관계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도 전민항쟁노선을 받들고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시기에 우리의

투쟁에 합류해나섰습니다.

이현상도 콩그룹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방침을 알게 되였다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 박달도 있었고 권영벽이랑 이제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현상이한테 조국해방작전과 관련한 우리의 구상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상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는 단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항쟁대오를 뭇고 왜놈들과 결판을 내자는 것이였습니다.

20여일간의 단식 끝에 생긴 병으로 하여 가석방된 이현상은 얼마동안 몸조리를 하다가 지리산에 들어가 징병, 징용을 피해서 숨어있는 청장년들과 학생들로 무장소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상이 타고 앉은 지리산은 해방구 형태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연합작전을 위해 백두산에 연락원도 파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조동욱도 서울에 가서 전민항쟁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6.6동맹이라는 조직은 그 산하에 등산대와 축구단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합법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바닥의 반일조직과도 연계가 깊었다고 합니다. 조동욱은 해방 후에도 서울에 틀고 앉아서 남조선청년운동을 우리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양에 들어오자 바람으로 나를 찾아와 10년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현상

옥중에서 비밀조직을 뭇고 우리의 전민항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가운데는 김삼룡이도 있습니다. 김삼룡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할 때 옥중에서 공산주의자 써클을 조직하고 일제의 전향강요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였습니다.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콩그룹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김삼룡은 콩그룹을 내온 다음 조직부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콩그룹은 서울공산주의자그룹라는 뜻입니다. 당을 재건해보자고 만들어낸 조직이였습니다.

그 조직에 망라되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내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전민항쟁에 합세하였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이 서울 한복판에까지 침투하여 콩그룹성원들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배포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도 통보해주었습니다.

서울콩그룹은 서울일대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직종별 산하노조까지 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도 벌였다고 합니다.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던 김삼룡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달이 서울에서 들어와 김삼룡을 의리가 있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라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일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몇몇 안되는 사람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현상과 마찬가지로 김삼룡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박달이네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친교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박달을 서울병원에 입원시키고 온갖 성의를 다해 보살펴준 사람이 김삼룡이였습니다. 박달이 우리의 부름을 받고 평양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가 뒤에서 조직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박달을 통해 나에게 문안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김삼룡은 강의한 신념과 능숙한 조직력을 가진 당활동가였으며 나라와 민족과 공산주의위업을 위해 한 생을 바친 애국자였습니다.

남로당활동이 비법화되였을 때 우리는 김삼룡의 신변이 걱정되어 정세가 험해지면 주저하지 말고 북반부로 넘어와서 사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초소를 떠나지 않고 지하에서 남조선의 당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변절자들의 밀고로 남조선경찰당국에 붙잡혀 총살당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전민을 빈틈없이 준비시켰습니다. 1945년 8월에 우리 나라에서 적의 통치체계가 왜 그렇게 빨리 허물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사람들이 틀고 앉아있던 통치기관들을 철저히 짓부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용

1940년대 전반기 전국도처에 조직된 전민항쟁역량의 반일투쟁이 적극화된 데 대하여 이전 쏘련의 출판물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반일운동이 더욱 크게 강화됨으로써 일본의 형편은 나빠졌다.

조선에서는 일본군사대상들에서의 태업과 파괴공작에 대한 사실들이 수많이 기록되었다. 례컨대 1942년 2월 신의주에서 7개의 군수물자를 실은 차량이 폭파되었으며 제지공장이 소각되었다. 웅기에서는 6개의 연유창이 폭발하고 창고가 불타버렸다. 제주도에서는 일본항공기지에 고용된 조선노동자들이 69대의 일본비행기를 파괴하였다.…≫≪베. 야로보이≪조선≫43-44페이지, 쏘련해군출판사 1945년 9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준비할 때 우리 민족내부의 힘이 다 발동되였습니다.

민족내부의 애국역량이 최대한으로 단결되고 발동된 거족적인 반일항전, 이것이야말로 1940년대 전반기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모습인 동시에 특출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로 대치되어있던 두 세력이 이 시기에 와서는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시 합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이용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원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벌이나 되는 노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은 우리와 걸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진실로 애국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산주의냐, 민족주의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김구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완고한 반공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군자금을 보내자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와의 군사적 련합을 위해 련락원까지 파견하였습니다.

일본유학생들이 공산주의신봉자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부하가 되겠다고 절규한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애국의 길이고 독립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주장과 이념을 따질내기를 해가지고서는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을 때처럼 제나름의 주의는 묻어두고 공통성을 찾아 그것을 절대화하여야 합니다. 항일혁명의 경험과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3. 대일작전의 돌파구

대일작전전야에 조국해방의 기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들고 소부대정찰활동을 벌이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된 조선인민혁명군 용사들은 수없이 많다.

소부대정찰활동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써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아래에 수록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상교시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적구정찰활동에서 세운 영웅적 위훈을 새겨보게 된다.

조국해방을 위한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선봉에 서서 그 돌파구를 열어나갔습니다.

대일작전수행과 그것을 준비하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은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직접적인 선을 통해서도 진행되였으며 국제연합군 별동대의 선을 통해서도 진행되였습니다.

대일작전을 예견하는 군사정찰활동, 특히 국제연합군의 공동정찰작전을 적극화하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볼 때 매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기도를 제때에 알아내자면 일본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쏘련과의 접경지역인 만주나 조선에서 군사정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둔 우리에게는 종전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정찰과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제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정찰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개 또는 3-4개 대상에 대한 습격전, 파괴전, 매복전을 위주로 하던 지난날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있는 대상들만 골라 쳤기 때문에 정찰대상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적주둔지와 요새구역, 비행장, 포화력 진지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요소들을 다 정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지어는 반동단체소재지와 그 구조적 특성, 민심동향까지도 다 정찰대상이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군사정찰활동을 중시하였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본군대의 기동이 빈번해지고 지휘기구가 자주 교체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자 일본군부는 만주의 관동군을 수십만 명이나 더 늘였습니다. 히틀러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쏘련이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면 즉시로 북공을 개시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만주에 군대를 대대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모스크바를 먹지 못하고 우물거리기 시작하자 약삭바른 일본군부

는 북공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북수남공≫에로 넘어가 진주만공격이다, 싱가포르함락이다 하면서 만주방면에 집중되었던 병력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남방으로 빼돌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자고 하니 새로운 인원과 전투기재들을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만주와 국내의 넓은 판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조국해방작전에 필요한 정찰자료들을 수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수집한 정찰자료가운데서 첫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이 조쏘, 조만, 쏘만 국경일대에 구축된 요새들과 요새구역에 대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훌륭하게 대일작전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적의 속내를 죄다 탐지했기 때문에 ≪범의 아들≫이라고 우쭐렁거리던 관동군의 정예무력이 변변히 저항도 못해보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이 요새구역들을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할 만도 하였습니다. 세상사람들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지그프리트선이 굉장한 줄만 알았지 일본의 요새들과 요새구역들이 얼마나 요란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구축한 요새구역들을 한데 연결시키면 총 연장길이가 1,000킬로미터이상이나 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막대한 물자를 들이밀어 이 요새선을 구축해놓았는데 보통 1개 요새구역에 영구화점과 토목화점만 해도 평균 500개나 되는데다가 지휘소와 감시소, 화력진지, 각종 엄개와 전호, 교통호, 반탱크, 반보병 차단물들까지 셈에 넣으면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을 지경이였습니다. 관동군의 기본주력이 이 구역들에 배비되어 있은 것만 보아도 일본군부가 이 요새구역들을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구역정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들락날락할 때 동흥진요새구역의 북쪽 익측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에서 적의 화점들과 잘 위장된 엄개에 맞다들군 하였습니다. 밤중에 숙영했다가 새벽 일찍 잠을 깨고보면 적들이 설치한 지하구조물의 지붕이 아니면 영구화점 옆이였습니다.

한번은 적초소가 있는 산밑에 숙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원들을 조심조심 깨워가지고 적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무들이 지난밤 어떤데서 잤는지 아는가, 적의 초소가 있는 산비탈밑에서 숙영했다고 하니 다들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요새구역정찰을 위해서는 몇 개의 정찰조를 고정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실례로 함경북도의 경흥(은덕)요새구역은 10여개의 정찰조가 전담하였습니다. 훈춘, 동흥진, 동녕 요새구역에도 그만 못지 않은 역량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정찰병들은 그때 적의 요새구역에 뚫고들어가 영구화점의 콘크리트쪼각까지 떼가지고 왔습니다.

영구화점의 크기나 포의 구경 같은 것은 노끈이나 자로 재면 되지만 적의 보초 옆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콘크리트쪼각을 감쪽같이 떼온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이 어려운 과제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국경일대에 구축된 요새구역 뿐 아니라 나진, 청진, 원산 일대와 멀리 조국남단에 있는 진해요새, 여수요새까지 정찰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은 넓은 지역에 전개되어있는 요새들과 거기에 배치된 병력과 포무력, 비행장과 비행기의 대수까지 알아냈고 항구시설, 적함의 종류와 톤수, 항구출입질서, 통신결속소위치, 군수물자창고를 비롯하여 알아낼 것을 다 알아냈습니다.

요새구역과 요새를 정찰하는데서는 오백룡을 조장으로 하고 김철만, 한천추, 김

혁철 등을 망라한 정찰조가 특출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오백룡이네 조는 국내정찰 임무를 수십 차례나 수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무전기가 없어서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이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둘기 발목에 달린 늄통속에 도착보고를 써넣어 기지에 알리군 했습니다. 1942년경부터는 국내와 만주에 침투된 대부분의 소부대들과 정찰소조들이 무전기를 이용하였습니다.


한천추

국내에 나올 때는 대체로 일본사람들이 국민복이라고 부르던 옷차림을 하고 지하족을 신었으며 마른 음식으로 끼니를 에웠습니다. 일단 국내에 나오면 기차나 자동차나 마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목적지까지 가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찰성원들에게 대상지역의 지리와 풍습, 말씨에 대하여서도 섬세하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두만강연안과 북부국경지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를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부대나 소조들이 침투할만한 야산들에는 가는 실오리 같은 것을 늘이고 상시적으로 살펴보다가 줄이 끊어지기만 하면 무작정 군경들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색을 들이대군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땅에 찍힌 신발자리를 보고 우리 정찰병들의 침투여부를 가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백룡정찰조 성원들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번은 이 정찰조의 성원들이 웅기(선봉)에서 경흥(은덕)쪽으로 넘어가는 저슬령이라는 고개에서 악질경방단원과 맞다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적의 군경들은 그 경방단원의 시체를 보고 저슬령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소동을 벌였습니다. 적들은 이 수색에 수백 명의 주민들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가둑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수색에 동원된 주민들은 우리 동무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였습니다.

김철만은 그날 가둑나무가지에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혁명군이라는 글쪽지를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수색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 글쪽지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여기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골짜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오백룡이네 정찰조는 국내공작과정에 임시비밀근거지들을 많이 개척해놓았습니다. 보로지산임시비밀근거지, 작은가매원임시비밀근거지, 청학산임시비밀근거지 등은 그 조가 개척한 것들이였습니다.

우리 정찰조성원들은 이런 임시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군중과의 사업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보로지산림시
비밀근거지

우리 동무들은 숯구이를 하는 한 노인을 교양하여 정보공작도 하게 하고 신문, 잡지도 사들이게 하였는데 그가 어느 정도 정보공작에 숙달되자 청진항과 원산항을 정찰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원산에 있는 친척집을 발판으로 삼고 오래동안 원산요새에 대한 정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입수한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오백룡이네 정찰조에 보고하였습니

다.

오백룡은 보로지의 깊은 산중에서 농사도 짓고 숯구이도 하면서 일본말도 괜찮게 하는 사람을 정찰활동에 인입하여 얼마동안 단련시켰다가 일본으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군은 그 지방에 있는 군마보충부들에서 길들인 말들을 매해 가을 일본에 실어가군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선사람들 중에서 말몰이군을 뽑아 일본에 데리고 갔는데 오백룡은 그 말몰이군대열에 자기가 장악한 그 사람을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오백룡에게서 특수임무를 받은 그 사람은 일본에 건너간 후 나진-니이가다, 청진-쯔루가 항로를 통하여 조선-일본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김혁철

오백룡이네 정찰조의 활동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활동범위가 크고 자료가 매우 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남단의 요시지들인 진해, 마산, 부산 일대의 정보들도 오백룡이네가 파견한 정보원들이 걷어들였습니다. 부산에 파견된 한 정보원은 잡화상을 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여수요새에서도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찰활동을 통이 크게 벌이면서도 능숙하고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대일전쟁전야에 쏘련군대가 작정한 나진, 웅기, 청진 등 동해안지대의 주요항구들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은 전적으로 오백룡이네 정찰조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가 항구들에 대한 정찰을 아주 대담무쌍하게 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이 정찰조가 배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전사입니다. 그는 열 번째로 조국에 정찰공작을 나왔다고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국내에 나왔는데 그 중에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했지만 그 대원이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소조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혁철이 그 대원을 업고 걸었습니다. 눈이 무데기로 내리는 날이여서 한걸음한걸음 힘들게 옮겼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눈구뎅이속에서 뭉개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어 강건너 접선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들은 철수해버렸습니다.

소조책임자는 며칠째 밥 한술 먹지 못한 전우들이 아사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로 내려간 다음 김혁철이 지성을 다했으나 관절염 때문에 신고하던 대원은 숨이 지고 말았습니다.

김혁철 자신도 사실은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였습니다. 김혁철은 눈속을 기여가다가 기운이 진해서 눈무지속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기간에 김혁철이처럼 굶어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듬해 봄에 마을 농민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두만강기슭에 묻어주었습니다. 관절염을 앓던 대원의 시신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안장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권총을 틀어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그 권총을 보고 그들이 빨치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김혁철은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우리 부대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충실하였습니다. 도천리출신들이 모두 잘 싸웠습니다.

경흥요새구역 정찰은 손태춘이네 정찰조가 담당하였습니다. 그 정찰조도 일을 잘 하였습니다.

손태춘네 정찰조는 웅기뒤산에 임시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손태춘은 1942년 여름에 적들의 포위에 들자 달려드는 적들을 맨주

먹으로 때려눕히며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손태춘은 화룡유격대에 있다가 우리 주력부대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우리 부대에 넘어와서는 분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였습니다. 같은 화룡출신들인 박영순과 김주현이 그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태춘을 두고 똑똑하고 대가 세며 신념이 강하고 절개가 굳은 열정가라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과정된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였습니다. 유격대경력으로 말하면 김주현과 입대연도가 같은 노병급이였습니다. 그는 고수머리에 미남이였습니다.


손태춘

손태춘에게는 그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소설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화룡에서 살 때 부모들끼리의 약속으로 한 처녀와 짝을 뭇게 되어있었습니다.

부모들끼리의 혼약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서로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두 사람사이에 곡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혁명가인 처녀의 오빠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데다가 빚 때문에 지주에게 오막살이를 차압당하고 온 식구가 도가집살이를 하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손태춘은 장인강이라는 곳에서 공청사업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일가가 겪는 참상을 보게 된 그는 심장이 당장 터질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태춘이한테는 처녀네집을 도와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모로 궁리하던 끝에 멀지 않은 마을에서 공청생활을 하는 김 아무개란 청년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좋은 며느리감을 소개해주겠는데 그 대신 소1마리를 줄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몇 해후에 소값을 갚아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이 약속한 좋은 며느리감이란 자기의 약혼녀를 염두에 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소1마리를 얻게 된 손태춘은 그 소를 팔아 지주에게 진 빚을 물어주고 차압당한 오막살이를 찾아 약혼녀의 일가를 도가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처녀를 만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처녀는 처음에 다른 집에는 절대로 시집을 안간다고 울며불며 야단이였습니다. 그러나 손태춘이 난들 왜 동무를 남의 집에 보내고 싶겠는가, 우리들이 지주의 학대속에 울고 있은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 동생들을 위해 사랑이야 희생시키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설복하는 바람에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슬프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잔치를 하는 날 토벌대가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수라장이 되고 신랑, 신부는 첫날옷차림으로 황황히 집을 떠났습니다. 온 일가가 흩어지다나니 신랑은 유격대로 들어가고 신부는 다시 적구에 남아 공청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태춘도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김아무개 청년은 그 후 왕청유격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불행한 그 여인은 손태춘을 잊지 못하여 한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손태춘을 늘 어려운 모퉁이에 파견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간삼봉전투와 무산지구전투, 홍기하전투를 비롯하여 우리가 조직하고 지휘한 중요한 전투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그때마다 남다른 기개와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홍기하전투 때에는 전방척후로서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손태춘이네 집안은 왕청의 오태희네 가문처럼 온 일가가 항일전에 몸을 바친 혁명가의 가문입니다. 손태이, 손태운, 손태룡 등 그의 많은 형제들도 유격대와 혁명조직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였습니다.

김학송은 경흥요새구역정찰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도 손태춘이처럼 적의 포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수집한 정찰자료를 김봉석에게 넘겨주고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다가 희생되였습니다.

청진, 나남 요새정찰에는 한태룡이네 조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일본헌병으로, 때로는 구두쟁이로, 때로는 인력거군으로 신분을 위장해가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장을 잘하고 임기응변해도 산에 있는 고사포진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너무 심해 정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지가까이에 가보아야 포의 구경과 문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날 한태룡이네는 고사포진지쪽으로 뻗은 올리막길로 손달구지를 힘겹게 끌고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하도 힘들게 오르기에 그 손달구지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한태룡은 ≪유랑걸식≫하는 자기네 신세를 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동정하면서 왜놈들이 망해야 조선사람 살길이 열리겠는데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한태룡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사포진지를 가리켜보이며 일본사람들이 대포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저 산의 대포는 대부분 가짜이다, 진짜대포는 몇 문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가짜포이다, 여기서 나무를 찍어서는 껍질을 벗기고 뼁끼칠을 해서 진지로 날라가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청진일대의 무력배치와 청진항에서의 배들의 입출항, 물자수송 정형까지 다 꿰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대조한 결과 신통히도 딱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온성, 경원, 경흥을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의 요새구역과 요새 정찰에서는 박광선이네 정찰조와 홍춘수네 정찰조가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는 군사정찰과 대중공작을 잘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정찰에 주력을 돌리면서도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다나니 군사정찰에서도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성, 웅기, 경원, 경흥, 나진 일대에는 1930년대 초부터 우리가 꾸려놓은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가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은 것은 이 조직들을 잘 발동시킨데 있었습니다.

해방 후 박광선은 소부대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네 정찰조가 함경북도 북부일대에 나와서 활동할 때 온성사람들의 신세를 제일 많이 졌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1930년대 전반기부터 ≪길림바람≫과 ≪간도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원군운동을 꾸준히 해온 조직성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네가 온성에 가서 우연히 손을 잡은 구장도 지하조직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장은 우리 정찰조 성원들을 만나서는 오늘밤은 두만강나루터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으니 강을 건느지 말라든지 전화도청을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귀띔해주군 하였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를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는 남양헌병본대에서 헌병오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사람이 헌병오장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혹 홍종우처럼 헌병보조원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헌병오장을 하는 조선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박광선이네는 이 오장을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오장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가 1940년대 초기부터 손장춘과 연계를 맺어온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손장춘이 경원군에서 소부대활동을 하다가 전사한 후 그는 인민혁명군의 줄이 와닿기를 기다리면서 깊숙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헌병오장은 헌병대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자료들을 정찰조에 빠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의 신변도 잘 보호해주었습니다.


윤태홍

한번은 소부대의 1개 소조가 두만강유역의 요소구역들에 대한 정찰을 하다가 적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병오장은 우리 동무들을 붙잡아놓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방단원들과 밀정들에게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속된 사람들이 헌병대소속의 밀정들인데 제편사람들을 잡았다고 한 바탕 욕설을 퍼붓고나서 우리 소조원들을 놓아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양은 국경일대 요새구역들과 일본본토와의 연계를 보장하는 중계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에서 중국동북지방과 연결된 중요 도로와 철도, 통신망이 주로 남양을 통하게 되어있었고 대륙침략을 위한 보급물자들도 남양을 거쳐 동북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찰조가 남양의 헌병오장을 정보공작에 인입한 것은 적후공작에서 하나의 큰 소득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군사정찰에 적기관복무자들도 대담하게 인입하였습니다. 서수라경찰서에서 급사로 일하던 사람은 경흥요새구역과 나진요새의 정찰에 참가한 우리소조성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열성을 내여 서장의 신임을 얻은 다음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나중에는 중요군사기밀문건까지 빼내었습니다. 한창봉과 조명선이 북부국경지대에서 활동할 때 자주 드나들던 청학의 일본경찰들 중에는 그들의 영향하에서 우리의 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정찰활동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작전기도와 병력이동정형을 수시로 살피면서 우리가 최후 공격작전을 수립하는데서 참고로 삼아야 할 가치있는 자료들을 무수히 수집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반복정찰을 많이 하였습니다. 적들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썼지만 우리 정찰조성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윤태홍도 관동군 제1방면군의 조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연합군지휘부의 대일작전계획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통치구역에 많은 공작원들을 장기적으로 침투시키는데도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 공작원들은 적구의 여러 주요개소에 깊숙이 박혀있었는데 지어 위만군과 위만경찰은 물론, 일본군부대들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공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하공작원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를 파견한 사람이 소환명을 내리지 않는 한 공작지를 함부로 떠나도 안되고 공작비밀을 누설해도 안됩니다. 이 원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무들은 이 원칙을 생명으로 지켰습니다.

지경수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사령부는 최후공격작전을 앞두고 그에게 적구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잠복하여 지하공작을 진행할 데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공작지는 쏘만국경연선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지경수는 공작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지주행세를 하면서 능란한 방법으로 일본국경들을 끌어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뽑아낸 극비자료들을 수시로 사령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자료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서 은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그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복해 있는 곳이 미구에 장개석군대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될 고장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경수

지경수는 공작지가 해방되자 소작인들이 달려들기 전에 미리 토지와 집을 내놓고 수걱수걱 농사차비를 하였습니다. 토지와 집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덕에 그는 타도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지대가 국민당군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지경수는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었던 땅을 도로 찾은 다음 이 전날처럼 또다시 지주행세를 하면서 국민당군대 상층과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없이 공로를 세운 지경수 자신은 동북이 국민당군대의 치하에서 해방되자 반동파로 몰려 심판대에 끌려나가 농민들의 손에 맞아죽을 번하였습니다. 그때 지경수는 심판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판장에 갔던 우리 동무들이 지경수를 항일유격대원이라고 보증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지경수를 인차 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훈춘현 밀강부근에는 쑥새골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이 고장에는 염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염노인은 짐승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반주민들에게 짐승사냥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냥허가를 주는 경우에는 꼭 자기네 정보활동을 도와달라는 조건부를 붙이군 했습니다. 염노인도 이런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고 짐승사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문정찰을 맡은 임철이네가 이 노인에게 접근해서 협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염노인은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놈들의 지령과 유격대의 주문을 동시에 집행하는 2중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노인은 적들에게는 가짜정보를 제공하고 유격대원들에게는 진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철이네 소조가 도문정찰에 성공한 것은 이 노인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도문지구에 파견된 정찰조들은 적의 반탐에 걸려 실패했는데 이 조만은 성공하였습니다. 도문은 일제의 비밀정탐기관들과 군경들의 집결지였습니다.

해방 후 사람들은 일본놈의 밀정질을 한 반동이라고 하면서 염노인네 가산을 다 몰수하였습니다. 그도 지경수처럼 심판장에 끌려나가 욕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1946년초에 임철이 염노인을 보증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염노인은 애국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은 대일작전이 박두해옴에 따라 더욱 적극화되였습니다.

패망전야에 일본 정계와 군부에서는 ≪조선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는데 그들은 조선이 자활자전체제에서 대륙전쟁의 병참기지, 최종전쟁거점으로

될 뿐 아니라 일본 최후의 운명수혈로로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놓지 않겠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조선사수론≫은 조선을 마지막지탱점으로 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잔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선사수론≫이 실천에 옮겨진다는 것은 곧 조선땅이 일제를 격멸하는 최후결전장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우리는 국내정찰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적들의 중요한 군사비밀을 새롭게 밝혀내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김대홍

그 가운데서도 적군용비행장에 대한 정찰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조선과 만주에 많은 비행장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해안 일대에 비행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청진이요, 길주요 하는 곳들에 있는 비행장들이 모두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길주에 새로 건설한 비행장에서는 비행기가 뜨는 족족 모두 곤두박질을 하군 했습니다. 시험비행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야 길주지구대의 기류가 비행기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인차 이 비행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는 통에 숱한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한지에 나앉았습니다. 동해안지구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은 이런 자료까지도 다 수집해왔습니다.

회령비행장을 정찰한 소조성원들은 이 비행장에는 진짜비행기가 몇 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해안으로 해서 평양까지 간 김자린조는 모란봉에 올라가서 비행장을 촬영하였습니다.

비행장에는 비행기수리와 자동차수리를 동시에 맡아보는 수리공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속품창고, 운수직장, 병원,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개의 부속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비행장내부에는 일본헌병으로 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북만에 파견된 김대홍이도 비행장정찰을 잘했습니다. 그는 품팔이군으로 가장하고 4개월 동안이나 쏘만국경지대에 있는 비행장에 대한 정찰을 하였습니다. 그 비행장에도 진짜비행기는 20대 미만이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짜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찰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정찰병들은 적의 이동정형을 정찰하기 위해 철길가까이에 있는 구조물의 어지러운 물속에 며칠씩 잠복해 있으면서 군용렬차 통과시간과 편성을 조사했으며 어떤 정찰병들은 무더운 여름날 적들의 전술훈련상태를 정찰하기 위해 하루종일 숨막히는 오소리굴같은데 들어가 비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훈련기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찰활동을 하다가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한 한 정찰소조의 활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정찰조는 지정된 날이 되면 사령부에 무전으로 정찰결과를 꼭꼭 보고하군 하였습니다. 정찰자료들이 풍부하고 정확한데다가 제때에 보고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쏘련동무들도 대단히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정찰조가 무전으로 비상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정찰조가 적들의 포위에 들었다는 것, 무전기는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보자료를 보내니 빨리 받아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무전기가 있는 산을 포위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젊은 대원이 먼저 나가 결사전을 벌이다가 전사했고 뒤이어 아바이대원도 전사했다는 것, 지금은 무전수인 자기가 자료송신을 끝내고 수류탄묶음을 폭파시켜 달려드는 적들을 한 놈이라도 잡고 죽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남만출신인 그 처녀무전수는 이런 내용의 전파를 날리고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김흥수도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는 1943년에 정찰임무를 받고 훈춘쪽에 나왔다가 체포되였습니다. 놈들은 그에게 갖은 악형을 다하면서 비밀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흥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를 감자를 가는 기계에 집어넣어 갈아죽였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한 기사가 국제연합군 신문에 크게 소개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나서면 말없이 맡아나서군 하여 내가 몹시 아끼던 전사였는데 그렇게 처절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지봉손도 같은 해 봄에 정찰을 나갔다가 훈춘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정찰활동과 그 과정에 발현된 그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던 적후정찰활동의 나날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인민들의 지지를 떼여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려운 적후정찰을 준비하면서 인민들의 방조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파견되는 소부대, 소조 성원들에게 적후에서 반드시 인민에 의거하여 인민의 도움을 받을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후정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 그전에 우리가 동북땅이나 국내에서 꽝꽝 소리치며 대부대유격전을 벌이던 때처럼 인민들과 친숙하고 혈연적인 유대로 얽히며 그들의 이해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저으기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의 혈로를 헤치는 이 간고한 투쟁에서 우리는 걸음걸음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변함없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날에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처럼 인민들도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을 믿고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더욱 뜨겁게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이 우리를 믿고 온 민족이 우리를 지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진리, 이 확신은 우리에게 천백 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일제격멸의 최후결전에로 우리를 세차게 떠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수백수천 건에 달하는 정찰자료들은 대일작전의 준비와 최후승리에 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러한 대담하고 폭넓은 정찰활동이 없었더라면 100만 관동군을 격파하는 대일작전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결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적극적인 소부대, 소조 활동과 꾸준하고 과감한 군사정찰활동으로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피로써 개척하여 일본제국주의를 격멸소탕하는데서 선봉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4. 민족의 얼

1940년대 전반기 조선민족은 민족으로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못하는가, 유린당한 민족성을 부활시키는가 부활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창씨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며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상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민에게 강요된 운명이었다.

우리 나라의 애국적 인민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을 우러러보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상교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하게 황민화를 강요하였습니다. 황민화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을 몇 십년 사이에 일본화하려고 했으니 그들의 식민지화정책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제일 선참으로 배워준 노래가 일장기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민학교시절부터 ≪충군애국≫을 강요하였습니다. 자결로써 충의를 다했다는 광신적인 천황주의자 노기에 대한 이야기가 공연히 아이들의 교재에 포함된게 아닙니다. 충군애국사상을 주입시키자니 노기와 같은 군국주의두목을 충군충효의 표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황국신민의 서사≫나 ≪황국신민체조≫ 역시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먹인 것이였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강요

자원을 강탈당하는 것도 물론 살점을 떼우는 것만치나 원통한 일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연부원을 약탈하다 못해 놋바리와 놋수저, 지어는 제상의 놋초대와 놋술잔까지 걷어갔고 여자들의 머리에서 비녀까지 다 뽑아갔습니다.

옛날에는 금강산에 수백 년 묵은 거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부터는 금강산사찰주변에 있던 거목들까지 다 뽑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막대한 재부를 약탈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조선사람들이 그걸 왜 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분한 것은 일본인들이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 별의별 고약한 짓을 다하는 것이였습니다. 색옷을 입어라, 창씨개명을 해라, ≪국어상용≫을 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정오묵도≫를 해라 하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때 일본사람들의 행실 가운데서 제일 고약하게 여긴 것은 조선사람더러 조선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말을 떠나서는 조선민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쓰라고 한 것은 조선민족을 이 세상에서 영영 없애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어를 잃으면 민족이라는 것도 사멸하고 맙니다.

그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는 국어상용으로부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관청이요, 회사요, 학교요, 공장이요 하는데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지어는 목욕탕안에서까지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황민일보≫라는 신문은 ≪국어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이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어상용≫을 부르짖다 못해 조선작가들에게 일본말로 작품을 쓸 것을 강요하였으며 일본말로 된 ≪국민문학≫잡지까지 발간하였습니다.

왜정말기에 연극을 만들어도 1막 이상은 꼭 일본말로 공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방 후 황철, 문예봉, 조영출이랑 만나서 담화를 해보니 조선영화배우들에게 일본어발성을 강요하였고 조선가요를 레코드에 취입할 때에도 가수들에게 한 절 이상은 꼭 일본말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민개창운동≫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파쑈군가까지 부르게 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말과 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포스터

학교에서 일본말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비국민 취급을 당했습니다. 조선말을 쓰면 관청이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배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차표도 팔아주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미다나≫라는 것은 일본의 개국신이라는 ≪천조대신≫의 명찰을 넣은 일본식귀신상자입니다. 그런 귀신상자를 집집마다 걸게 하고 ≪동조동근≫을 떠들었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와보니 ≪신사≫곁에서 뒤를 보았다는 죄로 감옥밥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에 어떤 농민이 성을 일본식으로 갈지 않으면 자식을 퇴학시키겠다는 공갈을 받고 마음에 없는 창씨개명을 하고 나서 조상에게 진 죄를 벗을 길이 없어 한탄하던 나머지 돌을 안고 우물에 빠져죽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시국이 이쯤되고 보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남의 나라를 강점한 침략자들이 식민지들에서 민족동화정책을 쓰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터어키는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했고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제정러시아는 폴란드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각각 자기 식의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서 말과 글을 빼앗고 자기네 식으로 성과 이름까지 갈게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궁성에 쳐들어가서 왕비를 난도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 조선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지난 세기말의 왕가유린과 같은 악행을 뻐젓이 감행했습니다. 조선사람은 그야말로 사멸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조선의 지성인들앞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는가 아니면 복종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저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 중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민족을 외면해버린 사람도 있었고 굴복하여 일신의 영달을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하고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동의 기지에 있을 때에도 국내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애국을 하고 누가 매국을 하는가, 누가 벼슬길에 오르고 누가 감옥행을 했는가, 누가 전향을 했고 누가 교수대에 올랐는가 하는 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중에 창씨와 관련한 이광수의 글을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식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성을 가야마라고 고치는 것이 좀더 천황의 신민답다고 생각하기에 창씨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이광수는 일본의 신무천황이 왕위에 오른 고장의 산이름을 따서 가야마라고 성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조선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광수란 사람이 변해도 아주 너절하게 변했습니다. ≪민족개조론≫이라는데서는 두루마기와 저고리만 벗었다면 이 글에서는 아예 바지와 속옷까지도 다 벗어내치고 공공연히 친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잡지에 지원병제를 찬양한 글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한용운

해방 후 이광수는 자신의 친일을 ≪민족보존≫을 위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민족을 보존하자니 부득불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리인데 그가 진실로 민족보존을 염원하고 있었다면 지원병제는 왜 찬양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몇 이나 됩니까.

불교인들가운데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3.1인민봉기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승이었는데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였습니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호사도, 사식도, 보석도 다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이 겁에 질려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감방의 변기통을 들어 내동댕이치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는 놈들이냐하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훗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떼주겠다고 구슬렀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그것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동료들과 친지들이 돈을 모아 서울 성북동에 자기 집을 지어줄 때에는 총독부 돌집이 보기 싫다고 하면서 기어이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종로네거리에서 이광수를 만났습니다. 이광수가 조선청년들에게 학도병출전을 권유하며 돌아다니던 때라고 합니다. 이광수와 한용운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용운이 이광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이광수는 한용운을 붙잡고 내가 춘원이다, 나를 모르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용운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기가 알고 있은 춘원 이광수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승이 민족혼을 저버린 이광수한테 내린 사형선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남선도 애국으로부터 친일로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은 일본문화화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소리까지 내놓고 하였습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은 지

식으로 말하면 제노라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념이 없는 지식이나 글재주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최린도 일본사람들의 동화정책에 굴복하였습니다.

어떤 문인은 친일시를 써서 총독부에서 주는 상이라는 것을 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성인들이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조상을 갈고 일본옷을 입고 궁성요배를 하고 지어는 ≪천황을 위해 보람있게 죽자≫는 얼빠진 소리까지 해가면서 민족을 반역하고 있을 때 애국적인 학자들과 교육자들, 문예인들, 언론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그런 자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완강하게 조선사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이기영

이기영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이기영은 ≪카프≫사건으로 2차례나 감옥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임화와 같은 사람은 감옥밥을 먹고나서 인차 변절했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선 다음에도 애국적인 문인으로서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무소 문턱을 넘어선 다음 실업자가 되어 서울장안을 방황하던 그 당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사상범으로 몰던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사상범보호관찰소 지붕밑에 마구다지로 밀어넣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일사상에 의한 ≪보국≫을 강요하였습니다. ≪보국≫이란 곧 전향을 의미합니다.

이기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경찰기관에 끌려가 전향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적들은 그에게도 일본말로 작품을 쓸것과 일본말로 친일강연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미가 참대쪽같은 그한테는 그 어떤 강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국민문학≫을 강요할 때 그는 오히려 조선글로 소설을 써내어 그들의 황민화정책에 대답하였습니다. ≪요시찰인≫으로 등록된 후의 그의 살림살이가 몹시 궁색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돈에 쪼들렸던지 둘째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장례비가 없어 그 애의 시신을 옆에 두고 ≪돈≫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유관순

이기영은 경찰들의 성화를 받다 못해 가족들을 데리고 금강산밑에 있는 산골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시의 눈초리는 산골에서도 계속 그의 뒤를 따라다니였습니다. 친일분자들의 돌팔매질에 그의 집 문짝이 여러 번 박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애국적 지성인으로서의 대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삼에서 피신생활을 하는 징병, 징용 기피자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소나 말처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왜놈들에게 저항하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때 이기영한테서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해방이 되자 그가 살던 고장의 간부들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광수는 창씨를 했지만 이기영은 왜놈들이 망할 때까지 창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씨개명을 하면 개아들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자신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성과 이름을 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방 후 평양에서 이기영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선생은 몸도 약한 분인데 어떻게 그처럼 견결하게 옥중고초도 견디어내고 창씨선풍도 이겨냈는지 참으로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 유관순과 같은 17살내기 처녀도 꽃다운 목숨을 바쳐 지조를 지키는데 나같은 문인이 절개를 굽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또대진재가 일어났을 때 도꾜바닥에서 왜놈들이 죽창과 일본도와 쇠갈구리로 조선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는 것을 보고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놈들과는 꼭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빼기 위한 일제의 동화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애국자들가운데는 신채호도 있었습니다.


여순감옥의 신채호

신채호는 권위있는 역사학자인 동시에 이름난 작가, 정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길림시절에 손정도 목사한테서 신채호가 쓴 성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을 미국의 위임통치령으로 해달라고 한 이승만을 때린 긴 글이였는데 어찌나 박력있고 예리한지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습니다. 손목사도 그래서 그 성토문을 그냥 간수한다고 했습니다.

신채호는 상해나 베이징 등에서 여러 신문, 잡지들을 발행하면서 타협주의자들을 때리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이 신문에 실릴 때면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신문을 샀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들을 읽느라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생명체를 보는 것 같은 감을 받게 됩니다. 구절마다 조선사람의 넋이 꿈틀거리는 글이였습니다.

신채호는 1920년대 말에 일제에게 체포되어 여순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면서도 일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채호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민족의 얼이 고동치는 글들을 중단하지 않고 썼습니다.

신채호가 여순감옥에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문화사≫를 계속 쓴 사실 하나만 놓고도 그가 얼마나 민족의 정통성과 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채호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짜내여 집필을 계속하다가 이국의 쓸쓸한 감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한 몸을 불태워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정신을 깨우쳐주려는 애국지사들과 지성인들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깨우쳐주려는 애국지사들과 지성인들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얼을 지켜주고 그 개개의 넋을 하나로 묶어세워 전민항쟁역량의 중요한 일익으로 내세워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고수하는 문제와 전민항쟁준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었습니다. 민족의 얼을 지키는 문제는 전민항쟁준비의 정신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중요한 일환이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전민항쟁대오에 광범한 애국역량을 묶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순감옥

우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할 지식인들의 사명을 중시하고 국내외의 지식계층속에 공작원들을 부단히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국내로 떠나가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품에서 태어나며 죽어서도 민족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민족이라는 한집안에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다, 그러므로 민

족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혁명도 민족을 위해 하는 것이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 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 그자체이다, 때문에 동무들은 전민이 무장을 잡는 것과 전민이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민항쟁준비를 잘하며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문예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지식계층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여 그들 모두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불꽃이 되고 총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군 하였습니다.

1938년 말에 ≪동아일보≫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적색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그 연루자들이 검거되였다는 기사를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화국의 초대교육상이었던 백남운도 적색연구회의 조직성원이었습니다.



백남운

굴복하면 사람대접을 받고 저항하면 짐승취급을 당하던 험악한 세월에 백남운은 지식인으로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견지하는 저항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백남운은 일본에 가서 고학으로 상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연희전문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조선사회경제사≫는 그의 대표적인 역작입니다. 그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저술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일제가 민족경제를 압살하고 조선민족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백남운이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사를 쓴 것은 대단히 애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서울 연희전문학교에는 경제연구회라는 합법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혁명적인 색채가 짙은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백남운이었습니다.

백남운은 동료교수들과 함께 단순한 학술연구단체였던 경제연구회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적색연구회라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적색연구회의 모든 활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현하는데로 움직이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이 단체의 성원들이 모두 대중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 상황≫이라는 관헌자료에는 적색연구회가 공산혁명달성의 목적밑에 연구토론회, 강습회, 독서회 등을 열어 회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주입과 선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씌여있습니다.

백남운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무직으로 은거생활을 하면서 ≪이조실록≫을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글을 쓴 것이라든가, 경제연구회를 적색연구회로 발전시킨 것이라든가, ≪이조실록≫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도전이였습니다.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 해 겨울부터 난로에 불을 때지 않고 냉방에서 강짜로 지냈다는 사람이 백남운입니다. 왜 난로에 불을 때지 않고 지냈는가. **김일성**이하 빨치산의 모든 장병들이 춘하추동 사계절 가랑잎을 덮고 한지에서 자고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각을 조직할 때 백남운을 첫 교육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과학원 원장도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였는데 일을 아주 양심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낳은 세계적 유전학자이며 육종학자인 계응상선생도 민족적 자존심

이 남달리 강하고 과학적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직심스레 했습니다. 생활이 하도 어렵다보니 종이가 없어서 가랑잎에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양말같은게 생기면 신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남의 집에 갈 때에만 신었고 신발도 해질가봐 노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푼전을 아껴가면서 지독스레 공부한 덕으로 선생은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는 대학연구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

계응상이 학창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가 연구원을 졸업하자 일본각지에서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시절의 지도교원도 계응상을 탐냈습니다. 그는 만주에 멋있는 농사시험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함께 일해보자고 구슬렸습니다.

그러나 계응상은 그 모든 요청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일본군대의 꼴을 보지 않고 살수 있는 고장에 가서 누에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가서 과학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지만 그것도 단념했습니다.

계응상은 오랜 고민 끝에 중국관내에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남방지대에는 일본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일본군대가 관내에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7.7사변 이후부터입니다.

일본군이 광동을 점령한 그때에야 그는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왜놈세상으로 된 바에는 조상의 묘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중국에서 돌아올 때에도 이국땅에서 천신만고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의 누에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행실이 역겨워서 트렁크에 누에종자를 넣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응상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조선사람의 얼을 가지고서는 미군정의 치하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더라고 토설하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가 민족적 자존심이 매우 강한 학자라는 생각을 더욱 깊이하게 되였습니다.

계응상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후 생산성이 높고 병에도 잘 견디는 훌륭한 누에종자들을 수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민족의 얼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에게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열렬한 애국심과 드놀지 않는 과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정말기 국내에서 민족의 넋을 고수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인 조직가운데는 조선어학회도 있습니다.

이극로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어연구회라는 것은 그 전신입니다.

조선어학회가 소문도 없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어학회가 조직된 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나라에 온전한 조선말 사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을 만들어보려고 애쓴 학자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때여서 온전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성원들이 그 중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섰습니다.

언어를 떠난 문화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언어와 문자의 합리적인 정리와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언어와 문자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통일하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언어자원을 종합하고 집대성한 사전입니다.

민족어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품이 무한정 드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뒤골목에서 가만가만 하는 일이어서 인민들의 후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과 문자의 표기에서 통일적인 표준으로 삼을 만한 것도 변변하지 못한 형편에서 방대한 사전편찬 작업을 하자니 얼마나 간고했겠습니까.


한글보급운동
관련서적

그들은 만일의 경우를 예견해서 원고도 2부씩 만들어 따로따로 감추어두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도 수십 년이고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벙어리 이상으로 천시를 당해야 하는 때에 막돌처럼 버림받던 조선어낱말들을 보물처럼 하나하나 모아 사전에 올렸으니 얼마나 장하고 외로운 애국자들입니까.

조선어학회는 비밀리에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1935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음성학회와 이듬해에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언어학대회에도 참가하여 일제가 조선어를 어떻게 말살하고 있는가를 온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글을 다듬고 연구한 첫 기관은 세종왕이 세운 정음청이었습니다. 세종이 최만리와 같은 사대주의학자들의 필사적인 반대를 물리치고 훈민정음을 권장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는 ≪용비어천가≫도 조선글로 짓게 하고 공문서도 조선글로 쓰게 했으며 유고, 불교의 경전도 조선글자로 출판하게 하였습니다.

정음청이 폐지되고 조선글이 버림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연산군 때입니다. 조선글은 수백 년동안 잡초처럼 천대를 받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에야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말부터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한 조선글을 이번에는 일본사람들이 ≪국어상용≫이요, 뭐요 하면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일어난 것이 다름아닌 조선어학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독립과 조선어의 정리보급을 위해 투쟁해오던 이 단체가 1942년 가을부터 적들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망라되었던 수십 명의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이 국내에 갔다가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듣고보니 분한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쏘련군대가 독일군을 수십 만이나 녹여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야영이 술렁술렁 끓던 때였지만 우리 학자들이 수십 명이나 붙잡혀 줄경을 치른다는 말을 듣고나니 밥맛조차 없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함흥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문이 어찌나 지독했던지 몇 사람은 예심과정에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강제폐간당한 간행물들

일본경찰은 조선어학회를 반일독립단체로 지목하면서

도 그 단체가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수감된 학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비밀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어학회 내부에는 우리의 조직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극로를 비롯한 선각자들을 망라한 비밀지하조직이 틀고앉아 있었습니다. 최일천이 서울에서 살고 있은 이극로를 찾아간 것이 1936년 가을과 1937년 여름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조직에서 그에게 국내지식인들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과업을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이극로

최일천은 장춘에 있는 ≪동아일보≫지국장으로 서울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이극로도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고문을 많이 받은 것은 동지들이 한 일까지 자기가 다했다고 스스로 죄를 걸머지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에 돌아가서도 만신창이 된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어학회를 거점으로 하여 민족역량의 단결과 자주적인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이극로가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에 들어왔길래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어학회사건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왜놈경찰들이 매일같이 고문을 들이대고 매를 너무 맞아 죽어가는 사람까지 생긴다니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견결한 반일의지와 집단적인 애국심에 탄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극로는 내 말을 다 듣고나서 그건 달래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뻗친 겁니다, 우리 배짱이라는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두산에서밖에 나올 데가 있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천보전투 후에 어학회 성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소주 한 병을 사다가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극로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데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고 또 공산주의자들한테서도 사랑을 받고 민족주의자들한테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4월남북연석회의 때 그를 주석단에도 앉히고 회의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문건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끝난 다음 이극로는 평양에 남아서 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내각에서 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상하를 불문하고 반말을 모르는 겸허하고 예절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

언제인가 이극로가 쓴 이력문건을 보고 놀란 일이 있는데 안가본 데가 없고 못만나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중국, 일본, 쏘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유명하다는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그는 레닌도 만나본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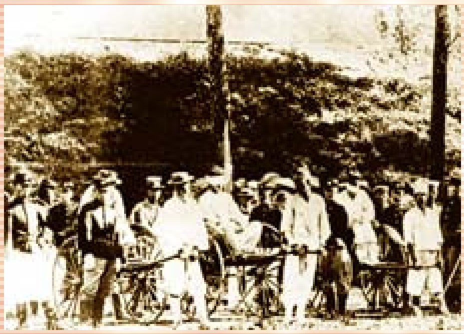
레닌을 만난 것은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그 무렵 상해에 있던 이극로는 이동휘, 박진순 등과 함께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크레믈린 궁전에서 레닌을 2번이나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이극로는 민족운동자들 가운데서도 한다하는 사

람은 거의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최일천, 변대우, 황백하를 비롯하여 동북지방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극로에게 독일유학을 부추긴 것은 모스크바에 체류중이던 윌헬름 피크였다고 합니다. 피크의 주선으로 베를린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나는 이극로에게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어 조선어연구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가, 선생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실업계에 나서라고 권고한 사람도 있고 벼슬길에 나서서 두각을 나타내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무슨 연고로 언어학자가 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자들

그랬더니 이극로는 아일랜드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모국어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 간판과 도로표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영어로 표기된 것을 보고 조선 말과 글도 저런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조국에 돌아가면 모국어를 지키는 운동에 한 생을 바치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어학회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총칼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로써 민족의 얼을 지켜낸 지성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조국, 살아서 싸우는 내 나라를 보았습니다.

경성제국대학학생들도 조직을 뭇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이 조직에 망라된 애국적 지식인들은 처음부터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에 반기를 들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이었습니다.

성대조직의 애국적 지식인들은 친일문인들과 어용학자들의 잠꼬대같은 주장에 반격을 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연단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민족은 나태한 민족도 아니고 파쟁을 즐기는 민족도 아니다, 조선사람이 잘살지 못하는 것은 나태해서가 아니라 왜놈들 때문이다, 그놈들이 우리 민족의 재부를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을 낙후한 민족이라고 하는가, 조선민족은 지혜와 문명도에 있어서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탄압을 해도 그리고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민족은 자체의 민족성을 고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만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지식인들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산줄기들에 근거지를 잡고 탄광, 광산 노동자들과 산중에 숨어있는 징병, 징용 기피자들로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쳤습니다.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학자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문예인들, 언론인들이 전민항쟁조직들에 망라되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반대하여 끝가지 과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직에 망라되지 않은 지식인들도 신념을 가지고 적들의 동화정책에 항거해 나섰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억압과 철쇄도 각성된 지식인들의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성공한 지식인들은 예외없이 다 자기 조국과 민족앞에 충실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지식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신념을 간직할 데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5.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온 민족의 단합과 반일애국역량의 총집결로 조국광복을 이룩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신 노선이였고 전략적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해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모색하여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였다.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1940년대 전반기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나는 한평생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중요한 노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때 민족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2대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사조로 남아있었고 민족주의 운동세력도 미약하나마 하나의 반일 애국역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개량주의세력을 제외한 다수의 민족운동자들은 의연히 반일의 기치를 들고 국내와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운동세력은 국내 인민들과 해외교포들속에서 일정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세봉과의 합작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반일민족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반일민족운동자들도 우리와의 연대를 이룩하려고 여러 모로 시도하였습니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배척하고 경원시하던 사람들도 점차 우리한테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반일독립운동자들의 움직임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1936년 5월에 우리가 조국 광복회를 창립하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면서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자 민족주의자들은 그에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해 나섰습니다.

남만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참모장 윤일파가 우리에게 지지서한을 보낸 것이라든가, 상해의 조선인거류민단에 있던 박씨성을 가진 독립운동자가 남만에까지 와서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였던 이동광을 만난 것이라든가, 김활석의 휘하에 있던 독립군의 잔존세력이 최윤구를 선두로 조선인민혁명군에 스스로 편입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상해임시정부 요인들

권위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된 데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민족해방운동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반일민족해방 전선의 주력군이었고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대표자였으며 항일혁명의 조직자, 영솔자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선상에 여러 갈래의 반일세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적들에게 제일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존재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고 우리 인민이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무장력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은 조선인민혁명군 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구를 보좌하고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보천보전투에서 일제가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환성을 울리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구

그때 남경에 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도 ≪조선혁명무장운동의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보천보전투를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편집집단은 그 신문자료를 함흥에 있는 ≪조선일보≫지국에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주장을 초월하는 범민족적인 지지와 격려,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보천보를 답새겼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도 대단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일찍부터 무력항쟁을 모색한 사람이였습니다.

1920년대 초에 그가 조직한 노병회라는 단체도 사실은 무력항쟁을 지향한 단체였습니다. 그는 무저항주의적인 실력배양이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은 군대를 큼직하게 꾸려가지고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벌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우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로스앤젤스에서 발간되던 ≪조선독립≫이라는 교포신문이 김구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김구의 호소에 호응해서 **김일성**부대와 조선의용군을 위해 거액의 군자금을 마련해 보냈는데 헌금을 호소한 김구자신은 중도에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구가 군자금을 보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돈을 전달하자면 조직선을 타야 하는데 우리의 조직선을 찾기가 그때로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김구가 우리를 위해 헌금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모로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삼봉전투도 관내의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외의 민족운동단체들에서 우리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연공의 움직임이 전에없이 활발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만인이 다 접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투쟁강령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관내에 있던 반일애국역량은 주의주장과 투쟁방식의 차이로 하여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분열되어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파라고 하는 김구파였고 다른 하나는 인민전선파라고 불리운 김원봉파였습니다. 김원봉파는 공산주의 계열에 가까운 독립운동좌파였습니다.

두 파는 장개석국민당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과 저마다 독자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우선 관내의 반일민족단체들 자체가 하나의 역량으로 단합되어야 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각이한 주의주장과 활동방식을 가진 단체들이 상호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항일애국의 기치밑에 단일전선을 형성해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단일전선에 망라된 모든 반일역량과 우리와의 합작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실현해야 하였습니다.


미국교포들의 독립요구시위

우리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이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종일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부터는 관내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혁명에서는 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어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공합작의 실현은 중국인민의 구국항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중국혁명발전을 크게 추동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타고 작은 당으로 서로 분립되어있던 김구계열과 김원봉계열이 1940년 9월에 지난날의 대치상태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단일전선결성에 성공하여 공동선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동선언에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에서 제시한 사항들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후 김원봉계열을 인입하여 좌우합작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운동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우리는 국내와 일본에 있는 반일애국역량의 결속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만주와 관내에 있는 반일애국역량을 끌어당기기 위한 활동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은 멸망의 함정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예고하는 사변들이 도처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격변하는 정세는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역량이 하나로 결속되어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반일투쟁역사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의와 당파를 초월한 민족역량의 굳건한 단합만이 조국광복의 날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하나의 인식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강력한 전민항쟁역량을 꾸려나가는 것은 시대가 우리앞에 부과한 역사적 과제였고 각계각층의 애국인사들과 인민대중의 공통된 염원이었습니다.

1940년대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활동방식과 민심동향의 변화에 대하여 일제경찰은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외로부터 감행되는 조선민족의 책모목적은 민족주의계라든가 공산주의계라든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조선독립에 있으며 현재 표면적으로 조선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경밑에 있는 자와 미국밑에 있는 자…쏘련과 중공하에 있는 자들은

종국의 목적을 조선독립에 두고 있다.≫≪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소화19년(1944년) 5월에 각 도 경찰부장앞으로 보낸 경찰문건≫

≪사상사건에서의 특이한 점

종래와 같이 주의주장의 이론구성에 구애되지 않고 중심목표인 조선민족의 독립에 중점을 지향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공산주의운동과의 관계에서도 심히 접근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분자와 좌익분자와의 혼재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도 드물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동외사월보≫ 제51호 5페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소화 19년(1944년) 3, 4월분≫


광복군
훈련모습

우리가 중국관내 반일애국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하는데서 주목을 돌린 단체의 하나는 상해임시정부였습니다.

일본군대가 중국본토를 침공한 후부터 임정은 거처를 빈번하게 옮기었습니다. 국민당정부를 따라 소재지를 자꾸 바꾸다보니 사실은 간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고달픈 처지에 있었습니다. 임정관계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이사짐을 늘 지고다닐 정도로 줄곧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짐보따리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여관구석에 앉아 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파쟁과 헌법개정, 개각으로 진통을 겪는 임시정부는 초보적인 생존조건과 신변의 위험 때문에도 고충을 겪고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구가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는 임정청사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하였겠습니까.

1940년에 임시정부는 방랑생활을 끝내고 장개석정부의 소개지인 중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과 같은 무장력을 내온 것은 그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광복군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주관한 한 출판물에서 **김일성**과 양정우, 조상지 등의 이름을 찍어가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역사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청소한 무장력이었습니다. 임정관계자들 자신도 자기네 무장력의 발전은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청천이 해외 반일역량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임정세력의 주도권 확립이 어렵다고 한 것이라든가 임정은 대처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8.15해방을 맞이했다고 솔직히 술회한 것은 이런 실정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일제경찰이 광복군에 대하여 남긴 기록의 한 토막을 소개한다.

≪광복군의 진용은 임시정부의 과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며 각 지대원은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제5지대만이 총계 50명이 되나 그 중 20명은 라월한 직속의 무정부주의자, 기타는 모두 조선인포로들로서 문맹에 가깝

고 아편을 밀매하는 불령업에 종사하던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빈약한 것으로서 거의 볼만한 활동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황해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 18년(1943년) 2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손을 잡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김구계열과의 합작이 성사되면 조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이 벌어질 때 그들의 무장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광복군

김책은 처음에 우리가 임시정부의 김구네 계열과 합작하려는 것을 내키지 않아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반공분자인 김구와의 합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였고 설사 합작이 성사되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큰 은을 내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내 설명을 듣고는 자기가 김구의 애국심을 중시할 대신 그의 반공적 측면만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관내반일역량과의 관계는 허정숙을 통하여 추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안까지 주동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최용건도 초기에는 김구와의 제휴를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그가 김책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였습니다. 파벌에 이골이 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무엇하겠는가, 손을 잡았대야 덕을 보지 못한다, 합작을 하는 바치고는 차라리 김원봉이네 계열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최용건도 나중에는 김책처럼 나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관내와 동북지방은 물론, 국내를 무대로 암살과 습격파괴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제1구 대장이 해방 직후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장을 잠간 한 바있는 박효삼이였습니다. 박효삼은 휘하에 40명 정도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김원봉이 하는 말을 들으니 조선의용대는 규모도 작고 갖춤새도 빈약해서 독자적인 활동은 별로 하지 못하고 중국부대들에 섞여 돌아가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반전선전과 적군와해공작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규모와 갖춤새는 그닥 변변치 않지만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려는 그들의 지향을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화북에 있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무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중국의 홍군건설과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에 돌아와서 민족보위성 부상도 하고 포병사령관도 하였습니다.

무정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집 가까이에 그의 집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정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무력건설에 참가하여 공로도 세웠지만 원채 군벌관료기가 심한 사람이어서 조국해방 전쟁 때에 비판을 받고 군직을 다 내놓았습니다.

무정이 현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우리는 그가 중병으로 신고할 때 최선을 다하여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중국 장춘에 루마니아의료집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

었습니다. 무정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정이 우리 곁에서 눈을 감고싶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공로를 평가하여 장례식을 잘해주었습니다.

무정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김**장군소문을 많이 들었다, 그 때마다 힘이 났다, 왜놈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하는 장수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몸은 비록 8로군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 쪽에 가있었다, 조선의용군이 **김**장군부대와 합류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조선의용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공동으로 일제를 격멸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장군과 손을 잡아보려고 여러 모로 애썼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가 조직된 다음 이 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연계를 맺기 위해 활동한 정형에 대하여 일제의 관헌자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동정

…1941년 5월, 6월경에 새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를 편성하였다.…

그 후 경한선일대의 우리가 점령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동지획득, 각종 모략선전에 광분하는 거소가 함께 재만불령선인 **김일성**과의 제휴, 선내동지와의 연락 등 공작중인 바…≪우리들은 내부의 단결을 굳게 하고 화북조선동포 20만, 동북(만주), 국내(조선)의 혁명인사 및 혁명단체, 무장대오를 연합하여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반일투쟁을 견지한다≫운운의 선언 발표…≫≪황해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 18년(1948년) 2월≫

해방 후 내각에서 초대문화선전상을 한 허정숙도 1940년대에는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연안에서 활동한 조선인운동자들가운데 한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우리 부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도 주은래와 주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주로 가게 해달라고 청원까지 했다고 중국사람들한테서 민족주의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중국관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관내의 조선인운동자들과 애국인사들도 우리와의 합작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도 8로군을 따라다니면서 적군와해공작을 많이 했는데 주되는 사업대상은 일본군대에서 복무하는 조선청년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왜놈들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고 과감무쌍하게 탈출하여 북중국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군이나 8로군에, 중부중국과 남중국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대나 신4로군에, 만주방면에 있는 자는 **김일성**부대를 찾아가라는 식으로 함화를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의거해오는 조선인 징병자들에 대한 대우규정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기관총을 가지고 오면 돈 얼마를 주고 3년간의 일용품우대특전을 준다든지, 경기관총이나 척탄통, 소총을 가지고 오면 얼마, 또 투항하는 자는 각자의 희망에 따라 공부할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적군와해공작을 벌이군 했는데 그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애국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주장에는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와의 연대와 합작

을 지향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좋은 일이였습니다.

우리도 주의주장에 따라 사람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 차별하는 놀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건 장개석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이건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애국을 지향하는 인사들은 다 합작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중국관내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쏘련의 군사당국이나 국제당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동북항일연군 측에서 관내에 파견하는 연락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자신이 연락원을 필요한 방면에 직접 파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동북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관내와 연계를 취하면서 이용한 선 가운데는 요하, 동강 방면의 동북항일연군 제7로군 교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강성 이리와 감숙성의 란주, 연안으로 통하는 국제통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은 만주의 동변도로부터 만주와 중국의 국경선을 연결하는 유격로였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는 그 당시 중국관내에서 홍군사단장을 하다가 쏘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연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제연합군에 와서 강의에도 출연한 유아루와 노동생, 중궁당연락원 왕붕이 와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관내로 돌아가게 되면 연안과 중경에서 활동하는 조선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연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유아루는 동북해방작전당시 동북야전군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생도 동북땅에 남아서 송강군구 사령원을 하였습니다. 그를 아마 송명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945년 말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지방에 소부대공작을 나가는 편을 통해서도 관내와의 연계를 시도했고 국내에 있는 지하조직선을 통해서도 관내인사들과 접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의 말대로 허정숙을 중시하였습니다. 허정숙이한테 우리의 선이 닿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연안과 중경 일대의 반일역량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출로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정숙을 특별히 점찍은 것은 그의 애국적인 투쟁경력을 좋게 본데도 있었지만 그가 김책과의 연고가 깊은 허헌의 딸이라는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ㅌ · ㄷ≫성원인 강병선이 주관했던 신의주의 지하조직에 관내와의 연계를 확보할 데 대한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령에 따라 신의주의 지하조직은 천진에 있는 한 공작원에게 중경과 연안 쪽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락통로를 개척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중경, 연안과의 합작을 위한 중간연락지점을 만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연합군시절에 중국관내 반일애국역량과의 민족통일전선,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항일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위해 각방으로 활약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제의 경찰기관들은 여러 건의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김일성**의 활동상황

김일성은 …현재 쏘련원동 블라디보스토크부근의 오께안스까야 야영학교에 있으면서 만주에 있는 불령선인들의 획득영도에 암약 중인바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미쏘합작의 비밀협정에 기초하여 중국에 있는 미공군의 만선지방공습에 호응하여

만선지대에서 만선연락의 철도파괴에 의한 군수수송을 방해하는 것과 함께 민심교란공작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까운 만선주요지구에 공작원을 밀파하려고 목하 준비중이라고 한다.

즉 **김일성**은 지난 6월 중순경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모스크바에 다녀 온외에 중경, 연안에 건너가 주중 쏘미대사관들과 중공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후 장래에 대처하는 … 공작밀파요원을 그전에 압록강연안지대에서 활동하였던 당시의 선만인항연비로써 철도파괴모략단 및 사상모략공작반을 재편성하고 쏘련 하바로프스크부근에서 이 모략공작의 교육훈련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19년(1 944년) 11월분 76페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반일애국역량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중경에 있던 반일애국역량도 우리와의 합작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모로 활동하였습니다.

김구의 비서로 있던 안중근의 조카 안우생의 회상에 의하면 김구도 우리에게 연락원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연락원은 만주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942년 12월에는 임시정부파견원의 자격으로 김가성을 가진 사람이 목단강까지 왔다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중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와 관내에 있는 중공당소속의 조선인공산당계가 중강진, 임강, 혜산진, 통화 부근을 중심선으로 해서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군시절에 소부대공작을 하면서 종교세력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1942년 말에 영안현 동경성에 있던 대종교본부의 3세교주 윤세복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종교의 교인들은 자기네 교의 사명이 일본과 만주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 의한 배달국의 재건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일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종교의 한 간부는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불가피한 운명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조국광복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면서 버마에 바모가 있다면 조선에는 **김일성**이 있다, 조선민족의 행복은 독립에 의하여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을 통하여 목단강성 경무청이 대종교간부들을 마구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영안현에 총본부를 두고 있던 제2방면군소속의 반일회에 적들의 탄압책동을 분쇄하고 애국적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해서와 화전, 돈화, 안도 일대의 반일역량을 조직의 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우리가 주목한 국내의 반일민족단체는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이였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나온 반일지하단체입니다. 이 동맹은 여운형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일대의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무은 농민동맹이라는 산하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이면 민족주의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달하던 때입니다. 패망에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가총동원법이요, 뭐요 하는 파쑈방망이들을 마구 휘두르며 반일요소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대상이면 그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문초하고 처형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에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반일단체를 내온 것은 과시 여운형다운

배짱이였습니다.

건국동맹이 비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지 서울에 있은 우리 공작원들도 얼마동안은 자기네 코앞에서 그런 조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가서야 겨우 건국동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내온 다음 인차 나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조선독립동맹에도 연락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보낸 연락원은 우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운형이 보낸 사절들이 연안쪽에 있는 조선독립동맹 인사들과는 만났다고 합니다.


여운형

여운형의 연락원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쏘련의 훈련기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여운형이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각방으로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여운형과의 합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운형과의 사업은 서울에 가있는 정치공작원에게 맡겼습니다. 품을 들여서라도 여운형과 접촉해보라는 임무를 주었으나 후에 들은데 의하면 상대가 도무지 곁을 주지 않아 그와 한번도 속깊은 말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운형은 건국동맹 안에 군사위원회를 내오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배후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전민항쟁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관내의 모든 반일애국역량과의 합작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이 너무나도 빨리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국내의 항쟁조직들이 내응외합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종작전을 벌일 때 관내의 무장력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구는 이것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적의 항복이 자기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였다고 하면서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고 통탄하였으며 자기네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발언권이 약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조소앙

그러나 합작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그렇게 허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때에 가서든지 꼭 은을 내기 마련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는 말도 있지만 민족해방을 위해 바치는 노력에 대해서는 역사가 꼭 보상을 하는 법입니다.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역사의 밑거름으로 되어 해방된 조국땅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결성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항일혁명 초기부터 통일전선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노선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것이 백 번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때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마찰과 대립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이허나 현묵관과 같은 국민부상층이 우리 동무들을 여러 명이나 살해한 왕청문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우리는 얼마동안 민족주의자들과 거래를 끊고 그들을 통렬히 규탄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일부 동무들

은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청문에서의 희생이 아무리 참혹하고 가슴아픈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이 범한 죄행을 민족주의진영전체의 잘못으로 증폭시켜 전가할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분노를 묵새겨가며 통일전선의 기발을 시종일관하게 추켜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백지화하고 국민부의 잔존세력으로 남만에서 활동하던 양세봉이네 부대에도 찾아갔고 반공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로 되어있던 김구와의 합작도 모색하였습니다.



김월송

우리가 만일 이런 심리적 곡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처신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만 나갔더라면 통일전선은 지상공론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의 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하루아침사이에 우리한테로 돌아섰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가 임정을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의 처사가 고깝고 또 단순히 이승만과 의가 맞지 않아서 반공대신 연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항일의 나날로부터 뜨겁게 간직해오던 애국의 열정이 우리와 김구를 하나로 융합시킨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찍부터 점을 찍어두었던 대상들은 해방 후 모두 통일전선의 기발아래 모여들었습니다.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에 어떤 정객들이 참가했는가를 보시오.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월송… 이름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다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보면 김구네 임시정부인사들은 다 우리에게로 온 셈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의 주인공인 여운형도 평양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갔고 조선독립동맹의 지도자들도 동료들과 함께 평양으로 찾아왔으며 김원봉도 평양에 와서 조대국가검열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벌써 1946년에 각당, 각파, 각계의 애국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더 연마되고 공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의지의 연마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애국과 매국,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동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던 복잡한 상황속에서 각이한 주의주장과 투쟁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그처럼 인내성있게 통일전선의 광장으로 불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좌우명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로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여부는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좌우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에 앞서 민족을 우선시하는 시종일관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크나큰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고 온 민족을 통일위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6. 현해탄 너머에서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던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는 국내에 강력한 전민항쟁역량을 꾸리는 한편 일본본토 안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이 전민항쟁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렸습니다.

일본땅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조직들을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할 때 그에 합세할 수 있도록 정비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늘여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편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특수공작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아성에 깊이 침투하여 적들의 군사정보를 정찰함으로써 대일군사작전의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본본토에 정치공작원들을 본격적으로 박아넣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과 서간도 지구에 진출하여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꾸리기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 초기부터 들고나온 구호입니다.

정치공작원들이 일본으로 침투하자면 물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잘되면 감옥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로의 출입구라는 것이 뱃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뱃길에는 정사복경관들과 형사들, 밀정들이 어느 때나 쫙 깔려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통로를 거쳐 공작원들이 일본으로 침투한다는게 용이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을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한 다음의 자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일본본토에 대한 군사정찰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의 선내(조선과 일본)양지에의 특수밀정파견에 관한 건

재만불령선인… **김일성**일파의 책동은 의연 극히 치열한 모양인바 최근 본성 조선특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어 정세에 맞게 엄중수배할 것이다.

특히 해항경비, 열차이동경찰 실시 등 부, 현에서는 크게 유의할 것이다.

1. 파견목적

쏘련으로부터 특별히 파견된 공비로 이루어진 특수밀정을 사용하여 조선 및 일본에서 첩보근무에 종사시키자는데 있다.

2. 파견지침

도가선, 봉길선의 각 중요군사지점

조선안의 주요항(청진, 나진, 부산, 목포, 원산, 군산, 신의주)
일본의 시모노세끼 및 쯔루가

3. 파견원의 년령, 복장, 휴대품
년령 ; 10-25살의 조선 만주계 남자
복장 ; 국방색 제낀형양복에 편상화
휴대품 ; 트렁크에 정치, 경제, 문예 등 여러 가지 잡지, 세면도구 등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는 자세치 않으나 이 밀정은 일본어에 능하며 본래 교원, 경찰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같은데 언어, 태도 등에서 일본사람과 다른 바 없다고 한다.≫
≪내무성 경보국, 소화 16년 (1941년) 11월 8일≫

우리가 일본본토를 중시한 것은 그곳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본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본바닥을 뒤흔들어 놓으면 적의 심장부에 강타를 안길 수 있고 식민지통치를 붕괴시키는데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있는 조선사람들, 특히 강제연행된 많은 조선청년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대일작전이 눈앞에 박두한 조건에서 군사정치정보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했으며 전쟁의 대포밥이 될 운명을 지닌 그들을 일본파시즘의 마수에서 떼내여 혁명의 편으로 집단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일본본토의 반일역량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반일애국역량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대일작전의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에 화합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였습니다.

일본의 역대천황의 연호들을 보면 그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생살이라도 떼여줄 것은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명치≫요, ≪대정≫이요, ≪소화≫요 하는 것들이 뜻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소화시대는 일본이 이웃나라들을 인간도살장으로 만들고 국제적인 백정으로 등장하여 수억만 인류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하던 시대였고 이마에 밝은 정치를 하겠다고 써붙이고 나선 명치천황은 조선을 먹어라, 동양을 먹어라, 세계를 먹어라, 무엇무엇을 먹어라 하고 사무라이들을 부추기었습니다.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해서 숱한 이권을 강탈한 게 바로 명치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나라를 총칼을 가지고 접어들어 대낮에 삼켜버렸습니다. 대정시대에도 일본은 못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피땀을 빨아내면서 하고 싶은 짓을 다하였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일본으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짐승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을 개, 돼지나 마소처럼 다루는데서는 일본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일본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군대와 경찰이 자동차를 끌고와서는 길가는 사람들을 짐작처럼 사정없이 처실고 달아나군 하였습니다. 밤중에 속옷바람으로 연행되어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한 다음에는 군대식으로 대오를 뭇고 그들에게 사소한 자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나 기차를 탈 때에는 변소에까지 당번을 세워 감시를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서 ≪일시동인≫이라는 말을 곧잘 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과 꼭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건 입에 꿀을 바르고 하는 소리였

습니다. ≪일시동인≫이 일본사람들의 진정이라면 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학대했겠습니까.

구일본을 형상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다꼬베야≫란 말이 더러 나오는데 ≪문어집≫, ≪문어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어는 돌짬에서 삽니다. 북해도의 토목노동자들은 콩나물시루같은 자기네 합숙을 ≪다꼬베야≫라고 불렀습니다. ≪감옥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선노동자들이 드는 막사는 ≪반도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도땅에서 온 사람들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꼬베야≫보다 더 한심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밖으로 쇠를 잠그고 여러 마리의 개까지 붙여놓아 도주는커녕 바깥출입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선말을 한마디만 해도 참대칼이나 곡괭이자루 같은 것으로 노동자들을 마구 찌르고 때렸습니다. 도주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끈으로 코를 꿰가지고 사방으로 끌고다녔습니다. 일본의 청부업자들과 고용주들은 심지어 조선노동자들의 등을 칼로 째고 그안에 불을 달군 연뎅어리를 넣는 고문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수틀리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때려죽여 물속에 던지거나 콘크리트 혼합물속에 처넣었습니다.

그런즉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조선사람들이 이런 학대와 모욕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사람들이 어질고 순박해도 배짱은 셉니다.

일본에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백수십 만이 된다는데 그들이 다 속으로는 딴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가. 일본을 망하게 할 꿈이었습니다. 항일유격대가 조선으로 밀고 나오면 자기네도 와 하고 들고일어나 일본놈들을 답새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노동자들만 꾼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하던 청년학생들도 다 그런 속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조선유학생들의 수가 만 여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생이 만 여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나는 조선사람들이 일본땅에서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만주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보호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더 동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정이나 해가지고 서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주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선물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만이 인민들을 파멸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조선사람들이 꾸려놓은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조직, 민족운동조직, 계몽조직, 학생조직을 비롯해서 별의별 조직이 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반일운동에서도 청년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재경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라는 간판을 가진 조직을 뭇고 3.1인민봉기전야에는 독립선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선언서의 사본이 국내에도 들어와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병탄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도꾜와 교또에 가있던 숱한 조선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귀국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청년학생들의 저항정신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운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 그곳 청년학생운동은 청원과 시위, 실력양성이라는 소극적인 투쟁형태로 적들과 맞서고 있었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무정부주의자인 박렬도 일본에 가있던 유학생출신입니다. 그는 일본천황에 대한 살해음모를 하였다는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0여년 간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1925년도 조선공산당을 창건한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일본유학생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맑스주의가 전파되자 그들은 여러 사상단체와 조직들을 내오고 새 사조를 연구보급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벌써 일본땅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공산주의 단체는 30여 개에 달했고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인원은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조직은 일본공산당의 1개 지부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새 사조의 영향밑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속에서는 노동운동도 발전하였습니다. 오사까에는 동아합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기업단체도 있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종교조직도 많이 무었습니다. 일본 땅에는 신간회지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조밀하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직들은 주의주장도 각이하고 활동방식도 서로 제나름이였습니다. 계몽, 호상친목, 상호부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민항쟁의 견지에서 볼 때 그 하나하나가 다 큰 밑천으로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순수한 계몽단체들에 입김을 불어넣어 혁명적인 실천투쟁의 마당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다 반일을 지향하는 것만큼 그런 개조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였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있는 우리 동포들속에 존재하던 이러저러한 조직들은 모두가 일제의 심장부에 박혀있는 시한탄과 같은 존재들이였습니다. 이 폭탄에 불을 달아줄 사명이 우리한테 지워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십만의 노동력과 반일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본토를 특별한 시선으로 주목하게 되였습니다.

일본에 공작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반일조선인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을 한 맥락에서 이어주고 일본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산만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조선사람들의 대중운동에 대한 통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운동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공작원들을 침투시키는 통로로는 주로 부산-시모노세끼 항로와 청진-쯔루가항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깊숙이 박아넣어야 할 중요한 정치공작원들은 제3국의 항구들을 이용하여 멀리로 에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일본에 제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계층은 유학생들이였습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트렁크나 고리짝을 메고 일본유학을 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나는 박달과 **김정숙**에게 우리의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망한 유학생들을 물색해보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김정숙**은 풍산지방에서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는 청년들이 도꾜에 유학생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적의 수도에 있는 유학생조직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면 일본본토의 심장부에서부터 조선사람들을 혁명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도꾜-요꼬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빈지구는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공업지대였습니다. 조선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곳도 경빈지구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주면서 풍산출신의 유학생들과 손을 잡고 도꾜에 있다는 그들의 조직을 우리의 영향밑에 있는 산하조직으로 전환시킬 방도를 세워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주병포에게 우리의 의향을 전달해준 다음 그와 함께 도꾜의 유학생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이인모

주병포가 일본에 파견할 적임자로 고른 대상이 바로 이인모였다고 합니다.

도꾜에서 풍산출신 유학생들이 무은 조직이란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를 말합니다. 풍우라는 것은 풍산에서 간 벗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목회는 이따금씩 모여앉아 시국담도 나누고 신세타령도 하고 독후감도 발표하고 때로는 무직업회원들에게 일자리도 알선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친목단체였습니다.

좀 정치적 색깔을 띤 것이 있었다면 ≪내선일체≫도 가짜다, ≪동조동근≫도 헛나발이다, ≪일시동인≫도 개수작이다 하고 일본 놈들을 욕질하는 것뿐이였습니다.

이인모는 도꾜에 가자바람으로 이 조직에 백두산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 성원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목표도 방향각도 없이 울분속에 모대기기만 하던 친목회는 반일애국단체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때 일본대학들에 가서 공부하고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합세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철수

반일지하조직은 고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들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1944년 상반년에 일제경찰에 발각되었던 가나자와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룹도 우리 주력부대의 정치공작원들이 꾸려놓은 항쟁조직이였습니다.

가나자와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조선유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인 이철수가 우리에게 다 보고하였습니다.

이철수는 특수임무를 받고 청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할 때 일본 가나자와 중학교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속에 공작원을 박아넣었습니다.

가나자와에 건너간 공작원은 조선각지에서 간 학생들을 흡수하여 학교 안에 무명조직을 내왔습니다. 조직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적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조직도 역시 최종목적은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로 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호응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일제경찰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 무명조직에 망라된 성원들은 북조선출신의 독립운동자 **김일성**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해서 빨치산을 조직하여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고 또 우수한 조선동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 밑으로 달려

가 독립운동에 협력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여러 갈래의 반일 항쟁조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백두산 쪽에 와서 우리와의 투쟁에 합세할 것을 공공연히 자기의 투쟁목표로 내세운 조직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쟁조직들이 우리의 투쟁소식에 힘을 얻고 우리가 최후공격작전을 벌일 때 그에 호응할 기세밀에 싸웠지만 일제경찰의 탄압을 고려하여 그러한 투쟁목적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사까에는 고학생들로 된 충성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에 제주도와 경상도에서 간 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민덕원

제주도 사람들이 저항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총련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사까의 빈민구역에 모여살면서 대학야간학부에 다니던 제주도 청년들은 모두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민족의식이 강한 곳에서는 조직도 생기고 혁명가들도 많이 배출되는 법입니다.

제주도 출신 유학생들이 오사까에서, 제주도에서 온 청년들로 동인야학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육성된 사람들로 반일친목단체를 무었다가 우리의 공작원들로부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입수한 다음 반일친목단체성원들과 일본대학 야간중학부 학생들로 충성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무었습니다.

이 조직이 내세운 강령과 투쟁임무가 괜찮았습니다.

충성회가 어떤 조직인가를 알려면 쏘련, 일본이 개전하면 즉시 조선으로 돌아가 동포청년들을 지도하여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휘날릴 때는 이에 호응하여 과감히 일떠설 것이라고 한 이 회의 취지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충성회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 관계자들은 서울에 돌아와 우리가 파견한 국내공작원들과 손을 잡고 혁명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조선과 일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주도 빨치산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유학생들의 반일지하조직은 지어 일본의 신학교들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 조선인학생민족주의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두산에서 싸우는 우리를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독립운동자라고 찬양하면서 민족의식과 독립정신, 애국심을 키워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까야마 6고등학교에 조직되었던 조선인학생친목회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오까야마 6고등학교의 조선인학생친목회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한 사람은 그 당시 도꾜에서 대학에 다니던 민덕원입니다.

민덕원이 조선의 광복은 조선동포들앞에 나선 지상의 과업이다, 조국광복회는 민족의 모든 애국역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묶어세울 것을 호소하였다, 유학생들도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일제에게 끌려온 불행한 조선동포들을 계몽하고 의식화하여 반일조직에 묶어세웠다가 일본내부에서 혼란기가 닥쳐올 때 일제히 들고일어나 독립을 성취하자고 했다는데 그때 공작원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의 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민덕원은 여운창, 김재호 등 조직성원들에게 방학기간의 투쟁과제도 주었다고

합니다. 조직성원들은 방학철마다 고향에 돌아가 가족, 친척들과 친지들, 동창생들속에서 계몽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계몽사업에서 중심은 항일유격대의 전과를 소개선전하는 것이였습니다. 전과를 소개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까지 해설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진정으로 원하거든 당신들도 광복성전에 나설, 그럴 의향이 없는가고 직방 들이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뜻이 통하는 가까운 친척, 친우들로부터 동아리를 지어서 슬슬 조직에 묶어세웠습니다.

6고사건에는 흥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6고의 조직성원들이 자기네 동생들과 동생의 친구들이 일본사람들의 선전에 속아서 소년항공대에 입대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김일성**부대에 찾아가라고 권고했다는데 그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때 조직성원들의 선전에 공감한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만주로 떠났다가 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국광복회 오까야마분회 성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해방 후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몸을 바쳤고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에 들어가 이현상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하였습니다.

반일항쟁조직은 노동자들속에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주요공업지대인 경빈지구, 호나신지구 그리고 북해도나 니이가다 등 조선사람들이 많이 가 있던 곳에 노동자들로 조직된 항쟁조직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빈지구의 조직들 중에서 이채를 띠는 것은 도꾜에서 조직된 동맹회입니다. 동맹회는 노동자들을 골간으로 하고 거기에 고학생들을 망라하여 꾸린 반일조직이였습니다. 이 조직은 일본천황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파벌을 반대배격하였으며 조선애국자들의 활동,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을 찬양하였습니다.

동맹회는 노동자들과 고학생들속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제관헌자료는 동맹회성원들이 진행한 선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북만에 있는 … **김일성**은 우리 동포인데 그 세력이야말로 위대한 것으로서 일본군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때로 조선내를 습격하여서도 조선동포의 집은 절대로 치지 않고 일본인가옥과 일본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러러 볼만한 행위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소화17년(1942년) 3월분 202페지≫

동맹회의 전략은 적의 지원병제도를 역이용하여 일단 군사훈련을 받아두었다가 유사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자는 것이였습니다. 동맹회는 조선독립이 공산주의운동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빈지구 조선노동자들의 흠모와 반일기세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은 도꾜의 한 노동자조직성원이 다진 다음과 같은 결의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 **김일성**은 만주국에서 조선독립단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다. 장래 조선의 대통령은 **김일성**이다. 우리들은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징병에 합격하여 일본을 위해 전사하는 것은 개죽음이다. **김일성**의 슬하로 달려가 조선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소화19년(1944년)3월분 75페지≫

원래 경빈지구는 1920년대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발족하여 활동하던 곳입니다. 이 로총은 오래전에 해산되었으나 그 그루터기를 타고 노동운동이 미미하게나마 이어졌는데 여기에 백두산바람이 불어들자 기성조직들이 혁명조직으로 개편되고 없던 조직들이 새로 태어나는 회오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공작원을 많이 보낸 곳은 북해도 지방이였습니다.

북해도에 침투한 우리 공작원들 중에 김태현이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해도가 목적지였지만 그는 거기로 직행하지 않고 쿠릴렬도에 있는 군용기지건설장에 먼저 들어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 살금살금 조직을 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형무소로 끌려가던 도중 벼락같이 탈출하여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동안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북해도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여러 탄광, 광산, 비행장, 수력발전소 건설장에 징용된 조선인노동자들을 반일조직에 묶어세웠습니다. 그가 정치공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조국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잃었기 때문에 바다건너 이 북해도 땅에 끌려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한다, 조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피투성이 싸움을 하고 있다, 저 백두산 밀림속에는 손에 총을 잡고 목숨을 걸고 일본군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 우리들은 **김일성**부대와 함께 싸워서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 우리들은 **김일성**부대와 함께 싸워서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을 꾸리고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단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하고 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조항한조항 해설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강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조직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쟁취한 노동자들이 북해도 여러 고역장들에게 파업투쟁의 앞장에 선 주인공들로 되였습니다. 유바리탄광노동자들의 폭동은 바로 그 공작원이 조직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기록≫이라는 책을 보면 북해도와 남부사할린, 쿠릴렬도 등지에서 진행된 조직건설정형과 반일, 반전 투쟁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편찬한 것입니다. 이 조사단의 부단장 후지시마 우다이는 저명한 평론가인데 우리 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혁명적 적지들을 제일먼저 답사한 인물입니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편찬한 책에는 북해도의 한 토목공사장에 침투한 우리 공작원이 조선인노동자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해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킨 자료들도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작원은 공사장에서 태업을 자주 조직하고 도주자를 많이 내여 군수생산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도주자들은 다른 공사장에 가서 불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패망의 날이 다가오자 ≪만들라, 보내라, 이겨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수생산을 필사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전주의자들은 ≪못 만들겠다, 못 보내겠다, 못 이긴다.≫는 반대구호를 들고 싸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공작원들이 반일역량을 동원하여 군수생산에 제동을 건 것은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나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나 매우 유익한 일이였습니다.

북해도에 삿포르에 들어간 우리 공작원은 군사기지건설장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노동자들속에서 지하조직을 꾸리고 그 대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까지 진척시켰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북해도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도 활발히 움직이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밑에 일본인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도 반제, 반전 투쟁에 합세하였습니다.

일본의 주요공업지대인 판신지구는 우리 공작원들의 영향이 많이 미친 곳입니다.

이 지구의 조직들 가운데서 이채로운 것은 효고현에 있는 한 공장에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노동자들이 꾸린 협화훈련대특별청년회라는 조직이였습니다. 여기에 침투한 공작원은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한테서 교양훈련된 사람이였습니다.

구일본의 비밀문건에는 국내공작원의 이름이 고영석으로 되어있는데 내 기억에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본명이 아니고 가명인 것 같습니다.

협화훈연대 특별청년회사건과 관련된 일제관헌자료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아마가사끼에 있는 조선인민족주의그룹 협화훈련내 특별청년회 사건 검거취조상황

… 주모인물…(27살)은 … 점차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우연히 재만조선독립운동의… **김일성**휘하의 고영석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머지않아 일쏘개전이 있게 되는데 이에 호응하여 조선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20년(1945년) 8월경에 만주의 **김일성**은 조선에 침공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그 준비공작으로 나는 조선청년들의 통일과 식량확보 … 사명을 띠고 이번에 **김일성**으로부터 비밀리에 파견된 것이다. 조선청년들은 바야흐로 조선독립의 시기를 맞이한 것만큼 크게 활약해주기 바란다. …≫고 하는 선동을 받고 … 당면하여 동지획득에는 조선안보다 오히려 조선청년의 다수가 일하고 있는 일본땅에 이입노동자로 잠입하여 그 집단생활을 통하여 일대조직을 결집하고 **김일성**일파의 조선침공에 내선호응하여 일제히 봉기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하며 소화19년(1944년) 3월 하순 오오다니 중공업 아마가사끼공작에 건너와서 동료인 이입조선인로무자를 목표로 민족의식을 각성앙양시켜 결집단결을 도모하는 등 책동을 추진전개하고 있는 바다.≫

≪≪내선관계월보≫, 소화20년(1945년) 6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우리는 국내와 만주, 일본에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에 합세할 수 있도록 전민항쟁역량을 잘 꾸렸습니다.

그때 일본에는 김창국과 같이 우리가 직접 선발해서 파견한 정치공작원도 있고 우리의 지도밑에 있는 국내조직이 우리가 보낸 지령을 받고 파견한 정치공작원도 있었으며 국제연합군 별동대의 선과 연결된 특수정찰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정치공작원들은 우리가 제시한 전민항쟁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의 모든 반일역량을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김일성**대≫만 하여도 니이가다철공소에 강력한 반일역량을 꾸리고 주요군수품생산을 저애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새로 들어온 수십 명의 징용노동자들을 집단도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교또의 조선인노동청년들은 장차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독립계획을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공장들에 반일조직들을 내왔습니다.

실로 북으로는 북해도로부터 남으로는 구주에 이르기까지 일본땅 어디에나 그리

고 대학생으로부터 신학교의 학생, 탄광노동자로부터 징용노무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조직이 박혀있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일제경찰당국이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특수정찰원들이 일본에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얼마나 전전긍긍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자료는 조선북부의 항로에 취항중인 선박이 보충서원을 모집하였는데 평소에는 응모자가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나 이번에는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매 항구마다 각각 47-48명이 지망해온 사실을 놓고 그들의 속심을 알 수 없어 오히려 채용을 중지하였다고 쓰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농후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인바 내지도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교적 쉽게 내지에 도항할 수 있는 선원을 지망하여 내지항만으로 기항하게 되는 때 배에서 빠져나와 도꾜, 오사까 그 밖의 대도시들에 잠입하며 그곳 조선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내외에 호응하여 불온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므로 만주방면에서 도항하는 조선인과 용의 조선인선원들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고월보≫ 내무성 정보국, 소화 16년(1941년) 8월분 77페지≫

일본땅은 전국에 조밀하게 꾸려진 조선인들의 항쟁조직들에 의하여 분출직전의 활화산우에 놓여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소조성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였습니다.

똑똑한 정신을 가진 조선사람들 중에는 강대국들의 협상탁에서 민족의 전도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들이 없었습니다.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한 우리 인민의 일치한 입장과 관점은 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을 인민혁명군의 두리에 묶어세울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달리 백두산을 쳐다본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혁명군이 있었기 때문에 백두산, 백두산하고 말끝마다 외운 겁니다. 옛날에는 백두산이 조종의 산으로서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서 항일대전을 벌인 다음부터는 혁명의 성산으로서 민족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것을 주축으로 하여 주체적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온 것은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항일혁명의 전 노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민족해방 투쟁에서는 기본의 기본이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야 인민들도 그만큼 빨리 각성하게 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에로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망국으로 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은 우리가 백두산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다음부터 백 배, 천 배로 증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민족적 자존심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형태의 혁명적 자부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민의 참된 민족적 자부심과 조국애는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일본땅에 꾸려진 전민항쟁조직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총련운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합니다. 총련이 흥하는 것은 그 터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7. 최후결전의 날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선봉항에 상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에 쏘련을 방문하시었을 때였다. 크레믈린궁전에서 우리 수령님을 영접한 쏘련공산당의 책임일군은 그이께 자기 나라 간부들을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었다.

그 간부들속에는 당시의 쏘련국방상이었던 말리노프스키원수도 있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 차례가 되자 웃는 얼굴로 ≪우리는 이미 구면이니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원동에 계시던 시절에 우리는 벌써 하바로프스크에서 첫 상봉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우입니다.≫라고 하시며 그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었다.

두 나라의 지도간부들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동지와 말리노프스키의 인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일본제국주의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준비는 히틀러독일이 패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는 소, 미, 영 3개국 수뇌자들이 모여 비밀회합을 하였습니다. 1945년 2월이면 쏘련군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해방했을 때이며 베를린에 대한 총공격전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독일의 패망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 미, 영 수뇌자들이 얄타에서 논의한 중심의제의 하나는 독일패망 후 쏘련의 대일참전문제였습니다. 회의에서 쏘련은 독일 패망이후 2-3개월이 지나 대일전쟁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얄타회담에서 쏘련의 대일참전문제가 확정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동방피압박민족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나갔습니다.

쏘련군이 베를린해방작전을 시작한 대로부터 얼마쯤 지나서 원동전선군사령부는 우리에게 독일의 패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있던 쏘련군장병들은 그날 온밤 자지 않고 축하연을 벌이었습니다. 후방창고에 있던 술이란 술은 아마 그때 다 마셔버렸던 것 같습니다. 군의소의 알콜도 하루밤사이에 결딴났습니다. 쏘련사람들이 원래 술을 많이 마시었습니다. 쏘련사람, 조선사람, 중국사람의 구별이 따로 없이 모두가 전승의 기쁨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쏘련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패망이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독일의 패망이 조만간에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은 일본의 패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파쑈세력은 동서방을 무대로 하여 무덤에로 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주봉을 일본이 받아쥘 참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고 조국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독전승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은 후 연합군에 망라된 조선인 지휘성원들은 한데 모여 조국해방과 관련된 작전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모두가 격정에 넘쳐 일제격멸과 조국광복을 부르짖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자력독립과 전민항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해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



얄타회담(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고 국내의 항쟁조직들을 잘 준비시켜 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벌일 때 그에 합세해서 전인민적 항전을 벌려야 한다,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쏘련의 전반적 대일작전과의 깊은 연관속에서 협동작전준비를 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날 우리가 논의한 요점이였습니다.

그 후 나는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문제를 두고 쏘련원동전선군 지휘부와 여러 차례에 걸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보중이나 장수전과 함께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김책이나 최용건을 데리고 따로 가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침공에 대처하여 쏘련은 그 동안 대일작전을 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는 독일패망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하였습니다.

쏘련지도부는 독일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던 주체32(1943)년경에 총참모부의 원동담당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원동의 무력을 전시작전수행에 알맞게 개편하였다. 스탈린은 원동전선사령관과 집단군사령관들을 대독전쟁을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은 장령들로 교체하였다.

원동전선사령관 아파나센코가 모스크바남방의 워로네쥬전선 부사령관으로 파견되어가고 그 자리에 칼리니전선사령관이었던 푸르카예프가 소환되어온 것도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

스탈린은 주체33(1944)년에 들어와 쏘련군이 쏘련경외의 동구라파 땅에서 군사작전을 적극화하고 있던 때에도 원동지역에 병력을 급속히 증파하여 그 군력을 최대한으로 늘여나갈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쏘련은 독일이 괴멸된 후에 대일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방향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쏘련군대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였습니다.

쏘련의 고위지휘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모든 부대들은 박두한 대일작전을 앞두고 종전보다 훈련강도를 몇 배나 높이였습니다. 그때에 벌인 군사훈련은 국제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민족부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모든 민족부대들이 다가올 대일연합작전에서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연합작전이 은을 내자면 국제연합군에서 민족부대별로 되는 작전분담은 어떻게 하고 각 군종, 병종 간의 전투적 협동과 보조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훈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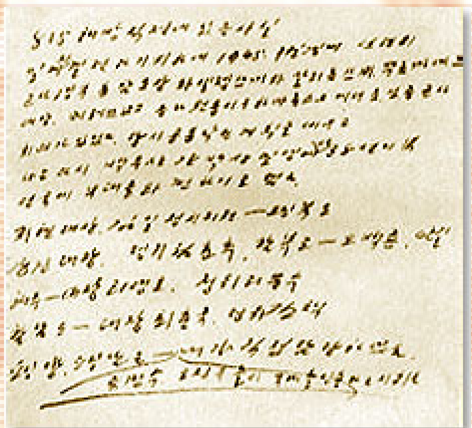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가가 부대들은 이와 함께 다년간의 항일전쟁에서 창조하고 연마해온 유격전법들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규모정규작전에서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훈련을 다같이 내밀면서도 조국해방작전에 절실히 필요한 정찰훈련, 공병훈련, 무전훈련과 항공육전대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쏘련군대가 대독전쟁기간에 창조한 최신전쟁경험도 충분히 연구하고 익히었는데 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갓 조직되었을 때 훈련기지에 파견되어온 쏘련교관들은 대부분 지난날의 공민전쟁참가자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던 그 무렵에는 쏘독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관으로 와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현대전에서 단련된 사람들이니 교육내용도 매우 참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내항쟁조직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조국에 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였습니다. 백두산밀영과 간백산에도 우리 공작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에 틀고앉아 항쟁조직들을 지도하고 있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쳐나갔습니다.

나도 그 무렵 국내에 나와서 당면한 대일작전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부대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쏘련의 전반적 대일작전준비와 우리의 작전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치였습니다.

쏘련은 1945년 여름에 와실레프스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원동쏘련군총사령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3개의 큰 전선군을 배속시켰습니다. 자바이깔 전선군은 말리노프스키가 담당했고 제1원동전선군은 메레츠코프가 담당했으며 제2원동군전선군은 본래 원동전선사령관이였던 뿌르까예브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 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제1원동전선군의 기본작전지역은 하얼빈이남의 중국동북 일부지역과 조선이였고 제2원동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하바로프스크 서쪽에 있는 동북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국제연합군은 제2원동군전선군에 배속되어 군사작전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주로 제1원동전선군과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원동쏘련군총사령부가 조직된 다음부터 나는 제1원동전선 사령관 메레츠코프, 군사위원이였던 스티코프와 거래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나 집단군지휘성원인 레베제프와도 친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대일작전의 개시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조선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원동쏘련군총사령부의 소재지는 하바로프스크였습니다. 나는 하바로프스크에 드나들면서 와실레프스키와도 낯을 익히고 말리노프스키와도 친교를 맺었습니다.

1945년 여름에 이르러 원동쏘련군총사령부는 연합작전을 위한 회의를 자주 소집하였습니다.

와실레프스키는 쏘련군총사령부의 작전적구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관동군주력을 포위하고 그것을 몇 개로 고립분단하여 일거에 소멸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해방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작전적 방침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백산일대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를 해방하며 원동의 훈련기지에 집결되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항공편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항쟁조직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작전계획이 그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군사정치정세하에서 조국의 해방을 단시일내에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모든 도들에 낙하산을 타고내린 빨치산부대들이 와왁 쓸어나와 전민항쟁부대들과 함께 사방에서 적들을 답새길판인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해안선에 구축된 적의 요새지구로는 쏘련군이 폭격과 함포사격을 들이대면서 쓸어들고 국경쪽으로는 보병부대들이 기갑부대들을 앞세우고 해일처럼 밀려들 판이였습니다. 쏘련사람들과 그렇게 약속이 다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결전을 앞두고 국내에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빨치산부대들과 인민무장대들, 항쟁조직들앞에 적들을 완전격멸한 후 식민지 통치기관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당과 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올 데 대한 임무도 설정하였습니다.


환성을 올리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

원동쏘련군 지휘성원들가운데서 내가 제일 많이 상종한 사람은 메레츠코프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이마가 약간 벗어질사한 40대 말기의 장령이였습니다.

메레츠코프의 경력을 보면 스탈린이 그를 연해주방면의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원동의 한 부대에서 지휘성원으로 있은 메레츠코프는 레닌그라드군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쏘련-핀란드전쟁에서 주력을 담당했던 제7집단군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쏘련군총참모장도 하였고 원동으로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서북부의 가렐리아전선사령관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메레츠코프는 구면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내 손을 꽉 잡아흔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권하고 나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에서는 조선동지들이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대일작전에 조선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국제연합군에서의 조선지대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요해한 다음 나에게 조선국내의 군사정치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도료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일본의 군사역량배치와 통치방법,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과 혁명조직들의 분포정형, 비밀근거지들과 연결되어있는 무장대들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나는 연합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였습니다. 쏘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츠코프와 스티코프를 비롯해서 대일작전과 관련되어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도 벌써 다 와있었습니다. 와실레프스키총사령관도 거기에서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항공륙전대전법에 기초한 조국해방작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그때 동북항일연군 부대들앞에는 만주지방의 주요도시들에 먼저 날아들어가 진격하는 쏘련지상부대들의 통로를 열어줄데 대한 임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쥬꼬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독일주둔 쏘련점령군 총사령관과 독일관리감독리사회 쏘연대표로 있을 때입니다. 쥬꼬브가 무슨 일로 거기에 왔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매우 인상깊은 상봉이였습니다. 이름난 백전로장인 쥬고브는 대단히 서글서글하고 소탈한 사람이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있는 성의를 다하여 우리를 접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친교적 관례를 벗어난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묘도 참관하고 역사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 모스크바 방위와 관련되어있는 이름있는 전적지들도 구경하였으며 영화 ≪챠

파예프≫도 다시 보았습니다.

대일작전과 관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쏘련사람들은 어째서인지 우리를 원동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배포유하게 계속 시내구경만 시키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를 쥬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쥬다노브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쥬다노브에게 가보니 스티코프가 이미 와있었습니다.

쥬다노브는 스탈린의 위임에 따라 동방에서 온 사절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온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스탈린과 스티코프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 바보다는 훨씬 더 젊어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스탈린도 우리의 활동에 유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나와 쥬다노브와의 담화는 당면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나는 그날 쥬다노브와 담화하면서 그가 해방된 조선을 민주주의독립국가로 발전시키자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겠는가 하는데 나의 견해를 몹시 듣고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담화도중에 쥬다노브는 불쑥 나에게 조선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 해 동안이면 독립국가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낼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그 대답을 듣자 두 손을 마주 비비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쥬다노브가 어째서 해방 후 우리의 자주독립국가건설문제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3년이라는 나의 대답을 듣고 반신반의의 모순된 표정을 짓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짐작하였습니다.

그 까닭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얄타회담에서 전후 조선문제처리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때 루즈벨트가 신탁통치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세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밑에 ≪민주적 제도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였습니다.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 영국외상 등과 회담할 때부터 조선과 인도지나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하에 놓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 수 있는 견실한 지도핵심과 광범한 애국역량이 준비되였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해방 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쏘련이 독일과 4년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역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폐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쏘련의 정치적 지지이다, 쏘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조

선문제가 조선인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내 대답을 듣고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동구라파의 어떤 나라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낙후한 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집이 된 셈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쥬다노브의 마지막말은 물론 농이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동구파라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보다 쏘련을 더 믿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거의 다 쏘련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나라들은 쏘련에 의존하여 쏘련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이 ≪아≫하면 그들도 ≪아≫했고 지어는 모스크바에 비가 오면 그들도 우산을 들고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대주의가 심했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가 망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사대주의에 있습니다.

쥬다노브는 나와의 상봉결과를 스탈린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쥬다노브와 여러 차례 만나 깊은 친교를 맺었습니다.

메레츠코프도 스탈린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순에서 있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직후 내가 여순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메레츠코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곧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부탁할 것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쏘련군사령부가 발행한 군표를 없애고 우리 화페를 발행할 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문제, 조선인민혁명군의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개편하는데서 쏘련이 필요한 방조를 주는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안을 제기하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그 후에도 우리의 사업을 각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연해변강군관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평양에도 이따금씩 오군 했는데 그때마다 쏘련군사령부에 가지 않고 먼저 우리 집부터 찾았습니다.

한번은 메레츠코프가 말리노프스키와 함께 평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주둔쏘련군사령관은 그들을 외국인전용호텔로 안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령관의 호의를 물리치고 우리는 **김일성**동지네 집을 찾아온 사람이니 거기에 가서 부인한테 만두나 해달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와 메레츠코프는 내가 집에 있건없건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대범하고 텁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예고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을 맞아들인 **김정숙**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네가 평양으로 떠나올 때 나에게 미리 연락을 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서도 비행장에 못나오고 또 이렇게 집에도 없는 것을 보면 여간 바쁘지 않은 모양이니 바쁜사람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끼리 먼저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국수도 가져오고 ≪조선홀레브≫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쥬다노브와의 회견을 마친 나는 스티코프와 함께 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동에서 맺어졌던 스티코프와의 친교는 그 후에도 계속되였습니다. 스티코프는

조선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으로 소집되었던 쏘미공동위원회의 쏘련측 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의 통일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외교활동을 정열적으로 벌이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 동안의 활동 정형을 통보하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쏘련은 동맹국들과의 협약에 따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대와 교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후공격작전에 앞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웅기군 토리와 훈춘현 남별리, 동흥진을 비롯한 적의 국경요새구역의 여러 군사요충지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의 방어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 요새구역안에 배치된 적 유생역량과 화력기재들에 타격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작전을 하면서 제1원동전선군사령부가 제일 신경을 쓴 것은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새화된 국경지대에서 어느 고리에 답새겨야 일본군의 방어체계전반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충을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945년까지 만주와 쏘련, 몽골 국경지대에 수많은 영구화점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선에 건설된 4개의 요새지대는 모두 쏘련을 공격하기 위한 발진기지들이었습니다.

일제가 10여년에 걸쳐 건설한 조쏘, 조만, 쏘만 국경일대의 요시구역들에는 관동군과 조선주둔관관하 부대들을 비롯한 육해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어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요새구역들을 가리켜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적들이 구축한 요새들은 모두가 비밀지하요새였습니다. 일제는 요새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을 비밀담보의 명목으로 학살해버리였습니다. 이런 요새들은 대일작전수행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련지휘관들은 그 요새선뒤에 있는 관동군을 크게 보았지만 나는 요새선과 돌파를 난문제로 보았습니다. 내가 요새구역의 몇 군데를 찔러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내가 개전에 앞서 국부적인 싸움을 해야겠다고 하자 제1원동전선군의 고위지휘관들은 다들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나는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자면 군사요충지를 몇 군데 답새겨서 적들이 은밀히 증강해온 방어체계와 은폐해놓은 유생역량과 화력기재들을 단번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한 부대가 개전전야에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두만강일대에 구축한 요새의 한 모퉁이를 담당한 토리에 대한 습격전투를 단행하였습니다. 토리는 경흥요새구역과 웅가-나진요새구역을 끼고 있은 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토리가 점령되면 적들이 그 일대의 넓은 지역을 내놓아야 하고 경흥요새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은 토리의 경찰관주재소를 불사르고 마을을 해방하였습니다.

토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결전에서 우리 혁명군부대에 의해 첫 번째로 해방된 망르이었습니다.

적들은 증원부대를 급파했지만 그 증원대는 겁을 집어먹고 웅상령에서 경찰관주재소가 불타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토리습격에 대하여 일본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전

하고 있다.

≪8월8일 오후 11시 50분 조선인의 일단 약 80명이 쏘련군과 함께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토리에 내습하였다. 여기에 쏘련영토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우선 토리경찰관주재소가 습격당하였다.

…

… 9일 오전 3시경 … 트럭을 토리에 보냈으나 때는 이미 늦어… 트럭은 웅상령에서 되돌아왔다.≫≪≪조선종전의 기록≫ 29페지≫


한창봉

쏘련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별동대, 선견대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해 마련된 돌파구는 대일전쟁을 전격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우리의 작전적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결정적 고리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간백산밀영을 최후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대오를 늘이면서 작전계획에 예견된대로 진격하였으며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흥 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웅기방향으로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국내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상륙부대의 선견대로 활동하던 일부 부대들은 지방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웅기에 상륙하였으며 전투성과를 확대하면서 청진일대에로 진격하였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금창, 동녕, 목릉, 목단강을 해방하고 적들을 격멸하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관동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두만강 대안에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폭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전국가지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였으며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경흥요새를 격파하는 전투에서는 도천리출신인 한창봉이 잘 싸웠습니다. 한창봉은 그때 국제연합군의 선견대에서 맨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도하한 선견대원들은 지방혁명조직성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의 포대들과 영구화점들을 단숨에 까부시고 원정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만강일대의 요시돌파작전에서는 훈융 마유산전투도 유명했습니다. 마유산과 월명산 일대는 적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곳이였습니다.

적들은 훈융교를 폭파하고 영구화점들이 구축되어있는 고지에 들이배겨 결사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박광선은 일본군으로 변장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조원들과 함께 야밤에 두만강을 건너 마유산뒤면에 불쑥 나타나 적정을 샅샅이 알아냈습니다. 마유산을 지키고 있는 적의 역량은 2개 대대나 되였다고 합니다. 정찰조는 부대에 무전으로 적정을 알리고 두만강을 강행도하한 부대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유산일대의 인민무장대는 전투전에 적의 화약고와 포탄, 탄약 야적장을 폭파함으로써 전반적 전투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토리습격전투에 참가하였던 오백룡이네 선견대는 만향고개전투에서도 위훈을 세웠습니다.

만향고개는 적들이 웅기-나진요새를 육로에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였

습니다.

만향고개에서 부대의 전진이 좌절되자 오백룡은 자기네 선견대가 고지의 적화점과 포진지를 까부시겠다고 자청해나섰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데리고 고지에 기여올라 아군의 전진을 막고 있는 화점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쏘련군장병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조선빨치산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는 조국해방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석이였습니다. 김봉석은 내가 제일 사랑하던 전령병이였습니다. 그가 내 연락임무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김봉석

그가 전령병이였지만 정치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1930년대 말에 김봉석이 윤병도와 같이 우리의 임무를 받고 적들의 토벌거점인 용정에 들어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모를 쓰고 청년학생들속에서 공작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놀랄 것입니다.

박인진을 호위하여 서울에까지 가서 천도교인들의 무슨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그 상층인물들에게 혁명의 물을 먹인 유격대원이 바로 김봉석입니다.

김봉석은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고 있던 오백룡이한테 나의 명령을 전달하고 돌아다니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쏘련군대와의 연합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주려고 김봉석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준 임무를 수행하고 인차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어떤 집에 들려 식사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나쁜 놈이다보니 김봉석이를 경찰에 밀고하였습니다. 김봉석은 추격하던 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때가 1945년 8월 14일이였습니다. 혁명열사릉 참관자들이 해방을 하루 앞두고 전사한 그의 반신상앞에서 너무 아쉬워 모두 발길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진을 해방시킨 것은 나진인민무장대입니다.

나진상륙작전을 담당한 쏘련 태평양함대의 해군부대는 나진상륙전투가 어려운 전투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나진은 적들이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큰 요새지였기 때문입니다. 항에는 적의 군함들이 노상 머물러 있었고 시변두리의 고지에는 고사포부대도 있었습니다.

쏘련군대가 나진에 진출했을 때 도시는 이미 해방된 뒤였습니다.

나진에 웅거한 일본군은 처음에 쏘련군이 시내를 폭격하고 함포사격을 하게 되자 그것을 장고봉사건과 같은 충돌사건으로 알고 결사적으로 방어할 잡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민무장대의 한 소부대가 밤중에 시내에 은밀히 돌입하여 요새사령부와 헌병대, 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육군군수창고에 불을 질러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하고 있던 인민무장대의 기본대오가 시내에 쳐들어가서 적들을 안팎으로 답새겼습니다.



까치봉무장대가 활동한
회령군 원산리 까치봉지구

나진해방 전투에 참가하였던 쏘련의 한 군관은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우리들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관총의 따르륵소리와 포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변두리로 나온 조선농민들이 손을 휘저으면서 ≪만세≫소리를 웨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시내에서는 벌써 이틀째 **김일성**빨치산부대와 일본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였다. 나진시의 조그마한 광장들과 좁다란 길거리들은 적군의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미여질 듯 꽉 차있었다.

조선빨치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들과 빨치산들사이에 갇히게 된 일본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도시변두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100여명의 무장인원을 보았다. ≪우리들은 **김일성**빨치산 대원들입니다.≫라고 급히 부대지휘관이 탱크병대좌에게 말했다.≫

≪이. 우르쥬멜라슈윌리 ≪조선에서의 수기≫중에서≫


최일

인민무장대는 전국도처에서 각이한 명칭을 가지고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무장대가 활동하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경흥, 웅기 지구들에 조직된 인민무장대가 개전초기부터 조쏘연합군과 합세하여 잘 싸웠습니다.

청진, 길주, 성진 지구의 무장부대들은 적패잔병들을 소탕하고 8.15해방 전에 벌써 무장으로 공장들을 장악하였으며 경찰기관들을 기습소탕하였습니다.

최일이 조직한 까치봉무장대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일은 1941년 여름에 회령지구에 파견되었습니다. 오백룡소조가 그때 그의 길안내도 해주고 활동지대도 선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최일이 숯구이노동자들과 징용, 징병 기피자, 선진청년들로 무장대로 꾸리고 대장이 되어 활동한 곳이 회령까치봉일대였습니다.

무장대를 내올 때에는 맹세문을 낭독하고 선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무장대는 임시규정과 행동준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일은 경흥군 녹야리 곰산지구에서 활동하던 박창범과도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박창범은 곰산임시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한 우리의 정치공작원이였습니다.

까치봉무장대는 최후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투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북부국경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원정, 청학, 마유산 계선에서 퇴각해오는 패잔병들을 소탕하였고 화약고와 연유창도 폭파하였습니다. 이 무장대는 쏘련군의 진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회령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들이 까치봉지구에서 소멸한 적유생역량만 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도 노획하고 고사포와 수많은 피복류와 중구류도 노획하였습니다.


일제의 무조건항복

량강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항쟁조직들은 쏘련군이 진격해오기 전에 수많은 경찰서와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철원, 법동 지구와 평안북도의 염주, 삭구 지구항쟁조직들을 잘 싸웠습니다.

신의주지구의 항쟁조직들은 총공격명령이 내린 다음날부터 경찰관파출소와 국경경비초소들을 들

부시고 도경찰부와 도청을 점거하였으며 비행장에 박혀있는 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하여 8월 하순에 진주해온 쏘련군사령부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양지구에서는 조국해방단을 중심으로 무어진 큰 항쟁대오가 병기창을 습격하고 도청과 부청을 점거하였으며 적패잔무력을 제압하였습니다.

황해도의 항쟁조직들도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여러 지역의 적들을 습격제압하였습니다.

최후결전의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쏘련의 훈련기지에서 여러 해 동안이나 조국해방작전준비를 해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역량이 본래의 계획대로 전투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방의 날
온 나라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아군부대들이 북부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의 교전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전선부대들의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항공육전대를 인솔하고 조선으로 출격할 준비를 최종적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전선정황에 맞게 육전대오를 부분적으로 재편성하기도 하고 무기와 탄약, 장구류 일식을 신품으로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전대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장에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번져진 것은 일본놈들이 너무 급작스레 항복한데 있었습니다. 일본놈들이 항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 얼마동안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오만하고 포악하고 검질긴 일본이라는 강적이 개전 1주일만에 손을 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염원이였고 우리 인민이 수십 년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줄기차게 톺아온 항쟁의 종착점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때이른 항복을 일미간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막은 어떻든지간에 일본이 몇 달만 더 저항해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의 전 영토를 다 해방하였을 것입니다.

일제의 급작스러운 항복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하여 쓰고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일본이 점차 패전의 길에 빠져 쏘련이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본에로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일성**장군은 다시금 부하의 정예들을 만주에 파견하여 관동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만주의 모든 요충에 군대를 배치하고 비행기 20여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 징병, 학병 등 일본군대내의 조선인장병들과 연락하여 들고일어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세기적 계획을 바야흐로 실현시키려고 하던 그 직전에 일본의 항복을 보게 되어 유감스러우나 이 계획은 무효로 시키고 중지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 계획을 조금만 빨리 세웠거나 혹은 일본이 좀 늦게 항복했어도 **김일성**장군은 그 절륜한 전략전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요란한 비행기프로펠러소리와 함께 또한 장렬한 군대의 포성과 함께 함성높이 보무당당히 입국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장군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 도꾜에서 발간된 잡

지 ≪문화조선≫에 실린 글 ≪**김일성**론≫에서, 소화 22년(1947년) 5월≫

일본의 패망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연광정과 을밀대앞에서는 하루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때로부터 40년, 국토를 병탄당한 때로부터 36년,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민족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감하였습니다.

일본천황이 항복선언을 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군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전후 조선의 공산주의화를 막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미일 두 제국주의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음모의 산물이었습니다.

놈들은 조선군은 엄연히 건재해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기화로 그 어떤 독립운동을 벌인다면 단호하게 무력을 행사하겠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까지 감히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조선에서 전투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이 그 선언을 무시하는 조건에서 국내의 항쟁세력은 저항을 계속하는 일본군패잔병들과 적통치기구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소탕하였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에서는 항쟁조직들과 무장조직들이 쏘련군이 입성하기 전에 일본군의 패잔무력을 소멸하고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당조직도 내오고 지방자치기관들도 창설하였습니다. 인민적인 자치기관들이 말단에까지 조직되어 도내의 행정을 틀어쥐고 민정문제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함경남북도를 내놓고도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은 8월 중순의 1주일 동안에만도 근 1천개소의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해방은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안겨 그것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항쟁역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항전이 선행되었기에 쏘련의 대일작전은 그처럼 짧은 기간에 결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해방은 쏘련군이 일본관동군을 격멸하는 유리한 환경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혁명군 자체의 역량에 의해 마련된 위대한 결실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조직한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국내도처에 웅거하고 있는 일제의 침략무력과 식민지통치기구들을 제압소탕하고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일본본토의 도시와
무장해제를 당하는 일제침략군

조선인민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하여 조국해방이 이룩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료들을 소개한다.

미국사람들은 벌써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 외교문서에서 ≪조선공산군김일성부대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반도를 휩쓸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한 대학교수는 ≪구만주(중국동북부)야말로 태평양전쟁의 핵심부이며 김일성장군에 의한 레지스탕스가 그 후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되었다.≫고 썼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광복하는데서 조선인민혁명



조국광복을 앞둔 2월의 명절

군이 논 역할에 대하여 쏘련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은 40년간 (1905년 이래)…압제자들에 대한 투쟁을 독자적 힘으로 계속하였다. 1945년 8월까지 조선에서는 빨치산부대가 활약하였으며… 쏘련군의 일본격멸전을 적극적으로 원조해주었다.≫ ≪엘. 말리노프스키 ≪관동군 격멸되다≫ 번역판 311페지≫

패전후 쏘련군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상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평양수비대장 다께나또장령은 조선에 2개의 군단과 9개의 사단 그리고 많은 수의 헌병과 경찰을 가지고 있은 것은 대쏘전쟁의 준비와 함께 조선의 빨치산투쟁을 물리치기 위한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백 년동안의 반일투쟁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말에 벌써 우리 나라는 수십만의 일본침략군과 맞서 7년동안이나 임진조국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대로부터 계산해도 조선민족의 반일투쟁역사는 70년이 훨씬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무력으로 일본침략군에 대항해나섰습니다. 통치배들은 일본군의 위세에 눌리워 벌벌 떨었지만 군대와 인민은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후에는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 계몽운동, 독립군 운동을 비롯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을 비롯한 각이한 방법으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수십 년동안이나 꾸준하게 투쟁해왔습니다.

백두산이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만산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백두밀림에서 개척되고 발전해온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이 수십 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 개선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8월의 조선은 해방의 열파로 진동하였다.

삼천리를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서 인민은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 있었다.

민족의 영수를 낳은 고도 평양은 **김일성**장군님의 입성을 기다리느라고 밤에도 잠들줄 몰랐다. 주체14(1925)년에 설한풍을 헤치며 고향을 떠나신 **김일성**장군, 내일이면 오실가, 모레면 오실가. 그이를 기다리는 40만 평양시민의 간절한 마음 한결같았다.

서울에서는 여운형, 허헌, 홍명희를 비롯한 명망높은 인사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서울역전은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온 수천수만 명의 시민들로 하여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천만의 심장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개선하실 그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고동치고 있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전했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온 그 순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모두 흥분된 기분으로 조국에 돌아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스무 해 동안이나 타향의 이슬비를 맞으며 살아온 나도 고향으로 한시바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귀국의 날도 얼마간 미루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개선을 학수고대하는 국내인민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발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국에 돌아가더라도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가자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였습니다. 무슨 준비였는가. 새 조국 건설과 관련된 준비였습니다. 조국해방의 전략적 과제가 완수된 조건에서 우리는 새 조국

건설과 관련된 시간표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1945년 9월 2일 도꾜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군전함 ≪미쑤리≫호 함상에서는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국제적인 의식이 거행되였습니다. 그날 일본정부와 군부를 대표하여 외상 시게미쯔와 참모총장 우메즈가 항복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시게미쯔는 중국주재 일본공사로 있을 때 윤봉길렬사의 폭탄공격을 받고 외다리쟁이가 된 사람입니다. 우메즈도 일본군부의 명물이였습니다. 그는 1939년 가을부터 1944년 여름까지 관동군사령관을 하였습니다. 일본관동군이 존재한 전기간에 사령관을 여라문사람이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령관이였습니다. 적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간판을 내걸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토벌소동을 벌인 것이 바로 우메즈가 관동군 사령관을 할 때입니다.

여러 해 동안이나 인류를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 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반파쑈역량의 승리로 종결되였습니다.

우리는 숙적이였던 바로 그 우메즈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패전의 슬픈 고배를 마실 때 우리는 항일혁명에서 승리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새 역사를 창조한 주인공들이 되어 조국에 돌아올 차비를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사상의 발원지인 구라파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최전방이였던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내의 형편도 좋았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기 바쁘게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습니다. 국내당조직에 망라되였던 혁명가들과 항쟁조직성원들이 핵심이 되어 도처에서 당단체와 군중단체 조직들도 내왔습니다.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도시들에는 해내외의 문예인들이 민족문화건설의 새로운 꿈을 안고 집결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무장자위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항만, 철도 등을 스스로 보위하였습니다. 전민항쟁을 통하여 발양되였던 우리 인민의 구국열은 해방과 함께 건국열로 전환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의 견지에서 보나, 종국적인 목적달성의 견지에서 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매우 낙관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패망하였지만 반혁명은 혁명에 대한 공세를 단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천황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일본군패잔병들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착취계급의 대표자들은 지하에서 새 조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 정치적 야심가들이 정체를 숨기고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에 기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동에 있을 때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미국군대의 진주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에는 두 대국의 군대가 동시에 진주하는 것으로 됩니다.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 땅에 다른 나라 군대가 둘씩이나 와서 주둔하는 것은 그 구실이나 명분여하에 관계없이 재미없는 일이였습니다.

갑오농민전쟁 때 일본과 청나라가 각각 우리 나라에 군대를 출병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민은 그들의 덕을 조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양군의 출병은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나라 강산은 전란에 부대껴 황폐화되였습니다.

쏘미 양군의 주둔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장으로 될 수 있었으며 그 배경밑에서 우리의 민족 역량은 좌익과 우익으로, 애국과 매국으로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쟁이 성행하고 당파와 외세가 결탁하면 그 종착점은 망국으로 되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조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주체란 우리 인민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항일혁명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에 참가한 수십수백 만에 달하는 항쟁대오는 즉흥적으로 전장에 뛰쳐나온 자연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해를 두고 가꾸어온 조직군중의 대오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혁명동지로 만들기 위해 100리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불속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

항일혁명의 전 노정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광복성전의 1선에 내세워준 사랑과 믿음의 역사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써 당당한 역사의 주체임을 과시해온 위대한 투쟁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이 인민과 인민혁명군의 투사들이야말로 새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될 우리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진리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국을 찾는 일이 어렵지 일단 찾은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국이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일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처럼 우리는 새 조국 건설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내야 하였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은 물론, 민족경제와 민족교육,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였습니다.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하고 정권이 있어야 하고 새 사회 건설을 무력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견해에 기초하여 1945년 8월 20일 훈련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과업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3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하고 필요한 조직사업도 하였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제수행을 위한 소조들도 조직하고 파견지도 확정하였습니다. 강건, 박락권, 최광, 임철, 김만익, 공정수 등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조성원들을 위한 강습을 여러 날에 걸쳐 조직하였습니다. 강습에서는 파견지에 가서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사업방법으로부터 각 지방 풍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취급하였습니다. 강의는 나와 김책, 안길 등이 담당하였습니다.


선봉항

우리 동무들은 강습이 끝나자 조국으로 빨리 떠나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조국에 돌아갈 날을 그리며 동심과 같은 심경에 잠겨있었습니다.

우리는 귀국할 때 아이가 달린 여대원들은 후에 귀국시키기로 하고 훈련기지에 떨궈두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쏘련군대와의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부대별로 제가끔 지정된 계선을 차지하고 전투행동에 진입하다가 불시에 일제가 무조건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헌

국내 각지에 낙하산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는 하바로프스크, 목단강, 왕청, 도문을 거쳐 육로로 조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하여 도중에 그 계획을 포기하고 노정을 변경시켜 배를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때 관동군패잔병들은 목단강 남쪽에 있는 차굴을 폭파하였습니다. 적들이 우회도로와 잇닿은 교량들과 목단강비행장의 활주로까지 파괴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단강까지 갔다가 원동으로 되돌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군함을 타고 귀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쏘련 제1원동전선군사령부의 한 대좌가 나를 호위하여 동행하였습니다.

함장은 나를 보고 중속으로 달려도 하루밤 하루낮 정도면 원산항에 배를 댈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날은 파도가 심했습니다. 배의 양켠에 집채같은 파도가 솟아올라 갑판을 후려갈기군 하였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였습니다.


홍명희

대부분이 바다에서 배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어서 멀미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배에서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에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배전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 이상스럽게 가슴이 뛰던 일을 좀처럼 잊을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열네 살 때 건느던 압록강과 조국의 일만강들이 해방열에 모조리 녹아 이 바다를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혈육들과 친지들, 동지들을 이국의 고혼으로 남겨두고 스무 해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희일비의 심정이였습니다.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한 것은 1945년 9월 19일이였습니다.

그때 부두에서 우리를 마중해 준 것은 원산시에 주둔하고 있던 쏘련군사령부성원들이였습니다.


여운형

그날 부두에 나온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인물은 그 당시 쏘련군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한일무입니다. 그가 강원도당위원장을 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쏘련군측이 우리의 움직임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부두에는 환영군중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훗날 허헌, 홍명희, 여운형을 비롯하여 우리의 개선을 전열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내의 명망 높은 인사들은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했을 때 부두에 환영군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선통이라도 할 것이지 행차를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하면 백성들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의 이주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허헌의 말이 우리 귀국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었더라면 서울역에 나와서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물론, 서울시민의 과반수가 도보와 기차로 원산땅에 쓸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야단스러운 환영을 조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사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수천수만 날 전장과 교수대에서 바친 피와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국땅에 들어서자마자 조선인민혁명군이 개선했다는 소문을 내지 않고 인민들속에 조용히 들어가 건강,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초작업이나 해놓고 조국의 인민들에게 인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산에 도착한 후 지방당일군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들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통감하였습니다.

나는 원산에 상륙한 날 적지 않은 사람들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에 가서 당일군들과도 담화하고 동렬여관에서 노동조합대표를 비롯한 지방유지들과도 담화하였습니다. 그 중 많은 품을 들인 것은 이주하와의 담화였습니다.

원산사람들과 담화를 하고나서 내가 받은 총적인 인상은 국내의 어느 당파나 어느 조직도 인민들에게 똑똑한 건국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원산시당의 어떤 일군들은 쏘비에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화제로 되자 사회주의 혁명을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원산시당청사 벽에 걸려있는 ≪공산주의기치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구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호를 보고나서 시당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노동계급의 힘만으로 새 조국 건설을 하려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야 공산혁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 노동계급밖에 믿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1920년대 후기 우리가 종종 만나보군 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과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였습니다. 스무 해가 지나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런 목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견이나 주의주장에서는 특별한 진보도 없었고 새로운 시국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진지한 모대김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원산시당일군들에게 ≪공산주의기치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고 한 시당청사의 구호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만큼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로 바꾸어야 한다,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면 노동계급 뿐 아니라 그 동맹자인 농민은 물론, 새 사회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워 거족적인 힘으로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원산시당사람들과의 담화는 저녁식사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나는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수행해서 서철이와 함께 시당에 따라갔던 김익현은 나에게 다가와서 자정이 다됐다면서 산에서도 노상 밤을 밝혔는데 해방된 조국에 와서까지 밤을 패겠는가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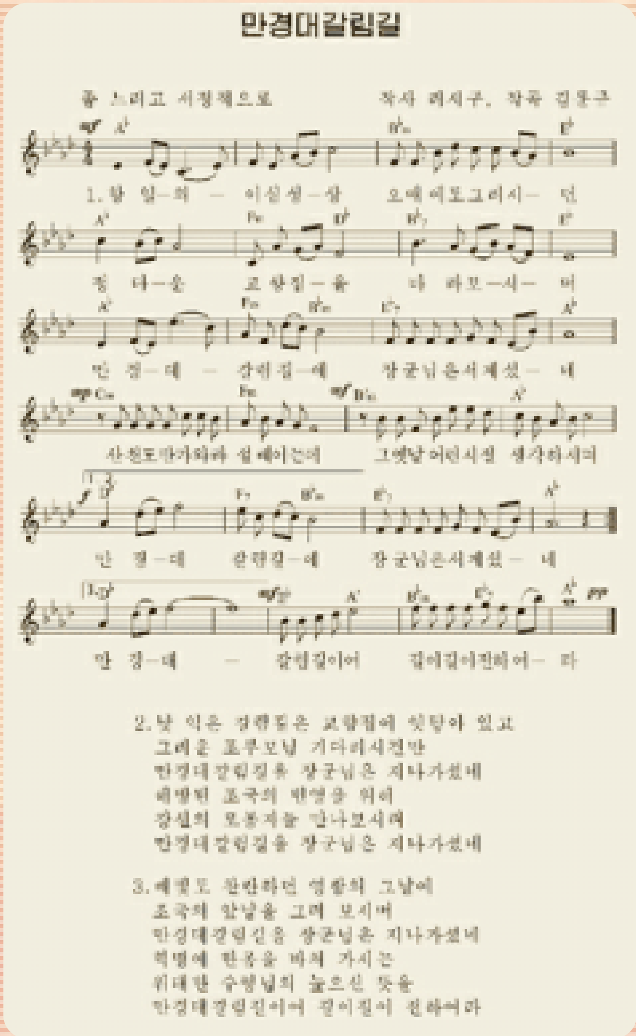
나는 김익현에게 나라는 해방됐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진지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일군들과의 담화는 귀국 후 내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내인사들에게 건국노선의 틀곽을 그려보인 조국에서의 첫 대화였습니다. 나는 그날 우리 나라에 세워질 정권형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하였습니다.

이주하를 비롯한 원산시당일군들, 원산의 유지들을 만나보고나서 나는 우리가 8.15해방 후 즉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내용으로 하는 새 조선 건설의 이정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마련한 기초우에서 조국행을 한 것과 조국에 발을 들여놓는 그 길로 지정된 파견지로 떠나갈 결심을 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산에 도착한 다음 지체하지 않고 함경남북도에 가서 사업할 소조들 중에서 그 일부를 북행열차에 태워 현지로 떠나보냈습니다. 같은 날 철원방면을 담당한 동무들도 남행열차를 따고 파견지로 떠나갔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초와 역경을 다 겪으며 혁명을 위해 청춘을 깡그리 바치면서도 한뉘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도 주지 않고 파견지로 떠나가라고 재촉하자니 사실은 나도 마음이 가



볍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한 그날은 추석전날이였습니다. 원산에서 추석이나 쇠고 피곤이나 푼 다음 전우들을 파견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절박한 국내형편을 보고는 그 미련마저도 털어버렸습니다. 원산을 떠난 함남북방향의 소조들은 열차안에서 추석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열차는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파견원들속에는 김책도 있고 안길도 있고 최춘국, 유경수, 조정철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의 작별을 몹시 서운하게 여기었습니다.


조정철

나도 역시 허전하였습니다. 항일전쟁 때 중상을 당한 최춘국과 조정철이 어깨를 겯고 다리를 절름거리며 열차승강대에 올라 나를 향해 손을 저어줄 때는 마음이 순편치 않았습니다. 마취제주사도 놓지 못하고 강짜로 수술한 그 다리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전장과 가시덤불길을 누벼왔습니까.

최춘국과 조정철은 해방된 조국에서 몇 해 동안 전상자대접을 받으며 항일전장에서 쌓인 피곤을 풀어도 될 사람들이였습니다.

하건만 그들은 그 피곤을 풀 몇 시간의 여유도 없이 웃으면서 북방의 파견지로 떠나갔습니다.

앞에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생소한 봉우리들과 고개들이 놓여있었습니다. 그 봉우리들과 고개들을 넘자면 피와 땀을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항일대전도 전인미답이였지만 새 조국 건설도 초행길이였습니다. 그 길이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앞에 둔 어려운 길이 아니라면 그처럼 서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는 김책에게 짬이 생기거들랑 고향에 꼭 찾아가보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최춘국과 유경수, 조정철, 이을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모두 함경남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파견지에 갔다가 평양으로 소환되어올 때까지 그들은 모두 고향에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강선제강소로 갈 때 고향집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경대갈림길에 대한 노래를 지어부르고 있지만 사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개선후 누구도 고향에 가보지 않고 건당, 건국, 건군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고향에 갈 권리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투사들의 사고방식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국땅을 밟은 첫날부터 인민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백두산에서 메고온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새 전구로 속속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네가 차지할 파견지를 하나의 작전지역처럼 여기였습니다. 우리의 조국개선은 개선이라보다 혁명의 새 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과 같은 것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나는 서해지구에서 사업하게 될 동무들과 함께 평양행 열차를 타고 원산을 떠났습니다.

북조선주둔 쏘련군사령부대표가 우리를 마중하느라고 평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부래산역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9월 22일 오전에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훈련기지에 떨어졌던 여대원들은 그 해 11월 말경에 함경북도 선봉쪽으로 해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숙**은 청진에 오자마자 전화로 나에게 도착보고를 하였습니다. 일행은 안길, 최춘국, 박영순을 비롯한 청진파견조 성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위한 대중공작을 정열적으로 벌려나갔습니다.

청진에 머물고 있던 **김정숙**은 청진제철소와 고무산시멘트공장, 부령야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기관들도 살펴보고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그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가정부인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뿐 아니라 나어린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새길신문

조국개선에 대하여
보도한 새길신문

청진시민들이 그때 **김정숙**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새길신문≫은 1면에 ≪**김**여사의 반생≫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혁명활동을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북방의 도시들에서 겪은 체험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그는 평양에 돌아와서도 얼마동안은 청진에 대한 말만 하였습니다. 그는 중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이야기와 자기네 일행을 위해 오찬을 마련한 나진면옥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김정일**도 여대원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도 평양에 입성한 다음날부터 전우들과 함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내가 8.15해방 후 제일 바쁘게 보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개선 후의 사업에서도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인민대중과의 사업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장과 농촌, 가두에 내려가 인민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실과 숙소에서 백두산시절처럼 전우들과 침식을 같이해가며 국내외에서 나를 찾아오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였습니다.

전우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고향에 가서 먼저 조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설복을 해도 내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임춘추는 나 모르게 슬그머니 만경대에 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나그네처럼 행세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다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덕으로 나는 고향집소식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9월 말경부터는 무슨 경로를 타고 비밀이 새나갔는지 내가 평양에 와있다는 소문이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형록삼촌이 평남도당에 찾아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임춘추는 형록삼촌에게 조카의 특징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죄다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록삼촌은 ≪우리 조카는 본명을 김성주라고 합니다.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에는 증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웃을 때마다 볼우물이 패이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날저녁 임춘추는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으로 형록삼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은 나를 만나자 ≪얼마나 고생했나!≫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역의 하늘밑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혈육들 생각에 스무해 동안 오는 바람 가는 바람을 다맞으며 마음을 썩이던 지난날까지 되살아올라 목이 메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삼촌으로서야 사실 기막힌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조카가 나라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집을 지키느라고 형님과 형수



≪민족의 환호≫

님 영전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구만. 우리 가문사람들은 왜 그렇게 명이 짧을가.…≫

삼촌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말쑥하던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졌나, 백두산바람이 모질긴 모진 모양이야 하고 애달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거칠거칠해진 것으로 말하면 나보다 형록삼촌이 더 심했습니다. 스무해전보다 곱절이나 더 늙어보이는 삼촌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주름살이 그리고 많던지, 저 무수한 주름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인생고초가 어려있을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이 지척이라면 신이라도 삼아 조카네 군대들 뒤시중을 할 수 있었겠는데 스무해가 지나도록 이 삼촌은 아무 보탬도 주지 못했어.≫

형록삼촌이 이런 말을 하기에 나는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야 집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날 나는 형록삼촌과 온밤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야 삼촌을 만경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를 만나보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삼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경대에 돌아가서는 할아버지에게 성주가 평양에 와있다고 가만히 귀띔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겠지, 백두산이 변하면 변했지 우리 성주야 변할 리가 있나. 지금 항간에서 ≪전라도 **김일성**≫이요, ≪함경도 **김일성**≫이요 하는 말들이 돌아가는데 아무려면 조선땅에 무슨 **김일성**이 그렇게 많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10월 9일 강선제강소를 돌아보고 그 후 당을 창건한 다음 10월 14일에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조국인민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란스러운 환영군중대회형식을 통해 인민들과 상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인사들과 나의 전우들이 한사코 그런 큰 규모의 행사

를 주장하고 고집하였습니다.

내가 한 모임에서 김영환이라는 가명대신 본명을 처음으로 공개하던 날 누구인가 연단에 나서서 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거족적인 민중대회를 가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모두들 그 제의에 열광적으로 호응해나섰습니다.

그때 벌써 뒤에서는 평안남도당과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나를 환영하기 위한 행사준비가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전날에는 모란봉기슭의 공설운동장에 경축솔문과 가설무대까지 다 설치해놓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김용범더러 요란스러운 행사놀음을 벌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남도당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마다에 우리가 평양에 입성했다, 14일 공설운동장에서 조선인민과 상봉한다는 글발들을 내붙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정오가 가까워오는 때 행사장으로 내정된 평양공설운동장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거리에 나선 나는 광장과 대통로들에 차고넘치는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장은 벌써 사람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고 최승대와 을밀대 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대회장 안팎을 휩쓰는 그 환영의 열파를 타고 나는 군중이 환호를 울릴 때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답례하였습니다.


市民 感動爆發

조국개선에 대하여 보도한 평양민보

그날의 군중대회에는 쏘련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상장과 레베제프소장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날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조만식이도 연탁에 나섰습니다. 그의 연설가운데서 청중을 웃기던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주 건드러진 목소리로 조선이 해방되었다기에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내팔을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보았더니 아�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팔을 꼬집는 시늉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연단에 나설 때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함성과 환호성은 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그 환호성을 듣는 순간 나의 심신에서는 스무 해 동안 쌓이고 쌓인 피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었습니다. 민중의 환호성은 열풍이 되어 내 몸과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10여만 군중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를 한 몸에 받으며 단상에 서 있을 때 나를 지배한 것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그려낼 수 없는 행복감이였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순간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민중의 아들로서 민중을 위해 싸웠다는 행복감, 민중이 나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 것을 느끼는데서 오는 행복감, 그 민중의 품에 안긴 행복감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폭발한 민중의 환호성은 조국과 겨레를 위해 우리가 겪어온 반생의 간난신고에 대한 표창이고 답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답례를 나에 대한 인민의 사랑과 신뢰로 받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락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민의 사랑, 인민의 지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혁명가의 존재가치와 혁명가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떼놓으면 혁명가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르조아정책들은 돈으로 인민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민이 나에게 주는 이 신임앞에서 감격하였으며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한 연설의 골자는 민족대단결이였습니다. 나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애국성업에 이바지하자고,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이 땅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군중은 하늘땅을 진감하는 박수와 환호로써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는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정경을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평양의 역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찍이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특히 대회를 역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 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 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늠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소리없이 울음을 울었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 것이어서 산야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었다.≫

그날의 군중대회는 우리 인민이 새 조국 건설의 장도를 개척하는 행군의 첫 시작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대회장에서 현양신삼촌어머니와 강룡석외삼촌도 만나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주석단에서 내려와 삼촌어머니를 만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군합니다.

한 몸의 건사조차 힘든 그 인파속으로 어떻게 비집고 들어왔는지 삼촌어머니는 내가 타고 온 승용차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석단쪽을 향해 막무가내로 나오는 삼촌어머니를 주도일이 차에까지 안내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삼촌어머니는 내 손을 부둥켜잡고 ≪조카, 이게 몇 해만이요!≫하면서 감격해하



개선역벽화

였습니다.

≪삼촌어머니, 큰 가문의 살림살이를 혼자서 맡아안고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까!≫

나도 삼촌어머니에게 짤막한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이야 산에서 싸움을 하며 지낸 조카가 더했지, 춘하추동 뜨뜻한 구들에서야 무슨 고생이었겠소. 나는 이 운동장으로 오면서도 은근히 걱정했다우, 영감이 조카가 왔다고는 했지만 혹시 우리 조카가 아니고 ≪전라도 **김일성**≫이면 어쩌나. 그런데 연단을 쳐다보니 틀림없는 우리 조카가 아니겠소. 얼마나 기쁘던지…≫

삼촌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또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전우들도 다같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삼촌어머니, 온 평양이 웃고 떠들고 춤을 추는데 이 기쁜 날 왜 자꾸 울기만 하십니까.≫

≪조카를 보니 형님생각, 아주버님생각이 나서 그런다우. 이런 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살아서 조카의 연설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들 하겠나.≫

≪삼촌어머니, 오늘은 삼촌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대신입니다.≫



고향 만경대에서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그 말을 듣자 삼촌어머니는 내 가슴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삼촌어머니의 눈물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는 친자매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삼촌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이 15살 때였다고 합니다. 시집살림살이가 하도 가난해서 삼촌어머니는 처음에 우리 가문에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시집에 정을 붙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삼촌어머니를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는 밭일을 해도 늘 같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밭김을 매다가도 쉴참이 되면 늘 잠이 모자라서 고달파하는 삼촌어머니에게 무릎베개를 베여주고 잠간이나마 눈을 붙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잠에 든 삼촌어머니의 머리를 조용히 빗어주군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삼촌어머니이니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안도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영전에 절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무척 애달파하였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이 못난 게 백이 된들 어찌 형님 한 분을 대신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조카, 오늘은 형님도 혼이 되어 날아와 이 운동장에 계시는 것 같구만이라고 하면서 저고리소매로 눈물을 꾹꾹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다가는 웃고 웃다가는 울고 하면서 형록삼촌과 대판 다투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우뭉스런 영감이 글쎄 나도 몰래 혼자서 성안에 들어와 조카를 가만히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겠소, 여태 입을 가만히 봉하고 있다가 어제야 토설합디다, 그래서 내 한 바탕 야단을 쳤다우, 영감, **김일성**이 뭐 영감 혼자의 조카고 내 조카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들이댔더니 똥딴지같이 팔은 안쪽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 않는다나 하면서 한 바탕 왁작 떠들었습니다.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날 오후에야 나는 삼촌내외와 함께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는 길로 해서 가지 않고 순화강 나루터에 승용차를 댄 다음 배를 타고 고향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감탕판에는 그전처럼 나룻배를 탈 때 발을 옮겨디딜 수 있게 징검돌들이 듬성듬성 박혀있었습니다. 내가 어린시절에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참게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고향마을로 들어설 때 나를 맞아주던 다듬이방치소리와 만경봉의 다박솔향기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듬이 방치소리가 왜 그리도 구성지고 그 다박솔향기가 왜 그리도 싱그럽던지 모르겠습니다. 갈매지벌쪽에서 소가 길게 영각을 울릴 때면 오래간만에 맛보게 되는 고향의 향취에 그만 목이 꺽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에 쪽잠마저 어설프던 유년시절이 어제같은 데 내 나이 어느덧 서른세 살이 되었으니 옛 사람들이 어찌 세월의 무정한 흐름을 일촌광음에 비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이향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 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노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헐해도 찾기는 힘든 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 년, 지어는 수백 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이치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00여 년만에 독립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 년, 알제리는 130여 년, 스리랑카는 150여 년, 베트남은 근 100년 만에야 각각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으니 망국의 대가란 실로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음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 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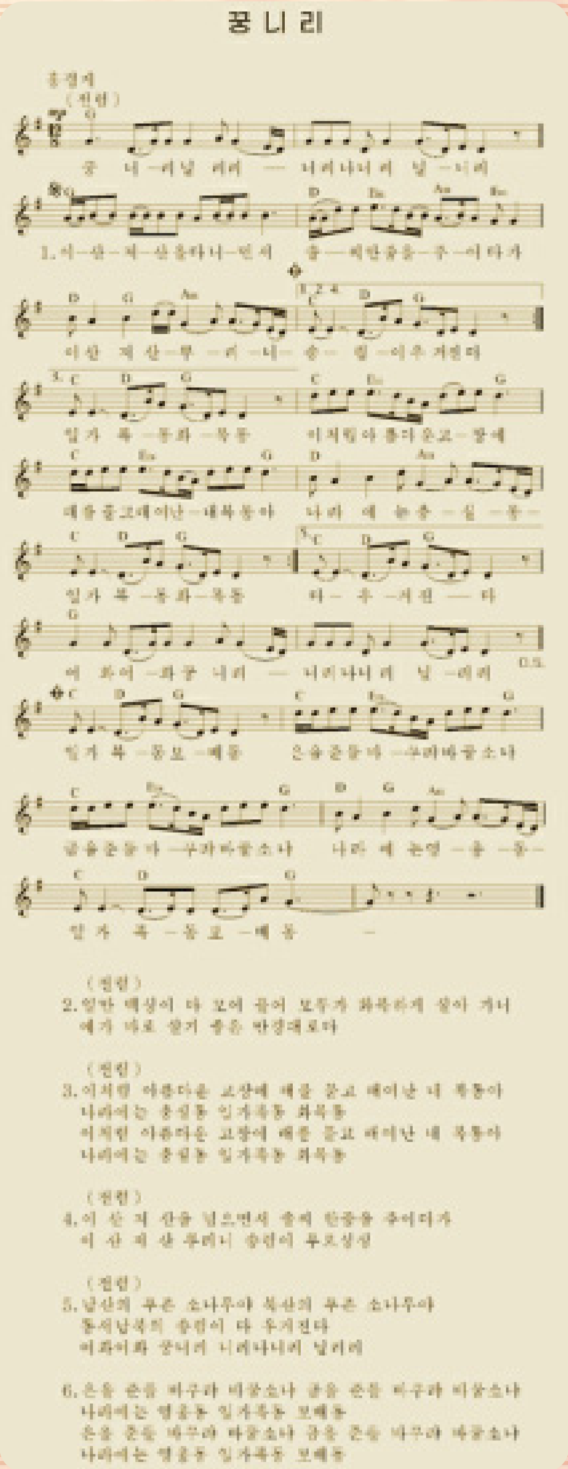
고향집을 찾던 그날의 풍경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자개바지를 입은 두세 살쯤 되는 사내애가 길가에서 우리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모습입니다. 그 별치않은 광경이 왜 그런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담한 향촌, 그 평화로운 세계의 한복판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태평스럽게 손을 저어주는 그 어린 것의 모습은 분명 새 조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삼촌어머니를 앞세우고 고향집 뜨락에 들어설 때는 가슴이 막 설레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큰 광장처럼 넓어보이던 뜨락이 그때는 손바닥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무 해를 걸치는 간고무쌍한 행군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니 일만장강을 건느다가 뭍에 오른 심정이었습니다.

눈에 익은 고향집 추녀를 바라보는 순간 어린시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입김으로 언 손을 녹여주던 아버지와 어머니, 봄날의 낙화와도 같이 땅속에 묻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옛 모습 그대로 소생하여 ≪성주야!≫하고 소리쳐 부르며 달려나와 두 팔

을 크게 벌이고 나를 부둥켜 안은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걸음을 선뜻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버선발바람으로 마당에 달려나온 할아버지는 나를 얼싸안고 ≪우리 장손이 돌아오는구나. …어디보자! 어디…≫하고 눈물속에 뇌이였습니다. 할머니도 나를 만나자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평양에서 가지고온 술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서른 살이 넘도록 효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네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네가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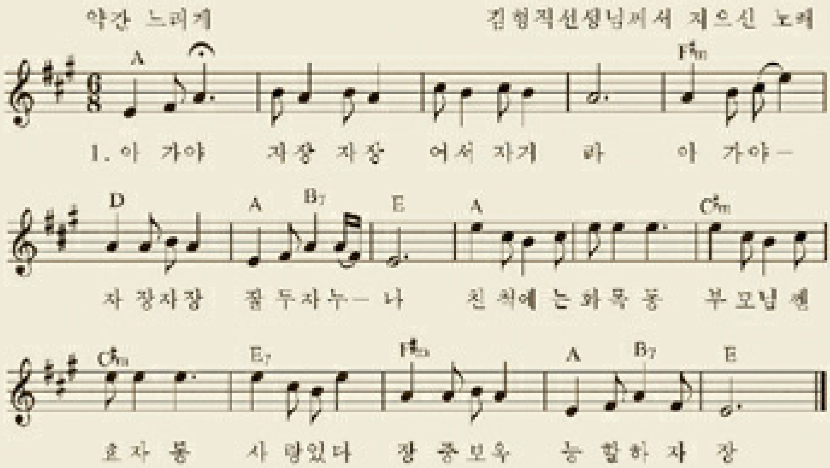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가볍게 잔을 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웃음을 지으며 오늘은 술맛이 참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만은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도 어렵지 않게 잔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심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도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이 잠시도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효도라고 한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할수록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리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내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단리와 추자섬에서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소꿉시절의 나의 동무들도 음식을 해가지고 줄레줄레 모여들었습니다.

소박한 가족연회가 수십 명을 망라하는 군중연회로 번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김응우증조할아버지대부터 우리 집 신세를 많이지고 산 최노인도 ≪꽁니리타령≫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 장 가



2. 아가야 자장 자장 얼른 소학교
아가야 자장 자장 벌써 중대학
박사동이 되어라 영웅동이 되어라
우리 나라 광복사업 능할하 자장

그날밤 나는 20년만에 고향집에서 자게 되였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집은 구들을 뜯어놓고 문도 채 달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였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구들에는 밀짚과 벼짚을 깔고 그 우에 멍석을 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집 사랑방에 잠자리를 정해놓았으니 오늘밤은 궁색한 대로 거기 가서 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산에서 호강을 하다가 온게 아닙니다. 풍찬노숙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을 지붕삼고 초목을 이불삼아 덮고 살았습니다, 좋은 제 집에 와서야 왜 구차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더니 희색이 만면해서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 집 사랑방은 물리겠다, 하기야 스무 해만에 찾아온 고향집인데 남의 집 사랑방신세를 진다는 것도 멋적긴 멋적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우에 대를 두고 물려오는 무명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그 이불거죽은 우리 할머니가 무명낳이를 하여 만든 것이였습니다.

깊은 밤중에 할머니는 내 베개 밑으로 팔을 밀어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에서 장가를 갔대지? 색시도 산에 있었나?≫

≪예, 나하고 같이 빨치산투쟁을 한 여자입니다.≫

≪아들애는 너를 닮았느냐?≫

≪닮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됐다.≫



평양의 새봄

할머니는 그밖에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팔이 아파할 것 같아 할머니, 내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겁기야 뭘 하면서 내 목밑으로 팔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서른이 넘은 손자를 위해 유년시절에 그래주었던 것처럼 팔베개로 내 목을 고여주는 할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해방이 됐으니 이제는 만주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도 옮겨야겠다.≫

그것은 그날밤 할머니가 맨 마지막으로 꺼낸 화제였습니다. 할머니로서는 응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타향의 진토속에 묻힌 자식들의 유해를 고향에 옮겨다 묻고싶어하는 그 심정이야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할머니, 천묘도 천묘지만 나한테는 그보다 먼저 찾아야 할 은인들이 있습니다. 연포리주막집에서 아버지를 빼돌린 황씨와 가둑령의 전주 김씨노인, 촉한에 걸린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조씨노인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낸 다음에야 천묘도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러면 양지촌의 아버지도 좋아할게다.≫

나는 할머니에게 길림시절과 간도시절, 백두산시절에 나를 도와준 은인들과 전우들, 친지들에 대하여 밤새도록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국의 산야와 타향의 이름모를 언덕받이에서 고혼이 되어 잠들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권삼촌, 철주동생에 대해서도 추억하며 소리없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소리를 죽여가며 간간히 흐느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열을 멈추고 내 팔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갔지만 그 대신 **정숙**이가 가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구 **정일**이가 태어나서 집안의 대를 잇게 되지 않았니.≫

나는 백두의 산상과 만주설원에서 겪어온 행적을 조용히 더듬어보며 나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도 그려보고 은인들도 생각하고 어린시절도 추억하고 우리가 건설하게 될 새 조국의 미래도 설계해보았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스무 해만에 맞보게 되는 만경대의 밤, 그 밤은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국이 광복된지도 만 두 달, 그러나 3천만 조선민족은 그때까지도 해방의 열광속에 그냥 깊이 잠겨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천만 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근 반세기의 대국난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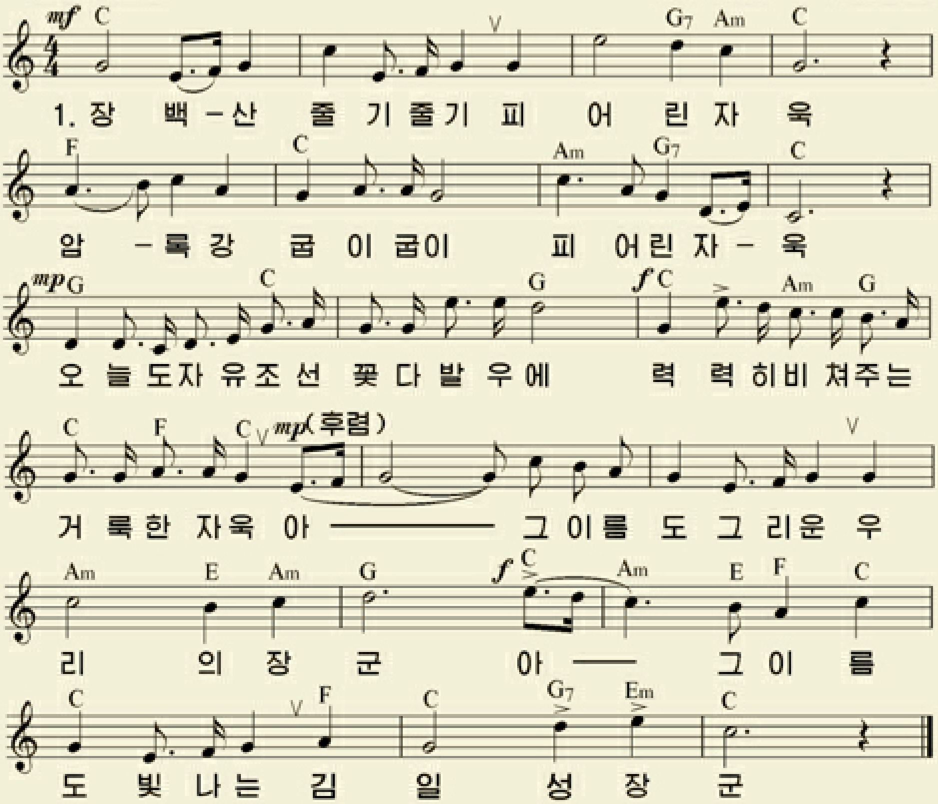


개선문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작사 리찬, 작곡 김원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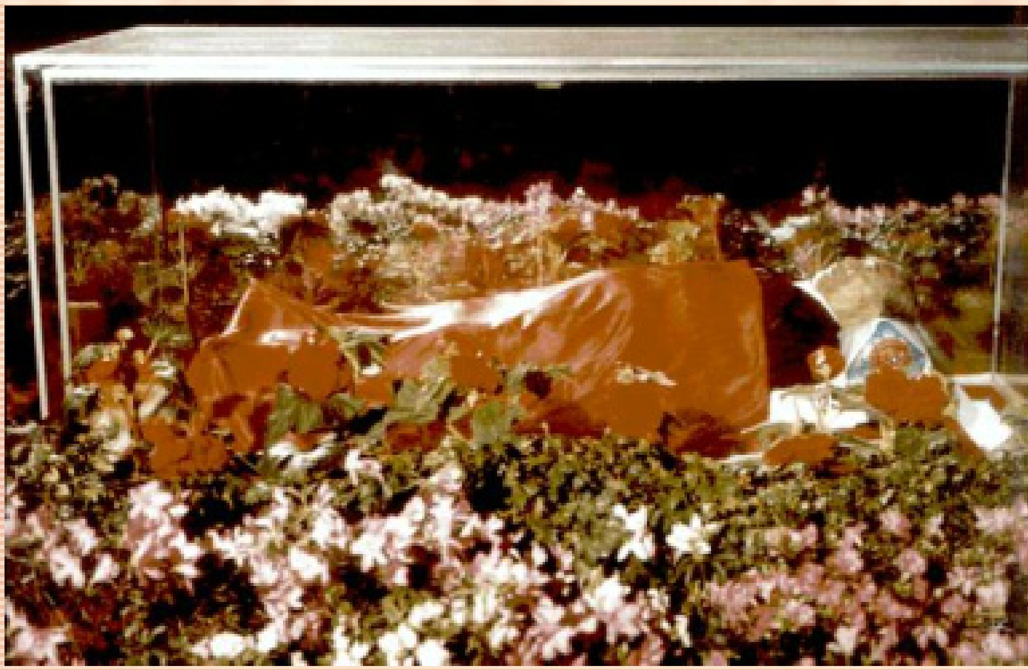


2.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만수대 동상




김일성
1994. 7. 7.



비오는 밤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만수대 언덕의 피눈물



비보를 받은 남녘의 인민들



비보를 받은 재일동포들


캄보자 앙코르 왓트 사원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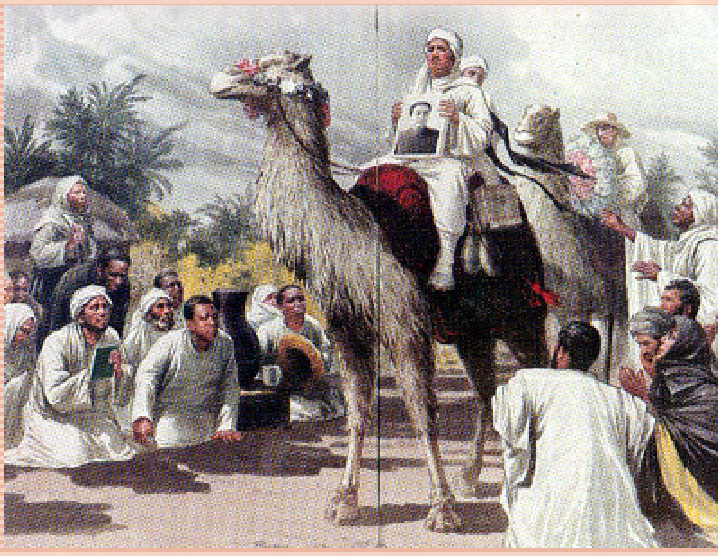

아메리카의 노동자들


크리믈리의광장앞에서


파리의 거리에서



가슴을 치는 쿠바의 병사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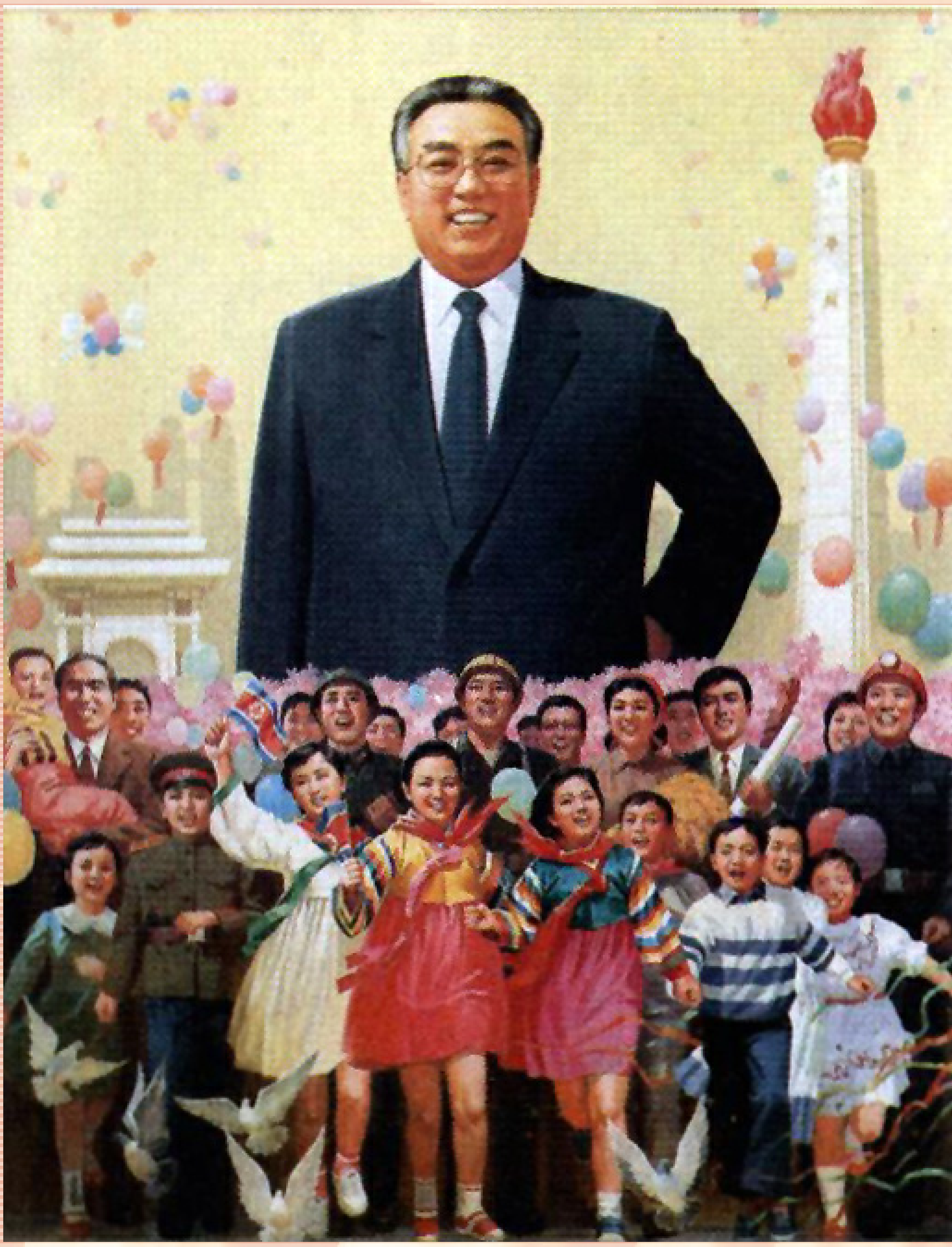
천안문광장의 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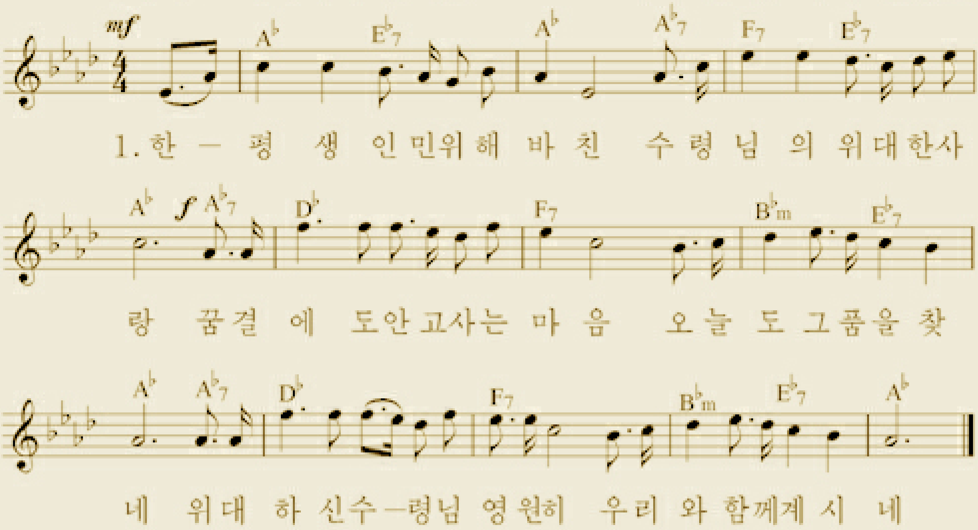


금수산 기념궁전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숭엄하고 장중하게 (♩=76)　　　　작사 집체, 작곡 전정근



2. 한평생 조국 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2절반복)

3. 한평생 조국 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